Encyclopedia of Korean Folk Beliefs

Shamanism

韓國民俗信仰事典

巫俗信仰



무속신앙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Encyclopedia of Korean Folk

한국민속신앙사전 _ 무속신앙

발행일 2009년 11월 12일
발 행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길 35(전화 02-3704-3230)

총괄기획 및 진행 김창일(민속연구과)
편수원 김혜경, 손대원, 이유나, 전주희(민속연구과)
윤문·교열·교정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
디자인·제작 (주)디자인인트로 / www.gointro.com

발간등록번호 11-1371036-000038-10
ISBN 978-89-92128-59-9 94200
978-89-92128-58-2 94200(세트)

발간사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한국민속학의 정체성 확립과 학술연구의 기초 자료 제공, 민속문화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환기와 저변확대를 위하여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은 민속을 크게 8개의 주제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결과물로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에 걸쳐 한국세시풍속사전 5권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의 두 번째 시리즈물인 한국민속신앙사전 편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거대 종교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에서 전승되어온 민중의 신앙행위들은 미신으로 치부되기 일쑤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는 크고 작은 민속신앙이 사라져가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역사적 자료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우리의 민속신앙을 무속신앙, 마을신앙, 가신신앙, 점복·속신·풍수·기타신앙으로 나누어 한국민속신앙사전을 편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결실이 바로 한국민속신앙사전의 무속신앙편입니다.

세계화와 정보화로 외국 문화에 대한 지식은 폭넓어졌지만 정작 이 땅에서 존재해 온 우리 것을 우리마저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왜곡된 민속신앙에 대한 시각은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이야기와 맥락을 놓치게 합니다.

한국민속신앙사전은 그러한 감춰진 이야기와 맥락을 꺼내어 일반 대중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에서 편찬되었습니다. 또한 사라져가는 혹은 이미 사라진 민속신앙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한국민속신앙사전이 전통문화의 콘텐츠 활용이라는 측면에 부응할 수 있는 원천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국립민속박물관은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이라는 거대한 청사진을 굳건히 하여 한국민속문학사전, 한국일생의례사전, 한국의식주생활사전, 한국민속예술사전, 한국생업기술사전, 한국민속사회사전을 순차적으로 발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본 사전의 원고를 집필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전이 나오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전편찬팀을 비롯해서 도움을 주신 우리 관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09년 11월

국립민속박물관장 신 광 섭

발간 개요

국립민속박물관의 중장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한국민속대백과사전》편찬사업은〈한국세시풍속사전〉,〈한국민속신앙사전〉,〈한국민속문학사전〉,〈한국일생의례사전〉,〈한국의식주생활사전〉,〈한국민속예술사전〉,〈한국생업기술사전〉,〈한국민속사회사전〉을 통칭하여 부르는 명칭이다. 총 8개의 주제로 나뉘어 편찬중인《한국민속대백과사전》은 현재까지〈한국세시풍속사전〉이 2002~2007년까지 6년에 걸쳐 '正月', '春', '夏', '秋', '冬', '색인편', '전자사전'까지 완간되었고 현재 웹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008년 1월부터는〈한국민속신앙사전〉편찬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한국민속신앙사전〉은 무속신앙편, 마을신앙편, 가신신앙편, 점복 · 속신 · 풍수 · 기타신앙사전편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발간될 예정이며, 그 첫 결과물이 무속신앙편이다. 무속신앙편은 2008년도에 표제어 추출과 집필자 선정, 편찬지침서 작성 등의 과정을 거쳤다. 무속신앙편의 편찬을 위해 한국민속신앙 분야의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운영하여 10여 회의 자문회의와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사전의 방향과 표제어 선정의 적정성 등 사전편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였다.

무속신앙편은 무속제의, 무신, 무속신화, 무악, 무무, 굿당, 무복, 무구, 제물, 무속문헌자료, 무속인명, 용어로 무속분야를 나누어 표제어 647개를 추출하였다. 114명의 집필자가 참여하였으며, 원고량 7600여매, 사진 1000여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필자가 제공한 사진을 선별하여 사진사용권을 구입하였다. 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였고, 부족한 사진은 국립민속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을 사용하였다. 집필자로부터 사용권을 구입 한 사진의 경우 사진제목, 촬영장소, 촬영 년 월 일, 촬영자를 기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국립민속박물관 유물사진일 경우, 사진촬영된 대상물의 크기와 제작년도, 소장처 등을 기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단 메타데이타를 알 수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확인되는 부분에 한해서 기재하였다.

표제어 배열은 가나다순으로 하였으며, 목차는 크게 가나다 차례와 분야별 차례를 병행하였다. 가나다 차례는 일반적인 사전의 찾기 방식으로서 비교적 편리하게 표제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러면서도 분야별 차례를 병행한 것은 무속신앙편의 특성을 살려 주제별 사전의 장점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분야별 차례를 제시해 줌으로써 무속신앙편의 전체적인 구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독자가 관심 있는 분야만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령 무속인명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분야별 차례를 통해 중요무형문화재 혹은 시도지정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속인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표제어로의 접근성 향상과 백과사전의 특징인 참조와 학습의 기능을 향상 시켰다. 그리고 집필자란에는 일반적으로 집필자 성명과 소속만을 표기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집필자가 작성한 표제어와 페이지를 기재하여 이를 통해서도 표제어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무속신앙편에서는 가표제어와 단순 내용참조 표시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호참조(cross reference) 표시를 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지식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강화했다. 상호연관성 있는 정보의 연계는 독자들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지식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로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민속신앙분야는 관련 항목의 중복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관련표제어를 긴밀히 연관시키는 사전편집체계가 필요하다. 분야별 차례의 병기와 상호참조 표시의 강화는 무속신앙편, 더 나아가〈한국민속신앙사전〉의 전문백과사전으로서의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편의 발간으로 한국 무속의 일면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무속신앙을 집대성하기에는 647개의 표제어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 앞으로 서비스될 웹사전에서 표제어 확장 사업 등을 통해 빈공간을 차곡차곡 메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속신앙편의 무속제의, 무신, 무속신화, 무악, 무무, 굿당, 무복, 무구, 제물, 무속문헌자료, 무속인명, 용어 등 12개 분야의 표제어를 살펴보면 무속제의, 무속신화 등의 분야는 상대적으로 표제어 수와 내용이 풍부한 반면 몇몇 분야는 표제어 수가 많지 않다. 이는 해당 분야의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 않았고 그에 따라 집필할 수 있는 필자도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사전을 일컬어 당대 학문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라고 하는 것이다. 무속신앙편을 통해 현시점에서의 무속연구의 수준과 방향 등을 통시적으로 파악하는 계기가 되어 미비한 부분의 연구를 채워나가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사전의 전체 구성

한국민속신앙사전은 무속신앙편, 마을신앙편, 가신신앙편, 점복·속신·풍수·기타신앙편으로 구성된다.
한국민속신앙사전의 첫 번째 편인 무속신앙편은 1,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어의 선정 및 배열원칙

1. 표제어 선정 범주: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무속신앙과 관련된 단어들을 표제어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2. 표제어 선정
   1) 표제어라 함은『한국민속신앙사전』에 독립항목으로 등재되는 단어를 가리킨다.
   2) 표제어는 무속제의, 무신, 무속신화, 무악, 무무, 굿당, 무복, 무구, 제물, 무속문헌자료, 무속인명, 용어 등 12개의 분야로 나누어 추출하였다.
      가. 무속제의 : 중요무형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굿은 표제어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유형의 굿이나 지역사례의 굿 중 특징, 규모, 전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제어로 삼았다.
      나. 무신 : 무속사회에서 숭배의 대상이 되는 신(神) 중에서 선별하였다.
      다. 무속신화 : 무속제의에서 구송되는 서사무가 중에서 선별하였다.
      라. 무악 : 무속제의에서 무당과 악사에 의해 불리고 연주되는 장단, 선율, 악곡 중에서 선별하되, 함경도, 평안도, 전북-충남 무속음악은 예외적으로 무속 권역 중심의 포괄적인 표제어를 선정하였다.
      마. 무무 : 무속제의에서 무당이 추는 춤 중에서 선별하였다.
      바. 굿당 : 중요민속자료, 시·도 민속자료, 시·도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굿당은 표제어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역사적· 유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굿당은 표제어로 삼았다.
      사. 무복 : 무속 권역 중심으로 포괄적 표제어를 선정하되, 특징적인 일부 무복은 표제어로 삼았다.
      아. 무구 : 무속과 관련된 제의용 물질, 굿당 장식물, 지화, 무신도 등을 표제어로 삼았다.
      자. 제물 : 무속제의에서 신을 위해 마련한 굿상 중심으로 표제어를 삼되, 특징적인 일부 제의용 음식은 표제어로 삼았다.
      차. 무속문헌자료 : 무속신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로서 사적(史的), 자료적 가치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문헌을 선별하였다.
      카. 무속인명 : 중요무형문화재 및 시 · 도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지정된 무당 및 악사를 표제어로 삼되, 특정 시대나 지역을 대표하는 무당으로서 무속 신앙분야의 전승이나 발전을 주도하였거나, 무속신앙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인물일 경우 표제어로 삼았다.
      타. 용어 : 위의 항목에 속하지 않지만 무속신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용어를 선별하여 표제어로 삼았다.
   3) 전체 표제어는 띄어쓰기 상관없이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다.
   4) 목차구성은 가나다 차례와 분야별 차례 두 가지로 구성하였으며 사전 끝부분에는 집필자별로 표제어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5) 표제어 중에서 가표제어, 내용참조, 상호참조 등을 표기해줌으로써 표제어간의 관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가표제어 (표 제 어) : 원고 있는 표제어로 페이지 이동
      나. 내용참조 (내용참조) : 풍부한 설명이 있는 관련성 있는 표제어 참조
      다. 상호참조 (상호참조) : 관련성이 있는 표제어간의 상호참조

표기방법

1. 부호와 기호
   1) 맞춤법 및 표기법은 기본적으로 현행 교육과학 기술부 규정 '한글맞춤법통일안(1989년 3월1일부터 시행)'과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1999년 10월 발간)'에 따랐다.
      (1) 작은따옴표 ' ' : 기본 표제어로 뜻풀이를 하거나 유의어를 뜻풀이 할 때 표기하였다.
      (2) 큰따옴표 " " : 직접 인용의 내용에 표기하였다.
      (3) 겹낫표『』: 문헌이나 저서명을 나타낼 때 표기하였다.
      (4) 낫표「」: 작품이나 책의 하위장 제목 및 논문명을 나타낼 때 표기하였다.
      (5) 대괄호 [ ] : 한글과 음이 다른 한자를 표기할 때 썼다.
      (6) 소괄호 ( ) : 원어, 한자병기, 주석, 설명 등을 넣을 때 표기하였다.
      (7) 중괄호 〈〉: 무가 등을 나타낼 때 표기하였다.
      (8) 줄임표 …… : 원문을 용례로 인용할 때 임의적으로 생략할 경우에 표기하였다.
      (9) 가운뎃점 · :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와 특정 차례를 일괄적으로 나열할 때 표기하였다.
      (10) 온점 . :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 표기하였다.
      직접 인용문의 경우에는 문장을 마칠 때 표기하였다.
      (11) 물결표 ~ : '내지'라는 뜻으로 나타낼 때와 생몰년 사이에 쓴다.
   2) 한자와 한자어의 표기는 속자나 약자를 피해 정자로 정확히 쓰되, 한자음에 특별한 관용이 있을 경우 현실음에 따른다. 그리고 앞에 제시된 한자는 생략하였다. 또한 고유명사, 특수한 용어 및 한자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를 ( )속에 병기하였다.
   3) 외래어와 외국어는 원음대로 표기하였다.
   4)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천 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고 본문에서는 이해가 편하도록 한글을 섞어 표기할 수 있다.
   5) 도량형 · 단위의 경우는 미터법에 의한 부호를 단위 그대로 표기하였다.
2. 자료
   도표, 사진, 삽화, 지도, 악보 등 내용 설명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본문의 해당 부분에 첨부하고 그 출처 또는 소장처를 밝혔다.

색인

이 사전에 실린 표제어 및 표제어에 준하는 용어들을 권말에 가나다순으로 배열해 본문에서 찾아보기 쉽게 하였다.

가나다 차례

ㄱ

가망 022
가신위목 022
가지꽃 023
각심절본 024
감흥시루 025
감흥신령 026
감흥화 027
강대형 027
강릉단오제 028
강신무 031
강화도외포리곶창굿 033
개성 덕물산 최영장군사 039
객귀 039
거령산 039
거리밥 040
거무장단 041
거무춤 041
거상장단 042
거상춤 043
걸립명두 044
걸립상 044
걸립신 045
걸립화 046
겉연 046
겜심바침 048
겹마치 048
경관만신 048
경기도굿 무복 049
경기도도당굿 051
계면 060
계면떡 062
고 063
고동화 064
고드개무당 065
고리동반 065
고리짝 066
고사반 067
고삼 067
고풀이 067
고희정 068
골맥이 069
공수 070
공싯상 072
공창무 072
곽머리씻김굿 073
관성제군 074
광대춤 075
광양당제 075
광인굿 077
광청애기본풀이 079
구덕북 081
구리갈매동도당굿 081
구삼싱 냄 083
구애비 084
구파발본 085
국무 086
국사당 무신도 086
군문기 089
군문춤 090
군웅 092
군웅방울 093
군웅본풀이 093
군웅상 096
군웅춤 097
굿 097
굿거리장단 103
궁상이무가 103
궤눼깃당본풀이 106
극락문 109
금성당 109
금성대왕 112
금이신장 113
기대잽이 113
기메 115
기밀 116
길대장굿 116
길베 117
김광수 119
김금화 119
김남순 121
김대례 122
김병옥 123
김석출 123
김영희 125
김옥렴 126
김용택 126
김유감 128
김유선 129
김유신 130
김윤수 131
김장길 132
김찬섭 133
김춘강 134
꼭두청 136
꽃맞이굿 136
꽃반세우기 137

ㄴ

낙화유수 142
날받이씻김굿 142
남이 장군 144
남이장군사당제 145
남해안별신굿 149
남해안 세습무 무복 156
남해안오구굿 157
내림굿 159
내림춤 162
너울 162
넋(무구) 163
넋(용어) 165
넋노래채 165
넋당석 166
넋춤 166
넋칼 168
노누메기 168
노들본 169
노무편 170
녹음이시루 171
놋동이 171
눈설화 172
느진연물 173

ㄷ

다리굿 176
다리화 177
단골 178
단군 179
단오맞이굿 181
단잡이굿 181
단종 183
단풍맞이굿 185
당떡 187
당맨심방 188
당산맞이굿상 189
당진안섬당제 189
당클 192
대감 193
대감굿무가 194
대감시루 194
대관령 성황사 및 산신당 196
대너리 196
대너리춤 197
대령상 197
대명왕사자기 198
대모 198
대사산이 199
대상 199
대수대명 201
대신발 201
대신방울 202
대신상 202
대신칼 203
대안주상 204
대전의 앉은굿 205
대철망 207
덤불국화 208
도깨비굿 209
도당 210
도당상 211
도랑선비 청정각씨 노래 212
도래둘러맴 214
도령돌기 216
도령춤 216
도부 217
도살풀이 218
도살풀이춤 218
도채비방쉬 219
도포 219
도황수 221
독경 221
독집 223
돈전개 223
돈전풀이 223
동다리 227
동살풀이 228
동이춤 228
동이풀이굿 229
동자대 231
동자상 232
동해안별신굿 233
동해안 세습무 무복 238
동해안오구굿 239
두두리 243
두린굿 243
뒷전무당 245
뒷전상 246
드렁갱이 247
떰쿵장단 248
떵떵이장단 248
띠배 249

ㅁ

마마배송굿 254
마마신 255
마불림제 255
막꽃 256
막음쟁이 257
만구대택굿 258
만당제물 260
만성수부채 261
만세바지장단 262
만수대탁굿 263
만신 263
말명 263
말미상 264
망묵이굿 265
망자상 267
망자혼사굿 268
매화 270
맴돌이장단 270
맹감본풀이 271
맹인신장 273
멩감제 274
명다리 276
명도 277
명두굿무가 277
모름채 279
목단꽃 280
몸기 280
몸주대감 281
몸주신 282
몽달귀신 283
몽두리 283
무감 286
무경 287
무고 288
무당 289
무당내력 292

무세 294
무조신 295
묵은진오기굿 297
문굿무가 299
문전본풀이 299
문전제 302
문전철갈이 304
물부리굿 306
미닫이 306
미친경 307

ㅂ

바라지 312
바라춤 312
바리공주 313
박경자 315
박꽃 316
박병원 317
박병천 318
박수 319
박용녀 319
반야용선 320
발뻐드래 322
밟이춤 322
밤섬부군당도당굿 322
방망이떡 327
방석화랭이 328
방울떡 329
백련화 330
백마장군 331
백학 332
벅구춤 332
범일국사 333
법사 334
법수선원 산신도 335
벙거지떡 336
베포도업춤 337
별기은 338
별상춤 338
병굿 339
본향 341
본향당굿 342
본향상 342
본향춤 343
봉등채 343
봉죽 344
봉화산도당굿 345
부군 350
부정 352
부정상 352
부정풀이 353
불도맞이 354
불보살번 357
불사맞이굿 359
불사상 360
불사할머니 361
비래쟁이 362
빈순애 363
빙의 365

ㅅ

사귀대 370
사냥타령 371
사슬세우기 371
사슬타령 372
사신 373
사신반혼굿 374
사신성황당 현판 375
사자맥이 377
사자상 379
산메기 380
산바라기상 382
산신 382
산신멩감 385
산씻김굿 386
산오구굿 387
산함박 389
살 390
살맥이 391
살장 393
살잽이꽃 394
살전지 395
살풀이 395
삼공맞이 가면 397
삼공본풀이 397
삼공잽이 400
삼두구미본풀이 401
삼멩두 402
삼사자 403
삼산돌기 405
삼승할망본풀이 406
삼신 408
삼오장 412
삼장개비 414
삼재맞이 414
삼지창 418
삼태자풀이 419
삼토신령 421
삼현춤 421
상문 422
상산춤 423
상식상 423
새남굿 425
새ᄃᆞ림춤 439
새미하로산당 440
새발심지 441
샛별국화 442
생불할망본풀이 443
서낭 443
서낭기 445
서빙고동부군당 446
서울굿 무복 448
서울새남굿 451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454
선무당 460
선부리장단 461
선왕상 462
설경 463
설쇠 464
설위설경 465
성수 466
성수청 467
성인굿 468
성주굿 470
성주상 473
성주풀이 473
세경본풀이 475
세령무 479
세민황제본풀이 480
세습무 481
셍굿무가 482
소가면 484
소미 485
소설경 486
소슬굿 486
속연 490
손각시 491
손님굿 492
손님굿무가 495
손전 497
송당리마을제 497
송당본향당 499
송동숙 500
송선자 502
송송개 503
쇠걸립 503
쇠풍장 504
수부채 505
수비 506
수비장단 506
수산본향당 507
수성당 508
수팔련 510
숙영랑앵연랑신가 513
순천삼설양굿 513
쉰대부채 516
스승청 517
시나위 518
시루말 518
시무굿무가 520
시왕기 524
시왕도 524
시왕맞이 525
신과세제 527
신광주리춤 529
신내림 530
신딸 530
신만곡대제 531
신법 532
신병 533
신부리 533
신석남 537
신석봉 538
신위행 538
신장대 539
신장위목 540
신청궤춤 540
신청울림 541
신칼 542
신태집 543
심방 545
심방백중제 545
심방청 546
심청굿무가 547
십대왕 550
싹불이가면 551
쑹거장단 552
쑹거타령 553

ㅇ

아흔아홉상쇠방울 622
악공청 622
안당사경맞이상 623
안당제석상 624
안사인 625
안산잿머리성황당 626
안택굿 627
애기씨 · 동자꽃 630
액막이굿 630
액막이상 633
약사불사 635
양산지산리부부상 635
양주소놀이굿 636
언월도 638
얼새남 640
여탐굿 640
역가상 640
연양탁상 641
연지당상 642
연풍대 642
염불 642
영감가면 644
영감놀이 645
영감춤 647
영게상 649
영돈 649
영등굿 650
영산대감춤 653
영장치기 654
영집 656
영해별신굿놀이 657
오방신장 659
오방신장기 660
오수복 661
옥수그릇 662
옥황상제 663
올림채 664
올림채춤 665
와룡묘 665
와룡선생 667
와흘본향당 667
완도장좌리당제 및 당굿 668
왕십리본 675
왕십리아기씨당 676
요왕차사상 678
용신 679
용왕기 681

용왕밥 681
용왕상 683
울쇠 685
원미상 686
원삼 687
원천강본풀이 688
월평다라쿳당 689
위도 대리마을 원당 691
위도띠뱃놀이 692
은산별신제 698
의무 703
의술가면 704
의원가면 704
이공본풀이 705
이명옥 707
이상순 708
이선비 708
이어인년 710
이정연 711
이종순 712
이중춘 713
인물개 714
인왕산 국사당 716
일뤠또본풀이 717
일산동당제 719
일월개 721
일월노리푸념 723
임경업 장군 725
입춘굿 726

ㅈ

자삼 736
자진한잎 736
작두 737
작두장군 738
작두춤 739
잡귀잡신 740
장구떡 742
장군개 743
장군상 743
장말도당굿 744
장발 748
장보배 749
장삼 750
장세일 752
장자풀이 753
재가집 755
재수굿 756
재인청 762
저승본풀이 763
저승사자 766
전금순 766
전복 767
전북의 앉은굿 770
전북-충남 무속음악 771
전안상 773
점사 773
정모연 773
정숙자 774
정영만 775
정정괴 776
정정애 776
정주 777
정학봉 779
제금 780
제마수 782
제석노래채 782
제석본풀이 782
제석상 785
제석춤 786
제주굿 무복 787
제주도 내왓당 무신도 789
제주칠머리당영등굿 792
제주큰굿 799
조금례 803
조너리 804
조리술 804
조상 805
조상대 806
조상상 807
조상화 808
조선무격의 신가 808
조선무속고 809
조선무속의 연구 810
조선신가유편 811
조선의 무격 812
조순자 814
중디밧산 814
지리천문신장 814
지양밥 815
지장본풀이 815
지전 817
지전춤 820
지하장군 820
진가장무가 821
진도씻김굿 823
진도 채씨 무계 829
진쇠 831
진쇠춤 832
진오기굿 832
진적굿 834
진진오기굿 839
쪼시개 839

ㅊ

차사본풀이 844
창부씨 844
채계만 846
천궁맞이상 847
천근소리 847
천금새남굿 849
천왕대 849
천왕메기굿 851
천존위목팔부신대 852
천지왕본풀이 853
철릭 854
철망 857
철물이굿 858
철쭉대 861
첨사통 861
청계상 862
청너울 862
청룡도 863
청송무당 864
초공본풀이 865
초롱등 868
최갑선 868
최영 장군 870
최음전 871
최형근 872
추라 873
충렬굿무가 874
충청도 독경무복 875
취타 876
측신굿 877
칠성검 879
칠성방울 880
칠성본풀이 880
칠성새남 882
칠성신 883
칠성풀이 885
칠쇠방울 886

ㅋ

쾌자 890
큰굿상 892
큰대 893
큰머리춤 893

ㅌ

타살칼 896
타승굿무가 896
탁상굿 897
탑등 897
태백신사 899
태안설위설경 900
태주 902
태주무당 903
텃대감상 904
터벌림 904
터벌림춤 905
토산여드렛당본풀이 906
통기 906

ㅍ

판수 910
팔문금쇄진 911
평안도굿 무복 911
평안도 무속음악 913
평진오기굿 915
평창동보현산신각 917
푸너리 918
푸너리춤 919
푸닥거리 919
푸살 920

ㅎ

하지굿 924
하직굿 926
하진순 927
한칠동 929
할망상 930
할미가면 930
함경도굿 무복 931
함경도 무속음악 932
해미광대탈 933
행당동아기씨당굿 934
허개등 940
허용업 942
허웅애기본풀이 943
허주굿 945
호가 945
호구별성 946
호구별성풀이 947
호남굿 무복 948
호남 당골굿 951
호살량굿 954
혼맞이굿 957
혼베 958
홍수맥이 959
황남희 959
황도붕기풍어제 960
황천혼시 962
황하청 965
황해도굿 무복 967
황해도평산소놀음굿 971

색인 556 / 976
집필자 590 / 1010

무속제의



강릉단오제 028
강화도외포리곶창굿 033
겜심바침 048
경기도도당굿 051
곽머리씻김굿 073
광양당제 075
광인굿 077
구리갈매동도당굿 081
구삼싱 냄 083
길대장굿 116
꽃맞이굿 136
날받이씻김굿 142
남이장군사당제 145
남해안별신굿 149
남해안오구굿 157
내림굿 159
다리굿 176
단오맞이굿 181
단잡이굿 181
단풍맞이굿 185
당진안섬당제 189
대전의 앉은굿 205
도깨비굿 209
도채비방쉬 219
독경 221
동이풀이굿 229
동해안별신굿 233
동해안오구굿 239
두린굿 243
마마배송굿 254
마불림제 255
만구대택굿 258
만수대탁굿 263
망묵이굿 265
망자혼사굿 268
멩감제 274
묵은진오기굿 297
문전제 302
문전철갈이 304
물부리굿 306
미친경 307
밤섬부군당도당굿 322
병굿 339
본향당굿 342
봉화산도당굿 345
불도맞이 354
불사맞이굿 359
사신반혼굿 374
사자맥이 377
산메기 380
산신멩감 385
산씻김굿 386
산오구굿 387
살맥이 391
삼재맞이 414
새남굿 425
서울새남굿 451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454
성인굿 468
성주굿 470
소슬굿 486
손님굿 492
송당리마을제 497
순천삼설양굿 513
시왕맞이 525
신과세제 527
신만곡대제 531
심방백중제 545
안택굿 627
액막이굿 630
양주소놀이굿 636
얼새남 640
여탐굿 640
영감놀이 645
영등굿 650
영장치기 654
영해별신굿놀이 657
완도장좌리당제 및 당굿 668
위도띠뱃놀이 692
은산별신제 698
일산동당제 719
입춘굿 726
장말도당굿 744
재수굿 756
전북의 앉은굿 770
제주칠머리당영등굿 792
제주큰굿 799
진도씻김굿 823
진오기굿 832
진적굿 834
진진오기굿 839
천금새남굿 849
천왕메기굿 851
철물이굿 858
측신굿 877
칠성새남 882
탁상굿 897
태안설위설경 900
평진오기굿 915
푸닥거리 919
하지굿 924
하직굿 926
행당동아기씨당굿 934
허주굿 945
호남 당골굿 951
호살량굿 954
혼맞이굿 957
홍수맥이 959
황도붕기풍어제 960
황해도평산소놀음굿 971

무신



가망 022
감흥신령 026
객귀 039
걸립신 045
계면 060
골맥이 069
관성제군 074
군웅 092
금성대왕 112
금이신장 113
김유신 130
남이 장군 144
단군 179
단종 183
대감 193
도당 210
마마신 255
말명 263
맹인신장 273
몸주대감 281
몸주신 282
몽달귀신 283
무조신 295
백마장군 331
범일국사 333
본향 341
부군 350
불사할머니 361
사신 373
산신 382
삼신 408
삼토신령 421
서낭 443
성수 466
손각시 491
수비 506
십대왕 550
약사불사 635
오방신장 659
옥황상제 663
와룡선생 667
용신 679
임경업 장군 725
작두장군 738
잡귀잡신 740
저승사자 766
조상 805
지리천문신장 814
지하장군 820
창부씨 844
최영 장군 870
칠성신 883
태주 902
호구별성 946

무속신화



광청애기본풀이 079
군웅본풀이 093
궁상이무가 103
궤네깃당본풀이 106
대감굿무가 194
도랑선비 청정각씨 노래 212
돈전풀이 223
맹감본풀이 271
명두굿무가 277
문굿무가 299
문전본풀이 299
바리공주 313
삼공본풀이 397
삼두구미본풀이 401
삼승할망본풀이 406
삼태자풀이 419
생불할망본풀이 443
성주풀이 473
세경본풀이 475
세민황제본풀이 480
셍굿무가 482
손님굿무가 495
숙영랑앵연랑신가 513
시루말 518
시무굿무가 520
심청굿무가 547
원천강본풀이 688
이공본풀이 705
일뤠또본풀이 717
일월노리푸념 723
장자풀이 753
저승본풀이 763
제석본풀이 782
지장본풀이 815
진가장무가 821
차사본풀이 844
천지왕본풀이 853
초공본풀이 865
충렬굿무가 874
칠성본풀이 880
칠성풀이 885
타승굿무가 896
토산여드렛당본풀이 906
허웅애기본풀이 943
호구별성풀이 947
황천혼시 962

무악



거령산 039
거무장단 041
거상장단 042
겹마치 048
고사반 067
고삼 067
굿거리장단 103
꼭두청 136
넋노래채 165
느진연물 173
대너리 196
도살풀이 218
동살풀이 228
드렁갱이 247
떰쿵장단 248

떵떵이장단 248
만세바지장단 262
맴돌이장단 270
모름채 279
미닫이 306
발뻐드래 322
봉등채 343
부정 352
부정풀이 353
사냥타령 371
사슬타령 372
살풀이 395
삼공잽이 400
삼오장 412
삼장개비 414
선부리장단 461
쇠풍장 504
수부채 505
수비장단 506
시나위 518
신청울림 541
쑹거장단 552
쑹거타령 553
염불 642
올림채 664
자삼 736
자진한잎 736
전북·충남 무속음악 771
제마수 782
제석노래채 782
조너리 804
중디밧산 814
진쇠 831
쪼시개 839
천근소리 847
취타 876
터벌림 904
평안도 무속음악 913
푸너리 918
푸살 920
함경도 무속음악 932

무무



거무춤 041
거상춤 043
광대춤 075
군문춤 090
군웅춤 097
내림춤 162
넋춤 166
대너리춤 197
도래둘러맴 214
도령돌기 216
도령춤 216
도살풀이춤 218
동이춤 228
바라춤 312
밟이춤 322
벅구춤 332
베포도업춤 337
벌상춤 338
본향춤 343
삼현춤 421
상산춤 423
새ᄃᆞ림춤 439
세령무 479
신광주리춤 529
신청궤춤 540
연풍대 642
영감춤 647
영산대감춤 653
올림채춤 665
작두춤 739
제석춤 786
지전춤 820
진쇠춤 832
큰머리춤 893
터벌림춤 905
푸너리춤 919

굿당



개성 덕물산 최영장군사 039
금성당 109
대관령 성황사 및 산신당 196
새미하로산당 440
서빙고동부군당 446
송당본향당 499
수산본향당 507
수성당 508
안산잿머리성황당 626
와룡묘 665
와흘본향당 667
왕십리아기씨당 676
월평다라쿳당 689
위도 대리마을 원당 691
인왕산 국사당 716
태백신사 899
평창동보현산신각 917

무복



경기도굿 무복 049
남해안 세습무 무복 156
도포 219
동다리 227
동해안 세습무 무복 238
몽두리 283
서울굿 무복 448
원삼 687
장삼 750
전복 767
제주굿 무복 787
철릭 854
충청도 독경무복 875
쾌자 890
평안도굿 무복 911
함경도굿 무복 931
호남굿 무복 948
황해도굿 무복 967

무구



가신위목 022
가지꽃 023
감흥화 027
걸립명두 044
걸립화 046
겉연 046
고 063
고동화 064
고리짝 066
구덕북 081
국사당 무신도 086
군문기 089
군웅방울 093
극락문 109
기메 115
길베 117
낙화유수 142
너울 162
넋 163
넋당석 166
넋칼 168
놋동이 171
눈설화 172
다리화 177
대명왕사자기 198
대신발 201
대신방울 202
대신칼 203
대철망 207
덤불국화 208
독집 223
돈전개 223
동자대 231
띠배 249
막꽃 256
만성수부채 261
매화 270
명다리 276
명도 277
목단꽃 280
몸기 280
박꽃 316
반야용선 320
백련화 330
백학 332
법수선원 산신도 335
봉죽 344
불보살번 357
사귀대 370
사신성황당 현판 375
산함박 389
살장 393
살잽이꽃 394
살전지 395
삼공맞이 가면 397
삼멩두 402
삼사자 403
삼지창 418
새발심지 441
샛별국화 442
서낭기 445
설경 463
설쇠 464
설위설경 465
소가면 484
소설경 486
속연 490
손전 497
송송개 503
수팔련 510
쉰대부채 516
시왕기 524
시왕도 524
신장대 539
신장위목 540
신칼 542
신태집 543
싹불이가면 551
아흔아홉상쇠방울 622
애기씨·동자꽃 630
양산지산리부부상 635
언월도 638
영감가면 644
영돈 649
영집 656
오방신장기 660
옥수그릇 662
용왕기 681
울쇠 685
의술가면 704
의원가면 704
인물개 714
일월개 721
작두 737
장군개 743
장발 748
정주 777
제금 780
제주도 내왓당 무신도 789
조상대 806
조상화 808
지전 817
천왕대 849
천존위목팔부신대 852
철망 857
철쭉대 861
첨사통 861
청너울 862
청룡도 863
초롱등 868
추라 873
칠성검 879
칠성방울 880

칠쇠방울 886
큰대 893
타살칼 896
탑등 897
통기 906
팔문금쇄진 911
할미가면 930
해미광대탈 933
허개등 940
혼베 958

제물



감흥시루 025
거리밥 040
걸립상 044
계면떡 062
고리동반 065
공싯상 072
군웅상 096
녹음이시루 171
당떡 187
당산맞이굿상 189
당클 192
대감시루 194
대령상 197
대상 199
대신상 202
대안주상 204
도당상 211
동자상 232
뒷전상 246
만당제물 260
말미상 264
망자상 267
방망이떡 327
방울떡 329
벙거지떡 336
본향상 342
부정상 352
불사상 360
사자상 379
산바라기상 382
상식상 423
선왕상 462
성주상 473
안당사경맞이상 623
안당제석상 624
액막이상 633
역가상 640
연양탁상 641
연지당상 642
영게상 649
요왕차사상 678
용왕밥 681
용왕상 683
원미상 686
장구떡 742
장군상 743
전안상 773
정정괴 776
제석상 785
조라술 804
조상상 807
지앙밥 815
천궁맞이상 847
청계상 862
큰굿상 892
텃대감상 904
할망상 930

무속문헌 자료



노무편 170
무당내력 292
조선무격의 신가 808
조선무속고 809
조선무속의 연구 810
조선신가유편 811
조선의 무격 812

무속인명



강대형 027
고희정 068
김광수 119
김금화 119
김남순 121
김대례 122
김병옥 123
김석출 123
김영희 125
김옥렴 126
김용택 126
김유감 128
김유선 129
김윤수 131
김장길 132
김찬섭 133
김춘강 134
박경자 315
박병원 317
박병천 318
박용녀 319
빈순애 363
송동숙 500
송선자 502
신석남 537
신석봉 538
신위행 538
안사인 625
오수복 661
이명옥 707
이상순 708
이선비 708
이어인년 710
이정연 711
이종순 712
이중춘 713
장보배 749
장세일 752
전금순 766
정모연 773
정숙자 774
정영만 775
정정애 776
정학봉 779
조금례 803
조순자 814
진도 채씨 무계 829
채계만 846
최갑선 868
최음전 871
최형근 872
하진순 927
한칠동 929
허용업 942
황남희 959
황하청 965

용어



각심절본 024
강신무 031
경관만신 048
고드개무당 065
고풀이 067
공수 070
공창무 072
구애비 084
구파발본 085
국무 086
굿 097
기대잽이 113
기밀 116
꽃반세우기 137
넋 165
노누메기 168
노들본 169
단골 178
당맨심방 188
대모 198
대사산이 199
대수대명 201
도부 217
도황수 221
두두리 243
뒷전무당 245
막음쟁이 257
만신 263
무감 286
무경 287
무고 288
무당 289
무세 294
바라지 312
박수 319
방석화랭이 328
법사 334
별기은 338
비래쟁이 362
빙의 365
사슬세우기 371
살 390
삼산돌기 405
상문 422
선무당 460
성수청 467
세습무 481
소미 485
쇠걸립 503
스승청 517
신내림 530
신딸 530
신법 532
신병 533
신부리 533
심방 545
심방청 546
악공청 622
왕십리본 675
의무 703
재가집 755
재인청 762
점사 773
청송무당 864
태주무당 903
판수 910
호가 945

가망
가신위목(家神位目)
가지꽃
각심정본
감흥사부
감흥신령
감흥화
강대형
강릉단오제(江陵端午祭)
강신무(降神巫)
강화도외포리굿참구
개성 덕물산 최영장군사(開城 德物山 崔瑩將軍祠)
객귀(客鬼)
거령산(擧靈山)
거리밥
거무장단
거무춤
거상장단(擧床長短)
거상춤
걸립명두(乞粒明斗)
걸립상
걸립신(乞粒神)
걸립화(乞粒花)
겉연(外緣)
겜심바침
겹마치
경관만신
경기도굿 무복
경기도당굿
계면
계면떡
고
고동화
고드개무당
고리동반
고리짝
고사반(告祀盤)
고삼
고풀이
고희정
골맥이
공수
공신상
공창무(空唱巫)
곽머리씻김굿
관성제군(關聖帝君)
광대춤
광양당제
광인굿
광청애기본풀이
구덕북
구리갈매동도당굿
구삼싱 냄
구애비(鬼業)
구파발본(舊把發本)
국무(國巫)
국사당 무신도(國師堂 巫神圖)
군문기
군문춤
군웅(軍雄)
군웅방울
군웅본풀이
군웅상
군웅춤
굿
굿거리장단
궁상이무가
궤눼깃당본풀이
극락문(極樂門)
금성당(錦城堂)
금성대왕(錦城大王)
금이신장
기대잽이
기메
기밀
길대장굿
길베
김광수
김금화
김남순
김대례
김병옥
김석출
김영희
김옥렴
김용택
김유감
김유선
김유신(金庾信)
김윤수
김장길
김찬섭
김춘강
꼭두청
꽃맞이굿
꽃반세우기

가망

정의 한국 무속에서 신령들의 근원(根源)을 관장하여 굿문을 열고 신령과 인간이 만날 수 있게 하는 신령의 이름.

내용 가망은 무속에서 가장 근원이 되는 신령의 이름이다. 그래서 서울굿의 부정청배 첫머리에 '영정가망 부정가망'으로 불린다. 가망은 본향을 쳐들기 전에 반드시 거론되어야 하며, 조상을 부르기 전에 말명이나 대신보다 먼저 불러야 하는 신격이다. 또한 망자가 저승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할 신이 가망이다.

서울굿에는 산거리가 가망거리보다 먼저 나오지만 두 거리의 신격은 닮은 점이 있다. 가망거리에서 춤을 출 때 드는 종이를 '가망종이'라 하는데 이는 산거리에서 들고 추는 산종이와 같다. 두 종이는 각각 산과 근원의 모양이다. 터와 지역신을 의미하는 산신과 근원을 의미하는 가망신은 성격에서 상통하는 바가 있다.

서울굿에서는 부정청배를 하고 뒤이어 가망청배를 한다. 가망청배가 끝나야 재가집은 상에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가망이 와서 근원을 향한 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재가집은 신을 맞아들여 절을 올릴 수 있다. 부정청배에서 여러 신격을 불러들였다면 가망청배는 근원을 쳐들어 굿문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재가집은 신들에게 인사를 올리고 굿을 시작할 수 있다.

아울러 가망은 조상신과 관련이 있다. 조상거리에서는 먼저 간 조상들이 여럿 불려지는데 가망공수가 있은 후에야 굿판에 들어올 수 있다. 서울 진오기굿의 뜬대왕거리에서도 동일하여 망자를 저승으로 온전하게 천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망공수가 있어야 한다. 이처럼 가망은 신령들이 굿판에 들어올 수 있게 굿문을 여는 역할을 한다.

지역사례 가망은 한국의 모든 지역굿에 나타난다. 먼저 황해도굿의 순서를 보면 초부정거리와 산천거리를 이어 초감흥거리가 진행된다. 초부정거리는 모든 부정을 물리치는 거리이고, 산천거리는 산신을 모셔 들이는 거리이다. 초감흥거리는 꽃갓에 초록저고리 · 남치마 · 남쾌자 · 감흥의대를 입고 감흥관대를 허리에 매고 진행하는, 모든 신을 굿당에 청하는 거리이다. 굿의 진행 순서를 보아도 부정거리 다음에 이어지고 있으며 여러 신령을 맞이하여 좌정시킨다는 데에서 서울굿의 가망과 황해도의 감흥굿의 상통성이 확인된다.

그리고 호남의 씻김굿 초가망석이 있다. 안당 다음에 이어지는 거리가 초가망석으로, 안당이 집안의 부정을 몰아내고 여러 조상과 성주 · 삼신 등 가신들에게 오늘밤 누구를 위하여 무슨 굿을 하는지를 아뢰는 의미라면 초가망석은 신과 망자를 청하는 거리이다. 안당과 초가망석의 관계는 서울굿의 부정청배와 가망청배의 관계와 흡사하다. 부정을 몰아내고 초가망석이 진행되어야 여러 신이 굿판에 들어올 수 있다. 동해안별신굿에도 가망굿이 있고 평안도다리굿에도 가믕서낭굿이 있다. 모두 굿판에 신령들을 불러들이는 동일한 기능을 보인다. 서울굿의 가망청배, 황해도굿의 초감흥거리, 호남 씻김굿의 초가망석, 동해안별신굿의 가망굿, 평안도다리굿의 가믕서낭굿은 모두 가망이라는 이름이 굿거리에 등장하고 있으며 그 기능도 유사하다.

이들은 모두 굿의 초반부에 있으며, 신들을 굿판에 모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의 굿은 초반부에 항상 신격을 불러 모시는 걸 강조하는데 이것이 가망이라는 뜻이다. 서울굿에 등장하는 가망청배의 의미는 전국적인 굿에서 모두 발견되는 양상으로, 이는 한국굿의 한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맞이로 하는 우리 신화 연구(김헌선, 서사무가와 우리 신화 찾기, 우리말로 학문하기 모임 제7차 집담회 발표집, 2004), 서울굿 가망청배거리에서 '가망'의 의미 연구(홍태한, 서울굿의 양상과 의미, 민속원, 2007).
필자 홍태한(洪泰漢)

가신위목(家神位目)

정의 집안 신령[家神]을 위하고 한 해 동안 무탈하길 바라는 안택을 할 때 신을 모시기 위한 위목(位目).



안택 위목
충남 태안군 근흥면 | 2004.11 | 임승범

형태 흰 종이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길게 자른 다음 그 안에 묵서(墨書)로 성주신 등 집안 신령의 이름을 적는다. 이러한 가신위목은 안택 의례를 할 때 굿청의 정면 벽면 혹은 병풍에 붙인다.

내용 신은 집안을 지키는 신령들이다. 대체로 부엌에는 조왕, 안방에는 성주와 조상, 장독에는 터주신이 좌정하고 있다. 이러한 집안의 신령들은 집안의 곳곳에 좌정하여 집안의 길흉화복을 관장한다. 집안 신령들을 위하는 안택을 할 때에는 대체로 사중팔신(舍中八神)이라 하여 8위의 신들을 모신다.

예컨대 충남 태안 지역에서는 조왕, 성주, 조상, 삼신, 지신, 용왕, 별성, 수비신을 8신으로 여긴다. 안택을 할 때에 이들 신령의 이름을 길게 자른 종이에 적어서 위목을 만든다. 이러한 위목은 안방 혹은 마루에 한데 붙여놓는데, 사중팔신 중에 격이 낮은 수비신은 다른 위목보다 조금 낮게 붙인다. 조왕 위목은 따로 그가 관장하는 부엌에 붙여놓는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위목은 성주위목이다. 성주신이 집안의 가장 큰 신령으로 추앙되기 때문이다. 안택을 마치고 나면 성주 신체(神體)를 제작하여 안방 혹은 마루에 붙여서 성주를 좌정시킨다. 태안 지역에서는 이때 성주 위목을 돌돌 말아서 성주 신체로 삼아서 성주신이 원하는 곳에 좌정시킨다.

참고문헌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충청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충청지역의 종이무구(임승범, 한국무속학 13, 한국무속학회, 2006).
필자 임승범(林承範)

가지꽃

정의 서울굿의 모든 굿에 사용되는 꽃. 다리화 · 함박꽃(목단) · 살잽이꽃으로 만드는데, 한 가지에 여러 송이를 꽂았다하여 가지꽃이라 부른다. 또한 두 종류 혹은 세 종류 이상의 꽃을 꽂았다는 점에서 갖은꽃이라고도 부른다. 새남굿에서 무당의 머리에 꽂을 때는 머리꽃이라 부르기도 한다.

형태 가지꽃은 한지와 대나무로 만들어진다. 이것은 여러 종류의 꽃으로 이루어진 만큼, 사용되는 색지의 색상이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녹색의 종이를 대나무 가지에 두른다. 살잽이꽃은 노란색 · 분홍색 · 남색 · 붉은색 종이로 만들어진다. 함박꽃은 노란색과 자주색, 다리화는 흰색 · 자주색 · 노란색 등의 색지가 사용된다. 함박꽃은 목단화[牡丹花]인 모란을 말한다. 상고 시대에서는 이 꽃을 작약(芍葯)으로 불렀다가 다시 목작약(木芍藥)이라고도 하였다. 노란색의 색지가 술이 되며 가운데 술을 먼저 겹친 뒤에 자주색 색지로 수십 장의 큰 꽃잎을 펼친 상태 그대로 여러 장을 겹쳐서 제작한다. 완성된 꽃의 모습은 꽃봉오리가 활짝 핀 형태이다. 반면에 동해안은 잎을 오므린 목단을 제작하는데, 그 이유는 꽃잎이 큰 만큼 한지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살잽이꽃은 다리화나 목단과 달리 꽃잎이 돌돌 말아져 주름이 진 형태이다. 다리화는 상상의 꽃으로, 잎이 큰 것과 꽃잎을 실처럼 가늘게 잘라서 만든 실다리화가 있는데, 그 중에 잎이 큰 것을 가지꽃으로 사용한다.

내용 가지꽃은 조상상과 사제상에 꽂는 것으로, 살잽이꽃과 마찬가지로 모든 굿에서 늘 사용하는 꽃이다. 가지꽃은 제물상에 가장 많이 진설되는 꽃으로 제물상의 주신인 신의 성격에 따라 색상이나 개수가 달라지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향상에는 노란색이나 흰색의 가지꽃 3송이를 편떡에 꽂으며, 장군상에는 수팔련을 에워싸듯이 그 주변에 가지꽃 여러 송이를 팥떡에 꽂는다. 뒷전상에는 떡에 가지꽃 한 송이씩 3개를 꽂는다. 불사상에도 불사수팔련을 꽂지 않은 백설기

위에 가지꽃을 꽂으며, 조상상에는 살잽이꽃 대신 가지꽃을 팥떡에 꽂기도 한다. 성주상에는 청색·홍색·황색의 가지꽃 3송이를 쌀이 담겨진 그릇에 꽂는다. 구능상(혹은 군웅상)에도 가지꽃을 팥떡에 꽂으며, 천궁맞이상에는 제면떡에 가지꽃 한 송이를 꽂는다.

또한 가지꽃은 새남굿이나 진오귀굿에서 사제 놀 때 무당의 장식물의 일종으로 사용된다. 사재삼성거리에서 무당은 삼베와 소창을 돌돌 말아 머리띠를 만들어 머리에 두르고, 흰색과 붉은색의 가지꽃을 머리에 꽂는다. 이때 무당은 말미종이를 머리 뒤쪽에다 꽂고 입에는 산자를 문다. 그리고 등에는 명태를 메는데, 이 명태는 곧 망자로, 망자를 업어가는 행동을 상징화한 것이다. 사재삼성거리에서 가지꽃은 머리에 꽂는 기능으로 인해, '머리꽃'이라고도 불린다.

가지꽃의 한 구성인 목단꽃은 무속에서 신이 가장 좋아하는 꽃으로 하강할 때에도 가장 먼저 점지하는 꽃으로 알려져 있다. 동해안굿에서도 큰굿이나 별신굿에서는 반드시 제단에 올리는 꽃이다. 목단꽃은 잡귀와 잡신을 쫓는 꽃으로서, 그 크기에 놀라 귀신이 도망간다고 한다. 이는 무속에서는 꽃이 크면 귀신이 놀라 도망간다는 믿음에 기인한다. 다리화 또한 그 꽃잎이 크다는 점 때문에 잡신을 쫓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살잽이꽃은 변화무쌍한 꽃으로서 국운이 위태로우면 평소와 반대로 밤에 피고 낮에 시드는 꽃으로 알려져 있다. 살잽이꽃은 한과 인정이 많은 신령님들이 좋아하는 꽃으로 유명하다. 주로 서울 사대문 안에 서식하였으며, 특히 창경궁에서 살잽이꽃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살잽이꽃은 바리데기 신화에 등장하는 주인공 바리데기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해서 '바리데기꽃'이라고도 한다. 즉 이 꽃은 다시 살아난다는 재생과 환생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사재삼성거리에 사용되는 가지꽃은 의례 주재자가 지니는 이중적인 역할만큼, 꽃의 의미 또한 이중적이라 할 수 있다. 무당이 사자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에 이 꽃은 그 형태에 기인해 잡신의 접근을 막고 망자를 높은 곳으로 모셔간다는 의미이며, 망자를 상징할 때는 곧 극락의 이상세계를 상징한다. 즉 꽃이 만발한 이상세계로서, 극락이 표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불교에서는 보통 연꽃의 만개로 상징되는 불계(佛界) 즉, 불교적 유토피아는 생명의 창조적 활동을 축원하거나 재생의 기원적 상징물처럼 여겨졌던 것과 연계지어 생각할 수 있다.

지화는 신에게 정성을 보이기 위해 장식되는 꽃이다. 또한 굿청을 화려하게 차려 장식해 신의 눈을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신이 꽃밭에 앉아 굿을 받으라는 목적을 지닌다는 점에서, 신이 하강하여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대상이면서 신을 즐겁게 해주는 대상으로 인식된다. 지화는 다양한 종류만큼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그중에서 신이 하강한 뒤에 일시적으로 좌정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과 신을 즐겁게 해주는 오신(娛神)의 의미가 가장 크다.

참고문헌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경상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무 · 굿과 음식 1(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한국의 무불습합론 (2)-꽃의 민속성이 갖는 일경향을 중심으로(편무영, 한국불교민속론, 민속원, 1998), 무화연구 1(김태연, 한국무속학 3, 한국무속학회, 2001), 서울굿의 신화 연구(양종승 · 최진아, 한국무속학 5, 한국무속학회, 2002), 서울굿의 상차림에 대하여(홍태한, 한국무속학 6, 한국무속학회, 2003), 무속의례의 꽃장식, 그 기원적 성격과 의미(이수자, 한국무속학 14, 한국무속학회, 2007), 최영장군당굿의 제물과 지화에 반영된 신의 위계와 신격(최진아, 최영장군 당굿 연구, 민속원, 2008), 무속의 물질문화 연구(최진아,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9).
필자 최진아(崔眞娥)

각심절본

정의 서울굿의 사제계승에 따른 유파를 구분할 때 동문 밖의 유파를 이르는 말.

내용 각심절본은 각심절쪽의 전통을 중시하는 굿법과 무가를 말한다. 이 용어는 특정한 제보자에 의해 말해진 것이지만 서울굿의 전반적인 판도를 볼 때 전통적인 서울굿의 유파를 말하는데 일정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각심절본이라고 할 때 각심절이 어디인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제보자들의 증언이 한결같지는 않지만 현재 행정구역상 월계동에 각심사(覺心寺)가 있었으며, 이곳에 있는 마을을 각심절마을이라고 했을 때 상당 정도 이쪽을 지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각심절본의 유래는 구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증언은 서울 대표적인 박수무당 가운데 한 사람인 이지산의 증언이다. 이지산의 구전신화에 따르면 각심절본의 내력은 자못 간명하다.

예전에 오만수라는 무조가 살았는데, 오만수에게 딸이 넷이 있었다. 그 중 하나는 양씨부인으로 개성 덕물산의 최영 장군의 부인이 되어서 덕물산의 굿법을 마련하였으며, 나머지 세 명의 자매가 서울로 들어와서 맏언니는 구파발에 자리하여 당주가 되었으며, 둘째언니는 동문 밖의 각심절에 당주가 되었으며, 막내는 우수재서낭의 당주가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각각의 굿법과 전통이 마련되었는데, 각심절본의 문서는 서울의 동쪽으로 진적굿과 재수굿으로 유명하였으며, 구파발본의 문서는 서울의 서쪽으로 진오기굿이 유명하였으며, 노들본인 우수재의 문서는 서울의 남쪽으로 서낭당에서 서낭굿으로 유명하였다고 전한다.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적 분포와 변화를 존중하면서도 이들이 자매간이라고 함으로써 혈족적인 인접성을 말하고 있다.

이 전통적 유파와 문서의 구분은 표면적인 사실 이외에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 지역들은 한양의 변두리였으며, 서울의 만신들이 축출되면서 사대문 밖으로 밀려나고 그 과정에서 독자적인 무풍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서울굿의 다른 구분도 있는데 서울굿의 동쪽제와 서쪽제의 구분이다. 서울굿은 궁 안과 궁 밖의 굿이 일차적으로 매우 중요한 구분이 되고, 동쪽제와 서쪽제의 구분은 지역적 편차를 말하는 것이 된다.

각심절본은 지역의 편차를 말하는 것으로 서울굿의 지역적 특색을 말하는 외적 비교론에서 마련된 전통적인 용어라면, 서울굿의 동쪽제와 서쪽제는 내적 차별화를 꾀하기 위한 구분이다. 굿에서 쓰이는 장단과 무가, 춤사위의 차별성 따위는 각심절본·노들본·구파발본 등에서는 잘 구분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진적굿·재수굿·진오기굿·서낭굿 등으로 구분하는 굿의 특징과 세부적인 차별성이 무엇인가 하는 말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나오므로 외적 비교와 내적 비교에 의한 구분은 상보적인 관계에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각심절본·노들본·구파발본 이 세 유파의 문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과장된 개념일 수 있다. 무풍의 차이를 말하는 각심절본이라는 용어는 무당들의 대자적 인식과 대타적 인식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지역적 차별성에 대한 거시적 준거 틀이다. 이 세 지역의 차별성과 함께 이들의 연관성을 말하는 혈족적 친연성에 대한 인식 역시 세 유파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참고문헌 한국의 무(조흥윤, 정음사, 1983), 서울육백년사(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특별시, 1992).
필자 김헌선(金憲宣)

감흥시루

정의 황해도굿에서 감흥당을 꾸미고 나서 바치는 시루며, 경우에 따라 감흥신을 위해 올리는 시루를 지칭하기도 함.

내용 감흥시루는 황해도굿을 할 때 올리는 시루 중 하나인데, 제보자마다 형태를 다르게 말하고 있다. 김금화 만신은 수수시루를 쪄서 올린다고 하고, 박선옥(1931~2005) 만신은 팥을 가루와 함께 통째로 쪄서 올린다고 한다. 가령 콩시루를 올리면 별성님시루, 수수를 올리면 깨비대감시루, 콩을 올리면 업시루라고 한다. 이처럼 다른 시루에 대한 제보 내용은 대체로 일치하지만, 감흥시루에 대한 내용은 차이가 난다. 하지만 감흥시루를 놓고 '초부정초감흥거리'를 하면서 신을 청배하고 있어 감흥시루가 초감흥의 신 청배에 긴요한 구실을 하는 것임은 틀림없다. 결과적으로 감흥당에 올리는 시루와 감흥신을 위해 올리는 시루는 같은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감흥시루와 함께 긴요한 것이 잔에 바치는 술이다. 떡과 술은 신찬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이다. 흔히 감흥시루와 함께 올리는 술은 막걸리이다. 떡과 함께 막걸리를 올리면서 여러 신을 청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막걸리를 국자로 퍼 올리면서 신이 오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초감흥에서 청하는 신이 누구인가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초감흥은 여러 신을 청배하는 굿거리이기 때문에 이 신들을 청배하는 과정을 보면 감흥시루가 초감흥의 신들을 위한 시루라는 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초감흥에서는 만신령님과 성수님을 청배한다. 실제 청배의 내용에서 이 점은 명확하게 드러난다.

감흥신령님이 산에서 새니 잠인들 올소냐/
감흥신령님 맞으라고 사시삼경을 서서 새와/
오를 반두 열두 반 내릴 반두 열두 반 스물네 반 거둥 속에/
내려 깔아 화몽석 치깔아서 용몽석 돋아 깔아 별몽석에/
안당 밧당은 내외 삼당을 둘러매고 서리당 둘러매고/
안당 밧당을 꾸며 놓고 사위 삼당을 배설해서 구비당을 꺾어 놓고/
백마지 너울 속에 홍마지 그늘 속에/
열두 줄에 거문고요 만근다리 태징소리 천근다리 제금소리/
쉬흔세 살 할림 속에 아흔아홉은 상쇠소리/
감흥신령님 오실 적에 무슨 옷을 입고 왔소

이 무가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초감흥거리가 굿당의 차림새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 점이다. 안당을 꾸며 놓고 하는 안굿에서 밧당을 꾸며 놓고 하는 밖굿으로 옮겨가는 순서에서 '초부정초감흥거리'를 한다. 이에 따라 이 굿거리를 안굿의 마무리 또는 결말이라고 할 수 있다. '초부정초감흥거리'에서 감흥신을 청하고 안당·밧당을 모두 읊는 것이 이 굿거리의 중요한 면모이다.

황해도굿을 할 때 굿당에서 모둠 상을 차려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 당을 매고 하는 경우 굿거리에 따라 장소를 옮겨가면서 굿을 한다. 이때 굿상의 위치 이동 역시 의미가 있다. 이 굿상의 위치에 따라 감흥당도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감흥시루가 감흥당과 함께 이동하기 때문이다. 감흥시루가 신을 모시는 긴요한 기능을 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감흥시루의 기본적인 용도는 여러 신을 함께 초청하는 것에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신들의 청배와 함께 여러 신이 응감하도록 모색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능이다. 다시 말해서 신들에게 보이는 신찬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이 있는 것이다. 초감흥의 신에게 시루를 쪄서 바치는 사례는 황해도굿 이외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황해도굿의 '초부정초감흥거리'와 같이 감흥신을 청하는 굿거리로는 다른 지역의 가망청배, 초가망굿, 가망굿 등이 존재한다. 하지만 황해도의 감흥시루처럼 신찬으로 특별한 시루를 올리는 용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황해도의 '초부정초감흥거리'의 감흥시루는 매우 특별한 신찬 가운데 하나이다.

참고문헌 김금화의 무가집(김금화, 문음사, 1993),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시지은(施知恩)

감흥신령

정의 단군왕검을 지칭하는 다른 신명(神名).



감흥신령 무신도
국립민속박물관 사진자료 소장

감흥화
국립민속박물관 사진자료 소장

내용 감흥신령은 한민족의 태초신으로 알려진 삼신(三神) 중 하나이다. '감응', '가뭉' 등으로도 불리면서 굿거리에서 주요하게 모셔진다. 황해도굿에서는 일월신과 상산신을 모신 후에 감흥신령을 모시는 의례를 행한다. 이를 초감흥굿이라고 부른다. 초감흥굿의 목적은 단군왕검 앞에 만신령들을 모셔서 신령들간 합의를 붙이기 위함이다. 초감흥굿은 소찬 음식으로 치르는 이른바 '소굿'의 의례이다. 또한 육찬의 음식을 준비하여 치르는 '육굿'에서의 감흥굿이 따로 있다. 이를 타살감흥굿이라고 한다. 육굿의 감흥굿에서는 만신령들이 흡족하게 먹고 흥겹게 놀 수 있도록 한다.

황해도 무신도에 나타난 감흥신령의 형상을 보면 수염을 기다랗게 늘어뜨리고 적토마(赤兎馬)를 타고서 구름 위에서 노닌다. 적토마 몸체에는 커다란 흑색 점이 곳곳에 박혀 있다. 이는 하루에 천리를 달릴 수 있다는 준마(駿馬)를 상징한다.

한편 감흥신령은 빨간색·초록색·노란색·파란색의 갓끈이 기다랗게 달린 흑갓을 쓰고 남색 바지에 홍도포를 입었으며, 허리에 제비홍띠를 둘러차고 오른손으로 매화선(梅花扇)을 펼쳐 들고 있다. 감흥신령 왼쪽 뒤편에는 벙거지를 쓴 사령(使令)이 홍색의 일산(日傘)을 받쳐 들고서 감흥신령을 보좌하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 무속신 고찰–무신도를 중심으로(양종승, 몽골학 4, 한국몽골학회, 1996), 황해도 맞이굿 형식과 특성 고찰(양종승, 한국무속학 16, 한국무속학회, 2008), 말과 무속신앙–최영장군당굿 서경욱 만신 소장의 말 그림 무신도를 중심으로(양종승, 마사박물관지, 마사박물관, 2008).
필자 양종승(梁鍾承)

감흥화

정의 감흥신령을 상징하는 꽃.

내용 감흥화의 주인공인 감흥신령은 한민족의 태초 신으로 알려진 삼신(三神) 중 한 분인 단군왕검을 뜻한다. 감흥화는 동·서·남·북·중앙을 상징하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검은색, 흰색 등의 오색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꽃을 한편에서는 오색감흥화라고도 한다. 이 꽃은 작약, 오색작약, 함박꽃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감흥화는 식물로 존재하지 않으며 황해도 만구대탁굿과 같이 대규모 굿에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되는 일회용 지화이다. 이 꽃의 유래는 옛날에 계산을 잘하는 '불우'라는 사람이 신령을 감응으로 모신 데서 유래되었다는 말이 전한다.

참고문헌 황해도 굿에 쓰이는 종이 신화와 신구의 종류, 형식, 상징성 고찰(양종승, 한국무속학 13, 한국무속학회, 2006).
필자 양종승(梁鍾承)

강대형

분야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12호 황도붕기풍어제의 보유자.

내용 강대형(姜大亨, 남)은 1932년(호적상에는 1930년생으로 등재됨)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황도리 24번지에서 태어난 황도의 토박이이다. 1991년에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12호 황도붕기

풍어제 보유자로 지정되었다가 2006년 6월에 작고함으로써 지정이 해제되었다. 어린 시절부터 중선을 탄 강대형은 뱃일에 익숙하며, 풍어제에 대한 지식도 출중했다. 특히 만선(滿船)을 상징하는 붕기를 손수 제작할 수 있었다. 황도붕기풍어제가 1977년 제1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고, 1991년에 충청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보유자로 지정받았다. 배치기를 할 때나 당제를 지낼 때 꽹과리, 장구, 징, 북 사물을 비롯하여 새납과 나팔을 사용한다. 이 가운데 강대형은 새납에 출중한 기량을 보였을 뿐 아니라 배치기소리의 선창을 훌륭하게 소화했다.

필자 김효경(金孝慶)

강릉단오제(江陵端午祭)

정의 강릉에서 해마다 단오를 중심으로 열리는 전통축제. 지역주민들이 대관령 국사성황과 대관령 국사여성황, 대관령 산신을 모시고 제의를 지낸 후 다채로운 단오명절을 즐기면서 공동체의식을 강화했다. 강릉단오제는 1967년 1월 16일에 '중요무형문화재 13호'로 지정되었고, 2005년 11월 25일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에 등재되었으며, 이 명칭은 2009년부터 '대표목록'으로 바뀌었다.

역사 강릉단오제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선조 36년(1603) 허균(許筠, 1569~1618)이 남겼다. 허균은 대관령에서 산신을 모시고 내려오는 단오제 일행을 보고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에 기록을 남기면서 대관령의 신이 영험하여 해마다 5월이면 사람들이 대관령에 올라가서 신을 맞이하여 즐겁게 해준다고 하였다. 또한 고려 태조 18년(935) 강릉 출신 왕순식(王順式, 생몰년 미상)이 왕건(王建, 877~943)을 도와 신검(神劍, 생몰년 미상)을 토벌하러 갈 때 대관령에서 치제(致祭)한 기록이 있어 1000여 년을 두고 신성시되어 온 대관령의 역사를 알 수 있다.

강릉단오제에서 모시는 신은 대관령 국사성황과 대관령 국사여성황이다. 이들은 모두 강릉 출신의 실존 인물이 신격화되었다는 점에서 강력한 지역적 독자성을 보여준다. 강릉단오제의 주신인 국사성황은 신라 말 심복사(尋福寺 또는 神福寺)와 굴산사(堀山寺)를 창건한 범일국사(梵日國師, 810~889)로 믿고 있다. 범일은 강릉시 구정면 학산 출신으로, 지금도 학산에는 굴산사지와 더불어 범일의 어머니가 물바가지에 뜬 해를 먹고 아이를 낳았다는 석천우물과 아버지 없는 아이라고 버림받았으나 학의 도움으로 살아났다는 학바위 등 범일 탄생의 비범함을 증명 해주는 신성한 장소들이 남아 있다. 또한 국사여성황은 본래 강릉 정씨 처녀로, 대관령 성황이 호랑이를 사자(使者)로 보내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다고 한다. 강릉 시내에는


1


2

1. 강릉단오제 제단과 신목

2. 강릉단오제 굿당
국립민속박물관


3


4

3. 강릉단오제 제관

4. 강릉단오제 제관의 아침제사
국립민속박물관

여성황사와 여성황의 친정집이 있어 단오제 때 의례를 행한다. 이 밖에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명장 김유신(金庾信, 595~673)이 강릉에서 검술을 닦은 인연으로 대관령 산신이 되었다.

내용 강릉단오제는 대관령 국사성황을 비롯해 대관령 산신과 대관령 국사여성황을 신앙 대상으로 하고 유교식 제례, 무당굿, 탈놀음과 더불어 단오민속과 놀이 및 난장이 어우러진 행사이다. 강릉단오제는 음력 4월 5일 신주빚기를 시작으로 4월 보름 대관령 국사성황을 모시고 내려오는 행사, 5월 3일부터 7일까지 남대천에서 하는 본격적인 단오제로 구성된다.

1. 신주빚기 : 음력 4월 5일에 한다. 단오제를 시작하는 행사로, 조선조 관청이었던 칠사당(七事堂)에서 신주를 빚는다. 과거 강릉부사가 쌀과 누룩을 하사했다는 전설에 따라 강릉시장이 신주 빚을 쌀과 누룩을 바치는 행사를 재연한다. 무당은 부정굿을 하고 정성껏 맛있는 술을 빚을 수 있도록 축원을 한다.

2. 대관령 국사성황과 신목 모시고 내려오기 : 제관들과 무당패, 시민들이 음력 4월 15일에 제물을 장만하여 대관령에 올라간다. 먼저 대관령 산신에게 제사를 지낸 후 성황사로 옮겨 대관령 국사성황에게 제사를 지낸다. 무당이 부정굿과 서낭굿을 한 뒤에 신장부가 앞장서서 신목을 찾으러 간다. 신목은 단풍나무이다. 『임영지(臨瀛誌)』의 기록에 따르면 "저절로 떠는 나무를 신장부가 지목했다"고 한다. 무당의 축원을 통해 신이 내린 신목을 모시고 내려오면 사람들은 다투어 오색 헝겊의 예단을 건다. 신목은 국사성황을 상징하는 신체이다. 무당패가 연주하는 음악에 맞추어 모시고 내려온 신목과 국사성황 신위는 단오제가 시작되는 음력 5월 3일까지 강릉시내에 있는 국사여성황사에 안치한다. 국사여성황사에 도착한 뒤에 무녀는 두 분을 합사하는 굿을 한다.

3. 단오제 본제 : 음력 5월 3일 저녁에 국사여성황사에서 영신제로 시작한다. 제사를 마치면 두 분의 신위와 신목을 모시고 남대천 강변 단오장에 마련한 가설 굿당으로 간다. 신을 모신 영신행차는 중간에 잠깐 여성황 생가에 들러 인사한 뒤에


5

5. 강릉단오제 관노가면희 양반
국립민속박물관








6. 강릉단오제 무굿

7. 강릉단오제 박금천 빈순애 무녀 굿판

8. 강릉단오제 관노가면희 양반소매 각시과장

9. 강릉단오제 송신준비

10. 강릉단오제 송신 행렬

11. 강릉단오제 환우굿

단오등을 든 수많은 시민과 함께 단오장으로 가는 것이다. 본격적인 단오제는 그후 7일까지 제례, 무당굿, 탈놀음 등 지정문화재 행사를 비롯하여 각종 민속놀이가 벌어진다. 아침에는 유교식 제례인 조전제를 한다. 조전제에는 강릉시장을 비롯한 단체장들과 유지들이 헌관으로 참여한다. 이어서 무당굿이 하루 종일 벌어진다.

4. **무당굿** : 무당굿은 강릉단오제를 이루는 신앙의 핵심이다. 사제인 무당은 국사성황 부부의 신위와 대관령에서 베어온 신목을 모시고 남대천 가설 굿당에서 굿을 한다. 굿의 내용은 부정굿, 청좌굿, 하회동참굿, 조상굿, 시준굿, 천왕굿, 군웅굿, 심청굿, 칠성굿, 지신굿, 손님굿, 제면굿, 꽃노래굿, 뱃노래굿, 등노래굿, 대맞이굿, 환우굿 등이다.

무당굿은 무당의 노래와 서사시 구연, 춤, 반주음악, 촌극 등으로 구성되는 종합예술이다. 특히 강릉단오굿은 집안으로 대를 이어 내려온 세습무들이 연행한다. 세습무들은 어려서부터 여자들은 춤과 노래, 남자들은 무악(巫樂)을 각각 익혀 세련된 공연예술을 보여주고 있다. 지모, 무당각시라고 부르는 여자는 굿을 담당한다. 양중 또는 화랭이라고 부르는 남자는 타악기로 된 무악을 연주하고 지화 제작과 연극 등을 맡는다.

무녀가 굿에서 노래하는 무속신화는 장편의 구비서사시로서 고도의 음악적 숙련 과정을 거쳐서 노래와 말, 적절한 몸동작과 춤으로 사설을 엮어나가는 원리를 터득한 이후에 연창이 가능한 장르이다. 심청굿은 5시간 이상, 세존굿은 4시간 정도 장구를 치는 악사와 무녀가 단둘이 연행한다. 무당이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할 때 하는 굿의 반주음악은 매우 복잡한 타악 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굿에 따라 푸너리로 신을 청한 뒤 굿에 따라 청보, 제마수, 드렁갱이, 삼공잽이, 삼오동, 고삼, 자삼, 수부채 등의 장단을 사용한다. 이때 한 장단이 1장에서 5장까지 여러 장으로 구분되면서 다양하게 변주되는 것이 특징이다. 장단이 바뀔 때마다 무녀의 노래와 춤은 달라진다. 이들의 예술성은 농악, 민속춤과 민속음악 등 전통연희예술의 기반이 되고 큰 영향을 미쳤다.

지역사례 강릉을 제외한 지역에서 전통축제의 성격을 띤 단오제로는 경산자인단오제와 법성포단오제가 있다. 경산자인단오제는 신라 때 꽃춤을 추면서 왜구를 유인하여 물리친 한 장군과 그 누이를 신앙 대상으로 삼고 여원무와 호장굿, 무당굿 등을 하는 행사이다. 하지만 세습무가 주관하던 무당굿의 전승이 끊겨 요즘은 일종의 공연으로 굿을 하고 있다. 굴비로 유명한 법성포의 단오제는 무당굿을 비롯하여 수륙재와 각종 공연으로 이루어진다. 바다에서 큰 사고가 났을 때 하던 무속수륙재를 전승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지만 지역의 세습무 전통이 끊어져 다른 지역의 무당을 초청하여 굿을 하고 있다. 강릉과 자인, 법성포의 단오제는 모두 지역의 역사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단오민속이 어우러진 축제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참고문헌 강릉단오제 백서(강릉문화원, 1999), 강릉단오굿(김선풍, 열화당, 1987), 강릉단오제(황루시, 강릉시, 1994).
필자 황루시(黃縷詩)

상호참조 대관령 성황사 및 산신당(196쪽)

강신무(降神巫)

정의 입무 과정으로 무당을 유형화하는 학문적 용어로, 신병(神病)을 앓아 내림굿을 받고 신이 실려 공수를 하는 무당.

내용 강신무는 무업을 배우거나 대물림하는 세습무(世襲巫)의 반대개념이다. 강신무는 신이 몸에 실려서 직접 신어를 말하고, 세습무는 신을 대신해서 신의 말을 전달하는 차이가 있다. 강신무는 엑스터시(Ecstasy)를 동반하는 샤먼으로 신병을 거쳐 좌정시킨 신을 모시는 신당(神堂)이라는 성소를 갖추고 형식화된 의례인 굿을 주재한다. 그리고 신병, 신당, 무의(巫儀)라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강신무라고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강신무의 특성을 살펴보면 '강신체험이 있고 세습되지 않는다. 신에 대한 의식이 강하며, 개인의 신당이 있다. 굿을 할 때 타악기와 빠른 도무를 통해 엑스터시에 몰입하여 공수를 하고, 신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무복이 발달되었다. 단골제도는 없고 분포지역은 한강 이북에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강신무는 북방 샤먼 계통으로 분류된다. 북방의 샤먼이 신의 세계로 가는 빙의(憑依) 현상이라면 한국의 무속에서는 신이 무당에게 내리는 빙신(憑身) 형태라는 데 차이가 있다. 강신무는 신이 내린 무당이기 때문에 굿에서 하는 모든 의례적 행위는 모두 신의 행동이라고 할 정도이다. 그래서 강신무의 굿은 세습무에 비해 강렬하고 신의적인 측면이 있다. 강신무는 한강 이북의 무속현상, 세습무는 한강 이남의 무속현상으로 지역적 특성을 설명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강신무에게 내리는 신병은 무병(巫病)이라고도 하는데, 무당이 되기 전에 앓는 정신적 질환의 일종이다. 예비무당의 신병은 태어날 때부터 잠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본격적인 생활 속에서 표면화된다. 그러므로 이들은 반드시 내림굿을 하여 무당의 길을 걷지 않으면 이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신병은 '신들렸다', '신이 붙었다', '신이 집혔다' 등으로 표현되는데 이러한 표현은 신병의 극치를 나타낸다. 무병을 앓는 사람은 신들림으로 인해 정상적인 행동규칙이 깨지고 이상한 행동과 정신적 혼돈의 상태에 있어 현대 의학적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신이 들리면 반드시 내림굿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신병의 현상들은 '시름시름 앓는다', '몸이 마비된다', '괴이하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 '밥을 먹지 못한다', '몸이 마른다', '가정파탄을 일으킨다', '신비스러운 현상을 체험한다', '미래의 일을 알아맞힌다', '먼 곳의 상황을 알아맞힌다', '신의 물건을 캐온다' 등 사람에 따라 다양하다. 이렇게 신이 집힌 사람이 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벌(神罰)을 받게 되는데, 그 종류 또한 매우 다양하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인다리를 놓는다'고 하여 집안사람들이 차례로 죽는 현상이다.

강신무가 무당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신병을 앓다가 신어머니 무당을 만나 내림굿을 하고 무당이 된다. 내림굿은 신을 제압하는 것(눌림굿)이 아니라 신을 좌정시켜 예비무당이 신의 뜻을 받아들여 무당이 된다는 굿으로, 신굿, 신내림굿, 명두굿이라고 한다. 내림굿을 하면 예비무당의 신병이 낫고 무업을 시작하게 된다. 내림굿 과정에서 신을 달래어 좌정시킨 후 숨겨진 신의 물건들인 신복(神服)이나 무구(巫具) 등을 찾아내게 한다. 또한 무업을 하면서 주신(主神)으로 모실 신들을 말문을 통해 불러낸 다음 엑스터시 상태에서 공수를 내리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무업을 잘하도록 신어머니가 베푸는 '솟을굿'을 하는 경우도 있다.

내림굿을 받은 무당은 신을 중간에 두고 맺는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를 통해 무업을 전승한다. 신굿을 주재한 사람은 경험이 많고 나이도 지긋한 무당이 대부분인데 남자이면 신아버지, 여자이면 신어머니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때 내림굿을 하고 무업을 시작하는 무당은 신아들 · 신딸이라고 하며 신애기 · 애동이 · 애동제자 등으로 부른다. 이들의 관계는 내림굿을 하는 날부터 형성되어 일생 동안 신부모와 신자식 관계로 유지된다.

내림굿을 받은 강신무는 신어머니를 따라다니며 굿을 한다. 이 과정에서 강신무의 의례, 춤, 사설, 공수 등을 배운다. 강신무가 하는 의례는 기본적으로 점, 고사, 굿이 있다. 강신무의 점을 신점, 대신점이라고 하는데, 이는 완전하게 신의(神意)로 점을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사는 큰 굿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하는 간단한 무속 의례로 인간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굿은 무속의례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지역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다. 강신무의 굿은 무가를 불러 신을 불러들인 다음 춤을 추어 신을 기쁘게 하고, 재담을 통해 신과 교통하여 인간이 알고자 하는 신의 뜻을 무당의 입을 빌려 이루어지는 공수를 통하여 듣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 강신무와 세습무라는 큰 개념 구분은 무당의 유형론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는 무속에 대한 원형론적 접근이라는 패러다임으로, 현재의 무속현상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비판의 요지는 '원형론적 패러다임은 한국의 무당과 무속을 고대적인 시간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무속을 탈역사화시키고, 무당을 탈인간화시킨다'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강신체험이 무당이 되는 충분조건이 아니므로 강신이 유형론의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는 문제 제기이다. 이는 강신무 지역에서 행해지는 무의(巫儀)의 학습, 세습무 지역에서 강신무의 활동무대가 넓어짐에 따라 유형론에 따른 지역구분이 모호해진 현실적 변화에서 기인한다. 기존의 유형론이 변화의 맥락을 읽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무속현상의 변화는 강신무도 세습되고 있고, 세습무도 강신을 하며, 지역 무속의 구분 없이 강신무와 세습무가 공존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습무에게도 강신무의 전유물인 신당, 신에 대한 뚜렷한 의식이 존재한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강신무의 새로운 개념정리이다. '신병을 통해 무당이 되지만 세습도 이루어지고, 영력은 물론 개인적 능력과 예술적 소양으로 굿을 진행하며, 굿에서는 신의 뜻을 알아내는 특별한 방법과 능력을 지닌 점에서 다른 무당과 구별되는 무당'을 강신무로 정의하고 있다.

강신무와 세습무의 유형론에 대한 비판은 무속현상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연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의 패러다임에서는 유의미한 개념이었음은 간과할 수 없다.

참고문헌 한국 무속의 연구(최길성, 아세아문화사, 1978), 한국무속연구(김태곤, 집문당, 1981), 한국 무계의 분화변천(김태곤, 무속신앙, 민속학회, 1989), 무속과 영의 세계(김태곤, 한울, 1993), 새로 쓴 한국무속(최길성, 아세아문화사, 1999), 무당의 신병과 신들림(양종승, 한국무속학 2, 2000), 무당문화의 전통(양종승, 비교민속학 12, 비교민속학회, 1995), 강신무의 사례로 본 강신무와 세습무의 유형 구분(홍태한, 한국무속학 7, 2003), 강신무 · 세습무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용범, 한국무속학 7, 2003), 세습무 사례를 통해 살펴본 강신무 · 세습무의 구분 검토(이경엽, 한국무속학 7, 2003), 강신무와 세습무(손태도, 한국무속학 8, 2004), 강신무 · 세습무 유형론에 대한 일고찰(김동규, 한국무속학 8, 2004), 강신무 · 세습무 유형론에 따른 무속연구 검토(양종승, 한국무속학 8, 2004), 강신무 · 세습무 유형론의 비판적 고찰(허용호, 한국무속학 9, 2005).

필자 김시덕(金時德)

강화도외포리곶창굿

정의 어업을 위주로 하는 정포마을과 농업을 위주로 하는 대정마을 주민들이 농사가 잘 되고, 풍어 등의 마을 번영을 기원하는 강화도 외포리에 전승되는 마을굿. 이 굿은 1997년 7월 14일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예능보유자는 정정애이다.

내용 경기도와 서울 인근의 마을굿은 지역에 따라 여러 명칭이 존재한다. 가령 도당굿 · 부군당굿 · 대동굿 · 고창굿 · 곶창굿 등의 이름이 있으며, 특정하게 두 고장에서 곶창굿이라고 하는 말이 전승된다. 하나는 강화도외포리곶창굿이고, 다른 하나는 경기도 광주의 곶창굿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용례로 보면, 곶(串)과 당(堂)이 합쳐진 곶당굿에서 이 말이 유래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말이 변화해서 곶창굿이 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강화도 외포리는 조기와 새우 및 여타의 어물을 잡아서 서울로 나르는 요충지대로, 중요한 어로의 본산지이다. 이 마을에는 배를 부리는 사람이 많아서 마을을 중심으로 곶창굿이 크게 번성하였다. 강화도외포리곶창굿은 내력이 깊고 절차가 대단해 곶창굿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강화도외포리곶창굿의 가장 주된 신격은 득대장군 또는 득제장군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신을 중심으로 뱃고사와 결합한 특별한 의례를 진행한다. 여기서 이 굿의 실제적인 제차 구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강화도외포리곶창굿의 순서를 2004년 2월 29일부터 3월 1일까지 있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살맞이
2. 돌돌이-우물고사 : 대동우물고사/ 가운데우물고사/ 성안정고사
3. 선부정(거리부정)
4. 앉은부정(초부정)
5. 본향가망노랫가락
6. 진적-상산노랫가락
7. 산거리 : 산신도당, 관성제군, 장군, 군웅, 신장, 대감, 말명, 창부
8. 칠성제석
9. 장군거리(작두거리)
10. 배치기
11. 성주받이
12. 배치기
13. 대감
14. 창부
15. 동자/소당애기씨
16. 선주굿(기내림)-도당성주
17. 대신
18. 군웅-막둥이굿
19. 뒷전

강화도외포리곶창굿에서 특이하게 관찰되는 굿거리는 수살맞이, 돌돌이, 산거리, 칠성제석거리, 배치기, 뱃기내림, 군웅굿 등이다. 이러한 굿거리의 이례적 돌출은 강화도외포리곶창굿 이해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상의 굿거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할 수 있다.

수살맞이는 지리적 환경을 통해 형성된 굿거리로, 바로 바다에 인접한 갯가 마을의 굿이라는 점이 자연스럽게 유추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수





1. 뱃고사를 위한 꽃반

2. 상산 최영장군 굿거리의 음복
강화도 외포리 굿당 | 2008.3.22 | 김헌선

강화도외포리꽃창굿
정수미

강화도외포리굿창굿
정수미

살막이라는 제차는 있어도 수살맞이라는 제차는 존재하지 않기에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다.

돌돌이라는 굿거리는 경기도 남부와 경기도 북부 일부, 서울 지역의 굿에서 발견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마을굿의 흔적을 보여주는 제차임을 증명해 준다. 돌돌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의 유가, 세경돌기 등과 비교되는 적절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칠성제석거리는 황해도굿에서나 발견되는 굿거리이다. 산거리 다음에 있다는 사실은 일부 지역의 서울굿에서 불사맞이가 산거리 다음에 있다는 사실과 일치하는 사례이다. 문제는 칠성제석이라고 명칭을 부여한 데 있다. 이에 따라서 강화도의 이 거리는 여러 지역의 무속적 현상이 복합되면서 생긴 현상이라 보인다. 황해도의 상산부군맞이-초부정-초가망-영정물림-칠성제석거리 등의 순서와 서울굿의 부정-가망-진적-산거리-불사거리 등의 순서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배치기와 뱃기내림은 말할 나위 없이 곶창굿이 풍어를 기원하는 굿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대목이다. 군웅굿에서 막뒤놀음을 하는 것은 경기도 일대의 다른 굿에서도 확인된다. 군웅굿과 막뒤놀음이 결합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기본적인 사실은 이러한 굿거리의 결합이 강화도굿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근간이 된다.

곶창굿은 해안의 바다를 끼고 행하는 마을굿이므로 마을굿 속성과 함께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굿의 성격이 일부 투영된 가능성이 있으나 이 말이 꼭 해안, 특히 서해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 광주 인근에서도 마을굿으로 곶창굿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강화도외포리곶창굿은 마을굿의 특별한 변이형으로 볼 수 있다. 외포리는 항구가 있어서 인근의 섬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고 들이 넓어서 농사가 풍성한 곳이다. 바다와 들이 마을의 생업 조건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를 도모하고자 하는 마을굿은 마땅히 성행할 수밖에 없다. 강화도외포리곶창굿에 이러한 조건을 반영한 거리가 일부 수용되기도 한다. 강화도외포리곶창굿은 바다에서 시작하여 마을을 거쳐 마지막으로 당이 있는 산에서 거행된다. 당에서 본격적인 굿을 하고 이어서 뱃기를 내리는 기내림을 하여 바다에 있는 배로 기를 되돌리는 것으로 굿이 끝난다.



강화도 외포리 배치기 장면
강화도 외포리 굿당 | 2008.3.22 | 김헌선

수살굿, 돌돌이, 기내림, 뱃고사 등의 거리들이 곶창굿의 특성을 나타내 준다. 여타의 굿거리는 다른 지역의 마을굿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수살굿은 바다에서 수살대를 세우고 하는 굿이다. 수살대는 나무에 오리를 얹은 것으로, 마을의 재액을 막자는 상징적 표현물이다. 이 수살대는 짐대, 솟대 등과의 연관성을 생각하면 우주목와 관련이 있을 개연성이 있다. 돌돌이는 마을의 우물을 돌아다니면서 축원하는 거리이다. 돌은 본디 경계를 의미하는 고어로 만신이 마을의 대표적인 우물을 돌아다닌다는 뜻이다. 마을의 오래된 괴목이나 마을의 여러 길을 돌아다니는 것으로 보아서 마을굿의 증후를 읽어낼 수 있다. 뱃기내림은 득제장군의 축원으로 배의 기에 풍어를 기원하는 제차이다. 마을 사람들이 배에 가서 각자가 받아온 기를 배에다가 놓고 이를 뱃고사 형식으로 축원한다. 이것이 곶창굿의 순서나 굿거리에서 기본적으로 확인되는 특징이다.

마을굿에서 마을의 경계를 돌아다니는 우물고사나 장승고사가 다른 곳에도 있지만 이처럼 바다에서부터 수살굿을 하면서 굿을 해 올라오는 곳은 흔하지 않다. 다른 곳에서는 산에서 시작해 바다로 내려가 굿을 마치는 경우는 있지만 바다에서 산으로 굿을 해 올라가는 경우는 흔치 않다.

참고문헌 곶창굿연신굿(이선주, 동아사, 1989). 강화도외포리곶창굿의 현지 연구(김용국, 2005).
필자 김헌선(金憲宣)

개성 덕물산 최영장군사 (開城 德物山 崔瑩將軍祠)

정의 개성 덕물산에 있는 최영 장군을 모시는 신당.

덕물산은 개성 동남 2리에 위치한 해발 200m 정도의 야산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경기도 풍덕군(豊德郡)의 관아가 있는 곳에서 동쪽으로 30리 지점에 있다고 했다.

내용 개성 덕물산 최영장군사는 우리나라 중부지방 무당들의 최고 성지였다. 조선시대에는 최영 장군의 신령을 모시는 전속 무녀가 배치되어 있었고, 무녀가 늙거나 병들면 다시 나이 어린 처녀로 사당을 모시게 했다. 국가에서는 이곳에 세금을 부과하여 국가 재정의 일부를 충당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까지도 덕물산 정상에는 산상동(山上洞)이란 무당촌이 있었다. 이곳에는 최영 장군을 모시는 장군당(3칸 기와집), 장군의 부인을 모시는 부인당, 창부당 등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신당들에는 신을 소상(塑像) 또는 그림으로 봉안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擇里誌, 晝永編, 덕물산이야기(이기백, 연사수록, 일조각 1994), 朝鮮巫俗の現地研究(秋葉隆, 養德社, 1950), 朝鮮民俗誌(秋葉隆, 六三書院 1954).
필자 서영대(徐永大)

객귀(客鬼)

정의 사람이 천수를 다하지 못하고 집 밖의 객지에서 죽었을 때 그 혼령이 승천하지 못하고 원귀가 되어 자기 가족이나 친척 등을 괴롭힌다는 귀신. 떠돌이 귀신을 부르는 말이다.

내용 무속에서는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나 교통사고 · 자살 · 타살 등 집 밖에서 횡사한 사람은 객귀가 된다고 믿는다. 특히 객지에서의 죽음을 강조하여 '객사귀(客死鬼)'라고도 한다. 이렇게 죽은 사람의 넋이 저승에 가지 못하고 원귀(寃鬼)가 되어 떠돌아다니면 아무에게나 붙어 여러 재앙을 가져온다 하여 꺼리고 두려워한다. 그래서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운명하게 될 때는 집으로 데려와 숨을 거두게 하기도 한다.

민간에서는 혼령이 원한을 품지 않고 미련 없이 승천할 수 있도록 무당을 불러 해원굿을 해 주고 절에서 회혼제를 지내 주기도 한다. 과거에는 사람이 악질(惡疾)에 걸리면 객귀가 들었다고 하여 무당을 불러다가 객귀물림이나 푸닥거리를 하였다. 바다에서 죽은 어부들의 넋을 위해 넋건지굿을 하고, 광산에서 죽은 광부들을 위해 넋맞이굿을 하였으며, 일반 평민의 넋을 달래기 위해 진오기굿을 하였다.

또 가정에서는 객귀의 범접을 피하기 위해 객귀물림을 하였다. 조밥과 나물반찬을 바가지에 담아 내다놓고 그것을 먹고 빨리 먼 곳으로 가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칼로 위협하고 칼을 던져 그 끝이 바깥을 향하면 객귀가 나간 것으로 간주하였다.

무당집 법당에는 간혹 신발을 걸어두기도 한다. 이는 객귀의 원혼을 달래기 위함이다.

참고문헌 한국민속대사전 1(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한국 무신의 구조 연구(양종승, 비교문학연구 5,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비교문화연구소, 1999).
필자 정연학(鄭然鶴)

거령산(擧靈山)

정의 동해안 지역의 굿에서 양중이 장삼에 고깔을 쓰고 추는 춤과 이를 반주하는 장단 명칭.

내용 이 춤과 장단은 동해안 지역 중에서도 주로 부산과 울산 등지에서만 쓰이며, 여러 굿과 거리 중에서 별신굿의 밧당 세존굿과 오구굿의 영산맞이 절차에서만 등장한다. 세존굿은 절에서 내려온 스님이 민가의 당금애기와 결합하는 과정을 그리는 내용이며, 영산맞이는 망자의 넋을 극락세계로 천도하기 위해 영가를 청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두 의식절차 모두 스님이 등장하고, 불교적 색채를 강하게 보여주는 공통점이 있다.

밧당 세존굿에서는 푸너리춤과 제마수무가에 이어 드렁갱이, 삼오동, 두나백이를 연주한 다음 거령산춤을 출 때 이 장단을 쓴다. 중모리 템포로 "덩궁당/더궁덩덩따/구기덩더궁덩/덩덩더따(♪♪♪/♬♪♬/♬ ♬♪/♪♬ -♪)" 와 같은 리듬이다. 이것을 차츰 몰아서 굿거리형 장단으로 치고, 다시 몰아 자진모리형 장단으로 마친다.

오구굿의 영산맞이에서는 두 명의 양중(굿하는 남자)이 장삼에 고깔을 쓰고 뫼 산(山) 자 춤을 출 때 거령산 장단으로 반주를 한다. 거령산춤은 불교의 재(齋)와 같은 의식에서 범패승이 나비춤을 추는 것과 유사하다. 이 때문에 예전에는 거령산춤을 작법(作法)이라고 불렀다. 거령산장단은 ♩♩♩박이 여러 개 모인 것으로서 박자체계가 다른 여러 장(章)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지역의 무악장단과 특징이 다르다. 따라서 거령산장단은 이 지역 고유의 무악장단이라기보다는 스님이 추는 춤을 반주하기 위해 도입된 장단으로 보인다.

거령산춤을 반주하는 거령산장단은 동해안 지역에서도 경북이나 강원도의 굿에서는 쓰이지 않고 경남 지역에서만 나타난다. 경남 지역의 굿이 경북 지역보다 불교적 색채가 강하기 때문이다. 경남 지역의 굿은 경북에 비해 「천수경(千手經)」이나 「반야심경(般若心經)」 등 불교 경전을 외는 소리가 많다. 또 무가의 명칭도 고삼염불, 자삼염불, 육자염불, 지옥가염불, 꽃노래염불, 등노래염불, 뱃노래염불 등 무가를 '염불'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굿의 각 거리 끝에 하는 놀음굿의 레퍼토리도 유행가보다는 고삼염불, 자삼염불 같은 염불류가 많이 불린다. 이처럼 동해안 경남 지역의 굿은 스님들이 재(齋) 의식절차에서 하는 염불이나 작법무(作法舞)를 무속의식에 많이 도입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거령산춤과 이를 반주하는 거령산장단이다. 거령산장단은 부산, 울산 지역의 굿음악이 단절되면서 현재는 거의 전승이 끊어졌다.

참고문헌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14–무의식편(이보형 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3).
필자 장휘주(張輝珠)

거리밥

정의 동해안별신굿의 마지막 제차인 거리굿을 할 때 굿판에 놀러온 여러 잡귀와 잡신을 풀어먹이기 위해 큰 통 또는 그릇에 한데 섞은 제물 음식.

내용 거리굿은 동해안 굿에서 굿판에 모셔온 신들을 즐겁게 놀린 후 무사히 돌아가게 하는 절차로서 송신(送神)의 의미를 지닌다. 동해안에서는 이를 '거리굿' 또는 '대거리', '거리 먹인다'라고도 부른다. 무부(巫夫)가 혼자 서서 진행하며, 동해안별신굿에서 하나의 굿거리 전체를 무부가 진행하는 것은 이 거리밖에 없다. 모든 잡귀와 잡신을 한꺼번에 풀어먹이고 위로한다는 제의적 의미를 지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극의 내용은 일상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을 과장적으로 표현해 웃음을 유발하는 희극적 요소가 많다. 해녀거리, 김따다 죽은 귀신거리, 미역 따다 죽은 귀신거리, 조개 줍다 죽은 귀신거리, 칼 맞아 죽은 귀신거리, 약 먹고 죽은 귀신거리, 교통사고거리, 장님거리 등이 있다. 이러한 각 거리를 구분하는 것이 곧 거리밥이다. 거리밥은 큰 양푼에 밥과 반찬 등 제물로 올린 각종 음식을 한데 담은 것으로, 거리가 끝날 때마다 이를 한 바가지씩 퍼서 내다버린다.





속초 외옹치 별신굿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외옹치 마을 | 2003.5 | 임승범

속초 외옹치 별신굿의 마지막 절차에서도 뒷전거리가 진행된다. 이때 무녀는 한국전쟁 때 전장에서 죽은 귀신, 일본인 귀신, 돛배를 타고나가 죽은 귀신, 그물질하다 죽은 귀신, 고민하다 우울증으로 약 먹고 죽은 귀신, 싸움하다가 칼에 맞아 죽은 귀신, 오토바이 타다가 죽은 귀신, 애 낳다 죽은 귀신 등을 일일이 흉내 내며 그들을 위해 음식을 큰 함지박에 쏟아붓는다. 그러고는 함지박에 용왕상에 올려두었던 제물을 한데 모아 담는다.

참고문헌 무 · 굿과 음식 3(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영덕 구계리 굿과 음식(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동해안별신굿박경신(장휘주, 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임승범(林承範)

거무장단

정의 동해안 굿에서 쓰이는 거무춤의 반주 장단. 오늘날 거무장단은 대개 거무춤의 반주로 쓰이지만 예전에는 굿하는 기간 매일 아침 굿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양중들의 기량을 보여주기 위해 드렁갱이와 함께 연주되기도 했다.

내용 별신굿이나 오구굿의 의식절차 가운데 청보무가를 부르는 거리는 대개 푸너리춤으로 시작하여 청보무가를 길게 부르고, 이어 거무춤을 추고 수부무가를 부르는 것으로 한 거리를 마친다. 따라서 부정굿, 도가집굿, 뒷전 등 특수한 몇몇 거리와 함께 제마수무가를 부르는 심청굿, 세존굿, 손님굿, 제면굿을 제외한 청보무가를 부르는 모든 거리에서는 어김없이 거무춤을 추고 이의 반주로 거무장단이 쓰인다.

거무장단의 '거무'는 '검무(劍舞)'가 와전된 것으로, 원래는 놋동이굿에서 무당 2명이 검(劍)을 들고 검무(劍舞)를 추던 것이 변하여 오늘날과 같은 거무춤이 되었다고 하지만 근거는 확실치 않다. 무당이 청보무가를 끝낸 다음 각 거리에 모신 신에 따라 "우여차 산신님네 놀고 씨고 가자" 혹은 "우여차 용왕님네 놀고 씨고 가자" 등의 사설을 하면 거무춤과 함께 거무장단이 시작된다. 거무장단은 전체 3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템포에 따라 상대적으로 느린 것은 느진거무, 빠른 것은 당거무라고 한다.

거무장단 1장은 ♩÷70의 템포에 3소박 4박(♩×4)으로 된 굿거리형 장단으로, 징은 두 장단마다 한 번 친다. 거무 2장은 박자가 1장과 같지만 징이 한 장단에 한 번 첫 박에 들어가고, 템포가 ♩÷115로 빨라지는 자진모리형인 점이 다르다. 거무 3장은 2장의 템포를 더 빨리 몰아서 ♩÷125에 2소박(♩)×4박의 단모리형으로 연주되는 장단이다. 징은 한 장단의 제1, 3박에 두 번 들어간다.

참고문헌 동해안의 굿음악, 그 전승과 단절의 역사(장휘주, 민속원, 2008).
필자 장휘주(張輝珠)

거무춤

정의 강릉단오제, 동해안별신굿 등에서 부정굿 꽃노래, 뱃노래, 등노래, 거리굿을 제외한 모든 거리에서 추는 춤.

내용 강릉단오제는 매년 단오 때 행해지고 동해안별신굿도 동해를 중심으로 수시로 행해진다. 거무춤은 동해안별신굿에서 대표적인 춤으로 거무장단에 맞추어 빠르게 춘다. 돌아가다 보면 모두가 신명을 내며 하나가 되는데, 춤을 추며 신을 대접하여 즐겁게 해드리는 의미를 지닌다.

거무춤의 장단은 다음과 같다.

1. 거무1장(중머리와 유사한 장단)-2소박 12박
2. 거무2장(굿거리형)-3소박 4박
3. 거무3장(자진모리형)

거무춤은 거무1장, 거무2장, 거무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무1장에서는 태극으로 빙빙 돌아

가면서 팔사위는 계속 감고 돌기도 하고 위로 너울거리기도 한다. 거무2장에서는 나비사위로 너울거리고 팔이 계속 태극으로 돌아가며 춘다. 거무3장에서는 한 발씩 뛰듯이 손을 위에서 감고 풀고 한 손씩 뿌리기도 한다.

거무춤의 춤사위는 다음과 같다.

① 태극돌기-태극으로 돌아가며 추고 삼태극이 된다.

② 제자리돌기-제자리에서 빙빙 돌며 춘다.

③ 너울거리기-팔을 좌우로 흔들며 추는데,
주로 위에서 많이 흔든다.

④ 나비춤-나비처럼 위아래로 너울거리며 춘다.

⑤ 감고풀기-팔을 계속 감고 돌며 태극이 된다.

참고문헌 무무(문화재연구소, 문화재관리국, 1987), 황루시의 우리 무당 이야기(황루시, 풀빛, 2000), 동해안별신굿(박경선 · 장휘주, 화산문화,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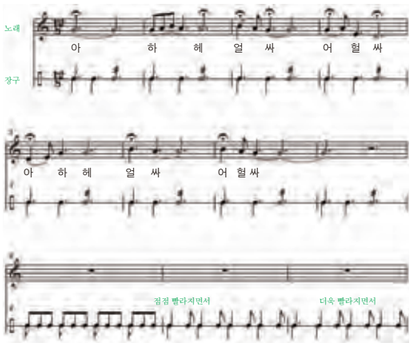
필자 이애주(李愛珠)

거상장단(擧床長短)

정의 무당이 의례상을 진설하여 신에게 바치는 행위를 할 때 연주하는 장단. 거상장단은 궁중음악에서 연주하는 '거상악(擧床樂)'에서 유래된 말이다. 궁중음악의 거상악은 잔치를 할 때 '음식 상(床)을 올리는[擧] 음악'이라는 의미이다. 굿판에서는 신을 모시기 위한 상을 올릴 때 거상악을 거상장단으로 연주한다.

내용 거상악과 거상장단은 주로 황해도와 서울 · 경기 북부 지역 굿판에서 연행된다. 황해도굿에서는 무당이 굿상 앞에서 절을 하고 춤을 추면 장구잽이가 느리게 "덩 쿵 덩더더더--" 하는 식으로 거상장단을 연주한다. 거상춤은 긴춤 또는 얼싸춤이라고도 한다.

〈보례〉 황해도 거상악 (김매물 노래 / 이용식 채보)



서울굿에서는 신을 모시기 위한 상을 올릴 때 거상악이 연주된다. 무녀들은 '거성을 친다' 또는 '신령님이 거성을 잡숫는다'고 한다. 서울굿에서 거상악은 안당사경맞이의 진적과 새남굿의 상식거리 등에서 연주된다. 진적거리에서는 자진난이(자진한잎), 염불타령, 반염불, 삼현도드리, 굿거리, 당악이 연주된다. 상식거리에서는 자진난이, 염불타령, 반염불, 삼현도드리, 굿거리, 느린허튼타령, 자진허튼타령이 연주된다. 느린 곡으로 시작하여 점점 빠르게 진행하는 빠른 가락으로 끝을 맺는다.

이들 악곡 중에서 자진난이, 염불타령, 반염불은 주로 거상악으로 연주하고, 나머지 악곡은 무용 반주음악으로도 연주한다. 자진난이는 궁중에서는 자진한잎[數大葉]이라고 하는 음악으로, 사관(舍官 혹은 鄕管)풍류 또는 경풍년(慶豊年)이라고도 한다. 자진한잎은 가곡에서 파생된 악곡이다. 가곡 가운데 두거(頭擧), 농(弄), 악(樂), 편(編) 등의 악곡을 변주하여 기악곡으로 연주하는 음악이다. 자진한잎은 가곡과 마찬가지로 16박(16/4박자) 장단으로 연주한다. 서울굿에서 좁은 의미의 거상장단은 자진난이를 연주하는 16박 장단을 의미한다.

염불타령은 긴염불 또는 염불이라고 한다. 염불타령은 느린 3소박 6박(18/8박자) 장단으로 연주한다. 자진염불이라고도 하는 반염불은 염불타령을 빠르게 변주한 악곡으로, 빠른 3소박 6박(18/8박자) 장단으로 연주한다. 거상악은 솔-라-도-레-미의 경토리로 되어 있다. 거상악 가운데 자진난이와 염불타령은 연주법상의 어려움과 곡의 긴 길이 때문에 자주 생략되며, 학습자 또한 많지 않아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있다.

〈보례〉 서울 자진난이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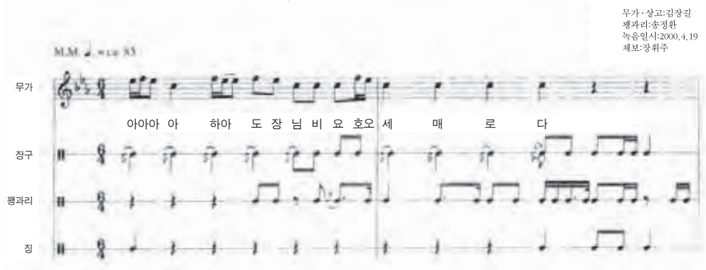


〈보례〉 서울 염불장단



동해안굿에서는 거상악이라고 칭하지 않지만 절을 하면서 무당이 부르는 재배무가가 있다. 재배무가는 2소박 6박(6/4박자) 장단의 재배장단이며 장구 · 꽹과리 · 징의 반주로 노래된다.

〈보례〉 동해안 재배 무가 (김장길 노래 / 장휘주 채보)



참고문헌 황해도 굿의 음악인류학(이용식, 집문당, 2005), 한국음악의 뿌리, 팔도 굿음악(이용식,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9), 경남 · 경북 동해안 무악 비교 연구(장휘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서울 새남굿의 삼현육각 연구(김소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필자 이용식(李庸植)

거상춤

정의 거상장단에 맞춰 추는 굿춤.

내용 거상춤을 긴춤 또는 얼싸춤이라고도 부른다. 거상(擧床)은 무속에서 의례상을 진설하여 신에게 바치는 행위를 말한다. 거상 행위에는 악가무를 동반한 의례가 뒤따르게 되는데, 이때 거상악(擧床樂)이라고 부르는 음악에 맞추어 추는 춤이 거상춤이다.

황해도 무속의례에서의 거상악은 장구장단에 맞추어 구음과 함께 피리 · 대금 · 해금 연주를 곁들인다. 거상춤을 추기 위해선 먼저 무당이 신을 청하는 청배소리 만수받이를 한다. 청배가 끝난 후 신내림을 하고, 이어서 상장구(장구잽이)와 징잽이가 연주하는 거상장단에 맞춰 춤을 시작한다. 구음 형식은 "얼싸" "에에" "어얼싸" "얼싸…"를 한 마루로 잡고 이를 반복한다. 구음 형식 때문에 거상장단을 얼싸장단이라고도 부르며 이러한 장단에 따른 춤도 얼싸춤이라고 한다.

거상춤은 손놀림, 몸 굴림, 발 디딤 삼요소가 전형화되어 아홉 가지로 짜여진 구기법(九技法)으로 춘다. 손놀림에는 양팔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유기적으로 숫자 8의 형태를 그리는 양사위, 손바닥을 서로 마주보게 하면서 양손을 번갈아가며 움직이게 하는 양우선, 양손을 일(一)자 형식으로 위아래 엇갈리며 올렸다 내렸다 하는 몰아치기 등이 있다. 몸 굴림에는 몸 전체를 앞뒤로 굴리는 굴리기, 어깨를 중심으로 몸 전체를 좌우로 비틀어 치는 좌우치기, 몸을 위아래로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몸 전체가 들썩거리게 하는 들치기가 있다. 발 디딤에는 발을 움직일 때 디딤과 디딤 공간을 이어주는 연속 동작의 연(連) 기법, 몸을 전체적으로 회전시키는 회(回) 기법, 몸 전체가 땅바닥으로부터 떨어지도록 뛰는 도(跳) 기법 등이 있다.

거상춤은 거상장단에 맞추어 추지만 의례 진행에 따라 형태 또한 변화한다. 의례 진행에 따라 거상장단이 차츰 빨라지게 되면서 춤 형태도 빠르게 바뀌어 간다. 의례 변화에 의한 거상춤 진행 과정을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장삼을 머리 위에 얹거나 얼굴을 가리고 칠성, 제석께 절을 올리는 제배춤이 있다. 제배는 일곱 번 하며, 양손으로 장삼을 휘어잡고서 머리 위로 올렸다가 무릎을 꿇고 앉으면서 동시에 바닥으로 엎드려 절을 하면서 춘다. 제배춤이 끝나면 벅구장단으로 바뀌어 벅구춤이 이어진다. 벅구장단 음을 소리로 표현할 때 '덤쿵'으로 표기하기 때문에 이 대목의 음악을 덤쿵장단이라고도 한다. 벅구춤(또는 덤쿵춤)은 제배춤을 마무리한 후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시작된다. 바닥에 무릎을 대고 어깨를 바닥에 밀착하여 머리를

숙인 상태에서 양손을 앞뒤로 돌리면서 땅을 휘저으며 춘다. 장삼 소매를 양손으로 휘어잡고 좌우로 뿌리기도 하고, 양손을 합쳐 장삼을 감싸 잡고 양어깨로 올렸다 내렸다 하기도 한다. 벅구춤을 춘 후, 이어지는 춤은 넘길춤이다. 넘길춤은 장단을 다음 장단으로 넘기는 일명 넘길장단에 추는 춤이다. 넘길춤 다음으로 이어지는 춤은 부채춤이다. 칠성부채를 펴서 좌우로 번갈아 가며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춘다. 부채춤을 춘 후에는 양손으로 장삼자락을 휘잡고 추는 장삼춤으로 이어진다. 장삼춤을 추고 나면 바라춤을 춘다. 양손의 바라를 머리 위로 그리고 양어깨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양사위로 춘다. 바라춤 다음으로 연결되는 춤은 칠성검춤(또는 칠성칼춤)이다. 칠성칼을 양손에 들고 추기도 하고 무당에 따라 오른손에 외검을 들고 추기도 한다. 칠성검춤 다음으로 추는 춤은 삼현춤이다. 삼현춤은 삼현장단(타령장단)에 맞춰 여러 춤사위를 구사하면서 흥겹게 추는 춤이다. 이때는 주로 맨손으로 어깨춤을 추면서 상징적인 표현을 하기도 한다. 삼현춤을 출 때는 장구잽이와 징잽이가 구음을 곁들인다. 마지막으로 추는 춤이 막춤이다. 이때에는 막장단이 연주된다. 양사위와 연풍대가 주를 이루는 춤이다. 이와 같이 거상춤은 의례 진행에 따라 제배춤, 벅구춤(덤쿵춤), 넘길춤, 부채춤, 장삼춤, 바라춤, 칠성검춤(칠성칼춤), 삼현춤, 막춤 등 총 아홉 가지 형태로 짜여진 기다란 춤이다.

거상춤은 신의 행동이나 지시를 전달하고 신령의 말씀을 표현하는 춤이다. 또한 춤을 추어 신을 기쁘게 하고 무당 자신의 흥을 돋우는 기능을 한다. 그야말로 예술적인 감각을 조건화하지 않고 신들인 무당의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표현양식이 우선시되는 춤이다. 즉 예술적 미 감각을 삽입시켜 남에게 보여주는 춤이 아니라 무당이 신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상징화하는 춤인 것이다. 따라서 거상춤은 무당 자신이 신령과 접신하기 위한 춤이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춤이라기보다 신과 더불어 노는 흥에 겨운 춤이고, 신앙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춤이다.

참고문헌 한국의 전통춤(정병호, 집문당, 1999), 굿춤의 구조와 본질 그리고 미적양상–민속예술의 정서와 미학(양종승, 한국민속학회, 1999), 황해도 굿춤의 원리와 형식성 고찰–우리춤 연구(양종승, 한양대학교 우리춤연구소, 2007).
필자 양종승(梁鍾承)

걸립명두(乞粒明斗)

정의 걸립신을 위한 명두.

내용 걸립신은 만인간으로부터 재복을 걷어다 주는 신이다. 걸립명두는 신당 출입구 걸립신이 계시는 곳 벽면에 걸어 둔다.

한편, 걸립명두는 신을 내릴 사람이 내림굿을 하기 전에 이집 저집을 다니며 걸립한 쇠붙이로 제작한 명두를 말하기도 한다. 새 무당은 걸립한 쇠붙이들을 모아 명두나 방울 등의 신구(神具)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걸립신 몫으로 제작된 명두를 걸립명두라고 한다.

참고문헌 한국의 굿(하효길 외, 민속원, 2002), 무당 귀물 연구-『삼국유사』의 삼부인과 무당의 거울 · 칼 · 방울을 중심으로(양종승, 생활문물연구 2, 국립민속박물관, 2001).
필자 양종승(梁鍾承)

걸립상

정의 걸립신에게 바치는 상.

내용 걸립은 무속의 하위 신령의 하나로, 주 신령을 따라다니는 부속 신령이다. 걸립은 무당이 전안에 모시는 신령과 연결되어 있다. 전안은 무당이 신당에 모시는 여러 신령을 가리킨다. 신당에 모셔진 신령이 상위 신령이고, 걸립은 하위 신령이다. 대개 출입문 한쪽이나 대청의 한구석에다 소쿠리 안에 실이나 낡은 헝겊 등을 담아두는 것으로 걸립의 신체를 대신한다. 전안에 상을 올릴 때에는 걸립에게도 따로 음식을 내리지만, 쟁반 위에 떡 한 조각이나 사과 한 조각을 담아 걸립 앞에 두는 것이 전부이다.

전안에서 굿을 하게 되면 따로 걸립상을 차린다. 작은 상 하나에는 팥떡 위에 떡을 얹고 다시 그 위에 도라지 · 콩나물 · 미나리를 얹은 접시, 밥 한 그릇, 술 잔 두 개를 올린다. 그 옆의 작은 접시에는 배 두 접시, 사과 두 접시, 다른 과일 한 접시를 차린다. 전안을 떠나 굿당에서 굿을 할 때에는 전안에 상을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걸립상을 차리지 않는다. "남걸립은 저들이고 여걸립은 여들이고"라는 무가 사설처럼 걸립은 재물을 관장하는 신령으로서 출입문 근처에 거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새로운 음식이 들어왔을 때에도 걸립 앞에 한 조각 놓아두거나, 굿이 끝나고 뒷전에서 사용한 북어를 꽂아두는 것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무 · 굿과 음식 1(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필자 홍태한(洪泰漢)

걸립신(乞粒神)

정의 한국 무(巫)의 신격 중 하나. 주로 굿의 뒷전에 모시는 하위신으로 분류된다.

내용 걸립신은 굿의 연행 후 뒷전에서 모셔지는 하위신 중 하나로, 학자들에 따라 잡귀(雜鬼) 혹은 잡신(雜神)으로 분류되거나 정신(正神)과 잡귀잡신의 중간 정도로 파악되는 양상을 보인다. 정신에는 포함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잡귀잡신으로 분류하기에는 어느 정도 신적 기능이 드러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성격이 명확하게 파악되지는 않는다.

'걸립'이라 하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음식이나 물건 따위를 얻어 모으는 것을 의미하지만 보통 마을의 행사를 치르기 위한 기금이나 물건을 마련하기 위해 풍장을 치며 집집마다 도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를 다른 말로 '걸궁'이라고도 한다. 무(巫)에 있어서도 마을굿을 위해 무당이 집집마다 돌며 기원을 해 주고 쌀이나 돈 등을 걷어 오는 걸립이 있다. 이러한 용어로 인해 걸립신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얻어먹는 귀신 정도로 이해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걸립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계면'이라는 용어가 있어 이 두 명칭 간의 관계에 주목하게 된다. 무당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행위를 '걸립한다'라고 말하지만 '계면돈다'라는 말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계면은 굿의 한 제차인 계면거리라는 것이 있어서 뒷전에서 모셔지는 걸립신과 같은 하위신의 이미지와 차이가 있다.

계면거리는 '계면각시' 혹은 '계면팔이'라고도 한다. 이 거리에서 무당은 계면떡을 팔러 군중 사이사이를 돌아다닌다. 지역에 따라 계면떡은 고기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농사를 위한 씨앗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기원을 해 주고 돈이나 곡식을 얻어 오는 형태인 계면돌기와 같은 것으로 판단되며, 걸립과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걸립은 사실상 무당의 성무(成巫) 과정 중에 겪게 되는 한 단계이기도 하다. 내림굿 제물을 마련하기 위해 걸립을 하는 경우도 있고, 황해도 무당처럼 금속으로 제작된 신물(神物)이 쇠걸립을 통해 얻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걸립신은 이러한 과정 중에 무당과 연관을 맺게 된다.

걸립신의 성격 규명을 위해 크게 두 가지를 거론하면 첫째, 걸립신은 일정 부분 정신들과 관련을 맺고 있다. 뒷전에서 가장 먼저 불리는 걸립신의 종류는 연행하는 무당에 따라 다르겠지만 꽤 여럿이다. 조흥윤이 기록한 무당 배경재의 뒷전에는 총 24걸립이 등장한다. 그 명칭으로는 '매옹남산불사걸립' '본향부군걸립' '성주걸립' '지신걸립' 등 여러 신령과 연결된 걸립신이 등장한다. 둘째, 계면돌기 혹은 걸립을 통해 필요한 것을 얻게 되는 과정을 보면 걸립신은 무당의 성무에 일정 부분 관여하는 신격으로 볼 수 있다. 아키바 다카시(秋葉隆)가 기록한 강화도 무당의 내림굿에서는 이미 신령을 받아들인 애기무당이 집집마다 공수를 내리고 걸립을 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간혹 내림굿에서 애기무당의 몸주로 걸립신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

이 두 가지 사실로 볼 때 걸립신은 무당의 몸주가 되는 여러 정신과 관련을 맺고 있으면서 무

당의 성무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무당들이 걸립신을 신당 입구나 거실 · 처마 등지에 모시는 것을 보면 몸주신령 및 무당과 연관을 맺고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신격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은 동해안별신굿에서 구송되는 걸립굿무가를 통해 더욱 확실해진다. 동해안별신굿에서는 걸립신을 위한 걸립굿이 연행된다. 경우에 따라 '걸립거리', '제면굿', '계면굿' 등 명칭이 혼용되고 있다. 걸립굿에서 구송되는 무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어느 반가(班家)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신내림을 받은 후 시어머니는 걸립할머니가 되어 당골판을 돌아다니며 곡식을 걷었다. 어느 집에서는 걸립할머니를 구박하여 내쫓고, 다른 집에서는 빈 집인 양 숨어서 걸립할머니가 돌아가길 기다린 데 비해 한 집에서는 융숭하게 대접하고 아들의 장래를 점쳐 달라고 하였다. 걸립할머니는 그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겠다는 점괘를 내주었고 후에 정말로 과거에 급제하였다. 이로 인해 다른 당골네들도 걸립할머니를 융숭하게 대접하고 집안의 우환 등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걸립할머니는 당골네들이 두고 간 곡식을 빻아 계면떡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개가 먹어치우자 화가 난 나머지 그 개를 때려잡고 가죽을 벗겨 장구라는 악기를 만들었다.

이 무가는 다른 서사무가들에 비해 서사적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여겨지기에 서사무가에 포함하지 않는 경향도 있으나 내용으로 볼 때 걸립신은 무조신(巫祖神)적 성격을 일정 부분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조선무속의 현지연구(秋葉隆, 계명대학교출판부, 1987), 무와 민족문화(조흥윤, 민족문화사, 1990), 동해안별신굿(국립문화재연구소, 화산문화, 2002).
필자 김창호(金昌鎬)

걸립화(乞粒花)

정의 걸립신을 모시기 위한 꽃.

내용 걸립신은 만인간으로부터 걸립을 담당하는 신이다. 그러나 민속에서의 걸립(乞粒)은 마을이나 동네에서 공동 경비를 쓸 일이 있을 때, 여러 마을 사람들이 패를 짜서 풍물을 치고 재주를 부리면서 각처로 돌아다니며 돈이나 곡식을 구하는 일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를 지방에 따라서는 매구굿, 걸립굿, 걸궁굿, 걸궁농악이라 부르기도 한다. 절에서도 사찰을 중건하기 위해 승려들이 걸립을 하는데 이때는 목탁을 치며 염불해서 시주(施主)를 받는다. 그러나 무속에서는 돈이나 곡식을 걷어다 주는 신을 걸립신이라 하고 이러한 신격을 모시기 위해 신당 출입구에 걸립신을 모셔놓고 굿을 할 때마다 놀린다.

걸립화는 황해도 만구대탁굿과 같은 대규모 굿에서 쓰이는 지화이다. 이 꽃을 한편에서는 무동화(舞童花)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무당이 걸립신이 들어오면 춤을 추고 여러 가지 재주를 부릴 때 마치 무동(舞童)처럼 하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걸립화는 식물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굿을 하기 위해 제작되는 일회용 지화이다.

참고문헌 황해도 굿에 쓰이는 종이 신화와 신구의 종류, 형식, 상징성 고찰(양종승, 한국무속학 13, 한국무속학회, 2006).
필자 양종승(梁鍾承)

겉연[外緣]

정의 전북 지역 무속의례인 연올리기 혹은 전올리기에서 속연을 끌어올릴 때 사용하는 종이무구. 겉전 혹은 겉대 등으로도 불린다. 속연과 함께 통틀어 '연(緣)'으로 불린다. 연(緣)은 묶음이라는 뜻과 인연의 약자로서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망자천도굿인 씨끔굿에 사용된다.

형태 겉연은 법사가 주로 제작하지만 의례를 주재하는 강신보살이 만들기도 한다. 겉연 또한 지전과 마찬가지로 한 쌍으로 구성되며, 한지나 창호지가 그 재료가 된다. 종이는 겉연의 크기에 따라 큰 경우에는 8장 정도면 충분하고, 작은 경우에는 12장 정도가 필요하다. 지전처럼 길게 늘어뜨린 형태로 만들기는 하지만 제작 과정이나 형태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나며, 지전에 비해 제작 과정이 단순하다. 겉연은 온장의 종이를 접은 뒤에 손잡이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가위질을 한 다음 이를 다시 펴서 손잡이 부분으로 말아나간다. 반면에 지전은 종이를 접고 가위로 문양이나 구멍을 오려낸 뒤에 다시 이를 펼쳐서 손잡이 쪽으로 잡아 올리는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겉연은 이 제작과정이 생략되어 지전과 그 형태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겉연은 위와 같은 제작 과정을 반복한 뒤에, 온장의 4~6장으로 완성된 종이를 한꺼번에 묶는다. 이러한 종이묶음에서 '연'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 종이 묶음에 추가로 손잡이 부분 위로 고리를 만드는데, 이때는 종이로 새끼를 꼬듯이 꼬아서 고정시킨다. 이 부분은 전남 지역의 넋올리기와 유사한 연올리기에서 칼[食刀]로 들어올릴 때 유용하게 사용되며, 지전에는 없는 제작 과정이다.

겉연의 크기는 대략 60~70㎝에서 크게는 100㎝가 넘게 만들기도 한다. 겉연은 108가닥으로 제작되는 것이 원형이지만, 보기에 풍성해 보이지가 않아 대체로 200가닥 정도로 만들어진다. 겉연은 의례를 할 때 마다 제작하며, 의례가 끝나면 소각한다.

내용 겉연은 전남 지역의 넋올리기와 유사한 거리인 연올리기 혹은 전올리기에서 넋으로 상징되는 속연을 끌어올릴 때 사용되는 지물(持物)의 한 종류이다. 이 거리에서는 유족(遺族)의 머리 위에 속연을 올려놓는다. 그리고 겉연의 맨 윗부분에 만들어진 고리에 신칼로 인식되는 식도(食刀)를 끼워 넣은 뒤에 속연을 끌어 올린다. 이는 망자가 의례에 만족했는지를 알아보는 의도이다. 이 겉연에 속연이 따라 올라오지 않으면, 올라올 때까지 이 의식을 반복한다. 속연이 따라 올라오면 겉연을 가족들의 머리 위에서 원을 그리듯이 돌리는데, 이는 망자에게 유족들의 향기를 맡게 하려는 의도를 지닌다. 의례 주재자는 망자의 가족에게 두 손을 모으게 한 뒤에, 겉연을 털어 속연을 받게 하거나 혹은 펼쳐 놓은 망자의 옷 위에 털기도 한다. 이어서 겉연에 속연이 붙게 한 뒤에, 겉연의 머리 부분을 유가족에게 잡게 한 뒤에, 일부분을 식도로 잘라낸다. 이는 망자와 가족과의 인연을 끊는 의미로서, 이러한 행위는 가족 구성원의 숫자만큼 반복된다. 만약에 바다에서 넋건지기 굿을 진행할 때는, 겉연과 속연을 바다에 던진다.

겉연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 용어에 담겨져 있으며 둘째는 그 형태에 담겨져 있다. 겉연[外緣]과 속연[內緣]의 연은 종이 묶음이라는 의미와 함께, 조상과의 인연 · 망자와의 인연을 상징한다. 즉 망자와 산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인연의 매개체로서, 산 사람의 몸에 이것들을 올려놓고 끌어올린 뒤, 머리 위에서 원을 그리듯이 돌림으로써 망자에게 일시적으로나마 가족들의 체취를 느끼게 해주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속연이 담겨 있는 겉연을 칼로 잘라내는 행위는 인연의 단절, 즉 망자와 그 가족 간의 관계단절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는 망자와의 절연을 상징하는 것으로, 잠시나마 망자가 자식들의 체취를 맡았지만, 이를 저승까지 가지고 갈 경우에 자식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므로 망자에게 빨리 잊고 가라는 의미를 지닌다. 만약 바다에 겉연과 속연을 던졌을 경우에 바다는 이승에서 저승으로 건너가는 경계영역인 월천(越川)으로 상징된다. 겉연과 속연은 생과 사의 영역을 구분하기 위한 의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 형태에 있어서, 겉연은 108가닥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 이유는 인생의 번뇌를 떨쳐버리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겉연은 망자와 유가족에게 이승과 저승의 인연을 끊고, 죽음이라는 인생의 번뇌를 떨치는 무속의 내세관이 반영된 결과물이라 볼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14-무의식편(문화재관리국, 1983),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전라남도 · 전라북도 · 제주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호남지역 종이무구의 변화상 및 상징성 고찰(최진아, 한국무속학 14, 한국무속학회, 2007), 무속의 물질문화 연구(최진아,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9), 전북의 앉은굿 전수자 최갑선 면담조사 및 의례조사(2006년 6월 3일~6월 6일) 자료, 전북의 앉은굿 법사 최광식 면담조사 및 의례조사(2008년 2월 27일) 자료, 전북의 넋건지기굿 전수자 하진순 면담조사 및 의례조사(2008년 4월 27일) 자료.
필자 최진아(崔眞娥)

겜심바침

정의 서울 지역에서 기자를 위한 축원의례의 하나. '삼신축원'이라고도 한다.

내용 겜심바침은 기자를 위한 치성의례로 현재는 그 전모를 알 수 없고 다만 김태곤이 조사한 사례가 유일하게 남아 있다.

안방 아랫목에 부부가 자는 머리맡에다 밥 3그릇, 미역국 3그릇을 상에다 차려놓고 무가 축원하고 밥과 국을 산모가 될 부인에게 먹인다. 먹다 남기면 두고 두고 먹어야 하고, 타인에게는 주지 않는다. 이때 축원 대상은 삼신이다. 잉태하여 해산하게 되면 3일과 7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삼신에게 빈다. 이때는 삼신에게 아이가 잘 자라게 해 달라고 빈다.

겜심바침에서 겜심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다. 현재 남아 있는 삼신축원과 흡사한 것으로 보아 겜심바침은 삼신축원을 특별하게 부르는 명칭이 아닌가 짐작된다.

참고문헌 한국무속연구(김태곤, 집문당, 1981).
필자 홍태한(洪泰漢)

겹마치

정의 경기 남부 지역 굿에서 춤반주로 쓰이는 장단의 하나.

내용 느린 3소박 4박자(12/8박자)로서 늦은 자진모리장단에 맞으며, 덩덩궁이(자진굿거리)에 비해 잔가락이 많다. 겹마치는 '겹(겹친 가락)'과 '마치(때린다는 농악장단의 의미)'의 합성어로, 지영희에 의해 전해졌으나 현재는 지갑성에 의해 불리던 '겹마치기'로 경기 남부 지역의 굿에서 널리 쓰인다. 특히 경기 남부 안택굿의 군웅굿과 도당굿 가운데 터벌림춤, 올림채춤, 진쇠춤에 많이 쓰인다.

터벌림춤에서는 청쾌자를 입은 화랭이가 혼자 (외군웅굿) 또는 무녀와 함께(쌍군웅굿) 춤을 출 때 장단이 터벌림(반설음), 연결채, 겹마치기로 이어진다. 이때 춤을 추는 화랭이가 꽹과리를 치며 사방을 돌고 발로 차면서 굿판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지신(地神)을 달래면서 부정한 것을 몰아낸다.

올림채춤은 무당이 군웅굿의 마지막 순서에서 춘다. 이때 올림채, 연결채, 겹마치기, 덩덩궁이로 장단이 이어진다. 선율악기는 연주하지 않고 타악기인 장구, 징, 꽹과리만으로 연주하면 홍철릭에 홍갓을 쓴 무녀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방수밟이를 하면서 춘다.

진쇠춤은 군웅굿에서 군웅을 맞이하기 위해 화랭이가 추는 춤이다. 이때 진쇠, 넘김채, 겹마치기 장단에 따라 쾌자자락을 뿌리거나 돌리는 등의 활달한 동작을 하면서 꽹과리를 친다.

이 밖에도 김영철, 이동안으로 이어진 광대줄타기에서도 겹마치 장단이 쓰였다.

참고문헌 한국의 무속장단(임수정, 민속원, 1999). 한국의 장단(김청만 · 김광섭, 민속원, 2002).
필자 이병옥(李炳玉)

경관만신

정의 황해도 무당들이 굿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왕초격의 무당.

내용 만구대택굿 같은 대규모 굿을 할 때에는 경관만신의 역할이 크다. 경관만신은 굿판의 최고 우두머리로서 굿을 총지휘하며 의례에서도 주요한 굿거리를 맡아 한다. 또한 경관만신은 대체로 족보 있는 굿 문서에 능통하면서 오랜 세월동안 축적된 기 · 예능으로 굿을 잘 이끌 수 있는 무당이다.

참고문헌 한국의 무속-서울 · 황해도편(양종승, 국립민속박물관, 1999).
필자 양종승(梁鍾承)

경기도굿 무복

정의 경기도 지방에서 굿을 할 때 무당들이 입는 복식.

내용 경기도는 한반도의 중심에 있다. 북쪽으로는 황해도, 남은 충청도, 동은 강원도, 서쪽으로는 서해안과 각각 접하고 있다. 경기도 무속은 이처럼 인접한 지역들의 영향으로 특수성보다 종합된 여러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혼재 속에서도 경기 북부는 신병체험자가 무업을 주관하는 강신무적 성격이, 남부는 의례를 주관하는 세습무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에 경기도 무속은 강신무와, 세습무가 접합되어 나타나는 복합권역인 셈이다. 따라서 무복도 세습무는 의례를 주관함에 일정한 틀을 지니고 있으므로 단순한 편이지만, 강신무는 의례 속에 신적인 영험함을 드러내기 위해 화려하고 복잡하다.

현재 경기도에 전승되는 대표적인 굿은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도당굿'이며, 대부분 만신들이 주관하고 있다. 따라서 이 굿의 무복은 경기도굿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만신들은 강신무로 조병호 · 정정애 · 최옥순 · 장석만, 세습무로 오수복 · 김순덕 등이 있다.

도당굿은 굿거리나 명칭이 무당이나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크게 14거리로 분류될 수 있다(동막 1984, 장말 1991년 조사). 당주굿, 부정굿, 도당모시기, 돌돌이, 장군잡기, 시루말, 제석굿, 신장굿, 본양굿, 별상, 터벌림, 군웅굿, 도당모시기, 중굿, 뒷전 등이다.

무복은 기본으로 입는 평복(平服)과, 거리별로 입는 무복으로 구분된다. 다시 관복류(官服類)와 승복으로 나뉜다.

1. 평복

치마와 저고리로, 평상시에 입는 기본적인 옷이다. 색이나 옷감이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 본격적인 굿거리에서는 이 평복 위에 거리마다 다른 신옷을 덧입는다. 치마는 따로 마련되는데 청 · 홍색 두 가지이며, 홍색이 상위계념으로 쓰인다.

2. 무복

신이 강림할 때 입는 것으로 신격(神格)을 상징한다. 신에 따라 옷의 종류도 달라지며 관복류 · 승복 · 기타로 나뉜다.

1) 관복류

무복으로 종류는 크게 철릭과 전복 및 동다리로 나뉠 수 있다. 모두 조선시대 관리용이며 주로 무관(武官)을 상징한다.

철릭은 경기도의 세습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서 핵심적인 무복이다. 모양은 상의[衣]와 하의[裳]를 연결시킨 것으로 아래 옷(치마)에는 주름이 잡혀 있다. 마치 저고리와 치마를 붙여 놓은 것 같다. 소매는 통으로 된 것과, 한쪽 또는 양쪽에 매듭단추를 달아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도록 된 것도 있다.

무복에 쓰이는 철릭은 '의상(衣裳)연결'이라는 기본은 같지만, 부분마다 변형되고 수(繡)를 놓는 등 치레거리가 추가된 것이 많다. 특히 소매는 통으로 달렸으며, 소매의 진동 부근에 아귀를 터서 팔을 빼내어 활동하기 편리하게 했다. 색은 홍과 청이 기본이다.

홍철릭은 주로 재수굿의 산거리와 성주거리, 도당굿의 산신거리와 군웅거리 등의 가장 중요한 거리에 입기 때문에 경기 무복의 대표적인 옷이라 할 수 있다. 만신에 따라 "빨간 철륙, 홍철륙, 대왕님의대, 산신님의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빨간 철륙, 홍철륙"이라는 것은 색을 구분한 것이고, "의대(衣帶)"라고 할 때는 각각 등장하는 신격의 입을 거리임을 상징한 말이다.

남철릭은 장군거리를 할 때 입는다. 만신에 따라 "장군님의대"(오수복, 정정애, 조병호), "장군복"(김순덕), "소장군복"(최옥순)이라고 한다.

남철릭은 장군거리 초입에서 입으며, 최영 장군을 위한 거리에서 입는 갑옷의 모양을 흉내 낸 것을 "장군복"이라 한다. 갑옷을 입을 때는 머리에 투구를 쓰고, 철릭을 입을 때는 머리에 갓[笠]을 쓴다. 투구를 "대왕님모자", 갓을 "빛갓, 홍갓, 산신할아버지갓"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전복은 깃과 소매와 섶이 없으며, 여밈은 섶이 없으므로 좌우가 나란한 합임(合衽)이다. 양옆에 무가 달리고 뒤와 양옆이 트여 있다. 조선 후기에 남자어른이나 유생(儒生)과 남아(男兒)에 이르기까지 통상예복의 겉옷으로 많이 이용되었다. 특히

무복에 많이 입는데 이때는 주로 “쾌자(快子)”라고 부르고 있다.

쾌자는 대감거리, 초가망거리, 산거리, 신장거리 등에 입는다. 만신에 따라 “대감복색, 대감의대”라고도 한다. 색은 남색(혹은 청색)과 검은색이 가장 많다. 쾌자를 입을 때는 머리에 전립(戰笠)을 쓴다. 전립은 “대감모자, 장군모, 안울림벙거지”라고 하기도 한다.

무복에서 중요한 것으로 ‘동다리’가 있다. 지금의 두루마기와 비슷하며 소매가 좁다. 만신들은 소매가 좁으므로 “섭수[夾袖]” 또는 “섭수두루마기”라고도 한다. 동다리는 길은 대부분 남이나 홍색이며, 진동 조금 아래 소매에 붉은색을 덧댄 포(袍)를 말한다. “동다리”라 함은 소매에 다른 색으로 ‘동’을 덧달았음을 나타낸 말이다. 조선 말기 정조(正祖, 재위 1776~1800년)대 이후 군복[戰服]용으로 많이 이용되었으며, 쾌자와 함께 한 틀로 입었다. 대감거리에는 평복 위에 쾌자만 입지만, 신장거리에서는 쾌자를 ‘섭수[夾袖]’ 위에 덧입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것도 만신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오수복은 쾌자를 신장거리에서는 길은 검은색에 붉은색 소매가 달린 “섭수두루마기 · 섭수 · 동다리”라고 하는 포 위에다 입는다. 이 쾌자는 겉은 검고 안은 붉은 겹옷이며, 이 옷을 “신장대감쾌자”라 하고 있다. 김순덕은 대감거리에도 섭수두루마기 위에 쾌자를 덧입어 신장거리와 같은 복색을 갖춘다. 보통 “신장의대”라 함은 섭수두루마기 위에 쾌자를 덧입는 것을 일컫는데, 김순덕은 섭수두루마기만을 “신장의대”라 한다.

2) 승복

승복은 불교를 상징하는 옷으로, 불사 · 제석 · 칠성을 모실 때 입는다.

불사거리에 입는 것은 “불사옷 · 불사의대” 등으로 부르고, 제석거리에서 입는 것은 “제석의대”라고 한다. 장삼과 가사, 고깔을 한 틀로 한다. 불사거리에서는 홍치마 위에 흰장삼을 입고 홍 · 청 가사를 양쪽 어깨에 두르며 허리에 홍띠[紅帶]를 띤다. 머리에는 흰 고깔을 쓴다. 고깔에는 대부분 무늬가 없지만 최옥순의 ‘불사고깔’은 흰색 옷감으로 만들고 아래쪽에 태극, 위에 모란 무늬를 각각 덧대기도 하고 금박을 찍거나 잣물림을 한 것도 있다. 고깔은 옷감이나 종이로 만드는데 대부분 옷감으로 만든다. 옷감으로 만든 것은 여러 번 계속 쓰고, 종이는 주로 일회용이다. 최옥순은 제석거리에서 회색 장삼을 입고 ‘제석고깔’이라 불리는 고깔을 쓰는데 회색이다. 불사나 제석거리에서 승복은 의대(衣帶)를 갖추고 목에는 염주를 걸고, 목탁을 두드리며, 굿을 한다.

3) 기타

특수거리로 ‘작두타기’가 있다. 이는 신의 용맹과 위엄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때 입는 무복으로 특수한 별상복이 있다. 또 연희와 치레성이 큰 무복이 있다. 주로 여성용 포류(철릭, 원삼, 몽두리)를 변형한 것으로 옷의 명칭도 “창부씨복 · 가망 · 선녀옷”이라고 하는 등 너무 복잡하여 혼동이 온다.

작두타기는 강신무가 한다. 이때 특별한 무복을 입으며 만신들은 이 무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정정애는 이 옷을 “작두별상복”이라고 한다. 이 옷은 길은 홍색에 소매는 녹색이며, 허리 아래는 끝이 제비부리처럼 세모꼴로 된 여러 가지 색을 배합한 색동을 술처럼 상하로 길게 가닥가닥 늘어뜨렸다. 호구와 군웅거리에서도 사용한다. 최옥순은 청치마 위에 ‘작두대신복’을 입는데 길은 붉고, 소매는 색동이며, 등에는 호랑이 무늬가 있다. 작두를 탈 때 쓰는 ‘작두모자’는 붉은색이며, 모자 테두리에 오방색 술이 달려있다.

예능과 악사들의 신령인 창부를 위한 거리 때 입는 옷이 있다. 색이나 치레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길은 공통으로 연두(녹)에 앞은 짧고 뒤가 길며, 소매는 좁고 색동을 단 옷으로 원삼의 변형으로 보인다. 김순덕은 “창부씨복”이라고 하는데 길은 녹색이며 소매에 색동을 단 것으로 민간 혼례복인 원삼과 같다. 부인굿(손굿, 마마굿) 때도 입는다. 그러나 오수복의 창부씨복은 녹색 길에 붉은색 단을 덧대고, 소매는 색동이며, 허리에 매는 녹색 대(帶)가 있다. 조병호는 “창부광부씨의대”라고 한다. 연두색 길에 모란 무늬와 봉황 수를 놓았으며, 소매는 넓고 수구에 백색 한삼(白汗衫)이 달려 있다. 창부거리에서 원삼은 현재 수를 놓은 활옷과 혼용된 변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몽두리류의 포(袍)가 있다. 대신거리에서 입는 대신의대는 “대신(마누라)할머니옷, 대신몽두리복, 노란몽두리, 은아몽두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황색의 포가 있다. 만신에 따라 이때 입는 무복을 “성전님의대, 성제님의대, 승전님의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저고리와 치마가 연결되어 길이가 길고, 소매도 넓으며, 허리에 주름이 잡혀 있다. 모양은 장삼이나 철릭과 비슷하지만 소매 끝에 한삼이 달려있어 혼합형이다. 성전님거리에서는 장군거리와 신장대감거리 등 여러 굿거리가 연결되며 평복 위에 청치마, 섭수두루마기, 쾌자를 입고 허리에 전대를 두른다. 그 위에 남철릭을 입고 붉은 띠를 두른 다음 주립을 쓴다.

세습무인 오수복의 무복 중에는 다른 만신들과 다른 ‘관디’가 있다. 앞이 뒤보다 짧고, 길의 겉감은 붉은색이며, 안감은 분홍이다. 길이는 다른 무복에 비해 짧고, 소매는 좁은데 색동을 달았다. 이 옷은 길이가 앞뒤로 차이가 나고, 소매는 좁지만 색동을 댄 것으로 보아 “관디”라는 말은 여성용 관복인 원삼과의 동격에서 나온 말이 아닌가 추측된다. 불사거리에서는 이 위에 가사장삼을 덧입기도 한다.

참고문헌 경기도 도당굿(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명선 중(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4),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서울시 · 경기도 · 강원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경기굿(경기도국악당, 2008).

필자 고부자(高富子)

경기도도당굿

정의 서울을 비롯한 한강 이북 지역과 수원 · 인천 등지에서 마을의 평화와 풍년을 목적으로 매년 혹은 2년이나 그 이상의 해를 걸러 정월 초나 봄, 가을에 정기적으로 행하는 마을단위의 굿. 이 굿은 1990년 10월 10일에 ‘중요무형문화재 제98호’로 지정되었다.

내용 무속의 역사적 관점에서 굿은 규모에 따라 집굿, 마을굿, 나라굿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집굿은 집안의 재수 또는 우환을 빌거나 물리칠 때 하는 굿이다. 재수굿, 병굿, 진오귀굿 등은 집안 단위의 집굿에서 행할 수 있는 굿이다.

마을굿은 동네굿이라고 하며, 마을 규모의 행사에서 하던 굿이다. 주로 마을 수호신의 내력을 말하고, 마을의 안녕과 마을 사람들의 수복강녕을 빌던 굿이다. 나라굿은 나라 단위의 굿으로, 현재는 행하지 않고 고대에 국중대회 형식으로 거행되었다.

예전에는 굿의 규모에 따라 무당의 종류도 달랐다. 현재 이러한 구분은 무너졌으나 대개가 집굿은 개인무, 마을굿은 마을무, 나라굿은 나라무당이 각각 주관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이들 무당이 모두 해체되었다. 그런데 경기도도당굿은 세습남무인 화랭이들이 거의 도맡아 한다는 점이 독특하다.

광의의 관점에서 보면 경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굿은 크게 몇 가지의 하위 유형이 있다. 명칭에 의해 구분하면 흔히 도당굿, 성황제, 대동굿, 부군당굿이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도당굿과 부군당굿의 차별성이다. 명칭에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실제 굿거리의 구성에서도 차이가 난다. 그러나 특별한 차이라기보다 굿에서의 강조점이 다르다. 경기도는 한강을 기점으로 하여 경기 이북과 경기 이남의 굿이 갈라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적인 차이점이 생기는 것이다.

경기도도당굿은 마을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하는 굿이다. 마을 사람들이 대표자인 화주 또는 당주를 정하고 외지에서 무당을 초청해 마을의 안녕을 비는 정기적인 의례가 곧 도당굿이다. 마을을 수호하는 마을 신, 즉 도당신이나 부군당신인 도당할아버지와 도당할머니 또는 부군할아버지와 부군할머니의 신이 있으므로 이들을 초청하여 신에게 마을의 안녕을 빌고 마을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이 곧 마을굿의 진정한 목표가 된다. 경기도와 서울 일대의 굿을 일러서 이와는 다르게 곶창굿, 부군당굿, 도당굿 등 다양한 명칭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기도 일원의 마을굿은 정기적 의례이기 때문에 마을마다 다른 제일을 가지고 있다. 대체로 정월에 집중되어 있는 지역도 존재하고, 이와는 다르게 3월이나 4월에 제를 지내는 지역도 있으







경기도당굿
정수미



















경기도도당굿
정수미

며, 10월에 제를 지내는 지역도 있다. 이러한 제일에는 마을 전체의 대동굿이 존재한다. 대동굿에서는 유교식 제례와 마을단위의 대동굿이 존재한다. 그러나 본격적인 제일 이외에도 특정하게 여러 지역 제일이 병용되어 정월, 특정일, 10월 제일이 있는 경우도 있다. 한 마을의 절기나 월별에 따라 당제나 당굿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유서 깊은 마을굿의 전통을 확인하게 된다.

경기도도당굿은 사제자인 무당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몇 가지 유형이 갖추어져 있다. 예사 무당이기는 하지만 한 가지 특징으로 마을단위의 도당굿판을 단골판으로 하는 무당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첫째는 세습무가 주체가 되어 도당굿을 맡아서 하는 인물들이 있다. 이들은 흔히 화랭이 또는 산이라는 인물로 미지인 무녀들과 협동해 마을굿인 도당굿을 연행한다. 둘째는 강신무인 만신들로, 이들이 일정한 도당굿판에 관여하면서 도당굿판을 주도하는 경우이다. 이들 관계는 마을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 맺어지는 것이 예사이다. 셋째는 이른바 악사당주가 그들이다. 악사당주의 사례로는 김순선의 아들인 김광수가 적절한 사례이다. 김광수가 자신이 악사당주라고 하면서 갈매리, 담터, 봉화산, 잣바위, 먹굴, 공덕굴, 상계동 등을 지명한 바 있다.

마을굿을 하는 주체에 의한 세 부류는 현재 급격하게 궤멸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마을굿을 염두에 둔다면 이러한 분류는 마을굿의 사제자가 점유하고 있는 특성에 의해 분류가 가능하다. 마을 사람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단골관계는 존속된다. 그러나 세 부류의 마을굿은 마을굿의 제의 절차, 음악, 무가 등에 의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화랭이굿과 선더러니굿이 차이가 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들을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곧 한강이다. 한강변을 중심으로 발달한 것이 곧 서울의 마을굿인 부군당굿이다. 부군당굿은 한강 이북과 한강변을 끼고 있는 이남 지역으로 대별된다. 부군당굿을 한강 이북과 이남으로 고정시켜서 놓고 보면 두 가지 양상이 동시에 일정한 원리에 의해 형성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일정한 원리는 강변을 끼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남 · 북으로 부군당굿인 마을굿을 행하는 곳이 갈라져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정리에 의해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는 마을굿의 구조적인 관련성이 이 사례들의 명칭에 의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성황제, 도당굿, 부군당굿 등이 이러한 작용을 하는 용어이다. 또한 제의적 구성 인자에 의해서도 이 굿이 유형화된다. 유가적 제의와 무속식의 굿, 유가적 제의+농악대굿+무속식제의 등이 결합하는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는 문화적 차별성을 형성하는 요인이 곧 특정한 지역의 강이나 산맥이 된다. 이에 따라 한강은 중요한 도당굿 경계면의 준거이다. 한강변을 중심으로 부군당굿이 집중적으로 분포한다는 사실이다. 부군당굿이 집중적으로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으나 이 사실에 역사적 근거는 분명하다. 서울의 관원들이 역사적 인물과 결부시켜 신참례나 마을굿의 후원책으로 이를 조

1. 꽃반에서 소지를 올리는 모습

2. 제석거리에서 바라팔기를 하는 모습
수원시 평동 벌말도당굿 | 2008.2.17 | 김헌선


1


2

경기 북부	한강 이북	한강 이남	경기 남부
개성덕물산도당굿 (3월27-28일)	답십리 왕십리 수풀당	작은한강부군당 화주당	청수골도당
문산도당굿	진퍼리살군당(4월/10월1일)	신길2동방아고지부군당 (4월1일/7월1일/10월1일)	새오개도당굿
양주유양리도당굿	금호동(무쇠막)부군당(10월)	신길3동신기리동당(10월3일)	영종도도당굿
파주도당굿	옥수2동부군당(10월)	영등포상산부군당 (7월1일/10월1일)	떼무리섬도당굿
봉화산도당굿	한남동 큰한강 부군당(1월1일)	당산동부군당(10월1일)	시흥군자봉성황제
담터도당굿	보광동부군당(1월1일)	염창동부군당 (7월1일/10월1일)	안산잿머리성황제
먹골도당굿	동빙고동부군당(3월15일)		평동도당굿(10월10일)
공덕굴도당굿	서빙고동부군당(1월1일)		영동시장거북당굿(10월10일)
삼각산도당굿	창전동부군당(10월1일)		고색동도당굿
구리갈매울도당굿	용문동부군당(4월1일/10월)		인천장말도당굿(10월10일)
정발산도당굿	마포불당(5월20일/10월20일)		인천동막도당굿(3월1-3일)
권율장군도당굿	밤섬부군당(1월2일)		

장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강의 운송 수단이 중요시되던 때에 물을 중심으로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던 전통의 여파로 보인다. 동시에 문화적으로 북부와 남부의 차별적 면모가 동심원적으로 구현되어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면서 이러한 문화적 형성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셋째는 마을굿의 제일이 일정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한강 인근의 지리적 조건에 따라 내지와 외지로 갈라서 보면, 외지와 내지의 일정한 역학관계를 고려할 수 있다. 분명하게 마을굿의 제일이 세시력과 관련되는 점은 인정된다. 다른 지역에서 신을 모시는 일이 농경세시력을 비롯한 생업력과 무관하지 않다. 더구나 일정한 제일에 굿을 하는 경우와 고사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 년에 적어도 두 번 굿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넷째는 한강 이북에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기는 해도 일정하게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당이 많다는 사실이다. 본래의 마을 수호신이 중심이 되지 않고 특정한 역사적 인물과 결탁된 사실은 서울의 부군당굿이 어떠한 경로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준다.

경기도도당굿은 마을굿이라는 점에서 동해안 별신굿, 전라도 당산굿, 황해도 대동굿과 동일한 성격을 지닌 마을의 공동체 신앙이다. 그러나 세습화랭이가 자신들의 연주 기량을 발휘하고 독창적인 사설을 주도해 부르는 것은 다른 지역의 마을굿에서 볼 수 없는 현상이다. 도당굿의 화랭이는 타악은 물론 삼현육각의 선율악기와 조화를 이루는 것을 궁극적인 음악형식으로 생각한다.

지역사례 동막도당굿은 1984년 4월 2일에서부터 4월 3일까지 행해졌다.

(1) 당주굿(서간난, 조한춘)
(2) 거리부정(서간난, 조한춘)
(3) 부정굿(서간난)
(4) 도당할아버지 · 할머니 모시기(서간난)
(5) 돌돌이(조한춘, 전은순)
(6) 시루말(이용우, 서간난)
(7) 제석굿(이용우, 서간난)
(8) 신장굿+손굿+공굿(산이들)
(9) 본향굿(조한춘)
(10) 터벌림(이용우, 조한춘, 이영수)
(11) 군웅굿(서간난, 조한춘, 이용우, 이영수)
(12) 도당할아버지 · 할머니 모시기(서간난, 조한춘)
(13) 중굿(조한춘)
(14) 뒷전(이용우, 조한춘, 이영수)

이 지역은 서간난과 조한춘의 단골판이다. 조한춘의 장모인 서간난의 단골판이 매개가 되어서 수원의 이용우와 인천의 이영수, 그리고 나머지 악사 잽이인 전태용, 김한국, 정일동 등이 참여해 도당굿을 진행했다. 실제 굿거리를 담당하는 장구잽이 화랭이로는 이용우와 조한춘을 들 수 있다. 나머지 산이들은 전악 구실만 했다.

산이와 미지가 함께 연행하는 제차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산이가 먼저 앉은 청배를 하고, 미지가 서서 청배를 하는 굿거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1. 앉은 부정 - (2)2. 선 부정

(6)1. 시루청배 - (6)2.시루말

(7)1. 제석섭채 - (7)2. 제석청배

산이가 먼저 자기 스스로 장구를 치면서 앉은 부정, 시루청배, 제석섭채 등을 연주한다. 장단은 각기 차이가 있어서 부정장단과 섭채장단이 쓰인다. 이 장단에 맞춰서 산이가 마달을 주워 섬겨 나간다. 부정청배에서는 부정을 물리기 위한 치국잡기를 하고, 치국잡기 끝에 갖가지 부정을 물리기 위한 휘몰이장단으로 끝을 맺는다. 시루청배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청배한다. 제석섭채에서는 섭채장단에 제석신을 청배하고 신을 맞이하는 본풀이를 불러나간다.

미지는 부정과 시루말에서 동일한 장단에 청배를 거듭하고 춤사위를 섞어서 노래한다. 이에 견주어 제석청배는 다른 장단을 사용하면서 제석본풀이를 도살풀이장단에 불러나가게 된다. 그런데 도살풀이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장단이 빨라져서 도살풀이, 모리, 발뻐드레 등으로 마무리된다. 본풀이청배가 끝나면 제석의 춤사위도 있고, 이어서 제석노랫가락 등도 곁들여서 한다. 산이와 미지가 호흡을 맞춰 가면서 선굿을 연행한다.

이를 통해, 산이와 미지가 굿을 겹으로 짜나가고 있는 경기도 남부굿의 전통을 환기한다. 도당굿이 아닌 집굿에서는 이 밖에도 조상청배 또는 군웅청배에서 산이들이 전악과 가래조장단으로 조상청배를 한 뒤에 미지가 선굿으로 오니굿거리와 도살풀이로 조상청배를 반복한다. 이러한 굿거리는 도당굿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미지와 산이가 대응하는 겹굿의 사례로 조상청배를 첨가할 수 있다.

경기도 남부굿을 산이와 미지가 겹으로 연행하는 것은 옥상 위에 집을 짓는 옥상옥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앉은굿과 선굿이 겹으로 진행되어 짜여지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겹으로 굿을 짜는 내림굿과 불림굿이 존재하므로 겹굿의 전통은 경기도 남부만의 독자적인 현상이 아니다. 동해안별신굿에서 신의 청배 과정에서 청보장단의 경우 화랭이와 지모의 주고받는 청배 역시 동일한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례이다.

그러나 경기도도당굿의 남부 지역적 특색은 산이가 먼저 굿을 하나 끊고 이어서 미지가 전혀 다른 각도에서 굿을 해야 하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더구나 산이가 하는 굿을 다시금 미지가 반복하면서도 전혀 다른 각도에서 굿을 하고 굿거리를 진행하는 특색이 있는 사실이 주목된다. 산이가 앉아서 장구를 두드리면서 굿을 한다면 미지는 일어서서 무구인 부채와 방울을 들고 굿을 하는 점이 남다르다. 장단을 치면서 굿을 하고 부채와 방울을 들고 굿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굿이다. 산이와 미지가 독자적 굿거리의 미학을 창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미지와 산이가 앉아서 굿을 하고 이어서 서서 굿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미지가 먼저 청배를 하고 이어서 산이가 굿을 이어 나가는 특별한 굿거리도 존재한다. 이러한 굿거리가 곧 손굿과 군웅굿에 해당한다. 손굿에서 먼저 미지가 손님을 청배하고, 이를 잇달아 산이가 손님노정기를 이어나가게 되며, 동일한 사례로 군웅청배에 이어서 군웅노정기를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굿거리의 순서는 산이-미지의 순서로 진행되는 굿거리와 전혀 다른 것으로, 반대로 미지-산이의 순서로 진행된다. 미지-산이로 진행되는 굿거리는 둘 다 서서 하는 굿이기 때문에 서로 차별성을 띤다.

미지는 일어서서 부채와 방울을 가지고 장단에 맞추어 신을 청배하고, 이어서 산이에게 굿거리를 인계한다. 이러한 굿의 인계 과정에서 미지와 산이의 대무는 제상을 두고 이어지게 된다. 이것이 곧 군웅굿에서 쌍군웅춤이고, 손님굿에서 쌍손님춤이라고 할 수 있다. 미지가 물러나고 산이가 독자적인 굿거리를 하게 된다. 이전까지 산이는 꽹과리를 들고 대무를 하다가 이어서 산이굿이 시작하게 되면 독자적으로 먼저 잽이와 함께 공수답을 한다.

공수답은 굿거리장단과 전혀 다르게 장구장단에 천지조관의 내력을 기술해 간다. 그러다가 장구장단이 북장단으로 바뀌면서 자진몰이 또는 덩덕궁이장단이 사라지고 북장단에 의한 공수답이 삼공잽이장단으로 느려지면서 노정기의 초앞으로 진행된다. 덩덕궁이장단에서 삼공잽이장단으로 바뀌는 현상은 산이가 들었던 꽹과리를 놓고 북장단에 맞춰서 부채를 드는 것과 일정한 함수관계를 맺는다. 이것은 판패개제 성음으로 하는 경기판소리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산이-미지의 순서가 미지-산이의 역순으로 구성되면서 굿거리 전체의 변형이 생겨난다. 단순하게 앉은굿과 선굿의 관계가 청산되고, 선굿-선굿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미지의 선굿과 전혀 다른 산이의 선굿이 등장하고, 선굿의 형태가 판소리의 형식으로 변질되는 기이한 비약이 이루어진다.

산이와 미지의 대립항에 따라 굿거리 비중이 다르게 짜이는 것은 경기도 남부의 굿에서 산이들이 별도로 자신들의 굿거리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창조한 전통이 있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굿거리가 이에 해당한다.

(5) 돌돌이

(8) 공굿

(9) 본향굿

(10) 터벌림

(13) 중굿

(14) 뒷전

산이 혼자서 하는 굿거리가 있고, 산이가 둘 이상이 모여서 연행하는 굿거리가 있다. 산이 혼자서 하는 굿거리에서는 돌돌이, 본향굿, 중굿 등이 있다. 산이 여럿이 하는 굿거리에는 공굿, 터벌림, 뒷전 등이 있다. 돌돌이는 다른 고장에서 하는 세경돌기 · 유가 등과 맥락이 닿는 굿거리로, 마을의 경계와 구성원들의 집을 돌면서 마을의 안녕과 축원을 비는 굿거리이다.

고사소리는 장구장단에 맞추어 하지만 미지들이 하는 것과 다르게 덩덕궁이장단에 천지조관의 내력과 치국잡기의 내용을 길게 구연하는 것이다. 광대들이 고사소리를 하는 전통을 염두에 둔다면 돌돌이에서 산이가 하는 고사소리의 전통은 미지의 그것과 다른 독자적인 소리제를 지니고 있다. 고사소리의 쓰임새가 마을의 축원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셈이다.

공굿은 공짜로 보는 굿이라고 하여 이른바 공거리라고도 한다. 마을 사람들이 따로 돈을 쓰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산이들의 장기자랑이다. 산이

장문잡기
경기도 용인민속촌 | 2009.4.12 | 김헌선



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많으나 토막소리나 꽹과리를 들고서 방수밟기를 하는 반설음장단의 놀이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도당굿에서는 공거리가 가장 다양한 놀음새를 보여주던 굿거리였음이 확인된다. 이 거리에서 줄타기, 땅재주 넘기, 갖가지 소리 등을 입체적으로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전통이 사라지고 현재는 굿거리가 소멸했다.

본향굿은 산이 혼자서 하는 굿거리이며,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이 터전을 잡게 된 내력을 밝혀주는 것을 말한다. 산이가 혼자서 세상이 생긴 내력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그것을 덩덕궁이 장단에 주워섬기는 것은 미지의 굿과 명백하게 다른 현상으로 이해된다. 본향굿에서 도당굿의 특징인 마을의 여러 본향 터전을 주워섬기면서 굿을 한다.

터벌림은 산이가 여러 사람으로 등장해 꽹과리를 치면서 하는 굿거리이다. 터벌림을 터잽이, 공거리, 그루백이 등 여러 이칭으로 불린다. 마을굿을 담당하는 쪽에서 아무런 제상도 차리지 않으므로 공거리라고 했으며, 터잽이 · 그루백이 · 터벌림 등은 산이가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터벌림은 산이들이 여럿이 나와서 흥미로운 놀이를 벌이는 굿거리이다.

터벌림은 터벌림장단에 터벌림춤을 추는 것이다. 터벌림춤은 꽹과리를 가지고 사방으로 방수를 밟는 것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가는 동작이 서로 다르며 방수밟기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산이들의 기량을 평가받는 굿거리이다. 그런데 터벌림의 굿거리적 본디 기능은 산이들이 맡아서 하는 큰굿거리를 하기 위한 예비적 거리의 성격이다. 좁아진 굿판을 정리하면서 관객에게 짚과 흙을 끼얹으며 방수밟기를 하고 터를 넓게 벌린 다음에 군웅상을 갖다놓고 군웅굿의 쌍군웅춤을 추기 위한 준비의 굿거리가 터벌림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터벌림이 정식적인 굿거리가 아니다. 하지만 산이들은 이 굿거리를 통해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미학적 제차를 확보하고 있다.

중굿은 산이 혼자서 하는 굿거리이다. 중굿은 중이 굿판에 내려온 내력을 말하는 것으로, 장구잽이와 말을 주고받으면서 중을 놀리는 굿이다. 이 굿거리는 다른 지역의 중도둑잽이굿과도 성격이 상통하며, 중이 내려와서 복을 주고 축원하는 굿이므로 잔을 내리면서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빈다. 산이가 중의 복색을 하고서 잽이와 함께 재담을 하는 것은 탈춤의 노장 과장과도 성격이 상통한다.

뒷전은 산이 2명, 북잽이 1명 등이 어울려서 재담을 주고받을 뿐 아니라 재담 중간 중간에 장단이 구분되고 변화되는 소리를 하면서 연극적인 놀이를 전개하는 독창적인 굿거리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굿에 따라 수비들을 풀어먹이는 뒷전을 하면서 만신과 잽이가 재담과 소리를 주고받는 것이 확인되는데, 이 굿의 변형이 곧 뒷전이라고 할 수 있다.

뒷전은 먼저 깨끔으로 시작한다. 깨끔은 손굿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제의적인 씨름놀이다. 굿꾼은 붙박이로 있는 존재이고 깨끔꾼은 떠돌이로 돌아다니는 존재이다.

참고문헌 경기도 도당굿 무가의 현지 연구(김헌선, 집문당, 1996).
필자 김헌선(金憲宣)

계면

정의 서울 · 경기 지역 굿의 계면거리와 동해안 지역 굿의 계면굿에서 모셔지는 신.

내용 및 지역사례 동해안별신굿의 계면굿은 '걸립거리', '제면굿', '제민굿'이라고도 불린다. 계면굿의 신격은 계면할머니이다. 계면굿은 무당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를 밝히는 굿거리로, 여기서 계면할머니는 무조신(巫祖神)으로 표현되고 있다.

무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반집에 딸이 태어난다.(고귀한 신분) 며느리와 딸에게 신이 내린다.(영신과의 만남) 며느리나 딸을 집에서 내보낸다.(버림받음) 딸이 산중에서 살면서 공을 들인다.(시련의 극복) 딸이 혼인한다.(혼인) 아들과 딸을 낳는다.(자녀 출산) 며느리나 딸이 계면할머니가 된다.(신으로 좌정) 며느리와 딸이 삼농사를 짓는데 계면할머니가 딸을 편든다.(후계자 다툼) 계면할머니가 걸립을 다니며 단골을 가려서 축복과 저주를 내린다.(신유) 며느리가 개가죽 장구를 만들어 굿을 한다.(무구 제작과 후계자 선정)

무가의 연행이 끝난 후 계면놀이를 연행한다. 계면놀이는 사우놀이, 놋동우놀이, 계면떡 팔기 놀이, 논밭사기놀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우놀이는 굿을 맡은 주무가 거의 전적으로 놀이를 진행하면서 반주를 맡은 잽이를 상대역으로 삼아 말을 주고받기도 하고, 관중이나 제관들을 일시적인 상대역으로 삼아 놀이를 진행하기도 한다. 사우놀이는 걸립 할매의 시점이 1인칭으로 바뀌면서 '내가 몇 년 만에 이 마을 별신굿에 찾아왔는데 처녀 때 딸 일곱을 낳고, 시집가서 여섯을 더 낳아서 합하면 열 셋이며, 그다음에 딸을 시집보냈는데 사위를 찾는다'는 내용의 놀음이다. 사우놀이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자녀 생산은 무녀 스스로 신성성을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의적 측면에서 풍작을 가져오려는 주술종교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놋동우놀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면할머니가 왔다가 굿을 한 거리 해야지. 나는 이제 도가차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고 말한 후 제팔(자바라)을 마을 주민 머리 위에 얹어 놓고 군웅장수를 모시자라는 간단한 무가를 부른다. 그다음 제팔을 놋동우라고 하고 입에 문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에게 놋도 받으러 오라고 한다. 마을 주민들이 별비를 시주하고 나면 무녀는 입에 물고 있던 제팔을 입에서 뗀다. 놋동우놀이에서 군웅신을 모신 다음에 놋동우를 무는 것이 자녀들의 안녕을 빌고 신의 위력을 나타낸다는 점은 계면할머니가 자녀의 운명을 관장하는 현실적 기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어서 계면떡 팔기 놀이가 진행된다. 여기서 계면떡은 여러 종류의 씨앗으로 설명되며, 곡물의 씨는 식물의 알로 인식된다. 이러한 인식은 곡령(穀靈)이라는 관념을 파생시켜 재생, 부활, 생성력의 상징으로 나타난다. 계면떡놀이는 무당의 단골 구역에서 집집마다 자루를 메고 다니며 동냥할 때 감사의 표시로 약소하게 준비한 떡을 나누어주던 일차적 의미에서 벗어나 무조신인 계면할머니가 생명과 존재와 풍요를 관장하는 신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무녀가 계면떡을 담았던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왼쪽으로 두 바퀴, 오른쪽으로 두 바퀴를 돈 다음 땅에 바구니를 떨어뜨려서 바구니의 터진 부분이 위로 나오면 밭을 사고, 바구니의 불록한 부분이 위로 나오면 논을 사는 논밭 사고팔기 놀이도 이어진다. 논을 사든 밭을 사든 무녀는 마을 주민을 축원한 다음 연행을 종료한다. 〈계면본풀이〉에서 논과 밭을 사는 내용은 계면할머니의 생산신적 성격을 강화시켜 준다.

서울굿에서는 창부거리 다음에 계면거리를 한다. 현재 서울 지역에서 전승되는 굿이 본래의 것인지 의문이 있다. 즉 서울의 계면거리가 애초에 이러한 형태였는지에 관한 것이다. 기록이나 서울굿의 구대인의 말에 따르면 꼭 이러한 굿만은 아니었다고 전한다. 가령 창부거리 뒤에 말명굿이 있었는데 이 말명굿이 계면거리였을 가능성이 있다.

서울굿에서 계면거리의 신격은 계면각시이다. 계면거리에서는 만신이 남치마와 은하몽두리를 입고서 당악장단에 춤을 추며 계면공수를 한 다음 떡타령을 한다. 그리고 떡을 나누어 주고 계면노랫가락을 부르면서 연행을 마친다. 연행 절차는 본풀이 없이 놀이로만 이루어진다. 이 거리의 요점은 굿거리를 할 때 은하몽두리를 입거나 평복을 입고서 진행한다는 것과 모판에 떡을 들고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떡을 파는 행위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서울굿의 아주 유명한 떡타령을 한다. 일년 열두 달의 떡에 대한 타령인 떡타령은 실제 이상의 주술적인 생산력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떡타령은 요긴한 의미를 지닌다.

특이한 점은 "돌러를 왔소 돌러를 왔소 삼십칠관 돌러를 왔소"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 긴요한 것으로 결국 애동기자 애동만신이 처음에 내림굿을 하기 위해 돌아다니면서 시주걸립을 다닌 전례(前例)를 나타내면서 이들에 대한 당골판을 상기시키는 절차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떡타령에서는 걸립을 다닌 전례와 내림굿에서의 신어머니와 신딸 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서울굿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 강신무권의 내림굿을 이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동해안의 계면굿과 서울굿의 계면거리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은 결국 계면에 있다. 계면은 매우 다면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해된다. '계면'이라는 말은 여자 무당의 조상이거나 조령을 뜻한다. 이 말은 크게는 조상 또는 여자 무당의 만신몸주인 조령을 말하기도 하고, 작게는 대신말명으로 현존하는 무당의 영혼을 말하기도 한다.

걸립은 세습무당이 굿 또는 자신의 생활을 위하여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곡식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걸립행위를 동해안 별신굿에서는 '계면굿'의 연행과정에서 무가와 놀이로 형상화되어 나타난다. 세습무권에서 무당과 마을 사람들의 관계는 무당이 당골이 되고 마을 사람들이 신도가 된다.

또한 강신무의 경우 처음 무당이 되기 위한 직접적인 행동으로, 강신자(降神者)는 내림굿을 하기 전에 마을을 돌면서 각각 당골집을 정하러 다닌다. 흔히 당골집은 일곱 집이나 스물 한집 등 7의 배수를 정한다고 하지만 일정한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당골집을 방문해 공수를 주면서 신점을 쳐 주고 걸립하는 것을 '계면돌기', '계면놀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이때의 무녀를 '계면각시'라고 한다. 이는 서울굿에서 나타난다.

참고문헌 한국서사무가 연구(홍태한, 민속원, 2002), 제면굿 연구(김헌선, 미발표 논문).
필자 최성진(崔性鎭)

계면떡

정의 무당이 굿을 끝내고 구경꾼들에게 음복을 위하여 나누어 주는 떡.

내용 민속에서의 '계면돈다'는 무당이 집집마다 돌며 쌀이나 돈을 구걸하여 걸립(乞粒)하는 것을 뜻하고, '계면놀이'는 무당이 단골집이나 일반 가정을 상대로 계면돌며 하는 굿을 말한다. 1937년에 간행된 『조선무속의 연구』중 「오산열두거리(烏山十二祭次)」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면굿풀이가 있다.

"돌너가자 돌너가자, 성우님[姉巫女, 신형님]이 돌던 계면 아우님[妹巫女, 신아우]이 아니돌냐. 윗 동산에 벽오동 심엇드니 그 남기(나무) 점점 잘아(자라) 소부동[小不等, 조그마한 둥근 나무]이 되엿구나, 대부동[大不等, 커다란 둥근나무]이 되엿구나.
그 나무 비여 내여(베어서), 북 장고(장구) 맨들어 놋코
벽상(壁上, 바람벽의 위)에 심은 녹죽비(綠竹篦, 푸른 두 개의 대나무 쪽을 맞추어 만든 것)여 피리 졋대 히금 맨들어, 풍류를 갖추어 가지고 어신젼대[娛神錢袋・새젼賽錢・공미供米 등을 넣는 커다란 자루로, 걸립승乞粒僧의 두타頭陀자루에 해당됨]를 둘너 메고,
경상도 칠십일조, 가중(家中, 온 집안 또는 집안)마다 계면 돌고
젼라도 오십삼관, 가중마다 계면돌고
충쳥도 오십삼관, 가중마다 계면돌고
강원도 이십삼관, 골골이 계면돌고
함경도 이십사조, 골골이 계면돌고
평안도 사십이조, 골골이 계면돌고
황해도로 들어가서, 골골이 계면돌고
경긔도 삼십육관, 가중마다 계면돌고
대시루(장독대의 큰 시루) 열두 돌님(큰시루 주위를 열두 번 돎), 중시루(장독대의 중 시루) 일곱 돌님(중시루 주위를 일곱 번 돎), 소시루 다섯 돌님
삼색 실과 오색 탕, 가진(갖가지) 실과(實果, 과일) 다 차릴 제(때)
어동육서 좌포우혜, 홍동백서 찰여(차려) 놋코
가중마다 증중[庭中]마다
아들아기 나시면 은명가사(恩命嘉事, 임금이 내리는 경사)로 점지하고
싸님아기 나시면 은복가사(恩福嘉事)로 점지하고
부모는 쳔년수(千年壽)요, 자손은 만년수(萬年壽)라.
만복을 점지하시도록, 축원 정성 발원이외다.
수명장수 만대 유전, 덧덧 부귀하시기를 쳔만복 축발원이요
이 가중에 이 신사(神事) 지낸 후에
우환재난관재실물(憂患災難官災失物) 널리 널리 제살하고
안과태평(安過泰平)하시기를 하나님께 축수하나이다."

전국의 집안마다 무당이 걸립하여 이것으로 제물을 만들어 계면굿을 하면 우환과 재난이 없어짐은 물론 천년만년 장수하고 자손만대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면굿은 굿을 주재하는 집안과 굿당에 모인 사람들을 위하여 무당이 축원 정성 발원하는 제차이며, 이때에 음복으로 주는 떡이 바로 계면떡이다.

계면굿을 걸립굿 또는 제면굿이라고도 한다. 2007년에 영덕 구계리에서 행한 별신굿 과정 가운데 걸립굿이라 하면서 제면굿을 하였다. 삼재를 없애고 풍어와 자식들을 위하여 제면떡을 굿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짝수로 나누어 주어 음복하게 하면서, 제면떡을 걸립떡이라고도 하였다. 멥쌀로 만든 절편류인 제면떡을 걸립떡이라고 한 사실에서 계면떡, 걸립떡, 제면떡은 불교 걸립승의 영향에 의하여 생겨난 떡으로 생각된다.

1974년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서울 국사당에서 행하는 제석거리에서 제석은 수명장수・재복・풍작・기자(祈子)의 신이 되었다. 이 때에는 차와 더불어 멥쌀로 만든 절편류인 계면떡을 차렸으며, 창부거리가 끝날 무렵에 무당이 계면떡을 굿마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만일 떡을 짝수로 집었을 경우 신이 정성을 잘 받았음을 상징하고, 홀수로 집을 경우 신이 정성을 받지 않았음을 상징한다. 이처럼 짝수가 복을 가져다준다고 하는 관념이 2007년 경상북도 영덕군 구계리 별신굿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계면떡에 대한 관념은 지역과 시간을 초월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무속・불교・유교를 통해서본 식생활문화 및 그 의식절차에 대한 연구(김상보,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5), 영덕구계리 굿과 음악(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朝鮮巫俗の研究(赤松智城・秋葉隆, 大阪屋號書店, 東京 昭和13年).
필자 김상보(金尙寶)

고

정의 씻김굿에서 고풀이를 할 때 사용하는 무구. '고'는 기다란 천이나 줄을 둥글게 매듭짓는 것을 말한다. 고싸움의 '고'나, 옷고름의 '고름'이 비슷한 용례라고 할 수 있다.

형태 한 필 정도 길이의 베를 둥글게 매듭지어 만든다. 보통 7매듭 또는 9매듭으로 묶는다. 고는 쉽게 풀 수 있도록 홀매를 매지 않는다. 흰색 무명베를 주로 사용하지만, 경우에 따라 노란색이나 검은색 삼베를 쓰기도 한다. 대상이나 종류에 따라 매듭이 달라지기도 한다. 전북의 전금순 무녀는 고를 세분화해서 파악하고 있다. 전씨는, 남자 조상의 고는 12매듭을 묶고, 여자 조상은 9매듭을 묶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성주고와 제석고는 12고, 열시왕고는 10고, 당산고는 9고, 조왕고는 8고, 칠성고는 7고, 천룡고는 7고를 맨다. 조왕고의 경우, 조왕이 팔만 사천 명에 이른다고 하여 앞 숫자를 따서 여덟 매듭을 묶는다고 하며, 칠성은 명칭 자체에서 이유를 찾고, 천룡신은 칠성신과 관련 있는 존재이므로 마찬가지로 일곱 매듭을 묶는다고 말한다.

내용 고는 전라도와 충청도 등지에서 고를 맺어 푸는 의식에서 사용된다. 전남 지역 씻김굿에는 고풀이라는 독립된 절차가 있지만, 전북 등지에서는 독립된 절차 대신 굿거리가 끝날 때마다 끝부분에서 고를 풀어준다. 고풀이는 무녀가 무가를 부르며 망자의 맺힌 고를 풀며 우환근심 없이 저승으로 갈 수 있기를 기원하는 거리다. 무녀는 고 끝을 쥐고 무가를 부르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간다. 둥근 매듭은 이승에서 풀지 못한 한의 표시다. 한이 맺혀 있으면 이승을 떠나 저승에 갈 수 없다고 여긴다. 그래서 굿에서는 그것을 하나하나 풀며 원혼을 달랜다. 그래야만 극락왕생 할 수 있다고 여긴다. 고를 풀고 나면 다시 고를 만들어 풀기를 반복한다. 망자 영혼의 수만큼 맺고 풀기를 반복한다.

무당들은 고를 '苦'라고 해석한다. 진도 채정례 무녀의 고풀이 무가에는 저승고, 산신(山神)고, 원한(怨恨)고, 해원(解寃)고가 나오며, 이 밖에 거리중천고・황천시왕고 등이 거론된다. 무녀들은 고가 잘 풀려야 좋다고 여긴다. 만약 풀리지 않은 고가 있으면 망자가 이렇게 맺힌 데가 있어서 집안에 우환이 든다는 식으로 가정의 불행을 풀이한다. 고풀이에서 사용된 고는 길닦음에서 '질베'로 사용된다. 고풀이에서는 이승의 맺힌 한이 매듭지어진 '고'이지만, 그것이 풀린 후 베는 길닦음에서 '길'이 된다. 이승의 원한이 풀리면 그로 인해 극락

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

고와 고풀이는 세습무굿의 상징성을 잘 보여준다. 강신무굿에서는 무당의 입을 빌려 직접적으로 한풀이를 한다. 그러나 전라도굿에서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이승에서 맺힌 삶의 응어리를 고로 매듭지었다가 무녀가 아름답고 단순한 춤을 추면서 그 고를 풀어간다. 맺힌 고가 하나씩 풀려가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망자가 이승의 결박에서 풀려 자유로워지는 과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고풀이는 가장 절제되고 예술적으로 형상화된 한풀이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인의 굿과 무당(황루시, 문음사, 1988), 씻김굿(이경엽, 한얼미디어, 2004),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전라남도 · 전라북도 · 제주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필자 이경엽(李京燁)

고동화

정의 동해안별신굿에서 사용되는 지화.

형태 고동화는 담배 말듯이 둥글게 말아서 만든다. 고동화는 꽃심이 있는 고동화와 외도래 고동화가 있다. 꽃심이 있는 고동화는 실제 꽃의 암술머리와 암술대에 해당하는 꽃심이 있다. 외도래 고동화는 꽃심 없이 만든 것이다. 고동화는 꽃잎이 고동처럼 둥글게 말려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고동화라고 불린다.

외도래 고동화의 색깔은 정해진 것이 없다. 옆의 꽃 색깔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외도래 고동화의 색을 정한다. 하지만 주황색인 경우가 많다. 꽃심이 없고 반구형이며 꽃받침이 있다. 꽃심이 있는 고동화도 정해진 색깔은 없다. 외도래 고동화처럼 주변의 색깔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화지의 색깔을 정한다. 하지만 노란색인 경우가 많다. 실제 꽃의 암술대와 암술머리와 같은 꽃심이 있는데 위가 잘린 원뿔 모양을 하고 있으며 꽃받침이 있다.

내용 고동화는 둥글게 생긴 종이를 바깥에서 원 중심쪽으로 가위질로 8등분한 다음 이것을 고동처럼 둥글게 말아서 만든 꽃이다. 고동화는 10가지 도래판에 따라 오려진 20장의 얇은 화지는 각 지화마다의 형상을 갖춘 다음 화지 한 장씩 꽃목대에 끼워져 전체적 형상을 갖추게 된다. 이때 꽃잎들은 무성하게 위로 솟게 하며 꽃을 세워 늘어뜨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 화지 4장 정도마다 '가락지'라는 것을 끼운다. 가락지는 원래 한지를 노끈처럼 말아서 사용했는데 요즘은 빨대를 1㎝ 정도 길이로 잘라 끼운다.

지화를 꽂는 삽화법(揷花法)은 크게 네 가지다. 지화를 꽂는 받침은 모래를 넣은 단지나 화분을 사용하다가 요즘은 플라스틱 화분을 주로 쓴다. 삽화되는 숫자는 굿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꽃을 꽂는 방법은 12송이의 경우 2-3-4-3, 16송이는 3-4-5-4, 20송이는 4-5-6-5, 31송이는 6-7-5-4-3 등이 있는데 마을굿에는 주로 16송이 꽂는 방법을 쓰고 개인굿에는 12송이 꽂는 방법을 쓴다.

참고문헌 한국의 민속지화에 관한 연구(강신영,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한국지화에 관한 연구 2–김석출씨의 기법을 중심으로(김태연, 산업기술연구, 대구대학교산업기술연구소, 1985), 한국전통지화에 관한 연구(박기복,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한국무가집 4(김태곤 편, 집문당, 1992), 무화연구 1(김태연, 한국무속학 3, 한국무속학회, 2001), 서울굿 신화 연구(양종승 · 최진아, 한국무속학 4, 한국무속학회, 2002), 지화 연구(김명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동해안별신굿 지화 연구 1(심상교, 한국무속학 6, 한국무속학회, 2003).


1


2


3


4

1. 고동화–외도래
2. 고동화–외도래(근접)
3. 고동화
4. 고동화(근접)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학리 | 2005.3.4 | 심상교

고리동반
제주시 조천읍 소재 굿당 | 2006.3.2 | 강정식

필자 심상교(沈相敎)

고드개무당

정의 함경도 무속 현장에서 쓰이는 용어로서 내림굿을 받고 얼마 되지 않은 새 무당.

내용 새 무당은 신어머니 문하에 있으면서 굿일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배운다. 그러면서 고드개 무당은 신어머니가 굿을 하게 되면 이일 저일 등을 보조하고 굿일을 도우면서 굿 문서를 터득하게 된다. 고드개 무당은 무업을 독립할 때까지 신어머니에게 매여 있으면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 기간은 무당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이 넘게 소요된다.

참고문헌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함경남도편(문화재관리국, 1981).
필자 양종승(梁鍾承)

고리동반

정의 둥글납작한 떡 위에 방울 모양의 떡 일곱 개를 놓아 댓가지로 얽어매고 창살 모양의 백지로 감싼 것.

내용 심방의 말명에서는 '고리동벽', '고리안동벽'. '고리신동벽' 등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달리 '심방떡'이라고도 한다. 고리동반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지만 유래는 〈이공본풀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인장제에게 피살되어 청대 숲에 내던져진 원강아미의 시신에 대나무 뿌리가 얽혔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굿에서는 이러한 유래가 고리동반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고리동반은 벙것떡, 방울떡, 너울지, 댓잎 등으로 이루어진다. 벙것떡은 손바닥 크기의 둥글고 넓적한 떡이다. '벙것'은 벙거지의 제주 방언이다. 벙것떡은 모양이 벙거지와 같은 데서 비롯된 말임을 알 수 있다. 달리 번개떡, 방석떡이라고도 한다. 번개떡은 벙것떡의 와전이고, 방석떡은 쓰임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방울떡은 계란 모양으로 빚은 떡이다. 너울지는 백지에 마름모꼴의 구멍을 여럿 낸 것이다.

고리동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모양을 만든다. 먼저 쟁반에 벙것떡을 깔아놓는다. 그 위에 방울떡 여섯 개를 고루 배치한다. 방울떡마다 댓잎을 꽂고 옆의 댓잎과 얽어 전체적으로 둥글게 얽어맨다. 전체를 너울지로 감싼다. 여기에 방울떡 하나를 가운데 올려놓는다. 맨 위의 방울떡에 댓잎을 꽂아 마무리한다. 댓잎 대신 동백가지를 꽂기도 한다.

고리동반은 제주굿에서 의례성이 가장 강한 제물이다. 굿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중요한 위치에 올려둔다. 굿이 끝나면 심방과 본주가 나누어 가진다. 심방에게는 무업의 번창, 본주에게는 자손의 번성을 각각 이루어주는 것으로 관념된다.

고리동반은 굿의 규모에 따라 필요한 수량이 다르다. 사갓집의 중당클 굿에서는 1개, 4당클 굿에서는 2개를 각각 올리고 심방집의 4당클 굿에서는 4개를 올린다. 초감제를 할 때는 초감제상의 양쪽에 고리동반을 올려두었다가 〈천지왕본풀이〉를 구송하면서 소별왕이 몰래 꽃을 바꾸는 대목에 이르면 소미가 고리동반을 서로 바꾸어 놓는다. 이 밖에도 제차에 따라 고리동반을 주요 제상으로 옮겨 놓는다. 굿을 하는 동안 공싯상에 올려두었다가 굿이 끝날 때쯤 풀어낸다. 이를 '고리동반풂'이라고 한다. 풀어낸 벙것떡은 둘로 나누

어 한 쪽은 '큰심방'(首巫)이 가지고 가고 다른 한 쪽은 '본주'[祈主]가 가지고 간다. 심방은 벙것떡을 집에 가지고 가서 당주에 올린다.

방울떡은 기주로 하여금 치마를 펼쳐 받게 하고, 심방이 설쒜(꽹과리) 받침으로 쓰는 체에 담아 몇 차례 흔든 다음 던져 준다. 굿하는 집의 여주인이 방울떡을 먹어야 그 자손이 번성하게 된다고 믿는다. 이렇게 오래된 떡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떡의 재료가 본래는 메밀가루였기 때문이다. 메밀로 만들면 오래 두어도 쉽사리 상하거나 곰팡이가 슬지 않는다. 그러나 요즘은 방울떡을 쌀로 만들기 때문에 굿을 하는 동안 변질되어 실제로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고리동반의 특징은 제물과 장식물의 기능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것이고 지역에 따라 방울떡의 수가 달랐다고 한다. 대정지역에서는 방울떡이 12개에 이른다. 이것은 원강아미의 열두 뻬(뼈)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 고리동반은 굿이 끝난 뒤에도 심방의 당주와 기주를 연결하는 고리 구실을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굿에서 고리동반이 쓰이기는 하지만 고리동반풂과 같은 의례는 생략되기 일쑤이다. 고리동반풂에 따른 말명을 아는 심방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필자 강정식(姜晶植)

고리짝

정의 버드나무 가지를 엮어서 만든 납작한 상자로 옷이나 책을 담는데 쓰며 '동고리'라고도 한다. 주로 서울 지역의 작은 굿에서 고리짝의 등쪽을 오동나무 채로 긁어 장구대신 사용한다. 타원형 혹은 직사각형의 형태가 있으며, 근래에는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를 사용하기도 한다.

형태 무속에서 사용하는 고리짝은 보통 높이가 9.5~13㎝, 지름이 30~48㎝ 정도이며, 바구니 모양으로 원형 · 타원형 · 직사각형이 있다. 고리짝을 긁는 채는 보통 오동나무를 쓰는데 길이가 30~40㎝ 정도이다.





고리짝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지름 41.5㎝, 높이 13㎝ |
광복이후

고리짝 긁는 이상순 (혼인예담 앉은굿)
서울시 혜화동 이상순 자택 |
2006.11.7 | 시지은

내용 서울 지역의 무속에서 주로 장사(葬事)나 삼우제, 진오귀 등 앉아서 하는 굿인 진자리와 치성을 드릴 때 사용한다. 한 손으로 고리짝을 엎어서 받치고 한 손으로 고리짝 바닥을 긁으며 무가(巫歌)를 부르는데, 그 까칠까칠한 소리가 넋을 달래거나, 악귀를 퇴치하고 신령을 부른다고 믿는다. 고리짝 대신 키[箕]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무당이 장구를 치지 않고 고리짝을 긁으면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는데 이것을 '고리짝 풍류'라고 부른다.

무악(巫樂)에 고리짝을 사용하게 된 것은 갑오개혁(甲午改革) 무렵에 사람들 모르게 무사(巫事)를 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보다 훨씬 이전의 원시적인 무악(巫樂)을 배제할 수 없다.

고리짝은 주로 서울 지역 무속에서 사용한다. 서울 봉화산 도당굿의 신위행, 서울새남굿의 이상순, 남이장군당의 이명옥, 왕십리 아기씨당의 김옥렴 등이 고리짝을 가지고 있으며 작은 굿에 사용하고 있다. 강화도외포리곶창굿의 정정애도 고리짝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진자리에서 사용한다고 한다.

참고문헌 조선무속의 연구(赤松智城 · 秋葉隆, 심우성 옮김, 동문선, 1991),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서울시 · 경기도 · 강원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서울굿의 무구 연구(최진아, 서울굿의 이해, 한국무속학회, 민속원, 2007), 서울, 경기북부 지역 한양굿(서마리아, 민속악 논문집 7, 국립민속국악원, 2007).
필자 시지은(施知恩)

고사반(告祀盤)

정의 걸립굿을 거행할 때 걸립패에게 대접할 물건을 차려 놓은 상 혹은 그러한 절차. 상 위에 쌀 · 돈 · 무명실 타래 따위를 올려놓으면 걸립패는 그 집에서 지신밟기로 풍요와 행복을 빌어준다. 굿판에서 고사반은 굿판에 모인 단골들의 한 해 동안의 복을 빌기 위한 연례행사라는 광의의 의미를 지닌다.

내용 걸립패는 고사반을 거행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대개 한 해의 액을 막아주는 액맥이타령을 부른다. 액맥이타령은 2소박 4박(4/4박자) 장단에 얹어 부른다.

정월달에 드는 액은 / 정월이라 대보름날 / 액맥이 연으로 날려보내고
이월달에 드는 액은 / 이월이라 초하루닫이 / 쥐불놀이로 태워버리네
삼월달에 드는 액은 / 삼월이라 삼짇날 / 화전놀이로 막아내고
사월달에 드는 액은 / 사월이라 초파일에 / 연등놀이로 막아내누나
오월달에 드는 액은 / 오월이라 단오날에 / 그네줄로 묶어내고
유월달에 드는 액은 / 유월이라 유두날에 / 비강천등으로 몰아내누나
칠월달에 드는 액은 / 칠월이라 칠석날에 / 견우직녀로 막아내고
팔월달에 드는 액은 / 팔월이라 한가위날 / 송편속에다 꾸려내누나
구월달에 드는 액은 / 구월이라 구일날에 / 비만머리로 막아내고
시월이라 드는 액은 / 시월이라 상달인데 / 고사반으로 막아내누나
동짓달에 드는 액은 / 동짓달이라 동짓날 / 동지 팥죽으로 막아내고
섣달이라 드는 액은 / 섣달이라 그믐날에 / 가래 흰떡으로 막아내누나
일년허구두 열두달 / 삼백허구두 육십오일 /
다달이 드는 액은 / 나날이 다 막았으니 /
내내 신수들 대길허리라

황해도굿에서는 무당이 작두를 타는 비수작두거리에서 고사반을 연행한다. 무당은 작두를 타고 내려와 굿판에 있는 단골들의 복을 기원하는 고사반을 연행한다. 무당은 한 손에 생쌀을 가득 담은 공기를 위아래로 휘둘러 넘긴다. 이를 고사반 넘김이라고 한다. 이때 공기의 쌀이 한 톨도 떨어지지 않아야 단골들에게 복이 내린다고 한다. 고사반을 넘긴 후에 무당이 제관이나 단골에게 쌀산을 준다. 이는 쌀알을 집어서 점을 쳐주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황해도 굿의 음악인류학(이용식, 집문당, 2005), 한국음악의 뿌리, 팔도 굿음악(이용식,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9).
필자 이용식(李庸植)

고삼

정의 동해안 지역 굿의 고삼염불에 쓰이는 장단. 원래 고삼무가는 동해안 지역에서 쓰이던 것이 아니라 살풀이문화권에서 부르던 고산염불(高山念佛)이 동해안으로 유입되면서 부르게 된 무가이다.

내용 고삼염불은 특정 거리에서 쓰이는 것은 아니라 무녀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부른다. 대개 거무춤을 춘 후 부른다. 경남 지역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축원굿이나 놀음굿을 할 때도 사용한다. 장단의 구조는 조금 빠른 듯한 중모리장단(12/4박자)에 3/4박자를 더한 구조(15/4박자)이다. 이때 뒤를 막고 3소박에 한두 번씩 리듬을 친다.

참고문헌 동해안별신굿(장휘주, 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경남 · 경북 동해안 무악 비교 연구(장휘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필자 이영선(李英仙)

고풀이

정의 망자(亡者)가 순탄하게 저승길로 가도록 비는

전라도 지역 씻김굿의 한 과정.

내용 우리나라에서는 죽음을 부정한 것으로 보고 죽은 자의 영혼이 살아있는 자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시신을 결박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러한 시신을 묶은 매듭을 '고'라고 한다. '고'는 이승에서 풀지 못한 원한을 의미하며, 고풀이는 매듭을 기둥에 묶어 놓았다가 하나씩 풀어가면서 영혼을 달래주는 대목의 굿을 말한다. 또한 '고'는 매듭을 풀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한 가닥을 고리 모양으로 잡아 뺀 것을 말하는 순우리말이다. 이는 '인고'의 옛말이기도 하며, '괴로움'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고풀이'의 '고'는 이 세 가지 의미를 모두 상징한다.

고풀이는 씻김의 종류에 따라 의례를 행하는 형태가 약간씩 다르다. 우선 고를 묶기 위한 질베가 필요하며, 이때 망자를 씻기기 위한 준비를 해둔다. 관머리 위에서 씻길 경우에는 관 위에 망자의 옷을 놓고, 영돈을 말 경우에는 돗자리 위에 망자의 옷을 차례대로 놓는다. 망자의 옷은 생존 시 입었던 것과 같이 차례대로 관 혹은 돗자리 위에 올리며, 속옷과 양말은 새것으로 준비하고 겉옷은 생존 시에 입던 옷을 준비한다. 그리고 망자의 넋과 돈을 놓는다. 마당 한쪽에 긴 대나무 기둥을 세워놓고 그 대나무에 하얀 무명천이나 베로 6m~7m 정도 묶어 늘어뜨린 매듭을 만들어 여무(女巫)가 다른 한쪽 끝을 잡아 당겨 춤사위를 추면서 풀어나간다. 여무는 천 끝을 쥐어 높이 들어 올렸다가 내려 당긴다. 매듭지어진 고를 풀기 위해 한 팔이나 양팔로 천을 쳐서 올리거나 힘있게 휘돌려 고를 풀리게 한다. 여무는 한 매듭을 풀 때 마다 무가(巫歌)와 축원을 곁들이며 고가 다 풀리면 두 손을 받쳐 들고 어른다. 이는 죽은 영혼이 살아 있을 때 맺혀있던 원한이나 한을 매듭을 풀 때마다 함께 풀어주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무가를 고(苦)의 이름만 바꾸어 일곱 번 반복한다. 이때 어느 한 고가 풀리지 않으면 그것이 망자의 넋이 엉긴 곳을 지시한다고 믿고 무녀는 다시 그 고를 새롭게 풀어준다. 이러한 절차는 죽은 자를 망령의 상태에서 깨끗한 존재, 저승에 안주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로 부활시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고풀이에서는 망자의 한을 풀어주는 지전춤과 고풀이춤이 있다. 고풀이베를 들고 추는 고풀이춤은 겁을 푸는 고풀이에서 액막이로 추는 것으로 진혼(鎭魂)과 오신(娛神)적 제의 기능이 있다. 또한 질베를 들고 추는 지전춤은 망자의 넋을 목욕시키는 제의적 기능을 하는 춤이다. 두 가지 모두 고풀이에 속하며, 흰 천으로 '고'를 일곱 개 정도 매어주고 살풀이로 넘어가면서 '고'를 푼다. 이 의식은 사령(死靈)이 묶여 있는 상태에 그치지 않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탈피할 수 있다는 관념을 잘 나타내고 있다. 사자가 고풀이를 통해 원한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재생, 즉 신으로 환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풀이는 생사(生死)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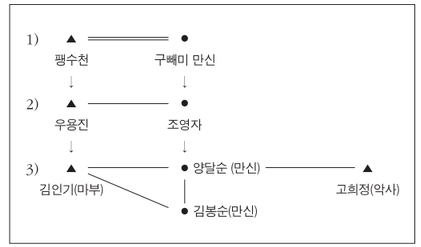
참고문헌 한국무용사(송수남, 도서출판 금광, 1988), 한국의 전통춤(정병호, 집문당, 1999), 한국 무용민속학 개론(이병옥, 도서출판 노리, 2005), 진도 씻김굿의 무무에 관한 연구(이명실,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살풀이춤과 무속 연관성 연구(이유나,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공연예술적 측면에서 본 진도 씻김굿 연구(금나연,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전북지역 무당굿의 전반적 성격과 공연학적 특성(이영금, 공연문화연구, 2005).
필자 차수정(車수정)

고희정

분야 중요무형문화재 제70호 양주소놀이굿의 악사 보유자.

내용 1921년에 태어나 2005년에 숨진 고희정(高熙貞, 남)은 중요무형문화재 제70호 양주소놀이굿의 악사 보유자였다. 고희정의 선대는 동두천에서 세거했으나 고희정은 아버지와 함께 경기도 양주군(현재 양주시) 남면 경신리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정착하였다. 고희정이 양주소놀이굿의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까지에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였다. 고희정은 음감이 탁월하여 어려서부터 노래와 풀피리, 버들피리 등에 아주 능하였으며, 이른 시기부터 굿판의 악사로 참여할 수 있었다. 여러 만신과 더불어 굿을 할 때 악사로 참여하면서 잽이 노릇을 하였다.

고희정이 소놀이굿의 악사로 등장함에 있어서는 구조적인 변화의 단계를 거쳤다. 일제시대부터 양주에서 전승한 소놀이굿에서는 악사로 등장하는 과정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를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1)은 소놀이굿의 마부로 이름이 높았던 팽수천과 구빼미 만신의 세대이다. 굿도 잘하고 소놀이굿을 가장 완벽하게 놀면서 마부놀이와 제석무녀 구실을 잘한 쪽이 바로 이 세대이다. 2)는 다음 세대이다. 우용진과 조영자가 결합하면서 소놀이굿의 실제적인 주도자가 되었다. 조영자는 별명이 따로이 있었는데, 이 무녀는 방울처럼 작아서 방울만신이라고 하였다. 3)이 다음 세대이다. 김인기는 달리 김순천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으며, 양달순과 김봉순의 두 무녀가 여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소놀이굿을 이끌어갔다. 이 과정에서 고희정은 피리를 부는 악사로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소놀이굿판에 들어오게 되었다. 셋째 세대에 이르면서 악사의 중요성이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고희정의 참여가 두드러지는 점을 알 수 있다.

고희정은 양주소놀이굿의 보유자가 되면서 소놀이굿을 주관하는 일련의 악사 노릇을 하였다. 굿을 하는 틈틈이 양주소놀이굿 이외에도 여러 굿에 악사로 참여하면서 소놀이굿 전승에 힘을 기울였음이 확인된다. 이처럼 고희정은 신명도 있고 놀이도 하면서 양주소놀이굿 전승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

참고문헌 양주소놀이굿-한국민속논고(이두현, 학연사, 1984), 양주소놀이굿(김헌선, 화산문화, 2001).
필자 김헌선(金憲宣)

골맥이

정의 마을굿이나 동제(洞祭)를 지낼 때 풍년 · 풍어나 제액(除厄)을 기원하는 마을의 수호신.

어원 어원적으로는 '골(谷)'과 '액운을 막다', '마을을 수호하다'라는 뜻을 지닌 '막다'가 전성된 명사인 '막이'가 결합된 형태이다. '맥이'는 '막이'의 한글 모음의 'ㅣ(이)'모음이 역행동화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내용 '골매기', '골맥이 서낭', '골맥이 할배'라고도 하는 골맥이는 주로 경상도의 마을에서 보편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골맥이는 마을굿에서도 신앙의 대상이 되지만 동해안 지방에서는 각 마을의 신으로서 동제의 대상신이 되고 있다.

골맥이신은 마을의 입향시조(入鄕始祖)나 창건자로서 마을을 처음으로 가꾸었고, 죽어서는 마을의 수호신이 된 존재이다. 그래서 김씨 할배, 이씨 할매 등으로 성이 붙어 인격신의 형태를 띤다. 여기서 할배나 할매는 조부(祖父)나 조모(祖母)라는 뜻이 아니라 조상이라는 의미이다. 골맥이신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마을 사람들은 대체로 나무, 바위, 당집 등에 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모시고 있다. 골맥이신은 마을에 따라 여러 명이기도 하여 웃당(상당)과 아랫당(하당) 또는 중당이 있는 마을도 있다. 포항 지역에는 웃당이 주로 소나무이다. 이곳에서는 매년 동제나 별신굿을 지낼 때 마을 안에 새로운 소나무 가지로 만든 아랫당을 만들기도 한다. 이는 마을신의 생생력을 높이는 행위로 보인다.

불상한 금일 近者 어느 꿈에 맺었는가
성주고에 맺었는가
· · · · · · (중략) · · · · · ·
고고에 맺힌 고를 설서리나 풀어보세
성주고에 맺었으며 성주님이 감동하사 설서리나 풀어보세





골맥이 서낭당
국립민속박물관

별신굿에서는 언제나 굿당을 깨끗하게 하는 '부정굿'을 한 다음에 '청좌굿'을 진행한다. 골맥이를 모시는 굿은 이 굿거리부터 시작된다. 청좌굿을 무당들은 '골맥이 청좌굿'이라고도 부른다. 청좌굿은 마을 당신(堂神)인 골맥이를 굿당에 맞이하는 굿거리이며, 부정굿과 함께 별신굿 전체의 시작 부분에 해당한다. 즉 별신굿 전체를 청신(請神), 오신(娛神), 송신(送神)으로 구분할 때 청신 부분에 해당하는 지극히 양식화된 제의과정이다.

청좌굿의 무가는 주로 여러 서사무가를 축약한 구송과 축원 등 교술(敎述)무가가 뒤섞여서 이루어져 있다. 무악(巫樂)이 울리면 주무는 쾌자를 걸쳐 입고 푸너리춤과 무가를 번갈아 가며 연행한다. 무가를 부르는 중간 중간에 대사조로 말을 하면서 호흡을 조절하기도 한다. 양중들은 바라지를 하며 무녀의 가창에 흥을 돋운다. 무녀는 제물대(祭物臺)에 절하고 술을 올리고는 빠른 장단의 춤을 춘 후 무가를 계속한다. 그리고 무가를 잠시 멈춘 후 대구포를 들고 신칼을 휘두르며 포(鮑)춤을 추다가 제주(祭主)를 앉히고는 대구포로 제주의 등을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한다. 이어 사설로 주민들의 정성이 부족함을 나무라지만 곧이어 주민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복을 주겠다고 하면서 축원을 한다. 축원을 마치고 나면 제단 위에 있는 술을 한 잔 부어서 제주에게 주고 음복 값을 받는다.

다음에 이어지는 '당맞이굿'은 골맥이가 있는 당나무나 당집 등지로 가서 골맥이를 내림대에 내려서 굿당으로 모시고 오는 굿거리이다. 골맥이를 굿당에 모셔 놓은 후부터 굿거리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별신굿이 벌어지는 굿당에 모셔진 골맥이는 별신굿이 끝나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참고문헌 한국민속대사전 1(민족문화사, 1991), 동신당(김태곤, 민속원, 1999), 한국의 굿(하효길 외, 민속원, 2002), 한국민속문화대사전상(김용덕, 창솔, 2004).

필자 이균옥(李均玉)

공수

정의 강신무가 모시는 신령이 굿을 진행하거나 점사를 풀어보는 과정에서 무당을 통해 인간에게 내리는 신탁 중 말로 이루어진 부분을 가리키는 용어.

내용 강신무는 굿을 연행하거나 점사를 풀어보는 절차 등 모든 과정에서 신령의 뜻을 인간에게 풀어서 전달한다. 신령의 뜻을 풀어서 전달하는 방법은 말, 동작, 춤, 무구 활용 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 무당에게 내린 신령이 무당을 통하여 신도들에게 직접 말로 뜻을 전달하는 것을 공수라 한다. 따라서 신내림 현상이 없는 세습무에게는 공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무당들은 자신의 몸에 들어온 신령이 곧장 말로 인간에게 뜻을 전달한다고 하지만 경력이 오래된 무당들은 신령의 말을 인간의 말로 바꾸어 전달한다. 공수가 직접 신이 내린 말씀인지, 신의 뜻을 인간이 풀어서 전달하는 것인지는 단정지을 수 없지만 두 가지 성격이 복합적으로 존재한다.

강신무가 신과 인간의 중간적인 존재라고 했을 때 인간의 기원 내용을 신에게 전달하고, 그에 대한 신의 답을 다시 인간에게 전달하는 것이 무속의례로서, 무당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신의 말씀이 공수가 된다. 따라서 공수의 내용은 인간사 전체를 포함하며, 한국 무속에서 받들어지는 신령이라면 무당에게 강신하여 공수를 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 무속의례의 핵심적인 내용이 공수에 들어 있으며, 공수를 통해 무속의례의 목적이 달성된다.

입무한 지 오래되지 않은 무당들은 신의 부림을 강하게 받아 입에서 나오는 대로 공수를 주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분란이 벌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무업에 종사하는 연륜이 오래된 무당의 경우 인간이 신을 부려서 필요한 것만 골라 '빼낸다'고 하여 공수의 내용은 무당의 경력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신도가 원하는 내용을 직설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어린 무당의 공수라면, 부드럽고 완곡한 표현으로 바꾸어 전달하는 것은 경력 많은 무당의 공수이다. 따라서 무당들은 공수 표현 방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 신도들의 특성, 굿판의 분위기, 굿의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한 공수를 내린다. 공수는 신령의 뜻을 무당이 전달하지만, 신령의 의지보다 무당의 의지에 좌우된다. "영검은 신령이 주지만 재주는 인간이 배운다."라는 서울 지역 무당들의 말에 공수를 조절하여 전달하는 무당의 능력이 중요함이 드러난다.

서울 지역의 강신무 공수는 공식적인 표현과 개별적인 표현으로 구성된다. 공식적인 표현은 모든 굿거리나 점사에서 들을 수 있는 것으로 관용구를 적극 활용한다. 서울굿에서는 신령이 들어오게 되면 "우엿구자 양반대감 아니시리"라는 표현처럼 자신의 정체를 먼저 밝힌다. 그런 다음에 재가집이 기원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 공수가 이어진다. 공식적인 표현에서 신령의 정체를 밝히고 그 신령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려준 다음에 재가집이 듣고자하는 개별공수를 내린다. 조상거리에서 자손들을 부를 때 "금같은 내 자손아 은같은 내 자손아"라는 관용구, 하는 일마다 잘되고 모든 사람들이 잘 받들어 줄 것이라는 내용을 "가지마다 꽃이 피고 잎잎이 번성하여 천인에 꽃이 되고 만인의 잎이 되게 받들어 주시마"라고 하는 관용구가 공식적인 표현의 예들이다. 이러한 공식적인 표현은 굿의 종류와 관계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개별적인 표현은 굿판의 특성과 재가집의 요청 사항에 따라 달라진다. 망자천도굿이라면 '망자가 저승에 잘 간다'는 내용이, 재수굿이라면 '명과 복을 많이 받아 하는 일이 잘 풀린다'라는 내용이 재가집의 특별한 사정에 맞추어 전개된다.

황해도 지역의 강신무들은 공수를 긴공수, 서린공수, 허리공수, 흘림공수로 구분하기도 한다. 긴공수는 굿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수를 해야 한다고 정해진 곳에서 하는 공수로 일종의 공식적인 공수이다.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설이 길다. 이때 사설을 줄여 간단하게 주는 것을 서린공수라고 한다. 긴공수가 한 사람의 신도를 위해 주는 공수여서 내용이 길다면 서린공수는 여러 신도들에게 번갈아 공수를 주기 때문에 내용이 짧다. 허리공수는 굿을 진행하는 중간에 춤을 추다가 불쑥 튀어나오는 공수로 격식을 갖춘 것이라기보다는 내용의 영검성에 초점을 맞춘다. 흘림공수는 굿이 거의 끝날 무렵에 신도에게 지시하는 내용으로 굿의 효험을 보기 위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할 것을 알려준다.

이러한 공수는 강신무의 영검성을 나타내 신도들에게 굿의 효험을 믿게 하는 역할을 한다. 예술성보다 영검성에 초점을 맞추는 강신무굿에서는 공수가 핵심이다. 신도들은 이러한 공수를 통해 신령으로부터 직접 답을 받았기 때문에 굿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여겨 만족도가 높아진다. 최근에는 공수가 굿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져서 악사 없이 굿을 진행하면서 음악적

요소를 줄이고 공수를 전면에 내세우는 형식의 굿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공수가 굿의 핵심이다 보니 공수가 굿의 전부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한국무속연구(김태곤, 집문당, 1980), 한국의 무속-서울 황해도편(양종승, 국립민속박물관, 1999), 한국의 무가 1(홍태한, 민속원, 2004).
필자 홍태한(洪泰漢)

공싯상

정의 제주도 굿에서 심방의 무조신(巫祖神)을 위해 차려 놓는 것으로, 굿을 할 때 심방의 무구를 올려 놓는 상.

내용 공싯상은 제주도 굿에서 심방의 무조신을 위해 차리는 상이다. 제주도에서 행해지는 모든 굿에서 차려진다. 굿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축원을 드리는 신에 대한 제물이 진설되고, 그 앞으로 비교적 크기가 작은 상에다 무조신을 위한 공싯상을 따로 차려 놓는다.

무조신에 대한 내력은 '초공본풀이'에 잘 나와 있다. 무조신은 심방의 조상이며, '멩두(明刀)'라는 무구로 표상된다. 멩두는 '신칼'과 '산판(천문, 상잔, 산대)', '요령'을 말한다. '삼멩두', '일월삼멩두'라고도 부른다. 제주도 굿에서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무구이다. 심방은 단골의 의뢰를 받으면 자신의 당주에서 조상인 멩두를 들고 굿을 하러 간다. 당주에서 모시고 온 멩두는 굿당의 공싯상에 놓인다. 말하자면 '공시'는 이 멩두를 뜻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모신 것이기에 공싯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공싯상은 '공신상(恭神床)'이라고 이해하기도 한다.

공싯상에 올려 두는 무구는 멩두와 바랑이다. 심방은 굿을 진행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이 무구를 가져다가 사용하고 끝나면 다시 공싯상에 올려놓는다. 이 밖에도 공싯상에 올리는 제물로는 사발시루떡, 돌래떡, 계란, 구운 생선, 과일(사과, 배, 귤), 비자, 대추, 곶감, 밤, 술, 제비쌀 등이 있다.

한편 심방이 스스로 본주가 되어 하는 심방집굿에서는 공싯상이 2개 차려진다. 즉 '안공싯상'과 '밧공시상'이다. 굿을 하러 온 심방뿐 아니라 본주도 심방이기 때문이다. 이때 본주 심방의 조상은 안공싯상에 모신다. 밧공싯상은 굿을 맡은 수심방의 조상을 놓는 상이다. 소위 '안팟공시'가 모두 함께 모셔지는 것이다. 이들 안팟공시는 나중에 굿이 끝나면 서로 자신의 조상을 당주에 모셔가야 하기 때문에 '공시갈림'을 하게 된다. 따라서 안공시는 본주심방의 당주로 가고, 밧공시인 수심방의 멩두는 안채포에 담겨 수심방의 당주로 돌아간다.

참고문헌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굿과 음식(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제주도 굿의 '공시풀이' 고찰(강소전, 한국무속학 14, 한국무속학회, 2007).
필자 강소전(姜昭全)

공창무(空唱巫)

정의 입을 벌리지도 않아도 공중에서 소리가 들리도록 하는 술법을 사용하는 무당.

내용 『고려사(高麗史)』 권105, 「열전(列傳)」 안향조(安珦條)에는 "공중에서 사람이 부르는 소리를 지어내었고 그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오는 것이 길을 비켜라하고 호령하는 것 같았다."라는 공창무에 대한 기록이 있다. 따라서 공창무는 일종의 복화술을 사용하는 무당일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공창무가 기록에 등장하는 것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 사이이며, 공창무에 대한 신앙은 상당히 열광적이었던 것 같다. 고려 충렬왕 원년(1275) 경상도에서 세 명의 공창무가 있어 백성들은 물론 관리까지 현혹되었는데, 상주판관(尙州判官)으로 있던 안향(安珦)이 이들을 처벌했던 사실이 전한다. 그리고 공창무에 대한 신앙은 대표적인 음사(淫祀)로 간주되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이를 금지하는 법조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렇듯 공창무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지금에 와서는 그 전통이 단절되었다.

참고문헌 高麗史, 조선 급 중국의 복화무(손진태, 조선민족문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48), 한국 엑스타시 변천고(최길성, 한국무속론, 형설출판사, 1982), 한국 무속사의 시대구분(서영대, 한국무속학 10, 한국무속학회, 2005).
필자 서영대(徐永大)

곽머리씻김굿

정의 출상 전날에 하는 씻김굿. 관 옆에서 한다고 하여 '곽머리씻김굿'이라고 부르며 달리 '관머리씻김굿', '진씻김굿', '진굿', '진일'이라고도 한다.

내용 곽머리씻김굿은 상가에서 하는 굿이므로 그에 따른 제약과 특징이 있다. 죽음으로 인해 부정이 발생한 상황이므로 진굿으로 간주되며, 조왕굿이나 칠성굿 등을 하지 않는다. 또한 망자의 천도를 비는 내용이 강조되므로 산 사람들의 복락을 축원하는 절차는 생략한다. 일정한 기일이 경과한 후에 하는 묵은 씻김굿과 비교하면 그것이 잘 드러난다. 예를 들어 전북 부안 줄포의 진씻김굿을 보면 성주굿, 조상석, 해원굿, 연올리기, 오구물림, 고풀이, 소당개시끔, 질닦기, 중천맥이로 구성된다. 묵은씻김굿에서라면 앞부분에 조왕석, 철륭석, 선영알림, 지신석, 서낭석, 칠성풀이, 손님석, 장자풀이 등이 추가된다. 묵은 씻김굿이 현세의 복을 비는 내용들을 확대한 것이라면 곽머리씻김굿은 망자굿 위주로 편성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곽머리씻김굿은 망자의 천도를 비는 절차를 관이 있는 방 안에서 하게 된다. 관에 고를 묶고 고풀이를 한 다음 씻김을 한다. 이 때에는 영돈을 말지 않는다. 망자의 옷은 시신이 누운 방향대로 관 위에 펼쳐 놓고 그 옷을 직접 씻긴다. 길닦음은 방 안에서 마당 쪽을 향해 질베를 펼쳐놓고 한다. 방 안에서 굿을 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관을 마당 쪽 문으로 옮겨 놓고 마당에서 굿을 한다. 질베 한 끝을 관에 묶고 다른 한 끝을 밖으로 내서 그 질베에 매듭을 묶어 고풀이를 하게 된다. 씻김과 길닦음은 일반 씻김굿과 비슷하게 진행한다.

곽머리씻김굿은 초상집에서 하는 굿이어서 상가 분위기를 반영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액상의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굿판은 활기를 띤다. 특히 호상인 경우 잔칫집과 같은 분위기에서 굿이 진행된다. 주민들이 술과 음식을 나눠 먹으며 떠들썩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윷놀이와 화투놀이 등도 한다. 그리고 무당의 굿 중간 중간에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놀기도 한다. 죽은 자를 노래와 춤으로 떠나보내는 축제식 장례의 일환으로 곽머리씻김굿을 하는 것이다. 곽머리씻김굿이 연행되는 축제식 장례의 모습은 진도나 신안 등지에서 볼 수 있다.

지역사례 곽머리씻김굿과 유사한 굿은 다른 지역에도 있다. 서울에서는 자리걷이라고 해서 출상 직



곽머리씻김굿
국립민속박물관

후에 한다. 자리걷이는 부정을 가시는 굿이다. 죽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집안의 부정을 가시고 식구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굿이다. 일단 자리걷이를 한 뒤에 3년상을 할 즈음 날을 받아서 정식으로 진오기굿을 하게 된다. 제주도에서는 '귀양풀이'라고 하는데 출상 후에 밤늦도록 한다. 귀양풀이는 망인의 한을 달래주면서 집안의 부정을 가시는 성격이 짙다. 제주도에서 시왕맞이는 본격적으로 망자를 저승으로 천도하는 굿인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 한다. 황해도에서는 진진오기라고 하여 삼우제날에 한다. 그 후에 하는 굿은 마른진오기 또는 진오기라고 한다.

참고문헌 줄포무악(임석재, 문화재관리국, 1971), 진도씻김굿(황루시, 화산문화, 2001), 씻김굿(이경엽, 한얼미디어, 2004).
필자 이경엽(李京燁)

관성제군(關聖帝君)

정의 서울굿 성제거리에서 모시는 무속의 신. 관성제군은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의 영웅 관우(關羽, ?~219) 장군을 신격화한 신이다. '관성', '관제', '승제', '성제', '승전님', '관우', '관운장' 등 다양한 이칭이 있다. 중국에서 관우는 무신(武神)과 재복(財福)의 신으로 추앙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내신(殿內神) 계급의 전쟁신, 장군신, 호국신, 재물신, 재복신, 기복신, 치병신, 난리의 피란신 기능을 한다. 특히 소원성취에 영험하다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전부인이라고 하여 관우의 부인을 신으로 모시기도 한다.

유래 관우가 신으로 승격된 것은 『삼국지연의』에서 그가 충성심과 의리가 있으며 용맹하고 위엄있는 장수로 등장한 영향이 크다. 즉 『삼국지연의』의 영향으로 관우는 문무(文武)를 겸비한 성인(聖人)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관우가 민간신앙의 신으로 승화된 것은 중국 관왕묘(關王廟)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관우신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조선 선조 31년(1598) 명나라 유격장군 진인(陳寅)의 주도하에 한양에 남묘(南廟)를 세운 것에서 시작한다. 관성제군이 민간신앙으로 발전되는 단초는 숙종, 영조, 정조대를 거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제사를 지낼 정도로 관왕묘가 번성한 후부터다. 특히 무속의 신 혹은 민간신앙의 신으로 일반화되는 시기는 1908년 2월 국가 소사(小祀)였던 관왕묘 제사를 철폐하면서 국가 주도의 신앙에서 이탈하면서부터다. 이후 1913년 '관성묘유지재단'에 남묘를 불하하는 등 민간화가 진척되면서 민간신앙화된다.

관성제군이 무속의 신으로 정착하게 되는 계기는 고종 20년(1883)이다. 임오군란(壬午軍亂)으로 명성황후(明成皇后)가 충주로 피란 갔을 때 환궁(還宮)의 시기를 점치는 등 도움을 주어 신임을 받은 이씨라는 무당이 자신이 '관성제군의 딸'임을 자처하면서 관왕묘 건립을 건의하여 북묘를 건립하고, 윤성녀(尹姓女, 윤씨 성의 여자) 무당이 고종의 계비이자 영친왕의 친모인 엄비(嚴妃, 1854~1911)의 명을 받아 남묘를 세워 자손의 번영과 복록을 빌었다. 이 두 무녀는 각기 진령군(眞靈君), 현령군(賢靈君)으로 봉해진다. 이후 한양의 무속인이 관성제군이 자기 몸에 내렸기 때문에 자신은 전내신이라고 하면서 사당을 세우고 문복자(問卜者, 점을 보러 오는 사람)의 금전을 사취할 정도로 확산되었다.


1


2

1. 관성제군 무신도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가로 64.1㎝, 세로 114.1㎝

2. 관우장군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가로 62.4㎝, 세로 111.2㎝

내용 역사적으로 관성제군이 무속의 신으로 정착된 사실들이 있었음에도 관성제군은 서울굿에서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서울굿에서는 주로 상산거리 바로 앞에 성제거리가 나타난다. 관성제군은 흔히 조상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굿에서는 황색포를 입고 왼손에는 황색·적색·백색의 삼색기를 들고 오른손에는 청룡언월도를 든 장군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관성제군무신도〉에는 우측 상단에 관성제군님이라고 쓰여 있고, 황색포를 입고 책과 붓을 들고 있는 형상으로 묘사되어 있다.

관성제군은 무속뿐 아니라 1920년에는 관성교(關聖敎)가 창립되어 주신으로 모셔지기도 하고, 증산교에서 삼계해마대제신위 원진천존관성제군(三界解魔大帝神位 願趁天尊關聖帝君)으로 모셔지고 있다. 관성제군은 그 유무에 따라 서울굿과 경기굿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근래에는 경기도 무당들이 관운장의 의대를 소지하기도 한다. 이는 서울굿을 의뢰받을 때를 대비한 것이다. 요즘은 경기굿에서 관운장이 잠깐 등장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한국무속연구(김태곤, 집문당, 1981), 한국의 무(조흥윤, 정음사, 1985), 한국민속대사전(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동신당(김태곤, 민속원, 1999), 한국의 무속(김태곤, 민속원, 2001), 한국무속신 고찰(양종승, 몽골학 4, 한국몽골학회, 1996), 한국무신의 구조연구(양종승, 비교문화연구 5,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비교문화연구소, 1999), 서울의 관왕묘 건치와 관우신앙의 양상(장장식, 민속학연구 14, 국립민속박물관, 2004), 안동의 관왕묘를 통해 본 지역사회의 동향(김명자, 한국민속학 42, 한국민속학회, 2005), 조선후기 관우신앙 연구(이유나, 동학연구 20, 한국동학학회, 2006), 무속의 물질문화 연구(최진아,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9).
필자 김시덕(金時德)

광대춤

정의 황해도굿에서 광대를 놀리기 위한 춤.

내용 광대춤은 황해도굿에서 무당이 광대신과 창부신을 불러들여 위하고 놀릴 때 추는 춤이다. 춤을 출 때 쓰이는 장단은 막장단과 삼현장단(타령장단)이다. 춤사위로는 탈춤사위가 많이 이용되며, 줄을 바닥에 깔고 줄타는 시늉을 하면서 흥겹게 춤을 추기도 한다. 광대춤은 광대가 탈을 쓰고 춤을 춘다고 해서 광대탈춤, 탈을 쓰고 줄타기 흉내를 낸다고 해서 줄타기탈춤이라고 하기도 한다.

지역사례 광대춤은 황해도굿춤의 한 종류이다. 따라서 황해도 일대 굿에서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대표적으로 평산소놀음굿이 있다. 평산소놀음굿에서 추어지는 광대춤은 광대를 놀리기 위한 춤이며 주로 탈춤사위가 사용된다. 춤장단은 막장단과 삼현장단이 사용된다. 춤을 추면서 광대가 바닥에 줄을 깔고 줄타는 흉내를 내기도 하고, 여러 광대짓을 하면서 흥겹게 춤을 춘다.

우옥주의 만구대탁굿에서도 광대춤 관련 사례가 보고되었다. 만구대탁굿의 광대거리에서 광대춤이 추어진다. 광대거리는 가무악에 뛰어난 광대신과 창부신을 불러들여 위하고 놀리는 굿거리이다. 여기서 여광대와 남광대들을 모시고 흥겹게 놀린다. 이때 가면을 쓰고 탈춤을 추기도 하고 줄타기를 하기도 하면서 추는 춤이 광대춤이다.

참고문헌 큰무당 우옥주 유품(양종승, 국립민속박물관, 1995), 황해도평산소놀음굿(양종승, 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한국의 굿(하효길 외, 민속원, 2002).
필자 허용호(許龍鎬)

광양당제(廣壤堂祭)

정의 제주도의 광양당(廣壤堂)에서 봄과 가을에 마을의 남녀가 모여 지내던 제의. 광양당은 지금의 제주도 제주시 이도 2동에 있다. 사람들은 흔히 이곳을 '과양'이라 하고 당에 대해서도 '과양당'이라고 한다.

역사 광양당은 본래 전통적인 무속의 굿당 또는 신당이었으며, 본향당의 성격을 지녔던 것으로 여겨

진다. 제주도의 당제는 세시력에 맞추어 일정한 내력을 갖춘 마을의 당굿 성격을 지녔다. 이런 전통이 국사의 일부로 채택되면서 이러한 내용의 당제가 전승되고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로산또에 대한 의례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일부 다른 이야기의 전통도 여기에 가미되면서 이당의 영험함을 토대로 하는 신앙이 복합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산에 대한 신앙과 외래의 인물신앙, 무속 고유의 산신신앙이 결부된 특별한 의례였을 개연성이 있다. 역사적으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제주목(濟州牧)」의 기록에 진산과 호종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진산 은 한라의 주 남쪽에 있으며, 두무악 또는 원산이라고도 한다. 그 관에서 제를 행한다.(鎭山 漢挐在州南一曰頭無岳 又云圓山 其官行祭 穹隆高大 其巓有大池)"라는 기록이 그것이다. 한라산을 섬기는 의례가 정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신의례를 나라에서 국제로 정비해 다룬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달리 "속전에 이르기를 한라산 주신의 아들 계는 살아서는 성덕이 있었고 죽어서는 명신이 되었다. 마침 호종단이 이 땅을 진양하고 배를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데 신(계)이 매로 화하여 돛대 머리로 날아오자 북풍이 크게 불어 호종단의 배를 격쇄하고 서경 비양도 암석 사이로 침몰시켰다. 나라에서는 그 영이함을 포상하여 식읍을 내리고 광양왕에 봉하여 해마다 향폐(香幣)를 내려보내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諺傳云 漢挐山主神子季生有聖 沒爲明神 適値胡宗旦鎭禳此土 乘舟向江南神化爲鷹 飛上檣頭 俄而北風大吹 擊碎宗旦之舟沒于西境飛揚島巖石間 國家褒其靈異 賜之食邑 封爲廣壤王 歲降香幣以祭)

이 기록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동일한 내용이 서귀포시 안덕면 광정당의 본풀이와 정의 웃내끼 광원당에 전승되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 내용의 본풀이가 있는 것은 삼성신화와 본풀이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하는 요소이다. 호종단의 이야기가 결과적으로 김통정(金通精, ?~1273)으로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광정당본풀이〉에서 이 대목을 비교하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옛날 서촌양반 시성제가 있었는디, 큰성님은 성내 과양당이고, 셋성님은 정이선앙당이고, 말ᄌᆞ아시는 대정 광정당입네다. 황바도리 짐통정이가 들어와 토성금성을 둘러싸고 매 호마다 불체 닷되, 비 ᄒᆞᆫ 줄리썩 받아, 비는 ᄆᆞᆯ꼴리에 ᄃᆞᆯ아매고 불체는 성우에 ᄉᆞᆯ아 ᄆᆞᆯ에 채를 주어 ᄃᆞᆯ리니 시상이 왁왁ᄒᆞ여 갔습네다. ᄒᆞ로은 과양당, 선앙당, 광정당 시성제가 짐통정일 심으레 가니, 짐통정인 무쇠방석을 바당데레 댓겨, 그 방석데레 ᄂᆞᆯ아가 ᄭᆞᆯ아앚이니, 바당에 ᄉᆞ신용신은 이젠, 새비 몸이 되고 그 방석을 심어 땡기니, 짐통정은 또시, 매가 되여, ᄂᆞᆯ아가니, 과양당 큰성님이 조롬에 좇아 ᄂᆞᆯ아가고 짐통정이 모가질 움직거릴 때에 비눌이 야썩 들러지연, 그 비눌 들러진 트멍으로 목을 비여 죽였습네다." 이 본풀이가 전하는 구전의 역사는 상층의 그것과 전혀 다르다.

내용 제주도의 삼당이 서로 형제이고, 이들의 판도 분화와 좌정이 제주도의 토박이 신화인 삼성신화와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다. 세 명의 형제는 한 몸에서 나온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들이 서로 다른 판도를 통해 구현하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면모를 본풀이에 나타난 현상대로 보면 다음과 같다.

신의 위계	세 자기 당의 내력	본풀이에 나타난 다툼과 좌정 경위					
		활 쏜 방향	경계 구분	차지한 곳		판도의 관할능력	판도
1	정의 웃내끼 광원당	성내 과양당	대정	정의와 대정 경계	목안 과양당	말타기	모관 80여 리
2	대정새당 덕수 광정당	정의 선앙당	정의	모관과 정의 경계	정의 선앙당	달리기	정이 38리
3	시내 내외 과양당	대정 광정당	모관	모관과 대정 경계	대정 광정당	기어 가기	대정 27도

본풀이의 내용은 제주도에서 태어난 삼형제가 외부의 침입자인 김통정을 물리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제주도의 토박이신과 외지의 떠돌이신이 제주도에서 벌이는 각축을 구현한 이야기이다. 호종단이라고 하는 인물 역시 같은 각도에서 외지의 침입자이다. 그가 죽는 과정이 예시된 것과 민중이 생각하는 외지의 사람이 다른 점을 이로써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나라에서 정한 일과 민중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일치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광양당제의 내용은 이와 다른 민중 관점에서 살펴야 함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광양당제는 다음과 같은 본풀이에 입각하고 있다. "과양당 오오전 한집 어식더식 금자광록 태광성 문수무량 고수고천 신산태산 어인타인 금인옥인 할로하로산서 솟아나신 고산태오 인피 오오전. 동의동편 시님 제석도마노라 광주무덤산서 솟아나신 선네국대부인. 감찰지방관. 운문문관 제집ᄉᆞ 정이정당 금천국 삼천뱅매 일만또 동사청 ᄆᆞᆯ굽 트여온다. 장자-걸머리제산국. 이남-도노태태자. 삼남-든변 씨고 난변 씬 어마시당동산마누라"가 주된 내용이다.

이 본풀이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섯 위의 신격을 소개하고 이들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좌정 경위가 어떠한지, 다섯 신위와 자식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밝히고 있다. 특정한 마을의 상관성을 자식들의 태생 순서에 의해 말하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런데 이 신들의 지리적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문헌정착과 구비전승의 양 차원에서 광양당과 광양당제의 행사는 분명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광양당제의 하층민 인식과 상층민 인식이 달라진 것이 아주 중요한 연구과제로 인식된다. 제주도의 토박이신격과 제주도에 들어온 떠돌이 신격의 피할 수 없는 갈등을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제례로 파악된다.

참고문헌 광양당제(강정식, 한국세시풍속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06), 제주도 안덕면 당신본풀이의 구비전승적 위상(김헌선, 비교문화연구 3,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1996).
필자 김헌선(金憲宣)

광인굿

정의 동해안 중부 지역에서 광인(狂人), 즉 미친 사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행하는 무속제의.

역사 인간은 재화(災禍)를 면하고 복을 얻기 위하여 신에게 제사하고 기원한다. 세상의 모든 인간에게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신의 뜻에 의하여 좌우되고, 질병이나 사망 등의 불행이 초래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신을 위하고 달래거나 막고 쫓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하게 된다.

대부분의 굿은 공물을 접대해 귀신을 환대하고 공경함으로써 노여움을 풀고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방법을 택한다. 그러나 귀신이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물질이나 색채 · 냄새 등 주력으로 귀신을 쫓거나 칼 · 낫 · 도끼 · 완력 등 물리적 위협을 가해 축귀(逐鬼)하는 방법도 있다.

가시가 돋친 엄나무 가지를 대문에 걸어두거나, 경면주사(鏡面朱砂)로 부적을 써서 잡귀를 예방한다. 복숭아나무도 잡귀를 쫓는 주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동도지(東桃枝), 즉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나무 가지는 잡귀를 쫓고 액을 막는 데 사용한다.

복숭아나무로 귀신을 쫓는 것은 중국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 남조(南朝) 송(宋)의 범엽(范曄, 398~445)이 편찬한 『후한서(後漢書)』의 기록에도 나타난다. 복숭아 가지로 열병 환자의 침소를 휘둘러 악귀를 퇴산시키고 병을 낫도록 했다. 또한 복숭아나무 가지 주부(呪符)를 문 앞에 걸어 놓아 악귀가 접근하지 못하게 했고, 복숭아나무 가지를 꺾어 분묘(墳墓) 선정지나 건축 예정지에 꽂아 놓아 악귀를 퇴치하였다. 조선 순조 때 한양의 풍속을 기록한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 의하면 섣달 그믐밤[除夕]에 관상감에서는 대궐 뜰에 귀신을 쫓는 의식인 대나(大儺) 행사를 할 때 악공 10명이 복숭아나무로 만든 귀신 쫓는 부적인 도열(桃苅)을 잡고 따르는 내용이 있다.

동해안에서 행해지는 광인굿은 귀신을 달래기보다 위협을 가하여 쫓는 방법을 통해 축귀하는 굿이다.

내용 동해안 중부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 굿에서는 없는 '광인굿'이 있다. '축구[축귀(逐鬼)]' 또는 '광인퇴치굿'으로도 불리는 광인굿은 귀신에 의해 정신이상자가 된 사람에게서 귀신을 떼어내는 굿이다.

광인굿은 굿의 규모에 따라 개인집의 오구굿

을 마치고 이어서 축귀의식을 하는 것과 따로 독립하여 축구를 하는 것이 있다. 따로 독립하여 축구를 할 경우 의례에 필요한 허재비 · 도끼 · 작두 · 칼 · 낫 등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처럼 광인굿에 필요한 도구를 모두 갖춰서 굿을 한다고 하여 '가진축구'라고도 한다.

김태곤이 1976년에 김석출에게서 파악한 광인굿은 부정굿-골매기서낭굿-조상굿-처낭굿-도수풀이-제반굿-거리굿-작두타기-여처낭굿으로 진행된다고 하였고, 송동숙 · 사화선 · 김장길에 의하면 부정굿-골매기굿-조상굿-가진축구풀이(귀신확인, 천도 또는 축귀)-거리굿 또는 부정굿-골매기서낭굿-조상굿-세존굿-대감장군굿(군웅장수굿)-성주굿-가짜(칼 · 도끼 · 낫 · 불 등으로 잡귀를 위협하여 몰아내는 굿거리)-초망자굿-거리굿의 절차로 진행된다고 한다. 제보자에 따라 굿거리가 가감되는 것은 굿의 규모와 귀신의 존재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광인굿은 동해안 중부 지역에서 남무들에 의해 연행되었다. 광인굿을 잘한 남무로는 제갈성도(송동숙의 의부), 변성문(변난호의 큰아버지), 김석출, 송동숙 등이 있었다. 광인굿은 동해안의 큰 무당에 의해 작두를 타고 축귀의식을 하는 유일한 굿이다.

지역사례 현재 광인굿은 거의 행하지 않기 때문에 광인굿의 사례를 파악하긴 쉽지 않다. 광인굿은 2004년 6월 21일 경북 울진 후포의 도곡영신산당에서 행해진 것이 마지막이다. 광인굿은 굿의 성격상 참여관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1976년에 김석출이 제보한 광인굿의 절차를 통해 굿의 사례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미친 환자의 집에서 환자를 안정 또는 감금을 한 다음 무당을 불러 굿을 할 준비를 한다. 무당은 짚으로 실제 사람 크기 정도의 허재비(허수아비)를 4개 만든다. 그리고 마당에 말뚝을 박아 기둥을 세워 널빤지로 약 3m 높이의 당을 맨다. 이렇게 만든 널빤지 위에다 허재비 4개에 각각 사람의 얼굴을 종이에 그려 붙이고 흰 두루마기를 입힌 다음 머리에 검정 갓을 씌워서 세워 놓는다. 이렇게 당을 매고 허재비를 올려 세워 놓는 것을 '사처낭맨다'라고 한다.

굿 준비가 끝나면 무당은 저녁을 먹고 어두워지기를 기다린다. 마당에는 모닥불을 피워 놓고 4처낭을 맨 아래에 굿상을 차린 다음 밤 8시경부터 굿을 시작한다.

굿은 먼저 부정을 없애는 부정굿을 하고, 마을의 당신(堂神)인 골매기굿을 한다. 그 다음에 제주집의 조상굿을 하고 처낭굿을 한다. 그 후에는 귀신을 풀어먹이는 도수풀이를 하고 제물을 헤쳐서 정리하는 제반굿을 한다. 그런 다음 거리굿을 하고는 화랭이(남자무당)가 올라가 작두를 탄다. 선반 위에 사각 말통에 쌀을 담아놓고 그 위에 작두를 나란히 얹어서 화랭이가 맨발로 작두에 올라간다. 화랭이는 낫 2개, 식칼 2개, 도끼 2개, 놀이칼 2개를 양손에 갈라 쥐고 춤을 추면서 무가를 부른다. 이때 작두를 타는 화랭이가 발을 다치게 되면 정성이 부족하고 부정이 들었다 하여 목욕재계를 하고 다시 기도한 뒤 작두를 탄다. 그래도 발을 다치게 되면 다른 화랭이로 바꿔서 작두를 탄다.

작두타기가 끝나면 여처낭굿을 한다. 여처낭은 매우 무서운 여귀(女鬼)이다. 여처낭굿은 작두를 타던 화랭이가 문 밖에서 여복(女服)으로 갈아입은 뒤 종이로 여귀의 얼굴을 그려서 얼굴에 쓰고, 짚으로 만든 아이를 업고 슬프게 울면서 문 안으로 들어선다. 이것은 여처낭 귀신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 여처낭은 광인에게 병을 준 귀신으로, 마당에 세워 놓은 4처낭에게 들켜서 오도가도 못하고 할 수 없이 항복해 4처낭 앞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즉 4처낭은 남처낭으로, 이 4처낭이 사방을 막고 서있어서 여처낭이 달아날 데가 없기 때문이다.

여처낭은 등에 업고 있는 아이를 내려 안고 젖을 주는 흉내를 내며 당맨 위의 4처낭을 보고 울면서 하소연한다. 여처낭이 배도 고프고 젖도 나지 않아 애가 죽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때 무악을 반주하는 화랭이들이 "귀신아! 귀신아! 귀신아!" 하고 세 번 부르면 여처낭이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4처낭을 향해 차례로 절을 하고는 다시 주저앉아 운다. 화랭이들이 "귀신아!" 하고 부르는 세 번째 소리에 여처낭은 "예" 하고 대답한다.

화랭이들이 "네가 어떤 귀신인데 밤중에 아(아이)를 안고 이리 청승맞게 울고 있노?" 하면 여처낭은 "예, 내가 다른 귀신이 아니오라 예귀[女鬼]옛사젠[女使者]데 이집 ○○○한테 밤낮으루 병을 주고 아침 저녁을 잘 뜯어먹고 있었는데 오늘은 4처낭님한테 다 들켜 갈데 올데 없어 오늘 이레 울고 있임니더. 갈데 올데도 없을뿐더러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이 어린 자식 데리고 갈데 올데 없고, 오늘 4처낭 앞에 내 목심(목숨)을 바치게 되니 그래 내 신세를 생각해서 울고 있임니더"라고 대답한다.

화랭이들이 "그러믄 오늘 밥과 떡과 술과 니 노자(路資) 돈꺼정 많이 줄 테니 환자 미친 증세를 전부 걷어 옥도끼에 목을 끊어 돌아가겠느냐?"고 물으니 여처낭이 "예, 돌아가겠심더"라고 말한다. 다시 화랭이들이 "니 줄나코 헤논 밥이 당 밑에 많이 있으니 니 한 대로 먹고 가거라" 하니 여처낭은 "예" 하고 대답하고는 당 밑에 놓은 밥 앞으로 다가가 화랭이들 쪽을 향해 밥먹는 흉내를 낸다.

여처낭이 "내 밥 묵는데" 하자 화랭이들이 "오 많이 무거라"하고 부추긴다. 여처낭이 밥과 반찬을 한 줌에 긁어 입이 터지도록 우겨넣다가 사래가 걸려 "캑 캑. 밥 다 묵고 간데이" 하며 떠나려 하자 화랭이들이 "다시는 병 넣지 말고 니 갈 데로 가거라" 하면서 쫓아낸다. 여처낭은 "내 간데이, 내 간데이" 하며 겁먹은 몸짓으로 뒷걸음질하여 문 밖으로 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화랭이들은 "어이 여루 귀신아. 옥도끼로 목을 쳐 불에 화살 보내자"를 세 번 반복한다. 화랭이들이 당 위에 있는 4처낭 허재비를 내려다가 모닥불에 태우고는 광인굿을 마친다.

현재는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굿을 하기보다 병원의 치료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광인굿은 거의 연행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後漢書, 洌陽歲時記, 한국무속연구(김태곤, 집문당, 1981), 굿놀이(정병호,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15,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1), 한국민속대사전 1(한국민속사전 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한국민속문화대사전 상(김용덕, 도서출판 창솔, 2004), 연행예술로서 동해안 굿의 변화양상과 변화요인(윤동환,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동해안 굿의 전승과 변화(윤동환,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필자 윤동환(尹東煥)

상호참조 두린굿(243쪽)

광청애기본풀이

정의 제주시 구좌읍 동김녕(東金寧)의 송씨 집안에 전해지는 조상본풀이로, 송동지(宋同知)와 광청아기가 조상신으로 모셔지게 된 내력을 설명하는 신화. 송동지영감본이라고도 한다.

내용 선주(船主)인 송동지 영감이 어느 해 섣달그믐에 사또의 명으로 초기, 우미, 미역, 오징어 등을 가지고 서울로 진상을 갔다가 돌아올 때 광청고을 허정승 집에 유숙하게 되었다. 저녁을 먹은 후 밤이 깊도록 잠이 오지 않아 마당에 나가 보니 이상하게도 사랑방에 희미한 불빛이 비쳤다. 송동지가 숨을 죽이며 그쪽으로 가보니 예쁜 아기씨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앉아 무엇을 생각하는 듯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송동지가 되돌아오려 하는데 아기씨가 할 말이 있으니 들어오라 하였다. 송동지가 방으로 들어가 앉으니 아기씨는 미리 차려 놓은 술상을 앞에다 가져다 놓고 자기는 지금까지 영감님이 나올까 하여 창문 밖을 살폈는데, 서로 뜻이 맞아 이렇게 앉게 되었으니 술을 마시면서 심심풀이나 하자고 하였다. 둘이 술을 마시던 중 아기씨가 말하기를, 자기는 허정승의 딸인데 부모의 명으로 장차 광청 고을 궁녀(宮女)로 혼인을 할 처지라며, 혼인을 하기 전에 한 번 그 행동을 해보고 싶다면서 서로 옷을 바꾸어 입고 날이 새도록 새각씨 놀이를 하자고 하였다. 송동지가 여기에 응하여 인연을 맺고 날이 샐 무렵에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송동지는 아침을 먹은 후 허정승 집을 나와 영암 덕진다리 베진고달또 포구에 와서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의심하였다.

얼마 후 송동지가 두 번째로 서울에 진상을 갔다가 돌아올 때 다시 광청 고을 허정승 집에 머물렀다. 밤이 어둡기를 기다려 광청아기씨가 있는

사랑방으로 가보니 아기씨는 임신하여 배가 태독 같이 불러 있었다. 아기씨는 송동지의 도포자락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였다. 그 시절은 육지사람이 제주도에 못 가고 제주도 여자가 육지에 못 갈 때였다. 송동지는 아기씨 몰래 그곳을 떠나 베진고달또에 와서 배를 탔다. 광청아기씨는 이날 밤이 지나면 아버지 손에 죽을 것임을 알고 흰비단 홑저고리와 치마로 갈아입은 뒤 대바구니를 옆에 끼고 베진고달또로 왔다. 그리고 송동지가 탄 배를 찾아 배에 타려고 이물 발판을 딛고 건너는데, 사공이 이물발판을 안으로 당기는 바람에 그만 바다에 떨어져 죽고 말았다.

송동지 영감이 동김녕 포구에 도착했을 때 마중을 나온 막내딸에게 광청아기씨 혼령이 씌어 딸이 갑자기 머리를 풀어헤치고 부모형제도 몰라보며 바다로 뛰어들려 하였다. 송동지가 놀라 웬일인가 물으니 딸이 "나는 광청고을 광청아기 궁녀로다. 시녀로다. 어야뒤야 살강싯소리 진바당 진소리로 어서 놀자" 라고 말하였다. 송동지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광청아기씨의 원혼이나 풀어 주려고 굿을 해 주기를 심방에게 부탁하였다. 심방은 용왕국에서 초혼과 삼혼을 건진 후 송동지 영감 셋째 아들을 광청아기씨의 양자로 삼아주고, 원성귀제맞이를 하며 신전국태추태로 광청아기씨의 일천간장을 녹여주니, 송동지 영감은 삽시에 거부가 되고 셋째 아들도 무과에 급제하였다. 후에 광청아기씨 혼령으로 만대유전을 시키고 보니, 동김녕 송씨 집안이 줄이 벋고 발이 벋어 잘 되었다. 광청아기씨를 고방(庫房)에 모시고 철갈이, 삼명일(三名日), 기일제사 등에 위하면 자손들이 잘 된다.

의의 제주도에는 집안에서 모시는 조상신에 관한 본풀이가 있다. 이것을 '조상본풀이'라 고 한다. 특정 집안과 단골관계를 맺고 있는 심방은 그 집안의 내력을 잘 알고 있어서 굿을 할 때 이와 같은 조상본풀이를 구송하면서 굿을 한다. 〈광청애기본풀이〉는 제주시 구좌읍 동김녕리에 살고 있는 송씨 집안에서 전승되는 조상신에 대한 본풀이로, 이 집안의 제일(祭日)이나 큰굿을 할 때 구송되고 있다.

조상본풀이는 조상 가운데 구체적인 인물과 관련이 있는 것이어서 신화인 동시에 살아 있는 역사라 할 수 있다. 즉 〈광청애기본풀이〉는 신화이면서 동시에 굿이라는 제의 속에서 구송되고 있어 신화와 제의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알게 한다. 또한 제의 속에서 신화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도 알게 한다. 신화 내용을 참조하면 송씨 집안에서 광청아기, 즉 '광청일월'을 만대유전시키면서 철갈이 · 삼명일 · 기일제사 등에 무악(巫樂)과 함께 큰굿 · 작은굿 · 앉은굿 등을 해 주고 대바구니에 여러 명주를 갈아 넣어주면서 상고팡에 위하면 자손들이 좋은 벼슬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없는 재물도 생기고 짧은 명과 복도 잇게 해 준다. 이것은 신화를 통해 제의의 존재 의의를 알려 주는 한편 제의 속에서 신화가 어떻게 살아 기능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 준다. 이런 면에서 이 신화는 중요하다. 〈광청애기본풀이〉는 또한 한국인의 조상숭배 관념이 반드시 혈연적 유대 관념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혈연성이 없다 하더라도 조상신으로 관념될 수 있음을 알게 해 준다. 유교식 조상숭배가 혈연적 유대를 중시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삼성신화를 포함하여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구조적 특징은 외지에서 온 여성신과 제주도의 남성 토착신이 제주도에서 결합한다는 것이다. 〈광청애기본풀이〉 역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아 이 신화가 당신본풀이의 구조를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 결과를 중시하면 〈광청애기본풀이〉는 명혼(冥婚)설화나 명혼소설에서 발견되는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이것은 광청아기씨와 송동지가 처음 만나는 모습에 나타나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이 신화는 매우 오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신라의 고승 의상대사와 선묘 이야기와 닮은 점이 많기 때문이다. '선묘설화'나 〈광청애기본풀이〉는 모두 외지의 여성신이 남성을 따라오는 이야기이다. 〈의상전〉이 수록되어 있는 『종고승전(宗高僧傳)』이란 책이 10세기를 전후해 살다간 찬녕(贊寧, 919~1002)이란 사람에 의해 편찬되었다는 점을 중시하면 의상대사와 선묘설화의 내용은 그만큼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를 계승하고 있는 〈광청애기본풀이〉 역시 그만큼 역사가 오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주도 무가의 담론에는 신화가 형성되고 전승되는 동안의 시대적 · 역사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기 마련인데, 〈광청애기본풀이〉에도 제주도가 처해 있던 역사적 질곡의 한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제주도에서는 조선 인조 7년(1629)부터 고종 13년(1876)까지 약 250년 동안 '출륙금지조치'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원래 제주목에 일정한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과도한 진상과 그 휴유증으로 인해 사람들이 자꾸 제주도를 빠져나가자 처음에는 여자들을 묶어 놓으면 남편과 가족이 제주도에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여자만을 육지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가 나중에는 남자들도 금지하였다. 이것은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어 개항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해제되었다. 〈광청애기본풀이〉에는 송동지가 임신한 광청아기씨를 버려두고 혼자 제주도로 돌아가고자 할 때 제주도에 이러한 제도가 행해지고 있어 광청아기씨를 데려가지 못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 〈광청애기본풀이〉는 제주도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살아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러한 상황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라면 〈광청애기본풀이〉는 적어도 그 역사가 140년 이상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김헌선 · 현용준 · 강정식 저, 보고사, 2006).
필자 이수자(李秀子)

구덕북

정의 제주도굿에서 무가나 춤을 반주할 때 쓰이는 북.

내용 제주도에서 이 북을 구덕북이라고 하는 것은 바구니의 제주도 방언인 '구덕' 위에 이 북을 올려놓고 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북을 사각형으로 된 뒷박 위에 올려놓고도 쳤는데, 이때는 이 북을 '북말'이라고도 했다. 구덕 안에는 예전에는 콩을 넣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주로 쌀을 넣어 둔다. 이는 북을 받치기 위해서는 무게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북을 고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구덕북의 통은 주로 소나무를 쓰고, 가죽은 대개 소가죽을 쓰며, 양쪽 가죽을 맨 줄을 당겨서 소리를 조절한다. 북을 칠 때는 구덕 위에 북을 세로로 비스듬히 올려서 고정시키고, 양손에 북채를 들고 오른쪽 면만 친다. 때에 따라 노래를 반주할 때는 북의 양쪽 면을 치기도 한다.

제주도 무의식에서 악기들은 그 쓰임이 분명하다. 춤이나 연희에는 설쇠, 대영, 구덕북이 쓰이고, 노래에는 장구가 쓰이지만, 구덕북은 춤과 노래반주에 모두 쓰이므로, 그 활용도가 가장 높은 악기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본풀이 무가에 장구 대신 쓰이기도 한다.

참고문헌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전라남도 · 전라북도 · 제주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필자 장휘주(張輝珠)

구리갈매동도당굿

정의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에서 전승되고 있는 마을제의. 현지에서는 '갈매동 산치성 도당굿'이라고 한다. 이 굿은 1995년 8월 7일에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되었다. 1995년 문화재 지정 당시 '갈매동도당굿보존회'가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이후 1998년 9월 11일 조순자(趙順子)와 허용업(許龍業)이 각각 무녀당주(巫女堂主)와 잽이당주로서 예능보유자로 지정되고, 당집 역시 추가로 지정되었다.

역사 구리갈매동도당굿의 역사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자료는 갈매동에 전해지는 도당굿 관련 문서와 당집의 상량문(上樑文)이다. 도당굿 문서는 현재 「무진 삼월 초오일 산치성 절차」와 「단기 4193년 3월 치성 축문기입 산치성 절차」 두 가지가 전해오고 있다. 전자의 연대는 1928년으로 추정되며, 후자의 연대는 1960년이다. 당집 상량문은 '龍昭和拾年乙亥拾月二十五日 立柱 上樑 龜'로 되어

있어서 1935년에 지어진 건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전해지는 이들 자료에만 의거한다면 갈매동도당굿의 역사는 1920년대 후반 이전으로 끌어올릴 수 없다. 그러나 보통 마을제의는 마을과 같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갈매동도당굿 역시 갈매동에 마을이 형성될 때 함께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갈매동도당굿의 역사는 이보다 훨씬 오래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현재 마을 주민들은 갈매동이 동구릉 뒤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동구릉이 형성된 시점에 이곳에도 마을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짐작하여 갈매동 마을과 도당굿의 역사를 500년 정도로 추측한다. 그리고 비록 19세기 말의 기록이긴 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大韓帝國官員履歷書)』를 보면 1898년 3월11일 산릉참봉(山陵參奉) 판임 팔등(判任八等)에 임명된 유갑희(柳甲熙)란 인물이 당시 경기도 양주군 노원면 갈매리에 거주하고 있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전 시기에도 관원을 비롯하여 동구릉과 관련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미 갈매동에 마을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적어도 이 시기에 이미 갈매동도당굿도 행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전해오는 도당굿 문서의 축문에 '조선 경기우도 남면 노원 갈매동'이라 하여 '경기우도'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것 역시 갈매동도당굿의 역사가 적어도 조선 시기까지 소급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아울러 적어도 현재 자료들이 보여주는 시기보다 더 이전부터 갈매동도당굿이 행해져 왔다는 것은 갈매동도당굿을 담당해 온 무당들의 계보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 갈매동도당굿은 4대째 대를 이어온 무당 집안 출신 무당이 담당하고 있다. 한 집안 출신 무당들이 4대째 갈매동도당굿을 담당해 왔다는 것은 갈매동도당굿이 행해진 지 120년은 넘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본다면 갈매동도당굿은 적어도 조선시기에 이미 형성되었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 갈매동 주민들에 의해 행해져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광복 전까지는 갈매동에 순흥 안씨와 벽진 이씨가 대성(大姓)을 이루고 살았으나 광복 이후 급격한 사회변동과 함께 많은 가구가 전출하였고 1990년대에는 서울 생활권에 포함되면서 많은 외지인들이 이주해왔다. 그럼에도 주변 지역에 비해 갈매동에는 원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또한 마을의 경제 수준이 높아서 인근에서 기와집이 많은 마을로 소문이 나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갈매동도당굿 전승의 든든한 사회적 기반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현재에도 마을 주민들의 도당굿 참여도가 높아서, 현재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은 물론 외지로 나간 사람들도 도당굿에 참여한다. 외지에 나가 살더라도 도당굿 비용을 부담하며, 도당굿 당일에 찾아와서 소지를 올리고 굿놀이에 동참한다. 1996년 조사 당시 200여 가구의 가정에서 갈매동도당굿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갈매동도당굿은 지금까지 격년에 한 번 짝수 년에 행해져 왔다. 2009년 7월에 갈매동도당굿 전수관이 완공되었고, 2010년부터 갈매동도당굿은 새롭게 지어진 전수관에서 행해진다.

내용 갈매동도당굿은 2년에 한 번 짝수 해에 행해진다. 도당굿을 하는 날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굿을 하는 해에 정하지만 일반적으로 음력 3월 초순에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음력 2월 1일에 도가 · 화주 · 시주 등의 삼화주를 결정하고 마을회의를 통해 전체 굿 비용과 마을의 각 가정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 굿 진행 전반에 대한 것을 결정한다. 이후 각 가정에서 굿 비용을 갹출하고 쌀을 준비하며, 산치성터와 당집을 청소하고 도당터에 굿청을 설치한다. 음력 3월 1일에 굿날을 택일하여 결정하고, 제물준비와 굿 진행에 관한 역할을 나눈다. 당집에 굿날을 알리는 날받이 종이를 붙이고 굿이 끝날 때까지 당집 문을 열어둔다. 이어서 우물 청소를 하고 조라술을 빚고 제물을 마련하면 굿의 준비가 완료된다.

갈매동도당굿은 크게 산치성과 도당굿으로 나뉜다. 산치성은 도당굿 하루 전날 밤 10시 경에 지낸다. 산치성에 앞서 오후 3시경부터 굿청 마당에서 여성들이 안반고사를 지낸다. 안반고사는 갈매동도당굿에서 여성들만이 참여하는 유일한 절차이다. 오후 7시경에는 조포(두부)를 올린다. 이어 노구메를 짓고 제물을 준비하여 밤 9시40분경에 산치성을 드리러 산으로 올라간다. 산치성 장소는 굿청에서 멀지 않은 동구릉 방향 산 중턱에 있다. 병풍을 치고 다리 긴 제상을 놓은 다음 제물을 진설한다. 산치성은 매우 엄숙하게 진행되며, 산치성이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들은 아무 소리도 내서는 안 된다. 임신부나 어린이가 있는 여성이나 달거리 중인 여성은 참여할 수 없고, 남자라 하더라도 부정한 사람은 역시 참여해선 안 된다. 또한 제물을 옮기는 사람이나 불을 밝히는 사람 등 산치성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부정을 막기 위에 입에 한지를 물고 참여해야만 한다. 산치성 과정은 제관이 세 번 절을 하고 축문을 읽고 소지를 한 후 다시 세 번 절을 하는 것으로 끝난다. 산치성을 마치고 돌아올 때도 역시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산치성을 마치고 내려와 굿청 마당에서 대를 내린다. 대를 내린 다음 서울과 경기도의 접경지역인 새오개 고개로 가서 서낭맞이를 한다. 서낭맞이를 한 다음 밤새워 동네의 각 가정을 방문하는 유가를 돈다. 대가 집에 도착하면 각 가정에서는 고사상을 차리고 절을 한다. 또한 한지에 돈을 싸서 대에 매달기도 한다. 대잡이는 대를 집 안으로 밀어넣어 복을 넣어 주며, 집안을 청소하듯 집안을 쓸어내기도 하며, 무당은 가정의 복을 축원한다.

새벽이 되면 유가를 멈추고 잠시 눈을 붙였다가, 도당굿을 하는 날 아침에 유가를 마져 돈다. 유가를 마무리하고 대잡이는 도당을 향한다. 이렇게 대잡이 일행이 도당으로 올라가는 것을 '장문밟기'라고 한다. 맨 앞에 대잡이가 가고, 그 뒤로 만신이 따르고, 장구 · 북 · 바라 · 피리 · 대금 · 해금 순으로 악사들이 뒤따른다. 장문은 걸음을 함부로 떼지 않고 한 발 한 발 천천히 가기 때문에 매우 느리게 진행된다.

도당에 올라 대잡이 일행이 굿청에 들어가기 전에 누군지를 알리고 굿청에 들어가는 '전갈'의 과정을 거쳐 굿청에 들어간다. 대잡이가 굿청을 두 바퀴 돌고 쌀을 담은 대야에 대를 세운 다음 본격적으로 도당굿이 진행된다. 도당굿은 초부정, 가망청배, 조상거리, 산할머니, 별상, 대감놀이, 제석거리, 호구거리, 바라, 계면떡, 군웅거리, 걸립, 당굿, 뒷전 순으로 행해진다. 굿의 마지막 절차인 뒷전 직전에 행해지는 당굿은 도당신에게 도당굿을 마쳤다는 것을 알리는 절차이다. 굿 날이 적힌 날받이 종이를 태워 소지를 올리는 것으로 끝을 낸다. 뒷전은 굿을 마치는 마지막 절차로, 도당터에서 진행한다. 무당은 액을 쫓는 액막이 행위를 하고 산 닭을 산신께 바친다. 버둥거리는 닭을 던지는데 이때 땅에 떨어진 닭의 머리 방향이 산을 향해야 한다고 한다.

갈매동도당굿은 전형적인 마을제의의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산신과 도당신, 새오개 고개의 서낭신을 대상으로 마을 주변과 마을의 각 가정을 돌면서 축원하는 절차가 그렇다.

참고문헌 대한제국관원이력서(국사편찬위원회, 1972), 갈매동도당굿(갈매동도당굿 학술조사단 · 구리시, 1996), 박영순 구리시장 '시정답변' 전문(정한성, 남양주투데이, 2009. 7월 3일).

필자 이용범(李龍範)

구삼싱 냄

정의 구삼싱 냄은 구삼싱할망이 아이에게 범접하여 생긴 병을 치료하는 무속의례. 구삼싱할망은 산육신(産育神)인 명진국할마님과 대적하여 아이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이다.

내용 구삼싱은 구삼싱할망을 줄여 부르는 말이다. 구삼싱할망은 산육신을 뜻하는 삼싱할망, 즉 명진국할마님과는 적대적인 존재이다. 명진국할마님은 명진국 따님아기로 아이를 포태하여 출산을 시키고, 열다섯 살까지 잘 자라게 하여 주는 신이다. 이에 반해 구삼싱할망은 동이용궁 따님아기로 심술이 많고, 아이에게 범접하여 아프게 하며, 결국은 목숨을 빼앗아 저승 서천꽃밭으로 데리고 가는 저승할망이다. 이들이 왜 이러한 성격의 신이 되었는지는 관련 본풀이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명진국할마님은 하늘의 옥황상제로부터 명령

을 받아 인간 세상의 출산과 양육을 관장하는 신인 생불할망으로 들어선다. 반면에 동이용궁할망은 동해용궁의 셋째딸로 태어났지만 부모에게 버림 받고, 인간에 포태만 주었지 해산법을 모르는 불완전한 존재이다. 이들은 나중에 하늘옥황의 명령에 따라 누가 인간세상의 생불할망으로 들어설지를 두고 꽃 피우기 경쟁 등으로 겨루게 된다. 승패 결과에 따라 경쟁에서 이긴 명진국할마님은 생불할망으로 들어서고, 패배한 동이용궁할망은 아이들을 저승으로 데리고 가는 저승할망으로 들어섰다. 이러한 본풀이는 구삼싱 냄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무속의례가 본풀이에 나타난 사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행해지기 때문이다. 산육신인 생불할망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한 구삼싱할망이 심술을 부려 아이들을 저승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자연스레 이 할망에게 인정을 걸고 대접하여 보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구삼싱 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명진국할마님에게 기원하는 의례인 할망비념과 같은 방식으로 준비한다. 거기다가 아홉 자 걸렛배(아기를 업는 멜빵), 적삼, 치마, 머리카락과 천으로 만든 아기인형을 추가로 마련해 둔다. 모두 준비되면 삼싱할망상과 구삼싱할망상을 차려놓고 아기인형과 걸렛배 등을 넣어둔 채롱을 별도로 만들어 상 앞에 놓는다. 한 명의 심방이 멩두를 갖추고 비념 형식으로 진행하여 나간다. 순서는 먼저 할마님께 비념을 하고, 이어 구삼싱 냄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할마님께 비념에서는 이승할마님과 저승할마님을 서로 가르자고 하면서 이승할마님인 삼승할망에게 축원하여 소지를 사르고 삼싱할망상을 철상한다. 이어서 심방은 구삼싱할망상으로 돌아앉아서 구삼싱할망도 흉험을 주지 말고 돌아서라고 말명을 한다. 그러면서 구삼싱할망상의 음식을 채롱에 넣고는 자장가를 부르며 아기구덕을 흔드는 것처럼 채롱을 흔들며,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후 갑자기 그 채롱을 들고 부엌으로 달려가는 행동을 한다. 이때부터는 매우 연극적인 행위들이 이어진다. 구삼싱 냄이라는 제차 역시 굿판에 참여한 이들에게 구삼싱할망이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연극적 행위들로 구성된 것이다.

심방은 아기 인형이 담긴 채롱을 들고 먼저 부엌의 조왕할마님에게 다가가서 자신을 좀 숨겨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심방은 조왕할마님으로부터 이 집안에 풍운조화(風雲造化)를 불러주는 나쁜 존재라는 꾸지람과 타박을 듣고 쫓겨난다. 조왕할마님은 어디 와서 숨겠다고 하느냐면서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이에 심방은 다시 채롱을 들고 고팡의 칠성으로 가고 거기서도 쫓겨나자 그 뒤에는 마루의 성주신, 집 바깥의 오방토신(五方土神), 집 입구의 일문전신(一門前神)에게로 차례로 다가가서 자신을 숨겨 달라고 또 부탁하지만 역시 거절을 당한다. 집 안에 좌정한 신들이 구삼싱을 쫓아낸다고 하는 양상이 흥미롭다.

마지막으로 아기구덕에나 숨겠다고 하지만 이 역시 구덕을 담당하는 구덕삼싱에게 혼이 나고 내쫓긴다. 결국 숨어볼 데 없이 여기저기서 쫓겨난 구삼싱할망은 이제는 별 수 없이 자신이 나가야겠다면서 각각의 신들에게 이별을 하고 나간다. 구삼싱할망은 많은 인정을 받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다. 구삼싱할망이 들고 다니던 채롱을 바깥으로 멀리 들고 나가면, 구삼싱할망은 이제 멀리 떠난 것으로 여겨진다.

구삼싱 냄은 이렇게 매우 연극적인 행위로 행해진다. 심방 한 사람이 구삼싱할망과 각각의 신의 역할을 모두 수행한다. 어조(語調)를 바꾸어가며 1명이 여러 명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구삼싱 냄은 특별한 지역적 구분이 없이 제주도 전역에서 행해진다.

참고문헌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제주도 무속 연구(현용준, 집문당, 1986).
필자 강소전(姜昭全)

구애비[鬼業]

정의 귀신의 업[鬼業]. 귀업이 또는 구업이라고도 한다.

내용 구애비는 죽은 사람이 살아생전 무업을 통해 사용되었던 신구로 현실화되는데, 무당이 될 어떤 사람이 신병을 앓다가 이를 떠오는 것을 "구애비 떳다"라고 한다. 구애비는 무당이 무업을 청산할 때, 만들어지는 무업의 종결로 생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애비의 창출은 무업의 끝맺음이자 시작인 셈이다. 신구들은 무업을 중단하고자 할 때, 나이가 들어 무업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죽음을 당했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이 비밀리에 깊은 산속이나 땅 속에 파묻어 둔다. 무신도의 경우에는 집안의 방 벽에 붙인 후 겉에다 도배종이를 발라서 감춰둔다. 이것을 신이 내릴 어떤 사람이 선몽이나 예언으로 찾아서 모셔가는 것이다.

구애비의 신구에는 방울, 엽전, 부채, 무신도, 신복 등이 있다. 천이나 종이로 된 것들은 쉽게 부식되어 없어지지만 쇠붙이는 녹은 슬더라도 오랫동안 형체가 보전되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하다.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구애비를 뜨면 으레 무당이 되는 것이고, 또한 무당이 되기 위해선 구애비를 떠야 되었다.

한편, 신구를 파묻는 관습이 생겨난 특별한 이유가 있다. 무당 문서에 따르면 무당은 무당 부리(뿌리)에서 나온다. 즉, 무당은 집안의 혈족에 의해 내림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회가 천대시하는 무당이 후대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사용하던 신구들을 땅에 묻거나 불태우는 관습이 생겨난 것이다.

참고문헌 무당의 신병과 신들림(양종승, 한국무속학 3, 한국무속학회, 2001).
필자 양종승(梁鍾承)

구파발본(舊把發本)

정의 서울의 북쪽인 구파발 지역에 전승되는 무가를 비롯한 무속의 여러 특징적인 문서. 구파발이라고 해서 구파발 지역에만 전승되는 것이 아니라 무악재 너머의 서울 북쪽 지역까지를 포함한다.

내용 서울 지역의 무속이 지금은 획일화되었지만 과거에는 동서남북이 모두 달랐다. 동쪽의 왕십리본, 서쪽의 노들본, 북쪽의 구파발본은 지역성의 대표적인 양상들이다. 이중 동쪽의 왕십리본과 서쪽의 노들본은 서울굿을 담당하는 무속인들도 그 차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굿거리나 사설, 춤사위 등을 중심으로 차이점이 규명된 바 있으나 구파발본은 아직 본격적으로 해명된 것이 없다. 이것은 구파발본을 대표할 수 있는 무당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동쪽과 서쪽에 비해 서울굿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작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파발본이라고 하면 경기도 북쪽 무속의 일부로 간주되기도 했다. 구파발 지역에 거주하는 무당들의 활동범위가 고양, 파주, 문산에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에 서울굿이라기보다 경기굿으로 여긴 것이다.

하지만 서울 무가에 나오는 구파발 금성당이 지금도 남아 있고 은평구의 사신당이 오랫동안 서울 무속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것을 고려할 때 구파발본의 특징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까지 조사된 구파발본의 특징은 미미하다. 서울 대부분 지역의 굿판에서 사용하는 대신칼에 한지를 길고 가늘게 오려 여러 가닥 매어 놓았으나 구파발 지역만큼은 오색천을 길고 가늘게 오려 매어 놓았다는 점, 서사무가 〈바리공주〉에서 버림받은 바리공주가 다시 부모를 찾은 후 약수를 구하러 서천으로 가는 도중에 만나는 신령스러운 존재가 호랑이로 변한 산신이라는 점 등에서만 차이가 있다. 다른 서울 지역의 〈바리공주〉에서는 부처님을 만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동쪽의 서울굿과 서쪽의 서울굿의 차이가 동쪽제, 서쪽제라고 불릴 정도로 확연한 것을 감안하면 구파발본도 분명히 특징적인 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구파발본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고문헌 서울굿의 양상과 의미(홍태한, 민속원, 2006).
필자 홍태한(洪泰漢)

국무(國巫)

정의 국가 차원의 제의를 주관하기 위해 도성 안에 둔 무당. 나라무당, 나라만신, 대무(大巫) 등으로 불린다. 국행제(國行祭)인 기우제를 집전하고 명산대천에서 왕실의 축복을 기원하며, 내행제(內行祭)인 치병의례 등을 주관하였다.

내용 제정일치 사회에서 부족의 우두머리는 무당이었다. 그 후 정치적 권력과 사제적 기능이 분리되면서 국가의 사제 기능은 국무(國巫)가 맡게 된다. 국무는 국가의 천신제나 시조제 등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으며 고려시대에 와서 불교와 도교에 의해 기능이 분리되었다. 국무는 더 이상 국가 제의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차츰 다른 신앙에 밀려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고려의 국무는 그 명맥을 계속 이어간다.

고려시대 국무가 주관한 대표적인 무속의례는 별기은(別祈恩)이다. 고려 명종 때 별례기은도감(別例祈恩都監)의 설치와 함께 시작된 별기은제(別祈恩祭)는 명산대천에서 왕실의 축복을 기원하는 제의로서 주로 불교나 도교적 행사로 거행되었다. 그러나 고려 말 14세기에 이르러서는 무당을 앞세운 국행제로 변모하게 되면서 국무가 의례를 집례하였다. 국무에는 무당의 수장격인 도무(都巫)와 도무를 도와주는 종무(從巫)가 있다. 이들에게는 잡역을 면제해주는 등의 특혜가 있었다. 유학자들이 점차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고려 인종 때에 이르면 무풍배척(巫風排斥)의 정책이 시행된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국무의 존폐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었다.

조선조 태종 15년(1415) 즈음에 무격은 활인원(活人院)에 분속되었고, 이후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서울의 무격은 활인서에 분속시키고 지방의 무격은 각 관에서 대장을 정리하여 병자를 치료하게 하였다. 그러나 국무는 동서활인서에 소속되지 않고, 궐내의 성수청(星宿廳)에 소속되어 공식적인 국행기은을 담당하였다.

성수청은 조선시대에 국무당으로 하여금 왕실의 안녕을 빌거나 기청(祈晴)·기우(祈雨) 등을 전담하기 위해 설치된 관서이다. 성수청에 소속된 국무는 기우제 등 국가의 공식적인 행사를 주관하면서, 성 안에 있을 때는 치병의례와 같은 내행제도 거행하였다.

무속적 성격을 띤 국행기은은 세종과 성종 연간에 사림들에 의해 꾸준히 비판의 대상이 된다. 결국 중종 대에 국은제에 관한 비판이 절정에 달하면서 더 이상 거행될 수 없었다. 성수청이 폐지된 것이 언제인지 확실치 않지만 무풍에 대한 비난과 탄압이 가중되면서 차츰 힘을 잃어 유명무실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국무의 공식적인 활동은 사라졌으나 내행의 차원에서 은밀히 거행되면서 명맥을 이어나갔다.

참고문헌 한국의 무(조흥윤, 정음사, 1983), 한국민속대사전(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조선무속고(이능화 저, 이재곤 역, 동문선, 1995), 한국 공동체 신앙의 역사적 연구(박호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7), 국무와 국무당(최종성, 비교민속학 21, 비교민속학회, 2001), 한국민속문화대사전(김용덕, 창솔, 2004).

필자 천진기(千鎭基)

국사당 무신도(國師堂 巫神圖)

정의 국사당 내부에 있는 무신도로 중요민속자료 제17호.

내용 국사당 무신도는 1970년 3월 24일에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산2-12에 있다. 국사당은 원래 남산에 자리 잡고 있었으나, 1925년 일본인들이 조선신궁을 세우면서 현재의 자리에 복원한 것이라고 한다.



국사당 아태조
서울시 종로구 무악동 | 1972.10.31 | 장주근



1. 국사당 아태조비



2. 국사당 호구아씨
서울시 종로구 무악동 | 1972.10.31 | 장주근

현재 남아있는 것은 17점으로 각각의 무신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사당 아태조 : 중요민속자료 제17-1호로 가로 60㎝, 세로 104㎝이다. 비단 바탕에 채색(綵本彩色)이며 위 아래로 같은 크기의 같은 그림 두 점이 걸려 있다. 머리에는 관을 쓰고 양 어깨와 앞가슴에 용무늬가 그려진 곤룡포를 입고 있다. 전주의 경기전(慶基殿)에 있는 조선 태조 영정과 흡사하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경기전 영정을 본떠서 그린 것이라고 한다.

2. 국사당 강씨부인 : 중요민속자료 제17-2호로 가로 60㎝, 세로 10㎝이다. '아태조비(我太祖妃)'라고도 한다. 비단 바탕에 채색이며, 바로 옆에 위치한 아태조 그림과 함께 '아태조 내외분'이라고 부른다. 조선 태조의 계비인 신덕왕후 강씨를 그린 것으로 추정되지만 고려 공민왕의 왕후인 노국공주일 가능성도 있다.

3. 국사당 호구아씨 : 중요민속자료 제17-3호로 가로 62㎝, 세로 100㎝이다. 비단 바탕에 채색이다. 남산에서 옮긴 지 5, 6년 지나 촛불에 타서 다시 그린 것이라고 한다. 어린 여자아이 둘을 앞에 세우고 뒤편 큰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오주연문장전산고』에는 "국사당에 어린 여아상이 있는데, 여아는 홍역신이며, 신전에 화장품류들이 놓여있다(小兒女像 女兒則以爲痘神云, 神前設脂粉之屬)"라고 쓰여 있다. 즉, 호구아씨는 홍역을 관장하는 신이다.

4. 국사당 용왕대신 : 중요민속자료 제17-4호로 가로 59㎝, 세로 102㎝이다. 비단 바탕에 채색이며 용과 용왕신이 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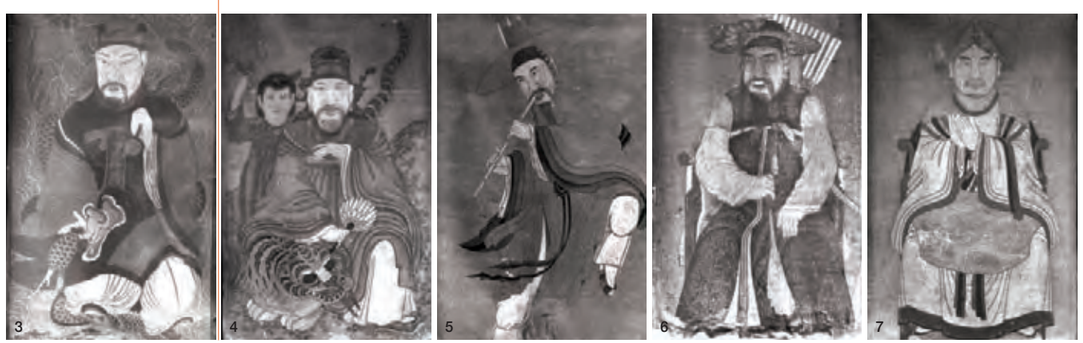
5. 국사당 산신 : 중요민속자료 제17-5호로 가로 60㎝, 세로 105㎝이다. 비단 바탕에 채색이며 호랑이를 타고 앉은 노인 뒤에 동자가 선도(仙桃)인 듯한 것을 들고 서 있다.

6. 국사당 창부씨 : 중요민속자료 제17-6호로 가로 53㎝, 세로 101㎝이다. 광대씨(廣大氏)라고도 한다. 비단 바탕에 채색(綵本彩色)다.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자세로 피리를 불고 있는데, 창부가 춤추는 모습 또는 줄을 타며 춤추는 모습이라고 한다. 창부는 예능신으로 여겨지기도 하나, 무속에서는 일년 동안 액을 막아주는 신으로 여긴다.

7. 국사당 신장 : 중요민속자료 제17-7호로 무당을 수호하며 무당에게 영험함을 주는 기능을 지닌 신장이 그려져 있다.

8. 국사당 무학대사 : 중요민속자료 제17-8호로 가로 59㎝, 세로 104㎝이다. 비단 바탕에 채색이며 태조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건국하는 데 공을 세운 무학대사를 그린 그림이다. 아태조상 왼쪽에

3. 국사당 용왕대신
4. 국사당 산신
5. 국사당 창부씨
6. 국사당 신장
7. 국사당 무학대사
서울시 종로구 무악동 | 1972.10.31 | 장주근








8. 국사당 곽곽선생
9. 국사당 단군
10~11. 국사당 삼불제석
12. 국사당 나옹화상
13. 국사당 칠성
14. 국사당 별상(금성)
15. 국사당 민중전
16. 국사당 최영장군
서울시 종로구 무악동 | 1972.10.31 | 장주근

있다. 『오주연문장전산고』 '화동음사변증설(華東淫祀辨證說)'에 보면 국사당무신도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국사당에는 본조승무학(本朝僧無學)외 여러 신상을 걸어두었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무학대사임을 알 수 있다.

9. 국사당 곽곽선생 : 중요민속자료 제17-9호로 가로 57㎝, 세로 93㎝이다. 종이 바탕에 채색이며 우측 상단에 '경셩부서린동일빅오번디 곤명동몽계측 싱엄규상'으로 삼행의 한글이 써있다. '경셩부'라는 글씨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제 강점기 시절에 만들어 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에는 우측에 두건을 쓰고 도포를 입은 남자 노인과 그 뒤에 치마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그려져 있다. 곽곽 선생은 중국의 『산해경(山海經)』과 『수경(水經)』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 경학(經學)과 역수(易數)에 능했다고 하는 중국 동진(東晋)의 학자 곽박(郭璞)이 점복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 신처럼 모셔지다가 곽곽으로 와음이 된 듯하다. 곽곽 선생은 맹인(盲人)풀이의 대상신으로 안질(眼疾)환자들이 특히 신봉한다고 한다.

10. 국사당 단군 : 중요민속자료 제17-10호로 가로 24㎝, 세로 32㎝이다. 목판에 채색이며 화상에 '檀君天神'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다. 좌측 하단에 맨 앞 글자가 지워진 'ㅁ晋齊石印'이라고 쓰여 있다.

11. 국사당 삼불제석 : 중요민속자료 제17-11호로 가로 57㎝, 세로 104㎝이다. 비단 바탕에 채색이며 제석은 산신(産神), 수신(壽神), 농신(農神) 등의 성격을 띠고 있다. 무가에 따르면 귀한 집의 무남독녀 당금애기가 중의 아이를 잉태해 3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삼불제석이 되었다고 한다.

12. 국사당 나옹 : 중요민속자료 제17-12호로 가로 63㎝, 세로 106㎝이다. 비단 바탕에 채색이며 연화좌 위에 앉아있으며 머리 뒤에는 광배 같은 것이 있다. 나옹은 고려 공민왕때 왕사(王師)였던 고승이다. 무학대사의 선배라는 이야기도 있다.

13. 국사당 칠성 : 중요민속자료 제17-13호로 가로 59㎝, 세로 103㎝이다. 비단 바탕에 채색이며 구름문양 위에 두 손을 옷자락에 감추고 정좌를 틀고 칠성님이 앉아있다. 칠성님 뒤쪽으로 남신으로 보이는 3위의 인물상이 그려져 있다. 칠성은 도교신(道教神)의 수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칠성 또한 민속에서 수명신(壽命神)으로 뿌리 깊은 관념을 두고 있다.

14. 국사당 군웅대신 : 중요민속자료 제17-14호로 가로 63㎝, 세로 104㎝이다. 비단 바탕에 채색이다. 군웅은 액을 막아주는 신격으로 모셔지고 있으며, 굿거리 군웅거리에서는 복숭아나무 가지에 버드나무 화살들로 동서남북의 액을 쏘아 쫓는 행위를 한다.

15. 국사당 금성 : 중요민속자료 제17-15호로 가로 57㎝, 세로 101㎝이다. 비단 바탕에 채색이며 칼을 잡고 앉아있는 무장상이다.

16. 국사당 민중전 : 중요민속자료 제17-16호로 가로 72㎝, 세로 110㎝이다. 색동옷을 입고 족두리를 쓴 주신이 서 있고, 그 아래쪽에 좌우에 두 명의 여자 아이가 시중을 드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1972년 문화공보부에서 발간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주신은 '호구아씨'라고 추정하고 있다.

17. 국사당 최영장군 : 중요민속자료 제17-17호로 가로 65㎝, 세로 110㎝이다. 비단 바탕에 채색이며 최일 장군이라고도 부른다. 국사당의 주신(主神)으로 여러 신격 가운데 무당과 치성자들이 가장 중요시한다.







참고문헌 국사당건물무신도 및 무구-민속자료조사보고서 제14호(맹인재 · 장주근,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2), 1950~2000년대 사진으로 보는 민속의 어제와 오늘 2(장주근, 국립민속박물관, 2003),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서울시청 홈페이지(www.seoul.go.kr).
필자 이건욱(李健昱)

군문기

정의 신체 형상으로 오린 백지를 대나무 가지에 달아 대문의 양쪽에 세우는 기. '군문'은 대문을 의미하고 '기'는 깃발을 의미한다. 올레에 두는 것이기에 '올렛기'라고도 한다.

형태 백지나 흰 천을 신체 형상으로 오려 잎이 달린 대나무가지에 묶어 굿하는 집의 대문 양쪽에 세우거나 매단다. 천을 쓰는 것은 굿을 하는 동안 비가 오더라도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군문기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이중춘 댁 | 2006.3.5 | 강정식

내용 군문기는 일종의 호위병으로서 보초를 서는 것이라고 한다. 제청 안으로 청해 들인 신이 굿이 끝날 때까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면서 청하지 아니한 잡신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셈이다. 달리 굿하는 장소임을 알리는 기능을 한다고도 한다. 찾아오는 신에게 굿하는 장소임을 알리는 구실을 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사람들에게도 굿하는 집임을 알려 부정한 자의 출입을 막는 효과를 얻는다.

군문기는 대문을 지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어서 이것을 내걸고 걷어내는 제차가 정해져 있다. 큰굿에서는 초상계 끝에 달았다가 굿이 끝나갈 쯤에 구연하는 〈문전본풀이〉 끝에 걷어낸다. 이는 집안의 문마다 붙이는 오방각기의 경우와 일치한다. 신을 다 청해 들이고 나서 달고 신을 보내면서 걷어내는 셈이다. 군문기를 내걸 때는 "오방각기, 시군문도 잡으레 가자."라고 하고, 걷어낼 때는 "오방각기, 시군문도 히여 맞자."라고 한다. '시군문'은 대문을 말하며, '잡으레 가자'고 하는 것은 '닫으러 가자'는 뜻이다. '히여 맞자'고 하는 것은 '거두어들이자'는 뜻이다. 심방이 이러한 말명을 하면 소미가 나서서 오방각기와 함께 군문기를 걸거나 걷어낸다. 걷어낸 군문기는 태워 없앤다. 참고로 초감제의 군문열림과 군문기는 무관하다.

한편 군문기가 내걸린 대문 바깥은 청하여 들인 신들을 따라온 군졸, 임신 등이 대기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굿의 주요 제차를 진행하고 나면 항상 '주잔넘김'을 하여 남은 술잔을 이들에게 바치는 의례를 하여 달랜다.

군문기는 울타리 안을 제의적인 공간으로 구획해준다. 이는 오방각기, 살장 등이 하는 기능과

같다. 굿은 울타리 안, 마당, 집안이라는 조금씩 달리 구획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요즘에는 제차에 구애됨이 없이 군문기를 내걸고 걷어내는 경향이 있다. 군문기가 본래의 기능을 잃고 장식적인 기능을 하는 데 그치고 있는 셈이다. 심방집에서 굿을 할 때는 군문기를 걸지 않는다고 하는 이도 있다. 당주에 항상 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참고문헌 제주도무속의 기메고-무속의 신체 형성의 일면(현용준, 문화인류학 2, 한국문화인류학회, 1969), 제주도무속연구(현용준, 집문당, 1986).

필자 강정식(姜晶植)

군문춤

정의 제주도굿의 초감제에서 하늘의 신이 내려오는 군문을 여는 과정을 표현한 춤.

내용 제주도굿에서 굿판을 열어 신을 청해 모셔 들이는 청신의례(請神儀禮)를 초감제라 하고, 초감제의 순서 가운데 하늘의 신들이 지상에 내려오도록 하늘 신궁(神宮)의 문을 여는 제(祭)를 군문열림이라 한다. 이때 하늘의 신들이 지상으로 하강(下降)할 수 있도록 하늘 궁전의 수문장과 사령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문을 돌아보고, 문을 열고, 열린 신궁의 문을 통하여 신들을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전 과정을 보여주는 청신무(請神舞)를 통칭하여 군문춤이라고 한다.

군문춤은 심방이 하늘 신궁의 문을 돌아보는 군문 돌아보는 춤, 군문춤, 도랑춤, 그리고 문이 열렸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신칼점 등의 여러 단계로 진행된다. 군문춤의 대표적인 춤 동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旗)춤'은 감상기를 양손에 꼿꼿이 세워 들고 신의 하강을 간절히 기원하는 춤이다. '뒷걸음[後進]춤'은 양손에 신칼과 감상기를 하나씩 잡고, 감상기를 낮춰 나란히 들고 뒷걸음질하며 추는 춤이다. '도랑춤[回轉舞]'은 신이 하늘에서 하강하기 위하여 하늘 신궁의 문이 열리는 순간에 정신없이 좌우로 팽팽 돌며 추는 춤으로 군문춤의 절정에 해당된다. 도랑춤은 도는 춤이란 뜻이다. '베포춤'은 양반이 행세하는 것으로, 군문을 지키는 사령의 행세라고 한다. 이 춤은 하늘 신궁의 문을 여는 수문장의 행동을 상징하는 청신무(請神舞)이다. '감상기 춤'은 앉은 자세에서 감상기를 세우고, 엎드린 자세에서도 기를 세워 신이 내려오기를 간절하게 기원하는 좌무(坐舞)이며 기춤(旗舞)이다. '요령춤'은 기를 세우고 기원하던 심방이 감상기를 앞으로 내던지고 앉은 자세에서 하늘 옥황의 신들에게 기원의 뜻을 전하며 요령을 흔들고 손을 비비며 기원하는 춤이다. '신칼춤'은 앉은 자세에서 요령을 내던지고 신칼채를 감아 잡고 돌리다가 던져 신칼점을 보는 칼춤이다. '손춤'은 간절하게 바라던 점괘, 즉 뜻하는 군문괘(신칼의 날이 모두 안쪽으로 향한 괘)가 나와 신이 군문을 열어준다는 뜻을 알고 기쁨과 고마움을 표현하는 손바닥춤이다. '영기 · 명기춤'은 시왕맞이 때 차사기(차사영갯기)와 명감기(시왕명감기)를 들고 추는 기춤이다.

군문춤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심방은 감상기를 나란히 들고 뒷걸음질하며 춤을 추다가 감상기를 하나씩 돌리며 놀리기도 하고, 감상기를 교차하여 높이 들기도 한다. 그러다가 제상 앞에 엎드려 양손에 잡은 감상기를 바닥에 바짝 세워 대가지를 흔들기도 하고, 앉은 자세에서 양손에 잡은 감상기를 하나씩 놀리다가 던진 뒤 신칼을 들고 놀리다가 모아서 잡고 돌려 점을 친다. 군문괘가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 점괘가 나오면 고맙다고 절을 하고, 신에게 고맙다는 인사로 손바닥을 펼쳐 돌리며 앉은 자세로 손춤을 추고 나서 일어선다. 대기하고 있던 소무가 감상기를 건네준다. 수심방은 감상기를 한 손에 잡고 요란하게 춤추기 시작한다. 문 밖 대령상에는 소무가 삼주잔(잔 세 개를 놓은 쟁반)에 술을 댓잎으로 계속 잔마다 번갈아가며 떠서 캐우린다. 심방의 춤이 조금씩 빨라지다가 연물소리도 춤을 따라가지 못할 만큼 빨라지면 심방은 빠르게 회전하는 도랑춤을 춘다. 도랑춤을 추다가 갑자기 멈추고 꿇어 앉아 엎드려서 다시 감상기를 세우고 흔든다. 감상기와 요령을 흔들다가 내던진 다음 신칼채를 돌리면서 점을 친 뒤 군문 점괘가 나오면 다시 요령을 흔든



1. 감상기를 들고 군문으로 신을 안내하는 뒷걸음춤[後進舞]

2. 감상기를 들고 신자리에서 빙빙 도는 도랑춤[回轉舞]

3. 무릎을 꿇고 앉아 감상기를 곧추 세우고 군문이 열리기를 비는 앉은춤

4. 엎드려 감상기를 곧추 세운 채 간절히 절을 하는 앉은춤[坐舞]

5. 요령을 흔들다 던지며 군문이 열리기를 기원하는 앉은춤[요령춤, 坐舞]

6. 신칼채를 잡고 돌리며 문이 열렸는지를 점치는 신칼점[坐舞]

7. 점괘를 읽고 손바닥으로 신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손바닥춤[手舞, 坐舞]

8. 문이 열린 기쁨에 감상기를 들고 요란하게 뛰면서 추는 도랑춤[回轉舞]

9. 시왕맞이 군문을 열 때 영기[令旗]와 명기[命旗]를 들고 추는 기춤

10. 문이 열리는 순간 펄쩍펄쩍 뛰며 신명나게 추는 도랑춤[回轉舞]

제주시 외동1동 김희숙무용학원 | 2002.12.17 | 문무병

다. 감상기와 요령을 나누어 잡고 일어서면 가장 빠른 속도로 춤을 추다가 마지막에 도랑춤을 춘다. 도랑춤이 끝나면 다시 보통 박자로 돌아와 춤을 추다가 끝을 맺는다.

참고문헌 한국의 굿(문무병 외, 민속원, 2002), 제주도의 굿춤(문무병, 각, 2005), 바람의 축제 칠머리당 영등굿(문무병, 황금알, 2005), 굿의 기메 · 전지(문무병, 제주특별자치도, 2008).
필자 문무병(文武秉)

군웅(軍雄)

정의 무속의 장군신 가운데 하나. 많은 군사를 거느린 무장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점에서 일종의 장군신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영 장군, 임경업 장군과 같은 무속의 대표적인 장군신과는 차이가 있다. 이들 무속의 장군신은 한 인물이 죽은 다음에도 생전의 개별적 정체성을 유지한 채 신격화된 인물신이다. 이에 비해 군웅은 생존한 어떤 장군과 같은 구체적인 인물이 신격화된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장수(將帥)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군웅을 군왕(君王)의 와전으로 보아 고려 군왕의 신 혹은 군왕으로서 정상적인 죽음을 하지 못한 자라는 견해도 있으나, 군웅을 묘사하는 무가 사설을 통해서 확인하기 어렵다.

내용 군웅은 서울, 경기, 황해도, 동해안, 제주도 등지의 굿에서 등장한다. 역할에 따라 여러 유형의 군웅이 있다.

군웅의 특징 중 하나는 많은 군사를 거느린 장군의 이미지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서울 무속의 굿에서 군웅 관련 무가 사설에는 "솔안전 할안전 흘각양각 가로백이 만하대전 상살바더 오신 군웅길아래 삼천군사 길우에 오천병마 진을 늘여 오신 군웅 대활네로 놀으소사"라고 되어 있다. 경기도굿에서도 을지문덕(乙支文德, ?~?) · 관운장(關雲長, ?~219) · 마초(馬超, 176~222) 같은 장군이 죽어 군웅이 되는 것이라며 군웅의 차림새와 이끌고 오는 부대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동해안굿에서도 군웅은 김유신(金庾信, 595~673)과



군웅장군 무신도
국립민속박물관 사진자료 소장 | 1930년대

조자룡(趙子龍, 168~229) 같은 여러 장군을 "군웅아 장수야 장수야 군웅아"라고 청한다. 황해도굿에서도 군웅거리에서 칼로 목을 찌르는 흉내를 내면서 허리를 뒤로 젖히는 장군놀음을 한다. 이런 점에서 군웅신은 군사를 거느리는 힘 있는 장군의 성격을 지닌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군웅신이 힘 있는 장군신이라는 것은 동해안굿에서 군웅을 노는 놋동우 또는 장수거리에서 무당이 무거운 놋동이를 맨입으로 무는 행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한편 군웅신은 장군신 외에 조상과 관련된 신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는 서울굿과 경기도굿의 "강남은 홍씨군웅 우리나라 이씨군웅"이라는 무가 사설을 통해 알 수 있다. 여기서 '이씨군웅'은 이씨라는 성씨 집단과 관련된 군웅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서울 지역 굿의 대감거리에서 그 집의 조상 가운데 벼슬한 대감을 군웅대감이라 하며, 경기도굿에서 군웅청배를 조상청배라고 한다. 화성 지역 자료에서는 조상거리의 '조상님 모시구 다니는 군웅님'이라는 구절에서 군웅이 나온다. 제주도 지역에서도 군웅은 어떤 집안이나 씨족에 오랫동안 모셔져 내려오면서 그 집안 내지 씨족을 수호해 주는 신으로 인식된다. 이런 점에서 군웅은 무장(武將)의 이미지와 함께 조상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는 신이다.

이러한 군웅신은 무속의 장군신이 그러하듯이 일정한 삶의 영역이나 집단을 수호하는 신으로 여겨진다. 즉 군웅은 화살을 가지고 일정한 삶의 영역이나 집단을 해롭게 하는 액(厄)과 살(煞)을 물리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군웅신의 역할은 굿에서 사방으로 활을 쏘는 행위로 나타난다. 서울굿의 '사살(射煞)군웅'이란 표현은 군웅신의 이러한 역할을 잘 나타낸다.

군웅신이 일정한 삶의 영역이나 집단의 액과 살을 물리치는 신이라고 할 때 그 영역과 집단에 따라 여러 유형의 군웅신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굿에는 상산별군웅(上山別軍雄)이 있는데 이는 개성 덕물산 장군당에 소속되어 있는 군웅신이다. 마을 도당의 도당군웅은 한 지역의 살과 액을 몰아낸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역할이 한 집안에 한정되는 군웅은 성주군웅이다. 즉 성주군웅은 한 집안의 액과 살을 물리치고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한편 서울굿에서는 사신군웅도 나타난다. 이 군웅신은 외국으로 나가는 국가의 사신(使臣)을 수호하는 특별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군웅신의 역할은 살아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승에만 한정되지 않고 죽은 자의 세계인 저승에서도 지속된다. 서울진오기굿의 시왕군웅이 좋은 예이다. 이승의 영역에서 살과 액을 물리쳐 사람들을 지켜주듯이 저승의 영역에서도 죽은 자들을 보살피는 존재가 시왕군웅인 것이다. 한편 동해안오구굿에서 군웅을 모시는 놋동우굿 역시 여러 장수 또는 군웅을 불러서 망자의 저승길을 축원하며 가족의 명복을 기원하고 일 년 동안의 살을 막아주는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서울진오기굿의 시왕군웅처럼 군웅의 역할이 저승의 영역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군웅방울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지름 2.2㎝, 끈길이 55㎝ | 1950년대

참고문헌 조선무속의 연구 하(赤松智城 · 秋葉隆, 심우성 역, 동문선, 1991), 김금화의 무가집(김금화, 문음사, 1995), 서울새남굿(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조선무속고-역사로 본 한국 무속(이능화, 서영대 역주, 창비, 2008), 동해안 오구굿의 종교적 성격-함께하는 삶, 함께하는 죽음(이용범, 한국학연구 25, 고려대한국학연구소, 2006).
필자 이용범(李龍範)

군웅방울

정의 황해도굿의 거리 중 하나인 군웅거리에서 사용되는 방울.

내용 군웅방울은 황해도굿의 군웅거리에서 사용되는 방울로 무당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울보다 다소 크다. 또한 다른 방울들은 무당이 직접 손에 들고 울게 하는데 비해 군웅방울은 군웅대라고 부르는 막대 끝에 달아 사용한다.

군웅대는 약 1m 길이의 나무 막대기에 굿을 의뢰한 재가집의 가족들 속옷을 감고 그 위에 흰 천을 감은 후 다시 삼베를 둘러 끈으로 고정한다. 그 윗부분에 두 개 내지는 세 개의 방울을 한 묶음으로 한 군웅방울을 고정한다. 방울이 묶인 윗부분은 군웅신의 머리, 군웅대 전체는 군웅신의 몸이 된다.

군웅대를 다른 말로 '둑대' 혹은 '뚝대'라 하고 이에 따라 군웅방울도 '둑대방울' 혹은 '뚝대방울'이라 한다. 군웅대를 둑대라 한 것에 대하여는 군웅거리의 성격으로 볼 때 옛날 군대에서 사용하는 둑(纛)과 연관되어 있는 듯하다. 둑은 왕의 행렬 혹은 군대의 행렬 앞에 세우는, 술과 장식이 달린 깃대이다. 왕과 군대의 위엄을 상징하는 둑은 그 자체로도 신성시 여겨져 매년 둑제(纛祭)를 국가에서 관장하는 제사 중 하나로 지냈다. 굿이 모두 끝나면 군웅대에 묶었던 속옷과 천은 소각하고 군웅방울은 장고의 줄에 묶어 보관한다.

참고문헌 큰무당 우옥주 유품(국립민속박물관, 1995), 무당 귀물 연구-『삼국유사』의 삼부인과 무당의 거울 · 칼 · 방울을 중심으로(양종승, 생활문물연구 2, 국립민속박물관, 2001), 한국의 굿(하효길 외, 민속원, 2002).
필자 김창호(金昌鎬)

군웅본풀이

정의 군웅신(軍雄神)에 대한 근본내력을 설명하는 본풀이로서, 제주도의 무속에서 불렸던 신화. '군

웅'은 용맹한 무장 가운데 영웅이 될 만한 존재를 일컫는 말이며, '본풀이'란 신의 근본을 풀거나 설명한다는 뜻이다. 현재 학계에서는 본풀이를 신화(神話)라는 말과 동궤로 사용하고 있다. 자료는 『조선무속의 연구(朝鮮巫俗の 硏究)』 제주도신가(濟州道神歌) 중 제15 군농본푸리[軍雄本解]에 소개되어 있다. 여기서 군농은 '군웅'의 와음이다.

내용 군농하르방은 천황제석, 군농할망은 지황제석, 군농아방은 왕대조 왕장군, 군웅어멍은 희속에낭, 큰아들은 왕근, 둘째 아들은 왕빈, 막내아들은 왕사랑이다. 군농아방 왕장군은 홀아비로, 나무를 베어다 팔며 살고 있었다. 하루는 초립동이가 와서 "나는 동해용왕의 아들이라. 동해용왕과 서해용왕이 싸움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매양 싸움에 밀리니 장군을 청하러 왔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왕장군이 자기는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지만 바닷물은 무서우니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고 하자 초립동이가 자기와 함께 가면 된다면서 왕장군을 업고 물 속으로 들어가니 바닷물에 길이 나서 용궁으로 들어갔다. 동해용왕은 기뻐하며 "내일 서해용왕하고 싸움을 할 텐데 그때 내가 짐짓 지는 것처럼 하고 물 속으로 들어가면 서해용왕이 물 위에서 이긴 듯할 테니 그때 화살로 쏘아 죽이라"고 말했다. 이튿날 접전 때 동해용왕이 말한 대로 스스로 물 속으로 들어가니 서해용왕이 물 위에서 이긴 것처럼 할 때 왕장군이 화살을 쏘아 죽였다. 동해용왕이 물에서 나와 크게 기뻐하며 "너를 무엇으로 상을 주리오"하니, 용왕의 아들 초립동이가 몰래 장군에게 "다른 것은 다 싫고 연갑을 달라"하라고 그러면서 연갑 속에 자기 누이가 있는데 그것을 얻으면 만사가 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장군이 원하는 것은 연갑이라고 말하니 용왕은 할 수 없이 그것을 주었다. 왕장군이 연갑을 인간 세상에 가지고 오니 밤이면 연갑 안에서 월궁선녀 같은 미인이 나왔다. 왕장군의 배필이 된 미인은 의복과 음식을 원하는 대로 가져 왔다. 삼 년이 지나 아들 삼형제를 낳았다. 첫째는 왕근, 둘째는 왕빈, 셋째는 왕사랑으로 각각 이름을 짓고 크게 부자로 잘 살았다. 하루는 용왕의 딸인 아내가 왕장군에게 자기는 인간이 아니어서 용궁으로 들어갈 것이니 당신들은 '군농'을 차지하여 잘 살라 하고 용궁으로 돌아갔다.

지역사례 제주도의 경우 『조선무속의 연구』에는 군농본푸리(군웅본해)가 있으며, 『한국의 민간신앙』에는 〈군웅본풀이〉가 채록되어 있다. 『제주도무속자료사전』에는 '5. 석살림' 제차에서 군웅본판이 불리고 있고,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에는 '3. 군웅만판에서 군웅만판 · 군웅노래 · 군웅풀이 · 고도채비군웅 등이 채록되어 있다. 한편 후자의 세 책에 나타나는 군웅 관련 자료를 보면 내용에 구체적인 서사구조가 나타나지 않고 여러 종류의 조상신만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여러 자료에 군웅신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제주도굿에서 확실히 군웅신에 대한 제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지만, 현재는 군농본푸리 같은 것이 채록되지 않는다.

육지 무속에서도 군웅청배, 군웅굿, 군웅거리, 타살군웅 등과 같은 무속의례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구체적인 서사구조로 된 신화는 별로 발견할 수 없다. 경기도도당굿의 경우에는 무녀와 화랭이가 쌍군웅을 서는 것이 특징이다.

의의 〈군웅본풀이〉 가운데 중요한 내용은 바닷속으로 들어간 왕장군이 동해용왕의 부탁을 받고 동해용왕과 서해용왕 간의 싸움에서 서해용왕을 죽여 주고 그 대가로 동해용왕의 딸을 부인으로 얻어 아들 셋을 얻고 부자로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왕장군은 바닷속에서도 살 수 있는 존재이며, 화살로 서해용왕을 쏘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뛰어난 영웅이기에 군웅이 되고 있다. 여기에 실려 있는 왕장군의 공업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실려 있는 '거타지(居陀知)설화'나 『고려사(高麗史)』에 수록된 '작제건(作帝建)설화'와 같은 유형의 설화라는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다. 거타지 설화는 『삼국유사』 권 2 진성여대왕 거타지 조에 실려 있다.

신라 제51대 여왕인 진성여왕의 막내아들 아찬 양패(良貝)가 당나라로 갈 때 활을 잘 쏘는 군사 50명을 데리고 갔는데 배가 흑도에 닿자 풍랑이 일어 열흘이나 묵게 되었다. 점을 치니 신지(神池)에 제사를 해야 한다고 하여 그렇게 했다. 그러자 밤새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활 잘 쏘는 사람을 섬에 남겨놓고 가라고 하여 거타지가 남게 되었다. 노인이 다시 거타지 앞에 나타나 자기는 서해 바다 물귀신으로, 어떤 사미[중]가 다라니를 외며 하늘로부터 내려와 자기 가족을 다 죽여 이제 자기 부부와 딸 하나만 남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를 화살로 쏘아 죽여 달라고 부탁했다. 거타지가 그렇게 해주니 사미는 늙은 여우로 변해 죽었다. 노인은 고맙다고 하며 자신의 딸을 아내로 삼아주기를 요청하면서 딸을 한 송이 꽃으로 만들어 그의 품 속에 간직하도록 했다. 거타지가 당나라로 갔다가 신라로 귀국하여 꽃을 꺼내었더니 꽃이 여자로 변해, 거타지는 그녀와 함께 잘 살았다.

작제건설화는 김관의(金寬毅, 생몰년 미상)의 『편년통록(編年通錄)』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작제건은 고려 태조 왕건의 조부[懿祖]이다. 작제건의 부친인 당의 숙종이 잠저시에 동유하여 송악군에 이르러 보육의 집에 머물렀을 때 보육의 막내딸인 진의(辰義)와 동침하여 작제건을 낳았다. 작제건은 육예를 겸비했을 뿐 아니라 활의 명수이기도 했다. 작제건은 모친으로부터 부친이 남겨 놓은 궁시(弓矢)를 받아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당으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 표류하게 되었다. 문득 한 노옹이 나타나 자기는 서해용왕이라면서 매일 여래상을 가장한 노호(老狐)가 나타나 괴롭혀서 못 견디겠으니 신궁으로 이를 제치해 달라고 간청했다.

작제건이 그대로 해 주니 서해용왕은 기뻐하며 그를 용궁으로 인도하여 "그대는 앞으로 당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는 칠보를 가지고 동토에 가서 모친에게 효도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작제건이 동토에 가서 왕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니 서해용왕은 아직 왕이 될 시기가 아니고 자손에게서 왕이 난다고 하였다. 한 노구가 작제건에게 나타나 용왕의 딸을 아내로 달라 하라고 말해 주어 작제건이 용왕의 맏딸을 아내로 하고 칠보를 얻었다. 그런데 신부가 버드나무 지팡이와 돼지가 칠보보다 나으니 그것과 바꿔 달라 하라고 일러주었다. 용왕은 칠보에 돼지만을 더 주었다. 이후 작제건은 아들 넷을 낳았다. 장자는 용건으로, 곧 세조인 왕건의 부친이다. 작제건의 부인인 용녀는 자기가 목욕하는 것을 보지 말라고 남편에게 말했다. 그러나 남편이 이를 어기자 용궁으로 돌아가 버렸다.

〈군웅본풀이〉에 나오는 존재들은 왕대조 왕장군, 왕근, 왕빈, 왕사랑 등 왕씨들이다. 군농어멍 희속에낭은 고려태조 왕건의 어머니인 위숙왕후(威肅王后)와 그 이름이 비슷하다. 또 군농의 큰아들 왕근과 고려태조 왕건의 이름도 유사하다. 이런 점을 중시하면 〈군웅본풀이〉가 거타지 설화보다 고려 시조들의 이야기인 작제건설화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며, 이와 같은 관련성에 대해서는 이미 선학들에 의해 연구된 바 있다. 결국 〈군웅본풀이〉는 작제건설화가 무가에 수용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이 신화는 설화와 서사무가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신화는 악마퇴치형 설화와 서사적 구조가 상통하고 있어 우리 문학사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서사전통을 고찰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제주도의 무가가 채록된 여러 자료에 군웅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제주도 무속에서는 군웅신에 대한 제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 육지의 무속에서도 군웅청배와 군웅굿 혹은 군웅거리가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무속에서는 전통적으로 군웅신에 대한 제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제주도의 〈군웅본풀이〉가 고려 시조 왕건의 세계(世系)를 설명하는 신화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군웅신에 대한 제의는 국가의 건국시조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고려 · 조선을 통틀어 국가의 건국주는 뛰어난 무장으로서의 영웅신, 즉 군웅들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육지 쪽에서는 군웅굿 혹은 군웅거리에 화살을 쏘는 시늉을 하고 있는 곳이 많고, 타살군웅굿은 피를 흘리며 죽어간 군웅이나 군웅할아버지들을 위로하고 대접하는 굿으로 되어 있다.

참고문헌 三國遺事, 朝鮮巫俗の硏究 上(赤松智城 · 秋葉隆, 조선총독부, 1937), 한국의 신화(장주근, 성문각, 1961),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진성기, 민속원, 1991), 김금화의 무가집(김금화, 문음사, 1995), 한국설화문학연구(장덕순, 박이정, 1995), 서사무가연구(서대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8), 韓國の民間信仰(장주근, 도쿄:금화사, 1973).

필자 이수자(李秀子)

군웅상

정의 군웅신을 대접하기 위해 제물을 차린 상.

내용 군웅(軍雄)은 전국적으로 두루 존재하는 군사 · 병사 · 전쟁 · 장수 등의 신격이지만, 그 성격이 그리 단순하지 않아 정확하게 분별되지 않는다. 또한 지역적 차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독립적으로 군웅신만을 위해 제물을 차려 대접하는 군웅상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마을굿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군웅상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경기도도당굿을 꼽을 수 있다. 경기도도당굿은 경기 남부와 서부인 수원, 화성, 오산, 안산, 부천, 인천 등지를 중심으로 활동한 속칭 화랭이패(산이패)라는 세습무계에 의해 연행되던 마을굿이다. 이 도당굿의 특징은 군웅굿(거리)을 크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현재도 전승되고 있는 부천 장말도당굿의 예를 들면 14개 굿거리 가운데 군웅굿은 11번째로 연행된다. 도당굿의 연행 순서는 1) 당주굿 2) 부정굿 3) 도당모시기 4) 돌돌이 5) 장문잡기 6) 시루말 7) 꽃반세우기 8) 제석굿 9) 터벼림 10) 손굿 11) 군웅굿 12) 중굿 13) 도당모시기 14) 뒷전이다.

경기도도당굿의 군웅굿에 쓰이는 군웅상은 다리를 높이 세운 제사상이다. 그 위에 군웅을 위한 떡, 이른바 군웅시루떡과 쇠머리 · 술잔 등을 올린다. 제상 밑에는 활, 화살, 생닭 등이 놓인다. 경기도도당굿의 군웅굿에서 무녀와 화랭이가 함께 굿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무녀와 화랭이는 군웅상을 중간에 놓고 마주보며 제상을 도는 춤, 이른바 맞군웅춤 또는 쌍군웅춤을 춘다. 또한 무녀의 〈청배〉 무가뿐 아니라 화랭이의 〈군웅노정기〉라는 무가도 부르는 등 아주 규모있게 군웅굿(거리)을 한다. 군웅굿 말미에는 군웅상 밑에 둔 활과 화살을 들고 사방 방수밟이를 하고 난 후에 활을 쏘아 잡귀와 액 등을 물리는 행위를 한다.

경기 서남부뿐 아니라 서울과 경기 마을굿에서는 굿의 말미에 군웅거리를 두고, 군웅화살을 쏘는 행위들이 보편적으로 등장한다. 이때 기본적으로 작은 규모의 군웅상을 차려 놓고 굿을 하는 곳을 중심으로 바깥의 사방을 다니며 활을 쏜다. 서울 용산구 용문동의 마을굿인 남이장군사당굿(용문동부군당굿)의 군웅거리에서도 뒷전 바로 앞에 행해지며, 화살을 쏜다. 이때의 군웅상에는 과일, 팥떡, 막걸리, 사탕, 과자를 올린다. 강화도외포리곶창굿에서도 뒷전 이전에 군웅굿이 연행된다. 이때 상 위에 올리는 제물은 팥떡, 삼색과일, 밤, 물, 술, 나물 등이다. 상 외에 활, 화살, 닭, 닭사실대, 오방기, 동글래떡 등을 준비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일반적인 서울굿, 즉 마을굿이 아닐 때 군웅은 산거리에서 부속적으로 놀려지거나 성주굿과 붙여서 연행된다. 진오귀굿에서는 시왕군웅이라는 명칭으로 연행되지만 독립된 제물을 받는 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황해도굿에서는 군웅풀이와 군웅타살굿이 있어서 이때 군웅을 대접한다. 과거에는 독자적인 군웅상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지만, 오늘날에는 독립된 상을 차리지는 않는 듯 보인다. 동해안 지역에서는 군웅굿을 군웅장수굿 또는 놋동이굿이라고 부른다. 여러 장수를 청배하는 무가를 부른 뒤에 무거운 놋동이를 입에다 무는 것이 핵심적인 연행이다. 그러나 이때도 독립된 제물 상을 차리는 것은 아니고, 여러 신이 두루 대접받는 굿상을 공유한다. 통영과 거제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별신굿에서도 뒷전 바로 전에 군웅굿이 연행되지만 역시 독립된 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주도굿에서 군웅은 조상과 관련되면서도 장군의 성격을 띠는 복합된 신격으로 관념하여 석살림굿 가운데 군웅덕담 · 군웅본판의 형태로 연행되고, 조상상 옆으로 작은 군웅상을 마련한다.

참고문헌 한국의 굿 1–인천지역편(이선주, 민속원, 1996), 한국의 굿 2–서울, 인천, 경기편(이선주, 민속원, 1996), 경기도 도당굿(김헌선,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무 · 굿과 음식 2(김헌선 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무당내력(서울대학교 규장각, 민속원, 2005), 서울 이태원 부군당굿(양종승, 민속원, 2007), 군웅의 의미와 지역별 망자천도굿의 구조 비교–서울굿의 양상과 의미(홍태한, 민속원, 2007).

필자 김형근(金亨根)

군웅춤

정의 경기도도당굿의 가장 중요한 굿거리인 '군웅굿'거리에서 추는 춤.

내용 군웅춤은 경기도도당굿에서 숭배 대상인 군웅신과 관계된 춤으로, 군웅신을 맞이하여 즐겁게 위무하는 춤이다. 무관다운 풍모를 보이면서도 역동적이고 활달한 동작으로 춘다. 마지막에 화랭이와 맞군웅춤을 추기도 하는데, 이는 서로 대칭되게 서서 쌍으로 춤추며 돌아갈 때는 팽팽한 대칭의 역학관계를 드러내면서 신명이 고조된다. 군웅춤의 장단으로는 진쇠, 터벌림, 올림채가 있다.

1. 진쇠-30박



2. 터벌림-10박



3. 올림채-6박

군웅춤은 징을 '꽹 꽹 꽹' 세 번 친 다음 부채방울을 들고 네모진 굿상을 한 바퀴 돌면서 절하는 춤으로 시작하여 홍철릭 소매를 제치고 엎으면서, 또는 어깨에 걸치고 돈다. 군웅님께 소리로 고하고 여러 제물을 들고 놀리면서 춤을 춘다. 즉 소머리나 닭 등을 놀린 후 그 제물을 군웅님께 바친다. 그다음 활춤은 활을 사방으로 겨누고 마지막에 화살을 쏜다. 또 무녀와 화랭이가 쌍군웅춤을 추기도 하는데, 화랭이는 쇠를 치면서 막춤을 추고 돌아가고 여자 무당은 철릭을 너울거리면서 상 주위를 돈다.

군웅춤의 춤사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징춤

징을 들고 추는 춤으로 춤사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절 드리는 사위
2) 징을 어깨에 메고 추는 사위
3) 징을 어깨에 메고 왼쪽으로 돈 다음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 8자로 회전하는 사위
4) 발을 좌우로 교차하면서 어깨춤을 추는 사위
5) 허리 밑에서 징을 잡고 치는 사위

2. 부채방울춤

1) 부채와 방울을 서로 좌우로 교차하면서 추는 사위
2) 부채와 방울을 상하로 교차하면서 추는 사위
3) 태극형으로 돌면서 방울을 흔들며 추는 사위
4) 군웅상을 돌면서 추는 사위

3. 홍철릭 소매춤

1) 홍철릭 소매를 좌우 교대로 엎고 제치는 사위
2) 홍철릭 끝동을 팔에 말아 감는 사위
3) 소매를 팔에 감아 어깨춤을 추는 사위
4) 철릭을 한쪽 어깨에 얹고 좌우로 도는 사위

4. 소머리춤(닭춤)

1) 소머리를 가슴 높이에서 놀리며 추는 사위
2) 소머리를 어르면서 태극형으로 도는 사위
3) 군웅상을 돌면서 회전하며 절을 하는 사위
4) 소머리를 들고 제자리에서 도는 사위

5. 활춤

활을 들고 추는 춤으로 춤사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활을 좌우로 어르는 사위
2) 활을 위 아래로 어르는 사위
3) 활 쏘는 사위

군웅굿에서 모시는 신은 전쟁 영웅이나 왕들이다. 예컨대 이성계, 왕건, 최영 장군, 임경업 장군 등이다. 군웅신은 주로 경기도 지역에서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군웅춤을 추며 마을 사람들에게 태평을 가져다준다는 의미를 지닌다. 모셔진 신의 성격처럼 춤 또한 위풍당당한 장군이나 영웅의 면모를 드러낸다.

참고문헌 무무(문화재연구소, 문화재관리국, 1987), 조선무속의 현지연구(최길성,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7), 한국무속과 연희(이두현,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경기도도당굿(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한국의 샤머니즘(조흥윤,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샤머니즘 연구(한국샤머니즘학회, 문덕사, 2002), 경기도 남부 도당굿 중 제석굿 무가의 음악적 특징(박정경, 한국무속학 7, 한국무속학회, 2003), 경기도당굿의 굿춤(이애주, 제8회 동양음악학국제학술회의, 2004).

필자 이애주(李愛珠)

굿

정의 무당이 굿상을 차려 제물을 신에게 바치고 가

무악희로 인간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제의. 풍물을 울리는 메굿도 굿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나 대개는 무당이 신에게 바치는 제의를 가리킨다. 굿은 굿을 의뢰하는 인간과 굿을 받는 신, 중간존재로서 무당이 있어야 진행된다. 굿은 신과 인간이 만나는 소통의 장이다.

내용 굿의 역사는 문헌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어렵고 몇 가지 기록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상고시대는 제정일치의 사회였다. 건국서사시가 구송되고 있었으며 무당의 권력이 막강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의 "차차웅은 혹은 자충이라고도 한다. 김대문이 이르되 방언에 무(巫)를 의미한 말이니 세인은 무당이 귀신을 위하고 제사를 숭상한다는 까닭으로 외경하여 마침내 존장자를 자충이라 하였다 한다."라는 기록은 국가의 일에 무당이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려시대에는 이규보의 「노무편」에서 현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무속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윤복의 풍속도 〈무녀신무〉에서도 굿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고 『무당내력』에는 거리별로 복식과 상차림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 조선시대 굿의 실상을 알 수 있다. 21세기 현재에는 서울지역에만 한 해 6만 건 이상의 굿이 연행될 정도로 왕성한 전승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많은 굿이 행해지고 있다. 굿의 형태를 따져 개인굿과 마을굿으로 나누는데 그 기능상 크게 경사굿과 우환굿, 그리고 신굿으로 나눈다. 개인굿이 개인적으로 치루는 굿이라면 마을굿은 마을민들이 합동으로 치르는 굿이다. 개인굿에서 경사굿은 사람의 명과 복을 비는 재수굿, 우환굿은 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행하는 치병굿, 죽은 이를 저승으로 천도하는 저승천도굿 등이 있다. 특히 저승천도굿은 한국의 대표적인 굿으로서 지역에 따라서는 진오귀굿, 오구굿, 새남굿, 다리굿, 시왕굿, 수왕굿, 수망굿, 시왕굿, 망묵이굿, 썻김굿, 질닦음, 시왕맞이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신굿은 강신무가 신병을 앓다가 신을 받아 입무하는 굿으로 내림굿 또는 신내림굿이라고도 불리며 세습무에게는 없는 굿이다.

마을 사람들의 평안을 기원하는 마을굿은 지역에 따라 별신굿, 당굿, 도당굿, 대동굿, 만동굿, 선황굿, 배연신굿 등으로 불린다. 마을굿은 마을 사람들에게 닥칠 액을 예방하여 마을의 평안을 유지하고 대동단결을 모색하는 기능을 한다.

한편으로, 굿을 나누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신에게 굿을 바치는 존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굿을 바치는 존재는 굿을 행하는 목적과도 상통한다. 예를 들어 굿을 바치는 존재가 죽은 이라면, 그 굿의 목적은 신에게 굿을 바침으로써 죽은 사람이 저승으로 무사히 천도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굿을 바치는 존재는 무당 자신인 경우와 무당이 아닌 일반인인 경우로 나뉜다. 무당 자신이 굿을 바치는 경우는 신에게 굿을 바치는 존재가 굿을 행하는 무당 자신과 일치한다. 무당이 굿을 열어 신에게 자기의 품은 뜻을 알리는 것으로는 내림굿이 대표적이다. 무당이 되기 위해 입사식으로 시행하는 내림굿은 무당 자신이 권능있는 무당이 됨을 신에게 고하는 굿이다. 또한 무당 자신이 신령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행하는 꽃맞이굿 또는 단풍맞이굿(일명 햇곡맞이굿)도 성격이 같다.

이 외에 무당이 아닌 일반인들이 굿을 바치는 경우는 그 목적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굿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현실에 가지고 있는 결핍을 해소하여 미래에 대한 평안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굿의 목적에 따라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굿, 죽은 사람을 위한 굿, 마을을 위한 굿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굿은 살아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순을 해결하여 평안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행하는 굿으로서 재수굿, 병굿이 대표적이다. 미래가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방하는 재수굿과 병자를 치료하려는 병굿은 굿을 바치는 존재와 굿을 행하는 목적이 일치하는 경우이다. 죽은 사람을 위한 굿에는 망자천도굿이 대표적이다. 이 망자천도굿은 살아 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천도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굿이다. 서울의 진오기굿, 호남의 썻김굿, 동해안의 오구굿, 함경도의 망묵굿, 평안도의 다리굿 등이 대표적이다. 마을을 위한 굿은 부군당, 서낭당 등

지에서 집단제례를 행한 후 마을 사람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벌어지는 굿이다. 서울 지역의 부군당굿, 도당굿, 동해안 별신굿이 대표적이며 서해안의 위도띠뱃굿과 남해안별신굿도 마을 사람들을 위한 굿이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왕성하게 행해지는 굿은 죽은 이를 위한 굿과 신굿이다. 죽음을 사람의 일생에서 중요시하고,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한(恨)의 의식 때문에 망자천도굿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과학이 발달한 현대이지만 신병을 앓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신굿 또한 빈번하게 벌어진다. 특히 신굿을 받는 사람 상당수가 기독교나 불교와 같은 고등종교를 믿던 신자들이었다는 것은 신병이 신앙적인 체험만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좀더 다각적인 규명이 필요하다.

한국의 굿의 구조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는 초반부, 중반부, 종반부의 구조로 바라보는 것으로 이것은 굿청 정화하기-본격적인 굿 진행-마무리하기라는 3단 구성과 상통한다. 또한 청신, 오신, 공수, 송신의 구조로 파악하기도 한다. 신을 청배하여 놀린 후 공수를 듣고 신을 보내는 것으로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개별 굿거리의 짜임 파악에는 매우 유용하다. 굿청 정화하기-하늘신 모시기-지역신 모시기-인물신 모시기-가옥신 모시기-잡귀잡신 불러 먹이기 순으로 보기도 한다. 신령의 위상과 굿거리의 짜임을 연계하여 파악한 이 구조는 한국 굿의 의미망을 도출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아울러 안팎의 구조로 굿을 바라보기도 한다. 썻김굿에서 연행 장소가 안방에서 마루를 거쳐 대청, 마당으로 옮겨가는 데에 주목하면서 동해안별신굿의 안당과 밧당 구조를 염두에 두고, 서울진오기굿이 안에서 진행하는 안당사경굿과 밖에서 진행하는 진오기굿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고려한 분석 방법이다. 굿의 구조는 어느 한 방법론으로 쉽게 파악할 수 없다. 춤과 음악, 재담, 몸짓, 노래가 복합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음식, 무구, 복식, 악기 등의 다양한 물질문화가 융합된 종합예술이기 때문이다.

지역사례 **1. 함경도 지역** : 현재 함경도 지역의 굿에 대해서는 실상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남북이 분단된 지 반세기를 넘어섰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실상을 감안하면 전통적인 굿이 사라졌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현재 조사된 함경도 굿은 분단 이후 월남한 무당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자료인 셈이다.

함경도는 앉은굿이 많은 지역으로 특별한 거리에만 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유별나게 서사무가가 많은 지역이 함경도 지역이다. 창세무가를 비롯하여 도랑선비와 청청각시, 궁상이, 치원대 양산복, 짐가재굿 등의 무가가 왕성하게 전승된다. 이러한 양상은 제주도 지역과 상통하는 점이 있으며, 제주도와 함경도가 중심부에서 거리가 먼 주변부임을 고려하면 우리 무속신화의 원형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함경도 지역의 대표적인 굿은 망묵굿이다. 망무기굿 또는 새남굿이라 불리는 이 굿은 모두 스물두 거리로 되어 있어 3일간 밤낮으로 연속하여 진행했다고 한다. 1982년에 세상을 떠난 지금섬만신이 망묵굿의 대가로 알려져 있으나 지금은 전승이 거의 단절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외에 집을 지어서 새로 이사하여 들어갈 때 하는 성주굿, 가족 또는 노인의 장수와 건강을 기원하는 성인굿 또는 센굿, 치병굿의 일종인 횡수맥이 또는 혼수굿, 조상의 한을 풀어주는 간지풀이, 산소에 가서 액을 물리치는 산령굿, 살풀이 등이 있다. 함경도 굿에 대한 조사 보고는 임석재와 장주근에 의해 이루어져 『관북지방무가』라는 책자로 엮어지기도 했다.

2. 평안도 지역 : 평안도의 사정도 함경도와 별 차이는 없지만 다행히도 아직까지 정통 평안도굿을 보유하고 있는 정대복의 제자 이정연 일행이 활동하고 있다. 현재 알려진 평안도 지역의 굿에는 다리굿, 선황굿, 요왕굿, 재수굿 등이 있다. 이들 굿에 대한 무가들은 임석재와 장주근에 의해 『관서지방무가』로 엮어진 바 있다. 평안도굿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굿은 다리굿이다. 죽은 사람의 혼을 저승으로 천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이 굿은 평안도의 가장 대표적인 굿으로 '다리'라는 상징성으로 인해 한국인들이 지니고 있는 죽음관을 확인할 수 있다. 다리굿은 모두 14거리로 되어 있으며 이들

또는 사흘 이상 행해진다. 망자가 무녀를 통해 생전의 한을 푸는 '기밀'이 특히 중요하게 여겨지며 이승과 저승을 잇기도 하고 단절시키기도 하는 다리를 통해 한국인 의식의 한 층위를 보여준다.

3. **황해도 지역**: 황해도굿은 북한 지역의 굿 중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다. 인천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는 황해도굿은 오늘날 이북지역의 굿을 대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되어 있다. 황해도를 중심으로 서해안 일대에서 배연신굿이 지금도 전승되고 있으며 만인간의 구설수를 막는 만수대탁굿, 농경문화와 함께 발달되어온 소놀이굿, 병을 치료하는 퇴송굿, 내림굿, 수왕굿 등은 유용한 자료로 남아 있다. 또한 황해도 산간지방을 중심으로 전승되어온 호살량굿이 유명하다. 호살량굿은 범에게 물려간 조상을 달래는 굿으로서 개를 잡아 개가죽 안에 조짚을 넣어 굿당 앞에 진설하여 혼을 부르는 굿이다.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배연신굿은 소래포구, 화수부두 등 서해안에서 황해도 무당들에 의해 그 맥이 이어지고 있다. 황해도는 강신무가 우세한 지역으로 쇠걸립으로 무당이 된 만신들은 엄격한 수련을 통해 하나의 독립된 만신으로 성장한다. 이들은 거울과 칼, 방울 같은 귀물들을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며 자신의 영적 능력을 잘 드러낸다.

황해도 지역에서는 서사무가가 발견되지 않는다. 전국적인 전승 양상을 보이는 〈바리공주〉나 〈당금애기〉도 황해도 지역에는 없다. 서사무가가 왜 황해도 지역에만 전승되지 않는지는 앞으로 규명해야 할 문제이다.

4. **서울 지역** : 서울굿은 가장 엄숙하고 장중하다. 궁궐이 있는 중심부 지역이어서 서사무가의 구송에 있어서도 원칙과 엄정함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 궁궐을 중심으로 무속이 전승된 것이 분명하지만 일반인이 중심이 되어 전승된 무속도 있다. 이는 현재 전승되는 오구굿에 두 유형이 있다는 주장과도 관련이 있으며, 공주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바리공주〉 무가가 몇몇 유파에 있었다는 주장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오구굿의 하나인 새남굿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서울굿은 음악이나 춤에서 엄정함을 보이는데 이것은 다른 지역과 구별된다.

서울굿이라는 명칭은 행정구역상의 서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지역까지 포괄하므로 상당히 유동적이다. 북한 지역에서 내려온 무당들의 영향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충청도 지역에서 올라온 법사들까지 가세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의 중심부로서 도시화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지역임에도 마을굿이 상당 수 남아 있어 주목할 만하다.

5. **경기 지역** : 경기 지역의 굿은 지리적으로 이북과 인접하는 북부 지역과 한강 이남의 남부 지역으로 대별된다. 굿의 형식에서 차이가 뚜렷할 뿐만 아니라 남부 지역에서는 광범하게 도당굿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당굿은 본래 산이, 고인, 재인, 화랭이 등으로 불리는 세습무가의 남자 굿꾼이 주재하는 굿으로 강신무가 우세한 중부 지역에서 주로 행해진다. 지금은 도당굿을 주재할 수 있는 화랭이가 거의 사라진 가운데 동막과 장말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다. 다행히 경기도도당굿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서 앞으로 전승이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굿판의 향유층이 일반 사람들과 점차 멀어지고 있다.

도당굿은 마을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굿으로 당주굿에서 시작하여 돌돌이 등을 거쳐 뒷전까지 모두 16거리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 남부 지역인 수원, 화성, 오산, 안성 등지에 도당굿이 왕성하게 행해졌으나 지금은 명맥만 남아 있다.

6. **충청도 지역** : 충청도는 법사가 있는 지역으로 앉은굿이 오래 전부터 발달해 왔다. 무신도 대신 설경을 걸고 굿을 하는 법사는 북 장단에 맞추어 경을 읽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으로 충청도인의 점잖은 기질과 상통하는 점이 있다. 이들이 읽는 경을 따로 '무경'이라고 한다. 이들은 비록 경을 읽고 있지만 안택굿, 고사굿, 삼신굿, 용왕굿, 병굿, 신명굿, 넋굿 등상당히 많은 굿을 진행할 수 있다. 부여 지역의 단잡이굿은 연극적인 구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으며, 이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굿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충청도 지역에서는 굿을 '거리'보다는 '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조왕석, 성조석과 같은 명칭이 사용된다. 비록 무경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이 지역에는 〈바리공주〉 같은 서사무가가 있고 복색은 앉은굿을 양반굿이라 하여 한복에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지역은 강신무가 점차 세력을 넓혀 가고 있다. 김영진이 1982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무당 2030명 중 강신무 1871명, 세습무 65명, 학습무 94명이라고 하는데 이 자료를 통해 충청도 지역에서 전통적인 무당들이 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신을 했어도 중부 이북 지역의 강신무처럼 선굿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독경을 배워서 앉은굿을 하는 법사도 많은 것이 이 지역 무속의 특징이다.

충청도 지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은산별신제에서 행해지는 굿이다. 옛날 전사한 장병들의 위령제부터 시작된 은산별신제는 은산 지역 마을 제사와 전사한 장병들의 위령제가 결합된 성격으로 현재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다.

7. **전라도 지역** : 전라도 지역은 단골이라 불리는 세습무가 우세한 지역이다. 이들은 단골판이라는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는 그 흔적만이 남아 있다.

전라도 지역의 대표적인 굿은 씻김굿이다. 망자의 넋을 씻겨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씻김굿은 곽머리 씻김굿, 소상대상 씻김굿, 날받이 씻김굿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씻김굿에서 넋을 올리고 고를 푼 후 넋을 씻기고 베를 갈라 저승으로 보내는 일련의 과정은 연극적인 요소가 짙다. 이와 함께 음력 정월에 집안의 안녕과 운세를 빌기 위해 하는 도신, 집을 새로 짓거나 이사를 했을 때 가장 큰 가신인 성주의 신체를 봉안하면서 행하는 성주굿,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경우나 아기가 아플 때 하는 제왕맞이굿, 망자의 사망일이 좋지 않은 경우, 사망일에 맺힌 액을 풀어주는 사자맥이, 아픈 환자가 있는 경우 치병을 목적으로 하는 삼설양굿 등도 전라도 지역의 대표적인 굿이다. 또한 도서지방에서는 개인적 차원의 유왕굿(용왕굿)과 마을 공동체 단위의 시숫배 띄우기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

전라도 지역은 서사무가가 있지만 전국적인 분포 양상을 보이는 〈바리공주〉나 〈당금애기〉는 약화되고 〈장자풀이〉와 〈칠성풀이〉가 왕성한 전승을 보이고 있다. 현재 진도씻김굿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다.

8. **남해안 지역** : 남해안 지역의 대표적인 굿은 세습무가 주관하는 별신굿이다. 거제도와 통영을 중심으로 인근의 여러 도서에서 행해지는 별신굿은 각 마을마다 일정한 주기를 정해 놓고 거행하는 마을굿이다. 현재는 별신굿을 주재할 수 있는 무당이나 악사가 많이 사라져서 몇 년에 한 번 거행되는 형편이라고 한다. 남해안 지역에는 뱃굿, 넋건지기굿, 가정굿 등이 있으나 현재 모두 강신무가 주관하고 있다.

남해안별신굿의 담당층은 원래 세습무로 이들은 전라도 지역과는 다르게 부게 세습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무당보다도 악기를 연주하는 잽이가 훨씬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어서, 일급 무당을 만드는 것도 이들 잽이 손에 달렸다고 한다.

별신굿은 무당이 직접 나서서 주관하기보다는 마을의 요청을 받은 대모가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시작된다. 동해안 지역과 달리 미리 비용을 정해 놓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무당과 마을 대표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별신굿은 모두 14거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질만한 것이 큰굿이다. 별신굿에 나오는 갖가지 장단과 음악, 춤사위가 모두 이 거리에 들어 있어 굿판에 참가한 사람들의 호응이 대단하다.

9. **동해안 지역**: 동해안 지역은 '화랭이'라고 불리는 세습무가 우세하다. 강신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강신무도 세습무와 협력하여 굿을 진행한다. 대표적인 굿에는 별신굿과 오구굿이 있다. 특히 별신굿은 마을 주민들이 모두 참가하는 굿으로 그 의례성과 축제성으로 인해 일찍이 주목을 받은 바 있으며, 별신굿에서 행해지는 맹인놀이, 원님놀이, 탈굿 등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연극적인 요소로 인해 무극(巫劇)이라 불리며 많은 연구성과를 낳은 바 있다.

별신굿에 참여하는 무당은 세습무로 모두 혈연관계로 맺어져 있다. 당주무당이 별신굿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데 연행과 관련된 모든 것을 마을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굿거리 종류와 연행에 필요한 무당과의 연락과 소집 등 제반사항을 결정한다.

이들은 무가 연행에서 예능적인 기질이 농후하여 사설이 풍부하고, 말과 노래를 반복하는 등 청중을 사로잡는 면이 있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는 전승되지 않는 〈심청굿 무가〉를 연행하고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10. 제주도 지역 : 제주도의 무당을 심방이라고 한다. 심방은 다시 심방과 삼승할망으로 구분되는데 심방은 굿을 주관하는 무당을, 삼승할망은 조산원의 역할과 소규모 의례인 비념을 주관하는 무당을 말한다. 또한 모든 굿을 주관하는 큰심방, 쉬운 부분이나 작은 굿을 할 수 있으며 악기를 연주하는 소미, 굿을 할 때 심부름을 하는 제비로 나누기도 한다. 이들은 사제로서 존재하기도 하며, 점을 쳐서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없애주며, 신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달하여 병을 고치기도 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제주도의 심방이 주관하는 굿을 보통 '큰굿'이라고 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 제주의 굿은 정형성에 있어서 매우 엄격하여 함부로 굿 절차를 바꿀 수 없다. 지금도 큰굿을 하면 '두 이레 열나흘 굿'이라 하여 14일 동안 계속 굿을 진행한다. 또 심방이 자신의 집에서 하는 굿은 신굿이라고 하여 굿 중의 굿으로 여긴다. 신굿은 제주도 심방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성무의례(成巫儀禮)이다. 과거에는 신굿을 하지 않으면 심방으로 인정하지 않아 심방청이나 무격 단체에 등록할 수 없었다.

이러한 큰굿은 청신의례(請神儀禮)인 초감제 · 초신맞이 · 초상계, 공연의례인 추물공연 · 석살림 · 보세감상, 기원영신의례(祈願迎神儀禮)인 불도맞이 · 일월맞이 · 초공본풀이 · 이공본풀이 · 초이공맞이 · 삼공본풀이 · 젯상계, 천도해원의례인 시왕맞이 · 요왕맞이 · 세경본풀이 · 제오상계, 오신의례(娛神儀禮)인 전상놀이 · 세경놀이 · 양궁숙임, 가신 · 조상의례인 문전본풀이 · 본향ᄃᆞ리 · 영개돌려세움, 송신의례(送神儀禮)인 군웅만판 · 칠성본풀이 · 각도비념 · 말놀이 · 도진 · 가수리 · 뒤맞이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마을의 수호신당인 본향당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영등할머니를 위하여 올리는 영등굿, 물에 빠져 죽은 이의 영혼을 천도시키는 무혼굿도 행해지고 있어 육지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특히 제주도는 본풀이라고 불리는 서사무가가 다양하게 전승된다. 큰굿에서 전승되는 무조신본풀이 말고도 각 마을에서 모시는 마을당신의 유래를 설명한 신당본풀이, 세민황제본풀이 같은 특수본풀이 등이 전승되고 있어서 한국 신화의 원류라 할 만하다.

한국의 굿은 음악, 춤, 복식, 무가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전통예술의 근간이 되고 있다. 판소리가 서사무가에서 기원했다는 설, 민속음악의 원류로 무속음악이 자리 잡고 있는 점, 민속무용의 춤사위가 무당춤에서 유래했다는 점 등에서 한국 굿의 가치가 확인된다. 사람들은 굿이라는 비일상적 공간에서 현실의 제약을 잊을 수 있었다. 삶과 죽음이 나뉘어져 있어 불행이 시작되는 현실과 달리 삶과 죽음이 혼재되어 있는 굿판에서 죽은 가족들을 만나 가슴에 쌓인 한을 풀었다. "굿하고 싶어도 며느리 춤추는 것 보기 싫어 못한다"라는 말처럼 굿은 현실에 지친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기능이 있다.

전통예술의 뿌리이면서 사람들을 위무해주는 기능을 가진 굿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자산이다. 특히 최근에는 게임, 만화영화, 캐릭터 등에 굿의 다양한 요소들이 활용됨으로써 유용한 콘텐츠 자료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 미래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굿이 기여하고 있다. 비록 예술성이 약화되고 개인의 기복 기능이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넘어 굿을 의뢰하고 있어 앞으로도 굿은 한국의 중요한 문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무속연구(김태곤, 집문당, 1980), 충청도 무가(김영진, 형설출판사, 1982), 굿춤의 지역적 양상(김정녀, 함경도 망묵굿, 열화당, 1985), 재체험을 통한 죽음에의 이해(황루시, 평안도 다리굿, 열화당, 1985), 제주도무가 본풀이 사전(진성기, 민속원, 1991), 동해안 지역 무극연구(이균옥, 박이정, 1997), 홍성의 무속과 점복(최운식 외, 홍성문화원, 1997), 동해안별신굿(이균옥, 박이정, 1998), 은산별신제 종합 실측조사보고서(하효길 외, 문화재관리국, 1998), 제주도 무속신화(문무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전북의 무가(김성식, 전라북도립국악원, 2000), 한국의 굿(홍태한 외, 민속원, 2002), 서울진오기굿(홍태한, 민속원, 2005).

필자 홍태한(洪泰漢)

굿거리장단

정의 우리나라 굿 장단의 보편적인 형태 가운데 하나.

내용 굿거리장단은 서울굿거리에서 대개 굿거리-허튼타령-당악 장단의 일정한 전개틀 속에서 이루어진다. 굿거리장단은 3소박 4박자 장단이라고 할 수 있다. 장단을 놓는 방법이 서울굿에서는 매우 독자적으로 나타난다. '덩--, 덩--, 쿵-따, 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이며, 이 장단의 틀로 된 완만한 곡이 흔히 굿거리장단의 전형이다. 우리나라의 한강 이남 서부 지역 굿에서 3소박 4박 장단의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충청도 · 전라도 등에서는 살풀이-신임장단 등의 틀이 운용되고, 경기도 남부에서는 도살풀이-모리-발뼈드레 등이 운용된다. 장단의 운용틀에 동일한 굿거리가 쓰인다고 하더라도 장단을 놓는 법이 다른 점을 알 수 있다. 굿거리장단이 3소박 4박이라고 한다면 살풀이 역시 동일하지만 장단을 운용하는 방법이 다르고 무가를 엇붙인다. 경기도 남부에서는 도살풀이를 써서 2소박 6박의 장단틀을 운용한다.

굿거리장단은 서울 만신들에게 중요한 장단으로, 타령을 부르거나 세련된 민요를 부를 때에는 전혀 다른 장단을 사용한다. 이 장단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노래하거나 춤을 추는 데 세련된 기교를 구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서울에서는 굿거리장단을 덤부리상장단 또는 덤부리상장구라고 한다. 굿거리장단이 단순하게 장단의 기교를 넣지 않고 원박만 연주하면서 주로 만신이 '들어숙배나 숙배'를 하는 데 쓴다면 덤부리상장단은 원박에 치우치지 않고 가락 사이에 잔가락이나 겹가락을 사용하면서 장단의 묘미를 긴장되게 구현한다.

굿거리장단은 흔히 '기생장단'이라는 이름으로 곧잘 불린다. 이는 굿거리장단이 세속화되는 과정에 이루어진 현상으로, 기생장단이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는 데 쓰이게 되면서 이를 관용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굿거리장단은 한국의 원형적인 무악 장단이면서 다른 타악 장단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농악장단에서도 이와 유사한 장단을 사용한다. 좌도농악과 우도농악 등에서는 이를 풍류굿이라고 일컬으며 이 가락을 발달시켰다.

의의 굿거리장단은 무악에서 일차적으로 서울굿에 한정된 장단이고, 이차적으로는 서울 지역의 굿거리장단과 한 틀로 묶을 수 있는 장단에까지 확장할 수 있다. 삼차적으로는 우리나라 농악에서 이 장단과 흡사한 장단이 더 있으며, 판소리에서도 중중모리 등이 있어서 긴요한 비교거리를 제공한다.

서울굿과 경기도굿에서는 굿거리와 자진굿거리가 대응한다. 경기도 남부 지역 굿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것 가운데 오니굿거리라는 것이 있다. 굿거리, 자진굿거리, 오니굿거리 등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이 굿거리의 원형에 대한 탐색이 가능하다. 굿거리장단은 우리의 이면에 잠재된 심층적 가락 인식과 관련된다. 가령 같은 장단의 틀이 〈3 · 3 · 3 · 3〉, 〈3 · 3 · 2 · 2 · 2〉, 〈2 · 2 · 2 · 3 · 3〉, 〈2 · 2 · 2 · 2 · 2 · 2〉 등의 장단으로 변형되는 장단이 곧 굿거리장단이다.

참고문헌 진쇠장단외 십일장단(박헌봉, 중요무형문화재보고서 28, 문교부, 1966), 시나위(유기룡 · 이보형, 중요무형문화재보고서 82, 문화재관리국, 1971), 경기도 도당굿 무가의 현지 연구(김헌선, 집문당, 1995), 한국의 무속장단(임수정, 민속원, 1999), 지영희민속음악연구자료집(성금연 편, 민속원, 2000), 경기판소리의 정착과 형성집단(김헌선, 경기판소리, 경기도 국악당, 2005).

필자 변남섭(卞南燮)

궁상이무가

정의 함경도 지역에서 망인의 영혼을 저승으로 보내는 망인 천도굿인 '망묵' 또는 '망무기굿' 가운데 궁상이 굿거리에서 구송하는 무가. 망묵의 열다섯 거리에서 궁상이굿은 여덟 번째 굿거리로 행해지며, 궁상이는 이 무가의 주인공 이름이다. 선계(仙界)에서 인간계로 귀양 온 마음씨 착한 궁상이와 악한 배선이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건에서 선악관념이 나타나며, 선한 자가 승리한다는 권선징악(勸善懲惡)으로 결말이 난다.

내용 〈궁상이무가〉는 함흥 출신의 무녀 이고분(조사 당시 66세)의 보유 자료를 1966년 5월 김태곤이 채록하여 『한국무가집(韓國巫歌集)』 3권-함흥지역 무가편에 수록했다.

궁상이는 원래 하늘의 선계에 살았으나 죄를 지어 지상의 인간세상으로 유배되었다. 그는 선비여서 욕심이 없고 마음씨가 착했으며 재산이 많은 거부 장자였다. 한편, 피가 많고 마음이 사악한 배선이가 궁상이 부인의 미모를 탐내어 궁상이에게 접근해 친구가 되었다. 궁상이의 부인은 인물이 절색이어서 근동에 소문난 미인이었다. 궁상이는 배선이의 속셈도 모르고 매일 배선이와 함께 바둑을 두며 놀기만 했다. 하는 일 없이 매일 놀기만 하니 그 많던 궁상이의 재산은 점점 축이 나기 시작했다. 그래도 궁상이는 친구인 배선이를 접대하며 매일 함께 놀았다. 어느 날 배선이가 궁상이에게 놀이바둑만 둘 것이 아니라 내기바둑을 두자고 제안해 궁상이는 순순히 응했다. 하지만 내기바둑을 둘 때 배선이는 자꾸 속임수를 썼다. 그래서 궁상이는 매번 질 수 밖에 없었으며, 그럴 때마다 재산은 눈에 띄게 축이 났다.

어느 날 궁상이의 부인이 꿈을 꾸니 궁상이의 식기와 대접에 녹이 슬고 수저가 부러져 보였다. 꿈이 하도 이상해 부인은 궁상이에게 무슨 변고가 일어날 것만 같아 꿈 이야기를 하고 남편의 신변을 보살펴 보라는 당부를 하고 싶었다. 궁상이가 전과 다름없이 사랑채로 나가 배선이와 내기바둑을 두려고 일어날 때 부인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꿈 이야기를 하려 했으나 궁상이는 여자 말은 듣지 않는다며 나가 버렸다. 한편 궁상이가 내기바둑을 하기 전에 배선이에게 재산이 지금 모두 축난 터여서 재산이 없다고 하자 배선이는 그러면 여자내기를 하자고 꼬드겼다. 그리하여 궁상이는 자신이 지면 아내를 주기로 하고 내기바둑을 두었으며, 결국 궁상이가 또 졌다. 궁상이는 낙심을 하고 돌아와 불도 때지 않은 3년 묵은 차디찬 냉방에 들어가서 혼자 가만히 있었다. 그러나 자초지종을 알게 된 궁상이 부인은 염려 하지 말라며 남편을 위로했다.

마침 궁상이집 하녀가 아주 예뻤다. 부인은 하녀에게 자기 옷을 입히고 단장시켜 꽃방석에 앉혀 놓고 자신은 이리저리 구겨진 헌 옷을 입고 재를 끼얹어 남루하게 보이도록 했다. 하지만 배선이는 이를 알아채고 능청스럽게 "아무리 내기를 했지만 남의 부인을 데려갈 수야 있겠느냐. 저 쓸모없는 여자를 달라"고 했다. 궁상이는 어쩔 수 없이 부인을 내주어야 할 판이어서 꽁꽁대는데 영리한 부인이 나선다. "남의 부인을 데려가는 데 어떻게 이레만에 데려갑니까. 백 년을 살자, 천 년을 살자던 정리(情理)를 버리고 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약속이라 내가 가겠으니 석 달 열흘만 참아주시오."

그리고 부인은 궁상이에게 큰 소 한 마리만 사달라고 하여 궁상이는 나머지 재산을 정리하여 소를 사주었다. 소를 잡아서 부인은 자기 손으로 보육을 떠 말리기를 거듭하여 소 한 마리가 솜같이 되었다. 그러자 남편의 옷 속에다 솜을 두듯이 쇠고기를 집어넣고 주머니 열두 개를 지어 낚싯줄을 이 주머니 저 주머니에 넣었다.

석 달 열흘 만에 배선이가 궁상이의 부인을 데리러 왔다. 부인은 아니 갈 수도 없고 해서 자기가 시집 온 첫날 입었던 옷과 족두리를 다 거두어 물명주 한 필과 함께 함에 넣어서 가기로 했다. 부인이 배선이에게 청했다. "여보시오.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살던 정리를 끊고 가겠습니까. 불쌍한 궁상이니 마당이라도 쓸게 데리고 갑시다." 배선이는 여자 말에 혹하여 데리고 가기로 했다. 그러나 배선이가 가다가 생각해 보니 궁상이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 바다에 집어넣기로 했다. 부인은 애원했지만 배선이는 거절했다. "그럼 그 배 조각 하나 떼어내 그곳에 실어다가 버립시다. 그러면 어느 불녁(갯가)에 걸리든지 갈대밭에 걸려서 고기밥이라도 되게 합시다"하며 부인은 일어나서 물명주 한 끝을 잡고 척 들어서 공중으로 던지며 "하느님 오늘 궁상이는 이 배에서 떨어져 고기밥이 되니 이것을 알아주시오" 하고는 드디어 이별했다. 궁상이는 이제 고기밥이 되는구나 하고, 체념하고 부인은 배 한쪽을 떼어 낸 널빤지에다 물명주필로 궁상이의 몸을 감은 뒤 물에다 집어넣었다. 그러자 큰 거북 한 마리가 나타나 궁상이를 등에다 턱 받아 업고 너울너울 헤엄쳐 간다. 부인은 배선이의 집으로 끌려왔으나 몸이 아프다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밥을 먹지 않고 누워서 앓는 척하며 배선이를 멀리할 궁리만 했다. 그러자 배선이는 매일 밖으로 나돌며 여자를 탐했다.

한편 거북은 궁상이를 갈대밭에 업어다 놓았다. 궁상이는 배가 고프고 서러웠다. 이 주머니 저 주머니를 열어 보니 고기를 낚을 낚시와 줄이 있었다. 배가 고파서 저고리섶을 물고서 질근질근 씹으니 맛이 있었다. 그 옷섶은 솜이 아니라 포육 뜬 것으로 지은 옷이었다. 궁상이는 옷 속의 포육을 뜯어먹으며 갈대로 퉁소를 만들어 구슬프게 불면서 옛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러다가 낚시를 매어서 물에다 집어넣어 고기를 많이 잡아놓았다. 하루는 학 한 마리가 궁상이 옆에 와서 목을 길게 빼고 짧게 빼고 하는 행동을 하기에 궁상이가 이유를 묻자 학은 새끼를 다섯이나 낳아 먹일 게 없으니 물고기를 좀 달라고 하였다. 궁상이가 고기를 주어 학은 새끼를 양껏 먹여 키울 수 있게 되었다. 학은 궁상이에게 은혜에 보답하려고 한다며 소원을 글로 써 달라고 했다. 궁상이는 아내가 강 건너에 있는데 강이 깊어 갈 수가 없다고 했다. 궁상이의 소원을 듣게 된 학 부부는 궁상이 다리를 하나씩 지고 등에 엎드리게 한 후 훨훨 날아서 강 건너로 옮겨 주었다.

부인은 매일 궁상이를 만날 것을 기다리고 있지만 배선이의 감시로 꼼짝할 수가 없었다. 배선이는 이부자리를 갖춰 놓고 궁상이 부인과 함께 자자고 졸랐지만 부인은 매번 거절했다. 부인은 정식으로 혼례식을 올리지도 않았고 남의 처를 몰래 빼앗아 사는 것이 탄로나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도 없으니 혼례를 성대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불쌍한 거지들을 모두 빠짐없이 불러다가 삼 년 석 달간 잔치해서 세상에 우리의 혼인을 알려야 한다고 했다. 배선이는 그녀의 의견에 수긍하고 잔치를 열기로 했다. 배선이는 궁상이로부터 빼앗은 재산까지 합쳐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 재산은 쓰지 않고 남의 소를 도둑질해다가 마구 잡고 풍류까지 잡히며 거지잔치를 아주 크게 벌였다. 궁상이 부인은 궁상이가 살아 있다면 거지가 되어 이 잔치에 나타나리라 생각하고 오랫동안 거지잔치를 했지만 궁상이가 나타나지 않아 체념했다. 거지잔치를 연 지 3년 만에 궁상이가 거지꼴로 잔치에 나타났지만 부인은 체념한 뒤라 거지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또한 상차림도 이날 상은 위로부터 내려가며 챙기고 아래부터 올라가며 챙겨 가운데 한 상은 빼놓으라고 일렀다. 이렇게 해서 그날 가운데 자리에 앉았던 궁상이는 상을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 이튿날 궁상이 부인은 또 차례를 바꾸어 상을 돌렸기 때문에 궁상이는 이날도 상을 받지 못했다. 사흘째 되는 날도 상을 받지 못한 궁상이는 속이 상해 울었다. 거지 하나가 운다는 소리를 들은 궁상이 부인은 "우리가 삼 년 석 달 동안 거지 잔치를 해서 좋게 했는데 한 거지를 울려 보내서야 되겠는가" 하면서 하인을 시켜 나가 살피게 했다. 궁상이는 "하도 춥고 배가 고팠는데 여기서 거지 잔치를 한다기에 무얼 좀 얻어먹어 볼까 하고 왔다가 사흘째 한 상도 못 받고 가니 억울해서 웁니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듣게 된 궁상이 부인은 궁상이에게 한 상을 차려주고 남은 음식을 모조리 모아 가져가게 했다. 그러자 다른 거지들이 공평하지 않다며 불평하더니 궁상이에게 떼를 지어 달려들어 음식을 빼앗았다. 그런데 그 빼앗은 음식을 가지고 누가 더 많다느니 하면서 또 싸움을 하는 등 난장판을 이루었다.

이때 궁상이 부인이 나서서 자신이 예전에 지어 놓은 구슬옷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를 입는 사람은 남편으로 삼겠다고 했다. 맨 먼저 배선이가 달려들어 구슬옷을 입으려고 했지만 마음은 바쁘고, 어디를 들추어도 옷섶은 나오지 않으며, 구슬이 한 덩어리여서 입을 수가 없었다. 배선이는 애만 쓰다가 결국 포기했다. 다른 거지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맨 나중에 궁상이 차례가 되었다. 그는 전에 집에서 늘 입던 옷이 구슬옷이어서 어렵지 않게 그것을 입었다. 궁상이 부인은 "의문을 풀었으니 이 사람이 내 남편이오"라고 선언했다. 구슬옷 입기 내기에 졌으니 배선이도 그 결과에 어쩔 수 없었다.

궁상이는 아내를 되찾아 배를 타고 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왔다. 옛집으로 돌아왔으나 배선이에게 재산을 모두 빼앗긴 뒤여서 생계가 묘연했다. 하는 수 없이 부인이 바느질품을 팔아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날마다 하는 일 없이 방

안에 들어앉아 있는 궁상이의 모습이 안타까워 그동안 어렵게 조금씩 모아둔 돈을 궁상이에게 주며 바람이라도 쏘이라고 했다. 궁상이는 아내가 준 돈을 받아들고 나와 장에 가서 이곳저곳 기웃거리다가 해가 넘어갈 무렵에 고양이 한 마리를 사 가지고 돌아왔다. 부인은 기가 막혔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음 장이 열리자 모아 놓은 돈을 주며 아무거나 걸리는 대로 물건을 사서 장사를 해 보라고 했다. 궁상이는 아내가 준 돈을 들고 장에 가서 기웃거리다가 강아지 한 마리를 샀다. 부인은 이번에도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고양이와 강아지는 의좋게 잘 자라서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강아지는 송아지만하게 컸다. 하루는 고양이가 강아지에게 "우리가 이렇게 자란 것이 주인의 덕이니 신세를 갚아야 하지 않겠니? 저 건너 장자집에 팔방야광주가 있다는데 우리 주인이 가난하니 그걸 가져왔으면 하는데 어쩌면 좋겠니?"라고 했다.

장자집에 가려면 물을 건너야 하는데 고양이는 물에 못 들어가니 강아지가 가야 할 판이었다. 둘은 의논 끝에 고양이가 강아지의 등에 업혀서 강을 건너 장자집에 있는 팔방야광주를 물어다 주인집 문 옆에 세워 놓았다. 그랬더니 자고 나면 쌀이 쌓이고 자고 나면 돈이 나와 금방 부자가 되었다. 이 사실을 안 나라에서는 이상히 여겨 궁상이에게 그 이유를 다그쳐 물었다. 궁상이가 사실대로 대답하자 나라에서는 개인이 그런 값진 보화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며 그것을 나라에 바치라고 했다. 그랬더니 나라에서는 이상한 일이 생겨났다. 자고 나면 밤낮없이 팔방야광주에서 썩은 기름만 생겨나게 되어 결국 팔방야광주를 불에 넣어 태웠다. 그 후 궁상이와 부인은 의좋게 살다가 죽어서는 지은 죄가 다 사해지고 죄를 벗어 하늘 위의 선계로 돌아갔다. 한편 고양이와 강아지는 의좋게 10년을 살다보니 부부처럼 한 쌍의 사람으로 되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자식이 생겼으며, 자식은 고가(高哥)라는 성을 가지게 되었다.

지역사례 망자의 저승천도를 위한 굿은 함경도의 망묵을 비롯하여 평안도의 수왕굿[十王굿], 서울 지역의 진오기 · 집가심, 경기 지역의 천근새남과 진오기, 황해도의 수왕굿과 진오기, 강원도의 오구자리 · 물굿 · 자리걷이, 호남 지역의 씻김굿 · 혼굿 · 곽머리, 영남 지역의 오구굿 · 수왕굿 · 수망굿 · 댓머리, 제주도의 시왕[十王]맞이 등 다양하게 있다. 이들 망인천도굿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궁상이는 함경도 망인천도굿에만 나타난다. 오구굿이나 새남굿 등에 등장하는 바리데기의 경우 저승길을 인도하는 오구신이 되는 신적 특성을 드러내는 반면에 궁상이는 서사적 이야기가 나타날 따름이다. 〈궁상이무가〉는 궁상이가 지상으로 귀양 와서 고생하다가 마침내 죄를 벗고 선계로 되올라간다는 이야기로 민담과 상당히 같은 속성을 담고 있다. 특히 여성의 지혜로 난관을 극복하고 살게 되는 이야기가 중심을 이룬다.

이 밖에 평안북도 강계 지방에서는 대규모 무굿을 할 때 여흥거리로 일월신제(日月神祭)와 성승제(聖僧祭)를 베푼다. 이때 일월신제에서 구송되는 무가 내용도 〈궁상이무가〉와 흡사하다. 이 무가는 강계읍에 사는 전명수의 보유자료를 1933년 손진태가 채록하여 1933년 『청구학총(靑丘學叢)』 28호에 「조선무격의 신가(朝鮮巫覡の神歌)」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영인본 『손진태선생전집』 5권에 수록되어 있다.

참고문헌 한국무가집 3(김태곤, 집문당, 1978), 조선신가유편(손진태, 손진태선생전집 5, 태학사-영인, 1981), 한국무속연구(김태곤, 집문당, 1981), 한국의 무속신화(김태곤, 집문당, 1985), 한국민속문화대사전(김용덕, 도서출판 창솔, 2004), 궁상이 무가의 상징성 연구(배영희, 한국민속학보 3, 한국민속학회, 1994).

필자 김명자(金明子)

상호참조 일월노리푸념(723쪽)

궤눼깃당본풀이

정의 제주도 당신본풀이(堂神本-) 가운데 하나로, 소와 돼지를 통째로 먹는 거대한 식성의 소천국과 그의 아내 백주또, 이들의 여섯째 아들 궤눼깃또의 이야기. 일명 할로영산 궤눼깃당본풀이, 송당본풀이(松堂本-)라고도 한다.

내용 하송당리(下松堂里)의 고부니마루에서 소천국이 솟아난다. 이때 강남천자국 백사장에서 솟아난 백주또는 자신의 천생배필이 될 소천국이 제주도 송당리에서 태어난 것을 알고 소천국을 찾아가 천생배필이 된다. 그리고 내리 오형제를 낳는다. 여섯째 아들을 임신했을 때 백주또가 소천국에게 농사를 권한다. 소천국이 볍씨 아홉 섬, 피씨 아홉 섬을 가지고 쟁기를 들고 나가 소로 밭을 간다. 백주또가 국 아홉 동이, 밥 아홉 동이의 점심을 차려서 밭 가는 곳으로 가니 소천국은 조금 더 갈고 먹겠다고 한다. 백주또는 점심을 밭가에 놓고 집으로 돌아온다. 소천국이 계속 밭을 가는데 마침 태산절의 중이 지나가다가 소천국에게 시장기를 호소한다. 소천국은 중이 먹으면 설마 다 먹겠는가 싶어 음식을 먹으라고 한다. 그러나 태산절 중은 소천국의 점심을 다 먹고난 뒤 달아난다. 소천국은 배가 몹시 고파 할 수 없이 밭 갈던 소를 잡아서 구워 먹는다. 그랬는데도 배가 고파 주위에 있는 남의 집 검은 암소 한 마리도 잡아먹는다. 그제야 배가 부른 소천국은 쇠머리 두 개와 쇠가죽 두 개를 옆에 두고 자기의 배로 밭을 간다. 그때 백주또가 와서 그 이유를 듣고는 남의 소를 잡아먹었으니 소도둑놈이라며 살림을 분산하자고 말한다. 그리고 백주또는 바람 위쪽으로 올라선다.

소천국은 바람 아래쪽으로 내려서서 정동갈체 딸을 첩으로 삼아 산다. 그러나 소천국은 배운 것이 총으로 사냥하는 것이어서 다시 수렵생활을 한다. 백주또는 배 안에 있던 여섯째 아들인 궤눼깃또를 낳고 아이가 세 살이 되자 아기를 업고 소천국을 찾아간다. 백주또가 아기를 내려놓으니 아기가 아버지의 수염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짓누른다. 소천국은 이 아기가 배 안에 있을 때도 부모의 살림을 분산시키더니 태어나서도 이런 나쁜 행동을 한다면서 무쇠석함에 아들을 넣어 자물쇠로 채워서 동해(東海)에 띄워 버린다. 무쇠석함이 용왕국(龍王國)으로 들어가서 산호수의 가지에 걸리니 여러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 바람이 거세게 인다. 이에 용왕국 대왕이 세 딸들을 불러 바깥을 살펴보게 하자 막내딸의 눈에만 걸려 있는 석함이 보인다. 석함을 가져오게 하여 열게 했더니 이번에도 막내딸만이 석함 뚜껑을 연다. 용왕국의 대왕은 무쇠석함 안에 옥 같은 도령이 책을 가득히 가지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왜 왔는지를 묻는다. 도령이 자신은 조선 남방국 제주도에 살며, 강남천자국에 국란이 났다고 하기에 평정을 하러 가다가 풍파에 밀려 용왕국으로 들어왔다고 말한다. 용왕이 도령을 천하의 명장으로 생각하고 큰딸, 둘째딸의 방으로 들라고 했으나 묵묵부답이다가 막내딸 방으로 들라고 하자 그제야 방으로 들어간다.

하루는 막내딸이 상을 풍성하게 차려서 방으로 들어가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막내딸이 그 이유를 묻자 도령은 비록 작은 나라에 살지라도 돼지를 통째로 먹고 소도 통째로 먹는다고 대답한다. 이에 용왕국 대왕이 날마다 돼지를 잡고 소를 잡아서 사위를 대접하니 용왕국의 창고가 점점 비어간다. 용왕국 대왕이 생각하기에 사위를 계속 두었다가는 용왕국이 망할 듯하여 사위와 막내딸을 함께 무쇠석함에 집어넣어 물 바깥으로 띄워 올린다. 무쇠석함이 강남천자국 백사장에 이르자 또다시 여러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 바람이 거세게 인다. 그리고 밤에는 횃불이 환하게 비추고 낮에는 글 읽는 소리가 하늘에 진동하여 천자국 안이 소란스러워진다. 이에 관해 여러 소문이 자꾸 들리자 천자가 신하들에게 그 이유를 알아오게 한다. 해변에 있는 무쇠석함 때문에 조화가 일어난 것을 알고 무쇠석함을 가져와 열어보니 옥 같은 도령과 아기씨가 앉아 있다. 천자가 어느 나라에 사는지, 왜 왔는지를 묻는다. 도령이 자신은 조선 남방국 제주도에 살며, 북쪽 오랑캐를 물리치고 세상을 평정하러 왔다고 대답한다. 천자가 도령의 손목을 잡고 궁 안으로 들어가 무쇠투구와 갑옷에 칼과 활을 주고 억만 대병을 내주니 도령이 싸움터에 나간다. 처음 싸움에 임하여 머리가 둘 달린 장수를 죽이고, 두 번째는 머리가 셋 달린 장수를 죽이고, 세 번째는 머리가 넷 달린 장수를 죽이니 다시는 대항할 장수가 없어 세상이 평정된다. 천자가 도령을 천하에 없는 장수라고 칭찬하며 땅 일부분과 물 일부분을 떼어 줄 테니 땅세와 국세를 받아서 먹고 살라고 한다. 그러나 도령은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전선(戰船)을 한 척 만들어 산호와 양식을 가득 싣고 백만 군사를 대동하여 조선국 제주도로 나간다.

그가 제주도로 들어와 천하가 요동하게 큰 대포 소리를 내니 아버지 소천국과 어머니 백주또가 하녀를 보고 그 이유를 묻는다. 세 살 적에 죽으라고 무쇠석함에 넣어 띄운 여섯째 아들이 아버지를 치기 위해 오면서 내는 소리라고 하녀가 대답한다. 이에 아버지는 무서워서 하송당리의 고부니마루로 가서 죽어 좌정하고, 어머니는 길게 늘어뜨린 머리를 하고 겁이 나서 도망가다가 당오름에서 죽어 좌정한다. 여섯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사냥을 잘하고 사냥고기를 좋아하셨다는 생각에 마을마다 일등 포수를 다 불러 사냥해 산짐승을 많이 잡아 아버님 전에 제를 지낸다. 여섯째 아들은 군사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낸 뒤 한라산에 올라가 산혈(山穴)과 수혈(水穴)이 좋은 곳을 골라 좌정할 터를 정해두고 내려와 백성들에게 옥황의 명령으로 김녕리 신당(神堂)을 받아 만민 백성에게 풍운조화(風雲造化)를 주러 왔다고 말한다. 백성들이 어디로 좌정할 것인지를 묻자 아랫궤네깃당으로 좌정하겠다고 대답하고, 무엇을 잡수시겠냐고 묻자 소도 통째로 돼지도 통째로 먹겠다고 대답한다. 이에 백성들은 가난한 백성이 소를 잡아 위할 수가 없으니 돼지를 잡아 위하겠다고 말한다. 이리하여 소천국의 여섯째 아들은 아랫궤네깃당에 좌정하게 되고, 이후 백성들은 돼지를 잡아 아랫궤네깃당에 제를 지내게 되었다.

지역사례 〈궤네깃당본풀이〉의 특수한 이본(異本)으로 〈칠일당본풀이〉가 있다. 〈칠일당본풀이〉에는 〈궤네깃당본풀이〉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결연, 부모의 별거,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찾아가는 내용, 아들이 강남천자국에 들어가 난을 평정하는 내용이 없다. 대신 무쇠옥갑에 넣어진 채 버려진 아들이 용왕국에 표착한 이후 제주도에 귀환하여 부모 또는 어머니의 눈을 아프게 한 후 고쳐주고 좌정하거나 좌정 이후 돼지털이 있는 물을 마신 부인에게서 돼지고기 냄새가 나자 부인을 귀양 보내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다. 또한 부모에 의해 버려지는 아들의 식성(食性)이 곡식성(穀食性)이고, 아들이 용왕국 여행 이후 의무(醫巫)의 능력을 보인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칠일당본풀이〉가 주술영웅(呪術英雄)에 대한 신화라면 〈궤네깃당본풀이〉는 전투영웅(戰鬪英雄)에 대한 신화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송당리(松堂里)와 이웃 마을인 교래리(橋來里) 일대는 농사에는 적합하지 않았지만 한라산이 가까웠기 때문에 수렵에는 적지였다. 조선 숙종 때 이형상(李衡祥, 1653~1733) 제주 목사의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교래대렵(橋來大獵) 그림에 이 일대에서 수렵하는 장면이 나온다. 〈궤네깃당본풀이〉에서 소천국이 수렵을 하며 생활한 것은 이러한 자연 지리적 환경의 반영이다.

의의 송당리의 본래 이름은 손당이다. 제주도의 많은 당신본풀이에 "웃손당[上松堂里] 금백주 셋손당[中松堂里] 세명주 알손당[下松堂里] 소로소천국, 아들아기 열여덟, 딸아기 스물여덟, 손지방상[孫子親戚] 삼백 일흔 여덟"이란 말로 시작하여 그 몇 대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다수 확인된다. 이 점에서 송당신은 제주도 당신(堂神)의 원조(元祖)로 지적되기도 한다. 또한 〈궤네깃당본풀이〉는 제주도의 유일한 고대국가인 탐라국(耽羅國)의 개국신화이자 씨조신화(氏祖神話)인 삼성신화(三姓神話)와의 유사성이 지적되기도 한다. 도내(島內) 용출(湧出)의 남자신과 외래 여자신의 혼인이라는 점, 아내의 권유에 의하여 농경을 시작하는 것과 여자신이 오곡(五穀)의 씨와 송아지 · 망아지를 갖고 와서 농목(農牧) 생활을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서 서로 유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 및 유사성을 근거로 하면 삼성신화의 모습을 간직한 채 계속 구전되어 온 신화가 바로 〈궤네깃당본풀이〉이다. 한편 〈궤네깃당본풀이〉의 주인공은 출생, 기아(棄兒), 구조, 결혼, 무공(武功), 귀환, 좌정의 구조에 따른 삶의 여정을 겪게 된다. 비의 관계로 변모되어 있다. 이는 당신본풀이가 일반신본풀이에 수용된 예다.

참고문헌 高麗史, 耽羅巡歷圖,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국문화사, 1980), 무속신화와 문헌신화(현용준, 집문당, 1992),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조동일, 문학과지성사, 1997), 동아시아비교서사시학(최원오, 월인, 2001).
필자 최원오(崔元午)



1~4. 극락문 제작과정

5. 극락문
부산시 기장군 | 2005.9 | 국립민속박물관

극락문(極樂門)

정의 동해안오구굿에서 사용되는 굿당 장식물.

형태 극락문의 규격은 보통 가로 80㎝ 내외, 세로 40㎝ 내외이다. 대를 타원형으로 엮어서 가운데에 극락문이라는 글자를 쓴다. 타원형의 바깥 둘레에는 연화 꽃잎을 붙인다.

내용 극락문은 망자가 극락왕생하기를 바라거나 극락왕생 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굿당 장식물이며, 신단 정중앙의 상단 벽에 걸린다.

극락문이 전통적으로 사용된 것인지, 근대사회 이후 새롭게 생긴 굿당 장식물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극락문에 관한 사항은 최길성에 의해 조사된 바 있는데 1971년 4월 부산 동래에서 행해진 산오구굿에서 사용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동해안의 큰 무당과 악사의 천도를 위한 오구굿에도 극락문은 어김없이 걸렸다. 1993년 동해안의 큰 무녀인 신석남의 천도를 기원하는 오구굿, 2005년 김석출의 천도를 위한 오구굿, 2006년 송동숙의 천도를 위한 오구굿에서도 극락문이 제작되어 굿당 벽에 걸렸다.

참고문헌 새로 쓴 한국무속(최길성, 아세아문화사, 1999), 동해안 오구굿의 무 · 불 습합 양상(김창일, 동남어문논집 21, 동남어문학회, 2006).
필자 김창일(金昌一)

금성당(錦城堂)

정의 비운의 운명을 맞이한 조선시대 단종의 숙부 금성대군(錦城大君)을 주신(主神)으로 모신 서울 지역의 대표적인 마을당. 이 당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외동 272번지에 있으며, 2008년 7월 22일에 중요민속자료 제258호로 지정되었다.

형태 서울 구파발에는 원래 윗금성당과 아랫금성당 2개의 금성당이 있었다. 현재는 윗금성당이 없어지고 아랫금성당만 있다. 대지 1,296㎡에 총 4채의 집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선 후기의 전통적인 당집 양식을 갖추고 있다. 건축물 형식은 전면 3칸에 서쪽으로 2칸을 붙여 지은 역 'ㄱ'자형이다. 본당 안쪽에 다락방이 붙어 있었으나 촛불이 넘어져 불이 나는 바람에 다락방 부분이 없어졌다. 그때 다락방을 대신하여 방 1칸을 다시 지었다. 본당 정면은 하나로 접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4짝







금성당
정수미

의 격자 문살 분합문을 좌우로 달아 접어올려 위로 고정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본당 옆으로 하당이 붙어 있고 본당 양옆으로는 새롭게 조성한 살림집이 붙어 있다. 오른편의 살림집에는 시봉자 송은영(宋恩榮)이 거주하고 있고 왼편에는 세입자가 산다. 본당 앞면 우측으로는 또 다른 기와 건축물이 있다. 이곳에는 당주의 아들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 이곳은 원래 초가집이었지만 1970년 아들이 결혼하면서 현재의 기와로 바뀌었다. 금성당의 대지와 건물의 법적 권리자는 큰아들이다. 금성당 건축물 관리는 송은영이 맡고 있다.

내용 서울에는 원래 진관외동을 비롯하여 망원동, 월계동 등 세 곳에 금성당이 있었지만 모두 1970~1980년대 도시개발에 의해 자취를 감추고 구파발 금성당만 유일하게 남았다. 이 당들은 한때 서울 지역민과 유명 만신들로부터 추앙받던 성스러운 공간이었고, 마을 주민들이 대동하여 굿을 거행하는 마을당 역할을 했다. 이 뿐 아니라 지역 무당들이 개인적 굿을 하는 공공 굿당의 역할을 하면서도 조선 말기에 궁중 여인들도 이곳 금성당에서 기복적 신앙행위를 했을 정도로 유명했다.

금성대군은 세종 8년(1426) 세종대왕의 여섯째 아들로 태어나 세조 3년(1457) 32세의 나이로 죽었다. 아버지 세종과 소헌왕후(昭憲王后, 1395~1446) 심씨 사이에 태어나 8살 때인 1433년에 금성대군으로 봉해졌다. 단종의 숙부이자 세조(世祖)의 아우인 금성대군은 죽은 지 334년이 지난 후 단종을 위해 충성을 바친 신하들에게 어

정배식록(御定配食錄)을 편정할 때인 정조 15년(1791)에 육종영(六宗英)의 한 사람으로 선정됐다. 영월의 창절사(彰節祠), 영주의 성인단(成仁壇), 괴산(청안)의 향사(鄕祠)에 배향되었다. 휘자는 유(瑜)이고, 시호는 정민(貞愍)이다.

어릴 적부터 성품이 강직하고 충성심이 많았던 금성대군은 조카의 왕위를 노리는 수양대군(首陽大君, 1417~1468)의 모함으로 단종 3년(1455) 삭녕(朔寧)으로 유배되었다가 다시 광주(廣州)로 이배(移配)되었다. 수양대군이 단종을 핍박하여 왕위를 수선한 이듬해에는 성삼문(成三問, 1418~1456)·박팽년(朴彭年, 1417~1456) 등이 중심이 되어 단종 복위를 계획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 실패로 금성대군은 광주에서 다시 영주 순흥으로 유배됐다. 이곳에서 부사 이보흠(李甫欽, ?~1457) 등과 모의하여 단종의 복위를 계획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세조 3년(1457)에 사사(賜死)되었다. 당시 마을 주민들은 금성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역적으로 몰려 수천 명이 희생되었다.

이러한 금성대군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오늘날 영주 순흥 두렛골에서는 음력 정월 보름이 되면 금성대군의 충(忠)과 의(義)를 기리는 대동놀이가 매년 치러지고 있다. 한편 전국의 무속신앙에서도 금성대군이 신격화되었으며,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의 많은 무당이 그를 영험한 신으로 모시고 있다. 무당에 따라서는 몸주신으로 모시기도 하며, 마을 곳곳에서는 마을 수호신으로 모시면서 그를 추모하며 기복을 비는 당굿을 정기적으로 행하고 있다.

금성당에서는 당 지킴이를 시봉자라고 한다. 송은영도 자신을 시봉자라고 하고, 여기서 하는 일을 가리켜 "시봉 든다"라고 한다. 송은영은 1925년 1월 14일(양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파동에서 태어났다. 진명여고를 졸업하고 스무 살 되던 해에 금성당집으로 시집을 왔다. 송은영이 금성당집으로 시집을 왔을 때는 그녀의 시어머니가 시할머니의 금성당 일을 돕고 있었다. 송은영도 시어머니와 시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금성당과 관련한 일을 따라하면서 배웠다. 송은영의 시할머니 박윤수는 그녀의 친정어머니 신씨로부터 금성당 시봉자 역할을 물려받았다. 시할머니는 아들 하나를 두었다. 송은영의 시어머니 이정숙은 진관외동 인근 북한산 자락에서 태어나 금성당집으로 시집을 왔으며, 남편은 농사일을 하였다. 송은영의 시할머니는 송은영이 시집 온 지 5년 후에 사망하였다. 시할머니가 사망하자 송은영은 시어머니를 도와 금성당 일을 하였다.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86세에 사망하였다. 이와 같이 이곳 금성당 시봉자 역할은 친정어머니 또는 시어머니로부터 대물림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당지기 송은영이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윗대의 시봉자들은 신씨(여), 박윤수(여), 이정숙(여)이며, 이와 같이 금성당 시봉자는 송은영까지 모계 대물림으로 4대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과거 이곳 아랫금성당에는 많은 단골이 매여 있어 굿이 늘 있었다. 단골들이 굿을 하면 먼저 금성당에 찾아와 시봉자에게 굿돈을 내고 날을 잡는다. 그러면 당지기가 모든 음식을 장만하고 굿할 만신과 악사들을 불러온다. 당지기는 곧 당주 역할을 한 것이다. 굿을 할 만신들은 이곳과 가까운 영천과 구파발에서 데려 왔다. 과거 영천과 구파발에는 유명 만신이 대거 거주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도 옛 단골들이 금성당을 찾아와 굿을 요청할 때가 있지만 흔치 않다. 금성당 단골이 굿을 할 때 밖에 나가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송은영도 금성당 내부에 보관하고 있는 신복과 악기들을 가지고 간다. 그리고 굿은 금성당의 신복과 악기들을 사용한다. 송은영은 굿을 하는 도중에 제금을 치는 등 이 일 저 일을 돕는다. 굿돈을 셈할 때는 큰 만신들과 다를 바 없이 한몫을 받는다.

송은영은 만신들이 재가집 굿을 맡아 이곳 금성당에 와서 굿을 하면 식사 준비를 해준다. 굿 음식은 만신들이 직접 준비해 온다. 굿이 끝나면 굿당비를 내고 간다. 과거에는 이곳 금성당을 찾는 신도가 많아 쉴 새가 없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마지를 올리곤 하였다. 그만큼 정성을 들이러 오는 사람이 많았고, 큰굿도 자주 있었다.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금성당에서는 일년 내내 행사가 이어졌다. 정월 홍수맥이를 시작으로 음력 3월 24일 금성님 탄생일 맞이, 7월 칠석맞이 등 사시사철 중요한 행사들이 있었다. 특히 금성님 탄생일에는 더욱 정성껏 행사를 치렀다. 대부

분의 단골들은 음력 정월 보름 안에 찾아온다. 아직도 전국에 흩어져 있는 당골들이 매년 찾아오긴 하지만 10여 명에 불과하다. 가끔 진관외동에 거주하는 동네 사람들이 연초에 이곳을 찾곤 한다. 한편 금성당을 오래전부터 다니던 만신들은 아직도 진적을 드리거나 새 제자를 내게 되면 이곳에 와서 금성님께 물고를 받아간다. 내림굿을 받을 제자들이 금성님을 선몽하여 이곳에 와 물고를 받아가는 경우도 있다.

이곳 구파발 아랫금성당에는 원래 금성님, 맹인도사, 맹인삼신마누라, 삼궁애기씨, 중불사, 창부광대씨, 별상님, 말서낭, 칠성님 두 분, 용장군님, 육대신마누라, 용궁부인, 삼불제석, 부처님, 삼불사할머니 등 총 16점의 무신도가 있었다. 지금은 맹인도사, 맹인삼신마누라, 삼궁애기씨, 중불사, 창부광대씨, 별상님, 말서낭, 삼불사할머니 등 8점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오래전에 도난당하였다. 금성당의 본당과 하당에는 신복을 비롯하여 악기, 촛대, 잔, 칼, 명두 등 여러 귀물(鬼物)이 있다. 제단 위에는 각각의 신령님 몫으로 되어 있는 소반, 촛대, 마지그릇이 놓여 있다. 천장에는 종이 달려 있고, 천장 대들보 아래쪽에는 여러 해 묶은 명두와 함께 여러 개의 전이 붙어 있다.

참고문헌 서울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민속유적학술조사보고서–금성당 · 사신당–(상명대학교 박물관 · SH공사 · (주) 동호, 2006), 서울 구파발 금성당 무속유물 및 민속유물 조사 연구보고서(서울구파발금성당유물조사단 · 한국귀신학회 · SH공사, 2006), 서울 무속과 금성당(錦城堂)의 실체(양종승, 생활문물연구 15, 국립민속박물관2004), 서울 무속의 자존심, 존립 위기에 직면한 금성당 · 사신성황당(양종승, 민속소식 119, 국립민속박물관, 2005).
필자 양종승(梁鍾承)

금성대왕(錦城大王)

정의 나주 금성산의 산신. 여기서 '대왕'은 임금이 아니라 '신(神)'을 가리킨다.

내용 금성산신(錦城山神)이 금성대왕으로 칭해지는 것을 자료를 통해 처음 확인할 수 있는 시기는 고려 충렬왕 때이다. 『고려사(高麗史)』 권 106 열전(列傳) 19 심양(沈諿, 생몰년 미상)전에 보면, 장성현(長城縣)의 어떤 여자가 금성대왕이 자신에게 내려 "네가 금성신당의 무당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네 부모를 죽이리라" 하여 두려워 따랐다는 기록이 나온다. 또한 이 여자가 현인(縣人) 공윤구(孔允九)와 통하여 신의 말을 내어 "내가 장차 중국에 가려는데 반드시 공윤구를 데려 갈 것이다" 하니 나주의 관리가 말을 내 주었고, 하루는 역리(驛吏)가 도병마사에게 "금성대왕이 옵니다"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함께 나온다. 이 자료를 미루어 보아 이미 13세기 이전에 나주의 금성산신이 금성대왕으로 칭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미 금성산신은 국가제사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고려사』 권 105 열전 18 정가신(鄭可臣)전에 보면, 나주(羅州) 사람이 정가신에게 "금성산신이 무(巫)에 내려서 '진도(珍島)와 탐라(耽羅) 정벌(征伐)에 있어 실로 내가 힘을 많이 썼는데 장사(將士)에게는 상(賞)을 주고 나에게는 녹(祿)을 주지 않음이 어찌된 일이냐. 반드시 나를 정녕공(定寧公)으로 봉(封)하라'라고 말하였다" 하니 이 말에 혹한 정가신이 왕에게 간(諫)하여 정녕공으로 봉(封)하고 나주읍의 녹미(祿米) 5석(石)을 거두어 해마다 금성산의 사(祠)에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에도 금성산은 국가가 제사하는 산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했다. 금성산은 태조 2년(1393)에 호국백(護國伯)으로 봉해졌으며, 태종 14년(1414)에는 소사(小祀)에 편제되었다. 금성산에는 하나의 신당이 아니라 상실사(上室祠) · 중실사(中室祠) · 하실사(下室祠), 국제사(國祭祠), 예조당(禰祖堂) 등 5개의 신당이 있었다.

그러나 금성산 신당은 처음부터 무속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음사(淫祀)로 비판받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 35 나주목(羅州牧) 사묘조(祠廟條)를 보면, "매일 밤 기생 4명이 사당 안에 윤번(輪番)으로 숙직했으며, 성종 10년에 예조에 명해 이를 금하게 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또한 『성종실록(成宗實錄)』 성종 97권, 9년(1478) 10월 13일조를 보면, "딸을 시집보내는 자는 그 처녀를 데리고 먼저 금성당(錦城堂)에 머물면서 '산신(山神)에게 시집간 뒤에야 시집간다'고 아뢴다 하니 이러한 폐풍(弊風)을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타난다. 또한 이 기록에 의하면, 나주 금성산에 친히 제사하지 아니하면 그해에 반드시 질병이 있다 하여 추수한 뒤에 도내 백성들이 멀고 가까움 없이 모두 가서 제사하였는데 늙은이는 이끌고 어린이는 끌려가면서 길을 메웠다고 한다. 이런 자료들을 통해 금성대왕으로 상징되는 나주 금성산이 국가의 치제 대상이면서 아울러 지역 주민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내용 '금이'는 금으로 만든 칼날을 의미한다. 이는 신장이 가지고 있는 칼[金]이 무당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이때의 칼은 해로운 것과 이로운 것을 가를 수 있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신령세계에 접할 수 있는 쇳소리를 낼 수 있는 물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당이 굿을 할 때에는 금이신장을 불러들이고 여러 가지 광란스런 칼춤을 춘 후 영험한 공수를 내리기도 한다. 금이신장은 황해도굿과 충청도굿의 신장굿에서 모셔진다.

참고문헌 한국 무속신 고찰–무신도를 중심으로(양종승, 몽골학 4, 한국몽골학회, 1996), 무신도에 나타난 무신의 상징성(양종승, 박물관지, 인하대학교 박물관, 1997).
필자 양종승(梁鍾承)

금이신장

정의 무당의 영험을 담당하면서 인간의 삶이 부귀공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 발음상 '그미신장'이라고 하기도 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황금역사 금이신장'이라고도 부른다.



금이신장 무신도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가로 76㎝, 세로 100.5㎝ |
1950년대

기대잽이

정의 서울굿에서 장구반주를 전담하는 세습무녀. 기대는 계대라고도 부르며 대체로 여성들이 담당한다.

내용 '기대'라는 용어는 소종래가 아주 명확하다. 기대의 문헌적 전거는 이옥(李鈺)의 「이언(俚諺)」 '탕조(宕調)' 에서 찾을 수 있다.

聽儂靈山曲	내가 흉내 낸 영산곡 소리를 듣고
譏儂半巫堂	반무당 다 되었다고 놀려대지만
座中諸令監	이 자리에 있는 영감님네들
豈皆是花郎	어찌 모두가 화랭이이실까요
章有後庭花	장에는 후정화가 있고
篇有金剛山	편에는 금강산이 있네
儂豈桂隊女	내가 어찌 계대녀가 되랴
不會解魂還	넋을 풀어서 돌아온 것을 만나지 못했네

기대는 광복 이전까지는 존재했지만,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서 사라진 존재로 보인다. 이 한시는 18세기에 작성된 것으로, 기녀들의 질탄한 놀이를 노래한 것이다. 이 시에서 주목되는 것은

바로 화랭이(花郞)와 계대녀(桂隊女)라는 말로, 이를 통해서 서울 무속의 실상을 찾아볼 수 있다. 화랭이와 계대는 세습무의 남성과 여성을 일컫는 말이다. 이 말은 현재의 서울 무속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기대가 적어도 18세기 이전부터 실제로 존재했을 개연성을 보여준다.

기대는 서울굿에 참여해서 특별한 기량을 발휘하던 사람이다. 기대의 임무는 단순하지 않다. 굿에서 기대는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기능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대는 서울굿에서 만신의 전담 악사 노릇을 한다. 만신들은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자신에게 잘 맞는 전속 악사를 두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기대이다. 기대와 만신은 만신이 내림굿을 한 후에 곧바로 인연을 맺게 되며 상호 호흡이 굿의 완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기대는 굿거리 진행에서 필수적인 기능을 했음이 확인된다.

둘째, 기대는 굿에서 적극적인 기능을 하는 인물이다. 만신의 전용 악사로서 기능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연행자로서 기능을 수행한 것이다. 굿거리의 특정 대목에서 기대는 굿의 일부를 철저하게 수행한다. 특히 서울굿의 가장 특징적인 무가인 노랫가락과 만수받이에서 주무당이 먼저 소리를 내면 이를 받아치는 반복창자로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굿의 절대적 참여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장단에만 능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장단과 함께 굿의 구조를 알고 문서의 속내를 알아야만 무당과 서로 잘 맞는 굿을 연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대는 굿의 연행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셋째, 기대는 서울굿에서 장편 무가의 전승을 담당하던 사람들이다. 기대가 문서에 밝았다는 진술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그들은 일정한 기억력을 가다듬어서 굿문서를 구송하고, 전승하는데 힘을 쓴다. 무가 전승에서 문서를 장악하고 구연하는 능력을 지닌 인물이 바로 기대이다. 기대가 서울굿 전승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서울굿에서 긴 문서로 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앉은 굿거리인 〈초가망〉과 〈초부정〉으로, 이러한 굿거리의 무가를 기대가 전담한다. 장차고 엄중한 어조로 구연되는 서사무가인 〈말미〉와 〈황제풀이〉 역시 이들이 전담해서 연행하는 굿거리로, 기대의 능력은 구비전승자로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넷째, 기대는 굿에 정통하고 밝은 인물로 굿을 진두지휘한다. 기대는 반주자로서, 적극적 연행자로서 굿에 기여하며 그 주변적인 일에도 관여한다. 시봉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굿상차림을 주도하고, 주요한 앉은굿거리 등의 무가를 당주만신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 한다. 기대는 굿판의 지휘자 노릇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서울굿에서 기대는 거의 만신의 보조자 노릇을 하면서 굿을 하는 인물임이 명확해졌다. 서울의 기대는 현재 사라졌지만, 과거 굿에서 했던 기능으로 보아 만신보다 더욱 중요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 기대의 존재들은 지역적으로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교 연구도 필요하다.

기대와 같은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다른 지역의 굿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황해도와 평안도에서 서울의 기대와 거의 같은 구실을 하는 인물이 황해도에서는 상교대, 장구할마이 등으로 불린다. 이들 역시 전속 악사의 구실을 하면서 만세받이나 푸념무가를 받는 구실을 한다. 이들은 강신무권에서 강신으로 행하는 굿거리가 아닌 여타 굿거리의 진행을 도맡았던 굿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세습무권에서도 역시 굿을 하는 무당을 위해 장단을 전담한 사람들의 존재가 확인된다. 경기도 남부 · 동해안의 화랭이와 전라도 지역의 고인이 바로 그들이다. 이 지역 굿을 연행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여자무당인 것과 달리 반주를 담당하는 화랭이와 고인은 남성으로 분명하게 구분된다. 이들은 주무들의 연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전담하지만, 특별히 놀이로서 연행되는 부분에서는 그들만의 독자적인 기량을 발휘한다.

참고문헌 서울굿의 다양성과 구조(김헌선, 서울굿의 이해, 민속원, 2007).

필자 김은희(金銀姬)

기메

정의 제장에 설치하거나 의례에 직접 쓰기 위하여 창호지나 백지, 천 등으로 만든 신의 형상. 무가에서는 기메를 '기메전지', '기메기전'이라고도 하지만 일상적인 용어는 아니다.

형태 기메는 대개 백지나 창호지를 오려 신체, 깃발, 창살 등의 형상으로 만든다. 기능 기메는 제장을 장식하는 용도로 쓰이는가 하면 의례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 쓰이기도 한다. 이를테면 살장은 당클 앞을 장식하는 데 쓰이고 감상기는 신을 청해 들이는 데 있어 무구처럼 쓰인다.

내용 기메의 어원은 분명히 알기 어렵다. 학계에서 몇 가지 해석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아직까지 설득력을 갖춘 해석은 제시된 바 없다. 참고로 '기'는 깃발의 뜻, '메'는 모양을 의미하는 뜻으로 흔히 쓰인다. 대부분의 기메는 그 역사가 그리 오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살장을 새롭게 만든 심방의 실명이 전해질 정도이다. 시왕멩감기, 영기 몸기 등도 사용된 지 그리 오래지 않은 듯하다. 제주시 지역에서 쓰이기 시작한 것이 불과 60년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메는 쓰임과 형태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신체의 형상을 지닌 것만 기메라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깃발, 꽃 등의 형태를 띠는 것까지 두루 기메라고 한다.

기메는 명칭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기류, 지류, 지전류, 살장류, 송낙류, 꽃류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기류에 속하는 기메는 명칭이 '-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대통기, 소통기, 좌둣기, 우둣기, 시왕기, 멩감기, 체섯기, 영갓기, 감상기, 군문기, 조왕기, 오방각기, 기리여기, 양상기, 성줏기 등이다. 지류에 속하는 기메는 명칭이 '-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돌레지, 당반지, 솔전지, 너울지 등이다. 고정되어 있어 의례 중에 이동이 없는 것들이다. 지전류에 속하는 기메는 명칭이 '-지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지전, 통지전, 발지전 등이다. 지전으로만 쓰이기도 하고 장식으로 쓰이다가 지전으로 전환되어 쓰이기도 한다. 살장류에 속하는 기메는 명칭이 '-살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고무살장, 지게살장 등이다. 모두 장식용이라고 할 수 있다. 살장은 종이로만 이루어진다. 창호지 한 장에 칼이나 가위로 다양한 모양의 구멍을 내어 당클의 앞을 가린다. 고무살장, 모람장, 지게살장 등이 있다. 송낙류에 속하는 기메는 명칭이 '-송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할망송낙, 칠성송낙 등이다. 기타 이상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육고비, 동심절, 번, 성주꽂, 칠성신상, 적베지, 영실, 고리동반, 철쭉대 등이 있다.

한편 기메는 재료와 구성 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기메는 백지나 창호지 등 종이로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종이로 만든 것을 댓가지에 달아매어 완성하는 경우도 있다. 백지로 신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따로 백지 한쪽을 접어 덧붙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덧붙이는 종이를 '첵지'라고 한다. 그러므로 재료의 조합에 따라 기메는 다시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1. **기메** : 오로지 백지나 창호지로 오려낸 것만으로 이루어진다. 이때의 기메는 대개 신체(神體)나 깃발[神旗]을 상징한다. 살장, 돌레지, 오방각기, 당반지, 기리여기, 양상기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기리여기와 양상기는 큰대의 버릿줄에 매단다는 점에서 기메+댓가지의 형태로 볼 수도 있다.



각종 기메
제주시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칠머리당굿보존회 전수실 | 2005.10.21 | 강정식

2. **첵지** : 오로지 첵지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첵지가 당클을 가리는 'ㄱ리메'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유일하다. 본래는 살장과 다양한 모양의 기메 대신 이처럼 간단한 첵지가 주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3. **기메+첵지** : 백지나 창호지로 오려낸 것에 첵지를 접어 붙인 것이다. 댓가지 없이 기메에 첵지만 덧붙인 경우는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는 없는 셈이다.

4. **기메+댓가지** : 백지나 창호지로 오려낸 것을 댓가지에 매단 것이다. 당클에 세워두는 시왕멩감기가 대표적이다. 송낙류를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고, '성주꽂'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5. **기메+첵지+댓가지** : 백지나 창호지로 오려낸 것에 첵지를 접어 붙이고 댓가지에 매단 것이다. 감상기, 시왕멩감기, 체섯기, 영갓기, 군문기, 성줏기 등이다. 여기에서 시왕멩감기라고 한 것은 시왕과 멩감을 청해 들일 때 심방이 들고 나서는 것을 말한다.

6. **기타** : 기메, 첵지, 댓가지 외에 다양한 것이 덧붙여지는 경우도 있다. 큰대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큰대에는 요령, 옷가지 등이 함께 걸린다.

엄밀하게 말하면 기메의 신체 형상은 명백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군문기나 술전지 형태의 신체는 여기저기 두루 쓰인다. 조왕기, 칠성기, 마뒷기 등이 같은 형태인 것도 이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에 따른 차이가 많지는 않다. 그러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로 성주꽂과 술전지를 들 수 있다. 성주꽂은 제주 지역에는 3개를 쓰고 정의 지역에는 2개를 쓴다. 술전지는 제주 지역에서는 당클과 제상 뒤의 병풍에 두 개씩 걸지만 정의 지역에서는 당클과 제상에 술전지를 걸어두는 일이 없다.

참고문헌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전라남도 · 전라북도 · 제주도(국립문화재연구소, 민속원, 2008). 제주도무속연구(현용준, 집문당, 1986). 제주도무의의 '기메고'-무속의 신체형성의 일면(현용준, 문화인류학 2, 한국문화인류학회, 1969). 제주도 굿의 무구 '기메'에 대한 고찰(강소전, 한국무속학 13, 한국무속학회, 2006).
필자 강정식(姜晶植)

기밀

정의 평안도 지역의 수왕굿에서 무당이 망자로 인격 전환을 일으켜 넋두리하는 것. 망자가 무당의 입과 몸을 빌려 산 사람을 만나 한을 푸는 것을 말한다.

내용 평안도 지역에서는 망자를 천도하는 굿을 수왕굿이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기밀굿의 제차가 있다. 기밀굿을 할 때 무당은 지화나 창호지로 싼 방울을 통해 망자의 넋을 받는다. 넋에 강신된 무당은 가족을 붙들고 넋두리를 하는데 이를 '기밀드린다'고 부른다. 서울지역의 진오기굿 가운데에도 영실굿이 있고 무당이 죽은 사람이 되어 산 사람을 만나는 것을 '영실논다'고 하는데 기밀과 매우 유사하다.

참고문헌 관서지방무가(임석재, 장주근, 문화재관리국, 1966). 평안도 다리굿(황루시 외, 열화당, 1985).
필자 황루시(黃縷詩)

길대장굿

정의 전라남도 진도군에 전승되어 왔던 일종의 마을굿. 진도 지방에서는 장승을 '길대장'이라고 부른다.

내용 길대장굿은 장승 앞에서 행하는 굿의 일종이지만 무속적인 의례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마을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동제의 성격도 띤다. 특히 진도는 다른 지역에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거리제 또는 거리굿이 발달해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수많은 전쟁을 겪었고, 수도와는 멀리 떨어진 지역임에도 국가의 전란에서 진도는 항상 커다란 피해를 겪어왔기 때문이다. 또한 섬이라는 자연환경으로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바다가 일터인 까닭에 마을 밖은 곧 죽음과 친숙한 공간이다. 이러한 역사적이며 자연적인 조건 때문이겠지만 진도에서는 동제 자체를 거리제라고 부르는 마을이 대부분이다.

진도에서 행해졌던 길대장굿도 일종의 거리제이며, 동제의 한 유형이다. 마을 사람들이 주축이 되고 무당이 의례에 참여하여 일부 의례를 주관하기 때문에 마을신앙과 무속신앙이 융합된 형상을 띠었다. 특히 길을 많이 다니면서 활동해야 하는 장사꾼, 우체부, 운전사 등이 주축이 되어 굿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 장승을 새로 세울 때, 길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상여가 장승 앞을 지나면서 발이 떨어지지 않을 때 하기도 한다.

길대장굿의 순서는 먼저 장승 앞에서 마을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동제를 모신 다음에 무당이 초가망석, 제석굿 등 축원굿을 하면 이어서 마을의 풍물패가 당산굿을 울린다. 당산굿 말미에 판굿으로 어우러지고 또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소리자랑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놀이판이 계속되다가 맨 마지막은 무당이 중천맥이를 하는 것으로 마감한다. 현재는 전승이 단절되어 보기 어려운 굿이다.

참고문헌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무의식편(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3). 진도의 마을굿(나경수, 민속원, 2007).
필자 나경수(羅景洙)


서울굿에서 베째(베가르기)
경기 하남 천신당 | 2006.4.18 | 김형근

길베

정의 길[路]과 베[麻布]의 합성어로,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는 길을 상징하는 긴 무명 또는 베.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의 굿에서 두루 존재하는 무구이다. '질베', '길베', '다리베', '길천', '다리천' 등으로 불린다. 특히 망자를 좋은 곳으로 천도하는 오구굿에서 쓰이는 무구로, 이승과 저승을 매개하는 길[路] 또는 다리[橋]를 상징한다.


송동숙 오구굿에서 길닦기
경북 영덕군 영해면 대진해수욕장 송동숙을 위한 오구굿 현장 | 2006.10.12 | 김형근

형태 길베는 만드는 무구는 아니다. 폭 40~50㎝에 한필(40자) 길이의 무명과 베 자체이다. 전라도, 동해안, 남해안에서는 흰 무명을 쓰는데, 서울, 황해도 등에서는 흰 무명과 함께 베를 사용한다.

내용 오구굿은 망자를 이승과 굿당에 초청하고(망자 청혼), 그 존재를 새롭게 변화시켜(망자 존재 변환), 좋은 곳으로 천도(망자 천도)하는 순차적 구조로 연행된다. 이 중 망자 천도의 단계에서 길베를 이용한 굿거리들이 배치된다. 서울 진오귀굿에서는 '베째' 또는 '베가르기'라고 하고, 황해도에서는 '베가름', '수왕천가름', 동해안에서는 '길가름', 남해안에서는 '길닦기', 전라도에서는 '길닦음'이라고 부른다. 굿을 통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망자를 좋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의 길베는 이승에서 저승으로





1. 제주도 시왕맞이 영게질침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서순실 심방 자택 | 2007.1.4 | 김형근

2. 남해안 길닦기
경남 통영시 정량동 한산대첩공원 | 2007.7.29 | 김형근

연결된 길 또는 다리를 상징한다.

길닦기의 연행은 보편적으로 길베를 양쪽에서 잡아 드리우고, 그 위에 망자의 영혼을 상징하는 것들을 얹어 길을 닦는 양상이다. 전라도, 동해안, 남해안 등의 세습무의 굿에서는 질베 위를 닦는 형식, 망자의 넋을 상징하는 무구들을 이동시키는 형태로 이용한다면, 황해도, 서울 등 강신무의 굿에서는 위의 연행과 더불어 길베의 가운데를 조금 잘라낸 뒤 무당의 몸으로 완전히 갈라주는 형식으로 연행한다. 요즈음에는 세습무권의 오구굿에서도 길닦음 후에 갈라주는 연행을 한다.

서울에서는 먼저 흰 무명을 가르고, 나중에 베를 가른다. 흰 무명은 이승다리를 상징하고, 베는 저승다리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 둘을 차례로 가름으로 해서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나누는 것으로 여긴다. 황해도의 경우는 사자다리, 시왕다리, 망자다리의 세 종류의 길베가 존재하여 차례로 길을 갈라주어야 한다. 평안도의 다리굿은 유난히 길베가 많이 등장한다. 사자다리, 망인다리, 조상다리, 시왕다리가 그것이다. 동해안에서는 길베를 반야용선에 연결하여 뱃노래굿때 신이나 망자가 오는 길로서 이용하기도 한다. 전라도에서는 연행자에 따라 고풀이의 고풀이천을 길베로 같이 쓰기도 한다. 남해안에서는 길닦기 외에도 굿의 초반부에 망자를 청하여 집으로 들어오는 문넘기 때도 길베를 가족들이 펼쳐 들고 그 위에 신태집을 얹어 들어온다. 육지의 길닦기에 해당되는 것이 제주도 시왕맞이 중 영게질(길)침이라 할 수 있다. 망자의 저승길을 위해 체ᄉᆞ(저승사자)를 모시고, 이 체ᄉᆞ가 여러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다리를 놓는 것이 영게질침의 핵심이다. 멍석에 댓가지를 이용하여 저승 12문을 만들고 진행하는 영게질침은 저승으로 가기 위한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다리를 놓고, 인정을 걸어 망자의 저승행을 준비한다. 영게질침 중 다리를 놓는 대목에서 흰 무명을 깔게 된다. 육지에서 연행의 모습은 다르나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다리[橋]로서 길베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공통적이다.

참고문헌 평안도 다리굿(황루시 외, 열화당, 1985), 황해도 지노귀굿(김인회 외, 열화당, 1993),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전라남도 · 전라북도 · 제주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진도 씻김굿의 물질문화 연구(최진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99), 동해안 오귀굿 구조의 현장론적 연구(김형근,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서울굿의 다양성과 구조(김헌선, 한국무속학 12, 한국무속학회, 2006), 남해안굿 갈래 연구(김형근,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필자 김형근(金亨根)

김광수

분야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34호 봉화산도당굿의 악사 보유자.

내용 김광수(金光洙, 남)는 1945년에 경기도 양주 사로리에서 출생하였다. 사로리는 오늘날 구리시에 속해있다. 김광수의 무악 계보는 대체로 삼대에 걸쳐서 확인된다. 김광수의 조모는 김간난, 부친과 모친은 각각 김순선과 김주옥이다. 이들은 모두 무업에 종사했다.

조모인 김간난은 활동반경이 넓고 다양한 지역에서 활약하는 악사를 총동원하여 굿을 함으로써 굿의 음악적 수준과 질을 한껏 높였다. 김간난은 악사들과 함께 굿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음악적 신격과 안목을 쌓아가면서 수준 높은 굿 음악을 집대성할 수 있었다. 여기에 아들 김순선이 굿 진행에 관한 모든 일을 도맡았다. 김간난과 김순선의 노력에 힘입어 사로리 일대의 굿은 일정하게 가다듬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김순선 학습계보에서 으뜸으로 쳐야 할 인물은 바로 서울 왕십리 일대에서 이름이 높았던 양씨 노인이다. 양씨 노인은 궁중악사 출신으로 이름이 높았을 뿐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다. 김순선은 양씨 노인으로부터 피리, 대금, 해금 등 악기를 배울 수 있었다. 김순선은 이 학습을 통해 모친의 굿판에 참여하면서 현장에서 익힌 경험과 학습이 배가되어 굿판의 악사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었다.

김순선은 서울 북부와 의정부에 인접한 지역의 악사당주로 이름이 높았다. 김순선이 관장한 악사당주의 관장 지역은 갈매울, 담터, 갑바위, 봉화산(봉홰뚝), 먹골, 공덕굴, 상계동 등지이다. 현재도 김순선의 단골판을 아들인 김광수가 이어가면서 굿을 도맡아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김광수는 5남 3녀 가운데 4남으로 태어났다. 김광수와 김홍수는 굿판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이 두 사람은 장단을 맞추는 솜씨가 남다르다는 사실을 김순선은 발견했다. 아이들을 데리고 대처로 나가서 활약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로리를 떠난 김순선은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서 거처하면서 경기도의 사로리 일대와 동대문 일대에서 굿을 하였다.

김광수의 학습 계보는 매우 다양하다. 주된 인물은 이충선이다. 이충선은 경기도 광주 중대면 출신의 대표적인 세습무가계의 악사로서 이달선 · 이일선 등과 함께 이름을 날린 광주의 세습무계 인물이다. 김광수는 이충선에게서 피리, 해금, 대금, 호적 등을 배웠다.

다른 한편으로 이충선과 쌍벽을 이루던 강학수에게서 피리와 해금 등을 배웠다. 김광수는 김순선에게서 초다짐을 하고, 이충선과 강학수 등에게서 악기를 재다짐을 하는 등 필요한 음악을 더욱 익힐 수 있었다. 김광수의 음악은 다시금 김홍수에게 이어지고, 김광수의 아들인 김용현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굿에서 악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따라서 악사들의 다양한 학습과정은 분명히 존재하고, 무당과 달리 신령을 매개로 하지 않으면서 세습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악사의 중요성은 마땅히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만신과 잽이, 또는 무당과 악사는 세습무권과 달리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강신을 해야 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다. 전통적으로 만신과 잽이의 대립항은 다른 고장의 미지와 산이, 당골과 공인, 지무와 화랭이 등의 관계를 환기시키는 다면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김광수는 김간난-김순선-김광수-김홍수-김용현 등 가족 악사 계보를 이으면서도 다면적인 전악의 학습 경험이 있는 특별한 악사이다.

참고문헌 봉화산도당굿(하효길 외, 중랑문화원, 2001).
필자 김헌선(金憲宣)

김금화

분야 중요무형문화재 제82-나 호로 서해안풍어제 배연신굿 및 대동굿 기 · 예능 보유자.

내용 1985년 2월 21일에 보유자로 지정받은 김금화(金錦花, 여)는 1931년에 황해도 연백군 석산면 '안바꾸니'[朴厚里]에서 가난하게 살던 농부 김녕 김씨 택근과 이음전 부부의 5남매 중 둘째 딸로 태어났다. 7세 때 황해도 옹진군(현재 인천시 옹진군) 홍미면 괴암리로 이사했고, 12세부터 신병을 앓기 시작했다. 17세 때 당시 큰 무당이던 외할머니 김천일에게 내림굿을 받고 굿 절차의 기본과 무당의 마음가짐, 처신하는 법 등 무당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기초적인 내용들을 배우기 시작했다. '관무당'과 방수덕 등 당시의 현역 무당들을 따라다니면서 굿 현장의 경험을 쌓았다. 19세가 되던 해 정월에 옹진군 용호도의 대동굿을 의뢰받고 6박 7일에 걸친 큰 굿을 처음 도맡아 성공적으로 주재한 후부터 '당일만신' '홍길동만신' 등의 별호로 불릴 정도로 전문 무당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였다.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인천으로 피란하여 만석동과 부평동 등지를 전전하다가 1966년 서울 노량진, 1970년 석관동으로 이사한 후 얼마 있다가 다시 이문동으로 이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67년 10월 13일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연평노래'와 배연신굿 공연으로 개인상을 받으면서 신문 · 방송 등 언론에 처음 소개됐다. 김금화는 무속을 미신으로 취급하고 타파 대상으로 삼던 당시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무당이 겪어야만 하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한 예로, 이문동으로 이사한 후 집에서 굿을 하던 중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함으로써 부득이 굿을 중단하고 북한산으로 자리를 옮겨서 굿 일정을 마쳐야만 했다. 그의 첫 번째 만수대탁굿 고난이었다.

전통 강신무로서의 김금화에 대한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황해도를 비롯한 서해안 지방의 주요 전통 무속의례인 철무리굿, 배연신굿, 대동굿, 내림굿, 진오기굿 등의 의례 절차와 기 · 예능의 내용은 물론 해박한 지식과 오랜 경험 및 뛰어난 기량을 겸비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많은 신딸과 단골을 거느리는 데에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큰무당으로서의 인품을 지녔다.

둘째로 1970년대 말부터 임석재, 로저 자넬리(Roger L. Janelli, 인디애나주립대 민속학 교수), 조자룡, 임동권, 이두현, 장주근, 최종민, 김인회, 황루시, 김수남 같은 한국무속 연구 전문가들의 현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가운데 자신이 지닌 무속의례 관련 기 · 예능의 무형문화로서의 가치에 대해 일찍부터 자각하기 시작했다.

셋째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속 관련 기 · 예능 보유자 중 가장 많이 해외 초청 공연을 했다. 1982년 5월부터 7월까지 한미수교100주년 기념 문화사절단으로 초청받아 미국, 녹스빌 국제박람회장, 로스앤젤레스 박물관, 뉴욕 한국문화원, 워싱턴 스미스소니언박물관 등에서 3개월에 걸친 순회공연을 했다. 이를 시작으로 2007년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스페인,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중국, 이탈리아, 일본 등 외국의 대학, 박물관, 방송국, 국제회의, 국제문화축제행사 등에 초청받아 순회공연과 강의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굿이 지닌 종교적 · 예술적 · 문화적 내용과 가치를 알리는 활동을 계속해 왔다. 레비 스트로스가 한국에 왔을 때 특별히 참관한 굿이 김금화의 만수대탁굿이었다. 국내에서의 초청공연, 학술강연 및 강의, 굿 시연 등의 활동 경력은 셀 수 없이 많다.

넷째로 무속 관련 지식과 기예의 방대한 내용을 책으로 출판했다. 1995년에 문음사가 출판한 『김금화의 무가집-거므나따에 만신 희나백성의 노래』가 그것이다. 이 책에서 김금화는 앞에서 열거한 여섯 가지 굿 각각의 의미와 유래, 준비과정, 진행순서, 굿의 내용과 무가 가사 등을 현장성 있게 자세히 서술해 놓았다. 이 뿐만 아니라 부록으로 굿에 사용되는 모든 장식과 도구에 대한 설명, 굿에서 사용되고 불리는 모든 노래가사와 음악가락 및 장단을 악보와 함께 실었다. 이 책 말고도 김금화는 『복은 나누고 한은 푸시게』(푸른숲, 1995), 『비단꽃 넘세-나라만신 김금화 자서전』(생각의나무, 2007) 등의 저서를 냈다. 김금화의 책이 나오기 이전의 무속 관련 자료집들은 모두 무속인이 아닌 학자나 전문 연구자들이 관찰ㄱ조8사하고 채록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었다.

다섯째로 19세 때 첫 신딸을 맞은 이래 평생 동안 수많은 신딸과 신아들을 두었다. 김금화에게는 특히 외국인을 포함하여 국내외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신딸이 많다.

여섯째로 2004년 3월 23일 강화도에 서해안 풍어제 전수관 금화당(錦花堂)을 건립하고 '사단법인 서해안풍어제 배연신굿 및 대동굿 보존회'를 발족시켰다.

참고문헌 김금화의 무가집-거므나따에 만신 희나백성의 노래(김금화, 문음사, 1995), 비단꽃 넘세-나라만신 김금화 자서전(김금화, 생각의나무, 2007), 한국의 굿(하효길 외, 민속원, 2002), 한국의 굿 10-옹진 배연신굿(김수남 · 황루시, 열화당, 1986), 황루시의 우리무당 이야기(황루시, 도서출판풀빛, 2000), 한국무속사상연구(김인회, 집문당, 1987), 한국민속대사전 1(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필자 김인회(金仁會)



김금화
국립민속박물관

김남순

분야 평안북도 무형문화재 제3호 다리굿 보유자.

내용 김남순(金南順, 여)은 1950년(호적상에는 1952년생으로 등재됨)에 경상남도 사천에서 출생하였다. 열한 살 되던 해부터 이유 없이 아팠는데 심하게 아플 때는 눈을 뜨지 못할 정도였다. 밥을 먹지도 못했고 물만 먹어도 토했다. 성당을 다녔는데 처음에는 그럭저럭 성당 활동을 하였지만 시



김남순
서울 보현산 신각 | 2007 | 양종승

간이 갈수록 화가 나고 머리가 아팠다. 한의원에서 침을 맞아 보기도 하고 피를 뽑아 보기도 하였다. 병원에서는 신경성이라고 하면서 특별한 치료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의 일에 대해 꿈을 꾸었고 그 꿈이 현실화되면서 이유 없이 이곳저곳을 헤매기가 일쑤였다. 어느 날 성당을 다녀와 집에 있는데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다. 놀러가자고 해서 친구를 따라 나섰는데 놀러간 집이 부처님을 모시고 있었던 보살집이었다. 다음날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그 보살이 김남순의 머리 위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신이 앉아 있어서 신을 받아야 된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김남순은 보살의 말을 부정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무속세계는 물론이고 타종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으며 그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다.

김남순은 어느 때부터인가 꿈을 꾸게 되면 꽃을 보곤 하였다. 뿐만 아니라 어느 날은 꿈에서 사람이 죽게 되었으니 빨리 일어나 사람을 구해라는 메시지를 받곤 하였다. 자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 꿈에 말한 곳을 가보면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하여 여러 번 사람을 구하기도 했다. 한 번은 딸이 심하게 아프다가 딸이 좀 괜찮다 싶으면 남편이 쓰러져 있곤 하였다. 자주 이상한 꿈을 꾸게 되면서 집안 식구들이 아프고 본인도 역시도 몹시 아팠다. 하루는 성당을 다녀왔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전에 녹번동 보살이 말 한 대로 신을 받으면 이러한 고통이 모두 없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림굿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300백만 원을 빌려줬다. 내림굿은 1988년 5월 17일 북한산 중턱에 있었던 어느 굿당에서 하게 되었는데 굿을 주관한 무당이 일곱 명의 신딸을 데리고 왔다. 그런데 김남순은 차려진 굿상이 맘에 들지 않아 굿당을 나와 버렸으나, 친구가 설득하여 다시 굿판으로 돌아갔다. 굿판에 앉아 있는데 신령님께 절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절을 하고 춤을 추어야 한다고 해서 춤을 추었다. 그렇게 해서 춤을 한참 추다가 결국 말문이 터진 것이다.

김남순은 무업의 길로 들어서면서 정대복으로부터 굿 문서를 배웠다. 그리고 스승 정대복이 사망 후에 독자적으로 활동하다가 2008년에 다리굿이 평안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보유자가 되었다. 현재 김남순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전승자들로는 악사 박수진(여), 신재동(남), 박수 김두연(남), 무녀 최형란(여), 홍세미(여), 김미정(여) 등이다.

참고문헌 평북무형문화재 다리굿 조사보고서(양종승, 평안북도, 2007).
필자 양종승(梁鍾承)

김대례

분야 중요무형문화재 제72호 진도씻김굿 예능보유자.

내용 김대례(金大禮, 여)는 1935년에 진도군 이매면 삼막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김영찬은 비금도 출신의 고인(鼓人)이었으나 세습무가 출신이 아니고 외가가 세습무가이다. 외할아버지 박종기는 대금의 명인이고, 친정어머니 박소심은 유명한 당골이었다. 남편 한찬용은 세습무가 출신이었으나 굿은 하지 않았다. 23살에 본격적으로 굿판에 나선 김대례는 어머니 박소심의 사촌인 박선애로부터 굿을 배웠다. 당골판은 삼막, 용호리, 길우지 등지이다. 하지만 1960년대에 임회면 백동으로 이사한 뒤 당골판의 도부를 중단했다. 6남매를 두었으나 무업을 이을 자손은 없다.

김대례는 잘생긴 얼굴에 타고난 미성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다. 진도에서 전승되는 각종 씻김굿은 물론 정월에 하는 재수굿인 도신, 새로 집을 지었을 때 하는 성주굿 등 모든 굿에 기량이 뛰어났다. 풍부한 예술성으로 굿을 끌고 가는 힘이 있어서 1980년에 진도씻김굿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당시 무녀로서는 유일하게 보유자가 되었다. 그렇지만 50대 초반에 중풍으로 쓰러진 이 후로는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제대로 굿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음반으로는 〈천명〉(제작 · 기획, 삼성뮤직, 1995)이 있다. 〈천명〉에는 안당, 초가망석, 제석, 살풀이가 녹음되어 있다. 1996년에 나온 음반 〈진도씻김굿〉(제작 · 기획, 오아시스)은 이완순, 정숙자와 함께 녹음했다. 여기서 김대례는 제석과 길닦음을 불렀다. 2005 4월 20일에 명예 보유자가 되었다.

참고문헌 진도씻김굿(황루시, 화산문화, 2001). 진도 세습무 박씨가계도 재구성연구(박미경, 박주언, 민속원, 2007).
필자 황루시(黃縷詩)

김병옥

분야 중요무형문화재 제70호 양주소놀이굿 악사 부문 예능보유자.

내용 김병옥(金炳玉, 남) 은 1931년에 경기도 양주 광적면 효촌리에서 태어났다. 현 거주지는 행정명 변경으로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이다. 1980년에 양주소놀이굿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때 악사 예능보유자로 인정받은 고희정의 권유로 양주소놀이굿에 참여하게 되었다. 김병옥이 이미 인근 동네에서 신명 있는 놀이꾼으로 알려진 사실을 고희정이 알고 권유한 것이다.

김병옥은 날라리, 대피리, 장구 등을 양주소놀이굿 보존회 활동을 하면서 배우고 익혔다. 주로 고희정에게 악사 예능을 배우면서 그와 함께 양주 일대의 굿판 악사로 참여를 하기도 했다. 부잣집에서 하는 대규모의 굿인 경우 해금, 대금, 피리 등 삼잽이의 일원으로 참여했고, 일반적인 굿판인 경우 양잽이의 일원으로 고희정과 함께 참여했다. 작은 굿인 경우 때때로 혼자 악사로 참여했다.

김병옥 가계에서 악사나 무속 등과 관련된 인물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김병옥 스스로도 악사나 무속 등과 관련된 활동은 집안에서 자신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병옥이 양주소놀이굿 악사의 길을 걷게 된 것은 고희정의 적극적인 권유가 주효했다. 동시에 원래 악기 소리를 좋아했던 그의 신명이 오늘날의 김병옥을 있게 했다. 동네 형님이자 스승인 고희정에게 태평소와 대피리를 배우고, 양주소놀이굿 보존회 활동을 하면서 악사 예능을 기르고 익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84년 4월 1일에 양주소놀이굿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받았고, 2005년 12월 1일에는 양주소놀이굿 악사 부문 예능보유자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양주소놀이굿(김헌선, 화산문화, 2001). 양주소놀이굿(김헌선 외, 양주시, 2006).
필자 허용호(許龍鎬)

김석출

분야 중요무형문화재 제82-가호 동해안별신굿 보유자(악사)이자 명예보유자.

내용 김성수의 둘째 아들인 김석출(金石出, 남)은 일명 김경남(金京南)으로 1922년에 경북 영일군 흥해읍(현재 포항시 북구) 환호동에서 태어났고 2005년에 사망했다. 김석출의 본적은 조부의 출생지를 이어받아 경북 영일군 흥해면 옥성동 26번지로 되어 있다.

김석출은 5살 때 모친인 이선옥이 사망하고 나서 형인 김호출의 집에서 생활하였다. 김석출은 7살 때부터 굿판에서 잔심부름을 하고 다니다가 8살부터 징채를 잡고 본격적으로 약바라지를 하였다. 김석출은 굿판에 참여하면서 원화선(엄화선), 김성수, 이충운(이치운), 박춘실 등의 가락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이 뿐 아니라 이 무렵에 유랑예인단체 일원으로 온 화중선의 단가와 판소리를 접하기도 했다.

김석출은 무악에 대한 이해력이 뛰어나서 12살 때부터는 굿판의 어른들이 3원 받을 때 1원 50전, 즉 반 섬을 받았다. 2년 후에는 어른들과 동일하게 온 섬 3원을 받았다. 동해안에서는 이 시기에도 굿 사이에 놀음굿이 있었다. 김석출은 굿 사이사이에 어른들이 못하는 단가나 판소리 한 대목을 하여 온 섬 3원 외에 잔배미로 1원 50전~2원을 더 받았다. 동해안의 굿판에서는 나이나 항렬보다 무업 능력이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김석출은 어린 시절에 부산에서 활동했다. 15살에서 18살 무렵에 굿을 하러 가면 인물이 좋아

여자들이 많이 따랐다고 한다. 동해안의 화랭이는 광인굿에서 작두를 탔기 때문에 김석출도 작두를 탔다. 김석출이 처음으로 작두에 오른 것은 16살 때이다. 김석출은 16~17살 무렵에 강원도 삼척의 작은아버지인 김영수가 맡은 굿에 불려가기도 했다.

김석출은 17살 때 경북 영덕 출신의 김옥순과 혼인하였다. 결혼식은 삼척 근덕에 있는 변성해의 앞집에서 하게 되었다. 처인 김옥순은 굿 학습을 중단하여 무업을 하지 않고 김석출의 할머니인 이옥분을 병수발하며 집안일을 도왔다. 김석출과 김옥순의 사이에 아들 하나가 있었으나 병으로 죽고 나서 이혼하게 되었다.

이후 김석출은 19살 때 변성해의 딸 변난호(본명 명자)와 결혼하였다. 혼인 후 장인 변성해의 집에 잠시 거주하였다. 그러나 처가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이 싫어 친형이 있는 포항으로 도망치듯 나왔다. 포항으로 와서는 구룡포 대보(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보면)로 분가하였다. 김석출은 변난호 사이에서 1941년 6월 맏딸인 영희(暎希, 개명하기 전 이름 福順), 1951년 둘째 딸 동연(東衍, 개명하기 전 이름 보길), 1955년 9월 28일 셋째 딸 동언(東彦, 개명하기 전 이름 愛心), 넷째 딸 동율(東律)을 낳았다. 김석출은 변난호와 자식들을 낳고 살면서도 한동안 처가집과 연락을 끊고 살았다.

김석출은 20대부터 30대 중반까지 본격적으로 민속예인들과 대면할 기회가 많았다. 포항에서 형제들과 함께 집집마다 걸립을 하다가 이생강의 부친과 만나게 되고, 이생강과도 자연스레 알게 되었다. 또 스무 살 때는 박동진을 만나 판소리를 배웠다.

김석출의 민속음악에 대한 관심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다. 김석출이 스물네 살 때 부산극장에서 유랑예인단체에 속해 있는 태평소의 명인 방태진을 만난다. 민속음악에 관심이 있던 김석출은 국악단체가 부산 · 포항 등지로 온다고 방이 붙으면 굿을 해서 번 돈을 싸들고 만나러 갔다. 김석출이 처음 방태진과 만났을 당시 그는 햇님달님 단체에서 무대(의상)감독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한국전쟁을 전후한 1950년에서 1955년 무렵에는 유랑예인단체에 참여하여 따라다니기도 했다.

김석출은 34살 때 강릉 주문진에 별신굿을 하러 갔다가 주문진 째보영감(백창옥) 집과 사돈관계에 있는 현재의 부인 김유선을 만났다. 김유선은 그 당시 굿은 하지 않고 있었지만 소리는 곧잘 했다. 이 시기에 김석출은 변난호와 부산 자갈치에 살고 있었다. 김유선은 김석출 부부의 권유로 김석출의 집에 기거할 수 있었다. 김유선은 무업 기능을 쉽게 습득하여 굿을 배운 지 넉 달 만에 굿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이후 김석출과 김유선은 변난호를 피해 포항 청하에 사는 형 김호출의 집에 갔다가 다시 영덕 강구, 강릉 안인과 주문진 등지로 주거지를 이동하였다. 결국 김석출과 김유선 사이에 동완을 낳고 변난호와는 이혼을 하였다. 그 후 1964년에 주문진에서 다시 부산 해운대로 이사한 김석출은 50년 가까이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동해안굿을 도맡았다.

김석출은 동해안굿뿐 아니라 전통연희나 예술에도 조예가 깊어 호적으로 산조를 분 정통 명인이기도 하다. 1982년 일본 도쿄국립극장 초청공연을 비롯하여 1994년 교토 · 오사카 공연, 1995년과 1996년에 요코하마 페스티벌 참가, 1996년 유라시안 에코스 호암아트홀 공연, 1997년 영국 런던 로열홀 공연을 통해 동해안 무속음악과 김석출의 존재를 알렸다. 그리고 굿음악 음반을 통해 대중과 접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그가 참여한 음반으로는 〈높새바람〉(삼성나이세스, 1993), 〈동해안 별신굿〉(서울음반, 1993), 〈동해무속사물〉(삼성뮤직, 1994), 〈동해오구굿〉(삼성뮤직, 1995), 〈94일요명인명창전 동해 무속음악〉(서울음반, 1996), 〈김석출결정판〉(삼성뮤직, 1997), 〈동해안 별신굿과 오귀굿〉(국립국악원, 1999) 등이 있다.

김석출의 자녀는 모두 1남 9녀이다. 그 가운데 변난호와의 사이에서 낳은 김영희 · 김동연 · 김동언만이 동해안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무업을 이어오고 있다.

참고문헌 동해안 무집단의 당주권 확보과정과 적응전략(윤동환, 한국무속학 16, 한국무속학회, 2008), 동해안 굿의 전승과 변화(윤동환,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필자 윤동환(尹東煥)

김영희

분야 중요무형문화재 제82-가호 동해안별신굿의 무녀 부문 예능보유자.

내용 김영희(金暎熙, 여)는 김석출과 무녀 변난호 사이의 4녀 중 맏딸로 1941년(호적상에는 1945년생으로 등재됨)에 구룡포 숲실(오늘날 경북 포항시 동해면 임곡리)에서 출생하였다. 원래 이름은 복순이지만 이십대 중반에 영희로 개명하였다. 천연두를 앓아 얼굴에 곰보 자국이 있어서 '곰보무당'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굿을 하는 시골 동네의 어른들은 그녀의 이름보다 이 별칭으로 많이 기억한다.

7세 때부터 무 수업이라고 할 수 있는 무가(사설), 장단, 춤 등의 학습을 자연스럽게 하다가 17세 때 부산 일광의 세습무인 송순택과 결혼하면서 시어머니인 백아기로부터 본격적인 무 수업을 받게 된다. 이 당시까지는 동해안 무속이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가 각기 독자적이었다. 김영희가 이 지역으로 시집가 굿의 학습을 받음으로써 오늘날 경상남도의 굿을 해본 유일한 연행자가 된다. 시집가서 처음으로 의례에 참여한 것은 굿이 아닌 비손 형태인 객귀물리기였다. 이후 백아기의 가르침을 차근차근 익히면서 무녀로서의 기틀을 잡았다. 어정(굿판)의 첫 참여, 이들의 은어(隱語)로 '쾌자를 올린' 것은 17세 때 부산 대변에서의 오구굿이었고, 18세 때 두모포 별신굿에 나서게 됨으로써 본격적으로 무녀의 길에 접어들었다. 25세 때 백아기 사후 송순택과 결별하고 강원도 삼척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이금옥 무녀에게 가서 굿을 익혔다.

이금옥은 당대 동해안 최고의 무녀였고, 김영희의 큰아버지인 김호출과 살고 있었다. 따라서 이금옥은 김영희에게 큰어머니인 셈이었다. 김영희는 동해안굿에서 큰굿이라 할 수 있는 손님굿, 발원굿의 바리데기무가, 심청굿 등을 이금옥을 통해 익히고 가다듬을 수 있게 되었다. 이즈음인 26세 때 경북의 유명 화랭이 송동숙의 이복동생 제갈태오를 만나게 되고, 10년 후에 다시 부산에 자리를 잡게 된다. 제갈태오는 당시에 굿을 하던 이가 아니었고 시댁과 친정이 당골판을 둔 경쟁관계여서 송동숙은 여러 고통을 겪게 된다. 이런 삶의 질곡을 겪으면서 송동숙은 이제 동해안굿의 윗세대가 되어 있다. 무녀 부문 보유자인 양중(악사) 김석출이 타계하고 무녀 김유선의 활동이 힘들어 사촌동생이 되는 김용택과 함께 2006년에 이 부문의 예능보유자가 되었다. 오늘날에는 동생 김동연 · 김동언 · 사촌동생 김용택 등과 함께 무리를 이루어 무업을 계속하고 있다.

무녀로서 김영희의 장기는 사설의 풍부함에 있다. 정해져 있는 원사설이 탄탄한 가운데 현장에서 상황에 따라 나오는 축원의 사설들이 조근조근 하면서도 배려가 깊어 무가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아버지 김석출로부터 이어받은 재주를 시어머니인 백아기와 큰어머니인 이금옥을 통해 꽃을 피움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장기이다.



김영희
경북 영덕군 영해면 대진해수욕장
송동숙을 위한 오구굿 현장 | 2006.10.11 | 김형근

참고문헌 한국무속의 연구(최길성, 아세아문화사, 1978), 경남 · 경북 동해안 무악 비교 연구(장휘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동해안 세습무 김영희의 무가 사설 연구(김구한, 울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필자 김형근(金亨根)

김옥렴

분야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33호 행당동 아기씨당굿 예능보유자.

내용 김옥렴은 1936년에 행당동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는 서울 토박이이다. 친할머니인 쪽집게방 고송자, 어머니인 이쁜이 김묘순, 어진이 김옥렴으로 이어지는 신줄 있는 만신이다. 17세 때 신병이 시작되었지만 신을 받지 않으려고 눌림굿을 받으며 견디다가 결국 41세 때 정식으로 내림을 받았다. 늦은 나이에 무업에 들어섰지만 어려서부터 보고 들은 것이 굿일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전통적인 서울굿의 실상을 잘 알고 있다. 무엇보다 왕십리를 중심으로 한 서울굿의 동쪽제 굿법을 잘 이해하고 있다.

아기씨당과의 인연은 친할머니 고송자로부터 시작된다. 점사가 족집게 같다고 붙여진 쪽집게방 고송자는 팔관동 태생이지만 내림을 받은 이후에는 왕십리에 자리를 잡고 활동하였다. 그의 친정일가가 아기씨당의 열쇠고지기였기에 아기씨당과 인연을 맺게 됐다. 과거 아기씨당은 행당동에 세 곳이 있었다. 살군당 · 양지당 · 수풀당으로 김옥렴이 당주를 맡고 있는 곳은 살군당이다. 양지당은 유실됐다.

고송자는 자손이 없어 조카 김현세를 양자로 들이고, 대를 물리기 위해 첫째 며느리가 있음에도 둘째 며느리 김묘분을 맞아들이게 한다. 김묘분은 13세 때 왕십리 청빼미를 신어머니로 두었고, 17세 때 김현세에게 시집와서는 고송자와 함께 굿을 하였다. 김옥렴은 일찍 신을 받지 않았지만 어려서부터 이들의 수발을 드는 이른바 시봉노릇을 하는 등 굿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있었다. 김옥렴은 개인적으로 남의 굿일을 다니는 이른바 청승 무당은 아니기에 모든 굿거리에 대한 기예를 갖추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것이 전통적인 것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름대로 이론적 안목이 있는 만신이다. 또한 행동이 반듯하고, 단골과 학자 등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밝고 친절하여 따뜻함을 주는 만신이다. 현재 거주하는 곳은 성동구 행당1동 128-901호로, 개인 신당이면서 살림하는 집과 별채로 꾸며진 아기씨당이 붙어 있다. 개인 신당에는 100년 이상 된 것으로 보이는 무신도 14점 등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무구들을 간직하고 있다.



김옥렴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아기씨당 | 2006.12.16 | 김형근

참고문헌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서울시,경기도,강원도편(국립문화재연구소, 민속원, 2005), 서울굿의 동쪽제와 서쪽제 비교(고영희, 비교민속학 29, 비교민속학회, 2005), 성동구의 민간신앙(최래옥 외, 성동문화원, 2005), 서울지역 당신화 연구–행당동 아기씨당을 중심으로(고영희, 서울굿의 이해, 민속원, 2007), 서울굿의 다양성과 구조(김헌선, 서울굿의 이해, 민속원, 2007).

필자 김형근(金亨根)

김용택

분야 중요무형문화재 제82-가호 동해안별신굿 보유자.

내용 김용택(金用澤, 남)의 증조부인 김천득은 경북 영일군 의창면 성내동(현재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내리)에 거주하는 이옥분을 만나 무가(巫家)를 형성했다. 김천득과 이옥분의 소생으로 김범수, 김성수, 김영수 3형제가 있었다.

김천득과 이옥분의 둘째 아들인 김성수는 이선옥과 혼인하여 포항에서 무업을 했다. 김성수 부부는 포항, 흥해, 청하, 월포, 환호, 용덕, 죽산, 우목, 오도 등지에서 원무당으로 활동했다.

김성수 부부는 김호출 · 김외동 · 김석출 · 김재출 3남 1녀를 낳았다. 큰아들 김호출은 경북 영덕의 김채봉과 1931년에 혼인하였다. 김호출과 김채봉은 경북 포항 청하에 거주하며 무업을 했다. 김호출은 무업 기량이 뛰어났으며, 후처로 경주 태생인 이금옥을 맞아 강원 삼척 근덕으로 주거지를 옮겼다. 김호출과 김채봉은 김복룡 · 김용업 · 김용택을 낳았다. 큰아들 김복룡은 강원 강릉 주문진에 거주하였고, 무업을 하기 전에 경찰직과 대한청년단 활동도 하였다. 김복룡은 신을 받은 신길자를 맞이하였고, 신길자는 김복룡과 혼인하여 큰굿을 배우게 되었다. 김용업은 경북 영일군(현재 포항시 북구) 옥성동에서 출생하여 큰굿을 하면서도 점복과 역술업, 성명철학 등을 겸하였다. 강원 동해시 발한동에서 30년 정도 '김대희철학관'을 운영하였다.

김용택은 1946년(호적상에는 1947년생으로 등재됨) 포항에서 출생하였다. 김용택은 9살 때부터 동해안별신굿을 하는 것을 봐 왔고, 계모 이금옥 밑에서 자랐다. 12살 때 강원도 삼척에서 산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고 산 공부에 전념하였다.



김용택
경북 포항시 청하면 이가리 오구굿 | 2008.5.19 | 최성진

김용택을 포함하여 총 13명이 산에 있는 맹방 초가집에서 아버지인 김호출에게 장단을 배웠다. 18년 동안 산에서 공부를 하면서 많이 혼나기도 했다. 옛날에는 악보가 없었는데, 청보가락을 배웠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한다.

김용택이 산에서 학습한 장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별신굿에 사용되는 장단과 오구굿에 사용되는 장단이다. 청보장단(1~6장)은 다 배우는데 3년 정도 걸렸고, 제마수장단(초장~삼장)은 배우는데 1년 정도 걸렸다. 또 삼오장(1~5장)은 배우는데 1년 정도 걸렸고, 중타령 때 하는 신협장단은 배우는데 5, 6개월이 걸렸다. 이렇게 해서 별신굿에 사용되는 장단을 다 배운 것이다.

다음으로 오구굿에 사용되는 장단을 배웠다. 초망자굿에는 쪼시개(초장~3장, 옛날에는 쪼치개라고 했음)장단이 있다. 청보장단과 비슷한 이 장단은 배우는데 5, 6개월이 걸렸다. 극락춤 출 때 사용되는 드렁갱이장단(초장~5장)은 1년 넘게 걸렸고, 문굿 치러 들어와서 마당에서 나가기 전에 육자염불을 할 때 사용되는 육자장단(1~3장)은 3, 4개월 걸렸다. 시슬장단은 5, 6개월 걸렸고, 동살풀이장단(태집무관)은 배우는데 6, 7개월 걸렸다. 꽃노래, 뱃노래, 등노래 등을 할 때 사용되는 상공잽이장단(초장~3장)은 3개월 걸렸다. 이때 초롱등은 춤장단이 별도로 있다. 이를 백이장(원래 박이장이라고 함)이라고 한다. 이 장단을 쳐줘야 끝이 나는 것이다.

김용택이 실제 굿판에서 처음 징을 잡은 것은 10살 때이며, 장소는 어렴풋이 지경 별자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2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별자에 참여하여 징을 잡았다. 장단 학습에 비해 사설 공부는 따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염불(육자염불, 지옥가)은 모두 암기했다. 암기를 다 했다 하더라도 혹여 빠뜨리지 않기 위하여 원전을 펴놓고 보면서 연행하라고 가르침을 받았다.

지화 제작은 10살 때부터 아버지 김호출에게

배우고 익혔으나 15살이 되어서야 제작하는 기술을 갖추게 되었다. 지화 종류는 다양하다. 그중에서 다부살이꽃을 만드는 것은 직접 배울 기회가 없었다. 특히 등사 가위질하는 것은 어려워서 배우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16세 때 처음으로 청하 월포 새마을의 마을굿을 맡았다. 그 마을은 김용택의 고향이기도 하다. 그곳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청진 · 이가리 · 칠포 · 용덕리 마을굿도 맡았다.

김용택이 22살이 되던 해, 강원도 강릉 남항진의 김영숙과 혼인하였다. 김영숙은 성덕초등학교와 강릉중학교를 졸업한 후 16살에 신이 왔고, 그해 이금옥의 수양딸로 김용택의 집에 들어왔다. 그래서 강릉여고에 시험을 치고 합격했어도 입학하지 못했다.

김용택은 1980년 초 KBS 방송 공개홀에서 동해안별신굿 기능을 보여 줬을 때와 해외공연(일본 도쿄 동해안별신굿 협연)을 통해 우리 가락을 다른 나라에 소개할 때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꼈다고 한다. 특히 최근에는 국악을 배우는 학생과 일반인들에게 장단을 전수하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김용택은 동해안 남무 중 무악의 기량이 출중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1993년에는 동해안별신굿 전수 조교가 됐고, 1997년에 보유자 후보로 오른 후 2006년 6월 19일 동해안별신굿 보유자로 지정되었다. 현재 김용택 · 김영숙 부부는 1남 3녀를 두었다. 자녀들은 무업을 하지 않고 있다.

참고문헌 동해안 굿의 전승과 변화(윤동환,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필자 최성진(崔性鎭)

김유감

분야 서울의 무속인. 중요무형문화재 제104호 서울새남굿 기능보유자 및 명예기능보유자.

내용 김유감(金有感, 여, 1924~2009)은 서울굿판에서 서울굿을 전문적으로 연행한 여성 무당이었다. 김유감의 가계는 정통 서울굿을 담당하는 무속 집안이다. 친정어머니는 삼신방이라는 별호를 지닌 반승업으로, 운현궁에서 나라굿을 주로 연행했다고 하며, 오빠인 김만용은 굿판의 악사였다. 김유감은 성음이 좋고 활달하여 대감거리를 특히 잘 연행하여 대감방이라고 불렸다.

김유감은 6세가 되던 1930년 정월 양지동의 집 대청마루에서 어머니 앞에 앉아 소꿉장난을 하다가 손뼉을 치면서 신이 내렸다. 인근 산에 올라가 종이에 싼 부채와 방울을 찾는 구업이를 떠왔는데 뒤따라 온 오빠가 엉겁결에 뺨을 때리는 바람에 다리가 굳어 7개월 동안 앉은뱅이로 지냈다. 9살이 되던 해에 순정어머니와 칠성네할머니를 모시고 신굿을 받아 무당의 길로 들어선 김유감은 나라무당인 어머니로부터 서울굿의 주요 문서를 습득했다. 1937년에는 부민관에서 개최된 조선민속예술대회에 출연하여 경성부윤상을 받을 만큼 기량이 뛰어났다. 일제 말기까지는 왔소집할머니, 장충동 창근할머니, 송파집 순이 등과 함께 어울리며 서울굿을 연행했다. 광복 후에는 최순자(노들순자), 강윤권, 한부전 등과 함께 새남굿을 주로 담당했다. 1990년대에는 강윤권, 한부전, 이상순 등과 함께 서울새남굿 전승에 힘쓰다가 1996년 5월 1일 서울새남굿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기능보유자가 되었다.


김유감
1997 | 국립민속박물관

이후 서울새남굿 보존회를 결성하여 많은 이수자를 길러내 서울새남굿의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일년에 한 차례 있는 서울새남굿 정기발표회에 여러 제자와 함께 참가하여 서울새남굿의 가치를 알리는 데 노력했다. 정기적으로 무형문화재회관에서 서울굿 관련 학술대회를 후원하여 10여 차례 여러 편의 무속 관련 논문이 발표된 것도 김유감의 공로이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거동이 불편한 데다 노쇠하여 기량이 과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쇠퇴했어도 항상 굿판에 참가하여 장구채라도 잡아 후학들에게 모범을 보이기도 했다. 2007년에 명예기능보유자로 한 걸음 물러났으며, 뒤를 이어 오랫동안 김유감 밑에서 서울새남굿을 전수한 이상순이 기능보유자로 인정되었다. 김유감은 2009년 5월에 85세의 일기로 세상과 작별을 고하였다.

대감방이라 불릴 정도로 재수굿에 뛰어난 김유감이 망자천도굿인 서울새남굿의 기능보유자가 된 것은 예사롭지 않다. 서울의 무당들이 재수굿이든 진오기굿이든 가리지 않고 자신의 재주를 드러낼 수 있지만 김유감이 서울새남굿의 기능보유자가 된 것은 뛰어난 기량과 함께 천복이 함께한 덕분이다. 오랫동안 기능보유자로 있으면서 무속계와 학계의 존경을 받으며 산 것은 서울의 무속인으로서는 누리기 힘든 영예로운 삶이었다. 하지만 서울새남굿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음에도 김유감의 문서 일체가 온전하게 정리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2009년 7월 1~2일에 김유감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서울새남굿이 남산 한옥마을에서 있어 생전에 그가 정립한 서울새남굿이 온전하게 연행된 것은 김유감의 마지막 공로였다.

참고문헌 서울새남굿(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필자 홍태한(洪泰漢)

김유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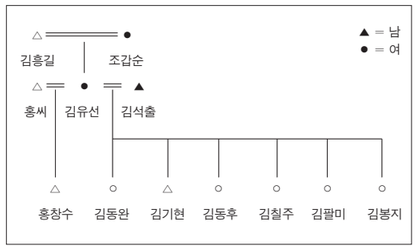
분야 중요무형문화재 제82-가호 동해안별신굿 예능보유자(무당)이자 명예보유자.

내용 김유선(金有善, 여)은 1932년(호적상에는 1935년생으로 등재됨) 아버지 김흥길(金興吉, 鶴善)과 어머니 조갑순 사이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무당이 아니었으며 모친은 동네에서 비손을 하는 비래쟁이였다. 김유선의 집안은 전통적인 무속 집안이 아니었다. 김유선은 태어나기 전에 부친이 별세하여 유복자로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강원도 강릉 안인진에서 살다가 18세에 시집가서 홍창수(洪昌洙)를 낳았다. 그러나 당시 한참인 한국전쟁 때 남편이 전사하는 아픔을 겪었다. 그리고 시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모두 사망하고 홀로 안인진에서 해녀생활을 하며 살다가 외할머니의 신이 몸에 강신하여 강릉 주문진으로 이사한 뒤 점쟁이가 되었다. 김유선은 이 당시 신이 지펴서 점(占)을 칠 수 있었으나 굿은 할 줄 몰랐다.

한편 김석출은 34살 때 강릉 주문진에 별신굿을 하러 갔다가 주문진 째보영감(백창옥) 집과 사돈관계에 있는 김유선을 만나게 되었다. 김유선은 이때 굿은 하지 못했지만 소리는 곧잘 했다. 이 시기에 김석출은 변난호와 부산 자갈치에서 살고 있었다. 김유선은 김석출 부부의 권유로 이해 5월에 김석출의 집에 기거하게 되었다. 김유선은 무업 기능을 쉽게 습득하여 굿을 배운지 넉 달만인 9월에 쾌자를 입고 굿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그 후 그녀는 점복(占卜)하는 것은 일절 하지 않고 김석출에게 굿을 열심히 배웠다. 김유선은 어떤 때 몸이 아프다가도 굿하는 소리만 들으면 기운이 날 정도로 굿하는 것을 미친 듯이 보고 배웠다. 특히 사촌 동서들과 한데 어울려 다니면서 굿하는 것을 많이 보고 배워 익혔다.

이후 김석출과 김유선은 전 부인인 변난호를 피해 포항 청하에 사는 김석출의 형 김호출 집에 갔다가 다시 영덕 강구, 강릉 안인과 주문진 등지로 주거지를 옮겼다. 결국 김석출과 김유선 사이에 동완을 낳은 뒤 변난호와 이혼하였다.

이후 강릉 주문진에서 다시 부산 해운대로 이사하였다. 무가, 무무, 지화 제작에 능한 김유선은 1985년 4월 1일 동해안의 큰무당으로서 중요무형문화재 제 82-가호 동해안 별신굿 예능보유자(무창)로 지정되고 2005년 4월 20일에 명예보유자로 지정되었다. 현재는 다리를 다쳐 굿을 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무속의 연구(최길성, 아세아문화사, 1978), 동해안 굿의 전승과 변화(윤동환,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필자 윤동환(尹東煥)

김유신(金庾信)

정의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신라의 장군이자 민간과 무속에서 신앙되는 장군신의 하나. 본관은 김해이며, 가야국 김수로왕(金首露王)의 12대 손이다. 아버지는 김서현(金舒玄), 어머니는 갈문왕 입종(立宗)의 손녀 만명(萬明)이다.

내용 김유신(595~673)은 민간과 무속신앙에서 장군신의 하나로 신앙되고 있다. 주로 마을을 수호하는 산신(山神) 또는 마을신으로 받들어진다. 강원도 강릉시, 충청북도 진천군, 경상북도 군위군, 서울시 용산구 일대가 대표적인 신앙 전승지이다.

마을의 평안과 풍농·풍어를 위해 거행되는 강릉단오제의 경우 주신은 서낭신인 범일국사신(梵日國師神)이지만 김유신 장군 역시 대관령을 관장하는 산신으로 모셔진다. 또 강릉 시내에 위치한 김유신 장군을 모신 사당인 화부산사(花浮山祠)에서는 매년 오월 단오 때마다 제사를 지내고 있다. 한편 이규경(李圭景, 1788~1856)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도 명주(溟州 ; 지금의 강릉) 사람들이 장차 5월의 길일에 신라대장군 김유신 대령신(大嶺神 ; 대관령 산신)을 맞으러 간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같은 책에서 "경상도 군위현에 김유신신사(金庾信神祠)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의 어머니 만명(萬明)을 모시고 있으며, 무녀들이 그 만명을 섬기는데 신당에는 반드시 명도(明圖)라는 구리거울을 걸어놓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현재 무속에서 '말명(대신)'으로 신앙되는 김유신의 어머니도 일찍이 신격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단오조에서도 "군위군 효령(孝靈) 서악(西岳)에 김유신사당이 있는데 속칭 삼장군당(三將軍堂)이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특히 현재에도 경북 군위 지역의 무속인 대부분이 김유신을 팔공산 산신으로 모시고 있다. 이 밖에 김유신의 태(胎)가 묻힌 곳으로 알려진 충북 진천군 길상산(吉祥山)은 고려 때 태령산(胎靈山)으로 불리다가 통일신라 이래로 김유신사(金庾信祠)를 세워 통일신라·고려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봄·가을로 치제하였다고 한다. 또 서울 용산구 보광동과 주성동 등지의 김유신장군당에서는 마을의 태평을 기원하며 당굿을 거행하고 있다.

이처럼 신격화된 김유신에 대한 일화는 문헌기록과 구비전승을 통해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그의 일대기는 『삼국사기(三國史記)』 열전(列傳)에 실려 있고, 『삼국유사(三國遺事)』 기이(紀異) 제2 김유신조(金庾信條)에도 그의 행적에 관한 단편적인 일화들이 기록되어 있다. 또 『파한집(破閑集)』, 『동경잡기(東京雜記)』,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등에도 그에 관한 기록이 전해진다.

특히 민간신앙의 주체인 민중의 구비전승에서 그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신격화되어 나타난다. 이들을 토대로 한 영웅의 일대기에 따라 김유신의 일생을 재구성하여 대표적인 삽화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신이한 탄생을 하다 : 김유신은 가야국의 시조 수로왕의 12대손이며, 칠요(북두칠성)의 정기를 타고났고, 태기가 있은 지 20개월 만에 출생하였다.

2. 신이한 능력을 획득하다 : 김유신이 어렸을 때 건천읍(乾川邑)의 남쪽 끝에 있는 단석산(斷石山) 바위 안에서 10년을 공부하기 위해 갔다. 10년을 마치고 나오는 날 밤 꿈에 단석산 산신령이 나타나 "이 칼은 네가 마음먹은 대로 움직인다"고 하였다. 김유신이 칼을 가지고 나오면서 천탑바위[千塔岩]를 보고, 신검으로 겨누니 바위가 절로 갈라졌다.

3. 신이한 능력을 발휘하다 : 신라 군사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다. 김유신이 단을 쌓고 신술을 쓰자 갑자기 큰 독만한 광채가 단(壇) 위에서 나오는데 별이 북쪽으로 날아갔다. 적군은 모두 땅에 자빠졌다가 한참만에야 깨어나서 모두 흩어져 달아났다. 또 소정방(蘇定方, 595~667)의 군대가 부여를 건너오는데 강에 있는 용이 풍파를 일으켜 소정방이 넘어오지 못하고 있었다. 김유신이 금고리에 백마를 꿰어 용을 낚자 소정방이 건너올 수 있었다.

4. 산신이 되어 나라를 지키다 : 신라 김유신 장군은 어렸을 때 명주(溟州)에서 유학하며 대관령 산신에게 검술을 배웠다. 그는 사후에 대관령의 산신이 되어 이 지방을 보호해 주었다. 임진왜란 때에는 대관령과 송정의 모든 소나무를 군사로 보이게 하여 왜군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다.

김유신은 출생이 천계(天界)와 연결되어 있고, 증거로 몸에는 북두칠성을 닮은 7개의 점을 지니고 있다. 수련의 과정을 거쳐 행적에 이르기까지 그의 탄생과 결부된 신이한 요소는 줄곧 나타나며 죽어서는 대관령의 산신으로 좌정된다. 이처럼 김유신의 출생에서부터 비롯된 그의 신이성은 그가 사후에 다시 천(天)의 세계인 산신으로 복귀함으로써 더욱 강화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순환적 서사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순환적 서사구조로 말미암아 김유신은 죽은 뒤에도 왜군을 물리치는 등의 이적을 보이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는 그가 민중의 의식 속에는 여전히 살아 있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장군은 대개 국가적 위기인 전란의 시기에 활동하는 인물이다. 이 때문에 전란을 겪고 있는 민중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구원해 주는 대상으로 장군을 평가하고 받아들인다. 곧 장군은 한 시대에 있어 민중이 바라는 영웅의 표상이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하고 이후 당나라와의 관계에서 주체성을 지켜낸 김유신 장군은 한국영웅의 전형으로 자리매김하여 신격화되어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동신당(김태곤, 민속원, 1999), 한국무속의 신관에 대한 연구(이용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필자 오세길(吳世吉)

김윤수

분야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 기능보유자.

내용 김윤수(金允洙, 남)는 1946년에 제주시 이도1동의 속칭 '남수각'에서 태어났다. 2남 2녀 중 장남이다. 그의 집안의 원래 고향은 북제주군(현재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이다. 이용옥과 혼인하여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다. 부인 이용옥 역시 뛰어난 기량을 지닌 심방이다.

김윤수는 본인까지 4대째 무업이 이어지고 있는 심방 집안출신이다. 그의 집안에는 심방 자손이 나오게 된 내력이 전한다. 김윤수의 6대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고조부가 산터(묘지터)를 보기 위해 아는 지관을 데려갔다고 한다. 지관이 한 장소를 가리키며 그 곳에 산(묘지)을 쓰면 자손은 많이 생기지만 심방 자손이 나오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고조부는 심방 자손이 나와도 좋으니 그곳에 산을 쓰게끔 달라고 해서 묘를 만들기로 했다. 그런데 지관이 하관(下棺)할 시간이 되면 서쪽으로 삼석소리, 즉 굿 하는 소리가 날 것이고 굿 소리가 나면 그때 하관하라고 말하고 갔다고 한다. 하관 시간이 되니 정말 '궷드르'(궤평동,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의 지명) 마을에서 굿 소리가 났다. 굿 소리가 난 후에 하관을 했는데 그 후에 증조부 때부터 심방일을 하기 시작하였고 성편(姓便)으로 4대째 무업을 계속 이어온 것이다.

성편에서는 증조부부터 김윤수까지 모두 13명의 심방을 배출했다. 외가 쪽으로도 외조부 때부터 심방일을 하기 시작해 외삼촌인 홍명관과 이모가 심방이다.

김윤수를 처음 무업(巫業)의 길로 이끈 이는 큰어머니 문옥선 심방이다. 문옥선은 큰아버지 김천년의 둘째 부인이다. 김천년은 당시 제주도에서 이름난 심방 중 한 사람이었다. 문옥선은 김천년의 자식들이 무업에 관심이 없자 김윤수에게 큰아버지 대를 이으라고 했다. 김윤수는 13세 무렵부터 문옥선을 따라 굿판에 다니기는 했으나 무업을 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1, 2년이 지나면서 몸이 아프기 시작하자 문옥선이 큰아버지의 대를 이으라고 계속 권했다. 그 뒤로 큰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굿을 배우기 시작, 16세 때부터 본격적으로 무업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심방에 대한 차별이 심한 데다 당국의 단속도 강화되어 김윤수는 심적 갈등도 많이 겪고 방탕하게 지내기도 했다. 그러다가 다시 아프기 시작하였다. 제대 후계부인 양금석 심방의 권유에 따라 굿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다. 이후 김윤수는 당시 조천읍 신촌리에 살던 고군찬 심방을 수양어머니로 삼아 따라다니며 일을 했다. 수양어머니의 배려로 거주지도 신촌으로 옮겨 지금까지 살고 있다. 29세 때 처음으로 제주시 봉개동 강씨 단골의 굿을 맡아서 하게 되었다. 그 뒤로는 점차 심방으로 이름이 나서 굿을 활발하게 하였다. 김윤수는 계부인 양금석, 큰어머니인 문옥선, 수양어머니인 고군찬 등에게 굿을 배웠다. 그의 첫 신굿은 1986년에 신촌리 자신의 집에서 진부옥이 수심방을 맡아 14일 동안 하였다.

김윤수는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인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의 기능보유자이다.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은 1980년 11월 17일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첫 기능보유자는 안사인 심방이다. 김윤수는 안사인과도 일찍부터 굿을 함께 다니던 사이였다. 1986년에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보존회가 만들어지면서 안사인과 함께 많은 활동을 하였다. 안사인이 작고하자 5년 후인 1995년에 그의 뒤를 이어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의 기능보유자가 되었다.



김윤수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영등송별제 |
2006.3.13 | 강소전

한편 김윤수는 현재 제주시 건입동의 칠머리당 외에도 수양어머니가 물려준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의 불돗당도 매고 있다. 굿을 하러 다니는 중심적인 지역은 제주시 건입동 산지와 봉개동, 조천읍 일대인 와산리, 신촌리, 와흘리, 조천리, 선흘리 등지이다.

참고문헌 제주 칠머리당영등굿(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전라남도 · 전라북도 · 제주도(국립문화재연구소, 민속원, 2008). 제주도 굿의 '공시물이' 고찰(강소전, 한국무속학 14, 한국무속학회, 2007).
필자 강소전(姜昭全)

김장길

분야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3호 영해별신굿놀이 예능보유자. 전 예능보유자였던 송동숙이 2006년 4월 24일 타계하고 난 뒤, 그 뒤를 이어 2007년 1월 8일 예능보유자로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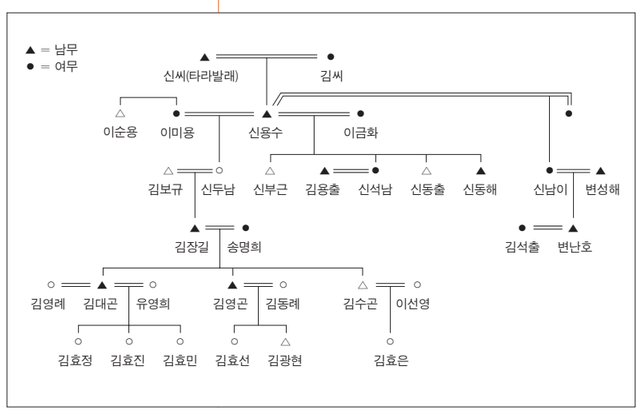
내용 김장길(金長吉, 남)은 외가인 신씨 무계와 관련이 있다. 다리가 뒤틀려 걸을 때 전다고 해서 '타라발래'라고 불리는 신씨는 김씨 부인을 맞아 신용수를 낳았다. 타라발래 부부는 경북 울진 지방에서 활동하며 평해 단오제를 맡았다. 이들은 김석출과 송동숙에게 있어 조부대의 무당이다. 아들 신용수도 마찬가지로 무업을 하였다. 신용수에게는 배다른 자녀가 여럿 있었다. 신용수가 혼인하기 전에 낳은 딸인 신남이는 변씨 무계의 변성해와 결혼하였다. 이들 사이에 낳은 딸인 변난호는 김석출과 혼인했다가 헤어졌다.

신용수는 울진 근남면 진복리에서 무업을 하는 이미용과 만나 혼인했다. '옹이 미용네'라고 불린 이미용은 굿을 잘했다고 한다. 신용수와 이미용 사이에서 딸인 신두남을 낳았으나 신두남은 몸이 뒤틀리는 병에 걸려 무업을 하지 않았다. 신두남은 정상적인 혼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딸 다섯을 두고 있었지만 아들을 낳기를 희망했던 김보규를 만나 김장길을 낳았다. 김장길의 호적에는 4년 뒤인 1950년 8월 6일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생년월일은 1946년 음력 8월 6일이다.

김보규의 집안은 대대로 농부였다. 김장길은 일곱 살에 아버지를 여읜 뒤 어머니와 문전걸식하며 살아야 했다. 어려운 살림에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채 온갖 품팔이를 하면서 어머니를 봉양했다. 그러던 중에 외할아버지 누나의 아들 김출이가 울진 평해 월송리에서 울진 후포면 삼율로 주거지를 옮겨 무업을 했다. 김장길은 열네 살부터 김출이에게 정식으로 굿을 배우면서 무악장단과 지화 제작 등 무업의 기본기를 익혔다. 이후 김장길은 스무 살 무렵부터 장구를 잡고 양중으로 활동하였다. 이를 눈여겨본 신석남과 변연호가 김장길을 사위감으로 찍었다. 김장길은 4년 뒤에 송동숙과 변연호의 딸 송명희와 혼인하였다.

김장길과 송명희 부부는 경북 울진 후포면 삼율리에 살며, 주로 울진 지방을 기반으로 한 경북 일대를 단골판으로 하여 무업을 하고 있다. 김장길은 1980년 12월 30일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된 영해별신굿놀이 예능보유자(무속악사) 송동숙이 2006년 4월 24일 타계하자 그 뒤를 이어 2007년 1월 8일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현재 김장길의 아랫대로 맏아들인 김대곤과 둘째 아들 김영곤이 무업을 학습하고 있다.

김장길 무계도



참고문헌 우리 무당 이야기(황루시, 풀빛, 2000). 동해안 굿의 전승과 변화(윤동환,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필자 윤동환(尹東煥)

김찬섭

분야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35호 밤섬부군당도당굿 보유자.

내용 김찬섭(金燦燮, 남)은 1948년에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에서 출생하였다. 7대째 무속인 집안으로 살고 있는 집안이다. 김찬섭은 양복점을 경영하던 아버지 김태희와 어머니 박옥순 사이의 3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위로 형이 있고 그 위가 바로 밤섬부군당도당굿 당주무당인 김춘강 만신이다. 어머니 박옥순은 '적설네'라는 별호로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서 유명한 만신이었다. 그가 태어난 이듬해인 1949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 후 세 살이 되던 해에 이충선이 새아버지로 들어온다. 서울 · 경기 일대에 무악의 기인으로 유명하였던 이충선은 1973년 11월 11일 중요무형문화재 제49호 송파산대놀이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김찬섭은 8세 때 이충선에게 처음으로 피리를 배웠다. 그가 12세가 됐을 때 아들의 재주와 열의

를 확인한 이충선은 본격적으로 무악을 교육하여 자신의 모든 기예를 전수하게 된다. 그리하여 약 30년 동안 김찬섭은 아버지에게 피리를 비롯한 해금과 대금을 모두 배웠다. 13세 때인 1961년에 아버지의 권유로 국악사 양성소에 들어간 김찬섭은 1967년에 제7회로 졸업하였다. 그는 양성소를 다니면서 아버지와 함께 차츰 굿판에 일을 나가기 시작했다. 16세 무렵에 아버지가 계속 다니던 밤섬부군당굿에도 악사로 처음 참여하게 된다. 부군당굿에 10여 년을 함께 다니다가 이후 아버지 대신 혼자서 부군당굿 일을 계속하게 된다. 1980년대 중반에 국제교류연합회 주선으로 약 4년간 미국에 가 있는 동안 부군당굿과는 잠깐 인연이 끊어졌다. 그동안 다른 악사가 그 일을 하고 있었으나 귀국 후 주민들이 다시 청하여 부군당굿과의 인연을 이어가게 된다. 21세 때 아버지와 함께 신세계레코드에 취입하고 이듬해 성음레코드나 유니버설레코드 등에 취입하면서 차차 이름을 알리게 된다. 이때부터 KBS 민속합주단과도 인연을 맺어 지금까지 피리 주자로 활약하고 있다.

김찬섭은 25세 때 장은순과 결혼하고 분가하였다. 2남 1녀의 자녀 가운데 장남 김필홍은 중학생 때부터 아버지에게서 피리를 배웠으며 이어 국악예술학교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와 용인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악을 전공하였다. 김필홍 역시 고등학교 졸업 후 아버지를 따라 굿판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1999년부터 밤섬부군당굿 악사로 참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이충선과 아버지 김찬섭에 이어 김필홍까지 대대로 무악이 전승되고 있다. 김찬섭의 부인 장은순은 형님인 김춘강으로부터 내림굿을 받았으나 굿판 일은 하지 않고 집에서 전안만 모시고 있다.

김찬섭은 21세 때부터 각종 음반을 취입하여 국내에서 수많은 공연을 해 오고 있다. 1993년 10월 중요무형문화재 제98호 경기도도당굿의 이수자가 되었고 10여 년간 보존회 총무직을 수행하였다. 1996년에는 KBS 국악대상(관악부문)을 받고, KBS 민속합주단 피리 수석을 맡기도 하였다. 1990년부터 최근까지 추계예술대학교에서 전임강사, 2006년부터 한양대 국악과 겸임교수 등으로 있으면서 후진 양성에 힘써 오고 있다. 2005년 1월 10일 밤섬부군당도당굿이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35호로 지정된 이후 2008년 3월 17일 친누나이자 밤섬부군당도당굿 당주무당인 김춘강과 함께 당주악사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김찬섭 악사의 연주 모습
왼쪽이 김찬섭, 오른쪽은 아들 김필홍 | 마포구 창전동 밤섬부군당굿 | 2007.2.19 | 김태우

참고문헌 마포 부군당도당굿 연구(한국샤머니즘학회, 문덕사, 1999)
필자 김태우(金泰佑)

김춘강

분야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35호 밤섬부군당도당굿 보유자.

내용 김춘강(金春江, 여)은 1941년에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에서 출생하였다. 7대째 무속인 집안으로 살고 있는 집이다. 김춘강은 양복점을 경영하던 아버지 김태희와 서울과 경기 일원에서 유명했던 만신 박옥순 사이의 3남 2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막내 동생이 역시 밤섬부군당도당굿 당주 악사인 김찬섭이다. 손(孫)씨 성의 외할머니 역시 경기도 일산 지역에서 활약한 만신이었다. 아버지 김태희는 안동 김씨 자손으로 무업은 하지 않았지만, 별호가 '적설네'인 친할머니는 궁에 다니며 굿을 했을 정도로 유명했다. 유명했던 적설네의 명성을 며느리인 박옥순이 전승하게 되었고, 박옥순 역시 '적설네'라고 불리었다. 박옥순도 대단히 유명한 만신이었으며, 특히 진오귀를 잘했다고 한다.

이처럼 김춘강은 친가쪽과 외가쪽이 모두 만신 집안이어서 어려서부터 무속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자랐다. 다섯 살 때부터 신병의 조짐이 있었으나 굿은 정작 24세부터 시작하였고, 34세가 되던 1974년에 내림굿을 받았다. 아홉 살이 되던 해에 부친이 사망하고 2년 후 이충선이 새 아버지로 들어왔다. 당시 무악의 기인으로 알려지던 악사 이충선은 1973년 11월 11일 중요무형문화재 제49호 송파산대놀이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이충선은 박옥순의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돌보았으며 김춘강이 풍문여고에 들어가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이충선이 새아버지로 들어온 후에 김춘강은 '이해옥'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이후에 여동생이 태어났다. 김춘강의 남동생 김찬섭 역시 김춘강의 지도와 편달을 통해 새아버지의 음악을 계승한다.

김춘강은 덕수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풍문여중을 거쳐 풍문여고에 진학했다. 풍문여고 2학년 말에 김춘강은 이상한 소리를 하며 춤추는 발동을 보인다. 그때마다 어머니가 기를 누르며 조치했으나 신병은 점점 깊어져 3학년 때 학교를 중퇴했다. 19세에 이문동의 양주 조씨 집안인 조원식에게 시집간다. 23세에 식구들과 함께 내수동 친정에 들어가 살게 된 김춘강은 29세에 이사 나올 때까지 친어머니의 전안에 매일 옥수 올리는 일을 했다. 1남 2녀를 낳고 청담동으로 이사한 이후부터 또다시 신병이 발동하여 하혈이 심해진다. 34세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되어 본인도 하혈이 심각해져 자궁수술을 받게 된다. 수술 후 아버지가 만신을 데려와 병굿을 벌였다. 이때 김춘강에게 신이 내려 그대로 말문이 터졌다. 몸주로 오신 신령은 성제님과 최영 장군이다. 이때 굿을 해준 만신 '도서방댁(이은순)'을 나중에 신어머니로 모시게 된다. 그러나 특별한 무업 수업을 받지 않고서도 바로 신어머니의 굿을 도우며 실력을 키워가게 된다. 김춘강의 천부적인 무의 능력은 만신인 어머니로부터 받은 태교와 학창시절의 방송활동, 고전무용과 연극반 활동 등을 통해 얻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춘강



김춘강의 본격적인 무 학습은 친어머니와 절친했던 '노들순자'(최순자)를 만나면서 시작된다. 노들순자는 김춘강에게 굿을 제대로 배워야 한다며 굿문서를 직접 녹음해 주며 익히도록 하였다. 그해 김춘강은 역시 친어머니와 절친했던 서울새남굿의 명무 김유감을 만나게 된다. 김유감은 적설네와의 교분을 헤아려 김춘강에게 서울새남굿의 진수를 전수하게 된다. 근래까지 중요무형문화재 제104호 서울새남굿의 이수자 중 한 사람으로 활약한 김춘강은 특히 대감거리가 일품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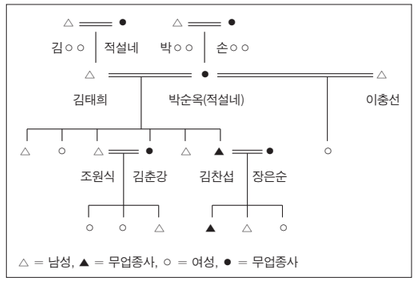
김춘강은 41세 되던 해에 급성위암으로 남편과 사별하고 47세에 돈의동으로 이사하여 살다가 2009년 현재 은평구 구산동에 살고 있다. 집 안에는 할머니 전안, 어머니 전안, 자신의 전안을 마련해 모시고 있다. 김춘강은 무신도 대신 명두를 걸어 놓아 특이하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6·25 한국전쟁이 터지자 할머니가 모시고 있던 화분(무신도)을 모두 불살랐다가 그때부터 당신이 드러누워 무척 고생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김춘강은 자신은 화분 대신 명두를 걸고 있다고 한다. 자신의 전안에는 12명두, 어머니 전안에는 7명두와 어머니가 캐 왔다는 명두 3개 및 방울, 할머니 전안에는 명두 1개만 각각 걸려 있다. 할머니 전안에는 '넋대신 할머니'를 의미하는 의복과 지전, 어머니 전안에는 태조 이성계를 의미하는 왕관을 각각 모시고 있다. 김춘강의 전안에는 명두 이외에도 성제님, 즉 관우와 함께 유비·장비의 관모를 비롯해 최영 장군·별상님·신장님·호구아씨·대감 등 신령을 모시고 있다. 신딸로는 장정숙, 여은서, 김성희, 장영원, 김주현, 장은숙 등이 있다.

그녀가 밤섬부군당굿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97년이다. 밤섬부군당이 밤섬에 있을 때부터 부군당굿에 악사로 참여한 남동생 김찬섭은 마땅한 당주무당이 없자 김춘강을 추천했다. 그해 부군당굿을 잘 놀아 밤섬 원주민들이 무척 만족해하였으며, 이후 밤섬부군당굿의 당주무당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굳히게 된다. 2005년 1월 10일 밤섬부군당도당굿이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당시 기능보유자 선정이 유보되기는 하였으나 당주무당으로서의 자격과 능력에 대한 평가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2008년 3월 17일에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1988년의 일본 공연을 비롯하여 1998년 서울

놀이마당에서 펼친 '실직자를 위한 재수굿'과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주최한 제2회 무속명인전에서 김춘강은 '서울새남굿의 명무'로서 공연을 펼쳐 갈채와 찬사를 받았다.

김춘강 무녀 · 김찬섭 악사 가계도



필자 김태우(金泰佑)

꼭두청

정의 경기도 무속음악에서 가장 높은 음을 내는 청(淸). 단오관청이라고도 한다.

내용 꼭두청은 '꼭대기의 청', '위의 청'이라는 의미이다. 청은 무가를 시작할 때 반주와 가창자가 음고(音高)를 맞추는 기준음을 일컫는다. 무가를 부르는 무당이 적당한 음으로 노래를 시작하면 악사들은 그 음고에 맞춰 일제히 반주음악을 연주한다.

청을 맞추는 악기로는 피리와 대금이 지역이나 악사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된다. 과거 경기도 지역에서는 피리로 청을 맞추었고 근래에는 대금으로 청을 맞추지만 예전과 같이 다양한 청이 사용되지 않는다.

청의 이름은 관악기의 손을 짚는 구멍인 지공(指空)의 운지법(雲指法)에 따라 다르다. 꼭두청을 낼 때 피리는 '오가락'으로 잡는다. 오가락은 앞 7공과 뒤 1공 가운데 뒷구멍인 제1공을 왼손 모지로 짚고 앞구멍 가운데 취구에 가장 가까운 제2공을 왼손 식지로 짚고 차례로 내려가다가 제5공은 오른손 식지, 제6공을 오른손 장지로 짚는 운지법이다.

청의 음은 제1공에서 나고 평균율 A음에 가깝다.

참고문헌 시나위 청(이보형, 한국음악연구 8 · 9합본, 한국국악학회, 1979), 경기도 남부 도당굿 중 제석굿 무가의 음악적 분석(박정경,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02).
필자 박정경(朴正卿)

꽃맞이굿

정의 일반적으로 봄에 하는 굿으로, 무당들이 신단에 모신 신을 위해 하는 진적굿.

내용 굿의 목적은 무업의 번영과 무의 영력 강화이다. 또 자주 쓰지 않는 무구와 신복을 모두 꺼내 거풍(擧風)시키고 정리하는 목적도 있다. 근래에는 재가집에서 이 시기에 의뢰하는 재수굿을 뜻하는 것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쓰이기도 한다.

무당들은 자신이 모시는 신들에게 보통 만물이 생동하는 봄에 꽃맞이, 단풍이 물드는 가을에 단풍맞이를 각각 올린다. 경제적으로 풍족하면 둘을 다 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봄과 가을 중 하나를 택해 행한다.

음력 3월이면 무당들은 서로 상대 무당들을 청해다가 진적굿을 한다. 이때 참석해 도와준 무당들에게는 사례비를 두둑하게 지불한다. 그리고 자신의 단골들을 모두 불러 음식을 대접하고 재수와 수명장수를 빌어준다. 즉 일 년에 한 번 아는 이들을 모두 불러 잔치를 벌이는 셈이다. 이때는 자신이 모시는 모든 신을 위해 재수 소망과 무당의 주술적 능력을 관장하는 모든 굿거리를 빠짐없이 행한다. 하루에 끝나기도 하지만 규모가 큰 경우는 2, 3일에 걸쳐 진행되기도 한다. 무당들은 굿거리 하나를 진행할 때마다 각 굿거리에 해당하는 신들을 상징하는 무구와 무복을 모두 꺼내 들거나 입고 춤을 춘다. 이 때문에 굿은 일반적인 재수굿보다 훨씬 오래 걸리고 길어진다.

꽃반세우기(부천장말도당굿)
부천시 중앙공원 | 2008.11.2 | 시지은



지역사례 꽃맞이굿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무속권은 서울과 황해도 지역이다. 서울 지역에서는 황해도에 비해 부속거리가 있는 큰 거리가 많지 않고, 부속거리들도 간단하게 형식만을 갖춘다. 그리고 무당들이 개인적인 인연으로 모시게 된 개별적인 신들을 따로 한 거리로 잡지 않고 대신거리나 말명거리에서 한꺼번에 놀려주므로 굿이 하루 안에 다 끝난다. 반면에 황해도 지역은 부속거리가 있는 큰 거리의 모든 신을 놀려주고, 무당에 따라 개별적으로 모시는 신들의 경우에도 한 거리를 할애하는 까닭에 굿이 길다. 보통 무당의 진적은 2박 3일 정도가 소요된다.

서울 무당인 이상순의 경우 진적굿거리는 부정, 초가망, 본향노랫가락, 진적, 상산노랫가락, 청계배웅, 대신말명, 천궁불사, 제당맞이, 산신도당, 산바라기, 대안주, 조상, 대감, 안당제석, 성주군웅, 창부, 계면, 뒷전, 회정맞이 등이다. 황해도 무당인 박선옥의 경우 부정, 일월석함맞이, 상산맞이, 초감홍초부정, 칠성제석, 영정물림, 성주굿, 소대감거리, 장군거리, 소신장거리, 군웅(생타살), 작두거리, 익은타살, 대신거리, 구대천문토인성수, 대감거리, 제장대감, 걸립, 말명, 조상 등이 꽃맞이굿에서 행하는 굿거리이다. 굿거리 수로는 별 차이가 나지 않으나 서울은 초가망, 본향노랫가락, 진적, 상산노랫가락을 엮어서 하나의 거리처럼 행하는 등 한 거리에 할애되는 시간이 많지 않다. 반면에 황해도는 큰 거리의 경우 한 굿거리를 3시간씩 연행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재수굿 · 진굿(이선주, 미문출판사, 1989), 한국민속대사전 1(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한국세시풍속사전 봄 편(양종승,국립민속박물관, 2006).
필자 이명숙(李明淑)

상호참조 단풍맞이굿(185쪽)

꽃반세우기

정의 부천장말도당굿에서 마을사람들이 조그만 상 위에 백지를 깔고 쌀 서되 서홉을 부어 놓고 꾸민 꽃반 위에 도당할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의 운세를 봐주기 위해 부채를 세우는 것.

내용 꽃반세우기가 시작되기 전 당집 안에 상을 차린다. 석 잔의 술잔과 함께 북어, 탕,떡, 밥, 감, 산자 등을 올려 상을 차린 다음 도당할아버지는 두루마기를 입고, 삼베로 허리를 묶은 채 갓을 쓰고 당쪽으로 절을 두 번 한다. 그리고 당집 안에 있던 당시루와 상을 밖으로 내어다가 꽃반 앞에 두고, 오른손에 부채와 왼손에 부채수건을 든 도당할아버지가 꽃반세우기를 진행한다. 먼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꽃반 사이에서 춤을 추다가 신이 내리면, 도당할아버지는 한쪽 다리를 들고 외다리춤(깨끼춤)을 춘다. 그러다가 어느 꽃반 앞으로 가서 꽃반에 부채를 세운다. 부채가 쓰러지지 않고 한 번에 잘 서면 그 집의 재수가 좋다고 믿는다. 한 집의 운세를 봐 주는 순서이기 때문에 굿에 참석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며, 도당할아버지가 부채를 세울 때 가족의 건강과 집안의 안녕을 기원한다. 활짝 펼쳐진 부채가 꽃반에 한 번에 서면 그 꽃반 주인은 매우 좋아하며 바로 꽃반을 치운다. 부채가 한 번에 서지 않는 경우에는 제대로 부채가 설 때까지 계속 한다. 한 집의 운세를 본다고 여기기 때문인지 꽃반세우기를 할 때는 장말에 살고 있는 사람들 외에 외지에 나가서 사는 집안사람들까지 모두 꽃반을 세워보기 때문에 도당할아버지는 많은 수의 꽃반에 부채를 세우게 된다. 꽃반세우기가 끝나면 도당할아버지는 상 앞에서 당집을 향해 두 번 절하고 주변에 술을 뿌리고 다시 당집을 향해 재배한 뒤 마무리한다.

부채가 선 꽃반의 쌀은 자루에 담는데, 예전에는 이 쌀을 도당굿의 남무(男巫)인 화랭이가 가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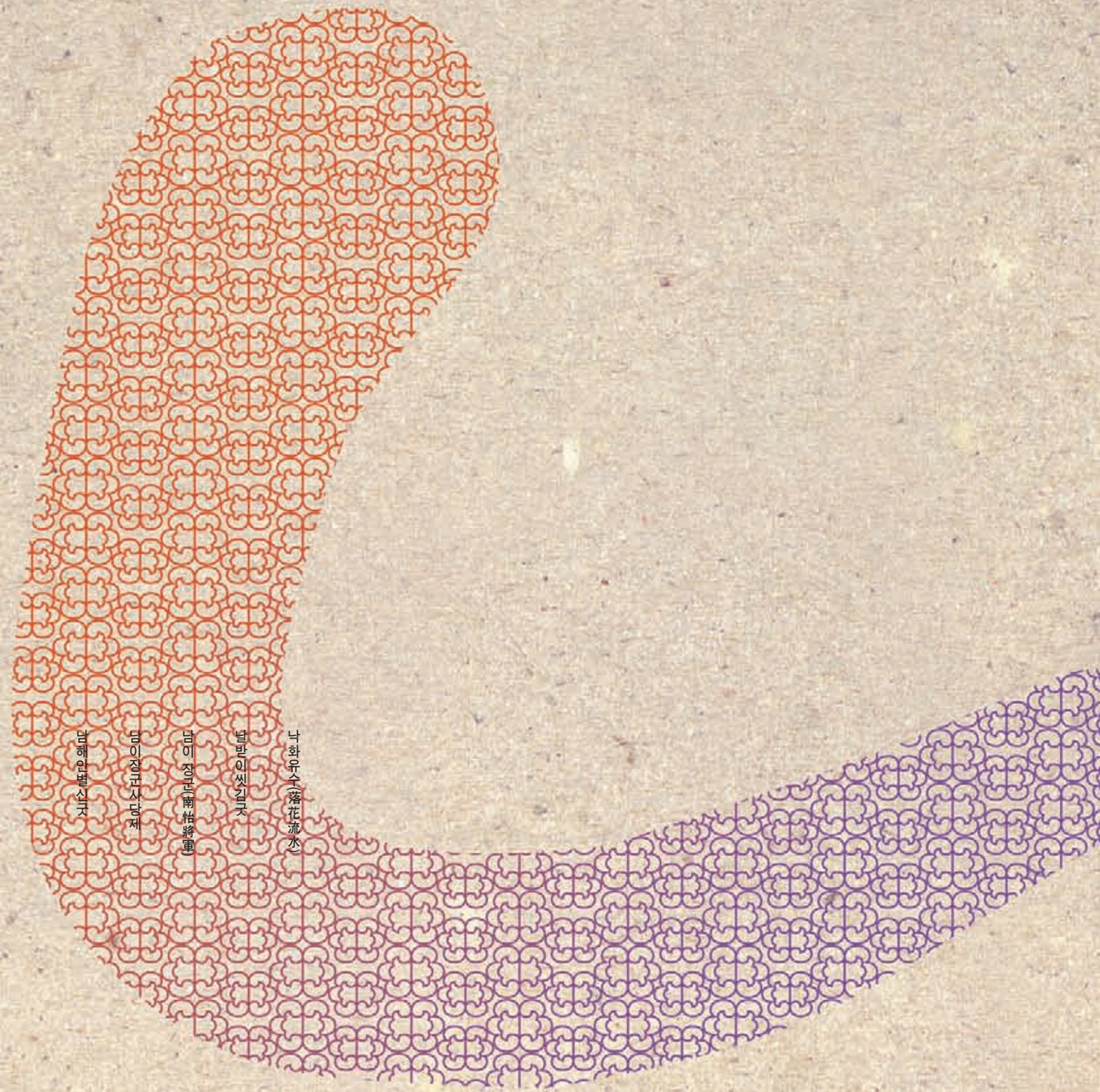


꽃반에 부채를 세우는 도당할아버지(부천장말도당굿)
부천시 중앙공원 | 2008.11.2 | 시지은

갔다. 그런데 1997년경부터는 화랭이가 아닌 도당할아버지가 가져간다고 한다. 이것은 굿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도당할아버지에게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꽃반을 세울 때 도당할아버지에게는 조상신이 내린다고 한다. 그 조상신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놓은 덫에 말 다리가 부러져 잡혔다는 할머니 당에 전해 내려오는 장씨 장군이다. 이런 이유로 신이 내리면 도당할아버지는 한쪽 다리를 들고 춤을 추는 '외다리춤'을 추는데 이 외다리춤으로 도당할아버지의 위엄과 정체성이 드러난다. 무속인이 아닌 도당할아버지가 꽃반세우기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 조상신이 내리는 것이 장말도당굿의 가장 큰 특징이다.

참고문헌 한국인의 굿과 무당(황루시, 문음사, 1988), 경기도 도당굿-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186호(이두현 외, 문화재관리국, 1990), 경기도 도당굿-중요무형문화재 제98호(김헌선,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무 · 굿과 음식 1, 2, 3(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필자 시지은(施知恩)



낙화유수(落花流水)
널받이씻김굿
남이 장군(南怡將軍)
남이장군사당제
남해안별신굿
남해안 세습무 무복
남해안오구굿
내림굿
내림춤
너울
넋무구)
넋(용어)
넋노래채
넋당석
넋춤
넋칼
노누메기
노들본
노무편(老巫篇)
녹음이시루
놋동이
눈설화
느진연물

낙화유수(落花流水)

정의 굿청 장식용 종이무구로서 한이 많은 원귀들이 다음 생에서 좋은 짝을 만나 인도환생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내용 낙화유수는 종이로 만든 무구이다. 전북 지역 오구 씨끔굿에 사용하는 굿청 장식무구로 활용되고 있다. 굿청에 외약 새끼줄을 쳐 놓고 새끼줄 양쪽 끝에 낙화유수를 하나씩 매달아 놓는데, 이는 남자 망자와 여자 망자를 의미한다. 형태는 연(鳶) 모양과 흡사한데 끝에는 흰색, 녹색, 황색, 청색, 홍색의 한지가 연의 꼬리처럼 여러 가닥 매달려 있다.

낙화유수에는 백제 의자왕 때 백마강에 떨어져 죽은 삼천궁녀처럼 한이 많은 원귀들이 다음 생에서 좋은 짝을 만나 인도환생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한다. 낙화유수라는 명칭은 일차적으로 떨어지는 꽃과 흐르는 물이라는 뜻으로 가는 봄의 경치를 나타내거나 힘과 세력이 약해져 쇠락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 당(唐)나라 시인 고변(高駢)이 지은 시(詩) '방은자불우(訪隱者不遇)'에 나오는 다음 구절에서 유래한 성어(成語)라고 한다.

> "떨어지는 꽃이 강물 위로 흐르는 데서 넓은 세상을 알고[落花流水認天台] 술에 반쯤 취하여 한가하게 읊으며 혼자서 왔다[半醉閑吟獨自來]."

또한 낙화유수는 '꽃은 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기를 바라고, 물은 꽃을 싣고 흐르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서로 그리워함을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낙화유수는 좋은 짝을 만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기에 새끼줄 양쪽에 남자 망자와 여자 망자를 상징하는 낙화유수를 걸어두어 현생에서 맺지 못한 인연을 다음 생에서는 이루기를 염원하는 상징성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낙화유수는 처용무에서 두 팔을 좌우로 한번씩 뿌리는 춤사위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처용무는 신라 말 제49대 헌강왕 때 시작되어 고려시대에는 팔관회, 연등회 등에서 연행되었으며 조선시대에 이르러 더욱 발전하여 궁중 나례의식에서 학무연화대무와 함께 합설로 연행되었다. 낙화유수라는 춤사위를 통해 연속적 동작의 반복으로 물이 흐르듯 시간과 공간이 계속되는 우주의 순환성을 표현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처용무가 예로부터 무의식(巫儀式)의 일환으로 연행된 춤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무구 낙화유수의 무속적 속성을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낙화유수를 무구로 사용하는 무녀는 전라북도 정읍의 대표적인 세습무였던 고(故) 전금순 무녀이다. 전금순 무녀의 굿에는 성주기, 산신기 등의 깃발이 걸리고, 연봉, 함박꽃, 목단꽃 등의 지화와 영사초롱, 낙화유수, 색지, 방망이, 팔보살, 시왕신위, 금강탑 등이 장식되어 호남의 다른 굿판에 비해 다양한 편이다.

과거에는 굿의 악사로 참여하는 고인들이 낙화유수를 직접 만들었지만 최근에는 단골이 직접 무구를 취급하는 만물상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전금순 무녀가 고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낙화유수가 무구로 사용될 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단정할 수가 없다.

참고문헌 인간과 신을 잇는 상징, 무구-전라남도 · 전라북도 · 제주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처용무와 티벳 참(chams)의 비교 연구(박은영, 한국체육철학회지 제12권, 한국체육철학회, 2004). 전북지역 무당굿 연구(이영금,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필자 이옥희(李玉姬)

날받이씻김굿

정의 굿하는 날짜를 택일해 벌이는 씻김굿. 초상을 치르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하는 굿이므로 '마른씻김굿' 또는 '묵은씻김굿'이라고도 한다.

내용 날받이는 택일(擇日)을 의미한다. 곽머리씻김굿처럼 불시에 초상을 당해 하는 굿이 아니라 미리 날을 받아 하는 굿이라면 모두 날받이씻김굿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날받이씻김굿이란 용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때가 많다. 즉 집안에 우환이 생겨 점을 치게 되었는데 그 처방으로 조상을 씻겨줘야 한다는 점괘가 나와 하게 된 굿을 날받이씻김굿이라고 한다. 곽머리씻김굿이 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날받이씻김굿은 여러 조상을 모셔 씻겨준다. 또한 곽머리씻김굿이 망자 천도에 대한 목적이 강조되는 데 비해 날받이씻김굿은 살아 있는 사람들의 평안을 비는 내용이 더 강조된다.

날받이씻김굿은 진굿이 아닌 마른굿이다. 진굿은 망자의 천도를 비는 절차가 중시되지만, 어느 정도 시일이 경과한 뒤에 하는 마른굿은 산 사람들의 복락을 축원하는 내용이 대폭 추가된다. 진굿에서는 부정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왕굿을 하지 않으며, 망자의 천도를 비는 내용이 주가 되므로 산 사람들의 복락을 비는 절차들은 누락되게 된다. 그래서 철륭굿, 칠성굿 등의 절차는 빠지게 된다. 예를 들어 부안 줄포의 진씻김굿은 성주굿, 조상석, 해원굿, 연올리기, 오구물림, 고풀이, 소당개시끔, 질닦기, 중천맥이로 구성된다. 그리고 묵은씻김굿은 조왕석, 철륭석, 선영알림, 지신석, 서낭석, 칠성풀이, 손님석, 장자풀이 등이 앞부분에 추가된다. 마른굿은 진굿과 달리 부정을 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석되므로 진굿에서 조심스럽게 경계하는 절차들도 제약 없이 연행된다. 이렇게 추가된 절차들은 대부분 현세의 복락을 축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날받이씻김굿에 해당하는 굿은 전국적으로 퍼져 있다. 조상을 위하고 집안의 복을 축원하는 재수굿이라면 대개 날받이씻김굿과 비슷한 굿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례 날받이씻김굿의 대표적인 사례인 진도 채정례 무녀의 굿은 조왕굿, 안당, 초가망석, 손님굿, 제석굿, 선영모시기, 넋올리기, 희설, 씻김, 고풀이, 길닦음, 중천맥이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비슷한 내용으로 돼 있다.

조왕굿은 부정을 물리고 가족들의 재수를 축원하는 절차다. 안당은 집안의 최고신인 성주신에게 굿을 하게 된 내력을 아뢰고 축원하는 거리다. 성주신은 집안의 평안과 부귀를 관장하는 신격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조상, 지신, 조왕, 삼신, 철륭(철륭) 등도 청배된다. 이들 신은 모두 가택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초가망석에서 모셔지는 신은 조상이다. 그리고 신망조상이라고 부르는 망자도 청배된다. 초가망석은 지역에 따라 '선부리'라고도 한다. 손님굿의 손님은 일반적으로 천연두를 옮긴다는 마마신으로 비정된다. 대개 객귀적 속성을 지닌 신격으로 묘사된다. 진도에서는 선영상을 받지 않은 비교적 먼 친척과 친구들이라고도 한다.

손님굿에서는 손님노정기를 통해 손님을 청해 해를 끼치지 말고 좋게 해주고 가시라는 축원을 한다. 제석굿은 가정의 번창과 자손의 수복(壽福), 재수를 관장하는 제석신을 청배해 복덕을 축원하는 거리다. 제석굿에서는 무녀가 한복 위에 장삼을 걸치고, 목에 염주를 걸치고, 머리에 고깔을 쓰고 악사의 반주에 맞춰 굿을 진행한다. 다른 굿거리들에서는 일반 한복만을 입고 굿을 하지만 이 굿에서는 이와 같은 복색을 갖춰 굿을 연행한다. 이 굿에서 서사무가 〈제석풀이〉와 집안의 복 및 재물을 축원하는 다양한 무가가 불려진다. 선영모시기는 조상을 대접하는 거리다.

넋올리기에서는 한지를 사람 모양의 형상으로 오려 만든 넋을 망자의 옷가지 위에 놓고 지전이나 신칼의 꽃술로 들어올리면서 무가를 가창한다. 이 절차는 망자의 영혼을 굿청에 모셔서 위로하고 달래기 위한 과정이며, 망자를 이승의 시공간에서 떼어내어 저승으로 보내는 의미를 담고 있다. 희설은 무녀 혼자 망자상 앞에 앉아 무가를 부르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내용은 망자가 극락에 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관문을 통과하기를 바라는 축원으로 되어 있다. 고풀이는 긴 무명베를 매듭지은 고를 풀면서 천도를 비는 굿이다. 고는 망자가 이승에서 풀지 못한 원한을 구상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고가 잘 풀려야 망자의 원한이 풀린 것으로 간주되며, 그렇게 되었을 때 망자가 순탄하게 저승길을 갈 수 있다고 여긴다.

씻김은 망자가 저승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깨끗이 씻기는 정화의례다. 씻김은 망자의 육신으로 간주되는 영돈을 말아서 씻는다. 씻김에서 사

용되는 물은 향물, 쑥물, 맑은 물이다. 이 물을 차례로 빗자루에 적셔 위로부터 아래까지 골고루 씻겨내면서 망자의 천도를 비는 무가를 부른다. 길닦음은 망자가 가는 저승길을 닦아주는 거리다. 고풀이나 씻김 등을 통해 이승에서의 한이 풀렸으므로 이제 망자의 넋이 극락왕생하도록 길을 닦아주는 것이다. 길은 안방으로부터 마당으로 길게 펼쳐 놓은 무명베이다. 이 때문에 질베(길베)라고도 부른다. 여기서 질베는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는 길 또는 다리를 상징한다. 이 길을 지나 망자가 저승에 들어가게 된다고 여긴다. 질베 양쪽 끝을 가족들이 붙잡고 서면 무녀는 넋을 담은 넋당석을 질베 위로 좌우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길을 닦는다.

중천맥이는 잡귀와 잡신들을 잘 달래 풀어먹이는 거리다. 굿판에는 머물 곳 없이 떠도는 객귀들이 굿하는 소리를 듣고 몰려와 있는데, 마지막 절차에서 이들을 잘 풀어먹여 보내게 된다. 중천맥이에 나오는 잡귀는 대개 비정상적인 죽음 때문에 한을 품은 원혼들로, 정식 신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존재들이다. 객귀들은 한을 품고 죽은 귀신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잘 대접해서 보내야 액을 막을 수 있다고 여긴다.

전라북도 정읍의 전금순(全今順) 무녀가 연행했던 날받이씻김굿은 부정풀이, 조왕굿, 철륭굿, 성주굿, 지신굿, 칠성풀이, 조상굿, 제석굿, 손님굿, 조상해원, 오구세왕풀이, 씨끔굿, 길닦음, 장자풀이, 중천맥이, 내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문헌 진도무속현지조사(국립민속박물관, 1988), 씻김굿(이경엽, 한얼미디어, 2004), 진도씻김굿의 연구(나경수, 호남문화연구 17,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1988).
필자 이경엽(李京燁)

남이 장군(南怡 將軍)

정의 조선 전기의 무신(武臣)으로, 여진족 토벌에 큰 공을 세운 인물이자 민간과 무속에서 신앙되는 장군신의 하나. 17세 때에 무과(武科)에 장원급제하고 이시애(李施愛, ?~1467)의 난을 평정하였으며, 예종 때 훈구대신(勳舊大臣)들의 시기와 모함으로 역모의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했다.

내용 남이 장군(1441~1468)이 비범한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억울하게 요절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사실은 남이 장군 신앙의 전승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된다. 비록 후대에 와서 신원(伸寃)이 되긴 하였지만 그의 부당한 죽음에 대한 민중의 억울한 심정은 그를 신격화하여 오늘날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러한 민중의 역사 인식은 민간신앙과 구비전승물을 통해 표출된다. 이를 토대로 남이 장군의 일대기를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1. 신이한 출생을 하다
2. 원조자의 도움으로 수련을 하다
3. 신이한 행적을 남기다
4. 원귀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다.

구비설화에 나타난 남이 장군은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그는 출생에서부터 완전한 신성성(神聖性)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네의 혼이 환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지네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신공희(人身供犧)를 요구하는 부정적 존재이다. 수련 과정에서도 그의 불완전한 상태는 해소되지 못한다. 그에게는 지네의 원혼이 그대로 남아 있어 복수를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선비 차림의 길손[客]이 남이를 데리고 가서 글과 무예를 가르쳤는데 수년 후 선비의 방에 비수를 든 사람이 나타나 선비의 가슴을 찔렀다고 한다. 비수를 든 사람이 바로 남이 장군이었다. 이처럼 그는 자신에게 신이한 능력을 지니도록 가르쳐 준 스승에게조차 칼을 겨누는 불완전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그의 행적에 관한 이야기에서 그는 귀신을 알아보고 퇴치하는 신이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또한 천명(天命)을 어기는 것이 되거나 결과적으로 구원자를 불행으로 이끄는 것으로 묘사된다. 신부를 죽이려고 하는 손각시를 퇴치하지만 사실 그 신부는 이미 천명을 다한 사람이었거나 귀신을 퇴치하고 살아남은 처녀가 남이 장군에게 자신의 여생을 바치겠다고 하지만 남이 장군이 이를 냉정하게 뿌리쳐 결국 처녀가 자결하게 된다는 식이다.

하지만 이야기 속에서 그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운명론적 결과로 그의 죽음을 말하는 것은 도리어 민중의 변혁에 대한 강한 욕구의 표명이 된다. 남이 장군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물로 묘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를 향해 숭배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역사적 모순이나 부조리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야기를 통해서는 그들의 영웅을 죽인 지배층의 논리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한편으로 그를 신격화하는 것은 현실의 부조리나 지배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민중의 역설적 저항의식의 표명을 나타낸다.

이처럼 지배층에 대한 민중의 저항의식은 남이 장군의 신격화에 관여하는 첫 번째 요인이다. 또 이것은 중부 지역 무속에서 최영(崔瑩, 1316~1388) 등을 비롯한 원한 깊은 장군을 신으로 받드는 맥락과 일치한다. 즉 생전의 위대한 업적이나 충정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억울한 사람들의 원혼을 달래주는 현상은 비단 남이 장군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동시에 원한 깊은 귀신을 모셔서 위해야만 살아 있는 자들에게 탈이 생기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금기의식도 남이 장군의 신격화에 반영되어 있다. 또 민간에서는 남이 장군이 잡귀를 쫓아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으로 신앙되고 있다. 이것은 그가 생전에 위엄 있는 장군이었다는 점에서 잡귀를 쫓을 수 있는 주력(呪力)이 있다는 믿음도 적지 않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남이 장군은 주로 서울 용산구에서 동제(洞祭)의 대상신으로 모셔진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남이장군사당제(南怡將軍祠堂祭)이다. 이것은 서울시 용산구 용문동 106번지에 있는 남이장군사당에서 열리는 제의로, 1999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20호로 지정되었다.

남이장군사당은 대지 294㎡에 건평 33㎡이며 크기는 3칸으로 한와(韓瓦)이다. 사당은 당 입구 전면에 있다. 이곳에 사당을 세운 이유는 남이 장군이 용산에서 병사를 모아 훈련을 시켰고, 한강변 새남터에서 참화(慘禍)를 당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원래 사당은 원효로 2가에 위치한 거제산 당고개에 있었으며, 100여 년 전에 장군이 현몽해 현 위치로 옮겼다고도 한다. 당 내부에는 남이장군상을 비롯해 최영장군상, 부군대감내외상, 정추정씨내외상, 산신령상, 토지신상, 천신대감상 등이 함께 모셔져 있다.

참고문헌 동신당(김태곤, 민속원, 1999), 한국무속신 고찰(양종승, 몽골학 4, 한국몽골학회, 1996).
필자 오세길(吳世吉)

남이장군사당제(南怡將軍祠堂祭)

정의 남이장군사당에서 열리는 마을제의. 이 제의는 일 년에 한 번 음력으로 4월 초하루에 소제로 유가제를 지내고, 음력 10월 상달 초하루에 대제를 올린다. 대제는 5일간의 대규모로 진행하며, 현재는 제일(祭日)이 양력으로 전환되었다. 이 제의를 달리 '용문동부군당굿'이라고도 한다. 남이



유가 후 용당기를 들고 굿당에 들어오는 장면
남이장군사당 | 2003.10.25 | 김헌선

남이장군사당제
정수미

장군사당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 106번지에 있다. 이 굿은 1999년 7월 1일에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20호'로 지정되었으며, 예능보유자는 이명옥(李明玉)이다.

내용 남이장군사당은 대지 294㎡에 건평 33㎡ 크기의 3칸 한옥으로 되어 있으며, 당 입구의 전면에 사당이 있다. 남이장군사당의 유래는 남이(南怡, 1441~1468)장군이 이곳 용산에서 모병을 해 훈련시켰고, 아울러 한강변 새남터에서 장군이 참화를 당했기 때문에 이곳에 당을 세운 것이라고 한다. 원래 당은 원효로 2가 당고개라는 거제산에 있었다가 1900년대 초에 장군이 마을 사람의 꿈에 나타나 현 위치로 옮겼다고 전한다. 남이장군 사당에 모셔져 있는 신격은 비극적 최후를 맞은 역사적 인물을 신격화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남이장군사당의 내부에는 남이 장군 영정을 비롯해 부군대감내외상 · 최영장군상 · 정추정씨와 부인상 · 산신령내외분 · 토지관장(土地官長)님 · 천신대감상(天神大監像) · 맹인내외상(盲人內外像) 등 각종 화분이 모셔져 있다. 이 화분에 근거하게 되면 역사적 인물인 남이 장군의 비극적 죽음을 원혼으로 하여 이 당의 역사적 근거를 부여하고 무속 일반의 신격들과 함께 봉안하면서 마을의 축제로 발전시킨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그러나 내용으로 보면 서울 부군당의 일반적인 면모와 다르지 않다.

먼저 걸립(乞粒)으로부터 남이장군사당제가 시작된다. 걸립은 용산구 용문동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당제 · 당굿 · 사례제는 사당 경내에서 실시한다. 당제와 당굿에 소요되는 제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걸립패가 동네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추렴하는 행사이다. 남이장군사당의 지네발을 내린 느림기를 앞세운 풍물패가 마을을 돌면, 주민들이 솔선해 소반에 한지를 깔고 돈과 곡식을 차려 내놓는다. 이때 식구 수만큼 실타래를 놓고 가내 평안을 기원한다. 흔히 부군당굿, 도당굿, 성황제에서 유가(집돌이)를 도는 형식과 일치한다. 단 풍물패가 주관하는 것이 특별한 점이다.

남이장군사당제가 열리기 하루 전에 산천동부군당에 가서 꽃을 받아오는 꽃받아오기 의례를 치른다. 이 의례는 산천동에서 여신을 받들어 모셔오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용문동부군당과 산천동부군당의 결합을 의미하는 대목이 있어 매우 주목된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곳 일대의 여러 당이 직 · 간접적으로 얽혀 있음을 볼 수 있다. 현재는 1990년대 중반 때 부터 이 꽃받아오기 행사를 확장하여 꽃등 행렬로 축제적인 성격을 강화시켰다. 100여 개의 행렬등이 용문시장을 거쳐 산천동부군당에까지 행진하는 모습은 일종의 전야제로서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

본행사인 유가식의 당제와 무속식의 당굿은 음력 10월 초하루에 거행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양력으로 전환하였다. 유가식의 당제는 원래 당굿 전날에 드리게 되어 있으나 당굿과 같은 날 거행하며, 전형적인 유가식 의례로 치러진다. 상에는 편 · 술 · 과일 · 나물 · 탕 등을 유가식 제사 법도에 맞게 차린 후 일동배례, 초헌, 아헌, 종헌, 독축, 첨작, 일동배례 순으로 진행한다.

당제가 진행되는 동안 최근 새롭게 만들어진 행사인 '장군출진'을 재현한다. 남이 장군이 반란군을 정벌하기 위하여 출진하던 옛 모습을 재현한 이 행사는 유가돌기의 현대적 변화이다. 유가돌기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현재의 상황에 맞게끔 지방자치단체와 결합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다.

굿거리는 주당물림, 부정청배, 가망청배, 장군신장, 불사, 말명, 조상, 상산, 별상, 신장, 대감, 제석, 성주, 창부, 황제풀이, 군웅, 뒷전 순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굿거리의 구성을 보면 용문동부군당굿은 서울부군당굿의 일반적인 면모와 일치한다.

당굿의 굿거리 구성은 서울 마을굿과 대동소이하다. 마을을 위하는 신격이 존재하고, 이들과 유관한 관계를 지니고 있었던 조상과 신격을 정리하면서 연결하는 굿거리를 하고, 마을의 신명과 여흥을 위해 구성되는 굿의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특정하게 성주신의 내력을 보살피는 황제풀이가 있다.

남이 장군이 마을의 주신이어서 장군 신장과 대감을 먼저 불러 모신다. 이것은 남이장군사당제의 특징적인 모습이다. 굿의 순서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황제풀이'라는 것을 행하게 된다. 이 황제풀이는 서울부군당굿이나 도당굿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당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례이며, 경기도 북부 일대에서 발견되는 굿의 의례와 일치하게 된다. 당을 지키는 마을의 성주에게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전에는 3일 뒤에 사례제(謝禮祭)를 실시하였지만, 지금은 둘째날에 지낸다. 이는 흔히 '사흐레치성'이라는 것이 변화된 모습이다. 제주와 화주 및 마을 어른들이 당에 모여 잡인이 경내에 들어왔음을 사죄하고 무사히 지내게 되어 고맙다는 뜻을 고한다. 사례제가 끝나면 제물을 내려 대동잔치를 연다. 사례제 때의 제물은 예전에는 따로 준비했으나 지금은 대제 때의 음식을 올린다. 대제가 끝난 뒤 제관과 임원 몇 명이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남전리에 있는 남이장군묘에 가서 간단히 제를 올리고 온다.

남이장군사당제는 용문동부군당굿을 확대하고 개편하였기 때문에 전형적인 서울의 부군당굿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가령 서빙고부군당굿, 동빙고부군당굿, 보광동부군당굿, 한남동부군당굿, 큰한강부군당굿 등이 성격과 맥락을 함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군당굿은 전형적인 유가식 제례와 무속식의 굿이 만나서 결합한 마을굿 일반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이 확인된다. 마을굿은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남이장군사당제는 부군당굿의 변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서울 영상민속지-한강변의 마을신앙(서울역사박물관, 2007).

필자 김헌선(金憲宣)

남해안별신굿

정의 경상남도 거제 · 통영 지역을 중심으로 해안마을과 도서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마을굿. 이 굿은 1987년 7월 1일에 중요무형문화재 제82-라호로 지정되었다.

내용 이 지역에서는 세습무에 의해 별신굿 · 오구새남굿 · 도신굿 등이 행해지는데 대대로 정씨 · 박씨 · 이씨 · 김씨 · 노씨 집안이 대표적으로 단골판을 현성하였다. 정씨는 거제도, 이씨는 통영 욕지도 및 인근 섬지역, 김씨는 한산도를 중심으로 단골판을 주도했으며 광복이후 거제신청과 통영신청이 통영으로 합쳐지면서 이 지역의 무가사설 및 무관(춤)이 통일되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때 아키바 다카시(秋葉隆)가 쓴 『조선민속지(朝鮮民俗誌)』에 거제도 별신대(別神竿)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내용은 소략하지만 오늘날 남해안별신굿과 동일하다. 이 굿의 제보자로 언급되는 무부 정철주는 현재 남해안별신굿 예능보유자인 정영만의 증조부이다. 이후 1967년 문교부 문화재관리국의 마을 제의에 관한 설문지 조사(이 자료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연차적으로 발간되었으며, 경남과 부산 지역의 자료는 2003년 『한국의 마을제당 제7권(경남 · 부산편)』으로 발간되었다)와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상남도편(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慶尙南道篇)』에 1968년 사량도 양지리 능량동의 별신굿 무부 박경삼의 제보로 굿의 제차가 소개되어 있다.

본격적인 조사보고서로는 문화재관리국편의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무의식편(巫儀式篇)』「통영지방의 무의식」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별신굿뿐 아니라 도신과 오구새남굿의 무악(巫樂) · 무구(巫具) · 무가(巫歌)사설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후 남해안별신굿은 1987년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초대 보유자로 정모연이 지정되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 당시 활동하고 있던 정모연 · 고주옥 · 박복개 · 박복률 등이 타계해 전승의 어려움을 겪다가 정모연의 기능을 정영만이 전수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남해안별신굿은 보통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사이에 행해지며, 요즘은 2일 정도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굿의 진행순서 및 석별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들맞이 당산굿** : 마을에 도착한 일행이 길군악을 연주하면서 마을을 한 바퀴 돈다. 이는 마을의 수호신에게 도착한 것을 알리는 거리이다. 제차는



남해안 별신굿
경남 통영시 한산면 죽도 | 정수미

































남해안 별신굿
경남 통영시 한산면 죽도 | 정수미





























길연주, 청신악, 삼십삼천, 청신악, 넋노래, 허배, 대너리, 말미, 천근, 불림, 법성, 삼현, 공사, 수부, 맘자심, 송신악 순이다.

2. **굿장모댁 부정굿** : 굿장모(굿을 하는 동안 마을을 대표하는 제관)댁에 들러서 이 집의 부정을 씻는 절차이다. 제차는 청신악, 넋노래, 허배, 대너리, 조너리, 푸너리, 제석노래, 제만수, 삼현, 공사, 수부, 맘자심, 송신악 순이다.

3. **산신제(위만제)** : 마을의 굿장모와 이를 보조하는 마을사람 1~2명이 당산에 올라가 마을 수호신에게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절차로 제물을 차려 제사를 모신 뒤 밤을 새운다.

4. **일월맞이(칠성굿)** : 묵은해를 잘 보냈으니 돌아오는 해도 잘 보내게 해 달라고 하늘에 기원하는 굿이다. 제차는 칠천수, 청신악, 삼십삼천, 넋노래, 허배, 대너리, 말미, 천근, 맘자심, 제석노래(칠천수), 공사, 제석노래, 제만수, 삼현, 수부, 맘자심, 송신악 순이다.

5. **골맥이굿** : 일월맞이가 끝나면 메구를 치며 삼한대를 앞세우고 바닷가의 용왕굿을 하기 위한 장소로 내려온다.

6. **용왕굿** : 사해용왕신에게 바람을 막아주고 배의 안전과 만선의 풍어를 기원하는 굿이다. 이때 마을의 각 가정에서는 조상상을 차린다. 제차는 청신악, 삼십삼천, 넋노래, 허배, 대너리, 말미, 천근, 불림, 법성, 삼현, 공사, 수부, 맘자심, 송신악 순이다.

7. **부정굿** : 굿청의 부정을 씻고 제단을 정화하는 굿이다. 제차는 굿장모댁 부정굿과 동일하다.

8. **가망굿** : 가망할매에게 비와 바람을 막아주고 어업과 농사의 풍요를 비는 굿이다. 제차는 부정굿과 동일하다.

9. **제석굿** : 제석신에게 재수를 기원하는 굿으로, 제차는 부정굿과 같다.

10. **선왕굿(서낭굿)** : 팔도선왕(서낭)을 다 불러 모셔서 동네 평안과 자손들의 무사를 기원하는 굿이다. 제차는 청신악, 대너리, 선왕풀이, 동살풀이, 조너리, 푸너리, 맘자심, 송신악 순이다.

11. **큰굿**

1) 손굿

(1) 지동굿 : 동태부신령(마을의 시조)을 위한 굿이다. 제차는 청신악, 넋노래, 허배, 올림채 1 · 2 · 3장, 말미, 대너리, 천근, 대너리, 천근, 대너리, 천근, 맘자심, 송신악 순이다.

(2) 손님풀이 : 마마(손님)에 걸리지 않도록 기원하는 굿이다. 제차는 대너리(징), 신가구연 순



올림채
경남 거제시 죽림마을 |
2008.2.9 | 오진호



악사
경남 거제시 죽림마을 |
2008.2.9 | 오진호

이다.

2) 고금역대 : 죽은 이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굿이다. 제차는 불림, 염, 맘자심 순이다.

3) 황천문답 : 평소에 지은 업보에 따라 지옥과 극락으로 가니 평소에 좋은 일을 많이 하도록 권장하는 굿이다. 제차는 불림, 염, 천근, 맘자심 순이다.

4) 축문 : 인생의 무상함과 망자의 제사 방법을 기록한 축문을 읽는다. 제차는 불림, 염, 맘자심 순이다.

5) 환생탄일 : 죄를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염불과 설법을 듣고 공역을 쌓으면서 지극정성으로 빌면 환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제차는 불림, 염, 천근, 맘자심 순이다.

6) 시왕탄일 : 저승을 관장하는 시왕을 모셔놓고 발복을 기원하는 굿이다. 제차는 염불장단, 접탄일, 불림, 염, 법성, 올림채 1 · 2 · 3장 순이다.

7) 대신풀이 : 돌아가신 선대무당들을 추모하는 굿이다. 제차는 수부, 맘자심 순이다.

12. **군웅굿** : 장군과 동네에 공로가 있던 분들을 모셔놓고 동네 평안과 명복을 기원하는 굿으로 공사가 없다. 제차는 청신악, 넋노래, 허배, 대너리, 조너리, 푸너리, 제석노래, 제만수, 삼현, 수부, 맘자심, 송신악 순이다.

13. **시석(송신굿)** : 모든 잡신과 구천을 떠도는 영혼들을 동참시켜 풀어먹이는 굿이다. 용왕굿을 할 때 차렸던 조상상의 제물을 바다에 던진다. 이때 던지는 밥을 용왕밥이라고 한다. 순서는 제석놀이, 제만수, 육갑풀이(육십갑자), 맘자심, 개기(메구나리) 순이다.

14. **띠뱃놀이** : 동네의 묵었던 액을 띠배에 실어 멀리 보내는 굿이다. 마을에 따라 생략하는 경우도 많다.

이외에도 탈굿(탈놀음)인 중광대, 해미광대, 망석놀림이 있었으나 현재는 잘 하지 않는다. 남해안별신굿의 굿제차는 크게 잔삭다리굿과 큰굿으로 나눌 수 있다. 잔삭다리굿은 부정굿, 가망굿, 제석굿이며 이때의 무녀는 큰머리를 쓰지 않고 조너리 · 푸너리 · 제석노래 · 제만수 등의 장단을 쓴다. 잔삭다리굿과 큰굿에도 속하지 않는 굿제차 중에서 일월맞이, 용왕굿은 '석을 크게 잡는다'고 하며 무녀는 큰머리를 쓰고 주로 말미 · 불림 장단을 사용한다.

지동굿, 손님풀이, 고금역대, 황천문답, 축문, 환생탄일, 시왕탄일을 묶어서 남해안별신굿에서는 큰굿이라 말한다. 무녀는 큰머리를 쓰고 무가는 서사무가와 교술무가가 중심이 된다. 〈손님풀이〉는 강남에서 온 손님의 노정기를 그린 서사무가이며 고금역대 · 황천문답 · 축문 · 환생탄일 · 시왕탄일은 기원과 교훈적인 내용의 교술무가이다.

남해안별신굿의 장단은 2소박 5박자의 말미 · 불림이 특징적인데 동해안별신굿의 청보3장과 구조가 같다. 무가의 선법은 육자백이 토리이나 전라도지역의 육자백이 토리처럼 시김새를 강하게 주지 않고, 경상도 사투리를 쓰기 때문에 메나리토리의 느낌이 난다. 악기구성에서 대금 · 피리 · 북 등이 쓰이는 것은 전라도 및 경상도 남부지역의 무속음악의 공통적인 특징이나 장구의 크기와 치는 법은 경상도지역 무속음악과 비슷하다.

남해안별신굿은 경상도 무속의 성격과 전라도 무속의 성격을 공유하고 있으며, 인근 남해군 · 사천시 · 고성군 · 진해시 · 마산시 등지에서도 별신굿을 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거제 · 통영 지역의 별신굿과 유사한 형태가 연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무의식편(문화공보부, 1983), 치리섬 별신제(이소라, 문화재 17, 문화재관리국, 1984), 통영군사(통영군사편집위원회, 1986), 조선민속지(秋葉隆, 동문선, 1993), 남해안별신굿의 음악적 특징(허지현,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남해안별신굿(김선풍 · 박이정, 1997), 남해안별신굿–중요무형문화재 제82–라호(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통영시지 상 · 하(통영시사편찬위원회,

남해안 세습무 무복

정의 거제도 통영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세습무가 굿을 할 때 입는 옷.

내용 남해안별신굿의 무복은 동해안과 마찬가지로 해안가의 특성을 갖고 있어 내륙 지역의 굿거리에서 볼 수 있는 무복의 화려함이나 굿거리마다의 신령을 상징하여 갈아입는 되는 다양성은 별로 없지만 동해안별신굿의 무복에 비하여 머리 형태와 장식에서 큰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다. 무복은 일반적으로 평복의 치마와 저고리를 기본으로 하여 굿의 종류나 춤에 따라 전복이나 의례용의 표의를 덧입게 된다. 남해안 세습무인 정옥이의 사례(2004년 8월 조사)에서는 동해안별신굿의 무복에서 보이는 남색 길에 짧은 색동소매 형태의 몽두리를 쾌자로 기록하고 있고 뒷길에 이중의 쌍학 흉배가 장식되어 있지만 한삼이 달려 있지 않은 것이 이색적이다. 쾌자는 양쪽 옆과 뒷자락이 트인 형태로 허리띠와 흉배를 합쳐 무복의 일습으로 준비한다. 특히 색동은 다섯에서 아홉가지 색을 배색하며 끝동이 대부분 검은색이다. 쾌자 위에는 검은색의 띠를 허리에 매거나 왼쪽 어깨에서 허리춤으로 가로지르듯 늘어뜨린다. 받침옷으로 입는 치마저고리는 평복으로 입고 있으며, 가능한 한 쾌자의 색동소매와 어울리게 하기 위하여 흰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안별신굿에서 입는 무복은 치마와 저고리의 경우 평상복인 한복을 착용하고 그 위에 홍치마와 쾌자를 덧입는 형식이다.

거제시 남해안별신굿 정옥이의 사례에 의하면 무복을 만들 때나 추리할 때 사후 물림할 사람이 없거나 무업에 종사하지 못할 때는 날을 받아 무복과 무구를 묻지만 쾌자 뒷길에 장식한 흉배와 큰머리는 처리하지 않는다. 무녀가 큰머리를 하면 불미스런 행동을 삼가야 하고 길에서 뛰면 안 되고 화장실에 가면 안 되고 큰옷은 동네사람의 시주를 받아서 만드는 등의 금기가 있다.

또한 남해안별신굿에서 무당의 머리 형태와 장신구는 동해안에 비하여 크고 화려한 특징을 보인다. 큰굿을 할 때 사용하는 머리틀, 구슬장식, 비녀, 큰댕기, 원정으로 구성되는 일체형으로 조립해 착용한다. 머리틀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재료는 대나무이며 둘레를 역대 무당의 가체나 굿에 관여한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잘게 땋아 틀을 촘촘하게 감싼다. 이는 궁중복식의 대례복에서 대수나 떠구지를 연상케 하는 형태로 검은색 천으로 머리틀 사이를 감아 구슬과 여러 보석으로 장식한다. 전대선방에서 다음선방으로 대물림되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크기와 종교적인 의미가 깊어진다. 비녀는 숟가락형의 놋쇠비녀이며, 댕기는 가운데에 구슬과 유리로 장식한 큰댕기이다. 원정은 머리틀 위에 꽂은 것으로 놋쇠로 만들고 쇠판에 상징이 담긴 문양을 새겨넣으며, 머리틀을 장식하는 실용적인 역할을 한다. 비녀는 놋쇠비녀로 머리틀에 원정과 댕기를 갖추고 큰머리를 머리에 얹을 때 짧은 것은 머리틀 위쪽 구슬장식, 긴 것은 틀의 구멍을 통과해서 머리옆에 꽂는다.

남해안별신굿에서 무복은 조선시대 여령의 정재무 복식인 몽두리 형태의 쾌자와 홍치마가 있고, 종교적인 의미를 더하는 머리장식인 큰머리를 아무런 장식이 없이 정리한 기본머리 위에 쓰고 굿을 한다. 반면에 동해안별신굿을 행하는 무녀들은 대부분의 굿거리에서 평복인 한복의 치마저고리 위에 전복을 주로 입고 굿을 하며, 일부 굿거리에서 전복 위에 표의로서의 포를 입고 특히 머리는 가체를 이용한 달비를 하고 흰머리 띠로 고정한 다음 홍색 댕기로 장식한다. 또한 굿거리에 따라 이 기본머리 위에 화려하고 아름답게 장식된 화관을 쓰는 것은 남해안별신굿의 큰머리와 대조적이다. 이것은 종교적이고 주술적인 색채를 띠는 남해안별신굿과 연희적 성격이 강한 동해안별신굿의 차이를 보여준다.

1999), 경남 어촌민속지(국립민속박물관, 2002), 거제시지 상 · 하(거제시지편찬위원회, 2002), 욕지섬의 위만제와 들채소리(이소라, 한국무속학 2, 한국무속학회, 2000), 남해안별신굿 장단 연구(임수정, 한국음악사학보 37, 한국음악사학회, 2006), 남해안별신굿 무악연구-동해안별신굿과 진도씻김굿과의 비교를 통하여(오진호,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남해안별신굿 연행구조 연구(오진호, 실천민속학연구 9, 실천민속학회, 2007), 남해안별신굿의 변화양상 연구(오진호, 실천민속학연구 12, 실천민속학회, 2008).

필자 오진호(吳振昊)

참고문헌 팔도 굿(황루시, 대원사, 1992), 큰무당 우옥주 유품(국립민속박물관, 1995), 동해안별신굿(박경신 · 장휘주, 화산문화, 2002), 한국의 굿(하효길 외, 민속원, 2002), 사진으로 보는 민속의 어제와 오늘 1(국립민속박물관, 2003), 민속과 종교(비교민속학회, 2003), 한국복식의 역사(백영자 · 최해율, 경춘사, 2004),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무구(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조선후기연향문화(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한국의 무신도(홍태한 · 박우택, 민속원, 2008), 조선시대 몽두의에 관한 연구(박성실, 한국복식학회 55, 2005), 남해안별신굿(KBS 코리아, 2003년 4월 15일 방영).

필자 소황옥(蘇晃玉)

남해안오구굿

정의 죽은 사람의 넋을 달래고 저승으로 천도시켜 극락왕생하기를 기원하는 남해안 지역의 무속제의. '오구', '오귀', '오귀새남굿', '큰굿', '수륙새남굿' 등으로 일컫는다. 서울의 진오기굿, 전라도의 씻김굿과 같은 사령제(死靈祭) 계통으로서 망자의 한을 풀고 부정을 가시게 하며 산 사람의 안녕을 도모하는 굿이다.

역사 남해안오구굿은 경상남도 거제 · 통영 등 경상도 남해안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다. 특히 통영은 풍어를 기원하는 남해안별신굿을 비롯하여 도신굿, 오귀굿 등 다양한 무속제의가 전해지는 지역이다. 조선시대의 통영은 삼도수군통제영(三道水軍統制營)이 설치되었던 곳으로, 해안방비와 수군통제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군사 및 행정 관아와 함께 교방청(敎房廳)과 고취청(鼓吹廳)이 있어 공인(工人)과 악무인(樂舞人)을 많이 배출하였다. 통영 지방의 무당들은 의식에 따른 예능적 기능이 발달했다. 이러한 역사성과 아울러 통영은 남해안의 중요한 어항으로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어업이 성행하였다. 바다에서 일을 하다가 풍랑을 만나는 해상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이에 따라 수사자(水死者)의 넋을 위로하는 의식이 발달하였다.

내용 서울의 진오귀굿, 전라도의 씻김굿과 같은 사령제(死靈祭) 계통으로서 망자의 한을 풀고 부정을 가시게 하며 산 사람의 안녕을 도모하는 굿이다. 1982년 정병호 · 서대석의 조사에 의하면 통영지방의 오구굿은 부정굿, 넋건지기굿, 당산굿, 문넘기, 제석굿, 방안오귀(칠공주풀이), 말미, 손풀이, 영둑굿, 길닦기, 염불굿, 시석굿의 12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부정굿은 신을 맞이하기 전에 굿판에서 부정을 정화하여 깨끗한 상태로 신이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굿이다. 넋건지기굿은 배를 타고 나가 망자가 익사한 장소에서 한다. 육지에서 죽은 망자를 천도할 때에는 무덤에서 혼백을 모셔오는 메맞이를 한다. 익사한 장소에서 용왕을 청신하고 제물로 가져온 산 닭을 무거운 돌에 매달아 물속에 빠뜨린다. 다음은 베[布]에 혼백식기를 매달아 바다에 던진 후 다시 물 위로 끌어올린다. 이렇게 건져낸 혼백을 신광주리에 담아서 마을로 돌아온다. 혼백이 마을에 당도할 즈음에 마을 당산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당산굿을 준비한다. 당산굿은 신광주리를 제상 앞에 두고 망령이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왔음을 당산에게 고하는 의식이다. 승방은 부정을 친 후 당산 신령에게 망자를 고하는 무가를 부른다. 음식을 사방에 뿌려 잡귀와 혼신을 풀어먹이고 길군악을 치면서 유가족의 집으로 혼백을 옮긴다. 이때 집 쪽으로 길게 늘어뜨린 길베 위에 신광주리와 혼백을 올려두고 운반한다.

혼백이 집안에 도착하면 문넘기를 한다. 망자 집의 마루에는 향, 촛불, 고기, 술, 과일 등으로 문넘기상을 차린다. 대문 밖에서 안방에까지 길베를 늘어뜨리고 신광주리와 혼백식기를 방 안으로 운반하여 망자의 부인에게 전달한다. 제석굿에서는 승방이 시왕침장으로 장식된 제상 앞에서 부정굿, 제석노래, 제만수를 하면서 춤을 춘다. 명태와 손대를 가지고 춤을 추면서 관중을 놀리고 종이를 태워 사르기도 한다. 방안오귀는 〈칠공주풀이〉를 하는 굿이다. 제상 앞에는 시루상을 차린다. 시루를 엎어서 그 안에 실꾸리를 두고 시루구멍 사이로 실을 내놓는다. 승방은 무가를 부르면서 오른손은 장구를 치고 왼손으로 실을 감다가 〈칠공주풀이〉가 끝나면 실을 끊는다. 이 실은 명줄이라 부르며, 수명이 길어지라는 축원이 담겨 있다. 말미굿은 마당에서 큰 상을 차려 놓고 진행한다.

말미굿은 집안의 조상들을 모셔다가 위하며

통영오구새남굿
정수미










집안의 안녕을 비는 굿이다. 즉 망자가 조상의 도움으로 극락으로 가고, 조상신으로 좌정하기를 기원하는 의식이다. 제상의 병풍에는 망자옷과 천도하지 못한 조상의 옷을 걸쳐두며, 향탁(香卓)에는 줄을 쳐서 종이로 만든 시왕침장을 매어둔다. 승방은 홍치마에 쾌자를 입고 화관을 쓰며, 부채·방울·손전을 들고 굿을 한다. 승방은 춤을 추다가 불림장단으로 오랫동안 무가를 부른다. 다시 승방은 손님굿으로 들어가는 손천근을 부른다. 손풀이에서는 마마신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거나 질병을 앓지 않도록 기원하는 무가를 부른다. 손풀이를 마치면 고인들이 올림채를 치고 승방이 춤을 추다가 상호 소리를 주고받으면서 논다.

다음은 마당에서 영둑굿을 한다. 영둑굿은 망자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내 생전에 맺힌 원한을 풀어주고 부정을 씻어 극락으로 보내는 의식이다. 먼저 망자의 옷과 돗자리를 말아서 세운 후 혼백그릇을 얹고 솥뚜껑을 세운다. 솥뚜껑 위에는 한지를 덮어서 영둑을 만든다. 촛불로 소지를 태워서 불로 씻긴 후에 향물·쑥물·청수로 솥뚜껑을 씻으며 "몸을 씻으니 잘 받아 가지고 극락세계로 가이소"라고 말한다. 승방은 천수를 치고 염불을 하다가 솥뚜껑을 들어서 혼백식기를 내린다. 그런 후에 시왕문 사이로 사방칠문(四方七門)을 통하는 의식을 한다. 시왕문은 대바구니 위에 대나무를 열십자로 휘어서 고정시켜 만든다. 이 시왕문 사이로 승방과 유족이 서로 혼백식기를 주고받고, 망자의 옷을 말았던 돗자리를 통과시킨다. 길닦기는 망자를 극락왕생의 길로 인도하는 송신굿이다. 길베를 대문에서 방까지 길게 늘어뜨려 양쪽에서 잡는다. 이 길베 위에 망자의 옷, 신광주리, 혼백식기를 올려놓고 당기고 밀면서 망자가 극락왕생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길닦기가 끝나면 승방은 망자의 옷과 길베를 들고 춤을 추다가 병풍 위에 걸어둔다. 이때 구경꾼들이 나와서 함께 춤을 덩실덩실 추며, 노인들은 "나 죽으면 굿을 해 달라"고 외치기도 한다.

다음은 염불굿이다. 승방이 제상에서 불림장단으로 천수를 치고 극락왕생하는 망령에게 염불을 들려주면서 제석신의 가호가 있기를 축원한다. 시석굿은 마지막 의식으로서 여러 잡신을 대접하여 배송하는 굿이다. 유족들은 제청의 음식을 덜어서 대문 쪽에 시석상을 차린다. 승방은 평복 차림으로 잡신들을 위무하는 소리를 하다가 육십갑자풀이를 한다. 유족들은 굿에 쓰인 반야용선, 지화, 시왕침장 등을 불에 태운 후 굿을 끝낸다. 승방과 고인은 집안 곳곳을 돌면서 잡귀를 몰아내기 위하여 풍물을 친다.

남해안오구굿은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서 한을 씻겨내고 천도하는 무속적 생사관을 잘 보여주는 의례이다. 또한 오구굿에서 연행되는 승방들의 소리와 춤, 고인들의 악기연주와 무가장단은 경상도 남해안의 지역 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남해안오구굿은 크게 넋을 건져서 마을로 돌아오는 절차, 집에서 망령을 모셔두고 여러 신을 불러서 오신(娛神)하는 과정, 망자의 넋과 부정을 깨끗이 씻어서 천도하는 절차, 마지막으로 잡신을 대접하는 과정을 거친다. 남해안오구굿의 목적은 망자를 저승으로 천도시키고 부정을 없애는 것이다. 죽음에서 생긴 부정은 이승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망자를 극락으로 보내는 것이 산 자에게도 필요하다. 이처럼 남해안오구굿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 죽은 자의 천도를 통하여 산 자의 안녕을 꾀하는 상생적 의례인 것이다.

참고문헌 통영오귀새남굿(정병호·서대석, 열화당, 1989),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무의식편)(문화재관리국, 1989), 한국의 전통춤(정병호, 집문당, 1999), 통영 오구새남굿참관기(전유선, 연극학보 26, 동국대학교 연극영상학부, 1998).
필자 유승훈(柳承勳)

내림굿

정의 무병(巫病)을 앓거나 몸에 신기(神氣)가 있는 사람에게 신을 내리게 하고 신을 받는 굿. '신굿', '신명굿', '명두굿', '강신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내용 내림굿은 신이 들린 사람에게 있을지 모를 잡귀 등을 벗겨주는 허주굿(허튼굿)을 한 다음 행한다. 본래 이 두 굿은 별개의 굿이었으나 요즘에는 허주굿의 과정이 내림굿에 포함되어 행해진다. 내

림굿이 끝나면 강신자는 더 이상 본래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다른 무당에 의해 별호를 얻게 된다. 또한 굿을 해준 무당과 새로 무당이 된 사람 사이에는 신부모(神父母)와 신자식(神子息)의 관계가 성립된다. 신자식은 신부모가 굿을 할 때마다 따라다니며 의식, 무가, 춤, 굿상 차리는 법, 음식 만드는 법 등 굿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을 익혀 무당으로 성장하게 된다.

지역사례 서울 지역의 경우 굿의 절차는 일반 재수굿 열두 거리에 내림굿 의식이 추가된다. 주당물림, 부정거리, 가망거리, 말명거리, 상산거리에 이어 내림굿을 한다. 무당이 상산노랫가락을 하며 내림굿을 받는 사람에게 마음에 드는 무복을 골라 입게 한 다음 손에 부채와 방울을 들려서 춤을 추게 한다. 춤을 추다가 강신자의 몸에 신이 내려 떨게 되는데 이때 내린 신명은 평생을 두고 몸주신으로 모시게 된다. 그리고 주위에 모인 사람들에게 점을 쳐준다. 신의 말인 공수를 내려주는 이것을 '말 문 연다'라고 한다. 내림굿 막바지에는 강신자가 구경꾼들에게 열두방기떡을 나눠 준다. 이 떡을 먹으면 재수가 좋고 병이 없다 하여 너도나도 다투어 먹는다. 이를 '방기떡 판다'라고 한다. 내림굿 과정이 끝나면 나머지 뒷부분은 별상굿, 대감거리, 제석거리, 호구거리, 성주거리, 군웅거리, 창부거리, 뒷전거리 등 일반 재수굿이 다시 진행된다. 이 굿을 다 행하고 3일 후 강신자는 굿을 해준 무당의 신전에 술과 밥을 올리고 삼일치성이라는 간단한 제를 올린다.

황해도 지역은 내림굿을 다시 세분하여 허주굿, 내림굿(솟을굿), 불림굿이라고 부른다. 이는 강신자의 몸에 든 허튼귀신과 잡신을 벗기고 올바른 신을 내리게 해 무당으로 솟게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과거에는 허주굿이 끝나고 내림굿을 하기 전에 며칠 동안 굿 의뢰자는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놋밥그릇, 놋수저, 제기, 놋엽전 등을 얻으러 다닌다. 이를 쇠걸립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얻은 쇠붙이 등으로 훗날 무업을 하면서 사용하게 될 무구들을 장만한다. 내림굿을 할 때 부채와 방울을 숨겨 놓고 강신자가 신들린 상태에서 찾아내게 한다. 이를 통해 무당으로서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림굿은 일반인이 일련의 정식절차를 통해 신을 받아 무당으로 거듭나는 통과의례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내림굿
정수미



참고문헌 황해도 내림굿(김수남, 열화당, 1983), 한국인의 굿과 무당(황루시, 문음사, 1988), 인천지역무속-2 내림굿 · 고창굿 · 진오귀굿 · 병굿(이선주, 미문출판사, 198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한국의 굿(하효길 외 6명, 민속원, 2002).
필자 이건욱(李健昱)

내림춤

정의 남해안별신굿 중에서 시왕탄일거리로 큰굿을 끝내면서 신에게 올렸던 무구와 신옷을 벗어 놀리면서 굿의 마무리로 내리는 춤.

내용 내림춤은 큰머리춤, 쾌자춤, 치마춤 등 3장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시왕탄일이 끝나면 대모가 먼저 머리에 썼던 큰머리를 양손으로 벗어 내려들고 좌우로 흔들면서 큰머리춤을 추면서 다시 오른손에 큰머리를 들고 왼손에 비녀를 들고 좌우로 흔들면서 춘 다음 큰머리와 비녀를 내려놓는다. 큰머리춤이 끝나면 색동쾌자자락을 양손으로 들고 쾌자춤을 추다가 벗어 놓은 다음에 다홍치마를 벗어 양손으로 받쳐 들고 치마저고리 차림으로 치마춤을 추면서 끝맺는다.

참고문헌 남해안별신굿(하효길, 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남해안별신굿과 동해안별신굿에 나타난 춤의 형태적 의미 비교(이보영,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필자 이병옥(李炳玉)



1. 남해안별신굿 시왕탄일거리의 내림춤 가운데 큰머리춤(정옥이)

2. 남해안별신굿 시왕탄일거리의 내림춤 가운데 쾌자춤(정옥이)

3. 남해안별신굿 시왕탄일거리의 내림춤 가운데 치마춤(정옥이)
서울역사박물관 광장 | 2006.5.7 | 이병옥

너울

정의 전북 지역 세습무가 의례 시 사용하는 천으로 '명주수건'이라고도 한다. 너울은 세습무가 손에 들고 사용하는 지물로서, 거의 전거리에서 사용된다. 이것은 단순히 손에 들려 있지만, 그 명칭이나 용도는 좀 더 복잡했던 것으로 보인다.

형태 너울은 사용자에 따라 크기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지만, 대략 7자 정도에서 그 이상의 명주베를 잘라, 그 테두리에는 올이 풀리지 않도록 바느질 한 것이 사용된다. 고(故) 전금순에게 무업을 전수받았던 강신보살 양옥순이 소유하고 있던 너울은 길이가 214.5㎝, 폭이 39㎝로 대략 7자 정도이다.

내용 너울은 그 유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제주무속에서 사용되는 '너울지(紙)', '청너울', '청너울다리'라는 무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연관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너울지는 백지를 그물 형태로 만들어 고리동반이나 통지전 위에 씌우는 것이며, 청너울은 큰굿의 초이공맞이에서 쓰는 것으로서, '노가단풍 ᄌᆞ지멩왕 아기씨'가 살장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 이것을 둘러쓴 데서 유래한 것이다. 이것은 본래 너울이 여자들이 나들이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하여 쓰던 물건에서 착안한 것으로 서울 · 경기도굿에서 호구마마애기씨가 등장할 때 붉은 치마를 쓰는 것과 동일하다. 그러한 맥락에서 전북 지역 무속에서도 특정거리에서 당골이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도 사용되다가 점차 그 기능 대신 단순히 손에 드는 용도로만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너울은 전북 지역 세습무 당골굿에서 거의 전거리에 사용된다. 당골은 이것을 든 채 무가를 가창하거나 춤을 추기도 한다. 지전과 함께 손에 들고 의례를 진행하거나, 지전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전남 지역 세습무가 거의 전거리에 지전을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북 지역 세습무는 이것만을 들고 의례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것은 춤을 출 때 한풀이천처럼 사용되기도 한다. 전북 전주에서 활동하는 강신보살 양옥순에 의하면, 굿을 의뢰한 재가집의 조상이나 망자 중에 한이 많은 사람의 영혼이 실렸을 때는 자신도 모르게 이것을 들고 한풀이춤(살풀이춤)을 춘다.

너울의 의미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으나, 칠성풀이 무가에 "칠성님이 문복을 솟을 때에 명주 대자 생미 서 대 問卜債로 주는구나"라고 명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칠성에게 드리는 예단일 가능성이 높다. 전북 지역 무속의례에서 가장 중요한 거리는 칠성풀이로서, 따라서 칠성을 위한 예단을 전 거리에 들고 의례를 진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 지역에서 세습무로 유일하게 활동하였던 고(故) 전금순은 의례 전 과정에 너울을 들고 사용하였으나, 그녀의 사망 이후로 세습무가 이것을 들고 사용하는 사례는 거의 볼 수 없다. 전금순에게 의례를 익힌 일부 강신무 중에는 이것을 사용하는 사례도 있기는 하지만 전거리에 들지 않고 망자의 혼이 내려서 한풀이춤을 출 때만 사용하고 있다. 또한 명주 베 대신 무명베를 사용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제주도무속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14-무의식편(문화재관리국, 1983),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전라남도 · 전라북도 · 제주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제주도 굿의 무구 '기메'에 대한 고찰(강소전, 한국무속학 13, 한국무속학회, 2006), 전북지역 무당굿 연구-정읍 세습무 전금순 굿을 중심으로(이영금,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필자 최진아(崔眞娥)

넋(무구)

정의 호남 지역 무속의례에서 망자의 영혼을 상징화한 종이 무구. 망자의 신체로 상징되어 의례 시에는 망자와 동일시되는 무구이다. 망자천도굿인 씻김굿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작된다.

형태 넋은 흰색의 한지를 이용하여 만들어진다. 호남 지역에서 넋은 넋전, 혼백, 속연, 넋발 등의 이칭으로 불린다. 그 형태가 다양하기도 하지만 제작자에 따라 그 명칭을 달리 하기도 한다. 넋은 성(性)을 구분하지 않고 중성적인 모습으로 구체화하거나, 혹은 남 · 여를 구분하기도 한다. 넋은 외형에 따라,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든 형태, 종이를 풍성하게 뭉쳐 놓은 형태, 일정하게 자른 종이에 망자의 이름만을 필사해 놓은 형태, 이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형태는 사람모양의 넋으로 망자의 성을 구분해서 다른 모습으로 오리거나, 중성적인 모습으로 오리는 등 그 형태가 다양하다. 이것은 넋 · 넋전 · 혼백이라는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데, 전남 지역에서는 넋이, 전북 지역에서는 넋전과 혼백이 의례에 사용된다. 전남 지역의 넋은 종이의 한가운데에 사람의 형상을 오리고, 그 주변부는 마치 액자틀을 형상화하듯이 직사각형 틀 주변부에 사선으로 가위질을 넣으며 일부는 종이를 길게 늘어뜨려 장식효과를 낸다. 넋은 머리에 고깔을 쓰고 장삼을 입은 모습, 혹은 도포에 갓을 쓴 모습으로 오린다. 남녀를 구분할 때는 여성의 넋은 치마 · 저고리에 쪽을 지거나 혹은 파마머리 모습으로 오려 남자망자와 구분한다. 전남 지역의 넋은 사람의 형상과 거의 흡사하게 구체화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길이는 30~50㎝ 내외이며, 폭은 10~15㎝ 내외이다. 직사각형 틀 안에 오려지는데, 넋의 길이는 15~20㎝ 내외이며 폭은 5~10㎝ 내외이다.

전북 지역의 넋전과 혼백은 사람 형상과 유사하지만 전남 지역에 비해 섬세한 형태는 아니다. 넋전은 몸통에 "故 ○○○씨 부군 신위"와 같은 망자의 위명을 필사하며, 그 크기는 15㎝~60㎝로

다양하다. 혼백은 속연과 함께 구성되기도 한다.

두 번째 형태는 전북 지역에 주로 나타나며, 속연 · 속대 · 넋발이라는 다양한 명칭을 지닌다. 이것은 종이를 일정하게 가위질을 하여 풍성하게 만들어 놓은 모습이며, 영혼을 추상적으로 가시화한 것이다. 남녀를 구분할 때는 남자는 7장, 여자는 9장을 겹쳐서 만들며, 그렇지 않을 때는 6~9장으로 동일하게 만든다. 넋발은 그 자체에 발모양이 오려지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그 자체도 사람의 형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속연에 혼백을 덧붙인다.

세 번째 형태 또한 전북 지역에 주로 나타나며, 제작자에 따라 호칭이 넋 혹은 혼백으로 달리 불린다. 직사각형의 종이에 망자의 위명을 필사한 것으로, 신위와 형태는 거의 유사하지만, 신위는 별개로 제작된다는 점에서 그 기능상의 차이가 있다. 그 길이는 20㎝ 내외이며, 폭은 10㎝ 내외이다.

내용 호남 지역에서 영혼의 상징물은 육체에 비해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 종류로는 넋, 혼백, 속연, 지방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넋과 혼백 그리고 속연은 동일개념이며, 지방은 영혼 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분석된다. 전남 지역에서는 넋과 신위가, 전북 지역에서는 넋, 혼백(넋전), 속연(넋발)으로 구체화된다. 전북 지역의 넋(혼백)은 신위와 유사한 형태이지만 장엄구인 신위와 달리 의례구로 사용되는 차이점을 지닌다. 혼백(넋전)은 사람의 모습과 동일하게 오려지며 그 몸에 위명을 필사한다는 점에서, 넋과 지방이 결합된 기능을 지닌다. 속연(넋발)은 전남 지역의 '넋'과 가장 유사한 기능을 한다. 특히 종이의 매수로 남녀를 구분하는 것은 전남의 넋과 같은 맥락으로, 영혼의 성별을 구분한 또 다른 사례라 볼 수 있다. 넋발은 혼백과 결합되어, 추상적인 형태를 보다 구체화하는 기능을 한다.

호남 지역에서 넋은 의례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끄는 매개물로 작용한다. 의례에 지물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쌀을 쌓아올린 상 위나, 제물상 위, 혹은 굿청 벽면에 장식되거나, 넋당석 안에 담아둔다. 의례에서는 혼맞이(객사한 영혼의 혼을



넋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길이 38.5㎝, 너비 16㎝ |
광복이후

맞아오는 의례를 할 경우), 넋올리기(전북의 연올리기), 희설, 씻김, 길닦음에 주로 사용된다.

혼맞이에서는 유족들의 머리 위에 이것을 올려놓고, 신칼이나 지전에 따라 올라오면 신칼 위에 올려놓은 채로 굿청으로 가져온다. 이것은 망자를 의례 장소로 모셔오는 기능을 한다. 넋올리기 혹은 연올리기에서 넋은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매개물로 기능한다. 넋 혹은 속연을 유족들의 머리 위에 올려놓고 신칼이나 지전 혹은 겉연에 따라 올라오면 망자가 의례에 만족하여, 이승을 떠날 준비가 된 것으로 믿는다. 희설에서 당골은 넋이 마치 망자라도 된 듯이 양손에 받쳐 들고 의례를 진행한다. 씻김에서 넋은 넋그릇 안에 담겨지는데, 전북에서는 신위 형태의 넋(혼백)이외에 속연(혼백이 붙여진 넋발)도 함께 담겨진다. 넋이 담긴 넋그릇은 영돈 위에 올리거나 그 안에 넣는다. 이때 영돈이 망자의 육체를 상징한다면, 넋은 그 영혼을 상징한다. 씻김에서는 쑥물 · 향물 · 맑은물을 각각 빗자루나 무명천에 묻혀 영돈에 묻힌 뒤에 수건으로 닦는 과정을 반복한 뒤에 넋그릇을 씻기는데, 이는 육신인 영돈을 씻긴 뒤에 영혼인 넋을 씻기는 것으로 상징된다. 길닦음에서는 질베 위에 놓여진 넋당석이나 용선에 담겨져 망자를 보내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넋은 반드시 소각되어야 망자가 저승으로 온전히 갈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넋은 육체와 따로 존재하는 대상으로서 무속에서 다뤄진다. 씻김굿에서 넋은 망자의 혼이 깃들어 있는 대상으로 존재하며 영혼의 상징물인 종이로 만들어진 넋은 천도의례가 진행되는 내내 죽은 망자 혹은 조상으로 상징된다. 무속에서는 망자도 조상신의 반열에 오르면, 신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넋 또한 신체(神體)라고 말할 수 있다.

참고문헌 옛무덤의 사회사(장철수, 웅진출판사, 1995),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충청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전라남도 · 전라북도 · 제주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진도씻김굿의 넋당석 연구(최진아, 한국무속학 8, 한국무속학회, 2004), 호남 지역 종이무구의 변화상 및 상징성 고찰(최진아, 한국무속학 14, 한국무속학회, 2007), 무속의 물질문화 연구(최진아,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9).
필자 최진아(崔眞娥)

넋(용어)

정의 사람의 육신에 깃들어 목숨을 지탱해주고 있다는 기운 또는 실체.

내용 넋은 흔히 얼 · 혼(魂) · 혼령 · 혼백 · 영혼 등과 같은 뜻으로 쓰이면서 이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넋은 사람이 죽은 뒤에도 없어지지 않으며, 사람이 살아 있을 때에도 육신에 구속되지 않고 드나드는 등 초월성을 띤다. 넋은 사람의 몸에 구애되지 않지만 사람은 넋이 빠져나가면 실성하거나 기절한 상태가 되고, 빠져나간 넋이 돌아오지 않으면 죽음에 이른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 넋은 우리나라의 민속신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전라도 굿에서 넋은 무구로 만들어 쓰기도 한다. 대체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제작한다. 남자는 도포를 입고 갓을 쓴 모습으로 만들며, 여자는 치마와 저고리를 착용하고 머리에 갓 대신 머리카락을 묘사하여 제작한다. 넋은 굿거리 전과정에서 망자의 영혼을 상징한다. 즉, 넋은 혼이 담겨 있는 대상이면서 그 자체가 혼이 된다.

이 넋은 굿청의 벽면이나 병풍에 걸어두기도 하고, 망자나 조상의 옷 위에 올려두기도 한다. 이 넋은 '혼맞이'에서는 망자의 혼을 맞아오는 대상으로 인식되어, 조상의 옷 위에 올려졌던 넋을 신칼의 꽃술에 끌어올린 뒤에 이것을 가족들의 머리 위에 신칼의 꽃술에 따라오게 한다. 이는 망자나 조상을 맞이해 오는 것을 의미한다. '넋올리기'에서는 망자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올려져 지전과 신칼에 끌어올려지기도 한다. 또한 '씻김'에서는 넋 그릇 안에 담겨져 영돈과 함께 세워진다. '질닦음'에서는 질베 위에 올려지거나 당석 위에 걸어둔다. 또한 신광주리에 담겨져 있는 넋은 망자가 저승에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넋은 질닦음을 하고 나서 태운다.

무속에서는 넋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넋, 넋전 같은 무구와 혼맞이, 넋건지기 등의 굿거리를 통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된다. 즉, 무속에서는 불교와 마찬가지로 넋이라는 존재를 통해 이승과 저승, 신과 인간이라는 구체적인 세계관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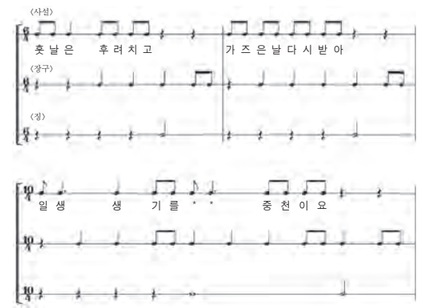
참고문헌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전라남도 · 전라북도 · 제주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필자 천진기(千鎭基)

넋노래채

정의 무속 의례에서 악사(樂師, 보통은 장구잽이)가 청신악(請神樂)을 연주한 후 혼자 부르는 노래.

내용 넋노래는 넋을 청하고 혼을 받는 사설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소박 6박자에 여느 리듬형을 이루어 한 장단이 되는 경우, 2소박 6박자 두 단위가 한 장단인 경우, 2소박 10박자가 한 장단이 되는 경우가 있다. 어느 경우든 마지막 2박은 사설이 들어가지 않는다. 징은 2소박 6박자일 때 제5박에, 2소박 10박일 경우 제5박과 9박에 친다.

〈악보〉 넋노래채



참고문헌 남해안별신굿 장단 연구(임수정, 한국음악사학보 37, 한국음악사학회, 2006), 오구새남굿 전승계보와 장단연구(박준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필자 오진호(吳振昊)

넋당석

정의 씻김굿에서 망자를 저승으로 보낼 때 그 영혼을 싣고 간다고 여기는 무구.

형태 대로 엮은 석작에 30㎝ 가량 되는 받침대를 세우고 그것을 연결하여 가로대로 묶는다. 양면에 4명씩 오린 팔보살을 삼각 지붕처럼 얹어 씌우면 넋당석이 완성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넋 형상을 오린 한지를 얹어 씌운다. 받침대 위에는 작은 지화(紙花)와 지등(紙燈)을 장식한다. 진도를 비롯한 호남 서부에서는 세로 받침대에 국수발을 세우고 지전을 매단 형태로 넋당석을 만든다. 또한 진도에서는 망자가 먹을 식량의 의미로 석작에 쌀을 담기도 한다.

내용 넋당석은 넋과 당삭을 합한 말이며 넋을 담아두는 용기로 사용된다. '신광주리' '용선', '반야용선(般若龍船)' 등으로도 부른다. 신광주리는 '신(神)'과 용기를 뜻하는 '광주리'를 합한 글자이고, 용선(龍船)은 영혼을 싣고 가는 배를 지칭하고, 반야용선은 불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넋당석은 망자의 영혼을 싣고 가는 운반구라고 여긴다. 씻김굿의 진행 절차 속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 기능을 지닌다. 초가망석과 넋올리기를 한 이후에 청배한 넋을 모셔두는 휴식처로 여기며, 길닦음을 할 때 넋을 저승으로 싣고 가는 배[船]라고 해석된다. 무녀는 넋올리기를 할 때 넋을 넋당석에 담아 춤추기도 하며, 길닦음을 할 때 '질베' 위로 이리저리 밀고 다니며 망자의 저승길을 닦아 준다. 특히 길닦음을 할 때 넋당석이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다. 길베 양쪽을 유족들이 팽팽하게 잡아당긴 후, 무녀가 그 위로 넋당석을 왕복하면서 밀고 다닌다. 이때 친지와 이웃 사람들이 넋당석이 지나는 길 위에 노잣돈을 깔아준다. 무녀는 질베 위를 왕복하면서 망자를 위해서 길을 닦는 내용, 망자의 넋이 고개를 넘어 길을 가는 과정, 다리를 건너는 과정, 쉬어가는 과정, 하직, 질베 거두기, 망자 여의기 등의 무가를 부른다.

넋당석은 무속신앙의 타계관(他界觀)을 보여주는 무구이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길베로 상징하고, 넋당석을 타고 그 길 또는 다리를 건너 저승에 간다는 저승타계관이 담겨 있다. 또한 저승이 물 건너에 자리하고 있어서, 배 모양의 용선을 타고 저승에 간다는 해양타계관이 담겨 있다.

참고문헌 씻김굿(이경엽, 한얼미디어, 2004),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전라남도 · 전라북도 · 제주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무속의 물질문화연구(최진아,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9).
필자 이경엽(李京燁)

넋춤

정의 죽은 사람의 넋을 위로하여 이승에 맺힌 한을 풀고 저승에 잘 건너가기를 기원하며 추는 춤.

내용 넋춤은 진도씻김굿 가운데 넋풀이에서 추는 춤이다. 이는 죽은 이의 혼을 달래고 맺혀 있는 한을 풀어주기 위한 상징적인 의식과 의례 내용을 담고 있다.



넋당석
국립민속박물관 사진자료 소장


1


2

1~3. 넋춤
2006.5.7 | 국립민속박물관


3

넋풀이는 굿 가운데 당골이 죽은 이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흰 종이로 만든 넋전과 지전을 사용하여 망자의 한이 풀렸는지 여부를 묻는 대목이다. 이는 넋굿의 한 과정으로 액막이와 겁(劫)풀이를 위한 제의적 기능과 점술적 기능을 지닌다. 이때 넋전과 지전을 함께 들고 춤을 추면서 망자의 넋을 위로한다. 이것은 지방마다 진오귀, 진오귀 새남, 오구굿, 오구새남, 시왕, 수왕굿, 다리굿, 망묵, 씻김굿 등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나 조상의 넋을 위로하고자 하는 의미는 동일하다.

'넋올리기'라고도 불리는 넋풀이는 사전적으로 불만을 길게 늘어놓으며 하소연하는 말인 '넋두리'와 같은 의미로도 해석된다. 넋풀이에서 넋은 죽은 조상을 상징하며, 넋전은 망자의 혼이 서리도록 염원하며 사람의 형상을 본떠서 종이를 오려 만든 것이다.

넋풀이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유가족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들여 자리에 앉히고 망자를 상징하는 넋전을 그 사람의 머리에 올려놓는다. 당골이 넋전을 달아 올리기 위한 지전춤을 먼저 춘 다음 넋전을 올린 후에 지전과 넋전을 함께 들고 춤을 춘다. 당골은 올려놓은 넋 위로 지전을 들고 무가(巫歌)를 구송한다. 이때 지전을 달아 올리며 춤을 추면서 넋전이 지전을 따라 올라오면 망자의 한이 풀어졌음을 의미하고, 넋전이 올라오지 않으면 망자의 한이 풀어지지 않았음으로 보아 넋전이 오를 때까지 계속 춤을 춘다. 넋이 한 번에 올랐을 때는 망자의 한이 잘 풀려 굿이 잘되었다고 보지만 넋이 잘 올라오지 않을 때에는 다른 유가족을 불러들여 계속 시도한다. 당골은 평상복 차림으로 먼저 흘림장단에 아니리식 노래로 축원하고 자진모리장단에 맞추어 지전춤을 춘다. 넋전이 올라간 뒤에는 아니리식 노래를 하면서 장단에 맞추어 넋전과 지전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춤을 춘 다음 절을 하여 넋풀이 과정을 마무리한다. 양손에 넋전과 지전을 들 때 한 손에는 넋전만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지전을 들며, 제자리에서 팔사위만으로 추는 것이 특징이다.

넋풀이의 춤사위는 양팔을 들어 좌우로 어르는 바람막이 사위, 양팔을 태극무늬로 교차하는 태극무늬 사위, 좌우로 양팔을 치는 좌우치기 사위가 있다. 따라서 넋풀이는 넋전과 지전 및 춤을 통해 죽은 이로 하여금 이승에서 맺힌 한을 풀고 그의 넋을 위로하고자 하는 살아 있는 자의 기원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죽음에 대한 인간의 슬픔에 대한 통과의례적 상징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필자 차수정(車수정)

넋칼

정의 전북 지역에서 넋을 들어올리는 데 사용하는 종이 무구.

형태 넋칼은 얇은 한지를 열두 장 겹쳐서 가위로 25가닥 정도를 오려서 만든다. 이는 호남 지역 무녀들이 사용하는 지전의 모양과 기능이 비슷하다. 다만 지전 가닥이 엽전을 이어놓은 형태라면 넋칼의 가닥은 직선으로 가닥을 낸 모습이다.

내용 넋칼은 전북 지역 법사가 행하는 망자굿 등을 할 때 넋을 들어올리는데 쓰는 종이무구이다. 형태는 지전과 유사하지만, 엽전 형태가 아닌 일자형으로 가닥을 내어 만든 것이 다르며 크기도 지전보다 조금 작다. 씻김굿을 할 때 넋을 도마 위에 놓고 신칼로 들어 올린 후에 넋줄에 좌정시키고, 그것을 넋칼로 들어올린다. 또, 가족들의 머리 위에 넋을 올려놓고 이를 들어올릴 때에도 넋칼을 사용한다.

참고문헌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충청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필자 임승범(林承範)

노누메기

정의 서울굿을 비롯한 해서 지역의 굿에서 구현되는 음식과 굿 비용을 나누는데 작용하는 분배의 원리.

내용 당주만신의 처지에 의하면 골고루 굿판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인다는 말에서 비롯된 용어이다. '나누메기'라고도 하는데 이는 황해도 일원에서 사용하는 말이다.

굿판에서 형성되는 일정한 경제적 배분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일정하게 자신의 구실에 따라서 나누어서 먹는다는 정신에서 비롯된 대동정신의 일체감을 말하는 것으로도 일정 부분 쓰이고 있다.

굿에서도 경제적 순환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은 정상이다. 신에게 바치는 인간의 정성을 기초로 하여 이를 다시 배분한다. 배분에는 사람의 높낮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굿에서 어떠한 기능을 했든 균등하게 분배한다.

노누메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신에게 바치는 신찬의 준비부터 이루어진다. 단골들 가운데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있는데, 부자의 예물과 가난한 자의 예물을 일단 섞어서 균등한 신찬의 예물을 준비한다. 그것을 서울굿에서는 흔히 '푸지한다'고 말한다. 이는 단골들을 다스리는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으며, 신에게 평등함을 구현하는 일정한 방식이다.

신에게 바쳐진 예물의 신찬과 무당사회에서 이루어진 돈인 석배와 별비라는 경비를 나누어주는 방식이 존재한다. 신찬은 굿에 참여한 경우에 따라서 균등한 분배를 원칙으로 한다. 반기 또는 봉송이라고 하는 원칙에 입각해서 굿에서 사용한 신찬인 전물을 굿을 한 집마다 모두 골고루 나누어준다. 경비를 공동으로 추렴한 마을굿의 경우에 이 점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

굿판에서 이루어진 굿돈의 분배는 더욱 긴요하다. 굿에서 얻어진 원몫의 돈은 석배라고 하고, 나머지 임의적으로 이루어진 굿거리마다 얻어진 돈은 별비라고 한다. 굿을 맡은 당주가 노누메기의 원칙을 근간으로 해서 골고루 나눈다. 가령 '부지깽이' 하나라도 들었던 사람인 부엌떼기에게도 반드시 나누어준다.

무당들의 구실과 재주 여하에 따라서 자신만이 가져갈 수 있는 대목이 많다면 노누메기는 하되 재주 여하에 따라서 이 경비는 차등을 두어서 지급한다. 특히 특정 굿거리를 맡은 무당은 자신의 재주로 굿판에 참여한 인물들을 모두 만족하게 했다면 그 돈은 자신이 가지고 간다. 그래서 이 돈을 흔히 뜬돈이라고 하며, 이 돈은 재주아치의 몫이다. 또한 악기를 연주하는 전악은 굿마다 자신들이 가져가는 돈이 지정된다. 가령 진오기굿에서 가시문돈과 같은 것은 이들의 몫이다. 이렇듯 일정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한 인물에게 돌아가는 돈이 있어서 서울굿을 재주로 살리는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게 했다.

또한 굿에서 마련된 돈은 일정하게 분배하게 되는데, 이것을 흔히 '심'이라고 한다. 아마도 셈이라고 하는 말이 변형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 돈은 보통 방바닥에 놓고 투명하게 헤아린 다음에 이것을 균등하게 나눈다. 이 돈의 분배 방식을 흔히 '바닥심'이라고 한다. 이러한 방식은 어느 한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일을 막았으며, 분배방식의 투명성이 보장되었다.

이처럼 신에게 바치는 전물과 돈의 경제적 분배가 필요했다. 그런데 이 전통은 매우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현재 서울굿에서는 '바닥심'은 사라지고 '봉투심'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출현했다. 봉투에 담아 돈을 나누어주게 되어 있어 전체 경비가 파악되지 않고 투명한 돈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누메기는 전국적으로 확인되는데 지역에 따라 굿돈의 분배 방식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굿돈이 적은 특정한 고장에서는 굿에서 사용된 제수를 나누는 방식이 특별하게 발달하기도 하고, 갯가 지역에서는 특히 배를 부리는 어업경제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노누메기는 굿판의 경제적 원리보다 인간의 경제적 살림의 단편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하다. 굿판에는 신, 사제자, 단골 등의 세 요소가 교묘하게 얽혀 있다. 그것은 신에게 바치는 교환, 인간들 사이의 교환, 사제자의 관점에서 나누는 증여, 신에 의한 순수증여 등이 기본적인 원리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굿의 경비는 분명히 교환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다각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증여론(마르셀 모스, 한길사, 1991), 서울굿 열두달 치성의례와 경제적 상관성 연구(김헌선, 비교민속학 27, 비교민속학회, 2004)
필자 김헌선(金憲宣)

노들본

정의 서울 무속의 유파 가운데 하나. 동쪽, 서쪽, 남쪽으로 나뉘는데, 노들본은 남쪽의 유파를 말한다.

내용 노들본이 전승되는 남쪽은 지역적으로 서울 남대문 밖, 현재 후암동 고개인 우수현과 노량진 사이를 가리킨다. 『중종실록(中宗實錄)』 중종 28년(1533) 2월 16일조에 '용산강 무녀의 집'이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이 시기부터 무당들이 용산지역에 살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으며, 근대에는 우수현과 노량진에 무당들이 모여 살았다고 한다. 이는 모두 조선시대 무당의 도성 밖 축출이나 한강 밖 축출로 무당들이 남대문 밖이나 노량진에서 집단적으로 모여 살게 된 역사적 사실과 연관된 것으로, 이들 무당을 중심으로 전승되던 서울 무속의 유파가 노들본이다.

노들본 무속은 당굿이나 용신굿으로 유명했다고 한다. 반면에 동쪽의 각심절본은 진적굿과 재수굿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쪽의 구파발본은 진오기굿으로 명성이 높았다. 이들 서울 무속의 세 유파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옛날에 오만수라는 무조(巫祖)가 살았는데, 그에게는 신딸이 4명 있었다고 한다. 신딸 가운데 한 명은 양씨 부인으로 덕물산(德物山) 무속의 전통을 세웠고, 다른 셋은 여형제들인데 서울에 발을 붙이면서 각기 구파발본 · 각심절본 · 노들본의 유파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러한 전통이 서울 무속에 전해지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서울 무속의 전통이 세 유파로 나눠지면서도 개성의 덕물산 무속전통과 연결됨을 말해 준다. 그런데 서울 무속의 세 유파는 모두 서울 도성 밖에 자리잡고 있다. 이는 어느 유파나 할 것 없이 서울 도성에서 축출된 무당들이 도성 밖에서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세 유파로 발전되어 갔음을 말해 준다. 이런 점에서 서울 무당의 세 유파의 형성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조선시대 무당의 도성 밖 축출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근대 이

후 무당의 거주가 자유로워지고 무당 간의 상호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지역에 따른 서울 무속의 세유파 간 차이는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

참고문헌 中宗實錄, 조선무속고-역사로 본 한국무속(이능화 지음, 서영대 역주, 창비, 2008), 한국의 무(조흥윤, 정음사, 1983), 서울굿의 다양성과 구조(김헌선, 한국무속학 12, 한국무속학회, 2006).
필자 이용범(李龍範)

노무편(老巫篇)

정의 고려 명종때 이규보(李奎報, 1168~1241)가 이웃에 사는 늙은 무당이 나라에서 내린 금령(禁令)으로 개경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고 지은 시.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 실려 있다.

내용 이규보는 「노무편(老巫篇)」 병서(幷序)에서 "동쪽 이웃에 늙은 무당이 살았는데 음란한 노래와 괴상한 말들이 들려 괴로워하던 차에 나라에서 명을 내려 모든 무당들로 하여금 멀리 옮겨가 서울에 인접하지 못하게 하자 이를 기뻐하여 시를 지었다"라고 시를 지은 배경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 시는 고율시(古律詩) 형식을 취하고 있다.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자무당과 남자무당을 각각 무당[巫]과 박수[覡]로 구분하였고 굿의 연행과 관련된 부분이 묘사되어 있다. 예를 들어 "목구멍 속의 새소리 같은 가는 말로 늦을락 빠를락 두서없이 지껄이다가 천 마디 만 마디 중 요행 하나만 맞으면 어리석은 남녀가 더욱 공경히 받드니 … 몸을 추켜 펄쩍 뛰면 머리가 들보에 닿는다(喉中細語如鳥聲 嚬哞無緖緩復急 千言萬語幸一中 騃女癡男益敬奉…起躍騰身頭觸棟)"라는 구절에서는 무당의 공수를 듣고 이를 받드는 모습과 격렬히 뛰면서 도무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나무 얽어 다섯 자 남짓한 감실을 만들어 입버릇 삼아 스스로 제석천이라 말하지만(緣木爲龕僅五尺 信口自道天帝釋)"이라는 부분에서는 굿당의 모습과 제석거리를 거행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온 벽에다 붉고 푸른 귀신 형상을 그리고 칠원성군(七元星君)과 구요성(九曜星)을 액자에 그려 붙였지만 성관은 본래 먼 하늘에 있거늘 어찌 너를 따라 네 벽에 붙여 있을 것이며(丹靑滿壁畫神像 七元九曜以標額 星官本在九霄中 安能從汝居汝壁)"라는 구절을 통해서는 칠원성군(七元星君)과 구요성(九曜星)을 그린 무신도를 걸어놓았음을 알 수 있다. 또 "북소리와 동이를 두들기는 시끄러운 소리 내 귀에 들리지 않으리(瓦鼓喧聲無我耳)"라고 표현함으로써 굿에 쓰이는 악기로 볼 수 있는 와고(瓦鼓)와 물동이[喧]를 언급하고 있다. 요즘 장구의 몸통은 보통 오동나무로 만들지만 예전에는 사기나 기와 등으로도 만들었다고 한다.

이규보는 「노무편」에서 신이 내려서 신통의 힘으로 점을 치고 예언하는 모습, 신당을 꾸미고 성관(星官)·칠성의 무신도(巫神圖)를 그려서 걸어 둔 모습, 굿을 할 때 격렬히 뛰면서 춤추는 모습 등을 묘사하였다. 그리고 무당의 의식에 관한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서 미신이 성행한 당시의 미신 타파를 역설하였다. 그는 어려운 민중의 의식을 괴요(怪夭)한 말로 현혹시켜 수탈하는 무격행사의 타락상을 비판하였으며 무속을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미신으로 보고 선비들에게 이를 가까이하지 않도록 경고하였다. 시의 내용 중에서 무당이 제석과 칠성 등을 모시고 있는 점으로 보아 당시 무속이 불교 및 도교 또는 자연신앙과 혼합된 양상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무편」은 무속에 관한 옛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무속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특히 이 시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12세기경 고려시대의 무속이 현존하는 중부·황해도 지역의 무속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무신도를 걸어 놓은 굿당, 제석거리에서 무당이 공수를 주고 단골들이 술을 마시는 모습, 뛰고 솟구치는 무당의 도무, 타악기 반주 등은 황해도굿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 자료를 통해 신이 내린 무당인 강신무(降神巫)의 존재도 확인할 수 있다. 강신무의 존재는 삼국시대 이래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이규보의 「노무편」을 통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으며 오늘날과 같은 무당의 기능과 굿의 형식이 고려시대 이전에 형성되어 고려시대에는 정형화되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참고문헌 東國李相國集,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유동식,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5), 무속의 세계(최길성, 정음사, 1984), 이규보문학연구(김진영, 집문당, 1984), 고려 무속신앙의 전개와 그 내용(박호원, 민속학연구 창간호, 국립민속박물관, 1994), 황해도 무악의 역사성(이용식, 한국무속학 16, 한국무속학회, 2008).
필자 이유나(李泑娜)

녹음이시루

정의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에서의 은산별신제 때 올리는 산신을 대접하기 위한 제사 음식 중 하나로, 시루에 안쳐 찐 백설기.

내용 민속에서 산천의 신령에게 제사하기 위하여 올리는 노구솥에 지은 메밥을 '노구메'라 하고, '노구메정성'이란 노구메를 놓고 산천에 기도하는 정성을 말한다. 놋쇠나 구리솥으로 만든 솥인 노구솥은 자유롭게 옮겨 따로 걸고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산천에 갖고 간 노구솥에 멥쌀을 담아 밥을 지은 다음 '노구솥 채로 신령께 올리는 밥'이라는 의미로 노구메라 한 것 같다.

노구솥 채로 신령께 올리는 노구메를 1974년 서울 삼각산에서 행한 산신제 경우에는 제기에 담겨진 흰밥 3기를 '노그매'라 하였다. 같은 흰밥이라도 산신이 드시는 밥은 '노그매', 부처님이 드시는 밥은 '마지', 잡귀가 먹는 밥은 '잡밥', 조상신이 드시는 밥은 '메'라 하고 있다.

은산별신제 때 산신께 올리는 제물은 날통돼지, 생두부, 콩, 쌀, 팥, 녹음이시루, 조라술이다. 여기에서의 '녹음이시루'는 입지름 23㎝, 바닥지름 14.5㎝, 높이 14.5㎝의 옹기에 멥쌀 한 되를 깨끗이 씻어 충분히 물에 불린 다음 건져내어 물기를 빼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 시루에 안쳐서 쪄 낸 백설기이다.

조라술을 제외하고 제물 가운데 유일하게 익혀서 쪄 낸 '녹음이시루'는, 소위 흰밥이 담긴 '노그메'가 진설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산신께 밥 대신에 잡수시도록 올린 공물로서의 의미로, '시루 채로 신령께 올리는 백설기'이기 때문에 '녹음이시루'라 한 것이다. 밥이 백설기로 대체된 것이다.

백설기는 팥시루편에 대응하는 제물이다. 제석신이나 산신과 같은 신성한 신격인 천신을 대상으로 제사드릴 때 올리는 음식이 백설기이지만 사찰의 영산재 때 칠성각(七星閣)이나 용왕전(龍王殿) 앞에 다수(茶水)·마지와 함께 차려지는 가장 중요한 공물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무속·불교·유교를 통해서 본 식생활문화 및 그 의식절차에 대한 연구(김상보,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5), 무·굿과 음식 3(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필자 김상보(金尙寶)

놋동이

정의 동해안 지역의 군웅굿에서 무녀가 군웅신의 위력을 보이기 위해 입에 무는 무구로 놋쇠로 만든 큰 동이.

내용 군웅굿은 '장수굿', '군웅장수굿', '노또오굿', '논동우굿', '놋동이굿' 등의 명칭이 함께 사용된다. 군웅신은 전쟁터에서 죽은 혼령으로 여겨지며, 재산을 맡아주는 신이며, 위력으로 잡신을 쫓아내는 신이기도 하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는 가업을 수호하는 신이며 여로(旅路)의 수호신이라는 복합된 신격이다.

무녀가 놋동이를 입에 무는 행위를 '놋동이를 붙인다.'라고 하여 놋동이를 '붙임동이' 또는 '부침동이'라고도 한다. 강신무(降神巫)들이 사실을 세우는 것과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데, 놋동이를 입에 문 상태에서 무녀는 여러 가지 축원을 하기도 한다. 놋동이를 입에 물 때에 제관이나 마을 주민들은 놋동이 안에 돈을 넣고 빌기도 하며, 놋동이를 만지면 좋다고 하여 손으로 놋동이를 만지기도 한다.

동해안별신굿이 벌어지는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무녀가 한 개의 놋동이를 입에 물고 들어올리는데,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와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 별신굿에서는 3개의 놋동이를 묶어서 사용한다. 이 놋동이굿을 특별히 '삼동이굿',



놋동이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높이 19.8㎝, 입지름 35㎝, 바닥지름 23㎝ | 1950년대

'삼동굿'이라고 한다. 근래에는 놋동이가 많이 사라져 스테인리스스틸로 만든 동이를 사용하기도 한다. 놋동이를 입에 무는 행위는 힘이 많이 들고, 이를 다치기 쉽기 때문에 다른 무녀들이 옆에서 놋동이를 들어주거나 주민들에게 장군신에게 벌기를 재촉하는 등 굿 진행을 보조하기도 한다.

놋동이굿은 축원무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축원의 내용은 군(軍)에 간 자녀들의 무사귀환을 기원(祈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마을의 대 · 소사와 주민들과 자손들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축원까지 아우르고 있다. 다음은 2007년 영덕 구계리 별신굿의 군웅굿에서 축원 부분이다.

"구계 대동 안에 우별신들이고 좌별신들이고,
성황님, 중당마실 성황님, 조상님네, 세존님네, 용왕님네,
각성받이 · 육성받이 군웅님네, 장부 장수님네,
아기 장수님네를 모시고,
이어 대관령의 김유신 장군, 이순신 장군,
강감찬 장군, 최영 장군, 문무대왕을 모시고,
군대 간 자식들 잘 지내길 바라고,
구계 대동 안에 딸을 낳으면 심청이처럼 되고,
아들 나면 김유신 장군 같이 되게 해주시고,
10년 동안 장군님네 고기도 많이 몰아 주고,
구계 대동 안에 잘 되게 해주길 바라며,
구계 대동 안에 개인과 가족, 직장이 잘 되길 기원하며,
더 나아가 남북통일 되게 하여 달라"

동해안별신굿의 거의 모든 굿거리에 이와 같은 내용의 축원들이 있으며, 이러한 축원들은 마을 전체의 축원에서부터 개인적인 축원까지 제한이 없다. 또한 이런 다양한 축원의 내용들은 그 굿거리의 중심 내용과도 엄격한 연관성을 갖지 않는 자유로운 것이다. 이러한 축원의 대부분은 어떤 연행의 순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루어진다.

참고문헌 동해안별신굿(박경신 · 장휘주, 화산문화, 2002), 한국의 굿(하효길 외, 민속원, 2003),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경상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영덕 구계리 굿과 음식(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필자 이균옥(李均玉)

눈설화

정의 길고 가는 실모양의 흰 꽃잎이 가지 전체에 달려 있는 모습의 지화. 이것은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로서, 지역에 따라 그 명칭이 다르다. 황해도에서는 서리화[雪裏花], 서울 · 경기 지역에서는 눈설화꽃[雪花], 그리고 전라도에서는 국수발이라고 부른다.

형태 눈설화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대나무와 흰 종이가 필요하다. 대나무는 대략 그 길이가 40~70㎝ 내외로 하여, 살대처럼 가늘게 자른 것이 준비되어야 한다. 종이는 온지를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번 접은 다음 그 접은 선을 따라 자르면 긴 직사각형 모양이 된다. 자른 종이의 그 폭이 좁은 면을 가로로 놓은 상태에서, 가로로 두 번 접은 다음 손으로 잡고 있는 종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가위질을 한다. 그리고 이것을 펴서, 대나무 살대에 감아 나간다. 완성된 눈설화는 'V'를 반복해서 세로로 일렬로 세워 놓은 모습이다.

내용 서울 · 경기굿에서 눈설화는 천궁맞이굿, 진오귀굿, 경사굿 등에 사용되며 대문 앞이나 조상상한 쪽에 진설된다. 서울굿에서는 시루편을 켜켜이 쌓아 올린 고임이나, 시루편 조각에 지화를 꽂는 게 일반적이다. 일부 대감상에 올려진 시루에는 눈설화를 꽂기도 하나, 통시루에 이 꽃을 꽂는 게 일반적인 황해도와는 비교가 된다.

황해도 무속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굿에 사용되며, 시루나 쌀불기에 꽂아둔다. 황해도굿에서는 모든 시루떡에 서리화를 꽂아둔다. 시루에는 적게는 한 개에서 많게는 여러 개를 꽂는 게 일반적이다. 시루에 지화를 꽂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서리화만 꽂거나 혹은 그 해당 신격을 상징하는 지화나 고깔을 추가한다. 즉, 육고기를 좋아하지 않는 소당을 위한 제물에는 서리화에 고깔이 추가된다. 쌀불기는 제기에 공양미라 불리는 쌀이 담긴 것으로, 여기에 꽂는 지화로는 수팔련과 서리화가 있다. 이 쌀이 담긴 제기에 수십 개의 서리화를 한가득 꽂아두기도 하는데, 이는 서울굿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전라도 무속에서 국수발은 넋당석의 구성 요소 중의 하나로서, 넋당석의 기본 틀인 소쿠리나 종이 상자 양쪽 옆에 세워, 기둥역할을 한다. 일종의 신간의 기능을 한다. 황해도에서 모든 시루에 이것을 꽂는 이유는 그 기능을 신간으로 보고 있다는 점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인다. 즉, 신이 자신에게 부여된 제물에 내려올 때 이것을 타고 내려오는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이다.

서리화는 뿌리 없이 눈 위에 피어난다고 믿어지는 상징적인 꽃이다. 지화는 신에게 정성을 보이기 위해 장식되는 것으로서, 특히 황해도에서는 신에게 가장 중요한 제물인 떡에 꽂아진다는 점에서 신을 즐겁게 해 주는 오신의 기능을 한다. 황해도굿에서는 무당이 서리화를 들고 의례의 일부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맑고 깨끗한 의미를 지니는 서리화를 통해 제장이 정화(淨化)되기를 바라는 의미를 지닌다. 즉, 꽃에 내재된 정화의 기능이 의례 속에서 발현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또한 서리화는 신이 타고 내려오는 신간의 기능을 한다. 전라도의 국수발은 황해도와 서울 · 경기지방과는 그 쓰임새가 전혀 다르지만, 신간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그 기능면에 있어서는 일정한 공통점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의 굿(하효길 외, 민속원, 2002),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경상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무 · 굿과 음식 1(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무화연구 1(김태연, 한국무속학 3, 한국무속학회, 2001), 서울굿의 신화 연구(양종승 · 최진아, 한국무속학 5, 한국무속학회, 2002), 최영장군당굿 굿춤의 유형, 기능 그리고 특징(김영란, 최영장군 당굿 연구, 민속원, 2008), 최영장군당굿의 제물과 지화에 반영된 신의 위계와 신격(최진아, 최영장군 당굿 연구, 민속원, 2008), 무속의 물질문화 연구(최진아,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9).
필자 최진아(崔眞娥)

느진연물

정의 제주도굿에서 느린 템포로 연주되는 장단.

내용 느진연물의 '느진'은 템포를 나타내는 말로 '자진'의 상대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연물은 악기를 말하지만 때로 장단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템포와 결합된 '느진 연물'에서의 연물은 '장단'을 의미한다.

연물은 제주도굿에서 춤 · 노래 · 연희의 반주에 쓰이는 대영, 설쇠, 구덕북, 장구 같은 악기를 총칭한다. 이러한 악기들은 반주음악의 장단적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푸다시 연물', '살려옵써 연물'에서처럼 푸다시 무가나 살려옵써 무가를 부를 때의 장단이라는 의미도 있다.

제주도굿에서 본풀이나 서우제소리 등 몇몇 무가를 제외하면 무가의 명칭이 크게 발달되지 않았다. 따라서 무가나 춤의 반주에 따르는 장단 명칭도 삼석(느진석, 중석, 자존석), 도랑 등 몇몇을 제외하고는 고유 명칭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느진연물은 특정 장단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느리게 연주하는 장단이란 일반 명칭이다.

참고문헌 제주도의 무속음악(노재명 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필자 장휘주(張輝珠)

다리굿
다리화
단골
단군(檀君)
단오맞이굿
단잡이굿
단종(端宗)
단종맞이굿
당떡
당맨심방
당산맞이굿상
당진안섬당제
당클
대감(大監)
대감굿무가
대감시루
대관령 성황사 및 산신당
대너리
대너리춤
대령상
대명왕사자기(大冥王使者旗)
대모
대사산어
대상
대수대명산(大壽大命傘)
대신벌
대신방울
대신상
대신칼
대안주상
대전의 앉은굿
대절만(大鐵網)
멈불구화
도깨비굿
도당(都堂)
도당상
도랑선비 청정각씨 노래
도래둘러맴
도령돌기
도령춤
도부
도살풀이
도살풀이춤
도채비방쉬
도포(道袍)
도황수[都行首(都鄕首]
독경
독집
돈전개[錢錢蓋]
돈전풀이
동다리(同多里)
동살풀이
동이춤
동이풀이굿
동자대
동자상
동해안별신굿
동해안 세습무 무복
동해안오구굿
두두리(豆豆里)
두린굿
뒷전무당
뒷전상
드렁갱이
떰콩장단
떵떵이장단
띠배

다리굿

정의 망자를 좋은 곳으로 보내는 평안도 무속의례의 진혼제. 살아 있을 때 다리굿을 하면 장수할 뿐 아니라 죽은 후에도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하여 부유한 집안에서는 나이든 노인을 위해 다리굿을 치르기도 한다. 이를 '산다리굿'이라고 한다.

내용 다리굿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조상다리, 사자다리, 망자다리, 수왕다리 등으로 불리는 '다릿발'이다. 다릿발은 망자가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 지나가야 하는 일종의 저승길이다. 삼베와 무명 또는 소창으로 된 일곱 자 일곱 치 길이의 천으로 준비되는 다릿발을 굿청 중앙으로부터 문을 지나 바깥까지 기다랗게 늘어 뜨려 놓고 굿을 주관하는 대무당이 굿소리를 하며 다릿발을 가른다.

다리굿은 성황대제(또는 성황굿)와 함께 평안도 지역의 대표성을 띠는 무속의례이다. 대동강 물을 먹고 자란 무당만이 평안도굿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다리굿은 독특한 지역성을 기반으로 전승되고 발전해 왔다. 이를테면 다리굿에서는 서도(西道) 창법의 굿소리를 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어려서부터 평안도 문화와 함께 해 온 무당이어야 한다. 이러한 평안도 굿소리 창법은 맑고 청정한 목청을 내면서도 속소리와 콧소리가 섞여 격하게 떠는 목을 쓰는 것이 특징이다. '산염불', '비나수', '푸념' 등의 다리굿에서 불려지는 소리들은 서도 창법으로만이 그 맛을 제대로 낼 수 있다.

다리굿에서 진설되는 감응상은 굿청 차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다. 굿을 하는 동안 절대로 옮기거나 움직여서는 안 되는 대들보 같은 굿청의 중심이 바로 감응상이다. 무당은 굿청 옆으로 진설되는 감응상과 둥굴부채(또는 둘레부채)를 중심으로 진설되는 굿상의 동선 사이에서 굿을 진행한다. 감응상은 상을 이층으로 하여 단을 만들어 진설하며, 상에는 쌀을 수북하게 쌓아놓는다. 모든 굿거리의 시작과 끝맺음은 감응상 앞에서 이루어진다.

평안도굿의 전문적인 장구잽이를 '술말이'라고 부른다. 술말이는 무당이 아니지만 푸념을 하거나 굿을 마무리하게 되는 뒷전 등을 맡아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노련한 술말이를 차지하려고 쌀 한말씩을 미리 안겨주기도 하였다. 평안도 다리굿의 음악적 특징은 쌍장구와 쌍제금 연주이다. 2대의 장구와 제금이 나란히 앉아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장단을 친다. 여기에 태평소, 피리, 대금, 해금 등 삼현육각을 더불어 앉히기도 하지만 근래에는 피리와 태평소 정도가 추가된다. 다리굿에서 추는 춤은 장삼춤과 바라춤이 대표적이다. 대무당이 양손에 대바라를 들고 엇사위로 춤을 춘다. 이를 '거상(또는 거성)한다'라고 한다. 거상은 장삼을 양손으로 잡고 하는 경우도 많다.

다리굿을 완전하게 하려면 이틀 정도가 소요된다. 굿 제차와 내용은 여러 상황과 재가집 형편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1. **당울림** : 굿청에 쇳소리를 내어 굿 시작을 알린다. 이때 무당들을 제외한 악사와 참가자들은 굿청 밖으로 피해야 한다. 쇳소리를 듣고 갑자기 달려든 귀신과 부딪쳐 살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2. **주당풀이(또는 주당푸념)** : 신칼을 들고 소리조로 푸념을 한 후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고 굿청을 정화시킨다.
3. **앉은청배(또는 감응청배)** : 감응당 앞의 의자에 앉아 신령들을 청하여 굿청으로 좌정시킨다.
4. **칠성굿(또는 세천굿, 불사굿)** : 장삼을 입고 머리에 고깔을 쓰고 갱지미(칠성괭징)를 들고서 소리조로 비나수를 한다. 칠성굿에서는 명과 복을 발원한다. 그리고 도래미떡(속이 비어 있는 둥그렇게 만든 하얀 떡. 이를 칠성떡이라고도 함)을 갱지미에 담아 명떡과 복떡이라고 하여 팔기도 한다. 이어서 삼지창에 무명을 꽂아 불로 태워 물그릇에 적시면서 길흉을 점치는 수레 올리기(또는 대수레천 올리기)를 한다. 그리고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재가 섞인 물을 망자 가족들에게 먹인다.
5. **영정굿(또는 녕정굿)** : 감응상 앞에서 소리조로 푸념을 한 후 영정 바가지에 든 떡과 과일로 객귀, 잡귀 등의 영정을 풀어먹인다.
6. **서낭굿** : 감응상 앞에서 소리조로 비나수를 한 후 부채를 들고 서낭춤을 춘다. 삼베와 감응천으로 서낭다리를 만들어 신령들을 모시고 들어오면 길(서낭다리) 위에 돈을 깐다.
7. **대감굿** : 감응상 앞에서 소리조로 비나수를 한 다음 대감춤을 추면서 재복을 달라고 축원한다.
8. **기밀굿** :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망자를 다루는 굿거리가 시작된다. 감응상 앞에서 비나수를 한 다음 망자의 혼을 불러 생전에 못 다한 한을 푼다.
9. **사자굿** : 망자를 저승으로 데려갈 사자(使者)를 놀린다.
10. **세경돌기** : 망자의 혼이 실린 다릿발을 들고 세경을 도는 '다릿발세경'을 한다.
11. **수왕세텬(또는 시왕세천)** : 시왕(십대왕) 앞에서 망자를 저승으로 잘 데리고 가겠다고 다짐한다.
12. **몸(망자)다리 들어섬** : 망자의 넋이 다릿발에 내려 가족들에게 굿을 베풀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한다.
13. **수왕포 가르기** : 삼베와 무명으로 된 수왕(시왕)포로 저승길(다리)을 만들어 두고 이를 가르면서 망자가 좋은 곳으로 가도록 한다.
14. **뒷전** : 잡귀와 잡신들을 풀어 먹여 보내고 굿을 마무리한다.

다리굿은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평안도에서 남하한 무녀들이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1, 2세대 무녀들이 거의 세상을 떠나고 고향 출신 단골들도 줄어들면서 활동 폭이 좁아졌다. 남하한 평안도 무당들은 주로 서울 종로 일대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무업을 하였다. 그들 중 대표적 무당이 이선호(속칭 이춘옥)로, 창경궁 근처에 살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대궐할머니'라고 불렀다. 이선호 무당은 또한 레슬링 김일선수의 장모로도 알려졌다. 이선호 무당은 1972년에 영변 성황대제를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출품하여 세간의 많은 사람으로부터 찬사를 받은 후 평안도굿의 대표적인 전승자로 알려졌다. 77살에 사망할 때까지 평안도굿을 전승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이선호 무당 사망 후에는 그녀의 직계 제자 정대복 무당이 평안도굿을 전승하였다. 정대복은 1916년 평안남도 평양에서 출생하였으며, 30세에 이선호 무당을 신어머니로 모시고 무업을 하다가 2004년에 사망하였다.

이선호와 정대복 계보에 의해 평안도굿을 잇고 있는 대표적인 제자로는 이정연과 김남순이다. 이들 중 김남순은 2007년에 평안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다리굿의 첫 번째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김남순은 1950년생이며, 평북 출신의 남편으로 인해 1988년, 신을 받을 때 평안도 무당을 신어머니로 삼게 되었다. 그리고 정대복 무당으로부터 평안도 다리굿 문서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굿 문서를 배웠으며, 현재 다리굿 전승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김남순과 함께 활동하는 다리굿 전승자로는 박수진(상장구), 김두연, 최형란, 홍세미, 정찬오, 김미정, 신재동(악사) 등이 있다.

참고문헌 평안도 다리굿(김수남 외, 열화당, 1985), 한국민속대사전 2(김용덕, 민족문화사, 1991), 한국민속문화대백과사전(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도서출판 창솔, 2004), 평북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다리굿 조사보고서(양종승, 평안북도, 2007).

필자 양종승(梁鍾承)

다리화

정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꽃을 상징화한 지화(紙花). 서울굿과 동해안굿의 굿상에 진설된다.

형태 다리화는 한지와 대나무를 주재료로 해서 만들어진다. 다리화는 일반 다리화와 꽃잎을 실처럼 가늘게 잘라서 만든 실다리화 두 종류가 있다. 일반 다리화는 꽃잎과 꽃이 크다는 특징을 지닌다. 다리화는 여러 종류의 색으로 만들어지며, 특히 백색의 다리화는 천궁맞이 혹은 불사거리에 주로 사용된다.

내용 다리화는 목단과 함께 가지꽃을 이루는 지화로서, 제물상에 진설되거나 의례에 지물(持物)이나 머리장식으로 활용된다. 서울굿에서는 거의 모든 굿에 사용되어 굿상 위에 진설되며, 수팔련을 구성하는 꽃 중의 하나로도 장식된다. 동해안굿에서는 이 꽃만이 하나의 상자에 담겨져 굿상 위에

독립적으로 놓여진다. 무속에서는 꽃의 크기가 크면 귀신이 놀라 도망간다는 속설이 있다. 다리화는 꽃이 커서, 잡귀와 잡신을 쫓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자를 저승으로 천도해주는 새남굿에서 사자의 머리꽃으로 쓰일 때는 망자의 저승길을 이끌어 주는 사자에게 잡신들이 붙지 않기를 바라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지화는 굿청을 화려하게 장식함으로써, 신에게 오신(娛神)의 기능을 한다. 다리화는 그 꽃잎이 크고 화려하다는 점에서 신의 눈에 가장 잘 띄어 신의 눈을 즐겁게 하는 지화 중의 하나이다. 다리화는 다른 지화와 마찬가지로 신이 하강하여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대상이면서, 신을 즐겁게 해주는 대상으로 인식된다.

참고문헌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경상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무 · 굿과 음식 1(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무화연구 (1)(김태연, 한국무속학 3, 한국무속학회, 2001), 서울굿의 신화(神花) 연구(양종승 · 최진아, 한국무속학 5, 한국무속학회, 2002), 서울굿의 상차림에 대하여(홍태한, 한국무속학 6, 한국무속학회, 2003), 최영장군당굿의 제물과 지화에 반영된 신의 위계와 신격 I (최진아, 최영장군 당굿 연구, 민속원, 2008), 무속의 물질문화 연구(최진아,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9).
필자 최진아(崔眞娥)

단골

정의 전라도 일대에서 일컫는 세습무녀. 단골네, 당골네 등으로 말하기도 한다. 서울 지역에서는 특정한 무당과 신도관계를 맺고 있는 신도들을 당골이라고 한다. 이 경우 단골, 당굴 등의 여러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내용 '특정한 무당과 신도관계를 맺고 있는 신도들'이라는 뜻으로는 서울 지역을 벗어나 다른 고장에까지 광범위하게 확장되며 황해도 등지에서도 이 용어를 쓴다. 가령 '당골갈림 골장갈림'이라는 말에서 이 전통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용례로 확장되어 단골손님이라는 말까지 생성되어 있다.

두 용례를 보면 한쪽은 사제자를 지칭하고, 다른 한쪽은 신도를 지칭한다. 이러한 전환이 어떠한 각도에서 이루어졌는지 쉽게 생각할 순 없지만 사제자와 신도 등이 하나의 근원적 현상으로부터 나왔다는 점은 여러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사제자와 신도는 정기적인 관계와 비정기적 관계를 통해서 만난다. 정기적 관계는 사시사철의 절기에 드려야 하는 정기적인 의례 때 이루어진다. 사월 초파일, 단오, 유두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비정기적 의례는 사람이 아프거나 혼인하거나 죽었을 때 하게 된다.

이 두 가지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요소는 바로 경제이다. 원활한 사회적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다. 그 돈은 특정한 질서 속에 구현될 수밖에 없는데 신의 이름으로 사제자와 인간이 만나는 것이 이 관계를 원만하게 하도록 한다. 이 관계에 대한 용어가 나누어져서 각기 다른 지역에서 남아 있다.

이 의례는 봄철과 가을철에 집중된다. 봄철에는 보리 수확, 가을철에는 쌀 수확이 이루어진다. 사제자인 단골은 이 수확에 의해서 신도인 단골의 대소사를 모두 관장하고 일을 수행한다. 특히 신앙적인 의례를 직접적인 거래 없이 도모하고, 수확철에 이를 걷어오게 된다. 이것을 흔히 '동냥걷는다'고 한다.

강신무권에서는 단골들이 근본적으로 곡물의 수확철에 의존하지만 봄에는 천신맞이를 하고 가을에는 성주바지를 하게 된다. 모두 이 몫돈을 기대고 하는 것이지만, 의례는 단골들을 중심으로 치러지며, 정기적인 작은 치성과 같은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기본적인 양상이다. 또 강신무권에서는 특별하게 단골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데 이 의례가 곧 만신의 진적굿에서 시행된다. 단골들을 다스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례적인 행사인데, 이 과정의 의례를 통해서 만신과 단골은 지속적인 회합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사제자와 신도의 의미인 단골이 분화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단골과 함께 쓰이는 중요한 용어는 단골판이다. 단골판은 만신을 중심으로 단골들에 의해서 형성된 특정한 집단을 이른다. "천단골들 만단골들 단골마다 다 빌어내는 가정마다 내 기자가 그저 신청에 귀설 없고 정성을 다 들여도 정성 덕 입게 도와주고 남의 정성을 댕겨도 귀설 없이 도와주마"라는 말에 있듯이 단골들에 의해서 형성된 판을 의미한다.

단골판은 세습무권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한다. 이뿐만 아니라, 제주도에도 단골판이나 단골이 있어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는 단골이 특별한 계기를 통해 구현된다. 마을의 본향당이나 마을의 다른 당을 중심으로 단골들이 형성되는데 개별적인 단골들의 대소사도 이를 통해서 진행하는 점이 특별하다. 마을 단골들의 관계도 명확하게 본풀이에 명시한다.

제주도의 당신본풀이에서는 이 관계가 반드시 명시된다. "옛날은 궤네기굴에 간 돗제 헤여나신디, 무진년 ᄉᆞ삼ᄉᆞ태가 당헤여 가난, 산에 오름사름 못 올라가는 게 일문전으로 청허는 법이 뒈엿십네다.[요령] 한집님아 한집님아. 예순에 아홉설 예순ᄋᆞ덥, 서른아홉 서른두 설, 아홉 설, 네섯설, 서른셋 스물ᄋᆞ덥, 사년만이 한집님 대접 허염수다. 땅세를 받읍서. 국세를 받읍서. 벌어먹은 역가 벌어쓴 역가, 앞으로 아덜덜 좋은 직장 내세와 주어삽네다, 조상님아.[요령] 조상님 속풀이 헙서. 우 머리 좌 머리, 궤기 벡근 ᄉᆞᆯ디도 벡근, 전각도 벡근, 후각도 벡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결말을 말한다.

참고문헌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진성기, 민속원, 1990).
필자 김헌선(金憲宣)


단군상
국립민속박물관 사진자료 소장

단군(檀君)

정의 고조선의 건국 시조.

내용 단군에 대한 전승은 13세기에 나온 『삼국유사(三國遺事)』와 『제왕운기(帝王韻紀)』 이래로 여러 문헌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이들 문헌에서 단군이 한국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시조라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단군의 계보 등에 대해서는 문헌에 따라 차이가 있다. 『삼국유사』에서는 하늘 신 환인(桓因)의 아들인 환웅(桓雄)이 지상으로 강림하여 웅녀와의 사이에서 단군을 낳았고, 단군은 고조선을 건국하여 1500년 동안 통치하다가 아사달산으로 들어가 산신이 되었다고 했다.

한편 『제왕운기』는 환웅의 손녀와 박달나무신[檀樹神]이 혼인하여 단군을 낳았으며, 단군은 1038년 동안 고조선을 다스리다가 산신이 되었다고 했다. 또 권근(權近, 1352~1409)의 〈응제시(應製詩)〉에서 단군이 직접 하늘에서 내려와 고조선을 건국했으며, 단군의 재위 기간이 1000년이 넘는다고 한 것은 실은 단군의 자손이 대대로 이어가면서 통치한 햇수를 합산한 것이라 했다. 이밖에 환웅과 백호가 혼인하여 단군을 낳았다는 전승, 환웅이 곰과 혼인하여 단군을 낳고 여우와 혼인하여 기자(箕子)를 낳았다는 전승도 있다. 이 가운데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는 단군의 계보를 천신과 연결하고, 재위 기간도 1500년가량인데다가 마지막에도 산신으로 좌정했다고 하여 단

군을 신격화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응제시〉는 단군의 조상 계보에 침묵하고 재위 연수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등 단군의 신화적 면모를 최소화하면서 역사적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렇듯 단군에 관한 전승은 다양하다. 하지만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의 전승이, 특히 『삼국유사』의 전승이 단군신화의 원형에 가까울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응제시〉는 유교적 합리주의에 입각하여 단군을 재해석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조선시대에는 〈응제시〉 전승이 각종 문헌에 채택되는 등 단군에 대한 표준적인 전승이 되었다.

조선시대를 통하여 단군의 역사적 위상은 확고해졌다. 국가 차원에서 단군을 시조로서 제사했으며, 단군의 무덤을 찾음으로써 단군이 산신이 아닌 인간임을 확실히 했다. 나아가 조선 후기에 나온 역사서에서는 단군의 치적이 언급됨으로써 단군의 역사성은 더욱 강조되고, 마침내 한말에는 단군 인식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즉 단군은 민족의 시조이고, 우리 민족은 다 같은 단군의 자손이라는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은 봉건적 신분제 사회에서는 존재하기 어렵다. 국왕과 노비가 같은 조상, 한 핏줄이란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말에 오면서 외세의 침입 앞에 민족의 단결이 필요했고, 민족의 단결을 위해서는 구심점이 필요했다. 바로 이러한 요청에 부응한 것이 단군이었다. 우리 민족은 단군의 자손이기 때문에 뭉쳐야 할 당위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말에는 단기 사용(1905), 개천절 기념(1909), 단군교 창립(1909) 등 단군과 관련한 각종 민족운동이 전개되었다. 단군은 민족의 시조라는 인식을 비롯하여 현재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단군 이해의 틀은 한말을 거치면서 성립된 것이다.

단군에 대한 역사화 작업이 진행되는 한편으로 단군을 신격화하고 숭배하는 전통도 꾸준히 이어졌다. '단군'이란 말의 의미는 '무당'으로 풀이되며, 따라서 단군은 고조선의 통치자인 동시에 최고 사제자로 여겨진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단군 자신이 신격화되기도 했다. 이것은 고조선의 조상신이었음은 물론 산신으로 좌정됐다는 점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단군을 숭배하는 전통은 고조선 이래로 계속되었다고 보이지만, 이것이 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때는 고려시대부터이다. 10세기경부터 황해도 구월산에는 단군을 비롯해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인 환인 · 환웅을 함께 모시는 삼성당(三聖堂)이 있었고, 이곳은 영험있는 기우처로 대접받았다고 한다. 조선 성종 때 황해도 지방에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그 원인을 삼성당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탓으로 돌린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단군 숭배의 전통은 조선 후기로 오면서 새로운 종교운동으로 발전해 갔다. 19세기 말~20세기 초 평안도 지역의 김염백(金廉伯)이나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백봉(白峰) 등의 단군운동이 그것이다. 이러한 신앙운동은 마침내 1909년 대종교의 출현을 가져왔다.

단군신앙의 전통은 오늘날에도 이어져 온다. 한 흐름은 신종교로, 다른 하나는 민간신앙 내지 무속을 통해 전승되고 있다. 한국의 신종교 가운데 단군을 모시는 교단은 30여 개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단군을 주신으로 받드는 곳도 있지만, 여러 신 가운데 하나로 모시는 종단도 있다. 한편 민간신앙에서 단군은 마을신앙의 대상으로 숭배되었다. 일제시대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경상남도 함양과 강원도 양양 지방에서 동제 때 단군을 모셨다. 오늘날에는 서울 동빙고동부군당에서 단군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여러 신과 함께 모시고 있다.

무속에서도 단군을 받들고 있다. 20세기 전반에 나온 것으로 짐작되는 『무당내력(巫黨來歷)』이나 『무당성주기도도(巫黨城主祈禱圖)』에서는 무속의 원류를 단군에서 찾고 있다. 즉 무속은 단군에서 비롯한 신성한 민족 전통이며, 제석거리 · 별성거리 · 대거리 · 성조거리 등이 모두 단군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무속이 근대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한국문화계에서 시민권을 얻고자 하는 움직임의 일단으로 볼 수 있다. 현전 무가에서도 단군이 사설에 등장한다. 영일 지방 골맥이굿이 그것이다. 그러나 동제든 무속이든 간에 단군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문헌 三國遺事, 帝王韻紀, 部落祭(村山智順, 조선총독부, 1937), 巫黨來歷(서울대학교 규장각, 1996), 육당 최남선 전집 2(최남선, 현암사, 1973), 단군-그 이해와 자료(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필자 서영대(徐永大)

단오맞이굿

정의 5월 단오를 맞이하여 집안의 재수를 위해 행하는 무속제의.

내용 단오맞이굿은 5월 단오 즈음에 벌어진다. 단오맞이굿은 세시절기인 단오를 배경삼아 치르는 굿이다. 재가집의 요청에 의해 재수굿의 하나로 행해지는 경우와 만신과 단골의 지속적 관계를 맺는 열두 달 치성제의의 하나로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 두 경우 모두 집안의 평안함에 감사하고 무사태평, 무병장수, 부귀공명을 비는 것이 주가 된다.

단오맞이굿은 철따라 행해지는 신(신령)맞이굿의 한 형태로서 일종의 철맞이굿임을 짐작케 한다. 이러한 것은 열두 달 베풀어지는 굿을 보면 알 수 있다. 정월의 세배살이와 횡수막이, 2월의 개춘(開春)맞이, 3월의 꽃맞이, 4월의 철쭉맞이, 5월의 단오맞이, 6월의 햇밀천신(薦新)과 유두맞이, 7월의 칠석맞이, 8월의 추석 한가위, 9월의 구일맞이, 10월의 햇곡맞이, 동짓달의 동지맞이, 섣달의 설경(雪景)맞이 등이 그것이다.

지역사례 단오맞이굿과 관련해서는 인천 지역과 서울 지역이 간략하게 조사되었다. 인천 지역의 경우 계절에 따라 그 명칭이 정해지는 재수굿의 하나로 단오맞이굿을 꼽고 있다. 서울 지역의 경우 만신과 단골이 지속적 관계를 맺는 열두달 치성제의의 하나로 단오맞이굿이 보고되었다. 이상순 만신의 경우 '단요맞이'라 부르는데, 5월 단오라는 세시풍속과 무속적 제의가 맞물려 진행되는 치성이다. 진퍼리 살군당 애기씨당의 김옥렴 당주의 경우 5월에 하는 치성제의의 하나로 단오맞이가 조사되었다.

참고문헌 인천지역무속 3 : 재수굿 · 잔굿(이선주 편저, 미문출판사, 1989), 서울굿 열두달 치성의례와 경제적 상관성 연구(김헌선, 비교민속학 27, 2004).
필자 허용호(許龍鎬)

단잡이굿

정의 '단(丹)'이라고 하는 개인 피부병에 대한 마을 공동체의 치병 의례. 이 굿은 2000년 1월 11일에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9호'로 지정되었다.

역사 단은 고열이 나면서 몸의 일부가 붉거나 푸르게 발진하여 화끈거리는 피부병이다. 단에 대한 민간요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병세가 악화되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단을 잡는다. '잡는다'는 표현은 단을 일으킨 병의 원인을 찾아서 병을 고친다는 의미이다. 단잡기 민속은 충남 부여군 일원에서 집중적으로 전승되고 있다. 충남의 다른 지역에서도 간헐적으로 전승되었지만 부여군 은산면 내지리의 단잡기는 부여군청, 부여문화원 관계자 등의 도움으로 1995년 제36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하여 대통령상을 받으면서 널리 알려졌다. 1997년에는 오문선이 '현지조사 노트;부여지방의 단잡기'(한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충청문화연구 5)라는 제목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였다. 1988년과 1999년에는 이필영이 부여군과 충청남도의 요청으로 재차 현지조사를 수행하여 이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1999년에 충청남도 문화재회의의 심의를 거쳐 내지리 단잡기가 충청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내용 단잡기는 한 개인이 앓고 있는 피부병을 마을 사람들이 집단으로 행하는 공동의 치병 의례이다. 환자와 가족은 단의 발병 초기에는 개인적 차원에서 치유를 강구한다. 그러나 증세가 악화되어 별다른 도리가 없으면 전통적인 치유 방법으로 단잡기에 의존한다. 환자와 가족은 자신의 마을이나 인근 지역에서 단을 잘 잡는다고 이름난 사람에게 진찰을 요청한다. 일단 단으로 판정되면 치유에 관한 모든 것은 단잡이를 비롯하여 마을 사람들에

게 맡긴다. 마을 사람들은 단잡이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단 잡을 준비를 하고, 의례가 제대로 거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그 결과 환자와 가족은 단을 잡아 주는 마을 사람들에게 더 없는 고마움을 느낀다. 단잡기 사례에서 마을공동체적 전통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단에게 먹일 오곡도 각성받이 다섯 집에서 걸립하도록 한다. 마을 사람들의 정성을 모은다는 의미와 함께 마을공동체의 유대를 잘 보여 준다.

지역사례 단잡기는 충남 부여군 은산면 내지리, 은산면 장벌리는 물론 인접 지역인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 청양읍 장승리, 서천군, 공주시 등지에서도 전승되었다. 그러나 은산면 내지리 이외 다른 지역에서는 현재 단잡기를 할 수 있는 고로(古老)들이 대부분 사망하였고, 그 기억 조차 희미해졌다. 은산면 내지리의 단잡기는 단을 진단하는 방법, 단의 원인에 관한 관념, 단잡기의 조직 구성, 단의 종류에 관한 인식, 오곡 걸립, 단기 제작 방식, 단을 잡는 절차와 그에 따른 행위 및 사설, 부엌의 당상관과 굴뚝의 사령, 단지 처리 방식 등 단잡기의 전통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다.

1. 단잡기 구성 : 기본적으로 당상관(堂上官), 전령(傳令), 사령(使令)을 선정한다. 당상관은 단잡기의 준비와 절차, 진행에 관한 일을 도맡아 통솔하고 지휘한다. 당상관은 어명을 받아 단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발동하며, 전령은 사령에게 명을 전하고, 사령은 분부대로 단을 잡아 당상관 앞에 대령한다.

2. 단잡기 준비 : 단 잡을 일시를 정하고, 각성받이 다섯 집을 돌며 오곡을 걸립하는 동시에 12가지 단의 명칭을 쓴 12개 단기(丹旗)를 제작한다. 우선 환자의 식구들이 나서서 각성받이 다섯 집을 돌며 오곡을 걸립한다. 보통 부녀자가 나서서, 한 집에서 한 가지 곡식만을 얻는다. 마을의 풍물패는 부녀자와 동행하여 풍장을 친다. 걸립한 오곡으로 밥을 짓고, 이어 단기를 제작한다. 단기는 당상관의 지시에 따라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제작한다. 단기의 깃발은 삼각형으로 오린 한지에 주사(朱砂)로 단의 이름을 써서 만든다. 깃대는 한 길 정도의 시누대를 꺾어 사용한다. 이 깃대에 한지로 만든 깃발을 풀로 붙여 12개의 단기를 제작한다. 단기는 환자집의 굴뚝 앞에 나란히 세운다.

3. 단잡기 과정 : 단은 부엌에서 잡는다. 단을 잡는 도구로 소두방(솥뚜껑의 방언)을 사용하였지만 근래에는 절구통을 뒤집어 놓고 사용한다. 부엌 바닥에는 단귀신을 잡아 가둘 조그만 항아리 또는 오줌동이(요강)를 놓아둔다. 당상관은 부뚜막에 걸쳐 앉아 동도지(東桃枝) 3개를 쥐고 솥뚜껑이나 절구통을 두드리면서 12단을 각각 호명하며 차례로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린다. 먼저 "풍단을 잡아들여라!"며 고함을 지른다. 당상관의 호령을 받아 부엌 밖에 있던 전령도 "풍단을 잡아들여라!"며 당상관의 말을 받아 읊는다. 그러면 밖에 있던 사령들이 "예이!" 하고 대답하고 굴뚝 앞으로 가서 풍단기(風丹旗)를 빼들어 부엌으로 달려온다. 이때 "단을 잡아들이라!"는 고함이 멀리까지 울리면 좋다고 하여 단잡기에 참여한 마을 사람들은 있는 힘껏 복창한다. 이렇게 잡아들인 풍단을 솥뚜껑이나 절구통에 올리면 당상관이 풍단을 동도지로 내리치면서 어명을 빌려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풍단아! 들어보아라! 곤명지주(坤命地主) ○○생 또는 건명대주(乾命地主) ○○생에게 침범한 단은 이 오곡밥을 거룩하게 먹고 네가 모조리 거두어 가지고 한시 바삐 당나라로 속거천리(速去千里)하라! 만약 그러지 않으면 장두칼로 목을 베어 한강에 처넣으리라! 어명이다!" 이렇게 명령한 후에는 한지로 만든 깃발을 떼어 오곡밥을 주먹만 하게 뭉쳐 싼다. 오곡밥을 미리 마련해 둔 항아리 단지에 넣는다. 동일한 방식으로 청단(靑丹), 황단(黃丹), 홍단(紅丹), 팥단, 태단(太丹), 띠단, 녹두단(綠豆丹), 토단(土丹), 메밀단, 백단(白丹), 두목광솔단(頭目廣率丹) 등을 잡아들여 매질을 가한 뒤, 한지 깃발로 오곡밥을 싸서, 단지에 넣는다. 12단 귀신을 모두 잡아들였으면 단지의 뚜껑을 덮고 왼새끼로 단지를 묶는다. 이를 사령들이 장대에 묶어 어깨에 메고, 손 없는 방위의 적당한 장소나 세거름길(삼거리의 방언)에 가서 묻는다. 이때 단지 위에 소금을 뿌려 단귀신이 다시는 나오지 말라고 위협한다. 또한 그 위에 건초와 땔나무를 놓고 불을 지핀다. 당상관 이하 단잡기에 참여한 마을 사람들은 환자집으로 몰려가 부엌에 남아 있는 오곡밥을 한 수저씩 떠먹고 난 뒤 풍물을 치며 한바탕 논다. 당상관은 환자에게 "자네의 인심이 후덕하고 선대 은덕이 많아 병마를 물리치고 완쾌되었네!"라고 덕담을 한다. 이로써 단잡기의 모든 절차는 끝을 맺는다.

4. 단잡기 인식 : 단이 온몸에 번지지 않아 비교적 병세가 가벼우면 하루저녁만 단잡기를 해도 치유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단이 심한 경우에는 사흘간 반복한다. 단이 아무리 심해도 하루저녁만 단을 잡으면 눈에 띄게 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심지어 고열 때문에 얼굴까지 벌겋게 부어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환자라 하더라도 단을 잡는다는 소리만 들어도 목이 시원해짐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병세가 심해 사흘간 단을 잡아야 하는 경우에는 오곡이나 단기 등을 미리 세 벌씩 마련한다. 예전에는 단지도 쉽게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단지에 넣었던 오곡밥을 땅에 파묻고, 마지막 사흘째 날에만 단지를 땅에 묻었다. 이렇게 사흘간 반복하면 단은 반드시 잡힌다고 마을 사람들은 믿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충남편(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3), 민간주술료법과 그 형태 유형(김형주, 향토문화와 민속, 선출판사, 1996), 소라실장승제(심우성 외, 공주문화원, 1998), 부여지방의 단잡기(오문선, 충청문화연구 5, 한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1997), 개인의 피부병에 대한 마을공동체의 치병 의례 – 충남 부여의 '단(丹)잡기'를 중심으로(이필영, 민속학연구 7, 국립민속박물관, 2000).
필자 안상경(安相敬)

단종(端宗)

정의 조선의 제6대 임금. 비극적인 죽음과 관련하여 무속에서 섬기는 신(神)이기도 하다. 8세에 왕세손으로 봉해져서, 문종이 훙(薨)한 뒤에 12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1453년 10월 숙부인 수양대군(首陽大君)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자 창덕궁에 거처한다. 성삼문(成三問, 1418~1456), 박팽년(朴彭年, 1417~1456) 등이 단종의 복위를 기도하다가 실패한 사건을 계기로 단종은 군(君)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유배된다. 유배중에 또 다른 숙부인 금성대군(錦城大君)이 그의 복위를 꾀하다가 발각되자 이에 연루되어 17세의 나이로 사사(賜死) 당한다.

내용 정변(政變)에 희생된 비운의 왕이라는 평가만이 남아 역사의 표면에서 사라졌으나 단종(1441~1457)은 역사의 이면에서 다시 부활하여 살아 숨쉬는 신령으로 존재하고 있다. 단종의 유배지이자 또한 죽음의 장소이기도 한 영월 일대의 지역민들은 그를 마을신이나 무신(巫神)으로 모시고 있다.

단종이 신령으로 좌정하게 된 것은 그의 비극적인 삶과 죽음에 토대한다. 그는 왕의 신분으로서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비극적인 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과 죽음을 함께 아파했던 당대의 사람들이나 후대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었다. 비록 그의 육신은 죽었지만 그의 억울하고 외로운 영혼은 그의 죽음을 아파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부활하였다. 생물학적으로는 소멸되었지만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는 살아 있는 것이다.

단종의 비극적인 삶은 양위(讓位)로부터 비롯되지만 일반 백성들이 그의 현실을 피부로 느끼고 아파하는 계기는 그의 유배생활에서 비롯되었다. 단종이 신격화되는 것은 그의 유배 길과 유배생활에서 잘 드러난다. 유배 자체가 신격화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았으나 영월에서의 유배생활은 단종과 지역민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중요한 기제로 기능하였고, 다른 지역보다 단종을 가까이에서 체험한 영월 지역민들에게 있어서 단종은 그들의 마음 속 깊이 간직될 수 있었다.

한양으로부터 영월에 이르는 유배 길 도처에는 단종과 관련한 전설과 유적이 남아 있다. 비록 기록되지 않은 역사이지만 주민들의 기억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의 첫 출발지인 서울의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화양정(華陽亭)에는 그가 유배 길에 오르는 것을 보았다는 전설이 깃든 수령 600년의 느티나무가 있다. 이 나무를 필두로 영월에 이르기까지 곳곳에는 단종의 유배와 관련한 전설과 지명이 전한다.

영월에서의 유배생활 역시 백성들의 관심과 슬픔으로 이어진다. 첫 유배지인 청령포(淸泠浦)

는 토사가 퇴적되어 생긴 섬으로, 배를 이용해야만 왕래할 수 있는 매우 험한 지역이다. 이곳에서 단종은 구들장도 없는 마루를 설치하고 그 위에 돗자리만 깐 투막집에서 생활했다. 하지만 홍수로 피해를 보고 관풍헌(觀風軒)으로 옮겨 갔다. 이 홍수에 대해서는 단순한 집중 호우가 아니라 어떤 신의(神意)에 의한 것임을 시사하는 일이 있었다. 그 당시 단종이 유배되자 그의 외조모인 화산(花山)부인 최씨가 무당 용안 등을 거느리고 영월에 내려와 단종을 위한 굿을 하였는데 굿이 끝나는 날 큰비가 와서 청령포가 침수되었으며, 그 결과 단종은 영월부중의 객사인 관풍헌으로 이전하게 된 것이다. 관풍헌에서는 비교적 편안하고 개방된 생활을 하였다. 단종에게 과실을 바치라는 왕명이 떨어지자 실제로 추익한(秋益漢, 1383~1457)이 머루를 진상했다. 지역민들은 이미 폐위되었으나 군왕이었던 단종을 지척에서 배알(拜謁)함으로써 그에 대한 존경과 동정의 분위기가 자연스레 고조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본격적인 신격화 단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단종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후에 그를 신격화하는 신앙적 토대로 기능했다.

단종이 신령으로 승화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그의 비극적인 죽음이다. 단종 숙부인 금성대군의 단종 복위를 꾀하는 움직임이 사전에 발각됨으로써 조정에서는 단종과 금성대군을 사사(賜死)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3개월 후인 10월 24일(1457)에 단종의 부음(訃音)이 전해진다. 단종이 자살했다는 기록도 있지만 사사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단종에게 사사를 내리는 과정에서 사신은 왕명 집행을 매우 곤혹스럽게 생각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왕명 집행은 천리(天理)를 배반하는 행위였다. 곧 왕명과 천명 사이에서 사신들은 갈등하였지만 이러한 사신들의 희생을 더 이상 강요하지 않기 위해 단종은 순순히 죽음을 택했다.

여기서 백성을 생각하는 성군(聖君) 단종의 모습과 폭군 세조가 대비되면서 그의 죽음은 한층 지역민들에게 아픔과 분노를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강요된 죽음인 사사와 함께 그의 시신이 유기(遺棄)되었다는 사실은 또 다른 차원에서 충격적이다. "숲속에 버려진 후 한 달이 지나도 염습하는 사람이 없어 까마귀와 솔개가 날아와서 쪼았다"거나 "옥체가 둥둥 떠서 빙빙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오곤 하는데, 옥 같은 가는 열손가락이 수면에 떠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단종의 비참한 삶과 죽음을 아파하는 사람들은 단종이 완전히 죽었다고 믿지 않았다. 그의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은 신령으로 승화되어 단종의 죽음을 아파하는 사람들과 종교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믿기 시작했다. 이처럼 단종의 비극적인 죽음은 그를 신격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양위, 유배, 강요된 죽음, 시신의 방치 등은 단종이 죽었으되 온전히 죽지 못하는 요인으로 등장한다. 이것은 단종의 영혼이 원혼(冤魂)의 성격을 띠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단종은 신격화를 통하여 이승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그의 죽음을 아파하는 사람들은 그를 신으로 섬김으로써 그로부터 가호를 빌 수 있었다. 단종은 자신의 죽음과 동시에 태백산으로 들어가 산신(山神)이 되었다고도 전해진다. 죽었던 단종이 죽음을 극복하고서 백마를 타고 태백산신이 되기 위하여 태백산으로 갔다는 전설 등이다.

단종은 당대의 정치적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제사를 받을 수 없었다. 가혹한 핍박 속에서도 단종은 비밀리에 서서히 제사를 받기 시작했다. 그가 죽은 지 15년이 지난 성종 3년(1472)에 죽은 단종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다. 그것은 단종을 부처와 동일시하여 그가 오른쪽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는 출생의 신비가 강조됨으로써 신격화하는 무리가 생긴 것이었다. 평범하지 않은 그의 출생 자체가 단종을 비상한 인물 또는 부처와 견줄 만한 신적 존재로 믿게 하는 토대가 되기도 하였다. 민간에서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백성의 집단적 표상 및 패배의 역사적 경험을 반영하여 자신들의 영웅을 만들어냈다.

또한 단종은 구체적인 직능을 지닌 신령으로 인식되었다. 남효온(南孝溫, 1454~1492)의 『추강냉화(秋江冷話)』에는 "매양 밝은 새벽에 대청에 나와서 곤룡포를 입고 걸상에 손수 앉아 있으면 보는 자가 일어나 공경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경내가 가물어 향을 피워 빌면 비가 쏟아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단종이 기우(祈雨)에 효험을 나타내는 신령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농본국가인 조선에서 단종이 비를 내리는 신령으로 인지되었다는 사실은 그가 매우 비중 있는 신격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17세기 중반에 들어와 재이(災異)를 소멸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국가 차원에서 단종을 제사 지냈고, 민간에서도 단종을 본격적으로 신령으로 모시기 시작했다.

지역사례 단종에 대한 신앙은 단종에 대한 공식적인 사묘 건립과 무관하지 않다. 중종 11년(1516)에 단종에 대한 공식적인 제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영월에는 상식을 벗어난 흉사(凶事)가 일어났다. 중종 36년(1541)에 영월에 부임한 군수가 7개월간 3명이나 사망하고, 전염병이 유난히 창궐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영월 지역민들은 이러한 흉사의 원인이 모두 단종의 원혼이 빌미가 되었다고 믿었다. 영월 지역민들은 국가의 공식적인 치제에 만족하지 않고 일반 백성들과 종교적으로 맺어지고 싶은 단종의 바람이 그러한 흉사를 유발시켰다고 믿게 되었다. 그 결과 성황사의 후신인 영모전(永慕殿)이 건립되고, 단종은 지역신령이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단종은 영월 일대에서 오늘날까지 마을의 신령 또는 무신으로 숭배되고 있다. 영월에는 "인간이 단종을 보살피지 않으면 도깨비가 보살핀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단종과 신적 존재들의 관계가 밀접하다.

영월에서의 단종 숭배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그가 사후에 태백산의 산신이 되어서 갔기에 태백산 일대에서 그를 태백산신으로 관념하는 것과 영월에서 태백산에 이르는 지역의 마을들에서 단종을 주신으로 모시는 것이다. 태백산은 이 지역의 명산으로서 조선 전기부터 현재까지 영산(靈山)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영월에서 활동하는 강신무(降神巫)는 일 년에 수차례나 이 산에서 '산맞이'를 한다. 이곳에는 무당이 단종의 현몽을 받아 세웠다는 단종대왕비각이 있다. 단종이 태백산신이 되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그곳에서 기도하는 무속인들에게 재인식되고 있다. 영월에 거주하는 무당들은 단종을 몸주로 모시거나 굿을 할 때 단종을 주된 신으로 청배하는 일이 많다. 이들에게 있어 단종은 중요한 신령이어서 이들은 굿을 통하여 영월의 지역민들에게 단종에 대한 믿음을 확산시켜 간다.

단종을 모시는 마을은 태백산을 중심으로 영월군, 태백시, 봉화군 일대에 분포한다. 그 마을들에는 단종이 생존 시에 어떤 형태로든 마을과 연관을 맺었음을 강조한다. 단종이 마을에 들러 잠시 쉬었다거나 그가 띄운 연이 마을에 닿았다거나 하는 등의 당설화가 전해진다.

단종은 영월 지역에서 마을신, 무신으로서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까지 깊이 관여한다. 영월 지역민들은 혼인이나 회갑 잔치를 치른 후에 청령포에 들러 단종유지비각 앞에서 모든 일이 잘 치러졌음을 고한다. 이뿐 아니라 단종대왕이라 불러서 항상 경의를 나타내는 생활습관도 있다. 이처럼 영월 지역에서 단종은 신앙생활뿐 아니라 의례생활에까지 깊이 관여하는 살아 있는 신령으로 존재하고 있다.

참고문헌 장릉에 향을 사르며(엄흥룡, 단종제위원회, 1996). 단종의 신격화 과정과 그 의미(김효경, 민속학연구 5, 국립민속박물관, 1998).
필자 김효경(金孝慶)

단풍맞이굿

정의 단풍맞이굿은 가을의 햇곡식을 거두고 자연의 풍광에 걸맞게 가을걷이를 밑천 삼아서 올리는 천신(薦新)굿.

내용 단풍맞이굿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지역은 개성과 서울 인근으로 굿에서 널리 사용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굿에는 각 절기와 관련해서 절기별로 특별히 발달한 굿들이 존재한다. 단풍맞이굿은 세시절기와 관련된 굿이다. 세시절기와 관련하여 올리는 굿은 봄에 꽃맞이굿 · 잎맞이굿, 가을에는 단풍맞이 · 신곡차림 · 햇곡맞이 등의 명칭을

붙여서, 그 특별한 시기적 성격을 부각시킨다. 특히 가을에 올리는 신곡차림이나 햇곡맞이 등의 명칭에서는 가을걷이 후에 추수감사제와 같은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으로, 1년 농사를 마친 후 농사가 잘 된 것에 대해서 신에게 감사를 올리고, 그 결과물을 제물로 삼아서 그 가족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굿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감사의례는 일반 가정집에서 무당을 불러서 하루 또는 이삼일에 걸쳐서 하는 굿과 무당이 스스로 자신이 모시는 신들을 위해서 하는 굿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 가정집에서 무당을 초대해서 굿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추수감사제의 성격이 분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농사를 짓는 집에서 각 가정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 삼년두리 또는 매년 의례를 햇곡맞이로 올리는 것이다. 특히 일반 가정집의 햇곡맞이에서 주요한 굿거리는 가신(家神)에 대한 의례이다. 제석, 텃대감, 성주, 터주지신 등 가신으로 모시는 신격들에 대한 의례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가을에 성주나 제석의 신체를 대신해서 모셔둔 쌀이나 성주대를 새롭게 대체하는 행위가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무당이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가을에 하는 굿을 단풍맞이라고 할 수 있다. 단풍맞이와 같은 무당의 굿을 서울 지역에서는 진적굿이라고 부른다. 진적굿은 포괄적인 명칭이고, 이를 세 시절기의 자연풍광과 곁들여서 말할 때에는 이름을 달리해서 단풍맞이라고 하는 것이다.

봄과 가을에 걸쳐서 무당의 집안에서 자신의 조상을 위하는 굿을 하는 이유는 쉽사리 해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신이 자신의 몸주와 명산대천의 신을 서로 의사소통시키는 행위가 진적굿인데, 가을에 한 차례 신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단풍맞이굿이라고 할 수 있다.

진적굿의 단풍맞이굿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는 것은 덕물산의 최영 장군을 뵙고 오는 일이다. 개성 덕물산에 있는 이 장군당을 상산(上山)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장군당이 산상에 위치해 있기 때문으로, 서울 지역의 무당들은 특히 최영 장군을 만산의 조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곳을 다녀와야 온전한 단풍맞이굿을 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 이 산상을 다녀오고 나서 단풍맞이굿의 내용도 매우 복잡한 구성을 하게 된다.

단풍맞이굿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것의 요점은 네 가지이다. 첫째, 청계배웅 굿거리가 있다. 청계배웅은 개성 덕물산에 있는 청계당의 신격인데, 광대의 넋과 함께 있으며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는 존재이며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신격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이 신을 보내야만 맑은 신을 위할 수 있다고 관념하는 굿거리이다. 이 신을 보내기 위해서 무당에게 조밥을 끼얹고 청계벗기기를 한다.

둘째, 제당맞이라는 거리를 행한다. 제당맞이는 개성 덕물산에 다녀오는 과정에서 모셔오는 여러 신들의 맞이굿에 해당한다. 가령 산상에 있는 여러 신격을 비롯해서 수영반장에 있는 밥할머니까지 수도 없이 많은 존재를 하나의 상에 모셔놓고 신맞이 행사를 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연상산, 수영반장, 금성당, 선바위, 화주당 등의 여러 신격을 모셔오는 굿거리를 행하는 것이 이 굿거리의 전반적 특정이라고 하겠다. 제당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무속에서 성지의 으뜸으로 여기는 당의 신을 모시는 것이 이 굿거리의 특징이므로 이렇게 제당맞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면모를 과시하게 된다.

제당맞이를 행하는 때에 이를 제당도령이라고 하는 독특한 굿거리를 행한다. 상산을 돌아오면서 그 인증표식으로 받은 물고종이를 들고서 굿을 하는 것으로, 앞서 굿을 하기 전에 상산을 돌아온 노정을 다시 한 번 굿판에서 재연하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그 연행 방식은 마치 진오기굿에서 대상과 영실상을 싸고도는 도령돌기와 흡사하다.

셋째, 산바라기라는 굿거리를 연행한다. 천궁불사맞이와 제당맞이를 한 뒤에 산바라기라는 독자적인 굿거리를 하게 되는데, 이 굿거리는 흔히 산신도당거리라고 하는 것인데, 단풍맞이굿과 같은 굿거리에서는 아주 독자적인 구성을 하는 것이 예사이다. 산바라기 종이를 들고서 세 단계의 틀로 된 공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산바라기와 본향바라기를 연속으로 하는 과정에서 바라기의 굿을 하는 신청배의 독자적인 방식이 있는데, 이 굿거리 구성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제당의 신과 단풍맞이를 하는 신격의 구성과 합치는 내용이다.

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 바로 이어서 하는 것이 곧 겨느리새참 또는 겨누리새참이다. 진적상에 있는 여러 음식상을 헐어내어 만신과 전악에게 음식을 공궤하는 일이 이어진다. 흔히 이를 두고 "만신의 진적을 가려느냐, 새남을 가려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만신과 전악이 대접을 받는 굿이 바로 단풍맞이와 같은 굿임을 알 수가 있다. 겨느리새참으로 먹는 음식이 아주 푸짐하고 갖가지 음식을 모두 차리기에 만신의 생일상과 같다고 흔히 이른다.

넷째, 여느 굿거리들의 연행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특별하게 연행하는 굿거리가 회정맞이이다. 회정맞이는 흔히 진적굿에서 제당맞이와 대응하는 독특한 굿거리이다. 회정맞이는 제당에서 오신 신격을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가라고 배웅하는 굿거리이다. 굿을 할 때에는 제당맞이로 청좌하고, 굿을 마칠 때에는 회정맞이로서 가시라고 하는 것이다.

단풍맞이굿의 의의는 몇 가지로 요약된다. 자연의 순환과 함께 질서를 구현하는 것이 이 굿의 의의이다. 자연에 순응하면서 이것에서 얻어진 곡식을 중심으로 하여 굿을 하면서 신에게 감사의 의례를 구현한 것이 바로 단풍맞이굿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과 신의 화합이다. 만신이나 개인 단골집에서 모시고 있는 신격과 명산대천의 신격을 서로 화합하게 하고 결국에는 신의 이름을 빌어서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 행위를 돕는 것이 바로 단풍맞이굿이다. 굿하는 집안 개인의 의례가 아니고 굿판을 통해서 잔치를 구현하는 것은 바로 신의 잔치이고 인간의 잔치판이 되는 것이다.

지역사례 단풍맞이굿은 수확으로 인한 안택굿으로 거의 전국적인 현상이다.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울진에서는 광과 같은 공간에 세존고리를 모셔두고 제사를 지내고 이곳에 햇곡식을 담아 드었다가 매년 가을 햇곡식으로 바꾼다. 이때 화랭이와 무녀를 불러 굿을 하는데, 집에서 주인네들끼리 가신도나 지신도를 하기도 한다.

또한 함경도 일대에서는 10월에 지신제를 올리는데, 햇곡물로 달떡을 만들어서 큰방 · 대청 · 주방 · 고방 · 앞마당 · 뒷마당 · 우물 · 문 · 뒷간 등에 제사 지낸다. 특히 평북 박천 지방의 민가에서는 뒷마당에서 터주대감을 제사지내고 매년 10월 햇곡으로 만든 떡과 특별히 제를 위해서 사육한 대감돼지로 안주인이 제사지내는 풍습이 있다고 한다.

그 외에도 경북 경주 지방의 손고사, 경남 마산 지방의 가실생기굿, 전남 순천과 해남 지방의 절기 등이 모두 같은 맥락에서 안택의 수확이다.

참고문헌 김금화의 무가집(김금화, 문음사, 1993), 조선무속의 연구(赤松智城 · 秩葉隆, 심우성 역, 동문선, 1991).
필자 김은희(金銀姬)

상호참조 꽃맞이굿(136쪽)

당떡

정의 당을 매고 당에 올리는 떡을 총칭하는 말.

내용 당에 올리는 당떡에는 편을 세 켜 올려놓고 여기에 웃기를 올려놓는 달떡 · 장구떡 · 벙거지떡 등이 있는데 이런 떡을 총괄해서 당떡이라고 한다. 전통적인 방식의 굿은 굿을 청한 재가집에서 했으므로 신이 거처할 수 있도록 집에 사위삼당을 매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사위삼당을 매고 여기에 정성을 들이는 일을 하였다. 서울 만신의 진적굿 사설에서 다음과 같은 대목이 발견된다. '오를 반도 열두 반 내릴 반도 아홉 반에 나비 앉은 꽃반에 새 앉은 잎반이요 안상에는 내리 받고 궁상에 높이 받고 공상에 재천하고'라는 사설에서 사위삼당을 매고 굿상을 각각 차린 전통을 확인할 수 있으나 현재는 집에 당을 매는 전통이 사라져서 이러한 사실이 잘 조사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당을 맨 곳에는 일단 한지를 깔아서 놓고 앞에서 말한 대로 떡을 놓는다. 이 떡은 매우 중요

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편은 세 켜를 올린다. 편을 올리는 이유는 만신의 굿에서 집안과 만신이 평안하라고 하면서 올리는 것이다. 달떡은 일월성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둥그런 떡을 올리게 된다. 장구떡은 만신이 항상 굿하는 일이 있어 장구채를 놓을 새도 없이 장구를 두드리라는 뜻으로 올리는 떡이고, 병거지떡은 안올림병거지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대감이 조종이기 때문에 올리는 떡이다. 이렇게 당에 떡을 놓으면 당은 그 신의 차지가 되기 때문에 당떡에는 높은 신들을 좌정하게 하고 그 신들에게 일정한 음식을 공궤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지역사례 서울굿에서처럼 당에 당떡을 올리는 사례를 전국적으로 모두 확인할 수 없지만 황해도굿과 제주도굿에서 유사한 형태를 찾을 수 있다. 황해도굿의 다음과 같은 사설에서 우선 신을 모시는 당을 확인할 수 있다.

> 오를 반두 열두 반 내릴 반두 열두 반 스물네 반 거동 속에/
> 내려 깔아 화몽석 치깔아서 용몽석 돋아 깔아 별몽석에/
> 안당 밧당은 내외 삼당을 둘러매고 서리당 둘러매고/
> 안당 밧당을 꾸며 놓고 사위 삼당을 배설해서 구비당을
> 꺾어놓고/
> 백마지 너울 속에 홍마지 그늘 속에/
> 열두 줄에 거문고요 만근다리 태징소리 천근다리 제금소리

황해도굿에서 당을 매고 올리는 떡은 입쌀반대기, 수수쌀반대기, 차좁쌀반대기 등의 감흥반대기로 준비한다. 반대기떡은 일종의 호떡과 비슷한 크기로 앞뒤가 동일한데 이를 당떡으로 사용한다. 서울의 당떡과 매우 다르고 전통에 차이가 있지만 안당과 밧당을 매고 신찬으로 떡을 올리는 관념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굿에서는 당을 매는 것을 달리 일러 '당클을 맨다'고 한다. 당클의 숫자에 따라 ㅅ당클, 삼당클 등으로 지칭한다. 제주도에서 당클을 매는 것은 육지에서 당을 매는 것과 같은 관념이다. 당클에는 주잔삼잔과 떡 등을 올린다. 이때 올리는 떡이 바로 돌래떡이다. 돌래떡은 바로 황해도의 반대기떡과 아주 유사하게 생겨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서 의미가 상통하는 관념의 물질적 소산이다.

황해도와 제주도 굿에 비해 서울굿에서 사용하는 당떡이 조금 유다르게 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발상은 모두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집안의 평안을 위해 굿을 할 때 당을 매는 것으로 신을 초청하고, 그 신을 위해 놓는 떡이 당떡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당떡이 달떡 · 해달반대기 · 돌래떡 등의 형태를 띠는 이유는 천상의 질서를 지상에 실현하고, 일월성신의 질서를 굿판에 구현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굿을 할 때 당떡을 올리는 전통은 전국적으로 모두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당떡의 실상만을 본다면 이 점이 명확하지 않으나 굿을 할 때 신을 모시는 당을 내당과 외당으로 매는 전통은 전국의 모든 굿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김금화의 무가집(김금화, 문음사, 1993), 무 · 굿과 음식 1(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필자 시지은(施知恩)

당맨심방

정의 마을의 본향당을 담당하는 심방으로 '본향당을 맨 심방'이란 뜻이다.

내용 일반적으로 '당에 매어 있는 심방'이란 뜻 보다는 '본향당을 맨 뛰어난 심방'으로 해석해 할 것이다. 많은 심방들 중 마을에 하나 밖에 없는 본향당을 맨다는 것은 마을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당을 맬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각 마을에는 당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심을 이루는 것은 본향당이다. 본향당에 좌정한 본향당신은 마을 주민들의 생살여탈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향당은 마을 사람들이 가장 경외감을 갖고 있는 당이기도 하다. 제주도 무속제의에서 일반굿을 할 때도 본향당신을 중요하게 모시며 저승차사가 사자(死者)를 저승으로 데려갈 때도 본향당신의 허락을 받는 내용이 있다.

당맨심방은 본향당에서 행해지는 마을굿의 사제자이기 때문에 한 마을에 한 명만이 존재한다. 하지만 근래 들어 심방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당맨심방이 없는 본향당들이 발생하고 있다. 단골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맨심방을 다른 마을에서 모셔오기도 하는데 한 심방이 2개 이상의 마을을 맡아 당맨심방의 직분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으며 당제일이 같은 경우 다른 마을의 당제일을 변경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제주도무속연구(현용준, 집문당, 1986), 제주도 무가본풀이 사전(진성기, 민속원, 1991),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각, 2007).
필자 강권용(康權用)

당산맞이굿상

정의 서해안 · 남해안 풍어굿이나 동해안별신굿 등에서 행해지는 당산맞이굿을 할 때 차려지는 제상.

내용 당산맞이굿은 마을의 수호신인 당산신을 맞이하는 굿거리로, '당신맞이'라고도 한다. 경기도 김포 대명리 대곶면 풍어굿 중에는 부정풀이 다음에 당맞이가 있다. 당맞이는 서낭신을 모셔다 굿제장에 좌정시키는 과정이다. 이때 당맞이의 상차림으로는 맨 앞줄에 삼색실과(밤 · 대추 · 감)와 술과 향로를 놓고 가운데 줄에는 삼색나물 · 명태전 · 호박전 · 술(2잔) · 삼색나물을 놓는다. 맨 뒷줄에는 팥시루에 북어를 올리고 조 · 수수 달반대기(반대기 : 곡식 가루를 반죽한 것으로, 편편하고 둥글넓적하게 만든 조각), 해반대기, 백설기시루 위에 쌀주발과 고깔을 올려놓는다.

동해안 지역에서 행하는 별신굿 중에는 '당신맞이'가 있다. 마을의 수호신인 당신(堂神)을 맞이하는 의식이다. '부정굿'과 '골매기 청좌굿' 다음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된다. 무녀와 제주(祭主) 일행이 굿청을 떠나 당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당 앞에 제물을 진설하게 된다. 제물은 메 · 떡 · 적 · 과일 · 부침개 등이며, 촛대 · 향로를 놓는다. 무당이 간단하게 축원을 하고 제관들이 헌작을 한다. 다시 무당이 축원과 덕담을 한 후 소지(燒紙)를 올린다. 음복을 하고 골매기대에 신을 내려서 마을의 공동관심사를 점쳐 본 후 굿청으로 다시 내려온다.

지역사례 부산시 기장군 두모포 풍어제에서 무당이 부정굿을 한 후 당산할머니당과 당산할아버지당에 가서 당맞이굿을 한다. 이때 굿상에는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올리지 않고 밥, 쇠고기탕수(쇠고기국), 나물, 인절미, 도미, 북어, 과일, 막걸리 등을 올린다. 당산할머니당과 할아버지당의 제물은 동일하다.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0(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무 · 굿과 음식 3(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필자 김태우(金泰佑)

당진안섬당제

정의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안섬[內島]'에서 새해를 맞이하여 풍어를 기원할 목적으로 음력 정월에 올리는 '당굿', '당제' 또는 '풍어제'. 이 굿은 2001년 6월 30일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35호'로 지정되었다.

역사 당진안섬당제의 유래는 분명치 않으나 400여 년 전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마을에서는 주민의 꿈에 신령이 나타나서 계시를 내렸다고 한다. 옛날에 어느 노부부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 외롭고 적적한 나날을 보내던 부부는 어느 날 꿈에 신령이 나타나서 이르기를 "너희가 당을 짓고 잘 위하면 마을이 형성되고 하는 일이 잘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 뒤로 당을 짓고 매년 당제를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내용 제당은 마을의 서북쪽 야산에 위치한다. 당내

주벽에는 본래 3개의 선반이 나란히 안치되어 있다. 앞에서 보았을 때 중앙을 본당, 좌측을 장군당, 우측을 소당 또는 각시당이라고 부른다. 삼위의 신격 가운데 본당신은 절대적인 존재인 용으로, 당할아버지 또는 진대할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런 까닭에 1990년대 화재로 소실된 당집을 새로 건립하면서 용 그림을 봉안했다. 장군당은 임경업 장군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소당은 소당애기씨 또는 소당각시로 칭하는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여성인 서낭신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소당에 올리는 폐백은 청홍색의 옷감과 미역이다. 그런데 안섬 일대에서 파다하게 퍼져 있는 설화에 따르면 이들 세 마을에서 모시는 당신은 가족관계를 이룬다고 한다. 즉 안섬의 본당에 좌정한 주신은 용신인 할아비당(남편), 한진은 여성인 큰할미당(큰마누라), 성구미는 작은할미당(작은마누라)으로 각각 인식되고 있다.

해마다 동짓달 그믐에 열리는 대동계에서 제일의 택일 및 당주의 선출, 제수비용 등 당제와 관련된 제반 절차가 논의된다. 먼저 제일은 새해 첫 용날[上辰日]로 잡되 첫 병진일(丙辰日)과 정월 초하루는 피하는 게 관례이다. 첫 병진일을 꺼리는 이유는 병의 발음이 질병을 뜻하는 병(病)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월 초하루에 용날이 들면 날짜를 연기하는데 이는 마을 사람들이 설 차례를 지내야 하는 까닭이다. 이처럼 제일을 굳이 용날로 정하는 것은 본당에 모신 당신(堂神)이 속칭 진대할아버지(뱀)로서 바다를 관장하는 용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안섬에서 당할아버지는 용이라 하지 않고 흔히 뱀에 빗대어 진대할아버지로 부르는데, 뱀은 곧 용을 뜻하므로 결국 본당에 좌정한 신격을 용신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때문에 정작 본당에는 뱀이 아닌 용의 화상을 그려놓았다. 이처럼 뱀의 존칭인 진대 또는 진대서낭을 모신 사례는 태안 황도 당제, 보령 장고도 당제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들 도서지역의 당제에서 공통적으로 전승되는 속신은 돼지를 극히 꺼려한다는 점이다. 돼지는 곧 뱀과 상극인 까닭에 돼지고기를 당제의 제물로 쓰지 않을 뿐 아니라 먹어서도 안 되고, 심지어 평소 주민들이 돼지를 사육하는 것조차 금기시했다.

당제를 주관하는 제관은 생기복덕(生氣福德)을 보아 당주 · 주감 · 당화장을 선출하되 집안에 초상이나 출산, 달거리 등 부정이 없는 정갈한 사람이어야 한다. 당주는 풍어당굿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제수 준비, 제장 관리, 당제 진행 등 전반을 주관한다. 주감은 당주를 보좌하여 그 실무를 집행하는 임무를 띤다. 그리고 당화장은 주감의 지시를 받는 사역인으로 3, 4명을 뽑는다. 이들 사역인은 당제와 관련된 잡역을 도맡아 한다. 이들 중에서 당주와 주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당굿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그런가 하면 주부라 하여 당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갹출하는 사람도 대동계에서 선정한다. 당제에 필요한 경비는 대제(大祭) · 소제(小祭)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소제의 경우 500만 원 안팎이 소요되지만 대제는 퉁소를 구입할 뿐 아니라 여러 명의 무당과 악사를 초청하기 때문에 2000만 원 이상의 큰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 현재 당제의 비용은 충청남도와 당진군으로부터 일부 지원받고 있으나 과거에는 중선배를 소유한 선주만 40여 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마을 자체에서 모든 비용을 조달했다. 이때 각 호구를 방문하여 돈을 걷는 사람을 돈주부라 하고, 쌀을 갹출하는 사람을 쌀주부라 불렀다.

당굿이 임박하면 안섬마을은 활기를 띤다. 당주와 주감은 당집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왼새끼를 꼬아 금줄을 치고, 황토를 편다. 제수는 당진읍내로 나가 각 당에 진설할 제물을 골고루 준비하되 값을 깎거나 흥정을 벌이지 않는다. 말을 할 수 없으므로 손짓이나 눈짓으로 대화를 나누고, 구입한 뒤에는 서둘러 마을로 돌아온다. 제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제 때 올리는 황소이다. 실한 소를 고르면 다른 제물과 마찬가지로 달라는 대로 값을 지불한다. 시장에서 구입한 소는 진일(辰日)에 잡으며, 대동샘에서 목욕을 시킨 다음 당산으로 끌고 올라간다. 이때 무당이 기다리고 있다가 부정풀이를 해 준다. 제주로 사용될 조라술은 섣달그믐날 당집을 도배한 후에 직접 담근다. 이 술은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잘 익는다고 한다. 본당과 장군당에 진설될 해적은 새해 첫 출어를 한 어민이 잡아온 준치나 숭어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 당집 입구에 매달아둔다. 이것을 지숙이라고 한다.

안섬당제의 화려함을 더해 주는 장식물은 단연 뱃기와 봉죽기이다. 뱃기는 단색 · 삼색 · 오색으로 만든다. 이를 각각 외폭기 · 세폭기 · 오폭기라고 한다. 뱃기의 일종인 봉죽기는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만선의 기쁨을 알리는 깃발이다. 깃발의 최상부에 꽃장식을 길게 늘인 서리화를 매고, 그 아래에 청 · 홍 · 백의 삼색 또는 노랑과 초록을 더해 오색천을 달았다. 서리화는 임금이 과거 급제자에게 내리는 어사화를 모방한 것이다. 곧 출어를 떠난 중선배가 예상보다 많은 어획량을 올렸을 때 봉죽기를 만들어 상부에 꽂고 신명나는 배치기를 하며 포구로 돌아오면, 마을 사람들이 마중을 나와 반갑게 맞이한다. 이는 고기잡이에서 장원을 하였다는 뜻이다.

당진안섬당제는 새해를 맞이하여 마을의 당산에 좌정한 수호신에게 풍어 및 고깃배의 안전을 기원하는 의식이다. 제차는 본제, 당굿, 뱃고사, 거리굿, 지신밟기의 순으로 진행된다. 당일 오후 3, 4시가 지나면 당주와 무당, 선주들은 뱃기를 들고 당산으로 향한다. 당주와 보살이 앞장서고, 그 주위에 풍물패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연방 길군악을 울린다. 그 뒤에는 선주들의 뱃기가 서열에 따라 길게 장사진을 친다. 서열은 배의 규모에 의해 결정된다. 행진 과정에는 일명 봉죽타령으로 불리는 배치기가 풍어의 소망을 담아 흥겹게 좌중을 압도한다. 당 입구에 이르면 잠시 행진을 멈추고 무당이 부정풀이를 한다. 이윽고 당에 도착하면 뱃기를 가지런히 세워 놓고 할아버지당 · 장군당 · 각시당에 제물 두 벌씩을 진설한다. 본제는 당주가 먼저 술을 따르고 세 당에 각각 재배한 다음 물러난다. 이어서 선주들이 뱃기의 순서에 따라 재배한다. 마지막으로 무당이 굿을 한 자리 하고 소지를 올린 뒤 저녁을 먹고 휴식을 취한다.

본제에 이은 당굿은 무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예전에는 대개 여섯 석의 굿으로 이루어졌다. 이른바 부정풀이, 본당굿, 대동굿, 어망굿, 지석굿, 하전굿이 그것이다. 첫 석인 부정풀이는 여느 굿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당굿을 시작하기 전에 부정을 물리치는 의식이다. 둘째 석인 본당굿은 당의 신령을 위해 축원하는 굿이고, 셋째 석인 대동굿은 마을의 무사태평과 가가호호의 재복을 기원하는 굿으로 무슨 일이든 잘되게 해 달라고 축원한다. 넷째 석인 어망굿은 풍어를 빌고 어선의 안전운항을 기원하는 굿이다. 이 과정에서 무당은 선주들을 대상으로 배소지와 선주소지를 올려 준다. 이어서 연장자 순으로 마을 사람들의 소지를 불사르며 축원을 해 준다. 다섯째 석인 지석굿은 원한에 맺혀 죽은 혼령이나 무주고혼을 위한 해원풀이로서 극락왕생을 빌어주는 굿이고, 여섯째 석인 하전굿은 당굿의 마지막 절차로서 마무리를 고하는 굿이다. 여섯 석의 굿이 모두 끝나면 명도를 가린다. 이는 당에 좌정한 신에게 이틀간의 치성을 잘 받았는지를 묻는 의식이다.

이튿날 당주는 아침 일찍 당에 올라가서 당굿을 한 제물을 선주들에게 분배한다. 이때 당화장과 주감이 "고사바구니 가져오시오"라고 신호를 보내면 선주들은 바구니에 자신의 이름을 써서 당집으로 들인다. 이 음식을 당맞은 음식이라고 하며, 선주들의 바구니마다 골고루 나누어 담는다. 이어서 무당은 당집에서 가져온 뱃기를 차례로 대쌀바지에 세우고 공수를 내린다. 이 같은 행위를 신 받는다고 한다. 그리고 뱃기마다 길지를 매어 깃손을 달아주면 각자 음식을 자신의 어선으로 가져가서 뱃고사를 지낸다.

뱃고사를 마치고 오후가 되면 장승제 · 용왕제(샘제) · 거리제(서낭제)가 거행된다. 안섬에서는 이를 일러 '거리굿 나간다'고 표현한다. 안섬은 바다로 막혀 있는 북쪽을 제외하고 동 · 서 · 남쪽 세 방향에 장승이 위치한다. 당굿 하루 전날에 인근의 야산에서 장승목을 베어와 마을 입구에 각각 남녀 한 쌍씩 6기의 장승을 세운다. 장승제는 당집 입구의 장승 앞에 제물을 차려 놓고 무당이 치성과 축원을 드린다. 그런 다음 마을 안에 위치한 대동샘에서 용왕제를 지낸다. 이어서 무당과 풍물패는 마을 한복판 사거리로 나가 거리제를 올리고, 나머지 두 곳의 장승에도 제를 지낸다. 이즈음이 되면 날이 어둑어둑해지며, 풍물패는 밤이 늦도록 가가호호를 돌며 지신밟기를 한다. 지신밟기

는 하루를 넘겨 이튿날 오전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해서 모든 절차가 갈무리되면 대동회의를 열고 비용을 결산한다.

의의 당진안섬당제는 이웃한 한진과 성구미 마을의 당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흥미롭게 본당의 신이 남편 · 부인 · 첩실의 관계를 이루는 것은 당제의 형성 과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임경업 장군으로 추정되는 장군신을 함께 모시는 등 안섬 일대의 당제는 조선 후기 이래 중선배를 이용한 연평도 조기잡이의 관행이 일정하게 반영된 산물로 이해된다. 이는 안섬과 동일한 성격을 지닌 홍성 성호리의 임장군당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듯이 조기의 신, 풍어의 신으로 숭앙을 받는 임경업 장군은 조선 후기 어업생산력의 변화와 더불어 이미 18세기 초 · 중엽에 서해안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된 새로운 당신앙이었다. 실제로 지난날 전형적인 어촌의 면모를 지니고 있던 안섬 사람들에게 연평도 근해의 조기잡이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고, 임 장군의 조력 여하에 따라 출어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믿어 왔다. 이런 까닭에 해마다 신년의 례로 마을 앞 당산에서 수호신인 당신(堂神)을 맞이하여 풍어를 빌고 뱃길의 안전을 기원하는 성대한 당굿을 베풀었던 것이다. 이러한 당맞이(당맞이굿) 의식은 서해안 당제의 연행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당진의 민간신앙(이인화, 당진문화원, 1996), 도서지(충청남도 · 한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1997), 한국의 마을제당 –충청남도편(국립민속박물관, 1998),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서해안배연신굿(하효길 글 · 송봉화 사진, 화산문화, 2002) 안섬풍어제(이인화, 도서출판신화, 2003), 당진풍어굿(박종익 · 송봉화, 당진문화원, 2003),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안섬 당제의 실상과 활로 모색(박종익, 한국민속학 39, 한국민속학회, 2004), 조선후기 홍성 성호리 동제의 성립과 신격의 변화(강성복,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0권 2호, 역사문화학회, 2007).
필자 강성복(姜成福)

당클

정의 집안굿을 할 때 마루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설치하는 신의 좌정처.

내용 제주도굿에서 상방(마루)의 벽에 선반을 매어 놓은 것을 당클이라 한다. 네 벽에 선반을 매어 놓으면 '사당클', 세 벽에 매어 놓으면 '중당클'이라 한다. 당클의 숫자를 통해 큰굿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당클은 굿을 하기 전에 심방들이 상방(마루)의 벽에 설치한다. 이때 넓은 선반을 가로로 놓고 양 끝에 줄을 매어 고정시킨다. 당클에 모셔지는 신의 호칭은 마을마다 조금씩 다르나 마을영개, 시왕, 문전 · 본향, 삼천전제석궁의 네 개 당클로 나뉜다. 당클의 위치도 마을마다 다르다.

당클은 신의 중간 좌정처로, 큰대에서 집으로 내려온 신이 머무는 곳이다. 초감제를 비롯한 청신의 과정을 통해 1만8000신이 내려오면 그중 앞에서 언급된 신들이 당클에 좌정한다. 그리고 개별 의례가 진행된다. 제의에 따라 당클에 좌정한 신을 제장으로 불러들여 굿을 진행하며, 굿이 끝나면 다시 당클로 좌정한다.

당클 및 탁상에 좌정한 신들은 굿이 진행되는 아침마다 세수를 한다. 이를 '관세우'라고 한다. 진행 사항을 보면 먼저 사당클 및 탁상에 합장한 후 요령을 사당클 주위로 세게 흔들어 신들을 깨운다. 그리고 향로를 사당클 및 탁상에 올려 정화를 시킨다. 다음이 이 제의의 핵심으로, 그릇에 물을 담아 사당클 및 탁상에 떠올린다. 이것이 관세(盥洗)의 과정이다. 이후 수건을 올려 닦게 하고, 술을 올리는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며칠간의 개별의례로 굿이 진행되고 나면 제의에 따라 신들을 보내는 송신 과정을 하게 된다. 이 제차 중 당클을 철상하기 위한 제차를 '상당숙임'이라고 한다. 상당숙임은 당클에 올려놓은 쌀과 지전을 내려놓고 삼주잔(三酒盞)의 술을 댓잎으로 흩뿌리는 '삼주잔권잔'의 제차로 진행된다. 심방의 사설에 따라 신명이 불리는 당클과 탁상에서 삼주잔권잔이 이루어진다.

참고문헌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진성기, 민속원, 1991), 제주도무속연구(현용준, 집문당, 1986), 제주도무속자료사전(각, 2007).
필자 강권용(康權用)

대감(大監)

정의 무속에서 주로 재복(財福)을 담당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신. 서울 · 경기 지역과 그 이북 지역 무속에서 신앙되며, 한강 이남 지역 무속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무속의례인 굿에서 대감신을 위한 독립된 제차를 통해 모셔지며, 무신도(巫神圖)를 통해서도 모셔진다.

내용 대감신은 재복이라는 단일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대단히 복잡한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크게 나누면 신에게 바치는 제물을 기준으로 육식을 하지 않는 '소(素)대감'과 육식을 받는 '일반대감'이 있다. 이러한 구분은 황해도 무속에서 나타난다.

더 복잡한 유형 구분은 서울 무속에서 나타난다. 서울 무속의 굿에서 대감신을 모시는 대감거리를 보면 만신의 몸주신이 되는 대감, 최영 장군과 관련된 상산대감, 서울 지역의 주변 산과 관련된 도당대감(또는 부군대감), 서울 지역에서 중요시되는 여러 당(堂)과 관련된 대감, 굿하는 집의 공간 및 조상을 포함한 가족, 집의 생업, 자동차와 같은 집안의 물건 등과 관련된 대감신 등이 등장한다. 한마디로 가정이나 마을과 같은 일정한 공간을 전제로 하여 그 공간 및 공간에 속한 사물이나 인간들, 공간에서 이뤄지는 생업과 같은 삶의 활동 등과 관련된 다양한 대감신이 존재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만신몸주 대신대감/ 그연 상산대감 삼각산대감 인왕산대감 부악산대감 안산대감 밧산대감 닉외산에 왕릐대감 사외삼당 제당대감 한우물 룡궁대감 섯우물 룡신대감/ 선대부텀 조상대감 벼슬군웅대감 하라버지 제장(諸將)대감/ □씨 양위 몸주대감 직성대감 상남 차남 내외 몸주대감 직성대감/ 공장대감 영업대감 상업대감 여러 영업에 사무실 대감 여립대감/ 자가용대감/ 돼지업 대감 족제비업 대감 인업 대감 긴업 대감"

서울 무속에서는 대감거리에서 나타나는 여러 대감신을 '안대감(또는 웃대감)'과 '밖대감(또는 아랫대감)'으로 나누기도 한다. 안대감은 상산대감, 별상대감, 신장대감, 전안대감, 제갓집 군웅대감, 몸주대감 등이다. 밖대감은 도당대감, 부군대감, 터대감, 수문장대감 등이다. 안대감은 점잖기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놀지 않으나 밖대감은 떡이나 우족(牛足)과 같이 대감신에게 바친 제물을 가지고 논다.

일반적으로 대감거리의 진행은 굿하는 가정의 가족과 그 집에 관련된 대감을 나중에 놀고, 그 외의 대감들을 먼저 논다. 즉 상산대감 · 별상대감 · 신장대감 · 벼슬대감 · 군웅대감 · 사실대감을 먼저 놀고 난 뒤에, 도당대감 · 부군대감 · 살륭대감을 논다. 그런 뒤에 굿하는 집의 기주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대주와 기주, 큰아들 내외, 작은아들 내외의 순서로 남자 몸주대감과 여자 직성대감을 논다. 그다음에는 그 집의 생업과 관계된 상업대감 · 공장대감 · 영업대감 등을 놀고 마지막으로 집안의 공간과 관련된 터줏대감 · 업대감 · 수문장대감 등을 논다.

이러한 대감신은 어느 지역에서나 욕심이 많고 한 집안에 재복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그려진다. 이는 온갖 재물과 재수를 가져다주겠다는 대감신의 무가 사설과 굿에서의 대감신 행위를 통해



천신대감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가로 72.5㎝, 세로 100㎝ |
1950년대

확인된다. 재복신으로서의 대감신의 성격은 이른바 초복(招福)의 행위, 즉 우족을 가지고 놀다가 무언가를 긁어 들이는 동작이나 쾌자자락 또는 부채로 기주에게 복을 펴 담아 주는 동작 등을 통해 나타난다. 이러한 무당의 행위와 무가 사설은 대감신이 바로 집안에 재복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는 신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 준다.

한편 대감신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양면적 성격을 보여 준다. 즉 인간에게 재수와 복을 가져다주는 존재인 동시에 인간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존재로 나타난다. 대감신은 인간이 신에게 관심을 갖고 정성을 다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만약 오랫동안 이 기대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집안을 뒤흔들고 가족들을 아프게 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대감은 인간을 보살피고 재물과 복을 가져다주는 존재이면서 신에 대한 인간의 무관심과 무성의에 대해서는 화를 내고 인간에게 여러 문제를 일으켜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키기도 하는 양면적 성격을 지닌 신이다.

참고문헌 한국의 무(조흥윤, 정음사, 1985), 김금화의 무가집(김금화, 문음사, 1995), 한국무속에 나타난 신의 유형과 성격(이용범, 민속학연구 13, 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이용범(李龍範)

대감굿무가

정의 함경남도 함흥 등지의 재수굿에서 불리던 무가. 조상을 위로하는 성격을 띤다. 대감굿은 서울·중부 지역에서 집터를 관장하고 집안의 재운(財運)을 가져다주는 신을 모시는 성격이지만 함경도굿에서는 터주신이나 재물신의 성격보다 대감신의 무장(武將) 성격이 두드러진다. 특히 무가의 말미에 "아버지는 장군받기로 법을 내고, 어머니는 서낭받기로 법을 낸다"고 한 것으로 보아 장군신과 마을 수호신의 권능도 지닌 신격으로 파악된다.

내용 지정대감, 신장대감, 산령대감, 호기대감 등 각종 대감신을 청해 들인 뒤 짐달언이 무술을 연마해 적장을 물리치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는 내용의 서사무가가 구연된다. 전장에 나가 패장으로 죽은 짐미련의 유복자로 태어난 짐달언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자 4세 때부터 어머니 몰래 무술을 연마하고 좁쌀과 콩 등으로 군사를 만들고는 천리용마를 타고 압록강 건너 저 나라로 들어간다. 마귀할멈의 도움으로 구미호를 물리치고 용천검으로 적장을 베고는 아버지의 유골을 찾아 안장하고 돌아와 이제는 더 할 일이 없다며 자결한다는 내용이다.

채록 자료는 1965년 함경남도 함흥 출신의 강춘옥 무녀로부터 임석재·장주근이 조사하여 『관북지방무가(關北地方巫歌)』에 수록한 자료가 유일본이다. 당시 함경도 무가 조사에 참여한 지금섬, 김복순 등 무녀와 김태곤이 조사한 이고분 무녀 등도 〈대감굿무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채록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특징 함경도의 〈충렬굿무가〉와 함께 아기장수전설을 수용하여 무가로 형상화한 자료이다. 주인공 짐달언이 조속한 성장을 보인다는 점, 천리용마의 설정, 곡식을 부려 군사를 만든다는 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다는 점 등에서 아기장수전설의 면모가 잘 드러나는 무가이다.

참고문헌 관북지방무가(임석재·장주근, 문화재관리국, 1965), 이승과 저승을 잇는 신화의 세계-함경도 무속의 성격(임석재, 함경도 망묵굿, 열화당, 1985), 함경도 서사무가에 나타난 〈아기장수전설〉의 수용 양상(권태효, 한국구전신화의 세계, 지식산업사, 2005).
필자 권태효(權泰孝)

대감시루

정의 서울과 경기도 일대를 비롯해 관북과 관서 지역의 무속에서도 모셔지는 신령인 대감신을 위해 차려지는 제물.

내용 대감신은 특히 서울과 경기도 일대 무속에서 장군·별상·신장 등과 대안주거리라 불리는 절차 때 모셔진다. 대감신을 위한 제물은 대개 시루 형태로 차려진다. 이 제물은 대감시루라 불린다. 서울 지역의 경우 신사굿에서 대감상이 별도로 차려지는 것을 볼 수 있으나 다른 굿에서는 대개 시루로 차려지고 있어 경기도 일대의 양상과 동일하다. 대감신의 몫으로 차려지는 대감시루는 대개 팥시루떡에 북어나 쇠족 또는 막걸리 등으로 간소한 편이다. 한편 대감신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굿에 따라서는 다양한 대감신의 종류에 따르는 별도의 시루가 장만되기도 한다.

대감은 재가집의 수호신적 성격과 함께 재가집과 마을의 터 및 생업 등에 직접 관여하는 기능을 지니며, 마을을 수호해 주는 수호신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신앙의 양상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경기와 경기 이북에서는 무의 신령으로 받들어지고 있지만 충청도·전라도·제주도 지역에서는 신앙 양상이 약한 편이다. 관서와 관북 지방 무속에서 대감신은 서울·경기 지방과 같이 재복신적(財福神的) 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편이며, 장군신으로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무속에서 대감은 안대감과 바깥대감으로 나뉘는 신령으로, 도당굿이나 부군당굿 같은 마을굿을 비롯해 개인굿인 재수굿·새남굿·진적굿 등 다양한 굿에서 모셔진다. 여기에서 안대감은 윗대감으로, 바깥대감은 아랫대감으로 불린다. 이 가운데 윗대감은 최영 장군을 모시는 상신대감, 나랏대감인 별상대감, 오방신장 밑의 신장대감, 신장 앞에 있는 전안대감, 재가집의 벼슬한 조상인 군웅대감, 재가집의 몸주대감 등을 가리킨다. 아랫대감에는 마을신인 도당대감과 부군대감, 대문을 지키는 수문장대감, 텃대감 등이 속한다. 무속에서는 안대감과 바깥대감신 외에도 업대감, 텃대감, 도깨비대감, 식신대감, 복대감 등을 언급하고 있어 대감신의 종류와 수가 많은 편이다.

서울과 경기도 일대의 재수굿이나 마을굿의 대감거리에서는 텃대감을 놀리는 절차가 일반적이다. 이때 무당이 텃대감시루를 이고 장독대, 안마당, 뒤꼍 등 집안을 한 바퀴 돈다. 이는 텃대감의 영역을 순력(巡歷)하는 의미이다. 텃대감을 모시는 절차에는 텃대감시루를 무당이 막걸리 주전자를 들고 집 안의 이곳저곳에 떡을 던지고 막걸리를 부으며 굿을 연행한다.

대감신의 성격과 기능은 굿판의 모습과 공수덕담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굿판에서 대감거리는 대감놀음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연희성과 오락성이 가미되는 절차이다. 무가의 대감타령에는 대감신령이 청새주, 황새주, 낙화주, 백일주, 막걸리 등의 술에 갈비찜과 바디산적을 안주로 하여 풍류를 즐기는 욕심 많고 탐심 많은 신령으로 그려진다.

개인굿의 대감거리 공수덕담에서 "재수 열고 몸수 건강하고 일수 대길하게 상덕을 물어주마", "먹고도 남고 쓰고도 남고 흐르게 넘치게 생겨주마"라 하여 집안의 건강과 재복을 내려주는 신령임을 알 수 있다. 마을굿의 대감공수 덕담은 "우리 마을 면면촌촌 가가호호 각성받이 가중마다 다 벼 술줄두 생겨주구 글줄도 생겨주고 문장두 생겨주구 대학마다 척척 합격두 시켜주구 천장사 만영업에 사업두 이뤄주구"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마을의 번영과 마을 사람들의 재복을 이뤄주는 신령으로 인식된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굿의 여러 절차 가운데 대감거리의 연희성과 오락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주로 이 절차에 능한 무당이 초청되어 담당했다. 굿을 구경 온 사람들의 참여가 매우 활발했으며, 대감거리는 대감놀음으로도 불렸다. 서울 지역에서는 대감거리가 강한 오락성을 지녀서 도시화 이전에는 여가시설 등의 미비로 대감거리만 서너 시간 연행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지기도 한다.

참고문헌 한국무속연구(김태곤, 집문당, 1982), 무·굿과 음식(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서울굿의 양상과 의미(홍태한, 민속원, 2007), 무속·불교·유교를 통하여 본 식생활문화 및 그 의식절차에 대한 연구-서울 지방을 중심으로(김상보,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5).
필자 오문선(吳文仙)

대관령 성황사 및 산신당

정의 대관령 성황사는 강릉단오제의 주신인 대관령의 국사성황을 모시는 당. 산신당은 강릉단오제의 중요한 신격 가운데 하나인 대관령의 산신을 모시는 당이다.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4-255번지에 있다. 이 건물은 1984년 6월 2일에 '강원도 기념물 제54호'로 지정되었다.

형태 성황사는 '城隍祠'라는 현판이 걸린 17㎡ 정도의 3칸 목조건물로, 기와를 얹었다. 산신당은 목조 한 칸짜리 기와집으로, 건물 중앙에는 '山神堂'이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내용 성황사 정면에 대관령국사성황지신(大關嶺國師城隍之神)이라고 쓴 위패와 화분을 모셔 놓았다. 화분 속의 국사성황은 화살통을 메고 활을 든 장군이며, 백마를 타고 있다. 시종이 말고삐를 잡고 서 있고, 양옆에는 앞발을 내민 호랑이가 시위하고 있다.

산신당에는 강인간지오복(降人間之五福), 응천상지삼광(應天上之三光)의 글귀가 양 기둥에 쓰여 있다. 정면의 단 위에 대관령산신지위(大關嶺山神之位)라고 쓴 위패와 화분을 모셔 놓았다. 화분은 연꽃을 든 노인이 호랑이를 거느리고 있는 모습이다. 배경으로 산과 나무를 그리고 오른쪽 뒤에는 동자가 서 있다.

대관령 국사성황은 강릉단오제의 주신으로 신라 말에 실존한 범일(梵日, 810~889)국사를 믿고 있다. 범일국사가 국사성황으로 좌정한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해마다 음력 4월 15일 제관과 무당패, 강릉시민이 함께 대관령 국사성황을 모시러 올라간다. 성황사에서 유교식 제례와 무당굿으로 국사성황을 대접한 뒤 위패를 모시고 강릉 시내로 돌아온다. 대관령 국사성황의 위패는 단오제가 끝나는 날까지 신체로서 기능을 한다. 위패는 음력 5월 7일 '송신제'를 한 뒤에 소각한다.

대관령 산신당은 김유신(金庾信, 595~673) 장군을 모시고 있다. 대관령 산신이 김유신 장군이라는 전승은 1603년 허균(許筠, 1569~1618)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허균은 『대령산신찬 병서』에서 "명주 사람들이 5월 길일을 택해 대관령 산신인 김유신 장군을 모신다"고 하였다. 김유신이 젊었을 때 명주에서 공부하면서 산신으로부터 검술을 배웠고 명주 남쪽 선지사에서 칼을 주조하여 삼국을 통일하였다는 것이다. 죽은 뒤 대관령의 산신이 되었고, 신령스런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을 사람들이 해마다 5월 초하루에 팻대와 꽃을 갖추어 맞이하여 명주 부사에 모신다고 한다. 이 전통은 지금도 해마다 음력 4월 보름에 제관과 강릉시민들이 대관령에 올라가 산신당에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전승되고 있다.

대관령 성황사 위에는 산신당이 있고, 그 위에 용왕당과 칠성당이 있다. 대관령 국사성황은 영험하다고 소문이 나서 현재도 거의 매일 전국의 무당들이 성황사를 찾아와 굿을 하거나 치성을 드리고 있는 살아 있는 신앙처이다. 또한 대관령 산신이 영험하다는 믿음도 오늘날까지 전승되어 산신당을 찾아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

참고문헌 강릉의 서낭당(강릉문화원, 1999). 강릉단오제 백서(강릉문화원, 1999).
필자 황루시(黃縷詩)

상호참조 강릉단오제(028쪽)

대너리

정의 동해안의 경남 지역 굿에서만 사용하는 장단.

내용 대너리의 용도와 리듬의 구조는 조너리장단과 같다. 다만 징을 칠 때 조너리장단처럼 잔가락을 많이 넣어서 치지 않고 큰 박에 한 번만 치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부산 지역 남해안별신굿의 대너리장단과 같다.

참고문헌 동해안별신굿(장휘주, 국립문화재 연구소, 2002). 경남 · 경북 동해안 무악 비교연구(장휘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경상도와 전라도의 망자천도굿 비교 연구(오진호, 2007 문화관광부 선정 전통예술 우수논문집, 문화관광부 · 한국국악학회, 국악춘추사 2007).
필자 이영선(李英仙)

대너리춤

정의 대너리장단에 맞추어 추는 춤.

내용 남해안별신굿에서 춤은 크게 장단 또는 무구나 악기를 드는 것에 따라 구분된다. 대너리춤은 장단에 따라 붙여진 명칭이다. 대너리장단은 청신악이 끝난 후 무녀가 무가를 부르기 전에 절을 하고 춤을 추는 부분의 장단을 통틀어 말한다. 대너리춤은 연행되는 거리의 첫 부분에 행함으로써 시작을 알리며, 전체적으로 가장 많다. 대너리춤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추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성격이나 날씨, 즉 주변의 상황에 따라 길게 혹은 짧게 하기도 한다.

이 춤은 사제가 굿을 이끌면서 혼자 추는 춤으로, 춤 동작이 크지 않고 화려하지도 않다. 남해안별신굿의 다른 춤과 마찬가지로 발바닥을 보이는 일도, 도약도 없다. 발디딤은 회전동작이 많고 전 · 후진 동작과 좌 · 우 이동 동작, 간혹 즉흥적인 동작도 있다. 발디딤의 폭은 크지 않고 느리게 진행된다. 팔놀림은 두 팔을 좌 · 우 동시에 움직이는 좌 · 우치기, 두 팔을 양 옆 수평으로 편 자세에서 동시에 가슴 중심부로 모았다가 다시 밖으로 펴는 모으는사위, 주로 회전할 때 행하는 평사위, 올림사위가 있다. 이 가운데 모으는 사위와 평사위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대너리춤의 팔놀림은 발디딤과 마찬가지로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부드럽고 섬세하다. 다른 별신굿에 비해 활달하진 않으나 절제의 미를 지니고 있다.

남해안별신굿 무녀로는 정모연이 작고한 뒤 고주옥이 대모로 활동했으나 역시 타계하였고, 백정자와 김현숙이 활동하다가 2005년에 탈퇴하였다. 현재는 정옥이(이수자), 이선희, 노명덕, 하선주, 최인명화(전수자) 등이 활동하고 있다.


대너리춤
2000 | 국립민속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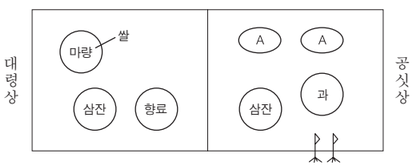
참고문헌 중요무형문화재 제82-라호 남해안별신굿(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남해안별신굿의 음악적 특징(허지현,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남해안별신굿과 동해안별신굿에 나타난 춤의 형태적 의미비교(이보영,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필자 민성희(閔盛熙)

대령상

정의 제주도굿에서 사용하는 굿상 가운데 하나.

내용 대령상은 '데령상' 또는 '도랫상'이라고도 한다. 대령상은 공싯상과 나란히 놓으며, 신에게 굿당에 청하여 오는 데 사용된다. 신은 강림할 때 맑은 정신을 통해 길을 따라오게 되는데 이때 그 신이 오는 길을 인도하는 것이 대령상이다.

이러한 내용은 심방의 굿문서 속에서 '천황 두리 지황 두리 인황 두리 삼두리 대전상'이라고 하는 용례 속에서 언급된다. 여기서 대령상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기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이 상의 굿 문맥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언급을 할 수가 있다. 전통적 방식으로 대령상은 심방의 왼편, 공싯상은 오른편에 각각 둔다. 현재는 이 방식이 바뀌어서 공싯상의 오른편에 대령상을 놓는다. 이 방법은 달라진 결과라고 보면 된다. 우리는 좀 더 전통적인 관점에서 이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그려서 보이면 다음과 같다.



A : 제상 위에 올리는 바닷물고기이다. 솔래기(옥돔), 조기 등을 쓴다.

대령상은 마량 또는 마령, 주잔삼잔, 향로향합 등으로 구성된다. 마량은 일종의 말 양식이다. 이는 신이 타고 오는 말의 식량으로 인지된다. 마량에는 세 가지 곡식은 좁쌀, 콩, 보리쌀의 세 가지 곡식을 둔다. 콩으로는 흔히 장콩을 둔다. 장콩은 장을 담그는 콩을 말한다.

천궁의 말, 신의 말, 인간계에 내려와서 말을 탄다고 관념하면서 삼곡마량을 준비한다. 삼곡마량은 쌀을 함께 두고 신이 오시는 길을 인도할 때 쓰기도 한다. 천문상잔에 쌀을 담아서 신칼로 이것을 뿌리기도 하면서 신이 오시는 정대우나 오리정 신청궤를 하기도 한다.

주잔삼잔은 신에게 바치는 술을 담는 잔이다. 주산삼잔의 첫째 잔은 청감주, 둘째 잔은 자청주, 셋째 잔은 흔히 자소주 등으로 구성한다. 세 가지 술을 잔에 채워서 이 잔을 기울이고, 버릴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한다. 한 번에 잔을 따르지 않고 거듭 부어서 잔을 채우며, 버리는 행위도 똑같이 한다.

향로향합에는 흔히 상불을 피운다. 이것은 인간세계에 오는 신의 길을 비추고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관념한다. 이 향로에다 향을 피워 신을 초청하는데,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향나무를 쪼개 넣어 피운다. 현재는 이 방식이 많이 바뀌었으며 일본에서 쓰는 향불을 가져다가 쓰는 경향이 있다.

제주도굿의 상은 상단 · 중단 · 하단의 공간 구성에서 작용한다. 상단에는 당클을 둔다. 당클이 몇 개인가에 따라 굿이 갈라진다. 당클이 없는 경우에는 탁상이라고 하며, 당클의 숫자에 따라 이름이 각기 다르다. 하나인 경우에는 연당클, 둘인 경우에는 고분연당클, 셋인 경우에는 고분중당클, 넷인 경우에는 만사당클이라고 한다. 중단에 상은 각기 상의 숫자나 신격에 따라 당클 아래에 군웅상, 할망상, 칠성상, 조왕상 등의 다양한 상으로 구성된다. 하단의 상은 공싯상, 보답상, 대령상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상단 · 중단 · 하단의 제상 구성 속에서 신의 위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굿상 차림의 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필자 김헌선(金憲宣)

대명왕사자기(大冥王使者旗)

정의 제주도굿의 시왕맞이에서 대명왕사자(大冥王使者)의 신체(神體)로 쓰이는 기메.

내용 대명왕사자기는 시왕[十王]에 따른 대명왕사자를 형상화한 기메이다. 기메는 제주도굿에서 종이를 오려 만든 무구를 말한다. 대명왕사자기는 시왕맞이에서 쓰인다.

형태 큰 한지를 이용해 사람의 형상과 닮게 오려 대명왕사자의 신체를 만든다. 눈, 코, 입 등의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팔과 손, 다리와 발 부분도 아주 구체적으로 만든다. 이런 대명왕사자의 신체 뒤쪽으로 첵지를 붙인다. 첵지는 사각형의 한지 한쪽 모서리 부분을 접어 삼각형 비슷한 모양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그런 다음 대명왕사자의 신체와 첵지를 푸른 잎이 달린 대나무 가지에 묶는다.



정미, 향로, 청수, 삼주잔, 술병이 올려진 대령상
제주도 서귀포시 가파리
요왕서낭굿 | 2008.3.28 | 김헌선

참고문헌 제주도 굿의 무구 '기메'에 대한 고찰(강소전, 한국무속학 13, 한국무속학회, 2006).
필자 강소전(姜昭全)

대모

정의 경상도 남해안 지역에서 여자 무당 가운데 큰 무당을 일컫는 용어.

내용 남해안 지역에서는 여자 무당을 '무녀', '대모', '소모', '승방' 등으로 지칭하며, 남해안의 무녀는 동해안 지역처럼 세습무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대부분의 무녀는 세습무가에서 태어나 세습무가로 출가하였다.

대모는 굿을 할 때 무녀 가운데 가장 어른 역할을 한다. 주무격으로서 마을 주민들로부터 굿을 받아 인원을 구성하고 굿을 주관한다. 예컨대 남해안별신굿을 할 때 대모는 마을로부터 굿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악사와 조무 등에게 연락하여 굿 날짜를 알리고 인원을 맞추어 짜서 굿을 한다.

남해안별신굿의 사제무로는 1989년 타계한 정모연(鄭模蓮)이 제일 손꼽히는 대모였다. 정모연은 세습무계인 아버지 정철주(鄭鐵柱)와 어머니 유선이(773쪽 정모연 참고)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무굿 기능을 익히다가 16세 때부터 굿판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정모연은 1970년대에 이르러 기 · 예능이 최고의 완숙기에 들었으며, 대모 중에서도 거의 독보적 위치에 있었다.

정모연이 작고한 뒤에는 고주옥이 대모로 활동했으나 역시 타계하였다. 고주옥은 세습무계인 아버지 고정운과 어머니 이필은 사이에서 태어났고 정모연의 오빠인 정봉호와 결혼했다. 어머니도 당시 대모로서 별신굿을 이끌었으므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무굿을 전수받았다. 전반적으로 굿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뛰어났던 고주옥은 정모연의 뒤를 이어 남해안별신굿의 기 · 예능 보유자로 지정을 받았으나 이듬해인 1990년 타계하였다.

참고문헌 남해안별신굿종합조사보고서(문화재관리국, 1996), 중요무형문화재 제82-라호 남해안별신굿(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한국 민속의 세계 9-기타신앙 · 민간신앙(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남해안별신굿 음악 현지연구(이용식, 한국무속학 6, 한국무속학회, 2003).
필자 유승훈(柳承勳)

대사산이

정의 경상도 남해안 지역에서 사용하는 말로 으뜸이 되는 남자 무당. 남해안 지역에서는 남자무당을 '양중', '고인', '산이', '잽이', '화랭이' 라고 지칭한다.

내용 양중은 남해안 굿에서 장구, 피리, 징 등의 악기를 치며 노래를 부른다. 이들은 무녀와 마찬가지로 세습무계 출신으로 어렸을 때부터 무속음악에 익숙해 있다. 남해안별신굿은 본래 부계 세습을 원칙으로 하였으므로, 남자들이 사제무 일행을 이끌고 지휘하였다. 이러한 남자 무당 가운데 대사산이는 굿을 전반적으로 관장하고 승방을 가르치는 일을 맡았던 것이다.

대사산이의 대표적 사례로서는 지난 1987년 작고한 박복률(朴福律)을 들 수 있다. 그는 유명한 양중 박경구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와 삼촌인 박재술에게서 피리, 대금, 장구, 징을 비롯해서 모든 악기를 배웠다. 19세부터 아버지를 따라 무굿 악사로 활동했으며, 피리와 대금 가락에서 뛰어난 솜씨를 발휘하였다. 박복률과 대모들이 연이어 타계한 후 현재는 정영만이 대사산이로서 남해안 굿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남해안별신굿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1980년대는 정모연 같은 무녀에게 별신굿의 지휘권이 있었다면 현재는 남성 악사인 대사산이의 역할이 강해진 추세이다.

참고문헌 남해안별신굿종합조사보고서(문화재관리국, 1996), 중요무형문화재 제82-라호 남해안별신굿(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한국 민속의 세계 9-기타신앙 · 민간신앙(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1), 남해안별신굿 음악 현지연구(이용식, 한국무속학 6, 한국무속학회, 2003).
필자 유승훈(柳承勳)

대상

정의 서울굿에서 관성제군과 최영 장군을 위해 차리는 굿상 가운데 하나.

내용 서울굿이나 황해도굿에서 신격마다 다른 상을 차리는 이른바 각상 차림의 전통이 있는 가운데, 대상 역시 이러한 전통의 소산이다.

서울굿의 전통적인 굿상 가운데 주된 기복의 대상이 되는 신격은 대청마루에 모시게 된다. 이 상은 흔히 대상과 대안주상, 대감상, 조상상 등 세 틀로 되어 있다. 대상은 관성제군과 상산장군을 위해 차린 상이다.

대상에 차리는 음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떡과 과일로 나뉜다. 떡에는 편을 놓는다. 편은



넋전이 올려진 대상의 상차림
보현산신각 안안팎굿 | 2004.5.31 | 김헌선

백편으로, 흰떡을 단출하게 놓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화려하게 꾸며서 놓기도 한다. 부잣집인 경우에 가진편을 놓기도 한다. 가진편은 서울굿에서 가장 화려하게 취급하는 떡이다. 가진편은 잣, 실백, 대추, 석이버섯, 밤 등을 채로 썰어서 장식한 떡이다. 가진편뿐 아니라 흔히 백편, 꽃편, 신금추편 등 세 가지 떡을 놓기도 한다. 세 가지 떡을 세 틀로 놓는 것이 현재 기본이다. 편에다 색을 넣는 것이나 장식에 따라서 편의 이름은 달라진다. 신금추편은 시금치로 만든 편이다. 편떡에는 이것 외에도 웃기, 건달떡, 주악, 찹쌀송편, 밤 등을 더 얹어서 고명처럼 장식해 놓는다. 이처럼 편떡이 대상에 중요한 장식물로 놓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장식이 대상에서 중요함을 말해 준다. 여기에 밀동자, 나비, 벌, 함박꽃 등을 장식하면서 형형색색의 기이한 면모를 모두 자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편 위에는 수파련과 잔꽃 등을 꽂는다. 잔꽃은 파랑과 빨강의 색깔로 된 특징이 있다. 이 꽃들의 장식물은 굿상에서 긴요한 구실을 한다. 일단 외관상 장식용으로 쓰이는 점에 주목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다. 신이 지접해서 꽃에 하강한다고 관념한다. 특히 잔꽃은 신들이 전물을 잡숫는 젓가락과 숟가락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편은 두 자반을 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편은 밑이 좁고, 위는 넓게 장식한다. 편을 괴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굿상에 대상의 외관적 형상을 말하는 결정적인 면모가 마치 상을 크게 화려하게 만드는 편떡 고임에 있음은 물론이다.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넓어짐으로써 웅장한 면모를 구현하기에 이른다.

과일은 삼색실과를 보통 놓는다. 삼색실과는 일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다. 가령 봄과 여름철에는 차미 · 수박 · 햇사과 등, 가을철에는 사과 · 배 · 감 등을 놓는다. 계절마다 올리는 과일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으며, 대상에서 과일은 중요한 전물 가운데 하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굿상은 모두 신에게 전물을 바치는 일종의 신찬이다. 신찬의 질과 양이 결과적으로 신의 위계를 결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대상은 관성제군과 상산 최영 장군에게 바치는 제상이다. 이 신들은 비록 복합적이기는 하지만 서울 지역의 만신들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신격이기 때문에 제상이 크고 화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상의 규모나 장식은 굿상에서 가장 귀하게 간주된다.

굿상을 달리 대상이라고 하는 것에는 사정이 있다. 현재처럼 모둠상을 차리지 않던 시절에 집안 곳곳에서 상이 차려진 전체적인 연관성 속에서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보아야 한다. 마당에 차려진 천궁불사맞이상, 도당상 등을 보아야 대상의 상대적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 소찬으로 차려진 천궁불사맞이상과 산신도당을 위한 도당상 등은 굿거리 순서에 관련되지만 신격의 위계에 따라 다른 상차림을 할 수밖에 없다.

대상은 서울굿의 신격 위계와 서울굿의 음식을 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전통의 의의를 지닌다. 무당이 신복을 입고 신의 형상을 갖춰서 신을 초청해 각 신의 성격에 맞게끔 굿상을 차리는 전통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서울의 음식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굿상의 음식이고, 이 전통이 다른 데서 사라지고 있다고 해도 비교적 완만하게 전통을 이어가고 있음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한국의 무(조흥윤, 정음사, 1983), 서울새남굿(조흥윤 외,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필자 김헌선(金憲宣)



대신발
국립민속박물관 사진자료 소장

대수대명(代壽代命)

정의 한국무속에서 재액을 전이시키는 모의 주술 행위.

내용 대수대명(代壽代命)은 '수명을 대신하고 명을 대신한다'는 뜻이다. 어떤 정신질환이 발병하거나 어떤 액운이 닥쳤을 때, 무속적 세계관에서는 그 원인을 조상이 서낭고에 매여 있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이런 경우에는 산신이나 용신, 칠성 등을 대상으로 아무리 기원해도 소용이 없다고 한다. 서낭고를 풀어야만 재액을 물릴 수 있다고 여긴다. 대수대명은 서낭고를 풀어내는 대표적인 의례이다.

『무속대백과』에는 대수대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다. "조상들이 맑지 못하면 동토나 부정이 잘 따라 들고 잘 생긴다. 조상들이 해탈을 하지 못하고 '성황고'에 매어 있다든지, 산소 자리가 좋지 못하여 괴로운데, 그 집 자손들은 자기들만 잘 먹겠다고 살생을 하거나 자주 잔치를 하거나 또는 남의 집 잔칫상에 다녀와도 신수가 불길하면 탈이 나고 심할 경우에는 지골이 내려서 중환자가 생겨나기도 하는데……." 문장이 비록 난잡하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즉, 중환자를 대체물(代替物)로 일단 죽음을 맞게 하여 재생시킴으로써 치유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대수대명은 일반적으로 어떤 대체물에 환자의 생년월일, 성명, 대수대명대신(代壽代命大神) 등을 쓰고, 삼베로 감싸거나 끈으로 묶되 반드시 일곱 매로 염습(殮襲)을 하여 서낭당에 매달거나 묻는다.

예컨대 1998년 가을에 제천 염의춘(1931년 단양군 출생, 충북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 거주, 무 40여 년의 학습무)이 주관한 '병굿'에서 대수대명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제천 염의춘의 병굿은 임시제였으며, 3일굿으로서 병굿의 전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병인(病因)을 죽은 전처(前妻)의 한(恨)이 서린 역신(疫神)으로 간주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유기적인 의례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제차 1일과 제차 3일은 안택굿으로 진행되었다. 본격적인 병굿으로 제차 2일은 전체 6석으로 진행되었는데, 제4석이 대수대명의 과정이었다. 대체물은 '살아 있는 닭'이었다. 우선 닭의 입에 환자의 나이 수대로 쌀알을 집어넣고 명주실로 동여맨다. 이어 환자의 속옷에 생년월일과 이름을 붉은색으로 기록하고 그것으로 닭을 에운다. 이렇게 준비된 닭의 목을 친 후 사람이 죽었을 때 염을 하는 방식과 같이 12매의 염장을 맨다. 이로써 환자의 재액이 닭에게 전이되었다고 믿는다.

참고문헌 무속대백과 2(이윤종, 석암출판사, 1995), 계룡산 굿당 연구(구중회, 국학자료원, 2001), 제천 지역의 병굿 연구(안상경, 지역문화 1, 세명대학교 지역문화연구소, 2002), 충북 북부 지역 무속의례의 전승과 변이(안상경, 중원문화논총 7,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3).
필자 안상경(安相敬)

대신발

정의 무당이 굿을 할 때 조상을 비롯한 모든 신을 청할 때 쓰이는 무구.

형태 장발로 사용하던 것을 잘라서 만들었는데 위쪽은 얼굴처럼 둥글게 감싸고 그 아래로 여러 가락이 늘어뜨려져 있다. 모든 신을 청할 때 쓰이는데, 많은 신들이 이 대신발에 들어가 쉰다고 한다. 황해도의 큰 만신이었던 우옥주 만신의 대신발의 윗부분에는 대신칼이 달려 있고, 발의 마디마디에 빨간색으로 매듭을 지어놓았다. 이는 역대 조상의 순위를 표시한 것이다.

내용 대신발은 대개 굿청 혹은 굿당 입구에 걸어놓는다. 대신발은 신을 청할 때 쓰이는 무구로서 서울새남굿의 김유감 만신에 따르면 신이 들어가 쉬거나 굿청에 들어서기 전에 머무는 곳으로 쓰이기도 한다. 굿거리에 따라 무당은 여러 신들을 청배하여 순서에 따라 굿을 진행한다. 신이 굿당에 오더라도 자신의 굿에 맞추어서 청배를 받아야 하므로, 청배되기 전까지 대신발에 잠시 머물러 쉰다

고 여긴다.

참고문헌 큰무당 우옥주 유품(국립민속박물관, 1995),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하효길, 화산문화, 2002).
필자 임승범(林承範)

대신방울

정의 열두 개의 방울이 묶여 자루에 달린 것으로, 열두대신방울이라 하기도 한다.

내용 방울은 대부분 내부에 조그마한 조각이 있어 흔들리며 소리를 내는 형태이지만 굿에서 사용되는 방울들은 주로 속이 빈 방울끼리 부딪쳐 소리를 내는 형태이다. 대신방울은 12개의 방울이 한 묶음으로 되어 소리를 내는데 점사를 할 때부터 굿을 연행할 때까지 크고 작은 무업(巫業)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울이다.

방울의 자루부터 방울까지 대부분 놋쇠로 만든다. 놋쇠자루 끝 부분에 네 개의 둥근 고리가 달려 있고 고리마다 3개씩의 방울을 달아 총 12개가 되도록 제작되었다. 방울이 달린 반대편 자루에도 하나의 둥근 고리를 마련했는데 무당에 따라서는 이 고리에 오방색의 천을 매달아 장식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무당 귀물 연구-『삼국유사』의 삼부인과 무당의 거울 · 칼 · 방울을 중심으로(양종승, 생활문물연구 2, 국립민속박물관, 2001), 한국의 굿(하효길 외, 민속원, 2002).
필자 김창호(金昌鎬)

대신상

정의 서울굿에서 만신의 조상격인 대신에게 올리는 굿상의 하나. 대신시루라고 해서 흰시루를 올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며, 진적굿에서 만신과 전악 등만 둘러앉아서 먹는 국수장국을 놓아 둔 상을 가리키기도 함.

내용 대신은 서울 지역 강신무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으로, 보통 대신할머니라고 말한다. 대신할머니는 무당의 오랜 조상이며, 선배이자 몸주이기도 하다. 무속의 신격체계에서 상위 신격은 아니지만 인격신으로서 만신네들에게 뿌리와도 같은 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신상은 바로 이 대신할머니를 위해 바쳐지는 상이다.

신당을 갖고 있는 만신네들이 평소에 전안에 모신 대신할머니를 위해 별도의 제물을 바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다. 대신할머니는 서울 지역의 화분(무신도)에서 대체로 노란색의 은하몽두리를 입고 점상을 앞에 두고 있는 신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도상은 굿의 실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만신들이 실제 서울굿을 할 때 은하몽두리를 입고 대신할머니와 대신말명을 노는 것은 분명한 무속적 신격의 일치된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대신상은 이와 같은 굿에서도 반드시 바치는 것이 기본이다. 특별한 제물로 상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매우 간소하게 흰떡인 대신시루와 청수(淸水)를 올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그 외에 과일 등을 올린다.

대신할머니가 특별히 매우 중요한 신격으로 부각되는 굿이 바로 서울 만신들이 자신이 모시는 신을 위해 하는 진적굿이다. 진적굿은 무당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고 신에게 드리는 감사 의례이면서, 무당으로서 살아갈 앞으로의 날들을 다시 한 번 되새기기 위해 하는 굿이다. 진적굿은 곧 만신이 이 세상에 나온 생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때 여러 각도로 굿판에서 신세를 진 인물들에 대한 예우를 한다. 여기에는 신뿐 아니라 무업에 종사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도 포함된다.

이러한 진적굿의 의미를 특히 음식으로 잘 구현하는 것이 바로 대신상이다. 진적상은 만신이 상산을 돌고 와서 당을 맬 때에나 차리는 상이다. 일종의 잔칫상 차리듯이 차리는 것이 진적상이다. 전안에 따라 양전안이면 스물 두 그릇, 삼전안이면 서른여섯 그릇의 국수와 잔을 놓는다. 진적상에는 신선로, 고기, 누름적, 나물, 잡채, 떡(계피떡 · 약식 · 편떡), 화채, 국수장국 등을 차린다. 이상에 갖가지 잔과 수저와 젓가락 등을 놓는 것이 전통적이다.

진적
이상순 갈현동 자택 | 2009.4.12 | 김은희



대신상은 진적굿에 참여한 만신과 전악 등만이 둘러앉아서 먹는, 굿판과 유관한 종사자들이 서로 국수장국을 먹는 행사를 하기 위한 굿상이다. 이 굿상에는 오로지 만신과 전악만이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만이 음식을 공유하는 특별한 행사이다. 이렇게 차려진 상을 대신상 또는 진적상이라고 부른다.

이 굿상에 여러 음식이 차려지지만 가장 중요한 음식은 국수 열두 그릇이다. 전통적인 서울 장국에다 메밀로 만든 면을 풀어서 고명을 얹고 이를 두었다가 장국을 데워서 먹는다. 여기에 술을 한 잔씩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열두 잔의 술잔이다. 국수장국 열두 그릇과 잔 열두 개가 긴요한 상징이 된다.

진적에서 올리는 대신상의 음식은 대체로 천궁불사맞이, 산바라기 등을 하고 난 뒤에 먹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다. 이 국수장국은 대신들의 정성이 담겨 있으며, 이 때문에 대신의 보살핌을 받는 존재들만이 먹을 수 있다고 관념한다. 본래 밥상 음식을 먹는 것보다 차원이 다른 일종의 간식 정도에 해당하는 음식이 바로 대신상이다.

참고문헌 무 · 굿과 음식 1(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필자 김은희(金銀姬)

대신칼

정의 굿에서 사용하는 칼 형태의 무구. 대신(大神)은 무조신(巫祖神)을 가리키는 말이고 대신칼은 무조상신(巫祖上神)의 영력을 상징하는 칼이라고 해석한다. 일반적인 칼의 용도와 달리 종교적인 상징성을 지닌 도구로 사용된다. 지역에 따라 신칼, 부정칼, 수부칼 등으로도 불린다.

형태 검류 무구는 주로 강신무들이 소유하고 있다. 칠성칼은 황해도 만신이나 황해도 무속의 영향을 받은 서울 · 경기 지역 만신 중에서 일부 사례가 보이며, 신장칼은 강신무와 법사 · 보살들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신칼은 세습무와 강신무 모두 사용하며 전국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다. 대신칼은 검류 무구 중에서 칼 폭이 가장 짧고 손잡이가 꽈배기 모양으로 꽈져 있어서 구분이 용이하다. 손잡이까지 쇠로 이루어진 일체형이다. 칼날은 한 면만 날이 있고 예외적으로 동해안만 양날의 검(劍) 형태다. 신칼은 베는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으므로 날이 무디며 칼보다는 신칼에 달린 '술'의 손잡이처럼 사용된다. 손잡이의 끝은 동그란 고리처럼 마감이 되어 있고 그곳에 한지나 실 혹은 천을 묶어 길게 늘어뜨려 놓는다. 이것을 '술'이라고 부른다. 종이로 꼬아 만든 것은 새끼줄 모양이어서 지승(紙繩)이라고 한다. 대신칼의 길이는 30㎝ 내외, 폭은 2~3㎝ 내외이며, 술의 길이는 20~60㎝ 내외이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대나무를 칼 모양으로 깎아 만든 대신칼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 대개 손잡이 부분이 없어 칼날 부위를 손잡이처럼 이용한다.

내용 대신칼은 대신의 영력으로 부정과 액을 제거하기 위한 행위를 할 때 주로 사용된다. 대신칼을 이용해 부정을 가시고 액귀를 퇴치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기능이다. 호남의 경우 사용 범위가 더 확대되어 있는데, 조상이나 망자의 영혼을 청배하고, 넋을 들어올릴 때, 신을 위로하고 달래주는 춤을 출 때 사용한다. 씻김굿의 주요 절차에서 빠지지 않을 만큼 중요시된다.



대신칼
국립민속박물관 사진자료 소장

대신칼은 전국적으로 퍼져있으며 지역에 따라 형태나 명칭 및 기능이 약간 다르다. 인천 강화도의 정정애 무녀는 용도가 다른 두 가지 대신칼을 갖고 있다. 하나는 부정칼이라고 불리는데, 총길이 31㎝, 폭 2㎝이며 칼끝은 오색 천으로 연결되어 있다. 초가망의 산바라기에서 산거리를 하기 전에 부정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다른 것은 총길이 35㎝, 폭 2.5㎝, 칼날 길이 20.5㎝, 손잡이 14.5㎝이다. 이 대신칼은 한양굿으로 진오기굿을 할 때 말미거리에서 사용한다. 황해도 만신 신명기가 소지하고 있는 대신칼의 총길이는 77㎝, 칼 길이 35㎝, 칼 폭(넓은 부분) 3㎝, 종이술의 길이는 42㎝이다. 이 칼은 주당물림과 뒷전에서 사용한다. 호남 지역 대신칼은 '신칼'로 통칭된다. 진도 채정례 무녀의 신칼은 총길이 29.5㎝, 칼 길이 16.5㎝, 칼 폭(가장 넓은 곳) 1.5㎝이며, 손잡이 길이 13㎝, 손잡이 지름 1.3㎝이다. 손잡이 지름에는 창호지로 만든 지승 술을 달아 놓는데 그 길이는 70㎝이다. 순천 박경자 무녀의 신칼은 길이 9㎝, 손잡이 길이 9㎝이다. 손잡이에는 노란색 한지 4~5장을 이용해 지승 형태의 꽃술을 달았는데 그 길이는 79.5㎝이다. 호남의 신칼은 넋올리기, 씻김 등 천도절차에서 널리 사용된다. 동해안에서는 수부칼이라고 부른다. 강원도 삼척의 김동철이 소유한 수부칼은, 전체 길이 24㎝, 칼 길이 16.2㎝, 날의 폭 4㎝, 손잡이 길이 7.8㎝이다. 선굿과 앉은굿에서 두루 사용하며 수부를 보내고 살을 좇는 기능을 갖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신칼이라고 부른다. 김윤수 심방의 신칼은, 칼 길이 22.3㎝, 칼날의 길이 9.3㎝, 손잡이 길이 9.3㎝이다. 신칼 아래에 달린 술을 '치메'라고 하며 그 길이는 53㎝이다. 신칼의 전체 길이는 80㎝ 정도이다.

참고문헌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전라남도 · 전라북도 · 제주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무속의 물질문화연구(최진아,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9).
필자 이경엽(李京燁)

대안주상

정의 서울굿에서 신령들을 위해 술과 안주를 올리는 제상.

내용 대안주상은 술과 안주가 핵심이기 때문에 대안주상 또는 안주상이라고 부른다. 간소한 굿에서는 대상(大床)이나 신령상 앞에 술, 향로, 산적을 놓는 정도로 소략하기도 한다. 술은 맑은 술을 쓰며, 고기와 생선을 위주로 안주를 올린다. 상 앞에는 향로와 촛대를 세운다. 대안주상은 굿당에서는 굿상 중앙, 전통가옥에서는 대청마루에 각각 차린다. 『무당내력(巫黨來歷)』에는 대안주상이라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대상에 편, 과일, 떡을 놓고 그 앞에 작은 상을 두어 술잔과 향로를 둔 그림만 전해진다. 장군거리, 신장거리, 별상거리, 대감거리에 쓴다. 이 네 가지 제차를 묶어서 대안주거리 · 상산거리, 또는 큰거리 · 대거리라고도 한다.

맨 앞줄에 맑은 술을 3잔 올린다. 맑은 술은 과거에는 쌀과 누룩으로 직접 빚어 여러 번 걸러낸 조라술이다. 탁주를 가라앉혀 윗물만 떠낸 술을 썼다고 하지만 현재는 거의 판매용 소주나 약주를 쓴다. 술을 직접 빚을 경우에는 아주 깨끗하거나 특별한 장소에서 뜬 물을 쓰는 것이 원칙이다.

고기 안주는 굿의 규모, 굿을 맡은 만신의 특성, 재가집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돼지고기보다는 쇠고기를 선호한다. 쇠머리, 통갈비, 우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갈비찜, 고기적, 너비아니, 산적, 편육 등을 볼 수 있다. 날고기를 올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만신들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그 지역과 계통을 명확히 추적할 수 없다. "소잡어 설파하고 왼소머리 깃을 잡어 받으시구, 큰소는 허리 찍어 받으시구, 작은소 꽁지 찍어 받으시구, 대양푼 갈비찜에, 소양푼 영계찜에…"라는 무가에서 보듯이 닭고기도 썼던 것으로 여겨지지만 현재는 흔히 보이지 않는다. 이외에 생선도 사용하며, 숭어 · 민어 · 생선전 등을 볼 수 있다. 여기에 두부, 빈대떡, 각종 전을 더하여 올릴 수도 있다.

여러 신격을 같은 상에 모시면서 제물의 의미에도 중복이 가해졌다. 그러나 대체로 쇠머리와 통갈비는 장군 또는 상산에게 바치는 제물, 우족은 대감에게 바치는 제물이라고 한다. 굿거리 도중에 쇠머리, 통갈비, 우족을 월도와 삼지창에 꽂아 사슬을 세운다.

대안주상에 올라가는 갈비찜, 통갈비 등에는 오색 고명을 올리기도 한다. 보통 5색이 아니라 3색이나 4색으로 이루어지는 오색 고명은 전통적으로 계란지단, 실고추, 부추나 미나리, 실파, 목이버섯이나 석이버섯으로 흰색 · 노란색 · 빨간색 · 파란색 · 검은색을 낸다. 이런 고명의 사용은 궁중음식의 영향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서울의 무가(최형근, 민속원, 2004), 굿과 음식 1(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무당내력(서대석 해제, 민속원, 2005), 서울지방의 무속신앙 제상차림을 통하여 본 식문화에 대한 고찰(김상보 · 황혜성,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2, 한국식생활문화학회, 1988), 서울굿의 상차림에 대하여(홍태한, 한국무속학 6, 한국무속학회, 2003), 굿상에 투영된 신에 대한 인식(이수현,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6).
필자 이수현(李琇炫)

대전의 앉은굿

정의 대전광역시에서 법사들에 의해 전승되는 독경형태의 굿. 이 굿은 1994년 6월 7일에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었다.

역사 앉은굿의 역사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는 영성하다. 대전 지역 앉은굿의 유래 및 역사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이 불가능하다. 다만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를 통해 대전 지역 앉은굿의 1970년대 전승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당시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무속인의 수는 1,000여 명이었다. 이 중에서 앉은굿을 주재할 수 있는 법사는 50~60명이었다. 나머지는 점복(占卜)을 위주로 무업(巫業)을 하는 만신들이었다. 법사들은 주로 각종 경문을 구송하면서 안택축원(安宅祝願)을 하였다. 병굿이나 미친굿을 연행하기도 하였지만 극히 이례적인 경우였다. 1994년에 대전의 앉은굿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래 현재에는 200여 명의 법사들이 대한승공경신연합회 및 전통민속문화보존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내용 대전 지역의 앉은굿은 무경의 구송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제장(祭場) 주위에 둘러치는 다양한 문양의 설경(設經), 문복(問卜)에 의한 대가름, 모의행위로서 양재(禳災) 등 직접적이고 격렬한 주술 행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그리고 병굿이나 미친굿 또는 푸닥거리처럼 주술이 강조되는 구병계열(救病系列)의 굿이 존재하는가 하면 안택굿이나 고사와 같은 기복계열(祈福系列)의 굿, 신명굿과 같은 강신계열(降神系列)의 굿, 넋굿이나 지노귀와 같은 위령계열(慰靈系列)의 굿도 존재한다. 또한 무경은 간단한 형식이나 내용의 조악한 주문도 존재하지만 오행(五行)이나 불교의 진언(眞言)을 수용하고 있는 한편 주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벽병(辟兵)이나 점성(占星)의 원리까지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무가에서 확인할 수 없는 독특한 언어 · 문학적 표현은 물론 비언어적 표현까지 발현되고 있다.

지역사례 대전 지역의 앉은굿으로서 안택굿[안택경]의 전승이 가장 활발하다. 그 이유는 안택굿을 일

종의 '재수굿'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에 김일순(1943년 충남 공주 출생,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거주, 강신무, 전통민속문화보존회 대전지부 이사)이 주재한 안택경의 연행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왕굿** : 제장(祭場)의 설치가 끝나면 조왕굿을 필두로 안택굿을 시작한다. 우선 안택굿의 전체적인 진행에 예비하여 부정물림을 선행한다. 궁극적으로 부정경(不淨經)의 구송과 조무(助巫)의 모의행위로 집약된다. 특히 부정을 물리는 주체로서 조무는 일종의 팬터마임을 차분하게 수행함으로써 굿의 분위기를 확립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제장의 부정을 물린 후 법사는 용왕경(竜王經)을 구송한다. 법사는 무경(巫經)의 구송 이외에 구어체 형식의 덕담을 던지며 연이어 소지를 올린다.

2. **터주굿** : 터주굿에서는 터주 이외에 칠성, 용왕, 산신 등을 함께 청배(請陪)하여 축원한다. 특히 칠성은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신격으로 숭앙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 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안택굿에서 적극 포용한다. 또한 전통적인 주거 환경에서 우물[수도]은 터[마당이나 뒤뜰]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곳에 용왕이 좌정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산신은 원래 천상의 신령들이 하강하는 거룩한 공간, 즉 우주산에 좌정하고 있는 신격이지만 터를 소우주로 상정하여 터에도 산신이 좌정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과 욕망으로 인해 터는 신령의 보호 아래 축복받는 성역으로 승화된다. 청배는 법사의 산신경(山神經) 당산경(堂山經) 등의 구송으로 성취되며, 축원은 이들 신격에게 전하는 덕담으로 성취된다.

3. **성주굿** : 성주굿은 안택굿의 가장 핵심적인 개별거리로서 성주와 제석과 조상을 함께 청배하여 축원한다. 해당 신격에 상응하는 제물을 각기 마련하여 한 곳에 진설하고, 해당 신격에 상응하는 무경을 순차적으로 구송한다. 한 거리의 큰굿에 하위의 개별거리가 결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안택굿의 하위로서 성주굿은 성조경(成造經) 구송을 주조로 삼고 있다. 사설의 축원은 여느 무경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관습적 축원과 달리 내용



대전의 앉은굿
정수미

이 매우 구체적이다. 즉 가족 구성원에 제각기 닥칠 수 있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액운을 고스란히 제시하고, 이러한 액운이 성주신의 가호로 극복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제석굿은 제석경(帝釋經) 구송과 〈제석풀이〉 구연을 주조로 삼고 있다. 안택굿에서 무가가 구연되는 유일한 거리이다. 사설이 제석신의 근본과 신으로서의 좌정 내력을 설명하는 이야기식의 구어체로 전개되기 때문에 한문어투 사설이 전개되는 여느 거리에 비해 법사의 사설에 집중할 수 있다.

조상굿은 조상해원(祖上解寃)의 구송을 주조로 삼고 있다. 그런데 여느 무경의 구조와 달리 조상의 원(怨)을 풀어 주는 동시에 그들의 천도를 기원하는 것으로 축원을 대신하고 있다. 이는 조상을 신의 영역에 포함된 전인격체(前人格體)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육십갑자에 매여 있다고 여기는 모든 조상의 원을 풀어 천도시키는 것이 곧 발복이라는 무속적 관념을 기저로 삼은 축원이 전개된다. 이렇게 조상을 감응시켜 그들을 청배하여 조상에게는 천도, 자손에게는 부귀공명을 동시에 축원한다. 대주·계주·자손 등은 시종 능동적인 자세로 이 거리에 참여한다. 이들은 굿의 수순, 즉 해당 무경의 구송에 이은 덕담 및 소지를 올리는 과정에 적절하게 참여하여 기원을 표출한다. 성주를 최고 권위를 지닌 신격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4. **대내림 및 성주봉안** : 대내림은 인간의 성의에 대한 신의 감응을 확인하는 절차행위이다. 이 거리에서 법사는 지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초월적 존재로 변신한다. 법사는 신의 영역까지 관장할 수 있는 존재로 변신해 있기 때문에 신에게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의식의 성과 여부를 되묻기도 하는 등 초월적 존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성주봉안은 안택굿의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하는 절차행위이다. 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한다. 성주의 감응은 성주대의 흔들림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성주의 운이 통하였느냐"는 문복에 대한 성주대의 흔들림을 가정을 수호하겠다는 성주의 약속으로 인식한다. 특히 성주대에 의한 성주[대추나무의 곁가지]의 점지를 성주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믿음 속에서 가정은 이제 성주가 좌정하고 있는, 그래서 성주의 보호와 축복을 받는 개별적이며 독립적인 신성구역으로 승화된다.

5. **내전풀이** : 내전풀이는 가택신의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수비(잡귀와 잡신)를 본래의 좌정지로 돌려보내는 절차 행위이다. 청배 대상은 가정에 안착시키는 반면에 청배의 대상이 아닌 잡귀나 잡신은 위로하여 물리는 의식이다. 잡귀나 잡신의 위로는 인간의 정성을 봉헌한다는 의미로서 제물의 분식(分食)으로 이루어진다.

참고문헌 한국민속종합보고서–충청남도편(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7), 대전민속지(대전광역시, 1998), 계룡산 굿당 연구(구중회, 국학자료원, 2001), 대전의 무속신앙(박종익, 대전문화 12,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편, 2003), 대전 · 충청지역 앉은굿과 옥추경(장인성, 대전문화 12,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편, 2003), 대전 충청굿의 설경연구(양종승, 민속학연구 6, 국립민속박물관, 1999), 충청 지방의 미친굿(이필영, 샤머니즘연구 1, 한국샤머니즘학회, 1999), 앉은굿 무경 연구(안상경,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충남의 앉은굿 무가(박혜정,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8).

필자 안상경(安相敬)

대철망(大鐵網)

정의 앉은굿에서 잡귀나 잡신을 잡아가두는 종이부적 형태의 무구.

형태 철망(鐵網)은 잡귀나 잡신을 포획하는 무구로서 그물을 상징한다. 실제로 형태는 그물을 형상화하고 있다. 철망에는 대철망(大鐵網)과 소철망(小鐵網)이 있다. 대철망은 위목(位目) 앞쪽의 중앙에 설치하며, 소철망은 좌우 끝에 하나씩 설치한다. 특히 대철망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잡귀나 잡신을 가두어 잠그는 자물쇠로서 의미가 있다.

내용 '철망'이라는 용어는 무경 사설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대축사(大逐邪)』에서 "여등귀신(汝等鬼神)을 철망(鐵網)으로 속신(束身)하고 뇌검(雷劒)으로 참지(斬之)하고 철퇴(鐵槌)로 파쇄(破碎)하며 천검(天劒)으로 타정(打精)하고 철편(鐵鞭)으로 집멸(執滅)하면 여등(汝等) 귀신죄상(鬼神罪狀)이 청천(靑天)에 소조(昭照)하고 일월(日月)이 광명(光明)하니 귀신소멸(鬼神消滅)이 명명(明明)하리라."라든가, 『축귀축사문(逐鬼逐邪文)』에서 "철망(鐵網)으로 탈을 씌워 앞도 결박하고 뒤도 결박할 때 황철사(黃鐵絲)로 몸을 결박하고 동도지(東桃枝)로 눈을 빼고 두파작분(頭破作分)하여 벼락 치고 가는 곳마다 화장하여라."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사설의 내용을 통해 철망의 역할이 잡귀나 잡신을 가두어 들이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철망경(鐵網經)』에서 "중앙대진군뇌신장(中央大陣軍雷神將) 천파총군후계신장(千派總軍後繼神將) 천군만군총병신장(千軍萬軍總兵神將) 각초군병호령신장(各硝軍兵號令神將) 철망신장(鐵網神將) 일시(一時)에 하강감응(下降感應)하소사"를 통해 잡귀나 잡신을 구축(驅逐)하는 신장으로서 철망신장(鐵網神將)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즉 물질전승(物質傳承) 무구인 철망은 애초 구비전승(口碑傳承)의 무경으로부터 파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흔히 팔문(八門), 팔진(八陣), 금쇄진(金鎖陣),

휘사(徽絲) 등을 아울러 '설경(設經)'이라고 한다. 설경은 '무경을 가시적으로 펼쳐 놓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대철망은 잡귀나 잡신을 감금하는 무경으로 『대축사(大逐邪)』, 『축귀축사문(逐鬼逐邪文)』, 『철망경(鐵網經)』, 『해살경(解煞經)』 등의 사설 내용에 기반을 두고, 그것을 가시적으로 형상화한 종이부적 형태의 무구라고 할 수 있다. 잡귀 잡신의 제거라는 의례의 목적이 무경의 구송과 설경의 설치로 절대적으로 성취될 수 있기를 바라는 기원에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계룡산 굿당 연구(구중회, 국학자료원, 2001), 충청도 설위설경(구중회, 금강민학회, 2002), 한국의 굿(하효길 외, 민속원, 2002), 대전 충청굿의 설경 연구(양종승, 민속학연구 6, 국립민속박물관, 1999), 충청도 설경 연구(안상경, 한국무속학 5, 한국무속학회, 2002).
필자 안상경(安相敬)

덤불국화

정의 동해안별신굿이나 동해안오구굿에서 제단에 올려놓는 지화(紙花)의 한 종류로 풍성하게 반원 모양의 국화를 지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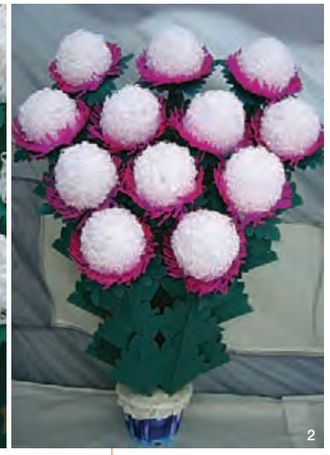
형태 덤불국화는 자주색 낙화 위에 부풀어오른 흰색 꽃잎으로 되어 있다. 각 층당 2장으로 이루어지며 모두 10층으로 구성된다. 10개의 도래에 맞추어 잘라진 10가지, 즉 10층에 해당하는 화지를 갈캐로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훑어낸다. 훑어진 부분은 화지의 가운데 쪽으로 말려 올라가면서 부풀어오른다. 이러한 것을 10층으로 쌓아올리면 덤불국화가 된다. 흰색 화지를 모두 꽃으로 연결한 다음 자주색 낙화를 붙이고 이파리와 꽃받침을 붙여 마무리한다.

내용 덤불국화의 꽃도래(꽃잎의 지름)와 작화(作花) 기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꽃도래

지름 10㎝의 꽃잎 15장씩을 물들인 다음 6등분하여 중심에서 1.5㎝ 남기고 자른다.





2. 작화 기법

1) 6등분한 꽃잎을 다시 7등분하여 자르고 끝부분이 약간 좁아지도록 굴려준다.
2) 고무판으로 된 '덤불국화전' 위에 꽃도래를 올려놓는다.
3) 끝부분이 'ㅱ' 모양인 꽃잎에 갈캐(덤불국화를 만들 때 꽃잎 끝을 여러 갈래로 찢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손잡이가 있고 손잡이 끝에 'ㄱ'자 모양의 쇠붙이가 구부러져 있음)를 오른손으로 움켜쥐고 전 위에 놓인 꽃잎 하나하나를 중심 쪽으로 눌러가며 잡아당긴다. 그러면 꽃잎이 골이 지면서 둥글게 말려 들어간다.
4) 꽃잎이 흩어지지 않도록 한참 놓아둔다.
5) 한 장씩 떼어서 처음 꽃잎은 꽃목대(꽃잎을 끼워 넣기 위하여 길이 15~20㎝, 폭 0.3㎝의 대나무. 꽃잎을 고정하기 위해 반드시 대나무의 마디가 있음)에 바싹 붙여주고 차츰 옆으로 벌어지게 끼운다.
6) 가물지(지화를 완성하고 잎사귀를 붙일 때 쓰는 종이)를 말아가며 잎사귀를 붙인다. 꽃이 완성되면 꼬챙이로 꽃잎을 하나씩 펴준다.

참고문헌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경상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한국 전통 꽃일에 관한 연구(오춘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동해안 무집단 지화의 문화적 의미(윤동환, 한국무속학 13, 한국무속학회, 2006).
필자 윤동환(尹東煥)

1. 덤불국화
부산시 기장해수욕장 | 2005.10.1~10.2 | 윤동환

2. 덤불국화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예림리 | 2006.4.13~4.14 | 윤동환





3. 덤불국화
부산시 해운대 약수암 | 2006.4.13~4.14 | 윤동환

4. 덤불국화
경북 영덕군 영해면 대진해수욕장 | 2006.10.11~10.12 | 윤동환

도깨비굿

정의 도깨비를 불러 도깨비로 인한 병을 치유하기 위해 벌이는 굿.

내용 일반적으로 도깨비굿은 도깨비를 좇아내기 위한 굿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도깨비가 돌림병을 퍼뜨리는 역신(疫神)으로 이해한 결과로, 이 도깨비를 좇아냄으로써 병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믿었다. 도깨비와 관련된 굿의 행위는 일반인, 특히 여성에 의해서 주도되는 특징을 보여 준다. 또한 이때에 사용되는 기물(器物)로서 솔뚜껑 등이 있다. 이처럼 집안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금속도구를 두드려서 도깨비를 좇아내기도 한다.

지역사례 대표적인 도깨비굿으로 질병 퇴치를 기원하기 위해 행해지는 진도와 순창 탑리의 도깨비굿을 들 수 있다. 제주도의 영감놀이도 실제로는 병에 걸린 여성을 치료하기 위해 행해지는 도깨비굿의 일종이다.

진도 지역에서는 도깨비굿을 정월 대보름 전날에 많이 치렀다고 하며, 돌림병이 이웃마을에 돌게 되면 자기 마을로 도깨비가 들어오지 못하게 굿을 하기도 하였다. 진도읍에 위치한 서외리가 도깨비굿이 전승되던 대표적인 마을이며, 이외에도 사정리 · 월가리 · 용장리 등지에서도 행했다고 한다. 이들 지역에서의 도깨비굿은 전승이 일찍 단절되었다가 1983년에 전 진도문화원장 조담환에 의해 서외리에서 재현되었다.

먼저 굿을 치르는 날인 음력 2월 1일 저녁 무렵이 되면 마을의 여성들만 모인다. 이때 손에는 기물들을 들고 얼굴에는 먹칠을 한다. 최근에 와서는 가면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이것은 원래의 모습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의 월경 피가 묻은 속적삼이다. 이것을 긴 장대에 묶는다. 이를 간짓대라고 한다. 굿패는 이 간짓대를 앞장세워 집집마다 다니며 도깨비가 숨어 있을 만한 곳을 쑤셔서 좇아내는 시늉을 한다. 이때 집주인들은 정화수와 쌀과 돈을 올린 작은 상을 마루에 준비해 준다. 굿패가 한 집의 굿을 모두 치르고 상쇠에 의한 축원이 끝나면 쌀과 돈을 거두어 다음 집으로 이동한다. 모든 집을 돌고 나면 마을 입구의 삼거리에 와서 간단한 제상을 차려 놓고 절을 한 후에 모두 집으로 돌아간다. 이때 짚으로 불을 피워 놓은 곳을 뛰어넘어 몸을 정화시킨 후에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곧장 집으로 간다고 한다. 뒤를 돌아보면 도깨비가 나중에 얼굴을 기억했다가 해코지를 한다는 것이다.

순창군 인계면 탑리에는 진도와 다른 방식으로 전승되어 왔다. 즉 음력 정월 열이레에 여성들만이 참여한 굿패를 짜서 마을의 동서남북 입구에 제를 드리는 방식이다. 이것은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에서 거리제를 행함으로써 그해 역신이 들어오지 않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이 마을의 도깨비굿도 역시 도깨비가 돌림병을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에 만들어진 신앙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마을의 경우에는 일찍 전승이 단절되다가 2002년부터 다시 전승되기 시작했다. 탑리 출신의 젊은이들이 외지에 나가서 사고로 죽는 일이 발생하자, 순창읍내에 나가 점을 친 결과 도깨비굿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을 듣고 다시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원래의 도깨비굿과 다른 성격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원래 이 지역에서는 정월 열이레에 여성들만이 참여해서 굿을 치른다. 이때의 중요한 제물은 직접 만든 메밀묵과 무나물 정도이다. 굿패는 진도와 달리 꽹과리 · 징 · 장구 등의 악기를 갖고 있


1


2


3


4

으며, 맨 뒤에 제물을 든 사람이 따라간다. 제물을 차리는 장소는 마을 입구 동서남북 4곳이다. 가장 먼저 마을 뒷산에 위치한 철륭으로 가서 짚을 열 십자로 깔고 그 위에 제물을 올린다. 제물은 메, 무나물, 메밀묵, 막걸리, 사탕 정도로 간략하다. 제관만이 동서남북으로 절을 한 후 고시레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삼거리, 아랫당산, 삼 끝(방죽 위의 삼을 찌는 장소) 등지에서 행한다. 마지막으로 마을의 방죽으로 와서 볏짚으로 불을 지피고 참가한 사람들끼리 어깨춤을 한바탕 춘 다음 마을회관으로 돌아와 음복하는 것으로 끝난다.

제주도의 영감놀이는 여성들이 병에 걸렸을 때 행하는 주술적인 무속 의례라고 할 수 있다. 도깨비가 여성의 몸에 빙의했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이해하여 도깨비를 쫓아내는 굿이다. 흥미로운 것은 육지에서 전승되는 방식과 달리 도깨비의 다른 형제를 불러서 잘 풀어먹인 후 여성의 몸에 있는 동생 도깨비를 데리고 가라고 하는 굿놀이적 속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민간신앙(장주근,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 전남편, 문화재관리국, 1969), 진도 도깨비굿교(이현수, 월산임동권박사 송수기념논문집, 집문당, 1986), 한국의 도깨비연구(김종대, 국학자료원, 1994), 도깨비굿(정병호, 전통문화 4월, 1983).
필자 김종대(金宗大)

도당(都堂)

정의 중부 지역의 마을굿인 도당굿에서 모시는 마을신. 도당은 마을민을 수호하고 마을의 안녕과 풍농을 관장하면서 마을민의 대동단결을 모색하며, 병환을 퇴치하고, 남녀의 성생활을 관장한다. 굿거리에서 나타나는 도당은 굿을 하는 집이 속해 있는 마을의 수호신 기능을 한다. 물론 이때는 지역신(地域神)뿐 아니라 팔도의 산신을 모두 모시기도 한다. 이로 보아 도당은 지역신으로 정의된다.

내용 도당의 명칭은 경우에 따라 부군(府君)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도당과 부군이 같은 성격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도당은 주로 한강변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마을에서 모시는 신을 일컫는다. 반대로 한강변에 있는 마을에서 모시는 마을신은 부군이라고 한다. 따라서 도당을 일컫는 용어 역시 도당할아버지(할머니), 산도당할아버지(할머니), 산도당, 부군님, 부군할아버지(할머니), 산도당부군님, 도당산신, 도당천신, 부군마지 등 도당과 부군 두 갈래이다. 도당은 마을의 당에 모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체(神體)는 터줏가리 형태가 많다.

도당굿은 주로 한양성 밖과 성저십리 안에 분포한 근교 농업지대에서 행하는 마을굿이다. 또한 도당굿을 하는 지역의 주민은 주로 한양성에 생필품 등을 공급하는 상인이나 농민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도당은 이들에게 구심점을 만들어 주고, 자신들의 권익과 안위를 보장하는 신으로 기능하였다. 이 도당굿을 형성하고 향유한 실체는 조선이 건국하기 이전부터 뿌리박고 살아오던 토박이들로, 도당굿은 이들이 집거하였던 마을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도당굿의 오랜 역사는 부군당과 함께 서울 · 경기 지역의 마을굿을 형성하는 하나의 축으로 기능하였다.

한강 이남의 일부 부군당은 당의 이름과 달리 모시는 신이 도당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지역은 그 배후에 중요한 농업 생산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염창동과 신길동의 경우 한강과 안양천이라는 강줄기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등포 일원의 농사권에 직접 위치하기도 한다. 염창동의 경우 증미 마을(염창동 20번지 일대)과 더불어 바로 농토와 연결되며, 배후의 등촌동 · 화곡동은 농사를 짓는 농사권이다. 즉 이들의 원래 생업과 한강이라는 강문화가 융화되어 혼합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당굿의 형식은 주로 굿놀이형에 가까운 부군당과 달리 유교식 제례 방식도 적절하게 수용한 형태를 보인다. 그러나 부군당굿과 도당굿의 바탕을 이루는 굿놀이 양식은 한양굿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이 한양굿은 개성에 뿌리를 둔 한양굿이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이는 도당굿의 역사를 말해주는 부분이다.

일반 굿에서 부군당굿과 도당굿의 차이는 부정을 두 번 물리는 것에 있다. 부군당굿에서는 부정청배로 부정거리가 한 번만 나타나지만 도당굿의 경우 선부정거리 후에 부정청배가 다시 등장하여 부정을 물리는 횟수가 2회이다.

참고문헌 조선무속의 현지연구(秋葉隆, 최길성 역, 계명대학교출판부, 1987), 서울 강북지역 벌리도당굿과 북한산도당굿 현지조사(양종승, 한국무속학 5, 한국무속학회, 2002), 한국무속의 신의 유형(이용범, 종교문화비평 1, 청년사, 2002), 한국무속의 신의 유형(이용범, 샤머니즘 연구 4, 한국샤머니즘학회, 2002), 서울 마을굿의 유형과 계통(박흥주, 한국무속학 12, 한국무속학회, 2006), 서울 마을굿의 전승 현황과 유형 구분(홍태한, 중앙민속학 13, 중앙대학교 한국문화유산연구소, 2008).
필자 김시덕(金時德)

1. 삼거리에 차린 제물과 불
김종대

2. 철륭 상차림
전남 순창군 탑리 | 2002.2.28 |
김종대

3. 피솟곳을 매다는 장면
전북 진도군 서외리 | 1996.3.19 |
김종대

4. 진도 도깨비굿
국립민속박물관

1. 당할아버지와 당할머니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가로 86.6㎝, 세로 124.7㎝ |
1950년대

2. 시산도당
국립민속박물관


1


2

도당상(都堂床)

정의 서울굿에서 산신과 도당신 등에게 신찬을 바치기 위해 차리는 상.

내용 산바라기 또는 산신거리에서는 숱한 신들을 모시기 때문에 이를 총괄해 도당상이라고 한다. 도당상의 음식은 소찬과 육찬이 섞여 있으므로 이를 분간해서 보면 소찬과 육찬의 성격이 곁들여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당상에 차려지는 음식은 몇 가지로 구분된다. 대체로 앞줄에서부터 뒷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굿상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음식을 놓는 방식이다. 음식은 단순하게 놓이지 않고 일정한 순서를 유지한다. 앞줄에는 술 세 잔, 사과, 배, 감 등을 놓는다. 이 과일들은 한결같이 높게 괴지 않고, 얕게 괸다. 둘째 줄에는 유과, 약식, 약과, 옥춘, 빈자떡 또는 빈대떡, 전 등을 놓고 일정한 높이로 괸다. 음식을 괴어 놓아서 보기도 좋고 신에 대한 정성을 확인한다고 관념한다. 셋째 줄에는 촛대를 양쪽에 세우고 이 사이에 국수장국, 밤과 대추, 약식 등을 놓는다. 이 가운데 국수장국과 같은 것은 특찬이다. 가령 만신의 진적굿에서는 국수장국이 으뜸이므로 이 음식을 차린다. 넷째 줄에는 도당시루와 산신시루를 시루째 놓는다. 시루는 으레 팥떡, 위에 흰 웃기와 웃기 등이 놓인다. 흰 웃기는 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고 크게 놓으며, 고명처럼 장식하는 웃기는 미나리와 대추 등으로 꾸며진다. 이를 일정한 배열로 무늬를 돌려가면서 꾸미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장식 음식이 된다.

이와 같은 도당상의 줄 배열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굿상 차림에 일반적인 관념에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도당상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육찬이다. 이상의 상차림은 소찬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육찬을 곁들인다. 육찬으로는 돼지머리와 돼지고기가 조금씩 놓인다. 최근에는 물화가 번성해져서 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육찬은 산신과 도당신 등이 온전하게 음식인 신찬을 받아들였는지 검토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신이 응감하고 온전히 받아들였는지 여부를 아는 중요한 준거가 곧 산신도당의 사슬세우기이다. 먼저 빈 사슬을 세우고 나서 바로 육찬의 사슬을 삼지창에다 세운다. 고기를 잡수고 신의 뜻을 점치는 행위는 굿상 차림의 핵심적인 면모를 과시한다.

서울굿 가운데 큰굿에서는 산바라기굿을 따로 했다. 산에 올라가서 산신도당상을 차리고 특정한 공간을 관장하는 신을 모시는 절차에서 이 상을 차려서 신을 대접했다. 신격이 어디에 거처하고 어느 곳을 관장하는 신격인가 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 굿상 차림의 의의를 이해할 수 있다.

자연적 공간을 통해 인간의 삶과 번영을 갈구하는 가운데 이러한 굿거리가 마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신격은 인격신의 의인화가 필요하므로 이 점 때문에 굿상에서 필요한 음식이 인간의 정성을 더하는 것과 관련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의 음식과 신의 음식이 경계면에서 서로 만나게 된다. 이 점에서 매우 긴요한 의미를 지닌다.

서울굿에서 굿상은 구조적으로 일정한 정합성을 띠고 있다. 가령 천상의 신격인 천궁불사신의 계통을 위해서는 온전히 소찬을 사용하고, 산신도당거리에서는 소찬과 육찬을 함께 사용하고, 대안주거리에서는 육찬을 위주로 하고, 조상상에는 인간의 잔칫상 비슷하게 차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울굿상에서 보이는 면모를 통해 우리나라 굿상의 차림에 대한 개괄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일상식의 잔칫상, 굿에서의 굿상, 유가식의 제상 등은 비교 연구의 대상이 된다. 이 점에서 일상식을 떠나 의례에서 차리는 음식이 서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게 된다. 이는 서로 연구의 준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연구과제를 발견할 수 있게 한다.

참고문헌 한국의 무(조흥윤, 정음사, 1983).
필자 김헌선(金憲宣)

상호참조 산바라기상(382쪽)

도랑선비 청정각씨 노래

정의 함경도 지역의 새남굿 또는 망묵굿에서 구송되는 서사무가. 혼인 첫날에 죽은 신랑을 만나기 위해 희생하는 청정각씨의 이야기다.

내용 청정각씨의 아버지는 화덕중군황철사이고 어머니는 구토부인이다. 청정각씨가 어떤 양반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그 신랑이 도랑선비였다. 신랑이 신부 집에 왔을 때 무엇이 신랑의 꼭뒤를 내려짚는 것같이 생각되더니 앓게 되어 그대로 정신이 혼미하게 된다. 신부가 이 사실을 알고 큰무당을 불러 굿을 하니 부정한 삼색채단 예물 때문이라고 하여 그것을 불태워 없애자 신랑의 정신이 조금 돌아온다. 그러나 병세가 호전되지 않자 신랑은 밤중에 본집으로 간다고 하면서 이튿날 오시(午時)에 단발한 놈이 고개를 넘어오면 자신이 죽은 줄 알라고 신부에게 말한다.

신부는 그날 밤부터 정화수를 떠놓고 이튿날 사시(巳時)까지 지극정성으로 신랑을 살려 달라고 한울님과 부처님께 빈다. 그러나 해시(亥時)가 되자 마침내 단발한 놈이 와서 신랑이 죽었다고 부고를 전한다. 신부는 검은 머리채를 풀어 산발을 하고서 시댁에 가 사흘 동안 오직 물만 마시며 슬피 운다. 신랑을 매장한 이후에도 신부가 계속해 우니 그 슬픈 통곡소리가 옥황상제에게까지 들린다. 이에 옥황상제가 황금산 성인으로 하여금 그 전후 사정을 알아보게 하였다. 황금산 성인이 청정각씨가 있는 곳으로 동냥을 오자 청정각씨는 동냥은 얼마든지 줄 테니 남편을 꼭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애절하게 빈다. 이에 감동한 황금산 성인은 뒤웅박을 주면서 정화수를 길어다가 남편 묘 앞에 가서 이부자리를 펴고 첫날밤 입던 옷을 입고 사흘 동안 지극정성으로 빌라고 한다. 신부가 사흘 동안 지극정성으로 빌자 남편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나 신부가 남편의 손목을 만지려고 하자 남편은 갑자기 사라진다. 신부가 소리를 높이 하여 신승(神僧)을 부르면서 다시 남편을 보게 해달라고 빈다. 그러자 황금산 성인이 청정각씨에게 머리카락을 뽑아 삼천 마디 노끈으로 묶어서 안내산 금상절에 가 그것의 한 끝은 법당에 걸고 또 한 끝은 공중에 걸어 두 손바닥에 구멍을 뚫어 삼천동녀(三千童女)가 힘을 다하여 올리고 내려잡아 당겨도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남편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한다. 신부는 신승이 시킨 대로 하여 마침내 남편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나 신부가 남편을 안으려고 하자 또다시 남편은 사라진다. 신부가 슬피 울자 신승이 나타나 새로운 방도를 일러주기를 참깨 · 들깨 · 아주까리 다섯 말로 기름을 짜서 그것을 손에 적셔 기름을 모두 없애고 열 손가락에 불을 붙이면서 부처님께 발원하면 만날 수 있다고 말한다. 신부는 마침내 열 손가락에 불을 붙여 불전에 발원한다. 그러자 염라대왕이 금상절에 불이 났다며 도랑선비에게 불을 끄고 오라고 하자 도랑선비는 부처님 뒤에 나타나지만 청정각씨가 안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남편은 사라진다. 신부가 다시 애걸하자 신승은 안내산 금상절로 가는 고갯길을 연장을 사용하지 않고 길 닦음을 하면 신랑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신부는 타고 남은 손가락으로 풀을 뽑고 돌을 치우고 흙을 고르면서 길 닦음을 하다가 고갯마루에 이르러 혼절한다. 한참 지나서 깨어난 신부는 다시 길 닦음을 하다가 고개 아래에서부터 길 닦음을 하며 올라오는 초립 쓴 소년을 만난다. 그 소년은 그녀가 그토록 애타게 만나려고 한 남편이었다. 신부는 이번에는 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여 모르는 체하고 있다가 남편이 가까이 오자 갑자기 껴안고서 놓지 않는다. 신랑이 신부를 알아보고서 "그대의 지성에 하늘이 감동하여 염라대왕이 나로 하여금 이 고개의 길을 닦게 하여 이것이 다 되면 부처님 덕으로 나는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오. 이제는 길을 닦는 것도 다 되었으니 지금부터는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소"라고 말한다.

도랑선비와 청정각씨는 집으로 가는 길에 다리를 건너게 된다. 청정각씨가 먼저 건너고 도랑선비가 그 뒤를 따라 건너는 도중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 도랑선비를 휘감아 다리 아래 물속으로 떨어뜨린다. 물속에 떨어진 도랑선비가 청정각씨에게 소리치면서 "나와 함께 살려거든 집에 돌아가서 석 자 세 치 명주로 오대조 할아버지께서 심은 노가지 향나무에 한 끝을 걸고 한 끝은 당신의 목에 걸고 죽으시오. 죽어서 저승에서라야 우리 둘이 잘 살리라.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탐재살민(貪財殺民)한 죄로 이렇게 되었소"라고 말한다.

이에 청정각씨는 죽는 법을 깨닫고 신랑이 시킨 대로 하여 자결한다. 옥황상제가 금상절 부처를 시켜 자기에게 청정각씨는 천하에서 가장 지성(至誠)한 사람이니, 청정각씨를 가장 좋은 곳에 있게 하라는 편지를 보내게 한다. 청정각씨는 저승에서 남편을 만나 무한한 낙을 누리다가 인간 세상에 환생하여 신으로 모셔지게 된다.

지역사례 1926년에 손진태가 처음 채록하였으며, 1966년과 1981년에도 각각 김태곤과 임석재가 채록하였다. 전자의 채록본과 달리 후자의 두 채록본

에는 도랑선비가 죽게 되는 원인이 결혼날짜를 잘못 잡았기 때문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두 사람이 저승에서 만나 행복하게 살다가 인세에 환생하여 신으로 모셔지게 되었다는 내용은 없다. 또한 남자 주인공 도랑선비의 이름인 '도랑'이 쇠와 같이 녹슬어 없어지지 않고 나무처럼 썩어 없어지지 않으며, 흙처럼 풀어져 없어지지 않는 대신 돌과 같이 단단하게 오래오래 살라는 뜻인 '돌랑'에서 유래한 것으로 제시한 것은 1981년 채록본만의 특징이다. 이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이 서사무가가 사령제(死靈祭)인 망묵굿에서 구송된 것으로 보아 함경도 지방에서는 도랑선비와 청정각씨가 인간의 영혼을 관장하는 신으로 숭앙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의의 문학적으로 볼 때 이 서사무가는 청정각씨의 지극한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켰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 부부간 애정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것은 1966년의 채록본 말미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 바로 이승에서 한 번 부부의 연을 맺으면 백 년이든 천 년이든 계속 이어져 집안의 조상신 내지 시조신으로 모시고 섬겨진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종교·문화적으로 볼 때 인간의 심성에서 우러나오는 지극한 '정성'이 가장 중요할 뿐 그것의 목적은 달라질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길 닦음 화소(話素)'나 '끈으로 손을 꿰어 말뚝에 맸다는 화소'는 원래 불교적 내용이다. 이들 화소는 불도(佛徒)가 서방정토(西方淨土)에 이르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고통과 지극 정성을 가시적으로 나타내 주는 상징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특히 '끈으로 손을 꿰어 말뚝에 맸다는 화소'는 고통과 정성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고통이면서 지극한 정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연(一然)이 편찬한 『삼국유사(三國遺事)』 권 5 감통(感通) 7 소재(所載) 욱면비염불서승(郁面婢念佛西昇)에서도 확인된다. 욱면이 천한 종의 신분이면서도 불법(佛法)을 지극 정성으로 닦기 위해 "뜰의 좌우에 말뚝을 세우고 노끈으로 두 손바닥을 뚫어 잡아매고 합장을 좌우로 늘리면서 격려하였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불교적 요소가 무속의 서사무가에 수용된 것은 무속에서도 역시 무속신(巫俗神)에게 발원할 때 인간의 정성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학이나 종교 및 신앙을 초월하여 인간의 정성은 아무리 천한 사람이나 연약한 여자든지 그리고 어떠한 고통이 가해지더라도 서방정토에 이르게 하고, 이승과 저승의 왕래를 가능하게 하고, 죽은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하는 정신적 힘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서사무가는 한국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근원적이며 보편적인 심성을 문학적으로 잘 형상화하여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참고문헌 三國遺事, 조선신가유편(손진태, 향토문화사, 1930), 삼국유사(권상로 역, 동서문화사, 1978), 한국무가집 3(김태곤, 집문당, 1978), 함경도 망묵굿(임석재 외, 열화당, 198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6-도랑선배청정각씨노래(서대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함경도 무속서사시 연구(김헌선, 구비문학연구 8, 한국구비문학회, 1999), 부부에 관한 신화적 탐색의 논리(최원오, 계간 미네르바 17, 2004).

필자 최원오(崔元午)

도래둘러맴

정의 제주도굿에서 떡이 든 차롱을 들고 추는 춤.

내용 시왕맞이 초감제에서 새ᄃᆞ림 뒤 신청궤를 하기 전에 심방이 돌래떡을 넣은 채롱을 들고 추는 춤을 도래둘러맴이라고 한다. 심방은 새ᄃᆞ림을 한 뒤 악기의 신을 대접하기 위하여 향로를 들고 춤을 추고, 돌래떡을 담은 채롱을 들고 춤을 추어 신을 즐겁게 하며, 춤이 끝나면 무악기인 설쇠·북·징 위에 떡을 올려놓고 악기의 신 '너사메너도령'을 대접한다. 연물은 곧 악기의 신이기 때문이다. 이때 돌래떡이 든 채롱을 들고 추는 춤을 '도래춤'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도래둘러맴은 악기의 신을 대접하기 위하여 마련한 '도래 채롱'을 둘러메고 춤을 추는 굿이다.

굿을 할 때 춤을 추는 심방과 악기를 두드리는 소무의 관계는 무조신 젯부기 삼형제와 악기의 신 너사메너도령의 팔자동관 유학형제법에 의한다. 제주도의 무속신화인 '초공본풀이'에 의하면 무조신과 악기의 신은 모두 팔자를 그르쳐 굿을 했고, 굿을 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물명주 단속곳 왼


1


2


3


4

1. 악기의 신인 너사메너도령을 대접하는 도래떡 채롱을 들고 추는 춤
북제주군 구좌읍 동김녕리 | 1994.10.24 | 문무병

2. 악기의 신인 너사메너도령을 대접하는 떡과 과일을 들고 추는 춤

3. 악기가 잘 울리도록 악기를 치는 소무들에게 인정을 받는 장면

4. 굿이 잘 되게 요령을 흔들며 기원하는 2,3박의 원불수룩춤
제주시 외동1동 김희숙무용학원 | 2002.12.15 | 문무병

쪽 구멍에서 오른쪽 구멍으로 나와 위아래 육형제 '한배 형제'가 되는 의식을 행하여 의형제를 맺었다. 삼형제는 두 이레(열나흘) 동안 북소리를 울려 굿을 하여 어머니를 살려내었다. 큰굿은 두 이레 동안 삼천천제석궁에 북을 울리면서 삼천천제석궁에 갇힌 어머니를 구한 데서 비롯되었다. 무조신 삼형제는 서광베포땅 어주애삼녹거리에 큰 집을 지어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는 이승 삼하늘을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북과 장구 등은 너사메너도령으로 하여금 지키게 함으로써 너도령 삼형제는 악기의 신이 되었다. 그러므로 도래둘러맴은 심방의 신[巫祖] 젯부기 삼형제와 한배 형제가 되는 악기의 신 너사메너도령 삼형제를 잘 대접하여 악기가 잘 울리게 하고, 굿춤 또한 신명을 얻어 굿이 잘되게 하는 악사와 연물을 위한 굿이다.

도래둘러맴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시왕맞이, 초감제, 군문열림이 끝나고 새ᄃᆞ림이 끝난 뒤 신청궤를 하기 전에 시작되는 도래둘러맴은 주잔권잔, 향로춤, 도래둘러맴, 젯북제맞이굿, 원불수룩춤, 신칼점의 순서로 진행된다. 주잔권잔과 향로춤이 끝나면 소무는 요령과 떡 차롱을 들고 제장에 서서 사설과 춤을 반복한다. "당주 도래 몸주 도래 신영간주 도래 신나게 했습니다. 인왕 도래 신내우니 인군님이 응할 듯하는구나. 상방 상도래 중방 중도래 하방 하도래까지도…"라는 내용의 사설을 한 뒤 악사들이 앉아 있는 곳으로 가서 악기 위로 떡채롱을 왔다 갔다 하며 흔드는 춤을 춘다. "열십전대왕님에도 인정 많이 받아 위에 올립니다. 삼시왕님에도 인정 많이 받아다가 위 올려 드립니다. 울랑국범천왕(북) 대제김(큰북) 소제김(작은북)에 간장 타던 선생님네들 많이 인정을 받아다 위 올려 드리며, 안도래는 바깥으로 넘놀리고, 바깥도래는 안으로 넘놀리자……"라는 내용의 사설이 이어지고, 다시 떡채롱을 흔드는 춤을 춘다.

다음으로 '젯북제맞이굿'으로 넘어간다. 소무는 "연당 아래 굽어보면 너사메너도령 밤낮 몰라 울고 있더라. 애산 신구월 초여드레 본명두, 열여드레 신명두, 스무여드레 삼명두 원불당 원수룩 올리면 살아날 듯합니다. 동서남북으로 전새남 육마을 내세울 도랩니다. 없는 금전 없는 제물 내세울 도랩니다. 자손들 다니는 길 편안하고 소원성취 시켜줄 도랩니다. 몸도 편안하고 동서로 먹을 연 입을 연 앉아난 데 서난 데 헌사날 일 가시들 일 막아 주고, 큰굿이여 작은굿이여 불도맞이여 성주풀이여 내세와 줄 도래외다. 원불당 원수룩 신불당 신수룩 젯북제맞이 굿입니다"라는 내용의 사설을 한 뒤에 '당당 당당당' 하는 2·3박의 수륙연물에 맞추어 원불수룩춤을 춘다. 원불수룩춤이 끝나면 북소리에 맞춰 주잔넘김을 한다. 마지막으로 신칼과 요령을 흔들며 춤을 추다가 신칼점을 치고 마친다.

참고문헌 제주도 무속신화(문무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한국의 굿(문무병 외, 민속원, 2002), 제주도의 굿춤(문무병, 각, 2005), 바람의 축제 칠머리당영등굿(문무병, 황금알, 2005), 굿의 기메·전지(문무병, 제주특별자치도, 2008).

필자 문무병(文武秉)

도령돌기

정의 서울새남굿의 도령거리에서 연지당을 도는 행위.

내용 도령돌기는 서울새남굿의 도령거리에서 연지당을 도는 것을 말한다. 원래는 사찰에서 행하는 '도량(道場)돌기'를 무속화한 것이다. 도령돌기를 하면서 추는 춤은 도령춤이라고 한다. 도령거리는 밖도령거리와 안도령거리로 구분되지만 안도령거리는 밖도령거리에 이어 곧바로 진행된다. 따라서 도령돌기는 밖도령거리와 안도령거리 두 거리에 걸쳐 두 번 돈다.

참고문헌 한국의 전통춤(정병호, 집문당, 1999).
필자 김영란(金暎蘭)

내용참조 도령춤(216쪽)

도령춤

정의 서울새남굿의 도령거리에서 추는 춤.

내용 도령춤에는 한삼도령춤(굿거리장단), 부채도령춤(취태장단과 별상장단), 칼도령춤(당악장단, 막장단) 등 세 가지 춤이 있다. 신복인 노란색 바리공주 복색에 달린 오색 한삼을 들고 양손을 들고 추는 평사위 또는 한 손씩 들면서 걷거나 도는 춤을 한삼도령춤이라고 한다. 그러나 평도령춤·손도령춤·나비도령춤이란 명칭은 만신에 따라 무구가 아닌 춤사위 형상에 따라 임의로 불리던 것으로, 모두 한삼도령춤에 속한다. 이는 부채도령춤과 칼도령춤이 손에 든 무구에 따라 붙여진 명칭이기 때문에 한삼자락을 들고 추는 춤의 명칭이 같은 맥락으로 무구에 따라 붙여진 통일성 있는 명칭이다.

서울새남굿의 도령춤은 도령거리에서 추는 춤이다. 도령춤은 밖도령거리와 안도령거리에서 두 번 춘다. 이 도령거리는 바리공주가 망자의 혼을 극락세계로 천도하는 과정을 그린 의식으로, 저승에서 인간의 죽음을 관장하고 자비로 그 혼을 구제한다는 지장보살을 모신 제단인 연지당 앞에 저승으로 통하는 문을 세워 놓고 도량(道場)을 도는 제차이다. 여기서 '도량'은 불상과 보살상을 모셔 놓고 예불과 치성을 드리는 곳을 일컫는다. 따라서 '도령거리'라는 명칭은 불교에서 파생된 '도량(道場)'에서 연유되어 '도령'으로 변이된 것으로, 지장보살을 모신 연지당을 일컫는 새남굿 명칭으로 고착된 굿 과정이다. 또한 불교의식에서 '도량돌기'는 사찰에서 스님과 신도들이 줄을 지어 탑을 중심으로 경내를 도는 의식이다. 새남굿의 도령춤을 '도령돌기'라고도 하는 것은 불교의식의 도량돌기처럼 대웅전과 탑을 중심으로 경내를 도는 의식을 무속화한 것임을 말해준다.

무복은 노란색 바리공주 신복에 오색 한삼, 큰머리, 가르마, 족두리, 용잠, 댕기로 화려하게 장식하여 춤을 추기에는 불편하다. 따라서 온몸을 반듯하게 서서 느린 걸음걸이와 한 손씩 한삼을 젖히고 엎는 사위로 춤을 추며, 연지당 앞에 저승으로 통하는 문까지 추면서 간다. 이때 상주와 재가집 식구들이 영정, 위패, 초, 향, 상, 돗자리 등을 들고 뒤를 따른다.

밖도령거리에서의 도령춤은 굿거리장단에 연지당 문 앞에서 한삼도령춤을 추면서 한 번 돌고, 큰 문을 나가서 한삼을 젖혀 양팔을 펴고 평사위로 세 번 돌고(평도령춤), 한손씩 뿌림으로 한삼도령춤(손도령춤)을 세 번 돌고, 방울과 부채를 들고 취태장단에 부채도령춤을 세 번 돈 다음 사방청배를 한 후에 문사재와 재담을 나눈다.

안도령거리의 도령춤은 바리공주와 재가집 식구들이 큰 상을 끼고 아홉 바퀴를 돌면서 저승의 12대문을 무사하게 통과하여 망자의 혼이 극락세계로 왕생하도록 하는 춤이다. 큰 문을 사이에 두고 재가집 식구 네 명이 돗자리를 잡고 있을 때 바리공주가 신칼을 들어 칼도령춤을 추고 신칼을 돗자리 넘어로 던진 뒤 돗자리를 쳐들면 그 밑으로 바리공주가 여덟 팔자를 그리며 춤을 추면서 나온다. 이것을 '돗삼'이라 하며, 다음에 만수받이로 이어진다.

참고문헌 한국의 전통춤(정병호, 집문당, 1999).
필자 김영란(金暎蘭)

도부

정의 단골이 단골판의 주민들로부터 받는 곡물. 봄과 가을 두 번에 걸쳐 곡식으로 받는데, 봄에 받는 것을 '봄 도부', 가을에 받는 것을 '가을 도부'라고 한다. 도부는 단골이 신에게 축원해주는 대가로 단골판의 주민들이 단골에게 주는 것이다.

내용 단골은 일정한 지역을 자신의 활동 근거지로 하는 '판'을 소유하고 있다. 이 단골판 내에서 신도들은 단골에게 종교적으로 의존하고 단골은 신도들로부터 경제적 부양을 받았다. 즉, 단골은 자신의 단골판에서 사제자 역할을 하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봄과 가을에 단골댁(신도)으로부터 보리와 나락과 같은 곡물을 받는 것이다.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의 『조선의 무격(朝鮮の巫覡)』에 기록된 1930년대 초 광주와 순천지방의 단골제의 관행을 보면, "광주 지방에서는 무녀를 단골무당이라고 부르고 신자를 단골댁 또는 단골집이라고 부른다. 무당이 단골댁에 대해서 하는 일은 매년 1회 정월 중 단골댁의 각 호를 돌면서 그 해의 식재초복을 빌어주는 정기적인 기도와 결혼, 출산, 사망, 질병, 재액 등의 일이 있을 때마다 빌어주는 임시적인 것 두 가지이다. 단골댁의 단골무에 대한 의무는 봄 1회 보리 약간, 가을에 1회 벼 약간을 시주하고, 정월 정기 기도를 제외한 임시기도에는 제물과 약간의 사례를 하게 되어 있다. 단골은 마을의 공동 축제자이며 사역자이기 때문에 단골댁에서는 단골의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콩, 보리, 쌀, 조, 의복을 주고 봄가을에 약간의 농산물을 주고, 무가의 개축이나 수리 등도 단골댁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순천 지역에서는 종래 무녀가 두 세 마을을 단골판으로 한다. 매년 보리와 벼 수확기에 큰 자루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곡식과 물건을 거두고, 그 대신 단골집에 대해서 무당은 제의를 하여 준다. 그때에는 달리 보수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근년에 와서 그런 제도는 없어지고 의례가 있을 때에만 받는다. 그 액수도 빈부의 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쌀 다섯 되에서 서 말까지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부잣집을 단골집으로 가지지 못한 무당은 생활이 곤란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단골의 도부 관행이 1930년대부터는 봄과 가을에 정기적으로 받는 정기제와 의례를 행하고 나서 그때마다 보수를 받는 임시제가 혼용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세습무의 수가 점차 줄어듦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기제가 없어지고, 현재와 같이 의례를 하고 나서 그때마다 보수를 받는 임시제로 정착되었을 것이다.

현재 순천 지역에서 세습무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박경자의 구술을 통해 살펴보면, 1970년대 초반까지도 순천 지역에서는 매년 봄과 가을에 정기적인 도부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봄에는 보리로, 가을에는 나락으로 받았다고 하며, 이것을 '동냥'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동냥'이라는 말이 주는 부정적인 어감 때문에 같은 무계끼리는 글자의 순서를 바꿔서 '양동'이라는 은어를 사용하거나 '시주'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정기적으로 받는 도부의 양은 일정치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부자들은 다섯 되, 보통 사람은 서너 되 정도를 주었다고 한다. 이 동냥을 받고 단골들은 성냥이나 바늘과 같은 물건을 단골댁(신도들)에게 주기도 한다. 동냥으로 거두어들인 양은 판마다 다르지만 보리 7~8가마, 쌀 7~8가마 정도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정기적인 도부 외에 씻김굿과 같은 의례를 해주고 나서 그때마다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부자들은 쌀 서너 가마, 보통 사람들은 쌀 한 가마 이하를 냈다고 하며, 곡물 외에 삼베 등의 물품으로 대신하기도 했다. 이것을 순천 지역에서는 '쏙쇠'라고 부른다. 이러한 쏙쇠나 동냥의 양은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훨씬 적은 양을 받거나 혹은 아예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전남 장흥군 대덕읍의 김씨 단골의 경우, 1년에 두 번 '보리 때'와 '나락 때'로 나누어 '동냥'이라고 하여 거둔다. 자식들은 이것 때문에 자신들이 차별을 받는다고 하여 거두지 말자고 하지만 수입이기 때문에 무시하기 어렵다고 한다. 보통 낮에 걷어 한 곳에 모아 두었다가 창피스러워서 밤에 사람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경운기로 운반한다. 이러한 정기적 수입 외에 의례를 할 때마다 수입

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신도들의 경제적 부양에 대해 단골들은 종교적 의례를 통해 봉사하게 된다. 단골이 단골판 내의 신도들에게 해주는 종교적 의례들은 수시로 이루어졌다. 정월에는 신수독경을 해주고, 애기 낳을 때는 삼신풀이를 해주며 자녀들이 결혼할 때에는 살맥이나 근원풀이 등을 해준다. 이외에도 일이 있을 때마다 독경이나 비손을 해준다.

참고문헌 朝鮮の巫覡(村山智順, 朝鮮總督府, 1932). 한국무속연구(김태곤, 집문당, 1985). 새로 쓴 한국무속(최길성, 아세아문화사, 1999). 굿의 현장에서 본 씻김굿 무가(이경엽, 박이정, 2000).
필자 한미옥(韓美玉)

도살풀이

정의 경기도 무속음악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장단. 경기도살풀이라고도 한다.

내용 도살풀이는 2소박 6박(6/4박자)이다. 경기도의 각 굿거리는 대부분 장구를 연주하는 세습악사 화랭이가 앉아서 노래하는 앉은청배로 시작되고, 이어서 무당이 굿의 절차와 내용에 따라 서서 부르는 무가가 이어진다. 이 무가가 대부분 도살풀이장단으로 구송된다. 앉은청배도 과거에는 앉은청배에 도살풀이 외에 청배, 중모리, 자진모리 등 다양한 장단이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거의 도살풀이로만 불린다.

무가가 장시간 구송될 경우 도살풀이는 점차 속도가 빨라져 모리, 발뻐드래로 바뀌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장단의 변화 없이 도살풀이를 빨리 몰아 연주하는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도살풀이와 유관한 장단으로 전라도굿의 동살풀이와 살풀이가 있다.

도살풀이 장단 기본형



참고문헌 경기 무가의 음악적 특징(박정경, 경기굿, 경기도국악당, 2008). 경기도 남부 도당굿 중 제석굿 무가의 음악적 분석(박정경,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02).
필자 박정경(朴正卿)

도살풀이춤

정의 경기도도당굿에서 무녀가 굿의 거리마다 도살풀이 장단에 맞추어 방울과 부채를 들고 소리하면서 저정거리며 추는 춤.

특징 경기도도당굿에서 도살풀이춤은 대부분의 거리에서 추기 때문에 경기도 굿에서 가장 많이 추는 춤 가운데 하나이다. 각 거리 초반에 거의 저정거리는 도살풀이춤으로 시작한다. 부정놀이 · 도살풀이 · 자진굿거리 등 세 가지 장단이 항상 한 묶음이 되어 행해지는데, 내면의 응축된 기운이 강한 기(氣)를 내뿜으며 신명을 낸다.

부정놀이-(2소박 4박)

도살풀이-12박 (2소박 6박)

덩			딱			궁			따	따		궁		따	구	궁	따	닥

자진굿거리-빠른12박 (3소박 4박)

덩		따	구	궁	따	구	덩	다	다	구	궁	따	구

도살풀이춤은 양팔벌리기, 저정거리기, 엎고제치기, 너울거리기의 춤사위로 이루어진다. 그 구성을 보면 굿거리로 신을 풀어낸 다음 자진굿거리에서는 차츰 분위기가 올라가면서 한 손 메고 걸으며 잡귀잡신을 날려 보내기도 하고, 모둠발뛰기처럼 들썩들썩 흥을 내며 너울춤을 춘다.

춤사위는 다음과 같다.

1. **양팔벌리기** : 양팔을 천천히 어깨높이로 벌려 올리는 춤이다.
2. **저정거리기** : 어깨춤이라고도 하며 좌우어깨로 으쓱으쓱 풀어낸다.
3. **엎고제치기** : 한 팔을 엎고 다른 한 팔은 위로 제친다.
4. **감고풀기** : 한 팔은 감고 다른 한 팔은 푸는데 태극문양이 일어난다.
5. **너울거리기** : 양팔을 좌우로 바람이 날리듯이 흔든다. 예컨대 한 번은 좌측으로 그 다음은 우측으로 계속하여 너울거린다.

도살풀이춤은 소리하면서 저정거리는 몸짓으로 신을 불러 본격적 춤을 추면서 신을 즐겁게 하는 의미를 지닌다.

참고문헌 무무(문화재연구소, 문화재관리국, 1987). 조선무속의 현지연구(최길성,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7). 서울 진오기굿(김수남, 열화당, 1993). 한국무속과 연희(이두현,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경기도도당굿(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한국의 샤머니즘(조흥윤, 서울대학교 출판부,1999). 샤머니즘 연구(한국샤머니즘학회, 문덕사, 2002). 경기도 남부 도당굿 중 제석굿 무가의 음악적 특징(박정경, 한국무속학 7, 한국무속학회, 2003). 경기도당굿의 굿춤(이애주, 제8회 동양음악학국제학술회의, 2004).
필자 이애주(李愛珠)

도채비방쉬

정의 운수가 나쁜 사람을 대신하는 허수아비를 만들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세거리나 바닷가에 버려 미리 액을 막는 행위.

내용 도채비는 도깨비, 방쉬는 한자어 방사(防邪)에서 비롯된 말이다. 정월 들어 운수를 보아 운이 나쁘다는 것이 확인되면 정월 대보름에 방쉬를 하여 액을 막는다. 그 한 가지 방법이 허수아비를 만들어 나쁜 운을 대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도채비방쉬라고 한다.

먼저 볏짚으로 허수아비를 만들고 얼굴 부위에 눈, 코, 입 등까지 그려 넣는다. 이를 '허재비'라고 한다. 심방을 빌어 집에 제물을 차려놓고 비념을 하고, 이어 〈영감본풀이〉와 〈차사본풀이〉 등을 구연한다. 그리고 기원자의 "모든 액을 소멸시켜 달라."고 기원하고 허수아비를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길거리나 바닷가에 내다 버린다. 정월대보름은 이러한 액을 막는 날이어서 도채비방쉬가 많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그 이튿날인 정월 16일에는 사람들이 밖에 나다니는 것조차 꺼렸으며 더욱이 길에서 무엇을 줍는 것을 금기시하였다. 어쩌다 길을 가다가 방쉬한 것을 본 사람은 반드시 돌멩이를 던지고 지나가야 나쁜 액을 대신 하지 않게 된다고 믿는다. 그중에는 액을 대신하는 것이 두려워 불로 태워 버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도채비방쉬는 도채비에 대해 알면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의례이다. 도채비는 달리 영감, 참봉 등으로 불리며 사람에게 범접하여 병을 일으키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도채비방쉬는 허재비를 내놓으면 도채비가 허재비를 기원자로 알고 대신 범접하여 병을 일으킬 것이므로 기원자는 무사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허멩이를 내다 버리기에 앞서 집에서 의례를 하면서 〈영감본풀이〉를 구연하는 것도 이러한 사정 때문이다.

도채비방쉬는 대명대충(代命代充) 형식의 유감주술적인 의례이다. 대명대충으로 액을 면할 수 있다고 하는 관념은 칠성새남굿과 액막음에서도 확인된다. 칠성새남굿에서는 허멩이라는 허수아비를 만들어놓고 뱀을 죽인 것이 환자가 아니라 허멩이라고 하여 대신 벌을 받게 함으로써 환자의 치유를 도모한다. 또한 액막음에서는 그 기원을 〈사만이본풀이〉에서 찾는다. 본풀이에 따르면 사만이는 차사가 다른 사람(흔히 사필이라고 함)을 대신 잡아간 덕택에 수명을 연장할 수 있었다. 지금은 도채비방쉬를 하는 사례를 거의 볼 수 없다.

참고문헌 제주도민속: 세시풍속(진성기, 제주민속연구소, 1969).
필자 강정식(姜晶植)

도포(道袍)

정의 서울을 비롯한 황해도, 평안도, 강원도 등 주로 한강 이북 지역의 강신 무당들이 굿에서 사용하는 무복.

내용 도포는 조선시대 사대부 남자들이 즐겨 입던 겉옷으로, 뒤트임이 있으며 그 트임을 덮어주는 뒷자락이 있는 겉옷이다. 도포에 관한 기록은『선조실록』선조 40년 4월 문신 이홍망(李弘望)이 초록색 겹도포를 입었다는 기록을 시작으로『효종실

록』에는 도포를 입는 제도가 임진왜란 이후부터라고 되어 있다. 『영조실록』에는 1736년 영조 12년 9월 세자의 돌을 맞아 청색 도포에 금사관(金絲冠)을 씌웠고, 영조가 승하하자 다홍색 도포 24벌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는 천민층에까지 도포가 퍼져서 많이 입어 이를 한탄하는 내용이 있다. 도포는 당시 왕을 비롯한 관리들의 옷이었으나 사용이 점차 아래 계급으로까지 퍼져 나갔다. 그러다가 1884년 고종의 의복개혁을 통해 당시 사대부 남성들이 즐겨 입던 크고 넓은 겉옷이 금지되면서 도포 사용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지금은 예복·제사복·무복 등의 용도로 남아 있다. 도포를 입을 때는 허리에 세조대(細條帶)라고 하는 실로 짠 가는 허리띠를 두르며 당상관은 훈색이나 자색, 당하관은 청색 또는 녹색을 각각 사용하여 계급을 표시하기도 했다. 외출시에는 갓, 평상시에는 사각 형태의 평평한 동파관(東坡冠)이나 방관(方冠) 등을 각각 쓴다.

도포는 지역이나 무당에 따라서 착용하는 굿거리의 종류가 달라지며 도포의 색과 함께 사용하는 부속에도 차이가 있다. 색은 옥색이 많고 굿거리에 따라 붉은색, 흰색이 사용되기도 하며, 옷감은 무늬가 없는 명주, 무늬가 있으면서 얇게 짠 국사, 삼베 등이 사용된다.

도포가 언제부터 무복의 하나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문헌 기록은 찾아볼 수 없지만, 실제 무당의 굿을 통해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서울 지역의 봉화산도당굿 무당은 대잡이거리에서 도포를 착용하고 머리에는 흑립을 쓴다. 황해도 지방의 만수대탁굿의 거리 가운데 동서남북과 중앙에 위치한 영험한 신장들을 모시고 재앙 및 액운을 막아 달라고 비는 신장거리에서 무당은 옥색 도포를 입고 그 위에 푸른색 띠를 두르며, 머리에 갓을 쓴다. 칠성거리에서는 각 거리마다 다양한 무복을 갈아입으며 거상춤, 사면춤, 바라춤 등을 추는데 이때 천문거리와 풍수거리에서 옥색 도포를 입는다. 그 외에 육식을 하지 않은 대감을 불러들여 대접하고 놀려주는 거리인 소대감거리에서 무당은 초록저고리, 남치마, 쾌자를 입으며, 머리에 그 위에 삼베로 만든 도포를 입고 패랭이를 쓴다. 이때 서낭기를 가지고 사면춤을 추면서 복을 몰아온다.

황해도 풍어제 성수거리에서 백색 도포를 입고 실띠를 두르며, 벼슬대감·운현궁대감·부귀대감 등을 청해 재담을 하며 놀다가 대감거리에서 옥색 도포에 전립을 쓴다.

황해도 해주·옹진·연평도 지방의 풍어를 기원하는 마을제의인 대동굿에서 무당은 상산맞이, 감흥굿거리, 성수거리에서 도포를 착용한다. 당신을 맞이하는 상산맞이와 제신을 즐겁게 놀려주고 제단에 좌정시키는 굿인 감흥굿거리에서 무당은 붉은 도포에 넓은 관대를 하고 꽃으로 장식된 갓을 쓴다. 성수거리는 여러 신장, 장군, 신령들을 즐겁게 해주고 마을을 축원해 주는 성주거리에서는 한 굿거리 안에 여러 차례 무복을 갈아입는다. 처음에 옥색 도포에 검정 쾌자를 입고 흰 부채를 든 차림으로 시작한다.

강릉 지역에서는 주로 단오굿을 통해 진행되며, 세습무의 성격이 강해 무당은 신을 대접하는 축원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무복의 도포는 붉은색 명주로 만들며 허리에 띠를 맨다.

제주 지역은 강신무와 세습무가 공존하면서 무복에도 두 가지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무당을 심방이라고 부르는 제주도에서 심방들의 복장은 크게 관디, 군복, 두루마기, 평복, 도포 차림으로 구분된다. 도포 차림에서는 도포에 갓을 쓴다.

도포는 주로 강신 무당들의 굿거리에서 위엄있고 남성적인 성격의 신을 모실 때 사용한다. 현재 도포는 전통적인 형태인 넓은 소매와 뒤트임, 이 트임을 덮는 뒷자락의 모습에서 무당이나 굿거리의 성격에 따라 그 형태가 조금씩 변화되기도 하고 두루마기나 철릭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또한 도포와 함께 사용되는 띠를 갖추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하며, 갓 이외 다양한 형태의 관모(冠帽)를 착용한다.

참고문헌 宣祖實錄, 孝宗實錄, 英祖實錄, 牧民心書,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무의식(국립문화재연구소, 1983),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의생활(국립문화재연구소, 1986), 한국복식문화사(유희경 외, 교문사, 1991), 한국의 무속복식연구(유효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한국의 무복(김은정, 민속원, 2004).

필자 김민정(金潤正)

도황수[都行首/都鄕首]

정의 제주도 심방 조직의 최고 위치에 있는 심방을 부르는 호칭.

내용 1910년대까지 제주도 내의 심방들을 아우르는 조직으로 있었던 심방청의 우두머리를 도황수[都行首/都鄕首]라 하였다. 도황수는 밑으로 도공원이란 심방을 두었다. 도 단위 심방청 아래에는 각 면마다 면 심방청이 있어 면황수와 면공원이 있었다. 심방청은 도내 심방들을 엄격하게 관리하였는데 심방들이 굿을 서툴게 하는 경우, 심방청 모르게 굿을 하는 경우, 미가입 심방들이 굿을 하는 경우, 비행(非行) 등을 저지르는 경우 처벌을 내리기도 하였다.

도황수는 제주도 무속에서 최고의 사제자로 제주목사가 참여하는 무속의례인 입춘굿에서는 제주목 동헌 마당에서 제주목사와 나란히 앉아 담배를 나누어 피우며 굿을 할 정도로 대등한 지위였다고 한다.

참고문헌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제주도편(문화재관리국, 1974), 조선무속의 연구(하)(赤松智城·秋葉隆, 심우성 옮김, 동문선, 1991).

필자 강권용(康權用)

독경(讀經)

정의 법사[經客, 경쟁이 등]가 무경(巫經)을 구송함으로써 개인의 수복과 집안의 강녕을 기원하는 무속 행위.

역사 독경에 의한 기복양재의 열망은 의약이 발달하지 못하고 보편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은 물론 왕실 내부에 이르기까지 은밀하게 표출되었다. 예컨대 신라시대 미추왕 3년(264)에 성국공주(成國公主)가 발병하자 무의(巫醫)에게 1차적으로 치료의 책임을 전가하였고, 무의의 치료가 효험을 보이지 못하자 법사에게 다시 치료의 책임을 전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선덕여왕 5년(636)에도 왕이 발병하자 1차적으로 의술과 기도를 통해 치유하려고 하였고, 그것으로 차도를 보이지 않자 다시 불경[仁王經]을 구송하여 치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이미 7세기에 법사나 승려가 무당의 치병적 영역을 일정 부분 잠식했던 듯하다. 고려 이후에는 특히 맹승(盲僧)들의 독경에 의한 치병 행위가 일반화되었다.

내용 김영진은 충청북도에서 전승되고 있는 독경을 구병계열(救病系列;병굿, 푸닥거리), 기복계열(祈福系列;안택굿, 고사굿, 삼신굿, 용왕굿, 삼재풀이, 살풀이 등), 강신계열(降神系列;신명굿 등), 위령계열(慰靈系列;넋굿, 지노귀, 오구굿 등) 등으로 분류하였다. 각 계열의 하위 굿들을 현장을 통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구병계열

병굿은 신병(神病)을 치료하기 위한 임시적인 굿이다. 보통 2~3일 동안 진행하는 굿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일주일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병굿은 여느 굿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성한 제물이 없다. 신을 먹이고 달래기보다 오히려 협신(脅神)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1일은 안택굿으로서 조왕굿, 터주굿, 성조굿, 제석굿, 조상굿 등 다섯 거리가 기본이다. 병을 치료하기 전에 우선 가택신들에게 고하는 한편 집안의 질서와 조화를 부여받기 위한 혼란이므로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는 의미가 지배적이다. 2일부터 본격적으로 병굿이 행해진다. 신장을 불러들이는 청배, 신장의 힘을 빌려 역신(疫神)을 구축하는 축사(逐邪), 신장을 되돌려 보내는 송신(送神)으로 진행된다.

푸닥거리는 대수대명(代數代命)이나 살풀이 등 축사와 축원으로 이루어진다. 무경의 구송보다 주술적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약간의 비손이 곁들여진다.

2. 기복계열

안택굿은 가택신을 대상 신격으로 하여 인간의 복락을 추구하는 굿이다. 보통 4~5개의 작은 석(席;거리)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큰굿이다. 석마다 일정한 역할을 지닌 신격이 등장한다. 대개 조왕, 제석, 터주, 삼신, 조상 등이다. 굿은 일반적으로 조

왕굿, 토주굿, 성주굿, 제석굿, 조상굿 등 순으로 진행된다.

고사굿은 안택굿과 유사하지만 정례성을 띤 추수감사제 성격이 강하다. 제일은 시월을 전후한 시기에 택일되며, 제물은 시루 · 돼지머리 · 삼색실과 · 청주 등이다. 기원의 내용은 가족 구성원의 안녕, 오곡의 풍성, 자손의 번창 등이다. 굿은 태을보신경, 부정경, 축원문, 고사덕담, 내전풀이 등의 구송으로 진행된다.

삼신굿은 자손이 귀한 가정에서 행하는 임시적인 굿이다. 제일은 출산 후 초이레 · 두이레, 세이레 중에서 택일하며, 제물은 메 · 청수 · 미역국 · 백설기 등이다. 기원의 내용은 산모와 유아의 건강, 산모의 풍족한 모유 등이다. 굿은 태을보신경, 부정경, 축원문, 삼신경 등의 구송과 삼신받이 순으로 진행된다.

용왕굿은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비는 정기적인 굿이다. 제일은 정월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원의 내용은 마을의 안녕과 풍어이다. 제물은 용왕시루 · 청주 · 삼색실과 등이며, 일부의 제물을 물에 던져 진설한다. 굿은 태을보신경, 부정경, 용왕축원문, 용왕경, 내전풀이 등의 구송으로 진행된다.

삼재풀이는 삼재가 드는 해에 행하는 임시적인 굿이다. 제일은 정월 초에 집중되며, 제물은 소금 · 팥 · 콩 · 청수 · 나이전 등이다. 굿은 태을보신경, 축원문, 삼재경 등의 구송과 삼재풀이 행위로 진행된다. 삼재풀이 행위는 삼재를 풀어내는 과정이며 주술적 행위가 두드러진다. 환자의 머리에 박을 뒤집어씌운 후 팥과 소금 등으로 내치며, 이어 제주의 속옷을 불에 태운다.

살풀이는 인간의 삶에서 닥칠 수 있는 여러 살(煞)을 풀기 위한 임시적인 굿이다. 살상(煞床) 앞에 제주를 앉히고 제주의 나이 수대로 수수팥떡과 청수를 진설한다. 굿은 태을보신경, 부정경, 축원문, 팔신청래(八神請來), 해살경 등의 구송과 살풀이 행위로 진행된다. 살풀이 행위는 살을 제거하기 위한 주술 행위로 제주의 머리 위에 보자기를 씌우고 여기에 다시 키[箕]를 뒤집어씌운다. 이어 수수팥떡을 재[灰]와 고춧가루에 묻혀 화살 끝에 꿰고, 제주의 머리 위를 향해 쏘아댄다.

3. 강신계열

신명굿은 흔히 내림굿 또는 신가래재비로 불리는 3일 이상의 대규모 굿이다.

첫째 날은 입무자의 신내림을 가택신과 조상에게 미리 고한다는 의미로 안택굿을 행한다.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신명굿이 이어진다. 이때 굿은 허주굿의 성격이 강하다. 허주굿은 입무자의 몸에 실려 있는 잡귀와 잡신을 몰아내는 의식이다. 굿은 보통 다섯 석으로 진행된다. 제1석은 청신거리로서 태을보신경, 부정경, 축원문, 청신편을 구송한다. 제2석은 축사거리로서 명당경, 신장축원문, 옥추경을 구송한다. 제3석은 축사거리의 연장으로서 옥갑경, 천지팔양경을 구송한다. 제4석 역시 축사거리의 연장으로서 계사(繫辭), 철망경(鐵網經)의 구송에 이은 대가림으로 진행된다. 제5석은 송신거리로서 신장퇴문경의 구송과 내전풀이로 진행된다.

셋째 날의 굿은 입무자의 몸에 신을 받아들이는 신내림과 입무자를 위한 축원이 핵심을 이룬다. 굿은 다섯 석으로 진행된다. 제1석은 청신거리로서 태을보신경, 부정경, 축원문, 청신편을 구송한다. 제2석부터 제4석까지는 입무자를 위한 축원거리이다. 제5석은 입무자의 주신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여러 신의 이름을 적은 신장위목(神將位目)을 바닥에 놓고 입무자로 하여금 대를 따라 선정하게 하는 방법이다. 일단 선정을 하면 입무자는 그 명패를 간수하였다가 신당을 설치한 후 보존한다. 이어 신장퇴문경을 구송함으로써 제장으로 청배했던 신장들이 원래의 장소로 돌아가기를 기원한다.

4. 위령계열

넋굿은 넋건짐으로 불리는 임시적인 굿이다. 집안에 객사한 사람이 있어 혹 원혼이 될 것을 염려하여 행하는 해원적 성격의 굿이다. 제장은 사망한 바로 그 장소가 되며 여기에 깨끗한 짚을 깔고 혼령상을 차린다. 혼령상에는 백설기, 청주, 정안수, 삼색과일 등을 진설한다. 굿은 태을보신경, 부정경, 축원문, 해원풀이 등의 구송과 초혼(招魂) 및 넋건짐으로 진행된다. 넋건짐은 초혼기로 불리는 그릇에 망자의 영혼을 불러들이는 의식이다.

지노귀는 망자의 혼을 천도하기 위한 임시적인 굿이다. 흔히 자리걷음으로 불리고 있다. 안방에 시왕 명패를 모시고 망령상을 차린다. 망령상에는 망자의 영가(靈駕)를 세우며, 그 앞에 길배를 12척으로 깔아 놓은 후 12개의 그릇에 쌀을 담아 불밝이를 한다. 여기에 사자(使者)의 신체를 상징하는 백지를 꽂는다. 경우에 따라서 망자의 옷이나 신발 등을 올려놓기도 한다. 굿은 태을보신경, 부정경, 축원문, 명당경, 해원경의 구송과 내전풀이로 진행된다.

오구굿은 길일을 택하여 망자의 영혼을 다시 한 번 천도하는 임시적인 굿이다. 일종의 위령제로 볼 수 있다. 굿은 안택굿 다섯 거리에 지노귀 한 석이 보태어지는 형태로 진행된다.

참고문헌 한국무가의 연구(서대석, 문학사상사, 1980), 손진태선생전집 권2(손진태, 태학사, 1981), 민속지(충청북도, 1987), 새로 쓴 한국무속(최길성, 아세아문화사, 1999), 충청북도 민속연구(김영진, 논문집 7, 청주대학교, 1972), 충청북도 무속연구(김영진, 논문집 10, 청주대학교, 1976), 조선조 유교사회와 무속 국행의례 연구(최종성,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01), 충청도 설경 연구(안상경, 한국무속학 5, 한국무속학회, 2002), 충청도굿(한국의 굿, 한국무속학회 편, 민속원, 2002), 앉은굿 무경 연구(안상경,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필자 안상경(安相敬)

독집

표제어 영집(656쪽)

돈전개[錢錢蓋]

정의 황해도 만구대탁굿 같은 큰 굿을 할 때 신령님전에 부귀영화를 염원하기 위해 굿청에 띄우는 장식물.

내용 돈전개는 돈개 또는 전개라고도 부르며, 금색으로 장식하는 금전개(金錢蓋)와 은색으로 장식하는 은전개(銀錢蓋) 두 종류가 있다.

돈전개는 제작자에 따라 일층개와 이층개 두 가지 형태로 제작된다. 일층 형태는 둥그런 틀을 위쪽에 하나만 제작하는 것이고, 이층 형태는 둥그런 틀을 위아래 두 개로 제작한다. 둥그런 틀은 두꺼운 종이나 얇은 나무로 만들어서 겉에 물감들인 한지를 바른다. 틀 하단 부분에는 여러 개의 한지를 주렁주렁 늘여 붙인다.

돈전개는 굿이 끝나면 불태우고 또다시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나 제작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제작비도 만만치 않아서 근래에는 보관하였다가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문헌 황해도 굿에 쓰이는 종이 신화와 신구의 종류, 형식, 상징성 고찰(양종승, 한국무속학 13, 한국무속학회, 2006).
필자 양종승(梁鍾承)

돈전풀이

정의 함경도 함흥에 전승되는 돈전[錢]의 내력에 관한 본풀이.

내용 〈돈전풀이〉는 동일한 내용의 본풀이가 여러 각 편 전해지고 있어 중요한 본풀이 가운데 하나였을 개연성이 있다. 현재 이 본풀이는 채록된 자료만 전할 뿐 전승은 단절됐다.

함경도에서 죽은 사람을 위한 굿을 하게 되면 굿당에 돈전을 장식한다. 이 본풀이는 이것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알리는 긴요한 본풀이다. 내용 자체가 복합적이어서 한결같은 의미로 일관되게 해명하기가 어렵다. 〈돈전풀이〉는 돈전굿, 돈전



쪼이라고도 한다.

〈돈전풀이〉는 특별하게 돈전의 기원을 '돈전'과 '변전'에서 찾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본풀이의 서두와 결말 부분에 있는 대목은 다음과 같다.

"그 판관들이 나 올 적에 전상에 돈을 내줍니다./ 많은 사람 많이 주고 적은 사람 적게 주고 거제 있는 맥에 놓은 사람덜/ 어 몇 만냥(萬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 든 다 내 주는데 망령으느 오늘이/ 가주고 나와서 잡수구 살아 노이러 가다가/ 세상 떠난 지 ○年이 되였습네다. 그런데 숫탄 빗을 가지고 환전도 못 바/ 치고 벤전도 못 바치니 오늘 날으느 망령에 초혼날이 되기를 예납으로 드리/ 놓고 각삭 제사를 다 멘하고 정상에서 가주고 나온 본전을 환전을 바치고/ 벤전으느 대왕님전에 모두 바치니 그 대왕이 얼매를 되겠습니다./ 이 돈을 디리는 근본이가 궁주섬에 궁산이가 장안 부잽니다."

"그렇겄다 그러며는 너이들이가 선간으로 올라 가라 선간에 올라 가서/ 돈 찾이를 해라 인간 사람이라 옥황상제께서 명을 빌어 준다 칠셍이란 것/ 은 복을 준다. 너는 많이 줄 사람은 많이 주고 적기 줄 사람은 적기/ 주고 금상에 나온 사람으느 다 돈을 조라 그러니 너 돈 찾이를 하여라/ 멩월각씨는 한전을 찾이하고 궁산이느 벤전을 찾이 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벤전 본전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벤전 본전을/ 찾이하니 궁산이가 멩월각씨는 돈전 불림에 들어가 있는 법입네다."

〈돈전풀이〉는 함경도 망묵굿의 한 굿거리에 해당한다. 함경남도에서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천도하기 위해 큰굿을 한다. 이를 망묵굿 또는 새남굿이라고도 한다. 망묵굿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저승의 사자에게 끌려가는 동안 사용하라고 황색의 종이돈과 흰색의 종이돈을 마련해 굿판에 장식하여 놓는다. 이른바 저승에서 사용하는 돈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지방의 영혼 천도를 위한 굿과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금전 및 은전의 장식물과 이에 관한 내력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죽은 사람의 영혼이 저승에서 돈을 알맞게 쓰며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돈전풀이〉의 내력을 구연한다.

〈돈전풀이〉에서 핵심은 '환전'과 '변전(邊錢)'이다. 이것은 본전과 이자 및 특별하게 사용하는 돈의 내력을 말한다. 본풀이의 서두에서는 인간은 전생에 숱한 빚을 지고 살게 되는 동시에 이 빚은 본전과 환전으로 나뉘는데 이것을 갚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초점이다. 또한 망자의 갑자(甲子)에 따라 그것이 속한 대왕에게 바치는 돈이 있으며, 여기에는 차이가 있다. 이 돈전의 내력이 곧 〈돈전풀이〉의 주요 내용이다.

〈돈전풀이〉의 서사 내용이 장황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간추려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궁상선비는 재산이 많고 놀이에 호기심이 많은 존재이며 학식과 재색을 겸비한 명월각시라는 여성과 혼사가 오가다가 마침내 그녀와 혼인하였다. 배나라의 배선비가 궁상선비의 재산과 명월각시를 탐내 여러 차례 거짓내기를 하여져 주는 척하다가 마침내 본격적인 내기를 한다. 결국 배선비는 궁상선비와 내기장기를 두어 온갖 본전을 얻는 것과 함께 심지어 명월각시까지 차지하는 승리를 거두게 된다.

명월각시는 궁상선비의 불행하게 된 사정을 알게 된 뒤에 지인지감(知人之監)이 있어 궁상선비를 위해 소를 잡고 육포를 떠서 이것으로 세 벌의 옷을 입게 하였다. 그리고 보따리와 소함박에 다 낚시를 준비하여 넣어 두었으며, 집에서 기르는 '봉학이'를 데려 가기로 하였다. 또 배나라 배선비는 명월각시를 데리고 배나라로 돌아갈 때 궁상선비를 집에 데려가서 쓰자고 하면서 배에 태워 가다가 그를 물에 빠뜨려 죽게 한다.

한편 배선비는 자신의 나라에 가서 명월각시의 정조를 유린하려고 하지만 명월각시는 전 남편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함께 잘 수 없다고 거절한다. 배선비가 얼마 뒤에 다시 동침을 요구하자 명월각시는 종이칼로 종이단추를 베어야만 동침할 수 있다면서 배선비의 요구를 다시 미룬다. 그리고 명월각시는 자신이 기르는 봉학이를 불러 '궁주섬'에 있는 궁상선비를 구하라고 날려 보낸다.

궁주섬에 버려진 궁상선비는 봉학이 덕분에 물가에 올라와 결국 살아나게 된다. 그리고 명월각시가 마련한 옷 속에 감추어진 음식을 먹고, 소함박 안에 있는 낚시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간다. 궁상선비는 궁주섬에 갇혀 있다가 봉학이의 잔등에 올라타서 그 섬을 빠져나오는 도중에 봉학이가 기운이 없어 떨어져 죽게 될 지경이 되자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 먹이면서 마침내 그곳을 탈출한다. 궁상선비는 그때부터 함박을 가지고 빌어먹으며 '이걸이'(거지)로 돌아다니게 되었다. 명월각시는 봉학이를 통해 궁상선비가 궁주섬을 탈출한 사실을 알게 되고 '이걸이 잔치'(걸인 잔치)를 하여 남편을 만나려는 계획을 꾸민다. 명월각시는 배선비를 설득하여 이걸이 잔치를 하게 한다. 궁상선비는 이 잔치에 와서 계속 얻어먹지 못하다가 마침내 명월각시를 만난다.

명월각시는 잔치에 온 삼천 유인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슬옷을 내놓아 이것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배선비가 구슬옷을 입으려고 하지만 입지 못하자 명월각시는 삼천 유인들이 보는 앞에서 배선비에게 호통을 치고는 궁상선비와 집을 나와 이걸이로 나선다.

궁상선비와 명월각시는 걸인으로 빌어먹고 다니다가 결국 잘사는 집에서 허드렛일을 하면서 머물러 살게 된다. 궁상선비가 하루는 산책을 하다가 돌아와서 돈이 한 칠 푼이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자 명월각시가 돈 칠 푼을 준다. 궁상선비는 이 돈 칠 푼으로 거의 다 죽게 된 고양이를 사와서 고양이에게 밥을 먹이며 함께 산다.

또 하루는 궁상선비가 명월각시에게 돈 반 냥이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을 하자 명월각시는 돈 열다섯 닢을 준다. 궁상선비는 이 돈으로 '뱀이'를 산다. 석 달 열흘이 되어서 뱀이가 사라지고 없게 되자 궁상선비가 뱀이를 찾으며 애타게 기다리는데 뱀이가 갑자기 나타난다. 뱀이는 자기가 용왕의 아들이라고 하며 껍질을 벗고 새파란 새서방이 되면서 '용곡천자'임을 강조한다. 용곡천자인 '새파란 새서방'이 용궁에 가서 아버지에게 자신을 구해 준 사람에게 은혜를 갚고자 하는 사연을 말하고 궁상선비와 명월각시를 데려온다.

'새파란 새서방'은 궁산선비에게 용왕이 상으로 바라는 것을 주겠다고 하면 '건망중태'를 달라고 말하라며 일러준다. 궁상선비는 그대로 말하였으나 용왕이 주지 않아 그냥 나온다. 그러자 궁상선비가 기르는 고양이가 용궁에 들어가 그것을 훔쳐 온다. 그리고 궁상이 내외가 건망중태를 걸어 놓자, 하룻밤을 자고 나면 여기에 돈이 가득하고 다시 하룻밤을 자고 나면 또 돈이 가득 차게 된다. 그러나 궁상선비의 집에 돈이 차는 대신 천자상감의 돈이 줄어들어서 그 까닭을 조사한다. 궁상선비의 집에 자신의 돈이 있는 것을 알게 된 천자상감은 궁상선비가 나랏돈을 가져간 것이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벌을 주려 하다가, 건망중태가 탐이나 이것을 빼앗아 간다.

그러나 천자상감네에 걸어 놓은 건망중태에는 검불과 소똥이 가득 찬다. 그래서 이를 다시 궁상선비와 명월각시에게 되돌려주게 된다. 궁상선비네 집으로 돌아온 건망중태에는 다시 돈이 가득 들어차게 된다. 천자상감은 궁상선비와 명월각시를 통해 여러 사연을 듣고 난 뒤 이들을 선관으로 오르게 한다. 궁상선비와 명월각시 둘은 결국 '본전'과 '환전'을 차지하는 신으로 좌정하게 된다.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서사무가인 본풀이가 장형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하나의 이야기보다 여러 이야기가 섞여서 전승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야기는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일관된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여러 사건이 뒤죽박죽 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유형적 복합이 이루어질 때에 분명한 원칙과 구성의 원리가 있다.

1. 궁상선비와 명월각시 및 배선비의 대결담 : 이것이 〈돈전풀이〉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즉 궁상선비, 명월각시, 배선비의 삼각 갈등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다. 이와 동일한 구도로 되어 있는 것이 〈일월놀이푸념〉과 〈궁상이굿〉이다. 부부로 이루어진 한 가정이 있다. 여기에 한 남성이 끼어들어 가정이 파탄되지만 여성이 지혜를 발휘하여 외부의 남성을 퇴치한다는 내용이다. 여성이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 요점이다.

2. 고양이와 뱀의 구원담 : 궁상선비가 고양이와 말하는 뱀이를 구해 주는 이야기다. 주목할 것은 여기서 돈전이 긴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궁상선비가 아내인 명월각시로부터 필요한 돈을 받고, 이 돈이 점점 불어서 다른 무엇으로 환원된다는 것은 돈의 환전과 순환을 말하는 것이다. 돈은 반드시 긍정적인 구실을 하고 이 구실에 입각해 다른 보상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경제적 순환을 나타낸다. 칠 푼의 돈은 고양이를 사는 데, 돈 반 냥은

뱀이를 구하는 데 들어간다. 물론 이 동물들은 궁상이 내외가 고난을 당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데 긴요한 구실을 한다. 고양이는 망태를 구해 주고, 뱀은 망태를 알려줌과 함께 궁상선비 및 명월각시에게 용궁을 구경하게 해 주는 구실을 한다. 여기서 고양이와 뱀을 구하게 해 준 돈은 물질의 순환에 긍정적인 구실을 하고 사람과 동물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된다.

3. 뱀에 암시된 용궁의 보물 획득담 : 궁상선비 내외가 구해준 뱀은 사실 '새파란 새서방'이고 이 새서방으로 인해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것은 흔히 작제건설화나 〈군웅본풀이〉에서 용왕의 아들이 육지에서 온 인물에게 용궁의 보물을 가져가게 하는 이야기와 상통한다. 이것은 민담적 차용에 의한 것이다. 일정한 값을 치르고 구한 동물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보은으로 은인에게 무엇을 가지라고 지정해 주는 이야기는 흔히 발견된다. 작제건설화나 〈군웅본풀이〉에서는 자신의 누이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누이는 신통력을 발휘해 주인공을 돕게 되어 있다. 그러나 궁상선비 부부에게는 주인공의 재산을 불려주는 물건이 필요했지만 이 보물은 용왕의 거절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된다.

4. 고양이의 보물 획득담 : 뱀이 보은의 표시로 주려던 보물을 용왕이 허락하지 않자 이를 얻기 위해 고양이가 활약한다. 이것은 주인을 위해 보물을 가져다 주는 개 및 고양이의 보은담과 상통하는 이야기이다. 주인이 잃은 보물을 개와 고양이가 이웃집에서 가져와 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변이를 일으키면서 〈돈전풀이〉에 들어온 것으로 판단된다.

5. '건망중태'에 돈이 채워지는 마술담 : 이 화소(話素)와 삽화(揷話)는 전형적인 '화수분 이야기'와 상통한다. 어떠한 재물을 넣으면 이 도구 안에서 계속 재물이 불어나게 되는데, 그 도구가 여기에서는 건망중태로 되어 있다. 이 화수분 이야기 설화는 독립적으로 유형화된 이야기로, 〈돈전풀이〉에 들어와서 새로운 의미로 구성되었다. 문제는 이 주술적인 보물이 나라의 임금이 가지고 있는 금을 축내게 하고 이것이 이들 부부와 관계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임금이 보물을 빼앗지만 이 보물이 임금에게는 검불과 소똥만을 벨어낸다는 긴요한 차이가 있다. 선한 보물이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려주는 구실을 한다.

6. 〈돈전풀이〉의 기원담 : 결말인 이 대목은 〈돈전풀이〉의 요점이다. 돈전의 담당자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돈전풀이〉에서만 발견된다. 다른 본풀이나 민담에서 이에 대한 내력을 말하는 것은 없다. 돈에 관한 습속과 이야기는 있어도 돈이 특별한 사정을 해결하는 것이나 이를 지키는 신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돈전풀이〉는 각별한 신화이다. 유사한 용례를 본다면 관우가 재물신이 되는 것과 상통한다. 돈전은 특정 시대의 산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인류가 이룩한 문화적 전개 과정에서 이야기가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돈전풀이〉의 의의를 몇 가지 각도에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돈전의 내력을 말하는 점에서 이 본풀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돈전의 내력을 신들의 갈등 관계로 해명하는 전례(前例)는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돈전풀이〉에서 제시한 돈전의 활용 범위가 재물의 순환과 관련이 있어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돈은 끊임없이 돌고 도는 순환에 근거한다. 이 순환의 이면에 물물교환의 이면적 문제의식이 잠재되었다.

둘째 이 본풀이는 특정 창자의 별난 전승이 아니다. 다른 본풀이로 전승되는 각 편이 세 가지 있다. 그것들과 견주어서 이 본풀이의 공통적인 유형의 전승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돈전풀이〉는 손진태, 임석재, 김태곤 등의 채록에 의해 세 가지 각 편이 전승된다. 〈일월놀이푸념〉, 〈돈전풀이〉, 〈궁상이굿〉 등 각기 이름은 다르지만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공통적인 내용인 데도 결과적으로 부여되는 신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일월마울, 돈전과 변전의 신, 선관 등 상이한 신격이 부여되지만 궁상선비, 명월각시, 배선비 등 삼각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남녀의 갈등에 근거하는 점에서 동일한 본풀이임이 확인된다.

셋째 본풀이와 민담의 교섭 양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본풀이는 본풀이의 고유한 내용이 장형서사로 형성되기도 하지만 이와 달리 본풀이에 일반적인 민담 내용이 가미되어 장황하고 다양하게 구성되는 일이 벌어진다. 〈돈전풀이〉가 여기에 해당한다. 본풀이와 민담의 교섭 양상은 제주도와 함경도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이 본풀이 역시 지역적 특색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참고문헌 한국민족설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48), 관북무가 1, 2(임석재 · 장주근, 문화재관리국, 1965~1966), 셍굿(서대석,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돈전풀이(임석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서사무가 1(서대석 · 박경신,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한국신화의 연구(서대석, 집문당, 2001), 서사무가연구(서대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8), 조개색시 민담구혼고(유증선, 한국민속학 5, 한국민속학회, 1972), 우렁색시형 설화연구(이수자, 이화어문논집 7,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4), 함경도 본풀이 〈돈전풀이〉의 특징과 의의(김헌선 · 시지은, 구비문학연구 29, 한국구비문학회, 2008).

필자 김헌선(金憲宣)

동다리(同多里)

정의 전복 밑에 입던 조선시대 군복으로 주로 별성거리나 신장거리에 착용.

내용 동다리는 소매통이 좁은 구군포의 총칭으로, 협수(夾袖)의 한 종류이다. 여러 종류의 협수 중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것이 동달이었으므로 협수가 곧 동달이라고 할 수 있다. 섭수(夾袖)라고도 하는데 '섭수'라는 명칭은 다른 옷에 비해 소매가 좁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고, '동다리'란 명칭은 소매를 길(흑이나 청색)과 다른 홍색으로 덧댄 것에서 붙여진 형태에서 연유하였다.



동다리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길이 118㎝, 품 46㎝, 화장 77㎝ |
조선시대

형태는 지금의 두루마기와 비슷하지만 뒷길의 중심선과 무 양옆이 트인 것과 트이지 않은 것이 있다. 소매 부분이 길(몸판)의 색과 다른 것이 특징이며, 홑 동다리와 겹 동다리가 있다. 깃은 곧고 소매는 좁다. 색깔은 보통 길은 붉은빛이 도는 황색이고, 소매는 적색이다. 검은색 길에 소매의 색깔은 끝동 부분만 적색인 것, 소매 끝에서 팔꿈치까지 적색인 것, 소매 끝에서 진동선까지 소매 전체가 적색인 것의 세 가지가 있다. 동다리는 바지와 저고리에 등거리를 입은 다음에 걸치며 전복을 덧입었다.

동다리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자료는 숙종 때 만든 『숭정전진연도(崇政殿進宴圖)』이며, 유물은 조선 후기의 것으로 겹 · 홑 2가지가 있다. 동다리의 색을 능행도(陵行圖)에서 살펴보면 주황색, 녹색, 남색, 자주색, 흑색, 분홍색 등이 있다. 끝동 부분만 홍색인 것, 소맷부리에서 팔꿈치까지 홍색인 것, 소맷부리에서 진동선까지 홍색인 것 세 가지 이다. 동달이는 계급에 따라 구분하여 관직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욱 고급스런 천으로 하였다. 정조 때부터 길고 넓은 소매를 간소화하면서 철릭과 함께 통용되었다.

무당들이 착용하는 동다리는 전통복과 비슷하지만 배색을 다르게 하였다. 동다리가 언제부터 무복의 하나로 착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무당내력(巫黨來歷)』에 나타난 별성거리에서 무당은 머리에 전립(氈笠)을 쓰고 홍색 소매가 달린 동다리를 입고 있으며 그 위에 흑색 전복을 착용하고 가슴에 청색 대를 두르고 있다. 동다리 안에는 백색 속바지 위에 황색 저고리, 녹색 치마를 입고 가슴에 백색 대를 둘러 늘어뜨렸다. 신장거리 무복으로는 전립에 구군복을 착용하고 오방기를 든다. 조선무속의 연구(赤松智城, 秋葉隆)에는 남색 치마에 구군복을 착용하였다. 현대의 무당들도 전립을 쓰고 남색이나 연두색 동다리와 쾌자를 착용한다. 깃은 직령교임으로 되어 있고, 트임이 없으며 무가 달렸다. 무당이 집굿의 손굿에서는 동다리를 입고 흑립(黑笠)이나 맨머리로 굿을 한다. 무당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주로 별상거리나 신장거리에 입는다. 조상거리, 대감거리, 칠성거리에 입는 경우도 있다.

참고문헌 한국 무속복식의 역할에 관한 논의, 민속과종교(소황옥, 민속원, 2003),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무의식편(국립문화재연구소, 수원지방무의식, 1983), 한국의 무복(김은정, 민속원, 2004).
필자 김혜경(金惠敬)

동살풀이

정의 전라남도 씻김굿과 호남 우도농악에서 주로 사용되는 빠른 장단 가운데 하나. 씻김굿에서는 안당[땅] · 흘림, 호남 우도농악에서는 오방진가락이라고도 한다.

내용 동살풀이는 망자를 천도하기 위한 씻김굿 절차 가운데 안당, 초가망석, 처올리기, 고풀이, 왕풀이, 넋풀이, 동갑풀이, 약풀이, 넋올리기 등에서 매우 흔히 사용되는 장단이다. 호남 우도농악에서는 판굿에서 오방진가락을 짤 때 동살풀이가 사용된다.

동살풀이는 2소박 4박(4/4박자) 장단이다. 동살풀이는 흘림 · 안당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장단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속도에 따라 이를 구분하기도 한다. 즉 흘림의 속도가 빨라지면 동살풀이, 동살풀이를 더 몰아치면 휘모리가 된다.

살풀이춤이 공연예술로 일반화되면서 동살풀이는 살풀이춤의 반주 장단으로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살풀이 반주 시나위에서 점차 속도가 빨라지는 후반부에 동살풀이가 등장하여 춤의 흥을 고조시키는 기능을 한다.

참고문헌 한국의 무속 장단(임수정, 민속원, 1999), 살푸리와 도살푸리와 동살푸리의 비교(이보형, 민족음악학 2,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1978).
필자 박정경(朴正卿)

동이춤

정의 제주도 지역의 동이풀이굿에서 쌀이 가득 든 동이를 입에 물고 추는 춤.


1


2


3


4


5

내용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지역에는 집안의 조상굿으로 조상신 고전적과 양씨아미를 위무하는 동이풀이라는 굿을 하는 집이 있다. 동이풀이굿은 '양씨아미본풀이'에 나오는 굶어서 '동이처럼 사려앉아 죽은 양씨아미(處女)'의 혼령을 위무하는 조상굿이다. 동이풀이는 시왕맞이가 끝나 석살림굿을 할 때 한다. 이때 심방이 동이를 입에 물고 추는 춤이 동이춤이다. '동이'는 동이처럼 사려앉아 굶어죽은 양씨아미를 상징하는 신체(神體)이기 때문에 심방이 동이를 입에 물고 추는 동이춤은 비련(悲戀)의 주인공 양씨아미를 놀리는 춤이 된다.

동이풀이굿에서 심방은 시왕맞이가 끝날 무렵 쌀이 가득 든 동이를 입에 물고 춤을 춘다. 이때 쌀이 담긴 동이에 치마저고리를 입혀서 사람의 형상처럼 보이게 한다. 무거운 동이에 입힌 치마와 저고리는 나비처럼 춤을 춘다. 이때 동이는 조상본풀이 '양씨아미본풀이'에서 오빠가 굶겨 죽인 양씨아미의 '동이처럼 사려앉아 죽은 모습'이다. 그러나 심방이 춤을 추는 동이는 죽은 양씨아미가 아니라 쌀이 가득한 재생의 의미를 지닌 동이, 다시 소생한 양씨아미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동이춤은 배고파 죽은 여인의 모습을 아름다움이 가득한 동이의 모습으로 다시 살려낸 재생의 춤이다.

1. 동이처럼 사려 앉아 굶어죽은 양씨아미를 놀리는 춤

2. 동이를 물고 춤을 추는 심방은 고운 옷을 입고 춤을 추는 양씨아미다

3~5. 양씨아미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심방이 쌀 동이를 물고 춤추는 동이춤
제주시 건입동 칠머리당영등굿 보존회전수회관 | 2002.12.20 | 문무병

참고문헌 제주도 무속신화(문무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한국의 굿(문무병 외, 민속원, 2002), 제주도의 굿춤(문무병, 각, 2005), 바람의 축제 칠머리당 영등굿(문무병, 황금알, 2005), 굿의 기메 · 전지(문무병, 제주특별자치도, 2008).
필자 문무병(文武秉)

동이풀이굿

정의 〈양씨아미본풀이〉에 나오는 굶어서 동이처럼 사려 앉아 죽은 양씨아미[處女]의 혼령을 위무하는 조상굿. 이 굿은 제주시 조천읍 눈미[와산리(臥山里)] 지역 고씨 집안에서 조상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행하는 무속 의례이다.

역사 제주 사람들의 역사라 할 수 있는 이야기 가운데에는 만들어진 지 100년 안팎의 것으로서 굿을 할 때 이야기되는 신화적 성격을 띤 '죽은 조상의 이야기'가 있다. 이를 〈조상본풀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200~3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임에도 엊그제까지도 일어났던 사건처럼 살아 있는 신화로 구송되고 있다. 그러므로 〈조상본풀이〉는 굿 속에 살아 있는 역사라 할 수 있다.

와산리 고씨 집안에는 〈고전적 본풀이〉와 〈양씨아미본풀이〉라는 조상본풀이가 전해 오고 있다. 〈고전적본풀이〉는 장연 현감 고전적을 따라온 처녀귀신 한양일월이 빙의하여 고전적의 딸과 아기씨의 몸종 악생이까지 죽게 되었다는 비극적인 이야기이다. 〈양씨아미본풀이〉는 예촌 양좌수 집안의 양씨아미(처녀)가 심방이 되어 춤을 추려고 하자 큰오빠가 누이를 개[狗] 달인 국물에 목욕시키고 굶겨 죽였는데, 서천꽃밭에서 쫓겨난 양씨아미가 자손의 굿판에 찾아가는 고전적을 만나 영혼으로 결혼하고 고씨 집안의 조상신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동이풀이에 등장하는 고전적은 조선조 선조 35년(1602)에 태어나 숙종 8년(1682)에 죽은 제주 사절이라 칭송되는 풍수가 고홍진(高弘進, 1602~1682)을 말한다. 제주에는 탐라의 사절이라 하여 첫째 풍수로는 고전적(高典籍, 본명은 高弘進), 둘째 의술로는 진좌수(秦座首, 본명은 秦國泰, 1680~1745), 셋째 복서(卜筮)로는 문곡성(文谷城, 본명은 文榮後, 1629~1684), 무술로는 양보성(梁寶城, 본명은 梁有成, 1684~1761) 등 네 사람을 지칭하였다. 고홍진은 조선조 현종 때의 문신으로, 일명 고봉래(高逢萊)라고도 하였다. 본관은 제주이며, 제주시 이호(梨湖) 가물개 마을에서 고정순(高定舜)의 3남으로 태어났다. 광해군 10년(1618)에 폐모론을 반대하여 제주에 귀양 온 간옹(艮翁) 이익(李瀷, 1579~1624)의 문하에서 명도암 김진용(金晋鎔, 1605~1663)과 함께 글을 배웠다.

효종 때 제주목사로 부임한 태호(太湖) 이원진(李元鎭, 1594~1665)이 그의 재주를 인정하고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 1622~1673)에게 소개하여 서울에 사는 반계의 문하생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간옹과 반계 밑에서 정주학(程朱學)·사서(史書)·지리학 등을 배워 감여술(堪輿術 : 풍수지리)을 탐구하였다. 이원진이 제주를 떠난 후에는 동학 김진용과 어울려 학론과 시음(詩吟)으로 교류하였다. 현종 5년(1664)에 제주별견시재어사(別遣試才御使) 윤심(尹深)이 인재를 뽑을 때는 63세로 응시하여 문영후, 문징후 형제와 함께 무과에 급제하고 전시(殿試)에 직부(直赴)하게 되었다. 1666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 성균관 전적을 배수하고 수년 후 귀향하였다. 숙종 1년(1675)에는 제주목사 소두산(蘇斗山, 1627~1693)과 8개월 재임하는 동안 서로 교류하였다. 소 목사는 그를 극찬하여 도안(道眼)이라 했고, 도내 풍수지리에 관한 현지답사와 논의가 있는 가운데 많은 일화를 남겼다.

내용 동이풀이는 독자적인 굿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굿 속의 작은 굿으로 진행될 때도 있다. 동이풀이굿이 독자적으로 행해질 때는 초감제, 새ᄃᆞ림, 젯도리 앉아 살려옴, 초상계, 불도맞이, 시왕맞이, 동이풀이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상굿을 독자적으로 하지 않고 굿 속의 작은 굿으로 진행될 때는 석살림 또는 석살림굿이라고 한다. 석살림굿은 일주일 동안 하는 큰굿에서는 열두 번(12석), 3~4일 동안 하는 작은굿에서는 여섯 번(6석), 하루에 끝나는 앉은제에서는 세 번(3석)을 각각 하게 된다. 제주도의 큰굿에서 모든 맞이굿이 끝날 때면 그 대상 신을 기본 제상(祭床)인 큰상으로 모셔 들인다. 이 모셔 들이는 과정은 광목천으로 된 긴 신ᄃᆞ리[神橋]를 밖에서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를 '메어 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메어 든 후 조상을 놀리는 석살림굿을 한다. 석살림굿은 집안에서 모시고 있는 일월조상(日月祖上) 또는 군웅(軍雄)이라고 하는 조상신을 즐겁게 놀리는 굿으로, 군웅덕담 또는 군웅석시라고도 한다. 또 이러한 전 과정을 "잉어 메어 석살린다"고 한다. 따라서 석살림굿은 집안의 조상신을 놀리고 맺힌 것을 풀어주는 해원굿이다.



동이풀이굿의 주인공이 동이처럼 사려앉아 죽은 불운의 양씨아미를 위한 상차림
제주시 건입동 칠머리당영등굿 보존회전수회관 | 2002.12.20 | 문무병

석살림굿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ᄃᆞ리를 메어 든 후 향로(香爐)를 들고 춤을 추다가 심방은 송낙을 쓰고 치마를 둘러 써서 가사를 걸친 승려 복장으로 차려 입고, 바라(哱囉)를 양손에 잡고 춤을 추다가 바라 점을 친다. 그 다음에 군웅덕담 제차가 덕담, 군웅본판, 〈조상본풀이〉의 순서로 진행된다. 군웅본판은 집안의 조상을 수호하는 조상신의 내력담인 〈군웅본풀이〉를 노래하는 것이다. 〈조상본풀이〉는 그 집안에서 조상신으로 모시고 있는 산신일월, 불도일월, 책불일월, 현씨일월, 양씨아미, 고전적, 김전적, 송동지영감 등 일월조상의 내력담을 노래하는 것이다.

석살림굿은 집안의 조상신들을 위로하는 〈조상본풀이〉를 심방이 노래로 풀어가는 소리굿으로, 소무의 추임새에 맞추어 제주도식 판소리 덕담창으로 읊어 신들을 재미있게 놀린다. 이 덕담창의 가락은 판소리처럼 쉰 소리를 내지 않으며 맑고 구성지게 부른다. 소무(小巫)들은 흥을 돋우기 위해 판소리에서처럼 북이나 장구장단을 치면서 중간 중간에 '좋다-', '하고 말고' 등의 추임새를 넣기도 하고 북을 쿵덕 하고 치기도 한다. 그리고 하늘에 기원하는 경우에는 요령을 흔든다. 〈조상본풀이〉의 내용을 보면 원한을 품고 죽은 조상이 "나를 위해 큰굿에서는 열두 석, 작은 굿에서는 여섯 석, 앉은제에서는 삼 석으로 나를 놀려 맺힌 간장을 풀어 달라"고 간절히 당부하고 있다. 그리하여 "3년에 한 번 큰굿 하면 큰 밭 사게 하고, 작은 굿 하면 작은 밭 사게 해서 부자가 되게 해주마"하고 자손에게 약속하고 있다. 그러므로 굿을 할 때는 맞이굿의 막판에 석살림굿 한 석(席)을 더하여 조상의 맺힌 한을 풀어 주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제주도 무속신화(문무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9), 제주사인명사전(김찬흡 편저, 제주문화원, 2002), 한국의 굿(문무병 외, 민속원, 2002).

필자 문무병(文武秉)

동자대

정의 동자신이 내려앉는 자리이기도 하며, 동자신이 내린 무당이 손에 들고 흔들며 노는 도구. '동자기', '동자영대', '동자명두대'라고도 부르며, 여자의 성별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동녀대'라 하기도 한다. 동자대는 신장대와 함께 신당에 모셔 둔다.

형태 동자대의 전체 길이는 약 50㎝이며, 머리·치마·몸통(손잡이)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화려한 색감과 무지개 형으로 색색을 구분하여 놓은 형태인데, 이것이 오늘날 사용하는 동자대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이 동자대가 등장한 것은 1970년대이며, 이후 보편화되었다.

동자대의 머리라고 할 수 있는 꽃술은 보통 세 가지 색종이(한지)를 사용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색은 빨강, 노랑, 초록이다. 각 색의 한지를 3단으로(약 4㎝) 접되, 풀칠할 곳(약 3㎝)은 남겨 둔다. 3단으로 접힌 부분은 약 15도의 사선 방향으로 자른다. 이때 가위질의 시작과 끝 부분도 15도의 사선으로 끝까지 잘라서 없애, 각도를 맞춰 준다. 간격은 0.5㎝ 정도이며, 풀칠할 곳까지 깊게 가위질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세 가지 색의 꽃술이 완성되면 가위질된 너풀거리는 부분이 위를 향하도록 하여 몸통인 대에 돌려가며 붙인다. 전부 붙이면 흔들어서 펼쳐지게 한다. 이렇게 여러 색을 사용하는 것은 신격이 동자이므로 화려해야 한다는 의식에서 비롯됐다. 동자대의 치마부분은 주로 흰색 한지를 사용하며, 가로로 약 20㎝ 길이가 되도



1. 꽃술 만들기
2. 치마 만들기
3. 꽃술 붙이기
4. 치마 붙이기
5. 완성된 동자대

대전시 중구 석교동 | 2009.4.18 | 이명진

록 겹쳐 접는다. 그러고 나서 세로 방향으로 약 2㎝ 간격에 맞춰 가위질을 하는데, 이때 풀칠할 곳은 남겨 둔다. 가위질된 너풀거리는 부분이 위를 향하게 하여 몸통에 돌려 붙여서 바로 세우면 분수가 떨어지듯이 아래로 쏟아지는데, 이렇게 해야 풍성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몸통은 일반적으로 대나무를 사용한다. 대나무의 울퉁불퉁한 표면이 시각적으로 좋지 않다고 여기면, 한지로 말아서 깨끗하게 해 준다.

내용 동자대는 충청도와 전라북도 지역에서 많이 보인다. 동자신을 몸주로 모시고 있거나 동자가 자주 실리는 강신무들이 주로 사용한다. 처음 신을 받는 신굿(내림굿), 신명을 불러 대접하는 신사맞이굿(신명맞이굿) 등을 할 때 자주 쓰인다. 여타의 굿에서는 동자대를 활용하는 일이 드문데, 동자신은 영이 약해 몸주로 모시거나, 특별하게 대접하지 않는 이상 따로 불러내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신굿을 하는 경우에는 무당이 자신에게 맞는 신을 받는 것이므로, 동자도 부른다. 동자신이 내려 감흥이 있으면 동자대를 들고 춤을 춘다.

참고문헌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충청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전라남도 · 전라북도 · 제주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필자 이명진(李明珍)



굿판에 차려진 동자상에는 까치옷과 사탕을 올린다
전남 해남 | 2006.5.17 | 나경수

그날 모시는 조상 신위를 연명으로 지방문을 써서 제상 앞쪽에 붙인다. 이 지방문에 망자가 기입되면 따로 제물을 갖춰 제상을 장만하고, 망자의 옷도 마련하는 예가 일반적이다.

동자상은 어려서 죽은 망자인 동자를 위해 차리는 상을 말한다. 대개의 경우 격식을 갖춘 상은 아니며, 제상 주변 바닥에 짚이나 한지를 깔고 그 위에 간단한 제물을 올린다. 또 동자상에는 어린이가 좋아할 사탕이나 과자를 함께 진설하는 사례가 많다. 색동으로 만든 동자의 옷을 따로 장만하여 동자상에 놓아두는 경우도 많다. 동자옷은 굿이 모두 끝나면 다른 망자들 옷과 함께 불사른다.

최근 호남 무속에서 변화 양상의 하나로 굿을 세습무와 강신무가 함께하거나 강신무 단독으로 하는 예가 늘어나면서 세습무만으로 진행하던 예전 굿과는 다른 내용을 보인다. 세습무만으로 진행하는 굿에서는 조상거리(초가망석이라고도 함)에서 그날 모셔지는 조상신들을 일괄적으로 거명하며 굿판에 초빙하지만 강신무가 조상거리를 진행할 때는 매우 극적인 장면을 연출한다. 즉 조상들을 굿판에 모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조상을 불러내 직접 강신무가 빙의를 받아 공수한다. 이때 동자신의 경우는 강신무가 아이의 흉내를 내면서 울고 웃고 하기 때문에 굿판이 숙연해지기도 하고 웃음판이 벌어지기도 하는 등 색다른 장면이 연출된다.

참고문헌 호남의 몸주천도굿(나경수 외, 민속원, 2006).
필자 나경수(羅景洙)

동자상(童子床)

정의 집안에 동자를 모시기 위해 차려 놓는 상.

내용 무속에서는 어려서 죽은 망자 중 여아는 명두라 하고 남아는 동자라고 부른다. 호남 지방에서 무속의례가 수행될 때 집안에 '맹두(명두)'나 동자가 있으면 따로 상을 차려서 함께 모시는 경우가 있다. 특히 호남 지방에서는 친가뿐 아니라 외가나 처가의 돌아가신 분도 함께 모시는 예가 많다. 친가, 외가, 처가 등에서 어려서 죽은 망자가 있는 경우 동자신으로 간주하여 함께 모시는 것이다.

동해안별신굿

정의 동해안 지역의 자연마을에서 일정한 주기로 행하는 마을굿. 1985년 2월 1일에 '중요무형문화재 제82-가호'로 지정되었다. 지정 종목의 정식 명칭은 동해안풍어제이며, 여기서 풍어제가 바로 이 별신굿이다.

역사 이 별신굿이 언제부터 동해안 지역에 존재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현재 동해안별신굿을 진행하는 세습무집단인 김씨 집안의 무계는 현재의 기능보유자인 김용택과 김영희까지 4대가 무업에 종사하여 왔음이 확인된다. 현재의 동해안 세습무집단은 김용택과 김영희의 증조부인 김천득으로부터 무업을 하기 시작하여 그 다음 대(代)인 김범수, 김성수, 김영수 삼형제가 모두 무업에 종사하였다. 김천득의 차남 김성수와 이선옥 사이에서 김호출, 김석출, 김재출 삼형제가 태어났다. 이들은 모두 동해안 지역에서 이름을 떨친 화랭이이다.

문화재로 지정될 당시의 기능보유자는 악사에 김석출이었고, 무녀에 그의 아내 김유선이었다. 그러나 김석출은 2005년에 사망하였고 그의 아내인 김유선 역시 고령으로 굿판에 거의 나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악사 부문은 김석출의 조카인 김용택, 무녀 부문은 김석출의 딸인 김영희가 각각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자녀대에서는 무업을 이어받은 사람이 나오지 않아 4대째 이어오던 이들 김씨 세습무가계의 맥이 단절될 상황에 놓여 있다. 자기 집안사람이 아닌 외부 사람들이 별신굿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되면 동해안별신굿의 원형은 사실상 붕괴되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내용 동해안별신굿은 세습무집단이 주재한다. 이들은 같은 집단에 속해 있지만 사는 곳은 동해안 지역의 해안선을 따라 흩어져 있다. 이렇게 흩어져 사는 것은 그래야 더 넓은 지역을 관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집단의 구성원들이 살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은 부산, 경북 포항시 구룡포읍, 영덕군, 강원도 강릉 등이다. 혈연에 의해 대물림하는 무당들인 세습무집단은 경기도 지역과 전라도 지역에도 있었던 것이 확인되지만 이들 지역에서는 이미 와해된 상태다. 이 때문에 동해안 세습무집단은 현재도 무업(巫業)을 계속하고 있는, 국내에 존속하는 유일의 세습무집단으로 평가된다.

동해안별신굿은 동해안 지역에 전승되는 별신굿이라는 뜻이며, 동해안의 범주는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부산의 다대포 지역까지를 포함한다. 강원도 고성 이북의 동해안 지역은 현재 북한에 속해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권이 미치지 못하는 상태이기에 이 별신굿이 전승되는 지역에서 제외되며, 부산의 다대포 지역은 지리적으로 남해안 지역에 속하지만 오래 전부터 동해안 세습무집단이 별신굿을 맡아 하던 지역이기에 동해안별신굿의 권역에 포함된다. 따라서 동해안별신굿이라는 명칭은 지역적 성격이라기보다 동해안 세습무의 무업권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 지역에서 이들 세습무집단은 마을단위 굿 진행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별신굿이라는 말의 어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보면 대체로 일정한 주기를 두고 마을 단위로 행하는 큰굿이라는 정도의 정리가 가능하다.

동해안 지역의 마을사람들은 이 굿을 벨순 · 벨신 · 별순 등으로 부르고, 이 제의를 행하는 것은 벨순한다 · 벨신한다 · 별순한다 등으로 말한다. 동해안별신굿은 마을마다 그 마을 고유의 틀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동해안 세습무집단이라는 동일 집단이 진행하지만 마을마다 내용은 각기 다르다. 어떤 마을의 별신굿 속에 들어 있는 거리가 다른 마을에는 아예 없는 경우도 많다. 동해안별신굿에 들어 있는 굿거리로는 제석굿, 손님굿, 심청굿, 조상굿, 장수굿(놋동이굿 또는 군웅굿), 골매기굿, 성조굿, 용왕굿, 계면굿, 부정굿, 천왕굿, 산신굿, 가망굿, 화해굿, 당맞이굿, 부인굿, 월래굿, 황제굿, 대왕굿, 지신굿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확실한 서사무가에는 〈제석본풀이〉, 손님굿, 심청굿이 있다. 특히 심청굿은 현재 다른 지역 무가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동해안별신굿만의 독특한 거리이다.













동해안 별신굿
정수미













동해안 별신굿
정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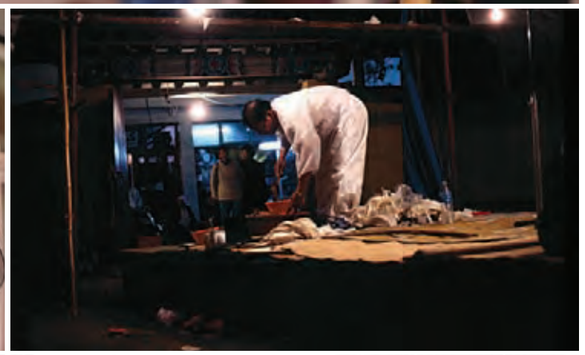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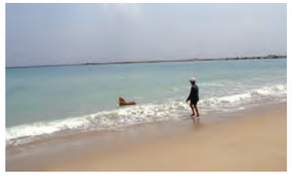
















동해안 자연마을들의 마을단위 제차는 마을의 수호신을 모신 제당에서 마을의 제주(祭主) 및 임원들이 진행하는 유교식 제사와 별도로 마련된 굿당에서 세습무집단이 진행하는 별신굿으로 양분된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제당에서 마을수호신을 굿당으로 모신 후 그 신대를 굿당의 기둥에다 묶어 놓고 무녀가 진행하는 이 별신굿은 몇 년에 한 번, 몇 월 몇 일부터 몇 일까지 며칠간, 몇 개의 굿거리를 어떤 순서로 진행한다는 등의 정해진 틀을 가지고 있다. 동해안별신굿은 이렇게 마을별로 정해져 있는 틀을 유지하면서 진행된다. 따라서 동해안별신굿은 동일한 세습무집단이 주재하지만 그 구체적인 제의절차와 굿거리는 마을마다 다 다르다.

하나의 굿거리는 한 사람의 무당이 진행한다. 하나의 굿거리가 끝나면 다른 무당이 나와서 다음 거리를 진행한다. 무녀는 굿당에 마련된 마이크 앞에 서서 관중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무가를 부르고 춤을 추며 굿을 진행하고, 양중이라는 세습무집단의 남자들은 앉아서 악기 반주를 한다. 다른 지역의 굿에서는 남자가 굿거리를 주재하기도 하지만 동해안별신굿에서는 무녀가 주로 굿을 진행한다. 몇몇 굿거리 가운데 들어 있는 무극(巫劇)과 제일 마지막 거리인 거리굿을 제외하고는 양중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굿거리는 없다. 양중들이 반주에 사용하는 악기는 장구, 징, 꽹과리 등의 타악기이다. 이렇게 타악기만으로 반주하는 것은 동해안 무악(巫樂)이 지니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이 악기들 가운데 가장 비중 있는 반주 악기는 장구이다. 이 장구는 굿을 진행하는 무녀의 남편이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악기 반주에 동원되는 악사는 평균 5명이다.

동해안별신굿은 풍어를 위한 굿이기 때문에 다른 굿거리보다 용왕거리의 비중이 큰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용왕거리를 할 때에는 온 마을의 선주와 선원, 해녀 등이 모두 굿판에 나온다. 이때 각 가정에서 각자 용왕상(龍王床)을 따로 마련하여 나오는 마을도 있다. 이렇게 용왕거리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세습무집단 입장에서는 이 거리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을 수 없다. 기량이 가장 뛰어난 무녀가 이 거리를 맡는 것은 이 때문이다.

참고문헌 한국무속의 연구(최길성, 아세아문화사, 1978), 한국무가집 4(김태곤, 집문당, 1980), 한국무속지 1(최길성, 아세아문화사, 1992), 동해안 별신굿의 제차 구성 방법과 그 특징(박경신, 구비문학연구 1, 한국구비문학회, 1994).
필자 박경신(朴敬伸)

동해안 세습무 무복

정의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세습무가 굿을 할 때 입는 옷.

내용 동해안별신굿은 남해안별신굿에 비하여 축제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역동적이라 할 수 있다. 별신굿에서 추는 무무(巫舞)로는 푸너리춤, 거무춤, 밟이춤, 포(脯)춤, 중춤, 바라춤, 거령산춤 등으로 문당굿에서 무당과 양중들의 군무(群舞)로 추는 춤인 밟이춤과 거령산춤은 경남 동해안의 별신굿에만 있으며 치마저고리의 기본 복식에 전복을 입는다. 춤의 종류에 따라 치마저고리를 바꾸어 입을 뿐 무복의 종류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포는 2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세존굿에서의 중춤에서 입고 있는 포로서 흰색 고깔과 함께 연두색 길에 색동을 넣은 넓은 소매의 포에 흰색 한삼이 달려 있다. 또 하나는 밟이춤을 추고 있는 김용택이 갓과 함께 착용하고 있는 포이다. 이것은 바지저고리 위에 한삼이 달린 색동소매의 저고리와 분홍치마를 연이어 붙인 철릭 형태의 의례적 용도로 입는 무복포라 할 수 있다. 한국복식의 의례복식의 고증적 측면에서 보면 조선시대의 철릭이나 활옷의 형태와는 차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동해안별신굿의 무복은 한마디로 조촐하다고 할 수 있다. 무당들은 굿을 하는 동안에 굿의 종류나 춤의 종류에 따라 간단한 무복을 착용한다. 치마저고리만을 무복으로 착용하거나 그 위에 남색의 전복을 덧입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별한 굿거리나 춤에 따라 표의(表衣)로서 포를 착용하거나 머리에 고깔 또는 화려하게 장식한 화관를 쓰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어 무복으로서의 특별한 양상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단순함 속에서도 두루마기, 몽두리, 쾌자, 활옷, 원삼, 철릭 등 크로스오버(cross over)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의례용 겉옷에서 보이고 있는 복식 대부분은 색동소매와 한삼이라 할 수 있다. 동해안세습무 무복의 형태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기록에 보이는 여령 정재복식의 황초삼의 어깨 부분의 색동장식과 오색 한삼을 무속의 오방색 상징과 융합시키고 여기에 정재복에서 중요한 복식 구성으로서의 화관을 춤을 출 때의 무복으로 연관시킨다면 동해안별신굿에서 통상적으로 보이는 동해안 지역 무복 형태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부산시 동래구 박영달 일가의 동해안별신굿(1977.6)에서는 색동소매의 동다리가 보이지만 부산시 해운대에서 행해진 부산 미포 별신굿(1976.12)에서는 전립에 한삼이 달린 단색의 몽두리 형태의 포를 입은 김석출 화랭이가 장구를 메고 신칼을 든 무녀와 마주 서서 노래 부르며 춤을 추고 있다. 또한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에서 행해진 동해안세습무(1971.12)의 김유선 무녀는 종이로 만든 고깔을 쓰고 소매와 길의 색상이 다른 동다리 형태의 포에 흰색 한삼을 달아 입고 있는 것을 보면 앞에서 언급한 색동소매의 의미를 시대적인 무복 패선의 변용으로 볼 수도 있다.




1~2. 동해안 세습무 무복
1992 | 국립민속박물관

동해안별신굿의 머리장식으로는 흰색 띠, 달비, 화관, 비녀, 꽂이, 갓, 고깔 등을 볼 수 있다. 머리띠는 얇은 흰 천을 가늘게 감아 머리에 띠를 두르고 여분으로 꽃을 만들어 장식한다. 달비는 길이가 일정치 않으며 머리카락을 두 갈래로 묶어 연결한 것으로 여자의 긴 생머리카락이며 어른 손 한 웅큼 정도의 굵기로 만든다. 굿을 할 때 머리를 감싸며 머리를 단정하게 만들어 주고, 가발처럼 쓴 후 굿 동작에서 자유롭게하기 위해 단단하게 고정한다. 굿거리 이후 땀범벅이 된 달비는 세탁하지 않고 뜨거운 방바닥에 놓아 습기를 말려 다시 사용한다고 한다. 달비는 굿판에서 구경하는 할머니들이 잘라준 머리채도 있고, 세습무에서 무녀들에게 중요한 상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대 태우지 않고 소중히 관리하는 중요한 장신구이다. 명주수건은 무녀들이 가체한 머리 전체를 가릴 때 사용하며, 머리 전체를 감싸는 형태이다. 화관은 문굿에서 밝이춤을 출 때 머리에 쓰며, 화려하고 아름답게 장식한다. 붉은 댕기는 갑사로 만들며 홍색이고 흰 머리띠와 함께 달비를 고정하고 머리모양을 장식하는 역할을 한다. 갓은 성주굿이나 심청굿 권위가 높은 굿거리에서 주로 사용한다. 고깔은 명주천이나 종이로 접어 쓰기도 한다. 세존굿에서 추는 중춤, 중도둑잡이굿, 양중이 염불을 구송할 때 등에 주로 흰 천이나 흰 종이를 사용한다.

참고문헌 팔도굿(황루시, 대원사, 1992), 큰무당 우옥주 유품(국립민속박물관, 1995), 동해안별신굿(박경신 · 장휘주, 화산문화, 2002), 한국의 굿(하효길 외, 민속원, 2002), 사진으로 보는 민속의 어제와 오늘 1(국립민속박물관, 2003), 민속과 종교(비교민속학회, 2003), 한국복식의 역사(백영자 · 최해율, 경춘사, 2004),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무구(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조선후기연향문화(한국학중앙연구원, 민속원, 2005), 한국의 무신도(홍태한 · 박우택, 민속원, 2008), 조선시대 몽두의에 관한 연구(박성실, 한국복식학회 Vol.55, 2005), 남해안별신굿(KBS 코리아, 2003년 4월 15일 방영).
필자 소황옥(蘇晃玉)

동해안오구굿

정의 죽은 이를 좋은 곳으로 천도하는 동해안 세습

무의 굿. 이를 '오구굿' 또는 '오귀굿', '오구자리'등으로 부르고, 세습무들은 은어로 '밤찌[夜祭]'라고 부르기도 한다.

내용 동해안은 강원도 고성부터 부산까지 이르는 한반도의 동쪽 해안이다. 전통적으로는 이 굿의 형식과 내용이 강원도(북부형), 경상북도(중부형), 경상남도(남부형)로 독자적이었다. 그래서 오구굿 또한 강원도 북부 · 중부 · 남부의 독자성들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연행 집단의 소멸로 중부형이 보편적으로 전승되고 있다.

동해안오구굿은 보통 2일간 벌어진다. 굿의 시작이 저녁 무렵부터 시작하여 밤을 새워서, 이튿날 오전 중에 마친다. 굿의 시작 전에는 굿 준비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진다. 중요한 준비는 종이를 이용한 굿당의 장식과 무구 제작이다. 동해안오구굿에서는 여러 지화(紙花)가 만들어진다. 이를 세습무 용어로 '꽃일'이라고 한다. 전통적으로 이 지화는 오구굿에만 사용하던 것으로, 오늘날에는 별신굿에서도 사용한다. 이 꽃 중에서 가장 만들기 힘들고 오구굿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꽃은 다부살이꽃이다. 지화 외에도 초롱등, 등, 허개등, 손대, 용선, 넋전, 위패, 지전, 번(시왕 · 불보살), 지옥단 등을 만든다. 오구굿에서 또한 무구 중 중요한 것은 망자의 혼이 잠시 동안 의지하는 공간으로 관념되는 신태집과 망자의 신체를 상징하는 망자자리(오구자리)이다.

오늘날 보편적으로 동해안에서 행해지는 오구굿은 집안굿(조상비나리와 대내림), 부정굿, 골매기굿, 청혼, 문굿(문답설법), (오는)뱃노래굿, 조상굿, 초망자굿, 놋동우굿, 발원굿, 시무염불, 넋올림, 넋대잡기, 판염불(지옥가염불), 꽃노래, (가는)뱃노래 · (초롱)등노래 · 등노래굿, 길갈림, 소진 · 거리굿의 순서로 진행된다. 저녁 무렵부터 시작된 굿은 발원굿과 시무염불로 밤을 새우게 된다. 아침 무렵에 넋올림 또는 넋대잡기를 하기 전에는 세존굿을 짧게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한다. 그리고 극락다리놓기라고 하는 축원굿 성격의 굿거리가 삽입되기도 한다.

보통의 굿은 가설 굿당을 차려 놓고 한다. 경북을 중심으로 하는 동해안 중부에서는 바닷가에 차리기도 한다. 반면 강원도의 동해안 북부에서는 집 안에 차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가설 굿당에서 본격적인 굿을 하기 전에 집 안에서는 집안굿을 한다. 그러나 음악을 연주하여 서서 하는 선굿이 아니라 무녀 혼자서 징 정도만 가지고 앉은굿으로 한다. 집에는 망자가 생전에 누웠던 방에 망자상을 차려 놓고 무녀가 부정을 가시는 가운데



김석출을 위한 오구굿–굿당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일광해수욕장 | 2005.10.2 |
김형근

1. 김석출을 위한 오구굿–골매기서낭굿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일광해수욕장 | 2005.10.2 |
김형근

2. 동해안 오구굿–망자혼례
서울시 서초동 국립국악원 |
2006.9.3 | 김형근

3. 송동숙을 위한 오구굿–굿당
경북 영덕군 영해면 대진해수욕장 |
2006.10.11 | 김형근







가신들에게 오늘의 행사를 알리는 목적으로 연행된다. 그리고 넋대를 잡아 대내림을 한다. 넋대를 잡는 이는 가족 중의 한 사람이다. 무당이 잡으면 연기를 한다고 오해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잡게 한다. 넋대를 잡아 망자의 넋이 실리면 죽었을 때의 상황, 가족들에게 못다한 말 등의 넋두리를 하게 된다.

본격적인 굿당에서의 굿은 부정굿으로부터 시작해 길갈림까지 진행되고, 굿당 밖에서 소진을 하는 것으로 굿이 끝난다. 부정굿에 들어가기 전에는 중요한 무구인 망자자리를 만든다. 망자자리는 오구자리 · 베석자리 · 영둑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전라도와 남해안에서 동일하게 존재하는 무구이다. 망자자리는 망자의 관을 상징한다. 그래서 "오귀자리에 입관한다(눕힌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이 망자자리 만드는 과정을 망자눕히기 또는 자리눕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망자자리는 때때로 굿 중에 무녀의 손에 들려 무악에 맞춰 춤추어진다. 그리고 굿 후반부 넋일굼이라는 제차에서 풀어지고, 넋전을 일으킬 때를 기다린다.

부정굿은 굿의 처음에 등장하여 부정한 것들을 제하는 굿거리이다. 골매기굿은 오구굿, 별신굿에서는 굿의 초반부에 각각 반드시 존재하는 굿거리이다. 골매기는 마을 신격이고,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알아야 하고, 허락해야 하는 입장으로 관념하여 골매기굿을 한다. 청혼은 망자의 혼을 청하는 절차이다. 집이 아닌 곳에서 죽음을 맞이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에 가서 혼을 모셔온다. 이때 바다에서 돌아가신 분의 경우는 넋건지기가 진행되고, 사망 장소가 먼 경우에는 그 방향을 향하여 청해 오기도 한다. 청해진 넋을 모셔 먼저 집으로 가 이별을 하고 굿당으로 모시고 온다.

문굿(문답설법)에서 중요한 연행은 남자 악사인 화랭이가 묻고 무녀가 답하는 문답설법이다. 질문의 내용은 하늘의 유래, 사재법, 땅의 유래와 함께 굿당을 장식한 지물(紙物)들의 의미이다. 망자에게 왜 지금 이 의례를 진행하는지 그 의미를 알라는 의미에서 연행한다고 설명한다. 오는뱃노래굿은 종이로 만든 반야용선에 길베를 느리워서 잡았다 놓았다 하며 무가를 부른다. 무가 내용은 굿의 말미에 연행하는 (가는)뱃노래굿과 같다. 다만 오는뱃노래굿에서 망자가 굿을 받으러 오시라는 축원 (가는)뱃노래굿에서 반대로 극락으로 가라는 축원이 각각 붙게 된다. 조상굿에서는 먼저 돌아가신 집안의 조상들을 청하여 망자와 만남의 시간을 맞이한다. 망자도 이제 이 굿을 받으면 또 한 분의 조상이라는 신격으로 자리 잡게 된다. 초망자굿은 망자를 위한 굿거리로, 동해안오구굿에서 가장 중요한 굿거리 중 하나이다. 연행의 시간과 방식이 까다로워 큰무녀여야 이 굿을 연행할 수 있다. 망자의 넋두리인 시설이 이 굿거리에서 유난히 중요하고, 가족들을 실컷 울려서 그 슬픔들을 풀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놋동우굿은 군웅장수굿으로, 이때 무거운 놋동이를 입에 물게 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왜 오구굿에 군웅장수굿이 존재하는가는 의문이

다. 다만 연행자들은 망자와 가족들의 제액을 소멸하는 기능, 전쟁과 군복무를 통해 죽은 영혼들과의 연관 등으로 그 존재 의미를 밝히고 있다. 발원굿은 망자가 좋은 곳으로 가시라는 발원을 담는 굿거리로, 전통적으로 초망자와 비슷하게 연행되었다. 이것이 광복 이후를 거치면서 경남 동해안으로부터 〈바리데기〉무가가 유입된다. 그래서 오늘날 동해안오구굿의 발원굿은 〈바리데기〉무가를 푸는 굿거리로 연행된다. 〈시무염불〉은 화랭이가 장구를 두드리며 부르는 무가로, 저승사자에 대한 무가가 불교 염불과 함께 불려진다. 넋올림은 망자 자리를 풀어헤치고 망자의 넋을 상징하는 종이를 지화로 일으키는 행위를 한다. 죽음에서 재탄생하였다는 시각적인 표현이다. 이를 가족들의 머리 위로 올려 주어 좋은 곳으로 가게 될 수 있음을 표현한다.

넋대잡기는 마지막으로 이승과 이별하기 위하여 망자의 넋을 불러내는 굿거리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와 가족과의 이별을 한다. 관염불(지옥가염불)은 화랭이가 불교의 불경을 앉아서 읊고 난 다음에 일어서서 무녀들과 지옥가염불을 불러 지옥을 면해 가라는 축원을 한다. 꽃노래 · (가는)뱃노래 · (초롱)등노래와 등노래굿 등을 통해 굿당에 쓰였던 여러 무구의 의미를 노래하고 망자의 극락을 축원한다. 길갈림에서는 길베라고 불리는 흰 무명천을 길게 드리우고 신태집, 영전 등을 올려 닦는 시늉을 하면서 천도의 축원을 한다. 소진 · 거리굿에서는 굿에 쓰였던 지물들을 태우고, 음식들을 조금씩 떼어 잡귀와 잡신들을 풀어먹인다.

앞에서 설명한 제차는 오늘날에는 보편화 되었지만 전통적으로는 동해안의 중부인 삼척, 울진, 영덕, 포항을 중심으로 연행되던 형식이었다. 중부와 달리 북부에서는 세존굿이 중요한 오구굿의 한 제차로 연행되고, 혼개미(혼갬이)라는 특징적인 제차가 있었다. 혼개미는 강신무들의 영실과 같이 망자의 영혼을 무녀의 몸에 실어 가족들과 넋두리하는 제차이다. 오늘날 혼개미라는 제차는 없어졌다. 신을 받지 않은 세습무가 영을 싣는다는 것이 의문이지만 북부에서의 신앙민은 이 제차를 굉장히 기다리던 제차였다고 한다. 이에 비해 앞에서 설명한 중부에서는 초망자굿이 가장 중요한 굿거리였다. 초망자굿은 이른바 망자굿으로, 대부분의 무가가 망자 입장이 된 1인칭으로 불려진다. 이를 '시설'이라고 부른다. 이 초망자굿을 통해 충분히 가족을 울려주어야 잘된 굿이라고 관념한다. 울산, 부산 남부 오구굿의 특징은 단연 불경의 차용이다. 따라서 동해안오구굿의 지역적 특징을 살려 말하면 동해안의 북부는 혼개미굿, 중부는 시설굿, 남부는 염불굿이라고 말할 수 있다.



송동숙을 위한 오구굿-청혼
경북 영덕군 영해면 대진해수욕장 | 2006.10.11 | 김형근

참고문헌 한국무속의 연구(최길성, 아세아문화사, 1978), 동해안 오귀굿 구조의 현장론적 연구(김형근,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동해안 화랭이 김석출 오구굿 무가 사설집(김헌선, 월인, 2006), 동해안 굿의 전승과 변화(윤동환,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필자 김형근(金亨根)

두두리(豆豆里)

정의 경주 지역의 독특한 민간신앙으로, 두두을(豆豆乙)이라고도 한다.

내용 두두리 신앙은 신라시대부터 존재했으며,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전하는 비형랑 설화에 기원을 두고 있다. 비형랑은 신라 25대 진지왕(재위 576~579)의 혼령과 도화녀라는 미녀 사이에 태어나 귀신을 부리는 존재였고, 그래서 신라 사람들은 대문에 비형랑에 관한 노래를 붙여 귀신들의 침입을 막았다고 한다. 두두리 신앙은 고려시대로 이어져, 경주 출신들은 다른 지역에서 살더라도 두두리를 신앙했다. 무인집권기의 집정무인의 한사람이었던 이의민(李義旼, ?~1196)은 자신의 집에 신당을 차려놓고 두두리 신의 화상을 모셨으며, 이의민이 패망할 무렵에는 두두리 신이 울면서 이 신당을 떠났다는 기록이 있다. 또 고려 고종 18년(1231) 몽골군이 침입했을 때는 두두리 신이 무당을 통해 무기와 말을 제공하면 몽골군을 격퇴해 주겠다고 공언했다고 전한다.

두두리는 목랑(木郞) 또는 목매(木魅)라고도 하는데, 목매는 나무도깨비란 의미이며, 두두리는 두드린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두두리의 신체(神體)는 나무방망이 같은 것이 아닌가 한다. 나아가 도깨비의 신체가 나무방망이였다는 설화가 전승되는 사실로 미루어, 두두리를 도깨비의 원형으로 간주하는 견해도 있다. 또 두두리는 대장장이의 옛날 이름이란 점에 착안하여, 금속신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두두리는 경주 남쪽 10리에 있는 왕가수(王家藪)란 수풀에서 제사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왕가수가 지금의 어느 곳을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다.

두두리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사실은 두두리를 신앙하는 집단이 다리를 만들었다거나 하룻밤 사이에 연못을 메워 영묘사(靈妙寺)란 절을 지었다는 등, 각종 토목공사에 동원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두두리 신앙 집단이 협업집단으로 공동노동에도 참여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언제부터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후 두두리 신앙은 쇠퇴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그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다.

참고문헌 高麗史, 三國遺事, 新增東國輿地勝覽, 도깨비고(임동권, 한국민속학논고, 집문당, 1971), 목랑고(박은용, 한국전통문화연구 2, 효성여대, 1986), 두두리(목랑) 재고(강은해, 한국학논집 16, 계명대학교, 1989), 한국난타의 원형, 두두리 도깨비의 세계(강은해, 예림기획 2003).
필자 서영대(徐永大)

두린굿

정의 정신적인 문제로 앓고 있는 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벌이는 굿. 두린굿은 달리 '미친굿'이라고도 한다. 일시적으로 미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굿이라는 뜻에서다. 또는 '추는굿'이라고도 한다. 환자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는 것이 굿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어원으로 두린굿의 '두린-'은 '미치다', '어리석다'의 뜻을 지닌 두리다의 관형형이다.

역사 두린굿과 같은 방식의 치병굿은 그 역사가 오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처용설화에서 확인된

다. 처용의 아내가 역신과 동침하는 것은 곧 역신의 범접으로 병이 난 것이다. 처용이 이를 보고 노래하고 춤을 추며 물러난 것은 치병굿을 행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역신은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다짐을 하고 사라졌다. 두린굿과 일치하는 바가 많다.

내용 두린굿도 일반적인 굿의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전체적인 짜임을 보면 일반적인 굿에서 석살림에 해당하는 제차가 확대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환자로 하여금 춤추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서우제소리와 무악으로 흥겹게 하느라 많은 시간을 쓴다는 점이 특별하다. 환자의 몸에 잡귀와 잡신이 범접하여 병이 난 것으로 보아 굿을 하여 잡신의 정체를 밝히고, 환자의 몸에서 잡신을 쫓아내는 모양을 보여줌으로써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치유에 대한 믿음을 주어 병을 치료한다. 달리 보면 환자 자신이 회피하고 싶어하는 나쁜 기억을 되살려내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함으로써 결국 정상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린굿은 오늘날 보기 어려운 굿이 되었다. 요즘 사람들은 현대 의학의 힘을 빌려 정신병을 치료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던 시절에는 무속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두린굿은 빈번하게 벌어졌다. 두린굿은 환자가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으면 이것이 어떤 잡신이 범접하여 병을 일으킨 것이라고 믿고 잡귀를 내쫓는 내용으로 의례를 진행하는 것이다. 심방은 평상복 차림으로 나서서 초감제, 춤취움, 대김받음, 옥살지움, 도진 등의 제차를 순서대로 진행한다. 두린굿은 신을 청하여 기원하는 제차, 잡신의 정체를 확인하는 제차, 잡신에게 떠나겠다는 다짐을 받는 제차, 잡신을 쫓아내는 제차, 굿을 마무리하는 제차의 순서로 짜인 셈이다.

1. **초감제** : 먼저 초감제를 하여 여러 신을 청하여 모시고 병을 낫게 해 달라고 기원한다. 초감제는 청신 의례로서 모든 굿에서 처음 이루어지는 제차이다. 베포도업침, 날과국섬김, 연유닦음, 군문열림, 신청궤, 추물공연 등으로 전개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와 다름이 없다. 다만 연유닦음에서 환자가 언제 어떻게 크게 놀란 일이 있고, 언제부터 아프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언급된다.

2. **춤취움** : 환자에게 어떤 귀신이 범접한 것인지 아직은 알지 못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잡신의 정체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끊임없는 무악 연주와 노래, 춤이 동원된다. 소미들이 북과 장구를 흥겹게 치면 심방이 나서서 덕담창과 서우제소리를 흥겹게 불러 환자로 하여금 춤추게 한다. 대개는 서우제소리로 채우게 된다. 서우제소리는 늦은 장단으로 부르다가 빠른 장단으로 바꾸어 흥을 돋운다. 환자의 춤이 무르익으면 심방은 노래를 그치고 소미들은 북, 설쉐(꽹과리), 대양(징)을 동원하여 무악만 빠르게 연주하여 춤추는 환자를 무아지경에 빠지게 만든다. 춤취움은 환자가 쓰러질 때까지 계속한다. 이처럼 환자를 춤추게 하는 일은 여러 차례 거듭된다. 환자는 병으로 이미 기력이 쇠잔한 상태이므로 춤을 그만두려 하기 일쑤이다. 그러나 심방과 가족들이 환자를 억지로라도 춤을 추게 만든다. 환자는 땀을 흘리면서 억지로 춤을 추느라 기진하기 일쑤다. 춤취움은 환자가 쓰러지면 중단했다가 조금이라도 기력을 회복하면 다시 시작된다. 환자는 춤추다가 쓰러져 물러나 잠들고 하기를 반복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환자는 결국 지쳐 쓰러져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 이때 심방이 환자로 하여금 빙의한 귀신이 누군지 자백하게 한다. 환자의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귀신의 대답이 나온다.

3. **대김받음** : 잡신의 정체를 확인하였으니 환자의 몸에서 떠나겠다는 다짐을 받는 절차가 이어진다. "언제 떠날 것이냐?"고 한다. 환자에게 묻되 환자의 몸에 범접한 잡신에게 묻는 형식이다. 환자가 "당장 떠날 것이다."라고 한다. 역시 잡신이 대답하는 모양이 된다. 이렇게 심방은 환자의 몸에 범접한 잡신과 대화를 하여 환자의 몸을 떠나겠다는 다짐을 받아낸다. 북채로 주리를 틀고, 코에 심지질을 하고, 버드나무로 때리기도 하여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내기도 한다. 이를 '대김받음'이라고 한다. 다짐받음이라는 뜻이다. 장시간의 춤취움은 결국 대김받음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 **옥살지움** : 심방은 잡신에게 어쩔 수 없이 독하게 대한 것에 대하여 이해를 구하며 위로한다. 아울러 원하는 대로 인정을 줄 테니 다시 돌아와 심방이나 환자에게 앙갚음을 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한다. 대김받음을 할 때처럼 환자에게 물어 확인하여 잡신이 원하는 것을 내어주어 치송한다.

5. **도진 · 벨코ᄉᆞ** : 일반적인 굿에서처럼 도진으로 굿을 마무리하기도 하고, 영감놀이와 막푸다시를 하거나 바닷가로 장소를 옮겨 영감놀이 · 배방선 · 막푸다시를 포함한 벨코ᄉᆞ[別告祀]를 하여 마무리하기도 한다. 영감놀이는 환자의 몸에 범접한 도깨비신을 불러들여 잘 대접하여 데려가게 함으로써 환자의 치병을 도모하는 연극적인 의례이다. 벨코ᄉᆞ는 다시 초감제를 간단히 하고 영감놀이를 하여 영감을 대접한 뒤 보내고 다시 막푸다시를 하여 환자의 몸에서 잡귀를 쫓아내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막푸다시는 환자의 몸에 초석을 두르고 불을 붙여 잡귀를 내쫓는 방식이 동원된다.

두린굿은 환자를 춤추게 하기를 거듭할 뿐 아니라 잡귀를 쫓아내기를 거듭한다. 본굿의 대김받음과 옥살지움, 벨코ᄉᆞ의 영감놀이와 막푸다시는 환자의 몸에 범접한 잡귀를 쫓아내는 의례가 형식을 달리하여 거듭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환자의 치유를 확실하게 믿고 싶은 것이다.

두린굿은 미리 며칠 동안 굿을 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워 놓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가 많다. 환자가 나서서 춤을 추고 대김받음이 이루어져야 다음 제차로 넘어가 굿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자마자 굿이 끝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또 굿을 하다가 끝내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단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두린굿은 환자가 하기에 따라 굿이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하는 셈이다. 따라서 두린굿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굿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심방은 환자가 나서서 춤을 추게 하느라 애쓰지 않을 수 없다. 환자의 가족들도 환자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환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춤을 추게 한다. 환자가 춤을 추지 않으려고 하면 억지로라도 끌고 나와 춤을 추게 하는 것도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한편 두린굿은 굿을 진행하는 심방이나 무악을 연주하는 소미들이 매우 힘겨워하는 굿이다. 심방은 끊임없이 노래를 부르고 소미는 끊임없이 무악을 울리면서 환자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래도 번갈아 나서면서 부르고, 북과 징도 수시로 교대하면서 치기도 한다.

두린굿은 처용설화에서 볼 수 있는 전통적인 방식의 치병굿이 오늘날에까지 전승된 적절한 실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두린굿은 서우제소리가 거듭 불리므로 동시에 다양한 이본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굿판에서 심방과 구경꾼들이 무악에 맞추어 신명나게 노래와 춤을 추는 것은 결국 신을 흥겹게 놀리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두린굿은 사람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결국 신을 흥겹게 놀리는 것이 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참고문헌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제주도무속연구(현용준, 집문당, 1986), 제주도 추는굿(고광민 · 강정식, 문화재연구소, 2006).

필자 강정식(姜晶植)

상호참조 광인굿(077쪽)

뒷전무당

정의 서울굿과 경기 북부 지역 굿에서 뒷전을 전담하는 무당.

내용 예전에는 굿에서 일정한 거리를 맡아 연행하는 무당을 구분하였다. 이 구분은 엄격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거리마다 전문적인 예능을 바탕으로 특정 거리를 맡아서 하는 무당을 뒷전무당이라고 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조상거리 전담자는 조상방, 불사거리 전담자는 불사방, 대감거리 전담자는 대감방으로 일컫는다. 마찬가지로 뒷전무당은 뒷전을 전담하는 무당이다. 넋대신이라고 해서 자리걷이 무당도 따로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무당의 위계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원무당, 창부무당, 뒷전무당으로 나누었다. 원무당은 신이 내린 집단으로 이들이 진정한 의미의 무당으로 가망 ·

산마누라 · 별성 · 제석 · 천왕 · 호귀 · 군웅 · 말명 등의 여덟 거리를 행하는 무당이라고 한다. 창부무당은 기예와 가무를 전담하는 무당으로 신이 내리지 않은 무당을 이른다. 뒷전무당 역시 뒷전만을 전담하는 무당이며 창부무당과 뒷전무당을 모두 합쳐서 정성무당이라고 한다.

일제강점기 이후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만신은 위계가 있다. 상속임 또는 불사방이라는 계층은 남무는 선관이라고 하고, 여무는 보살이라고 한다. 중속임은 전내 또는 전안이라고 한다. 상당주와 중당주가 다음의 계층에 속하는데 상당주는 박수이고, 중당주는 만신이다. 뒷전무당이 다음의 위계에 속한다. 넋무당, 넋대신, 걸레 등은 모두 자리걷이를 전담하는 무당의 별칭이다. 태주방이라고 해서 다음의 위계가 있으며, 이들보다 격이 낮은 명도, 흠치암치, 무성패가 있다.

뒷전무당이 필요한 이유는 굿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무악희(歌舞樂戱)의 재능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뒷전이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뒷전이 온성주받이를 하거나 마을굿에서 황제풀이를 했을 때에는 뒷전무당이 등장하여 안당뒷전, 가진뒷전, 안당사경뒷전 등의 굿놀이를 신명나게 펼쳤다. 이 때문에 뒷전무당이 전담해서 두 시간 가까이에 걸쳐서 굿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뒷전무당이 벌이는 무당굿놀이는 주로 재담이 풍부하고, 타령과 같은 노래가 다수 동원되고, 특정 인물의 구실에 따라 탁월한 연기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령이 내린 무당과 다르게 문서와 행동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뒷전무당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뒷전무당은 신령이 내리지 않았으므로 이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무당들은 허천 · 걸구 · 걸립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다. 이들은 평복을 입고 굿상에서 물려진 음식을 한데 합쳐서 이것을 전물 삼아 굿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신복을 입지 않고 기대와 둘이서 하는 굿거리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경기도 남부의 산이제굿에서는 특히 마을굿에서는 뒷전무당이 두드러지는 구실을 한다. 뒷전무당은 흔히 산이 또는 선증애꾼들이 다수 등장해서 극적 역할을 나누어서 진행하는 특징이 있다. 깨끔꾼과 산이들이 춤도 추고 노래도 하면서 풍부한 놀이를 전하는 것이 이 굿거리이다. 여기에서 뒷전무당은 연기력과 소리 등을 내세우면서 이 놀이를 진행한다.

다른 고장의 굿에도 뒷전무당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있어서 비교의 기준이 된다. 이 인물들 가운데 특히 주목을 요하는 집단이 동해안의 양중들이다. 뒷전에 해당하는 거리는 이른 바 대거리 또는 거리굿이다. 이 거리를 남성들이 맡아서 진행하는데 탁월한 연기력과 재담, 무가 등이 이 집단의 특징이다.

뒷전무당은 두 가지로 살펴보아야 한다. 한 가지는 지역적 분포와 변이가 지니는 의미이다. 특히 신이 내리지 않은 인물들이 이 굿거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남성과 여성이 있어서 비교가 가능하다. 다른 한 가지는 무당집단의 분화 과정에서 뒷전무당의 특징을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한국의 무(조흥윤, 정음사, 1983), 경기도 도당굿 무가의 현지연구(김헌선, 집문당, 1995), 朝鮮巫俗の研究(赤松智城 · 秋葉隆, 屋號書店, 1937).
필자 김헌선(金憲宣)

뒷전상

정의 서울굿에서 뒷전을 위해 차리는 제물상.

내용 뒷전거리는 모든 굿에서 마지막 제차로 행하며, 여러 잡귀와 잡신을 풀어먹이면서 굿에 들어온 별비를 나누고 굿상을 철하는 등 정리 단계에 해당한다. 황해도굿의 마당거리, 충청도굿의 수분거리, 전라도굿의 퇴송거리 및 거리굿 등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뒷전상은 굿당 문 밖이나 마당에 차린다. 상차림은 어느 굿에서나 거의 동일하되 큰상에 두는 제물을 조금씩 덜어서 놓기 때문에 굿판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 상은 잡귀와 잡신을 풀어먹이는 목적으로 차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차림에 격식이 없다. 부정상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제물 – 주무 장주억 만신
삼곡사 굿당 | 2005.11.18 | 이수현



『무당내력(巫黨來歷)』에서는 뒷전상에 떡 한 접시와 밥 세 그릇, 북어를 둔 그림이 남아 있다. 북어는 대체로 하위 신격에게 바치는 제물로 여겨지며, 1마리 또는 3마리를 쓴다. 현재는 밥, 떡, 나물, 전, 과일, 조과(造菓)를 올리고 흐린 술(주로 막걸리) 3잔과 통북어를 놓는다. 떡, 나물, 전, 과일, 조과 등은 격식을 차려 따로 담는 일이 드물고 한 접시에 담기도 한다. 따로 미역국을 준비하기도 하며, 날계란을 쓸 때는 뒷전거리 중에 마당에 던져 깨뜨린다. 이는 액을 좇는 의미가 있다.

잡밥(수수 · 팥 · 좁쌀 등을 볶은 밥)을 함께 쓸 때는 잡밥 그릇을 상 밑에 두며, 따로 건물 바깥이나 문 밖에 두기도 한다. 잡밥은 "섣달 한달 드는 홍수 정월하고도 열나흗날 오곡 잡밥으로 막아내고"라는 무가 구절에서 보듯 좋지 않은 기운을 막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른 제물 없이 잡밥과 북어만으로 상차림을 끝내기도 한다. 다른 제물상과 달리 이 상에 놓는 음식은 굿이 끝난 후에 사람이 먹지 않는다.

참고문헌 한국의 샤머니즘(조흥윤,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한국의 굿(하효길 외, 민속원, 2002), 서울의 무가(최형근, 민속원, 2004), 무당내력(서대석 해제, 민속원, 2005), 서울지방의 무속신앙 제상차림을 통하여 본 식문화에 대한 고찰(김상보 · 황혜성,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2, 한국식생활문화학회, 1988), 서울굿의 상차림에 대하여(홍태한, 한국무속학 6, 한국무속학회, 2003), 굿상에 투영된 신에 대한 인식(이수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필자 이수현(李琇炫)

드렁갱이

정의 동해안별신굿에서 서낭굿 · 산신굿 · 포춤 · 거무춤 · 중춤 등의 반주로 쓰이는 장단. 3소박과 2소박의 혼합박(♩+♪)을 기본으로 하여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잡한 장단이다.

형태 드렁갱이는 청보형 장단의 하나이며, 드렁갱이 5장을 기본으로 한다. 여기서 청보형은 동해안 무악장단 가운데 청보장단과 유사한 형의 장단을 말한다. 1장(♩+♪+♩) → 2장(♩) → 3장(♩) → 4장(♩+♪) → 5장(♩)의 형태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장단의 단위에서 서로 비슷하다. 드렁갱이는 5장 구성이지만, 도깨끼를 장(章)으로 치면 6장이 된다. 도깨끼는 드렁갱이 2장과 3장 사이의 장단으로, 이 도깨끼를 하나의 장으로 보느냐 마느냐에 따라 드렁갱이 전체를 5장으로 보기도 하고 6장으로 보기도 한다.

드렁갱이 1장은 (♩+♪+♩)박이 다섯 번 반복되어 한 장단이 되고, 징은 두 장단의 첫 번째 박에만 한 번 친다. 드렁갱이 2장은 1장보다 속도가 아주 빨라지고, 리듬이 혼소박에서 3소박으로 바뀌어 (♩)이 다섯 번 반복되어 한 장단이 된다. 징은 1장과 마찬가지로 두 장단의 첫째 박에만 한 번 친다. 드렁갱이 2장의 속도가 더 빨라지면 이 장단을 도깨끼라 한다. 도깨끼는 장단을 다음 장(章)으로 바로 넘기지 않고 머물러서(다시 깨끼서) 넘긴다는 뜻이다. 도깨끼를 하나의 장(章)으로 치면 드렁갱이는 6장이 되고 하나의 장으로 간주하지 않으면 5장이 된다는 것은 도깨끼가 음악적으로 드렁갱이 2장과 똑같지만 드렁갱이 2장이 징을 두 장단에 한 번 치는 것과 달리 도깨끼는 한 장단에 매번 징을 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드렁갱이 3장은 2장의 2소박 리듬이 불규칙한 혼소박 리듬으로 바뀐다. 한 장단은 (♩+♩)×2이며 징은 첫 번째 박자에 한 번 친다. 드렁갱이 4장은 매우 빠른 3소박 4박 (♩×4)장단이다. 징은 제1박과 3박에 두 번 들어간다. 드렁갱이 4장에 이어서 치는 5장은 악사들에 따라 치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하는 장이다. 드렁갱이 5장은 한 장단(♪×4박 장단)으로, 징은 제1박과 제3박에 2회 들어간다. 드렁갱이 5장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드렁갱이 1장	(♩+♩+ ♩)	박이 5회 반복 징은 두 장단에 한 번
드렁갱이 2장	(♩)이 5회	징은 두 장단에 한 번
드렁갱이 3장	(♩+♩)×2	징은 한 장단에 한 번
드렁갱이 4장	(♩×4)	징은 1박과 3박
드렁갱이 5장	♩×4	징은 1박과 3박

내용 드렁갱이장단은 강릉 지방의 서낭굿, 산신굿, 포춤의 반주로 쓰인다. 당고마기의 거무춤(그무춤)에도 쓰인다. 거무춤은 청보장단 혹은 제마수장단으로 무가를 마친 무당이 추는 춤이다. 무당은 장단에 맞춰 한참 춤을 추다가 광어 혹은 명태궤와 같은 어포를 들고 춤을 춘다. 이때의 춤이 혼합박자인 드렁갱이장단으로 시작된다. 드렁갱이장단은 오구굿의 초망자굿에 쓰이며, 부정굿을 하기 전에도 쓰인다. 또한 이것은 세존굿에서 중춤을 반주하는 등 특별한 굿거리를 진행할 때 사용되지만 굿을 하는 동안 매일 아침 굿의 첫 거리를 시작하기 전에도 연주된다.

드렁갱이장단은 농악과 비교하면 굿거리형 장단으로 시작해 자진모리형으로 변화된 다음 경기도 농악의 이채형이나 전라도 세산조시형 장단인 2분박 4박으로 몰아지다가 경기도 농악 1채형으로 몰아치며 끝난다.

참고문헌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14-무의식편(문화재관리국, 1983), 동해안별신굿(국립문화재연구소, 화산문화, 2002), 동해안의 굿 음악-그 지역적 보편성과 특수성(장휘주, 국립민속국악원, 민속악논문집 7, 2007).
필자 시지은(施知恩)

떰쿵장단

정의 하나의 무가를 부르다가 다른 무가를 부를 때 연주하는 장단.

내용 떰쿵장단은 장구를 '떵쿵' 친다는 장구 구음(口音)에서 비롯됐다. 노래를 넘긴다는 의미로 넘길장단이라고도 한다.

참고문헌 황해도 굿의 음악인류학(이용식, 집문당, 2005).
필자 이용식(李庸植)

떵떵이장단

정의 전라도 씻김굿의 장단 가운데 신의 내력을 풀어내는 '○○풀이'형 무가에서 동살풀이(흘림), 풀이살과 함께 사용되는 장단의 명칭. 대왕놀이장단 또는 대학놀이장단, 업중모리 등으로 혼용되어 불리고 있다.

어원 우리나라 무속음악의 전승방법이 그렇듯이 체계적인 악보를 통한 전승이나 세습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무악 전반에 걸친 용어들의 정확한 어원이나 유래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명칭의 정확한 어의를 알아내기란 쉽지 않다. 다만 진도 지역에서 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떵떵이'는 타악기의 소리를 구음으로 흉내 내서 만든 말이다. 파생원리를 따져보면 우선 '떵'은 '덩'의 된소리이다. '덩'은 장구나 북으로 연주할 때 합(雙)장단을 의미한다. 여기에 접미사 '-이'가 붙어 '떵떵이'가 된 것이다. 참고로 우리 전통 장단 가운데 비슷한 파생원리를 가진 장단으로는 자진모리(삼채)를 덩더궁이라고 부르는 예가 대표적이다. 떵떵이장단은 3소박과 2소박이 3+2+3+2로 혼합된 혼소박 4박 장단(10/8박자)이라는 특별함 때문에 별칭할 필요에 의해 이름 붙여진 것으로 추측된다.

떵떵이장단은 현재 국악에서 사용되고 있는 엇모리장단형과 같다. 무속장단에서는 대학놀이나 대왕(대황)놀이 같은 용어로 더 많이 불리고 있으며, 엇모리의 용어가 사용되게 된 것은 판소리의 영향인 듯하다. 떵떵이장단의 별칭인 대학놀이나 대왕놀이의 어원을 살펴보면 대학놀이는 대왕놀이가 오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놀이는 이 엇모리장단을 연주하기가 대학(大學)에 들어가기보다 힘들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는 3소박과 2소박의 혼용으로 인한 불규칙 때문에 연주하기에 까다로운 장단의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소박한 남도 사람들의 정서를 읽을 수 있다.

대왕놀이의 '대왕'은 '대왕신(大王神)'에서 나온 말인 듯하다. 한국의 신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숭상하는 가택신(家宅神), 마을에서 숭상하는 동신(洞神), 무속에서 숭상하는 무신(巫神) 및 잡신 등이 있다. 대왕신은 당연히 무속에서 숭상하는 염라대왕(閻羅大王), 사천대왕(四天大王), 사해용왕(四海龍王) 등이 해당된다. 대왕놀이 장단이 신의 내력을 풀어내는 풀이형 무가에서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왕놀이의 대왕은 여기에서 파생된 것이라 고 추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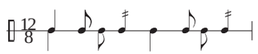
내용 떵떵이장단의 기본형은 판소리나 산조음악 등에서 쓰이는 엇모리의 형태와 같다. 하지만 잔가락이 훨씬 화려하고 복잡한 것이 판소리나 산조와의 큰 차이다. 특히 무녀가 이 대왕놀이 장단의 무가를 부를 때 사설의 어미가 한 장단을 뛰어넘는 괴대죽 부분이 등장하면 고인(鼓人)들은 여지없이 복잡하고 화려한 잔가락을 구사한다. 징과 장구의 연주에서 화려함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장구는 채편의 리듬을 잘게 분할해 화려함의 극치를 이룬다.

떵떵이장단-엇모리



이견 떵떵이장단을 조금 느린 박자로 치는 자진모리장단이나 다른 지방의 덩덕궁이장단과 같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진도에서는 이것을 살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진도씻김굿 가운데 굿거리장단의 제석춤에 이어 복개를 들고 추는 복개춤에서 이 장단이 사용된다. 떵떵이장단은 자진굿거리장단으로도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굿거리장단은 3소박 4박(12/8박자)장단이다. 약간 느린 템포(M.M. ♩ = 55~65)로 연주하는 것이 굿거리장단이라면 이를 빠르게 연주하는 것이 자진굿거리장단으로서의 떵떵이장단이 된다. 전북 무가의 살풀이와 박수는 같지만 고법과 강약이 다르다. 떵떵이라는 표현은 큰 쇠붙이나 딴딴한 물건이 잇따라 세게 부딪쳐 울리는 소리의 의성어로, 타악의 마찰음이 마치 '떵떵거린다'는 뜻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떵떵이장단-자진굿거리



참고문헌 채정례 진도씻김굿(국립남도국악원, 2006), 호남지역의 무악과 굿의식의 성격(윤화중, 한국음악연구 29, 한국국악학회, 2001), 전남지역 씻김굿의 지역별 장단사용과 음악적 특성(김혜정, 한국무속학 16, 한국무속학회, 2008).
필자 김만석(金滿錫)

띠배

정의 풍어제에서 제의 마지막에 바다로 띄워 보내는 모형(模型)의 의식용 배.

내용 띠배는 볏짚 등으로 만든 모형의 배로 주로 해안 지역의 마을굿에서 볼 수 있는 무구이다. 우리에게는 위도띠뱃놀이에서 볼 수 있는 띠배가 널리 알려져 있지만 남해안별신굿, 제주도의 영등굿, 추자도의 마을굿, 거제도 별신굿 등에서도 제의 마지막 과정에서 띠배를 바다에 띄워 보낸다. 우리와 인접해 있는 일본과 중국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띠배와 유사한 형태의 모형 배를 볼 수 있다.

띠배의 명칭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로 띄배 · 떼배 · 짚배 · 퇴송배로 불린다. 이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띠배는 주로 짚으로 만들며, 마을의 좋지 않은 액을 실어 바다로 띄워 보내는 역할을 한다. 위도 지역에서는 제의가 끝날 무렵에 배를 바다에 띄워 보낸다는 의미로도 부르지만 띠배를 만드는 주 재료가 띠라는 식물이기에 '띠배'라고 한다.

위도띠뱃놀이에서 볼 수 있는 띠배는 길이 2~3m, 배의 높이 70~80㎝, 폭 1.5m 규모이다. 이곳의 띠배는 원당제가 행해지는 정월 초사흘 당일에 제작된다. 띠배 제작에는 남자들만이 참여

한다. 먼저 띠배 제작에 사용하는 재료를 미리 준비해 놓는다. 띠배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볏짚, 띠, 합판, 스티로폼 부망과 그물 등이다. 배를 만드는 순서는 우선 배의 골격을 만든 다음, 볏짚과 나뭇가지 등을 모아 골격에 따라 맨 아래부터 위로 엮어 올라간다. 배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히면 돛대를 세우고, 뒤편에 키를 달고, 바다 위에서 뜰 수 있도록 스티로폼 부표를 여러 곳에 단다. 띠배가 완성되면 성기가 부각된 사람 모양의 허수아비(제웅이 · 허재비) 7개를 만들어 각자 역할에 맞는 자리에 놓는다. 그리고 용왕굿이 끝나면 용왕상에 차려진 과일과 음식 등을 배 안에 넣어 두고, 무사히 바다로 갈 수 있도록 노잣돈을 꽂아 기도 한다. 이런 과정이 모두 끝나면 모선(母船)이 먼 바다로 띠배를 끌고 나가 즐겁게 배 위에서 배치기 소리를 하면서 한참 원을 그리며 돈 다음 줄을 풀어 바다에 띄워 보낸다.

해안 지역에서 보이는 띠배는 위도띠뱃놀이에서 볼 수 있듯이 마을 사람들이 함께 제작하여 바다에 띄워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전남의 상마도 지역처럼 개인들이 직접 만들어 띄워 보내는 경우도 있다. 전남의 상마도에서는 마을의 용왕굿이 끝나면 각 가정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띠배를 바다에 들고 나와 띄운다. 이곳에서도 위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띠배에 용왕상에 올려놓았던 음식과 함께 노잣돈을 함께 실어 보낸다. 이 지역에서는 바다에 띄워 보낸 배가 가장 먼저 앞서가면 그해 풍어를 올릴 수 있고, 집안에 좋은 일만 생기는 것으로 믿고 있다.

제의 마지막 과정에 배를 바다에 띄워 보내는 것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마을의 좋지 않은 액을 바다로 실어 보내 마을에 아무런 일이 없기를 기원하기 위함이 강하다. 이는 과거 서해안 지역에서 출어(出漁)고사 후에 바다에 띄워 보낸 배방선과 호남 도서 지역에서 행해지던 방실놀이에 등장하는 매생이배와 마찬가지로 마을의 좋지 않은 액을 바다에 실어 보내어 마을에 아무런 탈이 없도록 하는 것과 유사하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띠배 자체가 하나의 제물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띠배 안에 성기가 부각되어 있는 허수아비가 놓여 있다는 점에서 바다를 관장하는 여성적 성격을 지닌 용신과의 결합을 통해 풍어를 기원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바다로 배를 띄워 보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강원도 삼척 등지에서 볼 수 있는 남근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출어 전에 남근석을 구멍에 놓고 가면 풍어를 올릴 수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띠배와 유사한 형태가 일본, 캄보디아, 중국 등의 동아시아에서 보인다는 점에서 띠배는 해양문화와 관련된 남방문화의 흔적으로 보아도 결코 무리가 아닐 것이다. 특히 띠배가 해안 지역의 풍어제에서 등장한 점에서 보면 해양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무구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해도부락제의 신 출현 형식고–상마도 당산제와 용왕제를 중심으로(김정업, 한국민속학 8, 민속학회, 1975), 용배 젓기 고(김광언, 문화재 27, 문화재관리국, 1994), 위도띠뱃굿에서 보이는 띠배의 의미 고찰(서종원, 생활문물연구 9, 국립민속박물관, 2003), 위도띠뱃놀이(김익두 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필자 서종원(徐鍾源)



띠배
국립민속박물관 사진자료 소장



1~7. 띠배 제작과정
국립민속박물관

8. 대리용왕제 띠배
국립민속박물관

ㅁ

마마배송굿
마마신
마불림제
말꽃
말금쟁이
만구대택굿
만물제물
만성주부채
만세바지잡단
만수대탁굿
만신(萬神)
말명
말미상
망묵이굿
망자상
망자혼사굿
매화(梅花)
맴돌이장단
맹감본풀이
맹인신장수(盲人神將)
멩감제
명다리
명도(明圖)
명두굿무가
모름채
목단꽃
몸기
몸주대감
몸주신
몽달귀신
몽두리(蒙頭里)
무감
무경(巫經)
무고(巫鼓)
무당(巫堂)
무당내력(巫黨來歷)
무세(巫稅)
무조신(巫祖神)
묵은진오기굿
문굿무가
문전본풀이
문전제(門前祭)
문전철갈이
물부리굿
미닫이
미친경

마마배송굿

정의 천연두에 걸린 뒤 13일째 되는 날 마마신을 공손하게 돌려보내며 행하는 굿.

내용 천연두는 '두창(痘瘡)', '포창(疱瘡)'이라고도 하고 속칭 '마마(媽媽)손님'이라고도 하는 질병이다. 이 질병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창궐하면 큰 사상자를 내기도 하였다. 종두법 개발 이전에는 천연두에 걸리면 큰 사고 없이 잘 낫길 기원하는 뜻에서 천연두를 신격으로 여겼다. 또한 찾아온 천연두신을 잘 모시고 잘 보내드리는 의례행위로 그 기원이 표현되기도 하였다.

16세기 때 문장가로 유명했던 묵재(默齋) 이문건(李文楗, 1494~1567)도 『양아록(養兒錄)』에 손자가 천연두에 걸린 후 13일 뒤 얼굴의 딱지가 떨어질 즈음에 마마배송굿을 했음을 기록하였다. 이를 보아 마마배송굿은 매우 보편적인 무(巫)의 의례행위였던 것으로 보인다.

천연두신은 매우 다양한 명칭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글을 통해 무지한 민중이 미신 숭상을 타파하고 계몽되기를 바란 소설가 이해조(李海朝)는 1908년 『제국신문(帝國新聞)』에 연재한 신소설 『구마검(驅魔劍)』에서 사람들의 천연두에 대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 우두라 하는 것이 다 무엇인가? 그까짓 것으로 호구별성(戶口別星)을 못 오시게 하겠군. 우두 한 아이들이 역질(疫疾)을 하면 별성 박대한 벌역으로 더구나 중하게 한답디다. 나는 아무 때든지 마마께서 우리 만득에게 전좌하시면 손발 정히 씻고 정성을 지극하게 들이어서 열사흘이 되거든 장안에 한 골 나가는 만신을 청하고, 입담 좋은 마부나 불러 삼현육각(三絃六角)에 배송(拜送) 한 번을 쩍지게 내어 볼 터이오.

이 글에서도 천연두신은 호구별성·별성·마마님 등의 명칭으로 불린다. 이 외에도 호구신·손님·강남대한국마마님·별상 등 수많은 명칭이 있다. 이들 중 손님이라는 명칭은 천연두신이 외국에서 건너왔기에 붙은 것이라는 해석이 주가 된다. 동해안별신굿의 손님굿에서 구송되는 무가를 보면 "조선(朝鮮)이 살기 좋다 하여 강남대한국(江南大漢國)에서 손님 쉰세 분이 들어오다가 쉰 분은 도로 돌아가고 세 분만이 압록강을 건넜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이능화(李能和) 또한 『조선무속고(朝鮮巫俗考)』에서 두신(痘神)이 강남에서 왔기에 손님이라 하기도 한다고 밝히고 있다.

천연두에 걸린 사람이 생기면 먼저 종이 깃대를 만들고 강남호구별성사명기(江南戶口別星司命旗)라는 글을 써 달아서 대문 앞에 꽂아 천연두를 앓고 있는 집임을 표시한다. 천연두는 보통 고열을 동반하는데 이로 인하여 환자는 헛소리를 하게 된다. 사람들은 이것을 호구신이 몸에 머물며 환자의 입을 빌려 말하는 것으로 여겼다.

천연두에 걸린 지 5일 정도가 지나 환자의 몸에 발진이 생기기 시작하면 정한수를 떠 놓고 호구신을 맞이하는 기원을 시작한다. 호구신은 보통 환자의 몸에 12일 정도를 머무는 것으로 여겨 13일째 되는 날 호구신을 보내는 의례인 마마배송굿을 연행한다.

마마배송굿은 보통 2~3일 전부터 준비가 시작된다. 무당은 우선 호구신과 함께 집에 들어온 식문(瘟門)을 일정한 공간에 가두는 것으로 의례 준비를 시작한다. 식문은 천연두에 걸려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일컫는 말로, 호구신에게 한을 품고 있어 호구신 주변으로 몰려든다고 여겨진다. 몰려든 식문으로 인해 호구신이 노하면 환자에게도 좋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때문에 식문을 가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무당은 우선 싸리바구니에 붉은 팥죽 한 그릇을 담아 추녀 밑에 두고 그 위에 시루를 뒤집어 덮은 후 시루의 밑구멍을 사금파리 등으로 막는다. 이곳이 식문을 가두어 놓은 곳으로, 마마배송굿이 끝나 식문을 거두기 전까지 그대로 두고 하루 세 번의 식사를 시루의 구멍으로 넣어 준다. 식문을 가두는 일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마마배송굿을 준비한다. 굿은 반드시 환자의 집에서 연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굿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구신을 태워 보내기 위한 말을 만드는 것이다. 말은 짚을 엮어 만들거나 싸리로 만든다. 호구신을 배송하는 말은 상마(上馬)라고 한다. 상마의 등에는 세 개의 오쟁이를 만들어 단다. 첫 번째 오쟁이에는 메, 두 번째 오쟁이에는 떡과 마부의 수고비, 세 번째 오쟁이에는 과일을 담아 준비한다. 각각의 오쟁이에는 청·홍·황색의 깃발을 꽂고 상마의 등에는 붉은색의 일산(日傘)을 고정하여 세운다. 상마의 머리에는 마등(馬燈)을 의미하는 등심지를 묶고 목에는 워낭을 매단다.

마마배송굿에서는 호구신의 상마를 움직일 마부가 필요하다. 마부는 남자로 한정하여 고용하며, 상마를 몰고 나갈 때 무당과의 재담 등이 이어지므로 주로 경험 있는 사람이 고용된다.

굿청의 제상에 올리는 떡은 대부분 팥시루떡이며, 두 개의 시루만은 백설기를 준비한다. 하나는 선생마마시루라 하여 일찍이 천연두에 걸려 죽은 자, 즉 식문을 위한 시루이다. 다른 하나는 후생마마시루라 하여 현재 병에 걸려 앓고 있는 자를 위해 바치는 것이다.

마마배송굿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특별히 상마거리·식간거리·〈호구본풀이〉가 포함되는 것 이외에는 대부분의 거리가 일반적인 굿거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상마거리에서는 호구신을 태워 보내는 말의 마부와 무당 사이에 재담이 오간다. 마부는 무당의 명에 따라 상마를 대문 밖으로 물려서 근처의 나무에 매달고 난 뒤 물러난다. 식문거리에서는 처마 밑에 시루를 덮어 가두어 놓았던 식문을 풀어 굿청으로 모신 후 놀리고 대접하는 의례가 연행된다. 식문거리가 끝날 즈음에는 식문을 감금할 때 두었던 팥죽을 담은 싸리바구니를 대문 밖으로 내던진다.

이어지는 〈호구본풀이〉는 호구신에 대한 무가가 구송되는 거리이다. 일명 호구노정기(戶口路程記)라고도 하는 〈호구본풀이〉에서는 구송되는 무가를 통해 호구신의 유래와 성격 등이 밝혀지면서 호구신을 잘 모시고 잘 보내드리는 마마배송굿이 연행되는 이유가 굿의 참가자들에게 전해진다.

한국의 굿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민중의 요구를 수용하여 그 모습을 변화시켜 왔다. 그리고 지금도 변하고 있다. 과거 호환(虎患)이 사람들을 위협할 때 존재했던 경기도의 호영산호대감놀이나 동해안별신굿의 범굿 등은 이제 자취를 감추었거나 예전같지 않다. 천연두는 1979년에 이미 세계적으로 사라진 질병으로 공표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마마배송굿도 찾아볼 수 없는 의례가 되었다. 아직까지 호구신이 굿거리 안에서 무당에 의해 호구거리·별상거리 등에서 모셔지고 있고, 동해안별신굿의 손님굿에서는 서사무가로 그 연원이 구송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들의 자리를 차지한 다른 목적의 굿거리들이 연행될지도 모를 일이다.

지역사례 명칭과 형식은 달리 하더라도 호구신에 대한 마마배송굿은 전국적인 분포를 보인다. 제주도의 경우 마마배송굿이라는 명칭 대신 마누라배송굿, 남해안별신굿의 경우 손님풀이, 동해안별신제의 경우 손님배송굿 혹은 손님굿이라고도 한다. 특히 동해안별신제의 강한 연희적 특징은 손님굿 안에서도 잘 드러난다. 손님을 말에 태워 보내는 행위나 마부와 무녀의 입담 등에서 나타나는 무극(巫劇)의 행위적 표현은 다채롭고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참고문헌 조선무속의 현지연구(秋葉隆 저, 최길성 역, 계명대학교출판부, 1987), 조선무속고(이능화 저, 이재곤 역, 동문선, 1991), 조선무속의 연구(秋葉隆·赤松智城 저, 심우성 역, 동문선, 1991), 양아록(이문건 저, 이상주 역, 태학사, 1997), 한국 무의 역사와 현상(조흥윤, 민족사, 1997), 동해안별신굿(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구마검(이해조 저, 권영민 역, 신소설전집 6, 뿔, 2008).

필자 김창호(金昌鎬)

상호참조 불도맞이(354쪽), 손님굿(492쪽)

마마신

표제어 호구별성(946쪽)

마불림제

정의 제주도에서 행해지는 작은 비념으로, 일반적으로 음력 7월 14일이나 15일에 행해지는 독특한 의례.

내용 이 의례의 이름은 마을마다 각기 따르게 '마불

림제' 또는 '백중제'라고도 한다.

마불림제는 초감제, 열명올림, 본향들음, 산받음, 액막음, 산신놀이 또는 세경놀이 등으로 진행한다. 초감제는 굿을 하는 기본적인 청신 절차이다. 신에게 천지조판의 내력을 알리고, 굿을 하는 이유를 고하고, 굿의 목적을 기원하는 것이다. 열명올림은 굿을 하는 마을 사람 모두를 고하고, 상단골 · 중단골 · 하단골 등의 기원을 올리는 행위이다.

다음으로 본향들음은 마을신을 초청하는 절차이다. 이 과정이 마불림제의 핵심이다. 산받음은 본향신에게 고하고 신칼 · 제비쏠점 · 산판점 등을 통해 신탁을 전달하는 과정이다. 액막음은 액을 막는 〈사만이본풀이〉 등을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놀이는 본향당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하는 행위로 일종의 굿놀이이다.

제주도의 당제는 반드시 세시절기와 상당 부분 관련이 있다. 따라서 어느 당에서든지 신년과세제, 영등제, 마불림제, 시만곡대제 등이 순차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향당을 중심으로 본향당과 단골들이 일정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당맨심방과 맺는다.

마불림제를 어떠한 각도에서 볼 것인가는 세시 구성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에 대한 해석은 둘로 나뉘어 있다. 7월 15일과 그 이전에 당제를 지내는 것에 대한 해석이다. 엄격하게 칠월 백중제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마불림제의 견해 차이로부터 비롯된다. 칠월 백중제는 우마(牛馬)를 중식하는 우마중식제와 일련의 관련을 맺는다는 해석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된다.

첫 번째 견해는 마를 일종의 곰팡이로 인식하여 장마철에 비 때문에 본향당에 모셔진 신옷이나 여러 가지 다리 등에 곰팡이가 슬기 때문에 이를 청소하는 장마설거지로 해석한다. 이것을 흔히 신옷을 햇빛에 말리는 청소에 의한 신의쇄폭제(神衣灑曝祭)라는 견해가 있다. 내륙에서도 장마가 길게 이어지고 동일한 시기가 되면 서원이나 양반의 종갓집 등에서 책이나 사당을 청소하는 의례가 있다. 이것은 자연절기의 순환에 따른 적절한 본보기가 서로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어 해석에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두 번째 견해는 마를 장마로 인식하여 장마 끝에 장마 불림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장마 불림이나 장마 갬으로 볼 때의 문제는 마불림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 견해가 달라진다. '마가지(장마걷이)'라는 말을 심방의 말명에 사용하기도 하고, "금년 조는 마가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심방의 신탁에서도 이것이 해명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조 농사의 성장을 비는 것으로 해석하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 견해 역시 다른 각도에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서울의 당굿에서도 7월 15일에 하는 고사 형식의 당제가 있다. 이를 흔히 '마팔련'이라고 한다. 마팔련은 마불림과 발음도 유사하고, 장마걷이로 당을 보살피거나 정기적인 단골 치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각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당제의 정기적 의례는 세시절기 및 생업과 무관하지 않다. 이 같은 공통적인 자연질서와 인문질서를 결합하면서 지역마다 색다른 신앙의 문화를 생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제주도의 마불림제를 이러한 각도에서 이해하면서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

참고문헌 제주도 무속연구(현용준, 집문당, 1986), 남국의 무속(진성기, 형설출판사, 1987), 제주도 무속(장주근,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0), 조선민속지(秋葉隆, 심우성번역, 동문선, 1993), 제주도 무속논고(진성기, 제주민속연구소, 1993),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장주근, 역락, 2001),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현용준, 집문당, 2002), 제주도 무속논고(진성기, 민속원, 2003), 우리 뿌리의 집 제주무속학사전(진성기, 제주민속학연구소, 2004), 韓國の民間信仰 論考篇(장주근, 금화사, 1973), 濟州島巫俗の研究(현용준, 제일서방, 1985).
필자 김헌선(金憲宣)

막꽃

정의 주로 탑등과 용선 등을 장식하기 위해 꽂아 두는 지화. 특별한 꽃이름이 없기 때문에 '막꽃'이라고 하며 '허드레꽃'이라고도 부른다.

내용 막꽃은 흰색, 분홍색, 녹색, 붉은색 등 다양한 색깔로 만들어지는데 꽃심과 꽃받침이 없으며 수평으로 퍼진 듯한 느낌을 주는 반구형이다. 막꽃은 주로 탑등과 용선 등을 장식하기 위해 만드는



1. 막꽃
경북 울진군 후포면 임태상자택 | 2003.5.24 | 심상교



2. 막꽃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학리 | 2005.3.4 | 심상교

데 탑등과 용선 상층부에 꽂는다. 용선의 경우 지네발이라고 하는 지름 1㎜ 정도의 가는 대나무에 한지를 오려 붙인 곳 위에 꽂는다.

연등이나 수박등의 모서리에 십자형의 노란 꽃이 붙여져 있는데 이 지화의 이름은 없다고 한다. 이 모서리에는 원래 매듭을 달아야 하나 매듭 만드는 일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대신 노란색의 지화를 붙인다고 한다.

얇은 화지 한 장 한 장을 10여 종의 꽃도래판에 따라 오려낸다. 이렇게 오려진 화지는 같은 크기 20장을 한 단위로 묶어 한 층을 형성한다. 한 개의 지화가 10층으로(김석출이 주로 제작하던 1980년대 중반까지는 7, 8층이었다고 함) 제작되어 한 개의 지화를 만드는데 얇은 화지 100장 정도가 사용되는 셈이다.

지화는 굿이 있을 때 주로 제작된다. 굿이 들어오면 굿 시작 열흘 전부터 여유 있게 만들기 시작하지만 최종 마무리는 굿을 하는 당일 아침 이른 시간에 굿당에서 이뤄진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굿이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화를 계속 만들었으나 지금은 일정치가 않다. 통상 연초에 굿이 많으나 오귀굿이나 간단한 축원의 개인굿은 일정치가 않다.

지화는 꽃심, 꽃잎, 꽃받침(이파리), 밑받침(따까리) 등으로 구성된다. 꽃심과 꽃잎은 화지로 만들며 꽃받침은 노루지라고 하는 신문용지 보다 약간 두꺼운 녹색종이로 만든다. 밑받침은 마분지같이 두꺼운 종이로 만든다.

참고문헌 한국무가집 4(김태곤 편, 집문당, 1992), 한국의 민속지화에 관한 연구(강신영,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한국지화에 관한 연구 2–김석출씨의 기법을 중심으로(김태연, 산업기술연구, 대구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1985), 한국전통지화에 관한 연구(박기복,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무화연구 1(김태연, 한국무속학 3, 한국무속학회, 2001), 서울굿 신화 연구(양종승 · 최진아, 한국무속학 4, 한국무속학회, 2002), 지화 연구(김명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동해안별신굿 지화 연구 1(심상교, 한국무속학 6, 한국무속학회, 2003).
필자 심상교(沈相敎)

막음쟁이

정의 집에 탈이 나거나 동티[動土]가 났을 때 액을 막기 위한 '막음질(액을 막기 위한 행위)'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내용 막음쟁이는 '비래쟁이'라고도 한다. 막음쟁이는 의례행위를 통해 재화(災禍)를 차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비래쟁이는 신에게 인간의 바람을 요구하는 의례행위에 치중하기 때문에 부르는 이름이다. 동해안의 큰무당들이 별신굿, 서낭굿, 오구굿 등 비교적 큰 무속의례를 집례하는 것과 달리 막음쟁이와 비래쟁이는 개인이나 마을사람들의 소규모 무속의례를 집례한다. 이들은 신수를 보는 일에서부터 객귀물리기, 액막이, 동토잡이, 주당물리기, 삼재풀이, 조상풀이, 안택고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을 한다.





1. 막음쟁이의 신단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 | 2006.12.27 | 윤동환

2. 막음쟁이 일을 하는 김진규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 | 2006.10.29 | 윤동환

참고문헌 북면 사람들의 삶과 민속(한양명 외, 울진군 북면 · 대구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2006), 온정면 사람들의 삶과 민속(한양명 외, 울진군 온정면 · 대구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2006), 남자는 그물 치고 여자는 모를 심고(한양명 외, 한수원 울진원자력본부 · 안동대학교, 2007), 동해안 굿의 전승과 변화(윤동환,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필자 윤동환(尹東煥)

상호참조 비래쟁이(362쪽)

만구대택굿

정의 황해도 지역에서 무당자신이나 부자집의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가장 큰 굿으로, 노인들의 무병장수와 사후 내세의 극락천도를 기원하는 굿.

역사 만구대택굿이 언제부터 유래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불교의례의 영향도 보인다. 특히 굿청 장식이나 규모는 마치 불교의 영산재나 예수재(預修齋)를 연상하게 한다. 영산재에서 볼 수 있는 괘불이나 금전괘, 은전괘, 길게 늘어뜨려 장식해 놓은 장발 등은 만구대택굿에서 굿청에 무신도를 매어 놓고 각종 괘를 달고 장발을 쳐놓은 것과 유사하다. 성격으로 보면 죽은 후 행할 불사를 생전에 미리 닦는 예수재에 비교할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불교가 추구하는 것과 무속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일한 선에서 볼 수는 없으나 노인들이 생전에 하는 의례라는 점은 유사하다.

내용 이 굿은 무당집에서 할 때는 무당 자신의 건강과 복은 물론 가족과 단골 모두가 편안하고 무고하도록 빌며, 나이 많은 분의 경우 장수를 빌어주고, 조상의 경우 극락천도를 빌어주는 등 다양한 기원과 목적을 함께 지니고 있다. 만구대택굿은 황해도 지방에서 규모가 제일 큰 굿으로서 보통 1주일씩 계속하며, 주로 만신집에서 행해지고, 무당이 일생에 세 번 하면 많이 하는 굿이다. 무당이라고 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굿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데다 의례절차도 복잡하고 다수의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큰만신이 아니면 하기 힘들다. 따라서 황해도 지방에서도 연륜이 있는 큰만신들이 하며, 회갑 · 진갑 · 칠순 · 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황해도 만구대택굿

5. 황해도 만구대택굿 중 신당

6. 황해도 만구대택굿 중 무당 윤순임

7. 황해도 만구대택굿 중 악사들

8. 황해도 만구대택굿 중 칠성거리(정학봉)

9. 황해도 만구대택굿 중 솔문

10. 황해도 만구대택굿 중 방아거리(정학봉)

11. 황해도 만구대택굿 중 성수거리

12. 황해도 만구대택굿 중 장군거리(정학봉)

13. 황해도 만구대택굿 중 작두거리(정학봉)
국립민속박물관

순과 같이 중요한 일생의례에 즈음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우옥주의 만구대택굿의 굿거리는 보통굿의 2배인 24거리로 짜여져 있다. 쌍피리, 해금, 대금, 쌍장구, 괭정, 바라가 기본 악기이다. 굿판에다 오색장발을 띄우고 그 오색장발에는 시왕개, 돈전개, 송송개, 보화개, 인물개, 청천개, 일월등, 팔모등, 학, 잉어를 매단다. 제물 진설이 끝난 뒤 경관만신이 꽃가마를 타고 굿판 앞에 마련된 솔문(솔잎으로 만든 문)으로 들어오면 만구대택굿이 시작된다. 제석거리에서는 '소놀이굿'을 한다. 동네사람들이 모여 멍석으로 소를 만들어 뒤집어쓰고 마부를 앞세워 풍악을 울리면서 굿당으로 들어와 굿을 하고 있는 만신과 갖은 익살과 재담을 한다. 이때 술상이 들어오면 놀이에 참여한 한량뿐 아니라 구경꾼들까지 함께 어울려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소놀이굿을 벌인다. 사냥굿에서는 소, 돼지, 닭을 잡는 생타살굿도 한다.

정학봉의 굿 제차를 보면 굿을 하는 전날 저녁에 대청이나 마루에서 안반고사를 지낸다. 안반(安盤)은 떡을 빚을 때 사용하는 떡판이다. 안반 위에 굿에 쓸 인절미, 반대기 등을 겹겹이 쌓아서 여러 곳에 올려놓는다. 또한 촛불을 켜고 쌀과 술을 함께 준비해 놓는다. 이렇게 하여 비손을 하고 떡에 방울을 달라붙게 하여 산을 준다. 이튿날에 굿을 시작하면 경관만신을 비롯한 참여자들은 복색과 악기를 갖추고 세경돌이를 한다. 이때 경관만신은 상산의대를 입고 꽃가마에 탄다. 앞에는 잽이들이 가고 그 뒤로 꽃가마와 무당 일행이 차례로 따른다. 세경돌이는 동네를 거쳐 집 주위를 세 번 돌면서 평안과 복을 기원하는 것이다. 경관만신이 꽃가마를 탄 것은 경관만신이 벼슬할 만큼 금상자리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경을 돌고 나면 집 안의 굿청 남쪽에 솔잎으로 만든 세 개의 솔문을 통과하여 굿청으로 들어온다. 이는 모든 부정을 씻어내고 산천의 기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세경돌이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굿을 시작한다. 굿은 주당물림, 부정거리, 산천거리, 초감흥거리, 소대감거리, 칠성거리, 제석거리, 영정거리, 사냥거리, 군웅거리, 익은타살거리, 감흥거리, 성주거리, 잔내림거리, 대감거리, 서낭거리, 말명거리, 신장거리, 성수거리, 장군거리, 조상거리, 광대거리, 터주살량거리, 마당거리로 이어진다.

참고문헌 큰무당 우옥주의 생애와 활동–큰무당 우옥주 유품(양종승, 국립민속박물관, 1995), 한국의 무속–서울 · 황해도편(국립민속박물관, 1999), 만구대탁굿(한국세시풍속사전 봄편, 국립민속박물관, 2005).
필자 김덕묵(金德黙)

만당제물

정의 제주도굿에서 쓰이는 가장 기본적인 떡들을 총칭하는 말.

내용 만당제물의 '만당'은 제상을 가득 채운다는 뜻이다. 따라서 만당제물은 제상을 가득 채우는 제물이라는 뜻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제물을 내리고 새로 마련한 제물을 올려 제상을 가득 차게 하는 것은 '만당ᄀᆞ득임'이라고 한다.

제주도굿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떡은 돌래떡, 월변, 좀매떡, 각변, 시리떡의 다섯 가지다. 이들을 함께 일러 만당제물이라고 한다. 돌래떡은 메밀가루나 쌀가루로 둥글고 납작하게 만든 떡으로, 접시만한 크기이다. 익힌 가루를 반죽하여 미레깃대로 평평하게 밀고 사발로 눌러 잘라낸 다음 삶아낸다. 굿을 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쓰인다. 당에 갈 때도 필수적인 제물로 여긴다. 월변은 쌀가루를 재료로 하여 돌래떡보다 더 작고 얇게 만든 떡이다. 좀매떡은 쌀가루를 재료로 하여 타원형으로 아기 손바닥 크기가 되게 만든 흰떡이다. 달리 '손웨성'이라고도 한다. 가루를 빚어 계란 모양으로 만들어 한 손에 놓고 다른 손의 손등으로 눌러 모양을 낸 다음 삶거나 쪄낸다. 각변은 쌀가루를 재료로 하여 네모꼴로 얇게 만든 떡이다. 흔히 '웨성'이라고 한다. 반죽한 가루를 안반에 놓아 납작하게 밀고 평행사변형으로 잘라내 삶아낸다. 시리떡은 사기사발이나 보시기 따위에 쌀가루를 담아 그대로 쪄낸 떡이다. 사발에 쪄낸 것을 '사발시리', 보시에 쪄낸 것을 '보시시리'라고 하고 '백시리'라고 통칭한다.

이들 굿떡은 소금을 비롯한 조미를 일절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요즘에도 돌래떡, 월변, 시리떡 등은 어디에서나 흔히 쓰인다. 원래 굿떡은 집에서 정성들여 만드는 것이지만 요즘에는 굿떡에 대하여 잘 아는 떡집에 주문하여 쓴다. 이러한 추세에도 돌래떡이나 시리떡 등은 집에서 정성껏 만들어 쓰는 경우가 많다.

한편 굿을 여러 날 하게 되면 올려둔 제물이 상하기 쉽다. 상한 제물은 신에게 바칠 수는 없기 때문에 노릇이니 바꾸어 올릴 필요가 있다. 올려두었던 제물은 상하기 전에 내려서 사람들이 먹어치우고 대신 새로 마련한 제물을 제상에 올린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상은 항상 새로운 제물로 가득 차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제상에 제물을 채우는 것을 두고 '만당ᄀᆞ득임'이라고 한다. 자주 바꾸어 올리는 제물로서 대표적인 것은 메, 떡, 채소 등이다. 과일은 쉽게 상하지 않으니 오래 올려두는 편이다. 술잔은 수시로 비우고 다시 따라 채운다.

모두 특별한 모양을 내지 않은 떡이다. 만드는 데는 떡본조차 필요치 않다. 게다가 어떠한 조미도 하지 않는다. 일부 지역에서는 당에 가지고 가는 돌래떡은 특별히 '다대', '당다대', '다대떡'이라고 한다. 지역의 사정에 맞게 마련하여 쓰는 제물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만당제물'이라는 말은 그다지 일반화되지 않은 듯하다. 떡은 같은 것이라도 쓰임에 따라 다른 명칭이 붙기도 한다. 이를테면 친족이 장지에 부조로 돌래떡을 해가지고 갈 때는 특별히 '고적떡'이라고 한다.

참고문헌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제주의 음식문화(허남춘 외, 제주특별자치도 · 국립민속박물관, 2007)
필자 강정식(姜晶植)



성수부채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길이 47㎝ | 1950년대

만성수부채

정의 황해도 큰무당들이 사용하는 부채. 만 가지 성수[神]님들을 모신 부채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만감응부채라고도 한다.

형태 나무 혹은 대나무로 된 살 위에 사직(絲織)이나 면(綿)으로 부채면을 덧대었다. 부채면에는 부처, 도령, 장군, 팔선녀, 산신 등 여러 신이 아름다운 채색으로 그려져 있다. 만성수부채는 일반적으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접부채[拉扇]이나 부채살 위에 부채면을 덧대고 둥글게 만든 둥굴부채[團扇]도 있다. 이를 만성수둥굴부채라고 한다.

내용 성수부채는 굿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채로 신령을 청배하거나 무당이 춤출 때, 신령의 강림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한다. 특별히 큰무당들이 큰굿에서 사용하는 부채를 만성수부채라고 한다. 무당이 굿을 하러 나갈 때 무신도 대신에 사용하기도 한다. 만성수부채는 황해도굿의 성수거리에서 사용한다. 성수거리는 황해도의 무당인 만신이 모시는 신을 청배하여 집안의 안전과 만복을 축원하며 잡귀를 물리칠 때 하는 굿거리이다. 굿판에서 굿을 하거나 공수를 전할 때 무당은 왼손에는 방울, 오른손에는 부채를 드는 것이 원칙이다.

부채는 원래 더위를 쫓는 데 사용하였으나 점차 의례용 · 장식용으로도 많이 쓰이면서 무당이나 승려들의 가무에도 사용되었다. 무당들은 굿을 할 때 부채로 얼굴을 가리기도 하고 부채 위에 돈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용도의 부채에는 도화(桃花), 모란, 나비 등이 채색화로 그려지는 것이 보통이다. 무녀들은 간혹 아무 그림도 그리지 않은 백선도 사용했지만 일반적으로는 부채 표면에 해와 달을 그린 일월선(一月扇), 세 명의 부처를 그린 삼불선(三佛扇), 네 명의 선녀를 그린 사선부채, 여덟 명의 선녀를 그린 팔선녀부채 등을 사용한다. 무속세계에서의 부채는 악신(惡神)은 떨쳐버리고 선신(善神)은 불러들이는 무당의 필수적 신구(神具)로 부채 바람을 통해 잘못된 과거를 씻

어내고 현재의 복을 불러들이며, 미래의 예언적 뜻을 알게 된다.

참고문헌 한국부채의 연구(최상수, 대성문화사, 1972), 한국민속대관 5-민속예술 · 생업기술(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조선무속의 연구(赤松智城 · 秋葉隆, 심우성 옮김, 동문선, 1991), 큰무당 우옥주 유품(국립민속박물관, 1995), 무-한국무의 역사와 현상(조흥윤, 민족사, 1997), 한국복식문화사전(김영숙, 미술문화, 1999).
필자 변지선(卞志善)

만세바지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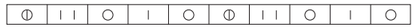
정의 황해도굿과 서울 · 경기 북부 지역 굿에서 무당이 신을 청하는 청배무가인 〈만세바지〉를 부를 때 연주하는 장단. 만수바지라고도 하는 만세바지는 '만세(혹은 만수)'와 '바지'의 합성어다. 보통 황해도굿에서는 만세바지, 서울굿에서는 만수바지라고 많이 부른다. '만세(萬歲)' 혹은 '만수(萬壽)'는 인간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이고, '바지'는 '받는다'라는 의미로서 악사가 무당 노래의 뒷부분을 받는 '바라지'를 의미한다. 만세바지나 만수바지는 주로 황해도, 서울, 경기도 등지의 강신무당이 신을 청하는 청배무가로 부른다.

내용 황해도굿에서 만세바지의 장단은 산유장단 혹은 모뇨리장단이라고도 한다. 산유장단의 정확한 어원과 유래는 알 수 없다. 모뇨리장단은 이 장단으로 노래하는 〈만세바지〉 무가가 "모여랴오 모여랴오"라고 시작하는 노랫말에서 비롯됐다.

황해도굿의 만세바지장단은 2소박과 3소박이 2+3+2+3으로 합쳐진 혼소박 4박(10/8박자) 장단에 얹어 부른다. 만신이 장구잽이를 향해 서서 한 장단을 부르면 장구잽이가 한 장단을 받아 부르는 '메기고 받는' 형식이다. 그러나 만신의 메기는 소리는 내용에 따라 노랫말이 길어져서 두 장단 이상으로 부르기도 한다.

황해도굿에서는 만세바지장단의 변형 장단이 나타난다. 무당이 청배무가로 부르는 〈만세바지〉 무가는 세 종류가 있다. 따라서 이를 부르는 장단도 세 종류가 있다. 이는 보통 빠르기의 혼소박 4박(10/8박자) 장단인 만세바지장단, 조금 느린 3소박 4박(12/8박자) 장단인 긴만세바지장단, 조금 빠른 2소박 4박(4/4박자) 장단인 자진만세바지장단이 있다. 이렇게 템포가 다른 세 가지 장단(긴-보통-자진)을 전통음악에서는 세틀[三機]형식이라고 한다. 이는 고려시대부터 보이는 매우 오래된 음악 형식이다.

〈보례〉 황해도 만세바지장단



〈보례〉 황해도 긴만세바지장단



〈보례〉 황해도 자진만세바지장단



서울굿의 만수바지장단도 예전에는 혼소박 4박 장단에 얹어 불렀다가 최근에 3소박 4박(12/8박자) 장단에 얹어 부른다. 서울굿의 만수바지장단은 자진굿거리이다. 자진굿거리는 굿거리를 빨리 치는 것이다. 만신이 장구잽이를 향해 서서 반 장단을 부르면 장구잽이가 반 장단을 받는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되었다. 서울굿에서 〈만수바지〉 무가를 부를 때 문서가 많거나 선배 무당이 장구를 잡으면 거리를 주관하는 무당이 장구 잡은 무당에게 〈만수바지〉를 시작하도록 예의를 갖추는 법도가 있다고 한다.

〈보례〉 서울 만수바지장단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는 제석거리 등을 거행하면서 〈만수바지〉를 부른다. 경기도 남부의 〈만수바지〉는 가래조장단에 얹어 부른다. 이는 3+2+3의 혼소박 3박(8/8박자) 장단으로 되어 있다. 무당의 메기는 소리와 악사의 받는 소리가 4장단씩 교대된다. 가래조장단은 경기도도당굿에서 주로 쓰인다. 군웅굿에서 악사가 앉은청배를 할 때 주로 연주한다. 그러나 요즘 앉은청배를 할 때 가래조장단은 어렵기 때문에 거의 연주하지 않고 도살풀이장단으로 연주하는 경우가 많다. 〈제석 만수바지〉는 본래 전통적인 경기도 남부 지역의 무가가 아니라 서울의 〈만수바지〉가 유입되어 정착된 것이다.

〈보례〉 경기도 남부 만수바지장단(가래조장단)



참고문헌 황해도 굿의 음악인류학(이용식, 집문당, 2005), 경기 무가의 음악적 특징(박정경, 경기굿, 경기도문화의전당 국악당편, 2008), 전통음악의 박 · 분박의 변화에 대한 고찰(이보형, 한국음악산고 3, 한양대학교, 1992), 서울굿의 장단사용과 장단구조의 연계성(김혜정, 한국무속학 12, 한국무속학회, 2006).
필자 이용식(李庸植)

만수대탁굿

표제어 만구대택굿(258쪽)

만신(萬神)

정의 무녀를 높여 일컫는 호칭 중 하나.

내용 여자 무당을 일컫는 호칭은 몇 가지가 있다. 근래에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무격(巫覡)은 무당과 악사를 통칭하는 것이므로 여자 무당도 해당될 수 있다. 이외에 무녀(巫女) · 여무(女巫) · 만신 · 기자(祈者) · 단골 · 단골네 등이 있다.

이중에서 만신은 한자를 빌려 '萬神'이라 쓰기도 하는데 보통 여자 무당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다. 만신이란 단어는 굿판에서 자주 등장한다. 예로 만신말명이라 하면 무조(巫祖)를 의미하는데 무당을 뜻하는 만신과 조상을 의미하는 말명이 합쳐진 것이다.

간혹 무당이 스스로를 칭할 때 기자라 하기도 하는데 이는 '기원하는 자', '기도하는 사람'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그리고 '단골', '단골네'라는 명칭은 무당을 따르는 무리들이 자신들을 돕는 무당을 일컫는 호칭이다.

근간에는 무당, 만신 보다 무속인(巫俗人)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방송과 같이 공공매체에 무당이 소개될 때에는 무속인이라는 표현을 쓴다. 무속인은 보통 무당을 비롯하여 무업을 돕는 사람들까지 통칭하는 말로 사용된다.

참고문헌 한국 무의 역사와 현상(조흥윤, 민족사, 1997).
필자 김창호(金昌鎬)

말명

정의 무속에서 넓은 의미의 사자(死者)를 가리키는 개념. 이 사자가 혈연관계에 있는 경우 말명은 넓은 의미의 조상을 의미한다.

내용 말명에 대한 무가사설을 보면 말명이 지닌 의미의 폭이 대단히 넓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무가사설을 보면 "선대달어 할아버지 할머니 말명 이대 할아버지 할머니 내외말명/ 하늘 아래 아버지 군마제장 어머니 업말명/ 고모말명 이모말명 삼사촌 내외말명 오촌 내외말명/ 남동승 남제장 여동승 여말명/ 조카항렬에 가던 말명 청춘말명 소년말명 호구말명 도령제장 원주 집주 말명" 등 다양한 말명이 등장한다.

이러한 무가 사설은 말명이 '죽은 여자의 영혼'을 가리키지만 크게는 '죽은 자' 전체를 가리키고 있음을 보여 준다. '어머니 업말명 여동승 여말명 호구말명 고모말명 이모말명'의 경우에서처럼 말명이 주로 여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아울러 '내외말명 조카 항렬에 가던 말명 청춘말명 소년말명 원주 집주 말명'의 경우처럼 남녀 모두를 지칭하기도 한다.

또한 말명은 조상 가운데서도 한(恨)이 있어 가족의 꿈에 자주 나타나는 혼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 경우 조상의 옷을 만들어 동고리에 넣어 집안 혹은 무당집이나 절에 모셔 두어야만 살아 있는 가족들이 안전하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죽은 조상에 대해서는 상자 속에 의복을 넣어서 말명,

즉 말명상자를 모든 조상에 대해 모셔야 하나 죽은 조상이 굿과 같은 경우를 통해 꼭 말명으로 좌정하겠다고 말하지 않으면 굳이 말명상자를 모시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도 있다. 한편 말명상자를 모실 경우 상자 안에 조상의 의복뿐 아니라 돈도 조금 넣어 둔다고 한다. 또한 집안에서 굿을 할 경우 말명상자 안에 모셔둔 조상 옷을 놀려 주고, 그 상자 속에 있는 돈에 다른 돈을 더하여 조상의 의복을 새로 마련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이가 어려서 죽었다든가 결혼을 못하고 죽는 등의 비정상적인 죽음을 당한 조상의 경우 살아 있는 가족들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명으로 모셔야 된다고 한다. 그리고 그런 위험한 조상을 모신 말명상자는 방으로는 못 들어가고 문 입구, 신발장 위 같은 곳에 올려놓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말명상자는 대부분 굿당이나 무당의 신당에 모셔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말명을 굿당이나 신당에 모시는 것은 조선시대에 조부모나 부모의 혼을 무당 집에다 모셔 놓았던 위호(衛護)를 연상시킨다.

이처럼 말명은 넓은 의미의 조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말명을 '만명(萬明)'으로 보고 김유신 장군의 어머니인 만명부인을 모시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참고문헌 조선무속고-역사로 본 한국 무속(이능화 지음, 서영대 역주, 창비, 2008), 한국무속에 나타난 신의 유형과 성격(이용범, 민속학연구 13, 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이용범(李龍範)

말미상

정의 보통 서울의 만신들이 '말미 드린다'는 굿거리를 할 때 사용되는 상.

내용 말미는 서울의 진오귀굿에서 바리공주 무가를 구송하는 굿거리의 이름이다. 굿놀음으로 저승사자가 등장하는 사재삼성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망자의 천도를 위한 굿거리들이 연행된다. 말미를 드리는, 즉 바리공주 무가를 부르는 만신은 홍치마에 대신몽두리를 입고 큰머리를 머리에 얹는다. 말미를 통해 바리공주를 청배한 뒤 이 바리공주가 망자를 인도하여 저승으로 가는 것을 시각화한 도령돌기가 다음에 따른다. 의자에 앉고 장구를 세워 북편을 위로 하고 한쪽만을 치면서 무가를 구송한다. 망자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진오귀굿에서는 장구를 세워놓고, 좀 지난 묵은진오귀에서는 그대로 놓고 친다. 이때 그 앞에 놓는 상이 바로 말미상이다.

1인용 좌탁 정도 크기의 상에 쌀을 수북이 놓고 그 위를 한지로 덮는다. 그 위에는 사탕류인 옥춘당을 놓고 다시 그 위에 새발심지를 기름에 적셔 올려둔다. 양쪽에는 촛대, 앞에는 향로를 각각 놓는다. 말미상 앞에는 망자의 옷과 베가르기에 쓰일 무명과 베를 놓는다.

말미는 장편의 서사무가를 구송하기 때문에 하므로 노래가 아닌 운율 있는 말로 주워섬긴다.





1. 바리공주를 부르는 원옥희
서울시 무악동 인왕산 국사당 선바위 | 2006.11.4 | 김형근

2. 바리공주를 부르는 이상순, 바라는 원옥희
서울시 무악동 인왕산 국사당 | 2007.5.21 | 김형근

중간 중간에 방울을 흔들며 장구채로 장구를 치면서 "우여~슬프시다.(김해김씨) 열두 혼백(남) 망재님" 하며 몇 구절의 공식화된 표현으로 망자를 위로하기도 한다. 이때는 가족들이 형식화된 곡소리를 내며 망자가 노자로 쓰라며 말미상에 돈을 얹는다. 바리공주의 끝부분에는 불교의 사방찬, 도량찬 또는 장엄염불의 일부 등을 붙여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 이때 덮었던 한지를 치우고 새발심지에 불을 붙이면 무가가 끝날 무렵에 새발심지도 다 타게 된다. 새발심지가 다 타면 심지와 한지를 치워 수북한 쌀을 유심히 들여다본다. 돌아가신 망자가 무엇으로 환생하여 갔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행위이다. 꽃, 새의 발자국, 나비 등의 흔적들이 남는다. 이런 흔적들을 무당은 가족들에게 설명하며, 말미 잘 받고 좋은 곳에 가셨다는 말을 전한다.

참고문헌 서울지역 안팎굿 무가자료집(김헌선, 보고사, 2006), 서울진진오기굿 무가자료집(김헌선, 보고사, 2007), 서울굿의 이해(한국무속학회, 민속원, 2007)

필자 김형근(金亨根)

망묵이굿

정의 함경도 지방에서 죽은 사람의 넋을 천도하기 위해 하는 굿. '망묵굿'이라고도 하며, 대규모의 굿으로 확장되면 '새남굿'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내용 죽은 사람이 산 사람들의 주변에서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산 사람 역시 죽은 사람을 더 이상 붙잡지 않고 각자 다른 세계를 인정하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망자천도굿이다. 망자천도굿은 무속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굿이다. 굿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삶과 죽음의 공간인 이승 및 저승 관념에서 시작되었다. 이 뿐 아니라 고유의 이승·저승 관념에 외래종교의 저승 관념인 극락과 지옥이라는 새로운 세계관이 유입되면서 현재 굿에서 구현되고 있는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저승천도 의례가 만들어졌다.

망묵이굿은 함경도 일대에서 연행하던 '망자천도'의 지역 명칭이다. 함경도 무속은 일제강점기에 손진태(孫晉泰),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 아카마쓰 지조(赤松智城), 아키바 다카시(秋葉隆) 등이 조사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광복 이후에 무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와 임석재·장주근 등 학자들이 1960년대 초·중반에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의 발간을 위해 다시 한 번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함경도 지방 중에서 특히 독자적인 함경도만의 망묵이굿이 확인된 지역은 북청 이남과 원산 이북이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망묵이굿의 실제 연행사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자료를 통해서만 그 옛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아카마쓰 지조와 아키바 다카시의 『조선무속의 연구(朝鮮巫俗の研究)』에 따르면 함경도의 망묵굿은 망자가 죽은 지 7일째에 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굿의 규모는 1일 만에 마치는 소규모 굿에서부터 길게는 3~4일이 걸리는 대규모 굿까지 다양하다. 대규모 새남굿인 망묵굿의 경우 재수굿과 오구굿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의 새남굿도 이와 같은 복합적 성격을 지닌 점에서 비교할 수 있다.

함경도 망묵굿은 총 22개의 굿거리로 정리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정풀이** : 평복 차림으로 앉아서 한다. 정화 뜻의 부정풀이를 주무당이 제단 앞에 앉아서 부정굿 장기를 치면서 노래한다.
2. **토세굿** : 평복 차림으로 마당의 한 귀퉁이나 뒤뜰에 상을 차리고 앉아서 터주신께 굿을 알리는 무가를 청배장기-상애짓는장기-도속잡는장기-드러치는장기에 얹어서 부른다.
3. **성주굿** : 성주상을 차린 뒤 평복 차림으로 앉아서 청배장기-상애짓는장기-도속잡는장기-드러치는장기로 장단을 맞추면서 성주신에게 굿을 알리는 무가를 부른다.
4. **문열이천수** : 주무가 흰 장삼을 입고 흰 고깔을 쓰고 서서 하는 굿으로, 사망한 후 저승에 간 망자가 다시 이승의 천도굿을 받기 위해 돌아오는 과정을 서술하는 내용이다. 시왕에게 망자가 천도하

도록 명부의 여러 문을 열어 달라고 기원하며 48원(願), 화청 백발가, 염불, 천수경 등의 구송과 바라춤을 반복하면서 연행한다.

5. **청배굿** : 여러 신을 청하는 절차로, 앉아서 청배장기-상애짓는장기-도속잡는장기-드러치는장기를 치면서 여러 신명을 열거하는 무가를 구송한다.

6. **앉은굿** : 말 그대로 앉아서 하는 굿거리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내용의 감천무가와 축원들의 내용을 청배장기-상애짓는장기-도속잡는장기-드러치는장기로 장단을 맞추면서 구송한다.

7. **타성풀이** : 망자가 저승사자에게 끌려가는 도중에 당하는 갖은 고초를 타성(他姓)의 망령들이 돕는 긴 내용의 무가를 앉아서 상애짓는장기-도속잡는장기-드러치는장기를 치면서 구송하는 굿거리이다.

8. **왕당천수** : 천수경으로 여러 신의 좌정을 기원하는 굿거리로, 문열이천수와 같은 방식의 선굿으로 진행된다.

9. **신선굿** : 난선구성인 · 지맹구성인을 비롯해 각 방위의 신인 지정과 각종 조왕, 오방신장, 각종 간주, 동서남북 각 바다의 용왕들을 청해 망자의 안주와 유족의 길복을 기원하는 무가를 앉아서 구송하는 굿거리이다.

10. **대감굿** : 먼저 선굿으로 여러 대감신 등을 청하고, 앉아서 짐달언 장수에 대한 장편 무가를 구송하는 굿거리이다. 청배장기-상애짓는장기-도속잡는장기-드러치는장기 등으로 장단을 맞춘다.

11. **화청** : 불교의 화청과 같은 용어를 가진 굿거리이다. 선굿으로, 흰 장삼에 흰 고깔을 쓰고 목에 염주를 건 선무당이 제금을 치고 무가를 부르면서 굿판을 돌아다니며 망자의 저승길이 평탄하기를 비는 굿거리이다.

12. **동갑접기** : 망자의 저승길 중에 발생하는 여러 난관과 고초에 먼저 간 동갑의 망령들이 나타나 도와준다는 내용으로, 동갑 혼을 향응하는 내용의 무가를 앉아서 장구를 치며 자장단에 맞추어 구송한다.

13. **도랑축원** : 도랑을 밝히는 도랑축원, 망령의 위로, 극락세계에서 고이 잠들라는 의미의 도랑선비청정각시 무가를 녹색쾌자 · 홍띠 · 흰고깔 · 바라를 들고 서서 구송하는 선굿이다. 대체로 상애짓는장기로 무가를 반주하며, 일정한 단락을 주기로 하여 바라춤(논놀이장기 반주)과 무가를 교대로 부르기도 한다. 이때 조무들이 무가를 제창하기도 한다.

14. **짐가제굿** : 일종의 액막이를 위한 굿거리로, 염라대왕을 이승까지 소환하는 이력이 있고 모든 사악한 것을 위협하는 저승 사령의 힘을 빌려서 망자와 유가족에게 살(煞) 등이 범접하지 못하게 하는 목적에서 짐가제 무가를 앉아서 구송한다.

15. **오기풀이** : 전국적으로 발견되는 바리공주 무가를 청배장기와 들어치는장기로 구송하는 굿거리이다.

16. **산천굿** : 앉은굿으로, 팔도 명산대천에 망자의 사후 평안과 유족의 복을 기원하는 내용과 함께 붉은선비 영산각시 무가를 구송한다. 대체로 자장단인 자유리듬에 맞추어 수시로 '덩덩덩더…'를 치면서 진행한다.

17. **문굿** : 저승길을 닦아 문을 여는 굿으로, 양산백 축영대 무가를 구송하는 절차이다.

18. **돈전풀이** : 망자가 저승에 끌려가는 도중에 사자에게 당하는 고초와 험난한 난관을 인정을 써서 넘기는 내용과 전신(돈신)의 신화가 담겨 있는 궁산선배 및 명월각시 무가를 부르는 굿거리이다. 도속잡는장기-드러치는장기-불림장기앉은굿으로 장단을 치면서 앉은굿으로 진행한다.

19. **상시관놀이** : 특별한 무가 없이 주무당이 고깔과 장삼을 착용하고 춤추는 것으로 진행한다.

20. **동이부침** : 이 역시 특별한 무가 없이 떡시루를 입술에 붙이고 굿판을 돌면서 신의 위력을 보이는 것으로 지역에 따라 떡시루가 아니라 제물이 차려진 상을 물고 돌기도 한다.

21. **천디굿** : 망자의 저승 천도와 함께 저승과 이승의 경계를 나누는 목적에서 연행되는 굿거리로, 천을 가르는 것이 주요 행위이다. 망자의 맏며느리가 정성을 들여 짠 베를 길게 펴서 두 사람에게 양 끝을 잡고 서게 해서 그 위에 망자의 의복이나 소지품을 올려놓고, 앞뒤로 움직이면서 망자의 저승 천도를 기원하는 굿거리이다. 이때 유족들은 망자를 위해 저승노잣돈으로 인정을 많이 걸어 준다.

22. **하직천수** : 천수경을 염송하면서 망자의 저승 천도를 기원하고 대를 내려서 망자의 마지막 작별의 말을 전하는 망묵이굿의 마지막 굿거리이다. 이 절차를 마치면 모든 굿청을 정리하면서 굿을 마친다.

이 가운데 부정을 가시는 부정풀이, 굿을 하기에 앞서 먼저 집안의 신께 알리는 토세굿과 성주굿, 망자의 저승길을 천수경으로 염원하는 문열이천수와 왕당천수, 망자의 저승길을 도와주는 타성과 동갑에 관한 내력을 풀거나 기원하는 타성풀이와 동갑접기, 저승과 이승을 오가는 존재들에 관한 풀이인 도랑축원 · 짐가재굿 · 오기풀이, 이승에서 이루지 못한 인연을 저승에 가서 이루는 문굿이 등이 망묵이굿에서 가장 중요하게 연행되는 굿거리라고 할 수 있다.

망묵이굿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선굿보다 앉은굿이 발달되어 있으며, 특히 장대한 서사무가를 사용하면서 굿을 길고 장차게 진행한다는 점이다. 감천, 짐달언 장수, 도랑선비 청정각시, 짐가재, 오기풀이, 붉은선비 영산각시, 양산백 축원대 등의 서사무가들은 각기 독립된 굿거리에서 나타난다. 이는 제주도 지역에서 많은 무가를 통해 굿을 진행하는 점과 비교될 수 있다.

또한 함경도굿에서 사용하는 반주음악은 장구 · 바라 · 징 등의 타악기만을 사용하고, 선율악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장구와 징의 쓰임새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타악기를 중심으로 반주를 하면서 각기 굿거리의 진행에 따라 청배장기 · 상애짓는장기 · 도속잡는장기 · 드러치는장기 · 천수장기 · 화청장기 · 예주게장기 · 열락장기 · 정적기염불 등의 '~장기'라는 말로 장단을 표현한다. 이 가운데 정적기를 제외하면 대체로 장단들이 혼합박자이거나 불규칙한 장단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서 음악적 분화가 매우 특별하다.

지역사례 망묵이굿과 같은 망자천도굿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함경도와 가장 가까운 강원도나 동해안 및 충청도 지역의 오구굿, 서울 · 경기 · 황해도 지역의 진오기굿, 평안도의 수왕굿, 전라도 일대의 씻김굿, 제주도의 시왕맞이 등이 명칭을 달리하면서 제각기 다른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 각 지역의 망자천도굿은 또 망자 사후부터 연행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하위 명칭을 각기 달리하면서 불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의 경우 사람이 죽은 후 7일 안에 하는 자리걷이, 49일 안에 하는 진진오기굿, 1년이 지나서 하는 안안팎굿, 대규모의 의례로 이틀에 걸쳐서 하는 새남굿 등 지역별로 세분화된 의례를 독립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조선신가유편(손진태, 향토연구사, 1930),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13-관북무가(임석재 · 장주근, 문화재관리국, 1966), 한국무가집 3(김태곤, 원광대학교출판국, 1978),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함경남 · 북도편(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1), 함경도 망묵굿(임석재 외, 열화당, 1985), 조선무속의 연구(赤松智城 · 秋葉隆, 심우성 역, 동문선, 1991), 함경도의 민속(전경욱,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朝鮮の巫覡(村山智順, 朝鮮總督府, 1932).

필자 김은희(金銀姬)

망자상

정의 망자의 천도를 목적으로 하는 망자를 위한 상.

내용 망자의 천도를 목적으로 하는 굿인 오구굿에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망자뿐 아니라 여러 신격을 위한 모둠상이 차려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오구굿에서는 망자 이외에 초청되는 신격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망자를 위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망자상이라 하고, 한편으로 망제상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서울 · 경기 지역의 망자상에는 자리걷이와 진오귀굿이 구분된다. 자리걷이는 발인 후 집에 돌아와서 바로 하는 굿으로, 앉은굿 형식으로 진행되는 의례이다. 이때 차리는 상은 부정상, 망자상, 상식상, 사제상이다. 망자상 위에는 탕, 밥, 밤, 대추, 삼색과일, 위패, 각종 전, 팥떡 등이 오른다. 망자가 돌아가신 지 49일 이전에 하는 굿이 진진오귀굿(만신에 따라 1년이라고 보기도 한다)이고, 이후에는 묵은진오귀굿 또는 안안팎굿이 된다. 이때의 망자상은 굿판의 중앙에 놓이게 된다. 이른

바 큰상, 대상(大床)이라고도 불린다. 그런데 이 때 대상은 망자만을 위한 상이 아니다. 불사상, 망제상, 대안주상 등이 합쳐진 것이다. 이 중 망제상에 중요한 것이 망자의 넋을 상징하는 넋전이다. 넋전은 보통 세 개가 오르며 편떡 위에 옷기를 얹어서 그 위에 수파련꽃을 꽂는다. 대상의 앞에는 대안주상이라고 하여 대안주를 받는 신령들, 전안, 상산, 별상, 신장을 위한 상이 놓인다. 대상의 뒤에는 도령돌기에 사용되는 주요 무구인 소설문이 놓인다.

황해도 진오귀굿에는 가신들을 위한 안등신상, 망자상, 사자상, 맑은혼모심상이 존재한다(만신에 따라 맑은혼모심상이 없기도 하다). 망자상은 과자, 나물, 전, 과일 등을 이용하여 차린다. 이때 가장 중심된 것은 백설기를 찐 망자시루와 위패이다.

전라도 씻김굿에서는 병풍을 둘러친 가운데 가장 중심에 망자상을 두고 그 앞에 액막이 상을 차린다. 망자상 우측에는 조상상을 둔다. 이외에 사자상이 있다. 망자상에는 망자의 영정을 중심으로 과일, 나물, 전, 밥, 국 등으로 차려지고 상 뒤 병풍에 망자의 옷이 걸쳐진다.

동해안에서의 망자상은 본격적인 굿판이 벌어지기 전에 망자의 집에서 가신들에게 행사를 알리는 조상비나리라는 제차에서 독립되어 차려진다. 격식 있는 상은 아니고 상 위에 망자의 사진과 물 한 그릇 정도만 차려 놓는다. 본격적인 굿을 하는 굿당에 차려지는 굿상은 망자를 위시한 여러 신격을 위한 상이지만 망자상에는 중앙에 망자의 위패 내지는 사진을 놓고 그 앞에 망자의 넋이 잠시간 머물 신태집(신광주리)을 놓는다.

참고문헌 한국의 굿-서울 · 인천 · 경기편(이선주, 민속원, 1996), 서울새남굿(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호남의 망자환갑굿(나경수 외, 민속원, 2007), 진도 씻김굿의 물질문화 연구(최진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99), 황해도 진오귀굿 연구(김덕묵,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00).

필자 김형근(金亨根)

망자혼사굿

정의 혼인하지 못하고 죽은 청춘남녀의 영혼이 있으면 적절한 연령대를 찾아서 혼인을 시키는 굿. 이 굿은 달리 '영가혼인굿', '사혼굿', '영혼결혼식굿' 등으로 명칭이 전한다.

내용 망자혼사굿은 혼인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온전한 제사의 대상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어른으로 대접받지 못하므로 이들을 조상으로 전환하는 굿이다.

이 굿은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 있으면서 강신무권이든 세습무권이든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지역에 따라 이 굿을 하는 방식이나 목적에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망자혼사굿의 방식이 대체로 일치하지만 전라도나 남해안 일대에서는 '저승혼사굿'이라고 하여 씻골을 하고, 처녀와 총각을 합장한 다음, 이 굿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망자혼사굿은 총각집과 처녀집에서 하는데, 비용은 반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굿을 할 때에 망자의 모습이 중요하므로 망자의 사진을 가지고 오며, 망자의 신체는 흔히 짚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는 인형을 사서 하는 것이 기본적이다. 아울러서 혼인식을 할 때는 기본적인 복색을 입힌다. 신랑은 짚으로 만든 몸에 바지저고리와 사모관대를 입히고, 신부는 다홍치마 · 초록(노랑)저고리를 입힌다. '청실'과 '홍실'을 준비하고, 폐물과 밤 · 대추를 놓은 폐백상을 마련한다.

구조적으로 볼 때 서울의 망자천도굿은 안당제석굿과 진오기굿이 결합하는 굿이다. 부정을 치고 나서 바로 안당제석굿을 하는 것은 이러한 구조적 특징을 부각하기 위해서이다. 망자라 하더라도 혼인을 통해 일정한 생명력을 고양한다는 관념이 이러한 굿거리 구성을 낳았다. 망자는 조상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가 결정되고, 집안의 여러 가신과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러나 망자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으면 굿의 구성도 달라진다. 망자혼사굿의 특성상 이러한 구성을 하는 기본적인

1. 도령돌기 앞서의 망자합궁
2. 망자를 안고 도령돌기
3. 망자합궁확대장면
4. 신방에서의 남망자와 여망자
5. 대례식을 올린 후 신랑신부의 합방
6. 초례청 상차림

경기도 시흥시 군자봉 대왕당 | 2005.7.12 | 김헌선



틀은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결혼식 폐백은 말미를 드리고 나서 한다. 이때 대례상을 차린다. 대례상에는 소나무를 꺾어 놓고 청실 · 홍실, 삼색과일, 용떡, 정한수 한 그릇, 삶은 국수, 밤, 대추를 놓는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 절을 하고, 합환주(合歡酒)를 주고받고, 신랑댁 부모에게 폐백을 올리는 과정을 모두 거친다. 이때 신혼여행비를 별비로 받는다. 신혼여행비는 당집 시봉자에게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인적이 없는 곳에 신방을 마련해 동침의 시간을 보내게 한다.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신방에서 신랑과 각시를 데리고 나온다. 신방에서 데려온 신랑과 신부를 앉혀 두고 도령돌기를 한다. 이어서 '사당차례'를 한다. 이 과정이 끝나게 되면 뒷영실을 한다. 뒷영실을 하고 나서 바로 시왕군웅도 겸해 한다.

망자혼사굿은 한국인의 조상 관념을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례이다. 혼인하지 않고 죽으면 조상으로도 어른으로도 대접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죽은 영혼이라도 혼인을 시켜서 온전한 죽음으로써의 망자로 맞아들이는 행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굿을 통해 이러한 관념을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사례로는 전국적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것은 강신무권의 사례에서 더욱 전형적인 면모를 알 수 있다.

굿 순서	사례 1(서울 2005년 3월)	사례 2(서울 2005년 7월)
1	부정	부정
2	안당불사제석	안당불사제석
3	도당산신	대안주(상산 · 별상 · 신장)
4	본향 · 조상	영실 · 조상
5	대안주	대감
6	성주	성주
7	창부	창부
8	사재삼성	사재삼성
9	말미	말미
10	결혼식 · 폐백	대례(혼인 · 폐백)
11	상식	도령
12	도령돌기	길가르기
13	길가르기	문들음
14	뒷전	맞조와
15	-	뒷영실
16	-	뒷전

참고문헌 한국의 전통예술(문화재보호재단, 2007).

필자 김헌선(金憲宣)

매화(梅花)

정의 동해안별신굿에 쓰이는 것으로 매화꽃의 형태를 재현한 지화.

형태 매화의 색깔은 분홍색이다. 지화는 대개 두 손에 가득할 정도로 풍성한 모습이지만 매화는 매화나무에 꽃이 달린 모습 그대로 막대형으로 만들어진다. 손가락 두 마디 정도 크기인 꽃잎 네 장이 하나의 꽃을 이루고 이 꽃 수십 개가 연이어 꽃대에 붙어서 하나의 꽃을 형성한다. 매화 하나 하나에 암술대와 암술머리 같은 꽃심이 있다. 매화꽃의 실제 모습 그대로를 재현한 형상이다. 매화의 꽃심은 손톱 크기만한 붉은색 혹은 진한 분홍색 화지 한 장 끝을 16가닥 정도로 자른 다음 이 가닥을 8-3-5개의 세 묶음 정도로 나눠서 만든다. 매화의 꽃잎은 5개이다. 어사화와 비슷하게 생겼으며 꽃받침이 없다. 꽃목대에 분홍색 화지를 감은 다음 5개의 잎으로 된 매화꽃을 단다. 실제 매화꽃의 크기와 비슷하다. 매화는 탑등 상층부에 주로 꽂는다. 별신굿 제단에는 봄에 주로 올린다. 봄이 아닌 다른 계절에는 제단에 올리지 않는다.

내용 매화는 환한 분홍색이 돋보이는 지화이다. 화지 염색이 매화의 꽃다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동해안별신굿 지화에서 사용되는 화지는 1980년대까지는 주로 한지를 화지로 썼으나 요즘은 잘 염색된 얇은 반투명의 습자지 같은 양지를 화지로 쓴다. 염료를 사다가 한지에 직접 염색하고 말려서 사용했다. 염색된 화지를 줄에 걸어 밤새 말리거나 24시간 정도 말린 종이를 지화 제작에 사용하였다. 과거에는 굿을 하게 되면 그때 그때 한지를 염색해 지화 제작에 사용했으나 요즘은 염색된 종이를 구입하여 제작한다. 화학염료가 나오기 전에는 개똥나무 열매를 이용하여 잉크색 같은 남색을 만들었다. '주치'라는 식물의 뿌리를 끓여서 우려내어 보라색을 만들었고, '곶감'을 이용하여 붉은색을 만들었으며, '치자열매'로 노란색과 오렌지색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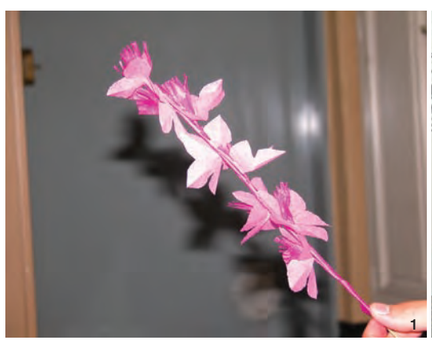
참고문헌 한국무가집 4(김태곤 편, 집문당, 1992), 한국의 민속지화에 관한 연구(강신영,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한국지화에 관한 연구 2–김석출씨의 기법을 중심으로(김태연, 산업기술연구, 대구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1985), 한국전통지화에 관한 연구(박기복,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무화연구 1(김태연, 한국무속학 3, 한국무속학회, 2001), 서울굿 신화 연구(양종승 · 최진아, 한국무속학 4, 한국무속학회, 2002), 지화 연구(김명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동해안별신굿 지화 연구 1(심상교, 한국무속학 6, 한국무속학회, 2003).
필자 심상교(沈相敎)



매화(한송이)
부산시 기장군 김동렬자택 | 2003.5.6 | 심상교

맴돌이장단

정의 무당이 신을 굿판에 청하는 청배무가를 부른 후 접신(接神)하는 과정에서 제자리에서 맴을 돌며 연주하는 장단. 무당이 제자리에서 맴을 도는 것을 '연풍대'라고도 하기 때문에 이를 연풍대(장단)라고도 한다. 연풍대(燕風臺)는 사전 또는 백과사전에서 기생춤이나 검무, 승무, 농악무 등에서 도는 춤사위를 의미한다고 풀이하지만 굿판에서 무당의 춤을 지칭하기도 한다. 연풍대는 청(淸)나라의 수도 연경에 영향을 받은 '연경(燕京)풍'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연풍대는 조선시대 사료에 '연풍(筵風)'이라고도 표기되어 있다. 이는 '대자리에서 (돌면서) 바람을 일으킨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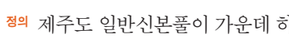


1. 매화(여러 송이)
부산시 기장군 김동렬자택 | 2003.5.6 | 심상교

2. 매화
경북 울진군 후포면 임태상자택 | 2003.5.24 | 심상교

내용 만신은 처음에는 느리고 우아하게 어깨춤을 추기 시작하다가 춤 동작을 점차 빨리 하면서 제자리에서 돌면 장구장단도 매우 격렬하게 빨라진다. 이때 연주하는 장단을 맴돌이장단 혹은 막장단이라고도 한다. 막장단은 '마구 치는 장단'이라는 의미이다. 맴돌이장단은 2소박 4박(4/4박자) 장단이다.

〈보례〉 황해도 맴돌이장단



무당이 맴을 돌 때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한다.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은 '외로 돈다'고 하여 잘못된 것으로 여긴다. 왼발을 앞으로 내디뎌 몸의 균형이 잡히도록 하는 동시에 오른발로 땅바닥을 밟아 가면서 빙빙 돈다. 그 횟수는 적게는 5회, 많게는 30회 정도이다. 돌면서 오금을 구부렸다 폈다 하여 몸 전체에 율동이 가해지도록 한다. 연풍대는 신(神)바람을 일으키는 춤이며, 황해도굿에서 핵심적으로 여기는 춤이다. 춤을 출 때나 마무리할 때 또는 춤사위를 바꾸거나 빠르게 몰고 갈 때 연풍대를 기점으로 삼는다.

참고문헌 황해도 굿의 음악인류학(이용식, 집문당, 2005), 한국음악의 뿌리, 팔도 굿음악(이용식,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9), 황해도 맞이굿 형식과 특성 고찰(양종승, 한국무속학 16, 한국무속학회, 2008).
필자 이용식(李庸植)

맹감본풀이

정의 제주도 일반신본풀이 가운데 하나로 사만이가 산에 버려진 백골(白骨)을 잘 모셔 명부(冥府) 사자(使者)들이 자신을 잡으러 오는 것을 피해 목숨을 연장하는 이야기. '사만이본풀이'라 하기도 한다. 액막이 제차(祭次) 때 액을 막기 위해 맹감, 즉 명관(冥官, 저승사자)의 본풀이가 구송된다.

내용 주년국에 사만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사만이는 부모가 죽자 문전걸식하며 지내게 된다. 사만이가 열다섯 살이 되자 동네 어른들이 돈을 조금씩 모아 장가를 보내준다. 사만이 부인은 손재주가 좋고 바느질을 잘하여 품팔이를 통해 조금씩 금전을 모아 끼니를 이어간다. 하루는 사만이 부인이 은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라 놓고 남편에게 시장에 가서 머리카락을 팔아 어린아이에게 먹일 쌀이라도 사오라고 하지만 사만이는 시장에 가서 쌀 대신 조총(鳥銃)을 사온다. 사만이는 그날부터 사냥을 나갔지만 매번 빈손으로 돌아온다.

하루는 사만이가 들길을 가는데 가려 하면 채이고 또 채이면서 세 번을 연속 무엇인가가 우연히 왼발에 채였다. 사만이가 쥐고 있는 몽둥이로 풀을 세 번 내려치자 풀 속에서 쨍그랑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 백 년이나 된 해골이었다. 추하고 더럽다며 그냥 지나가려 하였지만 다시 왼발에 채였다. 하는 수 없이 사만이는 백년해골(百年骸骨)을 갖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무도 모르게 고방(庫房)에 들어가 큰 독 안에 들어놓고 자기 집안의 조상이라 하여 기일제사(忌日祭祀) 때나 집안에 대사(大事)가 있을 때 첫째로 위하며 지낸다.

사만이가 서른 살이 되니 저승 염라대왕의 분부로 저승사자가 사만이를 잡으러 인간 세상에 내려온다. 그러자 백년해골이 사만이 부부의 꿈에 백발노인으로 나타나 저승사자를 피할 방책을 일러준다. 사만이에게는 삼거리로 가서 족자병풍으로 옆을 두르고, 비자나무 겹상에다 맑은 음식을 단정히 차려놓고, 향촉(香燭)을 밝힌 다음 사만이 이름 석 자를 써서 제상 아래에 붙여 두라고 한다. 그리고 백 보 앞에 엎드려서 어느 누가 불러도 응하지 말고 있다가 세 번을 부르거든 머리를 들고 대답하라고 한다. 사만이 부인에게는 날이 새면 심방(무당)을 불러 와서 바깥에 대통기와 염라대를 세워 염라대왕을 청하는 시왕맞이를 하되 시왕 저승 염라왕 앞으로 관대(冠帶) 세 벌, 띠 세

개, 신 세 켤레와 큰 동이에 상백미 · 중백미 · 하백미를 가득 올리고, 황소 사만삼 필을 대령하여 방액(防厄)을 하고 있으면 알 도리가 있을 것이라고 일러준다.

꿈에서 깬 사만이 부부는 그날부터 심방을 불러다가 염라대를 세우고 시왕맞이를 한다. 그리고 사만이는 그날이 어둡기를 기다려 삼거리로 나가 족자병풍을 둘러치고 비자나무 겹상에다 음식을 차려놓고, 자신의 이름 석 자를 써놓아 제상 아래 붙인 다음 백 보 앞에서 엎드린 채 저승사자들을 기다린다. 초경(初更), 이경(二更)이 가까워지자 염라대왕에게 소속된 세 차사가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주년국을 향하여 오다가 비자나무 겹상에 맑은 음식이 단정하게 차려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 세 차사는 배고픈 김에 차려진 음식을 하나씩 먹는다. 그런데 천황차사(天皇差使)가 제상 아래에 붙어 있는 사만이 이름 석 자가 쓰인 백지(白紙)를 발견하고 큰일났다며 적패지(赤牌紙,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에 사용하는 붉은 천이나 종이)에 쓰인 이름과 대조하니 백지에 쓰인 이름 석 자와 똑같았다. 그제서야 사만이의 음식을 먹은 것을 알게 된 세 차사는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사만이의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보기로 한다. 세 번째로 사만이의 이름을 부르자 백 보 앞에서 사만이가 '예'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드는 것을 보니 틀림없는 사만이었다. 이에 세 차사는 앉아 의논하면서, 남의 음식을 공짜로 먹으면 목에 걸리게 되기 때문에 사만이를 잡아갈 수 없으니 나중에야 어찌 되든 사만이의 집이나 찾아가 보기로 한다. 그러나 사만이의 집에서는 사만이 부인이 시왕맞이로 대액(大厄)을 막고 있었다. 세 차사는 어떻게 해서든 사만이를 잡아갈 수 없음을 알고 고민하다가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 낸다. 그것은 저승 동자판관실(童子判官室)에 들어가 저승 장적(帳籍)을 고치는 것이었다. 저승으로 돌아간 세 차사는 장적에 적힌 사만이의 정명(定命)이 삼십삼 년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 붓을 꺼내 십(十) 자에 금을 하나 비스듬히 그어 천(千) 자로 고친다. 그러고는 염라대왕이 사만이를 잡아오지 않은 이유를 묻자 사만이의 정명은 삼십삼 년이 아니라 삼천삼 년이라고 대답한다. 그렇게 하여 사만이는 저승사자들의 액을 막아 삼천 년을 산다.

지역사례 〈맹감본풀이〉의 이본 중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사만이가 해골을 발견하는 부분과 저승사자가 사만이의 연명(延命)을 처리하는 부분에서 나타난다. 1962년의 고대중 구연본을 예로 들어 본다. 사만이가 깊은 산중으로 사냥을 나갔다가 비가 오자 비를 피하기 위해 속이 텅 빈 나무 안으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사만이는 깜박 잠이 들게 되어 해골 꿈을 꾼다. 자신은 서울에 사는 백정승의 아들인데 사냥하러 왔다가 자신의 총에 맞아 죽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부모 처자식이 자신의 사망 일시(日時)를 잘 몰라 제사를 제대로 지내주지 않기 때문에 굶어 죽어가고 있다면서 자신의 해골을 잘 위해주면 부자로 살게 해 주겠다고 말한다. 이렇게 해서 사만이는 그 해골을 집으로 가져와 잘 위하게 되고, 해골은 사만이에게 사냥할 곳을 일러주어 부자로 만들어 준다. 그러나 사만이가 해골만 위하고 자신의 조상은 위하지 않자 사만이 조상이 옥황상제에게 소장(訴狀)을 올린다. 이에 옥황상제는 세 차사를 시켜 사만이를 잡아오게 하자 해골이 사만이 부인에게 방액할 방법을 일러준다. 세 차사는 사만이 각시가 바친 공물과 말 세 마리를 끌고 저승에 올라가 공물을 최판관과 나눠 갖는 대신에 저승 장적에 있는 사만이 이름을 사마(飼馬) 세 마리로 고치게 하고 사마 옆에 말 마(馬) 자 셋을 쓴다. 그러고선 옥황상제 앞에 나아가 장적에 적힌 대로 사마 세 마리를 잡아왔다고 보고한다. 사만이는 죽은 것이 되어 사만년을 변색(變色)하며 사는데 누군가가 옥황상제에게 그 사실을 밀고한다. 옥황상제가 세 차사에게 명하여 사만이를 잡아 오게 하자 세 차사는 사만이를 유인하기 위해 주천강에서 숯을 씻는 계교를 꾸며 마침내 사만이를 붙잡는다.

해골이 꿈을 통해 사만이에게 나타나 자신을 모셔주면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요구하는 점, 사만이 대신 말 세 마리가 대신 바쳐지는 점 등에서 특이함이 드러난다. 말 세 마리 대신 다른 사람(예를 들면 오사만이)을 잡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대명(代命)의 방식을 통해 사만이가 연명하는 것은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장자풀이〉와도 유사하다. 그러나 저승사자에게 치성을 드림으로써 연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더 중요한 유사점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대명은 저승사자에게 치성을 드린 결과 행해지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기 때문이다. 함경도에서 전승되는 〈황천혼시〉에서도 이러한 유사점이 확인되고 있듯이, 저승사자에게 치성을 드리는 것과 연명의 상관성은 상당히 보편적인 요소로 파악된다. 이외에 〈황천혼시〉는 주인공들이 해골을 숭배하는 점, 해골이 주인공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점, 해골이 주인공들에게 저승사자를 대접하도록 해 연명할 수 있게 한 점 등에서 제주도의 〈맹감본풀이〉와 매우 유사하다. 이는 함경도의 무속신화와 제주도의 무속신화가 특정 부분에서 상관성이 강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의의 〈맹감본풀이〉에서의 백년해골을 수렵신이나 조상신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떤 신격으로 인식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신화상으로 백년해골이 숭배의 대상으로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점에서 이 신화는 영혼불멸사상(靈魂不滅思想)을 잘 나타내는 자료이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이 해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도 드러나고 있다. 이는 수렵사회에서 동물의 두개골을 사냥의 풍요와 관련지어 특별하게 취급한 만물유령사상(萬物有靈思想)에서 연유된다. 또한 후손의 제향(祭享)을 받지 못하는 망자의 혼령을 숭배함으로써 복을 받고 수명까지 연장한다는 신화의 내용 및 관념은 후손의 제향을 받지 못하는 귀신을 객귀(客鬼)라고 하여 푸대접하는 무속의 관념과 관계가 있다. 이처럼 이 신화는 영혼과 제향간의 관계를 잘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조선신가유편(손진태, 향토문화사, 1930), 韓國の民間信仰(장주근, 도쿄:금화사, 1973),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장주근, 역락, 2001), 차사본풀이 유형 무가의 구조와 의미(최원오, 한국민속학 29, 한국민속학회, 1997), 사만이본풀이 연구(현승환, 백록어문 16,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2000).

필자 최원오(崔元午)

상호참조 장자풀이(753쪽), 황천혼시(962쪽)

맹인신장(盲人神將)

정의 전문적으로 점복(占卜)에 종사하는 맹인(盲人)들과 무당이 모시는 점복신. 자손의 번영과 가운(家運) 대통, 무병장수를 도와 주며 눈병을 고쳐주기도 한다.

유래 및 내용 과거 한국에는 전문적으로 점복에 종사하는 맹인이 있었다. 맹인신장은 이런 맹인들과 무당들에 의해 점복신으로 모셔진다. 서울굿에서는 뒷전에서 모셔지기 때문에 맹인신장을 잡귀잡신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하지만 잡귀잡신은 죽어도 저승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무런 정체성도 지니지 못한 채 정처 없이 떠도는 이름 없는 사령(死靈)을 가리키는 데 반해 맹인신장은 뒷전에 나오긴 하지만 무당들과 마찬가지로 독경이나 점복과 같은 민속 신앙의 사제로서 활동했던 맹인 점쟁이에게서 유래한 것이다. 따라서 잡귀잡신이라기 보다는 무조신(巫祖神)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맹인은 '관수(判數)' 또는 '장님(杖林)'으로 불렸다. 이는 대개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점을 치는 사람이란 뜻으로 풀었다. 이능화는 항간의 풍속을 소개하면서 집을 수리하거나 동토(動土)하거나 남의 집에서 음식이나 의복이 들어온 후에 가족 중 누군가 질병이 생기면 귀신의 빌미라 하여 무당을 불러 귀신에게 치성을 드렸다. 이때 경(經)을 읽고 잡귀를 쫓는 것이 맹인의 일이라 하였다. 또한 손진태는 처음으로 '맹격(盲覡)'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맹인 가운데 일 년간 가정의 안강(安康)과 행복을 위하여 경문을 읽고 병자나 집안에 들어온 악귀를 구축(驅逐)하는 사람이 있었다면서 이와 같은 주술 신앙적 직능을 지닌 맹인을 일컬어 맹격이라 불렀다고 하였다.

손진태의 연구에 의하면 독경은 본래 장님에 의해 시작된 것이다. 고려시대 불가(佛家)와 술가(術家)의 영향을 받아 점치고 안택(安宅)하고 잡귀를 쫓아 병을 고치는 장님들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들을 '맹승(盲僧)'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서울굿의 마지막 거리인 뒷전에서 맹인신을 모시는 이유는 과거에 맹인 점쟁이들이 이러한 역할을

한 것과 관계가 있다. 맹인 점쟁이가 사람들의 답답함을 풀어주듯 맹인신이 그 집의 답답한 일을 풀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투영된 것이다. 곽각(郭覺), 이순풍(李順風), 황계관(黃鷄冠) 등 실제로 점복을 행한 유명한 맹인들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모셔지기도 한다. 특히 맹인거리에서는 맹인이 눈을 뜨는 대목이 나온다. 이것은 맹인의 눈이 밝아지듯이 이 집의 앞길을 밝게 해 주고 액운을 막아 달라는 의미가 있다.

지역사례 맹인신장은 서울굿을 비롯한 전국의 여러 굿에서 모셔진다. 서울굿에서는 천신굿에서 뒷전거리의 하나로 등장하는 것과 달리 동해안별신굿에서는 맹인거리가 개별적으로 존재한다. 이때 맹인거리는 안질(眼疾)을 퇴치하는 굿이다. 이 굿은 안질 환자가 있는 집에서 각각 성(姓)이 다른 일곱 집을 돌아다니며 쌀을 동냥하여 스무 번 씻어서 시루에 백설기를 쪄 독상에다 바치고, 일반 제수를 차린 상을 그 옆으로 나란히 차려 놓고 무(巫)가 굿을 진행한다. 동해안별신굿의 맹인거리 과정에서는 심청이 부친의 개안(開眼)을 위해 공양미 삼백 석에 몸을 팔아 인당수에 몸을 던졌다가 환생하여 부친을 다시 만난다는 내용의 무가 사설을 구연하고, 맹인대(盲人竿)로 안질 환자의 눈을 씻어준다. 맹인대는 100㎝ 정도 길이의 죽간(竹竿)에 백지를 오려서 만든 지전(紙錢)을 잡아맨 것이다. 이 맹인대의 지전으로 굿을 구경하는 관중의 눈을 씻겨 주면 그 관중의 당사자는 맹인대의 지전에 돈을 달아매 준다. 이것은 눈병을 앓지 말며, 눈이 계속해서 밝으라는 액막이의 뜻이다. 여기서 눈을 씻겨 주는 방법은 무가 지전을 맨 맹인대를 가지고 관중의 눈앞을 스쳐가는 행위를 3~4회 반복하는 것이다. 이 굿은 맹인거리가 강조되는 과정이며, 다른 과정은 일반 굿과 같다. 맹인거리에 이어 거리굿을 하고 전부 끝맺게 된다.

참고문헌 한국의 무(조흥윤, 정음사, 1985), 한국민속대사전 1(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한국 무신의 계통(김태곤, 문화인류학 3, 한국문화인류학회, 1970), 한국 무속신 고찰(양종승, 몽골학 4, 1996), 한국 신령의 체계와 성격(조흥윤, 동방학지, 연세대학교출판부, 1997), 강원도 지역 독경의 현황과 종교적 특징에 관한 연구(황루시, 관동민속학 12, 관동대학교 강릉무형문화재연구소, 1997), 한국 무속의 신관에 대한 연구(이용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필자 염원희(廉元姬)

멩감제

정의 새해를 맞이하여 해당되는 집안에서 개별적으로 멩감[冥官]을 청하여 모시고 한 해 동안의 무사안녕과 생업 풍요를 기원하는 의례. 흔히 '멩감', '멩감코ᄉᆞ'라고 한다. 수렵이나 목축을 하는 집안에서 행하는 멩감은 '드릇멩감', '산신멩감'이라고 한다. '드르'는 들[野], '산신'은 수렵 · 목축의 신, '코ᄉᆞ'는 고사를 각각 의미한다.

내용 멩감제의 멩감은 한자어 명관(冥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명관은 지옥에서 중생의 죄를 재판하는 관리를 말한다. 멩감제의 신화적인 기원은 〈사만이본풀이〉에 있다. 〈사만이본풀이〉는 달리 〈멩감본풀이〉라고도 한다. 멩감제는 무악을 울리지 않고 심방 혼자 요령을 흔들면서 말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이른바 전형적인 앉은굿의 형태이다.

멩감제는 매해 정기적으로 치르는 제의로, 해당되는 가호별로 지내는 의례이다. 제주도 사람들은 방위마다 멩감이 따로 있다고 믿었으며 생업에 따른 멩감도 따로 있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농사를 짓는 집안에서는 제석멩감, 사냥을 업으로 삼는 집안에서는 산신멩감, 어가에서는 요왕멩감, 배를 부리는 집안에서는 선왕멩감 등을 따로 모시게 된다. 멩감제는 개별 의례인 만큼 제일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음력 정월에 가족들의 생기를 보아 택일을 해서 정한다. 집 안에서 지내는 경우도 있고 들에 나가서 지내는 경우도 있다.

농사짓는 집안에서 제석멩감을 위하여 멩감제를 지낼 경우에는 집 안에서 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멩감제는 어느 경우에나 어두워진 뒤에 지낸다. 이때 심방은 평복 차림으로 진행한다. 무구는 멩두(요령 · 신칼 · 산판)와 장구만 쓴다. 무악기인 북, 설쇄(꽹과리), 대양(징)은 쓰지 않는다. 이는 곧 앉은굿으로 진행한다는 뜻이다. 제의는 공선가선, 날과국섬김, 집안연유 닦음, 군문열림, 정데우, 추물공연, 비념, 액막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초감제를 하여 신을 청하여 기원한다. 농사짓는 집안인 만큼 세경본풀이를 하여 농사의 풍등을 빈다. 아울러 집안에서 따로 모시는 조상신이 있는 경우에는 조상신을 함께 놀린다. 마지막으로 문전 액막음을 하여 한 해 동안 집안의 무사와 행운을 빈다. 액막음을 할 때는 〈사만이본풀이〉를 구연한다.

산신멩감은 본래 들에서 지내는 것이다. 수렵 · 목축을 하는 집안에서는 한밤중에 들이나 산으로 나가 의례를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두고 흔히 드릇멩감, 드릇코ᄉᆞ라고 한다. 드릇멩감을 지낼 때는 깨끗한 장소를 골라 바닥에 띠를 깔고 제물을 진설한다. 집 안에서처럼 상을 차리고 제물을 진설하는 경우도 있다. 메에 수저를 꽂아 올리고 돌래떡, 시리떡, 오물떡, 생선, 계란, 과일, 채소 등을 차려 올린다. 제물 뒤쪽에는 멩감송낙과 소지를 둔다. 멩감제는 제물에 칼집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통째 그대로 올리는 것이 특징이다.

심방이 평상복 차림에 송낙을 쓰고 배례를 하는 것으로 제의는 시작된다. 역시 무악은 울리지 않는다. 심방은 앉아서 요령을 흔들며 초감제, 추물공연, 〈멩감본풀이〉, 상당숙여 소지원정, 산받음, 걸명 순으로 진행한다. 초감제는 공선가선, 날과국섬김, 연유닦음, 살려옴, 정데우, ᄌᆞ손절시킴 등으로 이루어진다. 추물공연도 같은 자세로 진행한다. 〈멩감본풀이〉는 추가로 치마를 어깨에 두르고 요령을 흔들며 구연한다. 〈멩감본풀이〉는 곧 〈사만이본풀이〉이다. 본풀이가 끝나면 바랑을 부딪치면서 덕담창조로 멩감을 청하고 말명을 한다. 상당숙임에서는 청한 신에게 일일이 잔을 올리며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고하고 소지를 올려 기원한다. 가족들이 나서서 철변을 하고 나면 걸명을 하고 마무리한다. 그 자리에서 음복을 한다. 요즘에는 멀리 나가지 않고 축사에서 멩감제를 하기도 한다.

한편 과거에는 제의 끝에 산신군졸 지사빔을 하여 산신군졸을 대접하였는데, 이때는 닭의 창자를 꺼내어 주위에 뿌렸다. 집 안에서 규모를 갖추어 산신멩감을 위할 때는 본격적으로 산신놀이를 벌이기도 하였다. 산신멩감은 제주 4 · 3 사건의 영향으로 들로 나가기 어려워진 탓에 집 안에서 지내는 사례가 늘었고, 이것이 결국 산신멩감이 급격하게 사라지는 요인이 되었다고 한다.

멩감제를 지속적으로 지내는 집안의 경우에는 지금도 외지에 나가 있는 식구들까지 가능한 대로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멩감제가 기제사나 명절처럼 중시되고 있는 셈이다. 요즘에는 멩감제를 지내는 사례가 많지 않아 남은 사례가 더욱 소중하다.

참고문헌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제주도무속연구(현용준, 집문당, 1986).
필자 강정식(姜晶植)

상호참조 산신멩감(385쪽)



멩감제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소재 축사 | 2008.3.23 | 강정식

명다리

정의 무당과 단골사이에 수양(收養) 관계를 맺는 표시로 장수를 기원하는 뜻에서 수양자의 생(生), 시(時), 성명과 '수명장수(壽命長壽)' 또는 '수명장수 재수발원(壽命長壽 財數發願)', '칠성님전 수명장수 발원'이라고 써서 신에게 바치는 무명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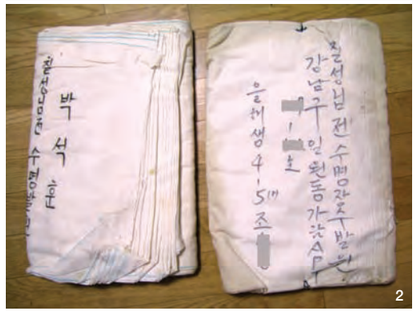
형태 명다리는 무명천, 실, 한지 등으로 이루어진다. 평소에는 무명천 안에 타래실을 넣고 이 타래실을 넣은 무명천을 접어서 다시 한지로 포장해 쌓아 둔다. 혹은 벽에 줄을 쳐 놓고 명다리와 실타래를 함께 걸어 놓는 경우도 있다. 면포의 양은 많을수록 좋지만 적을 경우 7척 7촌(약 223㎝) 혹은 1필을 사용한다고도 하지만 일정치는 않다.

내용 명다리는 부모들이 태어난 아이의 나이가 홀수인 1살, 3살, 5살에 단골무당에게 바친다. 바친 명다리는 칠성님 전에 놓고 아이의 수명장수를 빌어주며 이후 칠성님 아래 함이나 신단 밑에 보관한다. 한 번 바치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갱신하여야 하며 새로이 만들어 바쳐야 영험이 지속된다고 믿는다. 이러한 행위를 일컬어 어린아이의 무병장수를 위하여 무녀에게 '아이를 파는 것'이라 한다. 이렇게 무당에게 팔린 어린아이는 무당의 자녀가 되어 무당의 '신딸'과 '신아들'이 되고 무당은 '신어머니'가 되는 단골관계가 성립된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수명장수를 신력(神力)이 있는 무당이 책임진다는 신앙에서 나온 것이다. 무당은 단골 아이들의 수명장수를 빌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 무녀 자신의 신당굿(진적)을 할 때 반드시 이 어린아이들의 명다리를 가지고 춤을 춘 다음 축원을 한다. 내림굿 중에 칠성거리 등에서 명다리를 들고 춤을 추기도 한다. 무당이 이사를 하게 되면 명다리를 팔 수도 있고, 죽었을 때에는 무계를 계승받은 무당이 명다리를 인계받거나 소각한다.

명다리는 단골들이 명을 길게 해 달라고 바친 것이므로 그 규모를 통해 무당들의 단골 판도를 알 수 있다. 어떤 무당은 따로 명다리 방을 마련하여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만큼 많은 단골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 마포구 밤섬부군당 당주 김춘강의 경우는 면포 1필을 차곡차곡 접어 그 안에 실타래를 넣었다. 면포 겉에는 '칠성님전 수명장수 발원'이라고 쓰고 주소와 생년월일을 적어 놓았다. 강화도외포리 곶창굿 당주 정정애의 경우 무명 안에 타래실을 넣고 무명을 접어 다시 한지로 포장해 두었다. 무명의 총 길이는 15마로 약 1,350㎝이며, 천의 가로 길이는 43.5㎝이다. 포장해 둔 상태에서 길이는 가로 48.5㎝, 세로 23㎝이다. 이 한 세트가 한 사람의 단골을 위한 것으로 이 명다리를 보관하는 방을 신당 바로 옆에 마련해 놓고 있다. 강원도 영월군 덕포 3리의 고재만의 경우, 신당 문을 열면 마주 보이는 벽에 줄을 쳐서 그 줄에 명다리와 실타래를 걸어 놓았다. 단골들은 명다리를 바치면서 고깔도 같이 바친다고 한다.





1. 명다리 안에 넣어 놓은 실타래

2. 명다리
서울시 마포구 밤섬부군당굿 당주 김춘강 무녀 | 2009.5.28 | 김태우

참고문헌 경기도지역무속(장주근 · 최길성, 문화재관리국, 1967), 한국무속연구(김태곤, 집문당, 1981),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서울시 · 경기도 · 강원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필자 김태우(金泰佑)



북두칠성명두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지름 16.3㎝ | 조선시대

명도[明斗]

정의 놋쇠로 만들어진 둥근 거울 형태로 무당이 신의 얼굴로 간주하는 신령스러운 무구. 동경 또는 명두라고도 한다. 동경이 거울의 기능을 주로 하며 양쪽이 다 윤이 나는 데 비하여 명도는 신령의 얼굴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격이 다르며 대개 한쪽 면만 윤이 난다.

형태 명도는 둥근 형태로 앞면은 그릇 뚜껑처럼 약간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으며 뒷면은 움푹 들어가 있다. 앞면은 어떤 형상을 비추어 보더라도 윤곽이 드러날 수 있도록 광택이 나고, 뒷면은 광택이 없이 해, 초승달, 별이 그려져 있거나 일월명도, 칠성명도 등 이름이 쓰여 있다. 크기는 대 · 중 · 소가 있으나 규격화되어 있지는 않다. 무당에 따라 크기가 다양하지만, 크기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누는 것은 동일하다. 경력이 오래된 무당일수록 명도의 수가 많다.

내용 명도[明斗]는 한자 이름에 드러나듯이 반드시 해와 달,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어야 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명도가 단군신화에 나오는 천부인(天符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그만큼 무당에게 있어서 신령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명도는 신령의 얼굴을 의미한다. 그래서 신당의 벽면에 봉안된 무신도의 상단 중앙부분에 걸거나 고비전과 같이 특정한 모양으로 신령의 형체를 만들어 상체 중앙 부분에 걸기도 한다. 명도만을 따로 걸기도 한다. 이때는 명도 뒷부분에 '예단'이라고 하는 흰색 한지를 접어 씌운다. 무당에 따라서는 작은 홍색 치마와 노랑 저고리 또는 바지저고리 위에 명도를 걸어 얼굴 형상을 만든 후 벽에 봉안하기도 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녀 김춘강은 신당에 무신도가 한 점도 없고 오로지 명도만 걸어놓았다. 이러한 경우에는 명도가 신령의 얼굴이라는 의미를 넘어 신령 자체를 가리킨다. 어떤 형식으로 걸든 명도는 신령의 얼굴 내지는 신령을 상징한다. 무당은 명도를 통해 신령의 형상을 볼 수 있고 신령과 대화를 나눈다.

황해도굿을 연행하는 무당 중에는 대신발 끝부분에 명도를 달아 모든 신령의 뜻을 명도를 통해 전달받기도 한다. 또는 명도쇠라 하여 명도를 작게 만들어 무당이 흔히 사용하는 아혼아홉 상쇠방울에 매달아 신령과 교감하거나 잡귀를 내쫓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연구자 양종승에 따르면 현존하는 명도는 모두 12명도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일월명도와 칠성명도가 있다. 일월명도는 솟을 명도, 불릴 명도라 불리기도 하며 해신과 달신의 명도이다. 칠성명도는 뒷면에 일곱 개의 별과 초승달이 양각되어 있다. 일월명도와 칠성명도는 무당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명도이다. 이 밖에 부인마마명도, 서낭명도, 성수명도, 동자 애기씨 명도, 삼불제석명도, 성주명도, 산신명도, 장군명도, 군웅명도, 걸립명도 등이 있다. 이것들은 각각 명도의 이름에 등장하는 개별 신령을 상징한다. 이중 무당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령은 일월명도이다. 처음으로 무당이 될 때 일월대를 통하여 천지신명과 교감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러한 명도는 연조가 오래된 것은 흔하지 않은데 무당들이 무업을 그만두게 되면 땅에 묻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업이를 떠온 무당이 과거의 명도를 신단에 다시 봉안하기도 하지만 흔한 일은 아니다. 현재는 만물상에서 기계로 대량 제작된 명도를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신성성이 많이 약화되었다.

참고문헌 무당 귀물 연구–『삼국유사』의 삼부인과 무당의 거울 · 칼 · 방울을 중심으로(양종승, 생활문물연구 2, 국립민속박물관, 2001), 무속에 살아있는 우리 상고사(조성제, 민속원, 2006).

필자 홍태한(洪泰漢)

명두굿무가

정의 전라남도 일부 지역에서 씻김굿 중 고풀이를 하며 부르는 무가.

내용 현재까지 조사된 자료를 보면 고흥, 보성, 신



순천삼설양굿의 명두굿무가 구송 장면
전남 순천 | 2007.10.20 | 나경수

안 등지에서 전승되고 있다. 대개의 경우 고풀이를 하면서 부르는 무가는 서사적 내용보다 서정적 내용이 일반적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무녀가 아홉 매듭을 묶은 고를 풀면서 〈장자풀이〉 계통의 서사무가를 구창한다.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43호(2008.12.26)로 지정된 순천삼설양굿 보유자 박경자 무녀의 씻김굿에서도 고풀이 과정에서 〈명두굿무가〉가 불리고 있음이 확인됐다. 고흥 지방에 전승되는 〈명두굿무가〉를 중심으로 줄거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명두님이라고 불리는 사마장자가 열여섯 살이 되었을 때 열다섯 살의 부인을 맞아 결혼해 살게 되었다. 집 앞뜰에 나무를 심었으나 과일은 열리지 않고 대신 까마귀가 자주 앉아 울 때마다 사람이 죽어나갔다. 하루는 사마장자가 자다가 몹시 좋지 않은 꿈을 꾸었다. 부인을 불러 꿈 이야기를 하자 부인도 똑같은 꿈을 꾸었다고 한다. 이들 부부는 점쟁이를 찾아가 해몽을 부탁했다. 점쟁이는 꿈 이야기를 듣더니 장자가 죽을 꿈이라고 풀이했다. 장자의 부인은 큰 보답을 할 터이니 제발 장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달라며 사정을 한다. 점쟁이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서 어느 날 어느 시에 원명두 다리 위에 밥 세 그릇, 옷 세 벌, 짚신 세 켤레, 돈 삼천 냥을 놓아두고 기다리면 알 것이라고 말해 준다.

부인은 점쟁이가 시킨 대로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밥 세 그릇 등을 준비해 두고 원명두 다리에서 기다리다가 마침 저승사자가 다리를 건너오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말을 듣게 된다. 저승사자 하나가 배가 고파 못살겠다고 하자 다른 저승사자는 추워서 못살겠다고 한다. 이런 말을 주고받으면서 다리를 건너던 사자들은 잘 차려진 상을 보게 된다. 배가 고팠던 사자들은 밥 세 그릇을 나누어 먹고, 옷과 신발 역시 입고 신었으며, 돈까지 천 냥씩 나누어 가졌다. 이때 장자의 부인이 남편을 잡으러 오는 저승사자들 앞으로 나서며 남편을 제발 살려 달라고 무릎을 꿇고 통사정 했다. 저승사자들은 하는 수 없이 부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고, 부인에게 곧장 집으로 돌아가서 평소 장자가 타고 다니는 사마[馬]를 마당에 내놓으면 장자 대신 그것을 잡아가겠노라고 말한다. 부인은 시키는 대로 사마를 내놓자 저승사자들이 나타나 쇠사슬로 사마의 목을 걸고, 쇠몽둥이로 등을 밀어 사마를 저승으로 데려간다. 그 덕분에 장자는 살아나게 되었다.

고흥 지역과 보성 지역의 경우는 내용에서 약간 차이를 보인다. 보성 지역의 〈명두굿무가〉는 장자를 악인(惡人)으로 그리고 있다. 장자가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승사자가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며, 따라서 죽음을 막기 위해 무당을 불러 사자풀이굿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사자풀이 굿마당에서 저승사자들이 잘 얻어먹는 대신 한양에 살고 있는 나이가 같은 다른 장자를 잡아간다는 내용이다. 신안 지역의 〈명두굿무가〉는 서사적인 줄거리가 고흥과 보성 지역에 비해 완전하지는 않지만 주요 모티프는 다른 지역과 일치하고 있다.

줄거리를 이루는 주요 모티프는 꿈, 해몽, 저승사자 대접, 대신막이 등으로 이어진다. 특히 보성 지역의 무가는 장자못 전설이나 장자풀이계 무가와 마찬가지로 장자를 악인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인다.

참고문헌 한국구비문학대계 6-7(한국정신문화연구원, 조은문화사, 1985~1986), 한국무가집 2(김태곤, 집문당, 1992).
필자 나경수(羅景洙)

모름채

정의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어포(魚脯)춤을 반주하는 장단.

내용 어포를 들고 추는 어포춤은 청보무가를 부르는 별신굿과 오구굿의 각 거리에서 푸너리춤, 청보무가, 거무춤에 이어 춘다. 경상남도 지역에서는 이 춤을 거무춤과 구분하지 않지만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이를 구분한다. 그러므로 경남에서는 거무춤과 어포춤의 반주장단을 구분하지 않으나 경북에서는 거무춤에 거무장단, 어포춤에 모름채 장단으로 반주장단을 구분한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사용하는 모름채장단은 거무장단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모름채가 거무를 부분적으로 반복하는 관계이다. 모름채장단은 2장으로 구분된다. 1장은 ♩÷115의 빠른 템포에 3소박 4박(♩×4)으로 연주되는 휘모리형 장단이고, 2장은 ♩÷125의 템포에 2소박(♩)×4박으로 연주되는 단모리형 장단이다. 징은 1장에는 한 장단의 첫 박에 한 번 들어가고, 2장은 한 장단의 제 1, 3박에 두 번 들어간다. 2장으로 된 모름채장단은 3장으로 된 거무장단을 치고 난 다음 거무 2, 3장을 다시 한 번 반복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동해안의 굿음악, 그 전승과 단절의 역사(장휘주, 민속원, 2008).
필자 장휘주(張輝珠)

목단꽃

정의 굿당 장식에 사용되는 지화의 한 종류.

내용 목단꽃은 굿당, 불당, 잔치마당에까지 두루 사용되던 지화이다. 혼례복에 수놓아지는 모란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화목(和睦)을 상징하는 것처럼 굿에서 사용되는 목단꽃 역시 부귀영화를 상징한다. 굿에서 사용될 뿐 아니라 혼례나 회갑과 같은 잔치가 있는 경우에도 무집단에게 의뢰하여 지화를 만들었다. 이때 차린 꽃은 꽃송이가 풍성하고 빛깔이 곱고 화려한 것을 선택했다. 잔칫상에 사용된 지화는 덤불국화, 국화, 산함박, 목단꽃, 작약, 다리화, 매화 등의 꽃류를 비롯하여, 화괘(花掛), 화등(花燈), 봉등(鳳燈), 수박등이 있다.

목단꽃은 진홍색으로 꽃씨가 없으며 잎을 오므린 목단으로 만들어진다. 꽃받침이 있으며 별신굿에서 중요한 지화로 여겨진다. 큰굿일 때는 반드시 제작하여 제단에 올린다. 보통 10~16송이를 한 세트로 해서 3~4단으로 장식하는데, 4단인 경우, 1단 3송이, 2단 4송이, 3단 5송이, 4단 4송이 등으로 구성한다. 이들 꽃 한 송이의 지름은 15㎝ 이상 되며 꽃 한 송이의 높이는 10㎝ 정도 된다.


목단꽃
정수미

꽃 한 송이는 보통 사람의 두 손 안에 가득 찬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러한 꽃 한 송이는 50㎝ 정도의 신우대 위에 올려 10송이에서 16송이가 한 화분에 꽂힌다. 이러한 꽃 화분은 보통 6개 이상 제단 위에 장식된다.

동해안굿에서 목단 한 송이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한지는 열 장이다. 외도래꽃이라 도래 1개를 사용한다. 한 개의 같은 크기 꽃잎을 10층으로 조성하는데, 각 층마다 조화로운 균형을 유지하도록 적당히 오므린다. 꽃잎이 활짝 그 잎을 열기라도 하려는 듯이 오므린 상태로 만든다.

참고문헌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경상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무화연구 1(김태연, 한국무속학 3, 한국무속학회, 2001), 동해안 무집단 지화의 문화적 의미(윤동환, 한국무속학 13, 한국무속학회, 2006).
필자 조정현(曺鼎鉉)

몸기

정의 제주도굿의 시왕맞이에서 시왕을 청해 들일 때 사용하는 기메로 '명기'라고도 한다.

형태 몸기의 형태는 심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시왕맞이에서 함께 쓰이는 기메 중에 '영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영기와 몸기의 형태가 서로 뒤바뀌어 인식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몸기는 직사각형 모양의 한지를 이용해 만든다. 윗부분은 양쪽 모서리를 각각 접어 삼각형 모양으로 만든다. 아랫부분은 가운데를 타원형 모양으로 크게 오린다. 마치 타원형으로 오린 곳은 가랑이고, 그 옆으로 두 다리가 있는 모양이다. 다리처럼 된 부분에도 구멍을 만들어 모양을 낸다. 첵지는 붙이지 않는다.

한편 심방에 따라서는 몸기의 형상이 달리 나타나기도 한다. 한지 한 장으로 만드는 것은 같지만 그 모양이 다르다. 윗부분에는 한지 그대로 특별한 모양을 내지 않고, 대나무 가지만 가로로 붙여 놓는다. 아랫부분에는 같은 너비로 한지를 세로 형태로 세 번 잘라준다. 다리가 넷인 모양이다. 각 다리에도 여러 모양을 내 준다. 첵지는 역시 붙이지 않는다.

그런데 후자의 몸기 모양을 두고 영기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즉 시왕맞이에서 함께 쓰이는 영기와 몸기의 형태가 심방에 따라 바뀌기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는 윗부분을 삼각형으로 하고 가랑이와 두 다리가 있는 모양의 기메이고, 다른 하나는 윗부분을 그대로 두어 대나무 가지를 붙이고 아랫부분은 다리를 넷으로 만든 모양의 기메가 있는 것이다. 어떤 이는 전자를 몸기, 후자는 영기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인식하기도 한다. 심방에 따라 첵지를 붙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몸기는 어떤 형태와 상관없이 나중에 푸른 잎이 달린 대나무 가지에 묶는다.

내용 몸기는 제주도굿의 시왕맞이에서 시왕을 청해 들일 때 사용하는 기메이다. 심방은 시왕을 청해 들이고 놀릴 때, 이 기메를 들고 춤을 춘다.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기능보유자 김윤수 심방의 설명에 따르면, 시왕맞이 외에 사당클을 매는 큰굿의 '초신맞이'와 심방집 굿의 '초공맞이'에서도 몸기를 쓴다고 한다. 이런 경우 외에는 몸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제주도 굿의 무구 '기메'에 대한 고찰(강소전, 한국무속학 13, 한국무속학회, 2006),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전라남도 · 전라북도 · 제주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필자 강소전(姜昭全)

몸주대감

정의 사람의 몸에 깃들어 있다고 믿어지는 대감신의 하나. 남자는 '몸주대감'이라 하고, 여자는 '직성대감'이라고 한다. 이처럼 남녀에 따라 몸주대감과 직성대감으로 나누지만, "남자는 열두 직성 여자는 아홉 직성" 등 다른 무가 사설에서는 남녀에 따른 몸주와 직성을 나누지 않고 있다. 따라서 몸주와 직성은 단지 사람의 몸에 깃든 대감신의 남녀 성차를 나타내는 것 외에 다른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내용 몸주대감과 직성대감이 동일한 성격의 존재는 아니더라도 양자가 모두 남녀의 몸속에 깃들어 있는 신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직성대감을 통해 몸주대감의 성격을 짐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직성대감에서의 '직성'은 사람의 나이에 따라 운수를 결정하는 별을 가리킨다. 또 한 해에 어떤 직성이 들었느냐에 따라 그 해의 운수가 달라진다고 하여 한국사회에서는 직성의 길흉에 따라 액을 물리치는 여러 의례와 연중행사가 행해졌다. 이런 점에서 몸주대감 역시 사람의 몸에 존재하면서 사람의 운수와 성격을 결정하는 신으로 볼 수 있다. 대감거리에서 몸주대감신을 모시는 것 역시 흉을 물리치고 복을 가져오기 위한 의도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몸주대감과 관련 있는 또 다른 대감신은 서울의 진진오기굿에서 나타나는 하직대감이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몸에 깃들었던 몸주대감이 죽은 자로부터 떠나간다고 한다. 그래서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서울의 진진오기굿에서는 하직대감을 논다. 이 점에서 몸주대감은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사람에게 깃들어 있다가 죽음과 함께 떠나가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즉 몸주대감은 사람의 몸속에 존재하면서 살아 있는

동안 그 사람의 운수와 성격에 영향을 미치다가 죽음과 함께 떠나가는 신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죽음과 함께 인간의 몸을 떠나간다고 믿어지는 혼령과 어떤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나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이러한 몸주대감은 서울 굿의 대감거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굿하는 집의 몸주대감을 놀 차례가 되면 먼저 굿하는 집 기주(주부를 말함)의 부모, 기주와 대주(남자 가장을 말함), 큰아들 내외, 둘째 아들 내외 등의 순서로 남자는 몸주대감을 놀리고, 여자는 직성대감을 놀린다.

굿에서 몸주대감은 대감신의 하나로 모셔질 뿐 아니라 집안의 가신(家神)으로 모셔지기도 한다. 대감신을 가신으로 모시는 집에서는 뒤꼍 항아리에 짚 주저리를 씌운 형태로 터줏대감과 업대감을 모신다. 이와 함께 몸주대감을 모시기도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조선도교사(이능화, 이종은 역, 보성문화사, 1986), 조선무속의 연구 하(赤松智城 · 秋葉隆, 심우성 역, 동문선, 1991), 한국 무속의 신관에 대한 연구(이용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필자 이용범(李龍範)

몸주신

정의 무당에게 강신하여 영력(靈力)의 주체가 되고 있는 신(神).

내용 한국의 무당은 신을 받아 무당이 되는 강신무(降神巫)와 세습에 의해 무당이 되는 세습무(世襲巫)로 나눌 수 있다. 강신무는 무당의 몸에 특정한 신이 빙의(憑依)된다. 이러한 현상을 무당들은 '신을 받는다' 혹은 '신이 내렸다.'라고 한다. 굿을 할 때 강신무에게는 여러 신이 빙의한다. 몸주신은 굿을 할 때 잠깐씩 실려서 공수를 주는 신과는 달리 무당이 평소에도 자신의 개인 신당에 모시는 신을 말한다.

몸주신은 크게 나누어 혈연관계가 있는 신과 그렇지 않은 신이 있다. 혈연관계가 있는 신은 대개 자신의 조부모, 부모, 삼촌, 고모, 조카, 자식 등 가까운 친족 중에 억울하게 죽거나 사고로 죽었거나 타지에서 죽음을 맞은 이들의 혼이 무당의 몸에 빙의하는 경우를 말한다. 혈연관계가 없는 몸주신들은 '선덕여왕(善德女王)', '남이(南怡) 장군', '최영(崔瑩) 장군', '명성황후(明成皇后)' 등과 같은 역사에 이름을 남긴 인물이다. 이들은 생전에 신령스러운 이적(異蹟)이 있었거나 억울한 죽음을 맞은 자들이다. 최근에는 인천상륙작전의 영웅인 '맥아더 장군'을 몸주신으로 모신 무당도 있다. 산신(山神), 동자(童子), 선녀(仙女), 관성제군(關聖帝君)을 몸주신으로 모시기도 한다.

강신무들은 자신의 몸주신을 주로 꿈에서 보고 그들이 자신의 몸에 내린 것을 믿는다. 몸주신은 대개 개인 신당에서 모셔지다가 무당이 굿을 할 때에는 굿판에서 몸주신을 위한 굿을 연행한다. 몸주신을 개인 신당에서 모실 때는 신당에 몸주신을 상징하는 물건을 놓는다. 어린아이가 몸주신일 경우에는 신당에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방울이나 사탕을 놓고, 선녀인 경우에는 선녀를 상징하는 날개옷인 선녀의대나 선녀부채를 놓는다. 선덕여왕을 몸주신으로 모시는 경우에는 신당에 신라시대의 금관 모형이나 옥목걸이, 의상, 거울 등을 놓는다. 무당은 모시는 몸주신에 따라 몸주신이 실렸을 때의 행동이 달라진다. 어린아이를 몸주신으로 모시는 무당은 점을 볼 때 어린아이의 말투와 어린아이의 행동거지를 흉내 내어 손님에게 점괘를 알려 준다. 선녀를 모시는 무당은 무당의 나이와 상관없이 젊고 아리따운 여인의 목소리와 행동거지로 손님을 대한다. 선덕여왕을 몸주신으로 모시는 무당은 성별과 상관없이 우아한 여인의 목소리와 행동거지로 손님을 대한다.

굿거리에서 모셔지는 몸주신들은 대체로 굿을 의뢰받았으나 굿을 능숙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무당이 맡는다. 이들은 몸주신을 모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무당이나 무당의 고객으로부터 영험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들은 굿을 잘하는 무당이 아니어서 손님으로부터 굿을 의뢰받아 굿판에 참여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몸주신이 실렸다면서 자신의 몸주신을 위한 굿거리를 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선녀를 몸주신으로 모신 무당은 자신을 '선녀보살'이라고 자칭한다. 이들은 굿 중간에 선녀의대를 입고 굿판으로 나와 선녀처럼 춤을 추고 공수를 준다. 이때 무당은 나이와 상관없이 젊고 아리따운 여인의 목소리로 상냥하게 말을 한다. 동자를 몸주신으로 모신 무당들은 자신을 '동자보살'로 칭하고 어린아이의 말투와 행동거지로 굿판에 온 사람들을 대한다. 명성황후를 모시는 무당은 굿을 할 때 명성황후가 착용했던 것과 비슷한 머리장식과 예복을 입고 황후의 말투로 굿판의 사람들을 대한다. 몸주신을 모시는 무당은 몸주신이 자신의 몸에 강신했을 때 몸주신의 성격에 맞는 말투와 행동 등을 하면서 자신과 몸주신을 동일시한다. 점을 보러 온 손님이든 굿판에 모인 사람이든 모두 이러한 무당의 행동을 받아들인다. 가령 어린아이를 몸주신으로 모시는 무당에게 몸주신이 실린 경우에 무당은 굿판의 모든 사람에게 나이와 관계없이 반말을 한다. 반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하는 반말이기에 모두 이해하고 그에 맞춰 대응할 뿐이다.

참고문헌 한국민속대사전 1(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조선무속고(이능화, 이재곤 역, 동문선, 1995), 한국민속문화대사전 상(김용덕, 도서출판 창솔, 2004).
필자 변지선(卞志善)

몽달귀신

정의 원한을 품은 채 죽은 총각 귀신.

내용 및 지역사례 몽달귀신은 총각귀신을 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밖에도 '도령귀신'이나 '삼태귀신'으로 부르기도 한다. 총각귀신은 장가도 들지 못한 채 죽은 귀신이기 때문에 원한을 품고 여러 사람에게 악행을 행하는 악귀(惡鬼)로 여겨왔다. 이 밖에도 황진이(黃眞伊)의 일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상사병에 걸려 죽은 귀신도 여기에 속한다.

황진이와 관련된 일화 중에서 황진이가 기생이 되기 이전의 일이다. 황진이의 미모에 빠져 상사병에 걸려서 죽은 총각이 있었다. 총각의 상여가 나가는 도중에 황진이의 집 앞에서 상여가 옴짝달싹도 못하고 땅에 붙었다. 이 소식을 들은 황진이가 나와 자신의 속적삼을 상여에 얹으니 상여가 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겪고 나서 황진이는 기생이 되었다고 한다.

진도에서는 일 년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귀신들을 사직각에 가두는 풍속이 행해졌다. 진도에는 원한을 품고 죽은 귀신이 많아서인지 귀신들 때문에 일상생활뿐 아니라 농사일도 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사직각에 귀신들을 가두는 귀신제가 행해졌다. 이때에 여러 귀신을 호명한다. "총 맞아 죽은 귀신/ 물에 빠져 죽은 귀신/ 처녀 죽은 귀신/ 애기 낳다 죽은 귀신/ 총각 죽은 귀신" 등이 그것이다. 여러 귀신 중에서도 총각귀신은 빠지지 않으며, 이처럼 우리 조상들이 매우 두려워했던 대표적인 귀신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한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로서 사혼식(死婚式)을 올려주는 방식을 취한다. 이때의 몽달귀신과 짝이 되는 귀신은 손각시, 즉 처녀귀신이다. 처녀귀신도 역시 원한을 품고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총각과 처녀를 혼인시켜 줌으로써 이들의 원한이 해소된다고 믿어 왔다. 이처럼 사혼식은 사후세계에서라도 부부관계를 맺고 편하게 살게 해 주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생사관을 잘 드러내는 의식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8(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저기 도깨비가 간다(김종대, 다른세상, 2000), 귀신(하효길, 한국민속의 세계 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통과의례에 나타난 제습속의 상징성 고찰(강재철, 국문학논집 15,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7).
필자 김종대(金宗大)

몽두리(蒙頭里)

정의 궁중 여령들이 정재에 참여할 때 입는 복식으로 대금형의 깃 모양이며 주로 황색으로 만들어진 표의(表衣).

내용 무복(巫服)에서 사용된 예복류의 형태와 명칭은 궁중예복에서 비롯되었으며, 평복은 굿을 하는 지역의 특색을 나타내는 남녀 복식을 기본으로 하

여 굿의 종류에 따라 신의 상징성이 내포되어 있다. 여기에 공연예술로서의 기능성과 장식성을 부가하기 때문에 무복은 궁중예복과 궁중 여령(女伶)의 정재복(呈才服)이 기본 복식 구조를 이루고 있다.

조선시대에 착용한 여성 표의류(表衣類), 즉 포제(袍制)의 기록에는 노의(露衣)·장삼(長衫)·몽두의(蒙頭衣) 등이 있으나 실제로는 장옷과 원삼이 대표적이며, 대한제국 말에는 두루마기가 남녀의 대표적인 포제로 일반화되었다.

조선시대 여자의 예복은 궁중을 중심으로 적의·노의·장삼·원삼·활옷·당의 등으로 외명부에게 적용되고, 다시 사대부가와 민가에 전해진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장삼은 5품 이하의 부인 예복으로 대홍색의 대수(大袖)로 되어 있고, 흉배와 한삼이 있으며 대홍라(大紅羅)의 대를 둘렀다. 원삼은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예복으로 꾸준히 착용해 국속화됐으며 조선 후기에 와서는 노의(露衣)·장삼 등의 대수(大袖)·대의(大衣)에 속하는 것들이 이 원삼 한 가지로 집약되었다. 원삼은 뒤가 길고 앞이 짧고 소매가 넓으며, 끝에는 홍색과 황색의 끝동이 있고 수구에는 백한삼(白汗衫)이 달렸으며 다홍색 대대(大帶)를 둘렀다.

궁중 여령들이 정재에 참여할 때 입는 몽두리 또는 몽두의는 대금형의 깃 모양이며 주로 황색으로 만든 표의(表衣)로 알려져 있으나 19세기 초부터 기록이나 회화 자료 등에서 대금(對襟)형이 아닌 교임(交衽)형의 몽두리가 등장하고 있다.

무복으로는 굿의 종류와 굿거리에 따라 또는 무당들에 의하여 색이나 형태가 정형화되지 않은 형태의 몽두리가 은아 몽두리, 남색 몽두리, 노란 몽두리, 황색 몽두리 등의 명칭으로 강신무나 세습무의 무당들에게 착용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몽두리는 蒙頭衣(몽두의), 蒙頭里(몽두리), 夢道里(몽도리) 또는 한글 표기 '몽도리' 등으로 조선시대 초기 여성 포제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밖에 '黃綃衫(황초삼)', '羅衫(나삼)', '夾袖(협수)' 등 명칭으로도 기록되어 있다. 조선 후기에는 주로 궁중 기행나인(騎行內人)과 여령이 착용한 것으로 의궤류와 기록화를 통하여 찾아볼 수 있지만 몽두리라는 명칭의 유물로는 대한제국 말에 무녀용으로 사용된 것만이 남아 있다.

몽두의의 기록이 조선시대에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여성 포의 유물로는 발견되지 않았다. 대한제국 말에 무당이 사용한 무복으로 몽두의라는 명칭으로 남아 있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조선시대 초기에서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어진 몽두리의 용도와 형태 변화에 대하여는 명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한국복식사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해야 할 조선시대 여성 표의류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몽두의(蒙頭衣)의 기록은 15세기 초 태종 12년(1412)의 기록인(태종실록 권23, 태종12년 6월 丁卯)부녀의 의관제도에 대한 사헌부의 상소에서 처음 나타난다. 신분에 따라 4품 이상의 정처에게는 노의, 5품 이하 정처에게는 장삼, 서인의 부녀나 상기(上妓)·천녀(賤女)에게는 세저포몽두의(細苧布蒙頭衣)를 각각 착용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처럼 몽두의는 궁궐 내외 하층계급의 부녀자 복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기록에 나타나는 몽두리의 용도는 궁중 기행나인의 상복용(上服用) 몽두의, 궁중 여관의 상복용(喪服用) 몽두의, 중첩(衆妾)의 상복용(上服用) 몽두의, 궁중 여령의 정재복용 몽두의로 나뉜다. 몽두리는 일반적으로 낮은 신분의 궁녀와 서민녀들이 착용하였다. 색상은 기행나인의 몽두리에 보이는 홍색과 황색의 몽두리와 국상 중에, 궁중의 여관들이 상복으로 착용한 소색의 몽두리가 있다.

18세기 초의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이 지은『병와집(甁窩集)』에서 몽두의는 황색이고, 소매가 짧고 깃이 곧으며, 섶이 없다고 전하면서 실녀(室女)의 배자(背子)는 혼녀(昏女)가 착용하는 홍장삼과 유사하고 중첩의 배자는 관기가 착용하는 '몽두'와 같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헌종 효현왕후(1837)와 헌종 효정왕후(1844)의 국혼을 위한『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에는 기행나인의 의복으로 홍저포 장삼과 황저포 장삼이 보이며, 정미년(1847) 국혼과 동일한 규모와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이는 헌종과 경빈 김씨의 혼례 절차를 기록한『순화궁가례시절차(順和宮嘉禮時節次)』에는 가례에 참여하는 기행나인 4인의

우옥주의 몽두리
국립민속박물관 사진자료 소장



복식으로 '홍몽도리' 1쌍과 '황몽도리' 1쌍이 표기되어 있다. 이것은 조선 초기에 장삼과 몽두의가 신분에 따라 구분된 각기 다른 옷으로 착용되었지만(이 당시 장삼은 사라단자(紗羅緞子) 등의 재질에 대한 제한이 없었음에 비하여 몽두리는 저포(紵袍)로써 제한하고 있으므로 장삼과 몽두리는 형태보다 재질의 차이에 신분적 차등을 두어 착용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이후 장삼과 국혼 때 기행나인들이 착용한 저포장삼은 몽두리와 거의 비슷하거나 동일한 형태의 예복으로서 같은 옷에 대한 이명(異名)으로 볼 수 있다.

조선 후기의『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 정조 19, 1795)』여령복식도에서 몽두리라고 생각되는 황초삼(黃綃衫)을 양옆에 무가 달린 짧은 소매 형태의 표의로 앞자락 사이로 뒤 중심선에 있는 뒤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홍초상(紅綃裳)과 함께 착용돠었다. 그 이후 순조 9년(1809)에 제작된『기사진표리진찬의궤(己巳進表裏進饌儀軌)』와 순조 27년(1827)『자경전진작정례의궤(慈慶殿進爵整禮儀軌)』의 여령복식는 동일한 형태의 황초삼(黃綃衫)에 홍초상과 황초상의 치마를 함께 착용되는 것으로 구성되고 있다

또한 헌종 14년(1848)에 제작된『무신진찬의궤(戊申進饌儀軌)』의 여령복식을 보면 화관(花冠), 수대(繡帶), 오색한삼(五色汗衫) 등 복식 구성은 동일하다. 그러나 황초삼 고름이 달린 합임의 넓고 긴소매이며, 옆에 무가 없는 대신 앞·뒤·옆이 터져 있으며 치마는 홍초상만 함께 착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몽두리 형태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며, 몽두리와 함께 착용하는 치마도 경우에 따라 홍색의 이거나 홍색과 황색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유물로는 창덕궁 소장 몽두리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의 몽두리가 있다. 창덕궁의 몽두리는 19세기 의궤류에 나타나는 황초삼의 형태와 비슷하지만 앞길 좌우 중심에 동일한 형태의 섶이 달려 있고 어깨의 색동 장식 대신 잣 장식이 되어 있으며 깃과 어깨에 잔잔하게 잣물림이 둘려져 있다.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의 몽두리 4점 중 2점은 대금형의 맞깃이며, 나머지는 교임형이다. 대금형은 양옆과 뒤에 트임이 있어 홍색으로 단을 대어 장식하고 있음에 비하며 교임형 모두 좌임이며 두루마기 형태와 양옆에 약간의 트임을 주었다. 한편 섶이 달린 교임형 몽두리 유물과 관련하여『무신진찬의궤(戊申進饌儀軌』의 여령 검기무 복식에서는 전복을 괘자로 기록하였고 몽두리도 역시 금향협수로 기록하고 있다. 19세기의『광재물보(廣才物譜)』에 몽두의를 속칭 '장옷'이라 하는 것을 들어 협수로서의 몽두리와 쓰개용의 대금 또는 교임형의 장옷을 모두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음을 예시하고 있기도 하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조사한 큰무당 우옥주 유품에 기록된 조상거리 무복으로서의 황색 몽두리는 어깨 등에 아무런 장식이 없이 그저 평범한 황색의 좌임형 두루마기이다. 또한 여러 종류의 굿에서 몽두리라고 입혀지고, 무복 몽두리도 무당이나 지역 또는 조사보고서에 따라 색이나 형태에서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무복에서 칭하던 몽두리의 일반적인 형태는 두루마기형의 합임 또는 좌임이며, 앞·뒤·옆의 트임이 있거나 없는 경우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소매도 광수 또는 협수의 다양한 형태로 길이가 다르다. 한삼의 유무와 어깨 장식(오색의 장식 또는 잣 장식)의 유무 등 다양한 포를 몽두리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굿거리에 따라 몽두리의 색상을 달리하고 있고, 어깨의 오색장식이 잣장식으로 변하면서 은하수를 상징한다고 하여 은하몽두리라 한다는 기록 등도 있다. 무당들 사이에서 몽두리의 명칭으로 전해 내려오면서 부르고 있는 현 시대의 몽두리 형태는 조선시대 기록에 나타나 있다. 몽두리는 의궤 여

령 복식도의 합임 반소매 형태인 황초삼에 원형을 두고 있지만 굿의 특성과 지역, 특히 무당들이 모시는 신들의 상징성이 부가되어 시대적인 변형을 가져왔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세습무와 강신무 차이, 특정 지역의 지리환경적 요인, 굿에서 발현되는 주술성과 예술성의 강약, 무당과 무복 제작자 등의 견해 차이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세기에 이르러 우옥주 무당의 유품에서와같이 아무런 장식이나 특징이 없는 황색의 평범한 두루마기를 몽두리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활옷이나 원삼 등 대례복 형식의 표의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겉옷을 몽두리라고 부르면서 복식의 형태나 색채 등에서 서로 다른 소재나 이미지를 융합시키는 크로스오버(cross over) 과정을 거듭하며 무당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팔도굿(황루시, 대원사, 1992), 큰무당 우옥주 유품(국립민속박물관, 1995), 한국의 굿(하효길 외, 민속원, 2002), 사진으로 보는 민속의 어제와 오늘 1(국립민속박물관, 2003), 민속과 종교(소황옥, 민속원, 2003), 한국복식의 역사(백영자 · 최해율, 경춘사, 2004),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조선후기연향문화(한국학중앙연구원, 민속원, 2005), 한국의 무신도(홍태한 · 박우택, 민속원, 2008), 조선시대 몽두의에 관한 연구(박성실, 한국복식학회 55, 2005).

필자 소황옥(蘇晃玉)

무감

정의 굿의 연행 중 잠시 쉬는 사이에 재가집의 대주나 청중이 무복을 입고 굿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 행위.

내용 굿은 무당이 중심이 되어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의례이지만 때로는 일반인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참가하고 신명을 느끼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무감이 대표적이다. 무감은 굿이 어느 정도 익어갈 무렵 거리와 거리 사이에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행해지는데 이를 '무감선다'라고 한다. 지역에 따라 무감을 '무권', '무관', '무골'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공구리'라고 부른다는 조사보고가 있지만 그 연원을 밝히기는 쉽지 않다.

무감은 황해도 굿과, 서울 · 경기 지역의 굿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보편적 행위로 황해도 지역에서는 필수적으로 나타난다. 보통 굿이 중반부 이상 진행되었을 때 무당의 권유로 굿을 준비한 재가집의 대주(주인)로부터 시작하여 점점 청중들의 무감서기로 이어지게 된다. 이미 중반으로 접어든 굿청에서는 신령에게 올려졌던 제물들을 내려 먹을 수 있는 때이므로 무감서기는 보통 술과 음식으로 인해 더욱 흥겹게 된다.

무감서기는 굿청으로 올라가 춤을 추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청중들로 하여금 굿을 즐기게 하는 한 요소가 된다. 무감을 서면 신덕(神德)을 입어 한 해 동안 몸에 병이 없고 운이 좋아진다는 믿음은 누구나 거리낌 없이 신령과 함께하는 춤판으로 나오게 한다.

무감서기를 할 때 무당은 먼저 홍을 돋우기도 하고 무감을 서기 위해 나온 이들에게 무복을 입혀주기도 한다. 무복은 간단히 걸쳐 입을 수 있는 쾌자 종류의 옷을 입혀주는데 굿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입고 싶은 무복을 직접 고르기도 한다. 간혹 참여자는 무복을 걸치는 것을 넘어 무구를 들고 춤을 추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 무감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제상에 돈을 올리거나 무당에게 돈을 내고 참가하기도 한다.

무감서기는 일반인들이 하기 때문에 무복을 입고 흥분을 한다 하여도 무당과 같이 굿의 연행과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지만 간혹 내재되어 있던 신기가 발휘되어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김태곤(金泰坤)의 『한국무속연구(韓國巫俗硏究)』에 '굿판을 따라 다니며 무감서기를 계속하다가 무당을 밀쳐내고 대감굿 한 거리 정도는 놀고 내려가야 직성이 풀리게 된' 사람이 등장한다. 이 사람은 결국 내림굿을 받았다 하는데, 이와 비슷한 예들을 현지조사의 보고서를 통해 다수 찾아볼 수 있다.

무감을 서는 행위는 형태상으로는 굿과 굿 사이에 벌어지는 여흥 정도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굿의 각 과장과 더불어 소규모의 의례 행위로 이해해야 한다. 특히 무감을 서게 됨으로써 얻고자 하는 무병과 재수는 춤추는 행위 자체에서 오는 만족감보다 더욱 구체적인 목적으로 여겨진다. 이에 무감서기는 일반인들이 신령들과 어울려 벌이는 능동적인 의례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무속연구(김태곤, 집문당, 1981), 황해도 무속의 지역성과 보편성(양종승, 실천민속학연구 2, 실천민속학회, 2000).

필자 김창호(金昌鎬)

무경(巫經)

정의 앉은굿에서 구송되는 한문어투의 무속 경전.

내용 한국의 굿은 연행 방식이나 환경에 따라 앉은굿과 선굿으로 나눌 수 있다. 앉은굿은 법사가 주재하는 굿으로 주로 협신(脅神)에 의해 기원을 성취한다. 선굿은 무당이 주재하는 굿으로 주로 오신(娛神)에 의해 기원을 성취한다. 기원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법사는 무경을 구송하며, 무당은 무가를 구연한다.

무경은 무가와 사뭇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 무경과 무가는 ①무당의 계열과 속성, ②연행의 절차와 방식, ③사설의 목적과 내용, ④사설의 형태와 전달 등에 따라 구분된다. ①은 법사와 무당의 변별이며, ②는 앉은굿과 선굿의 변별이며, ③은 협신과 오신의 변별이며, ④는 문어체의 구송과 구어체의 구연의 변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무경이나 무가는 '인간의 기원 성취'라는 기능을 동시에 발휘하고 있지만, 연행 방식이나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일반무가 〈성주풀이〉와 무경 『성조경』을 비교하면, 〈성주풀이〉는 '본풀이 형식'으로서 서사성(敍事性)이, 『성조경』은 '신명나열(神名羅列) 형식'으로서 교술성(敎述性)이 지배적이다. 곧 〈성주풀이〉는 신의 근본을 설명하는 내력담(來歷譚)으로 신의 과거 공업(功業)을 설명하고 치하하는 한편 본풀이를 통해 신의 행적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주인공이 사건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조경』은 '신의 이름을 거론하면 신이 강림한다'는 무속적 관념에 의해 각 방위에 좌정하고 있는 성주신의 이름만을 호명하고 있다. 서사나 서정의 경우와 같이 인물의 형상화나 효과적인 구성, 세련된 감정을 시도한 흔적이 없다.

또한 일반무가와 무경은 사설 자체가 상이하다. 일반무가는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어체 사설이다. 따라서 구연자는 청중을 인식할 수밖에 없고, 청중의 호응에 따라 말과 창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다. 무당의 경력이나 청중과의 교섭에 따라 사설이 확장 ·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 반면 무경은 한자의 조합에 의한 한문어투의 사설이다. 일반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탈속한 경전이라야 신비감이 조성되어 주술력이 강하게 발현된다는 믿음과 직 ·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오행(五行)이나 진언(眞言) 또는 부작(符作) 등을 대거 수용하여 한문으로 조합하고 있다.

무경은 무가와 달리 신의(神意)에 의거하여 악신을 제거함으로써 인간의 기원을 성취하는 일종의 주사(呪詞)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주술력으로 신의 조력(助力)을 획득하여 악신을 위협하고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양재의 원력이 이미 무경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무가와 다른 무경의 특성이 자체적인 주력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신이 아니라 협신에 의한 기원의 성취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무가와 달리 '엄숙하고 경건하며 성스러운 내용'으로 일관한다. 따라서 연행의 방식이나 무당의 성향도 선굿과 다른 형태를 보인다.



옥추경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가로 17.2㎝, 세로 15㎝ | 조선시대

참고문헌 한국무가의 연구(서대석, 문학사상사, 1980), 해동율경집(김혜승, 선문출판사, 1989), 경문대전(한중수, 명문당, 1992), 무경(김기형, 한국민속학의 이해, 민속학회 편, 문학아카데미, 1995), 일반무가의 작시 방법(박경신, 구비문학연구 3, 한국구비문학회, 1996), 교술무가의 구술시학적 성격과 기능(이경엽, 한국언어문학 38, 한국언어문학회, 1997), 충북의 무가 · 무경(이창식 외, 충북학연구소, 2002), 무경의 사상적 원류(안상경, 한국무속학 8, 한국무속학회, 2005), 축사경의 교술적 성격 검토(안상경, 우리말글 34, 우리말글학회, 2005).
필자 안상경(安相敬)

무고(巫蠱)

정의 초연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는 흑주술(black magic)의 일종. 저주 또는 방자(方子)라고도 한다.

내용 질병이나 불행을 저주의 탓으로 돌리는 믿음은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으며, 그 방법도 민족이나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이를 조작적인 것과 무조작적인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조작적인 것은 일정한 의례적 행위를 통하여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이고, 무조작적인 것은 영력(靈力)을 타고난 사람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의례 없이 심령작용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인류학에서는 전자를 sorcery, 후자를 witchcraft로 구분하는데, 무고는 특별한 방법에 의거한다는 점에서 전자에 포함된다.

그러나 무고의 방법에도 몇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고(蠱)로 하여금 질병이나 재앙을 일으키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한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이를 유괴하여 굶겨 죽이고 그 혼령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해치고 재물을 갈취하는 염매(魘魅)의 풍습이 있었다고 하는 바, 이 경우는 아이의 혼령이 고의 일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첫째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둘째, 흉측한 물건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사람이나 짐승의 시신 또는 뼈를 베개 속에 넣어둔다든지 왕래하는 길에 뿌려둔다든지 하는 것이다. 이때 흉측한 물건은 고(蠱)를 대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해치려는 사람의 대용물, 예컨대 인형이나 명패 같은 것에 해코지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가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유사한 행위를 하면 유사한 결과를 낳는다는 공감주술(homeopathic magic)의 원리에 입각한 저주라 할 수 있다. 넷째, 저주의 말을 퍼붓거나 주문을 외거나 부적을 사용하여 재앙을 주는 방법이다. 이 가운데 첫째 방법은 한국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고란 글자는 중국의 갑골문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어, 그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도 무고는 일찍부터 행해졌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기록상 처음 등장하는 것은 고려 의종 15년(1161) 정서(鄭敍)의 처 임씨(任氏) 등이 저지른 국왕 저주 사건이다. 이후에 왕실을 중심으로 저주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난 사실이 확인된다. 예를 들면 고종 45년(1258) 홍복원(洪福源)의 왕족 영녕공(永寧公) 저주 사건, 충렬왕 2년(1276) 충렬왕의 후궁 정화궁주(貞和宮主)의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 저주 사건, 충렬왕 3년(1277) 원종의 계비 경창궁주(慶昌宮主)의 충렬왕 저주 사건, 충렬왕 23년(1297) 궁인 무비(無比)의 제국대장공주 저주 사건, 충선왕 즉위년(1308) 충선왕의 조비(趙妃)의 계국대장공주(薊國大長公主) 저주 사건 등이 그것이다. 조선시대에도 왕실에서 무고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는데, 중종 22년(1527) 중종의 후궁 경빈(敬嬪) 박씨의 세자 저주 사건, 광해군 5년(1613) 인목대비(仁穆大妃)의 광해군 저주 사건, 인조 17년(1639) 인목대비의 딸 정명공주(貞明公主)의 인조 저주 사건, 인조 23년(1645) 소현세자비인 민회빈(愍懷嬪) 강씨의 인조 저주 사건, 효종 2년(1651) 인조의 후궁 조귀인(趙貴人)의 효종 저주 사건, 숙종 27년(1701) 장희빈(張禧嬪)의 인현왕후(仁顯王后) 저주 사건 등이다. 이상은 사건화되어 드러난 사실들이지만, 이 밖에도 표면화되지 않은 많은 저주들이 행해졌을 것이다. 효종 3년(1652) 창덕궁과 창경궁을 수리한 목적이 궁궐 곳곳에 감추어진 저주용 물건을 없애기 위해서였고, 실제로 수리 과정에서 저주에 사용된 물건들이 많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왕실 내에서 저주가 얼마나 성행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저주굿에 동원 된 인형
홍태한

저주는 증오와 질투를 실력이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취하는 행위이다. 이런 점에서 무고는 사회적 강자인 남성보다 여성에 의해 선호되었고, 여성들 간의 인간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궁중에서 성행하였다. 그러나 증오와 질투는 궁중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는 왕실에서부터 사대부 양반가문을 거쳐 서민사회에까지 널리 행해졌다. 을사사화 때 죽은 유관(柳灌)의 여종이 주인을 죽음으로 몬 정순명(鄭順明)에게 무고의 방법으로 원수를 갚았다는 이야기는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다.

무고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그 효력을 믿었던 전통시대에는 일종의 범죄로 간주되었다.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무고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했으며, 고려나 조선도 이를 준용하여 엄벌에 처하였다. 공민왕 20년(1371)에 사면령을 내릴 때도 무고 관련자는 제외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무고는 중죄로 취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무고한 자를 처벌한다고 하여 저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무고가 표면화되면, 저주에 사용한 물건을 찾아내는 등 무고를 차단하거나 무효화하는 일이 필요했다. 이러한 역할을 무당이나 술사들이 담당했다.

무고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불법적이고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은밀히 행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고가 사회적으로 표면화되는 것은 누군가의 고발에 의한 것이다. 무고 문제를 고려할 때는 누가 무고했느냐에 못지않게 누가 고발했느냐는 점과 고발한 의도가 중요하다. 고발은 허위일 수 있으며, 누군가가 무고했다고 고발함으로써 오히려 무고당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열거한 고려와 조선시대 왕실의 무고 사건은 대부분 날조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들은 커다란 정치적 파장을 몰고 왔다. 충선왕 때 조비의 계국대장공주 저주 사건은 정치적 개혁을 단행하려던 충선왕의 실각을 가져왔으며, 숙종 때 장희빈의 저주 사건은 남인에서 서인으로의 정권 교체를 불러왔다. 이처럼 무고 사건은 한국정치사 이해에도 일정한 의미를 지닌다.

무고는 현재도 행해지고 있다. 처첩 관계 등 인간관계의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실력이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밀히 행해질 수밖에 없는 무고의 속성상 현대의 무고에 대해서는 조사된 자료가 없다.

참고문헌 高麗史, 星湖僿說, 五洲衍文長箋散稿, 朝鮮王朝實錄, 芝峯類說, 민속종교(서영대, 한국사 21-고려후기의 사상과 문화, 국사편찬위원회, 1996), 조선무속고-역사로 본 한국 무속(이능화 지음, 서영대 역주, 창비, 2008), 장희빈 저주사건의 신해석(Boudewijn Walraven, 제1회 한국학국제학술회의 논문집, 인하대학교, 1987), 효종초 김자점 옥사에 대한 일고찰(김세봉, 사학지 34, 단국사학회, 2001), 효종대 조귀인 저주 사건과 동관 개조(김호, 인하사학 10, 인하역사학회, 2003), 中國巫蠱考察(鄧啓耀, 上海文藝出版社, 1999), 蠱毒(澤田瑞穗, 中國の呪法, 平河出版社, 1990), Lucy Mair, Witchcraft (World university library, 1969).
필자 서영대(徐永大)

무당(巫堂)

정의 무속의 사제자로, 길흉화복을 점치고 굿을 주관하는 사람의 총칭.

내용 지역이나 성별에 따라 호칭에 차이가 있는데 지역적으로, 충청도에서는 법사, 전라도에서는 단골, 제주도에서는 심방이라고도 한다. 성별에 따

라, 여자 무당을 만신이라고 하며, 남자 무당은 박수 · 화랭이 · 낭중 · 양중이라고 한다. 최근 무당이란 말에는 천시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여 무속인이란 표현을 쓰기도 한다. 따라서 무당이란 지역과 성별을 초월한 명칭이라 할 수 있는데, 전통시대의 문헌에는 사제자로서의 무당이란 표현이 없어, 언제부터 사용된 호칭인지는 알 수 없다.이들은 선령이나 악령을 불문하고 교통하여 그것들을 다룰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졌고, 이러한 능력을 토대로 인간과 신령의 세계를 매개함으로써 인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무당의 시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지리산의 성모천왕(聖母天王)과 법우화상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라는 성모전설 · 중국 황제의 딸이나 왕녀였다는 왕녀전설 · 귀족 여성이라는 귀녀설 · 왕명을 받들어 무사(巫事)를 시작했다는 왕무전설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어느 것이 무조전설의 원형인지 알 수 없지만, 무당이 원래 고귀한 신분이었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무당은 신령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연결하는 중계자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입무(入巫) 과정의 차이에 따라 강신무와 세습무로 나뉜다. 강신무란 자의가 아니라 신령의 선택에 의해 무격이 된 사람들이다. 신령의 소명은 보통 병리현상으로 나타나며, 이것을 신병(神病)이라 한다. 신령의 부름이 확인되면 신령을 정식으로 받아들이는 절차인 '내림굿'을 한다. 이때 받은 신을 '몸주'라 하며, 내림굿을 해준 무격을 '신어머니'나 '신아버지'라고 한다. 내림굿을 했다고 완전한 무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상당 기간 신어머니나 신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의례의 절차나 방법 등을 학습한다. 영적 능력은 신령으로부터 받지만 재주와 기술은 선배로부터 배운다. 강신체험을 통해 입문한 무격들은 의례 과정에서도 신령과 직접 접촉한다. 신령에 빙의되고 신령과의 합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빙의 상태의 무격은 인간이 아니라 신령으로 취급된다. 그래서 무격의 말은 신령의 말씀으로 신의 약속이고 예언이 된다. 한편 세습무란 무격이 되는 특정 가계에서 가업(家業)을 이어받아 무격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춤과 노래 등 필요한 재주들을 익혀 무업(巫業)에 종사한다. 그러나 강신무와는 달리 입무 과정에서 강신체험은 없으며, 의례 과정에서도 신령과 일체화되는 일은 없다. 그 대신 가무에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여 신령을 즐겁게 함으로써 의례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강신무가 신령의 입장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면, 세습무는 인간의 소망을 신령에게 전달한다는 것이다.

강신무와 세습무는 분포도 다르다. 한강을 경계로, 그 이북에는 강신무가, 이남에는 세습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세습무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 무격을 천시하는 사회적 풍조 때문에 자손들이 무업을 계승해 나가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대신 한강 이남 지역에서는 강신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강신무와 세습무의 분포권이 다르다는 것은 점차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듯 강신무와 세습무 사이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자는 기원부터가 다르며, 별개라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양자의 신 관념이나 의례 절차, 그리고 무구(巫具) 등에는 공통점이 많다. 따라서 강신무와 세습무는 같은 계통이며, 하나에서 다른 하나가 분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할 때 강신무와 세습무 중, 어느 것이 먼저인가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은 있지만, 강신무 선행설이 우세하다. 직업의 세습이란 후대에 와서 이루어진다는 점도 있지만, 강신무가 북아시아의 샤먼과 유사점이 많다는 사실이 유력한 근거다. 강신무와 샤먼은 다 같이 신병체험을 통해 입무하며, 의례의 과정에서 신과의 합일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통분모가 크다. 그런데 북아시아 지역이 샤머니즘의 원향(原鄕)이며 샤머니즘의 고형(古形)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북아시아의 샤먼과 유사점이 많다는 사실은 강신무가 세습무에 선행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강신무나 세습무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무당도 있다. 제주도의 심방은 혈통에 의해 사제권이 세습되며, 강신체험이 없고 무점구(巫占具)를 통해 신의 뜻을 탐지한다는 점에서는 세습무와 유사 하나, 영력을 중시하고 신인식이 확고하다는 점에서는 세습무와 차이를 보인다. 호남을 비롯한 남부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명두는 어린 아이의 사령(死靈)을 불러 점을 친다는 점에서는 강신무와 유사하나, 가무에 의한 굿은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또 충청도의 법사는 앉아서 북과 징을 두드리며 무경(巫經)을 구송하여 악귀를 몰아내는 일을 하는데, 입무과정에서 강신체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가 있다. 따라서 무당의 강신무와 세습무로 유형화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한국무속의 역사는 그 기능을 기준으로 했을 때,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신석기 시대부터 삼국 시대까지로, 무속이 국가와 사회 전체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이데올로기로 기능했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고대국가의 지배자들이 무속의 권위를 빌어 정치권력을 정당화하고자 했으며, 스스로 무당처럼 사제자적 역할을 했다. 이것은 고대국가의 왕호(王號)인 단군이나 차차웅(次次雄)이 무당을 뜻한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시기이기에 무격들은 국가조직의 일원으로 참여했으며, 국왕의 측근에서 국정을 보좌하면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러나 불교가 수용되면서 무속의 지위는 위협을 받게 된다. 그래서 불교와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신라의 반도통일을 전후하여 지배적 종교 자리를 넘겨주게 되고 기층사회로 침전하기 시작한다.

두 번째 단계는 7세기 통일신라 시대부터 조선 중기인 16세기까지이다. 이 시기에는 무속이 국가나 전체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치적 기능을 상실했다. 그래서 국왕에게서는 사제자적 성격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고, 무격들이 국가조직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의례에서도 배제된다. 그렇지만 무당들은 지역사회에서는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 시기에 지역사회에는 지역 나름의 독특한 신앙이 있었고, 이러한 신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부의 통합과 결속을 유지하고 있었다. 경주의 두두리(豆豆里) 신앙 · 영해(寧海)의 팔령신(八鈴神) 신앙 · 울산의 계변신(戒邊神) 신앙 · 삼척의 오금잠(烏金簪) 신앙이 그 예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에 기초한 의례들을 지역 세력의 후원 하에 무당들이 주관함으로써 무당들의 사회적 영향력은 아직까지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12세기부터는 무속에 대한 배척의 움직임이 시작된다. 그리고 배척은 고려 말 유교이념으로 무장한 신흥사대부 계층의 집권,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유교국가 조선왕조의 건국으로 강도를 더해 간다. 그것은 무당들을 처벌하거나 도성 밖으로 쫓아내는 등 무당들에게 직접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동원되었는가 하면, 무격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것은 아니지만, 무당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줌으로써 무속 배척에 일익을 담당한 것이다. 예컨대 국립의료기관인 동서활인서(東西活人署)에 무녀들을 배속시켜 환자를 돌보게 한다든가(굿을 통한 치료가 아니라 간호를 하도록 함), 무격들로부터 각종 무세(巫稅)를 징수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무당들은 점차 천시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무속 자체가 사회적 기능마저 상실할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16세기 사림파의 집권 이후로, 무당들이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기능마저 상실하고 주로 개인의 길흉화복 문제에만 관련하는 시기이다. 사림파란 16세기에 조선왕조의 새로운 집권세력으로 부상한 세력들인데, 이들은 향촌사회를 기반으로 성장한 세력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무속을 배척하는 데 앞장서게 된다. 그들은 무속의 존립 근거를 없애는 일환으로 귀신을 연구하여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귀신의 존재를 부정했고, 나아가 귀신이 인간의 길흉화복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무속 말살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들이 무세(巫稅) 폐지를 주장한 것도 바로 이를 위한 것이었다. 즉 무격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무격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그들을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므로, 무격을 불법화하기 위해서는 무세 징수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관리로 부임하면 관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무속을 탄압하였다. 중앙관서의 관리로 부임해서는 소속 관청의 신당들을 없앴으며, 지방관

으로 나가는 지방의 무속적 전통을 근절시키는 데 온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사림파의 집권을 계기로 무속은 사회적 기능을 상실하는데, 촌락의 동제가 무격이 배제된 유교식 동제로 변모하는 것도 그 결과의 하나이다.

그러나 무당은 개인의 길흉화복 영역에서는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것은 조선왕조의 지도이념인 성리학의 한계 때문이다. 성리학은 우주의 원리를 설명하는 고도의 철학이지만, 인간으로서 최대 관심사인 길흉화복이나 사후세계 문제에 대해서는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러한 성리학의 한계는 무속이 존속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또 조선왕조 정책의 모순 때문이기도 하다. 조선왕조는 토착종교 금압의 일환으로 무격들의 도성 내 거주를 제한하고 도성 밖으로 축출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도성 밖에서의 무업을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특히 중앙관청과 지방관청 재정의 상당 부분을 무세로 충당한 점도 문제였다. 무세를 징수하지 않을 경우 이들 관청의 운영이 어려워지게 된다. 나아가 무세에 대해 지방관의 재량이 상당히 주어진 점도 문제다. 지방관들은 무세의 유혹을 벗어날 수 없었고, 그래서 무격 탄압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었다.

무속은 현세를 무의미하고 덧없는 것으로 보지 않고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현세 긍정의 종교다. 그리고 도덕적 가치보다 실존적 가치를 중시하는 생존의 종교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무속은 기복적이며 저차원의 종교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내세의 구원이나 고매한 이상의 실현이 아니라 현세에서 부딪치는 어려움의 해결이다. 이 때문에 무속은 생존의 종교로서 지금까지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무속연구(김태곤, 집문당, 1981), 한국 무교의 역사와 구조(유동식,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3), 한국 무속의 강신무와 세습무 유형구분의 문제(한국무속학회, 민속원, 2006), 조선무속고-역사로 본 한국 무속(이능화 지음, 서영대 역주, 창비, 2008).

필자 서영대(徐永大)

무당내력(巫黨來歷)

정의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무당의 굿거리를 그린 책. 작은 책과 큰 책 두 권으로 작은 책은 가로 17㎝, 세로 21㎝, 14면으로 되어 있고, 큰 책은 가로 19.5㎝, 세로 28㎝, 14면으로 되어 있다. 두 책 모두 표지에 '무당내력(巫黨來歷)'이란 서명(書名)을 종서로 쓰고 있다. 큰 책 표지에는 서명 밑에 난곡수장(蘭谷手粧)이라고 종서하고 낙관을 찍어 놓았다.

내용 『무당내력』은 조선조 말기에 난곡(蘭谷)이란 호를 사용하는 사람이 서울 굿의 각 거리를 그림으로 그려 설명한 책자이다. 두 책자의 크기는 다르나 같은 내용의 서문 및 굿거리의 그림과 설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일한 사람의 저작으로 판단된다. 작은 책 서문 말미에 '시을유중춘(時乙酉仲春) 난곡파적이(蘭谷破寂耳)'라고 쓴 뒤 '명의학도(明義學道)'라는 전서(篆書)낙관을 찍어 놓았다. 이를 근거로 이 책은 1825년 4월이나 1885년 4월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책의 서문을 보면 단군이 태백산 단목하(檀木下)에서 신교(神敎)를 개설하고 이를 부루(扶婁)에게 가르쳤는데 여기에서 무당이 비롯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토기에 벼를 담아 위성하는 부루단지를 무속신앙의 기원으로 기술하면서 신라 중엽 법우화상(法祐和尙)의 여덟 딸들이 팔도무당의 시원이라고 하는 설에 대하여 근거가 없는 와언(訛言)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저작자는 단군에 대한 숭앙이 강했던 인물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으로 그려진 굿거리는 다음과 같다.

작은 책 : 1. (부정거리) 2. 감응청배(感應請陪・속칭 산바리기) 3. 제석거리(帝釋巨里) 4. 별성거리(別星巨里) 5. 대거리(大巨里・속칭 최장군거리) 6. 호구거리(戶口巨里) 7. 조상거리(祖上巨里) 8. 만신말명 9. (축귀) 10. 창부거리(唱婦巨里) 11. 성조거리(成造巨里) 12. 구룽 13. 뒷젼

큰 책 : 1. 부정거리(不精巨里) 2. 제석거리(帝釋巨里) 3. 대거리(大巨里・속칭 최장군거리) 4. 호구거리(戶口巨里) 5. 별성거리(別星巨里) 6. 감응청배(感應請陪) 7. 조상거리(祖上巨里) 8. 만신말명 9. 구룽거리(巨里) 10. (성조거리) 11. 창부거리(唱婦巨里) 12. 축귀(逐鬼) 13. 뒷젼

두 책의 굿거리 순서와 해설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는 굿거리 그림을 각각 그리고 이들을 모아 묶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굿거리 명칭을 쓰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른 책의 명칭을 참고하여 괄호 안에 이름을 적어 넣었다. 굿거리에 대한 해설이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번역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정거리 : 4명의 악사를 그린 그림인데 작은 책에는 그림만 있고 큰 책에는 '부정거리(不精巨里)'라고 되어 있다. 굿을 시작할 때 부정한 생각이나 잡귀가 있으면 이를 안정(安定)시키기 위한 굿거리이다.

2. 감응청배 : 제상과 쾌자를 입고 양팔을 벌리고 서 있는 무녀를 그린 그림. 치성을 드릴 때 무녀가 태백산을 바라보고 성령감응을 세 번 부르는데 단군을 모시는 것이다.

3. 제석거리 : 제상과 고깔을 쓰고 흰 장삼을 입고 방울과 부채를 양손에 든 무녀를 그린 그림. 삼신제석(三神帝釋)인 단군성조(檀君聖祖)를 일컬으며 10세 전 어린이를 보호하는 신이다.

4. 별성거리 : 제상과 흑립에 칼과 삼지창을 양손에 등 장군 모습을 그린 그림. 농경을 처음 백성에게 가르친 단군의 신하 고시(高矢)를 모시는 거리이다. 근일에는 최영장군이나 사도세자라고 하는데 이는 근거가 없다.

5. 대거리 : 제상과 홍갓에 남철릭을 입고 칼과 삼지창을 든 무녀를 그린 그림. 옛날에는 단군의 복색을 썼지만 근래에는 최영 장군 복색을 쓴다고 한다.

6. 호구거리 : 제상과 노란색 저고리에 홍색 치마를 입고 부채와 방울을 든 무녀를 그린 그림. 천연두신을 모시는 굿거리이다. 최 장군의 딸 혹은 첩이라고 하는데 이는 망발이라고 한다.

7. 조상거리 : 부채와 방울을 든 무녀를 그린 그림. 조상신이 길흉화복을 미리 알려준다고 하는데 이는 무녀의 토색질에 불과하다고 한다.

8. 만신말명 : 부채와 방울을 든 무녀를 그린 그림. 무녀를 만신이라고 하며, 이는 무녀의 연원을 말해준다고 한다.

9. 축귀거리 : 흑전립에 검은색 쾌자를 입고 오색신기를 양손에 든 무녀를 그린 그림. 오방신장이 잡귀잡신과 제반 살격(殺格)을 구축하는데 근일에 병 치성에서 많이 행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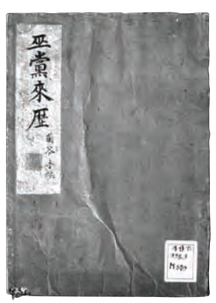
10. 창부거리 : 흑립을 쓰고 부채와 방울을 든 무녀를 그린 그림. 무녀 가운데 젊고 아름다운 자를 뽑아 유희를 하는 거리인데 돈을 거두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60년 이래 성행하였다고 한다.

11. 성조거리 : 갓을 쓰고 부채와 방울을 든 무녀를 그린 그림. 단군 시절에 무녀로 하여금 가옥의 축조를 축하하도록 한데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12. 구릉거리 : 붉은 갓과 두루마기에 부채와 방울을 든 남자를 그린 그림. 명나라 때 사신이 수로로 무사히 왕래하도록 비는 굿거리라고 한다.

13. 뒷젼 : 치마저고리를 입고 양손에 북어를 든 무녀를 그린 그림. 잡귀를 풀어먹이는 굿거리이다.

『무당내력』은 각 굿거리에서 굿하는 무녀의 모습과 제물을 차려 놓은 굿상의 모습을 그린 것인데 무녀는 양팔을 벌리고 쾌자나 장삼 혹은 치마, 저고리 등을 입고 있으며 양 손에는 방울이나 부채 또는 칼과 삼지창을 들고 있다. 이러한 그림은 굿거리에 등장하는 주무(主巫)의 무복(巫服)과 무구(巫具)를 표현한 것으로 설명적 회화의 성격이 강하고 미술적 측면에서 조잡함을 면치 못한다. 굿거리 해설은 한문으로 간단히 쓰고 있는데 감응, 제석, 별성, 대거리, 성조 등 굿거리가 모두 단군에서 유래된 것이고 근일 최영 장군이나 사도세자를 모시는 일에 대해 망발이라고 부정적 비판을 하고 있다. 이 그림 책자는 19세기에 단군신앙이 강한 인물이 무속의 연원을 단군에서 찾으면서 서울굿의 각 거리를 그림과 해설로 기록한 것으로 최초의 무속 회화자료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무당내력
국립민속박물관 사진자료 소장

참고문헌 무당내력 해제(서대석, 무당내력 영인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6).

필자 서대석(徐大錫)

무세(巫稅)

정의 조선시대 잡세(雜稅)의 일종으로, 남녀 무당으로부터 징수하는 각종 세금의 총칭.

내용 무당에게 세금을 징수한 사실은 고려 후기부터 확인된다. 충혜왕 복위 4년(1343)에는 무당에게 공포(貢布)를 바치게 했고 우왕 13년(1387)에는 말을 바치게 하였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징수한 것으로, 무세가 정규 세금은 아니었다. 무세가 정식 세금으로 제도화된 것은 조선시대부터였다.

조선시대 무세에는 세 종류가 있었다. 첫째는 무업세(巫業稅)로, 무업에 대한 일종의 영업세였다. 국가에서 3년마다 한 번 무당의 명부[巫籍]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무업세를 징수했다. 무업세의 징수는 연 2회였는데, 세종 5년(1423)부터 연 1회 징수하였다. 납부액은 정포(正布=麻布) 1필과 약간의 동전이었으나 면화 재배가 확대되면서 정포는 면포로 바뀌고, 지역에 따라 포 대신 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백성들을 질병으로부터 많이 구해주었거나 기우제 등에서 영험을 보였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는 무업세를 감면해 주기도 했다. 둘째는 신당퇴미세(神堂退米稅)로, 신당에 바친 물품 가운데 일부를 국가에 바치도록 한 것이다. 이것 역시 무당이 부담하였으며, 주로 쌀로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식 세금은 아니고 일종의 불법 수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는 신포세(神布稅)로, 함경도와 강원도에서 무속이 성행한다는 이유로 거두는 세포(稅布)인데, 무당이 아니라 민호(民戶)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다. 이중에서 가장 비중 있고 정세(正稅=정식 세금)로 간주된 것은 무업세이다. 영조 20년(1744)에 나온 『속대전(續大典)』에는 무업세를 정식 국가 수입의 한 항목으로 간주하여, 구체적인 징수 규정을 수록하고 있다. 나아가 19세기 초에 국가 재정을 기록한 『만기요람(萬機要覽)』에는 평안도와 황해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징수한 무업세의 총액을 1,326필로 집계하고 있어 당시 무업세를 납부하는 무당의 숫자가 2,000여명 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게 한다.

징수된 무세는 국가 운영을 위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우선 평안도·황해도와 함경도 북부지역에서 징수한 무업세는 관찰사의 감독하에 국방비로 사용되었으며, 다른 지역의 무세는 일부 관청의 운영비로 충당하였다. 예컨대 서울이나 경상도 현풍(현재 대구 달성군 현풍면)의 무세는 동서활인서의 경비로 사용하였으며, 나주 금성산 신당의 퇴미세는 관곽을 제조하고, 기타 장례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인 귀후서(歸厚署)의 운영 경비로 충당하였다. 징수한 무세의 일부는 지방관의 관공비로 사용되었다.

무세를 징수하는 목적은 무속을 탄압하기 위한 것인데, 무당이나 무속 신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워 무속에서 멀어지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각종 무세를 징수한다는 것은 무당을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하는 셈이 되어 무속 탄압이란 당초의 취지와 모순되었다. 또 무세의 부담자는 대부분 여성이며, 전통시대에는 여성이 세금을 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예외적 세금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16세기 사림파 세력이 등장하면서 무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대두된다. 무세 폐지 주장은 무당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무당을 불법화하여 무속의 뿌리를 뽑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영조 50년(1774)에는 여성들의 세금[女貢]을 폐지할 때 여무로부터 세금 징수를 중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동서활인서가 운영의 어려움을 겪었고, 무업세는 다시 부활되었다. 또 지방관의 재량권이 많이 허용되는 세금이었기 때문에 무세의 폐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무속 근절이라는 당초의 목적과 달리 현실적인 필요성으로 조선시대에 각종 무세는 유지되다가 1895년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조선무속고-역사로 본 한국 무속(이능화 지음, 서영대 역주, 창비, 2008). 조선시대의 무세제도와 그 실태(임학성, 역사민속학 3, 이론과 실천, 1992).

필자 서영대(徐永大)

무조신(巫祖神)

정의 무당의 조상이나 시조로 여겨지는 신. 한국 문화에 무조신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전설에는 법우화상(法祐和尙)과 8녀가 있고, 무속에는 바리공주, 말명할머니, 계면할머니, 쌍둥이 삼형제신 및 유정승딸 등이 있다. 이 중 쌍둥이 삼형제신 및 유정승딸 등은 제주도 무속에서 구송되고 있는 〈초공본풀이〉라는 신화 속에 등장하고 있는 신들이다. 제주도 무속에는 과거에 굿을 했던 무당들을 차례로 불러 모시는 '공시풀이'라는 소제차가 있는데, 이 내용은 제주의 전역사를 통해 무업에 종사했던 무당(심방)들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내용 법우화상 전설은 이능화(李能和)의 『朝鮮巫俗考(조선무속고)』에 전한다. 지리산 암천사(巖川寺)의 법우화상이 신선이었던 지리산 천왕봉 성모천왕의 화신인 여인과 혼인하여 딸 8명을 낳아 무술(巫術)을 가르쳐 전국에 무업(巫業)을 행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아카마쓰 지조(赤松智城)와 아키바 다카시(秋葉隆)의 『朝鮮巫俗の硏究(조선무속의 연구)』 上(상)에는 오산 지역의 무당 배경재가 구연한 〈바리공주〉 신화를 '무조전설'로 소개하고 있다. 오구대왕은 왕비가 일곱 번째 자식도 딸을 낳자 그 아이를 내다버린다. 그래서 이 딸의 이름이 바리데기가 되었다. 오구대왕은 나중에 병이 들어 죽었다가 이 딸이 길어온 생명수 덕분에 살아난 후 바리공주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고 묻는다. 이때 바리공주는 "부모 슬하에 호의호식 못 하였으니 만신(萬神)의 인위왕(人爲王)이 되어 위로 백재일은 산 사람을 위해 천도하고, 아래로 유재일에는 죽은 사람을 위해 천도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만신의 인위왕은 바로 무당을 뜻한다. 이러한 까닭에 육지 쪽의 경우 바리공주는 무조신으로 인식되고 있다.

말명굿에서 모셔지는 말명할머니는 구월맞이굿을 올리려고 단골 시영집에 걸립을 나섰다가 그 집의 세존 방손이 기특하여 그 집을 명당터전으로 잡아주기 위해 사흘굿을 올려 준 신이다. 후에 이 집은 대단골이 되었고, 모든 집에서는 이 집을 큰집으로 모시고 구월맞이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계면굿에서 모셔지는 계면할머니는 오동나무와 대를 심어 악기를 만든 신이며 전국을 돌면서 아이들에게 명과 복을 주고 우환과 재난을 막아 주는 신이다.

〈초공본풀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떤 부부가 나이가 들어 딸을 낳고 그 이름을 '이산줄이벋고저산줄이벋어왕대월석금하늘노가단풍자지멩왕아기씨'라고 짓는다. 딸이 열다섯 살 되었을 때 부부는 서울로 벼슬을 살러 가게 되어 집을 비우게 되는데, 그 사이 황금산 도단땅의 주자선생이 와서 딸에게 잉태를 시키고 떠난다. 부모가 돌아온 후 딸은 임신한 일로 인하여 집에서 쫓겨나 고생 끝에 남편을 만나고 후에는 불도땅에서 쌍둥이 세 아들을 낳는다. 삼형제는 고생하며 성장한 끝에 과거시험에 합격하지만, 세 아들 때문에 과거에 떨어진 삼천선비는 물명주전대로 자지멩왕아기씨의 목을 걸어 삼천천제석궁에 가두어 놓는다. 삼형제는 어머니가 죽었는데 과거급제를 하면 무얼 하겠느냐며 어머니를 찾고자 황금산 도단땅의 아버지를 찾아 떠난다. 주자선생은 아들들에게 어머니를 찾으려면 전상팔자를 그르쳐야 한다고 하면서 '천지문(天地門)' 글자가 있는 무구를 만들어 주고 초감제·초신맞이·시왕맞이제를 설연한 후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삼형제가 너사메아들 너도령을 만나 북과 울쩡(징)을 만들어 삼천천제석궁에 가서 열나흘을 울리니 궁에서는 아기씨를 내놓는다. 아들들은 어머니를 위하여 금법당을 만들어 무구 전체와 삼만 제기(祭器)를 보관해 놓고, 어머니로 하여금 신당(神堂)을 지키게 한다. 이어 상잔과 천문·요령·삼멩두를 만들어 연당에 두고 양반의 원수를 갚고자 시왕대반지(신칼)를 만들어 삼시왕으로 들어선다. 유정승 딸은 여섯 살 때 중[僧]으로부터 엽전을 받아 이것을 가지고 놀다가 말광돌 아래 놓아두었는데, 일곱 살 되던 해부터 눈이 어두워지며 생사의 고통을 겪는다. 17·27·37·47·57·67·77세 때 갖은 고통을 당하다가 77세에 처음으로 큰굿을 행하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아랫마을 장자집

딸이 죽었는데, 유정승 딸이 지나다가 그것을 보고 혈맥을 짚으며 백지 알대김을 올리도록 한다. 딸이 살아나기 시작하자 유정승 딸은 전새남굿을 벌이고자 하는데, 무구가 없어 수소문을 하다가 자지멩왕아기씨가 있는 신당으로 찾아와 어멍딸(신어머니와 신딸 관계)을 맺고 일천기덕과 삼천제기를 얻어 큰굿을 벌인다. 이때 저승 삼시왕으로 갔던 아들들이 나와 북과 장구를 쳐준다. 전새남굿을 처음 벌일 때 마련한 것이 보전빈, 기매, 보답의 세면포 · 당반 · 감주 · 술 · 떡 등이었으며, 굿이 끝난 후에 유정승 딸은 당에 있는 어머니를 위해 새 제물을 해간다.

의의 무조신으로 여겨지는 신들은 이상의 자료 외에도 일부 더 있다. 작도대신, 대신할머니, 만신할머니신, 대신창부신 등도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여러 유형의 무조신들 중 가장 눈여겨 볼 만한 것은 제주도 무속에서 구송되고 있는 〈초공본풀이〉라는 무속신화에 나오는 쌍둥이 삼형제신 및 유정승 딸과 관련된 내용이다. 신화는 일반적으로 신의 일에 기원하여 현존하는 자연환경의 제현상이나 인간사회의 의례, 또는 의미 있는 모든 인간행동의 범례를 설명하는 본질을 지닌다. 〈초공본풀이〉는 여기에 나오는 많은 신들의 행위에 기원하여 현존하는 무속현상, 즉 무법(巫法)의 제기원을 설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무조신에 관한 설명도 하고 있다. 따라서 〈초공본풀이〉는 올곧은 무조신화라 할 수 있으며 그러기에 제주도 무가에서는 초공신을 가리켜 '신뿌리'라 하고 있다.

〈초공본풀이〉에 따르면 최초의 무(巫) 사제자는 바로 중인 쌍둥이 삼형제신이다. 따라서 이들은 무당의 조상신, 혹은 시조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너사메아들 너도령과 함께 의형제를 맺고 무악기와 무구를 만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들은 바로 무악기 및 무구적 측면에 있어 무조신이라 할 수 있다. 신화 내용을 중시하면 무속에 있어 최초의 무구는 천문(天門)이고 최초의 무악기는 북이며 무점구 중에서는 천문, 상잔, 신칼 등이 이런 성격을 지니고 있다. 신당(神堂)은 무구, 무악기, 제기 등을 보관하는 곳인데, 이곳을 지키는 최초의 당신(堂神)은 바로 자지멩왕아기씨로서 여신이다. 또한 유정승따님애기는 최초의 강신무로서의 무조신이라 할 수 있다.

〈초공본풀이〉는 현재 제주도에서만 전승되고 있지만 원래는 열두 거리 큰굿 가운데 세 번째 거리인 '초공제'에서 불렸던 신화로 볼 수 있기에 고대에는 육지 쪽에서도 불렸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육지 쪽에서 전국에 걸쳐 전승되고 있는 〈제석본풀이〉라는 무속신화는 〈초공본풀이〉와 같은 계통의 신화라고 이미 연구되어 있으며 이것은 바로 고대에는 육지 쪽에서도 〈초공본풀이〉와 같은 신화가 구송되었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제석본풀이〉는 중이 여자 주인공을 찾아 와서 잉태를 시키고, 여주인공은 이로 인해 쌍둥이 세 아들을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많다. 이것은 〈초공본풀이〉 내용이 워낙 길어 내용이 다 전승되지 못하고 앞부분만 남아 전승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육지쪽 〈제석본풀이〉에서는 쌍둥이 세 아들을 낳은 여신은 삼신[産神]이 되고, 쌍둥이 세 아들은 수복신(壽福神)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많아 이 신화는 무조신에 관한 신화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다.

〈초공본풀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구 · 무악기 · 무법 등을 처음 창안했을 뿐 아니라 최초로 굿을 행한 무 사제자는 바로 쌍둥이 삼형제 신이며 이들의 신분은 바로 중[僧]이라는 사실이다. 한국의 무신도에는 삼불제석 그림이 아주 많이 남아 있다. 이들은 대부분 고깔을 쓴 세 명의 스님들이 그려져 있다. 무당이 굿을 할 때 드는 부채에도 삼불신이 있으며 여기에도 고깔을 쓴 세 명의 중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여러 신당이나 법당 등에도 이와 같은 모양의 삼불제석 조상(彫像)이 많이 남아 있다. 우리 무속에는 이처럼 고깔을 쓴 세 명의 스님을 그리거나 조상을 만들어 놓은 '삼불신'이 공통적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초공본풀이〉에 나오는 것처럼 쌍둥이 삼형제신이 무조신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우리 문화나 혹은 무속에 그 흔적을 많이 남겨 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무신도 '삼불제석'이나 삼불제석 조상들, 그리고 삼불선 부채 속에 등장하는 세 명의 스님 모습은 바로 이것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이들은 원래 〈초공본풀이〉 같은 것이 원래의 모습대로 육지 쪽에서 구송되고 있었을 때 무조신으로 관념되었기에 무속에 그 그림자를 깊게 드리우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초공본풀이〉에서 전하는 것처럼 최초의 무속적 사제자들이 중이었다는 사실을 중시하고, 또한 중은 원래 무속적 사제자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선행 연구를 중시하면 우리 문화에 남아 있는 절이나 여기에 몸담고 있는 스님들은 원래 무속과 깊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 가능하다. 〈초공본풀이〉에서 무조신이었던 쌍둥이 삼형제신의 이름은 본멩두, 신멩두, 살아살축 삼멩두인데, 굿의 제청에는 멩두를 걸고 굿을 하면서 이를 무조신으로 모시고 있는 것도 특이한 일이다.

참고문헌 朝鮮巫俗の研究 上(赤松智城 · 秋葉隆, 조선총독부, 1937), 한국무가의 연구(서대석, 문학사상사, 1980),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한국무속연구(김태곤, 집문당, 1981), 한국민속논고(장주근, 계명사, 1986),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진성기, 민속원, 1991), 한국민족대백과사전 무조신조(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제주도 무속신화-열두본풀이 자료집(문무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장주근, 역락, 2001), 제주도 무속을 통해서 본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이수자, 집문당, 2004), 이용옥 심방 본풀이(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 무신도 삼불제석의 신적 성격과 형성배경(이수자, 역사민속학 4, 한국역사민속학회, 1994).

필자 이수자(李秀子)

묵은진오기굿

정의 서울 지역에서 행해지는 망자천도굿인 진오기굿의 한 종류. 망자가 죽은 지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행하는 진오기굿으로, 대개 탈상 이후에 행하는 진오기굿을 '묵은진오기굿'이라고 부른다.

내용 묵은진오기굿은 마른진오기굿이라 불러 탈상 이전에 행하는 진진오기굿과 구별하기도 한다. 묵은진오기굿은 재수굿과 진오기굿이 결합된 모습이다. 전반부가 재수굿의 제차에 따라 굿을 연행한다면 후반부는 진오기부정을 물리고 진오기굿을 진행한다. 이러한 묵은진오기굿이 언제부터 연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무속인들은 묵은진오기굿을 안안팎굿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꽁지가 달렸다"라고도 불러 묵은진오기굿의 특징을 드러낸다. 서울 지역에서 산 자들의 복을 기원하고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굿으로 서울굿의 역사만큼 오래된 것으로 보이나 문헌적인 근거는 제시하기 어렵다.

묵은진오기굿의 제차는 주당물림, 부정청배, 가망청배, 불사, 산, 조상, 대안주, 성주, 창부, 안당뒷전, 진오기부정, 뜬대왕, 사재삼성, 말미, 도령돌기, 상식, 베가르기, 뒷영실, 시왕군웅, 뒷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묵은진오기굿의 제차는 크게 이승굿과 저승굿으로 대별된다. 이승굿은 주당물림부터 창부까지로, 이승의 여러 신령을 청배하여 재가집의 복을 기원한다. 뜬대왕부터의 저승굿에서 비로소 망자를 저승으로 보내는 의식을 거행한다. 묵은진오기굿의 전반부에서 이승굿의 모습을 확연하게 드러내는 것은 조상거리이다. 진진오기굿에서는 망자의 혼령을 불러들여 위로하고 저승 천도를 기원하는 영실거리를 연행하지만 묵은진오기굿에서는 선대 조상을 모두 불러들여 복을 기원한다. 이런 점에서 진진오기굿이 망자 중심이라면 묵은진오기굿은 여러 조상을 함께 청배하여 복을 기원하는 산 사람 중심의 굿이다.

묵은진오기굿이 재수굿의 성격을 드러내는 점은 굿을 의뢰한 재가집의 특성에서도 확인된다. 묵은진오기굿을 의뢰한 재가집은 무당의 권유에 의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굿을 하는 사례가 많았고, 망자의 극락왕생보다는 산 자의 재수 소망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따라서 후반부의 저승굿인 사재삼성, 말미, 도령돌기 등 진오기굿의 중요 절차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비록 조상을 천도한다는 목적에서 진오기굿을 의뢰했지만 굿을 하는 목적은 산 자들의 재수 소망이기 때문이다.

묵은진오기굿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거리는 불사거리, 산거리, 성주거리이다. 진진오기굿에서 연행하지 않는 불사거리를 묵은진오기굿에서 연행하는 이유는 망자를 이미 죽음의 세계에 편입된 사람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미 죽음의 세계에 편입된 망자이기 때문에 비린 것을 꺼리는 불사

신령이 거리낌 없이 진오기굿판에 올 수 있다. 반면에 진진오기굿에서는 아직 망자가 죽음의 세계에 편입되지 않았으므로 망자의 육신은 여전히 이승에 남아 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하나의 육신(고기)에 불과하여 불사거리를 연행하지 않는다. 묵은진오기굿은 망자가 완전히 저승에 포함된 존재기 때문에 망자보다 산 자 중심으로 굿이 진행되어 불사거리를 연행한다. 산거리에서도 묵은진오기굿의 성격이 드러난다. 산거리에서 모셔지는 신은 도당, 본향으로 불리는 신격이다. 이들은 모두 지역신을 의미한다. 망자가 이미 저승의 세계로 들어간 묵은진오기굿의 경우에는 저승과 이승의 확연한 구분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굿의 전반부에 도당을 모시는 굿거리가 진행된다.

묵은진오기굿이 산 자 중심의 굿이기 때문에 산 자들의 삶의 터전인 도당에 대한 언급이 필요함으로써 한 거리를 차지한다. 대부분의 산거리가 그러하듯이 이 경우에는 여러 신이 꺾여 들어온다. 도당신장, 도당대감, 도당호구 등의 여러 신이 들어오고, 이들이 주는 공수는 대개 산 자들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러나 아직 죽은 자가 저승으로 떠나지 않은 진진오기굿에서는 도당거리가 연행될 필요가 없다. 이 굿에서는 죽은 자를 가능한 한 무사하고 빠르게 저승으로 천도시켜야 한다. 이런 경우에 도당거리는 오히려 죽은 자의 발목을 잡을 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성주거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가옥신 중에서 제일 높은 신으로 여겨지는 성주신도 산 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신이기 때문에 묵은진오기굿에서는 하나의 굿거리로 존재할 수 있지만 진진오기굿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묵은진오기에서 부정과 뒷전이 두 번 존재하는 것도 동일한 의미이다. 진진오기굿은 죽은자를 위한 굿이어서 모든 굿이 죽음을 향해 있다. 반면에 묵은진오기굿은 죽은 자의 천도와 산 자의 재수 소망을 함께 이루어야 한다. 이에 따라 산 자를 위한 부정과 뒷전이 한 번 있고 죽은 자를 위한 부정과 뒷전이 다시 한 번 있다. 안당사경이 산 자를 위한 굿이다. 이런 다음에 죽은 자를 위한 진오기굿이 다시 이어진다.

뒷전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발견된다. 먼저 묵은진오기굿의 뒷전을 고찰하면 걸립, 지신, 터주, 업신, 맹인, 서낭을 안당뒷전에서 풀은 후 진오기 뒷전에서는 영산과 상문을 따로 풀어낸다. 이러한 묵은진오기굿에서는 맹인을 비롯한 여러 신격을 놀리기 위한 타령도 있어 흥을 돋운다. 걸립공수, 터줏대감공수가 이어지면서 터주타령이 이어진다. 터주타령은 "어떻게 좋은지도 모르겠네 어둠 충충 야밤삼경에 자취를 뵈시던 내 대감님…"으로 이어지는 타령이다. 그런 다음 지신공수가 주어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경닫이타령이 이어지기도 한다. 지경닫이타령의 존재는 묵은진오기굿이 결코 망자를 위한 굿만이 아님을 알려준다. 다음으로 장님재담과 맹인타령이 이어진다. 그다음으로 서낭을 모시고 영산과 수비를 논다. 이러한 묵은진오기굿 부정은 재수굿의 뒷전과 매우 흡사하다. 굿판에 들어오지 않은 여러 신격을 불러 모시는 것은 그 신격들이 살아 남은 사람들에게 어떤 해코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이 또한 산 자를 위한 굿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진진오기굿에서의 뒷전은 분량이나 구송 시간이 매우 짧아 여러 재담이나 타령은 빠지고 서낭을 불러 먹인 후 곧장 영산, 상문, 수비만을 모신다. 진진오기굿 뒷전에서는 산 자보다 죽은 자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하위 신격인 영산, 상문, 수비만을 청배한다. 묵은진오기굿은 저승에 있는 망자의 혼을 불러내 다시 씻어서 저승으로 보내는 굿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승의 존재와 저승의 존재는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다. 이승에 살고 있는 존재를 위한 굿을 먼저 진행하고 저승에 존재하는 망자의 혼을 불러와 다시 씻어서 보낸다.

묵은진오기굿에서는 망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드러난다. 망자는 죽은 지 오래되어 저승에 가 있는 존재여서 만에 하나 망자가 이승에 남은 사람들에게 어떤 우환을 끼칠까 걱정하여 행하는 것이 묵은진오기굿이다. 묵은진오기굿은 저승과 이승이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어 우선 산 자들의 복을 빌어 주는 의식을 진행하고 나서야 본격적인 망자를 천도하는 거리로 들어간다. 묵은진오기굿은 이승과 저승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이러한 구분 속에 저승에 간 망자를 다시 불러 한을 풀게 한 후 보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인들은 저승에 가 있는 혼령이라도 이승에 있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를 다시 불러내 온전하게 천도시켜야 뒤탈이 없는 것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서울진오기굿(홍태한, 민속원, 2004), 서울지역 안안팎굿 무가자료집(김헌선, 보고사, 2006).
필자 홍태한(洪泰漢)

문굿무가

정의 망자의 혼을 천도해 주는 함경도의 망묵굿에서 불리던 무가. 치원대 양산복 무가라고도 한다. 망자의 영혼이 저승으로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저승길을 닦아주는 성격을 띤다. 특히 젊어서 죽은 자를 위하는 경우에만 불린다는 견해도 있다. 이 무가는 인물 설정 및 전반적인 내용 등으로 보아 중국 명청대의 강창문학(講唱文學)인 〈양산백보권(梁山伯寶卷)〉, 고소설인 〈양산백전〉 등의 영향을 받아 무가로 생성시킨 독특한 서사무가 사례이다.

내용 양산백과 추양대(치원대)는 어릴 때 은하사에 들어가 10년 동안 함께 공부했다. 추양대는 여자이면서 남장(男裝)을 하고 있어서 양산백은 추양대가 여자인 줄 몰랐다. 양산백이 16살 때 목욕하다가 추양대가 있는 곳에서 혈수(血水)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추양대가 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양산백은 추양대에게 청혼하였으나 추양대는 멀리 부모를 두고 결정할 수는 없다며 집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추양대는 부모에게 양산백의 청혼을 말씀드렸으나 거절당한다.

한편 양산백은 추양대를 못 잊어 하다가 집에 돌아와 추양대가 다른 곳으로 시집간다는 소식을 듣는다. 양산백이 이 소식을 듣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으면서 추양대가 시집가는 길에 묻어 달라고 유언한다. 추양대는 시집가는 도중에 양산백의 무덤이 있는 곳에 이르자 소변을 보겠다며 가마에서 내린다. 추양대가 무덤을 비녀로 치자 무덤이 갈라진다. 추양대가 갈라진 무덤 안으로 들어가자 무덤은 다시 합쳐진다. 사람들이 황급히 추양대의 옷자락을 잡아서 당기자 옷이 찢어지면서 나비가 되어 날아간다.

〈문굿무가〉의 자료로는 함경남도 함흥에서 남하(南下)한 2명의 무녀에게서 채록한 것이 있다. 1965년 임석재 · 장주근이 강춘옥 무녀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관북지방무가』에 수록한 자료와 함경남도 함흥 중화리에서 월남한 이고분에게 김태곤이 1996년에서 채록하여 『한국무가집』 3권에 수록한 자료 등 두 편이다. 후자가 전자보다는 분량도 적고 내용도 현저히 축약되어 있다. 한편 남장여인과 사랑을 맺는 동일한 내용의 무가가 제주도에 〈세경본풀이〉라는 무가로 전승되고 있다.

참고문헌 관북지방무가(임석재 · 장주근, 문화재관리국, 1965), 서사무가연구(서대석, 국문학연구회, 1968), 한국무가집 3(김태곤, 집문당, 1978), 이승과 저승을 잇는 신화의 세계-함경도 무속의 성격(임석재, 함경도 망묵굿, 열화당, 1985), 풀어쓴 한국의 신화(장주근, 집문당, 1990).
필자 권태효(權泰孝)

문전본풀이

정의 제주도 무속에서 구송되는 것으로 집안의 여러 공간, 즉 올레주목정쌀과 동서남북중앙 및 앞문, 뒷문, 그리고 조왕 및 측간을 지키는 신들에 관한 본풀이. 전형적인 계모담이다. 〈문전본풀이〉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래 제차명(祭次名)이라기보다는 문전신에 관한 본풀이, 즉 신화라 할 수 있다. 〈문전본풀이〉는 큰굿의 일부로도 행해지고 있지만 집을 새로 짓거나 혹은 증축했을 때 행하는 성주풀이와 같은 굿에서 구송되고 정초에 문전비념 같은 것을 할 때도 구송되고 있다.

내용 〈문전본풀이〉는 수차례 채록 · 보고되어 자료가 많은 편이다. 『조선무속의 연구(朝鮮巫俗の硏

究)』 상(上)(赤松智城 · 秋葉隆),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진성기), 『제주도 무속신화-열두본풀이 자료집』(문무병), 『제주도 큰굿자료』(제주도 · 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장주근), 『이용옥 심방 〈본풀이〉』(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등에 소개되어 있다. 다른 자료의 내용을 보완하되 『제주도무속자료사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승전 땅에서 살고 있는 열다섯 살 된 조정승따님애기가 연방층에서 빨래하고 있었는데 이 세상으로 공부하러 내려온 하늘옥황 수문대장 아들이 지나다가 그녀를 보고 반하여 물을 달라 하면서 접근하고 손목을 잡는다. 수문대장 아들은 공부를 마치고 돌아올 때 그녀를 다시 찾기로 약속하고 둘은 헤어진다. 하늘에서 수문대장 아들에게 결혼을 위해 올라오라는 소식이 오자 수문대장 아들은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고자 한다. 그런데 도중에 연방충을 지나게 되어 옛일이 생각나자 조정승따님애기 집을 찾아가 함께 밤을 지낸다. 새벽이 되어 조정승따님애기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니 수문대장 아들은 함께 떠나 이 세상과 하늘옥황 사이에 살림을 차리자고 제의한다.

그러나 두 신이 함께 살다 보니 생불꽃이 내리기 시작하여 어느덧 남자형제 일곱을 낳게 되었다. 가난하여 도저히 살 수 없게 되자 부인은 남편에게 다른 나라에 가서 무곡을 사와 장사나 해 보라고 제의하고, 남편은 배를 타고 떠나가서 삼 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다. 부인은 아들들에게 신이나 삼아 달라고 하여 밤마다 곳곳을 헤매며 남편을 찾아다니는데, 매일 삼아주는 신발 일곱 켤레가 흔적도 없이 닳자 아들들은 어머니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한다. 막내아들 녹디셍인의 제의에 따라 어머니 뒤를 밟은 후 아들들은 의심을 풀고 어머니에게 배를 만들어 주며 아버지를 찾아보라고 한다.

배가 오동국에 도착했을 때 조정승따님애기(『제주도무속자료사전』에는 여산고을 여산부인으로 되어 있음)는 그곳에서 새 쫓는 아이의 노랫소리를 듣고 남편이 있는 곳을 알게 된다. 그리고 남편이 노일제대귀일의 딸에게 속아 가져간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오동국에서 그녀와 함께 구차하게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남편은 본부인이 해준 밥을 먹고 옛날 밥맛을 알아보고 부부는 해후를 한다.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큰부인을 보고 형님이라 부르며 함께 본집으로 돌아가자 해놓고, 집으로 가는 길에 함께 목욕을 하면서 큰부인을 물에 밀어 넣어 죽인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큰부인인 것처럼 꾸민다. 아들들은 부모가 돌아오는 줄 알고 옷들을 벗어 다리를 놓는데, 일곱째 아들인 녹디셍인만은 어머니가 다슴어멍(계모)인 줄 알고 칼선다리를 놓는다. 아들들은 어머니가 집을 잘못 찾고, 열쇠와 쌀이 있는 곳도 잘 모르며, 숟가락 등의 기물을 뒤죽박죽 놓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진짜 어머니가 아님을 알게 된다.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일곱 아들을 죽이기 위해 거짓으로 아픈 척하고, 남편에게 자신을 살리고자 하면 길에 가서 문복(問卜)을 해 보라고 한 후 자신이 문복쟁이로 가장하여 남편에게 일곱 아들의 애(간)를 먹어야 병이 낫는다고 거짓말을 한다. 이런 일을 두 번이나 하여 남편으로 하여금 그 말을 철저하게 믿도록 만드니 남편은 결국 아이들을 죽이고자 한다. 마침 불을 빌리러 온 청태산 마고할망이 일곱 형제의 아버지인 남선비가 칼 가는 것을 보고 이유를 묻다가 놀라서 일곱 아들들에게 그 사실을 얘기하니, 막내아들은 부친에게 가서 "아버님이 우리 일곱 애를 내면 우리 몸에 흙을 끼얹으려고 해도 일곱 삼태기나 들어 힘이 들 것인데, 제가 산에 가서 형님들의 애를 내어 올 터이니 아버님은 나중에 나 하나만 죽여 애를 내어 어머니를 드리라"고 한다. 막내가 칼을 받아 형들과 함께 산에 올라 어머니의 현몽에 따라 노루를 잡고, 다시 노루의 가르침에 따라 새끼돼지 여섯 마리의 애를 내어 노일제대귀일의 딸에게 갖다 주니,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입에 다가 피를 묻힌 후 여섯 개의 애를 자리 밑에 묻어 두는데, 문틈으로 이것을 보고 있던 막내아들이 달려들어 그녀의 쉰댓 자 머리를 잡아 한쪽 편에 엎질 러 두고, 양쪽 손에는 애를 세 개씩 들고 지붕꼭대기에 올라 동네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도망가다가 측간에서 수패머리로 목매어 자살하고 남선비는 도망가다가 정낭에 걸려 죽는다. 아들들은 노일제대귀일의 딸 시신을 조각조각 분산하여 다른 생물로 화신시키는데, 양각으로는 측간의 드딜팡(변을 볼 때 디디고 앉는 넓은 돌), 대가리로는 돗도고리(돌을 파서 만든 돼지먹이통), 머리터럭으로는 바다의 패(해조류의 일종), 입으로는 솔치(어류의 일종), 손톱과 발톱으로는 쉐굼벗 돌굼벗(딱지조개의 일종), 배꼽으로는 굼벵이, 하문으로는 대전복과 소전복, 그리고 몸체는 빻아 각다귀와 모기를 만든다. 일곱 아들은 배를 타고 오동국으로 가 못 속에서 어머니의 시체를 찾아내고, 서천꽃밭에 가서 도환생꽃을 가져와 죽은 어머니를 살려낸다. 녹디셍인은 어머니가 물에 오래 있어 춥다 하자 불이 있는 부엌의 조왕신으로 들어서게 하고, 아버지는 올레주목정쌀 지신으로, 다슴어멍은 측간신으로, 위의 다섯 형은 각각 동 · 서 · 남 · 북 · 중앙의 대장군으로, 여섯째 형은 뒷문전에 좌정케 하고, 자신은 일문전으로 들어선다.

지역사례 〈문전본풀이〉와 유사한 줄거리를 가진 육지의 무속신화는 관북 지방 무속의 〈살풀이〉와 관서지방의 〈성신굿〉, 그리고 충남 · 호남 지방의 〈칠성굿〉 또는 〈칠성풀이〉 등이 있다. 이 신화와 유사한 내용의 신화가 〈문전본풀이〉가 아니라 '칠성'과 관련된 명칭으로 불리게 된 것은 이들 신화에 나오는 아들이 일곱으로서 이들이 나중에 하늘에 있는 북두칠성이 되기 때문이다.

의의 〈문전본풀이〉는 계모담적 성격을 지닌 신화다. 여기에 등장하는 후처로서의 계모는 전처를 죽일 뿐만 아니라 전처의 자식들을 구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전형적인 악인형 계모이다. 이런 면에서 이 신화에 등장하는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전형적인 팜므파탈형 인물로 연구된 바 있다. 이 신화에는 부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자식도 죽일 수 있다는 부성부재(父性不在)의 모습도 나타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물형의 설정은 모두 신화적 원리와 상관이 있다.

〈문전본풀이〉는 집안의 여러 공간, 즉 올레주목정쌀과 동 · 서 · 남 · 북 · 중앙 및 뒷문과 앞문, 그리고 부엌과 측간을 지키는 신들에 관한 본풀이라 할 수 있다. 그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신은 문전신[一門前]신과 조왕신(竈王神)이다. 이 신화의 특징은 가족구성원 중 하나하나가 집안의 어떤 특정한 공간을 하나씩 차지하는 신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신화에 나타나는 가족구성원이 어떤 공간을 맡고 있는지 살펴보면 여기에는 이 신화를 창조한 집단의 집공간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다.

집 구조와 관련해 볼 때 집으로 들어오는 입구와 집안으로의 통로, 즉 문(門)은 전부 남성신의 공간이다. 거리로부터 집안으로 들어오기까지의 길인 올레 및 집 외부와 내부의 경계지역인 주목정쌀은 아버지인 부신(父神)이 맡고 있다. 그리고 집과 같은 건물의 동서남북 및 중앙과 앞문, 뒷문은 일곱 아들이 맡고 있는데, 여러 문 중에서 앞문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문전본풀이〉의 실제적 주인공은 막내인 일곱째 아들 녹디셍인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앞문을 지키며 집안의 모든 곳을 관장하고 있다. 집에서는 아들, 그중에서도 특히 말자(末子)가 중시되고 있는 것이다. 남성들은 집의 외부 및 경계지역에서 집안을 보호하는 자, 집안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는 자로 인식되었다.

집 외부 공간 및 집 외부와 내부가 만나는 경계지역으로서의 문의 공간을 남성공간으로 인식한 데 반해 신화창조집단은 집 내부 공간인 부엌과 측간을 여성공간으로 인식했다. 모신(母神)은 부엌의 조왕신이 되고 첩신(妾神)은 측간신이 되는 결말에서 이런 인식이 잘 나타나 있다. 어머니, 즉 한 집안의 안주인이 조왕신(竈王神)이 된다고 하는 사실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신화에서는 첩에 의해 살해당한 어머니가 물 속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추울까봐 아들들이 하루 세 번 불을 쪼이며 살라고 어머니를 조왕신으로 좌정케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모신은 물의 신이며 동시에 불의 신이라는 성격을 지니는데, 표면적으로는 후자의 성격이 더 강조되고 있다. 물신이며 불신인 조왕신은 부엌에 있는 신이다. 물과 불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데, 물과 불

은 바로 이러한 음식을 만들 수 있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물과 불은 사람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물은 생명을 있게 하고, 불은 열을 내어 음식을 익히고 또 빛을 발하여 어둠을 밝힌다. 어둠을 밝힌다는 것은 암흑을 제거하고 빛을 가져다준다는 뜻이기도 한데, 빛은 곧 희망을 상징한다. 〈문전본풀이〉에 나오는 조왕신은 부엌에 있는 물과 불의 신이지만, 그렇다고 물과 불을 처음으로 발견했거나 발명한 신은 아니다. 이 여신은 다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물과 불을 지키는 수호신적 성격을 지닌다. 한 가정의 어머니가 부엌신이자 물신 · 불신이 되었다는 것에는 신화창조집단이 어머니라는 존재를 생명의 신이며 집안의 가장 은밀한 곳인 안쪽에서 집안을 지키면서 가족에게 양분과 원동력을 주고 집안을 따뜻하게 하며 희망을 주는 존재로 인식했다는 것이 반영되어 있다.

친어머니와 의사(擬似) 어머니인 첩이 각각 조왕신과 측간신으로 나타나는 것에도 신화적 의미가 있다. 부엌과 같은 곳은 음식을 만드는 곳이기에 원래부터 여성공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 집안의 어머니였던 존재가 이곳을 지키는 수호신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측간은 부엌과 기능상 정반대적 성격을 가진 공간이다. [부엌 : 측간] = [음식을 만드는 곳 : 음식을 배설하는 곳] = [깨끗한 곳 : 더러운 곳] = [집안의 안쪽 : 집안의 바깥쪽] = [집안의 중심지 : 집안의 변두리] 이렇게 보면 부엌과 측간은 냄새 때문이거나 기능상으로라도 서로 붙어 있거나 가까워질 수 없는 공간이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변소와 부엌은 멀수록 좋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이 둘은 가까울 수 없는 공간이지만 먹을 것을 만들고 또 그것을 배설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있다. 따라서 부엌이 여성공간이라 한다면 측간도 여성공간이 될 수 있다. 부엌과 측간이 서로 가까워질 수 없는 것처럼 인간사에서도 가까워지려야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본부인과 첩의 관계일 것이다. 신화창조집단은 이러한 공간상의 기능과 인간사의 관계를 알고 〈문전본풀이〉 속에서 부엌신과 측간신을 본부인과 첩의 관계로 상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신화를 창조해낸 집단이 얼마나 논리적이고도 체계적인 사고를 했던가를 엿볼 수 있다.

참고문헌 朝鮮巫俗の研究 上(赤松智城 · 秋葉隆, 조선총독부, 1937),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진성기, 민속원, 1991), 제주도 무속신화-열두본풀이 자료집(문무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한국 무속신화에 나타난 모신상과 신화적 의미(이수자, 우리문학의 여성성 · 남성성-고전문학편, 도서출판 월인, 2001),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장주근, 역락, 2001), 제주도 큰굿자료(제주도 · 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1), 제주도 무속을 통해서 본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이수자, 집문당, 2004), 이용옥 심방 본풀이(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 〈칠성풀이〉의 연구(서대석, 진단학보 65, 진단학회, 1988).
필자 이수자(李秀子)

문전제(門前祭)

정의 제주도 지역에서 새해를 맞아 '문전신(門前神)'에게 집안의 무사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신년제.

내용 문전신은 달리 '문신'이라고도 하며, 집안에 좌정한 여러 가내신 중에서 으뜸으로 여기는 신이다. 제의 대상이 문전신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문전제라고 한다. 그런데 지역과 행제방식(行祭方式) 및 대상 신의 범위 등에 따라 문전비념, 문전철갈이, 문전고사, 문전비들기, 장구고사, 올레코ᄉᆞ(올레대위)라고도 불린다. 문전제의 제의 대상인 문전신은 서사무가 〈문전본풀이〉에서 유래한다. 한 집안의 앞쪽 입구를 차지해 좌정하였다 해서 앞문전 또는 일문전(一門前)이라고도 한다. 여타 가내신들에 비해 가장 중요하고 으뜸인 신이며, 집안의 모든 대소사와 관련을 맺는다. 그러기에 제주도에서는 "문전 모른 공사(公事)가 없다" 하여 집안의 모든 일을 문전신에게 알리고 기원한다. 이런 문전신은 자연히 무속적 관념에서 유래한 것이며, 문전제의 출발은 무속의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제주도에서 문전제를 지내는 방식과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첫째, 행제 시기로 보면 정기적 · 부정기적 문전제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신년제의 경우로서 주로 음력 정월에 택일하여 지낸다. 정월이 여의치 않으면 음력 3월에도 할 수 있으나 영등달인 음력 2월은 되도록 피한다. 이밖에 유교식으로 치르는 조상제사도 정기적인 의례인 점을 생각하면 이때 조상제사와 함께 행해지는 문전제도 정기적이라 할 수 있다. 후자는 혼례, 출타, 입주 등의 집안 대소사가 있는 경우에도 본 행사와 관련되어 행해진다.

둘째, 문전제를 단독으로 하는 경우와 다른 가정신앙과 함께 치르는 경우가 있다. 전자는 문전제만을 독립해 하는 것으로 단순한 의례인 반면에 후자는 여타 다른 가정신앙이 섞여 있어 제의도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사실 여러 종류의 가정신앙을 일일이 택일하고 제물을 마련하며, 심방 등을 청하여 수행한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 사정이 이러니 후자의 경우처럼 하루를 택일하여 조왕제나 칠성제, 멩감제 등 다른 제의와 함께 행한다.

셋째, 행제방식에 따른 차이점이다. 문전제는 무속식, 유교식, 불교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벌어진다. 먼저 무속식 문전제는 가장 원형적인 형태로 여겨지는 것이다. 제주도 무속에서 문전신에 대한 의례는 크게 두 가지이다. 종합의례인 큰굿의 일부분으로 하는 〈문전본풀이〉라는 제차와 이와는 달리 문전비념이나 문전철갈이처럼 단독의례로 하는 신년제가 그것이다. 문전비념의 진행을 살펴보면 공선가선, 날과국섬김, 집안연유 닦아 비념, 문전 액막음, 물랍퉤송이다. 한편 유교식 문전제는 후대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에 제주 지역에 유교식 의례가 퍼지면서 생겨난 양상으로 여겨진다. 유교식 문전제의 모습도 역시 조상숭배와 관련되는 경우와 신년제로 지내는 경우가 있다. 전자는 명절이나 기제사 등 유교식으로 상당히 번모한 조상숭배에서 함께 행해지는 것으로 무속적 풍속이 유교적 형식을 거치고 여전히 남아 있는 사례이다. 따지고 보면 문전제는 유교식 제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후자는 정월에 택일하고 집안의 남자가 제관이 되어 유교적 형식으로 신년제를 지내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불교식으로 지내는 문전제는 스님을 불러 경을 읽는 것으로 신년제를 치르는 방식이다. 스님이 무속식 문전제의 심방을 대신하는 격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례 문전제는 제주도 전역에서 행해진다. 명절, 기제사, 신년제, 혼례, 출타, 입주 등 집안의 모든 큰일에 다양한 행제방식으로 항상 벌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성격별로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기로 한다.

우선 무속식이다.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의 문전비념에서는 상은 차리지 않고 문전에 초석(草席)을 펴서 진설하고 기원한다. 초감제가 끝나면 심방은 멩두를 이용해 가족의 운수를 점친다. 무속식 문전제는 단독으로 벌어지기도 하지만 보통 조왕제, 칠성제 등 다른 가정신앙과 함께 행해지는 편이다.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서는 집안의 1년 운수를 위해 문전제를 지낸다. 이때 조왕제와 칠성제도 겸한다. 심방이 닭을 들고 쉐막(외양간), 고팡(곡식을 저장하는 곳), 부엌, 올레(거릿길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구불구불한 골목길) 등 집안 곳곳을 다니며 액을 막는다. 닭을 죽인 후 피는 올레에 뿌리고, 닭머리 역시 올레에 묻는다.

서귀포시 서홍동의 문전제는 토신제와 조왕제를 하고 나서 지낸다고 한다. 제물은 토신제의 제물을 준비할 때 함께 마련해 둔다. 토신제는 제관, 문전제는 심방이 각각 주관한다.

제주시 우도면에서도 정월에 심방을 청하여 했다. 이를 '문전비들기'라고 불렀다. 문전신을 주신으로 하고, 이어서 조왕 · 안칠성 · 밧칠성 등 집안의 다른 신들에게도 축원을 올린다.

서귀포시 대포동에는 문전제를 '장구고사(장토제, 장고코ᄉᆞ)'라고 불렀다. 토신제를 하지 않는 해에 심방을 청해 장구고사를 하여 액을 막는다. 이때도 산신제를 지낸 뒤, 집에 와서 칠성, 문전, 조왕제를 지낸다. 그런데 같은 무속식으로 심방을 청해 하는 문전제에도 다소 독특한 사례가 있다.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의 문전제는 다른 마을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점이 있다. 문전에 백지와 삼색물색(적 · 청 · 황의 색포)을 실로 묶어

매어두고, 이를 문전신의 신체(神體)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 색포를 일러 문전옷이라 부르고, 심방을 불러 액막이를 할 때 갈아서 걸어 놓는다고 한다. 이렇게 새 것으로 바꾸어 걸어 놓는 것을 "문전 새 옷 갈아입힌다"고 한다. 만약 액막이를 못하면 정월에 남자 주인이 제관이 되어 과일과 찬물을 그 앞에 올리고 향을 피워 절을 한 후 스스로 문전옷을 갈아입힌다.

다음은 유식이다. 먼저 신년제로서 문전제를 지내는 경우이다.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의 경우 마루에서 현관 쪽으로 제상을 놓는다. 문전은 집의 입구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제물로 메는 문전에 한 그릇, 조왕에 한 그릇을 올리고 갱(羹)도 한 그릇씩 올린다. 유자, 사과, 배, 대추, 비자 등 다섯 가지 과일도 올린다. 조왕제의 제상도 제물을 같게 해서 따로 준비한다. 행제 시간은 주로 자시(子時)를 택하고, 제를 지내며 축을 읽는다. 제를 지낸 후에 예전에는 걸명을 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다. 제사 때 걸명을 하지 않으므로 문전제를 지낼 때도 걸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가 끝나면 가족들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한편 기제사, 혼례, 출타, 입주 등의 경우에 행해지는 문전제 사례이다. 우선 기제사 때의 문전제 모습이다. 서귀포시 서홍동에서는 기제사를 모실 때 본제사를 하기 전에 문전제를 먼저 지낸다. 이는 제사에 모실 조상신을 문전제를 지내면서 먼저 청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한다.

가족이 출타할 경우의 문전제다.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에서는 제주도를 떠나거나 군입대 또는 시험 등으로 잠시 집을 떠날 때 아침에 문전제를 지낸다. 신년제의 문전제와 비슷하게 제물을 준비하고, 당사자가 제관이 되어 제를 지낸 후에 음복을 한다. 문전신에게 무사안녕과 복을 비는 것이다.

다음은 혼례를 치를 때의 문전제 사례이다.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에서는 혼례식을 하는 날 새벽에 잔치멩질(조상차례)를 먼저 지낸 다음 문전제를 지내고 음복한다. 잔치음식을 이용해 문전제 제물을 차리고, 여기에 돼지머리도 올린다. 문전제의 잡식은 지붕 위에 던진다. 신랑집에서는 혼례식 날 아침에 신랑이 제관이 되어 문전제를 지낸 후에 신부집으로 출발한다. 신부집에서는 예장이 담긴 홍세함을 받으려면 상을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이 상으로 문전제를 대체한다. 즉 신부집에서는 문전상에 제물, 향, 술잔을 올리고 예장을 받는 것이다.

한편 새 건물이나 집에 입주하는 경우의 문전제다.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에서는 입주할 때 택일해 문전제를 먼저 지낸다. 새 집으로 들어올 때 푸는체(키)를 가지고 오기도 하였고, 입주시간이 정해지면 솥을 먼저 가져와서 밥을 하고 문전제를 지낸다고 한다.

참고문헌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제주도 무속 연구(현용준, 집문당, 1986), 제주도부락지 3(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0), 제주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현용준, 집문당, 2002), 한국세시풍속사전 정월편(국립민속박물관, 2004).

필자 강소전(姜昭全)

문전철갈이

정의 절기가 바뀌는 시절에 한 해 동안 집안의 행운을 비는 의례. 그냥 '철갈이'라고도 하고 달리 '벨롱겡이'라고도 한다. 의례가 복합되는 양상에 따라 '멩감', '안택' 등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역사 문전철갈이의 유래는 알기 어렵다. 신화적으로는 〈문전본풀이〉와 〈칠성본풀이〉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가신에 대한 의례는 개별적으로 치러지다가 간소화되어 통합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온 것으로 보이며, 문전철갈이는 문전제와 철갈이가 합쳐진 것으로 이해된다.

내용 문전철갈이는 무악을 울리거나 일어서서 하는 행위 없이 앉아서 요령을 흔들며 말명을 하는 전형적인 앉은굿의 형태이다. 문전은 문신을 의미한다. 철은 절기 · 계절을 의미하는 말로서 철갈이는 곧 절기가 바뀜에 따른 의례라는 뜻이다. 엄밀히 말하면 문전철갈이는 문전신을 위한 의례인 문전제와 주로 칠성신을 위한 철갈이가 복합된 의례에 부여되던 명칭이다. 문전제는 본래 정월에 택일하여 행한다.

철갈이는 춘하추동 4계절 어느 때나 벌일 수 있는 의례로, 특히 정월이나 가을에 주로 행하다가 요즘에는 대개 정월에만 벌이고 있다. 어느 것이나 가족의 생기를 보아 택일하여 심방을 청하여 제의를 벌인다. 문전제는 문전신을 위주로 하여 제의를 치르면서 다른 가신들을 함께 모셔 기원한다. 철갈이는 밧칠성을 위주로 하여 제의를 치르면서 역시 다른 가신들을 함께 모셔 기원한다. 어느 것이나 문전, 조왕, 삼승할망, 칠성, 오방토신 등 집안에 좌정하고 있는 모든 신에게 행운을 기원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기주는 제일을 앞두고 대문에 금줄을 쳐둔다. 이렇게 친 금줄은 심방이 오면서 걷어 한쪽에 둔다. 걷어낸 금줄은 삭아 없어질 때까지 그대로 둔다. 심방은 먼저 기주가 차려준 저녁을 먹는다. 심방은 저녁식사를 마치면 바로 터진방[空方]에 해당하는 방향을 찾아 마루나 안방에 상을 차린 후 밤이 되면 의례를 시작한다. 심방은 평상복 차림으로 앉아서 요령을 흔들면서 진행한다.

문전철갈이는 초감제-문전제(칠성본풀이), 각도비념, 상당숙임, 액맥이, 올레코시, 도진의 순서로 전개된다.

첫째, 먼저 초감제를 한다. 대개 날과국섬김, 연유닦음, 군문열림, 살려옴, 정데우, 추물공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한다. 이어 〈조상신본풀이〉, 산받아 분부사뢈 등을 한다. 〈조상신본풀이〉는 초감제에서 신을 청해 들일 때 함께 하는 것이지만 조상신이 많은 경우에는 이처럼 따로 하기도 한다. 〈조상신본풀이〉는 조상신을 모시고 있는 집안에서라면 반드시 구연해야 한다.

둘째, 문전제는 문전신을 위하여 따로 제의를 벌이는 것이다. 다시 초감제 사설로 시작하여 추물공연을 거쳐 산받음을 한다. 집안에서 한 해 동안 재배하는 각종 작물의 풍흉에 대하여 알아보고 분부사뢈을 통하여 기주에게 알려준다. 걸명한 것은 기주가 가지고 밖으로 나가 지붕 위로 던져 올린다. 제반 걷은 것을 백지에 조금씩 모아 싸서 지를 만든다. 이렇게 만든 지는 기주가 아침에 밭으로 가서 동쪽으로 돌아서서 땅에 묻는다. 대개 문전제를 지내기는 하지만 〈문전본풀이〉를 구연하지는 않는다. 칠성을 모시는 집안에서는 문전제에 이어서 〈칠성본풀이〉를 구연하기도 한다. 〈칠성본풀이〉는 심방이 칠성상 앞에 앉아서 요령을 흔들며 구연한다. 본풀이를 마치면 소지를 태워 올리고 산을 받는다. 역시 제비로 농사짓는 작목별로 풍흉을 알아본다. 제반을 걷고 수궤 무음을 한다. 이 대목에서 기주가 곡식을 조금씩 넣어 백지로 싼다. 이른바 지를 싸는 것이다.

셋째, 각도비념은 조왕, 할망, 칠성 등 제각기 따로 마련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심방이 여럿 함께 할 경우에는 문전제와 〈칠성본풀이〉를 하는 동안 각도비념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한다. 조왕비념은 부엌에 간단히 차린 조왕상 앞에서 한다. 요즘에는 싱크대 앞에서 지낸다. 무가 사설로 말명을 하기도 하고 조왕경을 반복해서 구송하기도 한다. 할망비념은 안방에 차린 할망상 앞에서 진행한다. 칠성비념은 뒤곁의 칠성눌 앞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칠성눌은 뒤곁에 밧칠성을 모시고 있는 곳으로, 대개 기왓장에 오곡을 넣고 그 위에 다시 기왓장을 덮은 다음 주저리로 덮어 놓는다. 칠성비념을 할 때는 이에 앞서 〈칠성본풀이〉를 하면서 싸두었던 지를 칠성눌 안에 놓는다. 본래는 칠성비념을 하고 칠성눌을 갈아 덮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이 철갈이의 핵심이다.

넷째, 상당숙임은 청해 들인 신들을 차례로 거명하며 술을 권하고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제차이다. 비교적 간단하게 하고 다음 제차인 액맥이로 넘어간다.

다섯째, 액맥이는 한 해 동안의 나쁜 액을 막아 달라고 기원하는 제차이다. 이때 액맥이의 기원신화인 〈사만이본풀이〉는 구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섯째, 올레코시는 바깥으로 나가 대문 앞에서 행한다. 양푼에 가득 걸명한 것을 들고 이를 조금씩 바깥으로 떠 던지면서 군졸을 사귀는 말명을 한다.

일곱째, 도진은 모든 굿의 마지막 제차이다. 막도진이라고도 한다. 청해 들인 신들을 하나하나 거명하며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내용의 사설로 노

래를 하고 집안 구석구석에 콩을 뿌리면서 사기를 쫓아내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도진을 마치면 심방은 기주나 그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지 않고 바로 짐을 싸서 떠난다. 이것은 어떤 무속의례에서나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흔히 문전제를 지내지 않고 초감제에 이어 바로 〈칠성본풀이〉를 구연하기도 한다. 물론 문전제를 지내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문전철갈이라고 하지도 않는다.

정월의 문전제나 철갈이는 대개 다른 의례를 겸하여 벌인다. 이에 따라 안택, 칠성제, 멩감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북두칠원성군을 위한 칠성제와 문신을 위한 문전제를 함께 벌일 때는 칠성제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전제를 이어서 지낸다. 이런 경우에는 칠성제를 위하여 차렸던 상을 철변하고 문전제를 위한 상을 다시 차려 진설한다. 멩감과 문전제를 겸할 때도 멩감을 먼저 지낸 뒤에 문전제를 벌인다. 그 집안에 북두칠원성군 · 멩감 · 칠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관련된 의례가 중시되고 문전제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전제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절기가 바뀌는 시기에 의례를 행하여 가정의 행운을 비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업의 풍등을 기원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문전제를 하고 난 뒤에 하는 산받음에서 주요 작물의 풍흉이 주요 관심사임이 드러난다.

여러 의례가 복합되는 양상이 간단치 않다. 여러 의례가 복합되다 보니 정작 문전제 자체는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참고문헌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제주도무속연구(현용준, 집문당, 1986).
필자 강정식(姜晶植)

물부리굿

정의 조선시대에 지냈던 기우제.

내용 물부리는 담배를 재어 불을 붙이는 담뱃대의 한 부분이다. 이곳은 매우 뜨겁고 연기가 난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뭄이 심하고 날씨가 더운 상황이 마치 물부리 같아서 물부리굿이라고 한다. 물부리굿에서 물부리라는 명칭은 연기처럼 안개가 피어오르고,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붙여졌다.

굿을 할 때 무녀들은 짚으로 용을 만들고, 타악기를 시끄럽게 치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원한다. 그런 다음 용을 객사로 맞아들여 모시고 비가 올 때까지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용을 신체로 만들고 있어서 물부리굿이 비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타악기를 치는 것은 하늘을 분노케 하여 비를 내리게 하는 기우제의 모습과 일맥상통한다. 현재는 물부리굿이 행해지지 않고 이름만 남아 있다.

참고문헌 잘돼도 못돼도 다 조상탓(이규태, 조선일보사, 2001), 조선조 무속 국행의례 연구(최종성, 일지사, 2002).
필자 홍태한(洪泰漢)

미닫이

정의 경남 동해안 지역의 무가이자 장단 명칭인 엇청보 2장의 별칭. 미닫이, 즉 엇청보는 경남 동해안 지역의 오구굿에서 주로 쓰는 음악이다. 한 장단이 청보의 다섯 칸을 벗어난 일곱 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엇청보'라 부른다. 이 때문에 '엇자'라는 별칭도 있다.

내용 미닫이는 경남의 남대청보나 경북의 달어청보와 달리 7장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제1장에서 제3장까지는 박자의 변화에 의해 장(章)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목이 올라가는 것(음고와 음역의 변화)에 의해 장을 구분한다. 즉 (♩+♩+♩)×7박을 한 장단으로 하는 엇청보 1장을 3+2+3소박(♩+♩+♩)≒30 정도의 템포로 부르다가 목을 한 번 올리면 이곳부터가 엇청보 2장이 되고, 2장의 템포(♩+♩+♩)≒37을 (♩+♩+♩)≒58 정도로 더 빨리 몰아가다가 목을 한 번 더 올리면 이곳부터 3장이 된다.

이처럼 엇청보 무가는 1장의 낮은 음역에서 시작하여 2장, 3장으로 가면서 음고가 높아지고 음역에 변화가 생긴다. 이러한 변화를 두고 엇청보 2장을 '미닫이', 3장을 '대닫이'라고 각각 부르지만 그 뜻은 분명치 않다.

참고문헌 동해안의 굿음악, 그 전승과 단절의 역사(장휘주, 민속원, 2008).
필자 장휘주(張輝珠)

미친경

정의 원인 불명의 정신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원인을 역신이나 잡귀 · 잡신의 침범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앉은굿으로써 퇴치하는 주술행위.

역사 미친경에서 역신이나 잡귀 · 잡신 등을 구축할 때 무엇보다 『옥추경(玉樞經)』을 독송한다. 원래 『옥추경』은 도교 신소파(神霄派)의 중심 경전으로, 북송 무렵부터 부각되었다. 원말명초에 이르러서는 민간에까지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 『옥추경』이 한국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유입 · 유포되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무경의 제명(題名)이 언급된 최고(最古)의 자료로서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도류(道類)가 옥추경을 독송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유 · 불 · 도와 무속이 공존하던 고려시대에 이미 『옥추경』이 존재하였던 것이다.

특히 '소격서'가 유지되었을 때 『옥추경』에 대한 신뢰와 평가는 대단하였다. 소격서에는 종8품의 상도(尙道) 1명과 종9품의 지도(志道) 1명을 비롯하여 도류 15명이 활동하였다. 도류는 흔히 '도사(道士)'로 불렸으며, 백의(白衣)와 오건(烏巾)을 착용하고 『영보경(靈寶經)』 등의 경문을 외우며 치성을 드렸다. 도류는 국가에서 엄선한 자들이었으며, 취재(取才)에 『옥추경』을 과의(科義) 경문의 하나로 지정하였다. 특히 팔절(八節;입춘, 입하, 입추, 입동, 춘분, 추분, 동지, 하지) 때 초제의식(醮祭儀式)에서 도류들이 『옥추경』을 독송하였다.

국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옥추경』은 『한국고서목록』에 실린 것만 한정해도 최고본인 조선조 선조 3년(1570)에 안심사(安心寺)에서 목판으로 발간한 '안심사판'을 비롯하여 모두 여섯 종이나 된다. 추사 김정희(金正喜, 1786~1856)의 서(序)가 붙은 판본도 전승되고 있다. 그런데 안심사판은 변상도(變相圖)와 경문(經文)이 한 장씩 낙장(落張)된 것을 성균관 진사인 오인(吳認)이 그대로 인간(印刊)한 자료이다. 이후 영조 12년(1736)에 송몽삼(宋夢三)과 서두추(徐斗樞)가 우연히 안심사판에서 낙장한 자료를 입수하고 묘향산 보현사(普賢寺)에서 『옥추경』을 보각(補刻)하여 완본을 만들었다. 오늘날 전승되고 있는 『옥추경』은 보현사판을 원형으로 삼고 있다.

내용 미친경은 점복(占卜)을 통해 획득한 병의 원인에 근거하여 연행된다. 미친경을 연행하는 무당[법사]은 병의 원인 및 치료 방법을 점복을 통해 확인한다. 그리고 병의 원인과 성향을 달리하는 초자연적 · 초인격적 존재와 접촉하는 방법으로 병몰(病沒)을 극복한다. 가령 어떤 병의 원인이 망자의 한(恨)에 기인한다면 망자의 한풀이, 잡귀나 잡신의 침범에 기인한다면 양재(禳災), 금기의 위반에 기인한다면 고백과 기원이 각각 치료 방법이 된다. 병인과 상응하는 논리를 바탕으로 주술적 효과를 기한다고 볼 수 있다. 미친경은 일종의 처방이며, 처방은 위협적 방법으로 병인을 제거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그런데 '점복을 통해 병인을 확인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으로써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주술적 논리에 의한 치병 행위는 이미 고려시대의 왕실에서 공공연히 자행되던 것이었다. 예컨대 이자겸(李資謙, ?~1126)과 같은 정치적 모반자에 대한 책벌이 강화되던 혼란기에 왕이 위독하자 점복을 통해 왕의 병인을 '20년 전에 죽은 이자겸의 망혼'으로 확인하고 이에 대한 상응의 방법으로 이자겸의 처자를 인주로 이주시킨 일이 있었다. 고려조 태조 13년(930)에 서경에 학교를 창설하여

의학과 복학을 가르쳤으며, 인종 연간에는 상약국(尙藥局)과 같은 국립기관에서 의업(醫業)과 주금업(呪禁業)을 전문으로 하는 의관을 배출하였지만 의술의 발달과 관계없이 초자연적인 존재의 개입이나 간섭을 병인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치유의 효과를 기하였던 것이다.

이외 궁궐과 민간에서 망자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불태우는 염승(厭勝)이나 망자의 해골을 성역에 양재 행위를 서슴지 않았으며, 다른 생명체에게 병인을 전이시키는 대수대명(代數代命)을 광범위하게 자행하였다. 오늘날에는 염승이나 양재 또는 대수대명뿐 아니라 목인(木人;木偶)이나 제웅 또는 사귀대로 환자나 병인을 표상하는 흉물을 만들어 태우거나 특정 장소에 매장하는 등 더욱 다양한 주술 행위를 빈번하게 표출하고 있다. 요컨대 점복을 통해 획득한 병인을 저주하여 병몰을 극복하는 것, 곧 저주로써 저주를 막는 대항주술(counter magic) 또는 역주술(revers magic)이 미친경의 핵심적인 진행원리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례 미친경은 앉은굿의 형태로 연행된다. 앉은굿은 전국적으로 전승되고 있지만 특히 충청권에서 집중적으로 전승되고 있다. 앉은굿의 형태로서 미친경의 '병인의 확인과 제거'라는 두 축을 고수하며 연행되었던 충청권 미친경의 연행 양상을 도표로 정리하면 〈표1〉과 같다.

이들 자료의 전개 양상을 연행의 형태에 따라 1.안택-미친경-안택, 2.축원-미친경-해원, 3.안택+축원-미친경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의 형태가 미친경의 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충북 제천의 염의춘이 주재한 병굿이 1의 형태를 대표한다. 대전광역시의 신석봉이 주재한 미친굿도 안택-미친경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후반부의 안택을 생략한 것이기 때문에 1의 형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미친경과 결부한 안택은 전형적인 안택의 의미와 전혀 다르다. 안택의 원래 목적과 의미가 가신의 축원에 있다면 미친경에 선행하는 안택은 본격적인 의식에 앞서 우선 가신에게 미친경의 진행을 고하여 축원을 획득하는 동시에 가정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하기 위한 일시적인 혼란이므로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는 의미가 더욱 지배적이다. 미친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차(祭次) 2일의 염의춘의 병굿과 신석봉의 미친굿은 모두 신장을 청배하고, 신장을 부려 병인을 제거하는 양재로 이어지고 있다. 환자의 상태 내지 점복을 통해 획득한 병인의 성향에 따라 양재의 구체적인 행위를 대수대명으로 할 것이냐, 화전치기로 할 것이냐는 것이 상이할 뿐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하다. 한편 후행하는 안택은 가신에게 미친경이 끝났음을 고하는 동시에 다시는 이러한 재액이 없기를 바라는 축원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2의 형태는 3일굿[오좌(五座) : 2박3일]으로서 미친경의 전형성을 띠고 있지만 현실 여건상 재가집에서 직접 연행하지 못하고 굿당에서 연행한 미친경이었기 때문에 선행해야 할 안택은 축원[축원경(祝願經)], 후행해야 할 안택은 해원[조상경(祖上經)]으로 각각 대체하고 있다. 안택을 통해 가신을 축원하여 병몰을 극복하는 대신에 미친경을 주재할 주체로서 제자법사를 스승법사가 축원해 줌으로써 의식의 전 과정에서 제자법사의 주술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무속적 관념의 표출로 볼 수 있다. 또한 환자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조상의 원을 풀어주어 그들의 신조를 얻고, 이에 따라 병몰을 극복하려는 이중적 조치로서 조상경을 연행한다. 안택을 대신하여 축원이나 해원이 미친경의 핵심적인 연행에 선·후하여 포진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 굿당에서 치러지는 미친경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

3의 형태는 1의 축소형 내지 변이형이라고 할 수 있다. 충남 태안의 조부원이 주재한 귀신착수가 3의 형태에 해당한다. 이 굿은 실연이었지만 시연의 공간에서 연행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당일양재(當日禳災)라는 축소형 내지 변이형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었으며, 개별 거리의 조합에 의해 가신을 일일이 청배하여 축원하는 온전한 형태의 안택이 아니라 가택축원이라는 별개의 형태로서 『안택경축원문(安宅經祝願文)』을 독송하여 가신의 축원을 일거에 획득하고 있다. 그리고 『신장축원문(神將祝願文)』을 반복 독송하여 신장을 축원함으로써 가택축원이 갖는 안택으로서의 한계를 신장의 신조를 얻어 보충하고 있다. 또한 영가축원·사자축원·길닦음 등 3~5석에서 망자와 사자를 축원하는 동시에 망자의 길을 닦아줌으로써 이들의 신조를 얻고, 이렇게 함으로써 병몰을 극복하고자 한다. 그런 이후에야 본격적인 귀신착수가 이루어짐으로써 검무, 화전치기, 신장봉양, 신장대가름, 귀신착수, 백살풀이, 퇴송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양재 행위가 매우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이상의 내용을 다시 연행 상황에 따라 대별하면 실연과 시연의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실연의 형태는 재가집 연행과 굿당 연행으로 나눌 수 있다. 1이 실연의 형태로서 재가집 연행이며, 2가 실연으로서 굿당 연행이며, 3이 시연의 형태이다. 이와 같이 현장의 종합적인 상황에 따라 연행 형태가 달라진다. 그렇지만 어떠한 형태를 취하든, 이것은 3단 구성[처음-중간-끝]을 취하고 있다. 현장의 여러 제약조건을 극복하는 동시에 치병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효과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미친경의 가장 적절한 구성법이라고 할 수 있다.

미친경은 무경의 독송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제장 주위에 둘러치는 다양한 문양의 설경(設經), 문복(問卜)에 의한 대가름, 모의행위로서 의 양재 등 직접적이고 격렬한 주술 행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자료의 실체를 왜곡하는 "미친경은 법사가 무경을 읽는 단순한 형태의 굿이다", "미친경은 신장을 불러와 사귀를 위협하는 일종의 푸닥거리이다"라는 식의 오해를 현장을 통해 풀어낼 수 있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五洲衍文長箋散稿, 朝鮮王朝實錄, 충청도 무가(김영진, 형설출판사, 1976), 조선도교사(이능화, 이종은 역, 보성문화사, 1977), 중국도교사(임계유, 상해인민출판사, 1990), 도령부신연구(김영진, 민속원, 1992), 계룡산 굿당 연구(구중회, 국학자료원, 2001), 충북의 무가·무경(이창식 외, 충북학연구소, 2002), 한국의 굿(하효길 외, 민속원, 2002), 충북의 민속문화(이창식, 푸른사상, 2003), 충청 지방의 미친굿(이필영, 샤머니즘연구 1, 한국샤머니즘학회, 1999), 충청도 앉은굿 무경 연구(안상경,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필자 이창식(李昌植)

〈표1〉

	충북 제천시 염의춘 본			대전광역시 신석봉 본			충남 태안군 조부원 본			충남 청양군 임철호 본		
명칭	병굿(1998)			미친굿(2000)			귀신착수(2001)			병경(2004)		
제차 1일	안택굿	1석	조왕굿	안택굿	1석	조왕경	귀신착수	1석	부정물림	축원경	1석	제자축원
		2석	터주굿		2석	당산경		2석	가택축원		2석	환자축원
		3석	성조굿		3석	칠성경		3석	영가축원		-	-
		4석	제석굿		4석	용왕경		4석	사자축원		-	-
		5석	조상굿		5석	성주경		5석	길닦음		-	-
		-	-		6석	조상경		6석	검무		-	-
제차 2일	병굿	1석	신장청신경	미친굿	1석	신장청신경		7석	화전치기	병경	1석	신장봉청
		2석	신장대가림		2석	신장축사경		8석	신장봉양		2석	신장축원
		3석	신장축사경		3석	신장대가림		9석	신장대가름		3석	신장축사
		4석	역신잡이		4석	귀신잡이		10석	귀신착수		4석	축귀진언
		5석	대수대명		5석	화전치기		11석	백살풀이		5석	고풀이
		6석	백살풀이			-		12석	퇴송		6석	내전풀이
		7석	신장송신경			-			-			-
제차 3일	안택굿	제차1일과 동일 진행		-	-		-			조상경	조상해원	

바라지
바라춤
바리공주
박경자
박꽃
박병원
박병천
박수(博數)
박용녀
반야용선(般若龍船)
발뼈드래
뱀이춤
뱀섬부군당도당굿
방석환령어
방앙이떡
방울떡
백련화(白蓮花)
백마장군(白馬將軍)
백학(白鶴)
벅구춤
범일국사(梵日國師)(泛日國師)
법사(法師)
법수선원 산신도(法水禪院 山神圖)
벙거지떡
베포도업춤
별기은(別祇恩)
별상춤
병굿
본향(本鄕)
본향당굿
본향상
본향춤
봉등채
봉죽
봉화산도당굿
부군(府君)
부정(不淨)
부정상
부정풀이
불도맞이
불보살번(佛菩薩幡)
불사맞이굿
불사상
불사할머니
비래쟁이
빈순애
빙의(憑依)

바라지

정의 무속신앙에서 무녀가 굿을 할 때 장단을 도와주는 일이나 무가(巫歌)의 선율(旋律)을 받아서 대선율(對旋律)로 응답하는 일.

내용 바라지는 다른 사람을 도와서 뒷바라지한다는 말인데 무속에서의 바라지는 무녀의 생활 일체를 뒷바라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라지는 일반적으로 무가를 되받아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방에 따라서 '만수받이'라고도 하고 '살대답'이라고도 한다.

만수받이는 무가의 일종으로 경기도 북부와 서북부 지방 굿에서는 신을 청할 때 하는 청신 절차에서 부른다. 굿을 할 때 입무(立巫)가 선소리를 메기면 고수인 좌무(坐巫)가 장고를 치며 그 선소리에 따라 되받아 간다.

전라도 지방의 굿에서는 대선율형의 바라지가 많으나, 제주도 지방의 굿에서는 드물다고 한다. 특히 지방에 따라 명칭과 쓰이는 장단이 조금씩 다른데, 경기 서북부 지방에서는 청신 절차에 무당이 한 장단 또는 두 장단을 메기면 기대가 "아왕임금 만세야." 라 하기 때문에 만수받이라는 곡명을 쓴다. 경기도 북부 굿에서는 조금 빠른 굿거리 장단으로 무당이 한 장단을 메기면 그대로 받는다. 황해도 굿에서는 만수받이를 만세라고 하여 장단에 따라서 긴만세 · 자진만세 · 산유만세로 구분한다. 평안도 굿에서는 늦은 굿거리 장단형으로 된 푸념 장단이 만수받이에 해당한다.

무당사회에서 바라지는 반주를 의미하는데, 바라지는 원바라지와 옆바라지로 나누기도 한다. 원바라지는 장구잽이를 의미하며 옆바라지는 장구 이외의 잽이를 의미한다.

참고문헌 새로 쓴 한국무속(최길성, 아세아문화사, 1999). 한국민속문화대사전(김용덕, 창솔, 2004).

필자 최명림(崔明林)

바라춤

정의 세존굿에 추는 춤.

내용 세존굿은 자식을 점지하고 명복을 비는 굿이다. 바라춤은 바라를 양손에 들고 돌며 앉거나 서서 추는 춤으로, 49재 때 바라를 치면 극락문이 열린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덩덕궁이 장단에 맞춰 잡귀와 잡신을 물리치고, 자식을 낳게 하며, 자식의 무병장수나 복을 기원하기 위한 춤이다.

필자 백현순(白鉉順)







바라춤
1980 | 국립민속박물관

바리공주

정의 한국의 망자천도굿인 서울 지역 진오기굿의 말미거리, 호남 지역 씻김굿의 오구풀이거리, 동해안 지역 오구굿 발원굿에서 구연되는 장편서사무가. 지역에 따라 바리데기, 비리데기라고도 부른다. 원래는 서사무가의 주인공 이름이지만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서사무가 각 편의 대표적인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내용 바리공주는 서울 지역에서 부르는 명칭으로, 호남이나 동해안 지역에서는 바리데기라 부른다. 망자의 영혼을 저승으로 천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높이 받드는 의미에서 바리공주라 부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90여 편의 각 편이 채록 · 보고되어 있어 전승 양상을 알 수 있다. 지역에 따라 편별로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서사 단락은 동일하다. 1)바리공주 부모가 혼인을 한다. 2)바리공주 부모가 연이어 딸을 낳는다. 3)일곱 번째도 공주를 낳는다. 4)바리공주가 버림을 받는다. 5)바리공주 부모가 병에 걸린다. 6)바리공주 부모의 병에 필요한 약이 약수임을 알게 된다. 7)바리공주가 부모를 만난다. 8)여섯 딸들에게 부탁하지만 딸들은 모두 핑계를 대고 거절한다. 9)바리공주가 약수를 구하러 길을 떠난다. 10)바리공주는 약수를 지키는 이를 만난다. 11)바리공주는 약수를 얻기 위해 일정한 대가를 행한다. 12)바리공주가 부모를 살려낸다. 13)바리공주가 부모를 살린 공을 인정받는다. 이것이 바리공주 무가의 기본 내용이다.

이러한 〈바리공주〉 무가에는 한국인의 내세관, 영혼관, 저승관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저승과 현실이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공간관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버림받은 딸이 부모를 위해 희생하고 있어 한국인의 효(孝)관념이 드러나며, 효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심청과 다른 의식이 담겨 있다. 심청이 왕후가 된 다음에 자신의 아버지를 직접 찾지 못하고 울기만 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약수를 구해 온 바리공주가 부모의 상여를 보고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달려가는 모습에는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족관계보다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관계를 중시하는 의식이 드러난다.



바리공주 무신도
서울시 창신동 | 1960.8 | 장주근

지역사회 〈바리공주〉 무가는 지역별로 세부적인 단락에서 차이를 보인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리공주〉 무가는 크게 북한본, 중서부본, 동해안본, 호남본 등으로 나뉜다. 북한 지역에서는 바리공주의 부모가 하늘에서 땅으로 귀양온 것으로 나타나며, 자식을 낳지 못한 바리공주 부모가 자식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장면과 약수를 구해 온 바리공주가 죽는 장면이 있어서 내용에 차이가 있다. 또한 망자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바리공주의 위상이 약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한편 서울 · 경기 · 충청도가 속해 있는 중서부 지역은 바리공주의 여섯 언니가 태어나는 장면을 지루할 정도로 반복하고 있는 점, 바리공주를 구해 주는 인물로 '비리공덕 할아범'과 '비리공덕할멈'이 등장하는 점, 바리공주가 약수 지킴이인 '무장승'을 만나 천생 배필이 되는 점 등이 특징이다. 이러한 중서부본의 모습은 제의성(祭儀性)을 강하게 드러내는 이본으로, 망자의 영혼을 저승으로

지역본	부모의 이름(신분)	주인공의이름(신분)	배경
북한본	덕주아 · 수차랑 (양반)	바리덕이 (불명확)	양반집인 듯
중서부본	엽비대왕마마(왕)	바리공주 · 바리데기(공주)	궁궐임을 분명히 묘사
동해안본	오귀대왕 · 길대 부인(왕) 천별산 대장군 · 검탈에 병오 (뚜렷하지 않음)	버리데기(공주) 비리데기(미상)	궁궐(분명한 묘사 없음)
호남본	오구대왕님 · 길대 부인(왕) - 왕인지 불명확한 경우도 있음	버르댁이(공주) -공주인지 불명확한 경우도 있음	궁궐(분명한 묘사가 없는 경우도 있음)

인도하는 바리공주의 모습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동해안본은 오락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단락이 발달되어 있다. 약수 지킴이로 '동수자'가 등장하는 장면, 남장(男裝)을 하고 약수를 구하러 간 바리공주를 여성으로 눈치챈 동수자가 여러 차례 바리공주의 여성 신분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장면, 약수탕에 가서 바리공주가 약수를 구해 오는 장면 등에서 유희적 면모가 명확하게 보인다. 특히 바리공주 부모가 일곱 딸을 낳는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이 등장하기도 하여 오락성과 놀이성을 강하게 내비친다.

호남 지역은 지역별로 세부 단락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하위 권역을 설정할 수도 있다. 약수를 구하러 갈 때 여느 지역과 달리 남장을 하지 않으며, 약수를 구해 돌아온 이후의 내용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다. 이러한 편차는 등장인물 및 배경에서도 보인다.

이러한 각 무가권 이본의 특징을 바탕으로 〈바리공주〉 무가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고찰하면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천도굿에 설화 및 신모(神母) 신화의 영향을 받아 〈바리공주〉 무가 기본형이 성립되고, 여기에서 다시 제의축과 놀이축이 강조되는 쪽으로 무가가 발달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제의축이 강조된 〈바리공주〉 무가는 주로 중서부 지역 무가권에 분포되어 있으며, 궁중의 무속 수용과 함께 엄숙성을 유지하며 발달해 갔다. 놀이축이 발달한 동해안 경상도 지역의 〈바리공주〉 무가는 판소리의 영향을 받아서 장편화 경향을 띠며 전개되어 갔다. 이에 따라 제의성에 충실하면서 망자천도굿의 목적을 명확히 드러내는 중서부본이 기본형이고, 호남본은 축소형, 동해안본은 놀이성에 맞춘 확장형, 북한본은 결말 부분에서 바리공주가 죽는다는 점에서 변이형으로 볼 수 있다.

의의 〈바리공주〉 무가는 전국적인 전승 양상을 보이는 서사무가이다. 따라서 각 편의 서사단락 분석을 통해 무가권 구획이 가능하다. 현재 이루어진 무가권 구획이 '무당의 유형', '무속음악권'과 일치하는 점에서 〈바리공주〉 무가의 전승이 무당과 음악이라는 무속의 큰 틀과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 준다.

〈바리공주〉 무가에는 수직적 세계와 수평적 세계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 여느 서사문학과 달리 〈바리공주〉 무가에서는 지옥이 수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일상세계에서 수평으로 이동하면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지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바리공주〉 무가의 서사단락이 전개됨에 따라 공간은 궁궐에서부터 산중, 바리공주를 버리는 장소인 황천강으로 확장되고 마침내 비일상적 공간인 지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또 공간 확장과 함께 문제가 새롭게 발생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오구대왕이 자식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계속 딸을 낳음으로써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바리공주를 버림으로써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여 마침내 누군가가 약수를 구해와야만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바리공주는 서천서역국으로 떠나가는 제의적인 죽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서천서역국은 일상의 시간 질서가 소거되고 비일상적인 시간 질서로 대체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문제는 바리공주가 비일상적 공간인 서천서역국에서 약수를 구해옴으로써 해결된다. 이러한 구조는 존재의 근원을 비일상적 세계(카오스)에 두고 있는 원본사고에 기반을 둔 것이다.

또한 〈바리공주〉 무가는 사건의 진행과 동시에 바리공주가 사건 진행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혼인으로 맺은 가족관계보다 태어나면서 맺은 혈연관계를 우선시하는 모습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바리공주의 결말 부분에 재생을 축원하는 사설은 바리공주가 죽음의 제약에서 벗어나려는 욕구를 드러낸다. 〈바리공주〉 무가에는 남성중심적 사고 방식과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욕망 및 한계가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욕망과 한계는 여성이 지니고 있는 모성적 가치로 표현되어 신모신화의 흐름을 계승하고 있으며, 남성중심의 세계에서 여성이 겪는 고난을 표현한 여성수난담의 전통을 문학사에 나타나게 했다.


1


2


3

1. 양주지노귀굿 바리공주
국립민속박물관

2~3. 국사당 지노기굿 바리공주
말미
서울시 종로구 무악동 국사당 | 1970.10 | 장주근

참고문헌 서사무가 바리공주 전집 1, 2, 3, 4(홍태한 외, 민속원, 1997~2001), 서사무가 바리공주 연구(홍태한, 민속원, 1998).

필자 홍태한(洪泰漢)

박경자

분야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43호 세습무. 순천삼설양굿, 여수영당풍어굿, 전통민속예술무속굿 보유자.

내용 박경자(朴鏡子, 여)는 1931년에 전남 순천시 낙안면 창녕리 간원에서 출생했다. 본명은 박서운이다. 호적에는 1933년생 박경자로 되어 있다. 아버지 박동실과 어머니 김순임 사이에서 1남 3녀 중 첫째 딸로 태어났다.

친정 집안은 낙안면 일대에서 대대로 세습무로 활동해 온 무계집안이지만, 형제자매 중 무업을 이은 사람은 박경자가 유일하다. 아버지 박동실은 같은 무계 집안인 김순임과 결혼하였지만 실제로 무업에 종사하지는 않았다고 하며, 17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간단한 비손 등의 무업을 해서 생계를 꾸려갔다고 한다. 당시 마을사람들에 의하면 박경자의 친정 할머니인 서씨 할머니(달성 서씨)가 굿을 매우 잘했다고 하며, 박경자는 자신이 친정 할머니의 정기를 이어받은 것 같다고 말한다. 실제로 서씨 할머니의 형제들은 순천과 경기도 등지에서 단골판을 세습했던, 인근에서 알아주는 세습무였다고 한다.

박경자는 28세 때 같은 세습무계 출신인 김순태와 결혼하였다. 시아버지 김세원은 무안 출신으로 본래 무계 출신이 아니지만 벌교의 무계 집안 딸 박태심과 결혼하면서 무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김세원은 9남매를 두었다. 그중 무업을 이은 자식이 아들인 김순태와 딸인 김영순(곡성 무계집안 출신인 성판수와 결혼)이다.

본래 박경자는 친정이 무계이지만 결혼하기 전까지 굿을 배우지 않았고 결혼 초기에도 굿을 할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남편이 유랑극단 생활을 하면서 이리저리 떠돌기만 하고 가정경제에 등한시하자 결국 생활과 때문에 굿판에 뛰어들게 되었다. 박경자의 시어머니가 큰굿을 하지 못하고 간단한 비손만 할 줄 아는 정도였기에 박경자는 시어머니에게서 굿을 배우지 못했다고 한다.

박경자가 처음 굿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 29

세 때 큰딸을 낳고 나서였다. 우연히 장롱 위를 청소하다가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남긴 무가집을 보고 흥미를 느끼면서부터였다. 초기에는 무가집을 보면서 스스로 익힌 것을 토대로 간단한 비손 정도를 했다. 이후 32세 무렵에 시어머니가 굿을 제대로 하려면 '치국말'부터 배워야 한다고 해서 인근 상사면에서 활동하고 있던 이덕완의 부인에게 '치국말'을 배우는 것으로 학습을 시작했다. 이후 시부모가 가지고 있던 옥천동의 단골판을 팔고 대룡동의 단골판을 쌀 15말을 주고 사서 들어온 뒤부터 본격적으로 무업에 들어섰다. 박경자는 누구에게 대놓고 굿을 배운 적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시누이(성관수의 부인 김영순)와 이순임(선일출의 부인, 장산부락판 소유)의 굿을 쫓아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익히며 자연스럽게 굿을 학습하게 되었다고 하며, 이 외에도 순천 별량면에 살던 고흥 출신의 박모씨 및 김모씨 등과도 함께 일을 하면서 굿을 배워나갔다.

초기에 박경자가 굿판에서 한 일은 무구로 쓸 지화(紙花)를 만드는 정도였지만, 점차 굿에 재미를 느끼면서 어렵지 않게 굿거리를 익혀 나갈 수 있었다. 처음에는 선배 단골들이 조왕굿이나 고를 풀라고 시키면 그때마다 한 거리씩 해보면서 굿을 익혀 나갔고, 이후에 점차 다양한 굿거리를 하나씩 해나가면서 점차 큰굿 전체를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렀다. 남편 김순태는 젊어서부터 소리꾼들을 따라다니면서 고수 생활을 했다. 현재하고 있는 북반주도 매형인 성관수에게서 배운 실력이다. 결혼 후에 내내 유랑극단 생활을 하며 떠돌다가 50세 무렵이 돼서야 부인 박경자의 굿판에 고수 노릇으로 가정에 정착했다. 한편 굿에 대한 기량이 별로 없었고 일찍 돌아가신 탓에 시어머니에게서 배울 기회는 없었지만 시어머니가 쓰던 신칼과 정쇠 등은 그대로 물려받아 사용했다. 한편 현재 굿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몇 년 전에 새로이 만든 것이다.

박경자는 순천의 큰 단골들과 함께 여러 종류의 전통적인 굿을 전승해 왔다. 지금은 세습무계 악사와 단골이 대부분 작고한 상태여서 박경자가 유일하게 순천의 굿을 제대로 전승하고 있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는 여수영당풍어굿으로



씻김굿(삼설양굿) 공연
전남 순천시 팔마공원 | 2007.10.20 | 한미옥

개인상을 받았고, 매년 열리는 여수 진남제에서 영당풍어굿과 거문도풍어굿 등 지역축제에 참여해 굿을 하고 있다. 특히 전라도 동남부 지역에서 전승되는 삼설양굿은 박경자가 옛 방식대로 전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런 활약상을 인정받아 2008년에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43호로 지정되었다.

박경자는 젊은 시절 단골이라며 받았던 멸시와 천대를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어려웠던 시절을 거쳐 자식들을 지금의 모습으로 키울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자신이 떳떳하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뒤를 이어갈 후계자가 없어서 고민이다. 몇 년 전에 신내림을 받은 막내 딸 김명희가 엄마의 굿을 이어가겠다고 나서서 배우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후계자는 없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무구-전라남도 · 전라북도 · 제주도 편(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굿의 현장에서 본 씻김굿 무가(이경엽, 박이정, 2000), 필자 2009년 현지 면담조사 자료.
필자 한미옥(韓美玉)

박꽃

정의 동해안별신굿이나 동해안오구굿에서 제단에 올려놓는 박꽃 모양의 지화.

형태 박꽃은 허드레꽃(막꽃)과 비슷하게 생겼다. 염색된 종이를 주름잡아 둥글게 한 다음 층층이 쌓아 올려 만든다. 박꽃이나 허드레꽃이나 주름잡는 것은 같으나 박꽃에는 화지 40장, 허드레꽃에는 20장을 사용한다. 사용되는 도래는 가장 큰 것 하나뿐이다. 외도래꽃(꽃잎의 지름이 단 하나인 꽃)인 셈이다.

내용 박꽃이 허드레꽃보다 정성이 조금 더 들어가는 셈이지만 박꽃 자체에 큰 비중은 없다. 박꽃을 잘 만들지 않는데, 굿당 안에 진설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주로 당에 진설된다. 박꽃의 꽃도래(꽃잎의 지름)와 작화(作花) 기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꽃도래

지름 9㎝의 꽃잎 40장을 물들인 다음 6등분하여 중심에서 3㎝를 남기고 자른다.

2. 작화 기법

1) 6등분한 꽃도래를 둥글게 굴려 준다.
2) 박꽃틀(박꽃을 만드는 틀)을 가로로 놓고 꽃잎을 감싸주며 돌린다.
3) 말은 꽃잎을 그대로 붙잡고, 틀을 땅에 대고 상하로 힘껏 눌러주면 주름이 잡힌다.
4) 완전히 눌러준 후 틀을 빼내고 모양이 잘 잡히도록 한참 둔다.
5) 한 장씩 떼어서 꽃목대(꽃잎을 끼워 넣기 위해 길이 15~20㎝와 폭 0.3㎝의 대나무로, 꽃잎을 고정하기 위해 반드시 대나무의 마디가 있음)에 끼운다.
6) 꽃받침을 끼우고 가물지(지화를 완성하고 잎사귀를 붙일 때 쓰는 종이)로 말아가며 잎사귀를 붙인다.



박꽃(김씨조상굿)
강원 강릉 대관령산당 | 2007.5.12~13 | 윤동환

참고문헌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경상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한국 전통 꽃일에 관한 연구(오춘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동해안 무집단 지화의 문화적 의미(윤동환, 한국무속학 13, 한국무속학회, 2006).
필자 윤동환(尹東煥)

박병원

분야 중요무형문화재 제72호 진도씻김굿의 장구부문 예능보유자.

내용 박병원(朴秉元, 남)은 1945년에 전남 진도 의신면 송정리에서 박남준과 함양화 사이에서 3남 4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박병원은 조부인 박종삼이 젓대의 명인 박종기와 사촌 간으로서 대표적인 세습무계 출신이다. 부친 박남준의 형제인 동준, 서준, 북준 역시 예능에 뛰어났다. 특히 백부인 박동준은 협률사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부친인 박남준은 장구, 피리, 가야금을 다루는 무악의 고인(鼓人)이었다. 박남준은 진도의 대표적인 세습무였던 박선내의 굿판에 참여하였으며, 굿판의 리더 역할을 하다가 1961년에 작고하였다. 모친 함양화의 친정은 지산면 와우리이다. 함양화의 친정은 무업을 하지 않았으며, 부농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진도의 대표적인 세습무에 속하는 함제관과 팔촌간임을 고려할 때 무계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모친은 원래 굿을 하지 않았으나 부친과의 사별 후에 집안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 쌍정리에서 단골판을 사서 무업을 시작하였다. 모친이 판을 잡는데 박선내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박병원은 진도읍 북상리에서 8세까지 살았으며 이후 13세까지 진도읍 성내리 제진관에서 살았

다. 제진관의 전신은 진도 신청이었다. 당시 국악하는 사람들의 회합장소이자 국악을 가르치는 장소이기도 했다. 당시에 제진관을 출입한 인물은 이병기, 정의현, 양태옥, 박복남, 한을용 등이었다. 제진관에서의 경험이 박병원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화적 토양이 되었다고 한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당시 결혼한 누나 박해숙이 살고 있던 해남으로 가서 해남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녔다. 박해숙 역시 예능에 능하여 국악인으로 활동하였다고 한다. 예능적 자질이 뛰어났던 박병원은 고등학교 밴드부에 가입하여 드럼, 색소폰, 앨토색소폰을 담당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제주도의 클럽에서 밴드 주자로 약 5년간 활동하다가 건강이 좋지 않아 진도로 옮기게 된다. 제주도에서 생활하던 1979년에 광주에서 만난 이덕순(李德順, 1954)과 결혼하여 2남 2녀를 두었다.

진도로 이주한 후에 채계만이 진도씻김굿 전수생을 권유하여 진도에 정착하게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굿판의 악사로 참여하였다. 당시 진도에서는 굿판이 매우 활발했다고 한다. 처음에 굿판에 참여한 것은 진도읍 수역리의 곽머리씻김굿이었다. 수역리는 모친의 굿판이었으며, 한을용 · 박창집과 함께 참여하였다. 박병원은 장구, 한을용은 피리를 담당하였다. 어머니의 판이었지만 실제 무녀는 귀태네 어머니가 맡았다고 한다.

박병원은 굿판에서 북 · 장구 · 아쟁 등을 담당하며, 근래에는 굿판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2001년 11월에 채계만을 승계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진도씻김굿의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자식 중 차남이 국악을 전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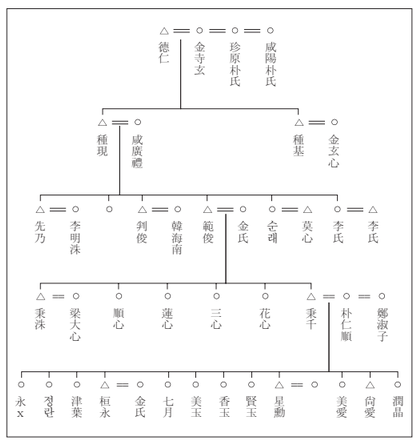
참고문헌 진도씻김굿(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진도 세습무 박씨가계도 재구성 연구(박미경 · 박주언, 민속원, 2007), 진도군지(진도군지편찬위원회, 2007).
필자 이옥희(李玉姬)

박병천

분야 중요무형문화재 제72호 진도씻김굿 악사 예능보유자.

내용 박병천(朴秉千, 남)은 1933년에 전남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의 박범준과 김소심의 2남 3녀 중 넷째(차남)로 태어나 2007년 향년 74세로 세상을 떠났다. 진도지방에서 굿을 했던 세습무 집안은 강(姜), 김(金), 노(盧), 박(朴), 안(安), 양(梁), 이(李), 진(陣), 채(蔡), 최(崔), 한(韓), 함(咸) 등 12개 성씨 집안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중 지산면 인지리에서 활동하다가 후에 서울에서 진도씻김굿과 진도북춤을 선보이며 활발한 활동을 했던 박병천은 진도 세습무계를 대표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진도의 박씨 집안은 누대에 걸쳐 진도에서 무업에 종사하면서 예능 활동을 해왔다. 박병천의 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박병천은 1952년 목포상선전문학교를 졸업한 뒤에 1960년부터 진도고등학교 농악강사, 국악협회 진도지부장, 진도국악원장, 사단법인 민속놀이진흥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다. 18세 때부터 판소리 명인 박동준에게 가야금을 배웠고, 30세 때에는 살풀이의 명인 이매방에게 무용을 배웠다. 진도들노래(남도들노래)와 강강술래를 지도하거나 진도 만가 등 대부분의 진도 민속연희에 연출



박병천 공연장면
서해숙



가 또는 안무가로 참여하였다. 제1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는 진도 만가 선소리로 문공부 장관상을 받았다. 1980년 11월 17일 진도씻김굿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예능보유자가 되었다. 서울의 집(코리아하우스) 악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진도씻김굿의 가락, 소리, 춤 외에 진도북춤의 명인으로도 널리 이름을 떨쳤다. 특히 한국예술종합학교에 객원교수로 임용되고, 영암의 대불대학에 국악학과를 설립하여 석좌교수로 활동하면서 후학들에게 예능을 전수하였다.

1981년 국제민속예술제 초청 유럽 6개국 순회 공연, 1984년 LA올림픽 개막축제 공연, 1985년 베를린 국제민속음악제 국가대표 유럽 7개국 순회 공연 등 해외에서 공연을 하였다. 1984년에는 니카라과 민속음악제에서 금상을 받았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 '화합' 협동안무, 1990년 LA아 · 태지역 토속신앙 페스티벌 공연, 1994년 아시아 소사이어티 초청 공연 '진도씻김굿' 미국 순회공연, 1999년 독일 · 오스트리아 · 이탈리아 유형문화 전시 · 무형문화재 공연, 독일 세계문화의 집 초청공연, DMZ－2000 백남준 비디오 씻김 공연 지도 및 출연을 하였다. 이후 2005년 러시아 나라음악 큰잔치 공연, 2006년 몽골제국 건국 800주년 기념공연, 2007 한 · 베트남 수교 15주년 기념공연 등 해외공연을 주도하였다. 음반으로는 〈박병천의 구음다스름〉, 〈한국의 슬픈 소리〉, 〈진도씻김〉, 〈강강술래〉 등이 있다. 이처럼 그는 대외활동을 통해 진도씻김굿에 대한 민속문화적 가치 함양과 함께 무속음악에 대한 지평을 넓히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참고문헌 진도군지(진도군지편찬위원회, 심미안, 2007), 진도 세습무 박씨가계도 재구성 연구(박미경 · 박주언, 민속원, 2007), 호남의 곽머리씻김굿(나경수 외, 민속원, 2009).
필자 서해숙(徐海淑)

박수(博數)

정의 남자 무당을 일컫는 말.

내용 박수는 한자로 박수(博數)로 표기되며, 한자어 박사(博士)나 복사(卜師)에서 와전된 것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박수는 알타이어를 사용하는 여러 민족이 남무를 부르는 명칭과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만주어에서는 faksi, 나나이 어에서는 paksi, 어원키 어(또는 에벤키 어)에서는 baksi, 몽골 어에서는 baksi 혹은 balsi, 터키 어에서는 baksi, 키르기스 어에서는 baksa로 불린다.

박수는 맹인이 아닌 남자 무당을 일컫는데, 경기도 · 충청도 · 강원도 등지에서 부르는 호칭이다. 경기도 수원 지방과 동해안에서는 남무를 화랑이라고 하며, 동해안에서는 양중이라고도 한다. 양중은 남해안에서도 사용되는 호칭이며, 평안도에서는 훈장이라고 부른다. 제주도에서는 심방이라고 부른다. 맹인인 남성 무당의 경우에는 경문쟁이, 경장, 경객, 경사, 송경 혹은 복술, 복사, 문복쟁이, 점사로 불리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발장, 축사, 신장, 장임이라고도 불린다.

참고문헌 조선무속의 현지연구(秋葉隆 著 · 최길성 역, 계명대학교출판부, 1987), 한국무속연구(김태곤, 집문당, 1995), 샤마니즘(미르치아 엘리아데, 까치, 1998), 조선무속고(이능화, 동문선, 2002), 한국의 굿(하효길 외, 민속원, 2002), 한국민속학개설(이두현 외, 일조각, 2006).
필자 강정원(姜正遠)

박용녀

분야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굿 부문 예능보유자.

내용 박용녀(朴龍女, 여)는 삼대째 내려온 강릉의 무당집안 출신 강신무로서 강릉단오제굿 부문 예능보유자였다. 굿을 잘 할뿐 아니라 인품이 좋은 무당으로 유명했다. 태백산에서 수도한 조부 박동불(또는 박등굴)은 신력이 뛰어나 강릉에서 유명한 무당이었고, 박용녀의 어머니도 무녀였으나 젊은 나이에 사망했다. 1912년에 태어난 박용녀는 13살에 때 무병을 앓아 18세 때 내림굿을 받은 뒤 조부 박동불에게 무업을 배웠다. 강릉단오제굿에는 22세부터 참가했다. 박용녀는 강릉단오제굿의 당주무로서 정기적으로 대관령에 올라가 국사성황을 모셨다. 박용녀는 굿을 하는 한편 집에 신당을 꾸며 놓고 손님을 받아 명두점을 쳤다.

박용녀의 무가로는 강릉단오굿 채록본이 남아 있다. 자료에 따르면 부정굿 노래, 축원굿 노래, 조상굿 노래, 당고마기 노래, 성주굿 노래, 군웅장수굿 노래, 심청굿 노래, 칠성굿 노래, 지신굿 노래, 손님굿 노래, 제면굿 노래, 꽃굿 노래, 등굿 노래 등이 있다. 채록본에는 세존굿, 성주굿, 심청굿, 손님굿 등 서사무가를 비롯한 중요한 무가가 모두 채록되어 있어 큰 무당의 면모를 알 수 있다. 1976년 6월 30일에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굿 부문 예능보유자로 지정된 박용녀는 강릉단오제굿의 발전과 전승에 힘을 기울여 오다가 1989년에 생을 마감했다.

박용녀의 대를 이어 무업을 하는 직계 자손은 없다. 그러나 유명한 양중이었던 남동생 박유관과 역시 세습무가 출신의 강신무 사화선 사이에 태어난 조카 박금천(1953)이 강릉단오제굿 부문 전수교육조교로 뒤를 잇고 있다.

참고문헌 강릉단오제 실측조사보고서(문화재관리국, 1994), 동해안굿의 전승과 변화(윤동환,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필자 황루시(黃縷詩)

반야용선(般若龍船)

정의 불교에서 차용한 무속 용어로 굿을 받은 망자가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 타고 간다는 배. 종이



반야용선(동해안)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일광해수욕장 | 2005.10.1 |
김형근

등으로 만들어 굿에 이용한다. 불교의 반야용선은 사바세계에서 피안(彼岸)의 극락정토로 건너갈 때 타고 간다는 상상의 배이다.

형태 용선이므로 용과 배의 형상이 결합된 형태로 만든다. 대나무 가지로 배 모양을 만들고 한지를 이용하여 배의 형상을 만든다. 색지나 물감을 써서 화려하게 장식하는 가운데 종이를 이용하여 용의 머리를 만들고, 용선의 등 부분에는 선실을 만든다. 겉면에는 종이로 오려진 팔보살을 덧대기도 한다. 동해안에서는 지화도 꽂아 장식한다. 일반적으로 반야용선은 1회용으로, 오구굿이 끝나면 태워지게 된다. 오늘날 동해안의 경우 용의 머리와 팔보살 모형은 만물상에서 인쇄되어 만들어진 것을 사서 쓰고, 재활용한다. 동해안에서는 반야용선에 길베를 연결하여 당겼다 놓았다를 반복하며 움직이는 모습으로 연행되는 반면, 남해안에서는 반야용선에 사람이 들어간다. 그러므로 동해안의 반야용선은 배의 바닥이 완전히 막혀있지만, 남해안 반야용선은 트여 있다.

내용 반야용선은 전라남도 씻김굿, 거제, 통영 중심의 남해안, 그리고 동해안오구굿에서 주로 쓰인다. 전라남도에서는 넋당석(신태집)을 용선, 반야용선이라고도 하며 이 둘을 구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남해안과 동해안에서 반야용선은 망자의 영혼이 잠시 머무는 공간으로서의 신태집과는 구별된다. 동해안의 경우는 별신굿에도 반야용선이 쓰인다.

동해안의 반야용선은 별신굿과 오구굿에서 모두 사용된다. 별신굿에서는 굿의 말미에 있는 뱃노래굿에서 사용된다. 굿을 받으러 오신 신들이 돌아갈 때 이 배를 타고 가시라는 의미에서 신령의 이동수단으로 해석된다. 한편 오구굿에서의 반야용선은 망자가 타고 극락으로 가는 것으로 관념한다. 이것은 오구굿 중 문답설법이라는 제차의 무가에 직접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문답설법은 화랭이(남자 악사)와 무녀가 서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오구굿의 굿당을 장식한 여러 무구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반야용선에 해당하는 문면은 다음과 같다. "문 : 그러면 시왕갈림 이 옆에 보면은 배는 옛날 어떤 부처님이 내놨는고요? 답 : 예. 저 배는 누가 내셨나하면은 삼천불조 오십삼불 부처님이 내셨는데.(그렇죠) 제불고양 심사하고 염불고양 관계하여 후생부모 천도하고 왕생부모 극락갈때.(그렇죠) 이 경상도 부산광역시 경상도로 내려오면은 반야용선이요, 경상북도로 올라가면 용의 머리에다가 배를 모았기 때문에 용용자 배선자 선개용신이요, 반야실건허니 반야용선 등등 띄워놓고 오르시오 오르시오 어열신 금일영가 오르시오. 오릅시며 염불하고 내릅시며 염불하고 구비구비 법석이요 모모이 송조로다 …(중략)… 극락갈 이는 동참하시고 지옥갈 이는 물러서시고 나무서방정토 극락세계로 삼십육만구천오백동명동호 대자대비아드도사 금세여래불 삼천불조 오십삼불 부처님이 인도를 해서 유수강 백만중에 내일이 극락세계 가실 적에 저 배를 타고 좋은 극락세계로 가시라고 저 배를 내놨다 하옵디더."

동해안에서 반야용선은 굿당을 장식하는 무구이기도 하면서 별신굿에서는 굿의 말미에 뱃노래굿에서 사용된다. 앞에서 말했듯이 반야용선은 모셔졌던 신들이 타고 갈 운송수단이다. 오구굿에서는 두 차례 연행에 사용된다. 굿의 초반부에 (오는)뱃노래굿, 굿의 후반부에 (가는)뱃노래굿이다. (오는)뱃노래굿은 굿에 올 신들이 타고 오시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가는)뱃노래는 신들의 이동수단이기보다 망자가 타고 극락에 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뱃노래굿을 할 때 관중은 이 배에 돈을 얹으며 두 손을 모은다.

남해안에서의 반야용선은 보통 집에서 굿을 할 때 문 밖에 걸린다. 굿 연행 중에는 이 반야용선과 관련한 의례가 없다. 그러나 굿의 말미, 즉 뒷전에 해당되는 시석 이전에 반야용선놀이를 하는 경우가 있다. 굿의 규모가 크고 시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즉 굿의 비용을 많이 받고 하는 굿에서 이 놀이를 한다. 이 놀이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마치 사자탈을 뒤집어쓰는 것처럼 반야용선을 쓴다. 산이 한 사람이 재담과 축원의 무가를 부르면 사자춤을 추듯 용선춤을 추며 돌아다닌다. 이때 관중들은 용선의 등에 별비를 얹는다.

참고문헌 한국무속의 연구(최길성, 아세아문화사, 1978),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경상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동해안 오귀굿 구조의 현장론적 연구(김형근,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남해안굿 갈래 연구(김형근,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필자 김형근(金亨根)

1. 들어오는 용선굿에서 용선에 무명천매달아 당기는 무녀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일광해수욕장 | 2005.10.1 |
김형근

2. 송동숙을 위한 오구굿 중 뱃노래굿에서 반야용선을 놀림
경북 영덕군 영해면
대진해수욕장 | 2006.10.12 |
김형근


1


2

발뻐드래

정의 경기도굿에서 도살풀이, 모리에 이어지는 빠른 장단. 발버드래, 버드래라고도 한다.

내용 장구 가락이 '당당그러, 당당그러' 하는 소리가 '발뻐드래, 발뻐드래' 한다고 하여 발뻐드래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며, 실제로 악사들이 '발뻐드래 막뻐드래'라고 익힌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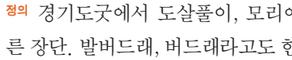
발뻐드래는 3소박 빠른 4박의 구조로 되어 있다. 2소박 보통 빠른 6박인 도살풀이가 빨라지면 3소박 조금 빠른 4박인 모리로 이어지고, 모리가 더욱 빨라지면 발뻐드래로 연결된다. 경기도의 세습 악사인 화랭이들이 잇달아 타계(他界)한 후 특유의 장구 변화가 약화되면서 발뻐드래 장단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빠른 속도와 함께 장구의 채편 기법이 강하고 기교적인 발뻐드래는 굿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기능을 하는 장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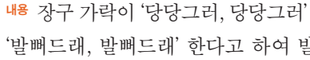
도살풀이 장단



모리 장단



모리 장단



참고문헌 한국의 무속장단(임수정, 민속원, 1999), 경기도 남부 도당굿 중 제석굿 무가의 음악적 분석(박정경,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02).

필자 박정경(朴正卿)

내용 동해안별신굿의 두 번째 거리인 당맞이굿은 마을의 당집을 돌며 직접 신을 청하여 오는 굿을 말한다. 당맞이굿에서 마을의 제당에 모셔져 있는 수호신을 굿당으로 모시고 올 때 제당 안마당에서 지신밟기를 한다.

덩덕궁이(자진모리) 장단에 맞춰 별신굿을 하는 무녀들과 동네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지신을 밟을 이때 추는 춤이 밟이춤이다. 밟이춤 역시 거의 즉흥적으로 추는 춤이다. 팔을 앞뒤로 흔들거나 목을 좌우로 흔드는 고갯짓도 하면서 신명이 나면 오른손과 왼손을 들어서 흔들고 엉덩이도 조금씩 흔들며 제자리에서 우쭐거리기도 한다. 축원을 의미하는 밟이춤은 조상굿에서 집집마다 조상을 불러들여 축원을 빈 뒤에도 춘다.

필자 백현순(白鉉順)

밤섬부군당도당굿

정의 밤섬의 실향민들이 이 섬의 전통을 전승하고자 지내는 마을굿. 이 굿은 2005년 1월 10일에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35호로 지정되었다.

역사 밤섬부군당도당굿의 내력에 대한 역사적 근거를 밤섬의 역사적 내력과 부군당(府君堂)의 내력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밤섬의 내력은 여러 기록에 전하고 있다. 밤섬은 여의도와 나란히 위치하고 있으며, 북과 남의 하중도(河中島)로 중요한 기능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사람이 살면서 많은 폐단이 있었던 과정이 나타나 있다. 실제로 『명종실록(明宗實錄)』에 이 기록이 남아 있다.

仍火島 在揚花渡之上 栗島之下 別爲一區 自祖宗朝 放猪羔羊於其中 以爲牧養之地 使典牲 司畜兩署官員掌之 其署典僕 因官員之供猪羊之養 家于島中 其俗以族親自相婚嫁 不避四五寸 或有男鰥女寡者 則雖切親 不使嫁娶於他處 任然同住 不以爲怪 蓋緣此島四面 皆限以水 無隣里相接 而人之耳目所不及故出入之際 渡水而行 深厲淺揭 男携女扶 其有瀆亂之行 聶由於此 請島中人家 皆撤去 使移居于本署近處 如或男女似前出入島中者 坐以重律 官員支供及牧養等事 一切以男人爲之 以絕瀆亂之弊 資級之序 所以辨等威也 自士風不古 弊習日成 名爲名士者 爲吏曹之郎 冒受加資 不以爲愧

이 기록은 밤섬 주민들의 생활상을 여의섬과 함께 보여주는 대목이다. 외부로의 왕래가 뜸해 남의 이목을 덜 의식한 듯 섬 주민의 생활방식이 대체로 자유분방하고, 남녀가 서로 업고 업히며 정답게 강을 건너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 또한 동성동본이나 반상을 따지지 않고 의논에 맞춰 살면서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고 하고, 간원의 교화가 덜 된 곳으로 지목되었다. 이곳의 한강물이 워낙 깨끗하여 창전동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식수로 직접 마셨다고 한다. 마씨, 인씨, 석씨, 선씨 등 희귀성의 대가족이 많이 거주하면서 은행나무 고목(당산목)과 부군당이 있어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였다고 전한다.

부군당 자체의 기록은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와 『중종실록(中宗實錄)』에 그 내력이 기록되어 있다. 해당 기록을 정리하면 부군의 내력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오주연문장전산고』에 "淫祠中 今京師各司有神祠 名曰付根堂 訛呼府君堂 一祀所費 至於累百金 或曰 付根 乃宋氏姐所接 四壁多作木莖物以掛之 甚淫褻不經 '或曰 付根者 旣爲官司之根 而其懸木莖者 以寓人之根爲腎莖 故作莖物以象之' 外邑亦祀之"라고 되어 있다. 아울러서 『중종실록』에는 "中宗己卯 罷各司付根神祠 先是 國俗各司付根 其來已久 至是 先焚紙錢 傳關各司皆焚之 禁其祠 人多稱快"라고 기록되어 있다.

두 기록의 핵심을 정리하면 음사로 하는 것의 과중한 자금을 지적하고, 부군당은 부근당(付根堂)의 와음(訛音)으로서 나무로 만든 신을 걸어놓는다고 하며, 이는 송씨 소저가 접물하는 곳으로 간주한다고 여겨 부군당에 나무로 만든 음경을 걸어놓는 이유를 해명하였다. 실록에서는 이를 불태웠다고 하고, 음사 배격의 과정을 말했다. 오늘날에도 부군당에 음경을 보관하는 용례가 있다. 이것은 방앗고지 부군당의 사례와 일치한다. 그렇다면 이 밤섬부군당의 전통도 이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현재 이 당에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내용 밤섬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한강의 가운데에 있는 섬으로, 현재 서강대교가 섬 위를 관통하고 있다. 밤섬은 1968년 2월 10일 여의도 개발의 일환으로 폭파되어 당시 62가구 443명의 원주민은 마포구 창전동과 우산 산중턱으로 집단이주하였다.

밤섬 주민들은 자신들의 섬에서 해오던 마을굿을 창전동의 부군당에서 재현하여 현재까지 전승하고 있다. 당주무당은 김춘강이며, 당주악사는 김찬섭으로 남매간이다. 밤섬부군당도당굿은 실향민의 아픔을 간직한 굿이며, 마을 주민 중심의 마을굿이다. 그러나 대거 마을 사람들이 떠나면서 그 전승력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은 당주무당을 중심으로 굿이 유지되고 있다.







1. 모여서 음복

2. 신장놀이굿-기 뽑고 공수하고 있는 장면

3. 유가돌기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밤섬부군당굿 현장 | 2008.2.8 | 김현선

구조적으로 볼 때 밤섬부군당도당굿은 마을굿의 변형된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일반적인 굿거리의 순서에 입각해 이 굿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주당물림
2. 부정청배
3. 가망청배
4. 진작
5. 유가돌기
6. 부군거리
7. 마지올림
8. 본향말명
9. 대신
10. 상산, 별상, 신장, 대감거리
11. 안당제석거리
12. 군웅거리
13. 창부거리
14. 뒷전
15. 소지

1. 주당물림 : 주당물림은 홍철릭을 걸어놓고 굿을 하면 갑자기 주당이 움직여서 사람의 몸에 파고들어와 해칠 수 있는 신격에 근거한다. 그래서 이를 물리기 위해 미리 악기 소리를 내면서 이것을 물리는 행사를 한다. 마을 사람들은 부군당의 굿당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기다린다.

2. 부정청배 : 부군당의 뜰에서 앉은 청배로 이를 진행한다. 부군당굿이 벌어지는 거리수마다 존재하는 갖가지 부정의 실상을 열거하고 이 굿을 하는 이유와 사연 등을 소개하는 것이 이 굿거리의 실제이다. 굿거리 말미에 부정을 물리는 잿물, 청수, 소지종이 등을 휘돌리면서 부정 가시는 행위를 한다. 부정청배 장단과 당악 장단의 음악에 맞추어 다른 인물이 이러한 구실을 하는 것으로 등장한다.

3. 가망청배 : 부정이 가셔진 굿당에 장차 굿을 하게 되는 여러 신격을 초빙하여 앉혀 놓는 것이 이 굿거리의 특징이다. 가망청배를 하면서 굿의 신격을 초청하고 이들을 높이 내세우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가망노랫가락으로 신을 찬양하는 의례를 거행한다. 앉은청배로 가망청배 장단으로 진행하며, 무당은 평복을 입고 한다.

4. 진작 : 진작은 잔을 신에게 올리는 절차이다. 유가식의 제관들이 부군에게 고유하는 대목이다. 이 대목은 유교식 제의와 무속식 굿의 결합과정이다. 반념불, 굿거리, 허튼타령, 당악 등의 장단에 맞춰 절을 올린다. 부군당굿의 엄숙한 의례적 특징을 이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유가돌기 : 무녀와 제관들이 함께 유가를 시작한다. 이를 밤섬 사람들은 산돌기라고 한다. 밤섬에서는 밤섬 전체를 돌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형편이 여의치 않아 아파트 사잇길로 잠깐 내려가다가 다시 부군당으로 올라간다. 부군당굿의 마을굿적 측면을 볼 수 있는 핵심적인 대목이다.

6. 부군거리 : 마을굿의 으뜸 대상 신격인 부군신을 모시는 거리이다. 홍철릭에 갓을 쓴 당주무당이 산종이를 들고 진행한다. 부군은 산신도당신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홍철릭과 갓을 쓰고 이 굿거리를 진행한다. 일종의 산거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련의 열두 거리를 모두 진행하게 된다. 마을 사람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례적인 성격을 이 거리에서 명확하게 보여준다.

7. 마지올림 : 마지는 굿에서 사용하는 메를 지어 바치는 것을 말한다. 이 마지의 전통이 매우 주목되며, 무속의 굿이나 불가의 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다. 부군당신에게 제를 올리고, 진지를 올리는 격이다. 부군이 음복하는 동안에 마을 주민들은 부군당 문을 닫고 모두 밖으로 나온다. 한바탕 흐드러진 잔치를 벌이는 과정이 들어간다.

8. 본향말명 : 본향말명은 이 부군당의 본향인 본소를 바라고 가망을 헤쳐서 지난날 굿판에 참여했던 여러 인물을 놀리는 대목이다. 흰색 도포를 입은 당주무당이 본향말명을 모신다. 부채와 방울을 들고 그동안 이 마을굿에 왔던 여러 선대 조상을 불러 모신다. 밤섬 사람에게 역사적으로 조상을 환기하는 각별한 대목으로, 전통을 지키라는 면모가 분명하게 확인된다.

9. 대신말명 : 본향말명과 서로 짝이 되는 중요한 대목이다. 노란색 몽두리를 입고서 부채와 방울을 들고 굿거리를 진행한다. 부군당굿에 왔던 여러 선대 무당의 혼령이 당주무당의 몸 속에 들어와 자신들의 내력을 말하면서 무당 쪽에서 부군당굿의 역사를 환기하는 구실을 한다. 밤섬 주민 가운데 해묵은 구대 단골을 만나서 공수하는 과정이 있다.

10. 상산 · 별상 · 신장 · 대감거리 : 여러 거리를 껴서 노는 특징이 있다. 이 굿거리는 매우 각별하고 무당들이 신들을 놀리고 대감과 같은 여흥성과 놀이성 높은 굿거리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점에서 이 굿거리는 매우 주목할 만한 부군당굿의 놀음적 성격을 환기하게 된다.

11. 안당제석거리 : 마을굿임에도 사람의 생명을 이어가는 의례는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다. 안당제석은 마을 주민들의 생명을 점지하고 이들의 수복강령을 기원하는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이 굿거리를 통해 마을의 안녕을 한층 기원하는 의미를 부여한다.

12. 군웅거리 : 군웅신은 다면적 성격을 지닌 신으로, 마을굿에서 마을에 해를 끼치는 존재를 물리치는 신격이다. 군웅은 마을의 나쁜 액을 모두 물리치는 역할을 한다. 홍철릭에 갓을 쓴 당주무당이 활과 화살을 손에 들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인사냥 액사냥을 한다.

13. 창부거리 : 창부의대를 걸친 무당이 진행한다. 창부대신은 마을에서 잘 놀고 노래를 잘하던 존재를 기억하는 대목이다. 밤섬 사람들의 신명놀이를 하는 것이 이 대목에서 매우 긴요한 구실을 한다. 창부타령을 하면서 신명놀이의 미진함을 달래고 굿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특징이다.

14. 뒷전 : 굿에 모여든 잡귀와 잡신을 풀어먹이고 물리치는 구실을 하는 굿거리이다. 부군당의 대문 앞에서 이 굿거리를 진행하며, 부군당굿의 대미를 장식한다.

15. 소지 : 밤섬 마을 사람들의 개별적인 기원을 올리면서 명소지와 복소지를 태우는 굿이 진행된다.

밤섬부군당도당굿은 당의 역사가 공교로운 점이 많아서 각별하게 주목되는 곳이다. 왜냐하면 밤섬자체가 원래의 위치를 상실당했기 때문이다. 본래 밤섬은 섬이었으나 인공적인 개발에 의해 해체된 곳이다. 밤섬은 배를 짓는 곳으로 유명했다. 밤섬부군당은 두 차례나 옮긴 후 현재의 마포구 창전동에 정착하였다.

당에는 부군할아버지와 부군할머니 내외를 중심으로 삼불제석과 군웅 및 조상을 모시고 있다. 음력 1월 2일에 대동굿 형식으로 굿을 진행한다. 여느 곳의 부군당굿과 다를 바 없다. 밤섬에는 군웅을 모시는 특별한 화분이 독특하다. 굿의 전반적인 절차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곧 부군 내외에게 바치는 사슬세우기이다. 다른 곳처럼 특별한 절차가 있지 않다.

서울의 당굿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이곳 외에 여러 곳이 존재하지만 한강 이북의 부군당굿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의가 있다. 앞으로 역사적 인물과 성기를 봉납하는 일, 유교식 제례와 무속식 제례를 보이는 것은 장차 전반적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참고문헌 서울 영상민속지-한강변의 마을신앙(서울역사박물관, 2007).

필자 김헌선(金憲宣)

방망이떡

정의 서울굿에 쓰이는 떡 중 한 종류로, 불사상과 연지당상에 올려짐.

내용 방망이떡은 생김새가 방망이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해당 신격에 따라 명명하면 불사떡, 지장떡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관습적으로 서울 만신들과 실제 음식을 만드는 주체 시봉자들은 방망이떡이라고 부른다. 방망이떡의 외형은 두꺼운 가래떡 모양이다. 길이는 15~20㎝, 지름은 4~5㎝정도 된다. 만드는 방식도 기본적으로 가래떡 방식이다. 멥쌀가루를 반죽하여 찐 다음에 둥글려서 만든다.

방망이떡은 불사상과 연지당상에 올린다. 불사상은 진진오귀굿을 제외한 진적굿, 천신굿, 안안팎굿, 새남굿 등에 존재하는 상이다. 흔히 불사맞이를 할 때 중심이 된다. 상의 상단 중심에는 고깔을 놓고 그 좌우로 백설기 떡 한 접시씩 올린





오늘날 변형된 방망이떡
서울시 무악동 인왕산 국사당 | 2006.11.4 | 김형근

다. 백설기 위에는 웃기를 얹는다. 그 옆으로 촛대를 놓는다. 그 외에 과일과 과자류를 올리고, 밤과 대추도 올려둔다. 그리고 상의 양 좌우에 방망이떡을 놓는다. 접시에 방망이떡 3개를 놓고, 그 위에 웃기(전병)를 얹는다. 그리고 그 위에 종이로 만든 불사꽃을 꽂기도 한다. 이것을 한 세트로 해 3~4개 올린다. 천신굿의 불사상 위에는 불사전이라고 하는 종이장식물을 천장으로부터 드리운다.

연지당상은 서울의 진오귀굿 중 규모가 큰 새남굿에만 존재하는 상으로, 지장보살을 위한 상이다. 바리공주 무가를 구송하는 말미가 끝나면 바리공주가 망자를 데리고 저승으로 가는 모습을 시각화한 도령돌기를 한다. 이때 최종 도달지가 연지당이다. 연지당은 상을 중심으로 병풍이 둘러쳐져 있는 형상으로 꾸민다. 연지당에 존재하는 상이라는 이름으로 연지당상, 그곳에 계시다고 관념하는 지장보살로 인해 지장상이라고도 명명된다. 상 앞에는 종이 연꽃을 상자 안에 담아 둔다. 상 위에는 앞에서 설명한 불사상처럼 방망이떡 세트가 세 개 정도 오르고, 백설기가 오른다. 마지(밥)와 삼색나물, 과일 등도 함께 올린다.

서울굿에서 떡은 직접 만신의 집에서 만들었지만 오늘날에는 떡집에 맡긴다. 이로 인해 예전에는 직접 절구질해 가며 손으로 직접 모양을 만들었으나 오늘날에는 기계에 의한 모양만이 존재한다. 기계로 떡을 빚다 보니 방망이 모양이 아닌 직사각형 모양이 오르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모양, 즉 방망이 모양이 아니라 아무 재료도 섞지 않은 흰 떡이라는 점이다.

참고문헌 무 · 굿과 음식 1(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서울굿의 다양성과 구조(김헌선, 한국무속학 12, 한국무속학회, 2006).
필자 김형근(金亨根)

방석화랭이

정의 굿을 할 때 굿판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사람 또는 다른 민속예술 분야로 나아가지 않고 평생 굿판에서 굿일만 하는 무당.

내용 어떤 종류의 굿이든 굿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물이 필요하며, 굿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굿을 담당하는 무당을 돕는 조무(助巫)나 심부름꾼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방석화랭이이다.

굿을 주재하는 무당은 과거로 갈수록 사회적 지위가 낮았다. 세습무가계(世襲巫家系)의 무당들은 어릴 때부터 악기나 춤, 소리 등을 배우기 때문에 예술적 기량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세습무(世襲巫) 중에는 굿 이외에 농악이나 판소리 등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예술에 종사하는 무당들도 있다. 소위 개비출신인데, 개비는 갑이(甲-)의 와음이다. 이는 무속 집안 출신의 예인을 이르는 말이다. 민속예능 분야에서는 개비출신이라야 기예를 인정받게 된다. 그와 반대로 평생 굿판에서 굿만 하는 방석화랭이는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굿을 주재하는 사제자로서는 유능하지만, 사제자로서의 기능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당들은 예능인으로서의 길을 모색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뛰어난 민속예술인 중에는 세습무가계 출신이 많은 편이다.

참고문헌 한국민속대사전 1(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우리 무당 이야기(황루시, 풀빛, 2000).
필자 이균옥(李均玉)

방울떡

정의 계란 모양처럼 둥그렇게 만들고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 놓은 떡으로, 벙개떡과 함께 고리동반을 이루는 제주도의 굿떡.

내용 방울떡은 마치 껍질을 벗긴 삶은 계란 모양을 한 떡이다. 쌀가루를 익반죽한 뒤 두 손바닥을 이용해 둥그렇게 계란 정도 크기와 모양으로 만든다. 그런 다음에 쇠젓가락으로 떡의 가운데를 깊게 찔러 구멍을 내고, 다시 두 손바닥 사이에 놓고 굴려서 모양을 다듬어 주면 된다. 방울떡은 모두 7개를 만든다.

방울떡은 벙개떡과 함께 고리동반을 이루는 떡이다. 벙개떡은 가운데가 약간 움푹하게 들어간 둥근 접시 모양의 떡이다. 납작하게 만들기도 한다. 벙개떡은 고리동반에서 일종의 방석 역할을 하는 떡이라고 할 수 있으며, 조금 봉긋한 부분이 위로 가게 놓는다. 방울떡은 이 벙개떡 위에 자리를 잡는다. 즉 6개의 방울떡을 하나씩 잎이 달린 작은 대나무 가지에 꿰어 벙개떡 위에 둥그렇게 돌아가며 꽂는다. 말하자면 방울떡의 가운데 구멍 안으로 댓잎을 꽂아 벙개떡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벙개떡 위에 6개의 방울떡을 다 꽂으면 그 위에 '고리동반 너울지'로 덮어 감싸준다.



방울떡과 벙개떡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동김녕잠수굿 | 2006.4.4 | 강소전

고리동반 너울지는 제주도굿의 종이 무구인 기메의 하나로, 사각형의 자그마한 한지에 여러 문양으로 오린 종이를 말한다. 너울지를 씌운 다음 나머지 1개의 방울떡에도 잎이 달린 작은 대나무 가지로 꿰고, 이를 고리동반 너울지의 구멍에 다시 꽂는다.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 너울지 위로 방울떡 1개가 잎이 달린 대나무 가지로 꽂혀 있는 모양새가 된다.

방울떡은 고리동반을 이루는 떡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고리동반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고리동반은 주요 제물로 인식되어 삶는 떡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든다. 익반죽하여 만들어 둔 것을 끓는 물에 데친 다음 냉수에 씻어 건져 놓는다. 고리동반은 제물로 올리는 여느 떡과는 좀 다른 특이한 면이 있다.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이공본풀이'와 관련한 떡이기 때문이다. 이공본풀이는 '꼿불휘(꽃의 뿌리)'에 관한 본풀이다. 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서천꽃밭 주화(呪花)의 근원에 대한 내력을 담은 것이다. 이공본풀이의 주인공인 할락궁이의 어머니 원강암이가 죽임을 당해 대나무 밭에 버려지자 대나무가 그 시신을 뚫고 얼키설키 자라났다는 내용이 언급되는 대목에서 고리동반의 유래가 나온다.

고리동반은 보답상 위에 놓이며, 공시풀이를 할 때와 같은 경우에는 공싯상에도 놓인다. 고리동반은 심방에게 주는 전상품이라는 뜻으로 '심방떡'이라고도 불리며, 심방은 굿이 끝나면 고리동반 중 벙개떡은 자신의 집에 있는 당주에 가지고 가서 올린다.

한편 방울떡은 본주에게 돌아간다. 공시풀이가 끝나면 '고리동반품'이라는 제차가 있다. 고리동반 너울지를 걷은 다음 심방이 방울떡과 천문,

상잔을 체에 놓고 이리저리 흔들다가 이를 본주의 치마 위로 던져 놓는다. 이는 점을 치는 행위로, 떡 하나라도 바깥으로 튀어 나가면 좋지 않다고 한다. 여기서 방울떡은 아기를 나타낸다고 하며, 본주는 이 방울떡을 먹어야 한다.

참고문헌 굿과 음식(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제주도 굿의 무구 '기메'에 대한 고찰(강소전, 한국무속학 13, 한국무속학회, 2006), 제주도 굿의 '공시풀이' 고찰(강소전, 한국무속학 14, 한국무속학회, 2007).
필자 강소전(姜昭全)

백련화(白蓮花)

정의 흰색의 연꽃 모양으로 만든 지화. 서울 · 경기도 · 황해도 · 동해안 지역에서 나타나며, 제석화, 불사화, 천상화, 천궁맞이화, 칠성화, 칠성제석꽃 등의 이칭이 있다. 불사, 제석, 천존, 천궁, 칠성제석 등이라 칭해지는 불교와 도교의 신격에 영향을 받은 천신을 위한 상에 진설된다.

형태 백련화(白蓮花)는 흰색의 한지와 대나무를 가늘게 자른 살대로 만들어진다. 일부사례에서는 흰색에 색지 한 가지를 추가하여 흰색의 꽃잎 중에 유색의 꽃 한 잎을 구성해 만들기도 한다.

내용 백련화는 불교 경전에도 자주 등장하는 꽃으로, 무속에서 이를 수용하였는데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다. 대일경류십오(大日經類十五)에 "삼장(三藏)은 서방의 연화 종류로 발두마(鉢頭摩), 우발마(優鉢摩), 구물두(俱勿頭), 소건지가화(蘇建地迦花)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들 중에서 백련화(pundarika)는 발두마(鉢頭摩)의 한 종류로 진흙 속에서 나왔으면서도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꽃으로 인식하고 있다.

백련화는 불사상, 제석상, 천궁맞이상, 칠성제석상 등의 여러 이칭을 지니는 제물상에 장식되는데, 백설기나 증편 위에 한 송이씩 꽂는 것이 일반적이다. 백련화는 불사수팔련과 함께 장식되기도 한다. 이때는 수팔련꽃을 에워싸듯이 12송이를 꽂는다. 수팔련은 백설기 위나 쌀이 담긴 제기 위에 올려지기도 한다. 주로 불사맞이와 새남굿, 진오귀굿에서 쓰인다.

백련화는 제물상에 진설되는 지화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의례 과정에서 지물로도 활용되었다. 과거 백련화는 불사맞이에서 무당이 화공에게서 사야 하는 꽃 중의 하나였다. 큰굿에서는 의례 과정 중에 무당이 화공에게 꽃을 사는데, 이것을 꽃 파는 거리라고 한다. 이때 무당은 꽃을 사기 위해 꽃에 대한 내력을 샅샅이 알아야 한다. 만약 그 내력을 알지 못하면 화공이 꽃을 팔지 않는다.

서울굿 의례를 연행하며 서울굿에 사용되는 모든 지화 제작이 가능한 박수 이영희에 의하면, 최근에는 잘 행하지 않지만 과거 큰굿에서는 주당물림을 하고 난 후 부정청배를 하기 전에 전안에 꽃을 올리는데, 이때 꽃을 화공에게 사는 절차와 의식이 따로 있었다고 한다. 천궁맞이에서는 백련화를 신령님에게 바치기 위해서는 꽃 파는 거리를 하기 전에, 특별한 의식을 하였다. 무당이 네모난 생두부 모를 쳐가면서 '사모를 바쳐서 육모를 쳤고 육모를 바쳐서 팔모가 되고 팔모가 돼서 열모가 되고 열모를 쳐서 열두모가 됐네'라고 하고, 화공에게 꽃을 사서 열두모가 된 두부에 꽃을 꽂는다. 물론 제석상에 진설된 떡에도 백련화를 꽂는다. 꽃이 꽂혀진 두부는 불사님 몫으로서 수명장수케 하는 신약으로 인식되었다. 이때 잘려져 나온 자투리 두부는 관객들에게 먹였는데, 이 또한 수명장수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굿 의례에서 제석상 혹은 불사상은 언제나 상의 가장 뒤편에 증편을 세 접시를 놓는데, 그 위에는 백련화 혹은 천상화를 꽂는다. 즉, 불사상에는 증편삼좌(蒸餠三座)와 연화삼좌(蓮花三座)가 반드시 구성되어야 한다. 천신인 불사 혹은 제석을 색으로 나타낸다면 흰색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이는 무당이 착용한 흰색의 장삼과 고깔, 제물상 위에 진설된 백설기 · 증편 · 백련화와 같은 제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9세기 말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무당내력(巫黨來歷)』에 의하면, 제석거리(帝釋巨里)에서 무당은 장삼에 고깔을 착용하고, 홍대와 홍띠를 두른 모습을 하고 있다. 제물상에는 증편 위에 흰색의 지화가 꽂혀져 있는데, 유일하게 이 거리에만 진설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 무속을 조사한 아키바 다카시(秋葉隆) 또한 백색의 무복[巫衣]은 제석과 같은 불교계의 신[神佛]을 모실 경우에 사용되며, 제물의 떡과 꽃 모두 백색으로 바치며, 일체의 색물(色物)과 육류를 금하여, 이를 소행사(素行事)라고 하였다. 제석상에 올려지는 백설기는 시루떡보다는 원시적이고 종교적인 떡으로서 백색관념에 의한 신성관념이 최고의 신격인 제석신 · 산신 · 칠성신께 나타나 표현된 상징적인 제물로 해석된다. 또한 증편은 신떡이라고도 하는데, 증편의 흰색과 백련화의 흰색이 모두 천신을 상징한다.

불교에서 백련화는 청결, 순결, 정화 등의 상징으로 삼아 왔다. 불교 경전에서는 수행의 방식 중 하나로 백련화와 자주 비유하여 정법연화라는 말을 종종 사용한다. 관음보살이 연화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나 연화를 들고 있는 것은, 곧 탈속(脫俗)을 나타내는 의미이다. 부처에게 연꽃을 놓는 이유는 부디 천국에 올라가 꽃의 주위에 계시라는 의미를 지닌다. 무속에서 백련화는 하늘나라에서만 피는 꽃으로 알려져 있다. 곧 불사상 위에 백련화가 꽂아졌을 때, 곧 그 위가 천신을 맞이하는 공간으로서 신성한 공간으로 인식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의 샤머니즘(조흥윤,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경상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무속 · 불교 · 유교를 통하여 본 식생활문화 및 의식절차에 대한 연구(김상보,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4), 무화연구 1(김태연, 한국무속학 3, 한국무속학회, 2001), 수기작불의 교육적 이해-「법화경」을 중심으로(이지중, 종교교육연구 13,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서울굿의 신화 연구(양종승 · 최진아, 한국무속학 5, 한국무속학회, 2002), 서울굿의 상차림에 대하여(홍태한, 한국무속학 6, 한국무속학회, 2003), 무속의례의 꽃장식, 그 기원적 성격과 의미(이수자, 한국무속학 14, 한국무속학회, 2007), 朝鮮巫俗の研究 (下)(赤松智城 · 秋葉隆, 大阪屋號書店, 1938), 朝鮮巫俗の現地研究(秋葉隆, 東京:名著出版, 1980).
필자 최진아(崔眞娥)

1. 백마장군 무신도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가로 70㎝, 세로 94㎝ | 1950년대

2. 백마장군 무신도
인천시 계양산 둑실굿당 박명애 소장 | 2006.3.1 | 김은희


1

백마장군(白馬將軍)

정의 황해도굿의 주요한 신격. 백마를 탄 장군신으로 인간을 수호한다.

내용 백마장군은 백마를 타고 하늘과 땅을 왕래하면서 인간을 수호하는 수호신이다. 황해도 지역에서 모시는 백마신장은 굿을 할 때 걸어두는 신의 모습인 마지(麻紙)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백마장군은 철갑으로 된 모자를 쓰고 장군복을 입고, 눈을 부릅뜨고, 오른손에 기다랗고 시퍼렇게 날이 선 장군칼을 휘두르면서 백마를 타고 용맹스럽게 달리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일찍이 백마를 탄 영웅의 모습은 신화나 민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러한 신화적 인물이나 영웅들의 위엄을 지닌 신격이 백마장군이다. 백마는 하늘을 나는 천마(天馬)와 이미지가 겹쳐서 나타난다. 이러한 사고는 일찍부터 우리나라에 존재했다. 예를 들면 경주 황남대총(皇南大塚)의 천마총(天馬塚)에서 발굴된 말다래에서 하늘을 난다는 백마인 천마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장에서 용맹을 떨친 장군의 표상으로 백마장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삼국지(三國志)』의 공손찬(公孫瓚)이나 우리나라의 김유신(金庾信), 홍경래(洪景來) 등이 백마장군으로 불리고 있다.

장군신은 인격신 계열에 속하며, 다양한 유래가 전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황해도 지역에서 어업과 관련해 모시는 임경업(林慶業) 장군, 서울 지역에서 으뜸으로 모시는 최영(崔瑩) 장군 등은 역사적 사건을 근거로 하여 분명한 내력을 확인할


2

수 있는 신격이다.

한편 황해도굿의 연행자인 김금화 만신은 백마장군을 "황해도 옹진군 으아도에 모셔져 있는 신으로 으아도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하였다. 이는 무속의 신을 특정 지역에 연계하여 그 내력을 분명하게 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백마장군은 황해도굿의 작두를 타는 장군거리에서 여러 장군신과 함께 반드시 주워 섬기는 신이다. 말로 주워 섬기는 것이 굿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신을 섬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백마장군은 만신이 특별히 몸주신으로 모시는 경우가 아니면 청배와 공수에서 신명을 들어서 말로 보이는 방식으로 연행한다.

지역사례 백마장군은 장군신으로 그 영웅적 측면이 신으로 격상되어 위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마을 도당이나 서낭당 등에서 백마장군의 화분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경북 영양의 백마장군 성황당에서는 최영 장군과 함께 백마장군의 화분을 모시고 있으며, 서울의 신길2동 부군당 역시 주신인 부군신 내외와 함께 백마장군의 화분을 모시고 있다.

참고문헌 김금화의 무가집(김금화, 문음사, 1995), 한국 무신의 계통(김태곤, 문화인류학 3, 한국문화인류학회, 1970), 한국 무속신 고찰(양종승, 몽골학 4, 한국몽골학회, 1996), 한국 무속의 신관에 대한 연구-서울 지역 재수굿을 중심으로(이용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필자 김은희(金銀姬)

백학(白鶴)

정의 황해도굿에서 굿청에 장식되는 종이로 만든 학.

내용 백학(白鶴)은 황해도굿의 굿청 중앙에 세워진 깃대에서 오방으로 늘어진 오색 만장발과 더불어 장식되는 종이로 만든 학을 말한다. 학은 일반적으로 십장생(十長生)의 하나로서 장수를 의미하기도 하고 고고한 선비의 기품을 표현하는 상징물로 여겨지기도 한다. 무(巫)의 경우에 신선(神仙)



백학
국립민속박물관 사진자료 소장

이 하강할 때 타고 내려오는 상서로운 동물로 여기는데 이는 도교(道敎)의 영향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황해도굿의 굿청에는 총 네 마리의 학을 동서남북 방향으로 장식하며 굿이 시작할 때 달아 끝날 때 까지 두고 마지막 날 내려 모두 불에 태운다. 몸체는 대나무를 저며 만든 살대를 엮어 만든 후 한지를 붙이고 그 위에 깃과 날개, 머리와 다리 등을 붙여 채색한다. 제작된 백학의 모습은 매우 사실적인데 신비로운 느낌이 들 정도이다. 보통 크기는 약 1m 내외로 제작되며 청학과 백학 두 가지로 제작해 장식된다.

참고문헌 큰무당 우옥주 유품(국립민속박물관, 1995), 황해도굿에 쓰이는 종이 신화와 신구의 종류, 형식, 상징성 고찰(양종승, 한국무속학 13, 한국무속학회, 2006).

필자 김창호(金昌鎬)

벅구춤

정의 황해도굿의 가장 느리고 독특한 굿장단인 거상장단에 맞추어 추는 춤인 거상춤의 일부분에 해당하여 추는 춤.

내용 벅구장단에 맞추어 추기 때문에 벅구춤이라고 한다. 또 벅구장단의 소리를 덤쿰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벅구장단을 달리 덤쿵장단, 벅구춤을 덤쿵춤이라고도 한다. 이 춤은 공연자가 굿판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시작하며, 굿판 바닥에 무릎을 대고 어깨를 아래로 내려 머리를 숙인 상태에서 양손을 앞뒤로 돌려가면서 굿판 바닥을 휘젓는 모양으로 춘다. 공연자가 긴 장삼 소매를 양손으로 휘어잡고 좌우로 뿌리기도 하고, 양손을 합쳐 장삼을 감싸 잡고 양 어깨로 올렸다 내렸다 하기도 한다.

황해도굿의 거상춤은 몸굴림, 발디딤, 손놀림 등이 조화를 얻어 '3합'이 이루어져야만 훌륭한 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거상춤은 제배춤, 벅구춤(덤쿵춤), 넘길춤, 부채춤, 장삼춤, 바라춤, 칠성검춤(칠성칼춤), 삼현춤, 막춤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벅구춤(덤쿵춤)은 거상춤의 전체 과정 중에서 두 번째 과정에서 추는 춤이다. 제배춤에서 막춤으로 갈수록 대체로 장단이 점차 빨라진다.

거상춤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배춤은 칠성신 · 제석신에게 절을 올리는 춤이고, 벅구춤(덤쿵춤)은 제배춤을 마친 엎드린 상태에서 벅구장단에 맞추어 춘다. 넘길춤은 장단을 넘기는 넘길장단에 공연자 무당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추는 춤이며, 부채춤은 무당이 칠성부채를 펴서 좌우로 번갈아가며 부채를 올렸다 내렸다 하며 추는 춤이다. 장삼춤은 무당이 자기의 장삼자락을 휘어잡고 추는 춤이고, 바라춤은 양손에 바라를 들고 바라를 마주치기도 하고 돌리기도 하고 어깨나 머리 위로 올리고 내리기도 하며 추는 춤이다. 칠성검춤은 칠성칼을 양손에 들고 추거나 외검을 한 손에 들고 추는 칼춤이다. 삼현춤은 삼현장단(타령장단)에 맞추어 여러 가지 우스꽝스러운 몸짓을 하기도 하면서 홍겹게 추는 춤이다. 막춤은 양사위와 연풍대가 주를 이루는 춤이다.

참고문헌 무무(문화재연구소, 문화재관리국, 1987), 민속무용과 예술-한국춤과 신춤에 관한 몇 가지 논의(양종승, 비교민속학회, 비교민속학 23, 2002), 굿춤의 요소와 본질, 그리고 미적 양상-민속예술의 정서와 미학(양종승, 민속학회, 1999), 한국무속-서울 · 황해도편(양종승, 국립민속박물관, 1999), 춤사위 어휘고(이애주, 관악어문연구, 서울대학교 국문국문학과, 1976), 춤사위(정병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1).

필자 이경호(李景好)

범일국사(梵日國師/泛日國師)

정의 신라 말의 선승(禪僧). 범일국사(810~889)는 강릉단오제의 주신인 '대관령국사성황'으로 신앙되고 있다. 강릉을 비롯한 영동 지역의 수호신으로, 해마다 강릉단오제를 통해 제의를 받는다.

내용 범일은 신라 헌덕왕 2년(810), 강릉 학산에서 태어나 진성여왕 3년(889) 강릉 굴산사에서 입적하였다. 속성(俗姓)은 계림(鷄林) 김씨이고, 조부는 명주도독 겸 평찰을 지낸 술원(述元)이다. 어머니의 성은 문(文)씨로 강릉에 세거한 호문(豪門) 출신이다. 범일은 15세에 출가하여 20세에 경주에서 구족계(具足戒)를 받은 후 흥덕왕 6년(831)에 입당(入唐)하여 선종(禪宗)을 계승하고 문성왕 9년(847)에 귀국하였다. 그리고 문성왕 13년(851)에 당시 명주도독 김공이 청하여 굴산사 주지로 오게 되고 그 후 40여 년간 영동 지역에 선불교를 펴뜨리는 활동을 하였다.

범일은 신라 말 구산선문(九山禪門)의 하나인 사굴산파의 창시자로, 동해 삼화사(三和寺)를 세우고 양양의 낙산사(洛山寺)를 중건했으며 강릉 신복사(神福寺)도 건립했다. 당시 영동 지역의 사찰은 신라 왕실을 비롯하여 전통적으로 신앙되었던 교학불교에서 선학불교로 전환되었다. 그 중심이 바로 범일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871년에는 경문왕, 880년에는 헌강왕이 각각 범일에게 국사(國師)로 의봉(擬封)하여 청했으나 범일은 나가지 않았다. 신라 왕실이 신앙한 교종과 대립되는 위치에서 범일은 지방 호족세력과 결합하여 영동 지역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범일국사는 강릉단오제를 하는 동안 대관령 국사성황으로 제의의 대상이 된다. 사람들은 유교식 제례와 무당굿으로 대관령 국사성황을 모시고 소원을 빈다. 대관령 국사성황은 사람들의 삶을 보살피고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해 주는 신으로 인식된다. 실존했던 승려가 대관령 국사성황으로 좌정하게 된 시기나 경위는 뚜렷하지 않다. 다만 강릉단오제의 연원으로 935년 왕순식(王順式)이 왕건(王建, 877~943)을 도와 전쟁에 나가면서 대관

령에서 제사 지낸 기록을 들고 있다. 이는 범일이 신라 왕실과 대립하면서 영동 지역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고려 건국에 도움을 준 시기와 가깝다. 강릉 지역에는 범일의 신성화된 탄생담이 전승되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산의 양갓집 규수가 우물에 물을 길으러 갔다. 바가지에 물을 뜨니 해가 담겼다. 처녀는 그 물을 마시고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하여 몰래 뒷산 학바위에 버렸다. 며칠 뒤에 가보니 학이 붉은 구슬을 입에서 내어 먹이면서 돌보고 있었다. 하늘이 아는 자손이라고 생각하여 다시 집에 데려와 길렀다. 후에 당(唐)나라에 수학하여 범일국사라는 고승이 되었고, 죽은 뒤에는 대관령 국사성황이 되었다. 범일의 탄생담은 태양을 숭배하는 천부수모(天父水母)형 신화구조의 주몽신화와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

범일은 조선조 강릉시내 대성황사에서 모신 12성황 중 한 명이기도 했다. 강릉단오제는 지역 출신의 인물을 성황으로 모심으로써 역사를 반영하고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는 기능을 지녔다.

참고문헌 강릉단오굿(김선풍, 열화당, 1987), 조선민속지(秋葉隆, 심우성 역, 동문선, 1993), 완역 증수 임영지(강릉문화원, 1997), 강릉단오제 백서(강릉문화원, 1999), 강릉국사성황제와 향촌사회의 변화(이규대, 역사민속학 7, 한국역사민속학회, 1998), 강릉단오제의 전통성과 지속성(황루시, 역사민속학 9, 학국역사민속학회, 1999).
필자 황루시(黃縷詩)

법사(法師)

정의 민속신앙에서 독경(讀經)을 하는 사제자를 지칭하던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현재는 남자 무당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어 사용하는 용어.

내용 본래 법사는 수행에 힘쓰고 항상 설법하여 세상의 모범이 되는 승려를 의미했으나 점차 승려 일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독경(讀經)의 전승이 우세한 충청도와 강원도 일대에서는 법사를 경객(經客), 정각 등으로도 불렀는데, 천한 칭호라 하여 불교에서 쓰는 법사라는 말을 차용하였다. 민간신앙에서 법사는 독경의례를 하는 사제자를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독경을 하는 법사는 맹인으로서 점을 치는 판수(判數)에서 그 기원을 찾아 볼 수 있다. 판수는 점(占)을 치거나 독경(讀經)을 하는 맹인(盲人)들이었다. 판수들의 의례는 독경이나 축언(祝言)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들이 주로 읽는 경문에는 『금단경(禁壇經)』, 『영보경(靈寶經)』, 『연생경(延生經)』, 『태일경(太一經)』, 『옥추경(玉樞經)』, 『진무경(眞武經)』, 『용호경(龍虎經)』, 『용왕경(龍王經)』, 『옥갑경(玉匣經)』 등의 도경(道經)과 『팔양경(八陽經)』, 『천수경(千手經)』 등이 있다.

법사는 강신체험을 통해 되기도 하고, 신내림이 없어도 스승 법사에게 배우는 과정을 통해 되기도 한다. 학습의 내용은 여러 종류의 경문을 고장(敲杖)에 맞추어 자유자재로 암송하는 것과 독경의례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설경 제작, 굿을 의뢰한 단골의 사정에 맞추어 경문을 융통성 있게 읽어주는 것 등이다.

신내림을 받아 법사가 되는 경우는 강신무와 똑같이 신내림 체험을 하며, 내림굿을 한 후 법사가 되는 것이다. 현재 법사 가운데 판수와 같이 안맹(眼盲)인 경우는 거의 없으며, 학습보다는 강신체험을 통해 법사가 되는 경향이 우세하다. 무당과 법사의 활동 가운데는 유사한 활동도 찾아볼 수 있으나, 병굿인 경우 그 차이가 분명하다. 신령을 모셔 대접하는 무당과 달리 법사는 귀신을 잡아 가둠으로써 병을 치료하기 때문이다.

법사의 의례는 독경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안택(安宅)과 미친경(미친굿) 등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왔다. 1960년대 이전에는 봄과 가을에 안택을 하던 경향이 일반적이었고, 주술적 의료의 성격이 가미된 미친경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 법사의 독경의례 전승이 활발했다. 특히 충청도 일대의 법사들의 미친굿은 그 효험이 대단하여 전국적으로 불려 다니기도 했다. 법사들은 독경의례 외에도 사주(四柱), 택일(擇日), 작명(作名), 풍수(風水), 지관(地官)의 일을 겸하기도 한다.

법사가 읽는 경문은 신통(神統)의 나열, 신병(神兵)의 결진, 귀신의 착금(捉擒)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문에는 수 십 가지가 있는데, 다양한 경들은 경의 내용과 기능에 따라 축사경(逐邪經), 가신봉안경(家神奉安經), 축원문(祝願文) 등으로 나뉜다. 이들 경문은 대부분 한 문구에 토만 단 것으로, 구송만으로 그 의미를 알기 어려워 경문의 책자가 발간되는 경우도 있다.

독경을 하는 법사들에게 경의 학습은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밑천이 된다. 예를 들어 충청남도 부여 지방의 경우 법사에게 필요한 4대 경문이 있다. 『옥추경(玉樞經)』, 『천지팔양경(天地八陽經)』, 『옥갑경(玉匣經)』, 『기문경(奇門經)』의 4대 경문을 포함해 수 십 가지 경문을 학습해야 한다. 이 지역 법사의 경은 제일이 청(淸), 제이가 고장(鼓杖), 제삼이 문서(文書)라 하였는데, 법사사회 내부에서는 문서를 제일로 쳐서 경문의 학습이 중요했다.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던 법사들의 독경의례는 현재 충청도와 강원도 일대를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고, 다른 지역에는 전승력이 약한 편이다. 충청도와 강원도 일대의 독경의례도 선굿 무당과 함께 진행되면서 앉은굿과 선굿이 복합되어 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는 앉은굿의 한 절차인 대잡이의 역할을 보살로 불리는 여성 무당들이 담당하면서 생겨난 것이다.

개성 법사
송석하



참고문헌 맹격고(손진태, 조선민족문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48), 강원도 송경연구 1, 2(박관수, 민속원, 2005), 경무고(서대석, 문화인류학 1, 한국문화인류학회, 1968), 판수고(김영진, 민속어문논총, 계명대학교출판부, 1983), 대전의 미친굿(이필영, 대전문화 2, 대전시사편찬위원회, 1993), 부여지역의 앉은굿(오문선, 역사민속학 6, 역사민속학회, 1997).
필자 오문선(吳文仙)

법수선원 산신도(法水禪院 山神圖)

정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261-18번지 소재의 법수선원(法水禪院) 명부전(冥府殿)에 봉안되어 있는 산신도(山神圖). 2005년 2월 11일에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제28호로 지정되었으며, 소유자와 관리자는 재단법인 선학원이다.

형태 법수선원 산신도는 법수선원의 전(前) 주지인 혜광스님이 1950년경 도봉산 망월사에서 이관해 온 것으로 전해지는 불화(佛畵)이다. 크기는 세로 78.2㎝(화폭 73㎝), 가로 106.9㎝(화폭 96.5㎝)이다.

내용 사찰 소장 산신도는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뿌리내리고 있었던 산신신앙과 불교가 융합된 양상을 보여 준다. 이로 인해 대개의 사찰들에서 산신도가 봉안된 독립된 산신각(山神閣)을 볼 수 있거나, 독립된 산신각을 갖추지 못한 사찰의 경우에도 전각의 한 켠에 산신을 봉안한 것을 볼 수 있다.

산신도가 봉안된 법수선원은 선학원 소속의 사찰로서 창건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1940년경 혜광이 초암을 짓고 사찰 이름을 운문사(雲文寺)라 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1972년에는 법수원(法水源)으로 개칭하고 1973년 선원을 개설하여 선학원에 등록하였다.

이 산신도는 2003년 7월에 문화재보수 기능자 김용신(金容伸)에 의해 일부 긁힌 자국을 보수하여 현재 보관 상태는 양호한 편이지만 부분적으로 촛농에 의한 훼손이 있다.

법수선원 산신도는 가로가 약간 긴 직사각형으로 화면의 왼쪽 가장자리를 따라 진채(眞彩) 기

법으로 그려진 소나무 아래 산신이 호랑이를 대동한 모습을 그렸다. 이 산신도는 황색, 짙은 녹색, 백색, 옅은 분홍색과 함께 금니(金泥)가 더해져 조화를 이룬다. 특히 산신의 몸체에 묘사된 음영법과 맨발의 다리와 손 등의 바리질로 인해 신체가 입체감이 있어 보이는 점이 특징이다.

이 산신도의 주인공인 산신은 족두리 모양의 치포관(緇布冠) 위에 투명한 탕건을 썼다. 얼굴은 약간 오른쪽으로 향한 채 오른손으로는 호랑이를 쓰다듬고 왼손에는 파초선을 들고 앉아 있는 모습으로 위엄이 있어 보인다. 산신의 몸체는 갈색에 가까운 붉은 선으로 윤곽을 그린 후 가장 자리를 따라 짙게 음영을 표현하였다.

산신의 뒤쪽으로 앉아 있는 호랑이는 산신을 호위하듯 에워싸고 있다. 이빨을 드러내고 꼬리를 길게 쳐들고 있는 호랑이의 모습은 섬세하게 묘사되었다. 일반적인 산신도의 호랑이가 친근하면서도 해학적인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에 비해 사실적인 묘사가 돋보인다.

그러나 산신의 몸체 일부와 산신의 배경으로 있는 산수 등에서는 사실적인 느낌이 다소 떨어지기도 한다. 산신의 몸체의 묘사 가운데 호랑이를 쓰다듬고 있는 오른손은 사실적으로 묘사된 것에 비해 파초선을 곧추 세워 들고 있는 왼손은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지 않아 어색한 편이다. 산신의 오른쪽으로는 산과 폭포, 영지가 묘사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적인 느낌이 떨어진다. 산에서 흘러내리는 세 단의 폭포는 물줄기가 직선으로 묘사되어 비사실적인 느낌을 주며, 비사실적으로 묘사된 폭포는 산신의 머리 위로 늘어진 소나무, 소나무 사이의 구름, 소나무 아래로 늘어진 꽃 등과 함께 이 그림에 민화적(民畵的)인 요소를 더해준다.

이 산신도는 화기(畵記)가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조성 연대와 화승 등을 알 수 없다. 그러나 화풍으로 볼 때 19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소나무, 산신, 호랑이 등이 안정된 배열 구성을 이루고 있고,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음영법과 섬세한 필치 등이 주목된다.

참고문헌 산신도(윤열수, 대원사, 1998), 서울특별시 기념물 및 문화재자료 지정고시(2005년), 서울의 사찰불화(서울역사박물관, 2007).
필자 오문선(吳文仙)

벙거지떡

정의 서울 만신들이 본인의 신령들을 위한 진적굿 때 천장에 당(堂)을 매고 그 위에 올렸던 떡의 하나.

내용 벙거지떡은 '당떡'의 하나로, 그 생김새가 마치 벙거지 모양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당떡은 네 가지 떡을 탑처럼 쌓아 한 세트를 이룬다. 당떡의 가장 하단에는 평평한 직사각형의 편떡(계피팥편) 2개를 놓고 그 위에 웃기(전병)를 얹는다. 이때 웃기는 다른 떡에 올리는 원형이 아니라 다소 크게 눈사람 형태 내지는 타원형으로 만든다. 그 위에 장구 모형의 떡이라 이름 붙여진 장구떡을 얹는다. 그 위의 가장 상단에는 벙거지 또는 갓 모양의 벙거지떡을 얹는다. 벙거지떡은 찹쌀이 주재료이며, 찹쌀을 익반죽하여 동그랗게 돌려서 만들어 상단에 손잡이 같은 꼭지를 만든다.

서울의 무당들은 정기적으로 자신들의 신령들을 위해 굿을 한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신을 받았던 날을 생일처럼 관념하여 한 해 한 차례 진적굿을 한다. 전통적인 서울 만신, 이른바 구대인들은 진적 전에 '삼산돌기'를 했다. 삼산을 돈다는 개념으로, 핵심은 서울굿의 가장 높은 신격이라고 관념하는 상산 최영의 당에 가서 물고(허락)를 받아오는 것이다. 이 당은 개성 덕물산에 있어서 그곳까지 갔다 와야 하지만 분단이 되면서 오늘날에는 인왕산 국사당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삼산돌기를 하여 진적굿을 하는 경우에는 굿



서울 진적굿중 당상에 오른 당떡
김형근

상 외에 세 개의 당을 매서 신령들의 좌정처로 삼았다. '사위삼당 또는 사해삼당'이라는 말을 관용어처럼 사용하고 있어서 세 개의 당을 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점차 이 전통이 사라지면서 당이 두 개, 한 개로 줄어들다가 오늘날에는 거의 당을 매지 않는다. 이 당 위에는 많은 제물을 차리지 않고 당떡 세 세트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편떡, 웃기, 장구떡, 벙거지떡이 하나의 세트를 이룬다.

참고문헌 무 굿과 음식 1(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서울굿의 다양성과 구조(김헌선, 한국무속학 12, 한국무속학회, 2006).
필자 김형근(金亨根)

베포도업춤

정의 제주도굿의 초감제에서 천지창조와 모든 자연 · 인문사상의 발생 배치를 상징하는 춤.

내용 초감제는 관복 차림으로 정장한 수심방이 신칼과 요령을 들고 서서 집행한다. 심방은 요령을 흔들어 하늘에 고한 다음 신칼을 들어 시간과 공간을 갈가르고(구분하고)나서 천지개벽, 동성개문, 일월성신의 발생, 국토의 형성, 국가의 도읍, 인물의 탄생 등 지리 · 역사적 현상의 발생을 차례차례 노래해 간다. 자연현상의 발생을 노래하는 것을 '베포친다'고 하며, 인문 발생의 현상을 노래하는 것을 '도업친다'고 한다.

초감제의 베포도업에서 추는 춤을 베포도업춤이라 하고, 춤에 맞춰 연주되는 연물(演物, 악기) 가락을 베포연물이라 한다. 한 단락의 노래가 끝날 때마다 소무(小巫)가 치는 연물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고, 춤이 끝나면 다음 단락의 노래로 넘어가는 형식으로 진행해 나간다. 수심방이 신칼을 들고 추는 춤이 중심이 되어 베포도업춤이 진행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자연현상과 인문사상의 발생을 노래하기에 앞서 신들께 굿의 시작을 알리고 제장에 오시도록 청한다. 관복 차림의 수심방은 신칼, 소무는 요령과 향로를 들고 함께 제상 앞에 선다. 수심방은 신


1


2


3


4

1. 소무는 향로와 요령을 흔들고 심방은 신칼춤을 추어 청신삼배(請神三拜)한다.

2. 심방이 신칼을 들고 자연과 인문사상의 발생을 '갈가르는 춤'[신칼춤]

3. 굿을 집행하며 베포도업[配布都邑] 과정을 창하는 심방

4. 천지창조와 인문사상의 베포도읍[配布都邑] 과정을 갈가르는 춤
제주시 외동1동 김희숙무용학원 | 2002.12.17 | 문무병


5


6

칼을 뿌리며 사방에 절을 하고, 소무는 요령을 흔들고 향불을 올려 신에게 굿의 시작을 알린다. 맨 처음 신들이 제장에 내려오시도록 청신을 권하는 배례(拜禮)이다. 이를 청신삼배(請神三拜)라 하며, 소미가 향로를 들고 추는 춤을 향로춤이라 한다. 이어서 인문사상의 발생을 노래하고, 한 단락의 내용이 끝나고 나면 간단한 춤을 추는 과정이 반복된다.

이 가운데 천지창조와 우주의 기원 생성을 이야기하는 '깁 가르는 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방은 "대시왕연맞이로 천지혼합시[天地混合時]제를 이르자"는 사설을 노래한 뒤 곧바로 춤으로 이어진다. 양손에 신칼을 들고 왼손의 신칼을 왼어깨에 얹었다가 내리고, 신칼을 나란히 잡고 천천히 세 번 돈다. 다시 왼쪽의 신칼을 왼쪽 어깨에 얹고 세 번 돌다가 왼쪽 신칼을 오른쪽 어깨에 얹는다. 소무는 향로를 들고 요령을 흔들면서 수심방과 함께 사방에 절을 한다. 수심방은 신칼을 양손에 나란히 들고 춤을 춘다.

참고문헌 제주도 무속신화(문무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한국의 굿(문무병 외, 민속원, 2002), 제주도의 굿춤(문무병, 각, 2005), 바람의 축제 칠머리당 영등굿(문무병, 황금알, 2005), 굿의 기메 · 전지(문무병, 제주특별자치도, 2008).
필자 문무병(文武秉)

별기은(別祈恩)

정의 무격이 왕실과 국가의 제재초복(除災招福)을 위하여 산천(山川)이나 신당(神堂)에서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벌이던 국행제(國行祭).

내용 별기은에 대한 기록은 고려시대에 처음 보이며, 고려 중기까지는 불교의 불사(佛事)나 도교의 제초(齋醮)로 행해진 제의란 의미로 사용되었다. 고려 말에 와서 별기은은 무격이 담당하는 행사로 기록되어 있다. 고려시대에는 단지 기은(祈恩)이라고도 하였으며, 조선시대 말에 사용된 별기도(別祈禱) · 산례(山禮) · 발기(撥記) 등의 명칭도 별기은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별기은이 중요한 점은 무격의 사제기능을 국가가 인정하였다는 점과,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제의 과정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무의(巫儀)의 형성과 전승을 가져와 무의의 체계화가 점차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그에 대한 폐단으로는 정기 · 비정기적으로 치러진 빈번한 제사에 따라 제비(祭費)의 소모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의 낭비를 초래한 점이 지적된다. 이러한 재정의 소모는 금무론(禁巫論)에 대한 하나의 구실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별기은고(이해구, 한국음악서설,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5), 조선전기의 민간신앙과 도교적 성향(조흥윤, 한국사상사대계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조선 후기의 무당과 굿(이필영, 정신문화연구 5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필자 박호원(朴昊遠)

별상춤

정의 별상굿이나 별상거리에서 별상신을 모시면서 추는 춤.

내용 별상춤은 서울에서 행해지는 진오귀굿, 재수굿 등 별상거리에서 추어진다. 서울굿거리이지만 경기도당굿에도 맛보기로 끼어들어 가기도 한다. 연산군 · 광해군 · 사도세자처럼 왕위를 비극적으로 잃었던 왕이나 세자를 신격화한 별상을 위한 춤으로, 굿거리와 자진모리를 장단으로 한다. 민간에서 가족의 안녕과 행운을 위해서 추는 제의로 신령을 기쁘게 해드리는 의미를 갖는 춤이다.

1. 굿거리

덩		기덕	궁	더러	러러	궁		기덕	궁	더러	러러

2. 자진모리

덩			궁			궁		따	궁		

별상춤은 부채와 방울을 들고 추는 춤으로, 반주에 맞추어 처음에는 제상 앞에서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며 추고 장단이 빨라지면서 뛰는 춤이 된다. 뛰는 춤이 반복되며 망아경에 빠지면서 공수를 준다. 공수가 끝나면 반주와 함께 다시 천천히 춤추고 다시 빨라진다.

춤사위는 다음과 같다.

1. **저정거리기** : 장단을 제자리에서 먹으면서 좌우로 몸을 실으며 추는 제자리 춤이다.
2. **밟기** : 제자리에서 사방을 중심으로 발걸음을 한 발씩 짚어주는데 땅을 모시듯이 정성껏 또박또박 밟아준다.
3. **뛰기(도무)** : 두 발을 도약하며 껑충껑충 뛰는 사위이다. 이때 두 팔을 서로 어긋나게 아래 위로 흔들게 된다.
4. **밖으로 몰기** : 부채를 펴들고 사방으로 나쁜 액을 쫓아내는 시늉을 한다.

참고문헌 한국무속도록(김태곤, 집문당, 1982), 한국의 무(조흥윤, 정음사, 1983), 무무(문화재연구소, 문화재관리국, 1987), 서울 진오기굿(김수남, 열화당, 1993), 한국의 샤머니즘(조흥윤,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황루시의 우리 무당 이야기(황루시, 풀빛, 2000), 봉화산 도당굿(중랑문화원, 2001), 경기도 남부 도당굿 중 제석굿 무가의 음악적 특징(박정경, 한국무속학 7, 한국무속학회, 2003), 서울굿의 장단사용과 장단구조의 연계성(김혜정, 한국무속학 12, 한국무속학회, 2006), 서울굿의 이해(한국무속학회, 민속원, 2007).
필자 이애주(李愛珠)

병굿

정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하는 굿. '치병(治病)굿', '환자굿', '중천굿', '별상굿', '우환굿' 등으로도 부른다.

내용 병굿을 할 때는 병의 원인을 망자의 원한에 의한 것으로 보고 해원을 하는 데 역점을 둔다. 그리고 환자의 몸에 실린 역귀를 퇴치해 병을 치료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병굿은 일반 망자 천도굿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구성을 보인다. 병의 원인이 망자의 원한과 연관된다고 보고 해원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강원도 고성 지역 환자굿은 부정굿, 서낭굿, 조상굿, 망자굿, 칠성굿, 산신굿, 성주굿, 대감굿, 말명굿, 장군굿, 발원굿, 꽃노래굿, 거리풀이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지역 굿의 기본 골격에 망자와 관련된 굿거리가 추가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치병을 목적으로 하는 굿으로는 환자굿이나 푸닥거리가 일반적이고, 여기에 영장치기 · 산거리 · 주천굿 · 명두굿 등이 있다. 특정한 병을 치료하기 위한 굿으로는 천연두를 퇴치하기 위한 별상굿 · 손풀이 · 마누라배송, 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맹인굿, 미친 병을 치료하는 광인굿 · 두린굿 등이 있다.

지역사례 병굿의 대표적인 사례로 순천삼설양굿을 들 수 있다. 인근 지역에서는 거리설양 또는 설양굿이라고도 한다. 설양굿의 어원은 설양(設禳)인 것으로 풀이된다. 가거도에서는 객귀에게 밥을 주는 것을 '양밥 준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양(禳 : 길제사, 길귀신; 驅儺)이 '거리 귀신에게 제사지낸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곧 설양굿은 거리잡귀를 위해 제사를 베푼다는 뜻이며, 거기에 삼(三 : 거듭, 자주)을 붙여 삼설양굿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뜻풀이에서 알 수 있듯이 삼설양굿은 잡귀를 먹이고 대접해서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내용이 부각돼 있다.

삼설양굿을 하게 되면 일반 씻김굿의 절차를 그대로 하고, 마지막에 잡귀와 잡신들을 대접하고

5. 베포도업[配布都邑] 제를 진행하는 심방

6. 베포도읍[配布都邑] 과정에 대해 신칼점을 쳐 신의 뜻을 점친다.
제주시 외동1동 김희숙무용학원 | 2002.12.17 | 문무병


1


2


3


4


5


6


7


8

1. 박진호씨댁 병굿 제물진설도
국립민속박물관

2~7. 박진호씨댁 병굿
국립민속박물관

8. 박진호씨댁 병굿 제물
국립민속박물관

놀리는 삼설양을 한다. 삼설양은 여러 사연이 있는 귀신들이 한 명씩 등장하여 자신의 사연을 말하고 한바탕 놀고 퇴장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도시, 한량혼신, 총각혼신, 처녀혼신, 총 맞고 죽은 혼신, 소동패 혼신, 벙어리 혼신, 임산부 혼신, 봉사 혼신, 도채비 등이 차례로 나온다. 무녀는 여러 귀신을 차례로 흉내 내며 악사와 재담을 주고받으면서 연극적 방식으로 굿을 진행한다. 삼설양은 병을 치료하고 집안의 우환을 털어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행되므로 갖가지 귀신을 불러서 풀어먹이고 보내는 과정이 중요시된다. 굿의 마지막에는 환자 머리에 바가지를 씌워 굿청 중앙에 앉힌 다음 무녀가 식칼과 도끼 등으로 잡귀와 잡신을 내쫓고 복을 불러오는 축원을 한다. 이와 같이 삼설양굿은 잡귀와 잡신들을 위로하고 달래서 우환의 근본을 제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 무속의 전통적인 귀신관이 그대로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순천삼설양굿은 이런 귀신관을 연극적으로 형상화한 치병굿놀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지역이나 무당에 따라 병굿을 하는 방법은 차이를 보인다. 세습무는 삼설양굿과 같은 방법으로 병굿을 하고, 강신무는 직접 원혼과 접선하는 과정이 부각되며, 법사는 독경을 통해 환자를 치료한다. 전북에서 40년 이상을 무업에 종사해 온 고창 안병채 법사의 경우 앉은굿으로 병굿을 한다. 안씨는 환자의 육십갑자에 따라 십이대왕에 매인 사주가 다르므로 그것을 뽑아서 풀어줘야 한다고 말한다. 먼저 산신경, 용왕경, 오방토지지신 명당경을 차례로 읽고난 다음에 산신 · 용왕 · 지신을 위한 합수고를 풀어준다. 이어 환자의 나이 · 주소 · 성명을 아뢰고 병경(病經)을 읽은 후에 조상해원경을 읽고 고를 풀어준다. 그리고 환자 가족에게 신대를 잡게 한 후 어떤 혼신이 해를 입히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별도로 위패를 써서 위로하는 회심곡을 읽어준다. 그리고 잡신을 털어내기 위해 털임굿을 한다. 털임굿은 옥추경을 읽은 다음 신장칼을 들고 오색천을 갈라 환자의 몸을 닦아주고 명태에 일곱 매듭을 묶어 대명대신으로 던져주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어 곳베를 펼쳐 길 가르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잡귀를 돌려보내는 퇴송을 한다.

참고문헌 한국무속연구(김태곤, 집문당, 1981), 씻김굿무가(이경엽, 박이정, 2000), 무구(이경엽 · 최진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필자 이경엽(李京燁)

본향(本鄕)

정의 한국무속에서 근본 · 근원을 의미하는 신령의 이름. 대개 굿을 청한 재가집 조상의 뿌리를 관장하는 신령을 의미한다.

내용 본향은 신령의 이름이지만 매우 추상적이다. 한국의 여러 신령을 형상화한 무신도에도 본향은 없다. 한국 무속의 여러 신령이 각각 맡은 소임이 있어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여러 공덕을 베풀어 주지만 본향은 직접적으로 인간과 만나지 않는다. 굿판에서 관례적으로 "본향이 어디냐?"라는 말이 있는 데에서 볼 수 있듯이 본향은 조상들이 거주하던 곳 또는 자신의 뿌리를 의미하는 말로 주로 사용된다.

본향은 서울굿 산거리의 초반부에 거명되거나 조상거리에서 가망, 말명, 대신을 거명하기 전에 잠깐 처들어진다. 무당은 본향가망종이와 방울을 들고 사방에 본향을 청배한다. 이때 "소산은 소본향 육산은 육본향 뼈주시고 살주신 본향 가망님 아니시리"라고 하든지 "수천향 마누라 수본향 마누라 씨 준 본향에 성 주신 양산에"라고 한다. 뼈와 살을 주었다고 본향을 거론하고, 씨와 성을 주었다고 거론하고 있음에서 본향이 근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거리가 팔도 명산의 산신을 거명하면서 지역신을 모시는 거리임을 감안하면 첫머리에 본향을 거명하는 것은 곧 지역적인 근원을 처드는 의미이다. 조상거리에서 가망을 청배하기 이전에 본향을 거론하는 것도 동일하다. 가망은 근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굿문을 열어 인간과 신이 굿청에서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가망보다 본향이 먼저 거명됨으로써 본향이 지닌 근원의 의미를 알 수 있다.

본향이 있음으로 인해 산거리와 조상거리가

재가집의 근본부터 탐색하는 거리라는 성격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

참고문헌 서울지역 안안팎굿 무가 자료집(김헌선, 월인, 2007).
필자 홍태한(洪泰漢)

본향당굿

정의 제주도의 각 마을에서 본향신에게 지내는 정기 당굿.

내용 본향당은 마을 주민의 생살여탈권과 생활을 관할하고 수호해 주는 신을 모신 당으로, 마을에 하나씩 있다. 이곳에서 본향당신을 위해 해마다 마을 단위의 정기적인 당제를 지낸다. 이를 통칭 본향당굿이라 하며, 개인적으로 본향당을 찾아가 지내는 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기적인 당제를 보면 처음에 신년과세제를 지낸다. 신과세제라고도 불리는 이 제의는 마을의 본향당신에게 새해 인사를 올리는 제의이다.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 사이의 날을 그 제일로 정하고 있으며, 이 제일에는 집안의 여성들이 새벽부터 정성스레 준비한 제물을 구덕에 지고 와 본향당에 모여 지낸다. 당맨심방이 제의를 주관한다. 제의의 내용은 도산받이라 하여 마을의 안녕과 생업의 풍요 등을 점치고 기원한다. 그리고 각 산받이라 하여 집안별로 가내 안전과 생업의 번창을 빌며, 한 해의 운수를 점친다. 이 제의는 정기제의 가운데 단골이 가장 많이 참여한다.

영등굿은 음력 2월 초하루와 13일에서 15일 중 마을별로 제일을 정하고 있다. 이 굿은 본향당에서도 행해지지만 바다를 관할하는 영등신을 모시는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바다 일과 관련된 것만을 기원하는 게 아니라 생업 전반에 대해 기원한다.

마불림제는 음력 7월 14일 또는 15일에 행하는 제의로 당신(堂神)에게 폐백으로 바친 삼색물색이라 불리는 천을 장마가 갠 후 꺼내 볕에 말려 곰팡이를 풀어내는 제의이다. 장마가 끝났다는 의미에서 장마 풀림으로 해석되기도하고 마불림제의가 세시풍속인 백중(百中)과 관련되어 있어 '마'를 '말'로 해석하여 우마의 번식을 기원하는 제의로 해석하기도 한다. 따라서 소나 말을 키우는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여 목장으로 가서 심방의 주관 없이 진행한다.

시만국대제는 음력 9월이나 10월의 어느 날을 제일로 정하여 행해졌던 제의이다. 곡식을 수확한 뒤 새 곡식으로 제물을 마련하여 올리고 기원하는 제로 전승됐으나 지금은 행하는 곳이 없다.

본향당의 정기의례 중 가장 많이 행해지는 제의는 신년과세제로, 마을의 단골 대부분이 참여한다. 이는 한 해의 첫 제의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기의례가 상황에 따라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한 예로 제의를 앞두고 마을에 상(喪)이 생긴 경우 부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해 제의는 행해지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도 본향당신을 찾는 경우가 있다.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중요한 대소사가 있을 경우 당맨심방에게 굿을 부탁한 후 가족의 소수만 본향당을 찾아가 비념을 진행한다.

참고문헌 제주도무속연구(현용준, 집문당, 1986), 제주도 무가본풀이 사전(진성기, 민속원, 1991),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각, 2007).
필자 강권용(康權用)

상호참조 신과세제(527쪽)

본향상(本鄕床)

정의 서울굿에서 본향거리 또는 본향바래기 · 산바래기에 차리는 제물상이다.

내용 본향거리는 언제나 보이는 굿 제차는 아니다. 또 본향이라고는 해도 본향조상, 본향가망, 도당말명, 본향산신 등 여러 계열이 나타나는데, 최근 본향상은 따로 차려지는 일이 드물고 다른 상으로 대신하거나 합하여 차리는 경우도 많다. 현재는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차리는 경우가 많은데 팥떡과 맑은 술이 대표적인 제물이며 그 외에 삼색나물과 전, 과일, 조과 등을 더하기도 한다.

산신본향을 모실 경우에는 비교적 정식으로 제물을 차린다. 산신본향상은 팥떡을 겹쳐 쌓아 3접시를 놓고, 맑은 술을 3잔 올리고, 생미 그릇, 밤, 대추, 약과, 다식, 팔보, 과일을 놓으며 상 양쪽으로 촛대를 세우고 본향종이를 놓는다. 가망본향상은 현재 서울 재수굿에서는 팥떡을 크게 나누어 놓고 그 위에 빈대떡 또는 전병만 올리고 끝내거나, 술잔 3개만으로 상을 대신하거나 밤, 대추, 빈대떡만으로 차리기도 한다.

팥떡은 본래 한국의 의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떡으로, 쌀가루와 붉은 팥고물을 시루에 안쳐 쪄낸 팥시루떡 또는 무시루떡이 가장 흔하다. 본향상에서도 이 떡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떡만으로 상을 대신하기도 한다. 노르스름한 겨피팥(붉은 겉껍질을 벗겨낸 팥)떡을 쓰거나 두 가지를 함께 쓰기도 한다.

참고문헌 한국의 샤머니즘(조흥윤,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굿과 음식 1(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서울굿의 상차림에 대하여(홍태한, 한국무속학 6, 한국무속학회, 2003), 굿상에 투영된 신에 대한 인식(이수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필자 이수현(李琇炫)

본향춤

정의 제주도 지역 무 의식에서 각 마을의 수호신인 본향당신[故鄕堂神]을 대접하는 본향풀이 절차 때 추는 춤.

내용 본향당신은 한라산을 떠돌다가 굿이 있을 때 마을로 들어온다. 심방은 마을을 수호하는 신인 본향당신을 대접하기 위하여 본향풀이에서 본향당신을 불러들이는 본향풀이를 한다. 본향당신을 불러들을 때 심방이 '감상기'를 당겨서 화살처럼 만들어 노루를 잡는 모습을 춤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이 춤을 일명 '활춤'이라고도 한다. 춤사위들은 모두 신의 동작을 흉내 내는 것들이다. 본향춤은 베포도업춤, 신청궤춤과 함께 신을 청할 때 추는 춤이다.

참고문헌 제주도의 굿춤(문무병, 각, 2005).
필자 장휘주(張輝珠)

봉등채

정의 경기도 남부 세습무인 산이 집단에서 제석굿을 할 때 쓰는 장단 가운데 하나.

내용 제석굿은 전통적인 굿에서 매우 중요한 굿거리로 다양한 음악이 쓰이고 굿거리가 복잡하게 구성되는 특징이 있다. 제석굿을 통해 인간의 생명과 복록을 기원함으로써 여기서 다양하고 풍부한 기원의 음악이 활용된다. 실제로 산이제 제석굿의 순서는 현행 굿과 매우 다른 고형의 면모를 구성하고 있다. 즉 제석청배(권선장단, 신모듬), 부정놀이, 올림채, 도살풀이, 모리, 발뻐드래, 중타령, 오니굿거리의 만수받이, 거리노랫가락 등 순서로 진행되는 과정은 제석굿의 고형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봉등채장단은 권선 다음에 무녀가 봉등채에 의해 춤을 추고, 신모듬이라고 하는 무가를 부를 때에 쓰는 장단이다. 또한 굿거리보다 한 박이 많은 3소박 5박 장단(3 · 3 · 3 · 3 · 3)이다. 봉등채 하나만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단과 연계되어 연행된다. 흔히 권선과 봉등채는 서로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으면서 순차적 구성의 요건이 된다. 권선장단은 2소박과 3소박의 혼소박으로 된 10박 장단(3 · 3 · 2 · 2)이다. 아울러서 봉등채장단 역시 단일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고 일정한 장단의 켜를 이루고 있어서 느린 장단에서부터 빠른 장단으로 이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장단의 빠르기인 한배가 달리 구성되고, 이 한배에 의해 장단이 연쇄되는 특징이 있다. 봉등채 초보와 봉등채 중보 사이에 연결되는 가락이 있어서 봉등채 연결 가락이 있는 격이다.

경기도 남부 지역의 산이 집단에서 '장단에 집을 짓는다'는 말을 곧잘 하는데 봉등채장단 역시 이러한 특징을 띠고 있다. '장단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 말은 단일한 장단을 일관되게 연주하지 않고

빠르기에 변화를 주며 가락을 다양하게 변주하는 등 장단의 규칙성과 불규칙성을 섞어 넣으며 차례대로 변주시켜 단칸에서 여러 칸으로 발전시키는 법칙을 말한다. 봉등채의 초보와 중보가 있으면서 신모듬을 하는 것은 이러한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봉등채장단의 초보에는 한삼을 뿌려 던지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면서 다양한 춤사위를 선보인다. 그리고 봉등채 넘기는 가락에서 잦게 춤을 몰아가다가 빠른 장단에 무가를 대면서 소리를 하게 된다. 봉등채장단의 중보에는 그에 맞추어 신모듬의 무가를 부른다.

한편 이 장단에 얹어 부르는 무가의 사설은 기록으로 남아 있어서 소개할 수 있다.

"신을 신을 신이로다 홑일곱도 신이로세 열일곱도 신이로다 일삼칠구 수에 집을 짓는다 그런 일곱 수가 언짢다고 하여 홑일곱에서부터 아흔 일곱까지 칠승귀 해살을 한데 모와서 잘 풀어먹여 달래여서 훼방 해살을 놓지 말아 달라"는 사설을 여기에 얹어 부른다. 봉등채 중보에 맞추어서 부르는 무가는 인간에게 좋지 않은 일을 야기하는 칠성귀를 없애고 해살(害殺)을 놓거나 훼방을 놓는다고 여기는 귀신을 물리쳐 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일곱 수마다 인간에게 고비가 오는데 이 고비가 바로 칠성귀라고 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 점은 매우 인상적이다.

참고문헌 지영희민속음악연구자료집(성금연 편, 민속원, 2000), 진쇠장단의 십일장단(박헌봉, 중요무형문화재보고서 28, 문교부, 1966), 시나위(유기룡 · 이보형, 중요무형문화재보고서 82, 문화재관리국, 1971).
필자 변남섭(卞南燮)

봉죽

정의 긴 장대 끝에 꽃으로 장식한 꽃대. 주로 황해도 지역과 해안가 일대에서 풍어를 기원하는 의미로 선주(船主)들의 뱃기를 걸어 두거나 굿하는 제장을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해 사용한다.

형태 굵고 긴 대나무에 새끼를 감고 그곳에 많은 꽃을 만들어 꽂아 놓은 꽃대이다. 길고 가느다란 대나무 조각에 오색 천을 오려서 길게 이어 붙이기도 하고, 흰 종이로 만든 서리화를 붙여 만들기도 한다. 서리화로 만든 봉죽은 특별히 사발봉죽이라고 부른다.

꽃잎으로 장식된 여러 개의 깃대 가닥을 다발로 묶어서 굿청 양옆과 도가집의 대문 앞에 세워 둔다.





봉죽
강화도외포리곶창굿 | 2004.3.2 | 김은희

내용 봉죽은 높은 장대 위에 화려한 꽃장식을 얹어 둔 것으로 대개 풍어제 또는 어촌의 마을굿에서 선주들의 뱃기를 걸어 두었다가 굿을 마친 후에 배에 가서 꽂아 두고 풍어를 기원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풍어제나 해안가 지역의 마을굿에서 굿을 시작할 때 선주들의 뱃기는 미리 봉죽 아래에 매달아 둔다. 굿이 진행되는 동안 봉죽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없으며, 굿이 다 끝나가는 무렵에 기내림 또는 당내림이라고 불리는 절차에서 과제(罷祭)를 행한다.

과제는 당내리기와 용왕제의 순서로 진행된다. 당내리기는 무당이 선주들을 위해 차례대로 풍어와 배의 안전운행을 기원하는 비손을 하고 기내림을 하는 것이다. 기내림을 할 때 선주들은 자기 뱃기 아래에 꽃반상을 차리고 선주와 선원의 생년월일을 적은 종이를 두면, 무당이 이를 보고 선주의 길운을 점친다. 모든 선주들의 배를 축원하고 나면 무당들이 기를 앞세워서 배로 이동하게 된다. 각 배는 풍물을 갖추어서 배풍장을 부르는 등 한껏 흥을 돋운 상태에서 먼저 도착한 기의 순서대로 이물에 기를 꽂는다. 그리고 나서 각 배의 선주들은 각기 배에서 간단한 제물을 마련해 요왕제를 올린다.

봉죽은 풍어제가 아닌 경우에도 사용되는데 만수대탁과 같은 큰굿에서 제장을 장식하고, 장발을 걸어서 높이 띄우는 도구로 사용된다.




참고문헌 김금화의 무가집(김금화, 문음사, 1995), 황도 붕기풍어제(태안군 · 태안문화원, 공주대학교 박물관, 1996), 황해도굿에 쓰이는 종이 신화와 신구의 종류, 형식, 상징성 고찰(양종승, 한국무속학 13, 한국무속학회, 2008).
필자 김은희(金銀姬)

봉화산도당굿

정의 봉화산에서 행하며, 재액을 물리치고 마을의 안녕을 위해 기원하는 마을굿. 이 굿은 2005년 1월 10일에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34호'로 지정되었다. 당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4동이다. 보유자로 무녀는 신위행, 악사는 김광수(金光洙)가 각각 지정되었다. 이들은 당주무녀와 악사당주의 전통을 각각 이은 후계자이다.

내용 전통적으로 봉화산은 '봉해뚝 도당굿'이라는 말로 사람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다. 예전에 봉화를 올리는 곳이 있었으므로 이 용어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과 상봉1동, 중화1동, 묵제1동 경계에 걸쳐 있는 봉화산은 조선시대 봉화대가 있던 산이다. 주변이 평지이기 때문에 우뚝 솟은 봉화산은 신앙 대상이 되었다.

봉화산 정상에는 당(堂)이 있다. 2칸 한옥으로 지은 당 안에는 목불(木佛)에 옷을 입힌 산신할머니상이 모셔져 있고, 왼쪽 옆에 동자상이 있다. 산신할머니 상이 있어서 '할미당'이라고도 한다. 아래쪽으로는 당지기 숙소와 제구(祭具)보관소가 있다. 현재 당은 대한제국 광무(光武) 4년(1900)에 수리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수리되었다. 당주는 37년 전부터 당에 거처하면서 관리를 맡고 있는 김소원 할머니이다.

이미 400~500년 전부터 지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확실한 기원이나 연도는 추정하기 어렵다. 예전에는 서촌마을 · 황촌마을(현재 상봉동) · 최촌마을(중화1동) · 피울(신내동) · 먹굴(묵동) · 현씨네(면목리)의 각성바지들이 모여서 굿과 제례를 하였다.

먹골의 경우 따로 당이 있어 떨어져 나갔으며, 동네가 개발되면서 농토가 없어지고 행정구역이 바뀌면서 변화를 겪게 된다. 1960년대 말부터는 음력으로 삼월 삼짇날에 중화동과 상봉동이 그해 도당굿을 지내면 신내동에서 이듬해에 도당굿을 지내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봉화산도당굿은 무녀가 주관하는 무굿과 마을의 화주가 유교식 제례를 함께 지내는 복합 형태이다.

도당굿의 제주는 굿 치성을 한 후에 뽑는다. 제주는 해마다 6월 초에 하는 간략한 작은 유가식의 고사와 치성을 하고, 2년마다 삼짇날에 하는 굿 치성을 주관한다. 봉화산도당굿의 제차에 관해서는 몇 차례 보고된 바 있으나 매번 다르게 정리

되고 있다. 이를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순서	1988. 황루시, 「한국인의 굿과 무당」	1995. 「중랑구지」, 2000. 「중랑의 발자취」	1999~2000 「봉화산도당제」 팸플릿	2001년. 하효길, 「봉화산도당굿」
1	불사 할머니굿	터대감놀이	거리부정	거리부정
2	진적	부정굿	청배무가	불사굿 2.1 주당물림 2.2 불사부정 2.3 가망청배 2.4 불사할머니굿 2.5 용궁불사
3	본향거리	봉화불사 할머니굿	불사굿	진적
4	상산 마누라	도당굿	천궁불사 사해용왕불사굿	도당가망청배
5	별상거리	대감놀이	진적	본향거리
6	신장굿	제석거리	본향거리	상산거리
7	대감거리	서낭놀이	별상굿	별상거리
8	제석거리	산할머니	신장굿	신장거리
9	창부거리	용궁놀이	대감거리	대감거리
10	구능굿	거리대감	무감	제석거리
11	대내림	신장놀이	제석굿	창부거리
12	뒷전	뒷전	창부굿	군웅거리
13	-	-	구능굿	용신거리
14	-	-	대내림	대잡이거리
15	-	-	뒷전	뒷전

이 표에서 봉화산도당굿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굿거리는 '봉화불사할머니굿'이다. 주요 제차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연행된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봉화산도당굿의 절차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각 정리자에 따라 굿거리에 대한 명칭이나 굿거리 구분을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된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굿거리를 정리하면 1. 거리부정, 2. 주당물림, 3. 봉화불사할머니굿, 4. 유교식제례, 5. 부정청배, 6. 가망청배, 7. 진적, 8. 본향거리, 9. 상산마누라거리, 10. 별상거리, 11. 신장거리, 12. 대감거리, 13. 제석거리, 14. 창부거리, 15. 군웅거리, 16. 용신거리, 17. 대내림, 18. 뒷전과 같다.

봉화산도당굿의 각 제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거리부정 : 일명 죽동굿이라고도 한다. 도당의 곳곳에 잡귀나 잡신 또는 부정한 기운이 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굿당 밖에서 먼저 부정을 푸는 것이다. 봉화산 정상 입구에서 거리부정을 한다. 이를 선부정이라고도 한다.

2. 주당물림 : 당지기집 마당의 사망돌 앞에서 하는 굿거리로, 당에 들어가서 하는 부정청배의 내용과 같다. 당에 들어가기 전에 당지기집 마당에서 부정과 주당을 물리는 것으로, 이와 함께 여러 신을 청하는 무가를 구송하는 것이다. 이때 막걸리와 나물 등 제물 약간을 밖에 버린다.

3. 봉화불사할머니굿 : 봉화산의 신령을 대표하는 산신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는 굿이다. 특히 불사굿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무녀는 흰 장삼에 붉은 가사를 입고 흰 고깔을 쓴 채 연행한다. 불사할머니굿에는 천궁불사와 사해용왕불사를 모시고 물동이타기(용궁사슬타기)를 하고 놀며, 주민들에게 공수를 주며 명잔과 복잔을 나누어준다.

4. 유교식 제례 : 제관 3명이 제단에 나와서 헌작, 배례, 독축의 순으로 예를 올린다. 굿과 마을제가 결합하는 공교한 대목이다. 유교식의 제례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지만 여기에서는 굿의 일환으로 진적을 드릴 때 나타난다.

5. 부정청배 : 무녀가 앉아서 각 부정이 들지 않고 동시에 여러 신이 도당굿에 오시기를 청하는 청배무가를 구송한다. 무녀는 장구를 치면서 청배한다.

6. 가망청배 : 부정청배에 이어 여러 신이 모두 제장에 와서 좌정하기를 기원하는 청배무가를 무녀가 앉아 장구를 치면서 구송하고, 도당가망노랫가락을 부른다.

7. 진적 : 무녀가 부정청배와 가망청배 구송을 마치면 도당굿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산신할머니께 절을 올리는 것이다. 이때 전악들은 반염불, 굿거리, 허튼타령, 당악 등의 음악으로 반주한다.

8. 본향거리 : 먼저 본향과 도당할머니 · 도당할아버지 등의 신을 모신 다음 신에게 공수를 받고 산말명, 대신할머니, 산제장, 굴막제장할아버지, 당지기 할머니, 대잡이 할아버지 등을 놀리는 굿이다. 이 굿거리는 마을의 웃대 조상과 후손이 만나는 매우 특별한 거리이다.

9. 상산마누라거리 : 일명 장군거리라고도 한다. 특히 상산의 높은 신을 맞이해 대접하는 굿거리로, 여러 장군신을 모셔서 공수를 듣는다. 상산마누라는 개성 덕물산의 최영 장군을 모시는 굿거리임을 알 수 있다.

10. 별상거리 : 상산마누라거리에 이어서 하는 굿거리로, 별상마누라라고 하는 신을 모시고 노는 거리이다. 특히 홍역 · 마마신을 잘 모셔서 주민들이 홍역이나 마마에 걸리지 않도록 기원한다. 이 굿거리를 마치면 상산마누라와 별상신의 뜻을 확인하고 제물을 바치는 월도 · 삼지창 사슬세우기가 이어진다.

11. 신장거리 : 산신장과 도당신장을 모셔서 노는 굿거리로, 오방신장을 뜻하는 오방기를 들고 그 위력으로 나쁜 기운을 모두 소멸하기 위해 도당주민들은 일일이 기뿝기를 한다. 각자의 재수 점치는 것도 기뿝기로 대신하며, 또한 나쁜 일을 미리 알고 대비한다.

12. 대감거리 : 도당대감, 부군대감, 살륭대감, 군웅대감, 봉화산 미륵대감을 청해 노는 굿거리이다. 이때 특히 주민들이 직접 쾌자나 무복(巫服)을 입고 춤을 추는 무감의 시간이 길게 주어진다.

13. 제석거리 : 이 굿거리는 특히 주민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굿이다. 자손들이 건강하고 크게 잘되기를 기원하며, 중상타령을 길게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바라시주를 걷는 '바라팔기'가 진행된다.

14. 창부거리 : 창부는 1년 동안의 횡수(橫數)를 막아주는 광대신으로, 창부타령으로 1년 동안의 평안과 무사를 기원한다.

15. 군웅거리 : 군웅장수신을 모시는 거리는 특별한 무가나 타령 등이 없이 행위로만 진행된다. 신칼 위에 군웅신에게 바치는 쇠머리를 얹어서 이를 가슴에 받치고 놀다가 사슬을 세우는 절차가 특별하다.

16. 용신거리 : 굿당의 아래쪽에 있는 옛 우물터인 용신당에 옮겨서 용신을 대접하는 굿으로 진행된다. 사해용신과 물할머니 · 물할아버지께 부정한 일을 막아 주고 물로 인한 사고를 막아 달라고 청한다. 사해용왕, 물할머니, 물할아버지, 칠성, 용궁천왕, 용신호구 등의 여러 용신이 공수를 한다.

17. 대내림 : 대잡이 할아버지가 참나무 대를 들고 굿당의 앞마당과 봉화산 정상 주위를 돌면서 도당신을 돌아보는 절차이다. 마당에 제물상을 차린 다음 그 옆에서 대를 잡기 시작한다. 대가 흔들려서 신이 내리기 시작하면 대를 앞세우고 산의 일대를 돌아온다. 돌면서 중간에 상을 내려 놓고 사방에 활을 쏘면서 마을의 여러 집안을 위한 축원과 공수를 하고, 터에 술과 떡을 던지기도 한다. 당으로 돌아온 후 무녀는 닭을 던져서 닭의 머리가 산 아래쪽을 향하면 마을의 액을 물리게 된다고 하여 굿을 마친다.

18. 뒷전 : 여러 신의 뒤를 따라서 들어온 잡귀와 잡신을 풀어먹이는 마지막 절차이다. 먼저 굿당 앞에서 작은 상에 몇 가지 음식을 차린 후 산걸립 · 서낭 · 맹인 · 영산 · 수비를 풀어먹인 뒤 당지기집으로 이동해 앞서 주당물림을 했던 사망돌 앞에서 다시 한 번 산걸립~영산, 수비 등의 여러 잡귀와 잡신을 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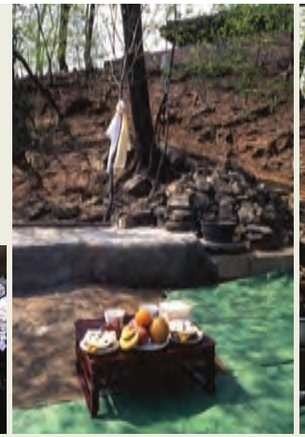
봉화산은 소산이어서 산신할머니께 고기를 올리지 않는다. 그러나 소 치성이라고 하여 해마다 6월에 산신께 소의 내포(간 · 염통 · 콩팥 · 천엽 등)를 떠서 치성을 드렸다. 봉화산의 이중적인 굿과 치성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굿과 제의 양면성이 작동하면서 이러한 봉화산을 위하는 내력이 교묘하게 교차한다.

굿치성과 소치성 시에 운용하는 제물이 각각 다르다. 소치성 때는 고기를 나눠 갖기 때문에 참여 인원이 많다. 소치성 때는 소의 내포와 막걸리를 올린다. 굿을 할 때는 고기를 올리지 않고 삼색과(三色果)와 육(肉), 백설기, 나물, 밥, 옥수를 올린다. 제비(祭費)는 추진위원들이 치성에 참가하는 집을 돌아다니며 추렴한다. 추렴한 경비에 대한 응답으로 반기 또는 봉송이라고 하여 일정한 제수를 되돌려주는 일을 한다.

도당굿이 끝나면 사례제를 지낸다. 이를 흔히 '사흐레치성'이라고 말한다. 예전에는 밤 1시에 화주들이 제관이 되어 초헌, 아헌, 종헌, 독축, 소지 순서로 진행한다. 이때는 메 · 떡 · 채 · 탕만 올리며, 제가 끝난 뒤 음복하고 돌아온다. 지금은 사례제 의식이 축소되어 제주들이 이튿날 아침에 당 아래 살고 있는 할머니 거처로 올라가 할머니에게 제를 올린 뒤 아침을 먹는 것으로 끝낸다. 현재 도당제는 2000년에 결성된 봉화산 도당제 보존위원회 주관으로 음력 3월 3일에 열리고 있다.

봉화산도당굿은 경기도 북부 지역의 마을굿에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사례로 중요한 의의가 있

봉화산도당굿
정수미




























다. 이 굿에서 유교식 제례와 무속식의 굿이 합쳐지면서 이 두 가지가 복합되어 나타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가돌기와 대내림 등의 행사는 개성 덕물산의 도당굿에까지 이어지는 마을굿의 전형적 특징이다.

참고문헌 한국인의 굿과 무당(황루시, 문음사, 1988), 중랑구지(중랑구청, 2000), 봉화산도당굿(하효길, 중랑문화원, 2001).
필자 김헌선(金憲宣)

부군(府君)

정의 부군당에 모셔진 주신(主神)으로, 무속이나 마을 신앙에서 모셔지는 마을의 수호신.

어원 부군신이 모셔진 부군당은 붉은당 · 부강전(富降殿) · 부군묘(府君廟) · 부근당(付根堂) · 부군사(符君祠) 등으로도 쓰인다. 그 유래에 대해 최남선은 '붉은'설을 제기하였다. 그는 『불함문화론(不含文化論)』에서 "조선에서는 '붉(Părk)'을 본원으로 하여 '붉은(Părkăn)'이라고도 하였고, 전하여 '부군(Pukun)' 또는 단순히 '불(Pur)'이라고도 칭하였다"라고 하여 '부군(府君)'이란 표기는 태양신을 의미하는 '붉은(Părkăn)'의 음차(音差), 부군당은 이러한 태양신을 숭배했었던 전통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았다. 조지훈은 제당의 명칭을 분류하면서 '붉신(神)'계와 '붉은'계를 구분하고 '붉은'계에 부군당계를 포함시켰다. 그는 "부근(付根) · 부군(府君 또는 富君)은 팔관(八關) · 불구내 · 붉은의 유속"으로 보았다.

한편 김태곤은 그 원음을 '불근', 즉 생산을 상징하는 성(性)신앙의 '불(불 · 불두덩 · 부삿 · 부랄)'에서 온 말로 보아 '부근(付根)'이 마을을 수호신의 뜻을 지닌 '부군(府君)'과 성신(性神)의 생산적 상징을 띠는 '부강(富降)'으로 발전했을 것이라며 남근 봉안 풍속과 관련된 명칭으로 보았다. 이밖에 '부군(府君)'은 한대(漢代)에 태수(太守)를 칭한 것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본 이능화의 견해가 있다. 그는 조선 각 군의 부군당에는 대개 임소에서 죽은 수재(守宰)가 모셔져 있으며, 부군당이란 명칭은 이처럼 고을 수령이나 관리를 신으로 모시는 관행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았다.

유래 부군에 관한 비교적 이른 시기의 것으로 조선 『중종실록(中宗實錄)』 중종 6년 3월 29일 기묘(己卯)에 "양현고 안에 부근당(付根堂)이 있다. 부근(付根)은 관부에서 기축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나라의 풍속이다(養賢庫內有付根堂[付根者 官府設祠祈祝 國俗也])"라는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군의 역사는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군 신앙의 구체적인 유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攷)』 권 2 한성부(漢城府) 사묘(祠廟)에 "부군사(符君祠)는 각사(各司) 아전의 청방 곁에 있으며, 해마다 10월 1일에 제사지낸다. 세상에서 혹 말하기를 고려의 시중 최영(崔瑩, 1316~1388)이 관직에 있을 때 재물에 깨끗하고 징수를 하지 않고 이름을 떨쳤으므로 아전과 백성들이 사모하여 그 신을 모셔 존숭한다고 한다. 각 고을에도 모두 있다"라고 하여 부군 신앙이 최영 장군에 대한 신앙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도 있다. 또한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천지편(天地篇) 천지잡류(天地雜類) 귀신설(鬼神說) 화동음사변증설(華東陰祀辨證說)에서 "부근은 송씨저(송각시)가 살려 있어 사방 벽에 목경물을 많이 만들어 달고 지나치게 음설하였다(付根 乃宋氏姐所接 四壁多作木莖物以掛之 甚淫褻不經)"라고 하여 부군 신앙이 남근 봉안 풍속에서 유래하였다는 설도 있다.

내용 부군신으로는 단군(檀君), 이성계(李成桂), 김유신(金庾信), 남이(南怡) 장군, 최영(崔瑩) 장군, 임경업(林慶業) 장군, 송씨(宋氏) 처녀 등이 있다. 부군신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신도에 잘 나타나 있으며 부군신은 대개가 남성이며 부부가 함께 모셔지기도 한다. 복색을 보면 남신인 경우 주립이나 복두를 쓰고 철릭 아니면 포를 입고 있는 등 일반 평민이 아닌 고위 관리의 형상을 갖추고 있다. 여신의 경우도 족두리나 화관(가체머리)을 쓰고 원삼이나 활옷을 입고 있어 역시 고귀한 신분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들 복색은 산신이나 대신할머니, 용왕 등이 입고 있는 옷과 달리 제도적인 공복(公服) 성격이 강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조선시대에 쓰인 『연암집(燕巖集)』의 안의현 현사사곽후기(安義縣縣司祀郭侯記)에서도 "주립(朱笠)에 구슬 갓끈을 달고 호수(虎鬚)를 꽂아 위엄과 사나움이 마치 장수와 같다"라고 하여 지금의 모습과도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부군신을 위하는 의례 형식에는 무속식(당굿)과 유교식이 있다. 부군당 의례는 대개 음력 10월 초나 정월 초에 행해진다. 제당의 형태는 대부분 맞배지붕에 기와를 얹고 단청 등으로 장식하고, 기타 부속건물과 마당 등도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규모가 큰 편이다. 부군당 의례의 전승은 보존회나 향우회 · 노인회 등 자치 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굿거리는 대개의 경우 유가돌기, 주당물림, 부정가망, 불사거리, 산거리, 조상거리, 대안주, 군거리, 군웅거리, 성주, 창부, 뒷전 순으로 행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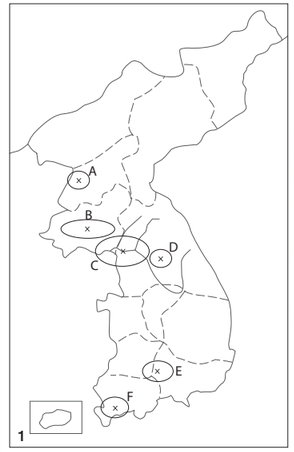
지역사례 부군당은 주로 서울 한강 유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경기도 김포 · 연천 일대와 강화와 임진강 유역에도 분포되어 있다. 부군당이라고 확실하게 명시된 경우와 부군당으로 추정되는 경우까지 합하면 2006년을 기준으로 서울 지역만 35곳이 확인되었으며, 이 가운데 21곳에서 전승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부군당이 대개 관청의 부속 건물로 건립되었으며 서울뿐 아니라 평안도 · 황해도 · 경상도 · 전라도 · 강원도에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경기도 연천군 중면 삼곶리와 군남면 선곡리에서는 일제강점기 때까지 부군굿을 행했다고 한다. 부군당과 같은 제당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공터나 신목(神木) 밑에서 음력 10월경에 부군굿을 하였다. 연천군의 장남면 고랑포리에는 제당이 있었다. 이를 부군당이라 불렀으며, 여기서 하던 굿을 '고창굿'이라 하였다. 고창굿은 주로 배를 부리던 선주들이 중심이 되었으며, 10여 명의 무당에 의해 거의 한 달간 지속된 대규모 굿이었다고 한다. 광복 후에도 한두 번 굿을 했으나 한국전쟁 후에는 중단되었다고 한다. 강화도 읍내리 부군당에는 남근 모형이 봉안되어 있어 서울 지역의 신길2동과 같이 부군당 내 남근 모형 봉안 풍속이 전승되고 있다. 한편 함경북도 지방의 촌락사회에서 관행되었다고 전해지는 봉사적 협동노동의 형태를 '부근(附近)'이라고도 하는데, 민간신앙 대상으로서의 부군과는 별개이다.

의의 부군신은 과거에는 서울이나 지방 관청의 부속건물에 모셔졌으나 현재에는 주로 서울 한강 유역의 마을 제당에 모셔지고 있어서 서울 지역의 특징적인 민간신앙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약 5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민간신앙이지만 옛 문헌에 나타난 형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한강을 중심으로 한 해상유통과도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역사적 · 문화적 · 학술적 가

1. 부군당 분포와 문화권
A 평안도 영유현
B 황해도 신천군(좌) · 서흥부(우)
C 한강유역
D 강원도 원주목
E 경상도 안의현
F 전라도 영암군

2. 작은한강부군당 부군 무신도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작은한강부군당 | 2007.2.17 | 김태우

3. 밤섬부군당 부군내외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밤섬부군당 | 2007.2.17 | 김태우



1


2


3

치가 매우 크다.

참고문헌 조선무속고(이능화, 계명구락부, 1927), 한국민간신앙연구(김태곤, 집문당, 1983), 한국농경세시의 연구(김택규, 영남대학교출판부, 1985), 서울 한강 유역 부군당 의례 연구(김태우,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누석단 · 신수 · 당집 신앙연구–서낭고(조지훈, 문리논집 7, 고려대학교 문리과대학, 1963).
필자 김태우(金泰佑)

부정(不淨)

정의 굿하는 장소를 청정하게 하기 위해 부정을 칠 때 부르는 무가이자 이의 반주 음악.

내용 및 지역사례 부정무가는 같은 동해안이라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 가운데 경남과 경북이 가장 큰 대조를 이룬다. 경남 지역은 별신굿이든 오구굿이든 부정거리가 따로 없기 때문에 선부정으로 간단하게 치르는 반면 경북 지역은 부정거리가 독립된 석(席)으로 있기 때문에 앉은부정으로 길게 부정을 치고 이어 선부정으로 마무리한다. 경남의 부정무가와 부정장단은 굿에 따라 내용이 달라서 별신굿과 오구굿의 내용이 다르다. 이에 비해 경북의 부정무가와 부정장단은 굿에 따른 차이가 없다. 이처럼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는 부정굿의 연행 형태가 다른 만큼 음악도 다르다.

경남 동해안의 별신굿에서 불리는 부정무가는 부정을 칠 때도 쓰지만 문당굿 등에서도 사용된다. 이 장단은 특별한 명칭이 없고 "일세동방결도량, 이세남방득천량"의 사설로 부르기 때문에 이 무가를 반주하는 장단을 '염불장단'이라고도 한다. 별신굿에서의 부정무가는 도가집굿에서 푸너리장단에 이어 연주되며, 하나의 장(章)으로 되어 있다. 무가와 장단은 2소박 6박으로 되어 있다. 징은 제1장단에서 첫 박에 치지만 제2장단에서 4박, 5박, 6박에 들어간다. 그리고 경남 동해안의 오구굿에서 불리는 부정무가는 골맥이굿 끝에 선부정으로 간단히 불린다. 무당과 악사는 각각 3소박 4박(♩×4박)으로 무가를 부르고 ♩×4박으로 간주를 한다.

경북 동해안에서 불리는 부정무가는 굿당에서 첫 번째 거리로 하며, 별신굿과 오구굿에서는 차이가 없다. 앉은부정으로 시작하여 선부정으로 마친다. 앉은부정은 3장, 선부정은 2장 구성이다.

앉은부정 초장에서는 무당이 혼소박(♩+♩+♩박)×4박으로 무가를 부르며, 악사가 (♩+♩+♩박)×4박으로 간주를 한다. 징은 간주를 하는 첫 박에만 한 번 친다. 앉은부정 2장은 3소박(♩)×4박으로 무가가 불리며, ♩×4박에 간주가 따른다. 징은 간주의 첫 박에만 한 번 울린다. 2장은 ♩×4박 장단이지만 2소박(♩) 리듬을 유난히 많이 쓰는 특징이 있다. 앉은부정 3장은 여러 장(章)으로 된 경북 동해안 무악장단의 말장(末章)과 같은 장단이다. 양중에 따라 이 장단을 동살풀이, 단약이라고 하기도 한다. 3장은 무가와 간주의 리듬이 3소박이고, 매 박에 울리며, 템포가 빨라지는 것이 2장과의 차이점이다.

앉은부정에 이어지는 선부정은 모두 2장 구성이다. 1장은 무당이 바가지의 물을 신칼로 찍어 뿌리면서 부르고, 2장은 바가지의 쌀을 사방으로 뿌리면서 부른다. 또 선부장 1장은 3소박(♩)×4박으로 무가를 부르며, 징은 매 박에 한 번 친다. 이 장단은 경북 동해안의 여러 무악장단 가운데 말장에서 흔히 보이는 동살풀이와 같다. 또한 선부정 2장은 음악에서 1장과 차이가 없고 가사만 다르다.

참고문헌 동해안의 굿음악, 그 전승과 단절의 역사(장휘주, 민속원, 2008).
필자 장휘주(張輝珠)

부정상(不淨床)

정의 서울굿에서 부정을 물리기 위해 차리는 상.

내용 굿판에 부정이 있어서 신을 청배하기에 앞서 부정을 일일이 예거하고 물리는 의례를 행한다. 이 부정을 물리는 일을 처음에 하면서 이때 차리는 상을 부정상이라고 한다. 부정은 부정청의 막연한 신이다. 이 신격을 위해서도 굿상을 차린다고 하는 것은 무속의 특별한 관념을 대변한다.



청학보살 진적–부정굿을 하기 위해서 제물을 올리다가 떨어지거나, 흠집이 난 음식들을 모아서 미나리 생채와 함께 차린 부정상
합의굿, 인천 둑실굿당 | 2005.4.11 | 김헌선



경기도도당굿의 부정거리를 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도당굿 공개행사
용인민속촌 | 2009.4.12 | 김헌선

부정상은 흔히 굿상을 차리고 난 뒤 문 밖을 향해 차린다. 팥떡, 웃기, 수파련, 삼색실과 한 조각씩, 나물(신금추 · 고사리 · 도라지 · 콩나물), 북어, 술 세 잔, 청수 한 그릇, 메 세 그릇, 소지종이 등을 갖추어서 주로 놓는다. 부정상의 곁에는 부정을 물리는 핵심적인 것으로 맑은 물과 잿물이 놓인다. 잿물은 전통적으로 바가지에다 아궁이의 잿가루를 담고 여기에 고춧가루와 소금 등을 곁들인다.

부정상은 두 가지 상반된 관념으로 구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는 굿상의 일반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굿판에 참여한 모든 것에게 음식으로 일단의 공궤를 하는 특징을 볼 수 있다. 아무리 하찮은 존재라 해도 이 존재를 위해서 약간의 음식과 주과를 베푸는 것은 기본적인 사고의 표현이다.

이 잡귀와 잡신은 굿판에 참여했어도 온전한 구실을 하는 신이 아니라 부정적인 구실을 하는 신격이다. 이 신격들은 맑은 신이나 위계가 높은 신을 모시는 데 있어서는 안될 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신격들이 배척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잡신을 물리는 데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구축의 성격을 띠는 것이 바로 맑은 물, 소지종이, 잿물, 소금 등이다.

부정물림에서 핵심은 불과 물이다. 불은 부정한 것을 태워서 없애는 기능을 함으로써 일정한 정화 기능을 수행한다. 물 역시 정화 기능을 한다. 불을 태워서 재를 내고, 이 잿물을 섞어서 부정을 물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소금은 정화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지만 어떤 대상의 부패를 막는다. 이 소금이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된다.

전라도굿에서 굿의 서두를 시작하는 장소는 부엌이다. 부엌에서 이른바 조왕반을 하게 된다. 조왕반은 서울굿의 부정상에 부정물림에 사용되는 도구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조왕반은 아궁이 신을 위해 바치는 의례이다. 부엌은 정화의 핵심적인 면모를 과시하는 곳이다.

부엌은 자연과 문화가 서로 상충하는 공간이다. 이 공간은 여성들이 음식을 만드는 곳이면서 아궁이로 구들을 통해 온돌을 달구는 곳이다. 인간의 먹을거리와 집을 일구는 기본적인 공간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적 창조의 공간이자 여성이 주된 구실을 하는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필수적으로 자연적인 것을 가공해 문화적으로 바꾸는 기능을 하는 것이 곧 불과 물이다. 불과 물을 통해 구현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하면 조왕반으로 굿을 시작하는 일이 이해된다. 부정상에 놓인 부정물림의 기능을 하는 것이 단순하게 한 지역의 사례는 아니고, 게다가 임의적 방식은 아니다.

부정상은 굿거리의 초입을 장식하는 굿거리에 쓰이는 굿상이다. 부정신을 청배해 부정을 물리는 데 있어 평복을 입은 만신이 부정청배를 한 뒤에 물과 불을 사용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정상이다. 한국무속의 보편적인 신관념을 이해하는 단서이므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참고문헌 한국의 무(조흥윤, 정음사, 1983).
필자 김헌선(金憲宣)

부정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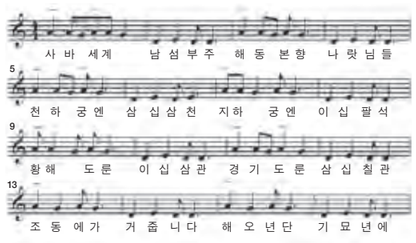
정의 황해도굿에서 무당이 부정(不淨)을 풀어내면서 부르는 무가.

내용 부정풀이는 황해도굿의 인간 수명을 관장하는 칠성신(七星神)을 모시는 거리에서 구송된다. 칠성거리는 불교 계통의 신을 모시는 거리이기 때문에 불교적 색채가 짙다. 예를 들어 칠성거리에서 무당은 승려를 상징하는 무복을 입는다. 머리에는 흰 고깔을 쓰고, 흰 장삼을 입은 다음 홍룡가사 · 청룡가사를 차리고, 제비홍띠를 가슴에 두르고, 백팔염주를 목에 걸고 굿을 진행한다. 무당은 신을 굿판에 청하는 청배무가를 부른 다음 제금을 들고 불교에서 승려가 재(齋)를 올릴 때 추는 바라춤을 흉내 낸다. 그리고 굿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부정풀이를 부른다. 이는 재가집의 부정한 기운을 가시기 위해 부르는 것이다.

무당은 부정풀이를 빠른 2소박 4박(4/4박자) 장단에 얹어 부른다. 한 장단에 노랫말 4자가 붙으며, 두 장단이 의미 있는 노랫말 한 악구를 이룬다. 대부분의 황해도 무가가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데 비하여 부정풀이는 무당이 혼자 통절 형식으로 부른다.

무당이 부정풀이를 부를 때는 왼손에 작은 경쇠(磬釗)를 들고 오른손에 쥔 채로 매 박에 경쇠를 치면서 반주를 한다. 경쇠는 불가(佛家)에서 유래된 것으로, 승려가 예불할 때 치는 작은 종을 가리킨다. 칠성거리에서 무당이 부정풀이를 부르면서 경쇠로 반주하는 것은 칠성거리가 불교 계통의 신을 모시기 때문에 승려의 모습을 흉내 낸 것이다. 부정풀이의 노랫말 또한 불교 계통의 노랫말을 지닌다. 노랫말은 다음과 같다.

〈보례〉 부정풀이 (김매물 노래 / 이용식 채보)



참고문헌 황해도 굿의 음악인류학(이용식, 집문당, 2005). 한국음악의 뿌리, 팔도 굿 음악(이용식,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9).

필자 이용식(李庸植)

불도맞이

정의 제주도굿의 한 종류로 아기의 점지와 출산 · 양육을 담당하는 산육신(産育神)인 생불할망(삼승할망), 아기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저승할망(구삼승할망), 그리고 마마를 앓게 하는 마마신을 맞이하여 모시고 행하는 제의.

내용 불도맞이는 단독의례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큰 굿의 일부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아기의 잉태 혹은 아기의 안전한 출산을 기원하거나, 아기가 병에 걸렸을 때 치유를 기원하기 위해서 한다.

'불도맞이'에서 '불'은 '아기' 혹은 '인간'을, '도'는 '신(神)'을 뜻하는 말이다. 따라서 불도맞이란 아기와 관련 있는 신들을 맞이한다는 뜻이거나 이러한 신들을 맞이하여 행하는 제의라는 뜻이다. 현존하는 불도맞이에서는 〈생불할망본풀이〉 · 〈마누라본풀이〉 · 〈이공본풀이〉라는 세 편의 신화가 구송되고 있는데, 이 중 〈이공본풀이〉라는 신화는 원래 이공제, 혹은 이공맞이제에서 불렸던 신화가 생명꽃 화소 때문에 불도맞이에 수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행해지는 불도맞이제는 1. 초감제, 2. 수룩침, 3. 생불할망본풀이 구송, 4. 질침, 5. 마누라본풀이 구송, 6. 이공본풀이 구송과 악심꽃 꺾음, 7. 꽃타러듦과 꽃풀이, 8. 상단숙여 소지사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초감제** : 제주도 무의식(巫儀式)의 첫머리에서 행해지는 의식이다. 언제, 어디서, 왜, 무엇 때문에 굿을 하는지를 신들에게 고하고, 제의가 행해지는 장소로 신들을 불러 모신 후 자리에 앉히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여기에서는 제의를 하는 시공간을 말할 때 그 시공간이 마련된 기원적 사실부터 이야기하기 때문에 천지창생신화, 즉 배포도업침 같은 것이 구송된다.

2. **수룩침** : 심방들이 배역을 정하고 극적(劇的)인 행위를 통해 ○○절에 권재삼문을 드리면서 아이 얻기를 기원하는 제(祭)인 원불수륙재를 드리는 것이다.

3. **〈생불할망본풀이〉 구송** : 심방이 앉아서 〈생불할망본풀이〉라는 신화를 구송하는 것이다. 이 신화는 명진국따님애기와 동해용왕따님애기가 하늘에 올라가 꽃피우기 시합을 통해 생불신과 저승할망이 되는 내용으로 생불신이 된 명진국따님애기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꽃씨를 얻어와 지상에 '서천꽃밭'을 만든 후 여기에 핀 '생불꽃'을 따가지고 다니며 부부에게 아기를 점지 · 잉태케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 생불신은 아기산육신을 뜻하고, 저승할망은 아기들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신을 말하는데, 꽃피우기 시합에 진 동해용왕따님애기가 나중에 저승할망이 된다. 생불할망은 삼승할망, 저승할망은 구삼승할망이라고도 한다.

4. **길닦기** : 〈생불할망본풀이〉에 등장하는 신들을 굿하는 제청으로 모시기 위해 신들이 오시는 길을 깨끗하게 닦는 것인데, 극적인 행위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이루어진다.

5. **〈마누라본풀이〉 구송** : 심방이 앉아서 〈마누라본풀이〉라는 신화를 구송하는 것이다. 이 신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불신이 수많은 아기들을 점지하여 출산을 시키고 있다가 서천강다리 건너에서 마마신인 대별상마누라가 아기들에게 마마를 주기 위해 길을 가는 것을 발견하고, 찾아가서 공손하게 "내가 태어나게 한 아이들이 고운 얼굴이 되도록 호명(천연두)을 앓게 해 달라"고 부탁한다. 마마신은 "여성이라는 것은 꿈에만 보여도 사물인데, 대장부 행차길에 사망(邪妄)한 여성이 웬 일이냐? 괘씸하다."고 하며 오히려 아이들 얼굴이 뒤웅박이 되도록 풍문을 준다. 이에 생불신은 마마신을 괘씸하게 생각하고 그 부인을 잉태시킨 후 열두 달 동안 해복을 못하게 한다. 부인이 죽어가게 되자 마마신은 할 수 없이 생불신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빈다. 생불신은 자신을 위해 서천강다리를 놓아 줄 것을 요청한 후 마마신의 부인을 해복시켜 준다.

6. **〈이공본풀이〉 구송과 악심꽃 꺾음** : 심방이 〈이공본풀이〉라는 신화를 구송한 후 배역을 나누어 극적인 행위로 악심꽃을 꺾어 버리는 것이다. 〈이공본풀이〉 신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라도령이란 신이 서천꽃밭으로 꽃감관을 살러 가게 되면서 잉태한 부인 원강아미와 함께 길을 떠난다. 중간에 부인이 힘들어해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게 되자 부인을 장자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맡긴다. 이후 이곳에서 아들 신산만산할락궁이를 낳고 할락궁이는 15세가 되던 해 부친을 찾아 떠난다. 그러자 장자는 탐욕의 대상으로 생각하던 부인이 말을 듣지 않는데다 그 아들마저 도망가자 부인을 죽여 띠밭에 버린다. 아들은 서천꽃밭에서 꽃감관을 하고 있는 부친을 만나 웃음웃을꽃, 싸움싸울꽃, 수레멜망악심꽃, 도환생꽃 등을 얻어 장자의 집으로 돌아와 사라도령에게 받은 앞서의 3가지 꽃을 이용해 장자의 가족을 죽이고, 도환생꽃으로 어머니를 살린 후 서천꽃밭으로 돌아간다. 악심꽃 꺾음은 악심꽃이 원래 인간을 죽게 하는 꽃이기 때문에 꺾어 없애는 것이다.

7. **꽃타러듦과 꽃풀이** : 꽃타러듦은 서천꽃밭이라는 곳에 몰래 들어가 생불꽃을 따오는 것이다. 꽃풀이는 서천꽃밭에서 타온 꽃을 보며 자식의 유무와 성별을 점치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극적으로 행해지는 것인데, 그 내용은 모두 〈생불할망본풀이〉라는 신화 내용에 근거하여 행해지는 것이다. 생불꽃은 아기를 점지 · 잉태케 하는 생명의 꽃이기 때문에 따오려 하는 것이다. 꽃풀이는 원래 〈생불할망본풀이〉에 나오는 바 서천꽃밭에 있는 꽃들 중 동쪽의 푸른 꽃은 아들을, 서쪽의 흰색 꽃은 딸을 점지해 주고, 북쪽의 검은색 꽃은 단명을, 남쪽의 붉은 꽃은 장명을, 중앙의 황색 꽃은 만과출세 하는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따온 꽃을 보면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성별 및 그 아이의 앞날을 점쳐 본다. 심방은 꽃타러듦 및 꽃풀이와 같은 놀이를 통해 불도맞이와 같은 굿을 의뢰한 본주가 아이를 잉태 · 출산할 수 있는지, 만약 잉태를 할 수 있다면 딸이나 아들 중 어떤 아이를 낳을 것인지를 미리 점쳐 알려 준다.

8. **상단숙여 소지사름** : 이 제의가 불도신을 맞아 행하는 제의임을 말한다. 이것은 소지를 올린 후 자손의 액년(질병이나 죽음)이나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을 막아 주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이어 산점(算占)을 통해 신의 뜻을 묻고, 신이 우리 인간의 기원을 들어주셨다는 것을 확인한 후 제의를 마친다.

이상과 같은 불도맞이굿은 상황에 따라 그 내

용이 조금씩 가감될 수도 있다.

큰 굿의 경우 불도맞이 상은 마당에 따로 2단으로 차리는데, 위에는 산육신인 삼승할망상을, 아래에는 칠원성군상을 차린다. 삼승할망상에는 반드시 꽃사발을 올리는데, 이는 쌀을 담은 사발에 동백꽃 가지를 몇 개 꽂은 것으로, 이러한 꽃사발은 생불꽃을 상징한다. 굿청에는 서천강연다리를 상징하는 긴 무명을 깔고 굿을 하며, 기메로는 삼불도 송낙 및 구삼승할망의 꽃을 상징하는 악심꽃도 사용한다. 굿은 수심방이 정장차림으로 진행하는데, 악심꽃 꺾음 · 꽃타러듦 · 꽃풀이와 같은 굿놀이에서는 소미들도 참여해 진행한다.

불도맞이를 포함한 제주도의 큰 굿은 오랜 세월 전승되는 동안 많이 변했다. 불도맞이 중 〈이공본풀이〉가 구송되고 악심꽃 꺾음 같은 놀이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이공본풀이〉 같은 신화는 원래 12거리 큰 굿 중 4번째 거리인 '이공맞이제'에서 구송되던 신화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악심꽃 꺾음은 이러한 제의에서 놀아지던 놀이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생불할망본풀이〉와 〈이공본풀이〉에는 다 함께 '서천꽃밭'이라는 신화적 생명공간과 여기에 피어 있는 '생명꽃'이 등장한다. 이러한 공통 화소 때문에 〈이공본풀이〉 신화와 악심꽃 꺾음 놀이는 자연스럽게 불도맞이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악심꽃은 원래 〈이공본풀이〉 신화에 나오는 중요한 꽃으로, 할락궁이가 장자의 일가족을 죽이는 데 사용한 꽃이며, 원래 이름은 '수레멜망악심꽃'이다. 이 꽃은 죽음의 꽃이기에 꺾어서 없애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악심꽃은 원래는 〈이공본풀이〉에 나오는 죽음의 꽃이었지만, 불도맞이에 수용되면서 아기를 병들게 하여 죽게 하는 구삼승할망(저승할망)의 꽃으로 사용되었다. 그러기에 여기서도 이 꽃은 꺾어 버려야 하는 꽃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불도맞이는 원래 불도맞이제에 속했던 굿일 가능성이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작은굿으로 독립된 것도 있다. 바로 '구삼승 냄'과 '마누라베(배)송'이라는 의례이다. 구삼승 냄이란 극적인 행위를 통해 아이의 질병이나 죽음을 다스리는 구삼승할망을 집 밖으로 내쫓는 것이다. 이 굿은 병든 아이의 치유를 기원할 때 한다. 마누라베(배)송은 마마를 앓게 하는 신인 대별상신을 배에 태워 밖으로 내보내는 굿으로, 역시 극적인 행위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마마에 걸린 아이의 치유를 기원할 때나 마마를 예방할 때 행한다.

불도맞이는 아기의 산육과 관련 있는 신들에게 언제, 어디서, 왜 굿을 하는지를 알리고, 본풀이를 구송하여 신들을 제의의 현장으로 현현(顯現)시킨 후, 길을 닦아 신들을 맞이하여 대접하면서 꽃타러듦과 꽃풀이 등의 놀이를 통하여 아이의 잉태를 기원한다. 또한 구삼승 냄과 마누라베(배)송 같은 놀이를 통하여 병을 앓게 하는 나쁜 신들을 멀리 보냄으로써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하기를 기원하는 제의이다. 〈할망본풀이〉나 〈마누라본풀이〉와 같은 신화에서 생불신의 능력이 구삼승할망이나 마마신보다 뛰어나게 설정된 이유는 현실적으로 생불신이 질병에 걸린 아이들을 잘 치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악심꽃 꺾음이나 꽃타러듦과 꽃풀이, 구삼승냄, 마누라베(배)송 등의 놀이는 모두 유감주술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인간이 원하는 내용을 모의적으로 행함으로써 놀이 내용과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고, 또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사례 내륙의 무속의례에 불도맞이라는 것은 없다. 그러나 아이를 탄생시키는 신이나 마마를 앓게 하는 신들에 대한 제의는 모두 불도맞이와 관련된 제의였을 가능성이 있다. 아이를 탄생시키는 삼신은 '삼신굿'과 같은 것에서 제의되고 있다. 마마를 일으키는 신은 호구 · 손님 · 별상 등으로 불리며 별상거리와 손(님)굿 또는 손님풀이 등에서 제의되고 있다. 삼신굿이나 손굿 등은 단독제로도 행해지고 있지만, 대개는 재수굿 · 축원굿 · 씻김굿 등 특정한 목적을 가진 제의 속에서 다른 개별제의들과 함께 거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안성무가에서 별상굿은 재수굿을 할 때 부정굿, 조왕굿, 산신굿, 제석굿, 조상굿, 성주굿, 대감굿, 터주굿, 선황거리, 창부거리, 걸립굿, 뒷전풀이 등과 함께 거행된다. 재수를 위해 행해지는 큰 굿 속에서 별상굿은 하나의 작은 개별제의로 존재하는 것이다.

내륙의 무속에서는 마마를 앓게 하는 신의 이름이 호구, 별상, 호구별상, 손님, 호역별성손님, 강남대별상손님 등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제주도의 불도맞이에서 마마신이 얼굴차지 혼합천자벨금상마누라나 대별상신이라 불리는 것과 유사하다. 내륙의 별상굿 또는 손굿의 무가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손님신이 강남으로부터 대한국으로 온다는 것과 강을 건너올 때 배가 없어 고생하며, 유엽선을 만들어 타고 온다는 것 등이다. 그런데 이들 내용은 불도맞이의 〈마누라본풀이〉에서 생불신과 대별상신인 마마신 사이에 서천강이 있는 것과 일치한다. 마마, 즉 천연두는 과거에는 무서운 병이었지만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하여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져 가는 병이다. 따라서 마마신에 대한 제의는 앞으로 무속에서 서서히 사라질 운명에 있다.

의의 전통사회에서는 아이를 잉태 · 출산 · 양육하는 신이 있다고 믿었다. 이것은 흔히 삼신신앙이라 말해졌는데, 이는 바로 이러한 기능을 담당한 신이 삼신할머니, 삼신단지, 삼신바가지, 혹은 삼신할아버지 등으로 불렸던 데서 유래한다. 까닭에 사람들은 아기의 잉태를 기원하거나 아기를 출산할 때면 이 신에게 간단한 제의를 베풀면서 아이의 안전한 출산과 성장 및 장수, 그리고 산모의 건강을 빌어왔다. 삼신신앙의 구체적인 신앙형태는 지방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이와 같은 신앙은 전국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신앙형태는 불도맞이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왜냐하면 둘 다 아기산육신이 실재(實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신앙형태이며, 의례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남아 있는 큰 굿 및 여기에서 행해지는 불도맞이는 원래 내륙에서 창조되고 제의되었던 열두거리 큰 굿과 불도맞이가 제주도로 건너가 정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에 이처럼 고형의 문화가 남아 있을 수 있던 것은 제주도에 세습무가 많고, 굿이 일상생활과 밀착되어 있어 항상 많이 행해진 덕분이다. 무엇보다도 섬이라는 제주도의 지리적 특징으로 문화변동이 적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고대에는 내륙에서도 불도맞이와 같은 것이 행해졌었다고 볼 수 있다. 고대의 제의에서 행해진 내용들은 후일 민간신앙을 형성하는 동인(動因)이 된다는 학설을 중시하면, 불도맞이는 바로 전통사회에 있어 아기산육신인 삼신이 실재한다고 하는 믿음, 즉 삼신신앙을 형성시킨 모태라 할 수 있다. 전국에 걸쳐 존재하고 있는 삼신신앙은 바로 고대의 제의에서 불도맞이 같은 것이 있어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불도맞이는 인간이나 아기를 가리켜 '불'이라고 말했던 때에 창조되고 시작된 제의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아기의 생명을 창조해 내는 신을 생불신 혹은 불도신이라 하고, 아기의 생명을 만들어내는 꽃을 생불꽃, 아기의 탄생을 기원하는 제의를 원불수륙재라 했다. 우리 민족은 고대 언제인가 인간이나 아기를 가리켜 '불'이라고 말하던 때가 있었다. 이것은 남성의 신체어에 남아 있는 '불알'이란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이 말은 바로 남성의 고환이 아기를 만들어 내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불도맞이나 삼신신앙의 형성은 고대에 있어 인간이나 아기를 불이라고 말하던 그때부터 형성됐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역사가 상당히 깊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무가집 2(김태곤, 집문당, 1971),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안성무가(서대석 · 박경신, 형설출판사, 1990), 탐라의 미, 너울거리는 삶의 희노애락 기메지전(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2006), 삼신신앙의 기원과 성격(이수자, 제주도언어민속논총, 1992), 한국문화에 나타난 불의 다층적 의미와 의의(이수자, 역사민속학 11, 2000), 제주도 무속을 통해서 본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이수자, 집문당, 2004).

필자 이수자(李秀子)

상호참조 마마배송굿(254쪽), 손님굿(492쪽)

불보살번(佛菩薩幡)

정의 동해안오구굿에서 굿당의 좌우 측면에 불교의 신들의 명칭을 종이에 적어 붙여 놓은 번(幡).

형태 불보살번은 가로 30㎝, 세로 2.3m 정도의 한지에 불보살의 명칭을 써놓은 것이다. 불보살번에


1


2

는 오방번(五方幡), 인로왕번(引路王幡), 삼신번(三身幡) 등이 있다. 이외에 불교가 도교적 사상과 결합된 시왕번(十王幡)이 있다.

오방번에는 나무동방만월세계십이상원약사유리광불(南無東方滿月世界十二上願藥師瑠璃光佛), 나무서방극락세계사십대원아미타불(南無西方極樂世界四十大願阿彌陀佛), 나무남방환희세계보승여래불(南無南方歡喜世界寶勝如來佛), 나무북방무우세계부동존여래불(南無北方無憂世界不動尊如來佛), 나무중방화장세계십신무애비로자나불(南無中方華藏世界十身無碍毘盧舍那佛)을 쓴다. 인로왕번(引路王幡)에는 나무대성인로왕보살(南無大聖引路王菩薩)이라고 쓴다. 삼신번(三身幡)에는 나무천백억화신석가모니불(南無千百億化身釋迦牟尼佛), 나무청정법신비로자나불(南無淸淨法身毘盧舍那佛), 나무원만보신노사나불(南無圓滿報身盧舍那佛)이라고 쓴다.

예전엔 무당들이 직접 한지에 글을 썼으나 현재는 사정이 그렇지 못하다. 글을 잘 쓰는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불교상 또는 만물상에서 구입하여 굿당 좌우에 설치한다.

동해안오구굿에 설치하는 번의 종류

오방번 (五方幡)	나무동방만월세계십이상원약사유리광불 (南無東方滿月世界十二上願藥師瑠璃光佛)
	나무서방극락세계사십대원아미타불 (南無西方極樂世界四十大願阿彌陀佛)
	나무남방환희세계보승여래불 (南無南方歡喜世界寶勝如來佛)
	나무북방무우세계부동존여래불 (南無北方無憂世界不動尊如來佛)
	나무중방화장세계십신무애비로자나불 (南無中方華藏世界十身無碍毘盧舍那佛)
인로왕번 (引路王幡)	나무대성인로왕보살 (南無大聖引路王菩薩)
삼신번 (三身幡)	나무천백억화신석가모니불 (南無千百億化身釋迦牟尼佛)
	나무청정법신비로자나불 (南無淸淨法身毘盧舍那佛)
	나무원만보신노사나불 (南無圓滿報身盧舍那佛)
시왕번 (十王幡)	나무봉청제일태광대왕 (南無奉請第一泰光大王)
	나무봉청제이초강대왕 (南無奉請第二初江大王)
	나무봉청제삼송제대왕 (南無奉請第三宋帝大王)
	나무봉청제사오관대왕 (南無奉請第四五官大王)
	나무봉청제오염라대왕 (南無奉請第五閻羅大王)
	나무봉청제육변성대왕 (南無奉請第六變成大王)
	나무봉청제칠태산대왕 (南無奉請第七泰山大王)
	나무봉청제팔평등대왕 (南無奉請第八平等大王)
	나무봉청제구도시대왕 (南無奉請第九都市大王)
	나무봉청제십오도전륜대왕 (南無奉請第十五道轉輪大王)

내용 동해안오구굿의 문답설법에서 무당은 굿당에 지화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게 된 연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무당은 불보살(佛菩薩)들이 지화를 만들었으며, 망자나 가족들에게 의례에 반드시 필요한 도구임을 강조한다. 불보살번과 시왕번을 굿당의 좌우로 장식하는 것은 이들이 망자를 극락세계로 인도하고 망자를 심판하기 때문이다. 불보살은 지화를 만든 신격으로 저승으로 가는 망자를 호위하기도 한다. 오방번이나 인로왕번, 삼신번 등의 불보살번은 망자를 천도하는 오구굿에 반드시 필요한 무구(巫具)인 셈이다.

불교의 영산재(靈山齋)나 예수재(預修齋)에서도 나무청정법신비로자나불(南無淸淨法身毘盧舍那佛)·나무원만보신노사나불(南無圓滿報身盧舍那佛)·나무천백억화신석가모니불(南無千百億化身釋迦牟尼佛)이라고 적혀 있는 삼신번(三身幡)을 안치함으로써 불보께서 자리하신 곳임을 내외에 알리고 불보님의 위덕을 나타내려고 한다. 또한 삼신번과 같은 의미로 종이나 헝겊 위에 그림이나 수(繡)로 불보살과 금강역사를 모신다. 상단에는 불보(비로자나불·노사나불·석가모니불)를 모시고, 중단에는 보살, 하단에는 금강의 순으로 배열한 인물개(人物蓋)를 설치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영산재(심상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동해안 굿의 전승과 변화(윤동환,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필자 윤동환(尹東煥)

1. 불보살번(김씨조상굿)
강원 강릉 대관령산당 | 2007.5.12~13 | 윤동환

2. 불보살번(고 송동숙 오구굿)
경북 영덕군 영해면 대진해수욕장 | 2006.10.11~12 | 윤동환

불사맞이굿

정의 흔히 '잎맞이', '꽃맞이', '화전맞이'로 불리면서 봄에 행해지는 서울·중부 지역의 천신(薦新)굿이나 재수굿의 명칭 가운데 하나. 불사맞이굿에서는 불교·도교의 신들인 불사·칠성·제석을 대상으로 한 절차인 불사거리가 하나의 독립된 굿의 절차를 갖춘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런 형식의 불사거리를 불사맞이 천궁(天宮)맞이, 사해 용신맞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불사거리가 불사맞이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굿을 불사맞이굿이라고 한다.

역사 불사맞이의 특징은 불교·도교의 신인 불사·칠성·제석을 주 대상으로 행해지는 굿 절차라는 데 있다. 이런 점에서 불사맞이는 불교·도교의 신이 한국무속에 수용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불교와 도교의 신이 한국사회에 일반화된 고려 시대부터 한국무속에 불사맞이가 자리 잡았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규보(李奎報, 1168~1241)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 실린 '노무편(老巫篇)'이라는 시에서 무당이 섬기는 신으로 제석(帝釋)과 칠원구요(七元九曜)의 불교와 도교의 신이 확인된다. 이 기록을 통해 이미 12세기 경에는 불사맞이와 같은 굿 절차가 성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언제 불사맞이굿이 성립하였는가를 명확하게 말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내용 불사맞이굿은 봄에 하는 일반 천신굿의 하나이지만 불사맞이 또는 천궁맞이로 진행되는 점이 특징이다. 보통 이러한 불사맞이로서의 불사거리는 굿하는 집의 가장인 대주의 나이가 홀수이며, 삼재(三災)가 없고, 죽은 자를 위한 굿 절차인 진오기를 함께 하지 않을 때 행해진다. 이때 불사맞이에서 물동이(물사슬·용사슬이라고도 함)를 타며, 일반 재수굿의 절차가 부속거리로서 행해진다. 그래서 무당들은 불사맞이에 무속의 모든 거리가 다 들어간다고 말하며, 이런 점에서 불사맞이는 굿의 한 가지 절차이면서도 완결된 굿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러한 불사맞이굿에서 불사맞이는 굿하는 공간을 정화하고 여러 신을 청하는 부정거리 이후 행해지는 본격적인 굿 절차에서 가장 먼저 행해진다.

불사맞이에서 무당은 가사와 장삼을 입고 머리에 고깔을 쓰고서 손에는 부채와 방울을 든 채로 만수받이로 굿을 시작한다. 만수받이가 끝나면 방울을 놓고 부채는 옷에 건 채로 춤을 잠깐 추다가 물동이에 올라가서 물동이 위에서 공수를 준다. 물동이에서 내려와 천왕(天王) 중상 타령이라고도 하는 바라타령을 하고 바라를 판다. 이어 불사노랫가락을 한다. 불사노랫가락이 끝난 다음에 제금에 밤과 대추를 담아 밤·대추로 산(算)을 준다.

불사맞이에서 모셔지는 신의 성격은 불사맞이에 대한 다른 명칭을 통해 알 수 있다. 불사맞이는 다른 말로 천궁맞이, 천존맞이, 칠성맞이, 사해 용신맞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명칭은 이 거리가 하늘과 바다의 여러 신을 청해, 그러한 신들을 대상

으로 행하는 절차라는 것을 말해 준다. 구체적으로 불사와 칠성, 제석, 용왕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신들은 천궁, 일월, 바다에 속해 있는 신으로 나타난다. 즉 불교와 도교에서 유래한 신들이면서 그 신들이 하늘과 바다의 영역에 존재하는 신으로 그려진다. 다시 말해서 불사맞이의 신들은 불교와 도교의 신들에 하늘과 바다의 영역 관념이 복합된 신이다.

하늘과 바다의 두 영역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은 하늘의 영역이다. 서울무속에서 불사맞이의 노랫가락을 보면 이들 신은 은하수를 타고 내려오거나 바람과 구름 가운데 안개 선풍에 내려오는 하늘에 있는 존재로 그려진다. 동해안 무속에서는 불교의 신을 모시는 세준굿(또는 시준굿), 중굿을 일월맞이굿이라고 한다. 일신(日神)이나 월신(月神), 세존(世尊)은 모두 천상에서 내려온 신으로 같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무속에서 불교와 도교에서 유래한 신들은 하늘신으로 그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점에서 불사맞이의 신들은 넓은 의미에서 천신(天神)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

또한 이들 신은 아이의 출산과 수명장수를 담당하는 신으로 여겨진다. 흔히 칠성에게 아이의 점지를 빌고, 아이를 잉태시켜 주는 삼신을 '삼신제석'이라 하는 것처럼 불사맞이에서 등장하는 불교·도교의 신들은 고유의 삼신 개념과 겹친다. 실제로 불사맞이에서 행해지는 바라타령의 주된 내용은 '있는 자손은 장수하고, 없는 자손은 점지해서 아들을 두면 효자충신, 딸을 두면 어주부인'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이다. '지석[帝釋] 전에 복을 얻구 칠성전에 명을 얻구'라는 무가(巫歌)의 구절 역시 제석과 칠성이 인간의 탄생과 수명 및 복을 관장한다는 믿음을 보여준다. 용신(龍神) 역시 기자(祈子) 치성과 아이들의 장수를 비는 중요한 대상 가운데 하나이다. 이처럼 불사맞이의 신들은 인간의 탄생과 수명 및 복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넓은 의미에서 생산신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불사맞이굿은 천신과 생산신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불사·칠성·제석 등 불교·도교의 신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굿이다.

참고문헌 東國李相國集, 재수굿 진굿(이선주, 미문출판사, 1989), 내림무당의 쇠걸립(이두현, 사대논총 34, 서울대학교, 1987), 한국무속에 나타난 신의 유형과 성격(이용범, 민속학연구 13, 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이용범(李龍範)

불사상

정의 서울굿에서 불사(佛師)거리에 차리는 제물상.

내용 불사는 칠성(七星)·제석(帝釋)·천존(天尊) 등과 통하며, 이름이 다를 때도 상차림은 거의 같다. 이 때문에 한 상으로 불사거리와 제석거리를 치르거나 천궁맞이상으로 불사거리 또는 제석거리를 치르기도 한다. 불사거리는 승무와 유사한 복장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나 그 이름에서 불교 색채가 짙다. 불사상에 육류를 쓰지 않는 이유를 여기에 두기도 하지만 제석상이나 천궁맞이상과 유사한 굿상이라는 점에서 도교, 용왕신앙, 곡신(穀神)신앙과도 연관시킬 수 있다. 서울에서는 천신의 성격을 강조한다. 굿당에서는 주로 안쪽 왼편에 차려서 떡을 비롯해 생미와 맑은 물을 놓고 두부, 나물, 빈대떡, 과일, 조과를 올린다.

떡의 종류와 수는 굿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주로 세 접시를 많이 볼 수 있으며, 드물게 여섯 접시가 나타난다. 기본은 굵은 가래떡인 방망이떡(기둥떡 또는 증편이라고도 부름)으로, 한 접시에 세 개에서 여섯 개를 놓는다. 그리고 불사시루가 있다. 가장 정성이 들어간 불사시루의 예는 시루 바닥에 판을 깔고 설탕과 소금으로 간을 맞춘 쌀가루를 안친 다음 고명으로 통대추를 얹는다. 현재 대부분의 굿에서는 시루를 생략하고 백설기를 맞추어 접시에 담아 올린다. 떡을 담은 시루와 접시 위에는 찹쌀가루, 대추, 미나리 또는 쑥갓을 넣어 부쳐낸 흰 '잰병' 또는 전병을 고명 웃기로 올린다. 그 외에 백설기, 인절미 등도 볼 수 있지만 붉은 팥떡은 쓰지 않는다.



불사시루와 고깔 주무 주명수 만신
범바위굿당. 진적굿 | 2005.10.16 | 이수현

생쌀은 그냥 올리기도 하지만 쌀그릇에 숟가락을 꽂고 명주실을 올려 '액그릇'이라고 하기도 한다. 보통 서울굿의 불사거리보다 제석거리에서 더 자주 볼 수 있다. 밥을 올리기도 한다. 밥은 제기에 담아서 한 그릇 또는 세 그릇을 올린다. 물은 옥수(玉水)라고도 부르며 놋쇠 제기에 담기도 하고 찻잔에 담기도 한다. 물 대신 차(茶)를 쓰기도 한다. 이 차는 보통 찻잎을 우려낸 것이 아니라 물에 대추나 통후추를 띄운 것으로, 대추차·후추차(호초차)라고 부르며 무가(巫歌)에도 언급된다. 이는 단순한 물보다 한층 정성을 다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 밖에 생두부 또는 부친 두부와 빈대떡을 올린다. 나물은 흔히 삼색나물을 쓴다. 고사리·도라지·시금치가 기본이며, 시금치 대신 숙주 또는 무나물을 쓰기도 한다. 1970년대까지는 숙주 또는 무나물을 쓰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한다. 삼색나물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존재한다. 각 나물이 신과 조상과 인간을 상징한다는 설명도 있고 하늘로 자라는 고사리, 땅에서 캐는 도라지, 물에서 나는 숙주라는 설명도 있다. 드물게 튀각을 더하기도 한다. 또 불사상에 생미나리를 20cm 정도 크기로 잘라 다홍실로 묶어 올리는 경우가 당굿과 진적굿 등에서 나타난 예가 있다. 미나리는 생명력을 의미한다.

과일과 조과는 불사상에 따로 올리지 않고 굿상 전체의 앞줄 또는 뒷줄에 길게 배열하는 일이 많다. 단 밤과 대추는 불사상에 꼭 올라간다. 생밤과 생대추를 접시에 놓으며, 불사거리 중에 이 접시를 굿 의뢰자의 품에 쏟아 그 수를 가지고 복을 점치기도 한다. 이를 "산을 준다"라고 한다. 나머지 과일은 사과·배·감을 기본으로 하여 3-5-7-9-12종으로 늘어나며, 복숭아를 빼면 종류에 제한이 없다. 조과는 산자·약과·다식을 기본으로 하여 3-5-7-9-12종으로 늘어난다. 조과에서는 옥춘, 팔보, 하스, 밤과자, 곶감 등을 볼 수 있다.

음식 외에 불사상에서 볼 수 있는 무구로는 흰 종이를 접은 고깔, 흰 창호지 한 장을 여러 번 접어서 오려 만든 불사전, 한지를 길게 3등분하여 이를 꼬아 꽃잎 모양으로 만들어서 떡 위에 놓는 새발심지가 있다. 무화(巫花)로는 흰색 한지로 만든 천궁맞이꽃이나 불사꽃을 꽂는다고 하지만 현재는 실례를 거의 보기 어렵다.

참고문헌 굿과 음식 1(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무당내력(서대석 해제, 민속원, 2005), 서울굿의 상차림에 대하여(홍태한, 한국무속학 6, 한국무속학회, 2003), 굿상에 투영된 신에 대한 인식(이수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필자 이수현(李琇炫)

불사할머니

정의 서울 지역의 강신무들이 봉안하고 있는 신령의 하나. '불사(不死)'라는 명칭이 있어 서울굿의 불사거리와 관련이 있어 보이나 굿거리에는 등장하지 않고 주로 무당들의 신단에 봉안된다.

내용 현재 서울 지역에는 다수의 무당이 신단에 불사할머니를 봉안하고 있다. 무신도에서는 흰 치마저고리를 입고 목에는 염주를 건 모습을 하고 있으며, 바로 앞 상에는 대개 목탁이 놓여있다. 고깔을 쓴 무신도도 몇 점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제석과 혼동되기도 한다. 같은 도상으로 제석이 있으나 제석은 고깔을 쓰고 있어서 불사할머니와 구별된다. 불사할머니는 무업의 번창을 관장하는 신령으로 알려져 있어 입무(入巫) 과정에서 불사할머니가 몸주로 들어와야 점사에 능하고 무업이 번창한다는 믿음이 있다. 이로 미루어 불사할머니는 죽은 무당이 좌정한 대신할머니, 황해도굿의 무당신령인 성수와 성격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대신할머니와 성수가 무당이 죽어 신령으로 좌정한 것인 데 비하여 불사할머니는 조상 중에서 신령을 위하던 할머니가 좌정하여 신령이 된 경우로, 무조신(巫祖神)의 성격보다는 조상신(祖上神)의 성





1. 불사거리
국립민속박물관

2. 불사할머니 무신도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가로 44.5㎝, 세로 75㎝ | 1950년대

격이 강하다.

강신무는 굿을 주재하기도 하지만 점사를 병행하기도 한다. 단골들을 만나 점사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굿을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점사를 뽑을 때 점사의 영검(靈-)성을 높여 무업의 번창을 주재하는 신령이 불사할머니이다. 할머니라는 명칭에서 이 신령이 무당들과 매우 친밀한 관계임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신령은 불사할머니를 모신 무당과 혈연적 관련성이 매우 높다. 또 무당으로 살다가 죽은 조상의 형태로 몸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무조신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불사할머니가 몸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무당에게 조상이라는 친연성이 더 중요하다. 몸주로 불사할머니가 들어온 것은 정성을 들인 조상이나 무당이었던 조상이 내린 경우로, 혈연적인 관련성이 없는 대신할머니와 구별된다.

지역사례 불사할머니는 서울 지역 강신무들이 주로 봉안한다. 서울 지역의 대신할머니, 황해도굿을 연행하는 무속인들이 봉안하는 성수와 관련이 있지만 성격이 조금 다르다.

참고문헌 무속화-토속신앙의 원형을 찾아서(윤열수, 가회박물관, 2007).
필자 홍태한(洪泰漢)

비래쟁이

정의 비손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사람.

내용 비래쟁이는 다른 말로 막음쟁이라고도 한다. 비래쟁이는 신에게 인간의 바람을 요구하는 의례행위에 치중하는 것이고, 막음쟁이는 의례행위를 통해 재화(災禍)를 차단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동해안의 큰무당들이 별신굿, 서낭굿, 오구굿 등 비교적 큰 무속의례를 집례하는 것과 달리 비래쟁이와 막음쟁이는 개인이나 마을사람들의 소규모 무속 의례를 집례한다.

비래쟁이는 동해안 마을을 근거로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면서 의례를 집례한다. 이들은 아이들이 탈이 나거나 아프게 되면 민간의료로 침이나 부황을 놓기도 한다. 또한 액화를 면하고 병이 낫기를 빌어주기도 한다. 보통 집에 탈이 나거나 동토가 나면 '비손' 또는 '막음질'을 통해 해결한다. 또한 가신신앙과 개인신앙의 일부인 안택과 텃제 · 액막이 · 성주매기 등을 지낼 때도 대주를 대신하여 가신인 성주 · 조왕 · 지신 등에게 빌어준다.

비래쟁이는 지역토박이로 마을사람들의 신앙의례에 항시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비손과 막음질만 하는 것은 아니며 한해의 운세를 점치고 예방책을 강구하기도 한다. 집안사람들의 치성으로는 미덥지 않아 전문적인 사제가 필요할 때는 이들이 직접 나서서 방액하고 가정의 안녕을 도모한다. 집안의 성주와 배성주를 새로 모시거나 텃제를 지낼 때 날을 택일하고, 가족이 아프거나 아이를 낳을 때도 비손한다. 이처럼 비래쟁이는 영등제나 텃제 · 성주제사 등 가신신앙과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다른 집례자보다 가장 가깝고 깊숙이 개입하여 소규모 의례를 주재한다. 이들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신에게 요구하고 발원한다.

비래쟁이의 비손은 일반 사람들이 행하는 비손과 유사한 면이 있다. 전업적이지는 않지만 일반인에 비해 전문적인 직능인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 사람들과 전문적 의례자인 비래쟁이가 하는 비손 또는 막음질은 내용과 절차에서 차이를 보인다. 마을 사람이 간단한 의례로 객귀를 물리는 것에 비해 막음쟁이는 제상을 차려놓고 불을 피우고 북이나 목탁을 치며 경을 읽는 등 체계적이고 복잡한 제의 절차를 거친다.

동해안 무속의례는 세습무들에 의해 연행되며, 제의성보다는 놀이성 · 연희성이 강조된다고 하지만, 모든 무속의례가 큰무당들만으로 치제되는 것은 아니다. 의례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집단의 경제적 여건, 지역의 특수성, 단골 관계 등의 다양한 변수에 의해 집례자를 선택한다. 특히 개인과 집안의 대소사나 가신신앙과 관련된 의례는 오히려 비래쟁이나 점쟁이 신자들이 치제하는 경우가 많다. 의뢰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리적으로 인접해있고, 마을사람과 단골관계에 있는 비래쟁이나 점쟁이에게 의뢰하는 것이 훨씬 유용할 수 있다.

참고문헌 북면 사람들의 삶과 민속(한양명 외, 울진군 북면 · 대구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2006), 온정면 사람들의 삶과 민속(한양명 외, 울진군 온정면 · 대구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2006), 남자는 그물치고 여자는 모를 심고(한양명 외, 한수원 울진원자력본부 · 안동대학교, 2007), 동해안 굿의 전승과 변화(윤동환,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필자 윤동환(尹東煥)

상호참조 막음쟁이(257쪽)



비래쟁이 일을 하는 장정이
경북 울진군 온정면 상조금 | 2006.2.3 | 윤동환

빈순애

분야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 기능보유자.

내용 빈순애(賓順愛, 여)는 1959년에 강원도 명주군 묵호읍 어달동 대진리(현재 동해시 대진동)에서 태어났다. 현재 단오제의 꽃으로 상징되는 빈순애는 속초에 거주하고 있다. 17세 때 빈순애의 몸에 신이 내렸는데, 동네사람들이 먼저 신이 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한다. 당시 빈씨는 무당 흉내를 내면서 놀기를 좋아했다고 한다. 예컨대 강아지 목에 달려 있는 방울을 빼앗아 사철나무에 달고 흔들면서 춤을 추었다. 또 아기 포대기 띠를 쾌자처럼 만들어 춤추면서 놀기도 하고, 돗자리를 가지고도 놀았다. 나중에 자신의 시어머니가 된 신석남이 굿을 하러 마을에 들어오면 어른들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학교에 가지 않고 굿을 구경했다. 이런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이 신이 왔으니 내

림굿을 해주라고 집안의 어른들에게 권했다고 한다. 당시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의 빈순애는 굿하는 소리가 너무 좋아서 공부와 멀어지고 끝내 중학교에 들어가지 못했다.

어머니는 빈순애가 무당이 되는 것을 반대했다. 아버지는 잠수부였으며 어머니는 빈순애가 집안에서 살림을 도와주기를 원했다. 이 무렵에 신석남은 빈순애의 동네에 3년에 한 번 단골무당으로 풍어제를 하기 위해 오곤 했다. 신석남은 빈순애의 사정을 듣고 '지직'이 아니니 국악원에 가서 무용도 배우고 소리도 배운 다음에 이 길로 나가자고 권유해왔다. 빈순애는 어머니 몰래 집에서 나와, 신석남을 따라 17살 때 신석남의 집으로 왔다. 신석남은 이곳(삼척 권덕 교과리)으로 빈순애를 데려와서 국악원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둘째 며느리로 삼았다. 그때부터 빈순애는 시어머니 신석남에게 '세습무' 굿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당시 남편 김명익은 29살로, 남편 역시 고등학교 때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다가 장구, 꽹과리를 치면서 눈이 밝아졌다고 한다. 식석남은 김명익 내외와 석 달을 함께 살면서 빈순애에게 설법 문서를 주고 사설을 외우도록 하였다. 물론 그동안 빈순애의 친정에서는 자신이 무당집으로 시집갔다고 해서 야단이 났다.

23살 때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시어머니 신석남으로부터 독립했다. 양양에서 살았다. 양양에 시백부 김해철이 거주하고 있어서였다. 양양에 이주했을 때 남편은 악사로 활동했으나 빈씨는 임신으로 활동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75년 경에 시누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자신의 딸도 죽었다. 후에 죽은 딸이 빈순애의 몸에 선녀로 들어왔고, 죽은 시누이도 꿈에서 책을 가져다 주면서 자기 대신 무속의 길로 나가라고 말해 주었다고 한다.

빈순애는 친정 동네 풍어제에서 처음으로 무업을 시작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굿에 대한 학습에 들어갔다. 28세 때 다시 빈순애의 몸에 신이 왔다. 그러나 시어머니 신석남은 강신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남편은 역시 이것을 인정하지 못했다. 신을 받아야 한다고 남편에게 사정해서 세습무는 부르지 않고 '강신무'만 불러서 내림굿을 했다. 내림굿은 '세습무'도 해줄 수 있으나 세습무인 시어머니가 너무 엄해 신을 내리지 못할 것 같아서 시어머니에게 부탁을 못했다고 한다. 내림굿은 36세에 받았다. 빈순애에 의하면 친정에서 외가로 윗대 할머니가 무당은 아니지만 신이 와서 신을 받지 않게 해 달라고 빌었고, 친정어머니에게도 신이 왔으나 억눌러서 부르지를 않았다고 한다. 결국 친정의 신과 시누이, 딸아이가 빈순애의 몸주로 들어왔다. 빈순애에 따르면 특히 선녀로 들어온 딸이 자신을 많이 도와준다고 한다.



빈순애
경북 울진군 봉깨 별신굿 | 2005.11.16 | 조정현

양양시 큰시아버지 둘째 부인인 박월순이 강신무여서(첫째 부인은 세습무) 빈순애는 박월순에게 강신과 관련된 것을 배우게 되었다. 이때 빈순애는 개인 신당을 속초 청호동에 모시고 손님도 받았다. 이런 가운데 빈순애는 시어머니 신석남의 세습무 굿을 전승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조교임명장도 받게 되었다. 신석남이 1992년에 작고하자 시어머니를 이어 2000년 7월 22일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 기능보유자로 인정받았다.

빈순애는 신이 내려서 내림굿을 받았지만 굿을 가르쳐준 신어머니가 없다. 빈순애는 자신은 신이 내렸기 때문에 신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강신무 굿에는 관심이 없다. 빈순애는 철저히 시어머니의 세습무 굿을 전승하고자 한다. 현재 강신무들이 진행하는 굿도 설법은 세습무 굿을 이용하고 있고, 세습무 굿이 강신무들이 진행하는 굿의 전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빈순애는 그러나 요즘은 생계상 이유로 강신무적 활동에도 관심이 간다고 말한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서 받는 보조금과 연금으로는 현실적으로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풍어제가 옛날처럼 자주 있지가 않다. 그래서 굿을 통해 살림을 꾸려 나가는 것이 아주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즉 현재에는 세습무의 대를 이어도 생활이 되지 않는 것이다.

빈순애는 강신무 쪽은 벌이가 괜찮다고 말한다. 그리고 강신무 쪽은 굿하기도 쉽다. 장단이 굿거리장단으로 단순하다. 이전에는 세습무도 역술을 배웠고 손님들도 받았다고 한다. 물론 세습무 중에 손님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시어머니인 신석남도 신당을 꾸미고 손님을 받았다. 그런데 손님을 많이 받지 못한다고 한다. 또 이전에는 굿이 많아서 자주 일하러 가기 때문에 집에 사람이 없어서 손님을 받기가 어려웠다. 현재 빈순애는 보유자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손님을 받기가 조심스럽다고 한다.

한편 빈순애의 딸 김은영이 대를 이어서 굿을 하고 있다. 남편이 1999년에 죽기 전에 딸이 마음이 흔들리고 중심을 잡지 못해 무속을 가르치려고 했지만 남편의 반대로 가르치지 못했다. 남편은 "무업은 우리 대에서 끝내자"고 주장했다고 한다. 남편이 죽은 후에 딸 스스로 무업의 길로 나가겠다고 주장하여 마음을 다잡고 이 길로 들어섰다고 한다. 사위도 세습무 집안 출신으로, 음악계통일을 하다가 이쪽 길로 나가려는 것을 빈씨 본인이 막았다고 한다. 이쪽 세계가 너무 어렵고 험하기 때문이어서였다.

빈순애에 의하면 강신무에 대한 옛날 명칭은 점쟁이, 꽃무당(큰무당이 아니고 중무당), 앞상쟁이 등이었다. 세습무는 큰무당, 큰지모라고 하였다. 무속인이라는 말은 최근에 생겨난 말이다. 이것은 이쪽 사람들이 무당이란 말을 싫어해 생긴 말이다. 비슷하게 장구잽이, 화랭이의 경우 악사란 말이 현재 사용되고 있다. 또한 예전에 '세습무'도 단골이 있었다고 한다. 수양아들 정하고, 쾌자에다 이름을 새겨서 주기도 하였다. 또한 집에는 신장, 즉 장구와 징을 모셔 놓고 굿을 다녀와서는 신장에게 빈다고 한다. 또한 가을 한 철에 단골집으로 '양하러' 즉 시주, 동냥을 다녔다. 그러면 단골집에서는 찹쌀 한말, 콩을 무당에게 주었다고 한다. 빈씨가 시집오기 전까지만 해도 세습무들은 이렇게 했다고 한다. 자신의 시어머니인 신석남은 이금옥과 함께 삼척 건덕에서 덕산 쪽으로 시주하러 많이 다녔으며, 당시 세습무는 누구나 다 그랬다고 설명하였다.

빈순애는 타고난 끼로 굿판을 주름잡는다. 빈순애가 엉덩이를 흔들면서 굿판에 서면 관중석은 떠들썩해진다. 타고난 신기와 재치가 굿판 어디서나 살아나기 때문에 인기를 몰고 다닌다. 그녀에게 타고난 끼는 큰 재산이다. 동해안굿이 현재까지 활기 넘치는 축제로 자리 잡는 데는 일정 정도 빈순애의 공헌이 크다. 누구나 즐겁게 굿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드는 빈순애의 굿판은 강릉단오굿과 동해안별신굿에서 지금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서울시 · 경기도 · 강원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동해안 세습무의 굿 전승방식과 창조적 연행능력(조연남,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필자 조정현(曺鼎鉉)

빙의(憑依)

정의 심리종교학적인 용어로 초월적 의식세계를 경험하거나 인식하는 상태.

내용 빙의(possession)는 엘리아데(M. Eliade)의 정의에 따르면 탈혼(ecstacy)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그는 시베리아의 샤머니즘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이 두 용어를 구별하여 쓰고 있다. 탈혼은 무당의 혼이 육체를 이탈하여 신계를 여행하는 것이고 빙의는 외부의 신령이 무당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보았다. 전자의 전통은 유목과 수렵을 경제기반으로 하는 북방 시베리아인에게서 주로 발

견되고, 빙의 현상은 정착생활을 하는 농경사회의 무당들에게서 발견이 된다고 하였다. 북방 샤먼의 경우 무당의 영이 초월적 공간을 여행 할 때 단독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럿의 조력신을 동반한다. 이는 빙의의 과정에서 무당의 몸주신 외의 여러 주력신이 병존하는 것과 동일하다. 무당이 굿을 할 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김태곤과 이정재가 1995년에 조사한 시베리아의 자료에 근거할 때 엘리아데가 주장한 북방인들의 엑스터시 현상은 절대적이지 않았고, 더구나 이들에게서도 빙의 현상이 드러나고 있음이 밝혀졌다. 탈혼과 빙의의 공간적 · 주제적 이분법이 분명하게 대치되어 드러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빙의를 학술적으로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것은 이성적 지식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체험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무속을 이해하는 데 빙의 개념의 풍부하고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종종 이루어진다. 무속학자 중에서 무속의 진정한 세계를 경험하기 위하여 스스로 무당이 된다거나, 전통춤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빙의적 현상을 논문화하는 것이 그 예이다. 여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빙의 혹은 빙의 유사현상이 가지는 무속과 관련 예술세계 내의 위상과 의미가 중요한 핵심을 이룬다.

무당의 빙의현상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기도 한다. 즉 정지 영상, 동영상, 소리 등이다. 그러나 이는 너무 단순한 요약에 불과하다. 빙의현상의 형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몸의 자동적인 움직임 유도, 초월적 영상체험, 초월적 소리체험, 공수, 신체 통증, 직감과 영감, 예지몽, 개인성향의 변화, 감정전이, 초월적이고 신비한 성(sex)체험 등이다. 이 모두가 무당이 굿을 할 때 사용하는 제반 요소인 무무, 무가, 무복, 무구, 공수, 점, 예언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성의 신비체험은 성과 속의 일체화, 성속의 추월이라는 상징성을 지닌다. 즉 양성구유 과정으로의 현상으로 분석된다.

참고문헌 시베리아의 샤마니즘과 한국무속(이정재, 비교민속학회 14, 1997), 빙의현상 연구(이철진, 김정명, 선무학술논집 15, 2005), 한국무속인열전(서정범, 우석, 2006), M. Eliade 1988, Mythos und Wirklichkeit(엘리아데, 성과 속, 1988), M. Eliade, Cosmos and History(엘리아데, 우주와 역사).

필자 이정재(李丁宰)

상호참조 신내림(530쪽)





사귀대(邪鬼隊)
사냥터림
사슬세우기
사신(使神)
사신(使者)타령
사자상(使者床)
사자맥이
사자밥
사자상(使者床)
사신벌중굿
사신성황당(현판:使臣城隍堂懸板)
산메기
산바라기상
산신(山神)
산신멘굿
산씻김굿
산오구굿
산함박
살(煞)
살맥이
살장
살젠이꽃
살전지
살풀이
삼공맞이가면
삼공맞이
삼공젭이
삼공본풀이
삼두구미본풀이
삼멩두
삼사자(三使者)
삼산돌기
삼산돌할망본풀이
삼승할망본풀이
삼신
삼오장
삼재맞이
삼지창(三枝槍)
삼토신령(三土神靈)
삼현춤
살문열림(門)
삼산춤
삼석상
새남굿
새드림춤
새미하군산당
새발심지
생별불할망본풀이
생별국화
선낭
서낭기
서낭고등부군당(西水庫洞府君堂)
서울굿부분
서울새남굿
서해안배연신굿및매듭굿
선부리장단
선왕상(船王床)
설경(說經)
설쇠
설위(設位)설경(設位說經)
성수
성수청(星宿廳)
성인굿
성주굿
성주상
성주풀이
세경본풀이
세령무
세민황제본풀이
세습무(世襲巫)
셍굿무가
소가면
소미
소설경(小說經)
속연(內緣)
손각시
손님굿
손님굿무가
손전
송당리마을제
송당본향당
송동숙
송선자
송송개(送送蓋)
쇠걸립
쇠풍장
수부채
수비
수비장단
수산본향당(水山本鄕堂)
수성당(水城堂)
수팔련(水波蓮)
숙영랑앵연랑신가
순천삼설양굿
쉰대부채
스승청
시나위
시루말
시무굿무가
시왕기(十王旗)
시왕도(十王圖)
시왕맞이
신과세제(新過歲祭)
신광주리춤
신내림
신딸
신만곡대제(新萬穀大祭)
신법(神法)
신병(神病)
신부리
신석남
신석봉
신위행
신장대
신장위목(神將位目)
신청궤춤
신청울림
신칼
신태집
심방(神房)
심방백중제
심방청(神房廳)
십청굿무가
십대왕(十大王)
쌍불이가면
쏭거장단
쏭거타령

사귀대(邪鬼隊)

정의 충청도 지역 무속에서 사귀(邪鬼)를 접신시키기 위해 만든 신간(神竿). 속대의 한 종류이다. 속대에 어느 귀신이 접신되느냐에 따라 사귀대(邪鬼隊), 수배(수비)대, 귀신대(鬼神隊) 등으로 불린다. 일반적으로 병굿이라 불리는 병경(病經)에 사용된다.

형태 사귀대는 신간과 사귀로 구성되며, 또한 사귀가 들어갈 함이 필요하다. 사귀대는 속대의 한 종류이다. 속대는 신장대를 작게 축소해 놓은 모양으로, 전지나 창호지와 대나무로 만든다. 종이를 일정한 크기로 자른 뒤에, 이를 반으로 접고 다시 옆으로 돌려서 반을 접는다. 종이가 접힌 부분 일부는 그대로 두고 그 아랫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칼질해서 가닥을 낸다. 대나무 윗부분을 칼로 조금 잘라내고 그 안에 가닥을 낸 종이를 끼워놓고 돌려서 만든다. 그 길이가 20㎝ 내외이다. 여기에 날래미가 잡신으로 함께 구성되는데, 이것은 사귀와 동등한 기능을 한다.

날래미는 흰 종이로 속대와 유사하게 만들어지는데, 그 크기는 가로 · 세로가 동일하게 대략 5㎝ 내외이다. 잡신의 신체로 상징되는 날래미는 하나 혹은 여러 개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그 숫자는 곧 귀신의 수(數)를 상징한다. 날래미의 형태가 추상적인 데 반해, 사귀는 남녀 한 쌍이 기본구성을 이룬다. 색지를 이용하여 사람의 형태를 본 떠 얼굴과 몸 이외에 손과 발까지도 구체화한다. 남자를 상징하는 사귀대는 흰 두루마기, 여자를 상징하는 사귀대는 빨강 치마와 노랑 저고리를 착용한 모습이다. 크기는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보통 조그마한 공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다. 길이는 평균적으로 20㎝ 이내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배대에는 흰색 · 파란색 · 빨간색의 삼색 천을 묶어 수배를 가시화한다. 수배는 상위의 신을 따라온 하위의 잡신으로 수비라고도 불린다.

사귀를 비롯한 잡신이 들어갈 공간은 사귀통(邪鬼桶)이라 불리는데 단지, 호박, 유리병이 주로 사용된다. 단지는 크기가 작은 옹기가 사용된다. 호박으로 만들 때는 늙은 호박을 사용하는데, 늙은 호박은 그 윗부분을 도려내고 속을 모두 파내어 뚜껑을 만든다. 병을 사용할 경우에는 병 중간부분을 잘라 날카로운 부분을 무디게 한다. 사귀가 들어갈 공간을 덮은 뚜껑은 여러 가지 곡물을 섞은 것이 사용된다. 밀가루에 고춧가루와 소금 재를 섞어 반죽하거나 혹은 고춧가루, 소금, 콩깍지를 태운 재를 혼합하여 만든 것을 흰 무명천이나 비닐봉지에 담아 만든다.

내용 속대는 날래미나 사귀, 수배와 같이 잡신을 상징화한 무구를 얹어서 의례를 행하는 것이다. 귀신이 내리는 접신 도구로 축귀의식에 사용된다. 환자 치료를 위한 병경을 할 때 환자의 병의 원인에 따라 잡신을 구체화 한다. 환자의 병인(病因)이 사귀에 붙은 것이라면 사귀대를 만든다. 사귀대는 이 용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요사스러운 귀신의 대라는 의미이며 주로 사귀를 접신시켜서 축출시키는 용도로 쓰인다. 또한 환자의 병인(病因)이 수배신이 붙은 것이라면, 속대에 수배신을 접신시켜서 배송시킨다. 사귀와 수배대는 날래미에 비해 잡신의 모습이 보다 구체화 된 무구이다.

병경 의례가 끝날 무렵에 귀신을 단지 안에 몰아넣을 때 사귀대가 쓰인다. 사귀대에 사귀인 잡귀를 얹어 놓은 뒤에 사귀대를 타고 내린 귀신이 사귀에 접신되면, 법사가 협박과 회유를 반복하며 단지 안에 귀신을 몰아넣는다. 사귀대는 사귀가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법사의 언변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사귀대를 놀리는 일은 아주 재미있게 치러진다. 사귀에게 좋은 곳으로 데려갈 테니, 대신 환자의 나쁜 기를 뽑아 가자고 회유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사귀대와 사귀가 벌벌 떨면서 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시늉을 하면 법사가 사귀를 단지 안으로 집어넣고 얼른 뚜껑을 닫는다. 법사는 뚜껑을 닫은 공간 전체를 문종이로 싼다. 그리고 귀신이 다시 나오지 못하도록 경청(經廳 ; 경문을 읽어 굿이 진행되는 공간으로 굿청을 말함)에 매달았던 병철망으로 사귀가 담긴 단지를 씌운 후에 왼새끼 줄로 칭칭 동여매어 대문 바깥으로 나가서 손 없는 방위를 점쳐 그 곳 땅 속에 묻는다. 이때 사귀를 단지에 넣어 묻는 광경을 환자가 보면 병이 낫는다고 믿는 것이다.

사귀대는 환자의 병의 원인이 되는 나쁜 액운이나 허깨비 혹은 잡신이 붙은 것을 떼어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수대명자(代數代命者)로 상징된다. 대수대명은 재액을 전이시키는 행위로서 환자를 구상화한 대신(代身) 즉, 사귀를 내세워 귀신을 추방하는 속죄양 모티브의 일종이다. 사람에게 붙은 모든 액운이 사귀대에 옮겨지게 되면, 이것은 잡신의 신체로서 의미가 전환된다. 사귀 자체가 귀신으로 상징되어 귀신단지에 넣으면 축귀 의식이 끝나는 것으로 인식된다. 사귀에 접신된 귀신을 밀폐된 공간에 가두어 인간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 더 이상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미리 준비해 둔 공간에 담음으로 인해, 나쁜 액운이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인식한다. 사귀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귀의 존재를 가시적으로 구체화한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의 굿(하효길 외, 민속원, 2002),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충청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충청지역의 종이무구(임승범, 한국무속학 13, 한국무속학회, 2007), 무 · 굿과 음식(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필자 최진아(崔眞娥)

사냥타령

정의 황해도굿에서 무당이 돼지 등 제물을 잡는 사냥거리에서 부르는 무가. 황해도굿에서 산 제물을 올리는 거리를 '제물을 사냥하러 간다'는 의미로 사냥거리라고도 하고, '산 제물을 죽인다'는 의미로 타살거리라고도 한다. 이때 무당은 제물을 잡기 전에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의례를 고하는 무가를 부른다. 이를 사냥타령이라고 한다.

내용 사냥타령은 "사냥을 가요, 사냥을 가요"라는 노랫말로 시작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사냥타령을 부르는 사냥거리에서는 무당이 장구잽이와 함께 '상산막둥이' 놀이를 한다. 이는 상산막둥이가 화살을 메고 총칼을 들고 깊은 산중으로 사냥을 나가 짐승을 잡아오는 내용이다. 사냥타령은 선율적으로 〈만세바지무가〉와 같은 것이다. 즉 혼소박 4박(10/8박자) 만세바지장단으로 부른다. 이처럼 하나의 무가에 다른 노랫말을 얹어 부르는 동곡이명(同曲異名)의 무가가 많다. 사냥타령도 이와 같다.

〈보례〉 사냥타령 장단

①	ㅣ ㅣ	○	ㅣ	○	①	ㅣ ㅣ	○	ㅣ	○

참고문헌 황해도 굿의 음악인류학(이용식, 집문당, 2005), 한국음악의 뿌리, 팔도 굿음악(이용식,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9), 황해도 맞이굿 형식과 특성 고찰(양종승, 한국무속학 16, 한국무속학회, 2008).
필자 이용식(李庸植)

사슬세우기

정의 서울굿의 용어로 '사슬'과 '세우기'의 합성어이다. 사슬은 옛말로 점이나 셈을 하는 산(算)가지나 댓[竹]가지란 말이고, 세우기는 이 과정에서 월도와 창을 세우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따라서 사슬세우기는 월도와 창을 세워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행위를 말한다. 그것은 곧 해당 신령이 이 굿을 잘 받으셨는지, 이른바 응감(應感)하셨는지를 알아보는 행위이다.

내용 서울굿에서 사슬은 두 차례 연행된다. 첫 번째는 산신도당거리에서, 두 번째는 대안주거리에서다. 산신도당은 재수굿이나 진적굿에만 존재하는 굿거리이고, 대안주는 오구굿에도 존재한다.

산신도당거리는 산거리 · 산바라기라고도 하고, 천궁불사맞이 다음에 행해지는 거리로서 산천에 있는 여러 신들과 지역신인 도당, 부군을 청배하고 놀리는 제차이다. 산신도당 12거리라고 해서 하나의 거리 안에 더 작은 거리들이 있다. 서울의 동쪽제는 천궁불사와 산신도당의 순서가 바뀐다. 실제로 1. 산신, 2. 도당, 부군, 3. 군웅, 4. 산신대신, 5. 산신호구, 6. 산신제장, 말명, 7. 산신신장, 8. 산신대감, 9. 산신창부, 10. 산신걸립, 서


1


2

낭, 영산, 수비가 이 굿거리에서 차례대로 청배된다. 이때 산신, 도당, 부군 공수까지 마치면 사슬세우기를 한다. 처음에는 무구인 월도의 손잡이 부분을 바닥에 대고 세운다. 이를 "월도사슬, 빈사슬 세운다"라고 말한다. 빈사슬이 잘 서면 두 번째 삼지창에 돼지를 얹어 세운다. 사슬을 세울 때 무당은 말로 신령에게 이 사슬을 잘 받아달라는 축원과 굿의 목적과 관련한 축원을 한다. 사슬이 잘 서면 술잔을 이 사슬에 한 바퀴 돌린 뒤 재가집에게 명과 복의 뜻으로 준다. 그리고 도당 노랫가락을 부른다.

대안주거리는 관성제군, 금성대군, 상산마누라, 별상, 신장, 대감을 아우르는 굿거리 명칭으로 서울굿에서는 그 위계가 높은 신격으로 관념된다. 대안주는 대거리(大巨里) 또는 댄주라고도 불리며 한 무당에 의해 위의 신격들이 차례대로 청배된다. 대안주는 '큰 안주'라는 의미로 대안주상이 독립적으로 차려진다. 이 대안주상에 중요한 제물은 육고기이다. 소머리, 소갈비, 우족, 돼지족 등이 있는데 굿의 비용에 따라 가감이 된다. 대안주거리에서 사슬은 별상의 끝에 세운다. 대안주상 앞에서 앉아서 사슬을 세우는데, 산신도당에서처럼 빈사슬을 먼저 세운다. 한 번만 세우지 않고 여러 번 세우는데 첫 번째는 상산을 위한 몫으로 세우고, 뒤의 것은 굿을 하는 재가집 각각을 위해서 세운다. 그 다음 창에 소머리, 소갈비, 우족, 돼지족의 순서로 꽂아 세운다. 이는 별상과 대감을 위한 몫이다. 바치는 안주 각각이 어떤 신령의 몫인지에 대한 해석은 만신마다 차이가 있다. 사슬세우기를 마치면 역시 산신도당거리에서처럼 명잔과 복잔을 내리고, 노랫가락을 부른다.

이렇게 보면 사슬세우기의 기능이 두 가지임이 드러난다. 하나는 산신, 도당, 부군, 상산, 별상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동시에 굿을 잘 받으셨는지의 여부를 묻는 것이다. 또 하나는 굿을 의뢰한 가족들의 길흉을 점치는 것이다. 한편 사슬세우기는 같은 강신무의 굿인 황해도굿에서도 존재한다. 세습무가 연행하는 동해안 굿에서도 사슬세우기와 유사한 행위가 존재하는데 성주굿을 마치면서 성주상을 성주목에 세우는 행위가 그것이다.

참고문헌 서울굿의 다양성과 구조(김헌선, 한국무속학 12, 한국무속학회, 2006). 서울굿 '대안주거리' 의 문화사적 의의 연구(김헌선 · 김형근, 한국민속학 47, 한국민속학회, 2008).
필자 김형근(金亨根)

사슬타령

정의 황해도굿에서 무당이 돼지 등 제물을 삼지창 등에 올려놓고 부르는 무가.

내용 무당은 굿을 진행하면서 신이 제물을 잘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돼지를 삼지창에 올려놓거나 떡을 칼 위에 올려놓아 균형을 잡는 행위를 한다. 이를 '사슬 세운다' 또는 '사슬 받친다'라고 한다. 삼지창이 균형을 잡으면 신이 제물을 잘 받은 것이다. 이때 신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부르는 무가가 사슬타령이다. 사슬타령은 선율적으로 〈만세바지무가〉와 같은 것이다. 즉 혼소박 4박(10/8박자) 만세바지장단으로 부르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의 무가에 다른 노랫말을 얹어 부르는 동곡이명(同曲異名)의 무가가 많다. 사슬타령도 이와 같다.

〈보례〉 사슬타령 장단

①	ㅣ ㅣ	○	ㅣ	○	①	ㅣ ㅣ	○	ㅣ	○

참고문헌 황해도 굿의 음악인류학(이용식, 집문당, 2005). 한국음악의 뿌리, 팔도 굿음악(이용식,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9). 황해도 맞이굿 형식과 특성 고찰(양종승, 한국무속학 16, 한국무속학회, 2008).
필자 이용식(李庸植)

1. 서울 진적굿중 도당산신거리에서 사슬세우기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이상순 만신 자택 | 2009.4.12 | 김형근

2. 황해도 생타살굿의 사슬세우기
인천시 계양구 방축동 계양산굿당 | 2007.5.21 | 김형근

사신(使神)

정의 신(神)이 이동할 때 호위하는 역할을 하는 신.

내용 사람이 죽었을 때 그 혼을 저승으로 데려가는 저승사자가 이에 해당한다. '저승사자' 혹은 '사자'라고도 한다. 저승에 있는 사자는 이승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망자(亡者)의 죽은 집으로 찾아와 그의 혼을 낚아채 저승으로 데려간다고 한다. 사자는 망자를 데리고 이승에서 저승의 염라대왕 앞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유족들은 사자를 위해 상을 차리고 돈을 주어 망자를 편히 데려갈 수 있도록 부탁한다. 저승사자는 보통 삼사자(三使者)라 하여 세 명이다. 사자는 삼성이라는 신과 함께 혼을 데리러 온다. 삼성은 사자보다 더 무서운 신이어서 삼성을 잘 모시지 않으면 또 다른 죽음이 생겨난다고 한다.

지역사례 서울 지역의 망자천도굿인 서울진오기굿에서는 저승사자와 삼성을 위한 굿거리인 사재삼성거리가 있다. 사재삼성거리의 연행 양상은 다음과 같다.

무당은 남치마에 연두협수를 입고 방울을 흔들면서 삼성만수받이라는 노래를 부른다. 삼성만수받이는 저승사자와 삼성이 저승으로부터 이승에 있는 망자의 집에 와서 망자의 혼을 낚아채 저승의 염라대왕 앞에 데리고 가는 내용을 교술적으로 부르는 노래이다. 주무(主巫)는 서서, 조무(助巫)는 앉아서 장구를 치면서 함께 부른다. 주무가 선창하면 조무가 반복해서 부르는 방식이다. 이렇게 노래 부르는 방식을 만수받이라고 한다. 만수받이가 끝나면 무당은 경중경중 뛰면서 머리에 삼베로 만든 사자베를 감아서 종이꽃을 꽂고, 사자상에 꽂은 꽃과 앉아서 노래를 불렀던 조무의 장구에 꽂힌 돈을 뽑아 자신의 머리에 꽂는다. 이어서 작은 산자를 입에 물고 망자를 상징하는 넋전에 달려들어 잡으려고 한다. 그런 다음 무당은 사자베를 길게 풀어 전물상 쪽으로 던지고 올가미로 만들어서 전물상으로 던져 망자의 넋(혼)을 잡으려고 한다. 이때 다른 무당들은 유족에게 망자의 혼을 데려가지 못하도록 손을 들어 올가미를 막으라고 시킨다. 저승사자 역할을 하는 무당은 출입문 쪽으로 베를 길게 깔고 그 위에 돈(인정)을 올려놓으라고 한다. 그러고 나서 대구포를 등에 업고 유족에게 돈을 달라고 한 다음 대구포를 땅에 내려놓고 재담(才談)을 시작한다. 이 재담은 사재재담이라고 불린다. 사재재담은 저승사자의 역할을 하는 무당과 유족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연극(演劇)이다. 저승사자 역할을 하는 무당이 유족들에게 망자를 편안하게 저승으로 데려가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무서운 이미지의 저승사자는 자

사재삼성거리의 인정 흥정
서울시 종로구 무악동 국사당 | 2004.11.7 | 변지선



신을 위해 차린 상을 불평하고 엉덩이로 조상(弔喪)을 하는 등 익살스럽고 모자라는 행동을 한다. 이 과정에서 가족의 죽음으로 슬픔에 잠겨 있던 유족들은 처음으로 웃게 된다. 사재재담이 다 끝나면 망자의 심정을 노래하는 타령이 불려진다. 이어서 삼성재담이 시작된다.

삼성재담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기의 소개와 자랑으로부터 이어진다. 먼저 망자 가족에게 삼성비빔밥을 판다. 삼성비빔밥은 커다란 그릇에 상위에 차려진 밥과 나물 · 전 등을 함께 넣은 것으로, 이 삼성비빔밥을 망자 가족에게 돈을 주고 사라는 것이다. 요즘은 시간상 문제로 삼성재담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담은 생략하더라도 의식적인 행위, 즉 삼성을 모시는 행위는 꼭 한다. 망자 가족은 삼성에게 돈을 주고, 돈을 받은 삼성은 비빔밥을 밖에 내다 버린다. 이후에 소금을 뿌리거나 짚신, 망자의 옷 등을 버리는 행위를 한다. 삼성재담은 앞으로 생길지도 모르는 죽음을 예방하고 화를 막자는 의도가 강하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차사본풀이〉라고 하며 저승사자의 내력을 설명하는 신화(神話)가 굿에서 구연된다. 제주도의 굿에서는 평복 차림의 무당이 저승사자(차사)를 위해 상 앞에 앉아 장구를 치며 노래한다. 노래 순서는 먼저 망자가 사망하여 굿을 하게 된 사유를 노래하고, 이어서 본풀이(신화)를 노래한 뒤 기원을 한다. 신화의 내용은 매우 용감하고 똑똑한 강님이라는 사령이 염라대왕에게 선발되어 차사가 되었다는 내용이다.

참고문헌 한국의 무(조흥윤, 정음사, 1985), 서울새남굿(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제주도무속과 서사무가(장주근, 도서출판 역락, 2001), 한양무속집(김선경 편저, 도서출판 대웅, 2007), 한국 무신의 계통(김태곤, 문화인류학 3, 한국문화인류학회, 1970), 한국무속의 신관에 대한 연구(이용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서울진오기굿 연구(변지선,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필자 변지선(卞志善)

사신반혼굿

정의 신호랑이에게 물려죽거나 사신으로 다녀온 사람이 있을 때 개를 잡아 놓고 그 혼을 달래는 굿.

내용 하나의 독자적인 굿이라기보다 큰굿을 할 때 중간에 삽입되어 관련 조상을 위로하는 굿이다. '호서낭', '반혼굿', '개반혼굿', '호영산굿'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과거 호환(虎患)이 심할 때는 일상에서 많이 볼 수 있었지만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행해지지 않는 굿이다. 오늘날에는 무당들을 통해 이 굿에 대한 내용을 들을 수 있으나 무당에 따라서도 설명에 다소 차이가 있다.

김매물 만신은 이것을 '호서낭 반혼굿', 또는 '개반혼굿'이라고도 하며, 범 · 개 · 뱀 등에 물려서 죽었을 때 하는 굿이라고 한다. 이선비 만신은 집에서 집굿을 하고 난 뒤 마당 밖 멀리 나가서 목신, 즉 나무 있는 곳에서 개를 잡아 한다. 이를 호서낭 반혼굿이라고 한다고 한다. 또한 돼지를 잡지 않는 굿이 반혼굿으로, 식상돋음도 같은 말로서 돼지를 잡지 않고 간단히 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무의식」편에는 "집안 조상에 사신으로 갔다온 이가 있다든가 호식(虎食)으로 죽은 이가 있으면 그 조상을 위하여 행하는 굿으로 '개릉산' 또는 '사신반혼굿'이라고 이른다. 조그맣게 시루를 찐 다음 개를 끌고 조용한 산에 가서 개를 잡아 가죽을 벗기고 조짚이나 수수짚으로 개 모양을 크기대로 만든다. 그 위에 개가죽을 씌워서 시루 앞에 놓고 개고기는 삶아서 큰 그릇에 놓고 간단히 굿을 한다. 만신은 개를 사신이라 하여 개를 타고 굿을 한다"고 한다. 이러한 설명을 종합할 때 사신반혼굿은 조상 중에 동물에게 물려 죽은 사람이 있거나 사신으로 다녀온 사람이 있을 때 돼지 대신 개를 잡아 놓고 그 영혼을 달래는 굿임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호랑이 피해가 심했다. 오늘날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처럼 예전에는 호랑이나 각종 동물에게 물려 죽은 사례가 빈번하였다. 따라서 이렇게 죽은 원혼을 달래기 위해 이런 굿이 많이 행해진 것이다.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동물로부터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정확히 사신반혼굿의 유래는 알 수 없지만 아득한 옛날부터 이러한 무속의례가 행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례 호환이 없는 오늘날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굿을 보기가 힘들다. 따라서 상세한 조사도 어렵다. 그러나 황해도 이외의 지역에서 아직까지 전해지는 범굿이 있다. 경상도 동해안의 포항시 남구 대보면 강사리를 비롯하여 몇몇 마을이 그러하다. 옛날 호환이 심했던 강사리에서는 범굿이 중요한 굿거리였다. 그래서 호환이 없어진 근래에도 범굿이 마을의 전통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 마을에서는 범에게 쇠머리를 대접하고 있으며, 범굿이 시작되면 무당은 종이로 만든 호피(虎皮)를 뒤집어쓰고 호탈놀이를 한다. 그리고 굿이 끝나면 쇠머리를 뒷산에 묻는다.

경기도 문산에서는 도당굿을 하고 호영산을 놀리는 놀이굿이 있다. 마을 사람들이 군웅할아버지, 선막동이, 후막둥이, 호대감, 어릿광대 등 여러 배역을 맡아서 탈을 쓰고 노는 놀이로 호랑이를 잡아 액을 풀고, 호랑이를 놀리기 위해 호랑이가 개를 잡아서 산을 헤집고 다니는 놀이를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하여 호영산을 잘 놀면서 동네가 편안하게 해 달라고 기원한다. 그리고 이 놀이를 하고 나면 돼지머리를 바위 위에 올려 놓고 호랑이가 물어가도록 한다. 오늘날 경기도 성남 청계산 일대의 동제를 보면 제를 지낸 후 고깃덩어리를 제당과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두고 내려온다. 이것도 호랑이에게 주는 것이다. 한편 문산과 같이 호영산을 노는 놀이굿은 없지만 경기도 일대의 동제에서도 호환에 대한 두려움과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례적 행위를 엿볼 수 있다.

1998년 경기도 마석에서 황해도굿을 하는 한 무당의 신사맞이 때 대감거리에서 호군웅대감이라고 하여 호영산을 놀리는 굿을 하였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앞에서 대감들을 놀리고 만신은 돼지 뒷다리를 들고 산으로 가서 나무 밑에서 호영산대감, 수살대감, 목신대감, 벌대감, 들대감을 호명하며 빈다. 호랑이 넋이 실리면 돼지 뒷다리를 땅에 묻기도, 하고 땅을 기어다니며 낙엽을 던지기도 한다. 온 산을 기어다니면서 이 나무저 나무 밑에서 돼지고기 덩어리를 던지고 입에 물고 다니며 호랑이 흉내를 낸다. 조금 내려와서 업단지 위에 올려놓은 짚주저리를 뒤집어쓰고 머리를 흔들기도 하다가 땅을 기어다니며 장구 앞으로 와서 군웅이 놀 때처럼 바구니 안에 담긴 돼지 내장과 피를 먹기도 하고 산 쪽으로 뿌려주기도 한다. 이렇게 한 후 장구 앞으로 와서 공수를 하고 끝냈다.

범굿은 지역에 따라 마을굿에서 호영산을 놀리기도 하고,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조상을 위한 가정굿도 있다. 그만큼 과거 한국인의 일상에서 호환에 대한 두려움이 광범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에도 연로한 무당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곤 한다. 한 무당은 1980년대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 방앗간을 하는 사람이 호랑이가 내려와서 개를 물어 가려는 것을 쫓았더니 그날로 주인이 병에 들어 죽었다는 말을 하였다. 이는 사실의 진위를 떠나서 여전히 민간에서 지금도 호랑이를 두려워하거나 신령스럽게 생각하는 사고가 잔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무의식편(문화재관리국, 1983), 강사리범굿(하효길 외, 열화당, 1989), 문산도당굿과 호령산호대감놀이(김선풍, 청하성기조선생회갑논총, 신원문화사, 1993).
필자 김덕묵(金德默)

상호참조 호살량굿(954쪽)

사신성황당 현판(使臣城隍堂 懸板)

정의 사신성황당(使臣城隍堂)에 보관되어 있던 나무 현판. 사신당무신도 부 현판(使臣堂巫神圖 附懸板)은 2005년 2월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제27호로 지정되었다.

내용 사신성황당은 서울 지역의 대표적인 신당(神堂)으로서 서울 서쪽 지역 거주민들의 안녕을 꾀하고 무병장수를 기원하였던 민중의 안식처였다. 사신성황당에서는 오래전부터 국가의 안녕을 위하는 거대한 굿을 거행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중국 사신이 오갈 때 큰굿을 하였던 곳이다. 사신서낭당은 원래 서대문구 홍제동 고개 말바위 아래쪽(현재 청구아파트 앞 쪽)에 있었는데 도로 확장으로 인해 건너편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앞으

로 옮겨졌다. 그러다가 그 자리에 빌라를 짓게 되자 불광동의 불광사 앞으로 옮겨졌다. 불광사 앞에서 다시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산 68-6번지 소재 이주하였다가 은평 뉴타운 개발로 인해 새로운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같이 사신성황당은 도심 개발 논리에 밀려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 결국 오늘에 이르렀다.

사신성황당에는 무속의례를 베푸는 신당과 함께 맹인들이 독경을 하였던 경당(經堂)이 함께 있었다. 이 곳의 경당은 서울 지역 맹인들에 의해 가장 선호되었던 독경의식의 본거지였다. 명성황후도 이곳 경당에서 맹인들을 시켜 기복행위를 베풀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사신성황당이 궁중과 관련된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고종과 명성황후, 왕대비, 세자, 세자빈 등을 위해 봉축을 올린 내용이 나무 현판에 새겨져 전하고 있다.

사신성황당에 보관되어 있던 나무 현판은 이곳의 무신도들과 함께 2005년 2월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제27호로 지정되었다. 사신성황당 나무 현판의 원문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奉祝

主上殿下 壬子生 聖壽 萬萬歲

中宮殿下 辛亥生 閔氏 聖壽 萬萬歲

王大妃殿下 辛卯生 洪氏 萬歲萬歲

世子邸下 甲戌生 千秋千秋 鳳閣千秋

嬪宮邸下 辛未生 閔氏 齊年齊年壽齊年

大院君 庚辰生

府大夫人 戊寅生 閔氏

宮人夫 甲寅生 嚴氏

○○○○ 阿只

尙宮 甲申生 河氏

尙宮 庚寅生 尹氏

尙宮 辛卯生 孫氏

己丑 仲夏 日

현판의 내용을 살펴보면 봉축(奉祝)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축하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왕을 비롯하여 중궁, 왕대비, 세자, 세자빈, 후궁, 후궁 소생 등의 만수무강을 축원하고 이를 기리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었다. 이 현판은 나무로 제작되었으며 가로 84㎝, 세로 41㎝ 이다. 그러나 귀퉁이와 아래쪽 조각 장식품까지 하면 가로 117㎝, 세로 55㎝가 되며 높이는 7.5㎝이다.

주상전하(主上殿下)는 고종을 지칭하는데 임자년(1852)에 출생하였다. 성수(聖壽)는 성상(聖上 ; 임금을 높여 부르는 말)의 수명을 높여 쓰는 용어이며 만만세(萬萬歲)는 아주 오래도록 만수무강(萬壽無疆)하라는 뜻이다.

중궁전하(中宮殿下)는 왕비 민씨로 명성황후를 지칭한다. 명성황후는 신해년(1851)에 출생했다. 왕대비전하(王大妃殿下)는 헌종의 계비인 효정왕후를 지칭한다. 왕대비 홍씨는 신묘년(1831)에 출생했다. 세자저하(世子邸下)는 순종을 가리키며 순종의 출생년은 갑술년(1874)이다. 천추(千秋)는 천년을 이르는 말로 곧 오랫동안 만수무강하라는 뜻이다. 봉각(鳳閣)은 궁궐의 건축물을 이르는 것으로 봉루(鳳樓)라고도 한다. 빈궁저하(嬪宮邸下)는 순명효황후를 이르는데 신미년(1871, 선원계보기략에는 1872년으로 되어 있음)에 태어나서 1882년에 세자빈에 책봉되었다. 제년제년수제년(齊年齊年壽齊年)은 부부가 함께 오랫동안 장수한다는 뜻이다.

대원군(大院君)은 흥선대원군 이하응으로 경진년(1820) 출생이며 부대부인(府大夫人)은 대원군의 아내에게 주는 작호이다. 궁인부(宮人夫)는 궁 안의 부인을 이르는 용어로 곧 임금의 여자를 뜻한다. 궁부인(宮夫人)이라는 용어는 고려 초에 쓰였으며 후비(后妃)에게 내리는 봉작(封爵)이었다. 여기에서는 갑인생(1854) 엄씨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아기씨[阿只], 갑신생(1824년생) 상궁(尙宮) 하씨, 경인생(1830년생) 상궁 윤씨, 신묘생(1831년생) 상궁 손씨가 기록되어 있다. 이 현판의 내용은 기축년(1889) 중하(仲夏)에 작성된 것이다. 중하는 여름이 한창인 때라는 뜻으로 음력 5월을 가리킨다.

참고문헌 서울 무속의 자존심, 존립 위기에 직면한 금성당 · 사신성황당(양종승, 민속소식119호, 국립민속박물관, 2005), 금성당 · 사신당: 서울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민속유적학술조사보고서(상명대학교 박물관 · SH공사, 2006).

필자 양종승(梁鍾承)

사자맥이

정의 물에 빠져서 혹은 목을 매달아 죽거나 해산 · 교통사고 · 질병 등으로 불쌍하게 죽은 사람들을 위해 무당이 하는 굿.

내용 굿이 끝날 무렵에 하는 중천맥이나 뒷전거리 등에서 이 굿을 한다. 이 굿은 무당이 죽은 사람, 곧 사자들의 행동을 몸짓으로 보여주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매우 연극적인 굿이다. 전북 지역 무당굿의 경우, 세습무 계통의 선반굿과 보살 · 법사 계통의 앉은반굿의 경우에 따라 이 사자맥이가 다소 다른 차이를 보인다.

먼저 세습무 계통인 선반굿의 경우 전북 세습무 전금순의 굿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명칭은 일반적으로 '중천멕이' 또는 '중천맥'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 굿을 하기 위해서는 중천 손님들인 사자들을 위한 새옷 · 의관 · 신발 등과 바가지 · 술병 · 함지박 · 지팡이 · 숟가락 등의 무구(대소도구), 미역국 · 묵 · 향물 · 소금물 · 고춧물 등 제물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준비가 끝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중천맥이가 공연된다.

전체 순서를 보면 먼저 무녀가 굿판에 나와 선반으로 악사들의 굿거리 장단에 맞추어 중천맥이 사설을 노래한다. 다음에는 주무당 단골 혼자 하거나 몇 명의 단골들이 해산 중천, 봉사 중천, 외팔이 중천, 절름발이 중천, 곱사등이 중천, 피부중천(피부병 걸려 죽은 귀신), 굶주린 중천, 주모중천 등의 모습으로 분장하고, 차례차례 굿판에 나와 악사들과 재담을 주고받는 식으로 굿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첫째, 해산 중천이 흰색 저고리와 검은색 치마를 입고 치마 속에 바가지를 넣어 임신부처럼 꾸며서 굿판(집안)에 등장한다. 다른 무녀가 옆에서 삼신경을 읽어주면 해산 중천이 산고를 치르다가 아기를 낳는 시늉을 한다. 이 과정은 치마 속에서 바가지를 꺼내는 동작으로 표현한다. 미역국을 먹은 후 새 옷으로 갈아입고 아기(바가지)를 보자기로 감싸 안아 아기 어르는 노래를 부른 다음 재가집 사람들과 관중들을 위한 축원을 하고, 바가지에 묵을 담아 머리에 이고 엉덩이춤을 추면서 대문 밖으로 퇴장한다.

둘째, 봉사 중천이 갓을 삐뚤게 쓴 채 두루마기 앞자락을 뒤로 묶고 봉사처럼 눈을 감은 채로 지팡이를 짚으면서 굿판으로 등장한다. 다른 무녀가 약물(향물)로 봉사 중천의 눈을 씻어주자 봉사 중천이 눈을 번쩍 뜬 다음 새 옷으로 갈아입고 음식을 대접받고 나서, 축원을 하고 한량무를 추며 대문 밖으로 퇴장한다.





1. 전금순 단골의 '해산 중천' 연기장면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세종문화원 | 2006.4.9 | 김익두

2. 하진순 보살의 사자맥이 공연장면
전북 군산시 은파유원지 | 2009.4.18 | 김익두

셋째, 외팔이 중천이 흰 저고리와 반쯤 걷어 올린 바지 차림으로 병신처럼 한 팔은 앞으로 비틀어 꼬아 가슴에 얹고 다른 팔은 뒤로 꼰 채 대문 밖에서 굿판으로 등장한다. 다른 무녀가 외팔이 중천의 팔에 약물을 발라주고 새 옷을 입혀주면 병이 나았다면서 꼬였던 팔을 제대로 편 다음 축원을 하고 대문 밖으로 퇴장한다.

넷째, 절름발이 중천이 흰색 한복에다 겉에 두루마기를 걸치고 굿판에 등장하면 다른 무녀가 그의 다리에 약물을 발라준다. 그러면 절름발이 중천이 다 낳았다면서 제대로 걸으며 축원을 하고 퇴장한다.

다섯째, 곱사등이 중천이 옷을 두툼하게 말아 등에 집어넣어 꼽추 모습을 하고 굿판에 등장하면 다른 무녀가 솔잎이나 댓잎으로 약물을 찍어 그의 등에 발라준다. 이에 곱사등이 중천은 병이 나았다면서 허리를 곧게 펴서 축원을 하고 춤을 추며 퇴장한다.

여섯째, 피부 중천이 허술한 한복 차림을 하고 굿판에 등장한다. 피부 중천이 피부병을 앓는 사람처럼 몸을 이곳저곳 박박 긁어대며 등장하면 역시 약물로 치료를 받고 고맙다는 축원을 하고 퇴장한다.

일곱째, 굶주린 중천이 허술한 한복 차림으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굿판에 등장하여 음식을 허겁지겁 집어먹는 시늉을 하다가 재가집 사람들과 관중들을 위한 축원을 하고 춤을 추며 퇴장한다.

여덟째, 주모 중천이 술병을 머리에 이고 엉덩이를 내두르며 굿판에 등장한 뒤 이리저리 굿판을 돌아다니면서 관중들에게 술 대접을 하고 축원을 한 다음 바가지에 술을 담아 머리에 이고 밖으로 퇴장한다.

보살 · 법사들의 앉은반굿 사자맥이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먼저 대소도구로 부엌칼 · 짚신 · 동전 · 북어 등을 준비한다. 개인굿의 경우 짚신 세 켤레, 동전 세 개, 북어 세 마리를 준비하고, 큰굿인 경우 짚신 열두 켤레, 동전 열두 개, 북어 열두 마리를 준비한다. 이밖에 과일과 같은 여러 제물이 준비되기도 한다. 준비한 짚신 · 동전 · 북어 등의 제물을 굿판 한쪽 가장자리 바닥에다 차려 놓는다. 그런 다음 보살 무당이 굿 사설을 노래하여 죽은 이의 혼을 위로하고 차려 놓은 것들을 풀어먹인다.

다음에는 보살 무당이 짚신을 들고 한참 놀다가 짚신을 굿판 밖으로 내던진다. 그 다음에는 보살 무당이 준비한 부엌칼 3자루를 가지고 굿 사설을 하면서 죽은 이의 혼을 굿판 밖으로 내쫓는 시늉을 한다. 이때 사용하는 부엌칼은 마을의 각성받이, 곧 성씨가 제각기 다른 사람들의 집에서 얻어온 부엌칼을 쓴다고도 한다. 이런 연극적 행동이 모두 끝나면 차려 놓았던 제물들을 모두 한데 싸서 굿판 밖으로 가져다가 버리거나 불태운다.

2009년 4월 26일 전북 군산시 은파유원지에서 공연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38호 하진순 보살 무당의 사자맥이를 순서대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관중석에서 볼 때 굿판의 오른쪽에 악사들(장구 · 피리 · 대금 등)이 앉아서 뒷전거리의 시작을 알리는 굿거리 장단을 연주한다. 악사석에 함께 앉은 법사가 장구 및 장구에 매어단 쇠를 치면서 뒷전거리 사설을 독경한다. 보살 무당이 굿판으로 나와 여러 번 묶은 검은 베를 흔들어 고풀이를 한다. 보살 무당이 준비된 부엌칼을 양손에 들고 춤을 추면서 법사 앞으로 다가서서 사자맥이 사설을 한다.

법사의 장단과 독경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살 무당 하진순이 다시 제물 옆으로 다가가 손에 든 부엌칼들을 하나씩 제물 근처의 굿판 밖으로 내던진다. 그런 다음 보살 무당이 짚신 한 켤레를 양손에 나누어 들고 법사 앞으로 다가가 사자맥이 사설을 주고받은 다음 다시 제물 옆으로 돌아와 짚신들을 모두 굿판 밖으로 내던진다. 보조 무당의 도움으로 앞서 고풀이를 하고 놓아둔 검은 질베 천을 길게 늘어뜨린 다음 그 가운데를 길게 찢어 갈라서 굿판 밖으로 내던진다. 다시 보살 무당 하진순이 법사 옆으로 다가서서 사자맥이 사설을 주고받고 객사귀 걷어내기 등을 한 다음 무당이 춤을 추고 법사가 독경을 한다. 보조 무당이 굿판에 차려져 있는 사자맥이 제물 음식들을 봉지에 담아, 굿판 밖으로 내다버린다. 보살 무당이 사자들의 노자가 없다며 노잣돈을 요구하고 관중들 중 일부가 굿판으로 나와 남아 있는 사자맥이 제물 위에 노잣돈을 올려놓는다. 무당이 남아 있는 제물 중에 사과 · 오렌지 등의 과일들을 차례로 하나씩 입에 물고 떼어먹는 시늉을 한 다음 굿판 밖으로 내던진다. 끝으로 무당이 제단에 절을 하고 법사가 독경을 하면서 '사자맥이' 굿이 끝난다.

전체적으로 보아 사자맥이굿은 연극적인 굿거리로서 여러 개의 토막극이 연결되는 이른바 옴니버스식 구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개의 토막극이 옴니버스식으로 연결되어 '사자맥이'라는 전체 주제를 구현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씻김굿 무가: 순천 씻김굿을 중심으로(이경엽, 박이정, 2000), 전북 씻김굿: 전금순의 무가(이영금, 박이정, 2007), 세습무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강신무 · 세습무의 검토(이경엽, 한국무속학 7, 무속학회, 2000), 전북지역 무당굿 연구: 정읍 세습무 전금순 굿을 중심으로(이영금,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하진순 넋풀이굿 공연 영상 자료 CD 1–7(김익두 · 백은철 촬영, 2009년 4월 18일, 전북 군산 은파유원지), 전금순 씻김굿 공연 조사 사진 자료(김월덕 촬영, 2006년 4월 8–9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완산동 세종문화원 공연장), 전금순 씻김굿 공연 영상 자료 CD 1–7(김월덕 · 이영배 · 홍태한 촬영, 2006년 4월 8–9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완산동 세종문화원 공연장), 전북 무형문화재 38호 하진순 넋풀이굿 조사 녹음 자료 CD(김익두 · 백은철 · 허정주 녹음, 2009년 4월 18일, 전북 군산 은파유원지), 전북 무형문화재 38호 하진순 넋풀이굿 조사 사진 자료(김익두 · 허정주 촬영, 2009년 4월 18일, 전북 군산 은파유원지).

필자 김익두(金益斗)

사자상(使者床)

정의 유교식 상례 때나 망자를 천도하는 굿에서 저승사자를 위하여 차리는 음식 상차림.

내용 민간에서는 사자상이라고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저승사자상이다. 굿에 차려지는 사자상의 경우 지역에 따라서 사재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저승은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이 사는 세상이다. 저승을 지키는 염라대왕이 명령을 내려서 죽은 사람의 넋을 데리고 오는 일을 저승사자가 맡는다. 이 저승사자가 망자의 넋을 괴롭히지 않고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 차린 음식상이 바로 사자상이다.

저승사자와 관련된 인식은 중국의 불교와 민간도교가 혼합되면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고대 중국의 저승사자와 관련된 이야기는 송나라 때 편찬된 『태평광기(太平廣記)』에서 지괴(志怪)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조선시대 문헌에서 저승사자는 무양(巫陽), 부(符), 불가지지신자(不可知之神者) 등의 한자로 표현되었다. 이 중에서 무양은 전설 속의 여무로 상제의 명에 따라 혼백을 주관하는 일종의 저승사자이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 저승 및 저승사자와 관련된 설화가 120여 편이 수록되어 있을 정도로 죽음과 관련하여 한국인의 인식세계에 저승사자는 중요한 신령으로 이해되었다. 이에 따라 유교식 상례는 물론 망자를 저승으로 천도하는 굿에서 저승사자는 중요한 신령으로 등장한다. 이 신령을 위해 반드시 사자상이 차려진다.

하지만 저승사자의 유래를 알 수 없듯이 사자상이 언제부터 상례나 굿에서 차려졌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료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조선 순조 28년(1828)에 진하겸사은사행(進賀兼謝恩使行)의 의관 및 비장으로 수행한 저자 미상의 연행(燕行) 기록인 「주견제사(主見諸事) · 풍속(風俗)」에서 당시 청나라의 사자상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초상이 나면 패루(牌樓)를 문 밖에 세우고 삿자리로 쌌다. 동자기둥과 기둥머리에 산과 마름을 그리는데 매우 교묘하였다. 뜰 가운데에는 점루(簟樓)를 세우고, 문 밖에는 점막(簟幕)을 설치하여 광대 무리가 풍악을 울리고 나팔을 불고 북을 울리면서 조객들을 맞이하고 보내곤 한다. 당 앞에는 큰 상 하나를 펴 놓고 떡 · 밥 · 탕 · 면을 진설하고 향촉의 기구를 아울러 벌여 놓았다. 이것이 곧 이른바 사자상이라는 것이다." 근대 풍속화가인 기산 김준근(金俊根)이 그린 풍속화에는 '종명초혼(終命招魂)'이란 제목이 붙은 그림이 있다. 저승사자 셋을 위해 밥 · 술 · 짚신이 각각 세 개 놓였다. 이로 미루어 유교식 상례에서 저승사자를 위해 차려지던 사자상이 망자를 천도하는 굿에서도 똑같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가족 중에서 사람이 죽으면 남녀가 먼저 하는 것이 곡이다. 그 이후 죽은 망자의 혼령을 부르는 초혼(招魂)을 행한다. 이때 염라대왕이 보낸 저승사자에게 먹인다고 하여 밥 세 그릇, 동전 세 닢 또는 술 석 잔, 짚신 세 켤레를 밥상에 차리거나 채반에 담아서 대문 밖이나 담 모퉁이에 놓아둔다. 간혹 묵은 간장을 세 종지 올리는 경우도 있

다. 밥과 술은 저승사자를 배불리 먹여 망자를 잘 인도하도록 청하는 의미를 지닌다. 동전과 짚신은 저승에 가면서 사용할 돈과 신발이다. 묵은 간장을 올리는 이유는 저승사자가 짠 간장을 마시고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기 위해 다시 망자의 집으로 돌아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망자를 천도하는 굿으로는 서울의 새남굿과 전라도의 씻김굿이 대표적이다. 이 굿에서도 사자상이 차려진다. 굿의 사자상에는 밥, 국, 술, 짚신, 북어 등이 세 개씩 제물로 차려진다. 새남굿에서는 안사자와 밖사자를 구분한다. 하지만 안사자를 위한 사재상(사자상)이 저승사자를 위한 상이며, 밖사자를 위한 사재상은 잡귀잡신을 위한 뒷전상을 겸하여 차려진다. 안사재상에는 밥 세 그릇, 술 석 잔, 사과 · 토마토 · 감이 각기 담긴 과일 세 접시, 떡 세 접시가 차려진다. 떡 위에는 소적을 올리고 지화를 꽂는다. 아울러 빈대떡과 전을 담은 접시 하나와 산자를 담은 접시가 놓인다. 산자는 도령문에서 망자의 도령문 통과를 허락할 때 도장을 받는 데 쓰인다. 동시에 저승사자를 위한 과자이기도 하다. 진도의 씻김굿에서 차려지는 사자상에는 밥 세 그릇, 국 세 그릇, 술 석 잔, 나물 세 접시가 놓인다. 밥과 국의 오른쪽에는 수저가 각각 놓인다. 전북 지역에서는 허재비 세 개를 만들거나 짚신 위에 칼을 놓아두기도 한다.

사자상에 올라가는 제물이 각각 세 개인 이유는 저승사자가 셋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3'이란 숫자가 저승사자 전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아울러 최상의 제물을 차렸다는 뜻으로 세 개씩을 올린다. 사자상의 제물 차림은 저승사자가 인간의 영역과 신령의 영역을 왕래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한다. 왜냐하면 사자상에 차려지는 제물은 모두 이승에서 사는 사람들이 먹는 일상적인 끼니 음식의 상차림인 밥 · 국 · 반찬의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곧 저승사자를 두고 신령이면서도 인간이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무 · 굿과 음식 1(주영하 · 방인아 · 최진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조선시대의 음식문화(김상보, 가람기획, 2006), 고대 중국에서의 소설적 서사의 형성과정–저승사자의 이야기를 중심으로(서경호, 동양학 28,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8), 저승설화의 전승 양상에 관한 연구–구전설화를 중심으로(이영수, 비교민속학 33, 2007), 무속의 물질문화 연구(최진아,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9), 한국고전번역원 웹사이트 「주견제사(主見諸事) · 풍속(風俗)」번역.
필자 주영하(周永河)

산메기

정의 주로 강원도 영동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민속신앙. '산멕이', '산맥이'라고도 부른다. 산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봄 또는 가을에 날을 받아 가족, 친족, 또는 주민들 단위로 산에 올라가 '산'을 대접하고 가정의 편안과 자손 발복을 기원하는 산간신앙 의례.

역사 산메기에 대한 기록은 일제강점기 때에 볼 수 있다. "문중별로 모여 집안의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무당과 함께 산 속으로 가서 산제를 올린다"는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의 삼척 산제에 대한 기록은 바로 산메기를 지칭한 것이다.

내용 산메기는 봄, 가을에 산에 올라가 조상을 대접하고 자손발복을 위해 치성을 드리는 신앙이다. 산메기는 문자 그대로 산을 먹이는(멕이는) 행위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산을 대접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산메기는 발음대로 쓴 것이고, 산멕이는 '산을 멕인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산맥이는 '액을 막는다'는 의미를 지니는데 현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축귀보다는 '산'을 대접한다는 뜻이 더 강하다.

산메기에서 모시는 신은 산신, 조상, 삼신, 군웅, 용신, 말명 등이다. 산메기를 하는 사람들은 '산'과 산신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산의 신령인 산신을 모시는 의례는 흔히 산당제라고 부른다. '산'은 이보다 복합적인 성격을 지녀 산신령이면서 조상이고 가족의 안녕과 자손번창, 가축의 무병과 번성을 돕는 신으로 믿고 있다.

현재까지 산메기를 가장 활발하게 전승하는 지역은 삼척이다. 삼척 지역의 산메기는 집안 단위, 마을 단위로 이루어진다. 가까이 사는 집안이

당산제 후의 산메기
국립민속박물관



모여서 함께 가는 경우도 있고, 한 마을에 사는 여러 집안이 함께 가는 수도 있다. 무당이나 독경하는 복자를 데려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입담 좋은 사람이 비손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산메기는 집단신앙과 개인신앙의 양상이 모두 존재하고, 산에서 이루어지지만 집안의 평안과 태평을 기원하는 신앙이라는 점에서 가정신앙의 면모를 지닌다.

지역사례 삼척에서 산메기로 가장 유명한 산은 쉰움산이다. 쉰움산은 정상에 둥글게 우물처럼 파인 것이 50개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 가운데 용신당이 있다.

내미로리 마을은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날을 잡아 쉰움산으로 산메기를 간다. 2005년 6월 9일에 실연된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마을의 산메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산메기는 17가구가 참여했다. 마을 주민들은 김동철 복자와 천순자 · 강행자 무녀를 사제로 초청했다. 날을 잡은 사람을 당주라고 한다. 해뜨기 전에 당주집에서 조상을 대우한 뒤에 다 함께 쉰움산으로 올라간다.

간단한 제물을 장만하여 산의 초입에 들어서면 먼저 복자가 거리부정을 친다. 쉰움산은 가파른 오르막을 한 시간 이상 계속 올라가야 한다. 이 때문에 중간에 있는 은선암에서 망제(望祭)로 올리는 사람도 많다. 쉰움산 정상에 있는 조상당에는 높이 1m 정도의 돌탑제단이 약 10m가량 둥글게 펼쳐져 있다. 당주가 가운데에 자리를 잡으면 집 단위로 각각 제물을 진설한다. 쌀가루로 둥글게 만든 동돌개비떡 · 삼실과 메 · 과일 · 포 등을 놓는다.

산메기 절차를 보면 먼저 부정경을 읽은 뒤 산맞이를 한다. 산신메에 수저를 꽂은 다음 모두 잔을 올리고 절한다. 웃대 어른들이 다른 산을 모신 집안에서는 먼산맞이를 한다. 산이 있는 방향에 가서 제물을 진설한 뒤에 간단히 비는 것이다. 아침을 먹은 뒤에는 조상맞이를 한다. 복자와 무녀들이 각 집의 조상당을 돌면서 축원해 준다. 조상맞이가 끝나면 삼신을 모신다. 삼신당은 조상당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사람들은 삼신메와 한지, 실 한 타래를 가지고 가서 바위에 걸어놓은 뒤 치성을 드린다. 무녀는 돌아다니면서 삼신메로 대를 내려준다. 비는 사람이 들고 있는 삼신메가 흔들리는 것으로 대가 내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용신제는 부녀자들만 참여한다. 쌀과 시루떡, 동돌개비떡, 술을 가지고 용신당에 모여서 절한 뒤에 쌀을 뿌리면서 풍년을 기원한다. 다시 조상당에 돌아와서 집에서 키우는 소를 위해 군웅축원을 한다. 마지막에 조상을 위해 삼베조각을 갈라주는 길가르기를 한다. 천은 조상당 앞에 있는 소나무 가지에 걸어두고 뒷전을 메기면 모든 제의가 끝난다. 사람들은 음식을 나눠 먹고 놀다가 내려온다.

한편 강릉 강동면 심곡리와 옥계면 도직리에서 전승되는 산메기는 개인신앙의 형태를 띤다. 평소 부엌에 왼새끼를 걸어두고 고기나 생선 등의 비린 것을 먹을 때마다 날것을 잘라 한 조각씩 걸어둔다. 이것을 '산'이라고 부른다. 단옷날 해가 뜨기 전에 일 년 동안 걸어두었던 '산'과 제물을 장만하여 안주인 혼자 산에 올라간다. 집집마다 정해진 나무에 '산'을 건 다음 그 아래 제물을 차린 뒤에 절하고 비손을 하는 것이다. 안주인은 주로 가족이 무사하고 자손발복 하기를 기원한다. 비손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다시 새로 왼새끼를 꼬아 '산'을 만들어 부엌에 걸어둔다. 강릉 지역의 산메기는 철저하게 여성 중심이며 시어머니에게서 며느리로 전승된다.

참고문헌 조선의 향토오락(村山智順(편) · 박전열(역), 집문당, 1992), 삼척의 민속예술(김태수, 코리아루트, 2000), 강원도 민속의 지역적 정체성–산간민속을 중심으로(김진순, 비교민속학 29, 비교민속학회, 2000), 산멕이에 관한 논쟁적 해석(김태수, 한국민속학 43, 한국민속학회, 2006).
필자 황루시(黃縷詩)

산바라기상

정의 산신을 위해 차려지는 상.

내용 산신은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의 굿에서 모셔지는 중요한 신이다. 서울 지역의 굿에서 산신은 '산거리'에서 모셔진다. 이때 산신을 위해 차리는 상을 말한다. 산거리에서는 먼저 산신을 모시고 마을의 수호신인 '도당'을 모시게 된다. 이런 이유로 산거리에서 차려지는 상을 산상 혹은 도당상이라고도 부른다.

서울 지역의 굿에서 산거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무당은 남치마와 협수, 쾌자, 홍철릭을 입고 홍갓을 쓰고 종이와 부채 방울을 양손에 든다. 출입구 쪽으로 먼저 산신을 청배한 후 산상 쪽으로 절하고 "소찬은 소산에 육찬은 육산에 팔도영산 산신령님~"으로 시작되는 공수를 한다. 채소를 받는 산신과 고기를 받는 산신이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공수를 하면서 사방으로 청배한 다음 부채와 방울을 내려놓은 뒤 종이를 들고 산상 앞에서 굿거리장단과 당악장단에 춤을 춘다. 이어서 공수를 한다. 공수는 산공수, 도당공수, 부군공수로 이어진다. 뒤이어 군웅공수를 할 때도 있고 하지 않을 때도 있다. 무당은 앉아서 월도(月刀)를 세우거나 삼지창에 제물로 올린 갈비를 꽂아서 흔들리지 않게 세운다. 이를 '사슬(사실) 세운다'라고 한다. 사슬을 세웠으면 술잔을 사슬 둘레에 세 번 돌려서 굿을 의뢰한 사람들에게 주고 부채로 사슬을 쳐서 쓰러뜨린다. 사슬이 잘 세워지면 신이 흡족해하는 것으로 여긴다.

서울굿의 망자천도굿인 서울새남굿에서는 산상을 다음과 같이 차린다. 상의 가장 뒷줄에는 도당신을 위한 떡시루인 도당시루를 놓고 그 위에 막걸리 한 대접을 올려놓는다. 도당시루 옆으로 돼지머리나 돼지갈비를 차린다. 그 앞줄에는 왼쪽부터 차례로 사과 · 배 · 감등 과일과 옥춘 · 약과 · 팔보 · 산자 등 유과를 놓는다. 그 다음 줄에는 상의 중앙에 술잔을 세 개 놓는다. 술잔의 오른쪽으로 다시마와 두부를 놓는다. 술잔 앞쪽 중앙에 향로를 놓고 향로를 중심으로 상의 좌우 끝에 촛대를 한 개씩 놓는다.

경기도 지역의 도당굿인 부천 장말도당굿에서는 도당신을 모시는 굿거리인 도당시루를 하고 나서 산신을 모시는 거리인 산바라기를 한다. 이때 차리는 산바라기상의 상차림은 다음과 같다.

당집 방향으로 놓인 상의 가장 뒷줄에 탕을 한 그릇 놓고 그 앞줄에는 왼쪽부터 공산떡(부침개), 밤, 대추, 공산떡, 수수팥떡, 인절미를 한데 놓는다. 이 오른편으로는 밤, 대추, 감, 공산떡, 수수팥떡, 인절미를 한데 놓는다. 오른쪽으로는 팥시루떡 한 켜를 놓고 그 왼쪽에 북어를 세로로 놓는다. 이 다음 앞줄에는 술잔을 세 개 놓는다. 이상을 두고 무당이 남치마에 홍철릭을 입은 후 머리에 주립을 쓰고, 손에 부채와 방울을 들고 무가를 부른 후 사고지(四古紙)를 들고 사방을 향해 산신을 청하며 춤을 춘다. 이어서 공수를 준다. 술잔을 들고 전 도당할아버지 내외와 현 도당할아버지 내외, 장말도당굿보존회 회장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에게 술잔을 돌린다. 이때 무당은 "명잔, 재수잔 받으라"고 하면서 술잔을 돌린다. 마을 사람들에게 술잔을 돌린 후에는 다시 술잔에 술을 채워 상에 올린다. 이어 옷자락으로 당 밖에서 안으로 복을 쓸어 넣는 시늉을 하며, 주립과 무복을 벗어 춤을 추다가 당을 향해 절하고 마무리한다.

참고문헌 서울새남굿(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서울 샤머니즘 연구 1(한국샤머니즘학회, 1999), 무 · 굿과 음식 2(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한양무속집(김선경 편저, 도서출판 대웅, 2007), 서울진오기굿 연구(변지선,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필자 변지선(卞志善)

상호참조 도당상(211쪽)

산신

정의 한국의 대표적 마을 수호신으로 산에 있으면서 산을 지키고 담당하는 신령. 자연물에는 그것을 지배하는 정령이 있다는 애니미즘(animism) 신앙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종의 산의 정령이다. 신체(神體)는 호랑이 또는 신선의 상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단군이 산신이 되었다는 기록을 비롯하여 견훤의 사위 박영규(朴英規)가 해룡산신(海龍山神)이 되었다거나 박난봉(朴蘭鳳)이 인제산신(麟蹄山神)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어 사후의 인간이 산신이 되었다는 관념도 있었음을 보여준다.



1. 구월산신령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가로 76㎝, 세로 97㎝ | 1950~1980년대



2. 산신도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가로 76.5㎝, 세로 100㎝ | 1950년대



3. 태백산신령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가로 77.5㎝, 세로 99㎝

역사 한국에서 산신신앙은 수렵문화 단계에 이미 출현했다. 이때 산신은 산의 일체를 관장하는 자연의 주인(master of nature)이다. 신체(神體)는 호랑이였는데, 동예의 호랑이신 숭배는 이러한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단군신화에서 단군이 마지막에 아사달 산신으로 좌정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고조선시대에도 산신신앙이 유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산신신앙은 신라에서 특히 성행했고, 신라 국가제사의 대상 대부분이 산신이었다. 이는 산신이 국가를 수호한다는 믿음에 기초한 것이었고, 그래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산신이 나타나 이를 경고하기도 했다. 신라 49대 헌강왕이 포석정이나 북악에 행차했을 때 3산 5악의 신들이 나타나 춤을 추면서 다가올 위기를 경고했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다. 고려시대에는 산신들에 대해 수시로 봉작을 내려 산신의 가호를 빌기도 했으며, 조선시대에는 중요 산악들을 국가의 제사대상으로 삼아 정기적으로 제사했다.

한편 불교가 수용되면서 전통신앙과 불교의 혼합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산신은 사찰의 수호신으로 자리 잡는다. 그래서 사찰마다 산신각을 지어 산신을 모시게 되는데, 그 시기는 대략 조선 후기로 짐작된다.

내용 산신에는 남성과 여성이 있다. 산신에 관한 최초의 기록인 단군신화에는 단군이 산신으로 좌정했다고 하여 한국의 산신은 원래 남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대의 기록에서 대부분의 산신은 여성으로 나타난다. 신라 선도산(仙桃山)의 산신, 영취산(靈鷲山)의 산신, 김유신을 보호했다는 신라 3산의 산신은 모두 여성 산신이다. 이뿐만 아니라 고려 건국설화에 나오는 평나산(平那山)의 산신도 여성이다. 그러나 고려시대로 오면서 산신의 성은 대부분 남성으로 바뀐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 산신의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졌는데, 지리산의 산신은 지금도 여성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공주 동학사에서 모시는 계룡산신도 여성이다. 여성 산신의 전통은 산 이름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는데, 할머니를 뜻하는 '노고(老姑)'라는 산명이 전국에 산재한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한편 고려시대를 전후하여 남성 산신이 산신의 주류를 차지하게 되는데, 현재 남아 있는 산신도에는 산신이 남성으로 묘사되며, 이와 함께 산신에게 처녀를 바치는 풍습도 생겨난다. 개성 덕물산이나 나주 금성산 산신에게 처녀를 바치는 풍습이 그것이다. 이러한 산신의 성(性) 변화는 사

회가 남성 중심으로 바뀌어 간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산신의 거처는 산정형(山頂型)·중복형(中腹型)·산하형(山下型)이 있다.

① 산정형은 산정이 하늘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산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산의 지배자가 군림하기 알맞은 곳이다. 그래서 흔히 산정에 산신이 거처한다고 하여 산신을 모시는 제단이나 제당을 산정에 마련하여 산신에게 제사한다.

② 중복형은 산 중턱이 찬바람을 막고 따뜻한 햇볕이 드는 이상적인 곳이므로 여기에 산신이 거처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산정은 올라가기 힘들어 인적이 뜸한 데 비해 중턱은 사람들의 내왕이 활발하고, 그 때문에 호환(虎患)을 당하거나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 산 생활에서 의미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에 제단이나 제당을 마련하여 산신을 모시는 형이다.

③ 산하형은 산 아래 빛이 잘 드는 곳, 또는 마을에서 산으로 들어가는 등산로 근처에 제단이나 제당을 만들고 산신에 제사하는 형이다. 산도 아니고 평야도 아닌 그 중간지점에 산신당이 있는 것은 산신이 그만큼 농경지로 내려온 것인데, 이것은 곧 산신이 산악의 신이나 수렵의 신에서 농경신으로 그 역할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산하형은 마을에 가까운 곳에 있으므로 마을 주민들의 모든 소망을 기원하는 장소가 되었다. 그래서 주민들은 풍작뿐만 아니라 치병, 기자(祈子) 등을 산신에게 빌기도 했다.

산신이 머무는 곳으로 간주되는 제당에는 토단(土壇)·석단(石壇)·거수(巨樹)·당우(堂宇) 등이 있다.

① 토단형은 산정에 위치한 경우가 많으며, 외형은 둥근형과 사각형이 있다.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둘레에 떼를 입힌다. 높이는 1척, 면적은 3㎡ 정도가 일반적이다. 산신 제당 가운데 가장 오래된 형태로 추정된다.

② 석단형은 돌을 쌓은 것으로, 자연석으로 쌓은 것과 가공한 석재로 쌓은 것이 있다. 산 속에 있는 것은 대개 자연석으로 축조하는데, 마을에 가까울수록 인공 석재를 이용한 것이 많다. 또 시기적으로는 자연석으로 쌓은 것이 더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③ 거수형이란 큰 나무가 있고, 그 옆에 제단을 두어 산신을 모시는 형태이다. 단군신화에서 웅녀가 축원한 장소로 전하는 신단수(神壇樹)도 거수형에 해당한다. 거수형은 마을 입구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고, 마을에서 모시지만 산중의 거목을 신목(神木)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단이나 당이 있는 곳은 신성한 구역이라 나무를 베지 않기 때문에 나무가 거목으로 성장한 것이다. 먼 데서 보면 산정 또는 산 중턱에 거목들이 우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산신이 있다고 여겨 산신제를 지내는 경우가 많다. 이 유형은 신목신앙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산신의 신앙 형태로는 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④ 당우형은 산신을 건물 안에서 모시는 유형이다. 존귀한 산신이 비바람을 맞는 것을 황송하게 여겨 건물을 짓고 그 안에 산신을 모신 것으로, 비교적 후기에 속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당우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지만 3㎡ 정도 되는 단칸집이 많다. 당우에는 토단형·석단형·거수형과는 달리 산신상이나 산신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산신상에서 산신은 백발에 긴 수염을 가진 노인으로 묘사되며 호랑이를 거느리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호랑이는 원래 산신 그 자체였으나 산신이 인간화되면서 산신의 사자 또는 산신이 나들이할 때 타는 승물(乘物)로 위상이 격하된다. 위패는 폭 15㎝, 길이 40㎝쯤 되는 나무판에 '○○산신위' 혹은 '○○산령위'라고 하여 산명을 기록하는 경우와 산명을 명기하지 않고 '산신위' '산령위'라 적어두는 경우도 있다. 위패나 신상은 당우의 정면 중앙에 두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상 앞에 위패를 두기도 한다. 당우의 정면에는 산신당·산령각·산신각 등의 현판이 걸려 있고, 당우 안에는 산신제에 소용되는 제구(祭具)를 보관하기도 한다.

산신은 개인에게도 영향을 주지만 대부분은 동신(洞神)으로 마을공동체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산신제는 개인제가 아니라 마을 공동의 제사로 행해진다. 산신제는 한 해를 시작하는 정월에 거행되는 경우가 많고 제사의 시간은 초저녁 또는 새벽이다. 제의 방법은 제관을 중심으로 한 유교식이 많으며 제의 참여자들은 주로 마을의 안녕과 평안, 풍작을 기원한다.

참고문헌 조선고대 산신에 취하여(손진태, 조선민족문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48), 임동권(산신고, 한국민속문화론, 집문당, 1983), 동예사회의 호신숭배에 대하여(서영대, 역사민속학 2, 한국역사민속학회, 1992), 고려시대의 산신신앙(박호원, 민속학연구 2, 국립민속박물관, 1995), 한국사찰의 산신신앙연구(김형우, 국립문화재연구소, 1996), 朝鮮の山神信仰(依田千百子, 朝鮮民俗文化の研究, 瑠璃書房, 1985).

필자 서영대(徐永大)

산신멩감

정의 수렵이나 목축을 하는 집안이나 또는 그것을 생업으로 했던 조상을 모신 집안에서 음력 정월에 들판에 나가 산신멩감을 청하여 생업의 풍요를 기원하고 조상을 대접하는 무속의례.

내용 산신멩감이라는 신명(神名)이 곧 제의의 명칭이다. 달리 '산신멩감코ᄉᆞ', '드릇멩감', '산신제', '멩감제'라고도 말한다. 코ᄉᆞ는 고사(告祀)를 말한다. 드르는 들판이란 뜻이니 제의가 행해지는 장소로 구별하여 부르는 명칭이다. 한편 간단히 산신제라 부르기도 하고, 게다가 그냥 멩감제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 멩감제는 좁은 의미에서 별도 제의라고 할 수 있으나 따지고 보면 산신멩감도 넓은 범주에서 멩감제의 하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산신멩감을 신앙 대상으로 하는 멩감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신앙민 사이에서는 굳이 구별하지 않고 멩감제라고 두루 불리기도 한다.

산신멩감은 정월에 집안 식구들의 사정을 살펴 생기(生氣) 맞은 날로 택일하여 지낸다. 제를 지내기 며칠 전부터 갖은 금기를 지켜 정성을 다한다.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집 입구에는 금줄을 치고, 마당에까지 들어오는 길목에 황토를 깔아 놓는다. 그런데 산신멩감을 지내는 집안에서도 이뿐 아니라 문전제, 조왕제, 칠성제 등 다른 가정신앙이 있게 마련이다. 이런 경우 보통 이들을 하나하나 따로 택일해 지내기보다 좋은 날을 받아 하루에 모두 치르는 편이다. 이때 산이나 들판으로 가서 치르는 산신멩감이 가장 먼저 행해지며,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다른 제의들을 행한다.

산신멩감에 대해 말할 때 신앙 대상인 산신멩감이라는 신격에 대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멩감은 보통 명감(命監)이나 명관(冥官)으로 표기된다. 멩감은 멩감본풀이에 나타난 양상을 보아 명관(冥官)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좀 더 보편적인 것 같다. 멩감은 인간세상에 와서 정명을 다한 이를 저승으로 데려간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는 저승차사와 같다. 따라서 인간 처지에서는 멩감에게 잘 대접하여 액을 막고 수명을 늘려야 하며, 결국 이로 인해 생업의 풍요까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멩감은 해마다 신년가제(新年家祭)로 기원을 받는 존재이다.

그런데 이 멩감은 신앙민들이 어떤 생업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더 구분하여 인식된다. 멩감본풀이에 나타나는 멩감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면 천황(天皇) 열두[十二] 멩감, 지황(地皇) 열한[十一] 멩감, 인황(人皇) 아홉 멩감, 동(東)의 청멩감, 서(西)의 백멩감, 남(南)의 적멩감, 북(北)의 흑멩감, 중앙(中央)의 황신멩감, 산으로 가면 산신멩감, 물로 가면 요왕멩감, 배로 가면 선왕멩감, 농사하는 집은 세경멩감, 책 보는 집은 책불멩감, 삼싱할망집에는 불도멩감, 심방집에는 당주멩감이 있다고 말한다. 멩감은 하늘과 땅 및 인간세상뿐 아니라 동서남북의 각 방위에도 있고, 산과 바다 등의 생활영역에도 있으며, 사람들의 생업에도 깃들어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업이나 생활영역에 있는 멩감을 잘 대접하여 액을 막고 풍요를 기원해야 한다. 수렵이나 목축을 하는 사람은 산신멩감, 해상활동을 하는 이들은 요왕멩감과 선왕멩감, 일반적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세경멩감이라고 하는 존재들과 각각 관련된 것이다. 게다가 특별한 직능을 가진 이들에게도 별로도 각각 해당된 멩감들이 있어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산신멩감은 밤에 본주(本主)와 심방이 들에 가서 지낸다. 깨끗하고 조용한 장소를 택해 제물을 올린다. 상을 마련할 수도 있고 띠를 깔아 그 위에다 제물을 차릴 수도 있다. 제물은 메, 시루떡, 돌래떡, 구운 생선, 채소류 등이다. 심방은 무복을 입지 않은 평복 차림이며, 무구는 멩두(요

령 · 신칼 · 산판)와 장구를 쓴다. 제의는 공선가선, 날과 국 섬김, 집안연유 닦음, 군문열림, 정데우, 추물공연, 비념, 산신군졸 지사빔 순이다. 제의의 내용은 산신과 산신일월조상(山神日月祖上)을 대접하고 기원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신은 곧 수렵과 목축을 관장하는 신이다. 이런 산신 뒤에 수렵을 생업으로 했던 그 집안의 조상을 산신일월조상으로 청하여 축원을 올린다. 그리고 산신 뒤에 따라다니는 어지러운 군졸들도 배고프지 않게 해야 한다. 따라서 마지막 제차인 산신군졸 지사빔에서는 산신군졸을 달래어 사귀는 뜻에서 닭을 잡아 그 창자를 뿌린다고 한다.

한편 집에서 산신멩감을 큰굿으로 할 때에는 도진 직전에 산신놀이를 한다. 즉 수렵을 하던 모양을 재현하는 것으로, 심방이 닭의 코를 꿰어 이끌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소미가 총을 들어 쏘는 시늉을 한다. 산신놀이가 끝나면 닭을 잡아서 칼 끝에 꿰어 산신군졸을 사귄다. 이런 산신놀이는 산신을 모시는 당에서 당굿의 일부로 행해지기도 한다. 산신멩감은 요즘 보기가 힘들다. 아직도 꾸준히 지내는 집안이 더러 있기는 하지만 시대와 삶의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예전에 비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지역사례 제주시 영평동 가시나물 마을에서는 해마다 산신에게 제를 지냈다고 한다. 올레(거릿길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구불구불한 골목길)에 금줄을 치고, 산에 가서 직접 파 온 황토를 올레에서 마당에까지 깔아둔다. 심방이 도착하면 금줄을 걷고 들어와 멩감제를 한다. 나중에는 차츰 스님을 청해서 하였고, 그나마 요즘은 거의 지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에서도 말과 소를 기르는 집에서는 멩감코ᄉᆞ라는 산신제를 지냈다. 초감제를 끝내고 밤 9시쯤에 심방을 데리고 들에 가서 제를 지냈다는 것이다.

서귀포시 하원동에서도 산신멩감을 지냈다고 한다. 3년에 한 번 노루나 꿩 사냥을 하는 집에서 정월에 들판의 깨끗한 곳으로 가서 산신멩감을 지낸다. 산신멩감을 할 때는 사만이본풀이(멩감본풀이)를 푼다고 한다. 들판의 산신멩감이 끝나면 집에 돌아와서 문전제와 조왕제도 지내는 방식이다.

참고문헌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제주도 무속 연구(현용준, 집문당, 1986), 제주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한국세시풍속사전 정월편(국립민속박물관, 2004).
필자 강소전(姜昭全)

상호참조 멩감제(274쪽)

산씻김굿

정의 씻김굿의 일종으로, 살아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는 굿. 일반적인 목적보다는 특별한 상황에서 '산씻김굿'을 하게 된다.

내용 집안에 나이가 아주 많은 상노인이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일 때 가족들이 곧 돌아가실 것을 염려하여 돌아가시면 좋은 곳으로 천도하라는 취지에서 무당을 불러 굿을 하게 된다. 따라서 산씻김굿을 의뢰하는 주체는 돌아가실 사람보다 그런 사람을 둔 가족인 경우가 많다.

굿의 절차와 방법은 망자씻김굿과 동일하다.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째는 전체 굿거리 중에서 조상거리가 확대되고, 둘째는 살아 있는 환자의 옷 한 벌을 장만하여 돌아가신 조상의 옷과 함께 태우며, 셋째는 산씻김의 대상자가 굿의 현장에 있다는 것이다.

첫째, 조상굿이 확대되는 까닭은 산씻김굿의 기능성 때문이다. 일반적인 씻김굿이 돌아가신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영혼을 씻겨 천도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에 비해 산씻김굿은 살아 있는 사람의 천도를 위해 하는 굿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성취될 수 있도록 조상신들께 별도의 소망을 빌게 된다. 따라서 산씻김굿의 현장에서는 굿에서 모시는 조상들을 일일이 불러내어 곧 돌아가실 분이 좋은 곳으로 천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기원한다. 정해진 사설이 있는 것은 아니며, 무당의 능력과 생각에 따라 무가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둘째, 망자가 아닌 살아 있는 사람의 옷을 장만하여 조상의 옷과 함께 태우는 까닭은 대상자를 일종의 죽은 목숨으로 간주하는 의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노인인 경우이거나 운명을 앞둔 경우에 산씻김굿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속신 중에 "부모가 너무 오래 살면 자식들의 명을 앗아간다"거나 "좋지 않은 일이 집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믿음이 있다. 이것은 죽었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 있어서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믿는 것이다. 따라서 산씻김굿은 표면적으로는 살아 있는 분이 죽어서 좋은 곳으로 천도하기를 바라는 가족의 희망이 실리지만 이면에는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지금 저승으로 가기를 기다리는 후손을 저승으로 잘 인도해 가시라는 의도가 깔려 있다.

셋째, 씻김굿 현장에 살아 있는 사람이 있고 그가 씻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살아 있지만 죽은 목숨으로 간주하는 의식 때문이다. 일종의 의례적 고려장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산씻김의 대상자는 누가 보든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다. 생명에 이상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산씻김굿을 하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그 가족은 비난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대상자 자신이 그러한 산씻김굿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산씻김굿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가족은 산씻김을 하는 대상자의 묵인 또는 동의가 없으면 굿을 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오구 씻김굿의 구조와 기능(이영금, 한국무속학 15, 한국무속학회, 2007), 전북지역 무당굿 연구(이영금,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고증: 무속인 김명례(67세, 여, 전남 순천시 거주).
필자 나경수(羅景洙)

산오구굿

정의 살아 있는 사람의 재수와 사후 극락천도를 위해서 하는 오구굿의 한 유형.

내용 오구굿은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령제(死靈祭)라고 하는 데에 대해 산오구굿은 살아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생축제(生祝祭)라고도 한다. 산오구굿의 산은 '살아 있는 이'라는 뜻이다.

오구굿은 본래 죽은 사람의 영혼을 저승세계로 천도(遷度)하기 위해 하는 굿이다. 살아 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거소(居所)는 이승세계와 저승세계로 분별되어 있고, 따라서 같은 세계에서 함께 살 수는 없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죽은 사람 특히 원(怨)과 한(恨)을 품고 억울하게 죽은 귀신은 아쉬움과 미련이 남아 이승세계를 쉽게 떠나지 못하고 인간 세계 근처를 맴돌면서 해코지를 하기 때문에 잘 달래어 그 원한을 풀고 저승세계로 가도록 인도해 주어야 한다고 인식하는데 이를 위해 하는 굿이 오구굿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살아 있는 사람을 위한 오구굿은 오구굿 본래의 의미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 아직 죽지도 않은 사람을 저승세계로 천도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굿은 죽은 후에 해야 할 오구굿을 살아 있는 동안에 미리 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산오구굿의 기주(祈主)는 노인들이다. 노인들이 자신의 죽음을 대비해 미리 하는 오구굿이 바로 이 산오구굿이다. 산오구굿에는 한 사람이 기주가 되어 행하는 개인 산오구굿과 여러 사람이 기주가 되어 행하는 공동 산오구굿이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를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지만 많은 경비를 혼자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실제로 전자와 같은 형태보다 후자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후자의 형태는 수명 혹은 수십 명이 돈을 추렴하여 함께 산오구굿을 행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모든 절차가 전자의 경우와 같지만 기주가 여러 사람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주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전자와 같은 산오구굿을 행하는 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무속의 세계관에 의하면 사람은 죽으면 오구굿을 행해야 그 혼령이 극락세계로 들어간다고 믿는다. 따라서 사람들은 형편이 허용하기만 한다면 후손들이 자신이 죽은 후에 오구굿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죽은 후에 후손들이 즐겨 오구굿을 해주리라고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노인들은 자신이 살아 있을 때 이 산오

구굿을 직접 행함으로써 사후에 받아야 할 오구굿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고 이 굿을 행하는 것이다.

산오구굿은 오구굿의 일종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절차는 오구굿과 별로 다르지 않다. 그래서 산오구굿은 조상굿, 골매기굿, 문굿, 초망자굿, 오구대왕풀이, 영산맞이, 꽃노래, 등노래, 탑등놀이, 마당밟이, 화산(火散), 수부치기 등의 굿거리로 이루어져 있다. 조상굿은 부정거리, 세존거리, 성주거리를 포함한 굿거리이다. 먼저 부정을 물린 후 세존신과 성조신을 모시고 굿을 한다. 골매기굿은 마을수호신인 골매기신을 모시는 거리이다. 오구굿은 가정 단위에서 행하는 굿이지만 그 가정의 굿은 마을수호신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인식 때문에 이 거리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문굿은 굿에 참여한 무집단 전원이 악기를 흐드러지게 연주하면서 한바탕 춤을 추는 거리이다. 무집단이 자신들의 기예를 선보이고 마을 사람들의 관심을 유발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거리이다. 초망자굿은 망자의 넋을 불러 위로하는 거리로 이해된다. 불경이 많이 삽입되고 무속의 사생관이 반영되어 있다.

〈오구대왕풀이〉는 서사무가 바리데기를 구연하는 거리이다. 동해안 세습무집단은 이 거리를 방심굿, 발원굿, 바리데기굿 등으로 부른다. 영산맞이는 산오구굿의 절정이 되는 부분이다. 기주를 위한 축문을 읽고 굿당에 매달아 두었던 용선을 내려 거기에 기주를 태워 극락세계로 보낸다는 의미를 지닌다. 극락으로 가는 길은 무명베로 상징된다. 무녀들은 기주의 위패를 담은 신태집을 이 무명베 위에 올려 놓고 무가를 부르면서 신태집을 무명베 위로 천천히 밀고 나간다. 꽃노래 · 등노래 · 탑등놀이는 굿에 참여한 모든 무녀가 굿당을 장식한 지화(紙花) · 등 · 탑등 등을 들고 홍겹게 춤을 추고 노는 거리이다. 이것은 망자의 영혼이 극락세계로 간 것을 함께 기뻐한다는 제의적 의미를 지닌다.

마당밟이는 미리 준비해 둔 가마에 기주를 태우고 마당을 빙빙 도는 의식이다. 무집단이 모두 나와 악기를 연주하면서 앞에 서서 가마를 인도하고, 가마의 뒤에는 구경꾼들이 줄을 지어 따른다. 이 거리가 끝날 때에는 모든 사람이 지화(紙花)를 들고 홍겹게 춤을 춘다. 이 춤은 극락춤이라고 한다. 기주가 극락세계로 들어갔다고 가정하고 이것을 모두 축하하는 의미이다. 화산은 굿에 사용된 각종 소도구들을 불에 태워서 깨끗이 하는 의식이다. 송신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수부치기는 큰신들을 모시고 온 하졸신들을 비롯해 이 굿에 온 잡귀들을 대접하고 풀어먹여 보내는 의식이다. 바가지 등의 큰 그릇에다 물, 밥, 술, 떡, 팥죽, 나물, 두부 등 각종 제물을 조금씩 넣은 후 섞어서 이것을 굿당 귀퉁이나 바깥에다 부어두는 의식이다. 이렇게 하면 독립된 제차를 받지 못한 잡신들이 이것으로 배를 채우고 흡족해한다고 한다. 전국의 모든 굿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난다고 보아도 좋다.

이 굿은 불교적 색채가 매우 강하다는 특성이 있다. 무 · 불의 습합으로 인해 전국 대부분의 굿에 불교적 색채가 혼재해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산오구굿에는 다른 굿에 비해 불교적 색채가 더 강하다. 이 굿을 주재하는 세습무집단이나 기주들이 이 굿을 불교의식으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이다. 또한 제의 절차상으로 보았을 때 이 굿에는 영산맞이라는 절차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영산맞이의 핵심은 기주들을 가마에 태우고 뜰을 빙빙 도는 의식이다. 이것은 오구굿에서 망자의 혼령이 극락세계로 이동해 가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해된다. 오구굿에서는 망자의 혼령을 신태집에 태워 이 신태집을 긴 무명베 위로 이동시킴으로써 망자의 혼령이 극락세계로 가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산오구굿에서는 이동해 갈 것이 망자의 혼령이 아니라 산 사람이기 때문에 신태집에 태우는 대신 가마에 태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오구굿은 오구굿의 한 유형으로 오구굿과 짝이 되는 굿이다. 이 굿에는 한국인의 사생관이 잘 나타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굿에 나타난 바와 의하면 한국인은 죽은 후에 오구굿을 해서 망자의 영혼을 저승으로 천도해야 한다고 믿었으며, 오구굿을 죽고 나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살아 있을 때 해도 동일한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례 지금까지 산오구굿은 부산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다른 지역에는 아직 보고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 외에는 행하는 곳이 없는 듯하다. 따라서 이 굿은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만 행해진다는 지역적 특징이 있다. 또한 이 굿은 세습무집단이 행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동해안 세습무집단 이외에 다른 집단이 주재한 산오구굿의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례 가운데 가장 상세한 것은 1971년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109번지에서 행해진 산오구굿이다. 이 굿은 동해안 세습무집단이 주재했다. 당시 79세인 이복계라는 할머니가 기주가 되어 행해진 이 굿의 자료는 한국무속지 1(최길성, 아세아문화사, 1992)에 수록되어 있다. 굿이 이루어진 곳이 부산시 동래구였기 때문에 이 굿을 학계에서는 흔히 동래산오구굿이라고 부른다. 기주인 이씨 할머니는 젊어서 딸 둘을 낳았으나 모두 죽었다. 그녀의 남편은 이씨와 불화해 젊어서 첩을 얻어 따로 나가 자식을 낳고 살다가 죽었다. 할머니는 채소장사, 빵장사 등을 하면서 부지런히 노력해 많은 재산을 모았다. 그러나 자신이 죽은 후에 그 재산이 첩의 자식들에게 상속되기를 원하지 않아서 많은 비용을 들여 산오구굿을 했다고 한다. 1971년에 행한 이 산오구굿이 이씨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행한 세 번째 오구굿이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 지역에서 산오구굿이 종종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굿은 모두 24거리로 진행되었다. 거리는 산신제, 조상굿, 골매기굿, 문굿, 초망자굿, 방심굿, 시왕굿, 산신굿, 오구대왕풀이, 추원굿, 추원굿, 추원굿, 영산맞이, 신중타령, 추원굿, 추원굿, 시황탄일굿, 영산맞이, 꽃놀이(꽃노래), 등놀이(등노래), 탑등놀이, 정정밟이(가매타기), 화산, 수부치기 등이었다. '추원굿'이 여러 번 들어간 것은 굿의 확대를 위해 축원굿이 무녀를 달리 해서 여러 차례 반복해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굿에 참여한 세습무집단은 김석출, 김유선, 제갈태오, 김영희, 박남도, 조순자, 김재출, 정채란, 김용택, 김영숙, 김동연, 김애심이었다.

참고문헌 한국무속의 연구(최길성, 아세아문화사, 1978), 한국무속지 1(최길성, 아세아문화사, 1992).

필자 박경신(朴敬伸)

산함박

정의 산에 피는 꽃이라 하여 산함박이라고 하며 설개화라 불리기도 한다. 바리데기굿에서 '길대부인이 태자를 낳으면 입힐 옷을 준비했는데 팔에 함박꽃을 수놓았다'고 할 만큼 함박꽃은 귀하고 아름다운 지화로 지칭된다.

내용 꽃은 전체적으로 붉은색이며 끝부분이 흰색으로 염색되어 있다. 붉은색 꽃에 흰눈이 얇게 내려앉은 모습이다. 지화 제작자는 이 색을 '두백(벽)색'이라고 부른다. 두백색은 머리쪽은 한지 그대로의 흰색을 살리고 아래쪽만 붉은색으로 염색한 형태를 지칭한다. 둥근 화지를 삼등분하여 안쪽 원과 바깥쪽 원은 한지 그대로이고 가운데 부분만 염색한 것을 가리키는데 고도의 염색기술이 아니면 염색 불가능하다고 한다. 요즘은 이미 염색된 화지를 쓰지만 1980년대 중반까지는 직접 염색해서 썼다고 한다. 산함박에는 꽃심이 없으며 아래쪽보다 위쪽이 약간 좁고 둥근 원기둥 형태이며 꽃받침이 있다.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①화지를 10장씩 포갠다. 이어 ②포갠 위에 필요한 번호의 도래를 얹어 놓고 연필로 원을 그린다음 송곳으로 원의 중심에 구멍을 뚫는다. 가로 세로 10㎝ 정도의 얇은 종이 한 장을 비벼말아서 귀이개 굵기의 가는 종이막대(화지를 모양대로 오릴 때 움직이지 않도록 가는 종이막대를 끼우는 것이다.)를 만들어 송곳으로 뚫ㄱ은 가운데 구멍에 끼운다. 여기에 도래 번호를 크게 쓴 다음 연필로 그린 도래 모양대로 둥글게 자른다. ③산함박의 도래는 가장 큰 도래인 10번 도래만 사용하는 외도래이다. ④연분홍색 화지에 머리부분은 흰색이 되도록 한다. ⑤화지를 십자(十字)형으로 네 부분을 오리되, 도래의 원끝에서 가운데를 향해 반 정도만 오린다. 이대로 자르면 화지는 네


1


2

1~2. 산함박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학리 | 2005.3.4 | 심상교

부분 나뉜다. ⑥각 부분을 반으로 접고 끝은 V자 모양으로 세 군데를 오므린다. 반으로 접은 네 부분 각각 세 군데를 오므리기 때문에 화지의 둘레는 전체적으로 24군데가 V자 모양으로 오므려진다. V자 모양으로 오므려진 부분의 바로 아래에 지름 1㎝ 정도의 추로 1㎝ 정도의 구멍 위에 화지를 놓고 힘껏 눌러준다. 그러면 V자 모양으로 오므려진 부분이 더, 오그라들지만 꽃모양은 퍼지게 된다. 산함박을 만들기 위한 기본 화지가 준비되면 꽃심을 만든다. ⑦꽃심이란, 실제의 꽃에서 암술대에 해당하며 암술대의 맨 위에는 암술머리가 있다. ⑧꽃심과 암술머리를 만들 때, 산함박 만드는 도래의 크기만큼 둥글게 화지를 자른다. 그리고 둥글게 잘라진 화지의 끝부분을 2㎝ 정도로 여러 갈래로 잘게 자른다. 이렇게 만들어진 꽃심을 가는 꽃대 끝에 붙인다. 그러면 꽃심, 즉 보통의 꽃에서 암술대와 암술머리가 완성된다. 꽃심은 대체로 짙은 남색을 지름 2㎝ 정도로 가운데에 놓고 주변에 지름 3㎝ 정도로 노란색 꽃심을 배치한다. ⑨꽃받침은 흰색 마분지를 지름 5~6㎝로 둥글게 잘라서 꽃 중심에 끼워 꽃을 받쳐준다. ⑩꽃대와 꽃심이 완성된 후, 분홍색화지 10장씩을 겹쳐 잘라서 누르고, 누른 것을 꽃대에 끼운 다음 겹쳐진 화지를 한 장씩 펼쳐 두 손에 가득담길 부피만큼 풍성하게 지화를 만든다.

참고문헌 한국의 민속지화에 관한 연구(강신영,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한국지화에 관한 연구 2-김석출씨의 기법을 중심으로(김태연, 산업기술연구, 대구대학교산업기술연구소, 1985), 한국전통지화에 관한 연구(박기복,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한국무가집 4(김태곤 편, 집문당, 1992), 무화연구 (1)(김태연, 한국무속학 3, 한국무속학회, 2001), 서울굿 신화 연구(양종승 · 최진아, 한국무속학 4, 한국무속학회, 2002), 지화 연구(김명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동해안별신굿 지화 연구 I(심상교, 한국무속학 6, 한국무속학회, 2003).
필자 심상교(沈相敎)

살(煞)

정의 사람이나 물건 등을 해치고 파괴하는 독하고 악(惡)한 기운.

내용 살(煞)은 간혹 악귀(惡鬼)의 소행에 의한 심한 폐해를 뜻하기도 하며, 친족을 비롯한 여러 인간관계 사이에 나타나는 좋지 않은 띠앗[정의(情誼)]을 표현하기도 한다. 특히 사람에게 질병이나 사고,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파국 등을 일으켜서 불행하게 한다. 살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해결이 불가능한 불행한 사태를 설명하는 민속에서의 개념이다. 이런 알 수 없는 불행은 '살'이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미연(未然)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살을 풀어 주어야 한다. 살풀이나 주당맥이가 대표적인 민속적 대처 방식이다. 살은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다. 이는 민속상에서 전승되는 속신(俗信)이나 무당의 예지(叡智), 사주학(四柱學) 등에 의하여 어떤 살을 지녔는지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살풀이 등의 일정한 종교적 의례나 행위 등으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고 믿는다.

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확하고 명료하게 설명하기는 다소 어렵다. 인간의 희구(希求)와는 다르게 일이 순조롭지 못하고 탈이 많아서 불행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인간이 바라는 욕망을 거스르는 어떤 '비가시적(非可視的)인 힘'이 작용한다고 여긴다. 이 힘은 살기(殺氣)이거나 이것과 비슷한 어떤 기(氣)이기도 하다. 이것은 귀신(鬼神)으로부터 비롯되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인간을 해치거나 사물을 파괴하는 기(氣)에 가깝다. 이는 매우 급박하게 작동되기도 하고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살과 관련된 관용어들을 검토하면 살이 어떻게 인식되는지 간접적으로 살필 수 있다. 가령 초상집이나 잔칫집에 갔다가 어떤 불길한 힘이 작용하여 갑자기 탈이 난 경우에 '살을 맞았다'라고 하며, 대수롭지 않은 일로 다치는 경우에도 '살이 가서 그러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또 '살이 끼다'라고도 한다. 이외에도 '살이 나가다', '살이 내리다', '살이 오르다', '살을 타다', '살이 붙다' 등의 표현이 있다. 곧 살은 인간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인간에게 내리고 오르며, 끼거나 타며, 붙어서 불행을 초래하는 비가시적이며 초자연적인 힘이다. 따라서 인간이 느닷없이 나타나거나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살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살의 종류를 인지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적절한 방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주학(四柱學)에서는 대개 남녀 혼인, 소아(小兒), 길신(吉神), 흉살(凶殺)에 결쳐 190여 종류의 살이 있다고 하나, 민속상의 속신이나 무당 · 법사 등의 살풀이에서 언급되는 살은 이 보다는 훨씬 적다. 일부의 무당들은 21개의 살이 있다고 한다. 물론 이들 살이 반드시 사주학의 살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고, 무당들에 따라서도 살의 종류를 달리 인식하기도 한다. 무당들은 불행을 초래하는 어떤 사건이나 귀신 등에 쉽게 살을 붙여서 관념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른바 조상살(祖上煞), 불난살, 동토살, 산신살, 용왕살, 성주님살 등이 이러한 예이다.

무당들이 일상에서 언급하는 21개의 살은 천강살(天罡煞), 지궁살(地宮煞), 연살(年煞), 월살(月煞), 일살(日煞), 시살(時煞), 금살(金煞), 목살(木煞), 화살(火煞), 토살(土煞), 혼인살(婚姻煞), 극체살(克體煞), 원진살(元嗔煞), 옥녀살(玉女煞), 단명살(短命煞), 부정살(不淨煞), 삼재살(三災煞), 관재살(官災煞), 이별살(離別煞), 횡사살(橫死煞)이다.

한편 아기가 태어날 때 부정을 타도 그것이 살이 되는 경우가 있다. 출생시에 살생(殺生) 부정이나 '죽은 부정[초상(初喪)]'을 타면 살성(殺星)이 든다. 그리고 몸에 피를 묻히거나 태(胎)를 목에 걸고 태어나도 그러하다.

민속에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살은 주당살(周堂煞)과 상문살(喪門煞)이 있다. 주당은 혼례 때에 꺼리는 귀신이다. 신부가 신행(新行)오는 월(月)이 큰 달인지, 작은 달인지에 따라서 어느 장소에 주당이 닿은지가 다르다. 집이나 사람에게 주당이 닿으면 신부가 들어 올 때 처마 밑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피하게 하는 주당물림을 한다. 또 장례를 모시면서 하관(下棺)을 함부로 보거나 피하지 못하여 상문 방위에 닿으면 병이 나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 이를 상문살이라 한다.

이러한 살들을 막아내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무당이나 법사가 '살풀이'를 하기도 하고, 또한 속신(俗信)에 따른 각종의 민속적 처방, 곧 '뱅이(양밥)'로 대응하기도 한다. 예컨대 피를 묻히고 태어난 아이의 살을 풀기 위하여 집에서 쓰는 식칼을 푸줏간에 주거나 가축의 도살(屠殺) 장면을 아기에게 몇 차례 보여 주는 등의 풍속이 있다.

참고문헌 한맥원류(김열규, 주우, 1982), 한국민간신앙연구(김태곤, 집문당, 198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1(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동아 새국어사전(동아출판사, 1996), 연세한국어사전(연세대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 두산동아, 1998).
필자 이필영(李弼泳)

살맥이

정의 전라도 일대의 굿에서 작은 굿으로 하는 것으로, 특정한 굿 의뢰자의 살을 풀기 위해 하는 굿. 진도 지역에서는 이를 '살맥이손등'으로 부르고, 순천 지역에서는 '살맥이굿'이라고 한다.

내용 살맥이는 경우에 따라 굿에 속하지 않고, 일종



칠언마을 살맥이 할아범 측면
김헌선

의 치성과 같은 작은 의례의 성격을 포함한다.

살맥이손은 간단하게 비손으로 한다는 말이다. 이 사실은 진도 당골들의 증언에 의하여 입증된다. 또한 의례를 치를 때 징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징장단에 맞추어 다양한 의례를 앉은굿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굿의 형식이 되면 잽이가 구성되고 당골네가 선굿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둔다면 살맥이는 살맥이이지 굿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전통적으로 호남 지역에서 맥이는 일종의 징으로 하는 앉은굿이라는 관념이 강해 수맥이, 대신맥이, 사재맥이, 삼재맥이 등을 이 범주에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살맥이손의 용례를 강조하는 것은 일종의 종합적 의례의 성격을 다시 파악하게 하는 준거를 갖게 된다.

비손, 맥이, 굿 등의 용례와 위계가 무너지면서 이 전통에 일대 혼란이 생겼다. 현재 살맥이는 독경쟁이와 굿이 복합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경우도 있어서 혼란을 가중시킨다. 호남 일대나 남해안과 동해안 일대에서 발생하는 경과 굿의 복합현상은 전국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 현상이 서울에까지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살맥이는 근본적으로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살 또는 액을 물리치는 것이 목적이다. 살과 액은 인간 세상에 나타나 질서를 어지럽힌다. 때로 살과 액은 분리되지만 같은 차원에서 이 둘이 함께 쓰인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서로 같은 개념으로 사용할 때도 있다.

살은 인간에게 달라붙는 좋지 않은 기운이고, 액은 인간의 운명적 질서에 끼어드는 좋지 않은 운수이다. 둘은 엄격하게 구분하면 다르지만 당골이나 독경쟁이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살맥이가 액막이와 같은 것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그 뜻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살맥이의 핵심은 살을 맥이는 절차이다. 이 과정에서 살풀이를 대신하는 의례가 바로 고를 풀어내는 행위이다. 이 행위 역시 예방의 주술적 성격이 있다. 살맥이와 살풀이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새삼스럽게 인정할 수 있다.

지역사례 살맥이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은 내륙 전역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군웅베라고 하는 검은색 천을 사용하여 이를 대수대명으로 찢어서 태우는 절차를 행한다. 근래에 전라도 일대에서 검은색 천의 고를 푸는 현상도 있다. 대수대명으로 짚으로 만든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이를 대신하기도 한다.

굿과 맥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사례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한국인의 근본적인 운명관과 함께 인간의 근본적인 안녕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이 잡다한 인간의 훼방꾼을 물리치는 전통이 여러 각도에서 문제가 된다. 인간의 무지한 능력이 빚은 산물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성찰 과정의 하나로 신 이외에 인간의 훼살꾼들을 구분하고 범주적으로 인식하는 면모를 신앙적으로 파악하는 데서 이 살맥이의 사례는 매우 유용한 가치를 지닌다.

참고문헌 진도무속현지조사–채씨자매를 중심으로(이종철 · 조경만 · 이정란 · 박주언 · 정종수 · 황루시, 국립민속박물관 · 전라남도, 1988), "에이 짠한 사람!" 내가 나보고 그라요(박주언 편집, 뿌리깊은나무, 1991), 중요무형문화재 제72호 진도씻김굿(황루시, 화산문화, 2001), 진도씻김굿연구(박미경, 계명대학교출판부, 2004), 진도 단골 채정례 구술 채록 연구 : 채정례의 삶과 예술(이숙희 편집, 국립남도국악원, 2005), 서울굿 열두달의 치성의례와 경제성(김헌선, 비교민속학 30, 비교민속학회, 2004), 서울굿의 다양성과 구조(김헌선, 한국무속학 12, 한국무속학회, 2006), 서울 무속 죽음의례의 유형과 구조적 상관성 연구(김헌선, 한국학연구 27,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동해안 굿의 전승과 변화(윤동환,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필자 김헌선(金憲宣)

살장

정의 한지 한 장을 여러 모양으로 오린 후, 굿판의 신들이 좌정하는 당클 앞에 가리개처럼 설치하는 기메.

형태 한지 한 장을 전부 사용하며 가위를 이용해 종이 전체를 여러 모양으로 오린다. 오린 모양은 대개 구멍의 형태이며, 이 구멍은 '문'을 뜻한다고 한다. 어찌 보면 갖가지 모양의 그물 비슷한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모양을 더 내어 특별히 꽃모양으로 오릴 때도 있다. 예전에는 칼을 사용해서 모양을 팠다고 하나, 현재는 거의 가위를 사용한다. 살장은 심방마다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 심방마다 살장 제작 방법을 조금씩 달리 배울 수도 있고, 무업을 해 나가는 동안 살장의 모양에 대해 스스로 궁리하면서 바꾸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흰 한지를 사용했으나 물자가 풍족해진 지금은 색지도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이 때문에 요즘은 여러 가지 색지로 만든 살장으로 인해 굿판이 화려해졌다. 또한 한지 한 장 밑에 또 반장 정도를 덧대어 마치 다리 모양 비슷하게 만들기도 한다.

내용 살장은 제주도굿에서 쓰이는 기메의 하나로, 종이로 만든 무구이다. 제주도에서 굿을 하게 되면 제장의 벽의 상단에 나무선반을 매단다. 이 선반을 당클이라고 하며, 신이 좌정하여 제물을 받는 곳이다. 살장은 이 당클 앞에 커튼처럼 늘어뜨려 걸어놓는 장식물로, 당클을 가리는 역할을 한다. 살장은 '마흔여덟 모람장, 서른여덟 빗골장, 스물여덟 고무살장, 지게살장' 등으로 다양하게 부르기도 한다. 특별히 어떤 모양을 두고서 살장마다 정해진 이름이 있다기보다는 심방의 말명에 따라 살장이 여러 이름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다만 심방에 따라서는 살장 하나하나를 그 모양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리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살장은 초공본풀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무조신(巫祖神)의 내력을 담은 초공본풀이에는 '노가단풍 ᄌᆞ지멩왕아기씨'가 살장에 갇히는 대목이 있다. 이 대목에서는 살장에 대한 인식이 매우 흥미롭게 나타난다. 임진국 대감과 짐진국 부인은 나이 들어 어렵게 딸을 얻고, '노가단풍 ᄌᆞ지멩왕아기씨'라 이름 지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어느 날 하늘옥황으로부터 명을 받아 벼슬살이를 떠나야 할 처지가 된다. 자신들이 떠나면 홀로 남게 될 딸을 걱정한 나머지, 갖가지 살장을 만들어 그 안에 딸을 가둔다. 그리고 하인인 느진덕정하님에게 살장의 구멍으로 아기를 키우라고 당부하고는 떠난다. 한편 나중에 황금산 대사님은 권제삼문을 받으러 와서 신이한 능력으로 살장의 문을 열기도 한다.

초공본풀이의 문맥을 보면 살장은 단순히 가두는 장치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아무나 살장에 갇히는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며, 살장의 문을 채울 때나 열 때에는 특별하고 신성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살장은 살장으로 가린 안의 세계와 밖의 세계를 구분하고 있다. 굿판에서 살장을 치는 이유는 당클에 좌정한 신들을 바깥에서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살장
제주칠머리영등굿(영등송별제) | 2006.3.13 | 강소전

참고문헌 제주도 굿의 무구 '기메'에 대한 고찰(강소전, 한국무속학 13, 한국무속학회, 2006),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전라남도 · 전라북도 · 제주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필자 강소전(姜昭全)

살잽이꽃

정의 동해안오구굿에서 사용되는 지화. 다부살이꽃, 바리데기꽃, 불동화, 오색동화라고도 한다.

형태 전체적으로 둥근 형태이며, 분홍색으로 염색한 한지를 이용해 만든다. 20장 정도의 한지를 눌러서 한 장의 마분지처럼 만들어 10층 정도 되게 한다. 20장 정도의 한지를 주름을 잡고 4~5가닥 정도로 자른 다음 칼을 자른 부분의 주름과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백 번을 눌러주면 둥근 형태가 만들어진다.

내용 동해안굿에서는 많은 종류의 꽃이 사용되는데 규모도 크고, 꽃의 모양도 화려한 것이 특징이다.

동해안의 바리데기굿에서 살잽이꽃은 사람의 뼈와 살과 힘줄 등을 만들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꽃이다. 서천꽃밭에 피어 있는 꽃으로 바리공주가 온갖 고난을 이겨내고 가져와서 아버지를 살려내는 생명의 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생명의 꽃에 대한 내용은 제주도 무속신화인 이공본풀이, 세경본풀이, 문전본풀이, 생불할망본풀이와 마누라본풀이 등에서도 나타난다. 이는 한국무속 고유의 재생관이 만들어낸 생명의 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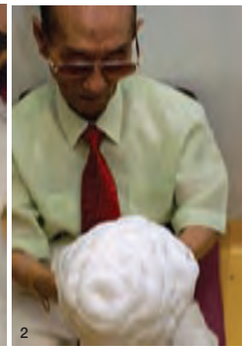
이 살잽이꽃은 현재 동해안굿에서 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제작이 쉽지 않은데다가 제작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1993년 12월 강릉단오굿전수실에서 있었던 신석남오구굿과 2005년 10월 부산 기장군 일광해수욕장에서 벌어진 고 김석출 오구굿에서는 송동숙이 제작한 다부살이꽃이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오구굿에서 보기가 쉽지 않다.

현재는 동해안별신굿 전수자인 김동열 등 소수만이 살잽이꽃을 제작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동해안 오구굿의 무 · 불 습합 양상(김창일, 동남어문논집 21, 동남어문학회, 2006), 김동언 · 김동열 녹음채록조사자료(김창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김동언 · 김동열 자택, 2006. 10), 김동언 · 김동열 녹음채록조사자료(김창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해안별신굿 전수관, 2009. 4).

필자 김창일(金昌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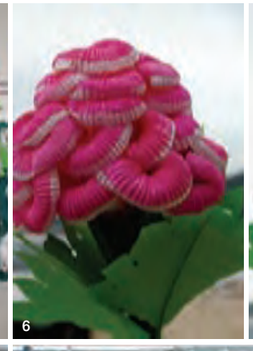

1


2


3


4


5


6


7



8


9

1~8. 살잽이꽃 제작과정
2005.9 | 국립민속박물관

9. 굿당에 설치된 살잽이꽃
부산시 기장군 | 2005.10 | 김창일

살전지(양쪽)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천모 씨댁 | 2007.6.10 | 강정식

살전지

정의 백지를 신체 형상으로 오리고 여기에 첵지를 덧붙여 댓잎이 있는 댓가지에 달아맨 종이 장식. 흔히 '술전지'라고 한다. '살전지'는 백지를 가늘고 길게 여러 다발로 오려낸 데서 비롯된 명칭으로 보인다.

형태 백지를 가늘고 길게 여러 다발로 오려낸 신체 형상에 백지의 한쪽 끝을 접은 '첵지'를 덧붙여 댓잎이 있는 댓가지에 달아맨 것이다.

내용 살전지는 신체, 첵지, 댓가지로 이루어진다. 신체는 백지를 오려 만든다. 얼굴과 몸통 부분을 남기고 위에서 아래 끝부분을 조금 남겨 자르면 전체적으로 본래 백지 길이의 두 배 가까이 길어진다. 가운데 부분은 얼굴과 몸통이 되고 양쪽 끝 부분은 늘어뜨려져 다리를 이루게 된다. 얼굴은 눈, 코, 입을 구멍 내어 모양을 낸다. 다리는 가늘고 길게 여러 갈래로 오려낸다. 다리는 발지전처럼 지전을 의미하는 둥근 모양이 연속되게 오려내기도 한다. 발은 버선처럼 만들어 모양을 내었다. '첵지'는 백지의 위쪽 끝을 왼쪽 변에 맞닿게 접은 것이다. 댓가지는 댓잎이 있는 것으로 비교적 길게 잘라낸다. 살전지와 첵지의 위쪽 끝을 가지런히 하여 댓가지의 댓잎이 시작되는 부분에 묶어 맨다.

살전지는 굿을 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기메 가운데 하나이다. 살전지는 당클의 양쪽에 하나씩 세워 둔다. 심방집에서 굿을 할 때는 당클이 네 개가 되어 4벌 8매가 필요한 셈이다. 당클은 큰굿을 할 때나 매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클에만 살전지를 세운다고 하면 살전지가 일반적으로 쓰인다고 말하기 어렵다. 살전지가 일반적으로 쓰이게 되는 까닭은 당클에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당클 형태로 우알상(바닥에 차린 상의 병풍 위에 널빤지를 두고 그 위에 다시 제물을 진설함)을 차릴 때 그 웃상에도 살전지를 세우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알상을 차리는 경우는 성주풀이, 요왕맞이 등에서이다. 이처럼 살전지는 큰굿을 할 때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살전지는 굿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만들어 세우고 굿이 끝날 때쯤 해서 기메를 걷어낼 때까지 그 자리에 둔다. 의례의 내용에 따라 자리를 옮기거나 심방이 들고 어떠한 행위를 하지도 않는다. 그 자리가 고정적이고 쓰임새도 한정적이다. 장식적인 의미가 강한 듯하지만 대개 그 앞에 다시 살장으로 가리기 때문에 장식적인 효과도 많지 않다. 결국 살전지는 신상을 대신하는 것으로 신전의 자리를 표시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제주도무속연구(현용준, 집문당, 1986),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현용준, 집문당, 2002).

필자 강정식(姜晶植)

살풀이

정의 충청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지역의 무속에서 사용되는 장단. 3소박 4박(12/8박자)이지만 2소박 단위의 리듬이 자주 사용되는 특성이 있다.

내용 살풀이는 충청도와 전라북도 지역 무가의 중심이 되는 장단이다. 이 지역의 굿에서는 굿거리의 앞부분에 신을 청하는 무가로 살풀이장단 무가를 부른다. 이 때문에 충청도와 전북 지역을 살풀이권이라 하기도 한다. 전라남도 진도에서도 살풀이를 사용하지만 주된 장단은 아니다. 현재 충청도와 전라북도의 세습무 전통은 대부분 단절되어 살풀이를 제대로 전승하는 무녀가 없다. 이 때문에 살풀이의 모습은 옛 음향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무가에서 주로 살풀이장단을 노래하는 지역을 이른바 시나위권이라고 한다. 경기도 한강 이남,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서남부 지역이 여기에 속한다. 살풀이 계통의 장단에는 경기도당굿의 도살풀이, 충청도와 전라북도의 살풀이, 전라남도의 동살풀이가 있다. 이들은 각각 박자 구조가 다른 듯 보이지만 실제 내적 구조에서 공통점이 발견되고 있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살풀이장단의 음악적 구조는 3소박 4박이다. 그러나 실제 내재된 리듬꼴은 2소박 단위로 끊어지는 경우가 많다. 즉 가사붙임에 따라 3·3·3·3(소박) 단위로 강세가 붙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2·2·2·3·3〉, 〈3·3·2·2·2〉, 〈2·2·2·2·2·2〉 등과 같이 1장단 12개의 소박들이 다양한 단위로 쪼개어진다.

또한 가사의 단위와 장단의 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장단의 첫 박을 비워 두고 가사가 나중에 나오는 엇붙임, 가사를 촘촘히 붙여 나가다가 길게 몇 장단을 뻗는 가사붙임 등도 자주 사용된다. 이 때문에 살풀이장단을 불규칙적인 성향의 장단으로 보기도 한다. 이러한 살풀이의 특성은 구음을 통해 잘 드러난다. 박병천은 살풀이의 구음으로 '돈도리돈/ 돈닷돈 / 도리도리돈/ 돈닷돈'을 사용하였다. 이 구음을 2소박 단위로 끊어 읽으면 '돈도리/ 돈돈 / 닷돈 / 도리도리/ 돈돈 /닷돈' 과 같이 된다. 즉 악사들은 2박 단위와 3박 단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구음을 사용한 것이다.

3·3·3·3	돈	도리	돈	돈	닷	돈	도리	도리	돈	돈	닷	돈
2·2·2·3·3	돈	도리	돈	돈	닷	돈	도리	도리	돈	돈	닷	돈
3·3·2·2·2	돈	도리	돈	돈	닷	돈	도리	도리	돈	돈	닷	돈
2·2·2·2·2·2	돈	도리	돈	돈	닷	돈	도리	도리	돈	돈	닷	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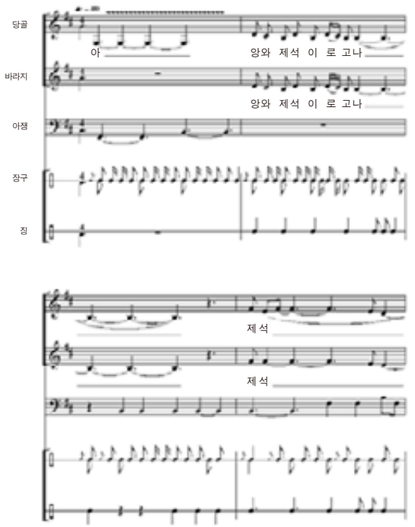
지역사례 은산별신제에서 살풀이장단은 상당굿과 하당굿의 무가에서만 쓰인다. 부여 지방의 집굿에서도 당산굿, 성주굿, 조상굿 등 대부분의 거리에서 처음 나오는 무가 장단으로 살풀이가 쓰인다. 은산별신제의 무녀 이어인년(예명 이언년)의 살풀이 무가에서 2소박과 3소박의 혼합 사용이 나타나지만 가사의 단위와 장단의 단위가 일치하는 대마디대장단형이 많다. 은산별신제의 살풀이 장구형은 3소박 4박형이다.

전라북도 부안 지방의 경우 무당이 조상석, 제석, 성주, 철륭 등 많은 거리에서 처음 부르는 무가에 살풀이장단이 사용된다. 부안의 무녀 박소녀는 가사 단위와 장단 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엇붙임을 자주 사용하고 있으며, 2소박과 3소박 단위의 변화도 많은 편이다. 하지만 장구형은 3소박 4박형을 연주하고 있다.

한편 일제강점기 때 Victor KJ-1055에 취입된 신수덕의 살풀이 무가에서는 2소박과 3소박의 변화도 많고 엇붙임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충청도 부여나 전라북도 부안의 경우보다 2소박과 3소박의 혼용이 더욱 심하다. 신수덕의 출신 지역이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살풀이의 전형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이 음반의 장구는 한성준이 연주하였다. 한성준의 살풀이 장구형 역시 3소박 4박형이다.

진도씻김굿의 풀이살

제석풀이 (앙와제석이로고나)



전라남도 진도에서는 살풀이를 '풀이살'이라고 뒤집어 부르기도 한다. 풀이살은 초가망석의 '공심은'과 제석굿의 제석풀이, 액막이 등에 사용된다. 진도의 풀이살 무가들도 2소박과 3소박을 섞어 사용하는 점에서 충청도나 전라북도의 살풀이 무가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가사 단위와 장단 단위가 일치하는 대마디대장단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 불규칙성이 크지 않다. 진도의 살풀이 장구형은 2소박 6박형이 우세하게 연주된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다.

참고문헌 채정례 진도씻김굿(국립남도국악원, 2006), 살푸리와 도살푸리와 동살푸리의 비교(이보형, 민족음악 2, 동양음악연구소, 1978), 살푸리 리듬형의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이보형, 한국음반학 7, 한국고음반연구회, 1997).
필자 김혜정(金惠貞)–경인교대

삼공맞이 가면

정의 제주도굿에서 삼공맞이, 즉 전상놀이를 할 때 사용하는 종이로 만든 가면.

형태 삼공맞이를 할 때 사용하는 가면은 종이로 만든 것으로, 형태가 매우 단순하다. 네모난 흰 한지에 눈, 코, 입만 형상화되게 간단히 오린 것이다. 한마디로 얼굴 모양을 나타내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내용 소미 2명이 이 가면을 얼굴에 쓰고 장님 거지부부로 변장한다. 가면 자체는 얼굴 모양을 나타내는 것 외에는 별다른 장치가 없으나, 이것은 단순한 가면은 아니다. 신의 얼굴을 그대로 드러내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삼공맞이는 연극적인 의례이다. 달리 '전상놀이'라고도 한다. 제주굿에서 말하는 '전상'은 '前生'이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이 전상의 개념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전상은 어떤 행위나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말한다. 말하자면 술을 먹는 것도 전상이고, 도둑질하는 것도 전상이다. 공부를 하는 것도 전상이며, 심방일을 하는 것도 전상이라고 한다.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나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두 전상이라고 생각한다. 전상은 'ᄉᆞ록'이라고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전상 중에서 '좋은 전상(상ᄉᆞ록)'은 맞아들이고 '나쁜 전상(하ᄉᆞ록)'은 풀어서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삼공맞이는 장님 거지부부를 통해 이런 전상을 연극적으로 보여주고, 굿판에 함께 한 모든 이들의 전상을 풀게 하는 제차이다.

그런데 이 삼공맞이는 삼공본풀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삼공본풀이는 '전상'을 차지한 신의 내력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옛날에 '강이영성이서불'과 '홍운소천궁에궁전궁납'이라는 거지가 만나 부부가 되어 딸 셋을 낳는다. 자식을 낳고 점점 살림이 나아져 부자가 되자, 어느 날 부모는 딸들을 불러 누구 덕에 잘 살게 되었느냐고 묻는다. 위로 두 형제인 은장아기와 놋장아기는 부모 덕에 잘 산다고 하였으나, 셋째 딸인 가믄장아기는 자신의 덕으로 잘 산다고 대답한 죄로 집에서 쫓겨난다. 가믄장아기가 나간 뒤로 가세가 기울어져 부모는 다시 거지 신세가 될 뿐 아니라 장님까지 된다. 하지만 가믄장아기는 나중에 마퉁이와 만나 행복하게 잘 살게 되고, 부모를 다시 만나기 위해 백일 동안 거지잔치를 베푼다. 부모는 거지잔치에서 가믄장아기를 다시 만나고, 눈도 뜨게 되어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는다. 이러한 삼공본풀이의 내용 중 거지잔치를 하는 부분이 삼공맞이에서 연극적으로 행해진다. 즉 소미 2명이 이 종이가면을 쓰고 가믄장아기의 장님 부모 역할을 한다. 가면을 쓴 소미는 이제 인간이 아니라 신의 형상을 한 것이다. 삼공맞이를 할 때 사용되는 이 가면은 현재 무속 현장에서 보기 힘들다. 삼공맞이가 자연적인 굿판에서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제주도 무속 연구(현용준, 집문당, 1986), 제주도 굿의 무구 '기메'에 대한 고찰(강소전, 한국무속학 13, 한국무속학회, 2006).
필자 강소전(姜昭全)

삼공본풀이

정의 제주도의 큰굿에서 불리는 신화로 전상차지신인 삼공신의 근본내력을 설명하고 있는 본풀이. 현재는 큰굿 31제차 가운데 14번째 거리에서 거

행되는 제차인 '삼공본풀이'에서 구송되고 있지만 원래는 큰굿 열두 거리 가운데 초감제, 불도제, 초공제, 이공제에 이어 다섯 번째 거리인 삼공제에서 구송되던 신화로 볼 수 있다.

내용 〈삼공본풀이〉는 여러 자료에 소개되어 있으며, 큰 줄거리는 대동소이하다. 『제주도무속자료사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거지인 강이영성이서불과 홍운소천궁에궁전궁납이 결혼하여 딸 세 명을 낳았다. 부부는 셋째 딸이 태어나면서부터 차츰 부자가 된다. 어느 날 아버지가 세 딸을 불러놓고 누구 덕에 먹고 사는가를 물으니 위의 두 딸은 부모 덕에 먹고 산다고 대답하지만 셋째 딸인 가믄장아기는 자기의 배꼽 밑 선그뭇줄 덕분에 먹고 산다고 대답한다. 화가 난 아버지가 셋째 딸을 내쫓으니 가믄장아기는 검은 암소에 먹을 것을 싣고 길을 떠난다. 어머니는 쫓겨난 딸이 불쌍하여 마지막으로 식은 밥이라도 먹고 가게 하려고 위의 두 딸을 시켜 동생을 불러 오도록 한다. 그러나 언니들은 동생을 멀리 쫓아내려고 부모님이 때리러 온다고 거짓말을 한다. 거짓임을 알고 있는 가믄장아기는 이를 괘씸하게 여겨 언니들을 청지네와 버섯으로 환생시킨다. 한편 부모는 딸들이 소식이 없자 문을 열고 나오다가 눈이 문 옷지방에 부딪쳐 장님이 되고, 이후 앉아서 먹고 입고 하다보니 재산이 탕진되어 다시 거지가 된다.

가믄장아기는 길을 가다가 깊은 산 속에 있는 마퉁이 삼형제의 초가집에 도착한다. 일하고 돌아온 첫째 마퉁이는 집에 가믄장아기가 있는 것을 보고, 우리 부모는 자기들이 애를 써 마를 파다가 배 불리게 해주니 지나가던 계집아이나 데려다 놀고 있다고 한다. 둘째 마퉁이도 똑같이 말한다. 그러나 셋째 마퉁이는 환히 웃으면서 우리 집에 검은 암소와 여자가 들어오니 하늘이 돕는 일이다 하면서 기뻐한다. 삼형제가 마를 삶아 첫째 마퉁이는 부모에게 먼저 태어나 많이 먹었으니 마의 목이나 드시라 하며 목을 주고 자기는 마 잔등이를 먹는다. 둘째 마퉁이 역시 부모에게는 마 꼬리 부분을 준다. 셋째 마퉁이는 부모가 자기들을 낳아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으며,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면서 마 잔등이를 부모에게 드린다. 또한 가믄장아기가 흰 쌀밥을 하여 부모, 큰형, 둘째 형에게 순서대로 주었지만 모두 벌레 같다고 하며 안 먹는다. 하지만 셋째 마퉁이가 밥을 먹기 시작하자 형들이 동생에게 밥을 달라고 한다. 셋째 마퉁이는 그들에게 밥을 나누어 준다. 가믄장아기가 가만히 보니 셋째 마퉁이가 쓸 만한 존재라 목욕을 시킨 후 함께 잠을 잔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가믄장아기는 셋째 마퉁이에게 마를 캐는 곳에 구경을 가겠다고 하면서 함께 길을 나선다. 큰 마퉁이 있는 곳에는 똥만 가득하고, 둘째 마퉁이 있는 곳에는 지네 · 뱀 같은 미물만 가득하나 셋째 마퉁이 있는 곳에는 자갈이라고 흩어져 있는 것을 주워 흙을 터니 모두 금덩이와 은덩이가 된다. 셋째 마퉁이와 가믄장아기는 이것을 검은 암소에 싣고 와 팔아서 큰 부자가 된다.

후에 가믄장아기는 장님인 자기 부모가 거지가 되어 이리저리 돌아다닐 것을 생각하고 부모나 한번 찾아봐야겠다면서 백 일 동안 거지잔치를 벌인다. 석 달 열흘이 되던 날 자신의 부모가 걸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자 가믄장아기는 그들을 불러 그동안 살아온 말을 해 보라 한다. 부모가 지금까지 살아온 말을 마치자 가믄장아기는 술잔을 권하며 자신이 가믄장아기라고 말하니 부모는 그 순간 놀라서 술잔을 떨어뜨리고 눈도 뜨게 되었다.

지역사례 현재 육지 무속에서는 〈삼공본풀이〉와 같은 신화가 구송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내용의 이야기가 전국에 걸쳐 민담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담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내복에 산다〉 혹은 〈숯구이 총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이야기는 아버지가 딸들을 앉혀 놓고 "누구 덕에 먹고 사느냐?"라고 물었을 때 셋째 딸이 "내복에 산다"고 대답함으로써 집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 딸이 숯구이 총각을 만나 결혼하고, 남편이 숯을 굽던 곳에서 금을 발견하여 큰 부자가 되어 잘 살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쫓겨난 셋째 딸이 간혹 마퉁이를 만났다는 자료도 있으나 많은 경우 숯구이 총각으로 되어 있다. 마지막에 걸인잔치를 벌여 부모를 만나는 자료도 있으나 흔하지는 않다. 이 유형의 이야기는 셋째 딸이 한 번만 결혼을 한다고 하여 '초혼형'으로 명명되어 연구되기도 했다.

둘째는 〈복진 며느리〉 유형이다. 어느 대감이 아들을 낳았지만 아들은 복이 없다. 대감은 백정의 딸이 복이 있어 그 딸을 며느리로 얻었다. 부친이 죽자 아들은 방탕한 생활을 하며 백정의 딸이라 하여 부인을 내쫓았다. 내쫓긴 부인은 숯 굽는 총각을 만나 결혼하고, 남편이 숯을 굽는 곳에서 금을 발견하여 큰 부자가 되었다. 전남편이 거지가 되어 있을 것을 아는 부인은 거지잔치를 벌여 전남편을 만나 다시 예전의 시가로 돌아가 큰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다. 이와 같은 유형의 이야기들은 부인이 결혼을 두 번 한다 하여 '재혼형'으로 명명되어 연구되기도 했다.

〈내복에 산다〉 유형과 유사한 화소를 지닌 이야기는 중국의 먀오(苗)오족이나 일본에도 전승되고 있다. 〈복진 며느리〉 유형 역시 중국과 일본에서 전해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모두 전남편이 부인을 만난 후 부끄러워 죽는 것으로 끝나지만 중국에서는 전남편이 죽어 조왕신(竈王神)이 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일본에서는 전남편이 죽어 화장실 뒤편에 묻히며 여기에서 담배가 나왔다고 한다.

의의 〈삼공본풀이〉는 삼공신, 즉 전상신에 대한 내력을 설명하고 있는 신화로, 그간 전상신은 전생신(前生神)으로 연구되기도 했다. 『조선무속의 연구(朝鮮巫俗の研究)』 상권에는 '인간살이 모든 일이 다 전상'이라 하고 있어서 전상은 '사람이 한평생 그렇게 살도록 마련된 어떤 운명이나 팔자'를 뜻하는 말로 추정되며,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우리의 옛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상신을 전생신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삼공신은 초공신 · 이공신 · 삼공신 등으로 보았을 때 세 번째 신을 높여 부르는 존칭어라 할 수 있다. 제주도 큰굿에서 놀아지는 놀이에는 '삼공맞이'라는 것이 있다. '전상놀이'라고도 하는 이 놀이는 내용상으로 볼 때 원래 삼공제 혹은 〈삼공본풀이〉와 상관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삼공본풀이〉에서 중요한 화소는 셋째 딸, 내복에 산다, 마퉁이, 황금, 걸인잔치, 안맹(眼盲), 개안(開眼) 등으로 이러한 요소는 〈삼공본풀이〉와 상관있는 놀이였다고 볼 수 있는 삼공맞이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이들은 '삼공제', 혹은 '삼공맞이제'라는 굿거리에서 〈삼공본풀이〉는 신화로, 삼공놀이는 놀이로 놀아졌던 것이다.

〈삼공본풀이〉 및 전상놀이에서는 마지막에 장님 부부가 눈을 뜨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삼공신 혹은 〈삼공본풀이〉에 있어 안맹과 개안이 아주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을 알게 한다. 육지 쪽 무속에는 맹인과 관련된 굿거리가 많다. 이들 내용에도 마지막에는 장님이 눈을 뜨고 있는 것이 많은데, 이러한 굿들은 기원적으로 삼공제 혹은 〈삼공본풀이〉, 삼공놀이 같은 것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삼공본풀이〉는 비교적 일찍부터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삼공본풀이〉와 유사한 내용의 민담이 전국에 걸쳐 전승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삼국유사(三國遺事)』 권 2 무왕조의 무왕설화, 즉 서동과 선화공주의 이야기가 〈삼공본풀이〉의 이야기와 유사한 점이 많고, 또한 고구려 온달 전승의 서사구조도 〈삼공본풀이〉의 그것과 유사하며, 나아가 〈심청전〉에도 유사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삼공본풀이〉는 그와 유사한 내용들이 신화 · 전설 · 민담 · 판소리 · 고소설 등 여러 장르에 걸쳐 있는 셈이어서 이들의 수수관계가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동안에는 대체로 〈삼공본풀이〉 같은 무가가 민담에서 소재를 취한 것으로 추정되고 연구되어 온 편이지만 최근에는 〈삼공본풀이〉와 같은 신화가 선행했고, 이것으로부터 민담 · 전설 · 판소리 · 고소설 등이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학설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삼공본풀이〉는 우리 민족의 고대적 제의라 할 수 있는 열두 거리 큰굿 가운데 다섯 번째 거리인 삼공제에서 구송되던 신화이다. 이 제의는 전상차지신인 삼공신에게 제의를 올리면서 우리 삶이 좋은 전상 속에서 잘 살기를 기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삼공본풀이〉는 이와 같은 제의와 관련하여 창조되고 형성된 매우 고형(古形)의 신화라 할 수 있다. 고대 제의 속

에서 구송되던 신화는 후일 제의의 현장을 벗어나 민담 · 전설 · 소설 등을 이루는 모태가 된다고 하는 일반적인 학설을 중시하면 〈삼공본풀이〉 역시 후일 제의의 현장을 벗어나 민담화되었을 수 있다. 또 중요한 화소, 즉 마퉁이나 황금 발견과 같은 요소는 무왕전설을 다채롭고 신성하게 구성하는 데 영향을 주기도 했다. 그리고 〈심청전〉과 같은 판소리 혹은 고소설을 이루는 데 부분적으로 중요한 모태가 되기도 한 것이다.

인류가 금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노천에 있는 생금을 발견하면서부터였고, 제련하여 금을 사용한 것은 훨씬 후대의 일이다. 〈삼공본풀이〉는 바로 생금을 발견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기에 그만큼 고형일 수 있다. 육지에 〈삼공본풀이〉 내용과 유사한 민담이 많은 것은 고대에는 육지의 무속에서도 이 신화가 구송되었음을 알게 하는 단서가 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 일본 · 라오스 등의 주변국에서도 〈삼공본풀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는 것은 이 신화의 역사가 그만큼 오래 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선행 연구에서는 육지에서 전승되고 있는 민담이 〈내복에 산다〉 유형 설화, 즉 '초혼형' 설화가 많은 것으로 미루어 〈삼공본풀이〉가 원래는 이러한 내용의 신화였지만 나중에 또 다른 하나의 신화로 전승되던 안맹 · 개안 화소가 〈삼공본풀이〉에 유입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재고되어야 한다. 〈삼공본풀이〉는 가난 · 거지 및 안맹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던 시대에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부자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개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창조된 주술적 신화이기에 처음부터 원래 현재의 〈삼공본풀이〉 내용처럼 신화가 창조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朝鮮巫俗の研究 上(赤松智城 · 秋葉隆, 조선총독부, 1937),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제주도 무속을 통해서 본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이수자, 집문당, 2004), 여인발복 설화의 연구(김대숙,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내복에 산다계 설화 연구(현승환,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필자 이수자(李秀子)

삼공잽이

정의 동해안 지역의 지옥가염불, 꽃노래염불, 뱃노래염불, 초롱등노래염불 등 무가를 반주하는 무악 장단의 명칭.

내용 동해안 지역 무악의 대부분이 무가의 명칭과 장단의 명칭이 동일한 것과는 달리 삼공잽이는 장단 이름으로만 쓰인다. 이 지역의 무속인들에 의하면 '삼공잽이'라는 말은 징을 세 번 치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 삼공잽이 장단이 쓰이는 거리는 경남 동해안 지역의 경우 별신굿에서 밧당조상굿 및 이운맞이와 오구굿에서 골맥이서낭굿, 초망자굿, 시왕탄일굿, 영산맞이, 뱃노래, 꽃노래, 초롱등노래 거리이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는 오구굿에서 관염불 거리와 별신굿 및 오구굿에서 뱃노래, 꽃노래, 초롱등노래 거리이다.

삼공잽이장단은 박자가 다른 장단이 세 번 바뀌는 3장 구성이다. 예전에는 무당들이 삼공잽이 장단으로 반주하는 무가를 모두 3장으로 불렀지만 오늘날에는 흔히 지옥가를 삼공잽이 1장, 2장으로만 부르고 꽃노래 · 뱃노래 · 등노래는 삼공잽이 3장으로만 부른다. 꽃노래, 뱃노래 등은 삼공잽이 3장 하나로만 부른다고 하여 '외마디장단' 또는 '외마디타불'이라는 별칭이 있다.

삼공잽이 1장은 무당이 무가를 몇 장단 부르면 악사가 타악기를 몇 장단 연주하는 식으로 교대가 된다. 타악기들의 합주는 일정한 단위로 연주되지만 무당이 지옥가를 부를 때의 삼공잽이 1장은 무가를 부르는 사람에 따라 단위가 약간씩 다르다. 삼공잽이 1장은 3+2+3(♩+♩+♩) 혼소박 4개가 모인 장단이다. 무가는 부르는 이에 따라 한 장단을 세 번, 네 번, 다섯 번 등으로 반복하지만 타악기들은 일정하게 두 번을 반복한다.

삼공잽이 2장은 템포 ♩≒60에 3소박 4박(♩×4)이 한 장단으로 되는 음악이다. 먼저 무가가 두 장단을 연주하면 이어 타악기들이 두 장단을 연주한다. 징은 타악기 연주에서만 제1, 3, 5칸에 세 번 친다.

삼공잽이 3장은 꽃노래, 뱃노래, 등노래에서 외마디타불로 부르는 장단이다. 템포 ♩≒63 정도에 3소박 4박에 무가를 부르면 마찬가지로 3소박 4박에 바라지를 한다. 타악기들은 바라지를 부를 때에만 연주하고, 징은 바라지의 첫 박에만 한 번 친다. 외마디타불의 템포를 ♩≒85정도로 점점 몰아가면 이를 '막넘기는 장단'이라 하고, 이때는 바라지 없이 타악기들로만 반주한다.

참고문헌 동해안의 굿음악, 그 전승과 단절의 역사(장휘주, 민속원, 2008).
필자 장휘주(張輝珠)

삼두구미본풀이

정의 제주도에서 구송된 것으로 알려진 특수본풀이.

내용 '삼두구미'는 제주도 지역의 이장(移葬) 풍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주도에서는 이장하는 것을 '철리한다'라고 한다. 묘를 옮길 때에는 새로 관 묘 구덩이에 반드시 달걀, 버드나무, 무쇠를 넣는다. 이것은 묘를 지키는 삼두구미(三頭九尾)신을 속이기 위한 방법이다.

토신제(土神祭) 때 삼두구미신께 옥황으로 올라가라는 축을 고하고, 시신을 100보 밖으로 옮긴 후 성복제(成服祭)를 지낸다. 이후 삼두구미신이 내려와 시신을 찾기 위해 묘 구덩이에 있는 버드나무와 무쇠와 달걀에게 물으면 버드나무는 뻣뻣하게 모른다 하고 무쇠는 먹먹하게 모른다하며 달걀은 코 · 눈 · 입 · 귀가 없어서 모른다고 한다. 시신을 찾지 못한 삼두구미신은 어쩔 수 없이 누구에게도 해를 끼칠 수 없게 되며, 후손들은 동티[動土]를 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철리' 과정에 무당이 개입하는 어떤 제차가 있었을 것이며, 거기서 〈삼두구미본풀이〉가 불리었을 것이라고 무리하게 소급하여 유추할 수도 있으나 너무 막연하다. 삼두구미신은 시신을 먹는 괴물로 보아야 하며, 〈삼두구미본풀이〉는 괴물을 물리치는 제주도만의 풍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역사례 〈삼두구미본풀이〉와 관련된 설화가 서귀포시 안덕면 지역에서 '와라진 귀신'이란 이름으로 채록되어 있다. 귀신의 이름만 다를 뿐 서사단락은 〈삼두구미본풀이〉와 같다. 와라진 귀신은 사람을 잡아먹고 사는 괴물로, 세 자매와 결혼한다는 것이 삼두구미와 같다. 단 와라진 귀신은 변신을 하여 가난한 할아버지의 손녀들과 결혼한다. 결혼의 조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사람 고기를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 고기를 먹지 못한 첫째와 둘째 손녀는 죽음을 당하지만 막내 손녀는 꾀를 내 괴물을 속이고 그를 안심시킨다. 그리고 괴물이 버드나무를 가장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삼두구미본풀이〉에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버드나무는 괴물을 죽일 수 있는 도구이다. 막내 손녀는 버드나무로 괴물을 처치하고 그동안 죽어 있던 사람들을 모두 구한다.

의의 두 이야기를 통해 보았을 때 '삼두구미신'이나 '와라진 귀신'은 무덤을 보호하는 신이라기보다는 시신을 먹는 괴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주도 장례 풍습에서 시신을 묻고 관 위에 동심절이란 한지로 만든 인형을 놓는다. 원한의 상징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무속제의에서나 가능하지 죽은 자를 묻으면서까지 이를 보일 필요가 없다. 죽는 자들이 모두 원한을 품고 죽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보다는 시신을 괴물로부터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는 시신을 훼손하거나 시신이 훼손당하는 것을 꺼리는 우리의 풍습과 일맥상통한다. 제주도의 나이든 사람 대부분은 이러한 독특한 이장 관습에 대해 알고 있으며, 현재도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삼두구미신'의 이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단지 묘를 지켜주는 신으로 알고 있거나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이는 무덤과 관련된 신의 개념이 점차 소멸되어 가는 상황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삼두구미본풀이〉가 이장 습속에 영향을 준 것인지, 이런 이장 습속이 〈삼두구미본풀이〉를 만들어 내는 데 영향을 줬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본토에도 이장 풍습이 있지만 이런 독특한 행위는 제주도에만 있어 주목된다.

참고문헌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진성기, 민속원, 2002). 제주도특수본풀이연구(강권용,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필자 강권용(康權用)

삼멩두

정의 제주도굿에서 공싯상에 놓이는 무구로 신칼, 요령, 산판 등의 세 가지 도구를 지칭하는 동시에 잿부기 삼형제를 지칭한다.

내용 삼멩두는 무구의 이름과 신화의 주인공을 동시에 지칭되는 사실만으로도 신화적 사실과 물질적 사실이 부합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초공본풀이〉에 따르면, 삼멩두는 9월 8일, 18일, 28일에 탄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삼멩두의 출생 역시 비범해서 본멩두는 9월 8일에 노가단풍ᄌᆞ지멩왕아기씨의 'ᄂᆞ단ᄌᆞ드랭이', 신멩두는 9월 18일에 역시 노가단풍ᄌᆞ지멩왕아기씨의 '웬ᄌᆞ드랭이', 삼멩두는 9월 28일에 노가단풍ᄌᆞ지멩왕아기씨의 '애ᄉᆞᆫ 가심'을 각각 뜯고 솟아났다고 되어 있다.

삼멩두가 무구를 가리키면서 〈초공본풀이〉의 주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잿부기 삼형제의 유아기적 인물을 지칭한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삼멩두는 유아기적 명칭이고, 자라서는 잿부기 삼형제가 되고, 나중에는 저승의 삼시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삼멩두를 모시는 '당주'에 9월 8일, 18일, 28일 등에 불을 밝히고, 물을 떠놓으며, 나아가 주잔 3잔을 올리는 행위 역시 삼멩두가 무구이면서 신화적 주인공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셈이다. 삼멩두, 잿부기 삼형제, 저승 삼시왕 등의 순차적 변모는 삼멩두의 신화적 설정에 근거하고 있음이 뚜렷해진다.

신칼은 신화적 명칭에 의하면 '시왕대번지'이고 '멩두칼'이라고도 한다. 신칼은 각기 다르지만 대체로 22㎝ 내외이고, 날의 길이는 13㎝ 내외, 자루의 길이는 10㎝ 내외가 된다. 이것의 소재는 방짜유기의 소재인 놋쇠가 되고, 놋쇠에는 다양한 장식이 되어 있다. 신칼의 놋쇠 끝에는 고리가 두 개가 있고, '신칼치매'를 달아서 쓴다. '신칼치매'는 길이가 60㎝ 정도인데 창호지마로 보통 8장으로 되어 있으며, 앞의 굿에서 쓴 3장은 그대로 두고, 새로 굿하는 곳에서 5장을 갈아 끼운다. 한꺼번에 8장 모두를 갈아 끼우지는 않는다고 한다. 원래의 신칼치매인 것을 '쏙치마'라고 하고, 굿에 와서 새로 맨 것을 '겉치마'라고 한다.

요령은 신화적 근거에 의하면 '천앙낙화옥술발'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손으로 잡고 흔들면 맑은 소리가 나므로 경쇠나 정중 또는 풍경 등과 음색이 같은 면이 있고, 직경 7㎝ 내외의 크기로 놋쇠로 만들고, 안에는 역시 놋쇠로 알심이 있어서 그것을 치면 소리가 난다. 요령의 끝에는 삼색 물색을 달아서 그것을 잡아서 흔들어 소리를 낸다. 삼색 물색은 붉은색, 연두색, 파란색으로 된 천을 말한다.

요령이 쓰이는 때는 군문열림을 하거나, 청신을 할 때, 심방이 신칼과 감상기 및 요령을 흔들 때, 중요한 점사를 칠 때이다. 요령의 신화적 전거는 역시 〈초공본풀이〉에서 찾을 수 있다. 황금산 도단땅의 추젓대선싱이 노가단풍ᄌᆞ지멩왕아기씨가 미모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그녀에게 권재삼문을 받으러 온다. 그런데 깊은 곳에 살장문을 잠궈 두었으므로 그것을 열 때에 요령을 흔들어 술법을 써서 잠긴 문을 열게 된다. 〈초공본풀이〉를 구송할 때 이 대목에서는 요령을 흔들어 실감나게 구송하여 흥미를 돋운다. 이때에 요령은 소도구처럼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요령의 구비전승적 의의는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요령은 시왕질침이나 요왕질침 따위에서도 일정하게 소도구 노릇을 한다. 맞이에서 홍마음ᄃᆞ리를 놓을 때 말방울을 울리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말방울 대신 요령을 흔든다. 이러한 쓰임새는 굿에서 행위전승의 측면에서도 요령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주술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뜻도 된다. 요령을 수호하는 신은 '홍글제대'로 되어 있다.



삼멩두
제주도 김녕 서순실 자택 | 2009.12.28 | 김헌선

산판은 삼멩두 가운데 신화적 명칭이 존재하지 않는다. 산판은 크게 보아서 상잔, 천문, 산때로 구성된다. 상잔은 술잔 종지만한 크기로 되어 있으며, 그 크기가 지름은 4.2㎝, 두께가 2㎝ 정도가 된다. 상잔은 2개다. 이와는 다르게 천문은 달리 '천문일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름이 6.7㎝이고, 높이가 2㎝이다. 천문에는 한자로 '天地門' 또는 '日月' 등의 글자가 새겨져 있다. 천문 역시 2개다. 상잔 2개와 천문 2개를 얇은 복지깨와 같은 것에 올려놓고 아래로 던져서 사용하는데, 이것을 흔히 '산때'라고 한다. 산때는 아래 지름이 14㎝이고, 위의 지름은 13㎝, 높이는 1.7㎝ 정도 된다.

산판은 점을 치는 연장이다. 천문 2개와 상잔 2개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점사가 각기 달라진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점구로 상잔, 천문이 쓰이게 된 것은 〈초공본풀이〉에서 말미암으니 그것은 신화적 근거에 의한다. 잿부기 삼형제가 양반의 자식이 아니고 중의 자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과거 합격을 취소당하고 황금산 도단땅의 부친에게 찾아가자, 부친이 자식들에게 여기에 와서 본 것이 무엇이냐고 묻게 된다. 그러자 잿부기 삼형제가 처음에 하늘을 보고, 다음에 땅을 보고, 마지막에 문을 보았다고 말하자, 부친은 "천지를 공경하고 집집마다 문을 돌아다니며 '전 팔자'를 궂혀서 굿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해서 부친이 '천지문(天地門)'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천문'을 주었고, '상잔'은 노가단풍ᄌᆞ지멩왕아기씨가 삼멩두를 낳았을 때 목욕을 시킨 그릇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천문은 남자를 상징하고, 상잔은 여자를 상징한다고 믿는다.



삼멩두
제주도 김녕 서순실 자택 | 2009.12.28 | 김헌선

김만보 심방에 따르면 천문에 있어서 구멍이 뚫어진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달을 뜻하고, 나머지 부분 전체는 해를 뜻한다. 천문의 유래에 대해서는 〈초공본풀이〉에서 다른 내력이 부가되어 있기도 하다. 최초의 심방 노릇을 하는 유정승 ᄯᆞ님애기가 '육환대사'로부터 '육간재비' 세 개를 받게 된다. 그것은 엽전을 말하는 것으로, 이 때문에 병을 앓아서 77세 때 굿을 하고, 천지(天地)의 모든 일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육간재비'로부터 천문이 유래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심방의 점구로서 중요한 일을 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제주도민속의 멋 2(진성기, 열화당, 1981). 고대 한일 양국간의 민간신앙(장주근, 한국민속논고, 계몽사, 1986). 제주도무속연구(현용준, 집문당, 1986).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진성기, 민속원, 1991).
필자 김헌선(金憲宣)

삼사자(三使者)

정의 망자를 저승으로 천도해 준다고 믿어지는 대상을 구체화한 무구. 종이를 오려 구체화한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짚으로 허재비 형태로 형상화하기도 한다. 사자는 시직사자(時直使者), 일직사자(日直使者), 월직사자(月直使者)로 구성된다고 믿어져 일명 '삼사자(三使者)'라고도 불린다. 일부는 시직사자 대신 황천사자(黃泉使者)를 그 구성 안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저승 천도굿인 씨끔굿, 넋건지기굿, 해원경 등의 의례에서 시왕을 형상화한 종이무구와 함께 앉은굿 의례 때에는 반드시 제작해야 하는 무구이다. 주로 전북 지역과 충청도 지역에서 나타난다.

형태 삼사자는 종이를 이용하여 구체화하거나, 짚

을 재료로 하여 허재비 형태로 만들어진다. 법사가 단독으로 주재하는 앉은굿이나 보살과 함께 선굿이 혼재된 굿을 할 경우에, 오랫동안 독경과 종이무구 제작법을 학습한 법사들이 주로 제작한다. 허재비 형태는 매번 제작되지 않고, 수륙재와 같은 큰굿에만 제작한다.

종이로 만들어지는 사자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 양상을 띤다. 하나는 도포차림에 갓이나 초롱을 쓴 모습이며, 일부 사례에서는 여기에 양손에 칼을 든 모습으로 구체화되기도 한다. 얼굴의 눈 · 코 · 입이 세밀하게 오려지며, 양귀는 얼굴 크기와 거의 동일할 정도로 과장되게 오려진다. 우리에게 익숙한 저승사자의 모습을 상징화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하나는 머리에 삼각뿔이 둘 혹은 세 개가 달린 모습에 갑옷을 입고 양손에 칼을 들고 있어 인간의 형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 형태는 팔과 귀가 과장되게 형상화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앞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양귀와 얼굴 크기가 거의 동일할 정도 과장되게 오려지고 눈 · 코 · 입의 묘사가 섬세하다는 점에 있어서 공통점을 지닌다.

이러한 두 가지 형태로 완성된 사자의 몸통 부분에 마치 신위를 연상시키듯이 사자의 이름을 적기도 한다. 그리고 사자의 뒷면에 나무젓가락을 붙인 뒤에 쌀을 담은 그릇에 각각 꽂아 굿청의 굿상 앞이나 사자상 주변에 진설한다. 혹은 전자의 형태로 한지 온 장에 세 명의 사자를 한꺼번에 오려 굿청에 붙이기도 한다. 허재비 형태는 짚을 이용하여 머리, 몸통,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까지 섬세하게 제작하여 사자상 주변에 놓아둔다.

내용 사자는 중국불교에서 유래된 관념이다. 지옥, 즉 명부에 대한 구조가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당대(唐代)에 체계적으로 형성되면서 시왕신앙과 함께 사자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었다. 시왕신앙[十王信仰]은 중국의 도교적 민간신앙과 불교의 중유(中有) 사상이 혼재된 관념이다. 중국불교의 명부 관념은 통일신라 때 도입되어, 고려 시대 이후에 체계적으로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에 불교가 민중화되어 대중의 기원적 요구에 부응하여 민간신앙으로서 한층 뿌리 내린 것으로 보인다. 사자를 시왕사상 안에서 설명하는 이유는, 사자가 시왕의 명을 받아 인간세계에 내려와 운명이 다한 인간을 명부로 천도해 간다는 믿음 때문이다.

중부 이북의 강신무가 연행하는 굿에서는 의례 주재자인 무당이 사자가 된다. 따라서 사자를 무구로 구체화시킬 필요가 없다. 반면에 세습무와 학습법사가 주로 활동하던 전북과 충청도 지역에서 사자는 의례 시 장엄구의 기능을 하며, 사자상 주변에 놓여진다. 의례 주재자가 손에 들고 굿을 진행하지는 않으며, 길닦음에서 망자의 저승길을 상징하는 길베 아래로 똑같은 크기의 무명천을 바닥에 깔고 그 위로 시왕과 함께 일렬로 세운다. 그 위에서 의례 주재자는 망자를 태운 용선으로 망자의 저승길을 천천히 닦아준다. 그리고 의례가 끝나면 사자 또한 용선에 담아 소각한다.

무속 내에서 신의 서열을 구분하면, 사자는 하위의 신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자를 소홀하게 다루지도 않는다. 이 사자를 위해서는 제물과 예단을 따로 마련하는데, 사자와 관련된 것은 모두 저승사자가 3명이라는 인식에서 '3'으로 구성된다. 제물로는 밥 · 국 · 술 · 떡 · 소금 · 된장 · 고추장, 예단으로는 신발 · 돈 · 사자고나 천을 준비한다. 또한 호남 지역에서는 사자를 위해 삼베로 매듭을 묶은 사자고를 풀어주는 특성이 있다. 이는 사자의 한을 풀어줘 망자를 잘 데려가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기인한다. 또한 각성받이 집에서 가져온 칼을 신발 위에 각각 올려놓는다. 이는 사자에게 겁을 줘 망자를 데려가지 말았으면 하는 가족들의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과거 양반 가문에서는 조상숭배식 상장례와 어긋난다고 하여 사자상을 차리지 않았다. 이처럼 사자의 관념은 유교적 상장례 절차에 비유교적 영혼인 불교나 사자의례의 흔적으로 보이는 절차가 혼용되어 있는 형태라 볼 수 있다. 과거부터 우리 조상들은 사자를 지나치게 잘 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함부로 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가까이 대해서 좋을 것이 없다는 사고에서 기인한다. 사자를 종이무구나 허재비 형태로 구체화하고 제물과 예단을 준비하는 것에는 곧 망자를 잘 데려가 달라는 유족(遺族)들의 의미가 담겨 있다. 즉, 망자의 저승길이 편해지기를 바라는 현대인들의 사고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의 관혼상제(장철수, 집문당, 1995), 조선시대 지장시왕도 연구(김정희, 일지사, 1996),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충청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전라남도 · 전라북도 · 제주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한국지옥 연구-무의 저승(조흥윤, 샤머니즘 연구 창간호, 한국샤머니즘학회, 문덕사, 1999),진도씻김굿의 넋당석 연구(최진아, 한국무속학 8, 한국무속학회, 2004), 호남지역 종이무구의 변화상 및 상징성 고찰(최진아, 한국무속학 14, 한국무속학회, 2007), 무속의 물질문화 연구(최진아,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9).
필자 최진아(崔眞娥)

삼산돌기

정의 무당이 되는 입무 과정에서 내림굿을 준비할 때 세 곳의 산천을 순례하는 과정.

내용 삼산돌기는 입무하려는 자의 본향산과 배우자 본향산, 스승의 본향산을 순례하거나 명산 중에서 세 곳을 정하여 순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산을 도는 것이 아니라 입무하는 자의 신명을 정확히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입무의 가장 큰 통과의례는 신내림굿이다. 그러나 신들림으로 인하여 무당이 되기 위한 첫 과정은 입무굿을 통한 내림이다. 신맞이인 신명(神命, 神名)받기는 허주굿과 산을 밟는 행위인 삼산돌기에서 이루어진다. 모실 신과 보낼 신을 구분하는 허주굿은 신내림의 첫 과정이며, 삼산돌기는 몸주신의 신명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삼산돌기(삼산밟기)는 세 곳의 정기 있는 산을 도는 과정이다. 신명(내림)을 받기 위해 산에 가서 치성을 드리는 행위이다. 신명을 받는 것은 허주굿부터 이루어지지만 보다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삼산돌기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허주굿에서는 몸주신이 당도한 것만을 느낄 수 있다. 삼산돌기는 절차상 굿의 개념은 아니지만 실제로 무당 자신에게 오신 신(몸주신)을 정확히 확인하는 첫 과정이다.

삼산(三山)을 도는(밟는) 행위는 신명받기를 위해 명산에 올라 허공에서 내림을 받는 것이다. 산을 밟는 것은 종교 수행자가 순례를 하는 이치와 같다. 신(神) 선생(신부모)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삼산을 돈다.' 혹은 '삼산을 밟는다.'라고 한다. 전대의 만신들은 '산문받이'라 하여 본인의 본향산에 가서 산의 정기를 받거나 신내림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명산에서 '산신의 문'을 여는 행위를 했다.

삼산을 정할 때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신 선생의 본향에 위치한 가장 큰 산과 신 제자의 본향 산, 그리고 결혼한 제자의 경우 남편 또는 부인의 본향산을 도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만신의 신맥과 통하는 지역의 신령스러운 곳을 방문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관령 국사성황당, 강릉 여 서낭당, 지리산 등 국내의 이름 있는 산과 서낭이라고 칭하는 곳을 방문하여 기도 및 치성을 드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삼산돌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과정은 각 지역의 이름난(정기 서린) 서낭을 방문하는 것이다. 신명받기 과정에서 서낭은 신이 거주하는 거처의 대문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집을 방문했을 때 대문 밖에서 본인의 존재를 알리듯이 무업의 시작을 알리고 이곳에 왔음을 고하는 뜻이 담겨 있다. 서낭을 방문하는 것을 '서낭돌기'라고 한다. 신 선생들은 서낭문이 열려야 잘 불린다고 강조한다. 서낭돌기는 '누구누구가 제자가 되었으니 잘 불리게 도와 달라'는 의미이다.

삼산돌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내림은 앞으로 무업으로 삶을 영위해야하는 무당이 몸주신의 신명과 신격을 정확히 모시는 과정이다. 허주굿이 끝났다 하더라도 온전한 신의 좌정상태가 아니다. 무당과 신이 다른 객체로 혼재하기 때문이다. 삼산돌기 과정은 제자마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은 같다. 삼산돌기 이전에 준비하는 것은 삼베와 일월다래 혹은 칠성다래 천으로 사용할 소창(무명실로 성글게 짠 천)을 구매하여 7번을 세탁한다. 일월다래 천을 사용하는 것은 천신계열의 신격을 모시기 위해서이다. 신을 모실 제자는 3일전부터 육식을 금하고 소식소찬(小食素饌)한다. 또한 향을 담근 물에 목욕하여 늘 부정이 없도록 준비한다.

삼산돌기는 제(祭)를 올리는 과정이 아닌 까

닭에 일반적인 굿의 절차가 아니다. 오로지 신명을 모시기 위한 축원 치성의 형식이다. 신을 받아들이기 위한 기도정성인 까닭에 경으로 주로 축원한다. 그 축원이 끝나면 장구와 징의 지속적인 울림 속에서 애동 제자의 상태를 확인한 신 선생은 제자와의 문답을 통해 신명이 올곧게 오셨는지를 판가름한다. 그리고 신이 내리는 하명(下命)이 무엇인지, 그 뜻을 확인하고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울림과 문답을 반복한다. 신명받기를 위한 개별 절차는 부정물리기, 신명축원, 강림축원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축원이 진행될 때 제자가 될 사람은 부채와 방울을 들고 신내림을 기다린다.

허주굿에서는 신명이 분명치 않으나 삼산돌기 과정은 신명의 양상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허주굿은 내림 과정이 전부 이루어지지만 신모으기와 신명받기만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삼산돌기는 몸주로 모셔지는 신의 명칭과 신의 계율을 정확히 확인해야 끝을 맺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삼산돌기를 할 때 신 선생들은 가장 긴장한다고 한다. 모든 부정을 없애고 정갈하고 정성되게 준비하는 것이기에 은밀히 진행된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무당들이 산에 기도하러 가는 것쯤으로 인식되어 왔다.

참고문헌 허주굿과 삼산돌기를 통한 입무과정 재인식(장순범, 한국무속학 16, 한국무속학회, 2008).
필자 장순범(張淳凡)

삼승할망본풀이

정의 아기의 점지 및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산육신(産育神)인 삼승할망에 관한 신화. 삼승할망은 '생불할망'이라고도 한다. 현재 제주도에서 행해지고 있는 무속의례 중 '불도맞이'에서 불리거나 삼승할망에게 아기의 산육 및 치병을 기원하는 '할망비념' 때에 구송되고 있다. 불도맞이는 단독제로도 행해지지만 대개는 큰굿 속의 일부로 행해지고 있다.

내용 〈삼승할망본풀이〉는 '생불할망본풀이'라고도 한다. 생불이란 '불을 생기게 하는 할망'이란 뜻이고, 할망은 '큰 신'이란 뜻이다. 생불할망을 삼승할망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오랜 기간 구전되어 오면서 음이 변했기 때문이다. 〈생불할망본풀이〉는 그동안 수차례 채록·보고되어 자료가 많은 편인데 『朝鮮巫俗の研究(조선무속의 연구)』 上(상)(赤松智城·秋葉隆),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진성기), 『제주도 무속신화-열두본풀이 자료집』(문무병), 『제주도 큰굿자료』(제주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장주근), 『이용옥 심방 〈본풀이〉』(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등에 소개되어 있다. 『제주도무속자료사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면서 부분적으로는 기타 자료도 참고하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불도맞이에는 산육신과 관련된 신화가 두 편 구송되고 있다. 하나는 〈할망본풀이〉라는 신화이고, 다른 하나는 〈마누라본풀이〉라는 신화다. 〈할망본풀이〉는 '멩진국따님아기'라는 신이 어떻게 하여 '생불신', 즉 아기산육신이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마누라본풀이〉는 생불신이 아기들에게 마마를 앓게 하는 마마신, 즉 마누라신을 어떻게 제압하여 아기들로 하여금 마마를 약하게 앓도록 했는지를 설명하는 신화다. 이 두 신화는 결국 생불할망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는 신화이기에 '생불할망본풀이'라 하면 이 두 신화를 함께 다루어야 할 것이다. 두 신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불할망본풀이 : 동해용왕따님애기는 부모에게 불효한 죄로 인간생불왕이나 해 먹도록 마련되어 무쇠철갑 속에 넣어져 바다에 버려진다. 그러다가 임박사라는 신에게 구조되고 그의 부인에게 생불을 주지만(잉태를 시켜 주지만), 정작 아이를 어디로 어떻게 낳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 부인을 죽음에 이르도록 만든다. 이에 임박사는 하늘에 호소하고 하늘에서는 지부사천왕에게 생불왕으로 들어설 만한 존재를 추천하도록 한다. 여기에 멩진국따님애기가 뽑혀서 노각성자부줄을 타고 하늘에 오르니 하늘옥황은 여러 시험을 한다. 결국 멩진국따님애기는 시험을 마치고 아기를 잉태시키는 법과 해복시키는 방법을 배운 후 지상으로 내려오다 처녀물가에서 울고 있는 동해용왕따님애기를 만난다. 두 여신은 서로 자신이 생불왕이라고 다투다가 옥황의 분부를 따르고자 하늘에 오른다.

하늘에서는 두 여신에게 꽃씨를 주고 심게 하여 번성꽃을 피운 존재를 생불왕으로 삼기로 한다. 멩진국따님애기가 심은 것은 사만 오천육백 가지의 번성꽃을 피우는데, 동해용왕따님애기의 것은 다만 한 가지에 한 송이 금뉴울꽃(시드는 꽃)이 피어 하늘에서는 멩진국따님애기를 인간생불왕으로, 동해용왕따님애기는 저승할망으로 들어서게 한다. 이에 동해용왕따님애기는 화를 내고 멩진국따님애기의 꽃을 꺾으면서 태어난 생불(아기)들로 하여금 백일 전에 여러 가지 질병을 앓게 하고, 그것으로 얻어먹고 지내겠다고 한다. 멩진국따님애기는 그러지 말고 좋은 마음을 가지자고 하면서 자신이 생불할망이 되면 저승할망을 위해 많은 인정을 걸어 주도록 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멩진국따님애기는 하늘에서 내려올 때 인간을 탄생시킬 수 있는 꽃씨를 받아 석해산에 와서는 여기에 꽃씨를 심어 '서천꽃밭'을 만들고, 이곳에 핀 생불꽃을 따 가지고 부부 사이를 다니며 아이를 잉태시키는데, 꽃의 색깔과 방향에 따라 아이의 운명이 달라진다. 즉 동쪽의 푸른 꽃으로 점지하면 남자, 서쪽의 흰 꽃은 여자, 북쪽의 검은 꽃은 단명, 남쪽의 붉은 꽃은 장명, 그리고 중앙의 노란 꽃으로 점지하면 만과출세를 하는 아이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서천꽃밭에 부엉이가 날아들어 꽃을 망치므로 생불할망은 꽃밭을 지킬 꽃감관을 보내주기를 하늘에 요청한다.

2. 마누라본풀이 : 생불할망이 생불을 주기 위해 서천강다리를 건너 네거리 있는 곳에 이르니, 생불할망의 눈앞에 온갖 화려하게 꾸민 영기를 갖추고 삼만관속 및 육방하인을 거느린 대별상신이 인물도감책을 가슴에 안고 아이들에게 호명을 주려고(마마를 앓게 하려고)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보인다. 생불할망이 그 앞에 가서 공손하게 무릎을 꿇고 자기가 생불을 준 자손에게는 마마를 곱게 앓게 해 달라고 간절히 비니, 대별상신은 눈을 부릅뜨며 사물(邪物)인 여자가 앞길을 막는다고 호령한다. 그리고 생불할망이 생불을 준 자손들에게는 마마를 심하게 앓도록 하여 얼굴을 뒤웅박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에 화가 난 생불할망은 복수를 위해서 대별상신의 부인을 생불꽃으로 잉태시키고 해복을 시키지 않는다. 부인이 출산을 못하여 죽어가게 되자 대별상신은 할 수 없이 생불할망에게 와서 잘못을 빌고 그녀를 위해 서천강 연다리를 놓아주니, 생불할망은 이 다리를 밟고 대별상신의 집으로 가 아이를 낳게 해준다.(자료 중에는 대별상신의 부인이 아니라 며느리에게 생불을 주고 해복을 시키지 않는 자료도 있다.)

의의 〈할망본풀이〉는 멩진국따님애기가 생불신으로 되어 가는 과정이 중심이고, 〈마누라본풀이〉는 생불신이 자신이 태어나게 한 아이들에게 마마를 앓게 하는 대별상신을 제압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이 두 신화는 '생불할망'을 중심으로 그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묶어 〈생불할망본풀이〉, 즉 〈삼승할망본풀이〉라 부를 수 있다.

〈생불할망본풀이〉에는 세 명의 중요한 신이 등장한다. 아기를 잉태시키고 양육시키는 '생불할망'과 아이들로 하여금 질병을 앓게 하거나 죽게 만드는 '저승할망(구삼승할망)', 그리고 아이들에게 마마를 앓게 하는 '대별상신'이 그것이다. 불도맞이라는 제의에서 이들 신화가 구송되고 있는 것을 보면, 불도맞이는 바로 이와 같은 세 신과 관련된 제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세 신 중 가장 중요한 신은 어디까지나 생불신이다. 생불신은 산신[産神]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 생불신을 '산신할망'이라고 하다가 '삼승할망'으로 음이 와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신화에서 생불신의 능력이 다른 두 신을 능가하고 있는 점은 신화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은 허약하여 여러 질병을 앓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간혹 죽기도 하며 조금 성장한 후에는 마마를 앓기도 한다. 생불신의 능력이 아기 질병신이나 마마신보다 우월한 것은 이 신으로 하여금 어린아이들의 질병을 고칠 수 있도록 하고 마마도 약하게 앓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신화를 창조해낸 집단이 아기가 병에 걸리거나

혹은 죽기도 하며 나아가서는 마마를 앓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위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생불신의 능력을 뛰어나게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불도신 또는 생불신이 될 수 있는 관건이 '꽃피우기 시합'인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번성꽃을 피운 존재는 사람의 생명을 잉태시킬 수 있는 생불신이 되고, 시든 꽃을 피운 존재는 질병이나 죽음을 유발하는 존재가 된다고 한 것에는 '인간의 생명=꽃'으로 본 인식이 내재해 있다. 동해용왕따님애기가 시든 꽃가지를 꺾으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병을 앓도록 하겠다는 것도 역시 이와 같다. 〈생불할망본풀이〉라는 신화를 창조한 집단은 인간의 생명체계를 식물체계와 관련하여 생각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 바로 '서천꽃밭'과 '생불꽃'이다.

인간을 탄생시키는 '생불꽃'과 이러한 꽃이 피어 있는 '서천꽃밭'이 있다고 상정한 것은 매우 특이하다. 생불할망은 하늘에서 얻어온 꽃씨를 석해산에다 심고 서천꽃밭을 만든다. 그리고 여기에서 피는 생불꽃을 따서 다니며 아이를 잉태시키는 것이다. 생불꽃이 애기꽃이며 생명꽃이라는 점에서 보면 서천꽃밭이란 바로 생명을 창조해 내는 신화적인 생명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신화적 생명공간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신화를 창조한 집단이 인간의 생명에 대해 외경심을 갖고 이것을 해명해 보고자 노력했음을 암시한다. 또 아기를 만들어내는 꽃씨를 하늘로부터 가져왔다고 하는 것에는 신화창조집단이 인간의 생명이나 탄생을 하늘에 종속된 것으로 생각했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생불할망본풀이〉에서 보면 아기를 탄생시키는 꽃은 생불꽃이며 아기를 탄생시키는 신은 생불신이다. '생불꽃'과 '생불신'은 바로 '불'을 생기게 하는 꽃과 신이란 뜻인데, 이때의 '불'은 바로 '아기' 또는 '인간'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고대에 우리 민족은 인간이나 아기를 '불'이라고 말했던 적이 있는데, 이러한 흔적은 바로 남성 신체어 중 '불알'이란 말에 남아 있다. 생불꽃, 생불할망이란 말은 바로 이러한 말과 상관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어 매우 고형의 언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朝鮮巫俗の研究 上(赤松智城 · 秋葉隆, 조선총독부, 1937),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진성기, 민속원, 1991), 제주도 무속신화-열두본풀이 자료집(문무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장주근, 역락, 2001), 제주도 큰굿자 료(제주도 · 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1), 제주도 무속을 통해서 본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이수자, 집문당, 2004), 이용옥 심방 〈본풀이〉(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 삼신신앙의 기원과 성격(이수자, 제주도언어민속논총, 현용준박사화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편집, 1992), 한국문화에 나타난 불의 다층적 의미와 의의(이수자, 역사민속학 11, 한국역사민속학회, 2000).
필자 이수자(李秀子)

삼신

정의 아기의 출산과 성장 등을 관장하는 신으로, 무속신(巫俗神)이자 가신(家神). 인간은 삼신의 점지로 태어나고, 수명은 칠성신(七星神)이 맡는다고 한다. 삼신은 삼신할머니, 삼신단지, 삼신바가지, 삼신할망, 삼신할아버지, 세준할머니, 지앙할매 등으로 불린다. 여기서 지앙은 제왕(帝王)으로, 세준은 세존(世尊)을 각각 이른다. 이는 불교가 가미된 제석신을 의미한다.

어원 삼신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다. 우선 산육(産育)을 관장하는 면을 강조하여 산신(産神)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 경우 산신이 삼신으로 음운 변화했다고 본다.

삼신은 삼신할머니와 삼신할아버지, 또는 삼신할머니 둘을 모시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삼신 셋을 모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삼신(三神)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곧 삼신의 삼을 숫자 삼(三)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특히 삼신(三神)으로 호칭되는 데에는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환인 · 환웅 · 단군의 삼신을 지칭한다는 설이 있지만 구체적인 논거는 없다. 이 밖에 산신신앙(山神信仰)과 관련시켜 산신(山神)으로 불리기도 하며, Kam 및 Sam과 어원을 함께하는 무신(巫神)이란 뜻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삼신에 대한 해석은 우리말이 삼이며, 여기서 파생된 '삼기다'[生]로부터 유래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내용 삼신과 관련된 굿거리로는 부여 지역 축원굿에 삼신풀이가 등장하고, 군산 지역 씨끔굿에 삼신굿, 목포 지역 축원굿 가운데 삼신굿, 제주도 큰굿 가운데 삼신할망본풀이가 있다. 삼신굿만 독립적으로 하기도 한다. 해남 지역의 삼신굿이 이 경우에 속한다.

삼신의 유래와 관련된 무속신화는 흔히 '당금애기무가'라고 한다. 강릉 지역과 울진 지역 등 동해안 지역에서 굿할 때 기자(祈子)와 풍요를 위해 무당이 부르는 '시준굿(세존굿) 무가'를 말한다. 강릉의 '시준굿무가'는 김태곤이 1968년 1월에 사화선(당시 39세)이 구송한 무가를 채록하여 『한국무가집(韓國巫歌集)』 1권에 수록되었다. 울진 지역 역시 1968년 1월에 세습무 변연호(당시 41세)가 구송한 무가인 '세존굿무가'를 채록하여 『한국무가집』 1권에 수록하였다.

강릉 지역의 시준굿, 울진 지역의 세존굿무가에 등장하는 당금애기무가는 내용이 거의 같으나 강릉 지역 세존굿무가에 좀 더 많은 이야기가 첨가되어 있다. 강릉의 경우 '당곰애기'라고 한다. 이는 무당의 발음에서 온 차이일 뿐 당금애기와 같은 명칭이다.

강릉 지역의 세존굿무가를 중심으로 삼신의 유래를 소개한다. 이 신화 내용을 통해 삼신은 불(佛)줄을 타고난 존재이기 때문에 의례 때 제물도 육류나 어류를 절대 금하고 오로지 깨끗한 정화수와 밥을 올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집마다 삼신이 있어서 아이를 태어나게 해준다. 아주 먼 옛날 삼신도 없는 때에는 사람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원래 삼한 시준[世尊]님네는 하늘 위에 있는 천국에 살았으며, 글 한 자를 잘못 지어서 계축년 칠월 보름날 지상으로 정배되어 개비랑국[迦毗羅國] 정반왕(淨飯王)의 마야부인에게 잉태되어 사월 초파일 옆구리로 탄생했다.

석가여래 시준님은 세상에 태어난 육 년 만에 설산중(雪山中)에 들어가서 나무 열매를 따먹으며 육 년간 공부하여 불도(佛道)를 마련하고, 지장보살님네는 꽃을 마련하고, 삼한 시준님네는 자손을 불어나게 해주는 삼신을 마련한다.

삼한 시준님이 인간의 자손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그 자손들에게 명과 복을 주기 위해 세상으로 내려온다. 삼한 시준님은 '스님'이 되어 내려온다. 이 스님은 법당을 수리하기 위해 서천서역 당곰애기 집에 재미(齋米) 동냥을 떠난다. 당곰애기 집에 당도하니 담장은 높고 열두 대문에 나는 새와 기어다니는 쥐도 들어갈 수 없게 단단하게 잠겨 있다. 그러나 스님이 개문경(開門經)을 외우니 열두 대문의 굳게 닫힌 문이 모두 열리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당곰애기가 종에게 밖을 살펴보라 한다. 앞문의 옥단춘, 뒷문의 명산군이 나가 보니 스님이 동냥을 달라고 염불을 한다. 방 안에서 수를 놓던 당곰애기는 스님이 왔다는 말에 문종이에 침을 발라 손가락으로 뚫어 구멍을 내고 내다보다가 스님과 눈이 마주쳤다. "여보시오 아가씨요, 소승이 아가씨께 문안 왔습니다. 재미 동냥 왔습니다. 어서 시주를 주옵소서." 당곰애기는 공비단에 수를 놓다가 던져놓고 스님을 보려고 나가는데 몸치장을 한다. "여보시오 스님요, 아버지는 천하공사 가구, 어머니는 지하공사 가구, 아홉형제 오라버니는 말공사 글공사 천기 바둑 공부를 가구, 구 년 치수를 가서 없습니다. 그래 곳간마다 잠긴 문을 어느 누구가 열어준단 말이오." 스님이 짚었던 철장으로 천하를 겨누고 왼발로 땅을 세 번 구르니 열두 대문 곳간 문이 왈그락 열린다. 그래서 당곰애기가 "여보 스님요, 아버지 자시던 백미쌀을 서 말 서 되 서 홉을 떠다가 시주를 할까요?" 하니 "그 쌀은 땀내 나서 못 받겠소"라며 거절한다. 어머님 자시던 백미쌀은 인내 나구 부정해서 못 받겠으니 아가씨 자시던 백미로 소승에게 시주를 하라고 한다. 그래서 자신이 먹던 쌀독 안에 있던 맨 밑의 밑쌀로 서 말 서 되 서 홉을 떠서 동냥자루 안에 부어 시주한다. 그런데 스님은 당곰애기 몰래 장도칼로 동냥자루 밑을 슬그머니 터놓았기 때문에 쌀이 계속 새어 나와 온 마당에 흩어진다. 당곰애기는 동냥을 하러 다닐 때는 성한 자루를 가지고 다니라며 나무라는 투로 말한다. 그러나 스님은 오히려 뒷동산에 올라가서 대봉싸리 열네 날을 꺾어다가 주워 담아 달라고 한다.

쌀을 주워 담다 보니 날이 저물어 당곰애기는 어서 속히 절로 가서 부처님께 공양을 하라 하니 스님은 의뭉스럽게도 "아가씨요, 날이 저무는데 집을 두고 어디로 가란 말이오. 유수같이 흐르는 세월인데 하룻밤만 유해 갑시다"라고 사정한다. 당곰애기는 거절하다가 할 수 없이 스님에게 아

버지 방에 가서 자라 하니 싫다 한다. 어머니 방에서 자라 해도 싫다 하고 오라버니들 자는 방에 자라 하니 그 방은 누추하고 땀내, 인내 나서 못 자겠다고 하며 아가씨 자는 방에서 자겠다고 한다. 결국 당곰애기 방에서 병풍을 치고 자게 된다. 그러나 몸과 마음이 후끈 달아오른 스님은 당곰애기가 깊은 잠에 든 것을 알게 되자 그의 이불 속으로 들어간다. 뒤늦게 깨어난 당곰애기가 심하게 호통을 치고 혼을 내지만 스님은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아가씨는 분명 중의 가정에서 태어났을 터이니 사주책을 보라고 한다. 사주책을 보니 자신은 중의 가정에서 태어난 몸이었다. 마침내 둘은 연분을 맺게 되는데 그날 밤 당곰애기가 꿈을 꾸니 스님은 그 꿈이 아들 삼형제를 잉태할 태몽이라고 한다.

스님은 당곰애기에게 박씨 세 개를 주며 깊이 간직하였다가 스님이 간 지 석 달 만에 태기가 있어 아들을 낳으면 이 박씨를 심어 덩굴이 뻗는 대로 그 덩굴만 따라가면 소승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한다. 당곰애기는 이런 일이 있은 후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니 입덧이 나고 아홉 달이 되니 아랫배는 산처럼 높아 몸을 추스를 수 없다. 이때 천하공사 가신 아버지, 지하공사 가신 어머니, 말공부 글공부 갔던 아홉 형제 오라버니가 돌아와 당곰애기가 아픈 것을 알게 된다. 어머니가 점을 쳐보니 당곰애기는 삼신이 굽어봐서 아들 삼형제를 점지하였다는 것이다. 아버지와 오라버니까지 이를 알게 되자 양반네 집에서 망신스러운 일이 났다며 당곰애기를 죽이려고 한다. 어머니가 가까스로 그들을 말려 결국 당금애기는 돌함 속에 갇힌다. 그리고 아홉 형제 오라버니들이 돌함을 산에다 두고 내려가는데 청천 하늘에서 난데없이 천둥 벼락을 치며 흙비, 돌비가 쏟아지면서 아홉 형제 오라버니들의 발이 땅에 딱 달라붙어 오도가도 못 하고 서 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자식의 얼굴을 보고자 울며불며 뒷동산으로 올라가서 "아가, 아가, 내 딸이야" 세 번을 거듭 부르니 돌함 속에서 모기만큼 가냘픈 소리가 나더니 돌합문이 덜컥 열린다. 그 속에서는 당곰애기가 아들 삼형제를 낳았는데 하늘에서 청학 세 마리가 내려와 삼형제를 날개로 덮어 품어서 추운 줄도 모르고 더운 줄도 모르게 키운다. 그리고 하늘에서 오색구름이 퍼져 내려 어린 삼형제의 머리맡에 사방으로 둘러쌌다. 어머니는 외손자 삼형제를 안고 집으로 데려와 후원 별당 안에 넣어두고 구메밥(옥의 구멍으로 죄수에게 넣어주는 밥)을 먹여 키우는데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다.

어느덧 일곱 살이 되자 삼형제는 서당에 다니게 되었는데 남달리 총명하여 글공부에 능하였다. 그래서 함께 공부하는 서당군들은 이들 형제를 질투했고, 심지어 아비 없는 아이라며 두어 번이나 죽이려고 했다. 결국 삼형제는 선생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글을 그만두고 아버지를 찾으러 가겠다고 하며 작별한 후 집에 와서는 어머니에게 아버지를 찾아 달라고 애걸한다. 그러자 당곰애기는 "느그 삼형제 태일 적에 뒷동산에 올라가서 대나무 밑에 잠시 잠깐 소피(소변)를 보았더니 느그 삼형제가 태어났나 부다. 대나무 곁에 가서 아버지 하고 한번 불러봐라." 그래서 대나무 곁에 가서 아버지가 여기 계시거들랑 어서 바삐 나와 달라고 목메어 부른다. 그러자 그중 큰 대나무가 "야들아, 어찌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느냐? 느그 아버지 이승에 오래오래 사시다가 후생 황천길로 돌아가시면 이 대나무를 베어다가 상장막대 짚으라 했지 내가 어찌 느그 아버지냐 아버지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 삼형제가 그냥 돌아가기가 섭섭해서 망설이고 있는데 대나무가 저 건너 밤나무 곁에 가서 아버지를 불러 보라고 한다. 거기 가서 부르니 제일 큰 밤나무가 "내가 어찌 느그 아버지냐? 부모가 이생(이승)에 오래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이 밤나무를 베어다가 신주를 만들어 모시고 위하는 것이지 내가 어찌 느그 아버지냐?" 부모가 돌아가시면 상장막대 짚는 것과 밤나무로 위패를 만드는 것이 다 그때 이 법으로 마련된 것이다.

삼형제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큰아들은 시퍼런 칼을 들고, 둘째는 솔가지에 불을 켜들고, 셋째는 담보따리를 지고 "어머니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를 안 찾아주시면 우리 삼형제는 우리가 나오던 안태 고향으로 어머니 배를 이 칼로 쭉 잡아 째고 도로 들어가겠습니다"하고 협박한다. 삼형제가 사뭇 협박조로 나오니 당곰애기는 몹시 당황하는데 언뜻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스님이 떠나면서 준 박씨 세 개가 생각난다. 당곰애기가 박씨 세 개를 찾아서 삼형제에게 주니 맏아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받아서 울타리에 심는다. 하룻밤을 자고 나니 어제 심은 박이 덩굴을 뻗어 끝없이 뻗어갔다. 당곰애기는 스님이 박씨를 주고 떠나면서 박씨를 심어 덩굴이 뻗거든 그 덩굴만 따라오면 자기를 만날 수 있다고 한 말을 삼형제에게 전해 주었다.

삼형제는 어머니를 가마에 태우고 아버지를 찾아간다. 이곳 저곳 험한 곳을 지나 금강산에 들어가서 일만이천봉, 팔만 구암자를 찾아가서 가마채를 놓고 잠시 쉬는데 어린 상좌가 샘으로 물을 뜨러 왔다가 황급히 절로 들어가 스님에게 전한다. "스님 안에 계십니까? 스님 가셨던 자취 있어서 보니 뼈 이은 동자에 삼형제가 왔는데 말도 스님 같고, 입은 입성도 스님 같고, 얼굴 모습이 스님 같습니다. 어서 치장을 하고 바삐 나가 보십시오." 이 말을 들은 스님이 놀랍고도 요란하게 치장하고 산길을 걸어가 당곰애기에게 가서 "당곰아가씨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깎듯이 드리니 삼형제가 모두 "아버지" 하고 나선다. 그러나 스님은 냉담하게 "야들아, 내가 어찌 느그 아버지냐? 만약에 느그들이 내 자식이 분명하면 삼형제가 종이버선을 신고 저 건너 냇물에 건너 왔다 갔다 해도 종이 버선에 물 한 방울 묻지 않아야 내 자식이다" 하고 시험을 한다.

삼형제는 스님의 요구대로 해냈다. 그래도 스님은 또 다른 시험을 한다. 계속해서 어려운 과제를 주어도 삼형제가 모두 해내고야 마니 스님은 동이를 가지고 와서 삼형제가 손가락을 끊어 피를 내면 자식인지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러자 삼형제는 즉시 동이를 갖다 놓고 칼로 손가락을 베어 피를 낸다. 그랬더니 삼형제의 손가락에서 떨어지는 피가 안개구름같이 뭉실뭉실 피어 한 군데로 똘똘 뭉친다. 그러자 스님이 자기 손가락을 베어 피를 내니 뚝뚝 떨어지는 피가 안개구름같이 피어 삼형제의 피에서 피어난 안개구름 같은 것과 함께 동이 안에서 한 군데로 똘똘 뭉친다. 그제야 스님은 자기 자식이 분명하다며 삼형제를 반긴다. 삼형제도 아버지에게 안기면서 이름을 지어 달라고 한다. "오냐, 이름을 지어보자. 맏아들 이름은 가서 대산(태산)이라 하고 둘째 아들은 한강, 셋째 아들은 평택이라 짓자. 평생을 가도 대산이 무너지고 한강이 마르며 평택이 꺼질쏘냐."

삼형제가 이름을 지었으니 아버지에게 먹고 입을 것을 마련해 달라고 하니 아버지는 맏아들은 금강산 신령님이 되고, 둘째 아들은 태백산 문수님(문수보살), 셋째 아들은 대관령 나라 당산 서낭님으로 마련한다고 했다. 그러자 삼형제는 어머니도 먹고 입고 살게 마련해 달라고 하는데 스님은 "느그 어머니는 부뚜막에 강구(바퀴벌레)되어 밥알 떨어진 거나 먹고 살라"고 한다. 삼형제가 그러지 말라고 하자 이번에는 진드기나 되라고 한다. 스님의 말이 떨어지자 어머니는 진드기가 되어 방안으로 들어온다. 이를 본 삼형제는 당황하여 스님에게 간청한다. "아버지 우리 삼형제를 보더라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 마시오." "아들아, 그런 것이 아니다. 너그들 삼형제 태일 적에 서천서역국으로 당곰애기 집에 가니 어디 잘 곳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헛간에 자거라, 봉당에 자거라, 뜨락에 자거라, 마당에 자거라, 변소에 자거라 하며 하도 박대하여 그 죗값으로 그랬다." "아버지 그래도 저희 삼형제를 본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오냐, 그러면 느그 어미 뭐 될 거 있다. 각성바지, 가가호호 집집마다 아들 낳고 딸 낳게 해주는 삼신할머니로 마련하자."

그렇게 해서 당곰애기는 삼신이 되었으며, 이 삼신이 사람을 세상에 태어나도록 점지해 주고 어린아이들이 병 없이 잘 자라게 돌보아 준다.

지역사례 삼신과 관련된 굿거리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삼신 관련 굿은 아기를 점지하기 바라는 기자의례(祈子儀禮)이다. 삼신굿이나 삼신풀이 이외에도 세존굿, 시준굿, 불도할망 등의 명칭으로도 삼신 관련 굿이 있다.

특히 제주도 큰굿 가운데 행해지는 불도맞이에는 〈삼싱할망본풀이〉가 구연된다. 불도는 '불도할망' 곧 삼신의 불교적 영향의 명칭이고, 맞이란 '영접'의 뜻이다. 삼신할머니를 제주도 말로 표현하면 삼싱할망이다. 이를 맹진국할망이라고도 한다. 〈삼싱할망본풀이〉는 곧 어린아이의 산육을 맡아보살핀다는 〈맹진국할망본풀이〉이자 〈할망본풀이〉다. 〈할망본풀이〉에는 〈맹진국할망본〉과 〈저상(저승)할망본〉이 있다. 전자는 이승의 아기, 후자는 저승의 아기를 각각 차지하여 관장한다고 한

다. 삼싱할망은 본디 동해용왕 따님으로 태어난 저싱할망과 꽃가꾸기 내기에 이겨서 이승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한다. 삼싱할망은 아기를 점지하고 살려내는 할머니 신이며, 저싱할망은 아기를 저승으로 데려가는 데에 주력하는 '궂은 할머니신'이다.

삼신제석도 있다. 출산과 관련되는 무속신으로, 일명 삼불제석이라고 한다. 제석은 본래 힌두교 계통의 신령으로, 불교에 들어와 불법수호신이 되었다. 이 신은 하늘신과 동일시되어 가장 권능이 강하며, 생명과 행운을 지켜 주는 신으로 간주된다. 무신도에는 세 스님의 모습으로 등장하며 삼불제석이라는 용어를 주로 쓴다.

삼신굿은 기자의례로 행해진다. 삼신의 유래가 서사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무속신화는 바로 '당금애기무가'이다. 광주(光州) 지역 '제석굿무가'에 등장하는 금각씨, 제주도 무가 '초공본풀이'에 등장하는 자지명(紫芝明)아가씨의 경우 스님과 연을 맺어 삼형제를 낳았지만 당금애기처럼 삼신으로 좌정하지는 않는다.

참고문헌 한국무가집 1(김태곤, 집문당, 1971),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유동식,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5), 한국무속연구(김태곤, 집문당, 1981), 한국의 무속신화(김태곤, 집문당, 1985), 제주도 무속연구(현용준, 집문당, 1986),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장주근, 역락, 2001), 제주도무속학사전(진성기, 제주민속연구소, 2004), 삼신할머니의 기원과 성격(최광식, 여성문제연구 11, 효성여자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1982).
필자 김명자(金明子)

삼오장

정의 동해안굿의 세존굿에서 중춤을 반주하는 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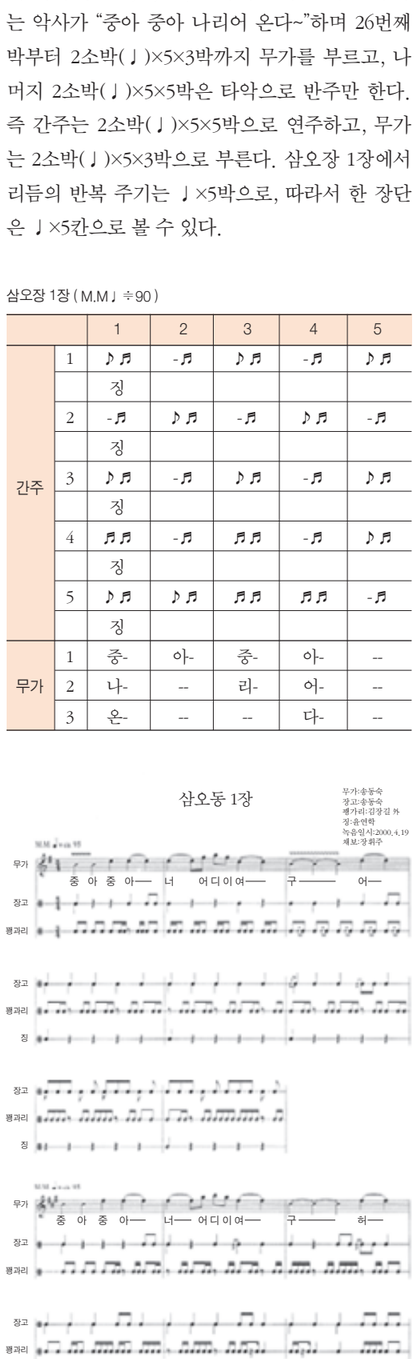
내용 삼오장은 무당에 따라 삼오동이라고도 불린다. 삼오장은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악사에 따라 4장까지 구성되어 있다고도 한다. 삼오장 1장에서만 장구잽이가 "중아 중아 나리어 온다. 백팔염주 손에 들고 온다" 등의 사설을 장단에 맞춰 구연하고, 2장 이하는 타악기 합주로만 연주한다. 각 장의 구분은 징의 타점과 빠르기에 따라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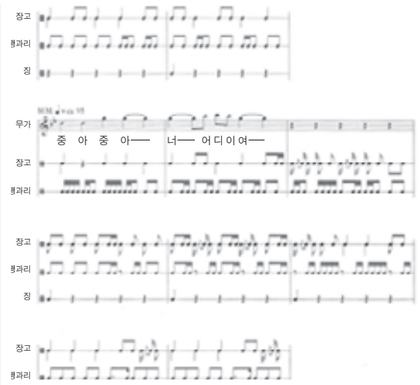
삼오장 1장은 총 2소박(♩)×40으로 이루어지며 이때 징은 1, 6, 11, 21박에 친다. 또한 반주하는 악사가 "중아 중아 나리어 온다~"하며 26번째 박부터 2소박(♩)×5×3박까지 무가를 부르고, 나머지 2소박(♩)×5×5박은 타악으로 반주만 한다. 즉 간주는 2소박(♩)×5×5박으로 연주하고, 무가는 2소박(♩)×5×3박으로 부른다. 삼오장 1장에서 리듬의 반복 주기는 ♩×5박으로, 따라서 한 장단은 ♩×5칸으로 볼 수 있다.

삼오장 1장 (M.M♩ ≒90)

		1	2	3	4	5
간주	1	♪♬	-♬	♪♬	-♬	♪♬
		징				
	2	-♬	♪♬	-♬	♪♬	-♬
		징				
	3	♪♬	-♬	♪♬	-♬	♪♬
		징				
	4	♬♬	-♬	♬♬	-♬	♪♬
		징				
	5	♪♬	♪♬	♬♬	♬♬	-♬
		징				
무가	1	중-	아-	중-	아-	--
	2	나-	--	리-	어-	--
	3	온-	--	--	다-	--

삼오동 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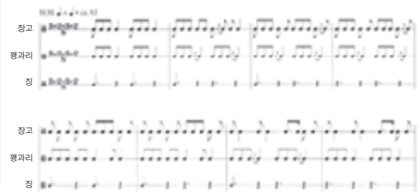




삼오장 1장에서 제1마루의 출현음은 모두 mi, la, do′, re′이다. mi를 떨고 la로 종지하는 메나리토리이다. 제2마루와 제3마루의 출현음 및 토리도 동일하다. 제1마루와 제2마루의 선율형은 동일하게 mi-la-do′-la-mi-la로 나타나고, 제3마루만 mi-la-do′-la로 나타난다.

삼오장 2장은 무가 없이 타악기의 연주로만 이루어진다. 2장은 1장보다 더욱 빠르게 연주되어 3+2(♩+♩)소박을 단위로 리듬이 나타난다. 2장은 총 ♪×40박으로 이루어지는 셈이다. 삼오장 2장은 (♩+♩)×2칸이 모여 1장단을 이루고, (♩+♩+♩+♩)×4장단이 모여 소마루를 이룬다. 징은 소마루를 단위로 제1, 2, 3, 5칸에 친다.

삼오장 2장 (M.M♩+♩ ≒83)

		1	2	3	4
연주	1	♬	♩	♬	♩
		징			
	2	♬	♩	♬	♩
		징			
	3	♬	♩	♬	♩
		징			
	4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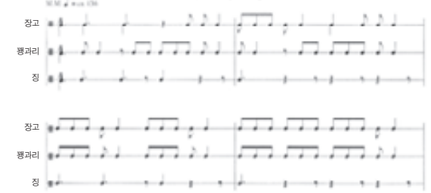


삼오장 3장은 2장의 불규칙 리듬(3+2)에서 규칙적인 리듬(3)으로 바뀐다. 1장단은 ♩×4박이다. 징은 두 장단을 주기로 하여, 제1장단의 제1, 2, 3박과 제2장단의 제1박에 4회를 침으로써 두 장단이 소마루를 이룬다.

삼오장 3장 (M.M♩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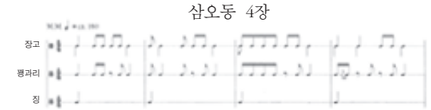
		1	2	3	4
연주	1	♪♩	-♫	♬	♪♩
		징--	징--	징--	징--
	2	♪♩	-♫	♬	♪♩
		징--			

삼오동 3장



삼오장 4장은 현재 잘 쓰이지 않는다. 삼오장 4장은 ♩×4박으로 타악기 합주로만 연주되고, 징은 제1박에만 한 번 친다. 현재는 삼오장 3장까지만 연주하고 4장은 주로 생략한다고 한다.

삼오동 4장



반주를 하는 양중들이 삼오장을 연주할 때 무녀는 중의 흉내를 내며 춤추고, 각 가정과 동네의 복을 기원한다.

지역사례 삼오장은 동해안 중부 지역(경상북도)과 동해안 남부 지역(부산 · 울산) 별신굿에서 모두 사용하는 장단이다. 삼오장을 줄여서 간단히 칠 때는 배기장을 치기도 한다.

참고문헌 경남 · 경북 동해안 무악 비교 연구(장휘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필자 윤동환(尹東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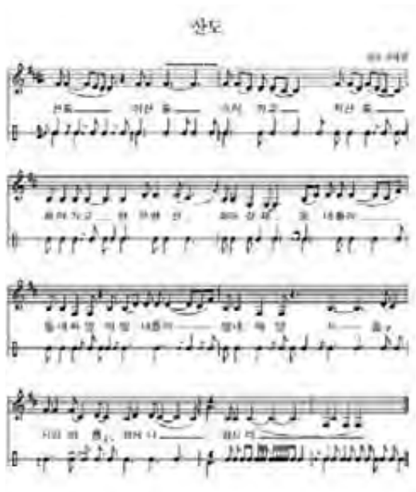
삼장개비

정의 진도씻김굿의 초가망석에 사용하는 장단. 3소박 6박이며, 장구형은 세마치장단과 유사하다.

내용 삼장개비는 전라남도 진도 채정례 일행의 초가망석에서만 사용되는 장단이다. 초가망석은 '늙어늙어 만련주야'의 느린 진양조로 시작하여 삼장개비 장단의 '산도-'를 부르고, 풀이살(살풀이)장단의 '공심은 저러지고'를 이어 부른다. 삼장개비 장단의 '산도-'는 7장단에 불과한 짧은 경과형 악곡으로, 진양조와 풀이살 무가를 연결해 주는 연결구라 할 수 있다. 시작할 때 '산도'를 외치고 "이산도 쉬어가고/ 저산도 쉬어가는 /양우양산 쉬어갈제 / 동네들어 동네짜망/ 방네들어 방네짜망/ 시름 시이름 /쉬어나 갑시다"의 가사를 부른다. 맨 마지막의 '쉬어나 갑시다' 부분은 3소박 4박의 풀이살장단으로 연주하여 '공심은' 무가로 바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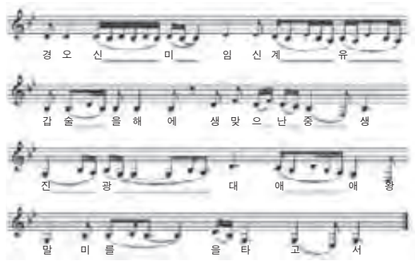
장구형은 3소박 3박 단위로 반복되지만 가사 붙임새의 구조는 3소박 6박 단위로 끊어진다. 전남의 씻김굿에는 3소박 6박의 진양조 장단이 있으나 진양조 장단이 4박+2박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 삼장개비는 3박+3박의 구조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삼장개비



지역사례 전남 순천삼설양굿에는 4박+2박 구조와 3박+3박 구조의 진양조 두 가지가 사용된다. 3박+3박 구조의 6박은 순천삼설양굿뿐만 아니라 경상도와 전남 동부 지역 민요에서도 흔히 발견된다. 이 장단을 진양조라고 부르지만 박자 구조에 있어서는 삼장개비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3+3박 구조의 진양조는 전남 동부와 경상도 지역의 음악문화이며, 이것이 진도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순천삼설양굿의 말미소리(3박+3박 구조의 진양조)



참고문헌 채정례진도씻김굿(국립남도국악원, 2006), 호남의 초분이장굿(나경수 외, 민속원, 2008).
필자 김혜정(金惠貞)–경인교대

삼재맞이

정의 태어난 해의 간지(干支)에서 12지를 기준으로 9년마다 찾아오는 3년의 삼재년(三災年) 동안 각종 액운을 막아내기 위하여 치르는 일체의 종교적 의례. 지역에 따라서 '삼재내기', '삼재풀이', '삼재막이'라고도 불린다.

내용 삼재맞이에는 민간에서 전승되는 여러 삼재풀이가 있고, 무당이나 법사[독경자(讀經者)]가 전문적인 기 · 예능으로 삼재를 막는 여러 굿 등도 포함된다. 또 액년에 행하는 '제웅치기'는 삼재가 드는 해에도 흔히 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교의례도 삼재풀이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무당이나 법사는 자신의 기주(祈主) 또는 단골의 식구 중에서 삼재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이를 막아주기 위하여 삼재맞이를 행한다. 한편 불교 사찰의 스님들도 신도들의 삼재풀이를 많이 해준다.

도교에서는 사람에게 닥치는 3가지 재앙을 대삼재와 소삼재로 구분한다. 대삼재는 수재 · 화재 · 풍재를 뜻하고, 소삼재는 도병재(刀兵災) · 질역재(疾疫災) · 기근재(饑饉災)를 말한다. 한편 곡식이 익지 않는 기(飢), 채소가 익지 않는 근(饉), 과일이 익지 않는 황(荒)도 삼재라고 한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계산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 세월인 겁(劫)의 말(末)에 일어나는 3가지 재해를 삼재라 한다. 여기서도 도교에서와 같이 대삼재와 소삼재가 있다. 점괘(占卦)에서는 흔히 명손(命損) · 신손(身損) · 재손(財損)이라 하여 목숨을 잃는 것, 몸을 다치는 것, 재산을 잃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민간에서 인식하는 삼재는 도교의 정확한 개념과 일치하기 보다 점괘의 삼재를 비롯하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온갖 액운을 뜻한다. 이 삼재는 사람에게 9년마다 주기적으로 찾아와 3년 동안 머무른다. 이를 삼재년 또는 액년이라고 이른다. 삼재년은 해마다 누구에게나 드는 것이 아니라 생년의 십이지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 주기마다 찾아들게 된다. 곧 사(巳) · 유(酉) · 축(丑)이 든 해에 태어난 사람은 해(亥) · 자(子) · 축이 되는 해, 신(申) · 자 · 진(辰)이 든 해에 태어난 사람은 인(寅) · 묘(卯) · 진이 되는 해, 해 · 묘 · 미(未)가 든 해에 태어난 사람은 사(巳) · 오(午) · 미(未)가 되는 해에 각각 삼재가 든다. 또 인 · 오 · 술(戌)이 든 해에 태어난 사람은 신 · 유 · 술이 되는 해에 삼재가 든다.

삼재가 든 첫 해를 들삼재, 둘째 해를 누울 삼재(삼재 묵는 해), 셋째 해를 날삼재(나는 해)라고 한다. 첫 해에는 삼재가 들어오는 해이며, 둘째 해는 삼재가 머물러 있는 해이며, 마지막 해에는 삼재가 나가는 해라는 뜻이다. 3년 중에서 들삼재가 가장 무섭고, 그다음으로 누울 삼재가 불길하다. 날삼재에도 경거망동(輕擧妄動)하지 않고 근신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날삼재가 가장 위험하다고도 하고, 둘째 해인 묵은 삼재를 악삼재라 하여 특히 꺼리기도 한다. 한편 삼재 든 해의 나이에 3이나 7 숫자가 들면 복삼재이고, 4 · 5 · 9 숫자가 들면 파산삼재라고 한다. 파산삼재에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삼재도 드는 사람의 운에 따라서 8가지로 구별된다고 한다. 생기(生氣) · 천의(天意) · 절체(絶體) · 유혼(遊魂) · 화해(禍害) · 복덕(福德) · 절명(絶命) · 귀혼(歸魂)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생기와 천의에 닿으면 삼재에 들었다 해도 큰 불행 없이 그런대로 잘 넘길 수가 있다. 유혼이나 복덕에도 평소와 같이 무해(無害)하게 지낼 수 있다. 그러나 절체와 화해 및 절명에는 큰 불행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삼재를 풀어주어야 한다.

삼재를 적극적으로 막아내기 위한 민속적 대응은 대개 2종류로 대별된다. 하나는 민간에 전승되고 있는 각종의 민속 관행이고, 또 하나는 무당이나 법사에 의한 굿이다.

먼저 삼재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민속 관행과 그와 관련한 속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19세기의 풍습을 주로 전하는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의하면 남녀 불문하고 삼재에 든 사람이 있는 집에서는 매 3마리를 그려 문 상방에 붙여서 액을 예방하며, 이 3년 동안은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등 삼가고 꺼리는 일이 많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부적(符籍)과 근신에 의한 삼재 예방법이다.

음력 정월 열나흗날 저녁이나 밤에 삼재가 든 사람의 액막이를 위해 삼재풀이를 한다. 왜냐하면 정월 열나흗날은 본질적으로 일 년 중 액막이에 가장 효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정월 열나흗날에 삼재풀이를 하지 못하면 입춘 전까지는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지역이나 무당들은 입춘에 맞추어 삼재풀이를 하기도 한다.

삼재를 푸는 방법은 다양하다. 대개는 대수대명(代數代命)의 의미에서 제웅치기(허재비 버리기)를 많이 한다. 허재비는 30cm~1m 크기로 짚 · 수숫대 등을 이용하여 만든다. 지역마다 허재비의 모습이나 버리는 방법 등은 다소 다르다. 허재비를 1개 또는 3개를 만들기도 하고, 그 안에 삼재 든 사람의 성명과 사주를 쓴 종이 · 동전 · 메 · 쌀 · 나물 · 소금 등을 집어넣는다. 허재비는 시신을 염습할 때처럼 삼베로 7개가 매듭이 되게 묶는

다. 삼재풀이를 마치면 허재비는 대체로 길가, 내[川], 다리, 삼살방(三煞方)이 닿지 않는 곳, 논둑 등지에 버린다. 때에 따라서는 땅에 묻기도 하고 불에 태우기도 한다. 특히 달집태우기를 할 때 함께 불에 사르기도 한다. 가까운 냇물에 띄워 보내기도 하고 삼색실이나 헝겊으로 서낭나무 등에 묶어 주기도 한다.

이밖에 삼재 든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옷 또는 동정을 세 갈림 길에 나가 태우기도 한다. 특히 첫 호랑이날[초인일(初寅日)]과 첫 말날[초오일(初午日)]에 행하면 좋다고 한다. 또한 집 용마루에 삼재 든 사람의 왼쪽 버선이나 종이로 만든 깃발을 꽂아 놓기도 한다. 대수대명으로 북어 입에 삼재 든 사람의 손톱·발톱을 조금씩 깎아 넣고, 또한 여기에 머리카락 3가닥도 함께 넣는다. 그런 다음에 이 북어는 땅 속에 파 묻는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삼재 부적을 무당이나 절에 가서 받아 온다. 이 삼재 부적 하나는 집안에 붙이고 또 하나는 몸에 지니고 다닌다. 삼재 부적은 3년 동안 매해 동지 때 새것으로 바꾸며, 낡은 것은 태운다. 또 부적은 흔히 삼재 든 사람이 쓰는 베개 안에다 넣기도 한다. 때에 따라서는 부적을 태워서 물과 함께 마시기도 한다.

삼재와 관련한 여러 민간의 속신도 있다. 곧 식구 중에 삼재가 든 사람이 3명이 있으면 큰 어려움 없이 비교적 잘 넘어갈 수 있다. 삼재가 든 사람이 2명이라면 풍파를 심하게 겪는다. 삼재가 드는 첫 해인 들삼재에는 마음이 산란하며, 그 이듬해인 누울 삼재에는 집안에 우환이 들끓고, 마지막 해인 날삼재에도 매우 불안하다. 또한 3년 동안 들삼재든 날삼재든 어느 한 해가 비교적 쉽게 넘어갔다면 다른 해의 삼재에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연령대에 따라서 삼재를 달리 부르기도 한다. 0~15세는 애기삼재, 16~25세는 청년삼재, 26~55세는 중년삼재, 55세 이상은 노삼재라고 각각 일컫는다. 애기삼재에는 낙상이 잦고, 청년삼재에는 구설(口舌)이 많고, 중년삼재에는 재산이 줄어들고, 노삼재에는 낙상과 구설이 많다.

또 "들삼재에는 사람이 들어와도 나쁘지 않고, 날삼재에는 사람이 나가야 한다"는 말이 있다. 가령 들삼재에는 며느리를 보아도 상관없지만 날삼재에는 며느리를 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때에는 뱅이 차원에서라도 집 안에서 키우는 가축을 내보내야 한다. 날삼재에는 혼사를 치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속신들은 지역이나 무당·법사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또 삼재에 닿으면 혼인도 꺼리게 되고, 이사(移徙)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삼재가 나가는 해에는 이사를 해도 무방하다고 여긴다. 한편 부모나 조부모의 삼재 든 해에는 자녀의 혼사를 피한다. 총각이나 처녀가 삼재가 들면 혼인이 어렵기 때문에 정초에 반드시 삼재풀이를 해준다.

지역사례 충남에서는 대체로 음력 정월 열나흗날에 삼재풀이를 한다. 삼재 든 사람이 자신의 속옷에 이름과 사주를 써서 무당이나 법사에게 가져가면, 이것을 명태에 삼베로 7개 매듭으로 묶은 다음 삼재풀이를 시작한다. 속옷은 빨래를 하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흔히 삼거리로 나가 간단한 굿상을 차리고 바깥쪽을 바라보고 비손을 한다. 굿상에는 메 3그릇, 정화수 3그릇, 나물 3가지, 삼색실과 등을 올린다. 징을 치며 삼재풀이를 위한 비손을 한다. 다음에는 7개 매듭으로 묶은 명태를 바깥쪽을 향하여 힘차게 내던진다. 이때 명태의 머리가 바깥을 향해 떨어져야 삼재가 풀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명태 머리가 안쪽을 향하게 되면 바깥 방향으로 될 때까지 수차례 반복한다. 몇 번을 던져도 명태 머리가 안쪽을 향하면 신장칼로 삼재 든 사람을 찌르는 흉내를 내기도 하고, 아예 용왕제를 별도로 치러주기도 한다.

이렇게 하여 액이 나가면 곧바로 삼재 든 사람으로 하여금 오방기(五方旗)를 뽑게 한다. 청색기나 녹색기를 뽑으면 좋지 않다고 하여, 삼재 든 사람에게 소금을 뿌린 다음 다시 다른 깃발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음에는 굿상에 올렸던 밤이나 대추로 산을 잡아본다. 짝이 잘 맞으면 길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길하다고 여긴다. 마지막으로 소금·메밀·팥을 삼재 든 사람에게 힘차게 뿌려준다. 삼재풀이를 마치면 모든 제물과 옷가지는 그 자리에서 태워 버린다.

어떤 무당은 삼재풀이의 마지막 절차를 살풀이하듯이 한다. 곧 빨간색·노란색·흰색의 종이로 망을 만들어 삼재 든 사람의 얼굴에 씌운 다음 칼로 걷어낸다. 이때 한 번에 3개의 망이 모두 거두어지면 삼재가 풀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2개가 거두어지면 2년 분량의 삼재가 소멸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번만 더 삼재풀이를 해주면 된다. 1개가 거두어지면 향후 두 번만 삼재풀이를 하면 되고, 하나도 거두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세 번을 해야 한다.

또 다른 법사는 다음과 같이 삼재풀이를 한다. 먼저 삼재 부적을 21장 그린다. 또한 삼재가 든 사람의 웃옷에도 부적을 그린다. 웃옷에는 사람의 얼굴과 몸체와 사지(四肢)를 그린다. 몸체에는 삼재 부적을 다시 그린다. 웃옷 하단에는 성명과 사주를 쓰고, 그 가장자리에는 삼재일시소멸(三災一時消滅)이라고 쓴다. 이렇게 부적이 마련되면 삼재상 위에 쌀, 삼재시루(팥시루), 메 3그릇 등을 올린 다음 법사가 경문을 외기 시작한다. 먼저 부정경을 하고, 육개주를 열고 삼재경을 읽는다. 때로는 옥추경 중에서 뇌공뇌차신장경을 추가로 외워준다. 경문 구송을 마치면 21장의 삼재 부적을 삼재 든 사람의 몸에 둘러준다. 이들 부적은 나중에 불에 사른다. 웃옷도 태운다. 대수대명인 셈이다. 법사에 따라서는 마지막으로 식칼을 마당에 던져 삼재가 풀어졌는지 확인한다. 칼끝이 집 바깥을 향할 때까지 여러 차례 던지는 것이다. 또 액풀이를 위하여 장만한 수수경단은 삼재 든 사람에게 반드시 먹인다.

어떤 법사는 안택을 할 때에 삼재풀이를 간소하게 행하기도 한다. 잡귀를 풀어먹이는 마지막 절차인 내전을 하기 전에 법사는 삼재 든 사람의 속옷을 굿당에 깐 다음 그 위에 불밝이쌀을 차리고 삼재를 소멸시키는 삼재경을 구송하는 것이다.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안섬에서 행하는 삼재풀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삼재풀이를 위해 무당을 찾아갈 때는 마을에서 각성바지 집을 돌면서 쌀을 걸립한다. 물론 부정한 집의 쌀은 걷지 않는다. 또 삼재가 든 사람의 속옷도 잊지 않고 가져간다. 이때에는 당연히 목욕재계를 하고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무당집으로 가는 도중에 부정을 보았다면 즉시 귀가하고 다시 택일을 한다.

걸립한 쌀은 불밝이쌀로 사용하며, 별도로 마련한 쌀로 떡과 메를 짓는다. 명태는 속옷으로 둘둘 말아서 굿상에 올린다. 한 집에 두 명이 삼재가 들었다면 명태가 두 마리 필요하다. 무당이 삼재를 풀기 위한 비손을 시작하면 그 옆에서 기주네 식구, 특히 대주와 지주는 온 정성으로 큰절을 수도 없이 올린다. 큰절을 100번이나 해야 신령이 잠시라도 정성을 헤아려 준다고 한다. 다음에는 명태를 싼 속옷을 풀어서 그것으로 살아 있는 흰 닭을 묶는다. 이때 흰닭의 날개 아래에 동전 3개를 넣어준다. 무당은 흰닭의 발을 단단히 움켜쥐고 축원을 한다. 한참 축원을 하다가 보면 어느 새 흰닭은 죽어 있게 마련이다. 간혹 닭이 시름시름만 할 뿐 죽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는 삼재풀이가 잘 안 되었음을 뜻한다. 흰닭은 삼재 든 사람의 대수대명이므로 쉽게 죽어야 좋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가지에 구정물을 담고, 그 안에 제물로 마련한 밤·대추·곶감·떡 등을 조금씩 떼어 넣는다. 한 손에는 바가지, 다른 손에는 부엌칼을 각각 든 다음에 방문을 열어 놓고 마루에 서서 칼을 휙하고 집어던진다. 이때 칼끝이 바깥으로 향하면 풀이가 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풀이가 덜 된 것으로 여긴다. 칼끝이 바깥을 향할 때까지 반복하여 던져 본다. 이윽고 칼끝이 바깥으로 향하면 삼재가 풀어진 것이므로 구정물을 들고 삽짝 바깥으로 나가 휙 뿌려준다. 이렇게 한 후 방안으로 돌아와 무당은 삼재 든 사람에게 오방기를 뽑도록 한다. 이때 노란색 기는 성주가 돌보는 것이고, 흰색 기는 칠성이 돌보는 것이며, 빨간색 기는 산신이 돌보는 것이다. 다른 색깔의 깃발은 좋지 않다. 이렇게 삼재를 풀어내고 길한 색깔의 기를 뽑아낸 다음에 무당은 부적을 써준다. 한 장은 몸에 지니도록 하고, 한 장은 집안 대문이나 방문 위에 붙이도록 한다.

전북 지역에서도 재가집 가족 중에 삼재가 든 사람이 있는 경우 날을 받아서 액을 소멸시키는 삼재풀이를 한다. 삼재가 들어올 때 인 들삼재인 경우 집안에서 굿을 하고, 삼재가 나갈 때 인 날삼재인 경우 보통 산이나 물가에 가서 굿을 한다. 집

안에서 굿을 하는 경우에는 방 안에 선영상, 성주상, 제왕상, 문전상, 삼재상 등을 차려놓는다. 삼재상에는 초 3개, 향 3개, 떡 3조각, 밥 3그릇, 국 3그릇, 술 3잔, 돈 3만원, 불밝이쌀 3개 등을 올려놓는다. 단골은 삼재 든 사람의 의복 한 벌을 마련해 놓고 삼재상 앞에 앉아 징을 치면서 삼재풀이를 한다. 삼재풀이는 부정풀이, 조왕경, 성주경, 지신경, 삼신제왕경, 조상굿, 삼재경, 내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삼재풀이는 주로 무당이 해주지만 절의 스님을 찾아가서 하는 경우도 많다. 절에 갈 때는 삼재가 든 사람의 속옷과 통북어 · 동전 · 쌀 등을 가지고 간다. 스님은 삼재 든 사람의 모든 액이 풀어지도록 불공을 드려준다. 대개 정초, 사월 초파일, 동짓날에 행한다.

참고문헌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무의식편(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문화공보부 1983), 한국의 무(조흥윤, 정음사, 1983), 한국정신문화대백과사전 11(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세시풍속-경기 · 충남 · 충북 · 강원 · 경북 · 경남 · 전북 · 전남 · 제주 · 총괄편(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6), 한국고전용어사전(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2), 한국의 가정신앙-경기 · 충남 · 충북 · 강원 · 경북 · 경남 · 전북 · 전남 · 제주편(국립문화재연구소, 2005~2007), 동국세시기(홍석모 지음, 정승모 풀어씀, 풀빛, 2009), 전북지역의 무당굿 연구(이영금,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필자 이필영(李弼泳)

삼지창(三枝槍)

정의 창끝이 세 갈래로 갈라진 무구의 일종. 대 · 중 · 소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청룡도 또는 언월도와 함께 한 조를 이루면서 사용된다.

형태 삼지창에는 둥글고 굵은 나무 손잡이 끝에 무쇠로 된 창이 달려 있는데 창은 가지가 셋으로 벌려져 있다. 가운데 가지는 일직선이고 양쪽 가지는 창끝이 바깥쪽으로 휘어져 있다. 손잡이는 나무, 날은 쇠로 만들었는데 길이는 다양하다. 작은 창은 27~38㎝, 중간 크기의 창은 47~64㎝, 큰 창의 경우는 86~150㎝ 정도이다. 삼지창을 사용하여 사슬을 세울 때는 종지를 엎어 놓고 그 위에 소금을 얹은 다음 소금 위로 삼지창을 세운다.

내용 삼지창은 창 끝이 세 갈래로 갈라져 있어서 생긴 이름이며 무당에 따라서는 '창검', '삼지검' 혹은 '장군칼'이라고도 부른다. 세 개의 창끝은 해 · 달 · 별 혹은 하늘 · 땅 · 인간을 상징한다.

무당이 삼지창을 소유하게 된 경로는 크게 네 가지이다. 신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경우, 신병체험 때 직접 캐오거나 내림굿 때 찾아낸 경우, 무당이 직접 의뢰해서 제작하거나 구입한 경우, 신도들이 기증한 경우이다. 과거에는 주로 대장간에 주문해서 제작하였으나 현재는 대부분 만물상에서 구입한다.

삼지창은 춤을 출 때나 '사실(사슬)'을 세울 때, 혹은 장식을 위해 사용한다. 크기는 용도에 따라 다르다. 춤을 추는 용도의 것은 중간 크기보다 약간 작으며 사실 세우는 용도의 것은 중간 크기 정도이다. 장엄용(장식용)으로 쓰는 것이 가장 크다.

작은 크기의 삼지창은 신장거리나 부군거리와 같은 굿거리에서 무당이 월도와 함께 양손에 각각 들고 춤을 추는데 사용된다. 이때 왼손에 삼지창, 오른손에 언월도를 들고 도무를 하는데 창과 검은 신의 위엄을 상징하며 신의 힘을 나타낸다. 황해도굿의 경우 사냥거리, 타살거리, 대감거리 등에서 군웅신, 대감신 등을 불러들일 때 삼지창을 들고 춤을 추어 신을 기쁘게 하거나 위엄을 나타낸다. 중간 크기의 것은 우족이나 소갈비, 돼지 등의 제물을 세우는 '사실 세우기'에 사용되는 것이다. 이때 사실 세우기는 신의 의도를 알아내기 위한 것인데 창과 검에 제물을 꽂아서 세운 사실이 넘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이는 곧 신이 의례에 만족했음을 의미한다. 사실 세우기는 군웅거리나 장군거리, 대감거리, 별상거리 등에서 행해진다. 가장 큰 크기의 것은 주로 장엄용으로 사용되는데, 크기가 큰 경우는 약 150㎝가 될 정도이다. 장엄용은 직접 무당이 들고 의례를 행하지 않고 주로 굿상 옆이나 굿청 앞에 세워 두는데, 이것은 신이 그 자리에 좌정해 있으며 또한 신성함과 신의 위엄을 드러낸다는 의미이다. 이 밖에 나쁜 귀신을 몰아내기 위해 사람의 등과 목에 대고 삼지창과 언월도(偃月刀)를 찍어대는 행위를 할 때도 삼지창이 사용된다. 또한 내림굿 과정에서 강신자



삼지창
서울시 마포구 밤섬부군당굿 당주 김춘강 무녀 | 2009.5.28 | 김태우

삼지창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길이 82.5㎝, 자루길이 59.5㎝, 지름 4.5㎝, 칼날길이 23㎝, 날폭 1.5㎝ | 1950년대



(降神者)가 삼지창과 언월도를 포개어 그 칼날을 입에 물고 영험을 보일 때 사용된다. 칼날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무당이 삼지창 위에 돈을 놓으며 빈다. 그러면 삼지창과 언월도가 입에서 떨어진다.

서울새남굿 전수자 이상순의 경우, 두 개의 삼지창을 가지고 있다. 큰 창은 총 길이 146㎝, 창날 길이(중간날 기준) 25㎝이고, 작은 창은 총 길이 63㎝, 창날 길이 17㎝이다. 경기도 수원 거북산당 당주 오수복의 경우에도 두 개의 삼지창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오수복이 직접 구입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단골이 기증한 것이다. 오수복은 한양굿을 행할 때 상산거리 · 별상거리 · 신장거리 · 대감거리에서 삼지창을 들고 춤을 춘다.

강원도 원주시 손음전의 경우, 몸체와 창 부분이 모두 알루미늄으로 된 작은 삼지창(총 길이 38㎝ · 창날 길이 13㎝)과 몸체는 나무, 창 부분은 무쇠로 된 중간 크기의 창(총 길이 47㎝ · 창날 길이 23㎝)과 가장 큰 창(총 길이 86㎝ · 창날 길이 26㎝)이 있다. 충남 당진군 맹인섭의 경우, 인천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구입한 삼지창(총 길이 65㎝ · 창날 길이 19.3㎝ · 창날 간격 7.5㎝)이 있는데 이 삼지창은 선굿을 할 때만 사용하고 충청도굿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전북 김제시 최예님의 경우, 삼지창을 '장군칼'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자신의 친오빠이며 한국전쟁 때 사망한 경찰 오라버니를 상징하는 칼이라고 한다.

참고문헌 한국무속연구(김태곤, 집문당, 1981), 한국의 굿(하효길 외, 민속원, 2002),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서울시 · 경기도 · 강원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충청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전라남도 · 전라북도 · 제주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필자 김태우(金泰佑)

삼태자풀이

정의 평양 지역에서 전승되는 무속신화로, 삼불제석신의 내력을 서사적으로 읊은 구전신화. 여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세장애기라고도 한다. 〈삼태자풀이〉는 가내의 평안, 무병장수, 자손의 번창을 기원하는 것이 목적인 '도신'에서 불린다.

내용 〈삼태자풀이〉는 서사무가이므로 내용이 길고, 이대(二代)에 걸쳐서 여러 사건이 일어난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거인적인 성격을 지닌 미륵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가운데 석가가 등장해 미륵님에게 내기를 제안한다. 둘은 석 달 열흘 동안 잠을 자면서 불동화 피우기 내기를 한다. 석가가 미륵님의 무릎에 핀 꽃을 꺾어 자신의 무릎에 꽂는다. 석가가 속임수를 써서 역천(逆天)함으로써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해진다. 미륵님은 석가의 세상이 끝난 이후에 자신이 다시 오겠다며 해, 달, 물, 불을 소매 안에 가두고 승천한다. 승천한 미륵님의 몸은 별, 하늘, 땅덩이가 된다. 석가는 세상을 배포(配布)하려고 채도사를 매질하여 해, 달, 물, 불을 다시 찾아낸다. 세상이 다시 밝아지자 석가는 깊은 산에 절을 짓고 도를 닦는다.

이때 인간 세상에는 서참봉이라는 이가 남매를 키우고 있었다. 딸인 서장애기가 열아홉살이 되자 부모와 오라비가 벼슬살이를 떠나게 된다. 부모는 서장애기에게 열두 대문을 잠그고 바깥출입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떠난다. 그러나 심심해진 서장애기가 남산 구경을 나가자 그 인물의 뛰어남이 천하에 소문이 난다. 이 소문을 들은 서인님이 중의 복장을 하고 서장애기를 찾아온다. 도술로 열두 대문을 연 서인님은 서장애기가 준 시주쌀을 일부러 밑이 터진 바랑으로 받는다. 서인님이 마당에 쏟아진 쌀을 뒷동산에서 꺾어 온 광대싸리 젓가락으로 주워 담다가 날은 저문다. 서인님은 여러 핑계를 대면서 서장애기의 방에서 묵게 되고, 서장애기는 잉태를 하는 꿈을 꾸게 된다. 서장애기의 꿈을 해몽한 서인님은 아들 삼형제를 낳을 것이라며 장삼과 박씨 세 알을 주고 떠난다.

달이 점점 차자 서장애기의 배가 불러온다. 꿈자리가 사나워 벼슬을 사직하고 돌아온 부모는 문점(問占)을 하여 딸이 아이 셋을 잉태했음을 안다. 딸을 죽이려고 부자탕을 달여서 주지만 서장애기가 서인님이 준 장삼을 입고 위기를 넘긴다. 그러자 부모는 천길굴을 파서 그 안에 서장애기를 가둔다. 서장애기가 다시 장삼을 입자 청학과 백학이 날아와 덮어 주고 먹을 것을 주는 등 도와준다. 서장애기는 굴 안에서 왼쪽 갈비뼈로 아들 삼형제를 낳아 글공부를 시킨다. 누이동생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온 오라비가 이들을 발견하고 부모와 의논해 집으로 데려간다. 세월이 흘러 소년이 된 삼형제는 글방에 갔다가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을 듣고 아버지에 대해 묻지만 서장애기는 입을 다문다. 서장애기는 삼형제가 열다섯 살이 되자 박씨 세 알을 삼형제에게 주면서 심게 한다. 삼형제는 박씨 세 알에서 뻗어 나온 덩굴을 따라 아버지를 찾으러 떠난다. 삼형제는 은하수에서 팔선녀의 빨래를 해주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옥황으로 가서 아버지를 만난다.

그러나 서인님은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임을 부정한다. 하지만 옥황상제의 중재로 표주박에 담긴 물에 네 사람의 피를 넣어 그것이 뭉치는 것으로 부자간임을 입증한다. 옥황상제는 서인님이 중의 신분으로 아들을 두는 득죄(得罪)를 하였으니 삼신제왕이 되어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 인간들을 구하라고 한다. 옥황상제는 서장애기도 불러 올려 세역세천으로 봉하고, 삼형제는 삼불제석으로 봉한다. 그리고 인간 서천국에 사는 황도사가 서인님의 본을 받아 인간구명(人間求命)을 한다. 사람들이 도신(굿)을 할 때 석가세인, 세역세천, 삼불제석이 강림해 굿을 받고 인간을 도와준다.

지역사례 〈삼태자풀이〉는 평양 지역에서 전승되는 서사무가로,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제석본풀이〉의 지역 유형이다. 〈제석본풀이〉는 생산을 주로 담당하는 신인 제석신의 유래담을 적은 서사무가이다.

가족들은 모두 일을 하러 떠나고, 혼자 집에 남아 있던 귀한 댁 따님은 시주를 청하는 중으로 인해 잉태를 한다. 가족들이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고 그녀를 죽이려 하지만 죽음을 모면하고 중을 찾아 길을 떠난다. 그리고 중은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신이 된다.

이것이 〈제석본풀이〉 유형의 공통적인 내용이다.

지역 유형으로는 평북 강계의 〈성인(聖人)노리푸념〉, 함남 함흥의 셍굿에서 불리는 〈아홉방 세주애기〉, 경기도의 〈제석본풀이〉(이칭으로 당금애기, 당금각씨, 제석), 강원도의 〈당고마기노래〉, 경상도의 〈세존굿〉, 충청도와 전라도의 〈제석굿〉, 제주도의 〈초공본풀이〉 등이 존재한다. 이것은 서사단락의 출입에 따라 함경도 · 평안도 · 강원도 · 경상도 · 경기도 양평 이북 지역이 속한 동북부권, 경기도 수원 이남 · 충청도 · 전라도가 속한 서남부권, 제주도권 등 세 가지 하위 유형으로 대분된다. 동북부 유형과 서남부권은 서두에 창세신화적 요소가 들어 있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내용상으로는 여주인공의 잉태 과정과 징치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큰 차이는 없다. 반면에 제주도권에서는 삼형제가 생산신이 아니라 무조신(巫祖神)으로 그려져 결말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의의 〈삼태자풀이〉는 제석신의 유래를 노래하는 무가인 동시에 서인님, 서장애기, 삼태자를 중심으로 사건과 갈등이 이대(二代)에 걸쳐 펼쳐지는 한 집안의 서사문학이다. 주인공들은 여러 시련을 겪으면서 신이 된다. 이는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영웅이 되는 영웅설화의 일반적인 모습과 유사하다. 〈삼태자풀이〉와 내용이 유사한 설화는 아직 채록된 것이 없다. 다만 〈삼태자풀이〉는 주인공의 일대기적 구성과 여성 주인공의 시련, 아들들이 아버지를 찾는 심부담(尋父談) 등의 모티프가 다른 설화나 소설들과 유사하다.

〈삼태자풀이〉는 또 굿의 현장에서 무당과 굿의뢰자들 및 구경꾼이 직접 호흡을 나누며 구송됨으로써 민중의 생각과 의식을 깊게 담고 있다. 자식을 키우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커다란 권력으로부터의 억압 등이 입말을 통해 생생하게 표현된다.

참고문헌 관서지방무가(장주근 · 임석재, 문화재관리국, 1966), 한국무가의 연구(서대석, 문학사상사, 1980), 한국민속대사전 2(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제석굿의 풀이와 놀이 연구(이명숙,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한국무속신화에 나타난 저승의 양상(최진봉,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필자 이명숙(李明淑)

삼토신령(三土神靈)

정의 황해도굿에서 매우 중요한 신으로, 한국 · 중국 · 인도의 세 나라를 가리켜 삼토라고 하는 영험있는 장군. 특히 작두를 탈 때 거명되며 액운과 잡신을 물리치는 신이다.

내용 황해도굿에서 삼토신령은 일명 비수거리로 불리는 작두거리에서 호국장군 · 성수장군과 함께 모시는 신으로 '엄한 혼령 삼토신령 장군'이라고 한다. 삼토신령은 장군 투구를 쓰고, 장군의대를 입고, 파랗게 날이 선 칼을 들고 흑마를 타고 있는 모습으로 무신도에 나타나 있다.

김금화는 『김금화의 무가』에서 삼토신령은 싸움터에서 조화를 잘 부려 승리를 이끄는 세 분의 신으로, 창검을 무당이 춤추듯 잘 썼기 때문에 모시는 신령이라고 한다. 또한 무당에게 영검(靈-)을 주는 신으로 모신다고 한다. 삼토신령의 성격을 작두거리의 무가를 통해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청배: 만세받이)
모시라오 모시라오 내 마누라를 뫼라오
어마군량 삼토장군 호국장군 아니시더냐
삼토장군 삼토신장님을 대접입니다.
해우년은 ○○년에 …
(덕담)
에~허나
비수창검 타고서 호국장군 성수장군 삼토장군 노시고
산천비물을 걷어준다.
본산비물을 걷어내고 먼산비물 제차내고 팔도명산 열세영산 사산비물을 막아낼 제 비수 끝으로 막아내고 창검으로 제차내고 …

이 무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삼토신령인 삼토장군은 싸움터에서 조화를 잘 부리듯이 인간의 삶에서 나쁜 것들과 싸워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신격으로 모셔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덕담의 내용에서 확인하듯이 삼토신령은 호국장군 · 성수장군과 함께 작두를 타는 영험함을 보임으로써 사산비물을 막아주고, 홍액을 젖혀서 가정이 평안하도록 도와주는 신격이다.

또한 삼토신령과 함께 후토부인(后土婦人)이 거명되는 경우가 있다. 후토부인은 삼토신령의 부인으로서 땅을 다스리는 신이며, 남녀 대우 한 쌍을 이루는 신격이다.



김금화 만수대탁굿 삼토신령
국립민속박물관 사진자료 소장

참고문헌 김금화의 무가집(김금화, 문음사, 1995), 한국 무신의 계통(김태곤, 문화인류학 3, 한국문화인류학회, 1970), 한국 무속신 고찰(양종승, 몽골학 4, 한국몽골학회, 1996).

필자 김은희(金銀姬)

삼현춤

정의 황해도굿에서 무당이 삼현장단, 곧 느린타령 또는 허튼타령 장단에 맞추어 추는 춤.

내용 황해도굿에서 무당이 추는 춤 가운데 삼현춤은

느린타령 또는 허튼타령 장단에 맞추어 추는 춤이다. 삼현춤이라는 명칭은 학술적 편의를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아닌 듯하다. 김금화의 철무리굿 초부정 · 초감흥굿에서 "여보시오 만조백관 신의 창(청)배씨들 / 감흥씨가 나왔다가 맺던 마음을 풀고 / 긴 장단으로 삼현춤에 거상이나 하고 들어(돌아)가자"고 하여 삼현춤이라는 언급이 나타난다. 이로 보아 황해도 무당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삼현춤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삼현춤은 거상춤을 구성하는 세부 춤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주로 황해도굿의 칠성 · 제석거리에서 이러한 거상춤을 춘다. 거상춤은 처음에 거상장단에 따라 추지만 의식의 진행에 따른 장단의 변화에 따라 춤의 형태 또한 변화한다. 거상장단이 점차 빨라짐에 따라 춤 형태 역시 변화하는 것이다. 그 춤의 순서는 제배춤, 벅구춤(덤쿵춤), 넘길춤, 부채춤, 장삼춤, 바라춤, 칠성검춤(칠성칼춤), 삼현춤, 막춤 등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삼현춤을 춘다. 거상춤 속의 삼현춤 역시 삼현장단(타령장단)에 맞추어 여러 짓거리를 하면서 흥겹게 춘다. 주로 맨손으로 어깨춤을 추며, 신령의 여러 가지 우스꽝스러운 흉내를 내기도 하고 상징적인 표현을 하기도 한다. 삼현춤을 출 때 장구잽이와 징잽이가 구음을 하기도 한다.

지역사례 삼현춤은 황해도굿을 전승하는 여러 무당의 굿에서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로 보아 황해도굿에서 일반적으로 추는 춤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황해도 평산소놀음굿에서는 대감거리와 신장거리, 때에 따라 칠성 · 제석거리에서 춘다. 삼현장단에 맞춰 흥겹게 춘다. 같은 팔에 같은 쪽 발을 동시에 들어올리며 추는 삼현춤은 같은 팔에 같은 쪽 발을 동시에 들어올리는 동작이 특이하다. 흥겹게 어깨춤을 추기도 하는 삼현춤에서는 대감놀이굿의 수웅거타령에서와 같이 팔과 다리의 움직임 없이 제자리에서 어깨춤만 추는 등 어깨를 우쭐대는 대목이 눈에 많이 띈다. 삼현춤은 주로 어깨춤이 많고, 춤을 추면서 신령님들의 흉내를 내기도 한다.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에서는 초부정거리나 성수거리 등에서 삼현춤을 춘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다가 맴돌고 또 반대



삼현춤
인천 화도진 공원 평산소놀음굿 정기공연 | 2009.5.17 | 김은희

로도 돈다. 맴돌 때는 발꿈치를 뒤로 내놓고 앞에서 뒤로 갈 때는 발을 양쪽으로 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황해도굿의 칠성 · 제석거리에서 거상춤을 구성하는 세부 춤으로 추기도 한다.

참고문헌 김금화 무가집(김금화, 문음사, 1995), 황해도평산소놀음굿(양종승, 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한국의 굿(하효길 외, 민속원, 2002),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하효길, 화산문화, 2002), 민속무용과 예술(양종승, 비교민속학회, 비교민속학 23, 2002).
필자 허용호(許龍鎬)

상문(喪門)

정의 죽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 상문은 죽음으로 인한 부정함을 말하거나 '상문살(喪門煞)'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그러한 죽음의 부정한 기운을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상문각시 상문도령'이라는 말에서 나타나듯 죽음의 부정이 의인화된 존재를 가리키기도 한다. 한편 상문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은 달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사람의 넋을 말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내용 상문은 죽음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정이나 나쁜 기운이다. 이 때문에 상문은 죽음의 여러 측면과 관련해 다 나타날 수 있다. 먼저 죽은 사람과 관련된 상문이 있다. "아이상문 어른상문 남상문 여상문"이 그것이다. 죽음의 시기와 관련한 상문도 있다. "해 묵은 상문 철 묵은 상문 신상문 구상



상산춤
남산한옥마을 아시아무속제 | 2004.10.9 | 김영란

문"이다. 죽음을 둘러싼 행위와 연관된 상문도 있다. "머리풀어 발상상문 은하수 대곡(大哭)상문"이 그것이다. 또한 상문이 침범하는 장소나 방식과 관련된 상문도 있다. "사랑 네귀에 범한 상문 외행랑 네 행랑에 범한 상문 지촉부의(紙燭賻儀) 왕래 상문 통부서(通訃書)에 따라온 상문 묻어 들어온 상문 따라 들어온 상문"이다.

무속의 굿에서 이렇게 다양한 상문을 쳐들어 물리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죽음으로 인해 발생한 온갖 상문을 다 물리어서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막겠다는 것이다.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인간 삶의 문제를 차단하고 해결하려는 것이 굿의 목적이라는 점에서 이는 당연하다. 또 하나의 의미는 죽음과 관련된 모든 것에서 상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만큼 죽음이 인간 삶을 위협할 수 있는, 흔히 상문 · 상문살로 표현되는 문제를 일으키는 강력한 원인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참고문헌 조선무속의 연구 상, 하(赤松智城 · 秋葉隆, 심우성 역, 동문선, 1991), 잡귀잡신연구(조흥윤, 종교신학연구 1, 서강대비교사상연구원, 1988).
필자 이용범(李龍範)

상산춤

정의 서울새남굿의 상산거리에서 추는 춤.

내용 상산춤을 추는 상산거리는 삼현도드리 마누라장단에 추기 때문에 일명 '마누라거리'라고도 부른다. 상산춤은 굿거리장단과 별상장단에도 춘다. 상산거리는 최영 장군 신령님께 재가댁의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굿거리로, 서울 지역의 모든 굿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비중이 있다. 상산춤의 무복은 남색 치마에 소매 끝이 흰 끝동을 한삼처럼 달린 남철릭을 입고, 섭수 전복에 붉은색 대띠(등쪽에 주머니가 세 개 달렸다)를 두르며 큰머리를 하고 그 위에 갓을 쓴다. 오른손에 월도, 왼손에 창검을 들고 추기 때문에 무구 명칭으로 볼 때는 월도창검춤에 해당한다.

상산춤의 순서는 먼저 갓을 쓰고 추다가 갓을 벗어 손에 들고 춤을 추면서 다시 쓴다. 소매에서 손을 빼서 손으로 춘 뒤 띠를 양손으로 받쳐 들고 부채로 띠를 받쳐서 춘다. 오른손에 부채를 펴들고 왼손에 띠를 잡고 춘다. 띠를 갈라서 양손에 잡은 후에 월도와 창검을 모아 춘다. 월도와 창검을 갈라 쥐고 춘다. 월도로 안주를 찍은 뒤 막춤을 추고 도무한 다음 공수를 내리고 회전한다.

참고문헌 서울새남굿(심우성 외, 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필자 김영란(金暎蘭)

상식상(上食床)

정의 서울굿의 상식거리에서 망자가 극락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받는 상.

내용 상식상은 망자천도굿인 새남굿이나 진오귀굿에서 차려진다. 죽은 망자를 위해 제사상 차림으로 진설하거나 생시(生時)와 똑같은 일상식 차림에 제사음식 몇 가지를 추가하기도 한다. 상식상은 미리 차려지는 것이 아니라 상식거리가 행해지는 직전이나 진행되는 동안에 차려진다. 대상 바로 앞에 주로 진설된다. 상을 따로 마련하거나 진설된 제물들을 한쪽 편으로 치우고 그 위에 차려지기도 한다. 상차림은 상 뒤편 한가운데에 신위를 세우고 그 앞에 제물을 놓는다. 이때 제사상과 동일하게 하거나 일상식 차림에 제사 음식 몇 가

지가 추가되어 차려지기도 한다. 전자는 제사를 올린다는 의미에, 후자는 한 끼 먹을 식사를 대접한다는 의미에 비중을 둔다.

제사상 차림은 신위 앞에 밥, 숭늉, 국수, 떡, 술잔이 2개씩 놓여진다. 또 회 · 나물 · 장 · 김치, 갈납 · 편육 · 수육 · 계적 · 소적 · 대적 · 누룸적, 육탕 · 계탕 · 창탕 · 소탕 · 대구탕 · 생선탕 · 홍합탕, 포 · 배 · 숙률 · 산자 · 다식 · 사과 · 홍시 · 대추 · 식혜가 차려진다. 후자의 상차림은 국수(혹은 밥), 김치국, 숭늉, 경단, 찐달걀, 연근, 단무지, 마늘쫑아찌, 오이지, 전, 문어, 북어, 꼬막, 굴젓, 밤, 대추(2002년 12월 7일 서울새남굿 전승행사에서의 상식상 조사사례)가 올려지기도 한다. 일상식 상차림에 국수, 꼬막, 밤, 대추, 북어, 문어, 경단 등과 같은 제사 음식이 추가된 형태이다. 밥이 올려지지 않는 경우는 국수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이는 망자의 사망 시기가 오래되었음을 알려 주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상식거리는 도령 다음에 진행된다. 상식은 망자가 비로소 죽은 영혼의 신분에서 조상의 반열에 오르는 것을 알리는 거리이다. 상식상은 이 거리의 성격을 알려 주는 핵심 매개물로서 기능한다. 이 거리에서 무당은 홍철릭에 허리베를 하고, 유족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는 매개자 역할을 한다. 상식상은 망자가 마지막으로 극락으로 가기 전에 받는 제사상으로서 기능한다. 유가족은 상식상에 술을 올리고 절을 하며 애도를 표한다. 제사가 끝나면 무당은 제금을 치면서 명두청배를 한다.

상식은 상례에서 망자에게 한 끼 밥을 대접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때 주요 음식인 메와 면을 놓느냐에 따라 망자의 사망 시기를 짐작하기도 한다. 국수가 놓인 경우는 망자의 사망 시기가 오래된 경우이다. 그 시기는 개인차가 있으나 대체로 사망한지 1~3년인 경우에 밥을 올리고 그 이상인 경우에 국수를 올려 진진오귀와 마른진오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와 이러한 시간적 해석에 대해서는 굿을 행하는 무당에 따라 조금 편차를 두기 때문에 정확하게 꼬집어 말하기가 어렵다. 일부 사례에서는 면과 밥이 함께 진설되기도 하며 이때 국수는 살아 있는 후손을 상징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망자는 조상거리에서 불려지지 않는다. 인간도 아니고 조상도 아닌 단지 죽은 자인 망자는 중간자적 존재이다. 망자가 조상으로 모셔지는 시기는 바로 상식부터이다. 상식상은 생자에게는 한 끼 식사를 대접한다는 의미가 강하며, 이를 흠향한 망자는 조상의 위치에 올라선다. 상식상은 조상제사상과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망자는 우리와 함께 살던 가족이 아니라 조상의 반열에 올랐음을 확인시켜 주는 대상 생자(生者)에게는 '손님'과 같은 대우를 받게 하는 매개물로 각각 작용한다. '조상'을 '손님'에 비유하는 것은 실제로 전남 씻김굿의 손님거리에서 호구마마와 함께 집안의 먼 조상들이 초대된다는 점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유교의 제사가 수동적이라면 무속의례는 능동적이다. 이는 무속의 조상관과 연관된다. 유교에서의 조상은 온전한 삶을 살고 인생의 통과의례를 무사히 거친 자들이 해당되며, 또한 이들을 위해 제사를 올려줄 봉사자가 있어야만 한다. 유교의 조상은 자비롭지만 강한 개성이나 권력이 없고 은거하는 수동적 노인의 이미지를 지닌다. 이는 종교학에서 말하는 지고신의 존재와 유사하지만 단지 수동적으로 받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

반면에 무속에서 죽은 자는 모두 조상이 될 수 있다. 불완전한 죽음을 맞이했거나 혼례를 하지 못한 영혼에게는 천도재나 영혼결혼식을 통해 온전한 존재로 바꿔 준다. 무속에서의 조상 이미지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화도 주고 복도 주는 이중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인식된다. 무속에서는 객사한 영혼이나 후손이 없이 죽은 영혼, 결혼하지 못한 영혼도 모두 천도굿을 통해 조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남굿에서 상식이 차지하는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다.

상식은 저승세계에 안정하여 유족들의 안위를 돌보고 영혼으로나마 유족과 함께 있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상을 차리고 제사를 올리는 것이다. 특히 죽어서 영혼에 불과하던 망자가 상식상을 받음으로 인해 조상의 반열에 올라가는 단계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즉 상식은 망자가 조상의 반열에 올랐음을 상징하며, 불온전한 죽음을 맞이한 영혼도 조상이 될 수 있다는 무속의 조상관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참고문헌 한국의 샤머니즘(조흥윤,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조상의례와 한국사회(김성철, 일조각, 2000), 무 · 굿과 음식 1(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무속의 물질문화 연구(최진아,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9). Janelli, Roger L and Janelli, Dawnhee Yim, Ancestor Worship and Korean Society, .
필자 최진아(崔眞娥)

새남굿

정의 전국적으로 전승되는 망자 천도굿. 서울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풍부하게 확인되고 있다. 가령 경기도 남부 산이제의 굿에서 새남굿, 경상남도 남해안 일대에 오귀새남굿, 함경도 북청 일대에 새남굿이 그 사례다. 그러나 새남굿의 확실한 전승과 굿의 온전한 면모가 남아 있는 지역은 서울 지역이다.

역사 새남굿의 역사적 근거에 대한 확실한 고증은 존재하지 않지만, 두 가지 전례로부터 새남굿의 존재를 알 수가 있다. 첫째 자료는 시조로 내용이 흥미롭다.

'청(靑)개고리 복질(腹疾)ᄒᆞ여 주근 날 밤의/ 금(金)두텁 화랑(花郞)이 즌호고 새남 갈 청(靑)뭡독 겨대ᄂᆞᆫ 장고(杖鼓) 던더러쿵 ᄒᆞᄂᆞᆫ듸 흑(黑)뭡독 전악(典樂)이 져 힐니리 ᄒᆞᆫ다/ 어듸셔 돌진 가재ᄂᆞᆫ 무고(舞鼓)를 둥둥 치ᄂᆞ니'라고 하는 시조가 새남굿의 존재를 알려주는 자료다. 이 작품은 『진본청구영언(珍本靑丘永言)』에 실려 있으므로 편찬 시기에 이미 진오기새남굿이 존재했을 개연성을 시사한다. 이 시조는 조선 후기 서울의 한 풍경을 우화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청개구리가 배탈이 나 죽자, 다른 금두껍이 화랑이가 진오기새남굿을 하러 갈 때에 청메뚜기 겨대가 장고를 치고, 흑메뚜기 전악이 피리를 불고, 가재는 북을 친다고 하는 것이 요점이다. 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동물을 화랑이와 삼현육각을 연주하는 동물무리로 빗대어 풍자하고 있다. 조선 후기 일상에서 발견되는 진오기새남굿의 사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새남굿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는 이능화의 『조선무속고(朝鮮巫俗考)』에서 찾을 수 있다. 새남굿의 어원에 대한 기록이지만 불교와 무속의 복합으로부터 이 용어가 유래되었음을 알려주는 자료다.

> "무당이 망자의 넋을 초단으로 축원을 할 때를 일러서 신길(뜻을 번역하면 신의 길이 된다) 또는 지노귀(뜻을 번역하면 귀신에게 길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불가의 재에서 인로왕보살이 있어서 왕생극락하는 세계의 길을 가리키는 것과 같다. 무당은 곧 말하기를 시왕의 길을 지시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니 진넉위이다. 무당이 망자의 넋을 이단으로 축원할 때에 새남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곧 산음의 와전된 말이다. 즉 절집의 재에서 사람이 죽어서 처음에 그 영혼이 중음신이 되어서 공계에 표탕하게 될 때에 갈 곳이 적당하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칠칠재[매일 칠일재를 배설한다]와 백일재를 하여 중음신에게 영계를 가도록 길을 찾아주는 것과 같으니 곧 왕생 선도가 이것이다. 그런 즉 무당이 절집의 재를 본받아 행하는 것이다. 진오기새남은 그 뜻이 망자의 넋을 천도하는 굿이다."
> (巫祝初壇曰 '신길(SinKil)'[譯義爲神路也] 或'지노귀(ChinNukWi)'[譯義爲指路鬼者] 卽如僧齋有引路王菩薩 指示往生極樂世界之路遥 而巫則曰 指示十王路者是也……巫祝二壇 '새님(Sai Num)'云者 卽散陰之訛轉也 卽如佛家謂人死之初 其靈魂爲中陰神飄蕩空界 莫適所之 故設七七齋[每一七日設僧齋] 及百齋 使之踈散中陰幽冥之身 卽得往生善道者是也 然則巫效僧齋而行 '진넉위새님(Chin Nuk Wi Sai Num)' 其義則爲亡靈薦度之神祀也)

이능화는 어원적으로 '지노귀'와 '새남'을 갈라서 지노귀와 새남이 곧 망자의 천도 의례며 새남굿은 명확하게 불교와 견주어 볼 수 있는 의례적인 단서라고 말했다. 또한 재를 지내어 '중음신(中陰神)'을 흩어지게 한다는 뜻에서부터 이 용어가 비롯되었다고 했다. 시조에 나타난 사실과 이능화의 말을 합쳐 보면 새남굿의 역사적 근거를 찾는 동시에 새남굿의 면모가 굿의 배설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일제시대에 채록된 무가 사설에서도 "초단에서 선행자 밧고 이단에서 진부정 밧고 삼단에서 사재삼성 바다 쇠설문 대설문 연쥬당 쌍갯새람 밧

고 은전 금전 밧고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염불하고 가는 배로성이다" 라며 새남굿의 의의를 말하는 대목이 있다. 이 부분은 사람이 죽어서 하는 의례를 일관되게 구성하여 말한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몇 단계의 의례를 갖추어서 대접받게 된다. 서울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죽음의례를 진행한다. 첫째, 사람이 죽으면 선황자, 서낭자, 현왕자로 취급하면서 의례를 거행한다. 다음으로 진부정이라고 하는 자리걷이와 같은 의례를 거행한다. 삼단에서는 진진오기굿의 절차를 받는 것으로 관념한다.

소설문은 망자와 시왕을 위한 상에 있는 문을 말한다. 대설문은 대상 밖에 연지당을 마주보고 있는 문이다. 달리 큰문이라고 한다. 연지당은 지장보살이 있는 것인데 이는 새남굿을 위주로 했던 특정 인물의 창안이라고 하지만 지장보살만 모신 것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고 연지당의 상차림이나 전통은 있었다고 한다.

은전(銀錢)과 금전(金錢)은 종이로 접어 돈을 산처럼 만들어 거는 등(燈) 모양의 장엄을 말한다. 그러나 이 말은 은전 금전과 관련이 있고 이른바 불가의 '금은괘전(金銀掛錢)'에서 비롯된 말일 가능성이 있다. 은전과 금전의 내력은 〈이운게(移運偈)〉와 〈예수천왕통의(預修天王通儀)〉라는 글에서 찾을 수 있다. 〈이운게〉에는 "은전과 금전으로 산을 조성하여 산들이 빼어남을 다투니, 명부의 시왕전에 받들어서 바치고, 안전에 늘어선 벼슬아치와 고지기를 맡은 이들을 좇아 이 경건한 정성으로 큰 인연을 수득하고자 한다(造成錢山山競秀 奉獻冥府十王前 案列從官庫司衆 受此虔誠大因緣)."라고 했으며, 〈예수천왕통의〉에서 "남염부주인이 윤회로 생을 받을 때에 명부를 맡은 이 아래 각자가 목숨과 생명을 빌리고, 생전에 미리 닦아서 본래의 창고에 돌려주어 납입하니 몸에 열여덟 가지의 횡재를 면하고 삼세의 부귀와 길상을 뜻과 같이 얻고자 한다(南閻浮提人 受生時 冥司下各借壽生錢 生前預修還納本庫 免于身 十八般橫災 得三世富貴吉祥如意也)."라고 되어 있다. 즉 수생전(壽生錢)을 갚기 위해서 은전과 금전을 산 모양으로 만들어서 등으로 장식하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따라서 쌍괘(雙掛)새남이라는 말이 변형되어서 쌍계새남이라는 말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금은전으로 산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이것으로 등을 꾸미는 것을 말한다. 이것으로 봐서 새남굿에서의 문 배설과 굿당의 장식이 오늘날의 새남굿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지역사례 **1. 서울의 새남굿** : 새남굿은 서울굿의 하나로 망자를 천도하는 굿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굿이다. 새남굿은 흔히 단독으로 쓰지 않고 진오기새남, 즌오구새남 등으로 말이 합쳐져 쓰이고 있으며 새남굿을 하는 신분적 지체나 굿의 규모에 따라서 얼새남, 원새남, 천금새남, 만근대도령, 쌍괘새남 등 다양한 명칭이 있다. '얼새남'은 온전한 새남이 아니라 얼치기 새남이라는 말이다. '원새남'은 본디의 새남을 말하는 것으로 원래의 새남굿을 의미한다. '천근새남'과 '만근대도령'은 규모를 매우 확대해서 하는 새남굿을 말하는 것이고, '쌍괘새남'은 새남굿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새남굿으로 절차와 굿의 구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굿을 말한다. 불가의 재받이 승려 참여 여부가 굿의 규모를 결정하는 구성 요인이 된다.

새남굿의 활발한 전승은 서울굿에서 확인된다. 전반적 절차가 분명하고 굿의 기능과 용도가 확실한 쪽이 바로 서울새남굿이기 때문이다. 서울새남굿의 실상은 굿거리 구성에서 확인된다. 굿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집안의 재수굿을 겸하는 '안당사경치기'로 굿의 전반부에 속한다. 안당사경치기는 전통적으로 밤에 하는 굿이므로 이를 밤굿이라고 한다. 이승에서 상산 최영 장군과 같은 높은 신에게 죽은 사실을 고하고 망자의 넋두리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승굿이라고도 한다.

다른 하나는 후반부의 망자 천도를 위한 굿이다. 망자 천도굿은 낮에 하므로 낮굿이라고 하며, 낮에 하는 굿은 저승굿이다. 밤과 다른 낮 시간에 밝은 곳으로 옮겨 가도록 하는 뜻을 지니고 있다. 망자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굿의 주체는 바리공주이다. 망자를 인도하면서 저승의 지옥에서 벗어나서 극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이 굿의 요체이다. 굿거리를 중심으로 굿의 신격, 신복, 기명, 장단과 소리 등은 다음과 같다.

새남굿-안당사경치기굿

순서	굿거리		주요 신령	신복(의대)	기명(무구)	장단 타령 소리
1	주당물림	주당물림	군웅할아버지, 주당살	홍철릭 (문에 걸어놓음)		거리장단(장구,제금), 당악(딱장구)
2	안당사경 부정	부정거리	부정신격 12거리신	계대만신의 평복	부정종이, 소지종이, 잿물, 고추물	부정청배장단 당악장단
3		가망청배(본향 가망노랫가락)	12거리신격과 이에 따른 가망	계대만신의 평복		가망청배장단- 본향노랫가락
4		진적(상산 노랫가락)	부정과 가망을 통해 자리에 앉힌 신격에게 제가집에서 인사하는 절차이다	.		잦은환입, 염불, 반염불, 삼현도드리, 굿거리, 허튼타령, 당악, 상산 노랫가락
5	불사거리	불사거리	불사 칠성 제석 정전부인 호구 대신(천궁신장은 하지않음)	다홍치마, 가사, 장삼, 고깔, 띠. 천궁호구에는 다홍치마, 당의, 면사포, 다홍치마쓰개	불사전, 부채, 방울, 오방신장기, 불사산에게 주는 대추와 밤	만수받이, 굿거리, 당악, 천왕중타령, 당악, 수비장단 불사노랫가락
6	산신도당 열두거리	도당거리	산신, 도당신, 용신, 철륭신, 호구부인, 산신신장, 산신대감	홍철릭,다홍치마, 갓	산지, 언월도와 삼지창 (도당 사실세우기에서 사용)	굿거리, 당악, 늦은타령, 당악, 수비장단(휘모리), 산신노랫가락
7	물고가망 초가망	본향바라기	제가집의 본향산신, 대감, 호구, 말명, 조상, 대신할머니	남치마, 협수, 두루마기, 노랑몽두리	본향지, 부채, 방울	굿거리, 당악
8		가망	본향에 의한 가망신	남치마, 연두색 동달이(협수), 두루마기	부채, 방울, 가망상	굿거리, 당악, 본향노랫가락, 수비장단
9	말명/대신 말명	말명/대신 말명	대신말명, 제장, 말명과 관련 있는 신격	은하몽두리, 남치마	부채, 방울	굿거리, 당악
10	초영실	초영실	새남굿의 주된 망재	망재의 옷, 남치마	부채, 방울, 영실수건	굿거리, 당악
11	조상거리	조상거리	제가집의 4대 조상	조상옷(망자의 저고리), 남치마	이승다리, 저승다리	굿거리, 당악
12	대안주	관성제군	관성제군, 와룡선생	황철릭, 남치마, 큰머리	언월도, 삼색기	반념불, 굿거리, 허튼타령, 당악
13		금성대군	금성대군, 용신부인	자철릭, 남치마	언월도, 삼색기	반념불, 굿거리, 허튼타령, 당악
14		성산거리	최영장군	남치마, 협수, 전복, 안올림벙거지, 큰머리	부채,월도,삼지창	삼현도드리, 굿거리, 별 타령, 잦은허튼타령, 당악
15		별상거리	별상, 다양하고 복합적인 신격	두루마기, 쾌자, 전복,안올림벙거지, 큰머리	부채, 삼지창	허튼타령, 취타 (사실세울때), 잦은취타
16		신장거리	오방신장	남치마, 협수(동달이), 전복, 안올림벙거지	신장기	당악, 늦은허튼타령, 신장타령, 당악
17		대감거리	전안대감, 군웅대감, 벼슬 대감, 몸주대감, 텃대감	홍철릭(군웅 및 벼슬 대감 만), 전복, 전띠, 안올림벙거지		당악, 늦은허튼타령, 대감타령, 당악
18	안당제석	제석거리	안당제석	다홍치마, 고깔, 장삼	산을 주는 기명과 대추와 밤	굿거리, 당악, 제석타령, 제석노랫가락, 수비장단(휘모리)
19	성주 창부	성주거리	성주, 군웅, 왕신	홍철릭, 남치마, 갓	부채, 성주소지채	휘모리, 굿거리, 당악, 굿거리당악, 성주노랫가락
20		창부거리	창부	진분홍색동소매동달이	부채	만수받이, 굿거리, 당악, 창부타령
21	계면	계면거리	계면각시	은하몽두리	방울, 모관의 떡	계면노랫가락, 떡타령
22	안당사경 뒷전	뒷전	텃대감, 지신, 맹인, 서낭, 영산, 상문, 수비	한복	부채	만수받이, 굿거리, 허튼타령, 당악, 휘모리, 수비장단

주당물림은 집안에 있는 주당살을 물리는 것이다. 보통 홍천익을 처마 밑에 걸어놓고 주당살을 물리는 장단을 연주하면서 굿을 시작하게 된다. 홍천익은 흔히 군웅할아버지를 상징한다고 관념한다. 홍천익을 걸어서 신격 상징으로 이를 두고 장구와 제금만을 가지고 굿거리와 당악 장단을 연주한다. 주당은 열흘을 기준으로 집안 곳곳과 구석을 돌아다닌다고 관념한다. 초하루는 우물에, 이틀은 문에, 사흘에는 행랑에, 나흘에는 칙간에, 닷새에는 마굿간에, 엿새에는 마당에, 이레에는 마루에, 여드레에는 방에, 아흐레에는 굴뚝에, 마지막 날인 열흘에는 아무 데도 있지 않는 것으로 관념한다. 갑자기 굿을 하게 되면 이 주당이 사람의 몸속에 파고든다고 생각하므로 이를 물리치는 일을 하는 것이 주당물림이다. 홍천익은 군웅할아버지의 상징체로 주당을 물리는 활을 쏘는 존재로 인지한다. 주당물림을 하는 것이 굿의 서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집안의 굿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굿이든 이 주당물림이 긴요한 구실을 하게 된다.

부정청배는 새남굿에서 안당사경부정 또는 새남부정이라고 이른다. 앉은굿으로 하는 서두에 해당한다. 만신이 앉은청배의 형태로 부정청배, 가망청배 그리고 본향가망노랫가락, 진적, 상산노랫가락 등을 연주하는 것이 기본적인 형태이다. 부정청배와 가망청배는 각기 기능이 다르지만 동일한 장단으로 부정을 물리고 가망을 청배하는 절차를 거친다. 부정청배는 부정장단에 맞춰 굿에 따라든 부정을 물리는데, 물리쳐야 할 부정의 종류를 장차 진행될 거리별로 나열하고 굿을 하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원만하게 굿이 마무리되기를 희망하는 바람을 담는 것이 기본적이다. 부정청배장단에 부정의 의례적인 말을 모두 열거하고, 다음으로 부정잿물과 부정맑은 물, 그리고 소지 종이를 태워서 부정청배를 마무리한다.

가망청배는 이제 신이 강림할 자리가 맑게 되었으므로 신을 본격적으로 청하여 응감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신의 응감을 중심으로 하는 가망청배는 부정청배와 전혀 다른 특징을 지닌 앉은굿이다. 부정과 가망을 서로 대립시켜 부정과 청정에 입각한 신의 응감과 초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부정한 것도 이름을 말하고 물리친다면, 신의 응감 역시 이름을 말하고 청해 들인다고 할 수가 있다.

다음으로 안당사경치기가 행해진다. 여기서 긴요한 절차는 재가집에서 술잔에 술을 붓고 전물이 차려져 있는 굿당에 절을 하는 것이다. 진적을 할 때 잔을 올리고 절을 하면서 본격적인 신의 응감과 함께 다음의 절차를 해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다. 잔을 올리는 과정에서 진적을 드린다고 말한다. 진적은 진작(進爵)이라고 하는 말이 와전되면서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진적을 드리는 동안에 장단을 연주하게 되는데 이 장단의 경우에 매우 전통이 있는 곡을 사용한다. 자진한입-염불-반염불-허튼타령-당악 등이다. 그러나 굿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 보통 반염불-허튼타령-당악 등을 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진적은 재가집과 신의 상견례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가 있다.

본향노랫가락과 상산노랫가락 등은 새남굿뿐 아니라 서울 지역의 내림굿, 진적굿, 진오기굿 등 다른 굿에서도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한다. 본향가망이라고 하는 으뜸 조상신과 상산이라고 하는 무속의 으뜸 신을 청하는 노랫가락을 앉아서 올리면서 굿의 결정된 면모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새남굿에서 불사거리를 놀게 되는 것은 탈상이 끝난 과정에서 가능하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탈상은 흔히 100일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쳤다면 불사거리를 놀 수 있다. 불사거리는 흔히 '안당을 거들어 논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타나듯이 천궁불사맞이와 같은 장엄하고 규모 있는 굿으로 하지 않는다. 천궁신장이나 천궁대감은 놀지 않고 제석과 호구정도까지만 노는 것이 예사이다. 탈상의 의미도 현재는 변화하고 있으므로 보통 변화된 관념으로 49재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이 기준에 따라 탈상을 말한다면 이 기간 내에 하는 새남굿이라고 하여도 진진오기굿의 굿법에 근거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그러므로 불사거리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다.

대신에 불사거리를 하지 않고 바로 물고가망이라고 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물고가망의 핵심적인 면모는 물고 받아온 물고지를 가망지로 접어서 이를 사용하고, 홍천익을 입고, 큰머리를 얹고서 물고가망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대체로 이 과정에서 청배하고 주워섬기는 말이 "사위삼당가망, 궁미제당가망, 물고가망, 사경가망, 새남가망" 이라고 한다. 물고가망의 중요한 절차는 물고를 받기 위해서 본향의대를 속에 입고 본향가망, 말명, 대신말명 등을 차례대로 논 다음에 상산물고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상산, 별상, 사슬세우기를 한 다음에 상산노랫가락을 하고 신장에서 청계를 벗기는 과정이 이어진다. 상산물고찌개, 별상찌개, 안당사경찌개, 사경찌개 등을 벗고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물고가망이라고 할 수 있다. 물고가망과 상산물고를 교묘하게 결합하는 굿법이다.

초영실을 바로 하는데, 초영실은 망자의 넋두리를 듣는 과정이다. 무당집안과 예사집안에서 하는 대감과 조상에는 차이가 있다. 무당 집안에서는 초영실을 하고, 대감과 조상을 하지만, 예사집안에서는 조상을 먼저 하고 대감을 나중에 한다. 이 둘의 진행 순서 차이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서울굿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현상이다.

진진오기굿법에 의하면 산바라기라고 하는 산신도당거리 역시 연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묵은진오기굿의 경우에는 산바라기를 거리별로 자세하게 한다. 산바라기 거리에 관련된 신은 삶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죽은 이의 넋을 달래는 굿인 안당사경치기를 할 때에는 자세하게 거론하지 않는다. 산바라기는 삶의 고양과 관련되므로 재수굿에서는 중요하지만 여기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안당제석거리, 성주거리, 창부거리 등은 진진오기굿의 절차에 따르면 여기에서는 행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묵은진오기굿법에 의하면 이 굿은 행해진다. 안당제석신, 성주신, 그리고 창부신 역시 굿법으로 본다면 재수굿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신격이기 때문이다. 지역적인 차이에 따라 특정한 지역의 새남굿에서 창부신격과 같은 것은 놀리기도 한다. 서울의 동쪽 지역에서는 창부거리를 행한다.

안당사경뒷전은 안당에서 하는 사경의 뒷전을 이른다. 가진뒷전처럼 여러 굿놀이를 행하지 않고 간단하게 뒷전을 하는 것으로 굿거리를 마치게 된다.

묵은진오기굿의 굿법으로 새남굿을 하게 되면, 진진오기굿의 굿법에 의한 불사거리, 산바라기, 성주거리, 창부거리 등을 하면서 비교적 재수굿에 가깝게 연행하는 것이 있다. 탈상 여부가 중요한 전거가 되므로 이 굿을 하는데 있어서도 진오기굿의 일반적인 속성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상순 만신이 하남시 천신당에서 새남굿의 말미 드리는 장면
경기도 하남시 천신당 | 2008.1.10 | 김헌선



이성재 박수가 하남시 천신당에서 넋노랫가락 청하는 장면
경기도 하남시 천신당 | 2008.1.10 | 김헌선

새남굿-진진오기굿

순서	굿거리		주요 신령	신복(의대)	기명(무구)	장단 타령 소리
1	진오기부정	진오기부정	새남의 전체 신령	평복		분정청배
2		시왕가망청배	새남굿의 신령과 시왕조상	평복		가망청배, 굿거리, 타령, 가망노랫가락
3-1	중디박산	중디밧산	시왕, 중디, 말명 등	평복		부정청배, 가래조 안장단과 밖장단, 중디밧산, 노랫가락
3-2	재부치기	재부치기	시왕, 지장보살, 인로왕보살	.재받이 승려의 복색	요잡바라	중디박산, 화청, 염불, 반념불, 굿거리, 허튼타령 등
4	뜬대왕 사재삼성	사재삼성	시왕, 중디, 말명, 사자 (밧문사재와 안문 사재) 삼성	사재삼성섭수, 두루마기, 큰머리, 남치마, 허릿베, 중딧베, 머리띠,	잔꽃, 빈잔, 인정, 방울, 건대구, 허릿베, 밧문	만수받이, 굿거리, 당악, 시왕노랫가락, 중디노랫가락, 굿거리, 노랫가락, 만수받이, 당악, 타령, 수비
5	말미	말미	바리공주, 십대왕	다홍치마, 남치마, 무지개치마, 당의, 몽두리, 큰머리	방울, 장구, 대신칼	독송(장구)
6	밖도령돌기	밖도령	바리공주, 지장보살, 문사재	무지개치마, 남치마, 다홍치마, 당의, 대띠, 홍띠, 은하몽두리, 큰머리(용잠, 댕기, 가르마, 족두리)	부채, 방울, 신칼, 제금	굿거리, 별곡타령, 풍류타령, 길군악, 길타령, 잦은굿거리
7	문들음	문들음	바리공주, 문사재	다홍치마, 당의, 몽두리, 큰머리	대설문, 한삼, 신칼, 제금	취타, 잦은굿거리, 당악
8	연지당영실	연지당영실	바리공주, 지장보살	다홍치마, 당의, 몽두리, 큰머리	부채, 방울	굿거리, 당악
9	안도령돌기	안도령	바리공주	다홍치마, 당의, 몽두리, 큰머리	소설문, 신칼, 대설문	굿거리, 별곡타령, 길군악, 길타령, 잦은굿거리
10	돗삼	돗삼	바리공주, 망자	다홍치마, 당의, 몽두리, 큰머리	돗자리, 망자의 옷, 청포와 홍포(대설문밖에서 한다.)	굿거리, 별곡타령, 길군악, 길타령, 잦은굿거리
11		맞조아	바리공주	다홍치마, 당의, 몽두리, 큰머리	대설문, 한삼, 신칼, 제금	맞조와 노랫가락
12	상식 명두청배	상식	조상제사	다홍치마, 당의, 은하몽두리	상식상,바라	잦은환입, 염불, 삼현도드리, 굿거리, 늦은허튼타령, 잦은허튼타령
13	뒤영실	뒷영실	망자	조상옷	넋전(머리에 아미핀)	늦은허튼타령, 잦은굿거리, 잦은허튼타령, 영실타령, 잦은허튼타령
14	베가르기	베째		홍철릭, 허릿베, 큰머리	신칼	잦은허튼타령 (맞조아하지 않음)
15	다리섬김 시왕공수		망자, 시왕	홍철릭	부채와 방울	만수받이, 당악
16	새남기명섬김	섬김	바리공주	대설문, 한삼, 신칼, 제금		문섬김, 인정섬김, 칼섬김, 전선김, 다리섬김, 말명섬김, 만수받이
17	시왕군웅	시왕군웅	저승문의 수호신으로 바리공주 남편이다	홍철릭, 갓	부채, 건대구	만수받이, 굿거리, 당악, 시왕노랫가락
18	뒷전	뒷전	텃대감, 지신, 맹인, 서낭, 영산, 상문, 수비	평복	굿에 사용된 기명	장구

새남굿은 진오기부정을 치는 것으로부터 굿을 시작한다. 낮굿의 본격적인 서두가 진오기굿의 부정이다. 밤굿인 안당사경치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낮굿의 진오기굿이 핵심적인 절차가 된다. 진오기굿은 새남굿의 정교한 발달과 정치한 굿의 체계를 감지할 수 있는 중요한 굿거리로 짜여 있으므로 저승굿의 실상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준거가 된다.

앉은굿으로 시작해서 선굿으로 마치는 것이 진오기굿의 요체다. 앉은굿과 선굿은 명확하게 유기적 흐름 속에 있으며 앉은굿, 재부치기, 뜬대왕과 사재삼성, 말미와 도령, 상식과 뒷영실 등 네 부분으로 되어 있다. 앉은굿은 앉은 부정을 치는데 안당사경치기의 새남부정과 대조되는 전혀 다른 굿의 부정을 치게 된다. 아울러서 '아린영산 놀아나오' 등으로 요약되는 진오기영산굿을 마치고 진적을 드린 다음에 이어서 시왕가망청배를 중심으로 한다. 시왕, 말명 등의 여러 신격을 앉은청배로 응감하게 한다.

서울새남굿의 앉은굿 가운데 비교적 전통 있는 소리로 '중디박산'이라는 굿거리가 연행된다. 이 굿거리는 새남굿의 전통 속에서만 전개되는 독자적인 굿소리다. 이 소리는 느릿골정박수로-콩나물박수 최명남-이상순 등으로 구비전승되어 이어지는 전통 있는 소리로 앉은청배의 특별한 굿거리다. 중디박산은 흔히 세 가지 소리가 쓰이게 된다. 부정청배장단과 같은 청배장단으로 하는 '말명간주는 서낭간주'로 시작되는 청배 대목, '우수수 박수수'로 시작되는 중디박산장단으로 연주되는 중디 청배, '서낭당 뻐꾸기 새야'로 시작되는 노랫가락으로 말을 부쳐서 하는 중디노랫가락 등의 삼단구조로 되어 있다. 광복 이전에는 중디박산을 했는데, 광복 이후에는 여기에 재를 부치는 것을 하면서 중디박산과 재부침은 대조적인 현상을 이룩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부치는 것은 일종의 범패와 화청을 치는 것을 모두 이르는 것으로 재받이 승려와 새남굿의 만신이 공동으로 만든 합작품이 곧 대조적인 굿거리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선굿으로 된 굿거리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뜬대왕과 사재삼성이다. 이 굿거리는 단계적으로 구분되는 저승신을 청해서 노는 굿거리이다. 시왕, 중디, 말명, 사재, 삼성 등이 그 신격이다. 이 신들은 저승의 신격 위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존재들이고, 이들이 앉은청배에서 청해진 바 있지만 개별적인 굿거리에서 초청되고 놀아진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이 가운데 '중디'는 신격의 성격이 불분명한 신격이다. 위계상 중디는 시왕과 말명 사이에 있으므로 높낮이가 가늠된다.

한편 뜬대왕과 사재삼성 굿거리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인간의 죽음과 관련되는 신격은 사재와 삼성, 그 가운데서도 사재이다. 사재가 등장하면서 인간의 죽음에 대한 실상을 다시 체험하고 상주와 사재 간에 재미있는 재담이 이어지고 한바탕 소란이 일어난다. 인간의 죽음을 객관화하고 이를 다시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다. 성찰은 죽음에 대한 엄숙한 사실과 함께 산 사람들의 한바탕 잔치가 재현된다. 사재는 단순한 저승차사라기보다 오히려 흥미로운 익살꾼으로 변화되었다.

말미가 이어진다. 말미는 바리공주의 복색을 한 만신이 바리공주의 본풀이를 길게 풀어간다. 말미는 말미상을 두고 망자의 옷을 청포와 홍포로 덮은 돗쌈 위에 넋전을 놓고 그 앞에서 장구를 세워놓고 방망이를 두드리며 본풀이를 부르는 것이다. 만신이 앉아서 바리공주를 본풀이로 청배하는 것이 말미의 요점이다. 신을 청배하는 과정에서 신의 내력을 길게 부르는 것은 서울굿의 전통 속에 확실히 살아 있다. 그리고 그것이 유일하게 바리공주의 본풀이라는 점은 서울굿에서 전통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동시에 말미의 특징이 한국굿의 보편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말미는 앉은청배로 바리공주를 청하고 이 전통 속에서 선굿을 대비하는 특징이 있다.

저승의 신과 바리공주가 서로 대조적인 면모를 지니면서 서로 다른 굿거리로 분할되어 있는 것은 인상적인 현상이다. 저승의 신격과 바리공주의 신격이 상관성을 지니고 있지만 서로 대립하는 위치에 있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저승의 신은 우리 고유의 신격은 아니고, 바리공주는 우리의 고유한 신격일 가능성이 있다. 굿거리에서 죽음에 매이게 하는 신의 위계와 이에서 벗어나는 바리공주의 신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바리공주는 죽음을 부정하고 망자를 죽음의 지옥에서 벗어나 극락

으로 천도하는 신으로 관념된다. 도령돌기에서 이것이 증명된다. 새남굿에서는 도령돌기가 복잡하게 나누어지고 밖도령돌기-문들음-안도령돌기-돗쌈-상식-뒷영실-베째(베가르기) 등일련의 순서로 굿거리를 행하게 된다.

밖도령돌기는 연지당에서 출발한 바리공주가 대상을 뒤로 하여 돌아서 가시문 또는 대설문에서 도령돌기를 하는 대목을 말한다. 도령돌기는 흔히 나비도령-손도령-부채도령-칼도령을 차례대로 도는 것을 말한다. 굿거리장단-허튼타령장단-당악장단 등이 차례로 연주되면, 이 장단에 입각해서 춤을 추고 네 방향으로 돌게 된다. 망자의 넋을 달래면서 망자의 넋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굿거리다. 문들음은 가시문인 대설문을 통과해서 연지당으로 가는 장면을 연출하는 굿거리다. 문들음에서는 문들음영실을 한 차례 구슬피 하면서 인간의 삶이 지니는 허망함을 달래며 새로운 존재로 전환하는 면모를 보여준다. 문안으로 들어서는 어려움을 사재와 재담을 나누면서 눈물과 웃음으로 한껏 고조시키게 된다. 연지당은 지장보살이 있는 곳이다. 연지당은 생과가 장식되고 연꽃이 아로새겨져 있는 곳임을 알 수가 있다. 이곳에서 망자는 진정하게 좋은 곳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받게 되므로 이를 알리기 위해 한 차례 고맙다는 내용의 연지당 영실을 길게 하는 것이 예사다. 대상을 싸고돌면서 다시 안도령을 돌게 되는데, 안도령을 도는 과정은 밖도령의 과정과 동일하다. 다만 안도령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은 망자를 중요한 존재로 전환하는 장치이므로 이 과정에서 필요한 부가적인 거리가 중요한 구실을 하게 된다. 돗쌈이 이에 해당된다. 돗쌈에서는 망자를 온전하게 꺼내어 극락으로 가게 되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다. 돗쌈 뒤에 하는 것이 새로운 존재의 전환을 분명히 하는 맞조와이다. 생과 또는 유과를 들고 사재와 바리공주가 망자가 새로운 인격적 존재로 전환한 사실을 한 차례 말하게 된다. 맞조와노랫가락을 하면서 대설문에서 망자가 변화하고 저승의 존재로 인지되는 과정을 연출하게 된다. 맞조와 뒤에는 상식과 명두청배를 한다. 상식은 망자에서 조상으로 전환하는 인격적 전환을 말하는 것이고, 명두청배는 망자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것을 축원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상식과 명두청배는 망자가 새로운 존재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뒷영실은 마지막으로 상주와 복쟁이와 관련된 영실을 하고서 이승과 저승의 경계인 다리를 갈라 망자와 그의 가족이 별도의 존재가 되는 분리과정이다. 세 가지 다리를 가르게 되는데, 새남다리, 이승다리, 저승다리 등을 갈라 망자와의 경계를 분명히 한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면에 머물던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부각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다리를 섬기거나 바리공주의 몸에 장식되었던 모든 것을 섬기는 갖가지 바리공주의 위대함을 말하는 대목이 부각된다.

시왕군웅과 뒷전은 굿거리를 마치는 의례적 절차이다. 시왕군웅은 바리공주의 남편인 무장승의 존재가 시왕군웅으로 된 것을 말한다. 시왕군웅채를 받아먹기 위해서 이 굿거리를 하는 것으로 인지한다. 진오기뒷전은 안당사경치기의 뒷전과 대응하면서 굿을 마치는 구실을 하게 된다.

새남굿의 구조적 가치와 의의를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는 서울새남굿이다. 다른 지역에도 새남굿을 표방하고 있는 사례가 더러 있지만 굿의 구성과 가치를 완전하게 지니고 있는 사례는 흔치 않다. 굿의 가치와 의의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으로 규명하여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새남굿은 망자의 영혼을 위무하기 위한 망자굿 또는 사령굿이다. 인간의 죽음 속에서 생성된 죽음문화의 구체적인 표현형태가 무속 의례로 구현되었으며 그 절차에 따라서 새남굿이 자연스럽게 파생된 결과물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삶을 고양하고 축복을 하는 재수굿과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 것이다.

둘째, 새남굿은 망자굿의 일반적인 원칙에 근거하는 굿이지만 구조적으로 안굿과 밖굿의 이원적 구성에 따라 이룩되는 굿이다. 안굿은 이승에서 망자의 위치를 가늠하는 굿으로 크게 신과 인간, 망자와 가족 등의 관계를 설정하는 굿이다. 즉 존재의 소멸을 강조하는 굿이고 특히 밤에 진행되므로 밤굿이며 집안의 안당을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안굿이라고 한다. 밖굿은 저승에서 망자가 겪게 되는 여러 전환 과정을 근거로 하는 굿으로 저승의 신과 인간의 인격적 전환을 목표로 하는 굿이다. 존재의 전환을 중심으로 하는 굿이며 이 굿은 낮에 진행되므로 낮굿이고 집안의 마당에서 진행되므로 밖굿이라 할 수 있다. 안굿과 밖굿이 구조적으로 결합하면서 진행되는 특징을 지닌 굿이다.

셋째, 새남굿은 서울 지역의 진진오기굿과 묵은진오기굿에서 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특징이 있다. 새남굿이 규모가 큰 굿이라고 하더라도 굿 일반의 속성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망자가 죽은 뒤 탈상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새남굿은 가능하지만 망자 천도굿의 일반적 기준에 어긋나는 다른 특별한 굿을 하지 않는다. 새남굿은 진진오기굿과 묵은진오기굿의 일반적 거리 구성을 벗어나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서 구성된다.

2. 함경도의 새남굿 : 함경도의 새남굿은 망자의 극락천도를 위한 사령굿이다. 이 굿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굿당 장식에 쓰이는 종이꽃, 꽃틀, 장벗대 등이 대표적인 준비물이 된다. 종이꽃을 만들어서 제당에 걸기 위해 한 달 전부터 준비하기도 한다. 제당은 집의 안방이거나 마당에 가건물을 세워서 굿청을 세우기도 한다. 이 굿청에 오색을 한지에 물들여서 장식한다. 꽃틀은 마당 가운데에 세운다. 굿하는 집 처마 밑에 3m 정도의 소나무 두 개를 지붕에 걸쳐 세우고 그 중간에 소나무 4m 정도의 가로대를 연결하고 새끼를 감는다. 수직으로 세운 대에는 오색 한지로 감아 장식하고 새끼에 볏짚을 감은 가로대에는 오색 종이꽃 500여 개 정도를 꽂는다. 볏짚에 꽂는 종이꽃은 직경 15㎝의 싸리나무에 오색 꽃을 꽂는다. 오색의 꽃을 묶어서 꽂기 때문에 화려하기 이를 데 없다.

대문 밖에는 장벗대를 세운다. 장벗대는 3m 이상의 큰 소나무로 잔가지를 모두 치고 맨 위에 소나무 가지만 남긴 후 대에는 오색 한지로 감는다. 장벗대의 중간에 짚을 묶어서 싸릿대로 만든 종이꽃을 꽂고 장식하고 장벗대에는 오색으로 한지를 물들여서 '登極樂世界(등극락세계)'라고 하는 글자를 쓴다. 장벗대를 통해서 새남굿을 받는 망자의 영혼이 극락으로 간다고 믿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장식물 가운데 하나이다. 장벗대는 달리 '장북대' 또는 '장봉나무'라고 일컫기도 한다. 장벗대와 꽃틀을 줄로 연결하고 50㎝ 간격으로 불서를 써서 매다는데 그 크기는 넓이 6㎝, 길이 25㎝ 정도다.

대문 밖에도 원두막처럼 생긴 가건물을 세운다. 이를 '덕대'라고 한다. 덕대에 들기름으로 등잔불을 켜놓고 덕대의 2층 입구의 직사각형 나무틀에도 종이꽃을 장식한다. 이 덕대를 세우는 이유는 가난한 마을 사람은 새남굿을 할 만한 장소를 가지지 못했으므로 그들의 조상과 무속신에게 새남굿을 대신하도록 세운 것이다. 즉 새남굿의 덕대가 마을 공동의 임시 굿청 노릇을 하는 것이다. 이 곳에 쌀, 꽃, 신주 등이 세워진다. 곧 남의 새남굿에 얹혀서 덕대 위에 조상 신위를 모시고 극락천도를 비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그들의 말로 '곁대 들어온다'고 표현한다. 새남굿이 단순하게 하나의 영혼만을 천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인물을 천도하는 것임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대목이다.

함경도에서 행하는 새남굿의 구체적인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부정풀이 (2)토세굿 (3)성주굿 (4)문열이천수 (5)청배굿 (6)앉인굿 (7)타성풀이 (8)왕당천수 (9)신선굿 (10)대감굿 (11)화청 (12)동갑접기 (13)도랑축원 (14)짐가재굿 (15)오기풀이 (16)산천굿 (17)문굿 (18)돈전풀이 (19)상시관놀이 (20)동이부침 (21)천디굿 (22)하직천수

(1) 부정풀이는 다른 지역의 굿에서 보이는 부정굿과 성격이 상통하는 제차다. 주무가 굿상 앞에 앉아서 장구를 치며 부정풀이를 부른다. 조무는 주무 곁에 앉아 징과 제금을 함께 연주한다. 부정신은 굿판을 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징치되어야 할 대상이다. 부정신을 물리치는 방법은 말로 물리치고, 불로 물리치고, 물로 물리쳐서 정화한다.
(2) 토세굿은 집터를 수호하는 터주신을 위하는 제차다. 함경도에서는 터주 또는 토주의 신을 '토세'라고 일컫는다. 주무는 뒤뜰에 간단히 제상을 차리고 토세굿무가를 부른다. 그렇게 해서 터주신에게 굿하는 사연을 고하고 굿의 덕을 얻을 수 있도록 기원한다. 토세굿이 끝나면 제수를 모두 거

두어서 마당 한 구석이나 대문 밖에 버린다.
(3) 성주굿은 집안을 수호하는 신인 성주신을 위하는 제차다. 주무가 성주상 앞에 앉아 장구를 치면서 무가를 부른다. 조무는 다른 굿거리처럼 징과 제금을 치며 반주를 한다. 성주굿은 집안의 수호신에게 굿하는 사연을 고하고 굿덕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고한다. 성주굿은 본격적인 굿에 앞서 집안의 신에게 고하는 제차 가운데 하나다. 새남굿의 신들은 이승에 있는 신이라기보다 저승이나 그늘에 있는 신이므로 일단 본격적인 굿에 앞서서 이승에 있는 집안신들에게 굿사정을 고하는 것이다.
(4) 문열이천수는 새남굿의 서두에 해당하는 제차이다. 불경 가운데 천수경을 외우면서 망자의 사망 과정을 서술한다. 망자가 사망했으므로 그 망자의 혼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명부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원한다. 이 과정에서 48대원을 염송한다. 문열이천수는 불교의 영향이 강력하게 느껴지는 굿거리이다.
(5) 청배굿은 본격적인 새남굿을 위해 새남굿에 소용되는 신격을 청해 들이는 제차다. 신은 거듭 청해 들여도 좋은 것이므로 청배굿을 통해서도 신을 초치한다.
(6) 앉인굿은 무당이 지성으로 신을 위한다는 뜻에서 하는 제차다. 이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뜻의 지성이와 감천이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7) 〈타성풀이〉는 망자가 아무런 고통없이 명부에 갈 수 있도록 기원하는 제차다. 망자는 사자에 의해 저승으로 끌려가는 동안 온갖 고초를 겪는다. 그 과정에서 먼저 저승에 간 온갖 성씨의 타성받이들이 나타나 망자를 위로하고 도와주는 제차다. 그래서 제차의 이름을 타성풀이라고 한다. 함경도에서만 보이는 독자적인 무속제의다.
(8) 왕당천수는 천수경을 치면서 여러 신들이 좌정하기를 기원한다. '천수를 친다'고 하는 것은 '화청친다'는 명명 방식과 동일하다.
(9) 신선굿은 여러 신격을 초청하여 대접하면서 망자의 명복과 유가족들의 길복을 기원하는 굿이다. 여러 신격은 나선구성인, 지맹구성인, 각 방위의 신인 지정, 각종 조왕, 오방신장, 각종 간주, 동서남북 사방의 용왕 따위를 초치해서 망자의 안녕을 기원한다.
(10) 대감굿은 여러 가지 대감의 종류를 위하는 제차다. 지성대감, 신장대감, 산령대감, 호기대감, 조상대감, 삼재대감, 호기별상대감, 재수대감, 전장대감 등 갖가지 대감을 청해 위한다. 이 가운데 특히 짐달언 장수의 신화는 아기장수전설과 상당히 유사하다.
(11) 화청은 주무가 흰 장삼에 흰 고깔을 쓰고 목에 염주를 걸고 제금을 치며 무가를 부르면서 굿판을 도는 제차다. 조무와 망자의 유족이 그 뒤를 따르면서 망자의 명복을 빈다. 화청은 불교에서 유래된 제차다.
(12) 동갑접기는 망자가 저승을 가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동갑의 영혼들이 나타나서 망자를 도와주게 되므로 그 영혼을 위해 향응하는 제차다.
(13) 도랑축원은 새남굿에서 가장 핵심적인 제차다. 도랑은 살아생전에 온갖 고초를 겪은 망자의 혼령을 위무하면서 망자가 극락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길 기원하는 의미를 지닌다. 망자들이 지극한 정성으로 새로운 세계에 나아갈 수 있음을 〈도랑선비 청정각씨〉라는 무속신화를 통해서 보여준다. 〈도랑선비 청정각씨〉는 새남굿에서 아주 긴요한 무가이며 청중들 역시 이 무가의 흥미로운 내용을 깊이 공감하여 무척 중요한 제차가 되었다.
(14) 짐가재굿은 살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제차다. 여기에서 불리는 무가는 저승의 사령이 염라대왕을 이승에까지 소환하는 위력이 있고, 모든 사악한 것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을 정도이다. 망자와 그 유족에게 사악한 기운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뜻에서 위하는 제차다.
(15) 오기풀이는 함경도 지역의 〈바리공주〉가 무속신화로 불리는 제차다. 다른 지역의 〈바리공주〉와 대동소이하다. 여기에 함경도 특유의 변형이 첨가되어 있다. 망자의 넋을 영원히 쉴 수 있는 안식처로 인도하는 신이 곧 바리데기이다. 망자가 바리데기의 안내로 이승과 저승의 탈을 벗도록 하기 위한 굿거리다.
(16) 산천굿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명산대천에 기도하여 망자의 사후 안주와 유족의 복락을 기원하는 제차다. 이 굿거리에서는 붉은선비와 영산각시에 관한 설화가 신화로 구송된다. 이 굿거리에서 밥상 여덟 개에 베, 망인의 옷 등을 올려놓고, 무당은 검은 무복을 입고 망인의 갓을 쓰고, 장구를 치며 계림 팔도 명산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영혼이 극락에 가더라도 뼈는 명산 중의 명산에 묻히도록 기원하기 위한 것이고 여덟 개의 밥상은 팔도 명산에 바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17) 문굿은 망자가 저승에 평안히 갈 수 있도록 저승길을 닦는 굿거리다. 이 과정에서 〈양산백축양대〉 설화가 구송된다. 밥상 세 개를 쌓아 올리고 그 위에 놋그릇을 놓은 다음, 물을 담은 놋그릇 속에 돈을 넣고 문 두 개를 만든다. 이것은 극락으로 가는 열두 문을 상징한다. 망자가 그곳을 무사히 빠져나가라는 의미가 있다.
(18) 돈전풀이에서는 망자가 저승으로 끌려가는 도중에 사자에게 고초를 당하고 험난한 과정을 겪을 때마다 인정을 써서 난관을 넘기는 의미를 지닌 제차다. 이 과정에서 돈전의 신에 관한 내력이 구송된다.
(19) 상시관놀이는 주무가 무가는 부르지 않고 고깔과 장삼만 착용하고 춤을 추는 굿거리다. 북청군의 현지 보고에 따르면 무당이 상을 입에 물고 돌았다고 되어 있다.
(21) 천디굿은 흰 천을 길게 펴서 두 사람이 양끝을 잡고 무당이 하얀 천 위에 망자의 유품인 옷과 소지품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망령이 저승에 평안히 갈 수 있도록 기원하는 제차다. 가족들은 이 과정에서 많은 인정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함경도 북청의 현지 보고에 따르면 굿하는 집에서 망령을 위한 '길막이'를 준비하는데 그 구실은 맏며느리가 했다. 맏며느리는 '금다리'와 '맏다리'를 준비한다. 그 준비 과정이 정성스러운 것이 입에 쌀을 물고 하루에 하나씩 짠다. '금다리'는 삼베에 귀밀짚이나 보리짚을 넣고 짠 것이고, '맏다리'는 그냥 삼베이다. 이 금다리와 맏다리를 조상 신주 앞에 두었다가 '호세미'가 이것을 가른다. 그러므로 앞의 사례는 변형된 듯하고, 뒤의 북청 사례가 본디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 굿이 끝나면 새남굿의 대미가 끝나는 것이므로 호세미가 꽃틀을 치우게 된다. 꽃틀을 치울 때에 장벗대와 덕대도 함께 치우는데 꽃들을 청중들이 가져가면 영험하다고 믿어 가져가며 특히 장벗대 위의 처음 만든 꽃은 아기 못 낳는 여성에게 효험이 있다고 믿어져 여성들이 거듭 이것을 가지려고 했다.
(22) 하직천수는 천수경을 암송하며 망자가 안전하게 저승에 가도록 기원하는 제차다. 북청군의 경우에는 호세미가 마당에 간단히 제상을 차리고 춤을 추면서 신을 초청한다. 흰쌀을 담은 그릇에 대를 세우고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대를 잡으면 호세미의 넋두리가 이어진다. 새남굿이 잘 되었는가 묻고 이러한 제차를 통해서 신이 마침내 감응하게 되면 대가 떨리는 긍정적인 표시를 해서 굿을 마무리하게 된다.

함경도의 무속은 우리나라 무속신앙의 주변부에 해당하지만 제의적 고형이 남아 있다. 함경도의 새남굿 사례를 미루어 보아 함경도에는 몇 가지 새남굿에 근거한 주요한 특징이 있다.

첫째, 제차가 세분화되어 있고 제차의 기능이 약간씩 다양하게 중복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치밀한 현지조사의 결과물이 아니므로 추단할 수 없으나 신격을 위하는 제차 치고는 상당히 복잡하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 역시 이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무속신앙의 주변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함경도 굿의 다양한 신화가 매 굿거리마다 개입되어 있어서 풍부한 무속서사시 전승이 확인된다는 사실이다. 무속서사시가 많다는 점 역시 제주도와 견주어지는 특성인데, 대체적으로 기능적인 굿거리를 제외하고, 모든 제차에 무속서사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셋째, 새남굿에 한정된 견해이기는 하지만 새남굿은 불교와 매우 인접해 있다는 사실이다. 무속과 불교가 복합되어서 무속신앙을 풍부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는 바이나 함경도 무속신앙의 사례가 그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3. 경기도 남부의 새남굿 : 경기도 남부 새남굿은 서울 지역의 강신무들이 구성하는 굿거리와 매우 다르다. 새남굿이라고 하는 명칭이 사용되고 이에 따른 망자의 천도의례의 성격을 지닌 것이므로 이에 따른 세부적 절차를 구성하되 이 지역의 무풍에 의한 독자적인 굿거리를 구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 새남굿을 은어로 산이들

이 '남새쳤다'고 말하므로 일반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다.

경기도 남부의 새남굿이 현장에서 연행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다만 1981년에 인천시 율목동에서 재현된 바 있다. 이 사례를 중심으로 경기도 남부 새남굿의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부정(서간난 · 조한춘)
(2) 말명(서간난)
(3) 산바라기(황치선)
(4) 성주새면(악사 : 김한국, 이영만, 정일동, 전태용, 이용우 등)
(5) 시루굿(이용우 · 오수복)
(6) 성주굿(이용우 · 조한춘 등)
(7) 제석굿(조한춘 · 오수복)
(8) 대감놀이(황치선)
(9) 무감
(10) 손굿(서간난)
(11) 조상굿(이용우 · 오수복)
(12) 군웅굿(서간난)
(13) 제면굿(오수복)
(14) 새남굿(이용우 · 오수복)

(1) 부정은 경기도 남부의 전통적인 방식이다. 거리부정과 앉은부정 등을 전통적인 장단인 부정청배장단으로 하는 굿거리로 부정을 가시게 하는 굿거리다. 겹으로 부정을 물리는 방식이 인상적이다.
(2) 말명은 망자 넋을 부르는 것으로 망자의 넋을 청하여 굿하는 절차는 새남굿의 대내림을 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한다. 망자의 옷을 들고서 넋을 청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3) 산바라기는 경기도 주변부의 굿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산이 우세한 고장이므로 산을 먼저 청해 공간적인 신격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이 절차다. 산바라기를 하면서 망자의 조상과 산신을 먼저 위하는 것이 이 굿거리의 주요 내용이다.
(4) 성주새면은 집안의 수호신을 위한 산이들의 연주를 위주로 하는 굿거리다. 성주새면의 특징적 절차를 통해 신을 모시는 음악을 장중하게 연주하는 특징을 구현하는 굿거리다.
(5) 시루굿은 창세신의 내력을 담은 창세신화인 〈시루말〉을 구연하는 굿거리다. 이 거리에서 산이와 미지가 겹굿을 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시루말과 비손을 겸해서 하는 구성을 보이게 된다.
(6) 성주굿은 집안을 수호하는 신격을 위하는 제차다. 이 과정에서 푸살이라는 장단이 사용되면서 굿이 장엄한 음악 속에서 진행되는 특징을 지닌다.
(7) 제석굿은 생산신격인 제석을 모시는 절차다. 여기에 사용되는 음악과 구성이 독자적이다. 산이와 미지가 겹굿을 하고 〈제석본풀이〉를 구연하는 특징이 있다.
(8) 대감놀이는 대감을 모셔서 갖가지 축원을 하는 절차다. 이 굿을 통해 여러 가지 명과 복을 기원하는 절차를 볼 수 있다.
(9) 무감은 정식적인 절차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각도에서 보면 산이들의 정중한 음악에 맞추어서 한바탕 신명풀이를 한 것이다. 신명풀이의 방식으로 고안된 이 절차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절차다.
(10) 손굿은 천연두를 옮기는 신격을 위하는 절차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질병의 위협을 없애고 진정한 인간의 삶을 고양하기를 희망하는 굿거리라 할 수 있다.
(11) 조상굿은 조상신의 신격을 위한 절차다. 다양한 구성을 하는 것이 긴요한 몫이고 조상과 망자의 관계를 회복하여 서로의 위계와 질서를 찾는 것이 중요한 절차다.
(12) 군웅굿은 집안의 조상 가운데 벼슬을 한 인물이나 군웅의 장수신등을 모시는 특별한 굿거리다. 마을굿에서 이 신격들을 모시는 방식과 절차가 강조되기 마련인데 군웅신격을 위시한 여러 신격을 위한 절차가 이루어지는 점을 볼 수 있다.
(13) 제면굿은 일종의 계면돌기와 단골판을 장악한 신격을 위한 절차이며, 계면은 미지 자신을 위한 절차이기도 하다.
(14) 새남굿은 망자를 위한 굿거리다. 이 과정에서 새남굿의 본령이라 할 수 있는 〈죽엄의 말〉과 같은 무가를 불러서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절차가 이루어진다. 다양한 장단과 여러 무가를 보여준다고 하는 점에서 새남굿의 무가는 긴요한 의미를 지닌 굿거리다.

다른 여러 가지 증언에 의하면 경기도 남부의 산이제 굿은 대체로 이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는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경기도 남부의 산이제 새남굿은 전통적으로 본다면 서울식으로 재수굿과 진오기 새남굿을 겸하는 특징이 있다. 일종의 안안팎굿과 같은 성격이 두드러지는 점이다. 집안의 화평과 망자의 천도를 겸하는 특징이 있다. 망자의 천도가 주목적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성격은 굿거리의 결말부처럼 부가되고 실상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 점에서 본다면 경기도 새남굿은 매우 이례적인 구성을 보인다.

둘째, 산이제 굿의 전통을 구현하기 때문에 산이제 굿의 전통 속에서 음악적 다양성과 함께 특별하게 망자의 넋을 천도하는 절차가 구현된다. 그리고 불교적 관념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염불과 장엄이 말로 구연되는 〈죽엄의 말〉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다. 산이들은 흔히 〈새남노정기〉라고 하는 말로 이 사실을 구체화하여 관습화한다.

셋째, 산이제 굿에서 발견되는 〈죽엄의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아마도 새남굿의 의미를 이 굿거리처럼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사례도 드물기 때문이다. 또한 존재의 전환을 알리는 특별한 세계관이 있어서 단순한 전환이 아니라 새로운 넋으로 거듭 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과정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4. 남해안의 오귀새남굿 : 망자를 좋은 곳으로 천도하는 무속의례인 망자 천도굿을 경상남도 통영에서는 오귀새남굿이라 부른다. 전국적으로 두루 존재하는 오구굿이라는 명칭과 서울 지역의 격식 있는 진오귀굿인 새남굿, 이 두 용어가 복합된 것이다. 남해안의 오귀새남굿은 비단 경상남도 통영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거제 · 남해 등 이른바 경상남도 남해안에 분포된 굿이다. 통영 지역을 중심으로 오귀새남굿을 전승했던 무집단은 세습무계이다.

이 무계는 거제 · 통영 등 경상남도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무업을 세습하였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도 전에 전승의 소멸이 불가피하게 일어났고, 다행스럽게도 유일하게 기록된 자료가 1982년의 통영(그 당시 충무) 오귀새남굿이다. 이 자료는 실제의 굿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영상으로 전판을 촬영하여 소장하고 있다. 이때 굿을 하였던 이는 승방(무녀) 정모연과 산이(악사) 박복률, 박복개 등이었으며 이들은 집안 대대로 거제와 통영에 당골판을 두고 활동했던 세습무계였다. 따라서 통영 오귀새남굿이라기보다 경상남도 남해안인 거제 · 통영 · 남해 일대의 오귀새남굿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은 정모연의 손주가 되는 정영만에 의해서 그 전승이 힘겹게 이어지고 있다.

오귀새남굿은 1박 2일 정도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다음과 같은 굿거리 구성으로 정리될 수 있다. (1) 부정굿 (2) 넋건지기굿 (3) 당산굿 (4) 문넘기 (5) 방안오귀 (6) 손굿(말미) (7) 영둑굿 (8) 길닦기 (9) 대내림 (10) 염불축원굿(고금역대, 황천문답, 축문, 환생탄일, 시왕탄일) (11) 대신풀이 (12) 시석의 순서로 진행된다.
(1) 부정굿은 굿을 하기 전에 굿판을 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굿을 하는 공간, 그리고 굿에 참여한 이들에게 따라온 부정을 가시게 하는 절차다.
(2) 넋건지기는 망자가 바다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넋을 건져오는 제차다. 만약 수사(水死)하지 않으면 무덤에 찾아가 혼백을 모셔오는 '메맞이'를 한다. 즉 묘에 가서 망자의 혼을 모셔오는 절차이기도 하다.
(3) 당산굿은 지역을 관장하는 신격인 당산신령에게 이 행사를 알리고 굿의 허락을 맡는 의미에서 진행되는 절차다. 남해안에서 어떤 굿을 하던지 마을에서 가장 웃어른이라고 관념하는 당산신령에게 아뢴 후에 본격적인 굿을 하게 된다.
(4) 문넘기는 '무넘기'라고도 부른다. 그 명칭대로 문(門)을 넘는다는 의미로 망자의 영혼을 집으로 모셔와 굿당에 앉히는 절차이다.
(5) 방안오귀는 서사무가인 바리공주의 내력을 구연하는 무가를 구연하는 제차다. 본격적인 굿이 마당에서 행해진다면 방안오귀는 방안의 망자상을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유로 방안오귀라 명명된다.
(6) 손굿(말미)부터는 마당에서 이루어진다. '손굿'은 천연두 마마신을 손님이라 부르고 이 신격

을 대접하는 굿을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굿거리다. 손님과 조상을 함께 모시는 굿거리다.
(7) 영둑굿은 실제 오귀새남의 대상이 되는 망자의 넋을 옷과 함께 준비한 것이다. 영둑에 담겨진 영혼을 씻어서 보내는 것이 영둑굿의 실제이다. 널리 알려진 씻김굿의 영돈말이와 견줄 수 있다.
(8) 길닦기는 망자의 넋을 천도하는 굿거리로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 길베에 얹어서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갈라 망자를 새로운 존재로 전환시킨다.
(9) 대내림은 신이 내려 무당이 된 강신무, 이 지역의 말로 '신자'(神者)가 망자의 넋을 대에 내림받아 가족들과 대화를 하는 제차다. 일종의 서울굿에서 말하는 영실과 같은 것이 이러한 구실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0) 염불축원굿(고금역대, 황천문답, 축문, 환생탄일, 시왕탄일)은 망자에게 새로운 존재로의 전환을 알리는 것으로 다양한 절차가 합쳐진 굿거리다. 여러 조상과 그 내력을 말하는 대목이고 축문은 유교식 상장례 과정에 읊어지는 축문을 차례대로 읊는 절차다. 앞의 환생탄일 무가를 마치면 바로 이어서 읽는 것이 축문이다. 축문의 구체적 절차는 1) 개토제(開土祭) 2) 계빈제 3) 일포제 4) 천구취여 5) 발인제 6) 평토후 산신제 7) 반혼제 8) 초우제 9) 재우제 10) 삼우제 11) 졸곡제 12) 소상 13) 대상 14) 담제 15) 기제사 축문 등을 읽는다.
황천문답(黃泉問答)은 망자가 저승(황천) 심판 과정에서 문답을 잘하여 극락으로 간다는 내용의 무가이다. 즉 이 굿을 받고 있는 망자도 장차 시왕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 문답을 잘하여 극락을 가라는 축원이 담긴 제차다. 망자에게 새로운 세계로 들어갔음을 알리는 절차다. 시왕탄일은 육십갑자를 배분한 저승 십대왕의 내력을 푸는 것으로 시왕의 원불, 시왕의 명호, 다스리는 지옥, 망자가 매인 소속 육갑 등이 내력으로 밝혀진다. 무가의 문면에 십대왕풀이라는 이름으로 달리 불리기도 한다.
(11) 대신풀이는 굿을 하다 돌아가신 무당의 조상과 선생들을 굿의 끝에 대접하는 제차다. 관찰자의 시점에서 보면 이 대신풀이는 앞의 시왕탄일 마지막에 붙어 시왕탄일의 한 종속 제차로 보기 쉽지만 굿을 하는 이들은 명확히 '대신풀이' 내지는 '신살풀이'라는 명칭으로 구분해낸다.
(12) 시석은 굿의 중간에 청배되지 못했던 잡귀잡신들을 풀어먹이는 제차다. 남해안굿 시석에 등장하는 잡귀잡신들은 수부사재와 혼신들로 명명된다. 시석 이전에는 모든 굿상과 치장물들을 거두고 굿의 끝을 알리는 절차를 행한다.

남해안의 오귀새남굿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남해안의 오귀새남굿은 새남굿의 전통적 구성과 구조적으로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일정하게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면서 불교적 세계관과의 복합을 반영하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씻김굿과 동해안의 오귀굿의 문화적 접경지대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이 굿의 실상에 반영되어 있다.

둘째, 오귀새남굿은 경상도 동해안 일대의 오귀굿과 공통점을 지니는 한편 차이점도 지니고 있음이 확인된다. 거의 유사하지만 남해안 오귀새남굿만의 구성에 입각해서 특징적인 절차를 행하고 있는 것이 거듭 확인된다. 망자 개인의 천도를 목적으로 하는 구성과 일체감을 지니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셋째, 오귀새남굿은 씻김굿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절차에 입각한 여러 다양한 면모를 구현한다. 이 점에서 전라도의 굿문화와 경상도의 굿문화가 복합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굿거리 구성의 많은 대목에서 씻김굿과 불가피하게 만나게 된다.

의의 새남굿은 우리 무속의례 구성 요소로서 긴요한 의의가 있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불교와 무속의 의례적 복합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총체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무속의 죽음을 바라보는 세계관 구성이 단연 돋보이는 굿이다. 불교의 저승관념과 세계관이 무속과 결합하면서 무속의 저승관이 한층 복합적으로 발전했다. 새남굿은 불교의례가 무속과 결합하는 의의를 해명할 수 있는 자료다. 구조적 합일과 세계관적 융합에 의해서 이 두 가지 죽음의례는 적절한 타협을 이루었을 것으로 보인다. 새남굿의 지역적 사례는 많지 않지만 유사한 사례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점에 입각하여 굿의 실상을 거시적 관점에서 반추할 수 있다.

참고문헌 조선무속고(이능화, 계명 27호, 1927), 시조문학사전(정병욱, 신구문화사, 1980), 통영오귀새남굿(정병호, 열화당, 1989), 서울새남굿신가집(조흥윤 감수 · 서울새남굿보존회, 문덕사, 1996), 함경도 민속(전경욱, 고려대학교출판부, 1997), 한국의 샤머니즘(조흥윤,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한국의 무속신앙(김헌선, 한국민속의 세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조선무속고(이능화, 서영대 역, 창비, 2008), 서울무속 죽음의례의 유형과 구조적 상관성 연구(김헌선, 한국학연구 27호,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남해안 굿 갈래 연구(김형근,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필자 김헌선(金憲宣)

상호참조 서울새남굿(451쪽)

새ᄃᆞ림춤

정의 제주도굿에서 굿판의 부정을 없애고 제장을 정화하는 제차인 새ᄃᆞ림에서 추는 춤.

내용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을 오리 밖에까지 나가서 모셔오기 전에 굿판의 부정을 말끔히 씻는 굿이 새ᄃᆞ림이다. 새ᄃᆞ림은 소무가 동해바다 은하봉천수를 사발 가득 떠다가 물을 뿌리며 제장의 부정을 씻는, 물에 의한 정화의식(淨化儀式)으로서 환자의 몸에 붙은 부정[邪]을 다리는 굿이다. 즉 새ᄃᆞ림춤은 초감제의 새ᄃᆞ림에서 부정을 다리는 춤 일체를 일컫는다.

물을 통해 제장의 부정을 쫓고 제장을 정화하는 의례인 새ᄃᆞ림에서 소무는 들고 있는 물그릇의 정화수를 댓잎가지 감상기에 적서 뿌리며 부정을 씻는 노래로 제장을 정화시키고 사를 쫓는 노래를 흥겨운 무악 반주에 맞추어 부르며 정화시켜 나간다. 새ᄃᆞ림의 순서는 물감상, 부정가심, 새ᄃᆞ림, 푸다시로 이어진다. 제의 순서에 따라 새ᄃᆞ림춤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굿의 첫 순서인 초감제에서 군문열림이 끝난 뒤 신칼점을 쳐서 군문이 열렸다는 점사를 받으면 그 결과를 알리는 분부사룀을 한다. 이어서 수심방은 굿을 끝내는 절을 한 다음에 새ᄃᆞ림 차례로 이어짐을 알린다. 먼저 물감상춤이 시작된다. 소무는 감상기와 물그릇을 들고 나와 제장 가운데서서 "제석궁 신소미 불러 연찻물로 신가입니다"라는 내용의 사설을 하고나서 춤을 추기 시작한다. 춤이 끝나면 "하늘로 내린 물은 천덕수(天德水), 지하로 솟은 물은 지덕수(地德水), 산으로 내린 물은 나무 돌굽 썩은 물입니다. 그리 말고 이물저물 버려두고 동해바다 은하봉천수 굽이 넓은 초동차대접 옷섶에 들어받아 감상기를 들먹이며 안에서 바깥으로 부정을 씻습니다"는 내용의 사설을 말한 다음 물그릇을 받들고 또다시 춤을 춘다. 감상기로 대접에 있는 물을 적셔 뿌리는 부정가시는



1. 소무가 물그릇과 감상기를 들고 나와 추는 물감상춤

2~3. 환자를 앉혀 놓고 심방이 그릇의 물을 감상기에 적셔 부정을 가시는 춤
제주시 외동1동 김희숙무용학원 | 2002.12.15 | 문무병

춤이 이어진다. 소무는 물그릇과 감상기를 들고 "지붕상상 초추ᄆᆞ를 입구상냥[立柱上樑] 시겨가멍(지붕 상마루까지 입주상량 시켜가며)"라고 지붕 위까지 위(位)를 올려드린다. 즉 부정을 지붕 위까지 가신다는 뜻의 사설을 한 뒤 물그릇의 물을 감상기의 댓잎에 적셔 물을 사방에 뿌리며 춤을 춘다.

이 춤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부정을 제거하는 춤인 새ᄃᆞ림춤이 시작된다. 이때 제장 가운데 환자나 본주를 앉혀 놓고 굿을 진행한다. 소무는 "조상님네 내리시려 하시는데, 깊은 물엔 용이 놀고 얕은 물엔 새가 노는 법이니, 용과 새는 낱낱이 다려 드리렵니다"라는 사설을 한 뒤에 환자 앞에 서서 "ᄃᆞ리고 ᄃᆞ리자"는 후렴구를 반복하고 "주어나 훨쭉, 훨쭉 훨짱" 하는 쌀을 뿌리고 새(鳥)를 쫓는 후렴구를 중간에 외치며, 새ᄃᆞ림 노래에 맞춰 가볍게 신칼채를 흔들며 선자리에서 춤을 춘다. 마지막으로 신칼로 환자의 이마와 온몸을 찌르고 위협하여 몸에 빙의한 잡귀를 쫓아내는 춤인 푸다시 춤을 추고 새ᄃᆞ림 제차를 마친다.

참고문헌 한국의 굿(문무병 외, 민속원, 2002). 제주도의 굿춤(문무병, 각, 2005). 바람의 축제 칠머리당영등굿(문무병, 황금알, 2005). 굿의 기메 · 전지(문무병, 제주특별자치도, 2008).
필자 문무병(文武秉)





새미하로산당

정의 제주시 회천동(回泉洞) 동회천 마을의 본향당. '새밋당(세밋당)'이라고 하기도 한다. 동회천 마을의 옛 이름이 새미(세미)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2005년 4월 6일에 '제주도 민속자료 제9-2호'로 지정되었으며, 제주도 제주시 회천동 1058번지에 있다.

형태 당집 등의 특별한 시설이 없다. 수령이 많은 팽나무를 신목(神木)으로 삼고, 왼쪽 편에 시멘트로 제단을 만들었다. 팽나무 뒤쪽에는 마을에 시집 온 여성들이 자기 마을에서 가지 갈라 온 당들을 모시는 곳이 있다. 제단 주위에는 대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다.

내용 새미하로산당은 제주시 회천동 동회천 마을의 본향당이다. 마을 주민들의 생산(生産), 물고(物故), 호적(戶籍)을 관장한다. 당 안내문이 있는 입구에서 과수원이 있는 방향으로 약 100m 정도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 당 인근에는 과수원들이 자리 잡고 있다.

당신(堂神)은 새미하로산또이며, 송당본향당 소로소천국의 여덟 번째 또는 열두 번째 아들이라고 한다. 아직도 당굿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새미하로산또는 사냥을 하는 산신일월조상(山神日月祖上)이기 때문에, 당굿을 할 때는 후반부에 산신놀이를 한다. 제일(祭日)은 1월 14일(신과세제), 7월 14일(백중마불림제)이다. 당의 본풀이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현용준이 채록한 본풀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웃손당 금벡주 셋손당(中松堂) 세명주 알손당 소로소천국 열두챗 아돌롭써, 글도 좋고 활도 좋아,"어딜 가 보리오." 부모가 "너 ᄆᆞ음(心)대로 가보라." 이러ᄒᆞ니, 삼천벵맷도(三千兵馬) 거느려 앞을 세우고 늬눈이반둥갱이 거느려 굴미굴산아야산 노조방산으로 올라간다.
> 높은 오롬(岳)마다 올라가 ᄒᆞᆫ 놀기를 ᄇᆞ투완 보니 사농놀이가 좋아지고, 대강녹(大角鹿) 소강녹(小角鹿)을 거느려 거친 오롬 상상봉오리(上上峰)에 앉아 천기지기(天氣地氣)를 집떠

1~2. 새ᄃᆞ림에서 본주인 젊은 부부의 새[邪]를 쫓는 푸다시 장면
북제주군 구좌읍 동김녕리 | 1994.10.24 | 문무병



> 보니 세미(回泉里) 천민(千民)ᄆᆞ을이 공안(空虛)ᄒᆞᆫ 상싶어지어 사농동산을 오라 천기지기를 집떠보니 당뜨르 천년(千年) 오른 큰 폭낭 잇어 글로 오라 좌정(坐定)ᄒᆞ고, 그 ᄆᆞ을에 웃어른을 청허여라.
> "너의 ᄆᆞ을(里)에 임재(主)가 엇인 상싶어지니 장적호적문세(帳籍戶籍文書)를 꾸며 드리라."
> ᄋᆞᆼ 허여 낳는 날 생산(生產)ᄒᆞ고 죽는 날 물구(物故) ᄎᆞ지허여 오던 산신일월조상(山神日月祖上).
> 벡주아기 남선밧일뤠중저(七日中姐) 서당국서 솟아난 큰부인님, 아기마을 상마을 업게마을청.
> 물비리 당비리 너벅지시 홍허물 불러주지 마옵소서. 신도본향(神道本鄕) 한집님네 이 ᄌᆞ손(子孫) 가지에 열두 숭엄(十二凶險) 풍문제해(風雲災害) 궂인 숭엄 막아줍서. 어진 한짓님전에 축원 올립네다. 정월(正月) 열나을날(十四日) 대제일(大祭日)을 받고 칠월(七月) 열나을날 벡중제(百中祭)를 받아 오던 어진 한짓님전에 축원올립네다.
> —제주시 삼도동 남무 김오생(金午生) 구송

참고문헌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제주시 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제주시 · 제주대학교박물관, 1998).
필자 강소전(姜昭全)

새발심지

정의 서울굿에 쓰는 무구로 종이를 새의 발처럼 밑끝이 세 갈래지게 꼬아 세워놓게 만든 심지. '새발'과 '심지'의 합성어이다. 세 개의 발(다리)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세발', 새가 다리를 딛고 서 있는 모양을 하고 있어서 '새발'이라고도 한다. 이 때문에 새발심지 또는 세발심지로 혼용된다. 굿에서 새발심지는 서울 진오귀굿의 〈바리공주〉 무가를 부르는 말미의 말미상과 진적굿에서 불사거리의 불사상, 본향바라기의 본향상 등에서 쓰인다.

내용 직사각형의 한지를 긴 끈처럼 둘둘 말고 손가락을 각각 끼워서 세 개의 원형, 이른바 새발[鳥足]로 받침을 삼고 심지를 만든다. 새발심지는 무구인 한편 과거 전기가 없던 시절에 사용한 등잔의 심지이다.

서울굿에서 새발심지는 일단 만신들이 본인의 신령들을 위하는 굿인 진적굿 중 불사거리나 본향바라기에서 볼 수 있다. 심지에 기름을 먹여 해당 굿거리가 시작되면 불을 붙이고 청배를 시작한다. 즉, 이때 새발심지는 신의 강림을 기원하거나 신이 오는 길을 밝힌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망자를 천도하는 서울굿 중 진오귀굿에서 바리공주 무가를 부르는 거리를 말미라고 하며 이때 말미상을 차린다. 1인용 좌탁 정도 크기의 상에 쌀을 소복이 놓고 그 위를 한지로 덮는다. 한지 위에는 사탕류인 옥춘당 등으로 받침을 놓고 그 위에 새발심지를 기름에 적셔 올려둔다. 이때 새발심지는 진적굿의 새발심지와 달리 굿거리 초반부에 밝히지 않는다. 〈바리공주〉 무가가 끝나고 이어 불교의 사방찬, 도량찬 또는 장엄염불의 일부 등을 붙여 망자의 왕생극락을 기원할 때 조무가 이 새발심지에 불을 붙인다. 무가가 끝날 무렵이면 새발심지도 다 타게 되는데 이때 심지와 한지를 치워 소복이 쌓여 있는 쌀을 유심히 들여다본다. 이것은 망자가 무엇으로 환생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행위이다. 꽃, 새[鳥]의 발자국, 나비 형상의 흔적들이 남는데 무당들은 이런 흔적들을 가족들에게 설명하며 "망자가 말미 잘 받고 좋은 곳으로 가셨다"는 등의 말을 전한다. 이때의 새발심지는 망자의 극락행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울 외에 황해도굿이나 충청도의 앉은굿에서도 이 새발심지가 쓰인다.

참고문헌 무 · 굿과 음식 1(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서울굿의 이해(최진아, 민속원, 2007). 서울진오기굿 연구(변지선,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필자 김형근(金亨根)





1. 서울 진오귀굿 말미상 위의 새발심지
서울시 평창동 보현산신각 | 2007.12.30 | 김형근

2. 서울 진오귀굿 말미상 위의 새발심지
경기도 하남시 천신당 | 2008.1.10 | 김형근

3. 서울 진오귀굿 말미상 위의 새발심지
서울시 무악동 인왕산 국사당 | 2006.11.4 | 김형근

샛별국화

정의 동해안별신굿이나 동해안오구굿에서 제단에 올려놓는 지화(紙花)의 한 종류로 샛별 모양의 국화. 일명 당국화(唐菊花)라고도 한다.

내용 국화는 만드는 기법에 따라 정국화와 가시개국화 두 종류가 있다. 정국화는 국화 모양으로 만든 정으로 찍어서 만든 꽃이고, 가시개(가위의 경상도 사투리)로 오려 만드는 국화를 가시개국화라고 한다. 1980년대 초반에는 샛별국화를 정으로 찍어 만들었다고는 하나, 김동열의 샛별국화는 정으로 찍어 만든 적이 없고 가위로 화지를 오려 만들고 있다.

샛별국화는 가위로 오려 만든 가시개국화와 유사하다. 가시개국화와 다른 점은 꽃받침이 있으며, 크기는 가시개국화나 다른 지화의 3분의 1정도이다. 또한 가시개국화는 붉은색 한 가지로 만드는 반면 샛별국화는 6가지 이상의 색을 사용한다. 흰색, 주황색, 노란색, 분홍색, 보라색, 붉은색 등 다양한 색을 쓰기 때문에 다른 지화에 비해 화려하다. 그리고 꽃의 크기도 작아서 한 묶음에 포함되는 꽃의 개수도 다르다. 가시개국화나 다른 꽃들은 통상 16개 정도를 한 묶음에 배열하지만, 샛별국화는 31개를 한 묶음에 배열한다.

샛별국화는 동해안 중 · 북부지역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고 동해안 남부지역 굿에서 많이 사용한다. 샛별국화의 꽃도래(꽃잎의 지름)와 작화(作花) 기법은 다음과 같다.

1. 꽃도래

지름 6.5㎝, 8㎝, 9㎝, 10㎝, 10.5㎝의 꽃잎 5장을 물들여 크기 순서대로 28, 26, 24, 20, 19등분하여 자른다.

2. 작화 기법

1) 등분한 꽃도래를 끝이 뾰족해지도록 다듬어 준다.
2) 각각을 반으로 접는다.
3) 가로 8㎝, 세로 2㎝의 세 가지 색지(色紙)를 세로 1㎝만 잘게 가위질 하여 꽃목대에 말아 풀로 붙여 꽃술을 만든다.
4) 꽃술에 이어서 제일 작은 꽃잎부터 차례로 끼워준다.
5) 꽃받침은 원을 3.5㎝ 지름으로 잘라 끼운다.
6) 가물지(지화를 완성하고 잎사귀를 붙일 때 쓰는 종이)를 말아가며 잎사귀를 붙인다.

1. 샛별국화송이
경북 영덕군 영해면 대진해수욕장 | 2006.10.11~10.12 | 윤동환

2. 샛별국화
부산시 해운대 약수암 | 2006.9.9 | 윤동환

3~10. 샛별국화 제작과정
국립민속박물관












참고문헌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경상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한국 전통 꽃일에 관한 연구(오춘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동해안 무집단 지화의 문화적 의미(윤동환, 한국무속학 13, 한국무속학회, 2006).
필자 윤동환(尹東煥)

생불할망본풀이

표제어 삼승할망본풀이(406쪽)

서낭

정의 치병(治病), 제액(除厄)은 물론 마을의 안녕과 풍요 등을 지켜 주는 토지와 마을의 수호신.

어원 및 유래 서낭의 어원은 산신(山神)의 다른 이름인 산왕(山王)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즉 산(山)이 음성모음화 되어 '선'으로 되면서 '선왕'이 되고, 이것이 다시 연철이 되어 '서낭'으로 정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서낭신앙은 인간이 고대사회에 수렵 · 목축 · 농경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신력(神力)으로 지켜내기 위한 목적에서 생겼다. 즉 이러한 공간의 요새지역에 천신(天神)의 하강처인 누석단(累石壇)을 만들어 천신의 거소(居所)로 삼고 이를 섬긴 데서 서낭신앙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낭신의 거소인 서낭당이 동구 밖 길가, 산록, 또는 산이 없는 허한 지점에 위치하는 것으로 볼 때 마을 수호의 기능이 선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의처(祭儀處)에는 누석단(累石壇)이 있으며 신수(神樹)에 현납(懸納)하는 습속이 있는데 이러한 신앙 양상은 몽고의 오보(鄂博)와 매우 흡사한 모습을 띠고 있다(몽고의 오보는 우리나라의 돌무더기 탑과 비슷한 것으로 마을의 이정표 기능을 한다). 몽고는 지리적으로 보아도 우리나라와 매우 인접한 곳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이동 경로, 문화접촉 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몽고의 오보신앙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한반도에 들어온


1


2


3

1. 토계동 서낭당
국립민속박물관

2. 성황당
서울시 신공덕동 | 국립민속박물관

3. 호서낭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가로 75.5㎝, 세로 100㎝ |
1950년대

오보신앙은 한반도 고유의 산신 · 천신 신앙과 습합되어 서낭신앙이라는 새로운 신앙 형태를 탄생시켰다. 또한 몽고의 오보에 영향을 입어 형성된 중국의 성황신앙(城隍信仰)이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복합되면서 오늘날의 서낭신앙 형태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서낭신앙은 우리 고유의 천신 · 산신에다가 몽골의 오보와 중국의 성황신앙 등 4가지 요소가 복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그 기능이 유사한 중국의 성황신앙에서 유래한 것이라 보는 견해는 잘못이다.

서낭신앙은 사람들이 일정한 장소에 제의를 베풂으로써 그들이 목적하는 소망을 성취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서낭신앙에는 뚜렷한 내세관이나 인간적 정신세계에 대한 이상 같은 것은 없다. 서낭은 마을 사람들이 신력(神力)에 의존하여 마을을 수호하려는 목적에서 신앙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의 유대와 단결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가진다. 또 서낭신의 거소인 서낭당은 고대부족사회에서 수렵 · 목축 · 농경 장소를 신의 힘에 의존해 보호하려는 공간이었으므로 수호적, 방어적 경계로 기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내용 서낭신을 모시는 서낭굿을 '별신굿'이라 하는 곳도 있다. 이 마을굿은 마을 공동의 제의처(祭儀處)인 서낭당에서 동민들이 제의를 올린 다음 진행하는 굿이다. 제의의 목적은 동민의 안과태평(安過太平) 및 풍농, 풍어, 치병 등을 기원하는 것이다. 서낭굿은 일반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음력 정초에 택일하여 시행한다. 그러나 지방에 따라서는 음력 10월에 하는 곳도 있다. 서낭굿이 없는 해에도 음력 정월 혹은 10월에 택일하여 간단한 공동제의를 올린다. 서낭굿은 서낭당에서 서낭제가 끝난 후 동민 일동이 서낭당에 모인 상태에서 무(巫)가 굿을 주관하는데 그 제차(祭次)는 부정굿, 서낭굿, 조상굿, 성주굿, 지신굿, 시준굿, 산신굿, 용왕굿, 축원굿, 거리풀이 순으로 진행된다.

서낭신앙은 우리나라 도처에서 전승되고 있는 민간신앙으로서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서낭신의 봉안처(奉安處)인 서낭당은 반드시 누석단과 함께 신수의 현납속이 수반되는데 이러한 형태는 주로 평안남북도 · 황해도 · 경기도 · 충청남도 · 전라남북도 등지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중 · 남부지방에서는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서부해안과 평야지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런데 평안도, 함경도 지방에서는 누석단과 신수의 현납속이 있는 서낭당을 '국수당(堂), 국시당(堂)'이라 부르는데, 이로 보아 이 지역은 '국수 · 국시' 신앙과 서낭신앙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지역이 아닐까 한다.

지역사례 제주도의 서낭신앙은 좀 특이하다. 제주도의 마을신앙은 '본향'과 '할망'신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 제의처는 본향당, 할망당 등이다. 그런데 신당의 형태를 보면 육지의 서낭당과 같은 현납속이 있다. 또한 옛날 항구였던 화북(禾北)지방에 '선왕당'이란 신당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무가 속에 '애기씨선왕', '장군선왕', '매신선왕' 등의 '선왕(서낭)'이란 명칭이 있는 것을 보면 제주도의 신당에 보이는 현납속은 육지의 서낭 신앙 형태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한국무속연구(김태곤, 집문당, 1981), 한국민속대관 3(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한국민간신앙연구(김태곤, 집문당, 1983), 조선무속고(이능화, 이재곤 역, 백록출판사, 1983).
필자 류종목(柳鍾穆)

서낭기

정의 서낭목이나 서낭대에 매다는 깃발. 단골들이 출세 혹은 소원성취를 위해 무당에게 바치는 천으로 무당들은 천에 기원문을 적어서 서낭대에 감아서 모셔 둔다. 혹은 단순히 서낭대를 장식하기 위한 오색천을 말하기도 한다.

형태 서낭기의 재료는 한복 치마의 안감으로 사용되는 얇은 삼베천이다. 그 크기가 과거에는 13마 3치가 일반적이었으나 단골들이 개인적으로 떠오는 것이라 그 크기와 색상은 일정치 않다. 색상은 붉은색 · 녹색 · 파란색 · 노란색 · 흰색 등이 주를 이루지만 붉은색이 가장 많다. 서낭기 안에는 출세 혹은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문구를 적어 놓기도 한다. 평소에는 신당 안에 펼쳐서 걸어 놓거나 서낭대에 감아 보관한다. 서낭대는 주로 대나무로 만들며 그 길이가 경기도 시흥 군자봉 서낭대의 경우, 총 길이 868㎝ · 밑둘레 26㎝ · 지름 8.25㎝ 정도이다. 서낭대는 대나무 면이 보이지 않게 겉면을 무명천으로 둘둘 말아 놓기도 한다.

내용 서낭기에서 '서낭'은 마을 수호신을 지칭하는 말로 그 어원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이능화가 『조선무속고』에서 주장한 것으로 중국의 성황(城隍)이 이입된 신격이라는 견해와 다른 하나는 손진태와 조지훈이 주장한 것으로 서낭을 고유한 신앙으로 보고 이후 중국 것과 복합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김태곤은 '서낭'의 어원을 산신(山神)인 '산왕(山王)'에서 온 것으로 보고, 악박(鄂博, 몽골의 돌더미 숭배물 또는 제단)신앙이 한반도에 들어와 산신 · 천신신앙이 혼합되어 '서낭'이라는 별개의 신앙 형태가 나온 것으로 보았다.

서낭기는 원래 서낭목 또는 서낭당에 매달거나 걸어놓았던 천을 말한다. 과거 서낭목에 울긋불긋 오색천이나 백지, 베 조각, 백지에 꾸린 쌀 · 떡 · 명태, 환자의 저고리 동정 등을 소망기원의 목적으로 매어 걸었던 신앙적 형태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서낭기는 주로 잔치, 환갑, 자녀 출세를 위해 단골들이 떠 오게 된다. 경기도 시흥의 군자봉 당주인 김순덕의 경우, 서낭기를 군자봉 위에 모셔 놓았다가 섣달그믐에 내려 모시고 3월 삼짇날 올려 모셨다고 한다. 근래에는 음력 10월 3일에 행해지는 성황제 때 산 위에 있는 당에 잠깐 올려 모셨다가 내려오는데 이때 서낭기는 서낭대에 감아서 군자봉 위의 신당 앞에 모셔진다. 이때 서낭대는 마을 사람들이 짊어지고 올라가며 의례를 행한 후 다시 가지고 내려온다. 서낭기는 성황제가 끝나면 일부는 신당 안 벽면에 걸어두고 나머지는 신당 안에 있는 장롱에 보관해 둔다.

일반적으로 서낭대라고 하면 본디 신이 내려오는 대, 즉 신대로 인식된다. 경기도 시흥 군자봉 성황제의 서낭기는 평상시에는 대나무와 오색천을 분리해 굿당 안에 보관해 둔다. 그리고 매해 성황제를 진행하는 날 아침에 오색천을 감는데 이를 "옷을 입힌다"라고 한다. 서낭기 장식 순서는 맨 위부터 꿩의 깃털-태극기-빨강천-노랑천-파랑천-빨강천-파랑천 순이다. 서낭기는 성황신, 곧 경순왕을 모셔 내리고 올리는 도구로 인식하며 서낭기가 있는 곳에 성황신이 머물고 있다고 생각한다. 통영지방에서는 천왕대라고도 한다. 굿하는 집에



서 굿하는 날 집의 한 기둥 앞에 세워 놓는다. 통영지방 서낭대는 서너 길 되는 긴 대나무를 베어다 아랫가지는 모두 쳐내고 위에는 잎을 그대로 놓고, 한지를 오려서 만든 장식을 걸어 놓는다.

은산별신제에서는 신이 내리는 기를 '대기(大旗)'라고 한다. 무녀는 무가를 부르고 춤을 추며 신이 내리기를 기원하고, 풍물패와 삼현육각은 경쾌한 연주를 한다. 제를 정성껏 지내면 대기 꼭대기에 달린 방울이 흔들린다. 그러나 방울이 흔들리지 않으면 제를 지내는 제관 전원이 은산천에서 다시 목욕재계 후 다시 굿을 해야 한다. 이처럼 서낭기(서낭대)에 신을 받아 온다든지 서낭기를 들고 마을을 돌며 축원과 액막이를 하는 행위는 한강 유역 부군당굿이나 경기도도당굿, 해안지역 풍어제나 별신굿 등에서 보편적으로 보이는 현상 중에 하나이다.

참고문헌 한국민간신앙연구(김태곤, 집문당, 1983). 무 · 굿과 음식 2(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서울시 · 경기도 · 강원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경상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필자 김태우(金泰佑)

서빙고동부군당(西氷庫洞府君堂)

정의 서울의 한강 유역에 위치한 마을을 수호하는 부군신을 모신 당. 1973년 11월 26일에 '서울특별시 민속자료 제2호'로 지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200-2번지에 있다.

형태 서빙고동부군당은 총 265㎡의 규모에 신을 모신 부군당 본당과 그 왼편으로 제물청이 있으며, 본당의 왼쪽 뒤편으로 터주대가 놓여 있다.

본당의 형태는 정면 1칸, 측면 1칸으로 된 10㎡ 안팎의 기와 맞배지붕 한옥이다. 제물청은 50㎡ 규모의 기와 맞배지붕집으로, 하주청이라고 부른다. 하주청에는 부군당굿을 준비하기 위해 음식을 마련하는 부엌, 쉴 수 있는 마루, 온돌방과 함께 제기와 기물들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다.

부군당의 정면에는 당의 주신(主神)인 조선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 1335~1408)와 그 부인의 화분이 나란히 모셔져 있고, 그 왼쪽 벽면에는 삼불제석(三佛帝釋)이 모셔져 있다. 강씨부인(康氏婦人)으로 알려져 있는 이태조 부인상은 두 손을 맞잡고 있는 형태이며 좌우에 시녀가 한 사람씩 서 있다.

역사 서빙고동부군당의 창건 연대는 미상이다. 서빙고동부군당에는 부군당 중수기 2점, 위원들의 이름을 기록한 현판 3점이 등 총 5개의 현판이 있다. 당내의 서까래에 걸려 있는 현판에 '崇禎紀元上之十三乙亥四月十八日重建'이라는 기록을 미루어 보아 늦어도 인조 13년(1635)에는 당이 세워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판의 크기는 가로 75cm, 세로 25cm이다.

또한 인조 13년의 중건 기록과 함께 '老人稧座目幷序'라고 쓰인 현판의 끝에는 '辛卯五月'이라는 기록과 '里中稧員座目'이라는 내용과 함께 '光武七年癸卯五月'이라는 기록이 있어 인조 이후 지속적으로 부군당이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금의 서빙고동부군당은 일제강점기의 초기인 1910년대에 일본군이 특무대 훈련장을 만들기 위해 현재의 위치로



은산별신제 대기(서낭기)에 신을 내리는 모습
충남 부여 은산별신제 | 2004.3.28 | 김태우

서빙고동부군당
정수미

옮기게 된 것이라고 한다.

서빙고동부군당에 모시고 있는 화분은 무속적 자료로서도 중요하지만 조선시대 회화를 연구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울시내와 인근 지역 부군당에 모셔진 신상의 그림은 민간회화의 전통과 기법적 특징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들이다.

내용 본당의 내부에는 정면과 왼쪽 벽면에 태조 내외 및 삼불제석의 화분이 모셔져 있고, 그 아래쪽 삼면으로 제물을 진설할 수 있는 제단이 마련되어 있다.

서빙고동부군당의 제의는 매년 음력 정월 초하루에 유교식 제례를 기본으로 하여 대체로 3년 주기로 한 번 무당의 굿이 함께 열린다. 예전에는 굿 비용이 충분하게 추렴되면 무당의 굿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교식 제례만 했다고 한다. 현재는 유교식 제례만 올린다.

1978년에 조사된 서빙고동부군당굿에서는 유교식 제례를 마친 후 마을 노인회를 중심으로 한 부군당굿이 열렸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집에서 정초 차례를 지내고 부군당에 올라와 부군님 내외에게 세배를 드린 뒤, 마을 어르신들께 정초 문안을 올렸다. 정월 초하루는 한강변의 인근 마을에서도 부군당굿이 열리는 등 대단한 축제의 날이었다. 부군당굿에서 핵심 굿거리는 성주거리라고 할 수 있다. 성주거리에서 성주대를 잡아 성주신을 부군당에 좌정시켜 모심으로써 일 년 동안에 마을 주민들이 안녕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부군당굿이 열리는 현장에서 마을 주민들은 공동체로서의 결속을 다지고, 마지막에 신이 드신 음식을 함께 먹음으로 동질감을 만들어 간다.

서빙고동부군당굿은 '서빙고동 부군당 치성위원회(西氷庫洞 府君堂 致誠委員會)'가 결성되어 이 단체가 실질적인 제를 주관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9명의 임원이 제관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치성위원회와 함께 단골만신인 당주무당은 장씨 할머니로 불리는 장남옥 만신이 당제일(堂祭日)이 되면 마을 주민들을 위한 축원발원의 기도를 올린다.

참고문헌 서울민속대관 1–민간신앙편(서울특별시, 1990). 한국의 향토신앙(장주근, 을유문화사, 1998).

필자 김은희(金銀姬)

서울굿 무복

정의 서울굿에서 강신무인 무당의 몸에 내린 신을 상징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복식.

내용 강신무의 굿에서 무당은 신과의 일체화 현상을 보이므로 무당이 착용한 무복은 무당의 옷이 아니라 접신한 신의 옷이다. 굿을 하는 현장에서는 무복을 굿거리의 명칭을 붙여 의대나 신복이라고 부른다. 서울굿은 몸에 신이 내려 내림굿을 받고 무당이 되는 강신무의 굿으로 한양굿이라고도 한다. 서울굿에서 무당은 모든 거리에서 여성의 평상복인 치마와 저고리를 기본복으로 착용하고, 그 위에 거리별로 접신하는 신을 상징하는 무복으로 포 종류의 의복을 착용한다. 머리에는 신의 특성에 따라 전모·갓 등을 쓰고, 신발로는 다양한 색상의 혜를 신는다. 무구로는 삼신선, 방울, 언월도, 삼지창, 오방기, 소지 등을 신의 특성에 따라 든다.

굿을 할 때 무당은 거리마다 접신하는 신을 상징하는 무복을 갈아입기는 하지만 특성이 비슷한 신인 경우 같은 종류의 무복을 착용하므로 굿거리의 수만큼 무복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 신을 상징하기 위해 착용되는 무복은 보통 장삼, 철릭, 구군복, 몽두리, 원삼, 장옷, 소창의 등이다.

무복은 거리별로 접신하는 신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굿에서 추구하는 염원을 상징한다. 굿에서 여성복인 치마와 저고리를 기본복으로 착용하는 것은 접신하는 신이 음성이므로 무당의 성을 음성인 여성으로 하여 신과 무당이 합일함을 상징하는 것이다. 또한 무복의 색상을 양의 색상으로 하여 음성인 신이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 무당의 몸에 쉽게 접신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음기가 강한 액귀를 강한 양기로 퇴치하고자함을 상징한다.

서울굿의 기본구조는 일반적으로 12거리로 되어 있으나 거리의 수·배치순서·명칭은 무당마다 다르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부터 서울굿에서 행한 거리와 무복은 다음과 같다.

구군복(신장거리)
1994.7.21 | 유효순



홍철릭(성조거리)
1994.7.21 | 유효순



1. **부정거리, 뒷전** : 부정거리는 굿을 할 장소를 깨끗이 하는 거리이고, 뒷전은 굿이 끝나고 이름 없는 신들을 풀어 먹여 보내는 거리로 특정 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므로 치마와 저고리만 착용하고, 뒷전에서는 북어를 들어 풀어 먹임을 상징한다. 무당이 남성이라 하더라도 치마저고리를 착용하나 오늘날에는 남성의 평복 차림을 하기도 한다.
2. **감응청배(감응거리, 가망거리)** : 조선시대에는 산신을 청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조상을 청하기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얹은머리에 녹색 장의를 착용하고 손에는 흰 창호지를 들었다. 오늘날에는 녹색포나 쾌자에 협수 또는 황색 몽두리를 착용하고 삼신선이나 방울을 드는 등 각기 다르다.
3. **제석거리(불사거리, 칠성거리)** : 자손의 명과 복을 비는 불교적인 거리이다. 신의 특성에 맞게 흰색 고깔에 폭이 넓고 긴 흰색 장삼을 입고, 가슴과 한쪽 어깨에 가사를 상징하는 홍색띠를 하며, 무구로 삼신선과 방울을 들었다. 오늘날에는 흰색이나 회색 장삼과 화려하게 자수를 놓은 홍색·남색·녹색띠를 함께 착용한다.
4. **별성거리(별상거리)** : 별성거리의 신은 고귀한 신분의 격이 높은 신으로 천연두신을 나타내는 별상이라고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전립을 쓰고 구군복에 청전대를 두르고 언월도와 삼지창을 들었다. 현대의 무당 중에는 투구에 갑옷을 입기도 하고 족두리에 원삼이나 원삼 비슷한 녹색 포를 착용하고 부채와 삼지창을 들기도 한다.
5. **장군거리(대거리)** : 대부분 지체 높은 무관계의 영을 신으로 모시며 현대 서울굿에 등장한 문관계의 신을 모시는 대신거리 또한 비슷한 특성을 지닌다. 무복으로는 호수 장식의 주립(홍색갓)에 청철릭을 착용하고 언월도와 삼지창을 들고 있다. 오늘날에는 투구에 갑옷, 주립에 몽두리, 쾌자·협수 또는 철릭 등을 착용하고 무구로 삼신선·방울·오방기 등을 사용한다.
6. **호구거리(오귀거리)** : 호구는 처녀신으로 천연두신을 의미하며, 현대의 굿에서는 점차 행하지 않는다. 무복으로는 처녀를 상징하는 노란색 삼회장저고리에 홍색 치마와 얼굴을 가리는 면사보(면사포)를 쓰고 삼신선과 방울을 들고 있다. 오늘날 호구거리를 행하는 무당들도 평상복에 부채를 들고 홍색 보자기나 홍색 치마를 머리에 쓴다.
7. **만신말명(만명거리, 대신만명거리)** : 무녀들의 무조신을 모시는 거리로, 현대의 굿에서는 많이 행하지 않는다. 조선시대에는 삼신선과 부채를 들고 무조신으로서의 신격을 상징하기 위해 어깨에 잣무늬 장식을 한 천민의 예복인 황색 몽두리를 착용하였다. 말명거리를 행하는 현대의 무당들은 평상복만을 착용하기도 한다.
8. **신장거리** : 신장거리는 오방을 지키는 방위신장으로 잡귀와 잡신을 쫓아내어 액을 물리치도록 하는 중요한 거리다. 무복으로는 전립에 구군복을 착용하고 오방기를 든다. 현대의 무당들도 전립을 쓰고 남색이나 연두색 협수와 쾌자를 착용한다.
9. **창부거리** : 예능을 담당하는 광대신으로 하여금 굿의 의뢰인이나 구경꾼들을 흥겹게 하는 거리로, 조선시대에는 평상복 위에 전복을 착용하거나 원삼을 착용하였고 삼신선과 부채를 들었다. 오늘날에도 초록색 원삼에 삼신선을 든다.
10. **성주거리(성조거리)** : 성주는 집안의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집터의 수호신으로, 중요한 신이다. 조선시대에는 흥철릭이나 흑립에 옥색 소창의를 착용하고 삼신선과 방울을 들었다. 현대의 무인들은 대부분 홍철릭을 착용한다.
11. **구릉거리(군응거리)** : 객지에서 무사안녕을 관장하는 구릉신을 모시는 중요한 굿거리였으나 오늘날에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무복으로는 호수장식의 주립에 홍철릭을 착용하고, 삼신선과 방울을 든다. 돈을 흰색 종이에 싸서 들기도 했다. 오늘날에도 주립에 홍철릭을 착용한다.
12. **조상거리** : 조상거리는 굿 의뢰자의 조상신을 받드는 거리로 거리 특성상 신격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도 흑립에 녹색 소창의나 평상복만을 착용하기도 하고 삼신선과 방울을 함께 들기도 했다. 현대의 무당들도 전립에 흑색 쾌자, 주립에 쾌자와 협수 또는 호수 장식의 흑립에 황색 몽두리를 착용하고 삼신선과 방울을 드는 등 각기


1


2


3

1. 감응청배(장옷)

2. 대거리(청철릭)

3. 만신말명(몽두리)
『무당내력(巫黨來歷)』 |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다르게 착용한다.

이밖에도 현대에 이르러 다양한 명칭의 굿거리가 첨가되기도 하며 신들의 특성이 비슷하면 무복 또한 같은 종류를 착용한다.

서울굿에서 접신하는 신은 절대적인 신이긴 하나 우리 인간처럼 인격을 지닌 신이기 때문에 굿에서 착용하는 신복은 인간이 착용하는 의복과 조형적 특성이나 착용방법이 동일하다. 그러므로 조선시대의 서울굿 무복은 기본 형태나 착용 방법 등이 당시 착용된 의복들과 동일하였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전통복을 착용하지 않게 되자 이미 1930년대부터 무복도 전통복과 다르게 변화되었다. 모든 무복의 깃은 마주 보는 쌍깃으로 변했다. 철릭 · 장삼 · 원삼 등 광수의 무복에는 팔을 내놓을 수 있게 팔꿈치 위치의 앞부분에 트임을 냈으며 철릭에는 원삼과 같이 흰색 한삼이 부착되었다. 또한 철릭과 장삼의 허리선에 주름을 약간만 잡아 폭이 좁아지고, 상 · 하의를 한 장으로 재단하여 뒤 중심선 이하를 트기도 하였다. 또는 여성용 몽두리는 통이 좁은 두리 소매에 길이도 짧아져 여성의 두루마기와 같아지는 등 무복 형태가 전통복과는 다르게 변화되었다.

이 외에도 철릭처럼 상의와 하의를 연결하여 만든 원삼이나 활옷처럼 수를 놓은 원삼 및 명칭을 알 수 없는 포 종류의 의복들도 착용하는 등 전통복에선 볼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무복도 등장하였다.

형태 변화와 더불어 장식성도 높아지고 있다. 조선시대 무복은 실생활에서의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어 일반복과 같지만 오늘날에는 다양한 무늬의 금 · 은박을 찍거나 꽃 · 동물문양 등으로 수를 놓아 화려해졌다.

반면에 조선시대의 무복재료는 신복이라 하여 질이 좋은 황세포나 견직물 등을 사용하였지만 오늘날에는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합성섬유를 사용하고 있다.

착용법도 조선시대에는 치마의 길이를 짧게 착용하여 속바지가 보이도록 한 것만 다르고 일반복식과 동일하였다. 현대의 굿에서는 한 거리에서 무복을 여러 번 갈아입기도 하며, 다양한 신을 접신한다 하여 여러 종류의 의복을 겹쳐 입기도 하고, 입고 벗기에 편리하도록 앞을 여미지 않고 착용하는 등 착용법 또한 다양해졌다.

이와 같이 무복이 전통복과 달라진 이유는 무복은 신복이라 하여 오염이 되거나 상하게 되면 불태워 버리고, 무당이 죽으면 불태워 버리거나 함께 묻어 버리므로 무당의 당대에서 끝나기 때문이다. 또한 제작자나 착용자 모두 전통복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전통복과 다른 무복이 계승되고 있다.

참고문헌 巫黨來歷, 조선무속고(이능화, 동양서원, 1927), 한국복식사연구(유희경,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5), 한국의 무당(최길성, 열화당, 1981), 한국무속사상연구(김인회, 집문당, 1988), 한말의 궁중무속(최길성, 교문사, 1989), 한국무속연구(김태곤, 집문당, 1991), 한국의 복식(백영자, 경춘사, 1993), 무당내력을 중심으로 한 무속복식연구(백영자 · 유효순, 한국방송통신대학논문집 5, 1986), 한국종교복식에 관한 연구(임영자,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한국의 무속복식 연구(유효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朝鮮巫俗の研究(赤松智城 · 秋葉隆, 大阪屋號書店, 東京 昭和13年).

필자 유효순(柳孝順)


4


5


6

4. 성조거리(소창의)

5. 신장거리(구군복)

6. 호구거리(평상복)
『무당내력(巫黨來歷)』 |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서울새남굿

정의 죽은 자를 위해 행해지는 서울 지역 무속의 죽음의례에서 규모가 가장 큰 굿. 서울 무속의 죽음의례 중 대표적인 것은 진오기굿으로, 이러한 진오기굿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굿이 새남굿이다. 서울새남굿은 다시 규모에 따라 열새남, 원새남, 천근새남, 쌍궤새남 등으로 나뉜다.

새남의 어원은 확실하지 않다. 새남의 어원으로 문헌자료에서 발견되는 한자어 산음(散陰)이나 새신(賽神)을 의미하는 새남(賽南)이 지적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새남을 순수한 우리말로 보고 재생을 의미하는 '새로 태어남'에서 새남의 어원을 찾는 설명이 좀 더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이는 무속의 죽음의례를 비롯해 한국사회의 많은 전통적인 죽음의례나 관련 놀이가 재생의 모티브를 함축하고 있으며 한국의 각 지역 무속 죽음의례에서 새남이라는 말이 폭넓게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이 굿은 1996년 5월 1일에 '중요무형문화재 제104호'로 지정되었다. 1996년 문화재 지정 당시에 예능보유자로 김유감이 지정되었고, 김유감이 노령으로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2007년 7월 11일에 이상순이 두 번째 보유자로 지정되었다.

역사 서울새남굿이 언제부터 서울 지역에서 행해졌는지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영조 4년(1728) 김천택(金天澤, 생몰년 미상)이 편찬한 가집(歌集)『청구영언(靑丘永言)』「만횡청류(蔓橫淸流)」항에 동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새남굿을 그린 시조가 실려 있고, 1843년경에 유만공(柳晩恭, 1793~1869)이 서울의 풍속을 월별로 나누어 읊은 한시집(漢詩集)『세시풍요(歲時風謠)』의 '시월 스물날'에 역시 새남굿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늦어도 18세기에는 이미 새남굿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울새남굿의 의례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이 행해진 시기를 좀 더 올려 잡을 수도 있다. 서울새남굿은 무속 죽음의례의 하나이면서도 불교와 유교적 요소를 고루 갖추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죽음을 처리할 때 무속과 불교가 상호협조 체제를 형성한 것은 고려시대 이래 이미 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반면에 유교식 상례가 한국사회에 일반화된 것은 조선 중기 이후의 일이다. 서울새남굿에는 무속과 불교적 요소 외에 유교 상례가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유교 상례가 일반화되기 이전 시기로 역사를 소급하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서울새남굿은 유교 상례가 일반화되어 무속의 죽음의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비로소 형성된 것으로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시기는 일러야 조선 중기 이전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서울새남굿에는 조선시대 궁중의 화려한 복식문화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그 형성 시점은 조선 중기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내용 서울새남굿은 크게 전반부의 안당사경을 치





1. 서울새남굿
2. 서울새남굿
3. 서울새남굿
국립민속박물관

는 절차와 후반부의 새남굿 등 두 부분으로 나뉜다. 이러한 서울새남굿은 이틀 굿으로, 첫째 날 밤에 안당사경치기를 시작하여 둘째 날 새벽에 마치는 가운데 새남굿 부분은 둘째 날 오전에 시작한다.

안당사경을 치는 부분은 서울 지역 무속의 전통적인 재수굿 과정으로 구성된다. 주로 이승에서의 인간 삶과 관련된 여러 신을 모시고 죽은 자의 저승천도와 살아있는 가족의 제액초복을 기원하는 과정이다. 구체적인 절차는 주당물림-부정-가망청배-진적-불사거리-도당거리-초가망거리-본향거리-조상거리-상산거리-별상거리-신장거리-대감거리-성주거리-창부거리-뒷전이다. 조상거리에서 망자의 혼을 모셔 초영실을 노는 것이 일반 재수굿과 다를 뿐이다.

그러나 이렇게 안당사경치기에서 일반 재수굿의 절차를 다 진행하는 것은 사후 49일이나 100일 또는 3년 탈상을 거친 죽은 자를 위한 굿에서만 그렇다.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이른바 넓은 의미의 탈상을 거치지 않은 죽은 자를 위한 새남굿의 안당사경치기에서는 앞의 절차에서 불사거리 · 도당거리 · 본향거리 · 성주거리가 생략되며, 무가 사설도 조금씩 달라진다.

후반부의 새남굿 부분은 죽은 자의 저승천도에 집중하는 절차로서, 저승에서의 삶 및 죽은 자의 저승길과 관련된 여러 신을 모시고 죽은 자가 저승세계에 안착하기를 기원한다. 새남굿 부분은 새남부정-가망청배-중디밧산-사재삼성거리-말미-도령(밖도령)돌기-영실-도령(안도령)돌기-돗삼-상식-뒷영실-베가르기-시왕[十王]군웅거리-뒷전 거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새남굿 부분의 구체적인 절차는 굿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서울새남굿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새남굿 부분의 절차이다. 이 새남굿 부분의 절차에 따라 서울새남굿은 크게 얼새남, 원새남, 천근새남, 쌍궤새남 등으로 구분된다.

이 4개의 굿 중에서 원새남, 천근새남, 쌍괘새남의 절차는 큰 차이가 없다. 원새남이 스님을 불러 불교식 재(齋)를 드리지 않는 데 비해, 천근새남과 쌍괘새남은 불교식 재를 드리는 차이가 있다. 천근새남과 쌍괘새남은 재받이 승려를 불러 재를 붙이는 점이 공통되지만 쌍괘새남에서는 시왕탱을 걸고 진행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천근새남과 쌍괘새남은 거의 같은 규모의 굿으로 볼 수 있고, 두 굿과 원새남도 불교식 재의 존재여부 외의 다른 차이가 없다.

위 3개의 새남굿과 얼새남의 차이는 도령돌기에 있다. 즉 원새남, 천근새남, 쌍괘새남에서는 도령돌기가 밖도령돌기와 안도령돌기로 나뉘어 행해지는 데 반해 얼새남에서는 안도령돌기만 행해진다. 밖도령돌기는 대설문이라고도 하는 큰문(이승과 저승 사이에 있다고 여겨지는 문)을 도는 것으로, 밖도령을 마치고 큰문을 통과함으로써 죽은 자는 이승의 세계에서 저승의 세계로 들어서게 된다. 실제 굿에서 죽은 자는 밖도령을 돌고 큰 문을 통과하여 지장보살이 모셔진 연지당으로 가서 지장보살을 뵙고 자비를 구한 다음 가족들과 대화를 나눈다. 안도령돌기는 굿에서 큰 상을 도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는 저승 안에 있는 저승의 12대문을 무사히 통과하여 죽은 자가 극락세계에 왕생하도록 한다는 의미가 있다. 얼새남에서 도령돌기를 밖도령과 안도령으로 나누지 않는다는 것은 이 둘을 나누는 다른 새남굿(원새남, 천근새남, 쌍괘새남)에 비해 죽은 자의 저승길을 의례과정을 통해 좀 더 세밀하게 구현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새남굿과 일반 진오기굿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얼새남을 포함한 다른 새남굿과 일반 진오기굿의 차이는 명두청배에 있다. 즉 새남굿에서는 상식을 올릴 때 명두청배를 하지만 일반 진오기굿에서는 명두청배가 생략된다. 명두청배는 죽은 자에게 상세하게 저승길을 안내하여 죽은 자로 하여금 극락세계에 안착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즉 얼새남을 비롯한 다른 새남굿에는 명두청배를 통해 죽은 자에게 저승길을 좀 더 세밀하게 안내하고 인도하는 반면에 일반 진오기굿에서는 이런 절차가 생략되어 있다. 도령돌기 역시 일반 진오기굿에서는 밖도령돌기와 안도령돌기로 나뉘어 행해지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서울새남굿은 죽은 자가 거치는 일정한 저승길의 여정을 전제하고, 이른바 규모가 큰 굿일수록 저승길의 여정을 의례과정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규모가 작은 굿일수록 이러한 저승길의 과정을 간단하게 처리한다.

서울 무속에서는 죽은 자가 이승에서 저승으로 나갈 때의 문, 이승에서 저승으로 들어가는 문(큰문), 저승에 들어가서 극락세계 연화대와 지옥으로 나눠지는 문(저승 열두대문) 등 3개의 관문을 잘 통과해야만 최종 목적지인 극락세계 연화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새남굿을 포함한 서울 무속의 진오기굿은 이러한 죽은 자의 저승길 여정을 구체적인 의례과정을 통해 가시적으로 재현하면서, 새남굿처럼 규모가 큰 굿일수록 저승길의 여정을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보여준다. 즉 저승길 여정을 불교와 유교의례의 다양한 요소를 끌어들여 정치한 의례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죽음의례가 바로 서울새남굿이다.

서울새남굿은 무속의 죽음의례이면서도 유교, 불교의 다양한 요소를 수용하고 있다. 특히 불교적 요소가 두드러진다. 십대왕, 지장보살 등의 신(神)들과 굿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불교적 축원, 금전 · 은전과 의례용 소도구 뿐만 아니라, 저승과 저승길 개념조차 불교의 영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서울새남굿은 유교와 불교 등 타 종교의 요소를 수동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창조적으로 수용하여 무속 나름의 죽음의례를 구성해냈다. 서울새남굿에는 타 종교의 다양한 요소가 수용되어 있으면서도 무속 나름의 원형적 모습이 유지되고 있다. 죽은 자의 저승길 인도에 있어서 한국무속 고유의 신인 바리공주가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무당의 신내림을 통한 죽은 자와 산 자의 직접적인 대화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무속 나름의 저승길 여정이 바리공주 무가와 같은 무속신화의 구송과 사설, 춤과 노래 등 다양하고 복잡한 의례적 장치를 통해 가시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서울새남굿은 무속의 죽음의례가 유교 · 불교의 죽음의례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종교적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죽음의례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참고문헌 靑丘永言, 歲時風謠, 서울진오기굿(홍태한, 민속원, 2004), 조선무속고-역사로 본 한국무속(이능화 저, 서영대 역주, 창비, 2008) 서울무속 죽음의례의 유형과 구조적 상관성 연구(김헌선, 한국학연구 27, 고려대한국학연구소, 2007), 서울 진오기굿의 종교적 성격과 문화적 위상(이용범, 한국학연구 27, 고려대한국학연구소, 2007).

필자 이용범(李龍範)

상호참조 새남굿(425쪽)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정의 서해안의 옹진 · 연평도 지방에서 선주(船主)가 배와 사공들의 안전 및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주로 정월에 지내는 제의를 배연신굿이라 하고, 벽성군 옹진군을 중심으로 마을의 안녕과 번영 및 풍어를 기원하여 2~3년 기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정월에 성행 하던 마을굿을 대동굿이라 고한다. 이 굿은 1985년 2월 1일에 '중요무형문화재 제82-나호'로 지정되었다.

내용 배연신굿과 대동굿은 서해안 지역에서 행해지던 굿이라는 점은 같지만 전자는 선주들의 개인적인 굿이고, 후자는 마을 공동체 집단의 굿이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굿의 규모나 절차와 내용에서도 적잖은 차이가 있다. 한마디로 배연신굿은 배에서 하는 굿이고, 대동굿은 마을에서 하는 대규모의 굿이다. 규모와 절차에 있어서 대동굿이 훨씬 번다한 편이다. 이는 두 굿의 거리별 순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확연해진다. 배연신굿과 대동굿의 진행과정과 내용을 각각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배연신굿은 한 해 동안 바다에서 무사하고 고기를 많이 잡게 해 달라고 배를 부리는 집에서 하는 굿으로 주로 고기잡이를 쉬는 정월에서 3월 사이에 한다. 정월에 하는 굿은 재수굿의 성격을 띠고, 이삼월에 하는 굿은 불의의 사고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한다.

『김금화의 무가집』에 의하면 먼저 선주가 택일을 받아 단골 만신에게 굿을 의뢰한다. 굿하기 이틀 전부터 사공들은 바닷물에 목욕재계하고 배에서 잠을 자며 금기한다. 선주는 문 밖에 장군기를 달고 집 대문과 추녀 양쪽에 소나무 가지를 꽂아 부정을 막는다. 굿청은 갑판 위 허릿간 쪽에 네 기둥을 세우고 천막을 쳐서 만든다. 경우에 따라서는 굿청을 매지 않고 그냥 배 위에서 굿을 진행하기도 한다. 배의 맨 앞 이물에 있는 돛대에는 호서낭기를 꽂고, 가운데 돛대에는 만장기를 늘어뜨려 그 위에 임경업장군기를 걸고 또 그 위에 국기를 단다. 이물과 고물에는 서리화(버드나무 가지에 백지를 촘촘히 오려 감은 지화 장식)를 피우고 호박등을 단다. 뱃기를 모두 걸고 중간 돛대 위에는 명주나 무명을 길게 늘어뜨린 뒤 중간중간에 장애발이라는 옷고름 모양의 고리를 만들어 매단다. 사고가 있던 배에는 어떤 장식도 하지 않는다. 굿청 정면에 무신도들을 건다. 이를 맞이 띄운다고 한다. 굿상에는 소당애기씨시루, 소당제석시루, 용궁시루, 산시루, 임장군님시루, 성수시루, 대감시루, 감흥시루, 조상시루, 강변시루, 서낭시루 등을 놓는다. 형편이 어려웠던 옛날에는 흰떡시루와 벌시루(허튼귀신을 대접하는 시루), 팥시루를 하나씩 준비하여 각 신명의 몫으로 나누어 대접하고 용신시루만 따로 쪄서 준비했다. 각 시루에 서리화를 꽂고 전발(백지를 그물 모양으로 오려 굿상 위에 벌여놓은 장식으로, 엽전다발을 상징한다)을 걸쳐놓는다. 이 밖에 인절미, 두부 한 모, 삼색나물, 조기, 삼색실과, 정한수, 촛대, 술잔을 놓는다.

거리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청울림** : 굿청의 잡귀를 쫓아내어 정화(부정을 가심)하고 배 위에 올라 잠시 악기소리를 냄으로써 굿을 한다는 사실을 신들에게 알리는 절차이다. 이때에는 무당들만 배에 오르고 일반인들은 자리를 피한다.

2. **당산맞이** : 당산의 신을 맞이하여 굿청에 모셔오는 절차이다. 홍철릭에 꽃갓으로 정장한 만신은 왼손에 방울과 제금, 오른손에 부채를 각각 들고서 뱃기를 든 선원들을 앞세우고 잽이가 길굿을 치는 가운데 선주 가족들과 함께 당에 오른다. 서낭 혹은 임경업 장군을 모신 당에서 먼저 선주가 분향재배한 후 무당은 당신에게 굿하는 날과 장소 · 목적, 배식구들의 이름과 나이 등을 일일이 고한다. 식구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풍어를 기원하는 정성임을 아뢰는 것이다. 부채와 방울을 흔들며 사방에다 반배를 한 만신은 장구 앞에 서서 산유만세장단에 만세받이를 부른 후 느리게 시작되는 거상장단에 맞추어 거상춤을 시작하고, 제금과 방울 소리가 점차로 잦아지는 거상춤 끝에 맴돌이장단에 맞춘 빠른 춤으로 연풍돌기(왼쪽으로 도는 회전무로서 맴돌이춤이라고도 함)를 한다. 당신(堂神)이 몸에 실린 무당은 이 과정에서 신의 자격으로 전환되어 장구 앞에 서서 공수를 준다. 신이 이들의 정성을 기다렸고 오늘 고맙고 반갑게 받으셨음을 확인시킨 후 앞으로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겠노라는 약속을 들려주는 것이다. 이어 무당은 뱃기를 들고 서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제금을 치며 당신이 뱃기에 임하기를 축원한다. "장군님들 하강에 염원입니다. ○○가중에 ○월○○날 배연신입니다. ○○선주의 정성입네다. 장군님 대접하고 ○○호 만뱃등에 장원 달라고 모시러 왔습니다. 배임자님 머리 위에 징명받아 양어깨에 지수받아 내림주소사… 이번 신사 드리고 일 년 열두 달 몸수 곱게 나고 장원 주신다 하시면 내리시오. 임경업 장군님이며 서낭님이며 이물서낭 고물서낭 소당애기씨 다 배연신 대령하고 장원 준다 하시거늘 자 설레입시다." 무당의 제금이 빨라지면서 뱃기를 든 사람의 손이 저절로 떨려 기가 설레이면 당신이 하강한 것으로 믿는다. "본당 장군님 모셔 싣구 연평 바다로 돈실러 갑시다. 어허어아 어야." 무당은 배치기노래를 먼저 시작하여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부르고 한바탕 춤추면서 논다. 배치기노래는 뱃사람들이 뱃일을 하면서 일상적인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을 가사로 만들어 부르는 노래로, 서해안 남부에까지 폭넓게 분포하는 민요이다. 춤추고 논 후 당신이 실린 뱃기를 모시고 다함께 배로 돌아온다. 이 다음부터 굿의 모든 순서는 배 안에서 진행한다.

3. **부정풀이, 부산 띄우기** : 배 안의 뜬귀와 부정을 다 실어 태워서 멀리 떠내려 보냄으로써 배와 굿청 등을 정화하는 절차다. 한 아름 정도의 짚으로 둥근 테를 엮어 가운데에 십자로 살을 만들고 그 위에 짚으로 산과 같은 모양을 만든 원추형의 작은 뗏목을 부산이라고 부른다. 영자(나이가 가장 많은 우두머리 사공)가 바가지에 담긴 물을 솔가지로 찍어 뿌려가면서 배의 이물과 고물 등을 돌아다니며 "부정이야" 소리를 쳐 부정을 풀고, 배에서 거둔 부정(고사상에 차려놓았던 떡과 나물 등)을 부산에 싣고 불을 붙여 바다에 던지면서 "○○호 배임자는 ○○씨입니다. 운수대통 발원이요. 모진 액운 다 젖혀 주시고 다 걷어갑소사"하고 축

1. 김금화 춤

2. 꽃갓(장군놀이중)

3. 막둥이 장가드는 놀이

4. 세경돌기
인천시 월미도 | 1992.10.12 | 김인회


1


2


3


4



무신도 앞 신받기
인천시 월미도 | 1992.10.12 |
김인회

원한다. 무당은 신칼을 들고 춤을 추면서 배를 한 바퀴 돌아본 뒤 이물에서 잠깐 춤을 춘 후 고삿상에 남은 음식을 바다에 조금씩 뜯어 버리고, 사공들 모두는 배치기를 하면서 춤춘다.

4. **초부정 · 초감흥굿** : 굿당의 부정을 씻어내어 정화한 뒤에 제신들을 청배하여 제단에 좌정시키는 절차다. 무당은 왼손에 부채, 오른손에 제금과 방울을 각각 들고 느린 곡조의 긴만세로 신을 청한다. "천하궁으로 삼해나 삼천 아왕 임금의 만세야 지하궁으로 이십팔수 아왕 임금의 만세야 천세만세로 살아살아 만세를 살아 사바세계 남산부주 해동은 조선국에…" 주무가 앞소리를 메기면 장구잽이와 조무들이 후렴을 받는다. 사방을 향하여 두 팔을 넓게 벌리고 서서 신을 맞이한 후 어깨를 움찔 하는 것으로 신이 들린 표현을 하고 가족에게 공수를 준다. 선주 집안의 만조상을 모셔들인 후 가족들에게 오방신장기를 뽑아 재수를 점치게 하고, 다시 긴만세받이로 "일구등신 각귀신명 잽이선에 만등신님들…"을 청배한 후 거상장단에서 차츰 빠른 춤으로 연풍을 돌면서 무구 · 칼 · 의상을 놀리고 나서 이물에 걸어놓은 대신발을 어깨에 둘러메고 이물 · 고물 · 허릿간 등을 다 돌고 난 뒤 조상과 감응신에게 양푼에 든 술을 국자로 떠서 바친다.

5. **영정물림** : 영정은 뜬귀 잡귀로서 부정을 물리는 것과 거의 동일한 기능을 지닌다. 조그만 상 위에 북어와 술 및 음식부스러기를 놓고 빈 후 소지를 올리고 배밖에다 버린다. 바가지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음식과 바가지를 함께 버린다.

6. **소당제석** : 일반적으로 황해도굿에서 제석은 명을 주는 칠성과 함께 모셔지고, 배연신굿에서는 소당제석을 특별하게 모신다. 소당제석굿의 중심이 되는 신은 소당애기씨로, 배를 지키는 신이다. 굿상에는 소당애기씨의 옷감과 화장품상자가 모셔져 있어서 무당은 그것을 들고 춤춘다. 무당은 그 배의 화장(배 안에서 밥을 하고 불을 때는 살림꾼이자 심부름꾼인 어린 소년)을 불러 세워 놓고 시집살이가 얼마나 고생이 심하냐고 위로하면서 머리도 빗겨주고 옷도 새로 입혀주고 화장도 시키면서 온갖 재담을 한다. 화장이 배안에서 하는 일이 밥짓고 빨래하는 여자의 역할이기에 소당애기씨처럼 꾸며 신을 즐겁게 하는 굿놀이다.

7. **먼산장군거리** : 멀고 가까운 여러 지역의 명산에 깃들여 있는 장군들을 청하여 용맹과 위용을 칭송하는 굿이다. 무당은 청쾌자에 병거지를 쓴 차림으로 팔도명산의 이순신 · 최영 · 임경업 등 장군들을 모신다. 장군칼을 좌우로 흔들며 칼끼리 부딪쳐 소리를 내고 칼춤을 추다가 허리를 뒤로 젖히는 장군놀이를 한다. 돼지나 쇠고기를 삼지창에 꽂아 신이 굿을 잘 받으셨는가를 점쳐보는 사실 세우기를 한다.

8. **대감놀이** : 재물을 관장하고 재수를 불어주는 대감신에게 풍요를 기원하는 굿이다. 술마시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호탕한 성격의 신이기에 가장 흥겨운 굿 중 하나로서 안주감인 돼지를 갖고 놀고 막걸리도 마시고 모든 사람에게 술을 권한 끝에 부채와 서낭기로 복을 불어주는 춤을 춘다.

9. **영산대감 · 영산할아뱜 · 영산할먐굿** : 만신이 된 공주를 모셨던 영산할아뱜 · 영산할먐을 모셔 놀게 하는 거리다. 만신은 홍치마 위에 삼베치마와 남쾌자를 입은 다음 머릿수건과 광대(탈)를 이마 위쪽에 비스듬히 쓰고 영산할먐 역할을 맡는다. 할아뱜 역은 배의 도사공이나 박수가 맡는다. 영산할아범은 활옷을 입고 광대를 머리 위에 붙인다. 영산할먐 역의 만신이 만세받이를 할 때 영산할아뱜은 뒤에서 춤을 추며 뒷소리를 받고 "영산할아뱜 할먐 대감님들 놀러나와요. 잽이선에 영신을 대령하니 간 데마다 장원 주시오" 하며 긴 노래를 띄운다. 만신은 대감기를 들고 이물 꼭대기로 가 강신을 받아 춤을 추며 온 배를 돌아다니다가 할아뱜과 만난다. 병자호란 때 헤어진 두 부부가 반갑게 만나 지나간 회포를 풀고 이 배의 화장으로 있는 막내아들 개똥이까지 만나 일가가 배의 풍어와 선주 집의 번창을 축원한다.

10. **쑹거주는굿** : 배임자와 사공들에게 복(고기)을 주고 배의 안전을 기원하는 굿이다. 떡을 올려놓은 긴 무명을 양편에서 붙들고 무당의 노래에 맞춰 좌우로 흔든다. 쑹거장단으로 무당이 복과 풍어를 주는 소리를 메기면 배꾼들은 "어허리 쑹거야" 하고 뒷소리를 받으면서 옷자락을 펼쳐 복떡을 받고 이어 다른 배의 주인들도 와서 저마다 복을 받는다.

11. **다릿발용신굿** : 육지에서 배로 가는 다릿발에서 잡귀들을 풀어먹이는 굿으로, 연희성이 강하다.

12. **강변굿** : 뱃굿이 모두 끝나고 해안으로 내려와 바다에 떠도는 수비 영산을 풀어먹이고, 작은 모형배인 띠배에 각종 제물과 허재비를 싣고 바다로 멀리 띄워 보냄으로써 모든 액을 몰아내고 배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며 바다에서 죽어간 용신들을 위로하고 대접하는 뒷전굿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굿이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황해도굿은 굿을 할 장소를 정리 정화하고, 신을 불러 모시고, 인간의 소원을 고하면서 신에게 축복을 빌고 신의 응답을 받고, 인 · 신이 함께 즐긴 후 신들을 돌려보내는 기본 줄거리가 분명하고 그 구조 위에서 진행된다. 배연신굿은 굿의 주요 무대가 선상이라는 점이 다를 뿐 전체 구조는 여느 굿과 동일하다. 물론 세부적으로는 다른 굿들, 이를테면 대동굿에서 하는 거리들 중 빠지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배연신굿만의 독특한 거리가 들어가 있기도 하다. 배의 수호신을 모시는 소당제석거리와 배임자와 사공들에게 복을 주는 쑹거주는굿의 경우가 그렇다. 배연신굿은 살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망망한 바다에서 고기잡이에 나서는 사람들이 벌이는 굿이다. 대체로 집안의 재수굿 계열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 굿 절차 역시 그 줄거리를 따르고 있지만 소당애기씨, 영산할먐 · 할아뱜 거리들의 내용은 특별히 뱃사람의 삶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신들을 위한 것이다. 무당과 뱃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연극적으로 진행되는 내용 속에서 소박한 주술에 근거하되 작은 공동체의 화해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다져진 힘을 풍어의 의지로 전환시키는 굿이면서 놀이인 것이다.

대동굿은 매년 또는 삼 년마다 정월에 사흘 또는 닷새에 걸쳐 마을의 안녕과 번영 및 풍어를 기원하면서 진행하는 굿이다. 모든 굿의 준비와 진행은 마을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여 치르는 마을축제라고 할 수 있다.

섣달에 굿 준비를 시작한다. 마을에서 조용한 집을 빌려 굿이 끝날 때까지 마을 사람들이 모여 목욕재계하고 금기하면서 굿에 쓰일 온갖 제물과 기물을 만들고 준비한다. 굿에 드는 비용은 집집마다 추렴한다. 정월 초사흘이 되면 마을의 어른들과 선주들이 상의하여 대동굿 할 날을 받고 굿을 준비하고 진행할 제관과 상산막둥이를 포함하여 소임들을 3명에서 9명까지 정한다. 대동굿 날을 받은 날부터 굿이 끝나는 날까지 밤에는 집집



김금화의 작두어름
1992.4.7 | 김인회

마다 불을 밝혀 놓고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는 타관으로 보내는 등 마을 전체가 금기에 들어가 출입을 삼가면서 모든 음식을 장만한다. 굿 준비 과정은 마을에서 남자들이 전담한다. 굿하기 삼일 전부터 당산에다 열 두 발 되는 장군발을 오색 물을 들여서 띄우고, 굿당과 마을도 장발로 장식한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배에 기를 띄우고 수박등 · 서리화 등으로 장식한다. 굿날이 가까워지면 배임자네들이 사공들과 함께 자기 집 마당에 장군기와 뱃기를 세운 다음 제물을 차려놓고 배치기 풍장을 치며 소리를 하면서 밤낮으로 논다.

거리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청울림** : 굿을 한다는 사실을 신들에게 알리는 절차로, 배연신굿과 달리 도가집이나 당산에서 한다.

2. **당산맞이** : 당산에 가서 신을 모셔 굿당으로 내려오는 순서로, 배연신굿의 경우와 대동소이하다.

3. **세경돌기** : 당신을 마을로 맞아 마을 우물에 와서 간단한 고사를 드린 후 마을 집집을 차례로 돌면서 마당에서 한 거리씩 놀고 그 집을 위해 축원과 덕담 및 공수를 준 후 대주에게 쌀 산을 주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논다. 만신과 길 군악은 장단을 치며 집을 옮겨 다니면서 집마다 굿을 할 때 나오는 쌀과 돈을 상산막둥이가 거둔다.

4. **문잡아들음** : 집집마다 세경을 다 돈 다음 굿청에 들어가기 전에 제관과 소임들이 굿청에서 서낭님을 맞이하는 절차다. 이 거리는 제관들과 무당 사이를 왕래하는 상산막둥이가 사령노릇을 하면서 재담 섞인 대화로 무당의 신분과 정체를 확인한 후 "이 대동에 풍어 주고 복주고 명 주려고 서낭님과 장군님 모시고 든 만신"이라는 것이 밝혀져 비로소 무당이 부정을 풀고 굿청 앞에 솔가지로 꾸민 아치형 대동문을 통과하는 연극적 의식이다.

5. **초부정굿 · 6. 초감흥굿** : 부정을 씻고 굿 당을 정화하는 절차로, 배연신굿과 같다.

7. **영정물림** : 배연신굿과 같다.

8. **복잔내림** : 제관과 각 소임이 신이 내린 술과 복잔을 먼저 받은 다음 마을 사람들이 복잔을 받는다.

9. **칠성제석굿** : 명을 주는 칠성과 복을 주는 제석을 함께 모시는 거리다.

10. **성주굿** : 성주굿은 한 집안의 길흉과 재복을 관장하는 성주신을 대접하고 그 집의 길복을 기원하는 굿이다. 대동굿에서는 당집이 성주가 되므로 성주굿을 크게 하지 않는다.

11. **소얼음굿** : 남정네 둘이나 넷이 짚신을 신고 멍석과 짚으로 꾸민 소의 탈을 쓰고 소 노릇을 하는 것으로, 소를 굿 당 앞에 매놓고 상산막둥이를 불러서 소를 어르면서 하는 굿이다. 그 해에 풍작이 되도록 소가 건강하고 일을 잘하게 해 달라고 기원하는 굿으로, 황해도 연백 지방에서만 행해진다.

12. **도산말명 방아찜굿** : 사람이 농사지은 벼를 방아에 찧어 먹듯이 여러 말명님이 명과 복을 방아에 찧어서 인간에게 내려주는 굿이다. 만신은 굿당에 각 뱃집의 방아 찧을 쌀을 모은 다음 큰 함지박에 담아놓고 마을방아를 찧으면서 방아타령으로 축원한다. 타령이 끝난 후 만신은 각 배임자에게 방아 찧은 쌀을 골고루 나누어 주면서 축원한다. 배임자들은 각자 받은 쌀을 어깨에 메고 춤을 추며 자기네 배에 옮겨 싣는다. 이 쌀로 배가 바다에 나갈 때 밥을 지어 고사를 지낸다.

13. **사냥굿** : 신령들이 산삼 녹용을 구하러 산으로 사슴사냥을 가는 놀이로 사슴 대신 돼지를 놓고 사냥놀이를 하는 굿이다. 대동굿의 절차 중 연희적 요소가 가장 많은 부분이다. 마치 마당극 놀이를 방불케 할 만큼 규모가 크고 공간 사용 범위도 넓다.

14. **성수거리** : 만신이 모신 신들을 청배하여 집안과 마을의 안전과 만복을 축원하고 잡귀를 물리는 굿이다. 만신은 한 굿거리 안에서 여러 차례 무복을 바꿔 입는다.

15. **타살군웅굿** : 피를 흘리며 죽어간 여러 군웅과 군웅할아버지를 모셔서 위로하고 대접하여 피를 흘리거나 다치거나 하는 일을 막아 달라고 기원하는 굿이다. 익은 고기와 날고기를 나누어 사슬세우기를 하고, 마을 노인들에게 잔칫상을 차려 올려서 자손들이 세배를 드린 후 남녀노소 구별 없이 음식을 나누고 어울려 춤추며 논다. 여러 거리 중 가장 질펀한 잔치분위기의 굿이다. 많은 사람이 차례로 무관을 서고, 굿이 끝나면 만신은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고기를 나눠 준다. 이때 각 배의 사공들은 고기를 받아 남 보다 먼저 자기 배로 가서 고사를 지내려고 경쟁한다.

16. **대감놀이** : 배연신굿에서의 대감놀이와 마찬가지다. 단 대동굿에서는 여러 대감님네를 다 논 다음 큰 만신이 안주와 술을 마을 사람들에게 권한다. 이때 새 무당과 소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마을 사람 모두에게 술과 안주를 빠짐없이 돌린다.

17. **뱃기내림** : 각 배임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풍어와 배의 안전을 축원해 주는 거리이다. 큰 황고리짝에 쌀을 담고 뱃기 모두를 모아 새끼로 묶은 다음 상소임이 두 손으로 잡고 만신이 제금을 치면서 축원하여 신 내림을 받으면 배임자와 사공들은 각각 자기네 뱃기를 재빨리 찾아 고사 술과 안주를 챙겨 자기 배로 앞다퉈 가서 고물에 기를 꽂고 고사를 지낸다. 고사가 끝나면 모든 배에서 풍악이 울리고 배치기 소리를 한다.

18. **조상굿** : 개인굿이 아니기에 조상굿은 필요없으나 오랫동안 대동굿의 소임을 맡아 마을을 위해 일하다 돌아가셨거나 살아생전 당산에 몸바쳐 정성을 들였던 이가 있으면 제상을 따로 차려 정성을 들이고 그 영혼의 극락천도를 기원한다. 조상님네를 모시는 각 집에서는 따로 만둣국, 밥, 나물, 술, 조기 등으로 조상님 상을 차려온다. 만신은 조상님네를 차례로 모시고 옷이나 손보시(손푸념이라고도 하며, 무명과 베를 60~70㎝ 길이로 잘라 영혼이 저승 가는 길에 손수건 눈물수건으로 쓰라고 주는 것이다. 가로의 가운데 부분을 약간 잘라 놓았다가 대주네의 몸으로 반을 갈라 찢는다)를 만들어 찾아온 조상의 인사말을(공수로) 듣고 "손보시 받아가시오" 하면서 돌려보낸다.

19. **서낭목신굿** : 오래된 고목에 목신이 머물고 당산의 부군님 · 서낭님 등의 높으신 신령님들이 고목에서 쉬기도 한다는 믿음에서 이런 서낭목신들을 불러 덕을 내리어 재수있게 해주고 모든 액을 막아 달라고 기원하는 굿이다. 마을의 고목 밑에서 한다.

20. **장발굿** : 마을의 액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며, 장발을 들고 놀리면서 장발에 좌정했던 신령님들을 전송하는 굿이다.

21. **영산대감 · 영산할아뱜 · 영산할먐굿** : 배연신굿의 경우와 같다.

22. **벌대동굿 · 23. 마당굿** : 굿청에 모인 여러 잡신과 비명횡사한 원혼, 수비 영산들을 풀어먹여서 보내는 굿이다. 온갖 수비 영산 잡신을 차례로 불러 잠깐씩 놀리고 돌려보내는 다양한 모양의 희극적 연희와 함께 골개 섞인 재담이 난무하는 즐겁고 재미있는 놀이판이다.

24. **강변 수살 용신 송신굿** : 모든 액운을 띠배에 띄





1. 대동굿 중 춤추는 김금화

2. 대동굿 중 대감놀이
인천시 월미도 | 1992.10.12 | 김인회

위 바다에 보내 사공들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고, 바다에서 죽어간 영혼을 위로해 주는 굿이다. 띠배는 마을사람들이 함께 만든다. 수수깡과 나무를 섞어 바닥을 만들고, 짚으로 옆을 두르고, 삼색 또는 오색 헝겊으로 작은 깃발을 만들어 배 주위에 둘러 꽂는다. 배에는 산 닭과 돼지머리와 각 집에서 만든 조밥과 떡 조금씩하고 나물 등을 담는다. 만신은 홍치마 검은 쾌자에 초록 동달이를 입고 베머릿수건을 쓴 다음 서낭기와 방울을 들고 사방에 신을 청해 내림을 받는다. 춤을 추며 떡을 창호지에 꼭꼭 싸서 덩어리로 만들고, 밥 · 나물 · 고기도 덩어리로 만든다. 마을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잡밥, 이팝, 나물, 떡 등을 해 와서 강변에 진열해 놓고 각자 두 손을 모아 소원을 빌면서 절한다. 만신과 더불어 상산막등이, 하소임, 마을 사람들은 띠배를 강가로 끌어다 놓은 뒤 자기가 가져온 삼색천을 둘러 꽂아놓고 "홍역마마님을 보냅시다. 하소임이 이 마을 대동굿에 우환, 질병, 걱정, 근심, 돌아가는 돌림병 다 모조리 거두어 이 띠배에 실리고 내물립니다. 먼 바다로 가서 이 마을 잽이선을 보거든 상장원 주시오" 하고 배치기를 하면서 띠배를 물에 띄워 보내며 전송한다. 만신은 "기다리고 바라던 모든 용신들이 잔뜩 먹고 찜뿍 먹고 물러가네" 하면서 춤을 추다가 대신칼을 들고 칼산(칼을 던져서 칼끝이 밖을 향해 떨어지면 모든 잡귀가 나간 것으로 간주하는 신점)을 던진다.

대동굿의 기본 구조는 여느 굿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단 마을 공동체의 집단 제의이자 축제이기 때문에 각 부분의 절차가 번다하고 화려하게 진행되며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가 많다. 대동굿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는 현상 중 하나는 마을 전체를 성역으로 정화하고 선포하는 절차이다. 굿하기 사흘 전부터 당산과 굿당 등에 오색 장군발(장발)을 두르고, 집집마다 등을 켜고, 배마다 기를 달고 하는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마을 주민들의 의식에는 평소와 다른 자부심과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굿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마을 공동체의 단결과 주민들의 선별의식 · 자긍심 · 소속감 등의 정서가 확인되고 강화될 수 있는 절차들이 앞서서 진행된다. 세경돌기 · 문잡아들음 등의 절차가 그렇다. 수많은 신을 청배하여 좌정시켜서 잔치를 즐기고 놀도록 대접한 후 마을을 축복하고 주민들의 안녕과 풍어 및 길복을 약속하도록 매개하는 전문가로서의 무당의 역할은 초대받은 모든 신령만이 아니라 초대받지 못했음에도 잔치에 찾아든 온갖 잡신 · 잡귀 · 원령까지도 만족할 정도로 대접하고 위로하여 돌려보내는 마지막 송신절차를 마쳐야만 끝난다. 그럼에도 대동굿의 진정한 주인공은 마을 주민들이다. 굿의 중요한 절차마다 마을 주민들을 일일이 빼놓지 않고 축복하고 대접하는 행사가 있다. 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앞세우면서 실제로는 주민들이 어울려 노래하고 춤추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취하는 집단적 열락과 환희에 빠져드는 경험을 통해 새로운 희망과 자신감을 공유하는 공감체험이야말로 대동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 값지고 소중한 무형적 자산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옹진 배연신굿(황루시 외, 한국의 굿10, 열화당, 1986), 황루시의 우리무당 이야기(황루시, 도서출판 풀빛, 2000), 한국무속사상연구(김인회, 집문당, 1987), 한국민속대사전1(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김금화의 무가집–거므나따에 만신 희나백성의 노래(김금화, 문음사, 1995), 한국의 굿(하효길 외, 민속원, 2002), 비단꽃 넘세–나라만신 김금화 자서전(김금화, 생각의나무, 2007).

필자 김인회(金仁會)

선무당

정의 서툴고 미숙한 무당. 선은 미숙하다는 뜻으로 직업적인 무당과 비교할 때 가무보신(歌舞寶神)에 숙달되지 못한 서투른 무당을 의미한다.

내용 무당들은 입무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인정을 받아, 신당을 만들어 몸주신을 받들고 굿이나 점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직 완전한 무당이 되지 못한 무당을 선무당이라고 한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은 이러한 미숙한 선무당의 서투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속담으로는 '선무당이 마당 기울다 한다', '선무당이 사람 속인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선무당이 사람 죽인다', '선무당이 장구 탓한다' 등이 있다.

선무당은 무당형(무당 · 박수 등)의 방계로 보살, 신장할멈, 칠성할멈 등을 지칭한다. 이러한 선무당류는 강신 체험으로 무당이 되어 영력을 지니고 있으나 가무로 전통적인 굿을 주관할 수 없다. 간단한 제의인 비손을 하며, 영력으로 점치는 것이 주기능이다. 선무당류는 중부와 북부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고, 남부와 제주도에서도 간혹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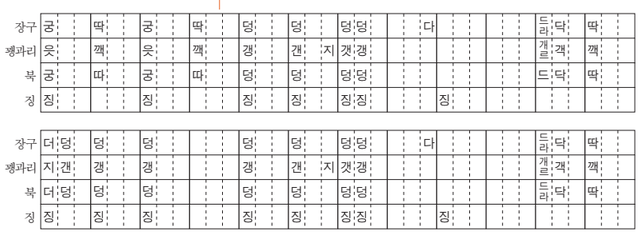
참고문헌 한국무속론(최길성, 형설출판사, 1981), 한국민속문화대사전(김용덕, 창솔, 1991), 우리말 속담 사전(조평환 · 이종호, 파미르, 2008).

필자 손대원(孫大源)

선부리장단

정의 처올리기의 무무(巫舞) 반주나 굿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을을 돌며 연주하는 진도씻김굿의 장단. 3소박 12박으로 3소박 중모리형이지만 강세의 위치는 중모리와 다르다.

내용 선부리장단은 문화재로 지정된 진도씻김굿(문화재팀)에서만 사용하는 장단이다. 중모리장단의 연주 형태에 변화를 주어 새롭게 만들어낸 장단으로 해석된다. 선부리장단의 용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처올리기의 무무(巫舞) 반주 음악이라는 설과 굿하는 것을 알리는 길굿 장단이라는 설이다. 하지만 두 가지 이야기에 관련성이 전혀 없어 신뢰하기가 어렵다. 각각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씻김굿에서 선부리는 초가망석을 가리키며, 조상신인 가망을 모시는 거리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문화재로 지정된 진도씻김굿의 선부리장단은 이와 별로 관계가 없다. 초가망석에서 불러들인 영혼들을 즐겁게 해주고 흠향하게 하는 처올리기 부분에서 무당의 무무(巫舞) 반주음악으로 잠깐 사용되는 점에서 관련성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선부리장단은 대체로 12박 중모리 장단과 유사한 박자 구조로 되어 있다. 선부리장단을 2소박 12박으로 보기도 하고 3소박 12박으로 보기도 하지만 악기의 가락이 세분되지 않기 때문에 악보로 그렸을 때 큰 차이가 없다. 아홉 번째 박에서는 징만 연주하고 열한 번째 박에서는 장구, 꽹과리, 북만 연주한다. 이에 대해 "철악기와 가죽악기가 품앗이로 주고받으면서 친다"고 설명한다. 매 박을 한 번씩 짚어 나가듯이 연주하다가 아홉 번째 박부터 변화를 주는 모습은 취타나 길군악 장단과 유사하다. 아홉 번째 박의 징 연주에 맞추어 인사를 올리기도 한다. 이를 두고 징이 기도 · 기원하는 성음을 만들어 낸다고 설명한다.

선부리장단은 굿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을을 돌며 치는 장단으로 활용되었다고 한다. 이때의 굿은 무당굿이 아닌 마을굿, 즉 당굿이나 유랑집단인 협률사들의 공연을 의미한다. 당굿을 할 때 길굿 장단 대신에 선부리를 쳤고, 협률 단체들이 공연의 막을 올릴 때도 홍보용 길굿으로 선부리장단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선부리는 '시작한다'는 의미의 신호 장단이라고 한다. 협률 단체의 공연이나 굿에서 선부리를 치면 마을의 아낙네들이 "선부리한다. 강아지 밥 차려 드리고 시아버지 밥 퍼줘라"고 말할 정도로 정신없이 일을 마치자마자 구경을 갔다고 한다. 그러나 전라남도 전역에서는 당굿의 길굿으로 오채길굿 계열의 옛질굿(구식질굿)을 연주하고, 협률사들의 홍보용 길굿은 굿거리용 길굿인 협률굿(신식질굿)을 연주한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여러 지역을 유랑하는 협률사가 진도에서만 선부리장단이라는 특이한 장단을 연주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선부리의 의미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선부리장단의 길굿 기능은 오래된 전통으로 보기 어렵다.

선부리장단은 대체로 12박 중모리 장단과 유사한 박자 구조로 되어 있다. 선부리장단을 2소박 12박으로 보기도 하고 3소박 12박으로 보기도 하지만 악기의 가락이 세분되지 않기 때문에 악보로 그렸을 때 큰 차이가 없다. 아홉 번째 박에서는 징만 연주하고 열한 번째 박에서는 장구, 꽹과리, 북만 연주한다. 이에 대해 "철악기와 가죽악기가 품앗이로 주고받으면서 친다"고 설명한다. 매 박을 한 번씩 짚어 나가듯이 연주하다가 아홉 번째 박부터 변화를 주는 모습은 취타나 길군악 장단과 유사하다. 아홉 번째 박의 징 연주에 맞추어 인사를 올리기도 한다. 이를 두고 징이 기도 · 기원하는 성음을 만들어 낸다고 설명한다.

참고문헌 씻김굿의 음악(이보형, 진도의 문화예술, 진도군, 1992), 한국의 무속장단(임수정, 민속원, 1999).
필자 김혜정(金惠貞)–경인교대

선왕상(船王床)

정의 제주도에서 어부와 선주를 수호하는 신인 뱃선왕을 위해 차린 상차림.

내용 어부 · 선주를 수호해 주는 신은 개하르방, 남당하르방처럼 확실한 신명과 직능이 없이 '일 만 어부를 차지한 신'으로 불린다. 이 신격은 선왕 또는 도깨비와 동일시되고 있다. 제주도에서 선왕은 영감, 참봉, 야채 등으로 불리는 도깨비신이기 때문에 영감상이라고도 한다. 큰굿의 끝판 배방선에서 차리는 선왕상에는 영감상으로 돼지머리 · 수수범벅 등을 올리며, 당굿과 뱃고사를 할 때는 돼지머리나 돼지턱뼈를 올리기도 한다. 영등굿을 할 때는 여러 개의 선왕상이 차려진다. 잠수회(해녀회)가 준비하는 도제상으로 요왕맞이상, 영등상과 함께 선왕상을 차리거나 마을에 배를 부리는 선주협회가 준비한 도제상으로 준비한 선왕상과 선주들 각자 집에서 준비한 선왕상이 있다.

선왕상을 차리는 주요 의례로는 풍어제나 영등굿, 돗제, 초하루 · 보름의 뱃고사, 멸치굿(멜굿) 등이 있다. 뱃고사는 선왕 도깨비신을 대상으로 하는 고사다. 뱃고사를 신앙으로 행하는 경우로는 배를 신축했을 때 강태공뱃목시를 청하여 하는 연신맞이 뱃고사, 배를 부리는 사람들이 초하루와 보름에 하는 삭망제(朔望祭)가 있다. 굿으로 하는 경우는 연신맞이 · 선왕굿이 되고, 유교식 제사로 하면 그물고사 · 뱃고사가 된다. 어부 · 잠수들을 관장 · 수호하는 선왕굿(뱃고사)은 돼지고기를 올리는 돗제[豚肉祭]다. 특히 당이나 바다에 갈 때는 돼지고기나 돼지 턱뼈를 올리며, 풍어제나 영등굿에서 영감신을 위한 제상을 차릴 때도 돼지머리를 올린다. 요왕신 · 선왕신 모두 돈육식성의 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신당의 신들은 돗제를 받는 신이기 때문에 속화된 신, 다시 말하면 인간에 가까운 신이기 때문에 생활 현장에 밀착되어 '일 만 잠수 일 만 어부'를 위하여 생업수호신의 직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뱃고사는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삭망제를 지내듯이 배에서 지낸다. 제물을 차려 배의 선장실, 기관방, 고물, 이물, 화장실 등에 제물을 진설하고 술을 올려 배례를 하여 간단히 제를 지낸다. 어떤 배에서는 선장실, 기관방 등에 따로 따로 올리지 않고 이물에다 모두 진설하여 지내는 데도 있다. 선주들은 뱃고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뱃고사[船舶告祀]는 정월에 택일해 하는데 당에 먼저 갔다 온 다음에 뱃고사를 합니다. 그것도 시간이 있습니다. 택일하면 개인별로 차립니다. 그땐 마을제 하는 날과 몇 시에 지내라는 택일이 되면 당집부터 먼저 다녀와서, 배에 가 고사를 지내는 거지요. 당에는 메 한 그릇이고, 배에는 메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보통 세 그릇입니다. 세 그릇부터 다섯 그릇까지 올립니다. 왜냐하면 기관실에 하나, 그물메도 하나 올리고. 선왕, 요왕(龍王), 기관실, 또 키 그렇게 올립니다. 지금은 한장이 없지만 이물에는 이물사공, 한장에는 한사공, 고물에는 고물사공이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한사공이라 하다가 기관실이 되니까 기관사공이라고 하지요."

'멸치굿(멜굿)'은 해안 마을 중 모래밭이 있는 마을에서 멸치잡이의 풍어를 비는 굿이다. 해마다 늦봄이 되면 멸치 떼가 제주도 연안에 몰려들기 시작한다. 이때 모래밭이 있는 해안 마을에서는 지인망(地引網)으로 멸치 떼를 끌어당겨 잡았다. 바로 이것의 풍어를 비는 굿이다. 약 30년 전까지는 심방을 청해 굿으로 해왔고, 그후 유교식 제법으로 바꾸어 해오다가 근래에는 멸치 떼가 몰려오지 않아 지인망 어업이 없어지면서 이 제의도 소멸되었다. 굿으로 할 때는 그 이름을 '그물고사' 또는 '멜굿'이라 했고, 유교식 제법으로 바뀌면서 '해신제'란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1. 칠머리당영등굿에서 굿청의 좌측 상단에 차려진 영감상

2. 칠머리당영등굿의 요왕맞이에서 돼지머리를 올린 요왕상

3. 영감상(선왕상)에 올린 돼지머리
제주도 건입동 사라봉 | 1998.3.22 | 문무병

참고문헌 제주도 큰굿자료(문무병 외, 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1), 한국의 굿(문무병 외, 민속원, 2002),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도서출판 각, 2007), 제주도 본향당 신앙과 본풀이(문무병, 민속원, 2008).
필자 문무병(文武秉)

설경(設經)

정의 충청 지역의 앉은굿에서 경무(經巫)가 독경을 하기 위하여 경상(經床) 앞과 경청(經廳) 안팎에 둘러서 배치하여 귀신을 협박하고 잡아 가두는 역할을 하는 일체의 종이무구.

형태 설경은 창호지에 문양 혹은 글자를 새겨 만든 것으로 대체로 사고지를 세 장 정도 연접하여 경청의 천장 높이에 맞추어서 제작한다. 가장 윗부분과 중간 부분에는 보살 및 저승사자, 경문의 문구 등 여러 문양을 칼로 파내고, 그 아래에는 붉은 글씨로 쓴 부적 형태로 제작한다. 이를 경상이 차려진 한쪽 벽면 전체가 덮이도록 제작한다.

내용 설경은 충청 지역의 앉은굿에서 경청(經廳)을 장식하는 종이무구이다. 지역과 제작하는 법사에 따라 '설위', '설경' 혹은 '설위설경'으로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설경은 종이에 경문을 쓰거나 글자를 칼로 파내어 만든다. 설경의 크기에 따라서 홑설경과 대설경으로 나누기도 한다.

설경은 경문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거나 귀신을 잡아 가두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설경은 독경의 성격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즉, 독경을 하는 주제에 따라서 설경의 내용이 달라진다. 예컨대 칠성 삼신을 모시거나 칠성이 내린 신풀이를 하는 경우에는 칠성 설경을 해서 걸어야 한다. 칠성 설위는 '탐랑', '거문', '녹존' 등 칠성의 각 명칭을 종이를 칼로 파내어 표현하거나 만든다. 이러한 설경은 귀신을 두려움에 떨게 할 수 있는 경문을 종이 무구 제작을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귀신을 직접 가두는 철망 역



1. 설경
충남 청양군 | 2004.9 | 임승범

2. 설경
충남 청양군 | 2002 | 임승범

3. 설경
충남 청양군 | 1997 | 임승범

4. 설경 앞에서 독경하는 법사
충남 태안군 | 2003.4 | 임승범

할과 귀신의 접근을 막는 부적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

참고문헌 대전 · 충남의 무속 연구(대전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7). 부여지역의 앉은굿(오문선, 역사민속학 6, 한국역사민속학회, 1997).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충청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충청지역의 종이무구(임승범, 한국무속학 13, 한국무속학회, 2006).
필자 임승범(林承範)

상호참조 설위설경(465쪽)

설쇠

정의 작은 놋대접을 엎어 놓은 모양의 제주도 무속 타악기.

내용 제주도에서는 여러 타악기가 쓰이는데, 장구, 북, 대영, 설쇠 등이 하나의 틀이 된다. 설쇠는 설쐬 또는 설쒜라고도 발음한다. 제주도의 설쇠는 긴요하게 취급하는 악기로 흔히 '쟁'이라고도 하며 '소제김'이라고도 한다.

설쇠의 생김새는 작은 놋대접을 엎어 놓은 형국이고, 이 설쇠를 채반 위에다 엎어 놓고 쇳가락 두 개로 두드려서 장단에 맞추어서 연주한다. 장단을 연주할 때 가장 먼저 치기 시작해서 가장 늦게 끝나는 것이 요체이다. 설쇠가락은 무악기의 기본적인 가락을 연주하는 특징이 있다.

설쇠는 흔히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설쇠라는 몸체와 그 밑에 놓이는 '체'가 있다. 설쇠는 두드리는 부분의 지름이 14㎝, 두께는 6.5㎝, 시울의 지름은 13.5㎝이다. 설쇠는 보시(폭이 넓은 밥주발)' 비슷한 것을 놓으며 그것을 뒤집어서 두드린다고 이해하면 된다.

체는 지름이 21㎝이고 두께가 6㎝이다. 체의 복판은 얇은 말총을 가지고 만들었으나, 오늘날에는 체의 말총 대신에 전기줄을 얽어서 거기에다 설쇠를 얹어서 두드리는 것이 예사이다.

설쇠는 금속 악기이고, 소리가 맑게 나기 때문에 그것을 나무 연장과 금속 연장을 합쳐서 연주해서 보여준다. 설쇠 역시 대양과 마찬가지로 대장간인 '불미항'에서 제작해서 온다. 설쇠의 채는 밧줄을 꼬아 만들고, 길이가 31㎝, 두께 손잡이 부분은 2㎝, 치는 쪽은 1.3㎝ 정도가 된다.

제주도 연물은 자연적 재질을 가지고 와서 가공하는 1차적 가공물이 있으며, 이와는 다르게 제주도 연물을 특별하게 가공해서 다른 곳에 의뢰해서 만드는 2차적 가공물이 있다. 제주도 연물의 전통적 방식에 따르면 자체 제작에 의해 충당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추정이 타당하다면 제주도 심방 가운데 '불미항'을 전담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육지, 특히 진도의 세습무 가운데 대장장이를 전업으로 하는 무당들이 있었던 전례에 입각하거나 샤먼이 대장장이 노릇을 했다는 전례에 따른다면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다만 그와 같은 물질적 전승 과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제주도 심방도 그러한 구실을 했을 것이라는 판단은 대단히 의문스러운 추정이 될 수밖에 없다.

제주도 연물은 육지의 무악기와는 다르게 독자적 방식으로 전승되고, 전통적으로 제작되어 왔을 가능성이 있다. 보편적 유형의 악기는 지역의 무풍에 의해서 독자적인 변형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제주도 연물이라는 지역 유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 연물은 명백하게 '손의 기억'에 의한 물질전승적 측면이 우세하다. '손의 기억'이 지니는 보편성이 전반적으로 물질전승을 새롭게 이룩한다. 물질 전승은 자신만의 독자성을 이룩하는 것만은 아니다. 다른 요소의 전승과 합쳐져 총괄적으로 이어진다.

설쇠는 구전신화인 〈초공본풀이〉에서는 이를 선성이 지니고 창조했다고 말한다. 이 신은 다른 신이 아니라 설쇠의 '느저왕 나저왕'이라고 한다. 그렇게 해서 신화적 전거와 함께 구비전승과 물질전승이 만나는 현상을 보여준다. 그러한 점에서 설쇠에 대한 기억은 매우 주목할 만한 공통점을 보여 준다.

설쇠에 대한 구음장단이 있어서 이를 종합적으로 보면 매우 중요하다. 삼석연물 장단을 칠 때에 '느꽝나꽝 어우러마짜(느진석)'과 '열두당번 열두당번(중판)'이라고 하거나, '갈라먹게 갈라먹게 고니낭들랑(강약)'이라고 발음한다. 이처럼 악기를 연주하기 앞서서 구전으로 설쇠를 가르치는 특징이 드러난다.

참고문헌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필자 김헌선(金憲宣)

설위설경(設位設經)

정의 앉은굿에서 무경의 내용을 형상화하는 물질전승 일체.

내용 설위설경(設位設經)은 위목을 설치하고 무경을 펼쳐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동음이의어로 설위설경(設位說經)은 위목을 설치하고 무경을 구송하는 것이다. 흔히 '설경(說經)'과 '설경(設經)'을 혼용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무경을 펼쳐 보이는 것으로써 '설경(設經)'이라는 용어가 합당하다. 앉은굿을 연행할 때, 법사는 앉은굿의 목적이나 규모에 부합하도록 제단을 설치하며 제물을 진설한다. 또 위목을 비롯하여 장엄한 형상의 종이부적을 설치한다. 이러한 물질전승을 아울러 설경(設經)이라고 한다. 그런데 설경(設經)이라고 할 때 종이부적으로 한정하기도 한다. 그만큼 설경(設經)에서 차지하는 종이부적의 의미가 크다. 종이부적을 설치할 때라야 법사는 신장을 청배하여 안치할 수 있으며, 잡귀 · 잡신을 위협하여 잡아가둘 수 있다. 무경의 내용 및 의미에 합당한 어떤 내용물을 가시적으로 형상화하여 주술의 효과를 배가하는 것이다.

종이부적의 문양을 흔히 수문(囚紋)이라고 한다. 설경은 굿의 목적이나 크기에 따라 다르게 준비된다. 굿의 규모에 따라 치장하는 정도를 달리하며, 이는 홑설경과 대설경으로 나뉜다. 홑설경은 당일의 짧은 시간 내에 끝나는 독경에 필요한 수문을 만드는 것이고, 대설경은 3일 이상 소요되는 독경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설경은 경문을 읽는 독경의 효과를 강화시켜 주는 요소이다. 설경의 문양으로는 음양오행의 상생, 상극의 원리를 적용한 팔문금쇄진(八門禁鎖陣), 천지사방에 있는 신령들의 이름을 늘어놓는 신령위목(神靈位目), 신장들이 출입할 때 이용하는 통로라고 생각하는 옥추48장군(玉樞四十八將軍),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물어보는 성조대[신장대], 삼불제석(三佛帝釋), 인물신장(人物神將), 집안으로 들어오는 귀신을 막기도 하고 잡아 가두기도 하는 대철망(大鐵網), 모든 신들에게 호령하는 천존신장(天尊神將), 12사자(十二使者), 시왕[十王]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설경은 수문(囚門) 때문에 설진(設陣)이라는 용어와 혼용하기도 한다. 설경의 가장 대표적인 수문은 팔문금쇄진(八門金鎖陣)이다. 이는 삼국지에 나오는 진법이다. 이때 팔문(八門)은 구궁

(九宮)에 맞추어 길흉을 점치는 휴문(休門), 사문(死門), 상문(傷門), 두문(杜門), 개문(開門), 경문(驚門), 생문(生門), 경문(景門) 등 여덟 문을 의미하는 술가의 용어로서 내설경(內設經)을 말한다. 팔진(八陣)은 팔문에 해당하는 방위마다 신장(神將)이나 신병(神兵)의 형상을 둘러치는 입체형 외설경(外設經)을 말한다. 금쇄진(金鎖陣)은 악신을 잡아 가두는 자물쇠로 철망을 말한다. 천상계와 인간계를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고, 악신을 위협·제거하는 신장이나 신병을 포진시키고, 악신을 포위·감금하는 그물이나 자물쇠를 곳곳에 설치함으로써 협신의 강도를 배가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태안 조부원의 귀신착수의 경우, 안방에는 축사단(逐邪壇)과 영가단(靈駕壇), 마당에는 천제단(天帝壇), 문 앞에는 사자상(使者床)을 설치한다. 그리고 갖은 형태의 설경을 제작하여 설치할 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를 금줄로 둘러친다. 각 단은 제의 절차에 부합하여 맞아들이는 해당 신의 강림처를 상징하며, 설경은 악신을 위협 또는 감금하는 일종의 그물을 상징한다. 축사단의 뒷벽에는 12신장의 위목을 세로로 늘여 놓는데 제장의 입지조건, 즉 방위나 풍수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장을 기준으로 산을 향해서는 산왕신장(山王神將), 물을 향해서는 용왕신장(龍王神將), 대문을 향해서는 착귀신장(捉鬼神將)을 설치한다. 그러나 중앙에는 예외 없이 옥황상제(玉皇上帝)를 설치한다. 또한 제단의 설치 및 진설과 병행해서 설경을 설치한다. 축사단 앞에는 소설경(小設經)으로 철망(鐵網)을 설치한다. 철망은 잡귀나 잡신을 포획하는 무구로서 그물을 상징한다. 또한 철망의 윗단에 12신장 중에서 가장 영험하다고 믿고 있는 백마신장(白馬神將)과 보화천존(寶化天尊)의 여덟 각자를 마름모꼴 한지에 적시함으로써 주술적인 효과를 기대한다.

천장에는 술을 거를 때 사용하는 용수처럼 생긴 철망을 설치한다. 흔히 '용수철망'이라고 하는 이것은 잡귀나 잡신을 감금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또한 용수철망을 중심으로 팔방으로 늘어뜨린 팔사(八絲;天禁)를 펼친다. 팔사에는 무경인 〈대축사(大逐邪)〉의 사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삼척검(三尺劍), 용천검(龍泉劍), 비수검(匕首劍), 태아검(太我劍), 망수검(亡手劍), 사수검(死首劍), 막사검(莫邪劍), 참사검(斬邪劍)" 등의 검명(劍名)을 적시한다. 한편 제가의 주위를 외금(外禁)으로 둘러친다. 외금에는 이십팔수(二十八宿)가 적혀 있는 한지를 일정한 간격으로 꽂는다.

참고문헌 굿에 있어서의 설경의 종류와 의미(한상수 외, 대전·충남 무속연구, 대전대 인문과학연구소, 1997), 충청도 설위설경(심우성, 충청도 설위설경전 팸플릿, 2000), 계룡산 굿당 연구(구중회, 국학자료원, 2001), 독경의 명칭 고찰(라인정, 어문연구 40, 어문연구학회, 2002), 충청도 설경 연구(안상경, 한국무속학 5, 한국무속학회, 2002).
필자 안상경(安相敬)

상호참조 설경(463쪽)

성수

정의 영험한 무당이 죽어서 된 신. 무당의 영험함을 담당하며, 무업의 번창을 도와준다. 또 집안의 재앙을 물리치고 집안의 번창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성수라 불리는 신격에는 그 하위에 성수님, 여성수, 남성수, 대신(大神), 대신마누라, 대신할머니, 성수마누라, 성수할머니, 만신할머니, 조상대신 등 여러 다른 이름이 있다.

내용 성수는 무당이 죽어서 된 신이다. 무당의 영험함을 관장하며, 집안의 재앙을 물리치는 기능도 한다. 또한 집안의 번창과 무업의 번창을 도와준다. 무당들은 자신의 스승을 신으로 섬긴다. 특히 황해도 무당들은 스승이 죽으면 신으로 모신다. 이렇게 신으로 모셔진 스승 무당을 성수라고 한다. 무신도를 통해 표현된 성수는 무당이 죽어서 된 신임을 그대로 보여 준다. 무당이 굿을 할 때 사용하는 성수부채를 오른손에 들고, 왼손에는 아흔아홉 상쇠방울과 바라를 줄로 연결한 줄바라를 든 모습을 하고 있다. 성수의 옷도 무당들이 입는 옷이며, 모자도 무당이 굿을 할 때 쓰는 꽃갓을 쓴다. 성수가 그려진 무신도를 보면 오른쪽에 장구를 치는 상장구 할머니가 자리하고 있고, 왼쪽



1. 대신마누라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가로 76.5㎝, 세로 104.5㎝ | 1950~1980년대

2. 남성수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가로 79.5㎝, 세로 99㎝ | 1950년대

3. 구성수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가로 72.5㎝, 세로 99.5㎝ | 1950년대

에는 징을 두드리는 징 할머니가 앉아 있다. 이들 역시 굿을 할 때 필수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에 함께 그려진 것이다. 성수 뒤편에는 신 내린 무당임을 나타내는 명두가 벽에 걸려 있다.

지역사례 성수는 영험이 있는 무당이 죽어서 된 신이자 무당들이 돌아가신 자신의 스승을 신격화한 것이다. 만일 박씨 성의 신아버지를 모시면 박씨 성수, 이씨 성의 신어머니를 모시면 이씨 대신마누라, 김씨 성의 신할머니를 모시면 김씨 대신할머니가 각각 된다. 그러다 보니 성수 관련 신격은 계속 늘어나며 이들의 이름이 다양한 것도 여기에서 기인한다.

성수님은 성수의 존칭이다. 여성수는 여자 무당이 죽어서 신격화된 것이며, 남성수는 남자 무당인 박수가 죽어서 신이 된 것이다. 무신도에 그려진 여성수와 남성수를 구분하는 방법은 성수의 얼굴에 수염이 있으면 남성수, 머리 뒤에 쪽머리가 있으면 여성수이다. 대신은 무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역시 무당이 신격화된 것을 말하며, 대신마누라와 대신할머니는 여자 무당이 신격화된 것이다. 대신할머니의 경우 여자무당으로서 나이가 많은 할머니이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대신할머니를 모실 때는 무당이 입는 무복을 입고 왼손에 아흔아홉 상쇠방울과 오른손에 성수부채를 들고서 무가를 부른 후 할머니가 강림하면 춤을 흥겹게 춘다. 대신할머니는 누구보다도 무당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신격으로 알려져 있다. 성수마누라는 대신할머니와 각각 같은 의미이다. 조상대신이라는 명칭은 대신이 무당인 동시에 조상으로 대접을 받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조상대신은 무당이라면 누구나 모신다.

참고문헌 한국 무속신 고찰(양종승, 몽골학 4, 한국몽골학회, 1996), 무신도 '성수'의 신적 정체성과 의미 분석(이세나, 생활문물연구 8, 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허용호(許龍鎬)

성수청(星宿廳)

정의 조선 전기 나라무당인 국무(國巫)를 두고 국가와 왕실을 위해 복을 빌고(祈福), 재앙을 물리치는(禳災) 굿을 전담한 국가 공식 무속 전담기구.

내용 성수청(星宿廳)은 성신청(星辰廳)이라고도 한다. 성수 또는 성신은 별자리라는 뜻으로, 도교(道敎)에서 이름을 빌려온 것 으로 보인다. 성수청의 무당을 국무 또는 국무당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고려 후기의 무속기구를 이은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는 별기은(別祈恩)이라는 불교와 도교적 성격의 국행의례가 있었고 이것은 무속과도 관련되어 있었다. 무속적 별기은은 조선 전기로 이어졌는데 국무(國巫)를 두어 국가적 차원의 공식적인 굿을 거행하였다. 성수청과 관련된 기록

은 『성종실록(成宗實錄)』,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중종실록(中宗實錄)』에 걸쳐 모두 10회 정도 나온다.

성종 8년(1477) 9월 성수청의 수리를 반대하는 논의에 대해 임금이 "내가 처음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조종조 때 시작한 것이다."라고 답한 것이 성수청에 관한 첫 기록이다. 이로 보아 성수청은 이미 그 이전부터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국무의 제장은 감악, 덕적, 목멱 등 여러 곳에 있었다. 대표적인 제장인 국무당(國巫堂)은 송악, 즉 개성에 있었다.

그러나 성리학이 체제 정립의 근간인 조선에서 이심원(李深源), 남효온(南孝溫) 성현(成俔) 등 사대부들은 성수청의 존속을 강하게 비난하고 혁파할 것을 요구했다. 조선 왕조에서 무당을 모두 성 밖으로 축출했으나 성내에는 성수청을 두어 국무가 공식적으로 나라와 왕실을 위한 굿을 거행한 것은 사대부의 유교적 논리에 가당찮은 일이었다. 그래서 성종 9년(1478) 11월 홍문관 부제학 성현의 상소문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성수청을 성내에 두고 있으면서 백성만 무속행위를 못하게 한다면 잘못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중종 1년(1506) 10월 소격서(昭格署)와 성수청을 혁파하라는 상소를 마지막으로 성수청에 대한 언급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중종반정 이후 결국 성수청은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식적인 국행의례 기관으로서의 성수청은 사라졌지만 왕실 내행(內行)의 별기은은 유생들의 반대 속에서도 조선 말기까지 지속적으로 행해졌다.

참고문헌 成宗實錄, 燕山君日記, 中宗實錄, 조선조 무속 국행의례 연구(최종성, 일지사, 2002), 조선무속고-역사로 본 한국무속(이능화 지음, 서영대 역주, 창비, 2008).

필자 신연우(申蓮雨)

성인굿

정의 함경도에서 전승되는 굿으로, 여러 성인의 내력을 일괄해서 하나로 모시는 작은 재수굿. 이를 달리 '셍굿', '센풀이', '세인굿' 등으로 불린다.

내용 성인굿의 주된 목적은 노인의 무병장수, 가족의 축원, 득남, 재산의 부귀공명 증식 등을 기원하는 것이다. 성인굿의 특징은 여러 성인(聖人)의 본풀이가 종합적으로 구연되는 것이다. 또한 삶의 의미를 고양하고 삶을 증식하고자 하는 신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점이 아주 독특하다.

성인굿의 본풀이를 보면 여러 성인의 내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선행 연구는 각기 차별성을 띠고 있지만 대체로 동일한 관점에서 내용을 분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찍이 이 본풀이에 주목하여 다루었던 연구자에 의하면 처음에 거칠게 분할했지만 나중에 이를 다시 재론하면서 신화적 성격을 분명하게 예시했다. 다음으로 성인굿의 실제를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의미 해독을 시도하고, 평안북도 강계의 자료와 견주면서 의미 탐색을 했다.

서사적 내용의 정리는 일차적으로 각기 의의를 지니고 있어서 서로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서대석은 미륵과 석가의 인세차지경쟁담, 석가의 치세담, 강박덱이와 모시각시담, 청애선비담, 원맥이의 희생담, 서인님의 장자징치담, 세주아기와 삼제석담 등으로 분할하고 이를 중심으로 이 굿의 신화적 성격에 대해서 논의했다. 임석재는 천지개벽신화, 강박덱이와 모시각시, 원맥이 설화, 천년두레 천년장재비, 아홉방 세주애기 등으로 분할하였다. 두 연구자는 의미 부여하는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의 관점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각각 다룰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관점을 존중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재편해 다루게 되면 다음의 몇 가지로 다시 정리할 수 있다.

1. 창세신화, 미륵과 석가의 대결 : 성인굿에서 성인의 근원과 내력을 말하는 과정 중에 중국과 우리의 성인을 말하는 것이 있다. 중국에 성인이 있으므로 우리에게도 성인이 있다고 하는 자존심의 발현이 이러한 성인의 내력과 창세 과정에서 구현된다.

이 세상을 차지한 신격이 누구인가 말하는 과정에서 미륵과 석가의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과정이 예시되어 있다. 원래 세상을 만든 신과 이 신이 만든 세상을 부정한 방법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신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세상의 창조와 치세는 각기 다른 것임을 말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석가의 일 · 월 혼돈 정립과 물 · 불의 근본 마련 : 부정한 방법으로 차지한 이 세상에 혼돈이 일어났다. 이 혼돈의 핵심은 우주적 혼란으로 세상에 있는 해와 달이 각각 두 개라는 것이다. 이 우주적 혼돈을 소거하는 것이 석가의 임무로, 자신의 부정과 직결되었다. 사회적 혼돈과 우주적 혼돈 역시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인간사회의 혼란을 중심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과정이 제시된다. 석가가 미륵을 찾아가서 이 문제의 해법을 구한다.

석가는 물과 불의 근원을 찾아내고 인간 사회의 죽음이 이룩되면서 이를 처리하는 화장법을 마련한 뒤 절을 짓고 문화를 이룩하는 면모를 보여준다. 또한 새로운 문화 창조를 이루면서 이 방법을 통해 인간 사회의 질서를 수립하는 면모가 예시된다.

3. 강박덱이와 모시각시 대결담 : 창세신화에 이어서 성주신화의 내용과 제의적 기원을 이루려는 이야기가 이어진다. 이 신화적 내용의 요점은 강박덱이와 모시각시가 한쪽은 궁궐을 짓고, 다른 한쪽은 천을 짜는 대결이다. 강박덱이가 이 대결에서 패배하자 하늘의 옥황을 협박해 성주신으로 좌정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성주신화의 일정한 맥락과 연계되어 있어서 이 자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본풀이가 있음에도 이 이야기가 있는 것은 성인굿의 남다는 면모를 파악하게 한다. 특히 창세신화의 뒤에 이 이야기를 놓은 것은 각별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이 내기를 하면서 집짓기와 베짜기를 하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를 환기하게 한다.

4. 청애두레 청애선비 이야기 : 이 대목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 내용을 요약해 정리하게 되면 다음과 같다.

> 장자가 자식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안헤산 금상절의 중이 와서 시주를 구하자 장자가 시주를 한다. 장자에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말을 하지 않는다. 다른 곳의 절에 있는 인물이 와서 시주를 구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묻고 절에 와서 삼일기도를 하라고 한다. 아이가 말을 하게 되고 아이 자신은 절간의 성인님이 되겠다고 하면서 출가한다.
> 아이가 안헤산 금상절에 가서 염불을 하는 것을 보고, 그곳의 중들이 신선춤을 추느냐고 하면서 아이를 박대하자 아이는 그곳 절의 중들을 구렁이로 만들어 대문에서 섭기게 한다. 아이 자신은 안헤산의 금상절을 크게 일으키게 된다.

이 내용은 신성성을 부정하고 도전하는 무리에게 다시 자신의 영험함을 보여주고 신앙적 회복을 꾀하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절 건립과 관련된 이야기가 독립적으로 부가되면서 이 이야기가 이어졌음이 확인된다.

5. 원산두레이 원맥이 시주이야기[人柱說話] : 경주 봉덕사의 에밀레종 유래설화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이 이야기는 전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인주전설(人柱傳說)의 범주에 속한다. 인경의 영험이나 주조 과정의 신비성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무속신화로 수용되어 구연된 것으로 보인다. 중세 전설에 이러한 이야기가 널리 전승되고 있어서 중세 종교의 신비성과 성스러움을 강조하는 이야기와 동궤의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적 사업의 불교적 신앙심을 고취하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봉덕사종' 기원설화에서 이를 입증하고 있다. 성인굿에 이러한 내용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음으로써 이 이야기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6. 천년두레 천년장재비 징치 : 이 이야기는 이른바 장자못 전설과 관련된 불교의 패망 및 홍수신화를 연결하는 이야기와 맥락이 닿아 있다. 창세신화와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홍수신화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점에서 이 이야기는 매우 소중한 의미가 있다. 장자가 악행을 저지르자 며느리가 이를 말리는 일을 한다. 이에 중은 파멸을 막을 방도를 일러주지만 이 방도의 금기를 어겨서 집안이 멸망했다고 하는 것이 이야기의 결말이다.

7. 아홉방 세주애기 이야기 '제석본풀이' :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당금애기의 유형과 상통하는 이야기이다. '아홉방세주애기'는 함경도에 전승되는 제석본풀이 유형의 본풀이로서 여기 셍굿에 수록

되어 있다. 제석본풀이가 여러 이야기에 마지막으로 수록된 것은 특이하지만 다른 지역의 사례로 보면 별반 이상한 현상도 아니다. 셍굿 자체가 종합적인 본풀이 성격이 있으므로 유사한 본풀이가 통합되어 묶여진 점을 감안하면 이상한 현상도 아니다.

서인님과 세주애기가 결연하여 자식을 낳게 되는 점, 세주애기 혼자서 고난을 당하다가 신성한 아이 셋을 낳는 점, 나중에 신성한 아이들이 아버지가 없음을 알고 아버지를 찾아나서는 점, 아이들이 아버지를 찾아서 신성한 시련을 견뎌내고 자식임을 인정받는 내용이 있는 점,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어머니를 위해 신직을 요구하는 점이 중심을 이루는 내용이다.

성인굿과 성인굿의 여러 본풀이가 서로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여러 다른 유형의 본풀이가 민담적 원천을 지니고 있으면서 이 자료로 수렴되면서 독자적인 굿의 형태를 이룩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본풀이의 원천을 계승하면서도 이 굿의 실제적 의례는 재수굿의 일환으로 연행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관북무가-2차분(임석재 · 장주근, 문화재관리국, 1965), 이승과 저승을 잇는 신화의 세계-함경도 망묵굿(임석재, 열화당, 198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서사무가연구(서대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8).

필자 김헌선(金憲宣)

성주굿

정의 집안의 길흉화복(吉凶禍福)을 관장하는 가옥신(家屋神)인 성주신에게 식구들의 재앙을 물리치고 행운이 있게 해 달라고 비는 무속제의. '성조(成造)굿'이라고도 한다.

역사 성주굿의 역사는 옛 문헌 상의 기록이나 방증자료가 흔치 않아 기술하기가 어렵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10월에 "집집마다 무당을 데려다 성조신(成造神)을 맞이하여 떡과 과일을 베풀어 놓고 빌어 집안의 편안함을 바란다"는 내용이 있다. 1914년에 대종교 2대 교주 김교헌(金敎獻)이 간행한 『신단실기(神壇實記)』에는 10월에 시루떡, 술, 과일 등을 차려놓고 굿을 하는 성조(成造)가 "단군이 백성들에게 처음 거처의 제도를 가르쳤고 궁실을 조성하였으므로, 인민이 그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해 반드시 단군이 단목(檀木)에 내려온 달에 신의 공로에 보답하는 굿"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성주굿의 뿌리를 단군이 나라를 조성한 것과 연관시키고 있지만 그 입증은 간단하지 않다.

내용 성주신을 모시는 제의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성주신을 처음 봉안하는 제의이다. 이를 '성주맞이' 또는 '성주받이'라고 부른다. 다른 하나는 집안의 재복을 비는 성주굿이다. 성주신을 처음 혹은 새롭게 봉안하는 성주맞이 또는 성주받이는 성주신을 받들어 위안하는 굿이다. 이 밖에도 성주신에게 재복을 비는 비손과 고사가 있지만 이것은 굿이라 할 수 없다.

집을 새로 지었거나 새로 마련한 집에 으뜸신으로 성주신을 모시는 것이다. 그런데 집을 새로 마련하였다고 하여 아무때나 성주를 모시지는 않는다. 대주의 나이가 27 · 37 · 47 · 57 · 67 등과 같이 7의 수가 드는 해 10월에 택일하여 한다. 경상도 지방에서는 대주의 나이가 23 · 27 · 33 · 37 · 43 · 47과 같이 3과 7의 수가 되는 해 10월에 택일해 성주받이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전국적으로 대주의 나이가 7의 수가 드는 그 해에 성주받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성주맞이 혹은 성주받이 과정을 거쳐 집 안에 성주신을 모셔 놓게 되면 정기적 · 비정기적으로 고사를 하고 재수를 발원하는 성주굿을 한다. 집안을 단위로 해서 식구의 재복을 비는 제의이기에 성주굿의 목적은 당연히 가족의 제액(除厄)과 재수발원이다. 이런 이유로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지방에서는 재수를 비는 굿을 성주굿이라 부르기도 한다. 진행과정이 각 지역 재수굿의 일반적인 절차와 동일함은 물론이다.

지역사례 경기 지역의 성주맞이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주맞이 또는 성주받이는 무당을 불러 오후 늦게 시작하여 밤에 끝난다. 먼저 대청에 다 굿상을 차려놓고 주당살을 가린 다음 부정거리, 가망거리, 말명거리, 상산거리를 놀고 나서 성주신을 맞는 성주맞이로 들어간다. 이때는 무당이 약 100㎝ 높이의 생솔가지 중간에 백지 1장을 묶어 놓은 성주대를 잡고 뜰에 나가 성주신을 맞아들여 놀리고 나서 성주신의 좌정처를 성주대가 가리키게 되면 대에 매달았던 백지를 풀어 동전을 넣은 후 접어서 청수에 적셔 성주대가 가리킨 상량대 밑의 벽이나 양주(樑柱)의 상부에다 붙인다. 그 뒤 무당이 손으로 쌀을 한 줌 집어 세 번 뿌리며 재복을 많이 점지해 달라는 내용의 축원으로 "천석 만석 불려 줍소사"라고 한다. 이렇게 성주신을 맞아 앉히고 나서 〈황제풀이〉를 구송하여 성주신에게 집을 짓게 된 내력담을 고한다. 〈황제풀이〉를 구송할 때는 새로 봉안된 성주신의 신체를 향해 소반에다 백지를 깔고 쌀 세 되를 소복이 부어놓은 다음 촛불을 켜서 성주상을 다시 차려놓은 뒤에 성주신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집 짓는 법을 가르쳐 주고 성주신으로 좌정하였다는 내력을 고한다. 이하 별상거리에서 뒷전거리까지는 다른 일반 굿과 동일하다.

다른 지역의 성주맞이 절차도 경기 지역과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성주신의 신체 모양에는 차이가 있다. 서울에서는 흰 종이에 동전을 싸고 접은 다음 여기에 깨끗한 물을 부어서 대들보에 붙여 놓고 마르기 전에 흰쌀을 던져 그 위에 붙인다. 충청북도는 서울과 비슷하지만 가옥의 가운데 기둥[上柱]에 붙이는 것이 다르다. 평안도와 함경도에서는 쌀을 항아리에 담아 대들보 위에 봉안한다. 이 밖에도 성주대에 잡아맨 백지를 청수나 막걸리에 축여서 구형(球形)이 되게 만들어 성주신의 좌정처에 던지면 반구형(半球形)이 되게 하는 방법, 이와 같은 성주대의 백지를 장방형이 되게 접어서 막걸리나 청수에 축여 성주신의 좌정처에 붙이고 쌀을 뿌리는 방법, 성주대의 백지를 길게 접어 그 한 허리를 실타래로 떠서 상기둥의 위쪽에 나무못을 박고 걸어두는 방법, 성주 신체를 오지단지나 동이에 쌀을 넣어 성주신으로 모시는 방법 등이 있다. 지방에 따라서는 성주신을 맞을 때, 대주가 성주대를 잡고 춤을 추어 성주신을 놀리기도 한다.

서울 지역에서는 집을 새로 지었거나 대주의 나이가 27세 · 37세 · 47세 · 57세 되는 해에 재수굿을 할 때 성주굿을 한다. 27세 초년성주, 37세 이년성주, 47세 중년성주, 57세 대성주라고 해서


1


2


3

1. 성주올리기
2. 정석산씨댁 성주독
3. 성주굿
국립민속박물관

이때는 새로 성주를 모셔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 외 집을 고치거나 동티가 나서 성주가 집을 나갔다고 생각되면 성주굿을 한다. 성주굿은 재수굿의 제차를 모두 마친 후 뒷전을 하기 직전에 한다. 먼저 소나무 가지에 한지를 묶은 성주대를 내린다. 대가 내리면 대가 움직이는 대로 밖으로 따라 나가서 새 성주를 모셔 오게 된다. 집주인은 상에 떡과 음식을 차려 놓고 나가서 신에게 절하고 성주를 다시 모셔 온다. 집에 들어오면 한지를 막걸리에 축여 동전과 실을 묶은 것으로 성주의 신체를 만들어 대들보나 안방 문 위에 붙인다. 성주 쪽을 향해 쌀을 뿌려 축원한 뒤 무당은 장구를 치면서 성주풀이 혹은 황제풀이를 부른다. 서울 지역의 마을굿인 도당굿이나 부군당굿에서도 뒷전을 하기 직전에 굿거리로 황제풀이를 부르며 성주굿을 한다.

영동 지역에서는 서낭굿이나 별신굿과 같은 마을 공동의 굿에서 제석을 모신 후 성주굿을 한다. 이 지역에서는 성주굿을 할 때 반드시 갓을 쓴다. 강릉의 경우 한지로 갓 가운데를 묶어 성주신의 신체를 표시한다. 이것은 편안할 '安'(안)자처럼 "여자가 갓을 쓰면 편안하다"는 뜻에서라고 한다. 무녀는 장단에 맞추어 성주가 산에 올라가 좋은 나무를 골라 집을 짓는 과정과 축원하는 내용의 성주무가를 부른다. 성주굿 마지막에 막걸리에 적신 한지를 서낭당의 서까래나 벽에 던져 붙이는 마을도 있다.

황해도 지역에서는 철물이굿이나 만수대탁굿을 할 때 성주를 모신다. 특히 새롭게 집을 지어 굿을 할 때는 성주굿을 크게 한다. 그 집을 지은 목수들을 청해 놓고 온갖 놀이를 하는 것이다. 무당은 먼저 춤과 노래로 성주를 모셔 대접한 후에 목수를 불러 집 짓는 과정을 흉내 내는 놀이를 한다. 무명 한 필을 펼쳐 성주 대들보 한가운데에 걸쳐 놓고 무명 양쪽 끝을 맞춘 뒤 한 끝은 목수, 다른 한 끝은 무당이 각각 잡은 뒤 톱질하는 흉내를 내면서 서로 잡아당긴다. 무명이 길게 끊어진 쪽이 무명과 성주상에 놓인 쌀과 돈을 가져간다. 이어 목수들은 시루를 무명끈으로 매어 들고 지정타령을 하면서 집 안을 돌고, 앞마당에서는 터주가리 절주비를 쓰고 업이 좌정하는 흉내를 낸다. 무당은 마을 성주나무 앞에 가서 성주를 받아 집 안으로 모셔간 후 성주와 지신과 업이 모두 자리를 잡았으니 집안이 평안할 것이라는 공수를 주고 굿을 마친다.

전라도에서는 도신굿, 운맞이굿, 뱃굿 등의 재수굿이나 다양한 씻김굿을 할 때 굿거리 가운데 하나로 성주굿을 한다. 위도 원당제와 같은 마을굿을 할 때에도 가장 먼저 성주굿으로 시작한다. 내용은 성주신이 집 짓는 과정을 설명하고 축원하는 것으로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라북도에서는 성주굿을 든임내굿이라고 부른다. 보통 집을 새로 짓거나, 이사하거나, 성주 생일이 돌아오거나, 집안에 우환이 생긴 경우에 굿을 한다. 도신굿과 거의 흡사한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굿의 핵심이 성주신을 떠받드는 데 있으므로 굿거리 중에서도 성주굿이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 굿거리 성주굿은 전반부인 성주모시기와 후반부인 성주풀이로 구성된다. 전반부는 성주를 모시기 위한 명당터잡기(지경다구기), 성주모시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반부는 성주를 모신 후에 성주를 놀리기 위한 옥관자올리기, 입춘붙이기, 화초타령, 운맞이, 업맞이, 명당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도에서는 집을 새로 지었을 때 성주풀이를 한다. 새로 지은 집에 성주신을 모셔 앉히고 집안의 행운을 비는 성주굿을 제주도에서는 성주풀이라고 한다. 초감제에서 여러 신을 청하여 새집을 지은 집안의 번영을 기원한 후 강태공서목시라는 굿놀이를 한다. 강태공서목시는 심방(무당)과 소무가 분장한 강태공서목시의 대화와 모의적인 놀이로 진행된다. 먼저 강태공은 숫돌에 도끼를 갈고 집 안을 돌아다니면서 도끼로 재목을 찍는 흉내를 낸다. 이어 주춧돌을 의미하는 시루떡에 대가지를 꽂고 그 위에 한지를 덮어 상징적으로 집을 지어 놓고 집터가 좋은지 산을 받아본 후 축원하고 물에 적신 한지를 네 벽에 던져 붙이는 지부찜으로 굿을 마친다.

참고문헌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한국무속연구(김태곤, 집문당, 1981), 한국민간신앙연구(김태곤, 집문당, 1983), 위도의 민속(국립민속박물관, 1984), 김금화의 무가집(김금화, 문음사, 1995), 한국민속의 세계 9(김헌선 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한국 민속문화대사전상권(김용덕, 도서출판 창솔, 2004), 조선무속고(이능화 지음, 서영대 역주, 창비, 2008), 전북지역 무당굿의 유형과 특징(이영금, 실천민속학 연구 11, 실천민속학회, 2008).
필자 허용호(許龍鎬)

상호참조 안택굿(627쪽)

성주상

정의 집을 수호하는 신령인 성주신에게 바치는 제물의 상차림.

내용 집을 조성한다는 의미로 집을 수호하는 신령이 성조신(成造神)이라고도 불리기 때문에 이 상차림을 성조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보통 전라도 지역에서는 기제사와 차례를 모실 때 별도로 성주상을 차려서 혈친 조상의 조상신으로 성주신을 모신다. 가정에서는 성주신을 집안의 대들보를 지켜주는 집안 신령으로서 조상에 해당되는 신령으로 인식한다. 굿에서는 성주거리를 별도로 두어 성주신을 모신다. 무당에 따라 성주신이 조상신과 같다고 보아서 성주상 대신에 조상상을 차리는 경우도 있다. 성주풀이와 관련된 민요와 무가가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보아 굿에서 성주상을 모셨던 시기를 조선시대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추정하지만 문헌적 근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새남굿에서 마련되는 상은 의례 절차에 따라 크게 안당사경맞이상과 새남굿상으로 나눌 수 있다. 안당사경맞이상에서 가장 핵심에 놓이는 큰상에는 불사상과 조상상이 차려지며, 그 앞에 대안주상과 성주상이 마주 붙어 대상을 이룬다. 대상은 다시 불사상, 조상상, 대안주상, 성주상으로 구성된다. 성주상은 조상상 앞에 놓인다. 성주상은 집안을 지켜주는 주인인 성주신령에게 바치는 상이다. 성주신은 남자 조상 중에서 종손을 상징하며, 다른 말로 대감신령이다.

우선 맨 뒷줄에 붉은 팥떡을 길게 놓고 그 위에 술잔 2개를 놓는다. 절편으로 만든 대감떡은 팥떡 앞줄에 놓이며, 그 위에는 소족이 오른다. 그리고 맨 앞에는 성주시루를 놓는다. 성주시루에는 쌀을 가득 채우고, 거기에 북어 세 마리를 꽂는다. 이것은 쌀이 성주신령을 상징하며, 성주신령에게 바치는 제물로 북어가 쓰이는 것을 의미한다. 시루 양쪽 밖에도 북어 두 마리를 천으로 묶어 꽂는다. 하나는 떡시루 안쪽으로 꽂고 시루 안에 막걸리를 한 대접 놓는다. 가정에서 성주신을 모실 때 차리는 제물은 햅쌀이다. 일반적으로는 단지에 햅쌀을 넣어 대들보 옆의 시렁에 모신다. 따라서 굿에서나 가신신앙에서나 동일하게 쌀은 성주상에 으뜸 제물이다. 그 이유는 쌀이 주식이면서 구하기 어려웠고, 동시에 조선 후기에는 화폐 대용으로 쓰였을 정도로 귀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서울새남굿(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한국음식대관 5(상차림 · 명 · 기구)–민속신앙 상차림(주영하, 한국문화보호재단(편), 한림출판사, 2002).
필자 주영하(周永河)

성주풀이

정의 가택신(家宅神)인 성주신(城主神)과 그 부인인 터주신의 내력을 이야기하는 무가(巫歌) 또는 무속신화. 새로 집을 지었거나 이사한 경우 집의 신인 성주신을 모시는 굿을 하거나 독경(讀經)을 할 때 부르거나 읽는 것이 성주풀이이다. 일반적으로 성주신은 집의 주인인 남성을 보호하는 신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집의 주재신이 된다. 이에 따라 성주신은 대청의 대들보 위에 모셔진다. 지역에 따라 성조푸리, 성조풀이, 성주본가, 성조신가 등의 이칭이 있지만 성주풀이가 널리 받아들여지는 명칭이다.

내용 지금까지 보고된 〈성주풀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 전승되는 황우양씨 유형과 부산 동래 지역에서 전승되는 안심국 유형이다. 황우양씨 유형의 자료 가운데 가장 일찍 채록된 판본은 아카마쓰 지조(赤松智城)와 아키바 다카시(秋葉隆)가 편찬한 『조선무속의 연구(朝鮮巫俗の硏究)』에 수록되어 있는 〈성주본가〉이다. 이 자료는 경기도 고양시 용인면 아현리의 이성녀 무녀가 제보한 것이다. 이 밖에도 황우양

씨 유형에 속하는 경기도 안성의 남무(男巫) 송기철이 구연한 성주굿 무가(안성본)가 『한국구비문학대계(韓國口碑文學大系)』 1-6(조희웅 조사 정리)와 『안성무가』(서대석 · 박경신 조사 정리)에 실려 있다. 안심국 유형은 손진태의 『조선신가유편(朝鮮神歌遺篇)』에 실려 있다. 이것은 1925년 12월 동래군 구포면 구포리에 살고 있던 최순도가 제공한 무가 책을 전사한 것으로, 제보자는 당시 경상남도 맹인조합장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두 유형 외에도 경북 안동 지역에서 성주를 봉안할 때 부르는 성주풀이가 있지만 민요적 성격이 강하고 무속신화적 성격은 약하다.

두 가지 유형 모두 하늘과 땅의 결합을 통해 성주신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용은 상당히 다르다. 황우양씨 유형은 천하궁 천대목신과 지하궁 지탈부인 사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아이가 성장하고 결혼한 뒤 어느 날 난데없이 동풍이 불어와 천하궁이 기울어진다. 궁이 기울자 궁을 수호할 성주신도 사라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명된 존재가 지하궁 황산 아래에 사는 황우양씨이다. 이때 연장이 없어 고민하는 황우양씨에게 부인이 천하궁에서 받은 쇠로 대목 연장 일습을 만들어 준다. 그리고 부인은 천하궁으로 떠나는 황우양씨에게 가는 길에 누구에게도 말대꾸를 하지 말라는 금기를 준다. 그러나 황우양씨는 소진뜰에 사는 소진랑의 꾀에 휘말려 말대꾸하다가 옷까지 바꿔 입게 된다. 황우양씨는 천하궁으로 떠나고 소진랑은 황우양씨의 옷을 입고 돌아와 남편이라고 속이면서 부인을 차지하려 한다. 그때마다 부인이 꾀를 내어 소진랑을 피하는 사이에 황우양씨는 꿈을 꾼 뒤 점을 쳐 변고를 알게 되어 급히 일을 마치고 돌아온다. 집으로 돌아와 숨겨둔 부인의 혈서를 읽고 사정을 알게 된 황우양씨는 새[鳥]로 변신해 부인의 치마폭에 숨어든 뒤 소진랑을 잡아 돌함에 가둔 다음 그에게 서낭신의 신직을 준다. 그리고 부인으로부터 누에를 길러 베를 짜는 재주를 배웠다는 말을 들은 황우양씨는 부인에게 지신(地神)의 신직을 주고 자신은 성주신이 된다.

안심국 유형은 고전소설의 도입부처럼 시작된다. 천궁대왕과 옥진부인은 늙도록 자식이 없어 기자치성을 드린 뒤 태몽을 꾸고 아들을 낳는다. 관상객에게 아들을 보이니 부인을 소박하고 18세 때 무인도 황토섬에 3년 동안 귀양을 갈 관상이라고 한다. 이름은 태몽대로 안심국, 별호는 성조씨라고 짓는데 자라는 동안 일취월장하여 나이 15세가 되자 무불통지(無不通知)한 인물이 된다. 그때 성조씨가 지하궁에 집이 없는 것을 보고 집을 지으려고 내려간다. 그러나 쓸 나무가 없자 옥황에게 고하여 솔씨를 받아 뿌린 뒤 천궁으로 돌아온다. 18세에 계화부인과 결혼했으나 부인을 박대한다. 성조씨가 주색방탕(酒色放蕩)에 빠져 있다고 간신들이 주달하자 천궁대왕은 그를 황토섬에 귀양을 보낸다. 황토섬에서 짐승처럼 살다가 계화부인에게 혈서를 써서 청조(靑鳥)를 통해 전한다. 이에 귀양에서 해제되어 3년 만에 입궐, 다시 계화부인을 만나 5남 5녀를 낳는다. 그 뒤 나이 70세, 솔씨를 심은 지 49년 만에 자식들을 거느리고 지하궁에 내려와 쇠를 마련하여 각종 연장을 만든 후 나무를 베어 집을 짓는다. 집을 다 지은 후 성조씨는 입주 성조, 계화부인은 몸주 성조, 성조 아들은 오토지신(五土地神), 딸은 오방부인(五方婦人)의 신직을 각각 차지한다.

의미 〈성주풀이〉 신화는 근본적으로 가족의 기초인 부부관계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는 〈성주풀이〉가 주로 집을 새로 짓거나 이사를 한 뒤 성주신을 모시는 굿에서 부르는 무가라는 사실과 관계가 있다. 집은 삶의 터전이고, 집 안에서 삶을 사는 이들은 부부라는 관계를 통해 가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 무속신화는 바람직한 부부관계를 이야기함으로써 새 집에 사는 가족의 안녕을 비는 굿을 정당화하는 구실을 한다. 요컨대 시련을 이긴 부부가 각각 성주신과 터주신이 되었으니 가신(家神)을 잘 모시면 가정의 평안도 이루어지리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뜻을 구현한 형식인 무속신화에는 유형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두 유형 가운데 더욱 주목되는 것은 황우양씨 유형이다. 이 유형에는 서사가 진행되면서 부인의 위상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날 뿐 아니라 신격으로 좌정하는 과정에서 이질적 문화의 대립과 공존이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황우양씨 유형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공간은 소진랑이 사는 소진뜰이다. 천하궁과 지하궁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적 공간인 이곳을 거치면서 황우양씨와 부인 간의 관계는 극적으로 변모된다. 황우양씨는 천지의 결합으로 태어난 영웅적 인물임에도 천하궁의 부름 앞에서 연장 문제로 쩔쩔맨다. 이때 연장을 마련하는 존재는 이름도 분명하지 않은 부인이다. 이들 부부관계에서는 부인이 우월하다. 부인은 우월할 뿐 아니라 쇠를 다루는 대장장이의 모습까지 보여준다. 그러나 천하궁을 다시 세운 뒤 소진뜰에서 수난 당하고 있는 부인을 구한 황우양씨의 태도는 달라진다. 즉 부인의 재주를 시험하는 우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반면에 부인은 양잠(養蠶)과 베 짜기 능력을 시험 받는 위치에 선다. 다시 말해 부인의 소진뜰 수난과 황우양씨의 천하궁 보수를 거치면서 부부의 위계가 역전되는 것이다. 황우양씨는 확고한 가부장의 지위를 획득한다. 또 이야기의 종결부에서 황우양씨와 부인은 가신(家神)이 되는 반면에 소진랑은 서낭신이 되어 행인들의 침을 받아먹고 들짐승을 사냥하여 먹게 된다. 이런 신직의 배치를 통해 우리는 수렵이동 문화에서 농경정주 문화로의 변모와 두 문화의 대립 및 공존을 읽을 수도 있다.

황우양씨 유형과는 달리 안심국 유형은 처음부터 가부장인 안심국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안심국의 문제는 탁월한 인물로 태어나 열다섯 살에 무불통지할 정도가 되었지만 결혼 뒤에 계화부인을 박대했다는 데 있다. 이유는 분명하게 서술되어 있지 않지만 주색방탕이라는 간신들의 모함 속에 드러나 있다. 가부장의 주색과 방탕이 안심국 가정의 문제적 상황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황토섬의 유배생활이다. 이 통과의례를 거친 뒤 안심국은 주색방탕을 잊고 나이 일흔이 될 때까지 5남 5녀를 둘 정도로 부인과 원만하게 산다. 통과의례 이전에는 지하궁에 집을 지으러 내려갔어도 집을 지을 수가 없었다. 쓸 나무가 없었다는 것은 가부장의 자질을 아직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통과의례 이후에는 소나무를 재목 삼아 집을 잘 짓는다. 그런데 이 같은 이야기 전개 과정에서 주인공은 단연 안심국이다. 철을 마련하여 연장을 만드는 존재도 안심국이고 집을 짓는 것도 안심국이다. 계화부인은 그저 울거나 청조가 물고 온 안심국의 편지를 시아버지 천궁대왕에게 전달하는 수동적인 역할만 수행한다. 황우양씨 유형에서 보이는 부인의 적극적인 형상이 안심국 유형에는 보이지 않는다. 더 철저하게 가부장제를 반영한 〈성주풀이〉가 안심국 유형이다.

참고문헌 서사무가 1(서대석 · 박경신 역주,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한국신화의 연구(서대석, 집문당, 2001), 우리 신화의 수수께끼(조현설, 한겨레출판, 2006).

필자 조현설(趙顯卨)

세경본풀이

정의 제주도에서 행해지고 있는 무속의례 가운데 큰굿과 같은 곳에서 구송되고 있는 본풀이로, 상세경인 문도령과 중세경인 자청비 및 하세경인 정수남의 세 경신에 관한 근본 내력을 설명하고 있는 신화. 자청비라는 여신을 중심으로 그녀의 일생을 설명하고 있어 자청비 신화라고도 한다. 신화의 마지막에는 이 여신이 하늘에서 오곡종자를 가지고 음력 칠월 열나흗날 지상으로 내려왔다고 전하는 만큼 농경기원신화(農耕起源神話)적 면모를 보이며, 자청비네 집의 종으로 그려져 있는 하세경 정수남은 나중에 우마(牛馬)관장신이 된다. 따라서 이 신화는 결국 농축관장신(農畜管掌神)에 관한 신화로 볼 수 있다. 자청비는 오곡과 메밀씨를 전해 주는 문화영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성신의 사랑과 영웅적인 면모를 중시하면 이 신화는 여성영웅신화로 볼 수도 있다.

내용 〈세경본풀이〉는 농경기원신인 자청비를 중심으로 그녀의 출생, 문도령과의 만남과 수학(修學), 사랑과 이별 및 재결합, 공업담, 신직 좌정을 그리고 있는 신화이다. 그런 만큼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자청비라는 여신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신화 가운데 가장 장편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풍부하고 사건도 다양하다. 굿판에서 심방에 의해 오랜 세월 구비전승되어 온 것이기에 채록된 자료에 따라 부분적으로 내용이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생담] 집안이 부요(富饒)하지만 늙도록 자식이 없어 걱정하던 부부가 권제삼문을 받으러 온 대사의 말을 듣고 동개남은중절로 원불수륙을 드리러 가다가 도중에 길을 바꿔 서과남의 무광절에 가서 원불수륙을 드린다. 동개남은중절의 대사는 부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서과남무광절로 간 것을 괘씸하게 생각하여 부부에게는 딸을, 하녀에게는 아들인 정수남을 점지한다. 부부는 딸을 낳아 자청비라 이름 짓는다.

[문도령과의 만남] 열다섯 살이 된 자청비가 못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을 때 글공부를 위해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문도령이 이곳을 지나가다 자청비를 보고 반하여 마실 물을 달라고 한다. 자청비가 물이 든 바가지에 버들잎을 띄워 주니 문도령이 화를 낸다. 자청비는 문도령이 급하게 물을 마시다 체할까봐 일부러 버들잎을 띄웠다고 말하니, 문도령은 그 말을 그럴듯하게 생각한다.

[문도령과의 동문수학] 자청비는 문도령을 보고 반하여 자기를 자청비 동생이라 속이고 남장(男裝)을 하고 따라가 문도령과 함께 같은 서당에서 한 방에 머무르며 삼 년을 공부한다. 문도령은 자청비가 여자인가 의심하여 오줌 멀리 누기 등 여러 가지로 시험하나 자청비는 기지를 발휘해 자신이 여자임을 속인다.

[문도령과의 사랑 및 이별] 삼 년이 지나자 문도령에게 장가들러 오라는 하늘옥황의 편지가 와서 문도령이 서당을 떠나게 되자 자청비도 공부를 마치고 함께 돌아오다가 중도에서 목욕을 하며 문도령에게 자신이 여자임을 밝힌다. 둘은 자청비의 집으로 돌아와 사랑을 나누고 본메를 나누어 갖고 헤어진다.

[자청비와 정수남의 갈등] 자청비네 집 소와 말을 각각 아홉 마리씩 모두 열여덟 마리나 잡아먹은 정수남은 혼이 날까봐 자청비에게 산에 문도령이 노니는 것을 보다가 우마를 잃었다고 거짓말을 한다. 자청비는 문도령의 소식을 듣고 좋아하며 그와 함께 산에 간다. 하지만 자청비는 정수남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되고, 자기를 겁간하려는 그를 죽인다. 부모는 자청비가 일 잘하는 남종을 죽였다고 집에서 쫓아낸다.

[서천꽃밭의 사위가 된 자청비] 자청비는 남장을 하고 서천꽃밭으로 가서 부엉새를 잡아주는 공을 세우고 그 집의 사위가 된 후 생명꽃을 얻어와 정수남을 살린다. 그러나 부모는 여자가 남자를 죽였다 살렸다 한다고 다시 내쫓는다.

[문도령과의 재결합] 자청비는 청태국할망의 수양딸이 되어 하늘나라 문도령에게 갈 비단을 짜면서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함께 짜 넣는다. 이것을 본 문도령이 자청비를 만나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온다. 그러나 자청비의 실수로 문도령은 그녀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다. 이 일로 자청비는 청태국할망에게도 쫓겨나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가 문도령이 내려 보낸 선녀들을 도와주고 하늘로 올라가 문도령을 만난다.

[문도령과의 결혼] 문도령은 부모에게 자청비와 결혼할 것을 청하고, 자청비는 시부모가 낸 시험인 숯불을 피운 오십 자 구덩이 위에 칼을 거꾸로 세우고 그 위를 통과해야 하는 통과의례를 치른 뒤에야 문도령과 결혼한다. 문도령과 약혼한 서수왕따님애기는 분통한 나머지 자살하면서 온갖 사기(邪氣)를 만들어 낸다. 결혼 후에 자청비는 문도령에게 서천꽃밭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문도령을 서천꽃밭으로 보내어 양쪽 집을 오가며 보름씩 남편 노릇을 하게 한다. 그러나 문도령이 돌아오지 않자 자청비는 시부모가 죽었다는 거짓 편지를 새의 날개에 끼워 보내 그를 돌아오게 만든다.

[문도령의 죽음과 환생] 하늘나라에서는 자청비의 미모가 소문나면서 많은 선비가 모여 그녀를 푸대쌈하기로 한다. 그리고 선비들은 잔치를 벌여 그녀의 남편인 문도령을 초청한 후 술을 먹여 죽이려고 한다. 문도령은 자청비의 기지로 잔치에서는 죽지 않았지만 결국 외눈할망에게 속아서 죽는다. 자청비는 기지를 발휘해 선비들의 푸대쌈을 모면한 뒤 남장을 하고 서천꽃밭으로 가 환생꽃을 가져다가 문도령을 살려낸다.

[자청비의 공업담] 나라에 변란이 일어나자 자청비가 서천꽃밭에 가서 생명을 죽이는 악심꽃을 가져와 난을 진압한다.

[농경신으로의 좌정] 자청비는 이 공을 인정받아 하늘옥황으로부터 '오곡종자'와 '열두시만국'을 얻어 음력 칠월 열나흗날 문도령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온다. 와서 보니 부모는 죽어 없고 정수남은 굶어서 죽어가고 있었다. 자청비는 정수남을 위해 밥을 준 늙은이의 밭에 풍년을 주고, 밥을 주지 않은 아홉 형제의 밭에는 흉작을 준 후 정수남을 목축신으로 좌정시켜 마불림제를 얻어먹고 살게 한다. 그러나 그녀가 지상으로 와보니 메밀씨를 잊고 와서 하늘에 가서 다시 가져왔기에 메밀은 수확 시기가 조금 늦게 되었다.

지역사례 육지 무속에서는 현재 〈세경본풀이〉와 똑같은 신화는 구송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세경본풀이〉의 일부 내용과 유사한 내용들이 무가로 구송되고 있기도 하고, 전설이나 민담 혹은 고소설 등에 나타나고 있다.

〈세경본풀이〉에는 자청비와 문도령이 처음 만났을 때 문도령이 자청비에게 마실 물을 달라 하고, 자청비는 물바가지에 버들잎을 뿌려 주는 대목이 있다. 이와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유명 인물들의 결연담에 전승되고 있다. 고려 태조 왕건(王建, 877~943)과 장화왕후(莊和王后, 생몰년 미상) 오씨가 만날 때, 조선의 태조 이성계(李成桂, 1335~1408)와 둘째 부인 강씨가 만날 때, 그리고 연산조 때 이장곤(李長坤, 1474~1519)과 고리 백정 천민의 딸이 만날 때도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것은 남성에 비해 비록 신분은 낮지만 지혜로운 똑똑한 여성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회자되고 있다.

함경도의 문굿에 포함된 설화 내용은 중국의 '축영대 설화'를 수용한 것이며, 또한 이 설화를 소설화한 것이 〈양산백전〉이라는 연구가 있다. 그런데 이 내용의 일부는 〈세경본풀이〉 중 자청비가 남장을 한 채 문도령과 함께 서당에서 동문수학 하고, 3년 후 헤어질 때 연못에서 목욕하다가 자청비가 문도령에게 비로소 자신이 여자임을 밝히는 내용과 일치한다. 문굿에서는 문도령이 양산백으로, 자청비가 추양대로 되어 있다. 여덟 살이 되었을 때 이 둘은 함께 은하사 절에 가서 10년 가까이 공부를 한다. 열여섯 살이 되어 한강에서 목욕할 때 혈수가 떠내려 오는 것을 보고 양산백은 비로소 추양대가 여자임을 알고 청혼한다. 추양대의 부모는 양산백의 집안이 가난하기에 허혼하지 않고 추양대를 다른 귀문에 시집보내기로 한다. 결국 양산백은 추양대를 잊지 못하여 죽으면서, 추양대가 시집가는 길에 묻어 달라는 유언을 남긴다. 추양대는 시집가는 날 양산백의 무덤이 있는 곳에 도착하여 금봉채로 무덤을 치며 "양산백의 무덤이 분명하면 표적을 내달라"고 하니 묘가 갈라지고, 추양대가 그 속으로 들어간다. 묘가 다시 합쳐진 후 추양대의 나삼자락이 밖으로 나와 있어 사람들이 그것을 떼어내니 모두 나비가 된다. 추양대 설화의 앞부분은 〈세경본풀이〉의 내용과 유사하지만, 뒷부분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남아 있다.

〈세경본풀이〉에는 자청비가 남종인 정수남을 살리기 위해 남장을 하고 서천꽃밭에 들어갔다가 그곳의 사위가 된 후 환생꽃을 얻어와 정수남을 살려내고, 나중에 문도령을 대신 보내 그 집의 사위 노릇을 하게 하는 내용이 있다. 육지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설화들이 전승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자청비와 남종의 관계가 누이와 남동생의 관계로 나타나며, 누이는 죽은 남동생을 살리기 위해 남장을 하고 생명꽃이 피어 있는 집에 들어가 사위가 되었다가 훗날 남동생을 살려 그곳으로 보내 사위노릇을 하게 한다.

의의 〈세경본풀이〉는 현재 제주도에서 큰굿을 할 때 31개의 제차 가운데 17번째로 행해지는 세경본풀이라는 굿거리에서 구송되고 있다. 이처럼 〈세경본풀이〉는 하나의 제차인 동시에 신화로도 남아 있다. 그러나 이 신화는 원래 열두 거리 큰굿과 같은 것에서 여덟 번째 거리인 '세경제'에서 구송되던 신화일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농경기원신 및 목축신을 맞이하여 굿을 하면서 농경을 가능하게 해준 신에 대한 감사와 풍농 기원, 우마와 같은 목축이 번성할 수 있기를 기원한 제의였다고 볼 수 있다. 세경제는 우리 인간의 삶에서 먹을

것, 즉 식량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에, 이러한 문제를 세경신과 같은 존재에 의존하여 해결해 보고자 행해진 제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세경본풀이〉는 바로 이와 같은 제의 속에서 구송된 신화였다.

〈세경본풀이〉는 우리 민족문화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우선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 오곡종자, 열두시만국, 메밀씨를 가져다 준 농경기원신 및 목축신의 내력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민족도 농경기원신화 혹은 목축신에 대한 신화가 있음을 알게 해 준다. 신화 내용에서 '오곡'과 '메밀씨' 이외에 자청비라는 여신이 가지고 왔다는 '열두시만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오곡이나 메밀 등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말하는 열두 개의 나라(國)를 뜻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가을에 거두어들이는 모든 곡식이나 온갖 채소류의 씨앗으로 보는 학설 등 몇 가지 설이 있다. 또한 〈세경본풀이〉는 우리나라 백중(百中)의 기원이 우리 민족의 농경기원일일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자청비라는 여신이 하늘로부터 열두시만국과 오곡종자를 받아 지상으로 내려오는 날이 바로 음력 칠월 열나흘이라고 하며, 그래서 이날을 백중대제일(百中大祭日)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날이 온갖 제일(祭日) 가운데 가장 크고도 중요한 제일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사실을 중시하면 백중은 여러 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일로서 우리 민족의 농경기원일을 기념하는 날이 되는 셈이다.

농경신이 여성신인 것은 세계에서 보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세경본풀이〉에서도 중심이 되는 농경신은 바로 여성신으로 나타난다. 농경신이 여성신인 것은 여성이 생래적으로 지니고 있는 잉태 · 생산 · 번식의 신비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세경본풀이〉와 같은 여성영웅신화도 탄생한 것이다. 그러기에 〈세경본풀이〉에는 자청비라는 여신이 여성이 한 달에 한 번 거쳐야 할 법지법(法之法)을 마련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세경본풀이〉의 내용은 자청비와 문도령의 연애와 사랑이 중심을 이룬다. 이것은 농경에 있어 곡물 수확이 '암수의 결합에 의한 열매 맺음'이라는 논리적 인식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남녀의 사랑과 결합으로 아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신화창조집단은 이러한 사실로부터 유추하여 식물 역시 암수의 결합에 의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풍농을 거두고자 하는 심정에서 농경기원 신화 속에 이처럼 신들의 애정결연적 요소를 많이 포함시켰을지도 모른다. 이 신화에는 또한 특이하게도 '남장'과 '여장'을 하는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한다. 자청비의 예를 들면 문도령과 함께 공부하러 갈 때와 정수남을 살리기 위해 서천꽃밭으로 들어갈 때이다. 여장과 남장은 남성의 여성화 또는 여성의 남성화를 의미한다. 남자이면서 동시에 여성인 상태이며 여성이면서 동시에 남성인 상태를 의미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곧 남녀 양성의 내재적인 성결합 상태, 즉 '양성구유(兩性具有)'의 상태를 상징한다. 신화나 의례의 문맥에 있어 양성구유는 흔히 우주적 풍요와 관련해 이해할 수 있다. 〈세경본풀이〉에 나타나는 일관된 주제로서의 애정성취담과 양성구유적 모습은 바로 우주적 풍요 혹은 오곡의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잠재적인 요소로 나타난 유사 성행위적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자청비가 오곡종자와 메밀을 하늘로부터 가지고 왔다는 것에는 '곡물'은 원래 하늘, 즉 신의 세계에 속해 있다는 인식이 내재해 있다. 이것은 곡물이 신성하고 존귀한 것이라는 사고를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다. 농경기원 신화에 있어 남녀 두 신이 각기 하늘과 땅의 존재로 설정된 것은 농경은 땅과 하늘이 함께 주관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마련되었다. 씨앗은 땅에 심지만 햇빛과 비는 하늘에서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농경신에 대한 본풀이에 목축신에 대한 내용이 함께 설명되고 있는 것과, 특히 목축신이 되는 정수남이 자청비네 집의 하인으로 설정된 것은 농업을 위해 마소가 이용되던 것의 비유적인 표현이다. 아울러 이들이 주종관계로 된 것은 가축 사용을 농경의 종속된 수단으로 파악한 것이다. 또 마소의 힘을 이용한 것이기에 목축신은 특히 힘의 상징인 남종으로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청비라는 여신의 이름에는 비를 부르는 주술의 원리가 숨어 있다. 농경에 있어 비는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화에서는 여신의 이름을 '자청해서 비를 부르는 신'으로 부른다. 〈세경본풀이〉는 농경기원 신화이기에 모든 내용이 농경과 풍농의 원리에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제주도 무속을 통해서 본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이수자, 집문당, 2004), 서사무가연구(서대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68), 제주도 무속신화의 몇 가지 특징(박경신, 국어국문학 96, 국어국문학회, 1986), 농경기원신화에 나타난 여성인식과 의의(이수자, 이화어문논집 11,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1990), 백중의 기원과 성격(이수자, 한국민속학 25, 한국민속학회, 1993), 설화에 나타난 버들잎 화소의 설화적 기능과 의의(이수자, 구비문학연구 2, 1995).
필자 이수자(李秀子)

세령무(洗靈舞)

정의 굿 의식 가운데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겨 위로해 주는 춤.

내용 굿의 씻김의식은 인간을 육체와 영혼의 이원적 결합체로 보고 육신이 죽은 후에도 영혼이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내세에서 영생한다는 민간신앙에서 나타났다. 씻김굿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씻어 저승으로 보내주는 망자를 위한 제의식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진도씻김굿에서 추는 춤은 신이 노는 신유무(神遊舞), 부정을 씻기 위하여 잡신을 몰아내는 축귀무(逐鬼舞), 신을 청하는 청신무(請神舞), 신을 보내는 송신무(送神舞), 신을 즐겁게 하는 오신무(娛神舞), 씻겨서 위로하는 세령무(洗靈舞), 한스럽게 죽은 혼을 달래는 진혼무(鎭魂舞) 등이 있지만 특히 진혼무와 세령무를 위주로 한 지전춤이 주축이다.

진도씻김굿의 의례 과정 가운데 무녀가 망자의 혼을 씻기면서 지전을 가지고 추는 지전춤이 세령무의 대표적인 춤이다. 지전춤은 굿의 여러 대목에서 나타난다. 특히 혼을 씻기는 영돈말이 대목에서도 지전춤이 사용된다. 여기에서 제석자리에 씻김하는 분의 의복 일체와 사람 형태의 넋을 놓은 다음 자리를 말아 묶어 세우고 유가족이 잡고 곡을 하기 시작하면 이때 무녀가 지전을 들고 노래한 후 씻김의식의 춤을 추기도 한다. 망자의 영혼에 부정을 씻겨주기 위해 기다란 하얀색 지전을 양손에 쥐고 이를 가지고 움직이면서 추는 지전춤은 모든 액을 막고 살을 풀어준다는 의미로 신과 죽은 이의 영혼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지전춤의 춤사위 특징은 대칭미, 대비미, 조화미, 점층미, 곡선미 등 다양한 형식미를 들 수 있다. 기다란 지전을 활용하기 때문에 움직임의 방향성과 상하좌우의 상체 놀림이 주동작으로 구성되어 있다. 춤사위는 바람막이사위, 외바람막이사위, 태극무늬사위, 가위질사위, 좌우에기, 회오리바람사위, 꽃봉오리사위, 다듬이질사위, 쳐올리기사위, 상모놀음사위 등이 있다. 원이라는 움직임의 형태 안에서 지전을 든 양손을 좌우로 열고 닫거나 돌리는 사위들로 구성되어 곡선 형태와 직선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움직임은 일정한 규칙이 있는 무법의 기본인 막고 여는 바람막이춤을 기본으로 여러 형태(아주 느리게, 조금 느리게, 느리게, 아주 빠르게, 조금 빠르게, 빠르게)로 나뉘어 발전된다고 할 수 있다. 손에 든 지전으로 인해 다양한 선이 나오면서 죽음에 대한 슬픔을 우아하고 무게 있는 움직임으로 표현하고 있다.

지전춤은 망자가 저승으로 가는 길을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닦아 준다는 세령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의식행위는 우주만물을 원의 형태로 보고 그 속에 존재하는 모든 액을 지전이라는 상징도구를 통해 직선과 곡선 형태로 '액을 막고 살을 푼다'는 무속의 상징체계를 갖고 있다. 지전춤의 무구 · 무복 · 무악은 춤 수행을 뒷받침하는 보조수단으로, 무구인 지전은 돈을 상징한다. 이들 보조수단은 신과 망자의 사이에서 의미를 전달하는 중요한 상징적 부호로 작용한다. 무복은 소박하고 단순하지만 흰색 치마와 저고리를 입기도 하고 그 위에 장삼 · 고깔 · 주홍당사를 착용하여 불교적 색채를 내포하기도 한다. 무악은 시나위 무속음악의 독특한 장단과 당골의 소리 및 악사들에 의한 연주되는 무악은 지전춤을 하나의 독립된 예술작품으로 고양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세령무는 무녀가 망자, 특히 조상이나 한스럽게 죽은 사람들의 혼을 씻겨서 달래주고 혼기를 풀어주기 위해 추는 춤으로 지전을 사용하여 춘다. 이러한 지전춤은 춤과 노래로 신에게 빌며 후손으로 하여금 죽은 자와 접하게 한다는 특징을 가짐과 동시에 영혼을 씻겨서 위로하여 극락으로 인도하는 것에 주목적이 있다. 이는 살아 있는 자에게 액을 면하게 하고 복을 기원하는 무속적 축원 성격을 담고 있으며 죽은 이의 영혼을 위로하고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 보내려는 살아 있는 자의 인간적인 정성 및 무속신앙의 근본적인 모습이 함께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 차수정(車수정)

세민황제본풀이

정의 제주도 지역의 굿에서 구송된 서사무가. 악행을 저지른 중국 당태종이 죽어 지옥에 떨어진 후 매일장상의 덕으로 살아나와 이승에서 선행을 펼친다는 내용이다.

내용 현재 제주도의 굿판에서 구연되고 있지 않으며, 박봉춘 구연본과 조술생 구연본이 1930년대와 1960년대에 채록되었다. 〈세민황제본풀이〉의 내용 가운데 박봉춘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승에서 만민을 괴롭히고 불법(佛法)을 무시하고 신자들을 엄벌하던 포악한 세민황제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 그리고 이승에서 엄벌과 약탈을 당한 백성들이 몰려와 세민황제에게 복수하고 빼앗긴 돈을 찾아 달라고 한다. 세민황제는 저승왕의 지시로 이승 사람 매일장상에게서 돈을 빌려 백성들에게 갚는다. 자신의 저승궤에는 동네 늙은이에게 주고 남은 볏짚 한 묶음밖에 없자 저승왕이 세민황제에게 이승에 나가서 적선을 하라고 한다. 이승으로 나온 세민황제는 매일장상을 찾아본 후 그의 적선 행위에 감동받아 적선지도(積善之道)를 의논하니 영의정이 팔만대장경을 내어 와야 한다고 말한다. 세민황제는 호인대사를 불러 극락세계의 팔만대장경을 내어오게 한다. 호인대사는 발이 가는 대로 걷다가 층암절벽에 갇힌 빠른개비를 살려준다. 호인대사는 빠른개비와 함께 배를 얻어 타고 바다를 건너 극락세계로 가서 팔만대장경을 얻어 세민황제에게 바친다. 세민황제는 호인대사에게 높은 벼슬을 주는 한편 매일장상을 불러 칭찬하고 적선활인지도를 행한다.

〈세민황제본풀이〉 가운데 조술생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일과 장삼이 남의 일을 하며 얻어먹다가 죽어 저승에 들어가니 품삯 거슬린 것이 창고에 가득 차 있다. 한편 세민황제가 남의 것을 많이 먹어 저승에 가니 빚을 갚을 도리가 없어 매일과 장삼에게 꿔서 갚는다. 인간으로 환생해 돌아온 세민황제는 굿을 하여 매일과 장삼을 불러 돈을 갚고 영암 덕진산 깊은 물에 덕진다리를 놓는다. 이러한 덕을 쌓은 세민황제는 만민으로부터 적선(積善)을 받아 극락세계에 가서 저승부자가 된다.

의의 〈세민황제본풀이〉는 두 부분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앞부분은 악행을 저지른 세민황제가 지옥으로 떨어진 후 이승 사람 매일장상으로부터 돈을 꾸고 이승으로 나와 적선지도를 한다는 부분이다. 악행을 저지른 것은 황제이고 선행을 베푼 것은 필부로 대조적이다. 후반부는 세민황제가 적선지도를 의논하여 호인대사를 시켜 팔만대장경을 갖고 오게 한다. 호인대사와 빠른개비의 여행을 통해 팔만대장경을 갖고 오는 것은 〈당태종전〉의 호인대사와 손행자의 여행과 같다. 이처럼 중국에서 수입해 소설로까지 읽혔던 이야기가 본풀이에 불리게 된 것은 굿에서 세민황제의 이야기를 차용하여 단골들에게 주려는 의미가 있거나 어떤 제차에 긴요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의미를 유추한다면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서도 다시 죄를 갚아야 한다는 권선징악적 사고이다. 또 지옥과 이승을 왕래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는 굿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제주도 굿의 제차 가운데 시왕맞이에서 영혼을 불러내 위로하고 다시 저승으로 보내는 과정은 이를 뒷받침한다.

차사영가를 질칠 때 지옥문을 여는 상황에서 〈세민황제본풀이〉를 구연함으로써 세민황제가 살아온 역사를 푼다. 죽은 세민황제가 저승과 이승을 왕래하는 일은 강림차사와 관련성을 맺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시왕맞이 가운데 소제차인 차사영가를 질칠 때 영혼ᄃᆞ리와 차사ᄃᆞ리를 바닥에 함께 깐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은 이상 이승에서 많은 죄를 짓고 저승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 따라서 굿을 할 때에는 죽은 자의 이승에서의 잘못을 비는 제의가 필요하며, 세민황제의 악행은 적절한 예시가 된다. 이를 통해 신앙민들에게 권선징악의 교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술생본에 팔만대장경 찾기 화소가 빠진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세민황제의 죽음을 통한 권선징악의 메시지에 팔만대장경 화소가 굳이 끼어 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박봉춘본이 〈당태종전〉을 그대로 수용하였다면 조술생본은 굿에서 필요한 내용만을 수용한 것이다.

참고문헌 조선무속의 연구 상(赤松智城 · 秋葉隆, 심우성 역, 동문선, 1991),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진성기, 민속원, 1991), 제주도특수본풀이연구(강권용,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필자 강권용(康權用)

세습무(世襲巫)

정의 조상 대대로 무당의 신분을 이어받아 무업을 수행하는 무당.

내용 강신무와 세습무로 대별되는 한국 무속의 계통설은 한국사회의 변화와 무업집단의 변신을 통해 설득력을 잃고 있다. 논의의 초기에 최길성은 북방의 샤먼 계통이 들어오기 이전에 사제자 중심의 남방종교 계통이 먼저 들어와 있었다고 보아, 경기 이북의 강신무와 경기 이남의 세습무는 처음부터 계통이 다르다고 보았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세습 계통의 제주도 신방, 역시 세습계통의 경기 이남의 단골, 강신되는 경기 이북의 강신무 순서로 우리나라의 무속이 성립되었다고 하였다. 반면에 김태곤은 북방의 샤먼 계통이 내려와 경기 이북의 강신무, 경기 이남의 세습무, 제주도의 신방이 성립되었다고 보고 이들은 같은 계통으로 지역적 편차만 보일 뿐이라 했다. 김태곤에 따르면 이들이 경기 이북의 강신무, 제주도의 신방, 경기 이남의 세습무 순서대로 우리나라에 정착되었다는 것이다.

강신무와 세습무는 기본적으로 입무(入巫) 방식에 따라 구분되는 개념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무당들을 유형화하는 한 방법으로 자리 잡은 게 현실이다. 최근 들어 학계 일각에서 이 개념이 오랜 세월 무업에 종사하고 있는 무당들 모두를 유형화하여 분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이는, 세습무 전통에 속한 무당들 중에서 강신체험을 하거나 했던 무당들이 많이 있으며, 강신무 전통에 속한 무당들 중에서도 자신의 무업이 가진 세습성을 주장하는 무당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신무와 세습무는 근대 초기에 역사적으로 형성된 개념에 불과하며, 입무 방식에 따른 강신무와 세습무 유형론에서는 내림굿 이후 무당이 무당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창조하는 과정이 배제된다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강신무와 대별되는 용어로서 세습무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다. 초기에는 한강 이남 지역에서 신내림 없이 무속과 관련한 기예를 학습해서 무업을 수행하는 무당을 가리킨다고 했지만, 사실상 남한 지역 전체에서 신내림을 받고 무업을 수행하는 무당이 많기 때문에 강신무와 세습무라는 용어가 현재의 무당들을 구분하는 주요 기준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강신무의 경우에도 세습적인 면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강신체험, 구체적 신관, 춤과 음악, 점사, 재가집과의 관계, 무가 등의 측면에서 강신무와 세습무의 개념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강신무는 신병체험을 통해 무당이 되지만 세습적인 성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영력을 바탕으로 하되 개인적인 능력과 예술적인 소양으로 굿을 진행한다. 그리고 굿판에나 점사에서 신의 뜻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을 지닌다 점에서 다른 무당과 구별된다.

세습무와 강신무는 개념적으로 구분해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다. 강신무와 세습무의 구분을 역사적 · 상황적 맥락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중요한 현실 흐름은 과거와

는 달리 강신무의 활동영역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세습무 우위의 당골·점쟁이 관계가 재편되고 있다. 세습무 우위의 대립적·상보적 관계에서 점쟁이가 주도하는 관계로 변하고 있다. 무속 전승의 실상으로 볼 때, 세습무와 강신무의 구분을 고정적인 관점에서 다루기보다 변화 과정과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동안 논의되어온 대표적인 세습무는 전라도의 당골, 강원도와 경상도의 별신굿 무업집단, 서울 경기 남부의 화랭이집단, 제주도 신방 등이다. 이들은 부계와 모계가 얽혀있는 혈연구조 또는 단골판을 이어가는 구조 등을 통해 세습무의 전통을 계승한다. 반면 강신무는 대개 부부 무당보다 여성이 중심이 되고 박수무당이 있으며, 따로 악사집단이 편성되는 형태이다. 결국 세습무들은 굿판 연행의 주체를 혈연계승을 중심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따로 악사를 부르지 않고 자신들의 무업집단 내에서 충당한다. 즉 신과 소통하는 기술인 가무악극 모두에 능통하다. 하지만 세습무의 전통 속에서 활동하는 무당이라고 해서 모두가 신내림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다. 동해안별신굿 무업집단만 하더라도 빈순애 등 상당수의 무녀들이 신내림을 받았거나 신이 지펴서 강신무와 유사한 체험을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기예를 학습하여 굿을 수행하는 세습무의 전통과 신내림 혹은 유사한 형태의 신과 교섭하는 사제자의 전통은 자연스럽게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동해안의 굿에서도 마을 인근에 거주하는 점쟁이(점바치, 막음쟁이, 비래쟁이 등) 역할을 하는 주민이 별신굿의 너름받기 등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큰굿이 필요한 점사가 나올 경우 인근의 세습무와 공동으로 굿을 실행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세습무와 강신무(최길성, 새로 쓴 한국 무속, 아세아문화사, 1999), 한국 무계의 분화 변천–강신영감무계와 세습사제무계의 분화 원인을 중심으로(김태곤, 한국민속학 창간호, 한국민속학연구회, 1969), 강신무, 세습무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용범, 한국무속학 7, 한국무속학회, 2004), 강신무·세습무 유형론에 대한 일고찰–강신체험 및 강신무의 세습성 주장에 대한 상징론적 이해(김동규, 한국무속학 8, 한국무속학회, 2004), 강신무·세습무 유형론에 따른 무속연구 검토–김태곤, 최길성론을 중심으로(양종승, 한국무속학 8, 한국무속학회, 2004), 강신무와 세습무–세습무 유지의 한 조건으로서 경기이남 무부집단의 세습(손태도, 한국무속학 8, 한국무속학회, 2004), 강신무의 사례로 본 강신무와 세습무의 유형 구분(홍태한, 한국무속학 7, 한국무속학회, 2004), 세습무 사례를 통해 살펴본 세습무·강신무의 구분 검토–전라도 당골과 점쟁이의 관계를 중심으로(이경엽, 한국무속학 7, 한국무속학회, 2004).

필자 조정현(曺鼎鉉)

셍굿무가

정의 함경도 지역의 천도굿인 망묵이굿에서 구연되는 서사무가의 하나.

내용 1965년 임석재(任晳宰)와 장주근(張籌根)이 함흥에서 월남한 강춘옥(姜春玉) 무녀로부터 듣고 채록하여 『관북지방무가(關北地方巫歌)』에 수록함으로써 알려지게 되었다.

'셍굿'은 '성인(聖人)굿'의 함경도 방언이다. 〈셍굿무가〉는 여느 서사무가와 달리 여러 이야기가 섞여 있는 특징을 보인다. 주인공으로 석가가 등장하지만 이는 불교적 내용이 아니라 신명(神名)의 차용일 뿐이다. 예를 들면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 '환인'을 '제석환인'이라고 하는 것이나 손진태 채록본 〈창세가〉에서 '미륵'과 '석가'가 등장하는 것과 같이 고유의 신화에 불교적 인물이 신격으로 차용되었을 뿐이다.

〈셍굿무가〉에서 구창되는 무가의 내용을 보면 여러 이야기가 독립성을 지니면서 결합하여 하나의 굿거리를 이루고 있다. 이를 각각 내용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야기는 세상차지경쟁담과 문화기원담으로서 석가의 등장, 석가와 미륵의 세상 차지 경쟁, 두 개씩 뜨는 해와 달 하나씩 없애기, 불과 물의 근본 알아내기, 불교의 전파 등으로 이어진다. 석가가 불교를 포교하기 위해 조선국에 이르지만 이미 미륵이 주인으로 있었다. 석가는 미륵을 몰아내고 세상을 차지할 욕심으로 미륵에게 내기를 건다. 장기와 바둑을 두지만 석가는 미륵에게 진다. 다시 약수 삼천리에서 선유(船遊)로 내기를 하지만 석가는 또다시 진다. 석가는 마지막으로 잠을 자면서 무릎 사이에 산국화 꽃피우기 내기를 하자고 조른다. 결국 자고 있는 미륵의 무릎 사이에서는 꽃이 피어났지만, 석가의 꽃은 피어나지 않았다. 석가는 미륵이 자고 있는 틈을 타서 몰래 꽃을 꺾어 자신의 무릎 사이에 꽂고 이겼다고 속인다. 미륵은 석가가 자신을 속인 사실을 알고 석가를 비난하면서 석가의 세상이 되면 마침내 세상이 어지러워질 것이라는 예언을 남기고 사라진다. 석가가 세상을 차지하자 해와 달이 두 개씩 떠올랐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다. 석가는 하는 수 없이 서천국에 가서 부처에게 방법을 물어 해와 달을 하나씩 없앤다. 또 그는 천태산에 들어가 쇠를 서로 부딪쳐서 불의 근본을 알아내고, 땅을 파서 물의 근본을 알아낸다. 그리고 석가는 절을 지어 삼천 명의 중을 가르쳐 불법을 펴뜨리고 화장(火葬)하는 법도 가르쳤다.

〈셍굿무가〉의 첫 번째 대목은 손진태본인 〈창세가〉와 많이 유사하다. 줄거리로 보면 창세담이 생략된 채 바로 세상차지경쟁담으로 들어간다. 석가와 미륵의 인물 배치와 두 신격 간의 세상차지 경쟁담 사이에는 치밀한 선택이 돋보인다. 즉 석가가 현세불이며, 미륵이 미래불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서사 내용과 일치를 의도한 불신(佛神)의 선택으로 보인다. 해와 달이 두 개씩인 상황은 자연적 질서뿐 아니라 사회적 질서와 위계를 정해 가는 상징적 서사 내용이며, 불과 물의 근본을 발견하는 것은 문화적 삶의 세계를 구축해 가는 것이다. 불교의 포교와 화장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신화적 발상이라기보다 신화 속에 불교의 간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예이다.

둘째 이야기는 내기담으로, 강박덱이와 모시각시가 등장한다. 어느 날 목수인 강박덱이가 부름을 받고 천상에 올라가 궁궐을 짓게 되면서 모시각시와 내기를 하게 된다. 모시각시는 모시 천 동을 짜고 강박덱이는 궁궐을 짓기로 하고 시합을 한 결과 모시각시가 먼저 모시 천 동을 짜서 내기에 이긴다. 내기에 진 강박덱이는 궁궐 지은 품삯을 모시각시에게 모두 빼앗긴다. 화가 난 강박덱이는 술수를 써서 궁궐을 짓고, 이로 인해 궁궐에 들어간 옥황상제가 병을 앓게 된다. 병든 옥황상제를 위해 성주안택굿을 크게 하자 병이 낫는다. 여성은 천을 짜고 남성은 집을 짓는 역할 분담이 보이고 있으며, 한편으로 의식주 가운데 옷과 집의 기원담 성격도 지니고 있다.

이 둘 대목은 남매 힘겨루기 설화의 모티프를 기저에 깔고 있다. 남녀가 내기를 했을 때 여자 쪽이 이기는 내용이다. 대개는 겨루기가 남매간에 이루어지지만 여기서는 남매간 대립이 아니라 남녀간 대립이다. 또한 여기에 성주안택굿의 내력담이 덧보태져 있다. 기능적으로 보면 성주굿의 성격을 띤다.

셋째 이야기는 출가담으로, 자식이 없는 청애선비 부부가 황금산에 있는 절에 들어가 백일기도를 드린 후 아들을 낳는다. 그러나 어렵게 얻은 아이가 부모를 버리고 황금산 절로 들어가 중이 된다. 화가 난 청애선비가 산에 가서 절을 허물어뜨리지만 성인님은 다시 안혜산에 들어가서 금상절을 짓는다.

넷째 이야기는 희생담으로, 어떤 스님이 절을 짓고 팔도의 쇠를 모아 종을 만들지만 종은 좀처럼 완성되지 않는다. 쇠를 모을 때 쇠 대신 아들이나 가져가라고 했던 원맥이의 어머니 말에 부정이 탔음을 알고 원맥이를 데려다 쇳물에 넣어 마침내 종을 만든다. 이 넷째 대목은 에밀레종을 만들 때 살아 있는 아이를 희생물로 한 이야기를 기저의 모티프로 하고 있다.

다섯째 이야기는 징치담으로, 서인님이 장재비의 집에 시주를 간다. 장재비는 괄세하였지만 그 집 며느리는 시아버지인 장재비 몰래 시주를 하였다. 서인님은 장재비의 집이 함몰될 것이라 하면서 살아나갈 방도를 며느리에게만 일러 주었다. 며칠 후 장재비의 집은 연못이 되고 욕심 많은 장재비 부부는 물오리가 되었다. 그리고 탈출하다가 뒤를 돌아본 며느리는 각시바위가 되었다. 이 다섯 번째 이야기는 유명한 장자못 전설을 사용하고 있다.

여섯째 이야기는 제석담으로, 서인님이 세주아기 집에 이르러 시주를 핑계 삼아 세주아기와 동침하였다. 아이를 밴 세주아기는 부모의 노여움을 사서 아홉 방에 갇히고, 그 안에서 아들 삼형제를 출산한다. 아들 삼형제를 데리고 서인님을 찾아간 세주아기는 곡식의 신, 아들 삼형제는 삼제

석이 각각 된다. 이 여섯째 이야기는 서사무가로서 거의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제석무가〉이다. 대개 〈제석무가〉는 따로 하나의 거리를 이루고 있지만 여기서는 〈셍굿무가〉에 포함되어 일부로 불리고 있다.

이상과 같이 〈셍굿무가〉는 단일한 서사가 아니라 여러 이야기가 병렬적으로 이어져 하나의 굿거리에서 가창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여기에 사용되는 이야기들은 다른 무가에서 부분적으로 차용하거나 널리 알려진 전설의 모티프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에도 전체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내용은 불교와 관련된 것이며, 이런 까닭에 셍굿(성인굿)이라는 명칭으로 통합되어 하나의 굿거리에서 가창되고 연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관북지방무가(임석재 · 장주근, 문화재관리국, 1965), 한국무가의 연구(서대석, 문학사상사, 1980), 한국민속대사전(민족문화사, 1991).

필자 나경수(羅景洙)

상호참조 천지왕본풀이(853쪽)

소가면

정의 소의 형상을 한 가면으로 경기도 양주소놀이굿과 황해도 평산소놀음굿에서 사용된다. 얼굴뿐만 아니라 몸통까지 함께 있어 전신가면의 형태를 띤다.

형태 양주소놀이굿과 평산소놀음굿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소 가면은 소의 머리 부분은 물론이고, 몸통까지 함께 있는 전신가면 형태이다. 평산소놀음굿인 경우 한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크기이며, 양주소놀이굿의 경우 5~6인이 들어갈 정도의 크기이다.

내용 우리나라의 무속제의에서 소가면이 등장하는 경우는 양주소놀이굿과 평산소놀음굿이 대표적이다. 이 두 굿은 현재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양주소놀이굿이 1980년 제 70호로 지정되었고, 평산소놀음굿이 1988년 제 90호로 지정되었다. 두 굿에서 등장하는 소가면의 형태는 대략 비슷한데, 그 크기가 다르다. 제작과정과 크기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평산소놀음굿인 경우 종이, 멍석, 대합껍질이나 조가비, 짚신, 조짚, 멍석, 무명천이나 볏짚 혹은 멍석 등이 제작 재료로 이용된다. 소의 머리 부분은 종이로 만들고 몸통은 멍석으로 만든다. 원래 소의 머리와 얼굴 부분은 종이로 만들어 대합껍질이나 조가비로 눈을 붙이고, 짚신으로 귀를 달고 몸통은 조짚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평산소놀음굿의 소가면은 한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 만든다.

양주소놀이굿의 경우 고무래, 종이, 명주 또는 광목, 짚신 또는 고무신, 짚과 멍석 등이 소가면 제작 재료로 이용된다. 양주소놀이굿의 소가면 제작은 머리 제작과 몸통 제작으로 나뉜다. 소머리 제작은 T자형 고무래나 나무 막대 머리 부분에 짚반단 정도를 놓고 새끼줄로 다섯 군데를 묶고 짚단의 앞뒤를 가지런히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고무래나 나무 막대를 짚으로 싸서 소머리의 윤곽을 잡는 것이다. 이어서 짚으로 만든 소머리 위에 종이를 바른 후 눈을 그린다. 새끼줄을 꼬아서 양쪽 발에 걸쳐 허리를 단단히 고정하고 그 사이 사이에 짚을 넣어 엮는다. 이렇게 엮어서 혀와 양쪽 귀를 만든다. 귀와 혀는 짚신이나 고무신 바닥을 재료로 한다. 소머리 형상이 만들어지면 종이 위에 눈을 그리고, 만들어 둔 귀와 혀를 머리에 연결해 완성한다. 소의 뿔은 짚을 꼬아 만든다.

소 몸통 제작은 멍석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한다. 우선 짚을 물에 축여 몇 시간 두었다가 부드러워지면 가늘게 새끼를 꼰다. 꼰 새끼를 멍석 매는 틀에 묶는다. 이때 매다는 새끼줄의 숫자는 멍석의 폭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개는 80수 정도이다. 틀에 매단 새끼줄 사이에 짚을 넣어 꼰다. 짚을 두 가닥으로 나누어 지그재그로 꼰다. 꼬아진 멍석 두 장을 서로 이으면 소 몸통이 완성된다. 소 몸통은 보통 그 안에 5~6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만드는데, 멍석 두 장을 서로 이어서 만들기도 하고, 큰 멍석을 반으로 접어 만들기도 한다. 고삐는 명주나 광목을 이용한다. 양주소놀이굿의 소가면은 이렇게 짚과 멍석을 주재료로 만들었으나, 현재는 짚으로 만든 재료가 너무 무거워 스티로폼으로 만든 소머리와 야자 잎으로 만든 끈으로 엮은 멍석을 몸통으로 사용한다.

황해도 만신 우옥주가 했던 옹진소놀이굿에서 썼던 소가면 역시 현재 전해지고 있다. 우옥주 소놀이굿에 쓰이는 소가면의 제작 방식은 다음과 같다. 소의 머리와 얼굴 부분은 종이로 만들어 대합껍질이나 조가비로 눈을 붙이고 짚신으로 귀를 단다. 몸통은 조짚으로 만들고 소꼬리는 기다란 무명천을 사용한다. 현재 전해지는 우옥주 소놀이굿의 소가면은 길이 20㎝, 폭 11.2㎝ 크기이다.

참고문헌 큰무당 우옥주 유품(국립민속박물관, 1995), 황해도평산소놀음굿(양종승, 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양주소놀이굿(김헌선,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한국의 굿(하효길 외, 민속원, 2002), 양주소놀이굿(김헌선 외, 양주시, 2006).

필자 허용호(許龍鎬)

소미

정의 수무(首巫)인 큰심방을 돕는 심방을 두루 일컫는 말. 소미가 차지하는 위상에 따라 접소미, 신소미, 수소미, 폿소미, 안체포소미 등 여러 명칭이 쓰인다. 소미는 한자어 소무(小巫)에서 비롯된 말로 큰심방을 돕는 작은 심방이라는 뜻이다.

내용 소미는 여러 일을 한다. 기메를 제작하고, 제물을 진설하며, 굿을 하는 동안 악기를 연주하고, 교대로 나서서 굿을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 심부름을 하기도 한다.

소미의 가장 주된 일은 악기 연주이다. 굿을 하는 동안 북, 설쒜(꽹과리), 대양(징) 등의 악기를 번갈아 연주한다. 기본적으로 세 종류의 악기를 동시에 울려야 하기 때문에 대개 굿을 하면 3명 이상의 소미가 동원된다. 때에 따라 큰심방을 대신하여 굿을 진행하기도 한다. 능력에 따라서는 맞이굿처럼 큰 제차를 맡기도 하고 새ᄃᆞ림처럼 작은 제차를 맡는 데 그치기도 한다. 소미들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 제차를 두루 나누어 맡아야 굿이 원활하게 진행한다. 소미 가운데는 반드시 남자 심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큰굿을 하게 되면 큰대를 세우고 당클을 다는 등 남성의 힘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심방이 서툴어도 굿을 할 수 있지만 소미가 서툴면 굿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소미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잘 아는 소미는 모든 것을 미리 챙기니 심방이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러므로 굿에 대하여 잘 아는 소미가 나서서 진행을 도우면 서툰 심방이라도 웬만하면 차질 없이 굿을 할 수 있게 된다. 서툰 소미는 심방이 요구해야 비로소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경황 중에 큰심방도 오히려 실수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러므로 소미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잘하던 심방도 굿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소미의 능력이나 위상에 따라 여러 별칭이 생겼다. 굿을 잘 알고 주요 제차까지 맡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소미를 접소미, 신소미, 수소미 등으로 칭한다. 특별한 기능을 익히지 못하여 무구를 싸는 보자기인 안체포를 지어 나르는 일이나 맡는 소미는 폿소미, 안체포소미라고 한다.

심방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소미로 경험을 쌓아야 한다. 굿의 제반 차림과 절차, 무악 연주 등에 대해 기본적인 소양을 쌓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점차 말명을 익히면 간단한 제차부터 나서서 굿을 진행하고, 문서가 쌓이면 큰 제차까지 맡아 할 수 있다. 소미가 실력이 쌓이고 신굿을 하여 공인을 받으면 독자적으로 굿을 맡아 여러 심방을 소미로 거느리면서 큰심방의 구실도 하게 된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수준 이상 도달하지 못하고 소미로 만족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아예 심부름이나 기메 제작, 무악 연주 등의 일에 만족하는 수도 있다. 과거에는 능력에 따라 크게 차등을 두고 품을 나누었기 때문에 능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능력에 상관없이 품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고 있어서 굳이 공들여 높은 수준에까지 도달하려 애쓰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능력 있는 소미를 구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고, 아울러 굿을 온전하게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

오늘날 심방과 소미는 수평적 관계를 이루고 있어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심방과 소미의 관계는 고정적이지 않고 수시로 변한다. 나서서 굿을 하면 심방이고, 뒤에서 무악을 울리거나 옆에서 심부름을 하면 소미가 된다.

제주도굿에서는 소미가 중요한 구실을 한다. 여러 일을 함께 할 뿐 아니라 주요 제차도 번갈아 나서서 진행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제주도굿, 특히 큰굿 같은 경우에는 복수의 심방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참고문헌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제주도무속연구(현용준, 집문당, 1986).
필자 강정식(姜晶植)

소설경(小設經)

정의 충남 내륙 지역의 앉은굿 법사가 하루 굿 정도의 간단한 독경(讀經)을 할 때 종이에 글씨나 문양을 칼로 파서 만든 장엄구(莊嚴具).

형태 설경은 법사가 사고지(四古紙)에 글씨나 문양을 칼로 파서 만든 일종의 앉은굿 장엄구이다. 설경은 크게 대설경과 소설경, 혹은 겹설경과 홑설경 등으로 나뉜다. 이중에서 하루짜리 간단한 굿을 진행할 때 만들어서 설치하는 설경을 소설경이라 부른다. 설경은 대개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맨 윗부분은 네 분의 관을 쓴 보살을 법당의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그 아래에는 투창(透窓) 기법으로 나타낸 여러 무늬를 배치한다. 두 번째 부분은 정사각형의 한지 안에 역시 투창기법으로 동심원(同心圓)으로 동일한 문양을 배치하고, 각 모서리에는 다른 무늬를 구성한다. 세 번째 부분도 여러 무늬를 투창기법으로 표현한다. 특히 이 부분은 철망(鐵網)이란 상징을 지닌다.

그러나 이 같은 설경의 기본 구성 외에도 법사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설경을 여러 종교적 관점과 방법으로 가감하여 설치할 수 있다. 설경은 방의 양쪽에 못을 박고 이것에 실을 매어 이은 다음, 이 실에 매거나 걸어서 설치한다. 설경 윗부분과 천장 사이에는 여러 신장(神將)들의 위목(位目)을 걸기도 하고, 설경과 설경 사이의 틈새에도 간패(間牌)라 하여 여기에도 신장의 위목을 건다.

내용 앉은굿 법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송경하는 경문은 『옥추경』이나 『옥갑경』이다. 이때 법사는 신장을 좌정시키고 귀신을 잡아 가둘 수 있는 설경을 만들어서 설치한다. 설경은 기주(祈主) 집에서 법사가 직접 판다. 이를 '수문판다'고 한다. 수문을 팔 때 종이를 한 번 더 접고 곱게 파면 '접설경'이라 부르고, 무늬를 크고 간단하게 파면 '홑설경'이라고 한다.

또한 법사에 따라 수문과 위목을 같이 걸면 '대설경'이라 부르고, 위목만 걸어두면 '소설경'이라고 한다. 이렇듯 설경을 대·소로 나누는 것은 설경 크기의 차이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다소(多少)로 구별하기도 한다. 즉, 여러 형태가 다양하게 표현되면 대설경으로 여기고, 그렇지 않으면 소설경이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설경은 굿을 하는 기주(祈主) 집에 가서 법사가 직접 제작하는 것이 원칙이다. 굿이 끝나면 바깥쪽에 있는 설경부터 걷고, 차례대로 안쪽에 있는 설경을 걷은 다음 모두 땅에 묻거나 태운다.

참고문헌 공주시지(공주시지편찬위원회, 2002).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충청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충청지방의 미친굿(이필영, 민족과 문화 11, 한양대학교 민족학연구소, 1998).
필자 이필영(李弼泳)

소슬굿

정의 내림굿을 하고 한 해가 지난 후, 무당으로서 이름 석 자를 떨치고 크게 솟아나기를 바라는 뜻에서 하는 굿.

내용 무당이 될 사람이 신병을 앓다가 마지못해 신내림을 받게 될 처지가 되면 우선적으로 허주굿(또는 허튼굿)을 하게 된다. 허주굿은 무당이 될 사람에게서 붙어 있는 허튼신을 베껴내는 의례이



소슬굿 일월맞이(용궁타기)
국립민속박물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소슬굿 애기씨반
2. 소슬굿 일월대
3. 소슬굿 시왕명두
4. 소슬굿 사실받침
5. 소슬굿 일월맞이
6. 소슬굿 토인성수거리
7. 소슬굿 성수거리
8. 소슬굿 작두거리(허리재기)
9. 소슬굿 산신당
10. 소슬굿 산맞이
11. 소슬굿 감흥거리
12. 소슬굿 서낭거리
13. 소슬굿 굿판전경
14. 소슬굿 머리올리기
15. 소슬굿 일월상
16. 소슬굿 산신도사 할아버지

국립민속박물관

다. 이는 들어온 신을 배척하지 않고 정열하여 좌정케 한 후 신의 지시에 따르면서 신을 모시겠다는 일종의 다짐의례이다. 이러한 의례를 통해 신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수여 받게 되고 동시에 신병을 치유하게 된다. 허주굿을 한 후 1년이 지나면 신내림을 하게 되는데 이 굿을 다른 한편에서는 명두굿이라 부른다. 명두굿이라고 하는 것은 내림굿 의례에서 신령 몸체를 상징하게 되는 놋쇠 명두를 걸어두고 말문을 트기 때문이다. 내림굿을 받은 사람은 신들림 행위와 공수를 자유로이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은 결국 특수한 주술적 전문성을 갖게 되어 신비적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내림굿을 한 후, 한해가 지나면 이때에는 무당으로서 크게 솟아나기를 바라는 뜻으로 소슬굿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슬굿은 허주굿과 명두굿을 치른 후 행해지는 이른바 "허주굿-명두굿-소슬굿"의 연관선상 마지막 단계에서 행해지는 내림굿의 완결의례이다.

참고문헌 한국의 무속-서울 · 황해도편(양종승, 국립민속박물관, 1999).

필자 양종승(梁鍾承)



1



2

속연[內緣]

정의 전북 지역 무속의례에서 사용되는 망자의 넋을 상징화한 종이무구. '전' · '넋발' · '속대'라고도 한다. 겉연과 함께 통틀어 '연(緣)'이라고 불린다. 연은 묶음이라는 뜻과 인연의 약자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망자천도굿인 씨끔굿에 사용된다.

형태 속연은 한지가 주재료이다. 정사각형으로 일정하게 자른 한지를 6~9장 내외로 겹친 뒤에 이를 여러 번 접은 채로 가위로 문양을 오린다. 오린 것을 다시 펼치면 완성된 종이는 길이와 폭이 동일하게 40㎝ 내외이다. 한지로 돌돌 말아 만든 끈 위에 문양을 오린 종이를 가운데에 얹고 끈으로 묶는다. 묶은 것을 풍성해 보이게끔 종이를 위로 잡아주면 완성된다. 그 형태는 종이를 풍성하게 뭉쳐 놓은 모습이다. 완성된 속연의 길이와 폭은 동일하게 20㎝ 내외이다. 속연을 제작할 때 종이의 매수는 제작자마다 달리 나타나며, 일부 사례에서는 남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매수를 사용하기도 하지만(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6호 전북의 앉은굿의 최갑선의 사례에서는 평균적으로 6매를 사용), 남녀를 구분하여 그 매수를 달리하는 경우(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38호 전북의 넋풀이굿 기능보유자 하진순, 최광식의 사례) 남자는 7장, 여자는 9장을 겹쳐서 만든다.

속연은 발 모양을 추가로 오린 뒤에 혼백을 덧붙이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그 형태에서 이름을 본 떠 '넋발'이라 칭한다. 혼백의 총길이는 대략 20㎝ 내외이며, 도포를 착용한 사람의 형상에 머리와 머리카락이 과장되게 오려진다. 그 몸통 부분에는 망자의 위명을 '三魂七魄○氏○魄靈駕'라고 필사한다.

내용 속연은 천도굿인 씨끔굿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이것은 전남 지역의 '넋'과 가장 유사한 기능을 한다. 속연은 의례에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쌀을 쌓아 놓은 상 위에 얹어 놓았다가 씨끔 · 연올리기 · 길닦음에 사용한다.

1. 소슬굿 부정청배 후 잔물림

2. 소슬굿 잔물림
국립민속박물관

속연은 씨끔에서는 넋그릇 안에 담겨진다. 넋그릇은 뚜껑이 있는 주발에 쌀과 돈을 담고 그 안에 신위형태의 넋(흔백)을 접어 넣은 뒤에, 그 위로 속연을 펼쳐서 얹고 뚜껑을 덮으면 완성된다. 이 넋그릇을 옹기단지 안에 넣고, 그 위에 솥뚜껑을 얹은 다음 옹기단지와 솥뚜껑에 밀가루를 뿌리고, 무명수건에 물을 묻혀 이를 닦아내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는 망자의 육신을 씻기는 것으로 상징된다. 넋그릇도 마찬가지로 씨끔의 과정을 진행하는데, 망자의 넋을 씻기는 정화의례(淨化儀禮)로 상징된다.

전남의 넋올리기와 유사한 연올리기(전올리기)에서는 속연을 망자 가족의 머리 위에 올린 뒤에 겉연을 올려서 끌어올린다. 속연이 따라 올라오면 겉연을 가족들의 머리 위에서 원을 그리듯이 돌리는데, 이는 망자에게 유족들의 향기를 맡게 하려는 의도를 지닌다. 그리고 의례 주재자는 망자의 가족에게 두 손을 모으게 한 뒤에, 겉연을 털어 속연을 받게 하거나 펼쳐 놓은 망자의 옷 위에 털기도 한다. 길닦음에서는 용선 안에 담겨져 망자가 저승길로 가는 것으로 상징화한다.

속연은 겉연과 함께 통틀어 연(緣)이라 불린다. 연은 종이묶음이라는 의미인 동시에 죽은 망자나 조상과의 인연을 상징한다. 즉, 망자와 산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인연의 매개체로서, 속연은 망자의 영혼 또는 망자와 동일시된다. 남녀의 성을 구분할 때, 이것은 지방에 필사되는 삼혼칠백(三魂七魄)과 삼혼구백(三魂九魄)에 영향을 받아 칠백인 남자는 7장, 구백인 여자는 9장으로 상징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전남에서 남녀의 넋을 구분하여 오리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영혼의 성별을 구분한 또 다른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넋발은 사람 형상으로 오려진 흔백을 덧붙이는데, 넋의 모습을 추상화 한 속연을 인간의 형상에 가깝게 구체화 한 형태라 볼 수 있다.

속연이 넋그릇 안에 담겨져 씨끔이 진행될 때는 망자의 영혼이 씻겨져 정화되는 것으로, 연올리기에서 유가족의 몸에 올려지는 것은 곧 죽은 망자가 가족들의 체취를 느끼는 것으로 인식된다. 속연은 망자가 의례에 만족했는지를 알아보는 척도가 된다. 즉 유족들의 정성이 마음에 들 경우 속연은 겉연에 따라 올라오는 것으로 간주한다. 용선에 담겨져 길베 위에 올려졌을 때는 망자가 저승으로 가는 것과 동일시한다. 연올리기가 끝난 뒤 혹은 의례가 끝난 뒤에, 속연을 겉연에 담아 놓은 채 겉연의 손잡이 부분의 일부를 칼로 잘라내는 행위를 하는데, 이는 인연의 단절, 즉 죽은 망자와 그 가족과의 관계단절을 의미한다. 즉, 절연을 상징하는 것으로, 잠시나마 망자가 자식들의 체취를 맡았지만, 이를 저승까지 가지고 갈 경우 자식들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망자에게 빨리 잊고 가라는 의미를 지닌다. 속연은 대체로 용선과 함께 소각된다. 속연을 바다에 던졌을 경우 바다는 이승에서 저승으로 건너가는 경계영역인 월천(越川)으로 상징된다. 이처럼 속연은 망자의 신체(神體)로도 상징되지만, 그 명칭에 담겨 있듯이, 이승과 저승의 인연을 단절시키는 매개물의 의미도 동시에 지닌다.

참고문헌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14-무의식편(문화재관리국, 1983),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전라남도 · 전라북도 · 제주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호남지역 종이무구의 변화상 및 상징성 고찰(최진아, 한국무속학 14, 한국무속학회, 2007), 전북의 앉은굿 도지정문화재 제26호 기능보유자 최갑선 면담 및 의례조사(2006년 6월3일~6월6일) 자료, 전북의 앉은굿 법사 최광식 면담 및 의례조사(2008년 2월27일) 자료, 전북의 넋풀이굿 도지정문화재 제38호 기능보유자 하진순 면담 및 의례조사(2008년 4월27일) 자료.

필자 최진아(崔眞娥)

손각시

정의 혼기가 찬 처녀가 시집을 가지 못하고 죽은 것이 한이 되어 주로 자기 또래의 혼기 찬 처녀를 괴롭히는 악귀. 손말명, 왕신, 처녀귀신이라고도 한다.

내용 처녀에게 손각시가 붙으면 그 처녀는 병이 들거나 다른 괴롭힘을 당해 시집을 가지 못한다고 한다. 설화에 따르면 손씨가(孫氏家)에 규녀(閨女)가 있었는데 출가(出嫁)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각씨는 규녀를 칭하며, '손'은 곧 손님이란 뜻에서 '침해(侵害)'를 말한다.

이능화는 “우리나라에서 원귀 중에서 가장 무서운 원귀는 흔히 손각시라 한다. 이 손각시는 정욕을 해원(解寃)하지 못하고 죽은 처녀귀신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처녀가 죽으면 다른 어떤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두려워했다. 손각시를 신봉하는 집안에서는 딸이 시집가기 전에 여무(女巫)를 초청하여 여탐굿을 한 다음 출가시킨다. 또한 손각시 옷을 만들 때는 비단필의 머리 부분을 끊어 처녀로 만들어서 신상(神箱) 안에 넣어두며, 집 안에 음식이나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신상에 바쳤다고 한다. 가족 중에 출가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신상에 고하지 않으면 큰 화를 입는다고 한다.

손각시를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처녀가 죽으면 손각시가 될 것을 두려워해 남성 성기를 강조한 인형을 짚으로 만들어 관에 넣거나 남자 옷을 입혀 거꾸로 묻기도 한다. 다음으로 가시나무를 관 주위에 넣어서 묻었다. 성기를 강조한 사내 인형을 관에 넣거나 남자 옷을 입히는 이유는 죽어서나마 남성과 접촉한 것을 위안삼으라는 것이고, 거꾸로 묻는 것은 행여나 혼이 다시 일어나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관 주변에 가시나무를 넣는 것은 앞의 방법으로도 안심이 되지 않아서 관 주변에 가시나무를 넣어둠으로써 손각시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또 사람의 왕래가 많은 사거리의 길목에 묻거나 주위에서 젊은 남자가 죽으면 그와 허혼례(許婚禮)를 치러준다. 그리고 머리 위에 체를 덮어 씌워서 묻기도 한다. 이유는 손각시가 체 구멍을 헤아리다가 그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을 보느라고 체 구멍 수를 잊어서 다시 헤아리게 하여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은 손각시가 조혼(早婚) 풍습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열녀문(烈女門)을 건립하게 되었으며, 실제로 손각시와 관련된 열녀문은 반수 이상을 차지한다고 했다.

지역사례 강원도 삼척시 원남면 갈남리에는 애랑이 전설이 있다. 이 전설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마을에 덕배와 애랑이라는 처녀 총각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덕배가 애랑이를 미역이 많이 있는 애바위라는 섬에 배로 태워다 주었다. 덕배를 보내고 미역을 뜯던 애랑이는 파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이 뱃일을 나가면 고기가 잡히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애랑이의 혼을 달래기 위해 바닷가 언덕에 당집을 짓고 제를 지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어부 한 명이 바다에 욕을 하고 오줌을 누었다. 이후에 마을의 배가 바다에 나가면 만선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마을에서는 매년 정월 대보름과 10월 첫 오(午)날에 제를 지내면서 이날 남근목을 깎아 당집에 바쳤다고 한다. 이는 애랑이의 원혼을 달래기 위함이다.

남해에 있는 사랑도 옥녀봉의 옥녀 이야기도 역시 유명하다. 전설에 따르면 과년(過年)한 옥녀가 홀로 된 아버지의 성적 요구에 괴로워한 나머지 옥녀봉에 올라가서 떨어져 자살하였다. 그 뒤부터 동네에서 처녀가 시집갈 때 신부가 탄 가마가 옥녀봉 밑을 지나게 되면 반드시 가마에서 내려 걸어간다고 한다. 이는 옥녀가 시집도 못 가고 죽었기 때문에 그 원령이 옥녀봉에 남아서 시집가는 처녀에게 샘을 내어 화를 미친다고 생각해서이다.

참고문헌 한국민속대사전 2(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정신문화연구원, 1991), 조선무속고(이능화, 이재곤 역, 동문선, 1991), 한국민속문화대사전 상(김용덕, 창솔, 2004), 사후결혼의 의미(최길성, 비교민속학회 창간호, 한국비교민속학회, 1985).

필자 손대원(孫大源)

손님굿

정의 일반적 굿거리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역신을 섬기는 제차 가운데 하나. 달리 ‘손굿’이라고도 한다.

내용 질병은 성격이 불분명하지만 대체로 천연두인 마마와 같은 것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에 따라서 이 신격이 일정하지 않다. 손님굿은 마마를 일으키는 신격을 물리는 굿으로, 형태는 전국적으로 다양하다. 손님굿에서 섬기는 신격의 실제적 면모는 질병에 관한 정확한 관찰에 근거한다. 손님인 마마가 다녀가는 정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무가가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손님굿의 무가 결말 부분에 이러한 대목이 있다. “하루 이틀 머리 알녀 사흘 나흘 보람 주어 닷세 엿세 소실신두(시루의 와음) 일헤 여들헤 부릇시루 아흐레 열흘 검은시루 바드실 째 영검자취 이러하고 긔염자취 이러하니 손임이 업슬손야. 정성(精誠)이 지극(至極)하면 정셩덕(精誠德) 입사옵고 치셩(致誠)이 지극(至極)하면, 치셩덕(致誠德) 입는이다. 중단호구(中壇胡鬼) 상단호구(上壇胡鬼) 호구푸리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다.

이 무가는 열흘 단위로 사람의 얼굴에 앉았다가 떠나는 과정을 이러한 말로 표현한 것이다. 하루와 이틀에 걸쳐 머리의 두통으로 오고, 사흘과 나흘에는 얼굴에 빨간 점으로 보람을 보이고, 닷새와 엿새에는 하얀 뜨물과 같은 것으로 솟아나고, 이레와 여드레에는 보랏빛의 부루 시루를 보이고, 아흐레와 열흘에는 검은 시루로 된다고 한다. 이 과정을 무가로 정확하게 구성하였다. 질병을 직접 보고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과정이 매우 흥미롭다.

손님굿과 가장 근접한 사례가 마마배송굿이다. 마마배송굿은 천연두라는 질병이 돌 때 하는 굿인으로, 손님굿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마마배송굿은 질병이 실제로 돌았을 때 마마를 달래는 굿이고, 손님굿은 질병이 돌기 이전에 예방하자는 뜻으로 하는 굿이다. 따라서 이 굿들은 서로 기능이 분리되지만 연관성이 있는 내용임을 알 수가 있다. 마마배송굿에서는 마마를 잘 위하고 섬겨서 내보내는 것이 핵심이다. 오쟁이에다 수수밥이나 조밥을 많이 해두고 이를 위하게 되면 무사히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굿은 오쟁이를 동구 밖의 나무에다 올려놓기도 하고 특별한 비방을 하기도 하면서 마마배송굿을 마치는 것이 요점이다.

손님굿은 이와 달리 마마예방굿의 성격을 띠고 있다. 손님은 일종의 떠돌이 신격으로 인식된다. 손님굿의 무가를 보면 중국의 강남에서 쉰 세 분이 출발했다가 의주 압록강 근처에서 쉰 분이 강남으로 되돌아가시고 나머지 분인 세 분이 넘어왔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붙박이로 머물러 있는 신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유랑신격이므로 이 점에서도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손님굿은 질병을 옮기는 신격에 대한 의례처럼 보이지만 이 의례를 통해 다양한 인간의 사고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요한 의의가 있는 굿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례 손님굿의 독립된 절차를 확보하고 있는 지역은 대체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남부인 경기도와 충청도 및 전라도 · 동해안 · 남해안 일대로, 매우 중요한 제차로 여겨진다. 이것은 손님굿 또는 손굿이 전통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신격으로 모셔지고 굿거리로 연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손님굿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등장하지 않고







손님여의기
국립민속박물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굿에 대해 지역적 특색을 살펴보면서 전국적인 분포를 개관할 필요가 있다.

손님신의 명칭을 달리 사용하면서 이른바 신의 위엄만을 나타내는 굿거리가 있다. 이러한 신격이 나타나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 북부 등지이다. 대체로 복색(服色)으로 신을 위하며, 신명을 열거하고, 이 손님에게 희생된 인물이 주신으로 등장하여 신격의 위엄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손굿 또는 손님굿이라는 명칭이 나타나는 지역은 경기도 남부다. 중국에 있는 신들이 왔다가 세 분이 와서 사람들 앞에 전좌하여 이들을 위하는 절차를 가지게 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 손님굿을 마을굿으로 하면 양상이 전혀 달라진다. 손님굿이 여성무당인 미지와 남성무당인 산이로 갈라지면서 연행되기 때문이다. 미지는 간단하게 주된 내용을 연행하지만, 산이는 판패개제 성음으로 길게 손님노정기를 놀면서 강남에서 굿판까지 오는 과정을 묘사하며 관객과 더불어 놀이를 벌이게 된다. 이런 점에서 경기도 남부 마을굿의 손님굿은 한 바탕 놀이가 된다. 소리와 재담, 굿놀이가 진행되면서 일정한 놀이적 성격이 매우 중요한 구성 요건이다. 이런 점에서 이 굿놀이는 확대되고 변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굿은 소리도 팔고 놀이도 곁들여지면서 엄숙한 신성성과 달리 신명난 놀이판의 성격을 지니게 된 것이다.

충청도와 전라도는 경기도 남부의 집굿에서 하는 손굿과 매우 흡사하다. 다만 굿을 하는 성음과 장단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뿐이다. 전라도 씻김굿에서 손님굿이 반드시 등장한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인식해야 된다.

남해안과 동해안의 별신굿과 같은 큰굿에서는 별신굿 안에서 손님굿이 작용하고 있는 현상이 발견된다. 남해안에서는 작은 거리로서가 아니라 매우 큰굿 가운데 하나로 엄연하게 놀아진다. 잔삭다리와 큰굿이 갈라지는 가운데 손굿은 큰굿으로 취급된다.

동해안의 손님굿은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동해안의 손님굿은 마마와 홍역을 앓게 하는 손님신을 모시는 절차로, 전통의 학에서 질병을 두려워한 가장 적절한 본보기의 굿이 곧 손님굿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마마배송굿을 하는데 동해안의 손님굿과 성격이 상통하는 점이 나타난다.

지모는 손대를 들고 갓을 쓰고 굿을 한다. 이때 서사무가인 〈손님본풀이〉를 한다. 동해안에는 5대 본풀이가 있다. 〈손님본풀이〉는 다른 고장의 손님굿에서 존재하지 않는 손님신의 내력을 푸는 것이 특징이다. 본풀이는 손님을 잘 대접한 노구할매는 복을 받고, 구박한 김장자는 외동아들을 마마로 잃게 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손님본풀이〉와 관련되는 손님놀이가 곧 말놀이이다. 말놀이는 손님신이 말과 마부를 불러 대원국으로 가는 대목에서 말놀이를 하는 제차이다. 본풀이와 놀이의 연관성이 다른 지역의 굿을 이해하는 단서이다. 본풀이에 근거해 대원국으로 되돌아가는 말놀이를 한다. 이 놀이가 곧 마마배송굿과 관련되며, 서울 지역의 마마배송굿에서도 이러한 절차가 있었음을 확인하게 한다.


1


2


3

1. 손대를 어깨에 둘러 매고 손님굿을 연행하고 있는 김영희 무녀

2. 손대에 돈을 걸고 있는 마을 주민들

3. 손대로 마을 주민들 머리 위를 지나가게 해서 나쁜 것을 둘러내고 있는 김영희 무녀

부산시 기장군 대변마을 풍어제 | 2007.2.24 | 김헌선

참고문헌 한국무가집 1, 2, 3, 4(김태곤, 집문당, 1982), 1988년 강릉단오제 무가집(김헌선, 보고사, 2008), 朝鮮巫俗の研究 上·下(赤松智城·秋葉隆, 大阪屋號書店, 1937~1938).

필자 김헌선(金憲宣)

참조참조 **마마배송굿**(254쪽), **불도맞이**(354쪽)

손님굿무가

정의 천연두 치병굿인 손님굿에서 구송되던 두신(痘神)의 노정기(路程記). 원래 손님굿은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 천연두의 원인으로 알려진 두신을 맞이하여 극진히 정성을 다함으로써 무사하게 병을 마치고자 한 독립된 치병굿이었다. 이처럼 손님굿은 비교적 큰 비중을 확보한 무의(巫儀)였다. 그러나 천연두가 정복된 후 독립된 치병굿은 행해지지 않고 다만 씻김굿이나 별신굿 등에서 제의의 한 부분으로 개별 굿거리화되어 연행되기 시작하였다.

내용 〈손님굿무가〉의 내용은 개별적으로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이를 유형별로 손님청배형과 손님노정기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손님청배형의 내용 구성을 굿의 진행 과정과 결부시켜 단락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배과정

1) 강남대한국에서 손님이 조선국으로 나온다.
2) 손님이 조선국으로 나오는 이유를 설명한다.
3) 조선국으로 오는 손님의 치장을 묘사한다.
4) 손님이 조선국으로 건너오면서 신의 위용을 과시한다.
5) 노정기 구송

2. 축원 및 공수 과정

6) 손님에게 축원을 한다.

3. 퇴송 과정

7) 손님을 퇴송시킨다.

손님노정기형의 내용 구성을 굿의 진행 과정과 결부시켜 단락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배 과정

1) 강남대한국에서 손님이 조선국으로 나온다.
2) 손님이 조선국으로 나오는 이유를 설명한다.
3) 조선국으로 오는 손님의 치장을 묘사한다.
4) 손님이 조선국으로 건너오면서 신의 위용을 과시한다.
5) 청배 과정 중 노정기

(1) 손님이 노구할머니를 찾아가 대접을 받는다.

(2) 손님이 노구할머니에게 보답하려 하니 노구할머니가 김장자의 아들 철원이가 잠복기를 잘 넘기기를 원한다.

(3) 손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철원이를 피신시킨다.

(4) 손님이 철원이 어머니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피신한 철원이를 꾀어내 병을 준다.

(5) 김장자가 아들의 병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민간요법으로 고치려고 한다.

(6) 병에 차도가 없자 결국 손님에게 빌어 철원이의 병이 낫는다.

(7) 병이 나았는데도 손님을 대접하지 않아 철원이가 결국 죽는다.

(8) 손님이 죽은 철원이를 마부로 삼아 데리고 간다.

(9) 김장자댁은 망하여 부부가 빌어먹으며 살고 노구할머니댁은 부자가 된다.

2. 축원 및 공수 과정

6) 손님에게 축원을 한다.

3. 퇴송 과정

7) 손님을 퇴송시킨다.
8) 손님 말치레 놀이를 한다.

지역사례 〈손님굿무가〉는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존재하고 있다. 〈손님굿무가〉는 현재도 전승되고 있기 때문에 무가 자료는 추가될 수 있다. 손님굿은 단일 굿거리로 연행되기보다는 큰 제의의 일부로 연행되고 있다. 동해안 지역의 경우 별신굿 제의에서 주로 연행되고 있으며, 서해안 지역에서는 씻김굿 제의에서 주로 연행되고 있다. 이

밖의 내륙 지역에서도 부분적으로 연행되고 있다.

서해안 지역 〈손님굿무가〉의 대부분은 씻김굿을 중심으로 축원굿이나 재수굿에서 연행되고 있다. 씻김굿은 죽은 이의 영혼을 씻기는 굿이다. 씻김굿의 전반적인 구성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부분은 제신(諸神)을 청(請)하고 가족의 안녕과 복을 비는 전반부다. 다음은 망자의 넋을 씻기고 극락으로 천도시키고자 하는 중반부다. 마지막은 굿에 참여한 모든 귀신을 배송시키고 굿을 마치는 종반부다. 씻김굿 무가의 각 거리는 이러한 세 부분의 구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손님굿은 대부분 전반부에 불리는 무가이다. 즉 제신을 청해 들이는 가운데 손님신을 모셔 가족의 안녕과 복을 비는 굿거리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손님굿도 본래의 천연두에 대한 굿거리보다는 일반적인 재액(災厄)을 물리치는 굿거리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무가의 축원 부분이 천연두병에 대한 축원보다 명(命)과 복(福)을 비는 굿거리로서 기능이 확장되어 변화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해안 지역의 〈손님굿무가〉는 별신굿에서 주로 연행되고 있다. 별신굿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도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는 마을굿의 일종이다. 별신굿은 종교적·신앙적 기능뿐 아니라 풍어제, 대동놀이, 시장부흥책의 기능도 겸하고 있다. 동해안 지역의 〈손님굿무가〉와 서해안 지역의 〈손님굿무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동해안 지역의 경우 노정기형 구조의 차용, '장자풀이' 같은 본풀이 무가의 차용, 제의의 연극화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변모는 연행자적 측면에서는 치병굿에서 예방굿으로의 굿 성격 변화를 통한 기존 굿거리의 활용, 수입 확대를 위한 별비 걷기의 효과적 장치로의 활용, 무속 제의의 효용성 강조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용자적 측면에서는 치병 및 예방과 같은 주술적 목적뿐 아니라 굿을 통한 놀이적 욕구의 해소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손님굿무가〉는 지역과 제의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유래 및 의의 〈손님굿무가〉는 천연두와 관련된 치병굿거리이다. 무속에서는 천연두를 역신(疫神)의 소행으로 여겼다. 역신에 관한 인식도 시대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천연두신을 모시는 굿거리로는 경기도의 '별상굿'이 있다. 별성(別星)신은 높은 벼슬을 지낸 인물의 혼령, 연산군, 광해군, 사도세자와 같이 왕위를 지키지 못했거나 왕위에 올랐지만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이 등을 신격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무당내력(巫黨來歷)』에서는 단군을 별성신이라고 보았다. 여기에서는 서울 지역 큰굿의 각 거리가 그림과 함께 설명되어 있다. 호구거리에 대한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천연두신위지호구(天然痘神謂之戶口)", 즉 천연두신을 일컬어 호구라고 하였다. 또한 『조선무속의 연구(朝鮮巫俗の硏究)』에서 "호구는 통상적으로 호구(戶口)자를 붙이는데, 두신(痘神)이 호구마다 침입하기 때문에 호구라고 하였다는 속설도 있으나, 그밖에 강남별성(江南別星)이라거나 중국에서 건너온 귀신이라 생각되므로 호귀(胡鬼)가 아닐까 추측한다."라고 나타나 있기도 하다.

천연두의 이명(異名)으로 손님마마(媽媽)가 있다. 마마는 임금과 그 가족의 칭호 뒤에 쓰여 존대의 뜻을 나타내거나 벼슬아치의 처와 첩을 높여 이르던 말로 손님의 존재를 임금과 같이 높은 존재로 파악했다고 볼 수 있다.

손님굿에서 쓰이는 손님이라는 명칭은 천연두에 대한 방언으로, 전국에 공통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손님은 손을 높여서 부르는 명칭이다. 생활이 지극히 궁핍한 전통사회에서는 손님 대접에 많은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반갑다는 생각보다 접대하기 어려운 점을 먼저 생각하고 손님 오는 것을 두렵게 여겼을 것이다. 여기에서 손님이란 말은 결국 두려운 존재라는 의미와 공경하기는 하지만 멀리했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다. 아울러 무가에서 보여주는 신이 외래신임을 감안할 때 민족신이나 고유신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외래의 신도 아울러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무속에서는 병의 원인을 신(神)의 작용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천연두를 발생시킨 신에 대해 여러 신이 존재하지만 역사적으로 억울한 죽음과 관련한 인물임을 생각할 때 이들의 한을 풀어주는 행위로서의 굿은 위령제 성격도 아울러 띠고 있다.

참고문헌 동해안무가(최정여 · 서대석, 형설출판사, 1974),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유동식,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5), 한국무속연구(김태곤, 집문당, 1981), 한국의 무(조흥윤, 정음사, 1983),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진성기, 민속원 1991), 손님굿 무가의 유형과 전승(변성환,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필자 변성환(卞成煥)

손전

정의 남해안 지역 무속에서 사제무가 손에 들고 신간(神竿)으로 사용하는 무구. 손대 혹은 적심대라고도 한다.

형태 손전은 가는 대나무의 일종인 신우대와 한지가 주재료이다. 대나무는 잎을 제거하지 않은 채 사용한다. 한지는 흰 종이나 색지가 재료가 된다. 한지를 일정한 크기로 잘라 여러 번 접어 가위로 문양을 오린 뒤 이것을 펼쳐서 감거나 걸어둔다. 동해안별신굿의 손대와 형태는 동일하지만, 대나무의 수술은 적은 편이다. 길이는 제작자마다 다르지만, 손에 들고 의례를 진행하는 지물(持物)이라는 점에서 그 크기가 60~70㎝ 이상은 넘지 않는다. 어른 손으로는 크기가 다섯 뼘쯤 된다. 굿을 할 때마다 제작하며, 의례가 끝나면 소각한다.

내용 손전의 유래는 망자를 저승으로 인도해 준다고 믿고 있는 바리공주가 남산에 올라 갈 때 한 손에 새꽃(억새꽃)을 들고 있었다는 것에 근원을 두고 있다. 별신굿에서 사제무는 부채를 주로 들고 굿을 하지만, 손전을 사용할 때는 오른손에 부채, 왼손에 손대를 든다. 별신굿에서는 용왕굿, 부정굿, 가망굿, 제석굿의 거리 초입부의 청배단계에 들려지며, 이것을 들고 대너리춤을 춘다. 큰굿에서는 손굿(혹은 지동굿)의 손님풀이까지만 사용한다. 손님풀이에서는 무녀가 장구에 손대를 꽂은 채, 장구를 치면서 의례를 진행한다. 큰 굿에 이어, 군웅굿에서도 청배단계에 들려진다. 별신굿의 마지막 의례인 거리굿에서도 손전을 들고 의례를 진행한다. 이때는 강신무가 대잡이를 한다. 그러나 이전의 의례에서 세습무가 사용하던 손전과 달리, 대나무 가지 여러 개를 묶은 것을 들고 의례를 진행하기도 한다.

남해안은 정통적으로 세습무가 활동하던 지역이다. 따라서 의례 시 죽은 망자나 잡신을 부를 때 자신의 몸에 직접 강신하지 못한다. 그 대신 강신무나 망자의 가족이 손전을 들면, 신간(神竿)인 손전을 타고 망자가 가족의 몸에 강신하게끔 한다. 손전은 잡신이나 망자의 혼이 내리게 하는 매개성물(媒介聖物)이 된다. 대나무가 신의 몸 즉, 신체(神體)로 상징된다면 한지는 신체를 감싸는 옷을 의미한다. 한지는 신에게 바치는 일종의 예단이다. 손전은 호남 지역과 경상도 지방에서 '손대'라고 불리는 신간과 같은 기능을 한다.

참고문헌 남해안별신굿 종합조사보고서(문화재관리국, 1996), 남해안별신굿(하효길, 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한국의 굿(하효길 외, 민속원, 2002),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경상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무속의 물질문화 연구(최진아,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9).
필자 최진아(崔眞娥)

송당리마을제

정의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본향당에서 벌어지는 정기적인 당굿. 절기에 따라 제의명이 달라 각기 '신과세', '영등', '마불림', '시만국제' 등으로 불린다. 이 굿은 1986년 4월 10일에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되었다.

역사 송당리마을제의 역사는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마을 설촌과 함께 당이 설립되고 당굿도 치러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 송당본향당에서는 1년에 4차례 당굿을 벌인다. 정월 13일에 신과세제, 2월 13일에 영등손맞이, 7월 13일에 마불림제, 10월 13일에 시만국대

제를 각각 벌인다. 정월에 벌이는 신과세제는 달리 대제(大祭)라고 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가장 중요한 굿으로, 규모 역시 다른 제의에 비해 매우 크다. 반면에 마불림제를 비롯한 나머지 제일에는 비념 정도로 간단하게 제의를 하여 모신다. 정태진 심방이 매인심방을 맡고 모든 굿을 진행한다. 그 목적은 한 해 동안 마을 공동체 전체의 안녕과 생업의 풍등을 기원하는 것이다.

송당본향당은 백줏도를 주신으로 모시는 당이다. 개별 제물로는 메 2그릇, 구운 생선, 과일, 돌레떡, 삶은 계란 등을 채롱에 담아 올린다. 돼지고기는 제물로 쓰지 않을 뿐 아니라 철저하게 금기한다. 돼지고기를 금기하는 것은 백줏도와 소로소천국이 별거하게 된 내력을 통해서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치마, 저고리, 가락지, 비녀, 옷감 등을 함께 바친다. 모두 백줏도 할망이 치장하는 데 소용되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궷집에 모셔 둔다. 당굿을 하여 이 당에 기원을 하면 자손들의 액운을 막아 주고 소원을 성취시켜 준다고 믿는다.

마을 아낙네들은 아침 일찍 제물을 구덕에 담아 등에 지고 당으로 간다. 한 집안의 주부가 이 일을 맡으며, 시어머니 된 이는 며느리가 어느 정도 시집살이에 익숙해지면 며느리에게 이 일을 맡긴다. 제물구덕을 놓는 자리는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먼저 도착하는 순서대로 제단에 올린다. 다만 이장네와 상단골이 궷집 가까운 곳에 제물구덕을 놓을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할 뿐이다. 궷집 왼쪽에는 뱅딧할망(평대 수데깃당신)을 모시는 중산처가 있어 평대리에서 시집 온 일부 아낙네들이 제물구덕을 올린다. 딸을 시집보낸 집에서는 홍세함(함)을 쌌던 홍세포를 가져와 당신에게 혼인 사실을 고하고 당굿이 끝난 뒤에 불사르기도 한다. 옛날에는 홍세포를 신목 가지에다 걸어두었다고도 한다.

신과세제로 벌이는 정월 열사흘 당굿은 본래 아침 일찍 시작하여 저녁 무렵까지 계속됐다. 그러나 요즘에는 오전 9시경에 시작하여 점심 때쯤 되면 주요 제차가 모두 마무리된다. 무악기를 모두 울리면서 진행하기에 소미도 3, 4명이 함께 참여한다. 주요 제차는 초감제, 산받음, 액맥이 등이다. 먼저 열명올림을 하고 초감제로 들어간다. 열명은 단골마다 가족사항을 고해 올리는 것이다. 열명올림은 연유닦음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간이 워낙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정을 보아 이렇게 미리 하는 것이다. 초감제는 베포도업침, 날과국섬김, 연유닦음, 신메움(본풀이), 새ᄃᆞ림(도레둘러뷈), 군문열림, 신청궤(본향듦, 석살림)'로 짜인다. 신메움을 하면서 본향 대목에 가면 당신본풀이를 길게 구연한다. 새ᄃᆞ림에서는 새ᄃᆞ림을 하고 이어 도레둘러뷈과 젯북제맞이굿을 아울러 한다. 신청궤에서 본향을 청하여 들인다. 백줏도는 치마저고리로 청하고, 소천국은 꼴찌거리로 청한다. 본향을 청해 모신 뒤에는 서우제소리를 부르면서 모두 함께 흥겹게 춤추어 신을 놀린다. 이렇게 해서 초감제가 끝나면 점심식사를 한다. 점심을 마치면 산받음을 시작한다. 소미들이 모두 산받음에 나서고, 단골들은 각 심방의 주위에 모여앉아 차례로 가족들의 한 해 운수를 알아본다. 이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액맥이를 한다. 궷문을 닫는 것으로 모든 제의가 끝난다.

초감제의 신메움에서 당신본풀이를 길게 구연한다. 내용은 제주도 신당의 원조라는 전승을 담은 것이다. 신청궤에서 본향듦을 하여 당신을 청하여 모신 뒤에는 서우제소리를 하면서 춤판을 벌이기는 하지만 다른 당에서처럼 나까시리 놀림은 하지 않는다. 산신놀이도 하지 않는다. 이는 농경신인 백줏도를 모시는 당이기 때문이다.

본래 상단골인 광산 김씨가 주축이 되어 당굿을 하여 모셔왔지만, 오래 전부터 마을 이장이 주로 관여하고 있다. 이장이 상단골 구실을 대신하는 셈이다. 심방들은 과거 상단골 집에서 아침을 먹던 것처럼 이장네 집으로 가서 아침을 먹는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그곳에서 필요한 기메를 마련한다. 아침식사와 기메 만들기가 끝나면 함께 당으로 이동한다. 당보존회와 부녀회에서는 굿판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점심으로 국수를 삶아 대접한다. 이는 혈연 공동체 중심의 단골체제가 행정조직을 반영한 단골체제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요즘에는 상단골에 대한 대우로 특별한 것이 없다. 제물구덕을 궷집 가까이 올린다든지 열명을 할 때 우선적으로 해준다든지 하는 것이 전부이다. 대우가 특별한 것이 없는 까닭은 상단골이 별다른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래 상단골은 당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대고 매인심방들의 생계를 돕는 등의 의무를 지며,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송당리에서는 오래 전부터 상단골이 특별한 권리와 의무를 지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생존해 있는 주민들 가운데 상단골이 특별한 대우를 받거나 의무를 지는 경우를 본 예가 없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미 오래전에 상단골의 의미가 사라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본향당이 대개 그러하듯이 정기적인 제일 이외에는 개인적인 비념을 따로 하지 않는다. 이 당에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출입한다. 제일 3일 전부터 정성을 들이며, 고기를 먹거나 부부간 동침을 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북제주군 송당리 조사보고서(문화 · 역사만들기 북제주군 추진협의회, 도서출판 각, 2004).

필자 강정식(姜晶植)



송당리 마을제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송당본향당 | 2009.2.7 | 강정식

송당본향당(松堂本鄕堂)

정의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마을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본향신을 모시는 당. 2005년 4월 6일에 '제주도 민속자료 제9-1호'로 지정되었으며,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산 199-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형태 본래 널찍한 제장을 두고 약 2m 높이의 흩담을 장방형으로 쌓았다. 현재는 왼쪽에 건물을 지으면서 이 담을 헐었다. 안쪽에 제단과 궷집을 두고 있다. 서쪽 담 가까운 곳에 돌을 다듬어 궷집을 마련하였다. 궷집 안에는 옷감, 신발, 가락지, 비녀 등을 넣어 두고 있다. 궷집 앞에 가로로 길게 시멘트 제단을 마련하였다. 제단은 4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단 앞에 자그마한 향석(香石)이 놓여 있다. 맨 상단에 궤가 세 개 마련되어 있다.

역사 송당본향당은 마을의 설촌과 그 역사를 함께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마을이 웃손당, 셋손당, 알손당으로 나뉘어 제각기 당을 모시다가 오래지 않은 시기에 함께 모시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 송당본향당은 송당리 사람들의 생업을 보호하고 삶과 죽음으로 인한 인적 구성원의 변화를 관리한다. 송당본향당은 송당리 마을 서쪽 당오름 기슭에 있다. 당오름 끝자락과 건천인 산앞내 사이에 형성된 평지에 당 자리가 마련되었다. 신목은 팽나무로, 제단 뒤의 오른쪽 구석에 있다. 다른 당의 팽나무에 비하면 수령이 그다지 많지 않아 줄기가 굵지 않다. 그 가지에 물색을 약간 걸어두었다. 본래 수령이 많은 팽나무가 있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양 모라는 이가 나무를 잘라냈다고 한



송당본향당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 2003.6.8 | 강정식

다. 이 일로 그 아들 혹은 손자가 죽었다고 한다.

송당본향당은 웃손당 금벡주, 셋손당 세명주, 알손당 소로소천국을 모시는 당이다. 이 가운데 웃손당 금벡주가 주신(主神)이다. 금벡주는 송당리 사람들의 생산 · 물고 · 호적을 관장하는 본향신이다. 그 본풀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 소천국은 하상천자국 잔소남밭 아래에서 태어나 제주도로 들어와 가죽옷을 입고 사냥을 하며 산다. 백주할망은 왕대웃성 갈림길에서 태어나 중의 아기를 임신하여 부모의 미움을 산 까닭에 무쇠 철갑에 담겨져 바다에 버려지며 성산 온평리에 표착한다. 둘이 만나 혼인하여 송당으로 가서 산다. 자식이 많아지자 농사를 짓기로 하지만 소천국은 밭 갈던 소를 잡아먹고 만다. 이로 인하여 백주또가 소천국과 함께 살 수 없다고 하여 살림을 가른다. 첫아들 문곡성이 자라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림 받자 아버지를 찾아나서 문곡성을 만나지만 버릇없이 굴다가 소천국의 미움을 사게 되어 소천국에 의하여 무쇠 석함에 담겨져 바다에 버려진 뒤에 용왕국에 닿는다. 문곡성은 자신을 알아본 용왕국 셋째 딸과 혼인하여 살게 된다. 그러나 문곡성은 식성이 과다하여 상자에 담긴 채 쫓겨나자 천자국으로 간다. 흉험을 주어 자신의 존재를 알려서 난을 평정한 뒤 군사를 거느리고 다시 제주로 돌아온다. 그 기세에 놀란 소천국과 의붓어머니는 죽어 당신(堂神)이 되고, 형제자매들도 모두 좌정처를 찾아 떠난다. 문곡성 부부는 한라산 바람목에 좌정하여 만민의 제사를 받아먹고 그들을 지켜준다.
>
> 백주또와 소천국은 부부였으나 소천국이 밭갈이하던 소를 잡아먹는 바람에 별거하게 된다. 그 아들 문곡성이 아비를 찾아 나섰다가 불효하다는 죄목으로 바다에 유기된다. 문곡성이 용왕국에 이르러 말잣똘(막내딸)과 혼인하지만 식성이 과다하여 쫓겨난다. 둘은 천자국에 이르러 난리를 평정하고 그 공을 인정받은 뒤에 위풍당당하게 제주섬으로 귀향한다. 그 모습에 놀란 소천국은 달아나다 죽었다. 문곡성은 동생들을 각처의 당신으로 좌정하게 하고 자신은 거멀(구좌읍 덕천리)에 좌정하였다.

본풀이의 내용으로 보아 송당본향당은 본래 웃손당, 즉 지금의 송당 상동의 본향당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웃손당 · 샛손당 · 알손당 · 즉 송당리 전체를 포괄하는 본향당으로 점차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송당본향당은 제주도 신당의 원조라고 널리 알려진 당으로, 제주도 당 신앙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당은 중산간 지역의 당임에도 영등굿을 하고 있다. 이는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본향과 더불어 주목되는 사례이다.

필자 강정식(姜晶植)

송동숙

분야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3호 영해별신굿놀이의 예능보유자.

내용 동해안 지역의 송씨 무계는 송동숙(宋東淑, 남)의 증조부까지 추정이 가능하다. 송동숙의 증조부모는 모두 무업을 했으며, 삼형제를 낳았다. 송동숙의 백조부 송대근과 중조부 송대봉, 조부 송학봉 모두는 부모의 가업을 이어받아 무녀들과 결혼하여 무업을 하였다. 백조부 송대근은 경북 울진 평해읍 구산에서 살다가 울산으로 거주지를 옮겨 활동하였다. 송대근의 아랫대인 자녀들은 무업을 하지 않다가 손자인 송신출이 김유복과 혼인하여 울산에서 무업을 하였다.

중조부 송대봉은 부부가 경북 영덕군 병곡 자래실에 거주하면서 무업을 했으나 자녀가 없어 무계의 맥이 끊어졌다. 조부 송학봉은 평해 기성에서 부인 이화선과 무업을 하였다. 송학봉은 장구를 매우 잘 친다고 해서 '왕장고'라는 별호로 불렸으며 부인 이화선은 목청이 좋고 굿을 잘하나 행동거지가 느리다고 해서 '늑대'라는 별명을 얻었다. 송학봉과 이화선 사이에서 큰아들 송일성, 둘째아들 송도성, 셋째아들 송기성을 낳았다. 송동숙의 백부 송일성은 무업을 잠시 하다 요절하는 바람에 후손이 없고, 아버지 송도성은 박아지(朴阿只)를 만나 경북 울진 기성에서 무업을 하였다.

송동숙은 1928년에 경북 울진군 기성에서 큰무당인 송도성과 박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송동숙의 위로 형이 둘 있었으나 이름도 짓기 전에 태어나자마자 죽었다. 부친은 송동숙이 3살 때 사망하였다. 부친은 금강산 구경을 갔다가 길에서 객사하였다. 술을 좋아한 부친은 술을 먹고 노숙하다가 오한을 만나 운명하였다고 한다.

송동숙이 대여섯 살 무렵에 어머니는 제갈성도와 재혼하였다. 이때 송동숙은 어머니와 함께 가지 않고 울진군 기성면 기성리에 거주하는 할머니 이화섭에게 기거하며 2년 동안 한문서당에 다녔다. 송동숙은 서당에 다닐 때 책을 떼고 책거리한 것을 즐거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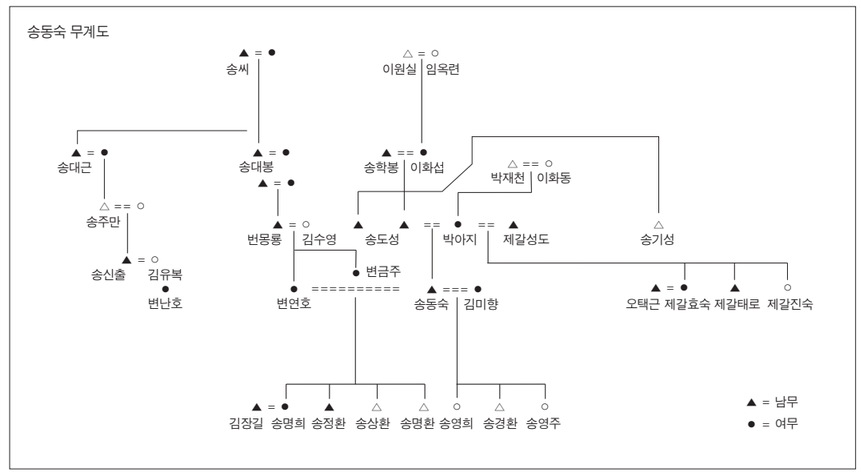
1936년 송동숙이 아홉 살 때 할머니가 사망했다. 이후 울진 기성 넘어 사동의 외가에서 일 년 반가량 있다가 11살 무렵에 어머니가 계신 평해로 갔다. 송동숙은 의부인 제갈성도에게 와서 무업을 처음 배우게 되었다. 제갈성도 부부는 송동숙이 온 지 3년 정도 평해에서 살다가 영해 성내3동으로 이사하였다. 송동숙은 열한 살에서 열일곱 살 무렵까지 굿판을 따라다니며 징 · 꽹과리 등의 악바라지를 했다. 그러나 그 당시 주바라지인 장구를 칠 정도의 실력은 되지 않았다.

1944년 일제의 대대적인 강제징용이 시작되어 그해 9월 17살의 나이로 강제 징집되었다. 그것도 나이가 어려 징집되지 않아도 되었으나 다른 사람 대신하여 가게 되었다. 송동숙은 일본 홋카이도의 건너가서 백금광산에서 일하였다. 광복을 맞아 1945년 10월에 귀국하여 1946년 때까지 제갈성도 집에 거주하였다.

송동숙은 1946년 여름 울진 죽변의 변성문 댁에 있는 변연호에게 청혼한 뒤 홀로 강원 강릉 주문진 연곡의 송순택에게 갔다. 송순택은 이때 이금옥과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한다. 송동숙이 강릉으로 간 이유는 장구, 꽹과리 등 무악을 그에게 배우기 위해서였다. 송순택의 집에서 두어 달 지내다가 주문진 오리나리 백창옥의 집에 가 있었다. 이때 죽변에서 변연호가 강릉으로 올라와 1946년 가을에 주문진에서 혼인하여 살게 되었다. 송동숙은 강릉지역에서 송순택과 지내면서 무악을 많이 배웠다고 한다.

송동숙은 스무 살 늦봄에 죽변의 변성문 집으로 주거지를 옮겨왔다. 죽변으로 이사 온 후로 영해의 제갈성도, 주문진의 송순택, 죽변의 변성문 등과 함께 울진 · 평해 근방의 일을 많이 하였다. 송동숙은 아홉 살 이후로 굿판에서 푼돈을 받다가 스무 살쯤 되어서부터 온 섬을 받았다. 이후 굿에 참가하면서 이삼 년간 착실히 돈을 모을 수 있었다. 송동숙과 변연호는 모은 돈으로 1950년에 죽변에서 울진읍내 2구로 집을 사서 이주하였다.

울진으로 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권역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송동숙은 울진에 거주하고 있던 김춘경과 친분이 있었고, 울진지역 또한 연로한 김춘경 부부 외에 이렇다 할 무당이 없었기 때문이다. 송동숙은 울진읍으로 이사 와서 첫



아들을 낳았으나 일찍 죽고, 1952년 음력 4월 12일에 큰딸 명희를 낳았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송동숙은 큰딸 명희의 첫돌이 되기 전인 1953년 26살의 나이로 제주도 제2훈련소에 입소하였다. 군에 입대한지 7개월 만에 휴전이 되자 경기도 연천에 배치되어 근무하였다. 그러던 중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입대 20개월 만에 의가사제대를 하였다. 송동숙은 1954년에 제대하고, 이후 아들 정환과 상환을 낳았다.

이후에 굿판에서 굿을 하던 김미향을 만나게 되었다. 송동숙은 김미향과 함께 김일향(김미향의 고모)이 있는 강구로 가서 살림을 차리고, 명희와 정환은 울산에 있는 송신출에게 맡겼다. 강구에서 채 1년도 되지 않게 있다가 1961년 음력 11월 21일 송동숙과 김미향은 경주에 있는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송동숙은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리에 있는 김미향의 친정으로 이주하였고, 이듬해 울산에 있던 딸 송명희를 데려왔다.

송동숙은 1963년에 김미향과 함께 영해읍내로 주거지를 이동하였다. 영해로 오게 된 계기도 죽변에서 울진읍내로 나온 것과 동일한 이유에서였다. 송동숙은 이후 영해를 중심으로 인근지역 굿을 맡아 연행하였다. 송동숙은 장구와 꽹과리 등 악기를 다루는 솜씨뿐 아니라 소리, 춤, 굿놀이, 지화제작 등에 능하였다. 송동숙은 2005년 10월 1~2일 김석출오구굿을 마지막으로 연행하고 2006년 4월 24일 새벽에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로 4월 26일 국립호국원에 안치되었다. 그와 같이 활동한 삶의 반려자인 무녀 김미향도 뒤를 따라 2007년 2월 12일 세상을 떠났다. 송동숙은 평생 동안 동해안굿을 지켜오고 아랫세대에게 전승한 큰무당의 한 사람이다. 송동숙은 동해안의 무속 악사로서 1980년 12월 30일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3호 영해별신굿놀이의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현재 송씨 무계는 송동숙과 변연호의 사이에서 난 맏딸 송명희와 맏사위인 김장길이 무업을 이어가고 있다.

참고문헌 동해안 굿의 전승과 변화(윤동환,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필자 윤동환(尹東煥)

송선자

분야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설경 보유자.

내용 송선자(宋善子, 여)는 1945년 6월 27일(음력) 충북 영동군 심천면 하고당리에서 출생하였다. 심천 초광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영동기술학원에서 3년간 수학하였다. 현재 남편과 1남 5녀를 두고있다.

송선자는 33세 되던 해에 신병을 앓았으나 신을 누르다가 38세에 신풀이를 하고 입무하였다. 이 후, 황하청 법사의 문하생으로서 설경(說經) 제작 및 질닦기굿과 사혼굿을 15년 동안 학습하였다. 그리하여 송선자는 황하청 법사로부터 설경제작 및 앉은굿의 기예능을 완벽하게 이수하였다. 이 후, 송선자는 설경을 전승하기 위한 전승단체의 중심이 되어 전통적 설경 기법을 전수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송선자 보살이 행하는 대전 지역의 설경은 우리나라 각 지방의 무속과 비교하여 볼 때 이 지방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무속 양상으로서 귀중한 무형문화재적 자료로 평가된다. 그러한 것은 설경이 무의식 보조품 역할을 훨씬 넘어 굿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비중 있는



송선자
대전 송선자 보살 신당 |
1997 | 양종승

송송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지름 45㎝, 너비 15㎝ |
1950년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설경의 제작 규모와 그것이 사용되는 폭이 타 지방의 종이 장식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크고 넓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설경은 무신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경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설경 없는 굿은 있을 수가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다. 설경은 이른바 대전 및 충청무속을 대표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설경 지정조사보고서(양종승, 대전광역시, 1998), 대전 · 충청무속의 설경연구 (양종승, 민속학연구, 국립민속박물관, 1999), 충청도 굿의 설경(說經) (양종승, 민속소식, 국립민속박물관, 2007).
필자 양종승(梁鍾承)

송송개(送送蓋)

정의 황해도굿에서 굿청을 장식하는 개(蓋).

내용 개(蓋)는 햇빛을 가리도록 제작된 대형 일산(日傘)을 말한다. 주로 나무나 대나무로 살을 만들어 그 위에 비단 덮개로 덮고 주변으로 휘장을 붙여 늘어지도록 제작한다. 과거 궁중에서 사용되던 개에는 신분에 따라 갖가지 장식을 더하였다.

황해도굿에서는 개 형태의 여러 장식물들이 굿청을 치장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송송개(送送蓋)이다. 굿청의 중앙에 세워진 깃대에서 오방으로 오색의 만장발을 늘어 뜨려 고정하고 사이사이에 각종 개와 잉어, 학 등을 달아 장식한다. 송송개는 여러 신령들이 하강할 때 구름, 비, 눈, 햇빛 등을 막아 굿청으로 잘 모시기 위한 무구이기도 하고 옳지 못한 기운을 다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개는 본래 종이로 제작하여 굿이 끝나면 다른 물건들과 함께 태워 없애는 것이나 근간에는 제작이 어려워 헝겊 등으로 한 번 만들어 두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문헌 큰무당 우옥주 유품(국립민속박물관, 1995), 황해도굿에 쓰이는 종이 신화와 신구의 종류, 형식, 상징성 고찰(양종승, 한국무속학 13, 한국무속학회, 2006).
필자 김창호(金昌浩)



쇠걸립

정의 만신의 내림굿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걸립 행위 가운데 하나.

내용 강신무권에서 신이 내리게 되면 내림굿을 하기 위해 마을의 권역을 돌게 된다. 이를 흔히 계면돌기라고 한다. 일곱 집, 스물한 집, 스물여덟 집 등 일곱 수로 돌아다니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신불리는 소리를 한다. 이를 걸립무가라고 한다. 이 무가는 대체로 일정한 관용구로 이루어져 있다. 걸립무가는 '불리러 왔고 외기로 왔다'는 관용구를 집어넣는다. 쇠걸립은 이 과정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쇠걸립을 할 때 부르는 무가는 다음과 같다. "외기러 왔소 불리러 왔소 닫은 문을 열러 왔소 죽은 쇠 모아다 산 쇠 만들려고 불릴 쇠를 걸립 왔소 외길 쇠 걸립 왔소 칠 년지 일곱 해가 된 대주님의 놋주발을 내놓으시오. 사룽(선반) 위에 있소 밥이 담겨져 솥 안에 있소이다. 우는 쇠라 하니 걸립을 줘야 이 댁 가중에 장남자손이 건강하겠소이다."

쇠걸립의 핵심적인 내용은 장차 만신이 사제자 노릇을 하는 데 필요한 놋쇠를 모으는 것이다. 즉 쇠걸립은 장차 단골이 될 집을 방문하여 놋쇠로 된 숟가락, 젓가락, 주발, 대접, 푼주 등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이 놋쇠를 모아서 만신 노릇을 할

때 쓰는 무구를 만든다. 무구는 주로 대신칼, 명도, 방울 등이다. 이는 사제자 노릇을 하기 위한 단골들의 원조와 추대 절차가 이러한 걸립 과정으로 형식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쇠걸립은 쌀걸립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만신이 자신의 내림굿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쌀이다. 쌀을 걸립하면서 역시 쌀을 비는 말을 하고 예비 단골과의 관계를 갖는다. 단골 후보들은 강신자에게 쌀과 쇠를 내어주면서 이 쌀과 쇠를 매개로 해서 자신들의 궁금한 점과 종교적인 의문 사항을 묻고 처방을 받게 된다. 이 단골관계의 맺음이 무속 종교에서 가장 긴요한 면모라고 할 수도 있다.

쇠걸립은 서울, 경기도, 황해도 일대에서 활발하게 연행되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된다. 제주도에서는 이를 쒜동냥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 역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쒜동냥에서는 쒜를 빌려다가 삼멩두라는 무구를 만들거나 울쇠를 만들어서 굿을 하는 밑천으로 삼는다. 그 절차와 기능이 동일하므로 쇠걸립과 쒜동냥은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제주도에서는 쒜동냥의 실상이 심방의 의례에서 쒜놀림이라는 아주 독특한 의례와 연계되어 있어 주목된다. 자신이 만든 삼멩두와 스승이 물려준 삼멩두 가운데 천문과 상잔을 하나로 합쳐서 자신들의 의문나는 점을 확인하는 의례를 거행한다. 이런 점에서 매우 독자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다.

쇠걸립은 사제계승권과 자신의 관도를 구축하는 사제자와 신도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사제의 계승권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이 전통은 일찍이 유리왕 신화의 전통 속에서 확인된 바 있다. 유리태자가 주몽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부왕인 주몽은 수수께끼를 내고 특정한 것을 찾아와야 자신의 자식임을 인정하는 절차를 부여한다.

이것의 핵심은 부러진 칼 토막을 찾는 것이다. 이 부러진 칼 토막이 곧 쇠걸립의 전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쇠가 울면서 소리를 내는 것을 듣고 유리는 마침내 칼을 찾아내 이를 가지고 주몽에게 가서 부러진 칼 토막을 합쳐서 마침내 하나의 칼을 완성하고 동시에 유리가 하늘에 오르는 비상술을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이 쇠걸립과 대응하는 고대적 기록이다. 온전하게 서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쇠걸립을 하는 과정이 어떠한 신화적 전통 속에 잠재된 행위이며, 다른 의례에서 어떻게 지속되는지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록이다. 쇠걸립은 과거의 신화와 현재의 의례가 만나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조선민속지(秋葉隆, 동문선, 1993), 한국무속과 연희(이두현,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필자 김헌선(金憲宣)

쇠풍장

정의 경기도 남부 지역의 세습무당 굿에서 산이(악사)들이 서서 하는 굿거리에 등장하는 쇳가락 연주 대목을 총괄하여 이르는 말.

어원 쇠와 풍장이 합쳐진 말로, 풍장은 단출한 사물 구성으로 된 것을 말한다. 유사한 용례로 두레풍장, 들풍장, 날풍장, 풍장굿 등과 일맥상통하면서도 구별되는 용어이다. 유례(類例)가 모두 농악과 관련되는 것이라면 쇠풍장은 오로지 경기도 남부 지역의 도당굿 등에서만 사용된다.

내용 쇠풍장은 도당굿거리 가운데 선증애굿꾼[立巫]이 도맡아 하는 굿거리에서만 사용되는 특별한 굿가락이다. 도당굿의 굿거리 가운데 대표적인 굿거리가 바로 손님굿, 군웅굿 등이다. 이 굿거리는 '미지(무당)'와 '산이(악사)'가 임무 교대를 하는 특별한 굿거리이며, 쇠풍장은 산이제 굿거리인 손님노정기와 군웅노정기 등을 하기 전에 잠깐 등장하는 가락이다.

쇠풍장은 주로 쇠를 든 산이들이 터벌림의 의례로 삼진삼퇴하며 사방으로 쇳가락을 연주하는 전통에서 비롯되었다. 많은 관객으로 인해 좁혀진 굿판을 넓히면서 방수밟이와 유사한 형태의 굿을 하며 이 가락을 연주한다. 장구가락과 짝이 되어 대체로 산이가 두루마기를 입고 꽹과리를 치면서 쇠풍장을 연주한다. 한 명의 산이가 이 가락을 연주하고 나면 다른 산이가 그 꽹과리를 이어받으면서 동일한 행위를 한다.

쇠풍장에 쓰이는 가락은 여러 가락이 혼용된다. 주로 쓰이는 가락이 터벌림가락, 겹마치기가락, 자진굿거리가락 등이다. 이 가락은 복잡한 가락으로 산이의 춤과 쇳가락이 어울려서 깊은 밤에 예술적인 감동을 주는 소중한 가락이다. 이 과정에서 쓰이는 가락의 악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터벌림-넘김채-겹마치기-자진굿거리

갱	-	-	갱	-	-	갱	-	개	갱	-	개	갯	-	개	(내드름)
갱	-	-	갱	-	-	갠	-	지	갠	지	개	갯	-	개	(암채)
갯	갱	-	갠	-	지	갯	-	개	갠	지	개	갯	-	개	(숫채)

이 가락은 터벌림가락을 정간보화한 결과이다. 3소박 5박으로 되어 있으며, 장단이 느린 장단에서 빠른 장단으로 일정한 틀을 갖춘다. 아울러 흔히 무악에서 말하는 암채장단과 숫채장단이 달리 구성되어 있어서 음양 장단을 이룬다. 또한 장단의 종류가 달라져서 일정한 집을 짓는 일도 일어난다. 터벌림, 넘김채, 겹마치기, 자진굿거리 등으로 넘어간다. 혼소박은 쓰이지 않지만 장단이 경쾌하고 발놀림에 주력하는 장단이다. 따라서 매우 중요한 동작인 발을 디뎠다가 다시 떼는 발놀음새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다. 더불어 쇳가락으로 이어져 나가면서 빠른 가락에서는 다양한 쇠놀림이 위주로 되며, 쇳가락에 치중함으로써 쇠풍장의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특징이 있다. 쇠풍장은 굿에서 비롯된 무악장단의 의의를 보여준다. 전통적인 타악 장단은 농악 장단과 무악 장단으로 나눌 수 있다. 쇠풍장은 무악 장단의 묘미를 알려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참고문헌 경기도 도당굿 무가의 현지 연구(김헌선, 집문당, 1995), 한국의 무속장단(임수정, 민속원, 1999), 지영희민속음악연구자료집(성금연 편, 민속원, 2000), 경기판소리의 정착과 형성집단(김헌선, 경기판소리, 경기도 국악당, 2005), 진쇠장단외 십일장단(박헌봉, 중요무형문화재보고서 28, 문교부, 1966), 시나위(유기룡 · 이보형, 중요무형문화재보고서 82, 문화재관리국, 1971).
필자 변남섭(卞南燮)

수부채

정의 무당이 한 거리를 마치고 잡귀잡신을 풀어먹이면서 연주하는 장단. 수부는 수비(隨陪)의 와음(訛音)이며, 수비는 주신(主神)을 따라다니는 잡귀잡신을 의미한다. 수부채의 '채'는 '치다'라는 동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악기를 치는 도구인 채에서 온 말이다. 또한 '채'는 전통음악에서 '장단'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풍물굿에서의 '채'는 그 장단에 쓰이는 징의 점수를 일컫는 것이고, 굿판에서의 '채'는 장단이 쓰이는 노래 혹은 춤 명칭에 붙어서 장단명으로 쓰인다.

내용 및 지역사례 수부채는 전국의 굿판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황해도굿의 초감흥굿에서는 모든 신령을 모셔 놓고 본격적인 굿을 진행하기 위해 굿청을 깨끗하게 정화한다. 이는 잡귀잡신인 수비를 물려내는 의례이다. 만신은 수비들의 이름을 노래하면서 놀려 보낸다. 만신이 수비상을 들고 청배한 후 수비상을 든 채 2소박 4박(4/4박자) 장단인 맴돌이장단(또는 막장단)에 연풍을 돌면서 춤을 춘다. 그리고 수비상을 밖으로 내보내어 수비들이 굿청 밖으로 나가도록 한다.

〈보례〉 황해도 맴돌이장단

①	ㅣ	ㅣ	○	ㅣ	○	ㅣ	○

서울굿에서는 수비장단이라고 하며, 뒷전에서 쓰인다. 수비장단은 2소박 4박(4/4박자) 장단이며, 이를 휘모리 또는 막장단이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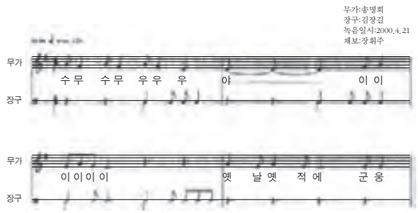
〈보례〉 서울 수비장단

①	ㅣ	ㅣ	○	ㅣ	○	ㅣ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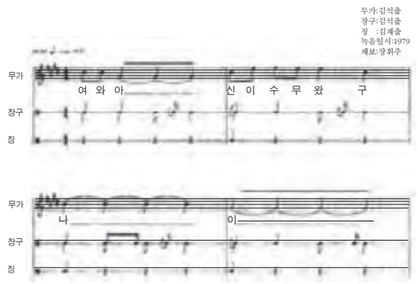
동해안굿의 수부채는 각 거리의 끝부분에서 무당이 수부잔을 들고 모신 신을 따라온 수부사자를 풀어먹이는 수부 무가를 반주하는 장단이다. 동해안 수부채는 겹수부채와 홑수부채가 있다. 겹수부채는 빠른 3소박 4박(12/8박자) 장단이고, 홑수부채는 빠른 2소박 4박(4/4박자) 장단이다. 수

부 무가는 메나리토리로 되어 있다. 요즘은 길게 부르는 겹수부채를 거의 부르지 않고 간단하게 부르는 홑수부채로 마치는 경우가 많다.

〈보례〉 동해안 겹수부채 무가 (송명희 노래 / 장휘주 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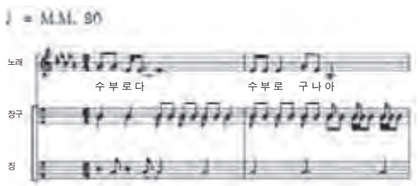


〈보례〉 동해안 홑수부채 무가 (김석출 노래 / 장휘주 채보)



남해안굿에서는 무당이 거리를 마치면서 수부무가를 수부채에 얹어 부르고, 손님에게 수부잔을 주면서 무병장수를 빈다. 수부채는 2소박 6박(6/4박자) 장단이며, 수부무가는 육자배기토리로 되어 있다.

〈보례〉 남해안 수부무가 (정영만 노래 / 이용식 채보)



참고문헌 민속, 문화, 그리고 음악(이용식, 집문당, 2006), 한국음악의 뿌리, 팔도 굿음악(이용식,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9), 경남 · 경북 동해안 무악 비교 연구(장휘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남해안 별신굿 음악 현지연구(이용식, 한국무속학 6, 한국무속학회, 2003), 서울굿의 장단사용과 장단구조의 연계성(김혜정, 한국무속학 12, 한국무속학회, 2006), 황해도 맞이굿 형식과 특성 고찰(양종승, 한국무속학 16, 한국무속학회, 2008).
필자 이용식(李庸植)

상호참조 수비장단(506쪽)

수비

표제어 잡귀잡신(740쪽)

수비장단

정의 굿에서 수비라고 하는 하위 신격을 물리치는 데 사용하는 무악 장단 가운데 하나.

형태 및 내용 굿에서 신에 대한 관념은 신의 이름으로도 구현되지만 굿의 구체적인 의례 행위로 구체성을 띠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수비'이며, 이 수비를 실제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것이 '수비장단'이다. 수비라는 잡신 관념이 존재하는 굿에서 이 장단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서울굿에서 수비장단은 굿거리별로 모두 확인된다. 수비장단은 보통 2소박 4박의 당악장단으로 아주 빠르게 진행되며, 장구와 제금만으로 연주한다. 기본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덩-,따따, 쿵따, 쿵-'으로 치지만 단순하게 같은 가락만을 연주하지 않고 변체 가락을 쳐서 리듬감을 한껏 살린다.

덩		따	따	쿵	따	쿵	

가령 '덩-, 따따, 쿵따, 쿵-'을 기본으로 치면서 '덩-, 덩-, 쿵따, 쿵-' 또는 '쿵따, 쿵따, 쿵따, 쿵-' 등으로 연주한다. 장단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겹가락을 연주하지 않으며, 더욱이 궁편과 채편을 농악처럼 옮겨 치지 않고 갈라 치는 것이 기본적인 특성이다.

만신은 이 장단에 "수비야 수비야/ 오다가다 만난 수비/ 산수비 들수비야/ 산해용신수비야/ 오구 가구 왕래수비 아니시냐~"라고 말하면서 준비된 물을 끼얹거나 북어를 던지며 수비에게 제물을 주는 행위를 한다.

장구잽이 만신은 고정적인 한 자리에서 장구를 치며, 선 만신이 이 장단에 맞추어 무가에 해당하는 말을 하고 수비에게 제물을 주는 행위를 한다. 서울굿의 각 굿거리 마지막 순서에 이 수비를 청해 풀어먹이므로 수비장단은 매 굿거리의 마무리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례 수비장단이 서울굿의 전형적인 면모이지만 빠른 장단을 치면서 굿거리를 마무리하는 사례가 서울굿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지역의 굿에서도 이러한 유례(類例)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전국 모든 지역의 굿 음악에 이러한 장단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 남부굿, 황해도굿, 동해안굿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남부 지역의 산이제굿에서도 서울의 수비장단과 같은 장단이 존재한다. 이 장단은 독자적으로 쓰이지 않고 다른 장단과 일정한 유기적인 전개 속에서 운용된다. 가령 '가래조, 모리, 발뻐드래'나 '도살풀이, 모리, 발뻐드래'의 전개 과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서울굿의 수비장단과 기능이 일치하는 것이 바로 발뻐드래이다. 발뻐드래는 3 · 3 · 3 · 3의 빠른 3소박 4박 장단이다. 산이들은 이 장단을 연주하면서 반드시 "상청은 서른여덟 수비/ 중청은 스물 여덟/ 하청은 열여덟 수비/ 문 밖을 썩 나서니/ 우중강 남수비/ 여중강 남수비/ 좌중강 여수비 몰아내고/ 해산 영산 마루 넘던 수재 넘던 수비/ 수살 영산 재결 영산/ 상청수비는 설흔여덟 중청수비는 스물여덟/ 하청 수비는 열여덟" 등의 말을 하면서 굿을 마무리한다.

황해도굿에서는 날만세받이장단이 연주되면서 만신이 다양한 수비를 물리는 행위를 한다. 날만세받이 장단은 2 · 2 · 2 · 2 · 2 · 2 · 2 · 2의 2소박 8박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만신은 이 장단에다 "이름모를 혼신들/ 여수비 남수비/ 뜬귀 뜬신/ 객귀영산 물에 빠져 용신귀/ 어른수비 아이수비/ 허튼귀신들/ 남청 죽어 아홉 반상/ 여청죽어 열두 반상/ 목을 매어 계령칙사"라는 말을 하면서 굿을 마무리한다.

동해안굿에서도 같은 역할을 하는 장단이 있다. 흔히 수부채장단이라고 하며, 3 · 3 · 3 · 3박의 3소박 4박 장단이다. 동해안에서는 굿거리마다 이 장단을 치면서 굿을 끝낸다. 무녀는 여기에 "시나 수부사자야/ 청간에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로 들오던 수부사자/ 강릉시 명주군에 가가일명 호차레로 잡귀잡병 막아주시고"라는 사설을 주워섬긴다.

의의 전국적으로 수비와 같은 장단은 뚜렷한 공통의 기능을 수행한다. 굿거리마다 높은 신의 뒤에 수비가 뒤따라온다는 관념 아래 수비장단이 굿거리의 마지막 순서인 수비를 풀어먹이는 절차에서 연주된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수비장단이 느린 장단에서 시작해 빠른 장단으로 마무리되는 결말에 연주되는 형태로 굿거리의 마무리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장단은 굿의 분절과 굿거리 결말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

참고문헌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14-무의식편(문화재관리국, 1983쪽), 김금화의 무가집(김금화, 문음사, 1993), 경기도 도당굿 무가의 현지연구(김헌선, 집문당, 1995), 서울지역 안안팎굿 무가자료집(김헌선, 보고사, 2006), 서울굿의 음악적 특성(김혜정, 서울굿의 이해, 한국무속학회, 민속원, 2007), 동해안의 굿음악, 그 전승과 단절(장휘주, 민속원, 2008).
필자 시지은(施知恩)

상호참조 수부채(505쪽)

수산본향당(水山本鄕堂)

정의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水山里)의 본향당. 울퉤ᄆᆞ루 하로산당이라고도 한다. 2005년 4월 6일에 '제주도 민속자료 제9-4호'로 지정되었으며,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51번지에 있다.

형태 시멘트로 당집을 지은 형태이다. 당 안내문이 있는 입구에서 80m 정도 떨어져 있다. 당 근처는 모두 밭이다. 당집 안의 제단에 나무로 만든 신상(神像) 2개를 모시고 있다. 신상에는 남녀 구별을 하여 한복을 입혀 놓았다. 하지만 신상의 목이 모두 잘려 머리 부분은 훼손된 상태이다.

내용 수산본향당은 수산리 주민들의 생산(生産), 물고(物故), 호적(戶籍)을 관장한다. 당신(堂神)은 본풀이에 의하면 수산하로산한집, 금벡조, 요왕국부인이다. 수산본향 당신인 수산하로산한집은 한라산에서 솟아난 당신의 계열 가운데 으뜸인 신으로 여겨진다. 제일(祭日)은 1월 2일(과세), 1월 15



일(영등제), 2월 13일(영등송별제), 7월 8일(마불림제), 11월 14일(시만국대제일)이다. 이 당은 고성리(古城里), 신양리(新陽里) 등 인근 마을에까지 널리 가지 갈라서 갔다. 아직도 신앙민의 발길이 활발하다. 당의 본풀이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현용준이 채록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본산국은, 아방국(父)은 종달리(終達里) 어멍국(母) 멩호부인, 중국(中國) 대국(大國)서 솟아난 한집.
> 글공부 활공부ᄒᆞ다 말을 안들어 아방(父) 눈에 ᄀᆞᆯ리나고 어멍(母) 눈에 시찌나 삼부체(三夫妻)를 귀양정베(定配) 마련ᄒᆞ난 제주남방국(濟州南方國)을 나올 때, 할락산(漢拏山) 테역장오리 물장오리 좌정허여 좌우천기(左右天機)를 솔펴 보난 좌정ᄒᆞᆯ 디 못뒈다.
> 오벡장군(五百將軍) 오벡선생(五百先生) 구경허여 ᄎᆞᄎᆞᄎᆞᄂᆞ려오는 게 송당(松堂里)을 오라네 금벡주를 대국의 대부인(大國大婦人) 설연ᄒᆞ고 사는디, 대부인이 목이 정정 몰라져 물을 먹젠 ᄒᆞ는 게 물혹엣 물을 먹다네 돗솔(豚毛)이 코레레 질런 피가 난다.
> 집의를 와시난 냄편(男便)이 말을 ᄒᆞ뒈
> "어찌ᄒᆞ난 부정(不淨)이 만만ᄒᆞ다. 대정(大靜) 마래섬(馬羅島)으로 귀양정베(定配) 나아가라."
> 귀양정베 마련ᄒᆞ고 요왕국(龍王國)의 들어가 요왕국 말잣ᄃᆞᆯ아기(龍王國末女) 소첩(小妾)을 얻어 들어오니, 소부인(小婦人)이 말을 ᄒᆞ뒈,
> "대국의 대부인은 어디 갔읍네까?"
> "부정(不淨)이 만만허여 대정(大靜) 마래섬(馬羅島)으로 귀양정베(定配) 보냈노라."
> "이거 무슨 말이우까. 귀양을 풀려사 홉네다."
> 소부인(小婦人)이 대부인 귀양을 풀리저 돌려 간 보니, 일곱 아길 난 질쾅더라. 걸레도 일곱 지성귀도 일곱을 허연 가시난
> "느 아니민 내 무사 귀양 오느니?"
> 씨앗싸움을 ᄒᆞ는디, 소부인이
> "내 그른 게 아니우다. 성님 냄편(男便)네가 그루우다."
> "그레민 느가 일곱아길 업영 냄편네안팀 가라."
> 업져내연 보내여 두고 큰부인은 갯맛(海邊)으로 개보말 줏어 먹으멍 알손당(下松堂里) 냄편을 ᄎᆞᆺ아 오라 삼부체(三夫妻)가 살아가는디, ᄃᆞᆯᄌᆞ식 손지방상 이른ᄋᆞ돕(七十八) 아ᄃᆞᆯᄌᆞ손 ᄋᆞ든ᄋᆞ돕(八十八) 나고 삽데다.
> 어멍(母) 아방(父)은 그디 살아봐도 ᄒᆞᆯ 일이 웃어 전지(田地) 제산(財產) ᄌᆞ식(子息)신디 물려줘 두고 나오는디 좌우(左右)를 솔펴보니, 수산(水山) 올뤠ᄆᆞ루가 좌정(坐定)ᄒᆞᆯ 만ᄒᆞ다 허여 좌정ᄒᆞᆫ 하로산 삼천벵매또 일만팔천초깃발.
> 정월(正月) 초이틀 신과세(新過歲)
> 정월 보롬(望日) 영등제
> 이월 열사을(十三日) 영등송별제
> 칠월 ᄋᆞ드레(八日) 마불림제
> 동짓ᄃᆞᆯ(十一月) 열나을(十四日) 시만국대제일(新萬穀大祭日) 받읍네다.
> —성산면 수산리 여무 조옥선(趙玉仙) 구송
>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686~688쪽)

참고문헌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남제주군의 문화유적(남제주군 · 제주대학교박물관, 1996),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강정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필자 강소전(姜昭全)

수성당(水城堂)

정의 계양할미로 불리는 여신을 모시는 당. 계양할미는 8명의 딸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인근의 어장과 바다의 모든 일을 주관한다고 여겨지는 당신(堂神)이다.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죽막동산 35-17번지에 있으며, 1974년 9월 27일에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58호'로 지정되었다.

형태 수성당은 서해상으로 돌출된 변산반도의 서쪽 끝에 자리 잡고 있다. 북으로는 동진강 어귀에 접하고, 남으로는 줄포만을 끼고 있으며, 서로는 위도와 위도에 속한 상 · 하왕등도를 바라보고 있다. 예전에 부르던 명칭은 구랑사(九嫏祠)였으나 어느날 수성당으로 명칭이 바뀌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해안과 맞닿은 곳에 위치한 수성당의 건물 구조는 정면 2칸, 측면 1칸으로 된 맞배지붕이다. 측면에는 풍판을 달았다. 지붕은 최근에 보수하면서 다시 기와를 덮었다. 망와는 정면에 운용문, 측면과 뒷면에 귀면문으로 각각 표현하였다. 기단은 지형상 낮은 정면에 자연석을 2, 3단으로 쌓고 높은 뒷면에는 상대적을 1단으로 쌓았다. 초석은 모두 자연석을 사용하였다.

역사 수성당의 역사는 삼국시대에까지 올려 잡을 수 있다. 이 시기의 수성당은 오늘날과 같은 마을굿 형태가 아니라 항해하던 사람들이 항해하기 전에 제사를 지내던 제의공간이었다. 오래전부터 서해 해로(海路)의 주요 길목인 이곳을 지나가던 항해자와 상인들이 수성당에 들러 제물을 차려놓고 제의를 지낸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전주박물관 조사 과정에서 제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의식(儀式) 용구와 신격에 바치는 공헌물 등이 발굴되었다.

당집의 개축에 관한 기록은 국립전주박물관의 조사에서 밝혀졌다. 수성당의 상량(上樑)에 쓰인 '승정기원후사갑자조선순조4년, 1804년 6월'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철종 원년(1850) 이전부터 당집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고종 원년(1864)에 3차 및 1940년에 4차로 중건되었다. 이후 1973년에 다시 중건되었으며, 근래에 보수되었다.

내용 수성당이 자리하고 있는 죽막동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나무와 관련성이 많은 지역이다. 죽막동은 반월리의 서북쪽 수성당 옆 해변 마을로, 과거에는 대막골이라 불렸다. 마을 뒤에 대밭이 있어 죽전(竹箭 ; 시누대 화살)을 저장한 막사(幕舍)의 마을이란 뜻으로 대막골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수성당의 또 다른 명칭으로 대마골이 있다. 이는 수성당 옆 여울굴에서 철마가 나왔다는 이 마을의 전설에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계양할미는 키가 크고 뛰어난 영험성이 있다. 특히 키가 커서 나막신을 신고 칠산바다를 걸어다니며 물결이 센 곳을 잠재우고 항해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오늘날 수성당 안에는 무신도가 세 장 걸려 있다. 할머니 무신도를 중심으로 하여 입구 좌우측에 칼을 차고 무서운 자세를 하고 있는 관운장이 있다. 마을 사람들에 따르면 당집 안에는 장군이 그려진 무신도도 있었다고 한다.

항해자들과 관련된 수성당이 어느 시기부터 민속신앙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는지는 알

수산본향당
2008.11.18 | 강소전









1. 용왕
수성당 | 2005 | 서종원

2. 팔선녀
수성당 | 2005 | 서종원

3. 무신도
수성당 | 2004.2 | 서종원

4. 수성당 외부 모습
수성당 | 2004.2 | 서종원

수 없다. 하지만 근래까지도 이 지역을 오고가던 어선, 특히 조기어업을 목적으로 칠산 어장을 찾는 어선들이 수성당 앞을 지날 때면 갑판에 조촐하게 음식을 차려 놓고 고사를 지냈다는 사례를 보면 삼국시대의 이러한 흔적이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속신앙으로서의 수성당과 관련된 제의는 해마다 정월 14일 밤에 지냈다. 죽막동 주민들은 이날 지내는 제의를 당산제라 한다.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제의는 반드시 이날 밤에 지냈다고 한다. 과거에는 무당이 참여하여 제의를 주관했으며, 마을회의를 통해 선정된 제관이 제물을 준비했다. 수성당 제의에 사용되는 제물에는 떡, 백설기, 돼지머리, 과일, 술 등이다. 술은 직접 마을에서 준비해 놓은 것을 썼다고 한다. 제의 비용은 마을에서 모아 놓은 기금을 사용하였으나 지신밟기 등을 통해 걷어들인 마을자금으로도 제의 비용으로 썼다. 제의는 매우 엄격하게 치러졌다. 물론 제의 전과 후에는 마을사람들이 모여 떠들썩하게 풍물을 치며 놀기도 하지만 제의를 지내는 동안은 정숙했다. 제의를 지낼 때는 수성당 앞에 음식을 차려 놓고 축도 하고 소지도 올렸다. 제의가 끝나면 당집 주변에 약간의 음식을 뿌리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국립전주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학술조사보고서 제1집, 1994), 부안죽막동유적주변지역지표조사보고서(국립전주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학술조사보고서 제15집, 2008), 부안 죽막동 수성당의 고고민속학적 고찰(표인주, 비교민속학 15, 비교민속학회, 1998).

필자 서종원(徐鍾源)










1~8. 수팔련 제작과정
국립민속박물관

수팔련[水波蓮]

정의 큰굿이나 특별한 굿에서만 만들어지는 규모가 가장 큰 지화. 서울·경기지역과 황해도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며 수파련이라 하기도 한다. 수팔련은 식물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꽃이다. 다만 종교의례를 통해 오랫동안 우리 역사와 문화 속에 존재해 왔다. 특히 한국의 불교의례와 무속의례에서 비중 있게 사용된 꽃이다.

형태 수팔련의 형태에 대해서는 1795년에 행해진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기록한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 권4 「채화(綵花)」편에 도식화된 자료와 함께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의례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크기와 화려함이 달라지는데, 규모가 큰 의례일 경우에 삼층대수팔련[三層大水波蓮]을 사용하였고 그 다음으로 규모가 큰 경우엔 이층중수팔련[二層中水波蓮]을, 일반적인 의례에서는 일층소수팔련[一層小水波連]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상화(床花)인 대수팔련은 랍을 이용하여 연꽃과 연잎을 만드는데, 잎과 잎 사이에는 월계와 홍색 및 푸른색의 복숭아류를 끼워넣고, 선동(仙童) 10인이 금·은 술잔을 받들고 있으며 그 위에는 남극노인(南極老人)이 있고, 여기에는 태평세월을 의미하는 강구연월(康衢烟月)과 수부다남(壽富多男)이라고 하는 8개의 금자(金字)를 새겼다. 이것을 대찬탁에 꽂으며, 중수팔련과 소수팔련은 좌우의 찬탁에 꽂았다. 『무당내력(巫黨來歷)』의 수팔련은 붉은색 꽃에 녹색의 잎이 달려 있고, 정면으로 황동자가 양쪽으로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형태의 수팔련은 서울굿에 현재까지도 진설되고 있으며, 특히 의궤자료에 도식화된 삼층대수팔련은 현재 서울굿을 연행하는 이영희가 제작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

서울굿에서는 백색수팔련과 일반 수팔련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흰색의 꽃으로만 만들어지며 '불사수팔련'이라 불린다. 후자는 여러 종류의 꽃과 장식으로 구성되며, 꽃모양은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진다. 수팔련이 완전함을 이루려면, 연꽃·목단화·다리화·매화·난꽃·도라지꽃·단풍잎 등의 꽃과, 그 외 학·백두조(白頭鳥)·봉황·원앙·나비·말잠자리·무당벌레·남극노인·동자·동녀 등의 장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완성된 꽃은 시루떡을 차례로 고임으로 쌓아 올린 것에 주로 꽂으며, 나무로 된 네모상자나 제기에 쌀을 넣어 꽂기도 한다.

반면 황해도 무속에서는 특정한 한 형태의 꽃으로만 수팔련을 제작한다. 즉, 같은 형태의 꽃 수십 송이를 꽃다발 형태로 묶어 쌀이 담긴 제기에 꽂은 뒤에, 꽃의 상단에는 큰 연꽃을 장식한다. 흰꽃으로만 구성된 것은 칠성꽃, 여러 종류의 색상으로 만들어진 꽃은 장군꽃이라 불린다. 이들 꽃은 일반적으로 모두 수팔련이라고 불리지만, 보다 세부적으로 신격에 빗대어 말할 때는 이러한 명칭을 사용한다.

내용 수팔련은 불교에서 유래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조선시대 궁중 뿐 아니라 반가(班家)의 잔치에도 폭넓게 사용되어 무속에도 자연스럽게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수팔련의 한자 표기는 '壽八蓮', '水八蓮', '水波蓮'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팔련에 대한 문헌자료로는 궁중의례를 기록한 의궤에 잘 나타나 있다. 『원행을묘정리의궤』, 『진연의궤(進宴儀軌)』에 그림자료와 함께 상세한 설명이 되어 있다. 『진연의궤』에 의하면 대수팔련[大水波蓮]은 큰상 '찬안(饌案)' 가운데 꽂고 그 좌우로 중, 소수파련을 놓는데, 이를 상화(床花)라 하였다. 이러한 풍습은 조선시대 궁중의례에서 크게 성행하였는데 모두가 지화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무당내력』에 의하면, 수팔련은 굿상의 중앙에 계피팥편 위에 꽂아진다. 그 형태는 궁중의례에 사용되는 상화가 그려진 도판자료와 비교했을 때 거의 유사하다. 이는 궁중의례나 불교의식에 진찬되는 수팔련의 형태에 영향을 받아, 일반 재가집의 굿상에도 사용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다. 이를 통해 19세기에 이미 무속에서는 수팔련의 사용이 보편화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며, 또한 지화 중 수팔련이 유일하게 묘사되었다는 점에서 그 중요도에 대한 짐작이 가능하다.

수팔련은 굿상 위에 장식되는 장엄구(莊嚴具)의 기능을 지닌다. 그 의례의 규모에 대한 짐작이 가능하게끔 그 층위를 구분하고 신격을 구분하기도 한다. 서울굿에서 경사굿으로 행해지는 진적, 운맞이굿, 천궁맞이굿 등이나 또는 죽은 망자를 좋은 곳으로 보내기 위한 진혼제로 치러지는 진오귀굿이나 새남굿 등에서 수팔련이 사용된다. 굿의 규모와 신격에 따라, 보통의 굿에서는 1단 수팔련이 장식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 중 천금새남과 신사굿 같은 규모가 큰 굿에서는 삼층 대수팔련이 진설된다. 수팔련은 상산상, 전안상 위에 거피팥편 위에 군뱅이를 얹은 고임 위에 얹으며, 불사수팔련은 불사상의 백설기 위에 얹는다. 새남

굿과 진오귀굿에서는 수팔련 위에 넋전을 올릴 경우 이것을 '넋전올린수팔련'이라고 부르며, 수팔련 위에 망자의 넋을 모신 것으로 해석한다. 한편, 황해도굿에서는 주로 큰 굿에 수팔련을 만들어 굿상에 진설한다. 흰색의 칠성꽃은 칠성을 비롯한 제석 등의 불교류의 천신을 위한 것으로, 이 신격을 상징하기 위해 쌀불기 위에 고깔을 얹어둔다. 또한 장군꽃은 최영 장군에게 바치는 꽃으로, 이곳에 최영 장군이 좌정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수팔련은 최영 장군과 같은 최상위의 신을 위한 제물상과 망자상 등에 진설된다. 특히, 흰색의 수팔련은 그 신의 성격이 분명하여 불사나 천궁·칠성제석·일월과 같은 신의 상에만 봉안된다. 이와 같이 수팔련은 의례에 따라 초대되는 주요한 신에게만 올려지는 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팔련을 제작하여 굿청에 봉안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화는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데, 그만큼 무속에서 수팔련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 수팔련에 부여된 의미 또한 다양하다.

수팔련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그 각각에 의미가 부여되는데, 그러한 의미가 모아져 수팔련이 지니는 함축적인 의미가 발현(發顯)된다고 볼 수 있다. 연꽃은 그 생태적 특징과 관련하여, 연이어 자손을 얻는다는 연생(連生)의 의미를 지닌다. 살잽이꽃은 국운이 위태로우면 평소와 반대로 밤에 피고 낮에 시드는 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바리데기꽃'으로도 불려 재생과 환생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학은 십장생의 하나로 장수를 바라는 의미를 지닌다. 모란은 신이 가장 좋아하는 꽃으로 알려져, 신이 하강 시에 가장 먼저 점지하는 꽃으로서, 나쁜 액을 쫓아내는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백두조(白頭鳥) 한쌍과 모란이 결합되면 "머리가 하얗게 셀 때까지 부귀하다"는 뜻이 되며 나비는 장수의 의미를 지닌다.

삼층대수파련의 상단부 꼭대기에 장식되는 남극노인은 『노자중경(老子中經)』에 의하면 서왕모(西王母)의 계보에 있는 신선(神仙) 중에 하나이다. 천문지(天文志)에는 노인성을 보면 수(壽)가 길어진다 하여 수성(壽星)이라 불렀다. 조선시대에는 남극노인이 나타나면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나타나지 않으면 전란이 있다고 하여,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고려시대 때부터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에 노인성에 대한 관념은 오직 '수(壽)'에만 집중된다. 따라서 남극노인은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불교와 도교에서 신을 보필하는 존재로 알려져 있는 동자는 남극노인을 받드는 대상이다. 동자가 둘이 앉아 있는 경우에, 이를 밀동자라 이른다. 우측의 동자는 선을, 좌측의 동자는 악을 상징한다. 동자가 연꽃을 들고 있는 것은 연생귀자(連生貴子)를 의미한다.

수팔련[水波蓮]은 불교의 철학적인 의미인 사물의 불가불이(不可不異)에 비유되는 '수파(水波)'와 부처가 소거(所居)하는 정토(淨土)를 상징하는 '연화(蓮花)'의 의미가 결합된 것으로, 불교에서는 제당의 대부분의 주재자들은 "부처님은 연꽃 주위에 계시는 분으로 이 꽃을 놓는 이유는 부디 천국에 올라가 꽃의 주위에 계시라는 의미"라 하고 있다. 이를 무속에서는 수팔련이 존재하는 제물상이 천상을 상징하며, 신이 좌정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미 이외에 수팔련에는 현세의 기복을 강구하는 무속의 신념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 수팔련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는 수명장수를 상징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 수팔련은 수명장수·현세태평(現世太平)·부귀·자손번창을 축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이는 수팔련 안에 남극노인을 받치고 있는 잔에 새겨진 강구연월(康衢烟月)과 수부다남(壽富多男)이라는 글귀에 가장 잘 반영되어 있다.

참고문헌 老子中經, 巫黨来歷, 禮記, 五洲衍文長箋散稿, 園幸乙卯整理儀軌, 進宴儀軌, 조선도교사(이능화 저·이종은 역, 보성문화사, 1977), 한국 미술문화의 이해(장경희 외, 도서출판 예경, 1994), 전통문양(허균, 대원사, 1999), 한국의 샤머니즘(조흥윤,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화장(花匠)(예용해, 예용해전집 (1): 인간문화재, 대원사, 1997),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경상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무속·불교·유교를 통하여 본 식생활문화 및 그 의식절차에 관한 연구-서울지방을 중심으로(김상보,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4), 무화연구(1)(김태연, 한국무속학 3, 한국무속학회, 2001), 수기작불(授記作佛)의 교육적 이해-「법화경」을 중심으로(이지중, 종교교육연구 13,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서울굿의 신화(神花) 연구(양종승·최진아, 한국무속학 5, 한국무속학회, 2002), 서울굿의 상차림에 대하여(홍태한, 한국무속학 6, 한국무속학회, 2003), 최영장군당굿의 제물과 지화에 반영된 신의 위계와 신격(최진아, 최영장군 당굿 연구, 민속원, 2008), 무속의 물질문화 연구(최진아,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9).

필자 최진아(崔眞娥)

숙영랑앵연랑신가 (淑英郎鶯蓮郎神歌)

정의 함경도 지역의 소규모 굿 가운데 혼수굿 또는 횡수맥이를 할 때 어린아이의 병을 낫도록 하고자 부르는 무가. 혼수굿에서 성인의 중병을 낫게 할 때는 저승사자를 대접해 인간의 정명(定命)을 연장하는 내용의 〈황천혼시〉 무가를 부르고, 어린아이의 병을 낫게 할 때는 장님과 앉은뱅이가 부처님의 은덕으로 병을 고치는 〈숙영랑앵연랑신가〉를 부른다. 여기서 숙영랑과 앵연랑은 무가 주인공인 남생이와 거북이의 부모 이름을 각각 가져와 손진태(孫晉泰)가 무가 명칭으로 삼은 것이다.

내용 숙영선비와 앵연각시가 혼인을 하여 살지만, 사십이 넘도록 슬하에 자식이 없었다. 자식이 없음을 한탄하다가 경상도에 사는 점쟁이에게 문복(問卜)을 했더니 안애산 금상절에서 100일 정성을 들이면 아이를 갖는다는 말을 들었다. 부부가 백일 정성을 올리자 태기가 있어 아이를 낳았다. 첫째는 장님이었다. 부부는 한탄하며 아이 이름을 거북이라고 지었다. 그 뒤 다시 태기가 있어 아이를 낳았다. 이번에는 곱사등이에 앉은뱅이였다. 부부는 다시 탄식하며 아이 이름을 남생이라고 지었다. 거북이와 남생이는 부모가 죽자 많던 재물이 점차 없어지고 가난뱅이가 되어 빌어먹게 되었다. 그러다가 거북이가 남생이를 업고 안애산 금상절을 찾아가 절 어귀의 연당에 금덩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금을 건져 부처를 도금하고 절을 치장하였다. 그랬더니 부처의 힘으로 거북이의 눈이 밝아지고 남생이의 등과 다리가 펴지게 되었다. 형제는 81세까지 살다가 죽어 혼수성인이 되었다.

이 무가는 함경남도 함흥, 평안북도 강계 등지에서 채록 자료가 확인된다. 가장 먼저 채록된 자료는 손진태가 1926년 함흥의 큰무당 김쌍돌이에게서 채록하여 『조선신가유편(朝鮮神歌遺編)』에 수록한 〈숙영랑앵연랑신가〉이며, 다음으로는 손진태가 평북 강계의 무격 전명수에게서 채록하여 『청구학총(靑丘學叢)』 23호에 수록한 〈제석님청배〉가 있다. 〈제석님청배〉는 제석님의 근본을 철령(鐵嶺) 땅의 늪이라고 하면서 오누이 간인 앉은뱅이 남생이와 장님 거북이가 철령 늪에서 금방석을 구해 부처님께 시주하여 병을 고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인물 설정과 내용은 동일하지만 그 성격이 치병(治病)이 아닌 곡물의 풍요를 기원하는 성격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한편 월남한 강춘옥 무녀로부터 임석재·장주근이 1965년 채록한 『관북지방무가(關北地方巫歌)』자료는 『조선신가유편』 채록 자료와 다르게 〈황천혼시〉와 〈숙영랑앵연랑신가〉 두 자료를 별개의 자료로 분리하지 않고 〈혼쉬굿〉이라는 하나의 무가로 묶어서 연결시켜 구송하는 양상을 보인다.

참고문헌 조선신가유편(손진태, 향토문화사, 1930), 관북지방무가(임석재·장주근, 문화재관리국, 1965), 근대 여명기 우리 신화 연구(권태효, 민속원, 2008), 조선무격의 신가 3(손진태, 청구학총 23호, 청구학회, 1936).

필자 권태효(權泰孝)

순천삼설양굿

정의 삼설양굿은 대개 병이 든 가족이 있을 때 하는 '치병굿'을 이르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보았을 때 그런 굿 중에서 후반부에 행해지는 굿거리. 이 굿은 전라남도의 남동부 지역인 순천·보성·고흥·광양 등지에서 전승되고 있다. 2008년 12월 26일에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43호'로 지정되었으며, 기능보유자는 박경자이다.

내용 삼설양굿은 마지막 거리인 배송굿을 앞두고 굿 말미에 무녀와 악사들이 재담을 주고받으면서 진행된다. 무녀는 굿판에 얻어먹으러 온 여러 잡귀의 배역을 맡고, 악사들은 그런 잡귀들과 일일이 대화를 나누는 역할을 한다. 등장하는 잡귀는 10여 명이지만 주관하는 무녀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삼설양굿이 진행되면 매번 상황이 바뀌면서 10여명의 잡귀 가운데 1인씩 등장하여 악사들과 재담을 나누고 들어가고, 다음의 잡귀가 등장하면서 반복된다. 잡귀의 역할은 한 무녀가 전담할 수

도 있고 여러 무녀가 나누어 맡기도 한다.

잡귀로 분장한 무녀는 굿청에 들어오고 나갈 때 악사들의 반주에 맞춰 춤을 추어 보인다. 대개의 잡귀들은 정상인과 다른 인물이기 때문에 춤 역시 그 역할에 맞춰 추게 된다. 예를 들면 봉사잡귀가 들어오면서는 지팡이를 들고 이리저리 짚어가면서 춤을 춰보이고, 아이를 낳다 죽은 잡귀가 들어올 때는 치마 속에 바가지를 감추고 뒤로 몸을 젖힌 상태로 어정쩡한 춤을 추면서 들어오고 나간다. 입장춤-재담-퇴장춤이 반복되는 형식이며, 해당되는 잡귀에 따라 분장이나 소도구가 달라진다. 강신무의 경우 장군복이나 대감복을 갖춰 입는 것으로 신격 전환을 가시화하지만, 삼설양굿의 세습무들은 매우 전형화된 간소한 소도구나 탈을 쓰는 것으로 전환을 이루어낸다. 예를 들면 목을 매 죽은 귀신의 경우 목에 새끼줄을 걸고 나오고, 도깨비의 경우 한 줌 짚의 중간부분을 꺾어 얼굴을 가리는 것으로 전환을 이룬다. 예전에는 삼설양굿에서 탈을 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지만 현재는 탈을 쓰는 예가 없어졌다고 한다.

1999년 순천시민회관에서 행해진 삼설양굿의 순서와 진행 내용을 이경엽 교수가 다음〈표1〉과 같이 정리했다.

이상과 같이 무녀들이 잡귀로 의장하여 차례로 나오고 들어가기를 반복하면서, 이때 잡귀와 악사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말들이 매우 해학적이어서 굿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재미있게 한다. 2007년 10월 20일 순천시에서 박경자 무녀가 주무가 되어 시연한 삼설양굿 중에서 이경엽 교수가 채록한 몽달(총각)귀신 장면의 대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순서	배역[장면]	연기자[巫]	분장 및 소도구	내용
1	도시	박경자	손대, 바가지	한 손에 손대를 들고 반주에 맞춰 등장한 도시가 악사와 재담한 후 음식을 게걸스럽게 먹고 춤을 추며 퇴장
2	한량	박경장	부채, 담뱃대, 바가지	부채질을 하며 춤추며 등장. 악사와 재담한 후 춤추며 퇴장
3	총각	한양심	짚으로 만든 남근	남근을 잡고 과장되게 내보이며 무녀와 성행위 흉내를 냄. 총각으로 죽게 된 원한을 말하고 위로를 받은 후 춤추며 퇴장
4	처녀	김명례	흰 손수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등장. 처녀귀신이 자신의 원한을 말하자 악사가 총각의 행적을 알려주고 뒤따라 가게 함. 춤추며 퇴장. 요잡바라
5	꼽추	황광엽	바가지를 등에 넣어 혹을 만듦	등에 혹이 불룩한 꼽추의 모습으로 등장. 악사와 재담한 후 혹을 해체하고 음식을 먹으며 퇴장
6	총 맞고 죽은자	한양심	목총	목총을 들고 사방을 겨누고 다님. 총에 맞고 죽은 사연을 악사에게 말하고 위로를 받은 후 춤추며 퇴장
7	소동패	김명례	소고(바가지)	바가지를 소고 삼아 치며 등장. 소동패니까 노래 잘하고 춤을 잘 춘다며 소리를 함. 단가와 민요를 부름. 무녀의 권주가를 안주 삼아 술을 얻어먹고 음식을 대접받은 뒤 춤추며 퇴장
8	벙어리	한양심		벙어리 흉내를 내며 들어오다가 신발 한 짝을 잃고 악사에게 신발값을 달라는 시늉을 함. 신발값을 주자 말문이 트이고 축원을 한 후 춤추며 퇴장
9	목매고 죽은자	황광엽	새끼줄	새끼줄을 목에 걸고 죽은 사람 흉내를 내며 등장. 자신의 사연을 하소연하고 재담을 주고받은 후 음식을 먹고 춤추며 퇴장
10	수사자	한양심		헤엄을 치는 흉내를 내며 등장. 자신의 사연을 밝힌 뒤 재담을 주고받은 후 춤추며 퇴장
11	임산부	김명례	배에 바가지를 넣어 임신부처럼 꾸밈	배를 감싸쥐고 등장하여 애를 낳겠다고 하자 악사가 '지앙풀이'를 부르라고 함. 지앙풀이를 하고 신음하다가 '바가지'를 낳음. 다른 무녀가 바가지를 들고 복과 재수를 주는 물건이라며 바가지를 팔고서 춤추며 퇴장
12	봉사	박경자	지팡이	지팡이로 더듬거리며 봉사 흉내를 내며 등장. 악사가 앞에 강이 있다고 멈추게 한 다음,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강타령'을 불러야 한다고 말함. 노래를 부르고 강을 건너니 눈이 뜨이게 됨. 봉사는 즐거워 지팡이를 던지고 춤추며 퇴장
13	도채비	박경자	짚으로 도깨비 형상을 꾸밈	짚으로 만든 관을 머리에 쓰고 허리와 팔 다리에도 짚을 감고 등장. 춤추다가 퇴장
14	도수	김명례	식칼 2자루, 도까, 바가지	환자를 머리에 바가지를 씌우고 굿청 중앙에 앉힘. 도수역을 하는 무녀가 식칼과 도끼 등으로 잡귀와 잡신을 내쫓고 복을 불러오는 축원을 함

조무 : 벌렁 벌렁 춤 춘 귀신이 왔는가 어쨌는가.

무녀 : 나 누군고니는 내가 총각 죽은 몽달이 혼신이오.

악사 : 워매~

무녀 : 장개도 못가고 장개는 가고자퍼 죽겄는디.

악사 : 총각귀신 몽달이 왔다고?

무녀 : 누가 장개를 안 보내 준께 거들먹 거들먹 해갖고 건들거리고 여기 와가꼬 어디 이쁜 처녀나 좀 있으면 어치게 쪼까 보듬아보까 싶어서 건들건들하고 와서

악사 : 여기 쎄부렀소.

무녀 : 둘러놓고 보니 보듬고 갈 처녀가, 보듬어 볼 처녀가 하나도 없네. 꽃같은 처녀가 있으면 하나 보듬아 보것는데

악사: 골라갖고 이녁 맘대로 골라갖고 돌이고 서이고 데꼬가.

조무: 아 지금은 없어, 없어. 항. 저승에가 있는디.

무녀: 없어? 총각 죽은 몽달이 혼신이 처녀를 한번 보듬어봐야 저승을 가지, 안 보듬어보면 저승을 못간대여.

조무: 이따 오면 맞춰드릴게.

무녀: "니는 여자 한번도 못 보듬어 본 놈이 먼 저승을 왔냐."

그러고 저승에서 쫓아내면 나 꼼짝도 못하고 쫓겨 나와야 돼.

긍께 하나 보듬어야 한디.

조무: 몽달혼신을 못 면했제.

무녀: 요 할매를 보듬자니 늙어서 못 보듬겄고.

요 할매 보듬어블까?

악사: 보듬어버려. 좋구만.

무녀: 좋아?

조무: 이따가 오면 맞춰줄게 지금은 없어.

악사: 안 해. 지금 골라 얼른.

무녀: 총각 죽은 몽달혼신이 여그 우둥둥 소리에 왔다가 처녀는 없어서 못 보듬어 봤어도 배가 고픈께, 만반진수로 많이 먹고 우리 순천을 나가 쪼깐 둘러본께 노총각이 쎄뿐네 장개를 못 가갖고. 아이고 그냥 마흔 살이 넘고 오십 살이 넘은 총각들이 그냥 버글버글 하고 그냥 외국 장가간다고 외국 가시네 닐라리 삐짝 빼뜨락한 가시네들한테 장가를 가고 그냥 난리가 났는데 말이여. 오늘 이 총각 죽은 몽달혼신이 와서 여기 와서 술이랑 많이 묵고 감시롱 뒷물 몰카노면 순천 앞으로는 노총각 없어.

조무: 장개 다 가게 해주소.

무녀: 아따 장개 다 가고 노처녀 없이 시집 다 가게 뒷물 몰카놓고 가네~

조무: 잘 가시오.

이렇듯 대화 중에서 귀신의 신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생략된 간략 분장만으로도 관중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충분하다. 또한 재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각각의 귀신은 차려진 제물을 게걸스럽게 먹는 장면을 연출한다. 우리나라에서 조상신을 위한 집안 제사나 차례를 모실 때도 제물이 중심이 되지만 귀신들을 대접하는 최상의 접대 역시 음식이라는 관념이 우리 민족의 종교의식에 깔려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특히 삼설양굿은 소박한 형태의 연극으로서 원시종합예술적 성격이 강하다. 춤과 재담, 음악이 어우러지면서 잡귀와 인간 사이의 팽팽한 긴장을 이완시키는 기능을 맡는다. 잡귀는 인간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존재이다. 그런 존재를 불러서 하소연을 들어주고 굶주린 배를 채워준다는 것에는 혹시 끼칠지도 모를 해악을 막고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삼설양굿의 이러한 연극적 형태가 그림으로 그려진 다른 예가 보인다. 불교의 수륙재에서 거는 감로탱이 그것이다. 감로탱은 상단, 중단, 하단으로 나뉘어 있다. 하단에는 죽음의 세계가 그려져 있다. 그런데 그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갖가지 사고로 죽은 귀신들의 형상이다. 즉 삼설양굿에 등장하는 귀신들과 유사한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

지역사례 삼설양굿처럼 억울하게 죽었거나 신원이 되지 못한 귀신들을 위하는 굿은 다른 지역의 무속의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호남의 서해안 지역에 전승되는 마을굿 형태의 무속의례인 수륙재가 대표적이다. 이영금 박사의 조사와 연구에 따르면 굿의 마무리 과정에서 치르는 중천맥이가 바로 삼설양굿과 동일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 경상도나 강원도 해안 지역에서 행해지는 별신굿 마무리 과정의 거리제 역시 동일한 형식과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렇듯 무속에서 전국적으로 거의 공통으로 나타나는 잡귀에 대한 무극적(巫劇的) 처리방법은 무속 고유의 귀령관보다 동양 또는 한국의 보편적인 귀령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계속되었던 팔관회, 불교의 수륙재, 유교의 여제(厲祭)가 모두 신원이 되지 못한 귀신을 위하는 사회적 의례였다. 또한 각 가정에서 제


1


2


3

사나 차례를 모시고 나서 제상에서 음식을 조금씩 떼어내 대문 밖에 짚을 깔아 그 위에 부어두는 것도 모두 잡귀를 위하는 의례적 형식이다. 잡귀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양귀법(禳鬼法)을 통해 제압하는가 하면 삼설양굿 등 여러 방식을 통해 잡귀를 달래고 위해주는 공귀법(恭鬼法)도 우리 민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무가집(김태곤, 집문당, 1992), 한국무가집 3(김태곤, 집문당, 1992), 씻김굿무가(이경엽, 박이정, 2000), 전북씻김굿(이영금, 민속원, 2007), 순천지역의 삼설양굿 조사연구(최덕원 외, 순천대논문집 2, 순천대학교, 1983).
필자 나경수(羅景洙)

1. 차마폭에 바가지를 엎어 감싸서 아이를 낳다가 죽은 귀신을 흉내냄

2. 귀신이 바뀔 때마다 무당은 어정쩡한 춤을 추면서 들어오고 나감

3. 짚으로 얼굴을 가리고 허리에 짚풀을 둘러 도깨비로 위장한 모습
전남 순천 | 2007.10.20 | 나경수

쉰대부채

정의 부채 살이 쉰 개인 접부채를 의미하는 것으로, 서울굿에서 쓰이는 무구. '쉰대한림', '꽃부채', '삼불제석부채'라고도 부른다.

형태 대나무 부채 살 위에 노란색 천을 붙이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린다. 중앙에 삼불제석을 앉히고, 그 좌우로 탑, 소나무, 해, 달, 구름, 연꽃, 무지개 등을 배치한다. 예전에는 부채살이 쉰개라서 쉰대부채라고 불렸다고 하는데, 현재 쓰이는 살은 22, 24, 27개 등으로 현저히 줄어든 형편이다. 해, 달, 구름 등은 일월성신(日月星辰) 등 높은 신령을 뜻하며, 소나무는 신의 근본을 뜻한다. 부채 끝에는 부채끈이라는 노란색 천이 40~100㎝ 내외로 달려 있다. 부채끈의 길이는 무당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내용 부채는 앉은굿과 각 거리의 신을 상징하는 특정한 무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굿의 모든 굿거리에서 쓰이는 가장 중요한 무구다. 굿에서 무당은 신의 대리인으로서 부채를 통해 재가집과 신을 매개한다. 신은 부채를 통해 재가집이 올린 음식을 흠향하고, 재가집에게 명과 복을 내리고, 재가집으로부터 별비를 받는다. 또 춤을 출 때는 소도구가 되고, 신이 현신(現身)한 경우에는 신의 위엄을 나타내 주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특히 진오귀굿의 도령돌기에서 부채는 중요하게 쓰인다. 바리공주는 험한 저승길을 헤치고 망자를 저승으로 고이 모시고 가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 그 중 하나가 '부채도령'이라는 것으로, 망자의 넋이 뒤처지지 않고 잘 따라오도록 부채로 넋을 싸고 돈다.

부채는 무당들이 선배 무당이나 스승 무당의 뒤를 잇는다는 상징물이기도 하다. 무당들은 죽음이 임하거나 무업을 그만둘 때, 부채와 방울을 후배 무당들에게 물려주거나 땅 속에 파묻는다. 부채와 방울을 받은 무당들은 그것을 통해 자신이 선배 무당을 계승한 것으로 여긴다. 또 땅 속에 묻은 부채와 방울을 습득한 이는 그 인연으로 인해 무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즉, 무당에게 부채는 방울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무구로, 무당으로서의 정통성을 잇는 상징물이기도 하다. 방울과 부채를 습득하여 무당이 되었다는 사례가 많고, 이를 누군가로부터 받거나 줍는 꿈을 꾸고 무당이 되는 경우도 많다. 무당에게 있어 부채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자신이 신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주술적인 상징물이다.

참고문헌 한국의 무(조흥윤, 정음사, 1983),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서울시 · 경기도 · 강원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서울지역 무구의 신화 · 의례적 기능 연구(이명숙, 한국무속학 8, 한국무속학회, 2004).
필자 이명숙(李明淑)


1


2

1. 쉰대부채
김유감 자택 | 2004.11.19 | 이명숙

2. 쉰대부채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길이 31㎝ | 조선후기

스승청

정의 함경북도에 있던 무당들의 조직체. 함북에서는 무당을 스승, 무당들의 조직체를 스승청이라고 했다.

내용 스승청은 조선조 말엽까지 경성(鏡城)의 북문 밖에 있었다. 30명 남짓 되는 남무(男巫)가 관의 허락을 받아 무계(巫契)를 조직해서 활동했다. 이 계는 친목 · 권업(勸業) · 장학 · 공조(共助) · 공조(貢租) · 이식(利殖) 등의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북부 지방에서 스승의 숫자가 줄고, 복술(卜術)이라 부르는 독경점복(讀經占卜)을 하는 무격이 스승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

1930년에 일본 학자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당시 스승청 소속 무부들이 대부분 사망하고 스승청의 악기를 운반하거나 심부름하던 세 사람(김두원 · 최운서 · 박인협)이 공동으로 무업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중에서 최운서는 연장자로서 중심 역할을 하고, 필사본 무경자료를 소장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스승청 관련 문서가 남아 있지 않고, 제보자들이 젊은 나이에 단체가 와해된 상태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했다.

스승청의 기능은 전국적으로 존재한 신청(神廳)과 비슷한 조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의 허락을 받아 무부들이 단체를 조직해서 활동했고, 설립 목적이 친목 · 권업 · 공조 등이었다는 점은 공통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함북의 스승청은 무속집단의 결속 강화와 상호부조, 관아 행사 참여, 전통예술 교육 등을 담당한 기관으로 짐작된다.

지역마다 있던 신청은 무당들의 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전통예술 전승에 중심 역할을 했다. 전국적으로 분포했으며 각 지역 공연예술 전승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지역에 따라 풍류방(서울), 재인청(경기도), 심방청(제주도) 등으로 불렸고, 호남을 비롯한 남부지방에서는 신청(神廳), 악공청(樂工廳), 장악청(掌樂廳), 공인청(工人廳), 취

고청(吹鼓廳) 등으로 불렸다.

참고문헌 조선무속의 연구(赤松智城 · 秋葉隆, 심우성 옮김, 동문선, 1991), 여수 영당, 풍어굿, 악공청(이경엽 외, 민속원, 2007).
집필자 이경엽(李京燁)

시나위

정의 한국 무악이 기악합주 형태로 전승된 것.

내용 시나위는 도살풀이, 살풀이 등에서 왔다. '시나위'란 말은 '신악(神樂)'에서 비롯되었다. 신아위, 신노이, 신놀이, 신방곡, 심방곡(心方曲)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경기도 수원 지방을 시작으로 하는 경기 남부 지역의 무의식(巫儀式)에서는 악기와 더불어 그 음악의 양식(樣式)이 충남 일부와 전라도 전 지역의 무악에서 보이는 남도민요 어법(語法)으로 연주된다.

무악의 선율과 장단이 남도민요의 대표적인 노래인 육자백이와 같은 식으로 연주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 남부 지역, 충청도 서부, 전라도, 경상도 서남부이다. 통영 지역의 남해안별신굿 가운데 무가의 반주에 쓰이는 음악을 '시나오'라고도 부른다.

현재 전승되고 있는 시나위는 기악합주 형태로 거문고, 가야금, 젓대, 피리, 해금, 장구, 징, 제금 등으로 연주되고 있다. 이는 1960년까지 전승되던 즉흥성이 많이 감소되었으며, 현재는 연주자들이 먼저 어떤 식으로 연주할 것인가를 의논한 뒤에 연주하기 때문에 무악과는 또 다른 독립된 기악합주곡의 일종으로 변질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시나위의 음악적 정의를 내리면 무악에 뿌리를 둔 음악으로서 각 악기가 이음성(異音性)을 보이며 조화를 이루는 기악합주곡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한민족음악론(권오성, 학문사, 1999).
필자 권오성(權五聖)

시루말

정의 경기도 오산 지역의 도당굿 열두 거리 가운데 부정거리 다음에 행해지는 제차(祭次) 혹은 여기서 구연되는 본풀이를 지칭하는 말.

내용 〈시루말〉은 창세신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지역의 유일한 무가이다. 오산의 세습(世襲) 남무(男巫)인 이종만이 구연한 자료가 아카마쓰 지조(赤松智城)와 아키바 다카시(秋葉隆)의 채록에 의하여 지금까지 전한다. 현재 〈시루말〉은 제의만 전승되고 사설은 전승되지 않는다. 시루말이란 명칭은 시루를 앞에 놓고 굿을 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시루는 떡을 찌는 도구이고 떡은 밥과 달리 비일상적인 음식으로 무속에서는 술과 함께 신에게 바치는 가장 중요한 제물로 인식된다. 그래서 굿을 할 때는 중요한 신마다 따로 떡을 쪄서 시루째로 바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떡이 시루째로 바쳐지는 것은 시루 자체가 신성한 그릇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리고 시루와 시루의 구멍은 하늘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흔히 하늘을 구천(九天)이라고도 하고, 동서남북중앙(東西南北中央)의 오천(五天)으로 부르기도 하며, 오천에 일천(日天)과 월천(月天)을 더하여 칠천(七天)이라 칭하기도 한다. 시루 밑에는 음식을 찌기 위해 5개부터 시작하여 7개, 9개, 12개의 구멍이 뚫려 있다. 이것은 둥그런 시루를 엎어놓았을 때 그 형상이 하늘 모양과 같고 뚫린 구멍은 각각 오천, 칠천, 구천(九天)을 의미한다. 이 해석을 따르면 〈시루말〉은 곧 천신을 모시는 굿이 된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시루도듬은 바로 천신의 감응을 증명하는 의례인 것이다. 그러나 신화의 전승이 중단되면서 〈시루말〉은 하늘의 칠성을 모시는 굿으로 성격이 바뀌었고, 다시 불교적 영향의 명칭인 불사굿의 성격도 지니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루말에서 '말'의 의미는 분명하지 않다. 한자 표기로 '두(斗)'를 쓴 예가 있으나 적절하다고 하기 어렵다. 오히려 시루도듬, 시루청배, 시루거리, 시루풀이 등의 명칭과 대응해 보면 '말'의 의미는 도듬 · 청배 · 거리 · 풀이 등과 유사한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경기도도당굿이나 다른 굿에서 부르는 무가를 지칭하는 용어로 '마달'이란 것이 있다. 〈시루말〉 역시 시루마달 곧 시루성신의 내력을 노래하는 본풀이인 시루성신본풀이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시루말〉의 내용을 정리하면 크게 네 부분의 사설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천지개벽과 혼돈의 시절, 둘째는 천부지모(天父地母)의 결연담, 셋째는 인간 세상 시조의 출생과 좌정, 넷째는 일월(日月)의 조정담이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창세 때 자연 상태에서 채집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비금주수(飛禽走獸)가 말을 하고 인간은 말을 하지 못하는 시절이 있었다. 이후 천하궁 당칠성이 인간 세상에 인물추심(人物推尋)을 다니다가 지하궁에 내려와 매화부인과 결연한 뒤 해몽을 해주고는 하늘로 올라간다. 그 후 매화부인은 혼자 선문이와 후문이 두 아들을 낳는다. 두 아들이 천하궁으로 아버지를 찾아가자 당칠성은 선문이에게 대한국, 후문이에게 소한국을 각각 차지하도록 한다. 그 시절에는 해와 달이 둘이어서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웠다. 형제는 활을 쏘아 해와 달을 하나씩 없애고 오늘날과 같은 인간 세상을 만들었다. 이와 같이 〈시루말〉에는 일월조정 신화소가 포함되어 있다.

특징 〈시루말〉의 특징은 다른 지역의 창세서사시와 달리 인간 세상을 차지하기 위한 선문이와 후문이의 경쟁이 부재(不在)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각각 이승과 저승을 맡아 다스린다고 하지 않고 대한국과 소한국이라는 모호한 성격의 두 치소(治所)를 나누어 맡았다고 하는 점도 특징이다. 복수(複數)의 일월을 오늘날과 같이 하나씩 남겨두기 위하여 철궁을 이용하여 일월을 조정한다고 한 설정도 특별하다. 조정한 해와 달을 각각 제석궁과 명모궁이라는 곳에 걸어 두었다고 함으로써 일월제치가 아닌 일월조정의 의미를 전승하고 있는 것은 다른 지역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지역사례 한국의 창세서사시는 북부 지역의 〈창세가〉, 동해안 지역의 〈당금아기〉, 오산의 〈시루말〉, 제주도의 〈천지왕본풀이〉 등 전국적인 전승 양상을 보인다. 창세서사시 가운데 북부 지역의 〈창세가〉가 온전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동해안 지역의 〈당금아기〉와 오산의 〈시루말〉에 와서는 성격이 달라졌다. 이들 서사시에는 〈제석본풀이〉 혹은 〈당금아기〉의 요소들을 결부시켜 변이형을 만들어낸 사정이 확인되며, 제주도의 〈천지왕본풀이〉는 〈창세가〉와 〈시루말〉의 요소를 포괄하고 있는 창세서사시이다. 지역에 따른 구체적인 차이는 창세서사시를 북부, 중부, 동해안, 제주도 지역으로 나누어 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북부 지역 창세서사시의 특징은 우선 경쟁의 주체가 미륵과 석가의 두 거인신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데 있다. 이 점은 다른 지역과 대비할 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경쟁 주체가 미륵과 석가로 설정됨으로써 부모의 존재 역시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이는 이들이 태초에 이미 존재하는 거인신이어서 부모의 혈통을 통한 신성성을 빌려 올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운학과 강춘옥이 제공한 창세서사시는 이어서 〈제석본풀이〉가 연결됨으로써 둘 사이에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미륵과의 모든 시합에서 패배하는 석가는 미륵에 비해 능력이 열세인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강춘옥이 제공한 자료에서는 석가가 세 번의 대결에서 앞의 두 번은 승리하지만 마지막 한 번의 꽃피우기 대결에서 패하게 되어 속임수를 썼다고 함으로써 석가에게 우호적인 관점을 내비치고 있다. 북부 지역에서 창세서사시의 이름은 다양하다. 김쌍돌이본(本)과 전명수본은 손진태가 '창세가'로 명명하여 널리 통용되고 있으나 본래의 이름이 무엇이며, 어떠한 굿에서 불렸는지 분명하게 알기 어렵다.

강춘옥본은 '셍굿' 혹은 '셴풀이', '세인굿' 곧 '성인굿'이라 불린다. 〈성인굿〉은 관북 지방에서 노인의 장수(長壽)와 성공(成功) · 득자(得子) · 재수(財數) 따위를 기구(祈求)하는 굿으로 연행되며, 가정사의 모든 일을 다루는 큰굿이라 할 수 있다. 이 굿에서 받들고 있는 신 역시 인간의 장수와 복록을 주관하는 신으로 인식되며, 제석신의 성격

과 크게 다르지 않다. '셍'은 곧 성인(聖人)을 일컫기 때문에 창세의 거인신 가운데 인세를 차지한 이가 성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창세서사시에 이어서 성주신화, 득남형 설화, 에밀레종 기원형 설화, 장자못형 전설, 제석본풀이 등이 장황하게 있어 성인이라 하는 석가의 행적을 하나로 모았다고 할 수 있다. 즉 태초의 시절에 인세를 차지한 거인신 석가가 인간 세상의 최고신으로 자리 잡아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묶어 그 내력을 길게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운학본은 '삼태자풀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삼태자는 〈제석본풀이〉에서 제석신과 당금아기 사이에서 태어난 삼불제석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름 자체만 놓고 보면 〈삼태자풀이〉의 구연자는 창세서사시의 주역신인 석가가 인세를 차지하여 인세의 여인과 결연하고 인세의 신으로 좌정하는 삼불제석을 태어나게 했다는 내용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했을 수 있다. 실제로 정운학본에는 〈제석본풀이〉가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강춘옥본과 정운학본은 창세 때 거인신의 행적이 대단히 확장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의의 〈시루말〉은 창세신화의 변천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북부 지역의 창세신화에 등장하는 미륵과 석가가 〈시루말〉에서는 선문이와 후문이라는 쌍둥이 형제로 설정된 것은 천하궁 당칠성과 매화부인이라는 부모의 혈통이 확정된 상황과 아울러 창세신화가 천부지모(天父地母)형 신화로의 변천 과정을 겪었음을 의미한다. 창세신화의 성격상 필수적인 요소가 아님에도 부모의 혈통을 확정하는 식으로 변천 양상을 보인 것은 신화 변천의 경로를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표지가 된다. 부모의 신성한 혈통을 확정하는 신화 방식은 대체로 고대국가 건립기에 형성된 건국신화의 일반적인 양상이기 때문에 창세신화가 고대 건국신화와 유사한 방식으로 변천을 겪고 있다는 논리를 세울 수 있게 한다.

참고문헌 朝鮮巫俗の研究 上(赤松智城 · 秋葉隆, 조선총독부, 1937), 관북지방무가(임석재 · 장주근, 문화재관리국, 1965), 제주도 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손진태전집 5(손진태, 태학사, 1981), 제주도 무속 연구(현용준, 집문당, 1986), 경기도 도당굿 무가의 현지 연구(김헌선,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한국의 창세신화(김헌선, 길벗, 1994), 한국창세서사시연구(박종성, 태학사, 1999), 무속의 천신의례에 관한 연구(황루시, 비교민속학 22, 비교민속학회, 2002).

필자 박종성(朴鍾聲)

시무굿무가

정의 경북 안동 지역에서 망인의 영혼을 저승으로 천도하는 오구굿 가운데 네 번째 시무굿에서 구송하는 무가. 시무란 저승사자(使者)를 말하며 시무굿은 곧 사자굿이란 뜻이다. 따라서 사자굿무가라고 할 수 있다.

내용 〈시무굿무가〉는 경북 안동 출신의 세습무 송희식(남, 조사 당시 65세) 화랭이의 보유자료를 1965년 5월 김태곤이 채록하여 『한국무가집(韓國巫歌集)』 2권-안동 지역 무가편에 수록했다. 안동 지역의 세습무에 대한 기록이 다른 문헌에는 나타나지 않아 더욱 중요한 자료로 남게 되었다.

무가 내용은 저승사자가 수명이 다 된 사람을 잡으러 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저승사자는 여러 방해를 물리치고 망자(亡者)를 잡아가며, 잡혀간 망자가 저승세계에 온전하게 들어가기까지 온갖 고초를 겪는다. 망자가 저승길을 가는 것은 저승사자가 이승에서 수명이 다 된 사람을 잡는 것 이상으로 어렵다. 사람이 죽어서 저승으로 가기까지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저승사자를 비롯하여 저승세계에 거주하는 존재의 역량으로 이루어지며, 이때 저승길에서의 난관은 삶이든 죽음이든 깊은 고난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승에서 수명을 다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망인이 되지만 저승에서 잘살 수 있는 극락에까지 가는 데에는 무수한 '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구송한 무가가 〈시무굿무가〉이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승사자가 수명이 다 된 사람을 잡으러 나온다. 사자는 짚신을 감발하고, 육갑책을 손에 들고, 청사슬과 홍사슬을 걸머지고 해동 조선국 경상좌도 안동 땅으로 찾아들어 수명이 다 된 사람을 잡아가려 한다. 그런데 동네 골매기 수문장(守門將)이 못 잡아가게 막아서 뒷동산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서낭님이 못 잡아가게 막는다. 사자가 겨우 마당으로 돌아드니 지신(地神)이 막아 못 잡아가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니 조왕님이 막아 못 잡아간다. 다시 사자가 마구간으로 돌아드니 우걱보리 햇보리도 막아 사자가 이리저리 들어갈 만한 데란 모두 기웃거려 보았으나 모두 막아서 들어갈 수 없었다.

천신만고 끝에 사자가 겨우 대청으로 들어서니 성주님이 막아서 못 잡아가고 안방으로 들어가니 삼신할머니가 막아서 못 잡아간다. 사자는 되돌아가 저승의 지부(地府)왕에게 자신의 재주로는 망자를 못 잡아오겠다고 한다. 지부왕이 "그러면 어느 차사가 나가서 망인을 잡아올꼬?" 하자 전라도 나주 땅의 남문 밖에서 살다가 저승으로 들어와 지옥을 맡아보는 정사자가 나선다.

정사자가 쇠사슬을 걸머지고 경상도 안동 땅으로 돌아드니 이번에는 골매기 수문장, 서낭님, 성주, 조왕, 삼신들이 모두 잡아가라고 허락한다. 정사자가 잡아갈 사람의 집 방문을 열어놓고 쇠사슬로 발목을 옭아매니 "아이고 발이야. 발치 밑에 앉아 있는 가족들, 내 발목이나 좀 만져다오" 한다. 정사자가 이 사람의 손목을 쇠사슬로 옭아서 잡아채니 "아이고 손이야. 수족 맡에 앉은 가족들, 내 손목이나 좀 주물러다오" 한다. 이번에는 정사자가 이 사람의 목을 쇠사슬로 옭아 당기니 "아이고 머리야. 머리맡에 앉은 가족들, 내 목이나 좀 주물러 다오"하고 난 뒤 숨이 넘어간다.

이 사람이 먹던 음식과 가진 재산이 많다지만 모두 허사이다. 목숨이 끊어져 망자가 되니 이 세상 모두가 소용없다. 부모가 있고 동생과 처자 권속과 일가친척이 많다지만 그 누가 대신 갈 사람이 없다. 망자가 떠나지 않으려고 망설이니 정사자가 망자의 목에 꺾쇠를 채우고, 입을 함봉(緘封)하고, 눈에 긴 정을 박고, 손발에 쇠사슬을 채워서 끌며 시간 없으니 어서 가자고 재촉한다. 망자의 혼이 정사자에게 잡혀 한 모퉁이를 도니 가족들의 곡성이 귀에 쟁쟁하고, 두 모퉁이를 돌아드니 통곡소리가 요란하다. 망자의 혼이 저승으로 끌려가는 사이에 가족들은 그의 몸을 향물로 씻겨 상하의복 곱게 입히고 고운 삼베로 꼭꼭 묶어 일곱 장을 지워 널에 담아 묏자리를 보아 묻었다. 망자의 몸은 삼신님께 바쳐져 땅을 요로 깔고, 뗏장을 이불로 덮고, 송림(松林)을 울타리로 삼고, 까마귀와 까치와 두견새를 벗 삼아 누워 있다.

망자의 맑은 혼은 육신을 이렇게 남긴 채 저승으로 들어간다. 애비락고개를 넘고 단발령 고개를 올라가니 바람도 쉬어 넘고 구름도 쉬어 넘고 산새 · 들새 · 해동청 · 보라매도 쉬어 넘는 높은 고개였다. 이 고개를 넘어 망자가 저승으로 들어가니 열두 대문이 있다. 망자가 첫째 대문에 도달하니 문지기가 인정(망인의 혼이 저승으로 들어갈 때 저승사자에게 길을 인도해주는 대가로 바치는 뇌물)을 달라고 한다. 망자는 가진 것이 없다 하니 한동안 못 들어가게 하다가 결국 보내준다. 그리고 둘째 대문에 당도하니 문지기 수직이가 또 인정을 달라고 한다. 그래서 망자의 아들들이 인정을 주었다. 이렇게 하여 아홉째 대문까지 들어갔다. 열째 대문에서 망자는 줄 것이 없어 백지 일만 장을 바쳤다. 열한 번째 대문에 들어갈 때는 입고 있는 속적삼을 벗어서 인정으로 주었다. 열두 번째 대문에 들어가 시왕[十王] 앞에 이르니 집장(執丈) 사자가 우루루 달려들어 형틀에 매달고 참나무 곤장으로 열 대를 치고 한 대로 세고, 스무 대를 치고 두 대로 센다. 이렇게 쉰 대를 치고는 다섯 대로 세자 망자는 사자에게 매를 못 이기겠다며 성복제(成服祭), 발원제(發願祭), 평토제(平土祭), 반혼제(返魂祭), 삼우제(三虞祭), 석 달 열흘 백일제 등 소상 · 대상제까지 모두 사자에게 바치겠다고 약속한다. 이렇게 저승의 구실은 많기도 하다.

사자는 또 망자에게 열씨(마의 종자) 닷 말, 담배씨 닷 말을 하루아침에 다 심으라고 하여 망자가 울고 앉아 있으니 삼동갑 사동갑쟁이들이 모여 한 사람이 한 줌씩 나누어 심으니 하루아침에 모두 심어졌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자가 양칫물 일천 동이, 세숫물 일천 동이, 목욕물 일천 동이 등 도합 삼천 동이를 하루아침에 다 먹으라고 한다. 망자가 해낼 수가 없어서 울고 있으니 또 삼동갑 사동갑쟁이 수백명이 모여 양반의 동갑쟁이들은 도포자락으로 그 물을 적셔 내고 여

인의 동갑쟁이들은 치마폭으로 그 물을 적셔 내고, 중의 동갑쟁이는 장삼자락으로 적셔 내어 물 삼천 동이를 모두 말렸다. 그렇게 물 삼천 동이를 모두 말려 놓았더니 사자가 이번에는 쉰 길이나 되는 깊은 소(沼)에 들어가 돌 이천 동이를 하루 아침에 다 건져 내라 한다. 망자가 또 울고 앉아 있으니까 이번에도 삼동갑 사동갑쟁이들이 모여 한 사람이 한 개씩 소(沼) 안에 있는 돌을 건져 내서 이천 개나 되는 돌을 모두 건져 냈다. 그렇게 시키는 대로 다 하니 그제야 시왕은 망자에게 꽃이 피는 극락세계로 들어가라고 인도해 준다. 망자는 고마워서 삼동갑 사동갑쟁이들을 자기의 제사상 뒤로 불러 술과 고기와 떡을 함께 나누어 먹는다.

지역사례 망인을 천도하는 오구굿 계통의 굿은 각기 명칭에 차이가 있을 뿐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함경도의 망묵을 비롯하여 평안도의 수왕[十王]굿, 서울 지역의 진오기와 집가심, 경기 지역의 천근새남과 진오기, 황해도 지역의 수왕굿과 진오기, 강원도의 오구자리 · 물굿 · 자리걷이, 호남 지역의 씻김굿 · 혼굿 · 곽머리, 영남 지역의 오구굿 · 수왕굿 · 수망굿 · 댓머리, 제주도의 시왕[十王]맞이 등 다양한 굿이 있다.

시무, 곧 저승사자를 대상으로 한 굿은 경기도 화성 지역의 집가심 가운데 삼사제가 있고 전남 광양 지역의 씨끔굿 가운데 사제맥이, 황해도 해주 지역의 진오기 가운데 사제으름, 서울 지역의 진오귀굿 가운데 사제삼성 등이 있다. 그러나 사자를 시무라고 하지는 않으며, 이들 무가는 안동 지역의 시무굿과 같은 장편서사무가가 아니다.

한편 함경도 지역의 망인천도굿인 망묵굿 가운데 타승굿 역시 사자굿이라 할 수 있다. 안동 지역의 시무굿과 같은 장편은 아니지만 이 서사무가를 통해서도 저승사자와 망자 간의 갈등, 이승과 저승이 다른 세계이면서도 이승은 저승에서의 공과(功過)에 따라 망자의 자리가 결정된다는 점이 서술되어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떤 젊은 사람이 병이 들어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였으며 침을 놓아도 소용이 없었다. 이미 저승사자들이 환자를 데려가려고 모여들었다. 급사사자, 검은 사자, 푸른 사자들이 환자의 집 대문으로 들어서려 하니 수문장이 "우리는 초하루 보름으로 고양을 바치고 밤낮으로 자시(子時)만 되면 고양을 바치니 들어가지 마시오"라며 막는다. 그래서 사자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일찍이 여자가 문병을 하러 이 집에 들어갈 때 사자들이 거미넋으로 변해 싸여 들어갔다.

사자들이 들어가 환자의 머리맡과 발치, 좌우로 빙 둘러앉아 있으니 환자는 심한 두통이 나며 사지가 뒤틀리고 오장육부가 당겨 견딜 수가 없다. 환자는 견디다 못해 어머니를 부르며 냉수만 찾는다. 드디어 사자들이 환자의 실낱같은 목을 비끌어 매 잡아당기며 어서 가자고 재촉한다. 환자가 자신은 죄가 없으니 지금 갈 때가 아니라고 한다. 젊디젊은 청춘을 왜 데려가냐면서 못 가겠다고 하자 사자들이 목을 졸라 숨을 끊었다. 환자는 결국 망자가 되어 입었던 웃저고리가 벗겨졌다.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 "복호, 복호, 복호" 하고 세 번을 부르니 이제는 할 수 없이 망자는 세상을 떠나 사자들을 따라 수 천리를 간다. 망자가 사자들에게 자기의 말을 좀 들어 달라고 하지만 사자들은 잔말 말고 따라오라고만 한다.

험한 길을 굶어가면서 꼬박 열나흘 동안을 걸어 겨우 저승문에 당도하니 우두마찰, 마두마찰이 와르르 달려들어 죄명을 묻고 통과시킨다. 염라대왕 앞으로 가니 문초가 시작된다. 이름을 묻더니 이어 가족을 묻는다. "가족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 혼자 살다가 오라 해서 왔습니다. 저는 죄 없습니다." 망자는 자기 가족을 또 잡아들일까 봐 혼자라고 대답했다. 염라대왕은 가족을 비롯하여 남을 해친 적은 없는가, 부모의 말에 대꾸하였는가, 남의 여자 욕심을 냈는가, 유부녀를 통간(通姦)했는가 등등을 물었다. 망인은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으며 "저는 이대로 세상에 있다가 왔습니다"라고 했다.

염라대왕이 명부 십대왕전 열두 대문에 인정을 쓰라 하여 망자는 입고 있던 옷가지 등속을 모두 벗어서 바쳤다. 그렇게 하면 저승으로 고이 보내줄 줄 알았으나 다시 문초가 계속되니 억울하기 짝이 없다. 망자는 억울하고 분해 울음밖에 나올 것이 없었다. 여든 살을 넘도록 산 것도 아니고 청춘의 몸으로 세상을 살다 왔는데 죄목을 대라니 이것은 너무도 억울했다. "아무래도 전 죄가 없습니다." "다른 죄 아니고 너 낳을 적에 산천 발원이 없고, 조상 발원이 없어서 너의 선대 조상이 모르니 네가 어찌 명이 길고 복을 받겠느냐? 너의 산천 조상을 한번 둘러 봐라." 이때부터 망자가 청춘의 몸으로 저승에 들어갈 때에는 염라대왕이 조상 산천을 알아보라고 했다.

청춘에 죽었으니 비정상적인 죽음이라 할 수 있지만 조상에 대한 '정성'이 없어서 수명도 짧았다는 것이다. 부모 말에 대꾸를 했는가, 곧 말대답을 함부로 했는가, 남의 여자 욕심을 낸 적이 있는가와 같은 문초에서 도덕성과 윤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 무가에서도 드러난다. 여기서도 고복(皐復, 招魂이라고도 한다)과 같은 상례절차가 하나 나타난다. 이 무가는 함흥 출신으로 월남한 이고분(여, 조사 당시 66세)의 보유자료를 1966년 5월 김태곤이 채록하여 『한국무가집』 3권에 수록했다.

무가와 달리 충남 서산 지역에서 망인의 저승길을 닦아줄 때 부르는 무경(巫經)인 황천해원(黃泉解寃)풀이는 모생(某生)이 저승사자들에게 잡혀 저승에 간 뒤 이승에서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극락세계로 간다는 내용이다. 물론 저승으로 가는 도중과 그리고 저승에 가서 여러 어려운 통과의례를 거친다. 〈시무굿무가〉 내용처럼 저승사자들이 처음에 왔을 때에는 성주신, 조왕신, 토지신 등 가신(家神)들이 가로막아서 명이 다 된 사람에게 갈 수가 없었다. 그러자 사자들은 이들 가신에게 둘째 시왕의 서찰을 펼쳐 보이니 가신들도 "모생의 수명이 다한 것이니 할 수 없다. 잡아가도록 하여라"한다. 저승에 와서도 〈시무굿무가〉의 망인 이상으로 온갖 어려운 고비를 넘긴다. 그러나 모생은 생전에 공덕을 쌓고 나이가 들어 세상을 하직하게 되었으니 그의 죽음은 정상적인 죽음이라 할 수 있다.

의의 〈시무굿무가〉에는 집안에서 섬기는 성주, 삼신, 조왕 등을 비롯하여 골매기, 서낭 등 마을신이 등장한다. 이는 가신과 마을신들이 가족과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보살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들 신은 처음에 차사가 왔을 때 자신이 보살펴주는 사람이 죽게 되어 저승으로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 준다. 그러나 저승사자가 두 번째로 찾아왔을 때에는 이미 수명이 다한 것을 안 신들도 더 이상 막을 길이 없어 사자에게 잡아가라고 허락한다. 이를테면 사람의 수명이 영원할 수 없음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의 수명은 결국 신의 결정에 좌우되는 운명임을 말해 준다.

망인이 저승에 가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의 상례를 치른다. 이 절차는 대체로 유교식 상례절차에 의거한다. 이는 무속신앙에 유교상례가 수용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유교식 상례절차는 예서(禮書)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형식'이 중심을 이룬다. 〈시무굿무가〉에서는 이러한 유교식 상례절차가 비교적 소상하게 드러남과 동시에 서사적으로 표현되고 있어 문학성이 돋보인다.

사람의 수명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승을 떠나지만 저승길 또한 결코 수월하지 않아 온갖 시련을 겪는다. 특히 저승의 대문을 통과할 때마다 '인정'을 바치라고 하니 이승에서 있는 일이 저승세계에서도 통용됨을 뜻한다.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뇌물'이라는 부정적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승에서의 삶에서 재물을 비롯한 모든 것이 필요한 만큼 저승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저승세계에서의 삶은 이승에서의 삶처럼 단절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기에 더욱 많은 '인정'이 필요하며 '노동'이 요구된다. 이승에서는 반목도 있지만 서로 도와가며 생활하듯이 저승에서도 도움이 없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극락세계에 갈 수가 없다. 결국 저승은 이승의 생활을 반영한다. 이승의 삶이 복잡하듯이 저승에서의 삶 역시 절차가 복잡하며, 극락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수한 통과의례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무가집 2(김태곤, 집문당, 1971), 한국무가집 3(김태곤, 집문당, 1978), 한국무속연구(김태곤, 집문당, 1981), 한국의 무속신화(김태곤, 집문당, 1985), 한국민속문화대사전(김용덕, 도서출판 창솔, 2004), 민간신앙과 일생의례의 수수관계(김명자, 한국종교민속연구회 편, 종교와 일생의례, 민속원, 2006).

필자 김명자(金明子)

시왕기[十王旗]

정의 제주도굿의 시왕맞이에서 시왕의 신체(神體)로 쓰이는 기메.

형태 시왕기는 큰 직사각형의 한지 한 장에다 그 아랫부분으로 다시 반 장 정도의 분량을 이어 붙여 크게 만든다. 위쪽에는 양쪽 모서리를 접어 삼각형 모양으로 만든다. 밑에는 비슷한 너비로 잡아 세로로 잘라 4개의 다리 모양을 만든다. 다리마다 여러 구멍을 오려 모양을 낸다. 여기에 윗부분의 한쪽을 삼각형 모양으로 접은 책지를 붙인다. 푸른 잎이 달린 대나무에 묶어서 사용한다. 한편 심방에 따라서는 위쪽을 삼각형 모양으로 접지 않고 그대로 두고 대나무 가지를 가로로 붙이기도 한다.

내용 시왕기는 제주도굿의 시왕맞이에서 시왕을 상징하는 신체로 쓰이는 기메이다. 시왕을 청해 들일 때 사용한다. 시왕맞이는 제주도의 가장 핵심적인 굿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이 죽어 대상(大祥)을 치르고 난 뒤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하거나, 병자(病者)가 있을 경우 쾌유를 비는 의미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승을 관장하는 시왕[十王]을 청하게 되며, 그 신체로서 시왕기를 만드는 것이다. 시왕맞이를 할 때 당클에다 시왕기 3개를 만들어 걸어 둔다.

참고문헌 제주도 굿의 무구 '기메'에 대한 고찰(강소전, 한국무속학 13, 한국무속학회, 2006),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전라남도 · 전라북도 · 제주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필자 강소전(姜昭全)

시왕도[十王圖]

정의 저승의 지옥을 다스리고 있는 열 대왕을 그린 무신도. 이 무신도는 한국인의 죽음관과 저승의 지옥 관념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내용 원래 무속에서의 저승 관념은 매우 막연한 것이었으나 불교의 지옥과 극락의 세계가 도입되면서 무속의 세계관 구성에 중요한 전환이 이루어졌다. 저승의 시왕이 들어오면서 우리 무속의 저승관이 체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인간의 윤리적인 선악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시왕의 무신도는 흔히 '마지' 또는 '화분'이라고 하고 특정하게 저승굿을 하는 경우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이 화분의 신화적 근거는 만신의 무가에 구체화되어 있다. 가령, 서울새남굿의 시왕가망청배 무가에서 이 점이 확인된다. 이 무가에서는 "열두 혼백 난망제 어느 대왕 매이셨나 제일전 진관대왕 제이전 초관대왕/ 제삼전 송제대왕 제사에 오관대왕 제오전 염라대왕/ 제육전 변선대왕 제칠전 태산대왕 제팔전 평등대왕/ 제구전 도시대왕 제십전 오도전륜대왕"이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관념은 분명하게 존재하는 양상이지만 불교의 시왕 구성과도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 지역의 무가집에 전승되는 시왕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표를 구성할 수 있다.

망자를 저승으로 천도하는 굿에서 이러한 무신도를 걸어놓는다. 특히 서울새남굿에서 이를 걸어놓고 시왕과 지장보살의 연지당을 구성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신앙적 구성에서 불교를 차입하여 시왕신앙을 발달시키고 여기에 도교적 관점의 신앙을 결부하여 한층 복잡한 시왕 관념이 탄생하였다. 무속에서 이 시왕은 저승의 명부전을 상징하는 것뿐이고 실제로는 지장보살과도 다른 바리공주가 지옥에서 벗어나는 구실을 한다. 그러므로 시왕의 화분은 불교와 깊은 관련이 있지만 이 신앙이 무속의 절대적 기능을 하는 것인지는 회의가 있다.

게다가 이 무신도는 상징적인 작용만을 할 뿐이지 바리공주가 나서서 시왕에 매인 망자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면모라고 할 수 있다. 시왕도는 굿당의 장식도이면서 불교와 무속의 접합점을 생각하게 하는 무구 가운데 하나이다. 서울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재받이 승려와 결탁하면서 이 무구의 사용이 본격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십제일	시왕원불(十王願佛)	시왕 이름	시왕탄일(誕日)	속한지옥(地獄)	매인사람(甲子)
1. 一일	정광불(定光佛)	진광대왕(秦廣大王)	二월 十五일	도산지옥(刀山地獄)	경오(庚午) 신미(辛未) 임신(壬申) 계유(癸酉) 갑술(甲戌) 을해(乙亥)
2. 八일	약사불(藥師佛)	초강대왕(初江大王)	三월 一일	확탕지옥(鑊湯地獄)	무자(戊子) 기축(己丑) 경인(庚寅) 신미(辛未) 임진(壬辰) 계사(癸巳)
3. 十四일	현겁천불(現劫千佛)	송제대왕(宋帝大王)	二월 二十八일	한빙지옥(寒氷地獄)	임오(壬午) 계미(癸未) 갑신(甲申) 을유(乙酉) 병술(丙戌) 정해(丁亥)
4. 十五일	아미타불(阿彌陀佛)	오관대왕(五官大王)	一월 八일	검수지옥(劍樹地獄)	갑자(甲子) 을축(乙丑) 병인(丙寅) 정묘(丁卯) 무진(戊辰) 기사(己巳)
5. 十八일	지장보살(地藏菩薩)	염라대왕(閻羅大王)	三월 八일	발설지옥(拔舌地獄)	경자(庚子) 신축(辛丑) 임인(壬寅) 계묘(癸卯) 병진(丙辰) 을사(乙巳)
6. 二十三일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	변성대왕(變成大王)	二월 二十七일	독사지옥(毒蛇地獄)	병자(丙子) 정축(丁丑) 무인(戊寅) 기묘(己卯) 병진(丙辰) 신사(辛巳)
7. 二十四일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태산대왕(泰山大王)	三월 二일	대애지옥(碓磑地獄)	갑오(甲午) 을미(乙未) 병신(丙申) 정유(丁酉) 무술(戊戌) 기해(己亥)
8. 二十八일	노사나불(盧舍那佛)	평등대왕(平等大王)	四월 一일	거해지옥(鋸解地獄)	병오(丙午) 정미(丁未) 무진(戊辰) 기유(己酉) 경술(庚戌) 신해(辛亥)
9. 二十九일	약왕보살(藥王菩薩)	도시대왕(都市大王)	四월 七일	철상지옥(鐵床地獄)	임자(壬子) 계축(癸丑) 갑인(甲寅) 을묘(乙卯) 병진(丙辰) 정사(丁巳)
10. 三十일	석가모불(釋迦牟尼佛)	전륜대왕(轉輪大王)	四월 二十七일	흑암지옥(黑暗地獄)	무오(戊午) 기미(己未) 경신(庚申) 신유(辛酉) 임술(壬戌) 계해(癸亥)

참고문헌 조선시대지장시왕도 연구(김정희, 일지사, 1996), 서울진진오기굿무가자료집(김헌선, 보고사, 2008).
필자 김헌선(金憲宣)

시왕맞이

정의 저승 명부(冥府)의 신(神)인 시왕[十王]을 모시고 기원하는 맞이굿. 제주도의 굿에서 '일월맞이' '불도맞이' '시왕맞이'라 할 때 '맞이'는 신을 맞이하는 굿, 즉 맞이굿[迎神儀禮]을 뜻한다.

내용 시왕맞이는 하늘의 두 번째 궁전 시왕당클에 모신 저승 명부의 신인 시왕을 모시고 기원하는 맞이굿이다. 즉 시왕맞이는 명부의 신 시왕이 오시는 길과 망자의 영혼이 떠나는 길을 닦고 시왕을 맞이하거나 영혼을 저승으로 고이 보내는 굿이다. 시왕맞이는 큰굿 젯ᄃᆞ리[祭次] 중 중심에 놓인 가장 중요한 맞이굿이다.

굿판의 마루 상방 위쪽에 신궁을 축소하여 제당에 마련한 것을 당클[祭棚]이라 한다. 당클은 수에 따라 4당클굿, 3당클굿 등으로 나뉘기도 한다. 4당클은 다시 하늘 2궁과 땅의 2궁으로 나누어진다. 삼천천제석궁 당클과 열시왕 당클은 하늘의 것이고, 문전 · 본향 당클과 마을 · 영신 당클은 땅의 것이라 할 수 있다. 맞이굿에서 신을 맞이하기 위하여 길을 닦는 굿을 특히 질침굿 또는 질치기라 한다. 이러한 길을 닦는 의례는 신 길을 바로잡는 것이며 다리를 놓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왕맞이는 사자가 가야 할 저승길을 바로잡으면서, 명부의 신 시왕의 명을 받고 정명이 다한 이승의 망자들을 데리러 차사가 오시는 길, 인간이 죽어서 저승으로 가는 길을 닦는 질치기(길닦이)이다.

시왕은 명부에 있으면서 현세에 생존하는 인간들의 생명과 죽어간 사령(死靈)들을 관장한다. 그러나 시왕은 인간들의 정명(定命)을 미리 정하여 그들의 명부에 기재해 놓고 정명이 다되면 차사(差使)를 시켜 잡아오게 한다. 그래서 그 사령

이 생시의 업보(業報)에 따라 지옥 또는 극락으로 심판하여 보낸다고 한다. 생사의 문제를 관장하는 신이니만큼 이 신에 대한 의례인 시왕맞이는 제주도 도내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분포·성행되고 있다. 그 기회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집안에 중환자가 있을 때 시왕이 저승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내린 병이라 해석하여 이 질병을 거두고 정명을 늘려 주십사고 기원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사망 후 사령의 생시 죄보(罪報)를 사하여 극락으로 보내 주십사고 기원하는 경우다.

사령이 저승에 제대로 못 가서 중간에서 헤매게 되면 그 사령은 잡귀가 되어 가족 또는 친지에게 되돌아와 빙의하여 질병이나 재해를 주며 괴롭힌다고 관념한다. 그러므로 이 시왕맞이는 건강과 질병 치료를 통하여 장수를 누리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시왕맞이는 큰굿의 일부로 하기도 하고 단독제(單獨祭)로 하기도 한다. 굿의 내용은 질침, 체ᄉᆞ본풀이, 액막이, 낙가도전침, 삼천군병질침 등 제차가 끼어 있어 다른 맞이굿에 비하여 복잡하지만 형식의 원리는 다른 맞이굿과 같다. 다만 시왕과 그 하위 직계신들에 대한 의식이 삽입된 것뿐이다.

시왕맞이가 저승길을 닦는 굿 즉 질치기라면 신 길은 신의 질서, 신이 걸어온 길, 망자가 떠나는 길, 신의 내력담 본풀이에 해당한다. 이것은 또 한라산 곶자왈 같은 풀지 못한 역사를 풀어야 할 과제로서 주어진 가시밭길이다. 이 길은 닦아서 하얀 광목천을 깔았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그 길은 신과 인간이 만나는 길이며, 망자가 이승의 미련을 버리고 저승으로 고이 갈 수 있는 길이다. 신 길을 바로잡았으므로 신의 질서를 좇아갈 수 있는 이승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승에 살아 있는 자가 망자를 저승으로 천도하기 위하여 길을 고이 닦아 드리는 것은 망자를 떠날 수 없게 하는 이승의 미련, 이승에서의 삶의 욕망과 살의 부정을 떨쳐내지 못한 마음, 그래서 억울한 죽음을 떳떳하고 홀가분하게 만들어 즉 앞에 놓인 가시밭을 거두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이승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저승으로 가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된다. 가시밭길이 앞에 놓여 저승으로 갈 수 없는 망자가 이승에 대한 미련을 거둠으로써 부정을 씻고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 저승에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1. 시왕맞이 영혼상 차림
2. 시왕맞이 질치기의 흥마음다리 놓기(요령을 흔들어 소리를 냄)
3. 시왕맞이 절치기의 은따비로 파기
4. 질치기에서 차사가 적베지를 등에 붙이고 있는 장면
5. 질치기에서 영게지를 들고 혼을 부르는 심방
6. 심방이 죽은 영혼의 생전의 이야기를 본주에게 전하는 영게올림
7. 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분부사룀
8. 영게지와 감상기를 들고 혼을 부르는 심방
9. 질치기에서 언월도로 베기(신칼로 베는 시늉)
10. 저승 열두 문에 인정을 걸며 문을 하나씩 차례로 열어가는 심방

북제주군 구좌읍 동김녕리 | 1994.10.24 | 문무병

다리를 놓는다는 말에는 차례와 순서를 밟는다는 뜻이 있다. 동시에 과정을 밟는다는 뜻도 있다. 그리고 신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길을 놓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 길을 밟는다는 것은 질서의 회복인 동시에 신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상생의 의미를 지닌다. 신인동락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또 시왕맞이에서 신과 인간, 망자와 산 자의 대화를 영개울림이라 한다. 영개울림은 죽은 영혼의 울음이며, 영개울림을 함으로써 죽은 자에게 죽어서 억울한 심정을 이야기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망자는 울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생전 또는 죽는 순간의 못 다한 말들을 다 풀어놓음으로써 맺힌 것을 풀고, 미련을 버리고 가볍게 저승으로 떠난다.

굿은 이승의 삶, 현실의 무질서를 저승의 맑고 공정한 법으로 다스려 새로운 질서를 닦는 의식이다. 이를 '신 길을 바로잡는다'고 한다. 신이 걸었던 바른길을 인간세계에 다리로 놓는 것이다. 이러한 신다리, 즉 신이 걸었던 길을 더듬어 신의 내력을 풀이하고, 신을 불러내어 맞이하고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놀이하는 것이 굿이다. 신 길을 바로잡는 일은 역사 바로 세우기라 할 수 있다. 망자의 한을 푼다는 것은 난리에 억울하게 죽은 일을 재현하고 그 억울함을 밝히는 일이기 때문에 굿은 의로운 싸움의 재현, 현실의 모순 극복, 죽임으로부터의 해방, 자유, 건강의 부활 등을 내용으로 하게 된다. 굿은 망자의 한을 풀고 저승으로 천도하여 완전한 죽음, 저승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재생 의식이다. 그래서 해원상생굿이며 역사맞이굿이다. 1948년 무자년에 일어난 4·3사건은 제주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었다. 그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심방은 망자의 굿인 시왕맞이를 계속해 오고 있다. 집집마다 시왕맞이를 하여 집안의 억울한 영혼을 해원하였던 굿의 역사가 제주 현대사라 할 수 있다. 시왕맞이를 통하여 죽은 자와 산 자가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참고문헌 제주도 큰굿자료(문무병 외, 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1), 한국의 굿(문무병 외, 민속원, 2002),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도서출판 각, 2007), 제주도 본향당 신앙과 본풀이(문무병, 민속원, 2008).

필자 문무병(文武秉)

신과세제(新過歲祭)

정의 마을의 본향당에서 매년 정월 신에게 새해를 맞이하여 과세를 드리는 의미로 벌이는 굿. 달리 '신과세', '대제'라고 하기도 한다. 그 어원으로 '신-'은 일반어휘와 구별하기 위하여 무속에서 흔히 덧붙이는 접두사이며 과세는 한자어 '過歲'로 과세문안(過歲問安)의 뜻이다.

내용 신과세제는 앉은굿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선굿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앉은굿은 연물을 다 갖추지 않고 제차를 축소하여 간단히 하거나 그냥 비념으로만 진행하기도 한다. 선굿으로 할 때는 연물을 갖추어 필요한 제차를 모두 진행한다. 규모 있는 당에서는 신과세제, 영등제, 마불림제, 시만곡제 등 1년에 네 차례 정도 제의를 벌인다. 이 가운데 신과세제는 정월에 벌이는 당굿이다. 신과세제는 마을 사람들의 생산·물고·호적·장적을 관장하는 본향신에게 새해를 맞이하여 함께 문안을 드리고 한 해 동안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아울러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 제일은 대개 정월 1~3일 혹은 11~15일이다. 현재 다른 시기의 당굿에 비하여 규모가 가장 크고 흔한 편이다. 사정에 따라서는 2~3년에 한 번 신과세제를 벌이는 곳도 있다. 하루 혹은 반나절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나 이틀 이상 소요되는 사례도 있다. 당굿이 전승되는 마을에는 지정된 심방, 곧 매인 심방이 있어 당굿을 전담한다.

선굿으로 할 때는 소미 3, 4명이 함께 참여하여 북·설쒜·대양 등의 무악기를 울리는 한편 굿의 진행을 돕는다. 심방은 이들 소미가 연주하는 무악에 맞추어 춤을 추면서 굿을 진행한다. 오늘날 이처럼 규모 있게 신과세제를 벌이는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다. 송당본향당, 와흘본향당, 수산본향당, 신양본향당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신과세제의 제차라고 해서 별다른 것은 없다. 대개 궷문열림, 열명, 베포도업침, 날과국섬김, 연유닦음, 군문열림, 신청궤(본향듦), 자손절시킴, 석살림, 산받음, 액맥이 순으로 진행한다. 이들 제차에는 마을에 따라 산신놀이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궷문열림은 "상궷문도 열립니다. 중궷문도 열립니다. 하궷문도 열립니다" 하면서 궷문을 열거나 궤를 덮고 있는 돌을 들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열명은 집집마다 차례로 가족의 성과 나이를 고해 올리는 것이다.

베포도업침부터 연유닦음까지는 굿하는 사정을 차례에 맞게 고하는 제차이다. 베포도업침은 세상이 생긴 내력을 고하는 순서이다. 날과국섬김은 굿하는 날짜와 장소를 고해 올리는 것이다. 연유닦음은 굿을 하게 된 연유를 상세하게 고해 올리는 순서이다.

군문열림은 신이 인간세상으로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어야 하는 신역(神域)의 문을 여는 것이다. 심방이 관련되는 말명을 하고 무악에 맞추어 감상기를 흔들며 제단과 제장 입구 사이를 오가며 문을 여는 행위를 연출한다.

신청궤는 신들을 차례로 청해 들이는 제차이다. 심방이 제장 바깥에까지 나서 신들을 차례로 청하여 모셔 들이는 행위를 연출한다. 이 대목에서 본향신을 청해 들이게 되는데 이를 본향듦이라고 하며, 매우 비중 있게 처리한다. 사람들은 본향듦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굿의 규모를 파악하기도 한다. 본향듦이 있으면 선굿으로 무악을 울리면서 제대로 하는 것이고, 본향듦이 없으면 그냥 앉은굿으로 요령을 흔들며 말명을 하는 방식으로 간단히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셈이다.

자손절시킴은 본향신이 들어왔으니 자손들이 절을 하는 것이다. 대개 마을 임원 셋이 대표로 절을 한다. 그다음에는 참여한 사람들이 차례대로 절을 한다. 여기에서 산받음을 하여 신의 뜻을 전달하는 분부사룀을 하기도 한다. 이때의 산받음은 마을 공동체 전체에 대한 것이어서 특별히 도산받음이라고 한다.

이어지는 석살림은 무악과 춤으로 신을 즐겁게 놀리는 제차이다. 서우제소리를 흥겹게 부르며 모두 나와 춤을 춘다. 시루떡을 높이 던져 올렸다가 받아내는 이른바 나까시리 놀림을 하는 곳도 있다. 이렇게 하면 주요 의례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이제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산을 받는다. 이를 각산받음이라고 한다. 사람이 많으므로 일일이 산을 받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소미들이 모두 나서서 산받음을 한다. 운수가 나쁘다고 하는 경우에는 액맥이를 하기도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모든 사람이 액맥이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각 산받음 이전에 마을 전체의 액을 막는 도액막음을 먼저 하는 사례도 있다.

산받음이 끝나면 제각기 자신이 준비해 올린 제물을 내려 걸명을 하고 끼리끼리 모여앉아 음복을 한다. 그리고 삼삼오오 구덕을 끼고 당을 떠난다.

앉은굿으로 할 때는 선굿의 제차를 말명으로 간단히 축약하여 진행한다. 심방이 미리 당에 가서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도착한 순서대로 비념을 하고 운수를 보아주는 것이 예사이다. 그이로 인해 소요시간이 길어지기도 한다. 2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본래 며칠간의 제일에 모두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대개 신과세제 가장 많이 찾는다. 그러다 보니 신과세제가 가장 규모 있는 당굿이 된다. 신과세제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그다음 제일에 참여한다. 신과세제에서 산받을 때 운수가 나쁘니 다음 제일에라도 참여하여 액맥이를 하라고 하면 반드시 다음 제일에 참여하여 액맥이를 하게 된다.

본향신은 마을 경계의 안을 두루 보호하는 토지관이면서 마을 사람들의 생사 관련 문서를 관리하는 존재이다. 신과세제에서는 새해를 맞이하여 인적 구성원의 변화를 일일이 고하고 한 해 동안의 안녕을 기원하는 셈이다. 따라서 신과세제는 본향신의 성격에 가장 부합되는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신과세제는 공동체의 제의로는 가장 흔한 것이기는 하지만 마을의 사정에 따라 영등굿이나 잠수굿에 밀려난 경우도 적지 않다.



신과세제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와흘본향당 |
2003.2.14 | 강정식

참고문헌 제주도무속연구(현용준, 집문당, 1986).
필자 강정식(姜晶植)

상호참조 본향당굿(342쪽)

신광주리춤

정의 종이로 장식한 광주리를 들고 추는 춤.

내용 남해안별신굿 가운데 원혼굿(위혼굿), 오구굿 가운데 들채굿과 길닦기에서 행해진다. 신광주리춤은 무구나 악기를 들고 추는 춤에 속한다. 이 춤은 광주리 안에 망자에게 바칠 쌀을 담아 혼을 위로하고 달래어 저승으로 보내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망자의 혼이 담긴 광주리는 오색 종이로 장식한다. 이는 동해안 지방의 '신(神)태집'과 같지만 한지로 보살을 오려 붙인 것이 다르다. 이 춤은 사제가 굿을 이끌며 혼자 추는 춤으로, 동작은 간결하며 소박하다. 팔놀림은 길게 뻗쳐 놓은 천(길베) 위에 신광주리를 양손에 들고 좌우로 왔다갔다 이동하며 광주리를 붙였다 떼었다 하는 호접사위, 광주리를 양손에 들고 팔을 앞으로 펴는 사위, 팔을 양 옆으로 펴는 평사위 등이 있다. 발디딤은 회무 외에 특별한 동작이 없으며, 평걸음으로 가볍게 움직이는 정도이다. 신광주리춤은 삼현장단(타령장단)이나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일정한 규칙이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춘다.

남해안별신굿의 대모인 정모연이 작고한 뒤 고주옥이 대모로 활동했으나 역시 타계하였고, 백정자와 김현숙이 활동하다가 2005년에 탈퇴하였다. 현재는 정옥이(이수자), 이선희, 노명덕, 하선주, 최인명화(전수자) 등이 활동하고 있다.

참고문헌 남해안별신굿과 동해안별신굿에 나타난 춤의 형태적 의미 비교(이보영,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거제도 수산마을 남해안별신굿 현장조사(경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4).
필자 민성희(閔盛熙)

신내림

정의 신이 무당에게 내리는 현상을 일컫는 말.

내용 신내림은 한자로 빙의(憑依)·접신(接神)·강신(降神)·망아(忘我)로 표현되며, 영어로는 possession 혹은 trance로 표기된다. 신내림 상태가 되면 신이 무당의 몸에 내려와서 의식(意識)을 지배하게 되는데, 탈혼(脫魂)처럼 무당의 혼이 몸을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내려서 자의식을 잃거나 의식이 변하게 된다. 완전히 자의식을 상실하는 정신이상 상태가 아니라 주변 상황에 맞추어 자신을 통제하는 반의식 상태로 간주된다. 신이 내리면 몸의 감각은 과도한 흥분상태에 들어가며, 전율하거나 발작을 일으키기도 한다.

신내림은 입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며, 이를 신병 혹은 무병이라고 말한다. 한국 무교에서 신내림은 강신무의 굿 의례에서 필수적인 현상으로 무당은 신내림을 통해 초월적 세계와 현실세계를 연결해 준다.

참고문헌 샤마니즘(미르치아 엘리아데, 까치, 1998). 샤먼(피어스 비텝스키, 창해, 2005). Zur Struktur des Schamanismus(D. Schröder, Religionsethnologie, Akademische Verlagsgesellschaft, 1964).
필자 강정원(姜正遠)

상호참조 빙의(365쪽)

신딸

정의 무속신앙에서 신어머니로부터 신의 계통을 이어받는 여자 무당.

내용 신딸은 강신무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남자의 경우 신아들이라 한다. 이때 신딸에게 신의 계통을 이어주는 사람을 '신어머니' 혹은 '신아버지'라고 한다. 이것은 혈족에 따른 실제적 관계가 아니라 허구적 친자관계의 형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목적도 무속신앙과 관련된 것으로 제한된다.

신어머니와 신딸 간의 관계는 형식적으로는 신어머니로부터 신딸이 신내림굿을 받는 순간부터 형성되지만 실제로는 내림굿을 하기 이전부터 시작되기도 한다. 보통 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등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경험한다. 이때 무당을 찾게 되고, 무당을 통해 자신이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곧바로 신내림굿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붙어 있는 거짓 신령인 허주를 가려내고 올바른 몸주신을 맞이하기 위한 정화기간을 가지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람은 장차 신어머니가 될 무당이다. 따라서 이때 이미 실제적인 신딸과 신어미의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는 신내림을 결심한 이후 며칠 내로 신내림굿을 받기도 한다.

신굿, 내림굿, 신풀이, 명두굿으로 불리는 신내림굿은 신병의 치유와 함께 무당으로 입문하게 되는 공식적인 통과의례이다. 보편적으로 신내림굿을 주관하는 신어머니는 나이가 지긋이 든 큰 무당으로서 영험하고 굿을 잘하는 무당이며, 무업 경력을 많이 쌓아 신딸에게 많은 것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같은 신아버지·신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신딸·신아들 사이에는 신형제·신자매의 관계가 맺어지며, 원칙적으로 이들의 관계는 혈통으로 맺어지는 가족이나 친족보다 훨씬 엄하고 의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다. 이러한 무당들 사이의 관계 설정에 대한 법칙을 '신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에는 신딸과 신어머니뿐만 아니라 신형제·자매간의 유대의식도 느슨한 경우가 많다. 신내림굿을 받으려고 결정한 신딸들이 이름 난 신어머니를 모시려는 경향이 많아 신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모든 신딸에게 자신의 신 계통[문서]을 전수해 줄 현실적인 조건을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딸과 신어머니 간의 관계도 의례적이거나 형식적인 것에 그치기도 한다.

신어머니는 대개 큰무당이므로 보통 전문악사인 장구잽이와 징잽이를 고정적으로 데리고 있다. 신딸은 보통 장구잽이에게는 큰할머니, 징잽이에게 작은할머니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신내림굿을 통해 처음으로 맺어지는 이들과의 관계도 평생 동안 지속되며, 질서와 규칙 또한 엄한 편이다.

신딸과 신어머니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무의식의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을 '학습'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최소 3년 이상 동거하며 하나에서 열까지 무업에 관한 모든 절차를 다 배워야 했지만, 요즘은 신내림굿을 마치고 곧바로 신딸이 독립하여 무업을 행하기도 한다. 신내림굿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무당은 신애기·애동 또는 애동제자라고 부르는데, 일반 사람들에게 이들 애동제자는 영험이 강하다고 인식되어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제적인 이유로 신내림굿과 동시에 신딸은 신당을 차리고 독립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다. 하지만 이때 대개는 신어머니를 통해 기본적인 점사의 방법이나 치성드리는 방법 등을 배운다. 또 신당을 차릴 장소를 물색하거나 신전에 바칠 제물이나 각종 무구 등의 준비도 신어미를 통해 이루어진다.

신딸이 신내림굿 이후 바로 독립했다고 해도 이들 간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신어머니에게 큰굿이 있을 때 신딸은 마땅히 굿에 참여하여 도와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신딸의 요구에 따라 신어머니는 무의식을 가르쳐야 할 암묵적인 책임감이 존재한다. 신딸 입장에서는 무당으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굿거리나 무가 등을 배우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간혹 이름난 신어머니의 경우 학원 강습처럼 일정한 횟수를 정해 놓고 굿을 가르치기도 한다. 이때 금전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신딸과 신어머니 간의 관계 형성은 얼핏 계통[문서]을 이어주는 인간간의 사제관계로 파악된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신의 뜻에 의한 것으로, 무의식뿐 아니라 무업권(巫業圈)이나 무구(巫具) 등을 물려주는 무업상의 상속권을 주고받는 관계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민속학 새로 읽기(최인학 외, 민속원, 2001).
필자 오세길(吳世吉)

신만곡대제(新萬穀大祭)

정의 제주도의 정기적인 당제 중 하나로, 음력으로 9월이나 10월 상달에 하는 의례. 이 의례를 '시만곡대제'라고도 한다.

내용 마을마다 당의 형편과 단골의 사정에 따라 각기 다른 제일에 제를 지내지만 세시절기를 바탕으로 네 차례의 정기적인 당제를 지내는 것이 전통이다. 이것이 이른바 정월달에 지내는 신년과세제, 2월 영등달에 하는 당제는 흔히 영등제, 7월에 하는 당제는 마불림제 또는 백중제, 9월이나 10월에 하는 당제는 바로 신만곡대제이다. 신년제는 한 해의 시작점에서 마을의 안녕과 집안의 행운을 기원하는 성격의 의례이고, 영등제는 풍어를 기원하는 준비의례, 마불림제는 우마증식제와 추곡성장 기원의례, 신만곡대제는 풍농 감사에 대한 수확의례이다.

이와 달리 당신(堂神)의 성격과 본풀이에 명시된 의례적인 기준으로 한 달 단위로 움직이는 의례도 있다. 한 달의 7·17·27일에 정기적인 의례를 지내기도 하고, 이와 달리 8·18·28일에 정기적인 의례를 지내기도 한다. 당신이 정한 의례의 내력이 다르지만 이와 같은 두 가지 질서가 공존하면서 당제일을 결정하는 것은 제주도의 특성이다. 제주도는 내륙처럼 벼농사가 일반화되지 않아 굳이 이러한 의례를 지내지 않아도 되지만 벼나 조와 같은 곡식을 매우 귀하게 여겨 수확의례의 전통이 강하게 전승된다. 수확의례는 수확한 것을 있는 그대로 신에게 고하는 의례가 있기도 하고, 수확을 마친 후 지내는 것을 보아 신곡천신의례인 동시에 수확감사제임을 알 수 있다.

제주도의 신만곡대제는 육지부의 수확의례 가운데 '올벼심리' 또는 '올게심리', '풋바심' 같은 의례와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다. 다만 조상에게 바치면서 위하되 이를 집안 중심의 가제로 하지 않고 마을 단위의 본향당 중심 의례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지역사례 벼농사가 있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큰

물당이나 대정읍 신도리 알당과 같은 곳에서 이 의례를 하는 전통을 환기하면 이 의례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있다.

큰물당에서는 "큰물당 할루산 섯어깨에서 무유아에서 솟아나니 그 할으방이 산방굴사로 ᄂᆞ렸수다… 강답 수답 ᄒᆞᆯ 거 웃이 다 ᄌᆞ손 가지에 분짓시켜 줘 비니 그 댓법으로 큰물당 할아버님께 ᄒᆞᆫ 해에 ᄒᆞᆫ 번씩 나록 ᄒᆞᆫ 뭇씩 이 본당에 맨 사람은 다 갖다 줍네다"라고 심방이 말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알당에서는 "알당, 돗괴기도 안먹곡 ᄆᆞᆰ고 ᄆᆞᆰ은 조상이난 ᄀᆞ실 들면 산뒤, 조, 콩들 오곡을 ᄒᆞᆫ 뭇썩 웃봉으로 걷었당 ᄀᆞ져 강 위홉네다"라고 되어 있다.

큰물당에서 하는 말이 중요하다. 당신이 생성된 내력과 단골자손이 성립된 과정을 말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 매개 과정이 강답[乾畓]과 수답(水畓)을 나누어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이 당이 바로 한 해에 한 번 나록(나락)을 수확하면 이 본당을 모시는 단골들이 시만곡대제로 위전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와 달리 알당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예시되어 있다. 돗고기(돼지고기)와 같은 것을 먹는 육식은 하지 않고 산뒤(山稻), 조, 콩 등을 수확한 후 탈곡하지 않은 채로 위한다고 하는 것이 자세하게 밝혀져 있다. 즉 첫 수확을 있는 그대로 바치는 의례를 명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제주도 무속연구(현용준, 집문당, 1986), 남국의 무속(진성기, 형설출판사, 1987), 제주도 무속(장주근,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0), 조선민속지(秋葉隆, 심우성번역, 동문선, 1993), 제주도 무속논고(진성기, 제주민속연구소, 1993),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장주근, 역락, 2001),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현용준, 집문당, 2002), 제주도 무속논고(진성기, 민속원, 2003), 우리 뿌리의 집 제주무속학사전(진성기, 제주민속학연구소, 2004), 韓國の民間信仰–論考篇(장주근, 금화사, 1973), 濟州島巫俗の硏究(현용준, 제일서방, 1985).
필자 김헌선(金憲宣)

신법(神法)

정의 무당들의 철저한 규칙과 규율.

내용 무당들의 신법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틀 위에서 협조 및 협력의 상생관계로 유지된다. 무당에 입문할 때 신굿을 해 준 큰무당을 스승으로 모시게 된다. 이때 큰무당이 남자인 경우에는 신아버지, 여자인 경우에는 신어머니라고 부른다. 신아버지 또는 신어머니는 제자 무당을 가리켜 신아들, 신딸, 신애기, 애동이, 애동제자 등으로 부른다. 스승과 제자로 맺어지는 신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내림굿을 하는 날부터 시작되어 신을 모시는 평생에 걸쳐 유지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듯 무당들의 결속 관계는 입무를 통해 신을 중심으로 맺어지는 신의 관계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는 혈연관계의 규율보다 훨씬 엄할 뿐 아니라 그들의 신법을 통해 질서와 규칙, 예의범절 등이 강하게 유지된다. 그리고 그들의 예의는 스승에 대한 효도와 성실함, 신 형제간의 우애심, 동기간의 의리와 협동심을 갖는 것을 말한다.

한편, 신법은 무업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과 실기적인 기술을 포함한 무속행위의 전반적인 굿문서를 말하기도 한다. 이때의 이론적 지식은 무속에 관한 모든 내용과 관련된 역사적 유래와 뜻을 말한다. 그리고 실기적인 기술은 기·예능적인 재주를 가리킨다. 굿문서는 본서(本書)라 하기도 하며, 불교의 영향이지만 신령님의 말씀이 곧 법이라는 뜻으로 설법(說法)이라는 용어로도 통용되고 법문(法文)이라고도 한다.

경기도 지방의 무당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마달은 무가와 재담을 뜻하지만 이 역시 굿문서에 해당되는 일종의 신법이라 할 수 있다. 충청도 지방의 법사 또는 보살이 알아야 하는 경문(經文, 또는 독경, 좌경, 앉은경) 등도 경 읽는 것만을 지칭하고 있지만 이것도 문서를 일컫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무당 문화–강신무당 전승고(양종승, 비교민속학 12, 비교민속학회, 1995), 무당 문서를 통해본 무당사회의 전통(양종승, 한국문화연구 4, 경희대 민속학연구소, 2001).
필자 양종승(梁鍾承)

신병(神病)

정의 한국의 강신무가 무당이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치는 강신체험 현상의 하나. 무병이라고도 하지만, 무당이 앓는 모든 병을 의미할 수 있어서 신병이라고 칭한다. 신병은 강신무가 영력을 지닐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원천이기도 하다.

내용 강신무가 무당이 되기 전에 이유 없이 앓는 병을 신병이라고 통칭한다. 신병의 증상과 원인은 개인이 처한 문화적 지역성과 생활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이를 유형화하기는 어렵다. 1930년대에 무라야마 지준은 신명의 빙의에 의한 현상, 신명의 계시에 의해 신물을 획득하는 현상, 신이 지펴 공창무가 되는 현상으로 분류하기도 했으나 모든 신병이 여기에 포괄되지는 않는다. 김태곤도 1960년대부터 다양한 신병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무 원인, 정신이상 돌발, 신체질환 돌발, 현몽, 충격에 의한 발생형 등으로 구분하기도 했으나 역시 신병의 한 단면을 알려줄 뿐 모든 사례를 포함하지는 못한다. 개인차가 크고 다양하여 유형화할 수 없는 것이 신병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현재까지 조사된 신병 사례를 종합할 때 몇 가지 유사점이 있다. 신병은 외적 충격에 의해 발생하기보다는 까닭 없이 우연히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이 밥을 먹지 못하고 편식증이 생겨 냉수만 마시거나, 고기류를 전혀 먹지 못하고 소화불량 증세가 나타난다. 또한 신체의 특정 부분이 아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껴 병원에 가지만 원인을 찾지 못하기도 한다. 마음이 들떠 안정할 수 없으며, 꿈이 많아지고, 꿈속에서 신과 접촉하는 성스러운 장면을 보기도 한다. 생시에도 신과 접촉하게 되어 헛것이 보이고 헛소리가 들린다. 증상이 심해지면 집을 뛰쳐나가 산야를 헤매고 다니기도 한다. 대개 신체상의 질환에서 정신상의 질환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많다.

신병은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고, 병원 치료는 역효과를 가져와 신병의 증세를 오히려 악화시킨다. 신병을 앓는 이들은 이 병이 무속적인 질환임을 알지 못하고 오랜 세월 동안 고초를 겪는다. 마침내 무속인을 만나 자신이 신병에 걸렸음을 알고 내림굿을 통해 신을 받아들이게 되면 말끔히 치료된다. 따라서 신병은 의학적인 질병이라기보다는 종교성의 상징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신병은 무속적인 입장에서 보면 신의 계시에 의한 선택의 형식이다. 무당의 길을 걸어야 할 사제를 신이 선택하고, 그 선택의 징표로 신병을 내린 것이다. 한편 신병을 앓는 이들은 가계적으로 선택된다. 집안의 조상 중에 무업에 종사했거나 신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일을 많이 한 이가 있으면 그 후손이 신병에 걸려 입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신줄이 있다'라고 한다. 신병을 앓고 강신무가 되는 것이 혈통적인 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에서 강신무의 세습적 요소가 확인된다. 과거에는 학력이 낮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신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최근에 신병을 앓는 이들에게는 학력이나 경제력이 뛰어난 이도 있어 신병이 무속을 바라보는 관점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의학에서는 신병을 다중인격의 발현으로 보기도 하고, 종교학에서는 빙의 현상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한국 무속만의 특징적인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참고문헌 한국무속연구(김태곤, 집문당, 1980).
필자 홍태한(洪泰漢)

신부리

정의 신(神)의 뿌리를 일컫는 무속용어. 부리는 조상의 영혼이나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신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만신(萬神)부리', '조상(祖上)부리'라는 용어를 무속에서는 종종 사용한다.

내용 '만신부리'나 '조상부리'는 과거에 조상 중에서 무(巫)를 한 경우, 무당을 하다 숨진 사람의 혼(魂)을 가리키는 말이다. 무당이 내리는 것은 원인이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무당의 혼이 있는 집안에서 그 혼이 내려 무당이 된다는 것이다.

"무당 집에서 무당 난다."는 말이 있다. 이 경우 만신부리라는 말이 적용된다. 무당은 느닷없이 되기보다는 조상 가운데 무당 또는 그와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있는 경우 그 '부리'를 받아서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신부리'의 '부리'는 뿌리[根]에서 온 말로 볼 수 있다.

무당은 크게 강신무(降神巫)와 세습무(世襲巫)로 나뉜다. 강신무는 신을 받은 무당을 말하며 세습무는 가계를 계승한 무당을 말한다. 강신무는 성무(成巫) 초기에 신병을 체험하여 신의 영력(靈力)을 얻어 이 영력에 의해 인간의 길흉화복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반면 세습무는 영력과 관계없이 조상 대대로 혈통에 따라 무의 사제권이 세습되어 인간의 길흉화복을 제의를 통해 신께 기원하는 사제의 기능만을 하고 있다. 곧 조상의 무업(巫業)을 혈연 중심으로 제도적인 계승[세습]을 하는 무당이 세습무이다.

이러한 세습은 신부리와는 다르다. 무속에서 세습이란 보편적으로 사제권(司祭權)의 세습을 말한다. 무당 집에서 무당이 나오는 경우는 세습무에서는 절대적이다. 그러나 세습무의 세습은 부리를 이어 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이며 제도적으로 무당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강신무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신부리는 혈연 또는 인척관계로 이어진다. 조상부리를 이어받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역시 세습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래에는 이를 각별히 영적 세습(靈的世襲)이라고 하며 신부리의 근간을 이룬다.

신부리는 아들, 딸, 손자, 손녀, 조카, 형제 등과 같이 혈연관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가까운 인척관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이어지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반드시 무당이 아니어도 조상 가운데 역학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부리가 작용한다. 그리고 신부리는 어느 특정 지역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든지 나타나는 현상이다. 신부리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강재(여, 1991년 9월 기준 50세) 씨는 경기도 포천에서 태어났으며 4남매 중 셋째다. 어머니가 아들 8형제를 낳았으나 여섯이 어려서 숨지고 오빠가 22세에 숨져 성인이 되어 남은 형제는 3녀 1남이다.

아버지는 전주(全州) 이씨(李氏) 집안의 완고한 분이었다. 이강재 씨가 첫 혼인을 하던 20세에 친정어머니가 작고하여 아버지는 재혼을 했다. 6·25 전쟁 때 돌아가신 이강재씨의 증조할머니가 신을 모신 분으로 궁(宮)에 드나들었다. 신단을 벽장에 조그마하게 차려서 늘상 조용히 빌었지만 큰만신이었다. 이처럼 '무당 내력'이 있었던 탓에 이씨의 아버지는 딸이 신을 모시는 것을 꺼렸다. 딸이 어린시절부터 아픈 것은 신병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무당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은 것이다. 49세로 사망한 전 부인(이강재 씨의 생모)도 신이 왔으나 받지 않아서 갑자기 세상을 떴다고 생각하지만 신을 받는 일은 절대로 꺼렸다. 8형제 중 여섯이 숨지고 나머지 두 아들 중 큰아들마저 성인이 되어 숨지자 점(占)을 보게 되었다. '묻는 곳'마다 신을 받지 않은 '벌전'이며 살고 있는 집도 흉가가 되었다고 했다. 이강재 씨의 부친은 세 딸을 모두 출가시키고 막내아들 하나 남은 것마저 잃을까 두려워 포천을 떠나 서울 동대문구 숭인동에 방 하나를 얻어서 이사하였다.

아버지와 새 어머니는 막내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으며, 이강재 씨 집과도 가깝지만 왕래를 하지 않을 만큼 무당이 된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강재 씨 자신은 첫 남편을 졸지에 잃고 나중에는 맏딸마저 잃는 등 신을 받지 않아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사업도 실패를 거듭하고 건강도 나빠졌다. 30세에 재혼하여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 가족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까지 부부와 1남 1녀이며, 39세에 정식으로 신을 받은 후에는 신의 거부로 남편과 4년에 걸쳐 별거를 한 적도 있다. 남편은 종종 산기도를 다니며 무속과 관련된 일을 한다.

남편의 부친인 이강재 씨의 시아버지도 신을 경험한 역학인으로 특히 부적을 잘 썼다. 시아버지가 부적을 쓰려고 붓대를 잡으면 팔에서 '삭삭삭삭'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가 나지 않으면 부적을 쓰지 않았다. 시아버지가 이러한 일을 하는 것도 모르다가 이강재 씨가 모시는 신이 알려주었으며 이씨 역시 '부적 할아버지'가 들어와서 조금씩 하고 있다.

이강재 씨의 사촌언니도 30년간 무업(巫業)을 한 큰만신이었으나 1992년에 작고하여 진오기굿을 이강재 씨가 해주었다. 이씨는 첫 남편이 세상을 떠난 데다 신까지 모시는 것이 '벌'이라 생각하여 그동안 친척도 만나지 않았었다. 사촌언니의 진오기굿을 하면서 이강재 씨가 무녀라는 사실이 친척간에 알려질 정도였다. 특히 처녀 때 만나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육촌오빠에게는 '공수'까지 내려 그동안의 병고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 심지어 친언니의 남편마저 처제가 무녀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남동생 부부는 누이가 무녀라는 것을 알았으나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다가 사촌누이의 굿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영험력을 보고 달리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막상 이강재 씨 자신은 '신을 모시고 불리는 일'을 하는 것도 벌이라며 스스로를 나무라기도 한다.

이강재 무녀의 신부리는 궁에 드나들었다는 큰 만신이었던 증조할머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친정어머니는 비록 신을 받지 않았지만 신을 체험했음에도 신을 거부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 이처럼 어머니에게 신이 왔는데 거부했다가 딸에게 가는 경우는 종종 있다. 심지어 시어머니가 거부하여 며느리에게 신이 오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강재 무녀의 경우 사촌언니도 무당이었고 재혼한 남편 쪽에도 신부리가 있었다. 게다가 시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녀에게도 부적신이 내렸다. 이씨의 신부리는 기본적으로 친정 쪽이라 할 수 있으나 시가 쪽의 신부리 역시 전혀 무관하지 않다. 곧 친가와 외가 및 시가의 신부리가 모두 작용한 셈이다.

이처럼 신부리는 후손에게 거의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무당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요소를 한껏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강재 씨의 경우 혼인 전부터 신병을 앓았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하면 일단 친정 쪽 신부리가 선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씨의 남편은 무당이 아니지만 종종 산에 수양(修養, 산기도)간다고 했다. 산에 수양(기도)가는 일은 무속인에게는 흔한 일이다. 이씨의 남편에게도 신줄이 있는데 아내가 신사(神事)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을 받지 않은 대신 산기도라는 수양으로 대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평안남도 평양 출신의 큰 무당인 고 정대복 무녀의 경우 외할머니가 큰 무당이었다.

외할머니가 집에서 크게 신당을 짓고 무신(巫神)을 모셨다. 정씨가 33세 되던 해 음력 5월 5일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15일 후인 5월 20일에 저절로 말문이 열려 "옥황상제 일월성신이다."라고 소리를 쳤다. 정씨는 이것이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자기에게로 대를 물려 내린 것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신체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도 찾아다니고 약도 썼으며, 점도 쳐 보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이 몸이 더욱 아프기만 했는데 외할머니의 대를 물려 신이 내리고 말문이 열린 후로는 차츰 아픈 증상이 덜해지기 시작하였다.

역술인 하지송 씨(남, 1992년 5월 기준 만 52세)는 함경남도 홍남시에서 출생하여 6·25 전쟁 때 월남하여 서울에서 신사(神事)를 하고 있다. 신병을 상당기간 앓았으며, 신점(神占)과 역점을 병행한다. 신을 받았지만 철학을 별도로 학습하여 신점복자(神占卜者)이며 아울러 역리점복자(易理占卜者)가 된 것이다. 하씨 역시 다른 무속인이나 신을 받은 역술인들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신을 거부하다가 무수한 고난을 겪고 신을 받아 무속인이자 역술인이 되었는데 그에게도 깊은 신부리가 있다.

반드시 무당이 아니더라도 점을 보는 등 역학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학문을 한 경우에도 '신부리'처럼 작용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난다.

신내린 과정을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집안에 어떤 내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부친 쪽으로는 큰아버지가 사주를 보던 분이었다. 신은 내리지 않았으나 육효(六爻)도 볼 줄 알았다. 아버지는 일찍이 부모를 여읜 고아가 되었는데 역시 사주보는 사촌 형님(하씨에게는 5촌 아저씨, 곧 당숙)이 데려다가 키웠다고 한다. 외가 쪽으로는 외할아버지가 신감(神感; 신가물, 신줄)이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면장을 지내고 학교 교장도 하던 유식한 분이었다. 외할머니는 무당이었는데 평상시에 무복을 만들어 놓고 진적굿을 할 때면 무당옷을 입고 춤을 추곤 했다. 전주 이씨 양반집인 탓으로 남의 눈에 보일까봐 막상 굴리지 못하고 대신에 여러 벌의 무복을 자기 몸주에 모셔 놓고서 굿판이 벌어질 때 끼어들어 풀어내곤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외할머니 쪽으로는 그 윗대에도 장구만 치고 다니던 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멀리 선대부터 신줄이 있었던 것 같다.

하지송 씨에게는 우선 친가 쪽으로는 큰아버지, 외가 쪽으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신부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큰아버지를 기준으로 하면 하지송 씨는 조카로서 신부리를 이어받은 셈이다.

같은 환경 속에서는 같은 문화가 형성될 가능성이 짙다고 보는데 이는 단순히 환경이 같아서만은 아닐 것이다. 이를테면 하지송 씨의 아버지가 사주를 보는 사촌형 슬하에서 성장하여 하씨가 그 영향을 받아 신기가 생길 수도 있었겠지만 애초 집안에 신부리가 있었다는 것 역시 크게 작용했으리라 본다.

친정에서는 무속이라는 것을 몰랐으나 시가에 와보니 신부리가 있었고 무당이 된 경우도 있다. 경남 고성에서 태어나 서울로 이주하여 신사(神事)를 하는 무녀 김임선(여, 1991년 기준 50세) 씨의 경우 혼인 후 무당이 되었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신병을 앓는 등, 신의 단련을 받았는데 신을 받지 않으려고 계속 신을 떼어내는 굿을 하여 재산을 탕진했다. 그러다가 신을 받고 모셔 놓았지만 손님을 받지는 않았다. 그 무렵 며느리인 김임선씨가 계속 신의 단련을 받았다. 결국 시어머니의 신과 합의시키는 '합의 굿'을 하여 며느리인 김임선 씨에게 신이 완전히 와서 무당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부리는 대체로 친가나 외가 쪽의 영향이 큰데 이밖에도 시어머니의 신부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역시 종종 보인다. 그러나 친가나 외가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이는 곧 혈연관계 쪽이 우세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 중에서도 어머니 쪽의 영향이 우세하다.

신을 거부하면 가족 가운데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하는 경우도 나타날 만큼 신부리는 후손에게 강하게 작용한다. 무당으로 신사(神事)를 하는 대신 수양을 하거나 다른 종교로 대체하여 '종교인'으로 활동함으로써, 무당이 되지 않는 수도 있는데 이는 드문 경우이다. 말하자면 떼어낼 수 있는 신의 경우도 있는데 대개는 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당들은 신부리를 자랑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자랑은커녕 숨기고 싶어하고 꺼린다. 그러나 일종의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

무당이 사용하던 물건을 없애버리는 것에 대하여는 각기 다른 설이 있다. 우선 무당이 쓰던 물건은 "대를 물리거나, 물려줄 사람이 없으면" 불에 태우는데 쇠붙이는 땅에 묻는다는 것이다. 땅에 묻은 이런 무구들이 노출되어 산골짜기를 헤매고 다니는 강신체험자들에게 발견될 수도 있다. 반드시 눈에 띄지 않더라도 현몽을 하는 경우도 있다. 무당이 신비체험을 하고 성물을 습득하는 체험은 범속한 인간이 신권자(神權者)인 무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무구를 찾아내는 것을 구애비[鬼業]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신부리를 꺼려 무당이 쓰던 물건을 없애는 경우도 있다. 즉 "무당은 무당부리에서 나온다고 하는 강신무들은 후손으로 무당의 대가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이 사용하였던 무구(巫具)를 땅에 묻거나 불태워버리는 관습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무구는 신이 내릴 예비무당이 현몽으로 찾아내기 때문에 무업의 종결은 무업의 시작을 뜻하기도 한다. 곧 무구를 찾아내면 새로운 무당이 탄생한다는 사실이다.

신부리는 인척관계보다 혈연관계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부계 쪽보다는 모계 쪽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을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무속을 여성종교로 고착화하는 것은 상당히 도식화되고 경직된 논의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논의대로라면 모계 쪽이 강한 요인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혹 남성과 여성의 역할분담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남성 중심의 가부장 사회에서 종교와 관련된 일은 여성이 중심이 되고 이는 신부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해 보는 것이다. 신부리는 인간심성을 지배하는 신 관념과 관련시켜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남성보다 여성 쪽이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무속과 같은 맥락에 있는 가신신앙이 대체로 여성 중심의 신앙이라는 점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무속연구(김태곤, 집문당, 1981), 서울민속대관 2-서울무속편(서울특별시 편, 1992), 무속과 영의 세계(김태곤, 한울, 1993), 한국의 점복(김태곤 외, 민속원, 1995), 무당의 신병과 신들림(양종승, 한국무속학 2, 한국무속학회, 2000), 무당과 신부리(김명자, 한국무속학 5, 한국무속학회, 2002).

필자 김명자(金明子)

신석남

분야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 기능보유자.

내용 신석남(申石南, 申돌내미)은 1930년에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 때부터 무업을 이어받은 세습무 집안에서 어른들이 굿을 하며 돌아다니면서 신석남은 유년시절을 굿판에서 많이 보냈다. 신석남은 부모가 경북 울진군 죽변 봉개마을에 굿을 하러 갔다가 뒷간에서 태를 갈랐다고 한다. 이런 연유로 어릴 때 이름이 분례(똥례)로 불리면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 신석남은 16세 때 경주 권번에 들어가 소리와 무용 등 민속예능을 배웠다. 이때 권번에서 박동진에게 단가(短歌)를 배우기도 했다. 17세에 김용출을 만나 혼인하였다. 미혼 때부터 익히 들어왔던 굿은 시어머니 김운화와 시숙모 이영파를 만나 더욱 발전하였다. 그녀는 남편인 김용출과 1964년에 사별하고, 1975년에 김창수와 잠시 무업을 함께 하기도 했다. 신석남은 무업 능력이 뛰어나 1990년 5월 8일 강릉단오굿 예능보유자로 인정받았고 1992년 10월 3일에 사망하였다. 2009년 현재에는 둘째 며느리인 빈순애가 예능보유자로 2000년 7월 22일 인정받았다.

신석남은 강릉단오제의 전 기예능보유자 박용녀 무녀와는 동서지간이며, 동해안별신굿의 기예능보유자였던 김석출은 그의 남편 김용출과 사촌간이다. 김용출은 뱃일을 하다가 부친의 권유로 무업에 나서게 되면서 신석남을 만났다. 김용출과 신석남은 강원 삼척 근덕과 강릉에서 주로 거주하면서 강원도를 비롯한 동해안 일대의 굿을 맡았다.

김용출 · 신석남 부부는 슬하에 김명철 · 김명익 · 김순희 · 김명광 · 김명대 등 4남 1녀를 두었다. 자녀들 중 김명철 · 김명익 · 김순희는 무업을 했으나 모두 사망하였고, 김명익과 결혼한 빈순애와 김명광, 김명대, 김명대의 전처 이순덕이 강원도를 배경으로 현재까지 무업을 하고 있다. 그들의 후손 중에 무업을 하는 사람으로 빈순애의 딸인 김은영이 있고, 김순희의 아들 박현수는 무업을 하였으나 지금은 그만두었다.



그녀의 남동생인 신동해는 무업을 하지 않고 일반인과 혼인하여 살다가 서른 중반부터 무업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사씨(史氏) 무가계의 사화선과 짝을 이루어 굿을 하기도 했다.

강릉단오제는 음력 4월 15일 대관령국사서낭당에서 서낭을 모시고 하산하는 데서부터 무녀들이 주역으로 등장하며, 여서낭당에 합사한 뒤에도 굿을 한다. 단오 4, 5일 전에 여서낭당에서 굿을 하고 서낭 내외를 굿당으로 옮긴 뒤 단오날까지 매일 굿이 연속되기 때문에 많은 무녀가 동원되고, 악사들도 굿거리에 따라 교대로 반주를 한다. 신석남은 단오굿 12거리를 모두 잘했으며, 특히 사설이 가장 길고 원숙한 무녀만이 연행할 수 있다는 '심청굿'을 잘했다. 또 동해안지역의 사령굿인 오구굿 중에서 '초망자굿'을 잘하여 관객을 울리고 웃기는데 능했다. 차분한 성격에 단정한 용모를 갖춘 그는 무가를 잘 암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춤을 잘 추었다. 특히 등을 약간 굽힌 자세로 추는 춤은 일품이었다.

한편 1967년 1월 16일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강릉단오제는 문화적 독창성과 뛰어난 예술성을 인정받아 2005년 11월 24일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으로 선정되었다.

참고문헌 강릉단오제(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우리 무당 이야기(황루시, 풀빛, 2000), 동해안 굿의 전승과 변화(윤동환,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필자 이균옥(李均玉)

신석봉

분야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호로 앉은굿[안택굿 · 미친굿] 예능보유자.

내용 신석봉(남)은 1936년(호적상에는 1937년생으로 등재됨)에 대전시 문창2동 339번지에서 출생하였다. 1951년에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 이듬해에 식장산 구절에서 입산수도하기 시작하였다. 2년 동안 주경야독으로 불경(佛經) 해독에 매진하였다. 이때 불경을 외는 목청이 좋아 사찰의 신도들로부터 인기가 높았다. 18세에 하산하여, 구춘근, 고기선, 김수복 등 고로 법사들로부터 문서(文書) · 청(淸) · 고장(鼓杖) 등을 전수받았다. 입산수도의 경험으로 불법(佛法)과 문서는 능통하였으나 한국전쟁 중에 끊어진 손마디 때문에 고장의 전수에 어려움이 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은 노력으로 신체적 결함을 극복하였다.

19세에 홍신철 법사로부터 신내림을 받고 본격적으로 입무(入巫)하였다. 1959년 경신회에 가입하였고, 1985년 경신회 도지회장에 당선되었다. 1994년 6월 7일 '대전 앉은굿'이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면서 앉은굿[안택굿 · 미친굿]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현재 대전 경신회 고문 및 대전 · 충청 앉은굿 보존회 회장으로 있다.

참고문헌 무형문화재 신석봉의 지정보유 자료집(대전 충청도 전통 앉은굿 보존회 편, 2005), 충남의 앉은굿 무가(박혜정,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8).
필자 안상경(安相敬)

신위행

정의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34호 봉화산도당굿의 당주 무녀의 예능보유자.

내용 신위행(여)은 1938년에 경상북도 영덕에서 출생했다. 경북 영덕에서 6남매 중 맏이로 태어나 8~9세 때부터 신이 온 듯했다. 그러나 잘 몰라서 그냥 두었고 느낌이 예민했다. 버스 안에서 누가 와서 부딪치면 '저 사람이 무슨 맘으로 부딪쳤는가'를 알 정도였다.

여자 아이는 공부하면 안 된다는 전통적 관습에 따라 당시에 국민학교만 나오고, 집에서 소설책을 많이 읽은 독자적인 체험을 했다. 신위행은 청하에 사는 세 살 위의 남편과 혼인했다. 신위행의 남편은 1남 4녀 가운데 외아들이다.

남편의 누나가 신위행의 친척 언니와 아는 사이여서 결혼 말이 오고갔다. 신위행은 시집을 가지 않으려고 했으나 신위행의 아버지가 총각 선만 보고 나서 양가 부모간에 날을 받아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후 1년간 친정에 있다가 그 이듬해 시댁으로 신행을 갔다.

신위행의 남편은 카투사 출신으로 결혼 후 7개월 만에 제대하고 부산 항만사령부 군수과에 근무했다. 남편이 인천으로 전근되어 22살이 되는 해 정월 7일에 서울로 올라왔다.

신위행은 결혼한 지 사흘 만에 까무러치기도 하는 신병의 현상이 그치지 않다가 마침내 신이 와서 여러 일이 있었다. 시아버지는 호랑이 굴속에서 솔잎을 먹고 기도하던 분이었다고 한다. 이런 연유료 시아버지는 경문 책도 가지고 있었고, 장군이나 대왕 등을 모시기도 했다. 그러나 나중에 부끄러움을 느껴 이것들을 모두 불태웠다. 이런 가운데 남편이 미군 부대에 있으면서 사업을 한다며 재산을 많이 없앴다.

신위행은 22살 12월 15일에 큰아들, 25살 12월 13일 둘째아들, 29살에 막내아들을 각각 낳았다. 아들은 모두 출가했고, 큰손자가 20살로 모두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무난하게 자식들의 다복함과 다르게 신의 벌전은 그치지 않고 이어져서 고난한 삶이 그치지 않았다.

신위행이 27살 때부터 혼잣말로 '지껄이기' 시작했다. 그전에 이미 집안 가세가 기울었으며, 자꾸만 기이한 꿈을 연속해서 꾸었다.

29살에 산에 올라가서 물을 떠다 놓고 푸함을 하고 영험한 소리를 지껄이고, 33살 때부터 돈을 받고 일했다. 우연한 소재로 만난 면목동 방씨 무녀와 신어머니 · 신딸 관계를 맺었다. 막내 신딸을 찾던 신어머니는 신위행을 보자마자 반갑게 맞았다. 신위행은 '전안기자'로 청송도 잘 안 다닌다. 편안하고 아는 사람들이 조상을 놀아 달라고 하면 가끔 가는 정도이며 그래서 청송만신들처럼 돌아다니고 재주를 배우는 것이 없다. 굿하는 것은 신어머니에게 별도로 배우지 않고 일하면서 자연스레 익힌 것으로 보이는 신위행은 담터 당주였던 이씨 어머니에게서도 배운 것이 없이 그냥 함께 일을 다녔다.

신위행은 봉화산도당굿의 전승계보와 학습계보라는 이중적 계보 속에 위치한다. 그러나 이전에 원만한 인품의 소유자 강기순 사제무가 미국으로 이민감으로써 현재의 보유자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참고문헌 봉화산도당굿(하효길 외, 중랑문화원, 2001).
필자 김헌선(金憲宣)

신장대

정의 주로 충청도 지역의 법사들이 사용하는 신간(神竿)의 일종으로, 신이 강신하는 무구이면서 신과 접신(接神)하는 도구이다.

형태 신장대는 나무에 종이 술을 풍성하게 달아 만든다. 평상시에 신당의 신단 위 쌀이 담긴 양푼에 놓아두었다가 법사가 경문을 읽으면서 의례를 진행할 때 사용한다. 보통 50~60㎝ 높이로 만드는데, 강원 일부 지역에서도 사용한다.

충청도의 경우 주로 대나무에 하얀 한지를 여러 가닥 길게 오려 몸통 부분에 붙이고 그 위에 하얀 한지를 가늘게 잘라서 부슬부슬하게 붙인다. 신장대는 머리, 갑옷, 치마 혹은 머리, 몸통, 다리로 구분하는데 각각 가장 윗부분, 술이 길게 내려진 부분, 손잡이를 가리킨다. 이렇게 만든 신장대는 흡사 청소도구인 먼지떨이와 유사하다. 강원 일부 지역의 신장대는 충청도의 신장대보다 키가 조금 작고, 참나무 · 물푸레나무 등을 사용하며 부슬부슬한 머리 부분이 없고, 가늘게 자른 한지도



더 적게 붙여 부피 면에서도 차이가 난다.

내용 신간은 신장대, 성주대, 시왕대, 서낭대, 손대, 신장대 등 다양하게 있으며 그 길이에 따라 장간(長竿)과 단간(短竿)으로 나누기도 한다. 장간은 사람의 키보다 큰 신간으로, 성주대는 굿이 행해지는 경우에 마당에 세워두는 신간이다. 시왕대는 제주도에서 망자천도굿인 시왕굿을 할 때 세워두는 신간이고, 서낭대는 마을의 수호신이 내리는 신간으로 그 자체가 서낭신이 좌정하는 신체(神體)로 상징된다. 단간인 손대는 망자의 식구들이 망자의 혼이 내리기를 바라며 잡는 신간이며, 손대와 더불어 단간에 속하는 신장대는 특히 충남 지역의 무속의례에서는 가장 중요한 무구로 접신(接神)의 도구이다. 신장은 신령을 일컬으며 신장대가 떨리면 신장님이 내리는 것으로 상징되는데, 무당은 의례의 마지막에 신장대를 잡고 신장을 불러 신수를 묻거나, 잡신을 혼내고 쫓거나 가두는 기능을 한다. 병굿을 하거나 재수굿을 하거나 무당은 언제나 신장대를 통해서 신을 통역하는 모든 역할을 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대는 무속의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무구(巫具)라 할 수 있다.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것, 모든 수비들과 동토 · 동역들을 물리치는 것이 이 신장대이다.

신간은 몸에 신이 내리지 않는 세습무계에서 신을 맞아들이는 유일한 무구이기 때문에 세습무계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적인 무구라고 할 수 있

다. 신장대는 특히 주로 충청 지역의 경문을 읽는 법사들이 사용하며 형태와 기능적인 면에서 다른 지역의 신간과 차이가 난다. 한편 풍물굿에서는 영기(令旗)·농기(農旗)와 같은 깃발이 위엄과 신성성을 지니는데 그 기능과 의미에서 무속에서 사용하는 신간과의 비교논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조선무속의 연구(赤松智城 · 秋葉隆 共著, 심우성 옮김, 동문선, 1991),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14-무의식편(문화재관리국, 1983),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서울시 · 경기도 · 강원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충청도(국립문화재연구소, 민속원, 2005), 무의식에 사용되는 무구 연구(최진아, 국립민속국악원, 민속악 논문집 7집, 2007),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전라남도 · 전라북도 · 제주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필자 시지은(施知恩)

신장위목(神將位目)

정의 천존(天尊)의 명령을 받아 귀신을 통제 · 제압 · 축출 · 조정하는 12위(位) 혹은 48위 신장(神將)의 명단을 종이에 쓴 위목(位目).

형태 한지를 장방형으로 길게 자른다. 이를 신장의 숫자만큼 마련하고, 여기에 경명주사[경면주사(鏡面朱沙)]로 신장의 이름을 각각 적는다. 위목의 윗부분은 실로 꿸 수 있도록 한 가운데에 구멍을 낸다. 아랫부분은 반원형으로 잘라서 모양을 낸다. 제작하는 법사에 따라 신장 위목에 모양을 내지 않고 반듯한 직사각형 종이에 글씨만 써넣기도 한다. 신장 위목은 법사가 환자 치료를 위한 병경 등을 비롯하여 각종 앉은굿을 할 때에 경상(經床) 정면에 설치한다.

내용 신장은 장수(將帥)의 격(格)을 가진 신령으로서 천존의 명령을 받아서 인간에게 악영향을 주는 귀신이나 동토 등을 제압한다. 신장은 그 휘하(麾下)에 수많은 신병(神兵)을 거느린다. 법사는 경문(經文)을 구송(口誦)하여 천존이 신장에게 명령을 내려 각종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천존은 도교(道敎)에서 가장 존귀한 천신(天神)에 대하여 일컫는 호칭이다. 삼청(三淸)과 같이 원시천존(元始天尊), 영보천존(靈寶天尊), 도덕천존(道德天尊)이라고 칭한다.

신장 위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사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대체로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신장(九天應元雷聲寶化天尊神將), 대성북두칠원성군(大聖北斗七元星君), 소거백마대장군(素車白馬大將軍) 등 도교 계통의 신들을 비롯해서 산왕대신(山王大神), 용왕(龍王), 오방신장(五方神將)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법사들이 그들의 신당에 일반적으로 모시고 있는 신령이다. 특히 환자 치료를 위한 병경을 하게 되면 신장위목을 보호하기 위해 신장위목 앞에는 잡귀가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도록 대철망이 처진다.

참고문헌 도교사상사전(김승동,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6),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충청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충청지역의 종이무구(임승범, 한국무속학 13, 한국무속학회, 2006).
필자 이필영(李弼泳)

신청궤춤

정의 제주도굿 초감제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을 심방이 감상관의 자격으로 오리 밖까지 마중 나가 모셔오는 춤.

내용 초감제에서 군문열림으로 하늘의 문이 열려 신들이 하늘에서 하강하면 오리 밖까지 마중 나가 신들을 안내하여 모시고 데려오는 과정을 '오리정신청궤'라 한다. '오리 밖까지 나가서 신을 청해 들이는 과정'이란 의미의 '오리정 신청궤'를 줄인 것이 '신청궤'이다. 전체적인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수심방이 신칼과 쌀이 담긴 그릇을 양손에 나눠 들고 사방에 뿌리면서 가면 그 뒤로 수심방의 안내를 받으며 일만팔천 신들이 따라 들어온다. 심방이 입구 쪽으로 가서 요령을 흔들다가 신칼로 쌀을 몇 차례 뿌리고 나서 다시 제상 앞으로 와 춤을 추고 똑같이 쌀을 뿌린다. 이런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한다. 이는 신을 청해 들이는 행위이다. 신청궤춤은 심방이 신칼과 요령을 들고 제상 앞

1. 심방이 신칼로 쌀그릇의 쌀을 떠서 뿌리며 추는 쌀춤
제주시 건입동 사라봉 | 2009.3.10 | 문무병

2. 쌀그릇을 소무에게 잠시 맡기고 신들의 자리를 고루는 신칼춤
제주시 건입동 사라봉 | 2009.3.10 | 문무병

3. 심방이 신자리 위에서 감상기를 들고 돌면서 추는 신청궤도랑춤
제주시 외동1동
김희숙무용학원 | 2002.12.15 | 문무병


1


2


3

신자리에 서서 "높고 높은 옥황상제 이하 하늘의 신들이 저기 정낭 앞에서 부르면 들어오려, 외치면 들어올까 하고 있으니, 일년 먹고 천년 살 금강머들설옥미 쌀 들어 받들고 오리정 신청궤~"하고 외치고, 신칼과 감상기를 들고 신자리 안을 돌면서 춤을 춘다. 그 다음에는 옆을 따르는 소무(小巫)로부터 쌀이 든 그릇을 받아 신칼로 쌀을 떠 사방에 뿌리며 춤을 춘다. 이때 감상기를 들고 추는 춤을 감상기춤이라 하며, 쌀을 뿌리며 추는 춤을 쌀춤이라 한다. 이어서 심방은 신칼을 잡고 신칼채를 돌리며 신자리 위에서 돌면서 춤을 추다가 자리에 앉아 신칼점을 여러 번 반복하여 쳐서 신이 오는 길을 점친다. 신칼을 들고 일어나서 다시 문 앞 대령상 있는 데로 가서 소무로부터 쌀이 든 그릇을 넘겨받아 신칼로 쌀을 떠 뿌리며 쌀춤을 춘다.

특히 시왕맞이의 신청궤에서는 영기 · 명기춤을 춘다. 심방은 "대시왕연맞이로 … 높고 높은 옥황상제 저승 십이대왕 대명왕 차사 삼명감 내려서 십육사제 삼명감 삼차사 관장님들 저먼정 부르면 들자 외치면 들자한다. 대령상 내어다 제인정 거니 청금저국이 근당한다. 영기랑 명기에 비준하자, 명기랑 영기에 비준하여 영기명기 둘러받아 오리정 신청궤로…"라는 사설을 한 뒤 대령상 앞에 가서 소무가 건네준 영기와 명기를 든다. 소무는 감상기와 쌀그릇을 들고 나란히 서서 사방에 쌀을 뿌리고, 심방은 기를 끌며 뒷걸음으로 신을 모셔 들이는 춤을 춘다. 다음으로 심방은 입었던 관복을 들고 "신의 형방 성은 ㅇㅇ씨 ㅇㅇ생, 홍포관대 조심끈 벗어다가 시왕상 위치에 올려…"라는 사설을 하며 관복을 벗어 놀리며 춤을 춘다. 이를 홍포관대 놀림이라 한다. 신청궤의 마지막에 신들이 좌정할 위치를 정하고 좌석을 마련해 주는 쌀춤인 정대우춤을 춘다. 이는 청해 들인 신들을 다른 신들이 제장에 도착하기 전에 임시 대기시키기 위해 '좌 고르고 우 고르는' 과정이다. '좌 고르고 우 고르는' 것은 청해 들인 신들을 지위와 계급에 맞게 좌정시키기 위함이다. 이처럼 신들의 자리를 배정하여 앉히는 과정을 정대우라 한다.

참고문헌 제주도 무속신화(문무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한국의 굿(문무병 외, 민속원, 2002), 제주도의 굿춤(문무병, 각, 2005), 바람의 축제 칠머리당영등굿(문무병, 황금알, 2005), 굿의 기메 · 전지(문무병, 제주특별자치도, 2008).
필자 문무병(文武秉)

신청울림

정의 무당이 본격적인 굿을 시작하기에 앞서 신청(神廳) 혹은 굿당을 정화하기 위해 악기를 울리는 제차. 악기를 울려서 신청을 정화하기 때문에 신청울림이라고 한다. 신청울림은 신청의 부정(不淨)을 가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거리 혹은

부정굿이라고도 한다. 또한 굿판의 잡귀잡신인 주당(뒷간을 지키는 신을 주당이라고도 함)을 물리기 위한 것이어서 주당물림이라고도 한다.

내용 신청울림을 하게 되면 악사는 장구, 징 등 악기를 소란스럽게 쳐서 음악소리로 잡귀잡신을 쫓아내며, 무당은 신청을 정화하는 노래를 나직하게 부른다. 이때 장구와 징은 특별한 장단을 연주하지 않고 장구를 '덩 쿵 덩덕'으로 치고 이에 맞추어 징을 친다. 이밖에 제금을 장구와 징에 맞추어 연주하기도 한다.

신청울림을 하는 동안에는 '지붕 아래' 있는 사람, 즉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부정을 탄다고 믿기 때문에 신청울림을 하는 동안에 무당과 악사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대문 밖에 나가 있어야 한다. 집 안에 중병에 걸려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무당은 병자의 머리에 흰 버선을 올려놓아 부정한 기운이 옮아가지 못하도록 예방해야 한다.

서울 당굿에서는 당을 보호하는 억사별 군웅신의 홍철릭을 굿당에 걸어놓고, 굿당을 정결하게 한 후에 주당살을 물리고 신을 부르는 의미에서 장구와 제금을 친다. 장단은 굿거리장단으로 시작해 빠르게 몰아 당악장단으로 끝을 맺는다. 규모가 작은 재수굿에서는 장구만 떵떵 울려 주당살을 물린 다음 앉은 자리에서 부정 가망청배로 넘어가기도 한다.

참고문헌 황해도 굿의 음악인류학(이용식, 집문당, 2005), 한국음악의 뿌리(팔도 굿음악, 이용식,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9).
필자 이용식(李庸植)

신칼

정의 무당이 굿을 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무구.

내용 신칼은 다양한 형태와 명칭 및 기능이 있다. 큰 것과 작은 것, 자루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직선형과 곡선형, 칼목이 부러진 고리형과 고정형, 쇠칼과 나무칼 등 지역과 무당에 따라서 종류와 형태가 다르다. 재료는 쇠, 스테인리스, 신주에 스테인리스도금, 알루미늄, 단동나무 등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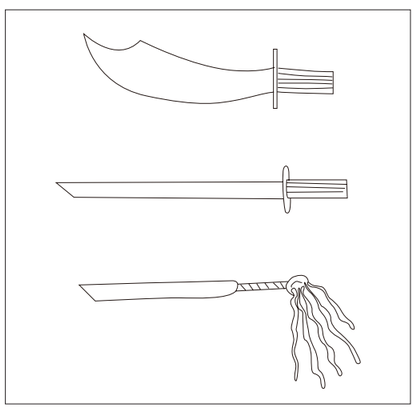
신칼의 명칭은 칼의 모양과 칼의 신성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뉜다. 전자는 월도, 언월도, 칼, 무칼, 신칼, 신명도이고, 후자는 대신칼, 대무신칼, 부정칼, 신장칼, 칠성칼, 입칼(입에 무는 칼), 장군칼, 군웅칼, 별상칼 등이다.

월도와 언월도(偃月刀)는 생긴 모양이 반달이나 초승달 같아서 '언(偃)'자를 사용하여 붙여진 명칭이고, 무칼은 무당이 사용하는 칼이라는 뜻이다. 신장칼, 칠성칼, 장군칼, 별상칼 등은 각각 해당 신들을 상징하는 의미를 지닌 칼이다. 대신칼, 대무신칼은 무당의 칼이라는 의미이며 진오귀에서 도령을 놀 때 주로 사용한다. 부정칼은 굿을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칼을 던져 신의 나감의 여부 혹은 악신의 내쫓음 여부 등을 점친다. 입칼은 굿을 할 때 입에 무는 칼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의정부시 최옥순의 경우는 칼날과 손잡이 길이가 각각 12.5㎝, 7.5㎝, 폭이 1㎝의 것으로 붉은색과 푸른색의 수술이 달려있다.

칼의 크기와 길이 역시 경우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칼날과 자루를 합한 길이가 30~40㎝의 것에서 1.5m 길이의 범위에 든다.

신칼은 대체로 대신칼, 칠성칼, 신장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세 종류의 칼은 지역에 따라 위의 각 명칭으로 불린다.

위에서부터 신장칼, 칠성칼, 대신칼



신장칼은 총 길이 75㎝의 것에서 1.5M에 이르는 것까지 다양하다. 75㎝의 경우 칼날과 손잡이가 각각 46㎝, 29㎝ 정도이다. 이 칼은 장군칼, 별상칼, 군웅칼 등으로 불리기도 하며 사실을 세울 때 주로 사용한다. 생긴 모양에 따라 월도 혹은 언월도라고 부른다.

칠성칼은 총길이 66.5㎝, 칼날 길이 44.5㎝, 칼날 폭 3㎝, 손잡이는 목재로 되어있고 12㎝ 길이이며 쌍으로 소장하고 있다.

대신칼은 칼과 손잡이가 모두 쇠로 만들어졌다. 칼의 총 길이는 대체로 30㎝이다. 칼날과 손잡이는 각각 20㎝, 10㎝ 정도이다. 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손잡이에는 한지를 말아 수술을 달아놓았는데 길이는 약 35㎝ 정도이다. 이를 신밥, 신수술, 신칼줄 등으로 부른다.

신칼은 그 종류와 쓰임새가 매우 다양하나 대체로 무당과 제신들의 위엄을 상징하며, 동시에 각 신을 상징하기도 한다. 또 액을 제거하고 복을 불러들이며 그 자체로 신을 의미한다. 사슬을 세울 때 삼지창과 함께 신장칼을 사용하는 것은 신의 신성성이 칼에 깃들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 밖에 춤을 추는 도구, 점을 치는 도구 등으로도 사용된다.



1. 장군칼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길이 45㎝ | 광복이후

2. 칠성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길이 57㎝, 지름 3㎝, 날폭 3.5㎝ | 1950년대

3. 대신칼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위) 길이 31.5㎝, 폭 2.7㎝, 술 23㎝, (아래) 길이 31.5㎝, 폭 2.2㎝, 술 20㎝ | 조선시대

참고문헌 한국무속연구(김태곤, 집문당, 198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4(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무속의 물질문화연구(최진아,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9).
필자 이정재(李丁宰)

신태집

정의 굿을 받기 위하여 청해진 망자의 혼이 임시적으로 거처하는 공간이라고 인식되는 무구. 전라남도 씻김굿, 남해안 오귀새남굿, 동해안 오구굿에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형태 신태집의 형태는 전라남도, 남해안, 동해안 지역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기본적으로 소쿠리 양쪽에 댓가지로 기둥을 세우고, 한지로 집의 모양처럼 감싼 뒤 종이를 이용해서 장식한다. 지역에 따라 장식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형태는 세 지역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소쿠리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흔한 플라스틱 바구니를 이용한다. 전라남도에서는 1980년대 이후 차차 씻김굿에서 신태집을 만들지 않고 있다.

전라남도에서는 넋당석의 기둥 부분에 국수발 또는 귀걸이 지전이라는 장식을 단다. 귀걸이 지전은 전라도 지전을 축소한 형태이다. 그리고 한지의 외벽에 불교의 보살을 의미하는 문양을 만들어 바탕이 되는 한지에 덧댄다. 순천과 남해안에서는 팔보살이라고 하여 앞뒤로 각 네 개의 보살 문양을 만들어단다. 진도 채정례의 넋당석은 외면적으로 두 개씩 총 네 개의 문양이 있고, 이를 필보살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동해안에서는 외벽에 보살을 오리지 않고 벽지처럼 문양으로 꾸민 색지를 덮는다. 기둥 양쪽으로는 남해안과 같은 종이 장식물을 달고 지화로 장식한다.





1. 초망자굿에서 김영숙 무녀가 신태집을 놀림
경북 영덕군 영해면 대진해수욕장 | 2006.10.11 | 김형근

2. 남해안 신태집
경남 통영시 정량동 남해안별신굿 보존회관 | 2006.9.16 | 김형근

3. 동해안 신태집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일광해수욕장 | 2005.10.1 | 김형근

내용 전라남도에서는 넋당석, 신광주리, 용선이라 부르고, 남해안과 동해안에서 신광주리 또는 신태집이라 부른다. 한편 전라남도에서는 넋당석을 반야용선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남해안과 동해안에서는 신태집과 용선을 구분한다. 신태집은 집 모양의 작은 상자라고 인식하고, 용선은 정말 배처럼 크고 용머리를 달아 만들어 엄격히 구분한다.

전라남도의 넋당석은 굿을 하는 동안 망자상의 앞에 놓인 채, 망자의 영혼이 머무는 곳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넋당석의 주요 쓰임은 넋올리기와 길닦기라는 제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넋올리기에서 넋당석은 망자의 넋이 위치해야 할 공간으로, 길닦기에서는 망자가 저승으로 타고 이동하는 용선으로 그 의미가 이중적이다. 이 외에도 순천의 박경자 무녀는 혼맞이, 초가망석, 오구굿 등에 이를 이용하고, 진도 채정례는 손님굿에 이용한다.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에서는 용선이라는 무구가 따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의례에 쓰이기 때문에 신태집은 공간으로서의 의미로만 쓰인다고 볼 수 있다. 남해안의 신태집은 넋을 청하는 단계에서부터 존재하여 굿을 하는 공간이 마을 당산, 집의 방안, 집의 마당으로 바뀔 때마다 항상 함께 이동한다. 신태집을 주되게 사용하는 의례는 전라남도 지역과 마찬가지로 길닦음 때이다. 흰 무명의 길베 위에 신태집을 올려놓고 좌우로 쓸어준다. 영혼이 길을 떠나는 모습을 형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마치 고르지 못한 땅을 신태집의 바닥을 이용하여 고르게 하는 행위로 보인다.

동해안의 신태집도 길닦기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이면에, 굿거리에서 거듭 무녀가 신태집을 들고 춤을 춘다. 이런 양상은 망자가 주체가 되는 초망자굿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신태집을 들고 춤을 춘다는 행위는 영혼을 위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 신태집을 들고 가족들의 머리 위에 흔들어주는 행위를 한다. 이런 행위는 망자와 가족과의 만남이라 고 해석될 수 있다.

전라남도, 남해안, 동해안 지역에서는 저승의 존재인 망자가 잠시 굿을 받기 위하여 이승에 왔을 때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신태집이라는 무구를 사용한다. 전라남도는 이동수단에 해당하는 무구가 독자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아 신태집은 공간이면서 이동수단으로도 기능한다.

참고문헌 한국무속의 연구(최길성, 아세아문화사, 1978),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전라남도 · 전라북도 · 제주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호남의 곽머리씻김굿(나경수 외, 민속원, 2009), 진도 씻김굿의 물질문화 연구(최진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99), 동해안 오귀굿 구조의 현장론적 연구(김형근,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남해안굿 갈래 연구(김형근,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필자 김형근(金亨根)

심방[神房]

정의 무격(巫覡)을 제주도에서 통칭하여 부르는 말. 제주도에서는 무속적 사제를 통칭하는 무당이라는 말 대신에 심방이라고 부른다. 심방을 좀 더 좁혀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제주도의 어떤 굿이라도 제법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를 일컫는다.

내용 심방이란 말의 어원은 확실치 않지만 한자어에서 온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심방이 부르는 무가에 심방을 '신의 성방' 또는 '신의 아이'라 일컫는 대목이 있다. 여기서 신의 성방은 '신(神)의 형방(刑房)'이 구개음화한 것이고, 신의 아이란 신의 심부름을 하는 아이라는 뜻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현용준은 심방이 신의 형방이 축약된 말인 신방(神房)이 자음역행동화하여 된 말로 추론한다.

진성기는 심방의 어원을 제주도 고유어에서 찾는다. 심방에서 '심'은 '잡다'라는 의미인 제주도 사투리 '심다'에서 온 것이며, '방'은 제주도 고유의 존칭대명사라는 것이다. 심방은 '신령을 붙잡은 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또 심방을 한자어로 '尋房'이라 쓰는데, 이는 본래의 의미에 '신령을 만나는 이' 또는 '신령을 찾는 이'라는 의미가 복합된 것임을 말하는 것이라 고 주장한다.

제주도의 무속 사제를 일컫는 심방에는 남녀가 따로 없다. 이들을 통칭하여 보통 심방이라 부르지만, 굳이 구분하여 남자는 소나이심방, 여자는 예심방이라고 부른다.

제주도에서는 무속적 사제의 소질이나 경력, 굿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이를 심방이라 부르기도 한다. 심방의 의미를 좀 더 좁혀서 사용하는 경우 아직 심방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일부 쉬운 굿이나 간단한 축원 제의인 비념 정도만을 할 수 있는 무속 사제를 소미라 구별해서 부른다. 아직 그 기능이 일천한 무당이 곧 소미이다. 소미는 굿을 할 때 보통 징, 설쇄, 북 등의 악기를 친다.

심방 중에서 굿의 집행을 의뢰받아 다른 심방들을 거느리고 가서 굿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심방을 수심방이라고 한다. 그리고 굿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심방 중에서도 특히 뛰어난 심방을 큰심방이라 부른다. 큰심방은 제주도의 어떤 굿이라도 능히 해낼 수 있는 뛰어난 기능을 하는 심방이다. 큰심방에 조응하여 보통의 기능을 보유한 심방은 족은심방이라 구별하여 부르기도 한다.

심방과 관련된 명칭으로 당맨심방도 있다. 말 그대로 당에 매인 혹은 매달린 심방을 말한다. 제주도 마을신앙의 핵심인 본향당의 책임을 맡은 심방이 당맨심방이다. 당맨심방은 자신이 맡은 마을 당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지며, 특히 단골들의 신앙생활을 돌보는 역할을 한다.

제주도에서는 무속적 사제를 통칭하여 심방이라 한다.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심방이라 고 부르는 경우는 없다. 제주도만의 특수한 명칭이다. 심방은 명칭뿐 아니라 입무 과정, 신관, 제의 형식, 개인적 신당의 유무 등에서도 육지 무와는 다른 독특함을 보인다. 육지 무의 '신 내린 무당'(강신무)과 '대 이은 무당'(세습무)의 분류체계로는 설명되지 않는 독특함이 있다. 흔히 제주도의 심방을 '대 이은 무당형(세습무형)'에 포함하지만, 영력을 중시하고 신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여 구체적인 신관이 정립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별나다.

참고문헌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한국무속연구(김태곤, 집문당, 1981), 한국의 굿(하효길 외, 민속원, 2002), 제주무속학사전(진성기, 도서출판 디딤돌, 2004).
필자 허용호(許龍鎬)

심방백중제

정의 백중을 맞이하여 심방들이 단골들로부터 곡식을 받아 올리는 제의. 심방이 백중에 벌이는 제의라는 뜻에서 비롯됐다.

역사 고대장본풀이에 따르면 고대장은 이형상(李衡祥, 1653~1733) 목사와 동시대의 인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형상 목사가 제주목에 부임한 것이 조선조 숙종 28년(1702)이니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방백중제의 역사는 18세기 초 이상을 거슬러 오르지 못할 것이다. 다른 근거는 없으나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다만 고대장이 굿을 하여 가뭄을 그치게 하자 농부들이 기뻐하며 조를 파종하러 나섰는데, 이때부터 백중사리가 당하면 심방들이 백중마량이라고 하여 곡식을 받아다 제의를 하는 법이 생겼다고 한다.

내용 심방백중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분명하게 알기 어렵다. 고대장본풀이의 관련 대목은 다음과 같다.

> "……멧시간 아니 온 비가 시내방천이 ᄀᆞ득차고 세파랑ᄒᆞᆫ 헤강ᄀᆞ이 세카망ᄒᆞᆫ 물로 벡식[雙色]이 뒈여, 뒷날 아침엔 어느 집을 막론ᄒᆞ고 농부덜이 떠렁헤여 밧장기를 짊어지와 한 부중에 타량[打令]소리 ……, 그 헤[年]부떠 칠월 열나을 벡중[百中] 소리가 당ᄒᆞ민 팔ᄌᆞ(八字) 궂인 신의 성방은 어느 성방칩을 막론ᄒᆞ고 벡중대제일(百中大祭日)을 지나, 벡중 마량(馬糧) 시만국[新萬穀]을 받아옵데다. 그때 옛 법으로 칠월 열나을 벡중이 근당(近當)ᄒᆞ민 초제일(初祭日)을 마련ᄒᆞ던 법입네다."

이에 따르면 심방백중제는 심방이 굿을 하여 가뭄을 그치게 함으로써 차질 없이 조를 파종할 수 있게 해준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곡식을 모아 심방에게 주어 제의를 벌이게 해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백중에는 마을마다 당에서 마불림제를 지내게 마련이다. 따로 심방집에서 백중제를 지낼 여유도 없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심방백중제를 따로 벌인 데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 시기를 넘어서면 한참 뒤에야 당굿이 있게 되고, 따라서 심방들이 식량을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을 미리 대비한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세경본풀이'에서는 백중과 관련하여 자청비가 오곡의 씨를 가지고 인간세상으로 내려선 것이 7월 열나흘 '백중사리'라고 한다. 이것이 마불림제의 기원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심방백중제와는 적어도 전승상으로는 근원을 전혀 달리하는 셈이다.

심방백중제는 비록 구전이지만 비교적 뚜렷하게 역사적인 근거가 제시되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볼 수 없는 의례이다.

참고문헌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필자 강정식(姜晶植)

심방청[神房廳]

정의 조선 후기에 제주도 무속인들의 결속과 무업의 질서를 위하여 운영된 무속 자치 기구.

내용 제주도에서는 무당을 심방 또는 슨방이라고 한다. 심방청[神房廳] 또는 슨방청이란 제주도 무당의 단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성격의 무속인 단체인 신청(神廳)이 있었다. 다른 지역은 흔히 무부(巫夫)인 악공들이 주체가 되는데 반하여, 제주도의 경우에는 남무(男巫)가 많아 활동 주체도 남무였다.

일제강점기에 이 지역을 답사한 아키바 다카시(秋葉隆)는 제주도 전체를 통할하는 슨방청의 우두머리로 도향수(都鄕首 · 都行首)가 있고, 그 아래 섬 곳곳에 슨방청이 있어서 각기 향수(鄕首 · 行首)가 있다고 했다. 도향수를 보좌하는 이를 도공원(都公員), 면향수를 보좌하는 이를 면공원(面公員)이라고 했다. 서무와 회계도 따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신청(元神廳)
송석하

이 단체는 일제강점기 초기까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 뒤 일제에 의해 1920년 전국적인 무속단체인 숭신인조합(崇神人組合)이 결성될 무렵에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초공본풀이나 시왕맞이의 공시풀이에서는 "옛날 선성 옛날 황수(行首) 곽곽(郭璞) 주육(周易) 이승불(李淳風) 제갈량에 놀던 선성님네 멘공원(面公員)에 멘황수(面行首)나 도공원(都公員)에 도황수(都行首) … 신공시로 상 받읍서"와 같이 언급되고 있다.

이 단체의 설립 목적은 무당사회의 친목과 공조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 굿을 못하는 무당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비행을 저지른 무당에 대한 징계 등 무당사회의 기강을 확립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신굿을 하지 않은 자가 무업을 하면 심방청으로부터 엄벌을 받았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초기까지 마지막 도황수로 이름이 알려진 이로는 고임생, 홍매화 등이 있다. 전남 장흥 · 나주 · 해남의 신청, 경기의 재인청 등 내륙에서는 선배 선생들의 이름을 적은 선생안을 만들고 그들의 넋을 기리는 제사를 따로 지냈다고 한다. 제주도의 경우도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확실한지는 알 수 없다.

참고문헌 제주도 무속자료 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조선무속의 연구 하(赤松智城 · 秋葉隆, 심우성 옮김, 동문선, 1991). 여수영당, 풍어굿, 악공청(이경엽 외, 민속원, 2007). 동복 정병춘댁 시왕맞이(강정식 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필자 신연우(申蓮雨)

심청굿무가

정의 동해안별신굿의 심청굿에서 불리는 장편서사무가. 심청굿은 동해안 지역의 세습무만이 연행하고 있는 굿거리이며, 심청굿 거리에서 구송되는 〈심청굿무가〉는 고소설 심청전으로 널리 알려진 내용을 담고 있어서 청중들에게 인기 있는 거리이다.

내용 동해안별신굿 심청굿에서는 장편서사무가인 〈심청굿무가〉가 연행된다. 〈심청굿무가〉는 고소설 〈심청전〉, 판소리 〈심청가〉와 동일한 내용으로 지금까지 20여 차례 채록되었지만 채록된 각편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 큰 변이 양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심청굿무가〉를 연행한 무당들이 모두 동일한 무속집단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줄거리는 고소설과 흡사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심청굿무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서두** : 판소리 〈심청전〉 및 고소설 〈심청가〉와 달리 서두 부분에서 〈심청굿무가〉를 구송하는 무당은 심청굿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를 한다. 심청굿을 함으로써 참가한 사람들의 눈이 밝아지고, 이에 따라 모든 사람이 무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무가가 지니고 있는 주술적 성격을 강조한 것이다.
2. **심청 탄생** : 모든 각 편이 동일하다. 판소리 〈심청가〉와 고소설 〈심청전〉에서는 옥황상제가 자식을 점지하라고 지시하여 선녀가 귀양을 가 심청으로 탄생한다고 되어 있지만 〈심청굿무가〉에는 옥황상제가 지시하는 내용이 없다.
3. **부인 죽음과 장례** : 판소리 〈심청가〉와 고소설 〈심청전〉에 나타나는 몇몇 삽화가 빠져 있다. 곽씨부인이 죽은 후 심청이 엄마를 찾는다는 내용이 없으며, 마을 사람들이 곽씨부인 초혼(招魂)을 하는 장면, 상여치레, 상두꾼들의 발이 붙는 장면, 노승이 산소를 지시하는 장면 등이 없다. 고소설 〈심청전〉에 비해 〈심청굿무가〉가 훨씬 간략하며, 실제로 한두 줄로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심봉사 심청 양육** : 모든 각 편이 동일하다. 심봉사가 젖동냥을 하여 아이의 배가 부르자 만족해하며 아이 어르는 소리가 고소설 〈심청전〉에는 있지만 〈심청굿무가〉에는 없다. 눈이 먼 심봉사가 암죽을 끓여 아이에게 먹이며 실수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어 흥미를 끈다.
5. **심청의 부친 봉양** : 심청이 동냥을 나왔을 때 옷차림이 허술하자 마을 사람들이 탄식을 하고 동냥에서 박대하는 장면, 치마 안에 떡을 넣어 가져와 부친을 봉양하는 장면이 판소리 〈심청가〉와

고소설 〈심청전〉에는 있지만 〈심청굿무가〉에는 없다. 반면에 심청이 모친의 무덤을 찾아가 통곡하는 장면이 있어 주목된다.

6. 장승상 부인 대목 : 심청의 효행을 들은 장승상 부인이 심청에게 수양딸 제의를 했을 때 심청이 거절하는 장면으로 모든 각 편에 보인다. 판소리 〈심청가〉에는 장승상댁 정원치레, 심청의 인물치레에 대한 대목이 있으나 〈심청굿무가〉에는 '울진 김복순본(本)'에만 나타난다.

7. 공양미 약속 : 모든 각 편에서 별다른 편차가 보이지 않는다. 심봉사를 구한 스님의 모습에 대한 사설이 중타령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동일하다. 판소리 〈심청가〉와 고소설 〈심청전〉에는 심봉사가 심청의 행적을 탐문하고, 심청도 공양미 삼백석을 올리겠다고 약조하는 내용이 있지만 〈심청굿무가〉에는 없다.

8. 심청 매신(賣身) : 집에 돌아온 심청이 심봉사를 안심시키고, 후원에 단을 모아 놓고 치성을 드려 마침내 뱃사람[船人]들을 만나 공양미를 구하는 것은 공통된다.

9. 이별대목 : 모든 〈심청굿무가〉에서는 공통된다. 그러나 세부적인 흐름은 조금 다르다. 판소리 〈심청가〉와 고소설 〈심청전〉에 보이는 세부적인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단 한 편의 각 편이다. 그러나 판소리 〈심청가〉에서처럼 심봉사가 술에 취해 잠이 들고 마을 사람들이 심봉사를 만류하는 대목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심청이 떠나가며 이별가를 부르는 것이 판소리 〈심청가〉의 모습이라 〈심청굿무가〉에서는 이러한 이별가가 나타나지 않는다.

10. 인당수 가는 길 : 심청이 인당수 가는 길에 소상팔경을 구경하고 혼령을 만나 격려를 받는 것이 판소리 〈심청가〉의 일반적인 내용 흐름이다. 그러나 〈심청굿무가〉에는 소상팔경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없을 뿐더러 기껏 나타나도 소상팔경이라는 이름 정도이다. 또한 혼령이 나타나 심청을 격려하는 장면이 빠져 있는 각 편도 있다.

11. 심청 투신 : 인당수에 도착한 심청이 투신하는 내용으로 모든 각 편이 동일하다. 인당수에 도착하고 고사 준비를 한 후 고사를 올리고 심청의 투신을 재촉하는 뱃사람의 말에 심봉사가 있는 쪽을 향해 축원을 올린 후 인당수에 뛰어든다.

12. 용궁에서의 생활 : 판소리 〈심청가〉에 비해 상당히 간략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다. 〈심청굿무가〉에는 심청이 용궁에 들어가고, 옥황상제로부터 미리 하교(下敎)를 받은 용왕이 준비하여 심청을 맞아들인다. 그리고 자신을 낳아 준 곽씨부인을 상면하는 것이 내용의 전부이다.

13. 환세 : 꽃 안에 넣어져서 물 위로 떠오른 심청을 뱃사람들이 발견하고 꽃을 거두어들이는 순간에 선관이 나타나 꽃을 송나라 임금에게 바치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판소리 〈심청가〉에는 고인의 혼령을 만나는 대목이 있으며, 장사를 성공 속에 마친 뱃사람들이 돌아오다가 심청을 위해 제문을 읽는 장면이 있다.

14. 심청 천자 결연 : 고소설 〈심청전〉의 전체 흐름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이 단락은 심청의 신분을 변화시켜 심봉사를 찾을 수 있게 하고, 심봉사의 눈을 뜨게 하는 단락이다. 그러나 〈심청굿무가〉에는 내용이 간략하게 나타난다. 〈심청굿무가〉는 판소리에 비해 내용의 풍부함이 덜하다.

15. 심황후 부친 생각 : 판소리 〈심청가〉에는 심황후가 부친을 생각하여 기러기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병에 걸린 심황후를 위로하기 위하여 심봉사를 찾기도 한다. 게다가 심청이 임금에게 자신의 신분을 고백하는 장면도 있다. 이러한 다양성에 비하여 〈심청굿무가〉는 매우 소략하다. 심청이 황후가 된 후 슬퍼하자 곧장 소경잔치를 연다는 식이다.

16. 투신 이후 : 판소리 〈심청가〉에는 장승상 부인이 심청의 화상에 나타나는 이적을 보고 나서 심청의 운명을 짐작하고 제문을 지어 혼백을 위로하거나 심청의 효성을 기리는 비석을 세운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심청굿무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17. 뺑덕어멈 삽화 : 심청이야기 전승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라 할 수 있는 뺑덕어멈은 심청 전승의 골계적 위상 및 심봉사의 개안(開眼)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다. 심청을 떠나보낸 후 상심하는 심봉사에게 나타난 뺑덕어멈은 나쁜 행실로 심봉사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황성으로 올라가던 중 황봉사를 만나 심봉사를 버리고 도망간다. 이러한 내용은 판소리 〈심청가〉와 서사무가 〈심청굿무가〉에게 공통된다. 그러나 판소리 〈심청가〉에는 짝타령이나 사랑가가 등장하지만 〈심청굿무가〉에는 뺑덕어멈이 심봉사의 관계만이 간략하게 구송된다. 또한 판소리 〈심청가〉에는 뺑덕어미가 도망간 후 심봉사가 자탄하고 신세타령을 하고 봉사모임에 참석하는 단락이 있지만 〈심청굿무가〉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18. 의복 구걸 삽화 : 뺑덕어멈과 헤어진 심봉사는 황성으로 향하다가 날이 더워 개울에 들어가 멱을 감다가 옷을 다 잃는다. 날이 저물기만을 기다리던 심봉사는 해가 구름 뒤에 들어가자 날이 저문 줄 알고 벗은 몸으로 걸어가다가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태수의 호의로 겨우 옷을 얻어 입어 상경할 수 있었다. 판소리 〈심청가〉에 비해 태수 앞에 나아가 옷을 얻는 심봉사의 능청스러운 모습이 〈심청굿무가〉에는 없다. 단순히 태수가 심봉사를 불쌍히 여기고 아랫사람들의 옷을 걷어서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19. 방앗간 삽화 : 판소리 〈심청가〉에서 심봉사가 방앗간을 지나다가 방아 찧는 여인네와 수작하는 장면은 해학성을 상당히 높여주고 있다. 그러나 〈심청굿무가〉에는 '강릉 송명희본'과 '강릉 빈순애본'에만 나타난다. 판소리 〈심청가〉에서는 심봉사가 목동들을 만나 도움을 받고 새타령을 부르는 장면이 있지만 〈심청굿무가〉에는 없다.

20. 여맹인(女盲人) 삽화 : 심봉사가 상경 길에 안씨맹인을 만나 부부의 연을 맺는 단락은 〈심청굿무가〉에 공통적으로 발견되지만 〈심청굿무가〉 가운데 가장 먼저 채록된 '울진 변연호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안씨 맹인과 혼례식을 할 때 방안치레나 혼인상 차리기에 대한 노래가 판소리 〈심청가〉에는 있지만 〈심청굿무가〉에는 보이지 않는다.

21. 부녀 상봉 : 심청이가 심봉사를 애타게 기다리며 탄식하다가 잔치의 거의 마지막에 들어온 심봉사를 만나 기뻐하고 이윽고 눈을 뜨는 심봉사에 대한 대목은 판소리 〈심청가〉와 〈심청굿무가〉의 비슷한 점이다. 그러나 눈을 뜬 다음의 행적에 대한 묘사가 〈심청굿무가〉의 경우는 간략하다. 판소리 〈심청가〉에서는 태평연을 배설하고 마침내 잘살게 되었다는 후일담이 나타나지만 〈심청굿무가〉에서는 없다.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심청굿무가〉는 판소리 〈심청가〉보다 매우 소략하고 핵심적인 내용 전달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청굿무가〉는 1930년대에 조사된 자료에는 없다가 1960년대 이후에야 나타난다. 이로 미루어 보아 동해안별신굿 담당자인 무당집단이 뛰어난 예능성을 바탕으로 새롭게 추가한 굿거리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심청굿무가〉의 형성에는 해안 지역에 내려오던 인신공희담(人身供犧談)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한국의 각 지역 굿 사례에서 발견되는 봉사 또는 소경에 대한 인식이 〈심청굿무가〉를 자연스럽게 굿판에 받아들이게 한 것으로 보인다. 즉 동해안별신굿에 봉사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심청굿무가〉의 수용이 용이했을 수 있다. 아울러 고소설과 판소리로 알려진 심청의 일대기가 굿판의 향유층인 동해안 주민들에게 매우 친근한 내용이었고, 제의적 측면보다는 오락적·예술적 측면을 강조하는 동해안별신굿의 연행 환경이 〈심청굿무가〉 수용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의의 〈심청굿무가〉는 고소설과 판소리에 동일한 내용이 있어 한국 서사문학의 흐름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초를 제시한다. 고소설과 판소리보다는 성격이 좀 더 근원적인 굿판에 〈심청굿무가〉가 있음으로 인해 심청이야기 전승이 한국인의 원형심상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도 알 수 있다. 특히 〈심청굿무가〉는 연행될 때마다 새로운 내용이 조금씩 추가된다. 이를 통해 무가가 연행되는 과정에 어떤 의미망을 보이는지도 규명될 수 있다.

참고문헌 심청굿의 형성문제(이균옥, 동리연구 1, 동리연구회, 1994), 심청굿 무가의 변이 양상과 형성과정 추론(홍태한, 서사무가 심청전집, 민속원, 2001).

필자 홍태한(洪泰漢)

십대왕(十大王)

정의 명부(冥府)세계에 있으면서 죽은 사람의 선업(善業)과 악업(惡業)을 재판하는 열 명의 왕.

내용 인간이 죽으면 이승에 지은 선업과 악업에 대해 심판을 받는데 이를 십대왕이 관장한다. 십대왕은 '시왕' 또는 '시왕님'이라고도 불린다. 십대왕은 그 명칭 그대로 10명의 신격으로, 각각 독자적인 이름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제1 진광대왕(秦廣大王), 제2 초강대왕(初江大王), 제3 송제대왕(宋帝大王), 제4 오관대왕(五官大王), 제5 염라대왕(閻羅大王), 제6 변성대왕(變成大王), 제7 태산대왕(泰山大王), 제8 평등대왕(平等大王), 제9 도시대왕(都市大王), 제10 전륜대왕(轉輪大王) 또는 오도전륜대왕(五道轉輪大王) 등이 십대왕의 구체적인 이름들이다.

십대왕은 관할하고 있는 지옥이 각각 있다. 진광대왕은 죽은 지 칠일째 되는 날에 망자를 심판하는 왕으로서 도산지옥(刀山地獄)을 다스리며, 초강대왕은 망자의 두 번째 칠일(14일)의 일을 관장하는 왕으로서 끓는 물 속에 죄인을 넣어 삶는 화탕지옥(火湯地獄)을 다스린다. 송제대왕은 망자의 세 번째 칠일(21일)의 일을 관장하는 왕으로서 한빙지옥(寒氷地獄)을 다스리며, 오관대왕은 망자의 네 번째 칠일(28일)을 관장하는 왕으로서 항마지옥(項魔地獄)을 다스린다. 염라대왕은 망자의 다섯 번째 칠일(35일)을 관장하는 왕으로서 죄인의 혀를 빼내는 발설지옥(拔舌地獄)을 다스린다. 변성대왕은 망자의 여섯 번째 칠일(42일)을 관장하는 왕으로서 독사지옥(毒蛇地獄)을 다스리며 염라대왕에게 재판을 받고도 남은 죄가 있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 벌을 받게 하는 일을 한다. 태산대왕은 망자의 일곱 번째 칠일(49일)을 관장하는 왕으로서 선악의 경중에 따라 죄인이 태어날 곳을 정하는 거해지옥(鋸骸地獄)을 다스린다. 평등대왕은 죽은 사람의 100일째 일을 관장하는 왕으로서 철강지옥(鐵鋼地獄)을 다스린다. 도시대왕은 망자의 일주기(1년)째 일을 관장하는 왕으로서 죄인을 평상에 끼워 조이는 풍수지옥(風水地獄)을 다스린다. 전륜대왕은 열 명의 대왕 중 마지막 왕으로서 죽은 사람의 삼주기(3년)째 일을 맡으면서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날 곳을 결정하는 흑암지옥(黑暗地獄)을 다스린다. 십대왕이 다스리는 지옥은 문헌에 따라 조금씩 달리 나타나기도 하지만 십대왕 사이에 겹쳐지는 경우는 없다.

십대왕을 그린 무신도는 한국 무신도 중에서 인물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림이다. 불화의 경우 각 전의 심판관인 십대왕이 고통 받는 죄인과 함께 표현되는 반면에 무신도에는 십대왕 각각의 심판 광경이나 처참한 지옥의 묘사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보통 십대왕 모두가 단체로 인물 사진 찍듯 열을 맞춰 서 있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간혹 십대왕은 죽은 사람을 심판하는 모습이나 죽은 자가 지옥에서 처참하게 고통 받는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무속에서는 죽은 자가 죄를 면하기 위해서는 일곱 차례의 7일, 곧 사후 49일이 지나기 전에 무당의 무속적 죽음제의를 통해 빌면 죄를 면할 수 있다고 믿는다. 십대왕들은 죽은 자들을 심판하여 죄가 없는 이는 극락 등 좋은 곳, 죄가 있는 자는 지옥 등 나쁜 곳으로 보낸다고 한다. 따라서 사람이 죽어서 무속적 죽음제의를 하는 것은 저승의 십대왕이 벌하는 죄를 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무속적 죽음제의는 지역마다 다르게 불린다. 전라도 지역에서는 씻김굿, 동해안 지역에서는 오구굿, 서울 · 경기 지역에서는 진오귀굿, 황해도 지역에서는 시왕굿, 평안도 지역에서는 다리굿, 함경도 지역에서는 망무기굿, 제주도 지역에서는 시왕맞이굿, 경상도 지역에서는 해원풀이굿이라고 각각 부른다. 이러한 무속적 죽음제의는 망자의 혼을 달래고 좋은 곳으로 천도하기 위한 진혼굿이므로 엄숙하고 진지하게 행해진다.



십대왕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가로 74㎝, 세로 104㎝ | 1950년대

참고문헌 한국민속문화대사전 상(김용덕, 창솔, 2004). 한국 무속신고찰(양종승, 몽골학 4, 한국몽골학회, 1996).

필자 허용호(許龍鎬)

1. 싹불이탈
2. 탈제작
3. 싹불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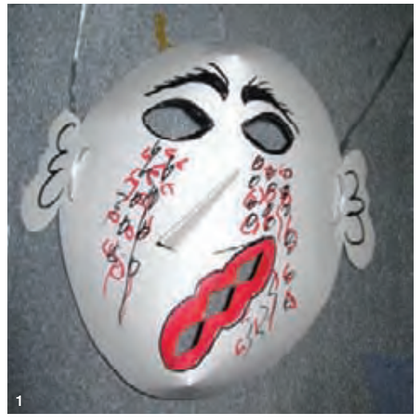
경북 영덕군 남정면 원척리 | 2009.4.5 | 김신효

싹불이가면

정의 동해안별신굿의 굿놀이인 '탈굿'을 연행할 때 남무(男巫) 가운데 한 사람이 '싹불이'라는 극 중 인물로 가장하기 위하여 얼굴에 쓰는 탈.

형태 종이로 만든 탈은 크기가 가로 24㎝(귀를 뺀 크기는 19㎝), 세로 23㎝, 높이 8㎝ 이다. 흰색바탕에 검은색과 붉은색으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으며, 반점을 그린 경우도 있다. 입은 중앙에서 왼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졌으며, 코 역시 삐뚤어지게 붙여놓아 정상인이 아닌 모습을 하고 있다. 탈의 크기와 생김새는 만드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내용 탈굿에서 싹불이는 신체적 장애와 지적 수준이 모자라는 인물로 그려진다. 싹불이는 바람난 아버지를 찾아 나서며, 짚으로 엮은 봇짐을 메고 머리에는 모자를 쓰거나 수건을 두른다. 탈이 인물의 성격을 좀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는데 있다면, 싹불이탈은 비정상적인 모습과 눈물자국으로 인하여 싹불이가 겪어온 힘든 삶을 미리 짐작할 수 있다. 탈굿의 할미탈과 유사한 것은 모자관계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1



2



3

탈의 제작은 별신굿 현장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제작 방법은 비교적 단순하다. 8절 크기의 마분지를 접은 다음 가위로 오려내어 얼굴 형태를 만든다. 펼친 상태의 크기는 가로 30㎝, 세로 25.5㎝이다. 눈과 입을 오려내고 코를 붙인다. 탈의 위, 아래를 조금 잘라 가운데를 접어 입체감을 준

다음 스테이플러로 고정시킨다. 외형이 갖추어지면 검은색과 붉은색 매직펜으로 눈, 눈썹, 입, 귀 순으로 그리고 귀 근처를 뚫어 머리에 묶을 노끈을 매달면 탈이 완성된다. 탈은 탈굿을 연행할 때마다 새로 제작하며, 굿이 끝나면 소각한다.

참고문헌 동해안 탈굿의 변화양상과 축제성(김신효,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필자 김신효(金信孝)

쑹거장단

정의 황해도굿의 무가인 쑹거타령을 반주하는 장단. 3소박 4박의 허튼 타령과 같은 계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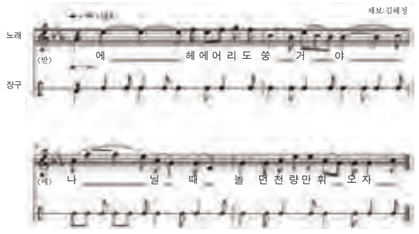
내용 쑹거장단은 쑹거타령의 반주에 사용하는 장단이다. 쑹거타령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대동굿이나 뱃사람들의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는 배연신굿 등에 연행되는 '쑹거를 주는 거리'에서 부르는 무가이다. 또한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는 재수굿의 단골에게 복을 주는 대목에서 부른다. 황해도 만구대탁굿의 소대감거리와 황해도 대동굿의 대감거리에서도 불린다.

쑹거를 주는 것은 복을 준다는 의미로 보이지만 쑹거가 무엇인지 정확한 어의(語義)는 밝혀지지 않았다. 서해안배연신굿에서 쑹거타령을 부를 때는 먼저 긴 무명을 선원들이 양편에서 붙들고 무녀의 노래에 맞추어 좌우로 흔든다. 쑹거장단으로 무녀가 복과 풍어를 주는 소리를 메기면 배꾼들은 '어허리 쑹거야' 하며 뒷소리를 받는다. 무녀가 그물망으로 고기를 무명 천 위에 건져 담아내고 선주와 선원에게 고기를 주는 모의적 행위를 한다. 그러면 선주와 선원들은 옷자락을 펼쳐 고기를 받는다. 이때의 고기는 흰 떡조각으로 대신하며, 이를 복떡이라 한다. 이어 다른 배의 주인들도 와서 저마다 복을 받는다. 쑹거를 주는 거리에서는 쑹거타령 이외에도 무당의 만세바지무가와 축원, 선주와 선원들이 함께하는 배치기소리 등이 불려 매우 흥겨운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황해도 쑹거타령
국립민속박물관

쑹거타령



쑹거타령은 긴만세바지에서 변형된 곡이다. 긴만세바지의 '아황 임금에 만세야'가 '에-헤에어리도 쑹거야'로 가사가 바뀐 것이다. 그러나 메기는 소리의 경우 긴만세바지는 '천하궁으로 삼에나 삼천/ 지하궁으로 이십팔수'와 같은 가사가 3소박 8박 단위로 붙는 것에 비해 쑹거타령은 '남대감을 낭저다주고/ 여대감을 낭여다주자'와 같은 가사가 3소박 4박 단위로 붙어 있다. 즉 긴만세바지보다 쑹거타령의 메기는 소리 가사가 두 배 정도 촘촘히 붙어 빠른 느낌을 만들고 있다. 또한 천수타령, 복타령, 방아타령 등은 모두 쑹거타령이 변형된 곡이며, 쑹거타령과 같은 쑹거장단을 사용한다.

참고문헌 중요무형문화재 제82-나호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하효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황해도굿의 음악인류학(이용식, 집문당, 2005). 한국의 굿-황해도 만구대탁굿(국립국악원, 한국음악 3, 2002).
필자 김혜정(金惠貞)-경인교대

상호참조 쑹거타령(553쪽)

쑹거타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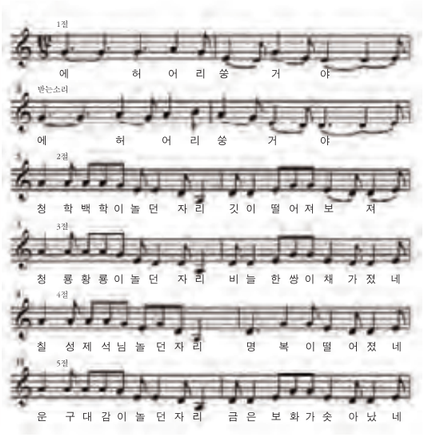
정의 황해도굿에서 무당이 굿판에 내린 신을 놀리기 위해 부르는 무가.

내용 쑹거타령은 본래 뱃굿에서 뱃사람들에게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면서 부르는 무가이다. 이를 황해도굿에서는 굿판의 단골들에게 복을 주는 노래로 부르기도 한다.

'쑹거'의 의미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쑹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바로 뱃굿에서 고기를 많이 준다는 것을 '쑹거 준다'고도 하는데, 보통 황해도굿에서는 쑹거타령을 부르면서 무당이 단골들에게 술을 나눠 준다. 이는 장수를 기원하는 명(命)잔의 의미를 지닌다.

쑹거타령은 조금 느린 3소박 4박(12/8박자) 장단인 쑹거장단에 부른다. 쑹거타령은 무당이 두 장단을 메기면 장구잽이가 두 장단을 받는 형식으로 구성된다. 후렴구는 "에-허어리 쑹거야"라는 노랫말을 지닌다.

〈보례〉 쑹거타령 (김매물 노래 / 이용식 채보)



쑹거타령은 음악적으로 무당이 신을 청하기 위해 부르는 청배무가인 긴만세바지의 변형이다. 두 무가를 비교하면 쑹거타령은 긴만세바지의 선율을 4도 아래로 옮겨 부르는 것이다. 쑹거타령은 또한 다른 많은 타령류 무가가 파생되는 모곡(母曲)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천수타령〉, 〈복타령〉, 〈톱질타령〉, 〈지정타령〉, 〈방아타령〉 등 무가가 쑹거타령을 변형한 것이다. 이 때문에 황해도 무당은 "쑹거타령을 배우면 다른 노래들은 다 배운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을 한다.

참고문헌 황해도 굿의 음악인류학(이용식, 집문당, 2005). 한국음악의 뿌리, 팔도 굿음악(이용식,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9).
필자 이용식(李庸植)

상호참조 쑹거장단(552쪽)

아흔아홉상석방울
악공청(樂工廳)
안당제석상
안당시경맞이상
안사인
안산챗머리성황당
안택굿
애기씨·동지곶
액막이굿
액막이상
약사불사(藥師不祀)
양산지산리부부상(梁山芝山里夫婦像)
양주소놀이굿
언월도(偃月刀)
얼새남
여탐굿
역가상(役價床)
연양탁상
연지당상
연종대
염불(念佛)
영감가면(令監假面)
영감놀이
영감춤
영게상
영돈
영등굿
영산대감춤
영장치기
영좌
영해별신굿놀이
오방신장기(五方神將旗)
오방신장(五方神將)
오수복
옥수그릇
옥황상제(玉皇上帝)
올림채
올림채춤
와룡묘(臥龍廟)
와룡선생(臥龍先生)
와흘본향당
완도장좌리당제 및 당굿
왕십리본(往十里本)
요왕차사상(龍王差使床)
용신(龍神)
용왕기(龍王旗)
용왕밥
용왕상
울쇠
원미상
원삼(圓衫)
원천강본풀이
월평다라귓당
위도 대리마을 원당
위도 띠뱃놀이
은산별신제(恩山別神祭)
의무(醫巫)
의술가면(醫術假面)
의원가면(醫員假面)
이공본풀이
이명옥
이상순
이선비
이어인년
이정연
이종순
이중춘
인물개(人物蓋)
인왕산 국사당(仁旺山國師堂)
일뤠또본풀이
일산동당제(日山洞堂祭)
일월개(日月蓋)
일월노리푸념
임경업 장군(林慶業 將軍)
입춘굿

아흔아홉상쇠방울

정의 강신무권의 큰무당이 사용하는 방울. 청배를 할 때, 공수를 내릴 때, 신의 영험을 보일 때, 길을 열 때 등 거의 모든 굿거리에서 사용된다. 줄여서 상쇠 혹은 상쇠방울이라고도 한다.

내용 무당이 사용하는 방울을 흔히 무당방울 혹은 무령(巫鈴)이라고 부른다. 신(神)은 쇳소리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무서워하는 양면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방울소리를 통해 신을 불러들이거나 내쫓는다. 그러므로 강신무에 있어서 방울은 필수적인 무구라 할 수 있다. 점을 치거나 굿을 할 때 사용되는 방울은 군웅방울, 칠성방울, 대신방울, 상쇠방울 등으로 나뉜다.

방울은 목탁과 같이 몸통 한쪽 부분이 약간 입을 벌리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이런 형태의 방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방울 안에 추가 들어 있어 소리를 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개의 방울을 한 묶음으로 묶어 각각의 방울이 서로 부딪치면서 소리를 내는 것이다.

아흔아홉상쇠방울은 주로 황해도굿 큰무당이 사용한다. 황해도 지역에서는 무당이 될 사람은 신병을 앓다가 구애비를 떠오는 전통이 있었다. 어떠한 이유로 무업을 중단하고자 할 때 또는 무당이 죽은 후 가족이 비밀리에 산 속에 파묻어 둔 것을 신내림할 사람이 선몽 혹은 예언으로 알고, 무구를 파서 가지는 것을 '구애비 떴다'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전수되기도 한다.

아흔아홉상쇠방울의 일반적인 형태는 가죽끈에 방울이 달려 있고, 수명을 상징하는 명[壽]쇠, 복을 상징하는 복(福)쇠, 무당의 말문을 열어주는 명두쇠와 왕방울처럼 생긴 왕쇠가 섞여 있으며 길쇠가 10개 내외로 달려 있다. 길쇠는 타원형으로 생긴 평면의 쇠붙이인데 이것은 신과 연결하는 통로 즉 길을 여는 구실을 하는 방울의 일종이다. 형태로 볼 때는 방울이라 할 수 없지만 아흔아홉상쇠방울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여러 개의 부착물들이 동시적으로 부딪치면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굳이 일반적인 방울의 형태를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묶음에 속해있는 쇠붙이는 방울로 인정할 수 있다.



아흔아홉상쇠방울
국립민속박물관 사진자료 소장

원래는 아흔아홉 개의 방울이 달려 있어야 하지만, 사용하는 도중에 점점 떨어져 나가 그 수가 아흔아홉 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떨어진 방울은 다시 붙일 수도 있지만 스승의 방울은 길하다고 믿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큰무당이 굿 도중 떨어뜨린 방울은 제자들이 가진다고 한다.

참고문헌 한국의 무속-서울 · 황해도 편(양종승, 국립민속박물관, 1999), 황해도 무속의 지역성과 보편성(양종승, 민속문화의 지역성과 보편성, 집문당, 2000),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서울시 · 경기도 · 강원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무당 귀물 연구-『삼국유사』의 삼부인과 무당의 거울 · 칼 · 방울을 중심으로(양종승, 생활문물연구 2, 국립민속박물관, 2001).

필자 김창일(金昌一)

악공청(樂工廳)

정의 무부들의 조직체이며 지방관아의 전통예술 공연을 담당하던 기관. 악공(樂工)은 관아에서 음악을 담당하던 음악인들을 말하며, 악공청은 그 일을 관장하던 조직체를 지칭한다. 지역에 따라 교방청, 취고청, 장악청, 신청, 재인청, 공인청 등으로도 불렸다.

내용 조선시대 군영의 악공 역을 맡은 사람들은 대개 무계 출신 무부들이었다. 무부들이 담당한 공역(公役)은 중앙의 장악청이나 지방의 관아 · 병영에 소속되어 악공이나 취고수(吹鼓手), 세악수(細樂手)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무부들을 악공이나 세악수로 선발한 것은 이들이 대대로 무업에 종사해온 전문 예술인이기 때문이다. 이들 음악인들은 군현의 제례, 연향, 고을 수령의 행차, 과제 급제자의 문희연 등에서 음악을 연주했다.

무부들은 자신들의 결속을 도모하고 관청의 공식 행사나 지역의 사적 행사를 관할하기 위해 무부계를 조직하고 엄격한 규율을 정해 운영했다. 이 조직은 각 군현에 있었고, 행정조직처럼 도 단위로 연결되어 전국을 관할하는 '팔도도산주(八道都山主)'의 지휘를 받았다. 악공청은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지방 관아의 공적 활동과 관련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건물이 있고 공식 문서들을 구비하는 경우가 많았다.

악공청은 전국적으로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여수 악공청, 진도 장악청, 장흥 신청(장악청), 나주 신청 등이 있다. 여수 악공청은 전라좌수영과 연결된 기관이었으며, 좌수영이 폐영(廢營)되면서 해체되었다가 1939년에 재건되었다. 재건 이후 악공청 사람들은 지역 유지들이 주도하는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하거나 음악을 전수하는 기능을 수행했으며, 광복 이후 혼란기를 거치면서 와해되었다. 여수 악공청은 여수시 동산동에 있었으며 지금도 관련 자료가 남아 있다. 여수 지역에서 활동한 100여 명의 무부 이름을 기록한 『선생안(先生案)』과 '악공청수헤서(樂工廳樹惠序)' 등의 현판 자료가 남아 있다. 그리고 후손들에 의해 매년 주요 명절마다 선생안 제사가 설행되고 있다. 여수 악공청 자료는 전라남도 민속자료 제45호로 지정되어 있다.

진도 장악청은 진도읍 성내리에 있었으며 각지의 광대들이 모여 음악을 익히던 공간이었다. 한일합병 이전까지는 광대들이 60여 호 모여 살았지만 1930년 중반에는 20여 호 60여 명이 거주했다고 한다. 장흥 신청은 장흥군 장흥읍 기양리에 있었다. 신청 문서인 「신청완문(神廳完文)」의 작성 시기를 순조 32년(1832)으로 볼 때 늦어도 19세기 초에는 설립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1894년에 해체되었다가 1919년에 중건됐으며, 지역 유지들의 찬조를 받으며 음악 전수기관의 역할을 수행했다. 장흥 신청은 1930년대에 해체되지만 그 후에들에 의해 지역의 예술활동은 지속되었다. 나주 신청은 나주 북문[北門町] 쪽에 있었고 1930년대에는 '기생음악합숙소'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다. 나주 신청은 나주 지역 전통예술 전승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참고문헌 조선무속의 연구(赤松智城 · 秋葉隆, 심우성 역, 동문선, 1991), 여수 영당, 풍어굿, 악공청(이경엽 외, 민속원, 2007).

필자 이경엽(李京燁)

상호참조 재인청(762쪽)

안당사경맞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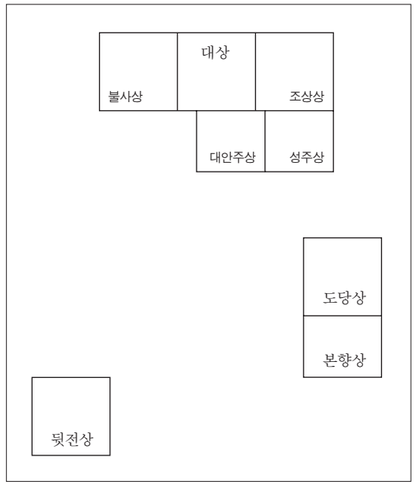
정의 서울새남굿 연행 전날에 치러지는 안당사경맞이에 준비되는 제상.

내용 서울새남굿(중요무형문화재 제104호)은 서울 지역에서 연행된 망자천도(亡者薦度)굿으로 화려한 연행 형태와 규모가 특징이다. 새남굿이 크게 새남굿 연행 전날의 안당사경맞이와 새남굿으로 나누어짐에 따라 굿상차림도 둘로 나뉜다.

안당사경맞이상은 크게 대상, 도당상, 본향상, 뒷전상으로 나뉠 수 있다. 대상은 불사상, 조상상, 성주상, 대안주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의 위치는 굿청을 바라볼 때 정면에 대상이 차려지고 도당상과 본향상은 우측, 뒷전상은 좌측에 각각 차려진다.

대상의 불사상과 조상상 사이에는 뒷줄에 팥시루떡 두 개를 담아 그 위에 종이로 만든 수팔련을 꽂는다. 그 앞으로는 약과, 산자, 옥춘, 다식, 곶감 등을 진설한다.

불사상은 제석을 모시는 상으로 불교계의 신



령인 만큼 그 특징이 음식에서도 나타난다. 고기와 생선은 올리지 않으며 제주를 허용하지 않는 대신 정화수를 올린다. 맨 앞줄에는 왼쪽에서부터 밤 · 대추 · 배 · 감을 진설하고, 잎을 잘라내고 대만 남긴 미나리를 붉은 실로 묶어 접시에 둔다. 그 뒷줄에는 백설기를 올려서 한지를 접어 만든 고깔을 엎어두며 옆으로 인절미 · 밀전 · 두부전을 올린다. 셋째줄 에는 도라지나물 · 튀각 · 고사리나물을 한 접시씩 올리고 마지막 줄에는 편을 쌓아 흰 꽃으로 장식한다. 불사상 한가운데에는 생미(生米)를 담은 그릇을 두고 제가집 식구 수대로 수저를 꽂아 놓는다.

조상상은 망제상이라고도 한다. 망제상 맨 앞줄에는 삼색실과를 두고 그 뒷줄에 삼색나물을 둔다. 마지막 줄에는 편떡을 쌓은 편대 셋을 두고 그 위에 종이로 만든 가지꽃을 꽂아 장식한다.

성주상에는 맨 뒤에 팥떡을 두고 위에 술잔 두 개를 얹는다. 그 앞으로 소의 족발이 진설되며 맨 앞줄에는 성주시루를 올린다. 성주시루는 생미를 깔고 그 위에 한지를 덮은 뒤 올린다. 시루의 테에는 흰 천으로 둘렀으며, 양쪽으로 시루와 천 사이에 북어 한 마리씩 꽂아 넣고 시루 안쪽으로 북어 한 마리를 꽂아 둔다. 시루 안에는 막걸리를 부은 사발을 놓는다.

대안주상은 양쪽으로 촉이 위치하고 가운데 향로와 함께 그 뒤로 술잔이 세 개, 또 그 뒤로 동태전 · 버섯전 · 쇠머리 · 양지머리 · 쇠갈비가 진설된다.

굿청 우측의 도당상에는 맨 앞에 향로를 두고 그 뒤로 술잔 세 개와 다시마, 두부전을 둔다. 뒷줄에는 산자, 유과, 옥춘, 약과 등과 함께 삼색실과를 진설한다. 맨 뒷줄에는 돼지머리와 돼지갈비, 도당시루를 놓는다. 시루 안에는 막걸리를 부은 사발을 하나 얹으며 양쪽에는 촉이 준비된다.

본향상에도 또한 양쪽에 촉을 밝히고 향로와 술잔 세 개, 삼색과일을 진설한다. 맨 뒷줄에는 떡을 세 곳에 나누어 담고 한지로 접은 본향종이 두 개를 옆에 둔다.

뒷전상은 술잔 하나와 그 주변에 조 1홉, 날계란 3개, 북어 세 마리를 두고 그 뒤로 나물 · 밀전 · 메 · 물 등을 진설한다. 약간의 과일도 함께 진설한다.

서울새남굿의 굿상은 규모도 규모지만 조리한 음식도 매우 화려하다. 이는 알려진 바 대로 새남굿이 상류층이나 부유층에서 연행되었던 망자천도굿이라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망자를 좋은 곳으로 보내고 싶었던 살아남은 자들의 소망의 발현이 그렇게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서울새남굿(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서울새남굿의 굿상차림(심우성, 샤머니즘학회샤머니즘연구 1, 1999).
필자 김창호(金昌鎬)

안당제석상

정의 출산과 자녀의 건강을 관장하는 가신 중의 하나인 산신(産神)을 위한 제물상.

내용 안당제석상은 서울 · 경기굿인 안당제석굿 의례를 위해 안방에 차려지는 제물상이다. 주로 작은 소반이나 쟁반에 음식을 진설하는 형태이며, 그날 굿상에 차려질 제물의 종류 중에 떡 · 과일 등이 주로 올려진다. 떡은 백설기 한 조각, 과일은 사과 · 배 등이 올려진다. 다른 가신들은 떡과 술 한 잔을 올리지만 유일하게 삼신제석을 위한 상에는 과일이 올려지고 술은 생략된다.

서울 · 경기굿에서는 천신불사(혹은 천신제석 · 천궁)를 초대한 경우 의례의 후반부에 제석굿을 따로 논다. 이때 집 안 안당제석상 앞에서 간략하게 의례를 진행하고, 다른 가신들이 좌정된 공간에서 그들을 위하기도 한다. 무당은 무복을 착용하지 않고 대신 평복이라 불리는 한복 치마저고리 차림으로 의례를 진행한다. 이는 전반부에서 진행된 천신불사와 구분하기 위한 의도를 나타낸다.

서울 · 경기 지역에서는 재수굿을 행할 때 집안 곳곳에 가신을 위한 상을 마련한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안당제석상이다. 안당은 안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안방에 좌정한다고 믿어지는 가신을 위한 상차림이라는 의미에서 안당제석상이라 불린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굿청의 중심부에 차려질 불사상(혹은 제석상)과 구분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천신에 해당하는 제석과 집안에 좌정된 가신인 삼신제석을 구분함으로써 무속신과 가신을 제물을 통해 구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삼신제석은 한 집안의 출산을 관장하는 가신의 직능을 지닌다. 제석 또한 출산을 관장하는 신으로 인식되지만 무속신의 위계에서 천신과 가신은 구분되는 것으로 보인다.

안당제석상에 올려진 제물 중에 백설기는 삼신제석의 성향을 현시적으로 보여 주는 무속의 표현 방식이다. 삼신제석은 출산을 관장하는 신으로서 천신인 불사의 영향을 받아 육식을 하지 않는 신으로 인식하고 제물 또한 흰색의 음식만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제석신은 육식을 좋아하는 육대감과 그 신의 성향이 반대되는 소신(素神)으로서 육식과 술을 즐기지 않는 신으로 인식된다. 백설기를 올리는 이러한 제석의 성향이 삼신제석에게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출산이라는 중요한 직능을 관장하는 신으로서 항상 정결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인식도 제물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제물에 있어서도 떡만을 올리지 않고 과일류 등을 추가로 올린다는 점에서 성주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신이다. 성주를 위한 제물은 시루째 봉안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외의 다른 가신들은 시루편으로 올리거나 혹은 그 편을 조각내 올리기도 한다. 이 또한 제물을 통해 그 신의 위계를 표현하는 무속의 한 방식이다.

근래에 들어와서 서울 · 경기굿에서 안당제석상을 따로 차리는 사례는 많지 않다. 대체로 오랫동안 무업에 종사한 무당이 자신의 집안에 진적굿을 할 경우나 오랫동안 무업을 신앙한 신앙자에게서만 나타나는 사례다.

참고문헌 한국의 샤머니즘(조흥윤,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무 · 굿과 음식 1(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무속의 물질문화 연구(최진아,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9).
필자 최진아(崔眞娥)

안사인

정의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칠머리당굿 전승보유자.

내용 안사인(安士仁, 남, 1928~1990)은 제주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큰심방으로 흔히 '스연이심방'으로 통한다. 제주시 용담1동에서 거주한 안사인은 제주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제주도 무속의 가치를 드러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의 학력은 소학교를 졸업하고 고등과 2년을 수료한 것이 전부이다. 학교를 마친 뒤에 제주군사비행장에서 군속으로 근무하다 광복을 맞았다.

안사인의 집안은 오랜 내력을 쌓은 심방 집안이 아니다. 증조부가 19대를 이어온 심방집 딸과 결혼하면서 무업과 관련을 맺게 되었고, 조부 때부터 증조모의 일을 물려받아 본격적인 무업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안사인은 멩두로 치면 22대에 이르는 내력을 지니는 심방인 셈이다. 그러나 안사인 대에는 안씨 혼자 무업에 종사하였다. 누이나 자식 가운데 무업에 종사하는 이는 전혀 없다.

안사인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따라 굿판에서 굿을 보고 배우며 자랐다. 그러다가 15세 무렵부터 무업에 종사하였다. 그가 무업에 나서게 된



것은 아버지가 병들어 무업을 계속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아버지 대신 당에 가서 간단한 비념을 하는 것부터 시작한 안사인은 이때 별다른 학습과정을 따로 거치지 않았음에도 무가를 어렵지 않게 술술 내뱉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즈음부터 시름시름 앓게 되어 자연스럽게 멩두를 물려받기로 하였다. 19세 때 멩두를 물려받은 해에 아버지를 여의었다. 23세 때 초신질을 바로잡는 신굿을 하여 온전한 심방의 자격을 얻은 안사인은 이때부터 용담동 한 냇가에 있는 ᄀᆞ시락당의 매인심방을 노릇을 맡았다. 훗날 이달춘 심방의 뒤를 이어 건입동 칠머리당의 매인심방을 맡았다. 36세 때 이신질, 49세 때 삼신질을 바로잡는 신굿을 하여 심방으로서는 최고의 경지인 상신충의 칭호를 얻었다.

그는 이전부터 제주도를 대표하는 심방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모든 굿에 능하였으며, 특히 목소리가 좋고 춤을 곱게 잘 추었다. 눈물 한 방울 없이 '영게울림'을 그럴듯하게 해내어 지금도 심방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초감제의 처음에 말미를 하지 않고 바로 베포도업침으로 들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1980년에 칠머리당굿이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로 지정되면서 그 기능보유자로 인정받았다. 칠머리당굿 보존회를 결성하여 많은 후배 심방을 모아 기능을 전수하던 도중에 1990년에 63세를 일기로 안타깝게도 영면에 들었다.

현용준의 《제주도무속자료사전》에 그의 문서가 대폭 수용되었다. 여기에 수록된 문서의 조사 기간은 1959년부터 1967년 사이다. 이 기간은 안사인의 30대 시절로, 그가 본격적으로 무업에 뛰어든 지 10년 뒤의 일이다. 안사인은 불과 10년 만에 제주도 굿의 모든 문서를 다 꿰뚫고 있었다. 이 책 덕분에 안사인은 그 어떤 심방보다 많은 문서를 남긴 셈이다. 그의 노력으로 제주도굿이 널리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문서는 《제주도무속자료사전》에 많이 수록되어 있고, 더러 음성자료도 보존되어 있다.

참고문헌 한국무속연구(김태곤, 집문당, 1981). 제주도무속연구(현용준, 집문당, 1986). 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아름다움을 훔치다(김수남, 열림원, 2004).
필자 강정식(姜晶植)

안사인
1987.2.17 | 강정식

안산잿머리성황당

정의 고려시대 서희(徐熙, 942~998)가 송나라 사신으로 가기 전에 제를 지내기 위해 세운 당. 이 당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산 76에 있으며 '안산시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되어 있다.

역사 안산 잿머리의 제차적 내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자료가 존재한다. 이를 근거로 제의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인접한 지역인 시흥 군자봉 성황제의 중요성에 입각해 이 제의를 재인식할 수 있다. 시흥 군자봉 성황제의 기록은 『여지도서(輿地圖書)』 안산군 산천조에 비교적 명확하게 예시되어 있는 "군자산은 안산군의 치소 서쪽 20리에 있으며 여기에 성황사가 있다"는 기록이다. 이와 아울러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있는 안산군의 사묘조(祠廟條)에 관한 기록이다. "하나는 군의 서쪽 21리, 다른 하나는 군의 서쪽 32리에 위치한다." 이 두 가지 기록을 검토하면 전자는 영조 33~41년(1757~1765)에 편찬된 것으로 이는 각도의 읍지를 모아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시흥 군자봉 성황제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잿머리 성황은 동일한 기록에서 바다에 대해 "군 서쪽 삼십 리 되는 곳에 있다"라는 말을 들어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성황사가 잿머리 성황임을 명확하게 추론할 수 있다. 성황사의 한 곳이 바로 군 서쪽 32리라고 하는 것과 바다가 동일한 지점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곳이 분명하게 잿머리 성황사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간접적인 증거가 된다. 이곳의 성황사는 기록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성황사가 있는 이 마을이 신라시대 이래로 매우 중요한 포구였기 때문이다.

잿머리 성황사의 존재는 1966년 전국 단위의 마을제당 조사 때에도 성곡리 무들마을에 경순왕비를 모신 성황당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성두산 산정에 초가집으로 지은 당집이 있고, 인근의 신목이 있으며, 군자봉의 성황당과 함께 나란히 기술되어 있다. 그때도 무신도가 있었다.

내용 잿머리는 성의 꼭대기에 있다는 뜻으로 성황사가 있었던 예를 통해 이를 중심으로 독자적 신앙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안산잿머리성황제는 일단 용어가 주목된다. 인접한 다른 지역에서는 성황제라는 제의 명칭이 그다지 활발하게 사용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도당굿이나 곶창굿이라는 말 이외에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대동굿이라는 말도 사용되지 않는다. 안산 잿머리를 비롯해 몇 군데에서만 성황제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이점이 각별하다. 안산 잿머리와 유관한 지역에서는 성황제를 사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안산 잿머리를 비롯해 시흥 구준물 성황제, 군자봉 성황제 등이다. 이뿐 아니라 우음도에서도 앞의 두 지역에서 말하는 성황신과 일정한 관련이 있는 신격과 제차가 있다. 안산과 시흥 군자봉, 구준물 성황제 등이 일련의 연계선상에서 독자적인 신앙계보를 형성하고 있다.

잿머리 성황사가 있는 지역은 성황사를 중심으로 성터가 쌓여 있음에 비추어서 이해할 수 있다. 선곡동의 마을은 네 개의 자연마을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잿머리라는 마을의 총괄적인 명칭 아래 골우물, 벌말, 안말, 도란말 등으로 하위 구성되어 있음으로써 성황당을 신성시해 주변에 단을 쌓고 이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성한 마을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네 개의 자연마을 가운데 규모가 큰 마을은 안말과 도란말로 가장 성대했다고 전한다. 안말은 순흥 안씨들이 대대로 세거했으며, 이로 인해 '안촌(安村)'이라고 한 데서 유래되었다. 도란말은 해안가에 위치한 마을이란 뜻으로, 바닷물이 이곳에 이르러서 황급하게 돌아가는 데서 유래한 말이라고 한다. 이 마을을 한자로 표기할 때에는 '회촌(廻村)'이라고 한다. 이 지역 김녕 김씨와 남양 홍씨가 대대로 거주한 세거지였으며, 잿머리에 들어온 성씨 순서는 안씨 · 홍씨 · 김씨 등으로 되어 있다고 전한다. 마을이 없어지기 전에 가장 번창한 성씨는 김녕 김씨였다고 전한다.

안산은 역사적으로 물화가 번성하고 자연 · 지리적인 조건 아래 교통의 요충지였다. 제보자들에 의하면 잿머리 아래 갯벌은 황금덩어리라고 표현될 정도로 마을의 주요한 수입원이다. 이 마을은 전적으로 잿머리 마을 아래에 있는 바다에 의존해 갖가지 경제적인 수입원을 조달했다. 역사적으로 안산 잿머리 마을은 일정하게 성씨의 변천을 거치며 성황제를 지내면서 성황제의 내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마을 사람들의 신앙심을 돈독하게 쌓은 것으로 이해된다. 잿머리 성황당이 몇 차례 화재에도 신앙심을 굳게 지켜온 것은 이 마을의 성황신앙에 관한 믿음이 온전한 덕분이라고 현지 전승자들은 말한다.

참고문헌 굿과 음식(김헌선, 문화재청, 2007).
필자 김헌선(金憲宣)

안택굿

정의 정월 또는 시월에 집안을 돌보아주는 여러 신령에게 가정의 평안을 축원하는 의례. 지역에 따라서는 안택, 안택고사, 무고안택, 독경, 재수굿, 축원굿, 소원굿, 운수맥이, 성주 달래기, 성주안택, 성주굿, 도신, 도신굿, 동방제, 경사굿, 신사굿, 상달고사 등으로도 불린다.

역사 안택굿의 유래와 역사는 분명치 않으나 조선 후기 이래 독경무가 주재한 무속제의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정월 상원조에는 "소경[邀瞽者]을 불러다가 보름 전날부터 안택경(安宅經)을 읽으며 밤을 새운다. 액을 막고 복을 비는 까닭이다. 정월이 다 가도록 계속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같은 책 시월 월내조에는 "민가에서는 10월을 상달[上月]로 여기고 무당을 데려다가 성주신[成造神]을 맞이하여 떡과 과일을 진설하고 기도함으로써 안택을 바란다"라고 하여 정월과 시월에 안택굿이 널리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은 근래까지 지속되었으며,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충청·경기·경북 등에서는 음력 시월의 안택굿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비해 호남 지방에서는 정월의 신수점에 따른 안택과 독경·도신굿이 주류를 이루었다.

조선시대의 독경은 '소경이 안택경을 읽었다'는 『동국세시기』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명통시(明通寺)라는 관청에 속한 맹인들이 담당했다. 이들은 여느 무당과 달리 학식을 통해 굿을 진행한 실력자들였으며, 국가에서 주관한 기우행사에 동원되기도 했다. 물론 독경이 맹인만의 전유물은 아니었다. 학식을 갖춘 이가 경문을 배워 행하는 일명 학습무의 존재도 있으며 지방에 따라 그 명칭도 다양하다. 가령 충청도에서는 법사·경[정]쟁이·경[정]각쟁이가 보편적이고, 호남 지방은 독경·법사·당골·정바치·문복[경문]쟁이, 경기도는 만신, 강원도는 복자(卜者)·복술, 경북은 참봉 혹은 화랭이 등으로 부른다.

안택굿은 충청도 및 호남 지역을 비롯한 우리나라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전승되던 대표적인 가정의례였다. 그러나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던 일련의 미신타파운동과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이미 대부분 중단되었거나 소멸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내용 흔히 독경무(讀經巫)는 앉은굿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안택을 원하는 가정은 독경무나 무당을 찾아가서 부탁하면 대주의 생기복덕을 가려 길일을 택한다. 날을 정하고도 집안이나 마을에서 부정한 일이 발생하면 날을 물리며 산부정(출산)·죽은부정(초상)·피부정(달거리)을 가장 꺼린다. 이를 위해 안택을 하는 가정에서는 미리 대문 앞에 왼새끼를 꼬아 금줄을 치고 황토를 펴서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막는다. 제물은 터주시루·성주시루·조상시루 등 떡이 중심이 되고, 집안에 따라서는 삼신시루·산신시루·문간시루를 별도로 준비하기도 한다. 이밖에 진설되는 제물은 삼색실과와 어물, 쌀, 청수, 나물 등이다.

안택굿은 부엌 혹은 마당에서의 부정풀이를 시작으로 제1석 조왕굿, 제2석 당산굿, 제3석 성주굿, 제4석 제석굿, 제5석 조상굿, 제6석 내전풀이의 순서로 진행된다. 물론 지역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어 당산부터 먼저 독경을 한 다음 부엌에서 조왕경을 외고, 안방으로 들어와서 성주와 조상을 위하기도 한다. 독경무의 앉은굿이 두드러졌던 충청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안택굿의 내용과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부정풀이** : 굿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정화시키기 위한 의례이다. 제상이 차려지면 독경무는 부엌이나 마당에서 본격적인 안택굿을 시작하기 전에 부정풀이를 한다. 물이 담긴 바가지에 고추·콩·숯 등을 넣고 별도로 콩 한 접시를 상에 올려놓는다. 부정경(不淨經)을 독송하고 축원을 하며, 부정풀이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제물의 뚜껑은 열지 않는다.
2. **조왕(竈王)굿** : 조왕신에 대한 의례이다. 제상에 삼색실과와 나물 등을 간단하게 차려놓고 조왕경을 외며 축원을 한다. 독경이 끝나면 조왕소지를 올린 다음 대주 소지부터 차례로 가족들의 소지를 올린다.
3. **당산(堂山)굿** : 집안에 깃든 가신 중에서 가장 웃어른인 터줏대감을 위한 의례이다. 지역에 따라 터주굿·장광굿·철륭굿·지신굿이라고도 하며 터주신이 좌정한 뒤꼍 장독대가 그 장소가 된다. 당산시루 안에 불밝이쌀을 바쳐 놓고 청수 한 그릇과 술을 올린 뒤 독경을 한다. 구송되는 경문은 지신경(地神經)·칠성경(七星經)·당산경(堂山經) 등이다. 이때에도 당산소지와 칠성소지를 올리고 나서 가족들의 소지를 불사르며 축원을 해준다.

통정리 안택굿
국립민속박물관





4. **성주굿** : 대주를 돌보아주는 성주신을 위한 의례이다. 안방 혹은 대청마루에 성주상·조상상·삼신상을 각각 따로 차린다. 성주상과 조상상 사이에는 말박에 쌀을 가득 담고 여기에 성주대를 꽂는다. 성조경으로 축원하는데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즉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액운과 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액운이 고스란히 제시된다. 아울러 이러한 액운이 성주신의 가호로 극복되기를 축원한다. 이때 이사를 했거나 집을 새로 지은 사람은 대주[성주]의 나이를 따져 운이 닿으면 대잡이가 대문 밖으로 나가 신이 내린 나뭇가지에서 성주를 받기도 한다.
5. **제석(帝釋)굿** : 주로 충북 지방의 안택굿에서 연행되는 거리이다. 제장은 안방이고 제물은 성주굿에서 진설된 것 이외에 따로 준비하지 않는다. 이 거리에서는 제석신의 근본을 풀어내는 제석풀이와 명당경(明堂經)이 결합되어 구연된다. 이는 제석신이 복덕신(福德神)의 성격을 갖추고 있고 대상에 대한 축원이 명당경에서처럼 가정의 번창과 자손의 발복에 있기 때문이다.
6. **조상(祖上)굿** : 집안의 여러 신령을 좌정시켜 축원한 후 마지막으로 자손들의 발복과 부귀공명을 주재하는 조상신을 청배한다. 기제사를 모시는 조상의 수대로 밥과 국을 차리고 음식도 골고루 준비한다. 조상경으로 축원한 다음 조상들이 정성을 잘 받았는지 대가림을 하고 가족들의 신수를 물어본다. 액운이 있으면 풀고 잡귀를 쫓는 간단한 독경을 하기도 한다.
7. **내전(內奠)풀이** : 집 안으로 불러들인 조상들을 돌려보내고, 아울러 혹시 집 안을 기웃거릴지도 모를 잡귀를 물리치는 의례이다. 내전상은 성주상과 조상상에 올린 제물을 조금씩 가져다가 바가지에 담아 사립문 앞 상 위에 올려놓는다. 이때 독경무는 식도(食刀)를 가지고 퇴송경(退送經) 등 주문을 외며 칼을 던진다. 칼끝이 밖을 향하면 잡귀가 물러가서 만사가 형통할 것으로 믿는다.

안택굿의 성격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속언에 "정월은 도액(度厄)이고, 시월은 안택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새해의 시작인 정월에는 액운을 물리치는 의례가 중심이 된다는 의미이고, 가을걷이를 마친 10월 상달은 집안에 좌정한 여러 가신을 두루 치제함으로써 무사태평을 축원하는 안택의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이 말에 잘 함축되었듯이 정월과 10월에 집중된 안택굿은 지난날 대표적인 무속의례이자 가정의례였다. 따라서 안택굿은 전문 사제인 무당이 주관하는 단순한 종교의례를 뛰어넘어 한 해의 농사를 갈무리하는 시기에 평소 집안을 보살펴주는 가신에 대한 종합적인 추수감사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지역사례 안택굿은 대체로 두 가지 경향을 띤다. 즉 평소 집안에 별 탈이 없지만 단골무당이나 법사를 초대하여 안택굿을 하는 사례이다. 신앙심이 깊거나 형편이 넉넉한 가정에서 매년 혹은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안택을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에 정초에 무당에게 신수를 보아서 삼재가 들었거나 액운이 끼었으면 그 예방책으로 안택굿을 한다. 또한 집안에 중병을 앓는 환자가

있거나 새집을 지은 경우, 기타 사고나 사업 실패 등 집안에 우환이 끊이질 않을 때에도 안택굿을 하게 된다.

안택굿은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이를 주관하는 무당에 따라서는 서울 · 경기 지방의 열두 거리와 유사한 방식으로 안택굿을 진행하기도 했다. 은산별신제의 주무 이어인년이 집안의 재복을 빌기 위해 상달에 했던 성주굿(재수굿 · 철물이굿)이 그러하다. 즉 어떤 집에서 성주굿을 하면 가족의 생기복덕을 따져 날을 잡고 당일 오후 5시쯤에 시작해 이튿날 새벽에 굿을 마친다. 그 절차는 조왕굿, 당상[산]굿, 성주굿, 조상굿, 제석굿, 손님굿, 칠성굿, 장자풀이, 군웅굿, 대감굿, 삼신굿, 수부굿 등 열두 굿으로 진행되었다.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는 안택굿과 안택고사를 구분하기도 했다. 즉 안택굿은 정월에 하고 안택고사는 시월에 행한다. 안택굿은 조상까지 불러내 12굿거리를 모두 진행하므로 3일 가량 소요되는 큰굿이었다. 이에 반해 안택고사는 한 해 농사를 마치고 햇곡으로 집안의 여러 신령을 위하며, 단지 안주인이 성주시루만 준비하여 성주를 중심으로 고사를 지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이 안택은 넓은 의미에서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는 일련의 종교적 의례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따라서 독경무나 무당을 청하지 않고 간단하게 제만 지내는 것을 안택이라 부르기도 한다. 제주시에서는 정월이나 3월에 좋은 날을 택해 안택고사를 한다. 이때 무당을 청하지 않고 문전과 토신(土神)을 위하는 제를 지냈다. 또한 요즘에는 집안에 스님을 청해 안택고사를 베풀기도 한다. 강원도에서는 법사나 무당을 부르지 않고 정월이나 시월에 길일을 택하여 대주 내외가 안택고사를 지내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독경무가 굿을 주관하는 충청도에서도 무당을 부르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주부가 안택을 손수 진행하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시월상달에 보편적으로 전승되던 충청도의 갈떡이나 철무리, 호남 지역의 도신(禱神), 경기도 및 경상도의 상달고사 역시 집안에 좌정한 신령을 위로하고 가정의 안녕을 축원하는 의례라는 점에서 안택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

참고문헌 東國歲時記, 안택(김영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4, 1997), 가을떡과 안택(이필영, 한국문화연구 1,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1), 충청도굿(안상경, 한국의 굿, 민속원, 2002), 충북의 무가 · 무경(충북학연구소, 2002), 한국의 가정신앙 경기도편(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한국의 가정신앙 충청남도편(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의 가정신앙 충청북도편(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의 가정신앙 강원도편(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의 가정신앙 제주도편(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가정신앙 경상북도편(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가정신앙 경상남도편(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가정신앙 전라북도편(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필자 강성복(姜成福)

상호참조 성주굿(470쪽)

애기씨 · 동자꽃

정의 애기씨와 동자를 상징하는 꽃.

내용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지화이며 굿청 중앙 부분에 마련된 '애기씨반'에 진설한다. 애기씨 · 동자를 놀리는 거리에서는 이 꽃을 들고 애기 목소리를 내면서 춤을 추고 공수를 내린다. 애기씨와 동자는 인간의 운명을 말해 주고 자손 번영, 인간의 수명장수를 축원하고 죽은 자를 되살려 내기도 한다.

참고문헌 황해도 굿에 쓰이는 종이 신화와 신구의 종류, 형식, 상징성 고찰(양종승, 한국무속학 13, 한국무속학회, 2006).
필자 양종승(梁鍾承)

액막이굿

정의 개인이나 가정 또는 마을에 액운이나 그 외의 불행한 일 등을 미리 막기 위해 무당이 하는 무속의례.

역사 액막이굿의 전통은 정월 세시풍속의 일환인 민간의 액막이 방식과 그 맥을 함께한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나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 등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월에 제웅을 만들어서 버리거나 오쟁이 다리놓기, 팥알을 구덩이에 파 묻는 매성이 심기, 액막이 연날리기 등의 액맥이 풍속에서 그 역사를 가늠할 수 있다. 또한 왕실이나 관청 단위의 액막이 의례인 나례(儺禮)나 여제(厲祭) 등의 전통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민간의 일반적인 액에 대한 관념이 갑자기 닥칠 수 있는 횡액(橫厄)과 수액(水厄), 도교에서 비롯된 삼재(三災)의 액년(厄年)에 대한 관념 등으로 더욱 구체화되면서 액막이 형태가 굿이라는 특정한 의례의 성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일반적인 민간의 액막이가 개별적으로 행해지는 세시풍속 형태로 나타나는 것과 달리 액막이굿은 가제(家祭)로서 무당의 주재 하에 특별히 운수가 좋지 않은 사람이나 가정을 위해 별도의 의례 절차에 따라 행해진다.

내용 액막이굿은 제액(除厄) 의례를 일컫는 말이다. 액막이굿은 정초에 치러지는 정기적인 문점(問占) 행사에서 확인된 액운 점괘가 있을 때 별도의 치성이나 큰 규모의 굿으로 치러지는 비정기적 의례이다.

대개 매년 한 해의 시작인 정월의 초사흘과 대보름 사이에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단골무당을 찾아가 일 년의 신수(身數)를 보거나 치성(致誠)을 드리는 것은 매우 보편적인 무속의 한 현상이다. 이때 가족의 안녕을 꾀하는 치성을 올리거나 별도의 액운자(厄運者)가 있는 경우 그 액을 미리 막기 위해 특별히 액막이굿을 올리게 된다.

액막이굿은 정월에 1년 동안의 모든 횡액과 수액을 막기 위한 치성 형태의 정기 의례를 그 근간으로 한다. 이러한 치성 형태에서 액운이 낀 점사를 확인한 대상을 위해 좀 더 각별한 목적으로 별도의 의례를 올리는 큰 규모의 굿으로 확대된 것이 액막이굿이다. 액막이의 근간이 되는 치성 형태의 의례는 한 해 동안의 평안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정월 한 달, 특히 대보름 안이라는 특정한 시기 동안에 치르는 소규모의 정기 의례이다. 이러한 소규모 정기 의례는 적은 양의 제물만을 마련하고 단골무당 혼자서 앉은굿으로 간단히 신을 청배해 액을 막고 복을 기원하는 치성이나 비손 형태로 연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의례는 모든 지역에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의 정월 횡수막이에 대해 아키바 다카시(秋葉隆)가 조사한 사례가 일찍이 확인됐다. 그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횡수막이는 보통 무당을 불러서 하기도 하고 직접 무당의 집에 찾아가서 행하기도 한다. 횡수막이를 위해서는 많은 과일이나 제물을 준비하지 않고 간단하게 기본적인 과일과 밥, 술을 작은 상으로 준비한다. 횡수막이 치성은 단골무당이 혼자 앉아 버들고리 바닥을 문지르면서 축사(祝詞)를 외며 진행하며, 부정(不淨) · 가망 · 대감(大監) · 뒤풀이의 네거리로 이어진다. 부정청배를 하면서 정월부터 섣달(12월)까지 열두 달 부정을 막는 무가를 구송하고 소지로 부정을 물린다. 이때 각 가족의 소지를 따로 하면서 소리를 통해 운수를 점친다고 한다. 이어서 부정청배에서는 여러 신을 청하는 무가를 구송하면서 열두 달 횡수를 막아 줄 것을 기원한다. 이후에 대감거리는 소위 터줏대감을 위한 것으로, 1년간의 횡액과 수액

1. 황해도 굿의 삼재풀이
인천 계양산 둑실굿당 | 2007.3.9 | 김은희

2.횡수막이 치성모습

3. 횡수막이 뒷전상
이상순 만신 명륜동 자택 | 2005.2.22 | 김은희


1


2


3

을 예방하기 위한 기원을 올린다. 앞의 세 거리는 모두 방 안에서 행해지며, 마지막에 작은상을 툇마루에 준비하여 잡귀에게 시식(施食)하는 뒤풀이로 끝난다. 이러한 의례들과 함께 한강의 용궁당(龍宮堂)에 찾아가서 소지축원을 올리는 용궁맞이를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아키바 다카시의 기록을 1930년대의 횡수막이 모습이라고 한다면 최근의 사례를 통해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횡수막이 치성에서 가장 주요한 것으로 드는 것이 횡수창부('홍수창부'라고 부름)의 「홍수맥이타령」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홍수맥이타령」은 서울식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부르는 타령으로, 열두 달에 드는 홍액과 수액을 각각 그달 또는 그 다음달의 좋은 기운이 들어 있는 날의 운을 빌려 와서 막아내는 내용이다.

정월 한 달 드는 홍수
정월 대보름으로 막어내고
이월 한 달 드는 홍수
이월 개춘에 막어내고
삼월 한 달 드는 홍수
삼월 삼짇날로 막어내고
사월 한 달에 드는 홍수
사월 초파일로 막어내고
...

이와 같은 소규모의 치성이나 비손 등과 달리 좀 더 큰 규모의 액막이굿은 정월의 점사 행위나 치성 의례를 통해 더욱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치러진다. 문점이나 치성을 하는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에게 생긴 불운의 기운이 특별히 심각한 경우에 반드시 굿을 해서 불운의 기운을 잠재우거나 불운을 대신할 방도를 찾는 것이다. 이는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의 불행한 일을 염려해 미리 경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액막이굿이 반드시 필요한 사례로 삼재풀이가 전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삼재는 9년을 주기로 해 들어와서 3년 동안(들삼재 · 묵는삼재 · 날삼재) 머물렀다 나가게 되는데, 대체로 한 집안의 가족 구성원 중 한 명 이상이 매년 삼재에 들어 있는 것은 다반사이다. 그러나 삼재 중에서도 대삼재(大三災)는 불 · 바람 · 물이며, 이러한 재앙이 한꺼번에 불어닥칠 수 있는 특별히 좋지 않은 운수에는 반드시 액막이굿을 한다.

삼재풀이를 위한 액막이굿은 일반적인 재수굿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면서 굿거리마다 삼재가 든 사람을 위해 삼재팔란이 없기를 반복해 기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굿의 절차에 따라 신을 청배하고, 각 신의 위계에 따라 여러 신을 모셔서 대접한 후에 삼재로 인한 위험이 닥치지 않도록 기원하는 형태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각 지역에 따라 삼재풀이를 위한 예방의 방식은 다양하다. 버선 모양으로 천을 오려서 오색종이를 옥수수 가지에 꿰어 삼재에 든 사람의 삼재소멸을 기원하는 글을 써서 오곡밥을 해 내놓는 것으로 예방하기도 하고, 대수대명으로 닭이나 북어로써 희생하는 방법 등이 있다.

지역사례 액막이굿은 전국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특히 치성 형태의 소규모 정기 의례는 지역별로 다양하게 확인된다. 서울 · 경기 · 황해도 등지에서의 횡수막이(홍수맥이), 전라도 · 충청도 지역의 액막이 · 거리제, 제주도의 신과세제 등 명칭을 각기 달리하면서 지역적 특색에 따라 연행된다. 대체로 무당이 혼자 앉아서 징이나 고리짝, 요령 등 한 가지 소리를 내는 도구를 악기로 이용해 무가를 구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에서 예로 든 서울굿의 횡수막이와 다른 사례는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전라북도 편(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全羅北道 篇)』의 무속신앙을 다룬 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라도 지역의 액막이는 조왕, 철륭, 성주석, 삼신제왕(삼신석), 대감석, 조상, 내전 등의 순서로 성주안택으로 하는 것이 서울 지역의 사례와 다르다.

이와 달리 가족 단위의 가정집굿 형태의 액막이굿이 아니라 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액막이는 마을굿 형태로 나타난다. 마을굿에서는 마을을 관장하는 주신을 중심으로 모시고 일련의 절차를 진행한다. 이때 마을 전체의 액막이를 기원하는 축원은 반드시 필요한 구성소이다. 예로 제주도의 당굿에서는 '도액막이'라는 제차를 별도로 행함으로써 마을 전체를 위한 액막이를 보여 준다.

한편 이처럼 무당들이 주재하는 굿의 형태가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독경무들을 불러서 도액경(度厄經)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거나 농악대의 고사를 통해 액막이를 대신하기도 한다. 경을 읽는 액막이는 독경무들의 활동이 왕성한 지역에서 발견되는 현상이며 농악대의 고사는 충청 · 전라도 지역에서 정초에 농악대가 지신밟기를 하거나 대보름굿 등의 당산제를 하면서 액막이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액막이 풍습은 우리 민간의 생활에 매우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속적인 행위라고 보기가 어렵다. 실제로 여러 액막이의 사례는 민간의 세시풍속에서부터 연행 주체를 달리하면서 여러 방법을 통해 액 또는 액운을 막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단지 어떤 위기가 닥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알 수 없는 힘에 순응하면서 인간의 삶의 영역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는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람들이 평온한 삶을 기대하고 이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의지가 바로 액막이굿인 셈이다.

참고문헌 東國歲時記, 洌陽歲時記,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전라북도편(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1), 한국무속연구(김태곤, 집문당, 1981), 조선무속의 연구(赤松智城 · 秋葉隆, 심우성 역, 동문선, 1991).
필자 김은희(金銀姬)

액막이상

정의 액을 막고 복을 기원하는 액그릇이 진설된 상.

내용 액맥이상으로도 불리며, 호남 지역의 굿에서 제물상과 별도로 차려진다. 액막이상은 액그릇으로 구성되며 액그릇은 쌀 · 실 · 초 · 수저 · 돈으로 만들어진다. 액막이상이 무속의례에 사용된 유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쌀 · 돈 · 실 · 초 · 수저로 구성되는 액그릇이 쌀 · 돈 · 실 · 수저 등으로 구성되는 돌잡이 및 돌떡 답례물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액을 막고 길운(吉運)을 기원하는 한국인의 사고가 무속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액그릇은 의례 주재자인 당골이 의례 직전에 만들며 의례 도중에 추가되기도 한다. 액그릇은 밥그릇 · 초 · 돈 · 무명실 · 숟가락 · 생미(生米)가 준비되면 밥그릇 안에 쌀을 7부쯤 담고 숟가락에 돈과 실을 돌려 만 다음 초를 꽂는다. 간혹 수저와 실은 생략되기도 한다. 원래 액그릇에서는 그 구성원의 나이 수에 맞게 실의 수를 세어서 수저에 둘러 고정시켰으나 근래에는 숟가락에 실타래를 통째로 둘러놓는다. 완성된 액그릇을 진설한 액막이상은 안당상이나 성주상 앞에 놓이며, 액그릇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이들 제물상 위에 올려놓기도 한다.

호남 지역 의례에서 액막이상 앞에서는 의례의 시작을 알리는 안당이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액막이 고사가 행해진다. 또한 각각의 거리가 끝날 때마다 쌀을 뿌리면서 액이나 살을 막아주기를 바라는 무가를 부르거나 사설을 읊으면서 액막이 의식을 간략하게 행한다. 대체로 "성주아관 모셔놓고 자손치시 품에 안고 복줌치는 손에 들고 배날듯이 실날듯이 청자받어 오실적에…"로 시작하여 액을 막고 장수, 자손의 탄생, 복을 기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 내용은 굿을 의뢰한 재가집의 환경이나 의례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다.

액그릇은 다른 지역에도 나타난다. 『朝鮮巫俗の硏究』(下)에 서울굿의 제석상에 액그릇이 진설된 기록이 있으며, 현재도 생미 한 대접 위로 식구 수대로 숟가락을 꽂고 그것을 붉은 실과 흰 실로 엮은 것을 올린다. 즉 실처럼 긴 수명과 쌀의 풍요로운 생산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분석된다. 또한 성주시루에도 밥그릇에 생미를 담은 후 숟가락을 꽂고 흰 실을 감아 액그릇을 만드는데, 남자 구성원의 수만큼 올린다. 서울굿에서의 사례는 호남 지역에서 별도로 상이 마련되는 것과 다르지만 의미가 동일하다. 또한 액을 막기 위해 액그릇의 구성요소를 제물상 위에 진설하지 않고 의례 과정에서 각각 신에게 바치는 사례가 경기도 시흥시 군

자성황제의 맞이거리에서 행해지고 있다. 신앙자는 의례 중에 주재자에게 직접 쌀·실·초·술 등을 올리고 공수를 받는다. 이 사례는 마을굿에서 액막이를 행하는 것으로 신앙자의 가정에 닥칠지 모를 액을 막는 동시에 재수와 재복을 신이 직접 기원해 주는 것으로 믿어진다.

액막이상은 개인굿과 마을굿, 재수굿과 천도굿 등 의례의 종류나 성격과 상관없이 차려진다. 액그릇은 재액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며 재가집의 개인굿에서 액그릇을 모든 가족의 몫으로 만들지는 않았다. 액그릇은 서울 지역 굿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족 중에 남성 구성원 위주로 만들었다. 혹은 그중에서도 특히 그해 운이 좋지 않다는 점괘를 받았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남자 구성원의 것만을 만들어 재액을 막아보려는 기능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가족 구성원의 수만큼 만드는 것으로 변형되었다. 마을굿에서는 신앙자나 마을주민들이 가족 전체의 것을 액그릇 하나만을 만들거나 특별히 그해 운세가 좋지 않은 가족 구성원 것만 추가하여 따로 만들기도 한다.

액그릇의 구성인 쌀·돈·실·초 등은 곧 신에게 바치는 예단[幣帛]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신에게 이와 같은 제물을 받침으로써 액을 물리치고 장수와 경제적 풍요를 기원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액막이상은 부와 복,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고 가난·불행·질병을 막아주기를 기원하는 상징적 의미가 지배적이다. 액맥이상의 구성은 돌을 맞는 아이에게 차려주는 돌상에 놓이는 돌잡이의 구성과 유사하다. 최남선의 『조선상식(朝鮮常識)』에 의하면, "兒生한지 周年이 되면…米·粟·錢·絲·弓·書冊·紙筆墨 等을 소반에 수북이 담아서 이것을 '돌상'이라 이르고…그 擇한 바로서 미래[來後]를 卜호대 錢 혹 穀이면 富, 粟 혹 絲면 壽, 書冊이면 문학으로 현달(顯達)하리라 하여 가로되 '돌잡힌다'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돌잡이에서 면과 실은 수명(壽命)이 길거라 점치고, 쌀·돈·수저는 재물(財物)을 모아 경제적 풍요를 보장하는 부자(富者)가 된다고 해석한다. 또한 돌떡을 나눠먹었을 때에 답례로 주는 물건으로 쌀, 돈, 실, 밥그릇 등이 있다. 이는 아기의 장래를 위한 귀복장수(貴福長壽)를 빌고 액을 막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굿에서 출산과 무병장수를 관장한다고 믿어지는 불사상에 액그릇을 올리는 것 또한 돌잡이와 돌답례품이지니는 의미와 무관하지 않다.

액그릇의 백미(白米)는 재앙을 물리치고 부를 가져다주는 의미를 지닌다. 돌잡이에서도 쌀은 부와 복을 상징하는 의미이며 돌떡을 먹은 사람들은 쌀로 보답하기도 한다. 씻김굿에서 쌀은 액을 막기 위한 액막이를 위해 뿌려진다. 호남 지역에서 쌀은 액막이쌀[厄米] 혹은 제석쌀[帝米]로 불리는데 이것은 그 기능에 따라 부여된 호칭이다. 액막이쌀은 액막이와 귀신을 쫓는 '벽사(辟邪)'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쌀은 부와 복을 기원하는 의미이다. 특히 제석쌀은 노적(露積)의 의미를 지닌다. 돈과 숟가락도 쌀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또 실은 무병장수를, 초는 장수의 의미와 앞날이 초처럼 밝게 밝혀져 무탈하기를 바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귀복장수를 기원하는 돌잡이와 돌떡 답례품 중에 액그릇의 구성 요소와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은 쌀·돈·실·숟가락이다. 돌잡이는 미래를 점치는 데에 목적이 있고, 액그릇은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고 나쁜 액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목적이 다르다. 그러나 구성 요소에 대한 해석은 동일하다는 점에서 한국인의 사고가 반영된 기원물(祈願物)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액막이상은 액을 막고, 무병장수와 경제적 풍요를 기원하는 목적을 띤다는 점에서 제액초복(除厄招福)을 기원하는 무속의 사고를 잘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액그릇은 흉운(凶運)을 막고, 길운(吉運)을 기대하는 무속 신앙자의 기대심리가 잘 반영된 물질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시주-조선상식 풍속편 2(최남선, 동명사, 1948), 민간신앙·종교-한국민속대관 3(홍윤식,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82), 진도의 민속-진도씻김굿(지춘상, 진도사람들, 진도사람들편찬부, 1985), 한국의 샤머니즘(조흥윤,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진도씻김굿의 물질문화 연구(최진아,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99), 서울굿의 상차림에 대하여(홍태한, 한국무속학 6, 한국무속학회, 2003), 무속의 물질문화 연구(최진아,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9), 朝鮮巫俗の研究(下)(赤松智城·秋葉隆, 大阪屋號書店, 東京 昭和13年).
필자 최진아(崔眞娥)

약사불사(藥師不死)

정의 치병의 능력을 갖고 있는 신으로 불교에서 유래한 무속신. 약사불사는 약사여래(藥師如來)를 중심으로 한 불교의 약사신앙이 무속에 수용되면서 성립된 신으로 보인다.

내용 약사불사는 불교·도교 관련 신을 모시는 불사거리, 제석거리, 칠성거리에서 모셔진다. 그러나 무속에 수용된 불교·도교 관련 신 중에서 약사불사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못하고 그저 명칭 정도만 거론될 뿐이다. 약사불사의 능력은 질병의 치유이다. 치병(治病)의 기능은 무속의 모든 신과 관련된 기능이어서 기능 측면에서도 약사불사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는 한국 무속이 인간 삶의 여러 문제 중 치병 측면에서는 다른 종교의 신에게 크게 의존하지 않는 나름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약사불사처럼 치병 능력이 있는 신으로 '약사신장' '의술신장' '약사도사' '약명선관' 등이 있지만 약사불사와는 신의 계통이 다르다. 약사신장과 의술신장은 기능에 있어서 약사불사와 같지만, 신장신 계통이라는 점에서 약사불사와는 다르다. 약사도사와 약명선관 역시 약사불사와 같은 기능을 하지만, 도교 계통 신이라는 점에서 불교의 약사불사와는 계통이 다르다.

참고문헌 조선무속의 연구 하(赤松智城·秋葉隆, 심우성 역, 동문선, 1991), 한국 무속신 고찰(양종승, 몽골학 4, 한국몽골학회, 1996).
필자 이용범(李龍範)

양산지산리부부상(梁山芝山里夫婦像)

정의 신라의 장군인 김서현(金舒玄)과 그의 부인인 만명(萬明)을 그린 그림. 이 그림은 양산 신기리 당집에 모셨던 초상화로 20세기 전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2001년 5월 3일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94호로 지정되었다. 현재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의 취서사(鷲棲祠)에서 보관하고 있다.

형태 김서현 장군 그림은 크기가 세로 78.3㎝, 가로 56.1㎝로 종이에 채색한 것이다. 상 위에 앉아 있는 김서현 장군을 중심으로 병풍이 사방으로 감싸고 있다. 붉은색 갑옷과 투구를 착용하고 있으며 왼쪽 어깨 위로 화살이 드러나 있다. 왼손에는 환도(還刀)를 쥐고 있고 오른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두었다. 갑옷은 동그란 두정(頭釘)들이 달린 두정갑으로서 조선 후기 무인들이 입은 보편적인 양식이다. 그림의 좌측 상단에는 '大都督○○玄之像'이란 글씨가 쓰여 있다.

만명 부인 그림의 크기는 장군 그림과 동일하며 좌측 상단에 '蘇判夫人萬明之像'이라는 글씨가 있다. 가르마를 단정히 탄 만명 부인은 붉은색 끝동을 댄 파란 반회장저고리에 붉은색 치마를 입고 있다. 저고리 길이가 짧아 가슴을 가리기 위한 허리띠를 차고 있으며, 왼쪽으로 노리개를 달았다. 병풍이 만명 부인을 감싸고 있으며 문갑과 경대, 상자와 태극문양의 베개 등이 함께 그려져 있다.

전반적으로 민화적 색채에 불화적 요소를 가미한 작품이다. 인물의 복식 및 그림의 양식 등으로 보았을 때 조선 후기의 화풍을 이어받아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채색이 벗겨지고 훼손이 된 상태이며 문화재 지정을 받기 전인 2000년 경에 보수를 하였다.

내용 양산지산리부부상은 취서사에 보관되어 있다. 취서사는 신라의 각간(角干)인 김무력과 김서현 장군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그림의 주인공인 김서현 장군과 만명 부인은 김유신 장군의 부모이다. 김서현은 진평왕 때의 장군으로 고구려 낭비성을 함락시키는 등 삼국통일의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 벼슬이 대량주도독(大梁州都督)과 삽량주총관(歃良州摠管)에 이르렀다. 만명 부인은 진흥왕의 질녀로서 결혼식을 올리기 전부터 김서현과 눈이 맞아 야합을 하였다고 한다. 이 만명은 무속에서 '말명'이라 부르며, 말명신은 무조신

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무속의 연구(朝鮮巫俗の研究)』에서는 "여자의 죽은 영혼을 말명이라 부르며, 무녀의 죽은 영혼은 만신말명이라 칭한다. 이 말명은 본래 김유신의 어머니 이름이었던 것을 나중에 무속에서 신격화한 것"이라고 하였다.

1930년대에 쓰인 양산 지역의 관련 사료에서는 양산지산리부부상으로 보이는 초상화를 언급하고 있다. 『교남지(嶠南誌)』 권26 능묘조(陵墓條)에서는 북정리에 있는 부부총(夫婦塚)을 거론하면서 그 위에 신라시대에 전사한 김 장군의 초상이 있다고 하였다. 부부총은 1920년 일제가 북정동 고분군을 발굴하면서 부부라고 생각되는 유해(遺骸)가 나란히 출토되면서 붙여진 것이다. 발굴된 유물로 보았을 때 진골 계급 이상의 귀족 무덤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한편 구한말 유학자인 묵헌(默軒) 박천수가 쓴 '북산성신사중수기'에 따르면, 마을주민들의 뜻을 모아 김장군 사당을 새로 수리하였으며 이곳에는 초상화가 엄숙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하였다.

양산지산리부부상은 원래 마을의 당집에 모셔졌던 초상으로서 신앙물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무속인이었던 황기준이 이를 모시고 있다가 1984년 김해 김씨 가락종친회에 인수를 한 것이다. 황기준의 동생 황당룡에 의하면 1926년경 자신의 집안이 마을수호신을 모시던 신기리 당집으로 이사와 살게 되었다. 점을 봐주던 어머니는 당집에 있는 이 초상화를 모시고 당제를 지냈다고 한다. 이 당집은 당시 양산의 거부(巨富)였던 배영복이 지어준 것이다. 배영복은 당집을 지으면서 화가를 불러 부부상 2점을 그리게 하였다. 그림은 각각 성황사와 당집에 모시도록 했다고 한다. 이처럼 양산지산리부부상은 마을을 수호하는 당집의 부부신으로서 오랫동안 모셔지다가 1980년대 들어서 김해 김씨 가락종친회의 사당에 이전되어 봉안된 것이다.

참고문헌 嶠南誌, 조선무속의 연구(赤松智城 · 秋葉隆, 심우성 역, 동문선, 1991), 양산 금조총 · 부부총(동아대학교박물관, 1991), 묵헌유고(박춘구, 경모재, 1992), 한국무신도(김태곤, 열화당, 1993) 취서사지(양산문화원, 2008), 성황사 및 그 사신에 대한 조사연구(양산문화원, 2009).

필자 유승훈(柳承勳)





1. 김서현 장군

2. 만명부인
양산문화원 제공

양주소놀이굿

정의 경기도 양주 지역에서 전승되는 소놀이굿. 양주소놀이굿은 1980년 11월 17일에 '중요무형문화재 제70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에 있는 양주소놀이굿보존회를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다.

역사 양주소놀이굿의 기원이나 형성 과정에 대해 참고할 문헌 자료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거의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우마숭배와 농경의례인 소멕이놀이에 그 기원을 두고 무속의 제석거리와 마마배송굿의 마부타령에 자극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양주소놀이굿의 형성 과정 역시 자생적으로 양주 지방의 무속에서 비롯된 것인지, 다른 지방에서 배워온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전승자들의 단편적 기억에 의존해 양주소놀이굿의 역사를 재구성해 볼 때 떠오르는 인물은 팽수천(彭壽天, 1901~1937)이다. 현재 전승자들이 말하는 양주소놀이굿의 역사는 무부였던 팽수천에서 시작된다. 팽수천은 재담도 잘하고 소리도 잘했으며 놀기도 잘했던 인물이다. 무녀와 한 짝이 되어 양주소놀이굿 재담도 확립하고 소리도 전승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 그는 구빼미 만신과 같은 양주 지역의 만신들과 함께 광복 이전에 양주 경사굿에서 벌어지는 소놀이굿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1960년대 양주소놀이굿 재현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여러 연행자를 길러내는 역할을 했다.

양주소놀이굿은 광복 이후 급격하게 쇠퇴하고 전승마저 단절될 위기에 처한다. 이러한 때에 양주소놀이굿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재현 작업도 이루어진다. 우용진 · 고관성 같이 팽수천에게 소놀이굿을 배운 인물들과 조영자로 대표되는 양주 지역 만신을 중심으로 양주소놀이굿이 재현되었다. 양주 지역의 신명 많은 놀음꾼과 만신들의 합작품이 양주소놀이굿임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전까지 양주소놀이굿은 마부 역할을 맡는 놀음꾼과 만신을 중심으로 전승되었다. 그런데 1980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전후해 양주소놀이굿은 마부, 만신, 악사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승체계가 마련된다.

내용 양주소놀이굿은 멍석 등으로 소를 꾸며 만들어서 제석거리 주관자인 무녀와 가장한 소를 몰고 온 마부가 재담과 소리를 주고받는 굿놀음이다. 이 굿이 굿놀음이기는 하지만 무당 중심의 연행이 아니라 마을의 신명 많은 놀음꾼들과 함께 연행해 나간다는 점이 독특하다. 마을의 놀음꾼과 무당이 합작해 벌이는 것이 소놀이굿이다.

양주소놀이굿은 만신과 소와 송아지를 몰고 온 마부와의 재담 및 타령을 중심으로 엮어진다. 만신의 부름을 받은 마부가 소와 송아지를 몰고 들어와서 소의 여러 가지 모색을 묘사한 뒤 소의 여러 가지 치장을 서술하고 소를 사고파는 행위가 이어진 다음 집안이 잘되도록 축원하는 것이 핵심적 내용이다. 원래 양주소놀이굿은 양주 지역 재수굿의 일종인 경사굿과 깊은 관련이 있다. 소놀이굿만 독립적으로 연행되는 것이 아니라 농사나 사업 · 장사 등이 잘되고 자손이 번창하기를 바라는 경사굿의 일부로서 제석거리에 이어서 행해졌다. 보통 가을 추수 후에 신곡(新穀)맞이 경사굿에서 연행되었다.

경사굿은 첫 굿거리인 행추물림에서 시작하여 부정, 불사맞이, 본향, 초가망, 조상, 대감, 성주받이, 상산, 별상, 신장, 산대감, 제석(소놀이굿), 호구거리, 성주, 산거리, 창부, 뒷전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소놀이굿은 이러한 경사굿의 문맥에서 제석거리에 연계되어 진행된다. 양주소놀이굿은 길놀이, 제석굿의 주바지, 마부의 등장과 소의 등장, 소의 모색치레, 소의 치장치레, 소의 논밭갈기와 글 가르치기, 고사 · 축원 · 덕담, 소 흥정과 권주, 뒷풀이 등의 순으로 연행된다. 길놀이, 소 흥정과 권주, 뒷풀이는 1980년 이후 새롭게 첨가된 것이다. 이는 양주소놀이굿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공연을 중심으로 연행되면서 생긴 독립적 연행물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양주소놀이굿의 연행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석거리 절차가 되면 대청마루에서 진행되던 굿이 안마당으로 옮겨지고 제석상이 차려진다. 마당에 제석상이 차려지면 악사들이 밑으로 내려와 자리를 잡고, 원마부 한 명과 곁마부 두 명이 어미소와 송아지를 데리고 들어와 소놀이굿을 한다. 어미소는 네 명, 송아지는 두 명의 사람이 각각 들어가 가장한 것이다. 소놀이굿에 등장하는 무당은 제석거리 복색인 장삼과 고깔을 쓰고 함께 마당에서 춤을 추면서 판을 이끌어 간다.

양주소놀이굿은 마부들과 무당의 재담 및 타령이 중심이 되어 진행된다. 판에 등장한 무당은 먼저 제석청배한다. 제석청배를 끝낸 무당은 마부를 부르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소놀이굿이 시작된다. 만신이 부르는 소리에 등장한 마부는 만신과 재담을 주고받는다. 무당이 짤막한 말을 던지며 원마부와 곁마부가 교대로 서로 창을 한다. 이 과정에서 원마부타령, 곁마부타령, 마부노정기 등의 타령이 불려진다. 마부들과 함께 등장한 어미소와 송아지는 까불면서 마당판을 돌아다닌다. 마부들은 절타령과 보물타령을 통해 어미소를 소개한다. 이어서 소의 생김새를 타령으로 부르면서 소빛내력, 머리치레, 뿔치레, 귀치레, 눈치레, 코치레, 입치레, 혀치레, 이치레, 꼬리치레, 다리치레, 굽치

례로 이어진다. 이어서 소의 치장치레가 진행된다. 질마치장, 굴레치장, 마부치장 등의 소 장식품에 대한 모습이 묘사된다. 치장치레 다음에 소의 기능적인 모습이 강조된다. 마부가 소를 부리는 일과 함께 글 가르치기를 시도한다. 여기에서 소가 사람의 말을 알아들어 잘 부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어서 고사·축원·덕담이 진행된다. 이 대목에서는 소놀이굿이 마부 중심에서 무당에게로 넘어간다. 양주소놀이굿의 결말은 소 흥정 대목이다. 무당이 집주인을 내세워 소 값을 흥정하고 소를 사고파는 행위가 보인다. 소가 팔리면 집안이 잘되도록 무당이 축원을 하고 소놀이굿이 마무리된다.

지역사례 소놀이굿 형태의 연행은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실제 연행 상황이 보고된 지역은 경기도와 황해도이다. 양주소놀이굿을 제외한다면 보고된 소놀이굿은 모두 황해도 지역이다. 경기도와 황해도 지역의 소놀이굿은 경사굿 문맥에서 제석거리와 연계되어 진행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볼 때 적지 않은 차별성을 보인다.

황해도 평산군에서 전승 연행되던 소놀이굿이 평산소놀음굿이다.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90호'로 지정되어 있다. 평산소놀음굿의 특징은 다른 소놀이굿과 비교할 때 연극적 속성이 강하다는 점이다. 제석굿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연극적 형태로 새롭게 분화되고 발전되어 등장한다. 제석님, 세지석(삼신제석·복립지석·지인지석), 신농씨, 애미보살, 지장보살, 마부, 약대 등 등장인물이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다. 이들 인물의 역할 또한 분명하다. 제석님은 인간애기를 점지하고 농사를 감독하는 구실을 한다. 신농씨는 농사를 감독하고, 애미보살은 씨뿌리기를 하고, 지장보살은 김매기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평산소놀음굿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제석과 마부이지만 나머지 인물들도 적절한 나름의 역할을 한다. 다른 소놀이굿과 비교할 때 가장 연극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황해도 연백군에서도 소놀이굿이 연행되었다. 연백소놀이굿의 주된 내용은 마부와 만신의 말로 겨루기가 서두에 진행된다. 이어서 소가 분명히 제 구실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 소에게 축원하고 대접하는 내용이 이어진다. 결말 부분은 대주가 나서서 풍농을 기원하자 마부가 나서서 잦은난봉가, 산염불, 잦은염불 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연백소놀이굿의 특징은 소놀이굿의 제의적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이다. 제의적 성격이 많이 거세된 양주소놀이굿에 비해 연백소놀이굿은 소놀이굿의 제의적 의미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황해도 만신이었던 우옥주가 연행했던 소놀음굿이 있다. 어느 지역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황해도 옹진군 일대에서 전승되던 것으로 추론된다. 이 소놀음굿에는 경관만신, 마부, 상좌 등이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경관만신이 묻고, 그 말을 상좌가 마부에게 전하고, 마부가 한 말을 다시 상좌가 듣고, 상좌가 그 말을 경관만신에게 전하는 대사 전달법이 독특하다. 간접화법을 사용하는 소놀이굿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소놀이굿은 크게 네 가지가 전승되고 있으며 각각 나름대로의 지역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소놀이굿의 형태는 각기 다르지만 가장한 소를 두고서 만신과 마부가 여러 가지 재담과 소리를 하며 한바탕 놀이를 벌인다는 점은 동일하다. 각 지역 경사굿의 문맥에서 제석거리에 연계되어 진행된다는 점 역시 공통적인 속성이다.

참고문헌 소놀이굿과 무가·제석거리에 대하여(최길성,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5), 양주 소놀이굿(이두현, 무형문화재보고서 제6집, 문화재관리국, 1967), 김금화무가집(김금화, 문음사, 1995), 큰무당 우옥주 유품(양종승, 국립민속박물관, 1995), 황해도평산소놀음굿(양종승, 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양주소놀이굿(김헌선,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양주소놀이굿(김헌선 외, 양주시, 2006).
필자 허용호(許龍鎬)

언월도(偃月刀)

정의 무당이 사용하는 칼 중에서 가장 큰 칼. '월도(月刀)'라고도 한다. 언월(偃月)이라는 말은 초승달이라는 뜻이며 귀인이 될 여자의 골상(骨相)을 뜻하기도 한다.



언월도
국립민속박물관 사진자료 소장

형태 이 칼은 칼 부분과 칼자루 부분으로 나뉜다. 칼 부분은 철(鐵)로 만들고 칼자루 부분은 단단한 나무로 둥그렇고 기다랗게 만든다. 칼날은 위가 넓고 끝이 뾰족하며 뒤로 젖혀져 있고 칼등은 두 갈래로 되어 아랫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삭모(削毛)를 달고 밑에는 용의 아가리가 있다. 칼자루에는 붉은 칠을 하였다. 언월도의 자루 윗부분은 나선형으로 제작된다. 방울이 부채와 함께 한 조를 이루는 것처럼 언월도는 삼지창과 함께 한 조를 이룬다.

내용 무속신앙에서는 굿을 하는 과정에 무악기(巫樂器)와 도검류(刀劍類), 무점구(巫占具), 소도구 등의 여러 가지 무구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무구가 삼지창과 언월도이다. 이들은 도검류(刀劍類)에 속한다. 도검류에는 언월도, 삼지창, 신칼, 작두가 있으며 칼과 함께 무당의 무기 역할을 한다. 삼지창은 창과 창 자루로 나누어지며 창은 철로, 자루는 단단한 나무로 만든다. 날이 3개 혹은 4개 달린 창은 원래 농기구나 수렵 도구에서 발전된 것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갈래로 나눠지는 창은 삼국시대부터 발견된다. 이것은 병구(兵具)에서도 사용되는데 무기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무구(巫具)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서울굿에서는 주로 군인 계통의 신인 장군, 신장, 군웅을 모실 때 언월도와 삼지창이 사용된다. 무당이 사용하는 신칼 중에서 가장 큰 칼인 언월도는 신의 성격을 나타내거나 신의 영험을 표현한다. 장군, 별성, 신장거리를 묶어서 대안주거리라고도 하며 대안주는 잘 차린 안주 혹은 상차림을 뜻한다. 대안주거리에서는 무당이 적색, 황색, 청색 삼색기를 오른손에 월도를 들고 춤춘다. 이어서 월도나 삼지창에 갈비를 꽂아서 세운다. 여기서의 갈비는 큰 안주에 해당된다. 무당은 앉아서 월도를 세우거나 삼지창에 제물로 올린 갈비를 꽂아서 흔들리지 않게 세운다. 이를 '사슬(사실) 세운다'라고 한다. 사슬을 세웠으면 술잔을 사슬에 세 번 돌려서 굿을 의뢰한 사람들에게 주고 부채로 사슬을 쳐서 쓰러뜨린다. 사슬이 잘 세워지면 신이 흡족해하는 것으로 여긴다. 황해도굿의 사냥거리에서는 경관만신이 상산막둥이를 데리고 사냥을 하러 나갈 때 이 칼을 가지고 나간다.

언월도는 무당이 신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이자 신의 영험함과 신의 감응(感應)을 굿판에 모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도구이다.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미술문화의 이해(김원룡 감수, 예경, 1994), 한국의 굿(하효길 외, 민속원, 2002), 무당 귀물 연구-『삼국유사』의 삼부인과 무당의 거울·칼·방울을 중심으로(양종승, 생활문물연구 2, 국립민속박물관, 2001).
필자 변지선(卞志善)



1.월도세우기

2. 대안주거리에서 무당이 월도와 삼지창을 든 모습
서울시 도봉구 상계동 범바위굿당 | 2004.11.23 | 변지선

얼새남

표제어 평진오기굿(915쪽)

여탐굿

정의 혼사나 환갑이 있을 때 조상들에게 미리 알려 복을 받기 위하여 하는 굿. '혼인여탐굿', '환갑여탐굿', '예탐굿'이라고 부르며 지방에 따라서는 '혼사굿', '환갑굿'이라고도 한다.

내용 여탐굿은 소규모로 비손 형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정식으로 굿을 하는 경우도 있다. 대개 양가가 정혼을 하고 약혼을 하게 되면 진행한다. 과거에는 조상 신주를 모신 사당에서 진행했으나 사당이 없는 경우에는 안방 윗목 벽 밑의 조상자리나 대청의 기둥 아래에 상을 차리고 진행한다. 조상상에 조상 수대로 잔을 올리고 나물과 삼색실과·주·과·포를 올린 후 당사자가 혼인을 하게 되었음을 아뢴 다음 결혼 후 잘살게 해 달라고 빈다. 환갑이라면 당사자가 환갑을 맞게 되었음을 아뢰고 무병장수하게 살게 해 달라고 빈다. 굿이 아닌 비손이라면 평복을 입은 무당이 진행한다.

과거에는 혼인을 하지 못하고 처녀로 죽은 왕신을 모신 집에서는 이 왕신을 달래느라고 혼인 전에 혼인여탐굿을 하기도 했다. 굿은 일반적인 재수굿 제차를 따르면서 조상거리에서 조상에게 따로 복을 비는 내용이 들어갔다. 성주거리에서는 왕신을 모실 때 각별하게 혼인을 앞둔 사람이 빌면서 혼인 후의 복을 기원했다.

최근에는 여탐굿을 보기가 어려워졌다. 특히 굿을 연행할 때 집에서 하기보다 굿당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조상을 위하는 특별한 의식을 거행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사당과 조상신주를 전혀 모시지 않아 조상 앞에 나가 혼인이나 환갑을 아뢰고 복을 기원하는 의식은 진행할 수 없다. 따라서 여탐굿을 한다고 해도 일반적인 재수굿의 절차와 동일하여 차이점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재수굿이라는 이름 아래에 혼인이나 환갑을 앞둔 재가집의 복을 비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사람이 평생 동안 겪는 다양한 일생의례는 무속과 긴밀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 혼인과 환갑은 삶의 흐름에 큰 변화가 있는 일생의례로 여탐굿을 거행함으로 인해 그때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었다. 혼인을 함으로써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고 환갑을 맞음으로써 다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믿는 한국인들은 여탐굿을 통해 삶의 재창조를 가져왔다. 그때까지 살아온 과거의 삶을 소멸시키고 새롭게 생을 출발시켰다.

참고문헌 한국무속연구(김태곤, 집문당, 1980).
필자 홍태한(洪泰漢)

역가상(役價床)

정의 제주도굿에서 신에게 인간의 정성을 바치는 상.

내용 제주도의 모든 굿에 차려지며, '보답상'이라고도 한다. 제주도굿에서 '역가(役價)'는 신의 덕으로 벌고 얻게 된 모든 것을 뜻한다. 신이 잘 보살펴 주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덜었으므로 당연히 그 덕을 감사히 여기고 보답하여야 한다고 인식한다. 말하자면 심방은 신의 덕으로 그동안 굿을 많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에 알맞은 역가를 신에게 올려야 한다. 단골도 집안이 평안하고 생업활동이 큰 변고가 없었음을 감사히 생각하며 역가를 바친다. 역가를 바친다는 것은 신에 대한 보답으로 인간이 인정과 정성을 바치는 것으로 곧 신에게 여러 공물(供物)을 올리게 된다. 쌀이나 폐백 등을 놓아 상을 차리며 이것을 역가상이라고 한다.

상에는 양푼 가득 담은 쌀과 폐백류, 실, 고리동반을 놓는다. 굿에 소요되는 돈을 봉투에 담아 올려 두기도 한다. 이 돈은 실제적으로 심방에게 주는 사례비이지만 단골이 굿을 함으로써 신에게 정성을 올리는 것이기에 자연스럽게 역가로 바치는 돈이라고 할 수 있다. 역가상에는 이밖에 심방이 가지고 다니는 무구인 바랑을 올려놓는다. 역가상의 제물은 굿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폐백류의 수량이나 고리동반 개수 등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한편 굿을 할 때 역가올림이라는 순서가 있다. 역가올림에서 심방은 자손이 정성을 모아 역가를 올린다고 말하면서 역가상을 들어 올려 바친다. 자손들도 무릎을 꿇고 앉아 소미들이 역가상을 들어 잡아준 상태에서 두 손을 공손히 내밀며 신전에 바치는 모양을 한다.

참고문헌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사진으로 보는 민속의 어제와 오늘 2(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강소전(姜昭全)

연양탁상

정의 제주도굿에서 굿을 할 때 차려 놓는 제상.

내용 연양탁상은 '연향탁상'이라고도 한다. 이 연양탁상은 달리 한자말로 추정하고 영연탁상(靈筵卓床)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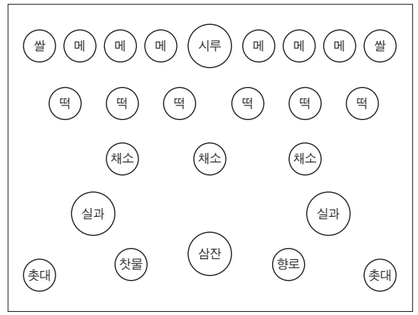
제주도굿을 당클을 매지 않고 할 때에는 오로지 이 탁상만을 차려 놓고 굿을 하기 때문에 이를 탁상굿의 전형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이 탁상을 놓지 않고 굿이나 맞이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지역적 편차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서귀포시의 성산읍, 표선면, 남원읍, 서귀동 등지에서는 이러한 탁상을 놓는 굿을 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탁상의 용례는 지역적 분포와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다. 서귀포시의 안덕면·중문동·대정읍, 제주시의 한경면·한림읍·애월읍·조천읍·구좌읍의 일대에서는 탁상을 놓고 굿을 하는 것이 예사이다. 또한 탁상굿을 하는 경우에도 연양탁상을 사용한다. 즉 갈영 명감코시, 푸닥거리, 성주일월맞이, 요왕맞이 등을 할 때 이 탁상을 놓고 병풍을 두르는 일을 한다.

연양탁상은 굿의 지역적 분포를 통해 굿의 기본적인 방식을 결정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인 동시에 굿 갈래의 위계와 종류를 가를 때 일정한 기능을 하면서 사용하는 용례가 된다. 당클을 매는 굿과 당클을 매지 않는 굿 등의 차이, 굿의 종류나 차이 등을 분별함에 있어서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연양탁상을 배설함에 있어서는 일단 제상 뒤에 병풍을 친다. 병풍은 기메를 화려하게 하지 않고 '솔전지'를 대나무 두 개에다 세우고 여기에 칙지 두 개를 두른다. 굿의 종류에 따라 여기에 '드리'를 걸기도 한다. 명감드리와 같은 것을 걸어서 인정을 걸기도 하거나 지전을 걸기도 한다.

연양탁상은 삼천전저서궁 또는 어궁 아래에 두기도 한다. 연양탁상의 상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연양탁상의 가장 앞에는 주잔삼잔을 가운데로 하여 향로, 찻물, 촛대가 놓인다. 그 뒤로 실과가 놓이고, 다시 그 뒤에는 채소가 놓인다. 다음으로



떡이 놓인다. 떡은 제주도에서 널리 사용되는 돌래떡을 놓는다. 다음 줄에 시루떡을 가운데에 놓고 양편으로 다시 메와 쌀을 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사상의 일반적인 용례와 다를 뿐 아니라 조상이나 군웅일월, 산농일월, 요왕일월, 제석일월, 책불일월, 백과일월 등을 위하는 특별한 의의가 있는 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굿에서 연양탁상은 각별한 의의를 지닌다. 신을 위하는 굿상이 전적으로 당클을 위한다면 이러한 탁상은 인간의 조상 반열에 들어 있는 존재를 위해서 설치되고 이것을 기준 삼아서 조상을 위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런 점에서 연양탁상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필자 김헌선(金憲宣)

연지당상

정의 서울새남굿에서 지장보살을 모시기 위해 차리는 제물상.

내용 지장보살상이라고도 하는 연지당상은 새남굿 중에서도 규모가 큰 굿에서만 볼 수 있다. 새남굿상 중에서 마당에 차린 대상(大床) 양편으로 금탑과 은탑을 설치하면서 대상 왼편 금탑 앞에 지장보살 화분을 놓고 그 앞에 연지당상을 차린다. 이 상을 중심으로 밖도령, 문들음, 안도령거리를 행한다. 공간에 따라서는 대상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차린다. 이때 연지당상 뒤에는 반드시 병풍을 둘러 독립성을 강조한다. 굿당에서는 대상을 안에 차리고 연지당상은 마당에 차리는 식으로 공간을 분할하기도 한다.

불교에서 죽은 사람에 대한 자비를 상징하는 지장보살을 모시는 상인 만큼 제물로는 육류를 일절 쓰지 않으며 불사상과 유사한 상차림을 보인다. 주로 쓰이는 떡은 흰 방망이떡으로 맨 뒷줄에 세 접시를 놓고 전병을 얹은 다음 흰 종이꽃을 꽂는다. 그 외에 백설기, 계피팥떡, 인절미 등이 올라갈 수 있다. 붉은 팥떡은 쓰지 않는다. 두부, 나물, 각종 과일과 조과를 올린다. 상 오른편에는 예단으로 옥색 천을 올린다. 이 상 앞에 다시 작은 상을 놓는다. 이 상에는 연꽃으로 장식하고 위패를 세우고, 그 앞에 맑은 물 세 그릇을 놓고, 다시 그 앞에 향로를 두고 좌우로 촛대를 한 쌍 세운다.

참고문헌 서울새남굿(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한국의 샤머니즘(조흥윤,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굿과 음식 1(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서울굿의 이해(한국무속학회, 민속원 2007), 서울 새남굿의 굿상차림(심우성, 샤머니즘연구 1, 한국샤머니즘학회, 1999).
필자 이수현(李琇炫)

연풍대(燕風臺)

정의 원을 그리며 돌면서 추는 회전무 동작.

내용 황해도굿에서는 이러한 춤 동작을 '맴돈다'라고 하고, 이 춤을 '맴돌기'라 부른다. 연풍대 장단은 춤 형식에 맞도록 짜여져 있는데, 이러한 장단에 맞춰 추는 회전무는 황해도 굿춤의 특징이다. 연풍대는 굿을 진행시키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황해도굿에서 연풍대는 원칙적으로 왼쪽으로 돌게 되어 있다. 이것을 맴돌이춤이라 하고 이때 연주되는 장단을 맴돌이장단이라고 한다. 연풍대를 할 때, 즉 맴을 돌 때의 발디딤새는 왼발이 중심이 되어 오른발을 빙빙 돌리면서 바닥에 찍는다. 이때 양쪽 무릎에는 오금 주기를 하여 탄력성을 갖는다. 왼발을 돌리면서 두 번 이상 바닥에 찍게 되면 춤이 사뿐사뿐 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방 뜨게 되므로 춤의 자연미를 상실한다.

연풍대는 신(神)바람을 일으키는 춤으로도 알려져 있다. 연풍대를 돌고 나면 무당은 신과 밀접한 상태로 돌입하게 되고 더욱 강한 영험력의 춤으로 이어지게 된다. 연풍대장단은 연풍대 동작에 알맞게 만들어진 매우 빠른 음악이다. 이를 연주하기 위해선 장구잽이와 징잽이의 호흡조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황해도굿에서의 연풍대는 강신무에 의해 추어지는 춤이다보니 춤 자체가 광란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춤을 추면서 특정한 상징적 표현을 하지 않는다. 연풍대는 무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적게는 5회, 많게는 30회를 회무한다. 연풍대는 춤동작의 변화 사이사이에 추는 춤이기도 하지만 춤의 시작과 끝맺음을 알리는 기능도 한다.

참고문헌 한국의 전통춤(정병호, 집문당, 1999), 굿춤의 구조와 본질 그리고 미적양상-민속예술의 정서와 미학(양종승, 민속학회, 1999), 황해도 굿춤의 원리와 형식성 고찰-우리춤 연구(양종승, 한양대학교 우리춤연구소, 2007).
필자 양종승(梁鍾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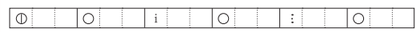
염불(念佛)

정의 굿판에서 연주하는 다양한 노래와 이에 따르는 장단. 염불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불교적 세계관을 반영한 것으로 무속에 스며든 불교의 영향을 보여준다. 염불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분포한다. '나무아미타불' 등 불교적 노랫말을 지닌 성악곡도 있고 순수하게 기악곡으로 연주되는 경우도 있다.

내용 및 지역사례 평안도굿에서 긴염불은 2분박 조금 빠른 12박(12/4박자) 장단이다. 염불은 서울굿에서 가장 많이 연주된다. 서울굿에서 염불은 긴염불, 반염불, 염불도드리가 있다. 긴염불은 염불타령 또는 염불이라고도 하며 느린 3소박 6박(18/8박자) 장단으로 연주한다. 반염불은 긴염불을 빠르게 변주한 것으로 자진염불이라고도 하며 빠른 3소박 6박(18/8박자) 장단으로 연주한다. 염불도드리는 보통 빠르기의 3소박 6박 장단으로 연주한다. 긴염불과 반염불은 굿음악뿐 아니라 승무, 검무, 탈춤 등의 반주음악으로도 연주한다.

서울새남굿 가운데 진적에서는 거상악을 자진난이로 시작하여 긴염불과 반염불을 연주하고 이어서 삼현도드리, 굿거리, 당악을 연주하기도 한다. 상산거리에서는 삼현도드리에 이어 염불도드리를 연주하고 계속해 굿거리, 별곡타령, 자진허튼타령을 연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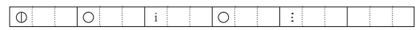
〈보례〉 염불타령 (1소박 = M.M. 54)



〈보례〉 반염불 (1박 = M.M. 58)



〈보례〉 염불도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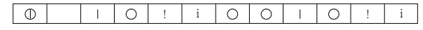


전라도굿에서 염불은 긴염불, 중염불, 자진염불 세 종류가 있다. 긴염불은 진양조, 중염불은 중모리, 자진염불은 중중모리 또는 자진모리에 얹어 부른다. 보통 긴염불은 무당이 혼자 부르는 통절형식, 중염불과 자진염불은 무당이 메기는 소리를 부르면 악사가 후렴구를 받는 유절 형식으로 각각 되어 있다. 후렴구는 대부분 '나무아미타불'이다. 여수 영당 풍어굿에서 부정굿을 하면서 사방에 절을 하며 염불을 부르고, 혼맞이굿에서는 집안의 재액을 물리기 위해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순으로 염불을 부른다. 순천씻김굿에서는 혼맞이와 길닦음에서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순으로 염불을 부른다. 진양조는 2소박 6박(6/4박자) 장단이 셋 혹은 넷 이상이 모여 한 집을 이룬다. 중모리는 2소박 12박(12/4박자), 중중모리는 3소박 4박(12/8박자) 장단이다.

〈보례〉 전라도 진양조장단 4장단 ○ : ⓘ ! · i



〈보례〉 전라도 중모리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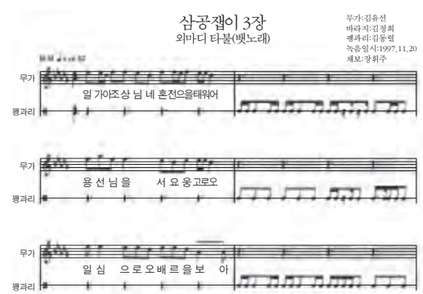


〈보례〉 전라도 중중모리장단



동해안굿에서는 안채비염불, 고삼염불, 자삼염불, 육자염불, 지옥가염불, 꽃노래염불, 뱃노래염불, 초롱등노래염불, 탑등노래염불 등 염불 무가를 부른다. 이들 무가를 염불소리라고 한다. 특히 경남 지역에는 염불소리가 많아서 이 지역 무당들이 "부산에서 무당행세 하려면 염불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할 정도이다. 이런 노래들은 다양한 장단에 얹어 부른다. 꽃노래염불, 뱃노래염불, 초롱등노래염불 등 많은 염불소리는 주로 3소박 4박(12/8박자) 장단의 삼공잽이 3장에 얹어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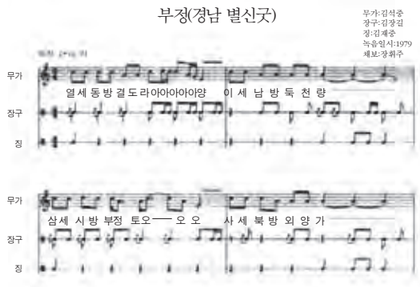
〈보례〉 동해안 뱃노래염불 (김유선 노래 / 장휘주 채보)



경상남도 별신굿에서는 부정장단을 염불장단이라고도 한다. 경상남도 별신굿에는 부정굿이 따로 없고 문당굿에서 부정을 친다. 이때 부르는 노

랫말이 "일세동방결도량 이세남방득천량"으로 시작되는 염불이기 때문에 이를 염불장단이라고도 한다. 염불장단은 2소박 6박(6/4박자) 장단이다.

〈보례〉 동해안 부정 (염불장단) (김석출 노래 / 장휘주 채보)



참고문헌 한국음악의 뿌리, 팔도 굿음악(이용식,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9), 무속음악장단의 음악적 특성(이보형, 한국음악연구 19, 한국국악학회, 1991), 전남 동남부 지역의 무속음악고(김만석, 민속학연구 7, 국립민속박물관, 1999), 호남지역의 무악과 굿의식의 성격-순천씻김굿을 중심으로(윤화중, 한국음악연구 29, 한국국악학회, 2001), 경남 · 경북 동해안 무악 비교 연구(장휘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서울 새남굿의 삼현육각 연구(김소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필자 이용식(李庸植)

영감가면(令監假面)

정의 동해안별신굿의 '탈굿'과 제주도의 '영감놀이'에서 사용되는 탈.

형태 탈굿에 사용되는 탈은 마분지로 만들며 크기는 가로 24㎝(귀를 뺀 크기는 20㎝), 세로 24㎝, 높이 8㎝이다. 흰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눈과 눈썹, 수염을 그렸으며 붉은색으로 입술을 그려놓았다. 탈의 크기와 생김새는 만드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영감놀이에 사용되는 탈은 창호지에 눈, 코, 입을 뚫은 단순한 모양으로 가면의 위, 아래 부분을 가늘게 잘라 머리카락과 수염을 나타내고 있다. 얇은 헝겊으로 만들기도 한다.

내용 탈굿을 연행할 때 쓰는 영감가면은 무격(巫覡) 중 한 사람이 영감이라는 극중 인물로 가장하기 위하여 얼굴에 쓰는 탈을 말한다. 극중 영감은 '양반'으로 통용된다. 탈굿에서 영감은 서울애기라는 기생에게 빠져 가산을 탕진하는 인물이다. 두루마기차림에 곰방대와 부채를 들고 거드름을 피우며 돈으로 서울애기를 유혹한다. 앞에는 사대부(四大夫), 뒤에는 팔대부(八大夫)라고 쓴 창호지로 만든 정자관을 머리에 쓰고 있다. 최근에는 창호지로 만든 관보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검은색 정자관을 쓰는 경우가 많다. 탈을 착용할 때 정자관과 탈이 이어지는 이마 부분을 옅은 색의 천으로 묶는다.







1~2. 영감가면(김용택제작)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 2009.4.11 | 김신효

3. 영감가면(김용택제작)
경북 영덕군 남정면 원척리 | 2009.4.5 | 김신효

탈의 제작은 별신굿 현장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제작방법은 비교적 단순하다. 먼저 8절 크기의 마분지를 접은 다음 가위로 오려내어 얼굴 형태를 만든다. 눈과 입을 오려내고 코를 붙인다. 탈의 위, 아래를 조금 잘라 가운데를 접어 입체감을 준 다음 스테이플러로 고정시킨다. 외형이 갖추어지면 검은색과 붉은색 매직펜으로 눈, 눈썹, 입, 귀 순으로 그린 다음 귀 근처를 뚫어 머리에 묶을 노끈을 매달면 탈이 완성된다. 탈은 탈굿을 연행할 때마다 새로 제작하며 굿이 끝나면 소각한다.

한편 영감가면은 제주도의 굿놀이 가운데 하나인 영감놀이를 할 때 '소미[小巫]'가 영감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얼굴에 쓰는 탈이기도 하다. 이 때 영감은 도깨비신을 말하며 참봉 또는 야채라고도 한다. 영감의 차림새는 탈과 패랭이 또는 갓을 쓰며, 짧은 곰방대를 물고 손에는 횃불을 든 허름한 행색이다. 영감놀이는 칠머리당영등굿에서 풍어를 기원하는 선왕굿과 어부나 해녀가 아플 때하는 치병의례인 두린굿에서 행하여진다. 〈영감본풀이〉에 의하면 영감은 서울 허 정승의 아들로 모두 7형제이며, 이들 형제들은 각 지역으로 흩어져 저마다 명산을 차지한다. 막내아들은 제주도의 한라산을 차지하지만 '오소리잡놈'에다 '팔도오입쟁이'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나머지 형제들이 막내를 데리러 오면 잘 대접하여 돌려보냄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주술적인 의미이다.

참고문헌 제주민속극(문무병, 도서출판 각, 2003), 동해안 탈굿의 변화양상과 축제성(김신효,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제주도 굿의 무구 '기메'에 대한 고찰(강소전, 한국무속학 13, 한국무속학회, 2006).

필자 김신효(金信孝)

영감놀이

정의 정신병의 원인이 영감이 범접한 탓이라고 여겨 영감의 형제들을 불러 환자에게 범접한 막내영감을 데려가게 하는 과정을 연극적 행위로 연출함으로써 환자의 치유를 기원하는 의례. 이 의례는 1971년 8월 26일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었으며, 기능보유자는 이중춘(李中春) 심방이다.

내용 영감놀이의 '영감'은 도깨비를 영감으로 부르는 데서 비롯되었다. 영감은 도체비이다. 도체비는 곧 도깨비의 제주 방언이다. 도깨비는 다양한 성격을 지닌 존재여서 제주도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신앙된다. 도깨비는 놀기 좋아하고 술과 고기를 좋아하며 여자를 좋아한다. 사람에게 범접하여 병을 일으키기도 하는 존재이다. 도깨비는 풍어를 이루어주고 해상 안전을 돌보아주는 선왕(船王)이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도깨비는 풀무의 신이기도 하다. 그래서 도깨비는 풀무를 생업으로 삼던 마을에서 당신으로 모셔지기도 했다.

영감놀이는 전체적으로는 일반적 형태의 굿과 연극적 놀이굿으로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 놀이굿 부분은 가면을 쓰고 영감으로 분장한 소미의 연극적 행위, 수심방과 영감의 대화로 이루어진다. 과거에는 영감놀이를 빈번하게 벌였다. 환자의 몸에 범접한 도깨비를 물리치는 치병굿에서도 벌였고, 배를 새로 건조하여 선왕을 들어앉히는 이른바 연신맞이에서도 벌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연신맞이에서 영감놀이를 하는 사례를 보기 어렵고 치병굿에서나 간혹 볼 수 있을 뿐이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이하에서는 치병굿을 중심으로 하



영감놀이
제주시 건입동 칠머리당 | 2004.3.4 | 강정식

여 기술한다.

치병굿으로 벌이는 영감놀이는 환자의 몸에 범접한 도깨비신을 데려가게 하기 위하여 도깨비신의 형제들인 영감을 불러들여 대접하고 잘 돌려보냄으로써 환자의 치유를 기원하는 유감주술적인 의례이다. 영감놀이는 비가시적 현상을 가시화해 보여줌으로써 환자와 그 가족으로 하여금 회복에 대한 믿음을 심어준다.

영감의 특성을 반영하여 영감놀이는 밤에 벌인다. 심방은 쿼지[快子] 차림을 하고 춤과 말명으로 굿을 진행한다. 베포도업침, 날과국섬김, 군문열림, 새ᄃᆞ림 등에는 무악기가 모두 동원된다.

영감놀이의 전체적인 짜임은 초감제-영감청함(영감놀이)-막푸다시-도진(배방선)으로 이루어진다.

1. **초감제** : 모든 굿은 초감제로 시작한다. 초감제는 베포도업침, 날과국섬김, 연유닦음, 군문열림, 새ᄃᆞ림, 젯ᄃᆞ리 앉혀 살려옴 등으로 짜여져 있다. 베포도업침에서 세상이 생긴 내력을 이야기하고, 날과국섬김에서 굿하는 날짜와 장소를 고하고, 연유닦음에서 굿하게 된 연유를 상세히 고하고, 군문열림에서 군문을 열어 신이 내릴 수 있게 하고, 새ᄃᆞ림에서 신이 내리는 길의 부정을 씻어내고, 젯ᄃᆞ리 앉혀 살려옴에서 해당하는 신들을 차례로 청하여 앉힌다.

2. **영감청함(영감놀이)** : 초감제를 마치면 본격적인 영감놀이를 할 준비가 된 셈이다. 영감청함은 본격적으로 연극적인 놀이가 이루어지는 대목이므로 좁은 의미의 영감놀이라고 할 수 있다.

영감청함은 영감들을 불러들여 잘 대접하고 흥겹게 놀려 환자에게 범접한 막내영감을 데려가게 하는 순서로 전개된다. 먼저 영감들을 청해 들인다. 수심방은 바깥을 향하여 서서 큰소리로 영감들을 부른다. 이 소리를 듣고 미리 영감으로 분장하고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던 소미들이 대답하며 제장으로 몰려든다. 이들은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모습이다. 갓양태만 붙은 파립을 쓰고, 깃만 붙은 베 도포를 입고, 총만 붙은 미투리를 신고, 한뼘도 못 되는 곰방대를 물고, 횃불을 들었다. 얼굴에는 창호지에 눈, 코, 입만 구멍 낸 가면을 썼다. 이들은 춤을 추며 들어와 수심방과 수작하며 자신들이 영감이며, 어떠한 사정으로 여기에 이르렀는지를 밝힌다.

영감들은 서울 먹자골 허 정승의 아들들로 모두 일곱 형제인데 팔도명산으로 흩어져 있다가 제주도로 간 막내의 소식을 몰라 찾아 헤매다가 여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어 환자에게 범접한 것이 막내가 맞는지 확인해 보라는 심방의 말에 환자를 보고 헤어져 소식을 모르던 막내를 만난 것처럼 반가워한다. 그런 뒤에 좋아하는 음식인 술, 수수떡, 돼지고기 등을 대접받는다. 심방, 환자, 환자 가족과 이별 잔을 나누어 마시고 난 뒤 한판 놀고 가자며 서우젯소리에 맞추어 흥겹게 춤을 춘다. 이때 북과 장구 반주가 따르며, 굿판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도 모두 함께 나와 춤을 춘다. 영감들은 흥에 겨워 춤추다가 제물로 채워진 짚배를 들고 물러난다.

3. **막푸다시** : 막푸다시는 마지막으로 하는 푸다시라는 뜻이다. 영감들은 떠났지만 그래도 남아있을지도 모를 다른 잡귀들을 쫓아내는 의례이다. 환자의 몸을 돗자리로 둘러놓고 푸다시를 한다. 소미가 치는 북, 장구 장단에 맞추어 잡귀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하면서 물러나라며 잡귀를 내쫓는 내용의 노래를 한다. 그러다가 잦은 연물이 울리는 가운데 신칼로 환자를 찌르는 시늉을 하고, 환자의 머리 위에 횃불을 피워 붙이거나 성냥갑을 머리에 놓고 불을 붙여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삽시에 번지게 하기도 한다. 이렇게 한 뒤에 돗자리를 재빨리 걷어내면 환자는 방 안으로 들어가 눕는다. 심방은 여러 방식으로 환자를 위협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것은 환자의 몸에 침범한 잡귀를 위협하는 것이다.

4. **도진(배방선)** : 도진은 모든 굿의 마무리에 해당하는 제차이다. 심방은 "헛쉬! 헛쉬!" 하면서 구석구석에 콩을 뿌리며 집 안의 사기(邪氣)를 쫓아낸다. 영감놀이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배방선으로 마무리된다. 배방선은 바닷가에서 행한다. 소미가 제물로 채워진 자그마한 짚배를 들고 바닷가로 나가 영감들과 배를 떠나보내는 사설을 창하며 배를 멀리 띄워 보낸다. 이렇게까지 하고서야 영감들을 완전히 떠나보낸 셈이 된다.

영감놀이, 막푸다시, 배방선은 환자의 병치유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거듭 방법을 달리하는 셈이다. 영감은 본래 일곱 형제이고 막내는 환자의 몸에 범접한 상태이니 실제 영감놀이에는 여섯이 등장해야 하지만 실제 굿에서는 이렇게 많은 소미를 동원하기 어렵다. 축제에서 공연 형식으로 연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굿이면 소미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 영감으로 분장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초감제와 영감청함을 통해 연극적인 행위를 연출하는 식의 전개는 성주풀이에서도 볼 수 있다. 성주풀이에서도 먼저 초감제를 하고, 이어 강태공서목시를 청하여 연극적인 수작을 한 뒤에 집 안팎의 사기를 쫓아낸다. 한편 추는굿에서는 초감제 다음에 대김받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춤이 길게 이어진다.

영감놀이는 심방이 일반적인 방식인 말명과 행위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영감을 등장시킴으로써 연극적인 놀이를 통하여 환자의 치료를 도모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치병굿인 추는 굿에 영감놀이가 삽입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제주도굿에서도 가면극의 면모를 볼 수 있는 사례라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또한 옛 사람들이 일찍부터 연극적인 행위가 심리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영감으로 대표되는 양반 지배층을 희화하고 풍자하는 민중적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제주시 건입동 칠머리당의 영등송별제에서도 영감놀이를 벌이지만 본래 영등굿에서는 영감놀이를 연행하지 않는다. 칠머리당에서 특별히 흥행을 위하여 덧붙인 것이다. 영감놀이는 쉽사리 보기 어려운 굿이 되었으나 전승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굿은 영감놀이의 축약형에 해당하는 선앙풀이와 배방선으로 마무리된다.

참고문헌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제주도무속연구(현용준, 집문당, 1986),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현용준, 집문당, 2002).

필자 강정식(姜晶植)

칠머리당영등굿 배방선에서 영감 일곱 형제가 추는 집단군무 횃불춤
제주시 건입동 사라봉 | 2009.3.10 | 문무병

영감춤

정의 제주도굿 가운데 영감놀이에서 도깨비신인 영감이 짚으로 만든 배를 들고 추는 춤.

내용 영감춤은 영감 도깨비 일곱 형제가 추는 집단춤이다. '영감본풀이'에 의하면 영감신은 일곱 형제이며 전국 명산을 차지한 산신들이다. 이 신들을 보내는 영감춤은 배방선 제차에서 춘다. 본풀이에 의하면 이 신들은 모이면 일곱 형제, 흩어지면 열네 동서로 나타난다. 따라서 영감춤은 막내동생을 데리고 제주도를 떠나기 전에 일곱 형제가 모이는 춤이자 흩어지는 춤이다. 영감춤은 일곱 형제가 그들이 타고 갈 짚배를 들고 서우젯소리에 맞춰 제장을 도는 집단원무, 사방에서 중심으로 모여드는 춤, 중심에서 사방으로 흩어지는 춤이 기본이 되는 집단무(군무)이다.

영감놀이는 제주도의 굿놀이 가운데 가장 해학적이고 연극적이다. 영감놀이의 대화를 살펴보면 영감이 좋아하는 음식은 돼지고기 · 술 · 수수범벅, 좋아하는 장소는 산 · 바다 · 어장촌, 좋아하는 잠자리는 과부의 방이다. 영감은 미녀를 좋아하고 음침한 곳에 깃든다. 영감은 도깨비이며 불이다. 따라서 처용신화의 역신처럼 여인 속에 영감이 들려서 병이 든 것이기 때문에 굿을 하여 영감을 여인의 몸에서 떼어내 달래어 쫓아 보내는 것이 영감놀이다. 병의 치료는 환자 속에 깃든 영감을 놀리고, 환자와 영감을 분리시키며, 영감 형제들이 나타나서 환자에게 깃든 막내동생을 데리고 나가게 하는 것이다. 영감놀이는 마당에 제상




1


2


3


4

을 차리고 밤에 행한다. 제상 위에는 여러 제물을 올린다. 특히 돼지머리, 수수떡, 소주 등 영감신이 즐겨 먹는 음식을 올린다. 이밖에도 영감신의 가면과 짚으로 만든 자그마한 배를 준비해야 한다. 가면은 창호지에 눈과 코와 입의 구멍을 뚫은 정도다. 얇은 헝겊으로 만들기도 한다. 배는 짚을 실이나 노끈으로 엮어 만들고, 가는 막대기를 배 중심에 꽂아 돛대를 달고, 백지를 달아매 돛을 삼는다.

준비가 모두 끝나면 마당의 굿청에서 수심방[首巫]이 군복 차림을 하고 일반굿을 하듯이 초감제부터 시작해 영감청함, 막푸다시, 배방선의 순서로 진행한다. 초감제는 베포도업침, 날과국섬김, 연유닦음, 군문열림, 새ᄃᆞ림, 정대우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어서 영감을 청해 들인다. 영감신을 청하는 대목은 심방이 '영감본풀이'를 노래하고 "이런 영감님이 한라산으로 하여 제주삼읍(濟州三邑) 방방곡곡을 돌면서 놀다가 이제 제청(祭廳)으로 들어서려고 하니, 삼선향(三仙香)을 피워 들고 모셔 들이자"하며 향로와 요령을 들어 바깥을 향하여 신을 맞이하는 춤을 춘다. 이때 굿청의 불을 끈다. 캄캄한 가운데 멀리 나가 대기해 있던 영감(분장한 소무)들이 서로 횃불을 내두르며 펄쩍펄쩍 뛰어다니다가 굿청 가까이로 들어온다. 수심방이 바깥을 향해 큰소리로 영감을 부른다.

지역사례 제주도의 놀이굿 가운데 영감놀이는 널리 알려져 있다. 도깨비탈(종이탈)을 쓰고 영감으로 차린 도깨비들이 제장 안으로 들어와 한바탕 수선을 떤 뒤 영감상에 차려놓은 진상물들을 잘 대접받고 제장을 떠나는 풍자적인 놀이굿이다. 영감놀이는 두 형식의 굿에서 각각 다른 기능을 하며 굿 가운데 놀이로 삽입되어 있다. 하나는 칠머리당영등굿에서 요왕맞이가 끝난 뒤 어부들을 위한 선왕굿으로 영감놀이를 하고 있다. 과거에 함덕리 그 물접에서 멸치를 몰아다 주는 말통이영감이라는 신을 위한 영감놀이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영감놀이는 풍어를 기원하는 의례로서의 놀이굿이다. 영감놀이의 또 다른 하나는 도깨비 또는 영감을 조상으로 모신 집안에서 미친 환자가 생기거나 어부나 해녀들이 아프면 치르는 두린굿에서 하는 경우다. 이때는 영감을 환자의 몸에서 떼어낸 뒤에 달래서 보내는 주술적인 의례라 할 수 있다.

1. 굿이 끝나고 영감 도깨비들이 타고 갈 짚배를 띄우는 배방선 장면
제주시 건입동 사라봉 | 1998.3.22 | 문무병

2. 영감 도깨비의 종이탈과 복장
제주시 건입동 사라봉 | 1998.3.22 | 문무병

3. 영감놀이의 영감탈과 비교가 되는 전상놀이의 거지부부탈

4. 영감놀이의 영감탈과 비교가 되는 전상놀이의 거지부부탈
제주시 건입동 수협창고 | 1989.2.14 (음) | 문무병

참고문헌 제주도 무속신화(문무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한국의 굿(문무병 외, 민속원, 2002), 제주도의 굿춤(문무병, 각, 2005), 바람의 축제 칠머리당영등굿(문무병, 황금알, 2005), 굿의 기메 · 전지(문무병, 제주특별자치도, 2008).
필자 문무병(文武秉)

영게상[靈駕床]

정의 굿을 할 때 영게를 청해 대접하기 위해 차리는 상.

내용 영게는 영가(靈駕)로 곧 '영혼(靈魂)'을 이르는 말이다. 굿을 하게 되면 그 굿을 마련한 본주(本主)와 관련 있는 죽은 영혼들을 청해 대접하게 된다. 즉 본주 집안의 조상 영혼들을 청하는 것이다. 조상 영혼들은 굿판에서 중요한 기원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을 청하고 제물을 올려 대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한편 집안 차원의 굿에서만 영게상을 차리는 것은 아니다. 마을이나 생업공동체 단위가 주관이 되어 행하는 굿에서도 영게상을 준비한다. 마을이나 관련 생업공동체에 소속되어 함께 삶을 영위하다가 유명을 달리한 존재들도 해당 굿에서 청하게 된다. 그들 역시 현재 삶을 살아가는 이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마을의 안녕이나 각종 생업공동체의 무사고를 기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존재를 기억하고 잘 대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제주 동김녕 마을 잠수굿에서는 영게상과 요왕영게상을 차린다. 전자의 영게상은 전체 김녕리 마을 차원에서 이미 돌아가신 영혼을 청해 대접하는 의미라고 한다. 돌아가신 일반 마을 주민들의 영혼들을 청하고, 더불어 마을 잠수굿의 오랜 역사 속에서 굿의 준비와 진행에 특히 애쓴 영혼이 대상이다. 영게상은 본향상과 이웃해 차린다. 후자인 요왕영게상의 경우에는 바다에서 작업하다가 돌아가신 영혼들은 대접하는 상이다. '요왕에서 잠 자는' 영혼들 역시 잘 대접해야 한다. 요왕영게상은 요왕차사상 및 선왕상과 함께 차린다.

영게상은 말하자면 '배 고픈 영혼'이 없게 하기 위한 상이다. 영혼이 배가 고프면 얻어먹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뜻하지 않은 불행한 일을 일으킨다고 여긴다. 영게상의 차림은 소박한 편이다. 시루떡, 돌래떡, 메, 고사리, 콩나물, 미나리, 계란, 구운 생선, 과일(사과 · 배 · 귤), 술, 제비쌀 등을 올린다.

참고문헌 굿과 음식(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제주도 잠수굿 연구-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동김녕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강소전,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필자 강소전(姜昭全)

영돈

정의 씻김굿에서 망자의 모습을 상징하는 무구. 씻김굿의 중반부 중 씻김 절차에서 사용된다. 지역에 따라 '영돗', '영대' 등으로도 불린다.

형태 영돈은 제작하는 재료에 따라 돗자리형과 옹기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돗자리형은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그 위에 망자의 옷을 펼쳐 놓고 그것을 둘둘 말아 일곱 매듭으로 묶어 세워 놓는다. 그 위에 '넋'을 담은 밥그릇을 놓고 그 위에 누룩과 솥뚜껑을 놓아서 만든다. 이렇게 만든 것을 영돈말이 또는 영돗말이, 영말이라고 한다. 아래로부터 양말, 하의, 상의 순으로 옷을 놓고 그 위에 넋그릇, 솥뚜껑을 놓은 형태를 두고 사람의 신체 형상이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영돈을 '망인(亡人)'이라고 호칭하는 경우도 있다. 옹기형은 작은 옹기 안에 망자 옷과 넋그릇을 넣고 그 위에 솥뚜껑을 얹은 형태이다. 분포로 보면 돗자리형이 훨씬 보편적으로 나타나며, 옹기형은 전남 동부와 전북 북부 일대에서 주로 사용된다.

내용 영돈은 망자의 영혼을 씻겨 주는 절차에서 사용된다. 무녀는 영돈 앞에서 신칼로 솥뚜껑을 두

드리며 망자의 넋을 청배하고, 향물 · 쑥물 · 맑은 물을 차례로 빗자루에 적셔 위로부터 아래로 골고루 닦아주며 망자의 천도를 비는 축원을 한다. 이어 한지를 솥뚜껑 위에 놓고 불을 붙여 태운다. 종교적으로 물과 불은 정화력을 가진 것으로 설명되는데, 씻김에서는 물과 불로 망자가 지니고 있는 이승의 잔재와 더러움을 씻어내고자 한다. 특히 물은 중요한 매개물로 사용되며, 향물 · 쑥물 · 정화수는 물의 일반적인 정화력을 강화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씻김은 사람의 죽음을 부정(不淨)하다고 여기는 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부정한 영혼이 저승에 곧바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부정을 씻어줘야 저승에 제대로 갈 수 있다고 여긴다. 씻김이란 절차가 씻김굿이라는 전체 굿의 이름으로도 사용되는 것은 그만큼 영혼의 정화가 중요시되기 때문이다. 영돈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 용구를 의례적인 무구로 사용하는 사례이다. 돗자리, 밥그릇, 솥뚜껑, 누룩, 옹기 등은 굿을 위해 따로 제작한 것이 아니라 굿 의뢰자가 사용하던 물건들이다. 생활 도구를 영돈이라는 무구로 용도를 바꾸고 거기에 의례 행위와 관념을 더함으로써 씻김이라는 종교적 상징과 신성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씻김굿(이경엽, 한얼미디어, 2004),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전라남도 · 전라북도 · 제주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무속의 물질문화연구(최진아,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9).
필자 이경엽(李京燁)

로 인정되었다. 현재 이 굿은 김윤수 심방을 기능보유자로 하여 제주칠머리당굿보존회에서 맡아 전승하고 있다.

역사 조선조 중종 25년(1530)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 38 제주목 풍속조에 "2월 초하루에 제주의 귀덕(歸德), 김녕(金寧), 애월(厓月) 등지에서 영등굿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귀덕과 김녕 등지에서는 나무 장대 12개를 세워 놓고 신을 맞아 제사했다 하고, 애월에 사는 사람들은 약마희(躍馬戲)를 하여 신을 즐겁게 하다가 보름날이 되면 파했는데 이를 연등(燃燈)[영등]이라 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약마희에 대한 해석에는 다소 이견이 있다. 이 부분의 원문은 '涯月居人 得槎形如馬頭者 飾以彩帛 作躍馬戲'이다. 이 가운데 '槎(사)' 자를 '나무 또는 나무등거리'로 해석하는지 혹은 '뗏목'으로 보는지에 따라 견해가 달라진다. 나무 혹은 나무 등거리로 해석하여 나무가 말머리 모양 같은 것을 얻어 이를 채색비단으로 꾸며 말이 뛰는 놀이인 약마희를 하였다고 해석한 자료가 있는가 하면, 뗏목으로 해석하여 떼배를 말머리 모양으로 만들어 이를 채색비단으로 꾸며 약마희를 하였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약마희는 바다에서 놀아졌던 경조민속(競漕民俗) 놀이가 되지만 전자는 그렇지 않다. 자료에는 또한 "이 달에는 배타는 것을 금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이러한 제주도의 영등굿에 관한 내용들은 이원진(李元鎭, 1594~1665)의 『탐라지(耽羅志)』를 비롯해 헌종 15년(1849)에 편찬된 홍석모(洪錫謨, 1781~1850)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도 비슷하게 나온다. 이로 보아 제주도의 영등굿 역사는 최소한 500년 이상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영등굿

정의 해마다 음력 2월 초하루와 열나흘 사이에 제주도 해안가 마을의 본향당에서 바람의 신인 영등신을 맞이하여 풍어 및 해상안전과 해녀들의 채취물인 소라 · 전복 · 미역 등의 풍성을 기원하는 굿. 여러 마을에서 행해지는 영등굿 가운데 제주시 건입동에서 행해지는 영등굿은 특별히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이라 하여 1980년 11월 17일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로 지정되었고, 1986년 11월 1일 단체

내용 주로 해녀 및 어업, 선박업자의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연행되는 영등굿은 봄을 맞는 문턱에서 행해지는 계절제로서의 의미가 있다. 영등신은 내방신으로서 풍우신 · 풍농신 · 어업신 · 해신 · 해산물증식신 등으로 관념된다. 예전에는 제주도 중산간을 포함하여 해안가 마을에서 행해졌다고 하나 현재는 주로 해안가에서만 행해지고 있다. 영등신은 2월 초하루에 와서 보름에 떠난다고 믿고 있기에 이 기간에 해안마을 곳곳에서 영등굿이 행해진다. 칠머리당영등굿에서는 음력 2월 1일 영등환영제, 2월 14일 영등송별제가 행해지는데, 이 가운데 송별제가 좀 더 성대하다. 환영제 때는 신앙민만 모이기 때문에 굿이 간소해 대개 오전 중에 끝나지만, 송별제 때에는 그 외의 신앙민과 관광객도 많이 모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큰 굿판이 벌어진다.

제주도에서는 겨울과 봄의 전환기인 음력 2월에 바람신 영등할망이 제주에 온다 하여 이 달을 특히 '영등달'이라고 한다. 영등달에는 바람신을 맞이하고 보내는 '영등굿'을 한다. 이때에는 마치 꽃샘추위가 닥치는 것처럼 바람이 불고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한다. 영등신은 정월 그믐에 우도에 들어가 이튿날부터 15일까지 해조류를 따먹고 우도 질진깍을 떠난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2월 보름이 지나면 소라나 전복 등의 속이 텅 비어 있다고 한다. 이 기간에 제주시 건입동, 조천읍 북촌리 · 함덕리, 구좌읍 김녕리 · 하도리 · 세화리, 우도면,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 수산리 · 신양리 · 온평리, 안덕면 사계리 등 해안가 마을에서는 영등굿을 한다. 영등굿은 특히 해녀를 기반으로 전승되고 있어 앞으로 해녀 즉 잠수업을 하는 사람이 줄어듦으로써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영등굿은 제주도의 여러 마을에서 행해진 것으로 제주도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건입동 칠머리당에서 행해지는 영등굿이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이 굿을 중심으로 영등굿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도에는 마을마다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을 모신 본향당이 있다. 이 가운데 건입동의 본향당은 원래 일곱 개의 머리 모양을 한 칠머리에 있어서 칠머리당이란 이름이 붙었다. 이에 따라 굿 이름도 칠머리당영등굿이 됐다. 칠머리당은 건입포 포구에 있다가 건입포 산지항 축항공사로 본향당이 있던 곳에 해안도로를 냄으로써 현재 제주항 동편 사라봉과 별도봉의 중간 바닷가 언덕으로 옮겨졌다. 옆에는 만덕기념관과 칠머리당영등굿 전수회관이 있다. 제주시 건입동의 칠머리당영등굿은 영등신을 모시고 해상에서의 안전 및 어업과 해녀가 채취하는 해산물의 풍요를 기원하는 굿이기도 하지만 마을을 수호하는 본향당신을 모시고 마을의 안과태평을 기원하기도 하여 당굿도 겸하고 있다. 당에는 세 개의 바위가 있는데, 각각의 바위에는 두 분씩의 신명(神名)이 적혀 있다. 서쪽에는 '영등대왕 · 해신선왕', 중앙에는 '도원수감찰지방관 · 요왕부인', 동쪽에는 '남당하르방 · 남당할망'이다. 중앙의 신들이 마을의 본향신 부부이며 동쪽의 신들은 제주시 일도동 막은골이라는 곳에 있던 남당의 신이었으나 이 당이 헐리면서 여기에 함께 모셔졌다. 칠머리당영등굿은 예전에는 건입동 사람들이 대부분 참여하던 성대한 굿이었다고 한다. 정월 보름부터 마을 걸궁패가 집집마다 돌며 문굿을 쳐주고 쌀을 받아 기금을 마련하여 영등굿을 준비하기도 했다. 그러나 후에 탑동이 매립됨에 따라 바다밭이 줄어 해녀 및 어부의 수도 줄고, 건입동 토박이들도 다른 곳으로 많이 이주했다. 또 비행기로 수하물을 운반함에 따라 수하물 운반을 전담하던 선박도 줄어 지금은 규모가 예전에 비해 훨씬 줄어 들었다. 현재 칠머리당영등굿은 마을굿의 기능을 상실하고 어부와 잠녀를 위한 굿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녀나 선주의 부인들은 영등굿이 있기 전날 밤 새워 떡과 음식을 마련한다. 영등굿이 있는 날 새벽 이들은 집에서 음식과 돗자리 등을 가지고 와서 상을 차린다. 제물은 기본적으로 밥 세 그릇과 과일 · 해물 · 시루떡 · 백편 등을 준비한다. 배를 갖고 있으면 배서낭 몫, 익사한 사람이 있으면 그 숫자만큼 밥그릇을 추가한다. 월덕기 및 기메 등이 본향당에 설치되어 있는 가운데 굿은 단골신앙민들이 차려 놓은 제상에 촛불을 켜며 시작된다. 이어 잠수회, 선주, 단골민들이 삼배를 하고, 심방들이 공시상에 무구를 바친다. 이후에 심방들이 초감제, 본향듦, 요왕맞이, 씨드림과 씨점, 마을 도액막음, 영감놀이, 배방선과 지드림, 도진 등의 순서로 굿을 진행한다.

1. **초감제** : 굿에서 모시는 수많은 신을 제청에 불러 자리에 앉히고 굿하는 이유를 밝히며 술잔을 바치면서 굿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의식이다.
2. **본향듦** :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인 본향신을 모셔 들이고 자손들의 소지를 올리면서 지역 주민들의 안과태평을 기원하는 의식이다.
3. **요왕맞이** : 사해용왕을 맞이하는 의식이다. 신을

맞기 위해 용왕길을 정성껏 치운다. 용왕문은 푸른 잎이 붙은 댓가지를 10~12개씩 제장 중앙에 두 줄로 꽂아 놓은 것이다. 그 사잇길이 용왕길로 상징된다. 이들 댓가지에는 백지, 지전, 현찰 등을 매달아 놓는다. 심방이 이 사이에서 길을 깨끗이 닦는 시늉을 하면 해녀 대표들은 용왕길을 나아가면서 "풍파 만날 일 막아줍서…" 등의 말을 하면서 어업의 안전과 해산물의 풍요를 기원하며 용왕문을 열어 나간다. 용왕문을 연다는 것은 댓가지를 차례로 뽑아 용왕다리와 함께 접어 나가는 것이다. 나중에 여기에 사용된 기물들을 모두 불에 태운다.

4. 씨드림 : 씨점은 바다와 같은 곳, 즉 바다밭에 씨를 뿌려서, 어떤 해산물이 풍작을 이룰 것인가를 점치는 것이다. 씨드림은 해녀들이 바다에 좁씨를 뿌리는 것이다. 좁씨는 해산물의 씨앗을 상징한다. 후에는 씨점을 친다. 이것은 어떤 바다에서 어떤 종류의 해산물이 많이 날 것인지를 점치는 것이다. 소미들은 점을 쳐 해녀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준다. 씨드림은 바다밭에 씨를 뿌리며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례이다.

5. 마을 도액막음 : 마을주민들의 안전을 기원하고자 액을 막는 의식이다. 심방들은 쌀점을 하여 단골신앙민들의 앞날을 점쳐 준다.

6.영감놀이 : 바다의 풍어를 가져다 준다는 영감신(도깨비신)을 대접하여 보내는 것이다. 이것은 어부나 선주들을 위해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가면을 쓰고 한다는 특징이 있다.

7. 배방선과 지드림 : 모든 액을 배에 실어 바다에 띄워 보내면서 용왕에게 제물을 바치며 기원하는 것이다. 배방선은 짚으로 만든 1m 안팎의 모형배에 오색의 비단으로 만든 돛을 달고 제상에 올렸던 제물 약간씩과 살아 있는 수탉을 실어 먼 바다로 띄어 보내는 것이다. 지드림은 '지아룀'이라고도 한다. 해녀들이 한지에 자신이 가져온 제물을 조금씩 떼어 주먹만한 크기로 싸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다. 집안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숫자와 바다에서 익사한 사람 숫자만큼 지(紙)를 만들어 용왕에게 축원한다. 이것은 용왕과 배서낭, 죽은 영혼들을 대접하는 것이다.

8.도진 : 굿에 모신 모든 신을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의식이다. 이로써 모든 영등굿이 끝난다.

칠머리당영등굿의 순서는 대체로 이상과 같다. 그러나 심방은 상황에 따라 굿의 내용이나 속도를 가감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은 영등굿은 마을의 본향당굿과 잠녀굿의 기본인 요왕맞이, 어부들의 풍어굿인 영감놀이 등이 복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칠머리당영등굿에 관한 최초의 보고서 및 1981년과 1982년 자료를 보면 칠머리당 영등굿에서 영감놀이는 행해지지 않았었다. 따라서 이 놀이는 원래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어업에 종사하는 단골신앙민이 많아서 풍어를 더욱 강조하여 기원하고자 언젠가 이 놀이는 칠머리당영등굿에 수용되어 포함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문화는 실용적 기능 때문에 변화한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와 같은 상황은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른다.

영등굿이 어떻게 하여 행해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신화에는 당나라 상인의 배가 제주에서 난파한 결과 네 조각의 시신이 제주도의 네 곳에 떠올랐으며 그 후로 정월 그믐에 서해로부터 바람이 불면 영등신이 왔다고 하여 어촌 사람들이 무당을 불러 굿을 하였다는 내용도 있고, 이월 초하루에 죽은 전영등이라는 글 선생을 제사 지내준 결과 유대감이 풍년을 맞자 이를 알게 된 사람들이 이날 전영등을 제사한 까닭에 영등굿이 시작되었다는 내용도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자료는 외눈백이와 관련된 신화라 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에 소개되어 있다.

성은 황씨이고 이름은 영등이란 신이 요왕황제국에 있었다. 마침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의 고기배가 풍파를 만나 외눈배기 땅에 불려가게 되었다. 영등대왕이 배를 숨겨 이들을 구해주고 가남보살[관음보살]을 외며 돌아가라 했다. 중간에 파도가 가라앉자 어부들은 이제는 괜찮겠지 하며 이를 외지 않았다. 홀연히 강풍이 불어 배가 다시 외눈배기 땅으로 들어갔다. 영등대왕이 다시 나타나 이들을 살려준 후 가남보살을 외며 가라 하면서 영등달 초하룻날에 자기를 생각해 달라고 하였다. 외눈배기들은 영등대왕 때문에 좋은 음식을 못 먹게 되자 3등분하여 그를 죽였다. 영등대왕의 머리는 소섬, 발은 한수리 비꿀물(우물이름), 몸통은 성산으로 각각 떠올랐다.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온 어부들은 바다의 수중액을 막아준 영등대왕의 은혜를 생각하여 정월 그믐날에는 소섬 , 초하루에는 한수리 비꿀물, 그리고 초닷새날에는 성산에서 각각 제를 지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신화는 영등대왕이 해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는 바다의 수호신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게 하며 현재 소섬과 한수리 영등당 및 성산 등지에서 순서대로 영등굿을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이 신화가 있어서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에 있는 영등당은 마을의 본향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주도에서 유일무이한 영등당이 되었다고 한다. 또 여기에서 행해지는 영등굿에는 전도적 차원에서 많은 신앙민이 참여해 왔다고 한다. 영등굿은 기본적으로 바람의 신인 영등할망을 모시고 하는 굿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신화를 중시하면 영등굿에서 모시는 신이 언제부터 남신인 영등대왕으로 바뀌어졌는지 앞으로의 연구과제가 된다.

지역사례 홍석모의 『동국세시기』 2월 삭일조에는 "영남 지방의 풍속에 집집마다 신에게 제사하는 풍속이 있다. 이를 영등(靈登)이라 한다. 이 신이 무당에게 내리면 무당은 동네로 나돌아 다니며, 사람들은 다투어 이를 맞아다가 즐긴다. 이달 1일부터 사람을 꺼려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기를 15일 혹은 20일까지 간다"는 내용이 있다. 이처럼 영등신에 대한 인식이나 영등굿은 우리나라 육지에도 있다. 영등신앙은 주로 우리나라 중부 이남의 산간농촌 지역에 많이 분포한다. 영남지방에서는 이 신을 바람할매라고 한다. 영등할머니는 2월 1일에 내려와서 2월 20일 상천(上天)한다고 믿고 있다. 육지의 경우 영등할머니는 바람신, 농사신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비해 제주도에서는 비바람신, 농신의 성격도 있지만 이보다 해양신에다 소라 · 전복 · 미역 등 해녀들이 채취하는 해산물을 풍성하게 해주는 증식신이 되기도 하고 마을 공동체에서 모셔지는 신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주도의 경우, 영등굿은 주로 해안가 마을에서 촌락 공동제의로 행해진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비해 육지에서는 가정을 단위로 한 개별제의라는 점이 다르다.

육지에서는 영등할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해에는 며느리가 비를 맞아 험상궂게 보이도록 하려고 비를 몰고 오기 때문에 풍년이 들며, 딸을 데리고 오는 해에는 옷이 바람에 나부껴서 딸을 이쁘게 보이도록 하려고 바람을 몰아 오기 때문에 흉년이 든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제주도에서는 영등할망이 딸을 데리고 오면 딸과 사이가 좋아 날씨가 좋다고 하며, 며느리를 데리고 올 때에는 서로 사이가 나빠 날씨가 궂다고 한다. 제주도에서 영등신은 '영등할망'으로 대표되지만 간혹 영등대왕이 식솔을 데리고 온다고도 한다. 식솔은 영등하르방, 영등대왕, 영등별감, 영등좌수, 영등호장, 영등우장 등이다. 비옷을 입은 영등우장이 오면 비가 오고, 두터운 솜 외투를 입은 영등이 오면 그해 영등달에 눈이 많이 오며, 차림이 허술한 영등이 오면 날씨가 좋다고 하기도 한다. 영등신이 왔다가 가는 기간에 많은 금기가 있는 것은 육지나 제주도나 비슷하다. 육지에서는 논밭갈이는 물론 땅을 다루는 일, 쌀을 집 안에서 밖으로 내는 일, 물건을 사고 파는 일, 심지어는 빨래까지도 금하기도 한다. 빨래를 하면 구더기가 생긴다고 하는 속신도 있는데, 이 속신은 제주도에도 있다.

참고문헌 新增東國輿地勝覽, 東國歲時記, 제주도 영등굿(장주근 · 이보형, 열화당, 1983),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진성기, 민속원, 1991), 바람의 축제 칠머리당 영등굿(문무병 · 칠머리당굿보존회, 황금알, 2005).

필자 이수자(李秀子)

상호참조 제주칠머리당영등굿(792쪽)

영산대감춤

정의 황해도굿의 영산할아뱜 · 할먐거리에서 탈을 머리에 얹고 탈춤 형식으로 추는 춤.

내용 황해도굿에서 무당이 추는 춤 가운데 한 종류이다. 영산대감춤은 영산할아뱜 · 할먐거리에서 탈을 머리에 얹고 탈춤 형식으로 춤을 춘다고 해서 붙여진 것으로, 흥을 돋우는 오락성 강한 춤이다.

지역사례 영산할아뱜 · 할맘거리가 있는 황해도굿에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영산대감춤을 추는 대표적인 황해도굿으로는 서해안배연신굿과 서해안대동굿이 있다. 서해안배연신굿과 서해안대동굿의 영산할아뱜 · 할맘거리는 영산들을 잘 놀게 하여 즐겁게 해주는 굿거리이다.

원래는 만신이 된 공주를 모셨던 영산할아뱜과 영산할맘을 모셔서 대접하여 어촌의 안전을 기원하는 굿이었다고 한다. 현재는 영산할아뱜과 영산할맘을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는 신격으로 인식하고 있다. 굿을 이끌어가는 만신이 할맘 역을 맡고, 영자가 할아뱜 역할을 맡는다. 할맘 역을 맡는 만신은 홍치마 위에 삼베치마를 입고 그 위에 다시 남색 쾌자를 입는다. 머리에는 검은색 띠를 두르고 가면을 이마 위로 비스듬히 얹어 놓는다. 할아뱜 역할을 맡은 영자는 활옷을 입고 역시 가면을 이마 위로 비스듬히 얹어 놓는다. 굿거리는 할맘과 할아뱜이 오래전에 헤어져 서로 찾아 헤매다 만나게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익살스러운 재담과 사설을 중심으로 굿거리가 진행된다. 사이사이에 난봉가, 술비소리 에밀랑 등의 소리에 맞추어 영산대감춤을 춘다.

참고문헌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하효길, 화산문화, 2002).
필자 허용호(許龍鎬)

영장치기

정의 중병에 걸린 환자를 치유하려는 목적을 가진 무속제의. 달리 '영장(永葬)', '헛장[虛葬]'이라고도 불린다.

내용 초상집이나 혼인집에 갔다 온 후 크게 아플 경우가 있다. 이때 무당이 영장치기를 통하여 환자를 치유한다. 영장치기는 크게 아픈 환자의 치유를 위해 모의적인 시체매장의식을 치르고 환자를 대신하여 짚으로 만든 인형인 제웅과 닭을 대신 땅 속에 묻는다. 세 차례 반복되는 모의적 시체매장의식 모두가 장례를 본뜨고 있다. 이러한 행위에는 제웅과 닭이 환자의 병을 가지고 대신 죽고 환자만은 쾌유하기를 바라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영장치기는 모의적 시체매장의식, 제웅이나 닭을 대수대명(代數代命)으로 사용한다는 점 등이 황해도 태송굿과 유사한 점이 많다.

지역사례 1967년 5월 17일 '서울 지역'의 무녀 문덕순을 조사한 김태곤에 의해 영장치기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환자의 집 마당 한가운데에 작은 구덩이 세 개를 만든다. 그리고 첫 번째 구덩이에 초석을 깔고 환자를 눕힌다. 환자의 가슴에는 50㎝ 정도 크기의 짚인형 제웅이 안겨 있다. 제웅에는 환자의 손톱과 발톱을 깎아 넣고, 환자의 나이 수대로 100원권 지폐를 넣어 짚으로 묶어서 환자의 속옷을 입혀 놓는다. 그런 다음 환자를 흰 홑이불로 시체처럼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는다. 그 옆에는 닭 한 마리를 놓아둔다. 닭에게 환자의 나이 수에 맞게 세어 환자의 입에 물렸던 쌀을 먹인다. 이는 환자를 대신해 받아가는 반함(飯含)을 의미한다.

닭의 발과 날개쭉지를 묶고 묶인 날개쭉지 안에 환자의 생시 · 성명과 대수대명이라 쓴 종이를 찔러 넣는다. 누워있는 환자 앞에는 백지(白紙)를 깔고 제물을 차려 놓는다. 제물은 밥 7무더기를 놓고 그 위에 각각 100원권 1장씩 꽂는다. 밥 옆에는 각각 콩나물을 볶아서 놓는다. 막걸리도 3잔을 부어 놓고 명태 3마리를 잔 위에 걸쳐 놓는다. 술잔 옆 한 귀퉁이에는 조밥을 1보시기 분량 정도 놓는다.

이렇게 준비가 되면 가상적 시체매장의식이 벌어진다. 무당이 환자의 머리, 배, 발 부분에 흙을 한 삽씩 떠서 얹는다. 이는 무당이 환자를 시체로 간주하고 땅 속에 묻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이다. 이어서 닭의 발목을 잡고 땅에 찧으며 환자 주위를 돌면서 달구질을 한다. 이것은 시체를 땅에 묻고 흙을 다지는 달구질을 상징한다. 이때 무당은 환자의 생시 · 성명과 아픈 연유를 대며 병을 걷어 달라고 축원한다. 조사된 축원의 내용은 "본향제융, 그 고랑산 부군제융, 상산제융, 불사제융님, 조상대감 본향상산대감, 불사대감님, 초상상문 추당살 맞었으니 왼추당 참겨 내추당 참겨 모두 벗겨 주십소사. 오늘 본향제융님이 쉰 살 먹은 권명대주 대수대명 받아 가지구 땅 속으로 든 본(本)이구, 쉰 살 먹은 권명대주 이씨는 난 본(本)이올습니다…"이다. 이렇게 축원하고 제웅이 환자의 액운을 대신 맡아서 죽어 땅 속으로 들어가 묻히고 환자는 그 결과로 해서 다시 세상에 나오게 해 달라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일종의 시체매장의식이다. 이러한 의식을 두 번째 구덩이와 세 번째 구덩이에 걸쳐 반복한다. 즉 두 번째 파놓은 구덩이 위로 누워있는 환자가 초석과 함께 홑이불로 씌운 그대로 옮겨서 제물도 누워 있는 환자 앞에다 그대로 옮겨 놓고 진설한다. 무당이 구덩이에서 파낸 흙을 삽으로 떠서 환자의 머리, 배, 발 세 곳에다 또 얹어 놓는다. 무당이 첫 번째와 같이 축원하면서 환자의 주위를 돌며 닭의 발목을 잡고 땅을 찧으면서 달구질한다. 이렇게 두 번째 의식이 끝나면 다시 한 번 세 번째 파놓은 구덩이 위로 환자를 초석과 함께 옮겨 놓고 제물도 전과 같이 그대로 옮겨 놓는다. 무당이 전과 동일하게 환자 위에다 삽으로 흙을 떠서 얹고 닭으로 달구질을 한다.

이렇게 세 번에 걸친 반복적인 시체매장의식이 끝나면 무당은 진설해 놓은 조밥을 환자의 머리 위에다 뿌리며 잡귀들이 물러가라는 축원을 한다. 이것은 출상(出喪)할 때 조밥을 풀어헤쳐 잡귀를 물리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축원이 끝나면 뚝배기를 하나 엎어 놓고 왼발로 밟아 깨트린다. 이것은 출상 때 시체를 담은 관이 문지방을 넘으면서 바가지나 뚝배기를 밟아 깨트리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뚝배기를 밟아 깨트린 후 환자는 지금까지 안고 있던 제웅을 홑이불 안에 남겨 놓고 누운 채 발치 쪽으로 발부터 빠져나온다. 그러면 무당이 닭의 다리를 잡고 닭을 허공으로 던진다. 닭이 땅에 떨어져 머리가 밖을 향할 때까지 몇 번이고 던진다. 닭의 머리가 밖을 향해 떨어져야 환자의 병 기운이 나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닭의 머리가 밖을 향하게 되면 무당은 제웅과 닭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 땅에 묻는다. 환자를 대신해 제웅과 닭을 영장시키는 것이다. 영장치기를 한 후 병굿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병굿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영장치기란 이름으로 조사된 것은 앞에서 정리된 서울 지역의 사례가 유일하다. 그런데 '인천 지역'에서 활동하는 황해도 무당 김황룡에 의해 연행된 태송굿이 영장치기와 유사한 사례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중병에 걸린 환자를 가매장하는 방식이나 제웅과 닭을 대수대명으로 설정하여 처리하는 방식이 서울 지역의 영장치기와 유사하다. 태송굿은 신청울림, 산거리, 석함맞이, 부정거리, 칠성거리, 성주거리, 영정거리, 소대감거리, 성수거리, 타살거리, 대감거리, 달고거리, 조상거리, 뒷전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달고거리가 영장치기와 흡사하다.

달고거리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선 사방의 산에서 각각 3되쯤 되는 흙을 가져다가 화장실 앞에 파 놓은 광정의 네 방위에 곱게 쌓아 놓는다. 닭 또는 정업이(허수아비)에 병자의 손톱과 발톱을 잘라 오색 헝겊에 싸서 매달아 병자와 함께 광정에 뉘어 놓고 그 위에 오방기를 덮은 다음 삼베를 씌우고 홑이불을 덮는다. 세왕상과 사자상을 차려놓은 다음 가족들은 상제옷을 입고 상정막대기를 짚고 병자의 발치 쪽에 선다. 이어서 무당이 만수받이, 내림, 공수를 하고 난 뒤 병자가 누워 있는 광정을 돌면서 달고소리를 한다. 무당이 앞장서고 병자의 가족들이 뒤따른다. 가족들은 사방에 쌓아둔 흙을 조금씩 집어서 병자 위에 뿌린 후 받는 소리를 하면서 상정막대기로 땅을 다지는 시늉을 한다. 달고소리가 끝나면 무당이 춤을 추고 병이 어느 날부터 낫기 시작하겠다는 공수를 준다. 그러면 가족들은 병자를 집 안으로 옮겨 놓고 대수대명을 보내는 닭 또는 정업이를 광정 안에 넣어둔 채로 흙을 덮어 광정을 메운다.

병에 걸리거나 나쁜 액운이 닥친 사람의 목숨이나 액운을 대신하는 존재를 대수대명이라 한다. 대수대명은 말 그대로 사람의 목숨과 신체 또는 운수와 목숨을 대신하는 것이다. 중병에 걸린 환자의 병을 떠안고 가는 대수대명의 존재를 설정하고, 이를 땅에 묻는 과정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영장치기와 태송굿은 유사하다. 다만 태송굿은 황해도굿의 형식으로서 좀 더 확대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영장치기와 다른 점이다. 영장

치기의 경우 병굿과 결합되어 진행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아 서울식 병굿과 결합되어 확대된 영장치기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문헌 한국무속연구(김태곤, 집문당, 1981), 한국민간신앙연구(김태곤, 집문당, 1983), 한국의 굿(이선주, 민속원, 1996), 전통연행예술과 인형오브제(허용호, 민속원, 2004).
필자 허용호(許龍鎬)

영집

정의 제주도 무혼굿에서 쓰이는 종이로 만드는 무구로 영혼이 와서 머문다는 집. '영실' 또는 '독집'이라고도 한다.

형태 네모난 흰 종이에 여러 가지 모양의 문양을 오린 후, 종이 안쪽에 가늘게 쪼갠 대나무를 아치형으로 둥그렇게 휘어서 십자 모양으로 연결한 것을 덧댄다. 둥그런 모양이 마치 조그마한 벙거지를 연상케 한다. 여러 가지 모양의 문양이 오려진 종이는 너울지인 셈이다. 꼭대기에는 쉽게 집어들 수 있도록 종이를 가늘게 꼬아 두거나 실을 연결해 둔다.

내용 영집은 제주도 무혼굿에서 쓰이는 종이로 만든 무구로 영혼이 와서 머무는 집이다. 제주도 무혼굿이란 비명횡사의 액을 당한 영혼을 위로하고 저승으로 고이 보내는 굿을 말한다. 주로 바다에서 익사한 영혼이 그 대상이 되는데, 바다에서 영혼을 건져 내어 위로하고 저승으로 보낸다. 익사자처럼 갑작스럽게 비명횡사한 이들의 죽음은 비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인 죽음은 시신(屍身)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뿐더러 그 한(恨)이 더욱 깊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의 영혼을 잘 위로하고 정상적인 죽음으로 환원시켜 저승으로 잘 가도록 빌어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바다에서 죽은 영혼을 위로하는 무혼굿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초감제를 하고 나서 요왕맞이를 한다. 익사자이니 바다를 관장하는 용왕에게 그 시신과 영혼을 잘 건져 낼 수



영집
신화의 상상 기메 전시회 | 2005.10.21 | 강소전

있도록 기원한다. 요왕맞이를 통해 비정상적인 죽음을 먼저 다룬다. 그 뒤에는 시왕맞이를 하여 죽은 영혼이 후회 없이 저승으로 잘 가도록 한다. 시왕맞이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죽음으로 환원되었고, 영혼은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니다.

이러한 무혼굿을 할 때 고인이 평소 입던 옷으로 메치메장[假屍體]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이불을 덮고 주위에 병풍을 두른다. 그리고 메치메장 위에 쌀가루(또는 메밀가루)를 가득 담은 접시를 놓고 영집을 그 위에 덮어 놓는다. 이때 쌀가루는 곧 '영가루'인 셈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김윤수 심방의 설명에 의하면, 방광침을 할 때 청나비나 백나비 몸에 환생시켜 달라고 기원하고 방광침이 끝나면 영집을 걷는다고 한다. 영집을 걷어 보면 그 안에 있던 쌀가루에 어떤 형상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심방들은 만약 영혼이 새의 몸에 가면 새발자국이 나오든가, 나비의 몸에 가면 나비날개가 나온다든지 하는 어떠한 표시가 생기는 것으로 여긴다고 말한다. 쌀가루 위에 나타나는 형상을 보고 영혼이 어떻게 되었는지 점을 친다.

한편 1981년 당시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에서 실제 있었던 무혼굿의 사례를 기록한 자료집에 영집과 영가루가 나오는 대목이 있으니, 곧 '영가루침'에 대한 설명이다. 즉 영가루침은 죽은 영혼이 저승에 가서 무엇으로 환생하였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마지막 제차다. 메치메장 밑에 깔아두었던 초석을 굿당 한가운데로 꺼내어 그 위에 술을 뿌린 다음 영가루를 뿌린다고 한다. 초석에 뿌려진 형상을 보고 무엇으로 환생하는지를 점친다. 인간이 죽으면 저승으로 가서 청나비와 청새로 환생하는 것이 최고라는 인식이 엿보인다. 현재는 무혼굿 자체가 예전에 비해 드물기 때문에 요즘은 영집을 보기가 매우 힘들다.

참고문헌 제주도 무혼굿(현용준 · 이부영, 열화당, 1985),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전라남도 · 전라북도 · 제주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제주도 굿의 무구 '기메'에 대한 고찰(강소전, 한국무속학 13, 한국무속학회, 2006).
필자 강소전(姜昭全)

영해별신굿놀이

정의 영해별신굿놀이는 동해안별신굿의 한 지역 유형의 굿. 이 굿은 1980년 12월 30일에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었다.

역사 별신굿은 3년이나 5년 혹은 10년마다 마을의 수호신에게 마을의 평화와 풍년을 기원하는 굿이다. 고대에는 부여의 영고(迎鼓), 고구려의 동맹(東盟)과 같이 국가에서 행해지던 제사의식이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회마을별신굿과 같은 마을 행사로 축소되었고 또한 용왕과 산신 등에게 마을의 평화와 풍어(豊漁)를 기원하고 바다에서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해변 어촌의 행사로 변천해 갔다. 우리나라 해안 지방에서는 동해안별신굿과 남해안별신굿으로 나뉘어 전해지고 있다.

별신굿의 연원은 『위지 동이전(魏志 東夷傳)』「마한조 별읍(馬韓條 別邑)」에서 "立蘇塗 建大木懸鈴鼓 事鬼神"하였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은 면면히 유전되어 동해안 어촌 일대에 있으며 일명 풍어제라고 한다. 농촌에 전해 오던 별신굿은 이제 거의 자취를 감춘 상태이다. 이처럼 농촌의 별신굿이 전멸 상태인데 비해 해안 일대에 별신굿이 남아 있다는 사실은 지역적 특성에서 온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즉 해안은 육지보다 생업의 현장에 생명의 위험성이 많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이 위험성의 극복은 오로지 해신을 비롯한 여러 신의 가호(加護)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별신굿의 종교적 행사가 더욱 요청되었던 것이다.

별신굿의 연원이 고대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진전함에 따라 외형이나 내용에 많은 변화를 거쳐 현금까지 전래된 것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무제(巫祭)가 지니는 심층의 원형구조만은 변함이 없다고 사료된다. 즉 신성성을 지키기 위한 '세습제'라든가, 가오무신(歌舞娛神)의 형식이라든가, 여무(女巫)가 굿의 주역(主役)이 된다든가 하는 것들은 원형을 그대로 보존한 부분들이다.

내용 영해별신굿놀이는 동해안별신굿의 한 종류로 음력 3월에 행해진다. 굿은 굿이 행해지는 곳의 나쁜 기운을 씻어내는 부정굿, 마을의 수호신을 모셔오는 골매기 청좌굿, 신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화해굿, 시준굿 또는 중굿이라고도 불리는 세존굿, 조상신에 대한 조상굿, 가옥을 관장하는 성주신에게 바치는 성주굿, 천왕신에 대한 천왕굿, 눈병을 없애주는 굿거리인 심청굿, 무녀가 축원을 한 뒤 놋대야를 입에 무는 놋동이굿, 마마를 앓게 하는 손님신에 대한 손님굿, 용왕신에 대한 용왕굿, 신들을 따라 다니는 수비들을 풀어먹이는 거리굿의 순서로 진행된다.

영해별신굿은 세습무당의 굿이다. 조상대대로 전승되어 동해안 어촌 일대에서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이 굿은 일명 풍어제라고도 한다. 그 이유는 해안은 육지보다 생업의 현장에서 생명의 위험성이 많기 때문이다. 음력 3월이 되면 마을의 평안과 수호, 사자(死者)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본격적인 별신굿놀이가 시작된다.

영해별신굿 보유자였던 송동숙은 온갖 조화술에 능해 칼과 송곳, 노끈, 종이만 있으면 온갖 꽃을 만들어 내는 등 이 부문에 있어서 그를 따를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현재는 맏딸인 송명희 무녀와 사위인 김장길 화랭이가 보유자로 지정되어 맥을 이으면서 활발하게 전승활동을 벌이고 있다.

1. 제장(굿당) : 마을에는 으레 골맥이당과 서낭당이 있으나 이곳에서 무제를 올리는 일이 없었다. 당에서 굿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은 산 위 또는 마을과 떨어진 외딴곳에 있어서 주민들이 모일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굿당은 언제

나 마을에서 가깝고 가장 넓은 해변사장에 천막을 쳐서 임시 굿당을 마련하는 것이 상례이다. 제단은 으레 바다 쪽을 향하여 가설하고 제물을 진설한다. 무녀는 제상 앞에서 강신 · 청배 · 축원 등을 하고 무가를 할 때에는 관중 쪽을 향하여 굿을 하며, 반주자는 제단 쪽을 향하여 앉는다. 마을의 유지이며 별신굿의 임원들(이장, 어촌계장과 집사 등)은 굿청 한쪽 옆에 자리를 잡고 무녀들의 상담에 응하면서 접빈의 일을 본다. 나머지 삼면은 관중석이 된다. 굿청 밖 차일 기둥 옆(바다 쪽)에는 신기와 신간(神杆)이 세워진다.

신간은 보통 네 개를 세운다. 그 명칭은 ① 너름 받는 대(마루대) ② 손대(2개) ③ 골매기대 등이다. 이 가운데 골매기대는 당(堂)맞이 굿을 할 때 제주(祭主)로 뽑힌 사람이 신대를 들고 당을 찾아갈 때 사용되며, 마을의 길흉을 물을 때에도 이 신대를 내려서 점을 친다. 대의 모양은 큰 대나무이며 종이로 만든 등(燈)이나 여러 가지 무늬를 새겨 오린 것으로 술을 달아 놓는다. 골매기대는 여러 개의 대나무로 묶어서 만들기도 한다.

2. 무구와 무복 : 무구로는 장구, 북, 징, 꽹쇠(매구) 등 악기가 필수적이다. 신기(神器)로서는 작은 신칼[神刀]과 신간이 있다. 무복은 접신무(接神巫)처럼 다양하지 않고 극히 단순하다. 쾌자(快子)와 장삼(長衫) 그리고 갓과 고깔이 있을 뿐이다. 다만 무녀나 남격(男覡, 화랭이)들도 예쁜 비단옷을 곱게 차려 입는다. 무녀들의 머리 모양은 매우 특이하지만 얇고 흰 수건을 머리중간(귀 위)에 한바퀴 돌리고 약간 긴 끝을 가지고 작약꽃 모양을 만들어 왼쪽 귀의 옆에 붙도록 한다. 그리고 처녀는 일할 때처럼 수건으로 머리 위를 덮어서 뒤에다 맴으로써 기혼녀와 미혼녀를 반드시 구별하고 있다.

3. 제물과 제상 : 제물의 진설은 마을 또는 계절에 따라 다르다. 진설방법이나 제물의 종류는 엄격한 규정 없이 일상적인 차림에 한두 가지 찬(饌)이 더 있는 정도로 극히 간편하여 제상의 모양을 갖추는 데 지나지 않는다. 거리마다 음식을 잘 바꾸지 않아 일절 낭비가 없는 것이 특색이다. 무당들이 특별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전혀 없다. 다만 약속에 의하여 굿을 성의껏 하면 그만이다.

4. 굿의 차례 : 제일이 결정되면 5일 내지 7일 전에 제주를 선정하고 당 주변에 금줄을 친다. 제주는 당에 소지를 올리고 제가 있음을 고하고 제일까지 목욕재계하며 근신해야 한다. 굿이 진행되면서부터 모든 것은 무당의 지시에 따른다.

굿은 대략 부정굿, 골매기청좌굿, 당맞이, 화해굿, 세존굿, 조상굿, 성주굿, 장군굿, 천왕굿, 심청굿, 놋동이굿, 손님굿, 계면굿, 용왕굿, 탈굿, 거리굿 순으로 진행된다.

각 거리의 개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정굿 : 부정을 친다고들 흔히 말하는데, 글자 그대로 정결하지 못한 것을 깨끗이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제장에 제신을 모셔 오기 위한 준비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무녀가 평복으로 제상 앞에서 재배를 하고 부정굿의 무가를 부른다. 이때에는 관객도 없고 제배, 축원 등으로 간단하게 끝낸다. 이어 정수(淨水)를 들고 신칼에 정수를 묻혀 제상 주변에 뿌린다. 이것으로 제장이 정결하게 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다.

2) 골매기 청좌 : 골매기신은 한자로 동구(洞口)막이, 지역에 따라서는 수구(水口)막이 · 수살막이 등으로 불린다. 대개 이 신은 수구, 즉 동구에 있는 신을 말한다. 청좌는 청하여 좌정시킨다는 말로, 곧 가장 먼저 동구신을 초청한다. 여기에서 강신 행위가 진행된다. 포(脯)와 신칼을 두 손에 쥐고 제단을 향하여 묵념한 후 약간 몸을 비칠하는 것으로 강신의 의미를 표현하며 이후 무당의 말은 신의 말로 바뀌어 권능을 지니고 모든 사람에게 지시를 한다.

3) 당맞이 : 서낭기를 가지고 당신(堂神)을 모시러 간다. 당제가 거행되는 것이다.

① 무축(巫祝) : 제물 진설이 끝나면 제관(祭官)들이 늘어서는 동안 무당이 축원한다.

② 헌작(獻酌) : 배례(拜禮)이다. 제단에 술잔을 부어 놓고 절을 한다.

③ 무축(巫祝) : 제관들의 배례가 끝난 후 무녀의 덕담과 축원이 이어진다.

④ 소지(燒紙) : 무녀가 마을에서 요구하는 대로 소지를 올려 길흉을 점쳐 준다.

⑤ 음복(飮福) : 제물을 조금씩 모아 바다에 내던지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당맞이가 끝나면 굿청으로 돌아온다.

4) 화해굿 : 여러 신들의 화해와 동중의 화해를 도모하는 굿이다.

5) 세존굿(중굿) : 세존굿은 석가여래의 세존에서 온 말로 불교와 결합해 승화된 신격에 대한 굿이다. 무녀가 승복을 하고 장편 서사무가를 부른다. 이것이 끝나면 굿 중에서 비중이 큰 굿인 걸립과 중도둑잽이놀이가 진행된다. 가장 인기있는 종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굿은 수석 무당이 한다.

6) 조상굿 : 조상굿은 조상신들을 초청하여 접대하는 비교적 단조로운 굿이다.

7)성주굿 : 성주는 가옥의 주신이며 남신이다. 개인의 가정에 행과 불행을 관장하는 가신이다. 굿은 주무가 쾌자를 입고 갓을 쓰며 부채를 들어 성주풀이 무가를 연창하고 가옥 건축의 시종을 연희로 재현시켜 보인다.

8) 장군굿 또는 군웅굿 : 국가를 수호하는 영웅들의 위대성을 찬양하는 무가를 연창한다.

9) 천왕굿 : 조선국조신인 환웅천왕을 비롯하여 도교의 오천왕과 불교의 제천왕을 숭상하여 국가 민족 수호의 덕을 찬양하는 굿이다.

10) 심청굿 : 인간의 안질(眼疾)을 없애고 눈총을 밝게 하는 굿이다. 무가로는 심청가를 연창하며 봉사놀이(장님놀이)가 연출된다.

11) 놋동우굿 : 놋동이 놋양푼을 입에 물고 춤을 추는 굿이다.

12) 손님굿 : 손님은 마마를 앓게 하는 역신(疫神)을 말한다. 역병신이 외방에서 왔기 때문에 손님이라고 호칭한다. 무녀는 손대를 메고 부채를 들어 무가를 연창한다.

13) 계면굿 : 계면은 무의 단골구역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 굿은 단골을 위한 것이다.

14) 용왕굿 : 어촌에서 용왕굿을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어업의 번성과 생명의 보전에 의미를 둔 굿이다.

15) 탈굿 : 이 굿은 놀이굿으로 가면극이다. 가면은 종이로 만들어 썼다가 극이 끝나면 소각한다. 일반적인 탈놀이의 할미 과장에 해당하는 굿놀이이다.

16) 거리굿(뒷전거리) : 거리굿은 파장굿이라 할 수 있다. 뒷전거리라고 하는 것과 뒷전에서 어른을 모시고 따라온 졸개 귀신들을 먹여 풀어보내는 굿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굿은 여무가 하지 않고 화랭이가 맡아 하며, 반주자 모두 남자들만이 참여하는 굿이다. 굿청에 있는 굿상을 모두 치우고 제물로 놓았던 밥, 탕, 반찬 등을 섞어서 비빔밥을 만들고 탁주 한 말을 놓고 시작한다. 한 거리가 끝날 때마다 비빔밥과 술을 들고 바닷가에 나가 뿌려준다.

지역사례 영해별신굿놀이는 지역에서 다양한 행사에 활용되고 있다. 삼사해상공원에서 벌어지는 해돋이축제 때나 영덕군민들이 화합하여 복숭아의 풍년과 활성화를 기원하는 복사꽃 축제 등 지역 행사에는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여 굿이 연행된다. 물론 본래 연행되던 방식의 별신굿 형태는 아니지만 굿의 대중화란 측면에서 볼 때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지정보고서(경상북도, 1980).
필자 조정현(曺鼎鉉)

오방신장(五方神將)

정의 다섯 방위를 관장하여 지키는 수호신. 오방신(五方神), 오방장군(五方將軍)이라고도 한다.

유래 오방신의 유래는 오래되어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으나 방위와 신관념, 방위와 색깔, 방위와 동물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문화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호사설(星湖僿說)』에 의하면 중국 신화에서 오방신은 태호(太昊), 염제(炎帝), 소호(小昊), 정욱(端頊), 황제(黃帝)라고 하였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따르면 방위신은 동서남북의 4방위에 주작(朱雀), 현무(玄武), 백호(白虎), 청룡(靑龍)의 상징적인 동물과 색깔로 표현하였다. 불교에서 오방신은 사천왕과 중앙의 신을 일컫는다. 사천왕(四天王)은 수미산(須彌山)의 제석천(帝釋天)을 호위하는 신중(神



오방신장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가로 53.5㎝, 세로 91.5㎝ | 19세기말~20세기초

衆)이다.

도교에도 오방신이 있으며 오방신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12지신이 성행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신라시대에 12지신은 동물상으로 조각되어 괘릉과 김유신장군묘의 판석에서 보듯이 방위를 맞춰 돌아가며 장식되었다. 민간에 전승된 방위신은 오방신이 주류를 이루며 전승되어 왔다. 방위와 색깔을 결부시킨 사상은 음양오행 사상에서 발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오방을 색깔과 오행에 대응하면 동(東)-청(青)-목(木), 서(西)-백(白)-금(金), 남(南)-적(赤)-화(火), 북(北)-흑(黑)-수(水), 중(中)-황(黃)-토(土)이다. 오방을 지키는 신장은 동방청제(東方青帝), 서방백제(西方白帝), 남방적제(南方赤帝), 북방흑제(北方黑帝), 중앙황제(中央黃帝)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내용 오방신장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사례는 처용무(處容舞)다. 『악학궤범(樂學軌範)』을 보면 다섯 처용이 춤추는 군무 형태를 보이면서 오방처용이 나타나 오방의 잡귀잡신을 물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삼국유사(三國遺事)』「망해사처용랑조(望海寺處容郎條)」에는 오방처용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성현(成俔, 1439~1504)의 『용재총화(慵齋叢話)』에도 처용무는 원래 한 사람이 흑포사모(黑布紗帽)하고 추었다고 하였다. 무속에서의 오방신장은 처용무와 관련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중부 지방 굿거리인 신장거리에는 오방처용의 변형된 형태가 나타난다. 굿당에는 벽에 오방신장의 신상(神像)을 그린 무신도를 모신다. 여기서 오방신장의 복색은 방위에 따른 색깔의 장군복이며 청룡언월도(青龍偃月刀)를 쥐고 있다. 굿청에서는 공수를 줄 때 오방신장이 청·황·흑·백·적의 다섯 가지 색깔의 깃발을 뽑게 하여 축원해 준다. 붉은 깃발은 벽사(辟邪), 흰 깃발은 고귀(高貴), 검은 깃발은 사악(邪惡)을 각각 상징한다. 민간에서 출타할 때나 이사할 때 일진과 방위를 잡아 택일하는 것도 방위신의 양해를 구하는 속신(俗信)이며 농촌에서 방위에 따라 대문을 내는 것도 방위신을 의식하여 재화(災禍)를 피하고 복록(福祿)을 기원하는 신앙 행위다.

오방신장의 변용 전승 형태로 오광대놀이도 있다. 고성오광대(固城五廣大)의 둘째 마당에 등장하는 인물들에서 중앙황제로서 주역인 원양반과 동방청제양반, 남방적제양반, 서방백제양반, 북방흑제양반이 등장하여 오방을 상징한다. 밀양 팔풍농악의 오방진굿도 오방신장신앙의 변용된 민간전승 굿놀음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三國遺事, 樂學軌範, 慵齋叢話, 한국의 민속(임동권, 교양국사총서, 1972), 한국민속대관 3(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82), 한국민속논고(장주근, 계몽사, 1986), 한국민속문화대전(김용덕, 창솔, 2004).
필자 김용덕(金容德)

오방신장기(五方神將旗)

정의 무당이 굿에서 사용하는 다섯 색깔의 깃발로 주로 운수를 점치는 무구. 오방신장기는 신장거리에서 사용되지만 대감거리와 장군거리 등에서도



오방신장기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가로 88.5㎝, 세로 43㎝ | 광복이후

사용하기 때문에 대감기 또는 장군기라고도 한다.

형태 깃대는 주로 대나무나 신우대로 길이는 70㎝ 내외이나 큰 것은 100㎝가 넘기도 한다. 깃발은 명주, 갑사, 공단 등으로 하며 때로는 한지에 물감을 들여 사용 한다. 깃발의 크기는 주로 가로 70㎝ 내외, 세로 50㎝ 내외로 만들어진 다.

신장기에 호랑이, 용 등의 그림이나 문양을 그려 넣기도 하는데, 이는 근래에 생긴 현상이다.

내용 오방신장기의 색깔은 다섯 방위와 관련이 있다. 동서남북과 중앙을 각각의 색깔로 상징한다. 동쪽은 파란색으로 우환(憂患)을 상징하며 동방청제신장이라고 한다. 서쪽은 흰색으로 천신(天神) 혹은 명복(冥福)을 상징하며 서방백제신장이라 한다. 남쪽은 빨간색으로 재수(財數)를 상징하며 남방적제신장이라 한다. 북쪽은 검은색으로 죽음을 상징하며 북방흑제신장이라 한다. 중앙은 노란색으로 조상(祖上)을 상징하며 중앙황제신장이라 한다.

신장거리에서 무녀가 오방신장기를 하나로 말아서 신자들이 구분할 수 없도록 한 후 손잡이 부분을 신자에게 내밀어 하나를 뽑게 한다. 선택된 깃발의 색깔로 운수를 점친다. 빨간색 깃발을 뽑으면 재물운이 좋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재수굿에서는 특히 빨간색 깃발을 신자들이 선호한다.

천신 혹은 명복을 상징하는 흰색 깃발과 조상을 상징하는 노란색 깃발을 뽑아도 길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검은색과 파란색 깃발을 뽑았을 경우에는 불길한 운수라고 생각하였다. 검은색은 북쪽인데 땅을 상징하며 이는 죽음을 의미한다. 파란색은 동쪽으로 우환을 상징한다. 특히 검은색 기를 뽑았을 경우 신자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거부감이 심했기 때문에, 1970년대 중반 이후 검은색 기는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현재는 파란색·흰색·빨간색·연두색·노란색의 기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오방신장기는 운수를 점치는 기능 외에도 잡귀잡신을 내쫓는 기능을 한다. 내림굿에서 오방신장기로 신어머니가 신딸의 몸을 훑어 내리는 '허주 벗기'나 병굿에서 오방신장기로 병자의 몸을 두드리는 것은 잡귀잡신을 몰아내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서울새남굿(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한국의 샤머니즘(조흥윤,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서울시·경기도·강원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무구연구의 성과와 전망(최진아, 한국무속학 10, 한국무속학회, 2005).
집필자 천진기(千鎭基)

오수복

분야 중요무형문화재 제98호 경기도도당굿 무녀부문의 예능보유자.

내용 오수복(吳壽福, 여)은 1924년에 경기도 용인군 역북리 해주 오씨 가문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오찬용이고, 모친은 한언년이다. 18세 때 용인군 기흥면 용수골에 있는 경주 김씨 집안으로 출가하여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다. 29세 되던 해에 남편이 염병을 앓다가 죽자 식구들의 생계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한 오수복은 31세 때 광화문의 이학사 할아버지에게 무당이 될 팔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무당이 되지 않으려고 애를 썼으나 올케인 이갑오 만신에 의해 무당이 되었다.

이갑오는 구한말 협률사에서 줄타기로 유명했던 재인인 이봉운(이봉의라고도 한다)의 딸이며 영동시장 거북당 도당굿을 맡아서 할 정도로 큰 만신으로 활약했다. 이갑오와 오수복은 신딸과 신어머니와 관계를 맺고 굿을 하다가 오수복



시루말
수원 고색동도당 | 2006.9.24 | 변남섭

이 43세 때 이갑오가 죽자 경기도도당굿의 명인 이용우에게 굿의 차서와 어정 및 법도를 배우면서 재주와 기예를 익혔다. 수원 매교다리 근처에 살아서 '매교다리쥔네'라는 별호가 생겼는데, 사람들이 '매교다리쥔네는 사닥다리 올라가듯 한다'고 하여 그의 탁월한 총기로 발휘되는 무녀의 자질을 칭찬하였다.

이용우와 오수복은 인천 · 부천 · 용인 · 시흥 · 화성 등 경기도 산이제 굿판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오수복은 서사무가인 〈제석본풀이〉 · 〈성주풀이〉 등을 잘하고 이용우와 짝을 이루어 쌍군웅을 할 정도로 경기도굿의 연행 능력이 뛰어났다. 오수복은 1990년에 조한춘과 함께 중요무형문화재 제98호 경기도도당굿의 예능보유자로 지정됐다. 그러나 오수복이 도당굿의 예능보유자가 되기까지 어떤 사람의 영향을 더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조사된 사항은 없다. 그러나 1950년대 큰만신이던 이갑오에 의해 무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이갑오 만신과 이용우 화랭이로부터 경기도도당굿에 대해 지대한 가르침과 영향을 받은 것은 확실하다. 현재 오수복은 전통적인 화랭이들과 함께 도당굿을 한 유일한 생존자이다.

경기도도당굿에서 사제 계승권은 부계내 고부 계승권(세습무 집안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사제권을 계승하는 것)의 기본틀을 유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세습에 의해 무녀가 사제 계승권을 차지하는 사례는 흔하게 발견되지 않는다. 오수복 역시 세습에 의한 무녀가 아니라 서른이 넘어 내림굿을 받은 강신무이지만 올케이자 신어머니인 이갑오 만신에게 도당굿을 배우면서 세습무의 길을 걷게 됐다. 오수복은 세습무가 출신으로 친정어머니가 큰단골만신이었으며, 시어머니 · 큰 동서 · 삼촌과 사촌 오씨네들이 다 단골만신이다. 오수복과 같이 세습무가 출신이면서 신내림으로 무녀가 된 경우를 통해 세습무와 강신무의 구분을 재고할 수 있다.

참고문헌 경기도도당굿(김헌선,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수원 근 · 현대사 증언자료집 2(허용호, 수원시, 2002), 경기도 도당굿 화랭이 연행자 연구—광주 이충선과 수원 오수복을 예증삼아(김헌선, 구비문학연구 7, 1998), 경기남부의 무속신앙—신앙편(이용범, 경기민속지 2. 경기도박물관, 1999).
필자 변남섭(卞南燮)

옥수그릇

정의 신령님께 올리는 맑은 물인 '옥수(玉水)'를 담는 잔 또는 통. 옥수그릇은 '옥수잔', '청수잔', '옥수단지', '옥수동이'라고도 한다.

형태 옥수그릇은 크기에 따라 대 · 중 · 소로 나뉜다. 큰 것은 윗지름이 40㎝ 정도이며 중간 것은 윗지름이 30㎝ 정도, 작은 것은 10㎝ 정도이다. 큰 옥수그릇은 세숫대야와 같은 그릇에 받침이 있고 중간 옥수그릇은 밥공기와 같은 그릇에 받침, 작은 옥수그릇은 술잔과 같은 잔에 받침이 있다. 옥수그릇은 잔과 받침이 따로 있는 것과 일체형으로 같이 붙어 있는 것이 있으며 잔 · 받침 · 뚜껑이 한 세트를 이룬다. 재질은 놋쇠, 자기, 스테인리스 등이다. 과거에는 방짜유기를 맞췄지만 지금은 대부분 만물상에서 구입한다.

내용 옥수는 신에게 바치는 필수적인 제물 중 하나로 청수(淸水), 정화수(井華水)라고도 한다. 가장 간결한 제상이 물 한 대접 올린 것이라고 보면 물은 가장 기본적인 제물이라고 할 수 있다. 물은 일상의 부정한 것을 씻어 없애고 현실 공간인 우주 공간을 소거해 '카오스'로 환원시켜 가는 공간을 상징하기도 한다. 또한 물은 생명의 원천이 되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 내기도 하며 바다와 강의 물은 불멸하는 존재로 신성시되어 숭배된다. 이와 같은 물의 상징성이 복합되어 기본적인 제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옥수그릇
국립민속박물관 사진자료 소장


옥수그릇
서울시 마포구 밤섬부군당굿 당주 김춘강 무녀 | 2009.5.28 | 김태우

옥수는 굿을 할 때 상에 올리거나 점쟁이들이 점을 칠 때 소반에 한 대접을 떠 놓기도 한다. 민간에서는 여성들이 부엌에 있는 조왕신에게 매일 아침 첫새벽에 물을 떠 놓기도 하며 칠성님께 빌기 위해 장독대 항아리 위에 정화수 한 그릇을 바치기도 한다. 무속인들도 매일 아침 신단에 옥수를 새로 갈아 올린다. 옥수는 신단에 모셔진 모든 신령들에게 바치는 것이다. 신단에 모신 신령들 이외에도 조왕, 걸립, 수문장 등에도 옥수를 바친다. 옥수그릇은 대개 15~30개 정도가 놓이는데 매일 아침마다 옥수를 새로 갈아 바치는 것이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다.

서울시 마포구 밤섬부군당 당주 김춘강의 경우를 보면 옥수를 올리는 순서가 할머니 전안, 자신의 전안 신령들, 천존, 복말명(남편), 임제장군(아버지), 조말생, 조왕, 수문장, 걸립 순이다. 평소에는 중간 혹은 작은 옥수그릇을 사용하지만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큰 옥수그릇을 사용한다. 경기도 시흥시 군장봉 당주 김순덕의 경우는 무척 큰 크기의 대왕님을 위한 옥수그릇(윗지름 41.5㎝, 바닥지름 34.5㎝, 높이 16.5㎝)이 있고 안씨부인과 홍씨부인을 위한 꽤 큰 옥수그릇(윗지름 31.3㎝, 바닥지름 24.5㎝, 높이 13㎝)이 있다. 겉면에 '사업번창대길'이란 글이 새겨져 있고 단골 중에 한 명이 기증한 것이다. 충북 제천 김필례 무녀의 옥수그릇은 항아리 형태(지름 25.5㎝, 높이 26㎝)인데 평소에는 큰 병 위에 올려 놓은 것이 특이하다.

참고문헌 한국무속연구(김태곤, 집문당, 1981),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서울시 · 경기도 · 강원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충청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필자 김태우(金泰佑)

옥황상제(玉皇上帝)

정의 하늘을 다스리는 신으로 하늘에 있는 신령들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신. 원래는 중국의 민간 도교에서 받드는 최고신의 명칭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무당들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신격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하늘을 주재하는 신격으로 인식하여 하느님과 동일시된다. 인간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신으로 인간의 무병장수나 길흉화복을 점지하는 신으로 여겨진다. 특히 농경사회에서는 농사일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유래 및 내용 옥황상제는 고래(古來)로 농경민족의 가장 큰 소망인 풍년을 기원하는 제천의식(祭天儀式)에서 섬긴 신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이름으로는 '옥황천존(玉皇天尊)' 또는 '옥황대제(玉皇大帝)'라고도 부른다. 옥황상제를 묘사한 무신도를 보면 용포(龍袍)에 관을 쓰고, 희고 긴 수염을 기르고 있으며, 두 손을 가슴에 모아 홀(笏)을 들고 있는 할아버지 모습으로 그려진다. 가장 거룩하고 권위적인 양태를 드러내기 위하여 정면상을 하고 있으며 위엄 있는 모습으로 의자에 앉아 있다. 배경의 휘장은 그가 하늘의 최고신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본래 도교에서 최고신으로 모시는 숭배의 대상이었다. 시대에 따라 '태상노군(太上老君)', '원시천존(元始天尊)', '옥황상제' 등으로 그 이름은 바뀌어 온다. 옥황상제에 대한 신앙은 당나라 때의 원진(元稹, 779~831)이 쓴 시에도 그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9세기 초에는 중국에서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옥황상제라는 최고신 밑에는 많은 신이 있다. 신들의 상 · 하 계통에 대한 설명인 신통론(神統論)은 분명하지 않지만 신들의 관계는 현세 봉건사회의 군신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즉 황제에 해당하는 옥황상제를 정점으로 하여 피라미드형의 위계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이능화의 순한문 저술인 『조선도교사(朝鮮道敎史)』에는 성현(成俔, 1439~1504)의 『용재총화(慵齋叢話)』를 인용하여 고려시대 복원궁(福源宮)과 조선시대 소격서(昭格署)에서 거행한 도교식 제사인 초제(醮祭)를 소개하는 부분이 있다. 여기에는 삼청전(三淸殿)에서 옥황노군(玉皇老君)과 천존제군(天尊帝君)에게 제사를 지냈으며, 태일전(太一殿)에서는 칠성(七星)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밝혀 놓았다. 이에 덧붙여 태일전에서 모시는 '칠성신과 여러 성신(星辰)의 상'[七星諸宿其像]은 여자의 용모를 하고


1


2

있는 반면에 삼청전에서 모시는 옥황상제와 태상노군 · 보화천존(普化天尊) 등 10여 위의 상은 모두 남자상이라고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신들이 옥황상제와 함께 한국의 샤머니즘 세계로 유입되어 신앙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천도교나 증산교 등의 경전에 신앙 대상으로 나타나는 상제(上帝)의 경우에도 도교로부터 유입된 옥황상제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민간 도교가 성행하고 있는 대만의 옥황상제 신앙 사례가 있다. 대만 사람들은 집에서 거행하는 제사의 경우 입구 가까이에 있는 큰 방 정청(正廳)의 출입문 부근 천장에 드리워져 있는 천공로(天公爐)를 향하여 먼저 절을 한다. 천공로는 바로 옥황상제의 신체(神體)를 나타내는 상징이다. 옥황상제의 탄생일인 음력 1월 9일에는 천공묘(天公廟)에 참배하는 한편 각 가정의 정청에는 등좌(燈座)라고 하는 신상을 그린 종이로 만든 통 모양의 장식을 꾸며 놓는다. 이것 역시 옥황상제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그곳에 신령이 깃든다고 믿는다.

한편 서울 지역 전통 무당들의 세계에서 옥황상제는 선관 및 보살 계통에 속하는 무당들이 모시는 가장 높은 계급의 신령이다.

참고문헌 조선도교사(이능화, 동국대학교, 1959), 도교와 한국문화(한국도교사상연구회, 아세아문화사, 1988), 도교 사상의 한국적 전개(한국도교사상연구회, 아세아문화사, 1989), 한국도교사상의 이해(한국도교사상연구회, 아세아문화사, 1990), 도교사(窪德忠, 분도출판사, 1990), 한국민속대사전 2(민족문화사, 1991), 무속신앙(박정례, 목원사, 1994), 그림으로 보는 한국의 무신도(건들바우박물관, 이가책, 1994), 무-한국 무의 역사와 현상(조흥윤, 민족사, 1997), 동신당(김태곤, 민속원, 1999), 한국민속문화대사전 상, 하(김용덕, 창솔, 2004), 한국 무속신 고찰(양종승, 몽골학 4, 1996).

필자 박일영(朴日榮)

1. 옥황천존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가로 56.5㎝, 세로 99㎝ |
19세기말~20세기초

2. 옥황상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가로 62㎝, 세로 95㎝

올림채

정의 경기도굿의 제석굿 및 군웅굿과 남해안굿의 허배춤에서 사용되는 장단.

내용 주로 무녀가 춤을 출 때 사용되는 장단이며 경기도와 남해안 지역의 형태가 서로 다르다. 그러나 독자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다른 장단과 이어져 연주된다는 점과 무당이 정식으로 무가를 부르기 전에 춤을 출 때 연주된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경기도굿에서 올림채는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무당이 대개 무가를 부르기 전에 제자리에서 부채와 방울을 들고 춤을 추거나 방수밟이를 할 때 부정놀이로 시작하여 올림채, 넘김채, 겹마치기, 자진굿거리로 이어진다. 올림채는 2소박 보통 빠른 8박의 부정놀이와 달리 2 · 3 · 3 · 2 또는 3 · 2 · 2 · 3의 혼소박 10박으로 되어 있다. 열채를 주로 사용하여 기교와 변화를 많이 주는 것이 특징이다. 올림채를 더 빠르게 몰아가면 같은 구조에 속도가 더 빠른 조임채로 조여 주었다가 맺는 장단으로 끝마친다.

부정놀이 장단 기본형



올림채 장단 기본형



넘김채 장단 기본형



겹마치기 장단 기본형



남해안의 올림채는 굿 절차 가운데 비중 있는 큰 굿에서 무녀가 허배춤을 추다가 대사산이가 '너울이나'하고 신호를 줄 때 추는 올림채춤의 반주 장단이다. 올림채는 별도의 새로운 장단이 아니라 남해안굿에서 사용되는 여러 장단을 복합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올림채는 크게 3장으로 나뉜다. 1장은 넋노래 후 무녀가 본격적으로 무가를 부르기 전에 춤을 출 때 치는 장단인 대너리, 즉 3소박 느린 4박의 허배–3 · 2 · 3 · 2의 혼소박 4박의 조너리–3소박 보통 빠른 4박자 덩덕궁이–3소박 보통 빠른 3박의 내림채 요소를 복합한 것이다. 올림채 2장은 다시 세 가지 장단으로 나뉜다. 각 장단의 연주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악사가 임의로 구성하여 연주한다. 3소박 느린 3박 또는 2소박 4박, 3소박 3박으로 된 세 종류의 장단을 조합하여 연주한다. 올림채 3장에서는 2소박 6박의 푸너리와 덩덕궁이를 빠르게 연주하여 몰아가다가 내림채로 맺어준다.

참고문헌 한국의 무속장단(임수정, 민속원, 1999), 남해안별신굿의 음악적 특징(허지현,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경기도당굿 군웅거리 장단 연구(변남섭,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시나위권 무속음악의 장단과 음조직 연구(박정경, 국립민속국악원, 민속악논문집 7, 2007).

필자 박정경(朴正卿)

올림채춤

정의 군웅거리에서 무녀가 군웅청배를 한 다음 사방으로 방수를 밟으며 굿상을 돌면서 추는 춤.

내용 올림채춤은 나직한 올림채장단에 맞추어 가라앉은 무게로 진중하면서도 단아하게 춤을 시작한다. 사방으로 터를 밟아주고 빨라지면서 조임채로 가고 마지막에 사방치기를 한다.

올림채 : 혼합10소박(3소박과 2소박의 혼소박)

덩	따	따	덩	따	덩	따	덩	따	따

조임채 : 장단이 점점 빨라지며 조임채로 간다.

올림채춤은 무녀가 홍철릭에 빗갓을 쓰고 부채와 방울을 들고 춤춘 다음 활을 놀리며 사방으로 활을 쏘고 신명나게 돈다. 또 닭을 들고 화살로 대면서 사살하는 시늉을 하기도 하고 북어를 들고 화살로 대면서 춤추기도 한다. 만신과 화랭이가 쌍군웅춤을 추는데, 화랭이는 꽹과리를 치고 무녀는 장삼춤을 추며 발을 여덟팔자로 짚어 발뻐드래 사위를 하고 올림채장단에 맞추어 사방으로 돌며 춘다. 이때 두 사람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삼진삼퇴하며 팽팽하게 진을 짜면서 추는 사방 구조이다.

올림채춤의 춤사위는 다음과 같다.

1. **저정거리는 사위** : (도살풀이춤, 별상춤 춤사위 참조)
2. **젖혔다 뿌리는 사위**
3. **귀신 모시는 사위** : 귀신을 몰아가면서 걷는 시늉의 사위
4. **사방치기** : 잦은걸음으로 삼진삼퇴하며 한 방향씩 사방치기를 한다.
5. **활사위** : 사방으로 활을 놀리며 활을 쏜다.

군웅거리에서 사방으로 방수를 밟으며 부정한 것을 몰아내는 씻김의 의미를 갖는다. 산닭놀림에서는 산닭을 들고 징 장단에 맞추어 춤추는데, 이는 대수대명(大壽大命)의 의미를 지닌다. 활춤은 활을 쏘는 시늉을 하며 악한 것을 쫓아버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마지막에 '사방치기'는 역동적으로 빠르게 몰아가며 사방의 악귀를 모두 쳐내어 모든 부정을 떨쳐내는 춤이다.

참고문헌 조선무속의 현지연구(최길성,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7), 한국무속과 연희(이두현,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경기도당굿의 굿춤(이애주, 제8회 동양음악학국제학술회의, 2004).

필자 이애주(李愛珠)

와룡묘(臥龍廟)

정의 중국 삼국시대 정치가인 제갈공명을 모시는 사당.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산 5-6에 있으며 1974년 1월 15일에 '서울특별시 민속자료 제5호'로 지정되었다.

형태 당은 기와지붕을 얹은 건물로 안에 2m 크기의

제갈공명 석고상과 함께 2.5m 높이의 관운장의 석고상이 있다. 이외에도 대북 · 소북 · 종 등 의식용 악기들을 갖추고 있다. 1924년에 화재로 훼손되었다가 1934년에 재건하여 지금에 이른다.

역사 『조선왕조실록』 선조 38년(1605)의 기록을 보면 평안도 영유현에 와룡묘를 짓게 하고 왕들이 관원을 보내 제를 올리거나 제문(祭文)을 지어 보내고 사액(賜額)의 예도 전한다. 그러나 이 기록과 이 와룡묘의 연관성은 확실치 않다. 조선시대 엄상궁(嚴尙宮)이 와룡묘를 시건(始建)하였다는 설이 있지만 이 역시 확실하지 않다.

내용 우리나라 무속에서는 최영(崔瑩, 1316~1388) · 임경업(林慶業, 1594~1646) 등 장군들을 최영 장군마누라 · 임장군마누라 등으로 신격화하여 섬기고 있다. 우리나라 장군 외에 중국의 영웅을 신격화하여 섬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소열황제(昭烈皇帝), 관성제군(關聖帝君), 장장군(張將軍), 와룡[孔明] 선생, 조장군(趙將軍), 마장군(馬將軍), 황장군(黃將軍) 등이 대표적이다. 소열황제 · 관성제군 · 장장군은 각각 유비(劉備, 161~223) · 관우(關羽, ?~219) · 장비(張飛, ?~221)를 일컬으며, 와룡 선생은 제갈량(諸葛亮, 181~234)을 가리킨다. 와룡 선생은 와룡당에서 숭배되며 맹격(盲覡)의 선각자로서 알려진 곽곽 선생 · 이순풍 선생 · 황계관 선생 등과 마찬가지로 주로 맹격이 숭배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 와룡 선생은 관성제군을 섬기는 서울 굿거리에서 성제님공수를 할 때 "관성제군은 성제마마 아니시리, 운창은 제군 아니시냐, 소열황제 아니시랴, 와룡은 선생님 아니시냐, 너 오호 대장 아니시냐, 영문옥문에 제갈공명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만 불려지고 있어 와룡 선생이 과연 맹격이 숭배하는 신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무(巫)의 당(堂)은 두 종류로 나뉜다. 무당의 집에 제단을 차려 놓고 신령이나 부처 · 보살의 화상(畵像) 또는 무경(巫鏡) 등을 걸어두는 신당(神堂)과 무당의 집이 아닌 곳에서 굿을 행할 수 있는 당이다. 대표적인 당이 개성의 덕물산 장군당이다. 서울의 경우 남묘, 동묘, 아기씨당, 금성당, 국사당, 와룡당 등이 있다. 모든 무당이 집에 신당을 차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당이 없는 무당에게 이러한 당들은 굿을 행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가 된다.

와룡묘는 중국 삼국시대 지략가인 제갈공명을 기리는 사당이다. 이곳에는 와룡묘 외에 단군묘(檀君廟), 제석전(帝釋殿), 약사전(藥師殿), 삼성각(三聖閣), 요사(寮舍), 문신각(文臣閣) 등이 함께 있어 중국 도교계의 신령으로 모셔지는 와룡 선생과 우리 민속신앙이 결합된 무속신앙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조선무속의 연구 하(赤松智城, 秋葉隆 共著, 심우성 역, 동문선,1991), 서울지역 안안팎굿 무가자료집(김헌선, 보고사, 2006),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필자 시지은(施知恩)

와룡묘
정수미

와룡선생(臥龍先生)

정의 유비를 도와 촉한(蜀漢)을 세운 제갈량(諸葛亮, 181~234). 서울 무속에서는 별다른 기능을 하지 않는 신이지만 황해도 무속에서는 글재주가 뛰어나고 도(道)에 통달해 인간의 길흉을 점치는 신으로 여겨지고 있다. 오른손에는 육갑(六甲)을 볼 때 사용하는 흰 부채를, 왼손에는 도가 통달했음을 나타내는 신선부채를 들고 구름을 타고 다니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내용 와룡신앙은 조선시대 관우(關羽, ?~219)신앙이 무속에 유입되면서 한국 무속에 자리 잡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관우가 관성제군(關聖帝君)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와룡선생은 상대적으로 그 위치가 미ㅅ미하다. 그리고 제갈량 단독으로 모셔지기보다 관우를 중심으로 유비(劉備, 161~223) · 장비(張飛, ?~221) · 조운(趙雲, 168~229) · 마초(馬超, 176~222) · 황충(黃忠, 145~222) · 옥천대사 등 관련 신들과 함께 모셔진다. 서울 무속에서는 관우를 중심으로 이러한 중국의 인물신을 모시는 무당을 전내(殿內)라고 한다. 서울 무속의 굿에서 관우는 관성제군으로서 성제님을 모시는 거리에 등장하지만 제갈량은 그저 말로써 언급되는 데 그친다.

서울에서는 맹격(盲覡, 맹인 남자 무당)이 주로 치성을 드리던 와룡당(臥龍堂)에서 관우와 함께 모셔졌으며 부군당인 무후묘(武候廟)에서 모셔지기도 한다.

참고문헌 조선무속의 연구 하(赤松智城 · 秋葉隆, 심우성 역, 동문선, 1991), 한국 무속신 고찰(양종승, 몽골학 4, 한국몽골학회, 1996).

필자 이용범(李龍範)

1. 제갈공명 무신도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가로 76㎝, 세로 99.5㎝ | 1950년대

2. 제갈공명 무신도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가로 76㎝, 세로 92㎝

3. 와룡선생상
국립민속박물관 사진자료 소장

4. 와룡묘
국립민속박물관 사진자료 소장









와흘본향당(臥屹本鄕堂)

정의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본향신을 모신 당. '한거리 하로산당'이라고도 한다. 이 말은 한거리 지경에 있는 한라산신을 모시는 당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 이 당은 2005년 4월 6일에 '제주도 민속자료 제9-3호'로 지정되었으며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1274-1번지에 있다.

형태 커다란 팽나무 두 그루가 펼친 가지 아래 넓은 제장을 마련하였다. 제장 주위는 흩담으로 에둘렀다. 제단은 두 개이다. 하로산또의 제단은 다듬은 돌을 계단식으로 놓아 마련하였다. 서정승 따님아기의 제단은 한쪽 구석에 따로 조그맣게 마련하였다.

내용 와흘본향당은 마을공동체의 성소(聖所)이면서 정기적인 당굿을 통하여 공동체의 유대감을 확인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에 모신 당신은 마을 전체의 안녕을 지켜주고 생업, 산육, 치병 등의 기원을 들어주는 것으로 관념된다.

와흘본향당에서는 하로산또와 서정승 따님아기

를 모신다. 하로산또는 본향신이면서 산신이고, 서정승 따님아기는 산육신이면서 치병신이다. 직능이 다른 남녀 신을 함께 모시는 셈이다. 와흘본향당은 인근 마을의 본향당이 대개 그러하듯이 송당본향당의 한 줄기로 전승된다. 이는 하로산또가 송당본향당 금벡주의 열한 번째 아들이라는 데서 구체화된다. 이 당에서는 1년에 두 차례 당굿을 크게 벌인다. 음력 정월 14일에 신과세제, 7월 14일에 마불림제를 한다. 매인심방이 있어 굿을 전담한다. 소미 4, 5명을 대동해 무악기인 연물을 울리면서 굿을 한다.

마을에서는 굿을 앞두고 미리 당을 깨끗이 청소하고 금줄을 쳐둔다. 동네 여성들은 아침 일찍 구덕으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단과 그 앞의 바닥에 진설한다. 이 마을 남성들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당굿에 참여한다. 와흘리에서는 유교식 마을제를 따로 하지 않고 당굿을 유일한 마을제로 삼는다. 신과세제의 제차는 일반적인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궷문열림, 초감제, 나까시리놀림, 산받음 등 순으로 한다. 신을 청하여 기원하고 신을 즐겁게 놀린 뒤에 한해의 운수를 보는 순서이다. 와흘본향당에서는 여기에 산신놀이가 더해지는 점이 특별하다. 하지만 이것도 중산간 마을에서는 보편적으로 행해지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차는 하로산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아침 일찍 시작한 굿은 점심나절이 지나야 마무리된다. 마을부녀회에서는 매년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국수를 제공한다.

본풀이는 전형적인 남녀 신의 만남과 이별 구도로 짜여져 있다. 사냥하던 하로산또가 먼저 좌정한 서정승 따님아기를 보고 한눈에 반하여 부부의 연을 맺는다. 하로산또는 임신한 서정승 따님아기가 돼지고기 금기를 깨뜨리자 별거하자고 한다. 먼저 좌정하고 있던 여성신을 뒤늦게 찾아온 남성신이 내쫓는 형국이 되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다. 현재 같은 당에 따로 제단을 만든 것은 언제부터인가 별도의 당에서 모시던 두 신을 함께 모시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와흘본향당은 남녀 신을 한 울타리 안에 모시되 제단을 따로 마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형태적으로도 당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인심방이 당굿을 맡아하고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의례의 전승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와흘본향당의 당굿은 단골들의 참여가 가장 많다는 점, 남녀 공동의 마을제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당은 많이 알려져 관광객이 많이 찾을 뿐 아니라 당굿을 할 때도 수많은 구경꾼이 몰려든다. 하지만 근래 외지 무속인들이 무속행위를 하면서 당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어 무인보안장치를 설치하여 이들의 무단출입을 막고 있다.



와흘본향당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 2002.11.13 | 강정식

참고문헌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필자 강정식(姜晶植)

완도장좌리당제 및 당굿

정의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 대보름에 당제를 지내고 있다. 이 마을에서는 두 곳에 당이 있다. 하나는 마을 앞 300여 m 거리의 조그만 섬 장도에 있고, 다른 하나는 마을 안 사장(射場)의 귀목나무거리다. 완도장좌리당제 및 당굿은 1995년 12월 26일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8호'로 지정되었으며, 김봉도가 예능보유자였으나 2002년에 사망하였다.

내용 매년 이장을 중심으로 정월 초사흗날 마을회의격인 대동공회(大同公會)를 열어 제관, 제비, 당굿을 칠 사람들을 선정한다. 이 회의에는 마을의 유지 및 임원들이 참여하며, 여기에서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시행한다. 제관으로는 당주와 집사를 선정한다. 당주는 제물을 비

완도장좌리당제 및 당굿
정수미






1


2


3


4


5


6


7

완도장좌리당제 및 당굿
정수미

1. 마을 앞 무인도인 장도의 정상에 위치한 당집

2. 당집 앞에 피워놓은 장작불

3. 장도에 제사를 모시러 오르기 전에 바닷길에서 신명나게 들당산굿을 울림

4. 헤일대사의 제상

5. 당제를 끝내고 당산굿을 치는 모습

6. 당집 주위를 돌면서 날당산굿을 치고 있는 모습

7. 당제를 마치고 배를 타고 풍물을 울리며 마을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
전남 완도군 장좌리 | 2007.2.25 | 나경수

롯한 일체의 준비물을 맡고, 집사는 독축과 집례를 관장한다. 당주의 선정 기준은 무척 까다롭고 엄격하다. 친가는 물론 처가까지도 아직 상복을 벗지 않은 사람은 제외되며, 집안에 산고가 든 사람도 안 된다. 또 어린애가 있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 역시 당주를 맡을 수 없다.

당비는 당공(堂貢)이라고 하며, 그해 당제에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여 호구전(戶口錢, 집집마다 내는 돈)으로 걷는다. 초사흗날 마을회의가 끝나고 이장이 방송을 하면 대개 그날 다 걷힌다. 이장은 그중 제물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당주에게 준다. 나머지는 다른 준비물, 예를 들면 굿물이나 풍물치는 사람들의 의복 · 고깔 등을 사는 비용으로 사용한다.

당주는 정월 대보름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여러 가지 준비에 들어간다. 처음 하는 일은 당샘 청소이다. 당주는 샘을 청소하고 목욕재계를 마친 후 물을 길어 집에 돌아와서 우선 제주와 콩나물을 앉힌다. 또 대문간에 왼새끼를 꼬아 만든 금줄을 걸고 마을 사람들과의 왕래는 물론 일상적인 대화까지도 삼간다. 마을 사람들 역시 당주 내외를 보면 서로 말을 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길을 피한다. 특히 제수를 준비하면서부터는 소변을 보면 손발을 씻고, 대변을 보면 찬물로 목욕재계한 후 옷을 갈아입는다. 이 때문에 옷은 최소한 세 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한다. 대소변 후 목욕재계하는 일이 번거롭기 때문에 준비기간에 극히 소식하거나 단식하는 경우가 많다.

당제를 모시기 2~3일 전에는 제물을 사기 위해 장에 간다. 이장과 당주가 함께 완도읍장 또는 해남 송지장을 본다. 장을 보러갈 때에도 반드시 목욕재계한 다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제물은 육류 · 생선 · 과일 · 나물 등 필요한 것을 사며, 쇠머리는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사는 것은 제수를 만들 식료품만 아니라 솥, 시루, 제기, 돗자리 등 일체를 새로 구입한다. 물건을 살 때는 일절 값을 깎지 않는다. 값을 흥정하거나 깎으면 공이 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다.

한편 당제 하루 전인 14일에 당집을 비롯하여 공동우물과 당수(堂樹)가 서 있는 사장을 청소하고 금줄과 금토를 한다. 금토는 깨끗한 황토를 퍼서 대강 한 걸음에 한 삽 분량을 까는 것이다. 당집 청소와 함께 마른 나무를 베어 당집 앞에 장작을 쌓아 놓는다. 장작은 당제를 모시면서 불을 때기 위해서이다.

당제의 진행 과정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새벽 5시경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모여서 굿물과 고깔, 의복 등을 새벽부터 부산하게 준비하여 마을회관 앞마당에서 당굿을 치기 시작한다. 한참 마을회관 마당에서 굿물을 치다가 당주를 앞세우고 길굿을 하면서 당집으로 출발한다. 썰물이 되어 도보로 당집이 있는 장도로 가며, 바닷길 중간에서 신명나게 풍물을 울리다가, 다시 상쇠가 이끄는 대로 굿물을 치는 사람들은 갈지자로 들당산굿을 하고 당에 오른다. 당집에 도착하면 당주와 제물을 운반하는 사람 및 당제에 참여할 이장을 비롯한 몇 명만 당집 안으로 들어가 집사의 지시를 받으면서 진설을 한다. 제수는 주 · 과일 · 포에 몇가지 나물과 식혜, 생선과 떡 · 탕 · 메 등이다. 가운데 제사상은 좌우의 상에 비해 제수의 규모나 가짓수에서 다소 많다. 또 가운데 상에만 쇠머리를 진설한다. 이는 언제나 그렇게 해 왔다고 하며 일제 말기의 어려웠던 때는 염소를 잡아 대신했다고 한다. 가운데 상은 주신인 장보고(張保皐, ?~846)와 송징(宋徵, 1564~1643), 왼쪽 상은 헤일대사, 오른쪽 상은 정년(鄭年)의 제상이다. 그런데 승려인 헤일대사의 상에도 술과 고기를 올리는 것이 특이하다. 제례는 동쪽 바다에 동이 트는 시각에 맞추어 시작된다. 제차는 유교식으로 진행되며 설상(設床)-분향(焚香)-강신배(降神盃)-독축(讀祝)-초헌(初獻)-아헌(亞獻)-종헌(終獻)-소지(燒紙)-음복(飮福)-헌식(獻食)-철상(撤床)의 순이다. 진설을 할

때까지 밖에서 쉬고 있던 굿패는 당제가 시작되면 당집 앞마당에 도열하여 상쇠의 지시에 따라 당산굿을 하기 시작한다. 축문은 아래와 같다.

堂祭 祝文

維

歲次西紀○年干支正月十五日長佐里里民代表○○○敢昭告于

顯張淸海大使保皐之神位 顯宋大將軍徹之神位

威冠一代 靈存永世追慕 茲値上望 謹以淸酌 庶羞恭伸 奠獻 尙

饗

당제를 마치면서 한지에 불을 붙여 공중에 띄우는 소지는 집사의 일이다. 여러 장의 백지를 축원의 말과 함께 사른 후 공중에 띄운다. 백지가 불에 타면서 잘 올라야 좋다고 한다. 소지가 끝나면 음복 후 철상(상을 치움)한다. 철상을 하면서 당주가 각 상에서 음식을 조금씩 떼어 양푼에 담아 당집 옆 나무 그루터기 위에 백지를 깔고 그 위에 놓아둔다. 헌식이 끝나면 당집 앞마당에 깐 짚 위에 식기를 줄줄이 늘어놓고 거기에 갖가지 음식을 차례로 담았다. 특히 현장에서 김밥을 말아 식기에 담는다. 이는 송 대장군의 부하인 장졸들에게 거리밥을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수는 일정치 않지만 대개 굿물을 치는 사람들의 수에 맞춘다. 이 거리밥은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아침식사로 나누어 먹는다.

아침식사를 하고 나면 모두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굿을 치는 사람들은 다시 열을 지어 날당산굿을 하기 시작한다. 일렬로 줄을 서서 당집 주위를 왼쪽으로 세 바퀴 달음질쳐 돌고 나서 옆의 보리밭에 둥글게 원을 그려 다시 풍물을 홍겹게 치다가 바닷가에 도착한다. 섬에 들어올 때는 걸어왔지만 나갈 때는 이미 만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실으러 올 배를 기다린다.

배가 도착하면 사람들은 마을에서 온 배에 나누어 타고 마을을 향해 굿물을 치면서 출발한다. 배가 부둣가에 가까워지면 온마을 사람들이 부둣가로 나와 구경을 한다. 마을에 도착한 굿패는 바닷가에 접해 있는 마을 공동우물에서 먼저 우물굿을 한다. 그리고 당산나무가 서 있는 사장에 가서 또 사장굿을 한다. 사장굿이 끝나면 이제 끝으로 그간 출입이 금지되었던 당주집에 가서 굿물을 한판 신명나게 치는 것으로 당제를 마감한다. 당주집에서 놀면서 술과 음식을 충분히 먹은 후 다시 그 길로 각 가정을 돌면서 며칠간 매구를 치며 놀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당일에 그친다.

이 마을에서는 당제와 별도로 보름 밤에 갯제를 모신다. 장도로 들어가는 길에 온 마을 사람들이 각 가정에서 상 하나 차려 내와서 길게 늘어뜨려 놓고 개인별로 소원을 비는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는 마을에서 일괄적으로 상을 마련하며, 이장이 제를 주관한다.

장좌리의 당제는 특히 역사적 인물을 모신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의 마을제사와 차이가 난다. 특히 마을과 관련이 깊은 인물들을 모시고 있으며 필요하면 장보고의 예와 같이 추배(追拜)를 하여 모시기도 한다. 당집이 있는 장도는 장보고의 청해진 본거지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발굴 조사 중에 있다. 또 이 마을의 풍물은 전라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특히 이 마을은 지금도 당제에 대한 신심이 돈독하다. 예를 들면 당산굿을 할 때 머리에 쓸 고깔을 지금도 직접 종이와 물감을 사다가 마을에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당제 덕분인지 마을민의 단합과 협동이 잘 된다고 한다.

조선조 임억령(林億齡, 1496~1568)은 〈송 대장군가〉라는 조선조 최고의 영웅서사시를 지었다. 이는 바로 이곳 당제에서 모시는 송징의 전설과 당제를 소재로 한 의고적 작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시 속에는,

歲時伏獵鳴村鼓　때를 맞춰 복날과 섣달에 마을에 북소리 울리고
翩翩落日野巫禱　뉘엿뉘엿 지는 해에 들가운데 무당의 굿소리
嘓嘓西風寒鴉舞　우수수 하늬바람에 갈까마귀 춤을 춘다.
靈之來兮飄天雨　신령이 내리는지 하늘에선 빗방울 날리고
神之床兮澀白酒　제상에 올려진 건 고작 막걸리 한 사발
嗟乎此豈淫祠類　오호라 이 어찌 음사류겠는가
甚矣諸生識之陋　심하도다 유생들의 고루함이여
剪紙招魂着自古　종이 잘라 혼부름은 예부터 있어온 일
往往下降叢林藪　때때로 수풀 속에 신이 내린다.

라는 대목이 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여름에는 복날에, 겨울에는 동짓날에 무당이 제상을 차려서 굿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유교식 방식에 의해 당제를 모시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무당이 당굿을 집전했다는 기억을 들을 수 없다.

장도의 당집은 섬 정상의 울창한 숲 속에 위치해 있다. 당집은 동향으로 마을을 등지고 바다를 향해 있다. 본래는 초가였으나 기와로 지붕을 교체하고 크게 수리한 당집이 있었다. 당시 상량문이 황기(皇紀) 2600년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이는 일제강점기인 1940년에 중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2년에 이를 철거하고 같은 장소에 새로 당집을 지었다. 본래 당집에는 주신으로 중앙에 송징 장군(宋徵將軍), 우측에 정년 장군(鄭年將軍), 좌측에 혜일대사(慧日大師)를 모시고 있었다. 그러나 1982년 이곳 당제가 남도문화제에 출연하면서 청해진이 있었던 연고로 인해 장보고를 추배하게 되었으며 그후 계속해서 장보고까지 4위의 신을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당집 안 전면 벽에 장보고의 초상이 걸려 있다. 당집이 있는 장도는 해발 33m, 넓이 9만 9,000㎡(29,991평)의 조그만 섬이다. 이곳은 밀물시 만조가 되면 섬이 되고, 썰물이 되면 도보로 출입이 가능하다.

다른 한 곳의 당은 귀목나무가 서 있는 사장거리에 있지만 크게 중시되지 않고 있다. 앞에서 말한 당집에서 제향을 마치면 여기에 와서 사장굿을 한다. 전에는 이곳에 간단한 제사상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없다. 지금은 약화되었지만 이곳 원로들로부터 이 귀목나무를 당수 또는 당수나무라고 부르는 말을 들을 수 있다.

참고문헌 완도 장좌리 당제(나경수, 광주전남의 민속연구, 민속원, 1998), 한국세시풍속사전 정월편(국립민속박물관, 2004).
필자 나경수(羅景洙)

왕십리본(往十里本)

정의 전통적인 서울굿의 지역적 세분 명칭 가운데 하나.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구분으로 동쪽과 서쪽을 나누었을 때, 동쪽의 중심 지역이 왕십리이기 때문에 왕십리본이라고 한다. '본(本)'이라는 명칭은 보통 활자화된 문서를 지칭하는 것이어서 왕십리본이라고 표현하면 왕십리 일대를 중심으로 굿을 하던 이들의 무가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무가집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가의 학습은 구비로 이루어지고, 지역의 세부적인 차이는 무가 측면보다 굿의 연행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본'은 정형화된 무가 사설이라는 의미보다는 무가를 포함한 굿법(-法) 또는 굿제(-制)를 의미한다.

내용 오늘날 서울굿의 본을 나누는 분류 명칭은 동쪽제, 서쪽제 정도로만 구분된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전통적인 학습을 한 소수의 만신들이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런데 과거에는 세분화된 분류가 있었다. 그 예로 2분류법과 3분류법을 들 수 있다. 2분류법은 사대문을 중심으로 안의 굿과 바깥 굿으로 나누는 것이고, 3분류법은 각심절-우수현-구파발 또는 각심절-노들-구파발 또는 왕십리-노들-구파발 또는 각심절-서댄밖-노들로 나누는 것이다. 왕십리본은 3분류법에 해당된다. 여기에 말죽거리, 마포, 되뫰이, 선희궁이라는 명칭들도 거론되지만 가장 일반적인 분류법은 3분류법이다. 즉, 서울의 서쪽은 구파발 또는 서대문 밖, 동쪽은 각심절(지금의 노원구 월계동으로 추측) 또는 왕십리, 남쪽은 우수현(예전에 용산구 도동과 후암동의 경계를 이룬 고개) 또는 노들(노량진)로 나뉜다는 것이다. 결국 왕십리본은 서울굿의 동쪽굿 내지 동쪽제의 중심 지역으로 거론된다.

과거 왕십리를 중심으로 한 서울의 동쪽굿은 진적굿과 천신굿이 유명했다고 만신들은 증언한다. 이에 비해 서쪽은 진오귀굿, 남쪽은 당굿이나 뱃굿이 유명했다고 한다. 또 '우대 만신 아래대 전악'이라는 말이 있다. 우대는 서울의 서쪽을, 아래대는 동쪽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쪽은 큰 만신, 동쪽은 무악을 연주하는 전악과 일류 잽이가 많이 났다고 증언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굿법으로서 '왕십리본'의 정체성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은 만신의 굿이다. 그리고 그 굿은 신어머니로부터 학습을 통해 전수된다. 2009년 작고한 중요무형문화

재 서울새남굿의 기능보유자였던 김유감은 "동쪽의 유갬이(김유감), 노들 순자(최순자), 서댄밖 순이, 갈월이"라는 말을 했는데, 바로 각 지역의 전통적인 굿을 학습한 만신들을 일컫는 것이다. 김유감 만신은 1924년 왕십리 두모개 태생이고 작고하기까지 줄곧 왕십리에서 거주하였다. 그의 어머니 반승업도 서울의 큰 만신이었다.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행당동 아기씨당굿의 당주 김옥렴도 행당동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이다. 그의 어머니 김묘분, 친할머니 고송자도 이곳의 무당이었다. 이외에도 유명했던 왕십리의 무당으로는 '왕십리 오토바이'로 불린 박어진(1923~1995)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박어진에게 굿을 배운 만신으로는 중요무형문화재인 서울새남굿의 기능보유자 이상순(은하엄마)과 굿 잘하기로 소문난 전농동 돼지엄마 박금순 등이 있다.

김옥렴, 김유감 등이 증언하는 왕십리를 중심으로 한 서울 동쪽굿의 특징은 먼저 굿의 순서 가운데 불사거리와 산거리의 선후이다. 동쪽에서 불사거리를 먼저하고 산거리를 나중에 한다면, 서쪽에서는 이것이 거꾸로이다. 동쪽에서의 진진오기굿은 시왕창부를 놀지 않는 특징이 있다. 동쪽이 청을 길게 뽑고 춤사위도 약간 느린 반면에 서쪽은 청과 음악을 빨리 둥글려서 한다. 이외에도 제물(전물)을 괴는 방법, 의대 등도 차이가 있다.

한편 이 서울굿의 본이 조선시대의 무당 마을, 이른바 무교촌(『세종실록(世宗實錄)』에는 무격리(巫覡里)라고 표현됨)과도 연관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종실록(中宗實錄)』 중종 28년(1533) 2월 16일조에 "근세에는 서울 남대문 밖의 우수현과 용산강의 노량진에 무격이 모여서 사는데, 이는 모두 서울에서 쫓겨나 부락을 이룬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구파발, 각심절, 되뒴(넘)이 등 다른 지역의 사정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참고문헌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서울편(문화재관리국, 1979), 한국의 무(조흥윤, 정음사, 1983), 한국의 무속-서울, 황해도편(국립민속박물관, 1999), 서울굿의 양상과 의미(홍태한, 민속원, 2007), 서울굿의 이해(한국무속학회, 민속원, 2007), 조선무속고-역사로 본 한국 무속(이능화 지음, 서영대 역주, 창비, 2008), 서울굿의 동쪽제와 서쪽제 비교(고영희, 비교민속학 29, 비교민속학회, 2005).

필자 김형근(金亨根)

왕십리아기씨당

정의 공주 아기씨를 주신으로 섬기는 당.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 부근에 살군당 · 양지당 · 수풀당 3개가 존재했다. 하지만 양지당은 현재 유실되고, 살군당과 수풀당만 남아 있다. 이 당은 2001년 4월 30일 '성동구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되었다.

형태 왕십리아기씨당은 약 265㎡의 대지에 20~23㎡ 규모이다. 제당 옆에는 당주 만신인 김옥렴의 개인 신당과 살림집이 있다. 마당에는 5층 석탑이 있고, 서쪽 문 옆에는 신목이 있다. 당의 내부에는 제단이 마련되어 있고, 전면에 아기씨를 포함한 7점의 무신도가 걸려 있다. 좌측 벽면에 '아기씨당 봉건기(阿祈氏堂奉建記)'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역사 건립 연대는 정확하지 않지만 봉건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영조 23년(1747) 정도로 추정된다. 당은 1900년대 초까지는 을지로 6가의 전차 종점 부근에 있다가 성동경찰서 앞으로 이전되었고, 1944년경에 현재 위치로 옮겨졌다. 당시 현재의 위치로 이전한 이유는 전 당주 만신의 꿈에 아기씨가 현몽하여 그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

내용 살군당에는 당굿도 전승되고 있어 행당동 아기씨당굿이 2005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33호'로 지정되었다. 살군은 이 마을의 당산나무였던 큰 살구나무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한편 수풀당은 현재 중구 신당5동 758번지에 위치하며 개인이 관리하고 있다. 행당동 아기씨당은 '진퍼리 살군당'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명칭은 마을이 질펀한 들에 있다고 하여 속칭 진퍼리라는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아기씨의 좌정담은 지역에서 전승되는 이야기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여러 사례 중 3대째 이 당의 당주를 맡고 있는 김옥렴 만신의 구술을 통한 당신(堂神) 좌정담을 소개한다.

"다섯 분이 이리루 피난을 나오셨다가 산찔레 필 무렵에 찔레꽃을 따서 입에다 물고 돌아가셨다고 했거든. 왕십리 이리로 피난을 나오셔서 숨어서 사시면서 풀뿌리, 나무 뿌리를 캐서 잡수시다가 산찔레 필 무렵에 산찔레를 따서 잡수시다가 입에 다 물고 돌아가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왜 나오셨대요?] 그러니까, 저기 전해오는 말로는 북쪽에서 나라가 망하자, 다 뿔뿔이 헤어지면서 다섯 공주도 계시고, 옹주도 계시고 다섯 분이 상궁 나인들을 거느리시고 이리로 피난을 나오셨대요. 나오시다가 더 가실 수가 없으니까, 여기 수풀이 많고 하니까는 나무가 많고 여기서 숨어서 사시다가 그땐 여기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대요. 집이 한두 채씩 생기면서 동네가 마을이 생기면서 옛날에 이장 같은 분들 뭐 이런 분들한테 당신님들 한을 풀어달라고 꿈으로다 현몽을 하셔서 무슨 일인가 하고 있다 보니깐 자꾸 이상해 동네에 변화가 생기고 또 흉한 일이 있고 해서 다섯 분을 세 군데다가 나눠 모셨대요. 한 분은 여기 왕십리 기차 정류장이구, 한 분은 지금 상왕십리 전철역 큰길 난 데 청구상업이라고 있는데 양지동 아씨를 거기다 모시고, 수풀당 아씨 세 분이 계시거든, 지금 한양교통회관 뒤편으로 모시고 산찔레 필 무렵이 사월 보름날 정도 아닐까 하고 사월 보름날을 기준으로 하셔서 탄신제 겸 기제 겸 지내 드리고, 10월 상달에는 날 받아서 굿하구 당제, 대동제 지내구."

이 좌정담은 고난을 피해 숨어 들어온 공주가 죽어서 당신으로 좌정한다는 얘기로 다섯 자매가 흩어져서 살군당 · 양지당 · 수풀당에 각기 좌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력 10월에 날을 받아 하는 당굿은 일반 서울 재수굿의 형식을 취하는데 오늘날 연행되는 아기씨당굿은 부정거리, 가망거리, 진적(작)-유교제례, 본향거리, 아기씨거양거리, 말명거리, 제석거리, 도당부군거리, 도당별상거리, 도당신장거리, 도당대감거리, 성주거리, 창부거리, 계면거리, 뒷전의 순서로 치러진다. 이 가운데 아기씨당굿만의 특징이라면 당신인 아기씨를 위한 굿거리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서울 만신들에게 아기씨당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녔음은 그들이 전승하고 있는 무가에 잘 나타난다.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은 1934년 아카마쓰 지조(赤松智城), 아키바 다카시(秋葉隆) 공저의 『朝鮮巫俗の硏究(조선무속의 연구)』에 채록된 경성 무녀 배경재의 무가이다. 이 무가에 왕십리 아기씨당이 기록된 부분은 부정, 가망청배, 호구청배, 말명청배, 뒷전이다.

부정 무가를 예로 들면 ("설명도대신말명[서울明圖大神萬明], 사위삼당말명[四位三堂萬明]

국내(國內)로 뎨당말명[諸堂萬明], 그연에상산말명[上山萬明]

열네아기당자말명, 수영반장말명

육조삼말[六曹三府], 부군말명[府君萬明], 배용남산에불사말명[佛事萬明]







왕십리아가씨당
정수미



왕십리아가씨당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아기씨당 | 2006.12.16 | 김형근

물건너화주당(化主堂), 매당왕신[應堂王神]의산활말명

왕십리수풀당[壽佛堂]에 열네애기자겨말명

동관암, 남관암, 정전(正殿)은대전말명[大殿萬明]…")이라고 해서 여러 말명을 섬기는 내용이다.

이 문서는 구비공식구처럼 굳어져서 말명의 자리에 가망, 호구, 걸립 등으로 바꾸어 여러 굿거리에 반복된다. 오늘날 서울 만신들의 굿에서는 호구의 종류를 나열할 때만 이 문구가 구송된다. 이 무가 내용에 의하면 왕십리 수풀당이 대표명칭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명칭이 살군당·양지당·수풀당 중 수풀당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앞에서 소개한 김옥렴의 구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 아기씨(공주)가 흩어져 자리를 잡기 이전에 모두 수풀에 기거했다가 3명의 아기씨만이 수풀당에 정하였으므로 무가에서 열네애기, 구비신화에서 다섯 공주를 모두 아우를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앞에서 인용한 무가 내용에서도 나타나듯이 서울 만신들에게 중요한 용어 가운데 하나가 '사위(외)삼당'과 '궁(국)리제당'이다. 서울굿의 구대인들의 구술을 들어보면 과거 서울 만신들이 진적굿을 하기 위해서는 개성 덕물산의 상산을 위시해 삼산을 돌고 서울 시내의 여러 당도 돌았다. 이는 진적굿을 위한 의례적 행위뿐 아니라 신기(神氣) 보강 차원에서 무척 중요한 일이었다. 이 사위삼당 가운데 하나가 왕십리 수풀당이라고 한다. 서울의 중요한 3개의 당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앞의 내용에서도 드러나는 금성당·화주당 등으로 만신들은 증언하고 있다. 그 외에도 유명한 당으로 홍제동의 할미당, 무악재의 사신당, 세검정의 원앙당 등이 있었다.

참고문헌 서울민속대관–민간신앙편(서울특별시, 1990), 조선무속의 연구(赤松智城 · 秋葉隆, 심우성 역, 동문선, 1991), 성동구지(서울특별시 성동구, 1992), 성동구의 민간신앙(최래옥 외, 성동문화원, 2005), 서울 행당동 아기씨당 무신도 고찰(김자림, 한국 무속 연구의 한 단면, 민속원, 2005), 서울지역 당신화 연구–행당동 아기씨당을 중심으로(고영희, 서울굿의 이해, 민속원, 2007), 호구거리의 의미와 기능(홍태한, 서울굿의 양상과 의미, 민속원, 2007).

필자 김형근(金亨根)

요왕차사상[龍王差使床]

정의 영등굿이나 잠수굿 등에서 용왕차사(龍王差使)에게 올리는 제물 음식을 차린 상.

내용 요왕차사상(요왕처서상, 요왕체ᄉᆞ상)은 용왕차사에게 올리는 제물을 차린 상이다. 요왕차사(요왕처서, 요왕체ᄉᆞ)는 바다 속의 용왕에게 소속된 차사를 말한다. 시왕(十王)에 속한 차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 속에도 같은 역할을 하는 차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바다일을 하는 어부와 해녀들에게는 해상 안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생업의 공간이 육지뿐 아니라 바다 속에까지 걸쳐 있기에 나타나는 관념이다. 비슷한 예로 '요왕세경'을 들 수 있다. 농사일을 관장하는 세경신이 용왕에게도 속해 있어 '바다밭'을 담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바다 속에는 요왕을 중심으로 요왕차사, 요왕세경 등이 각각 있어 육지의 세상과 닮은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제주에서도 어부와 해녀들은 영등굿과 잠수굿 등 무속의례를 통해 해상의 무사고와 생업의 풍요를 기원하여 왔다. 이때 요왕차사를 청하여 '요왕차사본풀이'를 하고 이어서 액을 막는다. 해녀들은 물질 중에 생길 수 있는 뜻하지 않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요왕차사를 청해 잘 대접해야 한다고 여긴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바다에서 작업 중에 유명을 달리한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요왕차사에게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믿는다. 동김녕마을 잠수굿의 경우 요왕차사상은 연약탁상(ᄉᆞ제상)의 오른편에 요왕영게상, 선왕상과 함께 놓인다. 올리는 제물 음식은 사발시루떡, 돌래떡, 메, 고사리, 콩나물, 미나리, 계란, 구운 생선, 과일(사과·배·귤), 비자, 대추, 곶감, 밤, 술, 제비쌀 등이다. 각각의 무속의례 현장에 따라 '요왕차사기'라는 기메가 요왕차사상에 놓이기도 한다. 요왕차사기라는 기메는 종이를 오려 요왕차사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이를 푸른 잎이 달린 대나무 가지에 달아맨 것이다.

참고문헌 굿과 음식(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제주도 잠수굿 연구–북제주군 구좌읍 동김녕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강소전,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필자 강소전(姜昭全)

용신(龍神)

정의 사해(四海) 바다를 관장하는 신. 기우, 풍어, 풍년, 무사항해 등을 담당하는 신으로 동신(洞神)으로 모셔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는 내륙 지방에서는 샘이나 우물에서 용왕제를 지내기도 한다. 용신은 남성과 여성이 있다. 남신은 주로 해일과 바람을 관장하고, 여신은 비와 구름을 관장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내용 용신에 대한 우리나라의 초기 기록은 주로 건국신화와 관련하여 나타난다. 고구려의 주몽신화(朱蒙神話)에서 오룡거(五龍車)라는 해모수의 수레를 끄는 동물이나 주몽이 죽어 승천할 때 타고 올라간 동물로 용이 등장한다. 신라의 박혁거세신화에서는 국모(國母) 알영이 알영정(閼英井)가에 나타난 계룡(鷄龍)의 몸에서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다. 석탈해신화에서도 석탈해가 자신의 본국인 용성국(龍城國)에 이십팔용왕(二十八龍王)이 있으며, 모두 사람의 태(胎)에서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용신과 제왕의 통치를 연결해 제왕의 신성성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용신은 바다를 다스리는 신인 동시에 천상을 왕래할 수 있는 신이라는 점에서 제왕의 정치적 권위를 신성화하기에 적합한 동물이었던 것이다.

용신에 대한 숭배는 특히 신라시대에 와서 고조되었다. 이는 불교를 배경으로 등장하는 호법룡(護法龍)신앙과 나라를 수호하는 것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호국룡(護國龍)신앙으로 대표되었다. 그리고 이들 신앙은 상호 습합되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예로 '신라 30대 문무왕(文武王)이 당군(唐軍)의 침입 소식을 듣고 용궁에 들어가 비법을 배워 왔다는 명랑법사(明朗法師)를 시켜 문두루(文頭婁)의 비법을 행하여 당나라 배를 침몰하게 하였다', '문무왕이 세상을 떠나며 남긴 죽은 후에 호국대룡이 되어 불법을 숭상하고 나라를 수호하겠다는 유언에 따라 문무왕을 동해 바위 위에 장사지냈는데 그 후 문무왕이 호국용신으로서의 이적(異蹟)을 나타냈다', 신문왕(神文



1



2



3

1. 국사당 용왕대신
서울시 종로구 무악동 | 1972.10.31 | 장주근

2. 용태부인 무신도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가로 77㎝, 세로 101.5㎝ | 1950년대

3. 용궁부인 무신도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가로 50.8㎝, 세로 92㎝

王)이 이견대(利見臺)에 행차하여 용으로부터 적병을 물리치고 가뭄에 비를 오게 하고 물결을 진정시키는 기능이 있는 옥대를 받았다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호국룡신앙의 관념은 백제에서도 확인된다. 백제 30대 무왕(武王)이 된 서동(薯童, ?~641)이 지룡(池龍)의 후손이었다는 기록, 당장(唐將) 소정방(蘇定方, 595~667)이 백제를 공격할 때 용신이(또는 의자왕이 용으로 변하여) 백제를 보호하자 소정방이 백마를 미끼로 용을 낚아 제거했다는 조룡대(釣龍臺) 전설의 구전 등은 이를 잘 나타낸다. 이러한 호국룡신앙이 고려와 조선의 국조신화에까지 계승되었음을 볼 때 비록 지배 계층을 중심으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호국룡신앙을 용신신앙의 한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민간에서는 용신을 수신(水神)으로 숭배하였으며 비 오는 것을 관장하는 신적 기능을 지녔다고 보았다. 『삼국유사(三國遺事)』 보양이목(寶壤梨木) 조에 의하면 보양스님을 따라 신라로 들어온 용자(龍子) 이목(璃目)은 날이 가물자 보양스님의 지시를 받고 천신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농민을 위하여 비를 내려 주었고, 보양스님은 이목을 징벌하러 온 천신의 사자에게 배나무를 이목이라고 하여 배나무에 벼락을 치게 하는 내용이 보인다. 이는 불교와 습합된 수신으로서의 용신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용신신앙, 특히 수신으로서의 용신신앙은 현재 전라도 · 충청도 등지의 내륙 지방에서 마을 우물이나 샘을 용신의 거주처로 간주하고 그곳에서 용왕굿이나 용신제를 지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용못[龍沼]이나 용우물[龍井] 등 전국적으로 전승되는 전설에 의하면 용이 보은(報恩)하려고 비를 내려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었다고 한다. 수신으로서의 용신이 농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바다와 관련하여 보면 용신은 풍어와 풍파를 조절하는 신적 기능을 지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용신은 용궁에 거주하며, 용궁은 진기한 보물이 있는 곳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수로부인 설화, 거타지설화, 작제건설화 등의 기록뿐 아니라 방리득보형설화(放鯉得寶型說話) 등의 구전이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용궁이 한국문학사에서 발복(發福) 가능한 이계(異界) 공간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음을 알려 주는 것이다.

무속신앙에서는 용신이 풍어를 관장할 뿐 아니라 물에 빠져 죽은 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도 숭배되고 있다. 가신신앙에서는 집안의 우물이 용궁과 통해 있다는 믿음과 함께 용신이 재물을 관장하는 신격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여러 사례를 통해 민간에서는 물이 갖는 생생력(生生力)이 용신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확장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지역사례 용신은 재래의 수신신앙에 불교, 도교의 용신이 습합되어 형성된 신격으로 호법신 · 호국신으로서 불교적 · 국가적 차원의 제향 대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풍년 · 풍어 · 기우 · 풍파 조절의 기원 대상으로서 무속신앙 · 가신신앙 차원의 제향 대상이 되었다. 현재는 무속신앙이나 가신신앙 차원에서 용왕님, 용자신, 용관신, 용궁대감, 용궁대신, 용궁부인, 용궁불사, 용궁제석신, 용궁칠성신, 용궁천왕, 용왕제석, 사해용왕, 사해용신, 사해용왕대감신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숭배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문화나 문학에서 가장 비중 있게 출현하는 신격 명칭은 사해용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동해안별신굿에서 용신은 동해를 관장하는 '광덕용왕', 남해를 관장하는 '광리용왕', 서해를 관장하는 '광택용왕', 북해를 관장하는 '광연용왕' 등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권역별로 용왕이 존재한다고 인식한 것은 불교나 도교 등 고급 종교에서의 신격들이 보여 주는 체계화된 위계 및 직능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제주도 무혼굿에서의 용왕맞이나 경북 포항 범굿의 용왕굿거리에서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잘 인도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용신이 숭배되기도 한다. 이것은 용신이 바다를 관장하는 신격이기 때문에 용왕을 잘 다독거려 줌으로써 망자의 혼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하지 않으려는 어촌민의 인식과 관련이 있다.

참고문헌 廣開土大王碑文, 三國史記, 三國遺事, 한국의 무(조흥윤, 정음사, 1985), 제주도 무혼굿(현용준, 열화당, 1985), 설화작품의 현장론적 분석(임재해, 지식산업사, 1991), 거제도 별신굿(황루시, 열화당, 1993), 무속신앙(박정례, 목원사, 1994), 동신당(김태곤, 민속원, 1999), 용 불사의 신화(윤열수, 대원사, 1999), 용, 그 신화와 문화(서영대 · 송화섭 엮음, 민속원, 2002), 한국 용설화의 역사적 전개(이동철, 민속원, 2005), 한국 무신의 계통(김태곤, 문화인류학 3, 1970), 문학적 제재로서의 용의 변용(김대숙, 국어국문학 100, 국어국문학회, 1988), 한국신화에 나타난 천신과 수신의 상관관계(서대석, 국사관논총 31, 국사편찬위원회, 1992), 백제 용신설화의 성격과 전개양상(정병헌, 구비문학연구 1, 한국구비문학회, 1994), 한국 무속신 고찰(양종승, 몽골학 4, 1996), 한국 무속의 신관에 대한 연구(이용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한국과 중국의 무속신 비교 연구(장국강,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필자 최원오(崔元午)

용왕기(龍王旗)

정의 백지나 천을 댓가지에 묶어 용왕의 신체를 나타내는 깃발. 흔히 용왕을 '요왕'이라고 하기 때문에 요왕기라고도 한다.

형태 백지로 용왕을 나타내는 신체를 오려 첵지와 함께 댓가지에 얽어매어 만들기도 하고, 조금 끊어낸 물색을 댓가지에 얽어매어 만들기도 한다.

내용 용왕상에 놓여 용왕신의 신체를 나타내며 용왕을 청해 들일 때 심방이 들고 춤을 추기도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요왕질을 칠 때 용왕이 들어오는 길목에 꽂아 놓기도 한다.

용왕기는 지역에 따라 상이한 모양이다. 선왕기처럼 하나만 만들어 쓰기도 하고 색깔별로 여러 개 만들어 쓰기도 한다. 여러 개 만들어 쓰는 사례는 워낙 드문 것이어서 예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깃발 형태라는 점에서는 어디서나 같다. 대체로 하나로 만들어 쓴다. 용왕상에 세워 신체를 대신하는 용도로 쓴다. 신청궤를 할 때는 용왕기를 들고 춤을 추면서 용왕이 들어오는 모양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신체가 특정한 형상으로 통일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참고문헌 제주도무속연구(현용준, 집문당, 1986).
필자 강정식(姜晶植)

용왕밥

정의 용왕님에게 굿을 하게 되었음을 알리거나 용왕굿(용왕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바다에서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고, 바다에서 죽은 원혼 또는 각종 객귀를 풀어먹이기 위하여 용왕상 제수(祭需)로 바다에 헌식하기 위해 만든 제물.

내용 용왕굿을 할 때 바다에 헌식하는 용왕밥은 쌈밥, 김쌈, 물밥, 지 등으로도 불린다. 마을 단위로 진설한 용왕상의 제물을 내려 용왕밥으로 헌식하거나 개인의 용왕상에 진설된 제물로 용왕밥을 만들어 헌식한다.

기장 두모포 풍어굿에서 당맞이굿을 지낸 후와 속초 외옹치 별신굿, 영덕 구계리 별신굿, 위도 띠뱃놀이 등 굿거리 중의 용왕제에서는 마을 단위로 만든 용왕밥을 무녀나 제관이 헌식한다. 거제도 수산마을 용왕굿, 제주도칠머리당영등굿 중 영감놀이에서는 개인 단위로 만든 용왕밥을 개인이 바다에 헌식한다.

마을 단위로 용왕밥을 헌식하는 마을에서 마을 공동의 용왕상과 함께 개인 용왕상(조상상)을 차려내어 오는 예도 많지만 개인적으로 용왕밥을 헌식하는 마을은 용왕굿 제차에서 개인이 차린 용왕상을 바닷가에 진열한 후 용왕굿을 진행하기 때문에 개인 단위로 용왕밥을 헌식한다.

용왕제를 지낼 때 바다에 제물을 헌식하는 유형은 별도로 만든 용왕밥 헌식 유형, 용왕상에 올린 제물을 그대로 바다에 헌식하면서 이를 용왕밥이라 부르는 유형, 용왕밥과 함께 물밥을 헌식하는 유형, 물밥만 헌식하는 유형, 용왕밥을 헌식한 후 좁쌀 등을 헌식하는 유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물밥은 지역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다르지만 용왕상에 올린 제물을 바다에 헌식하기 위해 큰 대야나 바가지에 담은 것을 일반적으로 이른다. 바가지 등에 담지 않고 짚으로 제물을 싸서 이를 '물밥'이라 부르는 마을도 있다.

용왕밥을 헌식하는 유형은 속초 외옹치 별신굿, 영덕 구계리 별신굿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용왕밥을 1개 또는 여러 개를 한지나 짚으로

싸서 만들어 바다에 헌식한다. 거제도 수산마을에서는 용왕굿이 펼쳐질 바닷가에 각 가정의 조상상을 차리고 굿을 하며, 굿이 끝난 후 상에 차려진 메와 기타 제물을 바다에 헌식한다. 이때 헌식하는 메를 용왕밥이라고 한다.

용왕밥과 함께 물밥을 헌식하는 유형은 매년 음력 정월 초사흗날에 열리는 위도띠뱃놀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도띠뱃놀이의 동편 용왕제와 서편 용왕제에서 각각 용왕밥을 바다에 헌식하고, 마을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용왕제에서는 바다에 나가 수중고혼(水中孤魂)이 된 사람들에게 음식을 고루 풀어먹인다는 의미에서 줄밥 뿌리기를 한다. 이때 선창자가 '가래질 소리', '에용소리', '술배소리' 등의 앞소리를 메기면 여러 사람들이 뒷소리로 받아 뒤따르며 함지박에 담은 '줄밥(가래밥)'을 바가지로 퍼서 바다에 뿌린다. 물밥 헌식 유형은 통영시 당포마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용왕제를 지낸 후 물밥[용왕밥]을 바다에 헌식한다. 용왕밥을 헌식한 후 좁쌀 등을 헌식하는 유형은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마을에서는 용왕밥을 헌식함에 있어 용왕과 수중고혼을 위하여 용왕밥을 헌식하는 '지드림(지아룀)'을 하고, 바다에서의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좁쌀을 뿌린다.

물밥을 별도로 헌식하는 마을에서는 객귀나 수사자(水死者)를 풀어먹이기 위해 만들었으며, 좁쌀이나 쌀을 별도로 헌식하는 사례는 풍어를 기원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유형으로 분류한 이유는 용왕제를 지내는 목적인 용왕 위함, 풍어 기원, 수사자를 비롯한 객귀 위함을 용왕밥이나 물밥을 만들어 헌식함으로써 각종 염원을 묶어 기원하거나 각각의 목적에 맞게 헌식하는 방법을 구분하여 기원하기 때문이다.

용왕밥은 용왕상에 올린 것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여 만든다. 용왕밥의 형태나 내용물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유형은 밥을 그대로 헌식하는 유형, 메(또는 쌀)나 용왕상에 올린 제물 일부를 한지에 싸서 만드는 유형, 한지에 김과 함께 제물을 싸서 만드는 유형, 제물을 짚에 싸서 만드는 유형, 밥을 비롯한 용왕상 제물 모두를 대야나 바가지에 담아 헌식하는 유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거제도 수산마을 용왕굿에서는 상에 차려진 메와 기타 제물을 바다에 헌식한다. 이때 헌식하는 메나 제물을 용왕밥이라고 한다. 제물을 한지에 싸서 만든 사례로는 속초 외옹치와 제주도칠머리당영등굿을 들 수 있다. 속초 외옹치에서는 소지 종이에 흰밥과 나물, 북어대가리, 오징어, 밤 등을 싸서 돌돌 말아 용왕밥을 만든다. 제주도칠머리당영등굿에서는 참석한 자손들이 배방선을 한 후 자기가 차려온 제상을 적당한 자리에 갖다 놓고 앉아 일제히 백지에 제상에 차린 여러 제물(메 · 떡 · 과일 · 어물 등)을 조금씩 떠 넣어 용왕밥을 만든다. 이를 '지'라고 하며, 지를 만드는 것을 '지싼다'라고 한다. 한지에 김과 함께 제물을 싸서 만드는 유형이 있다. 서천군 도둔리 요치에서의 당제 중 하위 제차인 용왕제를 지낼 때 김쌈을 준비한다. 이때 소지 종이 두 장을 열십자로 포개 놓고 그 가운데에 김(해태) 두 장을 놓는다. 그리고 용왕상에 올렸던 떡, 간부침, 갈비, 조기, 약과, 두부, 무나물, 삼색실과 등을 조금씩 김 위에 올린다. 이것을 사각형 모양이 되게 귀를 잘 접어서 싼다. 형태는 약간 다르지만 위도띠뱃놀이에서는 밥을 김으로 싸서 용왕밥을 만든다. 제물을 짚에 싸서 만드는 유형은 기장 두모포 풍어굿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마을에서는 제주(祭主)가 배 1개, 사과 1개, 밤, 대추, 조기 1마리, 민어 1마리, 북어 1마리, 건오징어 1마리, 건대구 1마리, 소 발 1족, 쇠고기탕수(쇠고기국) 1기를 합하여 짚으로 싼 '물밥'을 만들어서 바다에 헌식한다. 밥을 비롯한 용왕상 제물 모두를 대야나 바가지에 담아 헌식하는 유형은 용왕밥과 별도로 무녀가 용왕상에 올린 제물을 양동이에 담아 바다에 헌식하는 속초 외옹치와 당제 형태로 진행하는 통영시 당포마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왕밥은 마을에 따라 만드는 수량에 차이가 난다. 유형은 마을 단위로 1개를 만드는 유형, 마을 단위로 여러 개를 만드는 유형, 용왕굿의 하위 제차로 개인별로 용왕밥을 여러 개 만들어 헌식하는 유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장 두모포 풍어굿에서는 1개, 속초 외옹치에서는 3개를 각각 만들어 바다에 헌식한다. 위도띠뱃놀이에서는 서편 용왕제에서 1개, 동편 용왕제에서 1개를 각각 헌식한다. 동제 형태로 지내는 마량리에서는 용왕밥 3개를 만든 다음 파도가 들어오는 곳에까지 나가서 하나는 왼쪽, 하나는 가운데, 마지막 하나는 오른쪽으로 각각 던진다. 개인별로 여러 개를 만드는 대표적인 사례는 제주도칠머리당영등굿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집안별로 2~5개를 만들어 헌식한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각각의 지(용왕밥)가 용왕신 몫, 선왕신 몫, 집안에서 죽은 영혼의 몫 등으로 집안에 따라 위해야 하는 대상의 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부산 지역에서는 용왕굿의 하위 제차로 개인별로 차려온 상에서 용왕밥 4개씩을 만들어 명태 1마리와 함께 각자가 바다에 헌식한다.

용왕밥을 만들어 헌식하는 제차는 일반적으로 용왕굿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헌식한다. 그러나 일부 마을에서는 당맞이굿을 하면서 용왕님을 모시거나 굿을 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용왕밥을 만들어 바다에 헌식한다.

기장 두모포 풍어굿에서는 당맞이굿을 끝낸 뒤 용왕님께 드릴 물밥을 장만하여 매바위에서 바다에 헌식한다. 위도띠뱃놀이에서도 모든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용왕제가 아닌 제관과 풍물패만이 참여하는 동편 용왕제와 서편 용왕제에서 용왕밥을 바다에 헌식한다. 즉 용왕밥 헌식을 동 · 서편 용왕제로 여긴다. 이들 마을에서의 용왕밥 헌식은 용왕님에게 굿을 하게 되었음을 알리는 의미를 지니며, 별도의 용왕굿에서 바다에서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고 수사자(水死者)나 객귀를 위하는 의례를 행한다. 동해안의 일부 마을에서는 '나리맥이'라고 하여 예전에 배를 댄 곳이나 선착장에서 당맞이굿을 한 후 용왕밥을 만들어 바다에 헌식한다.

용왕밥을 헌식하는 장소는 마을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바닷가이다. 기장 두모포와 위도 등에서는 마을 내 특정한 바위 위에 올라가서 헌식한다. 영덕 구계리, 제주도칠머리당영등굿에서는 배를 타고 나가서 헌식한다.

세습무들이 수살굿(수망굿)을 주재할 때 용왕상에 올린 밥을 한지에 싸서 용왕밥 4개를 만든 후 사해(四海) 바다의 용왕님을 위하여 바다에 헌식하고, 이어서 용왕상에 올린 나머지 제물들을 객귀와 수부 사자들을 위해 헌식한다. 마을 단위로 굿을 하는 과정에 용왕밥을 만들어 바다에 헌식할 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내는 당제 중 하위 제차로서의 용왕제, 가정 단위로 지내는 용왕매기기, 뱃고사 등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용왕밥을 만들어 바다에 헌식함으로써 용왕을 위하고 바다에서 죽은 조상을 위하며 바다에서의 안전과 집안의 평안 및 가족의 건강을 염원하는 사례 또한 많다.

용왕밥은 형태나 만드는 방법, 수량 등에서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용왕밥을 헌식하는 1차적인 목적은 용왕을 잘 위함으로써 바다에서의 안전과 풍어를 염원하기 위함이며, 이와 함께 바다에서 죽은 자와 객귀를 잘 풀어먹임으로써 이들의 해코지를 막아 바다에서의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목적에서 헌식하는 것이다. 또한 일부 마을에서 당맞이굿을 하면서 용왕님을 모시거나 굿을 하게 되었음을 알리는 과정에서 용왕밥을 헌식한다. 이와 함께 일부 지방에서는 용왕밥을 헌식한 후 생쌀이나 좁쌀 등을 바다에 뿌림으로써 각종 어류나 해초의 풍요를 함께 기원한다.

참고문헌 남해안 별신굿(하효길, 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경남 남해안 민간신앙–경남 어촌민속지(정연학, 국립민속박물관, 2002),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하효길, 화산문화, 2002), 한국 민속과 용–용그 신화와 문화(홍태한, 민속원, 2002), 서천의 당제(이필영, 서천문화원 · 충청민속학연구소, 2004), 무 굿과 음식 3(임승범 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영덕 구계리 굿과 음식(김도현 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위도띠배놀이(김익두 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문무병 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삼척 해안지역 마을신앙 연구(김도현, 역사민속학 21, 한국역사민속학회, 2005), 제보자(김장길, 63세,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3호 영해별신굿 보유자 / 김상수, 52세, 월간 우리바다 편집장 / 정연락, 34세, 동해안 별신굿 82–가호 이수자).

필자 김도현(金道賢)

용왕상(龍王床)

정의 수신(水神) · 해신(海神)이라 하여 농민과 어민의 유력한 신으로 숭배되고 있는 용왕을 위한 음식상.

내용 용왕은 신라시대에 호국신이 되기도 하였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문무왕이 동해의 용왕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자 유언함에 따라, 그의 사후에 동해 어구 큰 바위 위에 장사지냈다. 민간에서 전하기를 왕이 화(化)하여 용이 되었다 하고 또 그 바위를 가리켜 대왕석이라 하였다.

고려 왕조에 들어서서도 국왕 왕건은 서해 용왕의 왕녀와 혼인하여 나라의 기초를 열었고, 왕위는 겨드랑이 밑에 용의 비늘이 있는 왕자에게 물려줌으로써 용의 혈통을 중하게 여겼다는 등의 전설이 있다. 조선 왕조에 와서는 용왕이 국가 차원의 기우제 대상신이기도 하였으며 해상 안전의 수호신이기도 하였다.

민간에서는 용이 물 속에 있다고 하는 관념에서 수신(水神) 또는 정신(井神)이기도 하였다. 정월대보름 새벽에 아직 아무도 마시지 않은 우물물을 길어 사용하면 행복이 온다고 믿었다. 또 새벽의 우물물에 달이 비칠 때, 비친 달은 용알[龍卵]이라고 하여 이 용란이 비쳐진 우물물을 길어서 얻는 사람은 용이 승천하는 것과 같이 행운아를 낳고, 그 아이는 부자가 된다고 여겼다.

대체로 민간에서의 용왕제 목적은 앞서 기술한 기자(祈子)와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입신출세 외에 재해를 없애고 복을 비는 것에 있다. 즉 집안 식구의 행복과 무병장수 및 복록(福祿), 소원성취, 다남출산(多男出産), 집안의 액을 없앰, 마을의 액을 없앰, 병의 쾌유, 수난 예방, 수재 예방, 해상 안전, 농산물 풍작, 기우, 어획량의 풍작 등 다양한 제재초복(除災招福)을 기원하는 것이다.

용왕제를 가장 크게 벌이는 곳으로는 어획량의 풍작을 기원하는 풍어제 행사장을 들 수 있다. 마을 전체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욕구에서 시작된 마을 공동의 별신굿 형태는 엄청난 자원을 품고 있는 바다가 육지보다 무서운 자연 재해를 많이 일으킨다는 점에서 어부들의 무사 귀환과 풍어라는 목적에 맞게 마을 공동의 축제적 성격이 짙게 배어 있다. 따라서 풍어제에서 가장 중하게 모시는 신은 용왕이며, 풍어제는 바로 용왕제이다.

2002년 2월 20일에 펼쳐진 부산의 기장 두모포 풍어제를 보면 용왕상 진설은 두 부류로 나뉜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차리는 상당에 진설하는 용왕상과 마을의 개인집에서 올리는 용왕상이다. 상당에 차리는 용왕상의 공물로는 연꽃 · 연봉 · 목단 · 국화 등의 조화를 꽂은 단지, 향 등과 고임음식으로 절편 · 인절미 · 두부적을 담은 목기 굽다리그릇, 공양미인 쌀 한 말을 놓았다. 제장(祭場)은 지망(紙網, 도가道家의 제사 상차림에서 진설되는 종이로 오린 망)을 길게 늘어트리고 색종이로 용선(龍船)을 만들어 장식하였다. 굿을 하는 동안 굿당은 수미산의 남섬부주(南贍部州 · 사바세계, 즉 염부제. 염부나무가 무성한 곳으로, 수미사주의 하나)가 된다. 풍어제 때의 무가에는 "사해팔방(四海八方) 용왕님… 여러 존신(尊神) 여러 어른귀신을 이 상당(上堂)에 모셔 놓고… 사바세계 남섬부주…"라 하여 상당에 차린 음식이 용왕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존(世尊, 帝釋)을 위한 것임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용왕과 세존을 동격으로 생각하면서 용왕제에 제석신도 함께 모시고 있다.

마을 공동으로 올리는 용왕상이 화려하고 풍성하면서도 무속 · 도교 · 불교 · 유교가 습합된 모습을 보여 주는 반면, 관에 등록된 선박을 소유한 각 가정집에서 올리는 용왕상은 지극히 소박한 모습을 보여 준다. 가정집 마다 쌀, 북어, 나물, 밤, 대추, 인절미, 술 등으로 차리지만 품수는 3품에서 5품으로 각기 다르다. 생쌀을 올리는 것은 공통적이다. 상당에 올린 공양미와 같은 성격으로 보인다. 무녀는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바다를 관장하는 사해용왕을 모셔와 공터에 모여 있는 선박 소유주 아내들에게 만선과 해상 안전을 축원한다. 제액을 위해 팥죽을 제공하고 굿의 끝 무렵에 각 가정에서 차려 나온 제물을 조금씩 떼어 바닷물에 던져 '용왕먹이기'를 한다. 이것이 끝나면 음복한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海槎錄(慶七松, 1607), 釋奠 · 祈雨 · 安宅(井坂圭一良, 1938), 음양오행사상으로 본 조선왕조의 제사음식문화(김상보, 수학사, 1995), 무 · 굿과 음식 3(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필자 김상보(金尙寶).



울쇠
국립민속박물관 사진자료 소장

울쇠

정의 제주도굿에서 큰심방이 초감제와 같은 거리에서 베포도업침을 하면서 삼석연물과 함께 설렁설렁 흔드는 무구.

내용 울쇠는 다른 고장의 명두를 여러 가지 묶어놓은 것과 같은 형태이다. 제주도에서는 각기 다른 형태의 거울이 있으며, 이를 악기처럼 흔들어 연주한다는 점에서 단순하게 굿당에 장식용으로 걸어놓는 형태와 다르다.

울쇠는 일단 명두의 형태와 흡사한데, 이 명두의 모양은 여러 가지 형태이다. 울쇠의 현전하는 형태는 제주도 무속 연구자인 진성기에 의해서 확인된 것이다. 이밖에도 세 가지 형태가 있으나 불완전하고 전승만 확인될 뿐 그것의 의의와 기능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울쇠의 제원에 대해서는 진성기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소개하기로 한다.

울쇠는 7개가 한 묶음으로 되어 있다. 이른바 '해거울'이라고 되어 있는 가장 크고 둥근 울쇠는 지름이 13.5㎝, 두께가 0.3㎝이고, 오목한 내면에는 세 겹의 무늬가 있다. 바깥쪽에는 불규칙한 반원형의 무늬가 있으니 모두 25개이고, 25개의 반원 무늬는 테두리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모양이 기본적으로 어긋난 부분과 무늬가 떨어진 것도 있다. 볼록한 외면에는 무늬가 없다. 가운데에는 하나의 원이 아홉 등분된 무늬가 있으니, 둥근 원으로 배열되지 않고 이지러진 형태로 되어 있으며, 모두 17개로 되어 있다. 맨 안쪽의 원으로 배열된 무늬 역시 가운데 무늬와 같이 모두 9개이고 이지러진 원의 형태이다. 중심부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끈을 꿰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달거울'이라는 거울은 지름이 8.5㎝, 두께는 3㎝이다. 거울에는 0.1㎝의 테가 있으며, 그 테를 두르고 난 뒤에 속에다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림을 양각으로 돋을새김 했다. 무늬는 단풍잎 비슷한 것을 두 개를 위에서 아래로 늘어놓고, 곁에는 줄기를 휘어지게 놓고, 볼록하게 점들을 배열한 것이 특징이다. 중앙에는 꼭지[鈕]가 있어서 끈을 꿰어서 사용하도록 했다. 테두리는 일부 깨진 곳이 있으나 뒷면에는 반질하게 되어 어떠한 무늬도 새겨져 있지 않다.

'몸거울'은 동일한 형태가 세 개 있다. 몸거울은 둥근 거울에 자루가 달려 있다. 지름은 8.5㎝, 자루 길이는 5.5㎝, 자루 너비는 1.3㎝, 거울의 두께는 0.2㎝이다. 몸거울의 자루 끝에는 길이 1.5㎝ 지점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여기에다 끈을 꿰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무늬는 몸거울의 양쪽에 모두 양각되어 있으니 구체적인 그림이 있는 면과 추상적 도면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인 그림이 있는 쪽은 테두리가 쳐져 있으며, 그 속에 십장생(十長生)의 상징인 무늬가 새겨져 있다. 소나무로 추정되는 것이 무늬의 전폭을 아우르고 있으며, 소나무 가지 위에는 학이 한 마리가 날아들고, 소나무 둥치에는 학 한 마리가 다리를 들고 서 있으며, 그 왼쪽에는 거북으로 추정되는 동물이 새겨져 있다. 소나무 왼편 한쪽에는 대나무가 두 줄기 새겨져 있다. 뒤편에는 둥근 원이 테두리를 두르고 내부에 그려져 있다. 지름은 5.8㎝, 테두리 두께는 0.5㎝이다. 그 안에는 추상적인 문자가 양각되어 있다. 대체적인 모양은 '和'자를 뒤집어서 그려놓은 것 같다. 같은 거푸집에서 나왔다고 추정될 정도로 몸거울의 무늬와 형국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아왕쇠'라는 울쇠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가로 4.5㎝, 세로 6.9㎝, 두께 0.2㎝이다. 네 귀퉁이는 둥글게 처리되어 있다. 무늬가 있는 면이 있고, 이와는 다르게 무늬가 없는 면이 있다. 무늬가 있는 면에는 지름이 4㎝인 둥근 원이 있고, 0.5㎝ 정도의 둥근 원 테두리가 둘러져 있으며, 그 속에는 다섯 잎이 있는 연꽃무늬가 세 개 그려져 있다. 그리고 아왕쇠의 가로 쪽 가운데는 구멍이 나 있어서 거기에다 끈을 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왕쇠는 연구자의 설명에 의하면 화장도구를 상징한다. 여기 꽃송이에 있는 꽃가루라고 여기고 분처럼 찍어서 사용한다고 해명하고 있다. 아왕쇠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형이 아닌 방형(方形)의 거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울쇠가 여러 가지 면모를 가지고 있는 대목을 이로써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른바 '뽀롱쇠'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지름이 2㎝ 정도 되는 것으로 작은 방울의 형국을 하고 있으며, 그 끝에 구멍이 뚫려져 있어서 끈을 꿰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뽀롱쇠는 별을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뽀롱쇠는 총알쇠붙이라는 뜻이다.

제주민속박물관의 진성기가 소장하고 있는 울쇠는 모두 7개이나 울쇠의 가지 수로는 다섯 가지이다. 해거울(1), 달거울(1), 몸거울(3), 아왕쇠(1), 뽀롱쇠(1) 등이 그것이다. 원래의 형태가 이러한 것인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으나 울쇠의 수나 종류가 적실한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진성기의 울쇠는 원래 '쐬돌이'라고 불리는 심방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쐬돌이'는 구좌읍 한동리에 거주하던 심방이라고 한다. 제주도의 큰심방 가운데 한 사람인 양창보 심방과의 면담에서 '쐬돌이'가 누구인가 확인할 수 있었다. 양창보 심방은 '쐬돌이'가 누구냐는 질문에 강태호라고 증언하였다.

강태호는 한동리에 거주하던 허정화 심방의 양자 노릇을 했다고 하니 진성기가 소장하고 있는 울쇠는 허정화 심방 → 강태호 심방 → 진성기 관장 등으로 전승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만큼 이 울쇠는 심방의 전승 경로 속에 있었던 것이므로 대단히 소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울쇠는 다른 고장의 명두와 상통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무구이다. 명두가 굿당의 장식품이면서 신의 얼굴로 상징되는 것과 달리 울쇠는 제주도에서는 일정한 악기로서도 기능을 하므로 중요한 상징적 무구이다.

참고문헌 朝鮮の巫覡(村山智順, 朝鮮總督府, 1937), 제주민속의 멋 1, 2(진성기, 열화당, 1983), 제주도 무구 '울쇠'의 성격과 의의(김헌선, 민속학연구 9, 국립민속박물관, 2002).
필자 김헌선(金憲宣)

원미상(元味床)

정의 영혼을 위하여 쌀죽과 술잔을 함께 차려 올린 상.

내용 원미상은 원미(元味)와 상(床)이 더해진 말로, 원미는 달리 '월미'라고도 한다. 원미상은 이제 맞아들이게 될 영혼을 달래기 위하여 차린다. 대개 초감제에서 군문열림을 한 뒤에 분부사룀을 하면서 영게울림을 하고, 그런 뒤에 영혼에게 원미와 술을 권하게 된다. 이를 '수월미', 'ᄌᆞ소지 권청'이라고 한다. 영게울림은 영가가 자손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심방이 대신 전하는 말이다. 울음을 동반하기 때문에 영게울림이라고 한다.

원미는 '애달픈 가슴 달래라'는 뜻으로 영혼들에게 권하는 것이다. 제청방의 문 바깥에 따로 상을 차리고 그 위에 원미와 술을 차려 올린다. 심방이 쌀로 미음처럼 죽을 쑨 원미를 사발에 담아서 사발 위에 수저를 걸친 것을 영혼 수대로 올린다. 또 그 수만큼의 술잔을 함께 올린다. "수월미나 청감주 ᄌᆞ소지로 실턴 가심 ᄌᆞ질룹서"라는 내용의 말명을 하면 자손들이 모두 원미상 앞으로 가서 원미 그릇의 원미를 대야나 양푼에 비워내고 아울러 술잔의 술을 바깥으로 흩뿌리며 비워낸다.

장례 때에 발인하여 상여를 운구하면서 친지 집 앞을 지나게 되면 친지들이 원미를 준비하였다가 조금씩 떠서 던지기도 한다.

참고문헌 제주도무속연구(현용준, 집문당, 1986).
필자 강정식(姜晶植)



원미상
제주시 조천읍 소재 굿당 |
2006.1.31 | 강정식



원삼
서울시 인사동 갤러리 |
2003.1.12 | 김은정

원삼(圓衫)

정의 현대 굿거리에서 무당이나 굿의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주신을 상징하기 위해 호구거리나 창부거리에서 착용.

내용 원삼은 조선시대에 궁중에서 비빈의 소례복이며 내외명부의 대례복이고 서민층의 혼례복이다. 원삼은 전통복식으로 통일신라 문무왕 때 여복(女服)을 개혁하는 가운데 중국 당나라의 복식제도를 받아들여 소매가 넓은 포제(袍制)가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국속화되었다. 궁중의례복이었던 원삼은 조선 후기에 신부 예복으로 착용이 허용되어 서민층의 혼례복으로 민가에서도 착용되었다. 원삼은 궁중 여인들의 품계에 따라 색과 문양을 달리하였다. 황후의 원삼은 용문을 직금한 황색 원삼이며, 왕비는 다홍색 길에 노란색과 다홍색 또는 남색의 색동에 한삼이 달린 봉문을 금박한 홍색 원삼이다. 공주나 옹주는 연두색 길에 다홍색과 노란색의 색동에 백색 한삼이 있으며, 화문을 금박한 초록색 원삼이다. 내명부 · 외명부 · 일반 부녀자도 화문이 있는 초록색 원삼을 착용하였으며 활옷과 함께 서민층의 신부 혼례복으로 착용이 허용되었다.

조선시대 실제 굿에서 착용한 무복의 종류와 형태를 알 수 있는 서울굿의 참고자료인 『무당내력(巫黨來歷)』에서는 무녀가 가옥의 신을 관장하는 성조거리에서 색동원삼을 착용하고 손에는 부채와 방울을 소지한다. 하지만 현재 굿거리에서는 대부분 호구마마신이나 천연두를 상징하는 별상거리 또는 창부거리에서 착용한다. 이러한 무복원삼의 명칭은 복식의 고유명칭보다는 특정한 신의 명칭을 의미하는 의대, 부인복 등 거리 신을 상징하는 또다른 복식 명칭이 부가되어 현장에서 무복의 용어로 불리고 있다.

현재 서울 · 경기 지역에서 강신무가 굿을 할 때 착용하는 무복원삼은 창부의대, 의대, 부인복, 별상의대로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무복원삼은 무당이나 굿거리에 따라 형태가 다르고 그 명칭 또한 달리 불러지만 현장에서 무당이 굿거리에서 착용하고 있는 서울굿 무복원삼은 전통복과 마찬가지로 머리에 족두리 수식(首飾)을 하여 전통복식의 일습(一襲)을 나타낸다.

무복으로 착용된 원삼은 장식기법이 다양하고 소재가 화려하게 변형되었으나 전통적인 의례복의 형태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궁중의례복인 원삼을 착용할 때는 가슴에 홍색 대를 둘렀다. 황후의 황색 원삼에는 용문을 부금하거나 금박하였다. 비빈의 홍색 원삼과 자적색 원삼에는 봉문, 그리고 초록색 원삼에는 화문을 부금하거나 금박하였다. 직금이나 부금은 궁중복식에서만 수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민가의 원삼에는 직금이 없었다. 또한 궁중에서는 원삼의 가슴과 등, 양 어깨에 보를 붙였다. 황후나 왕비가 착용하는 원삼은 오조룡의 운용문을 금색실로 수놓은[金繡] 등근보[圓補]를 달았으며, 빈궁이나 공주의 경우에는 쌍봉문의 보를 앞뒤에 붙였다. 원삼을 착용할 때 머리에는 수식으로 족두리를 사용하였다.

현대 굿거리에서 신격을 상징하기 위해 무당이 착용하는 원삼은 색동소매로 구성되었으며, 대부분 중부 지역에서 강신무들이 무복으로 착용하고 있다. 신을 모셔 놓고 굿거리를 행하는 규모나 무당에 따라 유형이 다르고 굿거리에 따라 신격의 차이는 있지만 무복원삼은 조선시대 착용한 전통 궁중의례복인 원삼이 근원이다. 무복원삼은 전통 궁중의례복인 원삼과 비교하면 앞길과 뒷길의 길이 차이가 없어지고 길과 깃 부분이 화려한 장식기법이나 다양한 색으로 변화되었다. 원삼의 진동 부위에 트여 있는 아귀는 무당이 굿을 행할 때 입고 벗기 편하고 춤사위 동작을 편하게 하도록 변형되었다고 본다. 현대 굿거리에서 무복원삼은 형태는 자수, 금박, 스팽글과 같은 다양한 장식기법이 가미되어 화려한 복식으로 변형되었다.

지역사례 1. **봉화산 도당굿** : 서울 중랑구에서 진행된 봉화산 도당굿은 마을의 풍농과 가내의 평안을 비는 마을굿으로 강신무가 주도하였다. 무당들은 굿거리마다 주신을 상징하는 다양한 포를 갈아입었다. 무당들이 착용한 다양한 무복의 포는 홍색동이 달린 남색 동다리, 옥색 도포, 황색 몽두리, 남

색 쾌자, 백색 장삼, 색동이 있는 분홍색 원삼, 홍색 철릭, 남색 철릭이다. 무당은 창부거리에서 무복으로 백색 저고리와 남색 치마를 입고 표의(表衣)로 분홍색 길에 색동이 달린 무복원삼을 착용하고 손에 부채를 들었다.

2. 서울 재수굿 : 서울 인사동에서 진행된 재수굿은 현재 하는 사업이 번창하기를 기원하는 굿으로 강신무가 주도하였다. 무당들은 불사제석에서 붉은 치마에 백색 장삼을 입고 가사를 걸친 후 홍색 대를 가슴에 두르고 백색 세모시 고깔을 썼다. 호구거리에서 무당은 홍색 치마에 녹색 길에 색동소매가 있는 무복원삼을 입고 손에 부채를 들었다. 그외 거리에서도 동다리, 흑색 쾌자, 홍색 철릭, 남색 철릭, 황색 몽두리를 착용하고 굿에 해당하는 신에 따라 무복을 다양하게 갈아입었다.

현대 굿거리에서 착용하는 무복원삼은 전통의례복에서 유래하였지만 강신무가 착용한 다양한 무복인 전통복식 중에서 형태 변형이 거의 없다. 단지 장식기법이나 무복원삼의 소매에 나타난 색동은 무당 또는 굿거리에 따라 달리 구성되고 있다. 이러한 색동원삼을 무당이 착용하는 것은 굿거리에서 주신을 상징할 뿐 아니라 액(厄)을 피하고 복을 받고자 하는 바람의 상징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역사속의 우리옷 변천사(김은정 외,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9), 한국무복의 변화에 관한 연구(김은정,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필자 김은정(金垠呈)

원천강본풀이

정의 제주도 지역의 굿에서 구연된 것으로 원천강의 내력담을 푼 서사무가.

내용 현재 제주도의 굿판에서 구연되고 있지 않으며, 박봉춘 구연본과 조술생 구연본이 각각 1930년대와 1960년대에 채록되었다.

박봉춘 심방이 구연한 〈원천강본풀이〉의 서사는 다음과 같다. 옥 같은 계집애가 강님드를에서 솟아났다. 어떤 학조[鶴]가 날아와서 한 날개로 깔아주고 한 날개로 덮어주며 야광주를 주며 살았다. 동네 사람들은 아이의 나이도 이름도 모르자 '오날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어느 날 오날이는 박이왕의 어머니 백씨부인을 만나 부모국이 원천강임을 알게 된다. 오날이는 원천강을 찾으러 가다가 장상이라는 사람을 만나 자신이 왜 글만 읽는지 물음을 받는다. 또 연꽃를 만나 꽃이 상가지에만 피고 다른 가지에는 왜 안 피는지 물음을 받는다. 그리고 천하대사(天下大蛇)를 만나 자기는 야광주를 세 개나 갖고 있는 데도 왜 용이 되지 못하는지 물음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매일이라는 사람을 만나 자신이 왜 매일 글만 읽는지 물음을 받는다. 그리고 오날이는 세 궁녀를 만나 지혜와 축도로써 물을 대신 퍼준다. 오날이는 결국 원천강에 도달하였으나 문지기가 들여보내 주지 않아 운다. 그러나 곧 부모를 만나 그녀가 오는 길에 답을 부탁받은 물음들을 모두 해결해 주고, 옥황의 신녀가 되어 인간에 강림하여 절마다 원천강을 등사한다.

조술생이 구연한 〈원천강본풀이〉의 서사 단락은 다음과 같다. 한 남자가 왕이 되려고 한다. 나라에서 그 남자를 잡아 죽이려고 사령(使令)을 보낸다. 이 사실을 안 남자가 그의 부인에게 아무 날[日] 아무 시(時)에 누가 날 찾아오면 모르겠다며 버티라고 말한다. 그러고나서 남자는 장독을 파고 독 안에 들어가 공부를 한다. 사령이 남편을 잡으러 왔지만 찾지 못하고 돌아간다. 그러다가 사령이 꾀를 내어 한 여자를 내세워서 세 살 난 아기를 업혀 남자의 부인에게 보낸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부인에게 가서 남편을 찾으러 왔다고 하라며 시킨다. 남자의 부인은 그 여자를 보고 남편이 외도한 줄 알고 독을 열어 남편을 구박하다가 결국 사령에게 들켜 남편이 잡혀간다. 남편이 가면서 "사흘만 있었으면 하늘에 올라가 왕이 될 것인데 부인이 입을 잘못 놀린 것 때문에 내가 잡혀가는 것이니 너는 살 수 없을 것이다"면서 "원천강이나 보며 살아라 너의 팔자다"라고 말한다. 그 후로 부인은 원천강이라고 불렀다.

지역사례 박봉춘본 〈원천강본풀이〉의 전체적인 서사 내용은 이계(異界)여행담이다. 각 화소(話素)를 거론하면 본토의 설화, 제주도 본풀이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이다. 제주도 본풀이 속성을 보이는 부분은 탄생, 천상으로의 상승, 군문열림 · 연유닦음이다. 탄생은 남자 당신(堂神)들의 지상용출 모습을 취하고 있으며, 천상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세경본풀이〉의 부분과 일치하고 있다. 군문열림 · 연유닦음 부분은 이계여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본토 설화의 속성은 구복(求福)여행담이 주를 이룬다. 학이 내려와 보살펴 주는 화소는 주몽과 바리공주가 동물들의 보살핌으로 생명을 연장해 가는 것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조술생본 〈원천강본풀이〉는 육지의 아기장수 후반부의 변이형으로 볼 수 있다. 제주도의 아기장수가 힘센 장사로 살아가는 데 반해 원천강의 남편은 재기(再起)를 노린다. 그러나 그는 1차에 실패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지혜를 통한 성공을 노렸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조술생본 〈원천강본풀이〉는 글의 내용상 아내가 어떻게 하여 '원천강'이라고 불리게 되었나를 말하는 이야기이다. 아기장수형 설화를 기본 모티프로 하여 이야기가 전개되었더라도 결말은 그의 부인이 원천강이나 보며 사는 팔자가 된다.

의의 박봉춘본은 '오날이'가 부모를 찾아 원천강으로 떠나는 내용이며, 조술생본은 '원천강의 남편'이 왕이 되려 하다가 좌절되는 내용으로 서사구조상 두 본풀이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물론 제주도 지역에서 같은 제목의 전혀 다른 서사구조를 지닌 본풀이가 채록되지는 않는다. 다른 일반신본풀이들은 서사구조에서 거의 가감 없이 공통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두 편의 마지막에 각각 "원천강을 등사하였다"와 "원천강을 보며 산다"는 대목이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천강이 주로 등장하는 일반신본풀이는 〈초공본풀이〉와 〈세경본풀이〉이다. 이들 본풀이에 공통적으로 자식을 갖지 못한 부모들이 등장한다. 그들이 기자(祈子) 기원을 하는 중에 동개남 은중절 중(僧)에게 자식의 유무 판단을 가리기 위한 과정에서 원천강이 점서(占書), 점술가(占術家)로 나온다. 즉 '원천강이 쓴 점서'나 '원천강이란 점서'를 통해 자식을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흥미 있는 것은 중이 이런 점서를 가지고 다닌다는 것이다. 이는 박봉춘본의 말미에 나오는 "절마다 다니며 원천강을 등사한다"라는 내용과 맥이 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일반신본풀이에서는 원천강이 점과 관계된 인물이거나 점서로 나온다. 그리고 당본풀이나 조상신본풀이에서는 원천강이 팔자(八字)를 뜻하는 단어로 나온다. "무당이 되는 팔자를 타고 났다거나 한이 많아 팔자와 사주를 거스를 아이다"라는 것은 원천강이 '운명'을 뜻함을 알 수 있다. 이 의미들을 종합하면 제주도 무속에서 원천강은 인간의 사주팔자와 관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조선무속의 연구 상(赤松智城 · 秋葉隆, 심우성 역, 동문선, 1991),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진성기, 민속원, 1991), 제주도특수본풀이연구(강권용,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필자 강권용(康權用)

월평다라쿳당

정의 제주시 월평동과 영평상동 사람들을 보호하는 본향신을 모신 당. 본향이라고 하며, 당이 있는 곳의 지명에 따라 '신데기ᄆᆞ를당'이라고도 한다. '다라쿳'은 당이 있는 곳 일대를 두루 지칭하는 지명이다. 이 당은 2005년 4월 6일에 '제주도 민속자료 제9-5호'로 지정되었으며, 제주도 제주시 월평동 1137번지에 있다.

형태 당 안에는 보호수로 지정된 커다란 팽나무가 있고, 팽나무 그늘을 의지하여 당을 마련하였다. 그리 넓지 않은 제장을 두고 주위를 흩담으로 둥그렇게 에둘러 울타리를 쌓았다. 동쪽의 담에 의지하여 나지막한 제단을 마련하였다. 제단 뒤에 있는 나뭇가지에 지전물색을 걸어둔다.

내용 다라쿳당은 여러 직능을 지닌 신들을 함께 모시는 당이다. 대개 하나의 신앙권에서는 토주관(土主官), 산육(産育), 치병(治病) 등 기능을 달리

하는 신들을 제각기 별도의 당에 두어 모신다. 월평다라쿳당의 경우 이러한 직능을 하는 신들을 모두 함께 모신다. 따라서 다라쿳당은 통합된 기능을 하는 셈이다.

다라쿳당은 제주시 월평동 '신데기ᄆᆞ를' 지경에 있다. 이곳에서 내[川]를 하나 건넌 곳이 이웃 마을인 영평상동이다. 다라쿳당은 두 마을 인가(人家)를 중심으로 할 때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셈이다. 이 당에서는 산신백관 산신대왕, 은기선생 놋기선생, ᄇᆞ젯도 등을 함께 모신다. 산신백관 산신대왕은 흔히 산신(山神)에 해당하는 신으로 본향신이면서 수렵신이다. 은기선생 놋기선생은 농경신이면서 산육신이다. ᄇᆞ젯도는 어린아이의 피부병을 돌보아주는 신으로 허물할망·애기도라고도 불린다. 이 당의 제일(祭日)은 본래 음력 1월 14일, 7월 14일이다. 하지만 대개는 유교식 마을제인 포제(酺祭)를 지낸 다음에 택일하여 빌러 간다. 당에 갈 때 가지고 가는 제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메이다. 다라쿳당에는 사발메 두 그릇, 보시메 한 그릇을 바친다. 사발메는 산신백관 산신대왕과 은기선생 놋기선생의 몫이고, 보시메는 ᄇᆞ젯도의 몫이다. 일반적으로 메의 크기는 신의 우열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산신백관 산신대왕과 은기선생 놋기선생은 부부관계이다.

본풀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냥을 하던 산신백관 산신대왕이 은기선생 놋기선생에게 반하여 명함을 드려 혼인을 한다. 둘이 함께 사는데 산신백관이 나날이 몸이 약해져 피골이 상접하였다. 은기선생이 그 까닭을 물으니 자신은 본래 돼지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은기선생하고 살면서 고기를 먹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은기선생은 둘이 함께 살 수 없음을 알고 별거하자고 한다. 남신 산신백관은 부정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바람 아래 좌정하고, 여신 은기선생은 깨끗한 신이기 때문에 바람 위에 좌정한다. 바람의 위와 아래로 나뉘어 좌정함으로써 깨끗한 신이 부정한 냄새를 피하는 것은 당신본풀이에서 매우 흔한 것이다.

다라쿳당의 본풀이는 전형적인 남녀 신의 만남과 이별을 다루고 있다. 흔히 그러하듯이 산신과 농경신(혹은 산육신)이 식성 갈등에 따라 별거하여 따로 좌정하게 된 내력을 담고 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나 산신백관과 은기선생은 함께 좌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 사정은 다시 본풀이에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이 당에서는 당굿은 하지 않고 간단히 비념만 한다. 마을 사람들은 아기가 아파 당에 가서 빌고 돌아갈 때 그릇을 깨뜨려서 두고 간다. 이 때문에 예전에는 깨진 그릇이 많이 쌓여 있었다. 그릇을 깨뜨리는 이유는 귀신방쉬라고도 하고, 그릇을 깨뜨리고 와야 아기의 그릇을 깨뜨리는 버릇이 고쳐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다라쿳당은 이웃한 마을들이 어떻게 하나의 당 신앙을 공유하고 나누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이다. 이 당은 같은 아라동에 속한 영평하동본향당, 간드락본향당의 본산이기도 하다. 아라동의 월평, 영평상동, 영평하동, 간드락 등 여러 마을의 당 신앙이 이 당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말이다. 영평하동이나 간드락에서도 아기가 아플 때 빌고 나서는 그릇을 깨뜨려서 두고 간다. 이 당의 매인심방은 고씨할망, 강진선, 강진선 처, 정씨할망으로 이어져왔다.

참고문헌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해설집(제주시·제주대학교 박물관, 1998).

필자 강정식(姜晶植)

월평다라쿳당
제주시 월평동 다라쿳당 | 2003.5.21 | 강정식



제의 모습
부안군 위도 원당 | 2002 | 서종원

위도 대리마을 원당

정의 위도띠뱃놀이가 행해지는 대리마을의 신이 모셔져 있는 당.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의 중심 섬인 위도에 있다.

형태 위도띠뱃놀이의 신앙공간인 원당(願堂)은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대리 마을의 왼쪽 편 당젯(제)봉 정상에 자리하고 있다. 마을 앞에 펼쳐진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상 절벽 위에 세워진 원당은 소원을 빌면 잘 이루어진다고 하여 원당이라 부르고 있다. 맞배지붕의 2칸 기와집으로 지어진 당집 주위에는 낮은 돌담이 둘러쳐 있다. 당집의 본 건물은 당신이 모셔진 당집 안과 제기 등이 놓여 있는 공간으로 구분된다. 제기를 놓을 수 있는 곳은 마루 형태를 하고 있다.

내용 현재의 당집은 풍우(風雨)로 헐거워진 것을 2000년에 보수한 것이다. 원당이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산 정상 절벽에 자리하고 있어 훼손이 심한 탓에 2000년 이전에도 여러 차례 보수와 중축을 했다. 오래전의 중축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남아 있는 문헌자료에 의하면 1987년과 1900년에 중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도 주민들은 당집이 워낙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 훼손이 있을 때마다 보수를 했으며, 그 횟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한다.

원당에 모셔진 당신은 모두 12서낭이지만 실제 원당 안에는 10위가 모셔져 있다. 당신은 원당마누라, 본당마누라, 옥저부인, 애기씨, 물애기씨, 신령님, 산신님, 장군님, 문수영대신 2위 등 모두 10위이다. 당집에 모셔진 당신에 대한 내력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원당에서 가장 큰 신은 원당마누라이다. 대리 마을 주민들은 원당에 모셔진 신들이 산·마을·바다 등을 관장하며 마을의 평안과 배의 안전 및 고기잡이를 돕는다고 받들고 있다. 또한 무병장수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특히 애기서낭은 어린아이들의 건강과 수명을 보호하고 있는 신으로 생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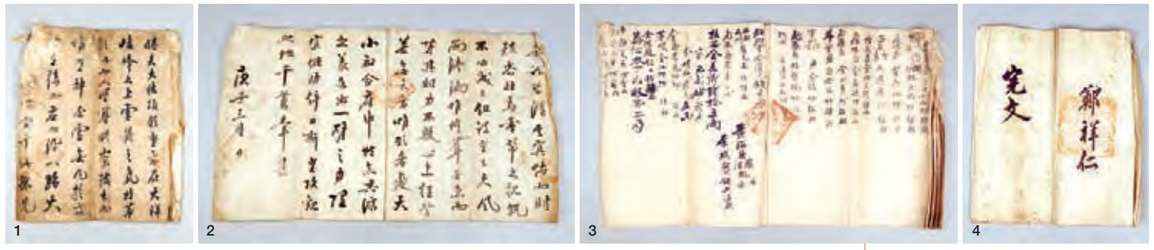


원당 안에는 이들 신이 표현된 무신도가 액자 형식으로 걸려 있다. 본래 있던 무신도는 대부분 없어졌다. 벽에 걸린 무신도 바로 아래 이들 신에게 올리는 제물을 놓는 단이 있다. 마루 한쪽에는 제의에 사용하는 제기와 물통 등이 놓여 있다.

원당은 위도뿐 아니라 서해안 지역에서 역사가 깊고 영험하기로 소문난 당이다. 특히 서해안 지역에서 조기 어업을 하는 어업민들에게 원당은 매우 절대적인 존재이다. 칠산어장을 오고가는 어업민들은 원당 앞을 지날 때면 마을에 들러 원당을 찾아가 제의를 지내거나 배 위에서 예의를 갖춰 고사를 지낸다고 한다.

이곳을 찾은 어업민들이 원당에 제의를 지내는 연유는 임경업이 모셔진 연평도의 충민사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조기 어업을 위해 연평도를 찾은 타 지역의 어업민들이 충민사에 들러 제의를 지냈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어업민들은 대리 마을의 원당에 대해 위도를 중심으로 하는 칠산어장(七山漁場)을 관여하는 신앙처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날이 좋은 날 원당에 오르면 우리나라의 3대 조기 어장의 하나인 칠산어장이 한눈에 들어온다.

위도띠뱃놀이의 원당이 칠산어장을 관리했을 가능성은 위도면 대리 지역에 남아 있는 『원당중수기(願堂重修記)』(1900년)의 내용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중수기에는 원당 중수 때 돈을 기부한 어민들 가운데 위도 지역을 비롯한 황해도 옹진과 추자도 등 다양한 지역의 어민 이름이 보인다. 이를 통해 대리 마을의 원당은 서해안 지역의 어민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1. 서문 일부
2. 서문
3. 추렴기
4. 표지
서울 소재 스튜디오 | 1990년대 중반 | 서종원

신앙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원당중수기의 서문 내용과 추렴자 명단이 적힌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중수기 서문〉

睹 夫大猪項願堂 處在大洋峻峰之上 靈異之氣 特華□此 而人皆擧瞻 崇被者而惟堂神是靈矣 凡於齋 □□禱必應 而沿八路大 □□□□ 會于此 輒先□□ 皆得其冥佑 而財殖寄旺焉 香幣之祝 孰不以誠 而但設堂已久 風雨滲漏 惟修葺是急 而第其財力不敷 心上經營若無良方 惟願各處大小舡僉座中 特念共濟之義 各出一臂之力 隱宜傾助 俾如斯堂 功觀之地 千萬幸甚

庚子三月 日

〈추렴기 일부 내용〉

飛應島 金允成 大小船 錢拾陸兩

莞島 楸子 金先達文權 錢貳兩(商舡)

楸子 朴正瑞 錢貳兩(商舡)

忠南道 牙山 芚浦 金成俊 錢參兩(商舡)

古群山 通(桶)里 朴寬淑 錢貳兩(商舡)

田富弼 錢貳兩(商舡)

鎭里 崔斗玉 錢貳兩(商舡)

林順昌 錢貳兩(商舡)

廣川 金玉仁 錢貳兩(商舡) 松洞金土走卽來舡

桂花 下里 鄭衙將仁參 錢拾伍兩

鄭君五 錢拾伍兩

□□ □土進 錢伍兩

참고문헌 한국의 풍어제(하효길, 대원사, 1998), 위도띠뱃놀이(김익두 외 3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마을굿에 대한 민족연극학적 연구(김월덕,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위도 파시의 민속학적 고찰(서종원,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필자 서종원(徐鍾源)

상호참조 위도띠뱃놀이(692쪽)

위도띠뱃놀이

정의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대리 마을에서 정월 초사흘에 행해지는 마을굿. 위도띠뱃놀이는 1985년 2월 1일에 '중요무형문화재 제82-다호'로 지정되었으며, 남해안 · 동해안 · 서해안 별신굿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풍어제이다.

역사 위도띠뱃놀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위도 지역이 오래전부터 서해안의 어업 중심지였다는 사실에서 볼 때 일찍부터 행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서해안에서 조기어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과 위도 지역의 입도조(入島祖)의 역사, 위도 지역에 전해오는 이야기 등을 종합해 보면 위도띠뱃놀이는 200~3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조선 후기에 오면서 우리네 조기어업이 이전과는 다르게 매우 활성화되었다는 조기어업의 역사와 일치한다. 위도 지역에 전해오는 이야기에는 과거 조기어업의 쇠퇴와 함께 큰굿이 없어지고 당제까지도 시들해진 적이 있는 가운데 배를 타고 나타나는 도둑들의 침입(해적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당시 '이도곤'이라는 마을의 이장이 나서서 다시 주민들을 단합시키고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위도띠뱃놀이를 부활시켰다고 한다. 이를 통해 보더라도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위도띠뱃놀이 역사는 조선 후기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내용 위도띠뱃놀이의 본래 명칭은 위도면 대리 마을에서 행해지는 굿이라 하여 대리 원당제 · 원당굿 등으로 불렀으나 현재는 위도띠뱃놀이와 위도띠뱃굿 등으로 부르고 있다. 본래 대리원당제로 불리는 명칭이 위도띠뱃놀이로 바뀌게 된 연유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으나 1978년 전국민속경연대회 출전 당시 제작된 팸플릿에 인쇄소의 실수로 '위도띄뱃놀이'라고 활자화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상 수상시 신문사들도 위도띄뱃놀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했고, 이후 한동안 '띠뱃놀이'와 '띄뱃놀이'라는 이름이 동시에 사용되었다.

위도띠뱃놀이에서 신앙의 주요 대상은 당집에 모셔져 있는 원당마누라와 본당마누라다. 당집은 마을 왼편 당제(젯)봉 정상에 자리하고 있다. 마을사람들에게 이곳은 영험한 존재이자 중요한 신앙처다. 특히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로, 과거 조기잡이가 한창일 때 대리 마을의 당집은 조기를 잡기 위해 칠산어장을 찾은 어업민들에게도 중요한 신앙처였다. 또한 타 지역의 어선들도 원당 앞을 지날 때면 배 위에서 고사를 지냈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위도띠뱃놀이의 원당은 이 지역의 어장까지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위도띠뱃놀이의 제일(祭日)은 음력 정월 초사흗날이다. 위도면 소재지인 진리 마을이 정월 초이튿날인 데 비해 위도띠뱃놀이가 행해지는 대리와 위도 본도(本島)에서 조금 떨어진 식도 마을은 초사흗날에 마을굿을 한다. 정월 초사흗날 위도띠뱃놀이를 치르기 위해 주민들은 전년도 섣달부터 제의 준비를 한다.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 이전에도 섣달 중순에 마을회의를 통해 제의 규모와 제의에 사용될 비용의 추렴 범위 및 액수 등을 논의하고, 제의를 주관할 제관과 원화장 · 부화장 등을 선정하였다. 본래 마을의 선주(船主)와 마을민들이 조금씩 돈을 거둬 행사를 치렀지만 근래에는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 제의를 준비한다. 제수(祭需) 준비는 1970년대에만 하더라도 장배(장을 보러 다니는 배)를 타고 곰소 · 줄포 · 격포 등지로 나가 제물을 준비했으나 지금은 보존회장과 총무 등이 직접 트럭을 몰고 부안(扶安)에 가서 제물을 준비해 온다. 위도띠뱃놀이에 사용되는 제물은 과일, 돼지 한 마리, 북어, 떡(절편), 나물, 여러 종류의 생선 등이다. 제주(祭酒)는 과거엔 직접 만들어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막걸리와 청주를 쓴다. 여러 제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돼지는 위도 지역에서 기르던 것을 샀으나, 요즘은 부안이나 격포 등지에서 구입해 온다. 이렇게 구입해온 것을 가지고 제만과 화장 등이 보존회관에 미리 제수를 준비해 놓는다.

위도띠뱃놀이는 원당제, 띠배제작, 주산돌기, 용왕굿, 띠배띄우기, 대동마당(뒤풀이) 순으로 진행된다. 과거에는 줄다리기가 있었던 음력 정월대보름까지 분위기가 이어졌으나 줄다리기가 없어지면서 그런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초사흗날 당일 아침이 되면 뱃기를 든 선주와 풍물을 치는 주민들, 무녀와 축관 등이 영기를 앞세우고 원당에 오른다. 원당에 도착하여 무녀가 당집 안 제단에 제물을 차리고 나면 제만이 초에 불을 밝히고 절을 한 후 축문을 읽는다. 독축이 끝나면 당굿에 들어간다. 당굿은 장구와 징 장단에 맞춰 무녀가 진행한다. 당굿은 성주굿을 시작으로 산신굿, 손님굿, 지신굿, 서낭굿, 깃굿, 문지기굿으로 진행된다. 어선을 가지고 있는 선주들이 일년 동안 배에 모실 서낭을 내림받는 깃굿은 어업민들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굿이다.

당굿을 마친 일행은 당굿에 차려놓은 제물을 챙겨 마을로 내려와 곧장 마을의 동쪽 바닷가로 가서 한지에 싼 용왕밥을 바다에 던지고 절을 한다. 용왕밥을 던지는 장소에는 용왕바위가 있다. 이 용왕바위는 대리 마을의 용왕당이 되는 셈이다.

용왕밥을 던지고 나면 마을을 한 바퀴를 도는 주산돌기에 들어간다. 주산돌기는 제관과 풍물패, 뱃기를 든 일행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을 따라 마을을 도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정월대보름에 줄다리기를 위해 미리 만들어 놓은 암 · 숫줄을 어깨에 메고 돌았다. 주산돌기를 할 때는 한지에 싼 당밥을 땅에 묻고 무녀와 제관이 절을 하고 나면 풍물을 친다. 이는 마을이 평안하고 아무런 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산돌기는 대리 마을뿐 아니라 인접해 있는 전막리(箭幕里) 마을에까지 가서 한다. 과거 전막리 마을이 대리 마을에 속해 있었던 연유로 전막리 마을의 뒤편 해변과 우물가에 가서 같은 식으로 절을 하고 풍물을 친다.

위도띠뱃놀이
정수미

위도띠뱃놀이
정수미

당굿과 주산돌기가 진행되는 동안 대리 마을 선착장에서는 남자들을 중심으로 바다에 띄워 보낼 띠배를 제작한다. 띠와 짚 · 싸리나무 등을 함께 사용해 배 형태로 만들고, 돛대와 닻을 달아 띠배를 완성한다. 그러고 나면 성기가 부각된 볏짚으로 만든 허수아비 7개를 각 위치에 맞는 곳에 놓는다.

주산돌기와 띠배제작을 마치고 나면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무녀를 중심으로 용왕굿을 한다. 용왕굿은 띠배가 제작된 선착장에서 진행하며, 이때에는 마을의 여자들은 물론 마을에 살고 있는 온 주민이 모여 용왕굿을 지켜본다. 과거에 용왕굿을 할 때에는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가족이 있는 집에서 별도로 용왕상을 차려 용왕굿이 진행되는 장소와 해안가에 펼쳐놓기도 하였으나 언제부터인가 마을을 대표해 큰 용왕상을 차려 굿을 진행한다. 용왕굿이 끝나면 여자들은 용왕상에 올려놓았던 제물을 조금씩 떼어 큰 함지에 담아 섞은 다음 바다에 고수레를 한다. 이때 풍물패의 장단에 맞춰 가래질소리와 배치기, 술배소리 등을 부르며 한바탕 큰 놀이판을 펼친다.

이런 과정이 끝나면 띠배를 바다에 띄워 보낸다. 띠배를 모선(母船)에 연결하여 바다 가운데로 끌고 나가 크게 원을 그리며 돌고 난 뒤에 연결된 끈을 풀어 놓으면 띠배는 망망대해로 떠나간다. 모선에는 풍물패와 소리꾼 등이 승선하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무사히 띠배가 용왕님께 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띠배를 바다에 띄워 보내기 위해 함께 나갔던 어선이 마을로 돌아오면 해변에서는 큰 놀이판이 벌어진다. 이때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을의 모든 주민이 모여 한 해 동안의 풍어와 무사고를 기원하며 밤늦게까지 놀이판을 벌인다. 놀이판이 끝나면 배를 부리던 남자들은 당집 반대편에 있는 도젯봉에 올라 도깨비불을 관찰한다. 도깨비불이 보이는 어장에 그물을 놓으면 한해 풍어를 올릴 수 있다고 하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젯봉에 올라가 도깨비불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 제의를 주관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결산을 하고 나면 비로소 위도띠뱃놀이가 마무리된다

위도띠뱃놀이는 서해안 지역에서 보이는 풍어제의 형식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다. 뱃기내림인 깃굿과 제의 마지막에 띠배를 바다에 띄워 보내는 것을 보면 서해안 여러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여타의 마을 풍어제 형식과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위도띠뱃놀이에서 보이는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위도띠뱃놀이가 행해지면 대리 지역의 어업민 이외에 타 지역의 어선들도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과거 조기어업을 위해 칠산어장을 찾았던 어선들이 대리 마을에 원당제가 있을 때면 참여하여 제비를 부담하기도 하였으며, 배를 타고 항해하는 과정에서 대리의 원당이 보이면 선상에 음식을 간단히 차려 고사를 지냈다는 사례 등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참고문헌 위도의 민속(국립민속박물관, 1984), 한국의 풍어제(하효길, 대원사, 1998).
필자 서종원(徐鍾源)

상호참조 위도 대리마을 원당(691쪽)

은산별신제(恩山別神祭)

정의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에서 전승되어 오는 별신제. 이 별신제는 1966년 2월 15일 '중요무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되었다.

역사 은산별신제가 어떠한 역사적 경로를 거쳐서 형성 · 전개되었는지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그러나 별신제의 일반적 형성 배경을 고려한다면 은산리가 역촌(驛村)과 장시(場市)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었던 조선 후기에 성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산팔읍(苧産八邑)을 중심으로 한 장시의 발달은 주목된다. 그 이전 시기에는 상당의 산신과 하당의 장승 · 진대에 대한 제의로 구성되었던 은산리의 동제가 역촌과 장시의 발달 때문에 별신제로 확대 · 개편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때에 장군신에 대한 유교식 제사와 단골 무녀의 상 · 하당굿이 새로이 삽입된 것으로 보인다.

은산별신제의 성립 이념에는 '어떤 전쟁에서 패몰한 장졸(將卒)' 또는 백제 고토(故土)란 지역의 역사성과 연계된 '백제부흥전쟁의 전몰(戰歿) 장병(將兵)'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제의(祭儀)의 구성에 군사적 요소가 편성되고 부각된 이유이다. 은산별신제의 연기(緣起) 설화에서 고을의 전염병, 들판에 나뒹굴고 있는 패몰 장병의 유해, 백마(白馬)를 탄 장군의 현몽(顯夢), 유골(遺骨)의 수습과 장례 및 제사 등은 중심 화소(話素)이다.

내용 은산별신제는 일제강점기 말기와 광복 · 한국전쟁을 지나면서 쇠퇴 · 인멸의 위기에 놓이자 정부에서 민속학자 임동권에게 조사를 의뢰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1. 제당(祭堂)

은산별신제의 제당은 별신당과 독산제당(산신당), 장승과 진대가 있는 장승거리, 그리고 하당터 및 이곳의 괴목(槐木)을 들 수 있다. 진대를 베어오는 산이나 꽃을 제작하는 화등방(花燈方), 꽃을 받아오는 삼충사(三忠祠) 등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 종교적 공간이다.

별신당 안에는 별신제 주신들의 영정과 위패가 모셔져 있다. 별신당 북측 주벽(主壁)의 중앙에는 산신도를 봉안하고, 그 좌우에는 각각 토진대사(土進大師)와 복신장군의 영정을 모신다. 독산제당은 별신당 왼쪽 옆 고목(古木) 아래에 있다. 당산의 서편 벼랑에 위치하며 그 바로 옆에는 은산천이 흐른다. 전형적인 야외의 자연 제당인 것이다. 이곳이 원래의 산제당으로 보인다. 산신의 좌우에 봉안한 토진대사와 복신장군은 백제부흥전쟁의 영웅들이다. 토진대사는 백제 말기 때 당(唐)에 저항하여 군사를 일으킨 승려 도침(道琛, ?~661)임이 거의 분명하다. 은산리는 네 방향의 길목에 각각 장승과 진대를 세우고 이를 하당신으로 위한다.

2. 제의 절차

은산별신제는 원래 다른 별신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3년에 한 번 모시는 것이 관례였다. 이즈음의 대제(大祭)와 소제(小祭)란 개념은 1978년부터 은산별신제보존회가 행사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정한 원칙이다. 소제에는 대제에서 행하는 진대베기 · 꽃받기 · 상당굿 · 하당굿은 하지 않고 본제와 독산제 · 장승제를 지낼 뿐이다. 먼저 보존회에서는 별신제를 수행할 임원을 뽑는다. 제관으로 화주(化主) · 육화주(肉化主) · 별좌(別座) · 축관(祝官) · 집례(執禮) 등을 선정하고, 무관으로 대장(大將) · 중군(中軍) · 영장(領將) · 선배비장(先陪裨將) · 후배비장(後陪裨將) · 사명집사(司命執事) · 통인(通引) · 좌수(座首) 등을 뽑는다. 이 밖에 무녀(巫女) · 악공(樂工)을 비롯하여 풍물패, 나팔수, 영기수, 사명기수, 대기수, 24방 기수, 제물 봉송자, 진대 운반자, 병졸 등도 필요하다.

'깨끗한 사람'으로 자체 선발한 화주와 별신제의 상 · 하당굿을 주도하는 단골 무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화주는 산신과 별신들에게 기본적으로 유교식 제사로 치제(致祭)를 하고, 무녀는 노래와 춤으로 그 신령들을 위로하고 기쁘게 한다. 조화장(造花匠)도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이다. 조화는 제상을 화려하게 장식하며 별신의 가호(加護)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수단이다.

은산별신제는 근래에 들어 3월 말에서 4월 초



은산별신제
국립민속박물관





은산별신제
국립민속박물관

순에 치러지며, 6일간 행사로 정형화되었다. 제1일에는 은산천의 물봉하기, 화주집의 조라술 담그기, 임원집을 순방하는 집굿 행사가 있다. 제2일에는 은산리 인근의 경둔리에 가서 진대를 베어오며 저녁에는 역시 임원 집을 순방하면서 집굿 행사를 벌인다. 제3일에는 은산에서 부여 부소산의 삼충사에 가서 꽃받기를 하며 저녁에는 3일째 집굿이 거행된다. 제4일에는 별신당에서 상당행사와 더불어 본제 행사가 치러진다. 제5일에는 오전에 별신당에서 상당굿, 오후에 하당굿터에서 하당굿이 각각 열린다. 마지막 제6일에는 별신당 옆에서 독산제가 모셔진다. 이때 한편에서는 은산리의 사방에 세워져 있는 장승에서 제사를 지낸다.

다음에는 이들 순서에 따라 그 제의 절차를 간략히 설명한다.

1) 물봉하기, 조라술 담그기, 집굿

별신을 모시기 위해서는 먼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장을 보아 오고, 은산천의 물을 봉(封)하여 별신만을 위한 정수(淨水)로 변환시키며 세속과 차단시킨 이 깨끗한 물로 신주(神酒)인 조라술을 담근다. 짧은 시간에 별신의 음조(陰助)로 술은 맛있게 익는다. 금줄과 황토 및 기치(旗幟)도 설치하여 은산리를 스스로 정화시키는 동시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부정의 가능성도 차단한다. 물을 봉한 날로부터 3일 동안은 별신제에 막중한 책임을 맡은 임원들의 집을 풍장패가 차례로 방문하여 집굿을 쳐 준다. 임원 집들의 지신을 밟아주어 평안하게 하는 한편 역시 온갖 부정을 가셔낸다. 임원들은 집굿을 통하여 정화된다. 이렇게 임원들이 깨끗해진 연후에야 비로소 별신을 모실 모든 준비는 끝이 난다.

2) 진대베기

둘째 날 오전에 하당굿 터에는 모군석(募軍席)이 설치된다. 군사를 일으키는 날이기 때문에 대장은 가장 먼저 도착하여 명(命)을 발동한다. 사명집사, 선배비장, 중군, 영장, 후배비장, 좌수, 별좌 등이 차례대로 모인다. 모군석에 임원들이 좌정하고, 진대베기에 참여할 많은 사람이 대오(隊伍)를 갖추고 떠날 채비를 한다.

진대를 베어 올 산은 은산리 인근에 있는 경둔리 뒤편의 야산이다. 행군 도중에 가끔 넓은 공터가 나오면 '오방돌기'라 하여 요란한 풍장 소리에 맞추어 진(陣)치는 모습을 흉내 낸다. 군사의 위용을 떨치는 행군의 한 과정이다.

산에 도착하면 요란한 풍물패의 쇠가락 속에서 별좌와 승마 임원들이 미리 보아둔 참나무를 향하여 삼배(三拜)를 올린다. 배(拜)마다 고개를 세 번 끄덕거려서 더욱 공손한 예를 표한다. 이를 삼배구고두(三拜九叩頭)라 한다. 이는 본제(本祭)에서 행하는 고두백배(叩頭百拜)와 함께 은산별신제 배례(拜禮)의 특징이다.

참나무는 모두 4개를 베어낸다. 상단 부분에만 가지와 잎이 달린 참나무는 이제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진대'가 된다. 진대는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는 이른바 우주목(cosmic tree)의 잔영(殘影)이다. 천상의 원형을 지닌 산에서 '살아 있는 나무'를 베어내 인간의 정주 공간으로 옮긴 우주목이 진대이다. 진대는 그 위에 새가 앉혀져 있지는 않지만 넓은 의미에서 솟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와 기능을 지닌다.

진대를 가지고 하산하면 차일을 쳐서 잠시의 여흥을 위한 공연 장소를 마련한다. 이곳에서 잠시 한바탕 논 다음에 다시 행렬을 지어 은산리로 회군한다.

하당터의 모군석에는 다시 승마 임원과 병졸들이 집결한다. 다만 대장과 후배비장은 모군석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이때의 모군석은 회군한 군대가 머무는 항전의 본거지인 성채를 의미한다. 병졸들은 창과 기치로서 하당터의 입구를 막고 양쪽으로 대오를 갖춘다. 대장과 후배비장을 제외한 나머지 장졸들만 모군석으로 회군한 것은 조금 전의 격렬한 전쟁에서 많은 인마(人馬)가 손상당했음을 나타낸다. 대장과 후배비장은 전쟁에서 낙오된 것이다. 대장의 낙오는 참패를 뜻하고, 회군한 군대 역시 패잔병임을 시사한다. 이윽고 대장의 입성을 허락한다. 대장은 전투에서 낙오하였으나 무사히 귀환한 것이다. 백제부흥전쟁의 참담한 실패가 은산별신제의 한 절차로 삽입되어 있다. 이러한 과장(科場)을 구성한 은산별신제의 역사인식에는 백제의 패배를 사실로 인정하는 관점이 잘 나타나 있다.

3) 꽃받기

셋째 날의 꽃받기는 별신당에 제물과 함께 올릴 꽃을 받아오는 절차이다. 형형색색의 지화(紙花)를 꽂은 꽃병 6개와 신령들이 오는 길을 환히 밝히는 화등 6개를 받아 온다. 꽃받기를 할 때에도 진대베기의 경우처럼 군사 행렬을 지어 나간다. 물론 이때에도 중간에 오방진을 치며 위용을 떨친다.

근래에는 꽃받기를 부여의 백마강 동편에 있는 부소산의 삼충사로 가지만, 예전에는 별신제가 있을 때마다 매번 꽃을 제작할 화등방을 별도로 선정하였다. 대개는 은산리 주변의 절이나 사당 또는 마을 등에 화등방을 설치하였다.

이 꽃은 별신제가 모두 끝나면 하당굿에 모인 사람들에게 무녀가 나누어 준다. 이 꽃을 안방이나 마루 등에 정성스럽게 보관하면 다음 별신제가 열릴 때까지 제액초복(除厄招福)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4) 상당 행사와 본제

넷째 날 오후에 화주댁에서 별신당으로 제물을 봉송하는 상당 행사가 열린다. 이는 본제인 상당제를 지내기에 앞서 제물과 꽃을 상당에 받들어 보내는 행사이다.

남자인 화주와 별좌들만 제물을 조리한다. 새벽부터 진편과 백편을 찌기 시작한다. 오전에는 모든 제물을 각각의 항아리와 그릇에 넣어 봉한다. 여기에는 일일이 오색 종이를 붙여 장식한다. 또 오색 물감으로 밀가루를 색깔별로 각각 반죽하여 다섯 가지 색깔을 띠는 화전(花煎)을 만든다.

제물 봉송자들은 제물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건네받은 다음 행진을 시작한다. 제물은 한 사람이 하나씩만 두 손으로 받들어 옮긴다. 이때 부정을 물리며 근신한다는 뜻으로 입에 백지 한 장씩을 문다. 화주가 별좌와 더불어 진설하면 화주 및 임원은 삼배를 올린다.

한편 육화주(肉化主)의 집에서는 곧바로 돼지와 닭을 잡는다. 풍물패의 쇠가락 속에 육화주는 희생동물에게 배례한다. 풍물패의 선도(先導)하에 육화주는 날돼지와 날닭을 큰 그릇에 담아 별신당으로 봉송한다. 날돼지를 먼저 올리는 것은 산신을 위한 제물이기 때문이다.

날돼지는 육화주의 배례 후에 곧바로 다시 육화주 집으로 옮긴다. 가마솥에 넣고 삶기 위해서이다. 이 시간 동안에 여러 임원은 휴식을 취하며 희생동물이 완숙되기를 기다린다.

육화주 집에서 돼지와 닭을 충분히 삶아 별신당에 올리면 오후 9시경이 된다. 이로부터 시작되는 상당의 본제는 산신과 별신에 대한 유교식 제사로 치러진다. 집례의 홀기에 따라 ①화주분향삼배, ②화주강신삼배, ③제관참신삼배, ④화주초헌, ⑤산신축독축, ⑥장군축독축, ⑦대장아헌, ⑧이장종헌, ⑨제관전원헌작, ⑩동민축독축, ⑪전제관백배, ⑫동민헌작, ⑬소지, ⑭파제의 순서로 진행된다.

5) 상당굿과 하당굿

다섯째 날 오전에 신령이 전날의 본제를 잘 받았는지 가늠하는 상당굿을 벌인다. 별신당 바로 앞에 상당굿 터를 마련하며 이곳에 쌀을 담은 큰 함지박에 대기를 세워 놓는다. 3명의 무녀는 춤을 추고 무가를 부르면서 복신장군과 토진대사의 슬픈 죽음을 위로하면서 정성을 잘 받았으면 설설이 내려 달라고 축원을 한다. 이윽고 대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대는 점점 심하게 요동을 치며 대를 붙

잡고 있는 화주나 대장은 물론 그 주변의 모든 구경꾼도 함께 긴장하며 대의 떨림을 예의주시한다. 이때가 은산별신제의 절정 순간이다. 구경꾼들조차 이 대목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손뼉을 치며 환호를 한다.

오후에는 마을 한복판의 괴목 아래에 굿판을 준비한다. 이곳을 흔히 하당굿터라고 부른다. 하당굿에서는 하당의 신령을 위하고, 별신제에 초대받지 못한 여러 원혼을 위무(慰撫)하며 풀어먹인다. 괴목 바로 앞에는 대장을 위시하여 승마 임원들이 차례로 앉는다. 이들 앞에는 별신에게 바치는 축원상인 교자상(交子床)이 하나씩 놓이고, 그 위에는 '꽃반'이라 하여 불밝이쌀을 놓는다. 그 앞은 무녀들의 굿판이 된다.

여기에서도 상당굿과 마찬가지로 큰 함지박에 대기를 꽂아놓고 화주와 대장이 붙잡고 있는다. 무녀들은 춤과 노래로 하당의 신령과 잡귀 및 잡신들을 위로하고 풀어먹이며, 또한 임원을 비롯하여 굿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축원해 준다. 굿은 대기가 심하게 흔들리며 방울 소리가 요란하게 날 때까지 계속된다. 굿이 끝나면 무녀는 별신이 내려준 지화, 곧 신화를 임원 이하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준다. 별신이 내린 신주로 음복을 하였듯이 별신이 내린 신화로써 다음 별신을 모실 때까지 그 축복을 보장하는 신표(信標)로 삼는 것이다.

6) 독산제

독산제는 화주 홀로 모시는 산제이다. 산신에게 별신제를 모두 마쳤음을 고하며 감사하는 제사이다. 장군신을 중요하게 모시는 은산별신제에서 독산제로 모든 제의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면 산신과 별신의 관계, 그리고 이들 사이의 위상이 어떠한 것인지 짐작하게 한다. 곧 은산별신제에서 별신은 매우 중심된 신격의 위상을 지니지만, 격년 또는 삼년마다 모셔지는 특별한 신령들이다. 은산리의 주신은 역시 당산의 산신이다. 굳이 비유한다면 산신은 주인이고 별신은 손님인 셈이다.

7) 장승제

과거에 장승제는 독산제를 마친 다음날에 치렀다. 그러나 별신제의 간략화로 인하여 근래에는 독산제를 지내는 시간에 별좌가 풍물패와 영기를 앞세우고 장승제를 동시에 모신다.

은산리는 사통팔달(四通八達)한 평지에 있다. 은산시장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연결되는 교통로의 길목마다 장승을 세웠다. 사방에 세워진 장승은 외형상 큰 차이는 없으나 각 장승이 책임을 맡은 방위 구역에 따라 동방청제축귀대장군(東方靑帝逐鬼大將軍)·서방백제축귀대장군(西方白帝逐鬼大將軍)·남방적제축귀대장군(南方赤帝逐鬼大將軍)·북방흑제축귀대장군(北方黑帝逐鬼大將軍)이라고 명명(命名)된다. 또한 이들 장승 옆에는 참나무를 상단만 남긴 채 진대라 하여 세워 둔다. 이는 별신제를 올릴 때만 새로 세운다. 다음에는 동방·서방·남방·북방 장승의 순서로 옮겨 다니며 장승제를 모신다.

오늘날의 은산별신제는 그 이념에 있어서 백제부흥전쟁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복신장군과 토진대사 외 삼천신위(三千神位)의 한을 풀어주는 위령제 성격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20세기 초반에는 다른 많은 장군을 별신으로 모셨다. 거의 대부분은 중국의 장군이고, 극히 일부가 조선의 장수였다. 물론 당시에도 복신장군에 대한 관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20세기 중·후반을 거치면서 은산별신제에 백제의 이념이 점차 강조되었다. 이 과정에서 은산별신제를 떠받들고 있는 3가지 요소인 교통의 중심인 역촌, 상업의 중심인 장시, 장군인 별신 중에서 역촌과 장시의 요소는 전혀 고려되거나 인식되지 않았고 별신만 백제부흥전쟁과 관련하여 한층 뚜렷하게 자리를 잡아 나갔다. 더욱이 일부에서는 은산별신제를 1300여 년 동안 지속해 온 백제 전몰 장졸의 위령제라는 오해도 확산되었다.

은산별신제는 근·현대에 부여 및 그 인근 지역에서 이루어진 백제 역사의 재창출이지 백제사 그 자체 또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대상이 아니다. 은산별신제에서 백제의 표상 또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조선 후기에 은산리가 지닌 역촌과 장시의 전통을 이해하는 일이다. 앞으로 은산별신제가 훌륭한 지역 축제로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도 이러한 전통들은 충분히 전제되어야 한다. 요컨대 은산별신제는 역촌과 장시의 기반 위에서 형성되었으며, 특히 시장 상인들의 자본은 중요한 물적 토대가 되었다. 한 마을이 아닌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 성격을 지닌 고을의 공동체 신앙이 어떠한 구조와 성격 및 기능을 하는지를 이를 통하여 여실히 볼 수 있다.

참고문헌 백제의 전설(홍사준, 통문관, 1956), 은산별신제(임동권,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8, 1965), 은산별신고(이양수, 부여향토문화연구회, 1969), 은산별신제(임동권, 한국민속학논고, 집문당, 1971), 은산별신제(이필영, 국립문화재연구소 중요무형문화재기록도서, 2002).

필자 이필영(李弼泳)

의무(醫巫)

정의 질병을 치료하는 무당. 무의(巫醫)라고도 한다.

내용 무당의 기능에는 크게 사제적 기능, 정치적 기능, 의료적 기능이 있다. 상고시대 무당은 사제자로서 씨족의 안녕을 기원함은 물론 씨족을 통괄하고 구성원이 질병에 걸렸을 때 주술의 힘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기능의 하나였다.

무속에서는 질병의 원인을 신귀(神鬼)의 작용이라고 여긴다. 신귀가 침입하는 요인으로는 부정(不淨)·신비력(神秘力)·운수(運數)·금기(禁忌)·저주(咀呪)·죄악(罪惡) 등이 있다. 무당은 신귀가 침입하는 요인에 따라 병을 구분하고 그 요인을 제거하거나 회피함으로써 병을 치료한다.

부정을 타서 병에 걸리는 경우는 주검과 관련이 있으므로 상가(喪家)를 꺼린다. 임산부나 신생아에게 부정을 타게 하는 경우는 동물의 살생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동물을 죽이거나 주검을 보아서는 안 되고 부득이하게 부정을 접하면 무당이 뱅이를 하도록 도와준다. 신비력은 신 또는 잡귀가 원인이 되며 흙을 파헤치거나 물건을 잘못 다루면 살이 붙어서 동티가 나는데 이때 무당이 살을 풀어내는 주술을 행한다. 성주·조왕 같은 가신이나 산신, 서낭신 같은 동신(洞神)들도 정기적인 제를 거르거나 불결하고 정성이 부족하게 제를 지내면 부정이 타서 인간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 운수는 사주팔자·일진·신수 등 초자연적이고 불가항력적인 힘으로부터 오는 병이다. 금기를 어겨서 그 벌로 받는 병도 있다. 다른 사람의 저주를 받아도 중병에 걸리며, 남에게 죄악을 저질러도 그 응보로 중병에 걸린다고 믿는다.

병을 치료하여 원상회복하려면 외부에서 침입한 신귀를 내쫓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약물의 복용이나 의약에 의하지 않고 주술적인 방법이나 굿을 함으로써 신귀를 퇴거하고자 하였다. 무당이 하는 굿은 재수굿·병굿·내림굿·천도굿·당굿 등이 있으며 병굿은 무당이 하는 굿 가운데서도 중요한 굿의 하나다. 치병을 기원하는 굿에는 중부 지방의 병굿·영장치기, 영동 지역의 환자굿, 호남 지방의 치병굿, 제주도의 비념굿, 천연두를 퇴치하는 마누라배송, 영남 지방의 천연두굿인 별상굿, 영동 지역의 안질을 퇴치하기 위한 맹인굿, 정신병자를 치료하는 광인굿 등이 있다.

무당은 치료 대상을 기준으로 개인 치병굿과 공동 치병굿을 하는데 개인 치병굿은 방술(方術)·비손·독경(讀經)을 한다. 방술은 주술적인 방법이다. 예를 들어 상가에 다녀온 후 병을 얻으면 객귀물림을 하고, 눈에 다래끼가 나거나 삼이 서면 양밥을 먹이거나 삼잡이를 한다. 비손은 무당을 불러서 환자가 있는 방에 제상을 간단히 차리고 축원하는 작은 굿이다. 중병일 경우는 푸닥거리를 하는데 닭을 희생으로 써서 액운과 명을 대신 가져가도록 죽인 뒤 집에서 보이지 않는 먼 곳에 묻는다. 독경은 판수나 법사를 불러 잡귀와 액살(厄煞)을 쫓아내 질병을 고친다. 그리고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수시 또는 정기적인 굿이나 주술도 의무(醫巫)의 권능에 속한다.

의무가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신성의 원리를 따른다. 여기에는 신이나 신비력을 지닌 존재에게 기원하여 비는 방법, 병의 원인인 잡귀나 신비한 존재를 주술을 써서 퇴출하는 방법, 환자에게 믿음을 주어 소생시키는 방법이 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 하는 기원에는 신의 진노가 병의 원인이라고 믿고 노여움을 풀어주는 비손이나 병굿이 있다. 잡귀잡신에 의한 병은 잡귀잡신을 위협하는 주술적인 방법을 쓴다. 중병의 경우는 환자를 재생시키는 상징적인 방법으로 영장치기처럼 대명(代命)을 위한 희생을 잡아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어 병을 낫게 하려고 노력한다. 의무는 약물이나

물리적인 과학보다 영적이고 심리적인 신비력에 의해 병을 치료하는 직능이 있는 사제자다.

참고문헌 한국민속학논고(임동권, 집문당, 1971), 한국무속의 연구(최길성, 아세아문화사, 1978), 한국무속론(최길성, 형설출판사, 1981), 한국무속연구(김태곤, 집문당, 1981), 한국민간신앙연구(김태곤, 집문당, 1983), 한국민속문화대사전(김용덕, 창솔, 2004).
필자 김용덕(金容德)

의술가면(醫術假面)

정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질병을 물리치기 위한 굿에서 사용되는 가면. 건강을 지켜주는 보호 세력을 불러낸다는 가면, 질병의 원흉인 악귀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 믿는 가면, 우리의 병굿에서 사용되는 가면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내용 의술가면은 건강을 유지하거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제의에서 쓰는 가면이다.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의술가면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건강을 지켜주는 보호 세력을 불러낸다는 가면이다. 다른 하나는 질병의 원흉인 악귀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 믿는 가면이다. 가면을 쓰면 초자연적인 신령이 들어와 건강을 유지하게 하거나 질병을 물리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질병을 다스리는 전문가인 의무(醫巫)가 주로 사용한다. 여기에 건강을 유지하거나 질병을 물리치기 위한 제의에서 사용되는 가면을 덧붙일 수가 있다. 우리의 병굿에서 사용되는 가면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의술가면의 형태는 각각의 제의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

질병의 원흉인 악귀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경남 초계오광대놀이의 기원이 주목된다. 경남 초계 밤마을[栗旨]에 전염병과 기타 재앙이 그치지 않았는데 마침 대홍수 때 떠내려 온 궤짝에 가득 든 가면들을 쓰고 놀이를 해보았더니 재앙이 다 없어졌다는 내용이다.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하여 연행을 한 것으로, 이때 쓰인 가면들을 의술가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병굿에서 사용되는 가면을 일종의 의술가면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의 병굿에서 사용되는 가면들은 대부분이 질병을 일으키는 원흉을 형상화한 것들이다. 병굿에 사용되는 가면들은 건강을 지켜주는 보호 세력을 불러내거나 질병의 원흉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가면이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의술가면의 개념을 보다 확장해야 한다. 의술가면의 정의를 건강을 유지하게끔 하거나 질병을 가져오는 악귀들을 쫓아내는 굿에서 사용되는 가면으로 그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 개념을 확대할 경우 동해안광인굿과 제주도 영감놀이 등에 사용되는 가면들이 의술가면에 포함된다. 동해안광인굿은 미친사람의 병을 고치는 치병굿이다. 사처낭[四天王]의 위력으로 정신병을 일으킨 원흉이라 믿는 여처낭[女天王]을 퇴치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여처낭이 쓴 여자 귀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종이가면이 의술가면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 영감놀이에 사용되는 영감가면들 역시 의술가면이다. 제주도 영감놀이는 도깨비신이 여인의 미모를 탐내어 병을 일으켰을 때 행하는 굿놀이이다. 여기서 사용되는 영감가면은 보통 창호지에 눈, 코, 입 등의 구멍을 뚫고 간단하게 만든다. 영감가면은 병을 일으키는 도깨비신을 상징하기 때문에 의술가면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가면이란 무엇인가?(송석하, 朝光 2-6, 1936. 4), 한국 가면극 그 역사와 원리(전경욱, 열화당, 1998), 동아시아 샤머니즘 연극과 탈(박진태, 박이정, 1999).
필자 허용호(許龍鎬)

의원가면(醫員假面)

정의 동해안 지역의 무속적 마을굿인 동해안별신굿에서 탈굿을 연행할 때 사용되는 종이가면. 의원탈이라고도 부른다. 탈굿 속에서 의원 역할을 맡은 화랭이가 쓴다. 탈굿에서 영감이 쓰러진 후 등장하여 영감을 소생시키려 하지만 실패하는 의원을 형상화하는 기능을 한다.

형태 의원가면은 두꺼운 마분지로 만든다. 동해안별신굿을 연행 전승하고 있는 화랭이 김장길의 의원가면 제작과정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마분지를 정중앙으로 접고 얼굴 윤곽선을 따라 잘라낸다. 이마 부분에서 90도로 접은 후 눈, 코, 입을 오려낸다. 마분지를 펼치면 얼굴 윤곽이 드러난다. 가위로 턱 중앙과 이마를 일자로 가른다. 검은색 매직을 사용하여 초승달 모양의 윗눈썹과 눈의 윤곽을 그린다. 눈 주위는 진하게 칠해준다. 검은색 매직을 사용하여 입 윤곽을 그리고 붉은색 매직을 사용하여 입술을 칠한다. 귀의 모양은 검은색 매직을 사용하여 3자 형태를 세 번 그려 완성하고 코를 붙인다. 송곳을 이용하여 양귀에 각각 두 개의 구멍을 뚫어 끈을 구멍에 끼운다. 탈 뒷면에서 끈을 연결시킨다.

이렇게 만들어진 의원가면은 흰색 마분지에 붉은 입술과 눈썹과 귀 등이 그려지고 코가 붙여진 형태이다. 제작자에 따라 콧수염, 턱수염, 구렛나루, 아래 · 위 속눈썹까지 미세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의원가면은 연행이 끝난 후 태워지기 때문에 연행을 할 때마다 매번 만들어서 사용한다. 연행자인 화랭이들이 별신굿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다. 항상 새롭게 만들기 때문에 그 크기가 동일하지 않지만 대략 가로 25㎝, 세로 23㎝의 크기로 만드는 경우와 이보다는 좀 크게 가로 26㎝, 세로 34㎝ 내외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

내용 의원가면은 동해안별신굿의 한 굿거리인 탈굿에서 사용된다. 의원 역할을 맡은 화랭이가 쓰고 등장하는 것이다. 무속적 마을별신굿이 행해지는 동해안 지역에서도 주로 영덕 일대를 중심으로 20여 개 마을에서 탈굿 연행이 벌어진다. 탈굿 내용은 가면극의 할미마당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탈굿만의 독특한 결말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서울애기의 등장과 관중 유혹, 싹불이의 등장과 서울애기 유혹 실패, 영감의 등장과 서울애기 유혹, 영감의 자기소개, 할미의 등장과 신세한탄, 영감의 쓰러짐, 영감의 소생, 연행자들의 인사와 뒷마무리 등의 순서로 전개된다. 연행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 전개 양상을 보이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다. 서울애기와 눈이 맞아 집을 나간 영감과 이를 찾아다니는 할미, 등장인물 모두가 직접 맞닥뜨려진 상황에서 벌어진 영감의 졸도와 소생이라는 기둥 줄거리는 거의 유사하다. 이러한 내용의 탈굿에서 화랭이가 의원가면을 쓰고 의원 역할을 한다. 의원은 영감이 쓰러진 이후 영감을 치료하기 위해 등장한다. 엉뚱한 진맥과 우스꽝스러운 진찰 행위로 웃음만 주고 영감을 소생시키는 데에는 실패한다.

참고문헌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동해안 탈굿의 변화양상과 축제성(김신효,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동해안탈굿의 여성과 욕망(허용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6,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무속탈의 제작법과 문화 체험에의 활용 방안(최성진, 지역민속학, 지역민속학회, 2009).
필자 허용호(許龍鎬)

이공본풀이

정의 제주도의 큰굿에서 초공맞이 다음 제차인 이공맞이에서 구연되는 서사무가. 불도맞이에서도 불린다. 같은 계열의 서사무가로 평안도의 〈신선세텬님청배〉와 경남 김해의 〈악양국왕자노래〉가 있다. 또한 『월인석보(月印釋譜)』의 〈안락국태자경(安樂國太子經)〉, 고전소설 〈안락국태자전(安樂國太子傳)〉, 기림사사찰연기설화인 〈기림사사적(祇林寺事蹟)〉과도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불화(佛畵)로는 〈안락국태자경〉의 내용을 서사 전개에 따라 그린 〈사라수탱(沙羅樹幀)〉이 있다.

내용 〈이공본풀이〉의 서사 전개는 사라도령이 천상의 부름을 받고 길을 떠나는 제1노정기, 원강암이 천년장자로부터 고통을 받는 수난기, 할락궁이가 아버지를 찾아 탈출하여 길을 떠나는 제2노정기, 사라도령 · 원강암 · 할락궁이가 신(神)이 되는 좌정기 등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이공본풀이〉의 서사 전개는 다음과 같다.

(1) 김정나라 김정국은 윗녘에서 가난하게 살고, 임정나라 임정국은 아랫녘에서 천하거부로 살았다.

(2) 김정국과 임정국은 늦도록 자식이 없어 수륙불공을 드린 후 김정국은 아들 사라도령, 임정국

은 딸 원강암을 각각 낳는다.
(3) 사라도령과 원강암은 혼인을 한다. 사라도령은 서천꽃밭 꽃감관으로 오라는 연락을 세 번이나 받고도 가질 않는다.
(4) 서천꽃밭에서 삼차사가 왔으나 점심 대접을 못하여 혼이 나고, 차사님은 먼저 간다.
(5) 길을 떠나는 도중에 병을 얻은 원강암이 천년장자의 집에 종으로 팔리기를 원한다. 천년장자의 첫째와 둘째 딸은 이를 거부했으나 셋째 딸이 찬성하여 원강암은 종으로 팔린다.
(6) 작별할 때 사라도령은 사내를 낳거든 '할락궁이', 계집을 낳거든 '할락댁이'로 각각 지으라고 한 후 신표(信標)를 맡긴다
(7) 천년장자가 여러 차례 동침을 요구했으나 원강암은 거절한다.
(8) 이에 천년장자가 화가 나서 원강암을 죽이려 하지만 셋째 딸이 만류한다.
(9) 천년장자는 원강암 모자(母子)에게 혹독한 노동을 시키지만 모든 일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10) 할락궁이는 서천꽃밭의 꽃감관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탈출한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를 눈치 챈 천년장자에게 죽임을 당한다.
(11) 천년장자가 할락궁이를 잡기 위해 천리통과 만리통을 보내지만 할락궁이는 이를 따돌리고 서천서역국에 도착한다.
(12) 할락궁이는 신표로써 아들임을 인정받고 어머니를 살릴 꽃과 천년장자 일가를 죽일 꽃을 가지고 되돌아온다.
(13) 천년장자가 할락궁이를 죽이려 하자 할락궁이는 꾀를 내 천년장자 일가를 한 곳에 모이게 한 뒤 멸망꽃으로 천년장자를 죽이고 큰딸에게는 가난꽃, 둘째 딸에게는 멸망꽃을 준다.
(14) 할락궁이는 뼈를 모아 놓고 꽃으로 어머니를 재생시킨 후 천년장자의 셋째 딸을 데리고 원강암 모자는 서천꽃밭으로 간다.
(15) 원강암은 저승어미가 되고, 사라도령은 저승아비가 되며, 할락궁이는 꽃감관이 되었다.

의의 〈이공본풀이〉에서 주목되는 것은 '서천꽃밭'과 '생명의 꽃'이다. 서천꽃밭과 생명의 꽃은 〈바리공주〉, 〈세경본풀이〉, 〈문전본풀이〉, 〈생불할망본풀이〉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한국 무속신화에서 중요한 화소이다.

꽃을 생명의 기원으로 여기는 의식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인류 공통으로 있었기 때문에 신화 속에 흔적으로 남아 재현·반복되고 있다. 고대인들이 매장의식으로 꽃을 뿌렸다는 고고학적 증거물로는 네안데르탈인과 한국의 홍수아이가 있다. 네안데르탈인은 이미 10만 년 전에 주검에 황토 칠을 하고 그 위에 꽃을 덮는 의식을 행하였고, 청원 두루봉 2호 동굴에서 발견된 홍수아이 역시 꽃을 뿌려 매장의식을 행하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꽃을 생명과 연결시키는 의식은 고대부터 인류 보편적으로 있어 왔기에 신화 속에 흔적으로 남아 재현·반복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 무속신화에서는 꽃의 생명성에 그치지 않고 꽃밭이라는 특수공간으로서의 이계(異界)가 설정되어 있다.

〈이공본풀이〉에 있어서 서천꽃밭의 의미는 어머니를 살려낼 수 있는 꽃이 피어 있는 생명의 공간이라는 점이다. 바리데기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수많은 고난에도 서천꽃밭으로 향하고,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가 서천꽃밭의 생명의 꽃으로 정수남이와 문도령을 살려내며, 〈문전본풀이〉에서 칠형제가 계모에게 죽은 어머니를 생명꽃으로 살려내며, 〈생불할망본풀이〉에서 생불할망이 아이들을 사산(死産)시키고 질병을 일으키는 구삼승할망과 마마를 심하게 앓게 하는 대별상신을 굴복시키고 생불꽃으로 아이의 출산과 양육을 도와 현세를 바로잡는 이야기 등은 모두 서천꽃밭이 지닌 생명력으로 파괴된 현상계를 원상회복시키는 과정을 담고 있다.

꽃밭은 죽은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 생명의 꽃이 피어 있는 공간인 동시에 악인(惡人)을 징치할 수 있는 죽음의 꽃도 피어 있는 공간이다. 〈이공본풀이〉의 할락궁이는 멸망꽃으로 천년장자네 가족을 벌한다. 〈세경본풀이〉의 자청비는 서천꽃밭에 피어 있는 수레멸망악심꽃으로 적을 죽이고 난을 진압하며, 〈생불할망본풀이〉와 〈마누라본풀이〉에서는 생불할망이 생불을 준 자손들에게 대별상신이 마마를 심하게 앓게 하자 생불할망은 대별상신의 부인에게 생불꽃으로 잉태시킨 후 해복을 시켜 주지 않는다. 즉 생불꽃으로 아이를 점지시켜 대별상신을 굴복시킴에 있어 생불꽃을 징치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한국 무속신화에서의 꽃밭은 생명의 근원지면서, 선을 누르고 이승을 차지하려는 악을 징치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청구학총 22(손진태, 경인문화사, 1982), 제주도무가본풀이 사전(진성기, 민속원, 1991), 한국의 원형신화 원앙부인본풀이(조흥윤,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이수자,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이공본풀이계 서사체 연구(김창일,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사라수탱 연구(김창일, 생활문물연구 8, 국립민속박물관, 2003),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전개와 공간 의미 고찰(김창일, 한국무속학 6, 한국무속학회, 2003), 무속신화에 나타난 꽃밭의 의미 연구(김창일, 한국무속학 11, 한국무속학회, 2006).
필자 김창일(金昌一)

이명옥

분야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20호 남이장군사당굿의 예능보유자.

내용 이명옥(李明玉, 여)은 193(호적상에는 1937년으로 등재됨)6년에 서울시 서대문구 아현동에서 서울 무악의 악사로 이름을 떨친 아버지 이달선의 4남 3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이달선의 형은 오늘날 서울굿 일류 악사들을 두루 길러낸 이충선이다. 큰형인 이일선, 이충선, 이달선 삼형제가 모두 유명한 서울굿 악사였다. 이들 형제의 아버지는 경기소리를 하는 명창이었고, 어머니는 몽촌관 광나루를 중심으로 무업을 한 만신이었다.

이명옥은 아현동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굿일로 여러 지역을 이동하게 되어 몽촌·창신동·강원도 철원·신설동 등지로 옮겨 다녀야 했다. 이 때문에 공부에 재미를 느끼지 못한 이명옥은 집안 사정 또한 넉넉지 않아 소리를 배워 기생이 되고 싶어 왕십리에서 소리를 가르치는 아버지 친구로부터 소리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반대가 심했다. 20세 때 미군 부대를 상대로 장사하던 남자와 결혼하였지만 약혼 무렵부터 살아가는 내내 풍파가 끊이지 않았다.

이명옥은 27세 때 내림을 받았다. 잠을 자다가 갑작스레 깨어 미친듯 소리를 지르며 어머니를 불러오라고 했다. 어머니가 오자 바로 점을 치며 공수가 터지게 되었다. 어머니가 이명옥을 데리고 왕십리 작두방 무당을 찾아가자 신내림을 받으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이명옥은 이를 거부하였다. 집으로 돌아온 이후 몸이 계속 아파서 아버지를 악사로 자주 부른 종로 점백이무당집으로 갔다. 마침내 이명옥은 나이 27세가 되는 생일달인 3월에 내림굿을 받게 되었다. 이후부터 집안의 풍파가 가라앉았다. 내림굿에 참여한 만신으로는 신어머니인 김은숙, 승인동 조씨 아주머니, 노들순자(최순자) 등이었다. 악사로는 김순선, 김광복, 지광희 등 당대 일류 악사들이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굿판에 구경을 다녔기 때문에 굿 학습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다. 본격적으로 내림굿을 받은 이후에 신어머니 김은숙으로부터 학습을 하였고, 신어머니와 굿을 함께 하던 이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굿의 학습은 교재를 놓고 하나하나 가르치기보다 어깨너머로 보고 들으면서 자연히 익히는 것이었다. 당대 일류의 굿을 보는 것이 곧 학습인 시절이기 때문이었다. 당대에 유명한 만신들이 노들순자, 검정판장집(김용주), 옥순네, 숭인동 돼지엄마(박종복) 등이었다. 특히 신어머니, 옥순네, 돼지엄마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 만큼 이



이명옥
서울시 무악동 인왕산 국사당 | 2008.2.11 | 김형근

명옥은 전통 서울굿을 체계있게 교육받아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만신이다.

남이장군사당은 성동구 사근동에도 존재하지만 이명옥이 담당하는 굿은 용산구 용문동 107번지에 존재하는 사당과 관련된다. 이 때문에 용문동부군당제, 남이장군당굿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남이장군당굿을 담당하는 당주 내지 사제무로 얻은어멈 문덕순, 밤쥐 최인순이 있었다. 이들이 작고한 이후로 이명옥이 맡고 있다. 최근 여러 서울·경기 마을 당굿들이 문화재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당주권을 가진 만신들도 문화재로 인정받는다. 이명옥은 1999년 7월에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20호 남이장군사당굿의 예능보유자로 지정됐다. 이명옥은 단순히 당주권만을 가진 만신이 아니라 실제 서울굿을 제대로 할 줄 아는 만신으로서도 의의가 있는 인물이다. 특히 이명옥은 꿋꿋하고 정제된 굿맛을 보이면서, 돼지엄마의 유려한 춤사위의 영향을 받아 춤태가 좋다.

참고문헌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서울시, 경기도, 강원도편(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남이장군사당굿(하효길 외, 민속원, 2009), 서울굿 음악연구–이명옥 만신의 진오귀굿을 중심으로(하을란,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필자 김형근(金亨根)

이상순

분야 중요무형문화재 제104호 서울새남굿 예능보유자.

내용 이상순(李相順, 여)은 1950년에 서울에서 태어나 15세 되던 해 삼월삼짇날에 머리를 감다가 신이 내렸다. 이미 어려서부터 신이 내릴 징조를 보여 눈에 부스럼이 나서 잘 보이지 않고 머리에도 부스럼이 심했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집에서만 지냈다. 말문은 15세 때 신이 내리면서 터졌다. 내림굿은 평안도 무당이었던 양어머니에게 받았으며 이때 한양대신이 들어왔다. 내림굿을 받으면서 어려서부터 괴로움을 주던 눈병과 부스럼에서 비로소 해방됐다. 내림굿을 받은 뒤 처음에는 점만 쳤다. 20세 되던 해 음력 11월에 결혼한 이상순은 남편의 반대로 무업을 하지 못하다가 신기(神氣)를 억누르지 못해 다시 무업을 시작했다. 큰딸 이름이 은하여서 은하엄마라고 불렸으며, 지금도 굿판에서 은하엄마로 불린다.

처음에는 양어머니에게 평안도굿을 배웠으나 그만두고 서울굿을 본격적으로 배웠다. 영천의 신박수를 만나 바리공주를 배우고, 옥순이에게 다시 배웠다. 1970년 별호가 짱구박수인 이홍기를 만나 서울굿 의식 전반에 걸쳐 학습하였다. 1975년 봄부터는 오토바이 만신 박어진의 신딸이 되어 서울굿의 전통적 기예를 익혔다. 아울러 오토바이 만신의 신딸로 있으면서 알게 된 노들순자 최순자로부터 깊이 있는 서울굿의 문서를 익힌다. 1970년대 중반에는 이지산을 신아버지로 하여 천신굿을 배우고, 숭인동 돼지엄마 박종복에게 새남굿을 배웠다. 콩나물 박수 최명남에게는 느릿골 정박수의 중디밧산을 배웠다. 1980년대에 1970년대 초부터 알고 지내던 김유감에게 다시 전통적인 새남굿을 학습하고 함께 활동하다가 1996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104호 서울새남굿에 교육보조자로 지정되었으며, 2007년 7월 11일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이상순의 몸주신령은 작두신장과 대신할머니이고 1970년대부터는 명성황후도 모시고 있다. 한편 이상순은 아이들이 무당 자식이라는 놀림을 받을까봐 육효, 당사주, 역리학을 배워 집에 동양철학 간판을 내걸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무업을 해오면서 많은 공연에 참여하였고, 황제풀이와 바리공주 전 내용을 CD에 담아내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서울새남굿(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우리무당이야기(황루시, 풀빛, 2000), 노름마치(진옥섭, 생각의 나무, 2007).
필자 이용범(李龍範)

이선비

분야 중요무형문화재 제90호 황해도평산소놀음굿의 기능보유자.

내용 이선비(李先妣, 여)는 1934년에 황해도 해주에서 출생한 황해도 만신이다. 전주 이씨 집안의 5남매 가운데 셋째 딸로 태어나 실제 성장한 곳은 옹진이다. 신어머니인 장보배의 영향으로 평산소놀음굿을 배우고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지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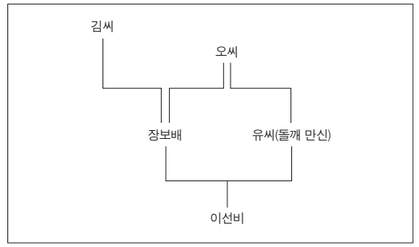
어릴 때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집안일을 돕다가 18세 되던 해에 25세의 남편과 혼인했다. 당시 6·25전쟁 중이어서 혼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1·4후퇴 때 남편과 함께 남하해 전라도·경기도·인천 등지를 돌면서 거처하다가 현재의 인천에 자리잡게 되었다.

객지 생활로 어렵게 지내다가 27세 되던 해에 입병이 생기면서 만신의 길로 접어들었다. 입병은 여러 병원을 다녀도 도저히 나을 방도가 없었고, 무당에게 점을 봐도 점괘가 나오지 않아 몇 달을 고생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북에서 남하한 종주깨 만신집으로 찾아가 신이 지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할머니들이 시키는 대로 신당에 절을 올리고 집에 돌아와 밥을 짓다가 꾼 꿈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었다. 꿈속에서 이선비는 절벽 같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노란 꽃, 빨간 꽃, 흰 꽃이 가득한 곳에서 예쁜 꽃을 하나도 다치지 않고 뽑아 산 아래로 내려왔다. 그러고는 산아래 굿하는 곳을 찾아가니 굿하던 무당이 감홍복색을 입혀 주면서 동쪽으로 향하여 신내림을 받으라고 하여 시키는 대로 행동했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서 깨고 난 며칠 후 아픈 데 하나 없이 말끔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당이 되는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다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새우젓 장사를 하며 열심히 지내다가 이듬해 음력 2월에 갑자기 몸이 비틀어져 넘어가면서 영험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하는 수 없이 황해도에서 내려온 유씨(돌깨 만신)에게 음력 삼월삼짇날 내림굿을 받았다. 그러나 본격적인 무업의 학습을 해야 할 시기에 신어머니 유씨는 한 달만에 돌아가셨다. 신어머니 없이 무업을 지속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 큰무당을 찾아다니면서 굿을 배우려고 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저 발로 뛰면서 열심히 귀동냥으로 배우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1987년부터 신어머니 유씨와 신동기간인 장보배를 신어머니처럼 모시면서 소놀음굿까지 전승받게 되었다.

장보배는 황해도 평산 출신으로 평산에서 신이 내려 무업을 하던 무당이었다. 결혼을 한 후 21세에 갑자기 신이 내려서 활동하게 되었다. 특히 병굿을 잘 하는 사람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남하하여 강화군 교동면에 자리를 잡아 황해도 해주 출신의 오씨를 신어머니로 모시고 무업을 하면서 점차 터를 잡아가게 되었다. 이선비는 황해도평산소놀음굿이 세상의 이목을 받고 민속경연대회에 출전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소놀음굿 문서를 물려받게 되었다. 길고 어려운 말이 많은 문서였지만 이선비는 열심히 연습해 마침내 장보배의 뒤를 이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받게 되었다.

이선비의 무계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선비는 어려서부터 그 태가 단단하고 멋졌기 때문에 이름까지 선비라고 짓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 자태가 굿을 할 때도 확연히 드러난다. 특히 이선비는 굿을 하면서 담뱃대를 등에 꽂고 긴 도포자락을 휘날리면서 삼현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 삼현춤이 매우 아름답다고 정평이 나 있다. 또한 40세 되던 해에 영종도에 병굿을 갔다가 갑자기 작두그네를 띄어서 타는 영험을 본 후부터 소놀음굿 정기발표회에서 작두거리에서 작두그네를 타면서 굿을 한다. 이 역시 이선비만의 특기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는 황해도 평산소놀음굿보존회를 통해 소



놀음굿을 전승하기 위해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다. 매년 5월에는 인천 수봉공원에서 소놀음굿 정기 발표회를 하고 있다.

참고문헌 황해도평산소놀음굿(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필자 김은희(金銀姬)

이어인년

분야 중요무형문화재 제9호 은산별신제 보유자.

내용 이어인년(李於仁連, 여, 예명 이언년)은 1894년에 충남 부여군 석성면 세습무당 집안에서 태어났다. 은산별신제의 상당굿과 하당굿을 주관하는 무당으로서 1986년 4월 6일 사망하기까지 평생 동안 굿판을 다니며 이름을 떨쳤다. 그녀의 어머니는 충남 일대에서 이름난 세습무당이었다. 이로 인해 이어인년은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따라 당골판을 다니며 굿일을 배웠다. 성장 후 은산 출신의 최씨 박수와 결혼하였고, 노년에는 아들과 며느리, 손녀(2명), 손자(1명)와 함께 살았다.

1966년 2월 14일 은산별신제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 이전에 생업을 위해 타지로 거주지를 옮긴 적도 있지만, 1960년대 초에 다시 고향 은산면 규암으로 돌아왔다. 유상렬 · 백남룡과 함께 1966년 2월 15일 은산별신제 보유자로 인정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24일 한국문화예술총연합회에서 문화공로상을 받았다.

은산별신제 상당굿과 하당굿을 주관하던 이어인년은 세습무녀로서 자신의 모든 기예를 둘째 손녀 최매순에게 전수하고자 각별히 정성을 쏟았다. 최매순 역시 할머니를 따라다니며 열심히 굿을 익힌 결과, 1975년 1월 20일 11세의 어린 나이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생으로 선정되었다. 이어서 1980년 12월 31일 이수자로 선정된 최매순은 은산별신제 무의식을 전승하면서 1979년 국악예술고등학교에 입학(판소리 전공)하여 학업을 마쳤다. 그러나 어린시절부터 굿판을 다니던 최매순은 10대 후반인 1980년 무렵 무업에 의욕을 잃기 시작하면서 1982년 은산별신제 대제에 불참하였다. 최매순은 고등학교 졸업 후 주변의 권유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하면서 비로소 1984년에 이어인년 · 한시우와 함께 은산별신제 대제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다가 1986년 이어인년이 별세하면서 가족들의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 최매순은 1992년 3월 이후 전승활동을 완전히 중단하였다. 이어인년이 작고하기 전까지 자신의 모든 무예능을 전수했던 손녀 최매순은 1994년에 31세의 젊은 나이로 병을 얻어 요절하였다.

최매순이 무업과 멀어지자 이어인년은 은산별신제 보존회원들의 권유를 받아들여 부여 은산면 홍산리 출신의 강신무녀 한시우를 제자로 들여 학습시켰지만 한시우의 기량에 만족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오늘날 은산별신제 보유자로 인정된 황남희가 은산별신제 무녀로 입문한 시기도 이 무렵이다. 한시우는 1980년 4월 1일 은산별신제에 입문하여 4년 뒤 전수생을 거쳐 1989년에 이수자로 선정되었다. 한시우는 이어인년이 숨지기 전 2년 남짓 이어인년으로부터 무학습을 하였고, 이후에는 황남희와 함께 은산별신제 대제에 참여하였다. 한시우는 1992년 은산별신제 전수교육조교 선정을 위한 추천 과정에서 후보자 자리를 황



이어인년
문화재청 소장

이선비
평산 소놀음굿 정기공연 | 2009.5.19 | 김은희

남희에게 내준 후 활동을 중단하고 상경하였다가 1995년에 병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어인년 작고 후 은산별신제 보유단체로서 보존회(1986년 11월 1일 보유단체 인정)가 발족되었다. 한시우는 활동을 중단하였다가 사망하였고, 이어인년의 무의식을 온전하게 학습받았다고 전해지는 손녀 최매순 역시 요절하자 황남희는 이어인년의 무가채록본과 비디오 자료를 통해 나름대로 무가와 굿을 정립하여야 했다. 황남희는 충남 서천 출생으로 부여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과 경기도 등지에서 살다 안성으로 출가하였다. 30세 무렵에 신을 받아 1973년부터 본격적으로 무업에 종사하였다. 1978년에 황남희는 부여 은산면 안저울에 있는 외가에 놀러갔다가 은산별신제 보존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보유자 차진용의 권유를 받아 1980년에 은산으로 이사했다. 그러나 1986년 7월 1일 전수생으로 선정되기 전까지 황남희는 이어인년으로부터 본격적인 무학습을 받지 못하였다. 1982년, 1984년 은산별신제 대제 때에도 두 차례 모두 이어인년의 굿을 관람하는 정도였다. 대제에 참석하지 못한 황남희는 이어인년의 사망과 최매순의 활동 저조로 한시우와 함께 1986년 3월 29일 처음으로 대제에 참여하였다. 1991년 7월 1일 이수자로 선정된 황남희는 1989년에 이수자가 된 한시우를 제치고 추천 받아 전수교육조교에 선정되었다. 황남희는 1998년 6월 5일 중요무형문화재 제9호 은산별신제 보유자로 인정되어 주무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일구와 함께 은산별신제 무의식을 전승하고 있다. 한편 이일구는 2001년 6월 27일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되고 1990년 3월 은산별신제에 처음 참여하였다.

참고문헌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8–은산별신제(문화재관리국, 1965).
무형문화재예능조사연구보고서 249–은산별신제(문화재관리국, 1997).
필자 황경순(黃慶順)

이정연

분야 평안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 성황대제 보유자.

내용 이정연의 본명은 이순희(李順喜, 여)이다. 1935년 출생하였으며 현재 서울 종로에 거주하고 있다. 2008년에 성황대제가 평안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자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이정연은 오늘날 정통 평안도굿을 전승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만신이다. 평안도 성황대제는 한국전쟁 때 월남한 이선호(일명 이춘옥)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선호는 월남하여 창덕궁(후원) 근처에 살았는데 사람들은 그녀를 대궐할머니라고 불렀다. 이선호는 1972년에 영변 성황대제를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출품하여 세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으며, 평안도굿의 대표적인 전승자로 알려졌다. 이선호는 사망 전까지의 성황대제 굿 문서를 그녀의 신딸 정대복에게 전승하였다. 2대 전승자인 정대복은 다시 이정연에게 전수한 후 사망하였다. 이정연은 평안도 성황대제의 족보 있는 대무당들 문하에서 학습한 후 이를 젊은 무녀들에게 전승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이정연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전승자로는 악사 이홍식(남), 송기영(남), 최승운(남), 무녀 송석란(여), 김옥춘(여), 방정옥(여), 박은자(여), 지영희(여), 김옥자(여) 등이 있다.

참고문헌 평북무형문화재 성황대제 조사보고서(양종승, 평안북도, 2007).
필자 양종승(梁鍾承)



이정연
서울 보현산신각 | 2006 | 양종승

이종순

분야 중요무형문화재 제82-다호 위도띠뱃놀이 악사 · 창 부문 전수자.

내용 이종순(李宗順, 남)은 1936년에 위도띠뱃놀이가 행해지고 있는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대리 마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인 이복용과 어머니 백순덕의 7남매 중 장남인 그는 위도초등학교와 법성중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18살 무렵에 남의 배 선원으로 고용되어 주로 멸치 잡는 일을 하였다.

이종순은 위도띠뱃놀이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아주 어릴 때이다. 이종순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마을에서 띠뱃놀이가 열리면 풍물패의 뒤를 따라다니며 원당에도 올라가 당굿을 지켜보기도 하고 해변가에서 행해지던 용왕굿을 구경하였다. 어린 시절에 그가 위도띠뱃놀이 굿판에 열심히 따라다닌 이유는 굿이 열리면 맛난 음식을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늘 배가 고프던 어린 시절에 이종순은 띠뱃놀이가 있는 날이면 떡을 비롯해 돼지고기와 과일 등을 맘껏 얻어먹을 수 있었다. 당시 배가 고파 위도띠뱃놀이에 참여하긴 했으나 굿판에서 들려오는 풍물가락과 노래 등이 무척 재밌고 흥미롭게 느껴졌다고 이종순은 술회했다. 이종순은 같은 또래 중에서도 유독 자신만이 띠뱃놀이에 관심을 기울여서 참여했다고 한다.

어린시절부터 위도띠뱃놀이를 접한 이종순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참여하였다. 평소 풍물장단에 맞춰 마을 어른들이 부르던 민요에 관심이 있던 그는 열 살이 되던 무렵에 양은냄비를 꽹과리 삼아 어른들이 부른 노래가사를 되새기며 배치기와 가래질 소리 등을 부르곤 하였다. 그러던 중에 평소 그의 재능을 눈여겨 본 같은 마을의 김문행(김종남의 아버지)이 어느 날 그를 집으로 불러 본격적으로 악기와 노래를 배워볼 생각이 없냐고 묻자 김종순은 흔쾌히 받아들여 체계적으로 꽹과리와 민요를 배우게 되었다. 그의 나이 12살 무렵이었다. 김문행은 대리 마을은 물론 위도 지역에서 상쇠로 유명하였다.

김문행의 강습은 수시로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먹고살기 힘든 시절에 남의 집에 찾아가 악기와 노래를 배우는 일은 당시 엄두도 낼 수 없기 때문이었다. 마을에서 굿이 있거나 위도띠뱃놀이가 있기 며칠 전에 찾아가 배우는 게 전부였다. 이종순은 스승 김문행에게 5년 동안 열심히 배우고 연습하여 기량이 늘어나면서 정식으로 위도띠뱃놀이에 악사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이종순은 띠뱃놀이 전 과정에 참여하여 제물도 준비하고 원당에 올라가 청소하는 등 여러 일을 하였다.



이종순
2002.2 | 서종원

이종순이 위도띠뱃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당시 위도띠뱃놀이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던 이효동 · 백형기 · 이복동 등이 그에게 악기와 소리 가락 등을 가르쳐 주었다. 특히 위도띠뱃놀이 초대 예능보유자인 이복동이 그에게 굿판에서 행해지던 축(祝)하는 방법을 알려줘 한동안 열심히 연습하여 기량을 갈고 닦았다. 그러나 이종순은 전막리 마을에 살고 있던 김상원이 기능보유자로 지정되면서 축 읽는 역할은 그만두고 상쇠와 제물을 준비하는 일을 전담하고 있다.

이종순은 위도띠뱃놀이에 60년 넘게 지속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자 위도띠뱃놀이의 산증인이다.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출전한 당시에는 상쇠로 참여하여 위도띠뱃놀이가 대통령상을 받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위도띠뱃놀이의 전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이종순은 꽹과리를 치며 부르는 술배와 배치기 소리는 위도 지역에서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기예능이 뛰어나다. 특히 띠배를 바다에 띄워 보낼 때 배에서 꽹과리를 치며 부르는 배치기 소리는 위도띠뱃놀이의 백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특기로 1992년 7월 1일에 악사 · 제관 부문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되고 2007년 7월 9일 중요무형문화재 제82-다호 위도띠뱃놀이 악사 · 창 부문 전수자로 지정되는 등 위도띠뱃놀이의 전승과 보존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

참고문헌 위도띠뱃놀이(김익두 외 3,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필자 서종원(徐鍾源)

이중춘

분야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3호 지정 큰굿의 전승보유자.

내용 이중춘(李中春, 남)은 1937년에 북제주군(현재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에서 출생하여 지금도 행원리에서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다. 특별한 별명이 없이 후배 심방들에게 의하여 '행원하르방', '행원삼춘' 등으로 불린다. 현재 양창보와 더불어 제주도를 대표하는 큰심방으로 통한다. 세습무 집안 출신으로 대를 이어 행원리의 매인심방을 맡고 있다. 멩두를 기준으로 하면 25대째 무업을 이어온 사례이다. 이중춘 집안은 무업을 시작한 지 그리 오래지 않았다. 그러나 외가는 오래된 심방집안이다. 어머니까지 24대에 이르는 외가의 멩두를 이어받았다. 이중춘은 25대에 이르는 오랜 내력의 멩두를 지니고 있는 셈이다. 4남 1녀를 두었으나 자식들은 무업을 하지 않고 있다.

이중춘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따라다니며 굿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다. 그러나 무업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녔다. 중학교를 다니다가 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쳤다.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여서 주위에서 무업을 하라고 권유하였다. 크게 화를 내며 거부하였으나 몸이 아파 무엇을 해도 낫지 않았다. 점을 치니 심방이 되어야 나을 병이라고 하였다. 할 수 없이 무업에 나섰더니 병이 말끔하게 나았다. 그 뒤에도 몇 번이고 무업을 그만두려고 하였다. 술자리에서 친구들이 무시하는 듯한 말투에 술판을 뒤엎고, 집으로 가서는 무구를 다 부수고 다시는 굿하러 다니지 않겠다고 하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본향당의 무신도를 불태우기까지 하였다. 그러자 다시 몸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 다시 굿을 하러 다녔더니 이번에도 씻은 듯이 병이 나았다. 그래도 무업을 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 그 뒤에도 장사를 해서 무업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그러나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지 않았다. 결국 조상을 모셔야 하는 운명임을 깨닫고 본격적으로 무업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어머니로부터 본향당의 매인심방과 무구를 물려받았다. 화북동 무계 집안의 홍씨와 혼인하여 안정도 찾았다. 이후 문서를 두루 갖추게 되자 큰심방으로 인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중춘은 모든 굿에 능하다. 그의 장기는 의례의 특성을 제대로 알고 그에 맞게 제차를 짜나가는 법을 안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의 학습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얻어진 성과이기도 하다. 이중춘은 젊은 시절에도 큰심방들과 어울려 굿을 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거리낌없이 말하는 사람이었다. 이러한 성격 덕택에 여러 심방이 굿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일 없이 굿의 질서와 체계를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중춘은 제자를 제대로 길러낸 것으로도 유



이중춘
강정식

명하다.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서순실 심방이 바로 이중춘의 제자이다. 이중춘은 제주도굿의 제차인 '굿ᄃᆞ리'를 정연하게 이해하고 바르게 실행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중춘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큰굿의 전승보유자이자 영감놀이의 전승보유자이다. 큰굿자료집(제주도 · 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1), 동복정병춘댁시왕맞이(강정식 외,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2008)에 그의 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참고문헌 제주도무속연구(현용준, 집문당, 1986).
필자 강정식(姜晶植)

인물개(人物蓋)

정의 황해도굿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형상화한 무속신을 묘사한 개(蓋)의 총칭. 무속신이 하강할 때 해 · 달 · 비 · 바람 등을 가려주는 가리개를 상징화한 무구로서 황해도 무속 의례 시에 굿청에 장식된다. 특히 만구대탁굿 혹은 만수대탁굿 등의 큰굿에 장식된다.

형태 개는 제작자에 따라 외형이 약간씩 다르지만, 그 기본틀의 개수에 따라 크게 2가지 양상으로 나누어진다. 개는 나무를 깎아 한 아름 정도의 둥그런 틀을 만든 것이 기본 틀인데, 그 통의 개수에 따라, 일층개와 이층개로 구분된다. 일층개는 원형의 통 하나를 기본 틀로 사용하고, 이층개는 원형의 통 두 개를 기본 틀로 사용한다. 일층개는 둥근 틀 주변으로 띠처럼 종이나 천을 두른 뒤에 그 위에 장식을 한다. 그리고 아래쪽에 한지를 늘어뜨려 붙인다. 이층개는 한 아름 정도의 둥그런 틀 두개를 위아래로 연결하고 이 원형통을 기본 틀로 하여, 통의 면이 보이지 않게 그 겉면에 한지나 천을 늘어뜨린다.

개에 그림을 그려 넣는 경우는 한지나 천에 각각의 상징하는 신의 모습을 묘사하며 여기에 장식물을 추가할 때는 그 위에 덧씌우는 방식을 취한다. 그림과 그림 사이사이에 오색을 나란히 덧붙인 천이나 종이를 장식한다. 인물개의 경우 인물그림-오색장식-인물그림-오색장식으로 반복되는 형식이다. 지전을 상징화하여 동전 문양을 일정하게 오린 보화개의 일종인 돈개의 경우, 직사각형으로 자른 천이나 종이를 틀의 전면에 붙이거나 인물개처럼 동전문양→오색장식→동전문양→오색장식이 반복되는 형식이다. 보화개 중 그 틀이 일층인 경우는 여러 색상의 천이나 종이를 직사각형으로 잘라 틀 아래로 길게 늘어뜨린다. 그림과 장식을 덧붙인 개가 이층개라면 그 틀의 상단부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종이나 천을 잘라 술처럼 덧붙이고, 개의 가운데 부분에 천이나 종이띠를 두른다.

이렇게 완성된 개는 대체로 야외에 마련된 굿청 중앙에 설치된 만장발이나 천정에 매달거나 해당 신의 제물상 위에 설치한다. 황해도 무당은 이것을 '띄운다'라고 표현한다. 개는 원래 일회용으로 제작되었으나 근래에는 제작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제작하는 시간이 꽤나 소요되기 때문에 천으로 만들어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부 만신은 개의 제작비용이 워낙 비싸, 보관을 위해 씌워 놓은 비닐을 벗기지 않고, 그대로 의례에 사용하여 이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재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물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지름 52.7cm, 너비 15cm |
1950년대

내용 개는 양산[日傘]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며 불교의 법구(法具)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의장용구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불교의 법구는 천개, 산개, 보개, 화개, 닫집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이것은 대웅전에 불상 위에 지붕 형태를 갖추는 등으로 변화하였는데, 그 의미는 개와 동일하다. 『고려도경(高麗圖經)』,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세종실록(世宗實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개에 대한 기록이 있다. 『고려도경』에 의하면 왕실에서 의장구로 사용되었는데, 그 종류로는 곡개(曲蓋), 청개(青蓋), 홍개(紅蓋), 화개(華蓋) 등이 있다. 무속에서의 개는 일산과 달리 손잡이가 없고 가로폭이 넓지 않은 기다란 원통형 양산에 가까우며 손잡이는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개는 굿청에 장식해 두는 것만으로도 존재가치를 지니는 장엄구(莊嚴具)의 기능을 한다. 이를 그 외형과 기능에 따라 또 다시 유형을 세분화할 수 있다. 그 종류가 가장 많은 인물개 외에 유형별로 명칭부여가 가능한 것으로 자연물개, 보화개, 액막이개가 있다. 무속신을 인격화하여 묘사한 인물개에는 제석개(祭席蓋), 칠성개(七星蓋), 장군개(將軍蓋), 시왕개[十王蓋], 사천왕개(四天王蓋), 동자(童子) · 애기씨개, 선녀개(仙女蓋), 용왕개(龍王蓋) 등이 있다. 제석과 칠성은 장삼과 고깔을 착용한 모습으로 장군은 전투시 무관이 착용하는 장군복을 착용한 모습이다. 시왕개는 공복(公服)에 관모를 착용한 모습이다. 사천왕 또한 장군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동자는 쾌자와 복건을, 애기씨는 치마저고리를 착용한 모습으로 형상화한다. 선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선녀복을 착용하고 손에는 선녀부채를 든 모습으로 가시화된다. 용왕은 면류관을 쓴 왕의 모습으로 묘사되며 그 발 아래에는 파도문양을 그려 넣는다. 인물개 중에서 시왕개는 탑돌이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살아생전에 이것을 열두 번을 돌면 죽은 후 생전의 죄를 사하고 죽은 후 좋은 곳으로 간다는 믿음으로 인해, 만구대탁굿 시 연로한 단골들이 시왕개를 돌기도 한다.

자연물개는 천신과 자연신 중 일부 신을 그 특성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다. 천신으로는 일월신을 해와 달로 묘사한 일월개(日月蓋)가 해당된다. 자연물로는 개의 둘레에 새를 묘사한 청천개(青天蓋)가 있다. 이는 성수장군님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보화개(寶貨蓋)의 종류로는 보화개와 돈개가 있다. 보화개는 신을 위한 예단을 오색천으로 길게 늘어뜨린 것을 말하며, 돈개는 천도굿에서 굿청에 걸리는 지전의 모습과 동일하게 형상화 한 것이다. 신에게 바치는 일종의 보물인 셈이다. 돈개[錢蓋]는 황색으로 만든 금개와 은색으로 만든 은개 두 종류가 있다. 이것은 금은보화를 상징하며 부귀영화를 염원해 준다고 믿어진다. 액막이개로는 송송개(送送蓋)가 있는데 특정한 그림이나 문양을 넣지 않고 흰색으로만 구성된다. 모든 신령인 성수를 위한 것으로 굿청에 유입된 좋지 못한 액운을 돌려보내는 기능을 한다.

인물개와 자연물개는 신의 성격에 따라 외형이 묘사되었다는 점에서 신격을 구분하는 기능을 한다. 보화개는 부를 기원하는 동시에 신에게 바치는 예단으로서 기능한다. 액막이개는 액운을 돌려보낸다는 점에서 굿청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개는 무속의 신관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속의 신은 천신, 자연신, 인격신, 잡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무속에서는 천신과 자연신 중 중요한 신격은 무신도에 모두 인격화된 모습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데, 인물개는 황해도 무속에서 중요시 여기는 신격의 존재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 제석 · 칠성 · 장군 · 선녀 · 시왕 · 사천왕 · 동자 · 애기씨 등이 인물개로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이들 신격의 중요도를 반영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월신개는 무신도나 무구에서는 인격화되어 묘사하는 것과 달리 개는 해와 달 모습이 그대로 묘사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의장구와 불교의 법구에서 유래된 개는 그 형태상에 있어서는 변형이 있었을지라도, 그 기능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즉 궁중에서 왕과 왕족을 위한 의장구로

사용되고,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머리 위에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무속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신격을 비, 바람, 햇빛 등으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믿어지는 상징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인물개는 만장발과 함께 굿청의 상단에 설치되고 해당 신을 위한 제물상이나 해당 신이 초대될 공간에 장식된다는 점에서 굿청의 공간을 구획해 주는 경계구(境界具)의 기능을 한다. 따라서 개를 통해 제물상의 주신과 어떠한 신이 특정한 공간에 초대될 지를 짐작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신의 하강 시와 굿청 좌정 시 자연현상을 피하게 하는 가리개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특정한 신을 상징하는 각각의 개 아래에 해당 신이 좌정되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것은 황해도 무속에만 나타나며 황해도 무속의 물질문화에 대한 특성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무구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高麗圖經, 國朝五禮儀, 世宗實錄, 增補文獻備考, 큰무당 우옥주 유품(국립민속박물관, 1995), 한국의 무속-서울 · 황해도편(국립민속박물관, 1999), 한국의 굿(하효길 외, 민속원, 2002), 황해도 굿에 쓰이는 종이 신화와 신구의 종류, 형식, 상징성 고찰(양종승, 한국무속학 13, 한국무속학회, 2007).
필자 최진아(崔眞娥)





인왕산 국사당
정수미

인왕산 국사당(仁王山 國師堂)

정의 조선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 및 여러 호신신장(護身神將)을 모시고 있는 당. 특히 무학대사를 모시는 데에서 '국사당(國師堂)'이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한다. 이 당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毋岳洞) 산 2-12에 위치한 무속신당(巫俗神堂)으로, 1973년 7월 16일에 '중요민속자료 제28호'로 지정되었다. 현 소유자는 김명권이다.

형태 1925년경에 새로 지워진 국사당은 영 · 정조 때의 건축기법을 바탕으로 전면 3칸, 측면 2칸의 한옥 1동에 맞배지붕 형식이다. 용마루 양끝에는 온전한 취두(鷲頭)가 올려져 있고, 내부의 대들보는 아치형이다. 내부 넓이는 모두 36㎡이며, 바닥은 마루이다. 마루 좌우에 있는 온돌방은 나중에 만들어졌다. 마루 전면과 좌우 일부에는 무신도(巫神圖)가 걸려 있고, 무신도 앞에는 제상이 있다. 마루는 굿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제당의 구조로서는 큰 편이다. 문살문의 새김 등과 같은 부분에서는 세련미가 보이고, 대들보나 서까래 등은 튼튼하게 지워졌다. 건물 정문에는 국사당 현판이 걸려 있으며, 문은 푸른색으로 칠하고 지붕 서까래와 처마에는 단청을 입혔다.

기단(基壇)은 인왕산 허리의 선바위 밑 자연암석 위에 조성하였기 때문에 지하 기초는 없다. 다만 석재와 토사를 매축하여 평탄하게 고르고 방석(方石)이나 단단한 돌을 쌓아 높이 약 1ㄹ의 전단(前壇)과 동단(東壇)을 조성하였다.

역사 원래 이 당은 남산 꼭대기인 팔각정 자리에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태조 5년(1396)에 남산을 목멱대왕(木覓大王)으로 봉하고 태종 4년(1404)에 호국신으로 삼았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목멱신사(木覓神祠)라고도 불렀다. 헌종대(憲宗代 · 1834~1849) 이규경(李圭景, 1788~1856)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도 '경성목멱산(京城木覓山) 잠두봉지국사당음사(蠶頭峯之國師堂淫祠)…'라는 기록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 후 국사당은 1925년 일본인들이 남산에 조선신궁(朝鮮神宮)을 지으면서 이전을 강요하여 현재의 위치로 원형 복원한 것이다.

내용 국사당 내부 벽면에는 비단 바탕에 채색한 무신도 21점과 명두(明斗) 7점이 있다. 무신도는 1970년 3월 24일 중요민속자료 제17호로 지정되었으며, 명두 역시 중요민속자료 제17-18호로 지정되었다. 무신도는 태조(太祖) 3점, 강씨 부인(康氏婦人) 1점, 호귀(胡鬼) 아씨 1점, 용왕대신(龍王大神) 1점, 산신(山神) 1점, 창부씨 1점, 신장 1점, 무학대사 1점, 곽곽선생 1점, 단군 1점, 삼불제석(三佛帝釋) 1점, 혜근(惠勤) 1점, 칠성 1점, 군웅대신(軍雄大神) 3점, 금성님 1점, 명성황후 1점, 최영 장군 1점 등이다.

국사당 주위에는 기자암(祈子岩)으로 이름난 선(禪)바위와 암자가 여러 채 있어 무속 신앙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참배객은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방에서도 찾아온다. 정월에 가장 많이 찾는다.

참고문헌 한국민속대사전 1(민족문화사, 1991), 사진으로 보는 민속의 어제와 오늘 1(국립민속박물관, 2003), 문화재청(http:www.cha.go.kr).
필자 정연학(鄭然鶴)

일뤠또본풀이

정의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에 있는 '웃당'의 본향당신에 관한 본풀이. 웃당은 '일렛당' '일뢰당' '서당'이라고도 하므로 이 신에 관한 본풀이를 '일뤠또본풀이'라고 한다.

내용 토산리에는 당이 두 개 있는데 위쪽에 있는 것이 웃당, 즉 일렛당이고, 아래쪽에 있는 것이 알당, 즉 여드레당이다. 일뤠또라는 말에서 '일뤠'는 '7(七)'의 방언이며, '또'는 '신'을 뜻한다. '일렛당'은 그 제일(祭日)이 매월 7 · 17 · 27일인 데서 유래된 것이며, '여드레당'은 그 제일이 매월 8 · 18 · 28일인 데서 명명된 것이다. 웃당의 일뤠또는 일레또, 일렛도, 일레한집, 일레할망 등으로 불린다. 서당이라는 당명을 따서 서당할망 또는 서당팟, 서당일뤠, 서당일뢰라 부르기도 한다. 토산리에서 알당은 나주 금성산과 관련된 뱀신[蛇神]에 관한 신화가 전승되는 반면 웃당의 신에 관한 본풀이는 그 내용이 전혀 다르다.

〈일뤠또본풀이〉는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진성기), 『제주도무속과 서사무가』(장주근) 등에 그 내용이 소개돼 있다. 줄거리는 대체로 같으나 신의 명칭 등 부분적으로 약간 다른 내용도 있다. 『제주도무속자료사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줄거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웃손(송)당 금백주와 알손(송)당의 소로소천국 사이에서 낳은 일곱째 아들(『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에는 일곱째 아들이란 말은 없고, 그 이름이 바람웃또(바람운님)로 나온다)이 부모에게 불효한 죄로 무쇠석함에 넣어져 동해에 버려진다. 상자가 떠다니다가 동해용왕국의 무우나무(산호수) 상가지에 걸린다. 용왕이 큰딸에게 나가 보고 오라 하니 아무것도 없다 고 말했고 둘째 딸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막내딸에게 나가보라 하니 이 딸은 "웬일로 무우나무 상가지에 무쇠석함이 걸려 있다"고 한다. 용왕이 큰딸에게 가서 내리라 하니 큰딸은 내리지 못했고 둘째딸도 역시 내리지 못했다. 결국 막내딸이 이를 내렸다. 용왕이 다시 큰딸에게 상자를 열어보라 하자 역시 큰딸과 둘째 딸은 열지 못했다. 그러나 막내딸이 열려고 하니 수많은 자물쇠청이 있는 자물쇠가 저절로 열렸다. 상자 안에는 한 옥동자가 있어 귀신인가 생인인가를 물으니, 자기는 알손당 소로소천국 일곱째 아들로 대국천자나라에서 변란이 났다 하여 그것을 막고 오는 길이라 하였다. 용왕이 그에게 큰딸 방으로 들라 하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둘째 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막내딸 방으로 들라 하니 그는 서른여덟 잇바디를 크게 벌려 웃으며 들어갔다.

일곱째 아들이 용왕의 사위가 되어 식사를 하

는데 하도 많이 먹어 용왕국의 창고가 비자 용왕은 막내딸을 불러 "너로 하여금 생긴 시름이니 빨리 남편을 따라서 알손당으로 가라"고 하였다. 막내딸이 남편과 함께 알손당으로 오니 느진덕정하님(하녀)이 그의 상전에게 죽으라고 버린 아기가 살아 돌아온다고 알렸다. 아버지는 이를 듣고 놀라 달아나다 정쌀에 눈이 걸려 죽고 어머니는 눈에 콩깍지가 들어 비틀거렸으나 며느리가 용왕국에서 청푼체(부채)를 가져다 부쳐주니 눈앓이가 나았다. 어머니는 며느리를 보고 재주가 좋다고 하며 토산의 메뚜기마루에서 마흔여덟 상단골을 맺어 살라 하였다. 남편은 오백장군 말잣딸아기를 첩으로 들여놓고 영주산을 오르내리며 살았는데 임신한 용왕의 막내딸이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오지 않자 그를 만나고자 한라 영주산 콩불릴목을 지나 교래리 송당으로 올라온다. 큰부인이 가는 도중에 난데없이 목이 말라 돼지 발자국에 괸 물을 빨아먹다가 돼지털이 코를 찔러 이를 불에 태우니, 돼지고기를 먹은 듯 그을음 냄새가 났다. 부인은 남편을 만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나중에 남편은 부인을 보고 어쩐 일로 난데없이 부정이 많다 하며 그녀를 마으렛섬(마라도)으로 귀양 보낸다.

오백장군 말잣딸아기가 남편을 보고 큰부인이 어디를 갔느냐고 물으니 남편은 마라도로 귀양을 보냈다고 한다. 말잣딸아기가 대국의 대부인을 하찮은 일로 귀양을 보내면 소국의 소부인은 어찌하겠느냐며 아직 정이 덜 든 자기가 떠나겠다고 하니, 남편은 그러면 큰부인의 귀양을 풀고 그녀를 데리고 와 같이 살자고 한다. 첩이 마라도로 가보니 큰부인이 일곱 아기를 낳은 터라 작은부인이 함께 돌아가자고 했다. 큰부인은 첩을 보고 "나의 죄목을 풀려면 업게 일곱, 기저귀 일곱, 산파 일곱을 모두 차려 오라"고 했다. 첩이 집으로 돌아와 업게 일곱, 기저귀도 일곱, 산파도 일곱을 가지고 대정 마으렛섬으로 들어가니 큰부인이 첩을 보고 "너는 일곱 아기와 위로 먼저 가라"고 했다. 그리고 자신은 아기를 낳느라고 속이 비어 바닷가로 가면서 개보말(바닷가의 고동)이나 주워 먹으며 가겠다고 했다. 첩이 일곱 아기와 업게를 거느리고 오는 도중 한 아기가 상동낭 가지에 걸려 떨어져 사라졌다. 나중에 큰부인이 보니 아기 하나가 없어 작은부인에게 화를 내자, 작은부인은 다시 온 길을 더듬어 가서 상동낭 가지에 걸려 떨어져 있는 아기 하나를 발견했다. [큰부인이 띠밭에 누워 둥그러져 버리니 몸에 온갖 옴이 생기고 까마귀가 아기씨 눈 하나를 후비어 갔다. 이 신은 몸에 물비리(옴의 일종)도 주고 당비리(옴의 일종)도 주며 허벅지에는 종기도 주고 눈에는 안질을 불러 주는 신이다.]

이상이 『제주도무속자료사전』에 있는 〈일뤠또본풀이〉인데, 다른 두 자료집을 참조하면 [ ] 부분은 아기가 땅에 누워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기가 새풀 그루터기에 몸이 많이 상해 있고, 새들이 눈과 코를 쪼아 흉하게 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피부병도 앓고 있어 첩이 아기를 데리고 와 일곱 아기를 모두 잘 키워 장성시키고 큰부인과 함께 토산한집 서편 일레한집의 당신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에는 다른 두 편의 자료에는 없는 다음의 내용도 들어 있다. 일곱째 아들이 부인을 마라도로 귀양 보내고 혼자 부모를 만나러 갔다. 부모는 일곱 살에 죽으라고 바다에 버린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을 보고 놀라 도망가다가 죽는다. 이를 모르는 일곱째 아들은 큰형님 보고 부모가 있는 곳을 묻는데, 큰형이 모른다고 하자 "큰형님이 되어 가지고 부모 간 곳을 모르니 무정하다"고 하면서 큰형은 거무문국성으로, 둘째는 대정 광정당으로, 셋째는 정의 시선당으로, 넷째는 성안 내왓당으로, 다섯째는 김녕 괴노기당으로, 여섯째는 개ᄆᆞ리 멍둥이 고비금상 상오님으로 들어서라고 한다. 그리고 자기는 토산 서편 일레한집으로 들어 살겠다고 한다.

의의 〈일뤠또본풀이〉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 있는 송당 본향당신인 백주또와 그의 남편인 소로소천국이 버린 일곱째 아들이 용왕국 막내딸과 결혼하고 육지로 돌아와 신으로 좌정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일뤠또본풀이〉뿐 아니라 〈송당본풀이〉나 〈궤눼깃당본풀이〉와도 관련되어 전승되고 있다. 〈일뤠또본풀이〉는 이러한 공통적인 줄거리와 함께 용왕국의 딸이 돼지털을 불살라 먹고 마라도로 귀양 가는 내용, 아들 일곱 형제를 낳고 작은부인인 첩과 함께 일렛당신이 된다는 내용이 덧붙여 있다. 여기에서 용왕국 막내딸은 아들을 일곱이나 낳는 다산과 풍요의 여신이며 용왕국의 딸이기에 바닷가에서 개보말 등을 먹는 신으로 등장한다. 반면에 첩은 아기들을 잘 보호하고 키워 내는 것으로 보아 아기들의 수호신이라 할 수 있다.

일렛당신은 용왕의 딸인 큰부인과 오백장군 말잣딸아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기를 포함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안질이나 피부병, 즉 옴이나 습진, 허물 등과 같은 병이 생기는 것을 막고 보호해 주는 신이다. 아기들이 이러한 병을 앓게 된 유래는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작은부인이 잃어버린 아기가 이와 같은 피부병을 앓은 데서 유래하며 사람들은 아기들이 이와 같은 병을 앓게 되면 일렛당신에게 해산물을 바치면서 빌면 아기가 낫는다고 생각하여 이와 같은 일을 해왔다. 토산리는 해안가 마을이기에 습기로 인하여 여러 가지 피부병이 만연할 수 있다. 〈일뤠또본풀이〉는 토산리의 이와 같은 자연환경을 반영하여 여러 가지 질병을 치유하고자 형성된 신화라 할 수 있다.

일렛당이란 그 제일이 매월 7 · 17 · 27일인 것에서 유래한 것이다. 따라서 그 신명도 '일렛또' '일레할망'이라 한다. 또 본풀이의 이름이 '일뤠또본풀이'인 것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일곱'과 연결 지어 설명하는 것이 많다. 남자 주인공 신은 여신인 백주또와 남신인 소천국의 일곱째 아들이며, 그가 열다섯 살이 되었을 때 바다에 버려진다는 자료도 있으나 어떤 자료는 그가 일곱 살이 되었을 때 바다에 버려진다는 것도 있다. 또 용왕국 막내딸이 낳는 아기의 수도 아들 일곱 형제이다. 신화 내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일곱이란 숫자는 이 당의 이름이 일렛당인 것과 더불어 본향당신의 이름이 일레또(일뤠또)인 것도 합리화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당의 제일이 7 · 17 · 27일인 것도 합리화한다.

제주도에서 제일이 7 · 17 · 27일로 되어 있는 일렛당은 거의 전도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많은데, 조사된 것만도 90여 곳이라 한다. 이러한 일렛당은 본풀이 면에서 보면 토산(兎山) 일렛당 계열, 서귀읍 호근리 일렛당 계열, 그리고 안덕면 하예리 일렛당 계열로 나눌 수 있다. 일렛당의 신은 대개 여신이 많고, 육아(育兒)의 효험과 유아(幼兒)의 경증 · 경세 · 어질 · 복통 등의 치병, 그리고 허물 · 옴 등 피부병과 관련된 당이 많으며 그런 까닭에 이 신을 허물할망이라 부르기도 한다.

구좌읍 송당은 제주도에서 신들의 뿌리가 되는 곳이다. 〈송당본풀이〉를 참조하면 웃송당의 백주할망과 알송당의 소로소천국은 부부였다.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18명, 딸이 28명, 손자 · 손녀가 78명, 그 일가 친족이 378명이며 이들은 제주섬 각 처에 당신으로 좌정해 있다고 한다. 딸 28명은 어느 마을에 좌정하게 되었는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으나 아들들은 대체로 분명하게 나타난다. 토산리 웃당의 일레한집은 백주또와 소천국의 일곱째 아들 혹은 열일곱째 아들이라는 자료가 있으며 〈일뤠또본풀이〉에서는 일곱째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고 있다. 이러한 신들의 계보는 당(堂)이 가지를 치면서 형성된 것으로 이러한 본향당이 있는 마을의 형성 및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

참고문헌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진성기, 민속원, 1991),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장주근, 역락, 2001), 신화의 땅 제주에서 토산을 만나다(오성자, 여름언덕, 2006), 제주도 당신앙 연구(문무병,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제주도 당본풀이의 유형과 변천 양상 연구(정진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강정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2).

필자 이수자(李秀子)

일산동당제(日山洞堂祭)

정의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에서 동해안 지역 세습무(世襲巫)에 의해 3년마다 거행되는 별신굿. 이 굿은 2003년 4월 24일에 '일산동당제(별신굿)'라는 명칭으로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었다.

역사 일산동당제는 울산 지역의 대표적인 별신굿으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200년

이상 전승되고 있다고 한다.

내용 일산동에서는 매년 정월 보름에는 당신(堂神)에게 제물을 진설하고 유교식의 제를 지낸다. 별신굿은 2년마다 음력 10월 초하루부터 약 4일간 연행된다. 음력 10월 초하루 자시(子時)에 유교식으로 신당(神堂)에서 제주와 마을 임원들이 제를 먼저 지낸 다음 장소를 옮겨 무당이 주재하는 별신굿을 한다.

첫날의 유교식 제의는 제주가 제물 등을 모두 준비하고 제관 역할도 한다. 제주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교체하지 않는다. 다른 마을과 같이 제주는 제일이 다가오면 제물 준비를 하고, 찬물에 목욕하고, 부부간의 잠자리도 삼가며, 부정한 일을 하지 않는 등의 금기를 지킨다.

일산동별신굿의 경비는 일산동 어촌계가 주로 부담하고, 마을 주민과 외지의 마을 출신 인사들이 기부한 금액으로 경비를 조달한다. 별신굿의 목적이 주로 풍어이기 때문이다.

무당이 담당하는 별신굿은 사정에 따라 다르다. 대체로 22~24개의 굿거리로 구성되며, 각 굿거리는 무녀가 주재한다. 남자무당인 양중들은 무악을 연주하거나 무극(巫劇)인 곤반에 참여한다. 잽이들의 무악 반주악기는 주로 장구, 꽹과리, 징, 바라 등이 사용된다. 동해안 지역 별신굿에서는 장구가 가장 기본적인 악기이다.

굿당은 바닷가 모래사장 위에 천막을 치고 설치된다. 제물을 진설하기 위해 만든 제물대는 후면이 바다에 접하도록 설치한다. 제물은 제물대의 오른쪽 아랫부분부터 시루떡 시루, 중앙 위쪽 좌우와 중앙에 지화(紙花), 그 사이에 소주와 밀가루로 만든 용 및 쇠머리가 위치한다. 중앙 아래쪽에는 생선, 밤, 대추, 엿, 과일, 전이 진설된다. 제물대 정면 앞에는 돗자리 한 장을 깔고 그 위에 촛대 2개, 술잔 2개, 향합을 놓은 상을 차려 놓는다. 제물대의 사방 나무기둥 가운데 정면 쪽으로 두 개의 기둥에는 신대와 장식용 깃발을 각각 묶어 놓는다. 장식용 깃발은 큰 대나무의 꼭대기에 태극기를 달고 그 아래 흑애둥을 단다.

경상도 지방에서는 마을의 수호신을 골맥이, 골매기신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그 신이 남자인 때에는 골맥이 할배, 여자인 때에는 골맥이 할매가 된다. 일산동의 신은 골맥이 할배와 골맥이 할매가 모두 좌정해 있다. 이들은 부부신이며 입향시조이다. 그런데 부부신은 한 쌍의 부부가 아니라 할아버지 한 명에 할머니가 둘인 것이 특징이다.

현재 신당에 모셔진 골맥이신은 입향시조 부부신이고, 그 후 혼자 사는 할머니가 이 마을에 들어와 현재의 아랫당 자리에 집을 짓고 살게 되었다. 할머니가 나중에 입향시조 할아버지의 작은 부인이 되었기 때문에 세 신을 다 모신다고 한다. 이 세 신의 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랫당은 신당이 따로 없고 제물도 웃당과 다르게 준비한다.

유교식 제를 지내기 위해 제주는 며칠 전부터 제물을 준비한다. 제물은 떡, 생선, 과일, 삶은 쇠머리, 엿 등이다. 밀가루로 만든 용이 제물로서 특징이다. 엿을 제물로 쓰는 이유는 미역이 줄이나 바위에서 잘 떨어지지 않고 잘 자라게 하도록 해달라는 뜻이다. 밀가루로 만든 용을 제상에 올리는 것은 이 마을이 해변에 있으며, 바다와 관련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물과 관련 있는 용을 제물로 올린다. 용은 40cm 정도 길이로 밀가루로 빚어서 쟁반에 올리고, 쟁반째 솥에 넣고 찐 것을 사용한다. 입은 대추로 만들고, 눈은 붉은 콩을 박아서 만든다.

자정이 가까워지면 제물과 제문을 준비하여 제당으로 향한다. 제주는 흰 두루마기를 입고 제물을 리어카에 실어 신당에 오른다. 신당 입구에는 대나무 가지 세 자루가 왼새끼와 함께 드리워져 있다. 신당은 5㎡ 정도 되는 1칸 기와집이다. 제주가 신당 주위를 청소한 후 깨끗한 물에 손을 씻고 신당 문을 열면 제주 부인이 물 한 바가지를 들고 신당 주위에 뿌리며 부정치기를 한다.

신당에서는 제주와 어촌계장이 제를 지낸다. 제주가 제물의 진설을 마친 다음 재배 후 어촌계장이 축문을 읽고 다시 재배한다. 정화수를 신단에 올린 후 재배하고, 소지를 올리면 제가 끝난다. 음복을 한 후 제물을 물리고, 일부를 따로 상에 담아 신당 바깥쪽을 향해 차려 놓고 간단한 거리물림을 한다.

신당에서 제주와 어촌계장이 제를 올리기 시작하면 마을 임원 두 사람이 또 다른 제물을 소쿠리에 담아 신단 뒤쪽에 위치한 아랫당에서 같은 형식으로 제를 지낸다.

별신굿을 진행할 무당은 굿 하루 전인 음력 9월 그믐 오후에 마을에 도착한다. 굿당은 해변가에 마련되며, 무당들은 숙소에서 굿당을 장식할 흑애등·지화·용선(龍船) 등을 만든다. 마을 책임자와 굿의 책임자인 당주무당은 굿거리에 대한 절차와 기타 내용들을 협의한다.

음력 10월 초하루 아침 해가 뜰 시간에 일월거리를 시작으로 별신굿은 시작된다. 그후 무당과 마을 임원들은 제주의 집으로 가서 부정굿을 한 뒤 신당에 오른다. 신당에서는 골맥이신에게 굿의 거행을 고하고 신을 내림대에 내린다. 신당에서 신을 모신 후 아랫당으로 이동하여 간단한 선고를 한 후 신을 모시고 굿당으로 돌아온다.

본격적인 굿은 골맥이신을 신당으로 모셔와 그 신대를 제물대에 묶어둔 후 시작된다. 굿은 일월거리, 가망거리, 세존거리, 군웅거리, 제석거리, 내천왕거리, 산신거리, 조상거리, 손님거리(손님네 말치레놀이), 대왕거리, 부인거리, 소가망거리, 성조거리, 황제거리, 내삼황세존거리(중도둑잡이놀이), 맹인거리(맹인놀이), 용왕거리, 우천왕거리(도리강관놀이), 장수거리, 걸립거리, 월래거리(뱃고사), 대거리 등 순서로 진행된다. 상황에 따라 굿거리 수는 조정되거나 순서가 바뀌기도 한다. 이 중에서 손님네 말치레놀이, 중도둑잡이놀이, 맹인놀이, 도리강관놀이, 대거리는 양중들이 주로 참여하는 무극이다. 이들 무극은 독립된 굿거리로 인정하면 굿거리 수가 더 늘어나며, 이러한 굿거리 이외에 마을 주민과 무당들이 어울려 노는 놀음굿이라는 즉흥적인 굿거리가 수시로 첨가되기도 한다.

일산동별신굿을 주재하는 무집단은 동해안 일원의 세습무 중 대표적인 무가계인 김석출 무가계이다. 김석출 무가계는 김천득(조부)·이옥분(조모)·김성수(부친)·이선옥(모친)·김호출(형)이 모두 무업에 종사했으며, 150년 가까이 되었다. 무집단의 규모는 현재 8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강원도 강릉에서부터 부산 동래에 이르기까지 동해안 해안선 일대에 흩어져 살고 있으며, 지역적 근거를 두고 지역의 단골이 되어 굿을 담당한다. 김석출의 사망 이후 사위인 김동렬, 딸인 김영희·김동연·김동언 등이 일산동별신굿을 하고 있다. 이들의 동해안별신굿이 1985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82-가호'로 지정되었다.

풍어와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별신굿은 마을의 축제이기도 하다. 별신굿은 동해안 지역에서 가장 많이 전승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별신굿이 전승되는 마을은 축소되고 있다. 별신굿은 주술적 기능 이외에 예술적 기능도 있으며, 마을의 대동화합을 위한 중요한 행사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무당들은 별신굿이 전승되는 마을들이 주민들 간의 화합도 잘 되어 평화로운 마을이라고 한다. 별신굿이라는 마을 행사를 통해 신과 인간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민주적이고 따뜻한 관계로 만든다. 별신굿을 보존하고 전승시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참고문헌 울산지방무가자료집(박경신, 울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3), 한국의 별신무가(박경신, 국학자료원, 1999), 한국세시풍속사전-겨울편(국립민속박물관, 2006).

필자 이균옥(李均玉)

일월개(日月蓋)

정의 일월신(日月神)의 양산을 상징화한 황해도 무구. 일월신이 하강할 때 해, 달, 비, 바람 등을 가려주는 가리개를 상징화한 무구로서, 황해도 무속의례 중 만구대탁굿이나 만수대탁굿 등의 큰 굿의 굿청에 장식된다.

형태 개(蓋)는 제작자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대체로 통의 개수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개는 나무를 깎아 한 아름 정도의 둥그런 틀을 만든 것이 기본 틀인데, 그 통의 개수에 따라, 일층개와 이층개로 구분된다. 일층개는 원형의 통 하나를 기본 틀로 사용하는 반면에, 이층개는 원형의 통 두 개를 위아래로 연결 해 그 기본 틀로 사용한다. 통의 둘레는 성인이 양팔을 벌렸을 때 한 아름 정도가 적정하다. 일층개에는 둥근 틀 주변으로 띠처럼 종이나 천을 두른 다음 그

위에 장식을 한다. 그리고 아래쪽에 한지나 천을 늘어뜨려 붙인다. 이층개는 한 아름 정도의 둥그런 틀 두개를 위아래로 연결하고 이 원형통을 기본 틀로 하여, 통의 면이 보이지 않게 그 겉면에 한지나 천을 늘어뜨리거나 덧붙인다.

그림을 그려 넣는 경우는 그 위로 각각의 상징하는 신의 모습을 묘사하며, 그림 사이의 여백의 공간에는 장식물을 장식하기도 하는데, 주로 청색, 홍색, 황색, 백색, 녹색의 오색을 나란히 덧붙인 종이나 천을 장식한다. 일월개의 경우 해·달 문양-오색장식-해·달 문양-오색장식으로 반복되는 형식이다. 해는 붉은색의 원, 달은 노란색의 원으로 그려진다. 이층개의 경우 이와 같은 작업이 끝난 뒤에는 틀의 상단부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종이나 천을 잘라 술처럼 덧붙여 장식하고, 개의 가운데 부분에 천이나 종이띠를 두른다.

이렇게 완성된 개는 대체로 야외에 마련된 굿청 중앙에 설치된 만장발이나 천정에 매달거나 해당 신의 제물상 위에 매달아 설치하기도 한다. 황해도 무당들의 말을 빌리면, 이것을 '띄운다'라고 표현한다. 개는 원래 일회용으로 제작되었으나, 근래에는 제작이 어려울 뿐 아니라 제작방식을 학습한 제작자가 많지 않은 점이 원인이 되어, 종이 대신 천으로 만들어 재사용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또한 일부사례에서는 장기간 사용을 위해 천 위에 씌운 비닐을 벗기지 않고 그대로 의례에 사용하기도 한다.

내용 일월개(日月蓋)는 양산[日傘]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며, 불교의 법구(法具)와 조선시대 의장용구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불교의 법구는 천개, 산개, 보개, 화개, 닫집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이것은 대웅전에 불상 위에 지붕 형태를 갖추는 등으로 변화하였는데, 그 의미는 개와 동일하다. 『고려도경(高麗圖經)』,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세종실록(世宗實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의하면, 왕실에서 의장구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도경』에는 곡개(曲蓋), 청개(靑蓋), 홍개(紅蓋), 화개(華蓋)의 형태와 용도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다. 무속에서의 개는 일산과 달리 손잡이가 없고 가로 폭이 넓지 않은 기다란 원통형 양산에 가까우며 손잡이는 생략된 채 무속에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일월개는 천신을 그 특성에 맞게 구체화한 자연물개(自然物蓋)에 해당된다. 개에는 황해도 무속의 신관이 반영되어 있는데, 무속의 신은 천신, 자연신, 인격신, 잡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천신에는 지고신인 제석, 불사, 칠성, 일월신 등이 있으며, 자연신에는 산신, 용왕신 등이 있다. 무속에서는 무신도를 비롯한 부채 등에 천신과 자연신 등이 모두 인격화된 신으로 묘사되며, 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다. 대체로 무신도나 부채 등에서 일월신은 남녀의 머리 위에 각각 해와 달이 그려진 것으로 묘사되지만 일월개만 유일하게 그 형태를 인격화하지 않고, 해와 달로 구체화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개는 양산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일월신이 개 아래에서 비와 햇빛 등을 피하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개 아래에 일월신이 좌정되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개는 만장발과 함께 굿청의 상단에 설치되고 해당 신을 위한 제물상이나, 해당 신이 초대될 공간에 장식된다는 점에서, 굿청의 공간을 구획해주는 경계구(境界具)의 기능을 한다. 따라서 개를 통해 제물상의 주신과, 어떠한 신이 특정한 공간에 초대될지 짐작이 가능하게 한다. 일월개는 실외에 주로 장식한다. 황해도굿에서는 일월신을 실외에서 맞이하여 실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월맞이의 주요 의례는 실외의 일월개 아래에서 진행된다. 일월개는 황해도굿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서, 황해도굿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무구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高麗圖經, 國朝五禮儀, 世宗實錄, 增補文獻備考, 큰무당 우옥주 유품(국립민속박물관, 1995), 한국의 무속-서울·황해도편(국립민속박물관, 1999), 한국의 굿(하효길 외, 민속원, 2002), 황해도 굿에 쓰이는 종이 신화와 신구의 종류, 형식, 상징성 고찰(양종승, 한국무속학13, 한국무속학회, 2007).

필자 최진아(崔眞娥)

일월노리푸념

정의 평안북도 강계 지방에서 전승되는 서사무가. 강계 지방에서는 대규모 무굿을 할 때 여흥거리로 일월신제(日月神祭)와 성승제(聖僧祭)가 베풀어진다. 이때 일월신제에서 〈일월노리푸념〉이 구송된다.

내용 궁산선비와 지혜로운 부인 명월각시, 명월각시를 탐내는 배선비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며, 결국 선한 자가 승리한다는 권선징악(勸善懲惡)의 원리대로 결말이 난다. 내용이 함경도의 〈궁상이무가〉와 거의 같지만 최종 결말에서 다소 차이를 드러낸다. 〈궁상이무가〉의 궁상이는 부인과 의좋게 살다가 죽어서 지은 죄가 다 사해져 죄를 벗고 하늘 위의 선계(仙界)로 돌아갔지만 〈일월노리푸념〉의 궁산선비와 부인 명월각시는 사후(死後)에 일월신이 된다. 즉 〈일월노리푸념〉은 일월신의 유래담 신화이기도 하다.

〈일월노리푸념〉은 평안북도 강계읍에 사는 전명수의 보유자료를 1933년 손진태가 채록하여 1933년 『청구학총(靑丘學叢)』 28호에 「조선무격의 신가(朝鮮巫覡の神歌)」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 서사무가는 〈성인노리푸념〉과 함께 1940년 『문장(文章)』 9월호와 1958년 『사조(思潮)』 6월에도 수록됐다. 특히 손진태는 〈일월노리푸념〉을 강계 방언, 경성어(京城語), 일어역문 등으로 서술하여 이해의 편의를 돕고 있다. 서사무가 〈일월노리푸념〉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명월각시 해당금이 궁산선비와 만난 지 3년 만에 혼례를 치르게 된다. 궁산선비는 초년에 명월각시에게 말을 붙여 2년 되는 해에 편지를 받아 3년 만에 혼사가 성립돼 장가를 들게 된다. 그러나 궁산선비는 예장(禮狀)을 쌀 것조차 없어서 국시당(국사당)에 걸린 비단을 모아 예장을 싸고, 예단함이 없어서 마루 밑을 보니 헌걱둑짝(헌나무신짝)이 있어 그것으로 예단함을 만들고, 예장을 실을 말이 없어 수탉을 말로 삼아 싣고 갔다. 그렇게 하여 신혼생활을 시작하였다. 궁산선비는 명월각시가 너무나 예뻐서 잠시도 곁을 떠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여 밥을 굶게 되었다.

하루는 명월각시가 궁산선비에게 나무를 해오라고 하자 궁산선비는 명월각시를 두고 갈 수 없다고 한다. 명월각시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서 화상을 궁산선비에게 주고 나무를 해오라고 하였다. 궁산선비가 명월각시의 화상을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쳐다보며 나무를 하는데 광풍이 불어 날려간 화상이 아랫녘에 사는 배선비네 집에 가서 떨어졌다. 배선비가 화상을 보니 윗녘의 명월각시가 소문대로 정말 잘생겨서 명월각시의 미모를 탐하게 되었다. 배선비는 배에다 생금을 싣고 내기장기를 두기 위하여 궁산선비를 찾아간다. 배선비가 궁산선비를 찾아와 내기장기를 두자 하니 궁산선비는 "나는 내놓을 물건이 없어 장기를 둘 수 없다"고 한다. 그러자 배선비는 "내가 지면 생금 한 배를 너에게 주고 네가 지면 명월각시를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궁산선비가 그렇게 하자고 하여 배선비와 내기장기를 두게 되었지만 세 판을 모두 져서 할 수 없이 명월각시를 배선비에게 내주어야 했다.

집에 돌아온 궁산선비가 자리를 펴고 누워서 밥도 먹지 못하자 명월각시가 "어찌 해서 진지를 아니 잡수시오" 하고 물어온다. 궁산선비는 자초지종을 말하며 이제 마누라를 잃게 되어 그런다고 한다. 명월각시는 "얼싸좋다, 정말 좋구나. 없는 사람 궁산선비와 사는 것보다 있는 사람과 살면 아니 좋겠는가"라고 하니 궁산선비는 더 운다. 명월각시는 "낭군님은 내 말대로 하라"며 걱정 말고 밥이나 잡수라고 한다.

명월각시는 큰 종(하녀)을 자기처럼 꾸미는 한편 자신은 남루하게 입고 다리를 절며 종노릇하는 시늉으로 배선비를 속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거짓으로 꾸민 것을 안 배선비는 능청스럽게 "궁산선비와 백년해로할 마누라를 데리고 가면 적원(積怨)이 될 터이니 저 마당에서 물 긷는 종년을 나를 주소"라고 한다. 할 수 없이 배선비에게 가게 된 명월각시는 닷새만 말미를 달라고 한다. 배선비가 그렇게 하라며 허락하고 돌아가자 명월각시는 소를 잡아 포육(脯肉)을 떠서 말린 후 궁산선비의 바지와 저고리에 솜처럼 두르고 명주 한 꾸리와 바늘 한 쌈을 옷깃에 넣어두었다.

약속한 때가 되자 배선비가 명월각시를 데리러 왔다. 배선비가 명월각시에게 "우리 둘이 살 테니까 궁산선비를 데리고 가다가 섬에 내려 놓자"라고 하니 명월각시도 그렇게 하자고 한다. 섬에 혼자 내려진 궁산선비는 먹을 것이 없어 옷을 뜯어보니 쇠고기 포육이 있었다. 그것을 다 먹으니 또 먹을 것이 없어 명주 꾸리와 바늘로 낚싯대를 만들어 물고기를 잡아먹었다. 그 때 학이 내려와 새끼를 친다. 그러나 학은 옥황상제에게 죄를 지어서 세상으로 도망쳐 왔기에 잡혀서 하늘로 올라갔다. 새끼학이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되자 궁산선비가 고기를 잡아 새끼학에게 먹여 살 수 있게 했다. 어미학이 죄가 풀려 다시 내려와 궁산선비가 새끼학을 살려 놓은 것을 보고 궁산선비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궁산선비를 강 너머로 실어다 섬을 떠나게 해주었다. 마침내 어미학을 타고 섬에서 나와 육지로 돌아온 궁산선비는 당장 먹을 것도 없어서 거지가 되어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한편 명월각시는 배선비 집에 가서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는다. 배선비가 "어째 마누라가 말을 하지 않는가"라며 답답해하니 명월각시는 "소원을 들어 달라"고 한다. 소원은 걸인잔치를 사흘간 해 달라는 것이었다. 배선비는 명월각시의 청을 들어 사흘 동안 거지잔치를 했다. 궁산선비도 거지잔치에 참여하게 되어 첫날은 아래쪽 끝에 앉았다. 그러나 위로부터 상을 놓아 상이 하나 모자라서 궁산선비가 얻어먹지 못했다. 둘쨋날에는 위쪽 끝에 앉았지만 그 날은 아래로부터 상을 놓아 또 상 하나가 모자라 못 얻어먹고, 마지막 날에는 가운데 앉았다가 상을 좌우로 놓아 얻어먹지 못하였다. 궁산선비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이 놈의 팔자는 어인 팔자인고. 초년에 에미네 잃고 중년에 거랭이 되고 삼년에는 거랑잔치도 못 얻어먹네"라며 나오는데 명월각시가 사흘 잔치를 보니 궁산선비는 계속 얻어먹지 못하는 것이었다. 사흘 잔치 동안 먹지 못한 거랭이에게 다른 상을 차려 주어 먹이라고 하니 궁산선비는 그 상을 받아 잘 먹고 남은 것을 오쟁이에 넣어 지고 나간다.

이렇게 하여 잔치한 지 사흘 만에 궁산선비를 만난 명월각시는 구슬옷을 내던지며 이 옷의 깃을 잡아 고대를 추어 입는 사람이 자기 낭군이라고 한다. 거랭이들이 모두 입어 보려 하지만 입을 수가 없다. 궁산선비가 고대를 추어 깃을 잡아 구슬옷을 입은 다음 백운중천(白雲中天)으로 날아올랐다가 내려왔다. 배선비도 자기가 입어 보자고 하며 입는 재주를 보였다. 그러나 배선비는 벗는 재주를 못 배워서 입고 백운중천으로 날아 올랐지만 내려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어 솔개가 되었다. 궁산선비와 명월각시는 다시 만나 살다가 죽은 뒤 그들의 혼령이 일월신이 되어 제(祭)를 받게 되었다.

지역사례 평북 강계 지방의 무가인 〈일월노리푸념〉은 함경도 지역에서 망인의 영혼을 저승으로 보내는 망무기굿의 궁상이 굿거리에서 구송하는 〈궁상이무가〉와 내용이 거의 같다. 〈궁상이무가〉가 망인천도굿에서 구송되는 반면에 〈일월노리푸념〉은 평북 강계 지방에서 큰굿을 할 때 여흥거리로 구송된다. 이들 무가의 내용은 같으나 결말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난다. 〈궁상이무가〉에서는 선한 자가 승리한다는 권선징악으로 결말이 나지만 〈일월노리푸념〉에서는 악한 자가 벌을 받는 결말과 함께 해와 달의 유래가 이야기된다. 〈궁상이무가〉에서 궁상이 부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등장하며, 궁상이 역시 궁산선비처럼 무능한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고 선량한 선비로 나타난다. 또한 궁상이와 궁상이 부인은 모두 선계(仙界)에서 죄를 짓고 내려왔다가 죄를 벗고 승천하는 존재인 반면에 궁산선비와 명월각시는 선계의 존재로 나타나지 않는다. 선계에서 죄를 짓고 내려왔으나 죄를 벗어난 존재는 궁산선비의 은혜에 보답하는 학이다. 궁상이나 궁상이 부인과 같은 인격적인 존재가 선계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학과 같은 동물이 선계에서 온 것이다. 여기서 인간과 동물의 미분된 신화성을 엿볼 수 있다.

〈일월놀이푸념〉이나 〈궁상이무가〉는 부인을 걸고 내기를 하였다는 점에서 『고려사(高麗史)』 권71 악지(樂志)에 수록된 '예성강'노래의 유래 설화와 같은 궤적을 이룬다. 구슬옷을 가지고 본래 남편을 찾고, 부인을 빼앗아 간 남자를 징치했다는 내용은 민담 '새신랑'과 유사하다. 이런 점에서 민간에서 전승되던 흥미 있는 설화가 무가로 이입되어 개편된 것으로 본다. 일월신에 대한 이 밖의 신화는 우리나라에 없으며, 민담으로 전승되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는 이와 내용이 전혀 다르다.

제주도 굿거리 가운데 일월맞이굿이 있지만 역시 〈일월노리푸념〉과는 전혀 다르다. 일월맞이굿은 행운과 가족의 무병장수를 비는 굿이다. 그런데 제주도굿에서 일월은 하늘에서 "빛나는 햇살처럼 달빛처럼 비춰 주는 조상신"을 뜻한다. 한 집안의 조상 가운데 생전에 높은 벼슬을 했다면 그 조상은 세상을 떠난 후에 일월이 되어 자신의 가문을 비추어 주는 수호신적 영험이 있다는 믿음이 있다. 이 조상을 '집안일월'이라고 하며, 그 집안의 굿에서는 이 조상신도 청해 맞이하여 대접하고 즐겁게 해드린다. 따라서 일월조상신에 대한 본풀이(무가)는 집안 또는 일월조상마다 다르다.

참고문헌 한국무속연구(김태곤, 집문당, 1981), 조선무격의 신가(손진태, 손진태선생전집 5-영인본, 태학사, 1981), 한국의 무속신화(김태곤, 집문당, 198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8-일월노리푸념(서대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제주도무속학사전(진성기, 제주민속연구소, 2004).
필자 김명자(金明子)

상호참조 궁상이무가(103쪽)

임경업 장군(林慶業 將軍)

정의 조선 후기의 명장이자 무속신앙에서 섬기는 장군신 계통의 하나.

내용 임경업(1594~1646)은 광해군 10년(1618)에 무과(武科)에 급제하였으며, 당시 친명반청(親明反淸)의 사회 분위기와 함께 우국충정에 뛰어난 충신이자 무장으로 평가받았다. 심기원(沈器遠, 1587~1644)의 모반 사건과 관련되어 인조 24년(1646)에 친국(親鞫)을 받던 중 김자점(金自點, 1588~1651)의 명을 받은 형리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다.

임경업은 명나라에 대한 의리와 명분을 내세우며 반청을 표명하여 민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명망 있는 장군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대내외적 정세에 밝지 못하여 결국 옥사(獄死)하고만 불운의 인물이기도 하다. 그런데 임경업의 불행은 궁극적으로 당시 조선의 정치적 상황에 의한 것이지 결코 개인의 능력 탓은 아니었다. 그는 쇠퇴한 명나라와 힘을 합쳐 청나라에 저항해 병자호란(丙子胡亂)의 국치를 씻으려 했지만 당시 조선의 상황이 이를 지지해 줄 수 없었다. 이러한 민중의 판단은 그를 무능하고 실패한 장군으로 머물게 하지 않고 도리어 민족의 영웅으로 재탄생시키기에 이른다. 그는 충의, 지조, 용기의 상징으로 민중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 죽음 이후 임경업의 무용담을 소재로 한 고대소설 〈임경업전〉의 창작과 대중적 수용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구비전승에 나타난 임경업 장군의 일대기는 더욱 영웅적이다. '영웅의 일생' 서사구조에 따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부모가 명당을 얻어 태어나다
2. 원조자의 도움으로 수련하다
3. 신이한 행적을 행하다
4. 사후 어업신(漁業神)이 되다

그런데 임경업은 출생에서부터 이미 금기를 위반한 것으로 묘사된다. 즉 임경업의 부모는 명당을 잡아준 중이 제시한 금기를 어긴다. '자손 둘 자리를 잡았으니 올라가 보지 말라'는 것과 '큰 바위를 건드리지 말라'는 두 가지이다. 이처럼 금기를 깨뜨리는 것은 임경업이 출생에서부터 결핍을 내포한 인물임을 밝히고, 그가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민중이 수용한 현상으로 해석된다. 임경업의 수련담을 보면 그는 산신의 도움으로 도술을 얻는다. 그리고 행적담에서는 중국에 잡혀 간 인질을 구출하고, 가시나무로 조기를 잡고, 바다에서 식수를 구하는 등 신이한 능력을 과시한다. 그리하여 결국 그는 비극적인 죽음 이후 연평도의 어업신으로 좌정하게 된다.

그런데 임경업의 경우는 남이(南怡, 1441~1468), 곽재우(郭再祐, 1552~1617)등 당대의 영웅

들과 달리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신격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그는 김유신(金庾信, 595~673)처럼 사후에도 여전히 신이성(神異性)을 유지하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즉 죽음 이후 자신을 모함하여 죽인 김자점의 역적 행위를 임금에게 알리고, 장끼로 환생하여 자신의 아버지를 구하기도 하며, 연평도의 어업신이 되어 많은 이적을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의 바탕에는 임경업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민중의 보상심리가 내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영웅의 죽음을 부정하고자 하는 민중의 역사인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하지만 그의 신격화에는 주체성이라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자리하고 있다. 김유신과 마찬가지로 그는 중국에 대해 주체적인 태도를 표명한 인물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대립에서 승리한 민족적 영웅이지만 억울하게 옥사하였다는 민중의 주체적인 역사인식이 투영되어 그를 더욱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영웅으로 신격화한 것이다.

이러한 민중 인식을 기반으로 형성된 임경업 장군신은 주로 경기도 지역에서 마을을 보호하고 풍어(豊漁)를 관장하는 신격으로 모셔지고 있다. 서해안 연평도에는 임경업장군사당이 있으며, 서해안 지방의 풍어제에서는 임경업 장군의 신령이 불려진다.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 안섬 마을의 경우 임경업은 본당인 용신(龍神)과 함께 장군당의 신격으로 모셔지고 있다. 또 과거 이 마을 조기잡이 어선들은 어로 철이 되면 연평도의 임경업장군사당에 가서 풍어굿을 지냈다고 한다. 이를 '임장군당 맞는다'라는 이 의례는 어선별로 행하는 풍어제이다. 풍어굿을 마치면 사람들은 배를 사당을 향해 정박시키고 '다오개모탱이'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당일 다른 배들이 아무리 어황이 좋다고 해도 곧바로 바다로 나가지 않았다. 하룻밤을 보내면서 임경업 장군이 꿈에 나타나기를 고대하며 풍어에 대한 소망을 기원했다고 한다.

민간에서는 임경업장군신이 흔히 잡귀를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며, 무병장수와 안과태평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다. 또한 임경업 장군은 무당들의 수호신이기도 하다. 박수(남자무당)는 무신도 형태로 임경업장군신을 모시며, 만신(여자무당)은 임경업장군신의 상징으로 '고비전'이라 하여 종이를 오려 만든 것을 신당의 벽에 걸기도 한다.


1


2

1. 황해도 당제 영기
국립민속박물관 사진자료 소장

2. 임경업 장군 무신도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가로 66.2㎝, 120.4㎝

참고문헌 한국 무신의 계통(김태곤, 문화인류학 3, 한국문화인류학회, 1970), 한국 무속신　고찰(양종승, 몽골학 4, 한국몽골학회, 1996), 당진 안섬 풍어굿의 연행 내용과 의미(이인화, 한국무속학 11, 한국무속학회, 2006).

필자 오세길(吳世吉)

입춘굿

정의 제주도에서 입춘에 베풀어지던 굿놀이. 입춘굿을 '춘경(春耕)' 또는 '입춘춘경(立春春耕)'이라고 하며, 이 굿을 노는 것을 "춘경친다"고 한다.

역사 이 굿은 탐라국 시대부터 탐라왕이 백성들 앞에서 밭을 가는 친경적전(親耕耤田)의 유습(遺習)이 조선조에 왕을 대신하여 호장이 나무소[木牛]를 끌며 농경의 모의적 행위를 실연하고 풍농을 비는 거리굿을 중심으로 한 관민합동의 축제이자, 신년의 풍농굿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이원조(李源祚, 1792~1871)의 『탐라록(耽羅錄)』에 입춘굿에 대한 기록이 있다. 입춘굿은 이원조가 방어사로 제주도에 부임한 헌종 7년(1841)부터 활발하게 전승되다가 미신타파라는 이름 아래 민족정기를 말살하려는 일제의 탄압으로 1914년 전승이 단절된 이후에도 입춘굿이 간신히 전승돼 왔다. 20세기 초의 역사서인 김석익(金錫翼, 1885~1956)의 『심재집(心齋集)』에 수록된 「해상일사(海上逸史) 춘경조(春耕條)」에는 이원조의 기록과 거의 유사하게 입춘의 춘경(春耕)에 대한 풍속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인 인류학자 도리이 류조(鳥居龍藏)가 쓴 『일본주변민족(日本周邊民族)의 원시종교(原始宗敎)』「민족학상(民族學上)에서 본 제주도(濟州道)」에 의하면 조선총독부에 부탁하여 이것을 실연시켜 참관하고 그 모습을 보고하고 있다. 이 굿은 춘경(春耕)이라는 무답(舞踏)으로 무당 100여 명이 모여서 했으며, 무언극으로 대사가 없는 일종의 드라마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1914년 외국인 선교사가 촬영한 사진이 현재 남아 있다. 1924년 일제하에서 제주도청(濟州島廳)에서 간행한 『미개(未開)의 보고(寶庫) 제주도(濟州島)』를 살펴보면 "매년(每年) 입춘일(立春日) 목사청(牧使廳)에 모여 동리마다 흑우(黑牛) 한 마리를 바쳐 목사와 도민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함과 동시에 농작물의 풍요를 산신과 해신에게 빌고, 여흥으로 가면극 형태의 고대극과 흡사한 것을 연출한다"라고 하였다. 1936년 김두봉(金斗奉)이 쓴 『제주도실기(濟州島實記)』의 『권농(勸農)하는 춘경풍속(春耕風俗)』이란 글은 『심재집』의 글을 발췌하고 자신이 직접 목격했던 장면을 첨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입춘굿을 설명하고 있다.

입춘굿은 1914년 축제로서의 전승은 끊겼지만 기록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1998년 탐라국입춘굿놀이란 이름으로 복원돼 전승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입춘굿놀이는 입춘굿의 원형을 재현하는 데 중점을 둬 전통민속놀이이며 고대부터 전승되는 축제라는 데 무게를 실었다.

내용 입춘은 새 철이 드는 날로 봄의 시작이며, 농부들에게는 한 해의 농사를 준비하는 날로써 이 날 한 해 농사의 풍등을 기원하는 풍농굿이 행해졌다는 것은 세시풍속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원조의 『탐라록』「입춘일념운(立春日拈韻)」에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월 24일 입춘날이다. 관복을 갖춰 입을 호장이 나무로 만든 소가 끄는 쟁기를 잡고 가면 양쪽 좌우에 어린 기생이 부채를 흔들며 따른다. 이를 '쇠몰이(退牛)'라 한다. 심방들은 신명나게 북을 치며 앞에서 인도하며, 먼저 객사에서 시작하여 차례로 관덕정 마당으로 들어와 밭을 가는 흉내를 내었다. 이날은 본 관아에서 음식을 차려 모두에게 대접하였다. 이것은 탐라왕이 적전하는 풍속이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二十四日 立春 戶長具官服 執耒耜以木爲牛 兩兒妓左右執扇 謂之退牛 熱羣巫擊鼓前導 先自客舍次入營庭 作耕田樣 其日自本府設饌以饋 是耽羅王籍田遺俗云)" 이 기록에 나타난 입춘굿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입춘굿은 탐라왕 때부터 친경적전하던 유풍이며 관아에서 주관한다. 입춘굿놀이의 중요 배역은 목사와 관원, 도황수, 호장, 무격배, 농부, 처, 첩, 동기(童妓)들, 새, 낭쉐[木牛] 등이다. 한 해 농사의 풍등을 점친다(보리 낟가리점). 호장과 심방들이 객사에 나타나 문안 인사를 한다. 모의적 파종의례를 통해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린다. 새가 날아와 훼방을 놓으면 '사농바치(사냥꾼)'가 등장해 새[邪]를 쫓는 대목에서부터 입춘탈놀이가 시작된다. 모의적인 농경의례를 행한다. 씨앗싸움(씨할아비가 밭할미를 조정하여 농부는 땅을 고른다)을 한다. 마당굿을 끝내고 관아의 문전제(門前祭)로 들어간다. 문굿을 하여 각 창고의 부정을 막고 풍요를 기원한다. 한 해의 농사를 기원하는 비념을 하면서 굿을 마친다.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입춘굿은 하늘에서 내려온 농경신 세경할망을 모셔서 풍년을 기원하는 입춘굿을 하고, 칠성동 송씨 집안의 조상신이 되었다가 관아에 들어와 옥할망(감옥을 수호하는 신)·관청할망(동헌을 수호하는 신)·창할망(창고를 수호하는 신)·과원할망(과수원을 수호하는 신) 등과 제주시 각 집안의 안칠성(고방을 수호하는 신)·밧칠성(뒤뜰을 수호하는 신)이 된 뱀신 부군칠성을 위한 칠성제와 관아 각 건물의 액을 막고 문굿인 문전제를 겸하는 한편 한 해 농사의 풍요를 빌고 제주목 관아의 액을 막는 관민합동의 굿이다. 칠성제에는 반드시 뱀신

을 위한 토산당굿과 각 관청지기가 된 뱀신을 대접하고 청마다 액을 막기 위한 액막이굿으로 전상놀이를 하였다.

풍농굿은 농경신 자청비를 맞이하여 세경본풀이를 한 다음 농사가 잘되게 해주십사 기원을 하고, 농사의 전 과정을 연극적으로 보여주는 세경놀이를 하였다. 세경놀이는 모의적인 풍농굿으로서 성적 상징성이 짙은 놀이굿이며, 보리뿌리점을 통하여 한 해의 농사를 점치는 주술성을 지니고 있는 가운데 이 보리뿌리점이 입춘굿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세경놀이가 끝나면 다시 이 모의적인 농경의례를 탈굿놀이로 보여주는 입춘탈굿놀이를 한다. 이 굿놀이에서 사용되는 탈은 영감놀이 · 전상놀이 등에 쓰는 원초적인 종이탈의 발전적인 형태라 볼 수 있다. 탈놀이의 내용은 세경놀이가 발전한 탈굿으로서 육지부 탈춤의 영향인지 아니면 육지부 탈놀이의 원형인 굿놀이인지 알 수 없지만 탈춤에 등장하는 꿩과 포수, 호장(양반), 할망(처), 기생(첩)의 삼각관계 등이 나타난다.

제주도 무속의 놀이굿에서 사용되는 원초적인 종이탈이 무형의 신격을 나타내고 이 종이탈이 발전하여 유형의 인물을 표현한 입춘탈로 변한 것이라면 진주 · 통영 · 고성 등지의 탈춤에 나오는 오광대탈은 종이탈이 발전되어 인물의 전형성을 획득하여 이루어진 완성형 탈이고, 이와는 달리 제주 입춘굿의 종이탈은 종이탈과 오광대탈의 과도기적 중간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耽羅錄, 心齋集, 제주도 실기(김두봉, 1936). 탐라국 입춘굿 놀이(문무병, 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2).

필자 문무병(文武秉)


1


2


3


4


5


6


7


8

1. 탐라국입춘굿의 거리굿 낭쉐물이

2. 새철드는 날 입춘굿을 하여 농경신 세경할망을 청하는 심방

3. 입춘굿에서 아이를 위한 굿인 불도맞이의 할망다리추낌도 한 룬을 한다

4. 해마다 입춘굿이면 새로운 한해의 상징으로 거듭나는 낭쉐

5. 오광대의 오방신장춤과 대적할만한 돌하르방 탈춤

6. 각시가 임신을 하고 팽돌이라는 사내아이를 해산하는 장면은 풍년을 기약한다

7. 제주굿의 새다림에서 차용한 포수탈(시농바치)과 싸우는 새탈(꿩탈)춤

8. 탐라왕의 춘경적전 풍농을 권장하는 하르방춤

제주시 삼도 2동 관덕정 | 문무병



자삼
사진한입
작두(斬刀)
작두춤
작두장군(斬刀將軍)
잡귀잡신(雜鬼雜神)
장구떡
장군개(將軍蓋)
장군상
장말도당굿
장발
장보배
장삼(長衫)
장세일
잡자풀이
재가집
재수굿
재인청(才人廳)
저승문풀이
저승사자
천근순
전복(戰服)
전북의 앉은굿
절북-충남 무속음악
전안상
접사
정무연
정숙자
정영만
정정괴
정정애
정주
정학봉
제금
제마수
제석 노래채
제석본풀이
제석상(帝釋床)
제석춤
제주굿 무복
제주도 내왓당 무신도(濟州道 川外堂 巫神圖)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조금례
조너리
조라술
조상(祖上)
조상대
조상상
조상화(祖上花)
조선무격의 신가(朝鮮巫覡の神歌)
조선무속고(朝鮮巫俗考)
조선무속의 연구(朝鮮巫俗の研究)
조선신가유편(朝鮮神歌遺篇)
조선의 무격(朝鮮の巫覡)
조순자
중디밧산
지리천문신장(地理天文神將)
지앙밥
지장본풀이
지전(紙錢)
지전춤
지하장군(地下將軍)
진가장무가
진도씻김굿
진도 채씨 무계
진쇠
진쇠춤
진오기굿
진적굿
진진오기굿
쪼시개

자삼

정의 동해안 지역 무악의 무가 이름이자 이를 반주하는 장단 명칭. 무가를 가리킬 때는 흔히 '자삼염불'이라고도 한다.

내용 자삼의 장단은 여러 장(章)이 아닌 하나의 장으로 되어 있고, 선율은 육자배기토리로 되어 있는 점에서 동해안 지역의 다른 무가와 성격이 다르다. 자삼 무가는 살풀이 무악권의 중타령, 반주장단은 살풀이 무악권의 '신임장단' 또는 '시님장단'으로 불리는 엇모리형 장단과 각각 같다. 곧 자삼무가는 고삼(고삼염불)과 함께 살풀이 무악권에서 유입된 음악이다.

자삼무가는 특정거리 혹은 각 거리의 어떤 절차에서 불린다는 규칙에서 다소 자유롭다. 대개 고삼무가를 부른 다음에 잇대어 불리며 동해안 지역 가운데서도 특히 경남 지역에서 많이 불린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는 별신굿의 세존굿과 오구굿의 영산맞이에서 불린다. 경남 동해안 지역에서는 별신굿의 문굿, 밧당 세존굿, 밧당 조상굿과 오구굿의 골맥이서낭굿, 문굿(문당굿), 초망자굿, 시왕탄일굿, 영산맞이 등에서 불린다.

템포 ♩+♩≒37에 3소박과 2소박이 혼합(♩+♩+♩+♩)된 박으로 부르며 매 박에 징이 들어간다.

참고문헌 동해안의 굿음악, 그 전승과 단절의 역사(장휘주, 민속원, 2008).
필자 장휘주(張輝珠)

자진한잎

정의 한국 전통 악곡에서 향피리 위주로 편성되는 삼현육각에 의한 음악.

내용 자진한잎은 피리 독주나 관현 합주로 연주되는 악곡의 하나로 정악(正樂)·민속악(民俗樂)·무속의례에서 널리 쓰인다. 정악에서는 자진한잎·경풍년(慶豊年), 민속악에서는 자진한입·자진난이, 무속의례에서는 연주자에 따라 자진한잎·경풍년·염양춘(艶陽春)·거상악 등으로 혼동해 불리고 있다. 민속악과 무속의례에서는 정악보다 조금 빠른 듯하게 연주된다.

자진한잎은 가곡의 원형인 만대엽(慢大葉)·중대엽(中大葉)·삭대엽(數大葉) 가운데 삭대엽을 우리말로 풀이하여 자진[數]한[大]잎[葉]이라는 빠른 큰 곡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오늘날 자진한잎이라고 하면 가곡을 노래 없이 삼현육각의 악기로만 연주하는 곡들을 지칭한다.

가곡의 반주음악으로 연주될 때는 관악기와 현악기가 함께 편성된다. 그리고 노래의 반주로 연주되기 때문에 음량의 제한을 받아 피리는 소리가 작은 세피리를 쓰며, 해금도 원산(遠山, bridge)의 위치를 조정하여 음량을 조절한다. 그러나 가곡의 반주음악이 아닌 독주나 합주로 연주되면 노래와 현악기가 제외되기 때문에 음량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때는 피리도 세피리 대신 소리가 큰 향피리를 쓰고, 해금도 원산을 조절하여 소리를 크게 한다. 대금의 경우도 가곡에서 낮은음으로 연주하는 부분을 청성(淸聲 : 높은음)으로 연주한다. 이처럼 독주나 합주로 연주될 때는 피리·대금·해금·장구·북 등 관악기와 타악기로 이루어진 삼현육각의 편성으로 연주한다. 향피리 중심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자진한잎을 일명 사관풍류라고 부른다. 사관풍류는 사관, 즉 향피리가 중심이 되는 풍류라는 뜻이다.

음악의 형식은 중여음과 대여음이 있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장단은 3·3·2·3박과 3·2박으로 구성된 16박의 모음박자이다. 자진한잎의 장단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보례〉 자진한잎 1장단(▫=1박)



ⓘ - 장주의 북편과 채편을 동시에 치는 것으로, 구음은 '덩'이다.
⋮ - 장주의 채편을 채로 굴려서 치는 것으로, 구음은 '더러러러'이다.
○ - 장주의 북편을 치는 것으로, 구음은 '쿵'이다.
ㅣ - 장주의 채편을 채로 치는 것으로, 구음은 '기덕'이다.
· - 장주의 채편을 채로 찍어주는 것으로, 구음은 '덕'이다.

자진한잎이 여러 명칭으로 불리는 이유는 연주되는 곡인 우조두거·변조두거·계면조두거·계면조평롱(平弄)·계락(界樂)·편삭대엽(編數大葉)의 6곡을 통틀어 지칭할 때와 나누어 지칭할 때 부르는 이름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6곡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자진한잎, 사관풍류, 경풍년이라고 부르지만 좁게는 우조두거와 변조두거만을 가리킨다. 이밖에도 계면조두거를 염양춘, 계면조평롱·계락·편삭대엽을 수룡음으로 각각 구분하여 부르기도 한다. 계면조두거인 염양춘은 특히 예전의 연희 때 상을 받기 전에 연주된다고 하여 '거상악(擧床樂)'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서울 지역의 무속의례에서 상류층이나 부유층을 위해 베푼 전통적인 망자천도굿인 새남굿의 진적과 상식에서 첫 곡으로 우조두거나 변조두거의 경풍년이 연주된다. 이밖에도 서울 진오귀굿의 상식, 무당의 천신굿이나 진적굿의 진적에서도 연주된다. 민속악에서는 독주곡으로 주로 염양춘이 연주된다.

참고문헌 한국음악 4(김기수, 국립국악원, 1969), 최신 국악총론(장사훈, 세광음악출판사, 198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국악통론(서한범, 태림출판사, 1993).
필자 하을란(河乙蘭)

작두[斫刀]

정의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짚이나 가축 사료를 썰거나, 한의원이나 한약방에서 한약재를 써는 데 사용하는 볼이 넓적한 큰 칼 모양의 연장. 무당에게 장군신이 내렸을 경우에 신령의 영험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올라타는 무구(巫具)로 사용되기도 한다.



작두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길이 49.5㎝, 높이 7.7㎝ | 1950년대

형태 농가나 한의원, 한약방에서 사용하는 작두는 외작두이지만, 무당굿에서는 주로 쌍작두를 사용한다. 2003년 인천광역시 강화도 지역에서 실시한 무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작두의 재료와 형태는 다음과 같다. 즉 작두의 재료는 쇠이며, 총 길이는 73㎝, 날의 길이는 52.2㎝이다. 폭은 8.5㎝이며, 두 개의 작두를 연결해 주는 나사의 길이는 14㎝이다. 이러한 형태의 쌍작두는 두 개의 작두날을 세우고 그 사이에 나사로 고정시켜서 타게 된다. 같은 해 강원도 원주에서 실시한 무구조사에서 보고된 작두의 경우에도 대동소이한 크기와 형태를 띠고 있다. 원주에 거주하는 40년 경력의 무녀가 사용하는 작두도 두 개의 날과 4개의 볼트[나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작두날에는 볼트를 끼우기 위한 구멍이 4개 뚫려있다. 날의 길이는 37.5㎝, 폭은 9㎝이다. 볼트의 길이는 15.5㎝, 두께가 1.5㎝이다.

충청북도 제천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년 경력의 해당 지역 무녀가 대장간에서 맞추어 제작한 쌍작두를 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작두날의 크기는 가로 57㎝, 세로 9㎝이며, 날과 날 사이의 길이는 43㎝이다. 작두 나무판은 그 재질이 송판으로 되어 있으며, 흰 천[소창]으로 싸여 있다. 나무판의 크기는 가로 64㎝, 세로 23㎝이다. 충청북도 충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38년째 활동하는 남자 법사가 사용하는 작두는 충주에 있는 대장간에서 주문 제작한 것이다. 장군거리와 신굿의 작두거리에서 사용한다. 작두날의 크기는 날 높이 11.4㎝, 날 길이 37㎝, 쇠손잡이 길이 51.5㎝이다. 작두 밑에는 송판을 이용해서 받침을 까깔았다. 송판 받침대의 크기는 가로 68.9㎝, 세로 20㎝, 두께 3㎝이다.

내용 무당이 굿할 때 타는 작두는 일반 농가에서 쓰는 작두와 그 겉모양에서는 같으나, 무당이 작두날 위에 맨발로 올라섬으로써 신령의 영험력을 발휘하는 도구로 그 의미가 변환(變換)된다. 무당들

은 작두를 타기 전에 먼저 칼날의 날카로움을 시험하고 영험력을 극대화시켜 보여주기 위하여 작두를 어르면서 팔이나 다리, 혹은 혓바닥을 찌르거나 자르는 시늉을 한다. 작두를 타는 무당들에 의하면, 작두날이 날카로울수록 작두 위에 올라설 때 발바닥이 덜 아프다고 한다. 작두날을 갈 때에는 쓸데없는 말을 함으로써 부정이 끼어드는 일을 방지하도록 입에 '하미'라고 불리는 한지를 물고 갈게 된다. 간혹 남다른 신통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외작두를 타거나, 사다리 모양으로 여러 개를 겹쳐서 '칠성작두'를 타기도 하며, 때에 따라서는 그네 위에 작두를 달고 마치 그네를 타듯이 작두를 타기도 한다. 이러한 행태들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지나치게 볼거리 위주로 흥행성만을 내세움으로써 굿의 본래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통 무당들로부터 낳기도 한다.

무당이 작두를 탐으로써 신령과 의사소통을 집중적으로 하고 신령으로부터 영험한 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작두 위에서 내리는 공수는 다른 어떤 종류의 공수보다도 신빙성과 위엄이 있다고 신도들에게 받아들여진다. 작두는 또 나쁜 액을 누르고 해로운 기운을 잘라냄으로써 부정한 기운의 침입을 막거나 억제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도 한다. 굿을 하지 않는 평상시에는 작두를 고정하는 나사를 풀어서 한지에 싸서 신당에 보관한다.

참고문헌 한국무속도록(김태곤, 집문당, 1982), 한국의 굿(하효길 외, 민속원, 2002),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서울시 · 경기도 · 강원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충청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무당 귀물 연구—『삼국유사』의 삼부인과 무당의 거울 · 칼 · 방울을 중심으로(양종승, 생활문물연구 2, 국립민속박물관, 2001).
필자 박일영(朴日榮)

작두장군[斫刀將軍]

정의 황해도 무속에서 모시는 신. 굿을 연행할 때 작두[斫刀] 위에 서 있는 무당에게 영험을 주는 신장으로 알려져 있다.



작두마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가로 74.5㎝, 세로 103.5㎝ |
1950년대

내용 작두장군은 영험이 강한 신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영험은 무당에게만 내려지는 징표이기 때문에 작두장군의 영험이 가장 잘 드러나는 굿은 내림굿에서라고 할 수 있다. 황해도 내림굿의 열여섯 번째 거리에서는 작두장군 춘방대감을 놀린다. 이때 무당은 작두 위에 서서 무경을 소리 내어 읽거나 신칼을 들고 춤을 춘다. 작두 위에서의 이러한 연행은 일반인에게는 불가능한 것으로, 이제 무당으로 인정 받는 신입 무당의 영험을 보이기에는 제격인 셈이다.

무당으로 인정받는 입문 과정으로의 작두장군거리 연행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굿이 연행되는 마당의 양쪽에 3미터 정도 되는 승전기(勝戰旗)를 세우고, 그 사이에 칠성단(七星壇)을 쌓아 놓는다. 칠성단의 맨 밑에는 드럼통을 놓고 그 위에 안반, 밥상, 송판, 물동이, 양철로 만든 양푼의 순서로 놓는다. 신입 무당이 작두를 타기 전에 신어머니가 되는 무당은 신입 무당에게 작두 어르는 법을 일일이 보여 준다. 즉 작두를 들고 춤을 추다가 날카롭게 날이 선 작두날로 자기의 팔이나 다리 등을 자르는 시늉을 해 보인다. 그러면 신입 무당은 신어머니가 되는 무당으로부터 작두를 받아 작두를 어르고 휘두르면서 동서남북과 중앙에 위치해 있는 오방신장(五方神將)을 놀린다. 신입 무당의 작두 어르기가 끝나면 다른 무당이 바라를 들고 시루를 걷으면서 염불타령조로 노래를 부른다. 그러는 사이에 신입 무당은 두 개의 작두날을 재빨리 칠성단 위에 올려놓고 고정시킨다. 이어 신입 무당은 빠른 무악장단에 맞춰 춤을 추다가 신이 오르면 작두날 위로 뛰어오른 후 칼을 휘두른다. 그리고 장군이 싸우는 시늉을 한 뒤 사람들에게 공수를 준다. 이런 식으로 신입 무당은 작두 위에서 모든 신을 받고 놀리고 전송한다. 이것이 끝나면 신입 무당은 아래로 내려와 오방신장기(五方神將旗)를 들고 춤을 추다가 굿판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기점(旗占)을 뽑게 한다.

한편 보편적이지는 않으나 작두장군의 유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다. 중국에 갔던 우리나라 장군이 중국과 전쟁이 일어나자 그네 줄에 작두를 매어 타고 백두산을 건너와 작두로 수많은 적군을 물리쳐 전쟁에서 승리한 뒤 작두장군으로 모셔졌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무당이 작두 위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장군의 영험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의하면 작두는 장군의 용맹과 위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실제 굿거리에서의 무당은 장수의 용맹과 위력을 무당의 영험함으로 치환하여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례 작두장군은 작두대신, 작도대신, 작두마지(무신이 麻紙에 그려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 작두신장 등으로 불린다. 이 신을 모시는 작두장군거리를 연행할 때 칠성단을 쌓는 방법은 무당마다 약간씩 차이를 보인다. 칠성단 위에 쌀이나 떡시루를 쌓고 그 위에 작두날을 고정시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절구통을 뒤집어 놓고 그 위에 쌀 세 가마를 올린 후 떡판으로 평평하게 한 다음 용궁단지(물동이)와 쌀이 듬뿍 담긴 모말(네 귀퉁이에 모가 난 말)을 올리고 그 위에 작두 두 개를 나란히 고정시키는 경우도 있다.

한편 작두장군거리는 내림굿에서 뿐 아니라 노인들의 만수무강과 돌아가신 뒤 극락천도를 기원하는 만수대탁굿, 집안에 우환이 없는 집에서만 하는 경사굿인 철물이굿 등에서도 연행된다. 이들 굿이 연행될 때는 작두날 위에 올라서서 춤추는 무신도, 장군복 차림으로 작두를 손에 들고 있는 무신도 등이 걸린다.

참고문헌 한국의 무(조흥윤, 정음사, 1985), 황해도내림굿(김인회 · 최종민, 열화당, 1986), 토속신앙의 원형을 찾아서—무속화(가회박물관출판부, 2004), 한국 무신의 계통(김태곤, 문화인류학 3, 한국문화인류학회, 1970), 황해도 철물이굿 연구—김금화씨를 중심으로(이노연, 연구논집 12, 이화여자대학교, 1984), 한국 무속신 고찰(양종승, 몽골학 4, 한국몽골학회, 1996).
필자 최원오(崔元午)

작두춤

정의 황해도굿의 장군거리에서 작두를 타기 전에 신장의 위엄과 권위를 과시하면서 작두를 들고 추는 춤.

내용 작두춤은 칼날의 예리함을 알리고 신체에 자해를 해도 다치지 않는 영험함을 보여주면서 작두를 들고 추는 작두춤, 쌍작두 또는 외작두 위에 맨발로 올라타서 추는 작두타기춤, 그네 위에 작두를 설치하여 추는 그네작두타기춤으로 나뉜다. 작두타기는 장군의 위용을 과시하고 운을 받으면서 액맥이를 하는 기능이 있다.

무당들이 사용하는 작두 형태는 농촌이나 한약방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작두와 다르지 않지만 작두를 고정하고 있는 틀 없이 작두날만을 사용하는 것이 다른 점이다. 무당의 작두신령이나 장군님을 상징하는 무구로, 여러 무구 가운데 중요하게 다루며 소중하게 보관한다. 평상시 작두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한지에 싼 후 다시 빨간색 치마로 싸서 신당 제단 위에 보관한다. 무구나 무복은 일반인이 만지고 볼 수 있지만 작두는 본인이 아니면 부정이 타기 때문에 잘 보여주지 않으며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작두를 가는 일과 붙잡는 일은 원래 남자가 하였으며, 이때 삼각형으로 접은 한지를 입에 문다. 입에 무른 이는 일체의 부정한 말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작두는 맨 먼저 절구통을 뒤집어 놓은 다음 그 위에다 쌀 3가마를 올린 후 떡판으로 편평하게 만든다. 최근에는 장대를 양 옆에 세



황해도 만구대탁굿 작두춤(김계순)
이북오도청 강당 | 2006.4.15 | 김영란

운 드럼통 위에 설치하고 계단을 세워 올라간다. 떡판 위에 다시 용궁단지(물동이)를 올린다. 물이 담긴 용궁단지 안에는 조기와 과일을 넣고 돈을 띄운다. 조기는 용궁님, 과일은 만신령, 돈은 재물을 각각 뜻한다. 용궁단지 위에다 모말(네 귀퉁이에 모가 난 말)에 쌀을 듬뿍 담아 올려놓는다.

무당은 장군칼과 오방기를 들고 장군모자(마래기)를 쓴 후 홍치마에 장군 더거리를 입는다. 작두 위에 올라가기 직전에 작두를 들고 한참 동안 춤을 춘다. 이때 작두를 손바닥, 팔, 허벅지, 등에다 대고 작두신령님의 영험력을 과시한다. 또한 작두를 장정들로 하여금 양쪽에서 붙들게 하여 턱걸이를 하고 다리를 들어 올리기도 한다. 여러 가지 영적인 춤으로 표현되는 작두춤이 끝나면 작두를 오른쪽 어깨에 메고 단골들에게 치마걸립을 한다. 치마걸립이 끝나면 작두를 모말 위에다 올려놓고 사람이 양쪽에서 작두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미를 입에 물고 잡는다.

작두에다 사람들은 절을 하면서 돈을 낸다. 사람들이 내는 돈은 모말의 쌀 속에 다 쑤셔 둔다. 무당은 춤으로 기를 극대화한 후 버선을 벗고 준비해 둔 정화수에 맨발을 담갔다가 곧바로 작두 위로 올라선다. 작두 위에서 장군칼을 들고 한참 춤을 추다가 한바퀴 돈 다음 오방장군기를 들어 춤을 추고 사람들에게 오방장군기를 뽑게 한다. 빨간색은 장군님을 상징하는 색이므로 많은 사람이 빨간색 기 뽑기를 원한다.

작두는 작두신령과 장군님을 상징하는 신 도구이며, 무당이 신령과 교신하고 영험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매개체이다. 작두를 타는 이유로는 첫째, 무당이 작두 타기를 통해 신령의 영험력을 극대화하고 공수도 영험하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함이다. 둘째, 작두를 탄다는 것은 맨발로 작두날을 누른다는 것이며, 이는 곧 부정한 액을 놀리고 좋지 못한 해로운 기운을 눌러 억제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이다.

참고문헌 한국의 전통춤(정병호, 집문당, 1999). 최영장군 당굿 굿춤의 유형과 기능과 특징(김영란, 최영장군당굿 학술세미나발표집, 2008). 중천-작두(대한선불 조계종 홈페이지 중천사, http://joongchun.egloos.com/910600).

필자 김영란(金暎蘭)

잡귀잡신(雜鬼雜神)

정의 서열에 따른 신 계통에서 가장 아래의 신인 계면, 걸립, 터주, 말명, 객귀, 잡귀 등을 일컫는 용어.

내용 잡귀잡신은 천신(天神)과 인물신(人物神) 계통 혹은 주요 직능신(職能神) 계통에도 속하지 않는, 무속신 계통에서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신격이다. 하지만 한국 무속의 전통에서는 이러한 신들도 버려두지 않고 부정굿이나 거리굿(뒷전) 때 반드시 언급하면서 먹을 것을 풀어먹여 돌려보낸다. 즉 굿판에 온 모든 신을 빼놓지 않고 위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우리의 굿이나 잔치에서 마을의 모든 구성원뿐 아니라 외지 구경꾼, 거지 등에게도 대접하는 것과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다.

서울굿에서 거론되는 잡귀잡신을 중심으로 그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걸립(乞粒)** : 뒷전에서 가장 먼저 모셔진다. 보통 24걸립이 나온다. 만신몸주걸립, 사위삼당제당(四位三堂諸堂)걸립, 상산(上山)걸립, 용궁걸립, 서낭걸립, 반장걸립, 사신(使臣)서낭 왕래걸립, 육조(六曹)삼말부군걸립, 배웅남산불사걸립, 매당왕신(王神)산활걸립, 열네애기재계걸립, 세자(世子)걸립, 본향부군걸립, 성주걸립, 지신(地神)걸립, 화주(化主)걸립, 시주(施主)걸립, 양위(兩位)몸주걸립, 직성(直星)걸립, 홍수[橫數]걸립, 영산걸립, 귀책(鬼責)걸립, 상문걸립, 동법걸립 등이다.
2. **터주(터대감)** : 지신대감으로도 불린다. 이 터대감은 굿의 본과장에서 대감거리에도 끼어 등장하지만 뒷전에서는 단독으로 모셔진다. 만신몸주대신대감, 사위삼당제당대감, 천신대감, 순력대감, 상산대감, 용궁대감, 재가집몽주대감, 열입대감 등이다.
3. **지신 할머니** : 터주가 터의 남신(男神)에 해당된다면 이 신령은 터의 여신(女神)이 된다.
4. **수광대(首廣大)** : 재가집의 조상 가운데 중이나 무당이나 광대였던 이들을 모셔 논다.
5. **서낭[城隍]** : 서낭 또는 성황은 각 처의 서낭을 이르며 마을의 수호신이다. 만신몸주대신서낭, 용신서낭, 중디서낭, 반장서낭, 왕래서낭, 불사서낭, 사신서낭, 자하문(紫霞門)서낭, 동악당(同樂堂)서낭, 우물서낭, 자지동(紫芝洞)서낭, 우수재[牛首峴]서낭, 노주(路主)서낭, 외대백이서낭, 고물[船尾]서낭, 이물([船首]서낭, 긴대[長竿]서낭, 노젤[櫓漕]서낭, 밀물[滿潮]서낭, 썰물[干潮]서낭 등이다.
6. **사신(使臣)** : 조선이나 중국의 사신 가운데 공무도중에 죽은 이들은 신격화되어 별상거리에 붙여 놀아지지만 이곳 뒷전의 사신은 사신들 앞에서 놀던 말뚝이를 가리킨다.
7. **맹인(盲人)** : 이 맹인거리에서는 곽각(郭覺), 이순풍(李順風), 홍계관(洪繼寬) 등 점복신(占卜神)과 재가집의 조상 가운데 맹인들이 모셔진다.
8. **하탈[下澽]** : 하탈은 재가집 부녀 가운데 아이를 낳다가 죽었거나 아이를 낳고 죽은 귀신을 말한다.
9. **말명** : 서울 · 경기 지역의 옛 천신굿에서는 뒷전의 말명이라 하여 재가집의 하인이나 종이 죽어 된 귀신을 놀린다. 이들은 말하자면 행세를 못하는, 떳떳하지 못한 귀신들이다.
10. **객귀(客鬼)** : 글자 그대로 객지에서 죽은 귀신이기도 하고 또 집안의 다른 귀신을 가리키기도 한다.
11. **영산** : 영산(靈山) 또는 영산(零散)이라고 쓰며 참혹하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넋이 이 계열에 든다. 남영산, 여영산, 조상영산, 호(虎)영산, 거리노중(路中)에 객사(客死)영산, 만경창파 수살(水殺)영산, 낳고 간(아이를 낳고 죽은)영산, 배고 간(임신 중에 죽은)영산, 난리통에 가던 영산, 총 맞고 살(矢) 맞고 가던 영산, 쥐통에 가던 영산, 회통에 가던 영산, 쓰리통에 가던 영산, 덜미치기에 가던 영산, 군문효수(軍門梟首)에 가던 영산, 서소문 네거리에 각(脚)을 뽑고 가던 영산, 육시허참(戮屍虛斬)에 가던 영산, 약 먹고 자결 한 영산, 목 매고 자살한 영산, 나무에 치여 압사(壓死)한 목신(木神)영산, 흙에 치여 토신(土神)영산, 돌에 치여 석신(石神)영산, 세네부리 빛 다른 영산, 색다른 영산 등이다. 이 밖에도 육이오 사변에 사일구사변에 총에 맞아 간 혼신, 외국영산에 타국영산 등도 있다.
12. **상문(喪門)** : 상문은 상가(喪家)에서 묻어 따라온 귀신이다. 남상문, 여상문, 늙은이 죽은 망령상문, 젊은이 죽은 소년상문, 머리 풀어 발상(發喪)한 상문, 은하수 대곡(大哭)상문, 뜰 네 귀에 범한 상문, 사랑(舍廊) 네 귀에 범한 상문, 외행랑(外行廊) · 내행랑(內行廊)에 범한 상문, 지촉부의(紙燭賻儀) 왕래(往來)상문, 통부서(通訃書)에 따라온 상문 등이 있다.
13. **수비** : 수비하직 · 수부 등으로도 불리며, 주신(主神)에 따라다니는 잡귀잡신들이다. 상청(上廳)의 서른여덟 수비, 중청(中廳)의 스물여덟 수비, 하청(下廳)의 열여덟 수비, 우중간(右中間) 남수비, 좌중간(左中間) 여수비, 벼루 잡던 수비, 책 잡던 수비, 먼 길 객사 수비 등이 있다.
14. **잡귀(雜鬼)** : 잡귀는 잡귀잡신의 줄인 말이 아

니라 잡귀잡신의 한 종류이다. 뒷전에 99도귀(都鬼), 53떼귀신이라 불리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우주만물의 잡종 99귀신이 여기에 든다.

15. **동법** : 동법은 집안의 목(木), 토(土), 석(石) 재료로 탈난 것을 가리킨다. 동티, 동토와 유사하다.

걸립, 터주, 지신할머니, 서낭은 수호신의 성격을 띠고 있다. 동법과 상문은 각기 동법살과 상문살이라 불리는 만큼 오히려 어떤 악독한 기운을 가리키고 있음직하다. 원한을 품은 잡귀잡신으로는 하탈, 영산, 말명, 객귀, 잡귀가 손꼽힌다.

지역사례 동해안별신굿에서 잡귀잡신의 존재는 특별하다. 따로 거리굿을 성대하게 벌여서 일일이 열거하며 음식을 풀어먹여서 보내주기 때문이다. 이 거리굿의 내용을 통해 모셔지는 잡귀잡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서장** : 남자주격이 바지저고리 차림에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거리굿을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2. **훈장거리** : 엉터리 훈장과 엉터리 제자 간에 일어나는 골계적인 만담식 문답으로 진행된다. 복장은 입은 그대로이다.
3. **과거거리** : 선생이 과거하러 갔다가 쫓겨나 자살한 뒤 저승 과거에 합격 급제하여 귀신을 관장하는 호구감관이란 벼슬을 받고 이승에 오기까지의 엉터리 이야기를 하여 모든 사람을 웃긴다.
4. 귀신문 열기 : 귀신들의 문을 열어 주는 경문을 읽고 육갑의 순서와 방위에 따라 배치하는 내용이다.
5. **관례거리** : 관중 속에서 청년 한 사람을 골라서 얼사촌이라 하고, 또 노인 두 분을 지적하여 사장과 아배역을 각각 정하여 골계적인 관례를 치른다. 폭소연발의 굿놀이이다.
6. **골매기 할매** : 화랭이는 치마저고리를 입고 수건을 쓴다. 며느리 흉보기와 칭찬하기가 주요 내용으로 일상에서 일어나는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실감나게 흉내 내어 웃음을 터뜨리게 한다.
7. **골매기 할배** : 갓을 쓴 화랭이는 짚으로 만든 안경을 걸치고 지팡이를 짚고 등장하여 마누라인 골매기 할매를 찾는다.
8. **봉소거리** : 눈을 감은 장님 행세를 하며 방아 찧는 각득 아주머니네들과 외설적인 노래를 주고받는다. 그리고 약수를 길어다가 눈을 씻고 눈을 뜨는 것으로 끝난다.
9. **해녀거리** : 짚으로 만든 우스꽝스러운 물안경을 쓰고 해녀가 잠수하는 흉내, 미역을 따는 흉내를 비롯하여 해녀생활의 이모저모를 골계적으로 잘 나타내 보인다.
10. **어부거리** : 노를 젓고, 고기그물을 데리고 끌어올리는 등, 어업에서 하는 일체의 조업상황을 그대로 모사해 준다. 그리고 풍어의 기쁨을 만끽하다가 태풍을 만나 파선되는 처절상까지 일인모의로 연기력을 훌륭하게 발휘하여 실감나게 연출한다.
11. **군대거리** : 국방의 필요성이 중요시되는 현실의 일면을 굿 속에서 연희를 통해 재차 실감하게 하여 이로 인한 희생자 방지와 함께 희생자의 혼을 위무해 주는 놀이이다.
12. **출산거리** : 거리굿 중에서 가장 희학(戱謔)적인 놀음거리이다. 치마저고리에 머리에는 수건을 두르고 아기를 배게 되는 장면, 잠자는 장면, 보리밭에 오물을 주는 장면, 이장과 수작하는 장면, 물을 길어 와서 밥을 짓는 장면, 낮잠 자는 장면, 아기를 낳는 장면, 공부를 시키는 장면, 병을 앓는 장면, 아기가 죽는 장면 등 모든 과정마다 배를 잡고 웃지 않을 수 없는 기막힌 희학성을 보인다.
13. **머구리** : 잠수부가 해저에 내려가 조업하다가 산소 공급이 잘 안 되어 희생되는 일면을 사실적으로 재연해 보이는 과정이다. 슬픈 내용의 비극을 웃음으로 표현한다.
14. **각종 현대판 원혼** : 교통사고로 죽은 영가, 약을 먹거나 목 매달아 자살한 영가 등 현대사회의 문제로 인해 저승으로 간 영혼들을 풀어먹인다.

참고문헌 동해안 지역 무극 연구(이균옥, 박이정, 1998), 朝鮮巫俗の研究 上, 下(赤松智城 · 秋葉隆, 大板 屋號書店, 1937).
필자 조정현(曺鼎鉉)

장구떡

정의 서울 만신들이 본인의 신령들을 위한 진적굿 때 천장에 당(堂)을 메고, 그 위에 올렸던 떡의 하나.

내용 '당떡'의 하나인 장구떡은 생김새가 악기인 장구 같다고 하여 이러한 이름으로 불린다. 정식 명칭은 당에 올리는 떡이므로 '당떡'이다.

서울의 무당들이 자신이 신을 받을 날을 생일처럼 여기고 한 해 한 차례 자신들의 신령들을 위해 진적굿을 한다. 진적굿을 할 때 차리는 제물로 장구떡을 올린다. 이때 제물은 많이 차리지 않고 당떡 세트를 만들어 올리는데, 당떡은 편떡, 웃기, 장구떡, 벙거지떡으로 구성된다. 당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진 '벙거지떡'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무 · 굿과 음식 1(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서울굿의 다양성과 구조(김헌선, 한국무속학 12, 한국무속학회, 2006).
필자 김형근(金亨根)

내용참조 벙거지떡(336쪽)

장군개(將軍蓋)

정의 장군신이 하강할 때 햇빛이나 바람 또는 비 등을 가리기 위해 사용되는 신구(神具).

내용 장군개는 굿청 천장에 띄워 둔다. 장군개에는 장군 형상의 인물을 그려 넣었기 때문에 이를 한편에서는 인물개라고도 부른다.

장군개는 제작자에 따라 일층개와 이층개 두 가지 형태로 제작된다. 일층 형태의 경우는 둥그런 틀을 위쪽에 하나만 제작하는 것이고, 이층 형태는 둥그런 틀을 위아래 두개로 제작한다. 둥그런 틀은 두꺼운 종이나 얇은 나무로 만들어서 겉에 물감들인 한지를 바른다. 틀 하단 부분에는 여러 개의 한지를 주렁주렁 늘여 붙인다.

개는 굿이 끝나면 불태우고 또다시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나 제작 시간도 많이 걸릴 뿐 아니라 제작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근래에는 보관하였다가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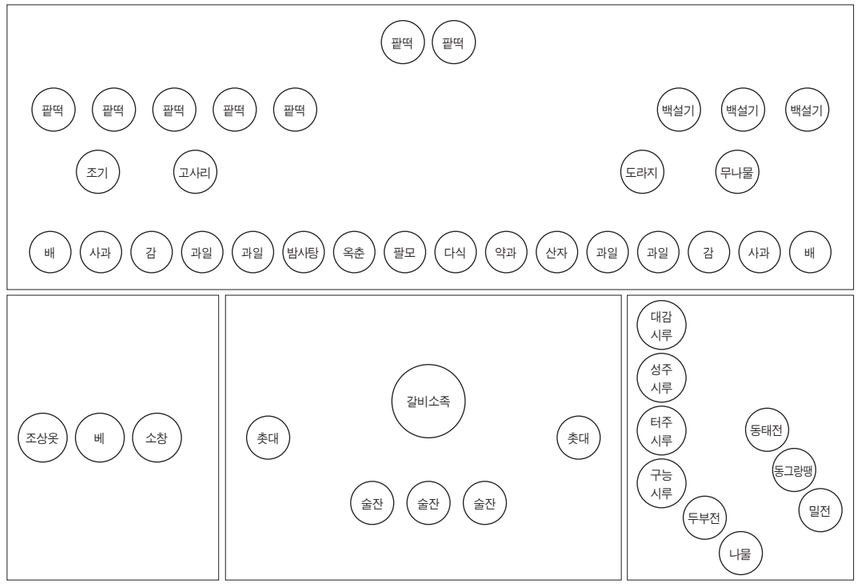
참고문헌 황해도 굿에 쓰이는 종이 신화와 신구의 종류, 형식, 상징성 고찰(양종승, 한국무속학 13, 한국무속학회, 2006).
필자 양종승(梁鍾承)

장군상(將軍床)

정의 장군신에게 바치는 상.

내용 서울굿에서는 굿을 연행할 때 각각의 신령들에게 상을 차린다. 이때 장군신에게 바치는 상을 장군상이라 한다. 장군신이 대안주거리의 '상산거리'에 청배되기 때문에 대안주상을 장군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장군상은 독립된 상이었지만, 지금은 장군상에 조상상과 불사상을 함께 차리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조상상과 불사상은 개인굿에는 반드시 차리지만 마을굿과 새남굿에서는 차리지 않는다. 내림굿에서는 조상상을 차리지만 불사상을 차리지 않고, 맞이굿에서는 조상상을 차리지 않는다. 따라서 굿의 종류에 따라 장군상은 상차림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서는 독립적인 장군상이 아니라 조상상과 불사상이 함께 있는 경우를 제시한다.

여기에서 왼쪽의 팥떡 다섯 접시는 조상님떡으로, 살제비꽃을 한 송이씩 꽂는다. 흰색이나 노란색, 빨간색을 많이 사용한다. 중앙에 있는 두 개의 팥떡이 장군님떡으로, 수파련꽃 1층짜리를 꽂는다. 그리고 이 수파련꽃을 에워싸듯이 가지꽃을 여러 송이 꽂는다. 오른쪽에 있는 세 접시의 백설기는 불사님떡으로, 중앙에 있는 백설기에 수파련꽃 흰색 1층짜리를 꽂는다. 신사굿에서는 3층짜리 꽃을 사용한다. 그리고 역시 수파련꽃을 에워싸듯이 가지꽃을 여러 송이 꽂고, 다른 백설기에는 가지꽃을 한 송이씩 꽂는다. 우환굿에서는 찹쌀로 떡을 만들지 않는다.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술은 맑은 술을 사용한다. 새남굿에서는 팥떡이 편떡으로 바뀌고 백설기 안쪽으로 방망이떡 세 개씩을 올린다. 방망이떡은 진오기굿, 새남굿에서만 올려지는 특이한 떡인 셈이다. 그리고 산자 위에는 질빵을 반드시 얹는다. 새남굿에서는



꽃도 조금 달라지는데 수파련꽃을 3층 짜리로 사용한다. 장군님떡 위에 꽂은 수파련꽃 위에는 넋전을 올린다. 진진오기굿이라면 처음부터 넋전이 올라가 있겠지만 묵은진오기굿에서는 조상님떡 위에 있다가 사제삼상을 돌 때 수파련꽃 위로 올라간다.

참고문헌 서울굿의 상차림에 대하여-서울굿의 양상과 의미(홍태한, 민속원, 2007).

필자 홍태한(洪泰漢)

장말도당굿

정의 경기도 부천시 장말에 전승되는 도당굿. 장말은 덕수 장씨(德水張氏) 집성촌을 가리키며, 굿의 순서와 내용은 경기도도당굿의 일반적인 제차를 따른다. 현재 부천의 장말 도당은 부천시 원미구 중동 756-7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역사 장말에 있는 할아버지당(큰당 또는 웃당)은 돌팡구지라 부르는 커다란 바위로 가로 4m, 세로 2.5m, 높이 1m가량 된다. 할머니당(아랫당, 작은당)은 당집이다. 애초에 할아버지당은 마을 어귀쯤에 있었고 할머니당은 마을 중심에 있었지만, 1984년 도시계획에 의해 할머니당이 헐리면서 할아버지당인 돌팡구지 뒤쪽에 할머니당을 세우게 되었다. 할아버지당에는 장씨 장수가 오줌을 눈 자국이 돌에 파여 있다는 이야기, 할머니당에는 임진왜란 때 왜군이 놓은 덫에 말 다리가 부러져 잡혔다는 장씨 장군의 이야기가 각각 전해 내려온다. 그 장군을 기리기 위해 장말도당굿의 도당할아버지는 한 쪽 다리를 들고 추는 외다리춤(깨끼춤)을 춘다고 한다. 할머니당인 당집을 헐고 다시 지을 때 당집 주춧돌 밑에서는 한쪽 다리를 들고 있는 쇠말이 나왔다고 한다.

장말도당굿의 기원은 확실하지 않다. 역사적으로 덕수 장씨가 13세기 말에 한반도에 들어왔고, 할머니당에 임진왜란 때의 전설이 내려오며, 마을의 안녕과 풍작을 기원하는 토착신앙으로 장말도당굿을 벌였다는 것으로 그 역사가 짧지 않음을 추정할 수 있을 따름이다. 굿은 격년으로 음력 10월에 진행하다가 1960년대 중반부터 전승의 맥이 끊어졌다. 그러다가 1980년 11월부터 다시 격년으로 음력 10월에 굿을 하게 되었으며, 1996년부터는 해마다 음력 10월 초에 진행하는 것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2년 장말도당기념비를 세우면서 덕수 장씨를 중심으로 장말도당후원회와 장말도당보존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도당에서 행하는 신앙 행위들로 인한 미관상 문제와 냄새, 도당굿 준비와 진행으로 인한 소란스러움 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못마땅해하는 시각들이 늘어나고 이에 대한 민원이 강해지자 2003년부터 장말도당굿은 장소를 옮겨 진행하고 있다. 현재 장말도당굿은 도당에서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부천시 중앙공원의 야외음악당 무대와 그 전방에서 행해지고 있다.

내용 도당은 그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을 모신 장소를 말한다. 부천 장말에는 바위로 된 할아버지당과 집으로 된 할머니당 두 개가 있다. 다른 지역의 도당굿과 비교하여 장말도당굿의 가장 특이한 점은 도당할아버지가 있다는 것이다. 도당할아버지는 덕수 장씨 중에서 남자로만 세습되며, 무당은 아니지만 당신(堂神)이 실려 도당굿을 할 때 당신을 모시는 역할을 한다. 무당이 아닌 도당할아버지가 신을 몸에 모신다는 점에서 더욱 특이하다. 도당할아버지는 굿 전체를 감독하고 관리하지만 구체적으로 웃당의 할아버지당신을 아랫당으로 모시고 내려오는 도당모셔오기와 동네 사람들의 일 년 운수를 봐 주는 꽃반에 부채 세우기를 한다. 도당모셔오기와 꽃반에 부채 세우기를 하면서 몸에 신을 모시면 도당할아버지는 한쪽 다리를 들고 '외다리춤'을 춘다. 도당할아버지는 현재 장승도-장윤행-장한복-장현수로 이어지고 있다. 장한복은 장윤행의 2남 2녀 중 차남이고, 장현수는 장윤행의 장남의 8남매 중 셋째아들이다.

장말도당굿은 경기도도당굿을 연행하는 화랭이(남무)와 미지(여무)가 굿을 진행하기 위해 마을을 방문하며, 장씨 마을의 도당할아버지와 당주 등이 굿을 준비한다. 장말도당굿은 덕수 장씨 가계로 세습되는 도당할아버지가 존재하며, 그 도당할아버지가 당 모시기와 꽃반 세우기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여느 지역의 도당굿과 다른 특징이다.

장말도당굿은 14개의 굿거리로 진행된다. 제차의 순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주굿은 도당굿을 주관하는 당주 집에서 하는 굿으로, 간단하게 상을 보고 부정을 물리고 당주댁의 안녕을 빈다. 부정굿은 할머니당에서 지내며, 앉은부정과 선부정으로 이루어진다. 도당모셔오기는 도당할아버지가 도당할아버지 옷을 입은 다음 돌팡구지 앞에 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신이 몸에 실리면 신을 모시고 할머니당에 가서 신을 좌정시킨다. 돌돌이는 마을 사방에 장승을 깎아 세워 놓은 다음 오방신장을 쓴 깃대를 들고 사방의 장승을 돌며 마을을 잘 지켜줄 것을 축원하는 것으로, 마을굿의 성격을 가장 잘 반영하는 굿거리로 보인다. 장문잡기는 돌돌이가 끝나면 할머니당으로 돌


1


2

1. 꽃반 세우기 전에 외다리 춤을 추는 도당할아버지

2. 장말도당굿의 돌팡구지 (할아버지당)
부천시 중앙공원 | 2007.11.11 | 시지은

장말도당굿
정수미

















아온 후 무녀가 쌀 섬 위에 앉으면 화랭이가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불러 신을 기쁘게 한다. 시루굿은 시루말, 즉 시루의 말로 볼 수 있다. 시루굿은 칠성굿이라도 하는데 그 이유는 자손의 수명장수를 위해 칠성님에게 비는 것으로 칠성님의 본을 풀기 때문이다.

꽃반에 부채 세우기에서 꽃반은 조그만 상 위에 백지를 깔고 쌀 서 되 서 홉을 부어 놓은 것으로, 집집마다 가져온 것을 말한다. 도당할아버지가 옷을 갖춰서 수건과 부채를 들고 꽃반 사이에서 춤을 추다가 신이 내리면 한쪽 다리를 들고 외다리춤을 추다가 어느 꽃반 위에 부채를 세운다. 부채가 쓰러지지 않고 한 번에 잘 서면 그 집의 재수가 좋다고 믿는다. 부채가 선 꽃반의 쌀은 자루에 담는다. 무속인이 아닌 도당할아버지가 온전히 진행하는 거리로 장말도당굿에서 가장 특별한 거리이다. 제석굿은 제석의 출생과 일대기를 담고 있는 〈제석본풀이〉를 구송하거나 중타령을 하는 순서와 마찬가지로 바라에 돈을 내러 나온 동네사람들이 춤을 추며 즐기는 거리이기도 하다.

터벌림은 무녀(미지)들은 하지 않고 남무(화랭이)들이 한다. 터벌림은 한 사람씩 나와 꽹과리를 들고 치면서 춤을 추며 노는 일종의 장기 자랑으로, 다음에 이어질 손굿과 군웅굿 등 큰 굿거리를 시작하기 전에 굿터를 벌여 놓는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손님굿에서 손님은 마마, 즉 천연두 신을 말한다. 이 굿에서는 천연두 신을 물리치는 형상이 깨끼으로 놀아진다. 깨끼은 지역신과 외부에서 온 신과의 투쟁과 만남을 의미한다. 화랭이 둘이 춤을 추다가 갑자기 씨름을 하듯이 싸운다. 그러다가 외부에서 온 신이 이기고 나면 손님노정기, 나귀치장타령, 손님치장, 압록강 건너기, 배타령, 평양기생점고 등을 부른다. 군웅굿은 경기도당굿에서 가장 큰 거리로 여긴다. 군웅상을 높이 차린 뒤 군웅청배와 쌍군웅춤(방수밟이)을 추고, 생닭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 잡귀를 물리치고, 군웅노정기를 부른다. 중굿은 화랭이들이 하는 굿이다. 고깔과 장삼을 쓰고는 중을 흉보고, 중타령을 부르고 갖가지 축원과 덕담을 한다. 도당모셔들이기는 도당할아버지가 도당신을 다시 웃당인 돌팡구지로 모셔가는 거리이다.

뒷전은 굿에 따라 들어온 잡귀와 잡신을 풀어먹이는 거리로, 커다란 짚인형인 정업이를 만들어 세워놓는다. 그러면 화랭이들이 깨끼을 하고 재담과 노래를 한 다음 정업이와 깨끼을 하여 쓰러뜨리고는 불에 태운다.

참고문헌 한국인의 굿과 무당(황루시, 문음사, 1988), 조선무속의 연구 상(赤松智城, 秋葉隆 共著, 심우성 옮김, 동문선, 1991), 경기도도당굿: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186호(이두현 · 장주근 · 정병호 · 이보형, 문화재관리국, 1990), 경기도도당굿: 중요무형문화재 제98호(김헌선,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한국민속문화대사전 下(김용덕, 도서출판 창솔, 2004).

필자 시지은(施知恩)

장발

정의 황해도굿에서 제장을 장식하는 기다란 종이장식으로 신에게 비는 축원의 말을 써 놓은 것이다. 장발을 길게 늘여서 장식하는 것을 '장발 띄운다'고 한다.

형태 장발은 이를 받는 신에 따라서 그 색깔과 쓰는 내용을 구분한다. 김금화 만신에 따르면 장발은 특히 만수대탁굿 등의 큰굿에서 열두 발되는 종이를 장식하는 것으로, 이 종이들은 각각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보라, 자주 등의 여러 색으로 물들인 다음 기름을 먹여서 단단하게 만들어서 봉죽으로 높고 길게 늘어뜨리는데, 이를 장발 띄운다고 한다. 굿청에 세워 둔 봉죽부터 당산이나 마을 어귀까지 꽃을 띄워서 길게 늘인다. 장발의 종류로는 장군장발, 칠성장발, 감흥장발, 군웅장발 등이 있다.

이와 달리 장발의 범위를 확대해서 제장을 장식하거나 굿을 연행할 때 사용하는 모든 긴 종이류로 좀 더 세분하면 만장발, 오방장발, 무지개장발, 제석장발, 칠성장발, 상산부군장발, 감흥장발, 걸립장발, 십대왕장발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내용 김금화의 자료집에 정리된 내용에 따라서 장발의 네 종류를 구분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장군장발** : 임경업 장군님, 최영 장군님, 치우 장군님(이름 높은 장군님들)과 그 마을에서 모시는 장군님의 이름을 쓰고 당산에 띄우는 것이다.
2. **칠성장발** : "동해사성, 남해육성, 서두팔성, 북두칠성, 칠성님전 명복을 기원합니다. 자손들 수명장수발원"이라는 글을 써서 굿당의 중심 뒤쪽을 띄운다.
3. **감흥장발** : 나라의 중요직책을 맡은 사람들(옛날 임금이나 공주 등), 굿하는 만신이 모시던 신어머니의 이름, 단골집의 이름, 재가집의 가족 이름과 "만감흥 신령님 ○○년 ○○월 ○○일 ○○군 ○○면 ○○리에서 만수대탁을 대령입니다"라고 쓰고 마을 한가운데 띄운다.
4. **군웅장발** : "제일전 진관대왕 정광불이 원불인데, 도신지옥 풀어주고(경오, 신미, 임신, 계유, 갑술, 을해), 제이전 초관대왕 약사불 화탕지옥 면해주고(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로 제십전 전륜대왕 흑암지옥까지 모두 써서 굿당의 가장 바깥쪽의 서낭의 수비 있는 곳에 띄운다.

장발은 신이 오시는 길을 표현하는 한 방식이다. 각 신에 따라서 각기 다른 색으로 종이를 물들여서 신이 오시는 길을 만들고, 거기에 꽃을 띄워서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큰굿에서 사용된 장발은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잘라서 대신발을 만들어서 사용한다. 대신발은 사용하지 않는 동안 서낭마지 위에 걸어 놓아서 대신발에 잡귀가 붙어있다가 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대신발은 모든 뜬귀나 잡신들이 함부로 굿청에 들어오지 못하게 중간에서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

참고문헌 김금화의 무가집(김금화, 문음사, 1995), 큰무당 우옥주 유품(국립민속박물관, 1995), 한국의 무속–서울 · 황해도편(양종승, 국립민속박물관, 1999), 서울굿의 신화(神花)(양종승 · 최진아, 한국무속학 4, 한국무속학회, 2002).

필자 김은희(金銀姬)



장발
국립민속박물관 사진자료 소장

장보배
이선비 화수동 자택 | 2009.5.19 | 김은희

장보배

분야 중요무형문화재 제90호 평산소놀음굿 기능보유자.

내용 장보배(張寶培, 여)는 1915년에 황해도 평산군 평산읍에서 출생하여 13세부터 신병 증세가 있었으나 자주 이사를 다니며 이를 감추었다. 19세 때 평산군 안성면 제암리(祭巖里)로 시집갔다. 시집살이를 하던 중 1936년 어느날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였다. 날씨가 좋은 데도 비가 온다고 빨래를 거두자고 하고 부엌에서 그릇을 씻을 때면 거기서 꽹과리 징소리가 난다고 하였다. 바가지를 잡으면 북소리가 난다고 하여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다. 집안 사람들이 깜짝 놀라 그녀가 정신이 다시 돌아오면 그때마다 부끄러워 어쩔줄 몰라 했다고 한다.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에 시부모는 논밭을 주어서 내보내라고 하였지만, 그녀의 남편은 부모를 설득하여 무마시키곤 하였다. 장보배는 김씨 할머니(당시 85세)라는 무당을 신어머니로 삼으면서 본격적으로 무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해방 때까지 4년간 평산군에서 무업을 하였다.

장보배는 무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병환굿으로 유명하였다. 당시는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하에서 무업을 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었다. 일본인들은 굿하는 것을 부정하면서 굿소리만 나면 몰려와 기구를 공출하려고 하였다. 굿을 꼭 해야 할 때는 이불을 둘러쓰고 해야만 했다. 하루는 이장 집에서 굿을 하는



데 일본 순사들이 들이닥쳐 감옥으로 끌려갔다. 그 때 일본인 경찰서장이 찾아와 장보배에게 자기 부인이 병이 났는데 굿을 하면 고칠 수 있느냐고 물어 그녀는 고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경찰서장은 굿을 하기로 하였다. 장보배는 소와 돼지를 잡아 큰굿을 벌였다. 경찰서장의 부인은 이 굿을 마친 후 완쾌되었다고 한다. 그 후 고향 평산군 일대에서 무업을 계속하다가 광복을 맞이하였다.

장보배는 공산정권을 피해 1947년에 월남하여 강화군 교동면 삼선리에 정착하였다. 그곳에서 다시 신어머니로 해주 출신의 무당 오씨 할머니(당시 79세)를 모시고 무업을 하였다. 그러나 얼마 안 가 오씨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신어머니가 남기고 간 신당을 맡아서 무업을 계속하였다. 1985년 8월 14일에는 이선비와 함께 평산소놀음굿을 인천에서 재현하였고, 그 후 서울놀이마당과 인천 화도진 공원에서 작두그네타기와 함께 여러 차례 발표회를 가졌다. 1986년 전국민속경연대회의 참가로 1988년 8월 1일 중요무형문화재 제90호로 평산소놀음굿이 지정되고 또한 장보배는 평산소놀음굿의 초대 기능보유자가 되었다. 장보배가 작고한 후 평산소놀음굿의 기능은 이선비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장보배는 1975년에 작고한 남편과의 사이에 2남 4녀를 두었으며 그중 장남과 함께 생활하다가 1991년에 작고하였다.

참고문헌 황해도평산소놀음굿(양종승, 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필자 김덕묵(金德默)

장삼(長衫)

정의 서울굿에서 착용하는 장삼은 불교의 법의인 장삼을 본떠 만들어 무복으로 착용한 것으로 어깨와 허리에 승려의 법의인 가사를 의미하는 붉은색 띠를 함께 두른다.

유래 장삼은 불사거리, 제석거리, 천왕거리 등 불교적인 색채의 굿거리에서 착용하며 굿을 하는 현장에서는 불사장삼이라고 부른다. 장삼은 불교에서 가사 아래에 착용하는 법의의 일종이다.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에서는 원래 착용하지 않으며 불교가 전래된 중국 · 한국 · 일본 등에서 인도와의 기후 차이로 인해 가사 아래 착용하게 됐다.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될 때 인도의 법의가 전래되었겠지만, 중국에서는 기후적인 조건과 생활 습관이 달라 인도에서 전래된 법의를 자신들의 기후에 맡게 고친 상의인 편삼(褊衫)과 중국의 하의인 군자(裙子)를 가사 안에 착용하였다. 이 편삼과 군자를 당나라 말경에 이르러 중국 고유의 복식과 혼합하여 허리를 꿰매 이은 직철(直綴)을 만들어 법의로 착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불교가 전래된 초기에는 가사 안에 우리 고유의 포를 착용하거나 중국의 편삼과 군자를 착용하였으며, 고려시대 초까지도 승복으로 편삼과 군자를 가사 안에 착용하였다. 고려시대에서도 승려의 법의로 직철을 착용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직철을 장삼이라고 불렀다. 이후 계속해서 직철형의 장삼이 승려의 법의로 착용되었다.

우리나라 장삼의 형태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고려시대의 보조국사 지눌의 장삼을 본 따 1946년경에 제작한 장삼과 조선 중기 승려인 사명대사의 장삼이 있는데, 그 중 사명대사의 장삼은 현존하는 승복장삼으로서 가장 오래된 유물자료로 재료는 고운 연회색 무명이고 직령교임식의 깃에 동정이 없으며, 상의와 하의를 연결하여 꿰맨 형태이다. 아랫부분의 치마폭수는 10폭으로 되어 있으며 오늘날의 맞주름과 같은 주름이 8개가 잡혀 있다.

고려시대에는 장삼의 색상으로 하늘색이나 흰색이 사용되었고, 재료로는 비단과 사가 사용되었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장삼의 색이 남색과 흑색이었으나 세종 11년(1429) 승려의 흑색사용을 금한 이후 남색과 회색이 사용되었으며, 재료는 비단과 무명이 사용되었다. 후에 일본의 제를 따라 자색, 감청색, 회색, 흑색도 사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회색 장삼으로 통일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불교의 법복으로는 종파에 따라 두 종류의 장삼이 착용되고 있다. 그중 하나는 조계종에서 착용하는 장삼이다. 이는 상의하상식의 직철형으로 소매통이 넓다. 반면에 전통적인 한국불교의 교종이라고 하는 태고종에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직령난삼이나 도포와 비슷한 것으로 상 · 하가 한 장으로 재단되어 있으며, 소매는 광수인 장삼을 착용한다. 두 종파에서 착용하는 장삼의 깃에는 동정이 없으며, 색은 회색과 백색이 사용되고 있고, 재료는 모직물이나 합성섬유를 사용한다.



제석거리(장삼)
『무당내력』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내용 서울굿에서 제석거리나 불사거리 등 불교적인 신을 모시는 굿거리의 무복으로 착용된 장삼도 조선시대에는 불교의 법복인 장삼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조선시대 무복으로 사용된 장삼에 대한 기록으로는 병인년(1866년)「온산송악별기도발기(松岳別祈禱發記)」가 있다. 여기에 '승당'의 무복으로 '황세포장삼 50자'와 '다홍수아주접은띠이 6자 반굴'이라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승당은 불교적인 특성의 신으로 보이고, 황세포(세마) 50자는 장삼의 제작에 소모되는 양으로 장삼의 크기가 매우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장삼의 색상은 표백되지 않은 순수한 세마포 재료 자체의 색상이고, 품질이 좋은 황세마포와 수아주를 무복 재료로 사용한 것은 궁중의 굿이기도 하지만 굿을 할 때 착용하는 무복이 신의 옷으로서 경건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 서민들이 행하는 굿의 양상을 알 수 있는 자료인 『무당내력』에 묘사된 조선시대의 장삼은 전통적인 장삼과 차이가 없다. 장삼의 색상은 흰색이고, 깃은 동정이 없는 직령교임이며, 소매는 통이 넓은 광수이고, 상의하상식의 직철형이다. 치마 부분에는 주름을 넣어 폭이 넓을 뿐 아니라 길이도 발등을 덮을 정도로 길다. 가사를 상징하는 홍색 띠는 오른쪽 어깨에서 비스듬히 가슴 중앙에 위치하도록 둘렀다. 또 가슴부분에 홍색 띠를 두르고 머리에는 흰색 고깔을 함께 썼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무복의 형태에도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1930년대 서울굿에서 착용한 장삼은 백색이며 깃은 직령교임이다. 길이와 폭은 조선시대의 것과 같이 대단히 넓으며 길이도 길어 거의 발목에 닿을 정도이다. 소매는 광수이지만 팔을 꺼낼 수 있도록 소매의 진동부분에서 앞에 트임을 주어 기능성을 고려하였다. 또한 조선시대와 달리 양 어깨에는 가사를 상징하는 홍색 띠를 걸쳤다. 이 띠는 길이가 길어 땅에 끌릴 정도이며 띠 전체에 금박을 찍어 매우 화려해졌다.

오늘날 서울굿에서 무복으로 착용되고 있는 장삼의 제작방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착용되고 있는 불교의 장삼과 같이 크게 두 가지이다. 조선시대 장삼의 제작방법과 같이 상의와 하의를 연결한 직철형과 우리나라 고유의 도포제와 같이 상하의가 연결되어 제작된 방법이다. 직철형의 장삼이나 도포제의 장삼이나 모두 전통적으로 착용된 장삼과는 다소 다른 형태이다.

상의하상으로 제작된 장삼의 형태를 보면 깃이 마주 보는 쌍깃이고 동정이 달려 있다. 또 소매는 광수로 넓고 길며 전통장삼과 같이 수구로 손을 내놓도록 되어 있고 진동부분의 앞에 트임이 있는 것도 있다. 치마 부분에는 주름을 잡았다. 전통 장삼과는 달리 외주름을 여러 개 잡았으나 전통무복의 폭보다는 좁은 편이며 길이는 종아리를 덮을 정도이다.

우리 고유의 포제를 본떠 상 · 하의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장삼 역시 깃은 마주 보는 쌍깃이며 소매는 광수이고 소매의 진동 부분에서 앞부분에

트임을 주어 팔을 내놓도록 되어 있으며 뒤중심선에서 허리 아랫부분이 트여 있고 길이는 종아리를 덮을 정도의 길이이다.

특히 장삼의 장식성이 높아져 장삼의 형태와 관계 없이 어깨 부분에 학 문양의 둥근 보(補)형 장식을 하기도 하고, 소매 · 길 등에 모란꽃 문양을 수놓기도 하는 등 화려한 장삼도 무복으로 착용되고 있다. 또한 장삼 위에 두르는 가사를 상징하는 띠도 홍색 · 녹색 · 청색 등 다양한 색상에 모란꽃 · 사슴 · 구름 등 문양을 수놓아 대단히 화려해졌을 뿐만 아니라 가슴에 두르는 띠에도 쌍학 문양을 수놓은 흉배형의 장식을 하여 전체적으로 화려해졌다. 장삼의 장식성은 높아진 반면에 장삼의 재료는 대부분 저렴한 함성섬유를 사용하 있다.

장삼을 착용하는 방법도 조선시대의 방법과 약간의 차이가 난다. 1930년대부터 착용하는 방법이 약간 달라져 가사를 상징하는 띠를 양쪽 어깨에서 허리 중앙으로 모이도록 두르고 있는 것이 보인다. 오늘날에는 무당에 따라서 앞가슴 중앙과 등 중앙에서 X자형으로 교차되도록 매기도 한다.

오늘날 무복으로 착용하는 장삼은 전체적으로 전통의 무복 장삼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전통의 장삼은 직령교임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불교의 법의로 착용되는 장삼 또한 직령교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무복으로 착용되는 장삼은 모두 깃이 마주보는 쌍깃이며 흰색 동정이 달려 있고, 치마 부분의 폭이 좁아지고 소매의 폭도 전통의 것보다는 좁은 편이며 길이 또한 종아리 정도의 길이로 짧아졌다. 장삼의 색상은 흰색과 회색이 착용되나 흰색이 주로 착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巫黨來歷, 증보한국복식사연구(김동욱, 아세아문화사, 1979), 한말의 궁중무속(최길성, 교문사, 1989), 한국의 복식(백영자, 경춘사, 1993), 한국종교복식에 관한 연구(임영자,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한국의 무속복식 연구(유효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한국무복의 변화에 관한 연구(김은정,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朝鮮巫俗の研究(赤松智城 · 秋葉隆, 大阪屋號書店, 東京 昭和13年).
필자 유효순(柳孝順)

장세일

분야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4호 태안설위설경 예능보유자.

내용 장세일(張世壹, 남) 법사는 1932년에 충남 태안군 소원면 소근리 밤섬 마을에서 부친 장오선과 모친 전주 이씨 사이에 2남 1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가 24세쯤 되었을 때 이웃 사람이 앉은굿 경문을 공부하는 것을 보고 함께 배웠다. 장세일은 어렸을 때 한문을 배운 것이 경문 학습에 도움이 되어 그 내용과 뜻을 금방 깨우칠 수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천대받는 점쟁이〔경객〕가 뭐가 좋으냐며 못하게 말렸지만 장세일은 경문이 좋은 글이라는 생각이 들어 더욱 열심히 배우러 다녔다. 어디서 유명한 법사들이 독경을 한다는 소리라도 들으면 그곳에 가서 경문을 베끼거나 얻어오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법사로 활동하다가 40세 무렵에 갑자기 시름시름 앓게 되었다. 그동안 신을 받지 않은 채 무업에 종사하다가 신에 관한 일을 하고 다녀서 신병이 난 것이다. 주변 사람들도 어차피 법사로 활동을 계속할 것이면 신을 받고 하는 것이 낫다고 권유했다. 주위의 권유를 받아들은 장세일은 신풀이를 하고 집안에 신당을 모셨다. 장세일 법사는 1998년 7월 25일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4호 예능보유자로서 앉은굿 보존과 전승에 힘쓰고 있다.

참고문헌 충남 내포지역의 앉은굿 연구(임승범,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필자 임승범(林承範)



장세일
충남 태안군 | 2004.5 | 임승범

장자풀이

정의 호남 지역에서 전승되는 서사무가. 그러나 함흥의 〈혼시굿〉, 〈황천혼시〉나 제주도의 〈맹감본풀이〉도 같은 유형의 서사무가로 볼 수 있다. 〈장자풀이〉가 구연되는 무의(巫儀)에는 '성주굿', '씻김굿', '고풀이', '혼시굿' 등이 있다. 함경도에서는 죽음을 예방하는 굿인 '황천도액(黃泉度厄)', 호남 지역에서는 망자의 혼령을 위무하는 '씻김굿', 제주도에서는 '작은굿 비념'에서 각각 구연된다.

내용 및 특징 지금까지 채록된 장자풀이계 서사무가의 각 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상의 자료들은 모두 저승사자를 후히 대접함으로써 수명을 연장시킨 사람의 이야기를 공통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각 편에 따라 세부적인 사건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 준다. 대체로 전승지역에 따라 '함흥본' · '호남본' · '제주도본'의 하위 유형을 설정할 수 있다. 지역별 하위 유형들을 비교하여 두드러진 차이점만을 지적하면서 공통된 서사단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죽음의 예언** : '함흥본'에서는 삼형제가 일찍 부모를 여의고 살다가 백골을 발견하고 이것을 집에 다 모셔 놓고 정성껏 받든다. 어느 날 백골이 눈물을 흘리며 삼형제가 죽을 것을 예언한다. '호남본'에서는 사마장자가 꿈을 꾸고 나서 문복(問卜)한 결과 사마장자가 죽을 것을 알리는 꿈으로 판명된다. '제주도본'에서는 소사만이 일찍 부모를 여의고 사냥하며 살다가 산중에서 백년해골(百年骸骨)을 발견하고 그것을 집에 모셔다가 정성껏 받들자 집안이 잘 되고, 백년해골이 사만이의 꿈에 나타나 사만이의 죽음을 예언한다.
2. **죽음의 모면** : '함흥본'에서는 백골이 삼형제로 하여금 저승사자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누런 황소에 유삼(油衫)을 입히고, 놋동이를 갖다 놓도록 지시한다. 삼형제가 그대로 시행한 결과 음식을 대접받은 저승사자는 삼형제 대신 황소 · 유삼 · 놋동이를 가지고 저승으로 돌아가고, 삼형제는 81세까지 살다가 죽는다(황천혼시). '호남본'에서는 점쟁이가 사마장자의 며느리에게 밥 세 상, 옷 세 벌, 돈 삼천 냥을 준비해 저승사자에게 주도록 지시한다. 사마장자의 며느리로부터 향응을 받은 저승사자는 사마장자 대신 다른 사람을 데려가고, 사마장자는 죽음을 모면한다. '고흥본'에서는 저승사자가 사마장자 대신 말, '부여본'에서는 사마장자 대신 우마장자를 각각 잡아간다. '고창본'에서는 우마장자를 잡아갔으나 우마장자가 저승에서 염라왕에게 항의하자 염라왕은 사마장자를 돌려보내는 한편 사자들의 팔을 자르고 다시 사마장자를 잡아올 것을 명한다. 그러나 사마장자 며느리의 지략으로 사자들은 천리마를 대신 잡아간다. '제주도본'은 해골이 소사만에게 현몽하여 시왕맞이굿을 하게 한다. 저승사자들은 굿상에 차린 음식을 배불리 먹은 후 사만이를 잡아가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서 장부에 기록된 사만이의 정명을 삼십에서 삼천으로 고치고 염라대왕의 명이 잘못되었다고 한다.

〈장자풀이〉의 핵심 서사는 이른바 연명(延命)설화 유형으로 알려진 '저승사자 대접하고 오래 살기'이다. 이와 같은 연명설화의 대표적인 예는 〈북두칠성과 단명소년〉, 〈삼천갑자 동방삭〉 등이다. 〈북두칠성과 단명소년〉은 중국에서 전래한 설화로, 중국 진(晋)나라 때 간보(干寶)가 지은 『수신기(搜神記)』에 수록되어 있다. 단명(短命)을 타고난 조안(趙顔)이란 소년이 술객인 관로(管輅)의 말을 듣고 바둑을 두는 북두(北斗)와 남두(南斗)에게 애걸하여 수명을 연장한다는 이야기다. 이 자료는 조안이라는 소년이 저승사자 대신 북두와 남두에게 술과 포(脯)를 대접하여 십구 세의 수명을 구십구 세로 연장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수명을 관장하는 신에게 술과 안주를 대접하고 수명을 연장하였다는 점에서 〈장자풀이〉에서의 연명방법과 공통성을 보인다.

그러나 『수신기』의 설화는 중국의 도교사상을 배경으로 한 것이고 〈장자풀이〉는 한국의 무속사상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에 세부적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관로는 인간이면서도 신적 존재로 신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이인(異人)은 도교사상에서 형상화된 신선의 모습이다. 한국의 〈장자풀이〉에서 사마장자의 수명을 알고 연명방법을 가르쳐 준 점쟁이는 복채를 받고 점을 쳐주

는 세속의 직업적 점쟁이에 불과하다. 또한 전체적 서사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인물은 사마장자의 며느리이다. 이는 관로 설화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장자풀이〉의 독특한 캐릭터이다. 사마장자의 며느리는 점을 쳐서 시아버지의 연명 방법을 알았을 뿐 아니라 저승사자들이 사마장자를 잡으러 왔을 때 남에게 향응(饗應)을 받고도 모른 척하는 배은망덕한 사자들을 꾸짖고 저승으로 압령하는 사자들의 공무집행을 저지하기도 한다. 여기서 사마장자의 며느리는 저승사자보다도 더욱 강력한 힘을 보인다. 이는 세속의 인정 원리가 저승계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여기에서 한국의 무속사상의 한 특징이 발견된다.

이와 유사한 설화 유형으로 '동방삭 설화'가 전국에서 전승된다. '삼천갑자 동방삭'으로 알려진 이 설화는 삼십 살의 수명을 타고난 동방삭이 저승사자에게 돈과 신발과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문서에 적힌 삼십을 삼천으로 고쳐 삼천갑자를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동방삭 연명 설화 역시 저승사자에게 인정을 베풀고 수명을 연장한다는 점에서 〈장자풀이〉와 같은 성격을 띤다.

의의 〈장자풀이〉에 함유된 무속사상의 특징과 민속 문화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죽음에 대한 인식이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저승에서 사자를 보내 혼령을 잡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육신과 영혼의 분리현상이 죽음이고, 이것을 저승에서 관장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저승세계는 무속 고유의 세계관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불교와 도교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염라대왕을 비롯한 저승의 시왕[十王]은 도교에서 유래한 것이고, 악한 사람의 혼령을 징벌하는 지옥의 형상화는 불교에서 유래한 것이다. 불교에서 저승을 관장하는 신은 지장보살이다. 이는 중국에서 도불습합(道佛習合)이 이루어져 지장보살과 저승의 시왕이 공존하는 형태가 되었다. 이러한 도불습합의 불교가 한국에 전래되고 무속신앙에 영향을 주어 〈장자풀이〉와 같은 연명 신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둘째, 무속 신관(神觀)의 특징이다. 무속의 신은 현실계의 인간 모습 그대로이다. 저승사자들은 먼 길을 오느라고 배도 고프고 신발도 해지고 돈도 떨어졌다. 그들은 사람과 같이 음식을 필요로 하고 돈도 좋아한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접대

무가명	전승지역	구연자	채록연월	채록자	발표지	발표연도
황천혼시	함흥	김쌍돌이	1926. 3	손진태	조선신가유편	1930
혼시굿	함흥	강춘옥	1966. 12	임석재,장주근	관북지방무가(추가)	1966
장자풀이	부여	이어인년	1966. 1. 7	김태곤	한국무가집I	1971
장자풀이 I	줄포	김씨	1970. 12	임석재	줄포무악	1970
장자풀이 II	줄포	박소녀	1970. 12	임석재	줄포무악	1970
장자풀이	전주	최문순	1970. 1. 20	최길성	한국무속지 I	1992
장자풀이	고창	배성녀	1969. 8 .20	김태곤	한국무가집III	1978
명두굿	고흥	오복례	1969. 1. 25	김태곤	한국무가집 II	1976
장자풀이	군산	황분순	1982. 8. 28	박순호	한국구비문학대계 5-4	1984
장자풀이	정읍	오판선	1985. 4. 16	박순호	한국구비문학대계 5-6	1987
대심매기굿노래	해남	주평단	1984. 8. 18	이현수	한국구비문학대계 6-5	1985
고풀이	신안	전금순	1984. 7. 5	최덕원	한국구비문학대계 6-7	1985
장자풀이	화순	조도화	1984. 12. 17	김균태	한국구비문학대계6-10	1987
고풀이	보성	김막례	1986. 7. 9	최덕원	한국구비문학대계6-12	1988
명두고풀이	보성	김행연	1986. 5. 7	최덕원	한국구비문학대계6-12	1988
사만이	제주도	안사인		현용준	제주도신화	1976
맹감본	제주도	이춘아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1991
맹감본	제주도	변신생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1991
맹감본	제주도	한태주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1991

를 해준 성의를 생각하여 잡아가야 할 사람을 저승으로 데려가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하기도 한다. 즉 상관인 저승왕을 속이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짐승을 대신 잡아가며, 심지어 수명이 적힌 문서까지도 위조하는 것이다. 이 같은 신의 세계는 인정을 중하게 여긴 한국인의 민중적 사고의 산물이라고 본다. 여기에는 사리(事理)나 정의(正義)보다도 인간의 정리(情理)를 우선시하는 무속적 신관이 담겨 있다.

셋째, 민속과의 관련성이다. 민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사자밥과 짚신을 준비해 문 앞에 놓는다. 이것은 바로 〈장자풀이〉의 이야기처럼 저승사자를 대접하고 죽음을 모면하겠다는 사고에서 형성된 습속이다. 지금은 형식적인 것으로 처리되고 있지만 이것이 상례(喪禮)의 습속으로 굳어진 것은 〈장자풀이〉가 민중의 의식을 지배하는 규범으로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신화의 연구(서대석, 집문당, 2002).
필자 서대석(徐大錫)

상호참조 **맹감본풀이**(271쪽), **황천혼시**(962쪽)

재가집

정의 무속제의를 이루는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의식을 결정하는 주체인 신도.

내용 재가집은 무속제의를 이루는 중요한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무속을 이루는 구성 요소는 신관, 무당, 신도, 굿 혹은 의식 등이다. 재가는 굿이나 의식을 의뢰하거나 요구하는 주체다. 굿이나 의식은 대체로 무당을 위한 의식, 신도나 일반인을 위한 의식, 공동체를 위한 의식 혹은 굿으로 나뉜다. 신도의 경우는 죽은 자와 산 자로 나누어 의식을 구분한다. 굿이나 의식을 결정하는 주체는 무당, 신도, 공동체장 등이다. 일반적으로는 신도가 재가집이 된다.

재가집은 살아 있는 사람을 위한 굿과 죽은 사람을 위한 굿으로 대별된다. 죽은 사람의 경우는 대부분 천도굿이나 영혼결혼굿 등이 이루어지고, 산자에게는 재수굿, 병굿, 치성, 비손 등 다양한 재가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행해진다.

재가는 자신의 가족 내 문제를 고민하다가 무당과 상담을 한다. 무당은 여러 처방을 내리게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굿이다. 굿을 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하는 쪽, 즉 신도가 재가집이 되는 것이다. 재가집이 굿을 하기로 하면 우선 날을 받고, 굿의 규모와 그에 따른 절차와 규모를 정한다. 이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획일화되어 있지 않다. 문제의 경중과 재가집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때 가장 큰 기준은 재가집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굿비)이다. 비용이 타협되지 않을 때는 굿이 취소되기도 한다. 비용은 재가집이 의뢰한 문제의 심각성 정도와 경제적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결정되면 무당은 굿청(굿을 할 장소)을 알아보고, 함께 할 다른 무당과 제비들의 구성을 주선한다. 이외에 제의에 필요한 제물, 의상, 차량 등을 준비한다.

보통 재가집이 치러야 하는 굿비는 무당에 따라 그 값은 또한 다양하다. 무당이 유명하거나, 무당의 능력이 두루 인정을 받고 평판이 좋을 경우 그 값은 훨씬 높아질 수 있다.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이 의뢰한 굿비의 경우 2009년 현재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이 굿비가 소요되는 내역은 앞서 제시했듯이 여러 준비물과 교통수단 등도 상당하지만 굿에 참여하는 무당들과 제비 도우미 등에 드는 인건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재가집은 굿을 하는 당일 관련 일가친척이 모두 참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며 심할 경우는 재가집의 참여 없이 무당이 혼자 굿을 하기도 한다. 굿판에서 재가집의 위치는 대단히 중요하다. 어떻게 상호 소통이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굿의 효용성이 배가된다. 홍태한의 「재가집의 관점에서 바라 본 오구굿의 의미」라는 논문은 서울의 오구굿의 경우 영실, 대감, 사재삼성, 말미, 베가르기 등의 제차에 따른 재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굿의 결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교통사고로 갑자기 딸과 손자를 잃은 재가는 딸의 영혼이 무당에 실

리어 그 사고경위와 평소에 맺힌 한을 어떻게 순조로우면서도 적극적으로 풀어갔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굿은 인간에게 맺혀 있는 응어리와 풀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연을 효과적으로 풀어주는 역할과 기능을 훌륭하게 실현하는 장치라 할 수 있다. 이때 재가의 역할과 자세는 대단히 중요하다.

재가집에 대한 연구는 실로 일천하다. 김태곤이 『한국무속연구』에서 그 중요성을 이미 언급하였고 일부 연구의 시도를 하였으나 이어진 연구가 적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차옥숭의 『한국인의 종교경험-무교』와 홍태한의 「재가집의 관점에서 바라본 오구굿의 의미」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나 역시 만족할 정도는 아니다.

참고문헌 한국무속연구(김태곤, 집문당, 1981), 한국인의 종교경험-무교(차옥숭, 서광사, 1997), 재가집의 관점에서 바라 본 오구굿의 의미(홍태한, 민속학연구 9, 국립민속박물관, 2002).

필자 이정재(李丁宰)

재수굿

정의 가정의 안녕과 재복(財福), 자손의 창성(昌盛), 가족의 수복(壽福) 등 집안에 재수가 형통하기를 빌기 위해 계절의 새로운 과일을 신령에게 바치며 지내는 넓은 의미에서의 무속제의.

역사 기록에 전하는 바 우리 민족은 예부터 봄·가을, 특히 가을 추수가 끝난 뒤 천제(天祭; 하느님굿)를 지내왔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재수굿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다.

이런 전통은 '한양열두거리'란 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굿을 열두 거리로 논다는 뜻이다. 19세기 말에 그려진 『무당내력(巫黨來歷)』이란 책에 거리별로 열두거리굿을 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으며, 일본인 학자 아카마쓰 지조(赤松智城)와 아키바 다카시(秋葉隆)도 『朝鮮巫俗の硏究(조선무속의 연구)』에서 「경성십이제차(京城十二祭次)」라 하여 서울 지역 천신굿 열두 거리의 신가(神歌)를 채록하고 있다.

내용 보통 천신굿으로 불리는 재수굿은 계절의 새로운 소산을 신령에게 올리는 굿으로, 한국 무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굿이다. 재수굿을 기본으로, 해당 굿의 특징적인 내용을 첨가함으로써 '진오기굿' 등 여러 형태의 다양한 굿거리가 파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천신굿과 재수굿의 차이를 살펴보면 재수굿은 서민들이 주로 하던 굿인 반면에 천신굿은 상류층이나 부유층이 격식을 제대로 갖춰 놀던 굿이다.

재수굿은 산 사람의 안녕과 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죽은 이의 영혼천도를 목적으로 하는 진오기굿과 대별된다. 명칭에 있어서도 지역에 따라 천신굿·경사굿·도신굿·성주굿·안택굿·신성굿·철물이굿(철맞이굿)이라 부른다. 여기서 철물이굿은 계절에 따라·꽃맞이굿·잎맞이굿·햇곡맞이굿·신곡맞이굿·단풍맞이굿 등으로도 불린다. 대개 중부지역에서 널리 행해지는 이 굿은 1년 또는 2년에 한 번 거행된다. 여기서 전통적으로 서울지역의 재수굿은 단골의 신분에 따라 상류층이나 부유층의 경우 천신(薦新)굿이라 하였고, 일반 하층민들의 경우 재수굿이라 하였다.

재수굿은 정기적으로 해마다 또는 2~3년에 한 번 치른다. 다만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특별히 재수를 빌어야 할 일이 발생하면 수시로 굿을 하기도 한다. 굿 날짜는 길일로 잡아야 한다. 시기적으로는 대개 정초 또는 봄·가을에 치르며 가족의 생기복덕을 보고 결정한다. 그러나 옛날에는 택일을 전문으로 판수에게 맡겼다고 한다. 그러나 요즘에는 무당이 직접 날짜를 잡는다.

재수굿 제단
국립민속박물관





박인오씨 굿당에서 연행 한 재수굿
국립민속박물관



굿은 보통 3~4명의 무당과 3~4명의 악사가 참여한다. 굿을 할 팀이 구성되면 2~3일 전에 굿값을 받아 전물(奠物)의 재료를 구입하는 등 직접 제물을 준비한다. 이때 제물은 신령이 드시는 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무당이 직접 준비해야 한다. 모든 굿 준비가 끝나면 당일 아침 일찍 원무(元巫)는 전물과 신복(神服)·신구(神具) 등을 상짐이라 부르는 일꾼에게 지게하고, 만신 및 악사들과 함께 제갓집이나 굿당으로 향한다. 재수굿은 원래 아침에 시작하면 그날 밤을 새고 이튿날 아침까지 놀았고, 저녁에 시작하면 그 다음날 저녁에 마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래 시간이 단축되어 아침에 시작하면 저녁에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수굿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에서 친족과 이웃을 초청하여 잔치처럼 치르는 축원을 위한 경사굿이다. 따라서 신과 인간을 고루 대접함으로써 집안의 안녕과 길복을 계속 유지하고자 함이 그 안에 담겨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재수굿은 사회변동에 따라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사례 재수굿 중 서울·경기 지역의 상류층이나 부유층이 즐겨 놀았던 전통적인 천신굿의 구성과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부정-가망(청배)-진적** : 굿 첫머리의 준비과장으로, 굿판을 정화(淨化)하고 제반 신령을 청하여 모신 다음 술잔을 올려 정성을 보이는 의례이다. 굿 준비가 완료되면 부정에 앞서 집안의 주당살(周堂煞)을 제거하기 위한 주당물림을 행한다. 주당물림은 상산군웅(上山軍雄)만이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령을 상징하는 홍철릭을 굿청 안이나 문에다 걸어 놓고 장구와 제금만으로 굿거리와 당악을 느리게 치다가 갑자기 몰아친다. 그러면 그 위세에 눌려 주당살이 물러난다.

주당물림이 끝나면 무당은 앉아서 노랫가락의 장단으로 장구를 치면서 부정신가를 부르며 부정거리를 시작한다. 부정거리에서는 가망·호구·불사·말명·상산·대감·군웅·성주·걸립·맹인·서낭·영산·상문(喪門) 등과 같은 각종 신령이 거론된다. 이들 가운데 걸립·맹인·서낭·영산·상문 등은 대개 뒷전에서 모셔지는 잡귀·잡신들이고, 가망·호구·불사·말명·상산·대감·군웅·성주 등은 본 과장에 등장하는 정신(正神)들이다.

부정거리 다음에 이어지는 가망거리는 제반 신령을 굿판으로 모시는 거리로, 가망청배·가망

노랫가락 · 사방청배 · 가망공수의 순으로 진행된다. 여기서 가망청배는 가망을 청하는 절을 올린다는 뜻으로, 가망거리는 인간사의 모든 근원, 특히 인간의 뿌리인 시조에 대한 숭앙의 뜻으로 펼치는 굿거리이다.

진적[進爵]은 청하여 모신 신령들에게 술을 올리는 거리순서를 말한다. 이 거리에서는 산마누라에게만 약주를 올리고 산마누라 노랫가락을 부른다.

2. 불사거리 : 불사거리를 불사맞이 · 천존굿 · 제석거리라고도 부른다. 여기서 불사는 부처를 가리키며, 천존은 옥황천존의 약칭이다. 이들 두 신은 각기 불교와 도교의 지고(至高)한 신령들이다. 제석 역시 불교의 신령이나 무속에서는 한민족의 하느님인 환인(桓因)으로 생각하여 믿고 있다. 이로 보아 불사거리는 지고신인 천신(天神)을 모시는 거리라 할 수 있다.

불사거리는 그 자체가 열두 거리로 구성되어 있다. 즉 '불사 · 천궁(天宮)호구 · 천궁말명 · 천궁제장 · 천궁신장 · 천궁대감 · 천궁창부 · 천궁걸립 · 천궁서낭 · 천궁영산 · 천궁상문 · 천궁수비' 등이 그것이다. 굿청 맨 위쪽 왼편에 불사상이 차려지면 다홍치마 위에 가사와 장삼을 입고 고깔을 쓴 원무당이 부채와 방울을 들고 장구잽이와 함께 불사만수받이를 시작한다. 이어 신이 실리면 제갓집에 공수[空唱]를 내린다. 공수를 주고 난 뒤에는 다시 반주에 맞춰 춤을 춘 다음 다시 공수를 내린다. 그런 다음 바라타령을 신나게 부르고 이어 손님들로부터 제금을 펼쳐들고 시줏돈을 받아 불사상에 붓는다.

끝으로 무당은 산(算)보기와 소지를 행한다. 여기서 산보기는 일종의 점으로, 대개 쌀이나 대추 또는 잣을 이용한다. 방법으로는 제금에 쌀을 가득 담은 무당이 제갓집 식구들에게 일일이 다니면서 제금을 까불어 쌀을 떨어뜨려 준다. 이때 치마에 떨어진 쌀알을 세 개씩 가려 나머지가 없거나 짝수가 나오면 길(吉)한 것이고, 홀수가 나오면 흉한 것으로 여겼다. 산보기가 끝나면 무당은 신복을 벗고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제갓집 가족 수대로 올린다. 이를 몸소지라고 한다. 소지가 잘 올라가면 건강하고, 그렇지 못하면 건강이 좋지 못할 징조로 여긴다.

3. 호구 : 호구를 한자로 호귀(胡鬼) 또는 호구(戶口)라 쓴다. 한자어에서 보듯이 호구에 관한 설은 여럿이 있다. 우선 원(元)나라의 고려 침공과 원의 부마국 시절 원나라로 끌려간 수많은 우리 처녀 가운데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혼령이 나중에 호구로 모셔졌다는 설과 중국 강남에서 유래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온 천연두신이라는 설이 있다. 뒤에 설과 관련하여 호구거리는 천연두에 걸려 곰보로 죽은 부녀자를 위해 노는 거리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호구거리에서 무당은 다홍치마에 당의(唐衣)를 입고 오른손에 흰 부채, 왼손에 무당방울과 붉은 면사포를 들고 나선다. 주악이 울리면서 무당은 당악(唐樂) 장단에 맞춰 춤을 추다가 호구신이 내리면 공수를 준다. 이어 붉은 면사포를 덮어쓰고 방울과 부채를 쥔 손을 높이 올려 무당의 몸을 붉은 면사포로 덮은 가운데 춤을 추다가 공수를 내린다. 마지막으로 붉은 면사포를 벗어 양손에 든 채 다시 공수를 내린다. 호구신으로는 상 · 중 · 하단의 호구와 성인호구 · 상산호구 · 전안호구 · 애기씨호구 · 형제호구 · 대신호구 · 관왕(關王)대전호구 등이 있다.

4. 본향(산신) : 본향은 성과 씨를 준 본향을 일컫는 말로, 산바래기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여기에는

1. 서울 재수굿–산거리

2. 서울 재수굿–경읽기
국립민속박물관


1


2

서울 재수굿–굿상차림
국립민속박물관



좀 더 광범위한 의미가 담겨 있다. 즉 우리 민족의 첫 조상인 단군이 후에 산신이 되었다는 이야기에서 본향산신이라고도 부른다. 본향산신은 한 집안의 조상이 묻혀 있는 조상의 산신과 단군으로 대표되는 한민족의 산신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향산신은 본향조상 · 본향가망 · 대신할머니 · 도당말명 등 본향과 관련된 한 계열의 여러 거리를 곁들인다. 본향거리에서 무당은 홍철릭에 빗갓을 쓴 차림으로 본향종이를 양손에 들고서 제갓집의 본향산을 향해 흔들어 가며 산신의 강림을 축원한다. 신이 내리면 무당은 본향 공수를 제갓집에 준다. 본향상에는 시루떡 세 접시, 삼색과일, 밤과 대추, 술 석 잔이 올려진다. 양 옆에는 촛대가 놓여지며 본향종이도 함께 올려진다.

5. 조상 : 조상거리에서는 내외 4대 조상을 모시는 거리이다. 조상거리 상에는 편떡 세 접시, 삼색과일, 술 석 잔에 도라지 · 고사리 · 시금치 등을 놓고 더러는 다시마튀각 · 북어포 등을 올리기도 한다. 작은 굿의 경우에는 무당이 협수만 입고 부채와 방울을 들고 놀지만 큰 굿의 경우 홍철릭에 빗갓을 쓴다. 무당은 장단에 맞춰 춤을 추다가 조상신이 내리면 껑충껑충 도무(跳舞)를 한다. 그러다가 살아있을 때 조상의 몸짓과 말투로 공수를 준다. 조상이 내리는 순서는 대개 선대 할아버지 · 할머니 내외, 이대 봉사 할아버지 · 할머니 내외, 할아버지 · 할머니 내외,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부모님 순으로 온다.

한편 본향거리까지만 하더라도 신명이 나고 축제판이던 굿판은 조상거리로 들어오면서 숙연해진다. 제갓집 식구들은 어느 조상이 들어와 무슨 말을 하는지 긴장하고, 이웃들은 개인적으로 알았거나 들었던 그 조상들을 회상하며 공수에 귀기울인다.

6. 대신할머니 : 노랑 몽두리를 입고 손에 방울을 쥔 할머니가 바로 대신할머니이다. 대신할머니는 무당의 조상, 즉 무업을 하다 죽은 무조(巫祖)를 일컫는다. 무당들에 따라 이 거리를 생략하거나 순서를 뒤바꿔 놀기도 한다. 만신의 몸주로서 대신할머니는 장구 치는 법, 춤추는 법 등을 가르쳐 주는 신령이다.

7. 전안거리 : 전안거리에서는 중국의 관운장(關雲長)의 신령만 모시거나 촉(蜀)의 유비 · 관우 · 장비 삼형제와 오호(五虎)대장 등 중국의 신령을 모신다. 전안거리는 이 계통의 신령을 모신 만신만이 모실 수 있다. 무당은 남치마에 협수 · 전복의 신장의대(神將衣帶)를 먼저 입은 위에 황포 또는 황철릭을 입은 다음 각띠를 두른다. 여기서 황포는 이 거리의 주신인 관제(關帝)의 황제격 위의(威儀)를 나타낸다. 그런 다음 양손으로 금관을 받쳐 들고 주악에 맞춰 춤을 춘다. 왼손에는 관제의 몸기(旗)로서 남색 기와 홍색 기, 오른손에는 청룡도를 각각 들고 춤을 춘다. 신이 내리면 길군악 장단으로 넘어가고 또 자진굿거리로 논다. 말을 탄 듯한 자세로 춤을 추다가 공수를 내린다. 마지막으로 명잔(命盞) · 복잔(福盞)이라 하여 술잔을 제갓집에 권한다. 전안상은 위축상(位祝床)이라 하여 대청마루의 상차림에서 뒤편 왼쪽에 차리는데, 반드시 둥근상에 차린다. 개피팥찰떡 위에 천장편 셋을 놓고 그 위에다 각기 수팥연을 꽂아 뒤편에 자리하고 그 옆으로 밤과 대추, 그 앞에는 어포 · 미나리 · 육포를 각각 놓는다. 맨 앞에는 배 · 감 · 사과를 접시에 담아 차린다.

8. 신장-작두 : 신장거리는 오방신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장거리에 들면 무당은 전안거리 복장인

금관 · 홍포 · 각띠를 벗고 그 위에 전립(戰笠)이라 불리는 안울림벙거지를 쓰고 손에는 오방신장기(五方神將旗)를 든다. 그런 다음 높이 도무하면서 춤을 추고 공수를 내린다. 이어 오방신장기로 신장기 점을 친다. 신장기 깃대를 뽑아 점을 치는데, 검은색은 죽을 운수, 파란색은 우환, 노란색은 조상, 하얀색은 천신(天神), 빨간색은 재수를 상징한다. 한편 신장거리의 상차림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루굿상 전부에다 별도로 신장시루 하나가 있을 뿐이다.

한편 작두거리를 장수거리라고도 한다. 작두거리는 여느 거리와 달리 마당에서 펼쳐진다. 무당은 신장거리 복장에 검무(劍舞) 칼을 들고 춤을 추다가 신이 내리면 맨발로 작두를 탄다. 공수가 내리면 작두에서 내려와 부채와 방울을 들고 춤을 추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이러한 작두거리는 장수신이 내려야만 탈 수 있다. 장수신으로는 관우와 같은 중국 장수신과 최영 장군과 같은 우리나라 장수신이 있다. 이들 장수신은 제갓집의 안과태평과 무운장구를 축원해 준다.

9. 상산거리 : 상산거리를 상산마누라거리 또는 산마누라거리 · 마누라거리라고도 한다. 이 거리의 주신은 최영 장군이며, 한라산 여장군과 평산 신장군 · 임장군 등을 함께 모신다. 여기서 상산은 최영 장군 사당이 있는 덕물산(德物山)의 별칭으로서 상산마누라는 덕물산의 상전, 즉 덕물산의 주인님이란 뜻이다. 상산거리 상차림은 대개 이 거리에 이어지는 별상거리의 별상거리 상차림을 겸해 사용된다. 개피팥편을 뒤쪽 한가운데 놓고 그 조금 앞으로 양옆에 누름부침개와 세반강정이 각 1기, 양쪽에는 산자 · 약과 · 배 · 감 · 계면떡이 1기씩 차려진다. 상 양 측면에는 촛대가 놓인다. 여기에 별도로 안주상이 차려진다.

한편 무당은 무지견 치마에 갈매막대기를 싸서 치마끈으로 허리에 메고 그 위에 다시 무지견 치마를 두른다. 그리고 남치마 · 협수 · 전복 · 전띠를 두른 다음 전띠에 부채를 매단다. 이어 그 위에 남철릭을 입고 대띠를 두른 다음 두루주머니 세 개를 매단다. 머리에는 큰머리를 올리고, 그 위에 호수빗갓을 쓴다.

10. 별상-대감 : 별상은 연산군 · 광해군 · 사도세자와 같이 왕위를 지키지 못하였거나 계승하지 못하고 비명(非命)에 죽은 이들을 일컫는다. 별상거리는 대개 같은 무당이 상산거리에 붙여 논다. 상산거리 복장에서 갓과 남철릭을 벗고 머리에는 큰머리를 올린 다음 전립을 쓴다.



서울 재수굿–공수내림
국립민속박물관

대감에는 안[內]대감과 밖[外]대감이 있다. 안대감을 웃대감, 밖대감을 아랫대감이라고도 한다. 웃대감으로는 상산대감 · 별상대감 · 신장대감 · 전안대감 · 제갓집군웅대감 · 몸주대감 등을 들 수 있고, 아랫대감으로는 도당대감 · 부군대감 · 터대감 · 수문장대감 등이 있다. 굿을 할 때는 군웅대감 · 벼슬대감 · 몸주대감 · 터대감 순으로 논다. 제갓집 조상 중에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이 있으면 군웅대감과 벼슬대감을 논다. 이런 경우에는 홍철릭을 더 입는다. 보통 대감거리에서는 웃대감으로 몸주대감, 아랫대감으로 터줏대감을 각각 모시고 논다. 대감거리에서 무당은 쾌자를 입고 안울림벙거지를 쓴 다음 전복을 입고 전 띠를 맨다. 그런 다음 부채를 들고 대감 청배를 한다. 한편 대감상에는 찰팥편 두 접시, 우족 한 개, 탁주 한 사발을 차린다.

11. 무감 : 무감은 한자로 무당의 느낌이란 무감(巫感)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무당은 이를 '무관(舞觀)이라고도 한다. 즉 무당과 악사들이 잠시 쉬는 틈을 타서 기대무당이 장구채를 쥐고 굿거리 장단을 치면서 누구든 나오기를 청하면 신명이 많은 여인들이 나와 한바탕 춤판이 벌어진다. 이를 무감이라 한다. 즉 제갓집 며느리를 비롯하여 딸 등 여인들이 나와 춤을 추면서 평소에 하지 못한 말들을 신의 말로써 대신 전하는 거리이다.

12. 제석-호구 : 무감거리가 끝나면 이어 무당은 홍치마에 장삼을 입고 띠를 맨 다음 고깔을 쓰고 안당제석거리를 논다. 제석거리 또한 불사거리와 같은 순서로 논다. 제석 역시 불사와 마찬가지로 천신(天神)의 성격을 지닌 신령이다. 따라서 불사거리와 마찬가지로 제석에 붙여 호구거리가 이어진다. 한편 제석거리 중 창부 · 계면 거리에서는 이른바 가신을 신령으로 모신다.

13. 성주-군웅 : 성주거리는 성주받이 또는 성주군웅거리라고도 하며, 지역에 따라서는 성주굿이라고도 한다. 한자로는 『무당내력』에 성조(成造)라 기록되어 있고, 성주(成主) · 성주(城主) 등으로도 쓰인다. 여기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성주신은 한 집안 또는 한 나라를 지켜주는 신령이다. 성주거리에서 무당은 남치마에 홍철릭을 입고 벙갓을 쓴 다음 성주 만수받이를 하고 춤을 춘다. 오른손에는 부채를, 왼손에는 성주군웅소지 석 장에 돈 세 푼을 싼 것을 각각 들고 춤을 춘다. 이어 공수가 내리면 술잔을 돌리고 성주노래가락을 부른 다음 소지를 올린다. 성주상에는 맨 앞쪽에 성주시루를 놓고, 그 뒤로 대감떡 위에 우족을 올린다. 맨 뒤에는 떡 위에 술 석 잔과 소지종이 · 실 · 촛대가 올려진다.

한편 군웅은 대개 한 지역을 지켜주는 장수신령을 일컫는다. 대개 성주거리에 붙여서 놀거나 아예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군웅신앙은 거의 전국적인 분포를 보인다.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그 위력이 대단하다. 동해안별신굿의 경우 장수굿 또는 논동우굿이라 하여 무당이 무거운 놋동이를 입에 물고 춤을 추면, 사람들은 그 위력에 압도되어 돈을 낸다.

14. 창부-계면 : 창부(唱夫)거리는 무당의 만수받이로부터 시작된다. 남치마에 색동거리를 입은 다음 그 위에 전복을 입고 띠를 맨다. 이어 초립을 쓰고 부채를 든 다음 주악에 맞춰 굿거리 춤을 춘다. 이어 공수가 내리고 공수가 끝나면 창부타령으로 들어간다. 창부타령에 이어 다시 공수가 내리고 마지막으로 홍수매기 타령을 부른 다음 덕담을 주고 거리를 마친다. 여기서 창부씨는 무당의 예능신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병살(病煞)홍수 · 관재(官災)홍수 · 구설(口舌)홍수 · 물[水]홍수 · 불[火]홍수 등 제반 횡액을 막아주는 기능도 하고 있다. 이러한 창부거리는 뒷전 직전에 놀아지는 굿거리로, 주로 서울 · 경기 지역의 굿에서만 놀아진다.

계면거리는 계면각시라고도 하며, 흔히 창부거리에 붙여 논다. 계면거리는 굿이 거의 끝날 무렵에 노는 거리로, 무당은 방울과 떡을 들고 계면떡 타령을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떡을 판다. 이 떡을 명떡 · 복떡 · 재수떡이라 하여 즐겁게 받아먹고는 떡값을 무당에게 기꺼이 낸다. 한편 어떤 무당들은 계면각시를 주방이나 떡 만드는 광의 부엌신으로도 여긴다. 계면각시는 걸립하는 것을 수호하고 그것으로 전물을 준비하는 것을 관할하는 신령이라 할 수 있다.

15. 뒷전거리 : 재수굿의 마지막 거리로 굿의 준비과장에서 굿판 주변으로 물려 놓았던 잡귀와 잡신들을 종류별로 모셔 놀려 보내는 거리이다. 마당에는 뒷전상이 차려진다. 뒷전상에는 떡, 나물, 빈대떡, 밥, 청수, 사과, 배, 감, 산자, 좁쌀 한 홉, 생계란 세 개, 북어 세 마리, 술 석 잔 등이 차려진다. 무당은 평복 차림에 오른손에는 부채, 왼손에는 북어를 각각 들고 만수받이를 한다. 지역에 따라 뒷전거리를 마당굿(경기도 화성) · 수부굿(충청도 부여) · 거리굿 또는 시식(施食)풀이(부산 및 경상도) · 도진(제주도) · 거리풀이(강원도) · 뒷전풀이(평안도)라고 불린다. 한편 뒷전풀이에 모셔지는 잡귀와 잡신으로는 걸립 · 터주 · 지신할머니 · 수광대(首廣大) · 서낭 · 사신(使臣) · 맹인 · 하탈(下頉) · 말명 · 객귀(客鬼) · 영산 · 상문 · 수비[隧陪] · 잡귀 · 동법 등이 있다. 전라도 진도 지방에서는 재수굿을 집굿이라고도 한다. 흔히 정월 보름 경에 치러지는 이 굿은 씻김굿과 제의 절차가 비슷하나 망자상이 따로 없다. 한편 경상도 통영 지방에서는 집안의 안녕과 재복 및 자손의 창성을 비는 굿을 도신굿이라 하고, 경기도 지역에서는 이를 재수굿 또는 안택굿 · 경사굿이라 부르며, 평안도 지방에서는 신성굿이라 한다.

참고문헌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유동식,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5), 한국의 무당(최길성, 열화당, 1981), 한국무속론(최길성, 형설출판사, 1981), 한국민속대관 3–민간신앙 · 종교(고려대학교 민족문화

연구소 편,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1982), 한국의 무(조흥윤, 정음사, 1983),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무의식(문화재관리국, 1983), 무속신앙(민속학회 편, 교문사, 1989), 팔도굿(황루시, 대원사, 198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의 무속(김태곤, 대원사, 1991), 무속과 영의 세계(김태곤, 한울, 1993), 한국의 샤머니즘(조흥윤,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한국의 굿(하효길 외, 민속원, 2002), 한국민속문화대사전 상권(김용덕, 도서출판 창솔, 2004), 전북지역 무당굿 연구(이영금, 전북대학교 대학원, 2007).
필자 이관호(李官浩)

재인청(才人廳)

정의 전통시대에 무속인, 화랑, 재인, 예인, 광대 등을 구성원으로 한 자치 조직.

내용 재인청은 광대청(廣大廳)·화랑청(花郎廳)이라고도 하는데 경기·충청·전라 삼도에 있었다고 한다. 재인청은 나름대로 엄격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그 계원은 세습무가, 무악을 반주하는 화랑, 곡예를 하는 재인, 가무를 하는 예인, 무악을 하는 광대 등이 었다. 재인청의 조직체계를 보면, 각 도마다 도청(道廳)이 있고, 그 장(長)을 대방(大房)이라 칭한다. 대방 아래 도산주(都山主) 2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좌도도산주(左道都山主), 우도도산주(右道都山主)로 칭하며, 한 도(道)를 좌우로 나눠 관할하였다. 산주는 대방을 보좌하며 중요 사항을 의논했다. 그 아래에 집망(執網) 4명, 공원(公員) 4명, 장무(掌務) 2명이 있었는데, 집망과 공원은 간사에 해당하며, 장무는 서무계이다. 한편 군(郡) 재인청의 장은 청수(廳首)라 칭하고, 그 아래에 공원과 장무를 뒀다. 조선 후기 재인들의 자치 조직인 재인청은 18~19세기 초에 만들어져 1920년까지 존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재인청 이외의 재인들의 자치 조직은 적어도 병자호란(1636) 이전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10년 10월 16일 기사에, '재인들의 우두머리라는 의미'의 '산주재인(山主才人)'이라는 호칭과 '완문 등장팔도재인(完文 等狀八道才人)'에 나오는 '도산주(都山主)'가 서로 통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이를 근거로 조선 전기에 재인들의 자치조직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재인들의 자치조직이 분명하게 그 실체를 드러낸 때는 병자호란 이후이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순조 24년(1824)의 '완문 등장팔도재인'의 내용이다. "팔도재인 등은 병자년 이후로 칙행(勅行)을 위하여 좌우산대를 설치하여 거행하였다(八道才人等 丙子以後 當爲勅行而設爲左右山擧行)"는 구절은 병자년인 1636년 직후에 어떤 조직 체계가 사신을 위한 나례를 거행한 주체로 부상했음을 말한다. 그런데 이 '어떤 조직 체계'가 '재인청'은 아니다. 1636년 직후 있었던 어떤 조직적인 체계가 나중에 재인청 설립을 보게 되었다고 할 수는 있어도 1636년에 재인청이 세워졌다는 것은 사실일 수 없다. 재인들의 자치 조직은 그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지만, '완문 등장팔도재인'에서 밝힌 1636년까지는 공식적인 역할을 맡지 않았다. 재인들의 자체적인 조직과 나례도감을 통한 중앙집권적인 관리가 병행하는 시기를 거쳐 1636년에 재인 조직이 정식으로 나례의 좌우 산대를 주관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재인 조직이 국가 행사를 주관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한 것을 의미한다.

한편 1784년 갑진년에 '좌우산(左右山)을 만들어 사신을 환영하는 규칙'이 사라진다. 『정조실록(正祖實錄)』을 보면 정조 8년(1784)에 이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월 9일에는 나례 비용을 부호나 강인들에게 부담지우는 폐단이 잇달았고, 11월 5일에는 "나희 연습을 하다가 밤중에 화포를 쏘아 올리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11월 14일 조에는 "사대부들이 산대놀이를 벌이고, 해당 당상관과 낭관이 이를 배웠다"라고 해서 이에 따라 해당 관계자는 물론이고 대사헌, 장령, 형조판서, 참판, 참의 한성부 좌윤과 우윤 등이 모두 파직되었다는 기록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 때문에 '좌우산을 만들어 사신을 환영하는 규칙'이 사라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재인청은 1784년에서 1824년 사이 어느 때인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흔히 재인 조직의 등장이 『경기도창재도청안』이나 '완문 등장팔도재인', 『조선무속의 연구』 등에 갑진년 이후 또는 1784년으로 분명하게 나와 있다는 점을 근거로 1784년이라고 추정한다. 그런데 1784년 이후에 재인청이 설립되었고, 재인청이 설립되고 수십 년 뒤인 1824년 조직을 재정비하여 그 결과를 호조(戶曹)에 보고한 문서가 바로 '완문 등장팔도재인'이다. 따라서 재인 조직이 재인청으로 설립된 시기는 『경기도창재도청안』의 내용에 "조산(造山)의 규칙이 깨진 후에 재인청의 규칙을 세웠다"라고 하였으니 1784년 이후이며, '완문 등장팔도재인'의 내용이 재인청을 재정비한다는 것이므로 1824년 이전이다.

중국 사신의 환영을 위한 행사마저 폐지된 이후에 오히려 재인 조직이 재인청으로 거듭난 것은, 그 존재 기반이 민간에서의 연행 활동에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재인 자치조직은 국가 행사를 위하여 존립한 것이 아니라 17세기 이후 민간에서의 흥행 활동에 기반을 두고 성장한 것이다. 그리고 1784년 이후 재인 조직이 재인청으로 거듭난 것은 자체적인 질서를 바로잡고 민간의 오락적 요구에 한층 더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朝鮮巫俗の研究(赤松智城·秋葉隆, 조선총독부, 1938), 조선무속의 연구(심우성 옮김, 동문선, 1991), 한국연극사 연구(사진실, 태학사, 1997), 조선 후기 수원 지역 연행예술(허용호, 수원문화예술사, 화성연구회, 2004), 일제강점기 경기도 민속신앙의 양상과 의의(허용호, 한국무속학 11, 한국무속학회, 2006).
필자 허용호(許龍鎬)

상호참조 악공청(622쪽)

저승본풀이

정의 제주도 큰굿의 시왕맞이 제차에서 불리는 무가. 저승왕들의 신위를 나열하고 저승차사를 대접하여 망자를 극락으로 잘 인도해 주기를 청원하려는 목적에서 구연된다.

내용 〈저승본풀이〉의 내용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심방은 저승을 차지한 '열 명의 시왕'[十王]과 이 시왕이 차지하고 있는 지옥, 각 시왕에 매여 있는 육갑(六甲)을 다음과 같이 구송한다.

제일(第一) 진강왕[秦廣大王] 도산지옥(刀山地獄)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제이(第二) 소간왕[初江大王] 흑탕지옥[篦湯地獄] 경오 신미 임신 계유 갑술 을해, 제삼(第三) 손게왕[宋帝大王] 금서지옥[劍樹地獄]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제사(第四) 오간왕[五官大王] 한빙지옥(寒氷地獄) 임오 계미 갑신 을유 병술 정해, 제오(第五) 염여왕[閻羅大王] 발련지옥[拔舌地獄]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 제육(弟六) 빙신왕[變成大王] 독사지옥(毒蛇地獄), 갑오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해, 제칠(第七) 태산대왕(泰山大王) 풍두지옥[風塗地獄] 경자 신축 임인 계묘 갑진 을사, 제팔(第八) 팽등대왕[平等大王] 거외지옥[鋸骸地獄] 병오 정미 무신 기유 경술 신해, 제구(第九) 도시대왕(都市大王) 철상지옥(鐵床地獄) 임자 계축 갑인 을묘 병진 정사, 제십(第十) 시왕[十王] 흑감지옥[黑暗地獄] 무오 기미 경신 신유 임술 계해.

다음으로는 각 지옥에서 당하게 되는 형벌의 종류를 다시 제일 진강왕에서부터 차례대로 풀어 소개하고 있다. '초제 진강왕'은 인간을 점점이 썰어 다스리는 왕이며, '제이 소간왕'은 죄 많은 영혼을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는 형벌을 준다. '제삼 손게왕'은 인간을 형틀 위에서 때리고 귀양 보내며, '제늬 오간왕'은 죄업에 따라 동지섯달 설한풍에 옷을 벗겨 춥게 하기도 하고 숯불을 피워 따뜻하게도 해주는 왕이다. '제다섯 염여왕'은 곡식과 돈을 놓아 이자놀이 한 사람을 잡아다가 대집게로 혀를 빼는 형벌을 내리며, '제여섯 빙신왕'은 죄가 많은 영혼을 굶주린 뱀·지네·도마뱀과 함께 가두어 피를 빨리는 형벌을 준다. '제일곱 태산대왕'은 죄 많은 영혼을 절구방아에 빻아서 바람에 '죽산이'로 날아다니게 만들고, '제여덟 팽등대왕'은 인간을 톱으로 썰어 애를 꺼내 연못에 씻어 열두 마소[牛馬]로 환생시키는 왕이다. '제아홉 도시대왕'은 인간을 발가벗겨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아 형벌을 주고, '제열 열시왕'은 죄 없는 백성은 석효산 상마을로 보내고 죄가 많은 영혼은 해도 달도 없는 곳에 하옥시켜 산천 좋은 데 묘를 써도 발복(發福) 못하게 하는 왕이다.

각 시왕이 다스리는 지옥에 따른 형벌의 종류

를 나열한 후에는 “성은 아무가이 나은 선ᄉᆞᆯ 불쌍ᄒᆞᆫ 이주당이 불쌍ᄒᆞᆫ 영혼님 이 중문에 걸게 맙서”라고 하여 죽은 망자의 이름과 나이를 밝히고, 불쌍한 영혼이 열 명의 저승 왕들이 다스리는 어떤 지옥에도 들지 말게 해 달라고 짧게 청한다.

그 후 곧바로 앞에서 미처 다 나열하지 못한 나머지 저승 왕들과 사자들을 소개한다. “열ᄒᆞ나 지장대왕 열둘 상부왕 열싯 우두영기 열늬 좌두영기 열다섯 동제판관 열여섯 ᄉᆞ제왕 일곱신앙 아옵귀양 천왕체ᄉᆞ 월직ᄉᆞ제 지왕체ᄉᆞ 일직ᄉᆞ제 옥황체ᄉᆞ 황금역ᄉᆞ 요왕체ᄉᆞ 거북ᄉᆞ제 저싱체ᄉᆞ 이원ᄉᆞ제 이싱체ᄉᆞ 강림도령 강파제”라고 하여 열한 번째 지장대왕에서부터 열여섯 번째 사제왕과 천왕차사인 월직사자에서 이승차사인 강림도령까지 나열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차사에게 험난한 저승길에 망자를 조심히 극락세계인 상마을에까지 인도해 달라고 부탁한 후 “청새몸에 환싱 줍서 백새몸에 환싱 줍서 청나비에 환싱 줍서 백나비에 환싱 줍서 부미 조상 가신 딜 지부칩서 좋은 곳에 지부치건”이라고 하여 청새, 백새, 청나비, 백나비로 환생시켜 주고 부모 조상 있는 곳으로 보내 달라고 부탁한다.

마지막으로는 망자의 자손들이 창성하고 가축이 번성하고 오곡이 풍성하게 해줄 것과 날액 달액을 막아주고 재수대통시켜 달라는 내용의 축원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유래 〈저승본풀이〉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시왕에 대한 내용은 중국 당나라 시기 성도(成都) 대성자사(大聖慈寺) 사문(沙門) 장천(藏川)이 찬술한 『예수시왕생칠경[預修十王生七經]』, 일명 『시왕경[十王經]』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시왕경』에 따르면 사람은 죽으면 초칠일(初七日)부터 사십구재(四十九齋)의 일곱 왕과 백일(百日)·일주년[小喪]·삼주년[大喪]의 세 왕까지 모두 열 명의 왕이 다스리는 지옥에 나아가 생전의 업보에 따른 심판과 지옥의 고통을 받는다고 한다. 사람이 죽어 저승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사고는 인도에서 전래된 불교 고유의 것이지만 저승의 열 지옥을 지키는 시왕의 여러 명칭과 죽은 조상에 대한 자손의 효 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불교 고유의 신앙과 차이를 보인다. 즉 불교의 인과응보(因果應報) 및 육도윤회사상(六道輪廻思想)에 중국의 도교사상(道敎思想), 유교의 삼년거상제도(三年居喪制度)의 관념이 융합되어 중국에서 시왕신앙이 형성되고 『시왕경』이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화된 불교사상인 것이다.

이러한 『시왕경』의 바탕이 되는 시왕신앙은 당나라 개원사(開元寺) 승려 도명화상(道明和尙)이 대력(大曆) 13년(778) 2월에 황의(黃衣)를 입은 저승사자들에게 이끌려 염라대왕 앞으로 연행되어 갔다가 지장보살(地藏菩薩)과 사자(使者)가 보좌하고 있는 시왕청[十王廳] 등을 경험하면서 기존의 저승 관념이 착오인 것을 깨닫고 난 뒤 이승으로 되돌아온 경험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후 장과로(張果老)에 의해 시왕도[十王圖]가 덧붙여짐으로써 대중은 좀 더 쉽게 저승의 윤회사상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할 수 있었고, 이는 『시왕경』이 대중에게 가장 가까운 불교경전으로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된다.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부터 이미 지장보살 신앙이 자리 잡고 있던 상황에서 고려시대에 이르러 시왕신앙이 중국으로부터 전래되면서 크게 유행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규모가 작은 사찰에서도 시왕을 모셔두는 명부전(冥府殿)을 따로 마련할 정도로 시왕신앙이 공고화되고 불교의 대중화와 함께 서민의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로 불교의 사십구재 의식에서 화청승에 의해 낭송되었던 『시왕경』은 후대에 이르러 점차 탁발승과 걸립패들에 의해 더욱 속화된 형식의 〈회심곡〉으로 변모되어 대중화되었다. 이것이 다시 독경무(讀經巫)를 포함한 무속집단에까지 영향을 끼쳐 망자의 천도의식과 관계되는 굿에서 불리는 〈저승본풀이〉, 〈지옥풀이〉, 〈시왕탄일〉, 〈시설〉 등과 같은 ‘해원계교술무가’ 또는 ‘해원계교술무경’으로 발전하기에 이른다.

〈저승본풀이〉에 등장하는 ‘열 명의 저승왕’[十王]과 지옥의 모습은 큰 틀에서 불교의 『시왕경』과 거의 일치한다. 다만 〈저승본풀이〉는 제주도 방언이라는 언어상의 이질성과 함께 구전상의 한계로 인해 시왕이 관할하는 지옥과 소속 육갑 등에서 『시왕경』의 내용과 다소 차이가 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시왕경』의 것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순서	시왕의 이름	관할지옥	차지한 육갑
제일	진광대왕 (秦廣大王)	刀山지옥 (地獄)	庚午, 辛未, 壬申, 癸酉, 甲戌, 乙亥
제이	초강대왕 (初江大王)	火湯/鐺湯지옥 (地獄)	戊子, 己丑, 庚寅, 辛卯, 壬辰, 癸巳
제삼	송제대왕 (宋帝大王)	寒氷지옥 (地獄)	壬午, 癸未, 甲申, 乙酉, 丙戌, 丁亥
제사	오관대왕 (五官大王)	劍樹지옥 (地獄)	甲子, 乙丑, 丙寅, 丁卯, 戊辰, 己巳
제오	염라대왕 (閻羅大王)	拔舌지옥 (地獄)	庚子, 辛丑, 壬寅, 癸卯, 甲辰, 乙巳
제육	변성대왕 (變成大王)	毒蛇지옥 (地獄)	丙子, 丁丑, 戊寅, 己卯, 庚辰, 辛巳
제칠	태산대왕 (泰山大王)	鋸骸지옥 (地獄)	甲午, 乙未, 丙申, 丁酉, 戊戌, 己亥
제팔	평등대왕 (平等大王)	鐵床지옥 (地獄)	丙午, 丁未, 戊申, 己酉, 庚戌, 辛亥
제구	도시대왕 (都市大王)	風塗지옥 (地獄)	壬子, 癸丑, 甲寅, 乙卯, 丙辰, 丁巳
제십	전륜대왕 (轉輪大王)	黑暗지옥 (地獄)	戊午, 己未, 庚申, 辛酉, 壬戌, 癸亥

특징 및 지역사례 제주도의 큰굿은 천지왕에서부터 초공, 이공, 삼공은 물론 세경신 및 문전신까지 심방이 섬기는 모든 일반신을 모셔 대접하는 큰 규모의 굿이다. 큰굿에서 시왕맞이 제차는 삼공제 이후에 진행되는 거리로, 인간이 죽은 후 가게 되는 저승세계의 신들을 불러 대접하는 의례이다. 이 제차는 초감제, 방광침, 추물공연, 분부사룀, 체사본풀이, 액막이, 나까도전침, 질침, 도진의 순서로 짜여져 있다. 이 제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망자를 저승으로 이끄는 차사 강림이의 내력을 읊는 〈ᄎᆞ사본풀이〉 순서이다. 그러나 신의 위계상 차사인 강림이보다 앞서는 저승왕들에 대한 소개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방광침 부분에서 저승왕들과 그들이 다스리는 지옥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곧 〈저승본풀이〉이다.

제주도 무속에서의 〈저승본풀이〉는 불교의 시왕사상 및 『시왕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 분명하지만 지향하는 세계에서 다소 차이가 난다. 불교의 『시왕경』은 지옥의 모습과 가혹한 형벌의 종류를 소개하여 살아 있는 인간들로 하여금 이승에서의 선업(善業)을 닦을 것을 강조한다. 이에 비해 〈저승본풀이〉는 저승왕과 지옥의 모습, 형벌에 대한 소개를 통해 사후세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죽은 영혼이나 조상의 극락행과 새·나비와 같은 이상적인 존재로의 환생을 기원하는 것이 목표이다.

육지에서도 제주도의 〈저승본풀이〉와 같은 성격을 띠는 무가가 다수 발견된다. 이 역시 죽은 자를 위한 천도의 성격이 강한 진오귀굿, 오구굿 등에서 〈바리공주〉에 앞서 불린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동해안오구굿 판염불에서 불리는 〈지옥풀이〉, 서울진진오기굿 사재삼성거리에서 불리는 〈말명 만수받이〉, 진도와 순천 등지 씻김굿의 〈희설(또는 시설)〉, 남해안의 〈시왕탄일〉 등이 있다. 이들 육지의 무가 역시 〈저승본풀이〉처럼 불경인 『시왕경』에 근거한 저승 시왕과 지옥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죽은 망자를 데려가는 저승사자의 도래, 저승사자와 망자의 저승행 노정기, 저승차사에 인정 걸기 등의 내용을 삽입하고 있어 불교의 〈회심곡〉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저승본풀이〉의 이본(異本)으로는 현용준의 『제주도무속자료사전』에 수록된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시왕맞이 제차 안의 방광침에서 불리는 짧은 무가로, 이름이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 방광침에 뒤따라 진행되는 〈ᄎᆞ사본풀이〉의 서두에 있는 〈혜심곡〉 역시 〈저승본풀이〉와 일정부분 공통점을 지닌 자료로 볼 수 있다. 다만 〈혜심곡〉에서는 망자가 죽음에 처한 순간과 저승차사의 도래, 저승차사에게 이끌려 저승에 간 망자가 각 지옥을 거치며 생전의 죄업에 따른 형벌이 집행되는 모습들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 때문에 서울진진오기굿의 경우처럼 불교가사 〈회심곡〉에 좀 더 깊은 연관이 있어 보인다. 한편 〈혜심곡〉 말미에 “그날 적베지(赤牌紙) 무루웁던 처ᄉᆞ(差使)가 오ᄂᆞᆯ 영신(靈神) 안동한 처ᄉᆞᆸ네다. 처ᄉᆞ님전 난시본산국을 신풉네다”라고 하여 곧이어 구연될 〈차사본풀이〉의 주인공 강림차사를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승본풀이〉 또는 〈혜심곡〉류 무가가 시왕맞이 제차에서 구연되는 이유가 저승차사를 불러 모시기 이전에 신의 위계에 맞게 시왕을 소개하고 위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게 해 준다.

의의 〈저승본풀이〉는 제주도 큰굿에서 저승의 시왕을 모시는 시왕맞이 제차에서 구연되는 무가로, 제주도 무속에 미친 불교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불교의 저승 관념을 수용한 〈저승본풀이〉류 무가는 망자의 천도를 축원하는 육지의 진오귀굿 계통에서도 발견된다. 〈지옥풀이〉, 〈희설〉, 〈시왕탄일〉 등이 그것이다. 이들 무가는 저승 관념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진 불교의 시왕사상을 받아들여 신앙민들에게 저승과 시왕, 지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무속의 중요한 존재 근거 가운데 하나인 사후세계를 확인시켜 준다. 또한 이를 근거로 망자를 좋은 세상으로 잘 보내기 위해서는 저승의 시왕과 차사들을 대접하는 의식인 '굿'의 절대적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능도 담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무가들이 〈차사본풀이〉, 〈바리공주〉 등과 같이 망자를 저승으로 이끄는 저승차사들에 대한 서사무가에 앞서 불려진다는 점에서 저승차사보다 위계가 높은 저승왕들을 소개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저승본풀이〉는 무속이 여타 종교와 어떻게 교류하고 수용했는지를 보여주면서 불교를 수용하여 신앙체계를 더욱 합리화 · 체계화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제주도 무혼굿(김수남, 현용준 외, 열화당, 1985),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진성기, 민속원, 1992), 서울진진오기굿 무가자료집(김헌선, 보고사, 2007), 한국판 시왕경 연구(조순향, 경기대학논문집 15, 1984),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이수자,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불교가사의 연행과 전승(김종진, 이회, 2002).
필자 김헤정(金惠貞)–경기대

저승사자

표제어 사신(373쪽)

전금순

분야 씻김굿 무녀이자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33호 호남당골굿 예능보유자.

내용 전금순(全今順, 여)은 1927년에 전북 정읍 정우면에서 부친 전생경과 모친 최소녀의 3남 3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친정 집안은 전북의 최고 무계로 꼽히는 천안 전씨 무계이며, 외가인 임실 최씨 무계와 외조모 집안인 남원 배씨 무계도 뿌리 깊은 당골 집안이다. 할아버지 5형제는 모두 무업 및 국악에 종사했으며, 그들의 자녀 중에서도 수많은 명인 명창이 배출되었다. 첫째 큰할아버지 전학술의 자녀 중에서는 전이섭 · 전사섭 · 전사종이 장구잽이와 쇠잽이로 이름을 날렸다. 둘째 큰할아버지 전광오의 자녀 중에서는 판소리 명창 전도성이 나왔다. 셋째 큰할아버지 전기옥의 자녀 중에는 명고수인 전계문이 있고, 손자 대에 단소 산조로 유명한 전추산이 있다. 넷째 큰할아버지의 슬하에서도 전주옥, 전홍근 등의 예인들이 나왔다. 전금순의 할아버지인 다섯째 전극공은 고인(鼓人)으로 활동했으며, 아들 전선 · 전생경, 전생필은 풍물굿이나 굿판의 악사로 활동했다. 전금순의 친정 예인 중에서 할머니 평산 신씨는 정읍 일대에서 특히 명성이 높았던 당골이었다. 굿을 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인근 지역 당골들이 많이 전수해 갔다고 한다.

전금순은 17세 때 순창군 복흥면 삼방의 성기남과 결혼하였다. 성기남은 무악을 연주하던 고인으로서, 20세에 일본으로 가서 3년 정도 거주하였다. 일본에서 돌아온 성기남은 김광래 농악단에서 소고를 쳤으며, 소리판에서 판소리도 하고 북도 치는 등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남편의 성씨 무계 역시 유명한 집안으로, 많은 국악인을 배출하였다. 시할머니 이씨는 유명한 당골이었으며, 시숙인 성수남은 설장구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또한 판소리 명창 성운선. 성채란, 성금화 등과 가야금 명인 성금연이 모두 성씨 가계 출신이다. 전금순은 결혼 이후에 비로소 무업의 길에 들어섰다. 결혼 이전까지는 굿을 배우지 않고 살림만 하였다.



전금순
전북 정읍시 옹동면 제내리
당산굿 중 한장면 | 2007.12.10 |
이경엽

전금순이 무업을 하게 된 것은 친정아버지와 시어머니, 정읍의 무계 출신 김광래의 권유 때문이었다. 김광래는 전금순의 부친 전생경과 '결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다. 김광래가 전생경의 집을 방문하여 우연히 전금순을 보고서 "사주팔자가 드세어 굿을 배우지 않으면 50세에 과부가 된다"고 하면서 굿을 배우라고 종용했다고 한다. 집안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업을 배우기로 결정한 전금순은 김광래와 그의 부인 박초선에게 3년 동안 굿을 배우게 되었다. 그런데 김광래 부부는 전금순의 할머니 평산 신씨에게 굿을 사사했기 때문에 결국 전금순이 김광래 부부에게 배운 굿은 전씨 집안에서 전해오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전금순은 무가사설을 김광래를 통해 익혔지만 육갑은 따로 서당 훈장께 배웠다고 한다.

전금순은 22세 때 육촌 오빠인 전우성에게서 정읍시 옹동면 오성리와 칠석리 12개 마을의 당골판을 사서 이사한 후 23세부터 본격적으로 무업에 뛰어들었다. 전씨는 무업을 시작한 뒤로 당시 최고의 고인이던 서동순, 김판순, 전광문, 전생필, 전수바우, 전득명 등과 함께 활동했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사망한 후 말년에는 젊은 국악인들을 데려와 반주를 맡겼다. 전금순은 별세하기 전까지 꾸준히 정읍과 전주를 오가면서 크고 작은 굿을 계속하였다. 굿이 없는 날에는 신수풀이를 비롯한 다양한 상담을 해 주기도 하였다. 또한 별세하기 직전인 2008년까지 해마다 거르지 않고 양동이로 곡물과 각종 농산물을 받는 등 옛날 방식의 당골판을 유지해 왔다. 전씨 자손 중에서 무업을 이은 사람은 없다.

전금순은 씨끔굿과 당산굿을 비롯한 각종 무속의례를 전승해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부안 위도 띠뱃굿(원당굿, 용왕굿)과 정읍 제내리 당산굿 등을 맡아 해 왔으며, 단절 위기에 있던 수륙재를 재현하기도 했다. 그는 동생인 전영애와 함께 전라북도 세습무굿을 전승해 온 마지막 무녀였다. 전금순은 2009년 1월 15일 전주시 평화동에서 노환으로 별세하였다.

참고문헌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전라남도 · 전라북도 · 제주도(이경엽,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전북지역 무당굿 연구(이영금,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필자 김헤정(金惠貞)–경인교대

전복(戰服)

정의 소매와 깃이 없으며, 겹쳐 입지 않는 맞임의 옆선과 뒤 중심선이 트인 조끼형태의 긴 옷.

내용 전복은 홑이나 겹으로도 입으며, 겹으로 만들 때에는 겉감과 다른 색을 두기도 한다. 전복은 단독으로 포류에 속하지 않으며, 동다리와 함께는 구군복으로 불린다. 철릭 위에 입으며, 두루마기나 아이들은 색동두루마기 위에 함께 입는 옷으로서는 포로도 분류된다. 신분이 낮은 서민들은 바지저고리 위에 전복을 입고 앞자락을 뒤로 묶은 모습을 조선후기 풍속화에서 볼 수 있다.

자료를 보면 전복과 쾌자, 답호를 같은 형태로 구분 없이 혼용되어 기록한다.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은 깃이 없고 목 둘레가 V형 또는 U형인 형태의 옷을 답호라고 명명하고 있다. 또한 같은 형태의 남색 옷에는 전복이라 하고, 답호 등 반비 계통의 옷은 모두 전복으로 불린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고복남의 한국전통복식 사연구에서는 전복과 답호의 옷 형태에 구분을 둔다. 답호는 맞임에 옆과 뒤가 트여 있는 형태가 같지만 깃이 달려 있다. 원광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전복을 살펴보면 부군옷은 두루마기 형태의 창의(氅衣)위에 뒤목점 아래에까지 뒤 중심이 트인 남색의 홑으로 된 전복을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1600년대 답호와 전복은 더 확실히 구분이 된다. 답호는 맞임이 아닌 우임으로 겹쳐 입는 형태이며, 『우리옷 이천년』에서는 순조(1825) 이후에

이러한 형태의 답호와 깃이 없어지고 맞임인 전복의 형태와 같아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쾌자와 전복은 형태의 구분 없이 명명되고 있으며, 답호는 살펴본 기록에서 깃이 없는 전복과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복은 예복의 형태와 명칭으로 보면 궁중예복에서 온 것이며, 궁중 여령(女伶)이 있는 정재복(呈才服)의 기본구조를 보인다. 조선 후기 연향문화를 알 수 있는 『무신진찬의궤(戊申進饌儀軌』와 『진연의궤(進宴儀軌)』의 검기무 여령복식을 보면 전복은 자적쾌자[紫的掛子]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된 『무당내력(巫黨來歷)』중에서 전복이 보이는 굿거리는 별성거리(別星巨里), 창부거리(唱婦巨里), 신장거리(神將巨里)이다. 별성거리는 단군의 시신(侍臣) 고시례(高矢禮)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함께 청하는 거리로, 남신(男神)을 위한 굿으로 보인다. 무복을 보면 속옷이 보이도록 녹색 치마에 황색 저고리를 입고, 주홍색 길에 홍색의 좁은 소매가 달린 동다리를 위에 착용하고, 겉에 흑색의 전복을 입고 남색 전대를 두른 것을 알 수 있다. 창부거리는 '창부'라는 광대의 신을 의미하며, 나이가 어리고 아름다운 무녀를 골라 한판 노는 거리이다. 무녀는 속옷이 보이도록 녹색 치마를 입고 남색으로 삼회장을 댄 황색 저고리를 입었다. 그 위에 흑색 전복을 입고 청전을 맸다. 오방기로 오방신장을 지휘하여 잡신을 쫓는 신장거리에서 무녀는 동다리와 전복의 군복 차림이며, 전립을 써서 구군복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

전복은 한자에서 알 수 있듯이 융복(戎服)이다. 전복을 입는 굿거리를 보면 이러한 성격이 드러난다. 굿은 크게 강신무와 별신무로 대별되어 왔다. 하효길은 한국의 굿에서 주로 한강을 중심으로 이북은 강신무, 이남은 세습무가 분포된 지역적 특성이 있다고 밝힌다. 강신무는 각 굿거리에 따라 신복(神服)을 갈아입으며, 요란한 악기반주에 동적인 춤을 추며 진행한다. 이에 비해 세습무는 일반적으로 굿을 진행하는 동안에 옷을 갈아입지 않으며, 굿거리가 바뀔 때 옷을 바꿔 입기도 한다. 강신무에 비해 굿을 대중과 함께 이끌어 가는 예술성이 더 강조된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무구에 관한 조사자료 중 전복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면 전복과 쾌자에 대한 용어사용이 혼용되어 있다. 남해안의 거제에서는 원삼 형태의 몽두리를 쾌자라고 부르며, 제주도에서는 지역 사투리의 특징 때문인지 쿼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표의 내용을 정리하면 전복과 쾌자라는 용어는 같은 옷의 형태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전혀 다른 형태의 옷을 쾌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서울 지역에서 전복은 기본복에 가까우며, 전복이나 쾌자 위에 다른 무복을 많이 덧입고 남색과 흑색이 주로 사용된다. 여러 겹을 입으므로 주로 홑으로 제작되고, 장식이 없다. 전라도 지역은 흰색의 쾌자가 보이며 역시 위에 다른 옷을 덧입는다. 경상도나 제주도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굿거리에서 평복 위에 전복을 입는 차림으로 굿을 진행한다. 일부 굿거리에서 전복 위


1


2


3

1. 신장거리
2. 창부거리
3. 별성거리
『무당내력』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에 다른 옷을 입기도 하지만 많은 시간 동안 전복을 입고 있어서 전복에 금박이나 자수 장식이 되어 있으며, 겹으로 제작해 안감을 홍색이나 분홍색으로 둔다. 제주에서는 쿼지라는 명칭으로 전복의 길을 좁고 길게 만들어 어깨에 띠를 늘어뜨린 듯한 형태를 보이며, 화문이나 자수로 장식한 것이 특징이다.

무복은 무당의 신분이나 성별과 관계없이 굿의 종류에 따라 자유롭게 착용했다. 따라서 굿거리마다 입는 무복에 의미가 있다. 굿마다 옷을 갈아입는 서울굿에서는 일부 굿거리에서 전복을 입는다. 하지만 세습무는 굿의 중간에 옷을 갈아입지 않는다. 기본복에 전복을 입고, 굿거리에 따라 다른 포류를 덧입는다. 전복은 성별 또는 신분을 전환하는 의미가 되거나 뒤에 다른 옷을 덧입으면 치마저고리와 같은 평복의 의미가 된다.

전복은 쾌자라는 이름과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굿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형태가 다르다. 전복의 형태가 항상 고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무복에 비하여 정형성을 가장 잘 지키고 있다. 일

지역	조사대상	전복의 색	사용거리	특징
서울굿	이태원부군당 당주 민명숙 (용산)	남색/흑색	남쾌자-신장거리 흑쾌자-대감거리	장식없이 겹으로 된 전복-흑전복은 안에 붉은 안감을 두었다.
	남이장군당 당주 이명옥 (동대문)	남색/흑색	흑색-대감거리	
	아기씨당주 김옥림(성동구 행당동)	자주색/먹색	자주-몸주 · 천신 · 별상거리 먹-텃대감거리	
경기도	거북상당 당수 오수복(수원)	남색/흑색	남쾌자-신장거리 흑쾌자-대감거리	장식없이 겹으로 된 전복-흑전복은 안에 붉은 안감을 두었다.
	군자봉 당주 김순덕(시흥)	자주/남색	자주-대감거리 남색-신장거리	전복위에 철릭을 입고 상태에서 장군거리시 철릭과 주립을 벗고 쾌자자락을 휘날린다.
강원도	속초시 빈순애	흑색	말명굿, 계면굿 이외에 모든 거리에서 입는 무복	
	삼척시 김동철	남색	선굿	남색에 분홍색 안감을 둔 전복
	춘천시 김경종	남색	부정거리	남색+홍색 안감
	정선군 조연옥		조상굿	
전라도	해남군 안해임	붉은 쾌자	넋올리기거리, 고풀이거리	
	정읍시 전금순	흰색		
	김제시 최예님	흰색		앞 중심과 목둘레를 황색선으로 선단을 댐 전복을 입고 위에 장삼을 덧입음.
경상도	울주군 김영희	남색/흑색	거의 대부분의 거리에서 착용	
	거제시 정옥이	남색	거의 대부분의 거리에서 착용	쾌자라 명명하나 형태가 원삼과 비슷하게 색동의 소매가 달려있으며 뒤에 흉배도 있는 형태
	안동시 김인섭	남색	산신거리/작두거리	남색으로 깃과 동정이 달려있으며 어깨 폭이 넓은 답호의 형태
	울진군 송명희	흑색(화복)		흑색에 분홍안감을 두고 금박으로 장식했다.
제주도	조천읍 김윤수	남색/홍색 쿼지		남색의 겹으로 앞과 뒷길에 장식이 있다.
	구좌읍 서순실	남색 쾌지	대부분의 굿에 착용	길이 좁고 길가운데에 자수장식
	성산읍 양정순	파란 쿼지(섭시)		깃과 고름이 달리고 안에 자주안감을 두었으며, 안에 길 둘레에 선단을 댄 형태.

부 지역에서 전혀 다른 형태의 전복도 나타나기는 하지만 대부분 소매가 없는 조끼 형태의 옆과 뒤 중심이 트여 있는 원형을 지키고 있다. 다른 옷의 받침 또는 평복에 입는 겉옷의 의미로 화려함 또는 단조로움으로 매개체 역할을 하는 중요한 무복이다.

참고문헌 한국전통복식사연구(고복남, 일호각, 1986), 팔도굿(황루시, 대원사, 1992), 복식(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1995), 큰무당 우옥주 유품(국립민속박물관, 1995), 한국복식문화사전(김영숙, 미술문화, 1998), 한국의 복식문화(백영자 · 최해율, 경춘사, 2000), 우리옷 이천년(유희경외, 미술문화, 2001), 동해안 별신굿(박경신 · 장휘주, 화산문화, 2002), 한국의 굿(하효길 외, 민속원, 2002), 민속과 종교(비교민속학회, 2003), 사진으로 보는 민속의 어제와 오늘 1(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복식의 역사(백영자 · 최해율, 경춘사, 2004),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조선후기연향문화(한국학중앙연구원, 민속원, 2005), 한국의 무신도(홍태한 · 박우택, 민속원, 2008).
필자 박선영(朴宣映)

전북의 앉은굿

정의 전라북도 지역에서 공연자가 굿판에 앉아 독경을 위주로 하여 공연하는 굿. 이 지역의 앉은굿은 '앉은반'이라고도 불린다. 이 굿은 2001년 6월 5일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6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예능보유자는 최갑선(崔甲善)이다.

내용 앉은굿은 주로 보살 · 법사 계통의 무당들에 의해 전승되고 공연되어 왔다. 이 굿은 이 지역 세습무인 단골들에 의해 전승되고 공연되어온 단골굿인 선반굿과 대조를 이룬다. 전북 지역의 굿은 대체로 전통 세습무 단골들에 의해서 전승되어온 단골굿과 강신무 혹은 보살 · 법사 계통의 무당들에 의해 전승되어온 독경 위주의 앉은굿 계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골굿이 이 지역 굿의 주류를 형성해 왔으나 앉은굿도 상당한 비중으로 이 지역의 굿을 담당해온 것도 사실이라는 점에서 이 지역의 앉은굿도 나름대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의 정통 단골굿은 단골 무당들의 노래 · 춤 · 몸짓 등이 굿의 중심을 차지하는 반면에 앉은굿은 일반적으로 굿판에 앉아서 장구 · 징 · 꽹과리 등으로 자기 장단에 맞추어 공연하는 법사의 독경이 굿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이 두 가지 굿 양식은 다음과 같이 대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단골굿이 악사들의 반주로 무당(단골)을 놀리는 굿이라면, 앉은굿은 법사의 독경으로 보살(강신무)을 놀리는 굿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단골굿에서 무당의 예능은 집안 대대의 세습적으로 전승되어온 반면에 앉은굿에서 보살 · 법사의 예능은 세습적 전승이 미약하기 때문에 주로 독경과 즉흥적인 사설 · 춤 · 몸짓을 위주로 공연을 하게 된다.

전북의 앉은굿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집안굿(개인굿)이고, 다른 하나는 대동굿(큰굿)이다. 집안굿의 경우 법사의 독경을 위주로 굿이 진행되지만 대동굿의 경우에는 법사의 독경과 법사 및 악사들의 무악에 맞추어 공연하는 보살 무당의 노래 · 춤 · 몸짓이 어울려 굿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앉은굿의 경우에도 큰굿을 할 경우에 여러 사람의 보살 무당과 악사들이 굿에 참여하여 큰 굿판을 벌이기 때문에 세습 단골굿 못지않게 성대한 큰굿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런 경우 굿은 법사의 독경에다 보살 무당의 노래 · 춤 · 몸짓과 악사들의 기악 연주가 결합되기도 한다.

이러한 앉은굿의 보살 무당은 세습무 단골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전북 앉은굿 보살 무당인 하진순의 경우를 보면 21세 때 신병이 일기 시작해 그 후 신모(神母) 양영자에게 신내림을 받은 후 만신 고등심에게서 굿하는 법을 전수받고, 법사 박복선에게서 독경을 수학했다.

따라서 하진순의 경우 그의 굿이 비록 세습무 단골의 굿과는 전통이 판이하게 다르지만 나름대로의 굿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근본적으로는 강신무의 특징과 전통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독경 법사의 전통을 함께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전북의 앉은굿 전통이 전라도 정통 세습무의 전통과는 다른 또 하나의 굿 전통을 수립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굿 전통은 전라도 세습무인 단골굿 전통도 아니며, 그렇다고 순전히 독경을 위주로 하는 충청도 법사 계통의 굿 전통도 아니다.

이것은 호남 지방의 굿 전통이 종래의 학설과 같이 전통 세습무인 단골굿이 완전히 지배한 것이 아니라 이와는 다른 강신무 무당굿 전통도 상당한 비중으로 존재해 왔음을 암시한다. 이 굿은 이 지역 전통 세습무인 단골굿과도 다르고 독경만을 위주로 하는 충청도 법사 굿 전통과도 다르게, 강신무 무당의 노래 · 춤 · 몸짓과 법사의 독경 및 악기 반주가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매우 독특한 무당굿 양식을 형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놓고 볼 때 전북 지역 앉은굿의 중요한 특징으로는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앉은굿의 무당은 계통상으로 강신무의 전통과 법사의 전통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둘째, 앉은굿의 공연은 강신무의 노래 · 춤 · 몸짓과 법사의 독경 및 장단으로 이루어진다. 셋째, 법사는 자신의 독경과 장단으로 무당을 굿판에서 놀린다. 넷째, 간단한 집안굿(개인굿)을 할 때에는 독경 위주의 법사식 굿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지역사례 보살 무당 하진순의 굿거리를 사례로 하여 전북 지역 앉은굿의 주요 굿거리를 보면 1. 천지굿, 2.칠성풀이, 3. 산신굿(도당거리/본향거리), 4. 용왕굿, 5. 넋건지기굿, 6. 조상굿, 7. 뒷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넋건지기굿의 순서는 1) 천지굿, 2) 칠성풀이, 3) 산신거리, 4) 용왕거리, 5) 넋건지기, 6) 넋놀리기, 7) 씻금, 8) 조상굿, 9) 길가르기, 10) 뒷전거리 등이다. 큰굿으로 하는 이 넋건지기굿의 구체적인 과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천지굿** : 법사-축원 독경, 보살-강신/대잡이 · 고풀이 · 춤 · 축원
2) **칠성풀이** : 법사 축원 독경, 보살-고풀이 · 바라춤 · 복주머니춤 · 축원
3) **산신거리** : 법사-축원 독경, 보살-고풀이 · 축원
4) **용왕거리** : 법사-축원 독경, 보살-고풀이 · 춤
5) **넋건지기굿 및 조상굿** : 법사-축원 독경, 보살-고풀이 · 넋건지기 · 넋담기 · 고풀이 · 넋풀이춤/지전춤 · 넋올리기 · 조상굿 · 넋보내기
6) **뒷전거리** : 법사-독경 축원, 보살-고풀이 · 칼춤 및 칼내던지기 · 짚신춤 및 짚신 내던지기 · 질베 찢기 및 내던지기 · 객사귀 걷어내기 · 노자풀이 · 사자 밥먹기

이상과 같이 앉은굿의 경우에도 큰굿을 할 경우에는 굿판에서 '법사 : 독경/구음+반주'(앉은반) 단위와 '보살 : 노래/축원+춤/몸짓'(선반) 단위가 동시적 · 계기적으로 어울려 굿이 진행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하진순 넋풀이굿 공연 영상 자료 CD 1-7(김익두 · 백은철 촬영, 2009년 4월 18일, 전북 군산 은파유원지), 전북 무형문화재 38호 하진순 넋풀이굿 조사 녹음 자료 CD(김익두 · 백은철 · 허정주 녹음, 2009년 4월 18일, 전북 군산 은파유원지), 전북 무형문화재 38호 하진순 넋풀이굿 조사 사진 자료(김익두 · 허정주 촬영, 2009년 4월 18일, 전북 군산 은파유원지).
필자 김익두(金益斗)

전북-충남 무속음악

정의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남부 지역에 전승되는 무속음악. 전라북도 전 지역이 이 무악권에 드는지 분명히 밝혀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북 고창, 부안, 정읍, 군산, 익산, 전주 등지의 무속음악이 줄포 무당 박소녀의 무가 자료와 같은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이 동일한 무속음악권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라북도 동부 지역, 즉 무주 · 진안 · 장수 · 남원 등지의 무속음악 특성에 관하여서는 밝혀진 자료가 없다. 충청남도 남부 지역이 전북-충남 무속음악권임은 충남 서천 출신이자 부여군 은산면에 사는 은산별신제 보유자 이어인년의 무속음악 특성에서 드러난 것이다. 충남 서천, 한산, 논산, 부여, 공주 등지가 전북-충남 무속음악권으로 보이지만 부여 지역 이외에는 음악 자료가 남은 것이 없다.

내용 전북-충남 무악권의 음악적 특성은 무악장단이 안진반, 살풀이, 덩덕궁이, 외장구 장단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무가의 선율이 육자배기토리, 악기 편성이 징 · 장구 · 피리 · 젓대(대금) · 해금으로 각각 되어 있는 점은 한국의 서남부 시나위권과 공통적인 특성이다.

다른 시나위권의 무가와 같이 전북-충남 남부 지역의 무가는 육자배기토리로 이루어져 있다. 육

자배기토리는 일명 '남도제'라 이르고 판소리에서 '계면조'라 이른다. 육자배기토리 선율은 Mi, Sol, La, do, re로 구성되었으며, Sol 음은 자주 나타나지 않고 다른 토리 음인 re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 토리의 주요 음은 Mi, La, Si의 3음으로 4도+장2도 구조로 되어 있다. 종지음은 La이며, 이것을 판소리 명창들은 '청'이라 이른다. 시김새는 대체로 Mi에서 떠는 목(용성)을 쓰고, do에서 Si로 흘러내리는 목(퇴성)을 쓰거나 꺾는 목을 쓴다. 전북·충남 지역의 무가 선율에는 드물게 성주풀이토리가 쓰이기도 한다. 성주풀이토리는 선율틀이 Sol, La, do, re, mi로 구성되었다. 주요 음은 Sol, do, re이고 4도+장2도 구조로 되어 있다. 종지음은 do이며, 이것을 판소리 명창들은 '청'이라 이른다. 시금새는 대체로 Sol에서 떠는 목(용성)을 쓰고, re에서 do로 흘러내리는 목(퇴성)을 쓰거나 꺾는 목을 쓴다.

전북·충남 남부 지역의 무속음악에 쓰이는 장단은 안진반, 살풀이, 덩덕궁이, 시님, 외장구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종류가 적은 편이다. 이 지역의 장단에도 덩덕궁이, 살풀이와 같이 3소박으로 된 장단이 많지만 시님과 같이 소박이 혼합·집합되는 장단이 쓰이는 것은 다른 지역과 같다. 그리고 안진반과 같이 보통 빠른 2소박으로 된 장단이 있는 것은 시나위권과 공통적인 특징으로 보인다.

1. 살풀이장단 : 전북-충남 남부 지역에 전승되는 무속음악 장단의 하나이다. 무속음악에서 살풀이라는 이름으로 전승되는 장단은 전북-충남 남부 지역 이외에 전남 무악의 살풀이, 경남 서남부 통영 무악의 살풀이 등이 있다. 하지만 전북-충남 지역에 전승되는 장단이 가장 전형적인 살풀이장단이다. 살풀이장단의 음악적 특성을 보면 원형은 3소박 4박이지만 실제 나타나는 리듬은 소박이 3·3·3·3으로 집합되는 3소박 4박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3·3·2·2·2나 2·2·2·3·3 또는 2·2·2·2·2·2 등으로 집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연주자들은 여러 가지로 다르게 장구장단을 치며, 이를 고수들은 "살풀이장단은 기본이 되는 장단 뽄[本]이 없다"고 한다. 김제 무속음악의 장고수 신관룡이 구음(口音)으로 댄 것은 "정거러 정/정 거러 정/정 거러 정/정 거러 정"이다.

2. 덩덕궁이장단 : 전북-충남 남부 지역에 전승되는 무속음악 장단. 조금 빠른 3소박 4박이며, 판소리의 자진모리장단에 해당한다. 일명 굿거리라 이르기도 하지만 이것은 별칭이며, 경기도 굿거리보다 빠르다. '덩덕궁이장단'이라는 명칭은 다른 여러 지역에도 쓰인다. 전남 무악의 '떵떵이', 경남 동부의 '무정정자궁 쇠정작궁', 함경도의 '정적기' 등 비슷한 이름으로 여러 곳에서 전승되고 있다. 이것은 모두 덩덕궁이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공통점은 어느 것이나 조금 빠른 3소박 4박이라는 데 있다. 장구는 '덩 - 딱/궁 딱 -//궁 - 딱/궁 따 -/ ' 하고 친다.

3. 안진반장단 : 전북-충남 남부 지역에 전승되는 무속음악 장단. 조금 빠른 2소박 4박이지만 때로는 주기가 불규칙하다. '안진반'은 '앉아서 연주하는 거리'라는 뜻이다. 실제로 무당이 앉아서 장구를 손수 치면서 무가를 부른다. 주로 거리의 첫머리인 청신 절차에서 불리기 때문에 청배 기능을 한다. 장구는 때로 불규칙하지만 기본 장단은 '덩 -/딱 다//구 닥/궁 -/ ' 하고 2소박 4박(4/4박자)으로 친다.

4. 시님장단 : 전북-충남 남부 지역에 전승되는 무속음악 장단. 조금 빠른 2소박과 3소박이 섞인 4박이다. '시님장단'이라는 말은 제석거리 중타령에서 이 장단이 불린다 하여 '스님 장단'이라 이르던 것이 '시님장단'으로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흔히 각 거리의 끝에 불리므로 일종의 오신(娛神)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장구는 '덩 - 궁/딱 -//궁 - 딱/궁 -/ ' 하고 친다. 판소리의 엇모리장단과 같다.

5. 외장구장단 : 전북-충남 남부 지역에 전승되는 무속음악 장단. 조금 빠른 2소박이 주(主)가 되고 가끔 3소박이 섞이면서 주기가 불규칙한 장단이다. '외장구장단'은 장구 한 면의 복판만 '당당당당…'치는 장단이라고 해서 사용된다. 〈당금애기〉, 〈장자풀이〉 같은 중요한 거리의 맨 처음 서사무가에서 이 장단으로 된 무가를 부른다.

필자 이보형(李輔亨)

전안상

정의 전안은 전내(殿內)를 가리키는 말로 신당 안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신령을 가리키며, 전안상은 이 신령을 위해 차린 상차림.

내용 보통 전안대감신 혹은 전안장군신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전안상은 무당의 몸주 신령에 따라서 장군상이 되기도 하고 대감상이 되기도 한다. 전안상의 유래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록이 보이지 않지만 1825년 또는 1885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측되는 『무당내력(巫黨來歷)』에서의 대거리상은 최영 장군을 모신 장군상으로 보인다. 큰상에는 수파련꽃이 가장 안쪽에 놓였고 그 앞에 계피팥떡, 또 그 앞에 누름적과 세반강정이 자리를 잡았다. 그 앞에는 양쪽에 촛대가 하나씩 올랐고, 안쪽에는 왼쪽부터 산자·약과·배·감·계면떡이 차려졌다. 작은 상에는 3개의 술잔, 산적, 향이 올랐다. 이로 미루어 전안상은 조선 후기에도 존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서울 밤섬부군당도당굿의 상차림은 크게 전안상, 당마루상, 뒷전상으로 나누어 준비된다. 뒷전상을 제외한 전안상과 당마루상은 굿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된다. 전안에 모시는 세 신령은 각각 신격이 다름에도 기본적인 상차림은 같은 구조를 갖추고 있다. 대구포, 말린문어, 잔절편, 나물, 식혜, 탕, 화전, 산자, 두부전, 튀각, 밤고임, 대추고임, 깨강정, 약과, 옥춘당, 곶감, 배고임 등이다. 밤섬도당굿 전안상의 제물은 메와 탕을 제외하면 다분히 유교식 제사의 제물과 비슷하다. 특히 대구포와 말린 문어가 바쳐지는 점은 이러한 경향성을 뚜렷하게 보여 준다.

이에 비해 수원 오수복(吳壽福)의 진적굿에서는 제물로 배, 포도, 참외, 오렌지, 귤, 사과, 밤, 호두, 땅콩, 딸기, 파인애플, 바나나, 백설기, 계피떡, 찰떡, 용떡, 계피팥떡, 밤모양과자, 다식과자, 옥춘, 국화방, 약과, 팔모, 삼색산자, 청주, 쌀, 쇠갈비, 쇠머리고기, 우족 등이 차려진다. 이 제물 역시 장군신령을 위해 마련되었다. 오수복은 전안상을 다른 말로 안주상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무당이 관리하는 신당에서 가장 중심된 신령인 몸주신을 위한 전안상에는 그 신령이 지닌 기능이 개입되어 제물이 마련된다.

참고문헌 밤섬 부군당 도당굿의 제물과 음식-신과 인간의 공식(주영하, 문덕사, 1999), 민속신앙 상차림-한국음식대관 5-상차림·기명·기구(주영하, 한국문화보호재단, 2002), 무·굿과 음식 1(주영하·방인아·최진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무속·불교·유교를 통하여 본 식생활문화 및 그 의식절차에 대한 연구(김상보,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4).

필자 주영하(周永河)

점사

정의 무당이 점을 치는 행위.

내용 무당이 내림굿을 받고 성무(成巫)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비로소 신령의 도움으로 점을 칠 수 있게 된다. 내림굿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무당의 경우 신통력이 더 강하다는 믿음이 있어 성무 후 첫 점사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내림굿 자리에 모여들기도 한다.

무당이 점사를 행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로는 부채, 방울, 엽전, 쌀 등이 있다. 엽전과 쌀은 반(盤) 위에 흩어 그 모양을 보고 점을 치고자 사용한다. 이덕무(李德懋)의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권56 「앙엽기(盎葉記)」 3 무녀척미조(巫女擲米條)에도 "무녀가 쌀을 반(盤) 위에 쌓아 놓고, 그 쌀을 던지며 입으로 주문을 외우며 머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스스로 쌀을 변별(辨別)하여 길흉(吉凶)을 점친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靑莊館全書, 한국의 무(조흥윤, 정음사, 1990), 조선무속고(이능화 저, 이재곤 역, 동문선, 1991).

필자 김창호(金昌鎬)

정모연

분야 중요무형문화재 제82-라호 남해안별신굿 예

능보유자.

내용 정모연(鄭模蓮, 여)은 1915년에 경남 거제군 장승포읍 두모리 435번지에서 부친 정철주와 모친 유선이 사이의 9남매 중 막내딸로 출생하여 모친으로부터 어려서부터 굿을 사사했다. 1931년 한산도에서 어업을 하던 동갑내기 김상문에게 시집갔으나 31세 되던 해에 김상문이 배사고로 사망하였다. 남편 김상문은 굿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나 그의 부모 역시 세습무였다. 정모연은 10년 후인 1965년 굿판에서 양중으로 젓대와 가야금에 능통한 김성오에게 재가하였다.

정모연은 김성오의 친가 쪽으로 8촌간인 김상조와 김윤희 남매로부터 거제에 소재하던 신청(神廳)에서 16세 때부터 무가사설과 무굿 사제에 따르는 기예를 학습받기 시작하여 21세에 완전히 무굿 기능을 전수받았다. 특히 승무 등 여러 춤에도 능했던 정모연은 막힘 없이 넘어가는 사설의 연결이나 보는 이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독특한 소리로 당대 거제·통영지역의 최고의 대모가 됐다. 198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82-라호 남해안별신굿 초대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어 남해안별신굿의 발전과 전승에 힘쓰다가 1989년에 숙환으로 숨을 거뒀다.

참고문헌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14 무의식편(문화공보부, 1983), 남해안별신굿(김선풍, 박이정, 1997), 남해안별신굿-중요무형문화재 제82-라호(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필자 오진호(吳振昊)

정숙자

분야 중요무형문화제 제72호 진도씻김굿 전수교육조교.

내용 정숙자(鄭淑子, 여)는 1939년에 충청도에서 태어나 23세 때 박병천과 결혼하였다. 정숙자는 무계 출신은 아니지만 중요무형문화재 제72호 진도씻김굿 예능보유자였던 박병천의 부인이며, 같은 종목 전수교육조교로 활동했다. 무용단의 일원으로 순회공연을 다니던 중 박병천과 만나면서 진도 무계 쪽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결혼 후 진도에서 살면서 무녀의 길로 들어섰다. 시어머니인 김소심이 굿을 맡아 놓고 몸이 아파 굿을 할 수 없게 되자 정숙자가 대신 굿판에 나서 무사히 일을 마치게 되면서 무녀로서의 자질을 보이게 되었다.

그 후 정숙자는 시어머니로부터 본격적으로 무업을 익혔으며, 시고모 박선내에게서도 굿을 배웠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당골판(진도군 지산면 소포리, 고야리, 길은리 등)을 물려받아 생활했다. 당골판을 갖고 있을 당시에는 봄·가을로 도부를 받으러 다니면서 노인이 계신 집에는 막걸리를 받아다 드리기도 하면서 상호부조했다고 한다. 1980년대 중반에 남편이 서울에서 활동하게 된 이후로는 서울에서 머물다가 진도에서 굿을 하면 내려가 굿을 하곤 했다. 정숙자는 1993년에 진도씻김굿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받았으며, 진도씻김굿 공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큰딸 박미옥이 무녀의 길을 걷기 시작한 1999년 무렵부터는 딸과 함께 굿판에 서면서 굿을 전수했다.

정숙자는 축원과 덕담소리에 능했으며, 살풀이춤을 잘 췄다. 무용단 출신답게 춤사위가 고와 그녀의 지전춤과 살풀이춤은 관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정숙자의 춤은 후학들에게 전수되어 진도 내외에서 진도씻김굿을 배우는 사람들이 정숙자류 '지전살풀이춤'을 추고 있다. 또한 정숙자는 진도 상례에서 여성들이 무명베를 잡고 행진하는 '질베행렬'을 처음 고안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질베행렬의 도입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정숙자가 나름대로 역할한 것은 분명하다. 질베행렬은 진도의 축제식 장례풍속의 특징적인 현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정숙자의 역할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01년 6월 14일에 생을 마감한 정숙자는 진도씻김굿 전승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다. 음반과 보고서 등에 흔적이 남아 있다. 무형문화재 지정 당시 조사된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1979)에 정숙자와 박병천이 구연한 무가자료가 실려 있다.

참고문헌 진도씻김굿(황루시, 화산문화, 2001), 진도씻김굿(지춘상 외, 전통무용연구소, 1979).
필자 이경엽(李京燁)

정영만

분야 중요무형문화재 제82-라호 남해안별신굿 악사부문 기능보유자.

내용 정영만(鄭暎晩, 남)은 1956년에 경남 통영군 산양면(현재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에서 출생했다. 유년 시절부터 통영권번에서 생활하였다. 통영권번 시절에 익힌 여러 예능은 현재 무업을 행하는 기반이 되었다. 5, 6세 때부터 조부인 정봉호로부터 무가, 피리, 징 연주하는 법과 지화 만드는 법 등을 전수받고, 정모연에게 무무와 무가 등을 배웠다. 무업에 잠깐 참여한 적이 있는 아버지 정덕재로부터는 무구 제작하는 법을 배웠다. 외삼촌 박복률로부터는 피리와 징 등을 연주하는 법, 이모할머니 고영숙에게 소리, 무무, 해금, 북 연주법 등을 배웠다.

정영만의 집안은 대대로 무업에 종사하였기에 어려서부터 굿판을 따라다니면서 친인척 어른들로부터 잔삭다리(작은굿)를 자연스럽게 익혔으나 본격적인 무업은 1987년 이후 왕고모(고모할머니)인 정모연으로부터 전수받았다. 정모연이 사용하던 무구 일체도 그대로 이어받아 현재 사용하고 있다.

정영만은 통영의 동중학교를 중퇴하였으며, 20대 초반에는 선원생활을 하였고,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까지는 택시기사를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기도 하였다. 1987년 남해안별신굿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날에 외삼촌 박복률이 타계하자 외삼촌 대신 남해안별신굿 악사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남해안별신굿 2대 예능보유자인 친할머니 고주옥이 타계하자 정영만이 대사산이로서 남해안별신굿 예능보유자를 계승하였다.



정영만
경남 통영시 남해안 별신굿 전수관 | 2009 | 김창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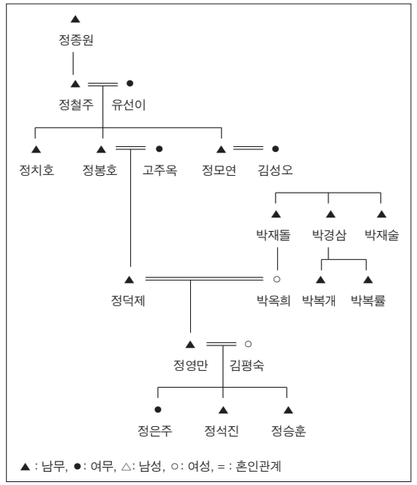
정영만의 부계와 모계는 대대로 무업에 종사하였다. 부계로는 정종원에서부터 정영만에 이르기까지 5대째 대사산이를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정영만의 부친은 무업을 부분적으로 익히기는 했으나 본격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 부계의 정모연이 남해안별신굿의 초대 예능보유자인 대모로서 크게 활약하고, 정모연의 올케언니 고주옥이 대모로서 제2대 예능보유자로 활약하였다. 현재 정영만이 중요무형문화재 제82-라호 남해안별신굿 악사부문의 대사산이로 예능보유자가 되어 남해안별신굿을 계승하였다. 모계로도 외조부와 외조모, 외삼촌에 이르기까지 무당과 악사로 활약했으나 어머니는 무업과 관련이 없었다.

정영만은 2남 1녀를 두고 있으며, 자녀 모두 남해안별신굿 이수자로 무업을 전수받고 있다. 그의 자녀 외에도 20여 명의 이수자 혹은 전수자가 무업을 배우고 있다.

현재 남해안별신굿의 무권역은 대폭 축소되어 있으며 무업활동이 위축되어있는 상태이다. 남해안별신굿을 정영만 주재 하에 치러지는 마을은 경남 거제시 남부면 학동리, 경남 거제시 거제면 오수리 죽림마을, 경남 통영시 한산면 죽도 등 세 곳이다. 2006년까지는 경남 거제시 남부면 수산마을의 굿도 맡아서 진행하였으나 지금은 남해안별신굿 보존회의 전수교육보조자로 있던 김현숙에 의해 굿이 진행되고 있다. 경남 거제시 남부면 갈곳리 도장포에서도 남해안별신굿이 연행되고 있으나, 남해안별신굿보존회 보유자 후보로 있었던 백정자가 맡고 있다.

정영만은 이전의 남해안별신굿 권역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별신굿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기억이 희미해진 상황이기에 호황기 시절의 남해안별신굿 권역을 회복함에 있어 난관에 있다.

남해안별신굿 전승계보



참고문헌 남해안별신굿 종합조사보고서(문화재관리국, 1996),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경상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남해안별신굿 무악 연구(오진호,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정영만 녹음조사자료(김창일, 경남 거제시 남부면 수산마을, 2006), 정영만 녹음조사자료(김창일, 경남 거제시 남부면 학동리, 2008), 정영만 녹음조사자료(김창일, 경남 통영시 정량동 통영예능전수관, 2009).
필자 김창일(金昌一)

정정괴

정의 메밀가루 또는 쌀가루로 만들며 대나무 칼을 이용해 정사각형으로 잘라 만든 굿떡.

내용 메밀가루나 쌀가루를 반죽해 두께가 0.5~0.7㎝ 되게 밀고, 약 6㎝ 크기의 정사각형으로 자른다. 이를 끓는 물에 삶은 뒤 냉수로 헹궈 건져 놓는다. 특이한 점은 떡을 자를 때 반드시 대나무로 만든 칼을 사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쇠(금속)를 싫어하는 귀신에게 올리는 떡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떡을 만들 때는 소금을 넣지 않는다.

정정괴는 주로 '토산한집'을 대상으로 올리는 떡이라고 한다.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의 본향당과 본향당신을 일러 토산한집이라고 말하는데, 이 토산한집 계통이 좌정한 당에서 굿을 할 때 쓰이는 떡이라고 한다. 또한 정정괴는 여자 귀신만 먹기 때문에 남자 귀신에게는 대신 돼지고기를 올린다는 말도 있다.

한편 제주도의 큰심방인 이중춘의 설명에 따르면, 정정괴는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본향당의 본향당신인 천자또와 백주또에게 올린다. 이들 당신은 육식을 하지 않는 '맑은 신'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정괴를 만들 때는 실을 사용해 자른다고 한다. 손으로 자른 것은 손때가 있고, 칼로 자른 것은 칼 냄새가 난다고 여기기 때문에 실을 사용하여 떡을 자른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제주무속학사전(진성기, 디딤돌, 2004), 제주의 민속 4-의생활 · 식생활 · 주생활(제주도, 1996).
필자 강소전(姜昭全)

정정애

분야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8호 강화도외포리 곶창굿 예능보유자.

내용 정정애(丁貞愛, 여)는 1936년 인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에서 출생했으며 현재 인천광역시 강화읍 신문리에 거주하고 있다. 3남 2녀의 둘째 딸로 태어나 15세 때 강화군 양도면 능내리 김씨댁의 민며느리로 들어가, 일년 있다가 결혼식을 올렸다. 34세 때 결혼한 시누이 집에서 재수굿을 할 때 신이 들려 내가면 외포리당집 조화순 만신에게 내림굿을 받아 신딸로 들어갔다. 1년 후에는 박금례를 신어머니로 모셨다. 1997년 7월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8호 강화도외포리곶창굿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정정애는 자신이 무당이 된 것이 시아버지 영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시아버지가 생전에 충청도에 갔다가 조장군을 모셔왔으나 무당이 못되고 죽어서 불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자신이 무당이 되었다는 것이다. 정정애에게 처음 내린 신도 시아버지에게 실린 충청도 조장군이다. 이처럼 시아버지 영향으로 무당이 되었기 때문에 그후 굿을 할 때마다 시아버지 시루를 따로 놓고 집 안에서 조장군이라 하며 모셔 놓았다고 한다. 남편에게도 신이 실렸다고 한다. 남편은 정정애에게 자신의 신을 받아 가라고 요구했으나 남편에게 실린 신이 잡신이라 받지 않았다. 그 일로 남편과 8년 동안이나 싸우다가 50세부터 강화읍 신문리의 동관제묘를 맡게 되면서 남편과의 갈등이 사라졌다고 한다.

현재 정정애는 동관제묘를 자신의 신당으로 하고 있다. 동관제묘에는 단군산신, 일월성신, 최영 장군, 임경업 장군, 와룡선생, 소진장전임, 승전장자방, 조자룡, 마총, 석가, 율곡, 서산대사, 사명당 등을 모시고 있다. 정정애는 자신이 장군거리를 잘하는데, 그 이유는 조장군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정애의 단골들은 주로 강화 주민들이지만 인천과 서울에도 있으며 500~600명이 된다고 한다. 단골들은 연중 정기적으로나 비정기적으로 치성을 드린다. 정기적인 치성으로는 정월 홍수막이, 4월 초파일, 7월 칠석, 10월 신곡맞이가 있다. 비정기적인 치성은 필요에 의해 찾아와 상담하고 드리는 치성이다. 정월이면 단골들이 보름 안에 다녀가는데 1년 열두 달 도액을 막아달라고 치성을 드리고, 수가 나쁜 사람은 홍수막이를 하기도 한다. 홍수막이는 신당에서 각 신령님께 축원하고 나서 재가집의 안당 불사를 하위 받아 공수를 주고, 창부를 받아 1년 액을 막는 제의이다. 1월부터 12월까지 홍수와 액을 막고 나면 뒷전에서 삼재가 든 집에 식구들의 삼재풀이를 하는 경우도 있다. 옛날에는 정월에 수가 나쁘면 허수아비에 동전 7개를 넣어 옷 하나를 입혀서 신작로 사거리에 갖다 버렸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 정월에 신도들이 치성을 드릴 때 가지고 오는 물건은 쌀 · 옷 · 초 · 과일이다. 7월 칠석에는 쌀을 가지고 와서 메를 올리고 축원을 받는다. 10월의 신곡맞이는 일종의 추수감사제로, 1년 농사를 잘 마친 것에 대한 감사로 진지를 올린다.

현재 정정애가 관리하고 있는 동관제묘는 고종22년(1885) 마여인이 창건하였다고 전한다. 관제묘에 들어서는 외삼문 앞에는 금잡인(禁雜人)이라는 금표가 세워져 있다. 조성 당시의 것으로 추정되는 외삼문에는 동헌랑묘(東軒廊廟)라는 현판이 걸려 있고, 안쪽에는 관우와 백마 · 흑마가 각각 짝을 이룬 그림이 걸려 있다. 외삼문을 들어서면 왼쪽에 충성전(忠聖殿)이라는 편액이 걸린 묘당이 있다. 충성전은 팔작지붕의 정면 3칸, 측면 2칸 건물이다. 1960년에 중건하였다고 전한다. 내부에는 고종20년(1883)에 만들어진 위진사해고금일인(威振四海古今一人)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으며, 이곳에 관운장을 비롯해 유비 현덕과 장비 등이 모셔져 있다.

참고문헌 강화도 외포리 고창굿 연구(문광영, 기전문화연구 제24집, 인천교육대 기전문화연구소, 1996), 신편 강화사 중-문화와 사상(강화군사편찬위원회, 2003).
필자 이용범(李龍範)

정주

정의 호남 지역 무속의례에 사용되는 종형(鐘形) 무구. 그 지역 용어로 '정쇠'라는 이칭을 지니며, 옥황종(玉皇鐘)이라 불리기도 한다. 불교 의식구인 경쇠(磬釗)에서 유래하였으며 불교에서 쓰이는 경쇠는 법식을 행할 때에 쓰이는 것으로, 부처님에게 절을 할 때에 흔드는 일종의 작은 종이다.

형태 대개 정주를 설명할 때는 불교의례구인 경쇠와의 관련성을 언급하는데, 경쇠의 범주 안에 정주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경쇠의 형태는 두 가지인데, 갸름하고 끝이 벌어져 있으며 안에는 치는 추가 달려있고 위에는 나무 자루가 있는 것과, 추가 없고 채가 있는 형태가 있다. 정주는 후자의 형태에 가깝다. 정주는 놋쇠로 만들어진 밥주발 형태의 몸체와 채인 녹각(鹿角)으로 구성된다. 이 둘은 천으로 연결하거나 혹은 끈이나 천을 꼬아 만든 줄로 연결하기도 하는데, 이를 주발의 상단 구멍에 넣어서 고정시킨 뒤에 녹각에도 연결한다. 정주는 놋주발에 손잡이가 달린 형태와 손잡이가 없는 형태 두 가지가 있다. 전자에는 전남 진도의 채정례의 사례가 유일하며, 대부분 후자의 형태를 띤다. 정주는 그 직경이 10㎝ 내외이며, 녹각의 길이는 20㎝ 내외이며, 끈길이는 60㎝ 내외

이다. 황해도굿에도 지물로 사용되는 경쇠가 있는데, 그 형태는 정주와 동일하지만 그 크기는 훨씬 작다. 채 또한 경쇠의 것에 비해 대략 8배 정도가 크다. 경쇠는 그 크기가 작아서 손가락으로 잡는 것이 가능하지만, 정주는 손 전체를 감싸서 쥐어야 한다.

호남 지역에서는 정주 대용 무구로서 바라를 사용하거나(전남 신안의 유점자 사례), 밥그릇이나, 복개 뚜껑과 같은 생활도구를 대체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만약 정주가 없는 당골은 놋그릇이 그 기능을 대신하기도 한다. 전남 진도의 송순단은 정주만한 크기의 밥그릇에 구멍을 뚫어 실을 연결하고, 녹각 대신 나무를 깎아서 사용하기도 한다. 진도의 박미옥은 정주 대신 주로 복개를 이용하여서 제석거리를 행한다. 복개는 바라로 그 의미가 전환된다. 또한 그 의미에 있어서는 정주와 동일하게 인식된다.

내용 정주는 호남 지역의 세습무 의례에 주로 사용되며, 특히 전남 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전북 지역에서 세습무로 유일하게 활동하였던 고(故) 전금순도 정주를 지니기는 하였으나, 바라를 더 선호하여 의례에 사용하였다. 정주는 제석거리에 주로 사용되며, 그 외에 출산을 관장해준다고 믿어지는 제왕과 관련된 의례 등에 사용된다. 정주는 의례 사이사이에 채로 치는 것으로, 무녀는 한손에는 정주를 감싸 쥐고, 다른 손에는 녹각을 들고 무가 한 소절이 끝날 때마다 정주를 한 번 세게 치거나, 무가가 불러지지 않는 동안에는 반주의 의미로서 정주를 여러 차례 치면서 장단을 맞추기도 한다. 또한 악사들이 무악을 연주할 때는 무녀의 정주소리로 장단을 바꾸기도 한다.

정주는 불교의례에서 사용하는 경쇠와 같은 것이라는 점에서, 불교의 영향을 받은 무구이다. 이는 무녀가 정주를 들고 의례를 진행할 때 착용하는 장삼과 고깔의 복장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고 볼 수 있다. 그 기능이 유사한 황해도굿의 경쇠와 정주는 모두 특정한 거리에만 사용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경쇠는 칠성제석거리, 정주는 제석거리나 제왕맞이 등 이 둘 모두 불교류의 천신을 초대하는 거리에만 사용된다. 그 형태나 지역은 다



정주
국립민속박물관 사진자료 소장

르지만, 유사한 신격을 초대하는 거리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기능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주는 출산을 기원해 주는 제왕맞이에서는 가장 중요한 무구로 쓰인다. 제왕맞이는 사람들의 왕래가 뜸한 시간에 일정하게 구획 지어진 공간 안에서 정주를 치면서 행해진다.

정주는 그 소리가 "하늘에까지 전해진다"할 정도로 청아하다. 그러한 연유로 인해, 이것은 요령과 함께 옥황종(玉皇鐘)으로 불린다. 즉, 이 소리가 하늘에까지 닿아 천신(天神)인 옥황상제에게 기원할 것이 있을 때, 청신의 도구로 사용된다. 전남 진도의 당골 채정례는 이것을 치는 것은 천지만물을 깨우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정주는 청신의 기능 외에 부정제거구로 인식되어 정화된 굿청을 제석이나 칠성과 같은 주요 천신이 내리기 전에 굿청을 재정화(再淨化)한 후에 신을 청하는 기능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경쇠 또한 정주와 유사한 기능을 지니는데, 황해도굿의 칠성거리에서 부정을 칠 때 사용한다. 그 크기는 작지만, 굿청에 넓게 울려 퍼질 만큼 청아한 소리가 난다. 칠성거리에서 무당은 굿청의 제단을 보고 앉아서 입에는 흰 종이를 삼각형으로 접은 하미를 문 채 경쇠를 두드리는데, 칠성거리에서도 칠성을 청배하여 굿청에 좌정시키는 단계에서 이를 사용한다. 이러한 맑은 소리로 제장을 정비시켜 부정을 가시게 하고 칠성신을 청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정주는 맑은 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굿이 행해지는 장소를 속(俗)에서 성(聖)의 공간으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신을 불러들이는 기능을 하는 청신

정학봉
1998 | 양종승

구(請神具)임과 동시에 무악기(巫樂器)의 기능을 지닌다. 또한 정주는 후손이 없거나 아들을 간절히 원하는 집안에서 자손획득을 목적으로 기증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출산의 상징물로도 인식된다.

아키바 다카시(秋葉隆)는 이것은 불교 승려의 것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은 옥황종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여, 옥황상제가 이 소리를 듣고 기도를 들어줄 거라 믿는 기원구(祈願具)로 해석하였다. 즉, 후자는 천신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도교적인 성향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주와 그 형태가 유사한 요령은 신역의 문을 열고 신을 청하는 기능이 있다고 믿어지는 것으로, 이로 인해 심방은 신을 청할 때 요령을 울려 굿하는 장소에 신이 임하기를 기원한다. 요령은 정주와 함께 옥황종으로 불리며, 그 소리가 하늘에까지 닿아 천신에게 기원하는 바를 알리는 기원무구로서 그 의미 또한 동일하게 인식되기도 한다. 즉 도교의 천신에 해당되는 옥황상제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는 점이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한편, 정주의 채인 녹각을 시베리아 샤머니즘과의 연관성을 제기하는 주장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朝鮮の巫覡(村山智順, 朝鮮總督府, 1932), 중요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129호 진도씻김굿(전통무용문화연구소, 1979), 진도무속현지조사-채씨자매를 중심으로(국립민속박물관 · 전라남도, 1988),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전라남도 · 전라북도 · 제주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무구의 상상체계-무구의 기능을 중심으로(황루시, 기층문화를 통해 본 한국인의 상상체계(중)-시간민속 · 물질문화, 민속원, 1998), 진도 씻김굿의 물질문화 연구(최진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99), 무속의 물질문화 연구(최진아,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9), 朝鮮巫俗の現地研究(秋葉隆, 東京:名著出版, 1980).
필자 최진아(崔眞娥)

정학봉

분야 황해도 무형문화재 제1호 만구대탁굿 보유자.

내용 1931년 황해도 안악군 대행면 풍곡리에서 출생한 정학봉(丁鶴鳳, 여)은 결혼 전 고향에서 신이 내려 우옥주를 스승으로 삼고 만구대탁굿과 소놀이굿을 학습하였다. 그러다가 평안도로 시집을 가게 되면서 우옥주와 헤어졌다. 한국 전쟁 때 인천으로 피난을 나와 인천에서 다시 무업 활동을 하면서 평안도 출신 쑤오리, 황해도 사리원 출신 이구 등과도 함께 굿을 하면서 굿 문서를 익혔다. 그러다가 인천에서 신어머니 우옥주와 상봉하였고, 이 후 스승과 함께 만구대탁굿 및 소놀이굿 학습을 계속하면서 스승과 함께 공연활동을 전개하였다.

정학봉은 족보있는 전승계보에 의해 무업을 해온 황해도 출신의 몇 안 되는 큰 만신이다. 그녀의 신할아버지 김기백은 황해도 신천에서 출생하여 10세부터 웅진과 해주를 거점으로 무업을 하였는데, 사망 전까지 황해도 만신과 단골들 사이에서 신화적인 존재로 명성을 떨쳤던 큰무당이었다. 김기백과 같은 해 출생하여 큰 명성을 떨쳤던 최일리도 고향 황해도에서 김기백과 함께 만구대탁굿을 주관하였던 큰 무당이었다. 김기백과 최일리는 만구대탁굿의 굿 문서를 정학봉의 스승 우옥주에게 전승하였다. 우옥주는 황해도 웅진군 북면 화산동리 출생으로 10대에 무속에 입문하여 김기백과 최일리 만신의 제자가 되어 만구대탁굿을 전수 받은 후, 한국 전쟁 때 월남하여 서울, 인천, 이천 등지에서 만구대탁굿을 전승하였다. 당시, 우옥주가 만구대탁굿으로 이름 석자를 날리게 된 것은 황해도 연백 출신의 환쟁이 및 소놀이굿 연희자 배문일, 황해도 해주 출신 악사 박동신, 황해도 연백출신 악사 지관용, 황해도 재령 출신 송순복, 황해도 해주 출신 상장구 정기호, 황해도 황주 출



신 악사 및 소놀이굿 연희자 김경복 등의 명인들과 함께 활동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들은 황해도 무속의례에 대한 정통한 전승자들로서 우옥주와 함께 만구대탁굿을 전승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들은 또한 정학봉이 우옥주의 만구대탁굿 전승자로 낙점케 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결국 우옥주는 사망 전 자신의 굿 문서를 현재의 전승자 정학봉에게 전승하였고, 2006년에 만구대탁굿이 황해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보유자가 되었다. 정학봉은 스승 사망 후, 만구대탁굿의 유일한 전승자로서 상장구 정순녀, 상장구 유재득, 악사 김주식 등과 함께 활약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굿 문서를 제자 김혜순, 강옥희, 김화선, 이정자, 양명덕 등에게 전수하여 왔다.

한편, 정학봉은 1956년 인천에서 스승 우옥주 만신 상봉 이 후, 만구대탁굿 및 소놀이굿을 계속하여 학습하면서 스승과 함께 공연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인천 화수조합 풍어제(1981년), 인천 월미도 풍어제 공연(1982년), 우옥주 큰 만신과 서울 여의도 지신제 및 만구대탁굿 공연(1984년), 일본(도쿄, 나고야, 오오사카, 고베)에서 우옥주 만신과 만구대탁굿 공연(1985년), MBC TV 만구대탁굿 대감거리, 조상거리 등 녹화(1986년), 서울올림픽 축하공연에 만구대탁굿 공연(1988년), KBS FM 방송 만구대탁굿 녹음(1991년), 제1회 국제샤머니즘학술대회에서 만구대탁굿 공연(1991년), 제1회 남산제에서 만구대탁굿 공연(1991년), 고 우옥주 추모제에서 만구대탁굿 공연(1994년), 황해도만구대탁굿보존회 창설 및 회장 취임(1994년), 서강대 종교학과 및 가톨릭대학교에서 만구대탁굿 특강(1994년), 인하대학교에서 만구대탁굿 공연 및 민속학개론 강의 특강(1995년), 한국종합예술학교 연극원 특강(1995년), 북한 무형문화재 놀이마당에서 만구대탁굿 공연(1997년), 한몽교류 2000년 무의식 심포지엄에서 만구대탁굿 공연(1997년), 1998년 계룡산 산신제에서 만구대탁굿 공연(1998년), 울산 처용문화제에서 만구대탁굿 공연(2000년), 거창 민간인 학살 희생자 추모식에서 만구대탁굿 및 진혼제 공연(2000년), 세계통과의례페스티벌 2001에서 만구대탁굿 공연(2001년), 국립민속박물관 만구태탁굿 공연



스승 우옥주
한국의 집 | 1981 | 양종승

(2002년) 등 100여회 이상의 공연을 하여 왔다.

참고문헌 큰무당 우옥주 유품(국립민속박물관, 1995), 한국의 무속–서울 · 황해도편(국립민속박물관, 1999), 한국세시풍속사전–봄편(국립민속박물관, 2005), 황해도 무속과 무당 우옥주(양종승, 민학회보, 1994).

필자 양종승(梁鍾承)

제금

정의 무속에서 주로 장단을 맞추는 악기. 불교와 관련된 굿거리에서는 중요한 무구로 쓰인다. '바라', '바랑', '제파리'라고도 한다.

형태 놋쇠나 방짜쇠로 만들고 지름이 대개 20~30㎝ 사이여서 절에서 쓰는 것보다 조금 작은 편이다. 심벌즈의 형태로 두 짝이 쌍을 이루며 보통 무명천으로 연결시켜 놓지만, 연결시키지 않고 따로 손잡이 부분에 무명천을 묶어 두는 경우도 있다. 2개가 한 벌인 제금은 장구 다음으로 주요한 무악기인 동시에 무구이며, 신자식이 신부모에게 물려받거나 무당이 직접 구입한다. 제금은 둥근 형태와 두 개가 한 벌이라는 점 때문에 햇님과 달님으로 상징되거나 암수로 해석되기도 한다. 암수로 해석하는 경우 그 해석이 단일하지 않은데, 가벼운 것이 수놈이고 무거운 것이 암놈이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가벼운 것이 암컷으로 위로 가게하고, 무거운 것이 수컷이며 밑으로 가게 한다는 의견도 있다.

내용 강신무는 대부분 제금을 지니는데, 무당의 몸에 신이 실릴 때 효과적인 무구로 인식된다. 지역적 명칭은 다르지만 불교 신을 놀리는 불사거리 · 칠성거리 · 제석굿 · 세존굿과 같은 굿거리에서는 의례도구로 사용하고, 다른 굿거리에서는 장단을 맞추는 보조악기 즉 무악기로 사용한다. 제금은 강신무의 굿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일부 세습무의 굿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조사되고 있다.

제금이 의례용 무구로 사용되는 경우는 서울굿의 불사거리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불사거리에서 무당은 바라를 양손에 들고 의례를 행한다. 바라를 들고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는 무당의 손짓이나 몸짓이 우아하다. 불사 · 칠성 · 제석의 순서를 마치고 천왕중상의 순서에 무당은 천왕중타령(바라타령)을 부른다. 이 노래에 '천왕중이 바라 시주를 나왔으니 명바라 복바라를 사시오'라는 내용이 있다. 이렇게 무당이 '바라팔기'를 하면 사람들은 바라에 돈을 놓는데 이것을 '바라팔기'라고 한다. 바라를 판다는 것은 명과 복을 기원해 주는 것이다.

황해도굿에서는 칠성거리가 끝나갈 무렵 무당이 바라 위에 과일과 복떡을 얹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사람들은 이에 대한 사례로 복비를 낸다. 이 과일과 복떡은 명과 복을 기원해 주는 제물을 상징하고, 사람들이 복비를 낼 때 무당은 건강하고 수명장수하라는 공수를 내린다. 다른 지역의 바라팔기에서는 명과 복을 기원하며 바라 위에 돈



제금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지름 26.5㎝ | 광복이후

을 얹는데, 황해도에서는 바라에 복떡을 나눠주는 것이 특징이다.

제금은 서울과 황해도의 강신무 의례뿐 아니라 호남과 동해안의 세습무 의례에서도 사용된다. 호남씻김굿의 제석굿에서 무녀는 앉아서 '명과 복을 바라면 시주'할 것을 강조하는 무가를 부른다. 그러면 신도들이나 재가집 식구들이 무녀에게 와서 바라 위에 돈을 얹는다. 서울과 황해도에서 무당이 바라를 들고 돌아다니는 것과 다르게 호남씻김굿에서는 무당은 앉아있고 사람들이 나와서 복돈을 내는 것이 색다른 모습이다.

동해안별신굿에서는 제금을 '제파리'라고 하는데, 세존굿 · 당굿 · 용왕굿 등에서 사용한다. 세존굿의 중춤을 출 때 바라를 들고 바라춤을 추고, 당굿과 서낭신을 모시는 용왕굿에서는 신내림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다. 이 때 신은 무녀의 몸에 내리는 것이 아니고 대잡이로 선정된 일반인에게 내리는 것이다. 무녀는 제금을 계속 치면서 주문을 외우는데, 이 과정에서 대잡이는 신이 들리게 된다. 세존굿에서 제금이 연희적이며 불교적인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면, 당굿이나 용굿에서는 대잡이의 강신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주도에서는 제금을 '바랑'이라고 하는데, 심방이 바랑을 들고 춤을 추다가 등 뒤로 던져서, 바닥에 떨어진 모습을 보고 길흉을 점친다. 바랑이 발랑 앉아 있어야 길한 것으로 여기고 엎어지면 흉한 것으로 생각한다.

아키바 다카시(秋葉隆)는 일찍이 제금이 제석굿 · 천왕굿 등과 같이 불교적인 색채가 두드러진 굿거리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말하고, 무악(巫樂)의 가장 대표적인 가죽악기와 금속악기는, 그 단조로운 율조와 소음이 무당을 종교적인 황홀경을 이끈다고 하였다.

제금은 강신무와 세습무 모두 제석 · 불사 · 칠성 · 세존 등과 같은 불교의 신을 위한 의례에서 사용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그러한 맥락에서 제금은 불교적인 신격을 상징하는 무구라 할 수 있다. 무당이 제금을 들고 '바라팔기'를 하고, 제금 위에 대추나 밤을 얹어 그 숫자로 길흉을 점치기도 하므로 제금은 명복을 주는 무구이면서 점사를 하는 무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금은 불교에서 영향을

받은 무구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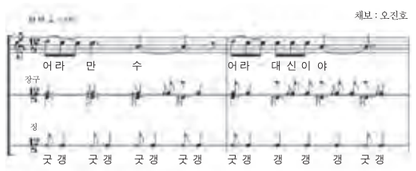
경기 북부 지역의 풍물굿에서 제금을 악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제금은 불교와 무악 · 풍물굿의 영향관계를 폭넓게 살펴볼 수 있는 악기이다.

참고문헌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14-무의식편(문화재관리국, 1983), 조선무속의 연구 하(赤松智城 · 秋葉隆, 심우성 역, 동문선, 1991),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서울시 · 경기도 · 강원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서울굿의 무구 연구(최진아, 서울굿의 이해, 한국무속학회, 민속원, 2007), 무의식에 사용되는 무구 연구(최진아, 민속악 논문집 7, 국립민속국악원, 2007).
필자 시지은(施知恩)

제마수

정의 액을 막고 복을 바라는 축원무가. 달리 '제만수'라고도 한다.

내용 "어라 만수 어러 대신이야~"로 시작한다. 장구형은 3소박 4박자 형태로 덩덕궁이와 비슷하며, 소리듬형 2개(사설 3~4음보)가 3소박 4박자 두 단위에 걸쳐 나타나 3소박 4박자 두 단위가 어느 한 장단이 형성되는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동해안별신굿의 제마수 장단은 경북 동해안의 제마수 장단을 기준으로 초장은 한 칸이 ♩+♩+♩박으로 구성되어 있고 6칸이 한 장단이 되며, 2장은 ♩박이 6칸, 3장은 ♩박이 4칸이 한 장단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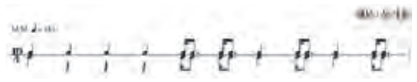


참고문헌 경남 · 경북 동해안 무악 비교 연구(장휘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남해안별신굿 장단 연구(임수정, 한국음악사학보 37, 한국음악사학회, 2006), 오구새남굿 전승계보와 장단연구(박준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필자 오진호(吳振昊)

제석노래채

정의 잔삭다리굿에서 푸너리 다음에 부르는 무가로 제석님을 청하여 오신(娛神)하는 내용이다.

내용 제석노래채에는 "오나리 오나리로다"라는 사설이 포함되어 있다. 장단은 2소박 10박으로 이루어져 있고 악사의 바라지가 들어간다.



참고문헌 남해안별신굿 장단 연구(임수정, 한국음악사학보 37, 한국음악사학회, 2006), 오구새남굿 전승계보와 장단연구(박준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필자 오진호(吳振昊)

제석본풀이

정의 무속의례에서 연행되는 한 거리 또는 이때 불리는 무가. 〈제석본풀이〉는 우리나라 서사무가 가운데 가장 넓은 분포를 보인다. 북으로는 함경북도에서부터 남으로는 제주도까지 분포하고 있다. 성주굿의 성주무가, 오구굿의 바리데기무가와 더불어 제석본풀이의 제석무가는 우리나라 3대 서사무가라 할 수 있지만 분포지역으로 보면 〈제석본풀이〉가 가장 넓게 전승되어 왔다.

내용 〈제석본풀이〉는 전승권이 넓기 때문에 그만큼 이본도 다양하다. 지역에 따라 불리는 명칭도 다양할 뿐 아니라 무가의 내용과 구조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또 지역별로 기능의 차이가 있으며, 무속을 벗어나 다른 민속으로 파급되는 등 전개과정을 보인다.

지금까지 조사 · 보고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제석본풀이〉는 평북 지역에서 '성인노리푸념', 평남 지역에서 '삼태자(三胎子)풀이', 함남 지역에서 '셍굿', 충청도와 호남 일원에서 '제석풀이' 또는 '제석굿', 강원도와 영남 일원에서 '시준풀이'

제석본풀이 구송 장면
전남 진도군 | 2007.4.26 | 나경수



나 '시준굿', 서울과 경기도 등 중부 지방에서 '제석본풀이'나 '당금아기', 제주도에서 '초공본풀이'로 각각 불린다.

〈제석본풀이〉가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현상은 불교의 민간신앙화라는 측면의 문화접변 현상과도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제석무가는 우리 무속에 미친 불교의 영향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일 수 있다. 제석신이라는 신의 이름도 그렇고, 제석무가를 가창하는 무당의 복식도 그렇다. 호남 지역에서 제석굿을 할 때는 머리에 한지로 접어 만든 고깔을 쓰고 어깨에는 장삼을 약식화한 붉은 띠를 내려 드리워 스님의 복식으로 분장하기도 한다. 제석은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성전(聖典)인 『리그베다(Rig-veda)』에 나오는 유명한 신인 인드라(Indra)가 원래 이름이다. 또한 아수라(阿修羅)와의 싸움에서 용맹을 떨친 무신(武神)이기도 하다. 불교에 의하면 수미산(須彌山) 정상에 있는 도리천(忉利天)에 살면서 사천왕(四天王)을 통솔하고 인간계도 돌본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나오는 단군신화의 환인을 '제석환인'이라고 한 데서 그 이름이 보인다. 이는 우리 고유의 천신을 대체하는 이름으로 사용되는 예이기도 하다. 신라시대 제석신앙은 석굴암에 대범천(大梵天)과 함께 조각되어 있는 제석천을 통해 알 수 있다. 또 고려시대에는 매년 정월 궁중에서 제석도량을 베풀었고, 제석천에 대한 호국진병(護國鎭兵)의 신앙의식이 많이 행해졌음을 『고려사(高麗史)』 등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전라도의 일부 남해안 지역에서는 제석을 조상으로 간주하여 조상단지를 부르는 이름, 즉 제석오가리, 지속오가리 등으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본래의 불신(佛神)인 제석이 한국의 무속에 차용되었을 뿐 아니라 멀리는 건국신화, 가까이는 가정신앙에까지 다양하게 영향을 미쳐온 사실을 알 수 있다.

많은 편차가 보이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제석무가의 줄거리는 대체로 일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여주인공의 부모와 남자 형제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산에서 내려온 스님 한 명이 그 집을 찾아가 혼자 집에 남은 여주인공에게 시주를 부탁한다. 시주를 하는 장면에서 잉태와 관련된 상징적인 성행위를 하거나 스님이 하룻밤을 자고 가면서 여주인공과 사통을 한다. 결국 여주인공은 이로 인해 잉태를 하며, 이를 알게 된 가족들에게 사실을 들켜 추방당하거나 감금된다. 그리고 세 쌍

둥이를 낳은 여주인공은 결국 스님을 찾아가서 살림을 차리거나 여주인공과 자식들과 함께 신직(神職)을 받게 된다.

이상의 줄거리는 크게 나누면 세 부분의 단계별 전개를 보인다.

첫째, 여주인공과 스님이 성적 결합을 하는 단계로서 남녀결합

둘째, 여주인공이 잉태를 하게 되고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단계로서 여성수난

셋째, 여주인공이 스님을 찾아가 재회하며 신직을 부여받는 단계로서 남녀재회

이러한 공통적인 줄거리를 담고 있음에도 〈제석본풀이〉는 지역별 차이를 보인다. 세부적인 차이는 다 기술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포권의 차이를 보면 가장 크게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여 동북부와 서남부로 구분된다. 동북부는 이북 지방을 포함하면서 강원도와 경상도 일원이며, 서남부는 경기도를 비롯해 충청도와 전라도 및 제주도가 포함된다.

남녀 결합단계에서 남녀의 결합이 남서부 지역에서는 상징적으로 처리되어 있다. 시주를 받던 스님이 일부러 쌀을 땅에 흘리게 하여 여주인공이 그것을 주워 먹거나 스님이 여주인공의 손을 잡든지 머리를 쓰다듬든지 하는 것으로 임신이 된다. 그러나 동북부 지역에서는 스님이 여주인공의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게 되고 이 과정에서 동물로 변신한 스님이 여주인공과 교구(交媾)하여 임신하게 된다. 한편 이러한 임신 모티프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일부 경기도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제석본풀이〉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임신 모티프가 중복되어 나타난다. 이는 곧 중부 지역이 서남부와 동북부의 두 지역 문화가 교류하는 곳으로 무가의 서사에 영향을 받은 예로 보인다.

여주인공의 핍박단계 역시 두 지역 간에 차이를 보인다. 임신한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부모와 형제들의 노여움을 사게 된 여주인공이 서남부 지역의 경우는 집에서 쫓겨나지만 동북부 지역에서는 굴 안이나 어두운 곳에 감금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신화의 주인공들이 겪는 고난에 해당하며, 고난의 극복을 통한 신격화가 이루어지는 중간 단



삼불제석 무신도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가로 54.8㎝, 세로 89.4㎝

계로서 장치되어 있다.

재회와 신직부여의 단계 역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스님과 자식들의 재회과정에서 동북부 지역의 경우는 스님이 친자 확인을 위해 여러 시험을 하지만 서남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거의 생략되어 있다. 한편 이러한 두 지역 간의 차이와는 달리 신직 부여에 관해서는 색다른 양상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무속의례에서 제석신은 '재복(財福)'의 신이다. 이는 거의 전국적으로 보이는 현상이지만 제주도의 예는 특이하다.

제주도의 〈초공본풀이〉에서 불리는 제석무가는 끝부분에 신직을 부여하는 장면이 나온다. 여주인공이 낳은 아들 삼형제는 과거에 급제하지만 양반 자식들의 밀고(密告)로 중의 자식이라며 급제가 취소된다. 낙방한 선비들을 구제할 양으로 다시 활 잘 쏘는 사람을 과거에 합격시킨다고 하자 선비들은 모두 합격하지 못하지만 삼형제는 또 다시 활을 잘 쏘아 합격한다. 그러나 시험에 낙방한 선비들의 흉계로 인해 마침내 세 쌍둥이의 어머니인 여주인공이 제석궁에 갇히게 된다. 삼형제는 어머니를 구출하기 위해 아버지를 찾아가서 굿을 하는 방법을 배워 굿을 하게 되는 내용이다. 이는 무조기원신화(巫祖起源神話)로, 제주도에서는 큰굿에서 불린다.

한편 서사적 구조로 보아 서남부 지역의 〈제석본풀이〉는 동북부의 지역에 비해 원형 파괴가 많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두 지역의 무가를 비교하면 다른 무가의 경우 서사는 동북부 지역의 자료가 훨씬 자세하고 서사적 구조를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석무가 역시 예외가 아니다. 대신에 서정적 요소가 짙고, 다른 무가와 혼효되는 현상을 보인다. 특히 진도 지역의 경우는 제석무가에 성주무가가 완전히 용해되어 불리고 있어서 성주무가가 씻김굿 등에서 따로 가창되지 않는 현상을 보인다. 그만큼 굿에서 〈제석본풀이〉의 비중이 크다는 사실을 방증(傍證)하는 예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한국무가집 1, 2(김태곤, 집문당, 1992), 한국신화의 연구(서대석, 집문당, 2001), 호남무속총서 전7권(나경수 외, 민속원, 2006~2008).

필자 나경수(羅景洙)

제석상(帝釋床)

정의 굿에서 한 집안 사람의 수명과 재산을 맡아본다는 제석신을 위하여 차리는 상.

내용 불교에서는 제석신을 육욕천, 십팔천, 무색계 사천(四天), 일월성숙천(日月星宿天), 상교천(常憍天), 지만천(持鬘天), 견수천(堅首天), 제석궁천(帝釋宮天)을 통틀어 이르는 삼십삼천(三十三天) 중의 천주(天主)로 이해한다. 주로 재복을 주는 신령으로 알려진다. 제석은 원래 인드라(Indra)라는 인도 신령의 중국 역어(譯語)이다. 민간 도교에서는 제석신을 칠성으로 여기고 자손의 수명을 책임진 신령이라고 믿고 있다. 각기 다른 종교적 맥락이 삼국시대에 민속신앙과 혼성되면서 무속의 신령으로서 제석신이 모셔지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제석상에 차리는 제물에 술과 고기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규보(李奎報, 1168~1241)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노무(老巫)」에서는 자신의 집 근처에 살던 늙은 무당의 신당에 성관(星官)·칠성·제석(帝釋) 등의 무신도(巫神圖)를 걸어둔 광경을 묘사했다. 이로 미루어 제석신에게 바치는 제석상은 삼국시대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술과 고기가 없는 소박한 상차림이어서 불사상(佛事床)이라고도 부르고, 황해도굿에서는 술과 고기가 없다는 의미로 소(素)라는 글자를 붙여 소대감상이라고도 부른다. 1825년 또는 1885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측되는 난곡(蘭谷)의 『무당내력(巫黨來歷)』에는 제석거리에 대한 그림이 들어 있다. 상에는 수파련꽃이 제일 안쪽에 놓였고, 그 앞줄에 증편이 제기 3개에 세 칸씩 담겼다. 일반적으로 증편은 불교와 관련된 신령을 상징한다. 즉 증편은 제석에게 보고를 드리는 떡으로 알려진다. 증편 앞에는 차수(茶水)가 담긴 7개의 잔이 제기에 받쳐진 채 놓였다. 차수는 불교의례에서 술 대신 신령에게 바치는 제물이다. 가장 앞줄에는 촛대가 양쪽 끝에 두 개씩 놓였고, 왼쪽부터 산자·약과·배·감·계면떡이 올려졌다.

현전하는 굿에서도 제석거리에서는 주로 불교의 신령으로 제석신이 모셔진다. 특히 〈제석본풀이〉라고 불리는 〈당금애기풀이〉에는 제석신이 속세에 내려와서 여자 당금애기와 혼인을 하여 아들을 낳고 가정을 이루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다. 따라서 무속에서는 제석신을 불교 계통의 신령으로 이해하며, 이로 인해 통후추를 뜨거운 물에 담아서 우려낸 후추차를 바치든지 두부를 제물로 올려서 제석신을 상징한다.

서울의 망자천도굿인 새남굿에서는 제석상이 화려하게 차려진다. 가장 북쪽의 오른쪽에는 흰 종이로 만든 고깔 세 개가 포개어 놓인다. 이 고깔은 원래 승려가 예복을 입을 때 갖추어 쓰는 모자이다. 고깔의 왼쪽에는 쌀을 담은 대접이 세 개 놓인다. 고깔과 쌀 대접이 세 개인 이유는 제석신을 보통 삼불제석(三佛帝釋)이라고 불러 최고의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쌀 대접 왼쪽에는 증편이 세 접시 놓인다. 간혹 증편을 고깔 앞에도 놓아서 모두 여섯 접시가 되기도 한다. 제석상에 오르는 증편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멥쌀가루에 막걸리

를 넣고 반죽하여 더운 곳에서 부풀어 올린 떡과 다르다. 여기에서 말하는 증편은 흰쌀가루를 무수히 쳐서 지름 6㎝, 길이 15㎝ 가량으로 말아 만든 일종의 절편에 해당하는 떡이다. 백설기도 제석상에 두 접시가 오른다. 백설기 위에는 대추가 홀수로 장식된다. 백설기와 대추는 아들을 낳는 출산 기원과 관련이 있다. 백설기 두 접시 사이에는 두부가 오른다. 두부는 대두(大豆) 중에 있는 물에 녹는 단백질을 응고시켜 만든 음식이다. 고기를 올리지 못하는 대신에 두부를 올려서 제석신을 모시려는 의도에서 차려진다. 고기를 사용하지 않고 채소로 만든 산적과 색실로 멘 미나리도 차려진다. 이 밖에 아들을 상징하는 밤, 대추, 산자 등이 제석상에 놓인다. 술 대신에 후추차, 대추차, 정화수도 오른다. 불교의 신령에게 바쳐지는 과일은 맨 앞줄에 차려진다. 계절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주로 수박, 감, 배, 참외 등이 오른다.

이와 같이 제석상에 차려지는 제물은 제석신이 지닌 불교적 요소와 도교의 칠성, 당금애기설화에서의 아들기원 등 의미가 복합되어 구성된다. 특히 제석상에는 고기로 만든 음식이나 돼지기름으로 지진 음식을 올리면 안 된다. 신령을 기쁘게 해드릴 목적으로 열리는 굿에서 이렇게 잘못 진설된 제물은 신령의 노여움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무당이나 단골들이 매우 조심한다.

참고문헌 무속 · 불교 · 유교를 통하여 본 식생활문화 및 그 의식절차에 대한 연구(김상보,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4.), 신라시대의 불교정책–진평왕대 왕권강화와 제석신앙(이창숙, 신라문화 16,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99), 무 · 굿과 음식 1(주영하 · 방인아 · 최진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무속의 물질문화 연구(최진아,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9).
필자 주영하(周永河)

제석춤

정의 경기도 제석굿에서 추는 춤.

내용 제석굿은 서울에서도 행해지기는 하지만 경기도의 제석굿이 비중도 높고, 장단 구성과 춤이 가장 화려하게 발달했다. 제석춤은 굿거리의 단계마다 각기 다른 춤을 춘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는 제석춤은 봉등채장단에 춤을 추고 부정놀이장단과 진쇠춤이나 여타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춘다. 그러나 현행의 제석춤은 부정놀이장단, 자진굿거리장단 및 여타의 장단에 맞추어 차례대로 춤을 추고 난 뒤에 바라타령을 하면서 바라춤을 춘 다음 나머지 필요한 춤을 춘다. 이처럼 제석춤은 적극적인 전통에서 소극적 전통으로 변화 과정을 거쳤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전의 경기 남부 굿에서는 제석굿이 시작되기 전에 작은 신, 큰 신 등 여러 신을 합의시키고 서원과 기원을 들이는 신모듬춤을 '더그래'라고 하는 관디를 입고 권선장단에 춘다. 이어서 봉등채장단에 봉등채춤을 추고 제석청배를 한다. 청배가 끝나면 부정을 물리치기 위한 부정놀이춤을 부정놀이장단에 춘 후 올림채, 천둥채, 올림채, 겹마치, 진쇠장단 순으로 춤을 춘다고 되어 있다.

현행의 춤은 형태가 조금 다르다. 산이의 제석청배가 끝나면 미지가 흰 장삼에 가사를 두르고, 흰 고깔을 쓰고 부채 방울을 든 다음 굿상 앞에서 꽹과리 · 징 · 장구의 부정놀이장단에 맞춰 부정놀이춤을 춘다. 2소박 4박자로 된 부정놀이장단에 좌우로 발을 옮기며 부채는 좌우, 방울은 위아래로 각각 움직이는 춤사위를 한다. 좌우로 돌아맺고 제자리에서 제석본풀이를 한 후 다시 부정놀이, 자진굿거리 순서에 따라 춤을 춘다. 자진굿거리는 3소박 4박자로 자진모리와 비슷한 빠르기이며 굿에서는 첫 박을 세게 치지 않고 반듯하게 친다. 당공수와 만수받이에 이어 제석상의 제물을 장삼 위에 올리고 자진굿거리장단에 당놀림춤을 춘다. 고깔, 두부, 밤, 대추 등을 좌우와 위아래로 단아하게 놀리고 난 후 장삼을 뿌리고 절을 올리는 장삼춤이 이어진다. 도드리, 자진굿거리, 당악장단 순으로 가락이 짜임새를 갖추고 있다. 몇 차례의 공수를 주고 바라를 든다.

경기 남부에서는 바라보다 크기가 작은 제금을 사용한다. 왼손은 명바라, 오른손은 복바라라고 하여 '덩 궁 덩 궁 덩 더기덩 따'의 염불마리라는 장구장단으로 반주하는데 2소박 4박자로 부정놀이와 한 배가 맞는다. 미지는 바라를 몇 차례 좌우 두 번씩 치고 어깨 위에서 바라를 돌리며 춤사위를 펼친다. 바라춤을 추고 난 뒤 바라타령을 하며 자손의 명과 복을 판다. 이어지는 당공수, 섭채, 거리노래가락, 바라타령에서는 제금을 뒤집어서 서로 반쯤 포개거나 어깨 위로 들고 어깨춤을 추기도 한다. 섭채는 도살풀이를 말하는 것으로, 굿에서 무가를 부를 때 쓰인다. '청태산 들어간다'로 시작하는 섭채무가로 축원한다. 마지막으로 자진굿거리장단에 복을 주며 수부를 치고 마친다.

지역사례 서울굿과 황해도굿에도 제석굿이 있어 제석춤을 춘다. 서울굿에서 불사제석춤과 안당제석춤이 여기에 해당한다. 황해도 지역에서는 제석굿거리에서 제석춤을 춘다. 서울굿의 불사제석춤과 안당제석춤은 주로 들어숙배와 나숙배 춤을 추고 도무한다. 세습무의 굿과 강신무의 굿이 서로 다른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경기도, 서울, 황해도의 제석춤을 통해 신을 섬기는 면모나 굿을 진행하는 절차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대상이 제석춤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진쇠장단외 십일장단(박헌봉, 중요무형문화재보고서 28, 문교부, 1966),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무의식편(정병호 외, 문화재관리국, 1983), 경기도 도당굿 무가의 현지 연구(김헌선, 집문당, 1995), 지영희민속음악연구자료집–성금연편(민속원, 2000), 경기판소리의 정착과 형성집단–경기판소리(김헌선, 경기도 국악당, 2005).
필자 변남섭(卞南燮)

제주굿 무복

정의 제주굿에서 입는 무복. 제주굿 중 강신무에서는 모시는 신과 연행하는 거리마다 만신들이 그 신 자체가 되기 때문에 신의 성격, 위계에 따라 조선시대의 문관 · 무관 · 여관들의 복식을 입는다. 병을 고치는 굿에서는 심방의 역할이 복식을 통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한복을 입어도 평상복으로 착용한다. 그래서 저고리와 바지만 입기도 하고 두루마기를 더 입기도 한다.

내용 제주굿 무복은 중부 이북의 강신무에 따라 화려해졌다. 강신무의 경우, 굿의 성격이 모시는 신에 따라 다르고, 연행하는 거리마다 역할이 달라진다. 강신굿에서 만신들은 신과 거리마다 그 신이 되어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역할에 따라 다양한 복식을 착용하여 변화된 역할과 거리를 표시한다. 제주굿에서 착용하는 복식 명칭은 조선시대의 여복제도(輿服制度)에 의거한다. 그러나 명칭만 조선시대의 것이고 실물은 반드시 그 복식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는 복식의 명칭은 전해 들었지만 그 복식 자체가 본토에서 함께 입수된 것이 아니라, 여러 과정을 거쳐 입수되거나 입수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 복식 제도에서 사용되는 명칭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그 복식이 반드시 실물과 일치하지 않는다. 장식품이나 착용방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1. **관디차림** : 관디[冠帶]는 사모관대(紗帽冠帶)를 줄인 말로, 조선시대의 관복(冠服) 가운데 상복(常服)을 말한다. 상복은 단령(團領)에 가슴과 등 부분에 흉배(胸背)를 부착하여 착용한 사람의 직급은 나타내었다. 문관(文官)의 경우 학(鶴), 무관(武官)의 경우 표범으로 각각 도안하였다. 당상관(堂上官)이냐 당하관(堂下官)이냐에 따라 동물을 각각 두 마리, 한 마리로 구분하여 흉배를 만들었다. 여기에 품계를 구분할 수 있는 대(帶)를 허리에 하고, 머리에는 사모를 썼다. 관리들이 궁에 들어가 사무를 볼 때 입던 것을 인륜지대사인 혼례 때 모든 남성에게 착용할 수 있게 했다. 현재에도 혼인식을 마치고 폐백을 드릴 때 신랑이 입는다.

조선시대 일반인의 혼례 때 그 착용을 허용했



제주굿 무복
1985 | 국립민속박물관





제주굿 무복
1985 | 국립민속박물관

던 유일한 복식인 상복을 제주굿에서 무복으로 착용하였다. 명칭인 '관디'라고 하면 이런 조합으로 된 복장을 말하지만 제주굿의 무복으로서의 관디는 큰 차이가 있다. 즉 상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단령이나 흉배가 없다. 흉배는 정교하게 자수로 문양을 수놓아 착용한 사람의 신분을 나타낸 것이지만 제주굿 무복은 이런 흉배 달린 상복이 아니다. 너른 소매의 도포를 입고 가슴에 세조대(細條帶)를 묶어 늘어뜨리고 머리에 갓을 썼다. 사모와 갓은 모두 말총으로 만들어서 의복이 도포와 같은 포(袍)라면 머리에는 사모를 쓰는 것은 격에 맞지 않고 갓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 또 갓에는 공작깃을 꽂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는 무관 등이 위용을 나타내기 위해 장식한 것이다. 안에는 저고리와 바지를 입었으며, 바지에는 행전을 쳐서 움직임을 경쾌하게 하였다. 이런 차림을 제주굿에서는 정장으로 여겨 큰굿의 책임을 맡은 수심방이 입으며, 초감제 · 시왕맞이 등 주요 거리의 사제에 사용되었다.

2. **군복차림** : 제주굿에서 군복차림이라는 명칭이 있지만 입는 내용을 보면 두루마기나 도포 혹은 창의 등 포(袍) 종류를 입고 그 위에 전복(戰服, 쾌자)을 입는다. 군복(軍服)으로 입는 동다리와 전복이 아니라 포에 전복을 입은 것을 말한다. 머리에도 전립(戰笠)을 쓰기보다는 흑립(黑笠, 갓)을 쓴다. 세조대를 가슴에서 묶고 나머지는 늘어뜨린다. 바지 종아리 부분에는 행전을 쳐서 바지의 넓은 폭이 보행이나 움직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3. **장삼차림** : 한복의 평상복인 저고리와 바지에 장삼을 입는 차림이다 주로 작은 굿에서 착용하며, 큰 굿에서는 청신의례의 신을 모시는 경우에 사용한다. 머리에 갓을 쓰기도 하지만 청신의례에서는 갓 대신 고깔을 쓰기도 한다.

4. **평상복차림** : 평상복이라고 하면 평상시에 입는 차림새로, 바지와 저고리에 두루마기를 입고 굿을 한다. 한 두 시간 내의 간단한 비념 때 이런 차림으로 하며, 큰굿에서도 추물공연 때의 차림새이기도 하다. 본풀이를 구송할 때 평상복 차림으로 하기도 하지만, 이때는 한지로 만든 고깔을 더하기도 한다.

5. **도포차림** : 도포차림은 관디차림과 유사하지만 제주굿에서는 관디차림과 도포차림을 구분하여 착용한다. 도포는 전통복 가운데 선비들이 주로 입는 옷으로, 관직이나 자신의 신분을 반영하는 의복이 아니라 선비로서의 교양과 수준을 나타내는 의복이었다. 이런 의복을 단일신을 모시고 기원하는 작은굿, 불도맞이, 칠성제 등에서 착용하였다. 도포를 입고 가슴에 띠를 묶어 늘어뜨리며 머리에 갓이나 고깔을 썼다.

6. **특수복 차림** : 굿의 내용에 따라 분장이 필요한 경우에 착용한 복장을 말한다. 특히 제주굿에서는 본풀이의 내용에 따라 배역이 있어 그 역에 맞는 복장을 하였다. 예를 들어 삼공본풀이에서는 장님 거지 부부로 나오는 부모가 셋째 딸 감은장아기가 개최한 거지잔치에 참가할 때 거지로 분장하는 경우가 있다. 또 염감놀이의 도채비나 악심꽃꺾음의 구삼싱할망이 종이 가면을 쓰고 그 역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밖에도 제주의 추는굿에서 영감신을 청하는 벨고ᄉᆞ 초감제에서 영감으로 분장하기 위해 가면을 쓰는 경우가 있다. 가면은 종이나 헝겊에 눈, 입 등의 부분을 뚫어 만들고 수염부분도 길게 늘인다. 가면 외에도 입에 담뱃대를 물고 손에 신불을 드는 모습으로 분장한다. 이렇게 분장하면 그 역을 맡은 사람의 성을 알 수 없는 것은 물론 익명성이나 신비감을 더해 영험함을 더 강조할 수 있다.

제주도의 무복은 본토의 복식과도 일맥상통한다. 특히 중부 이북에서 볼 수 있는 복장이나 각종 관복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내용상에서는 제주 특유의 환경에 맞는 복식으로 재정리하여 착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특수복과 같은 역할을 좀 더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가면이나 복장을 역할에 맞게 분장해 입는 것을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장주근, 역락, 2001), 한국의 굿(하효길 외, 민속원, 2002), 제주도무속논고(진성기, 민속원, 2003), 제주도 추는굿(고광민 · 강정식,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필자 김영재(金永才)



제주굿 무복
1985 | 국립민속박물관

제주도 내왓당 무신도 [濟州道 川外堂 巫神圖]

정의 제주시 담동을 가로질러 흐르는 한천 중 특히 삼동물이라 불리는 깊은 웅덩이가 있는 주변 마을에 있던 내왓당[川外堂]이라는 신당(神堂)에서 모시던 신들의 신상(神像)을 그린 그림. 원래는 12폭이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현재는 남신상 6폭과 여신상 4폭 등 10폭만 남아 있다. 내왓당은 고종 19년(1882)에 헐려 남아 있지 않으며, 현재 이들 무신도는 제주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1991년 6월 4일 제주도 민속자료 제7호로 지정되었다가 2001년 11월 30일 중요민속자료 제240호로 재지정되었다.

형태 한지(韓紙)에 채색(彩色) 안료인 진채(眞彩)를 사용하여 그렸다. 빨강 · 노랑 · 초록 등 삼색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그림에 금박이 입혀져 있다. 10폭 모두 가로 · 세로 길이가 380×620㎜이다. 제주대학교의 현용준 교수가 1959년 처음 보았을 때는 원래 송판에 붙어 있었으나, 벌레가 많이 먹어 제주대학교 박물관에서 2000년에 다시 배접 하여 현재는 오동나무 상자에 보관하고 있다. 1963년에 이것을 다시 발견했을 때에는 10폭 모두 오른편 상단에 한자(漢字)로 쓴 붉은색의 신명(神名)이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8폭에만 신명이 남아 있다.

내용 내왓당 무신도가 남아 있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1882년 내왓당이 훼철되자 이 당의 매인 심방이자 신방청[神房廳]의 도행수(都行首)로 있던 고임생(高壬生)이 삼도동에 있는 자기 집에 가져다 모셨다. 후일 그가 사망하자 부인은 살던 집을 팔고 제주시 산지천(山地川) 가까이에 있는 남수각 근처 굴로 이사를 했는데, 이 때 이들 무신도와 무구도 이곳으로 옮겨졌다. 1959년에 현용준 교수가 우연히 이곳을 지나다가 냇가에서 어떤 안노인이 이상한 그림을 가지고 이리저리 짝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여 확인해 본 결과 전후사정을 알게 되었다. 1963년 고임생의 부

인이 사망하자 현 교수는 그녀가 살던 굴속에서 무신도가 들어있던 궤짝을 꺼내 당시 용담동에 있던 제주대학교 창고로 옮겼다. 1967년 제주대학교 민속박물관 개관 후 1970년에 유물을 전시할 때 이 무신도들이 전시되었다. 1980년 제주대학교가 현 위치인 아라동으로 이전될 때 이 무신도 역시 현재의 제주대학교 박물관으로 옮겨졌다.

현존하는 내왓당 무신도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세조실록(世祖實錄)』 세조 12년(1466) 7월 27일조에 있었던 내왓당과 관련된 강우문(姜遇文)과 복승리(卜承利)의 사건을 참조하면, 내왓당에는 적어도 그 이전부터 당신을 그린 화상(畵像)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은 복승리가 세조의 열렬한 지지자인 사실을 몰랐던 강우문이 복승리를 모해하여 그가 노산군[단종]의 얼굴을 그려서 치제(致祭)를 하였다고 보고하자, 세조는 이것이 모해임을 알고 잘잘못을 가려 강우문을 치죄한 사건이다. 이러한 기록 중에는 '천외당(川外堂) 신의 화상(畵像)이 이미 불에 타버렸다'는 내용이 있어 당시 내왓당에는 이미 당신도(堂神圖), 혹은 무신도(巫神圖)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남아 있는 내왓당 무신도가 그 때의 그림과 같은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무신도 같은 것은 대체로 모본을 대고 계속 그리는 점을 감안하면 모본이 세조 때의 것일 가능성이 있다.

내왓당 무신도는 신상에 나와 있는 신들의 복장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는 시대를 짐작할 수 있다. 무신도 10폭 가운데 남신의 복장에는 목 부분에 리본을 맨 듯한 모습이 강하게 남아 있는데, 한국복식사를 살펴보면 남성복에 이처럼 리본이 나타나는 예는 거의 없다. 우리 민족은 남녀 모두 신분의 귀천이 없이 포를 많이 입었는데, 귀족층은 소매가 넓은 활수포(闊袖袍), 평민은 주로 소매가 좁은 착수포(窄袖袍)를 착용하였다. 신라 때에는 목에 표(裱)를 둘러 목 뒤에서 어깨에 걸쳐 가슴 앞으로 늘어뜨려 일종의 장식용 목도리로 착용하였다고 하는데 무신도 깃의 리본은 이러한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남신 가운데 감찰위의 사모는 그 모습이 고려 말 이후 조선 중기 즈음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사모는 주로 검은색이어서 흔히 오사모(烏紗帽)라 부르기도 했는데, 이것은 그 모양에 있어 시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그런데 감찰위의 사모는 뒤쪽의 뿔이 폭은 좁지만 옆의 길이는 상당히 길어 고려의 것과도 다르고, 조선 후기의 모습과도 전혀 다르다. 또한 4폭의 여신상에 나타나는 저고리 길이는 허리 즈음에 닿아 있는데, 이러한 기장은 주로 조선 중기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신들의 복장을 중시할 때, 이들 무신도는 적어도 1800년보다 앞서는 것이 확실하다.

내왓당 무신도는 원래 12폭이 있었다고 전하는데 내왓당본풀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본풀이에서 "서수문 밧 삼동물 ᄀᆞ의 좌정ᄒᆞ신 열두시위전 본초~"라고 하여 이 당에는 12신위가 있다는 사실과 그 근본 내력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내왓당 무신도는 10폭만 남아 있다.

10폭의 무신도 중에 6폭은 남신상이고, 4폭은 여신상이다. 남신은 제석위(帝釋位), 원망위(寃望位), 수령위(水靈位), 천자위(天子位), 감찰위(監察位), 상사위(相思位) 등이고, 여신은 본궁위(本宮位), 중전위(中殿位), 상군위(相君位), 홍아위(紅兒位) 등이다. 내왓당본풀이와 연결해 보면, 천자위는 대국천자의 아들로서 불효하여 바다로 내쫓겼다가 용왕의 딸과 결혼하고, 나중에 강남천자국의 변란을 제압한 후 제주시 내왓당에 좌정한 신이다. 상사대왕은 서천서역국에서 들어온 신으로 큰부인은 중전대부인이고 작은부인은 정절상군농이다. 작은부인은 일곱 아기를 임신한 몸으로 돼지고기가 먹고 싶어 돼지털 세 개를 뽑아 청동화로에 태우다가 남편으로부터 부정하다고 내쫓김을 당했다가 나중에 큰부인과 함께 내왓당에 좌정되었다.

무신도의 회화적 특징을 살펴보면 〈제석위〉는 머리에 송낙을 쓰고, 양손에는 각기 지팡이와 부채를 쥐었는데, 지팡이의 끝에는 새[鳥]가 있다. 가사가 붉은색인 것은 오늘날 육지의 중이나 대사들이 입는 복장과 일치하는데, 장삼이 노란색인 것은 특이한 사례이다. 〈원망위〉는 망건에 흑립을 썼으며, 손에는 선추가 달린 접선(쥘부채)을 쥐었고, 청철릭으로 볼 수 있는 주름이 있는 옷에 검은 목화를 신었다. 〈수령위〉는 머리에 원유관 혹은 오량관을 쓰고 손에는 선추가 달린 접선을 쥐고 있으며 청록색의 포에 검은색 목화를 신고 있다. 관모 및 쥘부채를 보면 높은 신분의 존재를 나타내고자 한 듯한데, 허리에 각대가 아니라 끈이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을 보면 복식은 격에 맞다고 할 수 없다. 〈천자위〉는 망건에 흑립을 쓰고 있으며, 홍철릭(융복)을 입었다. 옷에는 반쪽의 국화무늬가 있고 주름이 많았다. 여기에 광다회를 드리우고 검정 목화를 신었다. 얼굴과 목 부위의 뒤쪽 배경에 푸른 점무늬의 뱀 같은 모양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감찰위〉는 사모를 쓰고 광다회를 드리운 포를 입었다. 포는 소매가 큰 것이 특징이며 목화는 신지 않았다. 〈상사위〉는 유문(有紋)의 홍포에 광다회를 드리우고 검정 목화를 신고 있다. 머리에는 망건 위에 붉고 흰 두 개의 원이 있는 매우 독특한 모자를 쓰고 있다. 모자가 우리나라 전통적인 관모가 아닌 것은 이 신이 서천서역국에서 들어온 외래신이라 이런 모습으로 그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여신 중 〈본궁위〉는 천자위의 부인일 가능성이 있다. 손에는 부채를 들었고, 속바지와 운문이 있는 녹의 및 홍상을 입었으며, 신발을 신었다. 치마에는 말기 및 긴 끈이 있는데, 말기라면 보통 흰색으로 나타나지만 여기에서는 청록색의 말기와 끈인 것이 특색이다. 머리는 자기머리인지, 가체인지 혹은 관을 쓴 것인지 구별하기 어려우나 뒤에 비녀가 있는 점으로 미루어 자신의 머리를 틀어 올린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비녀에 새가 있는 것이 특이하다. 〈중전위〉는 상사대왕의 큰부인으로 볼 수 있는데, 속바지와 운문이 있는 홍의를 입었으며, 반쪽의 국화꽃 무늬가 있는 녹색 치마를 입었다. 혜를 신고 있으며, 치마에는 흰 말기와 끈이 보인다. 〈상군위〉는 상사대왕의 작은부인으로 일곱 아기를 출산하는 정절상군농인 듯한데, 손에는 부채를 들고, 머리에는 아름다운 구슬이 장식되어 있다. 녹의 홍상에는 반쪽의 국화 문양이 있다. 저고리와 치마가 이어지는 부분에는 빨간 색의 말기가 있고, 혜를 신고 있다. 〈홍아위〉는 정절상군농의 딸로 여겨진다. 손에는 부채를 들었고, 머리는 내려진 긴 머리에 비녀를 꽂



1. 제석위
2. 원망위
3. 수령위
4. 천자위
5. 감찰위
6. 상사위
7. 중전위
8. 상군위
9. 홍아위
10. 본궁위

제주도 내왓당 | 1959.8 | 장주근

았다. 운문의 홍상을 입었고, 흰 말기에 녹색 끈을 드리웠으며 혜를 신었다. 본풀이 내용과 연결지어 보면 이 신은 아직 미혼이기에 이처럼 머리를 길게 내려 그린 듯하다.

내왓당 무신도 중에서 남신의 복식을 살펴보면 머리에 통이 넓은 흑갓, 뒤쪽의 뿔이 긴 사모, 대가 낮은 원유관(혹은 오량관), 송낙, 모자 등 여러 형태가 나타난다. 깃 부분과 수구(袖口)는 대체로 여러 색이 나타나는데, 옷의 깃 부분은 대개 리본을 맨 듯한 독특한 모양이며 광다회를 드리우고 있다. 〈제석위〉는 스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 신인데, 이 신을 제외한 남신들의 복식은 대체로 그 복식이 신분이 높은 관복형이라 할 수 있다. 내왓당 본풀이에서 신들의 위상에 대해 대체로 "대왕" 운운하고 있는 것과 맥이 닿아 있다. 제석위를 제외한 모든 신들이 손에 부채를 들고 있는 특징을 보이는데, 양손 중 부채를 든 손을 제외한 나머지 손들은 모두 용이나 새와 같은 동물의 발톱모양으로 그려져 있다. 이것은 인간과 신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고자 하여 신들의 손을 새나 용의 발톱처럼 그린 것이 아닌가 하며, 또한 양쪽 손목에는 거의 누런색의 팔찌를 끼고 있는데, 이러한 금팔찌 역시 신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 이들 무신도들은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손 모양이라든지 얼굴 모양, 그리고 옷에 나타나는 반쪽의 국화꽃 무늬 같은 것으로 볼 때, 동일 시대에 동일 화가에 의해 그려졌다고 볼 수 있어 한 속(屬)으로 묶을 수 있다.

내왓당 무신도는 회화적으로 볼 때 그렇게 뛰어난 작품이라고 할 수 없다. 신상의 얼굴 표정이 너무 획일적이고 일률적이어서 감정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육지의 수많은 무신도와는 얼굴 모양이나 색채, 감각이 매우 달라서 상당한 이질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무신도의 저고리, 치마, 사모관대 등을 보면 이들은 분명히 우리 문화, 그 중에서도 특히 제주문화 속에서 배태되고 잉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내왓당 무신도에 나타나는 색채와 기교의 독특함은 내왓당의 무신도가 지니는 특이성이자 독자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앞으로 제주도의 신앙 형태와 회화사를 연구할 때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무신도는 제주도의 4대 국당(國堂) 중의 하나였지만,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내왓당의 무신도라는 점에서 더욱 소중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耽羅誌(담수계, 1953), 조선왕조실록 중 탐라록(김봉옥, 제주문화방송, 1986), 중요민속자료 지정조사보고서-제주도 내왓당 무신도(이수자, 문화재청, 2001), 내왓당 무신도(제주대학교 박물관, 2002),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현용준, 집문당, 2005).
필자 이수자(李秀子)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정의 제주시 건입동에서 벌어진 속칭 '칠머리당굿'으로, 해마다 2월 14일에 하는 영등 송신제. 이 굿은 1980년 11월 17일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로 지정되었다.

내용 영등굿은 세시절기에 의한 풍어기원적 성격에 가까운 의례이다. 이 점에서 이 굿은 제주도의 중요한 당굿 가운데 하나이다. 제주도에서는 2월을 영등달이라고 하는데, 2월 영등달에는 영등할아버지가 들어와서 여러 곳을 거쳐 다시 2월 보름날에 나간다고 여긴다. 칠머리당은 영등이 나가는 과정에서 송별제를 하는 당이고, 이 당의 영등굿은 규모나 단골들의 참여 규모가 매우 큰 영등굿 가운데 하나이다. 영등을 보내는 굿이므로 이를 '송별제'라고 지칭하도 한다.

칠머리당영등굿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때 '칠머리당굿'이라고 했으나 현재 그 성격과 의미를 회복하여 '칠머리당영등굿'이라고 고쳐서 말하게 되었다. 이 칠머리당은 본디 건입동에 있었으나, 산지항이 들어서고 어수선해져서 사라봉 쪽으로 옮겨졌다. 칠머리당에는 영등굿에서 신들을 모시며, 이 신위를 보면 칠머리당에서 섬기는 신격의 근본을 이해할 수 있다. 서편에서 동편으로 모셔지며, 순서는 영등대왕 · 해신선왕 · 당신(도원수감찰지방관) · 요왕부인 · 남당하르방 · 남당할망 등이다.

영등굿은 주신인 토박이신과 떠돌이신의 만남 및 이별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영등신과 당신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 마을단골인 제주도 해녀들이 힘을 모아 바다의 해산물이 잘되고 풍요한 삶을 기원하기 위해 벌이는 마을굿이다. 앞에서 언급한 신격관계에서 이 신들의 위패가 증거이다.

제주도의 당제에서는 세시력에 따라 크게 4가지가 있다. 그것이 곧 신년과세굿(정월), 영등제(2월), 마불림제(7월), 시만곡대제(9월 또는 10월) 등의 마을굿이다. 오늘날까지 가장 활발한 전승의 실제를 보이는 굿은 신년과세굿과 더불어 2월 초부터 중순까지 전 지역에서 행해지는 영등굿이다. 영등신은 풍어와 풍요를 기원하는 신격이다. 영등은 2월 초하룻날 한림의 수원당으로 들어와 보름에 성산 소섬을 거쳐 연평으로 빠져 나간다고 여긴다. 그래서 수원당에서는 영등신 환영굿을 크게 해 왔다고 전해진다. 현재 많이 남아 있는 굿은 13일부터 보름 사이에 행해지는 송별굿이다.

한편 신 관념에서 영등은 육지에서 비와 바람과 관련된 신격인 동시에 풍농과 관련되는 신격이다. 우리나라 중부와 남부지방에서는 흔히 영등할머니 신앙이 보인다. 이 신은 2월 초하루에 내려와서 20일 경에 올라간다고 여겨진다. 영등할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해에는 비를 맞아 초라하게 보이도록 하려고 비를 몰고 오기 때문에 풍년이 들고, 딸을 데리고 오는 해에는 다홍치마 노랑저고리의 고름과 치맛자락이 나부껴서 예쁘게 보이게 하려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흉년이 든다는 이야기가 있다.

제주도에서는 시체화생의 관념에 의해 풍어와 풍농을 기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문헌자료와 구전자료에서 동시에 볼 수 있다. 이를 소개하면서 이 신의 성격을 알아보자.

> 又二月朔日 於歸德金寧等地 立木竿十二迎神祭之 居涯月者 得槎形如馬頭者 飾以彩帛 作躍馬戲以娛神 至望日乃罷 謂之燃燈 是月禁乘船. -『東國與地勝覽』卷之二十八 濟州牧風俗條
>
> 煙燈節 諺傳 大唐商人 漂沒於州境者 四体分解 頭骨入於魚登浦 手足入於高內涯月明月月等浦 故每年正月晦時 百風有風自西海來則 謂之迎燈神降矣 沿邊居民聚群巫作野祀 夜以繒畫 造槎形如馬頭者 飾以彩帛 作躍馬戲 以娛神 至二月旬望 又造舟形具帆檣 汎于浦口 謂之送神 是時風自東北來則謂之燃燈去矣 自二月初吉于望後絕不放船 又俚語以爲燃燈神每於正月晦日入牛道 採食海族 翊日登陸地于十六日 復自牛島出去而所過沿邊蚌蛤螺螄之屬 盡爲空殼乃燈神所採食者云. 心齋 金錫翼, 『海上逸史』 燃燈節條

첫 번째 기록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있는 것이다. 2월 삭일(10일)에 귀덕 · 김녕 등지에서는 나무 대를 12개 세워 신을 맞이하여 제사를 지낸다. 애월에 사는 사람들은 나무 등걸 형상이 말머리와 같은 것을 얻어 비단으로 꾸미고 약마희(躍馬戲)를 지어서 신을 즐겁게 하다가 보름(15일)에 이르러 파하는데 이를 연등이라 하며, 이 또한 연등달에는 배를 타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기록은 당나라 상인이 제주 근경에서 표류해 빠져죽었다고 하는 데서 시작한다. 시신이 네 부분으로 나뉘어 두골은 어등포로 들어오고, 수족은 고내포 · 애월포 · 명월포 등지로 들어왔다. 이 때문에 매년 정월이 되면 모든 바람이 서쪽 바다에서 불어 오며, 이를 일컬어 영등신이 하강했다고 하여 이곳에 사는 백성들이 무리지어 무당과 함께 들에다 굿판을 벌인다. 밤낮으로 말머리 같은 나무 등걸에 비단으로 꾸며 약마희를 지어서 신을 즐겁게 하고, 2월 15일에 이르면 돛대를 갖춘 배 형태를 만들어 포구에 띄우면서 이를 신을 보낸다고 일컫는다. 이 달에는 배를 띄우지 않는다.

문헌기록은 오늘날의 구전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도 적지 않다. 예컨대 약마희와 같은 것은 오늘날에 전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의 기원은 알기 어렵다. 배방선을 바다에 띄우기에 앞서서 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인지도 확실치 않다.

두 번째 기록의 항간에 전하는 이야기인 당나라 상인의 시신이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어등포 · 고내포 · 애월포 · 명월포로 들어왔는데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구전되는 이야기나 본풀이에서 영등대왕 시신이 나뉘어서 들어왔다는 말과 일치한다. 따라서 4세기 전의 문헌에 전하는 사실과 구전의 사실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사실은 당연한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정수미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정수미



















일이다. 그러므로 영등제에 대한 오늘날의 전승을 살펴보는 일이 더욱 긴요하다.

영등신과 관련된 신화는 구전신화와 본풀이를 합해 네 가지가 전승된다. 영등신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진성기, 영등대왕, 『남국의 전설』, 일지사, 1968, 60~62쪽. 진성기, 영등당본풀이,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민속원, 1990.
2. 진성기, 영등할망, 『남국의 전설』, 일지사, 1968, 62~63쪽.
3. 진성기, 영등당본풀이, 『제주도 무가본풀이 사전』, 민속원, 1990.
4. 현차남 구연, 영등할으방, 2000년 2월 16일에 필자 채록.
5. 이씨무녀 구연, 영등할으방, 『제주도의 영등굿』, 「한국민속학」 창간호, 1970.

1은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전승되는 영등당의 당본풀이이다. 한림읍 옹포리의 남무(男巫)인 김승은에 의해 구전되는 것으로, 진성기 선생이 채록한 것을 다시 표준어로 바꾸어서 소개한 것이 『남국의 전설』에 수록되었다. 자료의 원문은 『제주무가집』에 처음 수록되었다가 1968년에 『남국의 무가』에 실리고, 다시금 1990년에 『제주도 무가 본풀이사전』에 실렸다.

2는 한림읍 동명리에 전승되는 일종의 구전신화로, 당본풀이는 아니다. 변신생이라고 하는 화자가 전승한 것으로, 1958년에 채록되었다.

3은 〈영등당본풀이〉로, 애월읍 신엄리 남무인 양태옥이 전승하는 자료이다. 이것은 영등당이 따로 있어서 전승되는 자료이므로 1과 함께 영등당의 본풀이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다.

4는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의 심방인 현차남 할머니가 전승하는 자료로, 2000년 2월 16일에 채록됐다. 그러나 이 자료는 심방이 구연했으므로 당본풀이일 것 같으나 사실은 당본풀이가 아니다. 오히려 구전신화이기는 해도 예사로이 전승되는 신화로 보아야 옳다.

그렇다면 1, 2, 3, 4 네 가지 전승 자료는 영등신의 내력을 보여주는 것이면서도 당본풀이로 심방에 의해 전승되는가 아니면 예사 구전으로 전하는 신화인가에 차이가 있다. 이 네 가지 전승은 그 자체로 소중하기 때문에 편마다 검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이 1에 있으므로 이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황영등이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닌데 용왕국에 살고 있었다. 하루는 한 어선이 폭풍을 만나서 외눈배기 나라로 표류해 갔다. 이것을 본 영등은 어부들을 살리기 위해 왕석 위에 나가 앉아 있었다. 영등은 배와 어부들을 왕석 안에 숨겨놓았다. 외눈배기가 개를 데리고 찾으러 왔다. 외눈배기가 영등에게 어부들의 존재를 묻자 자신도 이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노라고 말했다. 외눈배기가 가자 영등은 배와 어부들을 내놓고 어부들에게 관음보살을 읊으면서 가라고 말했다. 한참을 빠져나온 어부들이 안심하고 관음보살 읊기를 그치자 외눈배기가 있는 곳으로 다시 끌려오게 된다.
> 영등은 다시 관음보살을 읊으면서 가라고 신신당부하면서 2월 초하루에는 자신을 잊지 말라고 당부한다. 어부들이 한수리로 돌아온다. 영등은 외눈배기에 의해 세 토막이 나서 머리는 소섬에 오르고, 사지는 한수리에 오르고, 몸체는 성산에 올랐다. 도민들은 어부들의 수중액을 면하게 해준 영등의 고혼을 위해 제사를 지내고, 소섬에서는 정월 그믐날에 제를 지내고, 2월 초하루에는 비꿀물에 오르고, 2월 5일에는 성산면에서 영등제를 지낸다. 영등은 이 과정에서 제를 받는 조상이되고, 소섬 · 성산 · 한수리에 있어서 삼첩이 된다.

이 신화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표류 어부들, 황영등, 외눈배기 괴물의 관계이다. 어부들이 표류를 하다가 도착한 이상한 섬에서 구원해준 인물이 곧 황영등이고, 이와 달리 적대자 노릇을 하는 인물이 곧 외눈배기 괴물이다. 어부들이 관음보살의 주문을 읊지 않아서 다시 외눈배기 땅으로 돌아오자 여기에서 영등의 희생이 이루어졌다. 괴물에 의해 토막이 난 영등의 시신이 각기 제주도의 특정한 고장으로 갈라져서 버려졌고, 이 시신의 화생(化生)을 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전형적인 시체화생의 조상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시신으부터 생명의 구근이나 씨앗을 얻는 것은 세계적인 신화의 구조 속에서 동일하게 확인된다. 영등달의 생업적 준비와 이 신화는 서로 맥락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등의 희생과 괴물은 이 신화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영등굿은 이 신화를 바탕으로 굿을 하는데 신화의 본풀이는 상당 부분 사라졌으며, 실제로 굿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의례적인 활성화를 위한 맞이와 놀이로 대폭 강화되었다. 칠머리당영등굿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초감제-본향매어듦-요왕맞이-씨드림-영감놀이-배방선

초감제는 굿을 하는 서두 대목이다. 세부적인 절차가 더 있지만 개략적으로 굿을 하는 시간과 공간을 제시한 뒤 이 굿을 하는 연유를 아뢰고, 굿을 하는 여러 사람의 이름[열명]을 올리고서 청한다. 본향매어듦은 영등신과 당신을 청해 모셔들인다. 이때 신격을 위해 이들의 청좌는 매우 중요하다.

요왕맞이는 요왕신을 모셔오는 절차가 중요하며, 이 신격의 초청에 의해 굿을 하는 분명한 목표가 제시된다. '질침'이라고 하는 맞이의 중요한 절차를 통해 신을 맞이하는 의례를 거행하고, 영등신와 요왕신을 보내는 절차를 연행한다. 그러나 이 사이에 곧 영감놀이라고 하는 〈영감본풀이〉의 주체를 가시화한 놀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영감놀이와 영등신앙의 결합이 어떠한 의의가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신화적 기원과 의례적 연행이 엄격하게 부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등굿의 기본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점에서 칠머리당영등굿은 긴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영등굿은 일단 제주도의 세시력에 의한 상세한 생명체계를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영등굿 기간에는 어떠한 물질도 하지 않고 바다에 생명이 깃들기를 기원하는 휴업기이다. 이것이 에코시스템의 설정으로 진정한 가치를 영등굿이 지향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둘째. 신화적 관점에서 이 영등굿은 인간의 희생에 의한 시체화생으로부터 바다의 생명체가 시작된다는 매우 흥미로운 설정을 담고 있다. 영등대왕의 죽음이 이를 말해주는 것으로, 이 과정의 시체화생으로 풍농이나 인간의 식량에 기원을 두었다고 하는 근본적인 시체화생신화와 맥락이 같다. 더구나 괴물이 바로 외눈배기라고 했으므로 이 존재들에 대한 기원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 즉 신화의 상상과 특징을 적절하게 구현하는 것이 영등굿의 의례적 배경으로 작용한다.

셋째, 영등굿의 지역적 분포와 전국적 사례의 비교 역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영등달에 영등굿을 하는 현상은 제주도 전역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이 굿이 있기도 하지만 또한 없기도 하다. 이 분포와 변이가 어떠한 의의가 있는지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영등굿의 대상이 지니고 있는 특징을 통해 이 굿의 진정한 의의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의 특수성이 이로써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아울러 영등굿은 제주도에서만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 제주도가 아닌 다른 고장에서도 '영등할매'신앙이 발달해 있으면서 특히 남해안에서는 제주도 못지않은 의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구체적으로 영등신을 위하는 의례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개인적 차원의 신앙이 아니라 집단적 차원의 신앙이라는 점에서 단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생명체계의 신화와 의례가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제주도의 영등굿은 총괄적인 각도에서 접근해야 그 성격이 부각된다.

제주도의 영등굿은 과학을 넘어서는 메타과학이고, 주술과 과학이 신화생명체계로 얽혀 있는 의례라는 점에서 소중한 의의가 있다. 모든 생명이 발휘되는 시기에 신앙적 간기를 두어서 생명을 보호하고,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면모를 보여주는 의례이다. 이 점에서 영등제는 세계문화유산적 가치가 있고 미래를 지향하는 인간의 의례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남국의 전설(진성기, 일지사, 1968),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현용준, 집문당, 2002), 바람의 축제 칠머리당 영등굿(문무병, 황금알, 2005).

필자 김헌선(金憲宣)

상호참조 영등굿(650쪽)

제주큰굿

정의 제주도 무속의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굿.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제주 큰굿의 상차림

2. 큰심방의 향로춤

3. 초감제를 집행하는 큰심방

4. 도랑춤을 추는 큰심방

5. 본향신을 따라온 잡귀들을 대접하기 위해 위를 봉한 술병인 우봉지주잔을 제장 밖으로 던진다

6. 신청궤가 끝나면 본주를 제장 앞으로 불러 절을 시킨다

7. 심방집 큰굿 당주맞이에서 사록을 놀리는 희극적인 놀이굿

8. 맞이굿이 끝나 석살림을 하기 전에 신다리를 안방으로 매어드는 장면

9. 맞이굿 질치기에서 깔았던 신다리를 거두어 안방으로 매어드는 장면

10. 안공시와 밧공시 모든 명구를 한꺼번에 던져 점치는 쇠놀림굿

11. 소무가 앉아서 장구를 치며 신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공연의례

12. 심방집 큰굿 당주맞이에서 새심방에게 신이 내리는 약밥약술
북제주군 구좌읍 동김녕리 | 1994.10.24~31 | 문무병

제주큰굿은 경륜이 있는 큰 심방을 수심방[首巫]으로 하여 굿법을 지키며 연행되는 '차례차례 재차례 굿'이다. 이 굿은 2001년 8월 16일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되었으며, 예능보유자는 이중춘(李中春)이다.

역사 무속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유교적인 봉건 지배 이데올로기 강화의 일환으로 위정자에 의하여 사회적 폐습이 되었으며, 심방[巫堂]은 한갓 이러한 폐습을 조장하는 불한당으로 인식되어 배척의 대상으로서 종교적 탄압을 받았다.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의 『남환박물(南宦博物)』에 의하면 "섬의 곳곳에 돌과 나무로 당을 만들고, 매년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에 이르기까지 심방들은 독기(纛旗)를 앞에 모시고 나희를 꾸며 꽹과리와 북을 치며, 깃발과 창검을 앞세워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 관원 이하 온 마을 사람들이 다투어 물품과 곡식을 바쳐 제사를 드린다. 사람들은 누구나 질병과 생사화복을 음신(陰神)에게 구하여 극복하려 하므로 자연 무당들의 횡포가 심하고, 그 무리 또한 많아 백성들의 피폐가 크다. 이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재물을 강요하고 신당에 소를 잡아 제사를 지내며 심지어는 마소를 탈취하는 등의 행패가 극심하였다. 이에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얻어 신당 129개소와 신당에 관계되는 기물 의복까지 부수고 불살랐다. 이에 무당들이 스스로 그 일에 손을 떼고 농사일에 종사하게 되었다"하여 제주 무격배들의 혹세무민(惑世誣民)의 폐단을 지적하였다. 또 "당하니[堂漢]는 마을의 신당을 맡아 모시는 심방이다. 이들이 서로 계를 만들어 굿을 하며 백성들에게서 뺏어 먹고 소를 잡아 신당에 올리는 등 그 폐단이 큰데, 그 계의 수가 천이 넘는다"고 했다.

이러한 유학자들의 무속에 대한 부정적 인식 속에서 조선시대의 무속신앙의 형태를 짐작케 하는 것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김정(金淨, 1486~1520)은 『제주풍토록』에서 "남자 무당이 매우 많다"(男巫甚多)고 지적하고 있으며,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은 『남사록』에서 "이 지방 풍속엔 예부터 여무(女巫)가 없고, 무릇 귀신을 모시고 기도하는 일은 다 남자 무당이 한다"고 전하면서 이것이 신라 화랑의 유풍이라고 흥미 있는 견해까지 덧붙이고 있다.(餘留州日 聞客舍外民家作巫事 卽掌致巫人 一偃蹇男子也 問其故 土俗自古無女巫 凡祀鬼禱神之事 皆男巫爲之云 比必新羅花郎之遺風) 이는 제주도에서는 남자무당이 큰굿을 집전하는 사제자로서 대표성을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 심방의 사회적 직능에 대해서 『제주풍토록』, 『남사록』, 『탐라지』 등에 "사람이 병이 나면 귀신의 노여움 때문이라 하고 약 쓰기를 두려워한다"고 했다. 이는 질병 치료에 굿이 필요했음을 말하는 것이며, "병액 득상화복에 대하여 신에게 물어본다(病厄 得喪禍福 一聽於神)"라는 표현은 길흉화복 모든 일을 신탁에 의해, 점을 쳐서 신에게 들었다는 말이 된다. 이것은 조선시대 조정의 강력한 탄압에도 전통적인 제주사회는 병을 고치거나 마을의 부정을 막거나 재앙을 없애고 복을 부르고[除災招福]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심방을 불러 굿을 해야만 했던 무속신앙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어떤 형태로든 존속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내용 큰굿은 전 무구를 사용하고, 그 굿의 목적에 필요한 모든 의례를 연속적으로 다하는 일종의 종합제이다. 이것은 4~5명의 심방이 동원되어 짧게는 4일에서 길게는 두 이레인 열나흘, 즉 보름 동안 함으로써 규모가 크기 때문에 큰굿이라고도 하지만 누구나 인정하는 큰 심방, 문서를 아는 심방이 맑고 공정하다고 하는 저승법인 굿법에 따라 제대로 하는 중요한 굿이기 때문에 큰굿이라고 한다. 큰굿은 심방 집에서 하는 신굿과 사가(私家)에서 하는 큰굿이 있다. 신굿은 사가에서 당클을 사방에 매어서 하는 큰굿인 4당클굿에다 심방 집에서 신 길을 바로잡기 위하여 당주의 길을 닦는 당주맞이의 여러 제차가 삽입되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총체적인 굿을 말한다. 따라서 신굿은 제주도의 큰굿 중의 큰굿으로서 차례차례 재차례 굿으로 제주도 굿의 모든 형식과 내용이 다 들어 있으며, 완벽한 굿의 체계와 질서를 지닌 굿의 종합이다.

굿법은 굿을 원리대로, 즉 젯ᄃᆞ리 또는 굿의 제차(祭次)를 어기지 않고 지켜가며 차례차례 재차례로 굿을 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초공본풀이에 나오는 최초의 심방 선생인 유정승의 따님아기(유씨부인)가 삼시왕[巫祖神]에게서 받아 배운 무당서 삼천 권에 근거한다고 한다. 무당서(巫堂書)는 굿법을 적은 신화적인 책이다. 제주도의 굿은 우주의 모형으로 당클을 만들고, 모든 신을 일제히 모셔들이는 초감제부터 시작한다. 초감제는 '하늘-땅'이라는 신과 인간의 거리를 좁히는 하강의식이다. 신의 하강은 지상의 성역화를 이루는 동시에 연극적으로는 공간 · 시간 · 장소의 현장성을 드러내어 보여준다. 초감제가 끝나면 당클에 모셔진 신들을 그 지위에 따라 상위신에서 하위신에 이르기까지 차례대로 개별의례를 치러 나가며, 그 방식은 본풀이 · 맞이 · 놀이의 세 가지 형식을 취한다. 그러나 하나의 신격에 대해서는 초공본을 풀어 초공맞이, 영감본을 풀어 영감놀이와 같이 '본풀이+맞이' 또는 '본풀이+놀이'로 진행된다. 여기에서 본풀이는 맞이나 놀이의 대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큰굿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큰굿의 제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주도 큰굿의 제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신의례[초감제-초신맞이-초상계], 공연의례[추물공연-석살림-보세감상], 기원 · 영신의례[불도맞이-일월맞이-초공본풀이-이공본풀이-초 · 이공맞이-삼공본풀이-젯상계], 천도 · 해원의례[시왕맞이-요왕맞이-세경본풀이-제오상계], 오신의례[전상놀이(삼공맞이)-세경놀이-양궁숙임], 가신 · 조상의례[문전본풀이-본향ᄃᆞ리-영개돌려세움], 송신의례[군웅만판-칠성본풀이-각도비념-말놀이-도진-가수리-뒤맞이].

큰굿은 굿판에서 항상 굿을 제대로 하는가를 참관하여 심사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형식과 내용이 풍부한 두 이레 열나흘 굿을 전승할 수 있었다. 특히 심방집에서는 신굿이라는 큰굿을 하여 신에게 역가(役價)를 바쳐야 한다. 심방은 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무업의 종사자로서 "신의 덕에 입고, 먹고, 자고, 행동발신"해 왔기 때문에 그 대가를 신에게 다시 바치는 것이 심방 집에서 하는 큰굿이다. 심방이 벌어먹은 역가, 즉 심방질을 하여 벌어들인 수입의 일부를 신에게 바치는 역례(役禮)이다. 심방은 역례를 바친 횟수만큼 심방사회에서 무덕이 높은 심방으로서 인정을 받는다. 초역례를 바치면 하신충, 이역례를 바치면 중신충, 삼역례를 바치면 상신충에 오른다. 그러므로 큰 심방이 되려면 굿도 물론 잘해야겠지만 신에게 역가를 바치는 신굿을 적어도 세 차례는 해야 한다. 심방은 역례를 행함으로써 자신이 벌어먹은 것의 일부를 심방 사회에 환원하고, 벌어먹은 역가를 신에게 바치는 역례의 횟수만큼 심방 사회에서 큰 심방으로의 층위 상승을 인정받게 된다. 이러한 신굿은 신 길을 바로잡는 당주맞이라고 한다. 심방은 자기 집에서 스승이 되는 원로 심방을 청하여 큰굿을 하여 스승으로부터 옛 법대로의 굿을 배우며, 수심방이 인도하는 대로 굿법에 따라 굿을 하고, 심방의 정도를 가는 것이 신굿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南宦博物, 제주도 큰굿자료(문무병 외, 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1),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도서출판 각, 2007), 제주도 본향당 신앙과 본풀이(문무병, 민속원, 2008).

필자 문무병(文武秉)

조금례

분야 중요무형문화재 제82-다호 위도띠뱃놀이 무녀 부문 예능보유자.

내용 조금례(曺金禮, 여)는 위도띠뱃놀이의 주무(主巫)로서 조기잡이의 칠산어장으로 유명한 위도에 5일씩이나 큰 풍어굿을 할 때부터 참여해온 위도 지역의 유일한 큰 세습 무당이었다. 1917년에 태어난 조금례는 17살 되던 해 서울에서 무업을 하던 작은어머니와 함께 위도로 들어와 한평생을 위도에서 살았다. 조금례가 서울에서 살았던 지역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위도띠뱃놀이 예능보유자인 김상원에 따르면 조금례의 고향이 서울이고, 서울에서도 '관훈정' 사람이라고 한다.

조금례는 본래 굿하는 법을 몰랐으나 중매로 대리의 신만준에게 시집간 이후 본격적으로 무업을 하였다. 조금례가 무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시어머니인 신만준의 어머니 영향이 컸다. 대

리 지역에서 '갈매기'라는 예칭으로 불린 세습무였던 시어머니의 이름은 전일녀였다.

처음 시어머니는 조금례에게 굿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러나 조금례가 적극적으로 굿을 배우려는 모습을 보이자 위도띠뱃놀이는 물론 단골집에 굿이 있을 때마다 조금례를 데리고 다니며 굿을 가르쳐 주었다. 마을사람들은 조금례가 목소리 청이 좋지 않았으나 여러 해 굿을 하면서 목소리가 걸걸해지고 긴 사설을 다 외워 훌륭한 무당이 될 수 있었다고 한다.

어느 정도 무업 일을 할 수 있을 때쯤 조금례는 위도띠뱃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원당제와 용왕굿 등 굿의 주무로서 역할을 담당하였다. 조금례는 굿판이 없을 때면 배를 부리던 남편을 도와 뱃일을 하다가 마을에 굿이 있거나 각 가정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면 늘 불려 다니며 굿일을 하였다고 한다.

1985년 2월 1일 중요무형문화재 제82-다호 위도띠뱃놀이 무녀 부문 예능보유자로 지정된 조금례는 위도띠뱃놀이의 주무이기도 하지만 대리 마을을 담당하던 단골무녀였다. 조금례의 단골은 대리 마을뿐 아니라 당시 행정구역상 대리 마을에 속해 있던 전막리, 소리, 논금, 거륜도 마을도 포함됐다. 정초에 책을 놓고 이 지역 주민들의 신수를 봐주기도 하고, 아이를 낳을 때면 산신할머니 역할을 하기도 했다. 특히 바다를 삶의 무대로 활동하던 주민들은 해상 사고가 있을 때면 조금례를 찾아 굿을 부탁하였다. 큰 배를 부리던 집에서는 출어(出漁)를 하기 전에 조금례를 불러 고사를 하기도 하였다.

조금례가 활동하던 시기에 위도 지역에는 각 마을에 여러 명의 무녀가 있었다. 진리 마을은 까오기와 보름새, 치도리 마을은 대판넘이(최명씨), 식도 마을은 조금례의 작은어머니가 각각 활동하였다. 조금례 무녀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조기 어업이 매우 활발하여 봄철이면 대리 마을에서 별신굿이 열렸다. 굿은 대략 4, 5일간 진행되는데 조금례는 다른 마을의 무녀들과 함께 별신굿판을 이끌었다.

신만준과 결혼한 조금례는 2남 4녀를 두었으며, 1995년 5월 24일에 사망하기 직전까지 장남 집에서 거주하였다. 조금례가 사망하자 대리 마을의 안길녀가 위도띠뱃놀이의 주무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안길녀가 죽은 이후 위도띠뱃놀이 세습무는 단절되었다.

참고문헌 위도띠뱃놀이(김익두 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풍어제(하효길, 대원사, 1998) 한국마을굿에 대한 민족연극학적 연구(김월덕,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필자 서종원(徐鍾源)

조너리

정의 동해안굿에서 경남 지역의 문굿과 장수굿에서 사용되는 장단.

내용 문굿에서는 푸너리를 치고 나서 정전을 밟은 다음 신칼을 들고 원앙중, 큰머리를 한 무녀, 갓 쓰고 활옷을 입은 양중, 종이수술을 단 막대기를 든 무녀들이 춤을 춘다. 이들은 숫자 8의 형태를 그리거나 오방진(五方陣)을 그리며 행진하다가 큰 원을 그린다. 그리고 그 안에 원 무녀와 양중이 들어가 장구를 들어 마주보며 춤을 춘다. 다시 큰 원을 그리며 무녀와 양중이 돌다가 원 무녀가 조너리와 대너리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춘다. 이를 '밟이춤'이라 한다. 리듬 형태는 민속악의 자진모리와 같다. 특이한 것은 징으로만 반주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징은 뒤를 막지 않고 열어서 잔가락을 많이 넣어 치는 것이 특징이다.

참고문헌 동해안별신굿(장휘주, 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경남 · 경북 동해안 무악 비교 연구(장휘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경상도와 전라도의 망자천도굿 비교 연구(오진호, 2007 문화관광부 선정 전통예술 우수논문집, 문화관광부 · 한국국악학회, 국악춘추사, 2007).
필자 이영선(李英仙)

조라술

정의 산신제(山神祭)나 용왕제(龍王祭) 등에서 산신과 용왕께 올리는 술.

내용 보통은 술을 빚어서 제단 옆에 묻었다가 쓰는데 조라라고도 한다. 신성한 신께 올리는 이 술은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엄격한 관리를 받는다.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에서 봄에 행사하는 은산별신제 때 산신께 올리는 조라술은 누룩만들기, 물봉하기, 고두밥만들기, 고두밥과 누룩섞기, 항아리에 담기, 숙성시키기, 조라술병에 담기 등 순으로 술을 빚는다.

누룩은 별신제를 행하는 해의 전년 음력 8월에 만든다. 통밀을 맷돌에 갈아 지하수를 끓여서 식힌 물로 간신히 뭉쳐질 정도가 되게 반죽한 다음 누룩판에 삼베를 깔고 반죽을 넣는다. 그 위에 삼베로 덮고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발로 단단히 밟아 다져 성형시킨다. 이것이 누룩디디기이다. 만들어진 누룩은 25도에서 28도 정도의 건조한 곳에서 약 한 달간 사오일 간격으로 뒤집어 주면서 쑥을 덮어 띄운다. 숙성이 끝나면 덩어리채 단지 안에 보관하였다가 이듬 해 봄에 조라술을 빚을 때 절구통에 담아 곱게 빻아 성긴 체(도두미)로 쳐서 그늘에 두어 이삼 일 동안 말린다.

술 담그는 책임을 맡은 화주(火主, 제관)는 별신제 올리기 사흘 전에 대문에 금줄을 치거나 별신당 뒷산에서 가져온 황토를 대문 밖에 놓는 등의 부정 예방 의례를 한 다음 목욕재계한다. 이른 새벽이 되면 별신당 옆의 가로질러 흐르는 은산천으로 가서 조라술 만들기 위한 물을 길어오기 위하여 금줄을 치고 물을 봉한다. 이어서 제물 없이 간단한 제사를 지내고는 위쪽 상탕(上湯)에서 물동이에 물을 떠 담아 집으로 돌아온다. 일단 금줄을 치면 별신제가 끝날 때까지 누구도 상탕의 물을 사용할 수 없다.

쌀을 3시간 이상 물에 불렸다가 시루에 쪄서 고두밥(술밥)을 만든다. 이 술밥용 쌀은 정월 초사흗날에 은산면의 각 집에서 걸립하여 저장해 둔 쌀이다. 술밥이 완성되면 갈대로 엮어 만든 삿자리 위에다 펼쳐서 싸늘하게 식힌다. 나팔수가 나팔을 부는 가운데 주걱과 손을 사용해 고두밥과 누룩이 잘 섞이도록 비벼 준다.

화주댁으로 누룩 섞은 고두밥을 옮겨와 은산천 상탕에서 길어온 물과 혼합하여 항아리에 담는다. 한지로 항아리 입을 단단히 봉하고 풍물패의 장단에 맞추어 술이 잘 익도록 빌고는 사흘 동안 방 안에 술 항아리를 놓아 두는데, 그 사이 방에 불을 때어 숙성시킨다. 제사 날 개봉하여 용수를 박는다. 이것이 조라술이다. 화주는 항아리에서 조라술을 퍼 조라술병에 담아 별신당으로 운반한다.

산신제는 분향(焚香), 강신(降神), 참신(參神), 초헌(初獻), 산신축(山神祝), 아헌(亞獻), 장군축(將軍祝), 종헌(終獻), 동민들의 헌작, 소지(燒紙)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삼헌으로 조라술을 헌주(獻酒)한 유교식 제사가 자정 쯤에 끝나면 상에 차린 제물을 걷고 제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은 별신당 앞 뜰에서 산신이 드시고 남긴 조라술과 안주를 골고루 음복한다. 이 때 삼현육각과 풍물패의 가락이 울리며, 사람들은 산신이 내려주신 복(福)을 즐거워하면서 밤새 노래하며 춤을 춘다[飮酒歌舞]. 이처럼 산신께 올린 조라술은 철저한 음복(飮福)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신성성이 공음공식(共飮共食)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무 · 굿과 음식 3(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필자 김상보(金尙寶)

조상(祖上)

정의 굿의 조상거리에서 모시는 돌아가신 가족신. 무속에서 모시는 조상은 종법(宗法)에 따른 조상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굿거리에서 모시는 조상은 직계 · 방계 · 남녀의 구분이 없는 데다 미혼으로 죽은 사람, 사고 등 비정상적인 죽음을 당한 사람, 어린 나이에 죽은 이 등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조상과 사자(死者)가 포함된다. 이런 점에서 굿거리에서 조상은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가족을 의미하고, 조상거리는 살아 있는 가족과 죽은 가족이 서로 만나 화합하는 자리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자연사한 조상은 말명으로 모시지 않아도 되지만 억울한 죽

음, 어린 나이나 미혼 상태에서 죽는 등 비정상적인 죽음을 당해 가족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조상은 반드시 말명으로 모셔야 한다고 한다.

내용 굿에서 조상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조상거리의 가망청배는 조상을 청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말명의 개념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무가에서 "선대 할아버지 할머니 양위 말명"이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보면 말명은 넓은 의미의 조상이 된다. 조상거리 말미에 노는 대신(大神)은 무당의 몸주신으로서 무조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역시 조상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어서 조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대동굿의 조상거리에서도 조상을 모신다. 이때의 조상은 혈연관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막연한 윗대의 연장자로서 사자들이라는 뜻이다.

굿의 조상거리는 조상 개개인이 무당의 몸에 실려 조상과 자손 사이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거리이면서 이에 앞서 이뤄지는 가망청배와 가망, 본향과 말명을 노는 과정 전체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조상이 직접 등장하는 때는 말명을 놀고 나서이다. 즉 말명을 놀고 나면 가족들이 옷과 음식을 준비하여 고조, 증조, 조, 부모와 나머지 조상을 청하여 노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때 조상은 무당을 통해 자손을 만나 생시의 한을 토로하고 후손의 정성에 고마워 잘 돌봐주겠다고 한다.

서울 재수굿에서는 마당에서 불사거리와 도당거리를 행한 다음 대청으로 장소를 옮겨서 조상거리를 행한다. 무당이 술 3잔, 떡 3접시, 촛대 1쌍, 향이 놓인 상을 문간에 내놓은 다음 방울 · 부채 · 본향종이를 들고 동서남북을 향해 여러 조상을 청하는 가망청배를 한다. 그리고 본향종이만 들고 가망공수와 본향공수를 한 뒤 부채와 방울만 들고 말명을 놀다가 말명공수를 한다. 그러고 나서 윗대 조상부터 차례로 불러 대화를 하고(조상놀기), 본향노랫가락을 부르고, 산(算)을 주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조상은 살아 있는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신이다. 따라서 무속에서 조상은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무속에서 조상을 잘 모시지 않으면 후손에게 탈을 일으킨다는 관념이 있고, 흔히 "귀신은 잘 먹으면 잘 먹은 값을 하고 못 먹으면 못 먹은 값을 한다"는 말이 있듯이 사령(死靈)을 잘 모셔야 한다는 관념도 있다. 예를 들어 "당신네 대주가 누워 있는 것은 친정부리의 두 남녀 조상이 방해를 놓고 있어서 그래! 잘 풀어 넘겨야 좋지 그렇지 않으면 못 일어나!"라는 신애기의 대사에서처럼 조상은 잘 풀어먹이지 못하면 자손에게 해를 끼치는 신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무속에서 조상은 나이가 많은 조상은 물론 나이가 어린 사령 역시 조상으로 간주된다. 이처럼 무속에서 조상은 유교식 문화적 전통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교식과는 다른 독특한 형태로 인지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참고문헌 한국 무속 연구(김태곤, 집문당, 1983), 무속과 영의 세계(김태곤, 한울, 1996), 무속의 조상숭배(장주근, 한국문화인류학 18, 한국문화인류학회, 1986), 무당문화의 전통(양종승, 비교민속학 12, 한국비교민속학회, 1995), 한국무속의 신관에 관한 연구(이용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한국 무속에 있어서 조상의 위치(이용범, 샤머니즘 연구 4, 한국샤머니즘학회, 2002), 한국무속의 신의 유형(이용범, 종교문화비평 1, 청년사, 2002), 서울굿 가망청배거리에서 '가망'의 의미 연구(홍태한, 한국민속학 41, 한국민속학회, 2005).
필자 김시덕(金時德)

조상대

정의 앉은굿 법사가 조상 해원을 하고 망자를 천도할 때 질닦음으로 사용하는 무구. 조상신을 접신시키기 위한 대로서 지역과 법사에 따라서 조상넋대, 영대, 혼대, 망자대로도 불린다.

형태 조상대는 대체로 한지와 대나무로 만든다. 형태는 신장대와 비슷하지만 신장대보다 작게 만든다. 태안 지역에서는 흰 종이로 술을 만들어서 머리부분을 곱슬곱슬하게 구부리고, 종이가닥을 길게 잘라내어 치마로 삼는다.

내용 사람이 온전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면 역시 온전한 조상이 될 수 없다. 그러면 망자는 결국 객귀가 되어 남의 집에 가면 잡귀가 되고, 자기 후손의 집으로 오더라도 원한이 있는 조상이 된다. 원한이 있는 조상 탓으로 인하여 후손 중에 환자가 생길 경우 조상의 원한을 풀어주어야 후손의 병도 치료될 뿐만 아니라 조상의 원한도 풀리게 된다. 이 때 조상대를 제작하여 조상의 혼을 대에 접신시켜서 굿을 진행한다. 즉, 조상대에 조상신을 실어서 저승으로 온전하게 천도시키게 된다.


조상대
충남 태안군 | 2004.9 | 임승범

참고문헌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충청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충청지역의 종이무구(임승범, 한국무속학 13, 한국무속학회, 2006).
필자 임승범(林承範)


황해도굿의 조상굿을 위한 상차림
송씨 대주 운맞이굿,
인천 선학굿당 | 2006.8.5 |
김헌선

조상상(祖上床)

정의 서울굿에서 조상을 대접하기 위해 차린 상.

내용 조상상은 굿상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무속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조상신앙이고, 조상신앙에서 구대조상에서부터 신대조상까지 이어지는 모든 조상을 대접하기 위해 모시는 상차림이 바로 조상상이다.

대상, 대감상, 조상상은 서울굿의 일관된 구성 아래 인격신을 모시고 음식을 대접하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된다. 이 구성 요소 아래 인격신의 위계에 따라 위계가 가장 낮지만 중핵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조상상이다. 조상상은 특별한 장식이 없지만 이 장식이 없는 것이 조상상의 요점이다.

조상상 옆에는 공상을 놓는다. 공상에는 잣, 밤, 대추, 호두, 은행, 옥춘, 약과, 산자, 과자, 유밀과 등을 괸다. 공상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조상상과 공상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비록 조상과 친인척의 관계는 아니니만 조상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인물들을 위한 상이 곧 공상이다.

조상상에는 떡, 과일, 나물, 약과, 산자, 약식 등의 음식과 조상의 수에 맞추어서 술잔을 올린다. 여기에 향로와 촛불 등을 놓는 것이 기본적인 방식이다. 밤과 대추 등은 핵심적인 과로 올라간다. 떡은 편떡과 백설기 등이 놓이고, 편과 백설기는 매우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

과일에는 삼색실과를 놓는다. 계절에 따라 과일은 다르게 놓인다. 여름에는 수박 · 참외 · 햇사과 등, 가을에는 배 · 사과 · 감 등이 각각 놓인다. 나물에는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호박나물 등이 놓인다. 정갈한 음식을 위주로 마련되는 이런 상차림은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생일상처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외에 잡채 등이 곁들여지기도 한다.

공상의 상차림은 화려하지 않으며, 조상상과 비교해 크지도 않다. 이런 점에서 조상상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 상차림임을 짐작 할 수 있다. 조상상과 공상은 여러 각도에서 대조를 보이는 상차림이다. 공상과 조상상은 서로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가운데 공상이 화려하게 장식되지 않지만 조상상과 견주어서 놓는 상이란 점은 변함 없는 사실이다.

조상상의 상차림은 유가식의 상차림과 좋은 대조를 보인다. 전통적인 사례에 입각해서 보면 조상상은 갖가지 격식이 있지만 유가식 상차림과 일정하게 맞물리면서도 이와 구분되는 상차림을 하고 있다. 따라서 조상상과 유가식의 상차림은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을 지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두 상차림은 전통적인 상차림으로 제사상



황해도굿의 조상굿을 위한 상차림
송씨 대주 운맞이굿,
인천 선학굿당 | 2006.8.5 |
김헌선

과 다르다. 유교식 상차림은 오히려 상식상과 비교가 된다.

여기에서 한국인의 보편적 관념으로서 조상신앙의 요체를 알 수 있다. 유교식으로는 혈연적 직접성과 관계없이 조상과 잠정적인 관계를 맺어도 이를 조상의 반열에 올려서 상을 차리는 것이 기본적인 관념이다. 여기에서는 조상의 광범위한 관념이 조상상과 공상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서울굿의 조상상은 인격신의 위계에 의해 차려지는 소중한 상 가운데 하나이다. 세 가지 인격신의 총체를 구성하는 서울의 조상상은 소박한 조상옷을 입고 평범한 일상식의 상차림보다 강조된 이른바 생신상이나 잔칫상 정도의 의의를 부여하는 점에서 긴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의 무(조흥윤, 정음사, 1983).
필자 김헌선(金憲宣)

조상화(祖上花)

정의 무속의례에서 진설되는 황색의 함박꽃.

내용 식물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굿에서 모셔지는 친가, 외가, 시가(또는 처가) 삼조상을 모시기 위해 진설되는 일회용 지화이다. 무속의례에서의 지화는 중요한 신화(神花)로 다루어지는데 이러한 꽃들을 신명꽃이라고 부른다. 꽃을 통해 신령이 강림하고 꽃의 움직임을 통해 신령의 강림 존재를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굿에서 꽃 진설은 신령의 강림을 뜻하며 굿청의 꽃은 신령이 머무는 곳, 좋지 못한 해로운 액운이 소멸되는 곳으로 의미가 부여되기도 한다.

참고문헌 황해도 굿에 쓰이는 종이 신화와 신구의 종류, 형식, 상징성 고찰(양종승, 한국무속학 13, 한국무속학회, 2006).
필자 양종승(梁鍾承)

조선무격의 신가(朝鮮巫覡の神歌)

정의 일제강점기에 손진태(孫晉泰)가 평안북도 강계의 무격 전명수로부터 무가자료들을 수집하여 『청구학총』 등의 잡지에 발표한 무가자료집.

내용 손진태는 1933년 7월 평북 강계의 무격 전명수의 집에서 일주일간 머물면서 무가자료를 채록하여 1935년부터 『청구학총』을 시작으로 『신가정』, 『문장』 등의 잡지에 7회에 걸쳐 〈조선무격의 신가(朝鮮巫覡の神歌)〉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수록자료는 서로 중복되어 소개되는 양상도 찾아볼 수 있다. 1942년에 나온 박문서관의 근간 예정 광고란을 보면 이들 자료를 묶어 『조선무가선』이라는 저서를 간행할 예정이었으나 간행하지 못했다.

1935년부터 1937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청구학총』에 발표한 자료는 평북 강계 지역 굿의 기본이 되는 열두거리 청배무가를 중심으로 각거리 푸념 초두와 푸념 2편 등이다. 『신가정』 4권 4호에는 새로 소개하는 〈창세가〉가 수록되어 있으며, 『신가정』 4권 5호에 실린 「조선무격의 신가」2에는 『청구학총』 20호에 수록된 자료와 동일한 것을 재수록하고 있다. 다만 『청구학총』에서는 강계방언, 경기어, 일본어 역문을 서로 병기하고 있는데 반해 『신가정』에서는 강계방언 부분만을 수록하고, '푸념 초두'라고 소개한 자료를 '尊神門열이푸념'이라고 제목을 달리해 소개하고 있다. 1940년 7월 『문장』 2권 7호에 발표한 자료는 〈성인노리푸념〉과 〈일월노리푸념〉 등 두 편으로, 모두 서사무가이다. 이 중 〈일월노리푸념〉은 이미 1937년 『청구학총』 28호에 수록되었던 자료를 재수록한 것으로, 전에 수록된 것과 비교해서 일본어로 정리한 부분이 없고 부분적으로 철자법이 달리 나타난다는 차이점이 있다. 〈성인노리푸념〉은 이 잡지를 통해 처음 소개되는 자료로, 전국적으로 널리 전승되는 〈제석본풀이〉의 내용이다.

자료소재 양상

제보자	자료명	게재지	게재연월	수록무가	채록지
전명수	「조선무격의 신가(1)」	『청구학총』 20호	1935. 5	각거리푸념 초두1, 각거리푸념 초두2, 푸념 초두	평북 강계
	「조선무격의 신가(2)」	『청구학총』 22호	1935. 11	도청배푸념 - 마우님청배, 성조님청배, 성인님청배, 신선세텬님청배, 위구님청배	
	「조선무격의 신가(3)」	『청구학총』 23호	1936. 2	제석님청배, 넝정님청배, 선생님청배, 조상님청배, 대감님청배, 감성님청배, 허튼거리	
	「조선무격의 신가(4)」	『청구학총』 28호	1937. 5	권선굿푸념, 일월노리푸념,	
	「무격의 신가(一)」	『신가정』 4권4호	1936. 4	창세가	
	「무격의 신가(二)」	『신가정』 4권5호	1936. 5	각거리푸념초두1, 각거리푸념초두2, 尊神門열이푸념	
	「무격의 신가」	『문장』 2권 7호	1940. 7	성인노리푸념, 일월노리푸념	

참고문헌 조선무격의 신가(손진태, 손진태선생전집 5, 태학사, 1981), 손진태 무가자료의 현황과 성격(권태효, 한국무속학 14, 한국무속학회, 2007), 근대 여명기 우리 신화 연구(권태효, 민속원, 2008).
필자 권태효(權泰孝)

조선무속고(朝鮮巫俗考)

정의 이능화(李能和, 1869~1943)가 한국의 무속과 관련된 자료들을 모아서 쓴 글로 1927년 계명구락부(啓明俱樂部)의 기관지 『계명 啓明』 제19호에 발표하였다.

내용 이능화는 한학자이자 외국어교육자로서 1921년 조선총독부 편수관, 1922년에 조선사편찬위원회(1925년에 조선사편수회로 개칭)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의 불교·무속·기독교·유교뿐 아니라 여속(女俗)·기생(妓生) 등 사회민속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정리하였다. 특히 1927년에 그에 의하여 발간된 『조선무속고』는 한국 무속 연구사에서 큰 족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능화의 조선 무속에 대한 관심은 1915년 발표한 「조선인과 각 종교」라는 논문과 1918년 『조선불교통사』 하편의 무속에 관련된 논의에서 보듯이 오랜 관심의 산물이었으며, 이는 1933년 발간한 『조선종교사』에서도 그대로 지속되었다. 『조선무속고』는 조선총독부의 한국 무속 조사와 무속 연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불교신자였던 이능화가 무속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한국 신교(神敎)의 연원뿐 아니라 민족신앙과 사회변천을 구명하기 위해 불교신앙과 밀접한 역사적 관계가 있는 무속신앙을 주목하여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능화의 『조선무속고』는 총 124종에 달하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고문헌에 기술된 무속 관련 자료들의 수집 정리에 1차적인 초점이 두어졌고, 2차로는 직접 무당과 면접조사하기도 하고 무격의 무가를 채록하기도 하는 현장조사 방법으로 한국의 무속을 정리한 자료집의 성격이 강하다. 한국의 고문헌 가운데에서도 특히 이규경(李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진다. 이능화는 한국 무속을 이해하는 방편으로 중국·만주·일본의 무속에 대해서도 조사 정리하여 이를 서로 비교하였다.

『조선무속고』는 총 2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3개의 장을 제외하고는 장(章)마다 서문을 제시하였다. 『조선무속고』는 단지 무속에 관해 고문헌 조사와 면접조사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보충설명과 고증과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한국 무속에 대한 이해 방식을 제시한 연구서이기도 하다. 『조선무속고』의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조선무속지유래(朝鮮巫俗之由来)
제2장 고구려무속(高句麗巫俗)
제3장 백제무속(百濟巫俗)
제4장 신라무속(新羅巫俗)
제5장 고려무풍(高麗巫風)
제6장 이조무속(李朝巫俗)
제7장 궁중호무(宮中好巫)
제8장 무격지소속지관서(巫覡之所屬之官署)
제9장 무업세급신세포(巫業稅及神稅布)
제10장 무병지제(巫兵之制)
제11장 금요무급음사(禁妖巫及淫祀)
제12장 출무성외(黜巫城外)
제13장 무격술법(巫覡術法)
제14장 무고(巫蠱)
제15장 무축지사급의식(巫祝之辭及儀式)
제16장 무행신사명목(巫行神祀名目)
제17장 성황(城隍)
제18장 경성무풍급신사(京城巫風及神祠)
제19장 지방무풍급신사(地方巫風及神祠)
제20장 부(附) 지나무사대략(支那巫史大略)

이러한 목차 구성과 용어는 이후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 등 조선총독부의 조선무속 보고서 목차에도 영향을 일정하게 미쳤다.

이능화는 환웅이나 단군에서 생성된 종교로서 신교(神敎)의 풍류도와 무축(巫祝)의 흐름 속에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를 무속으로 보았다. 이러한 무속이 신라시대부터 유교 · 불교 · 도교가 한국 사회에 수용되면서 무속의 정치적 · 사회적 영향력은 크게 쇠퇴하게 되었지만 무속은 외래종교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존재해 왔다고 보았다. 일제가 만주사변 이후 국민총동원령을 발포하자 조선에서는 그 일환으로서 1930년대 중반에 심전개발(心田開發)정책을 모색했다. 이때 이능화는 조선과 일본이 신앙면에서 친척관계에 있다고 보고 조선인에게 일본의 신을 섬기도록 하는 것을 심전개발의 원칙으로 제안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이능화의 『조선무속고』에 대하여(서영대, 이능화연구, 집문당, 1994), 일제하 무속론과 식민지권력(최석영, 서경문화사, 1999), 조선무속고-역사로 본 한국 무속(이능화 지음, 서영대 역주, 창비, 2008).
필자 이해준(李海濬)

조선무속의 연구(朝鮮巫俗の研究)

정의 『조선무속의 연구(朝鮮巫俗の研究)』는 1937년에 발간된 아키바 다카시(秋葉隆)와 아카마쓰 지조(赤松智城)의 공저로 상 · 하권으로 되어 있다. 상권은 주로 경성을 비롯하여 중부지방과 제주도의 무가를 일본어로 번역하고 간단한 해제와 주석을 붙여 정리한 것이다. 하권은 전국 90여 지역에서 현지조사를 수행하고 관련 문헌을 조사하여 발표한 논문들과 새롭게 작성한 글을 모은 것이다.

내용 책의 저자인 아키바 다카시는 동경제국대학에서 사회학을, 아카마쓰 지조는 경도제국대학에서 종교학을 전공하였다. 아카마쓰보다 후배인 아키바는 대학 재학 중에 가족제도에 관심이 있었으며 대학 재학 중이던 1920년 7월부터 대학 졸업 후 1924년 10월까지 동양문고에 근무했다. 그가 조선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조선총독부 재외연구원 자격으로 유럽에 갔다 온 뒤 1926년 경성제국대학 조교수로 부임하면서이다. 유럽에 유학하는 동안에는 웨스터마크(E. A. Westermarck), 말리노프스키(B. K. Malinowski), 래드클리프 브라운(A. R. Radcliffe-Brown) 등으로부터 인류학적 영향을 받았다. 1945년까지 경성제국대학 교수로 재직하였다.

아카마쓰 지조는 경도제국대학을 졸업한 이후 진언종 연합 경도대학의 불교전문학 교수, 불교대학과 류코쿠(龍谷)대학 교수를 지냈고 1920년 10월부터 1923년 6월까지 유럽에 유학후 류코쿠대학의 종교학과 종교사 주임교수가 되었다. 아카마쓰가 조선에 온 것은 1927년 경도제국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해였다. 1941년 3월까지 경성제국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종교학과 종교사를 담당하였다.

이 책의 공편자들은 이 연구가 조선의 민간신앙과 사회상(社會相)을 밝히는 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조선무속을 조사 연구하는 데 일본 국내의 제국학사원(帝國學士院)과 핫토리보공회(服部報公會)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다. 1932년도 제국학사원으로부터는 아카마쓰 지조, 아키바 다카시의 연구 프로젝트 「조선 및 만주에서의 무속의 연구(朝鮮及び満州における巫俗の研究)」가 선정되었다. 1935년부터 1936년에는 핫토리보공회로부터 연구보고서의 편찬 및 출판비에 대한 원조금을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생산된 사진들은 공편자들이 직접 촬영한 것 외에 경성제국대학의 사진부가 찍은 것이다. 이 책이 발간되는 데 참여한 조선인은 유홍렬(柳洪烈), 장지태(張之兌), 손진태(孫晉泰), 권직주(權稷周), 일본인은 이즈미 세이이치(泉靖一), 쓰쿠다(筑田隆藏), 곤도 도키오(近藤時雄)였고 무가는 이왕직아악부의 이종태(李鍾泰)가 채보한 것이다.

이 책은 두 사람이 분담하여 집필하였는데 상권은 무가집으로 무조전설, 12제차(祭次), 고사축원(告祀祝願), 성조신가(成造神歌), 지두서(指頭書), 죽음 이야기, 제주도 신가(神歌), 잡편(내당도사, 창가6편, 맹인덕담경, 맹인타령, 중고사, 삼신축원, 조왕동토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하권 중에서 아키바가 집필한 부분은 무조전설(제1장), 무의 호칭과 종류(제2장), 입무 과정(제3장), 가제의 행사(제6장), 촌제의 행사(제7장), 무장과 무구(제8장), 무의 가족생활(제10장), 무의 사회생활(제11장)이다. 아카마쓰가 집필한 것은 무속의 신통과 성소(제4장), 천신새신의 행사(제5장), 무가와 무경(제9장), 무속과 도교 · 불교와의 관계(제12장)이다. 아키바가 전체 12장 가운데 8장을 집필하였고 이는 양적으로 본문 전체 321쪽 가운데 70%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집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람은 아키바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일제의 동화이데올로기의 창출(최석영, 서경문화사, 1997), 일제하 무속론과 식민지권력(최석영, 서경문화사, 1999), 학문과 제국 사이의 秋葉隆-경성제국대학 교수론(1)(전경수, 한국학보 120, 일지사, 2005), '조선민속학'과 식민주의(남근우,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8), 大東亞民俗學の虛實(川村湊, 講談社, 1996), 日帝植民地時代と朝鮮民俗學-中生勝美편-,(崔吉城, 植民地人類学の展望, 風響社, 2000), 赤松智城の學問世界に關する一考察-京城帝國大學時代を中心に(전경수, 韓国朝鮮の文化と社会 第4号, 韓国朝鮮文化研究会, 2005).
필자 최석영(崔錫榮)

조선신가유편(朝鮮神歌遺篇)

정의 손진태(孫晉泰)가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펴낸 한국 최초의 무가집으로 1930년 일본 동경의 향토연구사에서 간행하였다.

내용 손진태는 민속학자이자 국사학자로서 1932년 송석하 · 정인섭과 더불어 조선민속학회(朝鮮民俗學會)를 창설하고 1933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민속학회지인 『조선민속(朝鮮民俗)』을 창간하여 제3호까지 발간하였다. 민속학을 독자적인 과학으로 인식하고 이를 학문으로 정립하고자 노력했다. 현지에 나가 일차 자료들을 수집함으로써 민속학이 실증과학임을 인식시켰고 역사학은 물론 인류학 · 고고학 · 사회학 등 인접과학을 폭넓게 원용하여 민속학 연구방법을 한차원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조선신가유편』은 그가 1935~1936년에 잡지 『청구학총(靑丘學叢)』에 발표한 「조선무격의 신가」와 함께 중요한 무가 자료집이다. 수집된 자료는 상단에 한글과 한자로 무가를 기술하고, 하단에 일본어로 대역하였다. 각 자료의 끝에 일본어로 해설과 주석을 붙였다. 이 자료는 문헌신화의 논급에만 치중하던 시대에 미처 신화자료로 인식하지 못했던 무가를 현지조사를 통해 발굴해내고 수집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신화자료를 크게 확충하면서 지평을 넓혔다는 점에서 일제강점기 우리 구비문학에 가장 큰 수확이라 할 수 있다.

1920~1930년대라는 비교적 이른 시기의 무가 자료를 채록, 정리해 놓은 것이므로 초창기 우리 무가의 실상과 존재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남아 있는 자료 중에서 함흥과 강계 등 북한 지역의 무가 자료를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하고 정리한 유일한 사례이다. 남북분단으로 더 이상 북한 무가에 대해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조선신가유편』의 자료적 가치는 더욱 높이 평가된다.

손진태는 무가 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요 무가를 보유한 무당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자료를 얻고 있다. 〈창세가〉와 같이 중요한 신화적 성격을 지닌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사적인 무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제보자를 선정하여 자료를 정리하였다. 이 책의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一. 창세가(創世歌)
二. 회생곡(回生曲)
三. 황천혼시(黃泉曲)
四. 숙영랑 앵연랑 신가(淑英郎 · 鶯蓮郎神歌)
五. 도랑선배 청정각시 노래(Toraṅ郎 · Choṅ-Joṅ娘神歌)
六. 성조신가(成造神歌)
七. 계책가(戒責歌)
八. 무녀기도사(巫女祈禱詞)
一. 산신께 올리는 말(産神に捧ぐる詞)
二. 아기가 울 때 산신께 올리는 말(赤児の泣く時産神に捧ぐる詞)
三. 성조신께 올리는 말(成造神に捧ぐる詞)
四. 우물신께 올리는 말(井の神に捧ぐる詞)
五. 불신께 올리는 말(ブル神に捧ぐる詞)
六. 칠성님께 올리는 말(七星神に捧ぐる詞)
七. 아기가 병났을 때 성인께 올리는 말(児童の病気の時聖人に捧ぐる詞)

자료의 구체적인 채록 시기는 1922~1926년이며, 수록된 무가는 제보자별로 김쌍돌이 구연의 〈창세가〉, 〈회생곡〉, 〈숙연랑 앵연랑 신가〉, 〈아기가 병났을 때 성인께 올리는 말〉과 김근성 구연의 〈도랑선배 청정각시 노래〉, 경상남도 동래군 구포면에서 맹인조합장 최순도가 기록하여 제공한 〈성조풀이〉 및 동래에서 석성녀 무녀의 무가책에서 베낀 〈계책가〉와 함흥 · 홍원 · 중화 등지에서 채록한 〈무녀기도사〉 7편이다. 〈창세가〉는 우리나라의 창세신화로서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인간세계가 창조되는 과정과 인류의 기원 및 물과 불의 시원을 말해 주고 있다. 〈도랑선배 청정각시 노래〉는 청정각시가 지극한 정성과 희생으로 저승의 도랑선비의 죄업을 씻어내고 부부로 결합한다는 이야기이다. 〈성조신가〉는 가정의 신인 성조(成造)의 일대기로 유려한 문체와 정제된 율격, 다채로운 내용으로 우리나라 서사무가의 진수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 책은 북한의 일부 지역에서 조사한 무가를 수록하고 있어 한국 무가 전반을 보여 주지는 못하지만, 무가가 문자로 정착된 최초의 예이고 조사 지역과 제보자가 기록되어 있어 본격적인 자료집으로서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들의 경력이나 무(巫)로서의 특징이 조사되지 않았고, 굿이 전승되는 현장에서 무속신화를 채록한 것은 아니다. 제보자가 보유한 무가 자체를 중요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굿의 전체 짜임을 염두에 두고 무가의 성격이나 기능을 파악하여 수집하지 않았다.

참고문헌 남창 손진태의 역사민속학연구(한국역사민속학회, 민속원, 2003), 손진태 무가 자료의 현황과 성격(권태효, 한국무속학 14, 한국무속학회, 2007).
필자 염원희(廉元姬)

조선의 무격(朝鮮の巫覡)

정의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 1891~1968)이 조선총독부가 추진한 무속조사를 전담하면서 조사한 것을 정리하여 1932년에 발간한 책.

내용 무라야마 지준은 동경제국대학 문학부 철학과(사회학 전공)에 1916년 입학하여 1919년 7월 졸업한 후 조선총독부의 촉탁이 되었다. 1941년 조선총독부 촉탁직을 그만두고 일본으로 건너간 뒤 조선장학회의 주사로 활동하였고 1945년 그의 양부 무라야마 지젠(村山智全)이 세상을 뜨자 묘광사(妙光寺)의 주지가 되었다.

그의 저술로 『조선의 복장』과 『조선의 시장』이 있으나, 조선의 민간신앙에 관심이 특히 많아 『조선의 귀신』(1929년)을 시작으로 『조선의 풍수』(1931년), 『조선의 무격』(1932년), 『조선의 점복과 예언』(1933년) 등 민간신앙에 관한 이른바 4부작을 남겨 유명하다(모두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것으로 일본어로 되어 있다).

그는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하고 각 지방경찰에 의한 조사 결과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이능화의 『조선무속고』(1927년), 『용재총화』, 『필원잡기』 등을 참고하였고, 경성신문 등 신문자료를 섭렵하고 1930년 6월을 전후로 1927년 10월에는 강원도 · 경상도, 1930년 11월에는 남부지방을 현지 조사하였다. 그리고 경성제국대학 교수 아키바 다카시(秋葉隆)와 아카마쓰 지조(赤松智城), 조선총독부 촉탁 오청(吳晴) 등의 글을 참조하기도 하였다. 조선 전체 경찰서 가운데 12곳을 제외한 모든 경찰서에 의뢰하여 1930년 6월 전국적인 무격 조사를 한 것도 그에 의해서였다.

『조선의 무격』은 총 8장(619쪽)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으로 본문 외에 옥추경(玉樞經), 성조경(成造經), 안택경(安宅經), 제왕경(帝王經) 등 31개의 경문으로 구성된 기도경문집(祈禱經文集)과 무구(巫具), 본향당(本鄕堂), 대감놀이, 도당제(都堂祭), 국사당, 무고(巫鼓), 무령(巫鈴), 무선(巫扇), 신장간(神將竿), 명다리 등에 관한 총 211장의 흑백사진을 실은 조선의 무격 부도(附圖)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1장 무격의 분포
제1절 무격의 수 제2절 신분, 성, 연령, 제3절 분포상황
제2장 무격의 호칭
제1절 무칭(巫稱)의 종류 제2절 무칭의 분포 제3절 기록상의 무칭
제4절 무칭 무당에 대해
제3장 성무(成巫)의 동기와 과정
제1절 성무의 동기 제2절 영감(靈感)성무의 과정 제3절 세습성무의 과정
제4절 생업(生業)성무의 과정 제5절 기타 성무 과정 제6절 성무의 기관
제4장 무행신사(巫行神事)
제1절 신사의 종류 제2절 고래(古來)의 신사 제3절 현행(現行)의 신사
제5장 무도(巫禱) 의식
제1절 무의(巫儀)의 관념 제2절 무의의 차례 제3절 각지 현행의 무의
제6장 무격의 수요
제1절 무의 수요(需要)와 신뢰 제2절 현재의 신무(信巫) 상황
제3절 단골제
제7장 무격의 영향
제1절 무격의 효과 제2절 무격의 폐해 제3절 전선(全鮮)의 폐해
제8장 무구와 무경
제1절 무구 제2절 무경

무라야마 지준은 일반 대중들이 지지하는 사상이야말로 사회적인 원동력이라고 보고 조선의 민간신앙을 연구하였다. 그가 조선총독부 촉탁으로 활동하던 1920년대와 1930년대는 일제의 조선통치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시기였다. 즉 내지연장주의에 의하여 동화(同化)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하여 구관(舊慣)제도에 대한 조사사업도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즉 조선 사람들을 정신적, 사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동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다. 무라야마는 그것을 조선의 민간신앙에서 찾았다. 따라서 무라야마는 개화된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이 무속 등 민간신앙을 미신으로 보고 타파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타파 불가능론'과 무속대책 신중론을 제기하였다. 그와 같은 신중론은 무라야마 지준에 의하여 처음 주장된 것은 아니다. 1927년에 최남선, 이능화가 조선의 토대신앙으로서 무속을 주목한 이래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 초반에 무라야마 지준이, 1937년에 아카마쓰 지조가 신중론과 개선론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들은 일제의 신사(神社)정책 속에서 양자의 유사(類似) 또는 동원(同源)을 주장하여 양자의 결합을 모색한 결과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참고문헌 일제하 무속론과 식민지권력(최석영, 서경문화사, 1999), 조선의 무격(최석영 해제, 근대한국 민속 인류학 자료대계 3권, 민속원, 2008), 영상이 말하는 식민지 조선(최길성, 민속원, 2009), 村山智順師の謎(朝倉敏夫, 民博通信 79, 日本國立民族學博物館, 1997).
필자 이해준(李海濬)

조순자

분야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5호 구리갈매동도당굿기 · 예능보유자.

내용 조순자(趙順子, 여)는 1951년에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 사노리(현재 구리시 사노동)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굿을 보며 자랐다. 신기를 누르고 살았기 때문에 몸이 시름시름 아팠지만 신내림을 받고 싶지 않아 국악학원을 다녔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1995년에 어머니가 위독해지자 그 이유가 신줄을 받지 않은 자신의 책임이라 생각하고 정식으로 내림을 받아 무업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1998년에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5호 구리갈매동도당굿의 기 · 예능보유자로 악사 허용업과 함께 지정을 받았다. 구리갈매동도당굿에는 다행히 1928년과 1960년대에 도당굿 관련 마을에 관한 기록이 있고, 대대로 당주를 맡은 무계가 살아 있어 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었다. 조순자는 대대로 당주를 맡은 무계의 인물이다. 갈매동의 도촌마을(갈매1리), 속칭 섬말의 마을굿인 갈매동 도당굿의 당주는 조순자까지 4대 정도의 모계 계승이 확인된다. 성명 미상의 외증조모, 외조모 이천분, 어머니 김복동을 이어 조순자가 계보를 잇고 있다. 영력은 신으로부터 받는 것이지만, 굿의 기 · 예능은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계속 학습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사회가 근대화되면서 무당을 천시하는 풍습 탓에 별호가 복댕이 만신이었던 김복동의 두 딸 조순이와 조순자는 굿을 하지 않으려 했다.

참고문헌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도당굿 학술종합조사보고서(주강현 외, 구리시, 1996).
필자 김형근(金亨根)

중디밧산

정의 서울새남굿 가운데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절차.

내용 지장보살에게 망자의 혼백을 천도하는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굿거리다. 서울새남굿 가운데 부정거리, 가망청배 후 뜬대왕 또는 사재삼성이라는 굿거리의 전후에 연행된다.

무당이 앉아서 장구를 치면서 독창으로 무가를 구송한다. 이때 사용되는 장단은 가래조이다. 가래조는 크게 6개의 보통박, 각 보통박은 3 · 2 · 3 · 3 · 2 · 3소박으로 각각 이루어져 있다.

가래조 장단 기본형



노래 한 구절이 끝날 때마다 악사들의 간주가 곁들여지는 독특한 형식의 음악이다. 중디밧산이 끝나면 중디노랫가락이 이어진다. 과거에도 굿의 상황과 무당에 따라 생략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최근 세습악사들이 잇달아 타계하면서 간주에 능숙한 악사가 줄어들어 매우 드물게 연행된다.

참고문헌 서울 재수굿과 진오귀굿(국립국악원, 1996), 서울 새남굿의 심현육각 연구(김소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서울, 경기북부 지역 한양굿(서마리아, 민속악논문집 7, 국립민속국악원, 2007).
필자 박정경(朴正卿)

지리천문신장(地理天文神將)

정의 천상과 지상을 오가며 인간의 집터, 마을과 고을 터, 공공건물 터, 무덤 터 등을 잡아주는 신.

내용 지리천문신장이 터를 잡을 때는 산(山), 수(水), 방위(方位), 사람(人) 등 네 가지 풍수지리설에 따라 하늘과 하늘의 별자리 위치를 천문학(天文學)으로 풀이한다. 지리천문신장은 천상 상징의 구름과 지상 상징의 산 위를 배경으로 노닌다. 갓(경우에 따라서는 정자관을 쓰기도 함)을 쓰고 도포를 입은 지리천문신장은 오른손에 지광이, 왼손에 터를 잡을 때 방위를 찾게 해 주는 나침반을 들고 다닌다. 지리천문신장이 정해 주는 무덤 터에 묘를 쓰게 되면 후손 가운데 이름을 세상에 크게 떨칠 인물이 태어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자손을 점지할 부인마마가 천주떡(하느님의 떡) 세 개를 접시에 들고 지리천문신장을 따라다니며 인물이 될 아들의 잉태를 기원한다.



1.천문신장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가로 73㎝, 세로 100.5㎝ | 1950년대



2.지리천문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가로 70.5㎝, 세로 95.5㎝

지리천문신장은 황해도굿 철성거리에서 뒷부분에서 남성신으로 모셔진다. 그래서 지리천문신장이 들어오면 만신은 도포를 입고 뿔갓(정자관)를 쓰고서 춤을 춘다. 그러다가 나침반을 들고서 터를 잡는 시늉을 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한국 무속신 고찰–무신도를 중심으로(양종승, 몽골학 4, 한국몽골학회, 1996), 무신도에 나타난 무신의 상징성(양종승, 박물관지 2, 인하대학교 박물관, 1997).
필자 양종승(梁鍾承)

지앙밥

정의 지앙을 모시기 위해 차려놓는 상.

내용 전라도 지역에서 지앙은 산신(産神)으로 믿어진다. 지앙은 가정신앙에 속하는 신격으로 알려져 있으며, 무속의례를 할 때 지앙을 위해 메와 숭늉을 올리는 예도 있다. 따로 상을 장만하지는 않고 성주상 주변이나 아래쪽에 한지나 짚을 깔고 올린다.

지앙은 지역에 따라 가정신앙의 일환으로 지앙동이 또는 지앙오가리라고 부르는 그릇을 장만해 조상신으로 모시는 예가 있다. 안방 윗목에 선반을 만들어서 지앙을 모신다. 그릇 안에는 쌀을 넣고 그 위에 여자들이 좋아하는 색실이나 오색헝겊을 놓은 다음 한지로 덮고 뚜껑을 덮는다. 또 이렇듯 구체적인 신체는 모시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아이를 낳을 때 산모가 있는 방 윗목에 순산과 산모 및 아이의 건강을 위해 차리는 상을 지앙상이라고 부른다. 지앙상 위에는 정화수와 미역을 놓고 또 옆에는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먹을 만큼의 쌀을 옹기그릇에 담아두기도 한다. 신생아가 아프거나 산모가 좋지 못하면 무당을 불러서 지앙상 앞에서 지앙굿을 하는 예도 있었다.

참고문헌 호남의 몸주천도굿(나경수 외, 민속원, 2006).
필자 나경수(羅景洙)

지장본풀이

정의 제주도 일반신본풀이 가운데 제주큰굿의 시왕맞이와 양궁숙임 제차, 작은굿의 하나인 거무영청대전상에서 구송되는 서사무가. 사령(死靈)위무굿인 시왕맞이에서 〈지장본풀이〉는 〈차사본풀이〉와 〈사만이본풀이〉가 구송된 후에 불린다. 거무영청대전상은 백정(白丁)의 도살업(屠殺業)의 풍요를 기원하는 굿으로, 여기서 지장은 백정들의 수호조상신으로 여겨지고 있다. 다른 본풀이처럼 심방이 혼자 구송하는 것이 아니라 심방이 선창하면 악무(樂巫)가 북과 장구를 치며 구마다 복창하는 방식으로 구송한다. 주요 서사는 지장아기씨의 출생, 성장 과정에서의 시련, 결혼 생활의 실패, 공업담과 환생담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내용 〈지장본풀이〉를 채록한 자료는 많지만 이본(異本) 간의 차이는 대동소이하다. 그 중 서사 단락의 누락 없이 가장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안사인 구연본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남산과 여산 부부는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 고민하던 중에 영험하고 수덕(修德)이 좋다는 절을 알게 되어 그곳에서 기자치성(祈子致誠)을 드린 뒤 지장아기씨를 낳게 된다. 지장아기씨는 한 살 나는 해에 어머니 무릎에서 노닐고, 두 살 나는 해에는 아버지 무릎에서 노닐다가, 세 살 나는 해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무릎 위에서 노닐게 된다. 그러나 네 살 나는 해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다섯 살 나는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니 급기야 여섯 살 나는 해에는 어머니까지 돌아가시어 천애고아가 된다.(어떤 이본에는 지장아기씨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무릎에서도 노니는 장면이 나오며, 마찬가지로 외조부모도 모두 돌아가시는 것으로 나온다)

지장아기씨는 할 수 없이 외삼촌 댁으로 수양을 가게 되지만 개밥그릇에 밥을 먹어야 하는 구박을 받고 살게 된다. 하지만 옥황의 부엉새가 밥과 옷을 주면서 키워 내고, 지장아기씨의 착한 성품이 널리 알려져 결국 십오 세때에는 서수왕 문수의 댁에서 혼인을 맺자고 연락이 온다. 지장아기씨는 시집에서 사랑을 받아 전답과 마소 재산을 모두 물려받고 아들까지 낳는다. 그러나 열여섯 나는 해에 시할아버지와 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열일곱 나는 해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열여덟 나는 해에는 시어머니까지 돌아가신다. 설상가상으로 열아홉 나는 해에 남편과 아들까지 죽는다.

자신의 팔자를 탓하며 지장아기씨는 시누이의 집으로 가지만 시누이는 죽일 말 잡을 말을 해가며 지장아기씨를 몰아친다. 지장아기씨는 하는 수 없이 살림살이를 두고서 자신이 한두 살에 입었던 옷을 들고 주천강 연못에 빨래를 하러 나갔다가 길 가던 중을 만나 자신의 사주팔자를 봐 달라고 한다. 중은 지장아기씨에게 사주의 초분은 좋으나 말분은 나쁘다면서(이것은 이본마다 다르다. 초분이 나쁘고 말분이 좋다고 하는 것도 있고, 초분이 좋으나 중분은 나쁘고 말분이 좋다는 것도 있다) 돌아가신 친부모와 시부모, 남편, 아들을 위해 전새남굿과 후새남굿을 하라고 한다.

지장아기씨는 그 길로 뽕나무를 심고 잎을 거두어 누에 밥을 주어가며 명주실을 잣는다. 그 명주실로 신이 내려올 때 놓을 명주다리를 만들고, 악기의 끈을 만들고, 시주 받을 쌀을 담을 부대자루도 만든다. 지장아기씨는 송낙과 장삼을 걸치고 다니면서 쌀을 시주 받고, 그 쌀로 굿에 쓸 떡까지 만든다. 갖출 것을 모두 갖추어 죽은 가족들을 위해 굿을 올린 지장아기씨는 죽어서 새[鳥]의 몸으로 환생한다. 머리로 나는 건 두통새, 눈으로는 흘그새(흘깃흘깃하는 새), 코로는 악심(惡心)새, 입으로는 혀말림새(부부살림을 갈라놓는 새), 가슴에는 이열새(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새)가 난다. 여기까지가 지장아기씨의 일생담이다.

그리고 이를 모두 구송한 심방은 "이 새가 들어서 풍문[風雲]에 조화(造化)를 불러나 주더고, 요 새를 ᄃᆞ리자(좇자) 주워라 훨쭉"이라는 말과 함께 새를 좇는다. 그리고 들어오는 액(厄)을 막아 달라는 기원으로 〈지장본풀이〉 구송을 마무리한다.

특징 〈지장본풀이〉는 실제 굿에서 가창 방식이 남다르다. 일반적으로 본풀이는 심방이 혼자 구송하지만 〈지장본풀이〉는 심방이 서서 선창하면 악사가 북과 장구를 치며 구절을 되받아 부르는 형식이다. 이것은 〈지장본풀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3음절 2음보의 특징적인 운율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지장본풀이〉는 제주도의 다른 일반신본풀이와 달리 결말에서 주인공의 신직(神職) 좌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무속신화 주인공들은 시련 끝에 결국 일정한 권역을 관할할 수 있는 신이 되지만 지장아기씨는 비극적이게도 사람들이 거부하고 좇아내고자 하는 새[邪], 즉 새[鳥]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새[邪]는 원래 굿에서 신이 제청에 들어올 때 함께 따라오는 사기(邪氣)와 부정(不淨)한 것을 가리키지만 발음상으로 동일하게 '새'라고 부른 것이 결국 관념적으로도 '새[鳥]'와 동일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지장아기씨가 가족의 몰살로 시련을 당하고 죽은 이들을 위해 전새남굿과 후새남굿을 준비하고 벌이는 공업까지 쌓았지만 신직에 오르지 못한 이유는 불분명하다. 분명한 건 지장아기씨를 사랑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모두 죽음을 당했다는 것과 태생부터 그녀는 사람들에게 해악(害惡)을 끼치는, 즉 살(煞)을 지닌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장아기씨는 삶보다는 죽음에 더 가까운 존재이며, 가까이 해서는 안 될 반드시 좇아낼 수밖에 없는 새[邪/鳥]로 형상화된다.

의의 악귀(惡鬼)의 성향을 지닌 새로 환생한 지장의 내력과 그 새를 좇아내는 언사로 마무리되는 〈지장본풀이〉는 일종의 액막이 기능을 하는 무속신화다. 의아하게도 시왕맞이의 막바지에 구송되는 〈지장본풀이〉는 뒤이어 행해지는 삼천군병질침 제차의 예고로 볼 수 있다. '부정'과 '죽음'에 인접한 지장의 본을 풀었기에 사방에서 전란 때 죽은 군병(軍兵)들이 몰려와 먹을 것을 달라고 하고, 이들에게 음식을 주어 달래어 보내는 제차가 삼천군병질침이다. 이것은 제의 공간의 완전한 정화를 위해 먼저 죽음과 관련된 부정한 것들을 모두 불러낸 후 이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좇아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즉 망자의 무사한 저승천도와 제주(祭主)집의 액막이를 위해서는 선한 신령[善神]뿐 아니라 악한 신령에게도 정당한 대접을 해줘야 한다는 다신(多神)신앙적인 면모를 잘 보여주는 신화이다.

또한 〈지장본풀이〉에 나타난 여주인공의 시련담은 본토에서 전승되고 있는 시집살이 유형의 민요와 일정 부분 공통적인 서사 구조를 갖추고 있다. 친정 식구들을 일찍 여의고 시집와서는 남편이 일찍 죽어 온갖 구박과 시련을 받다가 결국 속세를 떠나 중이 되는 결말은 시집살이 민요의 일반적인 내용이다. 영향의 전후관계를 차치하고라도 여인들의 고된 시집살이 내지 과부의 삶을 모티프로 한 구술서사물이 다양하게 전승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참고문헌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이수자, 집문당, 2004),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현용준, 집문당, 2005), 제주도무속자료사전(개정판)(현용준, 각, 2007).

필자 전주희(全珠熙)

지전(紙錢)

정의 종이를 돈 모양으로 재단한 것으로, 현물화폐가 아닌 저승에서 망자가 사용할 저승화폐를 상징화한 무구. 지전은 한지나 창호지를 가늘게 접어 엽전의 원형이 길게 이어지도록 오린 것을 여러 가닥 모아 만든 조형물이다. 불교에서는 음전(陰錢)·우전(寓錢)이라고도 한다. 지전은 황해도·서울경기·동해안에서는 금전·은전으로, 호남 지역에서는 넋전·돈전, 제주도에서는 그 형태에 따라 지전·발지전·통지전이라고 부른다.

형태 지전은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그 기능이 다양한 만큼 주요 재료가 되는 종이의 종류도, 한지·창호지·전지 등이 사용된다. 재료의 종류에 따라 구분한다면 굿청에 장식되는 것은 주로 한지를, 지물(持物)은 주로 창호지와 전지로 만들어진다. 지전은 주로 한 쌍으로 구성된다. 무당과 악사가 공동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황해도·서울·경기 지역에서는 이것의 제작기법을 익히지 못한 경우에는 전문장인에게 의뢰한다. 호남·동해안·제주 지역에서는 여전히 의례 주재자와 악사가 제작하며, 특히 제주도에서는 신도들이 만들어오기도 한다.

지전은 그 형태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커다란 돈궤의 모양으로, 이것은 가까이서 보면 종이가닥을 모아서 만든 모습이며, 그 하단은 구멍을 일정한 간격으로 뚫은 형태이다. 멀리서 봤을 때는 마치 민속놀이에 사용되는 '재기'를 크게 확대해 매달아 놓은 듯한 모습으로, 황해도·서울·경기·동해안 지역에서 제작되는 금전·은전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금전은 노란색으로 은전은 흰색의 종이로 만들어진다. 둘째는 긴 종이가닥을 여러 겹으로 모아서 한데 묶은 형태로서, 엽전을 형상화하기 위해 종이가닥에 구멍을 오려, 마치 엽전다발을 길게 늘어뜨린 모양이다. 이 형태 중에는 엽전을 상징한 구멍을 뚫지 않아, 마치 미역줄기 모양을 연상시키는 것도 있다. 완성된 지전 위에는 고깔모양이나 그물문양의 덮개를 씌운다. 호남의 지전과 돈전,

제주도의 발지전이 이 형태에 해당된다. 그 크기는 작은 것은 50~60㎝ 내외, 큰 것은 120㎝ 내외까지 다양하다. 셋째는 직사각형의 종이에 간격을 일정하게 두고 구멍을 오리는 형태로, 제주도의 통지전이 이에 해당된다. 직사각형의 백지를 여러 겹 접은 후 가위로 구멍을 만들고 나서 펼치면 둥그런 모양이 줄지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돈을 상징한다.

내용 지전의 기원은 고대 중국에서 찾을 수 있다. 『법원주림(法苑珠林)』에는 "지전은 은(殷) 장사(長史)에서 일어났는데, 홍경선(洪慶善)의 두시변증(杜詩辨證)에 이르기를 제(齊)의 동혼후(東昏侯)가 귀신의 술(術)을 좋아하여 종이를 가위질해서 돈을 만들어 속백(束帛:비단 다섯 필을 각각 양 끝에서 마주 말아서 한 묶음으로 한 예단)을 대신했으며, 당(唐)에 와서 이 일이 성행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당서(唐書)』「왕여전(王輿傳)」에는 "한나라 이래로 망자를 장사지낼 때 관(棺)에 돈을 넣는 습관이 있었는데 후세에 육도전(六道錢, 六文錢이라고도 하며, 저승에 갈 적에 또는 육도(六道)를 윤회할 적에 쓸 노잣돈)을 넣은 것에 대해 국가에서 통화의 매몰(埋沒)을 금지하였으므로 지전을 사용하게 됐다. 왕여에 이르러 양볼(禳祓, 푸닥거리)하는데 사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돈다라니를 흔히 사용하며, 비단으로 만든 두타대(頭陀袋, 머리에 매는 자루)를 죽은 이의 목에 걸고 육도전을 그 가운데 넣거나, 혹은 두타대에 돈 모양을 그렸다고 한다. 불교에서는 사자(死者)의 죄업을 가볍게 하기 위해 명토(冥土)의 금고(金庫)에 납입할 몫으로, 죽은 자가 가지고 가게 하는 지전을 기고전(奇庫錢)이라 한다.

지전은 기능에 따라 장엄구(莊嚴具), 지물(持物), 그리고 예단[幣帛]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장엄구는 대개 굿청에 장식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로는 금전 · 은전 · 돈전이 있다. 장엄구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의례공간을 엄숙하게 한다고 믿어진다. 금전 · 은전은 황해도 · 서울 · 경기 · 동해안에서, 돈전은 호남 지역에서 나타난다. 서울 · 경기 · 황해도 · 동해안에서는 거대한 지전을 굿청의 정면 혹은 좌우 천장에 양쪽에 하나씩 매달아 놓는다. 그 크기는 서울 · 경기 · 황해도는 굿청 천장에서 벽면의 중간까지 올 정도의 크기로 제작하며, 동해안은 굿청 천장에서 벽면 바닥에까지 닿도록 만든다. 이러한 형태의 지전은 불교의 천도재 의식에도 나타난다. 불교의 선종(禪宗)에서는 지전을 많이 이용하여 기도 또는 우란분회(盂蘭盆會) 때 『반야심경(般若心經)』과 말을 그린 경마(經馬)와 함께 지전을 법당에 걸고, 법요가 끝난 뒤에 귀신을 위해 이를 동발(銅鉢)안에 담아서 태운다. 이와 달리 전남 동부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돈전은 그 크기가 작고 그 형태는 호남의 당골이 지물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며, 지전가닥에 뚫어진 구멍이 망자의 저승돈을 상징한다고 믿어진다.



지전
국립민속박물관 사진자료 소장

지물은 의례 주재자가 손에 들고 사용하는 것으로서, 호남 지역에서 주로 나타난다. 지전은 천도제인 씻김굿 의례에서 가장 자주 들려지는 지물의 하나로서, 강신무의 방울만큼 빈번하게 사용된다. 당골은 몇 거리를 제외하고는, 이것을 손에 들고 춤을 추거나 무가를 구송한다. 지전에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꽂아 신칼의 기능을 대신하기도 한다. 지전은 혼맞이에서 망자의 혼을 실어 오는 청신구로도 사용되고, 넋올리기에서 망자의 넋을 끌어올려 의례에 대한 만족도를 점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저승길로 상징되는 길베 위에 얹어 놓고, 저승 노잣돈으로 가져가게 한다.

예단은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제주도의 발지전과 통지전에서 주로 나타난다. 발지전은 끝 부분이 발 모양이 되게 오려낸 지전을 여러 겹으로 모아서 한데 묶은 것으로, 호남 지역에서 당골이 지물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통지전은 직사각형의 종이에 동그란 구멍의 나열이 엽전으로 상징된다. 발지전은 신에게 인정(돈)을 거는 의미로서, 많이 걸수록 좋다고 믿어진다. 본향당의 제일에 맞춰 당에 갈 때에 신앙자가 직접 만든 지전을 가지고 당나무 등에 걸어두고 온다. 하지만 집에서 굿할 때에는 보통은 심방이 이를 오리며, 시왕맞이나 요왕맞이 등에서 질(길)을 칠 때, 신앙자들에게 주면서 '인정'으로 걸게 한다. 즉, 신과 망자에게 지전을 예단으로 바치는 기능을 지닌다.

이처럼 지전은 유통수단 또는 구매수단으로써 죽은 자[死者]에게 사후세계에 대한 안정과 신의 보호를 비는 제의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전은 일상의 가치보다 더 신성한 의미를 가진 무구로서, 사령제(死靈祭)와 관련성이 가장 깊다. 지전은 상장례를 포함한 종교적인 의례에서만 사용되어, 저승길에 망자가 가져갈 여비인 노잣돈[路資錢]으로 상징된다. 이러한 노잣돈에 대한 관념은 일연의 『삼국유사(三國遺事)』 권 5 「감통(感通」7 월명사 도솔가조(月明師 兜率歌條) 찬시(讚詩)와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한식조(寒食條)에도 나타난다. 일연은 월명사의 제망매가 배경설화 중에서 "嘗爲亡妹營齊作鄕歌祭之 忽有驚颸吹紙錢擧行西而沒"의 내용에 대해 "바람이 지전을 날려 죽은 누이의 저승길 노잣돈을 하게 했다"라고 해석하였다. 『동국세시기』 한식조에는 "오대(五代) 후주(後周)에서는 한식에 야제(野祭)에서 지전을 살랐다(五代後周 寒食野祭而焚紙錢)."는 기록이 있다. 『동국세시기』에 기록되어 있는 지전과 제망매가 배경설화의 지전은 모두 의례구(儀禮具)로서, 지전이 서쪽으로 날아갔다는 것은 곧 당대인들이 가졌던 서방정토에의 왕생사상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지전은 저승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상징적인 화폐로서, 호남의 씻김굿에서 당골은 지전을 들고 춤을 춤으로써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해 준다. 또한 망자를 저승으로 태워 갈 넋당석 안에 지전을 작게 오려 매달아, 망자가 저승에서 사용할 것이라 믿는다. 길닦음에서는 질베 위에 지전을 올려놓기도 하지만, 실제 의례에서는 실물화폐를 유가족이 올려 놓고, 이를 망자가 저승길에 가져가기를 바란다. 제주도에서는 신앙자가 직접 질(길) 위에다가 지전을 여러 겹으로 덮어, 망자가 고이 저승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기원한다. 또한 여비(旅費)로서의 의미를 지닌 지전은 저승길에 단계별로 쓰이는 것으로 믿어진다. 불교에서는 죽은 사람이 저승세계를 가는 길에 이승과 저승의 경계인 강을 건너기 위해 배를 탈 때 지불하는 배삯으로, 저승문에 들어서기 전에 지불하는 비용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망자의 죄업을 가볍게 하기 위해 저승 금고에 바치는 돈으로 사용된다고 믿어진다. 상장례 의례에서도 노잣돈에 대한 인식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귀신을 섬기는 영물(靈物)로 인식되는 지전은, 망자를 위해 상여에 매달기도 하였다. 과거 제주도에서는 상여 주위로 발지전을 달아맸고, 그 상여가 나가면서 지전을 뜯어서 뿌리는 전통이 있었다. 현재의 장례절차에서 엽전을 망자의 입 혹은 손에 쥐어 주거나 사자상에 놓는 풍습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지전은 신에게 거는 예단의 의미로도 인식되어, 많이 걸수록 좋다고 믿어진다. 죽은 자에게도 지전은 저승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준비해 가야 하는 예단[幣帛]으로도 상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지전은 이승과 또 다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저승세계에서도 현세와 다를 바 없이 여러 용도로 쓰일 구매수단이 필요할 거라는 현세인의 내세관이 반영된 상징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참고문헌 唐書, 東國歲時記, 法苑珠林, 三國遺事, 진도씻김굿(정병호, 전통무용문화연구회, 1979), 진도무속현지조사-채씨자매를 중심으로(국립민속박물관 · 전라남도, 1988), 무 · 굿과 음식1(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경상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전라남도 · 전라북도 · 제주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월명사의 신분과 향가작품의 관계(나경수, 향가문학론과 작품연구, 집문당, 1995), 월명사도솔가의 불교설화적 관점(홍기삼, 불교민속학의 세계, 집문당, 1996), 진도 씻김굿

의 물질문화 연구(최진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99), 제주도 굿의 무구(巫具) '기메'에 대한 고찰(강소전, 한국무속학 13, 한국무속학회, 2007), 무속의 물질문화 연구(최진아,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9).
필자 최진아(崔眞娥)

지전춤

정의 동해안 지방 오구굿 및 진도 지방의 씻김굿에서 망자를 위한 천도 의례로 추는 춤.

내용 지전춤은 백지 엽전이 여러 개 이어진 모양처럼 길게 찢어 뭉친 지전을 당골이 양손 또는 한손에 들고 신을 부르거나 보내기 위해 추거나 망자의 넋을 불러 부정을 가시게 하고 원한을 풀어 극락으로 천도하기 위해 추는 춤이다. 진도씻김굿의 지전춤을 추는 당골은 흰 한복을 입는다. 제석굿에서는 두루마기를 입고, 종이고깔을 쓰고, 홍띠를 두른다. 이 춤은 처음에 느리게 추다가 후반부에서 빠른 동작으로 격렬하게 추어 절제되면서도 역동적인 힘을 보여준다. 진도씻김굿에서는 돈이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고 믿어 돈을 상징하여 지전춤을 돈전춤이라고도 한다.

동해안 지방의 춤이 활발하고 격렬하다면 진도지방의 춤은 동작이 우아하면서 응축된 힘을 발산한다. 제자리에서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굴신으로 무겁고 정숙하지만 깊은 한을 딛고 추는 춤이 매우 의식적이고 상징적이다. 진도씻김굿의 지전춤사위는 바람막이, 외바람막이, 태극무늬, 가위질, 좌우치기, 회오리바람, 꽃봉오리, 다듬이질, 쳐올리기 등이 있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액을 막아주는 춤의 정신을 보여준다. 또한 길닦음에서도 길게 늘어뜨린 길닦음천을 왔다갔다 하면서 넋당석을 든 무녀와 함께 지전춤을 추면서 무가를 부르며 망자를 극락왕생하도록 빌어 고이 떠나보낸다.


1


2


3

1. 태극무늬춤사위(송순단)

2. 가위질춤사위(강은영)

3. 외바람막이춤사위(강은영)
세계굿페스티벌 진도대교앞광장 | 2008.10.13 | 김영란

참고문헌 진도씻김굿(황루시, 화산문화, 2001), 한국민속대사전 2(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진도씻김굿의 상징적 특성에 관한 연구–지전춤을 중심으로(서희경,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필자 김영란(金暎蘭)

지하장군(地下將軍)

정의 말을 타고 지하를 수호하는 장군신. 장군신 계통의 무신이다. 지하용마장군, 용마장군, 용장군, 지하제일장군 등으로도 불린다.

내용 각 이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용마 혹은 용을 타고 다닌다고도 하며, 지하제일장군의 명칭에서와 같이 지하세계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하장군은 우리나라의 전통적 무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용신, 용궁칠성신 등과 함께 외래 계통의 신격이기도 하다. 묩시 흉악한 방위(方位)를 뜻하는 상문(喪門)이나 동법을 풀어주는 능력을 지녔다고 한다.

참고문헌 한국의 무(조흥윤, 정음사, 1985), 무속신앙(박정례, 목원사, 1994), 한국의 무속(김태곤, 민속원, 2001), 한국 무신의 계통(김태곤, 문화인류학 3, 한국문화인류학회, 1970), 한국 무속신 고찰(양종승, 몽골학 4, 한국몽골학회, 1996).
필자 오세길(吳世吉)

진가장무가

정의 함경도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저승으로 천도시켜 주기 위해 하는 망묵굿 가운데 진가장굿에서 부르는 무가. 진가장이 이정승의 아들 삼형제를 살해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은 죄 때문에 죽은 삼형제로부터 보복당하는 이야기이다. 짐가제굿이라고도 한다.

내용 진가장이란 사람이 노름을 좋아해 재산을 다 날렸다. 마침 이정승의 아들 삼형제가 글공부를 하고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었다. 진가장 부인이 어디 가는 나그네냐고 묻자 삼형제는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가는 나그네인데 날이 저물었으니 하룻밤만 쉬어가기를 청하였다. 진가장 부인이 승낙하여 삼형제가 진가장의 집에서 자고 있는데 진가장이 돌아와 어떤 애들이냐고 물었다. 부인이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가는 나그네라고 하자 진가장은 저 아이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자고 하였다. 부인의 만류에도 진가장은 칼로 삼형제를 찔러 죽인 뒤 움구덩이에다 삼형제의 시체를 묻었다. 삼형제의 죽은 혼은 원수를 갚으려고 서로 궁리하였다. 결국 삼형제의 혼은 각기 금붕어, 황붕어, 청붕어가 되어 연못에 있다가 진가장 부인이 물을 길으러 와서 연못에 두레박을 내리면 거기에 들어가 원수를 갚자고 하였다.

한편 진가장은 계속 밤낮으로 노름질하러 다녔다. 어느 날 진가장 부인은 새벽에 조반을 짓기 위해 물을 길으러 갔다. 진가장 부인이 두레박으로 물을 뜨니 커다란 붕어 세 마리가 들어와서 여자는 물은 긷지 않고 붕어만 떠가지고 급히 집으로 갔다. 그리고 진가장 부부는 그 붕어를 끓여 맛있게 먹었다. 그날부터 진가장 부인에게 태기가 있더니 열 달 만에 아들 삼형제를 낳게 되었다. 장성한 삼형제는 공부를 모두 잘해 과거에 급제하였다.

진사와 암행어사가 된 삼형제가 집으로 돌아와 조상을 모신 사당에 술잔을 올리고 허배(虛拜)를 하더니 일어나지를 않았다. 진가장 부부가 삼형제를 일으켰으나 모두 입에 피를 가득 물고 죽어 있었다. 진가장은 아들들을 잡아간 귀신을 잡아오라며 벽력같이 소리를 질렀다. 이 소리에 놀라 손님들은 다 가고 못나고 못난 사람이 하나 있다가 그 소리에 그만 넋이 나가서 자기가 잡아오겠다고 얼떨결에 대답하였다. 진가장이 어서 가서 잡아오라고 하자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 깊은 근심에 빠졌다. 부인이 무슨 근심을 하느냐고 물었다. 이 사람이 근심하는 이유를 설명하니 그의 부인이 가만히 있지 왜 그렇게 대답했느냐고 책망하면서 매떡을 일곱 짝 만들어 주었다. 그러고는 남편에게 인가가 없어 사람이 다니지 않는 다리에 가서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밤낮으로 매떡을 하루에 한 짝만 먹고 기다리면 알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남자는 기척이 없는 다리에 들어가 부인의 말대로 하면서 이레를 기다렸다. 그런데 이레째 밤이 되니 다리 위에서 이랴 이랴 하며 말 모는 소리와 함께 다리 아래에 있는 인간은 누구냐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사람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하였다. 그러자 귀신이 함께 가자고 하여 그 바보 같은 사나이는 귀신을 데리고 진가장네 집 대문으로 들어갔다. 그 바보 같은 사람이 아들들을 잡아간 귀신을 데려왔다고 고하자 진가장이 나서며 요망한 귀신아, 내 아들 잡아간 귀신은 나서라며 벽력 같은 소리를 내질렀다. 이에 귀신이 진가장에게 성명을 물은 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사죄를 하라고 요구하였다. 진가장은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항변하면서 이 세상에 나와 남에게 악한 일을 한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였다. 귀신이 진가장에게 아직도 스스로의 죄를 모른다고 질책하며 집 뒤로 돌아가 그 움구덩이를 열어 보라고 말하였다. 진가장이 움구덩이를 열어보니 삼형제의 시체가 썩지도 않은 채 그대로 있었다. 귀신은 진가장의 혼

을 빼내 목숨을 끊고 아이들의 시체를 들어내 놓고 원수를 갚아 주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삼형제는 파란 나비, 노란 나비가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죄는 어디를 가나 그대로 남아서 부모의 죄가 자손에게까지 삼사 대를 이어내리는 법이 생겼다. 그리고 귀신을 잡아온 못나고 못난 인간은 허수아비처럼 다리 옆이나 길 옆에 서 있는 장승이 되었다.

지역사례 다른 이본(異本)에서는 죽은 삼형제가 김정승, 이정승, 박정승 등의 아들로 되어 있다. 또한 구경차 장사를 하며 강림골에 내려왔다가 짐가제 여편내의 꾐에 빠져 죽는 것으로 되어 있다. 죽어서 묻힌 곳도 외양간 말판 밑이며, 붕어가 되는 것도 지부왕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뿐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인물도 관아에 소속된 손사령으로 되어 있고, 손사령이 아내의 지시에 따라 잡아온 이가 열시왕[十王] 사자로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사건이 해결된 후 손사령은 열시왕의 사령이 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제주도 〈차사본풀이〉의 과양생이 각시 이야기와 상당히 비슷하기에 〈진가장무가〉를 '강림도령형' 무가라고 하여 〈차사본풀이〉와 같은 유형으로 보는 근거가 된다. 한편 이 무가와 같은 설화로 충북 보은군에서 전승되는 〈영동이 유래담〉과 전라북도지에 있는 〈흥덕현감설화(興德縣監說話)〉가 있다.

〈영동이 유래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옛날 어느 산골에 부부가 한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다. 그런데 흉년이 심하여 굶게 되자 아이를 시켜 외가에 가서 먹을 것을 얻어 오게 하였다. 아이는 외가에 가서 호박과 쌀 한 되를 얻어 오던 도중에 큰비를 만나 주막에서 자게 되었다. 주막집 주인 부부는 먹을 것을 빼앗으려고 그 아이를 죽여 말판 밑에 넣었다. 그 후 주막집 부부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아이가 자라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와서 갑자기 죽었다. 이에 주막집 주인은 억울한 사정을 관가에 호소했고, 원님은 사령인 영동이를 시켜 염라대왕을 잡아오게 했다. 영동이는 원님의 명대로 염라대왕을 모셔 와 주막집 주인의 죄를 밝히고 처형하였다. 염라대왕이 영동이를 저승사자로 데려가기를 원님에게 청하자 원님이 허락하였다. 원님은 영동이를 불러 소원을 물으니 경주 미림(삼백 석 지기) 가운데에 묘를 쓰고 비석을 세워 춘하추동(春夏秋冬)으로 제(祭)를 지내 달라고 하였다. 영동이가 죽은 후 그대로 시행하였다. 그런데 영동제의 음식을 먼저 맛보는 사람은 모두 죽었고, 영동제를 지내면 무사하여 이후부터 모두 다투어 제를 지내게 되었다. 이 설화에서 〈진가장무가〉는 영동제의 유래담으로 변형되어 있으나 내용은 영동제와 아무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영동제는 생업과 관련이 있는 비와 바람 신에게 제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흥덕현감설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려 17대 인종조(仁宗朝) 때 흥덕 현감(興德 縣監)으로 강씨 성(姓)의 한 인물이 부임하였다. 하루는 한 노인이 찾아와 사형제를 키워 자부(子婦)까지 보았는데 까닭 없이 며칠 내로 사형제가 모두 죽었으니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상소하였다. 강현감은 한참 생각하다가 사령 가운데 가장 용맹 있고 똑똑한 자를 골라 그날 밤 이경(二更) 쯤에 정읍(井邑)으로 나가는 길가에 서 있으면 삼경쯤에 꽃가마가 지나갈 터이니 두 번째 꽃가마에 탄 사람을 불문곡직하고 잡아서 동헌으로 데려오도록 하였다. 그날 밤 현감은 불을 대낮같이 밝히고 기다리고 있으니 삼경이 되자 사령이 과연 위풍이 늠름한 한 사람을 인도해 왔다. 이는 염라대왕이었다. 현감이 말하기를 대왕은 사람을 잡아갈 때 악한 자를 잡아가야 되지 않느냐고 하니 염라대왕은 그 노인의 이야기를 모두 하고는 사라졌다. 즉 그 노인의 여막 마방(馬房) 바닥에 깔린 널빤지를 들어 보면 수십 길이나 되는 푸른 물에 시체 네 구가 떠 있는데 이것은 그 노인이 돈에 탐욕이 발동하여 장사차 길을 떠나다 날이 저물어 들른 사람들을 죽인 것이며, 노인의 아들 사형제는 그 원귀가 재생한 것으로 사거(死去)하여 보복한 것이라고 하였다. 현감은 사령을 시켜 그 노인 집을 조사한 결과 과연 염라대왕의 말과 같았으므로 노인 부처를 사형시켰다.

의의 〈진가장무가〉의 내용은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차사본풀이〉의 내용과 흡사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한국의 북부인 함경도와 최남단인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무가가 등장인물의 명칭을 제외하면 거의 유사하기 때문이다. 신화적 세계에서 볼 때 억울하게 죽으면 원령(怨靈)이 된다는 점, 원령은 단순한 혼령이 아니라 복수를 꿈꾸는 사회적 존재라는 점, 죽음은 저승 소관이라는 점 등의 유사성도 확인된다. 이를 근거로 하여 이들 지역은 상호 유사한 생사관과 영혼관을 공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주도 지역의 무가는 고형(古形)의 요소를 간직하고 있고, 함경도 지역의 무가는 상대적으로 설화의 수용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많아 고형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이해되지만 무가가 내재하고 있는 세계관 만큼은 유사하다는 것을 간파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진가장무가〉는 함경도 무가와 제주도 무가에 보이는 신화적 세계관의 상동성(相同性)을 탐구하는 데 주요한 근거 자료가 된다는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전라북도지(향토문화연구회, 1960), 관북지방무가 추가본(임석재 · 장주근, 문교부, 1966), 한국무가집 3(김태곤, 집문당, 1992), 한국민속대사전 1(민족문화사, 1994), 서사무가연구—설화 · 소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서대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8), 차사본풀이 유형 무가의 구조와 의미(최원오, 한국민속학 29, 한국민속학회, 1997).

필자 최원오(崔元午)

진도씻김굿

정의 진도에서 전승되는 망자 천도굿. 이 굿은 박씨 무계를 중심으로 전승되며, 1980년 11월 17일 '중요무형문화재 제72호'로 지정되었다. '씻김'이란 말은 이승에서 살 때 맺힌 원한을 지우고 씻어준다는 의미에서 비롯되었다.

내용 씻김굿은 굿의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인다. 상가에서 하는 굿은 '곽머리 씻김굿', 날을 받아서 하는 굿은 '날받이씻김굿', 물에 빠져 죽은 혼을 건지기 위한 굿은 '혼건지기 굿', 미혼으로 죽은 이를 위한 굿은 '저승혼사굿'이라고 한다.

씻김굿의 절차는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기도 한다. 수사자(水死者)를 위한 굿에서는 물가에서 혼건지기굿을 한 후에 집 안으로 영혼을 모셔와 굿을 하며, 객사한 영혼을 위한 굿에서는 안당굿을 한 후 골목 어귀에서 혼맞이굿을 해 불러들인 후 본격적으로 굿을 한다. 미혼으로 죽은 영혼을 위해서는 혼맞이굿과 결혼굿을 한 후 씻김굿을 한다. 한편 어떤 경우 '진굿이 아니다'는 관념적 구분에 의해 조왕굿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다.

진도 씻김굿의 구성과 절차

순서	문화재본	구성	대상	장소	채정례본
1	조왕	전반부	조왕	부엌	조왕
2	안당		가택신	마래	안당
3	초가망석		조상신	굿청 (마당)	초가망석
4	손님굿		손님	〃	손님굿
5	제석굿		제석, 성주 등 가택신	〃	제석굿
6	조상굿		조상신	〃	선영모시기
7	고풀이	중반부	망자	〃	넋올리기
8	씻김			〃	희설
9	넋올리기			〃	씻김
10	희설			〃	고풀이
11	길닦음			안방 -마당	길닦음 망자여의기
12	중천	종반부	객귀 중천	대문간	중천

무계에 따라 굿의 절차가 달라지기도 한다. 박병천 · 정숙자의 씻김굿과 채정례 무녀의 씻김굿 절차는 약간 다르다. 하지만 어느 경우나 씻김굿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전개된다. 전반부-중반부-종반부 구성이 그것이다. 안당부터 선영모시기까지의 과정은 산 사람들의 복덕을 축원하는 전반부에 해당하고, 그 뒤부터 길닦음까지는 망자를 천도하기 위한 중반부이며, 마지막 중천은 굿을 마감하는 종반부다.

전반부는 산 사람들의 복락을 축원하기 위한 굿거리들이다. 처음에는 건물 안에서 굿을 하다가 마당으로 공간이 옮겨진다. 굿청은 마당에 임시 천막을 설치하고, 그 안에 병풍을 세우고 굿상을 차려 놓는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중반부부터 굿청에서 하며, 진도에서는 초가망석 이하의 굿을 굿청에서 연행한다. 조왕굿은 부엌의 조왕님
























진도씻김굿
정수미











전에 부정을 아뢰어 그것을 물리고자 하는 굿이다. 무녀 혼자 앉아 징을 치며 무가를 부른다. 무가 내용은 부정을 물리고, 집안의 우환을 제거하고, 가족의 재수를 비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안당은 집의 최고신인 성주신에게 굿을 하게 된 내력을 아뢰고, 성주신을 청해 들이는 거리다. 여기서 모셔지는 성주신은 집안의 평안과 부귀를 관장하는 것으로 믿어지는 신격이다. 이외에도 조상 · 지신 · 조왕 · 삼신 · 철룡 등도 청배되며, 이들 모두 가택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요컨대 안당은 성주를 비롯한 가택신을 청해 들여 축원하는 거리라고 할 수 있다. 초가망석에서 모셔지는 신격은 조상이다. 그리고 최근에 죽었다고 하여 신망조상이라고 부르는 망자도 청배된다. 영암 · 목포 · 광주의 선부리, 순천 · 화순 등지의 조상굿이 같은 성격의 굿이다. 손님굿의 손님은 일반적으로 천연두를 옮긴다는 마마신이라고 비정되며, 대개 객귀적 속성을 지닌 신격으로 묘사된다. 이 거리에서는 손님노정기를 통해 손님을 청해 해를 끼치지 말고 좋게 해주고 가시라는 축원을 한다. 제석굿은, 가정의 번창과 자손의 수복(壽福) 및 재수를 관장하는 신격으로 여겨지는 제석신을 청배해 복덕을 축원하는 거리다. 이 굿에서 무녀가 한복 위에 장삼을 걸치고, 목에 염주를 걸치고, 머리에 고깔을 쓰고 굿을 진행한다. 다른 굿거리들에서는 일반 한복만을 입고 굿을 하다가 이 굿에서 이러한 복색을 갖춰 굿을 연행한다. 제석굿에서는 서사무가 〈제석풀이〉와 집안의 복 및 재물을 축원하는 다양한 무가가 불려진다. 조상굿은 조상에게 복덕을 축원하는 굿거리다. 다른 지역에서는 제석굿에 첨부되어 있기도 하다. 액풀이는 대개 제석굿 말미에 복합되어 있지만 독립된 굿거리로 취급하기도 한다.

중반부는 모두 망자와 관련되어 있어 망자굿이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서 망자의 영혼을 위로하고 달래는 내용의 굿거리들을 연행한다. 다른 지역에는 서사무가인 바리데기가 들어 있는 오구굿이 있지만 진도에서는 전승되지 않는다. 고풀이는 긴 무명베를 일곱 매듭으로 지어, 굿청의 명두대나 차일 기둥에 맨 다음 그것을 잡고 풀면서 무가를 부르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고는 망자가 이승에서 풀지 못한 원한을 구상화(具象化)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고가 잘 풀려야 망자의 원한이 풀린 것으로 간주되며, 그렇게 되었을 때 망자가 순탄하게 저승길을 갈 수 있다고 여긴다. 씻김은 망자가 저승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깨끗이 씻기는 정화의례로서 씻김굿의 핵심적인 굿거리다. 그래서 이 거리의 이름이 굿 전체의 이름이 되어 있기도 하다. 씻김은 망자의 육신으로 간주되는 영돈을 말아서 씻는다. 영돈은 대개 다음과 같이 만들어진다. 먼저 돗자리를 깐 후 그 위에 망자의 옷을 놓고 돗자리를 둘둘 말아 세 매듭으로 묶는다. 이렇게 말린 돗자리를 세워 넋을 담은 밥그릇을 얹고, 그 위에 누룩을 놓고, 마지막으로 솥뚜껑으로 덮는다. 무녀는 영돈의 솥뚜껑을 숟가락으로 두드리거나 물로 씻으면서 무가를 부른다. 씻김에서 사용되는 물은 향물, 쑥물, 맑은 물이다. 이 물을 차례로 빗자루에 적셔 위로부터 아래까지 골고루 씻겨내린다. 무녀는 씻김을 하면서 망자의 천도를 비는 무가를 부른다. 넋올리기에서 사용되는 넋은 한지를 사람 모양의 형상으로 오려 만든 20㎝ 정도 크기의 무구이다. 무녀는 이 넋을 망자의 옷가지 위에 놓고 지전(紙錢)이나 신칼의 꽃술로 들어올리면서 무가를 가창한다. 이 절차는 망자의 영혼을 굿청에 모셔서 위로하고 달래기 위한 과정이며, 망자를 이승에서 저승으로 보내는 의미를 담고 있다. 희설은 무녀 혼자 망자상 앞에 앉아 무가를 부르는 방법으로 연행된다. 내용은 망자가 극락에 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관문을 통과하기를 바라는 축원으로 되어 있다. 이 무가에는 불교적 저승세계가 자세히 묘사되고, 망자의 60갑자에 따라 통과하는 시왕문이나 불교적 신격 이름이 차례로 등장한다. 이 때문에 문자가 있는 어려운 무가라고 얘기되며, 큰무당으로 칭송받는 노무들이 주로 가창한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잘 연행되지 않는 편이다. 길닦음은 망자가 가는 저승길을 닦아주는 거리다. 고풀이나 씻김 등을 통해 이승에서의 한이 풀렸으므로 이제 망자의 넋이 극락왕생하도록 길을 닦아 주는 것이다. 길은 안방에서부터 마당으로 길게 펼쳐 놓은 무명베이다. 이 때문에 질베(길베)라고도 부른다. 여기서 길베는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는 길 또는 다리를 상징한다. 이 길을 지나 망자가 저승에 들어가게 된다고 여긴다. 질베 양쪽 끝을 가족들이 붙잡고 서면 무녀는 넋을 담은 넋당석을 질베 위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길을 닦는다. 망자여의기는 망자의 옷을 들고 축원하는 굿거리다. 길닦음 뒷부분에 결합되어 연행되는 경우가 많다.

종반부는 대문간이나 골목길 어귀에서 이루어진다. 굿청에 모여든 여러 신을 배송하는 부분이다. 중천은 잡귀와 잡신들을 잘 달래 풀어먹이는 굿거리다. 굿판에는 정식으로 초대받은 신격 말고도 머물 곳이 없어 떠도는 객귀들이 굿하는 소리를 반겨 듣고 몰려와 있다. 바로 이 객귀들을 잘 풀어 먹여 보내는 배송굿이 종천이다. 여기서 잡귀는 대개 비정상적인 죽음 때문에 한을 품은 원혼들로서 정식 신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존재들이다. 그러나 무속에서는 이런 객귀마저 소홀히 대하지 않는다. 객귀들은 한을 품고 죽은 귀신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대접을 잘해서 보내거나 축귀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참고문헌 무가문학연구(이경엽, 박이정, 1998), 씻김굿(이경엽, 한얼미디어, 2004), 진도씻김굿의 연구(나경수, 호남문화연구 제17집,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1988).

필자 이경엽(李京燁)

진도 채씨 무계

정의 진도의 채(蔡)씨 출계(出系)를 통해 전승되는 무업(巫業)의 계보.

내용 1987년 국립민속박물관의 진도무속 현지조사에 따르면 당시 조사된 과거의 무계(巫系)와 그때까지 이어온 무계를 합쳐 14개 성씨의 친족집단이 진도에 분포되어 있었다. 채씨 무계는 그중 하나이다. 진도를 비롯하여 한국 서남부 지방에서는 세습무(世襲巫)가 주류를 이룬다. 신병(神病)을 앓고 내림굿을 받으면 무당이 되는 강신무(降神巫) 전통과 달리 세습무는 개인적인 종교적 체험이 아니라 출계집단을 따라 세습을 하여 무당이 된다. 한국 서남부 지방에서는 여성이 결혼하여 시가(媤家)에서 시어머니의 무업을 이어받는 세습무 전통이 일반적이다. 무당이 되는 것은 여성이지만 그 계통이 부계(父系) 출계를 따라 이어지는 것이다. 진도에서 통상 사용되는 '단골'이라는 명칭은 무업이 세습된 무당을 가리키는 말이다. 여성이 단골이 되어 무당의 정체성을 잇고 무속의례를 주재(主宰)한다. 남편은 부인과 함께 굿판에 다니면서 악기 연주를 맡는다. 이를 고인(鼓人)이라고 한다.

무업(巫業)이 남편 가계에 속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단골판'이 있다. 단골판은 신도(信徒)들이 분포해 있는 영역이자 단골에 대한 경제적 부양 단위이다. 이 단골판의 권리가 남편 쪽 가계에 속한다. 단골판은 단골이 지속적으로 굿을 해주는 신도 가정들로 이룬 권역이다. 한 단골이 능력에 따라 여러 단골판을 관리할 수 있다. 단골은 신도 가정에 씻김굿을 비롯한 여러 굿을 해주고 현장에서 현금과 제물(祭物)을 걷어 동료들과 나눈다. 이때 걷는 것들을 '마령'이라고 한다. 한편 보리와 쌀 수확기에는 단골판을 돌면서 곡식을 얻는다. 이 관행을 '도부'라고 한다. 봄철 도부와 가을철 도부가 일반적이다. 단골은 이때 성냥이나 과일 등 약간의 선물을 신도 가정에 증여한다. 이를 '이바지'라고 한다. 단골판의 신도 가정들과 단골 사이에는 이렇듯 의례와 현물을 매개로 한 지속적인 '단골관계'가 성립되어 있다.

진도에서 채씨 무계의 유래는 자세하게 밝혀지지 않는다. 현재까지 이른 과정도 확실치 않고 앞으로 채씨 친족 구성원들의 무업 계승 가능성도 확실치 않다. 근래에까지 무업을 한 고(故) 채계만(전 중요무형문화재 제72호 진도씻김굿 기능보유자) 가계(家系)의 경우 그의 8대조 채걸합이 현 신안군 비금도에서 이주하여 이 가계의 입도조(入島祖)가 되었다. 채걸합의 구씨(具氏)와 김씨(金氏) 부인 중 김씨가 무계 출신인 것으로 전해지지만 남편 채씨의 집안이 무계였는지는 확실치 않다.

한편 현재 진도 무속의 주요 실행자인 채정례(여, 1924년, 진도군 의신면 원두리)는 사실은 채씨 가계가 아니라 남편 함씨의 가계에 속한다. 그녀의 부친 채백주는 진도에서 그의 무계를 마감한 인물이다. 현 신안군 신의면 상태리에 거주했

던 채백주 가계의 경우 조상 어느 대(代)부터 무업을 시작했는지 알 수 없다. 그는 단골인 부인 임득춘과 현 신의도에서 무업을 하였으며, 채정례가 일곱 살 나던 해에 1남 3녀를 데리고 진도로 이주하였다. 그는 아들 한 명이 질병으로 사망하자 하의도 생활에 염증을 느꼈고, 당시 친가와 외가 쪽 친족원이 많이 살고 있던 진도로 옮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채백주 부부는 진도로 이주해서도 무업을 하여 경제적 여유가 생겼다. 이후 딸 셋은 무계로 시집가서 단골이 되었으나 막내인 아들 채동수는 채씨의 무업을 계승하지 않아 채백주 무계가 끊겼다. 부계 출계집단으로서의 진도 채씨 무계는 그 전체적인 모습이 밝혀지지 않았고 앞으로의 계승도 불확실하다. 한편 채정례와 작고한 그녀의 두 언니 채자네(채자녀), 채둔굴은 비록 다른 무계로 시집을 가서 무업을 하였지만 진도 무속의 계승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세습무 전통을 이해하는 데 많은 자료를 남기고 있어서 이에 관해 수록할 필요가 있다.

채자네는 진도에서 19세에 결혼하였다. 이후 2남 3녀 중 딸 하나만 남고 모두 사망하자 남편과 이혼하고 목포로 나가 행상을 했다. 그러다가 33세 때 경제적 궁핍을 해결하기 위해 무업을 시작한다. 그녀의 굿은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들은 어머니의 전통으로, 신안군에서 살 때부터 보고 들은 것이다. 이후 그녀는 딸이 12, 13살 나던 해에 다시 진도로 들어 와 무계 집안의 김원선과 재혼하였다. 김원선은 무계 집안이지만 한약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그녀 혼자서 무업을 이끌었다. 그녀는 남편이 물려받은 95호 가량 되는 단골 가정들과 새로이 무업을 하면서 사들인 100호 가량을 관리하였다. 그러나 그녀가 나이가 들면서 무업을 하지 않게 되자 단골판이 유명무실해졌으며 작고한 이후에 끊겼다. 채자네의 경우는 경제적 궁핍이 무업을 수행하도록 이끄는 세습무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채자네의 동생 채둔굴은 단골판 경영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 준다. 무계의 강홍섭와 결혼하여 약간의 무업과 농사, 어업을 하다가 생활고 때문에 남편과 함께 친정으로 들어가 7년에 걸쳐 굿을 다시 배웠다. 이후 부부가 무업으로 단골판을 늘려가면서 집안 살림을 이끌었고, 남편이 작고한 이 후에는 아들이 고인으로서 굿 반주를 하였다. 무업 계승에 열성적이었던 채둔굴은 며느리에게도 굿을 가르치려 하였으나 며느리가 마다하여 채씨가 작고한 후 대가 끊겼다. 채둔굴은 단골판을 늘려나가는 데 남다른 수완을 보였다. 진도군 지산면을 중심으로 여러 곳에서 모두 합쳐 500호가 넘는 단골판을 관리한 채둔굴은 특히 1950년 12월 20일 거제리를 비롯한 333호를 마련할 때의 기록인 '당골기'를 남겼다. 이 기록을 보면 진도군에 사는 가정 외에도 서울, 목포, 광주의 가정들도 들어 있어 단골관계가 진도를 떠난 가정과도 이어졌음을 알게 해준다.

채정례 역시 함인천(남, 1925년 생)과 결혼하여 무업으로 함씨 집안을 일으킨 경우이다. 결혼 이후 당분간은 부부가 남의 소를 길러 주고 생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워낙 궁핍한 형편 때문에 부부가 무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함씨가 차남이기 때문에 물려받은 단골판이 없어 채씨가 친정 부모와 남동생으로부터 단골판을 얻고 본인이 늘려나가 살림을 일으켰다. 채정례의 굿 역시 대부분은 어머니의 전통을 따른 것으로, 특별히 배운 바 없이 보고 들은 것을 기억해 재현한 것이다. 또한 틈틈이 언니 채자네가 행하는 굿을 보고 익히는 능력을 길렀다.

이와 같이 채정례 세 자매는 다른 집안의 무계를 이었지만 이들의 굿은 어렸을 때 보고 듣고 배운 채씨 무계의 전통을 재현한 것이다. 친정 부모로부터 다시 배워 익힌 것이다. 현재 채정례가 혼자 남아 이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세 자매는 모두 무업을 하는 집안으로 시집을 갔다. 신분과 경제생활 때문에 무계들 사이에 혼인이 이루어지는, 통혼(通婚) 범위의 제한성을 세 자매가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제적 궁핍 때문에 무업을 시작하고 단골판을 늘려 시집 살림을 일으키는 채씨 자매의 모습은 세습무 가계의 경제적 생존 과정을 잘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진도군의 문화유적(목포대학교박물관, 전라남도 진도군, 1987), 진도무속현지조사(국립민속박물관, 1987).

필자 조경만(趙慶萬)

진쇠

정의 경기도 남부 지역 세습무당의 굿에서 제석굿에 쓰이는 장단 가운데 하나. 간혹 군웅굿과 새남굿에서 쓰인다고도 하지만 어느 굿거리에서 나왔는지 모호한 경우도 있다.

내용 제석굿은 다각도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굿거리 가운데 하나이다. 신화인 본풀이와 음악인 장단의 구성이 드러나는 것으로, 여기에서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봉등채, 신모듬, 도살풀이, 오니섭채, 거리노랫가락 등이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춤사위가 화려하고 장단이 두드러지는 것이 진쇠장단이다.

진쇠는 장단이 집을 짓는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장단이 하나로 되어 있지 않고 여러 장단이 함께 어울려서 하나의 장단을 구성하는 것을 '집을 짓는다'고 한다. 진쇠에서 이러한 특징이 확인된다. 진쇠는 산이제의 경기도굿에서만 쓰이는 특별한 장단이다. 이 장단의 구성에서 필요한 장단은 순서에 따라 나열하면 진쇠장단, 올림채, 넘김채, 겹마치기, 자진굿거리이다. 또한 진쇠장단 가운데 중요한 장단만 간추려 보면 진쇠장단의 한 세트를 볼 수 있다.

진쇠장단-올림채-넘김채-겹마치기-자진굿거리



진쇠장단에서 올림채로 갔다가 다시금 천둥채를 거쳐서 넘김채로 가고, 마지막으로 겹마치기로 가는 것이 이 장단의 특징적인 전개 과정이다. 춤장단의 전개 과정과 일치하지만 전반적인 전개는 불규칙적인 혼소박장단에서 규칙적인 소박장단으로 전개된다. 진쇠장단은 엇모리장단의 하위 요소인 3+2의 엇모리형 요소로 되고, 이어서 청보 1장과 유사한 것을 네 차례 제시한 뒤 다시 원래의 시작 리듬 요소로 돌아간다. 장단이 한 층 한 칸으로 되어 있지 않고 다시금 장단이 반복되다가 발전하는 악구형으로 진전되는데, 이것을 장단이 집을 짓는다고 한다.

진쇠는 홑채 초보 장단이 있고, 겹채 중보 장단이 있으며, 세 번째는 암수겹채라고 하여 세 가지의 틀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장단의 전체적 구성을 삼십 박의 장단에 징이 열두 점 쳐진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의의 진쇠는 장단이 음악적으로 아름다울 뿐 아니라 전형적인 춤 장단에 해당함으로써 춤사위 구현에 절대적인 기능을 한다. 진쇠장단이 춤사위와 더불어 연주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가 더욱 긴요하다. 삼진삼퇴(三進三退)를 하면서 오방에다 춤을 추는 것이 이 춤의 기본적인 춤사위이다. 진쇠장단은 산이 또는 공원들이 서로 모여 기예 겨루기를 하면서 연주하는 음악 가운데 하나로, 올림채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도 한다. 진쇠장단은 이러한 점에서 많은 공력을 요구하는 굿거리 음악이다. 이 굿거리 음악이 결과적으로 다양한 무속의 춤사위 구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진쇠장단은 태평무(太平舞)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물론 장단의 세부적인 구성은 다르지만 태평무가 일정하게 진쇠장단과 관련이 있을 개연성이 있다. 무악이 무무(巫舞)를 위해 연주하는 것이고, 무무의 연주에 무악이 작동하는 것으로 본다면 진쇠장단이 태평무의 형성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참고문헌 경기도 도당굿 무가의 현지 연구(김헌선, 집문당, 1995), 한국의 무속장단(임수정, 민속원, 1999), 지영희민속음악연구자료집(성금연 편, 민속원, 2000), 경기판소리의 정착과 형성집단(김헌선, 경기판소리, 경기도 국악당, 2005), 진쇠장단외 십일장단(박헌봉, 중요무형문화재보고서 28, 문교부, 1966), 시나위(유기룡 · 이보형, 중요무형문화재보고서 82, 문화재관리국, 1971).

필자 변남섭(卞南燮)

진쇠춤

정의 제석거리 앞부분에서 추거나 터벌림을 하고 난 다음 판을 여는 의미로 추기도 하고, 군웅굿에서는 굿상을 앞에 놓고 진쇠장단에 맞추어 군웅을 영접하며 추는 춤.

내용 진쇠춤은 진쇠장단에 맞춰 은근한 점을 찍어 주는 듯 추어지는데, 여기에서 팔놀림은 마치 지시하기도 하고 호령하기도 하는 듯한 위엄 있는 당당한 기풍의 춤사위로 몰이로 가며 활달한 춤으로 변화된다. 이 춤은 현재 보기 어렵게 되었다. 진쇠장단이 매우 복잡한 30박으로 구성되어서 무당들이 소화해 내기 힘들 뿐 아니라 현대 들어 굿이 짧아지고 생략되기도 하면서 점차 잊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진쇠춤의 장단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진쇠-30박

덩	더러	덩	덩	덩	더러	덩	덩		덩	덩		따쿵		덩		덩	덩	기다	쿵	따	쿵	쿵	덩	덩	덕	따

2. 조임채-10박

덩		더	덩		덩		궁	딱	

3. 넘김채-6박

4. 겁마치기-4박

덩		따	따	궁		궁		따	따	궁	

5. 자진굿거리-2박 또는 4박

덩		따	쿠	궁	따	구	덩	다	다	쿠	궁	따	구

진쇠춤은 발놀림 팔놀림 몸놀림을 이용한 여러 가지 춤사위로, 춤이 진행되면서 너울사위와 함께 저정거리기, 엎고 제치기, 팔위로 올려 뿌리기 등을 제자리에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돌면서 한다.

1. 발놀림-무릎 굽히기, 걷기, 삼진삼퇴
2. 팔놀림-어깨 높이로 들기, 엎고 제치기, 위로 뿌리기
3. 몸놀림-저정거리기, 어깨춤

참고문헌 안성무속(경기시나위춤),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제12호(이보형 · 심우성, 문화재관리국, 1976), 무무(문화재연구소, 문화재관리국, 1987), 서울 진오기굿(김수남, 열화당, 1993), 한국무속과 연희(이두현,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경기도도당굿(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한국의 샤머니즘(조흥윤,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샤머니즘 연구(한국샤머니즘학회, 문덕사, 2002), 경기도 남부 도당굿 중 제석굿 무가의 음악적 특징(박정경, 한국무속학 7, 한국무속학회, 2003), 경기도당굿의 굿춤(이애주, 제8회 동양음악학국제학술회의, 2004).

필자 이애주(李愛珠)

진오기굿

정의 서울 지역에서 행해지는 망자천도굿. '진혼귀굿', '지노귀굿', '지로귀굿'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역사 진오기굿의 유래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 사람의 죽음의례가 오래전부터 있었음을 고려하면 진오기굿의 역사도 오래된 것으로 보이지만 문헌에서는 전거를 찾을 수 없다. 1937년에 간행된 『조선무속의 연구』에 경성 무녀 배경재의 바리공주가 수록된 것으로 보아 오래전부터 서울 지역의 대표적인 의례로 거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내용 진오기굿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다. 진혼귀(鎭魂鬼)로 보아 죽은 영혼을 달랜다고 보기도 하고, 지노귀(指路鬼)로 보아 혼령이 가는 길을 알려준다는 의미로 보기도 하지만 한자어가 아닌 순우리말일 가능성이 높다.

진오기굿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먼저 진오기굿을 하는 시기에 따라 자리걷이 진오기(망자가 죽은 곳에서 하는 진오기굿으로, 삼우재를 지내기 전에 하는 진오기굿), 진진오기(망자가 죽은 지 백일 이내에 하는 진오기굿. 지금은 대개 1년 이내에 하는 경우에 진진오기라 한다), 묵은진오기(망자가 죽은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하는 굿)로 나눈다. 규모에 따라서는 평진오기(재가집이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간단한 격식을 갖추어 하는 진오기굿), 얼새남(평진오기보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재가집에서 하는 진오기굿으로, 상차림이 화려하고, 가시문을 안에 세운다), 평새남(가시문을 밖에 세운다), 천근새남(부자들만이 하는 진오기굿으로 상차림이 매우 화려하고 가시문을 안팎에 세운다), 쌍계새남(천근새남을 쌍계새남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도령을 둘이 도는 것으로 구분된다. 안당사경은 전날 하고 이튿날에 진오기를 한다) 으로 나누기도 한다. 최근 서울 지역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진오기굿은 평진오기굿으로, 진진오기굿 아니면 묵은진오기굿이다.

묵은진오기굿은 재수굿에 진오기굿을 더한 형식이며, 흔히 안안팎굿이라고 부른다. 묵은진오기굿의 제차는 다음과 같다. 주당물림, 부정청배–가망청배–불사–산–조상–대안주 거리–성주–창부–뜬대왕–사재삼성–말미–도령돌기–상식–베가르기–뒷영실–뒷전. 여기에서 불사, 산, 조상, 창부를 빼고 대안주거리를 진행하다가 영실을 중간에 놀면 진진오기굿이 된다. 묵은진오기굿이 이승굿과 저승굿의 복합이라면 진진오기굿은 저승굿을 중심에 두는 굿이다.

진오기굿은 대략 다음과 같은 5단계로 구성된다. 1. 굿판의 정화, 2. 망자 보낼 준비, 3. 망자 보내기, 4. 망자 보낸 후 확인하기, 5. 굿판 정리하기. 이러한 일련의 구조는 발단, 전개, 절정, 위기, 결말이라는 널리 알려진 구조를 연상시킬 정도로 매우 유기적이다. 어느 한 거리를 빼고서는 굿판이 온전하게 지탱될 수 없을 만큼 밀접한 관련 양상을 보인다. 주당을 물리면서 시작된 진오기굿은 망자를 극락으로 보낸다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고서야 끝이 난다. 복잡하게 얽힌 굿거리지만 망자천도라는 목적 하나로 통일된 흐름을 가질 수 있다.

굿판의 정화 부분은 진오기굿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부분으로, 주당물림 · 부정청배 · 가망청배가 여기에 속한다. 신의 영역인 굿이 시작되어 온갖 부정을 물리고 망자의 혼을 저승으로 천도시킬 준비를 갖추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진오기굿과 서울의 다른 굿의 양상이 동일하다.

망자를 보낼 준비를 하는 부분은 아직 본격적인 진오기굿이 아니다. 여러 신격을 차례로 불러 한바탕씩 놀려주는데 무가에서는 다른 굿과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공수 부분'에서만 차이가 보인다. 이러한 것은 서울 지역 굿의 일반적인 특징이라 할 만하다. 동일한 무가를 구송하면서 신들을 부르지만 그날의 굿판 목적에 맞추어 공수를 각각 다르게 주어 굿판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를 나타낸다.

망자를 보내는 부분은 진오기굿의 핵심으로서 다음에 이어지는 '망자를 보낸 후 확인하기'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망자를 저승으로 데려갈 사자가 우선 등장한다. 가족들은 사자에게 인정을 써서 망자가 무사히 저승으로 가기를 기원한다. 말미 거리에서 〈바리공주〉가 구송되면서 망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신의 유래담이 굿판에 자리한





다. 그리고 도령을 돌면서 망자는 저승으로 간다. 때에 따라서는 한삼도령, 부채도령, 칼도령을 돌면서 망자가 여러 험한 것을 걷어 젖히면서 저승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망자가 저승으로 갔음을 확인하는 의식은 말미 거리에서 세발심지에 불을 붙이는 것으로 진행된다. 세발심지가 타 들어가면 무당은 말미상의 촛불을 제외한 불을 끄고 쌀에 나타나는 무늬를 통해 망자가 극락왕생했음을 확인시킨다. 자리걷이의 경우에는 시루에 있는 세발심지의 불을 밝힌 뒤 그 위에 한지를 덮어씌우고 물을 뿌린 후 한지에 나타나는 그을음을 통해 망자의 천도를 확인하기도 한다. 재가집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의식을 통해 함께 생활하던 망자가 이제는 자신들과는 다른 영역의 세계에 도달했음을 느끼는 것이다. 상식을 올려서 망자는 고인이 되었음을 다시 확인하고 베를 갈라 저승으로 가는 모든 제약이 사라졌음을 눈으로 확인시킨다.

굿판을 정리하는 부분은 다른 굿과 동일하게 뒷전에서 이루어진다. 굿판에 오기는 했지만 정식으로 부름을 받지 못한 수비 영산들을 풀어먹인다. 마지막으로 북어나 칼을 던져서 굿판이 온전하게 일상의 공간으로 돌아왔음을 확인함으로써 굿은 끝난다.

이러한 진오기굿은 복식, 음식, 음악, 사설, 재담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진행되는 서울지역의 대표적인 무속의례이다. 최근에는 굿을 바라보는 관념이 과거와 달라져서 진오기굿의 연행 시간이 4~5시간으로 줄었지만 앞에서 기술한 모든 제차를 진행한다.

서울진오기굿에서는 말미거리에서 서사무가인 바리공주가 구송된다. 성장(盛裝)을 한 무당이 장구를 세워 놓고 치면서 장시간에 걸쳐 서사무가를 부른다. 살아 있는 신화가 온전하게 전승되고 있는 현장이 바로 진오기굿이다. 도령돌기에서는 음악의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삼도령을 돌 때에는 굿거리장단, 부채도령을 돌 때에는 별상장단, 칼도령을 돌 때에는 당악장단이 각각 연주된다. 점점 저승으로 가까이 가는 모습을 음악으로 나타낸 것으로, 도령을 도는 무당도 음악에 맞추어 춤동작이 점점 빨라진다.



진오기굿
정수미

진오기굿을 마친 재가집은 굿을 시작하기 전보다 훨씬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죽음의 례를 통해 망자를 온전하게 저승으로 보냈다는 위안의 기능과 함께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생활이 영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현실 회복의 기능을 진오기굿이 수행했기 때문이다. 재수굿에는 재가집이 오지 않고도 굿을 연행하지만, 진오기굿에는 반드시 재가집이 참가하는 점에서 진오기굿이 아직도 종교의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서울진오기굿(홍태한, 민속원, 2004). 서울지역 안안팎굿 무가자료집(김헌선, 보고사, 2006). 서울지역진진오기굿 무가자료집(김헌선, 보고사, 2007).

필자 홍태한(洪泰漢)

진적굿

정의 만신이 날을 잡아서 자신의 몸주신과 여타의 신격에 감사의례를 올리는 굿. 이 굿은 본디 진적이라고 약칭하였으나 이것이 일반화되면서 진적굿이라고 널리 쓰였다. 진적은 '진작'이라고 하는 말에서 비롯되었다. 진작(進爵)은 의궤 등에서도 보이는 특별한 명칭이다. '잔을 올린다'고 하는 것으로 신에게 감사의 술잔을 올린다는 말이기도 하고, 특정한 제차를 말하기도 한다.

내용 강신무권에서 봄과 가을로 계절이 바뀌고 특정하게 이 굿을 하게 된다. 진달래꽃이 피거나, 잎이 새로이 돋아나거나, 가을걷이가 마무리된 때에 이 굿을 한다.

2009년에 진행된 서울 진적굿의 사례이다. 이를 굿거리별에 의해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순서	서울진적굿	
구분	굿거리	특징 (진적굿의 구조)
1	주당물림	
2	초부정	초부정
3	초가망	
4	본향노랫가락	본향 앉은굿(A1)
5	청계배웅/진적 말명	진적굿의 특징 구현
6	상산노랫가락	상산 앉은굿(B1)
7	천궁불사맞이	맞이
8	제당맞이	맞이
9	산바라기	맞이
10	본향바라기 가망혜치기 말명놀리기 대신말명놀리기	맞이(본향 선굿 A2)
11	관성제군	대안주 1
12	신장	
13	상산마누라	대안주2(상산 선굿 B2)
14	별상	
15	민중전마마굿	특별한 굿거리
16	대감	대감의 분화 중시
17	대감	
18	조상	본향가망말명 조상 분리
19	안당제석	
20	성주군웅	
21	대신몸주놀리기	굿거리 아님
22	창부거리	
23	작두신령	
24	몸주놀리기	굿거리 아님
25	몸주놀리기	굿거리 아님
26	계면할머니	
27	뒷전	
28	회정맞이	맞이

굿이 일정한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덩어리는 굿을 운용하는 일정한 단위이다. 굿거리의 단순한 제차가 아니라 굿거리를 좀 더 크게 묶는 단위이다. 이를 흔히 전통적인 용어로 맞이라 한다.

여느 굿과 다르게 맞이가 진적굿에 많다는 사실은 진적굿이 여느 굿과 다르게 일정한 방식을 고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거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청계배웅 · 천궁불사맞이 · 제당맞이 · 산바라기 · 본향바라기 · 회정맞이 등으로, 진적굿의 복합적인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단서이다.

이 굿거리의 특징은 신의 위계에 따라 여러 신격이 단계적으로 복합된다는 점에 있다. 아울러 남신과 여신이 동등한 대우를 이룩하면서 신격의 복합화를 시도하고 있는 점도 남다르다.

굿거리의 전반적인 구조는 여느 굿과 다르지 않으나 앉은굿의 노랫가락과 선굿의 굿거리가 구조적으로 대응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노랫가락 사이에 특정한 굿거리 요소를 삽입하는 면모가 있으며, 곧 바로 이어서 청계배웅과 만신 말명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체로 굿거리의 일반적인 구성은 천신, 공간신, 인격신, 가신, 잡신 등 일정한 신격의 위계와 원리에 입각한다. 인격신을 놀리는 과정에서 만신의 으뜸인 조종신을 먼저 놀리고, 조상신을 나중에 놀리는 점이 남다르다. 또한 대감신과 조상신이 서로 연계된 점도 특징적이다.

여기에 진적굿에서만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 그것은 진적굿을 '이태말미 삼년시력'이라고 하는 구성 속에서 온전한 진적굿을 하면 청계배웅 · 제당맞이 · 회정맞이 등이 첨가 된다는 점이다. 진적굿의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삼산돌기** : 삼산돌기는 만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신령의 기운이 높은 것으로, 만신들의 말로는 영검이 많은 곳을 돌아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삼산은 영기가 있는 특정한 산을 이른다. 그러나 물도 일정한 구실을 하게 되며, 명산대천을 돌아오는 것이 핵심이다. 삼산돌기는 만신의 진적굿 준비에 핵심적인 절차이다.

삼산돌기의 전통적인 방식은 만신들의 조종이

라고 하는 개성 덕물산의 상산마누라 최영 장군에게 다녀오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남한과 북한이 갈려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삼산돌기가 변형된 것이다. 개성 덕물산을 다녀오는데 수영반장, 밥할머니, 임진강의 박씨 만신과 임씨 만신, 상산당의 안당과 밖당 등의 주요한 곳을 다녀오는 특징이 있다.

개성 덕물산을 다녀오는 데 있어서는 상산물고지를 받아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대신하여 국사당에서 권능을 행사한다. 이 권능을 받아서 개성 덕물산에서 상산물고지에 도장을 받아 와서 이를 제당맞이와 회정맞이의 중요한 절차로 삼는다.

자신의 근거지를 떠나서 이 먼 여행을 하는 이유는 신의 에너지가 일정 부분 고갈될 때에 영험한 곳으로 인식되는 개성을 다녀오면 그 기운을 보충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 여행을 통해 만신은 신앙심을 회복하고 구도자로서의 자기 갱신을 시도하면서 재충전의 기회를 가진다.

그러나 삼산돌기의 의미를 반추하면서 신상의 관념을 제도화하는 깊은 의미의 맥락이 있음을 이 절차로 감지할 수 있다. 신앙은 단순하게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연마와 갱신, 그리고 신 앞에서의 복종과 구도자로서의 삶을 다짐하면서 자신이 만신이 된 내력을 일깨우는 데 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되살아나는 아픈 고통과 신에 대한 복종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

단골판을 다스리는 한 사람의 사제자는 신이 있는 곳까지 여행하고 돌아옴으로써 확실한 권능을 부여받고 자신의 갱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삼산을 다녀오지 않았다면 평범한 사제자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 단골판의 체험이 삼산의 명기와 연결될 때 비로소 삿된 의미에서 벗어날 수 있다.

2. 청계배웅-제당맞이-회정맞이 : 삼산을 다녀온 만신이 하는 굿의 구조적 구성에서도 진적굿의 의미는 명확하게 나타난다. 개성 덕물산을 다녀오는 것은 여러 당과 명소를 다녀오는 신화적 여행과 신앙적 신성 체험을 근간으로 한다. 여러 당에 있는 존재를 체험하고 그들에게 복종하며, 구도자로서 자기갱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 흔히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진적굿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절차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그것이 곧 청계배웅이 된다.

청계는 곧 개성 덕물산에 있는 청계씨와 광대씨 같은 존재를 말한다. 이들은 그다지 바람직한 존재가 아니며, 굿판에 와서 해악을 끼치는 존재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이 청계를 벗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계만이 문제가 아니라 청계와 함께 온 총체적인 신격이 문제가 된다. 이들을 일관되게 물리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

청계와 광대가 개성 덕물산의 당에 모셔져 있으므로 이들이 뒤를 따라와서 잡귀와 잡신을 물리는 행례를 필요로 한다.

상당히 무섭게 생긴 이들 탈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는 오늘날 알기 어렵다. 다만 청계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이상을 일으키는 신격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 년 열두 달에 작용하는 청계홍수와도 있다고 생각한다. 광대 역시 이러한 각도에서 청계광대의 일종이라고 판단된다. 이들이 사람에게 일종의 해악을 끼치므로 이를 물리치는 절차를 행하지 않을 수 없다.

제당맞이는 청계배웅과 구분되는 여러 신당의 신을 모시는 절차이다. 제당맞이 상은 두 개를 나란히 둔다. 제당상과 열두쟁반기가 그것이다. 제당상과 열두쟁반기는 제당의 여러 신령을 위한 상과 그에 뒤따르는 열두 대신을 위한 것이다. 주신은 제당의 신이고, 부신은 열두 대신일 수도 있고, 서로 대응하는 병렬적인 신일 수 있다.

제당맞이는 흔히 빗갓을 쓰고, 홍철릭과 홍치마를 입고서 상산물고지와 부채와 방울 등을 들고 하는 절차이다. 이 역시 하나의 신격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격을 놀리는 제차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제당맞이상을 중심으로는 제당도령돌기를 한다. 제당도령돌기는 도령돌기와 대응하는 독자적인 거리이다.

제당신을 초청해 음식도 대접하고 진적굿에서 공수도 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 절차를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따라서 이 제당신의 효험을 감지할 수 있다. 하나의 신만이 아니라 제당신에 뒤따르는 신격의 모양새를 알려주는 중요한 절차이다.

회정맞이는 뒷전 뒤에 하는 독자적인 절차이

청학보살 햇곡맞이 진적
인천시 | 2006.11.24 |
김헌선



다. 전악은 흔히 굿이 끝나면 굿판에서 민적을 가르고(셈을 해서 돈을 나누고) 굿판을 떠나게 되는데 진적굿에서는 회정맞이에 따르는 음악을 조달하고 연주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행할 수 없다. 진적굿에서 전악이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3. 이태말미 삼년시력 : 진적굿은 만신의 개인적 사정과 단골판의 조화로운 관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절대적인 구성 요건이 된다. 만신 개인의 준비로는 진적굿이 성립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만신은 공수나 덕담에서 무가를 항상 '이태말미 삼년시력'이라고 하는 상투어구로 구사한다. 이 말은 공년은 간단하게 넘기고 삼년이 되는 홀수해에 진적을 드리는 모험을 감수한다는 말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신의 진적굿을 준비하는 과정과 공년으로 보내는 과정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단골판을 다스리는 사제자는 단골과 신앙적으로 돈독하게 결합해 있지만 단골판의 사제자로 존중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자신의 신성한 능력과 권위로 신앙적인 성지 순례를 통해 보여주어야 할 책무가 있다.

만신의 책무는 '상짐'을 지고 '채롱(차롱)'에 음식을 싸서 '노구메'에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이러한 굿을 해마다 하는 것은 버겁고 감당하기에 벅찬 일이다. 그러므로 이를 해걸이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더구나 만신의 진적굿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균등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 분배의 장이다. 이 분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참여와 균분이 일정하게 실현하도록 하는 단골판이다. 이것을 흔히 노누메기 또는 노나메기라는 말로 일정하게 실현하고 있었다.

노누메기의 원리는 만신과 만신, 만신과 전악, 만신과 시봉자들, 만신과 단골들 사이에 구현된다. 자금을 단골이 대고 단골들은 신에게 신찬을 바치는 것이 노누메기의 기본적 원리이다. 단골은 이 원리에 입각해 단골판을 다스리는 제왕으로 존립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은 이제 사라졌다. 현금으로 대체되면서 전물보다 돈이 단골판을 다스리는 중요한 원리가 되었다. 단골판의 구조는 인간의 종교적 신앙심을 구현하는 얼개로 작동해 왔다. 사제자가 있으며, 사제자가 자신의 통치판도를 구현하는 것이다.

진적굿의 사례에 입각한 착안을 구체적으로 해명하기 위해 내적 의미와 다르게 외적 의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삼산돌기(신화적 성지 순례, 내림굿의 재체험, 신기

보강) : 삼산돌기는 만신의 신화적 지리에 대한 탐구와 함께 성지 순례를 하는 과정의 구현이다. 이것은 자신의 단골판에서 성립한 단골판과 성지 순례 체험을 통해 공간적이고 신화적인 확장을 구현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이 점에서 삼산돌기는 성지 순례의 면모를 구현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삼산돌기를 통해 신기를 보강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기(神氣)가 부족하고 원기가 없어 신을 모시고 사는 일이 불가능하게 된다.

2. 청계배웅-제당맞이-회정맞이(제당의 신과 모든 신의 구조적 합일) : 굿을 하는 당일에 필요한 것은 신들의 화의이다. 일반적인 굿의 절차 속에 이 신들을 배치해 일정하게 놀려주는 일을 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진적굿의 굿 덕을 보고자 하는 노력이 증진된다.

제당의 신과 일반적인 신의 다양한 위계가 구조적으로 결합하게 된다. 제당의 신과 만신의 몸주신이 결합하고 천신과 산신 계통의 신을 만나서 화의하게 하고, 아울러서 본향 · 가망 · 말명 · 대신말명의 신과 대안주의 신과 조상신을 결합하면서 일정한 위계를 구성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집안에 있는 가신을 놀린다.

3. 이태말미 삼년시력(단골판 다스리기, 신정합일의 원리) : 경제권과 일상권을 장악하고 이를 정치적인 화해와 다스림으로 귀일하는 과정이 이태말미와 삼년시력에서 구체화된다. 신의 이름 아래 모인 신도를 궁극적으로 다스리는 제일 원칙은 신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이는 신을 통해 단골과 만신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다.

진적굿은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과정을 통해 신도들의 결속력을 다지고 단골판의 제정일치를 위하는 근간 원리를 구현한다. 신을 모시는 사제자, 신을 믿는 단골들이 가장 밀접하게 확인되는 굿판이다.



상산맞이 상차림
인천시 | 2006.11.24 |
김헌선

의의 1. **다른 고장에서도 진적굿류의 굿이 있다.** 황해도 굿판에서는 봄과 가을로 구분해 봄철에는 '꽃맞이'와 '잎맞이'라고 하며, 가을철에는 '단풍맞이', '신곡차례정성'이라고 부른다.

자연의 순환과 질서를 적용하여 이를 진적굿이라는 독자적인 개념을 창안한 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자연적 전환 속에서 인간의 질서를 창조하고, 이에 따른 굿을 만들어서 신을 기리는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인간과 자연, 신과 인간 등이 동일한 질서를 찾아가는 조화를 구현했다고 볼 수 있다.

2. 만신을 위한 굿 가운데 2대 갈래가 곧 내림굿과 진적굿이다. 내림굿을 한 날이 곧 새로운 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날이다. 따라서 자신에게 신이 내린 날이 곧 만신의 진적굿 날짜가 된다. 만신의 진적굿과 내림굿은 이러한 의미에서 무당에게 소중한 날이다. 단골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체험을 다시 확인하고, 사제자의 권능을 인정하면서 그 만신과 맺은 관계를 신의 이름으로 기리는 날이 된다.

만신은 단골판 위에서 존립할 때 진정한 가치를 가진다. 성지 순례를 거쳐 진정한 구도자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내림굿의 존엄성과 신성한 가치를 거듭 확인하는 순간이다.

3. 만신의 진적굿과 단골판의 천신 및 성주받이는 깊은 관련이 있다. 만신이 꽃맞이 정성을 들이고 단풍맞이 정성을 들이듯이 단골판의 단골은 형편에 따라서 자신의 굿을 하게 되는데 봄에는 천신, 가을에는 성주받이를 지낸다.

4. 진적굿과 치성을 통해 맺어지는 강신무권의 신앙판은 단골판이라고 한다. 이 단골판의 걷이나 세습무권의 봄걷이 및 가을걷이는 서로 깊이 관련된다. 이 둘은 형식적인 방식이 다를 뿐 내용면에서는 서로 깊은 관련이 있다. 이 단골판의 내용을 보면 경제력의 근간을 이루는 점이 일치한다. 다만 후불제인가 맞돈을 내는가에 차이가 있다.

단골판에서 봄과 가을은 전통적 방식으로 하는 굿의 경제적 분배와 교환이 맞물려 있다. 경제적 자본의 회전과 이를 재분배하는 것에 기초해 굿이 짜여지고 형태가 다른 굿에도 성립된다.

참고문헌 서울굿의 다양성과 구조(김헌선, 서울굿의 이해, 민속원, 2007).
필자 김헌선(金憲宣)

진진오기굿

표제어 평진오기굿(915쪽)

쪼시개

정의 동해안오구굿에서 쓰이는 무가 또는 장단의 한 종류. 오구굿의 초망자굿에서 부르는 무가와 반주 장단을 지칭한다.

내용 쪼시개 1장은 무가와 타악기 합주가 교대하지 않고 무가만을 이어서 부르는 특징이 있다. 1장의 한 칸은 소리듬형이 반복되는 3+2+3(♩+♩+♩) 소박이다. 사설은 5칸을 단위로 제1, 2, 3, 4칸에만 붙고 제5칸에는 비어 있다. 따라서 한 장단은 3+2+3(♩+♩+♩)×5칸이고, 한 장단의 제4, 5칸에는 타악기 간주가 들어간다.

쪼시개 1장(M.M ♩+♩+♩ ≒25)

	1	2	3	4	5
무가1	돌아-/오소-/--	돌아-/-아/아아아	오--/--/--	---/--/---	---/--/---
	---/--/---	---/--/---	---/♩♪/♩	♪♩/♩♪/♩	♩/♩/♩
무가2	불쌍코/애참/하는	어열신/손씨/영가	돌아-/--/---	오--/--/---	---/--/---
	---/--/---	---/--/---	---/--/---	---/♩♪/♩	♪♩/♩♪/♩
	징--/--/---				

쪼시개 1장의 출현음은 la, do′, re′, mi′, sol′이다. la로 종지하고, 이 음을 떨며, re′-do′의 꺾는 퇴성이 re′-do′-re′-do′로 빈번히 나타난다. 즉 메나리토리 변형 선율이다. 쪼시개 1장은 한 장단(♩+♩+♩)×5칸으로 무가를 부른다. 선율선은 대개 하행형이고, 하행형에서의 주된 선율형은 re′-do′-la형이다.

쪼시개 2장은 청보 2장과 동일하다. 다만 쪼시개 2장도 청보장단처럼 무가와 타악기의 간주가 교대하지 않고 무가를 이어서 부르는 것이 다를 뿐이다. 2장은 3소박(♩)이 한 칸이 되고, 3소박 5개가 모여 한 장단이 된다. 매 장단의 제5칸에는 사설이 붙지 않고, 제4칸의 음이 연장된다. 징은 두 장단을 단위로 두 번째 장단의 첫 칸에 친다. 쪼시개 2장에서는 한 장단의 제4, 5칸에 간주와 바라지가 따른다.

쪼시개 2장(M.M ♩ ≒57)

	1	2	3	4	5
무가1	금일-	-종천	하적을	하고오	---
					♪♬♪
무가2	돌아갈	줄을-	어느누가	알까아	---
				♬♬♪	♬♪♪
	징--				

쪼시개 2장에는 mi, sol, la, do′가 출현한다. 다른 무가와 달리 sol이 빈번하게 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mi를 떨고 이 음으로 종지하는 메나리토리이다. 2장의 선율은 ♩×5칸 한 장단에서 단락된다. 선율선은 하행형이며, 선율형은 do′-la-mi형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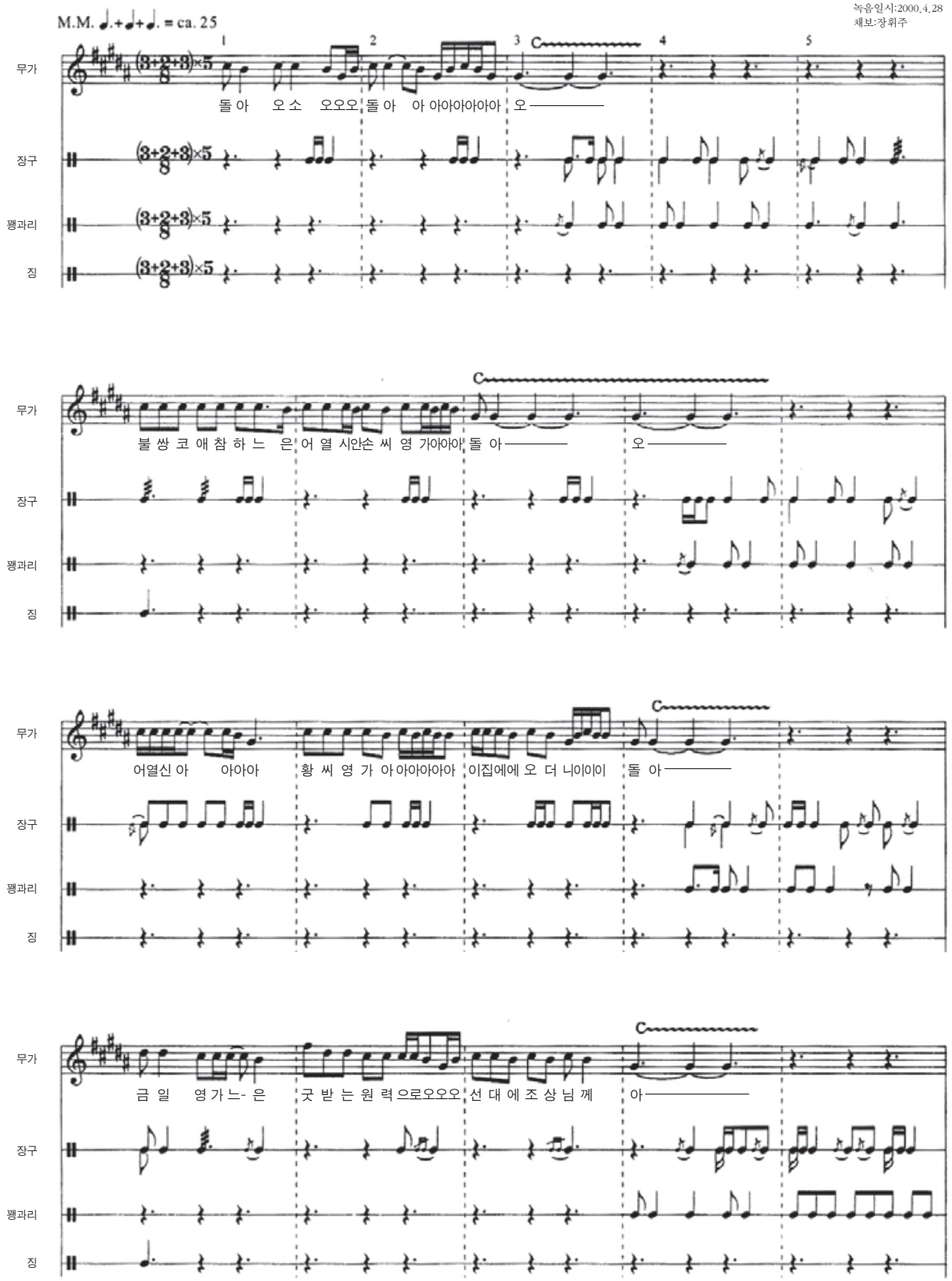
쪼시개 3장은 한 칸이 2소박(♩)이고, 다섯 칸을 주기로 음악이 반복하고 있어 ♩×5가 한 장단이 된다. 징은 2장과 같이 두 장단마다 한 번 치며, 첫 번째 칸에서 친다. 쪼시개 3장도 한 장단의 제4, 5칸에서 꽹과리 간주 및 바라지가 따른다.

쪼시개 3장(M.M ♩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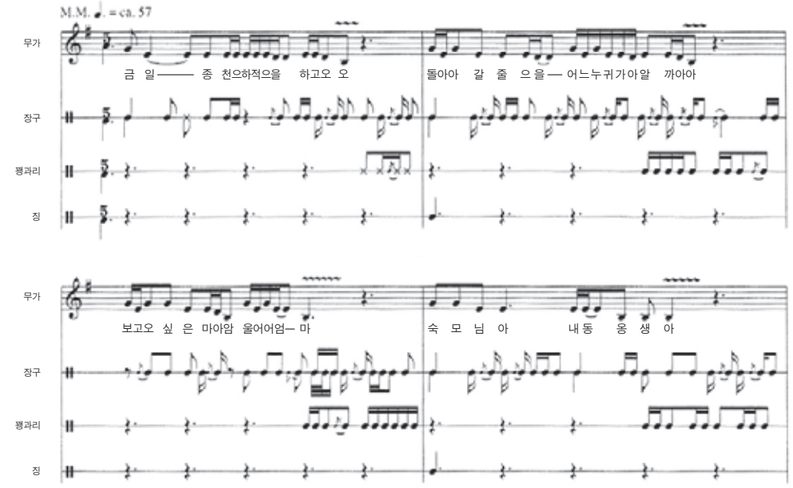
	1	2	3	4	5
무가1	오소	오소	돌아	오소	오-
				♩	♬♪
무가2	초제	이제로	돌아	오소	--
				♬-	♬
	징--				

쪼시개 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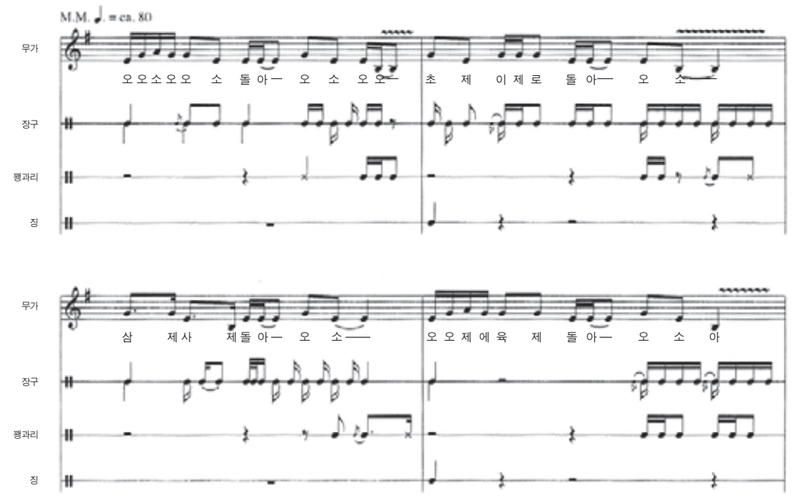
무가: 김영숙
장구: 김용대
꽹과리: 김정희 外
징: 김동렬
녹음일시: 2000. 4. 28
채보: 장휘주



쪼시개 2장



쪼시개 3장



쪼시개 3장의 출현음은 mi, la, do′, re′이다. mi에 요성이 있으며, 주로 이 음으로 종지하는 메나리토리 선율이다. 3장의 선율은 한 장단을 단위로 단락되며, 선율선은 하행형이다. 선율형은 2장과 마찬가지로 do′-la-mi형으로 나타난다.

지역사례 쪼시개는 동해안 중부 지역(경상북도)과 동해안 남부 지역(부산 · 울산) 오구굿의 초망자굿에서 공통적으로 부르는 무가이자 장단이다. 동해안 중부 지역 오구굿에서 발원굿을 서사무가로 구연하지 않는 경우에는 쪼시개를 사용한다.

참고문헌 경남 · 경북 동해안 무악 비교 연구(장휘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필자 윤동환(尹東煥)

자사본풀이
창부씨(倡夫氏)
채계만
천궁맞이상
천근소리
천금새남굿
천왕대
천왕메가굿
천존위목팔부신대
천지왕본풀이
철릭(天翼)
철망(鐵網)
철물이굿
철쭉대
첨사통(籤辭筒)
청계상
청너울
청룡도(靑龍刀)
청송무당
초공본풀이
초롱등
최갑선
최영 장군(崔瑩 將軍)
최음전
최형근
추라
충렬굿무가
충청도 독경무복
취타(吹打)
측신굿
칠성검(七星劍)
칠성방울
칠성본풀이
칠성새남
칠성신(七星神)
칠성풀이
칠쇠방울

차사본풀이

정의 제주도의 무당굿 가운데 망자의 혼령을 천도해 주는 '시왕맞이', '귀양풀이' 등에서 불리는 서사무가. 저승차사인 강님은 저승을 관장하는 시왕[十王]의 명을 받고 적패지(赤牌紙)를 들고와 정명(定命)이 된 인간을 잡아가는 존재이다. '시왕맞이'와 '귀양풀이' 등에서 〈차사본풀이〉를 구송함으로써 망자를 저승에까지 잘 인도해 주기를 기원한다.

내용 〈차사본풀이〉는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시왕맞이와 장례를 지낸 날 저녁에 죽은 영혼을 저승으로 보내는 간략한 굿인 귀양풀이 등에서 불린다. 시왕맞이에서는 주로 추물공연과 석살림 사이에 불리며, 평복 차림의 심방이 차사상 앞에 앉아 장구를 치며 구송한다.

〈차사본풀이〉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정국 범을왕의 아홉 아들 가운데 세 아들만이 살아남았다. 하루는 지나가는 중이 아이들을 보고 세상에 나가 장사하며 고생해야 오래 살 수 있다고 일러준다. 삼형제는 중의 말대로 장사를 하게 되고, 주년국 연못에 이르러 과양생이 처(妻)를 만난다. 재물에 욕심이 생긴 과양생이 처가 삼형제를 꾀어내어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죽이고는 재물을 뺏고 연못에 시체를 던져 넣는다. 그 뒤 과양생이 처가 연못에 갔다가 꽃 세 송이를 꺾어 와서 그 꽃에서 나온 구슬을 삼키고는 아이를 가져 삼형제를 낳는다. 세 아이가 커서 과거에 급제하여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 자리에서 모두 죽는다. 과양생이 처는 억울하다며 김치원님에게 소지를 올려 자신의 원통함을 풀어 달라고 한다. 원님은 강님을 시켜 염라대왕을 잡아오도록 한다. 강님은 아내의 말을 듣고 떡을 준비해 길을 떠난 뒤 조왕(竈王)과 세 신선의 도움을 받아 저승차사를 만나서 염라대왕을 데려온다. 염라대왕은 연못물을 퍼내고 삼형제의 시체를 찾아 과양생이 처의 죄를 다스리고, 강님의 혼을 데려가 저승차사로 삼는다.

〈차사본풀이〉는 1930년대 아카마쓰 지조(赤松智城)와 아키바 다카시(秋葉隆)가 박봉춘으로부터 〈체사본풀이〉를 채록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주도 큰굿을 조사한 자료집에는 대체로 빠짐없이 수록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채록 자료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명	구연자	채록자	수록책명	채록연도
1	체사본풀이	박봉춘	赤松智城 秋葉隆	조선무속의 연구(상)	1930~1933
2	차사본풀이	고대중	장주근	韓國の民間信仰(資料篇)	1962.8
3	(시왕맞이) 본풀이	안사인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
4	차사본	이영주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
5	차사본	김해춘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
6	차사본풀이	이정자	문무병	제주도무속신화열두본풀이자료집	-
7	차사본풀이	강순선	문무병	제주도 큰굿자료	1994.10
8	체서본풀이	강순선	강정식 외	동복 정병춘댁 시왕맞이	2006.4
9	체서본풀이	이용옥	허남춘 외	이용옥심방 본풀이	2008.4

〈차사본풀이〉와 내용이 비슷한 무가가 함경도 지역에서는 〈짐가제굿〉이라 하여 전승되며, 충북 보은에서 채록된 '영동이 유래담' 등을 비롯해 동일한 내용의 설화도 다수 채록되어 있다.

참고문헌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조선무속의 연구 상(赤松智城 · 秋葉隆, 심우성 역, 동문선, 1991),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진성기, 민속원, 1991), 제주도무속신화-열두본풀이자료집(문무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제주도 큰굿자료(문무병, 제주도 · 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1), 풍속무음(제주문화 편집부, 제주문화, 2002), 동복 정병춘댁 시왕맞이(강정식 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이용옥 심방 본풀이(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 韓國の民間信仰-資料篇(장주근, 도쿄:금화사, 1973).

필자 권태효(權泰孝)

창부씨(倡夫氏)

정의 광대신(廣大神)을 일컫는 말. 보통 생전에 명성 높은 광대가 죽어서 창부씨로 모셔진다. 혹은 명성 높은 광대가 죽어서 그 넋이 창부씨가 된다고도 한다. 창부 또는 창부대신(倡夫大神)이라고도 불리는 창부씨는 예능 혹은 풍류를 담당하는 신이다. 서울 · 경기 지역의 재수굿에서 창부거리라고 불리는 창부씨를 모시는 굿거리가 있다. 여기서 모셔지는 창부씨는 신명풀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풍류적 성격이 강하다. 덧붙여 창부거리에서의 창부씨는 일 년 열두 달의 횡액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한다.

내용 창부씨는 풍류를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 년 열두 달 가정의 횡액을 막아 주는 일을 하기도 한다. 창부씨가 예능뿐 아니라 가정의 횡액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은 창부씨를 모시는 굿거리인 창부거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창부거리는 서울 · 경기 지역에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굿거리이다. 평양 지역의 창부굿과 경기도 화성의 창부서낭굿이 보고되기는 했다. 광대신인 창부씨를 불러서 재수가 있게 해달라고 비는 굿거리가 평양 지역의 창부굿이다. 경기도 화성의 창부서낭굿에서는 마을의 수호신을 함께 모셔 횡액을 막아 줄 것을 빈다. 이 두 지역의 사례는 특별한 경우인 것으로 보이며, 지역적으로 보아 서울 · 경기 지역의 재수굿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것이 창부거리이다.

보통 창부거리는 서울 · 경기 지역 열두 거리굿에서 11번째에 행해진다. 굿거리는 창부청배, 창부공수, 창부타령의 순서로 진행된다. 창부청배는 창부씨를 부르는 것이고, 창부공수는 창부씨가 내린 무당의 입을 통하여 창부씨가 말을 하는 것이다. 창부타령은 남원에서 올라온 광대가 서울 성안에서 한동안 놀고 난 다음 일 년 열두 달에 드는 횡액(橫厄)을 막아낸다는 내용의 노래이다. 이러한 창부거리를 통하여 창부씨가 단지 예능을 담당하는 신격일 뿐 아니라 집안의 횡액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사례 일제강점기에 아키바 다카시(秋葉隆)의 조사에 의하면 개성 덕물산의 산상 마을 장군당 측당에는 가면 형태의 광대씨(廣大氏)가 걸려 있었다고 한다. 광대씨가 곧 광대신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때 개성 덕물산 산상 마을 장군당에 창부씨가 가면 형태로 모셔져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서울에도 창부씨를 모셔 놓은 당이 있다. 인왕산에 자리한 국사당(國師堂)에는 무신도로 창부씨를 모셔 놓고 있다. 일본 시즈오카(靜岡)시 세리자와게이스케(芹沢銈介) 미술관에 소장된 창부씨 무신도 역시 서울 지역 신당에 모셨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관련무신도 창부씨를 그려 놓은 무신도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서울시 종로구 무악동 산 2-12번지 국사당에 모셔진 것이다. 이 무신도는 1970년 3월 24일 중요민속자료 제17-6호로 지정되었다. 국사당 창부씨 무신도는 세로 101㎝, 가로 53㎝ 크기의 견본채색(絹本彩色)으로 되어 있다. 피리를 불며 줄을 타고 있는 지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자세가 기묘하게 표현되었다. 왼쪽 다리를 번쩍 들고 몸의 중심을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자세에서 피리를 불고 있다. 춤을 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흰색 바지에 누른색 두루마기를 입었다. 머리에는 갓 모양의 모자를 썼으며, 모자의 턱에 묶는 끈은 구슬로 되어 있고, 인물의 움직임에 맞추어 옷주름과 허리띠의 방향도 잘 표현되어 있다. 몸의 오른쪽으로 휘날리는 옷자락의 펄럭임이 경쾌하다. 대부분의 무신

1. 국사당 창부씨 무신도
서울시 종로구 무악동 | 1972.10.31 | 장주근

2. 창부씨 무신도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가로 65.8㎝, 세로 123.7㎝





도가 정태적인 모습으로 표현된 것에 반해 국사당 창부씨 무신도는 날렵하고 동태적이다.

일본 시즈오카시 세리자와게이스케 미술관에 소장된 무신도 창부씨 역시 주목할 만하다. 그림 하단에 '창부씨'라고 적혀 있다. 국사당 무신도 창부씨가 남성적인 데다 날렵하고 경쾌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세리자와게이스케 미술관의 무신도는 여성적이며 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오른손에 노란색 천을 휘감고 왼손에는 피리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다.

참고문헌 한국무가집 3(김태곤, 집문당, 1978), 조선무속의 현지연구(秋葉隆, 최길성 역,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7), 한국민속의 세계 9(김헌선 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무신도, 인간적인 신의 세계(정병모, 그림으로 만나는 한국의 무신, 강릉시오죽헌 · 시립박물관, 2004), 창부거리 무가의 성립과정(김헌선, 고전문학연구 9, 한국고전문학회, 1994), 한국 무속신 고찰(양종승, 몽골학 4, 한국몽골학회, 1996).
필자 허용호(許龍鎬)

채계만

분야 중요무형문화재 제72호 진도씻김굿 악사 부문 기능보유자.

내용 채계만(蔡桂萬, 남)은 1915년(호적상에는 1916년 5월 16일로 등재)에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43번지에서 출생하였다. 진도 보통학교를 졸업한 채계만은 음악은 정규학교 수업과 상관없이 옛 명인들을 통해 습득하며 다양한 국악 활동과 공연을 통해 악사로서의 소양을 쌓았다. 18세 때 진도군 진도읍내에서 채두인에게 장구 장단을 배우고, 22세 때에는 2년간 진도의 채맹인에게 가야금산조 진양조부터 휘모리까지 기초학습을 하였다. 그 뒤 굿 현장에 악사로 참여하면서 꽹과리, 징, 장구를 자연스럽게 익혔다. 그의 전공 악기인 아쟁 역시 따로 배우지 않고 견학하여 자습한 것이라고 한다. 그는 39세 때부터 10여 년간 삼성여성국극단, 햇님 등 창극단을 수행하며 아쟁으로 반주음악을 연주하였다. 국극단에서는 국악 연주뿐 아니라 클라리넷도 불렀다.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는 후진 양성에 힘쓰면서 간간이 굿판에다가 아쟁과 가야금을 연주하는 고인(鼓人)으로 활동하였다. 특히 진도에서 아쟁을 잘 타는 고인이 많지 않아서 아쟁 연주자로서 여러 곳에 초빙되어 다녔다. 1943년부터 1946년까지 진도국악원 악장으로 있었으며, 1979년 9월 18일 KBS 〈즐거운 인생〉의 최우수상을 받고, 1985년 6월에는 서독 외 유럽 5개국을 순회 공연하는 등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였다. 채계만은 진도의 이름난 무녀들인 박선례, 김석연 등 여러 선굿 명인들을 수행하며 가야금 또는 아쟁을 연주하였다. 1980년 11월 17일에 진도씻김굿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에는 진도씻김굿 공연 현장에서 아쟁을 연주하였다. 특히 현재 진도씻김굿 예능보유자인 박병원을 전수생 시절부터 육성함으로써 진도씻김굿 아쟁 연주의 토대를 다졌다.

채계만의 선조는 원래 신안군 비금면 출신이었으나 8대조인 채걸합이 진도군으로 이주하면서부터 진도에서 살게 되었다. 신안에서도 무업을 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채걸합의 두 부인 구씨와 김씨 가운데 김씨가 무계였다는 점은 확인된다. 채계만의 증조부는 진도 군수로부터 오위장(五衛將 : 7品이하)에 준하는 벼슬을 받는 등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쌓기도 하였다. 그 후 현재까지 집안 대대로 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많은 무속인이 배출되었다. 특히 현재 활동 중인 채정례도 채계만과 8촌간인 동일 가계 인물이다.

채계만은 안씨와 결혼하여 2남 2녀를 두었지만 자녀들 중에 무업을 계승한 사람은 없다. 상처한 후 혼자 진도읍내 셋방에서 살다가 2002년 9월 29일 87세가 되던 해에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월가리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그가 남긴 음반으로는 〈무악 진도씻김굿〉(소리 김대례 · 이완순, 아쟁 채계만, 피리 김귀봉, 북 강준섭, 장구 박병천)이 있다. 이 음반은 1992년 6월 진도홀에서 녹음되었고 1994년 사운드스페이스/삼성나이세스에서 제작해 출반되었다.

참고문헌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무의식편(정병호 외, 문화재관리국, 1983), 진도무속현지조사(국립민속박물관 · 전라남도, 1988), 진도씻김굿(황루시, 화산문화, 2001), 향토문화전자대전(이경엽, http://jindo.grandculture.net).
필자 김혜정(金惠貞)–경인교대

천궁맞이상

정의 서울굿에서 천궁맞이에 쓰이는 제물상.

내용 천궁맞이상은 원래 재수굿에서도 차렸다고 하지만 현재는 주로 신굿과 진적굿에서만 볼 수 있다. 천궁맞이상은 굿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차리는 상이기도 하다. 반드시 하늘이 열린 곳에 차려야 하기 때문에 전통 한옥의 경우 마당에, 굿당에서는 창문 옆이나 문 밖에 차린다. 복장과 제차, 제물 모두 불사거리와 유사하다. 천궁맞이상, 불사상, 안당제석상은 어느 정도 상호 교환이 가능하다. 천궁맞이를 따로 하지 않는 진적굿에서는 불사거리가 동일한 역할과 내용을 보인다. 다만 '천궁'이라는 이름에서 불사거리나 제석거리에 비해 천신(天神)의 의미가 짙어짐을 알 수 있다.

떡의 종류와 수는 굿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 3접시, 6접시, 10접시 순으로 늘어난다. 같은 굿에 차린 불사상보다 떡의 수와 종류가 많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다. 굵은 가래떡인 방망이떡은 한 접시에 세 개에서 여섯 개를 놓는다. 여기에 불사시루를 놓고, 다른 떡을 더 한다. 대신시루를 함께 올리기도 한다. 대신할머니시루라고도 하는 대신시루는 멥쌀과 콩을 섞어서 쪄내는 콩설기를 말한다. 용떡을 쓴다는 언급도 있다. 용떡은 전통 혼례식에 나오는 떡으로, 가래떡을 둥글게 빚어 용틀임 형상으로 만든 떡이라는 기록과 함께 절편을 양푼에 굵직하게 틀어올려 용신에게 바치는 떡이라는 기록이 있다. 기본적으로는 흰색이며 노란색과 푸른색도 가능하다. 붉은 팥떡은 쓰지 않는다.

맑은 물을 3그릇 올린다. 물 대신 차를 쓰기도 한다. 이 차는 보통 찻잎을 우려낸 것이 아니라 물에 대추나 통후추를 띄운 것으로 대추차 · 후추차(호초차)라고 부르며 무가(巫歌)에도 언급된다. 이는 단순한 물보다 한층 정성을 다한 것으로 여겨졌다. 드물게 술을 올리는 굿도 있다.

나물은 흔히 삼색나물을 쓴다.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가 기본이며 시금치 대신 숙주 또는 무나물을 쓰기도 한다. 1970년대까지는 숙주 또는 무나물을 쓰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한다. 삼색나물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다. 각 나물이 신과 조상과 인간을 상징한다는 설명도 있고 하늘로 자라는 고사리, 땅에서 캐는 도라지, 물에서 나는 숙주라는 설명도 있다. 드물게 튀각을 더하기도 한다.

생밤과 생대추를 접시에 놓고 나머지 과일로는 사과 · 배 · 감을 기본으로 하여 3, 5, 7, 9, 12종으로 늘어나면서 복숭아를 빼면 종류에 제한이 없다. 조과는 산자, 약과, 다식을 기본으로 3, 5, 7, 9, 12종으로 늘어나며 옥춘 · 팔보 · 하스 · 밤과자 · 곶감 등도 볼 수 있다.

음식 외에 불사상에서 볼 수 있는 무구로는 상 안쪽에 흰 종이를 접은 고깔, 흰 창호지 한 장을 여러 번 접어서 오려 만든 불사전, 한지를 길게 3등분하여 꼬아 꽃잎 모양으로 만들어서 떡 위에 놓는 새발심지가 있다. 새발심지는 굿당에서 흔히 볼 수 없다.

천궁맞이 중에는 옆에 놓아둔 물동이를 타면서 공수를 하는 과정이 있다. 이를 '용궁을 탄다'고 표현한다. 주로 무병장수와 집안의 안녕을 빈다.

참고문헌 굿과 음식 1(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서울굿의 상차림에 대하여(홍태한, 한국무속학 6, 한국무속학회, 2003), 굿상에 투영된 신에 대한 인식(이수현,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6).
필자 이수현(李琇炫)

천근소리

정의 전라도 씻김굿과 남해안별신굿에서 불리는 무가. 씻김굿에서는 오구굿, 넋올리기, 씻김같이 망자와 관련된 굿거리의 끝 부분에 부른다. 남해안별신굿에서는 말미, 대너리, 염 등에 이어 천근을 부른다.

내용 '천근이야'라는 가사를 반복하여 부르기 때문에 천근소리라 한다. 천근소리를 부르기 전에 음영조의 천근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장단과 형식, 가창방식 등은 지역과 무녀마다 다르다. 전라도 씻김굿의 무당은 각 굿거리를 마칠 때 성주풀이

계열의 악곡이나 천근소리 가운데 하나를 부른다. 그리고 망자와 관련 있는 굿거리들은 천근소리로 끝맺고 나머지는 성주풀이로 맺는다. 성주풀이에서는 연행이 춤으로 연결되어 한바탕 놀아지고 굿거리가 끝나는 것에 비해 천근소리를 부를 때는 굿이 비교적 엄숙하게 끝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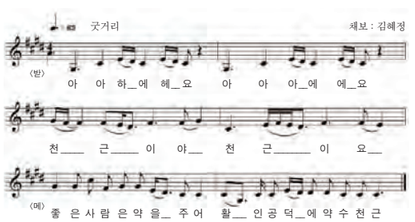
지역사례 천근소리는 지역마다 선율과 장단이 다르고 용례도 차이가 있지만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진도씻김굿의 천근소리와 여타 다른 지역의 천근소리로 크게 양분할 수 있다. 문화재로 지정된 진도씻김굿의 천근소리는 본래 전승되지 않은 소리이지만 문화재 지정 전후로 영암의 천근소리와 진도 채정례 일행의 천근소리를 조합하여 만들어 부르게 됐다. 이 때문에 화려하고 세련된 맛이 강하여 다른 지역 악사들은 문화재 지정팀의 천근소리(진도씻김굿의 천근소리)를 소리제 또는 진도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소리제는 어정소리와 달리 판소리처럼 만들어졌다는 의미이다.

진도씻김굿의 천근소리가 여느 지역 천근소리와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도씻김굿의 천근소리는 3소박 4박의 굿거리장단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천근소리가 엄숙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과 달리 흥겨운 느낌으로 노래된다. 둘째 진도씻김굿의 천근소리는 두 장단을 메기고 네 장단을 받는 선후창 형식으로 노래한다. 다른 지역의 천근소리는 모두 제창 형식이므로 문화재 지정팀에서 메기는 소리를 새로 추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진도씻김굿의 천근소리에는 천근말이 없거나 매우 짧다. 순천 천근소리는 천근말을 길게 한 후 종지의 의미로 천근소리를 부르지만 이에 비해 진도씻김굿은 천근소리가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넷째 진도씻김굿의 천근소리는 음계 활용이 특이하여 따로 천근소리목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인 씻김굿 무가는 '미라시도'를 중심으로 하는 육자배기목으로 되어 있지만 천근소리목은 '라레미'를 중심으로 선율이 진행된다. 천근소리목은 청의 위치를 육자배기목의 4도 위로 옮기면서 평조 선율로 바뀌어 있는 형태이다. 그러나 완전한 이조가 되지 않고 여전히 육자배기목의 꺾는 음이 섞여 사용됨으로써 오히려 독특한 맛을 내고 있다. 천근소리목은 '레' 음으로 종지하며, 이후 육자배기목으로 다시 돌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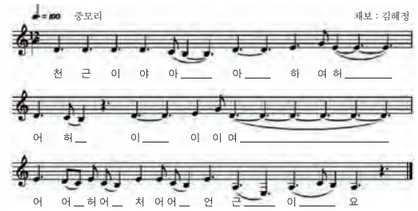
진도씻김굿의 천근소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천근소리들도 각각 차이가 난다. 그 가운데 순천삼설양굿의 천근소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순천삼설양굿의 천근소리는 3소박 12박의 세마치형 장단을 사용하며, 전체 악곡의 길이가 3장단 정도에 불과하다. 전반부의 두 장단에서는 '레' 음을 중심으로 '솔'이 출현하는 평조선율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무가와 다른 독특한 느낌이 있다. 그러나 마지막 한 장단은 육자배기목으로 되돌아가서 종지된다. 순천의 악사들은 '진도제'와 달리 순천 천근소리가 하행형 선율로 되어 있는 '어정제'라고 말한다. 순천삼설양굿에서는 혼맞이, 오구굿, 고풀이, 넋올리기, 씻김, 길닦음, 객사고풀이 등 제석굿 이후의 모든 굿거리가 천근소리로 마무리되고 있다. 심지어 고풀이에서 성주풀이 계열 악곡을 부른 이후 다시 천근소리를 부른다. 또 넋올리기에서는 당산주산풀이, 천근소리, 말미소리, 천근소리, 동살풀이, 천근소리, 사자여우기, 천근소리와 같이 천근소리를 네 차례 반복하고 있으며, 매번 길이가 긴 천근말이 앞에 붙는다. 무녀가 악기반주 없이 천근말을 음영하다가 악사들과 함께 천근소리를 제창함으로써 종지의 느낌을 만들어 낸다.

남해안별신굿의 천근은 불규칙 박과 불규칙 박자로 음영조처럼 읊어 나간다. 남해안별신굿의 전승자인 정영만은 '천근이 안 되면 저승에 못 간다', '하늘, 땅, 인간의 소리이다'라는 말로 천근을 설명하고 있다. 천근이 망자를 저승에 보내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전남의 씻김굿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진도씻김굿의 천근소리



순천삼설양굿의 천근소리



참고문헌 씻김굿의 음악(이보형, 진도의 문화예술, 진도군, 1992), 호남의 곽머리씻김굿(나경수 외, 민속원, 2009), 연행 및 전승 맥락에서 본 씻김굿의 예술성과 연희성(이경엽, 구비문학연구 18, 한국구비문학회, 2004), 남해안별신굿 연행구조 연구(오진호, 실천민속학연구 9, 실천민속학회, 2007), 씻김굿의 거리별 장단사용의 보편성과 지역별 특수성(김혜정, 공연문화연구 16, 공연문화학회, 2008).
필자 김혜정(金惠貞)–경인교대

천금새남굿

정의 서울의 망자 천도굿인 진오기굿 중 화려한 '진오기새남굿'을 달리 부르는 명칭.

내용 천금새남굿은 실제로 서울 진오기굿의 여러 무가 사설에 등장하는 용어이다. "천금새남 받으시고 연화대로 산하소서"라는 구절이 진오기굿에 관용적으로 등장한다. 망자를 극락으로 천도시킬 때 사용하는 이 용어에서 천금새남은 구체적인 제차(祭次)를 갖춘 진오기굿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망자를 온전하게 저승으로 보낼 수 있는 진오기굿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다.

진오기굿의 종류를 보면, 천금새남굿은 과거에 부자들이 주로 하던 진오기굿으로 상차림이 매우 화려하다. 평진오기굿에 스님이 참가하여 염불을 하는 재받이가 추가되면 새남굿이 되고, 돗삼돌기 · 명두청배 · 중디밧산의 유무에 따라 얼새남 · 원새남 · 쌍계새남 등으로 나뉜다. 진오기굿의 규모나 굿거리 짜임새 등에 따라 얼새남, 원새남, 천금새남, 쌍계새남 등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천금새남은 화려함과 상차림에서 진오기굿의 으뜸이었다고 한다. 서울 사람들 입장에서 진오기굿에 참가하여 망자를 저승으로 천도시키는 천금새남은 동경의 대상이었고, 진오기굿을 연행하는 무당들에게도 천금새남은 으뜸가는 진오기굿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천금새남굿은 진오기굿 무가 사설에도 망자가 저승갈 때 꼭 받아가는 굿의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필자 홍태한(洪泰漢)

천왕대

정의 부산 지방의 별신굿 가운데 밧당 천왕굿에서 사용되는 무구.

내용 천왕대는 동해안별신굿에서 천왕굿을 진행할 때 굿막 바깥에 세워둔다. 천왕대로는 잎이 달린 큰 대나무를 사용한다. 길이는 보통 350㎝ 내외인데 정해진 길이는 없다.

천왕은 천왕국의 가장 높은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찰 입구에서 사찰을 지키는 사천왕과 같은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천왕은 극락을 지키는 절대적 존재인데, 천왕굿은 여러 신을 청해 그들을 위로하고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복을 빌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굿이기 때문에 극락을 지키는 천왕도 하나의 신으로 받들어 모셔지는 것이다.

무녀가 청보 무가를 부른 다음 "우여차 천왕님네 천왕대 내 모시러 가자" 하면서 굿당 밖에 세워놓은 천왕대를 모시러 간다. 무당이 굿당 입구에서 천왕대를 들고 "욕심많고 탐심많은 천왕네, 밥은 솥밥을 자시고, 자식들 명주고 복주고" 하는 사설을 읊으면, 제관이 두루마기를 천왕대에 건다. 천왕대에는 제관의 두루마기와 함께 그 아래에 종이수술 같은 손대를 달아 놓는데, 주민들은 여기에 돈을 매달고, 무당은 이 천왕대를 아래위로 떨듯 흔들며 주민들의 머리 위를 쓸 듯이 지나가며 축원한다.

동해안별신굿에서 천왕대는 천왕굿 외에 신을 받는데 사용하기도 한다. 이때 천왕대는 신대라고 불린다. 신대는 당굿에서 서낭신을 모실 때나 용왕굿에서 신내림을 할 때, 월래굿 후반부에 조상



1. 천왕대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학리 | 2005.3.4 | 심상교

2~3. 천왕대
경북 경주시 감포읍 | 2003.6.28 | 심상교





들에게 마을의 중대한 결정사항에 대한 신적 충고가 필요할 때 사용한다. 천왕대 혹은 신대를 잡는 사람은 마을의 주민이다. 특별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을에서 '날 받는 일'을 한 적이 있거나 그와 유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즉 강신무의 특성이 있는 사람이면 더 효과적이다. 마을 주민이 잡고 선 천왕대 혹은 신대 앞에서 무녀는 제금을 울리며 신의 강림을 호소한다. 이때의 신은 마을 시조에 해당되는 '할배신'이나 '할매신'이다. 신이 내렸다는 표식은 천왕대 혹은 신대의 떨림으로 나타난다. 신이 내리면 신대를 잡고 있는 마을 주민이 갑자기 몸을 떨게 되는데 이로 인해 천왕대 혹은 신대도 함께 떨리게 된다. 잎이 무성한 대나무가 떨리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는 신의 강림을 의미하는 효과적인 음향이다.

천왕대 혹은 신대를 잡은 사람은 입을 닫은 채 대를 흔들기도 하지만 입을 다물지 않고 강신의 말을 하기도 한다. 입을 닫은 사람은 눈을 감는 경우가 많으며 매우 긴장된 표정으로 뭔가 할 말이 있지만 할 수 없는 답답한 표정을 짓기도 한다. 입은 닫지 않고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마을과 자신에 관한 말을 한다. 이 말은 곧 '신의 말'로서 신의 뜻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듯이 신의 감정과 신의 말로 마을 사람들에게 신을 대리하여 뭔가를 이야기한다.

천왕대 혹은 신대의 흔들림은 입을 닫은 사람에게서나 닫지 않은 사람에게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무녀가 대를 향해 어떤 말을 물으면, 대는 흔들리거나 큰 원을 그리는 행위로 신의 의사표시를 한다. 무녀가 질문하는 내용은 마을의 중대사이다. 입을 다물지 않고 뭔가 이야기하는 사람은 마을의 여러 분란과 경사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거나 칭찬하기도 한다.

남해안별신굿에서 천왕대는 본래 신이 내려오는 신대의 하나로 서낭대라고도 한다. 굿을 하는 집에서 굿하는 날에 집의 한 기둥(마루 앞 큰 기둥) 앞에 세우는데 때로는 문간이나 울타리에 세우기도 한다. 통영 지방 서낭대는 서너 길 되는 긴 산 대나무를 가지째 베어다가 아랫가지는 모두 쳐내고 위에는 잎이 달린 채로 두고 한지를 오려 전발을 단다.

참고문헌 한국무속의 연구(재판)(최길성,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0).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경상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필자 심상교(沈相敎)

천왕메기굿

정의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일대의 주민들이 동제당인 천왕당에서 정월 보름에 지내는 마을 의례. 이 굿은 1989년 6월 15일에 천왕메기라는 명칭으로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되었다.

역사 기천왕은 현재의 북비산로터리 위쪽에 있던 큰 고목이었으며, 말천왕은 현재의 비산 3동 삼성예식장 위치에 있던 고목이었다. 현재의 비산1동 1번지에 위치하였던 중천왕은 고목인 천왕목(天王木)과 사당과 조산(造山)이었으며, 사당 안의 벽에는 천왕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사당과 조산은 1960년대 이후 대구광역시의 도시개발 과정에 철거되어 자취를 감추었다. 천왕메기는 한국전쟁 이전까지도 관행되던 '지신풀이'이다. 구전에 의하면 약 400년 전에 대구 지역에서 계속된 가뭄과 돌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 민심이 흉흉해졌을 때 마을주민들이 중천왕 자리에 흙으로 당집을 짓고 치성을 드렸다고 한다. 그 뒤 지나가던 주민들은 당집에 돌을 하나씩 던지게 되면서, 그 돌이 쌓여 조산이 되었다. 주민들은 여기에 돌을 던지는 것을 천왕에 대한 치성으로 여겼다. 해마다 정월에 천왕제를 지냈으며, 치성이 부족하면 또다시 가뭄이 들거나 질병에 시달렸다고 한다.

내용 비산동 일대에는 기천왕, 중천왕, 말천왕 등 세 개의 동제당이 있었다. 원래 정초에 대내림으로 제관과 독축관을 정하고 정월 보름에 천왕제를 지냈다. 이때 사당 앞에까지 가면서 질굿을 치고, 사당문 앞에서 문굿을 치며, 사당에 들어가서는 유교식으로 헌작(獻爵)을 하며 축을 읽고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천왕메기로 들어가 지신풀이를 계속하였다. 보통의 지신밟기는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이루어지는데 비산동 천왕메기는 사당의 앞마당에서 홍겨운 가무로 판굿을 벌이고 난 다음에 끝을 맺는 마을굿의 특징을 띠고 있다.

천왕메기굿은 현재 질굿, 문굿, 대내림(천왕제), 고사 독축, 천왕메기(지신풀이), 천왕굿, 천왕놀이, 질굿(마을굿)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질굿 · 대내림 · 천왕굿, 천왕놀이는 농악, 문굿 · 천왕메기는 지신풀이, 고사 독축은 유교식 제의이다. 현재 천왕메기굿의 연행자는 약 50명으로 축관, 징, 북, 장구, 기수, 소고, 대감, 각시, 포수, 대잡이, 태평소 등을 담당하고 있다.

질굿은 마을의 모든 패랭이패가 당제를 모시는 천왕당 문 앞에까지 이동하면서 치는 굿이다. 질굿은 당제를 드린다는 것을 온 마을에 알리는 기능도 한다. 문굿은 패랭이패가 천왕당 앞문에 도착하여 짧게 흥을 돋운 후 문굿 사설로써 모든 부정한 액과 살을 물리치고 한 해의 만복을 기원하는 과정이다. 대내림은 천왕당 문 앞에서 신을 내리는 과정이며 신이 내린 대가 제관과 축관을 선택하면, 제관과 축관이 제를 지내는 고사 독축을 한다. 천왕메기굿은 천왕에 대한 지신풀이로서 마을의 액을 쫓고 복을 비는 굿이다. 다음은 천왕메기 지신풀이 사설이다.

남산은 봉이요 주산은 당산이라
안강은 강이요 여산은 도읍이라
천간이 착하시니 하늘이 생기시고
지복이 착하시니 땅이 생기셨네
인보솔상하니 사람이 생기셨네
그때 그시절에는 동방문이 열리시고
그때 그시절에는 서방문도 열리셨네
남방문도 열리시고 북방문도 열리셨네
오구제석 천왕문이 사방으로 열리셨네
함경도라 백두산은 두만강이 둘러있고
평안도 묘향산은 대동강이 둘러있고
황해도라 구월산은 임진강이 둘러있고
강원도 금강산은 해금강이 둘러있고
경기도라 삼각산은 한강수가 둘러있고
충청도라 계룡산은 공주금강 둘러있고
경상도라 태백산은 낙동강이 둘러있고
전라도라 지리산은 용림수가 둘러있네
제주도라 한라산은 사면바다 둘러있네
맥이맥이 성황님네 봉봉이 성황님네
앞도당산 천왕님네 뒷도당산 천왕님네
골골마다 천왕님네 자리잡던 천왕님네
사바세계 고행중에 지극성심 이중생은
오늘날 이 자리에 맑은정신 가다듬어
대자대비 신통자세 거룩하신 천왕님께
한 많은 모든포부 애원발원 하나이다
해와달이 천마산을 차별없이 비추지만
그중에서 높은산을 제일먼저 비추듯이
천왕님의 신력으로 중생차별 없아오니
지극정성 급한중생 제일먼저 구언하사
천만소원 성취시켜 안락하게 하옵소서
이마음에 어두움이 그믐밤과 같사오니
천왕님의 은덕으로 일월같이 비추소서
오느때나 밝고밝아 무명어둠 없게하고
이마음에 쌓인죄가 엄동설한 눈같으니
봄바람 부슬비로 부드럽게 녹여지고
화화초초 선명하듯 화창하게 하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왕님전 비나이다
이 고을 많은인생 가뭄에서 벗어나고
모진질병 들어올때 천왕이 막아주소
천만가지 성취시켜 안락하게 하옵소서

천왕굿은 지신풀이 후에 천왕당 앞에서 벌어지는 굿판이다. 천왕놀이는 천왕당 둘레를 돌면서 노는 판굿이다. 기천왕에서는 다드레기로 끝나고, 중천왕에서는 2채에서 12채까지의 다양한 가락으로 덧배기들놀이를 비롯한 굿판이 벌어진다. 말천왕에서는 모든 패랭이패가 한판 굿을 한다. 질굿은 삼천왕에 대한 굿이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 노는 마을굿이다. 이때는 정적궁이, 엎어빼기, 다드레기 등 천왕메기굿의 모든 가락이 동원된다.

참고문헌 날뫼문화(대구서구문화원, 2005), www.cha.go.kr.
필자 이균옥(李均玉)

천존위목팔부신대

정의 망자(亡者)가 저승으로 가는 도중에 바다를 건널 때 그를 보호한다는 천존위목팔부신을 빙의(憑依)시키는 대. 대전광역시 일원의 법사들은 이를 '천존위목팔부신대'라고 부르나, 그 어의(語義)상으로 보면 '팔부신대'라고 명명(命名)해야 올바르다.

형태 대나무로 제작되며 길이는 약 30㎝이다. 평소에는 굿당 중앙에 모셔둔다. 놋쇠로 만든 주발(周鉢)에 불밝이쌀을 담고, 그 위에 천존위목팔부신대 4개를 사방에 꽂아둔다. 밥그릇의 한가운데에는 새발심지에 불을 밝혀 놓는다.

내용 천존위목팔부신대는 대전광역시 일원에서 앉은굿 법사로 활동했던 고(故) 황하청 법사와 그의 제자인 송선자 보살이 쓰는 무구(巫具)이다. 이들은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호 '대전의 앉은굿(1994년 6월 7일 지정)'의 예능보유자이다. 황하청 법사 사후(死後)에 송선자 보살이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천존신장위목', '팔부신대', '천존신장' 등으로도 불린다. 망자의 저승길에서 도해(渡海)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참고문헌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충청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필자 이필영(李弼泳)

천지왕본풀이

정의 제주도 큰굿의 서막이라고도 볼 수 있는 초감제 가운데 맨 앞에 열리는 굿거리. '베포도업침'이라고도 한다. 〈천지왕본풀이〉는 굿의 한 거리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이때 불리는 무가를 뜻하기도 한다. 본래 '풀이'라는 말 자체가 의례적 성격과 신화적 성격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맺힘과 풀림의 상대적 관계로 보면 의례적 성격이 강하고, 신의 내력담을 풀어낸다는 점에서 보면 신화적 성격이 강하다.

내용 초감제(신의 내력, 좌정, 흠향 등을 위함)의 기능은 굿을 하고 있는 시간과 장소, 굿의 목적을 임재(臨齋)할 신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그리고 천지왕은 우주기원과 관련되는 신이기 때문에 초감제에서도 가장 먼저 불린다. 손진태의 〈창세가〉와 아울러 제주도에서 불리는 〈천지왕본풀이〉는 우리나라의 우주기원신화, 인류기원신화, 문화기원신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소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심방은 제상 앞에 앉거나 신칼과 요령을 들고서서 〈천지왕본풀이〉를 구연한다. 특히 여러 심방이 공동 참여하는 굿에서는 수심방이 〈천지왕본풀이〉를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태초에 천지는 혼돈 상태로 있었다. 하늘과 땅이 떨어지지 않아 서로 맞붙어 있었고, 암흑으로 휩싸여 한 덩어리로 되어 있었다. 이 혼돈천지에 개벽(開闢)의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갑자(甲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에 하늘의 머리가 자방(子方)으로 열리고, 을축(乙丑)년 을축월 을축일 을축시에 땅의 머리가 축방(丑方)으로 열려 하늘과 땅 사이에 금이 생겼다. 이 금이 점점 벌어지면서 땅덩어리에서 산이 솟아오르고 물이 흘러내려 하늘과 땅의 경계가 점점 분명해졌다. 이때 하늘에서는 청이슬이 내리고 땅에서는 흑이슬이 솟아서 서로 합수되어 음양의 상통으로 만물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먼저 별이 생겨나고, 아직 태양이 없을 때 천황닭이 목을 들고 지황닭이 날개를 치고 인황닭이 꼬리를 치니 갑을동방에서 동이 트기 시작했다. 이때 하늘의 옥황상제 천지왕이 해와 달을 두 개씩 내보내어 천지가 개벽하게 되었으며, 아직은 질서가 없어 혼란스럽기만 했다.

어느 날 천지왕은 좋은 꿈을 꾼 후 지상으로 내려가 총명부인을 배필로 맞고자 했다. 총명부인은 자신을 찾아온 천지왕을 대접할 생각으로 부자인 수명장자의 집에 가서 쌀을 빌려 왔다. 하지만 마음씨 고약한 수명장자는 쌀에 모래를 섞어 주었다. 첫술에 돌을 씹은 천지왕은 수명장자와 그 아들딸들의 악행을 전해 듣고 집을 불태워 벌을 주었다.

며칠간의 동침 후에 천지왕이 하늘로 올라가려 하자 총명부인이 자식을 낳으면 어찌할지를 물었다. 이에 천지왕이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대별왕 · 소별왕이라 짓고, 딸을 낳거든 대월왕 · 소월왕이라 지으라고 했다. 그리고 박씨 세 개를 내주며 자식들이 자신을 찾거든 이를 심어 하늘로 뻗쳐 올라간 줄을 타고 올라올 수 있도록 당부도 남겼다. 천지왕이 하늘로 올라간 후 총명부인이 아들 형제를 낳아 이름을 대별왕과 소별왕이라고 지었다. 형제는 자라나서 아버지를 만나고자 박씨를 심었다. 박씨에서 움이 돋아 덩굴이 하늘로 뻗어 올라갔다. 이에 형제는 그 덩굴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 천지왕을 만났다.

천지왕은 형인 대별왕에게 이승, 아우인 소별왕에게 저승을 각각 차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소별왕은 욕심이 많아 이승을 차지하고 싶었다. 그리하여 형에게 서로 경쟁하여 이기는 자가 이승을 차지하자는 내기를 청했다. 동생은 먼저 수수께끼로 다투었으나 이기지 못하자 한 번 더 하자고 졸라서 서천꽃밭에 꽃을 심어 더 번성하게 한 이가 이승을 차지하자는 내기를 하였다. 꽃을 가꾸는 데 있어 대별왕의 꽃은 번성했지만 소별왕의 꽃은 번성하지 못했다. 이에 소별왕이 대별왕에게 잠을 자자고 하고는 대별왕이 잠든 사이에 몰래 대별왕의 꽃을 자기 앞에 가져다 놓고 자신의 꽃을 대별왕 앞에 가져다 놓았다. 잠에서 깬 대별왕은 꽃이

바뀐 것을 알았으나 소별왕에게 이승을 차지하도록 하고 자신은 저승으로 갔다.

소별왕이 이승에 와서 보니 해도 두 개가 뜨고 달도 두 개가 뜨고, 초목이나 짐승도 말을 하고, 인간 세상에는 도둑·불화(不和)·간음이 성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을 부르면 귀신이 대답하고 귀신을 부르면 사람이 대답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소별왕은 형에게 이 혼란을 바로잡아 주도록 부탁했다. 대별왕은 활과 살을 가지고 해와 달 하나씩을 쏘아 바다에 던져 하나씩만 남기고, 송피가루 닷 말 닷 되를 뿌려서 짐승들과 초목이 말을 못하게 하였다. 또한 귀신과 인간은 저울질을 하여 백 근이 넘는 것은 인간, 못한 것은 귀신으로 각각 보내어 인간과 귀신을 구별하여 주었다.

이상과 같이 〈천지왕본풀이〉 신화는 우주기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세상의 질서가 잡혀가는 과정을 노래한다. 먼저 우주가 천지개벽을 통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노래된다. 크게 보면 우주기원신화는 개벽형과 창조형이 있다. 〈천지왕본풀이〉의 우주기원은 개벽형에 속한다. 전형적으로 『구약성서』의 「창세기」에는 조물주가 우주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러한 우주기원신화는 창조형에 속한다. 사실 서양에서 기독교가 들어오고 성경이 번역되기 전까지 동양에는 천지개벽이라는 말만 있었을 뿐 천지창조라는 말은 없었다. 우주기원의 개벽형과 창조형은 문화권을 구분하는 중요한 준거이며, 〈천지왕본풀이〉는 전형적인 개벽형 우주기원신화에 속한다.

개벽이 되자 마자 바로 질서와 안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본래 신화에서는 카오스(Chaos)와 코스모스(Cosmos)라는 말이 각각 혼돈과 질서라는 말로 사용된다. 카오스는 갈라진 틈새라는 뜻이며, 특히 하늘과 땅이 서로 거의 붙어 있는 상태를 지칭하는 오리엔트 지역의 낱말이었다. 천지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하늘과 땅이 개벽을 통해 거리가 생기게 되면 그때 모든 존재는 시작된다. 시작 단계는 혼란스럽다. 질서의 세계인 코스모스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화적 사건이 일정 기간 병행되며, 바로 이러한 사건이 신화의 줄거리를 이루게 된다. 〈천지왕본풀이〉 역시 개벽에서부터 질서의 세계로 나아가는 단계의 여러 사건이 나타난다.

〈천지왕본풀이〉가 지니고 있는 사건의 성격을 나누어 보면 신화의 3대 기능인 존재론적 기능, 인식론적 기능, 가치론적 기능을 공유하고 있다. 존재론적 기능은 우주의 기원과 각종 천체 및 만물이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천지개벽과 함께 청이슬 및 흑이슬이 음양상통(陰陽相通)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만물 등 공간이 생성되고, 천황닭·지황닭·인황닭이 울어 날이 밝는 등 세상의 시간이 생성된다.

인식론적 기능은 앎의 눈을 뜨게 하거나 해결의 방법을 밝히는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소별왕, 대별왕 등 이름을 짓는 것은 대상 준별과 인식의 중요한 기능이다. 또 내기를 해서 승부를 가리는 방식, 박의 줄기를 타고 하늘에 오르는 방법, 활을 쏘아 두 개씩인 해와 달을 하나씩 없애고 송피가루를 써서 짐승과 초목들이 말을 못하게 하며 무게를 달아서 사람과 귀신을 구별하는 등 여러 방법은 인식의 기능을 하는 내용들이다.

가치론적 기능은 사회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규범과 윤리도덕 등을 제시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옥황상제는 악행을 저지르는 수명장자와 그 가족을 징치하여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하는 내용을 보이고, 소별왕과 대별왕을 대립시켜 저승과 이승이라는 두 개의 이질적인 세계를 제시하면서 역시 선악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제주도 신화(현용준, 서문당, 1976).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장주근, 역락, 2001).

필자 나경수(羅景洙)

상호참조 셍굿무가(482쪽)

철릭[天翼]

정의 상의와 하의를 따로 마름하여 허리에 연결시킨 포(袍).

내용 철릭은 관복(官服) 가운데 하나로 고려 중기부터 조선 말까지 전쟁 등 비상 때나 사냥·사신으로 나갈 때 왕 이하 하배(下輩)들까지 입었던 옷이다. 주로 군사용으로 쓰였기 때문에 '융복(戎服)' 또는 '군복(軍服)'으로 통칭된다. 출토된 조선시대 복식유물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저고리와 치마가 연결된 모양이고 허리에 띠, 머리에 모자(갓)와 목이 긴 신[木花]을 한 틀로 갖춘다.

이에 대한 명칭으로는 첩이(貼裏)·첩이(帖裏)·천익(天益)과 함께 『궁중발기(宮中撥記)』(1866년, 규장각소장)에는 첩이(貼裏)·첨니·천닉이라 하였다. 현재 무당들은 학습된 용어로 '철릭'이라고 하지만 철륙, 철륭, 철립, 관디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용어는 혼동되기도 하며 철릭의 수구(袖口)에 달린 한삼을 '장삼'이라고도 한다.

1. 무복 철릭의 옛 자료 : 신윤복의 「무녀신무도(巫女神巫圖)」에서 무녀는 얹은머리 위에 검은색 끈으로 두른 홍색의 갓[朱笠]을 얹고, 홍색 철릭을 입었다. 철릭의 오른 소매에는 매듭단추가 보이며 허리에 가는 띠[帶]를 묶었다. 왼손에는 부채를 들었다.

『무당내력(巫黨來歷)』에는 그림으로 12굿거리가 나온다. 옷은 포(袍)류와 저고리 치마가 기본이다. 포는 철릭, 장삼, 원삼, 몽두리, 동다리, 전복 등이 보인다. 철릭의 색은 남·홍이고, 허리에는 옷의 색과 반대인 홍색과 남색 띠를 매었다. 머리에는 호수(虎鬚) 세 개를 꽂은 홍갓을 썼는데 턱에는 홍색과 황색 구슬[纓子]을 꿴 긴 끈을 늘어뜨리고, 양옆에 옷감으로 만든 검은색 긴 끈을 달았다. 『궁중발기』에도 12제차(祭次)에 철릭이 나온다. 모자[笠]는 공작깃[孔雀羽]과 호랑이수염[虎鬚] 등을 치장한 것을 썼다. 철릭의 색은 홍·황 두 가지이다. 허리에는 다홍에 남전대(戰帶), 남색에는 홍색의 매듭띠[紅多繪]를 각각 둘렀다.

1930년대 서울[京城]의 무복을 연구한 『조선무속의 연구(朝鮮巫俗の硏究)』에는 14거리가 나온다. 여기에서 옷 명칭은 색의(色衣), 단의(短衣), 장의(長衣) 정도로 단순하지만 『무당내력』과 거의 비슷하다. 여기에도 산거리(최영장군거리)에는 적색 호수립에 구군복과 남철릭, 성조거리와 군웅거리에는 호수립에 홍철릭이 있다.

이들 자료를 종합하면 철릭은 각기 3, 4번씩 나온다. 『궁중발기』에서는 12거리 중에서 어실당별군웅·산마누라·왕신, 『무당내력』에서는 12거리 가운데 대거리·조상거리·구릉거리, 『조선무속의 연구』에서는 14거리 가운데 산거리·성조거리·군웅거리이다. 철릭의 색은 모든 자료에서 홍이 남보다 위 개념이다.

2. 무복의 종류와 철릭 : 무복은 굿을 할 때 무가 신을 상징하는 복장으로 입는 옷이다. 인간은 대리자인 무당을 매개체로 '굿'이라는 행위를 함으로써 소원을 풀고자 한다. 무복의 종류는 무당이 여러 신을 불러들이고 성격과 신분에 맞는 복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다.

무당들은 무복을 '신복'이라고 한다. 조흥윤은 "무당은 원칙적으로 남치마를 기본 복식으로 한다. 그 위에다 다른 옷들을 껴입는데 이들은 대부분 조선왕조의 공복을 받아들인 것이다. 홍천릭(또는 홍철륙), 남천릭(또는 남철륙), 몽두리, 전복이라고 하는 군복 등이며 홍천릭에는 빗갓이라고도 불리는 홍갓이 어울린다"고 하였다. 김은정은 무복을 크게 원삼, 장삼, 철릭, 몽두리, 동다리로 나누었다.

철릭을 최길성은 "천익(天翼)은 소매가 넓어서 장삼과 비슷한데 고름이 없고 등에 흉배를 달고 술띠를 띠는데 남천익에는 홍, 홍천익에는 남색이다. 빗갓[朱笠]을 쓴다. 홍천익은 주로 성주거리와 군웅거리에서 입는데 색에 의한 구별은 확실한 것이 아니다. 무복은 예전, 특히 조선시대의 관복이나 예복에서 나온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철릭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역은 세습무를 중심으로 하는 경기도이다. 강신무의 신당과 무구·무복의 종류는 다양하고 세분되어 화려하다. 이에 비해 세습무의 무복은 일정한 틀 안에서 단순하다. 세습무인 오수복의 무복은 단순하며 어느 정도 전통적인 고형(古形)에 가까운 일정한 틀을 유지하고 있는데 홍철릭은 산거리와 군웅·성주거리에서 중요시하고 있으며, 장군거리에서는 남철릭을 입고 있다.

이태원부군당은 옷을 여러 번 갈아입지만 원삼, 장삼, 철릭, 동다리, 몽두리 등으로 기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전통적인 명칭이나 정통성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산거리는 부군을 모시는 큰굿거리이기 때문에 홍갓을 쓰고 홍철릭과 부군할머니 몫인 홍치마를 입는다. 밥솥띄기나 군웅거리에서는 홍치마, 홍철릭, 홍갓, 부채, 화살, 활을 들고 군웅춤을 춘다. 여기서 철릭에 사용하는 모자는 꿩깃을 좌우에 꽂은 홍갓이다. 홍갓은 청·황색 구슬을 목 아래로 늘어뜨린 두 개의 긴 홍색 끈을 뒤로 묶어 내려 단순하고 정갈하다.

3. 무복 철릭의 기능과 의미 : 철릭이 무복에 많이 등장하는 것은 조선시대 군사용으로 널리 입은 것과 상통하며, 이와 함께 모자장식 및 삼지창·월도 등 무기류도 갖춘다. 색은 신격을 상징하는 수단이자 굿거리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홍철릭은 왕이 행차할 때 산신과 군웅을 위한 굿거리에서 사용된다. 남철릭은 만신들에 의해 '장군님의대'로 불린다.

옷의 색은 무당들이 모시는 신의 서열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현재는 혼란스럽다. 서울국사당의 진오귀새남굿에서 홍색은 군웅(구릉)거리, 남색은 장군거리에 각각 쓰인다. 군웅거리에서 높은 신격으로 호수립이나 갓을 쓰고 청철릭을 입었다. 현대 서울굿은 청을 입기도 하지만 대부분 홍철릭에 주립을 쓴다. 오수복은 "장군은 신장보다 크다", 시흥 군자봉 김순덕은 "홍철릭은 산신이자 경순왕을 상징하며, 장군거리에서는 남철릭이다"라고 한다. 남이장군사당굿에도 16거리 가운데 가장 큰 도당부군거리에서 부군을 모실 때는 홍철릭을 입고, 큰머리를 하고 흑립을 얹는다. 또 남이 장군을 모시는 상산거리에서는 큰머리에 흑립을 얹고 남철릭을 입는다. 가택신인 성주거리와 마을 수호신을 모시는 군웅거리에서는 홍철릭에 호수주립을 쓴다. 경기도도당굿 중에 군자봉 서낭(산신, 대왕)인 경순왕을 모실 때도 최고신의 복장인 홍철릭에 주립을 쓴다. 한편 장군님의대에는 남철릭이다.

4. 무복 마련 및 처리 : 무복은 신어머니로부터 물려받는 것도 있지만 무구와 달리 물려받는 일이 매우 드물다. 예전에는 단골들이 옷감만 바치면 치수에 맞추어 짓는 일이 무당들의 과제였지만 지금은 완성된 옷을 요구하거나 자진해 만들어 바친다. 한편 김남순은 "신이 크기 때문에 단골들의 것을 받지 않는다"고도 한다. 지금은 만물상에서 구입하고 있다.

오래된 무복은 더러워져도 빨지 않고, 새로 만들어야 할 때는 불에 태우고 있다.

5. 굿판(지역)과 무당에 따른 철릭의 변화 : 현대 무복은 만들거나 맡기는 사람들이 옷에 대한 지식이 없어 전통 무복의 구성법만 흉내 내고 있다. 여기에 무당의 개성이나 허세가 가세하면서 시각과 역동적인 효과에 더욱 치중하고 있다. 1900년대의 전통복을 근거로 1930년대까지도 그런대로 이어지다가 1960년대 이후 사회, 경제, 문화, 종교 등 요인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문헌이나 그림, 유물 등을 비교하면 현재의 무복 철릭은 너무 많이 변하여 원형을 잃고 있다. 이는 현재 무업을 하는 무당의 증언이나 기록에서도 입증된다. "시방(지금)은 이상스럽게 달라졌다. 철릭(철륙)뿐 아니라 특히 한양굿(서울)이 심하고, 수원이나 평택 앉은굿도 그렇다."(오수복, 2009년 5월 면담) "과거 무복은 민무늬가 대부분이었는데 근래에 무복이 화려해진다."(조병호), 평안도 대택굿의 김남순(2009년 5월 면담)도 "신이 명령을 내리면 그림을 그려서 만든다. 옷이 100가지도 넘는다", 의정부시 최옥순은 "무구와 무복에 대한 것은 기억뿐이므로 의정부 만물상에서 구입하였는데 화려하며 종류가 많다"고 했다.

현재 무복철릭은 계통이 없고 이름도 다르다. 가장 큰 변형은 어깨나 등에 무늬는 물론 크기나 색도 맞지 않는 흉배나 보(補)를 달고, 깃이나 옷의 부분에도 수(繡)를 놓거나 그림을 그리고 있다. 또 섶과 깃·고름 위치가 변하고, 소매 끝[袖口]에 한삼을 다는가하면 팔을 뺄 수 있도록 진동선에서 앞으로 창구멍을 낸 점 등이다. 또한 허리띠에도 넓은 홍색이나 청색에다 수를 놓고, 양쪽 끝은 제비부리꼴로 세모로 처리한 것, 다른 색(주로 녹색)을 달기도 하고, 삼색 복주머니를 허리에 차기도 한다.

6. 철릭을 사용하지 않는 곳 : 굿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전통을 지키는 곳에서는 대부분 철릭이 귀하다. 진도씻김굿에서는 머리에 흰색 고깔을 쓰며 흰색 치마와 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흰색 장삼을 입는다. 동해안의 강릉이나 영덕 지방에서는 옷보다는 송신(送神) 때 지화·디림전·탑등·용선 등의 무구류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참고문헌 巫黨來歷, 한국무속연구(김태곤, 집문당, 1981), 무속의 세계(최길성, 정음사, 1984), 평안도다리굿(열화당, 1985), 한국의 무(조흥윤, 정음사, 1986), 큰무당 우옥주 유품(국립민속박물관, 1995), 경기도도당굿(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한국의 전통춤(정병호, 집문당, 2002), 한국의 무복(김은정, 민속원, 2004),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서울시·경기도·강원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서울 이태원 부군당굿(양종승, 민속원, 2007), 최영장군당굿 연구(최영장군당굿보존회, 민속원, 2008), 남이장군사당굿(하효길·홍태한·하을란, 민속원, 2009), 朝鮮巫俗の研究(赤松智城·秋葉隆, 大阪屋號書店, 1937).
필자 고부자(高富子)

철망(鐵網)

정의 앉은굿에서 귀신을 막아 준다고 믿어져 굿청에 설치되는 종이무구. 철망은 잡귀를 체포하고 구금하거나 경청(經廳, 경문이 주가 되어 의례가 진행되는 공간인 굿청)에 함부로 범접할 수 없게 차단시키는 기능을 한다. 병굿이나 미친굿과 같은 축귀의례와 조상을 저승으로 보내는 해원에 주로 사용된다.

형태 철망은 한지나 창호지를 이용하여 종이를 칼로 파내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이것은 앉은굿을 행하는 법사가 제작하는데, 철망을 비롯한 종이무구 제작은 법사가 학습할 때에도 반드시 익혀야 하는 과정이다. 앉은굿 의례에서는 종이무구 제작 과정도 의례과정의 일부로 삼을 만큼 중요하게 인식되기 때문이다.

철망의 종류는 대철망, 소철망, 구리철망, 병철망이 있다. 철망은 그물 모양의 격자무늬 문양으로 만들어지는데, 일상에서 사용하는 철망과 그 형태와 기능이 비슷한데서 유래한 명칭이다. 이를 다시 그 형태에 따라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크게 격자무늬, 자물쇠, 병모양으로 나눌 수 있다.

격자무늬는 대철망과 소철망이 해당되며, 그 명칭에 맞게 크기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대철망은 신장상 앞 혹은 큰굿의 설경(設經) 위에 쳐진다. 선이 대각선으로 교차되어 마름모꼴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철망의 크기는 집의 구조 혹은 크기에 따라 더 길어지거나 더 짧아진다. 장세일의 사례에서 보면 대철망의 크기는 가로 280㎝, 세로 200㎝이다.

자물쇠 모양은 구리철망이 해당된다. 대철망의 양쪽 끝 상ㄷ단에 구리철망의 끝 가닥을 각각 건 뒤에 마치 쇠사슬처럼 늘어뜨리는데, 그 만나는 정 중앙 지점이 자물쇠와 유사하게 만든 종이장식으로 채워진 형식이다. 구리철망은 대철망 앞에 둘러놓는 것으로 철망을 이중으로 설치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철망 앞을 장식하는 휘장의 역할을 한다.

병모양은 병철망이 해당된다. 병철망은 긴 그물 형태로 제작하는데 병처럼 생긴 그 형태에서 명칭이 유래하였다. 상단은 좁고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둘레가 커지는데 그 모양이 마치 병과 유사하다. 병철망은 한지 온장을 접은 뒤에 칼로 파는 과정을 거친 뒤, 접은 것을 모두 펴면 가운데는 둥그런 원이 겹겹이 나 있는 모양이 되고, 양쪽은 이등변 삼각형이 일정하게 파진 모습이 된다. 펼친 종이의 가운데 부분을 잡아서 끌어 올리면 병철망이 완성된다.

철망의 설치는 굿청 뿐 아니라, 굿이 행해지는 동안 집 주변에 둘러 쳐지기도 한다. 대철망은 경문과 부적을 연결해 놓은 종이무구인 설경(設經) 앞에 설치하거나, 혹은 집 주변에 장식하기도 한다. 소철망은 설경의 규모가 작은 경우, 신위 위에 쳐진다. 병철망은 굿청 곳곳에 설치되는데, 병철망은 팔진도의 사이사이 천장에 매달거나 신들의 신위를 적은 위패나 대철망 옆 혹은 굿청의 중앙 벽면 한쪽에 장식된다.

내용 철망은 벽면이나 천장에 장식되는 팔진도나 신위 앞 또는 그 아래에 걸어두는 것으로, 귀신이나 잡귀가 철망에 걸려서 굿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철망을 비롯한 종이무구는 법사들이 기주(祈主)집에 도착해서 제작하는데, 촌각을 다투는 독경이면 대부분 생략하고 경을 읽는다. 그러나 귀신을 잡아넣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철망만 제작하고 독경을 한다.

축귀의례에서 법사는 대철망과 소철망으로 어부가 그물로 고기를 잡듯이 귀신을 잡는다. 또 축사단과 그 앞에 걸린 신령 위목에 잡귀가 감히 범접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도 한다. 구리철망은 부여, 대전 등 충남 내륙지역에서는 '휘사'라 부르며, 당진 등의 해안지역에서는 '각개철망'이라고 부른다. 이는 휘장(揮帳)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대철망과 소철망 앞에서 열쇠를 채워서 다시 한 번 단단하게 방어하고 잡귀들이 철망의 흐름을 타고 내려오다가 맺히는 기능을 한다. 병철망은 그 자체가 잡귀와 잡신 등을 가두는 병으로 상징된다. 충남의 해안지역에서는 자주철망이라고도 한다. 축귀의식에서는 병에 잡귀를 빨아들여, 잡귀를 잡아넣는 의미를 지닌다. 단지에 귀신을 잡아서 가두면 양쪽 철망으로 단지를 쐬워놓는다. 귀신을 잡아 꼼짝 못하게 가둘 때 쓰는 착수무구(捉囚巫具)이다. 축귀의식에서 사귀통에 담긴 사귀를 병철망에 쐬운 뒤에 왼새끼 줄로 칭칭 동여매어 대문 바깥으로 나가서 손 없는 방위를 점쳐, 그 땅 속에 묻는다.

한편, 조상을 천도하는 해원상에도 대철망을 친다. 해원은 귀신을 잡아들이는 굿이 아니라 조상을 위해서 차려놓은 제사상인데 잡귀가 혹여 범접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함이다. 또, 조상을 천도시킬 때 법사가 조상대와 십대왕 위목을 쌀 함지박에 담아서 길닦음을 하는데 이 때 조상과 십대왕이 건너는 다리 양쪽 사이에도 철망을 쳐서 잡귀가 접근하는 것을 차단시킨다.

병굿의 궁극적 목적은 역신(疫神)의 구축에 있다. 따라서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내는 무경들이 이 거리에서 구송된다. 역신에 대한 위협은 『옥추경(玉樞經)』과 『옥갑경(玉匣經)』에서, 잡아 가두는 것은 『철망경(鐵網經)』과 『해살경(解煞經)』에서, 섬멸하는 것은 『백화경(白化經)』과 『박살경(撲殺經)』에서 두드러진다. 이들 독경 중 『철망경』의 구송 목적이 귀신을 잡아 가둔다는 점에서, 종이무구인 철망은 축귀의례 시, 굿청 안으로 잡귀나 잡신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고 귀신을 잡는 방어막이를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철망경』에서 법사는 여러 신장의 이름을 호명하여 그들을 제장으로 불러들여 역신과 대적하게 한다. 호명된 신장들이 역신을 철망 속에 가두는데, 법사의 독경과 함께 실제로 철망에 가두는 구체적인 행위가 이어진다. 철망은 굿청의 벽면에 장식되는 팔진도나 신위 앞에 걸어두어, 귀신이나 잡귀가 철망에 걸려서 굿청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중으로 막아주는 것으로 믿어진다. 즉, 대철망 앞에 자물쇠 모양의 구리철망으로 확실히 잠금으로써, 잡신들이 범접하지 못하게 하고 여기에 걸린 귀신은 병모양의 병철망에 가둔다. 철망의 형태는 그물, 자물쇠, 병을 상징화하여 가시화 한 것이다. 그 주요목적은 귀신이 굿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물에 걸려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병에 가두어 쫓아내는 데에 있다. 따라서 다른 종이무구를 제작할 시간이 없을 때에도 철망만큼은 만들어서 축귀의례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철망은 귀신을 잡아 가두는 병굿이 지니는 의미가 상징적으로 발현된 무구이다. 철망은 경청을 꾸미는데 매우 중요한 무구일 뿐 아니라, 특히 병굿과 미친굿 등에서는 잡귀를 잡아서 다스리는[拘縮]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병경(病經)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무구이다.

참고문헌 한국의 굿(하효길 외, 민속원, 2002),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충청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충청도 앉은굿 연구—충남 부여 지방을 중심으로(오문선,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충청지역의 종이무구(임승범, 한국무속학 13, 한국무속학회, 2007), 무속의 물질문화 연구(최진아,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9).
필자 최진아(崔眞娥)

철물이굿

정의 황해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독자적인 굿 가운데 하나로, 일종의 재수굿 성격을 띠고 있는 굿. 철물이굿은 우환이 없는 집에서 하는 경사굿으로서 새로 집을 짓거나 신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거나 자손의 창성을 빌기 위하여 연행하는 굿이다. 이 굿은 절기상으로 동짓달과 섣달은 피하고 10월 상달이나 정월에 한다.

역사 우리나라는 고대부터 일정한 시기가 되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특별한 의식을 행하던 전통이 있었다. 『삼국지(三國志) 위지(魏志)』「동이전(東夷傳)」과 『후한서(後漢書)』「동이전」 등에 기록이 있다. 섣달에 하늘에 제사지내고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날을 술 마시고 노래와 춤을 함께하는 부여의 영고(迎鼓), 매년 10월이면 하늘에 제사 지내는 고구려의 동맹(東盟), 10월에 하늘에 제사 지내는 예(濊)의 무천(舞天), 5월 씨를 뿌리고 난 뒤와 10월 농사일이 마친 뒤에 모두 모여 노래하고 춤을 추기를 밤낮으로 하는 마한(馬韓)의 제사[제귀신(祭鬼神)]가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고대 제의 풍습은 국중대회(國中大會) 형식으로서 제사의 현장인 동시에 놀이의 현장이었다.

이러한 전통에 대한 기록이 조선시대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즉 청안(靑安-현재 충북 괴산군 청안면)의 국사신제(國師神祭), 웅천(熊川)의 웅산신당사(熊山神堂祀), 고성군(固城郡)의 신사(神祀)에 대한 기록이 있다. 또한 『임영지(臨瀛誌)』「풍속조(風俗條)」에는 강릉단오굿에 대한 기록도 보인다.

고대부터 한반도에 존재했던 이러한 절기별 제의가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개별적인 제사행위로 남아 있는 것의 한 사례가 황해도 지역의 철물이굿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 철물이굿의 용례는 황해도 전통에서 비롯된 어원에 근거한다. 철물은 철을 따라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온다는 뜻에서 비롯된다. 가령 특정한 장소에 가면 많은 사람이 거푸 많이 모이게 되는데, 이것을 흔히 황해도 사투리로 '인무리'라고 한다. 황해도 연백 · 옹진 · 해주 등지에서는 철물이굿이 인무리 잔치처럼 베풀어지는 행사이므로 많은 사람이 구경을 오고 밀물처럼 밀려오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철물이굿의 과정은 여느 굿과 모두 일치하지만 집안에서 경사스럽게 준비하는 굿이므로 정성을 동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륙과 제물의 준비가 거창하므로 이에 대한 엄격한 준비 사항이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천과 음식, 기타 기명을 장식하는 전통이 아주 짜임새 있게 진행되는 굿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굿을 준비하는 집안에서는 철물이굿을 3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가을에 농사 지은 상곡식과 최상품의 목화송이를 따서 무명을 나르고 이를 근거로 '핫옷'의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천을 준비한다. 가령 다래천, 감홍천, 수래천, 조상천으로 다리를 놓아 짜서 신에게 정성스럽게 바친다. 이러한 천을 짤 때는 반드시 다리를 놓아 짠다. 이는 신들을 잘 맞이하기 위함을 의미한다. 이때 무명천은 촘촘히 짜지 않고 듬성듬성 성글게 짜는데, 예전에는 37자를 짜서 바쳤다고 한다. 굿하는 집안의 외형을 장식하고 신이 선명한 자국을 보고 오라고 하듯이 천들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굿거리의 순서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이 굿의 순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신청울림, 일월성신맞이, 칠성맞이, 세인굿, 상산부군맞이, 초부정초감흥굿, 복잔내림, 영정물림, 제석굿, 소놀음굿, 성주굿, 소대감놀이, 도산말명방아찜굿, 사냥굿, 성수거리, 별상거리, 타살군웅굿(생타살굿, 익은 타살굿), 먼산장군거리, 대감놀이, 서낭굿, 조상굿, 걸립대감놀이, 비수거리(작두거리), 마당굿(사신굿) 등이 일반적인 굿의 절차이다.

철물이굿은 엄격한 틀이 있으며, 이 틀은 황해도 굿의 일반적인 구조와 직결된다. 공간적으로 높은 신격은 천상에 있으므로 이 신들을 청하는 절차가 있고, 다음으로 공간적으로 가까운 지역의 신을 초청한다. 부정을 물린 뒤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신격을 모시고 난 다음에 제석굿과 연관된 소놀음굿을 하게 된다.

소찬으로 받는 신을 모두 놀린 뒤에 제숙을 준비하면서 도산말명방아찜을 한다. 나머지 인격신을 모두 모셔서 인간의 원한과 부귀를 행하는 신격을 위한다. 조상굿을 하고 마당굿 등을 하면서 굿을 마치는 것이 특징적인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철물이굿은 황해도굿의 일반성을 따르면서도 철물이굿의 독자적인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하게 된다.

굿의 순서는 여느 굿에 비해 아주 특별한 것은 없지만 안반고사에서부터 정해진 황해도 굿의 일반적인 절차를 그대로 따른다. 안반고사는 굿하는 집의 정성을 선명하게 확인하는 절차이다. 안반고사는 굿하는 집안의 여러 가지 떡을 점검하는 절

차를 일컫는다. 이 절차에서 비손을 하면서 굿이 잘되기를 비는 정성이 긴요한 구실을 한다. 떡과 조라술을 준비하는 것이 핵심으로 전물을 모두 안반 위에 올려놓고 하는 데서 유래된 개념이다.

가장 특별한 굿거리는 일월성신맞이 · 칠성맞이 · 세인굿 등 세분화되어 있는 천신맞이 굿거리와 집안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으뜸 재산인 소를 위하는 놀이굿이라고 할 수 있다. 일월맞이~세인굿에 이르는 굿거리들은 하늘의 해 · 달 · 별 등 하늘의 신을 맞이하여 명과 복을 기원하는 것으로, 특히 엄중하게 부정한 것을 꺼리는 굿거리들로 인식되어 외부인들의 출입을 금하고 가족끼리만 모여 있는 밤늦은 시각부터 새벽 사이에 굿거리를 행한다. 일월성신맞이는 앞마당에서 소나무 상가지로 만든 일월대와 제물을 올린 일월상을 준비해 일월꽃은 등에 꽂고 일월대에는 일월성신을 맞아 모든 좋은 운수가 솟아오르고 자손들이 무탈하기를 기원한다. 칠성맞이굿과 세인굿은 배타적인 굿거리이다. 칠성맞이는 자손 중 아들이 있는 집안에서 하는 굿이며, 세인굿은 아들자손이 없는 집안에서 하는 굿이다. 칠성맞이는 조상칠성 · 공중칠성 · 세인할마이 · 미륵칠성 · 석함칠성 · 산천칠성을 맞이하는 굿이다. 특히 칠성맞이는 자손들이 건강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안뜰 장독 옆에서 행하는데 제물로 칠성시루에 제미쌀을 준비하고, 대주의 장수를 기원하는 숟가락에 고갈을 씌워서 명실을 걸어놓고, 목화솜으로 새발심지를 만들어서 준비하는 특징이 있다. 세인굿은 칠성맞이와 달리 안뜰이 아니라 안방에서 굿을 하며, 특별히 삼신제왕을 위한 노구메를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자손을 기원하는 특징이 있다.

이들 굿거리와 함께 철무리굿의 특징인 소놀음굿은 각별한 놀이를 하는 굿거리로, 우마숭배의 역사를 담은 전통적인 의례 절차임을 알 수가 있다. 굿을 통해 경사를 일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절차들이 이 굿거리 과정에 담겨 있다. 소놀음굿은 제석굿을 마친 후에 이어서 하는 놀이굿으로서 소가 건강하고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며, 특히 황해도의 내륙지역에서 성행한 굿놀이이다. 소놀음굿은 하늘 제석님이 서천서역국에서 굿을 하는 집안에 복과 재물을 소 등에 가득 실어 보내셨다는 것을 만신과 마부의 재담으로 길게 이어가면서 여러 타령과 춤 등을 섞어가며 흥겨운 판을 만든다.

제석굿과 소놀음굿의 구조적 관련성에 대한 논의는 상세하게 다루어야 할 핵심적인 과제이지만 여기에서는 인간의 수명과 소의 기원을 담고 있는 점에서 이 굿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제석굿 뒤에 소놀음굿을 하면서 인간의 수명과 소의 생산 증식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다. 소놀음굿은 서두, 중간, 결말의 유기적 구성을 갖추고 있다. 이 굿거리의 주된 내용은 마부와 만신의 말로 겨루기가 서두에 진행되다가 중간에서 소가 분명히 제 구실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소에게 축원하고 대접을 한다. 결말 부분에서는 대주가 나서서 풍농을 기원하면 뒤를 이어 마부가 나서서 잦은난봉가, 산염불, 잦은염불 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내용 자체가 짧은 데도 불구하고 극적 압축력이 매우 높은 굿거리임을 알 수 있다.

소놀음굿은 철저하게 신인합일적(神人合一的) 세계관에 기초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만신과 마부, 사람과 신, 사람과 동물 등이 균등하게 화합하는 것이 곧 소놀음굿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무속적 사유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소가 가축이면서 숭배의 대상이 된다든지 신이 신성한 존재이면서 인간의 뒤치닥거리를 한다는 설정은 신인합일의 사고방식과 일치하는 면모이다.

황해도굿의 일반적인 절차는 일정한 굿법에 의존하고 있으며, 맞이 · 놀이 등이 적절하게 안배되면서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굿의 범형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특히 본풀이가 드문 대신에 맞이와 놀이의 완전한 조화를 보여주고 있는 점도 이 굿의 구경거리로서의 의의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된다. 굿거리마다 일정하게 반복하는 홀림공수를 보면 이 굿의 근본적인 도달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

가령 공수의 한 대목을 보면 "가을이면 상곡에 끝을 잡아 신곡맞이로 해로도 별르고 철로도 별르고 노인은 갱소년시키고 젊은 사람은 건강하고 재수 달라고 신령님 원력을 달라고 철물이를 대령이느냐 철물이를 받는 우리 신령님 모두가 십 년이 무연고하게 받들고 삼십 년 대통운 열어 준댄다라."라고 하는 것이 이 굿의 기본적인 목표를 보여주는 것이다.

철물이굿은 마을 단위로 하는 대동굿을 하는 마을에서 대동굿이 끝난 뒤에 하는 것이 예사이다. 달리 정월 보름이 지나서 하고 대개 3년마다 한 번 행한다. 철물이굿과 대동굿은 상호 배타적이면서도 마을굿과 집굿의 보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굿이다. 즉, 철물이굿과 대동굿은 집안 잔치이자 동네 잔치였던 전통 속에서 생성된 것으로, 서로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굿거리이다.

철물이굿의 특징은 세 가지이다. 일단 이 굿은 집안의 경사굿이다. 재수굿을 일정한 주기로 완성하면서 대동굿과 상관성을 맺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황해도 굿다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사례이다. 두 번째로 굿에서의 신성성과 놀이성이 가장 풍부하면서도 특히 만신과 집안사람의 화합이 이루어지는 굿이다. 세 번째로 예술적 성격이 활발한 굿이 바로 이 굿이다.

지역사례 소놀음굿은 전국적으로 전승이 이루어졌지만 황해도 일대에서 전승되고 있는 것이 비교적 의례적 특징을 명확하게 띠고 있다. 다른 고장의 소놀음굿과 비교하면 양주소놀이굿에서는 제의적 의의가 거세되고 예능적 의의가 큰 반면에 황해도의 연백소놀이굿은 제의적 의미가 뚜렷하게 살아 있음으로 좋은 비교 거리가 된다. 평산소놀음굿은 성극의례이면서 신화적 설정이 돋보인다. 소놀음굿의 한 가지로 의미의 가능성이 발굴된 것은 대단히 소중한 일이다.

소놀음굿을 매개로 하여 집굿이 만신과 동네 사람들의 잔치로 발전하는 일반적인 특징을 지니게 된다. 철물이굿이 집안잔치이면서 동네잔치가 되고 인무리 잔치가 되는 것이 이러한 특징을 담게 된다. 잔치이면서 대동놀이로 되는 철물이굿의 주요한 특징을 이 소놀음굿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三國志, 後漢書 東夷傳, 東國歲時記, 臨瀛誌, 조선무속의 연구(赤松智城 · 秋葉隆, 심우성 역, 동문선, 1991), 김금화의 무가집(김금화, 문음사, 1993), 양주소놀이굿(김헌선, 화산문화, 2001).
필자 김은희(金銀姬)

철쭉대

정의 제주도굿인 '불도맞이'에서 아이의 산육(産育)을 관장하는 불도할망이 짚고 다닌다는 지팡이.

형태 대나무를 잘라서 잎을 떼어낸 후, 그 위쪽에 여러 갈래로 오린 종이를 매달아 놓은 형태이다.

내용 철쭉대는 불도할망(삼승할망)이 짚고 다닌다는 지팡이를 말한다. 대나무를 적당한 길이로 자르고 잎을 떼어낸 후, 그 위쪽에 여러 갈래로 오린 종이를 묶는다. 예전에는 주로 붉은색의 명주를 맸다고 하는데, 지금은 종이로 많이 한다. 이렇게 대나무에 달아매는 종이를 두고 '할망 땀수건'이라고 부른다.

철쭉대는 제주도굿의 하나인 '불도맞이'에서 쓰이는데 불도맞이는 기자 및 산육의례이다. 아이가 생기기를 기원하고, 출생과 육아과정에서 무탈하기를 바라는 무속의례이다. 주요 기원대상은 불도할망이라고 할 수 있다. 불도할망은 명진국 따님아기로, 아기의 출산과 그 아기가 열다섯 살이 될 때까지 성장을 관장한다. 불도맞이에서 심방이 이 철쭉대를 짚으면서 불도할망이 들어오는 대목을 연출한다. 허리가 굽은 할망이 지팡이를 짚고 제장으로 천천히 들어오는 모양새를 흉내 내는 것이다. 그러니 철쭉대는 불도할망이라는 신을 형상화하는 중요한 무구라고 할 수 있다. 〈명진국할마님본풀이〉는 이런 불도할망의 내력을 담은 본풀이며 지금도 굿 현장에서 전승되고 있다.

참고문헌 제주도 굿의 무구 '기메'에 대한 고찰(강소전, 한국무속학 13, 한국무속학회, 2006),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전라남도 · 전라북도 · 제주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필자 강소전(姜昭全)

첨사통(籤辭筒)

정의 목재로 만든 원통형의 점사무구(占辭巫具). 이것을 흔들어 그 안에 넣어둔 대나무 첨사(籤辭)

를 뽑아서 점괘를 살펴 점을 친다.

형태 첨사통은 나무로 만든 원통으로 높이 20~30㎝에 지름은 8~15㎝ 크기이다. 첨사통 윗면 중앙에는 조그만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넣어둔 첨사가 뽑아져 나오도록 하였다. 첨사는 대나무를 얇게 잘라서 만든 것으로 점괘를 살필 수 있게 끝부분에 번호를 매겨놓은 것이다.

내용 첨사통은 나무로 만든 원통형 점사 무구로 '첨사통' 혹은 '산통'으로도 불린다. 경기도 만신인 정정애의 설명에 따르면 주로 도교(道敎)류의 장군신(將軍神)을 모시는 무당들이 소지하는 무구(巫具)라고 한다. 그녀도 자신의 신당(神堂) 안에 있는 관운성제 앞에 첨사통을 놓아두었다. 첨사통 안에는 첨사를 넣어두는데, 첨사에는 번호가 각각 써져 있다. 첨사란 첨자(籤子)에 새긴 길흉(吉凶)의 점사(占辭)이다. 첨(籤)이란 대오리 등으로 만든 길흉을 점치는 심지를 말한다. 또 가는 '대'로 신의(神意)를 묻는다는 뜻도 있다. 무당이 첨사통에서 첨사를 뽑아 그 번호를 확인한 후 첨사서를 통해서 점괘를 확인한다. 첨사서는 첨사의 번호에 따라 점괘를 해석해 놓은 소책자이다. 만약 첨사통이 없는 경우에는 엽전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서울시 · 경기도 · 강원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필자 이필영(李弼泳)

청계상

정의 서울굿에서 청계배웅거리에 차리는 제물상.

내용 청계배웅거리는 산에 다녀온 만신에게 정화를 행하는 의식으로 부정거리 후에 들어간다. 산에서 모셔온 신령을 맞이하면서 함께 따라온 잡귀와 잡신격을 '청계를 가시라'고 배웅한다고 하여 청계배웅상이라고도 부른다. 청계배웅상은 진적굿 중에서도 드물게 나타난다. 굿 제차상 산에서 신령을 모셔온 경우가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 굿거리이기 때문이다. '청계'는 창부나 광대가 죽어서 된 귀신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산에서 왔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창귀'(범에게 물려 죽은 후 붙어다니면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귀신)를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

청계배웅상은 현관 밖에 차린다. 팥떡과 술이 주된 제물이며, 좁쌀을 담은 그릇이 쓰인다.

팥떡 세 접시, 산자, 삼색나물, 술 세 잔을 올린다. 정화 대상이 한복 또는 보자기를 뒤집어쓰고 앉아 있으면 청계배웅거리를 맡은 무당이 좁쌀, 막걸리, 소지 순으로 부정을 막는다. 북어를 칼처럼 이용하여 부정을 찍어내기도 한다. 끝난 후에는 좁쌀그릇에 청계상에 올린 제물들을 섞어 넣고 북어 머리를 뜯어 넣어서 계단 입구에 둔다.

참고문헌 한양무속집(김선경, 대웅, 2001), 굿과 음식 1(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필자 이수현(李琇炫)

청너울

정의 제주도굿에서 종이를 세로로 길게 하여 여러 갈래로 오리고 윗부분은 대나무에 붙여 둥그렇게 휘어 만든 무구. 초공맞이에서 얼굴을 가리기 위해 사용된다.

형태 청너울은 종이로 만든 무구이다. 우선 흰색 한지를 세로로 길게 하여 발처럼 여러 갈래로 잘게 오린다. 그 뒤 종이의 윗부분을 얇게 쪼갠 대나무에 붙이고 이를 둥그렇게 휘어서 원통 모양으로 만든다. 원통 모양이므로 머리를 안쪽으로 들여놓으면 모자처럼 쓸 수 있다. 곧 머리에서부터 발처럼 늘어뜨려지게 되므로 효과적으로 얼굴을 가릴 수 있는 것이다.

내용 청너울은 제주도굿의 초공맞이에서 사용된다. 초공맞이는 무조신(巫祖神)을 맞아들여 기원을 올리는 굿이다. 초공맞이의 순서를 살펴보면 우선 초감제와 추물공연을 하여 두고, 초공질침을 하게 된다. 초공질침이란 초공신, 즉 무조신이 오시는 길에 부정이 없게 하기 위하여 깨끗이 치워내는 제차이다. 이 질침을 하는 가운데 '청너울드리 놓기'라는 대목이 있다. 여기서 심방은 "아기씨 상전(上典)은 청너월을 둘러쓰고 하늘이 보카 땅이 보카 흑(黑)너월을 둘러 쓰고 나올 때 그때 아기씨가 둘러써난 청너월 흑너월 ᄃᆞ리우다."라고 말하고는, 이어서 무악기인 연물이 울리면 신칼치마를 머리에 쓰고 춤을 추는 것이다.

이 대목은 〈초공본풀이〉의 내용과 관련이 깊다. '노가단풍 ᄌᆞ지멩왕아기씨'의 부모는 어느 날 하늘옥황으로부터 벼슬을 하러 오라는 분부를 받는다. 부모는 옥황의 명령으로 집을 떠나야만 하자, 혼자 남게 될 아기씨를 염려하여 살장에 가두고는 하인인 느진덕정하님에게 아기씨를 부탁하고 떠난다. 그런데 이후에 황금산 주접선생이 권재삼문(勸齋三文)을 받으러 내려오게 된다. 느진덕정하님이 권제를 내어 주려 했으나, 주접선생은 아기씨 손으로 직접 주라고 하면서 살장을 열어준다. 살장에 갇혀 있던 아기씨가 권제를 내어 주기 위해 나올 때, 자신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 이 청너울을 둘러쓴다. 청너울은 사당클을 매어 큰굿을 할 때 초공맞이 순서에서 쓰는 것이지만, 요즘은 사당클을 매어 굿을 하는 경우가 그리 흔하지 않기 때문에 보기 드문 무구가 되어 버렸다. 한편 일반 집에서 큰굿을 하게 되면 그 본주도 청너울을 쓴다고 한다.

참고문헌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제주도 무속신화–열두본풀이 자료집(문무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제주도 굿의 무구 '기메'에 대한 고찰(강소전, 한국무속학 13, 한국무속학회, 2006).
필자 강소전(姜昭全)

청룡도(靑龍刀)

정의 중부 이북 강신무 의례에서 삼지창과 함께 월도 대용으로 사용하는 무구. 청룡도는 비수라고도 한다. 삼지창과 각각 사용되기도 하지만 의례에서는 월도 대신 하나의 세트로 사용되어 '비수창검'이라 부른다. 혹은 장엄용 무구로 진설되기도 한다.

형태 청룡도는 쇠와 나무로 구성된다. 칼의 몸체 부분은 쇠로, 손잡이는 나무로 각각 제작된다. 칼과 손잡이는 분리가 가능하여 평상시에는 이 둘을 분리해 놓기도 한다. 나무의 재질 특성상 손잡이는 정기적으로 교체한다. 청룡도는 '활모양으로 휜 달' 혹은 '초승달'의 형태를 띠는 월도보다 칼몸통 부분이 좁게 되어 있으나 대체로 그 형태가 유사하여 이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청룡도는 칼 모양은 반달모양 형태이지만 칼 폭은 일정하지 않다. 칼 폭은 자루 쪽에서 위로 갈수록 넓어졌다가 다시 칼끝 부분에서 폭이 좁아진다.

황해도 만신 조천할머니의 무구를 계승한 신명기의 사례에서는 칼날에 '一'자 문양의 줄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양면에 3개 혹은 2개가 그어진 형태도 있다. 또한 경기도 성남시 장석만의 사례에서는 창날과 손잡이 사이에 용문양을 장식하기도 한다. 대개 칠성칼이나 신장칼 등의 검류의 손잡이 길이는 몸체의 길이보다 짧은데 반해, 청룡도를 포함한 비수창검류는 손잡이의 길이가 몸체에 비해 2배 이상 길다. 이것은 그 사용용도와 관련된 것으로 그 주요기능 중에 하나인 사실세우기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즉 긴 손잡이가 지지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청룡도는 기능에 따라 의례용은 대략 40~80㎝로 길이가 다양하지만 90㎝를 넘지 않는다. 사실용은 그 길이가 대략 60~120㎝까지 다양하지만 150㎝를 넘지 않는다. 장엄용은 그 길이가 대략 120~200㎝까지 다양하며 청룡도 중에서는 가장 길다.

내용 청룡도는 장엄용구로 주로 사용되지만 월도와 구분 없이 사용할 때는 의례용 · 사실세우기용 · 장엄용으로 월도와 기능이 동일하다. 이것은 주로 삼지창과 함께 구성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다. 서울 · 경기 지역에서 삼지창과 월도가 한 쌍이 되어 쓰이는 것에 반해, 황해도를 포함한

그 이북 지역에서는 월도 대신 청룡도가 더 많이 쓰인다. 서울굿에서는 장군거리나 신장거리 등에서 이 두 무구가 들려지며 황해도 지역에서는 장엄용도로 한정된다.

의례용구의 기능을 할 경우 서울굿에서는 상산거리(혹은 장군거리)나 신장거리 등에서 청룡도나 월도를 가지고 춤을 추거나 공수를 내린다. 또한 상산거리에서는 소머리 · 소갈비 · 소족 · 통돼지 등의 육찬에 칼끝을 대는 시늉을 하는데, 이는 신령이 음식을 흠향하는 것을 상징한다. 황해도굿의 사냥거리에서는 경관만신이 상산막둥이를 데리고 사냥을 하러 나갈 때 월도나 청룡도를 가지고 나가며 신장거리에서 신장님을 모시고 놀릴 때 이것을 가지고 춤을 추어 신을 기쁘게 하고 신의 위엄을 드러낸다. 사실세우기의 기능을 할 경우, 서울굿에서는 제물을 꽂지 않고 칼끝이 위로 가게 해서 똑바로 세우는 검사실세우기를 행한다. 장엄용구(莊嚴用具)의 기능을 할 경우에는 삼지창과 함께 진설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황해도 지역에서는 칠성칼 혹은 칠성도와 함께 굿청에 장식되기도 한다. 황해도굿에서는 서울굿과 달리 이 두 무구를 한꺼번에 들고 춤을 춘 뒤에 공수를 주지는 않는다. 초부정과 초감흥에서 잠깐 드는 행위를 하기도 하지만 이 두 무구를 들고 춤을 추거나 공수를 내리지는 않는다. 대신 각각을 따로 들고 춤을 춘다. 삼지창은 타살 · 군웅 · 장군거리 등에서 춤을 추는 용도로 사용되고 월도나 청룡도는 사냥 · 장군 · 신장거리에서 춤을 추는 용도로 사용된다. 서울굿에서는 전안거리에 유일하게 청룡도(혹은 월도)만을 들고 의례를 진행한다.

청룡도는 월도 · 삼지창과 함께 검류 중에서는 가장 크다. 대체로 70~150㎝ 내외가 가장 많으며 큰 것 중에는 200㎝ 가까이 되는 것도 있다. 크기는 곧 그 기능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즉 공수의 기능을 하는 청룡도는 지물로 사용되기에 작고 가벼워야 할 것이며, 사실용은 이것을 세웠을 때 잘 서야하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의 것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이것은 무점구의 기능을 지니는데, 신이 의례에 만족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 기준이 된다. 장엄용구는 지물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 무게를 고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존재 자체가 중요한 무구이기 때문에 가장 크고 길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엄용구로서의 청룡도는 신당이나 굿청에 세워두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위력을 발휘한다. 이것을 지니는 것은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며 주로 도교류의 신장신을 모시는 전내계급의 무당이나 강력한 장군신을 몸주로 섬기는 무당의 사례에 한정되어 나타난다. 또한 청룡도는 관운장을 상징하는 무구로 인식되어 서울굿의 전안거리에 들려진다. 이것은 장군류의 무관이 사용한 무기(武器)를 무속에서 수용한 것으로서 이러한 점에서 장군류의 신격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의 굿(하효길 외, 민속원, 2002),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서울시 · 경기도 · 강원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무당 귀물 연구–『삼국유사』의 삼부인과 무당의 거울 · 칼 · 방울을 중심으로(양종승, 생활문물연구 2, 국립민속박물관, 2001), 서울굿의 무구 연구(최진아, 한국무속학 12, 한국무속학회, 2006), 무속의 물질문화 연구(최진아,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9).
필자 최진아(崔眞娥)

청송무당

정의 서울 지역에서 남이 맡은 굿판에 불려가 굿을 연행하는 무당. 청승무당, 청배무당, 정성무당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재가집으로부터 굿을 의뢰받아 굿을 담당하는 무당을 당주무당이라고 하며 당주무당이 자신의 굿판에 불러 함께 굿을 연행하는 무당을 청송무당이라고 한다.

내용 서울 지역에서 재가집이 굿을 단골무당에게 의뢰하면 단골무당은 굿을 진행할 준비를 한다. 여러 가지 제물을 맞추고 굿할 장소를 섭외한 후 자신과 함께 굿을 담당할 무당들을 섭외하는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남의 굿판에 다니며 굿을 연행하는 무당을 청송무당이라 한다. 대체로 청송무당은 당주무당과 혈연적 관련성이나 신 가족으로의 친연성이 전혀 없다. 굿을 맡은 무당의 요구에 따라 불려가서 굿을 연행하고 품삯을 받아올 뿐이어서 상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단 한 번 불려갈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불려갈 수도 있다. 청송무당이 굿판에서 계속 굿을 연행할 수 있는지는 오로지 당주무당의 의사에 달려있다. 따라서 청송무당은 굿판에서 당주무당을 의식하여 재가집에게 공수를 주며, 당주무당의 위신을 세워주면서 재가집과 당주무당의 관계가 친밀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발언을 주로 한다.

서울 지역에서 굿을 연행할 때 청송무당은 대개 부정청배와 가망청배를 맡아 하고, 춤과 음악적인 기량이 필요한 대안주거리를 담당하는 것이 상례이다. 청송무당은 재가집을 굿판에서 처음 만나기 때문에 당주무당으로부터 재가집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미리 얻어 굿 연행에 반영하기도 한다. 굿을 연행하면서 공수를 줄 때에도 당주무당에게 필요한 내용을 주로 전달하고, 당주무당의 제지가 있으면 재가집에게 더 이상 공수를 주지 않을 뿐 아니라 다가가지도 않는다. 만약 청송무당이 당주무당 몰래 재가집과 관계를 맺고 굿을 의뢰받게 되면 굿판의 질서를 깨트린 것으로 간주하여 분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청송무당은 주로 남의 굿판에 불려 다니는 관계로 자신의 신도 관리가 어려워 단골들이 거의 없다. 따라서 전적으로 남의 굿판에서 굿을 연행하며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기술자라고도 불린다. 굿의 연행 절차나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자신이 참가한 굿판의 분위기를 금방 파악하고 적절하게 굿을 연행하고 공수를 준다. 최근에는 입무를 하여 무당으로 활동은 하고 있으나 굿판의 세부적인 사정에 밝지 않은 무당이 대거 굿을 맡음으로써 청송무당의 활동 범위가 매우 넓어졌다. 이러한 경우에는 청송무당이 당주무당을 도와 굿의 준비부터 장소 섭외, 굿 담당 무속인의 구성까지 관여하기도 한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청송무당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청송무당이 다니는 지역에 제한이 없어졌다. 이에 따라 과거 서울 지역에서 구분되던 동쪽제와 서쪽제의 구분이 없어지게 되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굿을 연행함으로써 각 지역의 서울굿이 혼재되면서 획일화가 되어 서울굿의 다양성이 사라졌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굿 연행에 있어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서울의 무당이 지방으로 굿을 하러 가게 되면 지방까지 따라가 서울굿을 연행하는 청송무당을 볼 수가 있다.

굿을 연행할 줄 아는 무속인의 감소와 서울굿판을 움직이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돈으로 인해 청송무당을 찾는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어 청송무당 중에는 상당한 수입을 올리는 무당도 있다. 단골 신도와의 관계망 속에 무속이 흘러가던 과거와는 달리 신도가 없이도 굿을 연행하는 청송무당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서울굿의 담당층이 굿을 맡는 무속인과 굿을 전문적으로 연행하는 무속인으로 양분화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앞으로는 신적 능력보다 예능적 기예를 중심으로 굿을 연행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여 청송무당은 점점 서울무속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문헌 서울굿의 양상과 의미(홍태한, 민속원, 2007).
필자 홍태한(洪泰漢)

초공본풀이

정의 제주 큰굿의 제차에서 구송되는 서사무가. 초공의 내력을 푼 것으로, 제주도에서 초공은 무조신(巫祖神)을 가리킨다. 주인공인 모자(母子)의 시련과정 부각, 처녀의 혼전 임신, 삼형제의 부친 탐색담 등은 본토에서 당금애기신화로 잘 알려진 〈제석본풀이〉와 비슷하다.

내용 〈초공본풀이〉의 채록본은 다양하지만 현용준이 채록한 안사인 구연본(本)과 진성기가 채록한 김명윤 구연본의 서사가 비교적 풍부하다. 이 둘을 참고한 이야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부부인 임정국과 김정국이 자식이 없어 고민하던 중에 시주하러 그들의 집에 온 스님의 권유로 기자불공을 드려 부부는 예쁜 딸 하나를 얻게 된다. 딸이 태어난 때가 온 산이 단풍으로 물들 즈음이어서 딸 이름을 노가단풍자지맹왕 아기씨라고 짓는다. 노가단풍자지맹왕 아기씨가 15세가 됐을 때 하늘로부터 부부 각각에게 천하공사와 지하공사 벼슬을 하러 가라는 명이 떨어진다. 딸을

데리고 갈 수 없게 된 부부는 집안의 하녀 느진덕이정하님에게 딸을 부탁하고는 수십 개의 문을 열어야 나올 수 있는 아주 깊은 궁에 딸을 가두어 놓고 떠난다.

한편 아름답기로 소문난 노가단풍자지맹왕 아기씨를 상대하고 오는 자에게는 절간 재산을 모두 주겠다는 주지스님의 내기 제안에 황금산 도단땅 주자선생은 주저하지 않고 아기씨의 집으로 찾아간다. 아기씨의 짧은 수명을 길게 이어 주겠다며 시주를 구하는 주자선생에게 하녀는 쌀을 주려 하지만 주자선생은 아기씨가 직접 주는 쌀을 받아야 한다며 아기씨가 갇혀 있는 궁의 문을 법력으로 모두 열어 그녀를 밖으로 나오게 한다. 아기씨는 하는 수 없이 쌀독에서 쌀을 덜어 주자선생의 쌀자루에 부어 준다. 그때 주자선생은 숨기고 있던 한쪽 손을 빼내어 아기씨의 정수리를 세 번 쓰다듬는다. 깜짝 놀란 아기씨가 몹쓸 중이라고 화를 내며 주자선생을 쫓아내자 주자선생은 아기씨에게 곧 자신을 찾게 될 날이 올 거라는 말을 한다. 이를 이상히 여긴 아기씨는 하녀를 시켜 주자선생의 옷가지 헝겊을 찢어 증거로 남기도록 하였다.

그 후 아기씨는 배가 불러와 음식을 먹지 못하여 곧 죽을 상태가 되고, 느진덕이정하님은 아기씨의 부모님을 불러온다. 그녀의 부모는 아기씨가 혼인도 하기 전에 아이를 밴 것을 알고 그녀를 하녀와 함께 집 밖으로 쫓아낸다. 두 사람은 멀고 험난한 길을 거쳐 황금산 도단땅 주자선생을 만난다. 주자선생은 아기씨가 증거로 가지고 있던 옷가지를 확인하고도 아기씨에게 기름을 묻힌 볍씨의 껍질을 모두 까놓아야 자신을 찾아온 아내임을 증명할 수 있다며 시험을 한다. 아기씨는 결국 새들의 도움으로 볍씨의 껍질을 모두 깐다. 그래도 주자선생은 스님의 신분으로 아기씨와 부부 살림을 차릴 수 없다며 아기씨와 하녀를 다른 집에 머물게 한다. 곧이어 아기씨는 왼쪽과 오른쪽 겨드랑이, 가슴팍으로 각각 본멩두 · 신멩두 · 삼멩두 삼형제를 출산한다. 이들 삼형제는 몹시 총명하여 가난한 형편에서도 틈틈이 글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

어느 날 삼형제는 과거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삼형제의 문장 실력을 시기하던 삼천선비 무리는 삼형제를 따돌릴 방책을 세운다. 그들은 배대감 집의 배나무 열매를 따오면 과거시험 보러 가는 무리에 끼워 주겠다며 배나무 위로 삼형제를 올라가게 해놓고 그 아래에 가시나무를 쌓아 올려 삼형제가 내려오지 못하게 한 후 먼저 떠나 버린다. 마침 배대감은 자신의 집 배나무 위에 청룡과 황룡이 뒤섞여 어우러져 있는 꿈을 꾸고는 배나무 위에서 울고 있는 삼형제를 내려오게 하여 자초지종을 듣고 그들이 과거시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여곡절 끝에 삼형제는 과거시험에 급제하지만 삼천선비는 중의 자식을 급제시켰다며 상시관(上試官)에게 항의한다. 상시관은 화살 쏘기를 하여 과거 급제를 가리기로 한다. 삼형제가 화살 쏘기에도 능하여 과녁을 명중시키자 상시관은 삼형제를 과거에 급제시킨다. 이를 시기한 삼천선비는 삼형제로 하여금 과거 급제를 포기하게 하려고 느진덕이정하님을 꾀어 삼형제의 어머니 노가단풍자지맹왕 아기씨를 깊은 궁 안에 가둬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 사실을 안 삼형제는 어머니를 살릴 방도를 찾기 위해 아버지인 주자선생을 찾아간다. 주자선생은 삼형제에게 팔자를 그르쳐 심방이 될 것을 요구하면서 북, 징, 장구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악기를 치고 울리면 궁 안에 갇힌 어머니를 살려낼 수 있다고 말한다.(어떤 이본에서는 삼형제가 무구의 재료를 구하러 가는 중에 너사메너도령을 만나 악기 만드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있다. 삼형제와 너사메너도령은 여기서 어머니 속곳을 통과하는 의식을 치른 후 의형제를 맺기도 한다) 이렇게 삼형제의 극진한 정성으로 노가단풍자지맹왕 아기씨는 다시 살아나서 궁 밖으로 나오게 되고, 삼형제는 저승 삼시왕[三十王]으로 좌정하게 된다. 그들은 어머니를 무구(巫具)와 악기를 관리하는 당신(堂神)으로 좌정시킨 뒤에 굿을 하러 오는 사람이 남자면 아들, 여자면 딸로 각각 삼아서 무구와 악기를 빌려주게 한다. 여기까지는 노가단풍자지맹왕 아기씨와 삼형제의 신직 좌정 이야기이다. 이와 함께 후일담 성격의 유씨부인 이야기가 덧붙여져 전승되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정승의 따님애기는 어렸을 때 길 가는 스님으로부터 팔자를 그르쳐야 산다는 말과 함께 엽전 두 푼을 받았다. 그녀는 이것을 그냥 땅에 묻어 놓고 잊고 있었다. 그러나 일곱 살 때부터 병이 들어 17, 27, 37, 47, 57, 67세마다 끊임없이 병치레를 한 끝에 일흔 일곱 살에 비로소 팔자를 그르쳐 심방이 되어 곳곳을 다니게 되었다. 어느 날 유씨부인은 길을 지나다가 원복장자네 외동딸이 다 죽어가는 것을 보고 딸을 살리고자 하면 자신을 찾으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다. 얼마 있지 않아 원복장자네 가족들이 딸을 살리기 위해 유씨부인을 찾아온다. 유씨부인은 굿을 하기 위해 무구와 악기가 있는 당(堂)을 찾아가 그것들을 빌리고자 하지만 당신은 아들 삼형제가 일러준 대로 남자가 찾아오면 아들로 삼고 여자가 찾아오면 딸로 삼은 후 무구를 빌려주겠다고 한다. 유씨부인은 자신이 딸이 되겠다고 하여 무구를 빌린 후 당신이 시킨대로 이제는 자신의 오라버니가 되는 삼형제, 즉 삼시왕을 청하여 굿을 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하여 유씨부인은 원복장자네 외동딸을 살리고 첫 심방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특징 제주도 무속신화는 그 유형을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로 분류할 수 있다. 그중 일반신본풀이는 본토에서 전승되는 다른 무속신화와도 공통된 내용이 있어 비교와 대조가 용이하다. 특히 〈초공본풀이〉는 본토의 〈제석본풀이〉와 비슷하다. 북부 지방의 〈제석본풀이〉에서 부각되어 있는 삼형제의 아버지에 대한 묘사와 역할, 그의 신이함은 제주도의 〈초공본풀이〉에서 비교적 많이 약화되어 있다. 더불어 〈제석본풀이〉의 결말에서 존재가 희미하게 묘사되기도 하는 당금애기는 자식을 점지해 주는 삼신[産神]으로 나타나지만 〈초공본풀이〉의 노가단풍자지맹왕 아기씨는 어느 이본을 막론하고 아들로부터 무구를 관리하는 신직(神職)을 받음으로써 존재가 비교적 뚜렷하게 묘사된다. 이러한 모자간의 신직 증여는 〈초공본풀이〉를 비롯한 다른 제주도의 일반신본풀이의 특징이기도 하다. 또한 본토에서는 무조신이 바리공주라는 여신(女神)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에 제주도에서는 초공이라 불리는 무조신이 노가단풍자지맹왕 아기씨의 아들 삼형제, 즉 남신(男神)으로 나타난다는 것도 변별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의의 무속 신앙이 성행한 제주도 지역에서 무법(巫法)의 시초에 대한 내력을 읊는 이 신화가 '초공본풀이'로 불린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초공'의 '초(初)'는 '처음', '기원', '근본'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 큰굿에서 초공이 '신뿌리(신의 뿌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또한 오랜 세월 동안 굿의 현장에서 구술로 전승된 무속신화는 제의 자체와 제의 참여자들의 인식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게 마련이다. 이에 따라 〈초공본풀이〉는 제주도에서 인식하고 있는 무조신의 내력과 첫 심방, 첫 소미(악사: 너사메너도령)의 기원(起源)을 담고 있는 중요한 신화이다.

신화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삼형제는 죽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심방이 되고 저승 삼시왕에 오른다. 또한 유씨부인은 죽어가는 원복장자네 외동딸을 살리기 위해 무구를 빌려 저승 삼시왕을 청해 처음으로 굿을 올린 심방이 된다. 〈초공본풀이〉에서 나타난 무조신과 심방은 이처럼 삶의 문제, 즉 죽음과 질병을 멀리하고 삶[生]에 귀환하게 해주는 해결사 역할에서 기원하고 있다.

또한 굿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구와 악기가 필요하다는 상황, 악기를 '제조'하는 이와 '관리'하는 이인 너사메너도령과 노가단풍자지맹왕 아기씨의 등장은 굿에서 심방이 갖추어야 할 무구에 대한 중요성을 입증한다. 실제로 〈초공본풀이〉의 삼형제의 이름을 본멩두, 신멩두, 삼멩두라고 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멩두는 제주도 심방이 굿에서 아주 요긴하게 쓰는 무구(산판 · 신칼 · 요령)이기도 하다.

한편 심방이 제의 현장에서 초공신, 즉 무조신의 내력을 직접 구송하는 것은 자신이 속한 무속세계의 시원(始原)이자 조상이 되는 그를 다시 부르면서 지금 행하는 이 굿도 그때와 같이 무사히 진행되길, 신에게 잘 받아들여지기를 기원하는 주술적 의미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반신본풀이의 주된 서사가 가족의 해체에서 가족의 재결합으로 이

루어지는 것을 볼 때 〈초공본풀이〉는 노가단풍자지맹왕 아기씨와 주자선생 및 이들 사이에서 난 아들 삼형제의 여정을 통하여 가족신화 서사의 전형을 보여주는 무속신화이다.

참고문헌 제주도 무가(현용준 · 현승환 역주,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6),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진성기, 민속원, 2002),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이수자, 집문당, 2004).
필자 전주희(全珠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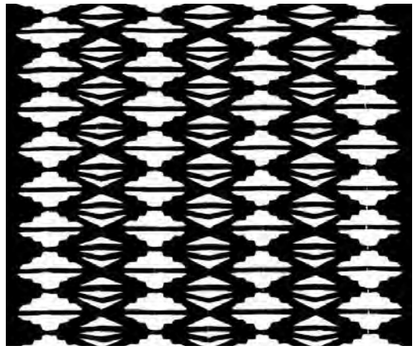
초롱등

정의 대나무 가지를 쪼개 21~30㎝ 크기의 조그마한 정육면체의 골격을 만들고, 윗부분은 같은 크기의 정사면체를 올린 다음 여러 가지 색지를 오려 초롱등사를 붙여 만든 등(燈)이다. 아랫부분에는 오색 색지로 만든 초롱댕기를 길게 늘어뜨린다. 초롱댕기는 6가닥으로 길이는 126㎝ 정도이다.

내용 과거에 초롱등은 경남의 별신굿에서 사용했으나 현재는 경북과 강원도 지역에서도 영산맞이에서 등노래, 뱃노래, 꽃노래를 연희할 때 초롱등을 들고 춤을 추기도 한다. 경북의 별신굿에서는 탑등을 사용하고 초롱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초롱등은 원래 오구굿에서 사용하던 것이다. 경남 지방에서 초롱등은 이운맞이(영산맞이) 거리에서 두 명의 무녀가 초롱등을 들고 춤을 출 때 쓰인다.

경남 지방에서 별신굿에 초롱등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운맞이에 앞서 하는 조상월래굿 때문이다. 조상월래굿은 오구굿을 따로 하지 못한 마을 주민들 중에 조상을 천도(遷度)하고 싶은 사람들이 조상상을 따로 차려놓고 천도굿을 하는 굿거리이다. 따라서 조상월래굿에서 천도굿을 했기 때문에 망자의 극락길을 밝히기 위해 초롱등을 사용하는 것이다.

초롱등사 규격은 가로 21㎝, 세로 27㎝이며 주로 초록색 화지를 쓴다. 초롱등은 굿당에 2개가 걸리는데, 초롱등은 저승으로 천도할 때 길을 밝히는 의미를 지닌다. 초롱등사의 문양도 다양하다. 이 중에는 탑등 치마사, 용선 가마사, 허개 가



초롱등사

마사와 함께 쓰는 경우가 있다. 초롱등사는 합사로 만든다. 합사는 두 장의 화지를 맞붙여 한 장의 사를 만드는 것으로 이때 문양 사이로 배접한 노란색 화지가 보인다.

참고문헌 한국무속의 연구(재판)(최길성,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0),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경상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필자 심상교(沈相敎)

최갑선

분야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6호 독경(앉은굿) 기능보유자.

내용 최갑선(崔甲善, 남)은 1952년에 전북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에서 출생했다. 최 법사의 할아버지가 4대 독자였기 때문에 당시 신기(神氣)가 있었던 할머니가 시집와서 임피 취성산에서 자손 번성을 위해 백일기도를 올렸다. 백일기도 덕분인지 할머니는 남매를 낳았다. 그 후 최갑선의 어머니가 7남매를 두었지만 둘은 죽고 5남매만 남았다. 어머니가 자식 둘을 잃고 집굿을 하다가 어머니 본인에게 신이 내려서 그 후 본격적으로 무속 일을 하였다. 어머니는 그 당시 지역에서 꽤 용한 점쟁이로 이름이 났으며 선굿 무당으로서의 모든 용모를 갖추었다. 어머니에게 신이 내린 것은 할머니가 무속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시 아버님은 평범한 농부였다. 결국 신기가 있었던 할머니와 그 뒤를 이은 보살 어머니를 둔 최갑선은 어릴 때부터 무속 환경에서 성장한 셈이다.

최갑선 자신도 7살 즈음에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다. 다리를 뻗고 앉아서 '통신(通神)'이라고 반복해 말하곤 했다. 최갑선은 이유 없이 몸이 아파서 초등학교도 2년이나 늦게 입학했다. 그 후에도 발가벗고 우물에 가서 물을 뒤집어쓰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종종 하였다. 지속적인 병치레와 비정상적인 행동 때문에 최갑선 본인을 위한 병굿을 자주 했다. 굿을 하여 문복(問卜)한 결과 당시의 법사들이 최갑선에게 신(神)이 왔다고 하였다. 이렇게 잦은 병치레에도 최갑선은 병원에 갈 엄두도 못 내었다. 당시의 어려운 경제적 이유와 병원이 장거리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16 · 17세 즈음에 중학교(군산 국중학교, 현 중앙중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에 다니던 중 아파서 자주 쓰러졌기 때문에 종종 근처 만수병원에 실려 가곤 했다. 하지만 병의 원인은 알 수 없고 단지 몸이 약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결국 최갑선은 중학교 3년 졸업과 동시에 요양을 겸해 스님이 되고자 절(강원도 설악산 신흥사)로 들어갔다. 신흥사 도관스님 밑에서 3년을 있으면서 불목생활과 채봉생활 등을 하면서 예불 의식도 익혔다. 하지만 이 생활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신기가 있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낙산사로 가서 그 당시 주지스님인 최원철 스님으로부터 차비를 만들어 집으로 들어갔다. 절에 있는 동안은 아프지 않았다.

귀가 후 27세에 고계숙과 결혼하여 2남 1녀를 두었다. 결혼 후 다시 아파서 그해 보은의 속리산 법주사로 들어갔다. 이곳에서 1년 정도 약간의 보수를 받고 처사생활을 했다. 1년 후 집으로 돌아와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에서 법사 일을 시작했다.



최갑선
전북 군산시 동흥남동
최갑선 법사 자택 | 2009.6.30 |
박혜정

법사로서의 입문은 당시 군산의 대법사인 임피면의 채현묵 법사를 사사하면서이다. 채현묵 법사에게 2년 동안 사사한 후에 대야의 한진석 법사 4년, 임피의 고길용 법사 3년, 익산의 최광식 법사 4년, 군산 경암동 최양수 법사 3 · 4개월, 군산 미원동의 박복선 법사 6개월, 군산 회현면의 박길산 법사 2년, 군산 옥구읍의 서두봉 법사 3개월, 김제 백구읍 정일환 법사 6개월을 일할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법사로서 익혀야 할 현장학습을 했다. 최갑선이 아홉 명의 스승 법사들을 사사한 내용과 기간 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최갑선 법사의 앉은굿 스승과 사사 내용

스승 법사 이름	주 활동지	사사 내용 / 사사 기간
채현묵(대표 스승, 첫 스승)	군산시 임피면	청, 고장, 설경 / 2년
한진석	군산시 대야면	청, 고장, 문서 / 4년
고길용	군산시 임피면	지경(산경), 천경(대경:미친굿) 설경팔문, 미친굿, 꽃(국화꽃) 만드는 법 / 3년
최광식	익산시 우현동	풍물 고장 / 4년
최양수	군산시 경암동	청 / 3~4개월
박복선	군산시 미원동	경문 / 6개월
박길산	군산시 회현면	청, 고장, 경문, 설경 / 2년
서두봉	군산시 옥구읍	소리 성 / 3개월
정일환	김제시 백구읍	청, 고장, 문서 / 6개월

위에 언급된 아홉 명의 스승 법사들 중에 현재 최광식 법사만 생존해 있으며, 나머지 법사들은 모두 고인이다. 이외에도 최갑선의 부친 친구인 강도홍 법사로부터 문서 · 설경 · 위패서식 등과 관련된 책자를 7 · 8년에 걸쳐 얻어왔다. 또 박궁기 법사로부터는 주역, 택일 책, 상경, 대경 등의 문서만 가져다가 독학을 했다. 이와 같이 최갑선은 당시 군산을 비롯하여 인접 지역의 대법사들로부터 앉은굿 법사 학습을 하여 지금까지 군산을 주 근거지로 법사 활동을 하고 있다.

최갑선은 법사로서 중요한 독경과 위패 등의 작성 시 필요한 한자를 옥구읍 향교에서 여름과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학습했다. 덕분에 그는 요즈음 법사 일 외에 서예작가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2001년 6월에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6호 독

경(앉은굿) 기능보유자로 지정된 최갑선은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총연합회 이사'와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총연합회 전북지회장'을 겸하고 있다.

참고문헌 2009년 6월 30일 군산시 동흥남동 최갑선 법사 자택에서 면담 시 녹음 자료와 기록물.
필자 박혜정(朴惠貞)

최영 장군(崔瑩 將軍)

정의 고려 말의 장수로서 수차례의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막고 원나라 원병과 내란 평정 등 혁혁한 공을 세워 고려를 수호한 인물. 그의 억울한 죽음 이후 무속신으로 좌정되었다.

내용 고려 충숙왕 3년(1316)에 철원(개성 혹은 충남 서산이라는 설도 있음)에서 출생하여 73세의 일기로 개성에서 참수(斬首)된 최영(崔瑩, 1316~1388)은 무속에서 장군신으로 섬기는 실제 역사적 인물 중 하나이다. 최영은 문하시중으로 있던 고려 우왕 14년(1388)에 명나라 땅 요동(遼東 ; 현재의 랴오둥 반도. 압록강 선양 일대를 말함) 정벌 때 팔도도통사(八道都統使)가 되어 좌군과 우군도통사에 각각 조민수(曺敏修, ?~1390), 이성계(李成桂, 1335~1408)를 두고 3월에 개성을 출발해 평양에 도착한다. 평양에서 최영은 왕의 만류로 출정하지 못하고 왕과 함께 개성으로 돌아오는 대신 조민수와 이성계로 하여금 요동으로 출정케 한다. 이성계는 조민수를 꾀어 요동 진군을 포기하고 5월에 개경으로 역진격한다. 최영은 6월에 남은 군사로 대적했으나 역부족으로 패한다. 곧바로 체포되어 경기도 고양으로 귀양을 가서 같은 달 합포로 갔다가 7월에 충주, 다시 12월에 개경으로 옮겨져 참수된다.

고려의 충신으로 큰 공로를 이룩했으나 직속 부하에게 배신을 당하고 참수까지 당하게 되는 억울한 생이 부각되어 한국의 무속에서는 그를 장군신으로 좌정시킨다. 최영 장군은 임경업(林慶業, 1594~1646) 장군 및 남이(南怡, 1441~1468)장군과 함께 한국의 주요 장군신으로 모셔지지만 이 가운데 최영 장군이 가장 널리, 가장 열렬히 숭앙되고 있다. 무속적 세계관에서 억울하게 죽은 영혼은 저승세계에 안착하지 못하고 구중을 떠도는 것으로 나타난다. 무속은 이들 영혼을 달래고 천도하는 굿을 통해 해결한다. 그중 억울하게 죽은 왕이나 장군 및 유명한 공인 등은 무속의 신적 세계관에서 신격으로 추대되고 숭상의 대상이 된다.

최영의 활동 범위는 전국에 걸쳐 있기 때문에 관련 사당과 유적지가 산재해 있다. 관련 유적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개성 덕물산의 최영장군사(崔瑩將軍祠), 강원도 철원군과 홍성군의 최영 장군 생가, 홍성문화제의 최영 장군 영신제, 경기도 고양시 대자산 기슭의 최영장군묘, 경남 통영시의 최영장군사당, 제주도 추자면의 최영장군사당, 부산 수영구의 무민사(武愍祠), 부산 동구의 무민공 최영장군사당, 경남 남해시 미조면의 최영장군사당 무민사, 충북 충주시의 기봉영당,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의 최영장군당 등이다.

유적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최영 장군 신격의 숭상은 특히 중부 지역이 강세를 보인다. 최영이 탄생하고 입적한 곳이 중부 지역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신관 분포를 볼 때 중부



1. 국사당 최영 장군 무신도
서울시 종로구 무악동 | 1972.10.31 | 장주근



2. 기봉영당 내 최영장군 영정
국립민속박물관 사진자료 소장

최일(최영) 장군 무신도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가로 77㎝, 세로 101㎝



지역이 강세로 나타난다. 개성의 덕물산에 있는 최영장군사는 조선조 초에 이루어진 최영의 신원회복으로 창건되고 활성화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무민(武愍)'은 그때 받은 시호이다.

최영의 신격 숭상 영향은 한양과 주변의 경기 지역에 두루 미쳐 최영장군신의 보편화를 가속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 영향은 개성 소재지인 황해도 지역의 무속에도 해당된다. 오늘날 최영장군굿을 주도하는 최영장군당굿보존회가 경기도 고양시에 있고, 그 주무(主巫)가 황해도 만신(萬神)인 점은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간과할 수 없는 점은 개성 덕물산의 도당굿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중환(李重煥, 1690~1752)의 『택리지(擇里誌)』에 덕물산과 최영장군사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젊은 처녀가 사당을 시봉(侍奉)하였고, 밤이면 신령과 접신하여 혼인을 맺고 있다고 적고 있다. 아키바 다카시(秋葉隆)도 덕물산 도당굿의 웅장함을 잘 소개하고 있다.

개성의 도당굿과 최영장군당굿의 제차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개성의 도당굿 : [첫째날] 유가(당맞이와 유사), 부정풀이, 가망거리, [둘째날] 제석거리, 별상거리, 본향신거리, 도당할아비할망거리, 창부거리, 본향병졸거리, [셋째날] 군웅거리, 막동거리(활쏘기), 뒷전/영산 등 총 열두 거리.

최영장군당굿 : 신청울림, 당맞이, 일월맞이, 상산맞이, 초부정거리, 감흥거리, 소대감거리, 성주거리, 칠성/제석거리, 별상거리, 영정거리, 말명거리, 군웅거리, 타살거리, 대감거리, 먼산장군거리, 토일성수거리, 신장거리, 최영장군거리, 대신거리, 창부거리, 조상거리, 목신서낭거리, 마당거리 등 총 스물네 거리.

참고문헌 澤里誌, 朝鮮巫俗の研究(赤松智城 · 秋葉隆, 조선총독부, 1937), 한국민족문화백과대사전 22-최영(민병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한국민족문화백과대사전 22-최영장군신(최길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최영장군과 기봉영당(최재영, 대한출판, 2005), 고려명장 최영의 역사흔적을 찾아서(김병섭, 해암, 2007), 최영장군당굿 연구(최영장군당굿보존회, 민속원, 2008).
필자 이정재(李丁宰)

최음전

분야 중요무형문화재 제82-나호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악사 부문 기능보유자.

내용 최음전(崔音全, 여)은 1915년에 황해도 해주시 동구 석동 25번지에서 태어났으며, 35세 때에 황해도 해주에서 당시 명성을 날리던 조춘물(방수덕) 만신 밑에서 10여 년 동안 황해도굿의 장구장단과 바라지하는 법을 배우면서 굿판에서 장구를 쳤다. 6 · 25 전쟁 때 전란을 피해 남쪽으로 피난 내려와 인천에 살면서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의 기능보유자인 무녀 김금화의 굿판에서 장구를 쳤다. 1985년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때 악사 부문으로 기능보유자가 되었으며, 황해도 굿판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악사로 자타가 공인하였다. 많은 나이임에도 김금화의 굿판에서 하루 종일 장구를 쳤으며, 2005년에 명예보유자로 지정되었으나 2007년 1월 12일에 세상을 떠났다.

서해안배연신굿과 대동굿은 마을의 평안과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기원하는 굿으로, 황해도 해주와 옹진, 연평도 지방의 마을에서 해마다 행해진다. 배연신굿은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가 벌이는 굿으로 배의 안전과 고기를 많이 잡고 집

안을 번창하게 해 달라고 기원하는 굿이다. 대동굿은 음력 정월이나 2, 3월에 마을 사람들이 축제처럼 벌이는 규모가 큰 마을굿이다. 이러한 황해도 굿판에서는 악사를 '기대'라고 한다. 기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장구를 치는 장구잽이이다. 황해도굿에서 장구를 치지 않는 굿거리가 없을 만큼 장구가 중요한 악기일 뿐 아니라, 장구잽이가 만신의 재담을 받아치며 굿을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즉 황해도굿은 만신과 장구잽이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장구잽이의 명칭도 '상장구할마이' 또는 '상기대'라고 하여 상(上)자가 하나 더 붙는다.

황해도굿에서 치는 장구는 농악 장구와 크기가 비슷하다. 장구를 내려놓을 때는 자루에다 쌀을 적당히 넣어 장구바퀴 밑에 양쪽에 하나씩 받쳐서 장구가 움직이지 않게 하면서 동시에 앉아서 치기 편하게 약간 높인다. 장구를 칠 때 채편은 보통 장구채와 같이 대나무를 얇게 깎아 만든 채를 쓰고, 북편은 소나무와 대나무 막대에 다홍과 초록의 양단을 입혀 곱게 만든 방망이로 친다. 최음전은 채편을 칠 때 독특했다. 채를 새끼손가락과 넷째손가락 사이에 끼고 채편 끝이 바깥쪽으로 가게 해서 쳤다. 김금화 만신에 의하면 아주 능숙한 반주자라야 그렇게 쥐고 장구를 칠 수 있다고 한다.

참고문헌 민속악체계정립자료집 3–무악(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0),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14–무의식편(문화재관리국, 1983),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국립문화재연구소, 화산문화, 2002), 황해도 굿의 음악인류학(이용식, 집문당, 2005).
필자 시지은(施知恩)

최형근

분야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33호 아기씨당굿 예능보유자.

내용 최형근(崔炯根, 남)은 1954년 6월 18일(음)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4가 102번지에서 부친 최봉식과 모친 오오순 사이의 4남 2녀 중 셋째아들로



최형근 공연 장면
2008 | 양종승

태어났다. 무속집안을 배경으로 어린 나이 14살 때부터 정통 서울굿 음악을 이인성, 김은산 등의 문하에서 학습하였다. 이후, 17살 때부터는 지영희제를 이어받은 최경만과 박범훈 등에게도 학습하여 그의 예술적 기량을 크게 높였다. 최형근이 무속음악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그의 고모 최인순 때문이었다. 최인순은 마포 일대에서 "밤쥐"라는 별호를 갖고서 유명 만신으로 이름 석자를 날렸는데 자손이 없어 최형근을 늘 친자식처럼 아꼈다. 결국 최형근은 고모 최인순의 영향을 받아 무속음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한편, 최형근의 고모부 김금준(최인순의 남편)도 악사로 활동하였지만 그에게 학습하지는 않았다. 최형근의 친할머니 정인숙(최인순의 친정어머니)도 마포일대에서 유명 만신이었는데 용산구 용문동에 있는 남이장군사당 당주로서 활약하였다. 정인숙은 사망 전, 친딸 최인순에게 당주를 물려주었다. 그러한 집안 내력으로 인해 최형근은 남이장군사당에 대한 애착심을 깊게 갖고서 악사로서 뿐만 아니라 사당제를 이끄는 실질적인 리더자로서 활약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1999년 제주에서 개최된 한국민속예술축제에 남이장군사당굿을 출품하게 되었다. 또한 제주 경연대회 개최 3년여 전에는 현재 당주가 된 이명옥 만신을 남이장군사당굿 팀으로 끌어들이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남이장군사당굿이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영광을 갖게 된 것도 최형근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형근은 앞서 거론한 남이장군사당굿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1981년부터 행당동에 있는 애기씨당굿과도 관련하여 무악 연주를 하여 왔었다. 그러한 인연으로 애기씨당굿이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3호로 지정되면서 보유자로 인정된 것이다. 애기씨당굿의 역대 잽이당주 및 잽이로 활약하였던 인물들은 시대에 따라 당대에 유명 악사들로 구성되었다. 당주 고송자 시절에는 이순길 씨가 잽이당주로 활약하였고 그와 함께 박기동, 전두연 씨 등이 참여하였다. 당주 김묘분 시절에는 김갑용 씨가 잽이당주로 활약하면서 지광희, 박일남, 양광선, 최석길 등 당대 유명 악사들이 참여하였다. 현재는 잽이당주 최형근 외에 한상기, 박문영, 한영서, 임기택, 김성연, 최은정, 박효원 등이 애기씨당굿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애기씨당굿 무속음악을 이어갈 후계자로는 최은정, 박효원 등이 있다.

최형근은 현재 서울 지역 당굿과 관련된 무악 연주를 담당하고 있는 최고 수준의 악사이다. 또한 최형근은 어려서부터 무속집안의 영향을 받아 굿판에서 무속음악 뿐만 아니라 굿 진행에 관련한 제반 사항에도 능통하다. 최형근은 삼잽이로 구성되는 애기씨당굿의 음악에서 주로 피리를 맡아하지만 때로는 대금이나 해금을 연주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호적을 연주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애기씨당굿 조사보고서 (양종승, 서울특별시, 2004), Investigative research towoards the designation of shamanic village rituals as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서울시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마을굿 조사연구) (양종승,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국제저널 무형유산), 2009).
필자 양종승(梁鍾承)

추라



1

1. 추라 꽃심
부산시 기장군 김동렬 자택 | 2003.5.6 | 심상교

2~3. 추라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학리 | 2005.3.4 | 심상교

정의 폭 0.5㎜에 길이 약 1㎝ 정도 작게 잘려진 미세한 종이들이 모여 만들어진 꽃으로 작약, 담배꽃, 설중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색깔은 흰색이고 지화 상부에 꽃심이 있다. 지화 모양은 위가 잘려나간 원뿔형이고 꽃받침이 있다.

형태 추라는 먼지털이의 수술처럼 아래는 묶이고 위쪽이 퍼져나간 작은 꽃 40~50개가 꽃 전체를 형성한다. '수염'처럼 '확 퍼져' 나간 모양을 하고 있는 꽃이라 하여 추라꽃이라 고 말하기도 한다.

내용 추라는 잘게 썬다는 뜻이다. 얇은 화지 20장을 겹친 다음 둥근 종이 바깥에서 안쪽을 향해 가위로 잘라 4~5등분한 다음 등분된 종이의 일부를 가위로 아주 잘게 썬 다음 이를 펴서 만든 꽃이다. 추라의 꽃심은 꽃의 암술이나 수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풍성한 지화의 가운데 윗부분을 장식한다. 꽃심은 잘게 썰어져 꽃대에 가장 먼저 끼워진다. 따라서 꽃심은 지화의 가장 윗부분을 장식하게 된다. 꽃심은 안쪽 원과 바깥 원 등 두 개의 원으로 이뤄지는데 안쪽 원이 바깥부분보다 짙은 색으로 만들어진다. 꽃이 아름답고 조화롭게 하기 위해 꽃의 가운데 부분을 더 짙게 만드는 것이다. 추라가 흰색 화지로 만들어지면 꽃심은 남색이나 분홍색으로 장식된다.

동해안별신굿의 지화는 굿상 전체를 뒤덮듯 장식된다. 10개에서 16개나 31개 정도의 지화를 한 묶음으로 하여 9개 또는 10개 묶음 약 146송이의 지화가 굿상 뒤편에 위치하는데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는 형상이다. 지화는 모래가 담긴 큰 화분에 1미터 이상



2



3

의 꽃대로 장식되어 넓게 펴진 상태가 강조된다. 때문에 높이보다 좌우로 배열된 모습으로 인식된다.

동해안별신굿에서 지화를 차려놓는 것은 "산 사람도 자신을 위해 조화로운 장식을 하는데 조상신이나 골매기신, 서낭신을 모셔와 굿을 하는데 그냥 할 수 없어 멋을 내고 분위기를 위해 꽃장식을 하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음식을 차리고 잔을 올려야 신에게 조금이라도 정성을 들이고 조금이라도 화려하게 보이게 된다."라는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맨바닥에서 밥드시고 굿받으시는 것보다 꽃밭에서 굿을 받으라는 목적"에서 지화를 차려놓는다고 한다. 지화를 놓고 굿을 하면 "골매기 서낭신이나 성주신 등이 꽃밭에 앉아 굿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무당들은 말한다.

이상을 통해 볼 때 동해안별신굿 지화는 신이 굿판에 하강하거나 깃들기를 희망하는 신성공간 마련의 정신이 강하게 표현된 경우라 할 수 있다. 신이 내려와 지화에 정좌해서 인간세계와 소통하고 산사람의 굿과 정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지화인 셈이다.

참고문헌 한국무가집 4(김태곤 편, 집문당, 1992), 한국의 민속지화에 관한 연구(강신영,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한국지화에 관한 연구 2–김석출씨의 기법을 중심으로(김태연, 산업기술연구, 대구대학교산업기술연구소, 1985), 한국전통지화에 관한 연구(박기복,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무화연구 (1)(김태연, 한국무속학3, 한국무속학회, 2001), 지화 연구(김명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서울굿 신화 연구(양종승 · 최진아, 한국무속학 4, 한국무속학회, 2002), 동해안별신굿 지화 연구 1(심상교, 한국무속학 6, 한국무속학회, 2003).

필자 심상교(沈相敎)

충렬굿무가

정의 망자의 혼을 천도해 주는 함경도의 망묵굿에서 불리던 무가. 어떤 제차(祭次)에서 어떤 성격으로 불린 무가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충렬굿 말미에 망자의 제상을 올린다고 한 것으로 보아 망묵굿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제차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가 내용 가운데 "시왕[十王]에 길을 닦을 적이요/나라님 충신 몸이 되어서/청춘에 가는 인상[人生]들이 난준[亂中]에 가 난을 막아 가실 적이"라는 사설이 서두에 있는 것으로 보아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은 혼령을 달래주던 성격의 무가인 것으로 보인다.

내용 아버지 유심이 간신의 모함을 받아 옥에 갇힌 상태에서 유복자로 태어난 충렬은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아나 있었다. 이웃집 노인은 이 사실을 절대 밖에 알려지지 않게 하지만 간신들이 천기(天氣)를 보고는 충렬을 죽이려고 쫓아온다. 충렬의 어머니는 충렬을 배에 묶어 강물에 띄워 보냈다. 왕이 충렬을 구해 기르게 되고, 나라에 변란이 일어나 공주가 적에게 잡혀가자 충렬이 천리마를 타고 출전하여 적장을 베고 공주를 구해온다. 후에 충렬이 절간에 공부하러 갔다가 어머니를 상봉하고 가족이 모두 만나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내용이다.

채록 자료는 김태곤이 함경남도 함흥 중화리에서 월남한 이고분 무녀에게서 1966년 5월 21일 채록하여 『한국무가집(韓國巫歌集)』 3권에 소개한 것이 유일본이다. 임석재 · 장주근의 『관북지방무가(關北地方巫歌)』에는 함경도 지역의 망묵굿 전반을 조사하였으나 19거리의 굿거리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 〈충렬굿무가〉 자료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인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

특징 〈충렬굿무가〉는 고소설인 〈유충렬전(劉忠烈傳)〉을 바탕으로 무가를 생성시킨 독특한 서사무가의 사례이다. 또한 날개 달린 아이의 출생, 천리마의 등장 등 민중영웅인 아기장수의 면모를 그대로 받아들여 무가로 형상화하였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외에 함경도 무가에서 아기장수전설을 수용하여 무가로 형성시킨 자료로는 〈대감굿무가〉가 있다. 이 무가에서는 함경도 서사무가의 다수가 민간에서 전승되던 설화를 받아들여 무가로 형상화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무가집 3(김태곤, 집문당, 1978), 함경도 서사무가에 나타난 〈아기장수전설〉의 수용양상(권태효, 한국구전신화의 세계, 지식산업사, 2005).

필자 권태효(權泰孝)

충청도 독경무복

정의 충청 지역 앉은굿인 독경에서 법사가 굿을 할 때 입는 옷. 법사는 무복으로 한복저고리와 바지를 입고 그 위에 포(袍)를 걸친다. 머리에는 갓이나 한지로 접은 고깔을 쓴다.

내용 충청도 굿은 일명 양반굿이라고도 한다. 이는 한문어투의 설경을 선호한 양반층의 특권의식에 호응하여 엄숙한 형태로 진행하면서 법사가 갓과 두루마기를 걸친 양반의 복식차림을 구축한 데서 유래된 명칭이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 보면 도복을 갖추고 도인의 말투는 아니지만 독경을 통해 병을 다스렸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도복은 이규경의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에 의하면 승려의 단의이다. 직철(直裰)은 중국에서 승도들이 착용하는 표의(表衣)로, 우리나라 도포(道袍)와 같다. 우리나라에서 승(僧)이 상시 입는 옷을 장삼(長衫)이라고 불렀으며 장삼의 모양이 도포와 비슷해 당시 도복이 도포임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도포는 현재도 의례복으로 착용되기도 하지만 조선 말기에는 신분과 관계없이 의례복으로 두루마기가 착용되면서 당 시대의 법사도 독경을 할 때는 두루마기에 갓이나 고깔을 썼을 것으로 추측된다.

굿과 꽹과리를 두드리며 앉아서 독경을 구송하는 법사가 착용하는 무복은 신이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입는 옷이어서 평복이라고 부른다. 충남 지역에서 독경을 할 때는 평복을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평복을 착용한다는 것은 강신무의 의례가 아님을 의미한다. 굿의 주재자는 초대되는 굿거리 주신을 상징하는 특정한 무복을 착용했을 때 특정 신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충청도에서 법사가 평복을 착용한다는 것은 신이 내리는 것과 무관한 의례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머리에 쓰는 갓은 양반굿의 잔재로 볼 수 있으며, 고깔을 쓰는 것은 도복이 불교의 직철인 도포에서 연유되었고 승을 상징하는 고깔은 여전히 잔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충청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독경은 대부분 법사가 단독으로 의례를 주도하지 않고 보살이 함께 주관하거나 강신보살들이 세력을 장악하고 있다. 이에 선굿을 하는 강신보살의 영향으로 세습무권에 속하는 충청도 독경은 과거 전통적인 무복에 비해 복식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무복의 종류만으로도 지역성을 알 수 있다. 전통적으로 세습무가 활동하는 충청, 호남, 제주도 지역의 굿을 행하는 주재자가 착용하는 무복의 종류는 다양하지 않다. 법사가 무복으로 착용하는 복식은 남자 한복, 두루마기, 고깔이나 갓이다. 법사가 굿에서 착용하는 두루마기는 상하의가 연결됐으며 옆이 트여 있지 않고 무가 붙어 있는 포(袍)이다. 이러한 두루마기는 조선 말기에 착용한 복식으로, 특정한 신분만이 착용하는 의례복이 아니고 일반 평민도 착용한 복식이다. 법사가 도복 대신 두루마기를 착용하는 것은 신령에 대한 신격을 나타내기보다 당대에 의례복으로 착용한 복식이어서 의례를 위해 복식으로 갓과 두루마기를 착용한 것이라 본다.

현재 충청도 독경은 앉은굿만 하는 경우 법사가 전통적인 남자 한복바지와 저고리에 포를 착용하지 않고 머리에 백색 종이고깔만을 쓰거나 입기 편하게 변형한 생활한복만을 착용한다. 선굿과 앉은굿을 하는 경우는 무복을 선굿용과 봉안해 두는 장엄용으로 분류한다. 앉은굿에서는 무복을 따로 입지 않고 평상복을 입거나 생활한복을 입는 정도이며 갖춰 입을 때는 두루마기를 입기도 한다. 그리고 머리에는 종이고깔을 쓴다. 선굿을 할 때는 섭수저고리, 쾌자, 불사옷, 도사할아버지옷, 천고깔, 종이고깔을 착용한다. 섭수저고리는 전통복인 동다리로 남색의 길에 소매는 홍색으로 되어 있다. 이 위에 남색 쾌자를 착용한다. 할머니옷이라고도 하는 불사옷은 전통복인 장삼 형태로 된 상의하상인 직철 형태이며 백색이다. 도사할아버지옷은 전통복인 두루마기로 상하의가 연결됐으며 옆이 트여 있지 않고 무가 붙어 있는 분홍색이다. 머리에 쓰는 고깔은 호남굿에서와 마찬가지로 천으로 된 고깔과 종이고깔이 공존한다. 종이고깔은 한번 한지로 접어 만들어지면 낡을 때까지 의례에서 계속 사용하기도 한다. 법사에 따라서는 고깔

도 의관이라 굿을 할 때마다 한지로 새로 접기도 한다. 천고깔은 예전에는 사용하지 않았으나 강신 체험한 보살들이 선굿을 할 때 사용되고 있다. 현재 충청도 독경은 법사의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강신체험한 보살들이 굿에 참여하면서 강신무복을 착용하기도 한다. 법사가 무복으로 착용하는 복식은 예전에 비해 종류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강신을 통한 의례가 아닌 전통적인 지역의 굿을 할 때는 다양한 무복을 착용하기보다는 과거의 전통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역성이 지켜지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 종교복식(임영자, 아세아문화사, 1990), 한국의 굿(하효길 외, 민속원, 2002),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무구(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충청도 설경(說經)연구(안상경, 한국무속학 5, 한국무속학회, 2002), 무속의 물질문화연구(최진아,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9).
필자 김은정(金垠呈)

취타(吹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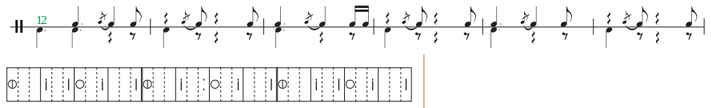
정의 서울 · 경기 지역의 굿에서 사용되는 무악. 비교적 규모가 큰 서울새남굿, 서울진오귀굿, 경기도도당굿에서 연주한다. 굿 연행에 있어서 길군악, 길타령 등과 함께 행악(行樂)으로 사용된다. 서울새남굿과 진오귀굿의 '별상거리' 및 '도령거리', 경기도도당굿의 '돌돌이-장문잡기'라는 의식에서 취타가 연주된다.

내용 취타는 원래 '불고[吹] 치는[打] 음악'이라는 뜻으로, 예부터 임금의 거둥[擧動]이나 군대의 행진 및 개선 때 사용하는 행악을 말한다. 현재 취타는 군영음악인 대취타(大吹打)의 태평소 선율을 변주하여 구성한 것으로 만파정식지곡(萬波停息之曲)이라고도 하며, 무악이나 민속악에서는 '취태'라고 부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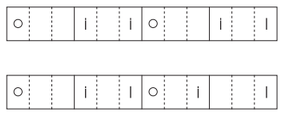
굿에서 취타는 사슬을 세워 별상 신령을 모실 때, 바리공주가 망자의 혼을 천도할 때, 굿패가 마을을 돌고 굿당에 도착했을 때 등 주로 신령이나 사람의 거동을 반주하는 행악으로 사용된다.

취타는 목피리, 곁피리, 대금, 해금, 장구, 북의 삼현육각 편성으로 연주한다. 취타는 7장 21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장단이 12박이다. 특히 무악에서 취타장단에는 관현악이나 민속악 취타의 12박 장단과 달리 허튼타령장단이 사용된다. 허튼타령장단은 한 장단이 4박이며, 별상장단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무악의 취타장단은 허튼타령장단을 변주하여 세 번 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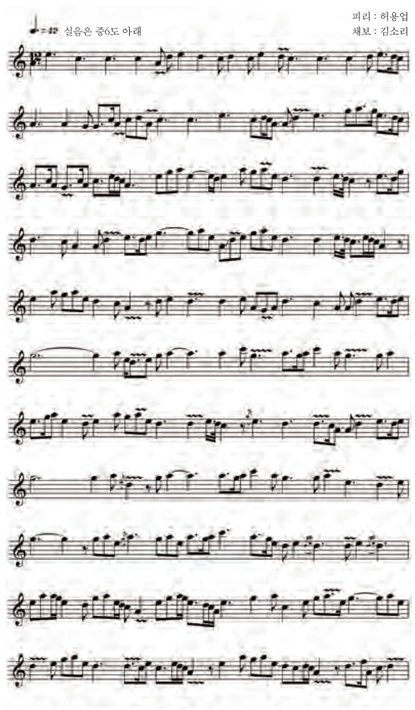
〈취타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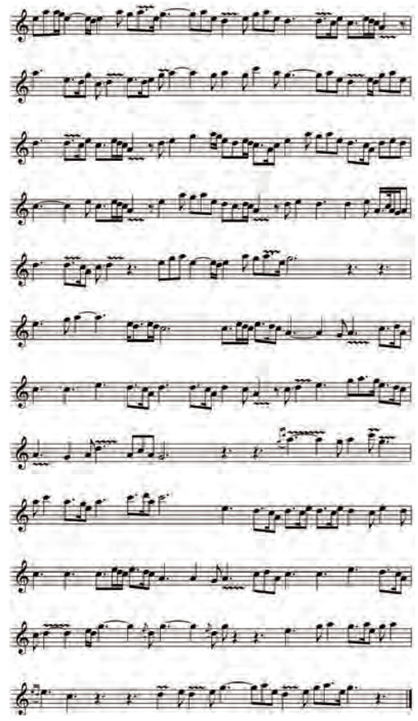


〈허튼타령장단〉



〈취타악보〉





큰굿은 궁중과 관련이 있어 왕의 거둥에 따라 연주되던 취타가 굿에서 연주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14–무의식편(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3), 서울새남굿(국립문화재연구소, 1994), 경기도 도당굿(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서울굿 음악연구(하을란,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서울새남굿의 삼현육각 연구(김소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취타계열 음악 연구(김정림,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필자 김소리(金소리)

측신굿

정의 화장실을 관장하는 신인 측신에게 올리는 의례나 굿.

내용 측신은 측간신, 측귀(廁鬼), 측간귀신, 주당, 변소각씨라고도 부르며 탈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젊고 신경질적인 여신으로 생각한다. 여느 가정신과 달리 신체를 모시지 않는 건궁신앙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굿이나 의례를 수행하지는 않는다. 다만 집안 식구 가운데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치면 지역에 따라 무당을 불러 굿을 하거나 떡과 밥 등 간단한 제물을 차려놓고 비손하는 경우가 있다. 측신은 악취가 나는 곳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성격이 신경질적이고 흉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가신 중에서도 악귀(惡鬼)에 속한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는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하기보다 두려운 귀신, 잡신으로 인식한다. 일반 가정에서는 이 측신을 두려워하여 뒷간을 함부로 고치지 않으며 땔감이 없던 옛날에도 뒷간에서 떨어져 나온 나뭇가지는 절대 아궁이용으로 때지 않았다. 또 야간에 뒷간을 갈 때에는 멀리서 헛기침을 하고 잠시 지체하다가 들어간다. 이것은 갑자기 들어가서 측신을 놀라게 하면 화를 당하게 되리라 여기기 때문이다.

제주도 무속신화인 〈문전본풀이〉는 조왕신과 기타 가옥의 신들에 대한 유래를 밝히는 신화로 집안의 여러 공간인 올레 주목 정쌀과 동서남북 중앙 및 뒷문과 앞문, 그리고 부엌과 측간을 지키는 신들에 관한 본풀이다. 아버지는 올레 주목 정

지역사례 취타는 서울새남굿과 진오귀굿, 경기도도당굿 등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큰굿에서 행악으로 연주된다. 서울 지역에서는 죽은 사람을 위한 굿인 새남굿(서울 지역에서 보통 망자천도굿을 진오기 또는 진오귀라 하며, 특별히 상류층이나 부유층을 위하여 베풀어질 때에는 규모를 크게 하여 새남굿이라 한다)이나 진오귀굿에서 사용된다. 별상거리에서는 비극적으로 왕위를 잃은 신령인 별상을 모시기 위해, 도령거리에서는 바리공주가 망자의 혼을 극락세계로 천도하는 과정에서 각각 연주된다. 특별히 임금의 거둥에 사용하는 취타를 연주함으로써 별상과 바리공주를 다른 신과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도당굿에서 굿을 하기 전에 굿패들이 마을 장승에게 고사를 지내고 마을의 공동우물을 돈다.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는 돌돌이를 마치고 굿당에 도착하였을 때 장문잡기라는 의식에서 군웅마마님께 취타 연주를 올린다. 예부터 서울 · 경기 지역의

찰지신, 어머니는 부엌의 조왕신, 첩은 측간신, 일곱 아들은 동·서·남·북·중앙과 뒷문 앞문을 지키는 신들로 각각 좌정하고 있다. 이 신화의 특징은 가족 구성원 중 하나하나가 집안의 어떤 특정한 공간을 각기 하나씩 차지하는 신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어머니와 첩이 각각 조왕신과 측간신으로 나타난다. 측신은 늙지 않는 첩신으로서 성정이 악하며 조왕과는 원수 사이로 나온다. 집안을 지키는 가신들은 대체로 집안의 평안을 위해 돌보는 착한 신이지만 측신은 좀 사악한 성정이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고 믿는다. 사실상 예전의 재래식 변소는 깊고 어두워 그 자체로 위험한 면이 있어 당연히 조심해야 했으며 이것을 신격에 반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사례 측신에 대한 지역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에서 측신은 6일·16일 등 6자가 들어 있는 날에만 있고 그 외의 날은 외출하여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6자가 들어 있는 날에는 뒷간 출입을 조심한다.

전남 진도에서는 집안 식구 가운데 누가 변소에서 넘어졌을 때 측신장군(변소 귀신)에게 간단히 제사상을 차려놓고 무당이 징으로 무장구장단을 치며 축원한다.

전북 남원에서는 측신에게 특별한 공을 드리는 일은 없지만 매년 정월 보름이 되면 까치밥을 문 앞과 변소 앞에 놓거나 지붕 위에 던져 놓는다.

또한 시집간 딸이 아기를 낳고 처음 친정에 오게 되면 아기를 데리고 가장 먼저 측신에게 가서 인사를 해야 아기에게 별 탈이 없다고 한다. 예전에는 딸이 아기를 데리고 오면 아기가 탈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한다. 그리고 어떤 탈이 나더라도 측간의 지붕에 있는 짚을 태우면 아무 탈이 없다고 한다.

또한 가족들이 삼재가 들어 삼재풀이를 할 때도 측신에게 삼재를 팔면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라고 한다. 삼재를 팔기 위해서는 그 전 해 섣달그믐에 변소에 가서 풀어주며, 삼재가 든 3년 내내 그렇게 섣달그믐에 측신에게 가서 풀어주면 좋다고 한다. 이렇게 삼재를 측신에게 파는 것이 다른 어떤 공보다 가장 효과적이라고 한다. 삼재풀이를 하기 위해서는 변소 밖에 자리를 잡고 가장 먼저 터주에게 술을 한 잔 따라 올린다. 터주제를 지낸 다음에 공을 드려야 집이 시끄럽지 않기 때문에 가장 먼저 터주에게 술을 부어 주고 난 다음 변소 앞에 앉아 술을 한 잔 부어놓고 "변소대장님네, 측신님네, ○○살 묵은 자손이 ○○○○년도에 삼재가 들었으니 들삼자 팔러 왔어요. 변소대장님, 나꼬라지 내면 싹싹 빼주고, 물을 두 바가지 빼드린께 삼 년간 재수 주시오."라고 빈다. 이렇게 빈 다음에 삼재가 든 자손이 똑같은 방법으로 공을 드린다고 한다. 그다음 술을 부어 놓은 곳에 또다시 술을 부어준다. 그런 다음 물만 한 바가지 부어버리면 그해 삼재 들어온 것은 깨끗이 씻어낼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삼재풀이는 정해진 시간이 따로 없이 섣달그믐 아무 때라도 하면 된다고 한다. 드는 삼재인 들삼자, 두 번째 삼재인 쉰삼자, 세 번째 삼재인 날삼자를 이렇게 판다. 또 집안에서 환갑을 맞은 사람이 있으면 측신에게 가서 술을 한 잔 따라놓고는 "측신님 돌 팔러 왔어요. 우리 식구 모두 웃음 짓게 해주세요."라고 빈다. 예전에는 환갑이 되기 전에 죽거나 탈이 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환갑이 다가오면 이렇게 측신에게 꼭 빌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때 빌 때는 아들·며느리 할 것 없이 모두 들먹이면서 빌어야 집안 식구 모두가 아무 탈 없이 환갑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한다.

무주에서는 초상집이나 안 좋은 곳에 다녀왔을 경우 변소에 가서 침을 세 번 뱉고 오면 괜찮다고도 한다. 또 나들이를 갈 때 침을 세 번 뱉고 가라고 하며 빨간 팥을 뿌리고 나서 나들이를 가기도 한다. 진안에서는 대사(大事)를 치를 때면 측간에 밥을 해서 올리며 초상집에 갔다 오면 불을 놓고 세 번 발로 밟아 불을 끈다. 시월 도신할 때도 상을 차려놓는다. 정읍에서는 딸이 시집가서 아기를 낳고 처음으로 친정에 가기 전에 아이에게 해가 없게 하기 위해 아이의 이마에 숯검정을 찍어준다. 이때 숯검정은 측간에서 뽑아낸 짚을 태워 만든다. 이렇게 하면 친정 가는 길에 액이 범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리고 가는 길에 잡것이 범하지 말라는 의미로 측간에 있는 짚을 몇 가닥 빼서 아이의 등에 묶거나 아이의 두리띠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잘 가리는 집에서는 아이를 처음 데려왔을 때 바로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외갓집 측간에 가서 절을 세 번 하고 나오기도 하였다. 예전에는 외갓집만 다녀와도 아이들이 아프기 때문에 이런 방비를 했다 하며, 나이 먹은 사람이 측간에서 넘어지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도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측신은 집안이나 가족을 돕기보다 탈이 나게 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탈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나 실제 탈이 날 때 간단히 의례를 거행하거나 무당을 불러 굿을 하기도 한다. 오늘날 가옥구조의 변화와 함께 인식이 전환되면서 이러한 측신에 대한 신적 관념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14-무의식편(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3), 서울 6백년사(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특별시, 1990), 한국민속대사전(민족문화사, 1991), 한국민속학의 이해(민속학회편, 문학아카데미, 1994), 전북의 가정신앙(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필자 서해숙(徐海淑)

칠성검 쌀산(김금화 만신 만수대 탁굿)
강화도 하점면 금화당 | 2007.10.12 | 김은희



칠성검(七星劍)

정의 황해도굿에서 사용하는 신칼의 하나로 칠성거리에서 칠성신의 위력을 보이는 무구. 얇고 긴 형태에 일곱 개의 별이 새겨져 있어서 칠성검이라고 불린다. 칠성검은 일월도라 부르기도 한다.

형태 황해도굿의 칠성거리에 쓰이는 무구로, 길이는 약 60여㎝ 쯤 되는 놋쇠칼이다. 칼날은 놋쇠이며 50㎝ 정도이고, 자루는 나무로 10㎝가 조금 넘는다. 칼날은 너비가 3~4㎝ 쯤 되고, 칼날의 등에 일곱 개의 별이 새겨져 있기도 하다. 칼날은 그 끝을 뭉툭하게 해서 날을 세우지 않는다.



칠성검과 명두
국립민속박물관 사진자료 소장

내용 칠성검은 황해도굿에서 사용하는 여러 신칼 종류 중의 하나로 쌍으로 되어 있는 대신칼·장군칼·신장칼 등과 달리 외짝으로 사용하는 칼이다.

칠성검은 칠성거리를 연행하는 중간에 칠성신의 위력을 나타내고 모든 도액을 막는 무구로 사용된다. 칠성거리는 흰 고깔 장삼에 홍가사와 청가사를 두르고, 백팔염주를 양어깨로 비껴서 매는 복색의 차림을 갖추면서 시작된다.

처음에는 갱정만 들고 만세받이 장단에 맞추어서 청배를 시작했다가, 점차 몇 개의 무구들을 바꾸어 가면서 굿이 진행된다. 칠성거리의 칠성신은 청배를 마치고 쇠를 내린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놀아진다. 즉 바라춤과 경쇠로 부정을 물린 후에 하미를 물고 벅구춤을 춘 후에 하미를 빼고 놀리게 된다. 빠른 춤장구에 칠성검을 들고 돌리면서 도무를 하거나 맴춤으로 점차 칠성신을 실어서 춤을 추다가, 칠성시루의 제미쌀을 칠성검에 붙여서 맴춤을 다시 한 번 돈다. 이때 칠성검에 붙어있는 쌀로써 쌀산을 주고 함께 공수를 내린다. 그리고 굿하는 집의 자손들의 명을 기원하기 위해서 바치는 흰 무명천인 칠성다래를 춤으로 놀려주는 것으로 이어진다.

칠성거리에서 칠성검에 쌀산을 보는 것은 '일월도신장 칠성검으로 모든 도액을 쳐내고 막아'주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14-무의식편(문화재관리국, 1983), 김금화의 무가집(김금화, 문음사, 1995), 한국의 굿(하효길 외, 민속원, 2002), 무당 귀물 연구-『삼국유사』의 삼부인과 무당의 거울·칼·방울을 중심으로-(양종승, 생활문물연구 2, 국립민속박물관, 2001).

필자 김은희(金銀姬)

칠성방울

정의 놋쇠로 된 긴 쇠막대의 끝에 일곱 개의 방울이 매달린 무구(巫具).

내용 칠성방울은 칠성의 일곱을 상징하는 수에 방울의 개수를 맞춘 것이다. 서울 지역의 무속에서는 칠성방울을 '칠쇠방울' 또는 '칠금방울', '쥘새방울' 이라고도 부른다. 칠성방울을 구성하고 있는 일곱 개의 방울에는 '수(壽)' 또는 '복(福)'자의 글씨가 새겨진다. 무속에서 무당이 굿을 하면서 칠성방울을 흔드는 것은 인간에게 명을 주고 복을 준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우리나라의 무당 방울은 청동기시대의 출토 유물을 통해 그 역사가 청동기시대까지 소급됨을 알 수 있다. 청동기시대의 출토 유물 가운데 방울에 속하는 것으로는 팔주령(八珠鈴), 유악령(有顎鈴), 쌍두령(雙頭鈴), 환상쌍두령(環狀雙頭鈴) 등이 있는데, 이 방울들은 주로 종교의례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방울의 기원에 대해서는 고대 소도에서 나무를 세우고 거기에 방울을 달아 의례도구로 사용했다는 설과, 부여의 영고(迎鼓)에서 방울을 쓰게 된 것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설 두 가지가 있다.

무구에서 방울은 소리를 내어 신령을 불러들이거나 쫓아내는 힘을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방울이 신령을 불러들이는 동시에 쫓아낼 수 있는 상징적 무구로 인식되는 것은 신령이 쇳소리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서워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유래한 것이다. 방울은 점을 치는 도구로도 사용되거나 악기(樂器)의 구실을 하기도 한다. 이밖에도 방울은 악기와 입무자(入巫者)의 자격을 가늠하는 중요한 무구 또는 조상신의 신격을 대표하는 무구로 인식된다.

칠성방울은 16~17㎝ 정도 길이의 쇠막대기의 끝에 달린 Y자형의 손잡이 가지에 두 개의 구멍이나 있어 각각의 구멍에다 4개와 3개의 방울을 매단 형태이다. 방울의 반대 방향 손잡이는 끝부분이 둥글게 고리가 지어져 있는데, 이곳에 하얀 명주천이나 노랑색 천을 장식하기도 한다. 방울의 손잡이 아래 고리에 매다는 천은 '방울끈' 또는 '방울보' 라고 하는데, 투명한 소재의 합성섬유나 부드러운 소재의 합성섬유, 종이를 사용하기도 한다. 방울끈은 보관 시에 분리해 놓기도 하며, 낡아지면 정기적으로 교체해 준다.

황해도굿의 칠성거리에서는 칠성방울이 칠성의 신체를 상징하기도 한다. 이는 칠성방울이 칠성을 위해 차려진 상 위의 쌀이 따라 붙어 올라오는지를 확인하는 의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의식은 칠성신이 제물로 차려진 음식을 흠향하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이 의식을 통해 칠성방울이 칠성의 신체(神體)로 상징됨을 알 수 있다. 방울은 본래 방올이라 불렀다. 한자어로 황자(鍠子), 영당(鈴鐺), 탁령(鐸鈴), 영(鈴)이라고 하는데, 모두 소리를 내는 물체라는 의미를 가진다.



칠성방울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길이 22㎝, 자루 19.5㎝ | 광복이후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방울고-무속을 중심으로(양종승, 생활용구 제2권-1호, 짚 · 풀문화연구회, 1998), 무당 귀물 연구-「삼국유사」의 삼부인과 무당의 거울 · 칼 · 방울을 중심으로(양종승, 생활문물연구 2, 국립민속박물관, 2001), 무속의 물질문화 연구(최진아,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8).
필자 오문선(吳文仙)

상호참조 칠쇠방울(886쪽)

칠성본풀이

정의 집안의 부(富)를 이루게 해주는 사신(蛇神)인 칠성이 태어나서 칠성신으로 좌정하기까지의 내력을 담은 이야기. 〈칠성본풀이〉는 대개 심방이 앉아서 장구를 치며 구연하지만 지역에 따라 특정한 제차에서 서서 구연하는 사례도 있다. 사업하는 집에서 굿을 할 때는 사업의 번창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칠성본풀이〉를 구연한다. 뱀과 관련된 우환을 없앨 목적으로 굿을 할 때도 〈칠성본풀이〉를 구연한다.

내용 〈칠성본풀이〉는 지금도 구연 기회가 빈번한 본풀이 가운데 하나이다. 큰굿에서라면 예외 없이 구연되며 철갈이와 같은 의례는 물론 칠성새남에서도 필수적으로 구연된다.

〈칠성본풀이〉는 대개 앉아서 장구를 치며 구연하며 그 앞에는 칠성채롱을 꺼내 놓는다. 채롱에는 쌀을 깔고 칠성신상, 계란, 술잔 등을 함께 차린다. 칠성신상은 백지를 꼬아 먹으로 칠성의 모습을 그려 넣은 형태이다. 계란은 뱀이 좋아하는 음식이어서 반드시 함께 올린다. 본풀이를 구연하기 위한 제차가 독립적으로 마련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짜임으로 이루어진다. 말미, 날과국섬김, 연유닦음, 들어가는 말미에 이어 본격적인 본풀이를 구연한 뒤 이어 비념, 주잔넘김, 산받음, 제차넘김으로 마무리한다. 말미, 주잔넘김, 산받음, 제차넘김 등은 장구 반주 없이 말명으로만 진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장구 반주와 함께 소리로 구연한다. 본풀이는 대개 소리로 하지만 대화 부분에서는 말로 하기도 한다.

〈칠성본풀이〉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장설룡 대감과 송설룡 부인은 나이가 들도록 자식이 없다가 절간에 불공을 드려 아기씨를 낳았다. 그러나 장설룡 대감 부부가 집을 떠난 사이에 아기씨는 중의 아이를 임신한다. 이 죄로 아기씨 부모는 아기씨를 무쇠상자에 담아 바다에 버린다. 아기씨는 바다를 돌아다니다가 제주도에 닿아 섬에 오르려고 하였으나 곳곳에 당신이 있어 오르지 못한다. 그러다가 제주도 함덕리 바닷가에 이르러 그곳에서 물질하러 나섰던 잠수와 낚시를 하러 나선 어부에게 발견된다. 이때 뱀의 모습을 한 아기씨와 아기들의 모습을 보고 어부와 잠수는 더럽다고 흉보면서 외면한다.

칠성은 이들에게 흉험(凶險)을 주어 조상으로 섬김을 받는다. 잠수와 어부는 칠성을 섬기면서부터 부자가 되어 잘살게 된다. 동네 사람들이 이를 알고 너나없이 칠성을 모시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 모두 본향당을 도외시하게 된다. 이에 함덕리의 본향신인 서물할망이 칠성을 핍박한다. 칠성은 하는 수 없이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제주성 안으로 들어간다. 관덕정으로 갔더니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못살게 굴어 칠성은 산지물로 간다. 그곳에서 빨래하러 나온 칠성통 송씨 집안의 며느리를 따라간다. 칠성은 송씨 집안으로 들어가 조상으로 섬김을 받고 송씨 집안을 소문난 부자가 되게 해준다. 나중에 칠성은 제각기 흩어져 막내는 밧칠성, 어머니는 안칠성으로 각각 좌정하여 곡물을 지켜 사람들을 부자가 되게 해주는 신이 되었다. 나머지는 추수지기, 형방지기, 옥지기, 과원지기, 창고지기, 관청지기 등으로 각각 좌정하여 제각기 제향을 받게 되었다. 그 뒤로 칠성은 제주도에서 너나없이 모시는 일반신이 되었다.

〈칠성본풀이〉는 조상신이 일반신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외래신인 칠성신은 토착신인 본향신을 넘어서는 영향력을 갖추었다가 오히려 본향신에 의하여 쫓겨난다. 당신(堂神)이라면 기존의 토착신격을 물리치고 좌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칠성신은 조상신으로서 당신을 넘어서는 결과를 얻었다가 오히려 내쫓김을 당한다. 어쩔 수 없이 제주성 안으로 가서 다시 시작하여 송씨 집안의 조상신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일반신으로 좌정하고 제주섬 어디에서나 대접받는 존재가 되었다. 결국 더 이상 경쟁이 필요 없는 지위를 획득하여 독립적인 신격으로 인정받게 된 셈이다.

〈칠성본풀이〉는 구연 끝에 덧붙이는 비념을 통하여 칠성에게 기원하는 바가 제시된다. 대표적인 기원 사항은 농사를 잘되게 해서 집안의 독(항아리)이 가득 차게 해 달라는 것, 금전을 많이 벌게 하여 부자가 되게 해 달라는 것 등이다. 이밖에 칠성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하지 말라는 기원도 반드시 덧붙인다.

제주도 사람들은 뱀이 돌아다니는 것을 좋지 않은 징조로 여긴다. 그리고 뱀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기시한다. 잘못하여 뱀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면 큰 벌을 받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또한 뱀으로 인하여 병이 생기거나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칠성새남굿을 한다. 칠성새남은 뱀에게 해를 끼친 것이 허멩이라고 하여 허수아비가 대신 벌을 받게 한다.

특징 및 의의 신이 뱀의 형상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일반신본풀이 가운데서는 예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외부에서 제주섬으로 들어온 후 사람들에게 흉험을 주어 제향을 받는 점에서 조상신본풀이의 면모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제주도 각처를 돌아다니며 좌정할 곳을 찾아다니다가 한 곳에 좌정

하여 제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당신본풀이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포함하여 여러 면에서 조상신본풀이, 당신본풀이와 교섭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풀이의 전국적인 영향 관계, 본풀이의 유형 간 영향 관계, 뱀 신앙의 전승양상 등 다양한 측면의 연구에 소중한 단서를 제공하는 자료이다.

지역사례 지역에 따라서는 불도맞이에서 칠원성군을 위한 의례를 행하면서 〈칠성본풀이〉를 구연하기도 한다. 이때는 선 채로 요령을 흔들면서 구연한다.

참고문헌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제주도무속연구(현용준, 집문당, 1986).
필자 강정식(姜晶植)

칠성새남

정의 칠성은 뱀, 즉 사신(蛇神)을 뜻하며, 칠성새남은 이 칠성을 죽이거나 또는 죽은 것을 보아 그로 인해 생긴 병을 치료하는 굿.

역사 제주도에서는 예부터 뱀신에 대한 신앙을 중요하게 여겼다. 뱀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은 물론 칠성은 가정신앙, 당신앙, 조상신앙 등 여러 영역에서 활발히 전승되어 왔다. 칠성(안칠성, 밧칠성)이라 여겨 잘 위하기도 하고, 토산리 여드레당신과 일월조상으로도 받아들여 지속적인 기원 대상이 되어 왔다.

16세기 초에 김정(金淨, 1486~1520)은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에서 "풍속에 몹시 뱀을 꺼려 이것을 신이라 해서 받들어서 이것을 보면 곧 술로 주문을 외우며 거룩한 신으로 하여 감히 쫓아내거나 죽이지 않는다(俗甚忌蛇 奉以爲神 見卽呪酒 不敢驅殺)."라고 기록했다. 17세기 초에 김상헌(金尙憲, 1570~1652)도 『남사록(南槎錄)』에서 동일한 내용을 기록했다. 또한 17세기에 이건(李健, 1614~1662)은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에서 "섬 사람들은 큰 구렁이와 뱀을 구별함이 없어 보기만 하면 이를 부군신령이라 하여 쌀과 정수를 뿌리면서 그에 빌며 이를 살해하는 바가 없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이것을 죽였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앙화가 내려져 발꿈치를 움직이지 못하여 죽게 된다고 한다(島人則 勿論蟒蛇見之 輒謂之府君神靈 必以精米淨水酒 而祈之切不殺害 若或殺之 其人必有殃 不旋踵死云)."라고 적었다. 이 내용을 보면 뱀을 죽일 경우 반드시 그에 상응하여 재앙이 닥친다는 당시 제주인의 관념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당시에도 뱀으로 인해 재앙을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했던 흔적이 역력하다. 조선시대 여러 문헌을 살펴보면 당시에 제주에는 무속이 아주 성행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으로 짐작하건대 뱀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심방을 불러 굿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칠성새남의 역사적 배경이 깊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내용 칠성새남은 뱀을 죽이거나 죽은 뱀을 보게 됨으로써 생긴 병을 치료하는 굿이다. 어느 날 사람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여 문점(問占)을 통해 그 원인을 알아본 결과 뱀을 죽였거나 우연히 죽은 뱀을 보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이 칠성새남굿을 하게 된다. 굿의 핵심은 환자가 뱀을 죽이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어떤 다른 존재가 뱀을 죽였고 환자는 우연히 죽은 뱀을 처음으로 보았을 뿐인데 억울하게 그 죄를 뒤집어써서 병에 걸렸다고 말하게 된다. 따라서 누가 뱀을 죽였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나중에 뱀을 죽인 존재는 악신(惡神)인 허멩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환자에게는 죄가 없음이 드러난다. 이어 죽은 뱀을 다시 살려내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연극적인 양상으로 나타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칠성새남굿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반적인 굿과 같이 준비를 한 뒤에 칠성상(七星床)을 추가한다. 그리고 칠성신상(七星神像)과 허멩이를 만들어 놓는다. 이는 모두 칠성새남에서 쓰는 무구이다. 칠성신상은 마치 뱀 한 마리가 똬리를 튼 모양이 되게 종이를 접어 만들고, 비늘 모양이나 뱀

칠성새남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만덕기도원 굿당 | 2006.10.30 | 강소전



얼굴 등의 그림도 그려 신체(神體)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쌀을 가득 담은 그릇 위에 올려놓거나 채롱에 쌀을 잘 펴서 담고 그 위에 올려놓을 수도 있다. 신상의 입엔 쌀 일곱 알을 물려놓고 그 앞에 달걀 하나를 놓는다. 한편 허멩이는 짚을 이용해 사람 형상처럼 만든 일종의 허수아비 인형이다. 인형에도 사람 얼굴처럼 그림을 그린다. 칠성상에 무명을 깔아 칠성나까방석과 칠성ᄃᆞ리를 깔고, 그 위에 각종 제물과 쌀 위에 앉힌 칠성신상을 놓는다.

칠성새남굿의 제차(祭次)는 초감제-초상계-일월맞이-초공본풀이-초공맞이-초곱메김-산받아 분부사룀-푸다시 함-메어들어 석살림-이공맞이(이곱메김 포함)-시왕맞이-삼대김-시왕질 쳐서 메어듦-본향ᄃᆞ리-칠성본풀이-각도비념-도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차를 보면 간단한 굿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초곱메김과 이곱메김, 삼대김이 특별하다. 이 부분이 바로 허멩이를 잡아다가 문초를 하고 환자의 무죄를 증명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초곱메김에서는 초공전 앞으로 환자의 원통한 소지원정이 전해진다. 칠성으로 인해 병에 걸리게 된 사연을 말하고, 자신은 아무 죄도 없다고 하소연한다. 소지원정을 해결하기 위해 허멩이를 잡아다가 대령한다. 허멩이는 자신이 칠성을 죽였음을 자백하고, 환자에게 뒤집어씌웠다고 인정한다. 이에 허멩이의 죄를 매로 다스린 후 옥에 가두어 놓는다. 두 번째인 이곱메김은 이에 앞선 초공맞이 때의 초곱메김과 같으며, 옥 안에 있는 허멩이를 잡아들이라는 심방의 말명만 다르게 나타난다. 마지막 삼대김은 시왕맞이에서 액막이를 하고 난 후에 벌어진다. 옥 안에 있는 허멩이를 불러 매를 때리는 것은 앞서와 같다. 그런 후에 허멩이로부터 다시는 인간에게 나쁜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다.

결국 심방은 굿을 청한 집안의 환자가 아무 잘못이 없음을 입증한다. 칠성을 죽인 범인이 허멩이이기 때문이다. 허멩이는 '하늘은 보고 땅을 못 본' 악신으로 인식되는 존재이다. 환자는 허멩이에 의해 죽은 뱀을 보았을 뿐이다. 따라서 심방은 죄인인 허멩이를 잡아다가 매를 때려 칠성을 죽인 죄를 다스리는 것이다. 허멩이에 대한 문초 후 원래는 환자를 구하고 그 죄를 묻는 의미에서 허멩이를 불 사르는 불천수를 해야 마땅한 일이지만 열시왕[十王]의 분부에 따라 가다귀섬으로 귀양을 보내는 것으로 대신한다. 따라서 허멩이는 인정과 잔(盞)을 받고 이별하여 돌아선다. 소미가 허멩이와 추물채롱을 들고 인가(人家)와 떨어진 곳에 갖다 버리면 비로소 허멩이는 사라지는 것이다. 앞의 제차들은 연극적으로 행해진다. 수심방이 허멩이를 문초하고, 소미는 수심방을 돕는다. 이들은 허멩이라는 허수아비 인형을 두고 연극적 대사로 흥미진진하게 진행한다.

한편 죽은 뱀을 살려내는 것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따지자면 칠성을 살려오는 것이기에 칠성새남굿이라고 한다. 칠성새남은 특별한 지역적 구분이 없이 제주도 전역에서 행해진다.

참고문헌 탐라문헌집(제주도 교육위원회, 1976),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제주도 무속 연구(현용준, 집문당, 1986).
필자 강소전(姜昭全)

칠성신(七星神)

정의 무병장수, 소원성취, 자녀성장, 안과태평 등을 관장하는 신.

내용 흔히 칠성신을 불교의 칠성여래불(七星如來佛)과 도교의 칠성신이 습합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더욱 원초적이고 보편적인 신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주부들이 정화수를

떠 놓고 칠성님께 기원하거나 무당들이 칠성굿을 통해 칠성신을 섬기는 것 등은 일찍부터 민간에서 전해져 온 신앙 현상이었다. 또 12세기에 이미 칠성이 무신(巫神)으로 등장하고 있던 사실을 이규보(李奎報, 1168~1241)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노무편(老巫篇)의 시문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신라 김유신(金庾信, 595~673)의 탄생에 대하여 일연(一然)의 『삼국유사(三國遺事)』 권 1 기이(紀異) 1 김유신조(金庾信條)에 "칠요(七曜)의 정기를 타고 났으므로 등에 칠성의 무늬가 있고, 또 신이한 일이 많았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본래 우리의 무속신앙 가운데 칠성신이 있었으며, 이와 흡사한 외래신앙이 들어오면서 이들과 혼합된 것으로 보인다.

도교에서는 칠정(七政), 곧 일(日)·월(月)·목성(木星)·화성(火星)·토성(土星)·금성(金星)·수성(水星) 등 칠성(七星)을 인간의 길흉화복을 맡은 별로 보고 이를 칠원성군(七元星君)이라고 한다. 또 『대유묘경(大有妙經)』에 따르면 수명을 좌우하는 최고의 신을 태일진군(太一眞君)이라고 하며, 태일진군은 왼손에 북두칠성을 쥐고 오른손에 북극성을 쥐고 있다고 한다. 일찍부터 도교와 습합한 중국의 불교는 도교의 칠원성군을 약사여래불(藥師如來佛)의 수적(垂迹)으로 생각하고 이를 칠성여래불이라고 했다. '불설북두칠성연명경(佛說北斗七星延命經)'은 이러한 배경 속에 형성된 불경이다. 이는 이미 고려 때 우리나라에 유입된 것으로 보아 이때 칠성신앙도 꽤 널리 유포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능엄경(楞嚴經)』 제9권과 『법화경(法華經)』 제1권을 보면 도교와 불교가 습합되자 중국에서는 불교의 천계제왕(天界帝王)인 환인제석(桓因帝釋)을 도교의 최고신인 옥황상제(玉皇上帝)와 동일시하고 있다. 옥황상제와 환인제석을 우리말로 하면 모두 '하느님'이다. 무속의 중심 신격은 하느님으로,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다. 불교와 습합한 뒤로는 이 옥황상제를 한자식인 환인천왕(桓因天王)으로 표기하기 시작하였다. 즉 불교의 영향을 받아 환인제석은 옥황상제, 옥황의 지배 하에 있는 칠성은 수명을 좌우하는 신으로 각각 믿게 된 것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환인제석, 옥황상제, 칠성신은 모두 무속의 하느님에 해당하는 신이다.





1. 칠성 무신도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가로 55.5㎝, 세로 91.5㎝

2. 칠성도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가로 56㎝, 세로 92㎝

칠성신앙은 현재까지도 전승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찰의 칠성각과 산신각에 모시고 있는 칠성신이다. 이뿐 아니라 불교에서는 북두칠성염송의궤(北斗七星念誦儀軌), 칠성여의륜비밀요경(七星如意輪秘密要經), 불설북두칠성연명경(佛說北斗七星延命經), 북두칠성호마법(北斗七星護摩法), 칠요성신별행법(七曜星辰別行法) 등 문헌들도 남아 있다. 또 도교에서는 칠성을 인간의 길흉화복을 맡은 별로 인식하고 일정한 부적을 써 붙이고, 해당되는 별을 향해 7배(拜)하면 복을 받는다고 한다.

지역사례 충북 지역에서는 칠성신, 즉 북두칠성이 가문의 번영 및 만사형통과 풍년을 가져오는 신으로 믿어지고 있다. 제주(祭主)는 그 집안의 주부로, 주로 할머니들이 맡고 있다. 일반적으로 칠성을 모시는 곳은 뒤뜰 장독대인 경우가 많다. 제사는 칠월칠석 밤에 지낸다. 제장(祭場)에다 돗자리를 깔고 그 위에 백설기를 담은 떡시루와 정화수 한 그릇을 놓는다. 가끔 사발에 백미를 떠 놓기도 한다. 그런 다음 촛불을 밝히고 제주가 동서남북을 향해 네 번 또는 일곱 번씩 절을 하고 나서 북두칠성을 바라보며 축원하고, 식구 수대로 소지장(燒紙狀)을 올린다. 경북 안동시 도산면 의촌리에서는 뒷마당 장독대 옆의 큰 돌 위에 물을 담은 사발을 얹어 놓고 이를 칠성이라고 한다. 가족 중에 여자들이 매일 정화수를 떠다 갈아 넣고 아침 일찍 물을 길으러 간다. 이때 남이 푼 다음의 물은 안 된다. 전남 고흥군 나로도의 무녀 박신녀(당시 63세)는 장독대에 높이 75㎝의 대나무를 세우고 윗부분을 부챗살처럼 쪼개어 펴서 그 위에 뚜껑을 덮은 그릇을 얹어 놓고 묶어 놓았다. 이를 칠성이라고 한다. 매월 7·17·27일 아침에 주부가 목욕재계하고 정화수를 길어다 부으며, 자손들을 위해 북두칠성님께 기도한다.

참고문헌 한국의 세시풍속(임동권, 서문당, 1972),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충청북도편(국립문화재연구소, 1976), 한국무속의 연구(최길성, 아세아문화사, 1980), 한국무속연구(김태곤, 집문당, 1981), 한국민속대관 3(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한국민간신앙연구(김태곤, 집문당, 1983), 조선무속고(이능화, 이재곤 역, 백록출판사, 1983), 한국 무교의 역사와 구조(유동식,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필자 류종목(柳鍾穆)

칠성풀이

정의 강원도와 경상도 권역을 제외한 한반도 전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속의례의 한 거리이자 이때 불리는 무가. 북으로 함흥에서부터 남으로 충청도와 전라도 및 제주도에까지 분포하고 있는 무가이다.

내용 지역별로 불리는 명칭은 다르다. 함흥의 〈살풀이〉, 평양의 〈성신굿〉, 제주도의 〈문전본풀이〉 등이 동일 유형에 속하는 서사무가이다. 〈칠성풀이〉는 충청도 남부권과 전라북도권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다. 무속의례에서 〈칠성풀이〉는 칠성신을 청배하여 자손의 무병장수와 출세를 기원하는 과정이자 칠형제가 칠성신으로 좌정하는 과정을 묘사한 서사무가이다. 전북 지역에 전승되어 온 자료(전금순본, 이영금 채록)를 중심으로 〈칠성풀이〉 무가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천상국에 사는 칠성대왕이 지하에 살고 있는 매화부인(지역에 따라 등장인물의 이름은 다르다)과 혼인하고자 지하국에 내려온다. 세 번에 걸쳐 청혼해서 허락을 받은 다음 칠월 칠석에 혼인한다. 그러나 여러 해가 흘렀지만 자식이 없다. 문복(問卜)을 하여 자식이 태어날 것인지를 묻자 점쟁이는 늦은 자식이 주렁주렁 열렸다고 하면서 공을 들일 것을 권한다.

칠성대왕과 매화부인은 명산대천 천지신명께 공을 들이는 한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양식과 옷가지 등을 나누어주며 공덕을 쌓는다. 점쟁이가 가르쳐준 대로 백일 공덕을 쌓았더니 어느 날 밤에 부부가 똑같은 태몽을 꾸게 되었다. 마침내 매화부인이 임신을 하여 날이 차서 매화부인이 아이를 낳았다. 아들 일곱이었다. 칠성대왕은 이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짐승새끼도 아닌데 일곱을 낳았다고 한탄하며 천상국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하도 기가 막힌 매화부인이 아들 일곱을 광주리에 담아 저수지에 빠뜨려 버리려 하자 세존님이 나타나서 하늘이 점지해 준 아이를 버려서는 안 되니 거두어 가라고 당부한다.

아이들이 일곱 살이 되자 매화부인은 아이들을 서당에 보낸다. 아이들이 글공부를 어찌나 잘하는지 함께 서당에 다니는 아이들은 시기를 하여 아비 없는 호로자식이라고 놀려댄다. 일곱 아들들은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아버지에 대해 묻는다. 아이들은 어머니를 졸라 사흘만 말미를 주면 아버지를 만나고 오겠다고 하며 아내와 자식들을 버리고 떠난 칠성대왕을 만나기 위해 천상국에 올라간다.

하늘에 올라간 아이들은 칠성대왕을 찾아뵙고 아버지라고 불렀으나 칠성대왕은 믿을 수 없다며 그들에게 시험을 제시한다. 칠성대왕과 후실인 사씨부인이 각각 손가락에서 피를 내어 옥대야에 떨구고, 다시 일곱 아들들 역시 피를 내어 옥대야에 떨궜다. 이 결과 칠성대왕의 피와 아이들의 피는 한데 엉켰으나 사씨부인의 피는 한데 엉키지 않았다. 칠성대왕이 자신의 아이들을 만났다며 기뻐하는 사이에 아이들은 지상에 두고 온 어머니가 걱정되었다. 천상의 사흘은 지상에서 석 달 열흘이 되기 때문에 급히 지상으로 내려오게 된다. 사흘 간 다녀온다고 하던 일곱 아들이 석 달 열흘이 거

의 되도록 돌아오지 않자 매화부인은 그만 걱정 끝에 죽고 만다. 집에 도착한 아이들은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하고 장례를 치렀다.

천상에서 칠성대왕은 이 모습을 보고 있다가 자식들을 천상으로 불러들였다. 사씨부인 역시 돌아온 아이들을 잘 돌보아주는 듯싶었다. 그러나 칠성대왕이 아이들 글공부를 시키느라 사씨부인에게 소홀히 하자 그녀는 앙탈을 부리다가 흉계를 꾸민다. 하루는 사씨부인이 칠성대왕에게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면서 점쟁이를 찾아가 죽겠는지 살겠는지, 산다면 약이 무엇인지 문복을 하고 오라고 한다. 사씨부인은 칠성대왕이 문복을 하러 가기 전에 먼저 몸종을 점쟁이에게 보내 많은 재물을 주면서 자신의 흉계를 일러준다. 점쟁이는 칠성대왕에게 일곱 아들의 간을 먹어야 사씨부인이 살 수 있겠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듣고 근심에 빠져 집에 돌아오는 칠성대왕은 그를 마중 나온 일곱 아들을 보고 망설인다. 그 사이에 산신이 나타나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부처에게 맡긴다. 이때 금사슴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자신의 간을 떼어다가 자식들의 간이라고 속여 사씨부인에게 주라는 말을 하고는 자신을 희생한다.

간을 받아든 사씨부인은 그것을 먹는 대신에 이불 밑에 감추고서 병이 나았다고 거짓말을 한다. 그러나 사씨부인의 꿈에 매화부인이 나타나 원망하면서 전(前)부인을 죽게 하고 자식들마저 죽게 했으니 큰굿을 하라고 하자 잠에서 깨어난 사씨부인은 무당을 불러 굿을 한다. 이런 사이에 일곱 아들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이들을 본 사씨부인은 기겁을 한다. 칠성대왕 역시 기가 막혀 일곱 아들에게는 칼날을 입에 물게 하고 사씨부인에게는 칼자루를 물게 하자 오히려 칼자루를 물고 있는 사씨부인의 입에서는 검은 피가 흐르더니 흉칙한 동물로 변하고, 칼날을 물고 있는 자식들의 입에서는 온갖 구슬과 꽃이 피어났다. 결국 칠성대왕은 옥황상제가 되고 일곱 아들은 각각 동두칠성, 서두칠성, 남두칠성, 북두칠성, 화강칠성, 용궁칠성, 삼신칠성이 되었다. 매화부인은 용궁의 마마가 되었다.

칠성은 본래 중국의 민간신앙에서 인간의 생사와 수명 등을 관장하는 신격이다. 중국의 칠성신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두터운 민간신앙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불교민속, 가택신앙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무속에도 영향을 미쳐 〈칠성풀이〉와 같은 굿거리와 무가가 생기게 되었다. 무속의례에서 불리는 〈칠성풀이〉는 축원굿, 즉 자손들의 건강과 번창을 비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전북 지역의 씻김굿에서는 필수적인 거리이며,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의 앉은굿에서도 많이 연행된다. 앉은굿에서는 주로 무경(巫經)을 많이 사용하지만 〈칠성풀이〉의 경우 전승되는 서사무가를 익혀서 사용한다. 최근에는 굿당에서 〈칠성풀이〉만을 별도로 담은 책자를 판매할 정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전북 지역의 정통 세습무 굿에서 〈칠성풀이〉는 2시간이 넘게 진행되는 매우 긴 굿거리이며 무가의 서사적 구성도 짜임새가 있지만 특히 수사적 내용이 매우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칠성대왕과 매화부인이 혼례를 앞두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통복식의 다양한 종류와 묘사가 두드러지며, 대례상을 차리면서 갖추는 다양한 전통음식에 대한 정보도 매우 풍부하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과정이 사건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산속(産俗), 혼례, 상례 등 전통적인 관혼상제에 대한 정보도 많이 담고 있다. 또한 천부지모(天父地母)의 세계상을 바탕으로 하여 천상과 지하 세계를 무대로 처첩 간의 갈등, 일곱 아들의 고난과 위기, 많은 아들을 낳고자 하는 전통사회의 일반적인 희망을 반영한 일곱 아들 출산 등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칠성풀이〉의 기본적 구조와 모티프와 일치하고 있다.

참고문헌 관서지방무가(임석재 · 장주근, 문교부, 1966), 칠성풀이계 신화(최길성, 전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전북, 1971), 칠성풀이계 신화(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구비문학대계 6-8, 조은문화사, 1986), 한국무가집 1, 3(김태곤, 집문당, 1992), 한국신화의 연구(서대석, 집문당, 2001), 전북씻금굿(이영금, 민속원, 2007).

필자 나경수(羅景洙)

칠쇠방울

정의 서울굿에서 쓰이는 방울이 7개 달린 무구로, 구비전승 과정에서 와전되어 '쥘쇠방울'이라고도 불린다.

형태 방울은 놋쇠로 만든 Y자형의 양쪽 가지에 각각 3개와 4개의 방울이 달려있고, 아래로 14㎝ 정도의 손잡이가 달려 있다. 각각의 방울 속에는 작은 놋쇠 구슬이 들어 있어서 흔들 때마다 짤랑짤랑 소리를 낸다. 손잡이 아래에는 둥근 구멍이 뚫려 있어서 끈을 맬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끈을 '방울끈'이라고 하며 길이는 40~100㎝ 내외이다. 방울을 보관할 때는 방울끈으로 방울 전체를 감싸서 보관한다.

달린 방울이 모두 7개여서 '칠쇠방울'이라고 불리며, 혹은 '칠성방울'이라고도 한다. 3개의 방울은 남자를 상징하고, 4개의 방울은 여자를 상징한다고 한다. 요즘은 약간 변형되어 동서남북 사방을 상징하는 †형 네 가지에 각각 3개씩의 방울이 달린 것을 많이 사용한다.

무당들은 굿을 하는 도중에 방울이 떨어지면, 방울 주인인 무당에게 재가집으로부터 굿 의뢰가 들어온다는 뜻으로 "굿이 나겠다"며 좋은 징조로 받아들인다.

내용 『삼국유사(三國遺事)』「고조선」편에는 환인의 서자 환웅이 인간 세상에 올 때 천부인(天符印) 세 개를 가지고 내려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문헌과 현장을 종합하여 학자들은 삼부인 중 하나가 방울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서울굿에서 쓰이는 칠쇠방울도 천부인 중 하나의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칠쇠방울은 재수굿에서는 불사거리, 산신도당거리, 조상거리, 계면거리에서 쓰이고, 불사거리와 사신도당거리 내의 부속거리인 호구와 말명을 놀 때도 쓰인다. 진오귀굿에서는 초영실거리, 뜬대왕, 말미, 도령돌기 등에서 쓰인다. 즉, 방울은 각 거리의 서두에 신을 청배하는 과정에서 주로 쓰인다. 무당은 신을 청배하기 위해 방울을 높이 쳐들어 흔들며 신이 오시기를 청한다. 또 신이 강림해서 재가집에게 공수를 줄 때도 쓰인다. 이때는 무당이 방울을 가슴 높이에서 흔들며 재가집을 바라보고 공수를 준다.

〈바리공주〉신화를 부르는 말미거리와 도령돌기에서는 방울의 상징성이 잘 드러난다. 〈바리공주〉 신화에서는 저승여행 중에 '낭화'라고 표현된 것을 흔들어 지옥 철성을 깨뜨리고 갇혀 있는 중생들을 구한다. 도령거리에서도 바리공주가 방울을 흔들며 '방울도령'을 돈다. 이를 통해 저승 가는 길의 여러 장애물을 헤치고 망자를 저승으로 무사히 인도하게 된다.

즉 서울굿의 방울은 신을 청배하고, 청배된 신이 무당을 통해 말하고 행동하도록 주술적인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또 진오귀굿에서는 망자를 저승으로 무사히 인도하는 도구가 되어 준다.

신화와 의례에서뿐 아니라 무당 개인에게도 방울은 중요한 무구이다. 방울은 무당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도구로, 무당들은 입문 시에 여러 집을 돌아다니며 놋쇠를 걸립하여 이를 녹여 방울을 만든다. 그리고 방울을 실제로 굽거나, 얻는 꿈을 꾸고 무당에 입문하기도 한다. 내림굿을 받을 때는 스승 무당이 방울과 부채를 찾아오게 해서 무당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시험하기도 한다. 방울은 굿에서 쓰이는 주술적인 무구이기도 하지만, 무당이라는 신분을 나타내주는 상징물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한국의 무(조흥윤, 정음사, 1983), 한국민속논고(장주근, 계몽사, 1986),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서울시 · 경기도 · 강원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무당 귀물 연구-『삼국유사』의 삼부인과 무당의 거울 · 칼 · 방울을 중심으로(양종승, 생활문물연구 2, 국립민속박물관, 2001), 서울지역 무구의 신화 · 의례적 기능 연구(이명숙, 한국무속학 8, 한국무속학회, 2004).

필자 이명숙(李明淑)

상호참조 칠성방울(880쪽)

쾌자(快子)

큰굿상

큰대

큰머리춤

쾌자(快子)

정의 서울굿의 신장거리나 대감거리 등에서 굿을 할 때 착용한 복식.

내용 쾌자는 중국의 당제(唐制)인 반비(半臂)에서 유래한 것으로, 통일신라 때 중국에서 전래되어 조선시대까지 착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서상의 기록이나 유물이 없어 쾌자의 변화 과정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쾌자에 대한 기록은 조선시대에 와서야 보인다. 조선 중기의 학자인 이수광(李睟光, 1563~1628)은 『지봉유설(芝峰類說)』에서 "당 고조(高祖)가 소매를 짧게 한 옷을 만들어 반비(半臂)라 하였고 이것이 오늘날의 배자(背子)다"라고 하였으며, 조선 영조 때의 서예가 송문흠(宋文欽, 1710~1752)의 『한정당집(閒靜堂集)』(1788)에 의하면 "반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쾌자(掛子)와 비슷하다. 단지 쾌자의 양 섶이 수직으로 내려온 것이 다르다."라고 하였다. 또한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아언각비(雅言覺非)』에서 "쾌자(掛子)를 쾌자(快子)라고 말하는 것은 중국음이 잘못 옮겨진 것"이라고 하였다.

쾌자의 형태를 알 수 있는 그림은 정조시대에 이르러서야 보인다. 정조 19년(1795)의 현륭원 행차 때 그림인 화성행행도팔첩병(華城行幸圖八疊屛) 「봉수당진찬도(奉壽堂進饌圖)」에는 아청색의 쾌자를 입은 기녀가 검무를 추고 있는 모습이 있으며, 『정축진찬의궤(丁丑進饌儀軌)』(고종 14년 1877)에는 쾌자의 제가 그려져 있다. 이 그림에서 묘사된 쾌자의 형태는 깃은 마주 보는 쌍깃에 소매가 없으며, 길이가 길고 뒷길 중심선이 등에서부터 길게 트여 있으며 옆선은 약간 트인 채 네 자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과 그림으로 보아 쾌자는 소매가 없는 포의 일종이다. 비슷한 형태의 옷으로는 전복과 답호가 있다. 이들은 모두 착용 범위나 형태가 비슷하다. 차이를 보면 전복은 깃이 없으며, 길의 양옆에 무가 있고, 옆자락 끝부분에 트임이 있다. 답호는 쌍깃이 있는 것도 있으나 유물 대부분이 전복과 같은 깃이 없으며, 길의 양 옆에 무가 있다.

쾌자는 궁중·관리들이 착용한 것과 군복과 무용복으로 착용한 것의 형태에 차이가 있어 보인다. 궁중·관리들의 쾌자는 길의 양 옆에 무가 있는 네 자락의 옷이다. 이에 반해, 군복과 무용복으로 착용한 쾌자는 무가 없는 네 자락의 옷이다.

전복과 답호와 쾌자는 형태가 비슷하여 조선 후기에 와서는 실생활에서도 혼용돼 착용했다. 최남선의 『조선상식(朝鮮常識)』에서도 "후세에 와서는 답호를 쾌자라 하여 하급군속 및 노예의 제복이 되어 버렸다"고 하였다.

고종 황제와 왕자들의 쾌자는 양남색이나 아청색의 갑사·숙고사·생고사 등을 재료로 했다는 기록이 조선 말기의 『궁중의대발기』에 있으며, 군사용의 쾌자는 홍·청색등의 삼승포·무명·모시 등을 재료로 하였다는 기록이 순조 8년(1808)에 제작된 『만기요람(萬機要覽)』에 기록되어 있다.

쾌자는 보면 조선시대 왕이나 왕세자가 평상복으로 착용하고 아래로는 하급군속 및 노예가 제복으로 착용한 옷이다. 『만기요람』에는 전배(前排), 기수(旗手), 고취수(鼓吹手) 등의 의복으로 협수와 쾌자가 보이고 전복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구군복에서 전복 대신 쾌자와 협수가 착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쾌자는 순조 이후의 각종 진찬의궤에서 보이는 검기무(劍器舞)와 무산향(舞山香)의 무복으로도 착용되는 등 매우 널리 입었다.

서울굿에서 무복으로 착용된 쾌자도 조선시대에는 일반에서 입은 쾌자와 다르지 않다. 조선시대 말기인 병인년(1866) 「온산송악별기도발기(松岳別祈禱發記)」에 전복이란 명칭은 보이지 않는 반면에 궁중의 높은 신으로 보이는 '어실당'의 신복으로 '천청망단협수, 장색망단쾌자'가 함께 기록된 것으로 보아 쾌자가 전복 대신 협수와 함께 구군복 성격으로 착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당내력(巫黨來歷)』에서 묘사된 별성거리와 신장거리에서는 전통의 구군복과 같이 황색 길의 협수에 검은색 전복을 착용하고 창부거리에서는 평상복 위에 검은색 전복만을 착용하는 등 쾌자를 착용한 예가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의 굿에 대한 기록과 그림에도 전복과 쾌자가 일반복에서와 같이 혼용해 무복(巫服)으로 착용되었다.

현대의 굿에서도 쾌자는 별성거리, 신장거리, 대감거리 등에서 착용되고 있다. 1930년대 경성지방에서 행해진 천신굿의 별성거리에서도 무의의 하나인 구군복을 착용하였다고는 하지만 대감거리의 무복을 '쾌자(일종의 전복)'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별성거리에서 착용한 구군복은 쾌자와 협수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쾌자와 전복은 굿을 하는 현장에서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무복으로 착용하는 소매 없는 형태의 옷을 모두 쾌자 내지는 전복이라 여기고 있다. 명칭도 신장님의대, 신장복, 쾌자, 전복, 대감전복 등 무당에 따라 다양하게 부르고 있다.

쾌자라 불리는 무복의 형태는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되어 있어 하나의 공통된 쾌자의 형태를 찾기가 어렵다. 오늘날 굿에서 착용되는 쾌자의 형태는 다양하다. 그 가운데 보편적으로 착용되고 있는 쾌자는 크게 4종류이다.

전통적인 쾌자와 비슷한 방법으로 제작된 쾌자 가운데 첫째 깃은 마주 보는 쌍깃이며, 흰색 동정이 달려 있고, 길 옆에는 무를 달았으며 옆자락에 길게 트임이 있어 속에 입은 협수의 옆자락이 보이도록 되어 있다. 둘째 깃은 쌍깃이며, 깃에 흰색 동정이 달려 있고, 길 옆에는 무가 없으며, 옆선이 길게 트여 있어 속에 입은 협수의 옆자락이 나오도록 되어 있다. 셋째 쾌자의 제작 방법대로 깃은 마주 보는 쌍깃이며, 깃에는 흰색 동정이 달려 있고, 길 옆에 무를 달아 전복과 같이 폭이 넓다. 옆의 트임이 없도록 만들어진 것도 있으며, 끝부분에서 30cm 안팎으로 트임을 낸 것도 있다. 넷째 쾌자라고는 불리지만 전복과 같이 깃이 없으며, 길 옆에는 무가 있고, 옆선이 길게 트인 것도 있다.

이와 같이 전통적인 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된 쾌자든 변형된 쾌자든 형태에서 공통점을 찾기가 어렵다. 특히 쾌자의 뒤 중심선이 트여 있는 쾌자도 있으며, 마치 포와 같이 뒤 중심을 트지 않고 양 옆만 튼 경우도 있다.

오늘날 무복으로 착용되고 있는 쾌자의 색상은 남색과 검은색이지만 장식이 없는 남색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무당에 따라서는 깃 부분에 오색의 잣 무늬장식을 하기도 하고 꽃무늬로 자수를 놓아 화려하기도 한다. 쾌자의 외형이 화려해지고는 있으나 쾌자에 사용된 재료는 경제적 이유로 대부분이 저렴한 합성섬유가 사용되고 있다.

결국 쾌자는 조선시대에도 착용자의 신분이나 옷의 용도에 따라 형태가 달랐으며, 또한 전복·답호·쾌자가 혼용됨으로써 굿을 하는 현장에서도 혼용되어 착용되었다. 이에 따라 무복으로 쾌자가 전승되는 과정에서 전통복의 형태나 착용법 등이 전수되기 어려웠으며, 제작자나 착용자 모두 전통복에 대한 지식이 없어 전통복과 같은 형태의 쾌자가 무복으로 착용되기 어려웠다. 현재 무복으로 착용되고 있는 쾌자는 대부분 전통복과 차이가 있는 조형적 특성을 띠고 있다.

참고문헌 巫黨來歷, 한말의 궁중무속(최길성, 교문사, 1989), 한국의 복식(백영자, 경춘사, 1993), 이조후기 궁중여무복에 관한 연구(이주원, 복식6호, 한국복식학회, 1982), 답호에 관한 연구(이봉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배자의 양식변천에 관한 고찰(박두이, 복식 19, 한국복식학회, 1992), 한국의 무속복식 연구(유효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조선후기 동다리에 관한 연구(권오선,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朝鮮巫俗の研究(赤松智城·秋葉隆, 大阪屋號書店, 東京 昭和13年).

필자 백영자(白英子)



1


2

1. 『무당내력』의 별성거리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2. 현대무복의 쾌자
(황해도굿-만구대탁굿)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이북오도청 | 2006.4.15 | 최호식

큰굿상

정의 마을의 대동굿, 진적굿, 오귀굿 등 큰굿에서 준비되는 제상으로서 일정한 규모와 격식을 갖춘 상차림.

내용 마을의 대동굿, 몸주신을 위한 진적굿, 격식을 온전히 수행하는 오귀굿 등 큰굿에서 준비되는 제상으로서 일정한 규모와 격식을 갖추고 있다. 한국 무속의 굿은 세 층위로 대별할 수 있다. 첫 번째 가장 간단한 비손 형태의 개인굿이다. 이때는 물 한 그릇, 명태, 술, 삼실과 등의 간단한 제상만 준비된다. 특별히 상이라고 할 만한 준비가 없이도 가능한 굿이다. 두 번째 주로 재가집굿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수굿 · 성주굿 · 조상해원굿 등 작은굿이다. 굿의 규모에 따라 큰굿과 작은굿을 오가지만 대체로 재가집굿은 굿을 하게 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작은굿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같은 재수굿이라도 규모에 따라 2일 이상 하면서 전통적인 온굿을 제대로 갖추어 하게 되면 큰굿상으로 준비하기도 한다. 세 번째, 마을의 대동굿(별신굿, 부군당굿, 단오굿, 고창굿, 연신굿, 도당굿 등), 진적굿(꽃맞이굿), 오귀새남굿 등의 큰굿이다. 큰굿에서는 온갖 신을 모두 모시게 되어 있어 굿상의 규모나 정성 면에서 작은굿과 확실히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여 준다. 신들에게 바치는 굿상의 규모와 더불어 굿에 참여하는 사람들까지 넉넉히 먹일 수 있을 정도의 음식이 준비되는 것이다.

특히 큰굿에서는 큰굿임을 드러내는 특별한 제물과 굿상이 등장한다. 예를 들면 정성이 많이 필요한 고임, 도적, 용떡, 소, 돼지 등이 사용된다. 또한 주된 신격에 더해 각 직능신에 대한 상들을 따로 준비하기 때문에 규모와 정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서울새남굿의 대상은 중심 제상으로 상산상 · 망자상 · 조상상 등을 차리고, 하단에 대안주상을 차리며, 굿의 진행에 따라 불사상 등을 차린다. 최영장군당굿에서는 최영 장군상, 일월맞이상, 산신상, 안서낭상, 소대감상, 육대감상 등을 차린다. 김유감의 진적굿에서는 청계상, 가망상, 전안상, 불사상, 도당상, 본향상, 대신할머니상, 조상상, 대안주상, 대감상, 터주소반, 돼지대감소반, 수문장대감소반, 안당제석소반, 성주시루, 뒷전상 등을 차린다.

황해도굿에서는 소대감상과 육대감상을 구분하여 진설한다. 상차림에 있어서 왼쪽은 육대감, 오른쪽은 소대감을 위한 제물로 이원화한다. 이것은 의례 구조가 상차림에 반영된 현상으로 소대감(素大監)은 비린 것을 올리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체로 육대감은 감흥 · 장군 · 대감 · 소대감 · 칠성 · 제석 등을 각각 말한다. 이는 소대감굿과 육대감굿으로 이원화된 황해도굿의 특성이 굿상에 표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라도 지역의 천도굿 제차인 씻김굿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차려지는 상차림은 안당상(혹은 성주상), 굿상, 사자상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대체로 간소한 형태이지만 씻김굿의 규모에 따라 제물의 양과 질에서 차이가 난다.

동해안별신굿에서는 마을마다 모셔지는 동신에 대한 큰굿상이 준비될 뿐 아니라 별신굿 굿청에 특별히 모시는 신격에 대한 큰상이 전면을 가득 채우게 되고, 그 하단에 직능별 신격과 관련한 상이 마련된다. 또한 마을회관 등에 모셔진 마을 성주를 위한 성주상, 용왕신을 위한 용왕당 등이 따로 준비된다. 하지만 주로 굿이 이루어지는 굿청 안에는 여러 상을 준비하지 않고 약간의 변화만을 주는 방식으로 각 굿거리의 신격을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마을에 따라서는 집집마다 상을 준비해 와서 진설하기도 한다.

큰굿상의 종류와 상차림은 해당 굿의 특성과 신격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또한 상차림의 방법이나 양, 질을 통해 해당 굿 공동체에서 인식되고 있는 신의 서열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굿상의 규모와 종류 및 상차림의 내용을 통해 해당 굿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으며, 굿의 제차와 굿상이 연동되는 양상에 대해 주목함으로써 한국 굿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참고문헌 서울굿의 상차림에 대하여(홍태한, 한국무속학 6, 한국무속학회, 2003), 무속의 물질문화 연구(최진아,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8).

필자 조정현(曺鼎鉉)

큰대

정의 제주 무속제의 중 '사당클'을 매어 하는 큰굿을 할 때 마당에 세우는 큰 깃대.

내용 제주도굿은 규모에 따라 크게 비념과 굿으로 나뉘며 굿은 다시 작은굿과 큰굿으로 나뉜다. 큰굿은 사당클굿이라고 하는데 상방(마루)의 벽에 선반을 매어놓은 것을 당클이라 하며 네 벽에 선반을 매어 놓았기 때문에 사당클이라 한다. 이 선반에는 제단을 차려 신의 좌정처로 삼는다. 큰굿은 보통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굿으로 5명 정도의 심방이 참여한다. 큰굿을 하기 위해서는 큰대를 마당에 세운다. 이 대는 일만팔천 신이 하강하는 하강로가 된다. 깃대의 재료는 대나무를 사용하며 좌우에 좌둣기, 우둣기를 별도로 세운다.

큰대의 구성을 보면 10m 쯤 되는 왕대나무 꼭대기에 댓잎과 동백 잎을 묶고 그 밑에 댓잎과 동백나무 이파리가 섞인 묶음을 2단으로 묶어 맨다. 그리고 '어깨'라 하여 2m 정도의 대나무를 십자로 묶어 양 옆에 댓잎을 묶어 맨다. 그 밑으로 요령을 달고 '등지거리'라는 두루마기를 묶었으며 신령의 식량이라는 쌀자루를 걸쳐놓는다. 큰대가 넘어가지 않도록 '삼버리줄'이라 불리는 세 줄을 지상에 내려 고정시킨다. 다음으로 긴 무명의 한쪽 끝을 이 대에 묶고 다른 한 쪽 끝을 집안까지 끌어가서 당클에 연결시켜놓는다. 신령은 이 큰대를 거쳐서 하강하고 무명을 통하여 제단에 이른다고 한다. 이 긴 무명을 'ᄃᆞ리(橋)'라고 한다.

2000년 4월 17일부터 22일간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김계수(당시81세) 씨 댁 큰굿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좌둣기, 우둣기는 큰대보다 작으며 꼭대기에 대잎과 동백잎을 섞은 묶음을 단다. 이것은 안거리에 고정시켰으며 세 개의 대를 연결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세운 대는 굿이 끝날 때까지 있으며 굿의 끝나는 날 '대숙임'이라는 제차에서 세 개의 대를 치운다.

참고문헌 제주도무속연구(현용준, 집문당, 1986), 제주도 무가본풀이 사전(진성기, 민속원, 1991), 제주무속학사전(진성기, 제주민속연구소, 2004),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각, 2007).

필자 강권용(康權用)

남해안별신굿의 시왕탕일거리
통영전수회관 | 1996.9.16 | 이병옥

큰머리춤

정의 남해안별신굿에서 대모가 시왕탄일거리를 끝내고 내림춤을 출 때 첫 번째로 큰머리를 벗어 들고 추는 춤.

내용 신에게 올린 큰굿을 마친다는 의미로 머리에 쓴 큰머리와 비녀를 벗어 들고 추는 춤이다. 먼저 큰머리를 양손으로 받쳐 들고 추다가 오른손에 큰머리, 왼손에 비녀를 각각 들고 좌우로 흔들면서 춘다. 이어서 쾌자춤과 치마춤을 추고 나서 평상복 차림으로 굿을 마무리한다. 남쪽 지방의 굿은 북쪽 지방의 굿보다 무복이 단순하고 흰 단색이지만 한 가지 색으로 입는 것이 보편적이다. 남해안별신굿의 대모 무복이 화려하고 북쪽 지방처럼 위엄 있는 큰머리를 쓰는 것은 전승지인 통영 지방이 예전에는 삼도수군절도사가 주둔하던 지역이기 때문이다. 궁중처럼 관가의 위상이 높았으며, 그 영향으로 마을굿이나 승전을 위한 굿에서 궁중의 왕을 대신하여 정성을 들이고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 한양굿의 큰머리 차림과 같이 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필자 이병옥(李炳玉)





단 전(箋)

단 송(宋)나라

단 청(淸)

단 비(碑)

단 화(畵)(書畵)

단 화장품 용기(盒)(粉盒 胭脂盒)

단 추

단 추 마감(木 未成品)

단 춘(春)

단 편(篇)

단 편(篇)(종)

또 하나의 단어들이

들기

타살칼

정의 굿에서 사용하는 무구의 하나. '군웅칼', '군웅할아버지칼'이라고도 한다.

내용 타살칼은 타살거리에서 소나 돼지를 타살할 때 쓰는 칼이다. 재료는 쇠이며, 손잡이의 재료는 나무이다. 무당에 따라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부엌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타살칼
국립민속박물관 사진자료 소장

참고문헌 한국의 굿(하효길 외, 민속원, 2002),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서울시 · 경기도 · 강원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필자 이건욱(李健昱)

타승굿무가

정의 함경도의 망자천도굿인 망묵굿 타승거리에서 부르는 무가.

내용 함경도 망자천도굿인 망묵굿의 타승거리에서 구연되는 〈타승굿무가〉는 저승에 잡혀간 망자(亡者)가 죄가 없음에도 결국 저승에 잡혀갈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는 내용으로, 사람이라면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김태곤이 함경도 출신 무녀 이고분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가 유일하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다가 약을 쓰고 침을 맞아도 효험이 없이 앓다가 죽는다. 저승사자가 달려들어 그를 잡아가려 하자 그는 자신이 죄없는 영혼이라고 했지만 저승을 갈 수밖에 없었다. 저승에 들어가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 그는 가족도 없고 이승에서 어떤 악행도 저지른 것이 없음이 밝혀진다.

염라대왕이 그에게 인정을 쓰라 하자 그는 인정 쓸 것이 없다며 죄목이 없음을 호소한다. 그러자 염라대왕은 이승에서 산천발원과 조상발원을 하지 않아 어찌 명이 길겠느냐면서 저승에서 그 내력을 알아보라고 한다.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무탈하게 살기 위해서는 조상과 산천의 신령을 잘 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 명을 다하지 못하고 젊어서 죽은 망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부른 것이다.

그런데 임석재가 조사한 다른 자료에는 '타성풀이'라고 되어 있다. 저승에 가는 망자가 고초를 당할 때마다 타성(他姓) 망령들이 나타나 도와준다고 되어 있어 명칭과 내용이 다르다. 김태곤과 임석재의 조사 자료는 모두 망묵굿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망자가 저승으로 가는 과정이 나타나는 점은 같다. 김태곤은 이고분을 조사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웠다면서 실제 굿판이 아닌 인공적인 조건에서 조사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어서, 이고분이 구술한 자료가 〈타승굿무가〉 전체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어쩌면 완전한 〈타승굿무가〉가 존재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모두 조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두 자료는 〈타승굿무가〉의 내용 일부분만이 조사되었을 것으로 본다.

의의 〈타승굿무가〉는 저승에 잡혀가는 망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조상과 산천을 잘 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복(祈福)적인 성격이 두드러진다. 사람이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저승에 가서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생전에 여러 신령을 위해야 한다는 의식이 나타나 있다. 인정을 달라고 요구하는 염라대왕의 모습에서 한국 무속의 저승은 이승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함경도 망묵굿(임석재 · 김수남, 열화당, 1985), 한국무가집 3(김태곤, 집문당, 1992).
필자 홍태한(洪泰漢)

탁상굿

정의 제주굿에서 당클을 매지 않고 바닥의 상에 제물을 차려놓고 하는 굿.

내용 탁상굿은 당클을 매지 않고 진행하는 작은굿으로서 큰굿보다 심방이 적게 참여하며, 굿을 행하는 일수도 적다. 굿의 진행에 있어서도 큰굿 처럼 모든 신격을 부르지 않고 특정 신격만을 청하여 굿을 진행한다. 하지만 심방은 무악기인 '연물'을 사용하며 춤도 춘다.

당클을 매지 않고 진행한다 하여 '당클굿'에 탁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당클이 신이 좌정하는 좌정처이지만 모든 신격이 좌정하는 것은 아니며 당클 아래에 할망상 · 차사상 · 조왕상 · 칠성상 등의 탁상이 항시 차려져 있다. 굿을 할 때도 시작 굿인 초감제상부터 탁상을 다시 차려 진행한다.

참고문헌 제주도무속연구(현용준, 집문당, 1986), 제주도 무가본풀이 사전(진성기, 민속원, 1991),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각, 2007).
필자 강권용(康權用)

탑등(塔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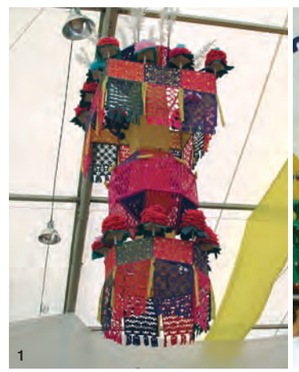
정의 굿당 좌측에 매달아 놓는 굿당 장식물. 굿이 진행되는 동안 굿당의 위엄을 지킨다.

내용 탑등은 굿당에 전시되는 것만 아니라, 별신굿 마지막 날에 연행하는 영산거리(이운맞이-경남지역)에서 사용된다. 대나무살로 뼈대를 만든 다음 그 위에 화지로 만든 사를 붙여 근원 형태를 만들고, 여러 개의 치마사와 막꽃 등을 붙여 완성한다. 다양한 색깔의 화지를 이용하여 만들기 때문에 화려하고 장식적이다.

탑등은 제일 위가 마늘모, 그 다음이 사각형 형태로 된 사모, 이어 수박등, 팔모 순서로 되어 있다. 마늘모-사모-수박등-팔모는 사각 형태의 몸통으로 연결된다. 각 부위에는 그 부위에 해당되는 고유한 사가 붙어 멋을 낸다. 특히, 사모와 팔모에는 사모치마사, 팔모치마사라는 화지를 덧붙여 딱딱한 탑등이 아니라 부드럽고 적은 공기의 흐름에서도 흔들리며 그 멋을 내도록 했다.

탑등의 전체 길이는 150㎝ 정도이다. 탑등의 제일 위에 위치한 마늘모는 16~30㎝ 정도 길이의 사다리꼴 모양의 육면체 두 개를 맞붙인 것이다. 마늘모의 높이는 대략 28㎝ 정도 된다. 마늘모 등은 형태를 구성하기 위해 대나무살을 구부리게 되는데 한 번 구부러진 것을 '모'라고 한다. 탑등에는 모두 48모가 사용된다. 48모는 단순히 대나무를 48번 구부려 각을 세웠다는 정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48개의 모를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48모라는 말에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이어서 위치한 것은 사모이다. 각 면 가로 50㎝, 세로 16㎝ 되는 네 개의 판이 사모를 형성한다. 여기에 12개의 사모사가 붙어 멋을 낸다. 사모 하단





1. 탑등
강원 강릉시 | 2003.6.20 | 심상교

2. 탑등
경북 경주시 감포 | 2003.6.28 | 심상교

에는 가로, 세로 25㎝ 정도의 사모가 한 면에 2장씩 붙어 있다.

사모 아래에는 수박등이 위치한다. 수박등은 길이가 16㎝인 대나무 48개를 붙여서 만든다. 먼저 16㎝의 정사각형 8개를 붙여 둥근 형태가 되게 한다. 둥글게 보이나 실제로는 각이 진 원이 되는 것이다. 8각이 진 원형태 위아래에 사각형을 위치시키고 사각형과 팔각형을 서로 연결시킨다. 팔각형 위쪽에는 사각형 네 개와 삼각형 네 개가 아래의 팔각형과 연결된다. 마찬가지로 팔각형의 아래에는 사각형 네 개와 삼각형 네 개가 팔각형과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각이 진 둥근 모양의 수박등이 된다. 탑등의 하단에 위치하는 수박등은 사각형과 삼각형이 어우러져 각진 둥근 공모양이다.

그 아래에는 팔모가 위치한다. 팔모는 팔각형 모양으로 원처럼 생겼으나 각이 진 팔각형인 것이다. 팔모는 가로 길이가 50㎝, 세로 길이가 13㎝이다. 팔모에는 8개의 팔모사가 붙어 있다. 팔모사 하단에는 팔모치마사 8개가 아래로 늘어뜨려져 있다. 팔모치마사는 가로 길이가 21.5㎝, 세로 길이가 14㎝이다.

무녀는 등노래굿에서 이 탑등을 들고 춤을 추기도 하고, 제관들이나 마을 주민들의 등을 눌러주며 축원을 해 주기도 한다. 탑등에는 탑등사모사, 수박등사, 탑등팔모사, 탑등치마사 등 여러 가지 장식화지인 사를 붙인다. 이에 대해 알아보자.

탑등사모사는 탑등 위에서 두 번째 부분에 사각모양으로 위치한 것으로 가로, 세로 17㎝이다. 탑등사모 한 쪽 면에 3장씩 붙인 뒤에 네 면을 모두 합치면 12장이 된다. 탑등사모사의 문양은 화지 색깔을 달리하여 3장씩 네 면에 모두 12장을 붙인 것이다. 색깔은 주로 적색, 꽃분홍색, 남색, 녹색을 쓴다.

탑등팔모사는 탑등의 하단부에 위치한 팔모에 부착하는 것이다. 가로 21.5㎝, 세로 14㎝이다. 팔모사는 한 면에 한 장씩 부착한다. 사모사와 문양 형태가 비슷한데 좌우에 횡으로 파진 문양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 색깔은 주로 적색, 꽃분홍색, 남색, 녹색을 쓴다.

탑등치마사 · 제단장식 지전은 탑등사모와 탑등팔모 하단에 붙여 아래로 늘어뜨린다. 여자의 치마처럼 길게 아래로 늘어져 그 멋을 내기 때문에 탑등치마사라고 한다. 탑등치마사는 제단장식 지전으로 쓰이기도 한다. 탑등치마사는 염색된 화지를 사용하지만 제단장식 지전은 흰색 한지를 염색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한다. 따라서 아래의 다양한 문양들은 탑등치마사와 제단장식 지전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것이다. 탑등치마사의 종류는 매우 많은 데 주로 8~10가지를 쓴다. 이 문양을 노란색, 녹색, 빨간색, 보라색 등으로 제작하여 탑등의 사모와 팔모 하단에 각각 부착하여 장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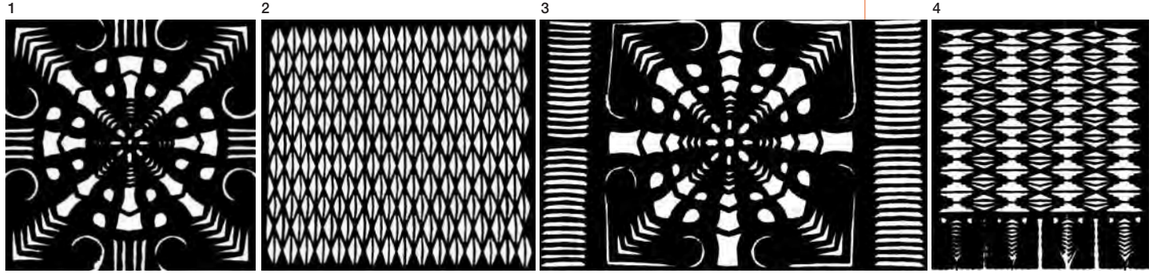
탑등사모에는 한 면에 2장씩 모두 8장을 붙이고 탑등팔모에는 한 면에 한 장씩 붙여 모두 8장을 붙인다. 크기는 사모와 팔모에 붙이는 것이 각각 다르다. 사모에 붙이는 것은 가로 25.7㎝, 세로 25㎝이고 팔모에 붙이는 것은 가로 21.5㎝, 세로 22.5㎝이다. 하단 즉 팔모에 붙이는 것이 조금 작다.

탑등치마사 하단에 만년필의 끝을 연상시키는 네 개의 문양은 치마사 어느 것에나 달려 있다. 만년필 끝 모양이 없는 경우는 치마사 문양에 이 펜촉 모양의 문양이 제외된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무속의 연구(재판)(최길성,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0).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경상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필자 심상교(沈相敎)

1. 탑등 사모사
2. 수박 등사
3. 탑등 팔모사
4. 탑등 치마사



태백신사(太白神祠)

정의 태백산신을 모시기 위해 세운 신사. 경상북도와 강원도 접경에 있는 태백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태백산 정상에 있는 천제단(天祭壇)은 1991년 10월 23일에 '중요민속자료 제228호'로 지정되었다.

역사 태백산에 제사를 지낸 기록은 신라시대부터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1 「신라본기(新羅本紀) 1 일성이사금조(逸聖尼師今條)」에 "일성이사금 왕 5년 겨울 10월에 북쪽으로 순행하다 친히 태백산에서 천제를 올리다."라는 기록이 있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삼척도호부조(三陟都護府條)」에는 "태백산은 삼척부의 서남쪽에 있는데 신라 때 오악(五嶽) 가운데 북악(北岳)이라 하였다. 산꼭대기에는 신사가 있는데 이름을 태백천왕당(太白天王堂)이라 한다. 여러 고을 백성들이 봄 가을로 천제를 올린다."고 하였다.

성현(成俔, 1439~1504)의 『허백당집(虛白堂集)』 「신당퇴우설(神堂退牛說)」에 "그 산은 동쪽으로 뻗어 대해(大海)에 임하여 삼척부(三陟府)가 되었고, 서쪽으로는 영춘(永春), 남쪽으로는 죽계(竹溪) 등 두 고을을 이루었다. 산이 높아도 사전(祀典)에 실리지 않는 것은 백성에게 시공(施功)이 없었기 때문이다. 3도의 사람들이 산정(山頂)에 당을 지어 신상을 만들어 모셔 놓고 제사를 올렸다. 세시(歲時)에는 왕래하는 사람들로 줄을 이었고, 제사를 마치게 되면 각각 신좌전(神座前)에 소를 매어 놓고 돌아갔다가 사흘 후에 돌아와 소를 몰고 가는데 이를 퇴우(退牛)라 한다"고 했다. "소를 신좌전에 매어 놓고 돌아갈 때는 조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한다. 뒤를 돌아보면 신이 벌을 준다는 것이다. 해마다 사월 초파일이 되면 그 신이 읍의 성황에 내려온다고 하여 읍인들은 깃대를 만들고 북과 피리를 성대히 갖추어 읍리의 집에 둔다. 그리고 읍인들은 이곳에 몰려들어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계속하여 허일(虛日)이 없을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5월 5일이 되면 모두 돌려 보낸다. 이 신에게 제사드릴 때는 조그마한 선미(鮮米)라도 먼저 제상(祭床)에 올려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를 입는다"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삼척도호부조」에는 "신라 파사왕(婆娑王) 때 태백산 정상에 단을 쌓고 '청우(請雨)'를 제물로 하여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고 하며, "태백산은 신라 때 북악으로 중사의 제를 올리던 곳이다. 산꼭대기에는 세간에서 말하는 천왕당이 있어 강원도와 경상도의 인접 고을 사람들이 봄 · 가을로 제사한다. 제사를 할 때에는 신좌 앞에 소를 매어 놓고 사흘이 지난 후에 부에서 그 소를 거두어 가서 쓰는데 이름하여 퇴우(退牛)라 한다."고 하였다.

허목(許穆, 1595~1682)의 『미수기언(眉叟記言)』 「괴조(怪條)」에서는 "무지한 백성들이 백두옹(白頭翁)을 가리켜 태백산(太白山) 신령이라 하는데, 태백사(太白祠)의 기도로 길흉을 점친다"고 한다. 「퇴우조(退牛條)」에서는 "원근(遠近)에 서로 다투어 가면서 태백신에게 재액(災厄)을 기도했다. 또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소를 신사(神祠) 밑에 매어 놓고 축언을 마치면 소를 그냥 두고 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돌아보면 신에게 바치는 소를 아낀다 하여 신이 흠향하지 않는다."고 한다. "사당 아래 있는 소를 산 밑의 사람들이 잡아먹어도 아무런 재액이 없었다. 이것을 퇴우라 했는데 관부에서 이 말을 듣고 감고(監考)를 정하여 날마다 관청에 드리게 했다. 그러다가 충학(沖學)이란 산승(山僧)이 그 사(祠)를 불 지르자 요사(妖祠)가 없어졌고, 감고도 폐지하게 되었다"고 한다.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목민심서(牧民心書)』 「예전(禮典) 6조」에는 "김치(金緻)가 영동에 관찰사로 와서 태백신사(太白神祠)를 헐었다"고 한다.

내용 천제단은 구령단(九靈壇), 구령탑(九靈塔), 마고탑(麻姑塔)이라 하기도 한다. 천제단은 천왕단(天王檀)을 중심으로 북쪽에 장군단(將軍檀), 남쪽에는 이보다 작은 하단의 3기로 구성되었으며 적석으로 쌓았다. 천왕단의 위는 원형이고 아래는 사각형이다. 이는 천원지방(天圓地方) 사상 때문

이다. 현재 태백시에서 거행하는 태백제(太白祭)는 태백신사에서 제사를 지내던 전통을 이어받은 축제이다.

참고문헌 한국민속대사전 2(민족문화사, 1991). 조선무속고(이능화, 이재곤 역, 동문선, 1995). 한국세시풍속사전 겨울편(국립민속박물관, 2006).

필자 이균옥(李均玉)

태안설위설경(泰安說位說經)

정의 충청남도 태안군에서 법사들에 의해 전승되는 독경 형태의 굿. 이 굿은 1998년 7월 25일에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되었으며, 예능보유자는 장세일 법사이다.

역사 설위설경의 일반적인 유래 및 역사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는 미약하다. 다만 현재 장세일 법사의 제보를 통해 1970년대의 태안 지역 설위설경 전승 양상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장세일 법사의 제보에 의하면 태안 지역 설위설경의 전승자들은 대부분 한학(漢學)에 조예가 깊다고 한다. 한학을 하는 과정에서 무경(巫經)을 접하게 되고, 이후 법사로 입문하여 본격적으로 설위설경을 일삼았다고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여느 지역과 달리 원형적인 한문어투의 무경이 잘 보존되어 있다. 태안설위설경이 충청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후 20여 명의 법사들이 전통민속문화보존회 및 태안설위설경보존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내용 태안 조부원 법사의 귀신착수는 공주민속극박물관에서 2001년에 시연한 것이었지만 시연이 아니라 실연이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점복을 통해 병인(病因)을 확인하고 이루어진 연행이었다. 개별 석[席;거리]의 진행에 따라 전개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부정물림** : 제장(祭場)의 설치가 끝나면 제장을 정화시키는 부정물림으로 연행을 시작한다. 부정물림은 법사1의 구송 및 조무들과 환자의 기원으로 집약된다. 법사1은 태을보신경(太乙保身經)과 부정경(不淨經)을 구송한다. 조무들은 재배(再拜)하고, 환자는 제물을 진설하는 것으로 기원을 표출한다. 법사1은 모의행위를 행함으로써 제장의 부정을 물린다.

2. **가택축원(家宅祝願)** : 가택축원은 축소된 안택굿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태안 조부원 법사의 귀신착수는 당일양재(當日禳災)로서 개별거리의 조합에 의해 가택신들을 일일이 청배하여 축원하는 안택굿이 아니라 안택경축원문(安宅經祝願文)의 구송으로 가택신의 축원을 일거에 획득하는 매우 축소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3. **영가축원(靈駕祝願)** : 영가축원은 환자의 주변에 머물고 있는 원혼을 위무하는 절차행위이다. 원혼이 환자의 주변 인물이라는 것을 점복을 통해 확인했기 때문에 양재가 아니라 위무를 통해 기원을 성취하려는 것이다. 법사1은 천수경(千手經) 등의 불경과 조상해원경(祖上解寃經)을 구송하여 원혼을 위무한다. 환자는 조무의 도움으로 영가단(靈駕壇)에 배례를 올린다.

4. **사자축원(使者祝願)** : 사자축원에서는 사자가 감응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음식을 진설한다. 법사2는 사자로 분(扮)하여 사자상에 진설된 제물을 마음껏 흠향한다. 법사1은 사자와 일문일답의 대화를 통해 사자의 원을 풀어준다. 사자의 원을 푸는 것은 곧 원혼의 천도로 연결되며, 원혼의 천도는 곧 환자의 치병으로 연결된다는 무속적 논리에 의해 풍성한 제물과 노잣돈을 마련하여 실제 상황인 듯 사자를 대접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사자축원은 병굿의 전체적인 진행과 어울리지 않을 만큼 법사의 변신에 따른 놀이적 성격이 부각된다.

5. **길닦음** : 길닦음은 망자를 극락으로 천도하기 위한 절차행위이다. 전체적인 진행은 망자로 변신한 법사1과 환자의 대화 및 환자 가족의 직접적인 모의행위로 이루어진다. 특히 변신한 인물 그대로의 동작과 음성을 통해 그들의 성격과 심리를 전달함으로써 극적인 상상력과 분위기를 창출한다. 환자의 가족은 베가르기에 참여하여 망자를 극락으로 천도시킨다.

6. **검무(劍舞)** : 검무는 악신을 제거하는 절차행위이다. 병인으로 지목되었던 망자의 원혼을 일단 천도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병인으로 부정적 존재를 제거해야 한다. 검무는 양재의 제1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무구로는 도검(桃劍)을 활용한다. 도검은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가지를 1미터 간격으로 자른 후 이를 창호지로 감고 긴 술을 늘어뜨린 채찍과 흡사한 형태를 하고 있다. 법사1은 검무신장하강축원문(劍舞神將下降祝願文)을 구송하여 제장으로 검무신장을 청배한다. 법사1의 구송이 끝나면 법사2는 도검을 사용해 용수철망을 중심으로 팔방으로 늘어뜨린 팔사(八絲)를 마구 내리친다. 사귀가 팔사에 걸려들었다는 무속적 관념을 바탕으로 사귀의 초능력을 무력화하는 주술행위이다. 또한 법사2는 도검으로 환자의 몸을 두르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마구 내리치기도 하여 환자의 몸에 서려 있는 악신을 위협한다. 그리고 제단 밑을 도검으로 한두 바퀴 휘젓기도 한다. 이것은 혹여 제단 밑에 숨어 있을 악신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다. 이후 망가진 설경을 귀신단지와 함께 묻는다.

7. **화전치기** : 화전치기는 매우 극단적인 방법으로 병인을 위협하는 절차행위이다. 무구로는 솜방망이, 잘게 간 톱밥이나 볶은 메밀가루, 석유 등을 활용한다. 마당에 멍석을 깔고 환자를 앉힌 후 머리에 박을 씌운다. 그리고 젖은 이불로 환자의 몸 전체를 감싸고, 환자의 곁에서 솜방망이에 불을 댕긴다. 이런 다음에 솜방망이를 향해 톱밥이나 볶은 메밀가루를 던지면 불기운이 솟구친다. 이로써 환자의 몸에 서려 있던 병인을 몰아낼 수 있다고 여긴다.

8. **신장봉양(神將奉養)** : 신장봉양은 신장을 제장으로 청배하는 절차행위이다. 악신을 착수(捉囚)하기 위한 선행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인 진행은 법사1이 양재무경(禳災巫經)을 구송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법사1은 사십팔신장청(四十八神將請), 팔문대진경(八門大陣經), 옥추경(玉樞經) 등의 양재무경을 반복적으로 구송한다. 병굿의 궁극적인 목적이 악신의 제거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과 가장 부합하는 무경이 이 절차에서 대거 구송된다.

9. **신장대가름** : 신장대가름은 병인을 확인하는 동시에 제거하는 수단까지 확인하는 절차행위이다. 법사1은 현현(顯現)한 신장, 즉 신장대를 잡은 법사2와 어떤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일문일답을 벌인다. 법사1은 신장대의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흔들림과 안 흔들림이라는, 다시 말해서 인정과 불인정이라는 상반하는 결과만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 법사1은 문복의 내용과 현장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병인을 신장에게 일일이 고하여 수배, 동토, 악귀가 병인임을 확인한다. 그리고 병인의 성향에 근거하여 병인을 제거할 것인지, 배송할 것인지, 제거한다면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등을 동일한 방법으로 고하여 매장이 병몰을 극복할 방안임을 확인한다.

10. **귀신착수(鬼神捉囚)** : 귀신착수는 병인을 완전히 제거하는 절차행위이다. 무구로 신장대, 사귀대, 단지거름을 활용한다. 사귀대는 한지를 여러 갈래 오려서 만든 엄지손가락 크기의 인형으로 사귀를 상징한다. 흔히 귀신발발이라고 하는 사귀대는 예전에 복숭아가지에 청·홍·백색의 헝겊을 엮어 만들었다고 한다. 귀신단지는 호리병이나 네 홉짜리 소주병을 한지로 에워싼 형태이다. 이곳에 사귀대를 집어넣고 그 입구를 막는 모의행위로써 악귀를 감금한다. 특히 귀신단지의 뚜껑은 고춧가루와 밀가루를 반죽하여 만든다.

11. **백살풀이** : 백살풀이는 환자의 모든 살(煞)을 제거하는 절차행위이다. 병굿의 전 과정에서 주술행위가 가장 역동적으로 펼쳐진다. 무구로 활과 100여 종류의 살을 활용한다. 살대는 쑥대나뭇가지를 창호지로 두른 형태이며, 살머리에는 수수를 둥글게 만 새알시미를 박는다. 살대를 두른 창호지에는 "正七月怨嗔煞 二八月八難煞 三九月天羅煞 四十月地網煞 …… 是非煞 錢財布帛盜賊煞" 등 인간 삶에 해를 가하는 살을 적시한다. 우선 환자의 머리에 박을 씌운 후 살로 박을 두드리고 활을 이용해 가능한 한 멀리 날려 버린다. 병인을 이미 제거했지만 아직 환자에게 남아 있을지도 모를 신과 조상의 풍파로 인한 재액까지 마저 제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출이다.

12. **퇴송(退送)** : 퇴송은 귀신착수의 마지막 절차행위이다. 법사1의 신장퇴문경(神將退門經) 구송과

조무들의 모의행위로 이루어진다. 법사1의 구송과 조무의 모의행위는 대문 앞에서 이루어진다. 대문 밖과 대문 안이라는 두 개의 공간을 인간계와 신계로 인식하여 대문 밖으로 신장을 배송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충청도굿(한국의 굿, 한국무속학회 편, 민속원, 2002), 대전 충청굿의 설경 연구(양종승, 민속학연구 6, 국립민속박물관, 1999), 충청도 설경 연구(안상경, 한국무속학 5, 한국무속학회, 2002), 앉은굿 무경 연구(안상경,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충남의 앉은굿 무가(박혜정,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8).
필자 안상경(安相敬)

태주(太主)

정의 어린아이가 죽어서 된 귀신 혹은 그러한 귀신이 몸에 실린 무당.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보통 굶어 죽거나 천연두에 걸려 죽은 아이의 혼령 혹은 그 혼령이 몸에 붙은 무당으로 알려져 있다. 태주는 남녀 어린아이 모두의 혼령과 관련되기도 하지만 좁혀서 남자 어린아이에 한정하여 일컫기도 한다. 반면에 여자 어린아이의 혼령이나 그 혼령이 몸에 실린 무당을 '명도(明圖)' 혹은 '명두(明斗)'라 일컫는다. 근래에 들어와서는 태주보다 도령, 동자, 애기동자, 산신동자, 선동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내용 태주는 공중에서 휘파람 같은 소리로 망령과 대화를 한다. 태주가 몸에 실린 무당은 이러한 소리를 내며 점을 치고 예언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태주는 인간의 운명을 말해 주는 신으로 인식된다. 때에 따라선 자손번영, 인간의 무병장수, 죽은 자를 살려내는 힘까지 지니고 있다. 따라서 무당은 태주를 각별히 모신다. 무당이 점을 치거나 굿을 할 때 태주가 몸에 들어오면 아기 목소리로 말한다. 또 무당이 굿을 할 때 칠성거리에서 태주가 몸에 들어온다. 이때는 도령이 좋아하는 음식, 사탕, 새 옷 등을 장만하여 드린다. 태주는 어린 귀신이지만 상당히 영험하며 소홀히 대접하면 후환이 생기기 때문에 각별히 모셔진다. 태주는 변덕이 심하고 소란스러워 진지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영험이 많고 잘만 달래면 인간이 요구하는 것들을 잘 들어주는 신으로 인식된다.


1


2

1. 동자마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가로 71㎝, 세로 96.5㎝ | 1950~1980년대

2. 동자마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가로 61.3㎝, 세로 102.2㎝ | 1950~1980년대

지역사례 태주는 지역에 따라 태자(太子), 명두, 명도, 새튼이, 공징 등으로도 불린다. 평안도 · 함경도 등 북한 지역에서는 새튼이, 새타니, 새티니, 새치니 등으로 부른다. 남아 · 여아 구별 없이 부른다. 이 호칭들은 어린아이 혼령이 내는 소리가 새가 트인 잇새나 입술의 틈이 벌려져 나온 소리이거나 이와 유사한 데서 나온 것이라 한다. 경상도 · 전라도 지역에서는 명두 혹은 명도라는 호칭을 많이 쓴다. 남녀 어린아이 모두의 혼령을 말하기도 하지만, 주로 여자 어린아이의 혼령에 한정하여 이 명칭을 쓴다. 경상도에서는 공징, 공밍, 공명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호칭들은 그 목소리가 허공에서 떨린다는 의미라고 한다. 태주라는 호칭은 주로 경기도 · 충청도 지역에서 많이 쓴다. 이는 태자라고도 한다. 근래에 들어서는 태주 혹은 태자보다 동자, 동자애기, 산신동자, 도령, 선동 등으로 많이 부른다. 이들 명칭은 남녀 어린아이 혼령 모두를 통칭하기 보다는 남자 어린아이 혼령에 한정하여 부르는 경향이 짙다.

참고문헌 조선무속고-역사로 본 한국 무속(이능화, 서영대 역주, 창비, 2008), 한국 무속신 고찰(양종승, 몽골학 4, 한국몽골학회, 1996).
필자 허용호(許龍鎬)

태주무당(太主巫堂)

정의 죽은 아이의 혼을 신령으로 하여 그 몸주신의 말을 직접 그 음성으로 전하는 일종의 복화술무(複話術巫). 태주방(太主房) · 명두(明斗) · 명도(明圖) · 태자(太子) · 공주 · 동자 · 곰밍이 등으로도 불린다.

내용 태주무당은 무당사회에서 뒷전무당과 넋무당보다 아래인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하는 무당이다. 이들은 죽은 아이의 혼을 꽃병에 꽂아 놓은 조화(造花)나 생화(生花) 형태로 모시면서 주로 점복에 종사한다.

태주나 명두는 죽은 영혼이 아이라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남창 손진태는 그 어원을 무조(巫祖)를 의미하는 몽골어 '밍두(mingdu)'에서 기원하였다고 보았다. 한편 김태곤은 무당의 몸주신이 어떤 존재로 모셔지는가에 따라 어린아이 신을 모시면 '명두무당'이라 하고, 마마를 앓다가 죽은 어린 여자아이 귀신을 몸주신으로 모시면 '태주무당'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몸주신인 어린아이 신을 자기 몸에 내려서 점을 치게 되는데, 이 때 무당은 몸주신인 아이의 음성으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아이의 몸짓까지 흉내 내려고 한다. 즉, 아기신은 주로 모셔 놓은 꽃을 통하여 휘파람 소리를 내거나 아기 목소리로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무당은 어린아이의 음성을 내기 위해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뱃속으로 소리를 내려 하기 때문에 이를 듣는 사람들은 그 소리가 천장이나 공중에서 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따라서 학술적으로 이를 '복화무(腹話巫)' 또는 '공창무(空唱巫)'라고 한다.

점을 칠 때 무당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몸주신의 공수를 받아 그 음성으로 전하기 때문에 무당-몸주신-단골 사이에는 삼각관계가 성립된다. 즉, 어린아이 신과 점을 보러 온 단골은 직접적인 관계에서 점을 보기 때문에 무당은 제삼자의 입장에 서게 되며, 이런 이유로 무당은 대화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 특히 태주무당이 모시는 몸주신은 성숙한 신이 아닌 어린 아기신이기 때문에 신의 장난으로 무책임한 행동을 하거나 좀 틀리더라도 예쁘게 봐준다. 다만 무당은 신의 말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써 자신의 몸주신을 나무라거나 점을 보러 온 단골의 무례한 태도를 제삼자 입장에서 꾸짖을 뿐이다. 점을 치는 한 방법으로 이들 무당은 몸주신의 말을 빌려 점을 보러 온 사람의 집안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미리 한다. 점을 칠 때 그 아기신은 점치러 온 사람의 집으로 가서 굴뚝을 타고 들어가 집안을 살펴본 다음, 그 집의 밥그릇이나 숟가락이 몇 개인지 조상 중에 잘못된 죽음을 맞은 자가 몇 명인지 등 집안의 내력과 길흉화복(吉凶禍福)에 대해 이야기 한다. 그러면 점을 보러 온 사람을 비롯하여 구경 온 사람들은 그 신통함에 놀란다. 태주 계통의 몸주신은 대개 무당의 입을 통해 알려지게 되는데, 이들 몸주신은 보통 개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그 신분이나 배경도 매우 분명하다. 따라서 몸주신은 보통 왕의 자손인 왕자나 공주, 또는 병으로 죽거나 굶어죽은 불운한 영혼들이 주를 이룬다.

태주나 명두형의 무당은 전국적인 분포 양상을 보이지만 특히 호남과 영남 등 남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적으로 불리는 명칭도 다양하다. 경상도 지역에서는 곰밍이 · 공명이 · 공쟁이 · 공징이, 평안도에서는 새트니 · 새티니 · 대주재비, 함경도와 황해도에서는 새즌이 · 새천애 · 새친이 등으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태주 · 명두형 무당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이나 시베리아 지역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손진태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복화무를 비교 · 설명하면서 죽은 영혼을 몸에 내리게 하여 직접 그 음성으로 점을 치는 것은 비슷하지만, 우리나라는 아기신을 주로 모시고, 중국에서는 어른신을 모시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계급의 무당들은 대개 신이 내린다는 점에서, 그리고 입무(入巫) 과정에서 무병(巫病) 현상을 거친다는 점에서 시베리아 샤먼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굿을 하지 않고 점복만을 전문으로 한다는 점과 점을 칠 때 휘파람을 불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고 표정을 지음으로써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강신을 뚜렷하게 느끼

도록 한다는 점에서 일반무당의 점복과정과 차이가 있다.

참고문헌 조선무속고(이능화, 계명 19호, 1927), 한국민족문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48),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강원도편(문화재관리국, 1977), 한국의 무당(최길성, 열화당, 1981), 한국민속대관 3-민간신앙 · 종교편(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1982), 한국의 무(조흥윤, 정음사, 1983), 팔도굿(황루시, 대원사, 198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7(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민속대사전 2(김용덕, 민족문화사, 1991), 한국의 무속(김태곤, 대원사, 1991), 무속과 영의 세계(김태곤, 한울, 1993), 한국의 샤머니즘(조흥윤,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필자 이관호(李官浩)

텃대감상

정의 터를 관장하는 텃대감 몫으로 마련되는 굿상.

내용 서울굿의 상산거리에서는 장군님, 별상님, 신장님, 대감님, 텃대감님을 차례로 모신다. 마지막으로 텃대감님을 모실 때에는 텃대감을 상징하는 쾌자를 입고 안올림 벙거지를 어깨에 걸친 후 부채를 든다. 텃대감상에는 팥시루, 우족 두 개, 막걸리를 올려놓는다. 텃대감신이 들어오면 텃대감상을 인 채로 막걸리를 마시며 이곳저곳 터를 밟고 다면서 텃대감을 놀린다.

참고문헌 굿상에 투영된 신에 대한 인식(이수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필자 양종승(梁鍾承)

터벌림

정의 경기도도당굿의 절차 가운데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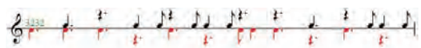
내용 터벌림은 '터를 밟는다', '터를 벌린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터벌림은 부정굿, 돌돌이, 시루고사 등 굿의 전반부 절차가 끝나고 본격적인 중반부로 들어가기 전에 굿판을 재정비하고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 연행된다. 경기도의 세습악사인 화랭이가 꽹과리, 장구, 징, 북 등 사물로 터벌림 · 진쇠 등 장단을 연주한다.

화랭이는 경기도굿에서 단순히 무당의 무가와 춤을 반주하는 악사만이 아니라 무당에게 예능을 가르치고 굿판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터벌림은 화랭이의 타악 연주와 춤이 돋보이는 대표적인 굿거리로 이를 통해 화랭이의 예술성과 굿에서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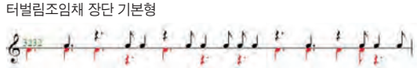
터벌림은 다른 뜻으로 경기도굿 중 터벌림과 손굿에서 연행되는 '춤'을 가리키는 명칭이기도 하다. 손님이라고 칭하는 마마신을 모시고 대접할 목적으로 터를 다지기 위해 추는 춤으로 꽹과리 · 장구 · 징 · 북 등 타악기만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무당은 터벌림장단에 맞춰 춤을 춘다. 이처럼 사물 위주로 연주되는 춤을 쇠풍장이라 한다. 춤이 강렬하며 타악의 음색과 점차 빨라지는 터벌림장단에 걸맞은 역동적인 춤의 묘미를 느낄 수 있다.

한편 터벌림은 경기도굿 가운데 터벌림 · 손굿 · 민속무용인 태평무 등에서 사용되는 '장단'을 지칭하기도 하며 반설음 · 반서름이라고도 한다. 총 10개의 소박이 2 · 3 · 2 · 3으로 집합되어 혼소박 4박(10/8박자)이 보통박을 이룬다. 터벌림은 기본 장단 외에 터벌림조임채, 넘김채, 겹마치기, 자진굿거리 등 연결 장단과 함께 다양한 변화 장단으로 다채롭게 연주된다. 1930년대 명무(名舞) 한성준이 터벌림장단과 경기도굿에서 연행되는 춤을 토대로 창작한 태평무의 반주장단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터벌림 장단 기본형



터벌림조임채 장단 기본형



넘김채 장단 기본형



겹마치기 장단 기본형



참고문헌 한국의 무속장단(임수정, 민속원, 1999), 경기도의 굿(하주성, 경기문화재단, 1999).
필자 박정경(朴正卿)

터벌림춤

정의 경기도도당굿에서 터벌림거리나 군웅거리에서 추는 춤.

내용 터벌림춤은 '터벌림'이란 말 그대로 터를 벌려 다지는 춤으로 '터잽이'라고도 한다. 땅을 밟으며 하는 독특한 발놀림춤으로 '망수밟음 춤'이라고도 한다. 발뻐드래를 하면서 사방을 돌아 사방치기를 하고 축귀하는 춤이다. 터벌림춤은 굿판의 터를 지신밟기로 씻김을 하고 부정한 것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터벌림춤은 군웅굿이나 손굿의 처음에 좁아진 굿판을 넓히면서 굿터를 정비하는 춤이다. 무녀는 철릭 자락으로, 화랭이는 꽹과리를 치면서 지신을 밟아주는 '지신밟기'의 전형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터를 밟으며 춤춘다. 이 춤은 '처용무'의 발춤인 '발바딧무'와도 그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발바딧무'를 '밟아 딛는 춤'으로 풀이한다면 터벌림의 발춤과 발바딧무는 서로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터벌림춤의 장단으로는 다음과 같다.

반서름(터벌림)-10박

덩		궁		따	따	궁	따	다	따	구	궁		궁		따		따	궁	따	다	따

넘김채-6박

덩		더	덩		덩		궁	따	

겹마치기-4박

덩		따	따	궁		궁		따	따	궁	

잦인굿거리-2박 혹은 4박

덩		따	구	궁	따	구	덩	다	다	구	궁	따	구

터벌림춤에서 여자무당은 철릭 자락을 흔들기도 하고 부채를 펴들고 방울을 흔들기도 하면서 사방치기로 발뻐드래 동작을 하며 춤춘다. 잽이인 화랭이는 꽹과리를 치면서 사방치기를 한다. 이 춤의 춤사위는 다음과 같다.

1. **발뻐드래** : 한 발을 짚으며 무릎을 굽히고 반대 발을 안으로 접었다가 순간적으로 밖으로 내뻗는 동작이다.
2. **사방재배** : 동서남북 사방으로 절을 하며 예를 드린다.
3. **삼진삼퇴** : 앞으로 세 걸음 나가고 뒤로 세 걸음 물러난다.
4. **사방치기** : '발뻐드래'를 하며 굿상 주위를 사각으로 돈다.

터벌림춤은 터를 다지면서 그 터를 정리하고 확장하는 의미를 갖는다. 터벌림춤의 핵심 춤사위인 발뻐드래에 그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곧 발을 내뻗으면서 액과 살을 퇴치하고 잡귀를 몰아내며 정화하는 춤이다. 곧 액을 물리치고 내치는 동시에 터를 벌리고 확장하여 새 판을 일구는 결의를 담고 있다.

지역사례 터벌림춤은 경기도 남부 지방의 수유리도당굿(들놀이굿) · 동막도당굿 · 장말도당굿 등에서 집중적으로 행해지는데, 군웅굿에서는 본격적으로 판을 벌여 사방치기를 하게 된다. 특히 손굿에서는 잽이인 화랭이가 꽹과리를 잡고 반서름 장단을 치면서 신을 즐겁게 하고 손님을 위한 여흥의 발놀림춤을 신명나게 추기도 한다.

참고문헌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12(이보형 · 심우성, 문화재관리국, 1976), 무무(문화재연구소, 문화재관리국, 1987), 서울 진오기굿(김수남, 열화당, 1993), 한국무속과 연희(이두현,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경기도도당굿(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한국의 샤머니즘(조흥윤,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샤머니즘 연구(한국샤머니즘학회, 문덕사, 2002), 경기도 남부 도당굿 중 제석굿 무가의 음악적 특징(박정경, 한국무속학 7, 한국무속학회, 2003), 경기도당굿의 굿춤(이애주, 제8회 동양음악학국제학술회의, 2004).
필자 이애주(李愛珠)

토산여드렛당본풀이

정의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 1리에 전승되는 사신(蛇神)에 관한 내력담. 당제가 숫자 8이 붙는 날에 행해지다 보니 당 이름이 '여드렛+당'으로 명명된 것이며, 토산리 바닷가 마을에서 당신을 모시다 보니 일명 '토산알당'이라고 한 것이다. 제주도의 여러 지역에 걸쳐 전승되고 있어 이 본풀이들을 '여드렛당계' 본풀이라고 한다.

내용 나주의 영산(靈山), 금성산(錦城山)에 1년에 한 번 처녀를 제물로 받는 신이 있었다. 이 고을에는 목사(牧使)가 부임하면 해마다 파직이 되어 목사로 갈 사람이 없었다. 이런 가운데 이(李) 목사가 자원하여 고을로 부임하게 되었다. 이 목사가 부임 도중에 금성산 앞을 지나려 할 때 하인이 이 산에는 영험한 신령이 있으니 말에서 내리셔야 한다고 하였다. 그대로 지나가면 말의 발이 전다는 것이다. 목사는 그 신을 보기 위하여 무당을 불러 굿을 하게 했다. 그러자 쉰 대자 머리를 드리운 처녀가 나타났다. 목사는 인간이 무슨 신령이겠느냐며 참된 신령을 보이라고 하니 한 아가리는 하늘에 붙고 다른 아가리는 땅에 붙은 뱀이 나타났다. 목사는 여의주를 물지 않았으니 신이 아니라 하여 포수를 시켜 뱀을 쏘아 죽이고 불살랐다.

이때 뱀은 바둑돌로 변하여 서울 종로 네거리에 날아가 있었다. 때마침 제주(濟州)에서는 강씨 형방, 한씨 이방, 오씨 형방 세 사람이 길을 떠나 서울에 진상을 왔다가 이 바둑돌을 주웠다. 바둑돌을 줍자 진상도 수월히 잘되고 보답도 많이 받았다. 그들은 배를 타고 귀로에 오를 때 바둑돌을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던져 버렸더니 갑자기 태풍이 일어 항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문점(問占) 후 서낭굿을 하니 순풍이 일어 항해가 좋았다. 항해를 하다 보니 어느 샌가 바둑돌이 뱃장 밑에 와 있었다.

배가 제주도의 성산읍 온평리에 닿자 바둑돌은 곧 여인이 되어 상륙하였다. 이 여인은 곧 온평리 본향당신(本鄕堂神)인 '맹호부인'에게 인사를 드렸다. 맹호부인은 모든 마을에 다 차지하고 있는 신이 있으나 토산리가 하나 비었으니 거기로 가라고 지시하였다. 여인이 맹호부인의 말대로 토산리로 가는 도중에 하천리 당신인 개로육수도가 나타나 여인의 손목을 잡고 수작을 걸었다. 그러자 여인은 "얼굴은 양반이나 행실은 상놈이라"며 장도로 잡혔던 자신의 손목을 자르고 잘린 손목을 명주로 감은 후 토산으로 내려가 좌정했다. 하지만 좌정하고 석 달 열흘이 지나도 어느 인간 하나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고 음식을 바치지 않았다.

하루는 오 좌수의 딸이 계집종을 데리고 '삼만오리소'에 빨래하러 갔다가 마침 앞바다를 지나다 파선 당하여 표착한 왜놈들이 오좌수의 딸을 발견하고 쫓아왔다. 오 좌수의 딸은 계집종과 도망가서 '묵은각단밭'에 숨었지만 왜놈들에게 발각되어 윤간(輪姦)을 당하고 하녀와 함께 죽었다. 시체는 토산리 '신산마루'에 묻혔다. 얼마 후 가시리 강당장집 외딸아기가 유월 방아를 찧다가 하품을 하며 광증을 일으켰다. 문점을 하니, 토산당신의 탓이라 하여 큰굿을 차려 지내는데 병자가 "나를 위한 굿이면 궷문을 열어 명주를 풀어 보라"고 한다. 명주 속에는 말라붙은 뱀이 있었다. 이 명주를 풀어 헤쳐 굿을 하니 그 따님이 파릇파릇 살아났다. 이런 연유로 하여 이 신을 위하게 되었고, 이 신이 주는 재해에는 명주로 다리를 삼아 굿을 한다고 한다.

의의 당신(堂神)으로 뱀신을 모시고 있으며, 이 당신은 특히 신앙민 가운데서도 여성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어디를 가나 당신을 잘 위하지 않을 때는 재화(災禍)를 준다고 생각되고 있다.

참고문헌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진성기, 민속원, 1991).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각, 2007).
필자 강권용(康權用)

통기

정의 창호지를 오려 통 모양으로 만든 깃발. 통기는

통기(가운데)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강금춘 자택 | 2006.8.16 | 강정식



그 모양이 통 모양의 깃발인 데서 비롯되었다. 크기에 따라 대통기, 소통기라고 하지만 대개 통기라고 하면 대통기를 말한다.

내용 통기는 본래 용 모양이었다고 하며 한때 원통형의 깃발을 길게 늘어뜨린 형태로 바뀌었다가 오늘날에는 천을 길게 늘어뜨리는 형태의 월덕기로 다시 바뀌었다. 창호지를 원통형으로 길게 늘어뜨린 형태이며 큰굿을 할 때 마당에 높이 세우는 큰 대에 매달아 용 모양으로 장식한다.

통기는 길게 만들어 큰대의 위쪽에 매단다. 큰대 끝에 다른 댓가지와 그 아래 묶는 동백 사이에 매단다. 동백 아래 버릿줄을 매어 큰대를 고정시키는 것이어서 통기의 위치는 그 길이 및 버릿줄과의 얽힘을 고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통기는 창호지, 댓가지, 끈으로 이루어지는데 길이는 창호지 석장 반, 둘레는 창호지 두 장 정도 크기로 만든다. 몸통에는 원형, 사각형 등으로 구멍을 내어 꾸미기도 하였다. 이것은 해와 달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댓가지를 둥글게 구부려 원형을 만들고 통기 위쪽을 댓가지에 붙여 원통형으로 모양을 잡는다. 백지를 가늘고 길게 오려낸 것 여럿을 속에 넣고 그 위쪽을 모아서 묶는다. 이를 '속'이라고 한다. 이 '속'을 넣는 것을 '속 담는다.'고 한다. 균형을 이룰 수 있게 가늠하여 댓가지 세 곳에 끈을 매달아 속과 함께 하나로 모아 큰대에 묶는다. 소통기는 대통기보다 작을 뿐 모양은 같다.

종이로 만드는 장식인 기메 가운데는 가장 큰 것으로 요즘에는 월덕기로 대체되어 통기의 모습을 보기 어렵다. 종이로 만들면 비에 훼손되고 오래 보존하기 어려운 탓에 일찍이 월덕기로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제주도무속연구(현용준, 집문당, 1986).
필자 강정식(姜晶植)

판수(判數)

팔문금쇄진(八門金鎖陣)

평안도굿 무복

평안도 무속음악

평진오기굿

평창동보현산신각(平倉洞普賢山神閣)

푸너리

푸너리춤

푸닥거리

푸살

판수(判數)

정의 점복(占卜)과 독경(讀經)을 하는 맹인.

내용 판수들의 활동은 고려 시대의 기록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그 연원이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맹인이 아닌 정상인들도 점복과 독경에 참여했다. 이들을 독경자, 점복자, 봉사, 맹인, 장님, 경바치, 경객, 경사, 복술, 복재, 경쟁이 등으로 부른다. 이들은 스승을 따라다니며 경문을 학습하고 독경하는 방식을 배운다.

판수는 무당과 여러 면에서 구별된다. 대체로 무당은 여자이고, 판수는 남자이다. 무당은 서서 춤을 추며 귀신들을 위무하지만, 판수는 앉아서 북을 두드리며 경문을 읽어 축귀나 착귀를 한다. 무당은 무가를 불러 신이 그들의 몸에 실려 치병 등의 행위를 하지만, 판수는 경문을 통해 여러 신장들을 불러 이들로 하여금 객귀나 잡귀 등을 물리치거나 착수를 하여 치병 등의 행위를 한다. 과거 안택을 하거나 객귀나 잡귀를 물리쳐 집안의 우환을 없애거나 치병을 하기 위해서 무당을 부르기도 했지만, 판수를 더 많이 불렀다.

판수는 굿을 하는 집안의 방이나 대청에 경당을 차린다. 경당에는 제상을 마련하고, 여러 신장들의 위목을 경당 안은 물론 처마 밑에까지 붙이기도 했다. 굿의 반주 악기는 북인데, 이를 천장에 매달아 놓고 앉아서 두드렸다. 장단과 선율은 단조로운 편이다. 무복은 평상복을 정결하게 입고 고깔을 썼다. 무구로는 산통, 북, 신장대, 귀신 가두는 통 등이 있을 뿐, 부채, 칼, 방울 등은 사용하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은 굿판에 모여 여러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음식을 함께 나누기도 한다.

굿은 해질 무렵에 시작하여 자정이 지날 때쯤 마친다. 몇 시간 이내로 간단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2~3일 혹은 1주일 넘게 경을 읽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는 여러 명의 판수가 와서 교대로 경을 읽는다. 신장대를 잡는 대잡이가 여러 명 있기도 하다. 악귀로 인하여 치병이 쉽지 않은 '병굿'인 경우 다른 굿보다 기간이 오래 걸린다.

판수가 정성을 들여 송경을 하여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신이 그 정성에 응답하여 굿판에 내려온다. 그 신은 판수의 몸에 접신이 되지 않고, 조무자인 대잡이의 신장대에 내린다. 신장대에 실린 신장은 말썽을 일으킨 사귀를 내쫓거나 잡아가둔다. 집 안에 있는 악귀를 잡아오기도 하지만, 멀리 떨어진 곳에 숨어 있는 사귀를 잡아오기도 한다. 신장이 내려 축귀나 착귀를 할 때는 송경 소리가 빨라지면서 대잡이와 삿대잡이 등이 어울려 신이 신장대에 내리게 하고 귀신을 잡아오는 등의 연희적인 요소가 드러나기도 한다.

송경을 할 때는 축원문과 경문을 읽는다. 축원문은 한글로 되어 있지만, 경문은 한문으로 되어 있다. 대부분의 판수들이 경문을 해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문 그 자체는 신성시한다. 그들은 경문을 송경하기 때문에 신이 응대를 하고 축귀나 착귀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무경에는 『옥추경』, 『옥갑경』, 『철망경』, 『축귀경』, 『신장경』 등의 축사경이 있고, 『성조경』, 『조왕경』, 『명당경』, 『지신경』, 『동토경』, 『칠성경』 등의 가신봉안경이 있다. 전자는 여러 신장들을 불러 요귀를 내치거나 침탈하지 못하게 하고, 후자는 여러 가신들을 불러 위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문을 읽는 순서는 일정하지 않고, 판수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

1950년대에는 판수가 함경도, 강원도, 경기도, 전라도 등 우리나라 전역에서 활동했으며 그 인원도 무당보다 많았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무속행위는 무당보다는 판수들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판수들은 거의 사라졌고, 무당들만이 성할 뿐이다. 판수들이 하던 무속 행위도 무당들이 대신하고 있다. 과거 판수를 했던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들은 무당들이 굿을 할 때 경문을 읽어 주는 등의 보조적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판수고(김영진, 민속어문논총,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3), 무경고(이규창, 전라민속논고, 집문당, 1994), 강원도 송경 연구 3(박관수, 민속원, 2007).

필자 박관수(朴官洙)

팔문금쇄진[八門金鎖陣]

정의 앉은굿 법사가 환자치료를 위한 병경을 할 때 잡귀를 쫓아내기 위하여 경청 천장에 여덟 가닥으로 장식한 종이 무구.

형태 팔문금쇄진은 흰 종이를 가늘고 길게 연접하여 그물망 형태로 만든다. 그리고 좁은 원통형의 그물을 다시 만들어 천장 한가운데에 붙여서 내린 후에 다시 원을 둘러 여덟 방위로 그물 형태의 줄을 드리운다. 제작하는 법사에 따라 가운데에는 귀신 모양의 형상을 오려서 거꾸로 매달아 귀신을 협박한다. 때에 따라서는 휴문신장(休門神將), 생문신장(生門神將), 상문신장(傷門神將), 두문신장(杜門神將), 경문신장(驚門神將), 개문신장(開門神將), 경문신장(景門神將), 사문신장(死門神將) 등 8개의 신장 위목을 붉은 글씨로 써서 그 위에 각 위목에 해당하는 부적과 함께 붙이기도 한다.

내용 팔문금쇄진은 설경과 마찬가지로 앉은굿 법사가 축귀를 위한 병경을 할 때 설치하는 종이무구이다. 경청의 천장에 장식하며, 팔방으로 종이철망을 드리워서 설치한다. 이를 법사에 따라 '팔방' 혹은 '구름다리'라고도 부른다. 이는 일종의 귀신을 잡기 위한 진법의 일종으로 앉은굿 법사가 독경을 하는 동안 귀신이 이 진법에 걸려서 꼼짝 못하게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대전 · 충남 무속연구(대전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7),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충청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충청지역의 종이무구(임승범, 한국무속학 13, 한국무속학회, 2006).

필자 임승범(林承範)



팔문금쇄진(장세일 법사 제작)
충남 태안군 | 2003.4 | 임승범

평안도굿 무복

정의 평안도 다리굿을 할 때 착용하는 무복.

내용 다리굿은 죽은 이를 저승으로 보내기 위한 굿이다. 억울한 망자의 넋을 청하여 원한을 들어주고 대접하며 풀고 달래서 돌려보내는 과정으로 진행되는 평안도 무속을 대표하는 큰굿이다. 시왕[十王], 다릿발, 염불 등 주로 불교의례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평안도 무당은 강신무이며 그 수가 적다(무당은 이선호→정대복→김남순으로 이어짐). 평안도굿은 서울굿과의 혼용이 심해서 오늘날 원래의 모습을 보기 어렵게 되었다.

굿거리는 무당에 따라 명칭 · 순서 등이 얽히고 설키지만 보통 열세 거리로 나타나는데, 크게 도입 · 본굿 · 뒤풀이의 세 단계로 나뉜다. 도입부는 당울림, 주당푸념(풀이)으로 이뤄져 있다. 본굿은 앉은청배, 감응굿(서낭), 대감, 칠성굿(불사굿), 넝(영)정, 대감(신장), 장군거리(작두허궁거리), 사자(使者)굿, 다릿발 들고 세경돌기, 시왕세텬[十王世天], 망인의 몸다리 들어섬 기밀드림이다. 뒤풀이(뒷전)는 마무리거리다.

1. 다리굿 무복종류 : 무복은 조선시대의 관복이나 예복을 모방한 것이다. 무복은 신격이 바뀔 때마다 바뀌면서 신복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며 무기류와 함께 신의 위엄과 용맹 · 존귀함을 상징한다.

월남한 평안남도 평양 출생 강신무인 정대복의 무복은 칠성옷, 신령님옷, 장군옷, 대신옷, 대감옷, 관복, 사신군복, 중국 장군옷, 창부옷, 애기씨옷, 도령옷, 외인대감옷 등 총 12종이다. 무복은 신복이기 때문에 오래 써서 더러워져도 물에 빨아서는 안 되며 너무 오래되어 새로 만들어야 할 경우에는 불에 태우는 것이 원칙이다. 무구는 장구, 제금[銅鈸], 꽹과리, 방울, 부채, 창, 검, 대신칼, 작두가 있다.

정병호는 평양굿춤 옷을 평복, 신복, 신모로 분류하였다. 평복은 노란 저고리에 빨간 치마이다. 신복(神服)은 칠성복(흰장삼, 고깔, 홍 · 청가사), 장군복(갑옷, 투구) 노란 장삼, 관복, 색동장

삼(일명 애기씨옷), 도포(오색 남띠에 관), 대감옷(청 · 흑쾌자)이 있다. 신모(神帽)는 대감모자, 장군모자, 호수갓, 고깔, 투구가 있다

2. 다리굿 무복 현황 : 무복은 세습무와 강신무에 따라 종류나 화려함이 다르다. 세습무는 평복에다 쾌자나 철릭을 정갈하게 입는 정도이지만 강신무는 큰무당일수록 신의 옷을 많이 갈아입기 때문에 무복의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하다. 특히 강신무가 주를 이루는 평안도의 무복은 현재 굿거리와 함께 무당에 따라 명칭이나 모양이 변형되어 계보를 찾기가 어렵다.

이는 김남순에서 확인된다. 그가 제보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굿거리는 12거리지만 신령이 많으므로 34거리나 된다. 전에 평안도굿은 아랫사람들을 모두 먹여야 하기 때문에 천석군, 만석군이어야 했다. 조상 · 하늘 · 땅의 신까지 불러다 하려니 옷도 많고 굿하기도 어려웠다. 재수굿이나 작두를 탈 때 특별한 의대는 없었으며 위에 파란 쾌자 하나를 입었다. 지금 이북무당은 옷도 많고 화려하다. 나는 산에 가서 기도하면 신들이 옷의 모양 · 무늬 · 색을 주는(명령) 그대로 내려받고 만든다. 옷은 옥황상제부터 용궁할아버지, 나라대신, 남대신, 제자대신 등까지 마련한다. 기본 의대는 같지만 시대가 바뀌어서 옷이 똑같지 않다. 철릭도 홍 · 남 · 초록이 있으며 초록이 가장 많다. 만신의대는 계절과 관계없이 양단으로 만든다. 만물상의대는 맞춰 입는다."

3. 굿거리에 따른 다리굿 무복 : 무당들은 무복을 철릭 · 전복 등 옷에 대한 개별명칭보다 굿거리에서 나오는 신을 상징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신복 · 신옷 · ○○거리 · ○○의대(衣帶) · ○○관디(冠帶)라고 한다.

다리굿 무복은 다른 굿처럼 평복과 무복으로 구분된다. 평복 차림은 평상시 입는 치마와 저고리를 말한다. 평복은 굿의 시작인 당울림과 주당푸념이나 끝부분인 뒷전 등에 입는데 이때 신의 존재는 없다. 무복은 다시 승복(僧服)과 '관복(官服)류'로 분류된다. 승복은 불교의례를 상징하는 옷들이다. 관복류는 주로 철릭과 구군복이다. 철릭은 무복을 대표할 만큼 자주 쓰이므로 명칭이나 꾸밈새도 원형을 찾을 수 없을 만큼 혼란하고 복잡하여 다른 옷과 함께 다리굿의 규모와 변화를 대변한다.

1) 치마

무복의 기능을 할 때는 청색과 홍색 두 가지가 기본이며, 홍색이 상위 개념이다.

2) 승복

승복 차림은 다리굿에서 다른 굿거리에서와 달리 칠성굿, 세경돌기 수왕세천, 기밀굿 등에 나온다. 고깔, 장삼(長衫), 가사(袈裟)가 한 틀이다. 치마는 홍색이다. 목에 염주를 걸고 부채를 들고 바라춤을 춘다.

고깔은 흰색 비단으로 만든 모자로, 중앙의 접은 자리와 앞뒤로 접힌 선에 오색 옷감을 세모로 잘게 '잣물림'하였다.

장삼은 길과 소매의 길이가 긴 포(袍)의 한 가지이다. 흰색이며 섶과 고름이 없다. 소매의 진동선 부근에 아귀(구멍)가 터져 있어 이곳으로 팔을 내놓고 있다.

가사는 청색 · 홍색이다. 양 어깨에 걸치며, 허리에는 청색이나 홍색의 띠[帶]를 두른다. 가사나 허리띠에는 글이나 그림을 수놓거나 금박을 찍기도 하고, 끝부분에는 색동을 바둑판모양이나 길게 연결해 장식하기도 한다.

기밀굿이나 세경돌기에서 흑립(黑笠)에 학(鶴)의 털을 꽂은[揷植] 호수빗갓을 쓰고, 홍치마 위에 장삼을 걸쳐 입고, 홍색 가사를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로 늘어뜨린다.

3) 관복류

가장 많다. 공통적인 것은 남성 관복류를 칭하는 관디 · 쾌자 · 섭수가 있으며, 여성용으로 원삼과 몽두리 등이 포함된다.

(1) '관디(복)'는 철릭을 말하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만신들의 정장이다. 무당에 따라 옷의 종류로 철륙 · 철륭 · 철립, 굿거리에 따라 감응 · 서낭(의대)관디, 색에 따라 홍 · 청관디라고도 한다.

관디복에는 목에 염주를 걸고 '호수빗갓'을 쓰고 홍철릭을 입는다. 철릭은 소매가 길고 넓으며 장삼과 비슷하고 저고리와 치마가 주름으로 연결된 옷이다. 고름이 없고 등에 흉배를 붙였다. 허리에는 남철릭의 경우 홍색을, 홍철릭의 경우 남색 띠를 각각 두른다. 갓은 색이 붉은 것과 검은 것이 있으며 모두 빗갓이라고 한다. 홍철릭은 주로 성주거리와 군웅거리에서 입는다. 청과 홍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다. 김남순은 "어릴 때 평안도에서 가장 큰 옷은 홍철립이었다. 홍색은 감응의대이며, 장군 · 성주님 놀 때 입는데 남색보다 높다. 남색(혹은 파란색)은 서낭 때만 입는다"고 한다.

(2) 쾌자는 전복(戰服)이다. 전북이라고도 한다. 간단한 굿을 할 때는 전립을 쓰고, 평복 위에 걸쳐 입은 뒤 청룡도나 삼지창을 든다. 소매가 없으며, 남색이 많지만 홍색도 있다. 홍색에는 남색 띠를 두른다. 협수와 남철릭에 겹쳐 입는 일이 많다. 따라서 '섭수(夾袖)'와 혼동하기도 하는데 이는 전복과 동다리가 한 틀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넝정(영정, 客鬼)이나 주로 대감거리에는 전립(벙거지)을 쓰고, 홍치마와 함께 입으며 청룡도나 삼지창 · 부채를 든다.

(3) 섭수는 동다리이다. 지금의 두루마기 모양이며 '섭수'라는 명칭은 다른 옷에 비해 소매가 좁기 때문에 붙여졌다. 동다리는 소매에다 홍색으로 덧댄 것에서 붙여진 명칭이며 길은 주로 흑이나 청색이다. 정조(正祖, 재위 1776~1800)대 부터 길고 넓은 소매를 간소화하면서 철릭과 함께 통용되었다. 머리에는 전립(氈笠)을 쓰고, 위에는 전복을 덧입고, 허리에는 넓고 긴 띠[戰 · 纏帶]를 둘렀다. 지금은 길의 색을 황 · 녹, 소매는 홍으로 각각 하고 있다. "장군복색"이라고도 하는데 별상이나 신장 외에 조상거리에서 입기도 한다.

(4) 몽두리(蒙頭里)는 노란색의 포이다. 깃의 가장자리에 잣물림을 넣어 상침하고 어깨와 가슴에 수(繡)를 놓은 것도 있다. 옷고름을 달고, 섶은 나란한 맞섶이며 소매에는 한삼이 있다. 허리에 금박이나 수를 놓은 띠를 두르기도 한다.

(5) 원삼(圓衫)은 왕실이나 반가 여성의 예복이자 민간여성의 혼례복이었다. 앞이 짧고 뒤가 길며, 섶이 없다. 옆선은 나란하고 트여 있다. 길은 황 · 홍 · 녹색이 기본이며, 민간의 원삼은 녹색이었다. 소매는 색동이며 끝(수구)에 한삼이 붙어 있다.

앉은청배(청배굿)나 창부(호구,애기씨)거리에 족두리를 쓰고 꽃부채를 들고 나온다. 호구신은 여신이기 때문에 여장(女裝), 창부신은 남성이지만 여장을 한다.

(6) 청배나 감응 · 서낭에는 장군과 제장 등 여러 신령을 불러들인다. 신에 맞는 옷을 바꾸어 입고 모신 신들을 손과 홍색 부채로 인도하여 굿상 위로 올라앉게 한다. 장군복으로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삼지창을 들고 칼춤을 춘다.

(7) 베[麻]옷은 사자가 망자를 저승으로 데리고 가는 굿(사자굿)을 할 때 험악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차린다. 삼베옷을 만들어 입기도 하고, 옷 대신에 삼베를 양 어깨로 걸치고 허리에도 두르고, 머리에는 흰종이를 갈기갈기 오려 만든 '전립'이라는 모자를 쓴다. 신칼을 들고 회심곡을 부른다. 이 베옷 차림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으며 불사 · 기밀 · 수왕 · 다릿발 등과 함께 영혼을 천도하는 다리굿을 상징함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평안도 다리굿(황루시 · 김열규 · 이보형, 열화당, 1985), 한국무속연구(김태곤, 집문당, 1981), 한국의 전통춤(정병호, 집문당, 2002), 평북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다리굿 조사 보고서(양종승, 평안북도, 2007).

필자 고부자(高富子)

평안도 무속음악

정의 평안도 지역에서 전승되는 무속음악. 현재 평안도 무속음악으로 알려진 것은 평양 지역의 무속음악이다. 평양 출신의 이선호와 정대복이 연행한 것 외에 다른 지역 자료는 없다. 함경도 원산 출신 무당들이 무속음악을 공연한 적이 있다. 그들은 평양 출신 무당에게 무속음악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이선호와 정대복의 평양 무의식과 같았다. 현재 평양 이외에 평안도의 다른 지역, 특히 평안북도 무속음악 자료가 없어 평양 무속음악과 어떻게 다른지 알 길이 없다. 무의식 음악에는 장구 · 바라 · 징 등 악기가 주로 쓰이며, 3소박 4박 장단이 많다는 점에서 황해도와 유사하고 다른 지역과 다르다.

내용 평안도 무가의 선율 토리는 수심가토리가 주

가 되고 때로 경토리가 쓰인다. 수심가토리는 선율틀의 구성음이 Re, Mi, Sol, La, do이고 주요 음은 Re, La, do의 5도+단3도 구조로 되어 있다. 종지음은 Re나 La로 나타난다. 시김새는 La에서 떠는 목(요성)을 쓰며, do에서 흘러내리는 목(퇴성)을 쓴다. 경토리의 선율틀은 Sol, La, do, re, mi로 구성되었고 주요음이 Sol, do, mi의 4도+장3도 구조로 되어 있다. 종지음은 Sol과 do이다. 시김새는 대체로 re에서 떠는 목(요성)을 쓰고, mi에서 re로 흘러내리는 목(퇴성)을 쓴다.

평안도 무의식 음악에 쓰이는 악기에는 장구, 바라, 징 등이 있다. 때로는 굉정이 쓰이기도 하는 점에서 황해도의 무악과 유사하며, 평안도에서는 장구 치는 기대를 '술맞이'라 이른다. 큰굿에서는 피리, 젓대, 해금 등 삼현육각을 썼다고 하지만 지금은 평안도 잽이가 없어 서울 잽이를 동원하기 때문에 평안도 삼현육각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평안도굿 장구 또한 알 수 없다. 현재 쓰는 것은 서울굿의 여느 장구와 같다. 오른손에 가는 대나무로 된 열채를 쓰며, 왼손에는 막대기에 천을 싸서 만든 장구 방망이를 쓴다. 징은 작게 만들어 나무에 매달아 들고 채로 친다. 절에서 쓰는 광쇠와 비슷하다. 바라는 방짜 놋쇠로 여러 번 쳐서 중간 크기로 만들며, 무가나 무무(巫舞)의 반주로 쓰이기도 하지만 때로 만신이 손에 들고 바라춤을 추기도 한다.

평안도굿에 쓰이는 장단은 만신(萬神)이 '무슨 무슨 장구'라고 이른다. 평안도굿에 쓰이는 장단에는 푸넘장구, 청배장구, 비나수장구, 당울림장구, 염불장구, 자진넘불장구, 감응장구, 방애장구, 돈 실러가는장구, 덕담장구, 절장구 등이 있다. 장단은 대부분 소박이 3집합되는 4박자가 많고, 2집합되는 것과 혼합 집합되는 장단은 아주 드물다.

1. 푸넘장구 : 평안도 지역에서 전승되는 무가 장단. 푸넘이라는 말은 '푸념'이라는 말의 사투리로 보인다. 조금 느린 3소박 4박(12/8박자)이며, 만신이 반 장단을 '오늘날이야' 하고 메기면 장구 치는 술맞이가 '오늘날이야' 하고 받는다. 장구는 '덩-기딱/딱-기딱//덩-기딱/딱-기딱/ ' 하고 친다. 이 장단은 영정, 서낭굿, 사제거리, 시왕가르기, 뒷전 등 여러 거리에서 쓰인다.

2. 앉은청배 : 평안도 지역에서 전승되는 장단. '앉아서 부르는 청배무가'라는 뜻이다. 소박이 3 · 2 · 3 · 3 · 2 · 3으로 집합되는 혼소박 6박(16/8박자)으로 특수한 장단이다. 청배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만신이 주요 거리에서 앉아 손수 장구를 치며 '신을 청하는 무가'를 부르는 것으로 청신 기능을 한다. 이 장단은 까다로워 현재 부르는 이가 드물다.

3. 비나수장구 : 평안도 지역에서 전승되는 장단. 축원고사를 곁말로 비나리라고 이르듯이 비나수는 축원이라는 말로 해석된다. 조금 빠른 3소박 8박(24/8박자)으로, 글자 그대로 축원 성격을 띤다. 장구는 '덩-다/딱-딱//덩-따/딱-따/ ' 하고 친다.

4. 덕담장구 : 평안도 지역에서 전승되는 무의식의 춤 장단. '덕담'이라는 말은 '축원'이라는 말이다. 조금 느린 3소박 4박(12/8)인데, 장구는 '덩ㅡ딱/딱 궁 딱//덩-따/딱 궁 딱/ ' 하고 친다.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만신이 서서 춤추며 기자(祈者)에게 복을 주는 오신기능을 한다.

5. 긴넘불(긴염불) : 평안도 지역에서 전승되는 장단. 넘불(염불)이라는 말은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불교의 염불에서 나온 것으로, 다리굿에서 만신이 불러 망자를 천도하는 기능을 한다. 황해도 염불의 경우와 같이 2소박 조금 빠른 12박(12/4박자)으로, 판소리의 중모리장단에 맞는다.

6. 자진넘불(자진염불) : 평안도 지역에서 전승되는 장단. 긴염불에 이어 부르는 빠른 염불이라는 뜻이다. 3소박 조금 빠른 4박으로 판소리의 중중모리장단에 맞는다. 만신이 서서 조상의 넋을 천도하며 염불무가를 부르는 축원 기능을 한다.

7. 당울림장구 : 평안도 지역에서 전승되는 장단. '당울림'이라는 말은 '굿당에서 타악기를 쳐 울린다'는 뜻이다. 이 장단은 불규칙 장단이다. 굿에서 맨 먼저 만신이 타악기를 울려 악령을 물리치는 기능을 한다.

8. 감응장구 : 평안도 지역에서 전승되는 장단. 소박이 3 · 2 · 3 · 3 · 2 · 3으로 집합되는 혼소박 6박자이다. 만신이 앉아서 손수 장구를 치며 신을 청하는 무가를 부른다. 이 장단은 까다로워 부르는 이가 드물다.

9. 방애장구 : 평안도 지역에 전승되는 장단. 3소박 4박자(12/8박자)이다. 장구는 춤 장단과 같다. 만신이 서서 방아 찧는 노래를 기자(祈者)의 복을 빌고 축원(祝願)하면서 부른다.

10. 돈실러가는 장구 : 평안도 지역에서 전승되는 장단. 만신이 기자의 복을 축원하며 '돈 실러 가는 노래'를 부르는 데서 나온 말이다. 황해도에도 이런 장단이 있다. 3소박 느린 4박자(2/8박자)이다. 장구는 '덩 궁 딱/딱 궁 딱//덩 궁 딱/딱 궁 딱/ ' 하고 친다. 만신이 축원 절차에서 이 장단으로 된 무가를 부른다.

11. 절장구 : 평안도 지역에서 전승되는 장단. 3소박 4박자(12/8박자)이다. 만신이 앉아서 손수 장구를 치며 신을 청하는 무가를 부른다.

필자 이보형(李輔亨)

평진오기굿

정의 서울굿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신분에 따라 하는 망자천도굿의 하나로, 주로 일반 서민들의 진오기굿을 이르는 의례.

내용 서울굿에서는 망자의 신분에 따라 새남굿, 얼새남, 진오기굿 등으로 나눈다. 이때 평진오기굿은 백성들의 예사 진오기굿을 일컫는다. 그러나 신분적 질서가 무너진 현재에는 돈의 대소에 따라 구분하는 개념으로 일부 변질되었다.

평진오기굿은 사람이 죽은 때를 기준으로 불교재례인 사십구재를 지내기 이전에 하는 굿을 말한다. 평진오기굿과 진진오기굿은 서로 동일한 개념으로, 진진오기굿을 새남굿 · 얼새남 · 평진오기굿 등으로 불리는 점에서 이들의 상관성을 찾을 수 있다.

평진오기굿의 핵심은 굿거리 구성에 있다. 평진오기굿의 제차는 다른 굿과 비교하면 일정한 차이가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굿과의 규모와 정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굿은 앉은굿에서 시작해 선굿으로 끝난다. 그중 마당에서 하는 굿을 중심으로 대문 밖으로 나가는 굿이 요점이다. 다른 재수굿이나 마을굿과 절차가 다르므로 이를 중심으로 굿의 핵심적 특징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평진오기굿은 망자에 대한 굿이므로 망자 중심의 굿거리가 주를 이룬다. 이 굿의 중요한 굿거리는 상산물고, 초영실, 조상, 창부, 대감, 사재삼성, 말미, 도령돌기, 상식, 뒷영실 등이다.

상산물고는 개성 덕물산의 상산 최영(崔瑩, 1316~1388)장군에게 물고를 받는 것으로 죽음을 신에게 고하는 절차이다. 최영 장군은 고려를 지키다 최후를 맞이하였으며, 그후 무속에서는 역사적인 신격으로 발전하였다.

상산 최영 장군은 경기도와 서울 북부에서 가장 으뜸으로 섬기는 무속의 주신이다. 이 신격에게 죽음을 고하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상산물고를 받는다는 것은 이 굿의 핵심에 해당한다. 동시에 죽은 사람은 인격신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본향과 가망에게 허락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본향과 가망이 인격신이므로 이 존재를 가능하게 했던 아득히 먼 조상의 근본에 대한 허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인격신의 존재에 대한 근본을 고하고 죽은 존재로 전환하는 과정이 부득이하게 필요하게 된 셈이다.

초영실은 망자의 말을 전하는 거리이다. 만신이 망자의 옷을 입고 망자가 못다한 말을 한다. 망자는 영실을 통해 상주에게 하지 못한 말을 하며, 이때 울음 반 눈물 반으로 말을 전한다. 이 과정이 굿거리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상주나 유가족의 애틋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신은 이 대목에서 영실수건을 들고서 죽음의 과정이나 못다한 마음의 말을 유가족에게 전하기도 한다.

초영실을 놀고 난 다음 9대 조상부터 차례대로 조상을 놀려준다. 조상을 노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무속신앙의 근간이 된다. 평진오기굿에서는 창부거리와 대감거리를 바꿔 진행하는 것이 특이한데 그 이유는 명확하지가 않다.

이상의 굿은 망자와 다른 인격신의 관계를 통해 망자가 죽은 사정을 고하고 다른 신이나 조상과의 관계를 환기시켜 준다. 여기서는 망자의 생전 사회관계와 종교적 설정 속에서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다.

이후의 굿에서는 망자를 죽음의 세계에서 천





1. 진오기굿의 맞조와
2. 대안주 대신 물고가망으로 연행하는 장면
3. 진오기굿에서 베를 모두 가르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망자와 유족이 만나는 뒷영실 장면
서울 국사당 | 2004.4.15 | 김헌선

도하는 과정이 두드러진다. 특히 이 굿거리는 주로 망자의 죽음을 무속에서 상정하고 있는 여러 신격의 위계에 입각해 진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면모이다. 예를 들면 사자가 망자를 잡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난 뒤 바리공주가 저승의 시왕에 갇혀 있는 곳에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굿이 있다. 망자는 이 굿을 통해 자연스럽게 유족과 상주의 조상으로 전환되고, 비로소 조상으로 예우를 받으면서 굿을 마치게 된다.

시왕가망과 사재삼성은 저승의 여러 신격이 복합되어 있는 굿거리를 말한다. 시왕가망, 중디, 말명, 사재삼성 등을 차례대로 청배하고 망자의 죽음을 거듭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이 가운데 사재삼성은 망자를 직접 잡아가는 신격으로서 시왕의 명으로 이승과 저승을 오고간다. 이런 점에서 사재삼성은 무서우면서 발랄한 장난꾼으로 행동하여 상주와 유족을 협박하고 웃기기도 하면서 눈물과 웃음을 자아낸다.

말미는 시왕에 잡혀 있는 망자에게 〈바리공주 본풀이〉를 들려주면서 바리공주가 저승을 여행하던 중 무장승으로부터 양유수와 여러 가지 꽃을 얻어 죽은 부모를 살려낸 내력을 듣는다. 그 결과 바리공주의 영험한 능력에 힘입은 망자는 저승의 어두운 세계를 벗어나서 좋은 곳으로 옮겨간다. 말미가 시왕에게서 일종의 시간을 얻어내는 과정으로 망자는 잠시 동안 풀려나서 바리공주의 문법(聞法)을 들음으로써 죽음과 저승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바리공주에게 구원받은 망자는 바리공주의 뒤를 따라 저승의 시왕으로부터 벗어나서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을 체험한다. 이 체험이 곧 도령돌기이다. 도령돌기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대체로 한삼도령 · 손도령 · 부채도령 · 칼도령 등을 통해 존재의 전환을 이루는 상징적 과정이 펼쳐진다. 이 과정이 저승을 헤쳐나가게 해준다고 믿는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승과 저승의 연결고리는 끊어지게 된다. 이것이 '베째'라고 하는 베가르기가 된다. 이승다리와 저승다리인 맑은 다리와 흐린 다리를 가른 다음 굿을 마친다. 그렇게 해서 이승과 저승은 갈라지고 망자도 이승의 미련을 버리고 저승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렇게 망자는 조상이 되며, 이 조상으로 받는 첫 번째 대우가 바로 상식이다. 상식은 유교적 의례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굿에서는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상식은 굿에서 조상과 같은 반열에 오른 존재로 인식되어 특별한 의례적 의미를 지닌다. 후손과 망자는 상식을 통해 둘의 관계를 회복하고, 후손은 조상의 인격적인 일체감을 지니게 된다. 평진오기굿은 서민들의 망자굿이지만 무속의 조상관념을 잘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의례이다.

평진오기굿에 있는 저승굿의 근본 관념은 무속적인 것과 불교적인 것, 그리고 유교적인 관념이 합쳐지면서 매우 이례적인 변형을 보여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무속의 저승관과 조상관념이 단일하지 않고 여러 원천을 두고 있으면서도 다른 각도에서 무속적 정체성을 잃지 않은 면모가 있음을 평진오기굿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서울새남굿 신가집(서울새남굿보존회 · 조흥윤 감수, 서울새남굿보존회, 1996). 서울 진진오기굿 무가 자료집(김헌선, 보고사, 2007).
필자 김헌선(金憲宣)

평창동보현산신각 (平倉洞普賢山神閣)

정의 서울에 있는 산신을 모셔 숭배하는 마을신당의 이름.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541-1에 있으며, 1973년 1월 26일에 '서울특별시 민속자료 제3호'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서울굿판에서는 보현산신각 아래에 있는 굿당을 보현산신각으로 불러, 많은 무속인들은 마을신당이 아닌 영업용 굿당으로 인식한다.

형태 보현산신각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정사각형의 맞배지붕 기와집으로, 정면에는 두 짝의 문이 있고 옆벽은 자연석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왼쪽 앞에는 작은 샘이 있고 왼쪽 뒤에는 산신각보다 큰 바위가 있으며 그 앞에는 여러 작은 바위가 산재해 있다. 산신각 앞쪽과 옆에는 촛대를 높게 만들어 놓아 초를 꽂을 수 있게 했다. 산신각 단 아래 우측에는 산신각 3배 정도의 큰 바위가 있다. 그 바위 아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길이 60㎝, 폭 30㎝, 높이 60㎝ 정도의 한옥 기와집 형태의 등각을 만들고 그 안에 촛불을 켤 수 있게 했다. 마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매년 3월 1일 제의를 올려왔다. 북한산신이 사람들의 소원을 잘 들어준다고 알려져 있다.

효험이 알려지면서 언제부터인가 보현산신각 바로 아래에 있는 주택에 무당들이 모여 굿을 하게 되었다. 수요가 늘어나자 1988년에 4층 건물로 증축하고 '보현산신각굿당'이라 이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각 층에 방이 2~4개씩 모두 12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한꺼번에 많은 무속인이 모여 굿을 연행할 수 있다.

내용 산신각 내에는 기호노인상(騎虎老人像)의 산신도(97㎝×108㎝)가 정면에 걸려 있다. 산신은 청색 도포를 입고 관을 썼으며, 왼손에 우선(羽扇)을 들었다. 뒤쪽으로 오른편에는 호랑이가 엎드려 있고 왼편에는 푸른 옷을 입은 동자가 무릎을 꿇은 자세로 천도복숭아 3개를 쟁반에 받쳐 들고 있다. "大正十二年 癸亥八月十四日 山神奉安于 大同出草 師 金禮□堂 相奎"라는 기록으로 보아 1923년에 제작된 그림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산신각 옆에 있는 보현산신각 굿당은 서울시내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산신각이 이웃하고 있어 무속인들에게는 굿의 효험을 잘 받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굿당에 굿을 하러 온 무속인들이 직접 보현산신각을 참배하거나 산신을 위하는 어떤 의식을 거행하지는 않는다. 최근에는 보현산신각의 존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무속인이 많아, 굿당 이름의 유래는 모르고 원래 이름이 보현산신각으로 알기도 한다. 서울의 주요한 마을신앙인 보현산신각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굿당의 이름으로 변화되었다.

1980년대에는 서울의 유명한 무당들이 모두 보현산신각 굿당에서 굿을 연행하였으며, 이때 무속인과 악사들이 많이 참가하였다. 보현산신각 굿당이 북한산 보현봉 중턱에 있어 지대가 서



평창동보현산신각 기호노인상
정수미













울시내보다는 다소 높아 "산신각에 올라갔다 왔다"라는 말이 마치 당대의 잘나가던 무당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무당 입장에서는 층마다 방이 구분되어 있어 동시에 굿을 연행하기에 좋다. 몇몇 무당은 각 층에 굿청을 개설하고 여러 명의 무당과 악사를 불러 굿을 연행하면서 자신은 위 아래로 오르내리며 한 거리씩만 연행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북한산 인근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 굿당이 개설되고, 개인 전용의 굿당이 증가하면서 찾는 이가 그리 많지 않다. 무엇보다 주차장이 협소하고 시설이 낡아 기피하는 무당도 다수 있다. 그러나 보현산신각이라는 이름은 아직 무당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참고문헌 기도터 순례 1(김용, 전통문화사, 2003).
필자 홍태한(洪泰漢)

평창동보현산신각 제의
정수미

푸너리

정의 동해안굿과 전라도 진도굿 등에서 쓰이는 장단.

내용 푸너리장단은 각종 굿의 본풀이를 하기 전에 굿의 시작을 알리고 신을 청해 모시는 전주(前奏) 기능이 있다. 이때 무녀는 무가 없이 양중들의 장구, 꽹과리, 징, 제금 등 타악기 반주로 허튼춤을 춘다. 장단은 세 개 장으로 나뉘어 있다. 장구의 올림채 이후 각 장은 장구의 신호가락에 따라 1, 2, 3장으로 구분된다. 이때 징의 역할이 중요하다. 각각의 장이 8/4박-4/4박-2/4박으로 템포가 빨라지면서 징의 점수도 좁혀진다. 3장까지 연주가 다 끝나면 자진모리장단을 여유 있게 한 장단 내지 두 장단을 붙인다. 이를 매슴채라고 부른다. 또 굿의 진행 상황에 따라 1장을 빼고 2, 3장만을 연주하기도 한다. 이를 민푸너리라고 부른다.

한편 진도씻김굿에도 푸너리라는 장단이 있다. 이 푸너리는 원래 경(經)을 읽을 때 주로 쓰던 것으로, 항상 어느 대목에서 쓰인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독경제(讀經制)의 노래를 실러빅 스타일로 엮어가며 노래할 때 임기응변적으로 쓰인다. 장단은 5/4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장단을 하나의 집으로 보아 연주한다.

참고문헌 동해안별신굿(장휘주, 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진도씻김굿의 음악적 구조 연구(박환영,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동해안진오귀굿 중 장수굿의 짜임새와 장단 구조(원일,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경남 · 경북 동해안 무악 비교 연구(장휘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필자 이영선(李英仙)

푸너리춤

정의 굿의 거리마다 처음에 푸너리장단에 맞춰 즉흥적으로 추는 춤.

내용 동해안별신굿은 굿이 행해지는 지역에 따라 굿거리가 달라진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사흘에 걸쳐 12거리의 굿을 하지만 부산 지역에서는 내당과 외당으로 나뉘어 24거리의 굿을 행한다. 푸너리춤은 이러한 굿의 거리마다 처음에 추는 춤이다. 무녀가 부채와 수건을 양손에 들고 푸너리장단에 맞춰 거의 즉흥적으로 춘다. 특징적인 춤 동작은 없으며, 좌우 팔을 흔들며 추는 평범한 동작으로 이뤄져 있다. 푸너리춤에는 '문을 열어주십시오'라는 뜻이 있다.

필자 백현순(白鉉順)

푸닥거리

정의 잡귀에 의해 살이 들거나 부정한 것이 들어와서 병이 들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이를 쫓기 위해 행하는 작은 규모의 무속제의.

내용 무속제의를 규모에 따라 분류하면 비손, 고사와 푸닥거리, 굿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가장 간단한 무속제의가 비손이다. 두 손을 비비면서 신에게 축원하는 가장 간단한 무속제의이다. 그리고 신에게 바치는 제수를 차려놓고 다양한 무구로 굿판을 장식하여 수명의 무당이 종합적인 연행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규모의 무속제의인 굿이다. 이 사이에 푸닥거리가 자리한다. 푸닥거리는 주로 가볍고 작은 병인 경우에 한해 잡귀에게 겁을 줘서 병을 쫓아내는 축귀(逐鬼)적 성격이 강한 약식 무속제의이다. 큰병이나 중한 병인 경우 푸닥거리보다 규모가 큰 치병굿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역사례 서울 지역에서 보고된 푸닥거리 사례는 닭이 환자의 액운을 대신 맡아 나가도록 주술적 제의를 행하는 경우이다. 환자의 방에 간단한 제상을 차린 다음 환자의 머리맡에 닭의 두 발과 날갯죽지를 묶고, 날갯죽지 안으로 환자의 생년월일 · 이름 · 대수대명이라고 쓴 백지를 끼워 넣는다. 이어 무당이 평복 차림으로 제상을 향해 앉아서 고리짝을 20㎝ 길이의 나무채로 긁으며 축원한다. 축원 후에 닭을 체로 덮어서 집 밖 멀리 땅에 묻는다. 이는 귀신이 사람 몸에 붙어서 병에 걸린다는 관념에 기초하여 여러 방법을 동원해 몸에 붙은 귀신을 쫓거나 몰아내는 주술적 행위이다. 닭이 대신 액운을 맡아 나가는 것뿐 아니라 식칼을 들고 귀신을 위협하는 것, 삼신이 노했을 경우 미역국을 끓여 대접하는 것, 사령(死靈)인 상문(喪門)이 붙었을 경우 환자를 밖에 앉혀 놓고 환자를 매장하는 시늉을 하는 것 등이 있다.

경기 지역 역시 서울 지역과 유사하게 상문이나 부정을 풀 때 푸닥거리를 한다. 상문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넋으로 잡귀의 하나이다. 주로 상가집에 갔다가 병을 앓는 경우에 이 상문살이 들었다고 하여 이 상문을 떼기 위한 푸닥거리를 하며, 부정과 같이 부정한 잡귀와 잡신을 몸에 묻혀와서 병이 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푸닥거리를 한다. 제물은 굿과 달리 간단하게 떡과 술과 나물 정도만을 차려놓고 그 앞에서 주로 앉아 간단하게 징을 치면서 부정, 12신령 축원, 제가집 공수, 조상, 뒷전 순으로 한다. 이때 잡귀를 쫓아내는 게 주목적이다. 푸닥거리는 주로 무당 혼자 하지만 필요한 때는 2명 정도의 무당을 불러서 함께 행하

기도 한다.

충청도 지역도 소규모의 병굿을 푸닥거리라고 한다. 푸닥거리에서는 대수대명이나 살풀이 등의 핵심 축사거리와 축원만을 행한다. 무경을 구송하기보다는 주술적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약간의 비손이 곁들여진다.

제주도에서는 푸닥거리를 '푸다시'라고 부른다. 환자가 생겼을 때 치병 목적으로 심방 혼자서 약식으로 한다. 잡귀가 몸에 붙으면 병이 된다고 믿고, 이 잡귀를 신칼로 위협하여 쫓아내는 무속제의이다. 제차는 베포도업침, 날과국섬김, 연유닦음, 군문열림, 신청궤, 추물공연, 초석벌풀이, 이석벌풀이, 삼석잡귀풀이, 도진, 끌레기치송 순서로 진행된다. 푸다시는 환자의 몸에 붙은 잡귀를 쫓아내는 잡귀풀이가 주 내용이 된다. 그런데 잡귀의 범접으로 인한 병이 아니지만 어떤 신에게 잘못한 죄 때문에 일어난 병인지 모를 수도 있다. 그래서 굿은 여러 신을 청하여 모시고(베포도업침, 날과국섬김, 연유닦음, 군문열림, 신청궤, 추물공연), 그 죄를 사해 주도록 비는 벌풀이를 먼저 하고(초석벌풀이, 이석벌풀이)난 다음 몸에 붙은 잡귀를 쫓아내는 잡귀풀이를 한다(삼석잡귀풀이). 그리고 띠 한 줌 가량을 양쪽 끝에 묶고 속에 각종 음식을 조금씩 싸 담은 끌래기를 들어 환자 머리 위로 돌린 후에 내버리는 끌래기치송을 한다. 이는 잡귀에게 다시는 돌아와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한국무속연구(김태곤, 집문당, 1981), 한국민속대사전 2(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한국의 굿(하효길 외, 민속원, 2002).
필자 허용호(許龍鎬)

푸살

정의 경기도 남부 지역 세습무당의 굿거리 가운데 새성주굿에서 쓰이는 장단의 하나.

내용 푸살은 경기도 남부 지역의 집굿에서 새 성주를 앉히는 성주받이 과정에서 사용된다. 무당은 대들보에 명주나 광목을 걸쳐 놓고 산이들과 함께 지경닫기를 하면서 장구와 징 반주에 무가를 부른다. 이때의 장단이 바로 푸살이다. 경기도 남부 지역의 굿에만 있는 특별한 장단이다.

푸살은 2소박 15박 장단으로, 장단 주기가 흥미롭게 설정되어 있다. 장단의 기본적인 형태는 지경닫기의 느린 장단이다. 푸살의 중요한 쓰임새는 명주나 광목을 잡아당기면서 우아한 춤사위와 노래를 결합하는 데에 있다. 푸살의 악보를 다음과 같이 도시하여 보면 기본적인 얼개를 알 수 있다.

푸살장단

산	이	로	구	나	-	산	이	로	구	나	-	섬	-	이	-	-	-	로	-	-	-	-	-	다	-	-	-	-	-

2소박 15박으로 된 장단으로 3박 5대박자로 일컬을 수 있는 장단이다. 장단에 맞춰 산이들이 소리를 대고 후렴을 받는다. 중머리장단에 세 박이 덧붙여지면서 세 마디의 말이 들어가는 말붙임새가 특징이다. 전형적인 선후창 방식으로 부른다. 선후창 방식이 산이들에 의해 가다듬어지면서 매우 이채로운 형태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장단에 이어 잦은장단으로 옮겨진다. 자진몰이와 중중몰이 등 여러 장단이 함께 어울리기도 한다.

푸살에 맞춰 부르는 노래의 사설은 대체로 명과 복을 늘려 주려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한 대목을 예시한다.

〈푸살〉

(선창)
공심은 제레주요 제래 남산본이로구나
집터를 잡으시니 삼십 삼천 서른 에이 ~
(제창)
에이요, 에이 에이 에이요.
산이로구나 산이로구나
에이요, 에요 ~
높은 데는 밭을 갈고 얕은 데는 논을 풀어서
구백곡식 씨를 던져 매거니 가꾸거니
에이요, 에이요,
(제창) 에이요, 에이요, 에라 ~
산이로구나, 산이로구나
에이요, 에이요
(중중모리)
동방을 다글 적에 동방 닫는 지방네들
청학에 묻었으니 학이 머리를 다칠세라
(제창)
어어어이여 지경이야
에이여 여차 어기어차 지경이야
남방 닷는 지방네들 적학 하나 묻었으니
적학 머리를 다칠세라 가만가만이 닷는다.
(제창) 에에이요, 어기여차 지경이야. 어 ~

푸살은 아주 각별한 것으로, 산이들의 예술적 창조가 보태지면서 이룩된 수준 높은 장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의의 경기도 지역의 푸살과 같은 것으로 동해안의 자삼장단이 있다. 동해안에서는 자삼장단이 고산염불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자삼장단은 경기도의 푸살을 가져다가 이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푸살은 동해안과 경기도 지역의 세습남무들의 장단 이식과 토착화라는 교섭사에도 일정한 의의가 부여되는 장단이다.

참고문헌 경기도 도당굿 무가의 현지 연구(김헌선, 집문당, 1995), 한국의 무속장단(임수정, 민속원, 1999), 지영희민속음악연구자료집(성금연 편, 민속원, 2000), 경기판소리의 정착과 형성집단(김헌선, 경기판소리, 경기도 국악당, 2005), 동해안의 굿음악, 그 전승과 단절의 역사(장휘주, 민속원, 2008), 진쇠장단외 십일장단(박헌봉, 중요무형문화재보고서 28, 문교부, 1966), 시나위(유기룡 · 이보형, 중요무형문화재보고서 82, 문화재관리국, 1971).
필자 변남섭(卞南燮)

허개등
허용업
허웅애기본풀이
허주굿
허가
호구별성(戶口別星)
호구별성풀이
호남굿 무복
호남 당골굿
호살량굿
호맞이굿
혼베
홍수맥이
황남희
황도봉기풍어제
황천혼시
황하청
황해도굿 무복
황해도평산소놀음굿
하지굿
하직굿
하진순
한철동
황망상
할미가면
함경도굿 무복
함경도 무속음악
해미광대탈
행당동아기씨당굿

하지굿

정의 자식들이 부모가 건강하고 장수하기를 빌며, 사후에도 극락왕생하길 기원하는 굿.

역사 하지굿이 언제부터 유래되었는지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론할 수 없지만 불교의 예수재처럼 오랜 세월 동안 전승되어 왔을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하지굿이 드물지 않게 행해졌다고 하지만 근래에는 쉽게 볼 수 없다. 그만큼 일생의례에서 굿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화되었음을 반증한다.

근래에는 황해도평산소놀음굿보존회가 공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굿은 2000년과 2006년 이래 매년 5월에 인천 하도진에서 공연 형식으로 재연되고 있으며 오늘날 평산소놀음굿보존회 회장인 이선비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이선비는 황해도 옹진 출신으로, 29세에 신을 모시게 되었다. 이선비는 처음에는 유씨할머니를 신어머니로 모시고 있다가 그녀가 사망하자, 유씨할머니와 같은 신어머니 밑에서 배운 장보배를 선생으로 모시고 황해도굿을 배웠다. 따라서 이선비의 굿은 유씨할머니와 장보배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선비는 노령화되면서 하지굿의 전승이 단절될 것을 우려하여 2000년에 재연하게 되었으나 그후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다가 2006년 이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매년 5월에 인천 하도진공원에서 재연하고 있다.

내용 이 굿은 연로한 부모의 생일에 헛장[假墓]을 치러 액을 물리고 수명장수와 사후명복을 비는 목적에서 하는 것으로, 의례의 저변에 효행이 강조되고 있다. 이 굿은 주로 회갑이나 고희연 등에서 많이 한다. 회갑이나 고희연을 하면 운수가 좋지 않다고 할 때는 이렇게 굿의 형식을 빌려 잔치를 대신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 굿은 친척과 동네 주민들이 모여 부모에게 수의를 입히고 헛장을 만들어 놓고 모의 장례의식과 천도의식을 행한다.

하지굿의 형식은 만수대탁굿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두 의례 모두 연로한 노인들의 생일을 맞이하여 수명장수와 사후명복을 빈다는 의미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만수대탁굿이 주로 큰무당 자신의 수명장수와 사후명복뿐 아니라 만단골의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 행해진다면 하지굿은 일반 가정집에서 노인들의 일생의례를 대신해 행해진다. 또한 규모면에서 만수대탁굿이 5일 이상 소요되는 큰굿이라면 하지굿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 내용에 있어서도 하지굿에는 헛장 · 장례의식 · 지옥넘기 등 구체적인 죽음의례가 굿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에 비해 만수대탁굿에는 이와 같은 의례행위가 보이지 않으며, 베가름이나 천도를 기원하는 의식이 없다고 볼 수 없지만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하지굿에서 헛장을 만들고 장례의식을 하는 것은 병굿인 퇴송굿에서 헛장을 만들어 놓고 장례의식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것은 무병장수를 기원한다는 점에서 맥락이 같다. 경상도의 생오구굿도 또한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 있다. 황해도의 진오귀굿, 경상도의 오구굿, 전라도의 씻김굿, 제주도의 귀향풀이, 서울의 새남굿, 불교의 영산재와 같은 것이 망자를 천도하는 의식이라면 하지굿과 생오구굿 및 불교의 예수재와 같은 의례는 살아 있는 사람을 위한 천도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굿의 구조를 보면 앞부분에서 일반신들과 조상을 대접하는 굿을 한 후 뒷부분에서 하지굿을 한다. 세인들의 회갑잔치 때 조상차례를 먼저 지내고 잔치를 하는 것과도 유사하다. 이를 보아 먼저 윗사람을 대접하고 아랫사람이 받는다는 윤리의식이 의례에도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굿거리가 끝난 후 하지굿에서는 부모를 잔칫상에 앉혀 놓고 환갑잔치와 같이 헌작하고 노래와 춤을 추고 놀다가 이어서 도령을 돌면서 염불을 하고 베가름을 하고 출상을 하여 지옥을 넘기고 헛장을 한다. 이것은 실제 환갑잔치와 함께 장례의식 · 천도굿을 곁들여 죽음과 재생을 연극적으로 놀이화한 의식이다. 잔칫상 앞에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헌작하고 한참동안 가무를 통해 노는 것은 환갑잔치이며, 이어서 수의를 입히고 도령을 돌고 베가름을 하고 출상하는 의식은 천도굿과 장례의식의 결합이다. 이러한 연극적 의식을 통해 하지굿은 회갑과 같은 일생의례를 대신하며, 헛장으로 부모의 우환질병을 벗겨드리고 수명장수를 기원한다. 또한 부모는 죽음의 현실과 맞닿은 상황을 받아들여 죽음을 준비하고 남은 생을 더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 계기를 가지게 되고, 자식들은 부모의 장례의식을 미리 체험해 봄으로써 부모가 살아계실 때 더 효도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다지게 된다.



수의를 입힌 어머니를 잔칫상 앞에 모신 모습
인천 하도진 공원 | 2008.5.4 | 김덕묵

지역사례 2006년에 황해도평산소놀음굿보존회가 행한 하지굿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굿하기 전날 밤에 굿이 잘되기를 기원하는 안반고사를 한다. 굿청에 안반을 놓고 그 위에 굿에 사용할 다양한 떡을 섞어서 사방 귀퉁이와 중앙에다 조금씩 떼어 놓는다. 또한 술잔 세 개를 안반 옆에 놓는다. 만신은 장구반주에 맞추어 축원하고, 축원이 끝나면 떡을 뒤집었다 하면서 굿이 잘되는지 점을 쳐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공수를 준다.

다음날이 되면 마련된 굿청에서 신청울림 · 주당물림, 산천거리, 초감흥거리, 영정물림, 칠성 · 제석거리, 성주굿, 장군거리, 소대감거리, 사냥거리, 타살 · 군웅거리, 대감거리, 말명거리, 서낭거리, 조상거리, 하지굿, 마당거리 순으로 굿이 이어진다. 여기서 중심은 하지굿으로, 앞의 굿거리는 보통의 재수굿과 같이 하지만 하지굿에서는 부모의 모의 장례의식이 행해진다.

하지굿을 행할 순서가 되면 굿청의 굿상 앞에 잔칫상을 마련해 놓고 종이 · 대소쿠리 · 나뭇가지 등을 이용하여 만들어 놓은 조형물인 태산지옥, 불탄지옥, 칼산지옥, 가시지옥, 수리지옥을 왼쪽 앞으로 나란히 놓아둔다. 그리고 그 끝에 잔칫상과 마주보는 위치에 무덤[假墓]을 만들어 놓는다.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먼저 회갑 때의 잔칫상과 같이 음식을 층층이 쌓아올려 가득하게 차려 놓은 상 앞에 부모를 앉혀 놓고 장남과 며느리, 기타 가족들 순으로 술을 올리고 절을 한다. 부모는 잔을 받아서 입에 대는 시늉을 하고 퇴주그릇에 붓는다. 이렇게 한 후 한바탕 춤과 노래를 하면서 논다. 여기까지는 일반 회갑잔치와 비슷하다. 이어서 부모는 수의를 입히고 머리에는 술을 늘어뜨린 종이 모자(죽은 사람에게 씌우는 족두리를 상징)를 씌우고 잔칫상 앞에 앉혀 놓는다. 무당일행과 가족들은 도령을 돌듯이 그 둘레를 돌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읊으며 염불소리를 한다. 이때 가족들은 수시로 잔칫상 앞에 돈을 내놓는다. 이 돈은 상례 때와 같이 망자를 위한 노잣돈이다. 이어서 부모의 저승길을 천도해 주는 베가름을 한다. 베가름할 때는 망자를 위한 시왕베와 저승사자에게 바치는 사자베를 함께 가른다. 공연 형식

으로 할 때는 마당에서 무당 3명이 나란히 서서 베를 가른다. 시왕베는 한 사람, 사자베는 두 사람이 각각 가른다. 베를 가르는 형식은 황해도 진오귀굿의 경우와 같으며, 베를 가르는 동안에 가족들은 향로를 들고 베의 위·아래를 번갈아가며 돌리면서 천도를 빈다. 이때 사용하는 베는 과거와 같이 가정에서 만든 것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근래에는 불교상회에서 구입한다. 시왕베는 소창, 사자베는 공장에서 만든 삼베를 각각 사용한다. 베가름을 한 후 베는 무당이 거머쥐고 각 지옥 앞으로 가서 휘두르 지옥을 넘기는 행위를 하고 무덤 옆에 던져 놓는다.

이어서 부모를 보교에 태우고 모의 출상행위를 행한다. 출상하는 순서는 맨 앞에서 만장을 들고 가면 다음에 등을 든 사람이 따르고, 이어서 보교가 가고 그 뒤를 가족 일행이 따른다. 일행은 마당을 한 바퀴 돌고 지옥 앞으로 간다. 각 지옥 앞에 보교를 멈추면 가족들은 보교 반대편에서 지옥을 향해 노잣돈과 술잔 및 안주삼아 포를 올리고 절을 한다. 이렇게 차례차례로 지옥을 지나 무덤 앞에 가면 부모는 수의를 벗어 무덤에 던지고 가족들은 부모께 술을 올리며 절을 한 뒤 장남이 부모를 업고 춤을 추며 잔칫상으로 온다. 이렇게 돌아오면 다시 한바탕 잔치판이 벌어진다. 이때부터는 굿의 형식을 빌려 친척과 온 동네사람들이 모여 축제판이 된다. 형식만 굿일 뿐 환갑이나 고희연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황해도굿의 무속지적 연구(김덕묵,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9).
필자 김덕묵(金德黙)

하직굿

정의 제주 지역에서 무업을 하던 심방이 나이가 들어 무업을 그만두기 위하여 신에게 고하는 굿. 하직굿을 달리 '하직제'라고도 한다. 하직굿의 하직은 한자어 '하직(下直)'에서 비롯된 말이다.

내용 하심방집굿을 신굿이라고 한다. 심방은 무업을 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신굿을 해야 한다. 입무에서부터 일정한 단계에 올라설 때마다 벌이는 굿을 신질 발루는 굿이라고 한다. 신질 발룬다라고 하는 것은 신을 모시는 길을 바르게 한다는 뜻이다. 공식적으로는 세 차례 신질 발루는 굿을 한다. 이를 초신질, 이신질, 삼신질이라고 한다. 심방은 이러한 과정을 거칠 때마다 하신충, 중신충, 상신충의 지위를 얻게 된다. 상신충이 되면 심방으로서는 최고의 경지에 이른 것으로 공인받는 셈이다. 이 밖에 무업을 잘할 수 있게 해준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굿을 하는 경우에는 역가(役價) 바치는 굿이라고 한다. 이를 초역례, 이역례, 대역례 등으로 지칭한다.

하직굿도 신굿의 일종이다. 그러나 하직굿은 일반적인 신굿과 의미가 다르다. 이제 무업을 그만두겠다는 의미의 굿이다. 그러므로 하직굿에서는 멩두를 물려주는 의례가 따른다. 그리고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일반적인 신굿은 선배 심방이 수심방을 맡아서 굿을 이끌어가지만 하직굿은 후배 심방이 수심방으로 나서서 이끌어가는 것이 보통이다. 이밖의 나머지 사항은 일반적인 신굿과 크게 다름이 없다. 멩두를 물려받는 심방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참여하였다가 멩두, 당주ᄃᆞ리, 당베절베 등을 가지고 간다.

따로 하직굿을 하지 않고 끝까지 무업을 계속하다가 사망하면 귀양풀이를 하면서 하직을 하는 수도 있다. 심방이 당주를 모시고 무업을 계속하다가 죽음에 이르면 장사를 지내고 귀양풀이를 하게 된다. 장지로 떠날 때 다른 심방이 당주에 가서 대양을 치며 하직 인사를 고한다. 장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귀양풀이를 하면서 당주를 물릴 자손이 없을 경우에는 당주를 걷어내는 의례를 한다. 그리고 그 멩두와 무구 일체를 어찌할 것이라고 고하고 그대로 처리한다.

한편 당주에 맡겼던 아기를 내어갈 때 당주에 고하는 의례도 하직굿이라고 하기도 한다. 아이가 15세가 되면 성인이 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당주에 맡겨둘 필요가 없다. 당주에 하직을 하고 부모가 데려간다. 하직굿은 별도의 의례가 아니라 당주제를 할 때 곁들여 벌이는 의례이다. 당주 앞에 아이를 앉혀 놓고 심방은 그간의 연유를 고하고 다시 데려가겠다는 말명을 한다.

요즘에는 하직굿을 보기가 어렵다. 하직굿을 하더라도 일반적인 신굿과 전혀 다름이 없을 정도로 그 성격이 온전하게 반영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나마 〈공시풀이〉를 할 때 그 내력을 상세히 고하여 올리는 것이 전부인 듯하다. 하직굿은 입무를 위한 신굿에 대응되는 의례라는 것이 특징으로, 멩두의 행로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가치가 있는 의례이다.

참고문헌 제주도민속 : 세시풍속(진성기, 제주민속연구소, 1997).
필자 강정식(姜晶植)

하진순

분야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38호 호남넋건지기굿 보유자.

내용 호남넋건지기굿 보유자 하진순(여)은 1948년 전북 남원읍 신정리에서 하관계와 모친 이이순 사이에서 3남 6녀 중 셋째 딸로 태어났다. 1962년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를 따라 진안으로 이주하여 살다가 16살 때 군산으로 이주하였다. 어려서부터 원인모를 병을 앓았는데 21살 되던 해 바느질을 하다가 신이 들려 법사였던 아버지의 권유로 전북 완주 출신의 양영자 무녀로부터 내림굿을 받아 무녀가 되었다. 23세 되던 해인 1972년, 대전 중앙시장 대형화재를 예언하여 그의 영험함이 알려졌다. 하진순은 조상해원경의 대가 김원식 법사와 넋건지기굿에 유명했던 양영자 무녀에게 호남정통 무속의례를 전수받았다. 이후 조상해원경과 넋건지기굿에 능했던 박복선 법사와 넋건지기굿의 대가 고동심 무녀에게서도 학습하였다. 한편, 하진순의 부친 하관계는 호남일대에서 이름 석자를 널리 떨쳤던 세습 법사로서 신장굿의 대가였으며 그녀의 쌍둥이 삼춘도 유명 법사로 활동하였다. 따라서 하진순은 어려서부터 무속집안 영향으로 인해 굿판의 이것저것을 눈으로 익혔으며 특히 아버지의 굿소리를 많이 익혔다. 1999년부터 호남넋풀이굿보존회를 조직하여 전통 호남굿을 전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2007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한편, 호남 지역의 굿은 크게 두 부류 집단에 의해 전승되어 왔다. 하나는 무속 집안의 혈통에 의해 대물림 되어온 당골집단이다. 이 집단의 구성은 친인척 혈연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며, 남자들은 바라지(악사)를 맡고 여자들은 선거리 굿을 하게 된다. 이처럼 세습에 의한 당골집단은 의례에만 전념하기 때문에 강신적 영험력이나 미래 예언은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들의 무업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힘을 갖고 있는 점쟁이 집단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례만을 전담하는 당골들과 점만을 담당하는 점쟁이들은 각자의 기능을 갖고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무업을 이어왔던 것이다. 당골·점쟁이 집단과는 달리, 호남 지역의 또 다른 무속 집단은 법사·무녀집단이다. 법사는 세습적으로 집안 혈연에 의한 남자들로 대물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여자는 강신이 되어야 무녀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이들도 주로 법사 집안의 자녀들이 많다. 의례 역할분담에서는 남자가 독경을 하고 여자가 선거리 굿을 하는데 독경을 하는 남자 법사가 악사 역할을 겸하게 된다. 강신된 무녀는 영적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굿을 하면서 신의 뜻을 말하는 공수와 같은 화답을 하게 되며 평상시에는 점을 보게 된다. 전라북도가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넋건지기굿'은 법사무녀 집단으로 전승되어온 것이다.

하진순 무녀에 의해 행해지는 호남 넋건지기굿은 안택과 넋건지기 그리고 넋맞이 등 3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그 제차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택** : 굿 의뢰자인 망자 가족의 집을 영가(靈駕)집이라고 하는데 안택굿은 영가집에 이루어진다. 1) 부정경-법사가 안방에서 모든 부정을 가시라고 경을 읽고 나면 무녀가 부정상을 들고 곳곳을 돌며 부정을 가신다. 2) 조왕경-법사가 부엌에서 조왕경을 읽는다. 무녀가 선거리로 조왕고를 푼다. 3) 당산경-당산상을 차려놓고 법사가 경문을 한다. 무녀가 선거리로 당산고를 푼다. 4) 성주알림-법사가 집을 지키는 성주신에게 굿을 하게

됨을 알리는 성주경을 읊는다.

2. 넋건지기 : 망자가 빠져죽은 바닷가에 임시 포장을 쳐서 굿청을 마련한다. 굿청 옆에 높다란 깃대를 꽂고 여기에 기다란 천을 늘여뜨려 바다(또는 강)와 육지가 연결되도록 만든다. 1) 보신경–수중고혼의 영가가 나올 때 신장들이 보호해 달라고 축원하는 경문이다. 2) 부정경–물에 빠져죽은 망자를 육지로 건져 올려내기 위해 주의의 공간을 정화시킨다. 3) 신명축원–법사가 경을 읽고 나면 무녀가 춤을 추면서 고풀이를 한다. 무녀는 굿을 진행하면서 중간 중간 법사와 화답을 한다. 그리고 천신축원, 칠성축원, 산신축원, 용궁축원, 지신축원, 신장축원 등을 한다. 4) 넋건지기–쌀을 놋그릇에 가득히 담는다. 영가가 남자일 경우에는 '삼혼칠백(三魂七魄)'이라 쓰고 영가가 여자일 경우에는 삼혼구백(三魂九魄)이라 써서 종이 위패를 만들어 쌀 속에 넣는다. 뚜껑을 닫고 반죽된 밀가루를 그릇과 뚜껑 사이에 붙여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놋밥그릇을 소지종이로 감싸는데 영가가 남자일 경우에는 일곱 번을, 여자일 경우에는 아홉 번을 싼다. 무명 한 필을 길게 늘여뜨려 끝부분에 주머니처럼 둥그렇게 묶은 후, 그 속에 밥그릇을 넣고 무게가 나가도록 돌을 매달고 넋이 건져질 수 있도록 조리를 함께 매단다. 길게 늘여뜨린 무명을 물 속으로 멀리 던진다. 이때에 영가가 남자일 경우에는 암탉을, 여자일 경우에는 수탉을 물에 함께 던져 넋을 건져내는 대신으로 닭으로 하여금 대수대명(代數代命)이 되도록 한다. 법사가 영가 이름을 부르면서 넋이 건져지기를 애원하면서 경을 읊는다. 무녀는 쌀말에 꽂아둔 넋대를 내려서 잡고 영가가 건져지기를 축원하면서 춤을 춘다. 이때 무녀가 화답을 하면서 무명으로 용왕고를 푼다. 영가 가족들이 무명줄을 잡아당기며 영가가 빨리 나와 함께 집으로 가기를 애원하면서 영가의 이름을 부른다. 이때 무녀가 무명 줄을 잡고 흔들며 영가 넋이 건져지기를 애원한다. 줄을 잡아당기어 밥그릇 뚜껑을 열어 영가 머리카락이 있으면 넋이 건져졌다고 믿는다. 가족들 중 영가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하여금 밥그릇을 들게 하고 집으로 간다. 무녀가 용떡, 북어, 미역 등을 이고 춤을 추다가 바다로 던져 용궁님을 먹여



하진순
전북 군산시 | 2008 | 양종승

놀린다. 5) 사자달램–망자를 저승길로 데려갈 사자를 놀린 후, 사자상에 차려 놓은 된장, 고춧가루, 소금을 주위에 뿌린다. 짚신은 태우고 북어는 바다에 던져 용왕을 달랜다.

3. 넋맞이 : 영가집 마당 한 가운데 덕석을 깔고 넋맞이상을 차려놓는다. 그 옆에다 바다에서 모셔온 영가를 모셔 놓는다. 1) 조왕경–부엌을 관장하는 조왕을 위한 경문을 읊는다. 2) 당산경–당산(장광)을 지키는 당산신을 위한 경문을 읊는다. 3) 성주경–방안에 성주상을 차려 놓고 상 위에 대주 밥그릇에 쌀을 담아 촛불을 켜서 올린다. 법사가 성주경을 읊으면 무녀가 선거리로 성주고를 푼다. 4) 성주대잡기–무녀가 성주대를 잡아서 성주가 뜨면(또는 내리면) 성주가 계시는 곳(대문 밖이나 집안의 특정한 공간)으로 가서 성주를 모시고 집안으로 들어온다. 성주를 집안으로 모시고 오기 전에 바깥 이곳저곳을 들른다. 그리고 성주화답을 한다. 5) 삼신경–법사가 안방에서 삼신경을 독송하여 자손들에게 축원덕담을 한다. 무녀가 삼신 바가지에 쌀과 실을 넣어 잡고서 삼신을 점지할 곳을 정하여 모신다. 자손이 귀한 집은 삼신을 모실 때 고추와 호두를 넣는다. 6) 씻끔–쌀이 담긴 동이(질그릇)에 영가혼백(영가 위패)이 담긴 밥그릇을 쌀 위에 놓고 솥뚜껑을 덮는다. 한편에서는 종이에 물을 들여 만든 영가옷(옷, 속옷, 양말, 신발) 한 벌을 돗자리에 말아 왼쪽으로 꼬아 놓은 새끼줄로 일곱 번 묶는다. 이것을 담은 동이에 세우고 윗부분은 창호지로 고깔을 만들어 씌운다. 동이에 쌀을 담고 그 위에 쌀을 담은 밥그릇에 촛불을 켜 얹어놓는다. 질그릇으로 만든 시루 밑 구멍 가운데 중앙 구멍으로 넣어 실 끝 부분을 놋수저에 감아 시루위에 놓는다. 무녀가 쑥물로 씻는 듯이 향물로 닦는 듯이 진옷벗고 마른옷으로 갈아입고 좋은 곳으로 가기를 축원하면서 화답을 하며 솥뚜껑 위에 밀가루 뿌린다. 이때 영가 가족 친지들이 주의를 돌며 솥뚜껑을 쑥물과 향물로 닦아 내면서 놋수저에 실을 감아준다. 이렇게 하여 무녀가 영가를 씻기고 나서 열두 고를 풀어 영가를 방에 모셔놓는다. 7) 넋올림 - 하얀 한지에 사람 문양을 오려 넋종이를 만든다. 넋종이를 '영[靈]' 또는 '영 발'이라고도 부른다. 망자 가족들을 차례로 앉게 하고 머리 위에 넋종이를 올려 놓고 무녀가 소리를 하면서 지전으로 넋종이를 끌어올린다. 이때 지전을 겉 영(연)이라고 하고 지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넋종이(영)를 속 영(연)이라고 부른다. 넋종이가 잘 따라 올라오면 망자가 좋은 곳으로 갈 것이라고 믿고 그렇지 못하면 망자의 원한이 남아 있다고 믿는다. 8) 조상해원경–조상상을 차려놓고 미리 준비해 둔 영가옷을 말아 놓은 돗자리를 갖추어 놓는다. 법사가 조상해원경을 독송하고 무녀는 조상의 맺힌 한을 푸는 조상고를 푼다. 이때 영가가 무녀의 몸에 실리면 영가 가족 친지들에게 울면서 화답하면서 동시에 영가 생전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가족 친지들의 재앙도 걷어가고 아픔도 낫게 해준다는 내용으로 화답을 한다. 9) 길닦음–대소쿠리에 영가옷을 담고(또는 상 위에 옷을 놓고) 길을 갈라 나간다. 이때 벼슬을 하였던 영가는 흰가마(흰등)를 연등처럼 만들어서 영가 위패를 가마 속에 넣고 길을 갈라 나간다. 그러나 일반적인 영가들은 옷을 대소쿠리에 넣거나 상 위에 올려놓고 길을 갈라 나간다. 이때 무녀의 몸에 영가가 실려 사설을 한다. 10) 넋보냄–무명을 길게 늘어뜨려 넋을 좋은 곳으로 보낸다. 11) 내전–법사가 내전경을 읊어서 밖에서 나도는 잡귀잡신들을 먹여 보낸다. 12) 사자풀이–법사는 사자풀이를 하고 무녀는 짚신 세 켤레와 북어 세 마리 동전 세 개를 가지고 삼사자고를 푼다. 무녀가 신장칼(또는 부엌칼)로 집 안을 다 둘러 다니면서 모든 사자를 쳐낸다. 그리고 영가의 좋은 곳으로 가기를 기원하는 뜻으로 영가가 소지하였던 일체의 물건을 불에 태운다. 그리고 무녀가 '원앙생'이라고 불러준다. 물건이 탈 때 냄새가 나지 않으면 영가가 좋은 곳으로 간 것이라고 믿고, 타는 냄새가 나면 영가가 좋은 곳으로 가지 못했다고 믿는다. 13) 문간굿–대감, 지신대감, 숨은신장대감 등이 굿을 잘 받았는지 알아 보기 위해 법사가 경문을 읊고 무녀가 선거리 굿을 하여 화답을 한다. 14) 안심경–모든 굿을 끝내고 신령들과 영가집 터신을 안정시키기 위한 경문을 읊는다.

참고문헌 전북 무형문화재 호남 넋건지기굿 지정조사보고서(양종승, 전라북도, 2007 전라북도), 호남 넋건지기굿 [민속소식] (양종승, 국립민속박물관, 2007).

필자 양종승(梁鍾承)

한칠동

분야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6호 독경(앉은굿) 보유자.

내용 한칠동(韓七童, 남) 법사는 1939년에 전라북도 정읍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경 읽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10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당대에 유명한 정충기, 김진철, 김영선, 김완철, 김칠용 등 고노의 법사들로부터 전통독경을 학습하였다. 소리에 고저를 넣어 애절하게 구성진 목소리를 쓰는 창법인 〈화초경〉과 귀신을 가두어서 재판하는 내용으로 유명한 신장잽이, 동편소리제로 유명한 칠성풀이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였다. 화초경은 호남 지역 독경의 맛을 내기 위한 필수적인 창법이며, 신장잽이는 독경 중에서 가장 힘들다는 무경이다. 칠성풀이는 최고 경지에 든 법사들만이 하는 독경으로 꽤나 긴 시간이 소요된다. 한칠동의 독경이 예술성을 인정받아 2001년 6월 15일에 최갑선에 이어 2004년 9월 10일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6호 독경(앉은굿)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참고문헌 전북의 독경–칠성풀이 사설 자료(양종승, 한국무속학 12, 한국무속학회, 2006).

필자 안상경(安相敬)

할망상

정의 산신인 삼승할망을 위하여 차린 상.

내용 산신에게 아이가 무탈하게 자라게 해 달라고 기원하거나 그간의 보호에 감사를 올린다. 삼승할망은 아이의 출산과 산육을 관장하는 신이다. 할망상은 굿을 할 때 안방의 궤 위에 차려 올리는 경우와 아기를 낳은 지 3일, 7일 등에 차려 올리는 경우가 있다. 3일은 나중에 각도비념이라는 제차에서 할망비념을 한 뒤에 철변한다. 이 경우에는 메와 생선, 채소, 과일 등과 함께 할망송낙, 소지, 명실 등을 함께 올린다. 기주가 건 인정은 다시 돌려 준다. 그리고 차려 올렸던 제물도 기주에게 준다. 7일은 아이를 순산하게 하고 건강하게 키워주는 데 대하여 감사의 의미에서 차리는 것으로 아기가 눕는 방에 차린다. 할망상에는 메 3그릇, 찬물, 미역 채소 등 세 접시와 쌀 · 명실을 함께 올린다.

이때 할망상에 차려 올리는 메를 흔히 '치셋메'라고 한다. 치사(致謝)하는 의미로 올리는 메라는 뜻이다. 사흘메, 일뤳메라고 구분하여 칭하기도 한다. 메가 세 그릇인 이유는 삼승할망, 구삼승할망, 업게삼승 등에게 각기 바치기 위함이라고 한다. 메에는 엄지 길이 정도로 잘라낸 띠를 둘씩 세 곳에 꽂는다. 이를 '무남제'라고 한다. 사흘메를 차릴 때는 아이를 낳은 지 3일 되는 날 아침에 아이 머리맡에 산모의 치마를 깔고 그 위에 상을 놓는다. 이때 차린 제물은 내려 산모에게 음복하도록 한다. 특히 메는 적어도 세 숟가락은 먹어야 하는 것으로 믿는다. 찬물은 댓돌 아래쪽으로 살짝 비운다. 아이가 귀하거나 조금 까다로운 때는 일뤳메도 차린다. 역시 속치마를 깔고 상을 차리되 상 위에 백지를 깔고 메, 찬물, 쌀, 명실, 돈, 소지 등을 올린다.

점차 아이가 무탈하게 자라는 경우에는 생략하는 경향이 늘어서 아기가 탈이 생겼을 때나 할망상을 차려 기원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때는 특별히 삼승할망이라고 하는 빌어 주는 이를 청하여 비념을 한다. 삼승할망은 본격적인 굿은 하지 못하고 간단한 아기비념만을 주로 하는 무속인을 말한다. 아이가 건강하지 못하고 자꾸 앓아 9살이 될 때까지도 매달 할망상을 차렸다고 하는 사례도 있다.

할망상과 관련한 의례는 출산과 산육의 어려움이 그대로 반영된 것들로 옛 사람들이 아이의 산육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다. 이 의례는 출산과 산육에 따른 어려움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잊혀지고 있다.

할망상과 관련되는 의례는 많다. 태의 처리를 비롯한 산후속, 구삼승할망, 마누라배송 등의 의례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참고문헌 제주도무속연구(현용준, 집문당, 1986).
필자 강정식(姜晶植)

할미가면

정의 동해안 지역의 무속적 마을굿인 동해안별신굿에서 탈굿을 연행할 때 사용되는 종이가면. 할미탈이라고도 부르는데 탈굿 속에서 할미 역할을 맡는 화랭이가 쓴다. 본능적이며 축제화된 할미를 형상화하는데 할미가면은 중요한 기능을 지닌다.

형태 할미가면은 두꺼운 마분지로 만든다. 동해안별신굿을 연행 전승하고 있는 화랭이 김장길의 할미가면 제작 과정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마분지를 정중앙으로 접고 얼굴 윤곽선을 따라 잘라낸다. 이마 부분에서 90도로 접은 후 눈을 오려낸다. 귀 윗부분부터 반대쪽 아랫부분까지 사선으로 종이를 접어 코의 각도가 좌측 15도가 되도록 자른다. 턱 부분을 사선으로 접어 입이 삐뚤어지도록 자른다. 가위로 턱 중앙과 이마를 일자로 가른다. 검은색 매직을 사용하여 윗눈썹을 초승달 모양으로 그리고 눈과 입의 윤곽을 그린다. 눈 주위는 진하게 칠해준다. 붉은색 매직을 사용하여 입술을 칠한다. 귀의 모양은 검은색 모양을 사용하여, 3자 형태를 세 번 그려 완성한 다음 코를 붙인다. 검은색 매직을 사용하여 양쪽 볼에 원을 두 줄로 그려 곰보 모양과 우는 모습을 그린다. 붉은색 매직을 사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한 번 더 그린다. 송곳을 이용하여 양귀에 각각 두 개의 구멍을 뚫는다. 끈을 구멍에 끼워 연결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할미가면은 흰색 마분지에 붉은 입술과 눈썹과 귀 등이 그려진 형태이다. 눈은 뚫려있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다. 눈초리가 밑으로 처지고 입이 비뚤어져 있다. 얼굴에는 검은색과 붉은색 반점이 많다. 가면 제작자에 따라 검은색과 붉은색에 파랑색 반점을 덧붙여 표현하기도 한다. 코를 오똑하게 붙여 만드는 경우도 있고 뭉툭하게 붙이는 경우도 있다. 할미가면은 연행이 끝난 후 태우기 때문에, 연행을 할 때마다 매번 만들어서 사용한다. 연행자인 화랭이들이 가면을 만드는데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별신굿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다. 항상 새롭게 만들기 때문에 그 크기가 동일하지 않지만 대략 가로 25㎝ 내외, 세로 23㎝ 내외로 만들어지는 경우와 이보다는 좀 크게 가로 26㎝ 내외, 세로 34㎝ 내외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

내용 동해안별신굿의 한 굿거리인 탈굿에서 할미 역할을 맡은 화랭이가 쓰고 등장하는 것이 할미가면이다. 무속적 마을별신굿이 행해지는 동해안 지역에서도 주로 영덕 일대를 중심으로 20여개 마을에서 탈굿 연행이 벌어진다. 탈굿 내용은 가면극의 할미마당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탈굿만의 독특한 결말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서울애기의 등장과 관중 유혹, 싹불이의 등장과 서울애기 유혹 실패, 영감의 등장과 서울애기 유혹, 영감의 자기소개, 할미의 등장과 신세한탄, 영감의 쓰러짐, 영감의 소생, 연행자들의 인사와 뒷마무리 등의 순서로 전개된다. 연행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 전개 양상을 보이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다. 서울애기와 눈이 맞아 집을 나간 영감과 이를 찾아다니는 할미, 그리고 등장인물 모두가 직접 맞닥뜨려진 상황에서 벌어진 영감의 졸도와 소생이라는 기둥 줄거리는 거의 유사하다.

이러한 내용의 탈굿에서 화랭이가 할미가면을 쓰고 할미 역할을 한다. 할미는 절뚝이는 걸음으로 소란스럽게 등장하는데, 등장 양상 자체가 관중의 웃음거리가 된다. 가면을 통해 드러난 할미의 외양은 박색(薄色)이며 허름한 옷차림에 속옷은 물론 속살까지 드러내는 늙은 여자의 모습이다. 그녀는 동해안탈굿의 등장인물 중 가장 말이 많은 수다스러운 여자이다. 그 움직임은 야단스럽고 적극적이며 상대를 의식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동해안 탈굿의 핵심적 인물이 할미라고 할 수 있다. 할미는 동해안탈굿 전체를 이끌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연행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공공연한 신체노출, 공공연하게 보여주는 이 잡기와 오줌 싸기, 노골적인 성행위의 공개와 그 느낌의 공유, 아들 싹불이와의 근친상간적 상상과 대화, 쓰러진 영감에 대한 모독적인 말과 행동 등 파격과 일탈적 상황 역시 거의 모두 할미가 주체가 되어 이루어진다.

참고문헌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무구(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동해안 탈굿의 변화양상과 축제성(김신효,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동해안탈굿의 여성과 욕망(허용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6,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무속탈의 제작법과 문화 체험에의 활용 방안(최성진, 지역민속학, 지역민속학회, 2009).
필자 허용호(許龍鎬)

함경도굿 무복

정의 함경도 지역의 무당이 굿을 할 때 착용하는 의복.

내용 함경도 무당은 신병에 걸린 사람이 내림굿을 받고 무업을 하는 강신무로, 여자뿐 아니라 남자도 무당이 된다. 굿거리마다 다양한 의복을 착용하기보다 여자 무당은 치마와 저고리, 남자 무당은 소매가 넓은 포를 기본으로 하는 평상복을 입고 진행하므로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다. 함경도 무속은 지역적으로 남도와 북도로 구분된다. 함경남도에서는 주로 강신무를 중심으로 하는 굿이 성행했으며, 함경북도에서는 여자 무당보다 남자 무당에 의한 독경(讀經)과 점복(占卜)을 통한 무속신앙이 더욱 발달하였다.

함경도의 굿은 병을 치료하기 위한 병굿, 집안의 평안과 번창을 기원하는 재수굿, 죽은 사람의 넋을 위로하며 극락왕생을 바라는 망묵굿으로 크

게 구분된다. 특히 함경도 지역의 대표적인 굿이라 할 수 있는 망묵굿은 망묵이굿 또는 새남굿이라고도 한다. 망묵굿은 모두 스물두 거리로 구성되어 있는 대규모 의례로, 3일 밤낮으로 여러 무당이 동원되어 진행된다. 특히 함경도에서는 여자 무당을 호시미 · 호세미, 남자 무당을 호시아비 · 호세아비라 각각 부른다. 여자뿐 아니라 남자도 무당으로서 무복을 입고 가무(歌舞)를 하며, 무가(巫歌)를 구연한다.

망묵굿의 굿거리 중에서 망자의 저승길이 평탄하기를 기원하는 화청은 불교에서 유래된 제차로, 무당은 흰색 장삼을 입고 머리에 흰색 고깔을 쓴다. 목에 염주를 걸고 바라를 치며 무가를 부른다. 또한 열아홉 번째 거리인 상시관놀이에서 주무는 흰색 장삼을 입고 머리에 고깔을 쓰고 무가 없이 춤을 춘다.

호세미는 강신무지만 평안도 · 황해도 · 서울 지역의 강신무들과 달리 무복을 바꿔 입지 않고 노란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고, 그 위에 남색 전복(戰服)을 걸쳐 입는다. 머리에는 흰색 고깔을 쓰고 굿을 진행하는 내내 이 복장을 한다. 강신무이지만 여느 지역과는 달리 거리나 역할에 따라 무복을 갈아입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호세아비는 소매가 넓은 홍색의 포(袍)를 입는다. 가슴에는 청색 띠를 둘러 늘어뜨린다. 머리에는 갓을 쓰며, 노래와 춤을 추면서 굿을 진행한다.

함경도굿에서는 여느 지역의 무당과 다르게 청룡도 · 삼지창 · 방울 등 다양한 무구를 사용하지 않으며, 전립이나 투구 및 다채로운 색의 다양한 무복을 굿거리마다 갈아입지 않는다. 무복은 강신무당에게 있어 거리마다 신을 대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함경도 지역의 굿거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서사무가가 많은 지역으로 비교적 경건한 분위기의 굿이 진행되면서 연희적인 여느 지역의 무속과 달라 무복에서도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함경도 무속은 6 · 25 한국전쟁 이후 남과 북의 교류 단절과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현재 실상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전쟁 이후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온 함경도 출신 주민과 무당들을 통해 일부 알려지기는 했으나 현재는 전승마저 단절된 상태로 정확한 무복의 종류와 형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앞으로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함경남북도(국립문화재연구소, 1981), 한국의 굿 8–함경도망묵굿(임석재, 열화당, 1985), 조선무속의 연구–下(赤松智城 · 秋葉隆, 동문선, 1991), 함경도의 민속(전경욱,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한국민속의 세계 9(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필자 김영재(金永才)

함경도 무속음악

정의 함경도 지역에서 전승되는 무속음악. 그러나 함경도의 무속음악이 알려진 것은 북청을 중심으로 하는 함경도 서남부 지역 무속음악뿐이고, 다른 지역의 무속음악 자료는 알려진 게 없어 불확실하다. 함경도 무가의 선율은 메나리토리가 주가 되고, 무의식 음악에 쓰이는 악기는 장구 · 징 · 바라 등이다. 무속음악 장단에는 장구 · 절장구 등이 있으며, 소박이 2집합과 3집합으로 혼합되는 장단이 많다는 점에서 강원도 · 경상도의 동해안굿과 유사하다.

내용 함경도 무가의 주선율 토리는 메나리토리이다. 이 점은 강원도, 경상도 지역의 무가 특성과 유사하다. 메나리토리 선율들의 구성음은 Mi, Sol, La, do, re이며 주요 음이 Mi, La, do로 4도+단3도 구조로 되어 있다. 종지음은 Mi나 La로 나타난다. 시김새는 Mi에서 떠는 목(요성)을 쓰며, re에서 do로 흘러내리는 목(퇴성)을 쓴다.

함경도 무의식 음악에는 장구, 징, 바라 등이 주로 쓰인다. 본토의 함경도굿 장구는 알 수 없으나 현재 쓰는 것은 서울굿의 여느 장구와 같다. 오른손에는 열채, 왼손에는 방망이를 각각 쥐고 친다. 열채는 변죽을 치기도 하고 복판을 치기도 한다.

함경도굿의 장단은 호세미가 '무슨 무슨 장기'라는 형태로 이른다. 장단에는 청배장기, 상애짓기장기, 전채질장기, 드러치기장기, 도속잡기장기, 예주게장기 등이 있다. 이 장단들은 대부분 소박이 2소박과 3집합이 혼합집합되는 박자가 많다는 점에서 동해안굿의 장단과 유사하다.

1. **청배장기(청배장단)** : 함경도 무의식에서 무가의 반주로 쓰이는 장단. 청배장기라는 말은 무의식에서 청배 절차, 즉 신을 청하는 절차에서 불리는 장단이라는 뜻이다. 장기는 장구라는 함경도 사투리이다. 함경도 청배장기의 장단 주기는 2소박 8박이다. 장구 반주는 '덩덩덩덩…' 하고 소박을 지속적으로 친다. 집굿인 간지풀이 또는 넋굿인 망묵의 첫째 거리인 청배와 둘째 거리인 토색굿의 청신 절차에서 연주된다.
2. **상애짓기장기** : 함경도 무의식에서 무무(巫舞)의 반주로 쓰이는 장단. 신선굿, 대감굿과 같은 거리의 청신 절차에 쓰인다. '상애 짓는다'는 신을 청한다는 뜻으로 풀이되며, '상애 짓는 장기'는 신을 청하는 장단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3. **전채질장기** : 함경도 무의식에서 무무의 반주로 쓰이는 장단. 상애짓기를 하고 나서 전채질로 치는 장단이다. 소박이 혼합된 장단이다.
4. **도속잡기(도솔잡기)장기** : 함경도 무의식에서 무무의 반주로 쓰이는 장단. 상애 짓고 도속잡을 때 치는 장단이다. 소박이 혼합된 장단이다.
5. **들어치는장기** : 함경도 무의식에서 무무의 반주로 쓰이는 장단. 상애 짓고 도속 잡고 들어 치며 치는 장단이다. 소박이 혼합된 장단이다.
6. **예주게장기(여주끼 장기)** : 함경도 무의식에서 무무의 반주로 쓰이는 장단. 조상굿, 대감굿에서 호세미가 춤을 출 때 쓰는 반주 장단이다. 조금 느린 3소박 4박자로, 느린 굿거리장단에 맞는다.
7. **천수(왕당천수)장기** : 함경도 무의식에서 무무의 반주로 쓰이는 장단. 2소박과 3소박이 2 · 3 · 2 · 3 · 2 · 3 · 2 · 3으로 혼합된 8박자이다. 함경도 망묵의 왕당천수고리에서 쓰이는 것이 천수장기이다. 왕당천수거리에서 천수장기는 천수경을 낭송할 때 반주되는 천수장기와 무가를 부를 때의 천수장기가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천수장기는 무가의 반주로 연주되는 장단을 말한다.
8. **열락장기(화청장기)** : 함경도 무의식에서 무무의 반주로 쓰이는 장단. 함경도 넋굿인 왕당천수에서 화청 백발가를 부를 때의 장단이다. 서울 화청 장단과 같이 2소박과 3소박이 혼합된 장단이다.
9. **정적기장기(덩덕궁이장단)** : 함경도 무의식에서 쓰이는 무무 장단. 정적기장기는 '덩덕궁이장구', 장구는 '장단'이라는 뜻이다. 덩덕궁이장단과 같이 3소박 4박이다. 정적기장기는 함경도 무의식 망묵의 문열이천수에서 바라춤, 왕당천수에서 바라춤, 오랑축원에서 쾌자춤의 반주 장단으로 쓰인다.
10. **앉은굿장기** : 함경도 무의식에서 무무의 반주로 쓰이는 장단. 함경도 넋굿인 망묵의 동갑접기 거리에서 불리는 무가의 반주 장단이다. 앉아서 무가를 부르며 손수 장단을 치는 장단이라는 뜻으로 '앉은굿 장기'라 이른다. 3소박과 2소박이 혼합된 8박이다.
11. **대내리는장기** : 함경도 무의식에서 무무의 반주로 쓰이는 장단. 글자 그대로 망자의 혼을 대에 내릴 때 치는 장단이다.
12. **불림장기** : 함경도 무의식에서 무무의 반주로 쓰이는 장단.
13. **논놀이장기** : 함경도 무의식에서 무무의 반주로 쓰이는 장단. 도량춤을 출 때 치는 장단이다.

필자 이보형(李輔亨)

해미광대탈

정의 남해안별신굿에서 연행되는 굿탈놀이의 핵심 등장인물인 해미광대가 쓰는 탈.

내용 해미는 할머니의 사투리인 할미의 변형이다. 남해안별신굿의 굿탈놀이는 굿을 연행하는 가운데 연극적 연행도 함께 병행하여 굿의 연행적 요소를 배가시킨다. 할미광대역 요소를 담고 있는 굿탈놀이에는 중광대놀이, 해미(할미)광대놀이, 판놀음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금역대 다음에 연희된다. 또한, 산이(연희자)가 혼자서 하는 1인 인형극인 비비각시 · 적덕이놀이는 시왕탄일 다음에 연희된다. 진행 과정은 중광대탈놀이가 연희되고 나서 해미광대가 연희된다. 배역으로는 소모(중각시) 1인, 중 1인 그리고 동네사람들인데, 해미광대탈놀이에는 해미 1인과 동네사람들이 연희에

참여한다.

굿탈놀이는 단촐한 구성인원만으로 놀이가 진행되는데 이는 서낭제 계통의 탈놀이라는 조건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다른 탈놀이와 구별되는 점은 굿에 참여한 모든 관중이 조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때의 할미는 보통의 할미가 아닌 당산할미다. 당산할미가 등장인물로 나와 관굿을 벌이고 대화를 청하고 질타를 하니 관중은 그 신을 위해 말문을 열 수밖에 없다. 어차피 그 굿은 신과 자아와 타아가 원초적 모습으로 만나는 장인 것이다.

탈은 참종이에 물감으로 그려 만든 것이 원형의 모습이다. 가끔 바가지로 제작한 적도 있다고 하나, 서낭제 계통의 탈은 지탈이 고형이다. 탈·적덕이칼·지광이 등 탈놀이에 쓰는 도구는 일월맞이가 끝나고 중천맞이를 할 때 만든다. 요즘은 미리 만들어 가거나 거처하는 방에서 만들어 둔다. 탈은 참종이 한 장으로 눈, 입 등 얼굴을 가위로 오려낸다. 얼굴은 검정, 붉은색 칠을 하고 접어서 양쪽에 줄을 매어 쓰개(쓰웅개)를 만든다.

별신굿을 진행하는 중간 무렵, 즉 밤중에 해미광대와 판놀음(잡색놀이) 중광대놀이를 한다. 굿청마당에 모닥불과 등을 밝히고 굿청에 모인 사람들과 한밤중에 졸음을 쫓으며 해미광대놀이를 한다. 고인수(악사) 중 한 사람이 얼굴에 해미광대 탈을 쓰고, 흰저고리와 붉은 치마를 입는다. 지광이를 짚고 왼손에 신방울, 오른손에 부채를 쥐고 마을 어귀에 서있으면 고인수는 두 패로 나누어진다. 한 패는 할미광대, 한 패는 굿청에서 매구 삼채가락으로 치며, 이때 할미광대는 주춤주춤 비틀거리고 춤추며 우스꽝스럽게 굿청으로 걸어와서 굿청을 한바퀴 빙 돌다가 장구를 잡은 고인수에게 다가와서 장구를 빼앗고 놀이를 시작한다.

해미광대는 마을굿이 연행되는 장소에 나타나 내가 이 마을의 할매당골인데 누구의 허락으로 굿을 하는지를 묻는다. 그리고 자신에게 돈을 시주할 것과 마령쌀을 바치라고 명령한다. 이처럼 욕심을 부린 후 굿을 시작한다. 먼저 선왕굿을 한다. 굿을 하다가 축원도 내려준다. 대금과 명태를 양손에 들고 춤추며, 굿청에 구경 온 몇 사람을 꿇어앉힌 다음 복을 내린다. 이어 볼일 좀 보고 오겠다고 하면서 몇 걸음 물러나 앉아서 치마를 걷어 올리고 오줌누는 시늉을 한다. 구경꾼들이 박장대소하면, 할미광대는 오줌을 고무신에 받아다가 뿌리면서 축원을 내린다. "오줌 간데 마다 농사도 잘 되고, 해옥도 잘 되고, 내 오줌 간 데마다 일가 화목 없는 데는 화목하고, 아이 못 놓는 데는 아이도 잘 놓고 부부간에 원진살 걸린 데는 살도 풀리라"고 축원한다. 이어 제석굿을 이어가며 굿탈놀이의 해미광대역을 마무리한다.

참고문헌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경상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필자 심상교(沈相敎)

행당동아기씨당굿

정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에 전해오는 마을굿으로, '아기씨'를 주신으로 모시는 굿. 이 굿은 2005년 1월 10일에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33호'로 지정되었다. 굿당은 '진피리 살군당', '왕십리 애기씨당'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당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1동 산 125번지에 자리하고 있으며, 2001년에 '성동구 향토유적 1호'로 지정되었다.

역사 아기씨당에서 모셔지는 신격, 당의 건립 시기나 역사는 기록된 바가 없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당신화에 나타나는 구비역사와 당주였던 이들의 진술에 근거해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현재 당주인 김옥렴 무녀가 진술하는 당신화는 다음과 같다.

북쪽에 있는 나라가 망하여 공주 5명이 시녀들과 함께 남쪽으로 피란을 오게 된다. 왕십리에 이르러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산속에 머물며 몇 해 동안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연명한다. 그러다가 봄에 찔레꽃을 먹다가 찔레꽃을 입에 물고 세상을 떠난다. 이후 왕십리에 마을이 생기자 5명의 공주가 마을 사람들의 꿈에 나타나 한을 풀어 줄 것을 당부한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당을 짓고 가

1. 삼불제석 아기씨 산신화분

2. 아기씨거양
행당동아기씨당 | 2005.11.4 | 이명숙





을에 제를 지내게 되었다. 5명의 공주들을 살군당과 양지당에 한 분씩, 수풀당에 세 분을 모셨다.

이 신화는 고귀한 신분의 여성이 죽어 마을신으로 좌정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모셔진 아기씨는 결혼 전에 마마로 인해 사망한 왕족 여성일 것으로 추정되며, 4월 15일에 아기씨 탄신제를 지내는 것으로 미루어 찔레꽃이 피는 시기인 4월 15일에 제의적 대상인 신격으로 모셔진 것으로 보인다. 아기씨와 함께 나누어 모셨다는 양지당은 당 자체가 유실되었고, 수풀당은 당만 남아 있으며, 제의는 사라진 형편이다.

당 건물은 1947년에 촬영된 사진 자료에서 이미 250년 정도 된 건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건립연대는 이보다 앞선다고 할 수 있다. 당주였던 고송자의 "이 당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었으며, 난이 있을 때면 주민들이 무신도를 반닫이에 숨겼다가 난이 끝나고 다시 꺼내 모셨다"는 진술로 미루어 보더라도 당이 300년 이전에도 존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당은 본래 왕십리역에 있었으나 이후 4번에 걸쳐 터를 옮긴 끝에 1944년 오늘날의 행당1동 산 125번지에 자리를 잡았다. 근래에 헐릴 위험에 처하기도 했으나 당주무와 주민들의 의지로 보존되었다.

당 내부는 신을 모시는 제당과 당주가 거주하는 생활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는 아기씨당만의 독특한 점으로, 간단한 음식 장만을 위한 공간만이 존재하는 다른 당들과 차이가 있다. 당 안에는 아기씨, 삼불제석, 조왕, 부군 내외, 산신, 좌(제)신장, 우(제)신장 등 일곱 위 7장의 화분이 모셔져 있다. 당주는 이 화분들이 100년 이상 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아기씨 제당 위에는 경대와 분첩 등이 놓여 있다. 당굿의 아기씨거양거리에서 당주무가 직접 화장을 하고 연지곤지를 찍는 데 소용된다.

김옥렴은 아양방-대사집-고송자-김묘분을 이어 마흔살 초반에 당주가 되었다. 특히 시할머니 고송자와 친정어머니 김묘분의 뒤를 이어 3대째 가족으로 대를 잇고 있어 당주로서 정통성이 높고, 당주 자신의 책임감과 자부심이 대단하다. 현재는 김옥렴의 딸 오소연이 전승자로서 학습을 받고 있다.

내용 음력 10월 초하루에서 초사흘 사이의 가장 좋은 날을 골라 굿을 하며, 굿 준비는 한 달 전부터 시작된다. 일주일 전부터는 제물을 준비한다. 제수를 살 때는 가장 좋은 것을 고르고, 물건 값은 깎지 않는다. 굿하기 3일 전에 간단한 부정상을 차려 놓고 문밖을 향해 앉아 징을 치며 상문풀이를 하여 전안과 당 주변에 모든 부정한 것을 사하는 의식을 행한다. 상문풀이가 끝나면 당 앞에 금줄을 매 삿된 귀신과 부정한 사람을 가린다.

당굿 당일 새벽에 당에 제물을 차리고 주당물림을 해 주변을 맑게 한다. 주당물림이 끝나면 비로소 당의 대문을 열고 굿을 시작한다. 굿거리는 부정, 가망청배, 진적, 지역 유지들이 주관하는 유교식 제례, 본향거리, 아기씨거양거리, 말명거리,

행당동아기씨당굿
정수미

제석거리, 부군거리, 별상거리, 신장, 대감거리, 성주, 창부, 계면거리, 뒷전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아기씨거양거리에서는 당신인 아기씨로 분한 당주무가 경대를 꺼내 연지곤지를 찍는 등 화장을 한다. 화장을 마치고 양손에 수팔련 꽃을 든 아기씨는 호구보를 쓰고 당 이곳저곳을 다니며 자신의 영역을 살핀다. 호구보를 벗고 주민들에게 공수를 주는 아기씨의 화장이 예쁘게 되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마을의 길흉을 점쳤다고 한다.

참고문헌 한왕십리 아기씨당 서울 지오귀굿 · 안당굿 음반 해설서(이자균, 지구레코드, 2001). 서울지역 당신화 연구-행당동 아기씨당을 중심으로(고영희, 한국무속학 11, 2006).

필자 이명숙(李明淑)



1



2

1. 허개등(노씨 오구굿)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삼광리 | 2008.10.25~26 | 윤동환

2. 허개등(송동숙을 위한 오구굿)
경북 영덕군 대진해수욕장 | 2006.10.11~12 | 윤동환

허개등

정의 동해안별신굿과 동해안오구굿에서 사용하는 굿당 장식물의 하나. 허개등은 대나무를 뼈대로 하고 그 위에 오색 화지를 붙여 굿당 바깥쪽 높은 곳에 매달아놓는 등이다. 흑애등, 학애등, 흐개등, 후개등으로도 일컫는다. 허개등은 걸어놓는 괘등(卦燈)의 하나로 허공에 매단 등이라고 해서 허괘등(虛卦燈)이라고 하거나, 불교의 지화장엄에서 유래한 등이란 의미에서 화개등(花蓋燈)일 가능성이 있다.

형태 허개등은 크게 허개가마, 허개운각, 허개몸통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각 부분에는 모양이 대칭적이고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문양이 장식되어 있다. 이러한 문양을 '사'라고 하는데 문양의 의미와 형태의 근원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부적의 특수한 문양을 연상시키는 기하학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허개가마는 허개등에서 가장 상단에 위치한다. 가마 모양을 닮아 허개가마라고 하며, 가마에는 처마 끝에서 마당으로 내걸린 차양 같은 종이(한면 35㎝ 정도)가 달려있는데 이것을 '전장'이라고 한다. 가마를 장식하는 것이 '허개가마사'이다. 허개가마사의 크기는 가로 30㎝, 세로 30㎝인데 노란색 화지를 배접하여 합사로 장식한다. 화지의 색깔은 녹색, 빨간색, 파란색, 분홍색 등이 주로 쓰인다.

허개가마 밑에는 허개운각이 위치한다. 허개등을 둘러싸고 있는 허개운각의 지름은 115㎝ 정도이고, 높이는 15㎝인 원통형으로 생겼다. 허개운각을 장식하기 위해 붙이는 것이 '허개운각사'이다. 허개운각사의 크기는 가로 30㎝, 세로 14.5㎝이며 허개운각의 크기에 따라 붙이는 매수가 달라지는데, 보통 8~10장 정도를 붙인다. 장수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허개등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허개등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굿의 크기에 비례하지만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화지는 녹색, 빨간색, 파란색, 분홍색 등이 주로 쓰인다. 허개등에 붙이는 사는 다른 사와 달리 정으로 찍어 문양을 만들기도 한다. 허개운각사는 합사로 사용한다.

허개운각의 띠에는 140㎝ 길이의 녹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분홍색으로 연결된 허개댕기가 매달려있다. 이 허개댕기를 '발전'이라고도 한다.

허개몸통사는 허개등의 가장 두드러진 부분인 몸통을 장식하는 것이다. 허개몸통사는 가로 22

허개등
경북 구룡포 삼정풍어제 | 2008.11.1~2 | 윤동환

㎝에 세로 30㎝이다. 허개몸통에 16장에서 30장 정도를 세로로 길게 붙인다. 화지는 남색, 파란색, 빨간색, 꽃분홍색 등이 주로 쓰인다. 허개몸통사는 보통 3층으로 장식된다. 허개몸통의 세로 크기가 90㎝가 되는 셈이다. 한 층에 10장의 허개몸통사가 합사로 부착되어 전체적으로 30장 정도의 허개몸통사가 허개몸통에 부착된다. 허개등을 작게 만드는 경우 한 층에 8장씩 2층으로 만들기도 한다. 그럴 경우 16장이 소요된다.

내용 허개등은 굿이 진행되는 동안 굿당 밖 높은 곳에 매달아놓는다. 허개등은 굿이 열리는 곳을 신과 인간에게 알리는 기능을 한다. 또한 별신굿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농·풍어를 기원할 때 신이 머물고 이동하는 도구로 기능하고, 오구굿에서는 신과 조상으로 좌정한 망자가 저승으로 가는 이동수단으로 기능한다. 허개등은 단순한 굿당의 장식물이 아니라 신이 좌정하고 이동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무구이다.

참고문헌 한국무속의 연구(최길성, 아세아문화사, 1978),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경상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동해안 무집단 지화의 문화적 의미(윤동환, 한국무속학 13, 한국무속학회, 2006).
필자 윤동환(尹東煥)

허용업

분야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5호 구리갈매동도당굿 구리 당주악사로 예능보유자.

내용 허용업(許龍業, 남)은 1947년(호적상에는 1948년생으로 등재됨)에 경기도 양주 구리면 수택리에서 허상천과 김옥예의 3남 1녀 중 차남으로 출생했다. 그가 네 살 무렵 구리면 갈매리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성장했다. 그의 부모는 모두 무업에 종사하였다. 부친 허상천은 민속악(피리) 연주자였으며 백부 허상복 또한 광복 전후에 민속악 연주의 대가로 크게 활동하던 명인이었다. 허용업의 집안은 전통민속악 연주자의 집안이었으나 부친은 당시 국악인에 대한 낮은 사회적 지위와 그에 따른 열등감, 불투명한 장래 때문에 아들인 허용업을 국악연주자로 키우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허용업은 집안의 음악적 혈통과 천부적인 재능 때문에 부친 몰래 피리를 연습했다.

용업이 12세 되던 해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으로 이사했다. 이곳에는 뛰어난 무악(巫樂) 악사가 많이 살았다. 중학교 2학년 여름에 아버지가 42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자 그해 겨울 민속악의 명인 이충선을 스승으로 삼았다. 이충선은 중요무형문화재 제49호 송파산대놀이의 기능보유자며 1901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그는 탈춤 음악 반주뿐만 아니라 서울의 민속음악 반주자로 명성을 떨쳤다. 이충선은 피리, 젓대, 해금의 명인인 이재덕에게 배웠다. 피리를 수년간 배워서 서울무악의 연주자로 알려진 이충선은 피리, 대금, 해금, 단소, 장구 등 여러 악기에 능했다. 허용업은 처음 이충선에게 2개월 동안 삼현곡(三絃曲)과 무악 전반에 대해 수업을 받고 그 이듬해 봄에 굿판에 나가 무악반주를 했다.

굿판에서 연주실력을 키워 가던 중 피리의 명인 강학수에게 피리를 다시 배우게 된다. 첫 스승 이충선은 원래 대금의 명인으로, 피리는 그의 나이 마흔에 시작했기 때문에 다양한 주법과 기량을 구사하지 못했다. 강학수는 이왕직 아악부 출신인 김여관의 수제자로 피리의 주법과 기교를 섭력한 명인이었다. 허용업은 강학수에게 피리를 배우면서도 꾸준히 굿판에 나가 피리연주를 했다. 그는 큰아버지 허상복의 배려로 굿판에서 유명한 명인들을 만나 민속악 전반을 배웠다. 큰아버지 허상복은 양주에서 이름난 씨름꾼이었으며 민속악의 권위자였다. 허상복은 조카 허용업을 위해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을 골라 허용업과 함께 굿판에 내보냈다. 이렇게 만난 스승 중에는 염불곡의 '겹튀김' 주법으로 유명한 이일선이 있었다. 이일선은 이충선의 형으로, 최승희의 전속악사였다고 한다. 피리는 이충선·강학수·이일선·지영희에게 배웠고, 대금은 허상복·이충선·한범수에게 배웠다. 해금은 지영희·허상복, 호적은 최인서·정규남, 단소는 강학수, 장구는 지갑성, 이정업에게서 배웠다. 이들은 당대 최고의 민속악 연주자들이다. 3년간 굿판에서 연주를 하다보니 그의 실력은 일취월장했다.

허용업은 1965년 서울시립국악단의 창단연주회에 참여하게 된다. 이때 최인서에게서 호적취타를 배우고 탑골공원 뒤에 있는 '정악연구소'에서 양금을 배웠다. 이후 육군본부 군악대에 복무하면서 정간보를 배웠다. 전역 후에는 굿판과 민속합주단원으로 방송국에서 연주하다가 1983년 굿판으로 돌아가 무악반주에 전념했다. 허용업은 1996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104호 서울새남굿 이수자로 선정되었으나 고향마을인 갈매동과 인연을 맺은 아버지에게서 이어받은 잽이당주(당주악사)여서 사양할 수 밖에 없어 서울새남굿 전수교육 보조자를 포기하고 1998년에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5호 구리갈매동도당굿의 예능보유자가 된다.

그는 1996년에는 '허용업 민속음악 기악독주집'이라는 CD를 자비로 제작했다. 허용업의 연주는 옛 연주의 교과서적인 주법을 모두 간직했기 때문에 국악계에서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다. 2003년 7월에는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국립관현악단이 주최한 '명인의 향기-허용업 창부타령 주제에 의한 피리 협주곡'을 공연했다.

참고문헌 우리전통예인 백사람(이규원, 현암사, 1995), 허용업 민속음악 기악독주집(허용업, WHAEUM레코드, 1996), 구리문화재대관(구리시·구리문화원, 1998), 객석 42호(돌꽃컴퍼니, 2001), 경서도 명인명창(정범태, 깊은샘, 2005), 허용업의 해금풍류연구(송주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대풍류의 음악적 분석-허용업의 피리가락을 중심으로(김태훈,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필자 변지선(卞志善)

허웅애기본풀이

정의 제주도 지역에서 불리는 서사무가로 사람이 이승과 저승을 왕래할 수 없게 된 내력을 밝히는 특수본풀이. 특수본풀이는 제주도 무가가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로 나뉘는 것과 별도로 일부 심방에 의한 구연과 자료집을 통해 확인되는 제주도 무가의 한 형태이다. 특수본풀이에 속하는 무가는 〈세민황제본풀이〉, 〈동방세기본풀이〉, 〈원천강본풀이〉, 〈허웅애기본풀이〉, 〈영감본풀이〉, 〈삼두구미본풀이〉, 〈십이대왕본풀이〉 등 모두 12개가 있다. 이들 무가는 신격이 불명확하고 제의나 제차와의 상관성이 희박한 관계로 제주도굿에서 거의 구연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세민황제본풀이〉, 〈동방세기본풀이〉, 〈원천강본풀이〉, 〈허웅애기본풀이〉 등은 서사적 내용의 분석 및 현지조사를 통해 본 결과 큰굿의 시왕맞이 제차의 〈차사본풀이〉 연장선상에서 불리거나 심방 개인의 신굿 등에서 구연되던 본풀이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내용 '허궁애기본풀이'라고도 불리는 〈허웅애기본풀이〉는 현재까지 총 6개의 각 편이 채록되어 있다. 각 편의 제목, 구연자(채록지역), 채록자, 채록시기, 수록지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허웅애기본풀이〉는 무가 또는 민담 형태로 제주도 전역에서 고루 전승되고 있다. 현재 채록된 6개의 각 편 가운데 3개는 심방들에 의해 구연된 것이고 나머지 3개는 일반인에 의해 설화 형태로 구연되었다. 주인공의 이름이 이 본풀이의 제목이 되고 있으며, 총 6개의 각 편 가운데 4개의 자료가 주인

	제목	구연자 정보	채록자	채록시기	수록지
가	허웅아기	이오생 심방 (서귀포시 서귀동)	진성기	1955~56년	진성기, 『탐라의 신화』, 평범사, 1980
나	허궁애기본	강을생 심방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진성기	1964년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 민속원, 1991
다	허웅아기	이방아 (제주시)	임석재	1964년	임석재, 『한국구전설화-제주도』, 평민사, 1992
라	허웅아기	윤추월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현용준	1981년	현용준·현길언,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마	허웅애기	부의함 (제주시 조천읍 선흘1리)	김태곤 외	1992년	『백록어문』 제10집,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국어교육학회, 1994
바	허궁애기본풀이	오인숙 심방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김헌선	2002년	강권용, 『제주도 특수본풀이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공을 '허웅애기(아기)'라고 하고 있어 마땅히 허웅애기로 명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허웅애기본풀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줄거리로 이루어져 있다. 자식을 여럿 낳아 기르고 있던 허웅애기라는 여인이 저승왕의 부름을 받아 저승에 갔다. 그러나 아이들 걱정에 눈물을 흘리자 이를 딱하게 여긴 저승왕이 밤이 되면 이승에 가서 아이들을 돌보고 아침이 되면 저승으로 돌아올 것을 허락한다. 허웅애기는 밤마다 이승으로 와서 아이들을 돌봐준다. 한편 어머니가 없는 아이들의 깔끔한 모습에 의문을 품은 이웃집 할머니가 아이들로부터 허웅애기가 밤마다 온다는 말을 듣게 된다. 이웃집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허웅애기가 저승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해주겠다며 어머니가 오면 기별해 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발과 아이들의 발에 실을 묶어 놓는다. 이웃집 할머니는 허웅애기가 왔다는 아이들의 신호를 받고 찾아와 허웅애기를 저승에 가지 못하도록 숨겨 주었지만 결국 저승사자가 허웅애기의 혼을 데려가게 되었다. 이때부터 이승과 저승의 세계가 나뉘어 사람의 왕래가 불가능해졌다고 한다.

한편 6개의 각 편 가운데 진성기가 채록한 〈허웅애기본풀이〉는 이러한 줄거리를 공유하면서도 전반부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허웅애기에 해당하는 인물이 콩대기로 설정되어 있으며, 콩대기가 계모인 허궁애기와 그녀의 소생인 풋대기 사이에서 '콩쥐팥쥐' 설화형 갈등을 겪는 것이 첨부되어 있다.

특징 〈허웅애기본풀이〉는 애초 사람이 이승과 저승을 왕래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원시신화적이다. 이와 관련해 허웅애기가 처음 저승에 가게 되는 이유, 허웅애기가 이승과 저승을 왕래하는 것을 막은 이웃집 할머니의 존재, 허웅애기가 살고 있는 작품 속의 시간성, 허웅애기가 이승과 저승을 오가지 못하는 이유 등에 의문이 생긴다.

허웅애기가 저승에 가게 되는 이유를 각 편의 내용에서 살펴보면 '살림 솜씨가 뛰어나서'(가) 또는 '얼굴과 소리와 춤이 뛰어나서'(마) 이 소문이 저승에까지 들려 불려가게 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이본에서는 허웅애기가 무명짜기를 잘했는데 저승에 가서도 무명짜기를 하고 있었다(다, 라)고 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허웅애기는 남들보다 뛰어난 장기가 있었고, 이로 인해 젊은 나이에 일찍 저승에 불려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제주도 서사무가인 〈차사본풀이〉에서 이승에 사는 강님이가 뛰어난 용기와 지혜로 결국 저승차사가 되어 불려간다는 내용과도 상통한다.

한편 허웅애기가 저승왕의 허락을 받아 밤이면 이승으로 돌아와 자신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는데 이를 이웃집 할머니에게 들키게 되었고, 이웃집 할머니의 만류로 허웅애기는 아침이면 저승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약속을 어기게 된다. 여기에서의 이웃집 할머니는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는 혹은 이승과 저승을 구분하는 세속적 관념을 지닌 인간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본풀이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특징으로는 저승차사가 저승으로 돌아오지 않은 허웅애기를 잡아가는 대목이다. 이웃집 할머니는 허웅애기를 집안 깊숙이 숨겨서 문을 잠그고 올래에 가시나무를 쌓아 저승차사의 접근을 막지만 저승차사는 지붕 상가마로 올라가 허웅아기의 머리카락 세 개를 뽑아 그 혼을 저승으로 데려간다. 일부 자료에는 이 과정에서 저승차사가 지상의 사람들에게 허웅애기의 육체를 갖겠느냐 혼을 갖겠느냐고 묻고, 혼이 무엇인지 모르는 인간들은 육체를 갖겠다고 하여 허웅애기의 혼만 빼가서 결국 죽은 육체가 남게 되었다고도 한다. 이는 인간이 죽으면 혼은 사라지고 육체는 그대로 있는 현상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는 기능도 지닌다.

이러한 결말에서 강조되는 것은 두 가지이다. 허웅애기 때문에 이승과 저승이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가, 나, 라, 바)과 허웅애기로 인해 저승의 소문이 이승에 날까봐 귀신 및 생인(生人)의 소통을 금지시키고 돌이나 나무가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결말이다(다, 라, 마). 이러한 결말을 통해 〈허웅애기본풀이〉가 이승과 저승이 갈라지기 이전인 사람이 귀신과 말을 하고 돌도 나무도 말을 할 수 있었던 신화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허웅애기의 실수로 인해 오늘날과 같이 저승과 이승이 구분되고 짐승과 사물들이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기원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허웅애기본풀이〉에서 또 하나 주목할 사항은 이방아, 윤추월이 구연한 자료에서 보이는 일월조정(日月調定) 화소이다. 두 자료에서는 허웅애기가 살던 시대에 해와 달이 두 개씩 있어 인간이 너무 덥고 너무 추워서 죽을 지경이었다는 〈천지왕본풀이〉의 일월조정 화소가 동일하게 발견된다. 이는 〈허웅애기본풀이〉의 역사가 결코 짧지 않다는 증거로, 허웅애기의 죽음으로 인해 이승과 저승이 구분된 시기가 해와 달이 하나씩 남게 되는 천지창조 시기와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의 〈허웅애기본풀이〉는 옛날에 인간이 저승과 이승을 오갈 수 있었다는 발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죽음에 대한 원시적 사고를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이처럼 인간이 저승과 이승을 오갈 수 있다는 사고는 멀리로는 『삼국유사』의 〈표훈대덕〉에서부터 지금의 제주도 서사무가인 〈차사본풀이〉, 육지의 서사무가인 〈바리데기〉, 함경도 망묵굿에서 구연되는 〈도랑선비 청정각시〉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허웅애기본풀이〉는 여성의 저승 여행이라는 점에서 〈바리데기〉와 함께 주목된다. 바리공주와 허웅애기는 나약한 여성이라는 점에서는 평범 이하의 존재이지만 각각 '효(孝)'와 '모정(母情)'이라는 덕목을 현현함으로써 이승과 저승을 오갈 수 있는 비범한 존재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허웅애기본풀이〉는 위대한 모정으로 이승과 저승 사이의 험난한 경계를 넘을 수 있다는 진실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 정도의 숭고한 모정으로도 끝내 삶과 죽음의 세계를 넘어설 수 없는 인간의 현실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탐라의 신화(진성기, 평범사, 1980), 한국구비문학대계 9-3(현용준 · 현길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진성기, 민속원, 1991), 한국구전설화-제주도(임석재, 평민사, 1992), 서사무가와 고소설의 서사구조 비교(김헌선, 경기교육논총 4,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1995), 제주도 특수본풀이 연구(강권용,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필자 김혜정(金惠貞)-경기대

허주굿

정의 장차 무당이 될 사람에게 잡힌 신들을 좌정시키어 허튼신을 벗겨내는 굿.

내용 무당이 될 사람이 신병을 앓다가 마지못해 신내림을 받게 될 처지가 되면 우선적으로 허주굿(또는 허튼굿)을 하게 된다. 허주굿은 무당이 될 사람에게서 붙어 있는 허튼신을 벗겨내는 의례이다. 이는 들어온 신을 배척하지 않고 정열하여 좌정케 한 후 신의 지시에 따르면서 신을 모시겠다는 일종의 다짐의례이다. 이러한 의례를 통해 신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수여 받게 되고 동시에 신병을 치유하게 된다. 허주굿을 주관하는 큰만신과 허주굿을 받게 되는 새 제자는 이때부터 신부모 · 신자식의 관계가 성립되어 굿일에 관련된 이것저것들을 전수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듬해에 하게 될 명두굿을 준비한다. 한편, 새 제자는 허주굿이 끝나면 동네를 돌아다니며 쇠걸립을 하게 된다. 새 제자가 쇠걸립을 다닐 때는 스승이나 또는 스승에게 매여 있는 상장구 할머니가 따라다니면서 거들기도 한다.

참고문헌 무당의 신병과 신들림(양종승, 한국무속학 3, 2001).
필자 양종승(梁鍾承)

호가

정의 굿을 하는 도중에 잽이에게 주는 곁돈.

내용 호가는 굿판에서 악사를 대상으로 주는 돈인데 이러한 관습은 주로 서울굿판에서 오랫동안 행해져 왔다. 호가를 받는 악사는 주로 관현악기인 피리, 대금, 해금, 호적 등을 연주하는 남자 잽이들이다. 굿일은 남녀 만신들과 남자 악사들로 구성되어 진행되는데, 호가는 주로 남자 잽이들이 받게 된다. 반면, 만신들은 굿일을 성사시킨 당주와 굿거리를 맡은 만신 역할에 따라 받게 된다. 이

를 테면, 당주가 굿거리마다 갖게 되는 명두채를 비롯하여 부정청배를 맡은 만신 몫의 부정채, 성주군웅거리에서의 성주군웅채, 뒷전에서의 뒷전채, 진오귀굿에서의 말미돈 등이 그것이다.

호가는 근래의 경우, 굿판 주위에 앉아 있는 무녀나 참관자에게 주기도 한다. 그러나 호가를 주는 원래의 목적은 굿 음악을 더욱 흥겹게 연주하여 굿판의 흥을 더욱 돋우기 위한 것이다. 또한 무당이 신령의 뜻에 따라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호가를 주는 경우도 있다. 호가의 액수는 굿 규모와 굿판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큰굿일 경우 십만 원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만원에서부터 이만 원, 삼만 원 또는 오만 원을 주기도 한다.

참고문헌 서울 이태원 부군당굿(양종승, 민속원, 2007).
필자 양종승(梁鍾承)

호구별성(戶口別星)

정의 서울굿 혹은 강신무와 세습무권에서 모두 섬기는 신격 가운데 하나. 호구와 별성이 서로 결합된 신명(神名)이다. 호구는 마마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천연두를 앓고 죽은 신격을 말한다. 이와 달리 별성은 '별상'이라는 말이 와음된 것으로 보이지만 명확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로도 볼 수 있다.(호구별성과 호구별상이라는 명칭이 둘 다 쓰인다) 이처럼 두 말이 결합되어서 하나의 신격으로 결합된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내용 호구별성은 매우 이례적인 결합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손님 혹은 마누라라는 말로 지칭되기도 하고, 호구와 별상이 따로 일컬어지기도 하며, 함께 지칭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신격은 분명하게 하나의 현상으로부터 비롯된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역질(疫疾)이나 질병을 앓고서 비롯된 신격이라고 하는 점이다.

호구신의 성별은 대부분 여성과 관련된다. '호구애기씨'라고 하는 것에서 이 용례의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간혹 남성의 신격을 지칭하는 일부 현상도 발견된다. 이때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어린 남성인 경우도 여기에 소속한다. 그러나 주로 여성 신격을 지칭된다.

무가의 문맥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일부 확인된다. 호구를 청배하는 과정에서 호구별성의 신격을 이해할 수 있다.

> "재산동반 칠기명천 상단에는 중단호구 상하단 서인호구 백옥남산 불사호구 만신에 대신호구 애동기자 말문호구는 글문호구 그연상산호구 사외삼당호구 궁위루 제당호구 / 우리 신에 호구 어늘은 물건너 화주당 매달왕신 산촬오구 왕십리 수풀당 애기씨형제호구 구대래님 서자호구 동관암 남관암 정전은 대전호구…"

이와 달리 별상은 남성 신격을 말한다. 별상은 청·장년의 남성 신격을 말하는 것이 예사이다. 역사적 사건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자신의 뜻을 온전하게 펴보지 못한 원한을 품은 남성들이 대체로 이러한 신격으로 모셔진다. 하지만 별상신이 남성신만으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무가를 보면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 "어 창덕궁은 창희궁 경복궁은 경혜궁이시다 종묘는 사직에 위패 받어 기우시다/ 어느 양전은 새별상님 수원은 대목 안에 뒤주대왕은 양전별상, 김포는 통진 안에 새별상 아니시냐, 강화로 마니산에 여별상님 아니시리."



1



2

1. 국사당 호구아씨 무신도
서울시 종로구 무악동 | 1972.10.31 | 장주근

2. 호구아씨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가로 47.5㎝, 세로 77㎝ | 20세기초

무속의 신 관념은 매우 독자적으로 생성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강신무권이 우세한 서울이나 해서 지역에서 보이는 호구별성에 대한 관념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영혼을 근간으로 한다. 온전한 죽음을 맞지 못한 신격의 경우 무속에서는 이 신격들의 최후를 비극적 죽음으로 해석하고 이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한 신격 구성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온전하지 못한 죽음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질병으로 온전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죽은 영혼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 소용돌이의 틈바구니에서 억울하게 죽은 영혼이다. 또한 생전에 사회적 신분이 높았던 자일수록 그 원한도 크게 여겨지며, 따라서 이들을 기리는 무속적 신격화 양상은 두드러진다. 이처럼 왕을 중심으로 하는 궁전이 가까이 있었던 서울 지역 굿의 무속신 관념은 원혼을 더욱 철저하게 섬기는 성향이 있다. 호구별성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나타난 결과임을 반추할 수 있다.

신격화할 대상의 죽음이 질병과 타살로 인한 경우 이것은 그 인물이 신격화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구실을 한다. 무속신의 관념과 그것의 신앙적 기반을 연구하는 데 있어 이러한 신 관념은 매우 중요하다. 죽음과 질병으로부터 인간이 자유로울 수 없음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신격들 존재 자체는 결과적으로 우리 삶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이해를 가능하도록 하는 실마리로 작용한다.

참고문헌 서울지역안안팎굿무가자료집(김헌선, 보고사, 2006), 朝鮮巫俗の研究 上, 下(赤松智城·秋葉隆, 大板屋號書店, 1937~1938).
필자 김헌선(金憲宣)

호구별성풀이

정의 천연두신인 호구별성을 제장(祭場)으로 청배하며 부르는 노정기(路程記) 형식의 무가.

유래 및 역사 호구별성(戶口別星)은 그 자체가 천연두의 다른 이름이었지만 어느 때부터 천연두를 주관하는 신령의 이름으로 전화(轉化)되었다. 곧 호구별성은 천연두를 많이 앓던 오래전에 아이들이 이 병에 걸리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는 역할을 하던 신령이었다. 오늘날에는 집안 식구들의 액운(厄運)을 막아주고 병을 없게 해주는 신장(神將)으로 인식된다. 15세기 중엽부터 중국에서 들어온 천연두는 민중에게 상처와 슬픔을 안겨 주었다. 천연두에 걸리면 죽거나 살아도 평생 곰보로 살아야 하였기 때문에 이 병에 대한 민중의 두려움은 컸다. 천연두를 두려워하던 민중은 이 병의 이름을 직접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마마(당상관 이상의 높은 사람을 부르는 말), 별성(別星, 궁을 지키는 수문장), 손님 등으로 불렀다. 당시 의원과 함께 천연두에 걸린 환자를 다룬 이가 바로 무당(巫堂)이었다. 천연두로 인한 민중의 고통은 무당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 그 결과 천연두신(天然痘神)의 관념이 형성되었고, 그 과정에서 천연두가 중국으로부터 왔다는 이유로 호구[胡口, 또는 胡鬼]라는 신령과 별성이라는 신령이 혼합되어 호구별성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생겨난 것이다. 이후 호구라는 말은 천연두가 집집마다 유행한다 하여 호구(戶口)로 한자의 뜻이 바뀌기도 하였다. 또한 별성(別星)이라는 말 역시 원래 연산군, 광해군, 사도세자와 같이 왕위를 지키지 못하였거나 왕위에 오르기 전에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인물들을 평안과 재수의 신으로 신격화하였을 때 사용된 별상(別相)이라는 말로 전화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 호구별상이라는 이름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나타났다.

내용 청배(請拜)는 신의 내력을 푸는 본풀이 형식, 신의 이동을 보여주는 노정기 형식, 신의 명칭을 거듭 나열하는 신명나열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호구별성풀이〉는 노정기 형식을 취하고 있다. 선계(仙界)에서 재가집의 제장으로 하강하기까지 이동 경로를 설명하고, 그 역경을 치하하며 신의 노정을 증명하고 있다. 이로써 호구별성을

제장으로 청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충청북도 괴산군의 송병숙(1911년 괴산군 출생, 강신무)이 1970년대에 구술한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호구별상 나오신다 호구별상 나오실제 오십삼분 나오실제 저나라는 대한국 우리나라 소한국이라 오십분은 떨러져서 서천서역국 드러가 명과복을 빌어가고 남은삼분 나오실제 어데가 초읍인가 의주가 초읍인데 앞강이 열두강 뒷강이 열두강 이십사강 건느려고 사공 불러 분부하네 저사공의 거동보소 나무배를 타자하니 나무배는 썩어지고 돌배를 타자하니 돌배는 풍덩 가라앉고 흙토선을 타자하니 어리설설 풀어지고 긴배를 타자하니 느리여서 못쓰겠고 짜른배를 타자하니 요망하다 거절하고 황금같은 꾀꼬리는 양류청청 노닐적에 수양버들 잎을 주루루 훑어내려 연엽선에 모아타고 앞에는 청기달고 뒤에는 홍기달고 와각직각 건너올제 아미타불이 주불되고 인로왕보살이 노를저어 팔보살이 옹호하여 의주고을 당도하니 묘향산이 명산이라 …… 충청북도 ○○군 ○○면 ○○리에 거주거생 하옵기는 ○씨 생신이온데, 아들아기 딸아기를 곱게곱게 점지시켜줄제 연지문에다 말을매고 하루이틀 꽃시루요 사흘나흘 부름시루 닷새엿새 낙화시루 천상수비 지하수비 원거천리 소멸하고 복을달라 비나이다 명을달라 비나이다 복을주면 명없이 어이살며 명을주면 복없이 어이살리 명과복을 점지하여 수명장수 시켜줄제 삼천갑자 동방삭의 길고긴명 점지하고 석숭이 갖은오복 점지하소서"

이렇게 호구별성의 노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호구별성을 재가집의 제장으로 청배하고, 이어 호구별성을 대상으로 자식의 명(命)과 복(福)을 축원하고 있다.

의의 〈호구별성풀이〉는 어린아이가 천연두를 앓을 때 곱게 앓게 해 달라는 기원의 굿에서 구연된다. 얼굴이 얽은 곰보 형상으로 굿거리에서 놀아지며, 무신도(巫神圖)에서는 홍치마에 의대와 족두리를 쓰고 연지 · 곤지를 찍은 여신(女神)으로 표현된다. 〈호구별성풀이〉는 노정기 형식의 무가로서 의미뿐 아니라, 특히 이것이 구연되는 현장에서 가면을 쓰는 가장(假裝)을 통한 연극성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구비(口碑), 물질, 행위가 융합되어 있는 한국 민속문화의 전형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충청도 무가(김영진, 형설출판사, 1976), 한국민속대관(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2), 조선무속의 연구(赤松智城 · 秋葉隆, 심우성 역, 동문선, 1991), 충북의 무가 · 무경(이창식 외, 충북학연구소, 2002), 서울굿 호구거리의 의미 연구(홍태한, 한국민속학 37, 한국민속학회, 2003).
필자 이창식(李昌植)

호남굿 무복

정의 호남 지역 세습무인 단골이 굿을 할 때 입는 옷. 호남굿에서 세습무는 제의를 주관하는 사제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한복 치마저고리를 기본적으로 착용한다. 제석신을 상징하는 거리에서는 당골에 따라 장삼이나 홍색 대대, 고깔을 착용하기도 한다.

내용 호남굿은 전통적인 세습무가 존재하고 있어 세습무권으로 분류된다. 호남굿에서는 세습무계가 주류이기 때문에 백색 저고리와 치마, 신격을 상징하는 무복장삼과 고깔이 중요한 무복이다. 호남굿에서 세습무가 장삼을 착용하는 것에 대해 굿거리 가운데 무가를 살펴보면 "관음보살 오실적에 백초포 장삼에 단홍띠 둘러매고… 세누비 장삼 벗어… 가로누빈 고깔 벗어…"라고 한다. 제석무가에 나오는 장삼의 명칭은 백초포 장삼, 세누비 장삼, 대장삼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백초포 장삼은 여름용, 세누비 장삼은 겨울용으로 각각 착용하는 것이다. 머리에 쓰는 고깔은 "제왕님 조산국 인간 마련 나오실 때 장삼 떨쳐 입고 피고깔 접어 쓰고… 염주는 목에 걸고 단주는 팔에 걸고"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제석을 불교 신으로 나타내기 위해 장삼을 착용했을 뿐 아니라 승려를 상징하는 고깔을 제시하고 있다. 손님굿이나 제석굿에서 유일하게 무녀는 신격을 상징하는 백색 장삼과 고깔을 착용한다.

과거에는 진도 지역 씻김굿을 할 때 제석굿에서 백색 장삼과 종이 고깔을 착용하였다. 현재 굿거리에서는 백색이나 옥색 계열의 반비장삼을 착용할 뿐 아니라 종이 고깔이나 천 고깔도 착용한다. 당골에 따라서는 두루마기 형태의 장삼만을 입거나 소매가 짧은 장삼 위에 홍색 대대를 두르기도 한다. 백색 장삼은 두루마기형태로 폭이 좁고 소매가 팔꿈치에까지 오며, 다른 형태인 반비장삼은 팔꿈치에서 한 번 접어 더 짧게 착용하기도 한다. 이는 전통적인 승복인 장삼에서 변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이나 중부 지역의 강신무들은 도무를 할 때 춤사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불사거리에서 착용하는 장삼의 소매를 넓게 하고 소매 부위의 활동성을 위해 진동에 아귀를 만드는 변화를 가져왔다. 반면에 호남굿의 무복장삼은 간소화된 형태로 변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장삼 위에 착용하는 가사에 해당하는 홍색 대대도 강신무의 경우 화려한 자수나 색상을 달리하여 넓게 착용하지만 호남굿에서는 홍색 대대를 10㎝정도 좁게 하고 문양을 하지 않거나 홍색 대대 대신 백색 장삼의 고름을 길게 하여 묶기만 한다. 머리에는 강신무와 달리 종이 고깔만 쓰기도 하고, 당골에 따라 종이 고깔을 먼저 쓴 다음 그 위에 천으로 제작한 고깔을 쓰기도 한다. 호남굿에서 제석신을 상징하는 무복은 무신도에서 볼 수 있는 제석신의 복식 형태보다 간략화 됐음을 살펴볼 수 있다.

호남굿에서 볼 수 있는 무녀의 무복 종류는 다양하지 않고 단순하다. 서울 중부 지역의 강신무들은 거리를 상징하는 신격을 나타내기 위해 거리마다 신을 상징하는 무복을 갈아입는다. 이는 서울 지역 강신무가 굿거리마다 신을 상징하는 무복을 갈아입어 무녀가 신격화되는 대신 호남 지역 세습무는 제의를 주관하는 일반적인 사제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굿판에서도 당골들은 굿에서 착용할 무복보다 굿이 시작되기 이전에 굿청을 설치하는 것 또는 무구에 비중을 두고 있다.

호남 지역에서 세습무가 착용하는 무복은 기본적으로 백색 치마, 저고리 장삼, 고깔이다. 이러한 백색 치마와 저고리에는 자수나 문양이 있기도 하지만, 백색으로 장식기법을 사용하여 화려하지 않다. 장삼의 경우는 강신무가 착용하는 백색 장삼과도 차이가 있다. 강신무의 장삼은 상의하상(上衣下裳)으로 철릭 형태이며, 화려한 문양을 수(繡)놓은 장식이 있다. 장삼의 길이는 발목에까지 내려오며, 진동부위에는 팔을 내밀 수 있는 아귀가 있다. 반면에 호남굿에서 착용하는 백색이나 옥색 장삼은 장식기법이 없고 형태가 단순하다. 호남굿에서 무복으로 착용하는 장삼은 크게 두루마기 형태의 소매가 긴 장삼과 소매가 짧은 장삼 두 가지가 있다. 소매가 짧은 반비 장삼은 고름을 길게 하여 뒷길로 돌려 묶으며, 소매의 진동부위에 아귀가 없다. 고깔은 강신무의 화려한 자수가 있는 직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이 세 개 겹친 모양의 종이(한지)로 접어 만들었다. 이러한 종이 고깔은 굿이 시작되기 전 악사나 당골이 직접 접어 만든다.

현재 호남 지역에서도 당골인 세습무가 강신무 계열의 보살이나 법사들과 굿을 함께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당골은 백색의 저고리 · 치마 · 장삼 · 고깔만 착용하지만 강신무는 생활한복이나 홍색 또는 녹색 대대, 홍색이나 남색 전복을 착용하기도 한다. 또한 화려한 자수가 있는 천고깔을 착용한다. 도시 근교 굿당에서 강신무만으로 구성된 굿에서 무당은 유색의 한복 저고리와 치마뿐 아니라 화려한 전복과 다양한 포를 착용하기도 한다. 호남굿에서도 강신무가 활동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지역에서 굿을 할 때는 과거의 전통성을 지켜주는 무복을 착용한다. 이 때문에 현장답사를 해 보면 당골이나 무당이 착용하는 무복의 전통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지역사례 호남 지역에서는 세습무계가 호남굿을 대표하며 활동을 주도하기 때문에 당골인 세습무가 강신무 계열의 보살이나 법사들과 굿을 함께하는 경우가 일반화되고 있다. 전승 기반이 있는 호남 지역 당골을 중심으로 무복의 종류와 형태를 정리하였다.

1. **진도 곽머리씻김굿 무복** : 진도에서 행해지는 곽머리씻김굿은 중요무형문화재 박병천의 호남의 전통 굿이다. 씻김굿에서 무녀는 기본적으로 백색의 치마와 저고리를 굿거리 내내 착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호남 지역 굿에서 세습무녀가 주도할 때는 기본적으로 전통한복 형태인 백색의 저고리 ·

치마 이외에도 거리 특성에 따라 백색의 장삼과 고깔을 착용한다. 특히 무복장삼은 제석거리라는 한정된 굿거리에서 입었다가 거리가 끝날 때쯤 벗지만 상가에서 이루어진 씻김굿에서는 굿 하는 내내 백색 저고리와 치마만 입고 머리에 백색 종이 고깔을 썼다.

2. 망자환갑굿 무복 : 해남에서 연행된 망자환갑굿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세습무만 주관하는 전형적인 호남굿이 아니라 극적 효과를 위해 강신무 1명이 손님굿과 망자놀이에 참여했다. 굿에서 무녀는 초장에서 종장까지 동일한 복식인 백색의 저고리와 치마를 착용하였다. 당골이 착용한 백색 저고리의 끝동 부분에는 백색 꽃 문양이 기계자수로 놓아져 있으며, 고름을 여미는 부분은 브로치를 달아 고름이 풀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백색의 저고리와 치마 위에 덧입는 백색 장삼은 소매가 짧은 형태로 소매를 두 번 접어 제석거리에서만 착용하였다. 강신무인 명연님 무당은 한정된 굿거리를 연행해서인지 전통한복을 개량한 남색 가선이 있는 바지와 저고리인 백색 생활한복을 착용하였다.

3. 몸주천도굿 무복 : 전남 화순에서 연행된 망자천도굿에서 당골은 무복으로 거리와 상관없이 백색의 치마와 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백색 장삼을 덧입었다. 무복 장삼의 긴 고름은 대대처럼 백색 대대를 허리에 둘러 뒤로 늘어지게 묶었다. 장삼은 두루마기 형태로 구성되었다. 백색 고깔은 굿이 시작되기 전 무구를 준비할 때 무녀가 한지를 직접 접어서 굿거리때 착용하였다. 마지막 거리인 종천에서는 백색 고깔을 벗고 백색의 치마와 저고리만을 착용하였다.

4. 초분이장굿 무복 : 진도에서 연행된 초분굿은 시신을 땅에 묻지 않고 일정기간 짚으로 만든 가묘인 초분에서 탈육된 시신의 뼈만 간추려 일반 장례와 동일하게 이장하는 과정을 밟은 뒤 망자가 묻힐 묘지 앞에서 이루어졌다. 당골은 전통한복 형태인 백색의 저고리와 치마를 기본적으로 착용하고 반비 장삼을 덧입었다. 머리에는 한지로 접은 종이 고깔을 썼다. 백색 반비장삼은 제석거리라는 한정된 굿거리에서 당골이 입었다가 거리가 끝날 때쯤 한지로 접은 고깔과 함께 벗었다.


1


2


3


4


5

1. 진도곽머리씻김굿(송순단)
전남 진도읍 고 박병천 선생 상가 | 2007.11.23 | 김은정

2. 해남망자환갑굿(유점자)
전남 해남군 산이면 유동마을 뒷산 | 2006.5.17 | 김은정

3. 화도몸주천도굿(이장단)
전남 화순군 북면 방리마을 굿 의뢰인 자택 | 2005.11.26 | 김은정

4. 진노초분이장굿(채정례)
전남 해남군 산이면 유동마을 뒷산 | 2006.5.17 | 김은정

5. 천지굿(이장단)
전북 김제시 신풍동 최예님 무녀 사찰 | 2006.11.3 | 김은정

5. 천지굿 무복 : 전북 김제에서 이루어진 천지굿은 세습무와 굿 의뢰인 강신무가 주도하였다. 굿 의뢰인 강신무는 무복으로 서울굿이나 황해도굿 강신무들이 착용하는 다양한 포(袍)를 굿거리의 주신들을 상징하기 위해 갈아입었다. 굿거리에서 무당이 착용한 무복은 굿이 시작되기 전에 굿상 좌측에 걸어두었다가 해당 굿거리마다 주신을 상징하는 포를 착용하였다. 이때 입는 방법과 무복의 종류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굿에서 무당이 착용한 무복은 화려한 유색 저고리와 치마, 남색 가선을 두른 생활한복, 도포, 장군복, 원삼, 마대기(작두타기 무복), 장삼이었다. 함께 굿에 참여한 세습무는 유백색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소매가 긴 두루마기 형태의 백색 장삼을 덧입었다. 머리에는 종이 고깔을 썼으며 굿거리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착용하였다.

6. 수륙제 무복 : 수륙제는 전남 영광 법성포 수협 위판장에서 전통 수륙제 재현 굿으로 이루어졌으며 전남과 전북 지역 무녀가 함께 굿을 진행했다. 조상 · 제석 · 씻김굿을 주도한 전남 지역 당골은 무복으로 전통한복 형태인 홍색 고름이 있는 백색의 저고리와 치마 이외에도 반비 장삼과 종이 고깔을 착용하였다. 전북 지역 당골은 규모가 큰 굿인 관계로 영신이 좋아한다는 신입성인 두루마기와 장삼을 착용하였다. 당골이 착용한 무복 장삼은 중부 지역 강신무들이 착용하는 장삼처럼 소매와 무복의 길이가 매우 길어 무복이 땅에 닿을 정도였다. 장삼 위에는 녹색 대대를 둘렀다. 이 대대는 호남굿에서 볼 수 없는 화려한 십장생 문양의 수가 놓여진 공단 소재의 가사였다. 머리에는 종이 고깔과 천 고깔 두 가지를 착용하였다. 착용방법은 종이 고깔을 먼저 쓰고 그 위에 자수 문양이 있는 천 고깔을 썼다.

호남굿에서 세습무는 무복에 많은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는 굿청을 설치하는 것이나 무구 또는 무가에 비중을 두고 의례를 연행하기 때문에 강신무처럼 굿거리마다 신격할 필요가 없어서 평복이나 장삼만을 착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 호남굿에서 무복으로 백색만을 착용하는 것은 씻김이라는 굿거리를 통해 염습 과정과 비슷한 의례를 행하기 때문으로 상복 개념과 동일한 정결과 순수함을 백색의 무복으로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의 무복(김은정, 민속원, 2004), 호남의 망자천도굿(나경수 외, 민속원, 2007), 호남의 천지굿(나경수 외, 민속원, 2008), 진도씻김굿의 물질문화 연구(최진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99), 제석거리 무복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김은정 외, 한국복식학회, 2000).

필자 김은정(金垠呈)

호남 당골굿

정의 전북 정읍시 옹동면 오성리에서 전승되는 굿. 이 굿은 2005년 12월 16일에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33호'로 지정되었다.

내용 호남 지방의 무당은 당골 · 단골이란 이름으로 불리고, 유형으로는 세습무로 분류된다. 단골의 어원에 대하여 단군, 천군, Tengri에서 나왔다는 고대 제사장의 유래설이 있는가 하면 신단과 신당을 모시는 마을 · 고을이라는 뜻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제 유래설이 있다. 호남 지방의 단골들은 자기 집에 신단을 갖고 있거나 성황당, 영신당을 관리하는 자로서 단골네, 당골네라고 불리기도 한다. 마을 주민들은 단골을 무당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를 단골애미 · 단골어멈, 남자를 단골애비 · 당골아범 등으로 친근하게 호칭하면서 마을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성향이 강하다.

호남 당골굿의 일반적인 내용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당골의 역할 : 호남 지방에서 당골은 큰 마을단위로 존재하였다. 당골은 개개인의 제액초복을 관장하고, 공동체의 제의를 주관하는 사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마을 주민들은 세시 · 절기에 따라 당골집에 찾아가 제물을 신단에 바치면서 집안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축원굿을 요청하기도 하고, 당골은 마을공동체의 수호신이 봉안된 성황당 및 신당에 찾아가 의례를 주관하기도 한다. 이처럼 호남 지방에서 마을 주민들과 사제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매우 밀접한 유대관계를 맺어왔다. 오늘날 자주 다니는 가게나 식당을 단골집이라고 부르는 것도 전통마을에서 마을 주민들과 당골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였음을 말해주는 흔적이라 할 수 있다. 당골은 마치 오늘날 카운슬러와 같은 존재였다. 마을 주민들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단골을 찾아가 의논하고 상담하였다. 당골은 언제든지 굿을 요청하면 의례를 주관하였고, 마을 주민들은 단골의 생계를 책임지는 정도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조선조 유교사회의 전통적인 질서 속에서 무속행위를 음사(陰邪)의 대상으로 규제했으

나 민간에서는 신당을 관리하는 당골들을 찾아가 굿을 하는 관행이 끊어지지 않았다.

2. 당골과 마을주민 : 당골과 마을 주민들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당골은 마을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액살과 재앙을 물리치고 방어하는 등 불안적인 요인을 제거해주고, 주민들은 당골이 마을에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였다. 당골들에게는 여름과 가을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걸립을 하거나 전곡을 거둬들이는 관행이 있었다. 당골의 걸립에는 여름철에 행하는 마른걸립과 가을철에 행하는 징걸립이 있다. 마른걸립은 악대를 구성하지 않고 전곡을 거둬들이는 방식이고, 징걸립은 악대를 편성하여 마당굿 · 철륭굿 · 조왕굿 · 샘굿 등을 쳐주고 쌀 · 보리 · 콩 · 깨 등 곡물과 금전을 받는 방식이다. 걸립을 달리 '동냥'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이처럼 무당들이 근대화 과정에서 천대받게 된 것도 낮은 신분과 사회적 차별에 주민들에게 동냥을 하는 관행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걸립은 당골들이 마을 주민들의 정신적인 정서 안정과 마을공동제례를 주관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 천민과 같은 신분에서 경제적인 능력을 마을 주민들에게 의탁하며 구걸하는 행위처럼 비쳐진 것이다.

3. 당골판 : 마을은 당골에게 경제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판이었다. 당골들은 큰 마을이나 작은 마을 몇 개를 묶어서 당골판을 형성하였다. 당골판은 무당에게 무업권과 생업권을 보장해 주는 일종의 판권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당골판은 무당에게 재산권과 같은 효용의 가치를 지녔으며, 무당들은 당골판에서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 당골끼리도 서로 당골판을 침해하지 않고 당골의 독점권을 상호 인정하면서 서로 돕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였다. 따라서 타 지역의 당골들이 자기의 당골판에 들어와 굿하는 것은 침해 행위로서 용납되지 않았다. 당골판은 호남 지방의 무당들이 정착성이 강하고 세습성이 높은 배경과 풍토를 만들어 주었다. 강신무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굿을 할 수 있는 이동성이 강한 반면에 호남 지방의 당골들은 당골판을 떠나면 무업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당골판이 당골의 생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강신무들은 판을 중시하지 않지만 세습무들에게 판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 당골판의 관할권은 생업권과 직결되는 관계로 권리가 이양되기도 하고 소유권처럼 매매되거나 거래되기도 하였다. 호남 지방의 무당들에게는 당골판을 마치 재산권 행사하듯이 사고파는 관행도 있었다.

4. 당골의 통혼과 세습 : 당골들은 생업 때문에 당골판을 쉽게 떠날 수가 없다. 당골판은 당골들이 세습무로서 세대전승이 이뤄질 수 있는 직접적인 요인을 제공하였다. 농촌에서 당골은 무업 외에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당골에게 있어서 무업은 숙명적인 생업이었다. 신분상 당골끼리 혼인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당골 집안 사이에 통혼권이 형성되었다. 자연스럽게 무업은 시어머니에서 며느리에게 이어지는 세대전승이 이뤄지고, 따라서 무업은 세습되어 갔다. 이러한 호남 지방의 당골들을 부계 계승의 세습무라고 한다. 세습무는 집안환경과 혈연적인 관계에서 무업을 생업으로 하는 신분을 갖는다. 당골 집안에서 부인이 소리와 춤을 담당한다면 남편은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의 역할을 담당한다. 당골 집안의 구성원들이 모이면 소리 · 춤 · 악기를 연주하고 재주를 부리는 판굿이 벌어진다.

가을철에 징걸립이 시작되면 걸립패는 꽹과리, 장구, 북, 피리, 젓대, 소고 등으로 악대를 구성하고 줄타기와 땅재주를 하는 당골들을 동원하여 당골판굿을 벌인다. 농촌에서 당골들은 굿놀이를 주관하는 재인으로서 오늘날 연예인과 같은 역할도 수행하였다. 당골들은 가무에 능하고 재기가 뛰어나 가창력과 춤솜씨와 기악이 어우러진 판굿을 연출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지닌 집단이었다. 근대화 과정 이후 신분제가 해체되면서 당골의 후손들이 국악계나 연예계로 진출하는 경향이 많았던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되었다. 반면에 당골들이 자식들의 출세를 위하여 신분을 감추거나 무업을 포기하면서 점차 자취를 감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결과 요즘 농촌에서 당골네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5. 당골의 능력 : 당골은 세습무로서 굿하는 방식에서 강신무와 차이가 있다. 첫째, 강신무는 신내림이라는 입무 과정을 통해 무당의 자격을 획득하지만 세습무는 혈연적 집안관계에서 무당의 지위를 얻는다.

둘째, 강신무는 몸주신과 영적 교섭을 통하여 신통력을 발휘하지만 세습무는 주민들의 요청으로 신에게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고 축원하는 의례를 주관한다.

셋째, 강신무는 작두타기나 신기한 기예를 보여주지만 세습무는 소리와 춤과 악기 연주 등 예능에서 뛰어난 소질을 발휘하고 있다.

넷째, 강신무는 몸주신의 영적 능력에 의지하여 굿을 함으로써 주거 이동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세습무는 자기의 당골판을 떠나 다른 곳에서 굿을 하기가 쉽지 않다.

다섯째, 강신무는 개인 신방의 신단을 관리하는 데 비중을 두지만 세습무는 마을의 신당이나 고을의 성황당을 관리하는 일과 마을의 대소사에 비중을 둔다.

여섯째, 강신무가 샤먼과 같은 존재로서 위엄과 권위가 높아서 무당과 인간의 관계가 수직적이라면 세습무는 사제와 같은 존재로서 매우 서민적이고 친근하여 무당과 인간의 관계가 수평적이다. 한마디로 당골은 세습무 가계와 혼인하여 숙명적인 무업을 영유하면서 마을 주민의 요청에 따라 종교의례 또는 일생의례를 돕거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제의 성격이 강하다.

6. 의례의 유형 : 당골이 주관하는 의례는 개인굿과 마을굿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굿은 주로 개인과 집안의 대소사와 관련된 것이며, 마을굿은 해안 지역에서 거행되는 별신굿과 용왕굿 등 신당에서 굿을 주관하는 일이다.

개인굿은 집안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안택굿, 제액초복을 기원하는 재수굿, 출산과 자손번창을 기원하는 칠성굿, 새로 집을 짓거나 이사를 할 경우의 성주굿 등 산 사람을 위주로 하는 굿과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거나 천도하는 오구굿 또는 씻김굿을 주관한다. 호남 지방에서는 오구굿을 씻김굿이라고 부른다. 씻김굿은 주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넋을 건져 위로하는 넋건지기 씻김굿, 길거리에서 객사한 사람의 넋을 불러 위로하는 넋맞이 씻김굿, 미혼으로 객사한 원혼을 달래주는 오구씻김굿,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로하는 조상해원굿, 처녀총각을 결혼시키는 영혼혼사굿 등이 있다.

마을굿은 당산굿과 별신굿을 들 수 있다. 당산굿은 유교식의 당산제와 달리 당골이 가무로서 의례를 주관하는 방식이다. 당산제는 유교식 제사 절차에 따르지만 당산굿은 전적으로 당골의 가무에 의탁한다. 지금은 당골들이 마을에서 자취를 감추고 없기에 제사 방식이 무속식에서 유교식으로 바뀌었지만 옛날의 마을굿 · 고을굿은 사제 역할을 담당하던 당골이 전담했다. 마을단위로 당골들이 당산제를 주관하는 게 통상적인 관습이었으나 당골들이 자취를 감추면서 주민 가운데 깨끗한 사람을 제관으로 선정하여 동제를 주관하거나 마을이장으로 대체된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도 당골이 당산제를 주관하는 마을이 있으며, 사찰의 스님이 당산제에 적극 참여하는 곳도 있다. 부안 내소사에서는 당산나무가 사찰 경내와 마을에 위치하는 관계로 내소사 스님과 마을 주민들이 합동으로 당산제를 지내기도 한다.

별신굿은 사묘 또는 신당에 당신상이나 당신도가 신당에 봉안되어 있는 곳에서 당골들이 주도하는 의례를 말한다. 당골이 관리하는 신당은 성황당, 영신당, 해신당, 산제당 등이다. 그곳에 봉안된 신상은 소조상, 목각상, 소조목각상의 인물상이다. 당신 역시 장군도, 산신도, 칠성도, 용왕도, 할미도 등 인물상을 그림으로 그려서 봉안해 놓았다. 당골들은 이러한 신들과 신상 · 당신도가 봉안된 신당을 관리하고 제사를 주관하는 일을 해왔다. 신당은 당골이 무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버팀목이다. 별신굿은 마을단위로는 정월 보름과 2월 초하루에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단오절에 성황당에서 행해지는 게 일반적이다. 예부터 별신굿은 무당들이 참여하여 주도하는 관행이 있다. 비교적 별신굿의 전승력이 강한 곳은 해안지역이다. 부안 위도 대리 마을에서는 정월 초이튿날에 당골과 악사들의 주도하에 원당제와 용왕굿을 지내오고 있다. 이밖에 당골들의 비손 행위로서 홍수맥이, 잔밥맥이기, 삼재풀이, 살풀이, 덕물림 등이 있다.

7. 호남 당골굿의 특징 : 호남 지방의 당골은 가무의

능력이 뛰어나 그들이 주관하는 판굿은 예술성이 높고 연희적 요소가 강하다. 당골의 소리와 춤에서 극적 요소가 강하고 굿에 따라 무가와 춤사위가 다르며, 악사 및 잽이에 맞추어 소리와 춤이 연출된다. 호남 당골굿에서 연행되는 무가, 무악, 무무 등의 특징을 살펴보면 당골굿의 독특한 예술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무가는 칠성풀이, 장자풀이, 제석풀이 등 서사무가가 발달하였다. 서사무가는 영웅적인 인물이 묘사되거나 우주창생과 인간의 신이한 탄생을 소재로 하는 무속신화의 요소가 깃들어 있는 문학적 장르로 분류되기도 한다. 호남 지역에서도 전북 지역은 서사무가가 발달한 반면에 전남 지역은 서정무가가 발달하였다. 당골들이 무가를 전달하는 데에는 육자배기토리와 판소리의 성음이 뒤섞여 있다. 당골은 무가의 사설을 창과 아니리로 구연하며, 육자배기 가락이 구성지다. 이로 인해 당골집안에서 국악인을 배출하는 경향이 높다. 당골굿에 등장하는 굿악기는 장구 · 징 · 꽹가리 등이 기본이며, 큰굿을 할 때에는 피리 · 해금 · 젓대 · 아쟁 등이 등장한다. 이러한 악기로 연주하는 호남 지방의 무속음악을 시나위라 하여 삼현육각이 동원되는 것이 정석이라고 했을 때 당골들은 직접 장구와 징을 두드리며 앉아서 독경을 할 경우 안진반장단, 물방구 장단, 외장구 장단을 사용하기도 한다. 당골들의 시나위 음악에 맞춘 가창력은 국악의 맥이 무속음악에서 발현되었음을 말해준다.

당골들이 악사들의 반주에 맞추어 추는 춤은 장단과 가락이 완만하며 느리다. 전통굿에서 강신무의 춤이 수직적인 도무(跳舞) 형태라면 세습무의 춤은 수평적인 선무(旋舞)가 주를 이룬다. 춤의 유형은 지전춤 · 바라춤 · 고베춤으로 지전을 손에 들거나 몸에 걸치고 춤을 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무복은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소복 또는 한복이다. 호남 지방의 당골굿은 제의성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예술성과 연희성이 뛰어나다.

참고문헌 전라도 씻김굿(최길성, 열화당, 198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7(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전북의 무가(전북도립국악원, 2000), 강신무, 세습무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용범, 한국무속학 7, 한국무속학회, 2003), 전북지역 무당굿 연구(이영금,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필자 송화섭(宋華燮)

호살량굿

정의 황해도굿의 굿거리 중 하나로, 호환(虎患)을 겪은 호영산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호영산이 등장해서 굿놀이 형태로 연행되는 굿거리.

역사 호랑이는 이미 단군신화를 비롯한 오래전의 여러 문헌이나 신화 등에 등장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호랑이는 위엄 있는 존재로서의 일면이 있는 반면에 호환이라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한반도에서 호랑이를 섬기던 풍속은 『후한서(後漢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이전(東夷傳)」에 "그 풍속은 산천을 존중한다. 산천에는 각기 부계(部界)가 있어 서로 간섭할 수 없다. …(중략)… 범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것을 신으로 섬긴다"라는 기록을 통해 이미 오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의 기록에서도 호랑이를 산군(山君)이라고 하여 무당이 진산(鎭山)에서 도당제를 올렸다는 기록까지 찾아볼 수 있다. 호환에 관한 기록은 『삼국유사(三國遺事)』「감통편(感通篇)」의 '김현감호(金現感虎)'에서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호환을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의 일환으로 호살량굿과 같은 굿의 형태가 발생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호환과 관련한 놀이의 기록은 1865년 경복궁 중건 당시에 축하공연 모습을 기록한 『기완별록(奇玩別祿)』에서 포수가 호랑이를 총으로 쏘는 사냥놀이가 확인되며, 이후 실제 호랑이와 관련한 굿놀이의 형태가 동해안 지역 일대의 별신굿에서 확인된다.

내용 호살량굿은 호랑이가 많던 시대에 호랑이에게 희생된 영혼들을 달래고, 미래에 있을 사고를 막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행한다. 황해도굿의 여러 절차 중에서 호살량굿은 매우 특별한 굿거리 중 하나이다. 호환이 많던 시대에 호환으로 인해 숨진 영혼들을 달래기 위한 것이 호살량의 연행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호살량굿은 호환을 겪은 조상이 있는 집안의 집굿이나 마을의 마을굿에서 굿을 마치는 마지막 절차인 마당굿(뒷전)만을 남기고 집 밖으로 나와서 굿의 맨 마지막에 연행되는 굿거리이다.

1. 호살량굿의 자진만세 청배
2. 호영산 마누라 놀기
3. 호살량 놀기
4. 호살량굿에 바치는 제물

인천시 계양산 둑실굿당 | 2004.12.17 | 김은희



그러나 호살량굿에서 중요한 것은 호랑이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람이 아니다. 호살량굿에서 호군웅씨, 호영산마누라, 사신반웅, 사신군웅 등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실제 이 굿거리에서 모셔서 노는 신에 대해 매우 특별한 모습이 반영된 것으로 짐작된다. 황해도 무당인 박선옥 만신은 호살량굿에 대해 "범 죽은 구신을 논다"라고 말한 바 있다. 즉 호환을 당한 사람을 위해 굿을 하는 것이지만 굿의 실제 내용은 범의 영혼을 잘 달래줌으로써 범들이 사람들을 해치지 않도록 기원하기 위해 하는 굿이라고 할 수 있다.

호살량굿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몇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1. **사방청배** : 무당이 굿청에 들어서서 춤 장단에 방울 · 부채 · 서낭기 등을 들고 사방에 인사를 하고 맴춤을 간단하게 돈다.
2. **자진만세청배** : 자진만세장단에 맞추어 만신과 장구잽이 · 조무의 반복창 형식으로 호영산대감을 비롯한 호영산군웅대감 등 제신을 청하는 무가를 구송한다.
3. **호영산마누라** : 구체적인 굿놀이가 놀기 시작하는 절차로, 무당이 호영산마누라가 되어 재담을 하며 노는 굿거리이다. 호영산마누라는 암호랑이이며 어미 호랑이로 설정되어 있어서 호랑이굴 안에서 새끼들을 거느리며, 수호랑이인 호살량이 먹잇감을 찾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새끼들을 돌보며서 여러 재담을 한다.
4. **호살량** : 호살량은 수호랑이로, 이 호랑이가 사냥감을 구해 돌아다니면서 미리 준비된 개를 발견하면 먹잇감을 사냥하는 시늉을 한다.
5. **날만세** : 굿을 마치면서 신들을 돌려보내는 무가를 자진만세받이 장단에 얹어서 역시 반복창으로 부른다.

호살량굿의 절차 중에서 사장청배, 자진만세청배, 날만세는 모두 황해도굿의 여러 굿거리에서 유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굿거리의 시작하고 끝맺는 방식이다. 따라서 호살량굿의 독자적인 내용은 암호랑이인 호영산마누라가 노는 호영산마누라 놀기와 수호랑이인 호살량을 노는 호량산 놀기의 절차라고 할 수 있다.

호살량굿의 주인공은 범이다. 호랑이 암컷과 수컷이 한 짝을 이뤄서 호영산마누라와 호살량으

로 나누어 놀고 있다. 호랑이 입장이 되어 호랑이의 행색을 표현하고, 호랑이 입장에서 대접을 받음으로써 앞으로의 호환을 예방하는 것이다.

특히 이들 굿거리에서 개고기는 호살량굿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특별한 제물이다. 이는 호랑이의 습성을 고려해 호랑이에게 바치는 제물로 날개고기와 날닭고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개고기 제물은 암호랑이인 호영산을 연행할 때 염병 맞은 코를 잘라먹으며 새끼들에게 제공하는 먹잇감으로, 호살량을 놀 때는 수호랑이인 호살량이 사냥해 오는 사냥감으로도 쓴다.

호살량굿의 또 다른 특이점은 연행에 있어서 말보다 소리와 행동이 매우 중요한 연행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호영산마누라를 노는 동안만 어느 정도의 대사에 해당하는 말이 쓰이고 있을 뿐 대체의 시간은 모두 소리와 행동으로 대신한다. 소리와 행동은 모두 호랑이의 행동을 모방하여 재연하는 방식이다. 호영산마누라나 호살량의 경우 모두 엎드려서 호랑이의 걸음걸이와 같이 기어간다거나 무서운 소리를 내면서 다른 생명체에게 겁을 주는 행위, 모래와 자갈이 담긴 함지에 배설을 하며 영역표시 하기,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통해 사냥을 하거나 고기를 먹는 행위 등으로 표현된다.

일반적으로 여느 굿거리에서는 사람과 신의 소통을 위해 말을 사용하고 대상의 특징에 대해 말로 설명하고, 굿놀이에서는 재담 형식을 통해 신의 직무를 행한다. 그런데 이처럼 호살량굿이 행동 중심의 연행을 하는 점은 동물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데서 오는 독자적 연행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호살량굿에 대한 실체가 처음 공개적으로 확인된 것은 2004년 5월 15~17일에 있었던 국립국악원의 황해도 꽃맞이굿이었다. 당시 박선옥 만신이 바로 호살량굿을 연행한 주인공이다. 박선옥은 호살량굿을 호살량 · 개반웅 · 사신반웅 등의 이명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러한 굿거리 명칭은 기왕에 조사된 몇몇 자료에서 확인되기도 한다. 조사자료인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황해 · 평안남북 편(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黃海 · 平安南北 編)』에서는 영산굿이라고 하여 잡귀에 씌어 병이 난 경우 개를 잡아서 개 몸 안에 짚을 넣어서 박제한 것을 마부로 하여금 제물을 싣고 나가게 하는 사신(使臣)굿에 대한 기록이 있다. 또한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무의식 편(巫儀式編)』에서는 개릉산(사신반혼굿)이라고 하여 집안 조상에 사신으로 갔다온 이가 있다거나, 호식(虎食)으로 죽은 이가 있는 경우 그 조상을 위해 행하는 굿으로 정리하고 있다. 개릉산 역시 영산굿과 마찬가지로 개를 잡아서 그 가죽을 조짚에 씌우고 개를 사신이라고 하여 타고 굿을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서로 다르면서도 일정 부분 유사한 성격으로 각각의 굿거리를 설명하고 있어서 병굿과 호살량굿, 사신굿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한다.

지역사례 황해도 지역의 호살량굿과 같이 호환과 관련한 무속의례의 사례는 동해안 지역의 별신굿과 경기도 파주 지역의 마을굿에서 발견할 수 있다. 동해안의 중부 지역인 경북 영덕군이나 포항시 일대의 별신굿에서 범굿이라는 굿거리가 발견된다. 범굿은 달리 호탈굿, 호석(虎席), 범안굿 등의 명칭으로 불린다. 동해안의 별신굿은 남자무당인 화랭이들에 의해 연행된다. 대거리굿만을 남겨두고 굿의 맨 마지막에 연행되는 범굿은 범과 포수로 분장한 두 화랭이가 등장해 포수가 범을 잡는 행위를 재연하는 방식으로 놀이가 진행된다. 범은 제장을 돌면서 먹잇감을 찾아 어슬렁거리다가 제물로 준비한 산닭(날닭)을 잡아먹는다. 이때 범을 뒤쫓아 들어온 포수가 범을 발견하고 곧 조총으로 쏘아서 쓰러트리고, 범을 잡은 포수가 기쁜 표정으로 범의 가죽을 벗겨내면서 구경꾼들에게 축원의 말을 전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경기도 파주 문산에서 확인된 호랑이 굿놀이는 문산도당굿에서 군웅거리 뒤에 연행하는 호영산호대감굿거리이다. 호영산호대감굿거리는 호랑이에게 난을 당해 죽은 호영산과 호대감신을 위안하는 것으로, 먼저 군웅신이 상산막둥이와 함께 사냥을 떠나서 미리 준비해 둔 희생 개고기를 호대감이 찾는 것으로 진행한다. 호영산호대감굿거리는 호대감만 등장해 숨겨둔 개고기를 찾아 나서서 온 산을 헤매며 사냥을 하고, 사냥에 성공하면 임진강 쪽을 향해 도무를 하고, 날고기를 물어뜯어서 사방으로 버리고 공수를 준 후에 마친다.

이러한 몇몇 호환과 관련한 굿거리들은 모두 재담이나 무언극 형태를 사용하는 굿놀이 형식으로 진행되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즉 신의 말을 직접 전달하는 공수나 신에게 기원하는 교술무가 형태로 연행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대화를 통한 상황의 직접적 재현이 매우 중요한 연행 방식으로 사용된다. 또 이러한 호환 관련 굿거리들은 공통적으로 굿의 후미에서 연행되는 공통점이 있다. 호환을 당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이므로 하위 신으로서 굿의 전반부인 상위신격들과 달리 굿의 후반부에서 하위 신격들의 연장선상에서 연행되고 있다.

이와 달리 범굿이나 호영산호대감굿과 호살량굿의 분명한 변별점은 호랑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라는 자연물에 대한 시각의 문제에서 나타난다. 호살량굿에서 호랑이는 굿거리의 연행 주체로 등장한다. 무당이 암호랑이와 수호랑이가 되어서 그들 스스로의 입장을 말하고 신으로서 등장해 노는 방식이다. 그러나 범굿과 호영산호대감굿에서는 사람이 주체가 되어 굿을 진행하며, 호랑이는 부수적 존재로 등장한다. 특히 범굿의 경우 살아 있는 뱀은 그 자체가 액운의 집합체로 인식되어 매우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고 물리쳐야 할 대상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호살량굿은 범을 물리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람과 같은 자연의 일부로 인식하고, 상호 존중해야 할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애니미즘 세계관이 반영된 굿거리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영동지역무악 및 구포호랑이굿(최길성, 문화재관리국, 1971),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경상남도편(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2),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황해 · 평안남북 편(문화재관리국, 1980),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무의식 편(문화재관리국, 1983), 한국의 굿11–강사리 범굿(하효길 · 황효창, 열화당, 1989).
필자 김은희(金銀姬)

상호참조 사신반혼굿(374쪽)

혼맞이굿

정의 씻김굿 중 수사자(水死者) 이외의 객사한 혼을 집안으로 모셔 오기 위해 길거리에서 혼을 불러 맞이하는 굿.

내용 혼맞이굿은 객사한 혼의 원한을 풀어서 극락왕생시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행한다. 객사한 망자를 씻길 때 안당 후 혼을 맞아오는데 집이 없는 망자의 경우 혼을 맞이한 장소에서 바로 씻김까지 행한다. 이때 가까운 장소에서 죽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통 마을 입구의 대로에서 망자가 죽은 방향을 보고 굿을 한다.

혼맞이굿은 대잡이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로 나뉜다. 그중 대잡이를 하는 것이 오래된 혼맞이굿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대잡이를 할 때는 망자상 1개, 산신상 1개, 사자상 3개 등 5개의 상을 차린다. 이때 사용하는 대는 장대(長竹)이며, 중간 즈음에 흰 천(가제 천) 한 필과 지전을 길게 늘여 묶는다. 대는 장대를 세울 수 있을 만큼의 쌀을 담은 그릇(대야)에 꽂는다. 대를 잡는 사람은 특별히 넋이 잘 내리는 사람이거나 가족 중에서도 감흥이 있는 사람이다. 대를 잡을 때는 망자가 대잡이에게 내려 자신의 말을 전한다. 대잡이에게 망자가 씌기 때문에 대잡이가 몸살을 앓고 거의 실신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이렇게 넋을 불러 맞이하는 것은 한 번에 되기도 하지만 오래 걸리기도 한다. 넋이 잘 안 내릴 때는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면서 대를 잡는 경우도 있다. 대에 넋이 내리면 대 끝이 흔들린다.

대를 잡지 않고 혼맞이를 하는 것은 채정례(진도 당골) 등에 의해 시도되었고, 현재는 많은 무속인이 행하고 있다. 이 경우 망자와 가까운 친척이나 망자가 평소 좋아했던 사람만 데리고 가며, 상도 차리지 않고 망자의 넋과 신칼만을 준비한다. 무속인은 먼저 함께 데리고 간 사람을 대로에 앉히고, 망자의 넋을 앉은 사람의 머리 위에 놓고 신칼의 술을 한바퀴 돌리면서 "왕생극락시키자고 하오니 빨리 오십시오"하면서 망자를 부른다. 망자가 오면 술에 넋이 달라붙는다. 붙은 넋은 앉은 사

람으로 하여금 두 손으로 받게 한다. 넋은 집으로 모셔 오며, 망자상 뒤 병풍에 붙인다.

참고문헌 진도무속현지조사(국립민속박물관, 1988), 한국의 굿(하효길 외, 민속원, 2002),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편(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필자 이명진(李明珍)

혼베

정의 호남 지역의 무속의례에서 객사한 망자의 혼을 맞아오는 길 혹은 다리로 상징되는 천으로 씻김굿이나 넋건지기굿 등의 망자천도굿에서 사용되는 무구. 혼을 맞아오는 길을 의미하지만, 혼을 보내는 길베와 반대의 개념이다.

형태 혼베에는 무명천이나 기저귀감으로 애용되는 흰색의 소창이 주로 사용된다. 혼베로 사용되는 천의 단위는 반 필, 한 필, 두 필, 20마 2필 등 다양하다. 한 필은 과거에는 42자가 주를 이루었으나, 근래에 들어서는 36자, 38자, 40자 등으로 그 길이가 약간씩 상이하다. 평균적으로 40자를 한 필로 쳤을 때, 이를 길이로 환산하면 한 필은 대략 1212㎝이며, 반 필은 606㎝이다. 길이는 다양하지만, 폭은 대체로 40㎝가 넘는 것을 사용한다. 이것은 고풀이베와 구분하기 위해서다. 고풀이베는 그 폭이 혼베, 길베보다는 좁은 것을 사용한다.

객사한 영혼을 맞이하는 굿에서 혼베는 반 필에서 한 필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두 필은 바다에 빠져 죽은 넋을 건지는 넋건지기굿에 주로 사용된다. 36자 2필이나 20마 2필이 사용되는데 무명 20마 2필을 길이로 환산하면 대략 1829㎝이며, 36자 2필은 대략 2182㎝이다.

내용 혼베는 혼을 맞아오는 다리 혹은 길로 기능한다. 특히 넋건지기굿에서는 바다에 던져 넋을 모셔오는 길이라는 의미로 상징된다. 넋건지기굿에서는 망자의 넋이 빨리 올라오도록 의례 초반부터 망자의 혼백을 담은 밥그릇에 연결하여 망자의 가족으로 하여금 의례 과정 내내 이를 잡게 한다. 망자의 넋이 올라오면 이를 거둬들인 뒤에, 그 반을 잘라서 고풀이의 고를 묶는데 사용한다. 재가집에서 의례가 진행될 경우 혼베는 망자가 거주한 공간부터 대문 밖 혹은 굿청 밖의 공간까지 천을 늘어뜨린다. 굿당이나 객사(客死)한 망자의 사망지에서 진행될 경우는 굿청의 제물상 앞에서 굿당 밖 혹은 망자의 사망 장소의 길 입구 쪽까지 천을 길게 늘어뜨린다. 이때 혼베는 손대에 묶어서 길의 입구 쪽까지 늘어놓는데, 이는 망자의 혼을 길 입구 쪽에서 맞이하여 집 안으로 데려오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혼맞이에서 사용하는 혼베가 청신(請神)의 의미를 지닌다면, 그 반대의 의미인 길닦음의 길베는 송신(送神)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호남 지역 무속의례에서 무명천은 혼베 이외에도 고풀이베와 질베로 상징된다. 고풀이베는 망자의 한을 풀어 주는 고로 가시화되어 한풀이천으로, 질베는 넋을 보내는 길로 각각 상징된다. 이러한 다양한 의미로 상징되는 무명천과 소창은 신과 인간이 상호 소통하는 매개 수단으로서 의례에 참여하는 이들을 일치시키는 연결고리인 예단으로도 기능한다. 예단으로 사용될 때는 신이 인간에게 주는 선물인 천과 인간이 신에게 바치는 천이 의례 속에서 교환되기도 한다.

혼베는 길 혹은 다리를 가시화한 것으로 온전한 죽음을 맞지 못한 객사한 영혼이나 물에 빠져 죽은 영혼을 맞이하는 매개물로 상징된다. 길 혹은 다리는 무속의 사고에서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인 저승과 내세라는 사후세계 혹은 신이 살고 있는 신계(神界) 등과의 연결 매개체가 될 때 그 거리가 멀다는 관념을 가시화한 산물이다. 따라서 베 한 필이나 두 필을 혼베로 사용하여 물리적으로나마 멀게 인식되는 공간에 대한 상징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길은 걸어가는 공간이지만 다리는 연결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혼베에는 이승과 저승을 잇는 매개물이라는 다소 이중적인 개념이 내재되어 있다.

참고문헌 진도무속현지조사—채씨자매를 중심으로(국립민속박물관 · 전라남도, 1988),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전라남도 · 전라북도 · 제주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진도 씻김굿의 물질문화 연구(최진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99), 무속의 물질문화 연구(최진아,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9).
필자 최진아(崔眞娥)

홍수맥이

정의 일상적 삶 속에서 닥쳐올 뜻밖에 좋지 못한 횡액을 미리 막아내기 위해 행하는 무속의례. 이를 횡수막이, 홍수막이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내용 무속신앙에서는 좋지 못한 나쁜 액이 달을 지날 때마다 수시로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이러한 액운을 사전에 막아내는 것이 홍수맥이이다. 이 의례를 큰굿으로 할 때는 홍수맥이굿이라고 한다. 이때에는 굿 뒷부분에서 행해지는 창부거리를 하면서 일 년 열두 달에 들어오는 나쁜 액을 막는다. 그러나 홍수맥이는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치루는 소규모 의례이다.

홍수맥이를 하는 기간도 정해져 있다. 새해가 시작되는 정월 초하루부터 대보름까지 대략 보름 동안이다. 이때가 되면 무당집은 홍수맥이를 하러 온 재가집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사람들은 홍수맥이를 하기 위해 아침 일찍 목욕재계하고 초, 향, 쌀, 막걸리와 소액의 금전을 들고 만신집으로 간다. 의례가 간단하게 치러지기 때문에 소요 시간도 짧다. 홍수맥이를 하는 동안 무당은 일 년 동안 닥쳐올 여러 가지 좋은 일과 나쁜 일에 대한 공수를 내린다. 그리고 가족성원들의 생년월일과 성명을 청하면서 나쁜 액운을 막아내기를 기원한다.

일 년 열두 달의 홍수는 다음과 같이 막아낸다. 정월달 드는 홍수는 설날 세배로 막고, 2월 홍수는 한식날 막고, 3월 홍수는 삼짇날 막고, 4월 홍수는 초파일에 막고, 5월 홍수는 단오날 막고, 6월 홍수는 유두날 막고, 7월 홍수는 칠석날 막고, 8월 홍수는 한가위로 막고, 9월 홍수는 구일날 막고, 10월 상달 홍수는 무시루떡으로 막고, 동짓달 홍수는 옹시미 팥죽으로 막고, 선달 홍수는 스무닷새 태종차기로 막는다.

참고문헌 한국민속대사전 2(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서울 이태원 부군당굿(양종승, 민속원, 2007).
필자 양종승(梁鍾承)

황남희

분야 중요무형문화재 제9호 은산별신제의 무녀 예능보유자.

내용 황남희(黃南姬, 여)는 1935년(호적상으로는 1937년으로 등재됨)에 충남 부여군 홍산면 조현리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6세에 부친이 별세하여 집안 사정으로 인근의 구룡면으로 이사하였다. 1950년 3월에 구룡초등학교를 졸업한 황남희는 한국전쟁 중에 서울로 올라가 군속으로 재봉 일을 하다가, 1955년 즈음에 신병을 앓았다. 황남희는 특별히 내림굿을 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벼락대신이 내려서 한 번에 '말문'이 트였다. 26세에 혼인을 하였으나 자식이 없어서 33세에 남편과 헤어진 황남희는 그 이후로 여러 사찰을 유람하면서 사람들의 신수(身數)나 산지리도 보아 주면서 근근이 생활하며 지냈다. 정식으로 법당을 차리고 무업에 종사한 것은 경기도 안성에 살던 43세 때의 일이다.

그녀의 외가는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이다. 어려서 외갓집에 수시로 출입하면서 은산별신제를 보았던 기억이 있다. 구룡면 논티의 꽃받기 행사를 구경한 적도 있다. 일제강점기 때의 일이다. 그 후에도 외갓집 마을에서 벌어지는 은산별신제를 간혹 보아왔다. 언젠가는 은산별신제 예능보유자였던 차진용의 소개로 이어인년 무녀와 함께 은산별신제의 상 · 하당굿에 두어 번 참여하였다. 그러다가 1986년에 은산으로 아예 거주지를 옮겼다. 그해 이어인년이 타계하면서 은산별신제의 이수생으로 추천되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본격적으로 은산별신제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 후 10여 년 동안 한시우 무녀와 함께 은산별신제의 굿을 주도하였다. 이 동안에 황남희는 1992년 7월에 은산별신제 조교로 인정되었다.

1995년에 이수자인 한시우가 별세하자 은산

별신제의 굿은 황남희가 거의 도맡게 되었다. 이어인년과 그녀의 전수자 최매순, 한시우가 모두 사망하자 은산별신제의 굿은 전수 체계에서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황남희는 1998년 6월에 예능보유자로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그녀에 의하여 은산별신제의 굿은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다. 현재 전수장학조교인 이일구와 전수생인 김일락 무녀 등이 황남희의 굿 예능을 학습받고 있다.

참고문헌 제9호 은산별신제 전승자 기 · 예능 조사보고서(문화재청, 1997). 은산별신제(이필영, 국립문화재연구소 중요무형문화재기록도서, 2002).

필자 이필영(李弼泳)

황도붕기풍어제

정의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황도리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지내는 마을제사. 이 제사는 1991년 7월 9일에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되어 있다.

내용 황도붕기풍어제는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면서 붕기풍어놀이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본래는 충청도 서북부 해안지역에서 흔히 불리는 당제이다.

황도는 전형적인 어촌마을 섬으로 인근에서 가장 많이 풍선(風船)을 부렸기에 배사업의 원고장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한편 다른 마을에 비해 소득이 높아 황도를 황금도(黃金島)라고도 불렀다. 풍선을 부리던 시절에 만선(滿船)을 하면 배에 대나무를 잘라서 장식한 붕기를 달고 귀도한다.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사용하는 이 붕기는 만선의 상징으로 모든 어부의 희망을 담고 있다. 풍어를 희망하기에 당제를 붕기 풍어제라고도 부른다.

불규칙적이며 험준한 바다를 대상으로 생활해야 했던 황도 어민들은 그 어려운 현실을 당제를 통해 극복하고자 해마다 음력 정월 초이튿날부터 초사흗날까지 당제를 베푼다.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베푸는 당제만 거행했으나 풍선을 이용한 어업이 번성하면서부터는 선주들이 나서서 당굿을 추가했다. 당굿은 3~5년에 한 번 무당을 불러 행하다가 1983년부터 지금껏 해마다 베풀고 있다. 2008년까지는 서해안배연신굿의 주무로 활동하는 김금화 무당패가 굿을 연행했으나 2009년에는 태안군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앉은굿[坐經]을 행하는 장세일 법사 일행이 굿을 주관하고 있다.

제당은 입촌주인 나주(羅州) 정씨와 해주(海州) 오씨의 거주처에 한 개씩 있었다. 1930년대 중반에 오씨 당이 무너져 현재의 제당에서 함께 제를 지내고 있다. 황도당제는 일제강점기에도 중단되지 않을 정도로 극진하게 이어져 왔다. 당시 일본인이 제당을 부수고 이곳에 신사(神社)를 건립하면서 제당 안에 모셔둔 화본(畵本)을 불살랐지만 화본의 종이만 탈 뿐 주신으로 모셔진 뱀 서낭인 뱀의 화상은 타지 않았다. 이를 두고 "몇 천 년간 녹 받아먹은 것이라 불에 타지 않는다."는 말들을 했다. 광복 후 신사를 부수고 이전의 집으로 복원했으며, 이를 기념하여 큰굿을 한 차례 행했다.

제당의 주신(主神)은 진대[巳]라 하나 현재는 성주 이하 다섯 장군(왼쪽부터 용왕각시, 성조천신, 군왕님, 삼불제석, 동서남북이십사방잡귀축출장군)을 포함한 열두 당을 모신다. 신격의 구체적인 실체와 봉안 시기는 알 수 없다. 주신을 서낭, 즉 진대서낭이라고 믿는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진대와 상극인 돼지를 사육하지 않는다. 돼지를 사육하면 돼지는 잘 되지만 그 집의 식구가 병신이 되거나 죽게 되므로 돼지 사육을 그만두었다. 돼지고기를 먹고 배를 타면 배가 난파되거나 사고가 발생하므로 돈육의 식육마저도 금했다. 이 금기는 특히 당을 모시는 당주와 선주 사이에서 강하게 지켜졌다. 이처럼 당을 정성껏 모신 탓에 그 덕으로 마을이 부유하게 되었다고 믿는다.

제당은 섬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당산의 튼 상봉과 작은 상봉의 두 봉우리가 만나는 편평한 지점에 있으며, 주변에는 해나무가 군을 이루고 있다. 당집은 왼쪽부터 원당, 산제당, 창고로 이루어져 있다. 원당 내부에는 다섯 점의 화상(畵像)이 걸려 있다. 산신당은 소당이라고도 부른다. 이곳에 쇠고기를 올리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소당(素堂)의 성격을 지닌다고도 할 수 있다. 정면에는 산신의 화상이 봉안되어 있다. 가장 오른쪽의 허름한 공간은 제물을 장만하는 장소로, 통소를 손질하는 육간(肉間)이다. 이외에 제당으로부터 50m 떨어진 곳에 '당샘' 혹은 '당너머 샴'이라 부르는 작은 샘이 있다. 이 물로 제물을 장만한다.

제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중선배 선주들이 추렴했지만 지금은 마을 기금으로 충당한다. 선주들에게 제비를 걷는 행위를 '당추렴한다'라고 표현한다.

제물 장만은 연륙되기 이전에 배를 이용했다. 그중 깨끗한 배를 탔으며, 그 배에는 상주나 부정한 사람은 타지 않았다. 서산장에 나가 제물 일체와 수소 한 마리를 구입한다. 수소는 뿔이 삐뚤게 나지 않고, 흰털 등의 잡털이 섞이지 않은 온통 붉은 털을 지닌 것으로 고른다. 소를 파는 집 역시 깨끗한 집의 것을 구입한다. 구입해 온 소는 더 이상 소라 부르지 않고 지태 혹은 제태라 불린다. 지태가 있는 외양간에는 금줄을 치고, 깨끗한 것만을 먹인다. 당주 집에서 가장 가까운 샘에서 처음 길어온 물로 술을 빚는다. 이 술은 조라라고 하며 선주가 가져온 쌀과 누룩 8말 정도의 분량으로 빚다.

제사를 앞두고 부정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섣달과 정월이 날달[産月]인 임신부 중 출산일에 임박한 사람은 마을을 떠난다. 1960년대 이전까지는 지금 연륙교가 있는 곳에 해산막(解産幕)이 있어서 그곳을 이용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 구습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다 하여 행하지 않는다. 이와는 별개로 당제를 앞두고 초상이 나면 그 집과 왕래하지 않고 제사를 거행한다. 초상집에서는 곡이나 울음소리를 내서는 안 되며, 제사를 지내고 나서야 장사를 모실 수 있었다.

당제는 당주와 선주가 중심이 되어 치르지만 3~4년에 한 번 치르는 당굿은 인근의 단골을 불러 했다. 단골은 안면도, 원산도, 당진 등지의 큰무당을 불렀다. 1950년경까지는 마을을 돌보아주는 단골이 있어서 그가 제를 지낼 때 비손을 맡았다. 단골이 외지로 떠난 후 한동안은 무당의 비손 없이 당제만을 거행했다. 그후 1980년대 초반까지는 한국전쟁 이후 마을 에서 거주하던 무당인 박한성 씨가 비손을 맡았다. 1980년대 중반에 큰 무당 김금화 패를 초빙했다.

초이튿날이 되면 아침 일찍 당주가 소를 몰고 나와 당산에서 소를 잡는다. 소는 당집 바깥쪽에 별도의 공간에서 육간 사람들이 잡는다. 소가 죽을 때 음매하는 소리의 횟수가 많을수록 운수가 대통한다고 해석한다. 소를 해체하는 열두 군데 부위를 조금씩 잘라 굽거나 삶거나 해서 제물을 마련한다.

하산한 당주는 조라를 가지고 당에 오른다. 집에서 씻어온 쌀로 노기를 짓는다. 밥이 다 될 때까지 당주는 그 앞에 꿇어 앉아 공손하게 불을 지핀다. 오전 11시경이 되면 준비된 제물을 모두 올리고 피고사를 지낸다. 당주와 화주가 원당 앞에서 재배하면 그 위에 선 선주들이 이어 재배한다. 간단하게 피고사를 마친 후에는 올렸던 제물을 꺼내 제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당주 일행은 하산해 본제 제물을 장만한다.

오후 3~4시에 당주와 무당 일행이 함께 제당에 오른다. 이를 당오르기라고 한다. 이때 당주는 조라를 머리에 이고 앞선다. 선주들은 꽃반을 마련해 가지고 오른다. 당집에 이르다가 바깥 금줄이 쳐진 곳에 도착하면 먼저 부정풀이를 한다. 모든 부정을 푼 후에야 제물을 제당 안으로 들인다. 제당 안에 먼저 길지를 걸고 이어 제물을 올린다. 제물은 북쪽 신위 앞에 먼저 올린다. 화상은 다섯 개뿐이지만 과거로부터 열두 당을 위했다고 전하므로 제물은 모두 열두 몫을 올린다. 밤 12시경이 되면 원당제를 거행한다. 밤에 지내는 제사라 하여 밤제사라 한다. 당주와 화주를 비롯하여 선주가 재배를 한 후 무당이 비손한다. 이렇게 하여 원당제사를 마친 후에는 산제당으로 건너가 산신제를 모신다. 산신제를 마친 후에는 무당이 본격적으로 열두거리 굿을 한다.

새벽 1~2시에 두 번째 노기를 짓는다. 이것은 동네노기이다. 날이 샐 무렵에는 세 번째 노기인 제를 지내는 당주의 몸노기를 지어 군왕님 앞에 놓고 무당이 비손한다. 새벽이 되면 당주가 미리 나누어 둔 고기를 각 배에 나누어 준다. 큰 배부터 작은 배의 순으로 고기를 주면 줄달음쳐서 자기 배로 내려간다. 고기가 도착하면 각 배에서는 제

숙고사를 지낸다. 먼저 고사를 지내면 기분도 좋고 돈도 많이 번다고 하여 경쟁하듯이 서두른다.

아침 9시경이 되면 선주들을 위한 비손을 한다. 이것이 기내림 혹은 당내리기이다. 큰 배의 선주부터 작은 배의 선주까지 순서대로 집에서 길지 한 장을 마련해 가지고 당에 오른다. 당에 오르면 가지고 간 길지를 제당 안에 건 다음 걸려 있는 길지 한 장을 꺼내 들고 나온다. 이어 무당이 선주 한 명씩을 불러 축언해준다. 축언을 받은 선주는 자신의 배로 가서 당맞이 고사를 지낸다. 기를 모두 내린 후에 철상(撤床)을 한다.

당을 내린 후에는 무당과 아녀자들이 주축이 되어 선창에서 요왕제(용왕제)를 지낸다. 이를 요왕제 혹은 부정풀이, 희식[獻食]이라고 한다. 선창-장벌-연륙교에서 순서대로 행한다. 해상에서의 안전을 기원하는 제사이다.

제사를 마친 후에 당주는 매월 초사흗날 새벽 3시에 당집에 올라 시루떡과 청수만을 올리고 만선의 해상 안전을 위해 기도한다. 혼자 올리는 치성이라 하여 독치성이라고 한다.

이처럼 황도의 당제는 어민들의 실생활에서 가장 절실했던 풍어와 안전을 위한 노력이 결집 되어 있다. 농촌과 달리 어민들은 불안전하고 변화무쌍한 바다를 대상으로 살아가야 했다. 그러한 삶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마을마다 치른 당제에 당굿을 추가했다. 강렬한 종교적 열망이 당굿으로 표현된 것이다.

참고문헌 황도 붕기풍어제(태안군 · 태안문화원, 공주대박물관, 1996).

필자 김효경(金孝慶)

황천혼시

정의 함경남도 함흥 지역에서 아이가 아플 때 낫게 해 달라고 신에게 비는 제의에서 구송되는 무가. 〈황천혼시〉는 황천곡(黃泉曲), 삼형제의 노래라고도 한다. 〈황천혼시〉의 황천(黃泉)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저승이고, 혼시는 혼(魂)의 방언 또는 와음으로 보인다.

내용 〈황천혼시〉 무가는 손진태가 1926년 3월 함경남도 함흥군 운전면 궁서리의 본궁(本宮)에 사는 김쌍돌이(당시 71세)가 구송한 무가를 채록하여 『조선신가유편(朝鮮神歌遺篇)』에 수록한 것이다. 내용은 송님동이, 이동이, 사마동이 삼형제가 백골을 잘 모신 덕으로 저승사자가 찾아올 것을 미리 알고 잘 대접하여 저승길을 면했다는 이야기이다.

송님동이, 이동이, 사마동이 세 형제는 아버지가 있을 때 재산이 넉넉하여 잘 지냈으나 아버지 사후에는 겨우 밥이나 먹을 정도로 가난하였다. 하루는 칠석날이니 논밭 구경을 가자는 사마동이의 말에 따라 삼형제가 논밭 구경을 나갔다. 사방의 곡식이 모두 이삭이 좋고 잘 패어 삼형제는 각종 이삭을 잘라 가지고 돌아왔다. 하지만 그냥 먹지 않고 지신님, 산신령님, 조왕님께 제를 지낸 후에 농사를 시작하자는 사마동이의 말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송님동이는 쟁기질하고 이동이는 재를 뿌리고 사마동이는 씨를 뿌리면서 절반쯤 갈아 올라가니 흙속에서 백골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삼형제가 속적삼을 벗어 백골을 모셔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방문 앞에 모셔두고 아침, 점심, 저녁마다 음식을 올리다 보니 세간이 바닥나게 되었다.

이렇게 5, 6년을 지내던 가운데 어느 날 밤에 백골이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이었다. 삼형제가 잠에서 깨어나 옷을 차려입고 극진히 세 번 절을 올린 뒤 물었다. "백골님, 어찌하여 이렇게 눈물을 흘리십니까? 저희가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만나서 호강을 잘하였다. 그런데 사흘 있으면 염라대왕이 와서 너희 삼형제를 잡아간단다." "백골님 여태까지 저희가 수많은 세간을 바쳤으니 무슨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십시오." 백골은 검은 소를 잡아 서른 세 쟁반에 담은 다음 궁왕산 다리 위에 많은 음식과 함께 차려 놓고 다리 아래에 들어가 숨으라고 했다. 그러면 삼형제를 잡으러 온 저승사자들이 시장한 김에 그것을 먹고 나서 돌아앉아 신발을 신을 테니 그때 앞에 가서 세 번 절을 올리고 살려 달라고 빌라고 하였다.

이윽고 저승사자 셋이 출발하여 궁왕산 다리를 건너게 되었다. 저승사자 가운데 하나가 너무 시장하여 어린아이가 먹던 밥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러자 뒤에 있는 사자가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면서 인간을 하나도 아닌 셋이나 붙잡으러 가니 서둘러 바삐 가자고 한다. 저승사자들은 다리를 거의 다 건너왔을 때야 비로소 가득히 차려 놓은 음식을 발견했다. 그것을 본 사자들은 "밤말은 쥐가 듣고 낮말은 새가 듣는다고 하는데 이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걱정은 되지만 음식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셋이 앉아서 다 먹어치웠다. 그때 삼형제가 다리 아래에서 나와 사자들에게 수없이 절을 올리고 각기 신분을 밝혔다. "너희의 음식을 우리가 먹었으니 어찌 그냥 갈 수 있겠느냐. 송님동이는 누런 황소를 급히 끌어오고, 이동이는 기름종이로 만든 비옷 한 벌을 내오고, 사마동이는 놋항아리를 내오너라." 저승사자들이 황소와 비옷과 놋항아리를 가지고 염라국의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염라대왕은 "송님동이를 왜 못 잡아왔느냐?"고 물었다. "방방곡곡을 찾아다녔으나 송님동이란 이름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고을에 누런 황소가 있기에 고삐를 풀어 가지고 왔습니다." 염라대왕이 이동이도 없더냐고 하자 저승사자는 "없기에 그 고을에 있는 비옷을 벗겨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했다. 염라대왕이 사마동이도 없더냐고 하니 "방방곡곡을 다 다녀도 사마동이란 이름이 없어서 그 고을에 있는 놋항아리를 들고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삼형제는 죽음을 면하고 여든 한 살까지 살았고, 죽은 뒤에는 아이가 아플 때 황천혼시 제(祭)를 받는 성인(聖人)신이 되었다.

지역사례 굿과 주인공의 성격은 다르지만 수명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무속신화는 여러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주도의 〈맹감본풀이〉는 〈황천혼시〉의 내용과 가장 근접하다. 이 밖에 충남 부여 지역의 축원굿 가운데 한 석(席)인 〈장자풀이〉, 고창 지역의 씨끔굿에서 부르는 〈장자풀이〉, 전남 고흥 지역의 씻김굿에서 부르는 〈명두굿무가〉 등도 수명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맹감본풀이〉는 제주도 무당굿에서 심방이 노래하는 본풀이의 하나로, 〈사만이본풀이〉라고도 한다. 이는 등장인물의 이름이 '사만이'인 데서 붙여진 것이다. 모든 굿에서 액막이를 할 때 불린다. 명관(冥官) 또는 명감(冥感)의 와음(訛音)으로 보이는 맹감은 본풀이의 내용이나 액막이 제차(祭次) 내용으로 보면 저승사자, 곧 차사의 이칭으로 되어 있다.

〈맹감본풀이〉 무가는 장주근이 1962년 8월 제주도 구좌면 세화리에 거주하는 고대중(당시 46세)이 구송한 무가를 채록하여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에 수록하였다. 이 밖에도 진성기가 조사하여 프린트본으로 만든 『남국의 무가』에도 수록되어 있다.

옛날 주년국 땅에 소사만이가 매우 가난하게 살았다. 혼인을 하여 자식은 태어나고 부인이 바느질 품팔이로 끼니를 이어가면서 살림은 더욱 곤궁했다. 어느 날 부인이 머리카락을 끊어 남편에게 주며 장에 가서 팔아 아이들 먹을 쌀을 사오라고 한다. 사만이는 장에 가 머리카락을 팔아 석 냥을 받고 쌀을 사러 다니다가 조총을 하나 샀다. 이것으로 사냥하면 쌀도 나오고 돈도 나온다는 장사꾼의 말에 솔깃해 사온 것이다. 부인의 타박을 들으면서 사만이는 사냥을 나갔으나 며칠이 되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어느 날 사만이는 들판을 헤매다가 백년해골을 발견하고 이게 집안 조상이 아닌가 하여 집으로 모셔다가 위하기 시작했다. 이로부터 사냥이 잘되어 사만이는 삽시간에 부자가 되었다. 사만이가 서른세 살이 되는 해 어느 날 밤 꿈에 백년해골이 백발노장으로 나타나서 "너는 서른세 살로 정명이 다 되어 삼 차사가 잡으러 오고 있으니 관디 셋, 띠 셋, 신발 세 켤레와 여러 음식을 차려 세거릿길에 가서 정성을 들이고, 집에서는 큰굿을 해야 액을 막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사만이가 그대로 차리고 엎드려 있으니 과연 차사 셋이 내려왔다. 배가 고픈 삼 차사는 우선 음식을 먹고, 신발을 갈아 신고, 관디와 띠를 갈아매고는 그 주인을 찾았다. 사만이가 주인임을 안 삼 차사는 사만이의 집에 와 굿 정성까지 받으니 사만이를 잡아

갈 수가 없었다. 삼 차사는 대책을 의논하고 그대로 돌아간 뒤 사만이 정명 삼십이라 쓴 저승문서에 '열십(十) 자'의 한 획을 비껴 '일천 천(千) 자'를 만들어 놓았다. 이래서 사만이는 삼천 년을 잘살았다고 한다.

이밖에 다른 무속신화에는 저승문서의 정명을 고치고 소사만이 대신 이름이 같은 유사만이 또는 오사만이를 잡아갔다는 이야기도 있다.

부여 지역의 축원굿 가운데 여덟 번째 거리에서 구송되는 〈장자풀이〉는 김태곤이 1966년 1월 충남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에 거주하는 세습무 이어인년 무녀가 구송한 무가를 채록하여 『한국무가집(韓國巫歌集)』 1권에 수록하였다. 〈장자풀이〉는 나쁜 액운을 면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장수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옛날에 사마장자란 사람이 있었다. 사람 됨됨이가 무척 엄했으나 심성이 인색한 소문난 구두쇠였다. 그는 수만 석 수천 석의 곡식을 받아도 쌀이 아까워 부모 제사에 밥 한 그릇 차리지 않았다. 그러니 일가와 화목하지 않고, 동기간에 우애 없고, 없는 사람 도울 줄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사마장자가 정월 초하룻날 밤에 참으로 해괴하고 이상한 꿈을 꾸었다. 그가 먹던 은수저가 세토막으로 나고, 먹던 은밥그릇의 굽이 빠져 보이고, 지붕에 흰 것이 앉아 보이고, 마당에 상식상(上食床)이 있어 보이고, 사랑 앞의 행자목(杏子木)이 춤을 춰 보이고, 사마장자가 사인교(四人轎)를 타 보이는 꿈이었다. 사마장자는 아들, 딸, 며느리에게 꿈 이야기를 했다. 듣고 있던 딸이 아버지가 과거에 급제할 꿈이라고 좋아한다. 그러나 며느리는 엄숙한 얼굴로 조용하게 아뢰면서 아버님이 돌아가실 꿈이라고 해몽을 한다.

"제가 친정에서 보면 조상님 제사도 지내고, 정월이면 당산에 고사도 하고, 거리에 논제[路祭]도 지내고, 없는 사람 도와도 주던데 제가 시집온 지 칠팔 년이 되어도 아무것도 없었으니 아버님이 돌아가실 꿈입니다. 해몽을 드릴 테니 바른대로 들으시오. 새로 집터 다진 것은 관중(棺中) 안을 다듬는 것이고, 사인교 탄 것은 상여 탈 징조입니다. 사랑 앞의 행자목이 춤춘 것은 그 나무 베어내어 관을 만든다는 뜻이고, 마당에 상식상 놓은 것은 사자상(使者床)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붕에 흰 게 보이는 것은 아버님 속적삼으로 초혼하는 일이고, 잡숫던 은수저가 삼 도막 나뵈는 것은 돌아가시면 맥을 끊는다는 뜻입니다. 잡숫는 은밥그릇 굽이 빠져 뵈는 것은 목숨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겁을 한 사마장자가 며느리에게 묻는다. 며느리는 종이를 꺼내 생금(生金) 닷 되를 싸주면서 어서 빨리 문복(問卜)쟁이를 찾아가라고 한다. 사마장자는 금싸래기 서 되 서 홉까지 다 싸 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간다. 점쟁이의 점사에도 역시 사마장자가 죽을 꿈이라고 한다. 사마장자가 학창의(鶴氅衣)도 벗어 놓고, 통영관도 벗어 놓고, 산호 동곳도 빼어 놓고, 대모풍잠(玳瑁風簪)도 떼어서 복채로 주며 빌었다. 점쟁이는 그동안 사마장자가 없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조상에게 제사밥도 올리지 않고, 쌀을 팔아도 누런 쌀에 누런 모래를 섞어 팔고, 흰쌀에 흰모래를 섞어 팔고, 장리(長利)를 주어도 작은 말로 주고 큰 말로 받는 등 악행들을 일일이 들어 말했다. 장자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살 수 있는 방도를 물었다.

"장자님이 살려면 이 길로 돌아가서 앞노적 뒷노적 헐어내어 동네 기민(饑民) 주고 술도 섬으로 하고, 밥도 섬으로 하고, 떡도 섬으로 하고, 돼지 잡고, 옷도 세 벌 새로 짓고, 광목을 길게 깔고 돈으로 유두(충청도에서 말하는 얕은 냇물을 발 벗지 않고 건널 수 있도록 돌을 놓아 다리 구실을 할 수 있게 만든 것. 징검다리류도 유두에 속함) 놓고 사자풀이를 하다 보면 저승사자가 나올 테니 그 사자들에게 살려 달라고 하시오."

사마장자는 급히 집으로 돌아와 며느리에게 일렀다. "여봐라. 며늘아가, 앞노적 뒷노적 헐어내어 동네 기민에게 주라더라. 옷도 세 벌 새로 짓고 돈도 삼천 냥 내어놓고, 소 잡고 돼지 잡고 사제풀이 하라더라." 이렇게 집안 식구들을 동원하여 모든 준비를 마친 사마장자는 마당에 차일 치고 상을 차려 놓고 밤이 되기를 기다려 사자풀이를 시작했다.

밤이 깊어지자 저승사자, 이승사자, 강님도령, 강님차사가 나온다. 어떤 사자는 쇠사슬, 어떤 사자는 쇠뭉치를 각각 손에 들었다. 이승사자가 들고 온 사명기(司命旗)를 마당에 꽂는다. 사마장자는 세수를 정히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나아가 제 목숨 값으로 재물을 바친다며 살려 달라고 애원한다. 사자들은 저희끼리 말을 주고받는다. "여봐라, 우리 이 음식을 먹어도 뉘 음식인가 성명이나 알고 먹세." "가만히 들어보니 사마장자의 축원이구먼." "이 공덕 저 공덕 하여도 부엌 공덕이 제일이라. 우리가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의복도 남루하니 젖은 옷은 벗어 놓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겠나." "우리가 젖은 옷 벗고 마른 옷 입고 돈 천 냥씩 꽁무니에 차고 술로 목욕하고 고기로 양치질하고 떡 먹고 메로 운감(殞感)하고 우마장자네 집으로 가세." 이렇게 해서 사마장자는 죽을 고비를 면한다.

일곱 식구가 짚신을 삼아 먹고사는 우마장자네 집에서는 갑작스런 변고가 생겼다. 저녁까지도 몸이 성하던 우마장자가 새벽이 되면서 갑작스레 병이 들었다. 밤새도록 냉수를 찾다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부르다가 붕어눈을 부릅뜨고 죽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사자들은 우마장자를 잡아끌며 어서 가자고 재촉한다. 우마장자는 먹던 양식을 봉해 두고 만당에 이별하며 성주께 이별하고 조상에게 하직하고 길을 떠난다. "여봐라, 네가 한강역사 옆에 가서 조사를 받을 적에 과연 네가 사마장자냐 하거든 예 하고 대답해야지 엉뚱하게 대답하면 두 번 죽음 시키겠다." 사마장자로부터 뇌물을 먹은 사자들은 우마장자를 협박했다. 그제야 우마장자는 자기가 사마장자 대신 잡혀가는 줄 알았다. 하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신수가 사나우면 이렇게 남 대신 죽기도 하고, 돈이 많으면 귀신도 사귀고 자손도 신께 빌어 얻을 수 있는 법이다.

의의 〈황천혼시〉, 〈맹감본풀이〉, 〈장자풀이〉 무가는 모두 대명(代命) 또는 연명(延命)설화형의 서사무가이다. 고전소설 〈왕랑반혼전(王郎返魂傳)〉에도 유사한 화소(話素)가 보인다. 이를 통해 서사무가와 고전소설이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자상에 사잣밥과 짚신 세 켤레를 만들어 놓는 습속을 뒷받침하는 등 유교의례를 상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무속에 수용된 유교 의례의 면모를 볼 수 있다.

이들 무속신화에 따르면 사람이 죽는 것은 저승에서 사자를 보내 혼령을 잡아가기 때문이며, 이것은 저승세계에서 관장한다고 믿는다. 또한 무속의 신도 현실계의 인간과 마찬가지로 음식을 필요로 하고 돈을 좋아한다고 믿고 있으며, 저승사자도 인정에는 약하고 염라대왕이 사자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내용에서 무속의 신관을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인간은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오래 사는 것이 제일이라는 현세 중심의 무속적 사고가 반영되어 있다. 〈황천혼시〉는 아이가 아플 때 낫게 해 달라고 무가 속에 나오는 삼형제 신에게 비는 제의에서 구송된다. 이 무가에서 삼형제 신은 아이들의 수명을 관장하는 무속의 신격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조선신가유편(손진태, 향토연구사, 1930), 남국의 무가(진성기, 제주민속문화연구소, 1968), 한국무가집 3(김태곤, 집문당, 1978), 한국의 무속신화(김태곤, 집문당, 198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7-맹감본풀이(현용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5-황천혼시무가(서대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민간신앙과 일생의례의 수수관계(김명자, 한국종교민속연구회편, 종교와 일생의례, 민속원, 2006).

필자 김명자(金明子)

상호참조 맹감본풀이(271쪽), 장자풀이(753쪽)

황하청

분야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설경 보유자.

내용 황하청(黃河淸, 남)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39번지에서 태어났다. 실제 생년월일은 1920년 3월 9일(음력)이지만 호적상에는 1922년 3월 9일로 등재되었다. 충남 대덕군 탄동보통학교 4년 졸업 후 서당에서 3년 수학하였다. 황하청은 서당 수학후 농업에 종사하다가 풍수지리를 배우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18세 되던 해, 당대에 법사로써 명성을 떨쳤던 민영태 선생이 동네에 들어와 병든 사람을 고치기 위해 경을 읽었다. 그 당시 민영태 선생은 40대 후반 정도

의 나이였으며 삼도(충정도, 경상도, 전라도)에서 크게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유명 법사였다. 그러면서 민영태 법사는 황하청이 사는 이웃 마을 유성면 구성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민영태 법사가 경을 읽은 후 병든 사람이 완쾌되었다. 황하청은 신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황하청은 집안에 무속인이 없었지만 법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민영태 선생에게서 무업을 배우려고 선생을 찾아갔다. 민영태 법사는 무업은 배우다 그만두면 몸이 아프다고 하면서 거절하였다. 황하청은 좌절하고 않고 다시 선생 집으로 찾아갔다. 두 번 거절당한 후, 세 번째 찾아 갔을 때 제자로 받아 주었다.

황화청은 민영태 법사 밑에서 무학습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스승을 그냥 따라 다녔다. 당시는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일본 순사의 눈을 피해 가면서 굿을 다니는 선생을 따라 다녔다. 굿을 따라 다니면서 스승이 굿을 하면서 신령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황하청은 더욱 무속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하였다. 무업을 배우는 순서는 먼저 병택(병굿)과 안택(안택굿)이었다. 스승 민영태 법사는 경문의 내용을 자필로 써서 제자 황하청에게 주었다. 집에 돌아와 혼자서 열심히 연습하곤 하였다. 그리고 굿일이 없을 때는 하루도 빠짐없이 스승의 집으로 갔다. 황하청이 스승을 따라 다니면서 무업을 거들고 배우고 하는 세월이 5년이 흘렀다. 스승 민영태 법사는 황하청의 사람 됨됨이와 무학습에 임하는 태도 그리고 무업에 관련된 설경제작 및 경문 고장 등의 기술을 점검하고 흐뭇하였다. 황하청은 스승 민영태 법사의 기술만 열심히 익힌 지 5년 정도가 지나서야 혼자 굿을 할 수가 있었다. 스승 민영태 법사가 작고 하실 때까지 황하청은 선생을 깍듯이 모셨다. 황하청의 스승 민영태 법사는 나이 73세로 세상을 떠났다. 스승 민영태 법사는 세상을 떠나기 전 제자 황하청 법사에게 설경 뜨는 칼 하나를 물려주었다. 당시 황하청 나이 40세 초였다.

스승 민영태 법사가 작고한 이후 황하청 법사는 스승의 무업을 이으면서 일가를 이루기 시작하였다. 황하청 법사의 설경과 경문 그리고 고장이 유명하다는 말이 장안에 알려지면서 많은 제자들이 몰려들었다.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안택굿 및



황하청
대전 송선자 보살 신당 | 1997 |
양종승

미친굿 보유자 신석봉 법사도 황하청 법사의 설경을 주문하여 사용하였다. 황하청 법사는 무속인 단체인 대한승공경신연합회 주최로 개최된 나라굿에서 그의 설경제작과 대전 앉은굿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대전 엑스포, 한밭문화제 등에서 그의 무의식을 선보였다.

황하청의 설경은 대전광역시 중구문화원에 보관되어 있고 대전사료관에서는 독립된 무속전시관을 마련하여 황하청의 설경을 전시하고 있다. 황하청 법사는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에 크게 이바지한 결과로 1998년에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황하청 법사는 1998년 11월 19일 사망전까지 약 200여명이 넘는 제자에게 신풀이를 하였다. 그리고 그의 굿문서를 학습한 제자는 대략 100여명 정도가 된다.

참고문헌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설경 지정조사보고서(양종승, 대전광역시, 1998). 대전 · 충청무속의 설경연구 [민속학연구] (양종승, 국립민속박물관, 1999). 충청도 굿의 설경(說經) [민속소식] (양종승, 국립민속박물관, 2007).

필자 양종승(梁鍾承)

황해도굿 무복

정의 황해도 강신무가 굿을 할 때 입는 옷.

내용 황해도굿은 복색이 매우 화려하고 다양하다. 굿에 사용되는 복식은 적게는 수십 벌에서 많게는 수백 벌까지 갖춘다. 황해도굿 무복은 무당이 제의를 행할 때 입는 옷으로, 신복, 신옷, 관듸 등으로 불린다. 무복을 광대(廣大)라고 하는 곳도 있다. 이는 무복의 옷소매가 넓고 크며, 색상이 화려하여 평상복과는 다른 구성을 하고 있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신복은 신의 몫으로 만들어 바친 옷이나 보관되는 옷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신복은 그것을 입음으로써 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제사를 지낼 신들에 관해 각각 그에 따른 신옷을 준비하는 것이 원칙이다. 무복에는 신옷과 신모가 포함된다.

무복은 무당이 신을 모시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무당은 무복을 입어야 인격을 지닌 인간에서 신격으로 상승하고, 신은 무복을 입은 무당의 입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공수를 통하여 내



황해도굿 무복
1983 | 국립민속박물관

뱉는다. 즉 무복은 공수가 굿의 핵심이 되기 위한 절대적인 전제조건이다. 무당이 무복을 입지 않으면 신이 내리지 못하고 따라서 공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무당은 무복을 입음으로써 보통의 인간을 초월하는 권위를 얻게 된다. 그러나 이 권위는 일상적인 권위가 아니다. 다시 말해 무당은 평상복을 입은 일상적인 상태에서 무복을 입음으로써 신이 내린 혼돈의 상태, 즉 반일상적인 상태로 전환되는 것이다.

만구대택굿은 황해도 지역에서 전승되어 온 큰굿으로, 무당 자신과 단골손님의 재수대통을 비는 기복굿이다. 대택굿은 크게 무당이 초년에 행하는 소대택, 중년에 행하는 중대택, 말년에 행하는 말대택으로 구분된다. 만구대택은 말년의 만대택을 말하며, 무당이 자신의 회갑 · 순 등 일생 동안 세 번밖에 할 수 없다. 일반적인 굿은 보통 12거리로 짜여져 있으나 만구대택굿은 24거리로 구성되어 있어 보통 일주일 이상 진행된다. 굿의 절차는 하루 전날 저녁 굿이 순조롭게 풀리도록 하기 위해 안반고사를 올린 후 24거리 제차로 진행된다. 〈표1〉은 24거리별 무복에 관하여 간단히 표로 정리한 것이다.

무복에는 관모와 의복, 대(帶), 장신구가 포함된다.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무복을 입는 순서는 일상복의 홍치마와 저고리를 먼저 입고, 흑색 머리띠를 하며, 남쾌자를 입는다. 그 위에 신복인 관복 · 도포 · 장삼 등 포(袍)를 입는다.

1. 관모 또는 수식 : 황해도 만구대택굿에 사용된 관모에는 꽃갓, 호수갓, 고깔, 갓, 족두리, 패랭이, 벙거지, 와룡관, 성수모자, 투구 등이 있다. 모든 수식의 기본은 흑색 머리띠이다. 각각의 관모는 다음과 같다.

1) 고깔

칠성거리 · 만장발거리 · 제석거리에서는 백색 고깔에 홍색 선장식이 있는 것을 쓰고, 방아거리 · 영전거리에서는 선이 없는 고깔을 쓴다.

2) 꽃갓, 호수갓

꽃갓은 초부정거리, 서낭거리에서 쓴다. 홍갓 위에 장식하는 꽃은 천을 삼각형으로 접어 잣물림 형식으로 만들었다. 색은 분홍 · 황색 · 녹색 · 백

색 · 남색이며, 꽃 위에 깃털도 장식하였다. 호수갓은 산천거리에서 사용한다. 흑립 위에 꽃을 자수한 홍색 띠를 얹고, 그 주변에 호수로 꽂아 장식하였다.

3) 갓

갓에는 패랭이와 흑립이 있다. 패랭이는 소대감거리에서 착용한다. 흑립은 천문거리, 풍수거리, 성주거리, 잔내림거리, 조상거리, 신장거리에서 일

〈표1〉 황해도 만구대택굿 거리별 무복

번호	거리		관모 또는 수식	일상복			신복		
				저고리	치마	쾌자	의복	대	부속품
1	초부정 거리		꽃갓	초록저고리	홍치마	남쾌자		홍띠	
2	산천거리(상산맞이거리)		호수갓	초록저고리	홍치마	남쾌자	상산의대 (홍관복)	백학옥대	
3	초감흥 거리		꽃갓	초록저고리	남치마	남쾌자	감흥의대 (홍관복)	감흥관대(영랑주머니)	
4	칠성거리	칠성거리	흰고깔	흰저고리	홍치마	옥색쾌자	백장삼녹가사, 홍가사	백학홍대	백팔염주, 단주, 바랑
		도령거리		옥색저고리	옥색바지	남색조끼			
		천문거리	갓	초록저고리	남치마	옥색쾌자	옥색도포	남술띠	
		풍수거리	갓	초록저고리	남치마	옥색쾌자	옥색도포	남술띠	
		부인마마거리	족두리	초록저고리	홍치마	남쾌자	활옷(원삼)	백학녹대	
		팔선녀거리	용잠, 옥잠	색동저고리	홍치마	남쾌자	색동의대 (녹관복)		
		만장발거리	고깔	흰저고리	홍치마	옥색쾌자	백장삼녹가사, 홍가사	백학홍대	
5	제석거리		고깔	흰저고리	홍치마	남쾌자	백장삼, 홍가사	백학홍대	
6	소대감거리		패랭이	초록저고리	남치마	남쾌자	베도포(베두루마기)		
7	사냥거리		벙거지	초록저고리	홍치마	흑쾌자	흑관복 (흑색장삼)	봉황녹대	
8	생타살거리		벙거지	분홍저고리	홍치마	흑쾌자	남색몽두리 (몽두리)	홍띠	
9	군웅거리		벙거지	초록저고리	홍치마	남쾌자	홍관복(장삼)	백학홍대	
10	익은타살거리		벙거지	초록저고리	홍치마	남쾌자	홍관복(장삼)	백학홍대	
11	성주거리		갓	흰저고리	홍치마	남쾌자	백장삼		
12	잔내림거리		갓	흰저고리	홍치마	남쾌자	백장삼		
13	방아거리		고깔	분홍저고리	홍치마	남쾌자	백장삼		
14	영전거리		고깔	분홍저고리	홍치마	남쾌자	백장삼		
15	대감거리		벙거지	분홍저고리	홍치마	남쾌자	남관복	수복홍대	
16	서낭거리		꽃갓	분홍저고리	홍치마	남쾌자	남관복(장삼)	백학녹대	
17	말명거리		머리띠	분홍저고리	홍치마	남쾌자		홍띠	
18	조상거리		갓	옥색저고리	옥색치마	옥색쾌자	황색몽두리	무명띠	
19	신장거리	신장거리	갓	흰저고리	홍치마	남쾌자	신장의대 (옥색도포)	남술띠	
		와룡신장거리	와룡관	초록저고리	홍치마	남쾌자	탕포 (황색의대)	남술띠	
20	성수거리	성수모자	흰저고리	홍치마	남쾌자	성수의대 (장군복)	홍띠		
21	장군거리	장군모(투구)	초록저고리	홍치마	남쾌자	장군복(홍색갑옷, 황색갑옷, 남색갑옷)			
22	광대거리	벙거지	초록저고리	홍치마 (진분홍)	남쾌자	광대의대	봉황의대		
23	터주상영거리	벙거지	초록저고리	홍치마 (진분홍)	남쾌자	광대의대	봉황의대		
24	마당거리		분홍저고리	홍치마	남쾌자		홍띠		

월도신장이 쓴다. 최영 장군 보존회의 서경욱 무당은 갓을 빛갓이라고 불렀다. 이는 신어머니가 예전부터 부르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4) 벙거지

벙거지는 사냥거리, 생타살거리, 군웅거리, 익은타살거리, 대감거리, 광대거리, 터주상영거리에서 착용한다. 벙거지는 조선시대 무관이 착용하던 모자로 전립이라고도 한다. 짐승의 털을 다져 만들며 그 형태는 패랭이와 비슷하다. 군웅거리에서는 베를 먼저 머리에 두른 뒤 전립을 쓰며, 대감거리에서는 전립을 쓴 후 예단인 베를 전립에 드리운다.

5) 투구

투구는 장군거리에서 갑옷과 함께 머리에 쓴다.

6) 족두리

족두리는 부인마마거리에서 활옷과 함께 머리에 얹는다.

7) 성수모자

성수장군이 써서 성수모자라고 불렀으며, 마래기 모자라고도 한다. 마래기는 악공들의 관에 장식하는 홍색 끈을 일컫는다. 국립민속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우옥주 무복에는 성수모자가 3종이 있다. 색동천과 양단으로 술을 달아 제작한 것, 색동천에 구슬을 꿰단 술을 달아 장식한 것, 오방색 천에 금속장식을 한 술을 달아 장식한 것 등 3종이 있다.

8) 머리띠(머리수건)

굿거리에서 무복을 입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마에 두르는 머리띠는 땀 흡수를 위하여 머리띠 안쪽에 한지를 넣어 만든다. 머리띠 그 위에 신복에 어울리는 관모를 갖춘다. 흑색으로 머리띠를 하는 것은 남성을 상징하기도 한다.

2. **무복** : 기본 복식은 치마저고리 위에 성수치마를 입고 남쾌자를 입는다. 그 위에 각 제차(祭次)에 따라 무복을 착용한다. 무복과 띠를 합해 부르는 경우에는 의대나 관대라고 말하며, 옷만을 말할 때는 옷의 특징을 들어 관복 · 도포 · 활옷 · 장삼 등으로 부른다. 이는 무당이 제차에 따라 무복의 명칭을 분류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인 복식 연구가들의 분류기준과 차이가 있다. 무당이 부르는 무복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성수치마

성수치마는 황해도굿 복식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허리치마이다. 일반적으로 성수치마는 홍색 · 남색의 치마단에 백색 선을 두르는 것이지만 홍색 치마에 초록색 선을 두르거나 분홍 치마에 백색 선을 두르는 경우도 있다. 우옥주 무복은 흰색 선에 홍색 실로 →를 자수한 것이 특징이다. 성수치마에 백색을 두르는 것은 백색이 지니는 상징성에 기인한다. 특히 백색은 깨끗한 색, 정(淨)한 색으로 잡귀나 액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쾌자

쾌자는 일명 전복으로 조선시대 무관들이 입던 군복의 일종이다. 황해도굿은 장군발이 세기 때문에 군복인 쾌자를 기본 복식으로 한다. 쾌자는 소매와 섶이 없으며 뒷솔기가 등 아래에서부터 터져 있고 양 옆이 터져 있다. 무당이 입는 쾌자는 신복 가운데 기본복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치마저고리 위에 홍색의 성수치마와 남쾌자를 입는다. 그러나 칠성거리와 조상거리에는 옥색, 사냥거리와 생타살거리에서는 흑색 쾌자를 각각 입는다. 남쾌자는 깃 · 진동 · 앞길 쪽에 홍색 선을 대고, 옥색 쾌자는 황색 선을 댐으로써 보색 대비를 이룬다. 이는 신복을 더욱 화사하게 만들 뿐 아니라 신복에 오방색을 사용함으로써 많은 신령을 모시고자 하는 의지를 담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3) 신복

신복은 소매 끝에 흰 끝동을 달며, 깃은 맞깃으로 한다. 소매가 넓은 광수의 경우 진동에서 소매 쪽으로 약 5㎝ 정도 떨어진 곳에 트임을 주어 팔을 뺄 수 있도록 기능적인 면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진동선 이하의 뒤가 터져 있어 움직임을 민첩하게 해준다. 무당의 신복은 장식적인 면이 강조된다. 대표적인 것은 깃선에 물리는 파이핑이다. 이는 깃 선을 단정하게 보이게 하며, 시선을 목과 얼굴로 이동시킨다. 다음으로 술장식과 다양한 색깔의 끈 장식을 들 수 있다. 이는 현대 굿이 지니는 축제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무당이 제의를 행하면서 움직일 때마다 흔들리는 술과 끈은 굿의 분위기를 한층 흥겹게 하는 장점이 있다. 성수 장군복의 끈과 술 장식을 비롯해 관

대의 술 장식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색상의 화려함이 무복을 더욱 다양하고 화려하게 만들며, 직물의 고급화와 무늬가 지니는 상징성은 무복이 단순한 옷이 아니라 인간의 염원을 담은 상징체임을 드러낸다.

무당이 24거리를 행할 때 입는 신복을 특징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초감홍거리 복색

초감홍거리 신복의 기본 구성은 같으며, 띠의 양식에 차이가 난다. 산천복색의 홍띠에는 오낭이 달려 있으며, 오색 잣물림과 오색수술장식으로 구성하였다.

(2) 칠성복색

칠성복색은 명을 길게하고 복과 자손번창을 기원하는 옷이다. 도령, 천문, 풍수, 부인마마, 팔선녀, 만장발거리의 소절차에서 착용한다. 칠성거리에서의 칠성복은 백색 저고리에 홍치마, 옥색 쾌자를 입고 백장삼을 덧입는다. 홍색과 녹색 가사를 양 어깨에 두르고 백팔염주를 목에 건다. 백학제비홍띠를 두르고 흰 고깔을 쓰며, 간주를 들고 바랑을 멘다. 홍·록가사에는 십장생을 수놓았으며 상부에 달과 칠성을 수놓은 것이 특징이다.

(3) 관대

관대는 크게 홍색과 남색으로 구분되며, 대는 모두 홍대와 녹대를 사용하였다. 홍관복의 홍대는 중앙에 쌍학이 있고 양 옆으로 연꽃과 구름이 수놓아져 있다. 그러나 대감거리의 홍대에는 쌍학과 수복문을 자수하였고, 서낭거리는 녹색 바탕에 쌍학·연꽃·구름 등을 자수하고 띠를 홍색으로 하였다.

(4) 도포

천문거리·풍수거리·신장거리에서 옥색도포를 입으며, 남색 술띠를 두르고 갓을 쓴다. 깃가장자리에는 황색이나 홍색으로 자수 장식을 하고, 깃머리에는 별을 수놓았다.

(5) 몽두리

몽두리는 조선시대 궁중의 정재복식인 몽두의에서 출발한 것으로, 기녀(妓女)나 무당이 입던 무의(舞衣)이다. 몽두리는 생타살거리와 조상거리에서 착용하는 옷으로, 대신할머니에 따라 다양한 색상과 형태로 구별된다. 이북대신은 초록색으로 수놓은 몽두리, 성수대신은 붉은 색동소매가 달린 몽두리, 한양대신인 넋대신과 경기도 대신은 노란색 몽두리를, 창부대신은 분홍색 몽두리를 각각 입는다. 몽두리의 특징은 둥그레 깃이 대금으로 되어 있으며, 고름이 양쪽 깃의 끝에 달려 있다. 소매는 두루마기형의 소매를 하고 있으며 기본 형태는 두루마기 모양을 이루고 있다. 이 밖에도 깃과 고름, 소매가 다른 몽두리도 있다. 한양대신인 넋대신은 깃과 고름이 다른 대신의 몽두리와 같으나 소매는 도포소매를 하고 있으며 성수대신 할머니의 몽두리는 신복의 깃을 하고 옆선이 터진 데다 색동소매를 하고 있어 일반적인 몽두리의 모양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몽두리 역시 기준이 없이 신어머니에게서 전승된 명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타살거리의 몽두리는 소매와 몸판을 홍색과 남색으로 달리한 동다리 형식이다. 조상거리의 몽두리는 두루마기 형식으로 일반적인 몽두리와 다르다.

(6) 원삼(활옷)

활옷은 칠성거리의 부인마마거리에서 입는다. 맞깃으로 되어 있으며 소매의 색동은 대개 3~7가지 색을 사용한다. 선왕복은 3색을 원칙으로 하여 삼성왕은 3색, 별상관대는 5~7색이다. 무당의 별상관대는 빨간·노란·파란·연두·분홍·흰색의 6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몸판에는 봉황을 좌우로 마주보게 수놓았으며 하단에는 모란을 수놓았다. 대는 백학녹대로 하였다. 원삼의 형식에 활옷의 자수를 놓아 활옷으로 부른다.

(7) 두루마기

두루마기는 소대감거리, 목신서낭거리에서 입는다. 두루마기 형식은 둥근 깃을 달고 고름이 있으며 좁은 소매를 갖는다. 소대감의 베두루마기와 여서낭과 남서낭 및 색동소매 두루마기가 있다.

(8) 장군복

황해도 만신들은 '장군발이 세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많은 장군상을 모신다. 성수장군은 마래기 장군복을 착용한다. 마래기는 말액에서 온 말로 악공들의 관에 장식하는 홍색의 끈을 일컫는다. 마래기 장군의 복식 역시 허리에 여러 색깔의 끈을 늘어뜨려 장식했다. 모자에도 다섯 가지 색깔의 끈을 늘어뜨리고 그 끝에 술을 달아 황해도 신복의 화려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장군복은 갑옷과 투구이다. 투구의 모정에는 삼지창이 날카롭게 뻗어 있으며 붉은 상모로 장식하였다. 투구에서 중요한 부분은 모정 부분의 발(鉢)과 목 및 등을 가리는 아(錏)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이 장군복은 놋쇠미늘을 연결하여 만든 두석린갑으로 구성되어 있다.

4) 대

대는 무복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가운데에서도 홍관복·백장삼·흑관복·남관복 등 광수의 신복에 대가 사용되고 있다. 무당은 대를 관대 또는 띠라고 한다. 대는 크게 색상별로 홍색·남색·녹색이 있으며, 무늬로는 백학·봉황·수복을 사용한 것이 있다. 대의 형태도 대에 오낭을 달기도 하고, 상모(술)를 달기도 하며 댕기 모양의 끈을 달기도 하는 등 다양하다. 수는 쌍학을 가운데 배치하고 양쪽으로 연꽃을 수놓는다. 다만 칠성거리에서의 홍관대는 쌍학 사이에 칠성을 수놓는다. 대는 신복을 더욱 화려하게 만드는 장식적인 역할과 함께 광수의 신복을 정리하는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

참고문헌 조선무속의 연구(赤松智城·秋葉隆, 심은성 역, 동문선, 1991), 한국의 무속-서울·황해도편(국립민속박물관, 1999), 큰무당 우옥주 유품(국립민속박물관, 1995), 한국세시풍속사전-봄편(국립민속박물관, 2005), 성의 상징성-무복을 통해 본 한국무속의 권력(이용식, 샤머니즘 연구 3, 한국샤머니즘학회, 2001), 한국무속복식의 역할에 관한 논의(고부자, 비교민속학 24, 비교민속학회, 2003).

필자 최은수(崔銀水)

황해도평산소놀음굿

정의 마을의 풍요와 번영의 기원, 재수와 복, 대동화합을 위한 경사굿. 대개 마을굿의 중간에 소를 형상화한 탈을 쓰고 노는 굿이기 때문에 소놀음굿이라고 한다. 이 굿은 1988년 8월 1일 '중요무형문화재 제90호'로 지정되었으며, 예능보유자는 이선비이다.

역사 평산소놀음굿의 기원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조선시대에 형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황해도 평산읍 출신인 장보배(1915~1991) 무녀가 1947년에 월남하여 강화군 교동면에 정착한 뒤 1985년에 이르러 인천에서 이를 재현하여 남한에 알려져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내용 소놀음굿은 농사에 없어서는 안 될 소를 등장시켜 노는 놀음이면서 가정과 마을의 액운을 쫓고 풍농을 기원하는 굿으로서 굿의 종교적 성격과 연희적 성격을 동시에 보여주는 놀음굿이다. 현재 인천과 강화, 김포 등지를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다. 예능보유자인 이선비 무녀를 중심으로 전수조교인 윤정화, 전수교육보조자인 안금순, 송경옥, 김은옥, 김학단 등이 소놀음굿의 무녀로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보존회를 통한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경사회에서 중요한 가축인 소와 송아지, 소를 부리는 마부, 반우반인의 농경신 신농씨, 인간을 창조하는 삼신제석, 인간을 성장시키는 사은제석, 도덕과 예를 알려주는 복립제석, 곡식을 파종하는 애미보살, 김매는 지장보살, 팔선녀, 연희자 악사와 명과 복을 관장하는 칠성신이 등장하여 천상세계로부터 조선의 개국을 위해 하강하는 노정기를 서사무가로 노래하는 굿거리이다.

이러한 소놀음굿의 기능은 음주가무를 통해 신명지고 신바람 나고 신들린 듯이 놀고 난 후에 새로운 생명력과 활력이 생성되며, 집단의 결속력이 강화되고 생산력이 향상되는 것을 기원하는 것이다. 칠성거리와 더불어 연행되는 소놀음굿은 칠성신이 여러 신과 더불어 마부·악사와의 대화로 놀이를 이끈 다음 파종하고 김매는 농사법, 집터 다지는 지정닦이, 계절별로 추수한 곡식의 방아 찧기가 춤과 소리로 어우러진 집단놀이로 연희된다.

정착 농경생활의 주생활인 한민족에게 파종과 수확, 집짓기는 공동체의 집단적 노동력을 필요로 했다. 장단에 맞춘 집단노동의 몸놀림과 소리는 놀음 속에서 재현된다. 소놀음굿은 비교적 대사가 많은 편이다. 목화송이, 물레의 형상, 물레로 짜낸 옷감, 미투리 만드는 재료, 소의 모양치레, 명복나누어주기, 송아지의 재롱, 소를 부리는 방법, 쟁기의 보습 맞추기, 천자풀이 등의 대사가 마부와

칠성신의 재담으로 이어진다.

황해도 평산 출신의 장보배에게서 소놀음굿을 포함한 황해도굿을 배운 이선비 무녀가 연행한 평산소놀음굿은 경사굿 안에 속한 전체 굿거리(1. 산청울림, 2. 당산맞이 및 성수거리, 3. 초부정 4. 칠성제석거리-소놀음굿, 5. 성주굿(지정닦기), 6. 장군거리, 7. 타살거리, 8. 대감거리, 9. 조상거리, 10. 터주거리, 11. 말명거리, 12. 사냥굿, 13. 마당굿) 중 칠성제석거리와 더불어 연행된다.

굿판은 앞마당에서 6명의 여자 무당이 장구와 징, 저나 피리를 가지고 굿놀이를 벌인다. 마당에는 팔선녀가 내려오는 여덟 개의 무지개를 상징하는 천을 늘어뜨리고 그 밑에는 팔선녀가 내려와 목욕하는 곳이라 하여 큰 물통에 바가지 여덟 개를 띄운다. 흰 장삼에 고깔을 쓴 무당은 삼불제석역으로 나와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지상에 내려와 인간을 탄생시키고 조선을 개국한 내력을 노래한다. 이때 바지저고리 차림에 벙거지를 쓴 마부가 소를 끌고 들어온다. 소는 어미 논갈이소와 송아지로, 종이로 만든 쇠머리를 손에 잡고 짚으로 만든 자리를 뒤집어쓴다. 제석은 마부와 소가 들어오면 이야기를 하며 노래를 부르고, 마부는 소를 끌고 다니면서 밭갈이를 한다. 이때 치마저고리에 수건을 쓰고 바구니를 든 애미보살이 씨를 뿌리며 뒤따르고, 치마저고리에 호미를 든 지장보살이 김을 매면 갓 쓰고 도포 입은 신농씨가 농사일을 감독하는 시늉을 한다. 이어서 소부리기와 쟁기의 바닥에 삽 모양의 쇳조각을 맞추는 법을 가르치기, 방아찧기, 지경다지기, 아이만들기 등의 놀이를 하면서 농사법과 복을 준다. 제석은 소를 타고 나졸들은 춤을 추며 굿판을 돌아 서천서역국으로 가는 것으로 소놀음굿은 끝난다.

굿에 등장하는 삼불제석 · 애미보살 · 지장보살은 불교의 신들로 지상에 내려와 고통받는 인간에게 복을 주고 좋은 길로 인도한다. 이것은 평산소놀음굿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장면이다.

참고문헌 황해도평산소놀음굿(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필자 장순범(張淳凡)



색인

ㄱ

12굿거리 630, 855
12지신 660
가래조장단 058, 262, 263
가망 022, 050, 245, 297, 341, 631, 678, 757, 758, 806, 838, 951
가망굿 022, 026, 154, 155, 233, 497
가망상 427, 892
가망청배 022, 026, 083, 148, 297, 326, 346, 427, 428, 430, 431, 452, 542, 677, 757, 758, 806, 814, 833, 865, 935
가사 050, 230, 346, 354, 359, 427, 449, 688, 750, 751, 752, 758, 786, 790, 847, 912, 949, 951
가신 101, 102, 186, 268, 282, 304, 305, 308, 363, 408, 474, 475, 523, 624, 625, 628, 629, 659, 703, 761, 803, 835, 838, 877, 878, 910
가신위목 022, 023
가실생기굿 187
가지꽃 023, 024, 177, 624, 743
가체 156, 239, 350, 791
가체머리 350
가택신 143, 207, 221, 222, 249, 473, 823, 828, 856, 900
가택축원 308, 309, 900
각심절본 024, 025, 169
간지 414
감고풀기 042, 218
감은장아기 788
감응상 176, 177
감응장구 232, 914
감흥 957
감흥당 025, 026
감흥반대기 188
감흥시루 025, 026, 454
감흥신령 026, 027
감흥화 027
갑사 239, 661, 890
갑옷 049, 107, 404, 449, 539, 635, 911, 913, 969, 971
갓 049, 078, 163, 165, 197, 220, 239, 293, 326, 337, 377, 404, 407, 423, 427, 435, 448, 472, 494, 644, 658, 659, 742, 760, 788, 792, 804, 814, 855, 875, 912, 932, 967, 968
강남대한국마마님 254
강대형 027, 028
강릉단오제 028, 030, 196, 319, 320, 333, 334, 537
강림도령 764, 822
강박데이 468, 469, 483
강변굿 457
강신 031, 032, 101, 119, 129
강신무 031, 050, 070
강신제 159
강윤권 128, 129
강준섭 846
강학수 119, 942
강화도외포리곶창굿 033, 066, 096
개로육수도 906
개성 덕물산 025, 039, 093, 186, 336, 346, 350, 383, 678, 836, 845, 870, 871, 915
개성 덕물산 최영장군사 039
개인굿 064, 098, 195, 257, 378, 634, 743, 892, 953
객귀 039, 125, 144, 176, 273, 339, 363, 681, 741, 742, 761, 806, 910
객귀물림 039, 703
거령산 039
거령산춤 040, 238
거리밥 040, 674
거리제 116, 117, 191, 209, 515, 632
거무장단 041, 279
거무춤 041, 067, 238, 247, 248, 279
거상악 042, 643, 736, 737
거상장단 042, 043, 332, 422, 454, 456
거상춤 043, 220, 332, 333, 422, 454
건궁신앙 877
걸궁 045
걸립 044, 045, 046, 061, 062, 083, 124, 137, 148, 182, 246, 295, 298, 417, 503, 504, 659, 663, 678, 740, 741, 757, 887, 952
걸립공수 298
걸립떡 063
걸립명두 044
걸립상 044
걸립신 045
걸립화 046
검무 041, 270, 309, 643, 890, 900
겉연 046, 164, 490
겜심바침 048
건수천 785
겹도포 219
겹마치 048, 505, 786
겹마치기 048, 505, 664, 831, 832, 904, 905
겹수부채 505
경관만신 048, 260, 638, 639, 864
경기도굿 049, 092, 103, 163, 322, 662, 664, 831
경기도굿 무복 049
경기도도당굿 051, 056, 094, 096, 097, 100, 218, 262, 446, 519, 744, 745, 856, 876, 904, 905
경기도살풀이 218
경사굿 098, 511, 627, 637, 638, 739, 756, 757, 761, 858, 861, 972
경산자인단오제 030
경쇠 354, 402, 777, 778, 879
경쟁이 221, 881, 910
경청 370, 463, 857, 858, 911
경토리 042, 914
경풍년 042, 736, 737
계면 045, 060, 137, 427, 740
계면각시 045, 061, 062, 427, 761
계면거리 045, 060, 427, 677, 761, 887
계면굿 046, 060, 233, 295, 659, 769
계면떡 045, 046, 062, 083, 760, 761, 773, 785
계양할미 508, 509
계피팥편 336, 511
고 063
고깔 449, 658, 674, 751, 785, 788, 875, 912, 948, 967
고동화 064
고드개무당 065
고름 063, 285, 855, 912, 949, 950, 970
고리동반 065, 115, 162, 329, 640, 641
고리동반폶 065
고리동벽 065
고리신동벽 065
고리안동벽 065
고리짝 066, 632, 919
고베춤 954
고사반 067
고삼 067, 736
고성오광대 660
고을굿 953
고인 100, 114, 122, 142, 159, 199, 249, 317, 767, 829, 846
고창굿 351, 892
고취청 157
고풀이 063, 067, 118, 143, 144, 228, 277, 279, 282, 309, 378, 753, 771, 823, 848, 928
고풀이베 958
고희정 068, 123
골매기 069, 241, 521
골매기대 189, 658
골매기신 388, 658, 720, 874
골맥이 069, 070, 720
공굿 059
공복 351, 715, 855
공상 187, 807
공수 031, 070, 170, 195, 261, 282, 283, 298, 455, 490, 622, 630, 660, 666, 737, 738, 777, 781, 786, 836, 847, 879, 887, 903, 925, 927, 967
공시 072
공신상 072
공싯상 072, 197, 329, 402
공인청 517, 623
공중칠성 860
공징 902
공창무 072, 533, 903
곶창굿 033, 038, 051, 627
곽각 274, 741
곽곽 선생 088, 666
곽머리쎗김굿 073, 142, 823, 949
곽재우 725
관대 271, 969, 970
관디 051, 220, 786, 787, 855, 912
관머리쎗김굿 073
관복 051, 337, 787, 789, 855, 911, 912, 967
관복류 049, 912
관성제군 074, 199, 200, 282, 372, 427, 666, 667
관우 074, 135, 226, 666, 667, 760, 777

관운장 074, 075, 092, 510, 666, 759, 864
관음보살 331, 652, 798
광대 059, 075, 379, 457, 623, 762, 768, 836, 845, 862, 967
광대신 075, 347, 449, 844, 845
광대청 762
광대춤 075
광양당 075, 077
광양당제 075, 077
광인굿 077, 124, 339, 703
광인퇴치굿 077
광청애기본풀이 079
괘등 940
괫대 196
굉정 914
교방청 157, 622
구군복 227, 448, 767, 768, 855, 891, 912
구대인 061, 336, 678
구덕복 081, 173
구령탑 899
구리갈매동도당굿 081, 814, 942, 943
구리솔 171
구삼승할망 354, 355, 356, 407, 706, 930
구삼싱 083, 084
구삼싱 냄 083, 084
구삼싱할망 083, 084, 789
구애비 084, 085, 536, 622
구파발본 025, 085, 169
국무 086, 467, 468
국사당 086, 087, 336, 666, 716, 717, 723, 836, 845, 846, 856
국사당 무신도 086, 846
국사성황 028, 196, 320, 333, 334, 405
국수발 166, 172, 173, 543
국중대회 051, 859
국행제 086, 338
군문기 089, 090, 115, 116
군문열림 089, 090, 215, 244, 274, 305, 386, 402, 439, 498, 528, 540, 646, 686, 689, 920
군문춤 090
군웅 092, 093, 096, 137, 246, 327, 371, 375, 380, 427, 459, 639, 757, 832, 855, 856, 864
군웅굿 030, 033, 038, 048, 057, 058, 060, 094, 095, 096, 097, 155, 171, 172, 233, 436, 497, 504, 630, 659, 905
군웅대 093
군웅대감 092, 193, 195, 347, 427, 760, 955
군웅덕담 096, 230
군웅방울 093, 622
군웅베 392
군웅본풀이 093, 226, 230
군웅상 024, 096,748
군웅시루떡 096
군웅장수굿 078, 096, 171, 241
군웅춤 097, 856
군웅칼 542, 543, 896
군웅타살굿 096
군웅할아버지칼 896
굿 097
굿거리장단 103, 249, 382, 423, 432, 529, 542, 632, 760, 834, 848
굿ᄃᆞ리 714
굿당 022, 026, 045, 070, 075, 100, 110, 170, 197, 240, 257, 260, 264, 268, 308, 309, 317, 321, 322, 326, 346, 417, 426, 437, 445, 456, 460, 525, 537, 642, 657, 660, 720, 847, 876, 897, 917, 934, 940, 942, 949, 958
굿장모 154
궁상선비 224, 225
궁상이 103, 104, 225, 226, 723
궁상이무가 103, 106, 723, 724
궤네깃당본풀이 106, 108, 718
귀신착수 308, 309, 466, 901
귀양풀이 074, 844, 926
귀향풀이 924
그네작두타기춤 739
극락문 109, 312
극락왕생 063, 101, 109, 144, 155, 157, 159, 191, 265, 297, 436, 438, 479, 814, 819, 820, 834, 844, 924, 931, 957
극락춤 127, 388
근원풀이 218
금성당 109, 186, 666
금성대군 109, 110, 183, 184, 427
금성대왕 112, 113
금성산 112, 383, 717, 906
금이신장 113
금전괘 258

금줄 190, 305, 385, 386, 466, 628, 658, 668, 672, 700, 805, 935, 961
기대잽이 113
기메 115, 198, 280, 329, 356, 393, 395, 485, 499, 524, 651, 679, 907
기밀 100, 116, 913
기밀굿 116, 177, 912
기생장단 103
기우제 086, 294, 306, 684
기자 048, 063, 263, 360, 384, 409, 684, 689, 861, 914, 915
기자의례 411, 412
기주 066, 282, 305, 387, 414, 486
기호노인상 917
긴만세바지장단 262
긴염불 042, 643, 914
긴춤 042, 043
길군악 157, 191, 430, 461, 759, 876
길닦음 063, 073, 117, 118, 123, 143, 144, 164, 166, 309, 404, 491, 544, 643, 819, 820, 823, 828, 829, 848, 858, 900, 929, 958
길닦음천 820
길대장 116
길대장굿 116, 117
길베 117, 118, 144, 157, 159, 166, 241, 242, 404, 438, 491, 529, 544, 819, 828, 958
김광수 056, 119, 345
김귀봉 846
김금화 025, 119, 120, 121, 421, 422, 454, 748, 871, 872, 960, 961
김기백 779
김남순 121, 122, 177, 856, 911, 912, 913
김대례 122, 123, 846
김동언 124, 125, 721
김동연 124, 125, 389, 721
김명광 537
김명대 537
김명익 364, 537
김명철 537
김문행 712
김미정 122, 177
김병옥 123
김복룡 127
김석출 078, 109, 123, 125, 127, 129, 133, 233, 239, 257, 389, 394, 502, 537, 721
김성수 123, 127, 233, 721
김성연 873
김순덕 049, 050, 445, 663, 769, 856
김순희 537
김영수 124, 127, 233
김영희 124, 125, 233, 389, 721, 769
김옥렴 126, 181, 676, 678, 934, 935
김옥순 124
김옥자 711
김옥춘 711
김용업 127
김용출 537
김용택 126, 127, 128, 233, 238, 389
김유감 128, 129, 135, 201, 451, 676, 708, 892
김유선 124, 125, 129, 130, 233, 239, 389
김유신 029, 092, 130, 131, 196, 264, 331, 350, 383, 635, 636, 660, 726, 884
김윤수 131, 132, 204, 281, 650, 656, 769
김장길 078, 132, 133, 502, 657, 705, 930
김종남 712
김준근 379
김찬섭 133, 134, 135, 323
김채봉 127
김천득 126, 127, 233, 721
김춘강 134, 135, 276, 277, 323, 663
깨낌 060, 748
깨비대감시루 025
꼭두청 136
꽂불휘 329
꽃갓 022, 454, 466, 967, 968
꽃맞이 136, 181, 359, 838
꽃맞이굿 098, 136, 137, 185, 187, 756, 892, 956
꽃반 137, 139, 187, 702, 745, 748, 961
꽃반세우기 096, 137, 139
꽃받아오기 148
꽃봉오리 023, 820
꽃부채 516, 913
꽃틀 433, 435
끝동 156, 227, 284, 423, 635, 950, 969

ㄴ

나누메기 168
나라굿 051, 128, 966
나라대신 912
나라만신 086, 121
나라무당 051, 086, 128, 467
나례 142, 631, 762
나비도령춤 216
나비사위 042
나삼 284, 477
낙화유수 142
난봉가 638, 654, 860
날과국섬김 244, 274, 275, 303, 305, 498, 528, 646, 648, 881, 920
날당산굿 674
날받이씻김굿 142, 143, 144, 823
날삼재 415, 416, 417, 632
남근 350, 351, 514
남당하르방 462, 651, 792
남당할망 651, 792
남방적제 660, 661, 702
남선비 300, 301
남이 장군 144, 145, 148, 856
남이장군사당제 145, 148, 149
남철릭 049, 051, 293, 423, 760, 855, 856, 912, 913
남해안별신굿 096, 099, 101, 149, 155, 156, 157, 162, 196, 197, 198, 199, 238, 249, 255, 518, 529, 657, 773, 774, 775, 847, 848, 851, 893, 933
남해안 세습무 무복 156
남해안오구굿 157, 159
내림굿 031, 032, 058, 061, 098, 120, 122, 159, 222, 232, 286, 290, 334, 364, 405, 418, 448, 481, 486, 490, 503, 530, 533, 661, 703, 707, 708, 738, 743, 773, 837, 838, 887, 927, 931, 959
내림춤 162, 893
내전 144, 417, 418, 632, 929
내전상 629
너사메너도령 214, 215, 866, 867
너울 162, 163
너울거리기 042, 218, 219
너울지 065, 115, 162, 329, 656
넋(무구) 163
넋(용어) 165
넋건지기굿 047, 101, 157, 403, 437, 771, 927, 958
넋건짐 222
넋그릇 164, 165, 491, 649
넋노래채 165
넋당석 144, 164, 166, 173, 320, 543, 544, 819, 820, 829
넋대잡기 240, 242
넋두리 116, 167, 241, 242, 426, 429, 435
넋맞이 씻김굿 953
넋발 163, 164, 490, 491
넋보냄 929
넋올리기 047, 143, 164, 165, 166, 167, 204, 228, 491, 544, 769, 771, 818, 823, 828, 847, 848
넋올림 240, 242, 929
넋전 163, 164, 167, 240, 241, 268, 373, 431, 512, 744, 817
넋종이 929
넋춤 166
넋칼 168
넋풀이 166, 167, 228
넘길장단 044, 248, 333
넘길춤 044, 333, 422
넘김채 048, 505, 664, 831, 904, 905
노구메 083, 171, 837, 860
노구메정성 171
노구솥 171
노그매 171
노누메기 168, 169, 837
노들본 025, 085, 169
노명덕 197, 529
노무편 098, 170, 359, 884
노삼재 416
노일제대귀일 300, 301
노잣돈 166, 250, 266, 378, 818, 819, 900, 925, 926
노적 634
녹디셍인 300, 301
녹음이시루 171
놀음꾼 637
놋동이 092, 096, 171, 172, 241, 659, 753, 761
놋동이굿 041, 096, 171, 172, 233, 657, 658
놋쇠 156, 171, 202, 277, 361, 402, 490, 503, 662, 777, 780, 852, 879, 880, 887, 914
눈설화 172
눈설화꽃 172
느진연물 173

ㄷ

다듬이질 820
다라쿳당 689, 690
다리굿 098, 099, 118, 121, 122, 167, 176, 177, 551, 911, 912, 913, 914
다리화 023, 024, 177, 178, 280, 511
다릿발 176, 177, 457, 911, 913
다부살이꽃 128, 240, 394
단골네 178, 263, 951
단골무당 217, 276, 364, 629, 631, 864
단골판 101, 119, 133, 149, 178, 179, 217, 218, 315, 316, 317, 436, 482, 829, 830, 836, 837, 838
단군 088, 179, 180, 291, 292, 350, 383, 408, 470, 496, 717, 759, 768, 810, 951
단독제 356, 406, 526
단령 787, 788
단오관청 136
단오굿 030, 220, 537, 892
단오맞이굿 181
단오제 028, 029, 030, 031, 133, 196
단잡기 181, 182
단잡이굿 181
단종 110, 111, 183, 184
단지거름 901
단풍맞이 136, 185, 186, 187, 838
단풍맞이굿 098, 185, 186, 187, 756
단홍띠 948
달떡 187, 188
달비 156, 239
닭춤 097
담배꽃 873
당고마기 노래 320
당골네 046, 178, 392, 951, 952
당골판 046, 061, 122, 125, 437, 710, 767, 774, 952, 953
당국화 442
당굿 083, 098, 111, 130, 148, 169, 189, 190, 191, 327, 440, 461, 497, 498, 527, 529, 542, 546, 633, 668, 673, 675, 676, 677, 693, 698, 781, 792, 849, 873, 935, 960, 962
당금애기 100, 101, 410, 772, 785, 867
당떡 187, 188, 336, 337, 743
당맞이 189, 192, 658, 871, 962
당맞이굿 070, 189, 192, 233, 322, 681, 683
당맨심방 188, 189, 256, 342, 545
당산경 206, 628, 927
당산굿 057, 117, 149, 157, 437, 628, 674, 767, 953
당산맞이굿상 189
당수 673, 675
당신 070, 078, 108, 296, 342, 440, 454, 455, 458, 508, 531, 532, 645, 658, 667, 676, 677, 689, 691, 718, 719, 720, 745, 776, 790, 793, 799, 866, 867, 881, 906, 940, 953
당신맞이 189
당신본풀이 080, 106, 108, 179, 498, 690, 867, 882, 943
당악장단 061, 216, 382, 432, 506, 542, 786, 834
당울림장구 914
당일만신 120
당주 025, 051, 066, 072, 090, 168, 190, 191, 329, 345, 381, 445, 539, 663, 668, 672, 674, 745, 814, 926, 945, 946, 961, 962
당주무당 101, 133, 323, 326, 327, 448, 721, 864, 865
당주악사 134, 323, 942, 943
당지기 111, 345, 346
당진안섬당제 189, 191, 192
당클 115, 116, 188, 192, 198, 393, 395, 485, 524, 525, 641, 802, 803, 893, 897
당화장 190, 191
대감 033, 135, 137, 148, 188, 193, 194, 195, 205, 220, 327, 755
대감굿무가 194, 874
대감모자 050, 912
대감상 172, 195, 199, 760, 773, 807, 892
대감시루 194, 195, 454
대감신 193, 194, 195, 266, 281, 282, 418, 457,

473, 835
대감옷 912
대감전복 891
대관령 성황사 및 산신당 196
대기 446, 701, 702
대내리는장기 933
대내림 207, 240, 241, 346, 347, 350, 436, 437, 438, 851
대너리 154, 155, 196, 665, 847
대너리춤 197, 497
대동굿 033, 051, 056, 057, 098, 120, 121, 191, 220, 327, 422, 454, 460, 552, 627, 770, 806, 861, 871, 872, 892
대령상 090, 197, 198, 541
대례복 156, 286, 687
대명왕사자기 198
대모 101, 162, 198, 199, 529, 893
대무 058, 086, 142
대무신칼 542
대별상신 356, 407, 706, 707
대별왕 853, 854
대사산이 199, 664, 775
대상 199, 200, 204, 207, 268, 432, 438, 623, 642, 807, 892, 935
대수대명 201, 308, 392, 415, 416, 632, 654, 665, 919, 920, 928
대신마누라 466, 467
대신맥이 392
대신몽두리 264
대신몽두리복 051
대신발 201, 277, 456, 749
대신방울 202, 622
대신상 202, 203
대신옷 911
대신칼 085, 201, 203, 204, 460, 504, 542, 543, 879, 911
대신할머니 202, 296, 346, 351, 361, 362, 466, 467, 708, 759, 970
대신할머니상 892
대안주상 199, 204, 205, 268, 372, 473, 623, 624, 743
대왕놀이 248, 249
대왕님모자 049
대왕님의대 049
대잡이 083, 220, 335, 346, 347, 497, 629, 771, 781, 910, 957
대장삼 948
대전의 앉은굿 205, 852
대주 193, 206, 282, 286, 359, 363, 417, 458, 470, 471, 472, 628, 629, 630, 638, 806, 860, 928
대철망 207, 208, 465, 540, 857, 858
대취타 876
대학놀이 248
댓잎 065, 090, 192, 329, 378, 395, 439, 440, 893
덕담장구 914
덕물산 025, 039, 169, 186, 666, 760, 871
덤부리상장구 103
덤부리상장단 103
덤불국화 208, 280
덤쿵춤 043, 044, 333, 422
덩덕궁이장단 059, 060, 249, 312, 322, 772, 933
데령상 197
도깨비 209, 210, 243, 462, 514, 645, 647, 648
도깨비굿 209
도깨비대감 195
도깨비탈 648
도당 210
도당굿 033, 048, 049, 051, 058, 060, 081, 082, 083, 096, 098, 137, 210, 211, 345, 346, 382, 472, 504, 518, 627, 662, 744, 745, 814, 871, 877, 892
도당대감 193, 195, 298, 347, 760
도당말명 342, 759
도당상 200, 211, 212, 382, 623, 624, 892
도당시루 212, 382, 624
도당신장 298, 347
도당할아버지 051, 057, 137, 139, 211, 346, 382, 744, 745, 748
도당호구 298
도랑선비 청정각씨 노래 212
도랑춤 090, 092
도래물러맴 214, 215
도래미떡 176
도래 채롱 214
도래춤 214
도랫상 197
도량돌기 216
도량찬 265, 441
도령귀신 283
도령돌기 186, 216, 264, 268, 269, 297, 328, 432, 833, 834, 836, 915, 916
도령옷 911
도령춤 216
도리강관놀이 721
도무 031, 170, 339, 418, 423, 759, 760, 787, 879, 954, 957
도병재 415
도부 122, 217, 774, 829
도사할아버지옷 875
도산받이 342
도살풀이 058, 103, 218, 322, 343, 396, 507, 787, 831
도살풀이춤 218, 219, 665
도속잡기장기 932
도신굿 149, 157, 472, 627, 628, 756, 761
도액막이 633
도진 102, 244, 245, 305, 306, 386, 646, 652, 761, 765, 803, 883, 920
도채비 219, 341, 789
도채비방쉬 219
도포 219, 220, 326, 646, 687, 751, 788, 875, 950, 967, 969, 970
도황수 221, 547, 727
독경 101, 205, 218, 221, 273, 334, 335, 341, 376, 378, 379, 381, 463, 465, 473, 486, 532, 627, 629, 703, 752, 770, 771, 857, 858, 868, 869, 875, 876, 900, 910, 911, 931, 954
독경무 628, 764
독경쟁이 392
독집 223, 656
돈전개 223, 260
돈전굿 223
돈전풀이 223, 224, 226, 266, 433, 435
돌래떡 072, 188, 214, 260, 261, 275, 385, 641, 649, 678
돗삼돌기 849
돗쌈 431, 432
동경 277
동고리 066, 263
동글래떡 096
동네굿 051
동다리 049, 050, 227, 239, 687, 688, 767, 768, 788, 855, 875, 913, 970
동막도당굿 057, 905
동맹 657, 859
동방삭 753, 754, 948
동방제 627
동방청제 660
동빙고동부군당 180
동살풀이 154, 218, 228, 248, 352, 396, 848
동신 249, 384, 679, 703, 892
동이춤 228, 229
동이풀이굿 228, 229, 230
동자 033, 087, 196, 231, 232, 277, 282, 283, 511, 512, 630, 715, 902, 903, 917
동자대 231, 232
동자상 232, 345
동제 069, 116, 117, 145, 180, 292, 375, 683, 698, 953
동토 095, 201, 273, 363, 539, 540, 742, 901
동파관 220
동해안별신굿 040, 041, 046, 057, 058, 060, 064, 099, 123, 125, 156, 171, 172, 189, 233, 238, 239, 247, 254, 255, 274, 322, 365, 482, 537, 547, 549, 551, 644, 657, 680, 704, 705, 721, 742, 761, 781, 782, 849, 873, 874, 892, 919, 930, 931, 940
동해안 세습무 무복 238
동해안오구굿 093, 109, 208, 239, 240, 241, 242, 243, 316, 320, 357, 358, 394, 442, 765, 839, 940
돼지대감소반 892
두나백이 040
두두리 243, 291
두두을 243
두레풍장 504
두루마기 050, 078, 101, 220, 227, 239, 284, 285, 286, 293, 377, 378, 450, 505, 644, 720, 767, 787, 788, 820, 845, 849, 875, 913, 949, 950, 970
두린굿 243, 339, 644, 648
두창 254
둑대 094
둑대방울 094
뒷길 156, 227, 687, 890, 949
뒷영실 269, 297, 431, 432, 452, 833, 915
뒷전 033, 041, 045, 049, 057, 059, 060, 083,

096, 100, 137, 148, 176, 177, 204, 245,
246, 273, 297, 298, 321, 326, 327, 346,
347, 351, 381, 429, 432, 449, 452, 472,
505, 637, 655, 659, 677, 740, 741, 742,
748, 757, 761, 771, 833, 834, 836, 871,
911, 912, 914, 919, 940, 946, 955
뒷전무당 245, 246, 903
뒷전상 023, 246, 247, 380, 623, 624, 761, 773,
892
드렁갱이 030, 040, 041, 127, 247
드릇멩감 274, 275, 385
득대장군 033
든임내굿 472
들놀이굿 905
들삼재 415, 416, 417, 632
들어치는장기 266, 933
떠돌이신 076, 792
떡타령 061, 427
뗌쿵장단 248
떵떵이장단 248, 249
뚝대 093
뚝대방울 093
뜬대왕 297, 430, 431, 814, 833, 887
띠배 155, 249, 250, 457, 459, 460, 698, 712

마고탑 899
마누라배송 255, 339, 703, 930
마누라본풀이 354, 355, 356, 357, 394, 406, 407, 706
마늘모 897
마당굿 459, 727, 761, 859, 952, 955, 972
마량 198, 546
마령 198, 829
마른굿 143
마마배송굿 254, 255, 493, 494, 495, 636
마마신 143, 159, 254, 256, 347, 354, 355, 356,
357, 406, 407, 437, 828, 904, 946
마불림제 255, 256, 342, 477, 497, 498, 508, 527,
531, 546, 668, 793
마을굿 033, 038, 045, 051, 056, 057, 060, 064,
069, 096, 098, 100, 101, 116, 128, 149,
168, 189, 195, 210, 211, 233, 246, 249,
322, 323, 326, 327, 344, 345, 347, 350,
375, 436, 444, 454, 461, 472, 494, 496,
509, 515, 632, 634, 651, 687, 692, 693,
704, 743, 745, 793, 814, 851, 852, 861,
872, 893, 915, 930, 934, 953, 955, 956,
971
마을제사 674, 960
마지 111, 171, 326, 328, 331, 524
막꽃 256, 316, 897
막음쟁이 257, 362, 363, 482
막장단 044, 075, 216, 271, 505
막춤 044, 097, 333, 422, 423
막푸다시 245, 646, 648
만구대탁굿 027, 046, 075, 223, 552, 714, 715, 721,
779, 780
만구대택굿 048, 258, 260, 780, 967
만당제물 260, 261
만명 130, 264, 635
만물상의대 912
만성수부채 261
만세바지장단 262, 371, 373
만수대탁굿 100, 120, 121, 220, 263, 472, 714, 721,
739, 748, 924
만수바지 262, 263
만수받이 043, 114, 216, 312, 343, 359, 373, 427,
430, 655, 761, 786
만신 263
만신부리 533, 534
만신의대 912
말명 022, 033, 065, 066, 084, 089, 130, 137,
148, 246, 256, 263, 264, 274, 275, 304,
305, 341, 371, 380, 393, 427, 429, 430,
431, 436, 485, 528, 529, 532, 635, 636,
646, 647, 678, 686, 740, 741, 742, 757,
761, 805, 806, 838, 881, 883, 887, 916,
927
말미 114, 154, 155, 157, 264, 265, 269, 297,
328, 430, 431, 437, 441, 452, 626, 755,
833, 847, 874, 881, 887, 915, 916
말미상 264, 265, 431, 441, 834
망무기굿 099, 103, 551, 724
망묵 103, 106, 167, 522, 933
망묵굿 098, 099, 212, 214, 224, 265, 299, 522,
821, 874, 896, 931, 932, 945
망묵이굿 098, 265, 267, 482, 932

망수밝음 춤 905
망자상 143, 240, 267, 268, 544, 437, 512, 761,
828, 892, 957, 958
망자천도 265, 833
망자천도굿 046, 071, 098, 099, 129, 163, 265, 267,
268, 297, 313, 314, 373, 382, 423, 490,
539, 624, 737, 785, 832, 877, 896, 915,
950, 958
망자혼사굿 268, 269
망제상 267, 268, 624
맞배지붕 351, 446, 509, 691, 716, 917
맞이굿 186, 230, 231, 485, 525, 526, 743
매슴채 918
매일장상 480
매화 270, 280, 511
맴돌이장단 270, 271, 454, 505, 642
맹감본풀이 271, 272, 273, 753, 963, 965
맹격 273, 666, 667
맹승 221, 273
맹인 088, 273, 274, 298, 319, 334, 347, 376,
399, 427, 430, 549, 628, 667, 741, 757,
761, 910
맹인내외상 148
맹인놀이 101, 721
맹인신장 273, 274
머리틀 156
메나리토리 155, 413, 506, 839, 841, 932
메밥 171
멩감 116, 274, 275, 304, 306, 385
멩감제 274, 275, 303, 385, 386
멩감코스 274, 386
멩두 072, 084, 274, 297, 303, 385, 625, 626,
713, 867, 926, 927
멩두칼 402
명감코시 641
명다리 276, 813
명도 130, 191, 246, 277, 504, 902, 903
명두 044, 112, 135, 232, 277, 291, 467, 490,
685, 686, 717, 902, 903
명두굿 032, 159, 339, 490, 530, 752, 754, 945
명두굿무가 277, 279, 963
명두무당 903
명두청배 424, 430, 432, 453, 849
명떡 176, 761
명바라 781, 786
명복 093, 155, 312, 434, 661, 749, 781, 971
명부전 335, 524, 764
명성황후 74, 282, 283, 376, 708, 717
명월각시 224, 225, 226, 266, 723, 724
명진국할마님 083, 084
명태 024, 157, 341, 416, 417, 445, 654, 683,
892, 934
모름채 279, 280
모리 058, 103, 218, 322, 343, 507
모시 483, 890
모시각시 468, 469, 483
모자 050, 331, 466, 551, 785, 791, 792, 845,
855, 856, 862, 912, 913, 925, 969, 970
목단꽃 024, 142, 280
몸기 115, 280, 281, 759
몸주대감 193, 195, 281, 282, 427, 760
몸주신 111, 160, 193, 282, 283, 332, 366, 405,
460, 530, 773, 806, 834, 838, 892, 903,
953
몽달귀신 283
몽도리 284
몽두리 050, 156, 239, 283, 284, 285, 286, 326,
448, 449, 450, 430, 687, 688, 759, 768,
855, 912, 913, 968, 970
몽두의 284, 285, 970
무가집 316, 524, 675, 811
무감 286, 346, 347, 436, 760, 761
무감서기 286, 287
무격 086, 102, 263, 290, 291, 292, 338, 513,
517, 545, 644, 676, 808, 809, 813
무경 100, 205, 206, 207, 208, 221, 287, 291,
307, 309, 465, 466, 523, 666, 738, 811,
813, 858, 886, 900, 901, 910, 920, 929
무계 132, 133, 217, 233, 276, 315, 317, 437,
500, 502, 517, 623, 709, 713, 766, 767,
774, 814, 823, 829, 830, 846
무고 288, 289, 810
무고안택 627
무극 101, 238, 255, 720, 721
무답 727
무당내력 098, 180, 204, 227, 247, 292, 293, 330,
496, 511, 687, 751, 756, 761, 768, 773,
785, 855, 891
무당방울 622, 758
무당서 803

무당성주기도도 180
무당촌 039
무라야마 지준 217, 265, 380, 492, 533, 779, 810, 812, 813
무령 622, 813
무명 117, 118, 176, 177, 264, 276, 356, 454, 457, 459, 472, 544, 552, 750, 859, 883, 890, 893, 928, 929, 958
무민사 870
무병 031, 159, 320, 530, 533, 903
무복원삼 687, 688
무복철릭 856
무세 291, 292, 294
무속신화 030, 099, 214, 273, 296, 301, 394, 409, 412, 419, 434, 453, 469, 473, 474, 706, 707, 812, 816, 817, 867, 868, 877, 954, 963, 964, 965
무속인 074, 085, 121, 128, 129, 130, 133, 134, 139, 185, 205, 263, 290, 297, 362, 365, 400, 533, 535, 546, 636, 663, 668, 748, 762, 846, 865, 917, 930, 957, 966,
무신도 027, 085, 086, 087, 088, 100, 112, 126, 135, 170, 193, 202, 258, 261, 277, 296, 341, 350, 361, 376, 412, 421, 454, 466, 467, 509, 524, 550, 627, 660, 663, 676, 691, 713, 715, 716, 717, 722, 726, 739, 785, 789, 790, 792, 845, 846, 935, 948 949
무악기 214, 274, 296, 464, 465, 498, 527, 639, 646, 668, 779, 780, 781, 863, 897
무업세 294, 810
무용복 890
무조신 046, 060, 061, 072, 203, 214, 215, 273, 295, 296, 297, 362, 393, 420, 449, 635, 806, 862, 863, 865, 867
무조신화 296
무학대사 087, 088, 716, 717
무화 361
무후묘 667
묵는삼재 632
묵은쎗김굿 073, 142, 143
묵은진오귀 264, 267
묵은진오기굿 297, 298, 429, 433, 744, 833
문간굿 929
문간시루 628
문굿 127, 239, 240, 241, 266, 267, 388, 389, 433, 435, 477, 651, 727, 736, 804, 851
문굿무가 299
문답설법 240, 241, 321, 358
문도령 422, 475, 476, 477, 478, 706
문들음 269, 430, 432, 642
문복 163, 205, 207, 300, 309, 513, 753, 869, 885, 886, 901
문산도당굿 057, 956
문서 025, 048, 065, 081, 082, 085, 114, 122, 128, 129, 177, 246, 262, 335, 364, 485, 529, 530, 531, 532, 538, 623, 626, 675, 678, 708, 709, 711, 713, 714, 763, 779, 780, 802, 869
문신 302, 304, 306
문전본풀이 089, 102, 299, 301, 302, 303, 304, 305, 394, 706, 803, 877, 885
문전신 299, 301, 302, 303, 304, 305, 765
문전제 302, 303, 304, 305, 306, 385, 386, 727
문전철갈이 302, 303, 304, 305, 306
문점 420, 631, 632, 882, 906
물방구 장단 954
물부리굿 306
미닫이 306, 307
미륵 468, 469, 482, 483, 519, 520
미륵님 419
미지 056, 057, 058, 059, 060, 119, 436, 494, 504, 745, 748, 786
미친경 307, 308, 309, 334
미친굿 205, 243, 308, 309, 334, 538, 857, 858, 869, 966
민영태 965, 966
민푸너리 918

ㅂ

바깥대감 195
바닥심 169
바라지 070, 262, 312, 401, 782, 839, 871, 927
바라춤 044, 176, 220, 238, 266, 312, 333, 354, 422, 771, 781, 786, 787, 879, 912, 914, 933, 954
바라타령 359, 360, 758, 781, 786, 787
바라팔기 347, 781
바람막이 167, 479, 820
바람할매 653
바리공주 085, 100, 101, 216, 264, 265, 266, 295, 313, 314, 315, 328, 394, 426, 430, 431, 432, 434, 437, 441, 453, 497, 516, 524, 689, 706, 708, 765, 766, 832, 833, 834, 867, 876, 877, 887, 916, 945
바리데기 024, 106, 242, 295, 313, 388, 434, 706, 828, 945
바리데기꽃 024, 394, 512
박경자 204, 217, 279, 315, 316, 513, 514, 544
박기동 873
박꽃 316, 317
박동신 779
박문영 873
박병원 317, 318, 846
박병천 318, 319, 396, 774, 823, 846, 949
박복률 149, 199, 437, 775
박수 122, 170, 246, 290, 319, 330, 457, 461, 467, 708, 710, 726
박수진 122, 177
박옥순 133, 134, 135
박용녀 319, 320, 537
박은자 711
박일남 873
박춘실 123
박효원 873
밖대감 193, 760
밖도령 430, 432, 453, 642
밖도령돌기 430, 432, 453
반대기떡 188
반비장삼 949, 950
반서름 904, 905
반설음 048, 904
반야용선 118, 159, 166, 241, 320, 321, 544
반염불 042, 346, 428, 643
발바딧무 905
발버드래 322
발뻐드래 218, 322, 343, 507, 665, 905
발지전 115, 395, 817, 818, 819
밟기 339
밟이춤 238, 322, 804
밤섬부군당도당굿 133, 134, 322
밤쩌 240
밧공시상 072
밧칠성 303, 305, 727, 881, 882
방망이떡 327, 328, 360, 642, 743, 847
방석떡 065
방석화랭이 328, 329
방수밟이 048, 096, 504, 664, 748
방애장구 914
방울 044, 058, 065, 085, 093, 097, 100, 116, 128, 135, 159, 160, 202, 216, 218, 260, 261, 265, 282, 293, 326, 339, 341, 359, 363, 373, 382, 406, 411, 446, 448, 449, 454, 456, 460, 504, 517, 622, 626, 639, 664, 665, 687, 702, 758, 759, 760, 761, 773, 786, 806, 818, 836, 880, 886, 887, 905, 910, 911, 932, 955
방울떡 065, 066, 329, 330
방위신 659, 660
배기장 413
배방선 245, 250, 462, 646, 647, 648, 651, 652, 682, 793, 799
배선비 224, 225, 226, 723, 724
배송굿 513, 829
배연신굿 098, 100, 119, 120, 121, 454, 456, 457, 458, 459, 552, 871
배치기소리 028, 552
백련화 330, 331
백마장군 331, 332
백살풀이 309, 901
백설기 023, 171, 222, 255, 268, 274, 327, 328, 330, 331, 347, 361, 510, 511, 624, 625, 642, 743, 773, 786, 807, 884
백아기 125
백주또 106, 107, 108, 500, 718, 719, 776
백중대제일 478
백중제 225, 256, 531, 546
백초포 장삼 948
백학 332, 420, 971
백형기 712
뱃굿 101, 457, 472, 553, 675
뱃기 038, 191, 344, 345, 454, 455, 458, 459, 693
뱃기내림 033, 038, 459, 698
버드래 322
벅구춤 043, 044, 332, 333, 422, 879
번개떡 065

범굿 255, 375, 680, 956, 957
범안굿 956
범일국사 028, 196, 333, 334
법사 046, 047, 100, 101, 168, 203, 205, 206, 207, 221, 287, 289, 291, 307, 309, 334, 335, 341, 370, 377, 378, 379, 391, 404, 414, 415, 416, 417, 463, 465, 486, 491, 502, 532, 538, 539, 540, 628, 629, 630, 703, 737, 752, 770, 771, 806, 852, 857, 858, 869, 870, 875, 876, 900, 901, 902, 911, 927, 928, 929, 949, 960, 965, 966
법성포단오제 030
법수선원 산신도 335
법우화상 290, 292, 295
법의 750, 752
벙거지 027, 065, 336, 456, 656, 904, 913, 967, 968, 969, 972
벙거지떡 187, 188, 336, 337, 743
벙것떡 065, 066
베가르기 117, 264, 297, 430, 432, 452, 755, 833, 900, 916
베옷 913
베포도업춤 337, 343
베포도업침 244, 498, 528, 626, 646, 648, 685, 853, 920
베포연물 337
벨순 233
벨신 233
벨코스 245
벽사 634, 660
변난호 078, 124, 125, 129, 133
변소각씨 877
별기은 086, 338, 467, 468
별비 061, 168, 246, 269, 321, 516
별상 049, 083, 148, 194, 254, 268, 269, 326, 327, 339, 356, 357, 372, 429, 449, 637, 760, 876, 877, 913, 946, 947
별상굿 160, 338, 339, 347, 356, 357, 496, 703
별상대감 193, 195, 760
별상의대 687
별상장단 216, 423, 834, 876
별상춤 338, 339, 665
별상칼 542, 543
별성 023, 246, 254, 293, 639, 946, 947
별성님시루 025
별순 233
별신 699, 700, 701, 702
별신굿 024, 039, 041, 061, 063, 069, 070, 098, 099, 101, 124, 125, 127, 129, 149, 155, 172, 189, 197, 199, 233, 238, 239, 240, 241, 249, 257, 270, 279, 280, 320, 321, 322, 352, 362, 400, 413, 444, 446, 472, 482, 494, 495, 496, 497, 515, 551, 643, 644, 657, 658, 659, 681, 684, 692, 705, 719, 720, 721, 736, 775, 804, 849, 868, 892, 897, 931, 934, 942, 953, 954, 956
별신대 149
별신제 698, 699, 700, 701, 702, 805
병굿 051, 098, 100, 135, 201, 205, 221, 308, 309, 334, 339, 341, 370, 539, 655, 656, 661, 703, 704, 709, 755, 857, 858, 869, 900, 901, 910, 920, 924, 931, 956, 966
보광동부군당굿 149
보리뿌리점 728
보살 122, 191, 203, 246, 335, 359, 377, 378, 404, 461, 463, 486, 502, 529, 532, 543, 544, 664, 666, 770, 771, 852, 869, 875, 876, 949
보신경 928
복개춤 249
복대감 195
복떡 176, 457, 552, 761, 781
복바라 781, 786
복삼재 415
복소지 327
복술 319, 517, 628, 910
복신장군 699, 701, 702
복자 381, 628
복줌치 633
복화무 903
본풀이 058, 061, 076, 077, 080, 081, 083, 084, 093, 094, 102, 173, 179, 219, 223, 224, 225, 226, 227, 271, 275, 287, 299, 301, 305, 329, 356, 374, 397, 431, 440, 468, 469, 470, 475, 478, 480, 494, 496, 498, 500, 507, 508, 518, 519, 526, 531, 647, 668, 689, 690, 717, 719, 725, 788, 790, 792, 793, 798, 799, 803, 815, 816, 831, 860, 861, 877, 880, 881, 882, 906, 918, 943, 944, 947, 963
본향 022, 060, 192, 298, 326, 342, 405, 498, 525, 637, 689, 758, 759, 806, 838, 915
본향가망 342, 428, 429, 759
본향당 075, 102, 179, 188, 189, 256, 342, 440, 445, 497, 499, 500, 507, 527, 531, 545, 650, 651, 653, 668, 713, 719, 776, 813, 819, 881
본향당굿 342, 652
본향바래기 342
본향산신 342, 759
본향상 023, 342, 343, 441, 623, 624, 649, 759, 892
본향신 256, 342, 499, 500, 527, 528, 529, 651, 667, 668, 689, 690, 881
본향조상 342, 759
본향춤 343
봉등채 343, 344, 786, 831
봉죽 344, 345, 748
봉죽기 191
봉화산도당굿 057, 119, 220, 345, 346, 347, 538, 539
부군 211, 323, 326, 327, 350, 351, 371, 372, 856, 935
부군굿 351
부군당 148, 211, 322, 323, 324, 326, 327, 332, 350, 351, 446, 448, 667
부군당굿 033, 051, 056, 057, 099, 134, 135, 148, 149, 195, 211, 326, 327, 446, 448, 472, 892
부군대감 193, 195, 347, 760
부군대감내외상 145, 148
부군할머니 051, 327, 856
부군할아버지 051, 211, 327
부인복 687
부정 352
부정가심 439
부정경 206, 222, 223, 381, 417, 628, 900, 927, 928
부정굿 029, 030, 041, 049, 057, 070, 078, 096, 154, 155, 157, 189, 233, 240, 241, 248, 320, 339, 352, 356, 433, 437, 444, 497, 542, 643, 657, 658, 721, 740, 745, 904
부정굿 노래 320
부정놀이 218, 343, 664, 786
부정무가 352
부정상 247, 267, 352, 353, 927, 935
부정청배 022, 058, 148, 211, 297, 326, 330, 346, 353, 428, 631, 833, 865, 946
부정칼 203, 204, 542
부정풀이 144, 189, 190, 191, 265, 267, 353, 354, 418, 433, 455, 628, 871, 961, 962
부채도령 432, 516, 834, 916
부채도령춤 216
부채방울춤 097
부채춤 044, 333, 422
북방흑제 660
불도맞이 102, 215, 230, 354, 355, 356, 357, 406, 407, 411, 525, 705, 788, 803, 861, 882
불동화 394, 419
불림굿 058, 160
불림장기 933
불보살번 357, 358, 359
불사 050, 148, 258, 297, 330, 338, 359, 360, 361, 512, 625, 722, 757, 758, 761, 777, 781, 833, 913
불사고깔 050
불사꽃 328, 361
불사맞이굿 359, 360
불사상 023, 268, 327, 328, 330, 331, 360, 361, 441, 473, 511, 623, 624, 625, 634, 642, 743, 758, 785, 847, 892
불사시루 360, 847
불사옷 050, 875
불사의대 050
불사장삼 750
불사전 328, 361, 427, 847
불사할머니 361, 362
비나수장구 914
비념 084, 102, 219, 255, 274, 303, 342, 386, 498, 499, 527, 529, 545, 626, 690, 727, 753, 788, 881, 893, 930
비래쟁이 129, 257, 362, 363, 482
비손 125, 129, 218, 221, 260, 315, 316, 344, 362, 363, 381, 392, 416, 417, 436, 461, 470, 631, 632, 640, 703, 755, 859, 877, 892, 919, 920, 953, 961, 962
빈순애 363, 364, 365, 482, 537, 768, 769
빙의 032, 210, 229, 232, 244, 282, 290, 365, 366, 440, 526, 530, 533, 852
빛갓 049, 969

ㅅ

ㅅ제상 678
사귀대 308, 370, 371, 901
사냥굿 260, 458, 859, 972
사냥타령 371
사당클 192, 281, 863, 893
사라도령 355, 705, 706
사령 068, 273, 279, 291, 525, 526, 753, 754, 806, 815, 919, 964, 965
사마장자 279, 753, 754, 964, 965
사만이본풀이 219, 256, 271, 274, 275, 305, 386, 815, 963
사방치기 665, 905
사슬 205, 212, 347, 371, 372, 382, 418, 543, 639, 876
사슬세우기 212, 327, 347, 371, 372, 429, 459
사슬타령 372, 373
사신 093, 184, 293, 373, 374, 375, 626, 741, 761, 762, 763, 855, 880, 882, 906, 956
사신군복 911
사신군웅 093, 955
사신굿 859, 956
사신반혼굿 374, 956
사신성황당 현판 375
사위 097, 167, 197, 216, 339, 479, 529, 665
사자맥이 101, 377, 378, 379
사자상 268, 373, 379, 380, 404, 466, 655, 819, 892, 900, 928, 957, 964, 965
사자축원 309, 900
사자풀이 279, 929, 964
사재삼성 264, 297, 425, 431, 755, 814, 833, 915, 916
사재상 379, 380
사제상 023, 267
사천대왕 249
사천왕 659, 715, 783, 849
사해용왕 249, 347, 651, 680, 684
사혼굿 268, 502
삭망제 462, 463
산다리굿 176
산대 072, 762
산맥이 056, 380
산메기 380, 381
산바라기 137, 186, 203, 204, 211, 371, 382, 429, 436, 835
산바라기굿 212
산바라기상 382
산바래기 342, 758
산부정 628
산속 886
산신 022, 028, 029, 063, 083, 085, 087, 088, 112, 130, 131, 137, 171, 179, 180, 184, 185, 196, 201, 206, 210, 212, 261, 274, 282, 331, 335, 336, 341, 347, 350, 371, 372, 380, 382, 383, 384, 386, 405, 407, 408, 417, 436, 443, 444, 445, 449, 624, 647, 657, 668, 690, 698, 699, 701, 702, 703, 717, 722, 725, 727, 758, 759, 805, 812, 815, 838, 856, 886, 917, 930, 935, 961
산신각 335, 383, 384, 884, 917, 918
산신놀이 255, 275, 386, 440, 498, 528, 668
산신님의대 049
산신당 196, 384, 699, 960
산신도 335, 336, 383, 699, 917, 953
산신도당 033, 137, 200, 212, 371, 372
산신도당상 212
산신멩감 274, 275, 385, 386
산신본향 343
산신상 384, 892, 957
산신시루 212, 628
산신신앙 076, 335, 383, 408
산씻김굿 386, 387
산염불 176, 638, 860
산오구굿 109, 387, 388, 389
산유장단 262
산육신 083, 084, 354, 356, 406, 668, 690
산이 056, 057, 058, 059, 060, 100, 119, 199, 246, 321, 343, 435, 436, 437, 494, 504, 505, 507, 786, 831, 920, 921, 933
산이제굿 246, 507
산이패 096
산점 355
산제당 699, 953, 960, 961
산종이 022, 326
산천동부군당 148
산판 072, 274, 386, 402, 403, 867
산함박 280, 389, 390

산후속 930
살 093, 222, 266, 267, 390, 391, 392, 817, 901
살군당 057, 126, 181, 676, 677, 678, 934, 935
살대답 312
살맥이 218, 391, 392
살맥이굿 391
살맥이손등 391
살장 089, 115, 116, 162, 393, 395, 863
살잽이꽃 023, 024, 394, 512
살전지 395
살제비꽃 743
살풀이 068, 099, 103, 122, 218, 221, 222, 228, 249, 301, 318, 390, 391, 392, 395, 396, 397, 414, 417, 518, 736, 771, 772, 885, 920, 953
살풀이장단 395, 396, 772
살풀이춤 163, 228, 774
삼공맞이 가면 397
삼공본풀이 102, 397, 398, 399, 400, 788, 803
삼공잽이 030, 400, 643
삼두구미본풀이 401, 943
삼멩두 072, 295, 297, 402, 504, 866, 867
삼불제석 088, 112, 296, 327, 412, 420, 446, 448, 465, 520, 935, 960, 972
삼불제석부채 516
삼사자 373, 403
삼산돌기 336, 405, 406, 835, 836, 837, 838
삼성 373, 374, 431
삼성당 180
삼성신화 076, 080, 108
삼성제담 374
삼승할망 084, 102, 305, 355, 406, 930
삼승할망본풀이 406, 407
삼시왕 295, 296, 402, 803, 866, 867
삼신 023, 048, 143, 296, 356, 357, 360, 380, 381, 408, 409, 410, 411, 412, 463, 521, 523, 828, 867, 919, 928
삼신경 222, 377, 928
삼신굿 100, 221, 222, 356, 409, 411, 412, 630
삼신번 358, 359
삼신시루 628
삼신제석 293, 360, 412, 625, 638, 971
삼신질 626, 926
삼신풀이 218, 409, 411
삼실 381, 892
삼오동 030, 040, 412
삼오장 127, 412, 413
삼장개비 414
삼장군당 130
삼재 063, 222, 359, 414, 415, 416, 417, 418, 629, 631, 632, 777, 878
삼재내기 414
삼재막이 414
삼재맞이 414, 415
삼재시루 417
삼재풀이 221, 222, 257, 414, 415, 416, 417, 418, 632, 777, 878, 953
삼잽이 123, 873
삼주잔 090, 192
삼지창 176, 205, 212, 293, 347, 372, 382, 418, 419, 448, 449, 457, 543, 639, 856, 863, 864, 913, 932, 971
삼진삼퇴 504, 665, 831, 832, 905
삼천신위 702
삼천전저서궁 641
삼태귀신 283
삼태자풀이 419, 420, 520
삼토신령 421
삼현도드리 423, 643
삼현육각 057, 176, 254, 425, 446, 736, 805, 876, 914, 954
삼현장단 044, 075, 333, 421, 422, 529, 709
삼현춤 044, 333, 421, 422, 709
삼혼구백 491, 928
삼혼칠백 491, 928
삼화주 082
상달고사 627, 630
상당굿 396, 699, 700, 701, 702, 710
상문 298, 391, 422, 423, 741, 742, 757, 761, 820, 919
상문살 391, 422, 423, 742, 919
상산 148, 186, 200, 205, 268, 327, 336, 346, 372, 426, 428, 429, 637, 678, 757, 760, 915
상산물고 429, 915
상산상 512, 892
상산춤 423
상쇠방울 277, 466, 467, 622
상식 185, 297, 424, 425, 431, 432, 452, 453,

737, 833, 834, 915, 916
상식상 267, 423, 807, 964
상신대감 195
상애짓기장기 932, 933
상잔 072, 295, 296, 330, 403, 504
새남굿 023, 024, 042, 098, 099, 100, 106, 178, 195, 212, 216, 224, 265, 267, 327, 328, 330, 380, 423, 424, 425, 451, 452, 453, 454, 473, 511, 512, 623, 642, 708, 737, 743, 785, 831, 841, 877, 915, 924, 932
새남굿상 473, 642
새ᄃᆞ림 214, 215, 230, 439, 440, 485, 498, 646, 648
새ᄃᆞ림춤 439
새미하로산당 440
새발심지 264, 265, 361, 441, 847, 852, 860
새튼이 902
색동두루마기 767
색동소매 156, 238, 239, 687, 688, 970
색동장삼 911
샘굿 952
샘제 191
샛별국화 442
생고사 890
생두부 171, 330, 361
생불꽃 300, 355, 356, 357, 407, 408, 706, 707
생불신 355, 356, 357, 406, 407, 408
생불할망 084, 354, 355, 394, 406, 407, 408, 706
생불할망본풀이 354, 355, 356, 394, 406, 407, 408, 443, 706
생오구굿 924
생타살굿 260, 589
서낭 069, 154, 298, 347, 371, 405, 443, 445, 454, 523, 537, 693, 741, 742, 749, 757, 757, 761, 856, 911, 912, 913, 960
서낭굿 025, 029, 154, 176, 247, 248, 257, 339, 362, 444, 472, 693, 859, 906, 914
서낭기 220, 445, 457, 460, 657, 955
서낭당 025, 098, 201, 332, 405, 431, 443, 444, 445, 472, 657
서낭제 191, 444, 934
서리화 172, 173, 191, 344, 454, 458
서방백제 660
서빙고동부군당 446
서사무가 046, 070, 085, 095, 099, 100, 101, 102, 114, 143, 155, 194, 212, 214, 225, 233, 255, 264, 267, 279, 299, 302, 313, 314, 320, 388, 419, 420, 437, 480, 482, 484, 494, 522, 549, 659, 662, 688, 705, 717, 723, 753, 776, 772, 782, 809, 812, 815, 828, 834, 841, 844, 865, 874, 885, 886, 932, 943, 944, 945, 954, 965, 971
서순실 714
서우젯소리 646, 647
서울굿 022, 023, 024, 025, 038, 042, 061, 071, 074, 075, 085, 092, 096, 100, 103, 113, 126, 128, 168, 172, 177, 188, 199, 202, 246, 262, 273, 632, 633, 634, 639, 643, 675, 676, 678, 687, 707, 708, 741, 743, 750, 751, 769, 781, 787, 807, 808, 847, 856, 862, 864, 865, 872, 886, 887, 890, 891, 904, 911, 914, 915, 932, 946, 950
서울굿 무복 448, 450
서울새남굿 066, 128, 129, 135, 201, 216, 382, 419, 423, 424, 426, 431, 432, 439, 451, 473, 524, 623, 624, 642, 643, 661, 676, 708, 814, 876, 877, 892, 943
서울진오귀굿 876
서울진오기굿 022, 093, 099, 373, 834
서천꽃밭 083, 229, 301, 329, 355, 356, 394, 407, 408, 476, 477, 478, 706, 853
서천서역국 315, 411, 706, 790, 791, 860, 948, 972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422, 454, 871
석배 168
석살림굿 096, 228, 230, 231
선녀 261, 282, 283, 364, 476, 547, 715
선덕여왕 221, 282
선무 954
선무당 266, 460
선문이 519, 520
선반굿 377, 770
선부리 143, 461, 828
선부리장단 461
선부정 033, 346, 352, 745
선영상 143, 418
선왕멩감 274, 385
선왕상 462, 649, 678
선증애굿꾼 504
설경 100, 205, 208, 309, 334, 463, 465, 466, 486, 502, 503, 857, 869, 875, 901, 911, 965, 966
설쇠 081, 173, 214, 464
설쒜 066, 244, 274, 464, 485, 527, 545
설위설경 463, 465, 900
설중화 873
섭수 050, 227, 423, 912, 913
섭수저고리 875
성수 361, 362, 376, 466, 715, 969
성수모자 967, 969
성수부채 261, 466, 467
성수청 086, 467
성수치마 969
성신 350, 467, 663
성신청 467
성인굿 099, 468, 484, 519
성조상 473
성조신 388, 470, 473, 812
성조씨 474
성주 022, 148, 186, 207, 297, 369, 396, 417, 458, 470, 471, 472, 474, 521, 523, 627, 629, 659, 703, 757, 761, 892, 920, 928, 940, 960
성주경 418, 928
성주굿 073, 078, 096, 099, 101, 122, 137, 143, 144, 206, 222, 239, 265, 267, 320, 339, 356, 372, 396, 433, 434, 436, 444, 458, 470, 483, 627, 628, 629, 630, 657, 658, 659, 693, 753, 756, 761, 782, 859, 892, 925, 953, 972
성주대잡기 928
성주받이 033, 246, 470, 637, 761, 838, 920
성주상 024, 265, 372, 418, 434, 471, 472, 473, 623, 624, 629, 633, 761, 815, 892, 928
성주시루 473, 624, 628, 630, 633, 761, 892
성주신 023, 084, 143, 148, 206, 265, 287, 298, 429, 434, 448, 458, 469, 470, 471, 472, 473, 474, 523, 628, 629, 657, 761, 828, 874, 927
성주아관 633
성주일월맞이 641
성주풀이 215, 287, 299, 395, 472, 473, 647, 659, 662, 847, 848
성황당 332, 627, 951, 953
성황대제 176, 177, 711
성황신앙 444, 627
성황제 051, 056, 148, 445, 626, 627
쇺 049, 284, 285, 856, 890, 912, 913, 969
세경놀이 102, 255, 728, 803
세경본풀이 102, 274, 299, 394, 475, 546, 689, 706, 728, 803
세령무 479
세민황제본풀이 102, 480, 943
세발심지 441, 834
세습무 030, 031, 032, 049, 051, 056, 062, 071, 098, 101, 114, 118, 125, 142, 149, 156, 162, 163, 203, 217, 220, 232, 233, 238, 239, 240, 242, 282, 284, 286, 290, 291, 315, 317, 318, 320, 328, 341, 343, 357, 363, 364, 365, 372, 377, 395, 409, 465, 481, 497, 514, 520, 534, 537, 545, 662, 683, 713, 719, 721, 768, 770, 778, 781, 787, 804, 829, 830, 855, 886, 912,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64
세인할마이 860
세조대 220, 788
세존굿 030, 039, 041, 078, 238, 239, 240, 242, 248, 312, 320, 409, 411, 412, 420, 657, 658, 659, 736, 781
센풀이 468, 519
셍굿 420, 468, 469, 470, 482, 484, 519, 782, 854
셍굿무가 482
소가면 484
소굿 027
소놀음굿 638, 709, 710, 859, 860, 861, 971, 972
소놀이굿 069, 100, 260, 485, 636, 637, 638, 779, 780
소당애기씨 190, 455, 456, 457
소대감상 785, 892
소례복 687
소리제 059, 848
소머리춤 097
소멕이놀이 636
소무 090, 215, 230, 337, 338, 439, 440, 472, 485, 541, 648
소미 065, 089, 102, 244, 245, 338, 356, 386, 397, 485, 498, 529, 545, 641, 644, 645, 646, 647, 652, 668, 867, 883
소별왕 065, 853, 854

소설경 466, 486
소슬굿 486, 490
소제 145, 190, 699
소지 075, 082, 083, 084, 159, 189, 191, 204, 206, 207, 275, 305, 326, 327, 347, 355, 428, 448, 456, 510, 628, 631, 651, 658, 673, 674, 682, 701, 720, 758, 761, 805, 862, 930
소진랑 474, 475
소창의 448, 449
소천국 106, 107, 108, 498, 500, 719
소철망 207, 857, 858
소호 659
속대 164, 370, 490
속연 046, 047, 163, 164, 490
손각시 144, 283, 491
손고사 187
손굿 050, 057, 058, 060, 096, 154, 227, 356, 357, 436, 437, 492, 493, 494, 497, 748, 904, 905
손님굿 030, 041, 058, 125, 143, 144, 159, 233, 254, 255, 320, 357, 492, 504, 544, 630, 657, 658, 659, 693, 748, 823, 948, 950
손님굿 노래 320
손님굿무가 495
손님노정기 058, 143, 494, 505, 748, 828
손님마마 496
손대 157, 240, 494, 497, 539, 658, 659, 849, 958
손도령춤 216
손말명 491
손보시 459
손전 159, 497
손진태 106, 213, 226, 265, 273, 445, 474, 482, 513, 519, 723, 808, 811, 812, 853, 903, 962
송기영 711
송당리 107, 108, 497, 499, 500, 718
송당리마을제 497
송당본풀이 106, 718, 719
송당본향당 440, 497, 498, 499, 527, 668
송동숙 078, 109, 125, 132, 133, 394, 500, 657
송동지영감본 079
송별제 651, 792
송석란 711
송선자 502, 852
송송개 260, 503, 715
송순복 779
쇠걸림 045, 100, 160, 503, 945
쇠머리 096, 107, 205, 347, 375, 624, 672, 673, 720, 972
쇠잽이 766
쇠풍장 504, 904
쇳가락 404, 464, 504, 505
수광대 741, 761
수구 050, 284, 658, 751, 792, 855, 913
수렵신 273, 690
수륙새남굿 157
수맥이 392
수문 465, 486
수문장대감 193, 195, 760
수문장대감소반 892
수미산 659, 684, 783
수박등 257, 280, 458, 897, 898
수부채 030, 505, 507
수부치기 388, 389
수부칼 203, 204
수비 060, 207, 298, 347, 370, 372, 457, 459, 460, 505, 506, 507, 539, 657, 741, 749, 758, 761, 834
수비장단 505, 506
수사자 157, 682, 683, 823, 957
수산본향당 507, 527
수살막이 033, 658
수성당 508
수수쌀반대기 188
수신 088, 680, 683, 684
수심가토리 913, 914
수심방 072, 090, 132, 337, 338, 356, 439, 540, 545, 645, 646, 648, 788, 802, 803, 853, 883, 926
수유리도당굿 905
수파련꽃 268, 743, 744, 773, 785
수팔련 023, 173, 177, 330, 510, 623, 940
수풀당 126, 676, 677, 678, 935
수호신 049, 051, 057, 069, 097, 111, 149, 154, 171, 189, 191, 192, 194, 210, 302, 322, 331, 332, 333, 343, 350, 382, 383, 384, 434, 436, 443, 445, 449, 457, 539, 651, 657, 684, 719, 720, 725, 726, 741, 742, 745, 845, 951
숙영랑앵연랑신가 513
순천삼설양굿 279, 315, 339, 341, 414, 513, 848
술맞이 914
술비소리 654
쉰대부채 516
쉰대한림 516
스승청 517
슨방청 546, 547
승무 270, 360, 643, 774
승방 157, 159, 198, 199, 437
승복 049, 050, 659, 750, 912, 949
시김새 155, 772, 914, 932
시나위 228, 479, 518, 954
시님장단 736, 772
시루 025, 026, 157, 171, 172, 173, 195, 222, 254, 255, 274, 343, 360, 361, 454, 472, 493, 518, 624, 625, 672, 739, 748, 776, 805, 834, 928, 962
시루말 049, 057, 058, 096, 436, 519, 748
시만곡대제 256, 531, 532, 793
시무굿무가 520
시봉자 110, 111, 114, 269, 327, 329, 837
시설 241, 243, 440, 764, 765, 918
시왕 116, 167, 177, 192, 198, 223, 271, 280, 281, 403, 404, 426, 431, 521, 524, 525, 526, 550, 678, 715, 754, 763, 764, 766, 911, 916
시왕기 115, 524
시왕대번지 402
시왕도 524, 764
시왕맞이 074, 090, 098, 102, 118, 198, 214, 215, 228, 230, 267, 271, 272, 280, 281, 295, 480, 524, 525, 541, 547, 656, 763, 765, 766, 788, 803, 815, 817, 819, 844, 883, 943
시왕문 159, 828
시왕침장 157, 159
시조신 214, 296
시주 046, 061, 082, 156, 217, 365, 409, 420, 469, 483, 513, 741, 781, 783, 784, 816, 865, 934
시준굿 030, 360, 409, 411, 444, 657, 783
식신대감 195
신간 173, 370, 497, 539, 540, 658
신격화 028, 074, 092, 111, 130, 131, 145, 148, 180, 183, 184, 339, 467, 636, 666, 725, 726, 741, 784, 947, 949
신곡맞이굿 756
신과세 497, 527
신과세제 342, 440, 498, 527, 632, 668
신광주리 157, 159, 165, 166, 268, 529, 544
신광주리춤 529
신궁 090, 095, 525
신기 159, 286, 365, 536, 658, 678, 708, 814, 838, 868, 869
신내림 043, 046, 071, 098, 222, 316, 334, 337, 366, 405, 406, 453, 481, 482, 490, 530, 622, 709, 770, 781, 814, 849, 952
신내림굿 032, 098, 405, 530, 531
신년가제 385
신농씨 638, 971, 972
신ᄃᆞ리 230
신당 032, 039, 044, 046, 075, 108, 112, 126, 130, 170, 202, 222, 231, 243, 264, 276, 277, 282, 285, 291, 294, 295, 296, 320, 338, 364, 365, 375, 376, 445, 460, 500, 531, 539, 540, 545, 666, 676, 709, 720, 721, 738, 739, 750, 752, 773, 777, 785, 789, 802, 805, 836, 855, 862, 951, 952
신당퇴미세 294
신딸 032, 061, 120, 121, 122, 135, 169, 276, 296, 530, 531, 532, 538, 661, 708, 711, 776
신령님옷 911
신만곡대제 531
신망조상 143, 828
신명굿 100, 159, 205, 221, 222
신명꽃 808
신명축원 406, 928
신모 314, 770, 911, 912, 967
신목 029, 030, 351, 440, 498, 499, 627, 676
신박수 708
신법 530, 532
신병 031, 032, 085, 098, 099, 120, 126, 135, 221, 290, 334, 466, 486, 490, 502, 530, 533, 534, 535, 536, 538, 540, 622, 749, 752, 770, 829, 931, 945, 959
신복 032, 085, 111, 112, 136, 200, 216, 246, 426, 448, 450, 757, 758, 768, 855, 891,

911, 912, 967, 969, 970, 971
신부리 533
신부모 032, 160, 405, 532, 780, 945
신사굿 195, 511, 627, 743
신석남 109, 133, 363, 364, 365, 537
신석봉 308, 538, 966
신성굿 756, 761
신수독경 218
신아버지 032, 290, 467, 530, 532, 708
신애기 032, 531, 532, 806
신어머니 032, 061, 065, 126, 135, 177, 276, 290, 296, 365, 418, 467, 530, 531, 532, 538, 539, 661, 662, 675, 707, 709, 738, 749, 750, 776, 779, 856, 924, 969, 970
신옷 049, 162, 256, 912, 967
신위행 066, 345, 538
신의쇄폭제 256
신임장단 103, 736
신장대 231, 370, 465, 539, 806, 901, 910
신장대가름 309, 901
신장대감 193, 194, 195, 434, 760
신장복 891
신장봉양 309, 901
신장위목 222, 540
신장칼 203, 341, 416, 542, 543, 863, 879, 929
신재동 122, 177
신질 926
신청 178, 318, 517, 541, 546, 623, 774
신청궤춤 343, 540
신청울림 454, 458, 541, 655, 859, 871, 925
신체 023, 029, 044, 089, 101, 115, 116, 163, 165, 186, 196, 198, 211, 223, 228, 240, 243, 268, 304, 306, 336, 370, 371, 382, 383, 395, 471, 472, 491, 497, 524, 539, 664, 681, 815, 877, 880, 883
신칼 047, 070, 072, 090, 143, 164, 165, 168, 176, 198, 203, 204, 215, 216, 239, 256, 274, 295, 296, 316, 337, 338, 347, 352, 386, 402, 456, 540, 541, 542, 639, 646, 649, 658, 738, 804, 818, 828, 853, 863, 867, 879, 913, 920, 957
신태집 118, 240, 242, 268, 320, 388, 543
신포세 294
신풀이 463, 502, 530, 752, 966
심방 545
심방떡 065, 329
심방백중제 545
심방청 102, 221, 517, 546
심청굿 030, 041, 125, 233, 239, 320, 537, 547, 657, 658, 659
심청굿 노래 320
심청굿무가 547
십대왕 177, 438, 453, 550, 858
십이대왕 341, 541
싹불이 551, 705, 931
싹불이가면 551
쌍계새남 426, 832, 849
쌍군웅 094, 662
쌍궤새남 451, 452
쌍깃 450, 751, 752, 890, 891
쌍작두 737, 739
쌍학 흉배 156
쑹거장단 457, 552
쑹거타령 552, 553
씻김 068, 073, 143, 144, 164, 165, 319, 387, 479, 649, 650, 665, 823, 828, 847, 848, 905, 951 957
씻김굿 022, 063, 068, 073, 098, 099, 101, 106, 122, 142, 157, 164, 166, 167, 168, 203, 217, 228, 248, 267, 268, 277, 279, 313, 320, 339, 356, 380, 386, 387, 414, 438, 461, 472, 479, 494, 495, 496, 522, 543, 551, 634, 649, 650, 753, 761, 765, 766, 818, 820, 823, 829, 847, 886, 948, 950, 953, 957, 963
씻끔 928

ㅇ

아랫대감 193, 195, 760
아카마쓰 지조 265, 295, 473, 518, 677, 756, 810, 811, 813, 844
아키바 다카시 045, 149, 265, 295, 331, 473, 518, 546, 631, 632, 677, 756, 779, 781, 810, 811, 813, 844, 845, 871
아흔아홉상쇠방울 622
악공 077, 517, 546, 622, 623, 699, 969, 970
악공청 517, 622, 623, 763
악무인 157
악심꽃꺾음 789
안공싯상 072
안당 022, 026, 042, 099, 122, 143, 188, 228, 429, 432, 625, 777, 823, 828, 836, 957
안당사경맞이상 473, 623
안당제석굿 268, 624
안당제석상 624, 847
안당제석소반 892
안대감 193, 195, 760
안반고사 082, 260, 859, 925, 967
안사인 132, 625, 816, 865
안사재상 380
안산잿머리성황당 626
안서낭상 892
안안팎굿 267, 297, 327, 437, 833
안진반 771, 772
안진반장단 772, 954
안칠성 303, 727, 881, 882
안택 022, 023, 187, 273, 304, 306, 308, 309, 334, 363, 417, 627, 628, 629, 910, 927, 966
안택경 205, 206, 628, 813
안택고사 257, 627, 630
안택굿 048, 100, 187, 201, 205, 206, 207, 221, 222, 223, 473, 538, 627, 756, 761, 900, 927, 953, 966
앉은굿 058, 059, 080, 099, 100, 101, 204, 205, 207, 240, 266, 267, 274, 287, 304, 308, 335, 341, 392, 403, 404, 428, 431, 441, 463, 465, 486, 490, 502, 516, 527, 528, 529, 538, 540, 628, 631, 752, 770, 771, 806, 835, 852, 856, 857, 868, 869, 875, 886, 911, 929, 960, 966
앉은굿장기 933
앉은부정 352, 436, 745
애기삼재 416
애기서낭 691
애기씨 · 동자꽃 630
애기씨옷 911, 912
애동이 032, 532
애동제자 032, 531, 532
애미보살 638, 971, 972
액그릇 361, 633, 634
액막음 219, 255, 256, 274, 275
액막이 068, 083, 167, 257, 266, 268, 271, 274, 304, 363, 392, 396, 415, 446, 526, 630, 631, 632, 633, 634, 765, 817, 883, 963
액막이굿 630, 728
액막이상 633
액맥이 305, 498, 528, 529, 631, 739
액맥이타령 067
액운 069, 201, 206, 220, 274, 371, 414, 415, 421, 455, 459, 498, 629, 630, 631, 633, 655, 703, 715, 808, 919, 947, 957, 959, 964, 971
약마희 650, 793
약명선관 635
약사도사 635
약사불사 635
약사신장 635
양광선 873
양산백전 299, 477
양산지산리부부상 635
양주소놀이굿 068, 069, 123, 484, 636, 861
양중 030, 039, 040, 041, 070, 125, 133, 199, 238, 239, 246, 290, 319, 320, 352, 413, 720, 721, 774, 804, 918
양중이 039, 238, 290, 319, 320, 804
양지당 126, 676, 677, 678, 935
어포춤 279
언월도 418, 419, 448, 449, 542, 543, 638
얼새남 426, 451, 452, 453, 640, 832, 849, 915
얼싸춤 042, 043
업게삼승 930
업대감 193, 195, 282
업시루 025
업중모리 248
엇모리 248, 249
에밀량 654
여무 068, 246, 263, 294, 379, 492, 657, 659, 745, 802
여수영당풍어굿 315, 316
여제 515, 631
여처낭 078, 079, 704
여탐굿 492, 640
역가 179, 640, 641, 803, 926
역가상 640
역신 201, 209, 221, 244, 298, 307, 492, 496, 647, 659, 858

역촌 698, 702
연물 173, 214, 215, 337, 464, 465, 527, 646, 668, 685, 863, 897
연백소놀이굿 638, 861
연양탁상 641
연유닦음 244, 275, 305, 498, 528, 646, 648, 689, 881, 920
연지당상 327, 328, 642
연평도 192, 220, 454, 691, 725, 726, 871
연풍대 044, 270, 271, 333, 642
연향탁상 641
열두시만국 477, 478
열두쟁반기 836
염불 046, 127, 155, 159, 239, 242, 266, 321, 409, 426, 428, 437, 642, 644, 849, 911, 914, 924
염불도드리 643
염불타령 042, 043, 643, 739
염주 050, 143, 266, 361, 434, 828, 879, 912, 932, 948, 970
영가축원 900
영감가면 621, 644, 704
영감놀이 209, 210, 245, 644, 645, 648, 651, 652, 681, 704, 728, 799, 803
영감상 462, 648
영감춤 647
영개울림 527
영게상 649, 678
영게질침 118
영고 657, 859, 880
영대 649, 806
영돈 068, 073, 143, 164, 165, 649, 828
영돗 649
영동이 822, 844
영등굿 102, 249, 462, 463, 500, 529, 647, 650, 678, 792, 793, 798, 799
영등달 303, 531, 651, 652, 653, 792, 798, 799
영등대왕 651, 652, 653, 792, 793, 799
영등상 462
영등손맞이 498
영등송별제 508, 647, 651
영등신 342, 650, 651, 652, 653, 793, 798, 799
영등할망이 651, 653
영등할머니 102, 653, 793
영산대감춤 653
영산맞이 039, 040, 388, 389, 400, 736, 868
영산재 171, 258, 359, 924
영신당 951, 953
영연탁상 641
영장치기 339, 654, 703
영집 656
영해별신굿놀이 132, 133, 500, 502, 657
영혼결혼식굿 268
예수재 258, 359, 924
예주게장기 267, 932, 933
예탐굿 640
오광대놀이 660
오광대탈 728
오구새남굿 149
오구 씨끔굿 142
오구자리 106, 240, 241, 522
오귀굿 124, 157, 240, 257, 438, 892
오귀새남굿 157, 425, 437, 438, 543, 892
오니굿거리 058, 103, 343
오방기 096, 227, 347, 416, 417, 448, 449, 655, 740, 768
오방번 358, 359
오방신장 195, 266, 293, 347, 434, 436, 540, 659, 738, 745, 759, 768
오방신장기 456, 660, 739, 760
오방진 228, 701, 804
오방진가락 228
오보 443, 444
오보신앙 443, 444
오색동화 394
오색장발 260
오색한삼 285
오수복 049, 050, 051, 419, 436, 661, 773, 855, 856
옥갑경 222, 334, 335, 486, 858, 910
옥수 135, 347, 361, 662, 663
옥수그릇 662
옥추경 222, 307, 334, 335, 341, 417, 486, 813, 858, 901, 910
옥황상제 083, 213, 272, 420, 466, 483, 541, 547, 548, 663, 724, 778, 779, 853, 854, 884, 886, 912, 972
올게심리 531
올렛기 089
올림채 048, 097, 154, 155, 159, 343, 664, 786, 831, 918
올림채춤 048, 665
올벼심리 531
와룡관 967
와룡당 666, 667
와룡묘 665
와룡선생 667
와흘본향당 667
왕건 28, 95, 97, 333, 477, 684
왕십리본 085, 675
왕십리아기씨당 066, 676
외다리춤 137, 139, 744, 745, 748
외도래꽃 280, 317
외바람막이 820
외인대감옷 911
외작두 737, 738, 739
요령 072, 090, 092, 116, 179, 192, 215, 230, 274, 275, 295, 304, 305, 337, 338, 385, 402, 403, 528, 540, 648, 778, 779, 853, 867, 882, 893
요왕맞이 102, 395, 462, 641, 648, 651, 652, 656, 799, 803, 819
요왕맞이상 462
요왕부인 651, 792
요왕세경 678
요왕영게상 649, 678
요왕제 345, 962
요왕차사상 649, 678
요왕처서 678
요왕처서상 678
용궁단지 739, 740
용궁당 632
용궁할아버지 912
용문동부군당 148
용문동부군당굿 96, 145, 148, 149
용선 164, 166, 240, 256, 257, 311, 320, 321, 388, 404, 491, 544, 684, 721, 857, 868
용신 190, 201, 250, 347, 360, 380, 457, 460, 679, 726, 820, 847
용왕기 681
용왕당 196, 693, 892
용왕밥 681
용왕상 681, 682, 683
용왕신 087, 657, 681, 683, 722, 892
용왕신앙 360
용왕차사 678
우도농악 103, 228
우둣기 115, 893
우옥주 075, 201, 260, 285, 286, 485, 638, 779, 780, 969
우환굿 098, 339, 743
운맞이굿 472, 511
울쇠 504, 685
웃기 187, 200, 212, 268, 328, 336, 337, 353, 361, 743
원강암 329, 705, 706
원당굿 692, 767
원당마누라 691, 693
원당제 249, 472, 692, 693, 698, 804, 953, 961
원미 686
원미상 686
원불수륙재 354, 357
원불수륙춤 215
원삼 050, 051, 239, 284, 286, 350, 448, 449, 450, 687, 768, 855, 912, 913, 950, 970
원새남 426, 451, 452, 453, 849
원앙생 929
원천강본풀이 688, 943
월덕기 651, 907
월도 205, 347, 371, 372, 382, 418, 423, 542, 543, 638, 639, 856, 863, 864
월도창검춤 423
월평다라쿳당 689
위도 대리마을 원당 691
위도띠뱃놀이 249, 250, 681, 682, 683, 691, 692, 712, 713, 803, 804
윗대감 195
유가돌기 148, 326, 350, 351
유감주술 219, 356, 646
유비 135, 666, 667, 759, 777
육굿 027
육대감상 892
육십갑자 155, 159, 206, 341, 438
육욕천 785
육자배기토리 506, 736, 771, 772, 954
융복 768, 791, 855
은산별신제 101, 171, 396, 446, 630, 698, 710, 711, 771, 805, 960, 959
은아몽두리 051
은전괘 258

은하몽두리 061, 202, 285
음사 072, 112, 323, 951
음신 802
의대 049, 050, 075, 448, 676, 687, 912, 948, 969
의무 108, 703
의술가면 704
의술신장 635
의원가면 704
이공본풀이 065, 102, 329, 354, 355, 356, 394, 705, 803
이규보 098, 170, 359, 785, 884
이금옥 125, 127, 128, 365, 501
이능화 254, 273, 295, 350, 425, 445, 492, 663, 809, 810, 813
이명옥 066, 148, 707, 872
이복동 712
이상순 066, 129, 137, 181, 419, 431, 451, 676, 708
이선비 374, 708, 750, 924, 971, 972
이선호 177, 711, 911, 913
이선희 197, 529
이성계 087, 097, 135, 350, 446, 477, 716, 870
이순풍 274, 666, 741
이승굿 297, 426, 833
이신질 626, 926
이어인년 396, 630, 710, 771, 959, 960, 964
이언년 396, 710
이역례 803, 926
이옥분 124, 126, 127, 721
이완순 123, 846
이은순 135
이일선 119, 707, 942
이정업 942
이정연 099, 177, 711
이종순 712
이중춘 645, 713, 776, 802
이충선 119, 133, 134, 135, 707, 942
이충운 123
이형상 108, 284, 546, 802
이효동 712
이흥기 708
이흥식 711
인격신 069, 202, 212, 331, 715, 722, 807, 808, 835, 859 , 915
인로왕번 358, 359
인물개 260, 359, 714, 743
인물신 092, 099, 667, 740
인왕산 국사당 336, 716
일뤠또본풀이 717
일반신본풀이 108, 271, 689, 815, 867, 881, 943
일산동당제 719
일월개 715, 721
일월노리푸념 106, 723, 808, 809
일월맞이 102, 154, 155, 360, 525, 722, 803, 860, 871, 883, 934
일월맞이상 892
일월삼멩두 072
일월성숙천 785
일월조상 230, 725, 882
일월조정 519, 945
임경업 장군 092, 097, 190, 192, 454, 455, 725, 748, 777
임경업장군사당 726
임기택 873
입쌀반대기 188
입춘 307, 415, 726, 727
입춘굿 221, 726
입춘굿놀이 727
입칼 542
잎맞이 359, 838
잎맞이굿 185, 756

ㅈ

자삼 030, 736
자삼염불 040, 643, 736
자손치시 633
자진굿거리 048, 103, 218, 249, 262, 505, 664, 759, 786, 831, 904
자진난이 042, 043, 643, 736
자진만세바지장단 262
자진모리 218, 248, 322, 339, 643, 786, 804
자진모리장단 048, 167, 249, 772, 918
자진염불 042, 643, 914
자진한잎 042, 736
자청비 475, 476, 477, 478, 479, 546, 706, 728
작두 050, 067, 078, 124, 332, 421, 639, 737, 739, 740, 759, 760, 911, 912
작두대신복 050
작두별상복 050
작두장군 738
작두춤 739
작두타기 050, 078, 739, 953
작두타기춤 739
작약 023, 027, 280, 873
작은할미당 190
잔치멩질 304
잔칫상 201, 202, 212, 280, 459, 808, 924, 925, 926
잡귀잡신 045, 099, 218, 273, 293, 380, 438, 505, 506, 542, 660, 661, 703, 740, 929
잡밥 171, 247, 460
장광굿 628
장구고사 302, 303
장구떡 187, 188, 336, 337, 742
장구잽이 042, 043, 044, 057, 060, 165, 176, 262, 312, 365, 371, 412, 422, 456, 507, 531, 553, 642, 758, 766, 872, 955
장군개 715, 743
장군님의대 049, 856
장군모자 740, 912
장군복 049, 331, 514, 660, 715, 739, 911, 913, 950, 969, 970, 971
장군상 023, 743, 773, 970
장군신 074, 092, 093, 130, 144, 172, 192, 194, 195, 331, 332, 346, 698, 702, 725, 737, 743, 820, 862, 864, 870
장군옷 911
장군칼 331, 418, 419, 457, 542, 543, 740, 879
장말도당굿 139, 382, 744, 905
장발 201, 258, 345, 458, 459, 460, 748
장벗대 433, 435
장보배 709, 749, 924, 971, 972
장비 135, 666, 667, 759, 777
장삼 750
장삼춤 044, 176, 333, 422, 665, 786
장석만 049, 863
장세일 752, 857, 900, 960
장승제 191, 699, 702
장시 647, 698, 702
장악청 518, 623
장애발 454
장엄염불 265, 441
장옷 284, 285, 448
장자풀이 073, 101, 143, 144, 273, 279, 496, 630, 753, 772, 954, 963, 964, 965
장토제 303
잦은염불 638, 860
재가집 022, 071, 093, 111, 136, 163, 176, 181, 187, 195, 205, 216, 286, 297, 308, 309, 341, 342, 354, 372, 377, 378, 417, 428, 481, 511, 516, 633, 634, 640, 741, 749, 755, 777, 781, 832, 834, 864, 865, 887, 947, 948, 958, 959
재가집굿 892
재물신 074, 194, 226
재배무가 043
재복신적 195
재액 038, 201, 217, 308, 345, 371, 496, 634, 643, 899, 901
재인청 518, 547, 623, 762
재화 077, 257, 362, 660, 906
잰병 361
잽이 057, 058, 060, 061, 069, 101, 119, 199, 260, 312, 392, 454, 456, 675, 720, 873, 905, 914, 945, 954
저승고 063
저승굿 297, 426, 431, 524, 833, 916
저승본풀이 763
저승사자 118, 242, 264, 266, 271, 272, 273, 279, 373, 374, 379, 380, 404, 463, 513, 520, 521, 522, 523, 753, 754, 755, 764, 765, 766, 822, 896, 925, 944, 962, 963, 964, 965
저승차사 188, 385, 431, 763, 765, 766, 844, 944
저승혼사굿 268, 823
저정거리기 218, 339, 832
적심대 497
적패지 272, 844
전계문 766
전광오 766
전금순 063, 144, 162, 163, 377, 766, 778, 885
전기옥 766
전내 246, 667, 773
전내신 074, 075
전두연 873
전령 182

전립 050, ,220, 227, 239, 449, 760, 768, 788, 913, 932, 969
전병 328, 336, 343, 361, 642
전복 049, 156, 227, 238, 285, 423, 449, 650, 651, 653, 759, 760, 761, 767, 788, 855, 890, 891, 912, 913, 932, 949, 969
전북의 앉은굿 490, 770
전북-충남 무속음악 771
전사섭 766
전사종 766
전상팔자 295
전생경 766, 767
전생필 766, 767
전안대감 193, 195, 760, 773
전안상 511, 759, 773, 892
전이섭 766
전주옥 766
전채질장기 932, 933
전홍근 766
절장구 914, 915, 932
점루 379
점복 088, 127, 129, 205, 273, 274, 307, 308, 813, 900, 903, 904, 910, 931
점복신 273, 741
점사 070, 071, 126, 202, 319, 361, 362, 402, 403, 439, 481, 482, 531, 631, 632, 773, 781, 862, 964
점쟁이 129, 273, 274, 279, 363, 365, 482, 513, 663, 752, 753, 754, 868, 885, 886, 927, 964
접신 044, 270, 370, 371, 448, 450, 530, 539, 806, 871, 910
젓대 317, 518, 771, 774, 914, 942, 952, 954
정대복 099, 122, 177, 535, 711, 911, 913
정대우 198, 541, 648
정모연 149, 197, 199, 437, 529, 773, 775
정박수 431, 708
정성무당 246, 864
정수남 475, 476, 477, 478, 706
정숙자 123, 774, 823
정영만 149, 199, 437, 506, 775, 848
정옥이 156, 197, 529, 769
정욱 659
정적기장기 933
정전부인 074, 427
정정괴 776
정정애 033, 049, 050, 066, 204, 276, 776, 862
정주 700, 777
정학봉 260, 779
정화수 209, 213, 409, 416, 439, 624, 650, 662, 663, 720, 740, 786, 815, 883, 884, 885
제갈공명 665, 666
제갈량 666, 667
제갈태오 125, 389
제금 111, 176, 266, 354, 359, 424, 427, 428, 430, 434, 454, 455, 456, 459, 506, 518, 542, 757, 758, 780, 781, 782, 786, 787, 850, 911, 918
제당맞이 137, 186, 187, 835, 836, 838
제마수 030, 040, 041, 127, 248, 782
제만수 154, 155, 157, 782
제면굿 노래 320
제면떡 024, 063
제배춤 043, 044, 333, 422
제석 050, 058, 088, 122, 123, 148, 170, 186, 206, 221, 246, 293, 330, 331, 359, 360, 396, 412, 429, 436, 456, 458, 472, 512, 623, 625, 637, 715, 722, 748, 758, 761, 778, 781, 783, 785, 950, 972
제석노래채 782
제석본풀이 058, 233, 296, 420, 436, 469, 470, 519, 520, 662, 748, 782, 786, 809, 865, 867
제석상 330, 331, 360, 625, 633, 637, 520, 662, 785
제석신 058, 143, 154, 159, 171, 206, 331, 333, 408, 420, 519, 625, 629, 684, 785, 786, 828, 948, 949
제석의대 050
제석춤 249, 786
제석환인 482, 783
제액초복 452, 634, 701, 951, 953
제웅 308, 630, 654, 655
제웅치기 414, 415
제자대신 912
제주굿 무복 787
제주도 내왓당 무신도 789
제주칠머리당영등굿 131, 132, 650, 653, 792
제주큰굿 799, 802, 815
제천의식 663
제청 089, 159, 297, 355, 648, 651, 816
젯북제맞이굿 215, 498
조금례 803
조너리 154, 155, 665, 804
조라술 082, 171, 190, 204, 700, 804, 860
조무 198, 206, 328, 373, 433, 434, 441, 456, 515, 900, 902, 955
조병호 049, 050, 856
조상 805
조상대 806, 858
조상대신 466, 467
조상맞이 381
조상본풀이 079, 080, 228, 229, 230
조상부리 533, 534
조상상 023, 096, 154, 155, 172, 199, 212, 268, 473, 623, 624, 629, 640, 681, 682, 743, 807, 868, 892, 929
조상시루 454, 628
조상신 022, 079, 080, 094, 139, 159, 164, 171, 180, 214, 228, 229, 230, 232, 273, 275, 293, 296, 304, 305, 362, 386, 428, 436, 449, 461, 473, 515, 629, 657, 725, 727, 759, 798, 806, 807, 815, 835, 838, 874, 880, 881
조상월래굿 868
조상칠성 860
조상해원경 900, 927, 929
조상해원굿 892, 953
조상화 808
조선무격의 신가 808
조선무속고 254, 295, 425, 445, 809, 813
조선무속의 연구 062, 094, 227, 265, 295, 299, 399, 406, 473, 496, 636, 677, 756, 763, 810, 832, 855
조선신가유편 474, 513, 811, 962
조선의 무격 217, 812
조순자 081, 389, 814
조왕 023, 063, 143, 221, 266, 299, 303, 304, 305, 363, 521, 523, 632, 663, 703, 823, 828, 844, 928, 935
조왕경 305, 418, 628, 910, 927, 928
조왕굿 073, 143, 144, 206, 221, 222, 316, 356, 630, 823, 952
조왕반 353
조왕상 198, 305, 897
조왕신 301, 302, 399, 523, 628, 663, 877, 878
조임채 664, 665, 832
족두리 088, 104, 216, 336, 350, 449, 687, 913, 925, 948, 967, 969
종이고깔 820, 875, 949
종이탈 648, 728
좌도농악 103
좌듯기 115, 893
좌우치기 043, 167, 820
주당물림 148, 160, 204, 260, 297, 326, 330, 346, 351, 391, 428, 452, 542, 757, 833, 925, 935
주당살 391, 428, 471, 542, 757
주립 051, 350, 351, 382, 449, 856
주산돌기 693, 698
주술행위 307, 901
주잔삼잔 188, 198, 641
중굿 049, 057, 059, 060, 096, 360, 657, 659, 748
중년삼재 416
중당클 065, 912
중도둑잡이놀이 721
중디밧산 452, 708, 814, 849
중앙황제 660
중염불 643
중천굿 339
중천맥이 073, 117, 143, 144, 377, 515
중춤 238, 239, 247, 248, 412, 781
즌오구새남 426
지갑성 048, 942
지관용 779
지광희 707, 873
지노귀 205, 221, 222, 223, 425, 832
지노귀굿 832
지덕수 439
지드림 651, 652, 682
지리천문신장 814
지만천 785
지물 047, 162, 164, 177, 241, 242, 330, 497, 817, 818, 819, 778, 864
지승 203, 204
지신 023, 048, 143, 298, 301, 341, 363, 474, 521, 828
지신굿 노래 320
지신밟기 067, 191, 322, 510, 633, 851, 905
지앙밥 815

지영희 048, 711, 942
지장보살 216, 328, 426, 432, 453, 524, 638, 642, 754, 764, 814, 971, 972
지장보살상 642
지장본풀이 815
지장상 328
지전 046, 047, 115, 135, 143, 163, 164, 165, 166, 167, 168, 192, 240, 274, 395, 479, 480, 543, 641, 652, 714, 715, 817, 820, 898, 929, 954, 957
지전살풀이춤 774
지전춤 068, 167, 479, 480, 771, 774, 820, 954
지하장군 820
지화 024, 027, 046, 064, 116, 127, 128, 130, 133, 142, 159, 166, 172, 173, 177, 178, 208, 240, 242, 256, 257, 270, 280, 316, 317, 320, 330, 358, 359, 380, 388, 389, 390, 394, 442, 454, 510, 511, 512, 543, 630, 701, 702, 720, 721, 775, 808, 857, 873, 874
직성대감 193, 281, 282
진가장굿 821
진가장무가 822, 823
진굿 073, 143, 823
진대베기 699, 700, 701
진대할아버지 190
진도들노래 318
진도씻김굿 101, 122, 166, 249, 317, 318, 319, 397, 414, 461, 479, 774, 820, 823, 829, 846, 848, 856, 918
진도 채씨 무계 829
진동선 227, 856, 912, 969
진쇠 048, 097, 831, 904
진쇠춤 048, 786, 832
진양조 414, 643, 846
진오기굿 025, 074, 116, 120, 129, 157, 168, 169, 186, 204, 267, 268, 297, 313, 428, 429, 431, 451, 453, 534, 535, 743, 756, 832, 833, 834, 849, 915
진적 038, 042, 112, 137, 203, 336, 346, 428, 643, 677, 737, 758, 835, 837, 935
진적굿 025, 136, 169, 178, 186, 187, 195, 202, 203, 212, 336, 361, 371, 428, 441, 535, 675, 678, 737, 742, 743, 773, 834, 836, 837, 838, 847, 862, 892
진진오귀굿 267, 327
진진오기 832, 833
진진오기굿 073, 143, 267, 281, 297, 298, 429, 433, 676, 833, 839, 915
진혼굿 551
진혼귀 832
진혼귀굿 832
진혼제 176, 511, 780
질굿 461, 851, 852
질베 063, 068, 073, 117, 118, 144, 164, 165, 166, 378, 771, 819, 828, 829, 958
질베행렬 774
질역재 415
짐가제굿 266, 812, 844
집굿 051, 227, 374, 396, 494, 700, 761, 861, 868, 920, 933, 955
징잽이 043, 044, 422, 530, 642
징춤 097
짚신 279, 374, 378, 379, 380, 458, 484, 485, 520, 755, 928, 929, 965
쪼시개 127, 839

차

차사본풀이 219, 374, 765, 766, 815, 822, 844, 943, 944, 945
차사상 844, 897
차좁쌀반대기 188
착귀 910
참봉 219, 462, 628, 644
창부광부씨의대 050
창부무당 245, 246
창부씨 087, 717, 761, 844, 845, 846
창부씨복 050
창부옷 911
창부의대 327, 687
창세가 482, 483, 519, 808, 812, 853
채걸합 829, 846
채계만 318, 829, 846
채맹인 846
채정례 063, 143, 204, 414, 543, 544, 777, 778, 823, 829, 830, 846, 848, 957
처녀귀신 229, 283, 491, 492, 514
처용무 142, 660, 905
처용설화 243, 245
천궁대감 429, 758
천궁맞이 024, 177, 330, 359, 847
천궁맞이꽃 361
천궁맞이상 024, 330, 360, 847
천궁불사맞이 186, 203, 371, 429, 835
천궁신장 429, 758
천근새남 106, 426, 451, 452, 453, 522, 832
천근소리 847
천금새남굿 849
천도교 664
천도굿 314, 482, 490, 634, 703, 715, 755, 868, 892, 924
천문 072, 295, 296, 329, 403, 504, 970
천석군 912
천수장기 267, 933
천신 122, 171, 179, 330, 331, 359, 360, 443, 444, 512, 518, 540, 625, 661, 680, 715, 722, 740, 758, 760, 761, 778, 779, 783, 835, 838, 847
천신굿 274, 327, 328, 359, 675, 708, 737, 741, 756, 757, 891
천신대감상 145, 148
천신불사 625
천신제석 625
천연두 125, 143, 254, 255, 293, 339, 355, 357, 436, 493, 495, 496, 687, 703, 748, 758, 828, 902, 946, 947, 948
천연두신 254, 293, 449, 496, 758, 947
천왕당 851, 852, 899
천왕대 445, 849
천왕메기굿 851, 852
천익 855
천제단 466, 899
천존위목괄부신대 852
천지왕본풀이 065, 484, 519, 853, 945
천청망단협수 891
철갈이 080, 304, 305, 306, 880
철륙 855, 856, 912
철륭 143, 912
철륭굿 143, 144, 628, 952
철릭 049, 050, 051, 097, 220, 227, 238, 239, 350, 448, 449, 450, 688, 757, 767, 854, 905, 912, 949
철망 207, 464, 466, 857
철맞이굿 181, 756
철물이굿 630
철무리굿 120, 422, 860
철물이굿 472, 739, 756, 858, 859, 861
철쭉대 115, 861
첨사퉁 861
첩이 855
청계배웅상 862
청계상 862, 892
청너울 162, 862
청너울다리 162
청년삼재 416
청룡도 418, 759, 863, 913, 932
청배무당 864
청배소리 043
청배장기 265, 266, 267, 932, 933
청보무가 041, 279
청보장단 058, 127, 247, 248, 839
청송무당 864
청승무당 864
청신삼배 338
청신악 154, 155, 165, 197
청신의례 090, 102, 788
청애선비 468, 469, 483
청좌굿 030, 070, 189, 657
쳐올리기 479, 820
초가망굿 026
초가망석 022, 117, 122, 143, 166, 228, 232, 414, 461, 544, 828
초감제 089, 090, 102, 192, 214, 215, 230, 244, 245, 255, 274, 275, 295, 303, 305, 306, 337, 354, 386, 398, 439, 472, 498, 540, 626, 646, 647, 648, 651, 656, 668, 685, 686, 765, 788, 789, 799, 803, 853, 863, 883, 897
초감제상 065, 897
초감흥 022, 025, 026, 027, 137, 260, 456, 505, 864, 925, 970,
초공본풀이 072, 102, 214, 295, 296, 297, 393, 402, 403, 412, 420, 465, 547, 689, 783, 784, 803, 863, 865, 883
초롱등 127, 240, 400, 643, 868
초역례 803, 926,
초영실 429, 452, 887, 915,

초혼 080, 222, 224, 379, 547, 964
총각귀신 283
최갑선 490, 770, 868, 929
최매순 710, 711, 960
최석길 873
최승운 711
최영 장군 025, 039, 049, 092, 097, 135, 172, 186, 193, 195, 199, 200, 293, 332, 346, 350, 423, 512, 717, 748, 760, 773, 777, 836, 870, 892, 915, 969
최영장군당 870
최영장군당굿 871, 892
최영장군상 145, 148
최옥순 049, 050, 542, 856
최은정 873
최음전 871
최인명화 197, 529
최일리 779
최형근 872
최형란 122, 177
추는굿 243, 647, 789
추라 873
축구 077, 078
축귀 077, 078, 207, 292, 293, 370, 371, 380, 479, 829, 857, 858, 905, 910, 911, 919
축사 221, 222, 275, 319, 334, 466, 631, 858, 910, 920
축원굿 067, 117, 240, 320, 356, 389, 408, 444, 496, 627, 886, 951, 963, 964
축원굿 노래 320
충렬굿무가 874, 194
충청도 독경무복 875
취고청 518, 623
취타 461, 876
취태장단 216
측간귀신 877
측간신 301, 302, 877, 878
측귀 877
측신굿 877
측신장군 878
치국말 316
치마저고리 088, 156, 162, 228, 238, 293, 361, 449, 498, 625, 715, 742, 769, 948, 969, 972
치마춤 162, 893
치병 074, 086, 101, 181, 221, 245, 307, 309, 339, 384, 406, 443, 444, 496, 513, 635, 667, 668, 689, 703, 719, 900, 910, 920
치병굿 098, 099, 243, 244, 245, 339, 341, 495, 496, 513, 645, 646, 647, 703, 704
치성 048, 066, 088, 178, 181, 191, 196, 216, 256, 273, 293, 307, 345, 347, 360, 363, 380, 381, 392, 405, 406, 531, 548, 631, 632, 667, 755, 777, 838, 851, 962
치원대 양산복 099, 299
칠머리당굿 625, 626, 650, 792
칠성 043, 050, 088, 112
칠성각 171, 884
칠성검 879
칠성검춤 044, 333, 422
칠성굿 030, 073, 143, 154, 176, 301, 320, 339, 630, 748, 884, 911, 912, 953
칠성방울 622, 880, 887
칠성복 911, 970
칠성복색 970
칠성본풀이 304, 305, 306, 803, 880
칠성상 198, 305, 882, 883, 897
칠성새남 880, 881, 882
칠성신 354, 408, 663, 778, 881, 883
칠성신상 115, 881, 882
칠성신앙 884, 886
칠성옷 911
칠성제 303, 306, 385
칠성칼 044, 203, 542, 863
칠성칼춤 044, 333, 422
칠성풀이 073, 101, 143, 144, 301, 771, 885, 886
칠쇠방울 880, 886

ㅋ

카오스 315, 662, 854
칼도령 432, 834, 916
칼도령춤 216
칼산 460
쾌자 050, 156, 159, 220, 227, 239, 382, 449, 658, 668, 767, 768, 788, 890, 913, 968, 969
쾌자춤 162, 893, 933
큰굿상 892
큰대 116, 485, 893, 907
큰댕기 156
큰머리 156, 162, 216, 893
큰머리춤 162, 893
큰무당 078, 120, 130, 257, 365, 502, 530, 531, 532, 709
큰한강부군당굿 149
큰할미당 190

ㅌ

타령장단 075, 333, 422, 529
타살칼 896
타승굿무가 896
탁상 192, 198, 641, 897
탁상굿 641, 897
탈굿 551, 644, 659, 704, 705, 728, 930, 931
탈춤 075, 643, 653, 728
탈혼 365, 366, 530
탐라순력도 108
탑등 256, 257, 270, 857, 868, 897
탑등놀이 388, 389
태백산신 184, 899
태백신사 899
태안설위설경 752, 900
태양신 350
태주 902
태주무당 903
태평무 831, 904
택일 082, 142, 222, 274, 303, 334, 417, 444, 463, 470, 660
터벌림 060, 097, 505, 748, 832, 904
터벌림춤 048, 060, 905
터잽이 060, 905
터주 221, 298, 433, 740, 741, 761
터주소반 892
터주시루 628
터주신 023, 194, 265, 473, 474, 628
터줏대감공수 298
터진방 305
텃대감 195, 904
텃대감상 904
토박이신 077, 792
토산알당 906
토산여드렛당본풀이 906
토산한집 718, 776
토세굿 265, 433
토신제 303, 401
토지신 523
토진대사 699, 701
통기 115, 906, 907
통지전 115, 817, 819
퇴송 495, 901
퇴송굿 100, 924
특수본풀이 102, 401, 943

ㅍ

파산삼재 415
판굿 117, 852, 952, 954
판수 273, 334, 910
팔모 260, 330, 773, 898
팔문금쇄진 911
팔보살 142, 166, 320, 543, 948
팥떡 096, 212, 343, 473, 624, 743, 847, 862
패랭이 220, 644, 967, 968
편떡 200, 203, 336, 624
편삼 750
평도령춤 216
평사위 197, 216, 529
평새남 832
평안도굿 무복 911
평안도다리굿 022
평안도 무속음악 913
평양굿춤 911
평진오기 832
평진오기굿 833, 849, 915
평창동보현산신각 917
포제 690
포춤 247
푸너리 030, 154, 665, 782, 804, 918
푸너리장단 352, 918, 919
푸너리춤 040, 041, 070, 238, 279, 919
푸넘장구 914
푸다시 646, 920
푸닥거리 205, 221, 703, 919

푸살	436, 920
풀이살	396, 414
풋바심	531
풍농굿	726, 728
풍어	069, 154, 250, 459, 644, 650, 657, 679
풍어제	233, 364, 446, 657, 684, 692
풍장	045, 504, 700
피부정	628

하당굿	698, 701, 710
하로산또	667, 668
하선주	529
하신층	803, 926
하심방집굿	926
하지굿	924
하직굿	926
하직대감	281
하직제	926
하진숟	378, 770, 927
하탈	741, 761
학애등	940
한남동부군당굿	149
한범수	942
한부전	128, 129
한삼	284, 855
한삼도령	834, 916
한삼도령춤	216
한상기	873
한시우	710, 959
한양굿	211, 419, 448
한영서	873
한칠동	929
할락궁이	355, 705, 706
할망상	897, 930
할머니당	139, 744, 745
할미가면	930
할미광대	934
할아버지당	191, 744
할아비당	190
함경도굿 무복	931
함경도 무속음악	932
함박꽃	023, 027, 389, 808
해달반대기	188
해미광대	933, 934
해미광대탈	933
해신	277, 650, 683, 727
해신당	463, 953
해신선왕	651, 792
햇곡맞이굿	099, 756
행당동아기씨당굿	934
허개등	940
허괘등	940
허드레꽃	256, 316
허멩이	219, 881, 883
허배춤	664
허상복	942
허수아비	219, 392, 883
허용업	942, 943
허웅애기본풀이	943, 944
허재비	219, 404, 415
허주굿	405, 486, 945
허튼귀신	160, 454
허튼신	486, 945
허튼춤	918
허튼타령	042, 103, 421
허튼타령장단	421, 876
협수	227, 284
협신	221, 287
호가	945
호구별성	946, 947
호구별성풀이	947, 948
호구보	940
호구신	254, 946
호구애기씨	946
호구전	672
호국룡	679
호국신	074, 680, 716
호군웅씨	955
호남굿 무복	948
호남 당골굿	951, 953
호랑이	028, 085, 196, 375, 382, 384, 954
호법룡	679
호살량굿	954, 955, 957
호석	956
호세미	932
호세아비	932
호수	351, 968
호수갓	912, 967
호수립	856
호수빗갓	912
호시아비	932
호신신장	716
호영산	954
호영산마누라	955, 956
호영산호대감굿	956, 957
호접사위	529
호탈굿	956
호환	374, 954, 956
혼건지기굿	823
혼례복	280, 687, 913
혼맞이	164, 544, 848, 957
혼맞이굿	823, 957
혼백	157, 163, 164, 437, 490
혼백식기	157, 159
혼베	958
혼사굿	640
혼인여탐굿	640
홍갓	048, 049, 293, 382, 855
홍계관	741
홍길동만신	121
홍띠	050, 266, 330, 968, 970
홍몽도리	285
홍세미	122, 177
홍수막이	777, 959
홍수맥이	112, 959
홍철륙	049, 855
홍철릭	049, 855, 912
홍치마	050, 156, 856
화개등	940
화관	156, 238, 285, 350
화랑청	762
화랭이	056, 101, 114, 742, 745, 748, 904, 905, 931, 956
화랭이패	096
화분	202, 332
화살	088, 093, 327, 391, 635, 856
화전	701
화전맞이	359
화전치기	309, 901
화주	347, 699, 805
화초경	929
화해굿	233, 657, 659
환갑굿	640
환갑여탐굿	640
활사위	665
활옷	050, 238, 284, 450, 804, 969, 970
활춤	097, 343, 665
황계관	274
황남희	710, 711, 959
황도붕기풍어제	028, 960
황우양씨	473, 474
황천혼시	513, 753, 962
황초삼	284, 285
황토	190, 386, 628, 805, 673, 700
황하청	502, 965
황해도굿 무복	967
황해도평산소놀음굿	709, 924, 971
회오리바람	820
회정맞이	187, 835, 836
횡수막이	181, 631, 959
횡액	631, 761, 845
후개등	940
후문이	519, 520
후새남굿	816
후토부인	421
휘모리	228, 505, 846
흉배	156, 284, 787, 788, 856, 912
흐개등	940
흑립	220, 293, 449, 788, 790, 912, 968
흑애등	720, 940
흘림	228, 248
흘림장단	167
흰등	929
흰장삼	050, 911

집필자

강권용(康權用) _ 국립민속박물관

당맨심방 188
당클 192
도황수 221
본향당굿 342
삼두구미본풀이 401
세민황제본풀이 480
원천강본풀이 688
큰대 893
탁상굿 897
토산여드렛당본풀이 906

강성복(姜成福) _ 충남대학교

당진안섬당제 189
안택굿 627

강소전(姜昭全) _ 제주대학교

공싯상 072
구삼싱 냄 083
김윤수 131
대명왕사자기 198
몸기 280
문전제 302
방울떡 329
산신멩감 385
살장 393
삼공맞이 가면 397
새미하로산당 440
수산본향당 507
시왕기 524
역가상 640
영게상 649
영집 656
요왕차사상 678
정정괴 776
철쭉대 861

청너울 862
칠성새남 882

강정식(姜晶植) _ 제주대학교

고리동반 065
군문기 089
기메 115
도채비방쉬 219
두린굿 243
만당제물 260
멩감제 274
문전철갈이 304
살전지 395
소미 485
송당리마을제 497
송당본향당 499
신과세제 527
심방백중제 545
안사인 625
영감놀이 645
와흘본향당 667
용왕기 681
원미상 686
월평다라쿳당 689
이중춘 713
칠성본풀이 880
통기 906
하직굿 926
할망상 930

강정원(姜正遠) _ 서울대학교

박수 319
신내림 530

고부자(高富子) _ 단국대학교

경기도굿 무복 049
철릭 854
평안도굿 무복 911

권오성(權五聖) _ 한양대학교

시나위 518

권태효(權泰孝) _ 국립민속박물관

대감굿무가 194
문굿무가 299
숙영랑앵연랑신가 513
조선무격의 신가 808
차사본풀이 844
충렬굿무가 874

김덕묵(金德默) _ 한국학중앙연구원

만구대택굿 258
사신반혼굿 374
장보배 749
하지굿 924

김도현(金道賢) _ 삼척하장고등학교

용왕밥 681

김만석(金滿錫) _ 전남도립국악단

떵떵이장단 248

김명자(金明子) _ 안동대학교

궁상이무가 103
삼신 408
시무굿무가 520
신부리 533
일월노리푸념 723
황천혼시 962

김민정(金潣正) _ 서울전문학교

도포 219

김상보(金尙寶) _ 대전보건대학

계면떡 062
녹음이시루 171
용왕상 683
조라술 804

김소리(金소리) _ 국립국악원

취타 876

김시덕(金時德) _ 국립어린이박물관

강신무 031
관성제군 074
도당 210
조상 805

김신효(金信孝) _ 안동대학교

싹불이가면 551
영감가면 644

김영란(金暎蘭) _ 포천시립민속예술단

도령돌기 216
도령춤 216
상산춤 423
작두춤 739
지전춤 820

김영재(金永才) _ 국립어린이박물관

제주굿 무복 787
함경도굿 무복 931

김용덕(金容德) _ 한양대학교

오방신장 659
의무 703

김은정(金垠呈) _ 전남대학교

원삼 687
충청도 독경무복 875
호남굿 무복 948

김은희(金銀姬) _ 고려대학교

기대잽이 113
단풍맞이굿 185
대신상 202
망묵이굿 265
백마장군 331
봉죽 344
삼토신령 421
서빙고동부군당 446
액막이굿 630
이선비 708
장발 748
철물이굿 858
칠성검 879
호살량굿 954

김익두(金益斗) _ 전북대학교

사자맥이 377
전북의 앉은굿 770

김인회(金仁會) _ 한양대학교

김금화 119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454

김종대(金宗大) _ 중앙대학교

도깨비굿 209
몽달귀신 283

김창일(金昌一) _ 국립민속박물관

극락문 109

살잽이꽃 394
아흔아홉상쇠방울 622
이공본풀이 705
정영만 775

김창호(金昌鎬) _ 국립민속박물관

걸립신 045
군웅방울 093
대신방울 202
마마배송굿 254
만신 263
무감 286
백학 332
송송개 503
안당사경맞이상 623
점사 773

김태우(金泰佑) _ 경희대학교

김찬섭 133
김춘강 134
당산맞이굿상 189
명다리 276
부군 350
삼지창 418
서낭기 445
옥수그릇 662

김헌선(金憲宣) _ 경기대학교

각심절본 024
강화도외포리곶창굿 033
경기도도당굿 051
고희정 068
광양당제 075
김광수 119
남이장군사당제 145
노누메기 168
단골 178

대령상 197
대상 199
도당상 211
돈전풀이 223
뒷전무당 245
마불림제 255
망자혼사굿 268
밤섬부군당도당굿 322
봉화산도당굿 345
부정상 352
살맥이 391
삼멩두 402
새남굿 425
설쇠 464
성인굿 468
손님굿 492
쇠걸립 503
시왕도 524
신만곡대제 531
신위행 538
안산잿머리성황당 626
연양탁상 641
울쇠 685
제주칠머리당영등굿 792
조상상 807
진적굿 834
평진오기굿 915
호구별성 946

김형근(金亨根) _ 경기대학교

군웅상 096
길베 117
김영희 125
김옥렴 126
동해안오구굿 239
말미상 264
망자상 267
반야용선 320
방망이떡 327
벙거지떡 336
사슬세우기 371
새발심지 441
신태집 543
왕십리본 675
왕십리아기씨당 676
이명옥 707
장구떡 742
조순자 814

김혜경(金惠敬) _ 국립민속박물관

동다리 227

김혜정(金惠貞) _ 경기대학교

저승본풀이 763
허웅애기본풀이 943

김혜정(金惠貞) _ 경인교육대학교

살풀이 395
삼장개비 414
선부리장단 461
쑹거장단 552
전금순 766
채계만 846
천근소리 847

김효경(金孝慶) _ 한남대학교

강대형 027
단종 183
황도붕기풍어제 960

나경수(羅景洙) _ 전남대학교

길대장굿 116
동자상 232
명두굿무가 277
산씻김굿 386
셍굿무가 482
순천삼설양굿 513
완도장좌리당제 및 당굿 668
제석본풀이 782
지앙밥 815
천지왕본풀이 853
칠성풀이 885

류종목(柳鍾穆) _ 동아대학교

서낭 443
칠성신 883

문무병(文武秉) _ 제주교육박물관

군문춤 090
도래둘러맴 214
동이춤 228
동이풀이굿 229
베포도업춤 337
새ᄃᆞ림춤 439
선왕상 462
시왕맞이 525
신청궤춤 540
영감춤 647
입춘굿 726
제주큰굿 799

민성희(閔盛熙) _ 숙명여자대학교

대너리춤 197
신광주리춤 529

박경신(朴敬伸) _ 울산대학교

동해안별신굿 233
산오구굿 387

박관수(朴官洙) _ 민족사관고등학교

판수 910

박선영(朴宣映) _ 중앙대학교

전복 767

박일영(朴日榮) _ 가톨릭대학교

옥황상제 663
작두 737

박정경(朴正卿) _ 문화체육관광부

꼭두청 136
도살풀이 218
동살풀이 228
발뻐드래 322
올림채 664
중디밧산 814
터벌림 904

박종성(朴鍾聲) _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시루말 518

박혜정(朴惠貞) _ 백제예술대학

최갑선 868

박호원(朴昊遠) _ 국립어린이박물관

별기은 338

백영자(白英子) _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괘자 890

백현순(白鉉順) _ 한국체육대학교

바라춤 312
밟이춤 322
푸너리춤 919

변남섭(卞南燮) _ 경기대학교

굿거리장단 103
봉등채 343
쇠풍장 504
오수복 661
제석춤 786
진쇠 831
푸살 920

변성환(卞成煥) _ 경북대학교

손님굿무가 495

변지선(卞志善) _ 고려대학교

만성수부채 261
몸주신 282
사신 373
산바라기상 382
언월도 638
허용업 942

서대석(徐大錫) _ 서울대학교

무당내력 292
장자풀이 753

서영대(徐永大) _ 인하대학교

개성 덕물산 최영장군사 039
공창무 072
단군 179
두두리 243
무고 288
무당 289
무세 294
산신 382

서종원(徐鍾源) _ 한국문화원연합회

띠배 249
수성당 508
위도 대리마을 원당 691
위도띠뱃놀이 692
이종순 712
조금례 803

서해숙(徐海淑) _ 전남대학교

박병천 318
측신굿 877

소황옥(蘇晃玉) _ 중앙대학교

남해안 세습무 무복 156
동해안 세습무 무복 238
몽두리 283

손대원(孫大源) _ 국립민속박물관

선무당 460
손각시 491

송화섭(宋華燮) _ 전주대학교

호남 당골굿 951

시지은(施知恩) _ 경기대학교

감흥시루 025
고리짝 066
꽃반세우기 137
당떡 187
드렁갱이 247
수비장단 506
신장대 539
와룡묘 665
장말도당굿 744
제금 780

최음전 871

신연우(申蓮雨) _ 서울산업대학교

성수청 467
심방청 546

심상교(沈相敎) _ 부산교육대학교

고동화 064
막꽃 256
매화 270
산함박 389
천왕대 849
초롱등 868
추라 873
탑등 897
해미광대탈 933

안상경(安相敬) _ 충북대학교

단잡이굿 181
대수대명 201
대전의 앉은굿 205
대철망 207
독경 221
무경 287
설위설경 465
신석봉 538
태안설위설경 900
한칠동 929

양종승(梁鍾承) _ 국립민속박물관

감흥신령 026
감흥화 027
거상춤 043
걸립명두 044
걸립화 046
경관만신 048
고드개무당 065
구애비 084
금성당 109
금이신장 113
김남순 121
다리굿 176
돈전개 223
사신성황당 현판 375
소슬굿 486
송선자 502
신법 532
애기씨 · 동자꽃 630
연풍대 642
이정연 711
장군개 743
정학봉 779
조상화 808
지리천문신장 814
최형근 872
텃대감상 904
하진순 927
허주굿 945
호가 945
홍수맥이 959
황하청 965

염원희(廉元姬) _ 경희대학교

맹인신장 273
조선신가유편 811

오문선(吳文仙) _ 서울역사박물관

대감시루 194
법사 334
법수선원 산신도 335
칠성방울 880

오세길(吳世吉) _ 동의과학대학

김유신 130
남이 장군 144
신딸 530
임경업 장군 725
지하장군 820

오진호(吳振昊) _ 부산대학교

남해안별신굿 149
넋노래채 165
정모연 773
제마수 782
제석노래채 782

유승훈(柳承勳) _ 부산박물관

남해안오구굿 157
대모 198
대사산이 199
양산지산리부부상 635

유효순(柳孝順) _ 혜전대학

서울굿 무복 448
장삼 750

윤동환(尹東煥) _ 고려대학교

광인굿 077
김석출 123
김유선 129
김장길 132
덤불국화 208
막음쟁이 257
박꽃 316
불보살번 357
비래쟁이 362
삼오장 412
샛별국화 442
송동숙 500
쪼시개 839
허개등 940

이건욱(李健昱) _ 국립민속박물관

국사당 무신도 086
내림굿 159
타살칼 896

이경엽(李京燁) _ 목포대학교

고 063
곽머리씻김굿 073
날받이씻김굿 142
넋당석 166
대신칼 203
병굿 339
스승청 517
악공청 622
영돈 649
정숙자 774
진도씻김굿 823

이경호(李景好) _ 전북대학교

벅구춤 332

이관호(李官浩) _ 국립민속박물관

재수굿 756
태주무당 903

이균옥(李均玉) _ 안동대학교

골맥이 069
놋동이 171
방석화랭이 328
신석남 537
일산동당제 719
천왕메기굿 851
태백신사 899

이명숙(李明淑) _ 경기대학교

꽃맞이굿 136
삼태자풀이 419
쉰대부채 516
칠쇠방울 886
행당동아기씨당굿 934

이명진(李明珍) _ 국립문화재연구소

동자대 231
혼맞이굿 957

이병옥(李炳玉) _ 용인대학교

겹마치 048
내림춤 162
큰머리춤 893

이보형(李輔亨) _ 한국학중앙연구원

전북-충남 무속음악 771
평안도 무속음악 913
함경도 무속음악 932

이수자(李秀子) _ 한중일비교문화연구소

광청애기본풀이 079
군웅본풀이 093
무조신 295
문전본풀이 299
불도맞이 354
삼공본풀이 397
삼승할망본풀이 406
세경본풀이 475
영등굿 650
일뤠또본풀이 717
제주도 내왓당 무신도 789

이수현(李琇炫) _ 서울대학교

대안주상 204
뒷전상 246
본향상 342
불사상 360
연지당상 642
천궁맞이상 847
청계상 862

이애주(李愛珠) _ 서울대학교

거무춤 041
군웅춤 097
도살풀이춤 218
별상춤 338
올림채춤 665
진쇠춤 832
터벌림춤 905

이영선(李英仙) _ 천안시 충남국악관현악단

고삼 067
대너리 196
조너리 804
푸너리 918

이옥희(李玉姬) _ 전남대학교

낙화유수 142
박병원 317

이용범(李龍範) _ 한국종교문화연구소

구리갈매동도당굿 081
군웅 092
금성대왕 112
노들본 169
대감 193
말명 263
몸주대감 281
불사맞이굿 359
상문 422
서울새남굿 451
약사불사 635
와룡선생 667
이상순 708
정정애 776

이용식(李庸植) _ 국립국악원

거상장단 042
고사반 067
떰쿵장단 248
만세바지장단 262
맴돌이장단 270
부정풀이 353
사냥타령 371
사슬타령 372
수부채 505
신청울림 541
쑹거타령 553
염불 642

이유나(李泑娜) _ 국립민속박물관

노무편 170

이정재(李丁宰) _ 경희대학교

빙의 365
신칼 542
재가집 755
최영 장군 870

이창식(李昌植) _ 세명대학교

미친경 307
호구별성풀이 947

이필영(李弼泳) _ 한남대학교

살 390
삼재맞이 414
소설경 486
신장위목 540
은산별신제 698
천존위목팔부신대 852
첨사동 861
황남희 959

이해준(李海濬) _ 공주대학교

조선무속고 809
조선의 무격 812

임승범(林承範) _ 국립문화재연구소

가신위목 022
거리밥 040
넋칼 168
대신발 201
설경 463
장세일 752
조상대 806
팔문금쇄진 911

장순범(張淳凡) _ 안동대학교

삼산돌기 405
황해도평산소놀음굿 971

장휘주(張輝珠) _ 용인대학교

거령산 039
거무장단 041
구덕북 081
느진연물 173
모름채 279
미닫이 306
본향춤 343
부정 352
삼공잽이 400
자삼 736

전주희(全珠熙) _ 국립민속박물관

지장본풀이 815
초공본풀이 865

정연학(鄭然鶴) _ 국립민속박물관

객귀 039
인왕산 국사당 716

조경만(趙慶萬) _ 목포대학교

진도 채씨 무계 829

조정현(曺鼎鉉) _ 안동대학교

목단꽃 280
빈순애 363
세습무 481
영해별신굿놀이 657
잡귀잡신 740
큰굿상 892

조현설(趙顯卨) _ 서울대학교

성주풀이 473

주영하(周永河) _ 한국학중앙연구원

사자상 379
성주상 473
전안상 773
제석상 785

차수정(車수정) _ 숙명여자대학교

고풀이 067
넋춤 166
세령무 479

천진기(千鎭基) _ 국립민속박물관

국무 086
넋(용어) 165
오방신장기 660

최명림(崔明林) _ 국립어린이박물관

바라지 312

최석영(崔錫榮) _ 대전대학교

조선무속의 연구 810

최성진(崔性鎭) _ 대구대학교

계면 060
김용택 126

최원오(崔元午) _ 고려대학교

궤눼깃당본풀이 106
도랑선비 청정각씨 노래 212
맹감본풀이 271
용신 679
작두장군 738
진가장무가 821

최은수(崔銀水) _ 국립민속박물관

황해도굿 무복 967

최진아(崔眞娥) _ 한국학중앙연구원

가지꽃 023
겉연 046
너울 162
넋(무구) 163
눈설화 172
다리화 177
백련화 330
사귀대 370
삼사자 403
상식상 423
속연 490
손전 497
수팔련 510
안당제석상 624
액막이상 633
인물개 714
일월개 721
정주 777
지전 817
철망 857
청룡도 863
혼베 958

하을란(河乙蘭) _ 국립중앙극장

자진한잎 736

한미옥(韓美玉) _ 전남대학교

도부 217
박경자 315

허용호(許龍鎬) _ 고려대학교

광대춤 075
김병옥 123
단오맞이굿 181
삼현춤 421
성수 466
성주굿 470
소가면 484
심방 545
십대왕 550
양주소놀이굿 636
영산대감춤 653
영장치기 654
의술가면 704
의원가면 704
재인청 762
창부씨 844
태주 902
푸닥거리 919
할미가면 930

홍태한(洪泰漢) _ 중앙대학교

가망 022
걸립상 044
젬심바침 048
공수 070
구파발본 085
굿 097
김유감 128
명도 277
묵은진오기굿 297
물부리굿 306
바리공주 313
본향 341
불사할머니 361
신병 533
심청굿무가 547
여탐굿 640
장군상 743
진오기굿 832
천금새남굿 849
청송무당 864
타승굿무가 896
평창동보현산신각 917

황경순(黃慶順) _ 문화재청

이어인년 710

황루시(黃縷詩) _ 관동대학교

강릉단오제 028
기밀 116
김대례 122
대관령 성황사 및 산신당 196
박용녀 319
범일국사 333
산메기 380

자문위원

강정식(제주대학교)
고부자(단국대학교)
김명자(안동대학교)
김상보(대전보건대학)
김용덕(한양대학교)
김은정(전남대학교)
김종대(중앙대학교)
김헌선(경기대학교)
김혜정(경인교육대학교)
나경수(전남대학교)
소황옥(중앙대학교)
안상경(충북대학교)
이경엽(목포대학교)
이균옥(안동대학교)
이기태(한국디지털대학교)
이보형(한국학중앙연구원)
이수자(중앙대학교)
이애주(서울대학교)
이용범(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용식(국립국악원)
이필영(한남대학교)
이해준(공주대학교)
임재해(안동대학교)
장휘주(용인대학교)
하효길(서울시문화재위원)
홍태한(중앙대학교)

감수위원

감수위원장
장주근(전 경기대학교 교수)

감수위원
김헌선(경기대학교 교수)
나경수(전남대학교 교수)
이용식(국립국악원 실장)
양종승(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하효길(서울시문화재위원)
황치영(윤문, 교열, 교정 전문가)